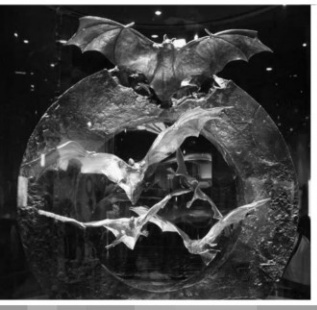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함평군사 제1권






함평군사 제1권 차례

제1편 자연환경과 인문·지리

| 제1장 | 지 리 (地理) / 30

제1절 함평군의 위치와 군역(郡域) 및 면적 _ 30

1. 위치와 군역 및 거리 _ 30
2. 면적 _ 32

제2절 함평군의 지형(地形) _ 33

1. 산세(山勢) _ 33
   1) 함평군의 산악 읍면별 소재 일람
   2) 함평군의 명산
2. 하천(河川) _ 44
   1) 함평군의 하천 개요
   2) 함평천(咸平川)
   3) 고막원천(古幕院川)
   4)사호(沙湖)와 곡강(曲江)
3. 평야(平野) _ 54
   1) 함평군의 평야 일람
   2) 함평군의 주요 평야
4. 해안(海岸)과 포구(浦口) _ 57
   1) 해안
   2) 포구
5. 함평만의 갯벌 _ 61

제3절 함평군의 지질(地質)과 토양(土壤) _ 62

1. 지질 _ 62
2. 토양 _ 63
   1) 함평군의 토양군
   2) 함평군의 지명(地名)이 통명(統名)으로 된 토양통(土壤統)
   3) 토양분류(土壤分類)
   4) 함평군의 토양별 면적 및 분포 비율

| 제2장 | 기 후 (氣候) / 78

제1절 개요 _ 78

제2절 기온(氣溫) _ 81

제3절 강수량(降水量) _ 84

제4절 강수일(降水日) _ 86

제5절 증발량(增發量) _ 87

제6절 습도(濕度) _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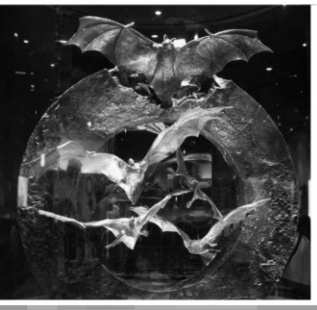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제7절 풍속(風速) _ 89

제8절 일조시간(日照時間) _ 92

제9절 안개 _ 96

제10절 뇌전(雷電) _ 97

제11절 서리 · 눈 _ 99







| 제3장 | 인 구 (人口) / 103

제1절 함평군의 인구 변화 _ 103

1. 조선시대 _ 103
2. 일제강점기 _ 105
3. 대한민국시대 _ 106

제2절 인구분포 _ 111

제3절 인구 구성 _ 118

제4절 인구의 동태와 인구이동 _ 118

| 제4장 | 동 물 (動物) / 121

1.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 _ 121
2. 옛 문헌에 기록된 함평의 동물 _ 121
3. 함평의 동물상 _ 122
   1) 척추동물(脊椎動物)
   2) 절족동물(節足動物)
4. 멸종 위기및 희귀동물 _ 128
   1) 야생동 · 식물 보호법
   2) 포유류
   3) 조류
   4) 양서 · 파충류
   5) 어류
   6) 곤충
   7) 무척추동물
   8) 함평지방의 야생동물
5. 외래(外來)동물 _ 168

| 제5장 | 식 물 (植物) / 171

제1절 자원식물(資源植物) _ 171

1. 식용(食用)식물 자원 _ 171
2. 공업용(工業用)식물 자원 _ 172
3. 기호(嗜好)식물 자원과 녹차밭 _ 172
4. 향료(香料)식물 자원 _ 185
5. 염료(染料)식물 자원과 쪽물 _ 186
6. 화훼(花卉)식물 자원 _ 191
   1) 함평 자생춘란(自生春蘭)
   2) 함평화훼산업
7. 섬유(纖維)식물 자원 _ 200
8. 약용(藥用)식물 자원 _ 202
   1) 반하(半夏. 깨무릇)
   2) 백과(百果. 은행열매)
   3) 함평군 약용식물 일람(一覽)

제2절 멸종 위기 및 희귀 식물 _ 226






| 제6장 | 함평 방언 / 230

제1절 전남 방언의 형성과 함평 _ 230

제2절 함평방언의 특징 _ 231

1. 어휘 _ 231
2. 문법 _ 239
3. 음운 _ 241

제2편 선사시대(先史時代)의 함평

| 제1장 | 개관(槪觀) / 246

제1절 구석기 ~ 신석기(즐문토기)시대 _ 246

제2절 중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_ 247

제2절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_ 249

| 제2장 | 선사시대 유적 · 유물 / 252

제1절 구석기시대 유적·유물 _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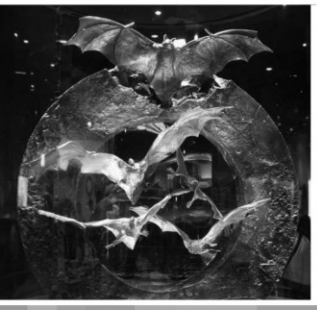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제2절 중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유적·유물 _ 253

제3절 청동기 시대와 초기철기시대 유적·유물 _ 254

1. 고인돌 _ 254
2. 무덤 및 주거지 등 _ 312
3. 선돌(立石) _ 341
   1) 민속신앙의 정신적 신체(神體)
   2) 함평군의 선돌 분포상황
   3) 함평군의 선돌 보전상황

제4절 유물 산포지와 수습유물 _ 372

1. 유물산포지 _ 372
2. 유적개요 및 수습유물 _ 372
   1) 학교면 월산리 월산 꺽창(銅戈)
   2) 나산면 구산리 출토 돌검(石劍)
   3) 나산면 덕림리 죽림수습 돌도끼(石斧)
   4) 나산면 초포리 수습 반월형돌칼(半月形石刀)
   5) 백호리 수습 칼자루장식(劍把頭飾)
   6) 엄다면 송로리 담안 수습 돌자귀
   7) 엄다면 송로리 담안 유물산포지
   8) 함평읍 대덕리 백곡 유물산포지







| 제3장 | 함평에서의 벼농사 시작 / 376

제3편 마한·신미·백제시대의 함평

| 제1장 | 진국(辰國)의 해체와 마한의 발전 / 380

제1절 진국의 해체와 삼한(三韓)의 대두 _ 380

제2절 마한 소국(小國)의 위치 비정 _ 382

| 제2장 | 마한시대의 함평 / 390

제1절 마한시대의 함평 _ 390

제2절 마한문화의 개략 _ 399

| 제3장 | 신미제국과 함평 / 406

| 제4장 | 백제시대의 함평 / 411

제1절 함평의 백제 영속 _ 411

제2절 백제의 관제(官制)와 함평 _ 414

제3절 백제의 행정구역과 함평 _ 418

제4절 백제의 문화와 함평 _ 423

제5절 백제의 토속신앙과 종교 _ 428

1. 소도(蘇塗) _ 428
2. 불교(佛敎) _ 429
3. 도교(道敎) _ 431






| 제5장 |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 433

제1절 백제의 멸망과 당(唐) 지배기의 함평 _ 433

제2절 백제 유민(遺民)의 부흥운동 _ 438

| 제6장 | 마한·백제의 유적과 유물 / 440

제1절 고분(古墳) _ 440

1. 함평군 고분의 읍면별 분포 _ 441
2. 함평군의 고분 발굴(發掘)조사 _ 442
   1) 월야면 월계리 석계고분군(石溪古墳群)
   2) 월야면 예덕리 만가촌고분군(萬家村古墳群))
   3) 월야면 예덕리 신덕고분군(新德古墳群)
3. 대표적인 고분 중 미발굴 고분의 현황 _ 499

제2절 산성(山城) _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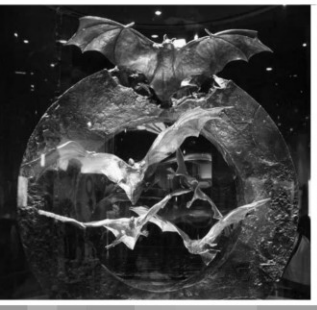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1. 기산성(箕山城) _ 518
2. 금성산성(金城山城) _ 521
3. 보평산성(普平山城) _ 523
4. 철성산성(鐵城山城) _ 525
5. 월악산성(月岳山城) _ 526

제3절 유물 산포지와 수습유물(遺物) _ 527

1. 유물 산포지 _ 527
2. 수습유물 _ 537
   1) 나산면 사산 출토 옹관(甕棺)
   2) 함평초등학교 소장 삿무늬(승석문.繩蓆文) 밑둥글 항아리 등의 유물

제4편 통일신라시대의 함평

| 제1장 | 개 관 / 542







| 제2장 | 관제(官制)의 재정비(再整備)와 함평 / 544

제1절 중앙관제의 재정비 _ 544

제2절 지방행정조직의 정비 _ 547

제3절 함풍현(咸豊縣)과 다기현(多岐縣) _ 550

제4절 영풍향(永豊鄕)과 다경부곡(多慶部曲) _ 552

| 제3장 | 군사조직과 함평 / 555

제1절 6정과 10(停) 제도 _ 558

제2절 9서당(九誓幢)제도 _ 558

| 제4장 | 통일신라시대의 유적과 유물 / 560

제1절 5교 9산(五敎九山) _ 560

제2절 용천사(龍泉寺) _ 562

| 제5장 | 후삼국(後三國)시대의 함평 / 567

제1절 후삼국의 성립과정 _ 567

1. 신라 통치력의 붕괴와 군웅(群雄) 봉기(蜂起) _ 567
2. 견훤(甄萱)·궁예(弓裔) 세력의 성장과 후백제 태봉의 성립 _ 568

제2절 후백제(後百濟)와 함평 _ 570

제3절 태봉국(泰封國후)과 함평정 _ 571

1. 태봉국의 성립과 함평옹관 _ 571
2. 영산강 유역을 장악한 왕건(王建) _ 574
3. 서군교(誓軍橋)와 파군교(破軍橋) _ 576






제5편 고려시대의 함평

| 제1장 | 중앙관제 / 582

| 제2장 | 지방제도 정비와 함평 / 585

제1절 12목(牧) 12주(州) 설치 _ 585

제2절 함풍현(咸豊縣)과 모평현(牟平縣)의 설치 _ 587

제3절 10도제(道制) 실시와 함평 _ 587

제4절 안찰사(按察使) 제도 실시와 함평 _ 590

제5절 무인정권 대두와 함평의 감무(監務) 설치 _ 591

| 제3장 | 지방군사 조직과 함평 / 594

| 제4장 | 재정과 농민의 부담 / 595

제1절 국가 재정 _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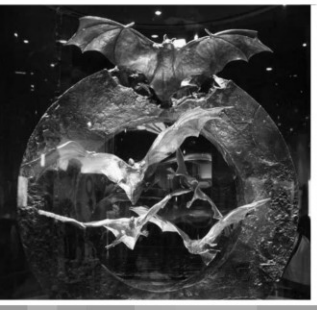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제2절 공해전시(公廨田柴) _ 597

제3절 농민의 부담 _ 598

| 제5장 | 조운(漕運)·역참제(驛站制)와 함평 / 600

제1절 조운 _ 600

제2절 역참제와 함평의 역 _ 607







| 제6장 | 외침과 함평 / 612

제1절 거란(契丹)의 침입 _ 612

제2절 몽고(蒙古)의 침입 _ 613

제3절 삼별초(三別抄)의 항몽(抗蒙) _ 616

제4절 왜구의 침입 _ 617

| 제7장 | 과거제도와 함평출신 급제자 / 621

| 제8장 | 고려시대의 유적과 유물 / 623

제1절 고려시대 사찰(寺刹)과 유물 _ 623

1. 고산사지(高山寺址) _ 623
2. 고산사지 마애여래좌상(磨崖如來坐像) _ 624
3. 군유사지(君游寺址) _ 624
4. 군유사지 부도(浮屠) _ 626
5. 해보 탑동 석불입상(石佛立像) _ 627
6. 해보 탑 앞 사지(寺址) _ 627
7. 해보 탑동(塔洞) 석불입상(石佛立像) _ 627
8. 해보 해보리 동여정(同余亭) 탑재(塔材) _ 629
9. 손불 사기봉(沙器峰) 마애불 _ 630
10. 대굴사지(大堀寺址) _ 631
11. 월양사(月陽寺) _ 633
12. 극락사(極樂寺) _ 633

제2절 고려청자(高麗靑瓷) 도요지(陶窯址) _ 633

제3절 고막 돌다리(古幕石橋) _ 637

제4절 나산면 삼축리 상축 평릉(平陵)고분군 _ 638

제6편 조선시대의 함평

| 제1장 | 개 관 / 642






| 제2장 | 조선의 건국과 함평현 신설 / 644

제1절 중앙 및 지방제도 개혁과 함평현의 성립 _ 644

1. 중앙정치기구의 개편 _ 644
2. 지방제도의 개혁과 함평현의 신설 _ 648
   1) 8도제(八道制)와 전라도
   2) 군현제(郡縣制)의 정비와 함평현의 신설
3. 군제(軍制) 개혁의 추이와 대굴포(大堀浦) 전라수영·임치진(臨淄鎭) _ 653
   1) 중앙 및 지방군제의 정비와 군역제도(軍役制度)
   2) 함평 전라수영(全羅水營)의 치폐와 임치진
4. 교통 통신 및 조운(漕運) 시설의 확충 _ 660
   1) 교통 통신 및 조운시설의 정비
   2) 조운과 창고
5. 조선시대 함평의 현감과 지방행정 _ 667
   1) 조선시대의 함평현감
   2) 함평현의 토성(土姓)과 조선전기 유향소
   3) 관아와 향리
6. 조선전기 부세제도와 함평의 재정 _ 679
   1) 조선전기 부세제도와 함평의 전결(田結), 호구, 토공(土貢)
   2) 조선전기의 면리제(面里制)·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와 함평
   3) 조선전기 지방재정제도와 함평의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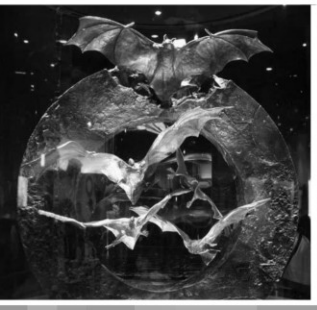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 제3장 | 성리학의 보급과 함평의 사림문화 / 686

제1절 조선시대 교육제도와 과거제 _ 686

1. 조선시대 교육제도와 함평향교 _ 686
   1) 조선시대 관학(官學)과 함평향교
   2) 조선시대 사학(私學)의 흥성과 양사제(養士齊)
2. 조선시대 과거제와 함평 _ 689
   1) 소과(小科)
   2) 문과(文科)
   3) 무과(武科)

제2절 호남사림의 성장과 함평의 정개청(鄭介淸)·기축옥사(己丑獄死) _ 713

1. 사림파의 성장과 호남사림 _ 713
   1) 사림파 성장의 배경과 의의
   2) 호남사림의 성장
2. 정개청의 학문세계와 기축옥사 _ 716
   1) 정개청의 생애와 사상
   2) 기축옥사와 정개청







| 제4장 | 조선중기 외침과 의병활동 / 727

제1절 조선중기 수취제제의 모순과 군역체제의 동요 _ 727

제2절 임진·정유왜란과 함평 _ 731

1. 임진왜란의 발발과 전황 _ 731
2. 의병의 봉기와 함평출신 의병의 활약 _ 732
   1) 금산전투와 함평의병
   2) 남문창의(南門倡義)와 함평출신 의병들
   3) 제2차 진주성 싸움과 함평출신 의병들
3. 관군의 승첩과 함평출신 전공자(戰功者) _ 744
   1) 행주대첩과 함평출신 전공자
   2) 이순신의 해전과 함평출신 전공자
   3) 함평출신 호종공신들
4. 정유재란과 함평출신 의병 _ 754
   1) 남원전과 함평출신 의병들
   2) 기산산성의 함락과 함평의 피해
   3) 대굴포 전투
   4) 동막전투
   5) 월악의 팔열부와 정각
   6) 죽사동(竹寺洞)의 3열부
   7) 정유피란기. 만사록. 해상록

제3절 정묘·병자호란(丙子胡亂)과 함평출신 전공자 _ 770

1. 정묘호란과 함평출신 의병 _ 770
2. 병자호란과 함평출신 의병 _ 771

| 제5장 |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변화 / 774

제1절 조선후기 국가제도의 개편과 함평지방 _ 774

1. 조선후기 군제개편과 함평의 군기(軍器) 군물(軍物) _ 774
   1) 조선후기 중앙 및 지방군제의 개편
   2) 함평의 군기·군물
2. 조선후기 수취체제의 개편과 함평의 부세 _ 779
   1) 전결세제(田結稅制)의 변동과 함평의 결총·세액
   2) 군역제의 변동과 함평의 군액(軍額)
   3) 환곡제의 운영과 함평의 곡총(穀總)
   4) 진상 및 별공제(別貢制)의 잔재와 함평의 진상품

제2절 조선후기 붕당 대립과 함평의 자산서원(紫山書院) _ 788

1. 붕당 대립과 자산서원의 치폐 _ 778
2. 동족 마을의 확대와 서원·사우 _ 793

제3절 조선후기 경제변동과 향촌사회의 발전 _ 799

1. 조선후기 경제발전과 함평의 제언(堤堰)·장시(場市) _ 799
2. 신분제의 해체와 평민의 성장 _ 801






| 제6장 |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운영과 함평농민항쟁 / 803

제1절 함평의 지방행정과 면리제의 발전 _ 803

1. 함평지방의 지방재정의 운영과 민고의 운영 _ 803
   1) 함평의 공해(公廨)
   2) 조선후기 함평의 재정운영과 직임의 사무
2. 함평의 호구와 면리제의 발전 _ 808
   1) 조선후기 호적제와 함평의 호구
   2) 함평의 면리제와 향촌자치의 발전

제2절 세도정권기 함평의 농민항쟁 _ 814

1. 세도정권기 함평지방의 폐막(弊瘼) _ 814
2. 1862년 함평농민항쟁 _ 819

제3절 대원군정권 이후의 함평지방 _ 851

1. 대원군 집정기 민정의 개혁과 함평사회 _ 851
2. 민씨 집정기 민정과 함평사회 _ 853

| 제7장 | 동학농민전쟁(東學農民戰爭) / 856

제1절 동학농민전쟁 발발의 역사적 배경 _ 856

제2절 동학의 창도(創道) _ 857

제3절 동학교단의 발전과 교조 신원(伸寃)운동 _ 859

제4절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860 _ 860

제5절 전주 화약과 집강소 설치 _ 864

제6절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와 함평 _ 866

제7절 동학군의 좌절과 함평의 피해 _ 870

| 제8장 | 항일의병(抗日義兵)의 전개와 함평인의 활약 / 875

제1절 민비(閔妃) 시해와 1차 의병 봉기 _ 875

제2절 을사보호조약과 2차 의병 봉기 _ 876

제3절 군대 해산에 따른 3차 의병 봉기와 함평 _ 877

제4절 호남 의병전쟁과 남한 대토벌작전 _ 881

제5절 함평출신 3대 의병장(義兵將) _ 884

제6절 의병사상 빛나는 함평출신 의병장들 _ 902

제7절 함평의 항일의병 전적지(戰跡地) _ 927

제8절 일제 헌병부대(憲兵部隊)와 함평 주둔지 _ 930






| 제9장 | 조선시대의 유적과 유물 / 931

제1절 함평향교(咸平鄕校) _ 931

제2절 서원(書院)·사우(祠宇)·영당(影堂)·단묘(檀廟) _ 931

1. 서원·사우 _ 931
   1) 자산서원(紫山書院)
   2) 증산사(甑山祠)
   3) 사산사(射山祠)
   4) 기산사지(箕山祠址)
   5) 수산사지(水山祠址)
   6) 자양서원지(紫陽書院址)
   7) 월산사지(月山사지祠址)
   8) 모양사지(牟陽祠址)
   9) 송암사지(松巖祠址)
2. 영당 _ 951
3. 단묘 _ 951
   1) 사직단(社稷壇)
   2) 여단(厲壇)
   3) 성황당(城隍堂)
   4) 우단(雩壇)
   5) 가묘단(家廟壇)
   6) 망곡단(望哭壇)
   7) 천문단(天文壇)

제3절 누(樓)·정(亭)·당(堂)·재(齋)·각(閣) _ 954

1. 함평의 대표적 누·정·당 _ 954
   1) 관정루(觀政樓)와 정인지의 기문(記文)
   2) 희우루(喜雨樓)
   3) 망월루(望月樓)
   4) 석옹루(石翁樓)
   5) 역락정(亦樂亭)
   6) 평지정(平志亭)
   7) 연예정(鍊藝亭)
   8) 관덕정(觀德亭)
   9) 이인정(里仁亭)
   10) 백화정(百花亭)
   11) 수성당(壽星堂)
   12) 녹죽당(綠竹堂)
   13) 사매당(四梅堂)
2. 정·누·당·헌(軒)·정사(精舍)·암(庵) 일람표 _ 964
3. 재와 각의 일람표 _ 967

제4절 정려(旌閭)·정려각(旌閭閣) _ 971

1. 함평의 정려 일람 _ 971
2. 해설(解說) 정려 _ 974
3. 금석문(金石文)·비(碑) _ 994
   1) 현감 남희중 영세불망비(縣監南羲重永世不忘碑)
   2) 함평 척화비(斥和碑)
   3) 현감 홍병위(洪秉瑋) 영세불망비
   4) 함평공원 내 공적비군(功績碑群)
   5) 현감 조규순 청덕선정비(縣監趙奎淳碑淸德善政碑)
   6) 현감 서공상정(徐相鼎) 영세불망비
   7) 나주임씨 타(타·일유(一孺)의 묘비






제5절 조선시대 도요지(陶窯址)와 주물지(鑄物址) _ 1002

1. 완창의 자기소(磁器所)와 쌍령(雙嶺)의 도기소(陶器所) _ 1002
2. 함평군의 조선자기 도요지 _ 1003
3. 함평군의 옹기요지 _ 1006
4. 기와요지 _ 1007
5. 주물지(鑄物址) _ 1007

제6절 사찰(寺刹)의 유적·유물 _ 1007

1. 용천사 유물 _ 1007
2. 보광사 범종 _ 1010

제7절 대굴포 전라수영(大堀浦 全羅水營) _ 1010

제8절 우득록 각판(愚得錄刻版) _ 1010

제9절 나산면 초포리 이규행 고가(古家) _ 1011

제10절 문주현(文周顯) _ 1011

| 제10장 | 고문서(古文書) 및 전적 / 1012

제1절 고문서 및 전적자료 개요 _ 1012

제2절 고문서 및 전적자료의 자료적 가치 _ 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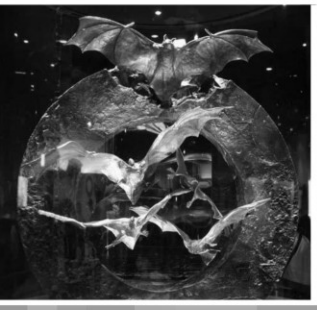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제3절 옛 문서의 종류와 내용 _ 1015

1. 호적 관련 문서 _ 1015
2. 과거 및 교육 관련 문서 _ 1016
3. 관리 임용 관련 문서 _ 1018
4. 명령 및 보고 관련 문서 _ 1019
5. 청원 및 보고 관련 문서 _ 1020
6. 거래 및 매매 관련 문서 _ 1022
7. 문중 관련 문서 _ 1023
8. 혼례 및 장례 관련문서 _ 1023
9. 촌락조직 관련 문서 _ 1025
10. 개인 관련 문서 _ 1025

제4절 함평지역의 고문서 및 전적자료 _ 1026

1. 고문서 소장가(所藏家)와 소장 내역 _ 1027
2. 전적(典籍) _ 1064

1) 교재집
2) 만사록
3) 만회유고 및 송암사 고서
4) 사정록(寫情錄)
5) 삼현 유고 전적자료 개요
6) 선무원종공신록원
7) 송파록
8) 애귤재 유고
9) 영빈 유고
10) 영언전
11) 우득록
12) 월악면 기호성책
13) 유천 유고






14) 자산서원 소장문서
15) 정유피란기
16) 음지 천룡제 문서
17) 지리와 기행문. 『팔도강산』
18) 진지록
19) 칠실 유고
20) 태허재 유고
21) 해상록

제7편 일제 강점기(日帝强占器)의 함평

| 제1장 |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과 함평사회의 변동 / *1080*

제1절 일제의 토지침탈과 함평의 일본인 회사농장 _ *1080*
제2절 일제의 수탈적 개발과 함평의 기업 회사 _ *1084*
제3절 함평군민의 생활고와 일제의 총동원 체제 _ *1091*

| 제2장 | 민족독립운동의 전개와 함평지방 / *1099*

제1절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환과 함평지방 _ *1099*
1. 비밀결사(秘密結社)운동과 함평인의 활동 _ *1100*
2. 함평의 3·1운동 _ *1103*
1) 3·1운동의 의의와 지방으로의 확산
2) 1919년 함평읍 시위계획의 좌절과 문장의 독립만세 운동
3) 3·1운동 1주년 시위운동
4) 함평 출신의 외지에서의 3·1운동 참가
5) 3·1운동 주도 포상 인물

제2절 1920~30년대 민족운동의 발전과 함평 _ *1122*
1. 1920년대 민족운동의 분기와 발전 _ *1122*
2. 함평에서의 민립대학(民立大學) 설립운동 및 사상단체(思想團體)·신간회(新幹會) _ *1127*
3. 함평의 청년운동과 야학(夜學) _ *1128*
4. 함평의 농민·노동운동 _ *1130*
5. 1925년 함평군민대회 _ *1135*
6. 함평군 월야면 주민의 '국유림'반환운동 _ *1136*
7. 1930년대 격문사건 _ *1146*
8. 지주층의 동향과 활동 _ *1147*
9. 광주학생운동과 함평출신 학생 _ *1149*







| 제3장 | 해외에서의 민족운동의 발전과 함평인의 활약 / *1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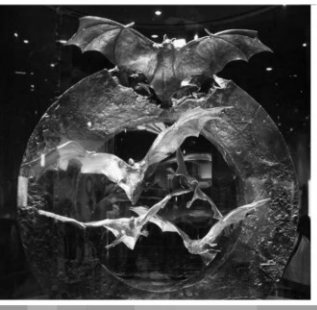
제1절 해외 민족운동의 발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_ *1153*

제2절 함평인이 참여한 해외 독립운동단체 _ *1156*

1. 신한청년당 _ *1156*
2. 의용단(義勇團) _ *1157*
3. 한중호조총사(韓中互助總社) _ *1157*
4. 중국본부 한인청년동맹 상해지부(中國本部韓人青年同盟上海支部) _ *1158*
5. 애국단(愛國團) _ *1158*
6. 상해 한인청년단(上海韓人青年團) _ *1158*

제3절 함평출신 해외 독립운동가 _ *1159*

1. 김덕근(金德根) _ *1159*
2. 김철(金澈) _ *1160*
3. 김석(金晳) _ *1164*
4. 문기호(文氣鎬) _ *1165*
5. 안후덕(安厚德) _ *1165*
6. 이도범(李燾範) _ *1166*




제12회 함평나비대축제





Contents

| 제1장 | 지리(地理) 30
집필 / 신영호

| 제2장 | 기후(氣候) 78
집필 / 최재원

| 제3장 | 인구(人口) 103
집필 / 최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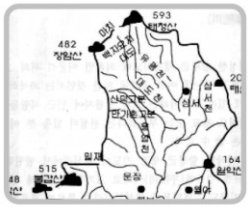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제1편 자연환경과 인문·지리

| 제4장 | 동물(動物) 121
집필 / 박광웅

| 제5장 | 식물(植物) 171
집필 / 신영호

| 제6장 | 함평 방언 230
집필 / 김창훈

제1장 지 리



제1절 함평군의 위치와 군역(郡域) 및 면적

1. 위치와 군역 및 거리

함평군은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전라남도 서해안의 북서부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이 함평(咸平)으로 불리우게 된 것은 조선조 태종 9년(1409) 함풍현(咸豐縣)과 모평현(牟平縣)을 합병하면서 "함풍"에서 "咸" 모평에서 "平"자를 따 "함평현"을 신설하면서 비롯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의 군역이 변동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의 전체 형상은 심장형(心臟形) 또는 역삼각형(逆三角形)을 이루고 있으며 군의 사방(四方) 극점(極點)을 날줄(經度), 씨줄(緯度)로 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함평군의 사방 극점의 날줄과 씨줄

군청 소재지	방위(方位)	극 점 의 날 줄 씨 줄		
		극점의 지명	날 줄	씨 줄
함평읍 함평리 123	극동(極東)	월야면 외치리 외치	동경 126°40′	북위 35°11′
	극서(極西)	손불면 학산리 해은	〃 126°22′	〃 35°08′
	극남(極南)	학교면 월호리 고문진	〃 126°33′	〃 34°58′
	극북(極北)	월야면 월계리 무봉	〃 126°36′	〃 35°14′

동서간의 날줄 차이는 18′으로 육지상에서의 거리는 26㎞며 남북간의 씨줄 차이는 16′으로 29㎞이다. 북으로는 손불, 신광, 해보, 월야면이 군유산과 불갑산맥을 경계로 영광군과 접경하고 있으며 월야면의 북동에는 장성군과 경계한다.

월야면의 동부와 나산면의 동북부는 광주광역시, 나산면의 동의 동부와 대동면의 동남부에서 나주시의 문평, 다시면과 그리고 군의 남단에 위치한 학교면과 엄다면이 나주시의 공산, 동강면과 접경하고 있으며 서남부에서는 엄다면이 무안군과 접하고 있고 함평만에서 함평읍과 손불면이 무안군의 현경, 해제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함평군은 1개 광역시, 1개 시, 그리고 3개 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고 다도해상에 위치한 신안군과 무안군 등 전남 서해안의 섬지역으로부터 반도의 내부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의 관문에 해당된다.

목포-인천간의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신의주간의 국도 1호선, 정주-순천간의 국도 22호선,

강진-천안간의 국도 23호선, 지도-울산간의 국도 24호선이 지나는 함평군은 서울과의 거리가 439㎞, 광주와 46.1㎞의 거리다.

읍면간의 거리는 <표 2>, 시군간의 거리는 <표 3>과 같다.

<표 2> 읍면간의 이정표(里程標)

단위 : ㎞

읍면별									
함평읍	함평읍								
손불면	14.3	손불면							
신광면	13.1	7.4	신광면						
학교면	5.9	20.2	19.0	학교면					
엄다면	8.0	22.3	21.1	3.0	엄다면				
대동면	1.4	15.7	14.5	7.3	9.4	대동면			
나산면	11.0	25.3	24.1	16.9	19.0	9.6	나산면		
해보면	19.1			25.0	27.1	17.7	8.1	해보면	
월야면	21.7			27.6	29.7	20.3	10.7	2.6	월야면

<표 3> 시군간의 이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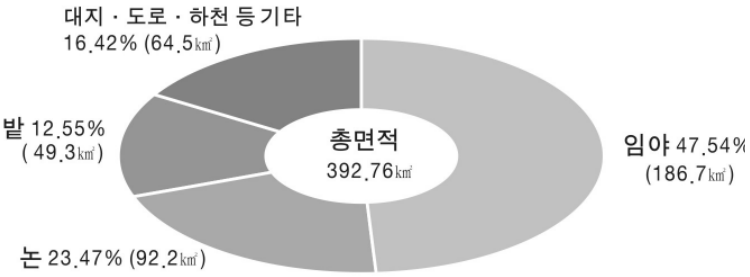
단위 : ㎞

목포	목포																				
여수	183.2	여수																			
순천	145.1	38.1	순천																		
광양	165.9	60.6	28.6	광양																	
담양	99.5	114.9	76.8	97.7	담양																
곡성	127.9	92.0	53.9	59.0	37.3	곡성															
구례	156.2	75.5	37.4	58.1	65.6	28.3	구례														
고흥	146.2	94.1	56.0	84.6	117.8	94.1	93.4	고흥													
보성	93.3	89.9	51.8	80.4	79.7	74.8	89.3	52.9	보성												
화순	85.2	108.2	70.1	90.9	32.9	61.3	89.6	92.6	46.8	화순											
장흥	68.9	114.3	76.2	104.8	90.8	99.2	113.7	77.3	24.4	57.9	장흥										
강진	50.8	132.4	94.3	122.9	97.0	117.3	131.8	95.4	42.5	72.7	18.1	강진									
해남	56.6	153.6	115.5	144.1	112.5	138.5	153.0	116.6	63.7	88.2	39.3	21.2	해남								
영암	43.3	144.9	106.8	135.4	71.4	99.8	128.1	107.9	55.0	47.1	30.6	25.6	41.1	영암							
무안	26.1	167.3	129.2	150.0	73.4	101.8	130.1	134.6	81.7	59.1	74.1	62.7	69.5	43.5	무안						
나주	53.3	139.8	101.7	122.8	46.2	74.6	102.9	112.6	60.7	31.9	59.4	53.2	68.7	27.6	27.2	나주					
함평	36.3	165.7	127.6	152.6	68.1	94.5	122.9	135.4	82.5	57.8	72.8	57.8	79.7	42.2	10.2	25.9	함평				
영광	63.7	168.4	130.3	151.2	58.1	96.3	123.6	152.9	101.2	60.3	99.9	93.7	107.1	68.1	37.6	40.5	27.4	영광			
장성	80.5	138.6	100.5	121.4	24.3	61.6	89.9	126.7	80.9	34.1	92.0	91.1	106.6	65.5	54.4	37.9	44.2	33.7	장성		
완도	99.6	190.2	152.1	180.7	154.2	175.1	183.6	153.2	100.3	129.9	75.9	57.8	49.0	82.8	115.5	110.4	121.7	149.1	148.3	완도	
진도	97.2	202.4	164.3	192.9	155.3	187.3	201.8	165.4	112.5	131.0	88.1	75.0	48.8	83.9	108.1	115.5	118.3	145.7	149.4	97.8	진도

2. 면적

2008년 통계 자료에 의한 함평군의 면적은 392.76㎢로 남한 총면적 99,615.65㎢의 0.394%, 전남의 11,863.3㎢의 3.31%를 차지하며 전남의 시군 중 시를 제외하고는 여천, 완도군에 이어 세번째로 작은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다.

면적에 대한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야가 186.7㎢로 함평군 면적의 47.54%를 차지하고 있고 논이 92.2㎢로 23.47%, 밭이 49.3㎢로 12.55%, 대지가 11.10 ㎢로 2.82%, 도로가 15.99㎢로 4.07%, 하천이 1.58㎢로 0.40%, 구거(溝渠)가 10.46㎢로 2.66%, 목장이 3.13㎢로 0.79%, 제방이 10.09㎢로 2.56%, 공장부지가 0.61㎢로 0.15%, 학교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등 기타가 21.69㎢로 5.52%를 차지한다.



<표 4> 함평군의 면적

임야의 전남 대비는 2.65%, 논은 4.64%, 밭은 4.35%로 논의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높다.

읍면별 면적을 비교해 보면 1973년 7월 1일 면간의 조정이 있기 전까지 하위의 면적이던 대동면(大洞面)이 조정 후에 이름 그대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진 면(56.51㎢. 군 면적의 14.38%)이 되었고 제일 좁은 면적의 면은 엄다면(23.31㎢. 군 면적의 5.93%)이다.

읍면의 면적은 <표 5>와 같다.

<표 5> 읍면별 면적

단위 : ㎢

읍면 이름	면 적	비 율	읍면 이름	면 적	비 율
함평읍(咸平邑)	40.25	10.24	대동면(大洞面)	56.51	14.38
손불면(孫佛面)	55.28	14.07	나산면(羅山面)	55.88	14.22
신광면(新光面)	41.08	10.46	해보면(海保面)	39.52	10.06
학교면(鶴橋面)	46.43	11.82	월야면(月也面)	34.50	8.78
엄다면(嚴多面)	23.31	5.93	계	392.76	100

제2절 함평군의 지형(地形)

1. 산세(山勢)

전남지방은 북쪽에서 노령산맥(蘆嶺山脈)이 동서쪽으로 뻗고 있어 전북과 경계를 이루고 동쪽에는 소백산맥(小白山脈)의 지맥들이 남쪽으로 연이어 경상남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 함평지방의 산세는 노령산맥의 지맥으로 이루어지는데 노령산맥은 동과 서의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담양의 추월산(秋月山. 697m), 장군봉(將軍峰. 451m), 병풍산(屛風山. 822m)을 거쳐 나주의 금성산(錦城山. 451m)으로 뻗은 동부맥(東部脈)과 장성의 백양산(白羊山. 721m), 고창의 문수산(文殊山. 626m), 장성의 태청산(泰淸山. 593m)으로 이어지는 서부맥(西部脈)을 들 수 있다.

함평의 산세는 노령산맥의 서부맥을 이어 받았는데 이를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태청산에서 월야면의 월악산(月岳山. 164m), 나산면의 어수산(魚首山. 130m), 구절봉(九節峰. 280m), 국사봉(國駟峰. 170m)으로 이어지는 함평의 동부맥과 불갑산(佛甲山. 516m)에서 나산면의 천주봉(天柱峰. 377m), 대동면의 철성산(鐵城山. 262m), 학교면의 속금산(束錦山. 171m)으로 이어지는 중부맥(中部脈)과 불갑산에서 서쪽으로 군유산(君遊山. 403.7m)까지 뻗다가 군유산에서 해안을 끼고 손불면의 발봉산(鉢峰山. 179m)을 거쳐 함평읍의 곤봉산(坤峰山. 190.4m)과 감악산(紺岳山. 257m)에 이르는 서부맥(西部脈)의 세 갈래다.

함평의 산세가 갖고 있는 특징은 멋 없이 높다거나(516m 이상의 산이 없음) 쭈빗쭈빗 모난 데가 없고 아기자기하게 크고 작은 줄기가 뻗어내린 기교가 없어 단조로운듯 하면서도 유현(幽玄)한 정취를 자아내는 저구릉지(低丘陵地)를 이루고 있어 소박미 넘치는 단아(端雅)한 시골 아낙에 비길 수 있는 것이다.

군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과 산, 그 산들에게서 함평인은 소박미 넘치는 촌부(村婦)의 자혜(慈惠)로움을 배워 오고 있는 것이다.

1) 함평군 산악 읍면별 소재 일람

읍면별	산 이 름		높이(m)	소 재 지	참 고
함평읍	감악산	紺岳山	257.5	자 풍, 만 흥 리	감방산(坎方山,紺方山)
	곤 봉	坤 峰	190.4	수 호, 내 교, 장 교 리	
	기 산	箕 山	147.3	기 각, 함 평, 대 덕 리	산신제단
	남단산	南壇山	120	수 호 리	망곡단(望哭壇)
	망월산	望月山	110	수 호 리	
	석 두	石 頭	23.1	석 성 리 (돌머리)	기우제단
	수산봉	水山峰	140	수 호, 내 교 리	화산 분화구 형적
	영대산	靈台山	130	진 양, 옥 산 리	기우제단

읍면별	산 이 름		높이(m)	소 재 지	참 고
손불면	광대산	廣大山	357	북 성 리	
	군유산	君遊山	403.7	손불면 북성, 신광면 송사리	기우제단
	노승봉	老僧峰	183	대 전 리	
	두류봉	頭流峰	159.7	석 창 리	
	매 봉	鷹 峰	180	죽 장 리	
	발봉산	鉢峰山	179.9	죽 장 리	
	백운산	白雲山	220	동 암 리	
	아미산	我帽山	167	동 암 리	
	어룡산	漁龍山	116.2	산 남 리	
	우마산	牛馬山	80	동 암 리	
	월암산	月岩山	337	양 재 리, 학 산 리	
	한 봉	閑 峰	123.4	월 천 리	망곡단
신광면	군장산	軍藏山	220	삼 덕 리, 월 암 리	
	보전봉	甫田山	147.7	보 여 리	
	복령산	伏嶺山	160	복 흥 리	
	사모산	紗帽山	279.6	월 암 리	
	조 산	釣 山	200	월 암 리	
학교면	속금산	束錦山	171.9	금 송 리	
	옥마산	玉馬山	120.8	마 산 리	
	옥수봉	玉岫峰	192	곡 창 리	기우제단
	월채봉	月釵峰	150	석 정 리	
	응암산	鷹岩山	115	곡 창 리	대굴산(大堀山)
엄다면	윤암산	輪岩山	50	엄 다 리	방대형 고분
	한문산	捍門山	95	삼 정, 영 흥 리	
나산면	건지봉	乾支峰	134	수 상 리	
	구미산	龜尾山	114	구 산 리	
	구절봉	九節峰	280	송 암, 신 평 리	기우제단
	국사봉	國駟峰	170	수 하 리	산신령제를 지냄
	백야산	百野山	88.4	삼 축 리	
	어수산	魚首山	194	나산면 용두, 월야면 용월리	
	연대산	蓮岱山	125	구 산 리	
	옥녀봉	玉女峰	186.8	나 산, 송 암 리	
	유덕산	有德山	140	수 상 리	
	천주봉	天柱峰	377.1	월 봉, 원 선, 우 치 리	화산 분화구 형적
대동면	감 산	甘 山	115	금 산 리	
	고산봉	高山峰	359	향 교, 강 운, 덕 산 리	기우제단
	금성산	金城山	227.5	용 성, 운 교, 서 호 리	약 4㎞의 산성
	대봉산	大峯山	325	연 암 리	
	석산봉	石山峰	223	덕 산 리	
	약마등	躍馬嶝	131	향 교 리	
	양갑산	楊甲山	286	연 암 리	
	철성산	鐵城山	262.5	월 송, 금 곡, 상 옥 리	500m 성터
해보면	자양산	鷄陽山	71.6	대 창 리	
	모악산	母岳山	260	광 암 리	
	불갑산	佛甲山	515.9	금 계 리	
	수양산	首陽山	304	금 계, 금 덕 리	기우제단
	승두봉	僧頭峰	320	해보면 산내, 나산면 원선리	
	월양산	月陽山	331	해 보, 상 옥, 산 내 리	
	자양산	紫陽山	130	나산면 우치, 해보면 상옥리	
월야면	석화산	石花山	150	양 정 리	
	월악산	月岳山	164	월 악 리	성 터
	칠봉산	七峯山	125	외 치 리	

2) 함평군의 명산(名山) - * 산 이름을 가,나,다 순서로 배열함

(1) 감악산(紺岳山. 257m) : 함평읍 자풍리 소재

감악산은 감방산(紺方山. 坎方山)으로도 많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아련한 보라색으로 보인다하여 붙여진 감악산이 원래 이름이다.

이 산은 함평의 서남단에 위치하여 무안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흔히들 아흔아홉 골짜기를 가진 깜박산이라고 부르는데 한 골짜기만 더 있었으면 도읍 터가 되었을 터인데 한 골짜기가 모자라 도읍 터가 못되었다는 전설이 있고, 또 중턱에 있는 용굴은 칠산바다와 통한다(영산강과 통한다고도 함)는 전설이 있는데 지금은 웅장한 바위가 위용을 보이고 있을 뿐, 굴은 거의가 메워져 있다.

상봉에 호랑이와 용이 서로 시세움을 하는 듯한 기암 서석(瑞石)이 널려 있는데 선암(仙岩)이라 이름 지어져 있으며 기우제단(祈雨祭壇)은 영험스런 제단으로 알려오고 있다.

중턱에 극락사(極樂寺)라는 고려조의 절이 있었으나 오래 전에 불타 없어지고 절 입구에 있던 동자상(童子像)은 함평읍 자풍리 노송마을 동각 옆, 작은 당산나무 옆에 세워져 있다.

(2) 고산봉(高山峰. 359m) : 대동면 덕산, 향교, 강운리 소재

불갑산의 낙맥이 반전(盤轉)하며 남으로 뻗어 내려와 우뚝 솟은 봉우리가 마치 붓끝처럼 솟았기에 일명 필봉(筆鋒)이라고 한다.

덕산리 쪽 산 중턱에 있는 구수천(廐首泉)은 서해가 밀물일 때면 샘물이 차서 넘치고 썰물일 때는 물이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향교리 쪽 골짜기 중턱에 자리잡은 고려 때의 고산사(高山寺) 절터에 마애불이 있다. (조선시대 유물을 볼 것)

상봉에 소반 같은 바위가 있는데 기우제를 지낼 때 제단으로 활용하였고 군유산, 불갑산과는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고 있다.

1992년 상봉에 산불 감시소를 세웠다.

(3) 곤봉산(坤峰山. 190.4m) : 함평읍 수호, 만흥, 장교, 내교리 소재

기산으로 부터 낙맥이 혹은 높게 혹은 낮게 비비꼬며 이어져 천연의 미가 수려 단아하며 학교면 쪽에서 보면 곤봉과 기산이 "一"자를 이루고 있어 가히 큰 터를 감아싸는 명산임을 보여 주고 있다.

역경(易經)에서 "乾(건)"은 하늘, "坤(곤)"은 땅을 이르고 이를 지명으로 함부로 쓰지 않았는데 "坤德(곤덕)" 즉 대지가 만물을 생육하는 힘을 의미하는 "坤"을 산명(山名)으로 쓴 데는 큰 까닭이 있었을 것이나 그 유래는 전하지 않고 있다.

함평의 지기(地氣)가 이 산에 뭉쳐 있다는 풍수설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산자락 남동쪽에 있는 대화(大化)마을 터를 함평의 이름난 터로 손꼽는 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4) 광대산(廣大山.357m) : 손불면 북성, 양재리 소재

1934년 간행 함평군지에 "고려 때 공민왕이 군유산에서 노닐면서 묘암(猫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붙인 이름이다."라는 전설을 소개하였으나 군유산에 공민왕은 온 적이 없고 고려 태조 왕건이 무안의 파군교에서 견훤군을 대파하기 전 군유산에서 3,000 기마병을 훈련했다는 전설이 있어 이에 비춘다면 왕건이 붙여 준 이름일 수가 있다.

상봉의 30여 m 깎아지른 암벽에 고려 말기 것으로 추정되는 미완성 마애불이 있으며 용상바위 등으로 불리는 기이한 바위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사기 마을 뒤에 있는 산이라하여 일명 사기봉(沙器峰)이라고 한다.

산 중턱에 암자(庵子)가 있었는데 오래 전에 폐사(廢寺)되었고 그 이름도 전하지 않는다. 지금도 탑의 잔해가 남아 있다.

(5) 구절봉(九節峰. 280m) : 나산면 송암, 신평리 소재

봉우리가 9개여서 또는 산 내에 9개소의 절이 있다해서 구절봉이라 했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인근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며 산상에는 기암 괴석이 널려 있고 기우제를 지낸 제단이 있으며 지금에도 산 곳곳에 절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산의 일품은 정상에 있던 일본 사람들까지 절찬을 아끼지 않았던, 수백년 회한을 품고 우뚝히 자란 한 그루 노송이었다.

이 소나무로 하여 구절봉이란 이름이 생겼을 것으로 본다.

한국전쟁 때는 서나주 빨지산의 본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6) 국사봉(國駟峰. 170m) : 나산면 수하리 소재

"國寺峰, 國士峰"으로 표기 된 곳도 있으나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 형국이라고 하여 이름 지어진 "國駟峰"이 옳다.

산 아래에 있는 마을 이름이 1789년 호구총수에 마흘산(馬屹山)으로 적힌 것을 보면 이 산을 한 때 마흘산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월 보름에 꼭 산신령제를 지냈으며 절골에서는 지금도 기왓장이 출토되고 있다.

큰뫼(大山)에 서장군 묘라는 무덤이 전해 왔는데 일제강점 때 그 무덤에서 칼 2자루가 출토되어 당시 나산 주재소에서 가져 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 뒤 소재는 확인 할 수 없다.

(7) 군유산(君遊山. 403.7m)[1] : 신광면 송사 보여리, 손불면 북성리. 영광군 군남면 대덕 용암리 소재

1) 1821~1823 함평현감을 지냈던 권복의 함산가(咸山歌)에 군유산(君遊山)으로 표기하였다.

불갑산에 이어 군내 산 중 둘째로 높은 산이며 영광군과 경계를 이룬다.

이 산에는 여늬 산과 달리 기암괴석이 널려 있지 않으며 짜임새도 모나지 않은 군자의 위풍을 지니고 있고 각종 약초가 많이 자생하고 있다. 희귀종 함평 자생 춘란(春蘭)이 많이 채집 된 바가 있고 근년에 140여 그루에 이르는 고로쇠 나무가 자라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그 수액을 채취하여 팔고 있다.



【손불쪽(서쪽)에서 바라 본 군유산】

이 산에서 고려의 공민왕이 노닐다 갔다고 하여 "군유산(君遊山)"이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으나 여러 모로 미루어 보아 사실무근한 이야기인 것 같으며 동국여지승람 불우조(佛宇條)에 "서상사(瑞祥寺)가 군니산(君尼山)에 있다." 하였다.

문헌상으로 남아 있는 군유산 이름 중 가장 오래된 이름이며 이로 미루어 보아 고려조와 조선조 초기에는 군니산으로 표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전설에 삼천명의 군대가 주둔 했다는 삼천동은 오늘날 "三泉洞"으로 표기하며 마을에 샘이 세개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지만 촌노들은 "三千洞"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말한다.

산상의 골짜기에 마구청(馬廐廳)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군사들이 말에게 먹이를 뜯긴데서 생긴 이름이라고 말한다.

왕건이 태봉국의 장수로 있을 때 이 산에 주둔했고 장군대(將軍臺)는 그가 주둔 할 때 지휘소라는 전설이 있고 기왓장이 출토된 바 있다.

또 김유신 장군이 이곳에 주둔하여 후백제를 토벌 했다는 전설도 있으나 김유신이 이 땅에 주둔했던 사실이 아직 밝혀진 바 없다.

한 때는 "군유산(君留山)"으로 표기한 적이 있다. 하여튼 군유산이 임금과 관련이 있는 산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전설들을 간추려 볼 때 왕건이 고려 태조가 되었으니 그가 머문 곳인 이 산을" 君遊山, 君留山"으로 쓸만 하다.

송사리 쪽 중턱에 서상사, 후에 은국사(殷國寺)로 이름을 고친 고려 때의 절이 있었으나 6.25 때 소실되고 울창한 비자나무 숲만 남았는데 최근에 은국사를 복원하기 위해 터를 정리하였다.

은국사의 유물인 부도 1기가 함평읍 함평리 이동범 집(李東範家)에 옮겨져 있다. (조선조의 유물을 참조할 것)

(8) 군장산(軍藏山. 220m) : 신광면 덕천, 월암리 소재

김유신 장군이 백제군을 토벌하기 위해 이곳에 군사 기지를 두었기에 군장산이라 한다는 전설이 있으나 이는 군유산 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김유신이 함평은 물론 인근 지역에도 온 사실이 어느 문헌에도 없어 앞으로 많은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단 왕건과 관련되는 군유산 전설과 연관해 보면 군사 기지였다는 전설이 믿음이 가는 전설이다.

(9) 금성산(金城山. 227.5m) : 대동면 용성리, 운교리 소재

용성리 금성 마을 뒷산으로 북쪽에는 대동저수지, 동쪽에는 대동댐이 축조되어 있다.

축조 연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4km에 가까운 성(城)이 있는데 성안 밭에서 고대의 토기가 출토되고 또 고대의 성과 무관 할 수 없는 아주 큰 옛 무덤인 금산고분(金山古墳), 죽암고분(竹岩古墳), 대덕고분(大德古墳), 진양고분(津良古墳) 등이 성의 서쪽과 서남쪽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은 백제 이전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유적유물항 금성산성을 볼 것)

여지승람에 금성산 귀절이 나오는 성임(成任)의 시 한 수가 있다.

등임(登臨)이 반드시 놀고 즐김이 아니요
가는 말을 잠간 쉬어 한가함을 빌리는 것일세
긴 길은 북쪽으로 가리역에 통하고
뜬 구름은 동으로 금성산에 잇닿았네
남풍에 베개와 댓자리는 속세를 벗어난 듯
긴 여름날에 누각이 푸른나무 사이에 있네
석류꽃의 붉음이 한창 이어서
나그네 길에 그런대로 다시 한 바탕 웃음일세

登臨非足好遊觀　試憩征鞍暫借閑
長路北通嘉里驛　浮雲東接錦城山
薰風枕簟紅塵外　永日簷楹綠樹間　簽 詹
賴有榴花紅爛漫　客中聯復一開顔>

이 시로 보아 전에는 금성산(錦城山)으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기산(箕山. 147.3m) : 함평읍 기각, 함평, 대덕리 소재

함평읍 북쪽에 가로 놓여 읍을 감싸고 있는 기산은 그 생김새가 곡식을 까불어 티끌, 검부러기, 쭉정이를 골라 내는 키와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지만 단종의 폐위에 불복, 벼슬을 버리고 귀향한 이안(李岸)이 마음에 티끌 없이 살겠다며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기산지절(箕山之節). 기산지지(箕山之志)"에서 따온 이름이다.[2)]

산상에 백제 때 축성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테뫼식 성이 있으며 둘레는 약 1km 가량 된다. (백제유적 항을 볼 것)

함평리 쪽 산 중턱에 함평 상수도 정수 시설을 1982년 7월 6일에 완공하였다.

2) 중국 요나라 때 기산(箕山)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허유(許由)가 요 임금이 자기에게 나라를 맡기려 한다는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며 자기의 귀를 영수(潁水)에 씻고 있는데 역시 기산에 살며 은둔 생활을 하던 소부(巢父)가 소에게 물을 먹이러 오다가 더러운 말을 들어 허유가 귀를 씻은 물을 자기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그 상류로 올라갔다는 일화로 은둔생활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는 고사다.

(11) 남단산(南壇山. 120m) : 함평읍 수호리, 엄다면 화양리 소재

포향정 앞산으로 1930년에 간행한 속수 함평지(續修咸平誌)에

"곤봉(坤峰)이 맥을 돌이켜 소나무가 울창하고 미풍이 가야금 소리를 연주 한다. 산상에 망곡단(望哭壇)이 있다."고 하였다.

이 망곡단이 있어 남단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본다.

(12) 대봉산(大峰山. 325m) : 대동면 연암리 소재

상하금 남동 쪽에 위치한 산으로 모악산의 줄기를 이어 받았다.

(13) 모악산(母岳山. 260m) : 해보면 광암리.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소재

불갑산 줄기를 연이어 받은 봉우리로 주위의 산들이 소나무로 뒤덮혀 있으나 이 산은 잡목과 단풍나무가 우거져 녹음과 단풍이 절경을 이룬다.

1934년 간행 "속수 함평지"에

"불갑산의 곧은 낙맥이 구름사이에 특출(特出)하였다. 당나라 정관(貞觀. 당의 년호. 627~649) 때부터 내려오는 용천사(龍泉寺)가 있다."고 하였다.

용천사는 일설에 백제 무왕 원년(600)에 세웠다고 하나 이는 근거 될 자료가 없고 일제가 펴낸 "조선 사찰사"에 당 현종조(712~756)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속수 함평지에 실은 당나라 정관 연대에 세웠다는 기록의 출처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이 기록은 6.25 한국전쟁 때 용천사가 불타기 전 사찰 기록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백제 말기에 세워진 절이며 조선 사찰사 기록보다 100여년이 앞선다. <통일신라시대 유물을 볼 것.>

모악산의 용천사 계곡에는 희귀 식물의 하나인 꽃무릇(상사화 - 相思花)이 수백 만주 자생하고 있어 꽃이 만개하는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는 온 산이 붉은 빛으로 보일 만큼 장관을 이룬다.

1983. 8~1986. 6월까지 한국자연보호중앙협회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고 내무부가 후원하여 선정한 한국자연 100경중 1경으로 선정되었다. (1965.6.9일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14) 발봉산(鉢峰山. 179.9m) : 손불면 죽장, 죽암리 소재

군유산 혈맥이 흘러 내려와 이루어진 봉우리다.

유적지로는 고려 때의 절인 죽사(竹寺)의 터가 있고, 순종 임금이 승하하였을 때 유생들이 망곡(望哭)하고 새긴 귀영암이 있다.

산 중턱에 있는 석간수(石間水)인 용샘과 갯샘은 약수와 정화수(井華水)로 쓰인다.

(15) 백운산(白雲山, 220m) : 손불면 동암리 소재

복암 마을 북쪽에 있는 산으로 군유산 지맥이 남으로 뻗으며 노승봉을 이루고, 노승봉의 맥이 남으로 이어 백운산을 이룬다.

(16) 불갑산(佛甲山. 515.9m) : 해보면 금덕리. 영광군 불갑, 묘량면 소재

이 산은 함평군과 영광군을 통털어 제일 높은 산이며 흔히들 산이름과 같은 불갑면, 불갑사가 영광군에 있기에 영광군의 산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산의 상봉에서 능선을 따라 함평군과 영광군이 갈라지며 산의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이 함평군이 더 많다.

이 산에는 만병초(萬病草), 삼지구엽초(三枝九葉草. 음양곽 – 淫羊藿)등 약용식물이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때는 이강산(李江山) 의병장이 이 산을 중심으로 항일 유격전을 벌렸고 6.25 전쟁 때는 공산군 잔당의 집결지가 되어 토벌에 애를 먹었으며 현재는 상무대 군인들이 통신시설을 갖춰 이용하고 있다.

(17) 사모산(紗帽山. 279.6m) : 신광면 월암리 소재

연천 마을 뒷 산으로 산 모양이 사모를 쓴 것 처럼 보인다고 하여 사모산이라고 했다는 말이 있고 이 마을에서 자작 일촌을 이루고 사는 경주이씨들이 가문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오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산정에 사모를 씌운 기를 걸었는데 이를 유래로 하여 사모산이라고 하였다는 말이 있다.

산 정상 못미처에 우람스런 바위들이 널려 있다.

이 산의 정기를 받아 대대로 인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전설도 있다.

(18) 석화산(石花山. 150m) : 월야면 양정리 소재

양지 마을 앞산으로 멀리서 보면 “一”자를 이룬다.

산정에 있는 기암들이 겨울에 눈이 내리면 마치 흰꽃이 만발한 것처럼 아름다워 보인다. 그래서 돌에 꽃이 핀 산이라는 뜻으로 석화산이라 했다.

이 산 동남 쪽 평탄지에 주위에서 약샘으로 이름난 “찬샘”이 있는데 겨울에는 물이 손에 따스함을 느낄 정도로 온화하여 주위에 자욱히 김이 서리고 여름에는 단 몇 초도 몸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차거움을 준다.

용출하는 물의 수량이 풍부하고 물 맛도 좋으며 지난 1967년의 극심한 가뭄 때도 그 솟구치는 양(量)이 줄지 않았다.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이 샘에서 발을 씻고 가면 합격한다는 전설이 있어 선비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찬물이 솟는 샘이라는 본래 뜻을 표기하면 “한천(寒泉)”이 옳은데 “찬”을 “참”으로 잘못 알아 지금은 “진천(眞泉)”으로 쓰고 있다.

(19) 속금산(束錦山. 171.9m) : 학교면 금송리 소재

함평군의 최남단에 위치한 산으로 영산강을 굽어보고 있다.

이 산은 그 형상이 장군으로 전해 오고 있는데 주위에 옥마봉(玉馬峰. 말), 투구봉, 칼재 등으로 불리는 산을 거느리고 있다.

금이 많이 나오는 산이라 하여 용금산(湧金山), 속금산(束金山)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제 이 산에서는 금을 많이 채광하였고 지금도 그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산 남쪽에 위치한 월호리 망월동 구릉에서 옹관묘군이 발견 된 바 있다. <마한시대 유적 항을 볼 것>

(20) 수산봉(水山峰. 140m) : 함평읍 수호리, 내교리 소재.

외대화 앞에 있는 산으로 화산(火山)이어서 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전한다. 이 산이 전설의 화산이 아닌 실제 화산이었음을 지금도 흔적이 뚜렷한 정상의 분화구가 증명해 주고있다.

수산이란 이름이 나오는 제일 오래된 문헌은 동국여지승람인데 산천조의 이제포(泥悌浦. 현재 지명 : 土橋浦) 항에

"현에서 15리 떨어져 있다.[3] 근원은 함평현 수산(水山)에서 나오고 남쪽으로 흘러서 대굴포(大堀浦)에서 합친다."[4]고 하였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향교리의 줄나무를 심게된 까닭이 마주 보이는 수산이 화산이어서 불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해온다.

(21) 수양산(首陽山. 300.4m) : 해보면 금계, 금덕리 소재

불갑산 지맥을 동쪽으로 가장 가까이서 이어받아 우뚝 솟은 산이며 산 중턱을 관통하는 재를 선치(蟬峙. 매미재)라 부르고 이 재의 이름에 유래하여 해보면의 5일 시장(市場)을 인근 사람들이 맬래미(매미의 방언)장이라 한다.

백이, 숙제가 고사리를 뜯어 먹으며 일생을 은둔했다는 중국의 수양산, 그 절개를 잇기 위해 옛 사람들이 수양산으로 불렀다고 전한다.

재의 정상 국도변을 1987년에 소공원화 하였는데 주위의 전망이 아주 좋아 일품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다.

(22) 승두봉(僧頭峰. 320m) : 해보면 산내, 대각리, 나산면 원선리 소재

1934년 간행 함평지에

"불갑산의 낙맥이 수십리 내려오다가 여기에 이르러 돌연히 기봉(起峰)하였고 중의 머리와 같이 생겼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승두봉 남쪽 해발 200m 능선을 인근 사람들이 중고개(僧峴)라 부르는데 전에 산내리와 원선리 은선암을 오가던 지름길의 정상으로 은선암의 중들이 많이 넘던 고개마루라하여 중고개라고 했다고 하며 정상에 수십명이 앉을 수 있는 넓다란 바위가 있는데 옛 군지 기이(奇異) 항에

"발로 구르면 둥둥 북을 치듯 울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크게 울리지를 않고 쿵쿵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다.

---

3) 당시는 이제포가 무안현이었기 때문에 무안현 소재지에서 본 거리임.

4) 이제포의 물은 현재 함평천을 말한다. 함평천의 발원지가 수산이라고 기술한 것은 잘못이다. 함평천의 발원지는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금산이다.

(23) 어수산(魚首山. 130m) : 나산면 용두리, 월야면 용월리 소재

나산면과 월야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 있어 높은 산이 아닌데도 아주 높은 산으로 돋보인다.

그리고 군내의 산들 중 기암 괴석이 가장 많은 산으로 뛰어난 경치를 보여 주고 있다.

청렬(淸洌. 맑고 차디 참)한 물이 솟는 샘이 다섯 군데며 호랑이 굴이 있는 범바위, 산정에 있는 용바위, 신랑 신부바위, 하녀(下女)바위, 체경(큰 거울)바위, 가마바위, 병풍바위, 치마바위, 솥바위, 자라바위, 오수 마을의 밥상바위 등 전설에 얽힌 바위가 많다.

이 산의 이름은 옛 함평지에는 자라 모양으로 생겼다하여 오수산(鰲岫山), 물이 다섯군데서 나온다하여 오수산(五水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근래에 출간된 지도에 어수산(魚水山)이라 표기되어 있어 여기서도 "魚水山"으로 표기하였다.

(24) 옥녀봉(玉女峰. 186.8m) 나산면 나산, 신평리 소재

옥녀가 빗질을 하는 형국이라고 하여 옥녀봉이라 이름하였다.

옥녀가 머리를 잘 빗을려면 거울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대정 마을 앞에 방죽을 마련하였다.

이 산의 정기를 받아서인지 대정, 동신, 방하 마을, 통칭 나산 마을에서는 고래로부터 과거 합격자가 연이었고 근래에도 재계, 예술계 등 각분야에 걸쳐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고 있다.

1934년 간행 함평지 산천조 옥녀봉 항에

"동쪽으로 20리 식지면에 있다. 병풍과 장막을 친 것과 같고 연꽃을 자른 것 같기도 하다. 산 아래 나산 마을이 있다."고 했다.

(25) 월악산(月岳山, 164m) : 월야면 월악리,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광주광역시 덕림동 소재

태청산 일맥이 꿈틀거리고 내려와 이룬 산이다. 이 산은 함평군과 장성군, 광주광역시와 경계를 이룬다.

산상에 정확한 축성 연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백제 때 쌓았다고 전해오는 토석(土石) 혼축성이 있으며 전설에 의하면 함평노씨(咸平魯氏) 7세손인 신(愼)이 고려말 벼슬을 하다가 고려가 망하자 이곳에 와 살면서 달밝은 밤이면 이 산에 올라 송악(松岳.개성)을 바라보며 고려의 임금을 그리워하여 월악산이라고 하였다 한다.

또한 이 산의 정기를 받아 월악리에서 인재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충신 열녀가 많은 고장이다.

산의 모습이 밋밋하면서도 안정된 위풍을 보여 준다.

1934년 간행 함평지에는 "동쪽으로 40리 월야면에 있다. 기(氣)가 모아 엄숙히 솟았고 인재가 뭉쳐 나온다. 명랑한 숙기(淑氣)가 완연히 달과 같기에 월악산 이라 한다."고 적혀 있다.

(26) 월양산(月陽山. 331m) : 해보면 해보, 산내리 소재.

불갑산의 낙맥이 비비 돌아 비틀거리며 오다가 이룬 월현 마을 앞 산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이 산에 월양사(月陽寺)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금은 터만 남아 있으며

1934년 간행 함평지에는"중턱에 산당(山堂)이 있고 또 용굴이 있다"고 하였다.

인근의 해보 사람들은 불갑산보다 월양산을 더 영험스러운 산이라 말하고 있다.

(27) 응암산(鷹岩山. 대굴산-大堀山. 115m) : 학교면 곡창리 소재

대곡 마을의 뒷 산으로 인근 사람들은 산상의 붉은 빛을 띈 바위가 책을 차곡차곡 쌓아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책바위산, 또 형국이 지네라 하여 지네봉이라 부른다.

이 산의 이름은 원래 대굴산(大堀山)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대굴사(大堀寺)가 대굴산(大堀山)에 있다고 하였고 고려 때 명종때의 시인 김극기(金克己)의 시 한 수를 실었다. <조선조 관방조 대굴포 전라수영을 볼 것>

또 1930년 간행 면성지(綿城誌. 면성은 무안의 고명) 산천조에"대굴산은 일명 서흥산(瑞興山)이며 현의 동쪽 20리 진례 속금산 서쪽에 있는 산이다. 김대유(金大有)의 시 한 수가 있는데 '강상에는 고려 때의 절이 있고 층층 바위에는 빨간 빛이 서려 있네. 학사가 분명 기록하거늘 천년 실은 탑이 구름 뚫은 절을 보네."라고 하였다.

1934년 간행 함평지에는"남쪽 20리인 학교면에 있다. 속금산이 서쪽으로 치달리다가 무리의 높은 봉우리를 이루었고 사람들이 가히 노닐 수 있는 눈앞이 훤히 트인 곳이다. 절터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대굴산은 1914년 이 지역이 무안군에서 함평군으로 이속된 후 이름이 언듯보면 매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하여 매바위산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려시대의 유적 대굴사 항을 볼 것>

(28) 철성산(鐵城山. 262.5m) : 대동면 월송, 금곡, 상옥리 소재

천주봉 혈맥이 뻗어내려 이룬 산이다. 산은 얕으나 기암 괴석이 많아 경관을 이루고 있고 평야지대에 우뚝 솟은 산이라 웅치(雄致)를 더한다.

산상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제단과 백제 때 쌓았다고 전해오는 500여 m의 테뫼식 석성이 있고 성안에 1개소의 우물이 있다.

남문에서 동쪽으로 100여 m 떨어진 호구암(虎口庵) 아래에 있는 동굴은 입구는 1m 미만이지만 굴안은 사방 3m, 높이 2m나 되며 또 거기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좁은 다른 굴이 있는데 그 길이는 알 수 없다.

상옥리 쪽 중봉에 석수암(石水庵)이란 옛 절터가 있는데 이끼낀 바위 사이에 홀연히 서있던 불상은 1970년대에 망실되었다. 석수암이란 이름은 석벽 사이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장마 때나 가뭄 때나 한결같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기이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돌샘이 있다하여 석수암이라 했다.

석수암의 약수는 영험이 있다하여 전에는 병자들이 많이 찾아 와서 병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는 명소(名所)다.

(29) 천주봉(天柱峰. 377.1m) : 나산면 우치, 월봉, 원선리 소재

함평군의 산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산이며 불갑산, 군유산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산

이다.

하늘을 떠 받들고 있는 기둥이라는 이름 그대로 육중한 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산정 가까이 100여명이 앉아 놀 수 있는 넓다란 바위가 있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용샘(용이 살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 있고 정상에는 움푹 파인 화산의 분화구 형태가 300m^{2}가량 남아 있으며 억새가 무성히 자라고 있다.



【동축에서 바라 본 천주봉】

1993년 나산 쪽의 산 모두가 소나무깍지벌레에 의해 피해를 입어 수종 갱신 사업을 벌였다.

(30) 칠봉산(七峯山. 125m) : 월야면 외치리 소재

월악산의 줄기를 이어 받은 산으로 산 중턱 능선 외치(外峙. 바깥 재)로 국토 22호선이 지나며 외치 마을 뒷편에 백 가지의 화초를 심어 만발하였고 전남, 북의 선비들이 1년에 한 두번 모여 시회(詩會)를 열어 친선을 도모했다는 백화정(百花亭)이 있는데 퇴락해 있던 것을 1994년에 중수하고 나무와 꽃도 고증에 의해 보식하여 산뜻한 옛 모습을 되찾았다.

(31) 한문산(捍門山. 95m) : 엄다면 삼정, 영흥리 소재

1934년 간행 함평지에

"무안군의 남산맥이 동으로 치달리다가 높지는 않으나 수려한 산을 이루었다. 앞에 대야장천(大野長川. 현 무안천)이 흐른다."라고 하였다.

산의 높이는 100여 m도 안되는 얕은 산이지만 평야지대인 엄다면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며 기암 괴석이 많다.

2. 하천(河川)

1) 함평군의 하천 개요

함평군의 하천 수계(水系)는 이분(二分)되어 있다.

전남의 젖줄로 전남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영산강 유역, 함평은 그 중상류에 해당하며 지류(支流)인 함평천(咸平川)과 고막원천(古幕院川)이 크고 작은 소하천과 합치면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흐르다가 고막원천은 학교면 석정리 석관정(石串亭) 나루터에서, 함평천은 학교면 곡창리 사포에서 본류인 영산강과 합류한다.

이 중류를 선인(先人)들은 사호(沙湖) 또는 곡강(曲江)이라 하였다.

함평천과 고막원천, 그리고 영산강의 중상류인 사호를 포함한 총 연장은 68.68km며 5km 이상 소하천까지를 합한 길이는 206.14km에 달한다.

2) 함평천

(1) 명　　칭

신증동국여지승람 함평현의 산천조에

“현의 동쪽 2리(里)에 대천(大川)이 있다.”고 했고 1871년 함평현읍지에는

“현의 동쪽 2리에 영수천(潁水川)이 있다.“고 했으며 여지승람 무안현 산천조에

“이제포(泥悌浦)가 현의 동쪽 15리에 있고 근원은 함평의 수산(水山)에서 나오고 남쪽으로 흘러 대굴포(大堀浦)에서 합친다.”고 하였다.

또 1930년 간행 무안현지에

“학포(鶴浦)는 현의 동쪽 15리의 토교(土橋)에 있고 토교는 돌로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승람의 대천은 함평읍을 끼고 흐르는 냇을 말하며 이제포의 설명은 현 엄다면 학야리 토교를 말한다.

현 함평천의 하류에 속하는 토교에는 1960년대까지 배가 드나들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무안군에 속했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데 현 토교를 중심으로 하는 함평천은 전에 이제천, 학천, 토교천으로 불리어졌을 것으로 보며 기실 촌노들이 토교천이라 부르고 있다.

함평읍 쪽의 냇인 옛 대천은 영수천으로 바뀌었는데 영수란 중국의 기산(箕山) 영수(潁水)에서 따온 이름이며 이에 연유한 바를 거슬러 보면 1445년 단종의 폐위 때 이에 불복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이안(李岸)이 그의 지조를 중국의 허부와 소유의 은둔 생활에 비기며 영파정(潁波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후학 양성에 힘을 쏟은데 기인하고 있다.

함평천의 중상류 지점인 대동면 운교리(雲橋里) 앞을 “버린바대들”이라 오늘날도 부르고 있는데 이는 함평천이 널직한 강이었음을 입증하며 함평읍 진양리(津良里) 하느리(한나루. 大津)라는 지명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해방 전까지는 토교천, 영수천, 버림바대들을 통틀어 영수천이라 부르다가 해방 후 부터 함평천이라 부르고 동시에 국가 직할 하천이 되었다.

(2) 함평천의 본류와 발원지 (發源地)

한글학회에서 펴낸 한국지명총람에는 함평천(일명 潁水川)이 모악산(母岳山. 해보면 광암리)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서 대동면 덕산에 이르러 신광천과 합류하여 계속 남쪽으로 흘러 영수천이 되고 함평평야를 이루는 동시에 엄다면과 학교면의 경계를 이루면서 영산강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여지승람에서는 수산(水山)에 근원을 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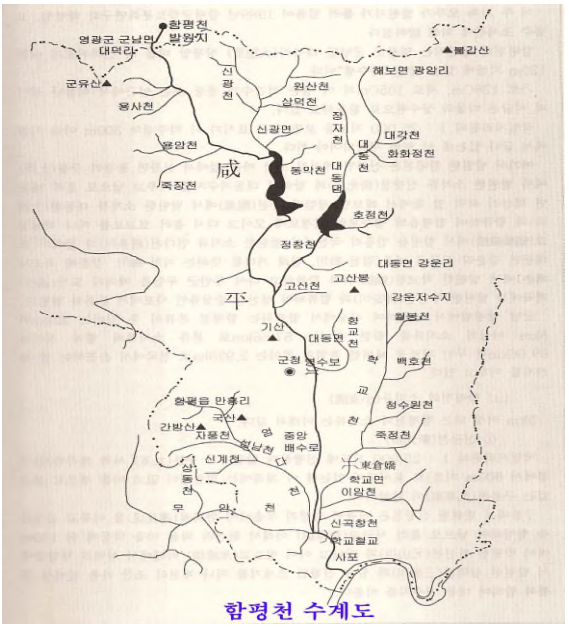
이 두 기록 모두가 발원지가 틀려 있음이 1989년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박병섭, 고송주 조사진에 의해 밝혀졌다.

함평천의 발원지는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大德里) 상광암 마을 뒤 선바위골의 해발 120m 지점에 있는 일명 “약수샘”이다.

가로 126Cm, 세로 105Cm의 이 샘은 석간수가 풍풍 솟는 인근에서 이름난 샘이며 지금은

마을의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립지리원의 1 : 25.000 지도를 보면 물끝 표시가 이 약수샘의 300m 아래 지점에서 끝나 있는데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한다.



함평천 수계도

여기서 발원한 함평천은 신광면 계천리 조산 마을 앞에서 신광면 동정리 구봉(九峯)에서 발원한 소지류 신광천(新光川)과 합하여 대동저수지를 이루고 남으로 흘러 대동면 덕산리 외덕 앞 들에서 해보면 광암리 용천(龍泉)에서 발원한 소지류 대동천(大洞川)과 합류하여 함평읍의 영수보와 대경보에 모이고 다시 흘러 토교보를 지나 학교철교(鶴橋鐵橋)에서 함평읍 만흥리 국산에서 발원한 소지류 엄다천(嚴多川)과 합하며 또 대동면 강운리 거무내 마을(검천-黔川. 원래 거미를 뜻하는 지천-蜘川. 강운제 축조시 폐촌)에서 발원한 학교천(鶴橋川)과 합류하고 다시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도산(道山) 계곡에서 발원한 무안천(務安川)과 합류하여 영산강 중상류인 사포에서 본류와 합한다.

군남 상광암에서 발원하여 사포에서 합류하는 함평천 본류의 총 길이는 32km며 5km 이상의 소지류를 합한 길이는 57.66km로 본류 소지류의 합계 길이는 89.66km며 무안 지역을 제외한 유역의 평야는 2,925ha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쌀 생산지를 이루고 있다.

(3) 함평천의 소지류(小支流)

5km 이상 되는 함평천의 소지류는 아래와 같다.

① 신광천(新光川)

국립지리원의 1 : 25,000 지도에 신광천의 발원지가 구봉(九峯) 서쪽 계곡까지(구봉에서 600m 지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계곡에는 발원샘이 없고 마을 샘으로 쓰고 있는 구봉천(九峯泉)이 발원지다.

구봉에서 발원한 신광천은 신광면 함정리 무송에서 연화제(蓮花堤)를 이루고 실개천을 형성하며 남으로 흘러 서군교(誓軍橋) 아래서 원산리 덕동 마을 덕동제 위 150m 에서 발원한 원산천(元山川)과 만나고 이어 빙고교(氷庫橋) 아래에서 삼덕리 덕암골에서 발원한 삼덕천(三德川)과 합류 신광면 소재지를 지나 계천리 조산 마을 앞에서 본류와 합하여 대동 저수지를 이룬다.

② 대동천(大洞川)

국립지리원의 1 : 25,000 지도에 대동천의 발원지를 광암저수지로 하였으나 대동천의 발원지는 광암저수지에서 400m 위에 있는 용천사 경내의 용천(龍泉)이다.

해발 160m 지점의 용천에서 발원한 대동천은 광암저수지를 지나 남으로 흘러 해보면 대각리 돌정이에서 발원한 대각천(大角川)과 하각(下角)에서 만나 큰 하천을 이루고 이어 회화정에서 아연동 동쪽 계곡에서 발원한 회화정천과 합치고 목포시 상수원인 대동댐을 거쳐 남류하여 신성제 동쪽 계곡에서 발원한 정창천(正昌川)과 정창다리에서 만나 제방둑안을 타고 덕산리 외덕 앞 들판에서 본류와 합친다.

③ 엄다천(嚴多川)

엄다천의 발원지는 함평읍 만흥리 국산(國山) 마을 뒤 국사제에서 300m 위 지점에 있다. 저수지 내에도 물이 콸콸 솟는 샘이 있다. 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발원지를 조사하던 당시는 3개월에 가까운 가뭄이 든 11월 6일이었는데 국립지리원이 표시한 발원 지점은 물이 말랐고 오른쪽 계곡 300m에 있는 샘에서는 물이 솟구치고 있었다고 보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국산저수지 오른쪽 계곡에서 발원한 엄다천은 신계리 화계제(花溪堤) 앞에서 돗재 계곡에서 발원한 자풍천(自豊川)과 합류하여 송로리 해정 앞에서 함평여고 앞에서 시작하는 중앙 배수로와 만난다.

함평여고 앞에서 시작하는 배수로는 경지정리 이전에는 구불구불한 냇과 소택이 수 없이 많았으나 경지정리 이후는 일직선이 되어 있다.

이어 엄다천은 국도 1호선 밑을 지나 학교철교에서 본류와 합치는데 유입되는 물의 양이 많아 매년 홍수 피해를 입는 지역이 되고 있다.

④ 학교천(鶴橋川)

함평천의 소지류 중 두 번째로 긴 하천이다.

발원지는 국립지리원의 1 : 25,000 지도보다 500m 아래인 전 검천 마을 서쪽 강운저수지 위 300m 지점이다.

검천에서 발원한 학교천은 강운제에 모였다가 넓은 강운리 평야를 적시며 남으로 흘러 가다가 대동면 강운리 주평의 동쪽 들에서 월송제에서 발원한 월송천(月松川)과 합류하여 큰 냇을 이루고 학교면 월산리 상송 동쪽 들에서 복천리 외치마을 서편 계곡에서 발원한 청수원천(淸水院川)과 만나 동창교(東倉橋) 윗쪽에서 옥마산을 낀 호암 계곡에서 발원한 죽정천(竹亭川)과 만나 큰 여울을 이루고 제방을 따라 학교면 소재지를 지나고 이암 마을 앞 들에서 함평군의 소소지류 중 제일 긴 이암천과 만나는데 이암천은 선암제에서 250m 떨어진 해발 150m 계곡에서 발원한다.

이암천과 만난 학교천은 서당매에서 신곡마을 동편 계곡에서 발원한 신곡창천(新谷昌川)과 합류, 학교철교에서 함평천 본류와 만난다.

⑤ 무안천(務安川)

무안천은 이름 그대로 하천의 대부분이 무안읍 땅을 흐르고 있다.

1934년 간행 함평지의 산천조 한문산(捍門山) 항에 "산 앞에 대야장천(大野長川)이 흐른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무안천의 원래 이름이 넓은 들판을 흐르는 냇이라는 뜻의 대야장천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무안천의 발원지는 무안읍 매곡리 도산 마을 북쪽 계곡 감악산 한 자락, 도산저수지 위 850m 지점인 해발 70m 샘에서 발원한다.

도산에서 발원한 무안천은 고절리에서 무안읍 불무제 위에서 발원한 소소지류와 합류, 상동 앞 들에서 무안읍 용월리 약곡저수지 북쪽 700m 지점의 계곡에서 발원한 상동천(上洞川)과 합류한 후 함평군과 무안군 경계를 이루는 송촌교(松村橋)를 지나 학교 철교에서 함평천의 본류와 합한다.

(4) 함평천의 본류 소지류의 길이

* 길이는 김경수(金京洙)가 지은 『영산강 삼백오십리』에 준하였다.

구분	하천명	합류지(合流地)	발원지(發源地)	길이(km)	소소지류 2km 이상 하천	참고
본 류	함평천	영산강 사포(沙浦)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상광암 선바위골 약샘	32.00	아래의 5km 이상의 소지류가 5개 있음	
소지류	신광천	신광면 계천리 조산 마을 앞	신광면 함정리 구봉천(九峯泉)	9.62	원산천:4km 삼덕천:2.8km	
소지류	대동천	대동면 덕산리 외덕 앞 들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경내 용천(龍泉)	16.97	정창천:2.1km	
소지류	엄다천	엄다면 영흥리 학교 철교	함평읍 만흥리 국산 국산제 계곡	8.74	자풍천:3.3km 중앙배수:4.3km	
소지류	학교천	엄다면 영흥리 학교 철교	대동면 강운리 검천마을 강운제 계곡	11.73	월송천:2.6km 청수천:2.2km 이암천:4.9km 신곡천:3km	
소지류	무안천	엄다면 영흥리 학교 철교	무안읍 매곡리 도산제 위 850m	10.60	불무천:3.6km 상동천:3km	

3) 고막원천(古幕院川)

(1) 명 칭

1970년대 후반에 작성한 함평군 행정지도에 의하면 이문리 위의 고막원천 본류를 왕릉천(王陵川)이라고 표기 했는데 어떤 유래에 의한 것인지는 자세히 전해지고 있지 않으며 나산면 삼축리에 있는 평릉이라는 묘와 연관지어 인근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라고 하나 평릉에 대해서도 왕묘 또는 부마묘라는 전설이 있을 뿐 이에 대한 오래된 기록이 없어 확연한 것은 알 수 없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제작한 함평군 행정 지도에 원선리에서 발원하여 덕림리에서 본류와 합

류하는 소지류를 평릉천(平陵川)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전에는 원선천(元仙川)이라고 썼었으며 지금도 지역민들이 원선천이라고 부르지 평릉천이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에 평릉면에 속했던 곳이므로 평릉천이라 제작자가 붙인 이름인듯 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저천(猪川)이 현의 동쪽 30리에 있다."라고 하였다.

나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냇을 저천으로 불렀다는 말이 된다.

이는 돛내가 돈내로 변해 한자로 표기하면서 "猪川"으로 쓴 것 같으며 원래 이곳은 배가 닿던 중요한 곳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실 1960년대 중반까지 고막돌다리 밑까지 소금과 고기를 실은 배가 드나들었고 초포리의 초포, 이문리의 이문(배문이), 이문리의 선박(배를 맨곳) 등 선창과 관련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에 이곳까지 배가 드나들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1934년 간행 함평지에는 저천(猪川)을 도천(道川)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이 구간이 매우 심하게 도는 곡류천(曲流川)이란 뜻의 "도내기"가 한자화하면서 도천(道川)이 된 것 같다.

현 고막원천의 하류는 원래 고막천 또는 고막원천으로 불렀고 중류인 나산면 쪽은 저천 또는 도천으로 불렀으며 상류는 왕릉천으로 불렀다고 보며 해방 이후 전체를 고막원천으로 부르고 국가 직할 하천이 되었다.

(2) 고막원천의 본류와 발원지

본 항의 글은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조사진의 조사 기록과 김경수(金京洙)가 지은 "영산강 삼백오십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태청산(泰淸山. 593m) 남동쪽 능선 장승백이 골에서 발원한 고막천은 유천 마을에서 방향을 바꿔 남으로 흘러 유정제에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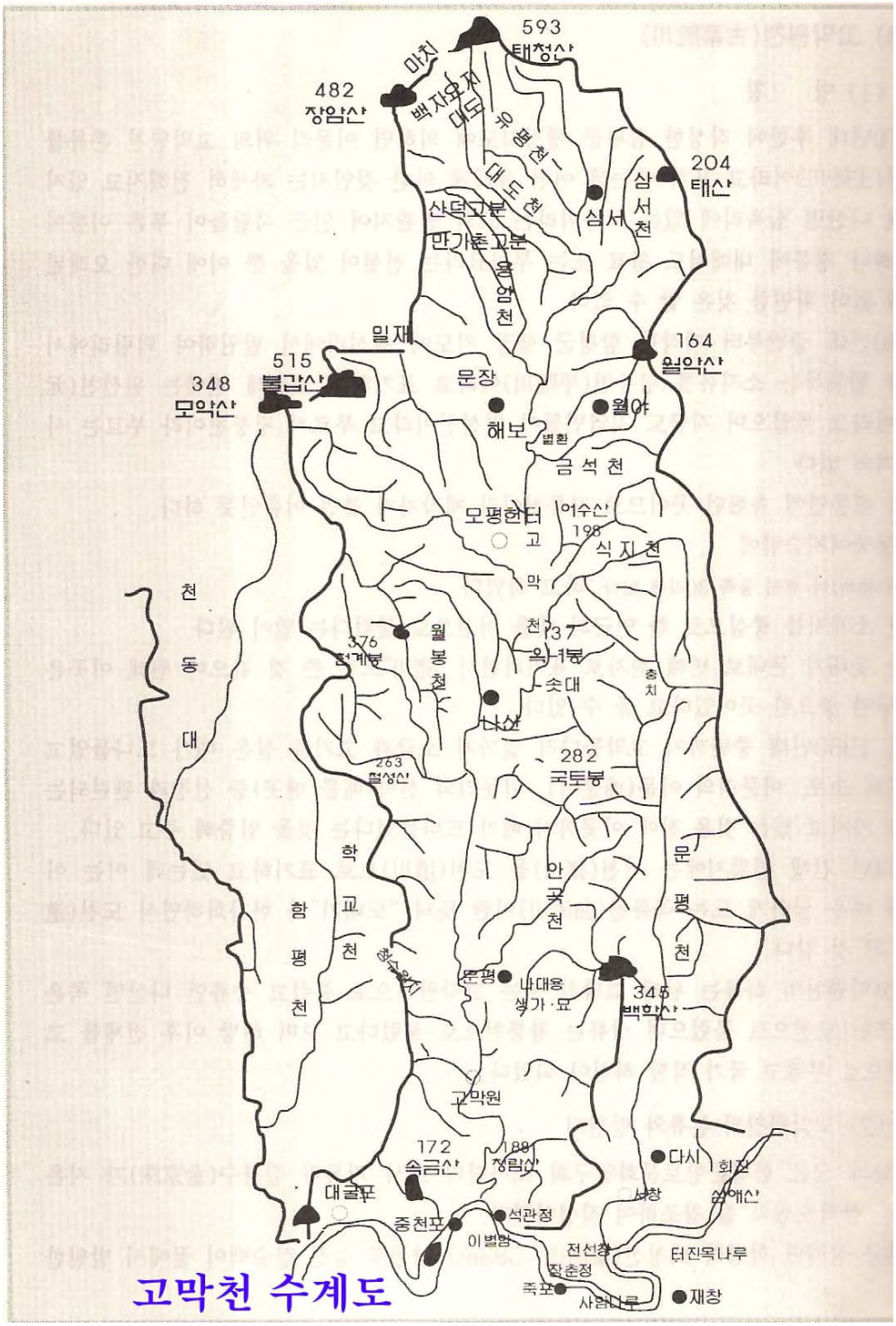
박주 마을을 지나 상계리 금광 마을에서 어량 안골 물과 어울리고 모초들 남쪽에서 유평천과 합류하고 수해리 하죽 마을 앞 들에서 대도천과 합한다.

함평으로 흘러온 물은 계림리 주전 들 앞에서 북동쪽에서 흘러온 삼서천과 합하여 남서 쪽으로 향한다.

정산리 동촌 앞 들에서 월계 저수지 북쪽 300m 골짜기에서 발원한 예덕천(禮德川)과 합류하여 큰 여울을 만들고 남으로 흘러 월야고등학교 바로 서쪽에서 용강 뒷산에서 발원한 용암천(龍岩川)과 합류한다.

문장리 귀밀 앞 들에서 외치에서 발원한 금석천과 합하고 월야면과 해보면의 경계를 이루며 남류하여 전 이문국민학교 앞에서 금계리에서 발원한 해보천과 합류한다.

이문 마을 서남쪽 장창보에 이르러 광주광역시 삼도동 내산에서 발원한 식지천과 합해 남류하여 나산 소재지에서 방향을 서쪽으로 돌려 백양골 모퉁이에서 우치리에서 발원한 월봉천과 만나고 방향을 남으로 돌려 흐르다가 백양동 마을 앞에서 원선리에서 발원한 평릉천(平陵川. 원래 원산천)과 어울려 함평군과 나주군의 경계를 이루면서 남으로 흐른다.


593
태청산
482
장암산
백자오지
대도
우명천
대도천
204
태산
삼서
심서천
산덕고분
만가촌고분
용암천
밀재
515
불갑산
348
모악산
164
월악산
문장
해보
별환
월야
금석천
모평한터
고
막
어수산
198
식지천
천
동
대
376
월봉
월봉천
737
옷대
충치
나산
263
282
국토봉
학
교
천
함
평
천
만
공
천
문
평
천
운평
나대용
생가·묘
345
백학산
고막원
172
속금산
188
정림산
다시
회전
서창
쌈에산
대굴무
중천포
석관정
이별함
전선창
터진목나루
잘춘정
죽포
사월나루
재창
고막천 수계도

장동 마을 앞에 다다른 고막원천 본류는 나주시 문평면 계로리의 불로촌에서 발원한 안곡천과 합하고 남으로 흘러 고막천 돌다리를 지나 학교면 석정리 옛 석관정[5] 나루에서 영산강과 합류한다.

고막원천이 지나는 곳은 하성평탄지(河成平坦地)며 본류의 총 연장 길이는 39.30km이며, 또 5km 이상 소지류천을 합한 길이는 68.68km로 본류와 소지류천의 합계 길이는 107.98km 이다.

(3) 고막천의 소지류(小支流)

5km 이상의 소지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① 대도천(大都川)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덤바위재 바다골에서 발원하며 장암사가 있는 눈섭골 물과 함께 회동제에 잠겼다가 이어 후동, 대도리 관동 마을에서 흘러온 물을 모아 대도저수지를 이룬 후 소룡 들로 나가 삼서초등학교가 있는 저전, 소도등을 지나 하죽 마을 동쪽에서 고막원천에 합류한다.

② 삼서천(森西川)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외골에서 발원하여 학산 저수지에 담겼다가 방죽밑을 지나 삼서면 소재지인 원대곡 마을을 지나 정유재란 때 격전지였던 우치리에 이르러 동쪽 보생리 물을 더해 시가래, 멍쟁이 들을 지나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노동 마을 서편에서 고막원천 본류와 합한다.

③ 용암천(龍岩川)

월야면 월계리 월계저수지 위 330m 지점에서 발원하여 월계제에 유입되었다가 남으로 흘러 연화저수지를 지나 장교(長橋.진다리)에서 용강쪽에서 흘러온 물과 합쳐 월야고등학교 바로 서쪽 옆에서 고막원천과 합류한다.

④ 해보천(海保川)

해보면 금계리 용운사 동쪽 금산골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흘러 금게제에 모였다가 월현 앞의 월양산 동쪽을 감싸며 흐르다가 모평 숲쟁이에서 산내골을 흘러온 산내 소소지류천과 합하여 해보면 대창리와 나산면 우치리를 경계하며 흐르다가 청동기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던 초포리 사촌 마을 뒷 쌍등을 감돌아 들을 가로질러 전 이문국민학교 서쪽에서 고막천과 합류한다.

⑤ 식지천(食知川)

옛 식지면 땅을 가로 질러 흐르는 냇이라 하여 식지천이라 한다.

식지천은 광주광역시 삼도동 내산 절재 북쪽 노리목 고개에서 발원하여 칠산골을 지나 쌍내 윗뜸에서 버러지골 북쪽에서 흘러온 물을 합치고 대봉 마을을 거쳐 북류한다.

5) 나주군 다시면 동당리 영산강변에 있는 정자

양동, 마암 마을에 이르러 취쟁이 들을 감돌아 월석 마을 간냄들에서 북쪽 복만골 물과 합하고 서쪽으로 흐른다. 석암 마을을 지나 나산면 용두리 선박에서 수양저수지의 물과 어울리고 하선박을 감돌아 대포리 마을에서 수상리 대안촌 발원의 물을 더하고 회정 마을 남동쪽을 지나 이문리 앞 장창보에서 고막원천과 합류한다.

⑥ 월봉천(月奉川)

나산면 우치리 중고개 동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강천저수지를 지나 화정 마을을 감돌아 초포리 입석 마을로 나와 월봉리 주갱이 들을 지나 나산초등학교가 있는 연화동 서쪽에서 안영동에서 흘러 오는 물과 만나고 남류하여 장파금 들을 지나 수하리 호만들과 마주하며 고막원천에 합류한다.

⑦ 평릉천(平陵川)

나산면 원선리 깽초고개 남쪽에서 발원하여 논골의 여러 산골에서 흘러온 물과 합쳐 원선리 유촌 ,구산리의 구산교에서 서쪽에서 흘러오는 구산천 소소지류와 합류하고 덕림 들로 나가 죽림 들을 돌아 백양동 남쪽에서 고막원천과 합친다.

⑧ 안곡천(安谷川)

나주시 문평면 계로리 불로촌 마을 서쪽에서 발원하여 도장골을 거쳐 남서류 하다가 탄방제 물을 더해 새야골 들을 타고 입석 마을 밑에서 소사골 물과 함께 대도저수지에 담긴다.

이어 동원리에서 백장골 물을 더해 서원 마을을 거쳐 문평면 소재지인 안곡리로 나가 배다리 들을 지나 학교면 복천리 장동 마을과 경계가 되는 문평 산호리 들에서 고막원천과 합류한다.

(4) 고막원천 본류와 소지류의 길이

* 5km 이상의 소지류만 기재 함. 하천 길이는 김경수 저 “영산강 삼백오십리”를 준함.

구분	하천명	합류지(合流地)	발원지(發源地)	길이(km)	소소지류(小小支流)	참 고
본 류	고막원천	학교면 석정리 석관정 나루터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장승백이 골	39.30		
소지류	대 도 천	삼서면 수해리 하죽 앞 들	삼서면 학성리 덤바위재 동쪽 바다골	7.92		
소지류	삼 서 천	함평군 월악리 노동마을 서편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외골	9.92		
소지류	용 암 천	월야고등학교 바로 서쪽 곁	월야면 월계리 월계 저수지 위 300m	5.65	금덕천	
소지류	해 보 천	전 이문국민학교 바로 서쪽 곁	해보면 금계리 용웅사 동쪽 금산골	9.64	산내천 3.01km	
소지류	식 지 천	나산면 이문리 앞 장창보	광주광역시 삼도동 내산 절재 노리목골	12.00	수상천	
소지류	월 봉 천	나산면삼축리 백양골 모퉁이 (호만들 정면)	나산면 우치리 중고개 동쪽	6.92		
소지류	평 릉 천	나산면 덕림리 백양동 마을 동쪽	나산면 원선리 깽초고개 남쪽	9.90	구산천 4.00km	
소지류	안 곡 천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 들	나주시 문평면 계로리 불로촌 서쪽	6.73		

4) 사호(沙湖)와 곡강(曲江) : 길이 8.5km

엄다면 영흥리 앞에서 학교면 석정리까지의 영산강 본류를 옛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다.

사호는 영산강 전체를 말하는 옛 이름이기도 하나 하구부터 몽탄까지를 몽탄강, 몽탄강에서 학교면 월호리 배야(背野)까지를 사호, 배야에서 고막원천과 합류하는 석정리 앞 석관정까지를 곡강, 그 상류를 금강(錦江)이라 나누어 부르기도 하였다.

배야에서 석관정까지의 강을 곡강이라고 부른 것은 지세에 등져 물이 흐르는 배류지(背流地)가 현 학교면 월호리 망월동(望月洞) 앞 배야에 있어 고려 때 부터 우리 나라에서 지세에 등져 흐르는 3대강 중의 하나라며 곡강이라 불렀다.

사호의 대굴포는 조선조 초기에 전라수영(全羅水營)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조선조 관방조 전라수영을 볼 것)

또 현재 응암산이라 부르는 옛 이름 대굴산에는 대굴사(大堀寺)라는 고려조의 절이 있었다.

사호와 대굴사에는 옛날 많은 시인 묵객이 쉬어 갔고 그들이 남긴 시편이 여러 책에 실려 있는데 몇 편을 골라 소개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안현 산천조(山川條)에 전국의 명승지를 두루 찾은 고려 명종조의 김극기(金克己)의 시가 실려 있다.

푸른 강 천만 이랑(頃)에 외로운 배 떠 있네
산봉우리는 붉은 해를 보내고 바다 밑에 흰 달 맞이 하네
물가에 가득한 모래 서리 같고 공중에 연한 물결 눈(雪) 같네
고기 잡이 젓대소리 서너 곡조에 갈대 사이 절로 처량하구나.

碧江千萬頃　孤棹自橫絶
峯端送紅日　海底迎自月
滿岸沙如霜　連空浪如雪
漁笛三四聲　葦間自凄咽

무안의 옛 현읍지에 실린 연파처사(烟波處士) 박개(朴漑)의 시,

玉岫白雲白　옥수에 빗긴 구름은 희고도 희고
沙湖明月明　사호의 달은 밝고도 밝네
白雲明月裏　흰구름과 밝은 달 사이에
閒臥洗心情　한가로이 누어 마음을 닦네

대동면 상옥리 옥동 출신으로 조선조 효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사헌부 감찰, 양성현감을 지냈고 시인으로 널리 알려졌던 윤제민(尹濟民)의 시 (옛 무안현 읍지에서 발췌)

– 전략 –

曲江暮色將烟合　　곡강의 어스름 연기와 합하고
別浦寒雲拖雨飛　　별포의 찬 구름 비를 안고 날라오네
十里蘆花雙雁下　　십리 갈대밭에 기러기 한 쌍 내리고
孤舟風浪一僧歸　　풍랑의 외로운 배에 한 중이 돌아가네

삼족당(三足堂) 김대유(金大有)의 시,

小屋高縣近翠微　　작은 집 산 비탈에 매여 있고
月邊僧影渡江飛　　달 가에 빗긴 중 그림자 날아서 강을 건너오네
西湖處士來相宿　　서호의 처사가 서로와 잠이드니
東岳白雲沾草衣　　동쪽 산 흰 구름이 베옷을 적시네

이상옥(李相玉)이 저술한 『설화 한국의 역사 고려조』에 의하면 옛날에는 지금의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공산면 신곡리, 중포리(中浦里)에 펼쳐 있는 들판이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강이었으며 강의 이곳 저곳에는 작달막한 섬들이 널려 있었고 공산면 백사리(白沙里)에는 4km에 이르는 은모래가 깔려 있는가 하면 갈대밭도 십리가 넘었으며 강이라기 보다는 크나 큰 호반(湖畔)이었다.

지금은 강 양쪽에 둑을 쌓아 강이 직강화(直江化)되어 옛 풍치는 잃었어도 망월동 쪽의 갈대숲이 일품이며 동애골(東涯谷)이라 부르는 곳에는 수십 척 낭떠러지가 연이어 있고 기암 괴석이 늘어 선 응암산(원래 대굴산)과 옥수봉의 경치가 가관이어서 산수(山水)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영산강 하구언 공사가 있기 전에는 득량골에서 민물과 바닷물이 맞닥뜨려 뱅뱅도는 경관을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 하구언 공사 이후에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우나 이곳에 큼직한 잉어가 많아 낚시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1995년 동강대교(洞江大橋)가 사포 나룻길에 놓여 교통이 편리해졌고 영산호의 풍광을 구경할 영산호 관광사업 일환으로 이곳을 개발하면 더없이 좋은 휴식 공간이 될 여건을 갖추고 있다.

3. 평야(平野)

평야는 논을 의미한다. 함평평야, 고막평야, 손불평야, 신광평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기간으로 펼쳐 있는 함평군의 논은 2008년 현재 군 전체 면적 39,276ha의 24.58%인 9,565ha이며 전남의 논 203,680ha의 4.74%를 차지하며 농가당 논의 경지면적은 2008년 1ha를 이루고 있다.

2008년말 함평군의 읍·면별 논 면적을 살펴보면 면적 순위로는 손불면, 월야면, 나산면, 함평읍 순이며 세대당 평균 면적 순은 엄다면, 신광면, 월야면, 손불면 순이며 농가당 평균 면적

은 나산면, 신광면, 대동면, 엄다면, 월야면 순이며 세대당 평균 면적은 0.55ha, 농가당 평균 면적은 1ha이다.

함평군의 논 면적과 농가수

2008. 12. 31 현재. 단위 : 면적 ha

읍 면 별	논 면 적	세 대 수	농 가 수	세대당평균면적	농가당평균면적
계	9,656	17,449	9,636	0.55	1
함 평 읍	1,156	4,170	1,728	0.27	0.67
손 불 면	1,367	2,023	1,388	0.67	0.98
신 광 면	799	2,023	1,388	0.73	0.19
학 교 면	1,035	2,254	1,177	0.46	0.88
엄 다 면	767	1,162	748	0.66	1.03
대 동 면	1,124	1,561	960	0.72	1.17
나 산 면	1,307	1,664	817	0.78	1.59
해 보 면	787	1,530	861	0.51	0.91
월 야 면	1,314	2,029	1,789	0.65	1.02

1) 함평군 평야 일람

읍 면	들 이 름	면적(ha)	참 고
함 평 읍	대 덕 들	110	양림들포함
	성 남 들	146.2	
	만흥, 장교들	454.4	
손 불 면	궁 산 들	265	주포와 손불면 궁산리 죽암, 신광면 유천리 들 포함
	산 남 들	360	
신 광 면	월 암 들	160	원산리 원산들까지 포함 함
	계 천 들	165.6	신광면 계천리, 복흥리, 손불면 동암들 까지 포함 함
학 교 면	진 례 들	270	
	월 호 들	162	
	월 산 들	272.1	
	죽 마 들	186	죽정리, 마산리들 회춘동들 포함
	학 교 들	80	
	복 천 들	133	
	고 막 들	49	
엄 다 면	엄 다 들	610	영흥들 포함
	성 산 들	150	
대 동 면	향 교 들	181	
	강 운 들	100.2	
	용 성 들	319.8	용성리, 운교리, 금산리들 포함
	상 옥 들	50	
나 산 면	평 들	130	
	사 산 들	120	
	삼 축 들	110	
	초 포 들	50	
해 보 면	주 현 들	115	
	모 평 들	76.5	대창들 포함
	해 보 들	100	
	중 귀 들	120	
	금 덕 들	120	
월 야 면	월 야 들	91	
	용 월 들	69	
	백 야 들	96	
	계 림 들	108	예덕들 포함
	용 암 들	171	
	한 새 들	116	

2) 함평군의 주요 평야

(1) 함평평야(咸平平野)

하해혼성평탄지(河海混成平坦地)인 함평천을 끼고 발달한 함평 평야는 대동면 운교리와 금산리에서 시작하여 엄다면 영흥리와 학교면 곡창리의 영산강까지 연이었으며 길이 15km에 면적은 2,300여 ha이다.

(2) 월야평야(月也平野)

하성평탄지(河成平坦地)인 고막천을 끼고 발달한 월야평야는 월야면 정산리에서 시작하여 해보, 나산면을 거쳐 학교면 월호리에 이르는 21.4km에 펼쳐 있으며 그 면적은 1,600여 ha에 이른다.

(3) 손불평야(孫佛平野)

서해안 간척지를 중심으로 한 손불평야는 하해혼성평야로 면적은 400ha이다.
『손불 간척지 쌀』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양질의 미곡을 생산하고 있다.

(4) 신광평야(新光平野)

곡간충적(谷間沖積)으로 이루어진 신광 평야(일명 계천들)는 함평천 상류를 끼고 발달하였고 면적은 200ha에 이른다.

이상 네 평야를 기간(基幹)으로 이루어진 함평의 논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국에서도 이름난 주산지를 이루고 있다.

제4차 영산강유역개발사업으로 마무리 짓게 될 함평만(咸平灣)간척사업은 현재 함평군 논의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12,000ha를 확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농업의 채산성과 2000년 초까지 무안군 망운면에 들어설 국제공항 건설, 그리고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함평만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민의 여론을 검토한 정부가 1998년 9월 제4차 영산강유역 개발사업을 백지화 하였다.

함평군의 4대 평야는 어떤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리시설이 확보된 것이 장점이다.

4. 해안(海岸)과 포구(浦口)

1) 해 안

함평읍 석성리 성뜰 마을과 무안군 현화면 해운리 후동 마을과의 경계선에서 시작한 함평군의 해안선은 손불면 학산리 복학 마을과 영광군 염산면 옥슬리 상해 마을과의 경계선에서 끝나며 연장 20.6km이다.

이 해안선은 한 때 대공취약지(對共脆弱地)로서 북한의 간첩이 침투해온 사실이 있다.

1975년에 침투하여 석창리 뒷산인 두류봉(頭流峰)에 은신하다가 주민에게 발각, 신고되어 경찰과 교전하다가 도주했다.

함평만으로 부르고 있는 이 바다는 수심이 극히 얕아 썰물 때는 만 전체에 걸쳐 물이 거의 빠져나간다.

또 도리포 근해는 수심이 깊어 천혜의 양항(良港)으로 지목되고 있어 국제항으로 개발하는 일도 검토되고 있다.

2) 포　　구

(1) 내륙(內陸) 하천 포구

① 대굴포(大堀浦)

현 사포와 대곡 마을까지를 대굴포라 부른 것 같으며 주 포구터는 현 대곡 마을앞의 논으로 보고 있다.

대굴포에는 전라수영(全羅水營)이 설치되었었다. (조선시대 관방 항 대굴포수영을 볼 것)

대곡 마을 동쪽 양창(糧倉)에 해태 야구단의 연습장이 들어서고 신곡 마을의 야산에 골프장이 건설되는데 1996년부터 사포의 동강대교에서 양창까지의 길을 확장하여 포장하는 공사가 시작되어 1997년 9월에 완공되었으며 양창에서 신곡 골프장까지의 도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해태 그룹의 부도로 1998년부터 중지된 상태로 있었다. 그 후 여러 건설회사를 거쳐 현재는 대주건설의 광주일보사가 인수 도로 공사 완료 후 광주일보 다이너스티골프장이 성업 중에 있다.

② 중천포(中川浦)

학교면 월호리에 있던 포구로 영산강에 배가 드나들 때는 번창하였던 곳이며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를 오가는 나루가 있어 교통 편이에 큰 몫을 하였다.

지금은 나루도 없어지고 진례들에 물을 대는 양수시설과 3호의 집이 있으며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끔 찾아 올 뿐이다.

③ 사포(沙浦)

사호에 있는 포구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1930년 군지에서부터 "사포(沙浦)"라는 이름이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제포(泥梯浦)는 현에서 15리 떨어져 있다. 근원은 함평현 수산에서 나오고 남쪽으로 흘러서 대굴포에서 합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 사포가 당시에 대굴포에 포함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함평천이 현재의 사포에서 영산강과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포가 나루로써 제 구실을 하게 된 것은 국도 23선이 개설되고 서다.

그 이전에는 월호리의 중천포 나루나 월호리 망월동의 빈정에서 건너던 배야 나루가 많이 이용되었다.

동강대교가 가설된 1995년부터 나루의 구실은 끝났으며 지금은 10여 가구가 민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며 이곳 일대가 민물고기 요리의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④ 토교포(土橋浦. 이제포-泥梯浦. 학포-鶴浦)

현 엄다면 학야리 토교 마을에 있던 포구다. 영산강 하구언 공사가 준공되기 전인 1960년대 말까지는 젓갈과 소금을 실은 배가 드나들었다.

사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에는 이제포라고 하였다.

토교포라는 이름은 토교 곁에 있는 포구라는데서 나왔다.

무안 현읍지에 토교는 돌로 놓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근세에는 돌로 놓은 다리는 없어지고 나무를 얽어 흙을 얹은 다리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토교라 불렀다고 촌로들이 말한다.

1930년 간행 함평군지에는 학포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인근 사람들 거의가 학포라 부르지 않고 토교포라 부르고 있다.

⑤ 고막포(古幕浦)

고막돌다리 밑 원고막 마을의 포구다.

1960년대 말까지는 소금과 젓을 실은 배들이 드나들었다.

광주광역시 거주 김경욱(金炅旭)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중 1905년 2월에 발행한 최준돈(崔準暾)에게 선려각 주인(船旅閣主人)[6]을 차정(差定)하는 문서와 완문(完文), 그리고 1907년 5월 29일에 내린 농상공부 대신의 훈령이 있어 이 당시에 상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정도로 포구로서 이권이 상당했던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유물 항 고문서를 볼 것)

(2) 해안 포구

① 굴내포(屈乃浦. 산내포-山乃浦)

함풍현(咸豊縣)의 백제 때 이름이 굴내현(屈乃縣)이다.

따라서 굴내포란 굴내현에서 대표적인 포구라는데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며 고대에는 서남해안에서 가장 번성했던 항구 중 하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굴내포는 현의 서쪽 15리에 있다."고 했고 1895년 간행 함평현읍지에도

"굴내포가 현의 서쪽 15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1906년 간행 함평군지에는 굴내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산내포(山乃浦)가 서쪽 15리에 있다."라고 기술되어 위치와 거리가 같은 곳에 굴내포와 산내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굴내포가 산내포로 이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산내포로 이름을 바꾼 까닭이 무엇인지는 전하는 바가 없다.

밝혀진 문헌상으로 볼 때 100여년 전부터 산내포로 써 왔다고 할 수 있다.

굴내포는 지금의 장년리 월선과 백년 마을 사이에 있었던 포구였고 현재 인근 사람들 거의가 구주포(舊酒浦)라고 부르고 있다.

이곳은 1937년 주포제방이 완공되면서 갯가가 아닌 들녁가가 되었다.

② 백옥포(白玉浦)

손불면 월천리 백옥 마을의 포구로 속칭 일공구(一工區)라고 하는데 일공구란 속칭은 간척사업을 할 때 여기가 제일 먼저 공사를 시작한 곳이어서 일공구라 했다.

6) 선려각(船旅閣)은 조선시대 각 연안의 포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방에서 오는 객상(客商)들을 위하여 화물의 도매, 위탁판매, 보관, 운송업과 더불어 금융업, 여관업을 경영하던 상업 기관의 하나로 조선 후기에 성행하였으며 여각(旅閣)과 객주(客主)는 보통 구별 없이 통용되어서 여각을 객주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여각과 객주를 통틀어 널리 객주라고도 하였다. <이종일(李鍾日)의 논고 "광무년간 나주고막포 선려각문서"에서 인용함>

엽삭, 낙지, 전어 등 함평만에서 잡히는 고기의 집산지로 근래에는 현대 시설을 갖춘 횟집이 들어서 포구의 회맛을 자랑한다.

③ 석두포(石頭浦)

1924년 간행 함평군지에 처음으로 이름이 보인다.

석성리 성들과 성덕 마을 앞의 포구를 말한다. 지금은 모래가 밀려 쌓여 포구의 기능을 상실했다.

④ 정포(鼎浦)

1895년 간행 함평현읍지에는

"정포는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고 했고 1924년, 1934년 간행 함평군지에는

"정포는 서쪽 10리인 구 영풍면(舊永豊面)에 있다."고 하였다.



【함평만의 낙조】

1895년 간행 함평현읍지의 거리 20리는 10리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본다.

장교리 자명동과 칠언 마을 사이인 배다리(주교-舟橋. 현 월봉교) 곁에 있던 포구로 지금은 이곳이 실개천이 흐를 뿐 완전히 내륙화 되었다.

단 옛 포구의 정취를 알게 하는 "배다니(舟交), 배다리"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이곳에 포구가 개설 된 것은 1759년 호구 총수 지명에 배다니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이후에 개설된 항구인 것 같으며 촌로(村老)들이 항구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을 보면 1900년대 이전에 폐항된 것으로 본다.

칠언 마을 어귀에 장승이 있고 목포로 통하던 옛길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항구와 관련지어 조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왜 "정포(鼎浦)"라는 이름을 붙였는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부(釜)"자나 "정(鼎)"자, "온(溫)"자를 붙인 지명이 온천과 관계가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⑤ 주포(酒浦. 주항포-酒缸浦)

1865년에 김정호가 완성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주항포(酒缸浦)는 서쪽으로 10리에 있고 장사 배들이 모여 머문다."라고 되어 있고 이 기록이 주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1871년 간행 함평현읍지에는

"주항포는 현의 서쪽 10리 영풍면에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1906년, 1924년, 1934년 간행 함평군지에는

"주포(酒浦)는 군의 서쪽 10리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위의 기록을 살펴 보면 본래 이름이 주항포였으며 1900년대 초부터 항(缸. 술항아리항)자를 빼고 주포로 썼음이 확실하다.

또 대동지지(1865)에

"굴내포는 서쪽 15리에 있고 북으로 영광의 칠산 바다와 이어 진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말하면 굴내포와 주항포가 이때는 모두 항구 구실을 하고 있었고 주항포에 장사 배들이 모여 머문다고 부언한 것을 보면 주항포가 굴내포 보다 번성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주포라는 이름은 그 근원이 주막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황실이(강달어), 엽삭, 조기, 새우젓 등이 많이 거래된 지난 날에는 이 포구에 술집이 즐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주포를 인근 사람들이 "수랑개"라고 즐겨 부른다.

"술항개" 즉 "술항아리"를 뜻한다하여 주항포, 주포(酒浦)로 표기 했다고 풀이하기도 하지만 질흙 투성이의 갯가로 발이 술술 빠지는 수렁의 갯가 "수렁개"였는데 이를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원 뜻을 잃고 주항포, 주포(酒浦)로 표기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1965년 이후 어선의 대형화로 수심이 얕아 큰 배가 못들어 오게 되고 또 어선의 동력화로 대도시가 있는 포구로 배가 직접 가버려 지금은 포구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소형 어선만 드나들 뿐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현대 시설을 갖춘 횟집이 많이 들어서 주포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황이 섞인 돌을 장작불에 달구어 바닷물을 넣고 찜질하는 해수찜의 효력이 전국에 알려져 하루 500여명 이상이 다녀가는 명소가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군에서 본격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5. 함평만(咸平灣)의 갯벌

지구 표면의 6%인 860만㎢를 차지하고 있는 갯벌은 한대지방에서 열대지방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많은 곳이 간척되어 농경지나 공업단지가 되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은 캐나다 동부해안, 미국 동부해안, 북해연안, 아마존강 유역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갯벌 특성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갯벌은 육상에서 풍화를 거친 미세한 흙이 빗물에 의해 해안으로 흘러들어 퇴적한 검은 뻘밭으로 이 뻘에는 육상에서 옮겨온 영양염류가 풍부하게 저장되어 지구상의 생물 20%가 서식하는 자연의 보고며, 또 조개와 게, 낙지, 갯지렁이 등이 구멍을 뚫으면 산소가 공급되고, 분해 능력이 뛰어난 박테리아가 번성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완벽한 자연계의 콩팥 역할을 한다.

해마다 남해안은 적조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갯벌이 많은 서남해안에서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적조(赤潮)의 원인인 오염물질을 갯벌이 제거하는 하수처리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남해안의 대표적 갯벌로는 전북의 곰소만, 함평만, 신안군 지도읍, 해남군 화원반도의 갯벌을 꼽고 있다.

이들 갯벌 중 전북의 곰소만 갯벌은 새만금 간척공사로, 화원반도의 갯벌은 영산강 개발 계획에 의해 이미 육지화 되고 말았다.

이제 함평만의 갯벌은 자연유산 보존 차원에서 그 가치성이 크게 높아졌다.

무등일보는 '남도의 자연유산·함평만' 편에서,

"갯벌의 특성과 인간의 삶이 다양한 형태로 연결돼 있음을 잘 보여주는 곳의 하나가 함평만이다. 함평만은 함평군 함평읍과 손불면, 무안군 현경면, 해제면, 영광군 염산면을 빙 두른 내륙만이다. 함해지구(咸海地久)라 불리는 이곳은 돌머리 해수욕장과 100년이 넘었다는 해수찜탕으로 유명하지만 사람들의 삶터는 역시 갯벌이다. 주민들은 바위굴, 낙지, 바지락, 장어치어, 갯지렁이, 숭어, 보리새우를 갯벌에서 잡아 올려 농사 못지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갯벌에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자연경관적 기능이다. 외국과는 달리 초보적인 생태학적 접근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서남해안 갯벌 중 경관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 독특한 낙조 경관을 보여주는 함평만이다. 갯벌을 붉게 물들이는 낙조는 해제반도의 구불구불한 해안선, 함평만을 휘감은 야산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주포항이나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갯벌 위 낙조는 함평 8경의 하나로 꼽혀왔다."[7] 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천혜의 자연유산인 함평만의 갯벌지구가 영산강 개발사업에 '함해지구(함평만) 간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있었다.

이 사업 계획을 폐기하라는 함평군민의 줄기찬 건의가 중앙관서에 진달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던 정부가 1998년 8월 영산강 4단계 계획을 철회하였다.

제3절 함평군의 지질(地質)과 토양(土壤)

1. 지질

함평군의 지질계통은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되어 변성작용을 받은 변성암류인 소백산 편마암 복합체와 화강암류로서 쥬라기에 형성된 편마상 화강암과 백악기(白惡期)[1]에 형성된 불국사화강암 및 산성화강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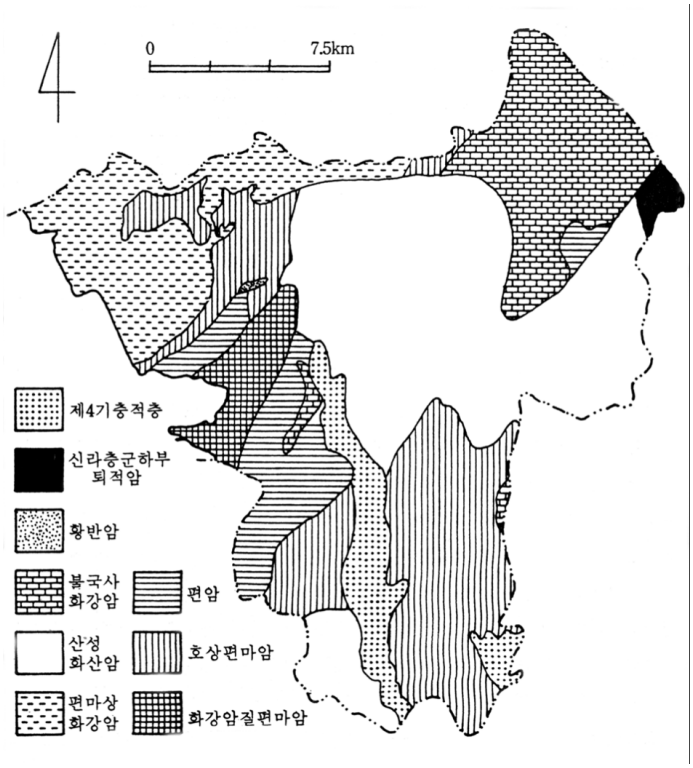
손불면 남부와 신광면 남부 및 함평읍 북서부 일원의 해안 부근에는 소백산편마암 복합체의 화강암질 편마암(granitic gneiss)이 분포하고 신광면 서부에서 손불면의 두류산 북쪽을 따르는 대상 지역과 엄다면 북부 및 대동면 남부 학교면 일원에는 호상편마암(縞狀片麻岩.banded gneiss)이 분포한다.

그리고 이들 화강암질 편마암 분포지역과 호상편마암 분포지역 사이에는 편암(schist)이 주로 분포하는데 이는 손불면의 남동부와 함평읍의 대부분 지역, 월야면 남부의 일부 지역 등에 주로 분포한다.

쥬라기에 형성된 편마상 화강암(gneissose granite)은 군의 북서부 경계를 따라 손불면의 대부분과 군유산에서 모악산에 이르는 신광의 북부 경계를 따라 분포한다.

그리고 백악기에 생성된 산성화산암(acidic vocanic granite)은 해보면 서부에서 신광면 동부에 이르는 지역 및 대동면, 나산면 일원, 그리고 월야면 남부의 일부에 분포하며 또한 엄다

7) 무등일보. 1998. 1. 19. 무등일보 전남도 공동 기획·남도의 자연유산·함평만. 글 김기성. 사진 기경범.
1) 지질시대에 있어 중생대(中生代)의 마지막 시대.약 1억 4천만년 전부터 7천만년 전까지의 시기.



【함평군의 지질 분포도】

면 남부 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불국사화강암은 월야면 대부분과 해보면의 동부 및 나산면의 북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함평읍 북부에도 국지적인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화성암으로서 반암류의 일종인 황반암(煌斑岩.lamprophye)이 손불면 죽장리에 극히 소규모로 분포한다.

퇴적암으로는 역암, 사암 및 세일 등으로 구성된 신라층 군(群) 하부 지층이 월야면 외치리 부근에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모래와 자갈 및 점토 등으로 구성된 제4기 충적층은 대동저수지 하류쪽의 함평천 양안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인 지질 구조의 주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을 나타낸다.

2. 함평군의 토양

1) 함평군의 토양군(土壤群)[2)]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농업기술연구소에 의해 함평군의 정밀 토양도(土壤圖)가 1976년

1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조사완료되어 1977년에 발간되어 귀중한 농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84년에 함평군사를 발간하면서 이 "함평군의 정밀 토양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했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수정 보완하여 여기에 그대로 옮긴다.

함평군의 토양은 6개의 토양군으로 나눌 수 있다. <1편 화보 참조>

토양군에 대해 상세히 언급을 하면,

(1) 부용-복천-광포 토양군

이 토양군은 하해혼성 충적 평타탄지 또는 배수가 약간 나쁘거나 아주 나쁜 하해혼성 충적층의 식질, 미사식질 및 사양질 토양으로 손불면 산남리, 엄다면, 함평읍 주포, 학교면 석정리, 금송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고 그 면적은 2,458ha로 군 전체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경사도는 0.2%며 이 토양군을 세분하여 알기 쉽게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통 명	분포면적 (ha)	토 양 단 면 특 성		토 양 반 응	토지이용 등 급
		표 토	심 토		
부용통	1,545	회색의 미사질 양토	회색, 암회색의 미사질 식양토	약산성, 배수가 약간 나쁨	논 1급지
복천통	476	〃	〃	약산성,배수불량	〃
광포통	273	회색, 회갈색의 양토	암회색, 회색의 사양토	〃	논 3, 사질

이들 토양지 외에 전북통은 심토(深土)의 토성(土性)이 부용통보다 약간 조립질(粗粒質)인 미사질식양토 또는 식양토의 군(群)이다.

(2) 평택-호남-석천 토양군

하성 충적 평탄지 또는 배수가 약간 나쁜 하성충적층(河成沖積層) 미사식양질, 식질 및 사양질(沙壤質)의 흙으로 월야평야를 흐르는 고막원천과 대동저수지를 기점으로한 함평읍 북쪽의 함평천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면적은 3,503ha로 전체 면적의 9.1%를 차지 한다.

경사도는 0~2%의 평탄지며 이 토양군을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 명	분포면적 (ha)	토양 단면 특성		토 양 반 응	토지이용 등 급
		표 토	심 토		
평택통	1,434	회색, 암회갈색 양토, 미사질 양토	갈색, 황갈색반문, 암회색, 회갈색 미사질 양토	약산성, 배수가 약간 나쁨	논 1급지
호남통	509	회색, 암회갈색의 미사질 양토	황갈색 반문이 있는 회색 및 암회색의 식토	〃	〃
석천통	349	회갈색의 양토	암회색, 농암회색의 사양토 및 세양토	〃	논 3, 사질

이외 부대 토양으로 세사양토인 강서, 중동, 미사질양토인 청원, 남평, 사양토인 황계, 남계통 등이 있으며 중동, 황룡통은 밭으로 이용되며 청원, 강서, 남평, 남계통은 논으로 쓰이고 있다.

2) 같은 성질의 토양으로 덮힌 일정한 지역의 구역.

(3) 지산-용지-백산 토양군

곡간 충적 및 선상지(扇狀地)[3]에 분포되어 있고 배수가 약간 나쁘거나 좋은 식양질 토양이다.

주로 저구릉지 및 구릉 사이의 곡간(谷間)인 손불면 양재, 북성리, 신광면 동정, 유천리, 학교면 마산, 죽정리 등에 분포하며 그 면적은 2,555ha로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경사도는 0~15%를 이룬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 명	분포면적 (ha)	토 양 단 면 특 성		토 양 반 응	토지이용 등 급
		표 토	심 토		
지산통	2,555	회색, 암회색의 양토	암회색 식양토	배수가 약간 나쁜 식양질 회색토	논 2~3경사
용지통	1,066	회갈색, 암회갈색 양토	회갈색, 암회갈색의 미사질 식양토	배수가 약간 좋은 충적 적황색토	논 2, 미숙
백산통	816	갈색, 암회갈색의 양토	암갈색, 진갈색의 미사질 식양토	배수가 약간 좋은 식양질의 충적토	밭 2, 경사

이외 대곡, 반산, 상주, 연곡, 용계, 원곡, 우곡, 호계통은 배수가 좋은 편으로 주로 밭으로 이용되고 칠곡, 함평, 행곡, 은곡, 온천, 가곡 등은 배수가 나쁘거나 약간 좋은 자갈이 있는 논땅이다.

(4) 봉산-송정-전남 토양군

저구릉 및 구릉지의 배수가 좋은 반암 및 화강암에 기인된 잔적층(殘積層)의 식양질 및 식질 토양으로 군 전체 면적의 19.2%인 7,396ha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 반암 및 화강암의 풍화물 잔적층을 모재(母材)로 저구릉 및 구릉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경사는 2~60%며 이를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 명	분포면적 (ha)	토 양 단 면 특 성		토 양 반 응	토지이용 등 급
		표 토	심 토		
봉산통	3,340	황갈색, 진갈색의 양토	황적색의 미사질 양토	PH 5.1~6.0, 강산성 및 약산성, 배수가 좋은 식양질의 적색 황토	밭 3~4 경사
송정통	1,284	갈색, 암갈색, 황갈색의 양토	적색, 황적색의 미사질 식양토	강산성, 약산성 배수가 좋은 식양질의 적황색토	밭 3 경사
전남통	642	적갈색, 황갈색의 미사질 식양토	적색, 황적색의 미사질 식토	배수가 좋은 식질의 적황색토	밭 2 중점

이외에 여기에 속하는 토양통으로 예산, 나산, 봉계, 마산, 고평, 덕평 등이 있는데 충적층에 기인된 고평, 덕평통은 식질 토양으로 토양의 물리성이 좋지 않으며 생산력이 낮다.

예산통은 사양질 토양으로 배수가 썩 좋으며 마산통은 응회암과 유문암이 풍화된 잔적층을 모재로 한 토양으로 역시 배수가 좋다.

나산통은 봉산통과 같으나 토심이 깊고 반암의 잔자갈이 없다.

3) 하천이 산지(山地)에서 평지로 흘러내릴 때 평지에 나서면 물의 속도가 갑자기 약해져 상류에서 운반 해온 모래, 돌, 흙이 쌓여 부채꼴을 이룬 땅.

(5) 고산-태화-삼각 토양군

산악지의 배수가 매우 좋거나 좋은 편인 반암 및 화강암에 기인된 바위 또는 자갈이 많은 양질, 식양질 토양으로 우리 군 면적의 39.8%인 15,294ha에 분포되어 있고 경사는 7~10% 범위다.

세분하여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통 명	분포면적 (ha)	토 양 단 면 특 성		토 양 반 응	토지이용 등 급
		표 토	심 도		
고산통	4,496	암갈색의 자갈이 있는 양토	암황갈색, 진갈색의 자갈 많은 양토	배수가 좋은 자갈이 많은 암쇄토	초지 3~4 석력
태화통	4,430	갈색, 암갈색의 자갈 및 바위가 많은 양토(심한 경사의 산악지에 분포)	황적색, 적황색의 자갈 바위가 많은 양토	배수가 좋은 식양질의 적황색토	임지(林地)
삼각통	1,872	진갈색, 갈색의 사양토, 조사양토(粗沙壤土)	황갈색, 담갈색의 사양토, 조사양토	배수가 매우 좋은 사양질의 암쇄토	임지 또는 초지(3~4 경사)

이밖에 행산, 무등통이 산록 경사지에 석토, 안룡, 각화, 연곡, 운곡 강원통이 약간 분포되어 있는데 이 군에 속한다.

행산은 응회암 및 유문암을 모재로한 토양이어서 배수가 매우 좋은 식질양토이고 무등통은 사양질 토양으로 역시 배수가 잘 된다.

석토, 안룡, 운곡은 같은 지형으로 식양질이며 배수가 잘 되고 각화는 식질토이다.

연곡 강원통은 경반층이 있으며 미사식양질 토양으로 배수는 약간 좋은 편이고 밭 또는 임목지(林木地)로 이용하고 있다.

(6) 함평 토양군

이 토양군은 곡간 충적봉적층을 모재로한 토양으로 월야면 외치리, 신광면 유천리, 대동면 강운리, 손불면 산남리 등 곡간지 또는 선상지에 분포하며 군 전체 면적의 1.78%인 685ha를 차지하고 있고 표토는 암갈색의 양토, 미사질 양토며 진갈색 또는 황갈색의 반문이 있다.

심토는 암황갈색의 반문이 있는 농암갈색의 자갈이 있는 양토 미사질양토이고 암반까지의 깊이는 대략 5m에 이른다.

토양 반응은 산성, 강산성이고 염기치환 용량 및 염기포화도는 보통이다.

이 토양은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어 보리 재배까지 한다.

배수력이 좋지 않은 것이 흠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함평군의 지명(地名)이 통명(統名)으로 된 토양통(土壤統)

통의 이름 중에 함평지방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는 다른 지방보다 앞서 토양 정밀조사가 이루어져 그 토양의 표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함평지방의 지명이 통명이 된 토양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산통(高山統)

반암의 풍화 잔적층을 모재로한 토양이며 경사가 지거나 매우 경사가 심한 산악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토양은 보통 무등, 봉산, 석토, 태화통 등과 가깝고 자갈이 많은 양질이며 배수가 좋고 토심(土深)은 보통이다.

겉 흙은 갈색, 암갈색, 황갈색 또는 진갈색의 자갈이 있는 식양토와 자갈이 있는 양토이긴하나 발달이 약한 반각괴상 구조다.

기층은 황갈색의 풍화된 반암이며 암반까지의 깊이는 60~70cm 정도다.

이 토양의 자연 비옥도는 낮으며 유기물 함유량도 적다.

토양 반응은 산성이고 염기치환 용량은 높고 염기포화도는 낮다.

이 토양은 참나무, 소나무, 관목 등이 자라는 임지나 곳에 따라서는 자연 초지인 곳도 있다.

이 토양의 문제점은 자갈이 많은 것과 토양의 침식이다.

① 고산, 자갈이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15~30%경사 <토양 부호 6>

잡목이 섞인 소나무가 자라는 임지며 생육상태는 보통이다.

자연초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으며 토양관리의 유의점은 돌 제거와 침식 방지 및 지력(地力)을 높이는 일이다.

군 내에 218ha(군 면적의 0.57%)이 분포되어 있다.

② 고산, 자갈이 있는 양토,침식이 있는 경사 30~60% <토양 부호 7>

잡목이 섞인 소나무가 자라는 임지이나 일부는 초지로 이용되고 있다.

겉 흙에 물이 지나는 속도가 빠르고 침식의 피해도 크다.

토양관리의 유의 사항은 위와 같다.

군 내에 4,278ha(군 전체 면적의 11.2%)가 분포되어 있다.

(2) 나산통(羅山統)

충성암인 반암의 풍화 잔적층을 모재로 한 토양으로 경사진 산록지와 구릉지지에 분포되어 있다.

이 토양은 보통 고산, 봉산, 태화, 안룡, 봉계, 연곡통 등과 인접되어 있으며 미사식 양질토로서 토양 배수가 좋고 토심이 깊다.

겉 흙은 진갈색, 황갈색의 미사질양토이고 심도는 황적색, 적색의 미시질양토며 암반까지의 깊이는 1m 이상이다.

자연 비옥도는 매우 낮으며 유기물이 적고 토양의 반응은 강산성이다.

이 토양의 대부분에는 보리, 밀, 고구마 등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경사가 30% 이상인 곳은 임목지로 되어 있다.

① 나산, 미사질양토, 침식이 있는 15~30% 경사 <토양 부호 10>

이 토양은 대부분 보리, 밀, 고구마와 과수 뽕나무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토양관리의 유의점은 등고선 및 등고선 대상 재배로 토양의 침식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 군내에 분포되어 있는 면적은 127ha(군 전체 면적의 0.33%)이다.

② 나산, 미사질양토, 침식이 있는 경사 15~30% <토양 부호 11>

대부분 임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토양관리의 유의점은 표토에 물의 흐름이 빨라 침식의 피해가 크므로 침식을 방지 해야 한다.

군 내 분포 면적은 201ha(군 전체 면적의 0.52%)이다.

(3) 함평통(咸平統)

토양구조와 특성은 함평군 토양군 6항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① 함평, 미사질양토, 경사 0~2% <토양 부호 76>

이 토양은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며 답리작으로 보리를 재배한다.

토양관리상 지켜야 할 점은 퇴비 등을 많이 주어 지력을 높이고 보리갈이 때 배수시설을 잘 할 것이다.

군 내 분포 면적은 559ha(군 전체 면적의 1.45%)이다.

② 함평, 미사질양토, 2~7% 경사 <토양 부호 77>

이용 실태, 지켜야할 점은 모두 위와 같다.

군 내에 126ha(군 전체 면적의 0.33%)이 분포되어 있다.

3) 토양분류(土壤分類)

우리 나라의 토양분류 방법은 1938년 미국 농무성에서 시행된 분류 방법을 쓰다가 최근부터 미국에서 제창된 7차 시안(7 th Approximation) 방법을 쓰고 있다.

7차 시안 방법은 6가지 큰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이를 간단히 설명하고 함평과 관계되는 부분을 알리고자 한다.

(1) 목(目. Order)

토양분류 방법에서 고차분류 단위에 속하며 층위(層位)의 발달 정도, 다양한 층위 종류의 존재를 구별하여 설정한 분류 단계인데 10개의 목으로 구분한다.

10개의 목 중 함평군에는 4개의 목이 분포되어 있다.

① Entisols

발달되지 않은 광물질 층위를 갖고 있는 토양(minerral soils)을 말한다.

② Inceptisols

제한된 발달도를 갖고 있는 광물질 토양이다. 반숙 모양으로 cambic 층이 있고 질흙은 entisols와 같은 미숙도는 아니다.

③ Ultisols

명료한 층위를 갖고 있는 광물질 토양으로 식질 함량이 많고 점토의 질적층인 bt층을 갖고 있다. 염기포화도(鹽氣飽和度)가 35% 이하로 낮으며 완숙한 표층토(表層土)를 갖고 있는 토양이다.

④ Altisols

Ultisols와 비슷하나 연기포화도가 35% 이상인 토양이다.

(2) 아목(亞目. Suborder)

목은 아목으로 세분되는데 한 아목 안에 있는 토양은 수분 상태, 온도 층위의 종류 그리고 함유 성분의 범위에 따라 분류한다.

(3) 대군(大群. Great Group)

아목을 세분한 것이며 이는 동일 토층의 배열에서 동일한 층위를 가지고 유사한 수분 상태 및 온도를 갖는 토양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단위다.

층위의 배열에 대한 예외는 경작되었다면 침식의 영향과 더불어 표토층의 뒤섞이나 유실의 경위를 들 수 있다.

(4) 아군(亞群. Subgroup)

대군을 다시 세분시킨 것으로 과거 분류 방식의 대토양군 보다 약간 협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대군의 중심 개념을 갖는 것과 다른 아목, 목과의 사이에 위치한 각계의 중간적인 여러 성격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분류한다.

혹 약간의 다른 특성을 갖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5) 속(屬. Family)

토양아군은 다시 식물의 생육 혹은 기계류를 사용하였을 때 문제되는 흙의 성질에 대하여 중점을 둔 여러 특성에 따라 속으로 세분된다.

이들 특성들은 토성, 견고도, 투수성(透水性) 토양 반응(PH), 광물성, 토양 온도 및 층위의 두께 등을 들 수 있다.

(6) 통(統. Series)

속은 다시 통으로 세분되는데 토양분류의 기준이 된다.

토양통은 겉흙의 토성을 제외한 토양 단면상에 있어서 구분되는 특성이나 배열 상태가 비슷한 토층을 갖고 있는 동일한 모재로 형성된 토양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특색이란 흙의 색, 짜임새, 견고도 및 광물학적, 화학적 조성(造成) 등을 들 수 있다.

함평군의 토양을 정밀 조사한 토양통은 51개통이며 이들 토양통에 대한 구분 방법 및 7차 시안 분류 방식에 따라 분류해 보면 <표 3>, <표 4>와 같다.

<표 3> 토양별 신구 분류 대비표

기준단위 / 토양통	7차 시안에 의한 분류			1938년 분류
	속(屬) (Family)	아군(亞群) (Subgroup)	목(目) (Order)	대토양군(大土壤群) (Great Soil Group)
가곡 佳谷	Fine silty, mixed, mesic	Fluventic Haplaquepts	Inceptisols	회색토 Low-humi Gley Soils
각화 角化	Fine olayey, mesic	Typic Hapludults	Ultisols	적황색토 Red-Yellow Podzdlic Soils
강서 江西	Coarse loamy, mixed, nonacid, mesic	Aquic Fluventic Futrochrepts	Inceptisols	충적토 Alluvial Soils
고산 高山	Loamy skeletal, mesic	Typic Dystrochrepts	Inceptisols	암색토 Lithosols
고평 高平	Fine clayey, mesic	Typic Hapludalfs	Alfisols	적색황토 Red-Yellow Podzolic Soils
광포 廣浦	Coarse loamy, mixed, nonacid, mesic	Fluventic Haplaquepts	Inceptisols	회색토 Low-Humic Gley Soils
나산 羅山	Fine silty, nonacid, mecic	Typic Hapludults	Ultisols	적황색 Red-Yellow Podzlic Soils
낙산 洛山	loamy skeletal, mesic	Litich Ruptic-ultic Dystrochrepts	Inceptisols	암쇄토-적황색토 Lithosols-R.Y.P. Soils
남계 南溪	Sandy skeletal, mixed, mesic	Aquic Udipsamments	Entisols	충적토 Alluvial Soils
남평 南平	Coarse silty, mixednonacid, mesic	Fluventic Haplaquepts	Inceptisols	회색토 Low-Humic Gley Soils
대곡 大谷	Fine loamy, mixed, mesic	Fluvaquentic Dystrochrepts	Inceptisol	퇴적토 Regosols
덕평 德坪	Fine claey mixed, nonacid, mesic	Aquic Hapludalfs	Alfisols	적황색토-회색토 R. Y. P. S- L. H. G. S
마산 馬山	Loamy skeletal, mesic	Typic Dystrochrepts	Inceptisols	암쇄토 Lithosols
무등 無等	Fineloamy, mesic	Lithic Dystrochrepts	Inceptisols	암쇄토 Lithosols
반산 盤山	Fine clayey, nonacid, mesic	Humic Hapludults	Ultisols	적황색토 Red-Yellow Podzolic Soils
백산 白山	Fine loamy, nonacid, mesic	Dystric Fluventic Eutrochrepts	Inceptisols	충적토 Alluvial Soils

기준단위 / 토양통	7차 시안에 의한 분류			1938년 분류
	속(屬) (Family)	아군(亞群) (Subgroup)	목(目) (Order)	대토양군(大土壤群) (Great Soil Group)
복천 伏泉	Fine silty, mixed, nonacid, mesic	Typic Haplaquepts	Inceptisols	회색토 Low-Humix Gley Soils
봉계 鳳溪	Fine clayey, mesic	Typic Hapludults	Ultisols	적황색토 Red-Yellow Podzolic Soils
봉산 鳳山	Fine loamy, nonacid, mesic	Typic Hapludults	Ultisols	적황색토 Red-Yellow Podzolic Soils
부용 芙蓉	Fine clayey, mixed nonacid, mesic	Typic Ochraquals	Alfisols	회색토 Low-Humic Gley Soils
사촌 沙村	Coarse loafmy, miyed nonacid mesic	Aeric Fluvenlic Haplaqepts	Inceptisols	회색토 Low-Humic Gley Soils
삼각 三角	Coarse loamy, mesic	Typic Dystrochrepts	Inceptisols	암쇄토 Lithosols
상주 尙州	Coarse loamy, mixed, music	Dystri Fluventic Eutrochrepts	Inceptisols	충적토 Alluvial soils
석천 石泉	Coarse loamy, mixed nonacid mesic	Fluventic Haplaquepts	Inceptisols	회색토 Low-humic gley soils
석토 石土	Loamy skeletal mixed mesic	Dystric Pluventic Eutrochrepts	Inceptisols	퇴적토 Regosols
송정 松汀	Fine loamy, mesic	Typic Hapludults	Ultisols	적황색토 Red-Yellow Podzolic Soils
안룡 安龍	Fine loamy, mesic	Typic Hapludalfs	Alfisols	적황색토 Red-Yellow Podzolic Soils
연곡 延谷	Fine silty, mixed, mesic	Aquic Fragiudalfs	Alfisols	유사반층토 Planosols
예산 禮山	Coarse loamy, mesic	Typic dystrochrepts	Inceptisols	적황색토 Red-Yellow Podzolic Soils
옥천 玉泉	Fine loamy, mixed, acid, mesic	Fluventic Haplaquepts	Inceptisols	회색토 Low-Humic Gley Soils
용계 龍溪	Fine loamy, mixed, mesic	Typic Dystrochrepts	Inceptisols	충적토 Alluvial Soils
용지 龍池	Fine loamy, mixed, mesic	Aquic Fluventic Eutrochrepts	Inceptisols	충적토-적황색토 Alluvial Soils-Red Yellow Podzolic Soils
우곡 牛谷	Fine loamy, nonacid, mesic	Typic Dystrochrepts	Inceptisols	퇴적토 Regosols
운곡 雲谷	Loamy skeletal, mixed	Typic Dystrochrepts	Inceptisols	퇴적토 Regosols
원곡 元谷	Fine loamy, mixed, acid mesic	Fluventic Dystrochrepts	Inceptisols	퇴적토 Regosols

기준 단위 / 토양통	7차 시안에 의한 분류			1938년 분류
	속(屬) (Family)	아군(亞群) (Subgroup)	목(目) (Order)	대토양군(大土壤群) (Great Soil Group)
은곡 隱谷	Coarse l0amy, mixed, nonacid, mesic	Fluvaquentic Eutrochrepts	Inceptisols	충적토 Alluvial Soils
장원 莊元	Fine loamy, mixed, mesic	Typic Fragiochrepts	Inceptisols	유사반층토 Planosols
전남 全南	Fine clayey, mesic, nonacid, mesic	Typic Hapludults	Ultisols	적황색토 Red-Yellow Podzolic Soils
전북 全北	Fine silty, mixed	Aeric Fluventic Haplaquepts	Inceptisols	회색토 Low-Humic Giey Soils
중동 中東	Coarse loamy, mixed, mesic	Typic Udifluvents	Entisols	충적토 Alluvial Soils
지산 芝山	Fine loamy, mixed mesic	Fluventic Haplaquepts	Inceptisols	회색토 Low-Humic Gley Soils
청원 淸原	Fine silty, mixed, nonacid, mesic	Aquic Fluventic Eutrochrepts	Inceptisols	충적토 Alluvial Soils
칠곡 漆谷	Fine loamy, mixed, mesic	Fluvaquentic Eutrdchrepts	Inceptisols	충적토- 회색토 Alluvial Soils Low-Humic Gley Soils
태화 太和	Fine loamy, mesic	Typic Hapludults	Ultisols	적황색토 Red-Yellow Podzolic Soils
평택 平澤	Fine silty, mixed, nonacid, mesic	Typic Haplaquepts	Inceptisols	회색토 Low-Humic Gley Soils
함평 咸平	Fine loamy, mixed, mesic	Fiuvaquentic Eutrochrepto	Inceptisols	충적토 Alluvial Soils
행곡 杏谷	Loamy skeletal, mixed, mesic	Aquic Udlfluvents	Entisols	충적토 Alluvial Soils
행산 杏山	Loamy skeletal, mesic	Lithic Udorthents	Entisols	암쇄토 Lithosoils
호계 虎溪	Loamy skeletal, mixed, mesic	Dystric Eutrochrepts	Inceptisols	충적토 Alluvial Soils
호남 湖南	Fine clayey, mixed, mesic	Typic Ochraqualfs	Alfisols	회색토 Low-Humic Gley Soils
황룡 黃龍	Sandy skeletal, mixed, mesic	Typic Udipsamments	Entisols	충적토 Alluvial Soils

<표 4> 토양통별 7차 시안에 의한 분류

목(2目) Order	아목(亞目) Suborder	대군(大群) Great Group	아군(亞群) Subgroup	속(屬) Family	통(統) Series	지형조건
Entisols	Fiuvents	Udifiuents	Typic Udifluvents	Coarse loamy, mixed, mesic	중동통	하성평탄지
			Aquic Udifluvents	Loamy skeletal, mixed, mesic	행곡통	곡간선상지
	Oethents	Udorthents	Lithic Udorthents	Loamy skeletal, mesic	행산통	산 악 지
	Psamments	Udipsamments	Aquic Udipsamments	Sandy skeletal, mesic	남계통	하성평탄지
			Typic Udipsamments	Sandy skeletal, mixed, mesic	황룡통	하성평탄지
Incepisols	Aquepts	Haplaquepts	Fluventic Haplaquepts	Coarse silty, mixed, nonacid, mesic	남평통	하상평탄지
				Coarse loamy, mixed, nonacid, mesic	석천통	하상평탄지
				Fine silty, mixed, mesic	가곡통	곡간충적지
				Fine loamy, mixed, acid, mesic	옥천통 지산통	곡간충적지 곡간충적지
Incepisols	Aquepts	Haplaquepts	Typic Haplaquepts	Fine silty, mixed, nonacid mesic	평택통 복천통	하성평탄지 하해혼성 평탄지
			Aeric Fluventic Haplaquepts	Coarse loamy, mixed, nonacid, mesic	사촌통	곡간충적지
				Fine silty, mixed, nonacid, mesic	전북통	하해혼성 평탄지
				Fine loamy, nonacid	우곡통	곡간충적지
				Fine loamy, mixed, mesic	용계통	곡간선상지
	Ochrepts	Dystrochrepts	Typic	Fine loamy, skeletal, mesic	고산통	산 악 지
			Dystrochrepts	Loamy skeletal, mesic	마산통	구 릉 지
				Loamy skeletal, mixed, mesic	운곡통	산록경사지
				Coarse loamy, mesic	삼각통 예산통	산 악 지 구 릉 지
			Aquic Dystrochrepts	Fine loamy, mixed mesic	함평통	곡 간 지
			Fluventic Dystrochrepts	Fine loamy, mixed, mesic	대곡통	곡간충적지
			Lithic-Ruptic-Ultic Dystrochrepts	Loamy skeletal, mesic	낙산통	저구릉지
			Lithic Dystrochrepts	Line loamy, mesic	무등통	산 악 지
			Fluventic Dystrochrepts	Fine loamy, mixed, acid, mesic	원곡통	선상지 및 곡간충적지

목(2目) Order	아목(亞目) Suborder	대군(大群) Great Group	아군(亞群) Subgroup	속(屬) Family	통(統) Series	지형조건
Incepisols	Ochrepts	Eutrochrepts	Aquic Fluventic Eutrochrepts	Coarse loamy,mixed, nonacid, mesic	강서통	하상평탄지
				Fine loamy, mixed, mesic	용지통	곡간충적지
				Fine silty, mixed, nonacid, mesic	청원통	하성평탄지
			Fluvaquentic Eutrochrepts	Fluvaqentic coarse, loamy, mixed, nonacid, mesic	은곡통	곡간충적지
				Fine loamy, mixed, mesic	칠곡통	선상 및 곡간충적지
			Dystric Fluventic Eutrochrepts	Fine loamy, nonacid, mesic	백산통	곡간충적지
				Coarse loamy, mixed, mesic	상주통	곡간충적지
				Loamy skeletal, mixed, mesic	석토통	산록경사지
			Dystric Eutrochrepts	Loamy skeletal, mixed, mesic	호계통	곡 간 및 선 상 지
		Fragioch-repts	Typic Fragiochrepts	Fine loamy. mixed, mesic	장원통	산록경사지
Ultisols	Udults	Hapludults	Humic Hapludults	Fine clayey, mesic	반산통	선상지 및 곡 간 지
			Typic Hapludults	Fine clayey, nonacid, mesic	전남통	저구릉지
				Fine clayey, mesic	봉계통 각화통	저구릉지 산록경사지
				Fine loamy, mesic	송정통 태화통	구 릉 지 구 릉 지
				Fine silty, nonacid, mesic	나산통	구 릉 지
				Fine loamy, nonacid, mesic	봉산통	구 릉 지
Alfisols	Aqualfs	Ochraqualfs	Typic Dchraqualfs	Fine clatey, mixed, nonacid, mesic	부용통	하해혼성 평 탄 지
				Fine clayey, mixed, mesic	호남통	하성평탄지
		Hapludalts	Typic Hapludalfs	Fine clayey, mesic	고평통	홍적대지
				Fine loamy, mesic	안룡통	산록경사지
			Aquic Hapludalfs	Fine clayey, mixed, nonacid, mesic	덕평통	홍적대지
		Fragiudalfs	Aquic Fragiudalfs	Fine silty, mixed, mesic	연곡통	저 구 릉 산록경사지

4) 함평군의 토양별 면적 및 분포 비율

함평군의 토양 중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토양은 고산통(高山統)의 자갈이 있고 침식이 있는 양토로서 경사도 30~60인 토양이며 군 전체 면적의 11.2%인 4,278ha이고 임지나 자연초지로 이용되고 있다.

다음이 태화통(太和統)의 자갈과 침식이 있는 미사질양토로서 경사도가 30~60%인 토양이며 군 전체 면적의 4.8%인 2,742ha이며 감, 밤나무가 재배되고 있다.

다음은 지산통(芝山統)의 양토로서 경사 2~7%의 토양이며 면적은 2,295ha이고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일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토양은 가곡통(佳谷統)의 미사질 양토로서 경사 7~15%인

땅이며 군 전체 면적의 0.08%인 31ha로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음은 송정통(松汀統)의 침식이 심한 경사 15~30%의 토양으로서 33ha가 분포되어 있고 임지나 밭으로 쓰고 있다.

함평군의 토양별 면적과 분포 비율을 통(統)에 의한 토양 부호별로 묶어보면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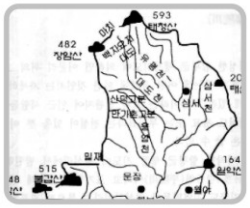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표 5> 함평군의 토양별 면적과 분포 비율

토양 부호	토 양 명	토양별면적 (ha)	비 율 (%)
1	가곡 : 미사질 양토 2~7% 경사	186	0.48
2	가곡 : 미사질 양토 7~15% 경사	31	0.08
3	각화 : 잔돌이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7~15% 경사	228	0.59
4	각화 : 잔돌이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15~30% 경사	82	0.21
5	각화 : 세사양토. 0~2% 경사	170	0.44
6	고산 : 자갈이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15~30% 경사	218	0.57
7	고산 : 자갈이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30~60% 경사	4,278	11.12
8	고평 : 미사질식양토. 2~7% 경사	64	0.17
9	광포 : 사양토. 0~2% 경사	273	0.71
10	나산 : 미사질양토. 침식이 있는 7~15% 경사	127	0.33
11	나산 : 미사질양토. 침식이 있는 15~30% 경사	201	0.52
12	나산 : 사양토. 침식이 있는 7~15% 경사	67	0.17
13	남계 : 사양토. 0~2% 경사	162	0.42
14	남평 : 미사질양토. 0~2% 경사	250	0.65
15	대곡 : 양토. 2~7% 경사	272	0.71
16	덕평 : 미사질양토. 2~7% 경사	84	0.22
17	마산 : 자갈이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15~30% 경사	553	1.44
18	마산 : 자갈이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30~60% 경사	202	0.53
19	무등 : 바위가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60~100% 경사	1,075	2.79
20	반산 : 양토. 2~7% 경사	227	0.59
21	백산 : 양토. 2~7% 경사	693	1.80
22	백산 : 양토. 7~15% 경사	123	0.32
23	복천 : 미사질양토. 0~2% 경사	476	1.24
24	봉계 : 미사질식양토. 침식이 있는 2~7% 경사	57	0.15
25	봉계 : 미사질식양토. 침식이 있는 7~15% 경사	416	1.08
26	봉산 : 자갈이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7~15% 경사	1,080	2.81
27	봉산 : 자갈이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15~30% 경사	1,871	4.86
28	봉산 : 자갈이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30~60% 경사	389	1.01
29	부용 : 미사질양토. 0~2% 경사	1,100	2.86
30	부용 : 미사질식양토. 0~2% 경사	445	1.16
31	사촌 : 양토. 2~7% 경사	191	0.50
32	사촌 : 양토. 7~15% 경사	59	0.15
33	삼각 : 사양토. 침식이 있는 15~30% 경사	755	1.96
34	삼각 : 사양토. 침식이 심한 15~30% 경사	54	0.14
35	삼각 : 사양토. 침식이 있는 30~60% 경사	339	0.88
36	삼각 : 바위가 있는 사양토. 침식이 있는 30~60% 경사	308	0.80

토양부호	토양명	토양별면적(ha)	비율(%)
37	삼각 : 바위가 있는 사양토. 침식이 있는 60~100% 경사	125	0.33
38	삼각 : 바위가 있는 사양토. 침식이 심한 60~100% 경사	246	0.64
39	상주 : 잔자갈이 있는 사양토. 2~7% 경사	135	0.35
40	상주 : 잔자갈이 있는 사양토. 7~15% 경사	209	0.54
41	석천 : 양토. 0~2% 경사	349	0.91
42	석토 : 자갈이 있는 양토 7~15% 경사	489	1.27
43	석토 : 자갈이 있는 양토. 15~30% 경사	889	2.31
44	송정 : 양토. 침식이 있는 7~15% 경사	913	2.37
45	송정 : 양토. 침식이 있는 15~30% 경사	338	0.88
46	송정 : 양토. 침식이 심한 15~30% 경사	33	0.09
47	안룡 : 자갈이 있는 양토. 7~15% 경사	489	1.27
48	연곡 : 양토. 2~7% 경사	138	0.36
49	예산 : 양토. 침식이 있는 7~15% 경사	144	0.37
50	예산 : 양토. 침식이 있는 15~30% 경사	215	0.56
51	옥천 : 양토. 0~2% 경사	219	0.57
52	용계 : 자갈이 있는 양토. 0~2% 경사	182	0.47
53	용계 : 자갈이 있는 양토. 2~7% 경사	238	0.62
54	용지 : 양토. 2~7% 경사	737	1.92
55	용지 : 양토. 7~15% 경사	329	0.86
56	우곡 : 자갈이 있는 양토. 2~7% 경사	678	1.76
57	운곡 : 자갈이 있는 양토. 7~15% 경사	64	0.17
58	운곡 : 자갈이 있는 양토. 15~30% 경사	42	0.11
59	원곡 : 양토. 2~7% 경사	327	0.85
60	원곡 : 양토. 7~15% 경사	85	0.22
61	은곡 : 양토. 2~7% 경사	134	0.35
62	장원 : 자갈이 있는 양토. 7~15% 경사	306	0.80
63	전남 : 미사질양토. 침식이 있는 7~15% 경사	642	1.67
64	전북 : 미사질양토. 0~2% 경사	164	0.43
65	중동 : 세사양토. 0~2% 경사	74	0.19
66	지산 : 양토. 2~7% 경사	2,295	5.97
67	지산 : 양토. 2~15% 경사	260	0.68
68	청원 : 미사질양토. 0~2% 경사	342	0.89
69	칠곡 : 양토. 2~7% 경사	357	0.93
70	칠곡 : 양토. 7~15% 경사	192	0.50
71	태화 : 자갈이 있는 미사질양토. 침식이 있는 7~15% 경사	215	0.56
72	태화 : 자갈이 있는 미사질양토. 침식이 있는 15~30% 경사	1,399	3.64
73	태화 : 자갈이 있는 미사질양토. 침식이 있는 30~60% 경사	2,742	4.81
74	태화 : 바위가 있는 미사질양토. 침식이 있는 30~60% 경사	74	0.19
75	평택 : 미사질양토. 0~2% 경사	1,434	3.73
76	함평 : 미사질양토. 0~2% 경사	559	1.45
77	함평 : 미사질양토. 2~7% 경사	126	0.33
78	행곡 : 양토. 2~7% 경사	64	0.17
79	행산 : 바위가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30~60% 경사	531	1.38

토양 부호	토 양 명	토양별면적 (ha)	비 율 (%)
80	행산 : 바위가 있는 양토. 침식이 있는 60~100% 경사	158	0.41
81	행산 : 바위가 있는 양토. 침식이 심한 60~100% 경사	50	0.13
82	호계 : 자갈이 있는 양토. 0~2% 경사	61	0.16
83	호계 : 자갈이 있는 양토. 2~7% 경사	526	1.37
84	호남 : 미사질식양토 0~2% 경사	509	1.31
85	황룡 : 자갈이 있는 사양토. 0~2% 경사	213	0.55
86	하천 범람지 : 자갈. 모래	152	0.40
87	하천 범람지 : 자갈	53	0.14
88	하천 및 저수지	112	0.29
계		38,464	100.00

제2장 기 후 (氣候)



제1절 개요(槪要)

기후란 어떤 장소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기상태, 즉 단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기상요소와 그들의 변화를 장기간에 걸쳐 모아놓은 평균상태라 할 수 있다. 기후는 기온(氣溫), 강수(降水), 기압(氣壓)과 바람, 습도(濕度), 일조(日照) 등의 요소에 의해 구성되는데, 이러한 기후 요소는 자연환경의 여러 요소 가운데 어느 것보다도 인간생활과 동식물의 분포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온대계절풍기후지역에 속하여 겨울에는 대륙에서 불어오는 북서계절풍에 의해 춥고 차가운 날씨가 계속되며 여름철에는 해양으로부터 불어오는 동남풍에 의해 매우 무더운 날씨가 나타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안(東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편서풍이나 온난한 난류(暖流)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동안기후(東案氣候)가 나타난다. 이는 대륙과 해양의 영향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심함을 뜻하며, 여름에는 해양성열대기단(海洋性熱帶氣團), 겨울에는 대륙성한대기단(大陸性寒帶氣團)이 지배하기 때문에 국토 면적은 좁으나 다양한 기후지역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겨울철 기온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삼한사온(三寒四溫) 현상이 나타나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총강수량(總降水量)의 40~60%가 집중하는 하계다우(夏季多雨)의 특징이 있고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특색을 지닌다.

함평군은 한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남부서안형 기후구에 속한다. 남부서안형 기후구의 일반적인 특징은 동위도의 내륙지방에 비해 겨울 강수량이 비교적 많고 겨울과 봄에 흐린 날이 많으며 기온의 연교차가 더 작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위도의 동해안에 비해 겨울 기온이 더 낮은데, 이는 황해로 유입되는 해류가 연안류로 변하여 북쪽으로부터 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해역의 수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겨울철 강수량은 전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양을 보이는데 이는 황해상을 스쳐온 한랭한 북서계절풍이 지형적으로 수렴되어 눈을 내리기 때문이다.

함평군의 연평균 기온은 12~14℃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며 강수량은 1,200~1,300㎜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온다우(高溫多雨)지역에 속한다.

다음 표는 함평의 기상 개요를 알아볼 수 있는 연별기상(年別氣象)과 연별천기(年別天氣)이다.

〈표 9〉 연대별 기상변화

구분 / 연대	기온(℃)			강수량 (㎜)	증발량 (㎜)	상대습도(%)		놋점 온도 (℃)	평 균 구름량 (10%)	일 조 시 간 (h)	최고 적설 (㎝)	바 람	
	평균	최고 (극)	최 저 (극)			평균	최저					평균 풍속	최대 풍속
1962				1,483.0									
1964	13.9	35.2	−7.8	1,239.4	1,199.9	74						2.7	20.0
1965	12.7	33.6	−11.0	1,257.7	1,178.8	72						2.8	18.7
1966	13.3	36.6	−11.0	1,155.9	1,164.4	70						2.7	15.7
1967	12.0	35.8	−12.4	795.2	1,274.4	70						2.1	13.3
1968	13.0	37.6	−10.2	698.2	1,242.2	74.3						2.2	13.6
1969	13.3	37.9	−11.4	1,392.5	1,251.4	73.2						2.2	11.3
1970	13.4	30.6	−7.3	1,077.5	1,250.8	73.8						2.2	11.4
1971	12.4	29.6	−3.8	1,380.4	1,241.2	77				2,167.1	11.3	2.6	10.5
1972	12.8	35.1	−6.7	1,748.6	1,077.3	78				2,007.6	8.0	2.4	15.0
1973	13.4	35.5	−10.2	1,171.3	1,348.9	77				2,413.5	17.3	2.6	12.5
1974	12.2	34.4	−11.8	1,904.5	1,260.1	77				2,577.2	10.0	2.5	12.5
1975	13.2	34.4	−14.3	1,459.2	1,249.4	78				1,942.1	13.1	2.4	14.5
1976	12.1	34.4	−19.2	1,183.0	1,221.4	78	15	8.1	5.9	2,471.5	37.5	2.5	13.0
1977	12.7	35.5	−22.6	943.7	1,309.8	79	14	9.0	5.7	2,526.2	21.8	2.3	12.5
1978	13.3	34.4	−15.2	1,259.6	1,145.9	77	12	9.0	5.2	2,637.7	12.1	2.4	14.5
1979	13.0	34.2	−8.2	1,368.5	1,300.4	78	8	8.9	5.4	2,472.7	18.3	2.5	13.0
1980	11.8	30.7	−15.4	1,877.0	1,104.8	78	9	7.9	5.9	2,314.8	16.0	2.6	13.0
1981	12.0	34.8	−14.2	1,435.1	1,248.8	76	8	7.7	5.5	2,325.7	12.5	2.5	13.0
1982	12.8	34.8	−18.5	813.7	1,284.8	76	6	8.3	5.4	2,286.2	11.2	2.4	11.0
1983	12.8	34.5	−13.0	1,167.0	1,113.0	78	13	8.7	5.5	2,054.6	14.0	2.4	12.0
1984	12.2	34.4	−14.0	1,226.4	1,053.1	74	8	7.1	5.5	2,226.2	13.7	2.4	13.0
1985	12.7	34.7	−17.9	1,620.9	957.7	77	7	8.3	6.0	2,079.0	18.4	2.4	12.5
1986	11.9	33.3	−14.4	1,375.9	1,066.8	77	10	7.6	5.5	2,215.6	10.2	2.4	13.5
1987	12.6	32.4	−9.0	1,546.8	1,103.7	77	7	8.3	5.8	2,123.6	13.4	2.6	14.0
1988	12.4	35.2	−8.0	807.2	1,214.2	75	5	7.6	5.6	2,298.3	18.4	2.4	13.0
1989	13.1	34.6	−8.9	1,736.3	1,082.2	76	2	8.4	6.6	2,093.4	6.0	2.4	12.0
1990	13.7	36.7	−16.5	1,468.6	1,051.2	76	4	9.0	5.9	2,058.2	5.9	2.5	12.0
1991	12.7	34.4	−17.7	1,341.6	1,151.0	79	4	8.6	5.7	2,075.2	9.9	2.4	12.0
1992	12.7	33.2	−8.7	1,072.0	1,215.0	77	7	8.3	5.5	2,133.9	3.5	2.2	11.0
1993	12.6	31.5	−7.9	1,193.8	1,175.6	78	25	8.6	6.0	1,971.3	11.2	2.7	16.0
1994	14.0	35.9	−8.3	827.8	1,282.4	74	23	9.2	5.2	2,255.2	24.8	2.7	15.7
1995	13.3	34.0	−6.9	773.0	−	77	21	8.9	5.0	2,223.5	11.5	2.7	13.4
1996	13.0	30.5	−0.4	1,252.0	−	72	21	7.5	5.1	2,218.5	10.0	2.4	12.6
1997	13.7	33.7	−9.8	1,228.4	−	63	19	6.4	4.7	2,235.4	6.9	2.4	11.1
1998	14.5	32.9	−8.3	2,124.5	−	73	19	9.4	5.5	1,716.4	5.8	3.0	16.8
1999	13.8	32.8	−7.6	1,591.1	−	75	19	9.1	5.3	2,099.7	17.2	3.1	25.0
2000	13.6	34.1	−7.9	1,176.7	−	71	12	8.0	5.1	2,211.2	4.1	4.0	21.4
2001	13.9	33.8	−10.2	945.9	−	72	10	8.5	5.2	2,206.3	4.1	3.7	17.2
2002	13.9	32.7	−3.5	1,162.2	−	74	14	8.9	5.2	1,990.4	4.3	3.9	29.1
2003	13.8	32.0	−9.3	1,686.0	−	74	13	9.1	5.6	1,881.1	6.7	3.1	20.8
2004	14.0	34.6	−7.8	1,483.3	−	71	12	8.5	5.0	2,258.3	8.0	4.1	17.2
2005	13.5	33.3	−9.9	1,002.7	−	72	9	8.3	5.2	2,133.5	30.0	3.7	19.3
2006	14.2	35.0	−11.0	1,520.2	−	68	8	7.9	5.2	1,948.4	10.5	1.8	12.0
2007	14.5	33.0	−4.9	1,350.6	−	77.3	17	10.4	5.4	2,005.9	5.1	3.2	16.6
평균	13.1	34.1	−10.8	1,296.1	1,187.8	74.9	11.9	8.4	5.5	2,185.3	12.5	2.7	14.7

〈표 10〉 연대별 천기(天氣)

구분 / 연도	맑 은 날	흐 린 날	비 온 날 (0.1㎜이상)	서리온날	안개낀날	눈 온 날	뇌 전
1962	88	138	65	27	28	14	21
1964	51	149	122	56	10	22	17
1965	69	123	121	58	15	37	13
1966	56	138	127	56	22	29	17
1967	75	125	126	42	16	33	6
1968	68	188	74	61	57	35	2
1969	67	186	71	57	72	44	3
1970	69	181	73	58	63	42	8
1971	72	162	79	59	60	52	11
1972	66	135	133	58	27	33	10
1973	83	125	121	95	34	26	5
1974	79	121	112	124	26	23	5
1975	74	129	132	106	49	3	25
1976	71	134	143	105	59	33	8
1977	75	127	117	95	56	31	5
1978	90	115	106	108	56	20	13
1979	92	118	122	101	54	20	14
1980	74	141	150	89	46	41	10
1981	89	127	120	89	42	30	10
1982	83	118	104	90	34	25	7
1983	72	121	127	75	43	42	9
1984	66	118	113	66	17	42	12
1985	55	136	140	44	24	36	12
1986	72	114	126	68	37	26	11
1987	67	137	127	82	57	18	12
1988	66	128	101	85	30	37	12
1989	51	138	113	84	43	17	10
1990	64	138	110	76	69	16	10
1991	82	148	116	99	44	23	10
1992	70	115	118	95	46	23	6
1993	65	153	109	49	24	28	11
1994	87	103	78	46	21	25	9
1995	85	96	93	63	17	32	15
1996	96	116	130	53	33	29	6
1997	106	80	86	35	43	19	11
1998	82	112	111	31	38	16	12
1999	74	104	117	40	30	26	5
2000	73	88	117	44	12	25	9
2001	74	100	131	48	23	30	13
2002	67	93	127	36	34	21	16
2003	71	121	143	36	21	21	17
2004	82	92	125	30	19	25	12
2005	54	84	132	30	10	47	14
2006	66	98	121	35	28	21	14
2007	123	103	121	45	36	15	14
평 균	75	125	114	65	36	29	11

〈표 9〉 연별기상(年別氣象)과 〈표 10〉 연별천기(年別天氣)에서 보듯이 1963년의 기상 기록은 찾을 수가 없어 수록치 못하였다.

함평의 기후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상 관측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각종 기록과 장비가 미흡하여 현대적인 기상 관측이 불가능하였으나 1970년 10월 18일 중앙기상대 광주지대 함평분실이 설치됨으로써 정확한 현대장비를 통한 기상 관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함평에 설치되었던 이 기상관측소는 1993년 1월 1일 광주지방기상청 무안기상대로 승격되면서 무안으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목포기상대 관할이 되어 함평군에서 기후관측자료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목포기상대의 기후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함평군에 설치되어 있는 기후관측시설로는 함평읍과 월야면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있다. 1995년 2월 24일 함평읍과 월야면을 제외한 함평군의 7개 면에 원격제어자동우량기(遠隔制御自動雨量機)가 설치되어 함평군의 정확한 강수량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제2절 기 온 (氣溫)

기온은 기후의 3대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저위도(低緯度)지방에서 고위도(高緯度)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형(地形), 해류(海流), 수륙(水陸)의 분포에 따라 그 값은 달라진다.

함평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3.09℃(1964~2007년까지의 통계)로 비교적 온화한 편이다. 이를 전국적인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서울(12.2℃)이나 강릉(12.9℃)보다는 높고 서귀포(16.2℃)보다는 낮은 기온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함평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우리나라(남한)의 중간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평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8과 2007년의 14.5℃로 남해안지방의 연평균 기온(대략 14℃에 달함)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었으며,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았던 해는 1980년의 11.8℃로 중북부 지방의 기온과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었다.

〈표 11〉 에 의하여 지난 45여 년 동안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살펴보면 최고 기온은 1969년의 37.9℃이고 최저 기온은 1977년 2월 17일의 −22.6℃로 나타난다. 이는 함평지역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극점(極點)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고 추운 계절인 1월의 평균 기온은 0.54℃로써 거의 동위도에 위치한 광주지방의 0.5℃보다 약간 더 높고, 최고 더운 계절인 8월의 평균 기온은 26.0℃로써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는 지역중의 하나로 제주(26.5℃), 목포(26℃)와 비슷하다. 따라서 기온의 연교차는 25.46℃에 이른다.

1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평균 기온은 1℃ 이상을 나타내며 삼한사온(三寒四溫)의 영향으로 여름보다는 겨울에 기온의 일교차가 심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연평균 일교차는 13.1℃를 나타낸다.

〈표 11〉 연·월별 기온 (氣溫)

단위:℃

월별 / 연별	1			2			3			4			5			6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1964	-	-	-	-	-	-	-	-	-	-	-	-	-	-	-	-	-	-
1965	-	-	-	-	-	-	-	-	-	-	-	-	-	-	-	-	-	-
1966	-0.6	18.8	-19.4	1.1	18.7	-17.7	5.7	23.4	-10.7	11.4	31.3	-4.5	16.8	36.7	1.4	21.4	37.3	8.3
1967	-1.3	12.8	-12.5	0.3	16.0	-7.2	6.2	16.6	-4.7	12.9	28.8	-0.2	19.5	30.1	7.3	22.6	32.8	15.6
1968	-0.9	3.1	-10.2	-0.8	5.6	-4.3	5.1	11.6	-1.0	12.7	18.0	4.7	17.5	22.1	10.8	23.7	29.3	17.2
1969	-0.8	3.4	-11.4	-0.9	5.7	-4.8	5.2	11.9	-1.6	11.6	18.4	4.9	18.6	22.6	14.6	24.7	29.6	19.8
1970	1.0	5.1	-2.3	2.1	6.5	-7.3	5.9	10.9	2.1	11.5	16.7	7.5	16.5	21.9	12.7	20.6	25.4	17.5
1971	-0.8	2.8	-3.8	1.4	5.2	-2.3	3.8	8.7	-0.7	10.9	17.4	4.6	16.7	22.8	10.5	20.9	25.1	17.3
1972	4.0	8.2	-0.2	1.6	5.0	1.2	5.6	10.8	-0.8	11.4	16.5	6.2	15.9	20.9	10.8	20.9	26.1	16.4
1973	2.8	6.8	-0.6	2.7	6.9	-0.8	5.1	11.2	0.7	12.8	18.6	6.7	16.5	21.8	11.3	21.6	27.0	16.7
1974	-0.5	5.2	-4.6	-0.7	5.5	-3.5	4.6	9.8	-0.2	11.5	17.0	5.6	16.6	22.6	10.6	19.8	25.3	14.4
1975	-	-	-	-	-	-	-	-	-	-	-	-	-	-	-	-	-	-
1976	-1.1	11.2	-13.5	3.8	16.2	-5.8	5.2	16.8	-5.0	10.7	22.2	-2.0	15.5	29.9	1.4	20.4	31.1	11.7
1977	-1.4	5.8	-17.3	-1.2	17.7	-22.6	6.2	17.3	-10.2	12.5	23.9	-0.2	16.6	27.6	5.6	21.3	26.4	12.8
1978	-0.9	10.9	-10.8	-0.1	12.4	-15.2	4.9	18.7	-5.3	11.8	25.9	-3.0	17.4	32.2	-3.1	21.5	31.6	6.0
1979	2.3	16.1	-6.0	3.2	16.7	-8.2	6.1	21.0	-6.6	10.9	24.7	-2.0	15.8	29.0	5.0	21.8	29.6	10.3
1980	-0.5	15.5	-10.2	-0.7	14.7	-13.4	5.1	16.6	-3.7	11.0	23.0	0.1	16.1	28.9	4.2	21.1	30.7	10.0
1981	-2.0	5.3	-11.4	1.0	12.7	-14.2	6.2	21.3	-5.4	11.0	23.6	-4.1	16.1	30.0	3.4	21.1	31.9	7.3
1982	-0.9	14.3	-18.5	1.4	14.5	-7.9	6.0	18.9	-5.3	11.0	26.3	-1.8	18.2	30.3	7.3	21.1	30.5	10.7
1983	-0.1	11.8	-9.7	0.2	11.7	-9.0	6.7	20.9	-4.9	12.6	25.8	-2.4	17.2	28.6	2.1	21.3	29.4	9.8
1984	-2.3	9.3	-11.0	-1.3	8.9	-12.4	3.7	20.0	-5.9	11.8	23.1	-2.9	16.7	26.8	4.2	21.9	31.9	13.1
1985	-1.7	7.6	-12.4	1.9	12.2	-5.7	4.8	17.8	-3.9	11.0	24.8	-3.7	17.5	28.1	6.8	21.1	29.7	12.9
1986	-1.8	9.7	-14.4	-0.9	10.1	-8.6	5.2	18.5	-4.4	11.5	23.5	-3.0	16.2	27.2	4.8	21.3	31.5	13.1
1987	0.3	11.1	-8.0	2.0	16.9	-9.0	4.7	16.5	-6.1	10.4	23.8	-2.5	16.4	28.0	2.2	21.5	31.1	12.2
1988	0.7	5.2	-3.6	2.0	5.5	-4.0	4.4	9.9	-1.1	10.6	17.2	3.8	16.8	23.1	10.8	21.6	26.1	17.6
1989	2.2	11.7	-8.9	3.5	13.7	-6.4	5.8	19.0	-5.1	12.6	28.3	-1.2	17.1	27.4	3.6	20.2	30.1	10.0
1990	0.1	15.1	-16.5	4.2	14.6	-6.2	6.8	20.0	-4.8	11.2	25.6	-0.1	16.5	28.0	4.5	22.0	32.2	11.2
1991	1.1	12.3	-8.4	0.9	11.7	-17.7	5.7	19.3	-6.2	11.7	25.1	-4.8	16.9	30.3	10	21.8	31.0	13.5
1992	1.8	12.9	-8.7	1.6	19.2	-8.2	7.2	20.1	-4.3	11.2	23.7	-1.3	15.5	28.6	1.9	20.2	31.8	7.0
1993	0.9	10.1	-7.9	2.5	15.9	-4.8	5.6	15.4	-3.4	10.3	22.9	-0.6	16.3	26.4	8.1	20.3	27.7	13.2
1994	1.3	11.1	-8.3	2.2	13.4	-3.5	4.6	16.1	-3.5	13.1	24.3	2.9	17.0	27.1	6.2	20.6	30.4	13.5
1995	1.4	13.5	-6	2.8	12.0	-4.7	7.2	22.9	-1.7	10.3	24.2	0	15.9	27.2	6	20.8	30.2	13.3
1996	1.4	5.3	-2.3	0.7	4.8	-2.8	5.0	9.2	1.5	9.3	14.5	5.0	16.1	21.6	11.5	20.8	24.4	18.1
1997	0.7	4.9	-3.0	2.6	7.5	-1.5	6.8	11.5	3.0	11.6	16.9	7.0	17.3	21.9	13.3	22.0	27.2	18.0
1998	1.9	5.6	-1.4	4.8	9.1	1.2	7.2	11.6	3.4	14.2	19.2	10.6	17.5	22.4	13.5	20.9	24.7	17.9
1999	2.4	6.5	-1.0	3.0	7.3	-0.5	6.8	11.2	2.9	11.9	17.3	7.7	16.8	21.9	12.3	21.9	26.5	18.2
2000	1.9	5.4	-1.2	1.1	5.2	-2.2	6.7	12.3	2.4	11.9	17.6	7.4	16.8	21.9	12.7	21.7	26.1	18.4
2001	1.0	4.7	-2.4	2.4	7.3	-1.2	6.1	11.3	2.0	12.6	18.4	7.9	18.0	23.1	14.4	21.2	25.1	18.5
2002	3.8	7.5	1.0	3.3	8.0	-0.4	8.3	13.1	4.0	13.6	18.2	9.6	16.9	21.4	13.6	21.8	26.3	18.2
2003	0.7	4.3	-2.4	3.7	7.6	0.4	6.6	10.8	3.0	12.9	17.1	9.3	18.3	22.6	14.5	21.3	25.1	18.2
2004	1.0	5.2	-1.8	4.3	9.2	0.3	6.8	12.2	2.4	12.5	17.9	7.8	17.0	21.1	13.6	21.6	25.9	18.3
2005	0.0	3.4	-2.7	-0.1	3.8	-3.2	4.3	9.0	0.5	12.4	17.7	8.0	18.1	24.0	13.3	22.9	27.0	19.7
2006	2.6	7.0	-1.1	2.5	7.5	-1.9	7.3	13.5	2.0	12.2	17.9	7.4	18.4	23.9	13.7	22.6	27.7	18.4
2007	2.6	6.6	-0.6	5.7	10.7	1.8	8.2	12.9	4.2	12.2	16.9	8.1	17.9	22.6	14.1	21.6	25.4	18.8
평균최고·최저	0.54	8.6	-7.2	1.7	10.6	-6.0	5.8	15.1	-2.0	11.7	21.3	2.5	17.0	25.7	8.4	21.4	28.6	14.5

월별 / 연별	7			8			9			10			11			12			전년(全年)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1964	–	–	–	–	–	–	–	–	–	–	–	–	–	–	–	–	–	–	13.9	35.2	−7.8
1965	–	–	–	–	–	–	–	–	–	–	–	–	–	–	–	–	–	–	12.7	33.6	−11.0
1966	25.7	37.6	14.9	26.1	32.6	13.1	20.9	29.3	5.6	14.1	24.8	2.7	8.2	22.8	−2.2	2.4	19.3	−13.6	12.8	37.6	−19.4
1967	25.9	35.3	17.4	28.2	35.8	22.5	22.1	33.5	11.6	15.4	25.2	5.4	8.2	19.6	−2.2	−1.0	8.9	−12.4	12.0	35.8	−12.4
1968	27.3	32.5	23.4	29.0	37.6	24.1	24.3	21.2	16.3	13.8	20.4	9.4	7.9	13.2	3.1	1.8	6.7	−1.2	13.2	37.6	−10.2
1969	28.4	33.4	23.4	31.2	37.9	24.6	19.0	22.1	15.9	14.6	20.6	8.6	7.5	13.8	3.2	4.1	10.2	−1.9	13.3	37.9	−11.4
1970	24.8	29.0	22.2	26.1	30.6	23.2	21.7	26.6	18.4	16.1	26.6	18.4	16.1	21.7	12.2	10.3	15.4	0.8	13.4	30.6	−7.3
1971	25.6	29.3	22.9	25.3	29.6	21.9	21.5	25.9	16.4	12.4	19.3	6.6	8.6	15.4	3.1	2.1	7.3	−2.2	12.4	29.6	−3.8
1972	24.8	28.5	21.8	24.5	28.9	20.8	19.9	24.8	15.3	14.2	20.8	8.1	8.4	13.1	4.2	2.7	7.7	−1.4	12.8	28.9	−8.5
1973	27.0	31.8	23.2	26.8	31.5	22.6	20.5	25.5	15.5	14.0	19.6	8.5	7.0	12.6	12.0	−0.5	5.7	−4.3	13.4	35.5	−10.2
1974	23.4	26.3	21.5	25.9	30.9	22.0	20.8	26.2	15.1	13.8	19.7	8.2	7.3	13.2	2.0	2.5	6.9	−1.0	12.2	37.4	−7.5
1975	–	–	–	–	–	–	–	–	–	–	–	–	–	–	–	–	–	–	–	–	–
1976	23.1	32.5	15.1	25.4	33.4	16.8	19.2	29.6	9.0	14.5	25.8	−0.4	6.0	22.4	−2.8	2.0	14.0	−19.2	12.1	33.4	−19.2
1977	26.1	35.5	19.1	24.2	33.8	14.2	21.9	31.5	7.0	16.1	30.8	1.3	9.9	22.9	−2.5	3.8	12.8	−7.4	12.7	35.5	−22.6
1978	27.5	34.4	19.9	26.5	34.4	18.2	21.1	31.0	9.3	15.1	28.1	3.4	9.0	19.3	−2.5	–	–	–	13.3	34.4	−15.2
1979	24.6	33.6	18.6	25.6	34.2	14.1	19.7	28.4	8.8	14.7	26.2	2.5	7.9	26.4	−4.0	3.0	15.9	−7.0	13.0	34.2	−8.2
1980	23.2	30.7	17.7	22.9	30.0	17.3	19.0	29.5	7.7	13.9	25.8	−0.1	9.0	20.9	−1.5	0.6	13.7	−15.4	11.8	30.7	−15.4
1981	26.3	34.8	20.4	25.0	33.1	16.8	19.7	29.4	8.7	13.7	24.2	2.6	4.1	14.9	−5.4	1.3	14.4	−8.2	12.0	34.8	−14.2
1982	24.1	32.9	17.0	25.6	34.8	16.9	19.8	29.8	8.6	15.5	27.5	1.5	9.9	21.4	−1.1	2.4	14.3	−7.1	12.8	34.8	−18.5
1983	24.1	32.0	17.5	26.1	34.5	19.9	22.3	30.9	14.2	15.1	27.3	0.4	7.5	19.1	−3.5	1.1	14.5	−13.0	12.8	34.5	−13.0
1984	25.1	33.3	18.0	26.6	34.4	20.7	20.2	28.9	6.8	13.7	24.4	−0.1	8.6	24.5	−4.4	2.0	16.1	−14.0	12.1	34.4	−14.0
1985	25.3	33.8	17.7	26.5	34.7	20.0	21.4	32.1	6.5	15.1	25.9	3.9	8.2	20.2	−1.2	1.0	15.6	−17.9	12.7	34.7	−17.9
1986	23.6	33.2	16.7	25.2	33.3	16.1	19.1	28.8	8.4	12.9	24.5	−0.6	6.7	19.0	−3.1	4.1	17.3	−5.1	11.9	33.3	−14.4
1987	24.1	31.3	19.0	25.1	32.4	18.7	19.5	29.0	6.8	15.5	27.9	1.1	9.1	23.4	−2.7	2.3	16.3	−8.0	12.6	32.4	−9.0
1988	25.4	29.5	22.4	25.2	30.8	21.1	20.8	27.0	15.6	14.4	22.0	7.5	6.6	13.5	0.1	2.1	8.2	−2.7	12.4	30.8	−4.0
1989	24.7	34.6	10.9	25.1	32.2	18.0	21.0	29.4	8.4	13.7	26.1	1.6	8.1	22.4	−3.0	3.1	17.0	−5.0	13.1	34.6	−8.9
1990	26.3	35.0	17.5	26.8	36.7	18.6	22.0	32.7	10.2	14.6	26.4	2.4	10.6	22.8	−0.3	3.4	18.5	−5.7	13.7	36.7	−16.5
1991	24.8	33.5	18.1	24.6	34.4	16.5	21.3	32.5	7.8	13.4	25.4	0.9	7.1	21.4	−5.5	3.6	19.0	−5.8	12.7	34.4	17.7
1992	25.2	33.2	17.7	25.3	32.3	18.0	20.3	31.8	6.0	13.2	25.5	0.7	6.9	21.8	−7.0	3.9	17.5	−6.8	12.7	33.2	−8.7
1993	22.7	29.1	16.0	22.9	31.5	15.8	21.3	29.0	13.1	15.1	24.5	4.7	10.3	21.3	−2.8	3.3	12.5	−5.9	12.6	31.5	−7.9
1994	27.7	34.8	22.6	27.1	35.9	20.1	22.1	31.2	12.7	16.4	27.1	6.9	11.6	21.3	1.0	4.6	15.8	−6.0	14.0	35.9	−8.3
1995	24.5	31.2	18.6	26.9	34.0	20.1	21.3	30.9	12.6	16.5	26.5	7.6	9.0	20.5	−0.4	2.6	9.9	−6.9	13.3	34.0	−6.9
1996	24.4	28.2	21.6	26.1	30.5	22.5	21.8	26.4	17.7	16.2	20.8	12.0	9.7	13.2	5.9	3.9	9.1	−0.4	13.0	30.5	−2.8
1997	25.0	28.8	22.3	26.1	30.5	22.8	21.5	26.2	17.5	15.7	20.4	11.2	11.2	15.2	7.7	4.4	8.8	0.7	13.7	30.5	−3.0
1998	25.1	28.5	22.4	26.1	28.8	23.4	23.2	27.2	19.8	17.9	21.6	14.4	10.0	14.6	5.5	4.8	8.9	1.1	14.5	28.8	−1.4
1999	24.4	28.2	21.8	25.5	29.0	22.6	23.4	27.0	20.4	15.5	19.8	11.8	10.3	14.6	6.6	4.0	8.3	0.0	13.8	29.0	−1.0
2000	25.8	29.5	23.2	26.6	30.9	23.4	20.7	24.5	17.8	16.4	21.1	12.8	9.0	13.8	5.2	4.3	9.1	0.3	13.6	30.9	−2.2
2001	25.7	29.3	23.0	26.0	30.3	22.9	22.6	27.5	18.5	17.5	21.7	13.9	9.5	14.2	5.8	3.6	7.0	0.6	13.9	30.3	−2.4
2002	24.7	27.9	22.3	24.8	27.7	22.6	21.7	26.1	18.5	15.7	20.0	11.9	7.6	11.8	3.7	4.4	8.0	1.5	13.9	27.9	−0.4
2003	23.1	25.7	21.0	25.0	28.2	22.4	22.7	26.6	19.6	15.7	20.4	11.9	11.6	15.6	7.9	4.4	7.9	1.1	13.8	28.2	−2.4
2004	25.5	28.8	23.0	26.1	30.3	23.1	21.9	25.9	19.0	15.6	20.9	11.2	10.5	15.2	6.5	4.8	9.1	1.2	14.0	30.3	−1.8
2005	25.0	28.5	22.5	26.1	29.5	23.5	23.9	27.9	20.8	16.8	21.5	12.8	11.5	16.1	7.3	0.7	4.5	−2.4	13.5	29.5	−3.2
2006	24.5	27.7	22.1	27.0	31.8	23.7	20.5	25.4	16.3	18.2	24.4	13.2	11.0	16.0	6.5	3.6	8.1	−0.2	14.2	31.8	−1.9
2007	24.2	27.6	21.8	27.2	30.4	24.7	22.4	25.4	20.0	16.8	20.9	13.3	9.6	13.9	5.9	5.5	9.0	2.6	14.5	30.4	−0.6
평균최고최저	25.1	31.3	20.0	26.0	32.3	20.3	21.2	28.2	13.3	15.1	23.7	6.7	9.0	18.0	1.4	3.1	11.7	−5.0	13.1	37.9	−22.6

제3절 강 수 량 (降水量)

우리나라의 다우지역(多雨地域) 중 하나인 영산강 수계에 위치한 함평군은 연평균 강수량이 1,344.7㎜로서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1,245㎜)보다는 많고, 세계 평균 강수량(880㎜)보다 훨씬 많은 비를 내리고 있는 지역임이 나타난다. 아울러 인근 지역과 비교해 보면 광주의 1,367.8㎜, 여수의 1,407.6㎜ 보다는 적으나 목포 1,125.1㎜, 군산 1,201.4㎜ 보다는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주. 1971년~2000년 평균기온, 출처 통계청)

강수량의 월별 분포로 살펴보면 연중 7월의 강수량이 가장 많아서 평균 254.45㎜를 나타내며 가장 건조한 달은 12월(30.55㎜)과 1월(32.67㎜)로 나타나고 있다. 하계강수량의 분포에 있어서는 6월~8월의 3개월 동안에 내리는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의 50.72%로 연강수량의 절반가량이 이 기간에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계강수량의 집중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지역에 속한다. 월별강수량에 있어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이동성 저기압이 빈번히 통과하는 4월(97.9㎜)의 강수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나있는 함평군의 1일 최다강수량 기록은 1981년 9월 1일의 230㎜이고, 1시간 최다강수량 기록은 2004년 7월 3일의 64.5㎜이며, 10분간 최다강수량 기록은 2004년 7월 3일의 26.5㎜이다.(주. 1995년 이후 자료는 목포지역 기준임)

지난 45여년 동안의 연평균 강수량을 연도별(年度別)로 보면 가장 비가 많이 내렸던 해는 1998년(2124.5㎜)이었으며, 1980년대 이전에는 1974년의 1904.5㎜가 가장 많이 내렸던 해였다.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해로는 2년여에 걸쳐 혹독한 가뭄을 안겼던 1968년의 698.2㎜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1995년의 최저강수량 773.0㎜와 함께 1988년(807.2㎜)과1994년(827.8㎜), 2001년(945.9㎜)에 1,000㎜이하의 강수량을 나타냈다.

함평의 연월별 강수량 통계는 〈표 12〉 와 같다.

〈표 12〉 연월별 강수량

월별 / 연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62	43.0	26.0	10.0	117.0	17.0	97.8	400.7	250.5	315.0	49.0	–	–	1326
1964	–	–	–	–	–	–	–	–	–	–	–	–	1,239.4
1965	–	–	–	–	–	–	–	–	–	–	–	–	1,257.7
1966	4.7	52.9	15.84	102.6	147.4	162.1	158.8	155.3	54.6	34.5	49.1	27.0	1,120.5
1967	15.2	31.3	87.2	81.3	17.2	162.1	163.6	39.9	57.3	8.8	131.3	–	795.2
1968	17.8	24.0	73.1	68.8	30.3	49.7	25.7	45.5	112.0	167.1	41.0	43.2	698.2
1969	84.6	156.5	24.1	228.1	19.8	47.8	198.4	279.8	340.9	–	14.3	–	1,494.3
1970	20.2	56.0	11.0	100.3	81.9	108.4	262.4	145.1	171.4	97.9	16.7	6.1	1,077.4
1971	31.3	44.6	52.9	54.7	77.5	353.8	341.8	182.0	151.2	24.0	22.9	43.7	1,380.4
1972	91.2	37.6	151.3	102.0	182.5	112.5	413.0	285.5	111.0	27.0	190.8	44.2	1,748.6
1973	63.0	44.9	8.9	164.5	191.0	69.0	125.0	81.3	146.0	92.8	23.0	45.3	1,171.3
1974	23.9	43.6	48.4	248.3	223.2	156.0	528.7	308.0	110.7	160.2	18.9	34.6	1,904.5
1975	25.2	31.4	57.2	208.3	126.0	127.0	287.2	137.3	249.0	116.1	36.4	58.1	1,459.1
1976	23.2	190.7	50.2	137.5	94.3	205.6	73.5	210.6	35.9	61.0	38.0	62.5	1,183.0
1977	20.0	12.9	81.6	278.0	134.6	124.6	51.0	94.7	35.0	9.5	72.4	29.8	943.7
1978	24.7	56.6	40.0	24.7	3.4	379.1	202.9	316.6	71.6	55.7	35.8	30.5	1,259.6
1979	33.6	107.4	63.8	111.1	131.1	249.6	103.7	226.2	260.6	0.1	53.5	27.8	1,368.5
1980	58.0	31.9	58.6	246.7	156.7	159.7	445.9	479.4	20.6	122.6	47.2	49.7	1,877.0
1981	32.0	45.8	10.1	65.5	23.2	260.8	292.6	278.9	321.5	75.8	14.0	14.9	1,435.1
1982	24.7	24.2	58.3	74.4	63.9	32.3	180.9	117.4	27.1	45.3	125.6	39.5	813.7
1983	29.7	44.7	52.8	83.0	88.2	30.4	327.6	137.8	251.0	41.2	45.7	34.9	1,167.0
1984	15.7	20.3	12.7	153.8	46.0	138.5	307.4	181.9	233.8	40.4	53.6	22.3	1,226.4
1985	9.7	53.2	84.8	78.3	198.6	402.0	135.5	121.7	262.9	132.1	109.0	32.2	1,620.9
1986	20.1	32.5	59.5	49.9	133.7	300.1	251.1	162.2	222.8	633.0	19.9	61.8	1,375.9
1987	60.4	37.8	62.0	82.4	92.1	124.5	481.9	389.0	54.7	76.4	78.6	7.0	1,546.8
1988	21.7	9.7	45.9	60.8	104.0	112.4	268.3	111.7	21.9	3.2	25.4	22.2	807.2
1989	113.0	94.6	63.4	27.2	35.8	231.3	643.6	268.7	148.0	40.0	63.1	7.6	1,736.3
1990	33.9	94.4	50.3	106.0	113.6	374.6	208.8	252.4	128.2	14.4	63.0	29.0	1,468.6
1991	32.9	45.6	101.8	165.2	29.5	175.6	397.6	155.6	152.0	6.0	38.5	41.3	1,341.6
1992	15.5	33.8	74.2	72.1	91.4	26.0	303.8	165.6	192.7	17.6	37.8	41.5	1,072.0
1993	30.1	65.9	77.9	12.7	110.0	109.7	296.2	314.3	23.5	31.5	95.6	25.6	1,193.8
1994	30.6	34.4	27.5	43.0	134.5	110.0	11.5	209.5	20.0	149.0	19.5	38.3	827.8
1995	4.3	29.5	33.5	131.5	76.5	80.5	103.5	202.5	20	15.5	27.5	9.5	773.0
1996	27.7	14.0	122.5	51.5	34.7	325.5	158.8	164.4	59.0	71.0	82.9	23.6	1,138.6
1997	5.3	27.2	63.5	66.5	109.5	124.5	327.0	259.0	20.5	5.5	166.0	53.9	1,228.4
1998	44.0	28.0	70.4	129.6	155.0	410.8	316.9	389.7	466.8	64.1	42.2	7.0	2,124.5
1999	44.3	28.0	129.7	70.2	136.7	148.2	224.4	307.9	330.0	120.2	29.0	22.5	1,591.1
2000	31.0	7.8	21.2	6.4	40.2	222.4	204.0	322.2	235.2	29.8	50.1	6.4	1,176.7
2001	47.5	79.8	18.7	32.0	28.5	270.3	171.5	102.8	55.2	79.0	15.8	44.8	945.9
2002	36.5	14.5	31.5	105.7	79.2	97.0	201.2	384.6	108.8	53.0	27.5	22.7	1,162.2
2003	41.5	41.7	75.3	195.2	147.9	135.7	402.4	368.7	170.0	36.4	49.6	21.6	1,686.0
2004	30.4	35.8	28.4	52.4	85.8	217.2	375.4	351.4	226.2	4.8	38.8	36.7	1,483.3
2005	18.4	39.1	64.0	55.9	81.6	209.7	197.1	143.1	68.9	18.8	51.0	55.1	1,002.7
2006	16.1	51.9	15.0	87.8	204.3	226.7	178.3	295.5	46.8	18.2	41.7	37.9	1,220.2
2007	8.3	67.9	88.8	26.5	128.5	30.6	191.9	222.6	426.5	101.0	6.8	51.2	1,350.6
평균	32.7	47.7	55.3	97.9	97.8	174.2	254.5	223.7	152.0	68.6	51.4	30.6	1,344.7

제4절 강 수 일 (降水日)

함평지역에 하루 0.1㎜이상의 비가 내린 날은 연평균 114일이다. 이는 인근 지역인 광주(122.9일), 전주(121.5일), 목포(115.3일)에 비해서는 비가 내린 날이 적으나 인천(100일), 여수(100.4일)에 비해서는 많은 편에 속한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달은 6, 7, 8월로 이는 하계강수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과 함께 장마철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8월을 중심으로 7~9월 사이에 내습하는 태풍은 하루 100㎜ 이상의 집중호우를 뿌려 적지 않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기도 하며, 함평군의 1일 최다강수량 기록은 1981년 9월 1일의 230㎜이다. 10월은 비가 가장 적게 내리는 달이다.

〈표 13〉 연월별 강수일(年月別降水日)

월별 / 연도	비가 (0.1㎜ 이상 온 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62	1	3	1	9	4	4	12	8	9	2	-	-	53
1964	-	-	-	-	-	-	-	-	-	-	-	-	-
1965	-	-	-	-	-	-	-	-	-	-	-	-	-
1966	1	4	11	5	7	8	9	8	5	5	3	2	58
1967	12	13	11	12	5	10	14	4	9	4	16	16	126
1968	1	1	6	7	7	4	9	7	7	10	7	8	74
1969	2	2	8	9	2	7	9	8	8	7	1	2	71
1970	2	2	7	10	3	9	10	7	6	8	5	4	78
1971	3	4	8	9	4	11	8	6	8	5	7	6	79
1972	14	13	10	7	12	12	8	13	11	4	17	12	138
1973	10	8	6	11	13	8	11	12	10	15	11	6	121
1974	4	14	10	10	9	6	20	7	4	9	8	11	112
1975	-	-	-	-	-	-	-	-	-	-	-	-	-
1976	14	13	7	7	11	14	14	18	7	11	15	12	143
1977	15	7	13	12	7	8	10	11	9	4	13	8	117
1978	10	10	7	8	2	17	8	13	6	6	13	6	106
1979	10	11	8	7	10	19	12	12	12	1	13	7	122
1980	19	8	11	9	13	13	20	15	6	12	9	15	150
1981	14	10	5	9	9	12	15	13	5	14	6	8	120
1982	9	6	8	7	9	3	14	13	3	6	12	14	104
1983	13	14	12	14	8	5	12	13	14	5	11	6	127
1984	8	11	9	10	4	10	13	14	9	5	5	15	113
1985	9	13	8	8	8	12	15	10	11	11	19	16	140
1986	14	12	7	7	5	13	17	10	14	9	5	13	126
1987	7	10	13	10	10	8	21	18	10	5	12	3	127
1988	9	7	10	7	10	7	11	14	5	4	9	8	101
1989	14	13	7	5	8	12	12	9	11	5	12	5	113
1990	13	8	9	9	14	14	12	9	10	6	8	12	124
1991	12	14	14	6	9	12	19	17	10	3	7	11	134
1992	12	10	13	9	8	7	6	13	13	7	7	13	118
1993	12	8	5	2	9	8	15	19	5	6	10	10	109
1994	10	5	6	7	9	7	3	11	2	6	3	9	78
1995	9	5	8	8	9	5	12	10	6	4	9	8	93

월별 / 연도	비가 (0.1㎜ 이상 온 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96	11	17	11	6	10	16	12	10	7	9	12	9	130
1997	7	3	8	9	10	8	11	5	4	4	8	9	86
1998	11	7	6	14	9	14	12	14	6	6	9	3	111
1999	10	10	11	7	8	10	11	12	14	8	9	7	117
2000	14	6	8	6	11	16	7	12	12	8	7	10	117
2001	16	9	10	7	8	13	13	14	8	11	9	13	131
2002	14	3	7	9	14	7	15	19	7	10	8	14	127
2003	11	9	13	10	14	9	22	15	12	5	14	9	143
2004	13	8	9	6	17	11	12	11	16	5	10	7	125
2005	15	14	12	9	6	8	19	18	7	5	4	15	132
2006	7	12	9	13	11	11	16	10	9	5	7	11	121
2007	7	7	11	6	7	15	15	13	15	6	4	15	121
평 균	10	9	9	8	9	10	13	12	9	7	9	9	114

제5절 증 발 량 (蒸發量)

우리나라의 수분(水分) 증발량은 서해안과 동해안 지방이 지형의 높낮이에 의하여 평균 200~300㎜의 차이가 난다고 한다. 우리 함평의 연간 증발량은 대략 1,250㎜ 내외로 동해안 지역인 울릉도(1,408㎜), 포항(1,592㎜) 등지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남해안 지역인 제주도(1,457.7㎜)나 여수(1,451.6㎜) 등지와 비교해도 적은 증발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해안 지역인 인천(1,233.6㎜)이나 목포(1,219㎜)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함평에서 증발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78년의 1,445.9㎜로 제주나 여수의 평균치에 근사했으며, 증발량이 가장 적었던 해는 1985년의 957.7㎜로 1,000㎜를 넘지 못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증발량이 가장 많은 달은 역시 여름철인 6, 7, 8, 9월이며 적은 달은 겨울철인 12월과 1월이다.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는 평균 100㎜ 정도의 차가 생겨 이상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연월별 증발량

월별 / 연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64	–	–	–	–	–	–	–	–	–	–	–	–	1,199.9
1965	–	–	–	–	–	–	–	–	–	–	–	–	1,178.8
1966	–	–	–	–	–	–	–	–	–	–	–	–	1,164.4
1967	45.2	52.6	79.6	87.2	167.5	161.9	131.8	181.8	141.3	122.8	52.2	40.5	1,274.4
1968	42.8	49.7	73.2	89.5	159.4	158.5	121.5	126.4	183.2	135.4	61.4	41.2	1,242.2
1969	43.5	49.2	70.3	92.4	169.4	149.8	132.7	128.4	179.4	136.2	59.2	40.9	1,251.4
1970	43.8	49.1	70.2	92.2	168.7	150.3	135.0	127.4	178.5	134.8	60.2	40.8	1,250.8
1971	38.2	44.5	73.4	88.0	159.3	162.4	132.8	131.6	181.3	128.6	58.8	42.3	1,241.2
1972	52.3	49.0	79.3	98.4	121.3	140.9	130.7	124.9	108.9	89.6	43.0	39.0	1,077.3
1973	–	–	–	–	–	–	–	–	–	–	–	–	1,171.3
1974	52.7	52.7	57.0	118.8	145.0	164.8	95.5	182.2	131.0	89.2	70.0	46.2	1,260.1

월별 / 연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75	–	–	–	–	–	–	–	–	–	–	–	–	1,249.4
1976	49.4	58.1	101.8	116.4	140.2	142.5	140.1	137.8	129.4	106.6	58.3	40.8	1,221.4
1977	46.3	53.1	85.7	113.5	139.6	156.6	154.2	161.4	138.8	141.9	65.5	50.8	1,309.9
1978	54.6	66.2	106.7	156.1	215.5	129.1	181.6	163.3	120.7	124.8	88.2	–	1,445.9
1979	57.0	66.6	111.0	149.0	183.2	105.2	142.3	158.1	104.8	110.6	67.8	44.8	1,300.4
1980	47.7	67.1	96.1	125.1	158.0	115.7	79.2	104.6	121.1	92.8	58.6	38.8	1,104.8
1981	54.3	58.2	99.1	117.7	167.3	144.0	144.8	140.3	123.6	91.9	59.9	47.7	1,248.8
1982	48.7	65.2	102.3	126.2	155.0	178.8	134.5	137.5	138.4	103.0	57.4	39.4	1,284.4
1983	40.4	47.6	82.3	110.0	146.2	161.7	111.0	144.4	95.6	86.3	53.0	34.5	1,113.0
1984	37.4	44.3	84.2	111.1	132.3	121.3	111.5	129.3	97.3	97.7	55.9	30.8	1,053.1
1985	32.1	26.2	50.3	102.0	116.4	122.2	115.5	141.5	91.9	77.4	52.7	33.5	957.7
1986	28.1	40.9	68.1	119.0	149.1	127.5	112.4	148.0	90.5	81.0	59.6	42.6	1,066.8
1987	40.1	50.9	71.5	117.4	151.8	147.2	90.9	116.5	116.7	97.0	60.4	43.3	1,103.7
1988	40.2	46.6	89.2	132.7	154.6	124.8	134.0	159.2	113.8	118.1	68.0	39.0	1,214.2
1989	30.9	41.7	91.4	130.8	142.9	110.3	118.2	131.4	95.5	95.3	56.5	39.3	1,082.2
1990	39.2	45.3	73.4	108.7	113.6	106.9	126.4	152.5	96.8	91.3	54.4	43.7	1,051.1
1991	48.9	44.6	69.0	129.1	159.3	121.7	108.9	129.0	115.3	110.3	70.0	44.9	1,151.0
1992	49.2	63.4	85.4	123.9	148.2	156.1	143.4	141.2	104.7	95.9	58.2	45.4	1,215.0
1993	–	–	–	–	–	–	–	–	–	–	–	–	1,175.6
1994	–	–	–	–	–	–	–	–	–	–	–	–	1,282.4
1995	47.0	57.2	84.7	105.4	130.7	127.1	94.9	132.9	103.5	107.2	70.8	39.3	1100.7
1996	46.3	51.2	63.5	114.5	130.5	78.1	119.8	144.1	123.6	101.7	58.0	42.8	1074.1
1997	46.3	55.8	88.5	115.4	124.0	137.6	115.5	147.5	135.5	113.0	62.0	45.9	1187.0
1998	44.1	55.9	87.2	107.5	126.3	109.4	148.5	127.9	122.2	103.1	78.0	53.6	1163.7
1999	44.0	54.5	72.6	124.0	162.2	151.3	132.5	147.4	106.9	94.9	70.9	56.5	1217.7
2000	44.4	49.4	83.3	124.5	134.4	123.5	141.2	154.7	88.5	91.6	66.6	51.6	1153.7
2001	32.3	48.7	97.1	127.5	132.7	101.8	136.9	148.2	133.8	83.9	61.2	37.8	1141.9
2002	39.2	48.1	81.4	108.8	98.0	147.9	103.4	92.9	104.1	88.2	61.6	30.7	1004.3
2003	29.1	39.1	60.2	82.7	102.6	114.9	82.0	111.2	102.8	96.0	50.1	36.3	907.0
2004	34.8	64.9	89.3	119.1	117.5	118.2	135.5	163.6	95.3	105.6	60.7	43.1	1147.6
2005	27.0	26.1	54.9	119.6	143.2	124.2	123.5	127.1	111.8	88.9	62.2	27.5	1036.0
2006	38.2	38.1	74.1	84.7	99.7	117.2	92.9	161.7	99.1	93.0	61.2	42.4	1002.1
2007	44.2	50.4	70.5	104.2	135.3	105.9	112.1	137.4	79.8	96.4	62.8	37.6	1036.6
평 균	45.1	53.5	85.1	119.8	151.5	140.5	130.5	148.4	125.9	109.2	65.0	42.7	1161.7

(주. 1995년 이후 자료는 목포지역 기준)

제6절 습 도(濕 度)

습도는 대기(大氣)의 건습(乾濕) 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기의 특성 중 가장 변화무쌍하며 기후와 날씨의 주된 요소이다. 즉 습도의 높고 낮음은 단지 대기 중의 수증기 양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기온과도 관계가 되며 단위체적(單位體積) 안의 수증기 함유량이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습도는 낮다.

대기 중의 수증기 포함율은 고온일수록 높아져서 보통 0℃ 내외의 대기에 비하여 30℃ 정도의 대기는 4배 이상의 수증기 포함율을 갖는다.

어떤 온도의 대기에 있어서 포함될 수 있는 최대량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를 포화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습도를 표시하는데는 이 포화상태의 수증기 양에 대한 현 대기 중의 수증기 양의 백분율(%)을 사용한다. 이것이 상대습도(相對濕度)인데 이 상대습도가 적을수록 대기 중의 수증기 포함은 여유가 많아진다.

상대습도는 대체로 겨울철에 낮고 여름철에 높게 나타나는데 함평지방의 연평균상대습도(年平均相對濕度)는 75% 내외로 인간생활에 적당한 수준이며, 3월이 가장 건조하고 7월의 습도가 가장 높다. 아울러 지금까지 관측된 함평의 일최소습도는 1989년 3월19일의 2%로 가장 건조한 날로 기록되고 있다. 1995년 이후 함평지방의 습도관련 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연평균이나 월평균치로 본 함평지역의 상대습도의 분포는 인간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나,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높고 기온이 낮은 겨울이나 봄에 낮아서 여름에는 무더위를 느끼게 되고 겨울 또는 봄철에는 건조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 또한 지형적인 영향과 한냉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이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 하에 장시간 놓이게 되면 몹시 건조한 기후를 보이기도 한다.

제7절 풍 속(風 速)

함평 지역은 겨울에는 시베리아고기압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북서풍이 탁월하고 북태평양고기압의 연변에 놓이는 여름에는 남풍계의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나 겨울의 북서계절풍처럼 여름계절풍은 탁월하지 않으며 또한 지표면의 마찰로 인해 해안지방 일수록 바람은 강하고 내륙지방 일수록 약하다.

함평의 연평균 풍속은 2.5㎧ 정도이며 평균 풍속이 가장 약한 달은 9월(1.8㎧)과 8월(1.9㎧)이고, 평균 풍속이 가장 강한 달은 2월(3.2㎧)과 3월(3.1㎧)이다.

연평균 초속의 전국적인 평균치는 2~3m로 함평은 전남의 목포(4.2㎧), 여수(3.9㎧), 완도(3.0㎧) 보다는 약하게 불고 고흥(1.4㎧), 장흥(1.7㎧), 해남(2.0㎧) 보다는 강하게 부는 지역이다. 하루 중에는 일출 후 부터 점차 강해져서 오후 3시 전후에 최대가 되고 그 후 부터는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여 새벽녘에 최소가 된다. 그러나 높은 산정에서는 오히려 주간보다 야간에 더 강하게 불 때가 많다. (주. 1971년~2000년 평균기온, 출처 통계청)

함평지역의 순간최대풍속은 1964년의 20㎧이며 최근에는 1994년 8월에 16.7㎧를 기록하였다.

〈표 15〉 연·월별 풍속(風速)

월별 / 연도	1		2		3		4		5		6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1964	–	–	–	–	–	–	–	–	–	–	–	–
1965	–	–	–	–	–	–	–	–	–	–	–	–
1966	–	–	–	–	–	–	–	–	–	–	–	–
1967	2.8	12.0	3.2	11.0	3.0	13.3	2.4	11.7	2.1	10.3	2.0	8.7
1968	3.1	13.1	3.3	10.8	2.8	13.6	2.3	12.4	2.1	11.2	1.9	10.5
1969	3.2	13.9	3.4	13.6	2.7	13.1	2.2	11.7	2.1	12.3	1.9	11.4
1970	–	–	–	–	–	–	–	–	–	–	–	–
1971	3.8	12.8	3.5	11.5	3.8	11.0	2.5	10.0	2.4	9.0	2.3	8.5
1972	3.0	9.5	3.8	11.5	3.0	13.5	2.8	10.5	2.6	11.0	2.3	8.5
1973	2.7	10.5	3.3	12.5	3.2	11.5	2.8	10.0	2.5	12.0	2.3	7.5
1974	2.5	12.5	3.4	10.0	3.0	10.0	3.2	11.0	2.5	12.5	2.3	9.0
1975	–	–	–	–	–	–	–	–	–	–	–	–
1976	3.0	12.0	2.8	9.5	3.3	13.0	2.6	10.5	2.2	9.0	2.3	9.5
1977	2.7	11.0	2.5	12.5	3.3	10.5	2.7	10.5	2.3	9.0	2.0	7.0
1978	3.2	11.0	3.3	10.5	3.2	10.0	2.8	10.0	2.0	7.0	2.2	10.0
1979	–	12.0	3.4	11.5	2.7	10.5	3.3	11.5	2.5	8.5	2.4	8.5
1980	3.4	13.0	2.9	10.5	3.1	11.5	3.5	13.0	2.6	11.0	2.4	8.0
1981	3.2	11.0	3.1	10.5	3.0	13.0	2.7	10.0	2.5	10.0	2.1	8.0
1982	3.1	11.0	2.7	10.0	3.0	9.5	2.6	10.5	2.5	8.0	2.0	7.0
1983	2.3	9.5	3.2	12.0	3.0	10.5	2.9	12.0	2.2	8.5	2.2	8.5
1984	2.7	10.0	3.4	13.0	2.8	11.5	2.7	12.0	1.9	9.5	2.3	10.5
1985	2.9	10.0	3.1	10.5	3.2	12.5	2.5	9.5	2.1	7.5	2.0	7.5
1986	2.6	10.0	3.3	11.0	2.8	9.5	3.0	11.5	2.6	10.0	2.3	9.5
1987	3.4	11.0	3.5	11.0	3.3	12.5	2.8	11.0	2.4	7.5	1.9	8.5
1988	2.9	11.5	3.3	13.0	3.1	9.5	2.6	12.5	2.2	9.0	2.0	8.5
1989	2.7	11.0	2.8	10.0	3.2	12.0	2.4	10.0	2.2	10.0	2.3	10.0
1990	3.2	10.0	3.0	10.5	2.6	12.0	2.9	11.5	2.7	11.0	2.4	9.0
1991	2.7	9.5	3.0	12.0	3.1	10.5	2.5	8.5	2.8	10.5	2.1	6.0
1992	2.5	10.5	2.6	9.5	2.0	8.5	2.7	9.5	2.3	9.0	2.1	7.4
1993	3.1	9.9	3.3	10.0	2.5	9.6	2.7	10.6	2.6	8.8	2.7	16.6
1994	2.7	9.4	3.1	11.8	3.3	9.1	2.5	9.4	3.2	11.1	2.3	12.0
1995	3.1	9.4	2.6	8.4	3.3	9.9	2.8	8.5	2.9	9.9	2.2	7.7
1996	2.7	9.8	2.8	10.4	3.1	11.2	2.7	8.5	2.1	8.9	2.6	12.6
1997	2.6	10.6	2.6	10.5	2.2	9.1	2.1	6.8	2.9	9.8	2.2	8.6
1998	2.9	13.3	1.4	10.3	3.3	13.3	2.8	11.2	2.9	12.3	3.1	15.0
1999	3.6	13.0	3.9	15.0	3.8	13.0	3.5	12.0	3.2	11.8	2.7	10.0
2000	5.5	10.8	5.1	10.5	4.5	9.5	4.5	9.6	3.8	7.8	3.3	7.1
2001	4.0	17.1	4.6	15.9	5.2	17.2	3.8	12.3	3.2	10.0	3.0	12.3
2002	5.3	15.1	4.1	15.3	4.1	14.1	4.4	17.0	3.1	10.9	3.1	8.7
2003	4.3	14.7	3.4	13.0	3.4	12.3	2.5	9.7	1.9	8.7	1.8	7.3
2004	4.2	15.7	5.3	16.7	5.2	16.0	4.5	17.1	4.3	14.0	3.1	10.7
2005	4.8	15.7	5.0	15.0	5.2	16.0	4.3	11.6	3.4	11.0	2.7	8.2
2006	1.6	8.1	2.0	7.6	2.0	8.1	2.1	8.2	2.0	10.5	1.8	9.5
2007	3.9	16.5	3.4	14.2	4.0	16.6	3.5	11.7	3.4	9.4	2.3	9.2
평균, 최고	3.1	17.1	3.3	16.7	3.3	17.2	2.9	17.1	2.6	12.5	2.3	16.6

월별 / 연도	7		8		9		10		11		12		전년(全年)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최대
1964	–	–	–	–	–	–	–	–	–	–	–	–	2.7	20.0
1965	–	–	–	–	–	–	–	–	–	–	–	–	2.8	18.7
1966	–	–	–	–	–	–	–	–	–	–	–	–	2.7	15.7
1967	2.2	9.0	1.6	8.3	1.4	8.3	1.8	10.0	2.0	12.0	1.9	11.7	2.1	13.3
1968	1.2	8.2	1.4	7.1	1.6	9.4	1.8	11.2	2.0	12.1	3.0	12.6	2.2	13.6
1969	1.3	11.6	1.4	8.4	1.6	7.6	1.8	9.3	2.0	10.6	2.9	12.7	2.2	13.3
1970	–	–	–	–	–	–	–	–	–	–	–	–	2.2	11.4
1971	2.3	8.0	2.2	13.0	1.7	10.0	1.9	10.0	2.3	10.5	2.9	12.0	2.6	10.5
1972	2.6	15.0	2.1	9.5	2.0	8.5	2.2	9.8	2.9	11.0	2.4	13.0	2.4	15.0
1973	2.4	11.0	1.9	12.5	1.7	8.0	2.1	8.0	3.0	10.0	2.8	11.5	2.6	12.5
1974	2.3	9.0	2.1	11.5	1.6	9.5	2.1	6.5	2.4	11.5	2.6	11.0	2.5	12.5
1975	–	–	–	–	–	–	–	–	–	–	–	–	2.4	14.5
1976	2.2	7.5	1.9	8.0	1.7	7.5	2.4	10.0	2.7	11.0	2.4	11.0	2.5	13.0
1977	1.8	6.0	1.7	5.5	1.8	7.5	1.7	8.5	2.4	9.0	2.2	11.0	2.3	12.5
1978	2.1	7.5	1.8	14.5	1.8	8.0	1.9	7.0	2.1	10.0	–	–	2.4	14.5
1979	2.0	8.5	2.5	13.0	1.8	7.0	2.0	9.0	2.7	10.5	2.2	11.5	2.3	13.0
1980	2.0	7.5	1.7	7.0	1.9	10.0	2.4	11.0	2.1	11.0	3.1	11.0	2.6	13.0
1981	2.2	10.5	2.0	10.5	2.1	10.0	2.3	12.5	2.4	9.5	2.5	10.5	2.5	13.0
1982	2.0	6.0	2.2	8.0	1.8	6.5	2.0	8.0	2.6	10.0	2.4	11.0	2.4	11.0
1983	2.2	8.5	1.9	9.5	1.8	8.5	1.8	8.5	2.5	11.5	2.2	12.0	2.4	12.0
1984	2.2	10.0	2.1	9.0	1.9	7.5	2.0	9.5	2.0	8.0	2.5	10.5	2.4	13.0
1985	1.7	6.5	2.3	10.5	1.7	6.5	2.0	10.0	2.7	11.5	2.3	10.0	2.4	12.5
1986	1.9	7.5	2.1	13.5	1.6	8.5	1.9	8.0	2.4	11.0	2.8	10.5	2.4	13.5
1987	2.2	14.0	2.0	12.0	2.0	8.4	2.0	9.0	2.7	11.5	2.4	13.0	2.6	14.0
1988	2.3	10.5	1.9	7.5	1.9	7.5	1.9	11.0	2.6	10.0	2.5	10.5	2.4	13.0
1989	2.1	7.5	2.1	8.0	2.0	9.0	2.0	12.0	2.6	11.5	2.0	10.0	2.4	12.0
1990	2.0	7.0	1.8	8.0	2.1	8.5	2.3	8.0	2.5	11.5	2.7	11.5	2.5	13.0
1991	2.2	9.5	2.1	9.5	1.9	8.0	2.1	9.0	2.2	9.5	2.6	10.5	2.4	12.0
1992	1.9	6.8	1.8	6.1	2.1	8.7	1.7	8.5	2.0	9.5	2.5	11.0	2.2	11.0
1993	2.3	9.4	2.5	10.2	2.0	10.0	2.8	10.2	2.7	10.2	3.2	9.7	2.7	16.6
1994	2.6	9.1	3.1	15.7	2.5	8.4	2.4	11.2	2.3	9.4	2.9	9.0	2.7	15.7
1995	2.9	10.4	2.9	13.4	2.1	8.1	2.2	10.4	2.9	13.1	2.6	12.0	2.7	13.4
1996	2.6	9.5	1.7	6.1	1.7	6.5	2.1	6.8	2.8	11.1	2.2	9.0	2.4	12.6
1997	2.6	9.6	2.4	10.4	2.3	11.1	2.5	8.3	2.4	8.2	2.3	9.0	2.4	11.1
1998	3.9	13.7	3.1	12.5	2.8	16.8	3.2	13.3	3.4	12.7	3.4	11.8	3.0	16.8
1999	3.8	12.2	2.5	25.0	2.2	10.8	2.1	10.7	2.7	13.8	2.6	13.7	3.1	25.0
2000	3.6	8.2	3.4	8.1	3.1	7.7	3.4	8.3	3.9	8.5	4.4	8.8	4.0	10.8
2001	3.6	11.0	2.9	9.4	2.7	9.7	3.4	13.4	3.7	15.3	4.3	16.4	3.7	17.2
2002	3.4	15.3	3.3	29.1	3.0	15.7	3.7	14.0	4.8	15.3	3.9	15.6	3.9	29.1
2003	2.1	7.1	1.6	5.1	1.7	20.8	4.3	17.2	4.3	16.1	5.3	16.2	3.1	20.8
2004	4.1	12.1	3.0	13.2	3.4	14.9	4.0	15.8	4.1	17.2	4.5	15.7	4.1	17.2
2005	2.1	7.7	2.2	6.4	3.2	12.0	3.5	11.7	3.8	13.1	4.5	19.3	3.7	19.3
2006	2.1	12.0	1.4	10.1	1.7	9.7	1.1	6.1	2.0	8.0	1.5	6.4	1.8	12.0
2007	2.6	11.8	3.1	10.8	2.6	13.4	2.9	11.1	3.5	14.5	3.3	14.7	3.2	16.6
평균, 최고	2.4	15.3	2.2	29.1	2.1	20.8	2.4	17.2	2.7	17.2	2.8	19.3	2.5	29.1

제8절 일조시간(日照時間)

1. 일조시간

일조시간은 태양이 구름빛, 안개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지면을 비친 시간을 가리키므로 그 지역의 강수일수(降水日數)와 구름량, 안개의 발생빈도는 물론 농작물의 생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연간 일조시간은 2,200~2,700시간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북부 서해안은 일조시간이 긴 곳이어서 2,600~2,700시간에 이른다. 도서지방은 육지보다 짧아 2,000시간 내외의 분포를 보여준다.

함평군의 일조시간은 2,300시간 내외로 연간 2,566.1 시간을 상회하는 고흥지방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2,065.2시간을 나타내는 순천지방 보다는 많이 나타난다.

함평지방의 일조시간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월평균 일조시간이 200~250시간의 분포를 보여 5월(227.0시간)을 전후로 해서 가장 길게 나타난다.

여름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6~7월의 일조시간이 170~200시간의 분포를 보이지만 장마전선이 북상한 후 북태평양의 영향을 받는 8월에는 200시간 내외의 분포를 보인다. 가을에는 다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10월에 210시간 내외의 일조시간을 보인다.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불 때 자주 나타나는 악천후 때문에 일조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130~160시간의 분포를 보인다.

일조율은 맑은 날과 흐린날의 일수(日數)와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으며 연평균치는 40~60%의 범위에 속한다.

<표 16> 연월별 일조 시간

단위:시간

연별 \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71	-	-	-	-	-	-	-	-	-	-	-	-	2,167.1
1972	-	-	-	-	-	-	-	-	-	-	-	-	2,007.6
1973	-	-	-	-	-	-	-	-	-	-	-	-	2,413.5
1974	208.8	164.4	206.5	246.0	262.8	300.7	136.7	270.8	259.3	206.2	191.0	125.0	2,577.2
1975	-	-	-	-	-	-	-	-	-	-	-	-	1,942.1
1976	164.2	162.2	241.2	215.2	242.2	213.2	221.0	217.1	258.1	222.2	148.3	145.1	2,471.5
1977	193.3	188.0	187.1	216.0	230.0	231.1	231.1	238.6	234.1	262.9	154.9	158.6	2,526.2
1978	140.1	188.9	233.9	262.9	300.5	191.5	262.6	266.8	206.7	246.0	152.5	184.3	2,636.7
1979	140.1	159.9	219.4	236.7	290.5	154.6	219.8	244.1	196.2	281.2	167.4	162.8	2,472.7
1980	132.8	214.7	204.9	230.8	274.7	195.4	133.8	170.0	242.7	196.1	182.7	136.9	2,314.8
1981	181.8	162.7	212.2	207.8	247.0	189.4	203.2	212.3	218.9	196.4	150.9	143.8	2,325.7
1982	150.4	182.8	217.8	227.1	232.5	246.8	182.1	193.4	218.2	204.6	103.5	126.9	2,286.2
1983	132.9	154.7	180.5	184.8	247.1	223.5	136.2	190.5	153.9	181.1	129.5	139.9	2,054.6
1984	156.3	160.6	208.3	193.3	247.6	176.8	163.3	215.5	184.1	236.7	187.1	108.6	2,226.2
1985	167.8	118.5	194.3	213.0	205.2	185.0	184.3	238.1	159.5	158.5	112.7	142.0	1,079.0
1986	166.3	170.0	196.6	227.2	256.2	174.2	147.3	237.5	174.5	201.1	143.7	121.0	2,215.6

월별 / 연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87	155.3	156.9	163.4	203.5	245.1	220.9	107.4	144.2	215.4	177.7	174.7	159.1	2,123.6
1988	151.3	140.0	177.7	242.2	242.3	178.0	173.4	248.6	212.7	230.9	175.1	126.1	2,289.3
1989	100.5	116.6	219.3	243.5	236.4	174.3	168.3	203.3	167.3	218.0	119.1	126.8	2,093.4
1990	128.4	111.4	199.6	208.4	195.3	150.2	176.2	250.8	109.8	221.7	161.4	112.0	2,085.2
1991	146.2	129.2	162.6	235.9	206.7	155.6	114.3	177.7	179.3	241.2	185.3	122.2	2,057.2
1992	119.8	177.3	153.5	211.6	251.6	215.5	172.7	202.7	149.2	205.5	150.8	123.7	2,133.9
1993	142.6	160.6	216.2	222.6	220.9	159.9	101.5	134.0	210.7	206.9	107.2	128.2	1,971.3
1994	155.2	156.0	198.7	189.7	201.0	168.2	250.1	230.4	241.8	186.9	159.1	118.1	2,255.2
1995	146.5	171.4	170.1	190.7	216.3	211.0	154.3	245.5	184.2	210.6	202.1	120.8	2,223.5
1996	153.0	180.4	165.5	240.0	233.3	94.6	204.5	235.7	200.8	212.2	195.0	163.5	2,218.5
1997	153.6	180.1	193.8	199.1	191.0	216.1	171.6	235.6	232.7	202.0	139.3	120.5	2,235.4
1998	84.6	132.3	182.9	148.1	155.1	113.6	129.0	103.6	142.7	198.5	178.2	147.8	1,716.4
1999	146.1	168.6	160.7	218.8	258.7	224.3	153.5	177.5	153.5	151.0	150.4	136.6	2,099.7
2000	113.3	183.6	216.1	234.4	223.5	155.8	197.3	226.1	138.1	174.9	163.3	184.8	2,211.2
2001	135.1	152.5	207.9	246.9	199.6	124.1	204.2	215.5	225.0	175.8	192.6	127.1	2,206.3
2002	129.2	176.2	186.4	181.1	155.2	239.6	120.9	115.2	206.4	189.6	166.8	123.8	1,990.4
2003	137.8	139.1	181.1	172.4	180.5	164.1	747.0	143.3	186.0	232.5	134.2	135.4	1,881.1
2004	167.9	198.6	214.0	209.3	182.2	163.8	182.2	215.6	133.9	254.9	188.1	147.8	2,258.3
2005	130.4	132.1	214.0	254.8	254.6	188.1	143.6	167.3	133.0	192.2	193.3	130.1	2,133.5
2006	140.1	145.1	217.4	167.6	169.6	188.5	59.8	181.7	166.0	221.2	144.7	146.7	1,948.4
2007	131.5	181.9	164.1	213.9	236.1	140.5	132.6	194.4	118.4	214.6	179.5	98.4	2,005.9
평 균	145.6	161.1	196.0	215.0	227.0	182.9	184.4	204.3	188.3	209.4	160.1	136.2	2,158.2

2. 맑은 날씨

함평군의 맑은 날씨는 연평균 74.1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적게 분포한다. 광주(71.7일), 울릉도(52.9일) 보다는 맑은 날의 분포가 많지만 전주(89.1일), 서울(96.7일), 대구(102.5일), 목포(107.7일), 인천(108.0일)에 비해서는 적게 분포한다.

맑은 날씨가 가장 많은 달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불리우는 10월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10.4일의 분포를 보여주며 다음은 11월의 8.4일과 4월의 8.0일 순이다. 가장 적은 달은 장마전선이 통과하는 7월의 2.2일, 6월의 3.4일 순의 분포를 보인다.

3. 흐린 날씨

함평군의 흐린 날씨는 연간평균 122.4일로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많은 날수에 속한다. 제주의 161.0일, 울릉도 143.5일 등 도서지방보다는 흐린 날이 적지만 광주 123.9일, 목포 116.0일, 전주 115.5일, 서울 108.8일, 대구 105.2일, 인천 96.1일 보다는 흐린 날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월별로는 역시 장마전선이 통과하는 7월의 16.6일과 6월의 14.2일로 한 달의 반 이상이 구름이 낀 날씨임이 나타난다. 흐린 날이 적은 날은 10월(7.1일)과 11월(7.7일)이다.

〈표 17〉 연월별 맑음·흐림

월별 / 연도	맑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62	6	2	8	7	5	7	8	10	12	8	9	6	88
1967	8	5	8	2	8	2	2	4	9	15	8	4	75
1968	6	3	4	14	2	1	1	10	7	9	7	4	68
1969	8	4	3	12	3	1	1	9	6	9	6	5	67
1970	7	4	4	11	4	1	1	10	5	10	7	5	69
1971	6	5	3	10	6	2	3	9	7	9	8	4	72
1972	7	5	12	7	7	3	1	2	3	8	6	5	66
1973	7	4	1	6	5	5	6	3	8	11	11	6	83
1974	15	4	8	8	6	6	−	6	8	6	9	3	79
1975	−	−	−	−	−	−	−	−	−	−	−	−	−
1976	7	10	5	8	8	5	2	1	8	9	5	3	71
1977	5	7	7	5	5	2	6	5	6	16	6	5	75
1978	3	10	7	11	9	5	5	4	1	14	9	12	90
1979	3	7	9	7	10	2	3	5	8	21	10	7	92
1980	6	9	6	7	9	3	1	−	10	10	8	5	74
1981	4	4	9	7	9	9	6	6	6	10	9	10	89
1982	7	8	7	12	6	7	4	3	7	10	6	6	83
1983	6	5	7	8	8	3	−	8	3	11	8	7	74
1984	4	2	3	5	10	3	1	4	8	13	11	4	66
1985	5	1	6	7	6	1	4	8	4	4	3	6	55
1986	1	7	8	10	10	2	2	8	3	7	7	7	72
1987	7	2	5	8	7	5	−	−	9	8	9	7	67
1988	6	4	4	9	6	2	1	3	9	9	9	4	66
1989	3	6	6	9	5	1	−	2	3	8	3	5	51
1990	4	1	9	4	3	3	1	8	6	11	9	5	64
1991	2	5	8	9	9	3	−	4	3	14	14	1	82
1992	6	7	5	8	9	5	−	3	4	6	11	6	70
1993	3	7	13	7	7	1	1	1	8	11	3	3	65
1994	4	4	6	5	9	4	9	10	14	9	11	2	87
1995	3	9	7	6	11	3	3	7	4	12	16	4	85
1996	5	7	7	10	10	1	3	13	11	11	6	12	96
1997	5	7	11	12	7	4	5	10	14	15	9	7	106
1998	2	7	8	5	3	2	3	4	10	12	14	12	82
1999	7	5	−	8	12	6	−	4	5	10	5	12	74
2000	3	6	9	9	8	5	2	6	4	2	9	10	73
2001	5	6	10	12	5	3	1	3	10	7	11	1	74
2002	6	9	7	4	4	8	2	1	7	10	7	2	67
2003	8	5	6	7	6	5	−	−	7	11	9	7	71
2004	6	10	6	8	5	2	3	3	3	14	15	7	82
2005	−	3	9	10	6	4	1	1	1	11	8	−	54
2006	6	3	10	4	5	2	−	4	6	15	5	6	66
2007	4	11	7	8	8	−	−	2	3	10	9	4	123
평 균	5.3	5.6	6.8	8.0	6.9	3.4	2.2	5.0	6.6	10.4	8.4	5.6	74.1

월별 / 연도	흐림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62	12	15	13	10	13	11	14	12	9	6	11	12	138
1967	8	9	11	16	12	12	18	7	5	4	11	12	125
1968	10	9	20	9	22	25	21	14	16	12	15	15	188
1969	7	8	19	21	7	20	23	20	13	16	15	17	186
1970	8	7	16	20	9	21	22	19	13	15	14	17	181
1971	7	6	13	17	8	18	20	14	11	18	16	14	162
1972	12	10	6	8	13	16	16	15	8	6	14	11	135
1973	15	13	6	11	13	11	6	8	13	11	6	12	125
1974	3	11	11	7	12	9	25	9	6	9	5	14	121
1975	–	–	–	–	–	–	–	–	–	–	–	–	–
1976	9	12	8	16	12	15	12	16	6	7	9	12	134
1977	7	9	14	13	14	13	15	15	9	5	7	6	127
1978	12	9	10	10	10	17	10	6	9	7	8	7	115
1979	12	10	8	8	8	20	16	11	12	1	6	6	118
1980	12	3	8	10	9	19	22	20	8	12	7	11	181
1981	8	12	10	13	10	15	13	13	6	8	10	9	127
1982	9	8	8	8	11	10	17	12	8	3	10	8	118
1983	10	8	11	11	8	4	18	10	14	10	9	8	121
1984	8	18	7	10	6	17	14	10	11	3	4	16	118
1985	7	15	15	10	11	17	14	9	13	8	7	10	136
1986	5	7	11	8	7	16	18	6	11	5	9	11	114
1987	11	7	14	10	10	12	26	15	9	12	6	5	137
1988	13	12	12	6	8	17	22	8	8	7	6	9	128
1989	16	13	6	9	10	16	18	11	12	6	12	9	138
1990	16	11	10	10	13	18	15	7	13	7	6	12	138
1991	13	13	12	9	12	20	25	18	11	1	2	12	148
1992	11	5	17	6	6	10	18	12	12	3	5	10	115
1993	20	8	8	9	9	14	22	19	9	8	17	10	153
1994	9	6	9	11	12	15	7	8	2	6	6	12	103
1995	7	5	8	5	10	8	21	8	11	6	2	5	96
1996	9	6	12	6	7	22	14	6	9	8	10	7	116
1997	5	3	8	6	10	8	12	5	2	2	11	8	80
1998	14	7	7	15	12	17	12	12	8	3	3	2	112
1999	7	4	12	5	7	7	12	13	11	10	5	8	101
2000	9	3	3	5	7	14	8	8	12	10	6	3	88
2001	13	6	5	5	10	17	13	7	4	9	3	8	100
2002	8	4	4	8	17	6	14	15	2	6	–	9	93
2003	9	8	8	14	11	11	23	10	7	3	9	8	121
2004	5	3	2	7	14	13	11	9	16	2	4	6	92
2005	2	8	5	5	5	8	14	11	13	6	4	3	84
2006	7	9	5	7	13	10	22	3	7	3	6	6	98
2007	5	6	8	9	6	12	16	10	16	5	2	8	103
평 균	9.5	8.4	9.8	9.8	10.3	14.2	16.6	11.2	9.6	7.1	7.8	9.5	122.4

제9절 안 개

안개란 지면 부근의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시야가 1㎞미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함평지방의 연평균 안개 일수는 36.1일로 군산지방의 41일 보다는 적은 편이나 목포의 23.7일, 여수의 23.0일, 해남의 19.4일, 고흥의 12.8일 보다는 월등히 많이 나타난다. 이는 서해를 끼고 있고 영산강이 인근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함평지방에서 안개가 가장 많이 끼는 달은 9월로 평균 6.4일을 나타내며 다음은 10월의 5.2일이다. 또한 여름철인 5월(4.4), 6월(4.7일), 7월(4.2일)에 안개가 낀 날이 많음을 보여준다.

안개가 적게 낀 날은 겨울철인 1월(2.2일), 2월(2.2일), 12월(2.7일)에 해당된다. 이는 함평지역이 여름과 가을에 안개가 많이 끼며 겨울과 봄에는 안개가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안개가 가장 많이 낀 해는 1969년의 72일이며 그 이후에는 1990년의 69일이었다.

〈표 18〉 안개 낀 날

월별 /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62	2	1	3	2	4	3	4	3	2	1	2	1	28
1964	-	-	-	-	-	-	-	-	-	-	-	-	10
1965	-	-	-	-	-	-	-	-	-	-	-	-	15
1966	-	-	-	-	-	-	-	-	-	-	-	-	22
1967	-	1	1	1	3	2	2	1	1	1	2	1	16
1968	-	-	4	2	7	11	5	4	14	5	5	-	57
1969	-	-	6	4	8	13	7	6	17	5	6	-	72
1970	-	-	4	3	9	11	8	4	13	4	7	-	63
1971	-	-	2	4	8	10	7	6	11	3	9	-	60
1972	1	-	-	1	2	3	6	3	4	5	1	1	27
1973	-	-	-	-	1	-	10	9	7	5	1	1	34
1974	-	2	1	3	3	3	-	5	5	-	4	-	26
1975	-	-	-	-	-	-	-	-	-	-	-	-	49
1976	1	-	3	5	4	4	9	6	15	7	2	3	59
1977	-	1	-	6	4	6	5	5	8	12	1	8	56
1978	7	1	3	3	9	6	4	5	5	4	4	4	56
1979	7	1	3	3	4	2	4	2	7	14	2	5	54
1980	-	-	-	1	4	2	8	4	10	7	12	-	46
1981	-	4	4	6	2	3	2	3	8	1	5	4	42
1982	-	2	1	2	3	6	6	-	3	10	1	-	34
1983	4	1	3	3	3	4	1	2	7	6	7	2	43
1984	-	-	-	-	2	2	-	-	9	4	6	-	17
1985	-	1	-	3	2	1	1	5	3	5	3	-	24
1986	1	1	1	1	-	2	1	4	10	11	5	-	37
1987	1	4	4	6	5	5	2	5	5	9	5	6	57
1988	-	-	1	2	3	6	-	1	5	4	6	2	30
1989	-	-	-	2	6	9	1	-	5	11	5	1	40
1990	1	3	5	5	6	5	4	6	6	10	15	3	69
1991	-	-	-	-	-	-	-	-	-	-	-	-	44
1992	1	1	5	2	6	2	1	2	5	9	7	5	46

월별 /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93	-	4	-	3	2	2	2	2	2	1	6	-	24
1994	-	-	1	6	2	6	3	2	-	1	-	-	21
1995	1	-	2	4	2	-	1	2	-	3	2	-	17
1996	2	2	1	4	5	13	3	-	2	-	-	1	33
1997	-	4	5	7	7	3	8	2	-	3	1	3	43
1998	1	3	3	9	4	1	5	1	6	2	2	1	38
1999	1	4	4	4	5	2	-	-	6	3	1	-	30
2000	-	1	2	1	2	6	-	-	-	-	-	-	12
2001	-	3	2	1	4	1	4	2	1	3	2	-	23
2002	3	3	4	3	7	4	3	3	3	-	-	1	34
2003	1	2	-	3	1	1	7	1	1	1	-	3	21
2004	-	2	2	3	6	4	1	-	-	-	1	-	19
2005	-	2	2	1	-	5	-	-	-	-	-	-	10
2006	-	2	4	2	7	4	4	1	-	3	-	1	28
2007	-	3	4	3	4	5	5	4	4	2	-	2	36
평 균	0.9	1.5	2.2	3.1	4.1	4.4	3.6	2.8	5.2	4.4	3.4	1.5	36.1

제10절 뇌 전 (雷電)

뇌전은 적란운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격렬하고 일시적인 대기의 요란(搖亂) 현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강한 폭풍, 폭우를 동반하며 때때로 우박 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뇌전은 세 가지로 구분해 부르는데 일사(日射)가 강해 국지적으로 가열되어 생기는 열뇌(熱雷), 저기압과 같이 오는 와뇌(渦雷), 불연속선(不連續線)에 동반되는 계뇌(界雷)가 있으며 이들 모두가 상승기류 때문에 생기는 점은 공통적이다.

함평지방의 번개 천둥 일수(日數)는 연평균 11.7일로 부산 10.6일, 목포 8.7일, 여수 10.0일에 비하여 많고 대구 11.8일, 전주 14.1일 보다는 적은 편이다.

함평지방의 번개, 천둥 일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여름철에 주로 집중되는데 8월 3.0일, 7월 2.9일, 9월 1.0일 등의 순이며, 이와 같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은 강한 일사로 인해 국지적으로 더워져 열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2월에는 천둥, 번개 현상이 전혀 없었으나 1994년에 1회 기록된 적이 있었다. 1975년에는 최고 25일을 기록한 적이 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2002년(16일)과 2003년(17일)을 제외하고는 10일 내외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표 19〉 뇌전일수 (雷電日數)

월별 /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62	-	-	-	-	1	4	8	6	2	-	-	-	21
1964	-	-	-	-	-	-	-	-	-	-	-	-	17
1965	-	-	-	-	-	-	-	-	-	-	-	-	13
1966	-	-	-	-	-	-	-	-	-	-	-	-	17
1967	-	-	1	-	-	1	3	5	5	1	-	-	16
1968	-	-	-	-	-	1	1	-	-	-	-	-	2
1969	1	-	-	-	-	1	1	-	-	-	-	-	3
1970	2	1	-	-	-	3	2	-	-	-	-	-	8
1971	-	-	-	4	-	3	2	-	2	-	-	-	11
1972	-	-	-	2	2	1	1	1	2	1	-	-	10
1973	-	-	-	-	1	-	2	-	1	1	-	-	5
1974	-	-	-	-	-	-	-	-	-	-	-	-	5
1975	-	-	-	-	-	-	-	-	-	-	-	-	25
1976	-	2	-	1	-	-	-	4	-	1	-	-	8
1977	-	-	-	-	-	-	1	1	1	-	2	-	5
1978	-	-	-	1	-	2	2	5	1	2	-	-	13
1979	-	-	2	-	1	2	2	2	1	2	2	-	14
1980	-	-	-	2	-	2	3	1	2	-	-	-	10
1981	-	-	-	-	2	1	5	2	-	-	-	-	10
1982	-	-	-	-	1	-	2	3	-	1	-	-	7
1983	-	-	-	3	-	-	2	4	-	-	-	-	9
1984	-	-	-	-	2	1	4	3	1	1	-	-	12
1985	-	-	-	2	1	-	5	3	1	-	-	-	12
1986	-	-	-	-	2	1	3	4	-	1	-	-	11
1987	-	1	-	-	-	1	4	6	-	-	-	-	12
1988	-	-	-	1	2	-	3	5	-	1	-	-	12
1989	-	-	-	-	-	-	5	4	1	-	-	-	10
1990	-	-	-	-	1	-	6	5	-	1	1	-	14
1991	-	-	-	-	-	-	-	-	-	-	-	-	13
1992	-	-	-	-	-	-	3	1	-	1	1	-	6
1993	-	-	-	1	-	1	4	3	1	1	-	-	11
1994	-	-	-	-	1	1	1	3	2	-	1	-	9
1995	-	-	-	1	-	1	4	6	-	-	3	-	15
1996	-	-	1	1	1	-	-	2	-	1	-	-	6
1997	-	-	1	-	4	-	2	2	1	-	1	-	11
1998	-	-	-	-	-	-	3	7	1	-	1	-	12
1999	-	-	1	1	-	-	-	-	3	-	-	-	5
2000	-	-	1	-	1	1	3	3	-	-	-	-	9
2001	-	1	-	-	1	1	6	3	-	1	-	-	13
2002	1	-	-	3	1	-	1	4	1	3	2	-	16
2003	-	-	-	1	1	-	8	3	3	1	-	-	17
2004	-	1	1	1	-	-	3	3	1	-	2	-	12
2005	-	-	-	2	1	3	2	4	1	-	1	-	14
2006	-	-	-	2	-	4	3	4	-	-	1	-	14
2007	-	-	-	1	3	-	2	4	6	1	-	-	16
평 균	0.1	0.2	0.2	0.8	0.8	0.9	2.9	3.0	1.0	0.6	0.5	0.0	11.7

제11절 서리 · 눈

1. 서리

서리는 지면이나 노출된 표면에서 직접 결정화(結晶化)된 대기 수분으로 초가을부터 늦봄에 걸쳐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며 바람이 없는 맑은 날 밤에 잘 내린다.

첫 서리는 가을에 대륙에서 발생한 한랭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데 함평지방은 대체로 10월 21일경이 된다. 목포 11월 27일, 여수 11월20일, 해남 10월 27일에 비해서 빨리 내림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서리는 4월 24일로 여수의 3월 17일, 완도의 3월 27일, 목포의 3월 29일에 비해서 늦게까지 내리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함평지방에서 서리가 내리는 연간 평균 일수는 64.6일이며 1월과 12월에 서리 내리는 날이 많다. 첫 서리와 마지막 서리와의 사이인 연평균 무상기일(無霜期日)은 220일 내외이며 서리가 가장 많이 내린 해는 1974년의 124일 이었다.

〈표 20〉 서리, 눈 온 날

단위:일

월별 / 연도	서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62	9	7	5	-	-	-	-	-	-	2	4	-	27
1964	-	-	-	-	-	-	-	-	-	-	-	-	56
1965	-	-	-	-	-	-	-	-	-	-	-	-	58
1966	-	-	-	-	-	-	-	-	-	-	-	-	56
1967	8	9	7	1	-	-	-	-	-	-	6	11	42
1968	4	6	16	16	4	-	-	-	-	6	9	-	61
1969	-	-	-	-	-	-	-	-	-	-	-	-	57
1970	-	-	-	-	-	-	-	-	-	-	-	-	58
1971	4	8	13	14	5	-	-	-	-	-	8	7	59
1972	9	8	12	1	-	-	-	-	-	2	4	22	58
1973	18	9	22	7	-	-	-	-	-	3	20	16	95
1974	31	18	22	7	1	-	-	-	-	4	21	20	124
1975	-	-	-	-	-	-	-	-	-	-	-	-	106
1976	20	21	20	8	1	-	-	-	-	2	16	17	105
1977	21	20	8	3	-	-	-	-	-	6	11	26	95
1978	20	14	22	8	1	-	-	-	-	8	16	21	110
1979	20	13	21	7	-	-	-	-	-	5	12	23	101
1980	10	16	17	7	-	-	-	-	-	-	17	15	82
1981	11	9	19	4	-	-	-	-	-	1	19	16	79
1982	19	23	16	9	-	-	-	-	-	-	4	19	90
1983	20	19	14	4	-	-	-	-	-	-	8	10	75

월별 / 연도	서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84	13	14	17	3	–	–	–	–	–	–	10	8	65
1985	10	8	8	4	–	–	–	–	–	–	5	9	44
1986	8	13	11	5	–	–	–	–	–	3	13	15	68
1987	20	14	14	4	–	–	–	–	–	–	11	19	82
1988	18	10	14	4	–	–	–	–	–	2	16	21	85
1989	18	12	16	3	–	–	–	–	–	1	11	23	84
1990	15	19	16	2	–	–	–	–	–	1	4	19	76
1991	17	18	15	6	–	–	–	–	–	8	16	19	99
1992	21	25	10	4	–	–	–	–	–	–	16	18	94
1993	9	14	8	1	–	–	–	–	–	–	–	17	49
1994	13	9	11	–	–	–	–	–	–	–	5	8	46
1995	17	14	7	3	–	–	–	–	–	–	6	10	57
1996	13	11	6	1	–	–	–	–	–	1	5	16	53
1997	13	7	7	1	–	–	–	–	–	–	–	7	35
1998	7	7	2	–	–	–	–	–	–	–	5	10	31
1999	9	8	3	1	–	–	–	–	–	–	5	14	40
2000	8	13	9	–	–	–	–	–	–	–	4	10	44
2001	14	13	3	1	–	–	–	–	–	–	6	11	48
2002	7	17	6	–	–	–	–	–	–	–	2	4	36
2003	13	9	3	–	–	–	–	–	–	–	2	9	36
2004	11	11	3	–	–	–	–	–	–	–	–	5	30
2005	11	6	6	–	–	–	–	–	–	–	2	5	30
2006	15	7	6	–	–	–	–	–	–	–	–	7	35
2007	15	8	1	–	–	–	–	–	–	–	8	13	45
평 균	13.8	12.5	11.2	3.6	0.3	0.0	0.0	0.0	0.0	1.4	8.4	13.4	64.6

월별 / 연도	눈온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62	3	2	1	–	–	–	–	–	–	–	2	6	14
1964	–	–	–	–	–	–	–	–	–	–	–	–	22
1965	–	–	–	–	–	–	–	–	–	–	–	–	37
1966	–	–	–	–	–	–	–	–	–	–	–	–	29
1967	13	9	3	–	–	–	–	–	–	–	2	6	33
1968	14	15	1	–	–	–	–	–	–	–	1	4	35
1969	16	18	3	–	–	–	–	–	–	–	2	5	44
1970	14	17	2	–	–	–	–	–	–	–	4	5	42
1971	15	18	6	–	–	–	–	–	–	7	6	–	52
1972	6	11	3	–	–	–	–	–	–	–	6	7	33
1973	3	3	–	–	–	–	–	–	–	–	1	16	23
1974	5	10	3	1	–	–	–	–	–	–	–	–	23
1975	–	–	–	–	–	–	–	–	–	–	–	–	34
1976	13	1	4	–	–	–	–	–	–	–	7	8	33
1977	14	8	3	–	–	–	–	–	–	–	3	3	31
1979	7	5	1	–	–	–	–	–	–	–	–	3	20
1980	16	9	2	–	–	–	–	–	–	–	–	14	41
1981	14	7	2	–	–	–	–	–	–	–	1	6	30
1978	7	8	2	–	–	–	–	–	–	–	2	1	20

월별 / 연도	눈 온 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982	12	5	–	–	–	–	–	–	–	–	–	8	25
1983	11	13	–	–	–	–	–	–	–	–	5	13	42
1984	13	14	3	–	–	–	–	–	–	–	–	12	42
1985	11	9	1	–	–	–	–	–	–	–	1	14	36
1986	14	9	2	–	–	–	–	–	–	–	–	1	26
1987	5	7	3	–	–	–	–	–	–	–	–	3	18
1988	10	9	6	–	–	–	–	–	–	–	4	8	37
1989	1	6	2	–	–	–	–	–	–	–	3	5	17
1990	10	1	–	–	–	–	–	–	–	–	–	12	23
1991													25
1992	7	8	–	–	–	–	–	–	–	–	1	7	23
1993	11	4	1	2	–	–	–	–	–	–	2	8	28
1994	8	7	7	–	–	–	–	–	–	–	5	8	46
1995	14	4	1	–	–	–	–	–	–	–	2	11	32
1996	7	15	–	–	–	–	–	–	–	–	1	6	29
1997	12	3	–	–	–	–	–	–	–	–	–	7	22
1998	9	1	1	–	–	–	–	–	–	–	2	3	16
1999	10	8	–	–	–	–	–	–	–	–	2	7	27
2000	10	10	–	–	–	–	–	–	–	–	–	5	25
2001	10	5	5	–	–	–	–	–	–	–	1	9	30
2002	10	1	–	–	–	–	–	–	–	–	2	8	21
2003	11	2	–	–	–	–	–	–	–	–	–	8	21
2004	13	5	4	–	–	–	–	–	–	–	–	3	25
2005	17	10	5	–	–	–	–	–	–	–	–	15	47
2006	4	6	6	–	–	–	–	–	–	–	–	5	21
2007	6	2	4	–	–	–	–	–	–	–	–	3	15
평 균	10.2	7.6	2.2	0.1	0.0	0.0	0.0	0.0	0.0	0.2	1.7	6.8	29.2

2. 눈

대기 중에서 결정화(結晶化)되어 녹지 않고 지면에 떨어지는 고체상태의 물인 눈은 한랭 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 내리게 된다. 특히 함평지역은 영광에서 목포 에 이르는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여 영광군과 함께 전남지방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 중 하나이다.

함평지방의 연평균 강설일수(降雪日數)는 29.2일로 여수 12.2일, 울산 7일, 강릉 24일, 광주 25일, 목포 28일 등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달은 1월(10.2일), 2월(7.6일), 12월(6.8일)의 순으로 되어 있고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1974년과 1993년의 4월에 1회와 2회씩의 눈이 내리기도 하였다. 눈 내린 날이 가장 많은 해는 1971년의 52일이며, 그 다음으로 2005년에 47일, 1983년과 1984년에 42일을 기록하였다.

최대적설량은 정확한 측정 기록은 없지만 1961년에 120㎝의 눈이 내려 함평 지역의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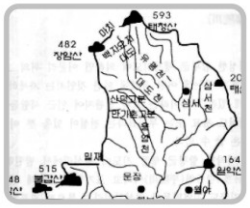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전해오며, 기록상으로는 1976년 12월에 37.5㎝를 기록한 적이 있고 최근인 1994년 2월에 24.8㎝과 2005년 12월에 30.0㎝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함평지역에 첫 눈이 내리는 시기는 11월 23일 경이며 끝나는 시기는 3월 13일 무렵이다.

〈표 21〉 연월별 최고적설량

단위:㎝

월별 / 연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全年) 최고적설
1971	-	-	-	-	-	-	-	-	-	-	-	-	11.3
1972	-	-	-	-	-	-	-	-	-	-	-	-	8.0
1973	-	-	-	-	-	-	-	-	-	-	-	-	17.3
1974	3	10	1	-	-	-	-	-	-	-	-	5	10.0
1975	-	-	-	-	-	-	-	-	-	-	-	-	17.0
1976	9.8	-	2.6	-	-	-	-	-	-	-	1.2	37.5	51.1
1977	16.1	21.8	7.6	-	-	-	-	-	-	-	-	1.4	21.8
1978	12.1	10.3	-	-	-	-	-	-	-	-	2.0	1.5	12.1
1979	12.1	9.7	-	-	-	-	-	-	-	-	3.8	18.3	18.3
1980	16.0	19.8	3.1	-	-	-	-	-	-	-	-	16.0	19.8
1981	6.3	12.5	1.5	-	-	-	-	-	-	-	-	5.1	12.5
1982	11.2	10.4	-	-	-	-	-	-	-	-	-	5.8	11.2
1983	9.1	9.2	-	-	-	-	-	-	-	-	1.7	14.0	14.0
1984	13.7	4.1	1.5	-	-	-	-	-	-	-	-	8.2	13.7
1985	5.3	2.9	-	-	-	-	-	-	-	-	-	18.4	18.4
1986	10.2	4.9	2.6	-	-	-	-	-	-	-	-	1.2	10.2
1987	13.4	6.9	1.0	-	-	-	-	-	-	-	-	6.5	13.4
1988	11.7	3.5	0.8	-	-	-	-	-	-	-	7.5	18.4	18.4
1989	0.5	6.0	-	-	-	-	-	-	-	-	10.0	-	10.0
1990	4.2	0.5	-	-	-	-	-	-	-	-	-	5.2	5.2
1991	3.6	9.9	-	-	-	-	-	-	-	-	-	5.4	9.9
1992	-	3.3	-	-	-	-	-	-	-	-	3.5	2.4	3.5
1993	11.2	1.8	0.3	-	-	-	-	-	-	-	1.8	2.9	11.2
1994	11.5	24.8	2.5	-	-	-	-	-	-	-	-	4.2	24.8
1995	11.5	9.9	4.0	-	-	-	-	-	-	-	-	4.2	11.5
1996	2.9	3.1	-	-	-	-	-	-	-	-	0.6	10.0	10.0
1997	5.6	0.8	-	-	-	-	-	-	-	-	-	10.5	10.5
1998	5.8	0.9	-	-	-	-	-	-	-	-	0.1	1.4	5.8
1999	17.2	6.1	-	-	-	-	-	-	-	-	-	13.5	17.2
2000	4.1	2.5	-	-	-	-	-	-	-	-	-	1.0	4.1
2001	4.0	4.1	1.6	-	-	-	-	-	-	-	-	3.2	4.1
2002	4.3	-	-	-	-	-	-	-	-	-	-	2.1	4.3
2003	6.7	2.0	-	-	-	-	-	-	-	-	-	2.5	6.7
2004	7.1	2.9	1.4	-	-	-	-	-	-	-	-	8.0	8.0
2005	3.4	3.8	2.1	-	-	-	-	-	-	-	-	30.0	30.0
2006	0.5	9.2	0.5	-	-	-	-	-	-	-	-	10.5	10.5
2007	0.9	5.1	0.2	-	-	-	-	-	-	-	-	2.9	5.1
평 균	7.7	6.7	1.0	0	0	0	0	0	0	0	1.0	8.4	12.9

제3장 인　　구 (人口)



제1절　함평군의 인구 변화

'인구'란 일정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사람의 총수를 말하는 것으로 지역의 인문경관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간은 사회·문화적 존재로서 모든 경제활동, 문화, 사회제도, 사상, 생활양식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까지도 일으키는 주체자이다. 이렇듯 인구가 한 사회나 지역을 형성하는 근원적 요소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구현상이란 그 지역이나 사회가 갖고 있는 자연·문화적·경제적 여건을 잘 반영해 준다.

함평군의 인구와 가구는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6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가 비단 함평군만의 현실은 아니지만 1990년대의 함평군의 인구는 최전성기 당시의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2000년대에도 감소세가 멈추지 않아 2006년과 2007년에는 4만 명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함평군의 인구변화를 시대별로 수집된 각종 자료를 통해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후 1960년대까지의 격동기, 그리고 60년대 후반의 인구유출시대가 그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의 증감과 구성 상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선시대

함평군의 가구수와 인구수를 최초로 언급한 자료는 세종실록지리지(1423년 간행)의 함평현조(條)로 총 호수는 315호며 인구는 1,608정(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가구와 인구의 기록은 나주목을 포함한 당시 전라도 24개 행정구역 중 호수는 무안현과 함께 8위, 인구로는 7위를 기록한 수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호구조사가 조세(租稅)나 부역(賦役)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인구가 누락되었을 것이며 조사의 대상이나 시기도 일정하지 않았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의 부정확성, 행정단위나 구역의 변화 또한 심했기 때문에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이 정확한 기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1,608정이라는 인구는 남정(男丁, 16~60세의 남자)들의 인구수로 여성이나, 노비, 유랑인 등이 제외된 것이며 또한 교통상의 어려움 때문에 누락된 수가 더

욱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영조조에 간행된 여지도서(1759년)에는 함평군의 호수와 인구가 7,512호에 남 9,904명, 여 12,072명, 총 21,976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에는 7,048호에 남 9,356명, 여 12,635명, 총 21,991명으로 나타난다. 당시에 간행된 기록들은 모두 비교적 상세히 호수와 인구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인구에 있어서도 남녀가 구별되고 면까지 나타나 있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의 기록들은 1895년 간행된 함평현읍지(표 23 참조)의 기록들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인구증감률이 1%를 약간 상회하고 있었다는 점과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할만한 수치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기록이 발견된다. 1864년 간행된 대동지지(大東地志)와 1871년 간행된 함평현읍지이다. 대동지지에는 함평현의 호수와 인구가 3,550호에 남녀의 구별없이 11,57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함평현읍지(1871년)에는 인구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호수만 1,912호로 기록되어 있다.

이같은 수치는 당시 행정구역의 조정도 없는 상태에서 이전의 기록과 이후의 기록을 살펴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기록들은 1862년 발생한 철종조의 민중봉기와 함께 조선조 말기의 불안한 정국과 연관지어 이해해야 할 것이다. 1862년 발생한 진주의 민중봉기는 봇물처럼 전국적으로 퍼져갔고 함평 또한 음력 4월 16일 거사가 발생했다. 이같은 불안한 사회적 현실과 함께 당시 정부의 가혹한 농민 수탈은 많은 유랑민의 배출을 부추겼을 것이며 정확한 호구조사를 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사되고 기록된 대동지지(1864년)와 함평현읍지(1871년)의 함평현에 관한 호구 기록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한편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의 기록과 1895년 간행된 《함평현읍지》의 기록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895년 《함평현읍지》 간행시 《호구총수》의 기록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조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조선시대 함평 지역의 남녀 인구 구성비를 보면 여자가 56%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한 여초(女超) 현상을 보이고 있다.

〈 표 23 〉 조선시대 함평현의 가구수와 인구

구분 / 면명		세종실록 지리지 (1423)			여지도서 (1759)			호구총수 (1789)			대동지지 (1864)			함평현읍지 (1871)			함평현읍지 (1895)		
		가구	남	여	가구	남	여	가구	남	여	가구	남	여	가구	남	여	가구	남	여
동현내면	東縣內面				691	910	1,190	667	875	995							667	875	995
평릉면	平陵面				514	739	918	493	740	860							498	740	860
식지면	食知面				620	736	1,083	544	772	973							544	772	973
갈동면	葛洞面				169	246	295	155	249	285							155	249	285
월악면	月岳面				223	363	403	226	335	346							226	335	346
대야면	大野面				452	679	788	313	451	730							313	451	730
해보면	海保面				698	1,061	1,330	745	1,054	1,299							745	1,054	1,299
대동면	大洞面				655	806	1,104	568	776	1,003							546	776	1,003
신광면	新光面				688	757	1,131	653	745	1,145							633	745	1,145
손불면	孫佛面				733	982	1,030	622	912	1,085							622	912	1,085
서현내면	西縣內面				416	414	711	399	561	734							399	561	734
영풍면	永豊面				281	515	456	294	483	622							294	483	622
다경면	多慶面				494	449	773	458	649	833							458	649	832
해제면	海際面				878	982	1,030	911	1,159	1,726							911	1,159	1,726
계		315	1,608		7,512	21,976		7,048	22,391		3,550	11,570		1,192	미기재		7,048	22,391	

2. 일제강점기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후 식민통치와 수탈을 위해 비교적 정확한 호구 및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1910년 이후 함평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1924년에 간행된 함평군지에는 호수(戶數)는 4,346호, 인구 69,25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어 1930년 간행된 속수 함평군지에는 14,157호 인구 77,46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을 볼 때 인구 수에 있어서는 인구성장률로 미루어 이해가 가나 1924년의 가호는 1906년의 가호를 그대로 기재하였음을 볼 수 있다.(표 24 참조) 이는 1925년 이전까지 일제가 실시한 인구센서스가 과소집계되었을 뿐더러 근대적 의미의 인구센서스는 1925년 이후부터 시행되었음을 상기해 볼 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와 함께 1930년 간행된 속수 함평군지에는 외국인 거주자도 포함되었는데 일본인 가호는 260호, 인구는 1,082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기타 외국인은 8호에 2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함평 지역에도 근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고 서구의 의술 및 의약이 보급되면서 사망율이 낮아지고 비교적 빠른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정책 및 태평양전쟁에 따른 징병·징용으로 말미암은 인구의 해외 유출은 인구 증가의 장애요소가 되기도 했다.

참고로 해방 당시 함평군의 인구는 모두 합해서 10만에 가까운 인구 수를 보였다.

3. 대한민국시대

1) 해방 후 격동기

1945년과 1955년 사이 한국은 사회적 혼란속에 인구의 변화 또한 심한 격동기를 맞는다. 해방과 함께 해외동포의 대거 귀환과 일본인들의 본국송환, 남북분단과 월남인구, 행정분할 등으로 인한 심한 이출입(移出入)현상,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명 대손실이 그것이다.

이 시기 함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의 편차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게되는데,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명의 손실은 인구의 증가를 크게 둔화시켰다. 그러나 1955년 이후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전후(戰後)에 흔히 나타나는 다산현상(多産現象)에 따른 높은 출생율로 인해 함평의 인구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1945~1960년은 가히 인구변화의 격동기라 할 수 있다. 8·15해방, 한국전쟁 등, 사회적 대변혁과 함께 출생과 사망에 심한 변화를 겪고 지역간 이동 또한 빈번해 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함평의 인구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확한 통계를 산출해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최고 성장기

1950년대부터 성장을 거듭한 함평의 인구는 산업화 시대인 1960년대 들어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서게 된다. 이미 1950년대 후반 10만을 돌파한 함평의 인구는 1965년 141,845명을 기록함으로써 최고의 성장년(成長年)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처럼 함평의 인구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기초산업으로서 농업을 중시하고 중점적인 개발을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농촌 땅값과 곡물 가격의 상승은 농촌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표 24〉 군·읍·면의 연도별 가구 및 인구현황

구분 / 연도	인구 밀도	가구수			인구수			함평읍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남	여
세종실록지리지	-	315	-	-	1,680	-	-	-	-	-
1871	-	1,912	-	-	-	-	-	-	-	-
1895	-	7,048	-	-	23,391	9,756	12,636	-	-	-
1906	-	4,346	-	-	-	-	-	-	-	-
1924	-	4,346	-	-	69,258	-	-	-	-	-
1930	-	14,157	-	-	77,464	-	-	-	-	-
1957	-	19,545	-	-	113,649	55,808	57,846	-	-	-
1958	299	19,722	-	-	115,374	56,957	58,417	-	-	-
1959	307	20,245	-	-	118,597	59,103	59,494	-	-	-
1960	329	22,217	18,449	3,768	127,039	63,204	63,835	-	-	-

구분 / 연도	인구 밀도	가구수			인구수			함평읍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남	여
1961	329	21,673	17,745	3,928	127,272	63,433	63,839	–	–	–
1962	346	22,176	17,745	3,928	131,991	66,223	65,768	23,314	11,642	11,672
1963	356	22,667	18,251	4,416	135,855	68,207	67,648	23,652	11,748	11,904
1964	366	22,709	18,966	3,713	139,547	70,478	69,069	24,760	12,401	12,359
1965	368	22,716	19,032	3,684	141,845	71,472	70,373	25,082	12,567	12,515
1966	360	23,363	18,862	4,501	138,818	69,654	69,164	24,786	12,488	12,296
1967	366	23,159	19,436	3,723	141,177	71,020	70,157	24,927	12,599	12,328
1968	356	22,628	20,137	2,491	137,337	68,985	68,352	24,094	12,104	11,990
1969	356	22,628	19,383	3,245	137,337	68,985	68,352	–	–	–
1970	330	22,545	19,050	3,495	127,240	63,112	64,128	22,830	11,434	11,396
1971	327	21,592	19,369	2,223	126,139	62,703	63,436	22,367	11,139	11,228
1972	332	21,452	19,188	2,264	128,197	64,100	64,097	22,914	11,475	11,439
1973	331	21,460	19,223	2,237	127,621	63,674	63,947	22,652	11,392	11,260
1974	308	21,274	19,223	2,051	126,636	63,576	63,060	22,445	11,367	11,078
1975	309	21,684	18,910	3,774	119,237	60,144	59,093	21,383	10,860	10,523
1976	306	21,234	18,647	2,587	118,157	59,188	58,869	21,184	10,755	10,429
1977	302	20,931	18,256	2,675	116,555	58,520	58,035	20,911	10,601	10,310
1978	297	20,656	17,829	2,827	114,913	57,313	57,600	20,571	10,362	10,209
1979	292	20,383	16,962	3,421	112,924	56,268	56,656	20,366	10,190	10,176
1980	249	20,001	15,404	4,597	96,344	48,064	48,280	18,732	9,342	9,390
1981	240	19,180	–	–	92,260	46,099	46,861	17,574	8,684	8,890
1982	236	18,899	–	–	91,417	45,526	45,891	17,798	8,787	9,011
1983	222	18,754	14,850	3,904	86,357	43,239	43,118	17,468	8,717	8,751
1984	219	18,561	14,360	4,201	85,004	42,372	42,632	17,250	8,510	8,740
1985	201	18,906	15,252	3,654	78,173	39,104	39,096	16,231	8,075	8,156
1986	195	18,342	14,961	3,381	75,720	37,703	38,107	15,536	7,718	7,818
1987	185	17,855	14,709	3,146	72,023	35,810	36,213	15,793	7,808	7,985
1988	179	17,411	14,317	3,094	69,550	34,835	34,715	15,540	7,972	7,568
1989	179	17,351	14,064	3,287	69,728	34,648	35,080	15,571	7,817	7,754
1990	162	17,304	12,304	5,000	63,081	31,368	31,713	13,373	6,477	6,896
1991	160	17,531	13,494	4,037	62,098	30,956	31,142	13,477	6,595	6,882
1992	150	17,312	11,406	5,906	58,215	28,979	29,236	12,949	6,374	6,575
1993	143	17,427	11,000	6,427	55,684	27,663	28,021	12,522	6,167	6,355
1994	136.6	17,170	10,666	6,504	52,819	26,278	26,541	12,104	5,931	6.173
1995	131.8	17,276	10,052	7,224	51,703	25,644	26,059	11,715	5,711	6,004
1996	126.8	17,220	10,210	7,010	49,733	24,670	25,063	11,356	5,530	5,826
1997	123.0	17,309	9,979	7,330	48,304	23,936	24,368	11,138	5,442	5,696
1998	129.6	18,372	9,490	8,882	50,929	25,263	25,666	12,182	5,967	6,215
1999	119.5	17,528	8,877	8,651	46,929	23,418	23,511	10,967	5,375	5,592
2000	115.2	17,398	9,555	7,843	45,369	22,545	22,824	10,669	5,246	5,423
2001	111.2	17,255	8,889	8,366	43,667	21,642	22,025	10,335	5,066	5,269
2002	107.2	17,114	8,337	8,777	42,123	20,792	21,331	10,306	5,037	5,269
2003	107.8	17,312	8,258	9,054	42,338	20,813	21,525	10,646	5,122	5,524
2004	103.1	17,153	7,921	9,232	40,486	20,013	20,473	10,124	4,931	5,193
2005	103.0	17,553	7,680	9,873	40,437	19,992	20,445	10,167	4,959	5,208
2006	99.2	17,412	7,612	9,800	38,956	19,288	19,668	9,719	4,747	4,972
2007	97.8	17,434	7,177	10,257	38,502	19,054	19,348	9,879	4,909	5,070

구분 / 연도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세종실록 지리지	–	–	–	–	–	–	–	–	–	–	–	–
1871	–	–	–	–	–	–	–	–	–	–	–	–
1895	–	–	–	–	–	–	–	–	–	–	–	–
1906	–	–	–	–	–	–	–	–	–	–	–	–
1924	–	–	–	–	–	–	–	–	–	–	–	–
1930	–	–	–	–	–	–	–	–	–	–	–	–
1957	–	–	–	–	–	–	–	–	–	–	–	–
1958	–	–	–	–	–	–	–	–	–	–	–	–
1959	–	–	–	–	–	–	–	–	–	–	–	–
1960	–	–	–	–	–	–	–	–	–	–	–	–
1961	–	–	–	–	–	–	–	–	–	–	–	–
1962	16,043	8,043	8,000	10,266	5,057	5,209	21,170	10,826	10,344	9,393	4,757	4,636
1963	16,411	8,254	8,157	10,499	5,216	5,283	22,275	11,349	10,926	9,892	5,017	4,875
1964	16,697	8,463	8,234	10,175	5,345	5,375	23,011	11,705	11,306	10,036	5,100	4,936
1965	17,111	8,655	8,446	10,944	5,461	5,483	23,370	11,869	11,501	10,144	5,090	5,054
1966	17,474	8,870	8,604	10,946	5,417	5,529	22,257	11,272	10,985	9,754	4,860	4,894
1967	17,718	8,969	8,749	10,894	5,436	5,458	23,199	11,764	11,435	9,963	4,979	4,984
1968	17,406	8,757	8,649	10,773	5,322	5,451	21,973	11,169	10,804	9,713	4,871	4,482
1969	–	–	–	–	–	–	–	–	–	–	–	–
1970	16,332	8,164	8,168	9,959	4,869	5,090	20,688	10,313	10,375	8,911	4,410	4,501
1971	16,372	8,148	8,224	9,891	4,996	4,995	20,362	10,145	10,217	8,760	4,363	4,397
1972	16,667	8,415	8,252	10,293	5,118	5,175	20,613	10,308	10,305	9,044	4,567	4,447
1973	16,695	8,417	8,278	10,266	5,084	5,182	17,295	8,632	8,663	8,915	4,484	4,431
1974	16,600	8,430	8,170	10,089	5,022	5,067	17,143	8,618	8,525	8,896	4,472	4,424
1975	15,622	7,960	7,622	9,423	4,726	4,697	16,026	8,613	7,863	8,275	4,181	4,094
1976	15,596	7,945	7,651	9,397	4,651	4,746	15,086	7,864	7,942	8,176	4,102	4,074
1977	15,590	7,876	7,714	9,265	4,608	4,657	15,577	7,756	7,821	8,046	4,044	4,002
1978	15,354	7,753	7,601	9,114	4,506	4,608	15,313	7,594	7,719	7,991	3,988	4,003
1979	15,116	7,633	7,483	8,977	4,447	4,530	14,738	7,334	7,404	7,860	3,888	3,972
1980	12,676	6,427	6,249	6,989	3,482	3,507	12,736	6,323	6,413	6,692	3,359	4,842
1981	12,585	6,367	6,218	6,763	3,330	3,433	12,797	6,312	6,485	6,336	3,170	3,166
1982	12,362	6,224	6,138	6,785	3,367	3,418	12,769	6,409	6,360	6,274	3,147	3,127
1983	11,190	5,709	5,483	6,096	3,203	3,073	12,339	6,213	6,126	5,790	2,922	2,868
1984	11,107	5,606	5,501	6,048	2,981	3,067	12,110	6,087	6,023	5,736	2,861	2,875
1985	10,172	5,230	4,942	5,358	2,659	2,699	10,696	5,308	5,388	5,310	2,697	2,613
1986	9,926	5,008	4,918	5,026	2,463	2,563	10,422	5,157	5,265	5,169	2,571	2,598
1987	9,200	4,696	4,504	4,690	2,318	2,372	9,574	4,707	4,867	4,918	2,464	2,454
1988	8,823	4,474	4,349	4,463	2,202	2,267	9,198	4,494	4,704	4,667	2,303	2,364
1989	8,776	4,345	4,431	4,457	2,230	2,227	9,213	4,585	4,628	4,691	2,310	2,318
1990	8,416	4,290	4,126	3,957	1,980	1,977	8,252	4,140	4,112	4,592	2,319	2,273
1991	8,116	4,111	4,005	4,154	2,049	2,105	8,214	4,179	4,035	4,064	2,022	2,042
1992	7,500	3,777	3,723	3,756	1,853	1,903	7,851	3,950	3,901	3,829	1,917	1,912
1993	7,004	3,519	3,525	3,522	1,738	1,784	7,555	3,782	3,773	3,658	1,833	1,825
1994	6,600	3,299	3,301	3,317	1,647	1,670	7,219	3,614	3,605	3,484	1,742	1,742
1995	6,339	3,169	3,170	3,293	1,618	1,675	7,248	3,616	3,632	3,415	1,687	1,726
1996	6,063	3,007	3,056	3,060	1,518	1,542	6,836	3,417	3,419	3,256	1,592	1,664
1997	5,819	2,875	2,944	3,070	1,515	1,555	6,613	3,299	3,314	3,195	1,561	1,634

구분 / 연도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8	5,960	2,970	2,990	3,253	1,612	1,641	6,818	3,416	3,402	3,349	1,651	1,698
1999	5,577	2,775	2,802	2,899	1,450	1,449	6,430	3,276	3,154	3,149	1,550	1,599
2000	5,381	2,672	2,709	2,749	1,354	1,395	6,200	3,118	3,082	3,000	1,480	1,520
2001	5,161	2,557	2,604	2,635	1,303	1,332	5,889	2,937	2,952	2,917	1,425	1,492
2002	4,898	2,390	2,508	2,545	1,250	1,295	5,585	2,783	2,802	2,775	1,353	1,422
2003	4,756	2,327	2,429	2,554	1,248	1,306	5,445	2,701	2,744	2,771	1,350	1,421
2004	4,602	2,243	2,359	2,359	1,169	1,190	5,277	2,643	2,634	2,654	1,290	1,364
2005	4,592	2,238	2,354	2,368	1,164	1,204	5,300	2,621	2,679	2,640	1,286	1,354
2006	4,457	2,170	2,287	2,256	1,104	1,152	5,163	2,559	2,604	2,519	1,223	1,296
2007	4,315	2,113	2,202	2,178	1,076	1,102	4,979	2,480	2,499	2,485	1,204	1,281

구분 / 연도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세종실록 지리지	–	–	–	–	–	–	–	–	–	–	–	–
1871	–	–	–	–	–	–	–	–	–	–	–	–
1895	–	–	–	–	–	–	–	–	–	–	–	–
1906	–	–	–	–	–	–	–	–	–	–	–	–
1924	–	–	–	–	–	–	–	–	–	–	–	–
1930	–	–	–	–	–	–	–	–	–	–	–	–
1957	–	–	–	–	–	–	–	–	–	–	–	–
1958	–	–	–	–	–	–	–	–	–	–	–	–
1959	–	–	–	–	–	–	–	–	–	–	–	–
1960	–	–	–	–	–	–	–	–	–	–	–	–
1961	–	–	–	–	–	–	–	–	–	–	–	–
1962	10,863	5,301	5,382	16,612	8,313	8,229	10,568	5,269	5,299	13,942	7,015	6,927
1963	10,957	5,511	5,446	16,994	8,520	8,474	10,756	5,341	5,415	14,419	7,251	7,168
1964	11,059	5,604	5,455	17,419	8,759	8,660	11,129	5,652	5,477	14,721	7,449	7,272
1965	11,225	5,683	5,542	17,688	8,898	8,790	11,264	5,618	5,646	15,017	7,621	7,396
1966	10,989	5,494	5,495	16,761	8,416	8,365	10,973	5,463	5,510	14,852	7,368	7,484
1967	11,185	5,669	5,516	16,955	8,506	8,449	11,220	5,538	5,682	15,116	7,560	7,556
1968	11,023	5,598	5,427	16,726	8,400	8,326	10,870	5,364	5,506	14,757	7,400	7,357
1969	–	–	–	–	–	–	–	–	–	–	–	–
1970	10,189	5,037	5,152	14,834	7,314	7,520	9,850	4,855	4,995	13,641	6,750	6,931
1971	10,145	5,031	5,114	14,503	7,183	7,320	10,144	5,012	5,132	13,595	6,786	6,089
1972	10,293	5,143	5,950	14,661	7,321	7,340	10,171	5,062	5,119	13,541	6,701	6,840
1973	13,448	6,644	6,286	14,421	7,198	7,223	10,235	5,959	5,176	13,694	6,764	6,930
1974	13,202	6,573	6,629	14,203	7,118	7,086	10,257	5,087	5,170	13,801	6,889	6,912
1975	12,341	6,199	6,172	13,453	6,750	6,703	9,571	4,770	4,801	13,134	6,566	6,578
1976	12,362	6,108	6,254	13,267	6,644	6,623	9,418	4,640	4,778	12,951	6,479	6,472
1977	12,209	6,056	6,153	12,895	6,449	6,446	9,276	4,695	4,581	12,786	6,435	6,351
1978	11,994	5,948	6,046	12,812	6,390	6,422	9,230	4,556	4,674	12,534	6,216	6,318
1979	11,764	5,805	5,959	12,652	6,305	6,347	9,128	4,511	4,617	12,323	6,125	6,168
1980	9,642	4,800	4,842	10,178	5,042	5,136	7,955	3,941	4,014	10,744	5,348	5,396
1981	8,911	4,438	4,553	9,497	4,676	4,821	7,941	3,929	4,012	10,476	5,193	5,283
1982	8,540	4,233	4,307	9,105	4,460	4,555	7,704	3,857	3,847	10,170	5,042	5,128

구분 / 연도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83	8,031	3,946	4,055	8,158	4,045	4,113	7,339	3,642	3,697	9,946	4,994	4,952
1984	7,875	3,883	3,992	8,136	4,012	4,124	6,999	3,501	3,478	9,743	4,931	4,812
1985	7,058	3,512	3,545	7,637	3,737	3900	6,444	3,190	3,254	9,267	4,695	4,572
1986	6,740	3,308	3,432	7,479	3,700	3,779	6,502	3,253	3,249	8,920	4,525	4,395
1987	6,558	3,191	3,367	7,011	3,432	3,579	6,043	3,026	3,017	8,236	4,168	4,068
1988	6,337	3,047	3,290	6,711	3,356	3,355	5,862	2,935	2,927	7,943	4,052	3,891
1989	6,301	3,025	3,276	6,682	3,289	3,393	5,931	2,934	2,997	8,106	4,113	3,993
1990	6,032	2,008	3,024	5,330	2,539	2,791	5,505	2,741	2,764	7,624	3,874	3,750
1991	5,601	2,758	2,843	5,827	2,880	2,947	5,215	2,609	2,606	7,430	3,753	3,667
1992	5,252	2,752	2,680	5,406	2,659	2,747	4,822	2,403	2,419	6,850	3,474	3,376
1993	5,209	2,467	2,562	5,181	2,546	2,635	4,596	2,275	2,321	6,577	3,336	3,241
1994	4,747	2,327	2,420	4,801	2,381	2,420	4,353	2,161	2,192	9,194	3,176	3,176
1995	4,674	2,286	2,388	4,671	2,300	2,371	4,270	2,126	2,144	6,078	3,131	2,947
1996	4,450	2,187	2,263	4,554	2,225	2,329	4,226	2,119	2,107	5,875	3,034	2,841
1997	4,328	2,115	2,213	4,373	2,135	2,238	4,094	2,048	2,046	5,674	2,946	2,728
1998	4,620	2,235	2,385	4,525	2,197	2,328	4,365	2,175	2,190	5,857	3,040	2,817
1999	4,224	2,073	2,151	4,203	2,043	2,160	4,029	2,031	1,998	5,451	2,845	2,606
2000	4,118	2,016	2,102	4,071	1,955	2,116	3,927	1,965	1,962	5,254	2,739	2,515
2001	3,962	1,943	2,019	3,976	1,898	2,078	3,726	1,885	1,841	5,066	2,628	2,438
2002	3,760	1,822	1,938	3,848	1,843	2,005	3,551	1,792	1,759	4,855	2,522	2,333
2003	3,782	1,841	1,941	3,959	1,898	2,060	3,603	1,820	1,783	4,822	2,505	2,317
2004	3,648	1,779	1,869	3,716	1,818	1,898	3,396	1,719	1,677	4,710	2,421	2,289
2005	3,656	1,776	1,880	3,670	1,797	1,873	3,342	1,709	1,633	4,702	2,442	2,260
2006	3,512	1,717	1,795	3,538	1,745	1,793	3,256	1,660	1,596	4,536	2,363	2,173
2007	3,405	1,669	1,736	3,458	1,721	1,737	3,230	1,646	1,584	4,473	2,336	2,137

3) 전출 감소기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함평군의 인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의 진행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인다. 이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정책과 인구억제정책에 의한 낮은 출산율과 공업화, 도시화에 따른 이농향도(離農向都)현상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시기는 대도시 중심의 인구증가현상이 뚜렷해진 시기로 전통적인 농업중심지인 함평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인구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표 25〉에서 보듯이 1960년 당시 12만 7천여명이던 인구가 5년 후에는 14만 2천여 명까지 증가했다가 70년에는 12만 7천여 명으로 감소했고, 이후 계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80년에는 10만명 이하로 감소했으며 1996년에는 다시 5만명 이하 수준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4만명 이하로까지 감소하는 상태가 되었고, 2007년에는 다시 38,502명의 최저 수준의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 수에서도 비슷한 변화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965년 당시 22,716호에 이르던 가구가 70년에는 22,545호로 감소하고 80년에는 2만호까지 줄었다. 2002년에는 17,114호로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최근에 들어서 소폭 증가하여 2007년에는 17,434호의 가구 수를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구의 감소속도는 인구의 감소

속도보다 완만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진행된 출생률 저하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원인은 주로 세대 구성원의 일부만이 도시지역으로 전출한데 기인한다. 가구당 인구가 6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07년에 2.2명까지 감소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제2절 인구분포

2007년 현재 함평지역의 인구는 약 25.7%인 9,879명이 함평읍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나머지 74.3%가 8개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함평읍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함평읍의 인구밀도는 245.4/㎢이다. 다음으로 호남의 중심지인 광주광역시와 접경하고 있는 월야면이 129.7/㎢에 이르고 군의 남부에 위치한 엄다면의 인구밀도는 106.6/㎢,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인 학교면은 107.2/㎢을 보인다.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신광면으로서 53.0/㎢에 불과하며 대동면과 나산면 또한 겨우 60/㎢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도시지역 및 평야지대의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산악이 위치하는 지역의 그것은 비교적 낮다. 군 전체의 인구밀도를 보면 1965년에는 368/㎢명이던 것이 2007년 현재 97.8/㎢명으로 낮아졌다.

한편 가구의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함평읍의 가구 수가 4,164호로 가장 많고 학교면의 그것이 2,234호에 달하며 최소 규모의 가구 수를 보이는 지역은 신광면의 1,100호이다.

〈표 26〉 읍·면·리의 가구와 인구 (1965년 : 함평군의 인구가 가장 많던 해)

구분 / 읍면리	1965년 가구수	1965년 인 구			1965년 대비증감 ( ) 내 %	2007년 인 구			2007년 가구수
		남	여	계		계	남	여	
함 평 군	22,716	71,472	70,373	141,845	△103,443(72.93)	38,402	19,054	19,348	17,434
함 평 읍	4,046	12,567	12,515	25,082	△15,203(60.61)	9,879	4,809	5,070	4,164
함 평 1 (산성,도화)						263	120	143	133
〃 2 (대사,빙현)						504	245	259	208
함평리계 (里界)	441	1,458	1,490	2,948	△2,181(73.99)	767	365	402	341
기 각 1						445	207	238	194
〃 2						540	261	279	225
〃 3						284	135	149	126
〃 4						376	188	188	163
〃 5						303	152	151	139
기각리계	776	2,423	2,401	4,824	△2,876(59.62)	1,948	943	1,005	847
내 교 1						362	184	178	139
〃 2						416	206	210	192
〃 3						486	221	265	193
〃 4						610	301	309	250
〃 5						127	65	62	54
〃 6						609	295	314	181
〃 7						911	437	474	307
내교리계	519	1,721	1,579	3,300	221(6.70)	3,521	1,709	1,812	1,316

구분 / 읍면리	1965년 가구수	1965년 인구 남	1965년 인구 여	1965년 인구 계	1965년 대비증감 ( ) 내 %	2007년 인구 계	2007년 인구 남	2007년 인구 여	2007년 가구수
수 호 1						151	78	73	77
〃 2						118	56	62	59
〃 3						38	19	19	21
수호리계	260	815	805	1,620	△1,313(81.05)	307	153	154	157
성 남 1						97	53	44	37
〃 2						134	63	71	64
성남리계	181	519	522	1,041	△810(77.81)	231	116	115	101
자 풍 1						94	47	47	45
자 풍 2						94	43	51	44
자풍리계	175	530	532	1,602	△1,414(88.27)	188	90	98	89
만 흥 1						176	84	92	65
〃 2						66	33	33	31
만흥리계	162	194	489	983	△741(75.38)	242	117	125	96
장 교 1						131	63	68	68
〃 2						119	59	60	61
〃 3						105	56	49	44
장교리계	207	608	661	1,269	△914(72.03)	355	178	177	173
옥 산 1						159	75	84	69
〃 2						156	82	74	67
옥산리계	170	582	544	1,126	△811(72.03)	315	157	158	136
가동리(가동)	94	325	312	637	△468(73.47)	169	88	81	81
석 성 1						183	86	97	90
〃 2						302	140	162	123
〃 3						236	124	112	99
석성리계	397	1.124	1,171	2,295	△1,574(68.58)	721	350	371	312
장 년 1						136	73	63	49
〃 2						128	67	61	65
〃 3						107	62	45	54
장년리계	203	603	619	1,222	△851(69.64)	371	202	169	168
진 양 1						222	107	115	95
〃 2						206	96	110	95
진양리계	252	726	757	1,483	△1,055(71.14)	428	203	225	190
대 덕 1						155	64	91	74
〃 2						161	74	87	83
대덕리계	209	639	633	1,272	△956(75.16)	316	138	178	157
손 불 면	2,653	8,656	8,446	17,111	△12,796(74.78)	4,315	2,113	2,202	2,003
학 산 1						134	67	67	60
〃 2						111	58	53	58
〃 3						135	64	71	57
〃 4						128	72	56	64
학산리계	210	617	611	1,228	△720(58.63)	508	261	247	239
양 재 1						104	50	54	50
〃 2						75	43	32	38
양재리계	140	430	428	858	△679(79.14)	179	93	86	88
북 성 리	124	395	368	763	△634(83.09)	129	61	68	69
월 천 1						154	73	81	56
〃 2						184	93	91	77
〃 3						123	57	66	54
〃 4						149	76	73	69
〃 5						156	82	74	73
월천리계	369	1,254	1,226	2,520	△1,754(69.60)	766	381	385	329

구분 / 읍면리	1965년 가구수	1965년 인구 남	여	계	1965년 대비증감 ( ) 내 %	2007년 인구 계	남	여	2007년 가구수
대 전 1						185	91	94	102
〃 2						356	174	182	149
대전리계	211	719	719	1,348	△807(59.87)	541	265	276	251
동 암 1						83	37	46	44
〃 2						42	20	22	20
동암리계	179	617	612	1,229	△1,104(89.83)	125	57	68	64
죽 장 1						110	60	50	58
〃 2						78	39	39	40
죽장리계	190	581	589	1,410	△1,222(86.67)	188	99	89	98
죽 암 1						90	41	49	47
〃 2						65	33	32	36
죽암리계	120	441	440	881	△726(82.41)	155	74	81	83
궁 산 1						165	78	87	77
〃 2						68	32	36	34
〃 3						53	24	29	28
〃 4						124	58	66	52
궁산리계	320	1,069	1,051	2,140	△1,730(80.84)	410	192	218	191
석 창 1						138	66	72	49
〃 2						134	64	70	64
〃 3						137	61	76	62
〃 4						79	36	43	29
석창리계	280	915	867	1,782	△1,294(72.62)	488	227	261	204
산 남 1						172	82	90	79
〃 2						141	67	74	70
〃 3						137	64	73	68
〃 4						116	65	51	53
〃 5						162	78	84	73
〃 6						98	47	51	44
산남리계	510	1,607	1,525	3,132	△2,306(73.63)	826	403	423	387
계 천 1						101	52	49	48
〃 2						84	40	44	47
계천리계	121	354	385	739	△554(74.97)	185	92	93	95
월 암 1						105	50	55	60
〃 2						215	107	108	103
〃 3									
월암리계	199	555	581	1,136	△816(71.83)	320	157	163	163
가 덕 1						58	29	29	32
〃 2						96	47	49	50
가덕리계	127	408	415	823	△669(81.29)	154	76	78	82
유 천 1						60	28	32	29
〃 2						66	33	33	36
〃 3						62	28	34	32
유천리계	158	511	536	1,047	△859(82.04)	188	89	99	97
학 교 면	3,637	11,869	11,501	23,370	△18,391(78.70)	4,979	2,480	2,499	2,234
복 천 1						74	36	38	32
〃 2						78	39	39	37
〃 3						58	26	32	26
복천리계	216	676	641	1,317	△1,107(84.06)	210	101	109	95
고 막 1						150	78	72	82
〃 2						48	22	26	24
고막리계	186	558	571	1,129	△931(82.46)	198	100	98	106

구분 / 읍면리	1965년 가구수	1965년 인구 남	1965년 인구 여	1965년 인구 계	1965년 대비증감 ( ) 내 %	2007년 인구 계	2007년 인구 남	2007년 인구 여	2007년 가구수
석 정 1						91	41	50	51
〃 2						89	43	46	46
석정리계	174	631	570	1,201	△1,021(85.01)	180	84	96	97
금 송 1						92	41	51	47
〃 2						167	69	98	97
금송리계	265	788	803	1,591	△1,332(83.72)	259	110	149	144
월 호 1						136	68	68	62
〃 2						106	45	61	61
월호리계	190	652	634	1,286	△1,044(81.18)	242	113	129	123
곡 창 1						172	83	89	74
〃 2						98	56	42	58
곡창리계	187	626	569	1,196	△926(77.43)	270	139	131	132
학 교 1						158	77	81	76
〃 2						131	65	66	61
〃 3						87	45	42	44
〃 4						195	99	96	82
〃 5						248	124	124	72
〃 6						154	81	73	70
〃 7						96	54	42	39
〃 8						146	65	81	71
학교리계	632	2,230	2,117	4,347	△3,132(72.05)	1,215	610	605	515
사 거 1						304	154	150	129
〃 2						211	104	107	88
〃 3						435	213	222	159
〃 4						180	96	84	76
사거리계	371	1,174	1,113	2,287	△1,157(50.59)	1,130	567	563	452
월 산 1						205	93	112	91
〃 2						227	119	108	97
〃 3						74	40	34	44
월산리계	287	882	918	1,800	△1,294(71.89)	506	252	254	232
삼 정 1						76	37	39	36
〃 2						102	48	54	56
삼정리계					178	178	85	93	92
영 흥 1						114	50	64	67
〃 2						122	59	63	58
영흥리계	172	502	536	1,038	△802(77.26)	236	109	127	125
학 야 1						143	71	72	63
〃 2						70	36	34	33
학야리계	116	415	401	816	△603(73.90)	213	107	106	96
성 천 1						112	53	59	60
〃 2						103	46	57	53
성천리계	211	680	672	1,352	△1,137(84.10)	215	99	116	113
화 양 1						79	37	42	48
〃 2						104	47	57	54
〃 3						46	22	24	25
화양리계	165	574	547	1,121	△892(79.57)	229	106	123	127
대 동 면	1,842	5,683	5,542	11,225	△7,820(69.67)	3,405	1,669	1,736	1,572
상 옥 리	155	519	486	1,006	△828(82.31)	178	86	92	90
금 곡 1						71	38	33	35
〃 2						75	34	41	41
금곡리계	138	452	433	885	△739(83.50)	146	72	74	76

구분 / 읍면리	1965년 가구수	1965년 인구 남	1965년 인구 여	1965년 인구 계	1965년 대비증감 ( ) 내 %	2007년 인구 계	2007년 인구 남	2007년 인구 여	2007년 가구수
월송리	100	337	345	682	△553(81.09)	129	57	72	60
백호1						123	60	63	57
〃 2						123	67	56	58
〃 3						54	26	28	26
백호리계	230	717	704	1,421	△1,121(78.89)	300	153	147	141
강운1						77	42	35	44
〃 2						96	45	51	42
〃 3						86	42	44	45
〃 4						92	50	42	41
강운리계	213	693	638	1,331	△980(73.63)	351	179	172	172
향교1						216	112	104	91
〃 2						236	109	127	103
〃 3						121	48	73	54
〃 4						286	138	148	128
향교리계	387	1,193	1,201	2,394	△1,535(64.12)	859	407	452	376
덕산1						125	62	63	53
〃 2						59	27	32	35
〃 3						150	71	79	66
〃 4						56	29	27	24
덕산리계	278	826	797	1,623	△1,233(75.97)	390	189	201	178
용성1						103	47	56	47
〃 2						68	38	30	27
〃 3						79	43	36	36
〃 4						139	65	74	62
〃 5						68	38	30	29
용성리계	340	1,054	1,005	2,069	△1,612(77.91)	457	231	226	201
운교1						130	63	67	53
〃 2						84	42	42	32
운교리계	131	398	404	802	△588(73.32)	214	105	109	85
금산1						138	67	71	74
〃 2						110	51	59	47
금산리계	161	526	520	1,046	△798(76.29)	248	118	130	121
서호리	127	398	384	782	△721(92.20)	61	36	25	31
연암리	205	595	593	1,188	△1,116(93.94)	72	36	36	41
나산면	2,839	8,898	8,790	17,688	△14,230(80.45)	3,458	1,721	1,737	1,668
삼축1						255	127	128	115
〃 2						155	69	86	63
〃 3						346	169	177	153
〃 4						86	41	45	39
삼축리계	405	1,276	1,248	2,524	△1,682(66.64)	842	406	436	370
수하1						128	61	67	65
〃 2						104	50	54	51
수하리계					232	232	111	121	116
나산1						152	74	78	74
〃 2						77	38	39	38
나산리계	193	581	589	1,170	△941(80.43)	229	112	117	112
신평리	93	319	332	651	△593(91.09)	58	27	31	27
송암1						50	25	25	27
〃 2						49	30	19	27
송암리계	154	482	465	947	△848(89.55)	99	55	44	54
이문1						76	35	41	39

구분 / 읍면리	1965년 가구수	1965년 인구 남	1965년 인구 여	1965년 인구 계	1965년 대비증감 ( ) 내 %	2007년 인구 계	2007년 인구 남	2007년 인구 여	2007년 가구수
이 문 2						69	36	33	34
〃 3						78	37	41	38
이문리계	234	725	700	1,425	△1,202(84.35)	223	108	115	111
수 상 1						131	65	66	75
〃 2						47	22	25	27
수상리계	206	577	590	1,167	△989(84.75)	178	87	91	102
용 두 1						177	81	96	72
〃 2						95	48	47	51
〃 3						78	36	42	45
용두리계	234	741	797	1,538	△1,188(77.24)	350	165	185	168
우 치 1						133	77	56	65
〃 2						73	36	37	32
우치리계	193	580	566	1,146	△940(82.02)	206	113	93	97
초 포 1						138	77	61	59
〃 2						127	65	62	56
초포리계	187	607	578	1,185	△920(77.64)	265	142	123	115
월 봉 1						165	82	83	83
〃 2						110	53	57	47
월봉리계	247	789	799	1,588	△1,313(82.68)	275	135	140	130
원 선 리	108	330	304	634	△564(88.96)	70	41	29	35
구 산 1						109	54	55	54
〃 2						143	66	77	72
구산리계	265	826	780	1,086	△834(76.80)	252	120	132	126
덕 림 리	114	364	368	732	△554(75.68)	178	99	79	105
해 보 면	1,925	5,618	5,646	11,264	△8,034(71.33)	3,230	1,646	1,584	1,518
상 곡 1						171	82	89	83
〃 2						101	57	44	46
상곡리계	182	515	524	1,039	△767(73.82)	272	139	133	129
대 창 1						113	53	60	54
〃 2						87	47	40	36
대창리계	168	467	513	980	△780(79.59)	200	100	100	90
용 산 1						235	121	114	104
〃 2						75	40	35	37
〃 3						79	38	41	45
〃 4						100	51	49	49
용산리계	234	792	843	1,635	△1,146(70.09)	489	250	239	235
문 장 1						48	20	28	32
〃 2						75	40	35	40
〃 3						97	45	52	45
〃 4						184	87	97	81
문장리계	219	652	679	1,331	△927(69.65)	404	192	212	198
금 덕 1						576	311	265	244
〃 2						205	96	109	99
〃 3						138	76	62	70
〃 4						117	66	51	46
〃 5						133	70	63	58
금덕리계	424	1,240	1,217	2,457	△1,288(52.42)	1,169	619	550	517
해 보 1						96	51	45	37
〃 2						163	79	84	68
〃 3						84	37	47	52
해보리계	245	744	709	1,453	△1,110(76.39)	343	167	176	157

구분 / 읍면리	1965년 가구수	1965년 인구 남	1965년 인구 여	1965년 인구 계	1965년 대비증감 ( ) 내 %	2007년 인구 계	2007년 인구 남	2007년 인구 여	2007년 가구수
금계리	50	144	141	285	△169(59.30)	116	55	61	72
산내리	111	351	328	679	△616(90.72)	63	33	30	24
광암리	89	238	250	488	△403(82.58)	85	44	41	48
대각1						41	26	15	24
〃 2						48	21	27	24
대각리계	153	475	442	917	△828(90.29)	89	47	42	48
월야면	2,422	7,621	7,396	15,107	△10,634(70.39)	4,473	2,336	2,137	2,014
용월1						148	76	72	64
〃 2						120	60	60	57
〃 3						88	48	40	35
용월리계	204	690	672	1,362	△1,006(73.86)	356	184	172	156
양정1						167	98	69	59
〃 2						145	79	66	67
양정리계	158	535	520	1,055	△743(70.43)	312	177	135	126
영월1						62	30	32	33
〃 2						102	51	51	56
영월리계	109	366	340	706	△542(76.77)	164	81	83	89
외치1						250	150	100	101
〃 2						194	107	87	86
외치리계	194	616	562	1,178	△734(62.31)	444	257	187	187
월야1						368	191	177	151
〃 2						172	90	82	73
〃 3						218	118	100	114
〃 4						137	60	77	65
〃 5						355	184	171	136
월야리계	395	1,178	1,100	2,278	△1,028(45.13)	1,250	643	607	539
월악1						159	77	82	78
〃 2						120	67	53	52
〃 3						117	62	55	54
월악리계	258	805	806	1,161	△765(65.89)	396	206	190	184
계림1						155	81	74	72
〃 2						93	43	50	47
계림리계	162	459	511	970	△722(74.43)	248	124	124	119
예덕1						94	49	45	51
〃 2						120	72	48	59
예덕리계	182	540	512	1,052	△838(79.66)	214	121	93	110
정산1						126	62	64	58
〃 2						159	80	79	61
〃 3						142	72	70	61
〃 4						79	41	38	38
정산리계	292	940	905	1,845	△1,339(72.58)	506	255	251	218
용암1						111	62	49	60
〃 2						113	57	56	50
용암리계	196	591	582	1,173	△949(80.90)	224	119	105	110
용정1						72	33	39	31
〃 2						60	30	30	31
용정리계	112	378	361	739	△607(82.14)	132	63	69	62
월계1						113	52	61	59
〃 2						114	54	60	55
월계리계	160	523	525	1,048	△821(78.34)	227	106	121	114

제3절 인구 구성

함평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 60세 이상의 인구비는 전국이 13.9%인데 함평이 34.8%이고, 15~59세 인구의 구성비는 전국이 68.0%인데 함평이 53.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세 이하 유·소년층 인구의 구성비는 전국이 18.1%인데 함평이 12.1%로 나타나고 있어 이 역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70년대 이후 함평군의 인구는 성별·연령별 구조가 뚜렷하게 변화되어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례(一例)가 되고 있다. 1970년 당시에는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인구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1975년부터는 인구비율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30~40대의 구성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80년에 들어서면서 이같은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25~40세의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40대이후의 인구비율이 급증한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농촌지역에서 전형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인구피라밋 형태인 표주박형으로 변화되었다. 즉 인구의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농촌 인구의 여성화 경향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유소년층의 인구를 제외한 청장년층 인구나 노년층 인구는 70년대 중반 이후 항상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최근에 가까울수록 이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 특히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20대 후반의 연령층에서는 남녀 인구의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보인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인구구성에 나타난 성별 구조에 특징은 유소년 연령 계층의 남녀 균형, 청년 계층의 남초현상, 장년·노년층의 여초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연령이 고령화 될수록 여초 현상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같은 인구성의 요인이 되는 주요 원인은 청소년층 여성들의 도시 전출 및 남녀간의 평균 수명의 불균형 그리고 농업적 생산 기반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점과 도시 농촌간의 생활안정성 격차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에 따른 농업기반의 취약은 전출 인구의 증가와 인구 구성비의 고령화, 여성화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제4절 인구의 동태와 인구이동

오늘날의 인구는 개방적 성격이 강하므로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요인보다는 전출과 전입에 의한 사회적 인구 이동에 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

먼저 호적을 중심으로 함평의 인구 동태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의 출생은 1,480명이고 사망은 2,803명으로 인구의 자연증가는 1,323명의 감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5년간의 출생률은 1.03%이며, 사망률은 1.51%이다. 또한 이때에 혼인을 한 사람은 1,068쌍이며, 이혼을 한 사람도 330쌍에 이른다.

출생률과 사망률은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률의 감소는 가족계획에 주된 원

인이 있고, 사망률의 감소는 경제 및 의료시설 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혼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65년에 24쌍이던 것이 1970년 33쌍, 1980년 88쌍, 1990년 128쌍, 1994년 186쌍으로 최대를 기록했다가 1995년 157쌍, 2002년 77쌍, 2007년 64쌍으로 줄었다. 이렇게 증가하던 이혼률이 최근에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이혼이 감소한 것으로 전체적인 이혼률이 감소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혼률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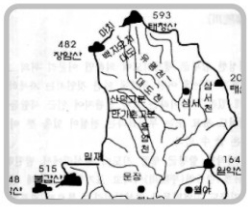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표 27〉 호적에 의한 인구동태신고 (함평군 통계연보에 의함)

구분 / 연도	합 계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1961	23,566	16,845	3,722	3,404	45
1962	7,966	5,196	1,498	1,235	37
1963	8,294	5,557	1,680	1,038	19
1964	4,081	2,731	783	544	23
1965	5,530	3,718	977	311	24
1966	7,062	5,116	1,054	878	14
1967	8,661	6,097	1,323	1,206	35
1968	10,256	7,304	1,306	1,615	31
1969	12,268	14,084	3,168	1,981	35
1970	8,985	6,243	1,582	1,127	33
1971	10,596	7,191	1,724	1,641	40
1972	5,591	3,572	1,953	1,027	39
1973	12,925	7,841	1,712	2,035	49
1974	20,218	5,734	1,476	1,451	61
1975	11,370	7,846	1,723	2,078	66
1976	12,115	7,887	2,441	1,720	67
1977	9,196	5,583	1,667	1,865	80
1978	7,997	4,455	1,657	1,811	74
1979	7,587	4,294	1,418	1,811	64
1980	8,490	4,463	1,929	2,010	88
1981	7,080	3,558	1,463	1,957	102
1982	6,736	3,069	1,324	1,894	89
1983	5,947	2,696	1,303	1,861	87
1984	5,234	2,089	1,318	1,699	128
1985	4,514	1,549	1,209	1,633	123
1986	4,064	1,278	1,184	1,496	106
1987	3,758	1,102	1,098	1,454	104
1988	3,519	967	1,001	1,464	87
1989	3,515	900	1,073	1,422	120

구분 / 연도	합 계	출 생	사 망	혼 인	이 혼
1990	3,143	702	966	1,347	128
1991	3,041	673	882	1,335	151
1992	3,012	632	932	1,291	157
1993	2,786	556	806	1,240	184
1994	2,562	532	762	1,082	186
1995	2,528	531	809	1,031	157
1996	2,370	521	741	957	151
1997	1,775	472	645	552	106
1998	1,696	456	656	462	122
1999	1,605	451	659	391	104
2000	1,510	412	671	332	95
2001	1,425	391	665	270	99
2002	1,210	319	609	205	77
2003	1,172	317	568	209	78
2004	1,165	299	592	211	63
2005	1,124	278	563	215	68
2006	1,106	282	555	212	57
2007	1,114	304	525	221	64

인구의 이동은 전체적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함평 뿐만이 아닌 농촌지역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입은 24,586명에 전출 27,230명으로 전출자가 2,644명이나 더 많아 인구의 사회적 증가 또한 마이너스 성장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제4장 동　　물 (動物)



1.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

야생동물(animal)이란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고 자연환경에서 자유로이 떠돌아다니는 생명체를 말한다. 야생동물의 범위는 국가, 관리주체 또는 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편적으로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를 모두 포함하지만 어류를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무척추동물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조류, 포유류(수입된 모든 것을 포함), 어류, 파충류, 양서류, 곤충, 무척추동물 모두를 환경부에서 관리(야생동식물보호법)하고 있으며 이 중 희귀종은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문화재보호법)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옛 문헌에 기록된 함평의 동물

세종실록지리지 토공조(土貢條)를 보면 함평의 토공물로 녹용(鹿茸), 이피(狸皮·삵 가죽), 호피(호皮·여우 가죽), 황모(黃毛·족제비 꼬리털)가 기재되어 있다. 공물의 품목에 오를 정도라면 우리 지방에 이런 동물이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현재는 족제비와 삵이 산림이 우거지면서 그 수효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슴과 여우는 1950년대 중반 이후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옛 함평현읍, 군지에 기록된 동물을 보면 짐승류(獸類)에 표(豹·표범), 이(狸·삵), 서(鼠·쥐), 위(蝟·고슴도치), 저(狙·긴손 원숭이), 달(獺·수달), 호(虎·호랑이), 토(兎·토끼), 호(狐·여우), 장(獐·노루), 새류에 홍안(鴻雁·기러기), 원앙(鴛鴦), 오작(烏鵲·까막까치), 구로(鷗鷺·해오라기), 두견(杜鵑·소쩍새), 포곡(布穀·뻐꾹새), 연(鷰·제비), 앵(鶯.꾀꼬리), 부(鳧.오리), 구(鳩.비둘기), 청한(靑翰), 백한(白鷳.황새), 척령(鶺鴒. 할미새), 계칙(鸂鶒. 뜸부기)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짐승과 새류 종에 오늘날 우리 지방에서 볼 수 없는 것은 표범, 원숭이, 호랑이, 여우, 청한, 백한 등이나 먹황새(천연기념물 제200호 1968. 5. 30 지정)가 2004년도 겨울철부터 매년 대동댐에 날아와 머물면서 먹이 사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청정한 이곳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옛 군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1950년 안팎까지 군내 여러 곳의 산에 살며 인명 피해까지 주던 늑대, 곤봉산(坤峯山) 등지에 서식하던 남생이, 대동면 향교리 약마등(躍馬嶝) 숲에 서식하던 왜가리, 백로 등의 서식 동물이 있었다.

또 1950년 중반까지 수없이 많이 서식하던 까치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1990년대에 들어 군내에 자연보호의 전개 영향으로 많은 수가 서식하게 되어 과수를 비롯하여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아 까치퇴치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겨울이면 함평읍의 하늘을 검은 빛으로 덮을 만큼 많은 수효가 날아와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의 대숲에서 잠을 자던 까마귀와 기러기, 청둥오리 등이 자취를 감췄다가 2005년도부터 다시 청둥오리를 시작으로 각 소하천은 물론 겨울철의 물논에도 오리 떼들의 노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기러기들의 모습은 하늘을 나는 모습만 볼 수가 있지만 고라니, 노루, 멧돼지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멧비둘기, 꿩 등의 개체수도 엄청난 증가를 보여 인가근처까지 접근하여 먹이사냥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자연환경이 청정해 졌음을 증명하고 있기도 한다.

3. 함평의 동물상

동물은 정착성(定着性)이 없는데다 함평의 동물상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 옛 기록에 의한 동물상을 전절(前節)에서 간략히 더듬어 보았고 현재의 동물상은 우리 함평 지방도 주변지역의 동물상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사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동물상을 엮어 보기로 한다.

바다고기[海水魚類]는 산업항의 수산업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1) 척추동물(脊椎動物)

(1) 젖빨이 동물(哺乳類)

포유류는 지구상에 18목 135과 4,070여종이 분포하며, 현재 한반도에는 8목 27과 102종이 기록되어 있고 이 중 18종은 북한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과거 북한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던 스라소니, 무산흰족제비, 갯첨서, 일부 박쥐류가 남한에도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북쪽에 서식하던 포유류가 점차 남쪽으로 분산하였거나 그 동안 확인이 안 되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포유류 종수를 인접국가와 비교하면 중국의 414종 보다는 매우 적은 수이지만, 일본의 106종과 비슷하다. 그러나 국토면적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종은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의 육상동물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는 상위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호랑이, 표범, 반달곰 등 대형 맹수류들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로 늑대, 여우, 스라소니, 멧돼지, 오소리, 삵 등 중형 맹수류와 이들의 먹이가 되는 사슴류, 고라니, 노루, 멧토끼와 같은 초

식동물과 소형 포유동물인 식충목과 쥐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육상동물을 크기 및 서식지로 구분할 경우 소형동물은 고슴도치, 두더지, 땃쥐와 같은 **식충목이 10종**, 붉은박쥐, 관박쥐, 멧박쥐 등의 **박쥐목이 22종**, 그리고 다람쥐, 청설모, 등줄쥐, 대륙밭쥐 등 **쥐목이 14종** 등 총 50종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만 서식하는 동물 18종을 제외한 나머지 19종 중 호랑이, 대륙사슴은 이미 멸종된 것으로 생각되며 여우, 늑대, 반달곰, 표범,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소니 등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남한에 분포하는 육상 포유류 중 비교적 지속적인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대형 종은 멧돼지, 삵, 노루, 고라니, 멧토끼, 너구리, 오소리, 족제비, 담비 등 9종정도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제 강점기 때 유해조수 구제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야생동물들을 포획하여 생태계 상위 종들에 대한 멸종위기를 초래하였다. 조선휘호 및 조선총독부 통계연감에 따르면 1915년부터 1942년 사이에 호랑이 102마리, 표범 642마리, 곰 1,059마리, 늑대1,369마리를 포획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실질적인 포획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우리민족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야생동물에 대한 윤리의식이 파괴되는 동기가 되었다.

함평에서는 동물의 분포가 다양한 산은 수목이 울창하고 계곡이 깊은 불갑산의 지맥(支脈)인 모악산(母岳山) 일대와 군유산(君遊山) 일대, 그리고 대동면의 고산봉 일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산에는 옛날에 표범과 호랑이, 늑대 등이 살았으나 지금은 유제류(有蹄類)인 멧돼지(山猪·멧돗) 큰 노루들이 살고 있는데 고산봉에는 멧돼지, 군유산에는 노루가 상당수 살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다. 고산봉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다하여 한때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식육류(食肉類)로는 너구리, 오소리, 족제비, 삵 등이 살고 있고 설치류(齧齒類)로는 군내 전역의 산에 산토끼, 모악산의 용천사 숲에는 다람쥐(희귀 동물에서 다시 언급함)가 많이 살고 있다. 같은 설치류에 속하는 쥐는 인가는 물론 원야(原野)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되어 살고 있는데 쥐, 시궁쥐, 곰쥐, 생쥐, 등줄쥐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엄다면 일대에는 실험용인 흰쥐를 사육하다 놓침으로하여 많은 수가 번식하였으나 근년에는 희귀하다.

식충류(食蟲類)로는 두더지가 군내 전역에 수많은 수효가 서식하고 있는데 최근 가죽이 좋은 값에 판매되고 있어 남획과 농약의 피해로 귀해졌고 해보면의 산내리에 고슴도치가 약간 보인다.

익수류(翼手類)인 집박쥐는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산박쥐도 많은데 그 외의 박쥐는 조사된 바가 없어 기술치 못한다.

(2) 새　류(鳥類)

조류는 전 세계적으로 29목 187과 9,600여종이 분포하며, 한반도에는 18목 72과 45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15종은 북한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남한에서만 기록된 종은 435종이다. 이들 종은 생태적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에 연중 서식하는 텃새는 59종뿐이고, 나머지 376종은 철새로서 여름철새 68종, 겨울철새 114종, 나그네새 109종, 길 잃은 새 85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조류의 모니터링 결과 두 가지의 특이사항이 확인되었는데 첫째는 종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 기록되었던 조류는 374종 이었으나, 1980년대 말에는 394종, 1998년에는 417종, 그리고 최근에는 450종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 이유는 전 세계 국가간을 이동하던 텃새가 태풍으로 길을 잃었거나 집단으로 이동하던 중 이탈하여 우연히 우리나라에 왔다가 발견되는 경우로서 모두가 길 잃은 새(迷鳥)이다.

둘째는 과거에는 철새였던 조류가 환경 및 기후의 변화로 텃새화 되어가는 종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왜가리, 해오라기, 중대백로와 같은 백로류의 조류는 원래 여름철새이었으나 지금은 텃새가 되어가고 있고, 겨울철새인 일부 오리류는 월동 후 시베리아로 이동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머무는 것이 관찰되고 있으며 그 수는 증가될 전망이다.

전반적인 조류의 서식실태를 보면 국내에 기록된 조류 중 일부 종은 국제적으로 멸종되었거나 국내에서 오랫동안 관찰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우리나라에 도래했던 원앙사촌은 국제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보고 있고, 따오기는 1966년 2월과 1974년 12월에 경기도 판문점 부근 비무장지대에서 각기 1마리씩 관찰된 이후 현재까지 관찰된 적이 없으며, 황새는 과거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번식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개체가 밀렵과 농약에 의해 희생되었고, 6.25이후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던 마지막 1쌍 마저도 1971년 밀렵으로 수컷이 희생되면서 국내 번식개체는 없어지고 지금은 러시아의 번식 집단이 겨울철새로 적은 수가 도래하는 실정이다. 또한 광릉 숲에 서식하던 크낙새는 90년대 초반에 관찰된 이후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많은 철새는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즉 CITES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에 포함된 종은 총 54종이며 이중 부속서Ⅰ에 속하는 종이 12종, 부속서Ⅱ에 속하는 종은 42종이다.

모악산과 군유산 일대에 여러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으나 조사된 분포상이 없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알 수 있는 새만을 간추려 보면 인가 근처에 살고 있는 참새와 굴뚝새(우리 나라의 특산), 원야에 서식하는 꿩, 멧비둘기, 부엉이, 뻐꾸기, 솔개, 올빼미, 박새, 파랑새, 뿔종다리(희귀동물에서 언급), 때까치, 까치, 딱따구리(종류는 확인 못함), 산솔새, 직박구리, 머슴새, 그리고 황새와 원앙새를 제외한 옛 문헌에 기록된 함평의 조류들이 살고 있고 뜸부기와 기러기, 그리고 각종 바다 오리떼가 철새로 찾아와 잠깐씩 지나치며 함평만에는 갈매기를 비롯한 바닷새들이 살고 있고, 함평천에는 근년까지 물총새 등 여러 종류가 살았으나 농약 등의 공해와 남획으로 거의 멸종되었다.

산이 울창해지자 새들의 종류가 불어나고 있으며, 모악산 용천사 경내의 숲은 활엽수가 잘 자라고 있는 곳이어서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3) 양서류(兩棲類)와 파충류(爬蟲類)

개구리는 척추동물이면서 탈바꿈을 하는 동물이다. 탈바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물속에서 아가미 호흡을 하며 기나긴 시간을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탈바꿈을 해서 육지생활의 꿈을 이룬다. 이렇듯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생태를 지닌 동물을 우리는 양서류라고 한다. 우리말로 물뭍동물이라 부른다. 원래 양서류라는 말은 그리스어 Amphibios로부터 유래되었다. Amphi는 양쪽을 뜻하고 bios는 생명이라는 말이다. 즉 수륙 양육의 생활을 하는 생명이다.

이 지구상에 척추동물은 약 4만 종이 있으며 그 중 양서류는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비늘이 없는 피부를 가진 동물로서 약 3천2백여 종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종이 서식하고, 환경부에서는 이중 금개구리와 맹꽁이를 멸종위기종(Ⅱ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양서류는 꼬리가 없는 무미류(개구리, 두꺼비)와 꼬리가 있는 유미류(도롱뇽류, 영원류, 사이렌류), 그리고 무족영원류(무족영원) 등 세 가지로 나눈다. 무미류는 성체가 되면 꼬리가 없어지고 뒷다리는 뛰는 데 알맞게 변형된다. 반면 유미류는 몸이 길고 꼬리가 있으며, 다리는 뛰는데 특수화되지 않았고 갈비뼈가 있다. 무족영원류는 몸이 길쭉하고 비늘을 가지며 눈은 작거나 흔적으로 남아 있을 정도이다.

양서류는 육지를 정복한 최초의 척추동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파충류, 조류, 그리고 포유류를 탄생시켰고, 자신들도 그들과 더불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전 세계에는 뱀을 비롯한 거북, 도마뱀, 악어 등의 파충류가 약 6,400여 종이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파충류는 바다에 서식하는 5종(바다거북, 왕바다거북, 장수거북, 바다뱀, 먹대가리바다뱀)과 육지에 서식하는 21종 등 26종이며 이 중 2종(북살모사, 줄꼬리뱀)은 북한에만 서식한다. 환경부에서는 구렁이(Ⅰ급)와 남생이, 비바리뱀, 표범장지뱀(Ⅱ급)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파충류는 제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변온동물이다. 그래서 항상 외부 열로 체온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추워지면 동면에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일광욕을 해서 체온을 높인다. 그리고 수분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부는 거칠고 딱딱한 비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허물을 벗는다.

파충류와 양서류는 정력을 돕는 식품이라는 말이 세간(世間)에 오고 가면서부터 그 종류가 격감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인가 부근에서는 거의 멸종 상태며 삼림(森林)이나 원야에서 발견될 뿐이다.

뱀과에 속하는 구렁이, 능구렁이, 흑질백장, 백사, 물뱀, 살무사, 독사 등이 살고 있다. 이밖에 도마뱀은 고산봉, 함평읍의 곤봉산에 많이 보인다.

양서류로는 산개구리, 금개구리, 옴개구리,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두꺼비, 맹꽁이, 등이 살고 있는데 근년까지만 해도 많이 서식하던 두꺼비가 근년에는 그 수가 줄어들었으며 맹꽁이 또한 두꺼비와 같이 그 수효가 줄어들었다.

파충류에 속하는 자라는 고막천의 중류라 할 수 있는 대동면 상옥리 앞 하천에 무수히 서식하였으나 이 역시 마구잡이에 의하여 현재는 그 수효가 보기 드물 정도로 줄어들었다.

(4) 민물고기 (담수어류-淡水魚類)

함평은 영산강의 중류인 사호(沙湖)와 영산강의 지류인 함평천과 고막천원을 끼고 있어 다른 지방에 비하여 민물고기의 종류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곳이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없고 조사된 자료도 부족하여 여기서는 개괄적인 것만 언급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함평에 서식하고 있는 민물고기로는 잉어, 뱀장어, 피라미, 가물치, 미꾸라지, 눈쟁이(송사리), 모래무지, 자가사리, 날치, 메기, 붕어와 희귀 및 위기종인 각시붕어, 달랍줄개, 납줄갱이, 왕종개, 미유기 등이 살고 있다. 또한 최근에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어종으로 블루길 (월남붕어)과 향어가 수원지, 저수지에 다수 서식되고 떡붕어가 신품종으로 수입되어 성장속도가 빨라 서식력이 차츰 증대되고 있다.

(5) 바다고기(해수어류-海水魚類) 수산업 항을 볼 것.

2) 절족동물(節足動物)

함평군은 노령산맥 서남단의 중심간 평야지대이며, 서해안 시대의 관문이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함평군의 지질계통은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되어 변성작용을 받은 변성암류인 소백산 편마암 복합체와 화강암류로서 쥬라기에 형성된 편마상 화강암과 백악기 지질시대에 있어 중생대의 마지막 시대인 약 1억 4천만년 전부터 7천만년 전까지의 시기에 형성된 불국사 화강암 및 산성 화강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함평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2.77℃로 비교적 온화한 남서안형 기후구에 속하며 연평균 강수량은 1,277.8㎜로서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1,190㎜)과 전 세계 연평균 강수량(770㎜)보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곤충류에 대한 과거 문헌상의 기록은 거의 없고 석주명의 한국산 접류 분포도(보진재, 1973)에 나비류 5과 24종의 기록이 최초이다.

현재까지 곤충상 조사가 거의 전무한 전라남도 함평군 일대의 연중 곤충상을 알아보면 우리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류는 과거 기록된 5과 24종을 포함하여 729종이 조사되어 총 15목 114과 823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동면 고산봉 주변에서는 15목 109과 617종이, 나산면 천주봉 주변에서는 14목 105과 514종이, 해보면 용천사 주변에서는 11목 74과 359종이 채집되어 향후 주 수종이 잡목림인 대동면 고산봉 주변에서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종들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채집 확인된 종들로 미루어 보면 함평군 일대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곤충류가 서식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임이 판명되고 있다.

사슴풍뎅이, 애호랑나비, 은판나비 등은 남부지방에서는 희귀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들 종들이 조사결과 이 지방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록상 이 종들에 관한 남방한계선이 되고 있다.

해보면 용천사 주변에서 채집된 청띠제비나비는 일시적인 기상요인으로 우연히 유입된 종으로 추정되며, 대동면 고산봉 주변에서 채집된 멋쟁이박각시나비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단 1개체만이 채집 기록된 희귀종으로 우리 함평군에서 1개체가 채집되어 이 고장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황벽나무만 먹고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대왕나비 애벌레가 함평에서 머귀나무잎을 먹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보면 용천사 주변에서는 호랑나비과의 주요 식초인 머귀나무가 집단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어 산제비나비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동면 고산봉 주변 일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황금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의 먹이가 되는 나방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일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의 미흡으로 인하여 급속도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위험이 있어 향후 이 지역에 대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보존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함평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곤충계통별 현황을 제시한다.

<함평지역의 곤충계통별 현황>

목	과	속	종	비고
하루살이목	1	1	1	
잠자리목	8	16	22	
사마귀목	1	2	3	
강도래목	1	3	3	
집게벌레목	1	1	1	
메뚜기목	7	24	26	
대벌레목	2	2	2	
노린재목	12	24	24	
매미목	6	13	13	
풀잠자리목	5	6	6	
딱정벌레목	21	65	70	
벌목	6	11	12	
밑들이목	1	1	1	
파리목	5	9	10	
나비목	37	468	629	
계	114	646	823	

4. 멸종위기 야생 및 희귀동물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이 1975년 이래 조사 집계하여 보고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의 척추동물 1천 아종(亞種)이 절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까닭은 그들의 보금자리인 서식지의 파괴, 분수를 넘어선 인간에 의한 지나친 개발, 도입종(導入種)의 침략에 뒤따르는 도태, 마구잡이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 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이들 동물을 슬기로써 지키고 사랑으로써 아껴야 한다는 보호운동이 일어났으며 자연보호운동은 차원 높은 시민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자연보호협회가 1981년 『한국의 희귀 및 위기 동식물』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 수록된 동물중 우리 함평지방에 살고 있는 동물을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고자 한다.

1) 야생동·식물 보호법

①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②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

③ "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 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④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⑤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⑥ "인공증식"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⑦ "생물자원"이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을 말한다.

2) 포유류

▣ Ⅰ급

1. 늑대	2. 대륙사슴	3. 바다사자	4. 반달가슴곰
5. 붉은박쥐	6. 사향노루	7. 산양	8. 수달
9. 시라소니	10. 여우	11. 표범	12. 호랑이

▣ Ⅱ급

1. 담비	2. 무산쇠족제비	3. 물개	4. 물범
5. 물범류(고리무늬물범, 흰띠박이물범)		6. 삵	7. 작은관코박쥐
8. 큰바다사자	9. 토끼박쥐	10. 하늘다람쥐	

3) 조류

▣ Ⅰ급

1. 검독수리	2. 넓적부리도요	3. 노랑부리백로	4. 노랑부리저어새
5. 두루미	6. 매	7. 저어새	8. 참수리
9. 청다리도요사촌	10. 크낙새	11. 흑고니	12. 황새
13. 흰꼬리수리			

▣ Ⅱ급

1. 가창오리	2. 개구리매	3. 개리	4. 검은머리갈매기
5. 검은머리물떼새	6. 검은목두루미	7. 고니	8. 긴점박이올빼미
9. 까막딱다구리	10. 느시	11. 독수리	12. 뜸부기
13. 말똥가리	14. 먹황새	15. 물수리	16. 벌매
17. 붉은가슴흰죽지	18. 붉은해오라기	19. 비둘기조롱이	20. 뿔쇠오리

21. 뿔종다리 22. 삼광조 23. 새홀리기 24. 솔개
25. 쇠황조롱이 26. 수리부엉이 27. 시베리아흰두루미
28. 알락개구리매 29. 알락꼬리마도요 30. 올빼미 31.재두루미
32. 잿빛개구리매 33. 적호갈매기 34. 조롱이 35. 참매
36. 큰고니 37. 큰기러기 38. 큰덤불해오라기 39. 큰말똥가리
40. 털발말똥가리 41. 팔색조 42. 항라머리검독수리
43. 호사비오리 44. 흑기러기 45. 흑두루미 46. 흰목물떼새
47. 흰이마기러기 48. 흰죽지수리

4) 양서·파충류

▣ Ⅰ급

1. 구렁이

▣ Ⅱ급

1. 금개구리 2. 맹꽁이 3. 남생이 4. 비바리뱀
5. 표범장지뱀

5) 어류

▣ Ⅰ급

1. 감돌고기 2. 꼬치동자개 3. 미호종개 4. 얼룩새코미꾸리
5. 퉁사리 6. 흰수마자

▣ Ⅱ급

1. 가는돌고기 2. 가시고기 3. 꾸구리 4. 다묵장어
5. 돌상어 6. 둑종개 7. 모래주사 8. 묵납자루
9. 임실납자루 10. 잔가시고기 11. 칠성장어 12. 한둑종개

6) 곤충

▣ Ⅰ급

1. 산굴뚝나비 2. 두점박이사슴벌레 3. 상제나비 4. 수염풍뎅이
5. 장수하늘소

▣ Ⅱ급

1. 고려집게벌레 2. 깊은산부전나비 3. 꼬마잠자리 4. 닻무늬길앞잡이
5. 멋조롱박딱정벌레 6. 물장군 7. 붉은점모시나비 8. 비단벌레

9. 소똥구리 10. 쌍꼬리부전나비 11. 애기뿔소똥구리 12. 왕은점표범나비
13. 울도하늘소 14. 주홍길앞잡이 15. 큰자색호랑꽃무지

7) 무척추동물

▣ Ⅰ급

1. 귀이빨대칭이 2. 나팔고둥 3. 남방방게 4. 두드럭조개
5. 칼세오리엽새우

▣ Ⅱ급

1. 검붉은수지맨드라미 2.깃산호 3. 둔한진총산호
4. 망상맵시산호 5. 밤수지맨드라미 6. 별혹산호 7. 연수지맨드라미
8. 별혹산호 9. 자색수지맨드라미 10. 잔가지나무돌산호
11. 진홍나팔돌산호 12. 착생깃산호 13. 측맵시산호 14. 해송
15. 흰수지맨드라미 16. 갯게 17. 붉은발말똥게 18. 기수갈고둥
19. 대추귀고둥 20. 장수삿갓조개 21. 참달팽이 22. 긴꼬리투구새우
23. 선침거미불가사리 24. 의염통성게

8) 함평지방의 야생동물

①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ussuricus* (천연기념물 329호)(멸종위기Ⅰ급 포유류)



곰 중에서 중간크기의 곰으로 몸 전체는 흑색이나 주로 앞 가슴에 흰색의 V자 무늬가 나타나는 개체가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반달가슴곰이라 부른다. 주둥이는 짧으며, 목과 어깨에는 긴 갈기가 있는 것이 많다. 발톱이 날카로워 나무에 오를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갈고리 구실을 한다.

저지대로부터 3,000m 고지대의 활엽수림, 혼효림 등의 산림지대에 서식한다. 여름에는 고산지대로 이동하고 겨울이 되면 저지대로 이동하는 계절적 고도이동을 하는 종이다. 잡식성으로 곤충, 소포유동물, 새, 벌꿀, 나무열매, 도토리, 산딸기 등을 먹이자원으로 이용한다. 특히 곰은 식물 중에서도 가장 영양가가 뛰어난 종류만을 선택적으로 섭취하는데 이를 보고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별했다고 한다.

먹이가 부족하고 날씨가 추워지는 12월부터 3~4월까지 바위굴이나 나무구멍에서 겨울잠을 잔다. 6년이 지나야 성적으로 성숙한다. 1~3월에 2마리의 새끼가 태어난다. 태어난 후 6개월이 지나야 젖을 떼고 3년 동안 어미와 함께 생활하며 사냥, 사회생활, 생존방법 등을 배운다.

곰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곰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큰 뇌를 가지고 있어 현존하는 모든 동물 중 가장 영리하며, 냄새를 구분하고 파악하는 능력과 서식지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한다.

② 붉은박쥐 *Myotis formosus* (천연기념물 452호)(멸종위기 I 급 포유류)



붉은박쥐의 몸길이는 5cm 내외이고 몸 색깔은 오렌지색이며, 날개의 골격과 귀의 끝은 검은색으로 일명 황금박쥐라 불린다.

박쥐류는 설치류 다음으로 종수가 많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추운지역과 대양의 섬들을 제외하고는 세계전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붉은박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프가니스탄 동부와 중국 남부, 대만, 자바, 일본 대마도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함평의 개체군이 가장 크다.

자연동굴이나 폐광 등지에서 동면하며 동면기를 제외한 활동기에는 동굴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야외에서 관찰은 어렵다. 수명은 6~7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1년에 1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가을에 교미하여 곧바로 동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고 암컷의 생신도관 내에 정자를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수정하여 먹잇감인 곤충이 가장 많은 초여름에 새끼를 분만하도록 조절한다.

붉은박쥐의 동면은 10월 초에 시작되어 이듬해 6월 초순까지 계속되며 동면과 깨어남이 집중되는 시기는 각각 10월 중순과 5월 중순으로, 고온 다습한 동면처 환경을 선호한다.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붉은박쥐의 암·수 성비를 조사한 결과 암·수 성비가 1:2인 것이 밝혀졌다.

③ 수 달 *Lutra lutra* (천연기념물 330호)(멸종위기 I 급 포유류)



몸집은 수컷이 암컷보다 좀 더 크며, 꼬리는 몸길이의 2/3 정도로 길며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 진다. 작은 귀와 콧구멍은 물속에서는 닫을 수 있어 수중생활에 알맞게 진화되었으며 다리는 짧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헤엄치기에 편리하다. 또한 굵고 긴 꼬리는 헤엄칠 때 방향을 잡아 주며 보온성이 뛰어난 몇 겹의 털로 덮여 있어 물에 흠뻑 젖어도 추위에 끄떡없다.

전국의 산속 계곡, 하천, 강 및 해안까지 물줄기를 따라 넓은 분포권을 나타내나 개체군의 크기는 매우 작다. 도내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대동 댐

에 서식하고 있다.

수달은 물속에서는 민첩하지만 물 밖에 나오면 다리가 짧아서 뒤뚱거린다. 이동 할 때는 주로 수로를 이용하지만 다른 수계로 이동하거나 겨울에 결빙되지 않은 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육로로 이동하기도 한다.

발자국 모양은 동그랗고 뒷발 발자국이 앞발 발자국 보다 크며, 발자국에는 발가락 다섯 개와 발톱 등이 찍히지만 물갈퀴는 잘 안 찍힌다.

수달의 배설물에서는 바다 냄새와 같은 고약하지는 않는 비린내가 나며, 물고기의 뼈와 가시, 눈알, 비늘 따위 등이 잔뜩 들어 있어 다른 포유동물의 배설물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천적은 별로 없으나 어릴 때 사망률이 높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먹이 감소와 서식환경의 변화로 감소 추세에 있다.

④ 담 비 *Martes flavigula* (멸종위기 Ⅱ급 포유류)



몸길이는 59~68cm이고 꼬리는 몸길이의 2/3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길다. 네 다리는 비교적 튼튼하고 짧다. 일반적으로 머리와 목의 윗부분, 꼬리, 발의 아랫부분, 등은 어두운 갈색에서부터 검은색이다. 턱에서 가슴까지의 밝은 노란색 부위를 제외한 몸의 나머지 부분은 엷은 갈색이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소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에서는 장성, 영광, 함평, 곡성, 영암, 보성, 구례, 하동 등지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살며 산기슭이나 물가에서 자주 보인다. 주로 밤에 활동하지만 낮에도 종종 나타난다. 몸체와 꼬리가 가늘고 길어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지역에서도 이동하는데 장애를 느끼지 못한다. 발톱이 날카롭고, 휘어 있어 나무를 잘 타며 땅에도 곧 잘 내려와서 먹이를 잡는다. 시력과 청각이 뛰어나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쥐를 많이 잡아먹으며 새알도 훔쳐 먹고, 식물의 열매와 꿀도 좋아한다. 끈질기고 성질이 사나워서 자기 몸보다 큰 먹이를 멀리까지 쫓아가서 잡기도 한다. 사냥은 한 쌍, 또는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며 항문선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자신의 세력권을 표시한다.

담비의 발자국에는 앞발과 뒷발 모두 5개의 발가락과 발톱이 찍히며, 앞발은 발가락이 벌어져 찍히지만 뒷발은 엄지발가락을 빼고 나머지 네 발가락이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찍힌다.

⑤ 삵 *Prionailurus bengalensis* (멸종위기 Ⅱ급 포유류)



살쾡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고양이와 모양이 매우 비슷하나 고양이와 달리 황갈색 바탕에 검은 점이 고루 나 있다. 이마에 흰 줄무늬가 두 개 또렷하게 나 있고, 귀 뒤쪽에는 흰점이 나 있어 고양이와 구별된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소수의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에서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매우 드물게 적은 수가 확인되고 있다.

산 속 덤불숲에서 사는데 먹잇감이 있으면 마을 가까이에도 곧잘 내려온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상당한 활동을 한다. 고양이와 달리 수영을 잘하며 땅에서만 아니라 나무에서도 먹이를 사냥한다. 1년 동안 먹는 먹이의 90%이상이 들쥐와 같은 소형 포유동물이다. 어린 우제류와 새도 잡아먹으며 마을에 내려와서 닭을 물어 가기도 한다. 홀로 지내다가 짝짓기 철이 되면 암컷과 수컷이 쌍을 지어 다닌다. 덤불숲이나 속이 뚫린 나무, 작은 동굴 또는 나무의 큰 뿌리 아래에 생긴 굴 등을 보금자리로 쓴다.

삵이나 호랑이 같은 고양이과 동물들은 모두 날카로운 발톱이 있지만 걸을 때 발톱을 감추고 있어서 발자국에 발톱이 안 찍힌다.

요즘에는 산과 들에 고양이가 많이 살아서 발자국만 보고서는 삵과 고양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다만 삵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설하는 반면에 고양이는 배설물을 흙으로 덮는 습성이 있다.

함평에는 산림이 우거지면서 각처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1963 고산봉에서 호랑이 새끼를 잡았다고 법석을 부렸으나 삵의 새끼로 판명되기도 했다.

삵은 중국 북부, 시베리아 동부, 만주 및 한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본의 대마도와 한국의 제주도에서는 절멸되었다고 한다.

삵은 한국 모피생산(毛皮生産)의 5대 품종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가축이나 더러는 인명에 피해를 주기도 하나 총상 또는 새끼를 거느린 때가 아니면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지금 추세로 삵은 세계 공통적으로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⑥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멸종위기 Ⅱ급 포유류)

다른 설치류에 비해 눈이 유난히 크고 동그랗다. 눈언저리가 갈색이어서 동그란 눈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 몸의 윗면은 회색이고 아랫면은 흰색이며, 활공할 수 있는 비막이 있다.

지리산과 백운산, 그리고 조계산 자락의 산악지대에 분포하나 개체수가 적고 땅에 잘 내려오지 않아서 좀처럼 보기 어렵다.

하늘다람쥐는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 가거나 땅으로 내려올 때 비막을 활짝 펼치고 활강하는



데, 먼저 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뒤 가고자 하는 나무를 향해 뛴다. 이때 비막을 펼쳐서 목표지점까지 활공을 한 뒤 도착지점에 가까워지면 운동속도를 줄이기 위해 위로 방향을 올린다. 보통 20~30m를 활강하며 때로는 100m 이상 활강하는 경우도 있다.

낮에는 나무구멍 등과 같은 보금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해가 지면 밖으로 나와 먹이를 찾고 해뜨기 전에 둥지로 돌아온다.

나무의 어린잎과 순을 즐겨 먹으며 소량의 곤충이나 밤, 호두, 개암 같은 종자를 먹는다. 겨울에도 겨울잠을 자지 않으며 잠깐씩 나와서 나무에 나 있는 겨울눈을 먹기도 한다. 부엉이나 올빼미 등과 같은 야행성 맹금류들이 이들의 천적이다.

다람쥐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 남획을 하는 실정이다. 특히 하늘다람쥐는 희귀종으로 보호되고 있다. 우리 함평에는 활엽수림이 울창한 용천사 일대에 많은 수효의 다람쥐가 서식하면서 그의 독특한 재롱을 보여주고 있다.

⑦ 물 범 *Phoca largha* (멸종위기 Ⅱ급 포유류)



물범의 수컷 크기는 1~2.1m, 암컷 0.8~1.6m이며 체중은 수컷 90-150kg, 암컷 70-120kg 이다. 어린 새끼의 크기는 평균 80cm, 체중은 6-12kg이다. 물범의 뒷다리는 구부릴 수 없어 육지에서 이동시 몸체를 이동하여 기어간다. 몸체는 부드러운 수 겹의 털로 덥혀 있어 보온성이 뛰어나며 몸 전체가 밝은 갈색 털로 덮혀 있어 짙은 회색의 반점이 몸 전체에 있어 점박이 물범으로 불리운다.

물범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Bering Sea), 뷰폴드해(Beauford Sea), 척키해(Chucki Sea)를 거쳐 오오츠크해(Okhotsk Sea)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본 종은 고립된 개체군이 중국의 동중국해의 보해만을 거쳐 우리나라의 서해연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령도 연안에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서식하며 도내에서는 칠산도 앞바다에 여름철 5~10개체 정도가 자주 관찰되고 있으며 신안군 섬 연안에서도 적은 개체수가 관찰된다.

서해 물범의 번식지는 중국 보해의 리아오동만으로 이 지역에서 1~2월 새끼가 태어나고 이후 새끼가 이동할 수 있게 자라면 우리나라 서해연안으로 이동한다. 3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백령도, 대청도 및 태안반도 등에 넓게 분포한다.

중국에서는 1940년대 8,000개체, 1980년대 2,300개체로 서식지 파괴와 남획에 의해 개체군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함평만이나 우리나라 서해연안에서는 300-500개체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먹이자원의 고갈 및 사람의 방해로 인해 우리나라 서해 연안에서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특별한 보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한 종이다.

⑧ 노랑부리백로 *Egretta europhotes* (멸종위기 Ⅰ급 조류)



크기는 쇠백로와 비슷하며, 몸 전체가 흰색이고 눈은 흐린 노란 색이다. 번식기에는 뒷머리에 여러 가닥의 장식깃이 발달하는 것이 본 종의 뚜렷한 특징이다. 여름철 번식기의 부리색은 선명한 노란색이며, 눈앞의 나출부는 녹청색을 띤다. 다리는 번식기에 검은색이고 발만 노란색이지만 비번식기에는 다리와 발이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도는 녹색이다.

본 종의 번식지는 우리나라의 서해안 및 중국 연안의 일부지역으로 국한되며, 월동지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이다. 전 세계 생존 개체군의 크기는 약 2,500마리 내외로 추산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국제적인 보호조이다.

넓게 펼쳐진 함평만 갯벌에서 연체동물, 갑각류 등 무척추동물과 물고기를 주로 채식하며, 5~7월 경 외딴 무인도서에서 집단을 이루어 번식한다. 우리나라 서해안 무인도서는 본 종의 주요 번식 및 생활권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번식지로는 인천광역시 웅진군의 신도와 동만도, 전남 영광군의 칠산도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서해안의 갯벌지역에서 관찰되며, 드물게 부산 낙동강, 강원도 속초, 제주도 해안에도 도래한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겨울에는 홍콩 근처의 중국 남부와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 집단 서식했고, 여름철에는 만주와 한반도 서해안 등지에서 번식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나고 각종 개발과 갯벌 매립에 따른 서식지 감소 및 먹이자원 등의 오염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했다.

⑨ 황 새 *Ciconia boyciana* (멸종위기 Ⅰ급 조류)



몸길이 112cm이며, 부리는 매우 크고 검은색이다. 눈 주위와 다리는 붉은색이며, 몸 전체는 흰색이다. 검은색의 날개깃은 앉아 있을 때 꼬리 뒤로 늘어져 있어서 꼬리부분이 검은 것처럼 보인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는 텃새였으나 현재는 겨울철새로 1980년대 후반부터 매년 천수만에 적은 수가 월동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해남 간척지에서 꾸준히 관찰되고 우리군 대동댐에서도 몇 년째 계속 관찰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제주도와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전국의 습지에서 드물게 관찰된다.

울음소리는 내지 못하나 목을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숙이면서 아래와 윗부리를 부딪쳐 소리를 낸다. 저수지, 강, 하구, 소택지, 논 등 다양한 습지에 서식하며, 한 쌍 또는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 먹이는 어류, 양서류, 갑각류, 곤충 등 주로 수서성 동물을 잡아먹는다.

전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던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무수동마을의 황새 1쌍은 1971년 4월 수컷이 사냥꾼에 의해 사살된 이래, 암컷은 수년 동안 무정란을 낳아 오다가 1994년 9월 동물원에서 숨을 거둠으로써 텃새로 살던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⑩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멸종위기 Ⅰ급 조류)



몸길이는 86cm이며, 몸 전체가 흰색이고 다리와 부리의 기부는 검은색이다. 끝 부분에 노란색을 띤 주걱모양의 부리가 특징적이다. 저어새와 유사하나 저어새는 검은색인 눈 주위 피부와 부리 기부의 검은색 나출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멀리서 보면 눈이 안 보인다.

드문 나그네새 또는 겨울철새로 호수나 늪, 하천, 하구, 해안가에 도래한다. 도내에서는 제주, 영광, 진도, 해남, 영암, 고흥, 순천, 함평 등지에서 관찰기록이 있다.

먹이를 찾을 때는 부리를 수면에 대고 목을 좌우로 흔들며 전진하면서 먹이를 잡는다. 먹이는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 올챙이, 연체동물의 조개류, 곤충 등을 잡아먹으며 호소 식물과 그 열매도 먹는다.

혼자 또는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날 때는 황새처럼 목을 곧게 뻗고 날개를 천천히 저어서 직선으로 난다. 때로는 날개를 편 채 날갯짓을 하지 않고 상승기류를 이용하여 날아가거나 미끄러지듯이 날아가기도 한다.

황새처럼 부리를 부딪쳐서 소리를 내기도 하며, 쉴 때는 한쪽 다리로 서서 머리를 뒤로 돌려 등에 묻는다.

⑪ 저어새 *Platalea minor* (멸종위기 Ⅰ급 조류)



몸길이는 74cm이며, 몸 전체가 흰색이고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눈 주위의 검은색은 부리 기부와 폭넓게 연결되어 있다. 여름 깃은 뒷머리에 연한 노란색을 띤 장식깃이 발달하며 가슴 윗부분에 연한 노란색의 띠가 나타난다. 어린 새는 부리가 어미새보다 연한 색을 띠며 날개 끝이 검은색이다.

한국에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서해안의 무인도서에서 번식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드문 나그네새 또는 겨울철새로 도래한다. 도내에서는 제주 성산포, 목포 북항, 신안 압해도와 함평만 등지에서 관찰기록이 있다. 대부분의 저어새는 겨울에 대만, 중국, 베트남 등지로 이동하여 월동하지만 제주도의 성산포 일대에서는 해마다 20여 마리가 월동함으로써 제주

도가 겨울철 저어새의 북방한계선임을 알 수 있다.

남한지역에서는 1992년 전남 영광군 칠산도에서 1쌍이 번식하고 있음이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그 후 1994년 경기도 김포의 유도에서 12개체가 번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경기도 옹진군의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석도와 비도에서 번식 집단이 확인되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는 주로 얕은 습지나 갯벌에서 작은 민물고기나 개구리, 올챙이, 조개류, 갑각류, 우렁이 등을 잡아먹는다.

⑫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멸종위기 Ⅰ급 조류)



수컷의 몸길이는 84cm이고 암컷은 94cm로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다. 부리는 크고 노란색이며 날개는 폭이 넓고 흰색의 꼬리는 짧게 보인다. 어미새의 꼬리는 흰색이며 부리와 발은 황색이지만 어린 새의 꼬리와 부리는 검은색을 지닌 갈색이다. 나이가 듦에 따라 꼬리의 색은 어두운 갈색으로부터 흰색의 얼룩진 부위가 넓어져서 5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 어미가 되면 완전한 흰색을 띠게 된다.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폭넓게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로 월동지는 주로 드넓은 강 하구, 해안, 또는 호수 등 물새류의 대집단이 월동하는 장소에 나타나 먹이를 찾으며, 휴식은 서식지로부터 멀지 않은 숲에서 취한다. 도내에서는 제주, 함평, 구례, 해남, 나주, 신안 등지에 도래하며, 최근 흑산도에서 번식하는 것이 알려져 소수는 텃새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종은 생존 집단이 감소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보호대상종이며, 유럽의 집단은 계속 감소하여 50년 전에는 매우 적은 수만 생존했지만 지난 20년간 각 종 보호조치에 힘입어 최근에는 일부 집단이 증가 추세에 있다.

흰꼬리수리는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하는 대형 수리류로 먹이를 찾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인가 근처에 나타나기도 하여 일찍부터 세계적으로 많은 수가 살상되어 왔다. 독극물에 의한 밀렵으로 죽은 오리류나 기러기류의 사체를 먹고 2차 중독으로 희생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또한 물가에 모이는 습성 때문에 수질오염과 먹이의 감소나 오염에 의한 간접적 피해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⑬ 검독수리 *Aquila chrysaetos* (멸종위기 Ⅰ급 조류)

수컷의 크기는 81.5cm 이고 암컷의 크기는 89cm이며, 날개의 크기는 167~213cm이다. 머리와 뒷목은 황갈색이며, 몸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이지만 간혹 꼬리 기부와 날개덮깃에 흰색 또는 노란색이 섞이기도 한다. 어린 개체는 날개깃의 안쪽과 꼬리의 기부가 흰색이며, 꼬리 끝에는 넓은 검은색 띠가 있다. 양 날개를 약간 들어 느슨한 V자형으로 난다.



매우 드문 텃새이며, 전국적으로 드물게 도래하는 겨울철새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지에 널리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내장산, 천마산, 두타연, 영월 동강에서 번식한 기록이 있다. 우리 도내에서는 제주도와 해남, 함평 등지에서 관찰된다.

검독수리는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바위가 많은 산악 지역에서 살며, 겨울에는 평지나 해안까지 내려온다. 단독 또는 한 쌍씩 살며, 둥우리는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 또는 고산 지역의 절벽 위에 굵은 나뭇가지를 쌓아서 짓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다. 이는 과거 매류와 수리류를 관상용 박제품과 한약제로 이용하기 위해 남획하였으며, 최근에는 서식지의 파괴, 감소와 함께 농약의 피해로 인해 알껍질이 얇아지거나 무정란이 생기는 등 번식력이 떨어져 이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⑭ 매 *Falco peregrinus* (멸종위기 Ⅰ급 조류)



암컷이 수컷보다 크며 날개의 폭은 넓고 길다. 배에는 세밀한 가로줄이 있고 눈테는 노랗다. 어린 새는 등에 갈색빛이 있으며 배에는 어두운 갈색의 굵은 세로줄이 있다. 뺨 부분에는 구레나룻 모양의 검은 반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빛의 반사를 막아 시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송골매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해안 절벽에서 번식하는 드문 텃새로 겨울에는 습지 주변의 농경지와 개활지에 도래한다.

매는 참매와 더불어 사냥을 잘하기로 유명하다. 매 사냥은 고조선 시대 북방의 수렵 민족인 숙신족으로부터 들어온 풍습으로 거의 2,000년의 역사를 두고 주로 왕권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수렵의 형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내응방이라는 매사냥 전담 관청을 두고 군역 대신 매를 잡게 했으며 양반들은 뛰어난 매와 말을 가지고 위세를 부렸는데 이를 두고 제일은 매, 제이는 말, 제삼은 첩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참매가 그 해에 태어나서 스스로 먹이를 포획할 수 있을 무렵에 잡아 길들인 매를 보라매라고 하며, 산에서 1년 이상 스스로 자란 매를 산지니, 집에서 길들여진 매를 수지니라고 하였다. 꿩 사냥에는 주로 수지니를 사용하였다.

⑮ 넓적부리도요 *Eurynorhynchus pygmeus* (멸종위기 Ⅰ급 조류)

몸길이가 15cm 정도의 소형 도요류로 부리 끝이 주걱 모양으로 넓적한 것이 가장 특징이다. 여름 깃은 머리, 가슴, 어깨 깃이 적갈색이나 겨울 깃은 몸 아랫면이 모두 흰색이고, 몸 윗면



은 밝은 회색으로 바뀐다.

전 세계적으로 2,700여 마리밖에 없는 멸종위기종이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서남해안의 갯벌에서 봄과 가을에 시베리아의 번식지와 동부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월동지로 이동하면서 드물게 관찰된다.

툰드라지역의 해안가 초원지역에서 번식하며, 번식기에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지만 비번식기에는 하구나 해안의 갯벌, 염전 등에서 저어새처럼 넓적한 부리를 좌우로 움직여 소형 무척추동물을 잡아먹는다.

도요류는 번식지에서 월동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봄과 가을철에 우리나라를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류이다. 이처럼 철새들이 철따라 이동하는 이유는 새의 진화과정에서 체내의 내재된 행동리듬이 원인이라는 설과 기온과 먹이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설이 있다.

⑯ 먹황새 *Ciconia nigra*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는 95cm 정도이고, 부리와 다리, 눈 주위는 붉은색이다. 흰색의 가슴과 배 부분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녹색 광택을 띠는 검은색이다. 어린 새는 부리와 눈 주위가 녹색을 띤 회색이며, 다리는 녹색을 띤 노란색이다. 몸 윗면에 녹색광택이 거의 없으며 목 부분에는 작은 흰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과거에는 희귀한 텃새였으나 지금은 일부 한정된 지역에만 도래하여 월동하는 희귀한 겨울철새다.

먹황새는 1938년 3월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가송리에서 최초로 번식지가 알려진 이래 해마다 그곳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장소를 바꾸어가며 1968년까지 번식하여 왔으나 이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근년에는 2002년 12월 초순 전남 함평군 대동 댐을 중심으로 도래하기 시작하여 매년 최대 7마리까지 월동하고 있다.

논과 하천 그 밖의 물가의 얕은 곳에 내려와 민물고기와 갑각류, 곤충 등을 잡아먹으며, 채식할 때 외에는 나무 위나 바위절벽에 앉아 쉰다. 황새와 비슷한 비상과 동작을 취하지만 날개를 펴서 유유히 높은 하늘을 날며, 나는 속도와 내려앉는 동작 등이 황새보다 훨씬 빠르다.

⑰ 흑기러기 *Branta bernicla*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 61cm이며, 흰 목테가 특징이다. 머리와 가슴, 등, 날개는 검은색이며, 옆구리와 아래꼬리덮깃은 흰색이다. 미성숙새는 목에 흰 띠가 없거나 가늘며 날개 윗면에는 흰색의 줄무늬가 있다.

겨울철새로 과거에는 전남 여수에서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이르는 해상에 약 100여 마리 미만의 월동군이 매년 규칙적으로 도래하였으나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가 최근 경남 하동

의 갈사리 해안에서 350여 개체의 대집단이 발견되었다. 먹이는 주로 초본류, 해조류, 등 식물성으로 해조류 중 거머리말을 선호한다.



기러기는 한번 맺은 부부관계를 평생 동안 유지하는 대표적인 새이다. 대부분의 새들이 일부일처제를 택하고 있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번식기 동안은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번식기 동안 어느 쪽이든 상대방이 죽거나,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았을 경우, 또는 영토로부터 쫓겨났을 때는 재혼이 이루어진다.

또한 꿩은 일부다처제로 한 마리의 수컷이 6마리 이상의 암컷과 부부관계를 맺으며, 일본에 서식하는 뇌조는 난혼제로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일정한 장소에서 여러 마리가 모여 서로 돌아가며 여러 번씩 교미를 하며 짝을 형성하지는 않는 새도 있다.

⑱ 큰기러기 *Anser fabalis*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는 약 85cm로 대형의 기러기다. 몸은 전체적으로 흑갈색이고, 부리는 검은색이며, 끝부분에 황색의 띠가 있다. 다리는 오렌지색이며, 발톱은 검은색이다.

겨울철새로 우리나라에는 10월 하순경 도래하여 저수지, 강, 갯벌, 매립지 등 다양한 서식지에서 월동한다, 주로 도내에 많은 수가 농경지와 습지에서 낟알이나 각종 초본류의 잎이나 줄기, 뿌리를 즐겨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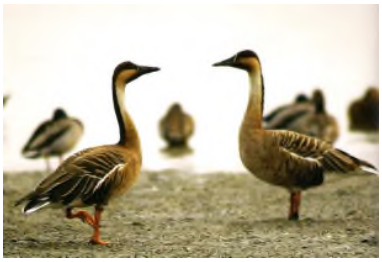
잠자리와 먹이장소를 오갈 때는 쇠기러기보다 더 먼 거리를 왕래하며 날아오를 때는 고니와 달리 활주하지 않고 곧바로 떠오르며 목을 앞으로 뻗고 난다. 번식지는 북극해와 가까이 있는 시베리아 툰드라 지대와 알래스카 툰드라 지대이다.

알품기를 끝낸 어미새는 새끼와 마찬가지로 약 30일 정도 날지 못하는 털갈이 기간을 맞는다. 대부분의 새들은 일 년에 1~2 번씩 털갈이를 하는데 번식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한다. 오리, 기러기, 고니 등과 같은 물에 사는 해들은 모든 깃털을 한꺼번에 털갈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깃털이 다 자랄 때까지는 날지 못하고 수면 위에 떠서 헤엄쳐 다니며 천적을 피한다.

원앙은 부부의 금실이 좋기로 유명한 반면에 매년 짝을 바꾸지만, 기러기는 한번 맺은 부부의 관계를 평생 동안 유지한다고 하여 예부터 결혼식장에는 기러기의 목각이 등장하였다.

⑲ 개 리 *Anser cygnoides*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 87cm의 대형 기러기로 이마에서 뒷목까지는 밤색이고 뺨과 앞 목은 옅은 갈색이다. 머리와 목 부분은 앞쪽과 뒤쪽의 색깔차이가 뚜렷하여 다른 기러기류 보다 밝게 보인다. 부리는 검은색으로 길며 기부에는 흰 띠가 있고 다리는 주황색이다. 가슴과 배는 갈색, 등과 날개윗면은 암갈색이며, 아래 꼬리덮깃은 흰색이다.



비교적 드문 겨울철새로 시베리아 중남부, 캄차카반도, 몽골,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우리 도내에서는 제주, 순천, 함평, 신안, 무안 등지에서 관찰된다.

하구, 갯벌 등의 물가에 도래하며 땅을 파헤치거나 논에서 먹이를 찾으며, 식물의 뿌리, 종자, 물고기, 무척추동물 등을 먹는다. 날아오를 때는 5~10m를 활주한 후 떠오르며 처음에는 흩어져 날지만 하늘에서는 사선 또는 V자 모양으로 줄을 짓는다.

간혹 갯벌에서는 고니나 개리 등이 긴 목을 물속 깊이 넣어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들은 먹이에 관한 맛과 냄새를 느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새들은 부리에 사람의 콧부멍에 해당하는 외비공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이 있으나 늘 건조한 상태로 있어 후각이 발달 되지 않았다. 또한 새들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미뢰가 목구멍에만 약간 분포하고 있어 먹이의 유독한 것들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만 미각을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포유류에 비해 미각도 발달되어 있지 않다.

⑳ 큰고니 *Cygnus cygnus* (천연기념물 201호)(멸종위기 Ⅱ급 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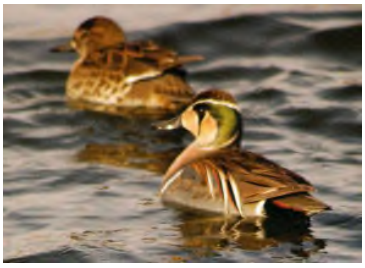
몸길이 140cm로 몸 전체가 흰색이나 어린 개체는 회갈색이다. 부리의 끝과 다리는 검은색이며 부리 기부의 노란색 부분이 앞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다. 고니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고니보다 조금 크고, 부리의 노란 부분의 끝이 조금 더 뾰족한 것으로 구별된다.

우리나라에는 11월 하순쯤에 찾아오는 겨울철새로 저수지, 호수와 늪, 소택지, 하구, 해안 등의 습지를 따라 남하하며, 강원도 경포대, 경상남도 낙동강 하구, 전라남도 금강하구, 전라남도의 강진과 진도, 해남, 함평 등이 월동지로 유명하다.

월동지에서는 암수와 새끼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겨울을 보내며, 헤엄을 칠 때는 목을 S자 모양으로 굽히고, 경계할 때는 목을 수직으로 세운다. 먹이를 찾을 때는 긴 목을 물속 깊이 넣어 수생 식물 줄기나 뿌리, 열매 등을 먹으며 때로는 수서곤충이나 담수성의 작은 동물도 먹는다. 수면에서 발로 물을 차듯이 뛰면서 날아오르며, 하늘로 날아오를 때의 모습과 물에 내리는 광경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잠을 잘 때는 만, 호수, 하천, 하구 등지에서 무리를 이루어 한 쪽 다리로 서서 머리를 등으로 돌려 깃털 사이에 묻고 자는 경우가 많다. 새들이 잠을 잘 때는 보통 다리를 웅크리고, 배를 지면이나 나무에 대고, 머리를 등속에 묻고 자는데 이는 피부의 노출된 부분을 털로 가려 체열의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때 한쪽 다리로 서는 것은 두 다리로 서는 것 보다 체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㉑ 가창오리 *Anas formosa*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 40cm정도의 군집성이 강한 소형의 오리로 큰 무리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부리는 검은색이며 수컷의 얼굴에는 노란색, 녹색, 검은색의 독특한 바람개비 모양의 무늬가 있으며 부리와 접하는 부분부터 머리꼭대기까지는 검은색이다. 암컷은 부리 기부에 둥근 흰색점이 있어 다른 종의 암컷과 구별된다,

겨울철새로 담수 또는 기수지역에서 월동하며, 겨울에는 주간에 저수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 주변의 농경지로 날아가 벼 낟알을 주로 먹는다. 월동지에서는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며 고천암호, 천수만, 아산만, 남양만, 금강하구, 동림저수지, 논산저수지, 주남저수지, 낙동강하구 등지에 도래한다.

오리류와 같은 물새들의 발은 항상 외부 온도와 가깝게 유지할 수 있어 얼음위에서도 동상에 걸리지 않는다. 물새들의 몸통 체온은 사람보다 높아 40~41° 정도인데 이처럼 한 몸에서 두 가지의 체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다리와 몸통을 잇는 관절부위에 가느다란 혈관이 그물눈 같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원더네트라고 하는 열 교환장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끝에서 몸통 쪽으로 돌아가는 차가운 혈액은 원더네트를 통과하면서 따뜻한 동맥에 의해 데워져서 몸통으로 올라가고, 거꾸로 몸통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동맥의 혈액은 열을 빼앗기면서 발쪽으로 내려간다.

㉒ 호사비오리 *Mergus squamatus* (멸종위기 Ⅱ급 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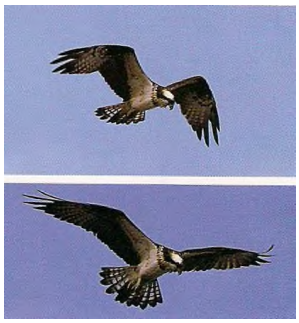
몸길이는 57cm정도이고, 비오리와 비슷하나 길게 뻗은 댕기와 옆구리의 뚜렷한 비늘무늬가 특징이다. 눈은 검은색이고 붉은색의 부리 끝에는 노란 점이 있다.

겨울철새로 전국의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매우 적은 개체가 월동하며, 우리 도내에서는 함평, 제주, 신안 등지에서 관찰된다. 주로 물의 흐름이 빠른 하천에 서식하며, 잠수하여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새들은 깃털 자체가 방수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은 미지선이라고 하는 지방샘에서 분비되는 지방을 부리로 찍어 몸의 깃털에 발라 방수처리를 한다. 그러므로 새들은 비를 맞아도 깃털이 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새들은 미지선에서 나오는 지방을 온몸에 바르기 위해 깃털손질을 하면서 수시로 고개를 돌려가며 깃털에 문지르는 행동을 반복하는데 이것은 깃털의 방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와는 달리 가마우지처럼 물속 깊이 잠수하여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은 깃털이 물에 젖어야 부력을 줄여서 깊은 곳까지 잠수가 가능하므로 방수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마우지는 잠수하여 먹이를 충분히 먹고 나면 바위나 나무기둥 등지에 올라앉아 양쪽 날개를 펴고 젖은 날개를 햇볕에 말린다.

㉓ 물수리 *Pandion haliaetus* (멸종위기 Ⅱ급 조류)



암컷이 수컷에 비해 크며, 몸길이는 58-60cm이다. 몸은 어두운 갈색의 윗면과 흰색의 아랫면이 대조를 이룬다. 머리는 흰색이고 검은 눈 선은 목뒤로 연결된다. 날아오를 때 현저하게 폭이 좁은 긴 날개가 눈에 띄며 꼬리는 짧다.

한국에서는 주로 겨울철새나 통과철새로 도래한다. 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국, 시베리아, 동남아시아, 호주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해안, 하구, 하천, 저수지, 양어장 등 물고기가 있는 곳에 도래한다.

단독으로 생활할 때가 많고, 물 위에서 정지비행을 하면서 먹이를 찾는다. 먹이를 잡을 때는 양쪽 다리를 밑으로 늘어뜨리고 날개는 반쯤 펴고 물속으로 돌진하여 양쪽 다리로 물고기의 머리를 움켜잡는 것이 일반적인 사냥방법이다. 때로는 하늘에서 원을 그리듯이 날을 때도 있다.

물수리는 천연의 폴라로이드 선글라스의 기능을 갖춘 눈과, 미끄럼방지 갈고리 발톱 등 물고기 사냥에 적합한 진화적 과정을 거쳐 왔다.

우선 눈은 특별한 오일로 코팅이 되어 있어 물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흡수를 줄여 수면 아래 1m에 있는 물고기까지 볼 수 있다.

또 발톱은 커브가 심하고 매우 날카로워 고기의 비늘을 뚫고 움켜잡기 쉽게 돼 있으며 발톱의 안쪽은 타이어의 트레드처럼 돼 있어 미끄러운 물고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심지어 뒷발톱의 하나는 앞쪽으로 회전하여 장악력을 더 해주기도 한다.

㉔ 벌 매 *Pernis ptilorhynchus*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는 57cm~61cm이며 암컷이 수컷에 비해 크다. 몸은 전체적으로 갈색, 암갈색, 회갈색이며 날개와 꼬리에 다양한 줄무늬가 있다. 아종, 암수, 연령별로 무늬의 변이가 심하며 다 자란 새의 꼬리에는 검은색의 굵은 띠가 있다. 이동 중에는 보통 무리를 이루며 머리가 작고 목이 길어 날 때는 다른 종에 비해 길게 보인다.

통과 철새로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에 전국에 걸쳐 규칙적으로 통과한다. 5월 초순경 신안 가거도와 매화도, 홍도, 함평, 영광 봉화령 등 해안이나 도서지역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며, 내륙에 위치한 장성 태청산과 광양 백운산 등지에서도 약 50여 마리 이상의 무리가 이동해 가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처럼 벌매와 왕새매, 새홀리기 등과 같이 주로 남쪽에서 날아오는 매 종류는 어느 한 지점에서 모였다가 무리가 형성되면 상승기류를 타고 계속해서 이동해 간다.

일본, 중국의 북동 및 아무르지방에 걸쳐 번식하며, 5월 하순에서 6월 하순에 산란한다. 알은

대게 2개를 낳으며 포란기간은 28~35일이고, 육추기간은 35~45일이다.
벌이나 말벌류를 주식으로 하며, 귀뚜라미류, 개미류, 기타 곤충류도 먹는다. 간혹 개구리나 도마뱀, 소형 조류나 포유류도 잡아먹는다.

㉕ 솔 개 *Milvus migrans* (멸종위기 Ⅱ급 조류)



암컷이 수컷에 비해 크며 독특한 M자형의 꼬리와 날개 아랫면의 흰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꼬리를 펼칠 때는 꼬리 끝이 직선처럼 보일 때도 있다. 어두운 갈색의 몸에 밝은 갈색의 세로줄 무늬가 많다.
흔하지 않은 통과철새이며 겨울철새이나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에 적은 수가 번식하는 여름철새이다. 과거 제주도에서는 흔히 번식하였으며 그 밖의 도내 내륙에서도 적은 수가 번식하였으나 현재 여름철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까지 규칙적인 도래지는 낙동강 하구와 거제도이며, 거제도 인근 섬과 부산에서 번식이 확인된 바 있다.
하늘에서 원을 그리듯이 날을 때가 많고, 때로는 날개를 편 채 날갯짓을 하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날기도 한다. 비번식기에는 보통 3~4마리의 적은 무리에서 10~20여마리의 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으며, 잠자리로 이용하는 숲에는 수백여마리가 모인다. 식성은 곤충을 비롯한 무척추동물, 죽은 동물, 소형포유류, 어류 등을 주로 먹는다.
새들이 하늘을 잘 날 수 있는 이유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몸이 유선형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골격은 속이 비어있어 단단하면서도 가볍기 때문이다. 먹이를 신속하게 소화하고 곧 바로 배설함으로써 먹이에 의한 체중 증가를 줄이기 위해 장의 길이도 짧아졌다. 또한 모든 내장기관이 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부속기관들이 몸의 중심을 향하고 있어 균형이 잘 유지된다. 그리고 기낭이라고 하는 공기순환장치에 의해 늘 신선한 공기를 몸 구석구석에 공급 받고 있기 때문이다.

㉖ 말똥가리 *Buteo buteo* (멸종위기 Ⅱ급 조류)

암컷이 수컷에 비해 크며, 아종 또는 지역에 따라 깃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한국에 도래하는 아종은 대개 몸이 전체적으로 밝은 갈색에서 암갈색을 띤다. 날 때 날개 아랫면의 암갈색 점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어미새의 눈은 어두운 갈색이지만 어린 새는 노란색을 띤 갈색이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월동하는 흔한 겨울철새로 말똥가리류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다. 숲의 가장자리, 경작지, 산림 등 다양한 서식지에 도래하며 주 먹이는 설치류이지만 곤충이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도 잡아먹는다.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고 솔개처럼 큰 무리를 짓는 일은 드물다. 상승기류를 이용하여 하늘을 날을 때가 많으며 정지비행도 한다. 날을 때의 모습은 솔개와 다소 비슷하지만 날개

폭이 넓고, 꼬리끝이 둥근 것이 다르다.

야외 관찰에 의하면 가족군을 형성하지 않는 철새들의 어린 개체는 월동지를 향한 최초의 여행에서 이동루트를 가르쳐 줄 연장자와 함께 무리를 형성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무리를 형성한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는 어린 까마귀를 포획하여 다른 까마귀들이 모두 남쪽으로 날아가 버린 다음 방사했는데 이 어린까마귀는 정확하게 자신의 가족이 통과한 이동루트를 따라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어린 철새의 몸속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동에 관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㉗ 항라머리검독수리 *Aquila clanga*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는 50~70cm이고, 날개의 길이는 158~182cm이다. 흰색의 허리를 제외한 몸 전체가 흑갈색이며, 야외에서는 검게 보인다. 날개는 넓지만 꼬리는 짧고 둥글며 줄무늬가 없다. 어린새는 날개 윗면과 어깨깃에 황갈색의 큰 반점이 산재해 있지만 깃털의 마모가 심하거나 털갈이를 하면 반점의 수가 줄어든다. 날 때 흰색의 허리가 뚜렷하게 보이며, 다리깃에도 노란색을 띤 갈색의 점이 있다. 부리는 검은색이며, 기부는 노란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겨울철새나 통과철새로 도래하며, 제주도를 비롯하여 경남 김해, 낙동강 하구, 전남 여수, 해남, 함평, 충남 천수만, 경기 포천 등지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다.

평지의 못가나 갈밭, 하천, 호수 부근의 낙엽활엽수림이나 침엽수림, 또는 초원에 서식한다. 행동이 활발하지 못한 새로서 독립수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다.

말똥가리와 비상하는 모습이 비슷하며 주로 소택지 위에서 원을 그리듯이 날면서 먹이를 찾는다. 비교적 느리게 나는 조류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설치류 따위를 잡아먹는다.

㉘ 독수리 *Aegypius monachus* (멸종위기 Ⅱ급 조류)

초대형의 수리류이며 몸 전체가 검은 갈색으로 야외에서 검게 보인다. 날 때 긴 날개의 끝은 갈라지고 위로 휘어져 있다. 날개는 매우 넓고 길지만 꼬리는 짧고 날 때 머리는 작게 보인다. 머리는 피부가 드러나 회갈색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습을 보이는 겨울철새로 최근에는 4월 이후까지 머무는 개체들이 확인된 바 있다. 유라시아의 온대와 아한대, 그리고 중앙아시아권에 널리 분포하지만 개체수는 많지 않다. 동아시아 개체군은 중국과 한국에서 주로 월동하지만 일본에서

는 미조로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



해안선과 큰 한천을 따라 남하 이동하며 내륙이나 해안지역의 언덕이나 절벽바위 위, 또는 하구의 삼각주 등지에서 관찰된다. 작은 무리를 이루기도 하며 최근에는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양계장이나 돈사주변, 도축장 등지나 철원, 양구, 파주 등 먹이주기 행사를 하는 지역에 대규모 집단이 도래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광양시 진상면의 한 염소농장에는 폐사된 염소의 사체를 먹기 위해 매년 100여 마리 이상의 집단이 도래하고 있다.

매년 겨울 독극물에 의해 희생당한 수거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먹음으로써 2차 중독에 의한 희생이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

㉙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는 45~51cm이고, 날개를 편 길이는 99~123cm이다. 선명한 흰색의 허리가 특징이며, 양 날개를 V자형으로 위로 올린 채 낮고 느리게 날면서 먹이를 찾는다. 수컷의 날개 끝은 검은색이고 몸 윗면은 밝은 회색이지만 허리는 흰색이다.

겨울철새로 개구리매 중 가장 흔한 편이며, 전국의 습지 주변이나 농경지에서 관찰된다.

단독으로 생활할 때가 많고, 갈대밭이나 초지 위를 직선으로 저공비행하며 들쥐나 작은 새를 발견하면 날쌔게 낚아채어 땅 위나 둑에 내려앉아 먹는다. 때로는 정지비행을 하며 먹이를 찾기도 한다.

나뭇가지나 전선에는 앉지 않으며 지상의 말뚝 위나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한다. 때로는 지상을 걷거나 가볍게 뛰어 다니기도 하고 뛸 때는 꼬리를 상하로 심하게 흔든다.

먹이는 작은 새나 오리류 또는 설치류이고, 다른 매류나 부엉이류 처럼 먹이 중에서 소화되지 않는 부분은 펠리트로 토해 낸다.

㉚ 비둘기조롱이 *Falco amurensis*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는 30cm정도이고 다리와 납막은 주황색이다. 수컷의 몸은 전체적으로 검게 보이며, 붉은색의 아랫배와 아래꼬리덮깃이 뚜렷하다. 아랫날개덮깃은 선명한 흰색이고 날개깃은 검은색이다. 암컷의 뺨은 흰색이며, 가슴과 배는 흰색바탕에 검은색의 무늬가 있다.

비둘기조롱이는 한반도의 중부 이북을 통과하는 희귀한 통과새이며, 북한의 고산지대에서는 작은 무리들이 번식하는 드문 여름새이다. 우리 도내에서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제주도, 함평 등지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다.



이 종은 매이면서도 무리를 짓는 것을 좋아한다. 이동할 때에는 큰 무리를 이루지만 번식기에도 비교적 밀집한다. 때로는 한 개의 나무에 2~3쌍이 번식하는 경우도 있다. 나무 가지나 전신주에 앉아 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지상으로 내려와 발로 먹이를 잡는다.

맹금류는 높은 하늘을 날면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명확히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사람과 달리 눈에 있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는 망막 중앙의 황반이라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황반은 특정 사물에 눈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맹금류의 황반에는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의 약 2~5배 에 달한다.

또한 인간이 5m밖에 겨우 볼 수 있는 물체를 매는 20m밖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맹금류는 훨씬 높은 시야를 확보하고 이들을 정확히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높은 하늘에 떠 있다가 사냥감을 발견하면 잽싸게 내려와 낚아채 가는 것이다.

㉛ 흑두루미 *Grus monacha*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는 약 100cm이며, 암수가 같은 색이다. 흰머리와 목을 제외한 전체가 검은색이며, 어미새는 이마가 검고 머리꼭대기는 붉다. 날 때 날개 전체가 검게 보이며, 뚜렷한 흰색의 목과 검은색의 몸 색깔로 다른 종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에는 가을에 구미의 낙동강변에 일본으로 이동하는 대규모 집단이 중간기착하며, 순천만에는 100여 마리 이상이 매년 월동하고 있으며 함평만에도 가끔 나타나곤 한다. 월동하는 개체군은 암·수와 어린새로 구성된 가족군들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다. 먹이는 수서무척추동물, 양서류, 어류, 식물의 열매와 구근, 곡물 등을 먹는다.

날을 때에는 날개를 완만하게 펄럭이고 긴 목과 다리를 앞뒤로 뻗되, 몸집의 수평면보다 약간 밑으로 처진다.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V자 형태로 대열을 이루며 날아간다. 선두 개체가 날개짓을 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그 뒤에는 와류가 생기고 뒤 따르는 개체는 이 와류 중에서 상승부분만 이용하면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며 쉽게 날아갈 수 있다.

이때 각 개체가 V자 대형을 이루며 각자의 위치에서 앞서가는 개체가 만들어 준 상승기류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선두의 한 개체만 제외하고는 무리의 모든 개체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㉜ 재두루미 *Grus vipio*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는 127cm이며, 뺨이 붉고, 흰목에 회색의 띠가 올라와 있다. 첫째와 둘째날개깃은 검



은색이며, 몸은 회색이지만 먼 거리에서는 희게 보인다. 어린새는 머리 꼭대기에서 뒷목까지 갈색이다.

겨울철새로 농경지, 갯벌, 저수지 등지에 도래한다. 우리나라에는 철원, 한강하구, 대성동, 주남저수지 등지에서 월동하며, 이동 시기에는 많은 지역에서 관찰된다. 먹이는 수서무척추동물, 양서류, 어류, 식물의 열매와 구근, 곡물 등을 먹는다.

날아오를 때는 날개를 1/2정도 벌리고 몇 걸음 뛰면서 활주한 후에 떠오른다. 날을 때는 날개가 V자 형태가 되지만 간혹 직선인 때도 있다.

두루미와 같은 철새들은 매년 같은 이동경로를 거쳐 같은 월동지 또는 번식지로 정확하게 찾아간다. 이는 태양의 위치나 별자리를 기준삼아 방위를 측정해 비행방향을 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측 또는 레이다 관측에 따르면 철새들의 이동은 주로 맑은 날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무리가 흐트러지거나 이동을 중지한다고 한다. 이는 철새들이 대륙을 횡단할 때는 산맥, 계곡, 하천, 해안선 등이 길잡이 역할을 담당해 이동경로를 기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길잡이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대평원이나 망망대해 등을 건널 때는 아마도 이미 유전물질에 프로그램 돼 있는 태양 콤파스와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㉝ 뜸부기 *Gallicrex cinerea* (멸종위기 Ⅱ급 조류)



수컷은 몸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푸른색을 띤 검은색이다. 부리는 노란색이며, 번식기에는 이마에 붉은 이마판이 있다. 비번식기에는 암컷과 유사하나 부리가 더 굵으며 붉은색의 다리는 암컷과 같은 연한 녹색이 된다. 암컷은 몸이 전체적으로 황갈색이며, 등과 날개에 암갈색의 반점이 있고, 다리는 연한 녹색이다.

여름철새로 논과 다양한 형태의 습지에 서식하며, 곤충류, 수서무척추동물 등을 잡아먹는다. 과거에는 함평에서도 여름철 농촌 들녘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었고, 울음소리 또한 쉽게 들을 수 있었으나 근래에는 일부 한정된 지역에만 드물게 도래하고 있어 머지않아 뜸부기라는 이름도 동요 속에만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새들은 번식기 동안 노래를 부른다. 노래의 구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과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배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새라 할지라도 개체마다 소리가 약간씩 다르다. 또한 지리적인 격리나 서식의 환경에 따라 새소리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새들도 사투리를 쓴다고 볼 수 있다.

새들의 울음소리에는 Song과 Call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Song은 번식기에 수컷이 다른 수컷들에게 자신의 영토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와 함께 마음에 드는 암컷을 유혹하여 배

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는 소리이고, Call은 경계음이나 상호간 의사소통을 위해 우는 소리를 말한다.

㉞ 검은머리물떼새 *Haematopus ostralegus*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 45cm의 대형 도요류로 부리는 길고 붉은색이다. 머리, 목, 등 및 꼬리는 검은색이며 배와 허리, 아래꼬리덮깃은 흰색이다. 어미의 눈은 붉은색인 반면 어린새는 적갈색이다. 날 때 날개 윗면에는 뚜렷한 흰색의 줄이 보인다.

텃새로 섬이나 해안가의 바위나 모래지역에서 번식하고 겨울철 금강하구와 장항해안의 갯벌에서 대집단이 월동한다. 전국의 해안이나 갯벌, 하구 등지에 서식하며, 긴 끌 모양의 부리를 이용하여 주로 조개류, 게류, 갯지렁이류를 잡아먹는다.

지상이나 암초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둥지를 만들고, 알은 2~3개를 낳으며, 포란기간은 21~24일이다.

포란이란 어미 새가 알을 품어서 새끼가 태어나 알을 따뜻하게 해주고 돌보는 것을 말한다. 어미 새가 포란을 시작할 때가 되면 배에 있는 깃털이 둥그렇게 빠져 피부가 드러나게 되고 이곳에 혈관이 집중 분포하게 되는데 이것을 포란반이라고 한다. 어미새는 포란반에 알을 접촉시켜 따뜻하게 덥혀준다.

포란중에 생기는 노폐물은 알껍질 속으로 배출되고, 껍질에서는 계속해서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알이 점점 가벼워진다. 껍질 속의 칼슘은 새끼의 뼈가 만들어 질 때 흡수되므로 부화될 때가 되면 껍질이 연해져서 새끼가 깨고 나오기 쉽게 된다.

㉟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 21cm로 꼬마물떼새보다 부리와 다리가 길다. 여름철 가슴의 검은색 줄무늬는 꼬마물떼새에 비해 가늘다. 겨울철에는 머리와 가슴의 검은색 줄무늬가 번식기에 비해 뚜렷하지 않다. 어린 새는 머리에 검은색 줄무늬가 없다.

전국의 하천에서 번식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로 하천가에서 걸어 다니며 곤충이나 무척추동물을 잡아먹는다. 해안의 모래밭이나 강가의 자갈밭 등의 오목한 곳에다가 접시 모양의 둥지를 틀고 번식하며, 3~7월 사이 3~4개의 알을 낳는다.

물떼새류는 의상행동을 하여 자신의 새끼를 보호한다. 모래 위에 낳아 둔 알이나 새끼가 있는 둥지 가까이로 사람이나 짐승이 다가오면 어미새는 마치 상처를 입고 날지 못하는 것처럼 날개

를 축 늘어뜨리거나 다리를 절룩거리기도 한다. 침입자는 이런 어미새의 행동에 이끌려서 어미새를 잡으려고 달려들면 어미새는 침입자를 몇 발짝씩 유인하여 알이나 새끼로부터 먼 곳까지 끌고 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천적의 관심을 둥지로부터 떼어놓거나 새끼가 천적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다.

㊱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 63cm로 대형의 도요류다. 아래로 휘어진 부리는 도요류 중 가장 길며 수컷이 암컷보다 짧다. 날 때 등과 허리에 흰색은 전혀 없으며 날개의 아랫면에는 갈색의 가는 줄무늬가 빽빽하다. 외부 형태는 마도요와 유사하나 윗꼬리덮깃과 아래꼬리덮깃이 흰색인 마도요에 비해 갈색에 반점이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봄과 가을철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대형의 도요류로 서해안지역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관찰된다. 번식기에는 곤충을 주로 잡아먹지만 비번식기에는 긴부리를 이용하여 게류, 갑각류, 갯지렁이류 등 다양한 저서무척추동물을 잡아먹는다.

중국의 고서인 전국책(戰國策)에는 도요새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전국시대에 조(趙)나라가 연(燕)나라를 치려하자 연나라 왕의 부탁을 받은 소대(蘇代)는 도요새와 대합에 관한 이야기로 조나라의 혜문왕(惠文王)을 찾아가 설득하였다.

대합이 입을 열고 햇볕을 쬐고 있으려니까 그 곳에 온 도요새가 대합의 살을 물고 늘어졌다. 이 때 대합이 화가 나서 자신의 입을 닫아 버려 둘 다 꼼짝할 수가 없었다. 도요새는 오늘 내일 비만 오지 않으면 조개는 바짝 말라 죽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조개는 조개대로 오늘 내일 입만 벌려 주지 않으면 죽은 황새가 될 것이다 생각하여 서로 버티고 있었다. 그 때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어부가 양쪽 모두를 간단하게 잡아갔다.

연나라가 대합이면 조나라가 도요새이고, 두 나라가 싸운다면 전국칠웅 가운데 가장 강한 주(秦)나라가 어부가 되어 양쪽 모두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방휼지쟁, 즉 어부지리라는 고사성어에 얽힌 이야기다.

㊲ 검은머리갈매기 *Larus saundersi*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 32cm로 부리는 짧고 검은색이며, 다리는 어두운 붉은색이다. 여름깃은 머리가 검은색이고 눈 주위는 흰색이지만, 겨울깃은 머리가 흰색이며, 눈 뒤쪽에는 검은색의 반점이 있다. 가슴과 배는 흰색, 날개 윗면과 등은 옅은 회색이다.

중국의 해안 염습지에서 번식하고, 한국에서는 겨울철 함평만 등 전국의 해안갯벌과 하구지역에 도래했으며 1990년대에 시화호, 인천 송도, 영종도에서 번식집단이 발견되었다. 비번식기에는 갯벌이나 강하구에서 조개류, 갯지렁이류 및 갑각류를 잡아먹는다.



갈매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바닷새들은 채내에 염분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기능이 있어 바닷물을 먹고도 살 수 있다. 바닷새들은 부리의 위쪽 부분에 먹이와 함께 채내로 들어온 혈액중의 염분을 여과하는 염선이라고 하는 샘을 갖고 있다. 이곳에서 여과된 염분은 진한 소금물이 되어 콧구멍을 통해 부리의 끝부분으로 배출된다. 야외에서 주의깊게 관찰해 보면 갈매기의 부리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닷물이 여과되고 남은 염분 찌꺼기이다.

㊳ 수리부엉이 *Bubo bubo*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 60~75cm로 한국의 올빼미과 조류중 가장 크다. 큰 몸집과 긴 귀깃으로 쉽게 구별되며 눈은 주황색을 띤 노란색이다. 몸은 전체적으로 황갈색이며, 암갈색의 반점이 산재한다. 가슴과 배의 세로줄무늬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며 다리와 발가락은 연한 갈색 깃털로 덮여 있다. 바위나 나무위에 직립자세로 앉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귀깃이 있는 것을 부엉이, 귀깃이 없는 것을 올빼미라고 구별하여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다.

텃새로 전국에 걸쳐 분포하나 어느 지역에서나 서식밀도는 낮다. 암벽이 있는 산이나 바위산에서 생활하며 절벽 틈의 평평한 바닥에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는다. 주간에는 쉬다가 야간에 활동하며, 설치류와 멧토끼, 꿩, 멧비둘기, 오리류 등을 잡아먹는다.

매와 부엉이처럼 새나 쥐와 같은 동물을 잡아먹는 맹금류는 소화되지 않는 털이나 이빨, 뼈, 깃털 등을 단단하게 뭉쳐서 둥그렇게 만든 다음, 입으로 다시 토해 내는데 이것을 펠릿트라고 부른다. 갈매기도 물고기의 뼈와 비늘을 펠릿으로 만들어 토해낸다.

부엉이는 먹이감을 통째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 펠릿을 토해내지만, 매는 포획물을 부리와 다리로 찢어서 먹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는 것을 적게 먹게 되어 펠릿의 양도 적다. 예외적으로 식물의 종자와 씨앗은 소화기관을 통과해 다른 배설물과 함께 밖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종자를 널리 퍼트리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대동면 상옥리 옥동마을의 암벽에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에는 군내 산간 암벽에 사는 곳이 많았으나 지금은 다른 곳에서는 서식처를 발견치 못했으며 일본산 수리부엉이는 멸종되었다고 하며 그 원인은 약용으로 마구잡이한 것이 멸종의 원인이라 하겠다.

㊴ 팔색조 *Pitta brachyura* (멸종위기 Ⅱ급 조류)



몸길이는 18cm정도이며 매우 화려하다. 등과 날개 윗면은 녹색, 허리와 날개덮깃은 광택이 나는 파랑색이며, 가슴과 배는 노랑색이다. 배의 가운데 부분은 붉은색이며, 눈 주위로 암갈색의 띠가 있고, 긴 다리와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

주로 제주도와 거제도를 비롯한 남부해안지방에서 번식하는 여름철새이며, 근래에는 내륙지방에서도 작은 무리가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팔색조는 삼광조와는 달리 주로 지상생활을 하며 경계심이 강하여 좀처럼 사람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포란 중에 있는 암컷이 위기를 느낄 때에는 둥우리의 출입구를 푸른 잎이 붙은 나무 가지로 가리거나 소똥을 입구에 박아두는 습성이 있다.

습기가 많은 울창한 상록활엽수에서 낙엽사이를 들추어 곤충이나 지렁이를 잡아먹으며, 육추할 때 새끼는 암컷에 의해 거의 지렁이로 키워 진다. 암컷만이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며 수컷은 경계만 한다.

자연도태론의 대가 Wallace는 팔색조의 색채를 평하여 미(美)의 극치라고 격찬하였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우리나라에서 번식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1918년 5월 한라산의 sksaWhr 울창한 숲에서 일본인에 의해 6마리가 채집된 후부터였다.

㊵ 삼광조 *Terpsiphone atrocaudata* (멸종위기 Ⅱ급 조류)



수컷은 몸길이의 두 배에 달하는 긴 꼬리가 특징이며, 머리는 어두운 청색, 등과 허리는 적갈색, 배는 흰색이다. 암컷은 수컷과 비슷하지만 등이 밝은 갈색이며, 꼬리가 짧다. 부리와 눈테는 푸른색이다. 어린 새는 꼬리가 짧으며, 암컷과 유사하다.

삼광조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번식을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나는 여름철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희소하며, 제주도와 남해안지역에서의 서식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비교적 다양한 숲에 서식하며, 주로 숲의 중층부나 상층부에서 생활한다. 공중을 날거나 정지비행을 하면서 곤충류를 잡아먹는다.

5~7월에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주변에 물이 있는 어두운 숲속에 둥지를 튼다. 둥지의 높이는 보통 2m정도이고, 때에 따라서는 6~10m까지 높이 짓는 경우도 있다. 거미줄을 이용하여 둥지에 이끼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끼는 번식장소가 어둡고 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 있으며, 살아 있는 이끼는 둥지를 튼튼하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과 위장해주는 역할을 한

다. 둥지가 완성되면 겉은 나뭇잎 등으로 다시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3~4일 혹은 10일이 걸려 둥지가 완성되며, 집을 짓는 동안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삼광조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달, 해, 별을 읽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최근에는 일본식 이름이라고 해서 긴꼬리 딱새라고도 불리 운다.

㊶ 구렁이 *Elaphe schrenckii* (멸종위기 Ⅰ급 양서·파충류)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뱀 중에서 가장 큰 종이다. 주로 산에 서식하는 먹구렁이와 인가근처에 서식하는 황구렁이 등 2가지 형태가 있다. 황구렁이는 등면이 녹색을 띤 황갈색이고, 배면은 황색이며 흑색의 점무늬가 산재한다. 반면에 먹구렁이는 등에 황갈색을 띤 감람색 바탕에 흑갈색의 가로무늬가 있고, 배의 각 비늘에는 세 쌍의 검은 무늬가 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나 밀도는 매우 낮다.

난생으로 5~6월에 12~20개 정도의 알을 인가 근처에 양지바른 곳의 돌담 밑이나 볏짚 아래에 낳는다. 먹이는 주로 설치류와 조류(참새), 양서류(개구리)이며, 이 중에서 설치류가 주류를 이룬다.

예로부터 구렁이는 각종 재화로부터 집을 지켜준다는 민속신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1970년대 이후 보신에 의한 지난친 욕망과 구렁이의 주 서식처인 시골의 돌담과 초가지붕 등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그리고 일부 섬 지역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산강 상류수역의 둔치 등에 자주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농경지 등의 배후습지가 위치해 있는 강변의 둔치 등을 구렁이들이 새로운 서식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㊷ 맹꽁이 *Kaloula borealis* (멸종위기 Ⅱ급 양서·파충류)

몸집에 비해 머리는 작고 몸길이는 45mm정도 이다. 아래턱의 앞쪽 끝 가까이에 1개의 울음주머니가 있으며, 화가 나면 몸을 풍선처럼 크게 부풀린다.

우리나라와 만주지역에 분포하며 1970년대까지는 전국적으로 흔하게 서식하던 종이었으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서식처의 파괴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제한된 지역에만 서식한다.



웅덩이나 저습지 등지에서 구멍을 파고 살거나 흩어진 낙엽 속에 서식하며 활동기 때 낮에는 뒷다리로 땅을 파고 들어가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온다. 쟁기질 하듯이 땅을 판다고 해서 쟁기발개구리라고도 한다.

맹꽁이는 4월경 동면에서 깨어나 한 달 정도 먹이활동을 하다가 다시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춘면을 하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가끔 땅속에서 기어나와 먹이를 잡아먹다가 비가 내려 웅덩이에 빗물이 고이면 모두가 모여들어 짝짓기를 하는데 이때에는 몸을 더 크게 부풀린다.

알은 웅덩이가 마르기전에 올챙이를 걸쳐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12일 만에 완전히 자랄 수 있다. 맹꽁이의 알은 덩어리를 이루지 않고 하나씩 분리되어 있으며, 올챙이의 눈은 다른 종의 올챙이에 비해 두 눈이 양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㊸ 남생이 *Chinemys reevesii* (멸종위기 Ⅱ급 양서·파충류)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민물거북으로 성채의 껍질 길이는 15~25cm정도이며 등껍질은 진한 갈색이고 긴 타원형이다.

반수서성으로 전국 대부분의 하천, 호수, 연못 등지에 분포하며 어류, 수서곤충, 수초 등을 먹는 잡식성으로 겨울이 되면 모래와 진흙이 섞여 있는 물가 은신처에서 겨울잠을 잔다.

남생이는 목과 다리를 움직여 폐호흡을 한다. 다리와 목을 밖으로 뻗으면 공기가 폐로 들어가고 도로 집어넣으면 공기가 밖으로 나간다. 대부분의 다른 폐호흡 동물들은 가슴을 움직여 폐 안으로 공기를 출입시키는데, 남생이는 등갑과 배갑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 이 같은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한 남생이는 위험에 처하면 잽싸게 머리와 꼬리, 네 다리를 갑옷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런 다음 갑옷의 앞뒤 구멍을 작은 비늘로 덮여있는 다리로 막아 버리기 때문에 남생이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천적은 거의 없다.

하천 개발에 따른 서식지의 변화와 모래와 자갈채취로 인한 산란장소의 상실, 한약재로 사용하기 위한 남획 등에 의해 최근에는 개체군이 크게 감소하였다.

㊹ 비바리뱀 *Sibynophis collaris* (멸종위기 Ⅱ급 양서·파충류)



몸길이 약 60cm이며 주둥이 끝판이 둥글지 않고 판판하고 넓다. 또한 정수리에는 검은 무늬가 있으며 몸 빛깔은 등 쪽이 연한 갈색으로 윤기가 있다.

비바리뱀은 전체 몸길이에 비해 꼬리의 길이가 상당히 긴 뱀으로 몸길이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꼬리를 지니고

있다. 전반적인 모양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대륙유혈목이와 비슷하나 비바리뱀은 목뒤에 댕기와 같은 검은 무늬를 지니고 있어 식별이 가능하다.

주로 아열대지방인 중국남부와 타이완, 베트남, 인도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국소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다.

저명한 파충류학자 고 백남극 박사는 1981년 제주도의 성판악 사라오름 부근에서 비바리뱀을 채집하여 처음으로 국내서식을 밝혔으며 겉모습이 연약하고 곱다고 하여 제주도의 방언으로 처녀를 뜻하는 비바리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뱀은 꼬리가 길수록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고 행동이 활발한데, 비바리뱀도 꼬리 길이만큼 행동이 매우 민첩하다. 주로 거칠고 메마른 바위지대, 돌담 위에서 관찰된다.

㊺ 퉁사리 *Liobagrus obesus* (멸종위기 Ⅰ급 어류)



몸은 전체적으로 황갈색인데, 등은 짙으며 배는 황색이다. 가슴지느러미,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의 가장자리에는 연한 색의 테두리가 있고, 그 안쪽은 검은색이다. 성어는 대개 8~10cm정도지만 3년 넘게 살면 11cm이상 자란다.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금강의 중류지역, 웅천천, 만경강, 영산강 상류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야행성으로 하천 중류의 물 흐름이 다소 완만하고 자갈이 많은 곳에 살며, 육식성으로 주로 수서곤충류를 잡아먹는다. 산란기는 5~6월로 추정되며, 암컷은 돌 밑에 알을 낳은 뒤 남아서 알을 보호한다.

퉁가리과 어류에는 자가사리, 퉁가리, 퉁사리 등 3종이 있는데, 이 중 자가사리는 아래턱이 위턱보다 짧고 가슴지느러미가시의 안쪽에 3~6개의 톱니가 있으며, 퉁가리와 퉁사리는 아래턱과 위턱의 길이가 거의 같고 가슴지느러미가시의 안쪽에 1~5개의 톱니가 있다. 퉁사리는 퉁가리에 비해 몸이 비대하고 가슴지느러미가시의 안쪽에 3~5개의 톱니가 있는 반면 퉁가리는 퉁사리에 비해 몸이 비대하지 않고 가슴지느러미가시의 톱니가 1~3개로 흔적적이다.

㊻ 산굴뚝나비 *Eumenis autonoe* (멸종위기 Ⅰ급 곤충류)

날개 앞면은 거무칙칙하고 어두운 흑갈색으로 날개 중앙에서 바깥선두리 쪽으로 황갈색의 넓은 띠무늬가 있다. 앞날개 앞면에는 두세 개의 검은 눈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그 중앙에 흰 점이 조그맣게 찍혀 있으며 뒷면도 앞면과 거의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의 해발 1,800m가 넘는 백록담 부근에서만 분포하며, 북한 지방에서도 북부 산악지대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산식물인 키 작은 나무와 다년생 풀이 우거진 곳에서 살며, 짧은 거리를 날아서 곧 그 자리

에 멈추어 서는 습관이 있다. 암컷은 초본식물인 김의털의 잎에 하나씩 알을 낳으며, 애벌레는 밤에 잎 끝으로 이동하여 끝에서 안쪽으로 섭식하고, 낮에는 뿌리 근처로 내려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쉰다.

산굴뚝나비는 한랭한 빙하시대에 남하하였다가 빙하기가 지나면서 기온이 다시 올라가자 대륙과 격리된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립된 개체들이 한라산 정상 부근으로 이동하여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㊼ 두점박이사슴벌레 *Metopodontus blanchardi* (멸종위기 Ⅰ급 곤충류)



수컷의 몸길이는 47~60mm이고, 암컷은 23~34mm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사슴벌레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종이다. 검정색의 다른 사슴벌레와는 달리 몸 전체가 노란 황갈색을 띄며 목덜미 양쪽에 검은 점 1쌍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점박이사슴벌레는 1969년 한라산 북동쪽 기슭 해발 600m에 위치한 관음사에서 1마리가 처음으로 채집된 이래 제주도 서귀포 시내 및 그 주변 계곡 등에서 관찰기록이 있다.

상록활엽수가 발달한 곳에 서식하며 주로 활엽수의 수액을 빨아먹는다. 성체는 주로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낙엽이나 토양속에서 휴식을 취한다.

두점박이사슴벌레는 지금까지 한라산에 산다는 것 말고는 생태가 거의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사설 연구소에서 인공증식에 성공하여 일부 개체를 서식지내에 방사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생물 종 다양성 확보와 멸종위기 종의 생태계복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2000년대의 함평군 곤충엑스포 준비 등에서 인공증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㊽ 꼬마잠자리 *Nannophya pygmaea* (멸종위기 Ⅱ급 곤충류)

수컷의 몸길이가 약 15mm내외이고, 암컷은 20mm 내외이다. 수컷의 색상은 선명한 붉은색을 띤 반면, 암컷은 배의 2~6마디 사이에 미색 띠무늬와 담갈색, 흑색의 가로줄 무늬가 있으며 색상은 황갈색과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남 곡성과 강진, 지리산, 무제치늪, 경기 칠보산, 인천 무의도 등지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발생 시기는 6월 말부터 8월 초순까지이나 지역에 따라 변화가 있다.

강진군 꼬마잠자리 서식지의 경우 수원은 좌·우 2곳으로 지하수와 지표수의 형태로 유입되고 있으며, 중심부 약 10여 평에 5~40cm의 이탄층이 형성되어 있다. 주변부의 토양은 가는 자갈이 섞인 마사토로 식생이 빈약하여 나출된 부위가 곳곳에 나타난다.

습지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은 적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배수상태와 함수기능이 양호하다. 서식지 내에 수초가 밀생하고 있어 심한 강우 시에도 토양의 유실이나 퇴적에 의한 서식지 상실의 유려가 적고, 꼬마잠자리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3~5cm의 수위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⑭ 물장군 *Lethocerus deyrollei* (멸종위기 Ⅱ급 곤충류)



성충의 크기는 50~70mm 정도이고 짙은 갈색이다. 꼬리 부분에 호흡기관이 있어 거꾸로 매달린 형태로 꼬리 부분을 물 밖으로 내밀어 호흡하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서곤충 중 가장 크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인도 북동부 등지에 분포하며 늪이나 연못 또는 하천의 고인 물 등에 서식한다.

물장군은 암컷이 물 위로 나온 물풀이나 막대기에 알을 무더기로 낳아 붙여 놓으면 수컷은 수시로 자신의 몸에 붙은 물방울로 알에 수분을 공급해 주며 암컷이 알덩어리를 떼어내거나 먹지 못하도록 몸 전체로 알을 감싸듯이 보호한다. 산란에서 부화까지는 약 10일이 소요되며 먼저 부화한 동료들로부터 포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날 일제히 부화한다.

식성은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 개구리 등 수생동물들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잡아 체액을 빨아먹는다. 최근에는 수질오염으로 그 수가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⑮ 애기뿔소똥구리 *Copris tripartitus* (멸종위기 Ⅱ급 곤충류)



크기는 13~19mm이고, 광택이 강한 흑색이며 공처럼 부푼 형이다. 수컷은 이마에 상아모양의 뿔이 있다.

우리 도내에서는 제주도와 전남 진도 등에 분포한다.

애기뿔소똥구리 수컷은 짝짓기를 한 뒤에 똥 더미 아래로 깊게 굴을 만든다. 그리고 똥 더미에 똥을 잘라내어 굴속에 있는 암컷에게 운반해 준다. 암컷은 이 똥으로 여러 개의 원형이나 타원형의 경단을 만든 다음 그 속에 알을 낳는다. 애기뿔소똥구리가 터널을 만들고 알을 낳기까지 보통 2~4일 정도 걸리며 알은 경단 속에서 애벌레와 번데기 생활을 거쳐 두 달 정도면 어른벌레가 된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소와 말 등의 배설물을 좋아한다. 그 속에는 섬유질이 많아 경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아직 소화되지 않은 영양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들판이나 제방, 하천의 둔치 등에서 신선한 풀을 뜯어먹고, 이곳저곳에 똥을 남겨두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우리 안에서 집단으로 사료를 먹고, 그 안에서 배설하기 때문에 애기뿔소똥구리와 같은 분식성 곤충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㊶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ctus* (멸종위기 Ⅱ급 무척추동물)



외형은 구형에 가깝고 담수산인 구슬알다슬기와 비슷하다. 체층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며 둥글고 크다. 껍질은 두껍고 단단한 편이며 갈색바탕에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과 검은색 반점이 있다. 패각은 갈색 각피로 덮여있고, 뚜껑은 석회질성으로 각구를 밀폐한다.

전남 보성, 장흥, 강진, 경남 마산 등지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유속이 빠르고 자갈이 깔려있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지역에 서식한다. 서식조건이 까다로워 서식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전남 보성의 서식지는 수심이 낮고, 비교적 유속이 빠르며 하상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크기가 작은 고둥이 큰 고둥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자갈에 붙어 분포한다.

기수갈고둥은 조그만 외부영향에 의해서도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이들이 서식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파괴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서식지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질의 하천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㊷ 붉은발말똥게 *Sesarma intermedium* (멸종위기 Ⅱ급 무척추동물)



갑각의 등면은 볼록하며 각 구역을 구분하는 홈은 뚜렷하고 옆 가장자리에는 눈의 뒤쪽에 뚜렷한 1개의 이가 있다. 갑각과 집게다리는 동면기에는 짙은 붉은색이고, 짝짓기와 탈피를 반복하는 5월과 7월에는 연한 주황색, 연한 갈색, 붉은색, 짙은 붉은색 등 다양하며 주변의 토양환경과 비슷한 색깔을 띤다.

서식지는 연중 담수가 유입되는 기수역의 최상단으로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기도 등에서 서식 기록이 있다.

다른 게에 비해 갑각이 단단하고, 갑각과 다리의 바닥마디가 몸체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 수분증발을 최소화 하며, 아가미 방에 저장된 적은 양의 호흡용 물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 아가미를 적셔줌으로써 공기 중에서도 아가미 호흡을 할 수 있어 물 밖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동면에 들어가나 동면 중 따뜻한 날에는 굴 밖을 나와 활동을 보이는 가동면의 습성이 있다.

어둡고 조용한 야간의 소리와 진동, 공기의 흐름을 감지하는 감각모를 이용하여 갈대 등의 각종 식물의 잎에 올라가 식물의 잎을 포함하여 진딧물, 노린재 등의 곤충과 지렁이, 죽은 물고기 등을 섭식하는 잡식성 게이다.

㊸ 긴꼬리투구새우 *Triops longicaudatus* (멸종위기 Ⅱ급 무척추동물)



꼬리채찍을 제외한 성체의 몸길이는 2.7cm이고, 갑각은 타원형의 투구모양이며, 살아 있을 때 채색은 진한 초록색 또는 갈색이다. 몸은 전체적으로 원통형이며, 앞부분이 넓고 납작하다. 다리에 이가 있어 다리로 먹이를 잡고, 이로 먹이를 갉아 가슴과 복부에 있는 부속지로 섭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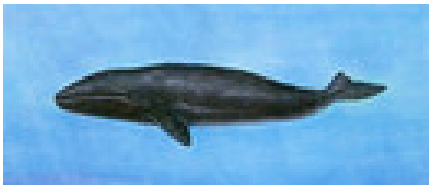
긴꼬리투구새우는 중앙아프리카가 원산지이나 2억 5천만 년 전 도이칠란트의 고생대 지층에서 화석상태로 발견된 적이 있으며, 현재까지 거의 진화되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서인도제도, 갈라파고스, 하와이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긴꼬리투구새우는 알 상태로 오랜 세월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서식지 환경이 양호해지면 5월중·하순경, 벼 생육초기의 논이나 못자리 등지에서 발생하여 7월 하순경에 소멸한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식물의 어린 싹을 비롯하여 모기 유충, 물벼룩, 각종 유기물 등 아무거나 잘 먹는다. 최근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긴꼬리투구새우를 복원 증식시켜 친환경농법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 참고문헌 : 영산강유역환경청. 2006. 남도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시보출판사

㊹ 쇠고래 *Eschrichtius robustus* (취약종 (脆弱種))



북태평양에 분포하며 미국대륙의 북태평양연안을 북상 또는 남하하는 연안성 고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차대전 전까지 동해안의 신포, 평강군 유진, 장전, 울산 등지와 다도해에서 포획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1월 하순 ~ 1월 하순의 2개월간에 동해안을 따라 남하 이동해 온다. 울산 부근 해면에 나타나는 것은 매년 11월 20일 이후이며 12월에는 갑자기 수가 증가한다.

㊺ 고슴도치 *Erinaceus europaeus* (취약종 (脆弱種))



본 종은 우리나라 특산아종이며 전국의 저지대에서 1,000 이하의 활엽수림에 서식한다. 야행성이며 낮에는 땅속의 빈 구멍이나 나무뿌리 밑, 바위 밑에서 쉬고 야간에 활동한다. 1989년 월악산 조사에서 많은 개체가 관찰되었으며 한약재로 남획되고 있다. 고슴도치 외에 북부지방에 *E. e. amurensis* Schrenk 희시무르고슴도치가 보고 되었다.

㊻ 산 양 *Naemorhedus goral Hardwicke*(천연기념물 217호)(멸종위기 Ⅰ급 포유류)



세계적으로 국한된 지역에 5종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아종은 티벳트 포메고원, 네팔, 중국 북부의 하북성, 사천성, 운남성, 시베리아, 만주, 우리나라에 분포한다. 고준지대(高峻地帶)의 암석에서 살며 3~4개체의 가족군으로 서식한다. 귀소성(歸巢性)이 강하여 밀렵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분포의 남부는 울진의 통고산이며 폭설로 인하여 인가지대(人家地帶)에 내려온 것을 마구잡아 개체수가 극도로 줄었다. 1988년에 비무장지대 조사에서 철책 속의 건봉산 고진동 계곡에 1군 11개체가 집단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㊼ 표 범 *Panthera pardus orientalis* (멸종위기 Ⅰ급 포유류)



우리나라와 아무르지방 및 동부 시베리아까지 분포한다. 현재는 캄카호반(湖畔) 남쪽에 분포하고 있다. 고급 모피로 인한 포획과 오지까지의 인간 출입 및 각종 먹이 부족이 감소의 원인이다. 고산(高山) 산림의 암석지대의 바위굴에 산다. 1,500m 이상에서도 살며 옛날에는 경기도 광릉에서도 출현하였다. 최후의 포획기록은 1962년 합천, 1963년의 지리산에서 포획된 것이 창경원(昌慶苑)에 입원(入苑)되었고 1956년 덕유산에서 2개체가 포획된 것 이외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1989년 환경처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㊽ 늑 대 *Canis lupus coreanus* (멸종위기 Ⅰ급 포유류)



중국 동북부, 북부 및 티벳트에 분포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전국에 널리 분포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야생에서의 서식이 의문시되는 절종(絶種)의 위기에 처했다. 고산(高山)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은 야산에서도 산다. 전후에는 광릉, 영주 등에서 확인되었고 환경처와 한국야생동물협회의 기록을 보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문시되며 들개를 오인한 듯하다. 1989년 강원도, 경기도, 충북, 충남 26개 산에서 조사한 바 1개체도 확인되지 않아 절종 상태인 듯 하다.

㊾ 여 우 *Vulpes vulpus peculiosa* (멸종위기 Ⅰ급 포유류)



한반도 전역에 분포된 한국특산 아종(亞種)이다. 8.15와 6.25 이전에는 전국의 야산 특히 공동묘지 부근에서는 어디서든지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야생에서는 서식이 의문시 된다. 1989년 환경처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등 26개 산지에서 조사한 바 1개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감소의 원인은 6.25 이후에는 풀라톨(강력살서제)과 8.15 이후의 청산가리의 산포로 죽은 꿩을 잡아먹어 몰살된 듯 하다. 1953~1954년에 4개체가 창경원동물원에서 사육됐으나 모두 죽어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종의 사육개체는 전혀 없다.

㊿ 시라소니 *Felis(lynx) lynx* (멸종위기 Ⅰ급 포유류)



꼬리가 뭉특하고 크기는 고양이와 표범의 중간 크기이다. 중위대부터 툰드라지대의 침엽수림을 중심으로 유라시아대륙의 동서에 걸쳐 연속적으로 분포하며, 스페인에는 고립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함경북도와 자강도일대의 고산지대의 산림에만 적은 수가 서식하고 있으나, 백두대간을 따라 강원도 일대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포유동물로서 야생상태의 개체는 그 수가 대단히 적다. 사슴, 노루, 어린 멧돼지, 멧토끼등과 멧닭, 들꿩, 어치 등을 포식한다. 무늬는 표범과 달리 호랑이와 같은 줄무늬를 띠고 있고 꼬리가 뭉특하여 다른 고양이과 동물들과 쉽게 구분된다.

⑥① 사향노루 *Mochus moschrus parvipes* (천연기념물 제216호)(멸종위기 Ⅰ급 포유류)



과거에는 우리나라 산악지역 전역에 분포하였다. 멸종위기에 처한 원인은 서식지 파괴를 들 수 있으나 약재로 쓰이는 사향을 얻으려는 밀렵도 한 몫 했다고 봐야겠다. 상당한 고지대에 서식하며 산을 잘 타는 고산동물이다. 1987년 오대산에서 생포, 방사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현재 환경부의 증식, 복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구소련의 알타이, 시베리아, 동북부의 에니세이강에서부터 시베리아 중부의 콜리마강 동사면에 이르는 시베리아의 산악 침엽수림, 오호츠크, 사할린 및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에 널리 분포한다. 전남 목포에서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전역에서 분산적으로 소수가 포획되었으나 격멸되어 위기에 처했다. 최근에는 충남 예산, 구례, 화천 등에서 밀렵되었다. 충북 영동, 고양 등에서 포획된 바 있고, 1971년에 산채로 잡혀 창경원에 입원(入苑)된 개체는 1972년에 죽었다.

⑥② 흰수염고래 *Balaenoptera musculus* (멸종 우려종)



북반구와 남반구에 널리 분포하였으나 적도해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다. 대양 이외에 지중해에서도 기록이 있다. 해마다 대개 같은 곳으로 되돌아와서 번식한다. 대형의 고래이다. 아직 절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종은 아니지만 감소일로에 있으며 종의 최대 유지수확을 상회하고 있어 보호를 요한다. 1900년대 초까지는 거의 북반구에서 포획 하였으며 남극의 채식권에서는 포경사업을 하지 않았었다.

일본 근해에 표류하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번 동해안에서 보고되었을 뿐이다. 남극에서 열대까지의 해양에서 살지만 북반구에서도 적은 무리를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100개체 미만이 생존하고 있다고 보며 CITES가 수출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국제보호수이다. 현재 동물계에서 가장 큰 짐승이며 몸길이(體長)가 27m 이상도 있다. 보통 10개체 내외의 무리로 생활한다.

⑥③ 바다사자 *Otaria byronia* (멸종위기 Ⅰ급 포유류)

북태평양에만 서식하며 북한계는 알류샨열도선을 넘지 않는다. 캄챠카반도와 알레스카만은 알류샤열도선을 넘은 북쪽에 위치하므로 그곳에서는 바다사자가 발견된 사실이 없다. 기아종(基亞種)은 캐리포니아주 몬데레이의 바다사자 바위에 연중 서식하고 있으며 약 5만~10만 개체의 집단이 캘리포니아 연안에 살고 있다. 일본아종 *Z. c. japonicus* (Peter)은 일본근해에 200~500 개체가 생존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때 울릉도와 일본

도근현(島根縣) 해안에 회유한 것만은 사실이다. IUCN의 국제보호수이다.



⑭ 검은토끼박쥐 *Plecotus auritus ognevi* (멸종위기 Ⅱ급 포유류)



우수리 지방 북부, 아무르 지방, 트란스바이칼리아, 중국 동북지방 및 우리나라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는 *P. a. ognevi* Kishida와 *P. a. uenoi* Imaizumi &Yoshiyuki의 2아종(亞種)이 보고 되었으나 재검토를 요한다. 한반도 이남에서는 강원도와 경북 일부지역의 폐광이나 동굴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이다. 동면하는 월동장소는 절대 보호가 필요하다.

⑮ 긴가락박쥐 *Miniopterus schreibersi* (포획금지 야생동물)

네팔, 세일론, 인도, 버마, 중국의 복건 및 호남(湖南), 해남도 및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 분포하는 종류이다. 동굴, 채석장의 낡은 구멍 및 건물의 지붕 등에 군서(群棲)하며, 겨울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면한다. 본 종은 비교적 흔한 종이었으나 남획으로 감소되고 있다.



⑯ 뿔박쥐 *Murina leucogaster* (포획금지 야생동물)



소련의 어니세이강 상류지역, 사할린, 알타이, 일본과 한국에 분포한다. 동굴, 폐광, 바위틈이나 좁은 구멍에 산다. 대개 갱도 구멍에서 20~30m 이상 들어간 깊은 곳에 작은 남포구멍에 들어가 산다. 관박쥐와는 공서(共棲)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과 강원도 및 경북의 일부지방의 폐광이나 갱도에서만 산다. 충북의 점말동굴에서는 화석으로 많은 뼈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지방에서는 우점종(優占種)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최근에는 절종(絶種)의 우려가 있는 희귀종이므로 시급한 보호가 요청된다.

⑰ 호랑이 *Panthera tigris coreensis* (멸종위기 Ⅰ급 포유류)

우리나라 전역과 중국 동북지방의 소흥안령일대 및 소련 연해주의 흑룡산 계곡 등 극히 한정된 지역에 분포한 고준지대(高峻地帶)의 원시림과 바위굴에 산다. 초원지대에서는 볼 수 없고 밀림성이 강하다. 대형수(大型獸)로서 다량의 먹이를 요구하여 먹이 부족과 호피의 고가판매에 의한 밀렵 및 입산 인구의 급증으로 서식처의 박탈(剝奪)을 가져와 절종의 위기에 처했으며 1921년 이후의 포획 기록이 없다. 본 종은 IUCN의 Red Data Book에 의

하면 세계적으로 불과 100여개체가 잔존된 것으로 보고되었을 뿐인 절종위기종(絶種危機種)이다.



㊽ 따오기 *Nipponia nippon* (천연기념물 제 198 호)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따오기는 황새목 따오기과에 속하며 예전에는 우수리, 중국, 일본, 한국 등지에 분포했으나 현재는 중국 일부 지역에만 불호한다.

우리나라에는 겨울에 찾아오는 철새였으나 20년 이상 발견되지 않아 현재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 영국의 캠프벨은 '한국에서는 따오기가 겨울과 봄에 흔한 새이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는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산업화의 피해물이라 할 수 있다.

㊾ 올빼미 *Strix alucoma Clark* (Strigidae)(멸종위기 Ⅱ급 조류)



1973년까지만 해도 나산면 구산리 근방에서는 밤에 차창으로 달려드는 올빼미 때문에 애를 먹을 정도로 많은 수효가 서식했으나 근년에는 그 수효가 급격히 줄어들어 찾아 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약용으로 많이 잡아 버렸고 쥐약 먹은 들쥐를 먹어 죽었기 때문이다.

등줄쥐를 특히 좋아하는 먹이로 하며 한국의 텃새로 특산 아종(亞種)이고 깊은 밤에 울어댄다.

㊿ 뿔종다리 *Galerida cristata coreensis Taczanowski* (Alaudidae)(멸종위기 Ⅱ급 조류)



한반도의 전역에 분포된 특산 아종이나 대개 중부 이북 지방에서 번식한다. 중부 이남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새이다.

손불면 죽장리 당골마을 앞에서 1983년 4월 30일 한마리가 먹이를 쪼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곳에서 서식하는 것 같다.

곤충과 풀씨를 즐겨 먹는 이로운 새이며 4~5월 구릉, 농경지 부근에 큰 잔 모양의 둥지를 만들어 4~5개의 알을 낳는다. 보호새다.

(71) 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 major hondoensis KURODA)*

우리나라의 숲속에서 살고 있는 텃새며 수컷의 이마에는 흰색의 줄이 있고 머리 꼭대기에서 등까지는 광택있는 검은색이며 뒷머리에 붉은 띠가 있다. 턱밑부터 윗배까지는 때묻

은 흰색과 같으며 아랫배는 붉은색이다.

부리는 푸르스름한 회색이고 다리는 검은색이다.

암컷의 경우는 뒷머리에 붉은 띠가 없고 그 외는 수컷과 비슷하다. 나무줄기에 구멍을 파서 3~5개의 알을 낳는다.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종이며 해보면 용천사 계곡과 대동면 고산골에 살고 있는데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는 정확히 조사한 바가 없다.



⑫ 달납줄개 *Rhodeus atremius* (Jordan et Thompson) (Cyprinidae)



함평천의 대경보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그 수효가 적어 어쩌다가 잡혀 나오며 잡혀 나오자마자 죽어버리는 연약한 민물고기로 희소한 종류다.

하천의 폭이 좁고 물이 비교적 맑으며 물 흐름이 빠르지 않는 곳의 모래나 모래가 많은 수렁에서 서식한다.

영산강 수계(水系), 고창의 인천강, 금강 수계, 충남의 무이천, 일본 규슈(九州)의 일부지방에만 분포되어있고, 석패과의 2매패(二枚貝·두 껍질을 가진 조개)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산란기는 5~6월이고 수정후 35시간이면 부화하며 크기는 길이 3.2㎜이며 산란후 1주일이 지나면 6.6㎜에 이르고 겨울 전까지는 30~40㎜ 크기로 자란다.

⑬ 각시붕어 *Pseudoperilampus uyekii Mori* (Cyprinidae)



함평천과 고막천에 서식하는 가녀린 민물고기로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함평천에는 그물을 던졌을 때 한 그물에 20마리의 물고기를 잡는다면 1마리의 각시붕어가 잡혀나오는 율이었으나 지금은 1백마리를 잡는데도 각시붕어가 끼어있지 않을 정도로 희소해지고 말았으나 고막천 상류 대동면 상옥리 앞에서는 지금도 가끔씩 보인다.

달랍줄개와 같은 서식 조건에서 번식하고 자란다. 유속이 완만하며 수초가 비교적 많이 있는 얕은 하천이나 저수지에 산다. 주로 수초나 돌 위에 붙어 있는 부착조류나 미세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다. 산란기는 5-6월로 서식처의 바닥에 사는 조개의 샛강에 산란한다. 분포지는 우리 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한국 고유종이다.

⑭ 납줄갱이 *Pseudoperilampus suigensis Mori* (Cyprinidae)

이 역시 멸종 위기에 있는 한국 특산종으로 함평천과 고막천 상류에 서식하고 있다.

각시붕어보다 그 수효가 더 줄어들었다. 서식 조건은 각시붕어와 같다.



⑮ 왕종개 *Cobitis longicorpus Kim, Choi et Nalbant* (Cobitidae)



섬진강, 낙동강 등에 서식하는 왕종개와 거의 같은 생김새를 가진 왕종개를 보고 여기에 수록하는데 함평천의 중류인 영수천의 유속이 빠르고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맑은 곳에서 가끔 몇 마리씩 잡힌다.

물에 자라고 있는 곤충을 먹이로 하며 산란기는 4~6월이고 수정난은 수온 20℃ 내외에서 3~5일만에 부화한다. 부화후 100일이 지나면 몸 길이는 3cm내외가 되고 1년 후에는 4~6cm가 된다.

⑯ 미유기 *Parasilurus microdorsalis Mori* (Siluridae)



메기와 거의 흡사하나 목 부분이 작고 몸 길이가 크다. 흔히들 메기의 변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류가 미유기다. 함평천과 고막천에서 서식한다.

이 미유기 역시 최근에 수효가 크게 격감되어 보기도 어려울 정도다.

⑰ 빙　어 *Hypomesus olidus*



하절기에는 저수지의 깊은 곳에서 서식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얕은 개울로 이동한다.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두부, 비늘 및 모든 지느러미에 약한 추성과 같은 돌기가 있고 배지느러미는 길어 항문에 이른다. 산란은 저수지나 댐의 상류인 얕은 개울의 자갈 바닥에 산란하고 그 후 죽는다. 먹이는 주로 플랑크톤을 섭식하고 깔다구 유충도 먹는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 댐과 저수지에 이식하여 분포하는데 함평에는 흔치 않다.

⑱ 흰납줄개 *Rhodeus ocellatus*



유속이 완만하고 수초가 우거진 하천이나 저수지에 서식한다. 산란기는 4-6월로 암컷의 산란관이 길어지면서 살아 있는 담수 이매패의 몸 속에 산란을 한다. 좋은 조건이면 봄에 부화해 그 해 가을에 성숙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을 제외한 우리 나라 전국의 담수역과 일본, 중국 대륙의 남부 및 대만 등지의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한다.

최근에 수효가 격감하여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⑲ 꼬치동자개 *Pseudobagrus brevicorpus* (천연기념물 제455호)(멸종위기 Ⅰ급 어류)



유속이 완만한 큰 하천의 중, 하류의 바닥이 모래와 진흙이 많은 곳에 서식하며 낮에는 돌 밑에 숨고 밤에 나와서 먹이를 찾는다. 수서곤충이나 물고기의 알, 새우류 및 작은 동물을 먹고 산다. 산란기는 5-7월로 수컷이 가슴지느러미 가시를 이용하여 진흙 바닥을 파내어 산란실을 만들고 그 안에 알을 낳는다. 가슴지느러미의 극조는 기부의 관절면과 마찰시켜 소리를 낼 수 있다. 어린 동자개는 성어보다 얕은 물에서 살고, 월동할 때 얕은 곳의 얼음 밑에서 대집단을 형성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황해와 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인 임진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에 서식하며 중국, 대만 및 시베리아의 동부에 분포한다.

4. 외래(外來) 동물

1960년대 이후 수자원 이용 목적으로 들여온 파충류와 민물고기가 있는데 이들 종류를 들여올 때 생태 등에 대해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었어야 하는데도 연구가 없이 들여와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 하여 박멸운동이 일어난 애물단지 외국산 도입종은 다음과 같다.

1) 향어 *Cyprinus carpio* (이스라엘 잉어)



1975년부터 소양호에서 처음으로 길렀는데 토종 잉어보다 2배 이상 빠른 성장률이자 수자원 이용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지에서 다량 수입하여 여러 곳에서 기르다가 홍수 등으로 방류되어 함평군에도 대소 하천과 저수지에 자연 서식하게 되었다.

향어 특유의 왕성한 식욕과 번식력으로 급격히 세력권을 확보, 기존 고유어종의 터전을 빼앗으면서 토종 잉어와 향어의 교잡으로 인한 잡종어로 전락하는 등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2)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월남붕어)



1960년대 들어 수산청이 동남아지역 각 나라에서 서식하는 담수어족인 새끼고기를 수입해 농촌소득 자원 시범조성지로 계룡저수지 등을 지정했었다.

당시는 국민소득이 낮아 워낙 배고픈 시절이라 잘 자라는 것만 보고 우선 택했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 같은 것은 전혀 생각치 못했었다.

그러나 수입한 블루길이 서식하는 주변에는 우리 고유의 어족인 붕어와 잉어, 피라미, 치어 등의 토종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 어종 중에서도 공격력이 뛰어난 쏘가리마저도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산란기는 4-6월로 알려졌으며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주위를 보호하느라 다른 어종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며 피라미나 각종 고기의 알 등을 마구 잡아먹는 난폭자로 자신의 천지를 만들어 나아갔다.

서식 장소는 큰 호수나 연안대의 수생식물이 많거나 하천의 흐르는 수초가 있는 곳에서 주로 산다. 원산지는 북미의 남동부 지역이다.

우리 군에서는 대동댐(목포상수도)에서 잡식성이어서 상수원의 오물을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1970년대부터 길렀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는 함평천을 비롯한 영산강 주변 지역으로 그 분포가 확산되어 토종어종의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생태계 영양평가가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다.

3)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개구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섬뜩한 40cm 크기의 황소개구리는 1970년대 당시 광산군 삼도면에서 농가 부업 양식용으로 수입된 식용개구리다.

개구리가 양식장을 뛰쳐나와 전국의 대소 하천과 저수지에서 급속하게 번성하면서 닥치는대로 먹어대는 식성 때문에 먹이사슬의 파괴가 생태계의 교란현상을 초래하는 등 이제는 괴물로 둔갑하여 주인 행세를 하며 토종의 씨를 말리고 있다.

탈의 마귀라는 황소개구리는 울음소리가 기성으로 「귀신소동」까지 불러일으켰었다. 함평군 내 각지에서도 그 위용을 과시함에 생태계 보존을 기하고자 이를 잡기위한 행사가 1997년 5월부터 거군적으로 하천과 저수지에서 열려 약간의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박멸하는데는 역부족인 처지에 있다.

4) 훼라붕어 *Carassius cuvieri* (떡붕어)


떡붕어

1960년대 일본에서 수자원 이용 차원에서 블루길과 같은 시기에 수입된 붕어로 성장속도가 토종어종보다 2-3배 빨라 소득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도입되었으나 다량 확산되어 피해를 주고 있다.

훼라붕어는 토종붕어보다 둥글고 유선형을 벗어나 타원에 가까우며 힘이 약하고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 점이 특징이다.

저수지나 흐름이 완만한 하천의 하류부 약간 깊은 곳의 중

층이나, 때로는 표층 가까이에서 떼지어 다니는 경우도 있다. 먹이는 주로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와 규조류를 섭식하지만, 때로는 식물체의 조직도 소화관 내용물에서 나타나는 대식가이다.

본 종은 붕어의 산란 성기인 5-6월과 거의 비슷하거나 이보다는 약간 빠르게 산란을 한다고 한다. 붕어보다 성장이 빨라서 5-6년 지나면 40cm를 넘는다. 일본 비와후가 원산으로 일본 전역에 이식되었고, 국내에서도 이식 정착되어 저수지와 대형댐의 여러 곳에서 우점적으로 분포한다. 현재는 전국의 저수지 및 댐호에 정착되어 재래종 붕어보다 우세하게 출현할 뿐만 아니라 재래종과의 교잡에 의한 잡종이 나타나고 있다.

함평군에는 하천과 저수지에서 살고 있으나 주로 물의 중층에 떠서 생활하며 수초가 많은 저수지에 군집되어있다.

우리 고장 이곳저곳의 하천이나 저수지에 살고 있는 우리 붕어들의 모습과는 그 생김새가 다르다. 우리 붕어들의 사진이다.


잉붕어


희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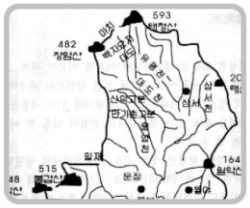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토종붕어

5) 베 스 *Micropterus salmoides*



흐름이 없는 정수역인 호소나 하천 하류의 흐름이 느린 곳을 좋아한다.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염분이 있는 기수역에서도 서식한다. 공격력이 아주 강한 어종으로 새우나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산다. 산란은 16-22℃가 되는 지역의 수초가 있는 바닥에 수컷이 청소를 하고 직경 50cm, 깊이 15cm의 둥지를 만든 후, 암컷을 유도하여 산란 방정(방정)한다. 한 마리의 수컷은 여러 마리의 암컷을 유도하여 산란 행동을 하는데 보통 1개의 둥지에 수백 개로부터 1만개까지의 알을 낳아 부화하도록 한다. 수컷은 산란 후 둥지에 있는 알과 치어를 보호한다. 낚시나 식용으로 이용되는데, 국내에서도 자원 조성용으로 수산청에서 1973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경기도 가평 조종천 등의 여러 곳에 시험 방류를 하는 동안, 적절치 못한 어종으로 판단되었다. 그 이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국내 하천에 정착,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섬진강 수계의 댐호에서도 매우 우세하여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제5장 식 물 (植物)



제1절 자원식물(資源植物)

식물자원의 사전적 의미는 육지에서 생육하고 있는 식물로서 현재 인류가 재배, 이용하고 있는 작물밖의, 이용목적이 뚜렷하여 다소의 노력으로 탐색, 선발 순화해 재배할 수 있거나 야생상태의 식물을 채취, 간단히 가공해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종류에 따른 자원식물의 분류는 개발정도에 따른 분류와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다.

개발정도에 따른 분류에는 재배식물의 원종, 재배식물의 근연식물, 경제적 자원식물(미개발, 개발중, 개발된 자원식물)이 있고, 용도에 따른 분류에는 식용자원, 섬유자원, 약용자원, 관상자원, 유지(油脂)자원, 기호료(嗜好料)자원, 당료(糖料)자원, 향신료자원, 염료자원, 밀원(蜜源)자원, 수지(樹脂)·탄닌자원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류는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것으로 함평이라는 작은 공간에 모두 적용할 수는 없다. 여기에 함평군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종류와 분포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된바 또한 없다.

본 장에서는 전체적인 식물자원의 종류와 내용만을 서술하되 함평군에서 특별히 많이 자생하고 있거나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식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다만 약용식물(藥用植物)만은 고(故) 이현석 선생이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종류를 조사했었고 1994년에 보강했기 때문에 본 장에 일람표를 수록한다.

1. 식용식물(食用植物) 자원

식용자원은 일상생활에서 주식 또는 부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순화 되어 이용되고 있는 작물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취급되어야 할 식용자원은 야생으로 산과 들에서 자라는 식용이 가능한 야생 채소류가 주요 범주에 속한다.

야생채소류의 예로 개미취, 고비, 고들빼기, 냉이, 고사리, 곰취, 달래, 도라지, 더덕, 돌나물, 두릅, 미역취, 마, 머위, 모시대, 부추, 비름, 수리취, 쑥, 쑥부쟁이, 씀바귀, 연근, 참나물,

토란 등이 있다.

채소류에는 먼저 엽경채소에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미나리, 잎들깨, 셀러리, 대위, 산채류 등이 있다. 다음으로 근채류에는 무, 당근, 우엉, 더덕, 도라지 등이 있고, 과채류에는 고추, 도마도, 가지, 수박, 참외 메론, 오이, 호박, 딸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경채류에는 마늘, 파, 양파, 부추, 달래, 아스파라가스, 생강, 토란 등이 있다.

함평에서는 유민봉 군수가 재직할 즈음인 1982년 봄 "야생초의 원예화"를 군 시책으로 정하고 함평군농촌지도소(현 함평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두릅나무, 돌나물, 취, 머위, 쑥 등의 야생 식용식물에 대한 생태와 재배법을 연구하는 시범포를 운영했었다. 하지만 유군수가 이임한 후 연구가 중단된 사실이 있다.

야생초의 원예화는 앞으로 각광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함평 쑥은 바다 바람의 영향으로 다른 지방의 쑥에 비해 영양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연해 전국 제일의 품질을 자랑한다.

쑥은 식용도 하려니와 약용으로도 널리 쓰이며 자생력과 생장력이 강해 재배가 용이하기 때문에 쑥차, 쑥떡, 쑥국, 목욕탕의 욕재 등 용도별 생산시설을 갖추고 권장하면 수익성이 높을 것이다.

또 돌나물은 간 질환의 성약으로 알려오고 있어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2. 공업용식물(工業用植物) 자원

해송, 적송, 삼나무, 리기다소나무, 리기데타소나무, 잣나무, 편백, 낙엽송, 느티나무, 초피나무, 산초나무, 때죽나무, 이태리포푸라, 메타세코이아 등이 있다.

메타세코이아는 원시 수종으로 생장이 빠르고 또 거목(巨木)으로 자라는데 1962년 함평농고에서 처음 사들여 30여 그루를 심었으며 몇 그루는 군내 기관에 심었고 현재 직경 30㎝ 이상 높이 15m가 넘게 자랐으며 학교면 월산리 등지에 개인의 묘목장이 있다.

1980년대부터 군내 산야에 번진 소나무깍지벌레의 피해가 심해 벌목하고 편백을 많이 심었다.

3. 기호식물(嗜好植物) 자원과 함평의 녹차

기호식물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양면에서 꼭 필요한 식물은 아니지만 인간의 정신을 휴식 또는 자극시키는 차, 담배, 유자나무, 치커리, 카카오, 커피, 호프. 술, 등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말한다.

일반인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기호식물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담배 [tobacco]

남아메리카 열대가 원산지이다. 여러해살이풀이지만 온대 지방에서 재배할 때는 한해살이풀이다. 한방에서 담배의 잎을 연초(烟草)라는 약재로 쓰는데, 소화 불량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쓰고, 종기·악창·옴·버짐에는 환부에 붙여 치료하며, 개나 뱀에 물린 데도 효과가 있다.

2) 카카오 [cacao]

코코아라고도 한다. 아메리카 열대 지방이 원산지이다. 다 익은 열매에서 종자를 꺼내 나무로 만든 통에서 며칠 동안 발효시키면, 종자가 붉은빛을 띤 갈색으로 변하고 독특한 향기가 난다. 이것을 물로 씻은 다음 건조시킨 것이 카카오콩이며, 볶아서 분말로 만든 것이 카카오 페이스트(cacao paste)이다. 여기에 설탕 · 우유 · 향료를 첨가하여 굳힌 것이 초콜릿이다. 카카오 페이스트를 압축시켜 지방을 뽑아낸 것이 코코아이고, 여기서 얻은 지방을 카카오 버터(cacao butter)라고 한다. 카카오 버터는 투명한 황색이고 독특한 향기와 풍미가 있어 마가린·포마드·의약품에 이용한다.

테오브로민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신장에 강력한 작용을 하므로 이뇨제로 사용한다. 기원전부터 재배하였고, 지금은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서부·자바·인도·스리랑카 등 열대 지방 각지에서 재배하고 있다.

3) 커피나무 [coffee tree]

쌍떡잎식물 꼭두서니목 꼭두서니과의 상록 소교목으로 높이는 6~8m이고, 지름은 10cm이다.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다. 종자를 커피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커피로 사용한다. 또한 종자에는 2% 내외의 카페인이 들어 있어 이것을 추출하여 의약품으로 사용한다.

4) 차(茶)

차는 차나무의 어린잎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제조방법에 따라 완전 발효시킨 차를 홍차, 반발효시킨 차를 오룡차, 발효시키지 않은 차를 녹차라 부른다. 차는 세계적인 기호성 음료로 커피와 함께 이용되고 있는데 함유성분은 주로 alkaloid 물질의 카페인과 탄닌, 카데킨, 비타민 A, C 및 무기염류 등이다. 이들 중 카페인은 이뇨, 강심, 피로회복, 흥분작용이 있다. 최근에는 각 지역별로 특산품으로 약용 자원식물을 이용하여 약초 차 또는 술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 함평의 녹차

함평 지역의 야생 차나무의 종류와 자생지 분포 조사 및 야생 차나무 관리방법에 대한 고찰[4)]

효천 김정석

서 론

1. 목적

함평 지역 곳곳에는 야생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이에 차나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살펴보고, 함평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 차나무 자생지를 답사하고 차나무의 종류와 그 상태를 조사하고, 야생 차나무의 보존과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이 지역의 차나무 잎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일반적으로 차나무를 잭살나무, 녹차나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많고 차와 차도구들의 용어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께 본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안한다. 단, 용어들 중에서 일부는 필자 나름대로 정의를 기술한 것에 대해서 차인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린다.

■ 차나무와 차
  – 차나무: 동백나무과 동백나무속에 속하는 상록 다년생 종자식물.
  – 차: 차나무에서 딴 찻잎을 원재료로 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성품.
■ 대용차: 차나무 잎이 아닌 식물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음료.
■ 제다: 차를 제조하는 과정
■ 유기농 차나무: 일체의 농약이나 화학적인 거름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차나무.
■ 야생 차나무: 인위적으로 부숙 시킨 거름이나 인공적인 시설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연상

4) 이 글은 대동면 서호리에서 작은 암자를 짓고 수양을 하며 나비 황차 등을 만들고 있는 효천스님이 2006년 함향 3호에 발표한 글이다. 효천스님은 직접 차를 만들고 있고 또한 차의 분포지를 알아보기 위해 함평 전역을 답사했기에 함평의 녹차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이글에서는 야생 차나무의 파종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 다인(茶人)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태에서 재배한 차나무

■ 우전, 세작, 중작, 대작: 이 용어의 구분에 대한 정의는 차인들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지의 내용은 필자가 함평에서 찻잎을 채취하여 만드는 시기와 찻잎의 크기에 의한 구분이다.

- 우전: 곡우(양력 4월 20일) 이전에 채취한 찻잎으로 만들어진 차를 뜻하나 일반적으로는 곡우전후 1주일의 시기에 1창1기(1촉1엽)의 찻잎으로 만들어진 차[5].
- 세작: 우전차 제다후 일주일 전후의 기간에 채취한 1창2기의 찻잎으로 만들어진 차
- 중작: 세작차 제다후 일주일 전후의 기간에 채취한 1창3기의 찻잎으로 만들어진 차
- 대작: 중작차 제다후 일주일 전후의 기간에 채취한 1창3기의 찻잎으로 만들어진 차

Ⅰ. 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 차나무의 특성과 종류 및 분포

가. 차나무의 특성과 종류

차나무는 동백나무과 동백나무속에 속하는 상록 다년생 종자식물로서 그 유전학적인 종(種)은 한 가지이나 교배에 의한 변이가 잘 일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잎은 타원형으로 어긋나기로 둘레에 톱니가 있고 끝이 뾰족하며 윤기가 있는데 부드러운 잎을 따서 식용한다. 차꽃은 홑꽃 흰색이 주종으로 9월에서 12월까지 피며, 열매는 이듬해 8월에 여물기 시작해서 10월에 익는다.

차나무는 [표1]과 같이 줄기의 형태에 따라 교목종과 관목종으로 분류되고, 잎의 크기에 따라 소엽종과 대엽종으로 분류된다.

[표1] 차나무의 분류

줄기의 형태		잎의 크기		자생지
교목 (큰키나무)	樹高:4m~8m	소엽	160mm정도	태국, 미얀마 북부,아쌈
		대엽	200mm~300mm	인도(아쌈), 중국
관목 (떨기나무)	樹高:2.5m~3m	소엽	40mm~60mm	중국 동부부, 한국(지리산), 일본
		대엽	120mm~140mm	인도(다르질링), 중국(사천, 운남) 한국(김해, 전남일부지역)

교목종(樹高:4m~8m)은 주로 열대지방에서 자생하는 키가 큰 차나무로 나이테가 있다. 교목종은 잎의 크기에 따라 교목소엽종(잎의 크기:160mm정도)과 교목대엽종(잎의 크기:200mm~

5) 지역마다 찻잎이 움트는 날짜가 다르므로 곡우(4월20일) 이전에 찻잎이 움트지 않는 지역이 많다. 한반도의 남쪽지방은 평균적으로 곡우 전후 일주일에(4월 15일에서 4월 말) 첫 찻잎이 움튼다.

300mm)으로 분류된다. 교목소엽종(일명 샨종)은 태국과 미얀마 북부지역과 인도의 아쌈지역에서 자생하고 있고 교목대엽종(일명 아쌈종)은 인도의 아쌈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다.

관목종(樹高:약 2.5m~3m)은 주로 온대지역에서 자생하는 키가 작은 떨기나무기나무의 차나무로 나이테가 없다. 관목종도 잎의 크기에 따라 관목소엽종(잎의 크기:40mm~60mm)과 관목대엽종(잎의 크기:120mm~140mm)로 분류된다. 관목소엽종은 중국 동남부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서 자생하고 관목대엽종은 중국 사천성과 운남성에서 자생하고 있다. 이들 지역중에서 특히 인도와 중국은 교목종과 관목종이 함께 자생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교목종은 자생하지 않고 관목소엽종과 대엽종이 함께 자생하고 있다.

나. 차나무 자생지의 분포

차나무의 자생지는 북위 42도인 소련의 그루지야에서부터 남위 29도인 남아프리카 일부지역까지 온대지역과 열대 고지대의 시원하고 배수가 잘되는 지역에서 자란다. 차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지역으로는 인도의 서북부 아셈지역과 동북부 다르질링지역, 스리랑카,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있다.

다. 한반도의 차나무 자생지 분포

한반도에 자라는 차나무는 대부분 관목소엽종과 관목대엽종이 함께 자생하고 있고, 남부지역의 차나무 자생지는 서쪽 익산에서 전주, 임실, 순창, 남원, 함양, 합천, 성주, 밀양, 울산 이남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다.[6] 그리고 최근 북한에서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 서해안의 배천, 강령, 옹진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다.

2. 차의 종류

차는 그 만들어지는 방법이나 만들어진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가. 찻잎의 발효 유무에 따른 분류

(1) 불발효차(녹차)

찻잎이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산화효소에 의한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진 차로 흔히 녹차라고 불리 운다.

(2) 발효차

발효차는 찻잎을 발효시키는 방법과 발효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차로 분류되는데 크게

6)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동국여지승람(15세기), 여지도서(1770년), 고사신서(1771년)의 기록에 없는 지역(전주 모악산, 임실 회문산)은 필자가 답사하고 추가하였다.

약발효차(백차), 중발효차(황차, 청차), 강발효차(홍차), 후숙성차(덩이차, 보이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 제조된 차나 차탕의 색깔에 의한 분류

만들어진 찻잎의 색상이나 차탕의 색상에 의해 녹차(녹색), 황차(황색), 홍차(붉은색), 흑차(검붉은색 또는 검은색)등으로 분류된다.

다. 제조된 차의 형태에 의한 분류

제조된 차의 모양에 따라 산차, 덩이차(일명 떡차), 가루차로 분류된다.

(1) 산차

산차는 찻잎이 낱낱이 분리되어 꼬이거나 납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낱잎차, 잘게 잘린 형태의 싸락차(영국홍차, 실론티)가 있다. 덩이차와 가루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가 이에 속한다.

(2) 덩이차

덩이차는 그 덩어리의 모양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 우고 있다. 대다수의 후숙성차들이 이에 속한다.

- 병차(餠茶): 둥근 원반 모양의 차
- 전차(磚茶): 벽돌 모양의 차
- 돈차(錢茶): 엽전 모양의 차

(3) 가루차(末茶)

미세한 가루의 형태를 가진 분말차로 찻사발에 물과 함께 타서 마신다.

3. 차의 음용 방법

차를 음용하는 방법은 차의 종류에 따라 혹은 차인의 기호에 따라 다르므로 차를 생산한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방법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음용방법을 모를 때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차를 우려 마시면 된다.

가. 녹차

한국에서 생산되는 녹차는 대부분 물을 적당히 식혀서 우려 마시나 중국에서 생산된 녹차는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기도 한다.

나. 발효차

대부분의 발효차는 90℃ 이상의 뜨거운 물에 바로 우려서 뜨겁게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나

함평지역에서 생산되는 황차는 차가운 물에 그냥 우려서 시원하게 마시기도 한다. 특히 기호에 따라 산야초로 만든 차나 허브차와 함께 펄펄 끓는 물에 넣어서 김이 한 소큼 나올 때까지 가열한 다음 마시면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다. 가루차

가루차는 찻사발에 가루차를 적당량 넣고 60℃~70℃의 물을 타서 잘 저어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루차를 음식에 넣어서 요리를 해 먹는 경우도 많다.

Ⅱ. 함평 지역의 야생 차나무의 종류와 자생지 분포[7]

1. 함평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 차나무의 종류

옛적부터 차를 재배하였던 함평 지역에는 세월 속에 잊혀진 차나무들이 곳곳에 야생의 상태로 자생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옛날 함평현에서 차를 재배하였던 곳으로 기록재배하고있는 용천사, 고산사터, 월량사터와 그 외에 기산, 군유산, 성정사터를 직접 답사하고 야생 차나무의 종류를 살펴보니 관목대엽종이 주종을 이루로 있었다. 현재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차나무는 관목소엽종과 관목대엽종이 섞여 있는데 지리산 주변의 화개, 구례, 악양 그리고 광양 다압지역의 차나무는 관목소엽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함평, 나주, 순천 지역의 차나무와 경남 김해지역 일부 그리고 경남 사천의 배방산의 차나무는 관목대엽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함평 지역의 야생 차나무 자생지 분포

가. 용천사(함평군 대동면 해보면 광암리 운암마을)[8]

현재 용천사 뒷산 대나무 밭과 그 주변의 나무 밑에는 차나무가 야생의 상태로 자생하고 있는데 그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찻잎이 돋아나는 봄철이면 인근 광주지역에서 온 차인들이 절에 보시를 하고 찻잎을 채취해 갔으나 이제는 용천사에서 직접 차를 만들고 있다.

---

7) 2001년부터 2006년 6월까지 필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기록한 내용임

8) 통일신라시대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천사는 정유재란과 6.25사변 때 불에 타서 폐허가 되었던 것을 1964년에 대웅전을 복구하였다. 2001년 10월 답사

용천사 주변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꽃무릇(상사화)은 한국의 100경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어 매년 9월이면 '꽃무릇 축제' 를 열고 있다.

나. 고산사터(함평군 대동면 고산일대)[9]

"지금도 고산사지 주변의 찻잎을 따서 엽차를 만들어 끓여 먹고 있지만 예전엔 참 좋았지. 보성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곳의 찻잎을 사갔었는데 이제는 보성에도 차나무가 많아져서인지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과 이 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러 주었다. 현재 고산사지 주변의 계곡 약150정보(45만평)가 산아래 입구에 사시는 권영감님의 사유지로서 산불방지와 산림 보호를 위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산림은 잘 보존되고 있다. 고산사터 주변에는 옛날 고산사의 스님들이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차나무들이 야생상태로 자라고 있는데 절터 주변에는 산죽이 무성해져서 차나무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생장의 상태로 좋지 않았다.

다. 월량사터와 모평마을 (함평군 나산면 월량산)[10]

월량산 기슭에 월량사로 추정되는 절터에는 이 산 소유주의 재실이 지어져 있는데 이 재실 양쪽 산골짜기와 뒷편에 야생 차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모평마을의 재실 뒤편 야산에도 야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도 해마다 인근 시도에서 차인들이 와서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었으나 몇 년 전부터 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산을 관리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라. 기산(함평군 함평읍 기산)

기산은 함평읍내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기산 중턱에는 편백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들 밑에 차나무들이 자생하고 있다. 이 편백나무들은 함평군에서 가지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밑에 자생하는 차나무들의 생장상태는 아주 좋았다. 그러나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이고 또 해마다 봄철이면 인근 도심에서 온 차인들이 찻잎을 따가고 있기 때문에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 기산의 차나무는 관목소엽종과 관목대엽종이 고루 섞혀 있다.

마. 군유산(전남 함평군 송사리 송계(松溪)마을의 뒷산)[11]

2001년 11월 16일 군유산을 찾아갔을 때 군유사지(서상사:瑞祥寺)[12] 주변의 산기슭에 차나

9) 고산사는 고려시대 때 창건된 절로서 조선시대 때 소실되었다가 그 후 언젠가부터 가건물의 형태로 그 명맥을 이어 오다가 1960년대쯤 무허가 건물로 철거되어 현재는 절터 주변에 무덤이 들어서 있고 고려시대 때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이 남아있다. 2001년 11월 17일 답사

10) 2001년에 월량사지를 찾았으나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었는데 2003년에 함평군 나산면에 사는 정물님이 차나무가 있는 곳을 하나 알려 주어서 그 위치를 알게 되었다.

11) 군유산은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전 궁예의 신하로 있을 때 호남정벌을 위하여 기마병 3천명과 함께 머물다 갔는데 왕건이 고려를 개국하여 왕이 되었기에 왕이 머물고 갔다하여 君留山이라 했는데 후에 공민왕이 3일간 놀고 갔다하여 다시 君遊山으로 표기 되었다 한다. 2001년 11월 16일 첫 답사 후 2002년, 2003년, 2006년 답사

12) 군유사지는 군유산 중턱에 있으며 옛 이름은 서상사(瑞祥寺)였다. 이 터에 남아있던 부도탑은 함평군 함평리로 옮겨졌고 지금은 수령을 가름하기 힘든(약 1,000년 이상으로 추정) 아름들이 비자나무 한그루가 대웅전 앞 뜰에 우뚝 서서 오는 이들을 반기고 있다.

무들이 야생의 상태로 자라고 있었다. 현재 함평에서 단일 지역으로는 야생차가 가장 많이 자라고 있다. 군유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해바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간간히 등산객들의 발길이 있을 뿐 인적이 드물어 야생차가 잘 보존되어 있다. 이곳도 해마다 봄이면 산아래 마을의 주민들이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고 있다.

바. 성정사터(함평군 대동면 서호리 성정마을)[13]

2001년 7월 성정사터를 처음 찾아갔을 때 절터에는 낡은 움집과 샘터만이 남아 있었다. 차나무들은 대나무 숲 속과 잡목들 밑에서 자생하고 있는데 숲이 너무 우거져서 차나무의 성장이 매우 느린 편이고 그 숫자도 매우 적은 편 있었다. 2003년에 성정사터를 중심으로 나무와 차씨를 심어 관리를 했으나 지금은 야생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지역 이외에도 함평 지역의 밭두렁 산모퉁이 곳곳에는 적은 규모이지만 야생차들이 자생하고 있다.

Ⅲ. 야생 차나무의 보존과 관리 방법

1. 유기농 차나무와 야생 차나무의 차이

필자는 그동안 차나무를 재배관리하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유기농으로 재배된 차나무와 야생 차나무의 재배 및 관리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유기농법과 자연농법의 차이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유기농 차나무(유기농법으로 재배)

유기농 차나무 재배법은 일반 유기농작물 재배법과 마찬가지로 농약이나 제초재 그리고 화학비료에 오염이 되지 않는 땅에 차나무를 재배하는 방법이다. 유기농법에서는 차나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인위적으로 부숙된 유기질 거름 등을 사용한다.

나. 야생 차나무(자연농법으로 재배)

야생 차나무 재배법은 오염되지 않는 땅에 차씨를 심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기농법과 같다. 그러나 유기농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인위적으로 부숙된 거름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순환적인 상태에서 차나무를 재배 관리하는 자연농법이다.

야생이라고 해서 차나무가 자연적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연농법에서는 차나무의 생장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만 제거해 주어 차나무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자기

13) 고려때 세워진 성정사(聖亭寺)터 주변에는 스님들이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차나무들이 자생하고 있다. 2001년 7월 첫 답사 후 매년 답사.

스스로 생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2. 야생 차나무의 관리방법

가. 기존의 야생 차나무 자생지를 관리하는 방법

차나무는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나 양질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햇볕이 살랑살랑 비추는 반음반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므로 나무를 적절히 간벌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일조량이 너무 많으면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덩굴나무에 차나무가 뒤덮이면 생장에 지장을 주고 찻잎을 따기도 어려워지게 되므로 덩굴들은 반듯이 제거하는 것이 좋다.

나. 새로 야생 차산을 조성할 경우

(1) 토양과 위치의 선택

새로 차씨를 심어 야생으로 차나무를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논이나 밭보다는 깊은 계곡의 산기슭이 좋다. 토질은 바위와 자갈 그리고 흙이 골고루 섞여 있으며 년 평균 기온이 10℃ 이상이고 년 평균 강수량이 1,500mm 이상의 시원하고 다습하며 배수가 잘되는 지역이 좋다. 방향은 남서향이 최적이나 남향이나 동향도 무난하다. 단 황토땅이나 너무 배수가 잘되지 않는 습지 같은 곳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겨울철 기온이 영하 5℃~10℃이면 동해를 입어 성장에 영향을 주고 영하 15℃이하가 되면 동사하므로 차나무 북방한계선상에 있는 지역은 반드시 북향을 피해야 한다.

(2) 야생 차나무의 관리

야산에 차씨를 심을 경우엔 차나무의 생장에 장애가 되는 가시덩굴과 칡덩굴 등은 제거하고 나무들은 그대로 잘 보존하면서 차씨를 심은 뒤 이듬해부터 일조량을 조절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작은 나무부터 간벌해 내는 것이 좋다. 간혹 처음 차를 재배하는 차인들 중에 산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차씨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땐 풀과 덩굴들이 너무 우거져서 면적이 큰 경우엔 자연농법으로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득이하게 산비탈의 묶은 논이나 밭에 차씨를 심어야 할 경우에는 먼저 덩굴들을 제거하고 풀을 베어낸 다음 나무를 심어서 최대한 자연상태의 환경으로 되돌리고 차씨를 일정 간격[14]으로 심는다. 이듬해 부터 차나무와 차나무 사이의 골에 난 풀을 베에서 그대로 차나무 주변에 깔아 준다. 풀은 장마 전에 1회 장마중에 1회 장마가 끝난 뒤에 1회 그리고 10월 말에 1회 정도가 적당하나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단 차나무가 3년생 이하일 경우에는 10월말 이후에는 풀을 베지 않고 풀들이 차나무를 살짝 덮고 있는 것이 좋다. 그래야 겨울철 동해를 적게 입는다.

(3) 차씨를 심는 방법

14) 골과 골사이 간격은 1.5m~1.8m 정도가 적당.

차씨는 한 구멍에 서너개씩 30C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두 줄로 심는다. 골 사이의 간격은 1.5m~1.8m의 간격이 좋다. 이때 풀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고 차씨를 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차나무를 야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차씨를 심어서 싹을 튀우는 것이 좋다. 묘목으로 심을 때에는 차을 심을 장소에 터를 만들어 3월경에 묘목분에 차씨를 심어 싹이 터면 장마철에 옮겨 심는 것이 좋다. 단, 다른 지역에서 키운 차나무를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차나무는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교잡에 의해 변이가 잘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차씨 속에는 다양한 특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씨는 씨앗이 심어지는 지역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토양이나 좌향에 따라 그 토질에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4) 거름 관리

거름은 그 자리에 난 풀을 베어서 그대로 덮어 두어 서서히 썩어서 거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부숙시킨 거름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영향이 과하여 비만이 되면 질병에 쉽게 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도 거름이 과하면 겉으로 보기엔 때깔이 좋지만 쉽게 허약해지고 병을 타게 된다.

항간에는 차를 수학하는 시기에만 농약을 치지 않으면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면서 차씨를 심고 차나무가 수확기에 접어들 때까지 차밭의 차나무의 골과 골 사이에 고추를 심어서 수확하기 위해서 농약, 비료, 제초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단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동물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일단 물들면 성장해서 농약이나 화학비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차나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릴 때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오염되지 않는 땅에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 왜 야생의 상태로 차나무를 키워야 하는가?

가장 안전한 음식은 오염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 자란 동식물들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떤 이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차도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물을 정화하고 신체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차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과 동시에 마음의 예도(禮道)를 수양하는 신심수양(身心修養)의 음식이 바로 차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차씨를 논이나 밭에 심지 않고 야산에 심어 자연적인 환경의 차산을 만들어서 차나무를 관리했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어 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산비탈을 개간하거나 논이나 밭에 차나무를 재배하는 다원이 생겨나면서부터 차산이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기와 물의 오염으로 인하여 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원재료인 차나무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재배하기 위해서 다원의 차나무는 유기농이나 자연농법으로 관리하고 기존의 야생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차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Ⅳ. 함평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의 종류와 발전 방향

1. 함평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의 종류

현재 함평 지역에는 야생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 마시는 차인들이 많이 있지만 찻잎을 원재료로 하여 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은 [표2]와 같이 4곳이 있다.

[표2] 함평 지역의 제다원에서 만들어지는 차의 종류

제다원	차의 종류	차의 형태	찻잎의 구분
나비황차원	녹차, 황차	산차, 덩이차	야생
부루다원	녹차, 황차	산차, 덩이차	야생, 유기농
서초다원	녹차, 황차	산차	야생
양산암	녹차, 황차	산차	야생

[표2]에서 보듯이 이들 농가나 절에서 만들어지는 차의 종류는 크게 불발효차인 녹차와 발효차인 황차의 두 가지로 분류되고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 산차와 덩이차(일명 떡차)로 분류된다.

가. 함평에서 생산되는 녹차에 대하여

녹차는 이미 지리산이나 보성에서 그 명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인들이 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맛에 익숙되어 있어서 함평에서 생산되는 녹차가 차인들에게 친숙해지는 데에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지리산이나 보성, 순천에도 야생 차나무들이 많이 있어 야생차가 생산되지만 기존의 일반 재배차들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관계로 야생차에 있어서는 차인들의 확고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하면 현재 함평에서 생산되는 녹차들은 소량이지만 모두 차인들에게 야생차로서의 점점 그 명성이 알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많다고 할 수 있다.

나. 함평에서 생산되는 황차에 대하여

발효차의 일종인 황차는 현재 시작단계에 있다. 비록 지리산 화개에는 예전부터 발효차인 일명 '화개 잭살차'가 있었으나 현재의 황차는 2000년부터 서서히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찻잎이 관목소엽종이 주종인 화개지역은 함평 지역의 황차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몇 년 전부터 차인들의 발효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차의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비하여 황차의 소비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함평 지역의 찻잎으로 만든 야생 황차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맛과 향 그리고 탕색이 모두 뛰어나므로 야생 황차의 본고장으로 그 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야생차의 본고장으로 발전 도모

가. 야생 차와 유기농 차의 본고장으로

함평에는 예부터 차를 재배하고 있었고 한때는 보성에까지 찻잎을 따서 팔았으나 그 명맥이 끊어진지 오래이다. 그러므로 이미 차의 생산지로서 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리산이나 보성, 순천에 비하여 함평은 차 생산지로 거의 알려 지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 함평이 이들 차 생산지들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차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양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원재료인 찻잎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차나무를 유기농이나 야생 차나무로 관리하여 차인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유기농 차나 야생차의 본고장으로 그 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 일반 재배차는 이제 그만

지리산 화개 지역에 차를 생산하는 큰 공장들이 세워져 차를 생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지리산 화개 지역의 일반재배 찻잎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여 찻잎이 남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화개농협에서는 내년부터 찻잎 가격의 폭락을 막고 찻잎 생산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찻잎의 수매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어 일반재배 찻잎 생산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유기농이나 야생의 찻잎을 선호하는 제다인들이 점점 늘고 있어 유기농이나 야생 찻잎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함평 지역에 일반 재배차를 심는 것은 경쟁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짧지만 그동안 쌓아온 야생차 생산지로서의 명성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드시 유기농이나 야생 차나무를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평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 차나무는 관목소엽종과 관목대엽종이 섞여 있으나 관목대엽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차나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같은 제다법으로 차를 만들었을 때 지리산 지역의 차와는 그 맛과 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함평 지역의 찻잎으로 만든 황차는 그 맛과 향 그리고 탕색이 매우 뛰어나다는 차인들의 평을 듣고 있다. 그러므로 지리산 일대의 녹차나 보성 지역의 녹차와는 구별되는 차 생산지로서의 그 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원재료인 차나무를 자연상태에 가장 가까운 야생 차나무로 재배 관리해야 할 것이다. 함평 지역의 찻잎으로 만든 황차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맛과 향 그리고 탕색이 모두 뛰어나므로 황차의 본고장으로 그 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4. 향료식물(香料植物) 자원

향료식물은 향수(香水)나 향유(香油)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그 대부분은 꽃이 낮 동안의 일광의 직사로 향기를 발산한다. 그러나 개화와 향기의 발산은 몇 가지 다른 유형이 있어 각각 적절한 채취법이 있다. 즉 재스민 ·월하향 등은 꽃을 딴 후에 일정한 시간 동안 세포의 생활기능이 필요한 것은 냉시흡수법으로 세포의 사멸을 막고 향분을 충분히 생성 ·발생시킨 후 침출법으로 수집한다.

식물의 어떤 종류에는 정유(精油), 때로는 방향유(芳香油)라고 하는 휘발성 기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방향유는 휘발할 때 향기를 풍기기 때문에 보통 식물에 들어 있는 기름과는 쉽게 구별된다. 향료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신성한 의식이나 제전에 쓰여 왔는데, 원래는 제단에 태워서 향기를 발산시키는 물질을 향료라고 하였다. 향료의 사용이 일반화된 것은 16세기 말엽에 수증기 증류에 의한 향료의 채취법이 발명되어 향료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부터이다. 19세기 말엽에는 합성품 향료가 인공적으로 제조되어 많은 종류의 합성향료가 값싸게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향료는 방향유의 일종으로 식물체로부터 채취되어 향수 ·향료 ·비누 ·과자류 ·껌 ·음료 ·화장품과 그 밖에 의료나 방부용으로도 쓰인다. 인조 합성향료가 나오고 있지만 천연향료의 생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조향료의 향기가 오래 가지 않으며 우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성향료는 천연향료의 향기를 강화시키거나 보정하는 데에 보조원료로 많이 쓰인다. 향료식물의 재배는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남서부 ·불가리아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및 인도 등이며 향료를 주로 제조 생산하는 나라는 유럽의 여러 나라이다. 한편 야생식물의 자생을 이용하여 향료원을 생산하는 주요 나라는 브라질 ·페루 ·멕시코 ·스리랑카 ·인도 ·말레이시아 및 중국이다.

향분(香分)은 열대식물에 많고 강하다. 고온건조하에서 식물체의 향분 함유량은 높아진다. 그러나 품질은 북쪽에서 생산되는 것이 더 우수하다. 또 식물체의 발육시기에 따라서도 향분의 함유량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박하는 어린 잎이 크고 늙은 잎보다 함유량이 높으며, 꽃필 무렵에 함유량이 가장 높다. 향료식물은 채취 직후보다 원료를 장기적으로 저장해 두면 향분의 함유량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효소에 의한 배당체의 분해가 채취 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방향유를 함유하는 식물의 종류는 약 60과(科)인데 그 중에서도 소나무과 ·국화과 ·장미과 ·미나리과 ·녹나무과 ·줄풀과 ·운향과 등의 식물에 특히 방향유가 많이 들어 있다. 향료식물은 이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꽃에서 향료를 채취하는 것(은방울꽃 ·재스민 ·라벤더 ·라일락 ·장미), 과실(종자)에서 채취하는 것(바닐라 ·레몬 ·회향 ·아몬드), 잎에서 채취하는 것(박하 ·레몬그래스 ·시트로넬라그래스 ·팔마로자 ·녹나무 ·월계수 ·유칼립투스), 줄기에서 채취하는 것, 뿌리와 뿌리줄기에서 채취하는 것(오리스 ·칼라머스 ·베티버), 선태류와 향료공업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방향성 휘발유식물 등으로 구분된다.

향료식물의 대부분은 꽃이 낮동안의 일광의 직사로 향기를 발산한다. 그러나 개화와 향기의

발산은 몇 가지 다른 유형이 있어 각각 적절한 채취법이 있다. 즉 재스민·월하향 등은 세포에 거의 방향유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가 채취 후 이들 세포가 생활기능을 유지하는 동안에 향분을 계속 생성하여 발산시킨다. 따라서 꽃을 딴 후에 일정한 시간 동안 세포의 생활기능이 필요한 것은 냉시흡수법으로 세포의 사멸을 막고 향분을 충분히 생성·발생시킨 후 침출법으로 수집한다.

현재 함평에서 자생(自生) 또는 양육(養育)되고 있는 수종(樹種)으로는 소나무과·국화과·장미과·미나리과·녹나무과·줄풀과·운향과 등의 식물 등이다. 이외에도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갓, 냉이, 고추, 마늘, 산초나무 등이 있다.

5. 염료식물(染料植物) 자원과 함평의 염색

염료식물은 염료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식물로 잇꽃(紅花), 치자, 쪽 따위가 있다.

• 염료식물의 종류

1. 매염제와의 결합성에 따른 종류

(1) 단색성 염료

한 종류의 염료로 한 가지 색만이 염색되는 식물성 염료이다.

(2) 다색성 염료

한 종류의 염료가 각종 매염제와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색을 발색시키는 식물성 염료로 그 성질에 따라 다시 건염염료, 직접 염료, 염기성 염료, 화염계 염료 등으로 나누어진다.

① 직접 염료

염료의 가용성 색소를 추출, 그 염액에 섬유를 담가서 염색하는 염료로 치자, 황백, 사프란, 울금 등이 해당된다. 이 염료의 염색은 대부분 염료식물의 꽃. 잎, 뿌리, 수피, 수목 심재, 열매 등을 가늘게 부수고 물에 달여서 염료 추출, 염색한다.

② 건염 염료

성분이 은인 돌유도체이며, 요람, 인도남, 숭남, 대청, 유구남, 보라조개 등이 해당된다. 건염 염료 염색은 남(쪽)과 같은 불용성 색소를 알카리로 환원시켜 염색, 공기 중에서 산화 발생시켜 본래의 불용성 색소로 돌아가게 하는 견뢰도가 높은 염색방법이다. 대표적인 건염 염료로

는 남(쪽)염이 있으며 견뢰도가 매우 높은 염료이다.

③ 염기성 염료

황벽이나 황련 등이 해당되며 주성분은 거의 베르베린을 함유하고 있다. 다른 염료와 혼합하면 침전을 일으키고 동물성 섬유에는 염색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 식물성 섬유에는 탄닌산 선매염 과정을 거쳐야만 염색이 잘 이루어진다.

④ 화염계 염료

봉선화, 산남, 딸기, 홍화 등이 해당되며, 그 성분은 안토시안류와 함께 산남의 경우에는 클로포필, 홍화는 칼콘 유도체 성분으로 반드시 매염제에 의해 염색이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사용된 홍화 꽃에는 수용성의 황색색소와 불용성의 홍색색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황색색소는 물에 용해되는 직접성 염료인 반면 홍색색소인 카르타민은 알카리에 의해 추출되어 색상이 변하는 다색성 색소로 다시 산에 중화시켜 염색이 이루어진다.

2. 색조에 따른 종류

(1) 적색계 염료-홍화(잇꽃), 소목, 꼭두서니 등
(2) 황색계 염료-황백. 치자, 울금 황련, 괴화, 환삼덩굴, 매리골드, 프리지어, 민들레 등
(3) 청색계 염료-쪽염, 치자청색소 등
(4) 자색계 염료-자초(지치), 비파 등
(5) 갈색계 염료-감염색, 밤껍질 등
(6) 녹색계 염료-생쪽, 호박, 무궁화, 파키라, 칡, 익모초, 쑥 등

• 대표적인 염료식물

(1) 치자

꼭두서니과의 다년생 상록관목으로 학명은 Gardenia Jasminoides이다. 치자의 황색소는 카로테노이드계(carotenoid)에 속한다. 카로테노이드계는 다중이중결합성의 카르복실산 탄화수소화합물로서 일반적으로 지용성이지만 치자의 색소는 겐티오비오스(gentiobiose)가 결합된 일종의 배당체인 크로신(crocin)이라는 수용성의 색소이다.

(2) 감

감은 오배자와 같이 탄닌 성분이 주를 이루는 염료식물로서 예로부터 제주도 갈옷의 염료로 많이 쓰여 온 염료식물이다. 감염료로는 풋감이 많이 쓰이지만 감잎, 줄기 추출물 등도 염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염료로서 감은 탄닌 성분이 가장 많을 때로 씨가 갈색으로 초기변화 할 때며 시기적으로는 7월말~8월 초순이 가장 적합하다. 감은 늦어도 염색하기 하루 전에는 따야 하

며, 따 놓은 감을 방치하면 물러지고 당화됨으로 짙은 발색이 잘 안되며 무른 감은 찌꺼기가 많아 얼룩의 원인이 된다.

(3) 지치(자초)

자초(紫草)라고도 불리는 다년생 식물로서 학명은 Lithospermum Erythrorhizon이다. 색소로 사용되는 뿌리에는 주된 색소인 자주색의 shikonin유도체(R=acetyl, isobutyl등)가 여러 종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shikonin은 naphthoquinone류에 속하는 색소이다.

(4) 홍화(잇꽃)

홍화, 잇꽃 또는 홍람화(紅藍花)라고도 하며,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목으로 학명은 Carthamus Tinctorious이다. 이들 색소는 플라보노이드계(flavonoid)이며 특히 적색소는 chalcone류로서 carthamin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산성에서는 퀴논구조의 carthamon으로도 발표 되고 있다. 이집트 원산지의 국화과에 속하는 1년 생 초목으로 우리나라 각지에서 재배할 수 있으나 따뜻한 제주도 또는 남부해안 도서 지방에서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며 개화 시에 비가 적게 오는 곳이 적색상적이라 하겠다. 토질은 배수가 잘되는 과히 걸지 않은 사질양토에서 가장 잘 된다. 이 약초는 연작을 싫어하므로 한번 심었으면 2~3년 쉬었다가 심는 것이 좋으며 꽃으로는 볼만하므로 울타리 또는 밭 가에 1~2줄 돌아가면서 심어서 수확하는 것이 좋다.

(5) 쪽

마디풀목 마디풀과의 한해살이풀로 학명은 Persicaria tinctoria이다. 쪽은 그 잎에 다량의 남색물질(indican)을 함유하고 있어 이것을 채취하여 물감으로 쓰는데 이 물질은 분해되어 청남(indigotin), 남홍(indirubin)이란 색소가 된다. 높이 50~80㎝. 여름에 가지끝에 붉은색이나 흰색의 작은꽃이 수상꽃차례로 달린다.

종자는 길이가 2~3㎜이며 익으면 검고 세모진 달걀꼴이 된다. 잎은 어긋나며 끝이 뾰족한 달걀꼴이나 긴타원형이고 적색을 띤 거무스름한 녹색이다. 짙은 청색의 염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한다. 염료자원의 식물에는 이외에도 쥐꼬리망초과·십자화의 식물이 있다.

쪽의 붉은꽃류는 조생이며 품질·수량이 좋고, 흰꽃류는 만생이며 내병성이 강하고 염료자원으로서의 품질이 가장 좋다. 최근에는 합성염료의 개발로 쪽의 재배는 거의 사라졌으나 고급용품에는 이용되고 있다. 한방에서는 열매, 마른 잎을 해열·해독에 쓰며 한국·중국·일본 등에 분포한다.

쪽은 함평에서도 많은 유행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한국전쟁 직후만 해도 우리네 가정과 인연이 깊었던 남빛(藍. 푸른색과 자주색의 중간 색) 물감으로 어지간히 사는 집안이면 쪽이불, 쪽옷이 마련되어 있었고 “남색짜리”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

쪽물 들인 옷을 입으면 독사가 싫어하는 냄새가 있어 독사에게 물리지 않고 이가 번지지 않는다하여 더욱 중히 여겼다.

한방에서는 “남(藍)”이라하여 잎과 열매를 해독, 해열, 상처 또는 독충에게 물린 곳을 치료하는 약으로 응용하였고 이와 같은 약효는 앞서 언급한 쪽물의 제독작용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함평의 각 마을에는 쪽물의 기능 보유자가 많았다.

특히 나산면 수상리는 나주시 문평면과 함께 전남에서 쪽물을 잘 들이는 곳으로 알려졌고 1980년대까지 기능 보유자가 생존했었다.

기능 보유자였던 김종환(1982년 당시 75세), 김종수(1982년 당시 70세)의 경험담에 의해 쪽물을 들이는 방법을 간략히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 꽃이 약간 필 무렵 쪽을 베어 큰 항아리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며칠을 두면 쪽물이 우러나오고 쪽의 잎은 누렇게 변색한다.
- 이 때 쪽풀은 건져내고 우러나온 쪽물에 조개껍질을 구어 밀가루처럼 가늘게 빻은 “사회가루”를 넣고 저으면 거품이 나오는데 거품이 많이 나도록 잘 젓는다.
- 시간이 지나면 쪽물은 밑으로 갈아 앉고 맹물은 위로 뜨는데 위로 뜬 맹물을 퍼낸 후 “잿물[15]”을 넣고 다시 “사회가루”를 적당히 섞어 잘 젓는다.
- 거품이 항아리를 넘쳐흐르면 찌거기를 건져낸 다음 쪽물이 담긴 항아리 주변에 뜨뜻하게 불을 지핀다. 계속 불을 지피면 쪽물이 구름처럼 피어 솟구치는데 이렇게 되면 성공이다.
- 쪽이 바로 피어오르지 않기 때문에 며칠간 꾸준히 불을 지피고 또 항아리 속을 잘 점검해야한다.
- 이 과정이 끝나면 베에 물을 들이는데 단 번에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담구었다가 꺼내고 말리는 일을 십여 번 되풀이하면 고운 남빛이 들게 된다.
- 이렇게 들인 물은 이 후 빠지거나 퇴색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는 천연염료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쪽물만이라도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함평군에서 자라는 염료식물 중 대표적인 것을 골라 보면 <표 1>과 같다.

< 표 1 > 함평군의 염료식물 자원

식 물 명	색 깔	식 물 명	색 깔	식 물 명	색 깔
산오리나무	누른다갈색	산뽕나무	누른다색	매자나무	누른다색
아그배나무	금 갈 색	다정금나무	갈 색	개살구나무	황 갈 색
자귀나무	담 황 색	다릅나무	엷은다색	칡	회 다 색
아카시아	다 갈 색	북 나 무	다 갈 색	봉 선 화	붉 은 색
제 비 꽃	황 록 색	층층나무	다 갈 색	작살나무	회 다 색
누리장나무	푸른취색	개 오 동	누른다색	참 쑥	다 록 색
조 개 풀	농 황 색	억 새	다 갈 색	감	흑 갈 색

15) 콩대나 메밀대 또는 목화대를 태운 재를 시루에다 넣고 물을 부어 매끈매끈한 잿물을 만들어 쓴다.

• 국내의 염색현황과 함평 천연염색의 현재

국내의 천연염색이 보급된 지 약 15년이 지났다. 천연염색의 현 주소를 살펴보건 대 중국의 쪽 염색천이 무명과 모시를 중심으로 값싸게 들여와 팔리고 있으며 일부 천연염색 회사의 경우, 중국으로 현지 공장을 옮겨 천연염색 제품을 생산해서 다시 국내로 역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감염색의 경우까지도 최근 중국에서 염색을 해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천연염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그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독일의 Livos사가 개발한 고착제가 포함된 천연안료의 경우 녹색을 띠는 공작석 분말 및 쪽색을 띄는 아즈라이트 분말 등 십여 가지 색깔의 천연안료를 1kg에 3만~5만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 안료로 염색된 제품이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근 국내의 천연염색계는 소수의 장인 중심의 공방염색을 탈피하며 '세노코' 및 '텍스켐' 원광대를 중심으로 한 'BTNT' 등이 천연염료의 분말화, 엑기스화 등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업염색으로서의 가능성을 열고 있으며 일본의 도토리현의 토우하쿠군의 쪽마을을 모델로 한 체험관광의 형태를 받아들여 체험관광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 한 형태로 경남 함양군 백전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감마을 – 먹고(곶감 · 홍시 · 단감), 마시고(홍시술 · 감잎차 · 홍시쥬스 · 감식초), 바른다(종이 및 천의 감 염색) – 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일부 공방의 경우, 기존에 없는 새로운 느낌의 염색법 및 염색물을 고안하여 다른 공방과 차별화를 시도하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색깔 있는 흙과 식물염색을 결합하여 기존의 식물염색과 차별되는 느낌을 만들어 내는 염색 및 감 염색과 식물염색을 결합하여 새로운 느낌의 감 염색을 만들어낸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최근에 설립된 나주시의 '천연염색문화재단'의 경우 공방 및 체험관광의 두 축을 문화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상품화 시킨 경우도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의 천연염색계의 동향은 물밀듯이 들어오는 중국 및 독일 등의 천연염료 및 염색물과 경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연염색의 문화적 콘텐츠를 함께 개발해 내야하는 시점에 이른 듯하다. 그렇다면 국외의 천연염색 동향은 어떠한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천연염색의 좌표를 어떻게 그려가야 할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듯하다.[16]

현재 함평에서는 5명의 장인(匠人)들이 천연 염색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전혀 다른 염색 재료를 가지고 자신만의 특성을 살린 염색을 하고 있다. 70년대 '꽃반지 끼고'를 불러 유명했던 가수 은희씨를 비롯하여 미술평론을 공부하다 천연염색의 길로 들어선 김현덕씨, 또 남편의 길을 따라 자신도 모르게 천연염색의 장인이 되어 버린 김현덕씨의 부인 김은경씨, 연잎차를 생산하려 무안에서 함평으로 정착했다가 염색의 길로 들어선 임영란씨,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 활동하다 염색의 길로 들어선 임명례씨 등이 바로 그들이다.

16) 김현덕, 『함향3호』 「세계의 천연염색 동향과 국내 천연염색의 가능성의 모색 90~91쪽」, 2006.

이들 5인의 장인과 이들이 활용하는 천연염색의 재료와 주요 상황을 살펴보자.

함평 천연염색 현황

성 명	천연염색 재료	작업 장소	참 고
김은희	감	손불면 산남리	전직 가수(예명 : 은희)
김현덕	감 +복합	신광면 보여리	김은경과 부부
김은경	쪽	〃	"쪽마을 사람들" 대표
임명례	황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소속
임영란	식물염색(연, 감 포함)	신광면 연천리	연잎차를 생산하며 염색 시작

이들 5인 대부분은 함평이 탯자리가 아닌 객지에서 와서 함평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함평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열정을 갖고 함평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함평의 행정기관은 이들에게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6. 화훼식물 자원

화훼식물은 곧 관상식물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초본식물의 꽃을 말하는데 넓은 뜻으로는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밭에서 재배하는 노지화훼(露地花卉), 온실에서 기르는 온실화훼가 화훼원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상(觀賞)용 식물로는 관엽(觀葉)식물과 관화(觀花)식물로 나눌 수 있다. 관엽식물은 주로 잎을 관상하는 식물로 종류로는 아이비, 소철, 몬스테라, 스파트필름, 벤자민 등을 들 수 있다. 관화식물은 주로 꽃을 관상하는 식물로 종류로는 국화, 펜지, 페튜니아, 극락조화, 코스모스 메리골드 등을 들 수 있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자연의 관상품으로 야생 춘란(春蘭)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함평은 한국 춘란(春蘭)의 성지로 일컬어 질 정도로 춘란에 대해서는 이름 높다. 함평의 많은 난 애호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춘란은 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83년경부터 시작된 화훼산업은 미곡 위주의 농업에서 화훼단지를 조성해 화훼산업을 형성할 만큼 농가 소득에 큰 이바지를 했다.

이에 따라 본 항에서는 함평 란과 함평의 화훼산업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1) 함평 자생춘란

(1) 한국춘란의 내력과 분포상황[17]

17) 참고문헌 : 박상길(朴相吉)·평야 완(平野綏) 저· 새로운 춘란· 난과생활사 간행. 1996. 1. 19

우리 나라 남부지방 야산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보이는 춘란(春蘭)은 산난초, 꿩밥, 아기다래, 여달래, 숟가락총으로 불리어 오고 있다.

향기가 없는 우리 춘란은 난으로 대접 받지 못했다.

그것은 어떤 것은 미미한 향이 있기는 하나, 있으나 마나한 정도였기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난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있으나 춘란에 대한 기록은 극히 적으며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세종 31년인 1449년에 인제 강희안(仁濟姜希顔)이 쓴 양화소록에 "호남 연해의 여러 산에 자생하는 난은 가히 일품이다.(生湖南沿海諸山者品佳)"라는 구절이며, 이 구절로 당시 호남의 자생 춘란이 어느 정도 호평을 받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춘란의 분포는 남으로는 제주도에서 북으로는 백령도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는 울릉도와 휴전선 근방인 강릉에서도 자생지가 발견되었고 서울 바로 아래 지방인 경기도 양평군에서도 춘란이 발견되고 있으며, 지구의 온란화 현상에 따라 겨울에 영하 20℃ 이하의 혹독한 추위가 만나기 어렵게 되어 머지 않아 북한산에서도 춘란이 발견되리라는 예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한국춘란은 온대성 다년생 식물로 주로 전남북과 경남 지방의 해발 100~400m의 표고가 낮은 산 중턱이나 야산지대에 자생하고 있으며, 소나무가 많고 동남향의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는 군생(群生)하고 있고 높은 산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대단위 분포지로는 함평, 영광, 장성, 광주, 화순, 해남, 나주, 무안, 부산, 거제도를 손꼽고 있다.

(2) 명품 춘란의 성지(聖地) 함평

한국춘란은 기온이 연평균 12~13℃이고 겨울 평균 기온이 0~2℃ 사이의 비교적 따뜻하며 습기가 많고 또 적설량이 많은 곳~1곳지며, 자생 여건~1비교적 좋은 곳에서 명품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함평군은 서해안을 끼고 노령산맥의 서쪽 끝부분에 자리한 곳으로 해양성 기후에 적설량이 많고 연평균 기온이 13℃며 최저 기온도 1986년 이후 10년간 1월 평균이 1.1℃, 2월 평균이 2.3℃며 지난 10년간 중 가장 추웠다는 1986년의 1월 평균이 영하 1.8℃, 2월 평균이 0.9℃이고 강우량도 연평균 1200~1300㎜며 평균 75%의 습도를 유지해 한국춘란의 자생지로써 제일 적합한 곳이다.

따라서 함평군과 그리고 이웃한 영광 장성 등지에서 명품이 많이 발견되었고 특히 함평군은 춘란의 성지(聖地)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춘란의 대가인 도교 산카엔(贊花園)의 오오에히로시(大榮浩)는, 다음 같이 증언했다.

"1978년경 규슈(九州) 북부와 거의 동위도에 있는 한국 제주도에서 상당한 양의 춘란 소심(素心), 꽃변이종, 한란 감복륜중투(紺覆輪中透)의 실생묘(實生苗)가 어느 난전문 경영자에 의해 찌바현(千葉縣)으로 운반된 일이 있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 영역 내에서 채취한 춘란이 일본 원예계 첫 진출일 것이다. 그 후 이때의 무늬가 들어간 한란(감복륜중투)의 자극을 받은 일본의 동양란 업자가 속속 섬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눈을 돌린 일본, 대만의 악질업자가 대만, 일본한란의 무늬가 들어간 명품(감복륜중투)의 벌브를 티워 제주도에 몰래 잠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한란 붐

은 불과 2~3년 만에 진정되었다. -략-

제주도 난 붐의 여파는 한국의 본토로 향하고 그때까지 중국의 유향종 중심이었던 한국란계가 자국산 춘란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현재의 한국춘란 명품이 오래된 것이라도 1982년경에 발견되었고 대략 이 무렵부터 한국 본토에서의 품종 선발의 노력이 시작된 것 같다.

한국춘란의 자생지는 전라남도가 중심으로 명품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함평군은 이전의 일본 쯔구바(筑波) 지방을 방불케 하는 산채지대로 매년 우수 명품을 내고 있다. 더욱이 기타 반도의 남부지역과 반도를 둘러싼 해안 지역의 섬에서도 많은 춘란 자생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일본의 춘란 분포지역과 비교해 보면 훨씬 좁다. 오늘날 한국춘란의 명품을 보는데 있어서 이처럼 한정된 자원 속에서 게다가 불과 15년도 안되는 동안에 이렇게 풍부하고 다양한 품종이 선발된 데는 그저 놀랄 따름이다. 한국의 춘란 명품에 또 한가지 놀란 만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일본춘란에서 보아 왔던 온갖 형태의 무늬가 화예품에도 엽예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서 일륜(日輪) 형태, 월륜(月輪) 형태, 도산금(桃山錦) 형태 등이 전부 한국에 있고, 또한 도산금 형태의 소심, 투구화(두화-兜花), 질부금(秩父錦) 형태의 홍염(紅染)도 있다. 일본에서 약 70년에 걸린 품종 선발의 역사가 한국에서는 불과 15년 만에 응축되어 훌륭하게 개화전부 한는 것이다." [18] 라고 1978년부터 일본에서 한국춘란을 수입한 경위와 함평춘란의 명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양인배(梁因培)는 함평춘란의 산채와 명품 발견에 대해, 다음같이 말했다.

"함평군에서 춘란이 산채되기 시작한 것은 목포의 주영일, 무안의 배영찬 등이 함평지역 산행을 자주 다닐 무렵 우연히 대동면 향교리 김천수와 함께 1983년 봄 좋은 색화를 발견하여 화제가 되자 수석과 분재를 취미 생활로 하여 오던 박문식, 고송주 등 몇 사람이 1983년 4월부터 산채를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그 때는 자생란에 대한 지식이 없어 품종 구별도 못했고 그저 소심만 찾는데 온 신경을 썼다. 그러다가 잎이 이상하다고 여겨 기른 난이 감복륜이었고 당시 산채한 감복륜을 필자가 지금도 기르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난을 심고 기르는 방법을 몰라 산모래에다 난을 심거나 제주경석을 구해 쓰기도 했으나 뿌리내림이 좋지 않아 모두 2~3년 뒤 일본에서 생산된 일향토(日向土)로 바꾸어 기르고 있다.

함평에 난 산채 인구가 급증하게 된 최초 이유 중 하나는 1985년 봄 박문식이 색화(주황색)를 상당량 채취 당시 고가로 매매가 된 뒤 작은 지역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자 그해 가을부터 산채를 하는 사람이 급증하여 몇 백명에 이르게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난을 구하러 함평에 온 사람들이 왜 함평란이 좋은가 흔히 묻는데 함평란은 다른 지역보다 잎변이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색화가 많이 채취되는데 그 색이 맑고 아름다워 일본에서 명품으로 명명된 난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색화가 출현되어 전국 애란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이다.

몇 년전부터 전국 자생란 전시회에서 대상 또는 입선한 난들 대부분이 함평인들에 의해 산채된 것임을 모두 알고 있다.

특히 1986년 함평에서 산채된 "사피"는 1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란의 최고 명품인 "수문룡(사피)" 의 추종을 불허했고, 1987년들어 꽃이 피기 시작하자 색화소심(황화 및 주황색 소심)이 여기 저기에서 출현 전국 애란인들의 꿈을 현실로 나타내는데 함평의 산채인이 앞장 섰다고 하겠다.

1988년 여름에 부산에 거주하는 애란인 송길현이 전국 색화소심 열두개 중 아홉개가 함평인 산채인의 손에 의해 채집되었음을 필자에게 알려주어 함평이 춘란 채취의 선두임을 인식하게 하였다. -략-

18) 위 주석 4)의 참고 문헌 "새로운 춘란" 124~125 쪽

함평의 애란인들은 1985년 11월 23일 함평란우회를 창립하고 꾸준히 회원을 모집하여 난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집단 산행으로 우의를 다져가며 난을 수집해 오다가 1987년 봄에 자체 전시회를 가진 후, 1988년 3월 12~13일에 군과 함평문화원의 후원으로 함평군민복지회관에서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란우회전시회를 가진 후 매년 봄에 전시회를 계속하고 있다." 19)

이 두 인용문으로 함평춘란의 전모를 거의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

(3) 명품 함평춘란

1996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자생란보존총연합회에서 한국란 등록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 나라 산림지역에 자생하는 난과 식물을 개발, 원예 가능한 개체로 선발 육성하여 등록시킴으로써 한국란의 위상 제고는 물론 원예식물의 가치를 재창출함에 따라 난문화 창달과 더불어 난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1997년까지 등록된 명품란은 화예품 134종 엽예품 99종, 교배종 4종 합 237종이다.

등록이 끝난 품종들은 사무국에서 등록 1품종당 신청서 이력서 등을 갖춰 보관하게 되며 등록인에게도 이력서가 보내져 배양 증식에 따른 각종 정보가 기재되어 그 품종의 동향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화예품

적화계	25 품종	주황색화계	33 품종	황화계	13 품종
자화계	12 품종	복색화계	12 품종	소심계	18 품종
기화계	9 품종	도홍화계	2 품종	두화계	3 품종
원판화계	4 품종	색설화계	5 품종	백화계	2 품종

엽예품

호화계	3 품종	중투(화)계	22 품종	중압계	6 품종
복륜(화)계	31 품종	사피계	4 품종	호피계	7 품종
서호반계	1 품종	산반(화)계	9 품종	단엽계	13 품종
기엽계	1 품종	교배종	4 품종		

이 237 품종에 대해 난세계 발행인 이영자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품종별 등록 현상을 보면 화예품에서는 적화와 주황색화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인 반면 복색화나 원판화 계열이 생각보다 취약성을 나타냈으나 두화, 기화, 색설화, 도홍화, 백화까지 나와 한국춘란 색화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다.

엽예품 중에서는 역시 복륜계열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호, 중투, 중압 등 선호반계열도 이에 못지 않게 등록의 주류를 이룬 반면 사피와 호피 품중은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여서 이들 무늬의 발색과 배양에서 취약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품종 자체의 희귀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 산지는 예상했던 대로 전남 함평과 장성이 우위를 차지해 우리 나라 자생지의 대표적 산지임을 입증했으며 -략-"

라고 하여 한국춘란 등록 품종 중 함평산이 우위였음을 밝히고 있다.

19) 양인배. (함평란우회장),·1997년도 춘란재배반 교재,· 전라남도농촌진흥원 간행· 7~9쪽.

함평산 한국춘란 명품을 알아 보려면 “한국란 명품 전국대회” 입상작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회는 1, 2회는 ‘한국동양란총연합회’와 ‘난과 생활사(生活社)’에서 따로 따로 개최했으나 3회부터는 합동하여 개최해 오고 있다.

또 ‘사단법인 한국자생란보존총연합회’에서 “대한민국란대전”을 열고 있다.

이들 대회에서 함평춘란으로 입상한 명품은 다음과 같다.

회(回)	개최년월일	부 문(部門)	상 명	입 상 자	주 소	참 고
1	1992. 3.13 ~15	호(縞)	금 상	함 평 란 우 회		주최 : 한국동양란총연합회
		중투화(中透花)	〃	〃		
		자화(紫花)	동 상	〃		
		복색화(複色花)	〃	〃		
	1992. 3.14 ~15	복륜화(覆輪花)	최우수상	임 병 재	함 평 읍	주최 : 난과 생활사
		단엽(短葉)	〃	이 호 연	대 동 면	
		기화(奇花)	우 수 상	정 낙 준	나 산 면	
		복색화	〃	노 화 섭	〃	
		호피반(虎皮斑)	〃	홍 기 용	〃	
		소심(素心)	기대품상	이만호 홍기용	〃	
		홍화(紅花)	〃	이 호 연	대 동 면	
		황화(黃花)	〃	노 화 섭	나 산 면	
		기화	〃	노 화 섭	〃	
		호화	〃	임 권 재	함 평 읍	
		단엽	〃	이 만 호	〃	
2	1993. 3.13 ~14	황화	금 상	노 화 섭	나 산 면	주최 : 한국동양란총연합회. 부산
		기화	은 상	홍 기 용	〃	
		두화(豆花)원판화	〃	양 인 배	함 평 읍	
		색화(色花)소심	동 상	노 병 상		
		두화소심	외국인시상	홍 기 용	나 산 면	일본한란 병물 전국연합회장상
	1993. 3.12 ~14	소심	우 수 상	노 화 섭	〃	주최 : 난과 생활사. 서울
		주금화(朱金花)	〃	이 호 연	대 동 면	
		〃	〃	임 권 재	함 평 읍	
		〃	〃	이 만 호	나 산 면	
		홍화	기대품상	이 호 연	대 동 면	
		황화	우 수 상	고 송 주	함 평 읍	
		〃	기대품상	고 송 주	〃	
		복색화	〃	홍 기 용	나 산 면	
		자화	우 수 상	노 화 섭	〃	
		호화	〃	이 만 호	〃	
		〃	기대품상	권 영	함 평 읍	
		투구화	〃	노 화 섭	나 산 면	
		〃	〃	이 호 연	대 동 면	
		기화	우 수 상	홍 기 용	나 산 면	
		〃	기대품상	노 화 섭	〃	
		산반화(散斑花)	〃	김 동 종		
		〃	〃	노 화 섭	나 산 면	
		중투호	우 수 상	이 만 호	〃	
		〃	〃	권 영	함 평 읍	
		〃	기대품상	김 동 종		
		〃	〃	이 호 연	대 동 면	
		야생란	특 별 상	고 송 주	함 평 읍	
		〃	〃	노 화 섭	나 산 면	
		기타	기대품상	이 만 호	〃	

회(回)	개최년월일	부 문(部門)	상 명	입 상 자	주 소	참 고
3	1994. 3. 8 ~10	기화 자화 〃 호화 산반화 두화.원판화(圓瓣花) 〃	대 상 은 상 〃 금 상 〃 〃 특 별 상	노화섭 홍기용 노화섭 권 영 고송주 양인배 홍기용	〃 〃 〃 함평읍 〃 〃 나산면	
4	1995. 3.14 ~16	소심 주금화 기화 산반화 기종소심 백화 투구화 자화	동 상 〃 금 상 은 상 〃 금 상 은 상 특 별 상	홍기용 〃 〃 〃 〃 고송주 홍기용 노화섭	나산면 〃 〃 〃 〃 함평읍 나산면 〃	
5	1996. 3.12 ~14	소심 〃 자화 산반화 백화 복륜반 두화	외국인시상 동 상 금 상 은 상 동 상 은 상 특 별 상	장유남 채희일 노화섭 노화섭 홍기용 홍기용 노화섭	함평읍 〃 나산면 〃 〃 〃 〃	일본한란 병물연합회장상
6	1997. 3.15 ~17	홍화 원판화 자화 황화 산반화 복륜화 〃 기화 백화소심	최우수상 후원단체상 〃 금 상 동 상 특 별 상 기대품상 특 별 상 기대품상	장유남 양인배 노화섭 이만호 홍기용 김우택 고재영 김영봉 홍기용	함평읍 〃 나산면 〃 〃 나산면	한국란문화협회 이사장상 일본애란협회장상 일본동양란업자조합 이사장상
7	1998. 3. ~	기화 황화소심 소심 홍화 자화 산반	금 상 〃 〃 은 상 동 상 외국인시상	고재영 홍기용 문 륭 양인배 이만호 양인배	 나산면 함평읍 나산면 함평읍	 히라노 교수상
98.대한 국란대전	1998. 3. 5 ~8	적화	특별상	양연일	함평읍	심사위원장상. 개최지 수원

(4) 보존 계획

함평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춘란의 최대 자생지이며 희귀 변이종 등 다양한 종류의 우수명품이 많이 자생하고 있어 난의 성지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존육성하려는 대책이 아주 미약하며 일부 애란인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보존육성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우수형질의 난이 감소되고 있다.

반면에 문화발전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정서적인 취미생활을 즐기려는 인구가 증가되면서 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난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온대 남부지역에 위치하여 한국춘란을 보존 육성하는데 지리적 여건이 합당한 함평지역을 난을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 명소로 가꾸어 난에 대한 산 교육장이 되도록하고 또 건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대 (대동저수지 주변)에 1997년~2002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함평란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부지 매입, 진입도로 개설 등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함평 화훼산업

• 함평 화훼산업의 현실과 발전 방향[20]

전)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이 순 영

1. 머리글

봄이 오면 앞산에 진달래와 민들레꽃이 피고 보리밭 물결이 들녘에 출렁일 때면 냇가에 핀 하얀 찔레꽃의 자태는 수줍은 시골 처녀의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애틋한 향내음 같이 아름답고 정겨운 자연에 둘러싸인 고향을 가지고 있었고, 고향을 떠나 머언 세월을 보낸 사람도 항상 마음 속에는 어릴 적 모습들이 쌓여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옛 선현들이 사계절의 꽃을 표현하기를 들녘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때 색동저고리를 입고 나물케는 처녀의 모습을 봄의 꽃이라 하였고, 여름의 꽃은 풀잎에 맺힌 이슬이 막 솟아오르는 햇빛을 받아 오색의 자태를 자랑하는 모습이라 하였고, 산자락 잡힌 언덕에 나뭇잎 다 떨어지고 난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감을 가을의 꽃이라 하였으며, 겨울의 꽃은 냇가의 앙상한 나뭇가지에 핀 설화를 으뜸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앞 다투어 자연을 파괴한 재앙은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다행히 늦었지만 자연의 소중함을 공감하고 도시의 풍요로운 삶이 오히려 마음의 고향을 찾으려 하고 있고 도시의 콘크리트문화 주거공간이 아파트로 자리하함으로 꽃 수요는 소득의 향상과 함께 증가 하리라 믿는다.

2. 함평군의 꽃 재배 역사 현황

함평군민이 영리 목적으로 꽃재배를 시작한 것은 '나산면 삼축리 박현순' 씨가 친척의

20) 이 글은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근무했던 이순영 소장이 2006년 『함향3호』에 발표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함평의 화훼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실려 있어 화훼산업 항에 넣어도 무방하리라 믿어 이 글을 싣는다. 이순영 전 소장은 현재 함평나비대축제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아 일하고 있다.

권유로 '83년도에 벼를 심은 논을 갈아엎고 관엽식물을 재배하였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듬해 벼농사의 6배 이상 소득이 나오자 꽃 농사에 대한 강한 의욕이 생겨 정병섭 군수와 함께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에 필요한 꽃 수요에 대비하여 꽃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전국 4개소중 1개소를 나산면 삼축리에 동축꽃단지 2.0ha를 관엽식물로 조성하여 재배를 시작하였다.

이후 군민들의 꽃 재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대동면을 중심으로 한 거베라 단지조성과 엄다면의 국화재배, 농업기술센터에서 새 소득 작목으로 개발한 꽃꽂이 소재류 재배가 정착하여 재배면적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하면 재배면적이 적은 편이며, 재배현황은 다음과 같다.

○ 함평군 꽃 재배현황 단위 : ha

계	수 경 재 배			국화절화	꽃꽂이 소재류	관엽식물	비고
	소계	거베라	국화				
11.9	4.4	4.0	0.4	1.5	3.0	3.0	

3. 함평의 자랑거리 꽃 들

가. 용천사 꽃무릇

함평하면 가정 먼저 자랑할 명품으로 한국 100경 중 하나인 용천사 꽃무릇을 연상하게 한다. 20여만평에 이르는 꽃무릇을 지금 인공적으로 조경한다고 생각하면 100억원을 들여도 어찌 그 모습을 재현하겠는가? 누가 처음 심었는지 몰라도 함평에 사는 우리 후손들은 그 분에 대한 감사의 비라도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나. 함평 춘란

난은 예로부터 고고한 선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사군자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함평을 연상할 만큼 수많은 희귀종은 명품을 배출하였고, 전국 유통의 중심지로 한 선비의활발한 거래가 되군자로 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98년도에 대동면 운교리에 난공원을 유치 선비의 자연생태공원으로 8년여의 준비 끝에 2006년 7월에 개장선비의 유료 관람객이 167천명 자리다녀갈 만큼 랒면 반응을 얻군자로 며, 며,경제의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 대나무 분재

나산면 삼축리 동축 화훼단지에서 '86년부터 전국 최초로 당시 농촌지도소 꽃단지 주재 지도사 이순영씨와 분재 전문가 김호삼 씨가 개발에 성공하여 TV에 방영되자 농촌지도소 전화가 3일 동안 불통이 될 만큼 화재거리가 되었으며 이를 김영삼 대통령께서 보고 청와

대에 대나무 분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여 대나무 분재 15점을 청와대에 판매하였다.

라. 꽃잔디 길

화사한 봄이 오면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함평의 꽃잔디 길을 택한다. 핑크빛 물결이 함평 어느 길을 가도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고 창문을 열면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스친다. 함평에서는 최초로 나산면에서 나홍채 면장(현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사무총장)이 2001년도에 황곡소공원 500평을 꽃잔디 공원으로 조성하여 꽃이 피자 지나가는 관광버스가 멈춰 사진촬영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져 IMF 한파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제도가 생겨 이분들과 함께 읍·면에서 대대적으로 삽목 번식하여 천만그루 이상을 생산하여 꽃잔디길과 공원을 조성 하였는데 이를 구입 금액으로 환산하면 4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비용이며, 특히 이른 봄 꽃이 없을 때 좋은 밀원식물이 되어 관내 양봉농가에 큰 효자노릇을 해내고 있다.

마. 함평천 수련

나비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함평의 첫 관문인 검정교 밑 둔치는 잡풀이 무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2001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태연못 16개소를 조성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35종의 수련과 수생식물을 심어 형형색색의 예쁜 꽃이 피자 그 해에 전국 사진작가들 사이에 가장 좋은 사진촬영장소로 각광을 받았고, 이곳을 찾는 우리 군민들은 쓰레기가 있으면 주어서 가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리 잡게 되었다.

4. 함평 화훼산업의 발전방향

주거공간 개념이 점차 살기 편한 아파트 문화로 정착하게 됨에 따라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대형 식물 보다는 꽃이 피는 소품 분화쪽을 선호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특성상 그늘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을 가지고 실내조경을 할 수 있는 양치류 식물의 분화를 개발 상품화 하고 절화류 거베라는 함평에서 수경 재배한 상품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어 기존 농가 중심으로 재배 환경을 개선 규모화 하여 전업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의 노령화로 인한 휴경하우스를 이용하여 한번 식재하면 5~6년간 계속 수확이 가능하고 비교적 가격이 안정된 꽃꽂이 소재류의 품종 다양화 및 면적을 대폭 확대 재배하고 바닷가 쪽의 따뜻한 기후를 이용하여 마늘, 양파 대체작목으로 노지재배 꽃꽂이 소재류의 개발을 하여 새 소득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다.

나비의 명성과 함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여 국화분화 재배 농가 육성 및 이와 관련된 식용국화 품종 개발과 노지국화 들녘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꽃을 채취하여 국화청주 생산, 국화베개, 국화 압화 등을 상품화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리라 생각되며, 함

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5. 맺는말

함평의 화훼산업 발전방향은 기존의 재배농가와 작목을 중심으로 기술향상과 함께 면적을 확대 재배하고 각종 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분화를 개발 상품화 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야 하겠으며, 선진국의 관광 형태 전개 과정에 있어서 고정된 명승고적이나 유적지 관광에서 스포츠 레저로 발전하여 자연을 소재로 한 생태체험관광으로 옮겨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5일제가 정착됨에 따라 자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의 관광자원은 꽃으로 승부가 날 것이다. 지금의 예를 보더라도 함평 용천사 꽃무릇, 거제도 동부면 동백숲, 지리산 철쭉, 진해 벚꽃, 장흥 천관산 억새밭, 제주도 유채꽃 등은 타 자치단체에서 모방하고 싶어도 단기간 내에 이루어 낼 수 없는 자연의 유산임과 동시에 선조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어낸 걸작품들이다.

따라서 우리군 에서도 군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어 항상 꽃과 나비가 살아 숨 쉬는 지상의 낙원으로 가꾸어 미래의 함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7. 섬유식물(纖維植物) 자원

섬유식물은 식물 가운데 수피, 목부, 엽신에 있는 섬유가 밧줄, 의류, 제지, 깔개, 바구니 등 따위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유사 이전부터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닥나무, 목화, 황마, 양마, 모시풀, 골풀, 왕골, 삼 , 아마, 어저귀, 고리버들, 수세미, 칡, 뽕나무 등 2000종 이상의 종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필리핀에서만도 750종을 상회한다고 한다. 그러나 유통되는 것은 방적용의 목화나 삼 등 그 수가 한정되어 있다. 화학섬유나 합성섬유의 출현으로 가공적인 경공업은 쇠퇴하였으나, 천연섬유가 지닌 멋이 재인식되어 복합섬유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각종 섬유식물은 건축의 영역에서 인공재료(텍스 · 파이버보드)의 형태로도 이용된다. 섬유식물은 용도에 따라 방적 · 제지용(닥나무 · 참동자꽃 · 삼지닥나무 · 대나무 · 전나무속 · 가문비나무속 등), 솔 · 비용(코코야자 · 비수수 · 보리사초), 멍석이나 모자 · 바구니 등의 엮음용(밥풀고사리 · 고리버들 · 으름덩굴 · 등 · 개왕골 · 골풀 · 보릿짚 등), 쿠션이나 구명용구 등의 충전용(케이폭 · 짚 등), 천연포용(종려 · 수세미오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식물조직의 이용 부위에 따라 종자의 표피 털인 표피세포성의 섬유를 이용하는 것(목화 · 블라드플라워 등), 외떡잎식물의 기계조직에 있는 후벽세포성 섬유를 이용하는 것(마닐라삼 · 사이잘삼 · 월도 · 파초 · 파인애플 등), 물관부섬유를 이용하여 주로 제지펄프에 이용하는 것(대나무 · 가문비나무 · 참피나무 · 오리나무 · 버드나무 등), 체관부에 발달한 길고 부드러운 체관부섬유를 이용하는 것(아마 · 삼 · 황마 · 꾸지나무 · 뽕나무 · 개모시

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랫부분에 대표적인 섬유식물의 종류를 설명하겠지만 함평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왕골돗자리를 생산하는 왕골이 유명하다. 물론 목화, 닥나무, 삼, 모시풀 등 어느 종류인들 함평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없지만 극히 소량일 뿐이다. 하지만 왕골은 재배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왕골돗자리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섬유식물의 종류를 살펴보자.

• 대표적인 섬유식물의 종류

* 목화

무궁화목 무궁화과의 섬유작물로 주요재배종에 4종류가 있다.

* 닥나무

쐐기풀목 뽕나무과의 쌍떡잎식물. 키는 약 3m. 낙엽활엽관목으로 잎은 달걀 모양 또는 긴달걀모양이다. 봄에 꽃이 피고 열매는 핵과로, 취합과(聚合果)는 둥글며 9월에 익는다. 산기슭 양지쪽 및 밭둑에 나는데, 나무껍질은 제지용으로 쓰이며 열매는 약용, 어린잎은 식용한다. 조림에 적당하며 표토가 깊은 비옥한 땅, 특히 밭둑에 많이 자란다. 한국 전역과 일본 · 중국 · 타이완 등지에 분포한다.

* 삼

쐐기풀목 뽕나무과의 한해살이풀. 대마 · 마라고도 한다. 넓은 뜻으로는 줄기의 바로 아랫부분(靭皮)에서 섬유를 얻는 모시(저마) · 어저귀(청마) · 황마 · 아마 등의 식물과 잎에서 섬유를 얻는 외떡잎류의 마닐라삼 · 사이잘삼 · 모리셔스삼 · 뉴질랜드삼 등이 포함된다.

* 모시풀

쐐기풀목 쐐기풀과의 쌍떡잎식물. 여러해살이풀로서 줄기는 높이 1~2㎝이며 원기둥 모양이고 곧게 선다. 밭에 나며 줄기는 섬유에 이용된다. 한국·일본·타이완·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왕골

외떡잎식물로 벼목 사초과의 한해살이풀이다. 학명은 Cyperus exaltatus var. iwasakii이며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주로 저습답 또는 고래논에 서식한다.

왕골의 크기는 줄기 1.2~1.5m, 포엽 폭 1cm, 길이 50~60cm, 종자 길이 0.9mm, 너비 0.5mm이며, 꽃은 황갈색으로 8~10월에 피고 3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으며 암술머리는 3개로 갈라진다. 꽃자루의 일부가 칼 모양의 잎으로 싸인다. 열매는 10월에 익으며 종자는 매

우 작아서 길이 0.9mm, 나비 0.5mm 내외로 타원형이다.

왕골은 생육기간 중에는 고온다습하고 성숙기에는 건조한 상태로 경과하는 것이 좋다. 토양은 비옥하고 작토층(作土層)이 깊은 것이 생육에 적합하다. 왕골은 일반적으로 배수가 불량하고 유기물의 함량이 너무 많아서 벼의 재배에 알맞지 않은 저습답 또는 고래논에서 많이 재배된다.

왕골은 줄기를 피부(皮部)와 수부(髓部)로 분리하여 건조시킨다. 실 모양으로 가늘게 쪼개어 말린 것으로는 돗자리 ·방석 ·여름베개 ·모자 ·발 ·핸드백 ·담뱃갑 등의 수공예품을 만들며, 굵게 수부를 붙여 쪼갠 조피(粗皮)는 신 ·슬리퍼 ·바구니 등을 만든다. 왕골속은 비교적 질겨서 끈을 꼬아 마사(麻絲) 대신 쓰며 잎은 새끼를 꼬거나 누엣자리 ·깔개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왕골은 한국 특유의 공예작물로서 그 생산도 한국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인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재배한다.

이 가운데서도 국내 제일을 자랑하는 함평 왕골돗자리는 전국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1년 이래 사업단이 구성되어 대량생산을 하고 있다. 촉감이 상쾌하고 부드러우며 왕골자체에 염분성분이 함유되어 땀 흡수력이 뛰어나 건강에 좋으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사용 및 보관이 간편하여 반영구적이다.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품으로 우아함과 품위가 돋보이며 생산 제품으로는 간석, 요석, 다단석, 베개, 방석, 자동차시트 등 다양하다.

8. 약용식물(藥用植物) 자원

대표적인 약용식물자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원이 있다.

(1) 1년생 초본류 : 나팔꽃, 결명자, 백편두, 소회향, 겨자, 아주까리 등 기타
(2) 2년생 초본류 : 디기탈리스, 잇꽃 등 기타
(3) 다년생 초본류 : 더덕, 도라지, 감국, 감초, 작약, 지모, 인삼, 황기, 패모, 사프란, 부자, 천남성 등 기타
(4) 상록성 목본류 : 치자, 동백, 비파, 감귤 등 기타
(5) 낙엽성 목본류 : 목단, 산수유, 대추, 산사, 두충, 오수유, 등 기 타

한편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함평의 토공물(土貢物) 중 약용식물을 보면 석류(石榴), 비자(榧子), 맥문동(麥門冬)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함평의 토산물로 석류, 감, 비자를 들었고 그 산지는 가을고지(加乙古之. 갈고지 또는 갈구지라 부르던 현 대동저수지 수몰지)라 하였다.

현재는 석류나 감의 특산지는 없고 군유산에 비자림만 있다.

옛 함평현읍지에 기록된 약용식물은,

반하(半夏), 선모초(仙母草), 익모초(益母草. 암눈바앗), 천화분(天花粉. 하늘타리 뿌리의 전분), 지부자(地膚子. 댑싸리), 금은화(金銀花. 인동꽃), 석창포(石菖蒲), 하수오(何首烏. 큰조롱), 차전자(車前子. 질경이씨), 고련근(苦楝根. 멀구슬나무 뿌리), 괄루인(括蔞仁. 하늘타리씨), 창출(蒼朮. 삽주), 홍화(紅花. 잇꽃), 복령(茯笭. 소나무 뿌리의 혹), 박하(薄荷. 영생이), 지실(枳實. 탱자나무 열매). 갈근(葛根. 칡 뿌리), 천초(川椒. 조피나무, 분디나무), 택사(澤瀉), 우슬(牛膝.

쇠무릎), 목단(牧丹), 작약(芍藥. 함박꽃), 치자(梔子), 모과(木瓜), 방풍(防風. 병풍나물), 감국(甘菊. 국화의 일종), 고삼(苦蔘. 너삼)이다. 군내 각처에 흔하던 석창포와 군유산에 많이 자생하던 하수오는 희귀해 졌고 택사는 몇 농가에서 재배할 뿐이다.

괄루인, 지부자, 차전자, 창출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슬, 갈근, 고련근은 다른 지방에 비해 월등히 많이 자생하고 있다.

옛 기록에는 없지만 율초(葎草. 환삼덩굴)는 어느 지방보다 많이 자생하며 사삼(沙蔘. 더덕), 천문동(天門冬. 호라지좃)은 군유산과 모악산에 많이 자생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작약과 목단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었고 어성초(魚腥草)와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도 생겼다.

함평에서 생산되는 약용식물 중 약효가 뛰어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반하와 은행이다.

1) 반하(半夏. 끼무릇)

반하는 끼무릇 · 소천남성 · 법반하라고도 하며 밭에서 자란다. 높이 30cm정도이다. 지름 1cm 정도의 알뿌리에서 1~2개의 잎이 자라고 잎자루는 길이 10~20cm이며 밑부분이나 위쪽에 1개의 주아(珠芽)가 생겼다가 떨어져서 번식한다.

잎은 3개의 작은잎으로 된 겹잎이 작은 잎은 털이 없고 모양이 달걀 모양이나 바소꼴 등 변화가 많다.

꽃줄기는 높이 20~40cm이고 포는 녹색이며 길이 6~7cm로 겉에 털이 없으나 안쪽에는 털이 있다. 꽃은 6월에 피고 육수꽃차례에 달린다. 암꽃은 밑에, 수꽃은 위에 달리며 끝이 길게 자란다. 꽃은 노란빛을 띤 흰색이고 열매는 녹색 장과이다.

반하에는 정유, 베타 시토스테롤과 배당체, 콜린, 글루콘산, 아스파라긴산, 아르기닌, 리진, 포도당, 람노즈 등이 있고 기름과 1.9%의 회분(마그네시움 약49%, 칼시움 약15%), 프로토아네모닌과 비슷한 점막자극물질, 휘발성알칼로이드, 0.002%의 에페드린이 있다. 뿌리껍질에는 아린맛이 있는 호모겐티산이 있다.

반하의 효능에는 본초경(本草經) 또는 본경(本經)이라 불리는 신농본초경권지3본초부록(神農本草經卷之3本草附錄)에는 한사(寒邪)의 침범으로 인한 한열왕래(寒熱往來), 명치 부위가 팽팽하고 아픈 것,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하는 증상,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캄캄한 증상, 인후가 붓고 아픈 증상, 장명(腸鳴)을 치료하고 하기(下氣)시키며 땀을 그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별록(別錄)에는 가슴과 명치 부위에 담열(痰熱)이 뭉쳐져서 그득하고 답답하며 기침하고 상기(上氣)되는 증상, 명치 부위가 팽팽하고 결리는 증상, 전염병으로 인하여 구토하는 증상을 치료하며 종기의 붓기를 없애고 황달(黃疸)을 치료하며 안색(顔色)을 좋게 한다. 태아를 유산시킬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견권(甄權)에 의하면 담(痰)을 없애고 폐기(肺氣)를 아래로 내리고 위(胃)가 잘 소통되게 하고 소화를 도와 구토를 그치게 하며 가슴 부위에 담(痰)을 없앤다. 날 것은 종기로 부은 부위를 문지르면 좋고 혹을 없애기도 한다고 하고 있다.

지대명(池大明)은 음식을 토하고 넘기지 못하는 증상, 심한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근육경련, 배가 찬 증상, 학질(瘧疾)을 치료한다고 했다.

한편 반하는 동의보감에 법제(法製 ; 한방에서, 자연에서 채취한 원생약을 약으로 처리하는 과정)방법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대체적인 방법으로는 반하의 아린 맛이 없어질 때까지 물에 우린 다음 백반물 또는 생강즙에 넣고 속이 익을 때까지 끓여 말리는 방법을 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초제를 쓰지 않던 1970년대까지는 보리를 수확하고 나면 보리밭 속에서 자란 자연산 반하만 거두어도 많은 양이 모였다. 그러나 제초제가 남용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들어 귀해지기 시작한 반하는 근래에 자연산은 거의 멸종되었다.

함평에서 반하가 다량 출하되던 때가 1960년대며 서울에서 전국 반하 중 최고의 값으로 팔렸다.

반하의 약효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반하를 제일로 치며, 서산과 장수에서 많이 재배했으며 최근에는 제주의 서귀포시에서도 반하를 약용 소득작물로 재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함평에서도 함평 반하의 옛 명성을 다시 찾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백과(白果.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한방에서는 백과라고 하는데 "황금의 나무"라는 별명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실로 위대한 나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지만 아직 산에 저절로 나서 자라고 있는 것은 발견된 적이 없다. 은행나무는 여느 나무와는 달리 사람의 도움 없이는 번식하지 못한다. 수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가 저절로 싹이 터서 자라지는 못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나는 것보다 유효성분의 함량이 20배에서 100배나 많아서 독일 등에서 수입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 은행나무는 활용하기에 따라 어쩌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보물나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은행나무는 그 몸속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살균, 살충 성분이 있어 갖가지 벌레의 유충, 식물에 기생하는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왕성한 식욕을 가진 딱정벌레도 굶어 죽을지언정 은행잎은 먹지 않는다고 한다.

농가에서 거름을 만들 때에도 은행잎을 섞어 만들면 흙 속의 해로운 미생물이나 벌레들을 죽일 수 있다.

은행에는 간놀, 펙틴, 히스티딘, 전분, 단백질, 지방, 당분 등이 많이 들어 있어서 폐결핵 환자나 천식 환자가 오래 먹으면 기침이 없어지고 가래가 적게 나오는 약리작용이 있다. 이같은 효과는 은행이 호흡기능을 왕성하게 하고 염증을 소멸하며 결핵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또다른 작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B의 모체가 되는 엘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성욕감퇴, 뇌빈혈, 신경쇠약, 전신피로 등에 뇌혈관을 개선해 주는 효능도 있다.

그러나 은행알은 독이 있어서 날로 먹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 「동의보감」에 보면 많이 먹으면 배 아픔, 구토, 설사, 발열 증세가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공복에 은행알을 많이 먹어 중독 증상이 있을 때 감초 달인 물을 마시면 바로 해독된다.

은행보다 더 놀라운 효능이 있는 것은 은행잎인데, 예로부터 민간에서 심장을 돕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폐를 튼튼하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는 등의 효능이 입증되어 가슴앓이, 가래

및 천식, 설사, 백태, 상피증 등을 치료하는 약으로 널리 써 왔다.

은행잎에 들어 있는 성분인 징코라이드 A,B,C와 진놀, 프라보놀 등은 말초혈관 장애, 노인성 치매 등을 치료, 예방하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대의학에서 비상한 관심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은행 효능과 약효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금을 쳐서 프라이팬에 볶거나 불에 직접 구워 먹는 것이다. 은행을 불에 구워 한 번에 4~5개씩 먹어주면 위에 열거한 효능 외에도 정력을 강하게 하고, 또 밤에 오줌을 싸는 어린이에게 날마다 먹이면 얼마 안 가서 낫는다.

다음으로 은행 두 근을 볶아 껍질을 까고 호두 속살 두 근을 살짝 찧어 함께 밥솥의 밥물이 잦아들 때쯤 밥 위에 삼베보자기를 펴고 얹어두고 밥솥 뚜껑을 닫아 찐다. 이렇게 세 번을 찐 후에 기름을 짜면 은행 호두기름이 되는데, 오래된 기관지염이나 해수, 천식 등에 더없이 좋은 효과를 낸다. 소나 돼지 혓바닥을 삶아 죽염을 섞은 은행 호두기름에 찍어 먹으면 더할 나위 없는 효험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약효 성분이 있는데 은행을 불에 볶아 껍질을 벗기고 찧어서 물 두 사발에 삶아 그 물을 마시거나 죽을 쑤어 먹으면 남녀 생식기병에 좋고 특히 여성의 음부에 악취가 날 때 탁효가 있다.

또한 불에 볶아 껍질을 벗긴 은행을 찧어 순두부에 삶거나 콩과 함께 삶아 먹으면 여성의 뒤가 깨끗해진다고 한다.

계란에 구멍을 내어 은행 알 두 개를 밀어 넣고 찐 것을 하루 세 개씩 닷새만 먹으면 여성의 대하증이 말끔히 치유되는 신비한 효능도 있다.

음력 5월에 따서 그늘에 말린 은행 잎 35g에 감초 15g을 넣고 달인 물을 수시로 마시면 몸 안에 쌓인 독을 풀고 혈압을 내리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날 은행을 껍질을 까고 설탕물에 달여 먹으면 신장, 방광이 튼튼해지며 술에 삶아 먹으면 조루증이 낫는 등 은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은행은 죽을 쑤어 먹으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한다.

현재 우리 군의 군나무가 은행나무이다. 하만 은행을 군나무로 정할 때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었었다. 이제 우리의 군나무를 더 정성들여 가꾸고 또 더욱 더 가치 있게 이용하는데 깊은 연구가 있어야할 것이다.

3) 함평군 약용식물 일람(藥用植物一覽)

·조사 기간 : 1962~1964, 보강 1994.
·조 사 자 : 리현석
·수정 보완 : 1997년
·기술 방법 : 우리 말 이름으로 쓰되 가, 나, 다 순으로 배열하였고 ( ) 속에 생약명, 줄을 바꾸어 학명을 썼으며 또 간략하게 용처를 썼다.

• 함평군 약용식물 일람

◆ 가래 (안자채-眼子菜)
Potamgeton Franchetii Bennett et Baagae
술 중독, 가물치 및 날짐승을 먹고 중독을 일으켰을 때 삶아 먹음

◆ 가새잎개머루
Ampelopsis. brevipedunculata var. heterophyll for. citullodes
동상, 진통, 종기, 치질에 싸맴

◆ 가지 (가자-茄子)
Solanum melongena var. Esculentum
얼굴 죽은깨, 부인탈음(婦人脫陰), 새안손, 요통, 변혈 등에 씀

◆ 각시취
Saussurea pulchella Fischer ex DC
토혈(吐血), 지혈, 간염, 황달에 씀

◆ 갈대 (노근-蘆根)
Phragmites communis Trin
뿌리를 건위, 해독, 해열, 담을 제거하는데 씀

◆ 갈매나무 (서이인-鼠李仁)
Rhamnus davurica Pallas
악한(惡寒), 부종(浮腫), 하혈(下血) 등에 씀

◆ 감국 (甘菊)
Chrysanthemum lndicum Linne
풍열(風熱), 두통, 눈병 치료제로 씀

◆ 감나무 (시체-柹蔕)
Diospyros kaki Thunberg var. domestica Makino
설사, 딸국질을 할 때 달여 먹음

◆ 갈참나무 (토골피-土骨皮)
Quercus aliena Blume
나무껍질을 수렴(收斂), 강장(强壯), 종기독을 다스리는데 씀.

◆ 감초 (甘草)
Glycyrrhiza glabra
각종 독을 제거하는데 씀. 재배만 하고 있음

◆ 강호리 (강활-羌活)
Ostericum Koreana (Maximowicz) Kitagawa
두통, 중풍 등에 뿌리를 쓴다. 재배만 하고 있음

◆ 개곽향 (藿香)
Teucrium japonicum Houttuyn
해수, 폐염, 치혈(痔血)에 뿌리를 씀

◆ 개구리미나리
Ranunculus Tachiroei Franchet et Savatier
벌레 물린데, 종기 위에 싸맨다. 독이 있는 품

◆ 개구리밥 (부평-浮萍)
Spirodela polyrhiza (Linne) Schleiden
피부병, 해열제로 전초를 달여 먹음

◆ 개구리자리 (석룡예-石龍芮)
Ranunculus Sceleratus Linne
충독(虫毒), 진통(鎭痛), 부스럼에 씀

◆ 개갓냉이
Rorippa sublyrata (Miquer) Frarchet & Savatier
전초를 소화(消化), 버짐 폐염, 건위제로 씀

◆ 개나리 (연교-連翹)
Forsythia koreana Nakai
창종, 나력, 버짐 등에 응용함.

◆ 개당주나무 (수산사-藪山査)
Ribes fasciculatum s. et z. var. japonicum Jaenzewsky
요통(腰痛), 위장, 옻, 장출혈(腸出血) 등에 씀

◆ 개맥문동
Lipriope Koreana Nakai
이뇨(利尿), 해열, 감기, 진정(鎭靜), 강장, 젖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 씀

◆ 개맨드라미 (청상자-靑箱子)
Colosia argentea Linne
씨를 부인 음창(陰瘡), 살충, 해열, 통경에 씀

◆ 개머루 (사포도-蛇葡萄)
Ampelopsis brevipedunculata var. heterophyll Hara
동상, 진통, 이뇨, 치질, 종독(腫毒) 등에 싸맴

◆ 개벚나무 (구내자-狗奈子)
Prunus leveilleana var. typica Nakai
열매를 먹으면 강장제가 되며 껍질은 고혈압을 다스리는데 씀

◆ 개비자
Cephalo taxus Koreana Nakai
구충(驅蟲), 건위, 장출혈에 씀

◆ 개산초나무 (죽엽초-竹葉椒)
Zanthoxylum planispinum Siebold & Zuccarini
이뇨, 중풍, 치통, 건위, 진해제로 쓰임

◆ 개시호 (시호-柴胡)
Bupleurum longe radiatum Turczaninow
해열제로 뿌리가 특효함

◆ 개암나무 (주인-榛仁)
Conylus heterophylla var. japonica Koidzumi
열매를 보익(補益), 강장제로 씀

◆ 개연꽃
Nymphozanthus japonicus (DC) Fernald
자양강장, 지혈, 해독에 씀

◆ 개오동 (반피동-半皮凍)
Paederia scandens Louur Merrill
거풍(去風), 치통, 해수, 해독, 이질, 신장염 등을 치료함

◆ 개옻나무
Rhus trichocarpa Miquel
소화, 건위, 당뇨, 관절염, 통경(通經)에 쓰임

◆ 개자리 (수숙-首蓿. 고여목. 거여목)
Medicago denticulata Willdenow
황달의 요약. 목초용으로 많이 재배함

◆ 갯버들 (수양-水楊)
Salix graicilistyla Miqel
이뇨, 종기, 버짐, 수렴, 황달을 치료하는데 가지와 잎이 쓰임

◆ 겨우살이 (동청-凍靑)
Viscum coloratum var. jutescens Miy & Kudo
진정, 통정, 허리아픔, 고혈압에 전초를 이용함

◆ 깽깽이풀 (조황연-朝黃連)
Plagiorhegma dubium Maximowicz
건위,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뿌리와 줄기를 씀

◆ 고들빼기 (황화채-黃花菜)
Ixeris sonchifolia Hance
어린잎 식용. 건위의 효과가 있음

◆ 고로쇠나무
Acer mono maximowicz
수액을 자양강정제로 쓴다. 군유산에 자생함

◆ 고본 (藁本)
Angelica tenuissima Nakai
부인병 치료, 배아픔, 두통 등에 전초를 씀

◆ 고비 (구척-狗脊)
Osmunda japonica Thunberg
잎을 달여 마시면 각기병 및 수종(水腫), 구충(驅蟲), 임질에 효과가 있음

◆ 고삼 (苦蔘)
Sophola angustifolia Siebold et Zuccarini
건위, 구충약으로 전초가 쓰임. 약간 독성이 있음

◆ 고수 (호유-胡荽)
Coriandrium sativum Linne
대변하혈, 학질, 이질등에 씀. 열매가 익으면 방향성이 있고 정원에 재배도 함

◆ 고욤나무 (군천자-君遷子)
Diospyros Lotus Linne
야뇨(夜尿), 지사(止瀉), 토혈, 중풍, 동상 등에 쓰임

◆ 고추 (번초-蕃椒. 고초-苦草)
Capicum logum
담 결림, 발한, 식욕부진, 조충 구제 등에 씀

◆ 고추나물 (소연교-小連翹)

Hypercum erectrum Thunberg

심장병, 쇠붙이로 인한 상처, 뼈가 부러졌을 때 전초를 찧어 붙임

◆ 곡정초 (穀精草)

Erioca sieboldianum Siebold & Zuccarini

눈병, 목구멍의 후비(喉痺)를 치료함

◆ 골담초 (骨膽草)

Cargana chamlagn Lam

풍습, 신경통 등에 씀. 정원에 많이 심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보기 드물게 됨

◆ 골무꽃

Scutellaria indica Linne

폐염, 해열, 위장병, 해수에 전초를 씀

◆ 골풀 (등심초-燈心草)

Juncus decipiens Nakai

이뇨, 임질, 지혈, 수종을 다스림

◆ 관중 (貫衆. 면마-綿馬)

Dryopteris crassirhizoma Nakai

구충, 자궁출혈, 해열, 두통에 씀

◆ 광나무 (여정실-女貞實)

Ligustrum japonicum Thunberg

잎은 여러 가지 부스럼, 열매는 강장약으로 씀

◆ 꽈리 (산장-酸漿)

Physalis Francheti Masters

열매를 이뇨, 설파제, 통풍약으로 쓰고 뿌리는 해수, 해열, 이뇨제로 씀

◆ 괭이밥풀 (초장초-酢漿草)

Oxalis corniculata Linne

피부병, 소화, 해독, 벌레의 독을 제거하는데 쓰임

◆ 꼭두선이 (천초-茜草)

Rubia Akane Nakai

황달, 지혈, 토혈, 뇨혈(尿血), 해열, 통경, 강장, 풍습 등에 쓰고 또 염료(染料)로도 씀

◆ 꽃다지 (정력-葶藶)

Draba nemorosa Linne var. hebecarpa Ledeb

기관지염, 천식, 변비 등에 씨를 씀

◆ 꽃무릇 (상사화-相思花)

Lycoris radiata Linne var. Heric Herb

벌레물린데, 화상 등에 응용함. 용천사에 많이 자생. 위기식물.

◆ 구기자(枸杞子. 새꼬치)

Lycium chinensis Miller

열매는 강장, 건위, 당뇨, 폐결핵, 간장약으로 쓰고 가지와 뿌리껍질(지골피-地骨 皮)은 해열, 청량제로 씀

◆ 구릿대 (백지-白芷)

Angellica davurica (Fisher) Bentham et Hooker

감기, 두통, 치통, 부인혈증, 태아 분만 촉진에 쓴다. 재배를 많이 함

◆ 구슬봉이

Gentiana squarrosa Ledobour

건위, 종양, 식은 땀. 회충, 습진을 다스림

◆ 구약나물 (구약-蒟蒻. 곤약)

Amorphophallus konjac

종기, 장내 배설작용 촉진 등에 씀

◆ 구절초 (九折草)

Chrysanthemum sibiricum Fischer

건위, 보익(補益), 정혈, 보혈, 신경통에 쓰임

◆ 궁궁이 (천궁-川芎)

Angellica polymorpha Maximowicz

순혈(順血), 청혈(淸血), 강장, 진정제로 씀. 재배를 많이 함

◆ 꿀풀 (서주하고초-徐州夏枯草)

Brunella asiatica Nakai

건위, 자궁병 등에 씀

◆ 꿩의다리

Thalictrum aquilegifolium Linne var. japonica Nakai

뿌리를 달여 배앓이에 쓰고 뿌리의 분말은 상처에 바름

◆ 귤나무 (진피-陳皮. 청피-靑皮)

Citrusnobilis Makino

잘 익은 귤의 껍질 : 진피. 덜익은 껍질 : 청피. 건위, 발한, 감기에 씀

◆ 긴병꽃풀 (연전초-連錢草. 속칭 적설초)
Galechoma hederacea Linne var. longituba Nakai
전초를 소아의 경풍, 해열, 진해, 지혈, 이수(利水)에 씀

◆ 나도닭의장덩굴 (즙채-葅菜)
Bilderdykia convolvulus (Linne) Dumortier
잎과 뿌리를 치질, 임질, 부스럼, 매독, 요도염, 음위 등에 씀

◆ 냉이 (제채-薺菜)
Capsella barsa-pasroris Miquel Medicus
전초를 이뇨, 해열, 지혈에 응용한다. 안질의 특효약

◆ 나팔꽃 (견우자-牽牛子. 흑축-黑丑)
Pharbitis rigida S. et Z.
씨를 설사, 이뇨, 수종, 각기병 치료에 응용함

◆ 노간주나무 (두송실-杜松實)
Juniperus utillis Koidz
열매를 이뇨, 거담제로 쓴다. 건위, 고혈압의 특효약

◆ 노란하늘타리 (왕과-王瓜. 토과-土瓜)
Trichosanthes quadricirra Miquel
이뇨, 거담, 수렴제

◆ 노루발풀 (녹제초-鹿蹄草)
Pyrola japonica Klenze et Alefeld
이뇨, 방부, 각기, 충독 제거에 전초를 씀

◆ 녹두(綠豆)
Phaseolus radiatus Linne
씨를 두창, 부종, 부종, 제독에 응용함

◆ 놋젓가락풀 (초오-草烏)
Aconitum ciliare DC
신경통, 류마티스에 씀

◆ 누리장나무 (상산-常山)
Clerodendron trichotomum Thunberg
건위, 종기, 피부병에 씀

◆ 눈개승마 (죽토자-竹土子)
Aruncus americanus (Person) Rafinesque
씨를 정력, 해독, 지혈, 편도선염에 씀

◆ 느릅나무 (유백피-楡白皮)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Nakai
가지나 뿌리 껍질을 이수, 거담, 소종(消腫), 새살 차는데 씀

◆ 느티나무 (괴목-槐木)
Zelkova serrata (Thunberg) Makino
껍질을 강장, 안태(安胎), 부종, 이수에 씀

◆ 다닥냉이
Lepidium micranthum Ledebour
해수, 두풍(頭風), 이뇨, 대머리에 씀

◆ 다래나무 (후도-猴桃)
Actinidia alguta S. et Z.
덩굴 즙액을 신장병에 복용하면 특효

◆ 다름나무
Maackia amurensis Rupree & Maximowicz
고혈압, 지혈, 자궁출혈, 충혈 등에 꽃을 응용함

◆ 닥나무 (저실자-楮實子)
Broussonetia kazinoki Siebold
열매와 잎을 양기, 피로 회복, 명목(明目) 등에 씀

◆ 단삼(丹蔘)
Salvia miltriorrhiza Bunge
뿌리를 자궁출혈, 월경불순, 관절염, 청혈제로 씀

◆ 단풍취
Ainslia acerifolia Schulzii Bipontinus et Zollirger
건위에 효과가 있음

◆ 달래 (산-蒜)
Allium monanthum Maximowicz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고혈압, 강정 강장제로 쓰임. 많이 재배함

◆ 담배 (연초-煙草)
Nicotiana Tabacum Linne
피부약, 풍한(風寒), 체기정담(滯氣停痰)에 씀

◆ 당근 (唐根)
Daucus Carota var. sativa
빈혈, 이뇨, 신장염, 담 제거에 씀

◆ 닭의장풀 (압척초-鴨跖草)
Commelina communis Linne
종기, 이뇨, 강심(强心)에 응용함

◆ 담배풀 (천명정-天名精)
Carpesium abrotanoides Linne
조충구제용(條虫驅除用)으로 열매를 씀

◆ 당단풍 (唐丹楓)
Acer pseudo sieboldianum(paxii) Komarov
수액(樹液)을 하리(下痢)에 씀

◆ 딱지꽃 (위능채-委陵菜)
Potertilla chinensis Seringe
지혈, 보익, 통경, 해열제로 뿌리를 씀

◆ 딱총나무
Sambucus willi9amsii Koreana Nakai
골절, 신경통, 해열, 이뇨, 폐염 등을 치료하는데 씀

◆ 땅콩 (낙화생-落花生)
Arachis hypogaea
건위, 강정제로 쓰임

◆ 대극(大戟. 속명 버들옷)
Galarhaeus pekinensis (Ruprecht) Hara
행혈(行血), 발한(發汗), 배앓이, 하설제(下泄劑)로 씀

◆ 대싸리 (지부자-地膚子. 속명 비싸리)
Kochia scoparia Schrader
소변불편, 음경, 대하 등의 특효약.

◆ 대왐풀 (백급-白芨)
Bletilla striata
비늘 줄기를 부스럼, 지혈, 보폐(補肺), 간질환 등에 응용함

◆ 대추 (대조-大棗)
Zizphus jujuba millear var. intermis Rehder
완화제, 해열, 목구멍 질환, 요통 등에 씀

◆ 대황 (대황-大黃)
Rheum urdulatum Linne
변비 소화불량(극소량 복용), 타박상에 뿌리를 응용함

◆ 댕댕이덩굴 (목방기-木防己)
Cocculus trilobus DC
이뇨의 특효약

◆ 때찔래 (매괴화-玫瑰花. 일명 해당화)
Rosarugosa thunberg var. typica Regel
수렴, 교미(矯味), 지혈, 피를 맑게 하는데 꽃, 열매를 응용함

◆ 더덕 (사삼-沙蔘)
Condonopsis lanceolata Traut
뿌리를 식용도 하고 거담, 건위, 강장, 폐열 제거, 산기(疝氣)에 쓴다. 재배를 많이 함

◆ 떡갈나무 (해두-槲斗)
Quercus dentata Thunberg
잎과 껍질을 강장, 수렴, 해동제로 응용함

◆ 떡쑥 (서국초-鼠麴草)
Gnaphalium luteoalbum Linne var. multiceps (Wallich) Hooker fil
진해, 거담약으로 응용함

◆ 도꼬로마
Dioscorea Tokoro Makino
어독(魚毒), 매독, 창산, 젖앓이, 토혈에 잎을 응용함

◆ 도꼬마리 (창이자-蒼耳子)
Xanthium strumarium Linne
발한, 해열, 고혈압 치료제로 전초를 씀

◆ 도라지 (길경-桔梗)
Platycondon grandiflocum A. DC
진해, 거담, 젖을 많이 나게 함, 배농(排膿), 인후병에 응용함. 재배를 많이 함

◆ 독말풀 (만타라화-曼陀羅華)
Datura tatula Linne
천식, 경련성의 해수, 신경통, 매독, 암종에 응용함

◆ 돌가시나무
Rosa wichuraiana crepin
복통, 하리(下痢), 누뇨(淚尿), 음위(陰痿), 관절염, 강장, 치통, 종창에 응용함

◆ 돌감나무

Diospyros kaki var. silvestris Makino

야뇨, 토혈, 지사제, 중풍, 동상에 씀

◆ 돌나물 (전채 – 錢菜. 석채 – 石菜. 일명 돈노물)

Sedum sarmentosum Bunge

잎은 종양의 고름을 빼는데, 삶은 물은 치질을 치료하는데 쓴다. 최근에 간경화 증을 다스리는 요약으로 판명됨

◆ 돌배나무 (산이–山梨)

Pyrus montana Nakai

토사, 해열제로 씀

◆ 두릅나무 (송목–松木)

Aralia elata Seemenn

해열, 강장, 거담. 당뇨 치료제로 씀. 일부 재배를 함.

◆ 두충 (杜沖)

Eucommia ulmoides Oliver

관절의 동통(疼痛), 척추의 여러 병, 견골제로 씀. 재배를 많이 하고 있음

◆ 둥굴레 (편황정–片黃精. 일명 괴불꽃)

Polygonatum japonicum Morren & Decaisne

폐염, 부스럼, 강심, 강장, 당뇨, 풍습(風濕)에 씀

◆ 뚝깔

Patrinia villosa (Thunberg) Jussieu

안질, 화상, 단독, 버짐 등을 치료하는데 전초를 씀

◆ 들깨 (백소–白蘇. 임자–荏子)

Perilla frutescens var. typica

고혈압, 산후회복, 담제거 등에 씀

◆ 들현호색(현호색–玄胡索)

Corydalis ternata Nakai

진경, 진통, 월경조절 치료에 씀

◆ 등 (藤. 참등. 등나무)

Wisteria japonica Sieboid et Zuccarini

줄기의 혹을 암에 응용함

◆ 등골나물 (산란–山蘭)

Euatorium japonicum Thunberg

황달, 보익, 고혈압, 토혈, 폐염, 산후 배앓이, 중풍, 당뇨 등을 치료함

◆ 띠 (백모근–白茅根)

Imperata cylindrica Linne var. koenigii (Retz) Durand et sunitz

주독, 이뇨, 지혈, 발한, 상처 등에 쓰는데 특히 임질에 특효가 있음

◆ 마 (산약–山藥)

Dioscorea batatas Decee

자양강장제, 동상, 화상, 젖앓이에 생즙을 씀

◆ 마가목 (마아목–馬牙木)

Sorbus Commixta Hedlund

보혈, 중풍, 구충제로 활용함

◆ 마늘 (호–葫. 대산–大蒜)

Allium cativum var. Pekinense

치핵(痔核), 축농증, 곽란,, 후두염, 이질, 더위 먹은데 응용함

◆ 마디풀 (편축–萹蓄)

Polygonum aviculare Linne var. buxifolium Ledebour

황달, 곽란, 어린이 회충 구제에 전초를 씀

◆ 마름 (능실–菱實)

Trapa natans Linne var. bispinosa Makino

덩이 뿌리와 열매를 자궁혈종, 월경폐지, 위암 예방에 씀

◆ 마삭나무 (낙석–絡石)

Trachelo spermum asiaticum (S. et Z.) Nakai var. intermedius Nakai

하리, 안태, 진통, 거풍(去風), 각기병, 종기, 강장제로 씀

◆ 마타리 (패장–敗漿)

Patrinia scabiosaefolia Fischer

안질, 화상, 단독, 종기와 부스럼, 버짐에 씀

◆ 만병초 (萬病草)

Rhododendron faurica franchet var. rufescens Nakai

내장약, 해열, 최음, 신장 질환의 묘약으로 알려 옴. 불갑산에 10여 그루가 자생하였으나 1992년 무지한 채약꾼에 의해 모두 뿌리까지 뽑혔으며 새로 발견하지는 못했음

◆ 만삼(蔓蔘. 더덕)
Codonopsis pilosula Nannfelelt
뿌리를 부인병, 임질, 폐로(肺癆), 태산불알 치료에 씀

◆ 말냉이 (퇴람채-退藍菜)
Thlaspi arvense Linne
중풍, 이뇨, 늑막염, 신경통에 씨를 응용함

◆ 말오줌나무 (접골목-接骨木)
Sambucus latipnna Nakai
타박상, 발한, 무좀 등에 응용함

◆ 맑은대쑥 (인호-茵蒿. 개제비쑥)
Artemisia keiskeana Miquel
해열에 달여 마심

◆ 매화(백매-白梅. 오매-烏梅)
Prunus mume Siebold & Zuccarini
지혈, 소화, 담과 가래, 곽란 등을 다스리는데 씀

◆ 맥문동(麥門冬. 속명 겨우살이)
Liriop platyphylla wanget Tang
덩이 뿌리를 완화, 청양(淸養), 거담, 강정제로 씀

◆ 맨드라미(계관화-鷄冠花. 청상자-靑箱子)
Celosia cristata Linne
하리, 눈병약, 지혈, 해열, 옴, 버짐 등에 응용함. 복용시 가물치, 돼지고기를 금함

◆ 머위 (관동화-款冬花)
Petasites japonicus (Siebold & Zuccarini) Maximowicz
토혈, 지혈, 간염, 황달에 씀. 폐병의 특효약

◆ 멀구슬나무 (고련피,자-苦楝皮子)
melia japonica Don
껍질 열매를 구충, 피부병 씻기, 동상, 화상 등에 응용함. 함평에 많이 자생함

◆ 멍석딸기 (홍매소-紅梅消)
Rosa parvifolius linne
강장, 설사를 멈추게 함, 안태, 명안(明眼)에 씀

◆ 메밀 (교맥-蕎麥)
Fagopyrum escuentum
오래된 체증, 편두통, 설사 멈춤, 종기, 대하증, 임질 등에 응용함

◆ 멧꽃 (선화-旋花)
Calystegia japonica (Thunberg) Choisy
천식, 중풍, 이뇨, 익기(益氣), 종기 등에 응용함

◆ 멧대추 (산조인-酸棗仁)
Zizyhus jujuba miller var. spinosus Bunge
간, 심장병, 허한, 신경예민증, 불면증에 씀

◆ 며누리배꼽 (자리두-刺利頭)
Persicaria perfoliata Gross
고기 먹고 체한데, 피부병 치료에 전초를 씀

◆ 명아주 (여-藜)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중독, 버짐, 백전풍(白癜風) 치료제

◆ 멧두릅 (독활-獨活. 일명 땃두릅)
Aralia continentalis Kitagawa
두통, 현기증, 습, 버짐 등에 쓴다. 많이 재배함

◆ 모과 (목과-木瓜)
Chaenomeles sinensis Schneider
곽란, 더위 먹은데, 각기, 진통, 감기에 씀

◆ 모란 (목단피-牧丹皮)
Paeonia suffruticosa Anderws
월경불순, 치질, 진정제, 통경제로 응용함. 재배를 많이 하고 음

◆ 모시풀 (행엽채-杏葉菜. 저마-苧麻)
Bochmeria frutescens Thunberg
뿌리를 해독약으로 달여 마심

◆ 목련 (신이-辛夷)
Magnolia kobus DC
꽃은 두통, 창독, 축농증 치료제로 쓰고 껍질은 요통, 골통(骨痛), 폐결핵에 씀

◆ 묏미나리
Ostericum sieboldii (Miquel) Nakai
해열, 구풍(驅風), 중풍 등에 씀

◆ 무궁화 (목근-木槿. 순화-舜花)
Hibiscus syriacus Linne
장출혈, 장티부스, 이질 치료에 응용함

◆ 무릇 (면조아-綿棗兒)
Scilla sinensis Merrill
벌레 물린데 응용함

◆ 무우 (대근-大根. 나부-蘿부) 富 芙
Raphanus sativus var. acanthiformis
숙취, 화상, 중이염, 신장염 치료에 씀

◆ 무화과 (無花果)
Ficus carica Linne
자양강장, 건위, 즙액은 치질 치료에 씀

◆ 물개암나무
Corylus sieboldiana var. mandshurica Maximowicz et Ruprecht
보익, 강장제로 씀

◆ 물봉선 (휘채화-輝菜花)
Impatiens textori Miquel
가슴앓이, 타박상, 독사에 물렸을 때, 난산에 응용함

◆ 물푸레나무 (수창목-水蒼木. 진피-秦皮)
Fraxinus pubineruis Blume
해열, 소염성 수렴약으로 씀

◆ 미꾸리낙시 (여뀌때)
Persicaria sagittata (Linne) Gross var. americana (Meissner) Nakai
식욕부진, 통경, 고기에 체했을 때 씀

◆ 미나리 (근-芹)
Oenathe stolonifera (Roxburgh) DC.
주독, 폐염, 황달, 해열, 고혈압, 전신이 부었을 때, 신경통에 응용함

◆ 미나리아제비 (모낭-毛莨. 자래초)
Ranunculus japonica Thunberg
종기와 부스럼을 다스림. 유독성풀임

◆ 미역취 (일지황화-一枝黃花)
Solidago virgaurea subsp asiatica Kitamura
해수, 이뇨, 부종에 씀. 재배하면 수익성이 높음

◆ 민들레 (포공영-蒲公英)
T. platycarpum H. Dahlstaedt
건위, 이뇨, 최유(催乳), 종독, 해열, 발한, 위암, 강장제로 쓴다. 함평군에는 재배하는 곳은 없음

◆ 민족도리풀 (조리풀. 세신-細辛)
Asiasarum heterotropoides (Fr. schmidt) F. Maekawa var. mandshuricum (Maximowicz) F. Maekawa = Asarum Sieboldii Miquel
해수, 입이 비뚤어진 증세, 두통 등에 씀

◆ 밀 (소맥-小麥. 부소맥-浮小麥)
T. vulgare Vill : 보통밀
밀은 번열(煩熱), 조갈(燥渴)에 쓰고 물에 뜨는 부소맥은 허한을 다스리는데 씀

◆ 바디나물 (전호-前胡)
Angelica decursiva Pranchet et Savatier
해열, 진통, 해수, 단 제거에 응용함

◆ 바위손 (권백-卷柏. 부처손)
Selaginalla involvens Spring
파혈, 통경, 장풍(腸風), 탈항(脫肛)을 다스리는데 씀

◆ 바위솔(와송-瓦松. 지부지기. 지붕지기)
Orostachys japonicus (Maximowicz) Rerger
독충에 물렸거나 쏘였을 때, 화상에 응용함

◆ 바위취 (호이초-虎耳草)
Saxifraga stolonifera Meerburgh
여러 부스럼, 동상에 씀

◆ 박 (포로-匏蘆)
Lagenaria siceraria var. depressa
번갈, 심열, 부종, 담석을 제거하는데 응용함

◆ 박주가리 (라마-蘿藦)
Metaplexis japonica (Thunberg) Makino
강정약으로 씀

◆ 반하(半夏. 깨무릇)
Pinellia ternata (Thunberg) Breitenb
거담, 구토, 멀미약의 주원료로 쓰인다. 극성양초임. 함평산이 반하 중 최우수품임

◆ 밤나무 (율-栗)
Castanea renata Siebold et Zuccarini
건위, 하혈, 종기의 독, 신장강화, 수렴제로 씀

◆ 방가지똥 (고채-苦菜)
Sonchus oleaceus Linne
종창, 대하증 치료에 씀

◆ 방동산이
Cyperus amuricus Maximowicx var. laxus (Franchet & Swatiee) Nakai
임질, 이뇨, 지혈 등에 씀

◆ 방애잎 (배초향-排草香. 중개풀)
Agastache rugosa (Fischer & Meyer) O. Kuntze
감기, 종기, 곽란, 구토, 풍습 치료에 응용함

◆ 배풍등 (백영-白英)
Solanum lyratum var. pubescens Nakai
신경통, 태산불알 통증, 부종, 해열제로 씀

◆ 백년초 (백년초-百年草. 선인장)
Opuntia tuna
선인장의 종류는 세계에 3,600 여종이 있다.
백일해, 늑막염, 각기, 수종, 위병, 당뇨 등에 씀

◆ 백미꽃 (백미-白薇. 아마존)
Cynanchum atratum Bunge
해열, 이뇨제로 씀

◆ 백선 (白鮮)
Dictamnus aibus Linne
통경, 낙태, 황달, 중풍, 이뇨제로 씀

◆ 뱀딸기 (사매-蛇苺)
Duchesnea wallichiana nakai
위염, 상한(傷寒), 해열, 토혈, 당뇨, 통경, 진해, 여러 독을 제거하는데 씀

◆ 버드나무 (유목-柳木)
Salix koreansis Andersson
수렴, 치통, 이뇨, 지혈, 종기에 응용함

◆ 범부채 (사간-射干)
Belamcanda chinensis (Linne) Leman
소염, 진해, 편도선염, 진통제로 씀

◆ 벚나무 (산앵-山櫻)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d Wilson
열매를 건위, 강장에 쓰며 껍질은 고혈압을 다스리는데 씀

◆ 변두콩 (백편두-白扁豆. 일명 제비콩)
Dolichos lablab Linne
곽란, 토리(吐利), 술독을 푸는데 씀

◆ 별꽃 (번루-蘩蔞)
Stellaria medica (Linne) Cyrillos
피임약으로 응용함

◆ 병풍나물 (방풍-防風)
Siler divaricatum Bentham et Hooker
풍기를 다스리는 선약(仙藥)

◆ 보리 (맥아-麥芽)
Hordeum sativum
보리밥은 각기, 당뇨 치료에 효험이 있고 엿기름은 최생(催生), 낙태에 씀

◆ 보리수나무 (우내자-牛奶子)
Elaeagnus crispa Thunberg
지혈, 설사를 멈추게 하는데 씀

◆ 복령 (茯笭)
Poriacocos wolff Cpachyma hoelen Rumphius
백, 적복령과 복신이 있다. 수종(붓는 병), 임질, 이뇨, 해열, 건위, 안태에 씀

◆ 복분자딸기 (복분자-覆盆子)
Rubus. coreanus Miquel
청량, 갈증, 자양강장제로 씀

◆ 복수초 (福壽草)
Adonis amurensis Regel et Radde ex Regel var. parviflora Nakai
종창, 진통, 이뇨, 강심제로 응용함

◆ 복숭아 (도인-桃仁)
Prunus persica Botseh
이뇨, 두통, 곽란, 진해, 월경불순에 응용함

◆ 봉선화 (鳳仙花)
Impatien balsamina Linne
고기류에 의한 식중독, 등창의 종기 치료제. 극성약임

◆ 뽕 (상근백피-桑根白皮)
Morus bombycis Koidzumi
한방에서는 이수, 진해에 응용하고 민간 요법으로는 여러 병을 다스리는데 쓰이며 잎이 고혈압 치료의 명약임

◆ 부들꽃 (포황-蒲黃. 일명 좀부들)
Typha orientalis Presi
지혈, 파열, 이뇨제로 씀

◆ 부추 (비-韭. 일명 솔)
Allium odorum Linne
잎은 반위(反胃), 토혈, 코피 흘리는데 쓰고 씨는 음위, 유정(遺精), 유뇨증(遺尿症) 을 치료하는데 씀

◆ 분꽃 (백분초-白粉草)
Mirabilis japonica Linne
절상(折傷), 버짐에 씀

◆ 분디나무 (천초-川椒. 일명 조피나무)
Fagara schlnifolia var. Microphilla
해독, 진통, 구충제로 씀

◆ 붉나무 (오배자-五倍子)
Rhus javanica Linne
출혈, 해독, 설사를 하게 하는데 응용함

◆ 붉은가시딸기
Rubus phoenicolasius Maximowicz
강장, 지사, 태생(胎生), 명안(明眼)에 씀

◆ 비름 (야현-野莧)
Amaranthus mangostanus Linne
안질, 종창 치료제로 씀

◆ 비자 (榧子)
Torreya nucifera Sieb & Zuce
구충, 건위, 장출혈에 씀

◆ 사리풀 (낭탕자-莨宕子. 초우웡)
Hyoscyamus niger Linne
발광, 신경의 여러 병, 나력을 치료하는데 씀. 아주 독성이 강함

◆ 사상자 (蛇床子. 일명 뱀도랏)
Torilis japonica (Houttuyn) DC
음위, 부인음종, 악창(惡瘡), 치통에 씀

◆ 사위질빵 (여위-女萎)
Clematis apiifolia DC
천식, 각기, 발한 절상, 풍질(風疾)에 씀

◆ 사철나무 (왜사중-倭社仲)
Eupnymus japonica Thunberg
진통, 자궁출혈, 강장, 통경제로 응용함

◆ 사철쑥 (茵蔯蒿. 일명 애탕쑥)
Artemisia capillaris Thunberg
황달, 해열, 더위풀이, 잇몸느리 치료에 씀

◆ 산검양옻나무 (야칠-野漆)
Rhus solvestris Siebold & Zuccarini
소염(消炎), 건위, 당뇨, 관절염 치료에 씀

◆ 산달래 (산산-山蒜)
Allium grayi Regel
보혈, 장염, 위암, 불면증에 전초를 달여 복용하고 타박상, 벌레 물린데에 비늘 줄기를 찧어 싸맴

◆ 산딸기나무 (산매-山莓)
Rubus crataegifolius Bunge
강장, 지사, 태생, 명안 등에 씀

◆ 산들깨
Orthodon japonicum Bentham ex Oliver
고혈압, 종기 등에 씀

◆ 산박하 (깻잎나물)
Amethystanthus inflexus (Vahl) Nakai
건위, 구충제로 씀

◆ 산밤나무 (산율-山栗)
Castanea crenata S. et Z. var. kusakuri Nakai
건위, 하혈, 독종(毒腫), 신장을 강하게 하는데 응용함

◆ 산뽕나무 (산상-山桑)
Morus bombycis Koidzumi
이뇨, 각기, 폐염, 중풍, 벌레의 독 제거, 감기, 고혈압, 발한 등에 쓰이고 재배하는 뽕보다 약효가 좋음

◆ 산부추 (산비-山韭)
Allium japonica Regel
구충, 이뇨, 강장, 해독, 건위, 풍습, 진통, 강심 등에 전초를 씀

◆ 산수국 (山水菊)
Hydrangea serrata var. acuminata Nakai
학질, 해열제로 씀

◆ 산수유(山茱萸)
Cornus officinallis Sieb et Zucc
강장제, 귀가 울리는 증세, 코막힘을 치료함. 극히 일부에서 심고 있음

◆ 산앵도 (도이－都李)
Frunus padus Linne
이뇨, 통격, 구충, 진통의 효과가 있음

◆ 산자고(山慈姑. 일명 까치무릇. 얼레지)
Amana edulis Honda
등창, 여러 종기와 부스럼, 폐결핵 치료제로 씀

◆ 산초나무 (산초－山椒)
Zanthoxylum schinifolium S et Z
해충구제, 해독, 살충제로 쓰고 있고 기름은 전에 기계독을 치료하는데 응용하였음

◆ 산해박 (백미－白薇)
pycnostelma paniculatum (Bunge) Kitagawa, Schumann
부종, 해열, 중풍, 익정(益精), 이뇨에 씀

◆ 살구 (행인－杏仁)
Frunus ansu Komaror
천식, 해수, 신체부종, 개고기 중독에 씀. 씨에 독성이 있음

◆ 살비아
Salvia officinalis Linne
수렴약, 인후염 등에 씀

◆ 삼 (마인－麻仁)
Cannabis sativus Linne
씨를 변비, 난산, 공수병, 월경과다에 씀. 자연산은 극히 귀함

◆ 삼지구엽초(三枝九葉草. 음양곽－淫羊藿)
Erimedium koreanum Nakai
이소변(利小便), 근골을 강하게 함, 양기 부족증을 치료하는 명약으로 알려 오고 있음. 함평군에서는 불갑산에만 자생하고 있음

◆ 삽주 (창출－蒼朮. 백출－白朮)
Atractyloides japonica Koidz
이수, 해열, 건위 당뇨에 씀

◆ 상사화 (相思花)
Lycoris squamigera Maximowicz
창(瘡), 화상 등에 씀

◆ 상산 (常山)
Orixa japonica Thunberg
거담, 해수, 학질, 해열에 씀

◆ 상수리나무 (역연－櫟椽)
Quercus acutissima Carruthens
수렴, 강장, 종독에 응용함

◆ 새머루 (조포자－鳥胞子)
Vitis. flexuosa Thunberg
해독, 중독, 보혈, 젖앓이, 안질, 폐질환, 이뇨, 두통 등에 효과가 있음

◆ 새삼
Cuscuta japonica Choisy
강장, 수렴약으로 씀

◆ 새양 (생강－生薑)
Zingiber dfficnale Rosocoe
구충, 소화, 건위, 기침, 타박상의 어혈을 푸는데 씀

◆ 생강나무 (단향매－檀香梅)
Lindrera obtusiloba Blume
해열, 강심, 건위제로 씀

◆ 서향 (서향－瑞香)
Daphne odora Thunberg
종기, 창의 발포약(發泡藥)으로 응용함. 재배함

◆ 석곡(石斛)
Dendrobium monile Thunberg
보위, 강정, 식은 땀을 잡히게 하는데 씀. 재배하고 있음

◆ 석장풀
Stachys riederi var. japonica Hara
해열, 해수, 폐염, 하혈, 진통, 복통, 정혈, 맹장염, 태독 등에 씀

◆ 석류 (石榴)
Punica granatum Linne
촌충구제, 수렴제, 곽란 등에 씀

◆ 석창포 (石菖蒲)
Acorus gramineus Solander
신경 안정, 부스럼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명약

◆ 선괭이밥풀
Xanthoxalis corniculata (Linne) Small f. erecta (Makino)
피부병, 소화, 해독, 충독(虫毒)을 치료 하는데 씀

◆ 선씀바퀴
Ixeris chinensis Nakai subsp strigoba Kitamura
진정, 최면(催眠), 건위에 쓰임

◆ 소나무 (송지-松脂. 송엽-松葉)
Pinus densitlora Siebold & Zuccarini
거담, 강장제로 쓰임

◆ 소철 (蘇鐵)
Cycas Revoluta
폐질환, 천식, 해수, 소아경기 등을 치료함

◆ 소태나무 (고목-苦木)
Pierasama quassioides Benneft
건위, 구충, 고미(苦味), 살충, 학질 치료

◆ 속썩은풀 (황금-黃芩)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e
거담, 이수, 당뇨, 임질, 해열에 씀

◆ 솜대 (담죽엽-淡竹葉)
Smilacina japonica A. Gray
이뇨, 해열, 지혈, 치풍(治風)에 씀

◆ 송이풀
Pedicularis respinata Linne
종기, 피부병에 씀

◆ 쇠뜨기 (문형-問荊)
Equisetum arvense Linne var. boreale(Bongars) Ruprecht
자궁출혈, 하리, 탈항, 임질에 씀

◆ 쇠무릎 (우슬-牛膝)
Achyranthes japonica (Miquel) Nakai
뿌리를 골절의 아픔, 임질, 부인 통경에 씀

◆ 쇠비름 (마치현-馬齒莧)
Portulaca oleracea Linne
임질, 부인냉증, 요통, 습진, 무좀 치료에 씀

◆ 수국 (水菊. 수구화-水毬花. 자양화-紫陽花)
Hydrangea masrophylla Seringe
해열, 창(瘡)의 특효약

◆ 수리딸기 (산매-山莓)
Rubus corchcrifolius Linne
명안, 설사, 강장, 양모(養毛), 음위증에 씀

◆ 수박 (서과-西瓜)
Citrullus vulgaris Schrad
이뇨, 건위제로 씀

◆ 수선 (水仙)
Narcissus tazetta Linne var. chinensis Roemer
종기 젖앓이에 밖에 바름

◆ 수세미외 (사과-絲瓜)
Luffa cyindrica Roemer
열매와 액즙을 두창, 건위, 이뇨, 치통, 해수 등에 응용함

◆ 수영 (산모-酸模)
Rumex acetosa Linne
통경, 피부병에 씀

◆ 순채 (蓴菜)
Brasenia schreberi J. E Gmelin
종기, 부스럼에 쓴다. 월야면 순촌 마을에서 다량 생산하였고 진상품의 하나였음

◆ 술패랭이꽃 (석죽-石竹)
Dianthus superbus Linne var. longicalycina Maximowicz
이뇨, 안질, 늑막염, 치칠, 소염에 씀

◆ 숫명다래나무 (고려표단목-高麗瓢簞木)
Lonicera. coreana Nakai
이뇨, 해독, 종기, 부종, 지혈, 정혈 감기 등을 치료하는데 씀

◆ 승엄초 (당귀-當歸. 일명 신감채)
Angelica gigas Nakai
진정, 통경, 청량에 응용함. 재배를 많이 함

◆ 씀바퀴 (고채-苦菜. 속명 씹배나물, 싸랑부리)
Ixeris dentata (Thunberg) Nakai
전초를 건위제로 씀

◆ 시무나무
Hemipteleia davidii Planchon
부종, 이뇨, 통경, 안태에 응용함

◆ 시호 (시호-柴胡)
Bupleurum falcatum Linne
해열, 오한(惡寒), 조막염(助膜炎), 진통, 해수, 기침에 씀. 재배를 많이 함

◆ 실새삼 (免絲子)
Cuscuta chinensis Lamarck
정한(精寒), 임질, 명목(明目), 거풍(祛風) 등에 씀

◆ 싱아 (일명 숭애)
pleuropteropyrum polymorphum nakai
해열, 변비에 씀

◆ 아그배나무 (당이-棠梨)
Malus sieboldii (Regel) Rehder
열매를 해열제로 씀

◆ 아욱 (동규자-冬葵子)
Malva olitoria
씨를 이뇨, 급체, 적리(赤痢), 타박상, 임부의 부종을 다스리는데 씀

◆ 아주까리 (피마자-蓖麻子)
Ricinus conmunis Linne
설사, 신경통, 류머티스, 피부병, 각기에 응용함. 극히 귀해졌음

◆ 알로에 (노회-蘆薈. 소코트린 알로에)
Aloe perryi Baker (Socotrine aloe)
건위, 강장, 소화약으로 응용함

◆ 애기똥풀 (백굴채-白屈菜)
Chelldonium sinense DC
황달, 간장병, 위궤양, 종기 등을 치료하는데 씀

◆ 약쑥(애엽-艾葉. 일명 사재발쑥. 다북쑥)
Artemisia asiatica Nakai
지혈, 통경, 곽란, 살충, 치질, 자궁냉증에 응용함

◆ 양배추 (감람-甘藍)
Brassica oleracca var. Capitata
당뇨, 위궤양 등에 즙액을 복용함

◆ 양파 (옥총-玉葱)
Allium cepa
고혈압, 동맥경화에 껍질을 달여 복용하며 신장병에도 응용함

◆ 엄나무 (해동피-海桐皮)
Kalopanax pictum var. typicum Nakai
진통제로 씀

◆ 엉겅퀴(대계-大薊. 일명 항갈퀴)
Cirsium maackii Maximowicz var. koreana Nakai
지혈의 명약. 이뇨, 해독. 수종에 씀

◆ 여뀌 (대료-大蓼)
Persicaria Hydropiper(Linne) Spach var. vulgaris(Meissner) Nakai
발포약(發泡藥), 살충제(며루), 독성이 있으며 씹으면 이가 전부 빠짐

◆ 여로 (산로-蒜蘆)
Veratrum japonicum Loesner fil
강심, 감기, 중독, 임질, 독사의 독 제거, 곽란, 피오줌, 고혈압, 중풍 등에 씀

◆ 여우콩
Rhynchosia volubillis Loureiro var. typica Maximowicz
기관지염, 폐염, 천식, 거담제로 씀

◆ 연 (하엽-荷葉. 연자육-蓮子肉)
Nelumbo nucifera var. macrorhizomata Nakai
자양강장, 지혈, 해독, 이뇨 등에 씀

◆ 영생이 (박하-薄荷)
Mentha sacharinensis (Briquet) Kudo
발한, 구풍(颶風), 건위, 통경약으로 씀

◆ 오갈피나무 (오가피-五加皮)
Acanthopanax sessiliflorus (Rupr et Max) Seemenn
뿌리의 껍질을 강장, 산기(疝氣), 당뇨, 복통에 응용함

◆ 오리나무 (적양-赤楊)
Alnus japonica Steudel
강장제로 씀

◆ 오미자 (五味子)
Schisandra chinesis Baillon
열매를 강장, 자양, 거담, 보음(補陰)에 씀

◆ 오수유 (吳茱萸)
Evodia officinalis Dode
간 계통 질환, 복통, 구역, 설사, 치질 등에 응용함

◆ 오얏 (도이인-都李仁)
Prunus salicina Lindely
수종, 장염 등에 응용함

◆ 오이풀 (지유-地楡)
Sanguissorba officinalis Linne
토혈, 하혈, 이질, 월경과다, 절상, 타박상에 씀

◆ 옥수수 (옥촉서-玉蜀黍. 강냉이)
Zea mays Linne
수염을 신장질환, 부종성 질환을 다스리는데 씀

◆ 올괴불나무
Lonicera. praeflorens Batalin
해열, 해독, 이뇨, 지혈, 종기에 씀

◆ 올방개 (발제-荸薺. 올메. 올리장매)
Eleocharis Kuroguwai Ohwi
황달, 당뇨, 명목(明目)에 응용함

◆ 옻나무 (건칠-乾漆)
Rhus vernicflua Stokes
가지의 액즙을 통경회충 구제, 후비(喉痺)에 씀

◆ 왕대 (고죽-苦竹)
Phyllostachys bambusoides S. et Z
구토, 술의 독, 각혈, 발한, 중풍 등에 응용함

◆ 왕머루
Vitis amurensis Ruprecht
식욕부진, 금창(金瘡), 종창, 허약증에 씀

◆ 왕버들
Salix glandulosa var. glabra Nakai
이뇨, 종기, 황달, 해열, 지혈제로 씀

◆ 용담 (龍膽)
Gentiana scabra Runbe var. buergeri (Miquel) Maximowicz
건위, 소화불양, 이담(利膽)에 씀

◆ 용둥굴레
Polygonoatum involucratum Maximowicz
폐염, 강심, 강장, 풍습, 당뇨에 씀

◆ 우엉 (우방근-牛蒡根. 악실-惡實)
Arctium lappa Linne
이뇨, 각기병. 강정, 두드러기, 해열 등에 응용함

◆ 원지 (遠志)
Polygala japonica Willdenow
강장, 거담, 이뇨제로 씀

◆ 율무 (의이인-薏苡仁)
Coix agrestis Loureiro
이뇨, 진해, 건위, 진정, 폐병 등에 쓰임

◆ 으름덩굴 (목통-木通)
Akebia quinata Decaine
이뇨, 소염제로 쓰임

◆ 은방울꽃 (영란-鈴蘭)
Convallaria keiskei Miquel
강심, 이뇨제로 쓰임

◆ 은행 (백과-白果)

Ginkgo biloba L.

열매는 해독, 진해, 거담 등에 쓰이고 잎은 살충, 고혈압 등 많은 약의 원료로 쓰임. 함평산 은행잎이 약효는 물론 성분에서 우월하다.

◆ 이질풀(방우아-牻牛兒)

Geranium thunbergii Siebdld & Zuccarini var. roseum Nakai

이질의 명약. 출혈증, 방광염, 지사제로 쓰임

◆ 익모초 (益母草. 암눈바앗)

Danium sibiricus Linne

잎과 줄기는 식욕부진에 쓰고 씨는 산후 지혈, 해독, 건위제로 씀

◆ 인동 (금은화-金銀花)

Lonicera japonica Thunb

각종 종기 및 부스럼에 씀

◆ 인삼 (人蔘)

Panax schihschg Nees

더위먹이, 기력쇠약, 강정강장에 많이 씀. 함평에도 재배지가 늘고 있음

◆ 잇꽃 (홍화-紅花)

Carthamus tinctorius Linne

종기, 토혈, 편도선염 등에 씀. 관상용으로 재배함

◆ 자귀나무 (합환피-合歡皮)

Albizzia koreans Nakai

진해, 진통, 골절의 접골, 새 살이 차오르게 하는데 씀

◆ 자래나무 (수서리-藪鼠李)

Rhamnella. schneideri Leveille & Vaniot

오한, 부종, 하혈, 부스럼, 버짐 등에 활용함

◆ 자리공 (상륙-商陸. 물나무)

Phytolacca esculenta var. Houttyn

몸이 부은데, 신경통, 신장병에 응용함. 약간의 독성이 있음

◆ 자원 (紫苑. 개미취)

Aster tataricus Linne var. Nakai Kitamura

해수를 치료하는데 씀

◆ 자주쓴풀 (당약-當藥. 천진-千振)

Swertia chinensis (Bunge) Franchet

건위, 태산불알 통증, 태독(胎毒), 이질 등에 씀

◆ 작약 (적, 백작약-赤, 白灼藥)

Paeonia albiflora Pallas var. trichocarpa Bunge

복통, 치질, 진경, 진통, 통경제로 응용함. 산작약도 있으나 주로 재배함

◆ 잔대

Adenophora triphylla A. DC var. tetraphylla Makno

한열(寒熱)에 응용함

◆ 잣나무 (백-柏)

Pinus koraiensis Siebold et Zuccarini

자양강장, 굶주림을 이김, 암 등에 응용

◆ 장구채풀 (왕불유행-王不留行)

Melandryum firmum Rohrbach

해열, 악화된 부스럼, 귓병, 임질, 이질, 정혈, 지혈, 젖이 나오게 하는데 씀

◆ 절구대(누로-漏蘆. 둥둥방망이. 개수리취)

Echinops setifer Hzin

해독, 통경, 하유(下乳), 지혈, 생살 돋는데, 살충, 뇨혈(尿血) 등에 씀

◆ 절국대 (음행송-陰行松)

Siphonostegia chinensis Bentham et Hooker & Arnott

황달, 배농(排膿), 간염, 월경조정, 임질, 폐염, 치혈, 고혈압 등에 씀

◆ 접골목 (接骨木. 일명 말오줌나무, 자반나물)

Sambucus latipnna Nakai

발한, 타박상, 무좀 치료에 씀

◆ 접시꽃 (촉규화-蜀葵花)

Athaca rosea Cavanilles

산기(疝氣). 임질, 이질에 뿌리를 쓰고 적백대하증에 꽃을 응용함

◆ 정가 (형개-荊芥)

Nepeta japonica

풍병, 부스럼, 산전 산후약으로 씀

◆ 정금나무
Vaccinium oldhami Miquel
수렴제, 신우염, 이뇨, 구토, 건위, 하리, 발진, 방광염에 씀

◆ 제비꽃 (자화지-紫花地)
Viola mandshurica W. Becker var. ciliata Nakai
태독, 해독, 부인병, 정혈, 발한, 설사 등을 치료하는데 씀

◆ 제비쑥 (모호-牡蒿)
Arteminia japonica Thunberg
건위제로 쓴다.

◆ 조팝나무 (유포공영-柳蒲公英)
Spiraea prunifolia var. simuliciflora Nakai
거담, 이뇨, 건위제로 씀

◆ 족도리풀 (세신-細辛)
Asiasarum heterotropoides var. seoulense (Nakai) F, Maekawa
해수, 여러 가지 풍, 두통, 발한, 귀가 울 때 씀

◆ 졸참나무 (포유-枹楢. 일명 떡졸참나무)
Quercus serrata Thunberg
수렴, 강장, 종기 치료에 씀

◆ 좀피나무 (진초-秦椒)
Q. serrata Thunberg
이뇨, 복통, 황달, 뱀의 독, 중풍을 다스리는데 씀

◆ 주엽나무 (흡협-皂荚)
Gleditsia japonica Miquel var. koraiensis Nakai
나력, 버짐 등을 치료하는데 씀

◆ 쥐꼬리망초 (진봉-秦艽)
Justicia procumbens Linne
치질, 폐결핵, 진통, 진정, 풍습에 씀

◆ 쥐다래 (목천료-木天蓼)
Actinidia kolomikta Maximowicz
산기(疝氣), 요통, 이뇨제로 씀

◆ 쥐똥나무 (동청-冬青)
Ligustrum ibota Sieb et Zuce var. angustifolium
건위, 강장. 나무 생김새가 여정실(女貞實)과 같으며 약효 또한 거의 같음

◆ 쥐방울 (마두령-馬兜鈴)
Aristolochia contorta Bunge
거담, 폐의 여러 가지 질환을 다스림

◆ 쥐오줌풀 (길초근-吉草根. 은댕가리)
Valeriana dagoletiana Nakai et Maekawa
진정제로 씀

◆ 지기다리스
Digitalis purpurea Linne
강심, 이뇨제로 씀. 꽃을 보기 위해 정원에 심고 있음

◆ 지모 (知母)
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
해열제로 쓴다. 재배함

◆ 지치 (자초-紫草)
Lithospermum erythrohizon Siebold et Zuccarini
절상, 화상, 피부병의 요약

◆ 지칭개 (야고마-野苦麻. 니호채-泥胡菜)
Hemistepta lyrata Bunge
건위, 보익, 이뇨제로 씀

◆ 지황 (地黃)
Rehmannia glutinoa (Gaertner) Liboschitz et Fischer & Meyer
보혈, 강장, 통경, 수렴제로 씀

◆ 진달래 (백척촉-白躑躅)
Rhodo dendron mucronulatum Turcz
살충, 진통, 신경통 치료에 씀

◆ 진득찰 (희렴-豨薟)
Siegebeckia glabrescens makino
풍습, 중풍, 종기, 피를 맑게 하는데 씀

◆ 진황정 (황정-黃精. 일명 대잎둥굴레)
polygonatum falcatum A. Gray
자양강장, 해열, 병후허약, 구황(救荒) 등에 씀

◆ 질경이 (차전자-車前子)
plantago asiatica Decaisne
이뇨, 진해, 지혈, 소염에 씀

◆ 짚신나물 (용아초-龍牙草)
Agrimonia pilosa var. japonica Nakai
지혈, 구충, 하리(下痢)에 씀

◆ 찔레나무 (영실-營實)
Rosa multiflora Thunberg
설사, 이수(利水), 관절염, 복통, 강장제로 씀

◆ 차나무 (다-茶)
Thea sinensis Linne
이뇨, 부종, 강심, 장(腸)을 튼튼히 하는데 씀

◆ 차조기 (소엽-蘇葉. 자소-紫蘇)
Perilla sikokiana Nakai
발한, 해열, 진해, 이뇨, 어패류 중독, 거담제로 씀

◆ 차풀 (산편두-山扁豆)
Cassia nomame (Siebold) & Honda
잎과 씨를 위약증, 각기, 수종, 소화불량 치료에 씀

◆ 참나무 (토골피-土骨皮)
Quercus acutissma Carruthers
태산불알, 이질, 수렴제로 씀

◆ 참개암나무
Corylus siebodiana Blume
보익, 강장제로 씀

◆ 참깨 (호마-胡麻)
Sesamum indicum Linne
강장, 점골(粘骨), 해독제로 씀

◆ 참나리 (백합-百合)
Lilium lancifolium Thunberg
자양강장, 진해제로 씀

◆ 참나물 (자근-紫芹)
Cryptotaenia japonica Hasskarl
지혈, 양정(陽精), 해열, 중풍, 폐염, 신경통에 씀

◆ 참두릅나무
Aralia elata Seemenn
해열, 강장, 거담, 당뇨 치료에 씀

◆ 참소리쟁이 (양제-羊蹄)
Rumex japonicus Houttuyn
버짐, 종기의 상처, 설사를 하게 하는데 씀

◆ 참억새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지갈, 이뇨제로 씀

◆ 참외 (과채-瓜菜)
Cncumis melon
꼭지를 황달, 부종, 담에 응용함. 극성약임

◆ 참으아리 (위령선-葳靈仙)
Clematis Maximowicziana var. paniculata Nakai
무릎 허리의 통증, 천식, 악종, 각기병에 씀

◆ 참죽나무 (춘근피-椿根皮. 일명 쭉나무)
Cedrela sinensis Jussieu
뿌리의 껍질을 출혈 및 하리에 씀

◆ 창포(菖蒲)
Acorus asiaticus Nakai
신경 안정, 부스럼 등에 씀. 단오절에 부녀들이 창포 끓인 물에 머리를 감음

◆ 천남성 (天南星)
Arisaema amurense Maximowlcz var. serratum Nakai
해수, 거담, 파상풍, 구토, 발한, 건위제로 씀. 독성이 강함

◆ 청갈참나무
Quercus aliena Blume
강장, 수렴, 종기의 독을 제거하는데 씀

◆ 청미래덩굴 (토복령-土茯苓.
산귀래-山歸來. 일명 명감덩굴)
Smilax china Linne
뿌리를 류마티슴, 이앓이, 설사 등을 치료하는데 씀

◆ 초결명 (결명자-決明子)
Cassia tora Linne
간장질환, 류마티슴, 천식, 눈병약으로 씀

◆ 측백나무 (백자인-柏子仁)
Thuja orientalis Linne
자양강장, 진해, 거담, 피의 질환에 응용함

◆ 층층이꽃
Clinopodium chinence O. Kuntze var. parviflorum Hara
치통, 위장염, 중풍, 신장염에 씀

◆ 치자나무 (치자-梔子)
Gardenia jasminoides Ellis
혈증(血症), 해열, 황달, 임질, 화상, 불면증에 씀

◆ 칡 (갈근-葛根)
Pueraia thunbergii Bentham
해열, 발한, 강장, 해독, 완화제로 씀

◆ 침향 (沈香)
Aguilaria agallocha
곽란, 심복통, 적취(積聚) 등에 쓰임. 손불면 산남리 질흙 층에서 나옴

◆ 큰괭이밥풀
Oxalis obtriangulata Maximowicz
피부병, 소화, 해독, 독충의 독 제거에 씀

◆ 큰조롱 (하수오-何首烏. 일명 새박풀)
Cynanchum wilfordii Maximowicz & Hemsley
자양강장, 골연풍(骨軟風)에 씀

◆ 키버들나무 (행이류-行李柳)
Salix koriyanagi Kimura
수렴, 치통, 이뇨, 지혈, 종기에 응용함

◆ 탑꽃
Catureia. multicaulis (Maximowlcz) Nakai
치통, 위장염, 중풍, 신장염 등에 씀

◆ 택사 (澤瀉)
Alisma canaliculatum A. Braun et Bonche
소갈, 구토, 각기, 뇨혈(尿血) 등에 씀. 재배하고 있음

◆ 탱자나무 (지실-枳實. 지각-枳殼)
Poncirus trifoliata Rafinesque
거담, 이뇨, 발한, 소화약으로 씀

◆ 털단풍나무 (모단풍-毛丹楓)
Acer pseudo siebolianum var. lanuginosum Nakai
수액을 하리에 씀

◆ 털제비꽃
Viola. phalacrocarpa Maximowicz
해독, 태독, 중풍, 강간(强肝), 보익제로 씀

◆ 토란 (토란-土卵)
Colcasia antiquorum var. esculentum
동상, 폐염, 소화, 보폐(補肺)에 씀. 재재함

◆ 토목향 (土木香. 일명 황화채)
Inula helenium Linne
뿌리를 건위, 방부제, 구충제로 응용. 재배함

◆ 투구꽃
Aconitum jaluense Komarov
강심, 이뇨, 관절염, 신경통, 중풍에 씀. 독성이 있음

◆ 파 (총-葱)
Allium fistulosum
세계에 30여종이 있다. 적백리, 유행성감기, 태동(胎動), 각기, 절상, 요혈(尿血) 등에 쓰며 파의 껍질은 저혈압의 명약으로 전해옴

◆ 파초 (芭蕉)
Musa basjoo seibet Zucc
각기병, 수종, 해열, 이뇨, 황달에 씀

◆ 팥배나무 (두이-豆梨)
Sorbus alnifolia (S. et Z.) Koch
해열, 곽란, 토사, 버짐에 씀

◆ 패랭이꽃 (구맥자-瞿麥子. 석죽-石竹)
Dianthus chinensis Linne
씨를 수종, 임질, 통경약으로 씀

◆ 팽나무 (박수-朴樹)
Celtis sinensis Pers
대하증, 불면증, 부종, 결핵, 이뇨, 화상에 응용함

◆ 패모 (패모-貝母)
Fritillaria ussuriensis Max
거담, 허로, 해수, 토설, 폐위(肺痿), 후비 등에 씀. 재배함

◆ 편백 (扁柏)
Chamaecyparis obtusa S et Z Endlicher
화상, 곽란, 간질, 동상에 씀

◆ 평지 (운대-蕓薹. 유채-油菜)
Brassica campestris subsp napus var. nippooleifera Makino
산후병을 다스림. 재배함

◆ 포도 (葡萄)
Vitis vinifera Linne
하복충혈증(下腹充血症), 간장질환, 암 예방제로 씀

◆ 풀솜나물 (천청지백-天靑地白)
Gnaphalium japonicum Thunberg
건위, 지혈, 이질. 거담에 응용함

◆ 피나무 (모피목-毛皮木)
Tilia amurensis var, Barbigera
이뇨. 진경(鎭痙), 발한제로 씀

◆ 피막이풀
Hydrocotyle sibthorpioides Lemarck
지혈, 해독, 구토에 씀

◆ 하고초 (夏枯草. 속명 제비꿀)
Thesium chinense Turczaninow
줄기와 잎을 나력, 자궁병, 월경불순, 눈병 치료에 씀

◆ 하국 (선복화-旋覆花. 금불초-金佛草. 들국화. 옷풀)
Inula japonica Thunberg
건위, 거담, 치질 등에 씀

◆ 하늘말나리
Lilium miquelianum Makino
종기, 동통(疼痛), 토혈, 유방염, 백일해, 폐염. 신경쇠약, 각혈에 씀

◆ 하늘타리 (괄루-括蔞)
Trichosanthes kirrilowi Maximowicz
거담, 진정, 황달, 당뇨, 변비, 강장, 땀띠 제거에 씀

◆ 할미꽃 (백두옹-白頭翁)
Pulsatilla koreana (Yabe) Nakai et Mori
지혈, 월경폐지, 열성하리(熱性下痢), 치질에 씀

◆ 향나무 (회-檜)
Juniperus chinensis Linne
이뇨, 통경, 살충에 응용함

◆ 향유 (香薷)
Elscholtzia patrini (Lebeckin) Garcke
발한, 이뇨, 수종에 씀

◆ 헛개나무
Hovenia dulcis var. koreana Nakai
과실을 달여 복용하면 주독이 풀림

◆ 현삼 (玄蔘)
Scrophularia buergeliana Miquel
종기, 나력, 폐결핵, 인후병에 씀

◆ 현호색 (玄胡索. 연호색-延胡索)
Corydalis Turtschaninovii Besser var. genuina (Maximowicz) Nakai
어혈을 푸는 요약, 자궁의 여러 병에 씀. 재배함

◆ 협죽도 (夾竹桃)
Nerium odrum Solander
잎, 나무껍질을 강심약으로 응용함. 독성이 있음

◆ 호도 (胡桃)
Jugians sinensis Dode
자양강장, 천식, 심복통에 씀

◆ 호라지좆 (천문동-天門冬)
Asparagus lucidus Lindley
거담, 이뇨, 강장, 각혈 등에 씀. 군유산, 모악산에 많이 자생함

◆ 호박 (남과-南瓜)
Cucurbita moschata var. Toonas
구충, 통기(通氣), 강정, 천식, 이뇨제로 씀

◆ 호장근 (虎杖根. 일명 감제풀)
Reynotria japonica Houttyn
통월수(通月水), 지갈(止渴), 해열 등에 씀

◆ 홍괴불나무
Lonicera vidalii Frnchet & Savatier
해열, 해독, 이뇨. 지혈, 종기 다스리는데 씀

◆ 화살나무 (귀전-鬼剪)
Euonymus alatus Thunberg et Siebold
최유, 복통, 자궁출혈 등 부인병에 씀

◆ 환삼덩굴 (율초-葎草. 일명 범상덩굴)
Humulus japonicus Siebold et Zuccarini
위암 등 위질환의 명약

◆ 황경피나무 (황백-黃柏
Phellodendron amurens
e Ruprecht
속 껍질을 건위, 강장, 소염약으로 씀

◆ 황촉규 (黃蜀葵. 일명 닥풀)
Abelmoschus manihot Medikus
내장의 염증, 약 제조의 부형약(賦形藥)으로 씀

◆ 황기 (황기-黃耆. 일명 단너삼)
Astragalus membranaecus Bunge
강장, 부스럼, 폐결핵 등에 쓰임. 재배하고 있음

◆ 회회산 (回回蒜. 일명 젓가락나물)
Ranunculus chinensis Bunge
즙액을 발로약으로 씀. 독성이 있음

◆ 회향 (茴香)
Poeniculum vuigare Gaertnet
흥분, 구풍약(颶風藥)으로 씀. 재배를 하고 있음

◆ 회화나무 (괴각자-槐角子)
Styphnolobium japonicum Schott
지혈, 치질, 이질, 혈압 강하제로 씀

◆ 후박나무 (厚朴)
Machilus thunbergii Siebold et Zuccarini
위한(胃寒), 구토, 곽란, 복통, 설사 등에 씀

◆ 흰독말풀
Datura alba Neesc
천식, 신경통, 매독, 암종 등에 씀. 독이 아주 강함

◆ 흰제비꽃
Viola prinulifolia Linne var. glabra Nakai
해독, 태독, 중풍, 설사, 강간제(强肝劑)로 씀

제2절 멸종 위기 및 희귀식물

1. 고본 <藁本. Angelica tenuissima Nakai. 산형과>

우리나라 각처에 분포하는 식물로 산록의 습기가 많은 곳에 자생하는데 향기가 좋아 뜯어서 떡을 해먹고 약용으로 쓰는 등 남획을 하여 근래에 그 수가 줄어 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8~9월에 꽃이 피고 색은 희며 줄기는 30~60㎝에 이르는 여러 해 살이 풀이다.

2. 깽깽이풀 <조황연-朝黃連. Plagiorhegma dubium Maximowicz. 매자나무과>

산록에 자생하는 풀로 군유산 등에서 볼 수 있으나 채약자들의 마구잡이 채취로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여러 해 살이 풀로 잎은 둥글며 크기는 지름이 5~10㎝ 가량이며 끝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예쁜 풀이다.

4~5월에 꽃이 피는 약용식물로 전국적으로도 멸종의 위기에 놓인 품종이다.

3. 꽃무릇 <상사화-相思花. Lycoris radiata Linne Heric Herb. 수선화과>

가을에 꽃이 진 후 돋아난 잎은 여름이면 말라 죽고 꽃대가 나와 9~10월에 피빛 같이 붉은 국수발 모양의 꽃을 피운다.

잎과 꽃이 서로 엇갈려 피기 때문에 상사화라 한다.

이 꽃은 우리나라 남쪽의 한정된 습한 지대에 자생하는데 백양사, 송광사, 불갑사 등지에 많이 자생했으나 줄어들었고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계곡처럼 광활하게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곳은 없다.

용천사 계곡에 자생하는 꽃무릇은 전 해보서초등학교에서부터 모악산까지의 계곡 전반에 퍼져 있고 용천사 주변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자생하고 있는 주수는 가히 수백만주에 이른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84년 한국자연보호협회와 한국일보가 지정한 한국 자연 100경의 1경으로 지정되었다. 꽃무릇공원을 배경으로 2000년부터 매년 9월에 꽃무릇 큰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이 꽃무릇 큰잔치가 열리기 전부터 식재와 보호가 이루어져 현재는 모악산의 군락이외에도 함평 전역에 상당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여러해살이 구근화(球根花)다.

4. 꽃창포 <창포-菖蒲. 타래붓꽃. 마린-馬藺. Iris ensata Thunb var. spontanea (Makino) Nakai 붓꽃과>

각처의 산과 들, 물기 있는 곳에 자생하며 함평군내에도 곳곳에 자생했으나 근래에 급격히

수가 줄어 보기 힘들게 되었다.

여러해살이며 키는 1m 정도이고 6~7월에 붉은 빛을 띤 자주색의 꽃이 피는데 꽃의 지름이 15㎝에 이른다.

5. 끈끈이 주걱 <Drosera rotundifolia Linne 끈끈이귀이개과>

우리 나라 각처의 산록 습지에 자생하고 있는데 근래에 보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우리 군의 실정도 같다.

여러해살이 풀이며 벌레 잡이 식물이고 7월에 꽃이 피며 꽃줄기의 키는 23㎝ 정도다. 잎은 뿌리에서 모여 나고 긴 잎자루가 있고 주걱 모양으로 연분홍인데 홍자색의 많은 잔털이 있어 끈끈한 액체를 분비하여 작은 벌레가 잎에 닿으면 털에 붙어 분비액에 의해 소화가 된다.

6. 노란하늘타리 <왕과-王瓜. 쥐참외. Trichosanthes quadricirra Miquel 박과>

마을 울타리 등지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덩굴식물로 열매와 뿌리는 약으로 쓰고 풀 전체에 부연 털이 나있다.

꽃은 암수 2가(家)로 백색이며 7월에 피고 열매는 가을에 노랗게 익는다.

농촌의 울타리가 브럭으로 바뀌면서 마을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었다.

7. 말나리 <Lilium distichum nakai ex Kamibayachi 백합과>

함평의 각 산지 특히 군유산의 수림 및 정상에 많이 자생하고 있다.

여러해살이며 비늘 줄기는 둥글고 흰색이며 줄기 길이는 80㎝ 가량이고 6~8월에 붉은 꽃을 피운다. 어린 잎은 나물을 해 먹는다.

8. 박주가리 <나마-蘿藦. metaplexis japonica (thunberg) makino. 박주가리과>

들, 특히 밭둑이나 울타리 등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덩굴식물로 아직은 상당히 자라고 있으나 제초제 남용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8월경에 연한 자주색의 꽃이 피며 짐승의 뿔같이 생긴 큰 열매를 맺는다.

줄기나 잎을 끊으면 흰 젖물이 나온다.

9. 산구절초 <山九折草. Chrysanthemum sibiricum Turczaninow & DC. var. acutilohum (DC) Komarov 국화과>

산상의 암석지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키는 20~40㎝ 가량이며 7~9월에 희거나 분홍색인 꽃이 피며 가는잎구절초와 닮았으나 털이 많은 점과 평지에 옮겨 심어 잘 살지 못하는 것

이 다르다.

군유산정, 나산면 송암리의 구절봉에 약간 자생한다.

10. 산닥나무 <Wikstroemia trichotoma Makino 팥꽃나무과>

모악산 등에 약간 자생하고 있으며 한지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나무로 종자 번식도 잘된다. 넓은잎 떨기나무며 전남에서는 진도에 많이 자생하며 7월경에 노란 꽃이 핀다.

11. 산작약 <山芍藥. Paeonia albiflora japonica (Makino) Miyabe et Takeda var. typica Nakai 작약과>

군유산, 모악산에 많이 자생하고 있었으나 채약자들의 남획으로 요즘은 참으로 보기가 힘들다. 여러해살이 풀이며 초여름인 5월경에 흰꽃이 핀다.

12. 삼지구엽초 <三枝九葉草. 음양곽-淫羊藿. erimedium koreanum nakai 매자나무과>

다년생 풀로 뿌리줄기는 단단하며 가로 누었고 한 줄기가 돋아 세 줄기로 나뉘고 하나의 줄기에 세 잎이 피기 때문에 삼지구엽초라 한다.

경기, 강원 평남산이 유명하며 전남에는 완도의 약산에 자생하며 함평군에는 불갑산에 약간 자생하고 있다.

강정, 명뇌, 불임증의 요약으로 쓰인다.

13. 속썩은풀 <황금-黃芩.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e. 꿀풀과>

해를 거듭할수록 자생종은 멸종 단계에 이르고 있고 종자 번식이 잘되므로 재배에 의존하고 있다. 다년초며 키는 60㎝에 이르고 7~8월경에 자색의 꽃이 피며 뿌리를 약으로 쓴다.

14. 순채 <蓴菜. Brasenia schreberi J. F. Gmelin 수련과>

전남과 충남 일부에서 재배하며 멸종 단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 함평군에서는 월야면 월야리 순촌의 방죽에서 자라며 순촌이란 마을 이름이 순채가 자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조선왕조 때는 진상품의 하나였다.

여러해살이 물풀로 줄기는 옆으로 뻗으며 많은 가지를 내고 잎은 어긋나며 타원형이고 긴 잎자루가 달려 물위에 뜬다.

잎의 크기는 길이 8㎝, 폭 5㎝ 가량이며 7~8월경에 암홍자색의 꽃이 핀다.

어린 순이 고급 요리에 쓰인다.

15. 앵초 <연앵초. Primula sieboldii Morren 앵초과>

각지 산지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풀 전체에 연모(軟毛)가 있으며 꽃대는 바로 서고 20㎝ 가량이며 5~7월에 붉은 자주색의 통꽃이 핀다.

근래에 그 수가 크게 줄고 있다. 어린 잎은 식용한다.

16. 용담 <龍膽. 초용담. Gentiana scabra bunge var. Buergeri (Miquel) Maximowicz 용담과>

각지 산야에 많이 자생하는 아름다운 가을 꽃으로 위장 질환의 요약으로 알려 오기에 근래 많이 채취하여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여러해살이 풀로 키는 60㎝ 가량이고 8~10월에 자주색의 종모양 꽃이 핀다.

17. 줄 <줄풀. Zijania caduciflora (Turczaninow) Nakai 화본과>

개울이나 연못가에 흔히 자생하는 풀이나 최근 농경지 정리 등으로 인하여 자생지가 점점 줄어들어 위기에 처한 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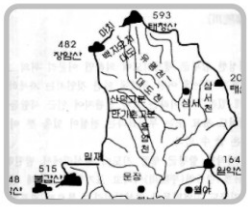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여러해살이 물풀로 키는 1~2m 가량이며 옛날에는 우장(비가리개의 일종)을 만들어 썼다.

18. 탱자나무 <Poncirus trifoliata Rafinesque 운향과>

충남, 전남북, 경남, 제주도 등지에서 생울타리로 많이 재배하고 있고 또 밀감 접목 대본으로 많이 심고 있다.

울타리 개선 등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제6장 함평 방언(方言)



제1절 전남 방언의 형성과 함평

고대 국어는 북방계(北方系) 부여어(夫餘語)와 남방계(南方系) 한어(韓語)의 분기가 방언적 단위를 형성하였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남 방언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백제어는 본시 남방계인 마한어에 남하하여 세력을 잡은 부여계의 언어가 혼합된 것이며, 상류지배 계급사회에서는 부여계의 언어가 우세하였으나 마한어와의 사이에 언어 투쟁 결과로써 혼효와 수정이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

전남 방언은 고대에는 남부의 한어(三韓語)계에 속한 마한어의 후예로써 고려 건국이후 오늘날의 국어 체제가 성립된 뒤에도 역시 공통어의 방사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와 인접한 지역의 방언과는 음운, 어휘, 문법 등의 언어적 사실에 차이를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전남 지역이 비록 행정구역상으로는 동일지역에 속한다 하나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언어 사실은 결코 동질적인 것이 아니요, 그 저변에는 꽤나 복잡한 방언적 특징이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돈주(李敦柱)교수는 백운산과 섬진강을 분계선으로 하여 경상도 방언의 개신파에 영향을 받은 동남부 지역의 방언과 서남으로는 노령산맥을 분계선으로 한 전북 방언권과의 대립에서 전남 방언을 다음과 같이 세 지구의 큰 핵 방언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지역 : 광산, 담양, 곡성, 화순, 나주, 장성, 함평, 무안

(나)지역 :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영암, 진도

(다)지역 : 구례, 광양, 여천, 승주, 거문도, 고흥

위의 핵 방언권 분류에 의하면 함평은 노령산맥 밑에서 전남 문화 중심권인 광주와 연결된 나주의 인접 서남방에 위치하고 있다. 전남의 문화 중심지였던 광주와 나주에 인접하여 연결되어 서울로부터의 문화 전파가 빨랐으므로 광양, 여천, 신안, 진도, 완도보다는 독특한 방언을 덜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에 영광, 무안, 장성, 나주 등의 언어와는 거의 동질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 근접성을 떠나 경상도나 강원도의 어휘나 음운과 친근성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있어 방언 형성의 역사적, 문화적 복합성을 말해 주기도 한다.

제2절 함평 방언의 특징

앞에서 지적했듯이 함평의 언어는 전남 방언 (가)지역권에 해당되는데 전남의 문화중심권인 광주와 나주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에 접한 해안지대로써 해상등을 통해서도 우리 나라 문화중심인 개경(開京) 즉 서울과의 문화를 비롯한 제반 사항의 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어떤 특별한 특징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세분하여 살펴본다면, 노령산맥 남쪽 내륙지방과 서해안의 일면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전남 서남권의 어휘나 음운을 특별히 보유하는 특정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어 보다 세밀하고도 전문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함평을 구분하여 장성, 광산, 나주에 접한 동부지역과 서해안에 인접한 서부지역으로 구분하여 볼 때 어쩌면 언어의 구성에 있어 많은 특이점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나 지리적 위치와는 달리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단지 발음면이나 언어 구사면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가 표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함평 방언의 특징을 장성권과 나주권에 연계하면서 해안지대 특유의 언어 형성을 가미한 점에서 생각해 봄이 바람직하리라 믿는다.

함평 방언을 살펴봄에 있어서 인접지역인 장성, 나주 등의 방언편을 참조하여 음운 형태, 어휘상의 특색에 대하여는 이돈주(李敦柱)교수의 저서를 참고하고 김형규(金亨奎)교수의 「한국방언연구」에서 지적해 낸 이곳 방언을 가려 뽑았으며 1991년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간행한 방언연구집 전라남도편을 참고로 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미흡한 부분은 이(李)교수의 저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에 이르러 컴퓨터 용어가 상용화되는 등 시대에 따른 새로운 용어가 방언화 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본고에서 생략하였다.

1. 어 휘

1) 농 사

- 가려낸다 : 취레낸다
- 가지 : 지
- 가지말랭이 : 지말랭이
- 감자 : 감자
- 겨 : 저
- 곁두리 : 창꺼리, 새꺼리
- 고갱이 : 배추
- 고구마 : 감자
- 고구마줄기 : 감자쭐거리
- 광주리 : 꽝지리
- 괭이 : 꾕이
- 그네외 : 홀태
- 김매다 : 지심맨다
- 깨(참깨, 들깨) : 꽤
- 꼬-다 : 꼰다
- 꼬았다 : 깠다
- 꽹과리 : 깽새
- 나물 : 노물, 풋노물
- 논애벌(매다) : 초벌(판다)
- 농기구 : 연장
- 골라낸다 : 발라낸다
- 들기름 : 들깻지름
- 등겨 : 유까, 뭉근재, 누까
- 방아 : 방애
- 맷돌 : 매
- 멍석 : 덕석
- 메조 : 모서숙
- 무 : 무시
- 무말랭이 : 무시몰랭이
- 무잎 : 무시잎삭

· 바구니 : 바구리 · 방앗공이 : 방앳고 · 밭고랑 : 꼬랑
· 밭두둑 : 밭두룩 · 밭둑 : 밭두럭 · 밭 : 밧
· 빻는다 : 뽛는다 · 벼(열매) : 나락, 베 · 벼이삭 : 나락모가지
· 벼훑이 : 가락홀태 · 볍씨 : 씨나락 종자 · 볏가리 : 나락비눌
· 볏단 : 나락뭇 · 보릿겨 : 보릿저 보릿재 · 보습 : 보십.
· 봄보리 : 춘모 · 삯군 : 놉 · 삼태기 : 송쿠리, 소쿠리
· 새꽤기 : 회기 · 새끼 : 사내키 · 쇠스랑 : 소시랑
· 수수 : 쑤시 쭈시 · 수숫잎 : 쑤시잎사구 · 숫쇠(아래) : 숫중쇠
· 시래기 : 실가리 · 심는다(씨감자) : 놓는다 · 심는다(콩. 팥) : 간다
· 심는다 : 숭군다 · 써레 : 씨레 · 쐐기 : 새악
· 쓰레기 : 씨레기 · 암쇠(위) : 암중쇠 · 어레미 : 얼갱이
· 역둥구미 : 망태 망태기 · 옥수수 : 깡냉이 · 왕겨 : 맷저, 맷재
· 자루 : 자리,차두,차대기 · 자리개 : 잘개 매개 · 장다리무 : 짱다리무시
· 절구공이 : 도굿대 · 절구 : 도구통 · 조밥 : 서숙밥
· 조 : 서숙 · 조선무우 : 조선무시 · 조이삭 : 서숙모가지
· 좁쌀 : 서숙쌀 · 짚방석 : 도레방석 · 짚 : 집, 지푸라기
· 차조 : 차서숙 · 참기름 : 참지름 · 채소 : 노무새
· 키 : 치 · 팔다 : 돈산다 폴다 · 팥 : 폿
· 팥죽 : 폿죽 · 호미씻이 : 풍년굿 · 호미 : 호무
· 호박고지 : 호박써래기 · 확 : 화약

2) 음식과 음식 관련 기물

· 가래떡 : 대떡 · 가루 : 가리 · 가마솥 : 가매솟
· 간장 : 장 · 간장종지 : 장깍쟁이 · 고명 : 국수
· 고무래(재)(곡식) : 당그래 · 과줄 : 약과 · 국물(김치의) : 짐칫국
· 국물도(없다) : 콧물도 · 국물 : 말국. 몰국 · 국수 : 밀국수
· 굴뚝 : 귀둑 · 그을음 : 끼시름 끄스름 · 기계국수 : 국수,
· 기른다(콩나물을) : 지룬다 · 김치 : 짐치 · 김칫국 : 짐칫국물
· 김 : 해우. 짐 · 깍두기 : 쪼각지 · 냅다 : 매웁다. 시다
· 누룽지 : 깜밥 · 눌은밥 : 누른밥 · 담배설대 : 댐배설때
· 담뱃대 : 댐뱃대. 대통 · 두부 : 뚜부 · 뚝배기 : 추머리
· 뜬숯 : 숫 · 물부리 : 대뽈치 · 바가지 : 바가치
· 반찬 : 경개 · 부뚜막 : 부수막 · 부삽 : 불삽
· 부시 : 부수 · 부싯깃 : 부숫집 · 부싯돌 : 부숫독
· 부엌 : 정지. 정재 · 부젓가락 : 불저붐 · 부지깽이 : 비땅

· 부추 : 솔
· 사발뚜껑 : 반개
· 상추 : 상추
· 석쇠 : 적사
· 성냥 : 성낭
· 솥 : 솟
· 솥뚜껑 (쇠) : 쇠소두랑
· 숭늉 : 숭님
· 숯 : 숫
· 시루밑 : 시리밋
· 시루변 : 시릿변
· 시루 : 시리
· 식혜 : 감주
· 쏠뚜껑. 나무 : 나무소두랑
· 씻다(쌀을) : 씨친다
· 아궁이 : 부석. 부삭
· 양념간장 : 파장
· 엿기름 : 엿지름
· 오이 : 물외
· 오이지 : 외짱아치
· 장독뚜껑 : 바내기
· 젓갈의(젓국) : 말국(몰국)
· 주걱 : 주벅
· 지핀다(불을) : 살린다,
· 참숯 : 참나무숫. 참목나무숫
· 칼국수 : 밀국수. 칼국수
· 콩기름 : 콩지름
· 콩나물국 : 콩노물국
· 콩나물 : 콩노물
· 튀밥 : 티밥,
· 푼다(밥을) : 담은다. 퍼
· 항아리뚜껑 : 질소두랑
· 화로 : 하리, 화리
· 화롯불 : 하릿불
· 흰떡가루 : 흰떡가리

3) 가 옥

· 거품 : 버끔
· 고드름 : 고두름
· 구기-다 : 꾹적거린다
· 구기었다 : 꾹적거렸다
· 구려지다 : 적거려진다
· 궤 : 닫이
· 급도리 : 들
· 기둥 : 지둥
· 기와집 : 기아집
· 낙숫물 : 지시락물
· 누벼야한다 : 뉘베야한다
· 누비이불 : 뉘비이불
· 담벼락 : 담베락
· 도랑 : 또랑. 똘
· 돌쩌귀 : 돌쪼구
· 두레박우물 : 두룸박새암
· 두레박 : 타리박
· 뒤꼍 : 뒤안
· 또아리 : 또가리
· 똥장군 : 장군 소매장군
· 퇴 : 토방
· 마루 : 말레
· 목침 : 몽침
· 미닫이 : 밀창문
· 바가지우물 : 쪽박새암
· 바깥변소 : 사랑치깐
· 바람벽 : 베랑빡
· 베개 : 비개
· 베갯속 : 비개속
· 베갯잇 : 비개호지
· 벤다(베개를) : 빈다
· 벽 : 베랑빡
· 변소 : 벤소 치깐
· 샘 : 도내기새암
· 서랍 : 빼깐
· 수렁 : 수랑
· 숫쇠 : 숫돌쪼구
· 시렁 : 시렁까리
· 안변소 : 안치깐
· 암쇠 : 암돌쪼구
· 여닫이 : 외창문. 쌍창문
· 열린다 : 끌러진다
· 열쇠 : 쇳대
· 열어라-서랍 : 잡아땡게라
· 열었다(서랍을) : 뺐다
· 열었다 : 땄다
· 용마름 : 용마람
· 욧잇 : 요껍딱
· 우물 : 새암
· 울타리 : 우타리
· 이엉 : 마람
· 자물쇠 : 쇠통
· 잠근다 : 장군다
· 잠긴다 : 쟁긴다
· 장독대 : 장깡
· 종이 : 종우
· 주춧돌 : 지춧독
· 처마 : 처매
· 틀다 : 튼다
· 펌프달린 우물 : 작두새암
· 흙손 : 쇠손

4) 의 복

· 가위 : 가새
· 골무 : 골미
· 낀다(골무를) : 찐다
· 누에나방 : 뽄대기나부
· 다리다 : 대룬다
· 덧버선 : 덧보신
· 매다 : 쨈매다
· 미투리 : 미터리
· 번데기 : 뽄대기
· 빨랫돌 : 빨랫독
· 양복주머니 : 개와. 양복개와
· 잠방이 : 중우잠뱅이
· 짚신 : 짚세기
· 혼수감 : 채단
· 겹옷 : 겹것
· 깁는다 : 줍는다
· 나막신 : 나마깨
· 누에 : 뉘에
· 다리미 : 대루
· 두렁이 : 두렁치매
· 면화의씨 : 미영씨
· 받짇고리 : 바느질상지
· 빨다 : 뽈다
· 솜 : 소캐
· 염낭 : 조마니
· 재봉틀 : 자방틀
· 조끼주머니 : 개앗조마니
· 홀옷 : 홀것
· 고치 : 뉘에꼬치
· 끊다 (옷감을) : 뜬다
· 누덕누덕 : 두덕두덕
· 다듬잇돌 : 다듬돌
· 대님 : 댄님
· 두루마기 : 두루매기
· 목화 : 미영
· 버선 : 보신
· 빨래 : 서답
· 씨아 : 씨아시
· 오디 : 오도개. 오둘개
· 주머니 : 조마니
· 허리띠 : 허리끈

5) 인 체

· 가르마 : 가리매
· 가부좌 : 행감
· 검은자위 : 거멍창. 꺼멍창
· 구레나룻 : 굴레시욤
· 귀머거리 : 귀먹쟁이
· 기계충 : 기겟독
· 나룻-이 : 시욤이
· 다래끼 : 다랫. 다래
· 돼지대가리 : 되아지머리
· 딸국질 : 포깍질
· 말더듬이 : 밤버버리
· 목 : 모가지
· 무릎 : 물팍
· 배꼽 : 배꾸락
· 보조개 : 볼태기새암
· 볼 : 볼태기
· 뼈 : 빼
· 새끼손가락 : 깨끼손고락
· 가마 (숯) : 숫굴
· 감기 : 고뿔. 개존머리
· 겨드랑 : 저탈밋
· 구린내 : 구렁내
· 귀에지 : 귓밥
· 기미 : 지미
· 넓적다리 : 허벅다리
· 대가리 : 대그빡
· 돼지머리 : 되아지대그빡
· 땀띠 : 땀뜨래기
· 머리 : 머리빡
· 목물한다 : 허리막한다
· 발가락 : 발구락
· 배추를 절이다 : 간저린다
· 복사뼈 : 복송씨. 복송뼈
· 비듬 : 지개미
· 뼈의 마디 : 매두. 매두락
· 세수대야 : 세숫대
· 가마 : 가매
· 거울 : 민경. 새경
· 곰보 : 빡보
· 궁둥이 : 궁댕이. 엉댕이
· 귀이개 : 귀지개
· 기지개 : 지지개
· 눈두덩 : 눈뚜껑
· 대마디 : 매답
· 두드러기 : 뚜두럭
· 마른버짐 : 모른버짐
· 머리카락 : 멀크락
· 목욕 : 모욕
· 방귀 : 동. 방구
· 벙어리 : 버버리
· 볼거리 : 항아리손님
· 뺨 : 뺨대기
· 사마귀 : 사마기. 사마구
· 소경 : 봉사

· 손가락 : 손고락. 손구락
· 수염 : 시욤
· 약손가락 : 께끼안손고락
· 얼레빗 : 어리빗
· 여드름 : 이두름
· 왼쪽 : 외약쪽
· 천연두 : 외손님
· 콧수염 : 웃시욤
· 트림 : 트름
· 혓바늘 : 섯바늘
· 쇠대가리 : 소머리
· 씻다 (얼굴) : 닦는다
· 언챙이 : 얼챙이
· 엄지손가락 : 엄지손고락
· 오금 : 오굼쟁이
· 정강이 : 성문다리
· 코털 : 콧시욤
· 턱수염 : 택시욤
· 학질 : 하리거리
· 홍역 : 호녁
· 쇠머리 : 소대그빡
· 애꾸 : 외퉁배기
· 얼굴 : 얼골
· 엉덩이 : 엉댕이
· 왼손 : 외약손
· 졸-다 : 자운다
· 콧구멍 : 콧구녁
· 턱 : 택
· 혀 : 서. 섯바닥
· 흰자위 : 흰창

6) 육 아

· 갓난아이 : 갓난애기
· 공기놀이 : 독줏어묵기
· 그네 : 군지
· 남자아이 : 머시마
· 돌 : 똘
· 밑싣개 : 발판. 안징개
· 사금파리 : 새금때기
· 안기다 : 보듬긴다
· 앉히다 : 앙친다
· 얼음 지친다 : 탄다
· 윷 두동가기 : 둑동생이
· 자치기의 작은막대 : 때콩
· 큰막대 : 뜰짱
· 고누 : 꼰
· 굴렁쇠 : 동태
· 그네를 뛴다 : 탄다
· 누다 : 싼다
· 마렵다 : 매릅다
· 버릇 : 버르장머리
· 소꿉질 : 바끔사리
· 안다 : 보듬다
· 어린애 : 꼬마. 꼬맹이
· 여자아이 : 지집아
· 윷 : 숯
· 죄암죄암 : 쥐엄쥐엄
· 팽이 : 팽도리. 뺑도리
· 곤지곤지 : 지개지개
· 굴렁쇠 굴린다 : 궁글린다
· 기저귀 : 지저구. 걸래
· 도(윷) : 퇴
· 목말 : 목물
· 부라부라 : 방애방애
· 아장아장 : 자박자박
· 안아서 : 보듬아서
· 얼레 : 연자새
· 오줌 : 오짐
· 자치기 : 때콩. 때공
· 지리다 : 저리다
· 포대기 : 보대기

7) 인 륜

· 결혼잔치 : 대사잔치
· 남동생의 부인지칭 : 동상의덕
· 매형님 : 매부
· 백부 : 큰아부지
· 새색시 : 새각시
· 시누이 : 시누
· 아버지세째형 : 세째큰아부지
· 남 : 놈
· 도련님 : 되련님
· 매형 : 매양
· 사위 : 사우
· 서방님 : 시아제
· 시동생 : 시아제
· 아우 : 동상
· 남동생 : 남동상
· 매부 : : 매양
· 며느리 : 메느리
· 삼촌 : 삼춘
· 숙부 : 작은아부지
· 아버지 : 아부지. 아부이
· 어머니 : 어매. 어무이머

· 어미 : 어매
· 중부 : 작은큰아부지
· 할머니 : 할무니. 할매
· 형 : 성. 성님
· 홀어미 : 홀엄씨
· 올캐 : 오라부덕
· 처녀 : 큰애기
· 할아버지 : 한아부지
· 혼인 : 혼연
· 환갑 : 한갑
· 외삼촌 : 외삼춘
· 할망구 : 망구
· 할아비 : 영감
· 홀아비 : 홀애비
· 효자 : 소자

8) 경 제

· 거스름돈 : 낭거지
· 구멍가게 : 점방 2
· 담배가게 : 담뱃집
· 두름 : 룸
· 마흔살 : 마훈살
· 모루채 : 매. 쇠매
· 바퀴 : 발통
· 설흔 : 서룬
· 쉰 : 쉬운
· 쌍 : 장곤. 장군
· 여든 : 야든
· 이웃 : 윳. 유제
· 잔돈 : 낱돈
· 켤레 : 커리
· 하나 : 한나
· 계란꾸러미 : 계란줄
· 꾸러미 : 줄
· 대장간 : 성냥간
· 마을 : 마실. 모실
· 머리카락 뭇 : 뭉탱이
· 무묶음 뭇 : 다발. 단
· 병 : 뱅
· 설흔아홉살 : 서룬아홉살
· 스무살 : 수무살
· 에누리 : 외누리
· 여섯말 : 연말
· 일흔 : 이른
· 장작묶음 뭇 : 다발
· 포기 : 폭
· 하루동안 : 하렛동안
· 곱하다 : 꼽허다
· 다섯말 : 단말
· 덤 : 우수
· 마흔 : 마훈
· 모루 : 모릿독
· 뭇 : 모들가리
· 뻠 : 뺌
· 세다 : 시다
· 스물 : 수물
· 여드레 : 야드레,
· 이야기 : 이야그
· 자루 : 자리
· 축 : 동
· 풀무 : 불무
· 하룻날 : 하랫날

9) 동 물

· 가물치 : 까마치
· 개구리 : 깨고리. 깨구락지
· 거위 : 때까우
· 고기(肉) : 괴기
· 구유 : 구수
· 까치 : 깐치
· 노래기 : 사내기
· 다슬기 : 고동. 물고동
· 대하 : 대와
· 돼지 : 되아지
· 가시 : 까시
· 거머리 : 거마리
· 게 : 기
· 고삐 : 괴뺑이. 괴삐
· 깃 : 짓
· 까투리 : 까토리
· 노루 : 노리
· 닭똥 : 달구똥
· 덫 : 돗
· 돼지우리 : 되아지집
· 강아지 : 갱아지
· 거미 : 거무
· 고기(魚) : 괴기
· 고양이 : 괴양이. 괴댁이
· 까마귀 : 까마구
· 날것 : 생맬치
· 노른자위 : 노랑창
· 닭장 : 장태
· 도둑고양이 : 도둑괴양이
· 두꺼비 : 뚜개비

· 두더지 : 뒤제기. 두지기 · 두엄 : 뒤엄 · 딱따구리 : 탁목새
· 땅벌 : 오빠시 · 뜸부기 : 뜸배기 · 마구간 : 말외양간
· 말총 : 몰총 · 메뚜기 : 매때기 · 멸치말린것 : 모른맬치
· 멸치 : 맬치 멸치 · 모기 : 모구 · 모이 : 모시
· 미꾸라지 : 웅구락대기 · 미끼 : 낚숫밥 · 민물고기 : 물천어
· 민물새우 큰것 : 징검새비 · 바구미 : 바개미 · 바다다슬기 : 고동. 갯고동
· 박쥐 : 뽁쥐 · 반딧물 : 개똥불 · 발채 : 바작
· 방개 : 방기 · 방아깨비 : 불땅깨비 · 벌레 : 벌거지
· 벌을 친다 : 키운다 · 벼룩 : 배룩 · 벼슬(닭) : 비실
· 병아리 : 뼁아리. 뼁아리 · 뻐국새 : 쑥꾹새 · 붕어 : 붕애
· 산돼지 : 맷되아지 · 삵괭이 : 싹 · 새우등 : 새비등
· 새우 : 새비 · 생선 : 갯고기 · 서캐 : 써까리. 싸가래
· 소금쟁이 : 소금장사 · 소입막이 : 소망 · 솔개 : 솔갱이
· 송아지 : 쇠앙치. 송아치 · 쇠고기 : 소고기. 환육 · 쇠꼬리 : 소꼴랑지
· 쇠발톱 : 소굽 · 쇠뿔 : 소뿔 · 쇠죽바가지 : 쇠죽쪽박
· 수코양이 : 숫괴양이 · 수탉 : 장닥 · 쌀벌레 : 쌀벌거지
· 아가미 : 아감지 · 암고양이 : 암괴양이 · 암방아깨비 : 땅깨비 숫
· 여우 : 여시 · 여치 : 연치 · 염소 : 맴소. 맴생이
· 올가미 : 홀랑개 · 올챙이 : 방망치 · 우렁이 : 우렁
· 잉어 : 잉애 · 작대기 : 짝대기 · 장구벌레 : 곤자리
· 장끼 : 쟁끼 · 장어 : 짱애 · 중고기 : 중태기
· 지느러미 : 날개 · 지렁이 : 거시랑 · 진드기 : 진두개
· 진딧물 : 뜬물 · 창자 : 창시 · 토끼띠 : 퇴끼띠
· 토끼집 : 퇴끼집 · 토끼 : 퇴끼. 퇴깽이 · 토끼풀 : 시계풀
· 파리 : 포리 · 피라미 : 피리 · 하루살이 : 하래살이
· 황소 : 부사리. 뿌사리 · 회충 : 회벌거지 · 흰자위 : 흰창

10) 식 물

· 갈퀴 : 갈쿠 · 개암 : 깨끔 · 고들빼기 : 꼬들빼기
· 고비 : 꾀충 · 고욤 : 나도감 · 과일 : 과실
· 그루터기 : 끌텅 · 껍질 : 겁덕. 껍닥 · 꽈리 : 때왈
· 냉이 : 나숭개 · 달래 : 달룸개. 달롱개 · 덩굴 : 넝쿨. 넌출덩
· 도깨비바늘 : 지개비풀 · 도끼 : 도치 · 도토리나무 : 가랍나무
· 돌배 : 독배 · 딸기 : 딸 · 떡갈나무 : 가랑낭구
· 머루 : 모루 · 마름 : 모람. 모랑 · 뱀딸기 : 배암딸
· 벤다 : 빈다 · 복숭아 : 복송 · 복숭아씨 : 복송씨

· 봉선화 : 봉숭아
· 삭정이 : 삭다리
· 상수리 : 상소리
· 씀바귀 : 싸랑부리
· 질경이 : 뻬쭌닢. 쑥부쟁이
· 콩껍질 : 깍지
· 호도 : 호두
· 삘기 : 삐비
· 산딸기 : 산딸
· 솔가리 : 갈쿠나무
· 진달래술 : 참꼿술
· 철쭉 : 개꼿
· 토마토 : 늘렁감
· 사과 : 능금
· 상수리나무 : 참나무
· 쇠서 : 쇠아서
· 진달래 : 참꼿
· 청미래덩굴 : 맹감
· 해바라기 : 해바라지

11) 자 연

· 가을하다 : 가실헌다
· 그글피 : 그고패
· 노을 : 북새
· 모래땅 : 목새땅
· 모퉁이 : 모탱이
· 벼락 : 배락
· 산마루 : 산뽕아리
· 소나기 : 쏘내기
· 윗마을 : 웃몰
· 이슬비 : 이실비
· 회오리바람 : 소소리바람
· 겨울 : 시안
· 글피 : 고패
· 돌 : 독
· 모래 : 목새. 모새
· 묘 : 맷. 맷동
· 비탈 : 깔크막
· 새벽밥 : 새복밥
· 아침밥 : 아직밥
· 이끼 끼다 : 입다
· 해거름 : 해름판
· 구석 : 구석지
· 내일 : 낼
· 먼지 : 문지
· 모래밭 : 목새밧
· 바위 : 바우
· 산기슭 : 산지시락
· 새벽 : 새복
· 언덕 : 엉턱
· 이끼 : 바우손
· 홍수 : 큰물

12) 상 태

· 가깝다 : 가차웁다
· 가볍다 : 개붑다
· 간지럽히라 : 갠지럼미긴다
· 길다 : 질다
· 깊다 : 짚다
· 낮으면 : 나차우문
· 높이어야 : 높애야
· 더위 : 더우
· 묽지 : 무르지
· 없애다 : 없앨라고
· 작아서 : 적응께
· 줄곳. 계속(가시오) : 상긋
· 가렵다 : 개롭다
· 가엾어서 : 짠해서
· 굵다 : 굵다
· 길어야 : 질어야
· 깊으니까 : 짚응깨
· 넓다 : 너릅다
· 다르다 : 달브다
· 무섭다 : 무숩다
· 뾰족하게 : 날캄허게
· 없으니 : 없응깨
· 짧다 : 자룹다
· 가렵-어 : 개루와
· 간지러워 : 갠지럽다
· 굵어서 : 퉁구와서
· 길이 : 지리. 지래기
· 낮다 : 나찹다
· 높은게 : 높응깨
· 다른말 : 딴말
· 묽어 : 밀거다
· 어두우니 : 어두웅깨
· 연필심이 툭하다 : 퉁허다
· 짧은 : 자룬

13) 동 작

· 가르치다 : 갈치다 · 가져오너라 : 갖고오니라 · 걷는다 : 걸는다
· 굽는다 : 군다 · 기르고(수염을) : 지르고 · 끓으면 : 끓응깨
· 끓이어라 : 끼레라 · 끼었다(가시가) : 찡개졌다 · 끼워준다(싼것을) : 쪄준다
· 달라고 : 도라고 · 들여다본다 : 디래다본다 · 떼고 : 띠고
· 떼-어야 : 띠어 · 뗀다(뗏장) : 뜬다 · 마르면 : 모르믄
· 마시어라 : 마새라 · 만들다 : 맨든다 · 만들어라 : 맨들아라
· 말리면 : 몰리문 · 말리어야 : 말개야 · 말린다 : 말긴다
· 맞추어진다 : 맞차진다 · 맡기어 : 맽개 · 먹이어라 : 맥애라
· 먹인다 : 맥인다 · 먹힌다 : 맥힌다 · 메우어야 : 미어야
· 메우지 : 미지 · 모시고 : 모새 · 모시어야 : 모새야
· 무치어라 : 무채라 · 바뀌었다 : 배깼다 · 버렸다 : 배랬다
· 보인다 : 빈다 · 빌어(돈울) : 빌레 · 빻아서 : 뽀사서
· 숨기어 : 숭캐 · 숨긴다 : 숭킨다 · 식히고 : 식후고
· 쌓였다 : 쌔였다 · 썩히고 : 썩후고 · 썩히어서 : 썩화서
· 씻어라 : 싳어라 · 옮겼다 : 앵겠다 · 읽히어 : 읽해
· 잠보(잠꾸러기) : 잠충이 · 저어라(노를) : 젓어라 · 주십시요(빌려) : 주씨요
· 줄까요/드려라 : 주까요/드래라 · 탄다(생선배를) : 딴다
· 토라져서 : 삐쳐서 · 튀겼다(물방울을) : 탱겠다 · 헤어졌다(옷이) : 무어졌다
· 후비어라 : 파라 · 후빈다 : 판다 · 흩트리-어 : 허쳐

2. 문 법

1) 대 명 사

· 너-가 : 니가 · 너-에게 : 너한태 · 너-의 : 니
· 너희-가 : 느그들이 · 너희 : 니기들. 느그들 · 너희-를 : 느그들을
· 너희-에게 : 느그들한태 · 너희-의 : 느그들 · 누구-가 : 누가
· 자기 (집) : 지기 · 자기-가 : 지가 · 자기-의 : 지
· 저-가 : 지가 · 저-에게 : 저한태 · 저-의 : 지
· 제 머리못깍는다 : 지

2) 조 사

· 나-와 : 나허고 · 동생-에게 : 동상한태 · 동생-을 : 동상을
· 돼지-를 : 되아지를 · 사람-에게 : 사람한태 · 삵괭이-와 : 싹과
· 여우-와 : 여시와 · 있는데-에 : 있는디 · 팥-은 : 폿은

3) 경 어 법

· 가니? : 가냐 · 가시었니? : 가셌냐 · 가요 : 가라우
· 계시어요 : 지시시오 · 계시지? : 지시냐 · 그랬잖아? : 그랬지않냐
· 무엇이어요? : 뭇이요 · 무엇인가? : 므신가 · 앉게 : 앉소
· 앉아라 : 앉어라 · 앉아 : 앉어 · 앉으세요 : 앉으씨오
· 오나? : 온가 · 오니? : 오냐 · 오시요? : 오요
· 입으시어야겠어요 : 입으서야겠소

4) 시 제

· 떠났으면 좋겠다 : 좋겄다 · 먹었던 : 먹었든 · 비가 오겠다 : 오겄다
· 안 가겠다 : 가겄다 · 오겠더라 : 오겄드라 · 왔니? : 왔냐
· 왔었니? : 왔디야 · 잡더냐? : 잡디야 · 잡았니? : 잡었냐
· 잡았다 : 잡었다

5) 사동·피동

· 기다려진다 : 지달라진다 · 닦게한다 : 딲개헌다 · 닦아지느냐 : 딱어지냐
· 만져진다 : 몬자진다 · 빨게해라 : 뽈개해라 · 빨린다 : 뽈린다
· 싣게한다 : 싫개헌다 · 쓰게해라 : 씨겋게해라

6) 연결어미

· 가난하면서도 : 가난함서도 · 까치가 울더니만 : 우드만 · 매야하니까 : 허니깨
· 먹었기 때문에 : 따매 땜새 · 모기때문에 : 따매 땜에 · 보니까 : 봉깨
· 비가 오면 : 오먼 · 사람이면서 : 사람임서 · 잡으면서 : 잡음서
· 하느라고 : 허니라고

7) 보조용어

· 고픈가보다 : 고픈가부다 · 깨끗하지않아요 : 안깨깟허다 · 꿈이었나보다 : 꿈이든갑다
· 꿈인가보다 : 꿈인가비다 · 쌌나보다 : 쌌능가비다 · 쌌나봐요 : 쌌능가비요
· 올까봐서 : 올감숭깨 · 웃어댄다 : 싼다

8) 부 사

· 갑자기 : 느닷없이 · 곧장 : 바로 · 깨끗하게 : 깨깟아게
· 다음에 : 나중에 · 마치맞게 : 마침맞개 · 먼저. 앞에 : 모냐. 몬자
· 모두 : 모도 · 살짜기 : 살차기 · 송두리째 : 통째
· 어떻게 : 어틍게 · 어찌 웃니? : 어째 · 예 : 얘. 야
· 일부러 : 역불러 · 찬찬하게 : 차박차박허게 · 하마터면 : 하마트라믄

3. 음 운

1) 단 모 음

· 글/걸 : 글. 걸 · 기/귀 : 기. 귀 · 떼/때 : 때
· 뙤(윷놀이의) : 태. 토 · 시/쉬 : 시. 쉬 · 틀/털 : 틀. 털

2) 이중모음

· 궤짝 : 괘구짝 · 석유 : 색유 · 양념/고약 : 양님,괴약
· 예의/계획 : 얘이,게흑 · 의논/무늬 : 이논. 무누 · 의자 : 이자

3) 음장, 성조

· 감더라 : 깜드라 · 감으면 : 깜으먼 · 드물-지 : 두물지
· 부드럽-지 : 부드롭지 · 알더라 : 알드라
· (머리를)감+기-었다 : 깽갰다
· (몸이)더럽혀졌다 : 더럽개뒀다
· (물건을)잡+히-었다 : 잽혔다
· (소금을 물에)풀+리-었다 : 푼다. 풀렸다
· (소식을)알+리-었다 : 알렸다. 알려졌다
· (신발이)바뀌겠다 : 배끼겄다

4) 억 양

· 어디를가니?(어느곳에) : 어디가냐(설명)
· 어디를가니?(어디엔가) : 어디가냐(판정)
· 어디를가니?(아무데도가지않음) : 어디가냐(수사)

5) 자음탈락

· 값-이 : 갑시가 · 맑-어 : 맑아서 · 밟-어 : 볼바라(봅아라)
· 삶-이 : 싹이 · 젊-어 : 젊어서 · 핥-아 : 핥아라

6) 불규칙활용

· 낫-고 : 나코 · 낳으니까 : 나니깨 · 노랗-고 : 놀어고
· 도-으니까 : 도웅게 · 들-으니까 : 들으니께. 등깨 · 먹-으니까 : 먹으니깨
· 무서우니까 : 무숭께 · 무섭고 : 무숩고 · 묻고 : 물꼬
· 살-으니까 : 사니께 · 않으니까 : 않으니께 · 하-고 : 허고
· 하-니까 : 허니께 · 흐르니까 : 흐링깨

7) 자음축약

· 굽혀라 : 굽헤라 · 놓게 : 놋소. 농개 · 좋더라 : 좋드라
· 떡하고밥하고 : 떡어고밥어고 · 먹힌다 : 맥힌다
· 깨끗하군요 : 깨까더요 · 못했읍니다 : 모댔십니다 · 떡했니? : 떡했냐

8) 경 음 화

· 긁지/긁겠다 : 극찌. 그꺼따 · 먹을 것 : 머글껏
· 먹지/먹겠다 : 먹찌. 머꺼따 · 밥도/떡국도 : 밥또. 떠꾹또
· 삶지/삶겠다 : 쌈찌. 쌍꺼따 · 삼지/삼겠다 : 삼찌. 삼꺼따
· 쏟지/쏟겠다 : 쏘찌. 쏘꺼따 · 안지/안겠다 : 보듬찌. 보듬꺼따
· 앉지/앉겠다 : 앙찌. 앙꺼따 · 어렸을적(에) : 애랬을쩍에
· 입지/입겠다 : 입찌. 입꺼따 · 할수(있다) : 할쑤
· (채소)밭보다/(묵정)밭부터 : 받뽀단. 받뿌터

9) 비음절화

· 가꾸어라 : 가꽈라 · 내리어라 : 내려라 · 놓아라 : 놔라
· 드시었다 : 드르셨다 · 들리었다 : 들렸다 · 띄우어라 : 띠워라
· 마시었다 : 마셨다 · 배우어라 : 배왔다. 배와라 · 부시어서 : 부서서
· 쐬우어라 : 씨개해라 · 어두웠다 : 어두왔다 · 이어라 : 여라
· (꿈)꾸-지 : 뀌지 · (반지)끼-지 : 찌지 · (안개)끼-지 : 찌지
· (장기)두-지 : 뒤지

10) 모음조화

· (눈을)비비- : 비배서 · (문을)두드리 : 뚜드러라 · (문을)잠그- : 장가라
· (물이)새- : 새아(들어온다) · (발을)밟- : 볼바라 · (불을)켜- : 써라
· (사람이)게으르- : 기울러서 · (술을)담그- : 당가라 · (실을)꿰- : 끼어라
· (어깨에)메- : 미어라 · (오랫동안)기다리- : 지달라라
· (줄을)당기- : 당거라 · (혹을)떼- : 띠어라

11) 움라우트

· 곰곰히 : 곰곰이 · 교통 : 개통이 · 굶기다 : 궁긴다
· 굶기도했다 : 궁끼도 · 깍이다 : 깩인다 · 넉넉히 : 넝너기
· 다음 : 담이 · 똑똑히 : 똑똑이 · 맡기다 : 매낀다
· 벗기다 : 뱃긴다 · 숲 : 숩이 · 안방 : 안빵이
· 앞 : 압이 · 의복 : 이복이 · 잡히다 : 잽힌다
· 접히다 : 접힌다 · 축축히 : 축축이
· (개한테)쫓겨 : 쬦겨 · (고집을)피워 우긴다 : 위긴다
· (그림을)그린다 : 기린다 · (물)푸기쉽다 : 품기 · (빨랫줄을)높여라 : 높애라
· (손이)저리다 : 재리다 · (옷을)다린다 : 대린다 · (음식을)삭인다 : 색인다
· (친구를)사귄다 : 사군다 · (풀을)뜯기다 : 뜨낀다

12) 외래어. 한자어

· 껌/까스 : 끔. 까쓰 · 라면/룩작 : 나면. 니구사꾸
· 리어카/라디오 : 니야까. 나지오 · 버스/빠꾸 : 뻐스. 빠구
· 상류 : 상뉴 · 손녀 : 솔려
· 예의 : 얘이 · 육년 : 융년
· 육학년 : 육앙년 ·일학년 : 일항년 · 잡년 : 잠년



Contents

| 제1장 | 개관 246
집필 / 이명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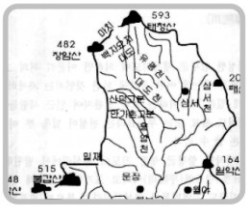
| 제2장 | 선사시대 유적·유물 252
집필 / 이명헌

| 제3장 | 함평에서의 벼농사 시작 376
집필 / 이명헌



제2편 선사시대(先史時代)의 함평

제1장 선사시대의 개관



제1절 구석기시대

인간이 자연에서 채취한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때를 구석기시대라 한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홍적세에는 커다란 자연환경의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 즉 4차례에 걸쳐 빙하기가 닥쳐오기도 하였고, 또 각 빙하기 사이에는 지금보다도 기온이 높았던 간빙기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부근의 자연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빙하가 발달하였을 때는 바다가 얕아져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육지로 연결되기도 하였고, 지금의 서해바다도 육지로 드러나서 사람이 지금보다도 훨씬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구석기 시대는 5시기로 나뉜다. 즉 3번째 빙하기까지를 전기 구석기 시대라 하고, 3번째와 4번째 사이의 간빙기 말부터 4번째 빙하기 초기까지를 중기 구석기 시대(7만~4만 년 전), 그리고 4번째 빙하기의 나머지 부분을 후기 구석기 시대(4만~1만 년 전)라 한다. 전기 구석기 시대의 이른 시기에는 손쓴사람(호모하빌리스)이 살았으며 이후로는 곧선사람(호모에렉투스)이 활동하였다. 그리고 중기 구석기 시대에는 슬기사람(호모사피엔스),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슬기슬기사람(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이 살았다. 이러한 각 시기마다 인류가 사용한 석기의 종류와 만듦새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한 곳에 보금자리를 정하고 살지 않았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더 나은 생활조건을 찾아 이동하면서 살았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이나 들판으로 다니며 열매를 따 모아야 하였고 여럿이 힘을 합쳐 자신보다 덩치가 큰 짐승들을 사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냥할 짐승이나 채집할 식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불안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착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동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오래 계속되었다. 한 무리가 살다 간 곳에 곧 다른 무리가 와서 일정 기간동안 살다가 떠나기도 하였고, 때로는 오랜 기간이 지나 그곳에 흙이 두껍게 쌓인 뒤에 사람이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이 남긴 유적은 동굴이나 물가의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지층을 우리는 흔히 문화층이라고 부른다. 때로는 한 유적에서도 제일 위층에는 신석기유적, 그 아래에는 후기 구석기 유적, 다시 그 아래에는 중기 구석기 유적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각 문화층에서 나온 유물들을 통하여 연대를 추정하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은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 무렵의

것부터 확인된다. 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는 평양시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충북 단양의 금굴, 청원의 두루봉 동굴 등의 동굴 유적과, 충남 공주의 석장리,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 등 강가 근처에 있는 야외 유적이 있다. 이 유적들에서는 동굴곰, 하이에나, 물소, 원숭이, 큰쌍코뿔이 등의 짐승 화석이 나와, 당시 우리나라 지역의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으며 그에 따라 동식물의 종류 등 자연환경이 매우 달랐음도 알 수 있다.

또 구석기 시대 유적 가운데 몇 군데에서는 사람의 뼈 화석도 발견되었다. 평남 덕천 승리산 유적에서 나온 두개의 어금니와 어깨뼈, 평양 역포 대현동 유적에서 나온 머리뼈 등이 그것이다. 이를 각각 덕천사람(슬기사람), 역포사람(옛슬기사람)이라 부르는데, 모두 중기 구석기 시대 문화층에서 나왔다. 한편 후기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는 승리산 유적의 승리산 사람, 평양 승호 구역 만달리 유적의 만달사람, 청원 두루봉의 흥수아이 등의 사람 뼈들이 발견되었다. 당시의 유적에서는 많은 석기도 함께 발견되는데 사냥, 가죽 벗기기, 고기 자르기 등 쓰임새에 따라 각각 모양이 다르다.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우리 함평군에서는 함평읍 장교리 월봉을 비롯하여 당마산, 당하산, 손불면 석창리 대발, 석계, 해창, 월야면 예덕리 등에서 조사되었다.[21] 이 중 장년리 당하산 유적이 발굴되었는데[22] 중·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과 함께 신석기 시대와 초기철기 시대의 유적도 확인되어 함평지역에는 늦어도 2~3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중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우리나라 부근의 기후 조건이 지금과 비슷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쯤부터이다. 기후 조건이 바뀌면서 물론 자연환경도 구석기 시대와는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즉 동물이나 식물의 종류가 현재와 비슷해지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도 거의 적응되어 갔다. 신석기 시대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돌을 깨뜨려서 나온 얇고 작은 격지로 정교한 석기를 만들어 쓰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를 중석기 시대라 한다.

중석기 시대 사람들도 채집 경제 단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사냥 도구를 비롯한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전 시기보다는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즉 그들은 활과 화살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였고 물고기를 잡는데 작살을 이용하였다. 활과 화살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사나운 짐승과 싸울 필요가 적어졌고, 재빠른 짐승들도 더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흙을 빚어 구워 토기를 만들어 썼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

21)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전라남도·함평군,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함평군-』, 2003.
22) 최성락·이헌종, 『함평 장년리 당하산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와서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집단의 규모도 그전보다 훨씬 커져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 인간 생활에 있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사람들은 씨앗에서 싹이 터 열매를 맺는 것을 우연히 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차츰 자연 상태로 자라난 것을 모아서 먹기보다는 씨앗을 간수하였다가 다음해에 뿌려 가꾸며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이동하는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신석기 시대 주거지 유적에서는 주로 탄화된 곡식의 낱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돌아다니며 짐승을 사냥하기보다는 길러서 새끼를 낳게 하여 필요할 때 잡아먹는 지혜도 가지게 되어 이제는 가축 사육이 시작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사용되었던 토기도 식생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음식물을 끓여서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더운 국을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남은 식량을 담아 보관할 수도 있게 되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다. 이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 나라에서뿐 아니라 시베리아나 중국의 발해만 연안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비슷한 문화를 가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당시 넓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신석기 시대에는 사회가 그 이전에 비하여 많이 발전하였다고는 해도 아직은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였다. 거대한 자연은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고, 혼자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혼자서는 사납고 날쌘 짐승도 사냥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노동을 힘을 합쳐서 해야 하였고, 그 결과물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개인이라는 생각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집단과 개인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으며,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공동생활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누린 평등은 아마도 생산력이 보잘 것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은 대략 6,0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평남 궁산리를 비롯하여 황해도 지탑리, 함북 굴포리,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강원 오산리, 경남 상노대도 등에서 발견된 유적이 있다. 우리 함평군과 관련하여서는 앞 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대표적으로 함평읍 장년리 당하산 유적에서 중·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과 함께 신석기 시대와 초기철기 시대의 유적이 확인된 바 있다.

어쨌든 신석기 시대의 유적에서는 대체로 집 자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의 집들은 대개 강가나 낮은 구릉지에 자리 잡은 움집이었다. 집의 바닥은 흙을 고르게 깔거나 불로 구워 단단하게 만든 경우도 있다. 이는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집터의 한가운데에는 강돌을 둘러 화덕을 만들었던 흔적이 있고, 때로는 구덩이를 파거나 흙을 발라서 화덕을 만들기도 하였다. 화덕은 난방용이었을 것이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도 쓰였을 것이다. 한편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주거공간이 용도에 따라 나뉘었던 흔적도 발

견되고 있다. 예컨대 생활공간과 함께 토기를 놓고 쓰던 공간을 비롯하여 석기나 도구를 만들던 공간, 또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 등이 구분되어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들은 움집에 살면서 가까운 강이나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다. 고기잡이에는 작살이나 낚시를 사용하였고, 때로는 그물을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미역이나 다시마 등을 비롯하여 조개, 굴 등을 채집하는 것도 중요한 경제활동의 하나였음은 물론이다. 산과 들에서 이루어지는 사냥은 그전과 같이 계속되었다. 바닷가나 강가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조개무지 유적이다.

한편 신석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돌을 떼거나 갈아서 석기를 만드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다. 간석기로는 도끼, 자귀 등이 있고, 후기의 것으로는 무기로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측되는 별도끼도 발견된바 있다. 석기 가운데는 농사 도구로 사용된 것이 특히 많은데, 다소 거칠게 떼어낸 돌로 괭이를 만들어 땅을 파서 농사를 지었고 이어 농사가 발전하면서 돌보습으로 땅을 좀더 깊이 파서 일구게 되었다.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사용하였던 반달 모양의 돌칼도 이 시기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며, 낱알의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한 갈돌판도 농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 하겠다.

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 한편, 식물에서 실을 뽑아 가락바퀴와 뼈바늘 등을 이용하여 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뼈나 뿔을 가공하여 도구나 장식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 시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정착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농사 자체가 자연조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은 물론 산이나 바위 등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풍요를 비는 주술적인 의미를 갖는 물건들을 만들기도 하였던 것이다.

제3절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신석기 시대 후기가 되면 이미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곧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것이었다. 즉 정착 생활로 인해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량이 많아지자 개인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남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를 흔히 잉여 생산물이라 하는데 이제 스스로 일하지 않고도 남을 부림으로써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자가 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바탕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기원전 3,500년 무렵의 유적인 대릉하 유역의 우하량 유적에서는 옥을 가공하여 용 모양으로 만든 장식품을 비롯하여 토기 등의 부장품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나왔다. 이것은 금속기가 사용되기 이전에 이미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음을 말해 주는 예라 하겠다. 이렇게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진행된 생산력의 발전과 잉여 생산물의 증가

로 인한 사유재산의 발생, 빈부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회, 즉 계급사회의 출현을 재촉하였다.

청동기 사용은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청동은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섞어 구리보다 단단하게 만든 것인데, 발해 연안에서 청동기가 사용된 시기는 기원전 10세기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기는 이보다 다소 늦지만 한반도에서도 다량의 청동기와 함께 거푸집들이 출토되어, 청동기가 여러 곳에서 직접 제작되고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는 대체로 비파형 동검·세형동검·창 등의 무기와 도끼·끌·자귀 등의 도구, 그리고 청동거울·방울을 비롯한 장식품 등이 있다. 그러나 청동기 시대라 하더라도 농기구로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 많이 쓰였다. 그리고 이 때는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가장 발달한 시기였다. 간석기는 무기, 농기구, 목공구 등으로 쓰였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는 생활유적인 주거지와 매장유적인 무덤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 중 무덤이 더 많다. 우리 함평군에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로는 손불면 죽암리 소명(8기)[23]을 비롯하여 함평읍 진양리 중량(3기)[24], 대덕리 고양촌(6기)[25], 성천리 와촌(6기)[26], 해보면 용산리 대성(2기)[27]에서 조사된바 있다.

당시에는 이미 계급이 발생하였고 지배계급은 죽어서도 살아 있을 때와 같은 생활을 누린다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무덤에 여러 가지 부장품들을 함께 묻었다. 무덤 형식으로는 돌무지무덤, 고인돌무덤, 돌널무덤을 비롯하여 돌깐무덤, 움무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고인돌무덤이다. 고인돌은 탁자 모양과 바둑판 모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바둑판 모양의 것은 주로 남만주와 한반도 서북부에 많이 분포한다.

우리 함평군에 분포돼 있는 고인돌의 경우는 123개 군 602기가 확인되었는데[28] 그동안 없어진 것을 감안하면 700~800기에 이른다.[29] 또 나산면 초포리유적에서는 적석목관묘로 추정되는 매장시설에서 세형동검을 비롯하여 동과·동모·중국식동검·동부·동착·동사·정문경·간두령·조합식쌍두령·쌍두령·병부동령·곡옥·지석 등이 출토된바 있고[30], 함평읍 장년리 당하산유적에서는 세형동검이 방형 토광에서 출토된 바도 있다.[31]

이러한 무덤에는 당시의 지배 계급들이 묻혔는데 때로는 어린아이가 묻힌 경우도 있어 그 권력이나 지위가 세습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남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분포하는 고인돌 중에는 무게가 수십 톤에 이르는 거대한 덮개돌을 가진 것도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한 지배자가 등장하였음을

23) 임영진·이승룡·전형민, 『함평 소명 주거지』, 전남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3.
24) 최성락·고용규·이영철·최미숙·김미연·한미진, 『함평 중량유적Ⅰ-주거지-』,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3.
25) 이영철·이은정, 『함평 고양촌 유적』,(재)호남문화재연구원·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5.
26) 임영진 등, 『함평 성천리 와촌 유적』, 전남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7.
27) (재)호남문화재연구원·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함평 창서 유적』, 2003.
28)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전라남도·함평군,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함평군-』, 2003.
29) 이영문,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30) 이건무·서성훈, 『함평 초포리 유적』, 국립광주박물관, 1988.
31) 최성락·이헌종, 『함평 장년리 당하산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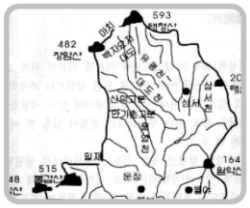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말하는 것이다.

이 지배자들은 다른 집단과의 교역을 주관하면서 더 많은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부를 독점함으로써 자기 집단 내에서 권력을 증대시켜 갔다. 그리하여 이제는 평등한 사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불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지배자로 행세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도 힘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배자들은 더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하여 자주 예리한 청동 무기로 약탈전쟁을 벌였고, 이는 계급분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들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더 큰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한편 싸움에 진 집단의 구성원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잡혀가서 노예로 부려졌다. 노예의 발생은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진행된 생산력 발전의 결과였다. 즉 그 이전, 한 개인이 일하여 자신이 먹을 식량을 겨우 마련하던 단계에서는 노예가 생겨날 수 없었다. 따라서 집단 간의 무력 충돌은 있었지만 사람이나 땅을 빼앗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차츰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자, 이제 전쟁에 진 집단의 구성원을 잡아다 부림으로써 생산물을 정기적으로 편안하게 얻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큰 힘을 지닌 세력을 중심으로 지배와 복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큰 정치집단이 성장하였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 대해 자행하는 지배와 착취는 더욱 심해지고, 이는 사회 내부에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낳게 하였다. 이 대립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가진 자들이 사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요구에 부응하여 출현한 것이 바로 국가였다. 국가는 상비군과 법 등을 통하여 공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한편, 국가 기구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세권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국가는 당시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모순과 깊은 대립으로 분열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으나, 외형상으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에 질서를 부여하는 객관적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었다.

제2장 선사시대 유적·유물



제1절 구석기시대 유적·유물

1. 함평 장년리 당하산 유적

최근 전라남도 서해도서지역과 영산강 유역에서는 여러 지표조사와 발굴 결과 함평 장년리 당하산 유적을 비롯하여 신안 압해도(세천·신기·갯모실·월포·목교·터골·반월·상촌), 나주(화성·도면동), 영암(송내·연화·화정) 유적 등 많은 구석기유적이 확인·보고 되었다.[32]

함평 장년리에 있는 당하산 유적은 함평만 일대의 해안 저습지 상류의 낮은 구릉지에 위치한다. 무안~영광간 서해안고속도로 공사를 계기로 199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층위는 기반암과 표토층을 포함하여 6지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석기시대 문화층인 1문화층(중기구석기문화층)과 2문화층(후기구석기문화층)은 각각 제1지층과 제3지층에 해당된다. 1문화층은 대체로 당하산의 정상부로부터 동서로 형성된 비탈과 계곡성 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물의 위치는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홈날을 비롯하여 찌르개, 양면찍개, 긁개, 주먹도끼, 격지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2문화층에서는 돌날, 세형몸돌 등 혼펠스제와 여러면석기, 긁개, 소형찍개, 톱니날, 홈날 등 석영제 석재를 이용한 유물들이 확인되었다.[33]

2. 함평 장년리 당마산 유적

당마산 유적은 당하산 유적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500m 떨어진 낮은 구릉상에 위치한다. 현재 이곳은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 혼펠스 격지 1점이 수습되었다.

3. 함평 장교리 월봉 유적

32) 연세대학교박물관, 『한국의 구석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226~230쪽.
이외에도 최근 목포대학교 이헌종 교수의 지표조사에 의해 완도군(본섬)의 1지점과 해남군의 8개 지점(구성·황조·덕곡·월산· 신평·척북·방죽)에서도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33)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함평 장년리 당하산 유적』, 2001.

월봉유적은 월봉마을의 낮은 구릉상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곳 구릉에서는 석영제 암편과 자갈 등이 확인되며 찌르개 1점이 수습되었다.

4. 손불 석창리 대발 유적

석창리 대발유적은 바닷가에 연접한 마을의 낮은 구릉상에 위치하는데, 이곳에서는 석영제 석재를 대각선으로 박리한 몸돌 1점이 수습되었다.

5. 손불 석창리 석계 유적

석창리 석계유적은 석계마을에 이르기 전 바닷가에 연접한 낮은 구릉상에 위치하는데, 이곳에서 석영으로 만든 돌날몸돌 1점을 수습하였다.

6. 손불 석창리 해창 유적

석창리 해창유적은 해창마을의 낮은 구릉상에 위치하는데, 이곳에서는 석영으로 만든 돌날몸돌 1점과 긁개 1점이 수습되었다.

7. 월야 예덕리 만가촌 유적

예덕리 만가촌 유적은 만가촌 고분의 시굴 트렌치 하단 벽면에서 가로날 도끼 1점이 확인되었다.

제2절 중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유적·유물

1. 함평 장년리 당하산 유적

장년리 당하산 유적은 신석기 시대 유적뿐 아니라 이전 시기인 중·후기 구석기 시대와 이후 시대인 청동기와 철기시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대의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곳 유적에서 중석기 시대 및 신석기 시대 문화층은 표토에서 약 10㎝ 정도 하강된 지점에서 확인되었는데, 확인된 유구는 노지(화덕자리) 2기를 비롯한 부석유구(깐돌) 2기, 원형유구 2기, 석기제작소 등이었고, 유물로는 석착, 돌도끼, 굴지구, 원형긁개, 측면긁개, 칼, 끌, 갈돌, 갈판,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신석기 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보고 있다.

1) 노지(화덕자리)

1호 : 유적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돌들이 대부분 불을 먹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2호 : 화덕자리 주변에서 돌도끼 4저, 다량의 토기편이 수습되었고, 여러 점의 격지가 출토되어 2호 주변에서 석기 제작이 일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접한 곳에서 다양한 무늬의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사용 흔적이 있는 도끼도 나왔다.

2) 부석유구(깐돌)

깐돌유구는 방형과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였고, 유구 안에서 신석기 시대의 토기와 석기들이 출토되었으며 바닥에 특별한 시설이 없이 편평하게 돌을 배치하였다. 이 깐돌유구는 북한의 청호리, 강원도 춘성군 내평리 등에서 발견된 유적과 비교되며 그 기능은 집터, 토기 굽는 장소, 조리장소 등 다양하다.

3) 원형유구

특별한 시설은 없고 몇 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4) 석기제작소

이 유적의 여러 곳에서 석기를 제작한 흔적을 볼 수 있고, 한 지점에는 석재를 다른 곳에서 떼어 옮겨와 모아 놓았으며, 주변에서 여러 종류의 망치와 격지, 돌도끼편들이 출토되었다.

제3절 청동기 시대와 초기철기 시대 유적 유물

1. 고인돌

1) 고인돌의 성격과 형식 분류

고인돌은 흔히 지석묘(支石墓)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묘제이다. 영국의 그린 대뉴얼(Glyn Daniel)이 고인돌은 남부 프랑스, 리베리아의 지중해 연안에서 발생하여 인도를 거쳐 일본의 규슈(九州)지방에 전파되었다는 설을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인돌 기수(基數)의 90%가 한반도에 분포해 있고, 또 한반도에 분포된 기수의 90%가 우리 전남에 분포해 있다. 따라서 한반도 그도 전남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 함평지역의 고인돌 분포상은 어떠할까. 대체로 우리 함평지역은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그 분포 기수가 상위에 속한다.

하천이 있으면 평야가 전개되게 되고 들이 드넓으면 사람이 모여 살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건에 뒤질게 없다는 듯, 남쪽에는 영산강의 중상류가 흐르고 서쪽에는 지류인 함평천, 동쪽에는 역시 지류인 고막원천이 흐르고 있어 유역에 넓고 넓은 들이 전개되어 있다.

땅이 기름져 농사가 잘 되고 높지는 않으나 북쪽에는 산이 첩첩히 있어 산 짐승이 많으며 더욱이 서쪽은 황해의 함평만이 천혜의 은전를 베푸는 곳, 고대인들에게는 더없이 교통이 편리하고 물자가 풍부한 곳이어서 살기 좋은 곳이었을 것이다.

우리 함평군에는 9개 읍면 전역에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청동기시대에 이미 군내 전역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당시 고인돌 1기를 축조하는데 평균 200~300명의 연인원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 함평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가를 추산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고인돌의 모습은 대체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을까. 그 형식에 따라 고인돌은 크게 북방식과 남방식 등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분류된다.

(1) 북방식(北方式)

북방식 고인돌은 지상에 넓은 판석을 세워 그 안에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덮게 돌을 얹어 놓은 형식으로 주로 한강 이북에 분포한다. 이러한 형식과 모양이 비슷한 우리 함평군의 고인돌은 대체로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을 비롯해 자풍리 노송, 신광면 삼덕리 덕천, 월야면 용암리 연화, 월악리 연당 고인돌 등을 들 수 있다.

(2) 남방식(南方式)

남방식 고인돌은 북방식과 달리 지하에 석실을 만들고 지상에 덮게 돌을 얹은 형식을 남방식이라 한다. 이 형식의 고인돌은 다시 고임돌이 있는 고인돌(支石式, 有支石)과 고임돌이 없는 고인돌(蓋石式, 無蓋石式)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고임돌이 있는 고인돌(支石式, 有支石)

이 형식은 고임돌의 형태에 따라 또 다시 다음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1식(式) : 고임돌이 3~4개로 석실(石室)과 고임돌이 독립된 형식으로 다른 고인돌 보다 정제되고 외관상 거대한 것을 말하는데 전형적인 남방식이라고 한다. 이 형식에서 고임돌은 주형(柱形)과 괴석형(塊石形)이 있는데, 주형 고임돌에는 대부분 판석상(板石狀)의 덮게 돌을 얹었고, 괴석형의 고임돌에는 원형이나 방형의 크나 큰 괴석을 덮게 돌로 사용하였다.

주형 고인돌의 대표적 예는 영광군 백수면 천정리와 대전리 고인돌이며, 괴석형 고인돌은 전남의 내륙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월봉마을 함평이씨 선산에 군집되어 있는 고인돌을 들 수 있는데 축조 연대는 주형 보다 약간

뒤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고인돌은 우리 군에 많이 분포해 있다. 규모가 큰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함평읍 자풍리 신풍 고인돌 : 장축 6.30m, 폭 3.68m, 두께 0.93m

△ 월야면 용월리 용두 고인돌 : 장축 7.40m, 폭 4.60m, 두께 1.90m(군내에서 가장 큼)

△ 대동면 향교리 중교 고인돌 : 장축 5.40m, 폭 5.00m, 두께 2.40m

② 2식(式) : 밖으로 보기에는 고임돌이 없이 석실 일부가 노출된 것으로 보이나 이 형식은 덮게돌 아래에 7~8개 또는 그 이상의 고임돌을 놓고 그 중 일부는 석실을 구성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대표적 예는 나주군 봉황면 만봉리 고인돌을 들 수 있고, 우리 군에서는 해보면 산내리 송산, 함평읍 기각리 권씨 소유 산기슭 고인돌 군에서 볼 수 있다.

나) 고임돌이 없는 고인돌(蓋石式, 無支石式)

고임돌이 없는 고인돌은 개석식, 무지석식 또는 변형고인돌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형식의 고인돌은 전국적으로 많은 기수가 분포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석이 있는 고인돌 기수에 비해 절반가량 분포해 있다. 이 형식의 고인돌은 다시 다음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섯 가지로 세분해 볼 수 있다.

① 1식(式) : 석실을 할석(割石. 쪼갠 돌)이나 냇 돌로 쌓고 있는 형식.

② 2식(式) : 석실을 판석(板石)으로 축조하고 있는 형식. 일부 학자들은 이 형식을 북방식으로 분류함.

③ 3식(式) : 2중의 덮게 돌이 있는 형식. 석실의 뚜껑을 마련하고 덮게 돌을 얹은 형식.

④ 4식(式) : 지하 석실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토광(土壙)인 형식.

⑤ 5식(式) : 고임돌이 덮게 돌의 주위를 돌아가며 일정한 형태가 없는 석실을 가진 형식. 대동면 향교리 향교에서 덕산리 아차동에 이르는 고인돌군에 이 형식이 많다.

2) 함평군 고인돌의 분포(分布)에 따른 분석

(1) 읍면별 분포

함평군 고인돌의 읍면별 분포 상황을 보면 다음의 < 표 1 >과 같다

< 표 > 함평군 고인돌 읍면 분포 상황

* 훼손·소멸 기수 : 기존조사 최고기수 – 2003년 동신대박물관 조사 현존기수
* 1999년 이후 현존기수는 실측 불가 기수까지 포함됨

읍면	군집번호	고인돌 유적지 이름	1984년 함평군사	1984년 광주박물관	1991년 리현석조사	1993년 목포대박물관	1999년 함평군사	2003년 동신대박물관	훼손소멸기수	비 고
함평읍	1	기각리 기산초등학교	5	훼손	1	1	1	1	4	
	2	기각리 권씨 소유 산기슭		7	7		2	미확인	7	
	3	내교리 내대화	8	훼손				미확인	8	
	4	함평리 잣고개(城峙)	5	훼손				미확인	5	
	5	장년리 함평서교 앞	5	훼손				미확인	5	
	6	진양리 화동	3	훼손				미확인	3	
	7	진양리 각골			2	2	2	2		
	8	진양리 양림						2		
	9	대덕리 고양촌(가)	5	6	6	9	9	3		
	10	대덕리 고양촌(나)						6		
	11	만흥리 초동			4		4	4		이씨선산 앞
	12	만흥리 국산			1	1	1	1		마을 뒤 구릉
	13	만흥리 만년						1		
	14	자풍리 신풍(가)	7	5	12	5	5	2	4	
	15	자풍리 신풍(나)						6		
	16	자풍리 노송(가)	5	11	34	10	16	6	14	
	17	자풍리 노송(나)						14		
	18	자풍리 비아			11	12	12	12		
	19	수호리 송정			5	4	4	3	2	
	20	수호리 예동						1		
소 계		조사 군집수 (20)	43	29	83	44	56	64	52	현존 군집수 (15)
손불면	21	죽장리 851번지	1	미확인				미확인	1	
	22	죽장리 장동(담골잿등)	2	5	5	1	1	1	4	
	23	죽장리 수철	1	미확인				미확인	1	
	24	북성리 차경			7			미확인	7	
	25	북성리 사기				8	8	8		
	26	양재리 장재동				2	2	2		
소 계		조사 군집수 (6)	4	5	12	11	11	11	13	현존 군집수 (3)
신광면	27	송사리 삼천동	2	미확인	5	3	3	3	2	
	28	송사리 사간						2		
	29	보여리 보전	1	미확인	1	1	1	1		
	30	삼덕리 덕천	2	9	9			미확인	9	
	31	원산리 덕동	5	6	6			미확인	6	
	32	가덕리 오두산 앞	1					미확인	1	
	33	계천리 사천(사동)	1	미확인		2	2	2		
	34	동정리 냉천						1		
	35	백운리 신기						1		
	36	함정리 무송						3		
소 계		조사 군집수 (10)	12	15	21	6	6	13	18	현존 군집수 (7)

읍면	군집번호	고인돌 유적지 이름	1984년 함평군사	1984년 광주박물관	1991년 리현석조사	1993년 목포대박물관	1999년 함평군사	2003년 동신대박물관	훼손 소멸 기수	비 고
학교면	37	마산리 표산			1		4	1	3	
	38	복천리 두동			1		1	1		
	39	학교리 영화촌			7	7	7	7		
	40	금송리 신곡제(新谷堤)	10	6	6		6	미확인	10	
	41	금송리 금산	10					미확인	10	
	42	월호리 기동	1	미확인	6	1	1	1	5	
	43	월호리 배야			5	1	1	1	4	
	44	곡창리 신곡(가)			14	17	17	17		
	45	곡창리 신곡(나)			2	2	2	2		
	46	곡창리 신곡(다)			12	12	12	12		
	47	곡창리 원곡창(가)						10		
	48	곡창리 원곡창(나)			7		1	1	6	
	49	금송리 방우동(가)				2	2	2		
	50	금송리 방우동(나)				6		3	3	
	51	금송리 반곡						1		
	52	석정리 동림(가)						5		
	53	석정리 동림(나)						1		
	54	석정리 동림(다)						7		
소	계	조사 군집수 (18)	21	6	61	48	54	72	41	현존 군집수 (16)
엄다면	55	엄다리	3					미확인	3	
	56	엄다리 성산						1		
	57	영흥리 월산			7		2	7		
	58	영흥리 송현						1		
	59	삼정리 벽류정(가)						3		
	60	삼정리 벽류정(나)						1		
	61	삼정리 수정동						1		
	62	송로리 노상						3		
소	계	조사 군집수 (8)	3		7		2	17	3	현존 군집수 (7)
대동면	63	용성리 금성동(가)	5					11		
	64	용성리 금성동(나)						2		
	65	용성리 괴정						9		
	66	용성리 정창						1		
	67	덕산리 고산동	1	1				3		
	68	덕산리 아차동(가)	21	20	20	16	16	13		
	69	덕산리 아차동(나)						16		정확한 기수 미확인
	70	덕산리 아차동(다)						3		
	71	향교리 상교(중교)	6		15	20	15	미확인	20	명교와 중첩된듯함
	72	향교리 명교						20		
	73	향교리 동교			8	7	1	7	1	
	74	강운리 상강(가)	1	2	2	2	2	1		
	75	강운리 상강(나)						1		
	76	강운리 산장앞(학송정)	7	4	4			미확인	7	
	77	월송리 월송초등학교	12	12	12	12	12	12		
	78	월송리 시랑동	20	6	14			미확인	20	
	89	월송리 월송제		3	9		3	8	1	
	80	월송리 동암고개(가)						6		
	81	월송리 동암고개(나)						4		
	82	금곡리 금곡						1		
	83	금곡리 나막(가)	30	27	28	20	20	20	10	

읍면	군집번호	고인돌 유적지 이름	1984년 함평군사	1984년 광주박물관	1991년 리현석조사	1993년 목포대박물관	1999년 함평군사	2003년 동신대박물관	훼손 소멸 기수	비 고
대동면	84	금곡리 나막(나)		6				7		정확한 기수 미확인
	85	금곡리 나막(다)	7	10	10	3	3	1	9	
	86	상옥리 옥동(가)	12	9	8	5	5	5	7	
	87	상옥리 옥동(나)						4		
	88	상옥리 매동(가)						5		
	89	상옥리 매동(나)						9		
	90	백호리 백련						1		
	91	백호리 보화						1		
소 계		조사 군집수 (29)	122	100	130	85	77	171	75	현존 군집수 (26)
나산면	92	구산리 광영(가)	20	25	25	24	24	2	6	
	93	구산리 광영(나)						17		
	94	구산리 원구산(가)				10	10	2	8	
	95	구산리 원구산(나)	3	6	6	6	6	6		
	96	구산리 내동						2		
	97	덕림리 덕림교 앞		5	5			미확인	5	
	98	덕림리 죽림(가)		2	2	3	3	5		
	99	덕림리 죽림(나)						1		
	100	덕림리 백양동			2		1	1	1	
	101	원선리 원선다리 앞		8	8			미확인	8	
	102	원선리		9	11			미확인	11	
	103	원선리 유촌	20	29	29	30	6	23	7	
	104	수상리 성재동						4		
	105	수하리 백인동			6	5	5	5	1	
	106	수하리 마산						4		
	107	수하리 화전						1		
	108	나산리 방하			2		2	소멸	2	
	109	삼축리 나산초등학교 옆	2	미확인			1	미확인	2	
	110	삼축리 동축(가)				5	5	6		
	111	삼축리 동축(나)						1		
	112	삼축리 백야산						1		
	113	삼축리 상장기						1		
	114	삼축리 상축						5		
	115	월봉리 점골			13	13	13	7	6	
	116	월봉리 안영동	13	12	12	8	8	8	5	
	117	월봉리 생동		9	11		11	소멸	11	
	118	월봉리 월평		6	7		7	소멸	7	
	119	우치리 신촌			18	19	19	10	9	
	120	우치리 계동						1		
	121	이문리 사정			4		4	5		
	122	용두리 오수	13		2	3	3	3	10	
	123	용두리 용수	12	12	12	12	12	12		
	124	용두리 선박(가)				2	4	2		
	125	용두리 선박(나)						2		
	126	초포리 입석	5	8	8	8		5	3	
	127	초포리 와락		7	7			소멸	7	
	128	신평리 신촌(가)				7	7	2		
	129	신평리 신촌(나)						7		
	130	구산리 삼구동				6	6	6		
	131	송암리 송암						1		
소 계		조사 군집수 (40)	88	138	190	161	157	158	109	현존 군집수 (32)

읍면	군집번호	고인돌 유적지 이름	1984년 함평군사	1984년 광주박물관	1991년 리현석조사	1993년 목포대박물관	1999년 함평군사	2003년 동신대박물관	훼손 소멸 기수	비 고
해보면	132	상곡리 운곡	20	19	23	22	22	22	1	
	133	산내리 노적	7	9	12		12	이전(1)	11	1999년 발굴, 송산으로 이전 복원됨
	134	산내리 한골	15	17	20	16	16	이전(7)	13	
	135	산내리 송산						8		노적·한골, 이전복원
	136	해보리 월현(지곡)	20	9	9	2	2	미확인	20	저수지 축조 시 훼손
	137	금계리 저수지	12						12	수몰
	138	금계리 금산			2		2	2		
	139	금계리 구수동	7	5	5		5	미확인	7	
	140	상곡리 상모	4				0	미확인	4	
	141	대창리 성대						3		
	142	문장리 하귀						1		
소 계		조사 군집수 (11)	85	59	71	40	59	36	68	현존 군집수 (5)
월야면	143	용월리 용두(가)	25	6	6	13	19	1	23	
	144	용월리 용두(나)						1		
	145	용월리 월봉	15	15	15	16	16	16		
	146	월악리 연당(돌뫼)	2	6	6	4	6	4	2	
	147	용정리 용산			3	5	5	5		
	148	용암리 신성		4	7	4	4	4	3	
	149	용암리 연화	5	5	5	5	5	5		
	150	월계리 석계	11	12	14	15	15	15		
	151	정산리 내정			2		2	3		
	152	예덕리 발산	3	미확인	3	3	3	3		
	153	계림리 주곡	5					미확인	5	
	154	외치리 외치				2	2	1	1	
	155	양정리 진천(眞泉) 옆					5	미확인	5	
	156	양정리 석화산						2		
소 계		조사 군집수 (14)	66	48	61	67	82	60	39	현존 군집수 (12)
총 계		조사 군집수 (156)	444	400	636	462	504	602	418	현존 군집수 (123)

* 1999년 『함평군사』에 수록된 <표> 함평군 고인돌 읍면 분포 상황의 통계 수치와 위의 <표> 통계 수치가 일부 맞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다. 이는 당시 통계수치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기존에 조사 정리된 각종 보고서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그 수효를 정리였음을 밝혀둔다.

함평군의 고인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는 1982년 『내고장 전통가꾸기』 책자를 발간하면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 때 조사 내용을 보면 34개 군집에서 260여 기가 확인되었는데 당시 조사는 지극히 미비하였다.

이어 조사를 다시 재개하여 1984년 8월에는 『함평군사』에 54개 군집 444기를 확인 조사하여 수록하였으나 이때도 마을 사람들의 제보 부족과 조사진의 인력부족 및 조사방법 미숙 등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력이 투입되어 함평군의 고인돌을 조사한 것은 1983년 11월이었다. 이때 국립광주박물관과 백제문화개발연구원의 조사진에 의해 약 1개월간에 걸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이듬해인 1984년 9월 『함평문화유적지표조사』(광주박물

관학술총서 제5집)라는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당시 함평군의 고인돌 현황을 보면 43개 군집 400기였다.

이어 1990년 12월말까지 리현석(작고)에 의해 군내 고인돌 유적을 현지 답사하여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1991년 2월 『전남문화재』 (제3집)에 「함평군의 고인돌·고분연구」라는 논문으로 게재되어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당시 조사된 함평군의 고인돌은 73개 군집에서 636기가 확인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 이듬해인 1992년에는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1993년 5월 『함평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학술총서 제30책)이라는 보고서에 59개 군집에서 조사 확인된 462기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그러나 이 때도 조사진이 함평지역에 대한 자세한 지리를 파악하지 못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고인돌 유적이 많았다.

이에 함평군사편찬위원회에서 1995년 6월말까지 조사 정리된 유적을 확인하고, 미 조사된 유적을 추가 조사하여 1999년 2월 『함평군사』 (제1권)에 정리 수록하였는데, 이 때의 조사 현황을 보면 75개 군집에서 504기가 현존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함평군의 고인돌에 대한 종합적인 최근의 조사는 2003년 동신대박물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같은 해 9월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함평군)라는 책자로 발간되었고, 이 책에 정리된 고인돌 현황을 보면 123개 군집에서 총 602기가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 확인된 함평군의 고인돌은 1982년 최초 조사(260여기)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약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사가 거듭되면서 약 340여 기가 추가 확인되었고, 더불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많은 수의 고인돌이 훼손 또는 파괴, 소멸되었다.

종합적으로 앞의 <표> 총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평군의 고인돌은 현존 및 훼손·소멸 기수를 모두 포함 총 1,020기가 조사 확인되었고, 이중 41%에 해당하는 418기가 훼손·파괴·소멸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행정구역별로 그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현존 훼손·소멸 기수를 포함하여 나산면 267기, 대동면 246기, 함평읍 116기, 학교면 113기, 해보면 104기, 월야면 99기, 신광면 31기, 손불면 24기, 엄다면 20기 순으로 나타났다. < 앞의 표 참조 >

이로 미루어 볼 때 청동기시대 함평지역은 나산면과 대동면지역에 좀더 강력한 집단의 무리들이 살았을 것으로 보여 지고, 이어 함평읍과 학교면, 해보면, 월야면 등지에도 이와 비슷한 세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에 손불면과 신광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분포수가 현격히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이 산악지역으로 당시 맹수들의 피해가 심해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20기 밖에 분포되지 않은 엄다면 지역의 경우는 함평천이 영산강과 합류하는 하류로서 홍수의 피해가 심해 사람들이 살기를 꺼려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고인돌의 훼손 또는 파괴, 소멸 등의 원인은 대체로 농경지 정리 및 도로 개설 등 주로 건설 현장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고, 특히 1993~1994년 사이에 피해가 매우 컸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함평군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은 그 수효가

매우 많아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떠나 거의가 개밥의 도토리 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배려에 의해 고인돌 주위에 잔디를 심고 조경을 하여 보존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갈수록 그 피해상은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행이도 최근 들어 여러 지자체에서 고인돌이 대규모로 무리지어 있는 곳이나 또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것에 한해 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이를 관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으나 아직도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에 대한 관리대책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어쩔 수 없이 꼭 치워야할 여건이라면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 필히 발굴조사를 통해 기록으로 남긴 뒤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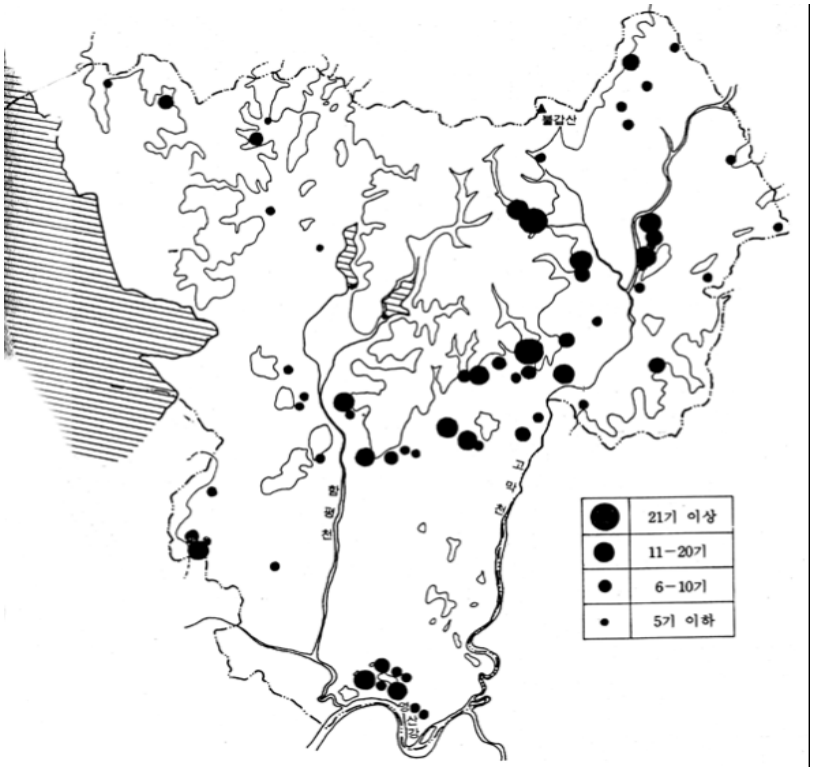
(2) 수계(水系)에 의한 분포

다음의 <그림> 함평군의 고인돌 분포도를 보면, 함평천과 고막원천 모두 냇가를 따라 양옆으로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함평천과 고막원천을 가른 것은 천주봉에서 철성산으로 이어지는 지맥으로 백제 때 함평 쪽은 굴내현(屈乃縣), 고막원천 쪽은 다지현(多只縣) 이었다.

백제가 두 현을 두었던 것이 마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이들 두 현의 세력권이 서로 다른 소국(小國)이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이 관계가 고분시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양 지역에 군집을 이루고 있는 대형 고분들이다.



<그림> 함평군의 고인돌 분포도

함평군의 고인돌을 수계에 따라 분류해 보면, 함평천 수계에 409기(분포비율 40.10%), 고막원천 수계에 592기(58.04%), 함평만 수계 17기(1.67%), 황룡천 수계 2기(0.20%)로 고막원천이 약 200여기가 많다. < 다음 표 참조 >

이는 청동기시대에 고막원천 유역이 함평천 유역 보다 번성했음을 보여 주는 물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양 수계 모두 상·하류 보다는 중류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중류 지역이 홍수의 피해도 적고 들이 넓어 살기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함평천 서쪽은 서해와 접하는 함평만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함평만에 접하는 곳에는 고인돌이 손불면의 사기, 장재, 차경 등 3곳에 17기가 있을 뿐이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당시 고인돌 문화를 이루며 함평에 살았던 청동기인들은 바다에서 수렵하는 생활 보다는 농사를 지으며 때로는 민물고기를 낚고 야산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표 > 수계에 따른 고인돌 분포

* 분포 기수(基數) : 현존기수+훼손기수(2008. 12.31 현재)

냇 이 름	분포기수	분 포 지 와 분 포 기 수 (基數)
함평천 상류 소지류 동정천(東井川)	19	담골(5), 851번지(1), 수철(1), 삼천동(5), 보전(1), 가덕(1), 사동(2), 사간(2), 냉천(1)
함평천 상류 소지류 신광천(新光川)	19	덕천(9), 덕동(6), 무송(3), 신기(1)
함평천 중류 서(西)	40	기산 (5), 내대(8), 잣고개(5), 함평서교(5), 화동(3), 고양촌(9), 각골(2), 양림(2), 예동(1)
함평천 중류 동(東)	113	권씨선산(7), 금성(13), 고산(3), 아차동(32), 상·중교(20), 명교(20), 동교(8), 괴정(9), 정창(1)
함평천 하류 소지류 학교천(鶴橋川)	64	표산(4), 상강(2), 학송(7), 월송교(12), 시랑동(20), 월송제(9), 동암(10)
함평천 하류 소지류 엄다천(嚴多川)상류	69	초동(4), 국산(1), 만년(1), 신풍(12), 노송(34), 비아(12), 송정(5)
함평천 하류 소지류 신곡천(新谷川)상류	65	신곡(17), 바윗골(2), 바윗골 고개(12), 원곡창(17), 영화촌(7), 신곡제(10)
함평천 하류 소지류 무안천(務安川)중하류	20	엄다리(3), 월산(7), 송현(1), 벽류정(4), 수정동(1), 노상(3), 성산(1)
소 계	409	
고막원천 상류 소지류 용암천,삼계천 상류	50	연당(6), 용산(5), 신성(7), 연화(5), 석계(15), 내정자(3), 발산(3), 계림(5), 하귀(1)
고막원천 상류 소지류 해보천(海保川) 상류	91	운곡(23), 노적(12), 한골(20), 월현(20), 금산(2), 구수동(7), 상모(4), 성대(3)
고막원천 중류 소지류 월봉천(月奉川)	94	나산초교(2), 점골(13), 안영(13), 생동(11), 월평(7), 신촌(19), 입석(8), 와락(7), 동축(7), 백야(1), 상장기(1), 삼축(5)
고막원천 중류 소지류 이문천,식지천	92	사정(5), 오수(13), 용수(12), 신촌(9), 용두(25), 월봉(16), 선박(4), 진천(5), 석화산(2), 계동(1)
고막원천 중류 소지류 평릉천(구 원산천)	111	광영(25), 원구산(16), 내동(2), 덕림교(5), 죽림(6), 백양동(2), 원선교(8), 삼구(6), 원선리(원선교와 유촌 사이, 11), 유촌(30)
고막원천 중하류	99	두동(1), 나막 가나다(47), 금곡(1), 매동(14), 백련(1), 보화(1), 옥동(16), 백인(6), 방하(2), 마산(4), 화전(1), 성재동(4), 송암(1)
고막원천 하류	55	금산(10), 금계리 저수지(12), 기동(6), 방우 가(2), 방우 나(6), 배야(5), 반곡(1), 동림(13)
소 계	592	
함평만(咸平灣) 수계	17	사기(8), 장재(2), 차경(7)
황룡천(黃龍川) 수계	2	외치(2)
소 계	19	
합 계	1,020	

(3) 고인돌 군집지(群集地)와 주거지(住居地) 관계

많은 사람들이 고대인들은 사자(死者)도 생영(生靈)이 있어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생각에서 무덤을 주거지 곁에 두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리현석(작고)은 조사한 함평군의 고인돌 군집지 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생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즉 함평군의 고인돌 중 인근을 묶어 현존 기수와 훼손 기수를 합하여 40기가 넘는 군집을 가려보니 8곳이고 이들 군집지에 분포된 기수가 539기로 함평군 전체 분포기수의 53%를 차지했다. < 다음 표 참조 >

이들 군집지를 골짜기에 있는 군집지는 "골"자를 붙이고 평야지에 있는 군집지는 "골"자를 넣지 않고 구분해 보니 "골"의 군집지가 5곳으로 군집지 분포 기수의 59%를 차지하는 318기였다.

골자를 붙인 곳 중 감악골, 월송골, 철성골은 주위에 약간의 들이 있어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주거지가 곁에 있을 수도 있으나 논골과 산안골은 현재도 함평군에서 오지 중의 오지로 손꼽히는 곳인데 논골에 92기, 산안골에 63기가 분포하는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다 논골에는 10~20t 그리고 21~30t 가량으로 추산되는 고인돌이 각각 10기씩이며, 산안에는 10~20t 추산 14기, 21~30t 추산 2기, 31~50t추산 1기 등이 있어 연인원 동원에 합당하는 사람이 살았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고인돌을 축조 할 수 있는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 거주할 여건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제시된 기록이 있어 주목되어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84년 함평군의 문화유적을 지표 조사한 서성훈(작고)의 보고서[34]는 참고된다.

> "한골 지석묘군 17기, 송산에서 동진하는 개울물을 따라 협곡을 올라가면 또 한 무리의 지석묘가 나타난다. 노적 지석묘로부터는 150m 서쪽에 위치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 좁은 계곡에 많은 지석묘군이 무리 짓고 있는가는 갑자기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계곡 주위에는 개석을 채취하기 용이한 채석지가 여러 곳에 보이고 있어 이런 조건하에서 연유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 주장은 채석이 가능한 지역 내에 길지(吉地)를 잡아 고인돌을 축조하였다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경작면적이 없는 논골과 산안골에 고인돌이 군집된 이유가 성립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수 십리, 수 백리 밖에서 사는 사람이 묘지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논골은 3km 밖의 나산평야에 한골은 역시 2~3km 밖의 상곡평야에 근거지를 두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인돌 축조는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 관계보다는 거석(巨石)을 옮겨야하는 과중한 부담 때문에 채석이 가능한 지역의 길지와 관계가 컸으리라는 말이 된다.

34) 국립광주박물관, 『함평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4. 80쪽.

또한 산안골 3km 밖은 모평(牟平)이 자리하고 있다. 모평은 백제 때 다지현(多只縣)에 속하던 곳으로 조선조 초까지 현(縣)의 치소(治所)였다. 따라서 산안골 고인돌묘의 주인공과 모평에 살았던 청동기인들과의 관계는 컸으리라 짐작된다.

< 표 > 고인돌 군집지 여건 분석표

고인돌 군집지 명 칭	대상 지역명	분포 기수	수계(水系)	지리적 여건	농토 등 생활 여건	주변 여건	채석가능 지역여건	
							지역명	고인돌과의 거리
감악골 군집지	함평읍 자풍리	58	함평천 소지류 엄다천 상류	감악산 계곡, 해발 0~90m	약간의 들이 있다.	1km 밖에 넓은 들이 있음	감악산	근(近)100m 원(遠)1km
월송골 군집지	대동면 강운리 향교리	57	함평천 소지류 학교천 상류	철성산이 3면을 에워싼 해발 40~70m	서쪽에 약간의 들	2km내에 넓지않은 들이 있음	월송제 앞	근(近)100m 원(遠)800m
철성골 군집지	대동면 금곡리	48	고막원천 중류	철성산이 에워싼 해발 40~50m 계곡	협곡	1 km 동쪽에 옥동평야	철성산	근(近)300m 원(遠)600m
논 골 군집지	나산면 원선리 구산리 일부	92	함평천 소지류 평릉천 상류	산골 오지	협곡	3km 밖에 나산평야	원선 앞 산	근(近)500m 원(遠)2km
산안골 군집지	해보면 산내리 상곡리	63	고막원천 중류 산내천 상류	산골 오지	협곡	3km 밖에 상곡평야	한골 옆 산	근(近)300m 원(遠)1.5km
아차동 군집지	대동면 덕산리 향교리	83	함평천 중류	저평지	남,서,북 넓은 들	대동, 함평평야 전개	향교약마 등	근(近)50m 원(遠)1.5km
월 봉 군집지	나산면 월봉리 초포리 우치리	79	고막원천 중류	천주봉 남쪽 저평지	나산평야	남쪽의 넓은 들과 경계함	월봉제 옆 산	근(近)500m 원(遠)1.5km
용 두 군집지	나산면 용두리 이문리 월야면 용월리	59	고막원천 중류	오수산 밑 저평지	서,남,북 들과 경계	나산, 해보평야	오수 마을 뒷산	근(近)500m 원(遠)1.5km
계		539						

(4) 수습 유물

함평에 산재해 있는 고인돌 가운데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도한 사례는 최근에 들어서 몇 군데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해보면 송산리 송산을 비롯하여 함평읍 진양리 각골, 대동면 향교리, 학교면 곡창리 신곡 고인돌 등이 바로 그러한 유적들이다.

먼저 해보면 송산리 송산 고인돌은 1999년 10월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유적으로 해보면 상곡2구 한골 밭 114, 87번지, 논 12번지 일대와 송산리 밭 119번지 일대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실시하는 농지개발택지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축조 공사로 유적이 물에 잠기게 되자 발굴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은 광주박물관 조사 때에 2개군 26기로, 목포대학교 박물관의 조사 때에 1개군 16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이미 보고 된 운곡 고인돌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인돌이 파괴, 이동되어 2기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 조사한 2기의 고인돌 외에 6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는데, 1호 고인돌만 하부에 무덤 방이 있었다. 상석의 무게는 5톤 이하부터 40톤 이하까지 다양하며 주로 6~10톤이며 1호는 32톤이다. 출토유물은 한 점도 없었는데 이는 영산강 유역 지석묘의 일반적인 양상과 같았다. 이 고인돌은 해보면 산내리 228-3번지로 이전 복원하였다.

함평읍 진양리 각골 고인돌은 서해안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덮개돌이 덥힌 1기와 하부의 널방(묘실)이 부분적으로 남은 1기였다. 이중 덮개돌이 덥힌 고인돌은 하부구조가 교란되어 바닥 부위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고, 출토유물은 없었다. 이 고인돌들은 백곡마을 묘제공원에 옮겨 복원하였다.

학교면 곡창리 신곡 고인돌은 (주)H·H레저에서 시행하는 골프장 건설공사지역에 포함되어 훼손의 위험이 있는 신곡 고인돌 나군의 고인돌 1기를 2003년 8월 전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지표조사에서 보고된 고인돌 2기 가운데 1기만 남아 있었으며 다른 1기는 등산로 개설 중에 매몰되었다고 하였다. 고인돌은 상석과 지석 일부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상석의 평면과 단면형태는 장타원형이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장축 570㎝, 단축 330㎝, 두께 120㎝이고, 무게는 32톤 정도이다. 상석 하부에 5개의 지석이 노출되었으나 묘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석의 배치 상태에서 중앙에 방형의 지석이 놓여 있는 점이 특징적이며 조사가 완료된 다음 이전 복원하였다.

이 밖에도 함평에 산재한 고인돌 주위에서 또는 파손된 고인돌 유적에서 각종 유물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즉 나산면 구산리 광영 고인돌군이 있는 밭에서 마제석검 1자루[35], 초포리 입석 고인돌군이 있는 밭에서 반달형 돌칼 1점, 그리고 국립광주박물관 조사진이 1984년 지표조사를 할 때 초포리 와락 고인돌군 훼손지에서 1단병식 마제석검과 무문토기편[36]을 수습하였다.

한편 근년에 이르러 몇 군데서는 고인돌을 민간신앙으로 신성시하여 잘 보존한 예[37]가 있고, 함평읍 만흥리 국산 1기, 수호리 송정 1기, 신광면 송사리 삼천동 1기, 학교면 마산리 표산 1기, 월야면 용암리 신성 3기, 연화 2기 등에는 성혈(性穴)이 있다.

(5) 고인돌 군집지 보존 현황

○ 함평읍 기각리 기산초등학교 고인돌군

원래는 5기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기산초등학교 교사 앞에 1기가 남아 있다. 상석의 형태는 방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상석의 크기는 장축 190cm, 단축 180cm, 두께 90cm이다.

35) 전체길이 36cm, 폭 4cm, 손잡이 길이 8.5cm, 손잡이 폭 6.4cm, 두께 1cm, 오르도식 돌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며 제작 상한 연대는 BC 3~4세기(국립광주박물관 소장).
36) 복원한 결과 모래알이 섞인 황갈색 점토질 태토로 구운 평저형 항아리.
37) 함평읍 자풍리 노송 길 옆 고인돌 : 촛불을 켜고 소원 성취를 빌었다.

○ 함평읍 기각리 권씨 소유 산기슭 고인돌군

대동면사무소에서 군도(郡道)를 따라 북쪽인 아차동 쪽으로 150m 가량 가면 오른편 밭에 1열로 6기가 배열하고 1기는 길 왼편에 있었는데 1989년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5기는 훼손하여 없어지고 2기만 남아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이 실측한 바는 아래와 같다.



훼손된 권씨소유 산록고인돌 모습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참 고
	길이(㎝)	폭(㎝)	두께(㎝)			
1	255	170	114	무	북북서-남남동	지금은 없음
2	298	230	150	유	동 - 서	〃
3	330	270	207	무	〃	현존(現存)
4	600	270	217	유	북동 - 남서	지금은 없음
5	276	155	80	〃	남 - 북	〃
6	230	220	168	〃	〃	〃
7	350	190	142	〃	북서 - 남동	현존

○ 함평읍 내교리 내대화 고인돌군

1975년 김학휘의 고고학 지명표에 8기가 있다고 수록되어 있으나 1982년 전통가꾸기편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1기도 남아 있지 않았다.

○ 함평읍 함평리 잣고개 고인돌군

1975년 김학휘의 고고학 지명표에 5기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1982년 전통가꾸기편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모두 인멸되었다.

○ 함평읍 장년리 서교 앞 고인돌군

1975년 김학휘의 고고학 지명표에 5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1982년 전통가꾸기편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모두 인멸되었다.

○ 함평읍 진양리 화동 고인돌군

1975년 김학휘의 고고학 지명표에 3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1982년 전통가꾸기편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모두 인멸되었다.

○ 함평읍 진양리 각골 고인돌군

국도 24호선에서 각골 마을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하느리 쪽을 향해 100m쯤 가면 "정

부인 밀양박씨묘"가 왼쪽에 자리하고 있고 그 묘 뒤에 2기의 고인돌이 있었다. 원래 5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3기는 개간으로 그 흔적도 없다. 현재는 서해안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발굴이 이루어져 백곡마을 묘제공원에 옮겨 복원하였다.

처음 조사 : 1986. 9. 3 목포대학교 박물관 조사진(발굴이전 현황)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유무	장축 방향	개석 상태	참 고
	길이(㎝)	폭(㎝)	두께(㎝)				
1	370	165	50	유	서북 - 동남	장방형	
2	278	185	60	무	〃	타원형	30°정도 기울음

○ 함평읍 진양리 양림 고인돌군

양림마을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의 중앙부에 1기가 있다. 원래 2기였으나 1기의 상석은 마을 우산각 앞으로 옮겨 놓았다. 상석의 형태는 장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으로 하부에 지석 1개가 확인된다.

○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고인돌군

가군 : 고양촌 마을 뒤 새마을 창고 옆에 3기가 있는데 밭으로 개간되면서 훼손이 심하며 개석이 땅에 묻혀 실측이 어렵다.



나군 : 1군에서 동북쪽으로 200m 가량 떨어진 마을이 끝나는 지점의 김양현 밭에 있으며 모두 6기인데 2기는 실측이 불가능하다. 4기는 판석(板石)이 개석을 바치고 있다. 이 고인돌군은 석괴(石塊)로 된 고임돌을 쓰지 않고 지하에 판석으로 석곽을 짜고 개석을 얹은 것으로 표토의 유실로 석곽이 들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긴 벽에 쓰여 졌던 양벽석의 긴 판석들이 개석의 무게를 견디고 있지만 하부 구조는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단벽의 마구리로 쓰였던 벽석들이 이미 유실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고인돌군의 남동쪽 600m 지점에 2기의 고분이 있고 함평천 건너 동쪽에는 아차동 고인돌군이 마주하고 있다.

처음 조사 : 1983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내부구조	장축 방향	장축 방향
	길이(㎝)	폭(㎝)	두께(㎝)			
1	실 측 불 가					
2	280	198	50	판석	서남 - 동북	장 방 형
3	320	210	50	〃	서북 - 동남	〃
4	실 측 불 가					
5	280	150	50	판석	서남 - 동북	장 방 형
6	260	30	?	?	?	장타원형

○ 함평읍 만흥리 초동 함평이씨 선산 앞 고인돌군

국도 24호선에서 초동으로 가는 길을 따라 600m 쯤 가면 함평이씨 5세조 이광봉의 묘역이 오른쪽에 있고 고인돌 4기가 길 왼쪽에 있다. 개석이 모두 땅에 찰싹 붙어 있어 고임돌의 유무는 알 수 없다.

처음 조사 : 1990년 나홍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형태	장축 방향
	길이(㎝)	폭(㎝)	두께(㎝)		
1	350	175	65	장방형	동 – 서
2	210	70	45	세모꼴	〃
3	195	140	40	〃	〃
4	150	147	20	타원형	동북 – 남서

○ 함평읍 만흥리 국산 고인돌

국산마을 뒷산, 일명 첫밭땅이라 부르는 놀이터 서쪽 가장자리에 있다. 규모는 길이 380㎝, 폭 230㎝, 두께 85㎝며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고 고임돌은 3개가 있으며 성혈(性穴)이 있고 개석의 형태는 마름모꼴이다.

○ 함평읍 만흥리 만년 고인돌군

만년마을 동북쪽 200m 거리에 위치한 밭 가장자리에 1기가 있다.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이며 하부에 지석 1기가 보인다.

○ 함평읍 자풍리 신풍 고인돌군

가군 : 장교리에서 자풍리로 들어오는 삼거리의 남쪽 구릉상에 위치한다. 일명 거북바위로도 불리며 현재 밭으로 개간되어 일부가 매몰되거나 상석이 반파되어 있다. 1993년 조사보고에 5기로 되어 있으나 모두 파괴되어 현재는 2기만 확인된다. 확인 가능한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동–서이다. 크기는 장축 216㎝, 단축 190㎝, 두께 80㎝이다.



가군 고인돌의 규모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276	258	105	유	150°	장 방 형
2	328	198	118	무	90°	〃
3	실 측 불 가					
4	630	368	93	유	40°	긴삼각형
5	462	112	46	무	75°	장 방 형

나군 : 신풍마을 서쪽 구릉 말단부에 6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곳으로부터 북쪽에 위치한 구릉 정상부에는 신풍고인돌 가군이 있다. 5기의 고인돌은 밭 가장자리에 모아져 있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100m 거리에 다른 1기가 있다. 상석형태는 모두 타원형이다.

나군 고인돌 규모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280	160	?	확불	동 – 서	장타원형	지금은 없음
2	360	200	50	〃	〃	〃	〃
3	실 측 불 가						〃
4	290	150	80	확불	동 – 서	사 각 형	〃
5	230	170	30	〃	〃	타 원 형	〃
6	290	150	30	〃	〃	〃	〃
7	320	100	60	〃	〃	장타원형	〃

○ 함평읍 자풍리 노송 고인돌군

가군 : 만흥리 삼거리에서 돗재 쪽으로 가는 도로 왼쪽 고성이씨 묘역에 6기가 있다. 1993년 조사 보고에 의하면, 전체 7기로 되어 있으나 6기만 확인된다. 파괴 정도가 심하며 그중 1기에는 치성을 드리고 있다. 가장 큰 상석의 크기는 장축 420㎝, 단축 220㎝, 두께 150㎝이다.

가군 고인돌의 규모 처음 조사 : 1983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216	190	80	유	동 – 서	타 원 형	
2	320	220	95	〃	〃	장 방 형	
3	160	130	45	〃	〃	부정방형	지금은 없음
4	420	220	150	확불	〃	타 원 형	
5	230	120	50	유	〃	부정타원	
6	240	190	35	〃	〃	타 원 형	지금은 없음

나군 : 노송고인돌 가군에서 돗재 쪽으로 가는 도로 200m 지점 남쪽 밭과 산속에 모두 14기가 있다. 군집방향은 북동–남서이며 2열로 배열되어 있다. 가장 큰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장축의 방향은 남–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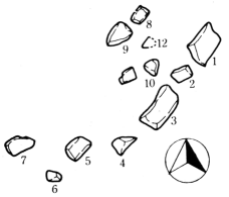
나군 고인돌 규모 처음조사 : 1991년 리현석

번호	개석크기			개석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240	120	40	유	남 – 북	마름모꼴	
2	440	200	90	〃	남서–북동	장방형	정교한 판석 2매
3	550	350	30	〃	〃	타원형	고임돌에서 1m 밀려남
4	350	245	65	〃	〃	삼각형	
5	250	200	50	〃	〃	〃	
6	실측불가						지금은 없음
7	실측불가						〃
8	172	135	35	무	남동–북서	삼각형	
9	430	365	200	확불	동 – 서	부정타원	▽ 정자리 20곳
10	600	320	180	〃	남 – 북	사다리꼴	
11	300	160	125	유	남서–북동	타원형	
12	300	120	50	확불	〃	장타원형	
13	430	235	115	무	〃	사다리꼴	판석 2매로 개석 지탱
14	330	220	70	유	동 – 서	타원형	〃
15	355	300	110	무	남 – 북	〃	지금은 없음
16	156	106	30	확불	북동–남서	장방형	〃
17	153	150	40	유	남 – 북	삼각형	〃
18	180	120	100	무	확인불가	사다리꼴	〃
19	실측불가						〃
20	350	320	100	확불	남서–북동	확인불가	〃
21	290	175	40	〃	남 – 북	〃	〃

○ 함평읍 자풍리 비아 고인돌군

비아마을 남쪽 자풍제(自豐堤) 곁에 동서 방향으로 2열을 이룬 11기가 있으며 12호 고인돌은 저수지 건너편인 남쪽 150m 지점에 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저수지를 만들 때 수기를 파괴하였다고 한다. 이 고인돌군에서 남서쪽 1km에 성재(城峙)가 있고 여기서부터 능선을 타고 서쪽 보평산성과 이어지는 성의 잔적이 있다.



처음 조사 : 1986.7.18 목포대학교 박물관

번 호	개석크기			개석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220	180	70	유	동 – 서	원 형
2	200	150	70	〃	〃	사다리꼴
3	190	150	80	〃	〃	타 원 형
4	200	120	40	무	〃	삼 각 형
5	300	180	100	유	〃	장 방 형
6	140	100	40	〃	〃	
7	150	90	40	무	남 – 북	
8	150	100	60	유	동 – 서	삼 각 형
9	300	220	90	〃	〃	장타원형
10	230	150	50	〃	〃	반 원 형
11	실측불가					
12	150	120	50	유	동 – 서	방 형

○ 함평읍 수호리 송정 고인돌군

송정마을 500m 못미처 마을길 왼쪽 과수원 입구에 있다. 1986년 조사할 당시에는 훼손되어 실측이 불가능한 것 1기를 포함하여 5기가 있었으나 1995년 확인조사에서는 훼손된 1기가 형적이 없어 4기가 보존되고 있으나 모두가 인위적인 손상을 입었고 4호는 성혈이 있다. 현재는 3기만 확인된다.

처음 조사 : 1986년 3월 리현석

번호	개석크기			개석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190	80	60	유	남동-북서	장방형	
2	200	170	?	확불	동 - 서	〃	개석이 지면과 밀착됨
3	180	120	40	〃	남동-북서	〃	〃
4	300	180	?	〃	동 - 서	방 형	〃

○ 함평읍 수호리 예동 고인돌

예동 마을 중앙에 위치한 구릉 위에 1기가 있다. 주변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으며 고인돌의 상석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장축 방향은 동-서로 3개의 지석이 보인다.

○ 손불면 죽장리 851번지 고인돌

1984년 군사를 펴낼 때 1기가 조사되었으나 현재는 파손되어 흔적도 없다.

○ 손불면 죽장리 장동(담골잿등) 고인돌군

장동마을의 잿등에서 전 손불동초등학교로 갈리는 삼거리에 위치한다.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이 지표조사를 할 때는 5기가 있었다. 그러나 1991년 도로를 확장하면서 모두 파괴하여 지금은 1기만 남아 있다.

처음 조사 : 1883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석크기			개석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207	174	84	무	65。	장방형	지금은 없음
2	370	280	130	유	135。	〃	〃
3	실측불가						〃
4	276	190	60	무	177。	장방형	현존함
5	140	110	290	〃		〃	지금은 없음

○ 손불면 죽장리 수철 고인돌

1984년 함평군사를 펴낼 때 1기가 조사되었으나 1991년 조사 할 때 이미 파괴되어 흔적도 없었다.

○ 손불면 북성리 차경 고인돌

원래는 7기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 손불면 북성리 사기마을 고인돌군

사기 마을의 이동준 소유의 밭에 8기가 있다. 고인돌 옆에는 이윤익과 그의 부인 묘가 있고 서쪽으로는 당산나무가 있으며 군집 방향은 북동-남서로 2열을 이루고 있다.

처음 조사 : 1886.7.17.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500	200	90	확불	북서-남동	장방형	개석 반파
2	330	150	40	〃	남 - 북	〃	
3	실 측 불 가						
4	실 측 불 가						
5	275	180	45	유	북동-남서	장방형	판석 보임
6	250	230	120	확불	〃	방 형	
7	270	160	40	유	〃	장방형	
8	250	230	25	확불	〃	장방형	

○ 손불면 양재리 장재동 고인돌

장재동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100m 떨어진 영광군 군남면 옥실리로 넘어가는 고갯길 민묘 옆에 2기가 있다. 고인돌 주위에 대규모 도요지군이 분포하고 있다.

처음 조사 : 1993 목포대학교 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235	150	55	유	북동-남서	타원형	개석 반파
2	220	95	50	무	〃	장방형	

○ 신광면 송사리 삼천동 고인돌

송계마을에서 삼천동으로 가는 고개 마루 예비군 훈련장내에 있다. 원래 이곳에는 10여기 이상의 고인돌이 있었다고 하나 예비군 훈련장과 산길을 넓히면서 훼손하여 현재는 3기가 남아 있다.

처음 조사 : 1986. 9. 20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330	250	80	유	동 - 서	장방형	성혈 있음. 하부 노출
2	240	140	55	〃	〃	타원형	〃 . 개석 이동
3	240	170	50	유	〃	장방형	〃 .

○ 신광면 송사리 사간 고인돌

사간마을 북쪽에 있는 민묘와 도로의 경계지점에 2기가 있다. 상석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하부에 지석이 받쳐져 있다.

○ 신광면 보여리 보전 고인돌

장전 마을과 보전 마을, 영광군으로 나누어지는 삼거리에 1기가 있다. 원래 2기가 있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하나 1984년 조사할 당시에도 1기는 그 형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고인돌 바로 앞에 높이 310cm, 폭 160cm, 두께 45cm의 거대한 선돌이 서 있어 선돌이 무덤 표시의 역할도 했다는 설에 대해 수긍이 가게 한다. 규모는 길이 320cm, 폭 200cm, 두께 45cm이고 장축방향은 남-북이며, 개석형태는 장방형이다.

○ 신광면 삼덕리 덕천 고인돌군

1983년 최초 조사당시 6기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원래 9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1988년 농경지정리를 하면서 남아 있던 6기도 땅에 파묻어 지금은 형적이 없다.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225	135	23	유	120°	장타원형	지금은 없음
2	210	180	60	무	125°	장 방 형	〃
3	310	240	110	〃	30°	타 원 형	〃
4	162	120	?	확불	25°	장 방 형	〃
5	204	63	70	무	100°	마름모꼴	〃
6	206	118	?	확불	90°	장 방 형	〃

○ 신광면 원산리 덕동 고인돌군

학동마을 앞에서 덕동으로 가는 사이길 오른편 하천에 있던 고인돌군으로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이 6기를 조사하였다. 하나의 고인돌 위에 "김해김씨효열비"가 세워져 비좌가 되었으며 고임돌도 정연한 가장 큰 고인돌에는 "김해김씨세천(金海金氏世阡)"이란 비가 세워졌었다. 또 4호는 밭두렁에 기울어 묻혀있어 두께를 알 수 없었다. 이 고인돌군은 이대로 수난이 끝나지 않고 1988년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중장비로 들어내어 신해선(新海線) 도로에서 학동으로 들어가는 마을 어귀에 탑식으로 쌓아 놓았다. 내부구조는 물론 수습된 유물도 없다.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덕동의 고인돌 규모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190	100	86	무	북서-남동	장방형	지금은 없음
2	171	145	74	〃	남 - 북	사각형	〃
3	243	153	85	유	북동-남서	장방형	〃
4	180	100	?	확불	?	?	〃
5	실 측 불 가						〃
6	233	143	90	유	남 - 북	장방형	〃

○ 신광면 가덕리 오두산 앞 고인돌

1984년 함평군사를 펴낼 때 1기가 조사되었으나 1995년 확인한바 흔적도 없이 인멸되었다.

○ 신광면 계천리 사천(사동) 고인돌

함평읍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국도 23호선을 따라 가다 보면 사동과 가리 마을을 경계짓는 70m의 구릉이 놓여 있다. 고인돌은 이 구릉의 정상부에 2기가 위치하며 일대를 밭으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개석이 기울어져 있다. 남북으로 늘어져 있는 고인돌 주변에 높이가 각각 3m, 1.5m인 선돌 2기가 있다. 옛 가리역으로 들어서는 입구다.

처음 조사 : 1993년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	폭(㎝)	두께(㎝)			
1	230	150	100	유	북동-남서	장 방 형
2	200	190	60	무	동 - 서	〃

○ 신광면 동정리 냉천 고인돌

동정리 냉천마을의 서쪽 구릉 말단부에 1기가 있다.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동-서이며 하부에 잡석이 채워져 있다.

○ 신광면 백운리 신기 고인돌

신기마을 남쪽 300m 지점에 위치한 구릉 말단부에 1기가 있다. 고인돌은 현재 고사한 노거수로 인해 상석이 훼손되어 있으며 하부구조 또한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주변에 하부구조로 판단되는 할석재 판석이 널려져 있다.

○ 신광면 함정리 무송 고인돌군

국도 23호선에서 무송마을로 들어가는 400m 지점에 3기의 고인돌이 있다. 3기의 고인돌 중 북쪽의 고인돌은 도로와 농수로 개설공사로 인해 상석이 이동된 것으로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이며 하부가 묻혀있다.

○ 학교면 마산리 표산 고인돌군

표산에는 두 군데 고인돌이 있었다. 한 곳은 마을 동각 곁인데 반파된 1기가 있으며 성혈이 있다. 또 한 곳은 동각에서 동쪽으로 농로를 따라 200m 쯤 가면 언덕이 나오는데 농로 오른편 언덕에 3기가 있었는데 도로에 묻혀 있어 실측이 불가하다. 이곳에는 원래 10여기 이상이 있었는데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그 자리에 묻어버렸다고 한다. 마을 뒷뫼에는 돌방, 독무덤군이 있다. 현재는 마을 동각 곁이 것만 확인된다.

처음 조사 : 1991년 리현석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230	110	85	확불	북동-남서	장방형	동각 곁
2	실측불가						
3	실측불가						
4	실측불가						

○ 학교면 복천리 두동 고인돌

1991년 첫 조사를 했는데 두동마을 어귀의 텃밭에 위치하며 성혈이 여러 군데나 있다. 고막천의 하류인 고막리와 복천리에서는 아직 이 고인돌만 발견 조사되었으며 고임돌이 받혀있는 추정 무게 50t 이상의 대형이다. 규모는 길이 370cm, 폭 250cm, 두께 240cm이고 장축 방향은 동-서이며, 개석 형태는 장방형이다.

○ 학교면 학교리 영화촌 고인돌군

영화촌 마을회관에서 남쪽으로 농로를 따라 200m쯤 가면 중앙 배수로가 나오고 배수로 건너 alt밋한 언덕에 민묘와 어울려 있다. 대개의 고인돌이 개석이 땅에 밀착되어 있어 고인돌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함평군의 고인돌군 중 가장 개석이 작은 것으로 무리를 이룬 고인돌 유적이다.

처음 조사 : 1991년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실측불가					
2	160	120	40	확불	남동-북서	방형
3	210	140	20	〃	남서-북동	마름모꼴
4	340	240	30	〃	남동-북서	타원형
5	실측불가					
6	240	164	50	유	남동-북서	타원형
7	175	135	30	확불	〃	마름모꼴

○ 학교면 금송리 신곡제(新谷堤) 고인돌군

학교면 소재지에서 월호리로 가는 군도를 따라 가다가 죽정리 선암마을로 들어서는 삼거리에서 동쪽으로 100m쯤 가면 오른쪽 길가 야산 비탈에 고인돌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이 고인돌군은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이"방우동 고인돌군"으로 표기하였으나 방우동과는 1km 거리로 너무 멀고 또 방우동 앞에도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50m 곁에 있는 신곡제의 이름을 따 "신곡제 앞 고인돌군"이라고 새로 이름을 붙였다. 1995년 6월 30일 확인 조사를 한 바, 1호는 민묘를 쓰면서 개석을 제자리에서 밀쳐 깨트

려 놓았고 5~6호는 1993년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역시 밀쳐 깨트려 놓았다. 하부구조를 조사한 바도 없고 유물도 수습한 것이 없다. 현재는 모두 훼손된 상태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120	90	30	유	북동-남서	일부파손	현재 파손. 실측불가
2	310	220	40	〃	〃	장타원형	
3	293	240	50	무	〃	마름모꼴	
4	315	215	50	유	동 - 서	타 원 형	
5	186	130	50	〃	〃	방 형	현재 파손. 실측불가
6	310	160	30	판석	〃	장 방 형	〃

○ 학교면 금송리 금산 고인돌군

금산 마을 동각 곁 텃밭에 있던 고인돌군인데 1984년 함평군사를 편찬하면서 조사할 때 10기가 있었다. 그러나 1991년에 재조사를 할 때는 이미 모두 파괴되어 잔편까지를 말끔히 치운 후였다. 규모에 대한 기록도 없다.

○ 학교면 월호리 기동 고인돌

기동 마을 뒤 50m 지점인 나주임씨 문중산에 있다. 1986년 8월 15일 목포대학교 박물관 조사진이 첫 조사를 하였다. 원래 6기가 있었는데 묘역을 정리하면서 파괴하였고 1기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1기도 하부가 매몰되어 두께와 고임돌의 유무를 살필 수가 없다. 규모는 길이 380cm, 폭 100cm이고 장축 방향은 동-서이며 개석 형태는 장방형이다.

○ 학교면 월호리 배야 고인돌

배야마을에서 망월동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위치하며 처음 조사할 당시에 5기가 있었는데 그중 2기만이 실측이 가능하였다. 현재는 마을 사람들이"생애바우(상여바위)"라고 부르는 강운철 소유 대밭 안에 있는 2호 고인돌 1기만 남았다.

처음 조사 : 1986. 7. 6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240	80	실측불가	확불	동 - 서	장 방 형	지금은 없음
2	324	216	90	무	〃	〃	현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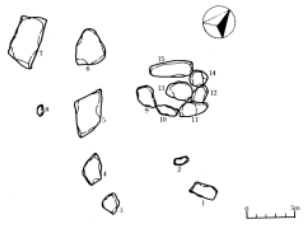
○ 학교면 곡창리 신곡 고인돌군 가군

신곡마을 세방저수지 제방 아래와 그 남쪽 가늠골이라 불리는 곳에 있다.

현재 3, 4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인돌은 그동안의 경작과정에서 파괴되거나 한쪽에 쌓

여 있다.

특히 9, 14호 고인돌은 1990년대 초에 이미 파괴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도 17기의 고인돌이 타원형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처음 조사 : 1990년 리현석, 나홍채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320	260	60	확불	동 – 서	부정원형	
2	310	280	40	〃	〃	타 원 형	
3	270	150	65	유	〃	방 형	일부 깨트린 흔적
4	230	200	35	확불	남 – 북	타 원 형	
5	360	200	40	〃	〃	〃	
6	405	250	60	〃	북서–남동	〃	
7	650	485	90	유	남 – 북	〃	
8	350	290	60	확불	〃	〃	
9	270	260	40	〃	동 – 서	〃	
10	380	250	70	유	남 – 북	장 방 형	
11	490	340	55	〃	〃	〃	
12	270	170	40	〃	〃	장타원형	
13	170	130	35	확불	〃	〃	
14	실 측 불 가						

○ 학교면 곡창리 신곡 고인돌군 나군

신곡마을에서 월호제로 가는 오솔길을 따라 남동쪽으로 150m 정도 가다보면 우측 산기슭과 밭에 2기의 고인돌이 있다. 속칭 물바위골로 불리는 골짜기로 현재는 골프장 공사로 인해 주변이 10m 정도 성토되어 있다.

처음 조사 : 1990. 12. 20 리현석. 나홍채. 김희태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570	330	130	유	남 – 북	장 방 형
2	170	130	30	확불	서북–동남	방 형

○ 학교면 곡창리 신곡 고인돌군 다군

신곡마을에서 월호마을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정상에 12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중 1기는 약 30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의 군집방향은 동–서이며 2열로 배치도어 있다. 하부는 대부분 도괴된 채 석관형 석실이 노출되어 있다.

처음 조사 : 1990. 12. 20 리현석. 나홍채. 김희태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300	190	60	유	동남-서북	장 방 형
2	440	370	90	〃	남 - 북	〃
3	300	130	40	〃	동 - 서	〃
4	250	180	50	〃	동남-서북	방 형
5	160	130	35	확불	동 - 서	〃
6	205	180	30	무	남 - 북	〃
7	400	330	100	유	동 - 서	타 원 형
8	200	130	40	무	〃	〃
9	220	150	35	〃	동남-서북	장 방 형
10	실 측 불 가					
11	240	110	40	확불	동남-서북	장타원형
12	220	110	30	무	동 - 서	장 방 형

○ 학교면 곡창리 원곡창 고인돌군 가군

와우산 서쪽편에 형성된 골짜기를 따라 고인돌 10여기가 2열로 길게 배치되어 있다. 가장 큰 고인돌 상석의 장축방향은 동-서이며 크기는 길이 233cm, 폭 187cm, 두께 30cm 이다.

○ 학교면 곡창리 원곡창 고인돌군 나군

원곡창 마을회관 앞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50m 떨어진 박문현 씨 댁 뒤편에 1기가 있다. 이곳의 서쪽에는 원곡창저수지가 있고 주변에는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다. 상석의 형태는 방형이며 하부가 매몰되어 있다. 원래는 7기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1986년 7월 5일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이 조사에 나섰을 때는 이미 6기가 농지를 확장하면서 파괴하여 자취가 없어졌다.

○ 학교면 금송리 방우동 고인돌군 가군

방우동 마을에서 북쪽으로 200m 지점의 민묘와 밭 주위에 2기가 있다. 이곳은 낮은 구릉으로 남동쪽으로는 구수저수지가 바라다 보인다.

처음 조사 : 1993년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150	130	50	유	북동-남서	타 원 형
2	200	190	60	〃	동 - 서	〃

○ 학교면 금송리 방우동 고인돌군 나군

학교리에서 월호리로 가는 도로 우측 산기슭에 있다. 원래는 6기였으나 민묘 조성과 도

로공사로 인해 파괴되고 현재는 3기만 남아 있다. 장축방향은 동-서로 산줄기의 방향과 일치하며 2열로 배치되어 있다.

○ 학교면 금송리 반곡 고인돌

반곡저수지로부터 약 20m 떨어진 밭과 논 가장자리에 1기가 있다.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이며 하부가 매몰되어 있다.

○ 학교면 석정리 동림 고분군 가군

동림저수지 북쪽에 인접한 밭 가장자리 민묘 주변에 5기가 있다. 이곳 주변은 논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고인돌은 동-서 방향의 타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하부는 토사의 퇴적으로 매몰되어 있다.

○ 학교면 석정리 동림 고분군 나군

동림 고인돌군 가군에서 농로를 따라 200m 정도 지점에 있는 민묘역 가장자리에 1기가 있다. 이곳은 배작골이라고 불리는 계곡의 중앙에 해당하며 이 주변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이다.

○ 학교면 석정리 동림 고분군 다군

동림 고인돌군 나군에서 약 300m 지점에 구릉 정상부에 7기가 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석정리와 금송리가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주변에는 김해김씨 선산이 있다. 북서-남동 방향의 타원형으로 군집되어 있으며 민묘로 인해 상석 일부가 매몰되어 있다.

○ 엄다면 엄다리 고인돌군

1975년 최몽룡의 고고학 지명표에 3기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1995년 조사를 실시한 바 파괴 인멸되었다.

○ 엄다면 엄다리 성산 고인돌

서해안고속도로 무안IC에서 엄다면 별뫼마을로 가는 도로 400m 지점의 동쪽 구릉 기슭에 1기가 있다. 고인돌의 서쪽은 엄다 농산물 저온창고가 있으며 남쪽은 송사천이 흐른다.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하부에 판석재의 지석이 받쳐져 있다.

○ 엄다면 영흥리 월산 고인돌군

월산마을 서쪽편의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칠성바우"라고도 불린다. 모두 7기가 남-북 장축으로 2열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 3기만 완전하고 나머지 4기는 파괴되었다.

처음 조사 : 1989. 3 리현석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	폭(㎝)	두께(㎝)			
1	380	290	90	유	남 - 북	타 원 형
2	300	190	80	〃	〃	방 형

○ 엄다면 영흥리 송현 고인돌

송현마을에서 영천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부 남쪽 농로변에 1기가 있다.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하부가 매몰되어 있다.

○ 엄다면 삼정리 벽류정 고인돌군 가군

벽류정 마을 동쪽 구릉 정상부에 3기가 있다. 고인돌 주변에는 경주정씨 묘가 있고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과 장방형이며 남-북 1열로 배열되어 있다. 상석 하부에서 지석이 확인된다.

○ 엄다면 삼정리 벽류정 고인돌군 나군

벽류정 마을 입구의 다리에서 북쪽으로 30m 거리에 있는 농로 변에 1기가 있다.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상석의 남쪽부분 아래에는 배수로가 있다. 지석 1개가 확인된다.

○ 엄다면 삼정리 수정동 고인돌

삼정리 산지촌마을에서 무안군 성동리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부 밭 가장자리에 1기가 있다. 고인돌 주변의 낮은 구릉 일대는 밭과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하부가 훼손되었으며 지석 1개가 보인다.

○ 엄다면 송로리 노상 고인돌군

송로리 노상마을에서 남서쪽으로 500m 떨어진 구릉 정상부에 3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곳은 무안군과 군계를 이루는 곳으로 이 주위는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고인돌군은 남-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밭작물 경작으로 인해 하부가 훼손되었다.

○ 대동면 용성리 금성동 고인돌군 가군

금성마을 북쪽 산과 논 단애면에 11기가 있다. 고인돌은 논과 밭 민가 뒤편에 남-북 1열로 배열되어 있으며 경작과정에서 일부의 상석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 대동면 용성리 금성동 고인돌군 나군

정자동마을 남쪽 300m 지점 밭 가장자리에 2기가 있다. 2기의 분포 방향은 남-북으로 상석 형태는 부정형이며 2기 모두 하부가 매몰되어 있다.

○ 대동면 용성리 괴정 고인돌군

용성리 괴정마을 이완열 씨 댁(용성리 724번지) 뒤 대밭에 9기가 있다. 남동-북서 방향으로 2열 군집되어 있다. 이중 가장 큰 고인돌의 상석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크기는 장축 420㎝, 단축 180㎝, 두께 60㎝이다.

○ 대동면 용성리 정창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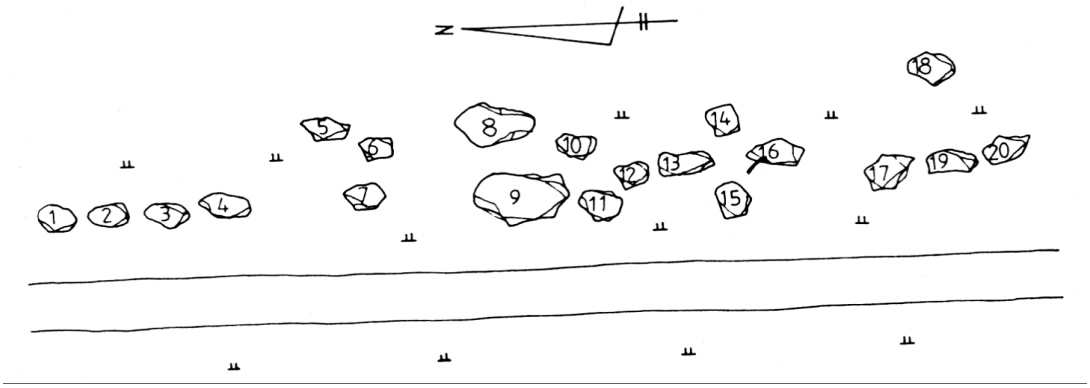
정창마을에서 신정저수지 방향으로 가는 길 북쪽 50m 지점 밭에 1기가 있다. 기존에는 4기로 보고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1기만 확인된다. 상석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이다.

○ 대동면 덕산리 고산동 고인돌군

마을 정자나무에서 동쪽으로 약 20m 떨어진 밭둑에 1기가 있고, 이곳에서 북쪽으로 20m 정도 떨어진 지점 밭 가장자리에 또 1기가 있으며, 이명헌 씨 댁에 나머지 1기가 있다. 이중 이명헌 씨 댁의 고인돌은 최근에 이명헌씨 소유의 밭에서 옮겨놓은 것이라고 한다.

○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고인돌군 가군

아차마을에서 외덕마을로 가는 도로변에 13기가 있다. 이곳은 고산봉에서 뻗어 내린 구릉의 경사면으로 지금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군집 형태는 남동-북서 2열이다. 가장 큰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상석 방향은 남-북이다. 크기는 장축 440㎝, 단축 330㎝, 두께 140㎝이다.



○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고인돌군 나군

아차마을 입구 밭에 있다. 아차고인돌 가군과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고 위치한 지형 또한 같다. 실측 가능한 상석은 장방형에 가깝고 장축의 방향은 남동-북서이며 크기는 장축 250㎝, 단축 110㎝, 두께 110㎝이다.

○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고인돌군 다군

아차고인돌 나군에서 서쪽으로 약 150m 거리에 있는 논둑에 3기가 있다. 이곳은 동쪽에 위치하는 고산동 방향의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작은 선상지를 이루는 곳으로 이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남쪽 선단부에 해당한다. 남-북 방향 1열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중 1기는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	폭(㎝)	두께(㎝)				
1	202	113	98	무	남 - 북		
2	229	187	100	〃	〃		
3	162	140	80	〃	서북서-동남동		
4	206	135	85	〃	북동-남서		
5	210	160	100	〃	동 - 서		
6	245	230	120	〃	〃		
7	355	314	65	유	서북서-동남동		
8	445	340	180	〃	북서-남동		
9	540	405	180	〃	북동-남서		
10	290	180	100	〃	남 - 북		
11	278	230	90	〃	북서-남동		
12	345	178	66	〃	남 - 북		
13	310	230	90	〃	북북서-남남동		
14	180	130	40	무	〃		
15	158	105	95	〃	북서-남동		
16	405	250	140	유	동 - 서		
17	355	270	105	〃	북북서-남남동		지금은 없음
18	200	105	144	〃	〃		〃
19	278	150	60	〃	〃		〃
20	210	130	110	무	동 - 서		〃

○ 대동면 향교리 상교·중교 고인돌군

함평향교를 중심으로 한 상교와 중교 마을의 개인 집안에 분포한다. 고인돌은 개인 집의 장독대로 쓰기도 하고 이웃집간의 담 벽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마당 가운데 있는 고인돌은 개석의 높이까지 흙을 돋아 마당의 수평을 잡은 곳도 있다. 향교 뒤에 있는 1기는 추정 무게 145톤으로 군내에서 2위에 해당하는 무게이다. 이 고인돌군은 명교 고인돌군과 중첩되어 조사된 듯하다.

처음 조사 : 1986. 11. 2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	폭(㎝)	두께(㎝)				
1	610	450	220	유	동 - 서	장방형	추정무게 145t. 군내 2위
2	380	240	120	〃	북동-남서		
3	260	210	100	〃	동 - 서	타원형	
4	실 측 불 가						
5	230	145	50	확불	남 - 북		
6	280	200	?	〃	북동-남서		
7	실 측 불 가						
8	실 측 불 가						
9	210	225	?	확불	확인불가		
10	470	250	180	유	북동-남서		
11	305	230	100	확불	확인불가		
12	530	270	110	유	동 - 서	타원형	
13	실 측 불 가						
14	450	420	260	확불	북동-남서	타원형	추정무게 118t. 군내 3위
15	270	230	190	〃	〃		

○ 대동면 향교리 명교 고인돌군

명교마을 뒷산을 중심으로 산 말단부에 20기가 위치하고 있다. 향교 내 2기, 박준기 씨 댁 1기, 박준구 씨 댁 3기, 김순용 씨 댁 5기, 서선권 씨 댁 3기, 이덕일 사당 내에 6기인데 대부분 마을 가옥 사이에 있어 훼손 정도가 심하다. 마을 남서쪽으로는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고인돌군의 군집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이중 함평향교 명륜당 좌측에 있는 고인돌 상석의 크기는 장축 380㎝, 단축 240㎝, 두께 100㎝이다.

○ 대동면 향교리 동교 고인돌군

24번 국도에서 나산면과 법흥사로 갈라지는 삼거리 남쪽에 7기가 있다. 이곳 지형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평지성 구릉이며 남동쪽으로는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군집 방향은 북동-남서이며 2열로 배열되어 있다. 가장 큰 고인돌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1983년 광주박물관의 『함평군문화유적지표조사』에는 "상교지석묘군" 목포대학교의 「함평군문화유적 조사카드」에는 "중교지석묘군"으로 명칭이 되어 있으나, 고인돌 소재지가 동교마을 지역이므로 "동교 고인돌군"으로 바로 잡았다. 1984년 조사 때는 8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7기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265	260	190	유	북북서-남남동	방 형	지금은 없음
2	367	250	110	〃	동 - 서	장방형	〃
3	380	290	110	무	북북동-남남서	타원형	〃
4	370	320	190	유	동 - 서	방 형	〃
5	310	300	75	무	〃	방 형	〃
6	220	155	95	〃	북북동-남남서	타원형	〃
7	210	145	80	〃	남 - 북	장방형	〃
8	250	190	100	〃	〃	장방형	현존함

○ 대동면 강운리 상강 고인돌군 가군

상강마을 정류소 건너편 밭에 1기가 있다. 이곳은 일명 바우베기라 불리며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이며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 이다. 크기는 장축 550㎝, 단축 500㎝, 두께 150㎝이다.

처음 조사 : 1983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190	150	42	무	남 - 북	장방형	
2	480	480	130	유	북서-남동	방 형	보존상태 극히 양호

○ 대동면 강운리 상강 고인돌군 나군

상강마을 입구 밭에 있다. 상강고인돌 가군보다는 약간 높은 구릉상에 위치하며 전방에는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이며 장축 방향은 동-서 이다. 크기는 장축 270㎝, 단축 130㎝, 두께 60㎝이다.

○ 대동면 강운리 학송정 고인돌군

국도 24호선에서 학송정 마을로 들어서는 왼쪽의 밭에 있었다. 1984년 함평군사 발간시는 7기가 있었고 광주박물관 조사진이 조사를 할 때는 4기가 있었다.

그러나 1989년 농경지 정리를 할 때 모두 파괴하여 지금은 형적도 없다. 광주박물관 조사진은"현재는 적은 수의 고인돌이 이곳에 있으나 주변 환경으로 미루어 보아 그간 여러 기의 고인돌이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처음 조사 : 1983. 11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355	270	270	유	남동-북서	타원형	지금은 없음
2	245	210	130	〃	〃	방 형	〃
3	225	150	90	〃	북동-남서	타원형	〃
4	145	120	45	무	동 - 서	장방형	〃

○ 대동면 강운리 송산 고인돌군

송산마을에서 국도 24호선을 따라 200m쯤 동쪽으로 가면 대동면과 나산면의 경계 지점에 이르는데 고인돌은 도로에서 북쪽으로 약 10m 지점에 3기가 있었다. 1984년 군사편찬 당시 조사 때 3기가 있었으나 1984년 말경 경지정리를 하면서 파손 인멸하였다.

○ 대동면 월송리 월송초교 고인돌군

지금은 폐교된 월송초등학교 동암분교 운동장 서편에 12기가 있다. 고인돌군은 동-서로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으나 주변을 정리하면서 상석 대부분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실측 가능한 2기의 상석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장축 방향은 1호가 동-서, 2호가 남-북이다. 1호 고인돌 상석 크기는 장축 290㎝, 단축 224㎝, 두께 85㎝이며 2호는 장축 280㎝, 단축 264㎝, 두께 85㎝이다.

○ 대동면 월송리 시랑동 고인돌군

1983년 군사편찬을 위한 조사 때는 20기가 있었다. 1983년 광주박물관이 조사를 할 때는 실측이 불가한 1기를 포함하여 6기가 있었는데 1992년 경지정리를 하면서 모두 땅에 묻어 버려 지금은 형적도 없다. 광주박물관 조사진이 조사한 고인돌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처음 조사 : 1983. 11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참 고
	길이(cm)	촉 (cm)	두께(cm)			
1	260	150	35	무	동 - 서	지금은 없음
2	227	138	45	〃	〃	〃
3	213	198	56	〃	〃	〃
4	224	165	75	〃	〃	〃
5	440	340	90	〃	〃	〃

○ 대동면 월송리 월송제 고인돌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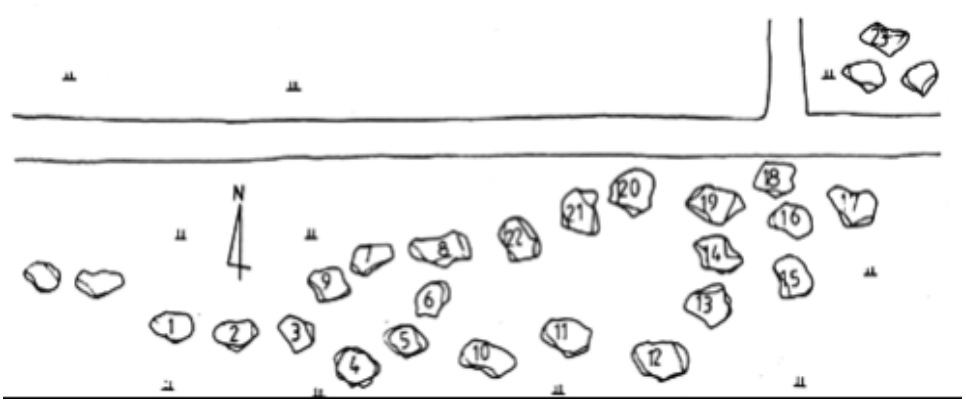
법흥사 동쪽의 구릉 정상부에 8기가 있다. 이곳은 월송리에서 상옥리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부이다. 고인돌의 분포 방향은 북동-남서이며 하부가 매몰되어 있다. 8기 중 3기는 농로개설로 인해 구릉에서 언덕 아래로 이동된 것이다.

○ 대동면 월송리 동암고개 고인돌군 가군

동암 마을에서 금곡리 나막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 도로변에 6기가 있다. 이중 4기는 도로 확장공사 때 이동되었다. 1호 고인돌 상석 크기는 장축 258㎝, 단축 254㎝, 두께 88㎝이다. 『함평군의 문화유적 지표조사』(1984년 광주박물관)에는"남악 A군"으로 정리되어 있다. 5호 곁에 돌방고분 1기가 있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참 고
	길이(㎝)	폭(㎝)	두께(㎝)			
1	165	114	25	무	남 - 북	지금은 없음
2	257	175	168	유	〃	〃
3	230	135	40	무	〃	〃
4	240	195	60	〃	〃	현존함
5	258	254	88	유	〃	〃



○ 대동면 월송리 동암고개 고인돌군 나군

동암마을에서 금곡리 나막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200m 지점 밭 가장자리에 4기가 있다. 이 고인돌의 분포방향은 남-북이며 상석의 형태는 부정형이다.

○ 대동면 금곡리 금곡 고인돌

금적동 마을 입구 보호수 아래에 1기가 있다. 이곳의 남쪽으로는 나산천이 흐르고 있으며 이 주변에는 넓은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상석의 형태는 방형으로 하부가 매몰되어 있다.

○ 대동면 금곡리 나막 고인돌군 가군

나막마을 앞 도로가에 20기가 동-서 1열로 배열되어 있다. 민묘와 혼재되어 있으며 6기 정도에서는 지석이 확인된다. 원래는 30기가 있었으나 도로공사로 인해 파괴되었다고 하며, 가장 큰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동-서이며 크기는 장축 480㎝, 단축 260㎝, 두께 110㎝이다. 이 고인돌군은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이 조사를 할 때는 실

측 불가능한 4기를 포함하여 27기가 있었고, 1991년 마을 뒤에 있는 1기를 추가하여 28기였다. 이 고인돌군은 군내에서 군집기수가 제일 많은 고인돌 유적이며 1988년 농경지 정리사업 때 모두 훼손될 위기에 처했으나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에서 건의하여 설계를 변경 보존하게 되었다. 23호는 100m 거리인 금곡분교 옆 밭에 있으며 24호는 300여m 떨어진 마을 뒤에 있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참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160	120	40	무	동 - 서	지금은 없음
2	230	185	75	〃	〃	〃
3	258	173	110	유	〃	〃
4	210	150	80	무	〃	
5	380	295	116	유	〃	
6	330	190	78	〃	〃	
7	330	160	129	〃	〃	
8	410	240	115	무	〃	
9	220	160	70	〃	〃	
10	290	154	110	유	〃	
11	330	238	110	〃	〃	
12	480	260	110	〃	〃	
13	490	230	115	〃	〃	
14	286	200	50	〃	〃	
15	255	200	100	〃	남 - 북	
16	250	146	70	무	동 - 서	
17	220	130	70	〃	〃	
18	240	180	70	〃	〃	
19	200	140	80	〃	〃	
20	250	210	90	〃	〃	
21	290	160	85	〃	〃	
22	150	110	30	〃	〃	지금은 없음
23	299	252	75	유	〃	
24	420	250	150	〃	남 - 북	

○ 대동면 금곡리 나막 고인돌군 나군

나막마을 동편 끝 함평나씨세적비와 함께 있으며 나막 고인돌 가군과는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동-서 1열로 배열되어 있으며 일부 상석은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다. 크기는 장축 300㎝, 단축 280㎝, 두께 50㎝이며 지석 1개가 확인된다.

○ 대동면 금곡리 나막 고인돌군 다군

1999년 『함평군사』에 '금곡분교 앞 고인돌군'으로 소개된 이 고인돌군은 현재 폐교된 금곡분교 앞에 1기가 있다. 전언에 의하면 1988년까지 금곡분교 앞 유병삼의 밭에 10기가 있었으나 1988년 농경지정리를 하면서 논가에 1기만 남아있게 되었다. 상석의 크기는 장축 380㎝, 단축 228㎝, 두께 150㎝이다.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의 보고서에 "2열로 배치된 이 고인돌들은 동-서에 축을 두고 있으며 배치상태나 개석의 축은 모두 동서로 전개되고 있는 계곡의 방향을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개석은 개답과 경작 과정에서 흙무덤을 이루고 있거나 일부 파괴를 입고 있어서 실측이 불가능하다. 상태가 비교적 좋은 1기는 개석 아래에 적석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후대에 경작으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 대동면 상옥리 옥동 고인돌군 가군

옥동 마을의 맨 북쪽인 윤병관의 집 뒤안과 밭에 거의 1열을 이루어 배치한다. 원래 12기가 있었다고 하나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이 조사를 할 때는 8기가 있었다. 1995년 재확인 결과 3기가 또 파손 인멸되어 지금은 5기가 남아 있다.

처음 조사 : 1983.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고
	길이(㎝)	폭(㎝)	두께(㎝)				
1	403	310	90	유	남 - 북	장방형	
2	312	169	65	무	동 - 서	〃	
3	329	215	75	〃	〃	〃	
4	269	210	99	유	〃	타원형	
5	546	288	140	〃	〃	장방형	
6	287	176	60	무	남 - 북		지금은 없음
7	346	230	65	〃	〃		〃
8	216	145	70	〃	북동-남서		〃

○ 대동면 상옥리 옥동 고인돌군 나군

옥동 고인돌군 가군에서 매동 마을로 가는 도로 동쪽 논과 농로 변에 4기가 있다. 고인돌은 농로를 사이에 두고 북서쪽과 남서쪽에 각각 2기씩 있는데 남쪽편 고인돌은 농로 개설로 상석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상석의 형태는 부정형으로 북쪽에 위치한 1기는 크기가 6m가 넘는 대형이다.



○ 대동면 상옥리 매동 고인돌군 가군

옥동에서 매동마을로 가는 도로 우측에 4기,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150m 떨어진 밭에 1기가 있다. 가장 큰 고인돌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크기는 장축 690㎝, 단축 420㎝, 두께 180㎝이며 상석 곳곳에 채석 흔적이 있다.

○ 대동면 상옥리 매동 고인돌군 나군

매동 고인돌군 가군에서 북쪽으로 약 300m 정도 떨어진 정홍채 씨 소유의 밭에 9기가 있다. 고인돌은 남-북 방향으로 3열 군집되어 있으며 약 50m 간격을 두고 5기와 4기가 떨어져 있다. 1호 고인돌 상석 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남동-북서이다. 크기는 장축 400㎝, 단축 340㎝, 두께 90㎝이다.

○ 대동면 백호리 백련 고인돌

백련동마을 입구 소나무로 이루어진 방풍림 사이에 1기가 있다.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하부가 매몰되었다.

○ 대동면 백호리 보화 고인돌

보화마을 입구 도로변에 1기가 있다. 고인돌 주위에는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원래는 여러 개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마을도로 개설공사와 농지정리로 인해 매몰되거나 파괴되었다고 한다. 남아있는 고인돌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남동-북서이다. 크기는 장축 260㎝, 단축 178㎝, 두께 90㎝이다.

○ 나산면 구산리 광영 고인돌군 가군

광영마을 입구 밭 가장자리에 2기가 있다. 원래 7기였으나 개답공사와 수로공사로 인해 모두 파괴되었고 상석만 한 곳에 쌓여져 있다. 상석의 형태는 2기 모두 타원형에 가까우며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크기는 장축 270㎝, 단축 170㎝, 두께 60, 90㎝이다.



○ 나산면 구산리 광영 고인돌군 나군

광영마을 동쪽 진주정씨 제각(29번지) 앞밭에 17기가 동-서 2열로 군집되어 있다. 고인돌의 군집 형태는 구릉 말단부의 평지상에서 나산천으로 흐르는 지류의 방향과 일치한다. 고인돌 대부분은 지석이 드러나 있으며 뒤에는 광영 고분군이 위치한다. 가장 큰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방향은 동-서, 크기는 장축 460㎝, 단축 190㎝, 두께 70㎝이다.

처음 조사 : 1983. 11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426	186	108	유	동 - 서	장방형	
2	165	84	40	무	〃		
3	130	86	35	〃	남 - 북		지금은 없음
4	230	190	45	유	동 - 서		
5	208	130	38	무	〃		
6	200	148	54	〃	〃		
7	250	138	90	유	〃		
8	120	100	25	무	〃		
9	200	150	25	유	〃		
10	230	125	70	〃	〃		
11	185	160	30	무	〃		
12	310	152	40	유	〃		
13	190	158	40	〃	〃		
14	310	142	80	〃	〃		
15	245	195	62	〃	〃		
16	460	185	70	〃	〃		
17	275	170	45	〃	〃		
18	405	240	64	무	〃		
19	245	160	50	유	북서-남동	장방형	2군집
20	300	200	60	확불	북동-남서	장방형	〃

○ 나산면 구산리 원구산 고인돌군 가군

원구산마을 북동편 입구에 6기가 있다. 문인현 씨 밭과 열녀비 주변에 5기가 있고, 최상철 씨 집안에 1기가 있다. 군집 방향은 남-북이며 가장 큰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남-북이며 크기는 장축 300㎝, 단축 193㎝, 두께 63㎝이다.

○ 나산면 구산리 원구산 고인돌군 나군

원구산에서 내동마을로 넘어가는 마을 북서편 소로에 위치한 노인창 씨 댁에 2기가 있다. 원래는 10기로 보고되었으나 모두 개답공사와 경지정리로 소멸되고 현재는 2기만 확인된

다. 확인 가능한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남-북이며 크기는 장축 315㎝, 단축 130㎝, 두께 60㎝이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	폭(㎝)	두께(㎝)				
1	290	195	62	무	65°	마름모꼴	
2	190	155	58	〃	95°	부정장방형	지금은 실측불가
3	202	140	60	유	5°	장타원형	〃
4	171	146	60	〃	80°	방 형	〃
5	263	191	64	〃	20°	마름모꼴	〃
6	232	146	93	〃	170°	장 방 형	〃

○ 나산면 구산리 내동 고인돌군

내동마을 뒤 구릉의 민묘와 밭에 각각 1기씩 있다. 민묘 뒤에 있는 고인돌의 상석 형태는 삼각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동-서이며 크기는 장축 194㎝, 단축 167㎝, 두께 62㎝이다.

○ 나산면 덕림리 덕림교 앞 고인돌군

현 덕림교에서 서쪽으로 200m 지점의 냇가에(지금은 배수로) 5기의 고인돌이 있었는데 1993년 경지정리 때 폭파 인멸하였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참 고
	길이(㎝)	폭(㎝)	두께(㎝)			
1	340	250	112	무	북동-남서	지금은 없음
2	172	140	25	〃	동 - 서	〃
3	180	92	56	〃	〃	〃
4	265	160	110	유	〃	〃
5	224	117	100	무	〃	〃

○ 나산면 덕림리 죽림 고인돌군 가군

마을 당산나무 좌우 밭에 모두 5기가 있다. 가장 큰 상석의 모양은 타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장축 250㎝, 단축 160㎝, 두께 6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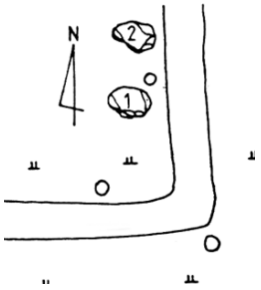
○ 나산면 덕림리 죽림 고인돌군 나군

죽림선돌에서 서쪽으로 40m 정도 떨어진 곳에 1기가 있다. 상석의 방향은 동-서 방향이고 크기는 장축 170㎝, 단축 120㎝, 두께 80㎝이다.

처음조사 : 1983. 11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	폭(㎝)	두께(㎝)				
1	180	150	40	무	북동-남서	장방형	당산나무 곁에 있음
2	280	215	28	〃	〃	타원형	
3	215	98	65	〃	〃	장방형	

○ 나산면 덕림리 백양동 고인돌



백양마을 입구의 국도 24호선 도로 곁에 원래 6기의 고인돌이 있었다. 그런데 1984년 국도를 확장하면서 4기를 파손 인멸하였고 24호선 끝집 밭에 2기가 남았었는데 1990년 12월에 1기를 파손 인멸하여 지금은 1기만 남아 있다. 크기는 길이 230㎝, 폭 210㎝, 두께 50㎝이며 지석은 없고, 장축방향은 북서- 남동이다. 상석 모양은 원형에 가깝다.

○ 나산면 원선리 원선교 앞 고인돌군

원구산에서 북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원선교가 나온다. 다리 앞에 8기의 고인돌이 남-북 1열상에 축을 두고 하천과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었는데 1993년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모두 제자리에 묻어버려 지금은 형적이 없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	폭(㎝)	두께(㎝)				
1	215	144	69	무	165°	장 방 형	지금은 없음
2	132	116	확인불가	확불	140°	〃	〃
3	190	103	〃	〃	140°	〃	〃
4	185	156	47	무	165°	타 원 형	〃
5	246	155	50	〃	145°	부정타원	〃
6	272	155	49	〃	145°	장 방 형	〃
7	202	165	49	〃	145°	부정타원	〃
8	313	182	75	유	85°	긴삼각형	〃

○ 나산면 원선리 고인돌군

1983년 조사 당시 원선 다리에서 북쪽으로 200m 지점에 11기의 고인돌이 있었다. 당시 2기는 경작으로 인해 심한 손상을 입어 실측이 불가능 했었다. 그러나 1993년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제자리에 모두다 묻어버려 지금은 형적이 없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	폭(㎝)	두께(㎝)				
1	177	119	50	무	140°	장 방 형	지금은 없음
2	205	156	50	유	145°	부정타원	〃
3	176	130	38	무	34°	장타원형	〃
4	128	74	44	〃	145°	장 방 형	〃
5	230	174	78	〃	55°	〃	〃
6	289	180	90	〃	120°	삼 각 형	〃
7	271	214	81	유	135°	장타원형	〃
8	164	155	45	무	85°	타 원 형	〃
9	200	150	35	유	145°	장 방 형	〃

○ 나산면 원선리 유촌 고인돌군

1983년 조사시 유촌마을 앞 논에 30기의 고인돌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으나 현재는 23기만 확인된다. 29호 고인돌 앞에는 상석과 같이 직육면체로 다듬은 판석이 놓여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도 그 연유를 알지 못할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조사자였던 서성훈은 "지석묘에 제례와 같은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라고 하였다. 군내의 고인돌 중 이러한 예는 이 고인돌에서만 나타난다. 1993년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여러 기가 땅에 묻혀버렸다. 마을의 배산인 표고 60m의 앵소산(鶯巢山) 남록에 위치한 연유로 마을 주민들은 이 고인돌군을 '꾀꼬리똥'이라 부르고 있으며 마을은 일명 '선돌골'이라고도 불린다.

30호 고인돌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추가 조사한 것이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석크기			개석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고
	길이(㎝)	폭(㎝)	두께(㎝)				
1	334	253	112	유	135°	부정타원	지금은 없음
2	260	163	54	무	100°	장 방 형	〃
3	203	145	50	〃	50°	삼 각 형	〃
4	240	150	110	유	155°	장타원형	〃
5	220	114	50	무	105°	장 방 형	〃
6	199	170	55	〃	160°	산 각 형	〃
7	301	200	78	유	178°	장타원형	〃
8	358	145	57	무	170°	긴 장방형	〃
9	200	162	59	〃	160°	원 형	〃
10	380	240	68	〃	170°	장 방 형	〃
11	267	215	50	〃	150°	부정원형	〃
12	165	140	50	〃	160°	장 방 형	〃
13	240	205	55	〃	34°	마름모꼴	〃
14	355	225	90	유	65°	장타원형	현존함
15	290	207	100	무	145°	〃	〃
16	220	195	50	〃	60°	〃	〃
17	230	115	85	〃	60°	장 방 형	지금은 없음
18	실측불가						〃
19	실측불가						〃
20	170	92	확인불가	확불	160°		〃
21	175	138	55	무	160°	부정삼각	〃
22	225	72	50	〃	165°		〃
23		실측불가					〃
24	215	175	확인불가	확불	90°	원 형	〃
25	실측불가						〃
26	160	94	확인불가	확불	90°		〃
27	180	116	80	무	115°	부정원형	현존함
28	268	245	120	유	90°	마름모꼴	〃
29	270	220	110	〃	20°	장 방 형	〃
30	340	280	120	〃	45°	타 원 형	지금은 없음

○ 나산면 수상리 성재동 고인돌군

성재동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모두 4기가 있다. 이곳은 남동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어내려오는 구릉의 말단부로 그 주변은 밭과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3기는 구릉 위 민묘와 혼재되어 있으며 또 다른 1기는 구릉 하단 마을 진입로 논 가장자리에 있다. 군집 형태는 남동-북서 방향이며 상석의 형태는 대부분 타원형에 가깝다. 가장 큰 상석의 장축 방향은 남동-북서이며 크기는 장축 250㎝, 단축 240㎝, 두께 146㎝이다.

○ 나산면 수하리 백인동 고인돌군

나주시와 경계인 수하교를 지나 도로변 이순용 씨의 밭에 5기의 고인돌이 불규칙하게 군집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북동쪽으로 400m 거리인 김영중 씨의 목장 목초지에 1기(6호)가 있다고 1999년 함평군사에는 정리하였으나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처음 조사 : 1984년 리현석

번호	개석크기			개석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고
	길이(㎝)	폭(㎝)	두께(㎝)				
1	250	160	70	무	북동-남서	장방형	
2	240	170	60	유	남 - 북	〃	
3	250	240	90	〃	〃	〃	
4	실측불가						지금은 흔적이 없음
5	230	110	60	유	북동-남서	장방형	
6	220	130	100	〃	북서-남동	〃	

○ 나산면 수하리 마산 고인돌군

마산마을 동쪽 100m 지점의 논과 밭둑에 4기가 있다. 이 고인돌군은 동-서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 논과 밭의 가장자리에 묻혀 있으나 일부 지석이 확인되기도 한다. 실측 가능한 1기의 상석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장축 방향은 남동-북서이며, 크기는 장축 170㎝, 단축 120㎝, 두께 90㎝이다.

○ 나산면 수하리 화전 고인돌

나산~문평간 825번 지방도에서 마산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 북서쪽 구릉에 1기가 있다. '무내미고개'로도 불리며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는 나산천이 흐른다. 이 고인돌의 상석 일부는 훼손되었으며 하부는 매몰되어 있다.

○ 나산면 나산리 방하 고인돌군

방하마을에서 남서쪽 400m의 목장 입구에 원래 4기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1991년 1월 4일 현지 조사한 결과 2기는 폭파하여 흔적도 없고, 나머지 2기도 1기는 전파 상태며 1기는 파괴되어 한쪽만 남아 있었다. 이 한쪽의 규모는 길이 150cm, 폭 90cm, 두께 40cm이었다.

○ 나산면 삼축리 나산초등학교 옆 고인돌

1994년 11월 리현석에 의해 처음 조사된 이 고인돌은 나산초등학교 교문 서쪽 50m의 도로변 밭에 도로와 맞물려 있었다. 당시 토사가 고인돌 하부에 쌓여 고임돌의 유무는 확인할 수 없었고, 규모는 길이 230㎝, 폭 150㎝였으며 두께는 측정이 불가능했고 장축 방향은 남북이었으며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이었다.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 나산면 삼축리 동축 고인돌군 가군

동축마을 함평생활유물전시관 앞 화단에 6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곳은 박현순 씨 소유의 밭으로 화훼단지 내에 있던 것을 옮겨다 놓은 것이라고 한다. 가장 큰 상석의 크기는 장축 221㎝, 단축 138㎝, 두께 45㎝이다.

○ 나산면 삼축리 동축 고인돌군 나군

영사정 앞에 있는 것으로 원래 5기였으나 모두 유실되고 1기만 남아 있다. 상석의 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장축 250㎝, 단축 160㎝, 두께 60㎝이다.

○ 나산면 삼축리 백야산 고인돌

국도 24호선에 접한 백야산 밑자락에 1기가 있다.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고 장축 방향은 남-북이며, 크기는 장축 410㎝, 단축 230㎝, 두께 130㎝이다.

○ 나산면 삼축리 상장기 고인돌

나산고등학교 교문 우측 밭에 1기가 있다. 상석의 방향은 남-북이며 크기는 장축 230㎝, 단축 150㎝, 두께 40㎝이다.

○ 나산면 삼축리 삼축 고인돌군

국도 24호선 마을 진입로 맞은편 구릉상에 5기가 있다. 초포리와 나산리를 구분하는 이 구릉은 표고 40m 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는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도로 맞은편에는 상축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실측 가능한 상석의 크기는 장축 180㎝, 단축 100㎝이며 장축 방향은 남동-북서이다.

○ 나산면 월봉리 점골 고인돌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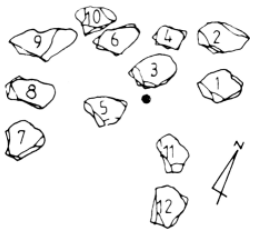
월봉교에서 점골마을로 가는 소로 왼편 이천서 씨 묘소 옆에 7기가 무질서하게 군집되어 있다. 원래는 13기로 보고되어 있으나 7기만 확인된다. 가장 큰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처음 조사 : 1989. 2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175	127	60	확불	북동-남서	타 원 형
2	275	106	80	〃	〃	장 방 형
3	390	380	220	유	〃	원 형
4	127	112	40	확불	〃	〃
5	155	120	실측불가	〃	〃	타 원 형
6	157	110	33	〃	〃	〃
7	217	135	55	〃	〃	장 방 형
8	155	83	35	〃	〃	〃
9	170	108	50	〃	〃	부정타원
10	210	130	55	〃	〃	타 원 형
11	355	227	80	유	남 - 북	〃

○ 나산면 월봉리 안영동 고인돌군

안영마을 정자나무 곁에 위치한다. 원래 12기가 있었는데 현재 8기가 남아 있다. 5호에서는 판석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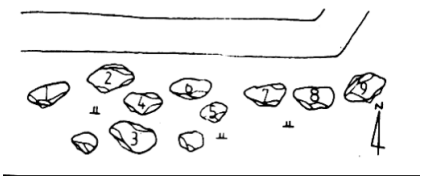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208	147	95	무	남 - 북	장방형	
2	317	234	110	유	〃	〃	
3	319	222	87	무	〃	〃	
4	198	84	65	〃	동 - 서	〃	지금은 없음
5	365	330	90	유	남동-북서	방 형	
6	287	182	85	〃	남 - 북	장방형	
7	263	152	75	무	남동-북서	〃	
8	234	145	93	〃	동 - 서	〃	지금은 없음
9	224	137	98	〃	〃	〃	
10	243	200	80	〃	〃	방 형	
11	157	142	33	〃	남 - 북	부정원형	지금은 없음
12	195	130	31	〃	〃	장방형	〃

○ 나산면 월봉리 생동 고인돌군

안영 고인돌군에서 북으로 600m 지점인 생동마을의 농로 변에 11기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2기는 논두렁에 묻혀 실측이 불가능하였고, 또 고인돌 하부까지 경작에 의한 토사가 몰려 고임돌의 유무도 확인 할 수 없었다. 현재는 모두 다 소멸되어 확인할 수 없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길이(㎝)	폭(㎝)	두께(㎝)		
1	315	105	85	확불	남 – 북
2	297	200	110	〃	서북서–동남동
3	327	300	95	〃	동북동–서남서
4	150	110	39	〃	〃
5	245	131	83	〃	남 – 북
6	223	110	50	〃	〃
7	267	187	94	〃	〃
8	268	187	98	〃	동 – 서
9	263	160	80	〃	〃

○ 나산면 월봉리 월평 고인돌군

생동마을에서 농로를 따라 월평에 이르면 생동 고인돌과 같은 환경에 처한 7기의 고인돌이 있었다.

이 가운데 1기는 실측이 불가능하고 3기는 경지화 되면서 논두렁으로 이용되었으며 1기는 고임돌을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다 소멸되어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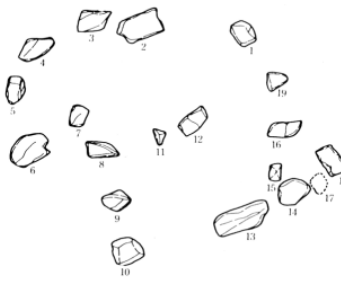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길이(㎝)	폭(㎝)	두께(㎝)		
1	425	350	89	확불	동 – 서
2	210	95	20	〃	남 – 북
3	365	110	40	〃	북서–남동
4	229	184	53	〃	〃
5	468	245	118	유	북동–남서
6	175	115	55	확불	〃

○ 나산면 우치리 신촌 고인돌군

신촌마을 입구 우치교회 옆에 원래 19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10기만 확인된다. 평지상에 민묘와 혼재하여 남동–북서 3열로 군집되어 있으며 개석 대부분이 매몰된 상태였다.

동쪽으로 200m 지점에 초포리 사촌의 청동기 유물 출토지가 자리한다. 1986년 7월 8일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이 처음 조사를 할 때는 18기였으나 1993년 조사 때 1기를 추가하였다. 다음의 표는 1993년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의 조사 자료에 의한 것이다.



처음 조사 : 1986. 7 목포대학교 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	폭(㎝)	두께(㎝)			
1	220	180	90	확불	북동-남서	방 형
2	385	220	90	〃	북서-남동	장방형
3	260	185	90	〃	남 - 북	방 형
4	330	185	80	〃	북서-남동	타원형
5	240	165	100	〃	북동-남서	부정형
6	365	245	120	〃	동 - 서	타원형
7	195	140	60	〃	〃	방 형
8	290	135	80	〃	남 - 북	장방형
9	250	185	80	〃	북서-남동	타원형
10	260	230	160	〃	〃	방 형
11	150	90	30	〃	북동-남서	타원형
12	280	165	70	〃	북서-남동	장방형
13	510	210	130	〃	〃	〃
14	290	190	60	〃	〃	타원형
15	155	115	40	〃	북동-남서	방 형
16	280	140	60	〃	남 - 북	장방형
17	160	130	실측불가	〃	〃	부정형
18	270	165	170	〃	북동-남서	장방형
19	185	165	100	〃	남 - 북	부정형

○ 나산면 우치리 계동 고인돌

계동마을 정용채 씨 소유의 밭가에 있는 것으로 원래는 3기였으나 농지정리 때 모두 매몰되고 현재는 1기만 남아 있다.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방향은 남-북이며 크기는 장축 233㎝, 단축 150㎝, 두께 107㎝이다.

○ 나산면 이문리 사정 고인돌군

사정마을 끝집이 있는 돌고개 북서편의 오재의(吳在義) 묘역에 2기, 오철선 소유의 밭에 2기가 있다. 이 가운데 1호는 비석으로 써도 좋을 만큼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다.

처음 조사 : 1990년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	폭(㎝)	두께(㎝)			
1	300	190	70	확불	북서-동남	방 형
2	180	170	40	〃	동 - 서	원 형
3	330	240	65	유	북서-동남	타원형
4	127	100	50	무	동 - 서	방 형

○ 나산면 용두리 오수동 고인돌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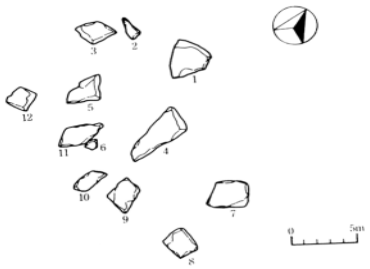
마을회관 뒤에 3기가 있다. 또 이 고인돌군 동편 권화생 씨 댁 뒤안 산기슭에 고인돌 크기의 잘 다듬어진 돌이 40여개 널려 있고 채석의 흔적이 있다. 따라서 이곳이 고인돌 채석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 200m 쯤 가면 김씨 묘역에 고인돌로 보이는 2

개의 돌이 있으나 이는 자연석과 섞여 있어 일단 자연석으로 처리하였다. 회관 뒤에 있는 3기 중 1기는 실측이 어렵다.

처음 조사 : 1990년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290	190	45	유	북동-남서	방 형
2	190	185	50	무	남 - 북	타원형

○ 나산면 용두리 용수 고인돌군



월야면 소재지에서 용수마을로 오자면 마을 어귀가 되는 왼편 잔등 함평이씨 문중산(1015번지)에 12기의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10기는 어수산 기슭의 자락에 가지런히 배치하고 있고 2기는 대밭 속에 있다.

마을 정자 곁에 1기가 있으나 광장을 시멘트로 포장하면서 개석 일부만 노출시켜 놓았고 밥상바위 근처에도 여러 기가 있었다고 하나 1983년 조사 당시에도 형적이 없이 인멸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용수 일대에 적게 잡아도 100여기의 고인돌이 있었다고 한다.

용수의 고인돌군은 그간 표토의 유실로 하부 구조가 일부 드러나 있는 것도 있고 고임돌이 완전히 노출된 2, 3호의 예와 같이 하부 구조가 굴착된 경우도 있다. 드러나 보이는 하부 구조로 미루어 판석형 석실 위에 개석을 얹은 개석식과 고임돌이 있는 두 종류가 병행하는 것으로 본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 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368	305	106	유	60°	마름모꼴
2	255	210	55	〃	55°	부정타원
3	230	224	92	〃	50°	정 방 형
4	244	126	63	무	15°	장타원형
5	395	200	60	유	35°	긴 마름모
6	534	260	70	〃	20°	긴 삼각형
7	350	315	56	무	25°	마름모꼴
8	310	220	110	유	50°	장 방 형
9	373	170	75	〃	30°	긴 삼각형
10	325	175	80	〃	25°	장 방 형
11	200	170	40	무	40°	〃
12	실 측 불 가					

○ 나산면 용두리 선박 고인돌군 가·나군

선박 고인돌군은 가군과 나군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1·2호의 군집은 선박마을에서 월야면 용월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으며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마당바우"라 부르는 곳이다. 다음으로 3·4호의 군집은 마을동편 제일 끝 집에서 동쪽으로 200m 지점인 산비탈과 논이 만나는 곳에 있는데 1기는 비의 좌대로 사용되고 있다.

처음 조사 : 1~2호(1993.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 3~4호(1995. 12 리현석)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200	160	90	유	동 - 서	방 형	
2	290	270	120	〃	북동-남서	원 형	
3	490	270	70	〃	동북-서남	장방형	1995. 12 리현석 추가
4	450	310	170	〃	남 - 북	〃	개석 2/3가량이 경락으로 인해 묻힘

○ 나산면 초포리 입석 고인돌군

1983년 조사 때 입석마을 입구에 8기의 고인돌이 있었다. 그러나 1987년 경지정리를 하면서 4호는 입석마을 표지 돌로 쓰고 나머지는 동각 곁으로 옮겨 놓았는데 원상이 많이 훼손되었고 현재는 5기만 확인된다.

이 유적에서 반달돌칼 1점이 수습되어 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점판암으로 만들었으며 타원형에 홈이 있다. 곡식의 열매를 따거나 요리를 할 때 썼을 것으로 본다. 길이는 12cm, 두께는 0.7cm이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179	106	78	확불	동 - 서	장방형	제자리에서 옮겨짐
2	245	101	55	〃	남 - 북	〃	〃
3	246	160	65	〃	〃	〃	〃
4	286	166	70	〃	〃	〃	마을 표시돌로 씀
5	300	199	110	〃	동 - 서	〃	제자리에서 옮김
6	235	195	120	유	〃	〃	〃
7	182	140	70	무	〃	〃	〃
8	207	145	64	유	북동-남서	〃	〃

○ 나산면 초포리 와락 고인돌군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이 조사를 할 때 모두 7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경지정리를 하면서 한 곳에 밀어 붙여 실측이 불가능 하였다. 현재는 모두 다 소멸되어 확인할 수 없다.

이 유적에서 돌검 2점과 무문토기편 다수를 수습하였다. 당시 보고서에는 “무문토기의 저부편은 모래알이 섞인 황갈색의 점토질 바탕흙으로 구웠는데 바닥은 평저이고 지름은 12cm로 복원되었다. 저부의 형식으로 볼 때 항아리로 추정된다. 두 자루의 마제석검편을 수습하여 접합한 결과 합치하였다. 본래는 완전한 돌검이었을 것이나 중장비에 의해 파손되었을 것으로 보며 봉부만 수습되었다. 수습된 부분으로 추정하면 1단병식의 마제석검인 듯하며 봉부나 칼날은 아직도 예리한 면을 보인다. 석재는 점판암이다.”라고 하였다.

○ 나산면 신평리 신촌 고인돌군 가군

신평저수지에서 남동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구릉사면에 2기가 있다. 상석의 장축 방향은 동-서이며 크기는 장축 290㎝, 단축 170㎝, 두께 110㎝이다. 일부 상석에 성혈(性穴)이 남아 있다.

○ 나산면 신평리 신촌 고인돌군 나군

마을 정자를 중심으로 7기가 원형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는데 1984년 정자를 지으면서 파괴 또는 매몰되어 실측이 불가능하다.

○ 나산면 구산리 삼구동 고인돌군

삼구동마을에서 주동마을로 넘어가는 언덕에 민묘와 혼재되어 6기가 있다. 일부는 개석이 파괴되어 있으며 고임돌도 확인된다. 비교적 완만한 구릉상에 남-북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군집되어 있다.

처음 조사 : 1993년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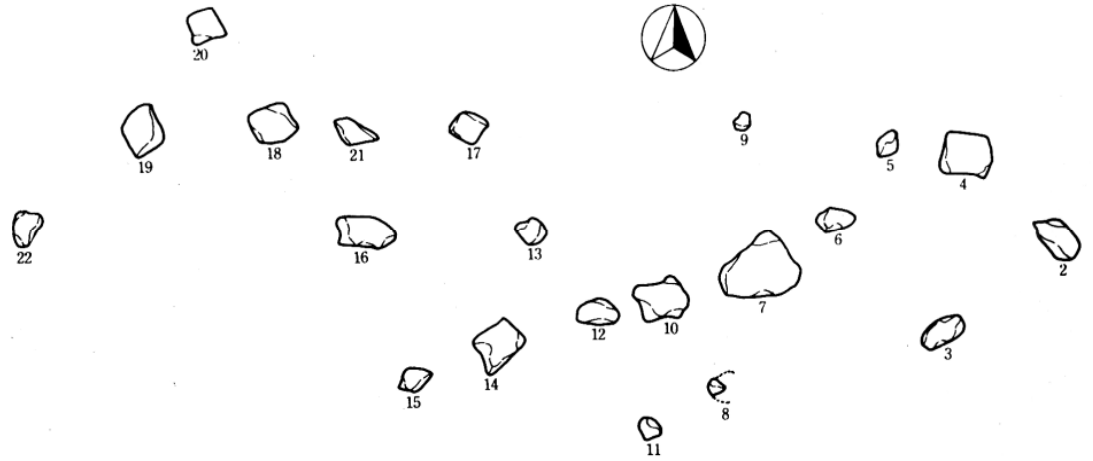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	폭(㎝)	두께(㎝)			
1	128	80	25	확불	북동-남서	장방형
2	150	100	35	〃	북서-남동	〃
3	260	180	90	유	북동-남서	〃
4	190	170	60	〃	남 - 북	부정형
5	260	240	130	〃	북동-남서	장방형
6	260	215	50	〃	〃	타원형

○ 나산면 송암리 송암 고인돌

죽리마을 동쪽 산사면 밭 가운데에 1기가 있다.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 방향은 동-서이다. 상석의 크기는 장축 184㎝, 단축 140㎝, 두께 70㎝이다.
3~10호 실측 불가

○ 해보면 상곡리 운곡 고인돌군

운곡에서 송산마을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400m쯤 가면 도로 왼편의 정병준 씨 소유 밭에 22기가 군집해 있다. 이 가운데 22호는 바로 도로 곁에 떨어져 있으며 장축 180cm, 단축 110cm, 높이 80cm, 두께 23cm의 각 1매 판석으로 축조된 석실이 노출되어있다. 다음 고인돌의 규모는 1993년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의 조사 기록이다.



처음조사 : 1983. 11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	폭(㎝)	두께(㎝)			
1			실 측 불 가			
2	290	160	60	유	북서-남동	타원형
3	230	130	100	〃	북동-남서	장방형
4	270	210	120	〃	북서-남동	방 형
5	120	120	100	〃	동 - 서	〃
6	210	130	70	무	〃	타원형
7	430	350	150	유	〃	〃
8		실	측	불	가	
9	100	100	50	유	동 - 서	원 형
10	300	250	150	〃	〃	방 형
11	120	100	80	〃	북서-남동	원 형
12	240	130	140	〃	동 - 서	타원형
13	270	130	140	〃	북서-남동	원 형
14	220	180	100	〃	북동-남서	장방형
15	130	130	80	〃	동 - 서	방 형
16	300	150	90	〃	〃	장방형
17	160	150	80	〃	북서-남동	방 형
18	260	120	50	〃	〃	삼각형
19	210	200	100	〃	〃	방 형
20	230	180	30	〃	〃	〃
21	160	160	80	〃	〃	〃
22	250	140	100	무	〃	장방형

○ 해보면 산내리 노적 고인돌군

1984년 광주박물관의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운곡에서 송산마을에 이르는 도로변에 있는데 운곡 고인돌군과는 서쪽으로 1.2km, 노적마을로부터는 0.5km 북쪽에 위치한다. 모

두 12기 정도로 추산하나 확실한 것은 9기이다. 주위가 경지화 되면서 논둑에 묻힌 것도 있고 논 가운데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개석 일부까지 매몰되어 하부 구조를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3호에는 하부구조의 벽석으로 보이는 판석이 2매 드러나 있다."라고 했고, 1987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 정리한 조사보고서에는 "원래 12기가 조사되었으나 1985년 6월 노적마을 진입로 공사로 거의 파괴 또는 도괴되어 실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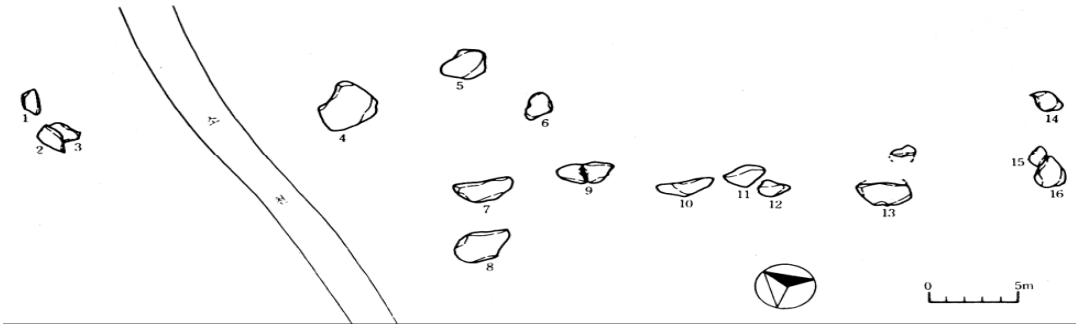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거쳐 노적 고인돌군은 거의 소멸되었고 이 가운데 1기만 1999년 발굴을 하여 이웃한 송산마을로 이전 복원하였다.

처음 조사 : 1983. 11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고
	길이(㎝)	폭(㎝)	두께(㎝)				
1	170	137	40	확불	90°		파손된 채 남아있음
2	250	190	67	〃	〃	타원형	〃
3	276	220	70	판석	〃	장방형	〃
4	310	220	90	확불	80°	타원형	〃
5	235	157	70	〃	95°	장방형	〃
6	140	135	70	〃	85°		〃
7	270	270	100	유	80°	장방형	〃
8	350	160	95	확불	100°	〃	〃
9	232	177	70	〃	95°	타원형	〃

○ 해보면 산내리 한골 고인돌군

1993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간행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운곡 고인돌군에서 서쪽으로 900m 지점의 송산목장(윤석현 소유) 주위의 논과 밭에 16기의 고인돌이 산재한다. 유적은 파평윤씨 세장비가 세워져 있는 1호기를 중심으로 서쪽 15m에 13기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골짜기를 따라 분포하고 동쪽으로 70m에는 5~6기의 고인돌 개석이 파괴된 채 논둑에 포개져 있다. 또한 송산저수지에서 발원하는 송산천을 따라 서쪽으로 150m에는 고인돌의 개석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석재들이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어 채석장으로 추정된다. 고인돌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한골 고인돌군은 거의 훼손되어 소멸되고 이 가운데 7기만 1999년 발굴조사를 하여 이웃한 송산마을로 이전 복원하였다.



재조사 : 1993.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	폭(㎝)	두께(㎝)			
1	310	220	25	확불	남 - 북	장 방 형
2	380	160	30	〃	〃	타 원 형
3	340	200	40	〃	북서-남동	장 방 형
4	360	280	90	유	북동-남서	〃
5	300	180	120	〃	〃	〃
6	200	120	40	확불	〃	타 원 형
7	340	200	50	〃	북서-남동	〃
8	340	220	90	유	북동-남서	〃
9	340	160	100	무	〃	〃
10	340	120	50	유	〃	〃
11	160	160	50	무	〃	방 형
12	160	160	50	〃	북서-남동	〃
13	320	200	50	유	〃	〃
14	220	100	20	확불	〃	마름모꼴
15	160	120	30	〃	북동-남서	방 형
16	340	320	100	〃	북서-남동	〃

○ 해보면 산내리 송산 고인돌군

송산 고인돌군은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된 후 현재의 위치(전 228-3)로 이전 복원된 것이다. 1999년 5월 실시된 지표조사 결과 노적 고인돌군은 9기, 한골 고인돌군은 17기가 분포되어 있었다고 보고되었으나 저수지 축조공사로 인해 노적 고인돌 1기, 한골 고인돌군 7기를 제외한 모든 고인돌이 파괴되었다. 남아 있는 8기를 송산 고인돌군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노적 고인돌(송산고인돌 1호)만이 하부 구조가 남아 있었고 이를 제외한 다른 고인돌의 하부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다. 1호 고인돌의 석실은 할석형 석재를 이용하여 벽석을 조성하고 석실의 장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지석을 놓아 상석을 올린 것으로 이는 전남지방 고인돌의 일반적인 구조이다.

○ 해보면 해보리 월현(지곡) 고인돌군

월현 고인돌군은 금계 저수지 제방 아래에 있었다. 1982년 조사 때 20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이 조사를 할 때는 9기가 남았었고, 1995년 조사 때에는 2기만이 남았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금계 저수지내에도 수십 기의 고인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수지 축조공사를 하면서 거의 파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인돌을 확인할 수 없다.

처음 조사 : 1983년 함평군사편찬위원회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실	측	불	가		지금은 없음
2	207	224	65	무	140°	타원형	〃
3	304	220	72	〃	〃	장방형	〃
4	210	160	40	〃	〃	삼각형	〃
5	285	255	64	유	〃	장방형	〃
6	326	175	110	무	0°	〃	〃
7	610	365	160	〃	55°	타원형	〃
8	310	188	140	유	10°	삼각형	현존함
9	300	230	145	〃	0°	장타원형	〃

○ 해보면 금계리 금산 고인돌군

금계 저수지 상류 진주정씨 제각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2기의 고인돌이 있다. 1기는 훼손이 심하여 실측이 어렵다. 이 고인돌에 대한 처음 조사는 리현석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고인돌의 크기는 길이 310cm, 폭 260cm, 두께 150cm이고 장축 방향은 90°, 고임돌이 있었으며 상석의 형태는 타원형이었다.

○ 해보면 금계리 구수동 고인돌군

1999년 함평군사에 의하면, 금계 저수지에서 서쪽으로 600m 떨어진 구수동재 아래 도로변에 5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2기는 도로를 확장하며 개석이 이동되어 실측이 어렵고 다른 3기도 수로가 고인돌 옆을 흐르고 있어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고인돌을 확인할 수 없다.

처음 조사 : 1983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428	250	70	유	5°	장방형
2	280	210	73	〃	90°	타원형
3	350	258	48	〃	90°	〃

○ 해보면 상곡리 상모 고인돌군

1975년 최몽룡의 고고학 지명표에 4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1995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괴되고 없어졌다.

○ 해보면 대창리 성대 고인돌군

원래는 7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3기만 확인된다. 고인돌이 있는 곳을 칠성바우 또는 계란바우라고도 부르는데 이 주변은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 해보면 문장리 하귀 고인돌

하귀마을 남서쪽 구릉 농로가에 1기가 있다. 농수로 공사로 인해 상석이 이동된 것으로 보이며 상석에는 지름 5~15㎝, 깊이 2~8㎝ 크기의 성혈이 수십여 개 있다.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 방향은 북서-남동이다.

○ 월야면 용월리 용두 고인돌(가)

용두 마을에는 25기에 이르는 고인돌이 1983년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군의 경우 현재 용월리 411-1번지 유화식 씨 댁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원래는 이 집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 9기가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모두 파괴되거나 매몰되어 현재는 1기만 확인할 수 있다. 상석의 장축 방향은 남-북이며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크기는 장축 740㎝, 단축 460㎝, 두께 190㎝이다.

○ 월야면 용월리 용두 고인돌(나)

나군은 용월리 537번지 정삼석 집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10기 있었다고 보고되었으나 밭을 경작하면서 개석이 매몰되거나 파괴되어 지금은 1기만 남아있다. 상석의 장축 방향은 북서-남동이며 크기는 장축 290㎝, 단축 260㎝, 두께 9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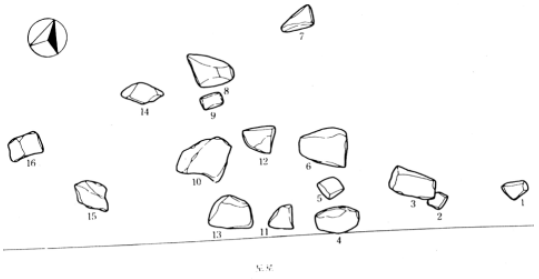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	폭(㎝)	두께(㎝)				
1	740	460	190	확불	남 - 북	장방형	군내에서 제일 큼
2	210	140	35	〃	북동-남서	원 형	
3	290	260	90	〃	북서-남동	부정형	

※ 이하 16기 실측불가.

○ 월야면 용월리 월봉 고인돌군

월봉 마을을 관통해 나산면 이문리 용수로 가는 도로변 이규서(李奎緖)의 묘역에 16기가 있다.



개석의 모양이 다채롭고 2기는 5개의 고임돌이 받치고 있다. 1995년 12월 20일 전남도지정 기념물 158호로 지정받았다.

다음의 고인돌 규모는 1993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의 조사 기록에 준하여 정리한 것이다.

처음 조사 : 1984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225	140	45	유	북동-남서	장방형
2	130	100	60	무	〃	방 형
3	400	280	130	유	〃	장방형
4	370	240	60	〃	〃	〃
5	200	160	55	무	〃	방 형
6	340	300	60	유	남동-북서	장방형
7	260	200	70	〃	북동-남서	〃
8	230	220	60	무	〃	〃
9	370	300	80	유	〃	〃
10	525	340	90	〃	〃	부정형
11	200	130	60	무	〃	장방형
12	290	205	70	유	동 - 서	타원형
13	390	290	100	〃	남 - 북	〃
14	350	200	80	〃	북동-남서	장방형
15	295	250	60	〃	동 - 서	〃
16	290	180	80	〃	북동-남서	〃

○ 월야면 월악리 연당(돌뫼) 고인돌군

연당마을 앞 돌뫼에 6기가 있으며 규모가 큰 고인돌은 말바우, 시렁바우, 개바우로 불리고 있다. 1984년 광주박물관 조사 보고서에는"2기는 개석이 파괴되어 그 일부가 잔존하여 실측이 불가하며 1호는 장방형 개석으로 앞면에는 음각된 각자가 있으며 개석 상면은 성혈이 패이고 평편하다. 4개의 고임돌은 장방형으로 탁자 다리처럼 받쳤는데 하부 유구는 굴착된 상태며 고임돌의 크기는 높이 50cm, 폭 40cm 정도고 고임돌간의 간격은 116cm, 135cm이다. 2호는 4개의 고임돌이 1호와 같이 괴고 있다. 개석 전면에 '진주정씨 세장산'이란 각명이 있고 고임돌의 크기는 높이 40cm, 폭 70cm, 또는 높이 68cm, 폭 117cm, 간격은 29cm로 고임돌 끝에서 끝을 연결한 한 변의 길이는 216cm에 달하고 있다. 3호는 장방형에 가까운 개석이 폭보다 두께가 두터운데 3개의 거대한 고임돌이 받치고 있다. 4호는 지면에 접해 있어 고임돌은 확인 할 수 없으나 앞과 같은 유형으로 보이며 5, 6호는 이미 개석이 파괴되었는데 정을 사용하여 파체한 흔적이 남아 있고 고임돌도 보인다."라고 하였다.

현재는 4호도 실측이 불가능한 상태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참 고
	길이(cm)	폭(cm)	두께(cm)				
1	407	228	105	유	110°	장방형	
2	360	230	133	〃	120°	〃	
3	460	182	200	〃	85°	〃	
4	220	130	70	확불	175°		현재 실측불가

○ 월야면 용정리 용산 고인돌군

용산마을 김학문 소유의 밭과 그 주변에 5기가 산재해 있다. 구릉의 말단부를 개간한 밭에 4기, 이곳에서 남동 300m 떨어진 경주김씨 선산에 1기가 있다. 1기를 제외한 4기는 개석이 땅에 묻히거나 훼손되어 실측이 불가하다. 크기는 길이 180cm, 폭 160cm, 두께 90cm이며 장축 방향은 남동-북서이며, 고임돌이 있고 개석 형태는 장방형이다.

○ 월야면 용암리 신성 고인돌군

신성마을 앞 표고 50m 정도의 구릉상에 4기가 있다. 구릉 남쪽 말단부에는 현재 완전히 파괴된 신성고분군이 위치한다. 속칭 '가말바위'라고도 불리는 고인돌은 주변에 4기가 더 분포했으나 1975년 경지정리 과정에서 신성고분과 함께 파괴되었다고 한다. 현존하는 고인돌 중 1기는 반파 상태이며 일부 지석이 드러나 있다. 군집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가장 큰 상석은 장방형으로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며 크기는 장축 370㎝, 단축 240㎝, 두께 85㎝이며 4개의 지석이 보인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	폭(㎝)	두께(㎝)			
1	210	115	55	무	북동-남서	장방형
2	270	215	70	유	〃	〃
3	155	150	40	무	〃	〃
4	370	240	85	유	〃	〃

※ 5~7호 실측불가

○ 월야면 용암리 연화 고인돌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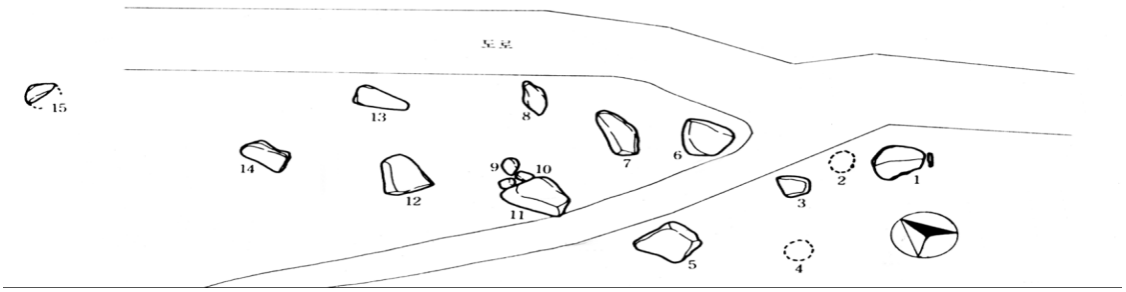
연화 마을 뒤 야산에 있으며 모두 성혈의 흔적이 있다. 개석의 규모는 작으나 판석조 석곽으로 짜여진 고인돌 묘이다. 두껍고 긴 장방형 석재로 석곽의 장벽을 짜고 단벽 마구리를 마무리한 후 개석을 올린 형식으로 보는데 마구리 석재는 없어지고 장벽의 석재도 넘어진 채 지상에 드러나 있다. 이것은 표토의 유실과 더불어 노출된 석곽 내부를 도굴한 것으로 본다. 판석형 석재로 개석의 3개소를 괸 것도 있다.

처음 조사 :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	폭(㎝)	두께(㎝)			
1	200	121	68	무	남 - 북	마름모꼴
2	269	107	74	〃	〃	장 방 형
3	277	201	63	유	〃	〃
4	188	76	90	〃	〃	〃
5	202	142	42	〃	북동-남서	원 형

○ 월야면 월계리 석계 고인돌군

석계 마을 입구에 위치한다. 1983년 광주박물관 조사진이 12기를 조사하였고 1993년 목포대학박물관 조사진이 3기를 추가하여 총 15기를 조사하였다. 마을 뒷산에 수십 기의 돌방무덤이 산재해 있고 12기의 돌방무덤을 전남대학교 발굴진이 발굴한 바 있다. 다음의 고인돌 규모는 목포대학교 박물관이 조사 기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처음 조사 : 1983. 광주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석 크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260	220	80	유	남동-북서	장방형
2	실측불가					
3	160	130	60	유	남동-북서	부정형
4	실측불가					
5	250	250	150	유	남동-북서	방형
6	210	210	110	무	〃	장방형
7	340	210	190	〃	남 - 북	〃
8	260	100	80	〃	남서-북동	〃
9	100	80	20	유	〃	〃
10	실측불가					
11	360	220	170	유	남동-북서	장방형
12	260	220	130	〃	〃	〃
13	280	140	90	〃	〃	〃
14	260	180	80	무	남 - 북	〃
15	실측불가					

○ 월야면 정산리 내정 고인돌군

내정마을 북쪽 약 200m 지점 구릉 말단부에 3기가 있다. 일명 '바우등'이라고도 불리는 이 주변은 모두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 고인돌군은 동-서 방향으로 군집되어 있으며 실측 가능한 고인돌 상석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크기는 장축 242㎝, 단축 112㎝, 두께 105㎝이다. 1기는 최근 납골묘 조성으로 인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조사 : 1995. 12 리현석. 정진오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182	110	74	확불	남서 - 북동	반타원형
2	242	112	105	〃	〃	정 방 형

○ 월야면 예덕리 발산 고인돌군

발산 마을 입구의 우측 능선을 따라 3기가 있다. 앞에는 예덕 저수지가 있고 고인돌은 고임돌이 드러나 있으며 도굴 흔적이 있다.

처음 조사 : 1993년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250	130	130	유	남동-북서	장방형
2	230	210	120	〃	남 - 북	〃
3	350	210	100	〃	〃	부정형

○ 월야면 계림리 주곡 고인돌군

1975년 최몽룡의 고고학 지명표에 5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1995년 조사한바 경지정리, 하천공사 때 모두 파괴 흔적도 없어졌다.

○ 월야면 외치리 외치 고인돌

외치마을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진주정씨세장비> 뒤에 1기가 있다. 이곳은 마을사람들로부터 '팔바우등'이라고 불리는데 고인돌군은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모두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상석의 형태는 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남동-북서이다. 크기는 장축 242㎝, 단축 112㎝, 두께 105㎝이다.

○ 월야면 양정리 석화산 고인돌군

진천 서쪽 200m 지점의 선박마을로 가는 오솔길 우측에 2기가 있다. 원래 길 좌우측으로 5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2기만 확인된다. 실측 가능한 고인돌 상석의 크기는 장축 440㎝, 단축 300㎝, 두께 100㎝이다.

처음 조사 : 1991년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번호	개 석 크 기			개석 유무	장축 방향	개석 형태
	길이(cm)	폭(cm)	두께(cm)			
1	230	180	90	유	동 - 서	마름모꼴
2	140	95	20	확불	남 - 북	타 원 형
3	125	75	40	〃	〃	장 방 형
4	330	240	100	유	〃	사다리꼴
5	440	300	100	확불	〃	장 방 형

2. 무덤 및 주거지 등

1) 나산 초포리 사촌 돌널무덤(석관묘)

(1) 발굴 경위

1987년 2월 20일 사촌 마을 사람들이 마을 안길을 넓히는 작업을 하다가 해질 무렵 녹이 슨 칼이 나오자 일흔 넘은 할머니가 엿이나 사먹자며 쑥쑥 뽑아 한 곳에 모았다. 마침 석양이어서 유물이 수습됨과 함께 작업이 끝났고 이튿날은 날씨가 아주 추워 작업을 할 수가 없었다.

전에 이장을 하였고 유물이 나온 땅의 주인인 이건일이 어제 나온 녹슨 것이 무엇인가 알아나 보자며 면사무소로 가지고 가 신고를 했다. 면에서는 군 공보실로, 공보실에서는 도에 신고를 했으나 유물에 대한 성격을 잘못 알고 군에서 적당히 처리하라는 답이었다.

토요일인 이날, 일과가 거의 끝날 무렵 리현석 씨가 군 공보실에 들려 이 말을 듣고 즉시 손동룡 공보실장과 함께 면사무소로 가서 확인한바 청동기 유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수습한 유물이 16점이나 되어 유물의 숫자와 종류에 놀랐다.

현장으로 가 파헤쳐진 현장을 더 이상 손을 못 대게하고 국립광주박물관에 이 사실을 전화로 알리자 서성훈 학예관(작고) 등이 4시에 현장에 도착 청동기시대의 돌널무덤임을 확인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연락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추위를 무릅쓰고 22일 오후부터 발굴을 시작 27일에 끝냈으며 1988년 2월말에 발굴 보고서가 나왔다. 발굴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몇 가지 기술한다.

(2) 발굴과정

유구(遺構)는 마을 사람들의 채토작업으로 인해 이미 1m 정도가 파헤쳐진 상태였으므로 상당히 파괴되었으나 묘광(墓壙)의 아래쪽에 구축된 매장주체부(埋葬主體部)는 일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먼저 주변을 정리하여 굴광선(掘壙線)을 확인하고 석관벽으로 추정되는 돌들을 놔둔 채 묘광안의 뜬 돌과 부식토를 걷어 내고 조사해 내려갔다.

묘광 북쪽 주변에서는 아주 작은 흑색토기편(黑色土器片)이 몇 점 수습되었다. 묘광 주위의 생토(生土)는 황적색을 띄는 부식화강암반 이었으며 묘광 안에 퇴적된 흙은 약간 붉은색을 띤 갈색부식토로 드문드문 점성(粘性)을 가진 흙이 섞여 있었다.

관의 벽석으로 생각되는 돌을 찾아 윤곽을 낸 뒤 계속해서 내부를 조사해 나갔다. 묘광의 남·서벽에서 약 85cm 쯤 떨어진 곳에 내부 퇴적토와 함께 할석들을 들어내자 한국식 동검(韓國式銅劍) 한 점이 칼끝을 묘광 위쪽으로 향한 채 비스듬히 박혀 있었다. 동검의 경부(莖部)가 바닥 보다 약 20c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동검이 관내에 부장되지 않고 관 위쪽에 부장되어 있던 것이 흘러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계속된 조사에서 동북쪽 마구리 단벽(短壁)으로부터 약 90cm 떨어지고 동남쪽 벽에 인접

한 바닥 가운데 쪽에서 직경 15cm 정도의 둥근 흑색 부식토 윤곽이 동검 칼집 같은 길이 36㎝ 정도 되는 흑색 부식토 윤곽과 겹쳐 나타났는데 둥근 윤곽은 벽쪽에서 관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나 있었다.

윤곽으로 보아 동경(銅鏡)과 동검임이 확실하였고, 이 흑색 부식토들은 거울의 나무갑(木匣)과 목재 칼집이 부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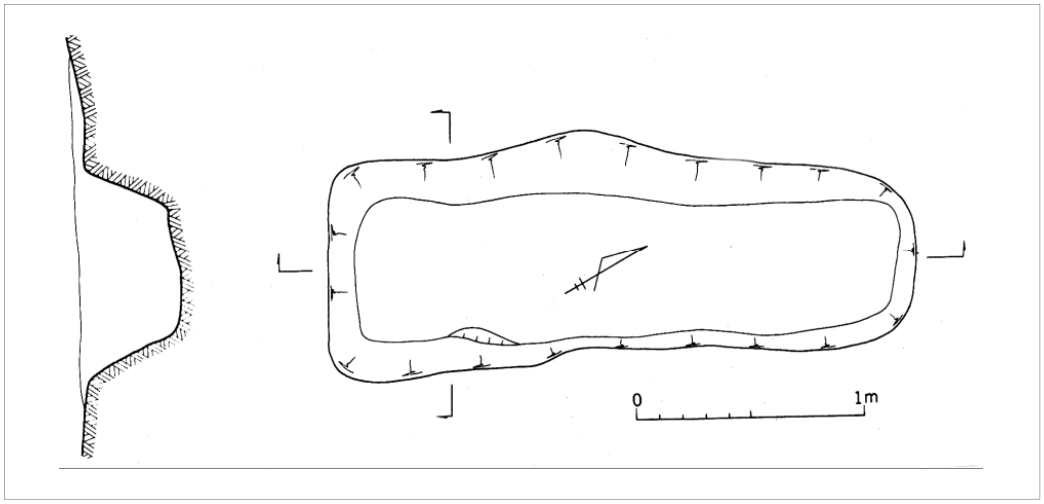
동검의 윤곽이 동경의 윤곽 보다 위쪽에 얹혀져 있었으나 먼저 동경의 일부를 벗겨내 동경임을 확인하고 계속 주위를 조사하자 동검 윤곽 봉부(鋒部) 옆에서 동제 칼자루장식(銅製劍把頭飾)이 1점 출토되었으며 남서쪽 일직선상으로 약간 떨어져 동경과 동검이 겹쳐진 새로운 윤곽이 동일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앞의 동제 칼자루장식은 바로 이 동검 윤곽과 연결되는 부속 칼자루장식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발견된 동경 윤곽은 직경 10cm 내외로 작았으며 역시 동검 윤곽 아래쪽에 놓여 있었다. 이 동검 윤곽은 칼끝 부분이 좁고 경부쪽이 넓은 요즘 칼집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칼끝 부분에서 절반 정도까지의 윤곽이 묘광안쪽으로 밀려서 겹쳐진 모습으로 발견되어 2매로 나누어진 것을 붙여서 만든 칼집이 썩으면서 분리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검 윤곽의 길이는 약 36cm 였다. 다시 첫 번째 동검 윤곽의 경부쪽(북동쪽)에서 약 12cm 쯤 떨어져 이 동검의 칼자루장식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철광석제(鐵鑛石製)였다.

이 칼자루장식의 북동쪽 마구리 벽에 인접해 또 다른 동경 윤곽이 나타났는데 이 윤곽은 직경 17.5cm 정도였다. 이들 동검, 동경은 거의 남동 벽 가의 바닥에 일직선상으로 놓여 있었는데 북동쪽 벽에서부터 대형동경, 철광석제 칼자루장식이 딸린 동검 및 중형 동경(칼 몸체 밑에 겹침), 동제 칼자루장식이 딸린 동검 및 소형 동경(칼 몸체 밑에 겹침) 순이다.

중형 동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색 부식토 윤곽과 함께 굳혀서 수습하였기 때문에 후에 보전 처리실에서 알게 되었지만 대형 동경만이 거울면을 위로 하고 있었다. 이 대형 동경이



유구 할석 제거 후의 단면

출토된 북동쪽 묘광 바닥 주위에는 고운 적갈색 흙이 일부 깔려 있었는데 이것은 후에 빗물에 침전된 고운 흙이 스며든 것인지도 모르겠다.

남서 마구리 단벽에서 약 26~30cm 떨어진 바닥에서 천하석제 굽은 옥 귀걸이(天河石製飾玉) 한 쌍이 발견되었는데 이 두 귀걸이 사이가 약 15cm 내외로 양 귀 사이의 간격이며 구멍이 뚫린 부분이 모두 남서쪽으로 같은 방향이라 귀걸이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석벽과 굴광선(掘壙線) 사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쪽 모서리 석벽 맨 윗돌과 굴광선 사이에서 방울 부분이 밑으로 박혀지고 봉상부(鋒上部)가 위로 향한 가지방울 조각(雙頭鈴片)이 발견되었고 이어 이 가지방울 조각의 서쪽으로 15cm 떨어진 곳에서 동일한 가지방울 조각이 1점 출토되었다. 이 묘광의 서쪽 모서리는 도로의 배수구에 의해 일부가 깎여 나갔는데 이때 박혀있던 가지방울이 파손되었고 한 쌍 중 한점은 유실되었던 모양이다. 묘광바닥에서 40cm 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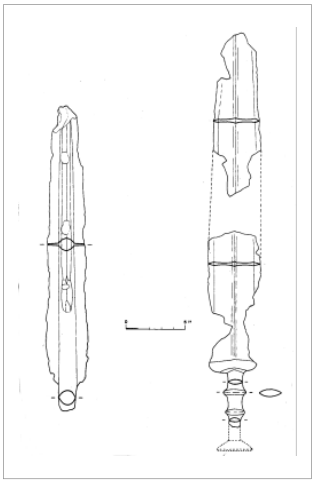
묘광바닥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었고 곱고 부드러운 황색 흙이 1~3.5cm 두께로 깔려 있었고 드문드문 거뭇거뭇한 부식토가 섞여 있었는데 이 부식토는 관 바닥에 깔려 있었던 널판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바닥면은 고르지 않고 약간 굴곡이 있다.

벽석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곳이 다섯 단으로 정연히 쌓이지는 않았고 맨 밑바닥 돌들 중 일부(석관 긴 벽의 중간부)는 안으로 밀려 들어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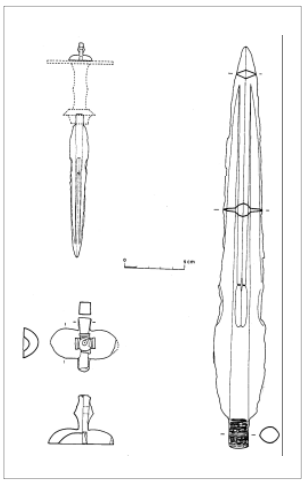
이어 굴광선을 확인하기 위하여 벽석을 위에서부터 뜯어 나갔는데 벽석과 굴광선 사이에는 일부 찐득찐득한 질흙이 발라져 있는 듯한 흔적이 보였다.

묘광의 남쪽 모서리에서 남·동벽을 따라 27cm 정도 떨어진 곳의 바닥으로부터 3단에 쌓여진 돌과 생토벽 사이에서 뉴(鈕)가 두 개 붙은 자루달린방울(柄附銅鈴)이 1점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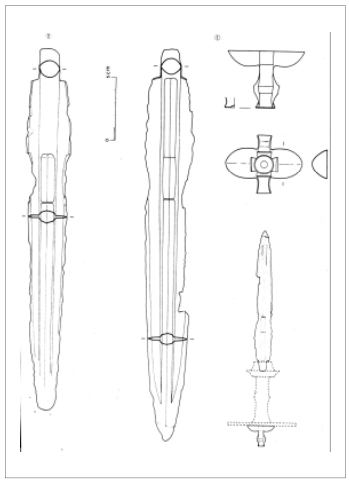
이 자루달린방울은 매장 후 파손을 입지 않도록 한쪽 면이 약간 들어간 돌과 묘광 사이



주민 수습 한국식 동검



동제칼자루장식 동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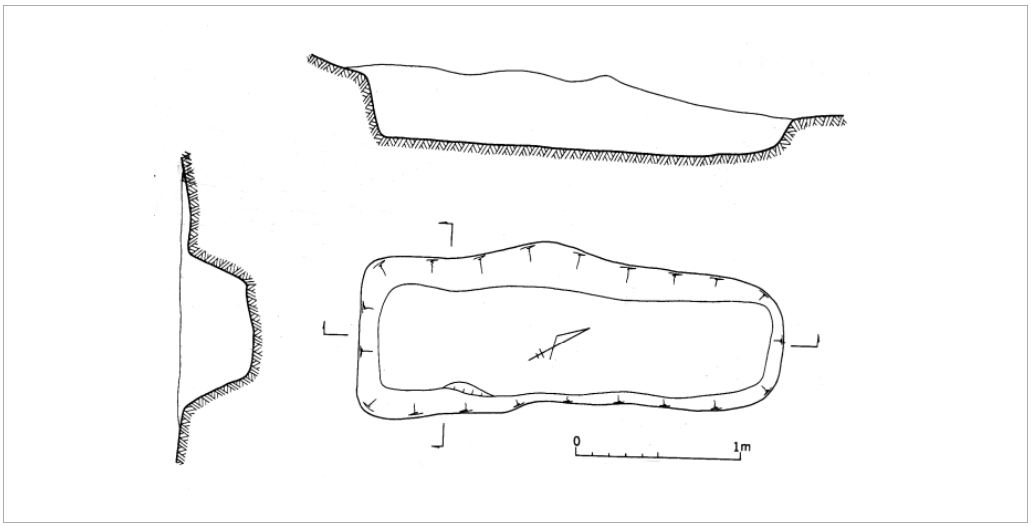


철광석제칼자루장식 동검

의 공간에 놓여 있었다. 피장자의 굽은 옥 귀걸이와 거의 나란한 위치에 자루가 남서쪽을 향하도록 눕혀져 있었다.

남·동벽의 벽석을 계속 들어내는 도중 다시 남·동벽 중간 석벽과 굴광선 사이에서 방울이 박혀 있었던 흔적이 푸른 녹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위치는 남쪽 모서리에서 남동 벽을 따라 약 1.2m되는 곳이며 바닥에서 약 35cm 되는 3단 째 돌의 옆이다. 이것은 아마 마을 사람들이 수습한 조합식 가지방울(組合式雙頭鈴)이 묻혔던 곳이었는데 주민들이 뽑아낸 후 자국만 남았던 모양이다.

이후 다른 벽석을 모두 들어냈으나 다른 흔적을 볼 수가 없었다. 동검, 동경 등의 유물은



유구(할석 제거 후)

현장에서 직접 약품으로 굳혀 주민 수습품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보존 처리실로 옮겨 처리하였다.

(3) 묘장개황

가) 형제(形制)

토광은 부식 암반을 파들어 간 것으로 장축(長軸)은 북동-남서 방향을 이루고 있다. 지면으로부터 차츰 아래쪽으로 면적을 좁히면서 팠으며 현 지표면에서는 장축이 260cm, 단축이 90cm로 부정형 장방형(不定形長方形)을 이루고 있다.

석관 형태의 주체부는 현 지하 55cm 깊이를 바닥으로 하여 구축하였는데 내부의 규모는 길이 190cm, 폭 55cm 정도이다.

그다지 면이 고르지 않은 할석들을 한 겹 내지 두 겹으로 쌓아 올렸는데 할석의 크기가 서로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정연한 느낌은 없다.

현재 쌓여진 돌이 가장 많이 남은 곳이 5단으로 바닥에서 55cm 높이다.

쌓여진 할석들 중 맨 밑바닥 돌들의 일부는 안쪽으로 밀려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은 그 위에 쌓인 돌들이 안으로 밀리지 않게 한 것이 아니면 나무관을 묘광 바닥에 설치하고 묘광과 나무관 사이를 할석으로 메꾸어 나무관이 썩은 후 할석이 안으로 밀렸을 가능성도 있다.

침향(枕向)은 천하석제 굽은옥 귀걸이 출토 위치로 보아 남동침이 되며 토광은 평면상으로 머리쪽이 넓고 발쪽이 좁은 형상을 보인다.

주민들이 묘광에 100여개 이상의 많은 돌이 채워져 있었다고 하므로 묘광 위에 적석이 되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묘광 바닥에는 나무판자 흔적이라고 추정되는 흑갈색의 부식토가 깔려 있다.

이상의 구조에서 사촌의 유구가 어떠한 묘제에 속할 것인가는 다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기왕에 조사되었던 할석으로 구축된 돌널무덤 중 상부에 적석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적석 돌널무덤(積石石棺墓),

둘째, 돌널무덤이 아니고 널무덤(木棺墓)이며 토광과 나무관 사이를 할석으로 메꾸고 상부에는 목개(木蓋)를 하고 그 위에 적석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적석 목관묘, 이 묘제와 가장 가깝게 관련 지을 수 있는 유적들로는 대전 괴정동(槐亭洞), 아산 남성리(南城里), 예산 동서리(東西里), 서흥 천곡리(泉谷里), 화순 대곡리(大谷里)를 들 수 있다. 풍화 암반을 파들어간 묘광(墓壙), 묘광을 아래쪽으로 차츰 좁혀들어가면서 판점, 묘광 상부를 적석하여 메운 점, 관 뚜경으로 생각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점, 주로 할석이 사용된 점 등이 대체로 공통되며 침향은 조금씩 다르나 남침, 동침에 가까운 편이다.

바닥에 돌을 깔거나 목판을 깐 것, 할석이 쌓여진게 정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의 세부적인 차이는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지역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차이로 생각된다.

이들 유적과는 출토 유물로 보아서 같은 성격의 것임에 틀림 없다.

나) 껴묻기 유물의 출토 위치

발굴된 부장품은 출토 위치로 보아

첫째, 묘광의 내부 바닥에서 출토된 것

둘째, 할석과 묘광의 벽 사이에서 출토된 것

셋째, 내부 퇴적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묘광 내부 바닥 출토품으로는 굽은옥귀걸이 1쌍과 칼자루장식동검 2자루, 잔무늬거울 3점이 있다. 이 중 굽은옥은 출토 위치로 보아 귀걸이로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귀걸이의 출토로 침향(枕向)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동남 석벽에 붙어서 일열로 발견된 동검과 잔무늬거울은 피장자의 우측 허리와 발쪽에 놓여진 것을 알 수 있다.

동검은 놓여진 방향으로 보아 두 점 모두 착장(着裝)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들 동검과 잔무늬거울은 출토 상태가 정연한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이러한 상태로 묻었던 것이 틀림 없다. 소형 잔무늬거울과 중형 잔무늬거울은 한쪽이 약간 들려 비스듬이 놓여져 있어 관내벽에 기대어 놓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하튼 관내에는 동검, 잔무늬거울, 굽은 옥의 세 가지 세트만 껴묻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유물의 위치로 보아 나무관이 있었다면 나무관의 두께가 매우 얇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석과 묘광 사이의 틈에서는 자루달린방울과 가지방울이 출토되었으며 이 밖에 유물은 보이지 않았어도 둥근방울 흔적을 보인 것이 한 군데 있었다.

이들 방울류의 출토 위치는 가지방울과 자루달린방울의 경우 피장자의 머리 부분 좌우이기 때문에 팔굼치를 구부린 채 양손을 올리면 손으로 쥘 수 있는 위치라 생전에 방울을 들고 흔드는 모습대로 묻은 것이 아닐까하는 느낌이다. 이러한 묻기 방법은 처음 보는 것으로 아직까지 그 예가 없다. 여기서 할석으로 쌓은 유구(遺構)가 석관의 관벽이 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다시 생긴다. 만약 석관의 석벽이라면 관을 조립하면서 부장품을 묻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시신이 관에 들어 가기도 전에 부장품을 묻는 특이한 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할석들이 나무관과 묘광 사이를 메꾼 돌이라면 관외 부장의 한 방법으로서 나무관을 안치한 뒤 나무관 주위에 부장품을 묻으면서 부장품이 상하지 않게 돌을 메꿀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령(銅鈴)들이 묻힌 상태로만 본다면 이 무덤은 적석목관묘(積石木棺墓)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겠다.

내부 퇴적토에서는 한국식 동검 한 자루만 발견되었는데 칼끝 부위가 위쪽으로 경사진 채 뜬돌들과 함께 바닥 보다 높은 위치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돌과 함께 흘러들어간 것임에 틀림없다. 관의 뚜껑 위에 놓여진 것이 후에 무너져 내릴 때 아랫쪽으로 떨어진 모양이다. 이러한 관외 껴묻기는 최근에 그 예가 조금씩 늘고 있어 조사시 주의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주민들이 수습한 유물은 모두 관외에 껴묻기를 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에서 돌덩이를 제치면서 청동기를 뽑아 냈다고 하므로 할석과 묘광 사이에서 꺼낸 것도 있지만 대 다수는 묘광 위에 덮었던 뚜껑과 적석된 봉토(封土) 사이에 묻었던 것이 흘러 떨어졌거나 할석으로 된 벽석들 위에 묻은 것이 아닐까한다.

여하튼 껴묻기 출토품으로 보아 관내 관외 껴묻기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 매장에 관한 의례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상당히 복잡했던 것을 알 수 있다.

(4) 껴묻기 유물(부장품)

사촌의 돌널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28점으로 동제(銅製)와 석제(石製)의 칼자루장식 2점을 각각 동검과 합해 1점으로 치면 26점이 된다.

이 중 16점은 마을 사람들이 도로 작업을 하다 수습했고 광주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발굴진에 의해 발굴한 것이 10점이며 이를 종류별로 나누면,

- 무기류(武器類)

  한국식 동검(韓國式銅劍.細形銅劍) 4점 (2점은 칼자루장식. 주민수습 1. 발굴 3)
  중국식 동검(中國式銅劍.桃氏劍) 1점 (주민수습 1)
  꺽창(銅戈) 3점 (〃 3)
  투겁창(銅矛) 2점 (〃 2)

- 의기류(儀器類)

잔무늬거울(多鈕細文鏡)	3점 (발굴 3)	
장대투겁(竿頭鈴)	2점 (주민수습 2)	
조합식가지방울(組合式雙頭鈴)	1점 (주민수습 1)	
가지방울(雙頭鈴)	1점 (발굴 1)	
자루달린방울(柄附銅鈴)	1점 (발굴 1)	

- 공구류(工具類)

동도끼(銅斧)	1점 (발굴 1)	
동시(銅시·동사-銅鉈)	1점 (주민수습 1)	銀 施
동끌(銅鑿)	2점 (〃 2)	

- 장신구(裝身具)

굽은옥(天河石製飾玉)	2점 (발굴 2)

- 기타

숫돌(砥石)	2점 (주민수습 2)
계	26점 (주민수습 16. 발굴 10)

이들 출토 유물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가) 무기류(武器類)

· 한국식 동검(細形銅劍)

출토된 한국식 동검은 모두 4점이다.

① 주민 수습품

부식이 심하여 칼날 부위와 칼끝 부위에 떨어져 나간 곳이 많다.

전체적으로 연초록색이 돌며 날 부분은 검은색의 녹이 덮여 있다.

등대에 세운 능각(稜角)이 결입부(抉入部)에 미치지 못한 윤무병(尹武炳) 교수의 분류 1식(式)에 속한다.

칼끝 부위가 부식에 의해 떨어져 나갔으나 등대가 뻗은 상태로 보아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며 등대의 둘째 마디가 뚜렷하게 서 있지 않아 마디는 보이지 않고 갈린 부분만 잘룩한 채 칼끝 부위 등날과 연결되었다.

첫째 마디도 부식되어 보이지 않으나 갈린 각도로 보아 직선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경부(莖部)는 짧은 편이며 단면은 살구씨 모양이다.

길이 25.8cm, 경부 길이 2.1cm

② 동제칼자루장식동검(銅製劍把頭飾附銅劍) : 발굴품

칼집에 들어 있었던 모양으로 동검 주위로 부식토의 칼집 윤곽이 나 있었다.

동검은 비교적 길이가 길고 검신(劍身)의 폭도 넓어 묵직한 감을 준다.

칼끝 부위쪽은 연록색의 녹이 덮여 있고 결입부 이하는 칠흑색의 녹이 덮혀 있다.

부식이 심해 칼날 부위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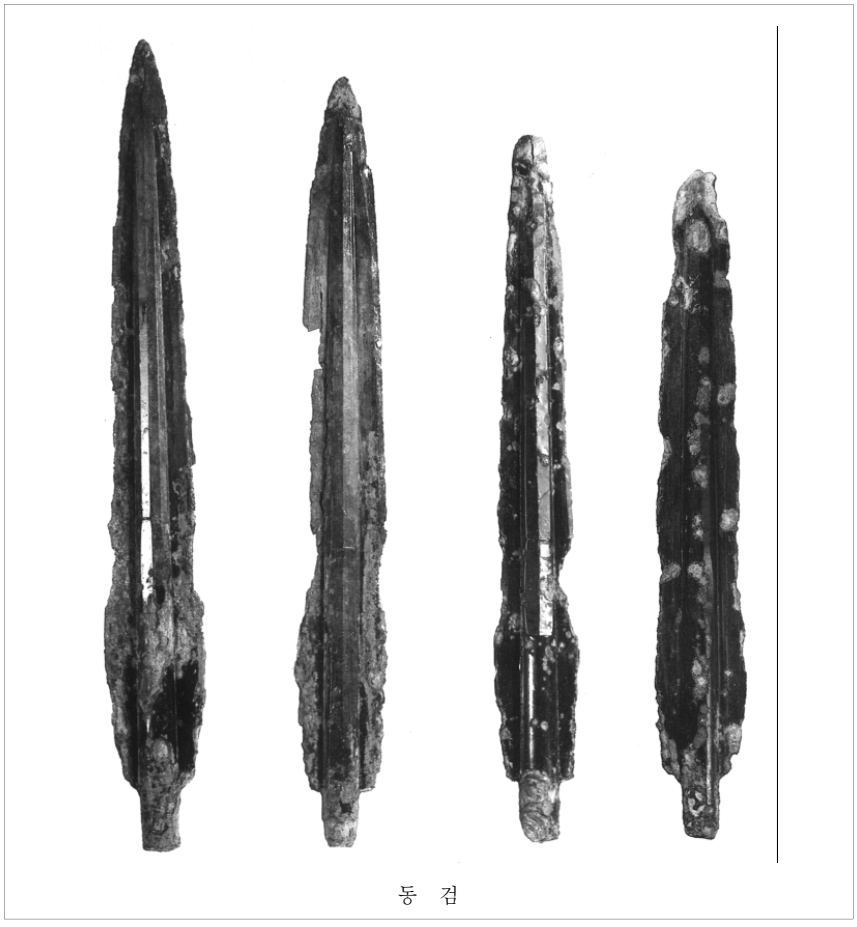
칼끝 부위는 짧고 능각은 결입부 이하에 미치지 않는 윤무병 교수 분류 1식에 속한다.

날의 폭이 비교적 넓고 둘째 마디가 뚜렷하며 단면타원형(斷面楕圓形)의 경부에는 가는 실로 감았던 흔적이 있다.

이 동검의 손잡이 부위는 목제였던 모양으로 부식되어 보이지 않았으나 칼자루장식은 동검 경부 아래쪽 12cm쯤 되는 곳에서 발견하였다.

이 칼자루장식은 입주상(立柱狀)의 장식이 상부에 붙어있는 +자형의 것으로 전면에 검은 녹이 덮여 있는데 드문드문 초록색이 보인다.

부식 상태가 심해 많은 부분이 결손되었다.



동 검

하부는 호콩껍질을 길이로 자른 반쪽 모양에다 네모 모양의 돌기를 잘룩한 양측면에 붙여 +자형을 이루게 하였고 상부는 곧게 세워진 직육면체(直六面體)의 네 모서리를 횡(橫)으로 깊게 파고 상하방에서 압축시켜 4벽면을 밖으로 튀어 나오게한 형태로 상반부는 2단으로 꺾고 하반부는 잘룩한 채로 두었다.

입주상의 맨 윗부분은 부식이 심해 확실치는 않으나 형태가 원형일 것으로 추정되며 한가운데에 직경 0.4cm, 깊이 0.2cm 정도의 작은 반구형(半球形) 홈이 나 있다.

호콩형의 상부 내면은 비었으나 후기 칼자루장식처럼 두께가 얇지는 않고 한가운데 소형 돌기(小型突起)가 붙어 있고 입주상의 상부는 속이 차 있다.

이와 유사한 칼자루장식은 충남 대전 출토품이 있다.

동검 길이 32.7cm, 칼자루장식 높이 3.9cm.

③ 철광석제칼자루장식 동검(鐵鑛石製劍把頭飾銅劍) : 발굴품

목제의 칼집이라고 생각되는 부식토내에 들어 있었다.

부식이 심해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거의 전면에 연초록색의 녹이 슬어 있으며 하부에만 진초록색의 녹이 덮여 있다.

칼끝 부위는 짧고 날 부위는 비교적 넓으며 등대에 나 있는 능각은 칼몸 하부까지 이르고 있는 전형적인 윤무병 교수 분류 2식 동검이다.

등대의 둘째 마디는 약간의 폭을 가지며 뚜렷하나 첫 째 마디는 그렇지 않다.

경부는 짧으며 단면(斷面)은 살구씨형이다.

경부 측면에 지어붙기틀을 합한 흔적이 보인다.

칼자루장식은 경부 아래쪽 12cm 되는 곳에서 출토되었다.

철광석제로 자성(磁性)을 가지고 있다. 전면은 흑회색의 쇠색을 보이며 호콩 껍질의 상부 바닥을 제외하고는 전면이 잘 갈아져 반짝반짝한 광택을 내고 있다.

광석제이기 때문에 중실(中實)의 것이나 형태는 앞의 칼자루장식과 같다.

다만 입주상의 장식이 폭도 넓고 두꺼운 점이 차이를 보인다.

입주상의 맨 위쪽은 원판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 원구형의 중심부에는 직경 0.5cm, 깊이 0.2cm의 둥근 홈이 파져 있다.

동검 길이 31.3cm, 칼자루장식 높이 0.5cm.

④ 발굴품

부식이 심해 결입부쪽과 칼끝 부위에 결손이 많다.

흑색의 녹이 전면에 슬어 있으며 칼끝 부위가 결실되어 확실치 않으나 등대가 뻗은 상태로 보아 칼끝 부위가 짧았던 것으로 믿어진다.

등대에 세운 능각이 결입부 이하에 미치지 않은 전형적인 윤무병 교수 분류 1식이다.

등대 둘째 마디가 일직선으로 뚜렷하며 동 위치의 칼날 부위에도 마디가 보인다.

날의 폭은 2~3mm로 넓은 편이며 칼끝 부위 가까운쪽 폭이 0.5mm 되는 곳도 있다.

결입부는 비교적 깊게 파여 있고 경부는 짧은 편이며 단면은 살구씨 모양이다.

1식 동검이지만 등대의 갈린 형태로 보아 후기 형식에 가깝다.
현 길이 28.5cm, 경부 길이 2.2cm.

· 중국식 동검(桃氏劍) : 주민 수습품



중국식 동검

두 편(片)으로 파손되었고 상당 부분이 결실되었으나 형태는 어느 정도 알아 볼 수있다.

전반적으로 기포(氣泡)가 많고 거칠은 동질이다.

색도 다른 청동기들과는 달리 연초록색의 녹이 전면에 나 있어 일견하여 다른 청동기들과 성분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결실된 부분은 칼몸체의 칼끝 부위와 중간 부분, 자루의 끝 부분인 삿갓장식(首)이다.

칼몸체의 중앙 부분에는 돌선(突線)과 같은 느낌의 희미한 호(鎬.稜角)가 나 있어 칼몸체의 단면이 편릉형(扁菱形)에 가깝지만 호에서 칼날 부위에 이르는 단면선은 안으로 약간 들어가 휘어진 형태다.

칼 콧등은 꺾인 각도가 심하지 않은 ∧형이다.

자루의 봉상부(捧狀部)는 단면이 원형이 아니고 두께가 얇은 볼록렌즈형이며 자루 부위 중간에는 약 1.7cm 간격을 두고 타원상(楕圓狀)의 소형(小型) 테두리 2개가 나 있다.

자루 부위의 끝은 결실되었으나 이러한 동검에는 대체로 삿갓장식형 장식이 달리기 때문에 장식이 달렸던 것이 떨어져 나갔을 것으로 믿어진다.

도씨검의 경우 자루 부위의 길이는 대체로 칼콧등 부위에서 두 돌기부 사이까지 길이의 2배가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복원하면 다른 동검의 손잡이 길이 (대체로 8cm)에 비해 2cm 정도나 짧아져 손잡이로서의 실용성이 없다.

동검의 두께가 얇고 조질인 점과 함께 이 동검이 껴묻기용 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식 동검은 평양 석암리, 재령 고산리, 전(傳) 익산, 완주 상림리 등 몇몇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매원자료(梅原資料)에도 몇점이 보인다.

또한 아직 소개되지 않은 개인 소장품이나 충남 출토로 믿어지는 2점이 있다.

이들 기왕에 출토된 동검 중에서 외형상으로 본 동질(銅質)이나 형태로 가장 가까운 것은 상림리, 고산리, 전 충남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이들 중국식 동검은 중국이나 평양지역에서 보이는 중국

제 중국식동검과는 달리 표면에 연록색의 녹이 덮여 있고 동질도 기포가 많이 보이는 등 거친 것이 없고 자루 부위의 단면이 볼록렌즈형으로 얇아 차이를 보인다.

추정 길이 약 35cm, 추정 손잡이 부위길이 약 6.8cm, 추정 칼몸 최대 폭 4.5cm

· 꺽창(銅戈)

3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주민 수습품이다.

① 주민 수습품

등대에 능각을 세우지 않은 형식이다.

전체적으로 두께가 두텁고 무거운 느낌을 주며 전면에 검은색의 녹이 슬어 있고 표피가 떨어져 나간 곳에는 드문드문 초록색의 녹이 덮였으며 창끝 부위의 길이는 약 6cm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다.

창끝 부위 및 좌우의 날(인부-刃部) 부위에는 횡(橫)으로 연마한 흔적이 보인다.

날 안쪽의 양혈구(兩血溝)가 마주쳐 합쳐진 창끝 부위가 시작되는 부분의 두께가 바로 그 아래쪽의 등대 두께 보다 2cm 이상 두껍다.

이러한 형식의 것은 영암 출토 꺽창 용범(銅戈鎔范)에서 볼 수 있다.

혈구 하단에 나 있는 천공(穿孔)은 네모꼴이다.

관부(關部)는 비교적 넓은 편이고 안(內)도 폭에 비해 길이가 길다.

안의 양 측면에 나 있는 합범흔(合范痕)은 갈아 없앴다.

최몽룡 교수 분류 2식, 이청규 교수 분류 A2식, 전영래 교수 분류 2식이다.

전체 길이 27.6cm, 칼끝 부위 길이 5.8cm, 관부 폭 7.8cm, 안 폭 3.6cm, 안 길이 3.4~4.0cm, 안 두께 0.7cm

② 주민 수습품

꺽창 ①과는 달리 등대에 능각(稜角)을 세운 형식이다,

창끝 부위가 결실되어 전체 길이는 확인 할 수 없으나 ①보다는 길이가 짧을 것으로 본다.

전면적으로 검은색의 녹이 슬어 있으며 드문드문 초록색의 녹이 보인다.

등대의 능각은 관부에 이르는 곳까지 잘 갈려 있고 전체적으로 두텁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혈구(血溝)에 나 있는 구멍은 작은 편이며 원형에 가깝고 관부와 안(內)이 이루는 각도는 꺽창 ①과 비슷하다.

등대와 안의 두께가 두꺼운 편이며 안의 길이는 꺽창 ① 보다 짧다.

안의 상부 관부쪽에는 주조시에 덧붙여 생긴 것이 볼록하게 튀어 나와 있으며 측면 일부에는 합범흔이 보이고 등대 일부에는 횡으로 간 흔적이 있다.

최몽룡 교수 분류 1식, 이청규 교수 분류 A1식, 전영래 교수 분류 1식이다.

현재 길이 20.5cm, 관부 폭 7.4cm, 안 폭 3.6cm, 안 길이 3.0~3.7cm, 안 두께 0.7cm

③ 주민 수습품

꺽창 ②와 같이 등대에 능각을 세운 형식이다. 전면에 검은색의 녹이 덮여 있으나 등대쪽에 일부 파여진 부분을 보면 청동 본래의 색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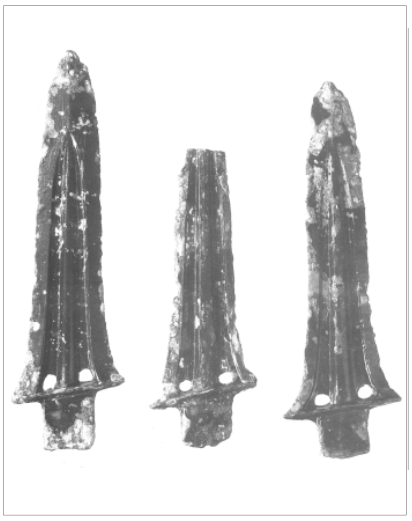
구리거울류 보다는 주석(朱錫)이 많이 섞인 것으로 본다.

창 끝 부위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길이 약 5cm 정도이다.

창날은 부식으로 인해 모두 탈락되었고 창 몸체의 관부쪽 호선(鎬線)은 곡도(曲度)가 큰 편이다.

능각이 등대의 아래 끝까지 제대로 갈리지 않고 하단 2.4cm 가량은 양쪽에서 같은게 마주치지 않아 희미하게 되어 있다.

혈구에 있는 천공(穿孔)은 장방형(長方形)에 가깝고 관부는 비교적 넓은 편이며 안은 폭에 비해 길이가 짧은 편이다.



꺽창(동과.신고품)

안과 관부가 이루는 각도가 다른 것에 비해 작으며 안의 좌우 측면에는 일부 합범흔이 보인다.

안의 관부 사이에도 주조시 놋쇠물이 스며 나와 굳은 것이 일부 붙어 있다.

길이 26cm, 창끝 부위 길이 5.0cm, 관부 폭 8.2cm, 안 폭 3.4cm, 안 길이 3.0~3.3cm, 안 두께 0.55cm

· 투겁창(銅鉾.矛)　　銅 眸

투겁창은 2점이 출토되었고 모두 주민 수습품이다.

① 주민 수습품

귀가 없고 구멍이 있는 형식(無耳有穿式)의 것이다.

전체적으로 칠흑색의 녹이 덮여 있고 비교적 긴 원통형의 착부(鑿部)가 그대로 연장되어 창몸체의 등대를 이루었다.

등대에 나 있는 능각은 관부까지 이르고 있으나 좌우 삭마면(削磨面)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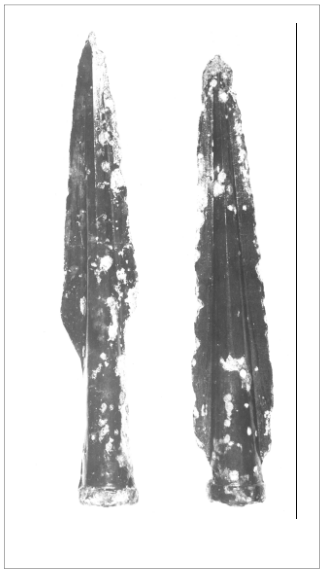
창날은 관부 이하까지 날이 잘 서 있고 공부(공部)의 하단에는 폭 0.8cm 정도의 돌대(突帶)가 1조(條) 돌고 있으며 공부 일측면의 돌대 바로 위쪽으로는 못을 박기 위한 직경 0.5cm 정도의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있다.

공부 양 측면에는 합범흔이 나 있고 공부 안으로 나 있는 소켈은 공부에서 16.8cm 되는 곳까지 나 있다.

윤무병 교수 분류 제1류에 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투겁창은 ①길이는 약간 ②짧지만 ③이화동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전체 길이 27.9cm, 공부 길이 8.2cm, 관부 추정 폭 약 5cm

② 주민 수습품


투겁창(동모·신고품)

공부가 매우 짧은 특이한 형식의 투겁창이다.

전체적으로 칠흑색의 녹이 덮여 있고 부분 부분 초록색 녹이 보인다.

창날 부분이 결실된 곳이 많아 확실치 않지만 관부의 위치도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어 바로 보고 투겁창 이라 하기 어려울 정도다.

모부(矛部)는 3cm 미만으로 짧은 편이며 등대에 나있는 양측의 삭마면은 일정치 않고 등대 중앙에서 마주치지 않아 호선(鎬線)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등대의 삭마도 3차례 정도 나누어 행하였던 모양으로 삭마면의 중간부가 일정하게 연결되지 않고 있다.

공부 길이는 2cm가 조금 넘는데 돌대의 폭을 제하면 1cm 밖에 되지 않는다.

공부 하단에는 폭 1cm 가량의 돌대가 돌고 있으며 이 돌대 바로 위쪽의 한 측면에는 직경 0.8cm 정도의 못 구멍이 뚫려 있다.

공부 안으로 나 있는 소켙은 공구에서 13.7cm 되는 곳까지 나 있고 공부의 단면은 타원형이다.

윤무병 교수 분류 제1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투겁창 형식의 것은 아직 출토된 바가 없다.

전체 길이 26.1cm, 공부 길이 2.3cm, 관부 추정 폭 4.6cm

나) 의기류(儀器類)

· 잔무늬거울(細文鏡)

모두 3점이 나왔고 발굴품이다.

① 발굴품

피장자의 우측 발밑쪽에서 발굴하였다.

일부 녹청색의 녹이 나 있으나 전체적으로 흑색의 녹이 슬어 있다.

거울면은 약간 오목하게 들어 갔으며 경연(鏡緣)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거울 뒷면 중심에서 약간 윗쪽으로 2개의 거울손잡이(뉴-鈕)가 나란히 붙어 있다.

거울손잡이의 형태는 반환형(半環形)이나 납작한 편이며 손잡이 밑에 뚫린 구멍도 둥글지

않고 납작하다.

거울손잡이의 중간부는 잘룩하며 구멍의 좌우쪽에는 구멍을 내기 위해 끼웠던 봉(棒)에 의한 흔적이 보인다.

거울 뒷면에 나 있는 문양 구성은 복잡하나 기본적으로 외구(外區), 중간구, 내구의 삼구로 구분되는 삼구식(三區式)의 거울이다.

각구의 문양 설명은 우야융부(宇野隆夫)의 "단위문양분류(單位文樣分類)"를 따르기로 한다.

외구는 ①삼각형문과 ②장방형문을 교호(交互)로 배치하였는데 삼각형문 중 꼭지점이 안쪽에서 경연(鏡緣)쪽으로 뻗은 것은 밑변의 폭이 좁고 그 반대로 뻗은 것은 밑변의 폭이 넓다.

삼각형의 내부를 사변(斜邊)에 평행하는 평행선으로 채운 단위 문양 A1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방형문은 상하로 구분하여 각각 동일한 문양 B1을 배치하였다.

이 밖에 접해 있는 3개의 구획대(區劃帶)에 짧은 평행선을 엇갈린 단위 문양 B4가 대칭으로 4곳에 나 있다.

중간구는 7개의 윤대(輪帶)로 구성되었는데 단위문양(單位文樣) C6, C3, C3, C1, C1, C4, C5 순으로 배치되었다.

내구(內區)는 상하로 양구획 한 뒤 위쪽은 다시 상하로 나누어 각각 단위문양 D3으로 채웠으며 아랫쪽은 다시 횡으로 4구획하여 각각 단위문양 D3으로 채웠는데 일부에는 외구 문양에서 주로 보이는 A1 문양이 그려졌다.

전체적인 문양 구성이 전(傳) 논산 출토 국보 거울과 아주 유사하다.

직경 17.8cm, 두께 0.3cm, 손잡이 높이 0.65cm, 주연(周緣) 폭 1.5cm

② 발굴품

이 거울은 철광석제 칼자루장식 동검 밑에 겹쳐서 출토된 것으로 나무로 만든 거울 갑에 들어 있었던 모양으로 검은 부식토가 거울 주위로 둥근 윤곽을 나타내고 있었다.

흑색의 녹이 전면에 덮여 있고 부식 상태가 거울 3매 중 가장 덜한 편이다.

거울면은 약간 안으로 들어가 오목한 편이며 경연(鏡緣)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거울 뒷면에는 중심에서 약간 위쪽으로 반환상(半環狀)의 거울손잡이가 쌍으로 달려 있다.

거울손잡이는 띠고리의 형태를 가졌으며 높이가 낮아 납작한 느낌을 준다.

손잡이의 중간부는 잘룩하며 구멍의 크기도 작다.

구멍의 좌우측에는 구멍을 내기 위해 끼웠던 봉의 흔적이 남았다.

뒷면의 문양이 외구, 중간구, 내구의 3구로 나뉘어 배치된 삼구식(三區式) 것이나 내구가 직경 1.2cm 정도로 아주 작고 그 안의 문양도 적당히 그려져 있어 내구를 내구 자체로서 특별하게 의식해서 만든 것으로는 인정하기가 힘들다.

중간구의 윤대(輪帶)를 여러개 돌리고 난 뒤 마지막으로 중심부에 남은 소원(小圓)을 그대로 중간구의 문양과 비슷하게 처리한 것이라 엄밀하게 말하면 3구식이지만 2구식에 가까운 것이다.

외구에는 삼각거치문(三角鋸齒文)을 엇갈려 맞물리게 하여 배치하였는데 각 삼각형의 내부는 삼각형의 꼭지점이 경연을 향한 것에는 밑변에 평행한 집선문(集線文)으로,꼭지점이

내구쪽을 향한 것에는 사변(斜邊)에 평행한 집선문으로 채웠다.

단위문양 A3이다.

내구는 12개의 윤대(13개의 동심원)로 이루어 졌으며 이 12개의 윤대는 한쪽이 중심쪽으로 뻗은 16개의 긴 선문과 10개의 짧은 선문에 의해 나뉘어 졌는데 바깥쪽으로부터 10개의 짧은 선문은 첫번째와 둘째번 윤대까지만 나 있고 이 선문 중 하나는 다시 세번째 원권대(圓卷帶)까지 뻗고 있다.

이 선문과 동심원이 만나는 점은 모두 대각선을 그어 잇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삼각형(한 변이 호선으로 이루어짐)의 내부에는 각각 밑변에 평행한 집선문과 사변에 평행한 집선문을 채웠다.

단위문양 C3이다.

내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주 작고 문양도 짧은 집선을 엇갈려 중간구의 단위문양 D3와 비슷한 효과를 노렸으나 자세히 살펴 보면 일정치 않고 가운데 빈 곳을 메꾸어 적당히 마무리 하려고 한 느낌을 받는다.

전체적인 문양 구성이 경주 입실리, 횡성 강림리 출토 거울과 가깝다.

지름 15.6cm, 두께 0.35cm, 손잡이 높이 0.5cm, 주연 폭 1.5cm

③ 발굴품

3매의 거울 중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이다.

피장자의 오른쪽 허리 옆에서 발견된 동제 칼자루장식 동검의 칼몸체 바로 밑에서 출토된 것이다.

나무로 만든 거울갑에 들어 있었던 모양으로 주위의 흙이 검은 부식토로 덮여 있었다.

흑색의 녹이 전면에 슬어 있고 거울면이 심하게 안으로 들어가 오목 거울처럼 되어 있고 경연의 단면은 납작하게 된 반구형(半球形)에 가깝다.

뒷면에는 중심에서 약간 위쪽으로 치우쳐 두 개의 거울손잡이가 나란히 붙어 있고 중심부에서 아래쪽으로 한 개의 거울손잡이가 붙어 있다.

소위 삼뉴식(三鈕式)의 것이다.

손잡이는 모두 종단면(縱斷面)이 반환형(半環形)을 이루고 중간부가 잘룩한 것으로 아랫쪽의 손잡이가 윗쪽의 두 손잡이 보다 작다.

거울 뒷면의 문양은 3구로 나뉘어 채워졌다.

외구에는 삼각거치문(三角鋸齒文)을 맞물려 돌렸는데 꼭지점이 중심을 향한 삼각형의 내부에는 아무런 문양도 채우지 않았다.

단위 문양 A5이다.

중간구는 폭이 좁은 3개의 윤대(輪帶)로 이루어졌는데 아래쪽 손잡이와 겹쳐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21개의 짧은 선문으로 나뉘어졌으며 각 구획된 곳에는 상하 좌우 교호(交互)로 짧은 선을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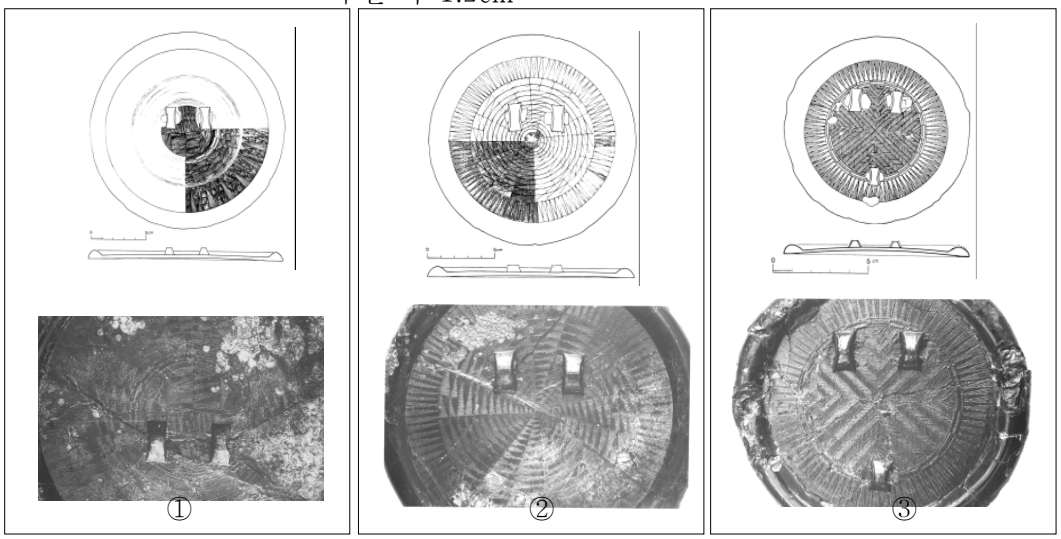
단위문양 C4 이다.

내구는 중심을 교차점으로 해서 ＋자로 4 구획한 뒤 각 구획된 곳을 ㄱ자형의 단사선문

대(短斜線文帶)를 교호로 엇갈려 그렸고 마지막 남은 삼각형에는 단사선을 채웠다. 우야(宇野)의 "단위문양분류"에는 없다.

손잡이가 셋 달린 잔무늬거울은 함흥 이화동, 금야 용산리 제 2 지점, 일본 산구 미율병(山口梶栗병) 등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내구가 이와 같은 +자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용산리 제2지점 출토품 밖에 없다.

손잡이가 셋 달린 잔무늬거울은 모두 지름 9cm 전후의 작은 거울이며 외구 문양은 단위문양 A5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름 9.7cm, 두께 0.15cm, 손잡이 높이 0.35cm, 주연 폭 1.2cm



잔무늬 거울

· 장대투검(竿頭鈴)

장대투겁은 1쌍이 출토되었고 모두 주민 수습품이다.

① 주민 수습품

"동간두(銅竿頭), 동제영부병두(銅製鈴附柄頭), 이형유악령(異形有鍔鈴)" 등으로 불리어 온 것이다.

기 출토된 일반적인 장대투겁과 같은 형태의 것이다.

신부(身部)와 자루 부위 사이에 갓의 테두리 형상을 한 테두리가 돌려진 중공(中空)의 포탄형구(砲彈形具)이다.

내부에는 꼭지부위에서 5.1cm 가량 아래쪽에 횡(橫)으로 칸막이가 설치되었다.

칸막이의 두께는 0.3cm 정도로 두꺼운 편이고 한쪽에는 부정형의 구멍이 두개 나 있다.

이 구멍들 하나는 칸막이를 사이로 둘로 나눈 내형(內型)들을 고정하기 위해 연결되었던 봉(棒)이 박혔던 자국이며 다른 하나는 주손(鑄損) 자국으로 생각된다.

영부(鈴部) 속에는 지름 1.2cm의 구리구슬 한 개가 들어 있다.

신부에는 네 개의 긴 살구씨형 절개구(切開口)가 나 있고 각 절개구 사이와 대칭이 되는 두 개의 절개구 아래쪽으로 각각 동일한 문양대(文樣帶)를 횡으로 배치하였다.

이들 문양대의 형태는 긴 이등변삼각형(長二等邊三角形)이며 구성은 일렬로 된 음각평행단사선문(陰刻平行短斜線文)의 좌우에 각각 2열로 된 음각방형 점선문(陰刻方形點線文)을 조합하여 이루어졌다.

나머지 두 개의 절개구 밑에 문양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이 부위가 2매의 용범이 합치는 곳이라 애초부터 무늬를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테두리부에는 대칭으로 부정형 구멍이 각각 1개씩 뚫려 있고 3군데에 땜질 자국이 보인다.

땜질 부위는 합범흔이 나 있는 부근으로 이쪽이 항상 주조시에 손상을 입기 쉬운 부분이라 구멍이 잘 생기는 모양이다.

땜질의 형태는 모두 장타원형이고 표면은 잘 갈아 매끄럽게 처리하였으며 내부의 튀어나온 자국은 모두 그대로 놔두었다.

땜질 부위의 녹 색깔은 주위와 약간 다르다.

자루 부위에는 연속된 음각의 장이등변삼각형에 가까운 사다리꼴 문양을 상하로 마주보게 하여 횡으로 돌린 문양대가 나 있다.

문양이 정치(精緻)하지는 않다.

높이 14.5cm, 자루부위 지름 4.5cm, 칸막이 높이 5.1cm, 구리구슬 직경 1.2cm, 땜질흔 길이 2.4cm, 2cm, 1.2cm

② 주민 수습품

형태, 문양, 녹의 색조 등이 ①과 동일하다.

영부의 일부가 결실되었고 구리구슬(銅丸)도 유실되었으며 땜질 자국은 보이지 않는다.

크기, 두께 등 세부적인 차이로 보아 장대투겁 ①과 함께 동일한 용범에 의해 제작된 것은 아니다.

높이 14.3cm, 자루부위 지름 4.5cm, 칸막이 높이 5.0cm <선사시대 화보 참조>

· 조합식가지방울(組合式雙頭鈴)

기 출토되었던 조합식 자지방울 보다는 소형이다.

일단(一端)에 영부가 부착된 직경 1cm 가량의 동봉(銅棒) 2개를 각각 구부린 뒤 X자형으로 교차해서 조합한 것이다.

영부는 만두형이며 4개의 절개구가 나있다.

봉상부(棒狀部)는 단면원형(斷面圓形)으로 굵기가 다른 조합식 가지방울에 비해 가늘다.

봉상부는 중실(中實)의 것이나 두 군데에 조그만 홈이 파져 있고 그 곳에 석회와 같은 회색의 물질이 채워져 있다.

이것이 주손(鑄損) 입은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였던 흔적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봉상부의 휘어든 만곡도(彎曲度)는 전(傳) 상주 출토 조합식가지방울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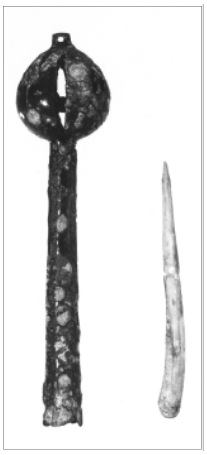
삽입 구멍이 나 있는 일단은 일부가 파손되어 확실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고착용(固着用) 구멍은 보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고착하지 않고 사용한 모양이다.

문양은 영부, 봉상부 모두 보이지 않는다.

길이 15cm, 폭 11cm, 영부 폭 3.3cm

(4) 가지방울(雙頭鈴)



자루달린 방울(병부동령) 및 목심

가지방울은 묘곽의 서쪽 귀퉁이 벽석과 묘광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파손되어 절반 밖에 남지 않은 것과 방울 부분만 남은 것이 15cm 간격을 두고 따로 따로 발견되었으나 같은 하나의 가지방울이 부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아령(啞鈴)과 같이 생긴 것으로 가운데 봉상부(棒狀部)는 중앙이 불룩하고 방울 부위와 연결되는 양단은 가늘다.

방울은 만두형으로 4개의 긴 절개구(切開口)가 나 있고 속에는 지름 0.7cm의 구리구슬(銅丸) 1개가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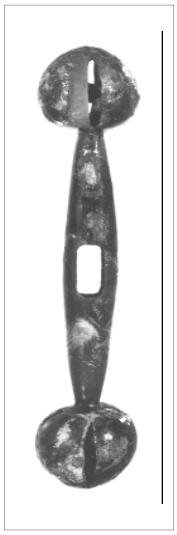
구리구슬은 합범(合范)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중심부에 합범 자국이 보인다.

봉상부의 속은 영부와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속이 비어 있다.

중앙에는 장방형의 구멍이 관통되어 있다.

가지방울은 쌍으로 발견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한 점은 유구가 발견 될 당시 없어졌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 길이 7.7cm, 복원 길이 15.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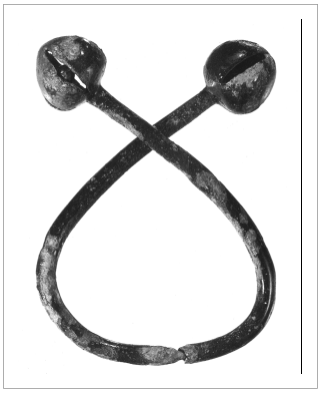
가지방울(쌍두령)

· 자루달린방울(柄附銅鈴)

가지방울 출토 위치의 맞은 편 쪽 벽석과 토광(土壙) 사이에서 발굴하였다.

방울 부위는 장대투겁을 제외한 일반 구리방울에서 보이는 방울 부위 보다 훨씬 크고 구형(球形)이다.

방울 부위의 정부(頂部)와 일측면(一側面)에는 각기 ㄷ자형의 작은 손잡이가 한 개씩 달려 있다.



조합식 가지방울

방울 속에는 영부(鈴部)와 동일한 형태의 작은 구형의 구리방울(銅鈴)이 들어 있는 모자(母子) 방울식의 특이한 것이다.

방울 부위의 절개구는 4개이며 안의 작은 방울에도 절개구가 4개나 있다.

작은 방울 속에는 지름 0.6cm 정도의 구리구슬이 1개 들어 있다.

자루 부위는 곧고 하단에 이를 수록 폭이 넓어진다.

자루 부위 하단에는 작은 네모형의 못 구멍이 대칭으로 하나씩 뚫려 있고 자루 부위 속에는 끝이 qY족하게 깎여진 나무가 꽂혀 있다.

자루 부위의 단면은 8각형에 가까우며 표면에 새겨진 문양은 4조의 단사선문(短斜線文)으로 구성되었다.

길이 17cm, 폭 4.2cm, 작은방울 폭 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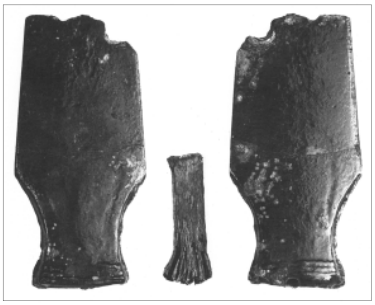
다) 공구류(工具類)

· 동도끼(銅斧) : 주민 수습품

소위 유견동부(有肩銅斧)에 속하는 형식의 것으로 전면에 칠흑색의 녹이 덮여 있다.

동도끼라고는 하지만 편도(片刀)의 것이 대부분이라 손자귀와 같은 공구의 일종이다.

공구 쪽에서 도끼 몸부를 향하여 호선을 그리며 잘룩하게 휘어져 들어 가다 다시 넓어지면서 견부(肩部)와 만나고 견부에서 도끼 날 까지는 약간 내향(內向)하면서 곧게 내려 왔다.



통도끼(유견동부) 및 목심

공구의 외면 주위로는 4조(條)의 돌선을 돌렸다.

날 부위는 결실된 곳이 많으나 편도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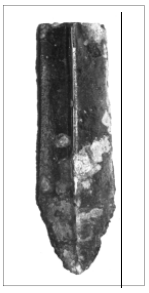
공부 양쪽 측면에는 일부 합범흔이 보인다.

공부 안쪽으로 나있는 소켙은 사다리꼴로 좁아지면서 공구에서 약 5cm 깊이까지 파여있다.

표면이 그다지 매끄럽지 못하고 돌선의 표현도 뚜렷하지 못하다.

이러한 형식의 동도끼는 영암, 화순, 전(傳)공주, 대구, 순안 각지에서 발견된 바 있는데 사촌 것과 가장 유사하고 규격이 비슷한 것은 전 공주 출토품이다.

전체 길이 9.7cm,날부위 추정 폭 4.0cm,신부장(身部長) 6.0cm,공구 폭 2.5. 0.7cm



동 과

· 동사(銅鉈) : 주민 수습품

날이 나 있는 선단(先端)이 삼각상을 이룬 전형적인 동사다.

전면이 칠흑색의 녹으로 덮여 있다.

외만(外彎)된 표면 중앙에 돌대처럼 가늘게 튀어 나온 능선이 있고 신부(身部)의 아래 쪽으로 폭이 조금씩 좁아진다.

날 부위는 좌우 양쪽이 잘 갈려 있으며 신부의 양 측면에는 날이 없다.

신부의 단면은 초생달형으로 이면(裏面)쪽이 들려있다.

원래 길이가 길었던 것이 부러져 하부를 갈아 재 사용한 모양으로 길이가 다른 동시들에 비해 매우 짧다.

이러한 동시는 화순 대곡리를 포함해 모두 11개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현재 길이 7.6cm,폭 2.5cm



동 사

(3) 동끌(銅鑿)

2점이 출토되었고 모두 주민 수습품이다.

① 주민 수습품

전면에 칠흑색의 녹이 슬어 있다.

공구(공口)의 일부가 결실되었고 신부(身部)의 단면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것이나 양 측면의 합범흔이 튀어 나와 있어 육각형처럼 보인다.

공구의 외면에는 돌대가 돌려 있고 내부의 구멍은 단면이 정사각형이며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졌다.

신부의 폭은 별로 좁아지지 않은 채 날 부위와 연결되나 상하의 두께는 얇아지면서 날 부위와 연결되고 있다.

소켵은 공구에서 5.8cm 되는 곳까지 나 있다.

숭실대 소장 용범(鎔范)에서 보이는 동끌과 동일한 형식의 것이다.

전체 길이 10.0cm,공구 추정 폭 1.5cm

② 주민 수습품

인부(刃部) 쪽이 절손된 것이다.

전면에 칠흑색의 녹이 덮여 있다.

동끌 ①과는 달리 신부의 단면이 육각형을 이룬 것으로 이 육각형의 상하면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다.

공구의 외면에는 폭 0.7cm 정도의 돌대를 한 줄 돌렸으며 내부 구멍은 아래 쪽으로 좁아지며 나 있는데 현재는 날 부위 쪽이 결손되어 구멍이 상하로 맞 뚫려 있다.

공구 윗면에는 합범흔을 갈아지운 흔적이 남아 있고 한 쪽 편에는 오목하게 주손(鑄損) 자국이 남아 있다.

이러한 단면 육각형을 가진 동끌로는 아산 성남리 출토품이 있다.

현재 길이 5.3cm,공구 폭 1.6cm

라) 장신구(裝身具)

· 굽은 옥귀걸이(天河石製飾玉) : 발굴품

묘광의 남서쪽 바닥, 피장자의 귀 부분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15cm 간격을 두고 한 쌍을 발굴하였기 때문에 귀걸이로 믿어진다.

연초록색 바탕에 흰 반정(班晶)이 박힌 천하석제의 것이다.

타원형의 환(環)을 반절한 형태며 한 쪽에 지름 0.6cm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어 수하(垂下) 할 수 있도록 되었다.

구멍은 위에서 아래로 비스듬히 뚫었다.

전면이 매끄럽게 잘 연마되어 윤이 난다.

길이 3.8cm, 두께 1.35cm

(2) 굽은옥귀걸이 : 발굴품

굽은 옥귀걸이 ① 과 같은 것이나 두께가 ① 보다 얇고 흰 반정(班晶)이 덜 섞인 질의 것이다.

구멍은 나란히 붙여서 2개가 뚫렸는데 앞뒤 쪽에서 맞뚫은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귀걸이는 대전 괴정동, 부여 연화리, 예산 동서리, 아산 남성리 등의 돌널무덤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길이 3.85cm, 두께 1.2cm



천하석제식 옥

마) 기타

기타 유물로는 숫돌(砥石) 2점이 있다.

· 숫돌(砥石) : 주민 수습품

단면 직사각형의 소형 숫돌이다.

중간부가 부러졌으나 완형이다.

전면이 잘 연마되어 있고 상면을 주로 사용하였던 모양으로 표면이 약간 오목하다.

입자가 치밀한 니질암제(泥質岩製)이다.

길이 7.9cm, 두께 1.0cm

· 숫돌 : 주민 수습품

횡단면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숫돌로 숫돌 ①과 같은 니질암의 것이다.

전면이 연마되어 있으나 주로 사용된 면은 상하면으로 표면의 중간부가 약간 우묵하게 들어 갔다.



지석

길이 20.6cm, 두께 2.5cm

(5) 무덤 축조연대

초포리 사촌 유적은 한국식동검문화기의 대표적인 적석돌널무덤(積石石棺墓) 계통의 유적이다.

유구(遺構)는 매장 주체부가 나무관으로서 묘광(墓壙)과 관 사이를 할석으로 메꾼 뒤 묘광의 상면에 적석을 한 것(積石木棺墓)이거나 매장 주체부가 할석을 쌓아 만든 돌널(석관. 바닥과 뚜껑은 나무로 된)로서 묘광의 상면에 적석을 한 것(積石石棺墓) 등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그동안 조사되었던 괴정동, 동서리, 남성리 대곡리 유적 등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이다.

껴묻기를 함에 있어 관내 껴묻기 이외 할석으로 쌓은 벽석 속에 껴묻기를 한 방법은 처음 확인된 것이지만 앞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던 유적들에서도 같은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소위 와질토기(瓦質土器)를 내는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 초기 널무덤 유적까지 계속되었다고 믿어진다.

초포리 유적과는 연대차를 보이는 것이지만 조양동(朝陽洞) 5호분과 같은 예를 보면 관내 부장품 외에 관벽, 묘광 사이, 관위 또는 주위, 묘광주위 등에 관외 부장품을 묻었던 것이 상부 나무뚜껑이 썩어내려 앉으면서 흙, 적석 등과 함께 매몰되어 묘광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초포리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들은 무기류, 공구류, 의기류로서 모두가 한국식동검문화기의 대표적인 유물들이다.

다뉴잔무늬거울(多鈕細文鏡), 동령(銅鈴)들은 그 제작 수법이 매우 정교하고 세련된 것으로 고도의 기술이 없이는 만들기 힘든 것이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석제용범(石製鎔范)에 의한 주조기법 이외에도 실납법(失臘法), 주물사법(鑄物砂法) 등 다양한 주조기법이 알려져 있었으며 주조시 주손(鑄損)을 땜질하는 보수방법도 알려져 있었다.[38]

한국식동검문화기는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한국식동검문화의 성립기로 요녕식동검(遼寧式銅劍) 문화의 파급으로 인해 한국식동검, 거친무늬거울(粗文鏡), 청동의기류 중 방패형동기(防牌形銅器), 검파형동기(劍把形銅器), 나팔형동기 등이 출현하며 그 성립 과정에서 요녕식동검문화 요소를 특히 형태를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등 요녕식동검문화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북방문화 요소도 일부 받아들여져 복합되고 있다.

제2기는 한국식동검문화의 발전기로 요녕식동검문화 영향에서 탈피하여 북방문화 요소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동령류(銅鈴類)의 청동의기가 등장하고 주조기술의 발전을 비롯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구리거울의 문양이 정문화(精文化)가 이루어지고 동도끼와 같은 것도 한국화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 중원문화의 영향도 받기 시작해 초기 형식의 투겁창, 꺽창, 동시 등이

38) 이건무 "청동기 유물의 땜질 기법" 삼불(三佛) 김원룡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고고학편.일지사.1987.

출현하게 되나 이들 청동기들도 모두 한국식이라 부를만큼 형태가 독특해 중원문화의 영향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제3기는 한국식동검문화의 쇠퇴기이다.

중원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각종 청동기들이 실용적이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제작되며 청동의기도 장대투겁, 자루달린방울 등만 남게 되는 등 새로운 문화에 대한 충격으로 청동문화가 쇠퇴해 가는 과정을 밟는다.

특히 한문화(漢文化)의 영향으로 철기가 제작되면서 청동기로서의 기능은 상실된 채 명맥만 유지된다.

초포리 유적은 이러한 한국식동검문화기 중 2기와 3기에 걸치는 시대의 유적으로 믿어진다.

왜냐하면 초포리 유적에서는 철기의 흔적을 볼 수 없으나 2기의 전성기에서는 이미 벗어난 느낌으로 퇴화된 형식의 중국식동검이 출토되었고 동검, 구리거울들 중 제3기에 가까운 것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구리방울류에서도 팔주령(八珠鈴)은 보이지 않고 의기류에서 보이는 단위문양의 조합을 보더라도 제3기 유적들에 가깝기 때문이다.

껴묻기 유물을 통해 피장자의 신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초포리에서는 각종 청동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특히 많은 무기류와 의기류가 공반되었는데 이 중 동령류(銅鈴類)의 의기는 샤마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고 농경, 수렵 의례에도 사용되었던 샤만(원시 종교 주재자)의 무구(巫具)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무기류는 피장자가 상당한 권력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 출토된 청동기 중 동일한 용범에 의해 제작된 것은 한 점도 없다.

이것은 청동기가 다량으로 제작되어 각지로 배분된 것이 아니고 일부 계층에서만 제작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렇게 한 무덤에서 청동기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것은 이들 청동기 소유자의 집단이 한정되어있고 이들 중에 종교적 제의(祭儀)를 주재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이 주재자는 의기와 무기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강제력을 구사 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계급간에 구분이 지어졌으며 지배계급의 최고 권력자는 제정(祭政)을 함께 관장하는 신분이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출토되는 의기류도 각 지역 지배계급 사이의 출자(出自) 등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관계는 철기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인 새로운 집단에 의해 점차 무너지게 되어 일부 집단은 경상도 지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가 미생시대(彌生時代)의 청동기 문화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것은 철기가 반출되는 청동기 유적이 경상도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구주(九州) 지

역을 포함한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한국식동검문화를 모체로 한 새로운 청동기 문화가 뒤늦게 꽃피우는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으며 검(劍), 거울, 옥 세트에 대한 삼종신기(三種神器)의 신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축조 연대는 한국식동검문화기 제2기에 속할 수 있는 화순 대곡리, 전(傳) 영암, 송산리 유적들 보다는 한 단계 뒤늦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원전 2세기 초에서 기원전 2세기 전반 정도에 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39]

2) 함평 성남리 지성 유적

성남리 지성유적은 서해안고속도로 편입지로 199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이 유적은 일명'지성골'로 불리며 지형은 평지부와 이곳으로부터 완만하게 올라가는 구릉 사면부로 이루어져 있다. 발굴조사 결과 원형유구 100여기,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5기를 비롯하여 토광묘 4기, 옹관묘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성남리 지성유적 일대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생활유적 및 분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40]

3) 함평 옥산리 옥산 유적

옥산유적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98년에 시굴된 유적으로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가군은 옥산마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표고 10m 내외의 논 지대이다. 이곳 주변에는 낮은 구릉에서 작은 계곡을 따라 발달한 소하천이 함평만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 조사결과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 말기의 문화층으로 무문토기편들이 수습되었으며 여러 곳에서 고하천이 흘렀을 가능성이 높은 계곡들이 확인되었다. 유적 지층 단면상에 자연환경 변화를 밝힐 수 있는 니층이 잘 발달해 있다. 나군은 높은 산으로부터 비교적 급한 구릉사면을 따라 흘러 내려오면서 퇴적층이 형성되었으나 특별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다군은 철기시대 유적으로 조사결과 적색 연질토기편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4) 함평 장년리 당하산 유적

당하산 유적은 중기 구석기와 후기 구석기, 신석기, 초기 철기시대에 이르는 유적이 확인된 다층위 유적이다. 철기시대 문화층에서는 토광묘 2기와 옹관묘 3기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수혈과 토광이 확인되었다. 특히 토광에서는 세형동검이 출토되었다. 토광묘는 소형 단독 묘로 초기 철기시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옹관은 물레를 사용하지 않고 무른 토기를 이용한 합구식 옹관으로 동체부에는 우각형파수를 부착

39) 이건무, 『전 익산출토 원형유구문청동기』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총, 통천문화사, 1984.
40)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함평 성남·국산 유적』, 2001.

하고 있다.

(1) 청동기 시대

유일하게 언덕사면에서 한국식동검(세형동검) 1점이 출토되었는데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재생한 흔적이 보인다.

(2) 철기시대

이 시기의 유구는 모두 제3문화층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널무덤 3기, 독무덤 2기, 소형구덩이(小形土壙) 6기가 발굴되었고, 독무덤 2기, 널무덤 1기에서만 유물이 출토되었다.

널무덤(토광묘)

3기 중 껴묻거리가 나온 1기를 소개한다. 규모는 길이 112cm, 폭 64cm, 깊이 31cm이고, 장축방향은 북서이며 언덕 사면에 위치하는데 출토유물로는 항아리 1점이 있다.

독무덤(옹관묘)

1호 : 소형 독널이다. 능선과 직교하는 길이 42cm, 폭 39cm의 타원형 구덩이에 묻혀있는데 독널의 총 길이는 42cm이다. 독널은 먼저 북서쪽으로 토기의 몸통부를 세우고 몸통부 쪽으로 토기를 뉘어 매장하였다. 뉘인 토기의 아가리 쪽은 다시 큰 토기의 아가리편을 덮어놓았다. 이 독널의 형식은 하나의 토기를 뉘어놓은 것이지만 그 몸통부로 그 토기를 막고 토기의 아가리를 얹어놓은 것이어서 마치 두 개의 독널을 맞물려 놓은 것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매장 방법은 두 개의 독널을 맞물려 놓은 상징적인 모습을 갖는 변형야식으로 볼 수 있다.

2호 : 길이 103cm, 폭 90cm의 구덩이를 판 후 한쪽 구덩이를 측면으로 깊이 파서 끼워 넣듯이 토기를 넣고 다시 큰토기를 그 토기에 끼워놓은 후 주변에 돌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았다. 독널의 총길이는 70cm며 독널 안에 아주 작은 목항아리(장경호) 1점을 껴묻기 하였다.

구덩이(土壙)

구덩이는 6기가 확인되었는데 처음에 질흙과 함께 주변 반경 10m 전후에서 토기의 파편들을 발견하여 수습한 후 그 아래에서 상부가 유실된 구덩이를 확인하였다. 이들 구덩이 주변에는 동일한 토기편이 산재해 있었다. 구덩이 안에는 질흙이 충적되어 있었고 구덩이 안에는 다른 유물은 없었다.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유구와 유물은 전남지방의 고인돌사회에서 독무덤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동안 충분한 자료가 없었던 이 시기를 메꾸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굴된 한국식동검, 널무덤, 구덩이(토광), 독널 등은 서로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독널의 경우 광주 신창동 유적 출토 독널과 비교될 수 있다.

5) 함평 진양리 중랑 유적

중랑 유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무안~영광간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99년 발굴조사 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 205기(청동기시대 3기, 철기시대 3기, 삼국시대 199기), 고인돌 1기, 토광묘 3기, 옹관묘 2기, 제형주구 1기, 구 1기, 수혈 7기, 방형주구 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시기는 기원후 3세기부터 5세기대로 추정되며 수습유물로는 다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옹형토기, 완, 시루, 주구토기, 개배, 철겸, 철도자, 철부, 철정 등이 있다. 분묘유적 중 토광묘와 제형주구는 4세기 전반, 방형주구는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출토유물은 이형토기, 단경호, 유공광구소호, 개배, 완, 옥, 철기 등이다.[41]

(1) 청동기시대

3기의 움집터(수혈주거지)와 고인돌 2기를 발굴하였다. 집터는 모두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주거 내부 중앙부에 타원형의 작업공 구덩이를 만든 송국리형 주거지 형태다. 그러나 타원형 구덩이 안에 두 개의 기둥구멍(주공-柱孔) 흔적이 대칭적으로 세워지는 일반적인 송국리형 집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집터 안 중앙부에 말각형에 가까운 구덩이가 파여 있고 그 주변부로 9개의 기둥이 방형으로 둘러진 특징을 지니며 자연 경사도가 높은 남쪽 부위에 계단식 출입구가 확인되었다. 3기의 집터에서 돌화살 등의 석기류와 소량의 무문토기 밑 부분이 출토되었다.

고인돌은 각골에서 덮개돌이 덥힌 1기와 하부의 널방(묘실-墓室)이 부분적으로 남은 1기를 발굴하였는데 덮개돌이 덥힌 고인돌은 하부구조가 교란되어 바닥부위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고 출토 유물은 없다. 백곡마을 묘제공원에 옮겨 복원하였다.

(2) 철기시대

움집터 10채와 산 능선 정상부에서 널무덤 2기가 발굴조사 되었다. 먼저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모두 방형계로 산사면부를 "ㄴ"자 모양으로 파내어 만든 구덩식이며 내부에서는 화덕자리와 벽구, 지붕을 받치기 위해 세운 기둥 흔적이 조사되었다.

1호 널무덤의 규모는 길이 270cm, 너비 100cm, 깊이 2cm이며, 구덩 안에서 나무 관을 안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찰진 질흙 띠가 길이 200cm, 80cm 크기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철검과 적갈색연질토기편 등이다.

2호 널무덤의 규모는 잔존길이 200cm, 너비 100cm, 깊이 4cm로 1호 무덤과 같이 나무 관을 안치한 흔적이 남아 있다. 출토유물로는 토기 1점이다.

이들 널무덤이 위치한 주변 부위로 월야면 예덕이 만가촌 고분에서와 같이 평면형태가 사다리꼴에 가까운 도랑이 확인되었으며, 도랑은 자연 경사도가 높은 서북쪽 부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도랑의 최대 폭은 200cm 정도며 최대 길이는 90cm 정도이고, 도랑 바닥은 불규칙하며 2~3차에 걸쳐 내부 퇴적이 되었다. 마지막 퇴적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시루와 단지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널무덤이 안치된 주구내의 내변 규모는 길이 27m, 최대폭

41)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함평 중랑유적Ⅰ-주거지-』; 『함평 중랑유적Ⅱ-분묘-』, 2003.

20m 정도다.

6) 함평 성천리 와촌 유적

와촌 유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되어 2001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와 2003년 호남문화재연구원의 시굴조사를 통해 총 20개의 유적이 확인된바 있고, 2004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결과 생활유적으로는 청동기 시대 수혈주거지 6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55기와 함께 수혈유구 및 구상유구가 조사되었고, 매장유적으로는 청동기시대 석곽묘 2기와 토광묘 7기, 그리고 고려·조선시대의 무덤 등이 조사되었다.[42]

7) 함평 대덕리 고양촌 유적

고양촌 유적은 함평~함평IC 구간내 문화유적조사로 2003년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이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3기, 석관묘 21기, 수혈유구 87기, 삼국시대 주구 3기, 옹관묘 1기, 구 15기 등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장방형, 말각방형, 원형 평면이며 규모는 대부분 한 변이 4m 이내인 소형이다. 장방형 평면인 가-2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주거지 중앙부에 타원형 구덩이가 설치되었으며 타원형 구덩이 양단에 주혈이 배치된 전형적인 송국리형 주거지이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 무문토기 등과 삼각만입촉, 일단경촉 등의 석촉이 주로 출토되었고 수혈주거지에서는 점토대토기를 비롯하여 적색마연토기,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8) 손불 죽암리 소명 유적

소명 유적은 소명동 마을 서북쪽 언덕에 위치한다. 이 언덕의 서쪽은 서해안고속도로 본선에, 동쪽은 휴게소에 포함되어 1999년과 2000년에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확인된 움집터는 150여 채에 달하며 이보다 더 늦은 시기의 원형고분 1기도 발굴되었다. 움집터는 언덕의 등고선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데 대부분 방형으로 한 변의 길이가 4~7m이에 이른다. 움집 내부에는 도랑, 화덕자리, 기둥구멍 등의 시설이 확인되었다. 수습유물로는 토기, 돌도끼, 돌화살촉, 철기, 탄화곡물, 옥 등이 있다. 시기는 대체적으로 3~4세기 경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43]

9) 대동 향교리 향교 유적

42) 전남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함평 성천리 와촌 유적』, 2007.
43) 전남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함평 소명 주거지』, 2003.

향교 유적은 분구로 추정되는 부분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어 2003년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긴급 발굴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매우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삼국시대 토광묘 2기,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2기, 시대 미상의 수혈유구 1기 등 총 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송국리형 주거지와 주구묘가 동일 공간에 자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0) 월야 월야리 순촌 유적

순촌 유적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문화마을 조성지역과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월야문화마을에서 팔열부간 사이의 도로 확·포장 구간인 월야면 월야리 순촌마을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확인된 유구는 주구토광묘 44기, 토광묘 5기, 주거지 1기, 석관묘 1기, 석개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주구 토광묘는 매장주체 시설인 토광묘의 깊이가 주구보다 얕은데 44기중 13기에서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었다. 특히 25호 주구토광묘의 매장주체인 토광 바닥에서 흑갈색을 띤 유기 물질과 나무 흔적이 확인되어 토광 내에 나무 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옹관묘와 토광묘가 추가장으로 확인되는데 옹관묘가 대부분이고 주구의 방향과 추가묘의 장축 방향이 일치해 당시에 주구토광묘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적에서는 사다리꼴 주구토광묘에서 옹관고분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의 유구가 조사되어 영산강 유역의 옹관고분의 발생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 석관묘와 석개 토광묘가 속하는 청동기 시대, 주구토광묘와 옹관묘가 속하는 철기시대, 그리고 주거지와 토광묘가 속하는 삼국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어 오랜 기간에 걸친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44]

11) 해보 용산리 대성 유적

대성유적은 창서유적과 함께 2000~2001년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대성유적이 위치한 곳은 용산리 대성마을 남쪽에 형성되어 있는 해발 60m 정도의 높이의 구릉으로 이 구릉은 동쪽의 월야천을 향하여 뻗어가고 있다. 유적이 자리한 곳은 하천과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주변의 지세가 한눈에 관망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조사된 유적은 청동기 시대 주거지 2기와 삼국시대 주거지 11기, 구상유구 등이다. 청동기 시대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말각방형으로 대팻날과 석촉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모두 방형계이며 내부시설로 주공, 화덕, 벽구가 확인되었다. 수습유물로는 직구호, 광구호, 이중구연호, 장란형토기를 비롯한 각종 토기편들이 있다.

44) 목포대학교박물관·농업기반공사· 함평군, 『함평 월야 순촌유적』, 2001.

12) 해보 용산리 백토 유적

용산리 백토 유적은 1998~199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불갑산의 산줄기로 그 사이에는 소규모의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는데 유적은'방잔등'이라 불리는 구릉과 곡간평야의 저습지에서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 삼국시대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동기시대 석관묘 계통의 분묘는 모두 10기가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수혈식 묘제로 소량의 무문토기편과 석촉, 소형관옥편 등이 출토되었다. 또 주거지는 구릉의 말단부에서 8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주위에 조성된 민묘로 인해 파괴되었다. 이외에도 구릉지역에서는 토광묘 1기, 삼국시대 주거지 1기, 석실분 2기 등이 확인되었고 곡간평야의 저습지에서는 저장혈 2기와 도랑 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1) 청동기 시대 돌널무덤(석관묘)

구릉의 정상부에서 5부 능선에 걸쳐 유적이 형성되었으며 청동기 시대 돌널무덤 계통의 분묘 10기가 발굴되었는데 돌널무덤 6기 뚜껑돌 얹은 널무덤(石蓋土壙墓) 4기이다. 이 무덤들은 생토면을 파내고 널방을 만든 구덩식(수혈식)으로 모든 무덤은 뚜껑돌을 가지고 있는데 뚜껑돌은 판석(板石)을 2~3매 이용한 것과 괴석이나 할석을 이용한 것이 있다. 이들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소량의 토기편과 돌화살 1점, 옥 1점으로 껴묻기가 성행하지 않은 시기의 무덤들이다.

이런 유형의 돌널무덤과 뚜껑돌을 얹은 널무덤은 아직 전남지방에서는 발굴 조사된 바가 없으며 부여 송국리 발굴 유적과 유사하다.

용산리 백토 발굴 돌널무덤 일람

1999. 4. 10 현재

번호	장축 방향	크 기 (cm)			벽 시 설	바 닥 시 설	참 고
		길 이	폭	깊 이			
1호	동-서	165	35	25	판석 수매	부분 판석	
2호	〃						유실
3호	〃	175	40	25	판석 수매	없 음	돌화살 1점
4호	〃	120	35	20			뚜껑돌 얹은 널무덤
5호	〃	175	40	25	할 석	부분 판석	옥 1점
6호	〃				판석 수매		유실
7호	〃	190	45	30		없 음	뚜껑돌 얹은 널무덤
8호	〃	125	25	25	부분 판석	부분 판석	
9호	남-북						조사 중
10호	동-서				할 석	판 석	유실

(2) 철기시대의 집터와 널무덤

· 집터

구릉 정상부에서 말단부에 이르는 전역에 산발적으로 8기가 확인되어 발굴하였는데 민묘 조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파괴를 입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들 집터는 경사면을 "L"자형으로 파내고 조성한 움집으로 모두 방형을 띠고 있으며 이들 집터에서 다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용산리 백토 철기시대 집터 발굴 일람

1999. 4. 10 현재

번호	크 기 (cm)			시 설		출 토 유 물	참 고
	장축	단축	깊이	벽구	노지		
1	330	295	20	유			민묘로 파괴
2	520	340	20			다량의 토기편	
3	360	350	35			호형토기. 자루달린토기. 바리형토기. 장란형토기	
4	340						민묘로 파괴
5						가락바퀴. 항아리. 장란형토기. 바리형토기	대부분 유실
6	530	390	22		유	장란형토기. 바리형토기	
7	320	296	26			항아리	
8	660		34			대형항아리. 직구호(直口壺). 사발. 바리. 가락바퀴	대부분 유실

· 널무덤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게 장축을 갖고 있으며 크기는 장축 210cm. 단축 60cm, 깊이 35cm이며 구덩 내부에서 단지 1점, 대로옥 1점이 출토되었다.

3. 선돌(立石)

1) 민족 신앙의 정신적 신체(神體)

선돌은 『국어사전』 이나 『국사사전』 등에 의하면, 선사시대 중 신석기시대 유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이나 약간 다듬은 길고 큰 돌을 수직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국경이나 분묘 등을 표시하기 위해 세워놓은 거석 기념물의 하나인데 영어로는 멘히르(menhir)라 하며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어쨌든 선돌은 “입석, 선돜, 선바우, 벅수”라고도 불리며 고인돌과 더불어 선사시대부터 시원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역에 널리 이어져온 거석문화(巨石文化)의 유산이다. 특히 선돌은 생성, 변화, 발전, 복합, 소멸이라는 인간사(人間事)의 염원을 해결해 주는 정신적 신체(神體)로 마음속에 간직되어온 관계로 개인 또는 마을 사람 전체가 소중히 여기는 민속신앙의 소산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온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먼저 선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고인돌과 같은 분묘(墳墓)를 표시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예가 주변에 너무 많아 그 말을 배제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함평군에도 신광면 보여리 보전마을 고인돌 앞에 세워진 거대한 선돌을 비롯해 나산면 용두리 등 몇 군데 고인돌 무리 곁에 선돌이 서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능은 점차 사라져 가고 후대에는 민간신앙의 신체로서 변화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엽은 전남 지방에서의 선돌 위치를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두 가지로 대별하고 있다.[45]

"하나는 당산나무 곁에 있는 것으로 여천군 화정면 개도리, 화순군 이서면 전도리의 입석이 그런 형태로서 이런 유형은 전남 각지에 산재해 있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말하자면 할머니 당산 옆에 있는 것으로 남성 상징이다. 풍요 다산의 기원 심리가 민간 신앙의 형태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예로서 현재에도 당산제의 일역을 맡고 있는 이것은 천지와 남녀의 양성 쌍분 체계가 형상화된 상징물이며 이를 통해 민간에서는 종교적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생산물의 풍요뿐만 아니라 기자(祈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남몰래 입석에 지성을 드리면 득남 할 수 있다는 속신(俗信)이 전하는 것도 모두 남근 상징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동구(洞口)의 도로 양옆이나 마을 사방에 서 있는 것으로 장승이 가진 잡귀의 침입을 막는 수호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화순, 승주, 장성 지방 등에서는 이를 "벅수"로 호칭하고 있어 장승의 역할 기대가 그대로 입석에 전가되고 있는 예를 찾을 수 있다. 마을 입구 도로의 양옆에 서 있는 입석을 암수로 구별하여 호칭하고 있는 예가 허다한 것도 입석과 장승 사이의 상관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들이 모든 농경사회의 시원과 함께 빚어진 지모신(地母神)의 등장과 이에 따른 우주론적 쌍분 체계가 인격화된 양상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다."

위에서 인용한 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평군 선돌의 경우는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과 해보면 산내리 산안, 송산 등이며, 다른 하나의 예의 경우 동구에 서있어 벅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돌은 나산면 덕림리 죽림을 비롯해 신광면 삼덕리 덕천, 동정리 신여, 월암리 신촌, 손불면 대전리 저전(수문), 엄다면 성천리 용흥동, 나산면 원선리 원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을 사방에 있는 예는 나산면 원선리 유촌의 선돌이 있다.

또한 학교면 영화촌의 선돌은 4기가 4각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배치는 그 예를 찾기가 어렵다. 또 정월에 길일(吉日)을 택해 제사와 줄 감기를 하는 마을이 많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곳이 신광면 동정리의 신여를 비롯해 월암리 연천, 손불면 대전리 저전(수문), 동암리 벽초, 복암, 죽장리 응암(당뫼) 마을 등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선돌 분포는 전국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자세한 분포조사는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우리 전남도 마찬가지 상태다. 따라서 선돌의 연대 규명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우리 함평군의 선돌 조사는 1984년에 국립광주박물관, 1986년에 목포대학교 조사진에 의해서 조사된 바가 있으나 조사진의 함평에 대한 지리 미숙과 짧은 일정 때문에 광주박물관은 12

45) 1995. 1 간행, 전라남도지 19권 288쪽.

개 마을, 목포대학은 18개 마을 밖에 조사하지 못했었다. 그 후 1993년 함평군 문화유적 지표 조사에서도 6개 마을의 예만 조사되었을 뿐이다.

선돌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인돌과 같은 문화적 배경에서 비슷한 시기부터 이루어졌고 역사시대에 들어와서도 선돌신앙이 지속되어 꾸준히 세워져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에서는 미륵신앙과 결부되어 미륵할머니로 불리며 어떤 곳에서는 당산할머니의 손주로, 풍수지리와 관련하여 한 몫을 차지하는 등 민간신앙과 서로 복합하여 나타나고 있다.

선돌의 조사가 그간 미진했던 것은 기념물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바위 크기라든가 생김새 파악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기념물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 환경에서부터 주민의 민간신앙, 풍속, 그들의 생활 문화와 정신문화까지를 파악하여 선돌 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으로 본다.

아무튼 선돌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정신문화를 일부 수용하면서 변화 발전한 문화적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결코 소외시켜서는 안 될 민속연구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함평군만이라도 정확한 분포 기수와 위치, 선돌의 현상 그리고 주민들과 얽힌 이야기만이라도 요약하여 조사해 군사에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함평군사편찬위원회에서 조사를 맡았고, 1997년 12월 14일과 20일, 25일 등 3일에 걸쳐 리현석(작고)이 당시 함평군 문화공보실의 손원식(孫元植)과 조사를 하였고, 이 가운데 월야면의 경우는 월야면 사무소의 정진오가 같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선돌이 있는 마을은 52개 마을이었고 총 기수는 83기였으며 이중 훼손된 3개 마을의 3기를 제하고 당시 49개 마을에 80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조사된 선돌 중 고인돌과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보이는 선돌은 신광면 보여리 보전, 엄다면 성천리 용흥동, 월야면 계림리 주곡, 해보면 산내리 산안 마을의 선돌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 뒤 함평군의 선돌에 대한 조사는 2003년 동신대 박물관에 의해 조사 정리되어 『문화유적 분포지도(전남 함평군)』가 발간되었다. 당시 이 조사에 필자와 리현석(작고)이 참여하였고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3개 마을에서 총 102기가 확인되었다. 이는 1997년에 조사한 80기와 비교해 보면 그간 매몰·유실·소멸된 것 5기를 비롯해 확인불능 2기 등 총 7기를 제외하면 모두 29기가 추가로 조사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월야면(22기), 손불면(15기), 나산면(14기), 학교면(11기), 신광면(10기), 함평읍·해보면(각 8기), 엄다·대동면(각 7기) 순으로 그 분포상이 나타났다. 이를 보면 다른 8개 읍면에 비해 월야면에 선돌이 월등히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 까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조사 연구해 보아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2)함평군의 선돌 분포상황

번호	선 돌 소 재 지	조 사 기 수				참 고 사 항
		1984년	1986년	1997년	2003년	
1	함평읍 자풍리 노송		2	2	2	극락사 입구에 있던 동자석을 옮겨옴
2	함평읍 자풍리 신풍			3	3	
3	함평읍 자풍리 비아				1	추가
4	함평읍 수호리 송정				1	추가
5	함평읍 진양리 양림				1	추가
6	손불면 죽장리 장동(담골)			3	3	
7	손불면 죽장리 죽사동				1	추가
8	손불면 죽장리 응암			1	1	현재까지 줄을 감고 있음
9	손불면 동암리 벽초			1	1	현재까지 줄을 감고 있음
10	손불면 동암리 복암			1	1	2000년까지 줄을 감았음
11	손불면 동암리 동백				1	추가
12	손불면 대전리 저전(수문)			1	1	현재까지 줄을 감고 있음
13	손불면 산남리 용흥		1	1	1	
14	손불면 북성리 차경				4	추가, 당산제의 및 줄을 감음
15	손불면 양재리 모량				1	추가, 당산제를 지냄
16	신광면 보여리 보전		1	1	1	함평군에서 높이가 가장 큼
17	신광면 동정리 신여			1	1	
18	신광면 삼덕리 덕천	2	2	2	2	
19	신광면 월암리 연천			1	1	
20	신광면 월암리 신촌			2	2	
21	신광면 가덕리 가덕(가리)		2	3	3	
22	학교면 학교리 영화촌			4	4	
23	학교면 학교리 회춘동				1	추가
24	학교면 월호리 망월동			2	1	1기 매몰
25	학교면 복천리 내동	1	3	1	1	
26	학교면 복천리 두동				2	추가
27	학교면 복천리 장동				1	추가
28	학교면 금송리 반송				1	추가
29	엄다면 엄다리 불암			2	2	
30	엄다면 성천리 용흥동			2	2	함평군에서 무게로 제일임
31	엄다면 신계리 장동		2	2	2	
32	엄다면 신계리 화계		1	1	1	
33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	3	3	3	3	1기는 미륵할머니로 부름
34	대동면 연암리 구적	1		1		1기 소멸
35	대동면 백호리 백련				1	추가
36	대동면 용성리 괴정				1	추가
37	대동면 운교리 운림				2	추가
38	나산면 덕림리 죽림	2	2	2	3	1기 추가
39	나산면 원선리 유촌	3	2	2	1	1기 소멸
40	나산면 원선리 원선		1	1(파손)		

번호	선 돌 소 재 지	조 사 기 수				참 고 사 항
		1984년	1986년	1997년	2003년	
41	나산면 이문리 원이문			1	1	
42	나산면 용두리 용수	7	7	3	4	1기 추가
43	나산면 초포리 사산(입석)	1	1	1	1	
44	나산면 구산리 내동				1	추가
45	나산면 구산리 냉천				1	추가
46	나산면 수산리 유덕				1	추가
47	나산면 우치리 우치				1	추가
48	해보면 상곡리 모평			1	2	1기 추가
49	해보면 상곡리 운곡			1	1	
50	해보면 산내리 송산			1		확인불능
51	해보면 산내리 원산(산안)	1	1	1	1	
52	해보면 용산리 소성	1	1	1	1	
53	해보면 용산리 주현				1	추가
54	해보면 해보리 월현			1	1	
55	해보면 대각리 오두				1	추가
56	월야면 용월리 내세			1	1	
57	월야면 용월리 외세			1	1	
58	월야면 용월리 용두	1		1(파손)		
59	월야면 월악리 죽산			3	3	
60	월야면 월악리 노동			3	3	1기는 장승 형태를 보임
61	월야면 계림리 시목			2	2	
62	월야면 계림리 주곡		1	1	1	군내에서 두 번째로 큼
63	월야면 계림리 주전			2	1	1기 유실
64	월야면 계림리 가차		1	1(파손)		
65	월야면 정산리 내정			2	2	
66	월야면 정산리 신기			1	1	
67	월야면 정산리 동촌		2	2	2	
68	월야면 월계리 석계	1		1	1	
69	월야면 월계리 덕산			1	1	
70	월야면 용정리 송정			1	1	
71	월야면 용정리 용수			1		1기 유실
72	월야면 외치리 백야			2	1	1기 확인불능
73	월야면 용암리 방하				1	추가
계	73군집	24	36	80(3)	102	추가 29기, 매몰·소멸·유실·확인불능 7기

3) 함평군 선돌의 보전 상황

(1) 함평읍 자풍리 노송(老松) 동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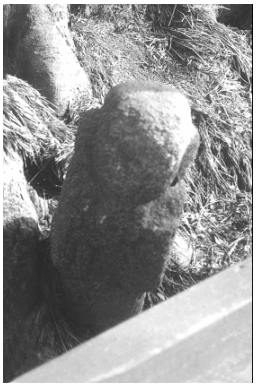
자풍리 노송마을에 있는 동자석은 엄밀히 구분해 2003년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는 기타 석조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유적이 선돌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선돌 부류에 포함시켰다.

이들 동자석은 노송마을 동편 정자와 서편 정자 당산나무 옆에 60m 간격을 두고 동서를 향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모양은 합장을 한 소형 동자상으로 얼굴 형태는 심하게 마모되

었으나 귀만은 뚜렷하다.

이중 동편 정자 곁의 큰 느티나무 옆 당산하나씨 동자석을 당산할매라 부르며 또 한기는 당산할배라 부른다. 전에는 정월 보름이면 당제를 지냈다.

이 동자석은 원래 간방산 동북쪽에 있던 고려시대의 사찰이던 극락사(極樂寺) 입구에 있었는데 극락사가 폐사된 후 마을 사람들이 이곳으로 옮겨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는 민속 신앙물로 숭앙하고 있다.



노송 동자석 1-①



노송 동자석 1-②

크기 : ①동편 정자 곁 동자석 현재 높이 86㎝, 얼굴 폭 24㎝, 얼굴 길이 22㎝.
②서편 정자 곁 동자석 현재 높이 92㎝, 얼굴 폭 21㎝, 얼굴 길이 24㎝.

(2) 함평읍 자풍리 신풍(新豊) 선돌

자풍리 신풍마을에는 모두 합쳐 3기의 선돌이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①은 신풍 정자 못미처 신풍과 비아로 갈리는 마을 어귀 삼거리 도로 왼쪽에 있는 것으로 마을에서는 선독이라 부른다. 1994년 마을 진입 도로를 포장할 때 땅 속에 묻혀있던 것을 파내어 세웠다.

이 선돌이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 30m 밭에는 수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폭파하여 1기도 없다.

②의 선돌은 ①의 선돌로부터 서쪽 100m 거리 밭둑에 있다. 이 선돌의 경우는 본래의 위치에 그대로 있고 명칭은 하나씨수구맥이라 부르는데 제의는 별도로 지낸 적이 없다고 하며 남쪽의 보평산을 향하고 있다.

③의 선돌은 ②의 선돌에서 서쪽으로 약 50m 떨어진 백일홍나무 밑에 세워져 있다. 이 선돌은 신풍마을에 있는 3기의 선돌 가운데 크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마을에서는 할매수구맥이라 부르며 형태는 상부가 원추형이다.

크기 : ① 높이 74㎝. 하부 폭 57㎝. 두께 20㎝.
② 높이 90㎝. 하부 폭 44㎝. 두께 30㎝.
③ 높이 84㎝. 하부 폭 30㎝. 두께 23㎝.

(3) 함평읍 자풍리 비아(飛牙) 선돌

비아 선돌은 마을 입구에 있는 무안박씨 농은(農隱) 박현묵(朴顯默)의 묘 옆에 세워져 있다. 마을에서는 이 선돌에 대한 특별한 제의 행위는 없다고 하며 크기는 높이 125㎝, 너비 58㎝, 두께 45㎝이다.

(4) 함평읍 수호리 송정(松亭) 선돌

송정 선돌은 수령 약 2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송정느티나무와 함께 있다. 마을에서 이 선돌에 대한 특별한 제의 행위는 없으며 크기는 높이 98㎝, 너비 43㎝, 두께 34㎝이다.



신풍 선돌 2-①



신풍 선돌 2-②



신풍 선돌 2-③

(5) 함평읍 진양리 양림(良林) 선돌

양림 선돌은 양림저수지 맞은편에 서 있는 것으로 그 좌측으로는 인동장씨 문중의 추선각(追先閣)이 있다. 마을에서는 이 선돌에 대한 특별한 제의 행위는 없으며 크기는 높이 100㎝, 너비 32㎝, 두께 24㎝이다.

(6) 손불면 죽장리 장동(담골) 선돌

장동 마을은 양성이씨 이암손(李岩孫)이 개촌(開村)한 마을로 수령이 족히 천년은 되었을 것이라는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모두 3기의 선돌이 분포되어 있다. 그 가운데 ①의 선돌은 마을 어귀 정미소 앞 도로 곁에 있으며 수살돌이라 부르는데 제의는 지내지 않는다.

②의 선돌은 죽장1리 농산물 간이집하장 못미처 이재오 씨 댁 입구 오른쪽 도랑 가에 있는 것으로 마을에서는 하나씨독이라 부르며 장동 선돌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크다.

이 선돌의 특징은 대부분의 선돌 석질과는 달리 규석질의 선돌이라는 것이다. 근래까지 곁에 정자나무가 있었고 정월 보름에 줄을 감았다고 전한다.

③의 선돌은 ②의 선돌에서 서쪽으로 약 80m 가량 떨어진 간이집하장 뒤 처마 끝머리에 있다. 이 선돌에 대해 마을에서는 할매독이라 부르고 있으며 넓은 쪽이 남북을 향하여 있다. 이 선돌에 대한 제의는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장동 선돌 6-①


장동 선돌 6-②


장동 선돌 6-③

크기 : ① 높이 105㎝. 하부 폭 52㎝. 두께 32㎝.
② 높이 138㎝. 하부 폭 64㎝. 두께 22㎝.
③ 높이 108㎝. 하부 폭 46㎝. 두께 17㎝.

(7) 손불면 죽장리 죽사동(竹寺洞) 선돌

죽사동 선돌은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와 수량 약 200년 정도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곁에 있다. 이 선돌에 대해 마을에서는 특별한 제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며 크기는 높이 95㎝, 너비 40㎝, 두께 28㎝이다.


응암 선돌

(8) 손불면 죽장리 응암(鷹岩) 선돌

응암 마을은 1670년 경 고부이씨 이세영(李世熲)이 개촌(開村)한 마을로 처음에는 마을 이름을 당뫼(堂山)라 하였다가 뒤에 마을 뒷산이 매봉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을 이름을 응암이라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응암 선돌은 마을 어귀인 재(峙) 왼편에 느티나무 노거수와 마을 정자가 있고, 이 정자에서 남쪽으로 약 100m 가량 떨어진 도로 왼쪽 정응기 씨 소유 논둑에 있다. 마을에서는 정자 곁에 있는 느티나무 노거수를 하나씨 당산이라 하고, 이 선돌에 대해서는 수살할매라 부르고 있다.

또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에 이 선돌에 제의를 지내고 볏짚으로 만든 줄을 감는다. 선돌의 재질은 대부분의 선돌과 달리 규석(硅石·산독)이며, 크기는 높이 118㎝. 하부 폭 56㎝.

두께 20㎝이다.

(9) 손불면 동암리 벽초(碧草) 선돌


벽초 선돌

벽초 마을은 1600년경 광주정씨가 처음 들어와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벽초 선돌은 마을앞 도로 맞은편 논 가운데에 있는 마을 정자와 노거수(물 버드나무 2그루) 밑에 있다.

마을나무이기도 한 이 노거수(버드나무)는 수령이 약 500년 정도로 추정되고 높이 14m, 둘레 5.4m 정도이다.

마을에서는 이 나무 밑에 있는 선돌을 가리켜 선독할매라 부르고 있고, 매년 정월 보름이면 당산제를 지낸 다음 볏짚으로 만든 줄을 감는다.

이 선돌의 크기는 높이 100㎝, 하부 폭 46㎝, 두께 23㎝이다.

(10) 손불면 동암리 복암(伏岩) 선돌

복암 선돌은 마을앞 도로 맞은편 최종기 씨 소유의 밭에 있다. 마을에서는 이 선돌을 가리켜 수살하나씨라 부르고 있고, 2000년까지 매년 정월 보름날이면 제사를 지내고 볏짚으로 만든 줄을 감았다고 한다. 크기는 높이 118㎝, 하부 폭 70㎝, 두께 18㎝이다.

복암 마을에는 원래 이 선돌 이외에도 약 100m 가량 떨어진 복암 저수지 아래에 1기의 선돌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선돌은 복암 저수지 공사 때 매몰되었다고 한다.


복암 선돌

(11) 손불면 동암리 동백(冬栢) 선돌

동백 선돌은 마을 어귀 도로변 우측 팽나무 아래에 있다. 마을에서는 이 선돌에 대한 특별한 제의 행위는 없다고 하며, 크기는 높이 98㎝, 하부 폭 58㎝, 두께 28㎝이다. 이 선돌 맞은편에는 유인 인동장씨 효열각(孝烈閣)이 자리하고 있다.

(12) 손불면 대전리 저전(楮田·수문) 선돌

저전마을은 1550년경 나주임씨 임열(林悅)이 정착하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번성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간척사업을 하기 전인 1930년대까지만 하여도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문(水門)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인근에서는 저전이란 마을 이름보다는 수문이라는 마을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있다.

선돌은 마을입구 도로 왼편 김상호 씨 소유의 논둑에 있다. 마을에서는 이 선돌을 가리켜 수살하나씨라 부르고 있고 매년 음력 2월 1일이면 줄다리기를 한 다음 이 줄을 선돌에 감고 이어 손불우체국 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불맥이 굿을 한다. 선돌의 크기는 높이 74㎝, 윗부분 폭 22㎝이다.

<3권 민속편 수문 불맥이굿을 볼 것>



저전 선돌

(13) 손불면 산남리 용흥(龍興·지사리) 선돌

용흥 선돌은 마을입구 새마을 창고 맞은편 논둑에 있다. 마을에서는 이 선돌을 가리켜 수살이라 부르고 있고 1950년대 후반까지 매년 정월 보름날이면 줄다리기를 한 다음 그 줄을 음력 2월 1일 선돌에 감았다고 한다. 현재 선돌의 크기는 높이 105㎝, 하부 폭 60㎝, 상부 폭 22㎝, 두께 30㎝이다.

(14) 손불면 북성리 차경(且京) 선돌

차경마을에는 모두 합해 4기의 선돌이 분포되어 있다.

먼저 ①의 선돌은 마을 어귀 도로 오른편 박상중 씨 소유의 논둑에 있다. 이 선돌 주위에는 이팝나무 2그루와 느릅나무가 서 있다. 예전에는 박우규 씨 집 뜰에 있던 수령 약 300년 정도 된 모과나무를 웃당산이라 하고, 이 선돌을 아랫당산이라 하여 정월 보름이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지금은 ④의 선돌에만 제를 지내고 있다. 선돌의 크기는 높이 160㎝, 하부 폭 70㎝, 두께 20㎝이다.

②의 선돌은 박중상 씨 소유의 논에 있다. 이 선돌은 마을에서 선독이라 불리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120㎝, 하부 폭 26㎝, 상부 폭 40㎝, 상부 두께 15㎝이다.

③의 선돌은 ②의 선돌에서 약 5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선돌 또한 마을에서는 선독이라 부르고 있다. 크기는 높이 100㎝, 하부 폭 55㎝, 두께 25㎝이다.

④의 선돌은 ②의 선돌에서 약 70m 정도 떨어진 밭둑에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선돌을 가리켜 당산이라 부르고 있고 마을에 분포되어 있는 4기의 선돌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매년 정월 보름날 제를 지내고 줄을 감는다. 크기는 높이 110㎝, 하부 폭 55㎝, 두께 20㎝이다.

(15) 손불면 양재리 모량(慕良) 선돌

모량 선돌은 함평모씨 모수택(牟秀澤)의 휴식소이던 수정재(守靜齋) 오른편에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선돌을 하나씨 당산이라 부르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는데, 매년 정월 보름날 이 선돌에 당산제를 지낸다.

모량 마을에는 원래 할매당산이라 불리는 선돌까지 합해 모두 2기가 있었으나 이 중 할매당산은 현재 유실되고 없다. 크기는 높이 140㎝, 하부 폭 90㎝이다.

(16) 신광면 보여리 보전(甫田) 선돌

보전 선돌은 마을입구 도로가에 있다. 좀더 자세히 소개하면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선돌거리라 하고 이 선돌을 가리켜 수살맥이라 부르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제의는 지낸 적이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선돌은 주민들의 민속적 신앙의 대상이었다기보다는 선사입석(先史立石)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이 선돌에 대해 제의를 지낸 적이 없었고 또 이 선돌에서 북쪽으로 약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선돌과 석질이 같은 고인돌 1기(310×215×70㎝)가 자리하고 있어 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보전 선돌의 크기는 높이 340㎝, 하부 폭 160㎝, 상부 폭 85㎝, 두께 48㎝로 그 규모면만을 볼 때 함평군에서는 가장 큰 선돌이다.

<총편 화보를 볼 것>

(17) 신광면 동정리 신여(申呂) 선돌

신여 선돌은 시멘트로 포장된 마을 광장 곁에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선돌을 가리켜 암수살이라 부르고 있다.

1996년까지는 줄다리기를 하고 이 선돌에 줄을 감았으나 마을 광장을 시멘트로 포장하던 1997년부터는 왼편으로 꼰 새끼를 선돌에 세 번 감고 한 줄을 아래까지 늘어뜨린 약식 줄 감기를 하고 있다.



신려 선돌

이 마을에 이 같은 수살맥이를 세운 것은 마을 뒷산인 학봉(鶴峯)의 학이 날아가지 못하게 다리를 묶어두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 이 선돌의 크기는 높이 125㎝, 하부 폭 55㎝, 상부 폭 40㎝, 두께 30㎝이다.

또한 신여 마을에는 1983년까지 이 선돌 왼쪽에 숫수살이라 부르는 선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선돌은 농경지 정리 때 땅속에 묻혀 버렸다고 한다.

(18) 신광면 삼덕리 덕천(德川) 선돌


덕천 선돌 18-①


덕천 선돌 18-②

덕천 마을에는 2기의 선돌이 있다.

먼저 ①의 선돌은 마을 어귀이자 서쪽에 해당하는 정자 곁에 있는데 아들수살이라 불리며, 크기는 높이 177㎝, 하부 폭 100㎝, 두께 58㎝이다.

②의 선돌은 모낙원 씨 댁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마을의 끝이자 동쪽인 노거수 밑 뿌리사이에 박혀 있는데, 손자수살이라 불리며 크기는 높이 100㎝, 하부 폭 40㎝, 두께 25㎝이다.

덕천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초사흗날 당산제를 지내고 있으나 이 선돌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19) 신광면 월암리 연천(燕川) 선돌

연천 선돌은 마을 남쪽 어귀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밭가에 있다. 매년 정월 보름에 제를 지내고 줄 감기를 한다. 선돌의 크기는 높이 117㎝, 하부 폭 68㎝, 상부 폭 48㎝, 두께 26㎝이다.


연천 선돌

(20) 신광면 월암리 신촌(新村) 선돌


신촌 선돌 20-①


신촌 선돌 20-②

신촌 선돌은 좌우 50m 간격으로 2기가 있다. 이 가운데 ①의 선돌은 마을 어귀 좌측 이하상 씨 소유의 과수원에 있다. 명칭은 할매독이라 불리며 크기는 높이 165㎝, 하부 폭 53㎝, 두께 17㎝이다.

②의 선돌은 도로 오른쪽 김정희 씨 소유의 밭가에 ①의 선돌과 마주보고 서 있다. 명칭은 하나씨독이라 불리며 크기는 높이 184㎝, 하부 폭 70㎝, 두께 35㎝이다.

마을 사람들의 구전에 의하면 신촌 선돌은 예

전에 정월 보름에 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21) 신광면 가덕리 가덕(加德·가리) 선돌

가덕 마을에는 총 3기의 선돌이 있다.

먼저 ①의 선돌은 신광면 계천리에서 가덕 마을로 들어서는 옛 국도 언덕에 있다. 선돌 한쪽 면에 긴 직사각형 홈을 구획한 다음 그곳에 글씨를 새겨 놓았으나 판독이 어렵다. 크기는 높이 210㎝, 하부 폭 130㎝, 두께 60㎝이다.


가덕선돌 21-①


가덕선돌 21-②

②의 선돌은 함평자연생태공원 입구에 서 있다. ①의 선돌과는 약 2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상단부는 뾰족한 석주(石柱) 모양이며 크기는 높이 200㎝, 하부 폭 73㎝, 두께 43㎝이다.

②의 선돌에 대해 리현석(작고) 씨는 예로부터 마을 동제와 무관하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과 선돌 크기를 고려해 이 선돌을 선사입석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③의 선돌은 마을 정자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조경현 씨 소유의 논 가장자리에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선돌을 살맥이라 부르며 또 이 선돌이 서 있는 아래 논을 가리켜 지살배미라 한다고 했다. 모양은 상단부가 삼각형에 가깝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5~60년 전까지만 하여도 이 선돌에 제를 지내고 줄을 감았으나 마을에 기독교가 들어와 성행하면서부터 그러한 제의가 없어졌다고 했다.

선돌의 크기는 높이 140㎝, 하부 폭 55㎝, 두께 25㎝이다.

(22) 학교면 학교리 영화촌(永化村) 선돌

영화촌에는 총 4기의 선돌이 있다.

김민수(金玟洙) 씨 소유의 학교면 산37-4 최남단에 4기가 4각형 형태를 이루며 서 있는데 이러한 선돌 배치는 쉽게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영화촌 선돌이 서 있는 지점은 예전 남으로는 월호리 망월동, 북으로는 고막원, 서쪽으로는 영화촌 마을을 지나 학교면 소재지, 동으로는 금송리 즉, 사방으로 통하는 갈림 길목이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 선돌들의 역할은 아마도 표석이 아니었을까 싶다. 선돌에 붙여진 이름은 없으며 제 또한 지낸 적이 없다.

먼저 ①의 선돌은 마을 동쪽 밭가에 있는 것으로 ②의 선돌에서 남서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다. 크기는 높이 50㎝, 하부 폭 36㎝, 두께 30㎝이며 모양은 절두 방대형으

로 상단 가로 19㎝, 세로 28㎝이다.

②의 선돌은 ①의 선돌에서 북동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크기는 높이 135㎝, 하부 폭 48㎝, 두께 32㎝로 작은 편이다.

③의 선돌은 ②의 선돌과 인접해 있다. 4기의 선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크기는 높이 192㎝. 하부폭 52㎝. 두께 40㎝이다.

④의 선돌은 ③의 선돌에서 서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고 마을 쪽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크기는 높이 95㎝, 하 부폭 47㎝, 두께 27㎝이다.


영화촌선돌 22-①


영화촌선돌 22-②


영화촌선돌 22-③


영화촌선돌 22-④

(23) 학교면 학교리 회춘동(回春洞) 선돌

회춘동 선돌은 마을의 당산나무인 팽나무 아래에 있다. 마을에서는 이 선돌과 팽나무를 대상으로 정월 보름날 당산제를 지낸다. 제관은 연장자 중에서 선출되며 제의 당일 날 아침이 되면 제사장 주위에 금줄을 치고 남녀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한다. 이 때 여자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제의는 진설-헌주-재배-축문-소지-음복의 순서로 진행된다. 선돌의 크기는 높이 85㎝, 너비 28㎝, 두께 18㎝이다.

(24) 학교면 월호리 망월동(望月洞) 선돌

망월동 선돌은 목포대학교에서 『함평군의 문화유적』을 조사할 때 조사되어 민속자료편에 수록되었다.

예전에는 마을 앞 동막골 들판 동쪽과 서쪽에 각기 1기씩 서 있었으나 1990년대 경지정리를 하면서 서쪽의 것은 매몰되고 동쪽의 것만 지금의 마을 북쪽 길가인 박재성 씨 소유밭으로 옮겨 세웠다.

당시 선돌이 서 있던 동쪽은 고막원과 나주로 통하는 길목이고, 서쪽은 옛날 함평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지형상 허한 곳이어서 선돌을 세웠다고 하며 제

의는 지내지 않았다.

선돌의 재질은 화강석이며 마을에서 불리는 명칭은 수구맥이라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선돌의 모습은 스님이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 형상이다. 크기는 높이 170㎝, 하부 폭 58㎝, 두께 18㎝이다. 그리고 매몰돼 없어진 선돌의 크기는 높이 106㎝, 폭 60㎝, 두께 26㎝ 규모였다.

(25) 학교면 복천리 내동(內洞) 선돌

내동 선돌은 1984년 광주박물관에서 1기(농로 오른편)를 조사하여 소개한 바 있고, 이어 1986년에는 목포대학교에서 동쪽에 1기, 큰길 도랑 가에 1기, 서쪽에 1기 총 3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에서는 이들 선돌들이 칼, 창, 총을 의미한다며 1970년대 초까지 마을의 재앙을 막아 달라고 정월 열 나흗날 저녁 닭 울기 전에 밥을 하여 메주 모양으로 만들어 짚으로 싸서 각각의 선돌에 걸어 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1997년과 2003년의 조사에서는 마을 어귀 큰길 방죽 옆 도랑 가에 1기만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크기는 높이 102㎝, 하부 폭 38㎝, 두께 30㎝이다.



복천리 내동 선돌

(26) 학교면 복천리 두동(斗洞) 선돌

두동 마을에는 총 2기의 선돌이 있다. 먼저 ①의 선돌은 노상근 씨 댁 대문 앞 길가에 있는 것으로 이 선돌은 마을길을 포장할 때 하부 50㎝ 가량이 묻혔다고 한다. 이 선돌은 할미당산이라 불리며 매년 정월 보름날 동제를 지내고 줄을 감는다. 현재 이 선돌의 크기는 높이 63㎝, 하부 폭 62㎝, 두께 57㎝이다.

②의 선돌은 체화재(棣花齋) 입구에 있다. 원래 이 선돌은 이웃한 내동마을 어귀의 논에 있었던 것인데, 1980년대 노병렬 씨가 유남정(悠南亭)을 중수한 후 체화재로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와 세웠다는 것을 2003년 필자의 조사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크기는 높이 125㎝, 하부 폭 70㎝, 상부 폭 40㎝, 두께 31㎝이다.

(27) 학교면 복천리 장동(壯洞) 선돌

장동 선돌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옆에 있다. 크기는 높이 70㎝, 하부 폭 50㎝, 두께 30㎝이다.

(28) 학교면 금송리 반송(盤松) 선돌

반송 선돌은 마을 남쪽 동각 옆에 있다. 이 선돌은 마을 입향조인 신영이 자손의 복을 빌기 위해 세웠다고 전하는데, 크기는 높이 150㎝, 너비 70㎝, 두께 56㎝이다.

(29) 엄다면 엄다리 불암(佛岩) 선돌

불암 선돌은 마을 입구 도로가와 들판에 동서 방향으로 각각 1기씩 총 2기가 있다.

선돌 모양은 모두가 아래쪽 폭 보다는 위쪽 폭이 더 넓은 주걱 형태이고 석질은 화강석이다.

이 선돌들은 마을 사람들의 구전에 따르면, 풍수지리설과 관련하여 마을 형국이 배(舟)와 같아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매어두기 위해 마을 동서 방향에 각각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또 이 선돌들에 대해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른 마을들처럼 특별한 제사와 같은 의식도 행한 바가 없다고 했다.

선돌의 크기는 서쪽 방향에 있는 ①의 경우는 높이 134㎝, 아래 폭 22㎝, 위 폭 32㎝, 두께 16~20㎝이다.

또 동쪽 방향에 있는 ②의 경우는 높이 140㎝, 아래 폭 21㎝, 위 폭 37㎝, 두께 19㎝이다.



불암 선돌 29-①

(30) 엄다면 성천리 용흥동(龍興洞) 선돌



용흥 선돌 30-①



용흥 선돌 30-②

용흥동 선돌은 마을 앞에 세 그루의 노거수가 있고 그 곁에 10m 간격을 두고 동, 서쪽 방향에 각기 1기씩이 서 있다. 편의상 큰 선돌을 ①, 작은 선돌을 ②로 정한다.

이 가운데 ①의 선돌은 넓은 면이 정남쪽을 향하고 있고 군내의 여러 거대한 선돌들 가운데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선돌이다. 현재까지 제의 행위가 없고 돌의 크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선돌은 선사입석으로 보인다. 크기는 높이 176㎝, 하부 폭 110㎝, 중간 폭 75㎝, 두께 70㎝이다.

②의 선돌은 높이 92㎝, 하부 폭 64㎝, 두께 14㎝이며 모양은 달걀과 비슷하다.

(31) 엄다면 신계리 장동(壯洞) 선돌

장동 선돌은 마을 동쪽입구 ①양경열 씨 소유의 밭가와 ②전행기 씨 소유 밭에 각각 1기씩이 있다.

①의 경우는 당산하나씨 또는 당산할아배라 불리며 ②의 선돌로부터 북쪽으로 30m정도

떨어져 있다. 크기는 높이 106㎝. 하부 폭 60㎝. 두께 23㎝이다.

②의 선돌은 당산할매라 불리며 당산하나씨 선돌로부터 서쪽으로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다. 모양은 두개의 판석을 20㎝ 간격으로 나란히 세워놓은 형상이며, 크기는 높이 110㎝, 하부 폭 50㎝, 두께 15㎝이다.

이들 선돌에 대해 장동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에 동제를 지내고 줄다리기를 한 다음 ①의 선돌 즉 당산하나씨(당산할아배)부터 줄을 감는다.

(32) 엄다면 신계리 화계(花溪) 선돌

화계 선돌은 마을 어귀 오른쪽에 위치하며 독당산할매라 부른다. 그리고 선돌에서 마을 안쪽으로 약 50m쯤 가면 노거수인 팽나무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당산할배라 부른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보름 또는 2월 2일에 당제를 올리고 줄다리기를 한 다음 당산할배(팽나무)와 독당산할매(선돌)에 줄을 감는데, 이 때 부정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 선돌의 크기는 높이 130㎝, 하부 폭 25㎝, 두께 12㎝이다.

(33) 대동면 덕산리 아차동(牙次洞) 선돌


아차동선돌 33-①


아차동선돌 33-②

아차동 선돌은 미륵할매라 불리는 돌까지 합하여 총 3기가 있다. 마을에서는 이들에 대해 매년 정월 열 나흗날 미륵제를 지내고 있다.

먼저 ①의 경우는 마을 어귀 효열각 옆에 있다. 이 선돌은 얼핏 보기에 남근(男根)을 닮았으며 선독할배 또는 딸미륵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남근 숭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남근 숭배는 종족의 번성과 풍요를 기원하는 뜻에서 신앙화 되었던 습속인데 전국 곳곳에 그 유습과 대상이 남아 있어 오늘날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크기는 높이 108㎝, 하부 폭 45㎝, 두께 24㎝이다.

②의 선돌은 마을 정자 앞에 있으며 일명 아들미륵이라 불린다. 이 선돌은 정자 주변과 마을길을 시멘트로 포장하면서 원래보다 7㎝ 가량 더 묻혔다고 한다. 현재 크기는 높이 74㎝, 하부 폭 54㎝, 두께 29㎝이다.

③의 경우는 미륵할매라 불리며 당집에 모셔져 있다. 이 미륵할매는 원래 마을 뒤 대밭에 있었다고 하는데, 당집(현재의 건물은 1933년에 건립)을 지어 모시게 되었으며 토속적이고 감각적인 조형미가 매우 해학적이다. 머리만 사람 얼굴을 표현하였을 뿐 몸체는 아무

런 장식이나 표현이 생략되어 있고 그 균형감도 잃고 있다.

이 미륵할매는 좌대와 접한 하부에 두개의 돌 기부를 형성하고 그 옆에 둥근 돌을 얹어 놓았는데, 이러한 표현은 할머니의 손자 3형제를 뜻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뜻과 다산을 바라는 마음이 합치된 토속신앙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미륵할매의 크기는 높이 132㎝, 둘레 142㎝이다.

아차동의 미륵할매나 선돌이 어느 때부터 마을의 신앙 대상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미륵신앙과 결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미륵할매 신앙은 그다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제의식 등은 3권 민속신앙을 볼 것>

(34) 대동면 연암리 구적(九積) 선돌

구적 선돌은 원래 특별한 전설이나 신앙적인 면이 없었던 선돌로 1997년까지 마을 어귀에 1기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03년 필자가 조사할 때는 이미 소멸되어 없어졌고 그 연유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35) 대동면 백호리 백련(白蓮) 선돌

백련 선돌은 마을 어귀 마을 표지석 옆에 있다. 이 선돌은 선독할매라 불리며 매년 정월 보름에 줄다리기를 한 다음 옷을 입힌다며 줄다리기 하였던 줄을 선돌에 감는다. 크기는 높이 90㎝, 하부 폭 100㎝, 하부 두께 12㎝이다.

(36) 대동면 용성리 괴정(槐亭) 선돌

괴정 선돌은 마을 정자 앞에 있다. 이 선돌은 마을에서 당산할매라 불리며 선돌 앞에 놓인 작은 판돌은 제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선돌의 기원과 관련하여 마을 사람들은 150년 전쯤 이 마을의 부자였던 양판기라는 사람이 산에서 가져와 당산할매로 모셨다고 말한다. 선돌 앞에 제단으로 이용되는 판돌이 있지만 별다른 제의를 행하지 않고, 다만 마을 행사 때마다 술을 부어 간단히 예를 갖춘다고 했다. 크기는 높이 100㎝, 하부 폭 25㎝, 상부 폭 10㎝, 두께 21㎝이다.

(37) 대동면 운교리 운림(雲林) 선돌

운림 선돌은 마을 어귀 정자 옆에 2기가 있다.

①의 선돌은 2기 가운데 오른쪽의 것으로 할배독이라 불리며 크기는 높이 100㎝, 하부 폭 30㎝, 두께 15㎝이다. 그리고 ②의 선돌은 ①의 선돌 왼쪽에 있는 것으로 할매독이라 불리며 크기는 높이 48㎝, 하부 폭 42㎝, 하부 두께 20㎝이다.

마을사람들은 이 선돌들이 마을의 재앙을 막아준다고 믿고 있으나 특별한 제의는 행하지 않는다.

(38) 나산면 덕림리 죽림(竹林) 선돌

죽림 마을에는 총 3기의 선돌이 분포되어 있다. 1997년 조사 때까지 2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졌으나 2003년 필자가 조사할 때 1기를 추가 확인하였다.

먼저 ①의 선돌은 옥동에서 죽림마을로 들어서는 어귀에 있다. 크기는 높이 100㎝, 하부 폭 58㎝, 두께 47㎝이다.

②의 선돌은 ①의 선돌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마을 중앙로에 있고 삼각석주 모양이다.



죽림선돌 38-①



죽림선돌 38-②

크기는 높이 105㎝, 하부 삼각 길이 41㎝ 정도이다. 끝으로 새로 추가된 ③의 선돌은 ②의 선돌에서 서남쪽으로 약 20m 정도 떨어진 축사 겸 건조장으로 쓰이는 건물 옆에 있다. 모양과 재질은 ②의 선돌과 비슷하고 크기는 높이 130㎝, 긴 변 길이 50㎝, 짧은 변 길이 40㎝이다.

죽림 선돌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특별한 의식은 없다. 다만 증언에 의하면 이 선돌들은 마을로 잡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39) 나산면 원선리 유촌(柳村) 선돌

유촌 선돌은 마을 동쪽과 서쪽에 각각 1개씩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현재는 동쪽에 있는 선돌만 남아 있다.

이 선돌은 할아범선독이라 불리며 크기는 높이 70㎝, 폭 상 25㎝, 중 43㎝, 하 43㎝, 두께 상 17㎝, 중 40㎝, 하 33㎝이다. 이 선돌에 대한 특별한 제의 행위는 없다.

한편 마을 서쪽에 있었던 할멈이라 불리던 선돌은 현재 없어졌지만 그 규모는 높이 153㎝, 폭 상 33㎝, 중 44㎝, 하 60㎝, 두께 상 22㎝, 중 38㎝, 하 47㎝였다.



유촌 선돌 39-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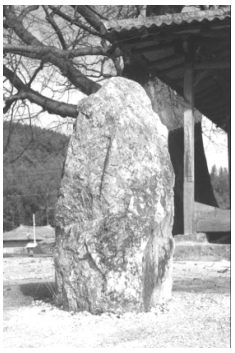
(40) 나산면 원선리 원선(元仙) 선돌


원선 선돌

원선 선돌은 1995년 이후 파손 유실되어 현재는 없다. 옛 모습과 내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전 군사에 정리된 글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 안길 중앙 선산김씨 문답에 위치하며 선독할멈으로 불린다. 1995년 마을 안길을 확장하여 포장할 때 중장비에 의해 두 동강이가 난 채 그 자리에 뒹굴고 있다. 목포대학 조사진은 「함평군 문화유적 카드」에 '이 입석에는 조사 당시(86.4.21) 줄이 감겨져 있어 유촌 마을 입석보다 잘 섬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마을 이장인 김근수(45세)의 제보에 의하면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촌장으로 부르는 고령자가 굿을 주관하며 유촌, 월랑, 쌍령, 원선의 네 촌민이 함께 줄다리기를 한다. 제비는 별도로 갹출하지 않고 마을 경비로 쓰고 있으며 마을의 질병 방지와 재앙을 막아 줄 것을 기원하고 있다. 크기(줄을 감은 상태)는 높이 150㎝, 폭 75㎝, 두께 140㎝, 좌우에 70~80㎝ 높이의 돌이 서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41) 나산면 이문리 원이문(原二門) 선돌


원이문 선돌

원이문 마을 어귀의 다리에서 서쪽으로 200m 지점에 당산나무와 정자가 있고 선돌은 정자 곁에 있다.

이 선돌은 두꺼비독 또는 선독이라 불리며 원래는 정자 앞 논에 세워져 있던 것을 경지정리를 할 때 지금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

두꺼비 등이 남쪽, 두꺼비 배가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방향은 원래 논에 서 있을 때와 같다고 한다. 모양은 세모꼴에 가까우며 제 의식은 없다. 크기는 높이 107㎝, 하부 폭 64㎝이다.

(42) 나산면 용두리 용수(龍水) 선돌

리현석(작고)이 정리한 이전 군사 내용을 보면, "국립광주박물관과 목포대학교 조사진이 오수동과 용수에 이르는 도로변에 7기의 선돌이 있다고 하였고, 광주박물관 조사진은 크기에 대해 언급이 없고 목포대학교 조사진은 5기에 대해 크기를 언급하였다. 이번 조사 때 3기를 조사하였고 용수에서 용두 마을에 이르는 재에 1기가 있어 1997년 도로공사 때 도로변으로 밀쳐놓았다고 하였으나 찾지를 못해 매몰한 것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잡귀를 물리쳐 마을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망(그물)을 쳤다고 한다."라고 정리하였다.

이후 2003년 필자와 리현석(작고)이 동신대 박물관에 의해 주관된 함평군의 『문화유적

분포지도』 조사에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4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의 선돌은 1990년에 마을 어귀에 세운 성재처사기계유공유허비(省齋處士杞溪兪公遺墟碑) 곁에 있다. 이 선돌은 한쪽 면이 위로 경사를 이루며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고 크기는 높이 94㎝, 하부 폭 44㎝, 두께 21㎝이다.



용수 선돌 42-①



용수 선돌 42-②



용수 선돌 42-③

②의 선돌은 ①의 선돌에서 북쪽으로 약 40m 떨어진 유중길씨 댁 담 벽에 있으며 형태는 삼각기둥에 가까우며 크기는 높이 132㎝, 밑변 길이 40㎝이다.

③의 선돌은 ②의 선돌에서 북쪽으로 약 30m 정도 떨어진 마을정자 앞에 있는 것으로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이 선돌 우측에는 1973년에 세운 순직용사유용재추도비(殉職勇士兪龍在追悼碑)가 있으며 선돌의 크기는 높이 112㎝, 하부 폭 60㎝, 두께 53㎝이다.

끝으로 추가 확인된 ④의 선돌은 ③의 선돌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함평이씨 문중 논둑에 있고, 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높이 92㎝, 너비 78㎝, 두께 62㎝이다.

(43) 나산면 초포리 사산(射山) 입석(立石) 선돌

사산 마을과 입석 마을 사이에 세워져 있는데 활줄이라는 사산 마을의 조림수 중앙에 해당하며 석질은 화강암이고 형태는 화살촉 같이 뾰족하다.

선돌의 구전에 의하면 사산 마을 뒤편은 활대에 해당하고 조림한 노거수가 활줄이 되니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화살이 있어야 하므로 이곳에 화살촉에 해당하는 선돌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크기는 높이 100㎝, 하부 폭 46㎝, 두께 44㎝이다.

<3권 전설을 볼 것>

(44) 나산면 구산리 내동(內洞) 선돌

내동 선돌은 마을 앞 논둑에 있다. 이 선돌에 대한 특별한 제 의식은 없고 크기는 높이 91㎝, 너비 53㎝, 두께 15㎝이다.

(45) 나산면 구산리 냉천(冷川) 선돌

냉천 선돌은 남평문씨 정려 앞 논둑에 있다. 이 선돌에 대한 특별한 제 의식은 없고 크기는 높이 86㎝, 너비 45㎝, 두께 27㎝이다.

(46) 나산면 수산리 유덕(有德) 선돌

유덕 선돌은 마을 입구에 마을정자와 함께 있다. 사각기둥 모양을 하고 있으며 크기는 높이 69㎝, 너비 45㎝, 두께 26㎝이다.

(47) 나산면 우치리 우치(牛峙) 선돌

우치 선돌은 원우치 마을에서 22번 국도로 나가는 농로 가에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선돌을 가리켜 당산제석이라고 부르며, 크기는 높이 117㎝, 너비 33㎝, 두께 38㎝이다.

(48) 해보면 상곡리 모평(牟平) 선돌

모평 마을은 함평모씨가 개촌했다는 마을로 옛날 모평현(牟平縣)의 치소(治所)가 있던 곳이다. 지금은 파평윤씨가 자작일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모평 선돌은 현재 총 2기가 있다.

먼저 ①의 선돌은 상모평으로 가는 도로 왼편에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제의는 없다. 크기는 높이 130㎝, 너비 95㎝, 두께 24㎝이다.

②의 선돌은 2003년에 추가 조사된 것으로 하모평으로 가는 도로 왼편에 있고 형태는 방패와 비슷하다.

이 선돌의 원래 높이는 130㎝ 정도였으나 밑 부분이 현재 아스팔트에 묻혀있어 지금의 높이는 96㎝, 하부 폭 100㎝, 두께 34㎝이다.



모평 선돌 48-①

(49) 해보면 상곡리 운곡(雲谷)선돌


운곡 선돌

운곡 선돌은 군도 13호선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삼거리 왼편에 서 있던 것으로 형태는 삼각형 추와 같이 생겼다.

2003년 조사당시 이 선돌은 삼거리 논둑 곁에 뉘어져 있었고 크기는 높이 110㎝, 삼각 밑변 길이 43㎝이었다.

(50) 해보면 산내리 송산(松山) 선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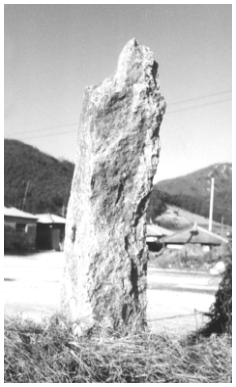

송산 선돌

기존에 조사 정리된 송산 선돌은 마을 앞 도로의 오른쪽에 있고, 함평군에 분포되어 있는 선돌 가운데 소형에 속하는 것으로 중간부분부터 폭이 크게 좁아진다고 하였다.

또 이 선돌에 대해 마을에서는 제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크기는 높이 77㎝, 하부 폭 31㎝, 두께 15㎝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2003년 조사할 당시는 이 선돌을 확인할 수 가 없었다.

(51) 해보면 산내리 원산(元山·산안) 선돌


원산 선돌

모평에서 시작되는 군도 13호선은 산안에서 끝난다.

모평 쪽에서 군도 13선을 따라 올라오면 산안 마을 어귀에 정자가 있고 그 곁에 거대한 선돌이 서 있으며 이 선돌을 선독할매라 부르는데 크기는 높이 217㎝, 하부 폭 50㎝, 두께 32㎝이다.

또 이 골짜기에는 40여기에 이르는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월 보름에 이 선돌에 줄을 감았는데 지금은 그 의식을 행하지 않는다. 1984년에 국립광주박물관이 펴낸 『함평문화유적지표조사』에 소개된 이 선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돌할머니는 썩은 동아줄로 머리를 칭칭 감았는데 낯모르는 사람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모습에서 선돌 할머니가 깊은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돌 할머니 옆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모정이 있고 마을 뒤 봉암에는 깃대봉이 있어 마을 제를 행할 때 깃대를 꽂는 장소가 된다.

또한 마을 내에는 진대(솟대라고도 함)가 1개 있었는데 현재는 나무가 썩어 없어지고 그 아래 부분만 남아 있다. 진대는 부근의 산에서 장대와 같이 곧게 자란 나무를 베어다가 다듬어 세우고 맨 꼭대기에는 나무오리를 올려 놓았다고 한다. 진대는 지역에 따라 짐대라고도 하는데 마을을 지키는 신목으로서 솟대와 같은 뜻을 지닌다. 진대 옆에는 당이 있어 6.25 한국전쟁까지만 하여도 10여 아름이 넘는 당산나무가 있었다고 하며 마을 제(당제)를 지낼 때는 선돌 할머니 옷 입히기 굿과 더불어 당제도 함께 올렸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제 의식은 3권 민속편을 볼 것>

(52) 해보면 용산리 소성(小城) 선돌

소성 선돌은 마을 내 이상돈 씨 댁 담장 옆에 있다. 이 선돌은 마을에서 당산할매라 불리며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이 선돌은 1979년에 시멘트로 좌대석을 만들어 보존하고 있는데 크기는 높이 149㎝, 폭 45㎝, 두께 30㎝이다.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 또는 2월 1일에 줄다리기를 한 다음 그 줄을 선돌에 감는데,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당산할매 옷 입힌다'고 하였다.

(53) 해보면 용산리 주현(舟峴) 선돌

주현 선돌은 마을 안 후송정 앞에 있고 크기는 높이 210㎝, 너비 87㎝, 두께 67㎝이다.

(54) 해보면 해보리 월현(月峴·지적실) 선돌

월현 선돌은 정충량신도비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논둑에 있다.

원래 이곳에는 수십 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5기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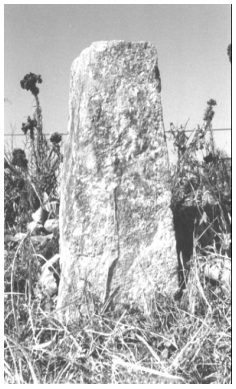
선돌에 제의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선돌은 고인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크기는 높이 148㎝, 하부 폭 60㎝이다.



월현 선돌

(55) 해보면 대각리 오두(烏頭) 선돌

오두 선돌은 마을버스 승강장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선돌에 대해서는 매년 정월 보름에 제사를 지내는데 크기는 높이 103㎝, 너비 58㎝, 두께 26㎝이다.



내세 선돌

(56) 월야면 용월리 내세(內細) 선돌

내세 선돌은 마을 어귀 나주정씨(羅州鄭氏) 삼효각(三孝閣)에서 마을 쪽으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선돌을 가리켜 마을에서는 수문신 또는 선독이라 부르며 1980년대 초까지 줄을 감는 의식을 행하였다고 한다.

크기는 높이 65㎝, 하부 폭 38㎝, 두께 30㎝인데 마을길을 포장할 때 중장비에 의해서 높이가 약 ⅓ 가량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57) 월야면 용월리 외세(外細) 선돌

외세 선돌은 원래 남북으로 약 100m 간격을 두고 2기가 있었다. 이 가운데 북쪽에 있던 선돌은 도로공사 때 매몰되어 없어졌는데, 정진오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 선돌의 크기는 높이 80㎝, 두께 22㎝였다.

현재 남아 있는 선돌은 마을 어귀 도로 오른편 공동우물 곁에 있는 것으로 기단은 돌로 쌓아 놓았다. 이 선돌의 크기는 높이 115㎝, 하부 폭 45㎝, 두께 39㎝이다.

외세 마을에는 예전부터 수십 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모두 훼손되어 흔적도 없는데 마을 앞 개울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고인돌의 덮개돌로 보인다.



외세 선돌

(58) 월야면 용월리 용두(龍頭) 선돌

용두 마을에는 수십 기의 고인돌이 있으며 특히 함평군에서 제일 큰 150t의 고인돌이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원래 2기의 선돌이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1기는 1984년 광주박물관 조사진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 선돌은 다시 도로 개설로 인해 원래의 위치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옮겨 세워졌으나 1997년 조사 때 확인해 본 결과 훼손되어 없어졌다고 한다. 정진오의 조사 기록에 의하면 이 선돌의 크기는 높이 90㎝, 하부 두께 22㎝였다.

(59) 월야면 월악리 죽산(竹山) 선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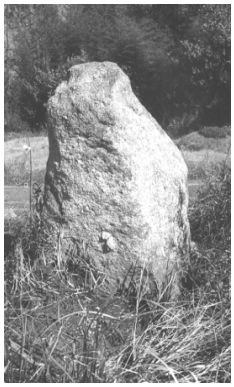
죽산 마을에는 모두 3기의 선돌이 있다. 그러나 이 선돌들에 대한 제의 행위는 않는다.

①의 선돌은 마을 어귀 정규선 공적비 앞 길가에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선독골이라 부르는데 이곳에 있는 이 선돌은 도로 개설 때 하단의 많은 부분이 땅속에 묻혀버렸다. 현재 이 선돌의 크기는 높이 87㎝, 하부 폭 53㎝, 상부 폭 31㎝, 하부 두께 27㎝, 상부 두께 25㎝이다.

②의 선돌은 ①의 선돌에서 동쪽으로 약 150m 가량 떨어진 시연골로 가는 길목의 재밑에 있다. 넓은 쪽이 남쪽을 향하고 있고 선독이라 불리는데 크기는 높이 74㎝, 하부 폭 50㎝, 상부 폭 43㎝, 하부 두께 36㎝, 상부 두께 30㎝이다.

③의 선돌은 ②의 선돌에서 북쪽으로 약 150m 가량 떨어진 논둑에 있다. 이 선돌 또한 마을에서는 선독이라 부르고 있고 크기는 높이 97㎝, 하부 폭 50㎝, 상부 폭 28㎝, 하부 두께 49㎝, 상부 두께 20㎝이다.


죽산 선돌 59-①


죽산 선돌 59-②


죽산 선돌 59-③

(60) 월야면 월악리 노동(鷺洞) 선돌

노동 마을에 2기 함평군과 장성군의 경계인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죽산에 1기가 있는데 군경계선에 따르면 장성군인 죽산의 선돌까지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또 노동의 1기는 석장승임이 틀림없으나 마을 사람들이 장승이라 부르지 않고 당산이라 부르고 있어 선돌에 포함시켰다.

①은 노동 마을 중앙에서 장성군의 죽산으로 통하는 길목에서 북쪽으로 50m 떨어진 길옆에 위치하며 다듬은 긴 네모꼴에 유난히도 코를 크게 조각한 석장승으로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서있다. 크기는 높이 127㎝, 얼굴 길이 40㎝, 얼굴 폭 33㎝이다.

②는 노동과 죽산의 마을길이 만나는 길목, 노동쪽에서 볼 때 왼쪽에 위치하며 당산이라 부르고 있고 세모꼴을 이루며 1996년 농경지를 정리할 때 하부 일부가 중장비에 잘려 높이가 낮아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크기는 높이 109㎝, 하부 폭 58㎝, 밑변 길이 26㎝이다.


노동 선돌 ①


노동 선돌 ②


노동 선돌 ③

③은 ②에서 죽산 마을 앞길을 따라 북으로 50m 떨어진 길가 논둑에 서있고 긴 네모꼴 돌을 중간에서 세모꼴로 나눈 형태다.크기는 높이 132㎝, 하부 두께 63㎝, 두께 25㎝이다.

(61) 월야면 계림리 시목(柿木) 선돌

시목 선돌은 마을 동편에 1기, 서편에 1기 합하여 2기가 있다. 모두 선돈이라 불린다.

먼저 동편 ①의 선돌은 마을 노인회관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군내에서 유일하게 성혈(性穴)이 남아 있는 선돌이다. 1995년까지 제를 지냈으며 크기는 높이 78㎝, 하부 폭 41㎝, 두께 30㎝이다.

②의 선돌은 마을의 서쪽에 있는 것으로 1995년까지 제를 지냈다. 크기는 높이 80㎝, 하부 폭 28㎝이다.

(62) 월야면 계림리 주곡(舟谷) 선돌

주곡마을은 6.25 한국전쟁 때까지 마을이 있었고 마을 명칭은 형국이 행주형(行舟形)이어서 주곡(舟谷)이라 불렸다고 한다.

이곳의 선돌은 주전(柱田) 마을 김영원 씨 소유의 대밭 속에 있는데, 현재 약 30°가량 기울어져 있다. 사람들은 이 선돌을 가리켜 수구맥이라 부르며 크기는 높이 276㎝, 하부 폭 67㎝, 두께 57㎝인데 이는 군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 선돌이 있는 일대는 16기에 달하는 고인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1986년 목포대학교 조사진이 조사할 때 하천 변에 옮겨져 파괴된 고인돌의 덮개돌이 서로 겹치거나 흩어져 있었고, 제방 속에도 여러 기를 매몰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어 그 같은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주곡 선돌은 이 고인돌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만하다.

<선사시대 화보참조>

(63) 월야면 계림리 주전(舟田) 선돌

주전 선돌은 원래 2기가 있었다.

먼저 ①의 선돌은 성남교회 앞 도로 곁에 있었던 것으로 당산하나씨 또는 수구맥이라 불렀으며 크기는 높이 130㎝, 하부 폭 44㎝, 두께 35㎝였다.

그러나 이 선돌은 현재 유실되고 없다.

②의 선돌은 ①의 선돌이 있던 곳에서 서쪽으로 약 150m 가량 떨어진 가차 마을 앞



주전 선돌 63-①



주전 선돌 63-②

에 서 있는 선돌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마을에서 농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300m 쯤 가면 주전교가 나오고 그 곁 서쪽 30m 지점에 이 선돌이 있는데 모양은 세모꼴 기둥형이다. 이 선돌을 가리켜 마을사람들은 당산할매 또는 수구맥이라 부르고 있으나 제와 같은 의식은 행하지 않는다. 선돌의 크기는 높이 135㎝, 밑변 길이 45㎝이다.



신기 선돌

(64) 월야면 계림리 가차(加次) 선돌

가차 마을의 동쪽 100m 거리인 수로 옆에 당산할매 또는 수구맥이라 부르는 선돌 1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선돌은 1996년 경지정리 때 매몰되고 말았다.

1986년 목포대학교 조사진이 조사한 다음과 같은 조사 기록을 통해 당시 가차 선돌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매년 정월 보름이면 농악을 치며 줄다리기를 하고 이 돌에 줄을 감아둔다. 줄을 감아 두는 것은 당산할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함이며 당산할매(선돌)가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고 마을의 좋은 기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높이 148㎝, 둘레 173㎝(줄이 감아진 상태)이다."

(65) 월야면 정산리 내정(內亭) 선돌

내정 선돌은 모두 2기가 있다. 먼저 ①의 선돌은 마을 중앙의 도로가에 있는 것으로 동쪽선독 또는 숫돌이라 불린다. 이 선돌에 대해서는 6.25 한국전쟁 때까지 줄을 감았다고 하며 크기는 높이 103㎝, 하부 폭 62㎝, 두께 32㎝이다.

②의 선돌은 동쪽선독의 정면 서쪽, 즉 정종원 씨 소유의 목장 앞 농로에 있다. 이 선돌은 암돌이라 불리며 제 의식은 없다. 크기는 높이 132㎝, 하부 폭 55㎝, 두께 49㎝이다.



내정 선돌 65-②



내정 선돌 65-①

이들 선돌은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고 하는데 배치 상태로 보아 내정 마을의 수호보다는 북쪽의 화산, 즉 만가촌의 수호를 위해 세워진 선돌로 보아야할 것 같다.

(66) 월야면 정산리 신기(新基) 선돌



석계 선돌

신기 선돌은 마을 경로당으로부터 약 8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선돌은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고 하며 당산 또는 수구맥이라 불리는 것으로 옛날에는 줄을 감는 의식을 행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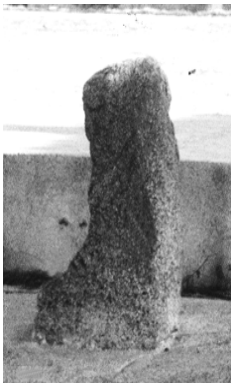
전체적인 모양은 사다리꼴에 가깝고 크기는 높이 170㎝, 하부 폭 77㎝, 두께 40㎝이다.

이 선돌은 마을이 번성하기 위해 서쪽에는 서나무를 심고 동쪽에는 선돌을 세웠다고 전한다.

(67) 월야면 정산리 동촌(東村) 선돌



동촌 선돌 67-①



동촌 선돌 67-②

동촌 선돌은 모두 2기가 있다.

먼저 ①의 선돌은 곽병찬 씨 댁(정산리 841번지) 담 옆에 있다. 이 선돌은 남당석이라 불리는 것으로 군도 7호선을 확포장하면서 약간 위치가 이동되었다고 한다. 크기는 높이 108㎝, 하부 폭 47㎝, 두께 24㎝이다.

②의 선돌은 ①의 선돌(남당석)에서 북쪽으로 약 250m 정도 떨어진 마을회관 앞 길가에 있다. 이 선돌은 여당석이라 불리며 크기는 높이 80㎝, 하부 폭 43㎝, 두께 31㎝이다.

이들 선돌에 대해 마을에서는 1970년대까지 매년 정월 보름에 줄을 감았다고 하나 지금은 행하지 않는다.

(68) 월야면 월계리 석계(石溪) 선돌

석계 선돌은 마을 동쪽 어귀 논둑에 서 있다.

마을에서는 이 선돌을 가리켜 선독하나씨라 부르며, 1980년대 중반까지 줄을 감는 의식을 행했고 당제는 지금도 지내고 있다. 크기는 높이 130㎝, 하부 폭 55㎝, 두께 30㎝이다.

마을의 당산에는 12기의 고인돌이 있고 선돌에서 북서쪽 산 능선에는 돌방고분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전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한 바 있다.

1984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간행한 『함평문화유적지표조사』에서 석계 선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마을의 당산에는 12기의 지석묘도 함께 있으며 당산제도 마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매월 정월 보름에는 집집마다 좋은 볏짚을 걷어서 길이 100m에 이르는 동아줄을 드리고 당제에 필요한 제수 준비를 위한 추렴도 한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고재상, 김승현 옹의 말에 의하면, 동제에는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고 남녀로 구분하여 줄다리기를 한다. 이 때에 농악이 곁들여지고 어린아이들은 응원을 하는데 여자가 이기면 그 해 풍년이 들고 남자가 이기면 흉년이 들기 때문에 여자가 이기도록 남정네들은 힘을 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풍습은 고대로부터 행하여졌던 다산(多産)과 풍요를 기원하던 습속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당제를 올리고 당산에 있는 지석묘에도 굿을 하며 절을 한다. 연후에 줄다리기를 하였던 동아줄을 선돌에 감고 굿을 계속한다. 그리고 샘굿을 마치면 마을 잔치가 한바탕 벌어져 신년을 기원하며 즐길 뿐 아니라 마을은 화합의 분위기가 넘쳐흐른다고 한다. 이상에서 선돌에 대한 신앙을 엿 볼 수 있는데 선돌은 남성을, 우물은 여성을 상징한 토속적인 신앙이 곁들여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덕산 선돌

(69) 월야면 월계리 덕산(德山) 선돌

덕산 선돌은 마을 어귀 산수정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0m 지점에 있다. 이 선돌을 가리켜 마을에서는 선독이라 부르고 있으나 현재는 넘어져 있다.

크기는 높이 135㎝, 하부 폭 24㎝, 두께 15㎝이다. 마을에서 당산 굿은 현재도 하지만 선돌에 대한 의식은 행하지 않는다.

(70) 월야면 용정리 송정(松亭) 선돌

송정 선돌은 마을 어귀에 있는 목장 앞 밭둑에 세워져 있고 수구맥이라 부르며 제 의식은 없다.



송정 선돌

모양은 세모꼴에 가까우며 상당 부분이 밭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의해 묻혀 있는데 크기는 높이 68㎝, 하부 폭 35㎝, 두께 28㎝로 함평군에 분포한 선돌 가운데 작은 편에 속한다.

이 선돌 서쪽으로 약 130m 지점에는 용수 선돌이 서 있다.

(71) 월야면 용정리 용수(龍岫) 선돌

용수 선돌은 마을에 들어서기 전 <인동장씨세장산비> 곁에 있었으나 현재는 유실되고 없다. 예전의 모습은 재질이 점판암이었고 위로 올라가면서 뾰족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크기는 높이 95㎝, 하부 폭 50㎝, 상부 폭 15㎝, 두께 19㎝이었다.



용수 선돌

이 선돌을 세우게 되었던 배경에는 용수마을 모양이 칼 모양이어서 칼끝에 선돌을 세웠다고 전한다.

그러나 동쪽으로 약 130m 가량 떨어진 송정 선돌과 서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는 폐촌 된 계동과 송정을 수호하기 위한 선돌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72) 월야면 외치리 백야(百野) 선돌

백야 선돌은 원래 2기가 있었다.

이 선돌들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예전에는 정월에 왼새끼에 종이를 낀 금줄을 감아 놓고 음식을 차려 선돌제를 지냈다고 한다.



백야 선돌 72-①

먼저 ①의 선돌은 백야마을에서 대한타이어공장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에 있다. 모양은 소뿔처럼 구부정하게 생겼으며 영감바우라 부르는데 도로확장 공사 때 자리가 약간 옮겨졌고 밑이 콘크리트에 묻혔다. 크기는 높이 164㎝, 하부 폭 49㎝, 두께 30㎝이다.

②의 선돌은 할멈바우라 불리는 것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변 정종섭 소유의 밭둑으로 옮겨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다.

옛 자료에 의하면 크기는 높이 47㎝, 하부 폭 33㎝, 두께 23㎝이었다.



백야 선돌 72-②

(73) 월야면 용암리 방하(芳荷) 선돌

방하 선돌은 마을에서 은암마을로 가는 길 왼편에 있다.

크기는 높이 133㎝, 폭 45㎝, 두께 50이다.

제4절 유물 산포지와 수습 유물

1. 유물산포지

유물 산포지와 수습 유물은 1995년 군사편찬위가 조사 정리한 것과 이후 2003년 동신대 박물관이 조사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

우선 1995년의 것은 학교면 월산리 월산 꺾창을 비롯하여 나산면 구산리 출토 돌검, 나산면 덕림리 죽림 수습 돌도끼, 나산면 초포리 수습 반월형 돌칼, 대동면 백호리 수습 칼자루 장식, 엄다면 송로리 담안 수습 돌자귀 등이며, 2003년에 추가된 것은 함평읍 대덕리 백곡과 엄다면 송로리 담안 유물산포지 등이다. 이를 종합하여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유 적 명	지 번	시 대	비고
1	학교면 월산리 월산	1995년 조사자료	철기	
2	나산면 구산리	〃	3-4세기	
3	나산면 덕림리 죽림	〃		
4	나산면 초포리	〃		
4	대동면 백호리	〃		
5	엄다면 송로리 담안	〃		
6	엄다면 송로리 담안	전650, 649, 644, 652, 643, 642, 350, 645, 646, 659, 658, 646-1, 347-3, 660, 636-1, 637, 639, 353, 352, 347-1, 답349-1, 641, 669-1, 임349-2, 347-2, 묘653, 640, 전638, 636-2, 579, 580-5, 580-6, 346, 346-1, 346-2, 348	청동기	추가
7	함평읍 대덕리 백곡	전458-7, 458-13, 458-12, 458-19, 임458-10, 458-11	청동기	추가

2. 유적개요 및 수습유물

1) 학교면 월산리 월산 꺾창(銅戈)

현 광주항만청 학교무선취급소 부지내의 토광묘에서 1976년 꺾창 1점을 주민이 수습 신고하였고 이 유물은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봉부(鋒部)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칠흑색의 백동질(白銅質)에 가까운 것으로 신부(身部)에 검푸른 녹이 나 있고 도능(刀稜. 모짐)과 홈(血溝)이 봉부에서 합쳐지며 도능은 봉부에서만 보이는 윤무병 교수 분류 2식에 해당하고 제작의 상한 연대는 초기 철기시대로 보고 있다. 길이 25.5cm, 폭 7.5cm, 두께 1cm.

<선사시대 화보를 볼 것>

2) 나산면 구산리 출토 돌검(石劍)

구산제 아래의 고인돌이 군집한 밭에서 밭을 갈다 발견한 것으로 파손된 부분이 없이 정교한 솜씨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정교함은 오늘날 군대용 대검보다 우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돌검이 쓰인 곳은 대개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전쟁에서의 무기, 사냥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산리 출토의 돌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한 흔적이 없고 또 그 섬세함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유물은 실제 생활 용구였다기보다는 껴묻기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돌검은 크게 자루가 있는 유병식(有柄式)을 비롯해 유경식(有莖式), 무경식(無莖式)으로 나누는데 유경식과 무경식은 돌창(石槍)에 가깝다. 자루가 있는 돌검은 1단, 2단병(二段柄) 또 혈구(血溝)가 있고 없음에 따라 분류한다. 돌검 중 가장 많이 출토되는 것이 홈이 없는 즉, 파인 곳이 없는 1단병식이다.

구산리 돌검은 오르도스동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전남지방에서 발견되는 것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상한 연대를 기원전 3~4세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돌검도 이 상한 연대에 맞춰 볼 수 있다.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체 길이 36cm, 폭 4cm, 손잡이 길이 8.5cm, 손잡이 폭 6.4cm, 두께 1cm.

<선사시대 화보를 볼 것>

3) 나산면 덕림리 죽림 수습 돌도끼(石斧)

돌도끼 1점이 수습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정확한 장소와 크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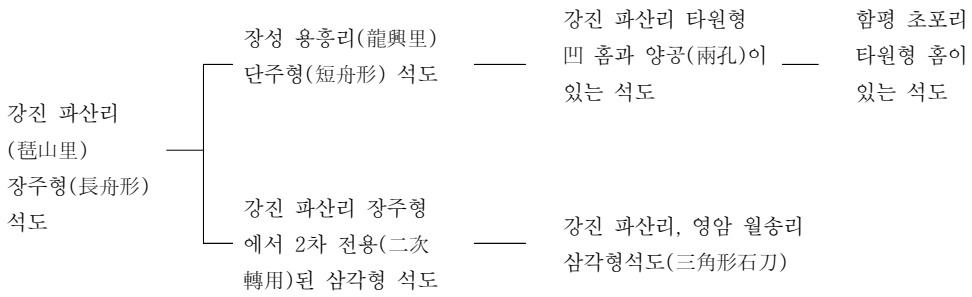
참고문헌 : 최몽룡 “영산강 유역의 선사 유적, 유물” 역사학보 59집. 1973.

4) 나산면 초포리 수습 반월형 돌칼(半月形石刀)

초포리 입석의 고인돌 군집지 밭에서 수습하였다. 점판암으로 만들었으며 곡식의 이삭을 따거나 요리를 할 때 썼던 것으로 본다. 복원한 길이 12cm, 두께 0.7cm.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최몽룡「영산강 유역의 선사 유적 유물」 『역사학보』(59집) 1973>

전남에서 출토된 반월형 돌칼은 그 수효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형(異形) 반월형 돌칼도 수차례 출토된 바 있다.

전남지방에서 출토된 반월형 돌칼에 대한 발전 계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 백호리 수습 칼자루 장식(劍把頭飾)

1983년 2월 백호리 119번지 밭에서 밭갈이를 하다가 이 밭의 주인인 윤판문에 의하여 석기류가 수습되었다. 유물이 수습된 지점은 국도 24호선에서 월송리와 백호리로 갈리는 갈림길에서 남쪽으로 300m 떨어진 얕은 언덕으로 겨울에도 햇볕이 잘 들어 따뜻한 곳이며 국도와 면도로 갈리는 지점에는 향교리 동교 고인돌군이 있다.

당시 수습한 석기는 돌화살촉 2점, 돌도끼 1점, 철광석제 칼자루장식 1점이었는데, 돌화살촉과 돌도끼는 분실되고 칼자루장식만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에서 보관하고 있다.

칼자루장식은 철광석제로 흑갈색을 띠고 있으며 자성(磁性)이 있다. 주먹 안에 들어가는 자연석을 마름모꼴로 다듬었는데 윗면은 다듬은 흔적이 뚜렷이 보이고 마름모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었다. 칼자루에 부착한 아랫면은 잘 연마하였고 박힌 쇠가 반짝거린다. 초포리 유적에서 발굴한 철광석제 칼자루장식처럼 +자형 모양새를 내고 기교를 부린 것과는 달리 자연석을 자연스러운 마름모 모양으로 단순하게 다듬었다.

이러한 철광석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물이 수습된 곳에서 북동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철성산(鐵城山)이 있어 이 산 어디에서 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름모 지름 크기 7.5cm, 하부 폭 5.0cm, 높이 3cm.

<선사시대 화보 참조>

6) 엄다면 송로리 담안 수습 돌자귀

이창규 소유의 집안 텃밭에서 1989년 봄에 2점을 수습하였다. 2점 모두 몸체는 원통형이며 날은 양면에서 비스듬히 돌을 떼어 정교하게 잘 다듬었다. 엄다리 거주 이창규가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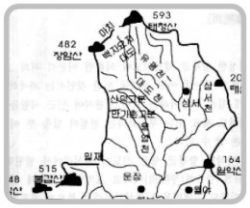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7) 엄다면 송로리 담안 유물산포지

담안마을 이점규 씨 댁 뒤편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낮은 구릉에 분포한다. 이 구릉 동쪽 사면부에서 돌자귀 2점이 수습된 바 있다.

8) 함평읍 대덕리 백곡 유물산포지

백곡마을의 서쪽 구릉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곳은 북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줄기를 따라 형성된 낮은 구릉으로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유물은 구릉의 전면에서 확인되었는데 특히 마을에서 구릉으로 올라가는 민가 남쪽 선산과 농로 단애 면에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도랑 단면이 노출되어 있다. 도랑의 단면은 V자 형으로 최하층은 적갈색사질토, 그 위에 황갈색사질점토, 작은 할석이 섞인 흑갈색부식토 순으로 쌓여있고 내부에 무문토기 저부편과 동체부편이 혼재되어 있다.

제3장 함평에서의 벼농사 시작



1978년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廣島大學) 야스다(安田喜憲) 교수가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영산강 지류의 부식토를 채집하여 꽃가루분석(花粉檢査)을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부터 이 일대가 사람에 의해 파괴 또는 개간되기 시작했으며 주위에 소나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쌀(Oriza satival rice)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그 쌀 생산의 실제 연대도 약 3000B.P(BC. 1050)나 되어 이때 이미 영산강 유역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분검사법(Pollen Analysis)은 늪 속에 묻힌 꽃가루가 썩지 않고 있기에 그 자체가 Radio Carbon dating과 같은 절대연대 결정의 자료로서 도움을 주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기후환경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검사 표본이 채집된 가흥리의 영산강 늪지대는 우리 함평군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우리 함평지역에서도 이 때부터 벼농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탄화미(炭化米)는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흔암리 1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BC 7세기 이전 경이었다.[46] 또 일본의 경우는 죠오몽(繩文) 말기에 해당하는 규수 이다쯔게(九州板付) 유적에서 출토된 BC 5~6세기경의 것으로 우리나라 보다 늦다.

벼 재배 기원에 대해서는 인도 기원설, 동남아(태국) 기원설, 앗삼 기원설, 중국 운남(雲南) 기원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원설은 운남 기원설을 비롯하여 화남(華南)지역 기원설, 장강하류(長江) 기원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장강하류 기원설은 양자강 하류지역에 있어서 야생 벼의 존재와 벼와 농구 등 출토된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양자강 유역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이른 시기의 농경자료는 중류지역의 호남성 팽두산(彭頭山) 유적과 호북성 성배계(城背溪) 유적 출토의 예가 시기적으로 가장 빠르며(820+-120B.P~9000~7000B.P), 하류인 절강성 나가각(羅家角) 유적(B.P 7170 +-10)과 절강성 나강 여요현 하모도촌(浙江省羅江餘姚縣河姆渡村) 유적(B.P 6700)은 그다음 단계인 앙소문화(仰韶文化)에 속한다.[47] 우리 함평지역과 인접해 있는 다시면의 것 보다 무려 4천년 이상이나 앞서고 있다.

우리나라에 벼농사가 전래된 경로를 일부 학자들이 양자강 하구 쪽에서 전남북 일대로 직접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면의 것이 높은 연대가 됨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

46) 서울대학교박물관 인문대고고학과, 『흔암리 주거지』, 1978, 30~38쪽.
47)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2권, 1993, 162쪽.

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나주시의 다시면과 문평면, 함평군의 대동면 상옥리, 나산면의 구산리와 용두리, 월야면의 용월리, 해보면의 상곡리 일대에 고인돌군이 집단으로 분포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쌀의 출현으로 인한 인구증가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견해를 다음과 같은 글이 잘 지적해 주고 있다.

> "…나주에서 발견된 꽃가루의 분석 결과 BC 10세기로부터 점차적인 사회적인 변천이 수전 경작으로 인해 일어난 것을 예견 할 수 있는데, 이는 청동기의 전문적인 제작과 고인돌묘의 축조가 수반되고 이러한 사회는 계급사회의 기본 단계며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군장사회(君長社會. Chiefdom Society)로의 추이를 뜻하는 것이다."[48]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탄화미(炭化米)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흔암리 12호 주거지에서 BC 7세기 이전의 것이 발견되었고, 이어 나주 나시면 가흥리에서 BC 10세기 이전의 것이 발견되어 우리나라 최고 볍씨로 지금까지 알려졌었다. 그런데 이후 이러한 탄화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1994년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일대에 오창 과학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던 중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구석기 문화층과 토탄층을 확인했고, 이어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이곳에서 고대 볍씨 18알, 유사 볍씨 41알 등 모두 59알의 고대 탄화(炭化) 볍씨를 발굴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이 볍씨들은 탄소연대측정 결과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받아왔던 중국 후난(湖南)성 출토 볍씨보다도 무려 3000년이나 더 오래 된 것으로 평가받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세계적으로 관심거리가 되어 이후 2003년 10월 22일에는"국제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받아왔던 중국 후난성 출토 볍씨보다도 약 3천년이나 더 오래된 세계 최고의 볍씨가 한국에서 발견됐다"고 영국 BBC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당시 BBC 인터넷판은 기사에서 "충북대 이융조 교수 연구팀이 충북 청원군 소로리에서 고대 탄화 볍씨를 발굴했는데 59개의 볍씨를 대상으로 탄소연대측정법을 실시,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또 기사에 따르면" 이들 '소로리 볍씨'의 유전자구조는 지금의 쌀 유전자와 달라 이 교수 연구팀의 발굴로 인해 쌀의 진화과정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가능케 하고, 또 고대 볍씨가 출토된 한국 중부지방은 아시아 석기시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고 소개했다. 다시 말하면 소로리 유적지는 마지막 빙하기의 기후와 식생 등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유적지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 함평지역과 인접한 나주 가흥리 출토 볍씨는 이전까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출토 볍씨로 알려졌으나 국제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받아왔던 중국 후난성 출토 볍씨보다도 무려 3천년이나 더 오래된 세계 최고의 볍씨가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유적에서 발굴됨으로써 그 자리를 소로리 출토 탄화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소로리 출토 탄화미는 나주 다시면 가흥리 것보다 무려 7천년이나 앞선다.

48)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1권, 1992, 278쪽.



Contents

| 제1장 | 진국(辰國)의 해체와 마한의 발전 *380*
집필 / 이명헌

| 제2장 | 마한시대의 함평 *390*
집필 / 이명헌

| 제3장 | 신미제국(新彌諸國)과 함평 *406*
집필 / 이명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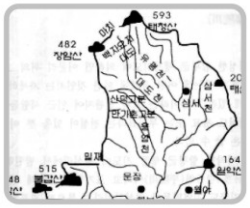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제3편 마한(馬韓)·백제(百濟)시대의 함평

| 제4장 | 백제시대의 함평 *411*
집필 / 이명헌

| 제5장 |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433*
집필 / 이명헌

| 제6장 | 마한·백제의 유적과 유물 *440*
집필 / 이명헌

제1장 진국(辰國)의 해체와 마한(馬韓)의 발전



제1절 진국의 해체와 삼한(三韓)의 대두

원삼국시대 즉 삼한사회(三韓社會)가 이룩되기 전에 삼한의 땅에는 진국(辰國)이 있었다. 그러나 이 진국이 언제 생겼고 언제 어떻게 해체 되었는가는 문헌의 빈약과 연구의 미진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북쪽에 위만조선이 존속하고 있을 때에 그 남쪽인 한반도 중·남부지역에는 진국이 있었다. 이 진국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아직도 분명치 않은 점이 많다. 다만, 진국은 고대국가로 보기 어렵고, 한족(韓族)의 여러 부족과 소국들이 제의와 중국과의 교역 등을 통해 상호 결속한 완만한 형태의 연맹체로 여겨진다.

또 진국의 생성과 관련해서는 북방보다 훨씬 원시성을 면치 못하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한반도 중·남부지역 진국의 선주민들이 선진적인 북방의 문명이 이입(移入)됨에 따라 그 영향으로 인해 적어도 기원전 3~4세기 무렵 생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진국은 많은 소국을 거느리고 있는 부족연맹사회였을 것이다. 즉 진국의 통수권자였던 진왕은 왕권 소유자라기보다는 최고 맹주로 해석함이 옳을 것으로 보이며, 진왕은 목지국(目支國)[49]의 거수(渠帥. 族長)가 세습(世襲)하였다.

또한 위만조선이 망한 뒤 많은 수의 고조선인들이 남으로 내려왔고, 이보다 앞서 위만이 고조선의 왕위를 찬탈했을 때에도 상당수의 고조선인들이 남쪽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군현이 설치된 이후에도 진번군이 폐지되는 등의 변동에 따라 적지 않은 유이민(流移民)들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해 진국에는 한강 이북의 유민(流民)이 끊임없이 유입하여 북방의 문화를 전하였고, 특히 고조선이 해체되면서 이들 해체된 집단이 대거 남동으로 이거하여 이미 선착한 진국의 주민들과 융화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단계 앞선 금속기문화를 가진 고조선계 주민들이 이주해 옴에 따라,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한족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대전-익산, 대구-경주, 김해-마산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는 새로운 금속기문화의 유적과 유물은 그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그 결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마한(馬韓), 변한(弁韓), 진한(辰韓)의 삼한(三韓)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 한전조(魏志 東夷傳 韓傳條)[50]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9) 월지국(月支國)이라 표기된 곳도 있는데 여기서는 『後漢書』에 표기된 목지국으로 기술한다.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다. 동서는 바다며 남쪽은 왜와 접하고 있고 지방이 사천리가 된다. 삼한이 있는데 마한, 진한, 변한이고 진한은 옛적의 진국이다.(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二曰辰韓三曰弁韓 辰韓者古之 辰國也)."

위의 기록을 보면, 진한(辰韓)이 곧 진국(辰國)이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위지를 쓴 진수(陳壽)가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후한서(後漢書)』 동이전 한조(韓條)에 "마한·진한·변한은 모두가 옛날 진국(辰國)이었다(---.皆古之辰國也)."라고 기술되어 있고, 또 진국이 일명 "개국(蓋國)"이라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 따라서 앞서 살핀 위지 보다 훨씬 신빙성이 가는 기록이라 하겠다.

또 『산해경(山海經. 山內北經)』에는 "개마(蓋馬. 고마)"라고 기술되어 있고, 『사기(史記)』에는 "진국(辰國)"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끊임없는 선진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진국이 해체되고 원삼국시대의 삼한(三韓)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삼한 역시 그 각각이 집권력을 가진 국가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그 내에 비슷한 문화를 영위하던 여러 소국과 부족을 포함하는 종족 단위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당시 삼한사회는 모두 78개의 소국으로 형성되었는데, 그 강역을 요약해 비정(比定)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한(馬韓) : 54개국이며 현 경기도 일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일대
진한(辰韓) : 12개국이며 현 경기, 강원도 일부, 경상북도
변한(弁韓) : 12개국이며 현 경상남도 일대

이 가운데 마한의 소국이었던 백제(伯濟)가 후일 백제(百濟)로, 진한의 소국이었던 사로국(斯盧國)이 신라(新羅)로 번창하여 고대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 함평은 진국 영속이었다가 마한 영속으로 되었다. 국명에 있어 마한(馬韓)의 "마(馬)"는 본래부터 진국의 일명이었던 고마(蓋馬)에서 온 것이며, 변한(弁韓)의 "변(弁)"은 그들이 사용한 관모(冠帽)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50) AD 3세기 말에 편찬되었고 진수(陳壽)가 썼음.

제2절 마한 소국(小國)의 위치 비정

마한 소국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몇몇 학자가 마한 54개국의 위치를 비정한 논문을 내놓은 바가 있다.

그러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학자마다 비정한 나라의 위치가 서로 다르고 대개 전라북도와 충청도에 비정한 나라가 많다. 앞으로 마한 소국의 위치 비정은 고인돌과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통일된 학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 함평군에 적어도 1~2의 마한 소국이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 이름은 비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함평에 적어도 1~2개의 소국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컨대 정약용은 그의 저서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 삼한총고조(三韓總考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널리 살피 건데 마한 54국이란 54개 현(縣)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대개 50리, 30리를 나라라고 불렀는데 강황요육(姜黃蓼六)과 같은 것이 이런 유(類)며 오늘날 일본의 법 역시 현을 나라라 하여 세습하고 있으니 제후와 같다. 마한의 54개국 역시 이런 유(類)였을 것이다."

또 『삼국사기』에 의한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돼 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전조(韓傳條)에 나오는 제국(諸國)은 오늘날 국가의 뜻 이라기보다는 읍성(邑城) 또는 대취락(大聚落)에 가까웠을 것이고 이것이 뒷날 삼국(三國)의 주, 군, 현(州郡縣)이 제도화되기 이전까지 기본적인 지역 단위가 되었을 것이다."

현재 함평군 지역에는 백제 때 두개의 현, 즉 굴내현(屈乃縣)[51]과 다지현(多只縣)[52]이 있었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굴내현과 다지현이 마한 때는 모두 부족국가였다고 일단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다시 확증해 주는 것이 그들이 남긴 유적이다.

선사시대에서 마한으로 이어지는 유적을 살펴보면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함평천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이며, 또 하나는 고막천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인데 이들 두개 집단의 유적을 양 가름이라도 하듯이 현 대동면 월송리에 철성산성(鐵城山城)[53]이 있고 옛 굴내현쪽에는 기산산성(箕山山城), 금성산성(金城山城), 보평산성(普平山城. 현 무안군과 경계)이 있으며 옛 다지현쪽에는 월악산성(月岳山城. 현 장성군, 광주광역시와 경계)이 있다. 이들 성곽은 현재 훼손은 되었으나 윤곽은 뚜렷한데 이를 살펴보면 철성산성을 제외하고는 토성(土城)이 혼재하고 있다. 이들 성곽이 삼한의 소국이 읍성국가였다고 할 때[54] 당시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51) 현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 중 다음 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동면 상옥, 백호, 월송, 금곡리와 학교면, 엄다면 지역은 물아혜현(勿阿兮縣. 현 무안군)에 속함.
52) 현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지역.
53) 백제 때 쌓은 성이라고 함평군의 옛 기록에 기술되어 있으나 정확한 축성 연대는 알 수 없다.
54) 『삼국지』나 『삼국사기』에 보이는 나라의 하위 단위가 성(城)이었다.

가진다.

AD 250년 전후에 삼한의 영내에는 석축(石築) 또는 토축(土築)의 성이 적지 않게 있었고 그것은 방어만이 아니라 성주(城主)가 거느리는 취락이 따르는 일이 많았을 것이며 전투상의 요새지에 특설한 성 외에도 자연히 형성된 취락의 주위를 둘러쌓거나 인근의 산상 또는 골짜기에 쌓은 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한에는 성이 없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고 실제 많은 성이 있었음이 입증된 바 있다.

월악산성과 철성산성을 지름으로 원을 그렸을 때, 고대 소국의 거리에도 합당하며 이곳에 나산면 용두리, 구산리, 월봉리, 초포리와 해보면 상곡리, 산내리, 월야면 월계리, 용암리 등에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지난 1987년 2월 나산면 초포리 사촌의 돌널무덤에서 26점의 청동기시대 유물이 출토되고, 또 초포리 일대에 대형 독널무덤과 돌방무덤이 있으며, 1995년 3월에 1차 발굴한 월야면 예덕리 만가촌고분에서 널무덤과 함께 2~3세기로 추정되는 큰 독널이 출토된 점 등 마한 소국의 위치 비정에 결정적인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함평천 쪽을 보면 함평읍 대덕리, 기각리, 자풍리, 대동면 향교리, 덕산리, 용성리 등에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학교면 마산리 표산에 대형 독널무덤과 돌방무덤이 군집해 있고, 함평읍 대덕리에는 지름이 30m가 넘는 추정 돌방무덤, 대동면 금산리 노적에는 초대형 이음돌고분(葺石墳. 가로 45m, 세로 50m, 높이 10m)이 있으며, 손불면 죽암리 장고산에는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장고형고분(長鼓形古墳) 중 가장 큰 고분 (길이 70m, 후원 지름 30m)이 있고 이 무덤들이 있는 곳이 옛 굴내포[55] 인근으로 당시에는 교통의 요충지로 또 넓은 들이 있어 식량이 풍부한 고대 부국(富國)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곳이어서 마한 소국 나아가 신미제국(新彌諸國)의 중심국으로 손꼽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부기(附記)해 두고자 하는 것은 김정호(金井昊)가 함평모씨(咸平牟氏)를 언급하면서 제언(提言)한 부분의 글이다.

> "이 집안은 경상도로 옮긴 자손과 전남북 서부를 중심으로 사는 수가 거의 같은 수효를 보이고 있다. 옛날 성(姓)이 출신 지역의 이름이었음을 생각할 때 고창(高敞)의 백제 때 이름이 모양부리(毛良夫里)라고 이두식으로 표기했던 점, 그 고을의 마한 때 부족국가 이름은 모노비리(牟盧卑離)였을 것이라는 점 등과 관련해 현존한 모씨들이 주로 토반 세력으로 살았던 모평(牟平. 백제 때 다지, 고려 때 모평으로 개칭)과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점이다."[56]

모평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근의 군집한 고인돌, 사촌의 돌널무덤, 사산의 독널무덤과 돌방무덤, 넓게 펼쳐진 평야 등 고대 소국 형성의 요건을 두루 갖춘 곳이다. 모평의 원뜻이 "물뜸"이고, 면(面)의 현재 지명인 해보(海保)가 역시 "물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현재 학자들이 모수국(牟水國)을 경기도 수원(水原)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수원보다는 모평이 설득력이 있으며 모씨들이 많이 사는 곳 중의 하나인 인근의 고창이 모노비리로 비정되었는데 모수와

55) 구주포라 주민들이 흔히 부르는 곳. 백제 때 굴내현에 있던 포구라 하여 굴내포라 불렀다고 전함. 옛 기록에도 굴내포(屈乃浦)로 표기되어 있고, 백제 때는 이 포구가 서남해안 일대에서 제일을 자랑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다.

56) 금호문화재단, 『예향』 (7월호), 1987. 192쪽.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전남의 여러 군에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마쳤고, 그 결과 전남에 분포하는 고인돌이 약 20,000여 기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영산강 유역인 함평군, 나주시, 영암군에 고분이 약 300기가 넘게 분포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들 유적들이 마한 소국을 성립시킬 수 있었던 세력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일 것이다.

다음 <표>를 보면 학자들의 마한 소국 비정이 얼마나 각각이며, 하루 빨리 통일된 비정설이 나와야겠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마한 소국의 위치 비정(比定)

나라 이름		위치 비정		
		정인보(鄭寅普)의 비정	이병도(李丙燾)의 비정	천관우 비정
원양국	爰襄國	경기장단(長湍) : 구려 때의 '야야(耶耶)'니 '아내'로 읽음(長淺城縣 一云 耶耶一云夜牙)	경기 수원 음덕 : 고려시대의 재양현(載陽縣), 고안양현(古安陽縣). 여람 남양부조를 볼 것	*전남 비정분만 옳김
모수국	牟水國	경기 수원 : 구려의 '매홀(買忽)'이니 모수는'물'이다.	수원 일대 : 구려의 매홀(水城-수성-의 뜻). 신라 수성	
상외국	桑外國	황해 봉산(鳳山) : 구려 때 휴류암(鵂鶹巖)이니 '병바희'로 읽을 것이다.	수원 장안, 우정면 : 장안, 우정면을 속칭 삼귀(三歸),삼귀(三貴),삼괴(三槐)라하고 고려때는 쌍고현(雙皐縣)임	
소석색국	小石索國	전북 순창(淳昌) : 백제 역평현(櫟坪縣)이니 '잔돌새'로 읽을 것이다.	경기도 서해의 어느섬? : 위서 백제전 개치왕 표문 '西界 小石山 北國海中 云云'	
대석색국	大石索國	전북 임실(任實) : 백제 때 역평현(櫟坪縣)이니 '돌새'로 읽을 것이다.	소석색국의 인접?	
우휴모탁국	優休牟涿國	황해 재령(載寧) : 구려 때 식성현(息城縣)이니 '쉬음들'이다	경기 부평(富平) : 구려의 주부토군(主夫吐郡). 우휴의 반절(反切Ju) 주(Ju)와 음이 통하고 모탁은 '수제(水堤.물둑)'의 뜻이니 후에 부토(夫吐.보둑)로 변한 듯	
신분활국	臣濆活國	전남 낙안(樂安) : 백제 때 분차군(分嵯郡)이니 신분치'로 읽을 것이다.	경기 양성(陽城) : 사복홀(沙伏忽).분활과 복(伏)은 동음 이사(異寫)로 적(赤)의 방언(邦言)인 '밝을'의 사음(寫音)이요, 신(臣)과 사(沙)는 동음으로 적의 의(義)를 수식한 말인 듯. 즉 '샛밝을'진적.(眞赤)의 '샛'의 차음(借音)	
백제국	伯濟國	경기 광주(廣州) : 백제 구도(久都)	경기 광주 : 백제는 위례마을(河北)에서 일어나 후에 하남 광주로 옮겨 그곳 지명에 의해 백재(伯濟)라 했다.	

나 라 이 름		위 치 비 정		
		정인보(鄭寅普)의 비정	이병도(李丙燾)의 비정	천관우 비정
속로불사국	速盧不斯國	전남 나주(羅州) : 백제의 반나부리(半奈夫里)니 '빠르부리'로 읽을 것이다.	경기도 통진(通津)지방 : 여람 10권 통진현조에 '守安廢縣在縣南十五里.本高句麗首爾忽. 新羅景德王改 戊城云云'의 수이(首爾)와 술(戊.)의 차자로 '속로'와 음이 근사하고 연혁조에 '平淮押縣 一云比史城 一云別史波衣'의 비사와 별사는 불사(不斯)와 음이 일치한 즉 속로불사국은 바로 수이(首爾.혹은 술) 비사(혹은 별사)를 연칭 것임	
일 화 국	日 華 國	경기 장단 : 구려의 장항현(獐項縣)이니 '나리고지'로 읽음. 경기 안산(安山) : 구려의 장항구현(獐項口縣)이니 '나리고지'로 읽을 것이다.	미상(未詳)	
고탄자국	古誕者國	전북 김제(金堤) : 백제의 구지지산(仇知只山)이니 '구티자'로 읽으며 지금 금구(金溝)	미상	
고 리 국	古 離 國	전북 정읍(井邑) : 백제의 고사부리(古沙夫里)는 곧 '古(卑)離' 이다.	양주군 풍양(豊壤)일대 :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백제 정복 지명중에 나오는 고이성(古利城)에 해당되고 고이(古利),고이(古離)는 음이 서로 일치함	
노 람 국	怒 藍 國	경기 이천(利川) : 고구려의 남천현(南川縣)이니'남내'의 도기(倒記)	이천의 음죽면(陰竹面) : 고려시대의 노음죽현(奴音竹縣)이니 노음과 노람의 비정이 가능함	
월(목)지국	月(目)支國	서울 : 한양고현(漢陽古縣) 혜화문 밖. 월(月)은 위례의 음사(音寫)	충남 직산, 성환, 평택 등지 : 위략 후한서는 목지국으로 되어 있다. 진왕 소도(所都)	
소위건국	素謂乾國	충남 홍성(洪城) : 백제의 우견현(牛見縣)이니 홍성군내 고구현지(高丘縣址)임	미상(未詳)	
자리모로국	咨離牟盧國	충남 부여(扶餘) : 백제의 가림군(加林郡)이니'다림내'로 읽고 지금의 임천(林川)임	경기 이천군의 일부(노람국과 인접) : 여람 8권 음죽현 고적조 '거村處 在縣四十里 거 古今韻書無之 本國方言 謂東草若薪爲거 合玆乙阿三字爲訓 而無音義'라했다. 자래 혹 잘애로 훈독하여 속초(東草)의 뜻인 바 거촌(거村)은 '자래말' 혹은 잘애말'인 자리모로(咨離牟盧)는 곧 거촌의 구명(舊名)이며 모로는 읍촌의 현재말인 '마을. 모을'임 遽 祛	遽 祛 遽 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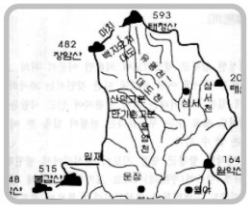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나라 이름		위치 비정		
		정인보(鄭寅普)의 비정	이병도(李丙燾)의 비정	천관우 비정
고원국	古爰國	충남 청양(靑陽) : 백제의 고양부리(古良夫里)니 지금의 청양임	미상(未詳)	
막로국	莫盧國	전남 장흥(長興) : 백제의 마사량(馬斯良)이니'맛내'로 회령현지(會寧縣址)임	중출(重出)	영광군
비리국	卑離國	전북 옥구(沃溝) : 백제의 부부리(夫夫里)니 회미성지(澮尾城址)임	옥구군 회면(繪面)일대 : 비이는 백제의 부리(夫里), 신라의 벌(伐), 발(發),불(弗), 화(火)와 같은 말. 비이국은 비비리국의 탈오(脫誤)로 백제의 부부리현인 지금의 옥구군 회면 일대	
점리비국	占離卑國	전북 정읍(井邑) : 고부(古阜)고비이비(古卑離)의 중출(重出)	전북 고부(古阜) : 위략에는 고비이국(古卑離國)으로 됨. 백제의 고사부리 지금의 고부에 해당된다	
신첩국	臣疊國	전북 옥구(沃溝) : 백제의 시산군(屎山郡) 일명 흔문(忻文)이니 '흔골'의 표기.지금 임피	충남 구진잠현(舊鎭岑縣) : 일본 학자 나가통세(那珂通世)가 백제의 진잠현에 비정했다.	
지침국	支侵國	충남 예산(禮山) : 지심현(支潯縣)이니 지금의 대흥(大興)본디 지삼촌(只彡村)	충남 대흥(현 예산 일부) : 당의 백제주군의 지심현(支心縣)에 해당하고 김정호 설에 의하면 현 대흥에 비정됨	
구로국	狗盧國	충남 아산(牙山) : 해례(解禮)곧 개리이(皆利伊),지금 신창	충남 청양군(靑陽郡) : 백제의 고양부리현(古良夫里縣)인 지금의 청양	
비미국	卑彌國	충남 천원(天原) : 비미는 사산(蛇山)이며 지금의 직산(稷山)임	충남 구비인현(舊庇仁縣) 현 서산(舒山) : 비미 백제의 비물(比勿)은 김정호 설 같이 비인에 해당한다.	
감해비리국	監奚卑離國	경기 파주(坡州) : 구려의 파해평사(波害平史). 감(監)은 '보'로 파(波)와 관계 있음	충남 홍성(洪城) : 백제의 고막부리(古莫夫里). 금마면(金馬面)의 옛 이름이 대감개면(大甘介面)이니 감개는 즉 감계(監溪) '곰개'와 같다.	
고포국	古浦國	경북 경산(慶山) : 압량소국(押梁小國) 장산현(獐山縣)의고포성(古浦城)임	미상(未詳)	
치리국국	致利鞠國	전남 화순(和順) : 백제의 잉이아(仍利阿). 잉은'즈' 아는 '끔'임	충남 서산 지곡면(地谷面) : 백제의 지육현(知六縣). 신라 지육(地育), 고려지곡으로 지육(知六), 지육(地育), 지곡은 치이국의 전음(轉音)인 듯하다.	

나 라	이 름	위 치 비 정		
		정인보(鄭寅普)의 비정	이병도(李丙燾)의 비정	천관우 비정
염 로 국	冉 盧 國	전북 진안(鎭安) : 백제의 난진아(難珍阿) 일명 월량(月良).염로는 '다래' 로 읽음	충남 아산 ? : 아산(牙山)은 백제 아술현(牙述縣). 신라 음봉현(陰峯縣). 일명 음잠(陰岑)	
아 림 국	兒 林 國	전북 익산(益山) : 백제의 알야산(閼也山)이니 낭산현지(朗山縣址)임	충남 서천군 ? : 일본 학자 나가통세는 백제의 설림군(舌林郡) 즉 서천군에 비정	
사 로 국	駟 盧 國	전북 3옥구(沃溝) : 백제의 마서양(馬西良)의 서(西)가 사(四)로 변함	충남 홍성군 장곡면(長谷面) : 일인 점구방지진 설과 같이 백제 사시양현에 비정. 사시양(沙尸良)은 일명 사라(沙羅)라 하고 신라의 신양(新良)	
내비리국	內卑離國	충남 부여(扶餘) : 백제의 소부리(所夫里)	미상(未詳)	
감 해 국	感 奚 國	경기 안성(安城) : 구려의 나혜홀(奈兮忽)이니 '놋새'로 읽어짐	전북 함열(咸悅) : 감해는'감개 '혹은'고마개'의 대음(對音)으로 지금은 함열에 '곰개'가 있다.	
만 로 국	萬 盧 國	충북 진천(鎭川) : 구려의 금물노(今勿奴)이니 금물은'골'로'만(萬)'도 '골'과 같음	충남 보령군 남포(藍포) : 백제의 사포(寺浦) 일명 마산(馬山)현이니 사(寺)는 '마을' '말'로 훈독하여 만로에 가깝다.	
벽비리국	辟卑離國	전남 보성(寶城) : 백제의 파부리(波夫里)	전북 김제 혹은 전남 보성의 복내면(福內面) ? : 백제의 벽골군(碧骨郡. 김제) 아니면 백제의 파부리(波夫里)현인 지금의 보성군이 아닌가 한다.	
구사오단국	臼斯烏旦國	전남 장성(長城) : 백제의 구사진혜(丘斯珍兮)니'귀돌"로 읽어짐	전남 장성의 진원면(珍原面) : 백제의 구사진혜(丘斯珍-들-兮)현. 조선조의 구사진혜(仇斯珍-들-兮)에 비정함	
일 리 국	一 離 國	전남 화순(和順) : 백제의 미릉부리(彌陵夫里),인부리(仁夫里)니 지금의 능주(綾州)임	미상(未詳)	
불 미 국	不 彌 國	충북 단양(丹陽) : 구려의 적성현(赤城縣),적산현(赤山縣)이니 '붉뫼'로 읽음	전남 나주시 : 불미지국(不彌支國)의 오기로 본다. 불미지는 당의 백제 주현 중의 대방주 속현 포현현(布賢縣)본디 파노미(巴老彌), 백제 신라의 발라군(發羅郡.현 나주)에 비정한다.	
지 반 국	支 半 國	전북 부안(扶安) : 백제의 개화(皆火)니 '다불'임	미상(未詳) : 지반국은 반구국(半狗國)의 오기로 본다.	
구 소 국	狗 素 國	전남 담양(潭陽) : 백제의 추자혜(秋子兮)니 '가아지새'로 읽음	위명(僞名) : 구(狗)자는 위의 반(半)자와 합해 반구국이 되고 소(素)자는 밑의 첩로와 합해 소첩로국(素捷盧국)이 되므로 위명임	

나라 이름		위치 비정		
		정인보(鄭寅普)의 비정	이병도(李丙燾)의 비정	천관우 비정
첩로국	捷盧國	충북 옥천(沃川) : 신라의 조비천(助比川)이니 '듭내"로 읽으며 양산현지(陽山縣址)	미상(未詳 : 소첩로국(素捷盧國)의 오기임	
모노비리국	牟盧卑離國	전북 고창(高敞) : 백제의 모양부리(毛良夫里)니 지금 고창	전북 고창 : 백제의 모양부리현	
신소도국	臣蘇塗國	충남 태안(泰安) : 백제의 소태현(蘇泰縣) 이니 지금 태안	충남 태안, 서산 : 백제의 성대혜현(省大兮縣). 신라의 소태현(蘇泰縣). 현 태안	
고랍국	古臘國	황해 연백(延白) : 구려의 도납현(刀臘縣) 일명 치악성(雉岳城)이니 '꿩뫼'로 백천(白川)	전북 남원(南原) : 백제의 고룡군(古龍郡.현 남원)	장성군
임소반국	臨素半國	전남 무안(務安) : 백제의 물아혜(勿阿兮)니 '물압새'로 읽으며 지금 무안임	전북 옥구군 임피(臨陂) : 임피면의 동쪽에 소방(所方) 일명 소방산이 있는데 소방과 임피는 다 임소반에서 유래 전칭된 듯함	나주 방면
신운신국	臣雲新國	전남 나주 : 동명주(東明州) 4현중아노곡(阿老谷)이니 '아루새'로 읽으며 나주의 노안면	충남 천안(天安) : 천안 소속의 구 역명에 신은(新恩)이 있음	광산, 나주 방면
여래비리국	如來卑離國	충남 논산(論山) : 백제의 가지나(加知奈)이니 시진폐현(市津廢縣)임	전북 익산의 여산(礪山) : 신라의 여양현(礪良縣.현 여산)	화순 능주
초산도비리국	楚山塗卑離國	전북 정읍(井邑) : 정읍의 일명이 초산(楚山)임	전북 정읍 : 초산도비리국은 초산국과 비리국의 이명(二名)인 듯. 초산은 정읍의 구명(舊名)	진도 군내면 (郡內面)
일난국	一難國	전북 고창 : 대량부곡(大良部曲)이니 '한내'임	미상(未詳)	영암군
구해국	狗奚國	전남 담양(潭陽) : 구소(狗素)의 중출(重出)	전남 강진(康津) : 일본 서기 신공 49년조에 보이는 고해(古奚 コケ) 그곳으로 백제의 도무군(道武郡) 강진에 해당한다.	해남군 마산
불운국	不雲國	전북 남원 : 운불(雲不)의 도기(倒記)로 운봉(雲峯)의 고호.'阿.(雲)英城'이니 '부리성'임	공주의 서부인 듯 : 백제의 벌음지현(伐音支縣) ?	보성군 복내

나 라 이 름		위 치 비 정		
		정인보(鄭寅普)의 비정	이병도(李丙燾)의 비정	천관우 비정
불사분사국	不斯濆邪國	전북 익산(益山) : 백제의 우소저현(于召渚縣)이니 '불이내갓' 이고 우주폐현(紆州廢縣)임	전북 전주(全州) : 전주의 고명(古名)은 비사벌(比斯伐) 일명 벌주(伐州)	승주군 낙안
원 지 국	爰 池 國	전남 신안(新安) : 백제의 아차산(阿次山)이니 나주에 속했던 압해폐현(壓海廢縣)임	미상	여 수
건 마 국	乾 馬 國	전북 익산 : 백제의 금마저(金馬渚)이니 익산임	마한 후기의 수부(首府)니 백제, 신라시대의 금마저(金馬渚) 또는 금마군	장 흥
초 리 국	楚 離 國	전북 정읍. 초산비리의 중출	미상	고흥군 남양

제2장 마한시대의 함평



제1절 마한시대의 함평

기원 전후부터 서기 300년경까지의 약 3세기를 고고학에서는 원삼국시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시기는 국사에서는 삼한시대, 부족국가시대, 읍성국가시대 등 여러 가지로 불러왔다. 또 고고학계에서는 김해시대, 웅천기 또는 초기 철기시대라 불렀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시기는 엄연히 삼국시대며 실제로 삼국시대라면 누구나 삼국사기의 편년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위에 든 것 같은 갖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삼국시대의 원초기(原初期), 또는 원시 단계의 삼국시대라는 뜻에서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57]

마한이 언제 건국되었는지는 정확한 사료가 없다. 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한서(後漢書)』에 삼한의 위치를 비롯해 소국의 수와 호수, 마한의 규모와 도읍지 및 마한이 실질적으로 삼한을 통솔했다는 위상 등의 내용 이외, 건국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서와 같이 일체 언급이 없다.

> "한(韓)은 세 종족이 있다. 첫째는 마한(馬韓), 둘째는 진한(辰韓), 셋째는 변한(卞韓)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으며 모두 54나라인데 그 북쪽은 낙랑과 연결되었고 남쪽은 왜와 연접되어 있다. 진한은 동쪽에 있고 모두 12나라인데 그 북쪽은 예맥(濊貊)과 인접되어 있다. 변한은 진한 남쪽에 있고 역시 모두 12나라인데 그 남쪽은 왜와 인접해 있다. 이렇게 해서 마한, 진한, 변한 세 종족은 도합 78나라이다. 백제(伯濟)도 그 중 한 나라이다. 이 중에 큰 나라는 만여 호나 되고 작은 나라는 수 천호에 불과하다. 이들은 각각 산과 바다 사이에 있는데 땅을 합치면 4천리가 된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바다에 이르러 끝이 났으니 모두 옛날 진국(辰國)이다. 이 중에 마한이 제일 큰데 함께 그 종족 중에서 사람을 뽑아 세워서 진왕(辰王)을 삼고 월지국(月支國)[58]에 도읍했다. 이리하여 이 진왕은 이들 삼한 땅을 모두 통솔했으니 실상 이 모든 나라 중에서 왕 노릇하기 시작하기는 마한이 제일 먼저였다. 처음에 조선왕 준이 위만에게 망해서 군사 수천 명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마한을 공격하여 깨치고 자기가 한왕(韓王)이 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준은 다시 마한에게 망하고 마한 사람이 다시 서서 진왕이 되었다."

이와 달리 안정복(安鼎福)은 그의 저서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기자조선(箕子朝鮮)의 패망과 마한 건국을 연결하고 있어 주목되는데,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57)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2권, 1993, 230쪽.
58) 다른 사서에는 월지국(月支國)이 없고 목지국(目支國)이 기록되어 있고 학계에서도 목지국으로 통용하고 있다.

"BC 193년(준왕 28년), 위만이 배반하여 왕도를 엄습함에 왕이 남으로 달아남에 위만이 조선왕이라 칭하고 왕검성(王儉城)에 도읍하였다. 위만이 서쪽 변방에 있으면서 망명한 무리들을 꾀어서 점점 많아지매 사람을 왕에게 보내어'한의 군사가 열 갈래로 온다.'고 거짓으로 고하여 들어가 숙위(宿衛) 하기를 청하고 드디어 왕을 공격하였다. 왕이 위만과 싸웠으나 대적하지 못하고 좌우의 궁인 및 나머지 무리 수 천을 거느리고 남으로 달아나서 마한(馬韓)에 가니 기자로부터 준(準)까지 41세(世)며 모두 930년을 지내고서 나라를 잃었다.

준이 마한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금마군(金馬郡. 지금의 익산군)에 도읍하여 한왕(韓王)이 되니 바로 무강왕(武康王)이다. 지금의 익산 오금사봉(五金寺峯) 서쪽에 쌍릉이 있는 곳이고 세속에서는 영통대왕릉(永通大王陵)[59]이라 부른다. 또 기준성(箕準城)이 용화산(龍華山) 위에 있다. -생략-

상고하건대, 덕양기씨보(德陽奇氏譜)에,'태조 문성대왕 기자(太祖文聖大王箕子)로부터 애왕 준(哀王準)까지 41세인데 주무왕(周武王) 기묘년(BC 1112)에 창업하여 한고제(漢高帝) 병오년(BC 195)에 마쳤다.'하고 또'마한이 강왕 탁(康王卓)으로부터 계왕(稽王)까지 8세인데 한 혜제(漢惠帝) 무신년(BC 193)에 창업하여 한 성제(漢成帝) 홍가(鴻嘉) 4년(BC 17)에 온조(溫祚)에게 병합한바 되었다.'하여 그 세대와 명시(名謚)와 기년(紀年)이 자세히 기록되었으며, 또'마한의 원왕(元王)이 아들 셋을 두어 우평(友平), 우성(友誠), 우량(友諒)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망하자 우평은 고구려로 달아나 유리왕에게 벼슬을 하여 북원선우씨(北原鮮于氏)가 되고 우성은 백제에 항복해 온조왕에게 벼슬하여 덕양기씨가 되고 우량은 신라로 도망가 탈해왕에게 벼슬하여 상당한씨(上堂韓氏)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 말이 정사에 있지 않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

이정귀가 쓴 「기자숭인전비(箕子崇仁殿碑)」에'마한 말에 잔손(孱孫) 3인이 있었는데 친(親)이란 사람은 뒤에 한씨(韓氏)가 되고, 평(平)이란 사람은 기씨(奇氏)가 되고, 양(諒)이란 사람은 용강 조석산(龍岡鳥石山)으로 들어가 뒤에 선우씨(鮮于氏)가 되었다.'하였으니 여기의 친(親)은 곧 통고에 이른바 기준의 아들 우친이 머물러 있어 한씨로 모성을 하였다는 것이요, 평과 양도 기보와 동일하여 그 후예들이 모성한 것이 각각 다르니 상고할 수 없다."

위의 기록에서도 준이 마한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한왕이 되어 금마군에 도읍했다고 하였으나 마한은 이 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정약용도 그의 저서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 중 「마한고(馬韓考)」에서 기준이 남으로 올 때 이미 마한이 있었고 기준이 마한을 열었다는 설은 잘못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마한은 지금의 익산군에 그 총왕이 도읍했다. 지리지(地理志)에 말하기를 '금마군(金馬郡)은 본래 백제의 금마저군(金馬渚郡)이다.'라고 했다. 정인지의 지지(地志)에는 '금마군은 본래 마한국인데 백제 시조 온조왕이 합하고 그 후부터 금마저라 불렀다.'라고 하였다.

미륵산에 석성이 있다(세간에 전하기를 기준이 처음 쌓았다고 한다). 또 후조선(後朝鮮)의 무강왕(武康王) 및 비(妃)의 능이 있다(세간에서 부르기를 말통대왕릉(末通大王陵)이라 하는데 말통대왕은 백제 무왕(武王)이며 어릴 때 이름은 서동(薯童)이다).

살피건대, 한사(漢史)에서 말한 목지국(目支國)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익산이다. 마한이란 나라가 본래부터 있었는데 기준이 습격해와 돌이키지 못하고 멸절했다. 동방의 유자(儒者)들이 매양 기준이 남래하여 처음으로 그 나라(馬韓)를 열었다고 하는데 역시 틀린 견해가 아닐 수 없다(미륵산은 용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진, 한(秦漢) 이전 마한의 자취는 역사책이나 글이 없다. 기준이 남쪽으로 옮기고서야 마한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후한서에는'처음에 조선왕 준이 위만에게 망하자 남은 무리 수천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한(韓) 땅에 살면서 스스로 한왕(韓王)이라고 불렀다.'고 하였고, 위략에는 '준왕이 해중에 들어 살면서 조선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후한서에 '준이 멸절한 후 마한인들이 스스로 진왕(辰王)을 다시 세웠다.'고 했고, 위지에는 '준이 멸절한 뒤 지금도 한(韓)나라 사람들은 그를 받들어 제사지내는 이가 있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기준으로 마한왕은 마치었는데 전세(傳世)한 역사가 오래이나 본신(本身)이 미상(未詳)하다(동사(東史) 혹은 신라, 백제사에 실려 있는

59) 다른 기록에는 미통대왕(未通大王), 말통대왕(末通大王)이라고 표기되어 혼선을 빚는다.

마한왕 기씨는 크게 그릇되었다).

김택영(金澤榮)이 말하기를 '우지(愚知)하지만 마한은 전한(前漢)의 왕망(王莽)이 왕위를 찬탈한 1년 만에 60)망했다. 그러므로 후한서를 지은이가 멸절되었다고 지적하여 썼다. 어찌 멸절이란 짧은 구절을 가지고 기준 당대에 끊겼다고 속단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살피건대, 100년 전에 행주기씨(幸州奇氏)가 돌 상자 안에서 족보를 얻었는데 시조 기자(箕子) 이하 애왕(哀王) 준(準)에 이르기까지 무릇 41대로 왕의 시호, 재위연수가 모두 씌어 있었다. 마한은 강왕 탁(康王卓)을 비롯하여 안왕 감(安王龕), 혜왕 식(惠王寔), 명왕 무(明王武), 효왕 형(孝王亨), 양왕 변(襄王變), 원왕 훈(元王勳), 목왕(穆王.이름은 잃음)이 소명하게 실려 있었다. 근세에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목왕 아래에 일세(一世)를 첨가하고 또 다계(多係)의 사적을 어지러이 쓰는데 이는 또 의심스럽고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지금의 기씨 족보 기록은 이문(異文)으로서 마음에 둔다."

따라서 위의 정약용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익산의 기씨 마한은 마한 54개국 중 목지국(目支國)의 건패(建敗)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다음의 『삼국사기』 신라본기 BC. 20년(혁거세왕. 38)조와 BC. 19년(혁거세왕 39)조에 의하면, 원래 마한이 강력한 지역연맹체로 삼한을 통솔했다는 중국의 사서가 사실임은 입증되나, 이 때에 이미 진한과 변한이 강성해져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마한이 강력히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미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봄 2월. 호공(瓠公)을 마한에 보내 수교코자하니 마한왕은 호공을 꾸짖으며 '진(辰), 변(卞) 두 나라는 우리의 속국인데 근년에 와서 조공을 보내지 않으니 사대(事大)하는 예가 이럴 수 있소? '하였다. 호공은 '우리나라는 이성(二聖)이 일어나시고 인사(人事)가 바로 잡히고 천시(天時)도 순조로워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백성들은 서로 공경하고 사양하여 진한의 유민을 비롯하여 변한, 낙랑, 왜(倭)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으되 우리 왕이 겸허하시어 하신(下臣)을 보내 수교하라 하셨으니 예로써 과하다고 하겠는데 오히려 대왕은 성을 내어 군사로써 협박하시니 이 무슨 뜻입니까?'하니 왕이 분히 여겨 그를 죽이려 하다가 좌우가 간하여 그만두고 이에 돌아가게 하였다.

예전에 중국 사람이 진(秦) 나라의 난리에 시달려 동으로 온 자가 많았는데 흔히 마한의 동쪽에 자리 잡아 진한과 더불어 살았다. 이에 이르러 그들이 차차 번성해지므로 마한이 이를 꺼려 책망했던 것이다. 호공은 그 족성(族姓)이 자상치 않으며 본디 왜국 사람으로 처음에 박을 허리에 차고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호공이라 일컬었다."(BC. 20년(혁거세왕. 38)조)

"마한왕이 죽었다. 어떤 자가 왕을 달래되 '서한왕(西韓王)이 전에 우리 사신을 욕보였으니 이제 마땅히 그 죽음을 틈타 들이치면 그 나라는 쉽게 평정될 것입니다.'하니 왕은 '남의 재앙을 나의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어질지 못한 것이요.'하고 따르지 않고 사신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BC. 19년(혁거세왕 39)조)

이로부터 이듬해인 기원전 18년에는 마한 왕에게서 동북의 백리 땅을 갈라 받아 온조(溫祚)가 백제국(伯濟國)을 건국했다. 안정복은 그의 저서 『동사강목』에서 백제 건국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BC 18년(계묘년. 마한. 신라 시조 40. 고구려 유리왕 2. 백제 시조 원년. 한 성제 3년) 졸본(卒本) 사람 해온조(解溫祚)가 위래성(尉禮城)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백제(伯濟)라고 하였다. 당초에 부여왕(扶餘王) 해부루(解夫婁)

60) AD 9년(온조 27년)에 마한이 망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말함 .

의 서손(庶孫) 우태(優台)가 졸본 사람 연타발(延陀勃)의 딸 소서노(召西奴)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둘 낳으니 맏이는 비류(沸流)이고 다음은 온조(溫祚)인데 우태가 죽자 주몽(朱蒙)이 부여에서 남쪽으로 피란하여 와서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소서노에게 장가들어 비(妃)로 삼았는데 터를 닦고 창업하는 일에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주몽이 총애로 대해주고 비류 등도 자기 자식과 같이 대하였다.

주몽의 아들 유리가 태자가 되어 왕위를 이어받게 됨에 비류가 온조에게 말하기를,'당초 대왕이 부여의 난리를 피해 도망쳐 여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가산을 털어 협조하여 왕업을 이루었으니 근로(勤勞)가 대단했는데 대왕께서 세상을 떠나고 유리가 왕위를 계승하니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마치 사마귀나 혹과 같으니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다가 땅을 가려 따로 나라를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하고 드디어 어머니를 모시고 오간(烏干), 마려(馬黎) 등 열 사람과 남쪽으로 가니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패수(浿水), 대수(帶水) 두 강을 건너 미추홀(彌鄒忽. 지금의 인천이다. 세속에 전해오기를 문학산(文鶴山) 위에 비류성 터가 있고 성문의 문짝 판자가 지금도 남아 있으며 성안에 비류정(沸流井)이 있는데 물맛이 시원하다고 한다. 여지승람에 실리지 않아 한스럽다)에 이르러 비류가 거주하려고 함에 열 신하가 간하기를, '한산까지 가서 부아산(負兒山. 지금의 삼각산)에 올라가 살만한 땅을 살펴보니 오직 이 하남(河南)의 땅이 북으로는 한수(漢水)를 끼고 동으로는 높은 산에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늪지대가 바라보이고 서쪽은 큰 바다가 막고 있어 하늘이 만든 요새의 지리로서 구득하기 어려운 지세(地勢)이니 여기에 도읍을 만드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하니 비류가 듣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에 살도록 하니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尉禮城. 삼국유사에 '지금의 직산(稷山)이다.'하였고 여지승람에도 그대로 따라 위례성은 지금의 직산현 성거산(聖居山)에 있다고 하였는데 삼국사기에는 미상한 지명의 조목에 있다)에 도읍하여 열 신하로써 보필을 삼으니 마한이 동북쪽 땅 백리를 갈라 주었다. 뒤에 비류가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가 없어 위례성에 가보니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태평하게 살므로 부끄러워하며 뉘우치다가 죽으니 그 신민(臣民)들은 모두 위례성으로 귀의하였다. 국호는 백제(伯濟)라 하였으며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扶餘)로 성씨를 삼았다.

살피건대, 김씨가 찬술한 삼국사는 국사나 실록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옛 기록을 인용하였다. 그가 지은 백제기에 이르기를 '주몽이 졸본부여의 왕을 계승하고 비류, 온조를 낳았다.'고 하였고, 또 '부루(夫婁)의 서손 우태(優台)가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하였으며 또한 옛 기록을 인용하되 더러는 시조 동명왕이라고 하고 더러는 시조 우태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일반 옛 기록의 글을 김씨가 취하거나 버리거나 한 것이다.

지금 보건대 백제가 고구려의 고씨(高氏) 성을 따르지 않고 부여씨라 하였으며, 또한 개치왕(蓋齒王)이 위(魏)나라에 올린 표(表)를 고찰하건데 '신과 고구려는 근원이 부여에서 나왔다.' 하였으니 이 말이 더욱 증거가 되고 따라서 우태의 후손임이 틀림없다."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마한 왕이 너그러워 온조에게 백리의 땅을 떼어 주며 나라를 세우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당시 마한의 국력이 쇠약해져 어쩔 수 없이 용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실려 있는 마한과 관련한 기록들은 빈곤하기 짝이 없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BC. 9년(온조 10)

가을 9월. 왕이 사냥을 나가 산록을 잡아 마한(馬韓)에 보냈다.

○ BC. 6년(온조 13)

8월. 사신을 마한에 보내어 천도(遷都)한 것을 알리고 드디어 경계를 그어 정하되 북으로 패하(浿河), 남으로 웅천(熊川), 서로 대해(大海), 동으로 주양(走壤)을 한계로 하였다.

9월. 성궐(城闕)을 세웠다.

○ AD. 1년(온조 18)

겨울 10월. 말갈이 엄습해 오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七重河)에서 마주쳐 싸워 추장(酋長) 소모(素牟)를 잡아 마한에 보내고 그 나머지 적들은 다 무찔러 버렸다.

○ AD. 6년(온조 24년)

가을 7월. 왕이 웅천에 책을 만드니 마한 왕이 사신을 보내어 책망하되 "왕이 당초 강을 건너 왔을 때 발을 들여 놓을 곳이 없으므로 내가 동북의 백리 땅을 갈라 주어 안정케 하였으니 왕에 대한 대접이 후하지 않았는가? 마땅히 보답해야 할 것을 생각했어야 할 터인데 지금에 와서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모여들자 나를 당할자가 없다고 하여 크게 성지를 설치하고 우리의 강토를 침범하니 이게 도리인가?" 하니 왕이 부끄러이 여기며 그 성책을 허물었다.

○ AD. 7년(온조 25년)

봄 2월. 대궐 안에 있는 우물들이 갑자기 넘치고 서울 민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뚱이가 둘이었다. 해석자가 말하기를 "우물물이 갑자기 넘은 것은 대왕이 발흥할 증조요, 소가 머리 하나에 몸뚱이가 둘인 까닭은 대왕이 이웃 나라를 합병할 응보입니다."하였다. 왕은 듣고 기뻐하며 드디어 진한, 마한을 합병할 마음이 있었다.

○ AD. 8년(온조 26)

가을 7월. 왕이 말하기를, "마한이 차차 약해가고 상하가 서로 마음이 이탈해 가니 그 형세가 오래 가지 못하겠다. 혹시 다른 자에게 합병된다면 마치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차다는 격이 될 것이니 후회한들 미치겠느냐? 남을 앞서 빼앗아 뒷날 곤란함을 면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겨울 10월. 왕이 군사를 출동하여 겉으로는 사냥하는 것처럼 꾀하고 몰래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그 나라를 합병하였으나 오직 원산(圓山), 금현(錦峴) 두 성은 굳게 지키고 항복하지 않았다.

○ AD. 9년(온조 27)

여름 4월. 원산, 금현 두 성이 항복하므로 그 백성을 한산의 북쪽에 옮기니 마한이 드디어 망했다.
가을 7월. 대두산성을 쌓았다.

○ AD. 16년(온조 34년)

마한의 옛 장수 주근(周勤)이 우곡성(牛谷城)[61]에서 웅거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온조왕이 몸소 군사 5천을 거느리고 이를 토벌하였다. 주근이 스스로 목을 매니 그 시신을 요참하고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함께 죽였다.

○ AD. 18년(온조 36)

가을 7월. 탕정성(湯井城)을 쌓고 대두성(大豆城)의 민가에 나누어 살렸다.
8월. 원산, 금현의 두 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성(古沙夫里城)[62] 을 쌓았다.

61) 미상.다루왕 때 동부(東部)에 명하여 우곡성을 쌓아 말갈을 방비하였으니 그 땅이 마땅히 백제 동북변에 있을 것이다.
62) 현 전북 고창군 고부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는 본래 마한 땅에 빌붙어 살더니 온조왕 10년으로부터 점차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북쪽의 마한 땅을 비롯해 금강유역까지 빠르게 영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조왕 27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마한을 망하게 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서 서기 9년에 마한이 백제에 의해 망한 것으로 『삼국사기』는 정리하고 있으나, 이 기록은 전라북도 일부지역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백제의 변방에 위치한 남쪽 특히 영산강 유역은 마한의 강력한 부족연맹체(部族聯盟體)로서 독자적인 문화권을 계속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다음에서 인용한 『문헌통고』 등 여러 기록에서도 그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44년(백제 다루왕 17) 한(漢)이 마한 사람 소마시(蘇馬諟)를 봉하여 염사군(廉斯君)으로 삼았다. 마한의 염사(염사는 지금 어느 곳인지 미상) 사람 소마시 등이 낙랑에 나아가 토산물을 바치므로 제(帝)가 그를 봉하여 염사군을 삼고 낙랑군에 예속시키니 사시로 조알하였다."(문헌통고)

위의 기록으로 볼 때, 온조왕 대에 마한의 총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망했지만, 그 밖의 여러 소속되었던 나라는 복속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마시 등이 한군(漢郡)에 나아가 토산물을 바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다음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라기』에는 61년에 마한 장수가 사로에 항복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61년(신라 탈해왕 5. 백제 다루왕 34. 고구려 태조왕 9. 한 명제 영평 4), 가을 8월. 마한의 장수 맹소(孟召)가 복암성(覆巖城)을 들어 사로에 항복하였다."

위의 기록에 대해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마한이 당시까지만 해도 백제에 전체적으로 복속당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복암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지금의 황간(黃澗), 영동(永同) 땅이 아닌가한다. 마한이 망한 지 이제 53년에 이르는데 마한의 장수가 복암성에서 항복했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 이를 근거로 할 때 금마군은 비록 멸했으나 마한의 후예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회복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사』에 태조왕이 마한과 예맥의 병사들과 함께 중국의 현토성과 요동을 공격했다는 다음의 기사가 주목되기도 한다.

"태조왕 69년(안제 건광원년. 121년) 왕이 마한, 예맥 1만의 기병을 거느리고 나아가 현토성(玄兎城)을 포위 공략했고, 70년 왕이 마한, 예맥과 더불어 요동을 쳤다."

위의 기사에 대해서 『삼국사기』를 집필한 김부식은 다음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한이 온조왕 27년에 망했다가 고구려 태조왕 때 다시 일어났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한이 백제 온조왕 27년에 망했는데 이제 고구려왕과 함께 행병(行兵)했다는 것은 아마도 멸망되었다가 다시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두 기사와 관련하여 정약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미난 해석을 하였다. 즉 마한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웅진 남쪽에서는 마한의 잔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당시 고구려 태조왕과 현토성과 요동을 공격하였던 마한 사람들은 온조왕 27년경에 복속당한 지역민들로 이들이 고구려 땅에서 일족을 이루며 살다가 전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마한이 망한지 114년인데 멸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은 또한 그럴만한 시기가 없고 마한의 국 읍이 본래 웅진(熊津)의 남쪽에 있어 편안을 얻었는데 백제의 경계를 넘어 현토와 요동을 정벌하는데 종군했겠는가? 기씨의 서토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마한이라 칭했으니 이는 위략에서 '이른바 나라에 남아 있던 자들이 성을 한씨(韓氏)'라고 했다는 것이다. 고구려가 망하자 마한의 유족들이 발해에 투항하여 의탁했고 발해가 이미 쇠하자 스스로 별도의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정안(定安)이라했다.

통고에 '정안은 본래 마한의 종족인데 거란(契丹)에게 패하자 그 추장이 남은 무리를 규합 서쪽 변방을 차지하여 나라를 세우고 원년을 고쳐 스스로 정안국이라 했다. 송나라 개보 3년(970)에 정안국의 왕 열만화(烈萬華)가 사신을 보내 입조했다.'또 말하기를 '태평 흥국 6년(981)에 여진(女眞)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되 본국으로부터 표문을 부치고 왔다.'고 했다.

정안국왕 신(臣) 오현명(烏玄明)이 말하기를, '신은 본디 고구려의 옛 땅 발해의 남은 백성으로 한 쪽 모퉁이의 땅을 차지하고 여러 해를 지냈는데 거란이 우리의 강토를 침입하자 신의 할아버지가 절개를 지키고 항복하지 않았으며, 또 지금에 와서 부여부(夫餘府)가 배반하고 거란과 함께 본국에 돌아왔으니 장차 살아가는데 재앙의 화가 막대할 것입니다.'하였다. 원흥 6년, 순화 2년(991) 그 왕의 아들 대원(大元)이 여진으로 인하여 표문을 올렸고 뒤에 불복함에 이르렀다. 살피건대 고구려의 여러 부족 중에 본래 마한의 일족이 스스로 한 무리를 이루었으니 정안(定安)이다."

한편 위의 정약용의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진서(晉書)』 마한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태강 원년(280)과 2년에 그 나라 왕이 자주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고 7년(책계왕 원년. 286), 8년, 10년에 자주 왔었다. 또 태희 원년(太熙. 서기 290)에 동이교위(東夷校尉) 하감(何龕)에게 와서 물건을 바쳤다. 무제 함영 3년(277)에도 다시 오고 그 이듬해도 또 와서 물건을 바쳤다."

학계에서는 이 마한 세력을 영산강 유역의 전남지방 세력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이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대형 독널무덤의 존재에 의해서 그러한데, 이들 세력은 백제의 영속에 들지 않고 마한의 전통을 이으며 대략 5세기까지 존속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이 시기에는 신미제국 영속의 함평이 포함되어 있다. 제4장 신미제국과 함평을 볼 것>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한은 건국연대는 미상이나 백제(伯濟)가 건국하는 무렵까지는 강력한 연맹체를 이루어 삼한을 통솔했고, 백제의 계속된 남진정책에 의해 적어도 전북지방 일부는 백제의 영속 하에 들어갔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의 마한세력들은 동성왕 20년(498) 조공의 예를 닦지 않는 탐라를 치기 위하여 친히 왕이 무진주(武珍州. 현 광주)에 오기 이전까지는 마한의 전통을 이으며 건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한의 강역은 현 경기도 지방 일부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지방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삼한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안정복의 『동사강목』 「삼한고」와 구암 한백겸이 주장한 설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안정복의 『동사강목』 「삼한고(三韓考)」에서 주장하는 삼한의 위치 비정

"삼한 땅은 지금의 한수(漢水) 이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한은 한수이남, 경기·충청·전라도 땅이며, 서쪽은 바다를 건너 청제양월(靑齊揚越. 청주·제주·양주·월주 지역)과 통하고 동남은 바다를 건너 왜국과 통하고 북쪽은 한수를 한계로 조선과 접하고 동쪽은 진한, 변한과 연하였는데 뒤에 백제가 그 땅을 차지했다.

진한은 지금의 경상도 낙동강 이동의 지역으로 북쪽은 예, 맥과 연하고 서북쪽은 마한과 접하고, 서쪽 지경은 대부분 변한과 섞여 살아 경계가 불분명하고, 동쪽은 바다를 건너 왜국과 통하였는데 마한에 복속되었다가 뒤에 신라가 되었다.

변한은 지금의 경상도 낙동강 이서 지역으로 서남쪽은 지리산을 거쳐 지금 전라도 남동 지역에 이르고 동쪽은 진한과 섞여 살아 경계는 불분명하고 서쪽은 마한과 접하고 동남쪽은 바다를 건너 왜국과 통하는데 마한에 복속되었다가 뒤에 신라에 항복하였다. 변한 땅은 또 나뉘어 5가야(伽倻)[63]의 땅이 되고 「문헌통고」에서 가야금(伽倻琴)을 변한금(卞韓琴)이라고 하였으니 그 것 또한 증거가 된다. 지리산 서쪽에 있는 땅은 백제에 흡수되었다."

○ 구암(久菴) 한백겸(韓百謙)이 주장한 삼한의 위치 비정

"우리 동방은 옛날에 저절로 남북이 나누어졌다. 북쪽은 본디 삼조선(三朝鮮) 땅이요, 남쪽은 곧 삼한(三韓)의 땅이었다. 『후한서』에 삼한지역을 가리킨 것이 또한 명백하다. 박혁거세가 진한 육부(六部)의 추대를 받자 신라가 비로소 생겼고, 온조가 마한을 멸하자 백제가 일어났다. 변한은 『전사(前史)』에서 비록 어디로 전했는가를 말하지 않았으나 수로왕이 가락(駕洛)에 나라를 세우고 진한 남쪽을 차지했으매 가야산 남쪽과 지리산 동쪽이 모두 그의 소유였다가 뒤에 신라에 흡수되었으니 아마 이 지대가 곧 변한의 땅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남쪽은 어디까지나 남쪽이고 북쪽은 어디까지나 북쪽이니 본디 서로 섞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 한계는 분명히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수(漢水)가 남북을 한계하는 천참(天塹)이 되었던 것 같다. 최치원이 비로소'마한은 고구려요 변한은 백제다.'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착오요, 권근은 마한이 백제라는 것은 알았지만 고구려가 변한이 아니라는 것은 역시 알지 못하고 혼동해서 말했으니 이것이 둘째 착오다.

삼한 때 본국에는 비록 문자가 없었으나 『진한서』와 『후한서』에 모두 열전이 있으니 연대의 상하와 지계(地界)의 원근을 가지고 구한다면 백대토록 멀더라도 눈앞에 있는 듯 역력하다. 한무제(漢武帝)가 조선 땅을 사군(四郡)으로 만들고 한소제(漢昭帝)가 그것을 합쳐서 이부(二府)로 만들었는데, 주몽(朱蒙)이 일어나서 이내 그 땅을 차지하여 고구려를 세웠으니 어느 시기에 변한이나 또는 마한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사군과 이부는 어디까지나 사군과 이부였고, 삼한과는 하등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한서』에 '변한은 진한 남쪽에 있고 또한 왜국과 접했다.'하였고 또 '진한과 변한은 섞여 살았으므로 의복, 거처, 풍속이 동일하다.'하였고 또 '마한은 54국을 거느리고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국을 거느렸다.'하였으니 진한과 변한은 합해도 겨우 24국으로 마한의 절반도 되지 못했다. 이것으로 보면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이 합쳐서 마한이 되고 영남 1도가 나뉘어 진한과 변한이 되었다는 것을 또 어찌 의심하겠는가?

상고하건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삼한의 강역은 천고의 미결안이다. 다행이 전적이 남아있고 선유의 논변이 있어서 참험(參驗)할 수는 있지만 여러 설의 서로 같지 않음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 수 없는데 자네 또한 말할 것이 있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동방에는 이미 증빙할 문헌이 없으니 중국의 역사책을 가지고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 후한서』에'마한은 북쪽은 낙랑과 접하고 남쪽은 왜국과 접했다. '하였으니 '한강 이남에서 남해까지가 그 땅이 아니겠는가?' 또 삼한은 동서는 바다에 닿았는데 진한은 동북에 있어 예, 맥과 접했다.'하였으니 예, 맥은 지금 강원도이므로 진한은 지금의 영남이란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또 '변한은 진한의 남쪽에 있고 또한 왜국과

63) 아라가야(阿羅伽倻), 고령가야(古寧伽倻), 대가야(大伽倻), 성산가야(星山伽倻), 소가야(小伽倻).

접했다.' 하였으니 지금 낙동강 이서 지리산 서남쪽의 제군(諸郡)과 양남(兩南. 호남·영남)의 연해 등지가 바로 그 땅이다.

또 『위지』에 의하면, 진(辰), 변(弁) 제국은 국명이 서로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진변(辰卞)이란 두 글자를 더해서 구별하였으니 진한과 변한의 지역이 서로 섞여 있던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 『북사(北史)』에 '백제는 마한의 무리요, 신라는 진한의 종족이다' 하였으니 그 설이 옳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온조가 강역을 정할 때 남쪽은 웅천까지 한계를 삼으니 마한 왕이 꾸짖기를 '왕이 처음 한수를 건널 때 내가 동북 일백리의 땅을 떼어 주었다고 했다.' 하였으니 웅천은 지금의 공주다. 마한은 금마군에 도읍하였는데 금마군은 지금의 익산이니 이것은 양호(兩湖)가 마한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이것으로 논한다면 삼한의 강역이 저절로 의거할 만한 것이 있으니 분분하게 각기 신설(新說)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 하였다.

또 그렇다면 고운(孤雲)이 '마한은 고구려요, 변한은 백제이다.'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므로, 답하기를, '그 설 또한 옳다. 고운은 당시 사람인데 마한이 고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어찌 몰랐겠는가? 그가 말한 마한이 고구려라는 것은 고구려가 일어난 땅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뒤에 고구려가 마한 동북쪽 땅을 병합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스승 성호 이익(李瀷)의 말에 '최치원이 마한을 고구려라고 한 것은 기준이 비록 도망하여 남쪽으로 갔지만 고구려를 가리켜 마한의 옛 땅이라 하므로 아마 그랬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가 말한 변한이 백제라고 한 것은 마한이 백제의 땅이 아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 변한의 반면(半面)이 또한 백제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의 생각에는 삼한을 삼국에 분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설이 이와 같은 것이니 착오라고 할 수 없다. 후인이 그 의의를 궁구하지 않고 망령되이 비방을 가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고운의 문장은 박아(博雅)하여 가장 고고함에 가까우니 무사(誣辭)가 아닐 것이다. 대개 이 같은 유(類)는 마땅히 시대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근거를 삼아야 하니 나는 고운의 설로 정설을 삼는다.'하였다.

아마 변(弁)은 천관(天冠)의 한 이름일 줄도 모른다. 장흥 곁에 있는 보성군에 군왕이 파천(播遷)한 유기(遺基)가 있고, 또 모후산(母后山)이 있는데 세속에 전하기를, '나라가 망하자 모후가 이 산으로 피해 들어왔기에 지어진 이름이다.'하니 이것도 변한의 유적일지 모른다."하였다.

이상과 같이 삼한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주장을 통해 대략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마한의 54개 소국과 기타 관제 등은 어떠했을까.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 나라들은 각각 장수가 있는데 큰 자는 신지(新智)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邑借)라 하며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있는데 성곽은 없다.

원양국(爰襄國), 모수국(牟水國), 상외국(桑外國), 소석색국(小石索國), 대석색국(大石索國), 고탄자국(古誕者國), 신분활국(新濆活國), 백제국(伯濟國),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 고리국(古離國), 노람국(怒藍國), 월지국(月支國), 자리모로국(咨離牟盧國), 소위건국(素謂乾國), 고원국(古爰國), 막로국(莫盧國), 비리국(卑離國), 점리비국(占離卑國), 신첩국(臣蠶國), 지침국(支侵國), 구로국(狗盧國), 비미국(卑彌國),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고포국(古蒲國), 치리국국(致利鞠國), 염로국(冉路國), 아림국(兒林國). 사로국(駟盧國), 내비리국(內卑離國), 감해국(感奚國), 만로국(萬盧國), 벽비리국(辟卑離國), 구사오단국(舊斯烏旦國), 일리국(一離國),불미국(不彌國),지반국(支半國),구소국(狗素國),첩로국(捷盧國),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신소도국(臣蘇塗國離國),고랍국(古臘國), 임소반국(臨素半國), 신운신국(臣雲新國), 여래비리국(如來卑離國), 초산도비리국(楚山塗卑離國), 일난국(一難國), 구해국(狗奚國), 불운국(不雲國), 불사분사국(不斯濆邪國), 원지국(爰池國), 건마국(乾馬國), 초리국(楚離國) 등 무려 50여 국이 있다. 큰 나라는 만여 집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 집인데 모두 합하여 10만여 집이다.

신지(臣智)는 신운견지보(臣雲遣支報), 안야축지(安耶踧支), 분신이아불례(분臣離兒不例), 구야진지렴(狗耶秦支廉)이라는 칭호로 더 우미(優美)하게 부르기도 한다.[64] 벼슬에는 위솔선(魏率善), 읍군(邑君), 귀의후(歸義侯), 중랑장(中郎

64) "신지(臣智)라…부르기도 한다."이 대목은 해득하기 가장 어려운 글로 여겨 온다. 원문은"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報安耶踧支濆臣離兒不例拘耶秦支廉之號"이다. 이 글을 그대로 국역하면"신지는 신운…렴 이라는 칭호로 더 우미하게 부르기도 한다."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무리한 해석이 된다. 이병도 설에 의하면, 이 대목은 편사자의 두찬(杜撰)으로

將), 도위(都尉), 백(伯), 장(長), 후(侯)가 있다."

문헌 사료가 극히 빈약한 마한사(馬韓史)는 앞으로 많은 유적이 발굴되어 고고학적 자료가 보강되어야 비로소 바르게 정립될 것이다. 그 열쇠를 간직하고 있는 유적이 월야면에 있는 만가촌을 비롯하여 영산강 유역에 분포되어 있는 고분이라고 생각한다.

제2절 마한 문화의 개략

마한시대에 이르러서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지방에서는 청동기시대에 활발히 축조되었던 고인돌과 돌널무덤은 점차 줄고 그 대신 독무덤(옹관묘-甕棺墓), 널무덤(토광목관묘-土壙木棺墓), 덧널무덤(목곽묘-木槨墓), 장고형고분(長鼓形古墳)[65] 등이 나타나며, 특히 독무덤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돌방무덤(석실분-石室墳)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특수한 지역 묘제를 형성한다.

독무덤은 전남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신창동 유적이 기원 전후로 가장 오래된 것인데, 이 무덤은 부여 송국리 독무덤[66]과 같이 청동기시대부터 이어 내려오던 독널의 발전된 묘제로 이후 영산강 유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고유한 큰독무덤 문화의 효시로 보고 있다.[67]

큰독무덤은 독널 자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봉토의 규모에 있어서도 경주, 부여, 공주지방에서 볼 수 있는 봉토분과 비견하여 더 크거나 버금가는 것들이어서 피장자들이 이 지역의 지배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9호 무덤에서 출토한 금동관과 금동제 신발, 1993년 3월 도굴꾼에 의해 도굴이 되었지만 금동관 잔편 등 유물을 수습 발굴한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신덕(月也面禮德里新德)의 장고형고분 출토품들이 마한 소국의 위치를 비정해 준다고 하겠다.

신덕의 장고형고분은 우리나라 고고학계에 장고형고분의 실체를 처음 보여주었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고분은 1983년 광주국립박물관 조사진과 리현석이 함평군 문화유적지표

보고 "우미하게 불렀다."는 말은 임의로 삽입한 것이고 실상은 거수(渠帥)의 칭호를 국명에 붙여서 열거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신운국(臣雲國) 곧 신운신국(臣雲薪國)의 견지(遣支) 곧 험측(險側)인 보(報. 아마도 인명)와 안야국의 축지 곧 신지와 분실리아국 곧 신불활국(臣濆活國) 이아불례 곧 번예(樊濊)와 구야국의 진지인 염(廉. 아마도 이름)으로 풀이하였다.

65) 성낙준(成洛俊)의 제언이 옳다고 여겨 장고형고분이란 이름을 쓴다. 그는"장고형의 고분을 일본에서는 전방후원형고분(前方後圓形古墳)으로 부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형태의 고분을 전방후원형고분(前方後圓形古墳)으로 불러 왔었다. 그런데 고분 소재지의 주민들이 대체로 장고산 또는 장고봉, 자라봉 등으로 그 외형에 따라 부르고 있어서 전방후원분이란 것이 일본의 고유한 학명으로 정착되어 있는 점과 일본의 전방후원분의 특징으로 하니와나 계단식 축조 방법이 우리의 고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과연 방부(方部)가 앞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장고형고분으로 부르고자 제언한다.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은 한병삼 선생님의 외형을 좇아 장고형고분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다는 교시에 힘입은 바 크다."라고 하였다(『전라남도지』 2권. 1993. 287쪽).

66) 강인구, 『송국리(松菊里) 1』, 국립중앙박물관. 1979.

67) 전라남도, 『전라남도사』 2권, 1993. 22쪽.

조사를 할 때 조사되었다. 당시만 해도 장고형고분 즉 전방후원형고분의 실존을 의심하고 있던 터여서 전방후원형 처럼 보이나 일단 붙어있는 두 개의 무덤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전남 각 군에서 활발히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장고형고분이 여러 기 발견되었다. 이런 봉분의 형태를 가진 고분을 일본에서는 전방후원분이라 부르고 있다. 전남지방에서 많은 장고형고분이 발견되기 전까지 일본에서는 전방후원분이야말로 일본 자생의 고유한 무덤이라며 자랑했었다.

전남지방에서 장고형고분이 많이 발견되자 한·일 학자들 사이에 "자연적인 형태의 것이냐? 정말 고분이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도굴의 화를 일단 입었지만 신덕의 장고형고분이 긴급히 수습 발굴되었다. 또 강인구(姜仁求) 교수에 의해 영암군 시종면 태간리 입석(立石) 마을의 자라봉고분이 발굴되므로 하여 부정적 견해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전남에 분포되어 있는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유사한 장고형고분이 분명한 내부 구조가 들어 있는 성토고분(盛土古墳)이란 것이 판명된 것이다. <유적 유물 항에서 자세히 언급함>

최근에 또 국내외 학자들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분은 우리 함평군의 월야면 예덕리 만가촌고분(萬家村古墳)이다.

이 고분은 함평군, 나주시의 반남면, 영암군의 시종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300여 기가 넘는 대형고분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할 뿐 아니라 이들 대형고분들의 봉분 형태가 원형이거나 방대형인데 비해 만가촌고분은 거의가 한 쪽이 넓고 한 쪽이 좁은 길쭉한 사다리꼴로 가장 큰 규모의 고분은 길이가 60여 m에 이르며, 1995년 2월 3일부터 3월 말까지 전남대학교 박물관 조사진이 1차 발굴을 한 결과 2~3세기의 큰독(대형옹관-大形甕棺)과 철기, 토기, 유리옥(琉璃玉) 등의 유물을 발굴하였다. 또한 독무덤과 함께 널무덤이 조사됨으로서 고인돌무덤과 가장 이른 시기의 큰독무덤[68] 사이에 널무덤 단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유적 유물 항에서 자세히 언급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전남지방은 적어도 5세기까지는 마한의 영역(신미제국 시기 포함)에 속했고, 한강이나 금강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문화와는 크게 다르게 수준 높은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 문화는 백제문화가 아니라 엄연한 마한문화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엄연한 마한고분을 백제고분이라 부르고 있고 엄연한 마한 토기를 백제 토기라 부르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는 연구가 미진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함평군에는 그간 발굴된 초포리의 돌널무덤, 예덕리 만가촌, 신덕고분들의 성격이 거의 뚜렷이 나왔는데도 아직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동면 금산리 노적(大洞面金山里老迪)의 초대형 이음돌고분(葺石墳), 손불면 죽암리 죽림(孫佛面竹岩里竹林)의 장고형고분(長考形古墳),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咸平邑大德里古良村)의 지름 30m가 넘는 추정 돌방무덤, 학교면 마산리 표산(鶴橋面馬山里杓山)의 표주박형고분(瓢形古墳) 등 독특한 성격의 고분들을 비롯해 가히 옛 무덤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140여 기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옛 무

68) 현재까지 대형 독의 출현을 3세기로 보았는데 만가촌 고분에서 나온 대형 독은 기원 2세기 것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대형독이다.

덤들이 분포해 있다. 이는 우리 함평군이 고대에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들 옛 무덤들이 제 이름을 찾을 때 마한, 나아가 신미(新彌) 그리고 백제로 이어지는 고대사의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고 한·일, 한·중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고대사도 매듭이 풀릴 것이다.

원삼국시대에는 청동기인들이 거의 전 기간에 썼던 민무늬토기 대신에 한식(漢式)토기의 영향을 받은 바탕흙이 보다 정선되고 새로운 지붕 가마의 출현으로 1000℃ 안팎의 범위에서 구어진 후기민무늬토기(後期無文土器)나 두드림무늬(打捺文)를 가진 단단한 토기(硬質土器)가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전남지방에서는 현대에도 만들기 어려운 대형 독을 구어 낼 수 있는 토기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마한시대는 농경에 의한 생산력에 의지하기 시작하던 때이다. 『위지』 「동이전」에,"땅이 기름지고 벼를 심어 곡식으로 하고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 입는다. 또 커다란 밤(栗)이 나는데 배(梨) 만큼이나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강 유역의 흔암리 집터 유적에서 탄화미 외에 보리·조·수수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재배하는 오곡들이 재배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시기에는 농사에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는 등 경작 기술도 크게 발전하였고 오늘날까지 농촌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지게가 이때부터 제작 사용된 것으로 전해온다.

그러나 우리 함평군에서는 아직 이 당시 농경문화와 관련된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인근의 광주광역시 신창동, 무안군 일로면에서 농경유적이 최근에 발견되어 당시의 농수로 등 농경생활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삼국사기』 등의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3~4세기경에는 저수지도 이용할 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해남군 군곡리 조개무지 발굴을 통해 볼 때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했음도 알 수 있다. 우리 함평에도 바닷가에 인접한 가동리에 큰 조개무지가 있었다는 주민의 제보는 있었으나 그 유적지가 80년대 초에 개간에 의해 인멸되어 아쉬움을 남긴다.

『위지』 「동이전」에, "소나 말을 타고 다닐 줄 모른다. 그래서 소나 말은 모두 사람이 죽어 장사지내는데 쓴다."고 하였는데, 이 기록으로 보면 마한 사람은 소나 말을 순장용으로 다 써버린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믿기지 않는 기록이다.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정기(精騎), 기병(騎兵), 경기(輕騎) 등의 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초기에는 북방민족처럼 우마를 이용할줄 몰랐어도 우마의 이용과 기르는 방법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고 본다.

다만 영암 자라봉고분에서 말뼈로 보이는 뼈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우마의 순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축의 사육도 성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사서에 꼬리 길이가 5자나 되는 닭이 있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사는 집과 가족 관계는 『위지』 「동이전」에, "풀로 지붕을 해 이고 흙으로 방을 만들어 그 모양이 마치 무덤과 같다. 문은 맨 위로 내고 온 집안 식구가 모두 그 속에 함께 산다.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 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다."고 하였다.

또 『후한서』 「동이전」에는"사람들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산다. 성이나 곽(槨)을 쌓지 않

으며 흙으로 방을 만들어 산다. 이들은 구부려 절하는 법을 모른다."고 하였다.

함평에서는 지금까지 1기 밖에 주거지가 발견되지 않아 우리 지역의 주거지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전남지방에서는 1992년까지 승주군 낙수리 18기, 대곡리 도롱의 83기와 한실의 11기, 보성 죽산리의 3기, 해남 군곡리의 2기,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 5기 등 122기가 발굴되었다.[69]

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면형태는 원형 4기(4.7%), 타원형 6기(7%), 방형 12기(14%), 장방형 63기(74%)로 장방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평면 형태의 변화는 청동기시대에 비해 원삼국시대는 원형계 집터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방형계 집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한편 원형계에 있어서 원형보다 타원형이 많아지는 점과 방형계에서 방형보다 장방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모든 집터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원형계 집터는 과도기에 사용하거나 부속시설로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집터의 규모는 $9m^2$ 에서 $20m^2$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며 $7m^2$ 미만의 소형과 $50m^2$ 내외의 대형 집터도 몇 기 있다. 소형의 경우 대개 창고와 같은 부속시설로 추정되고 대형의 경우는 지배계급에 속하는 집터일 가능성이 높은데 청동기시대 보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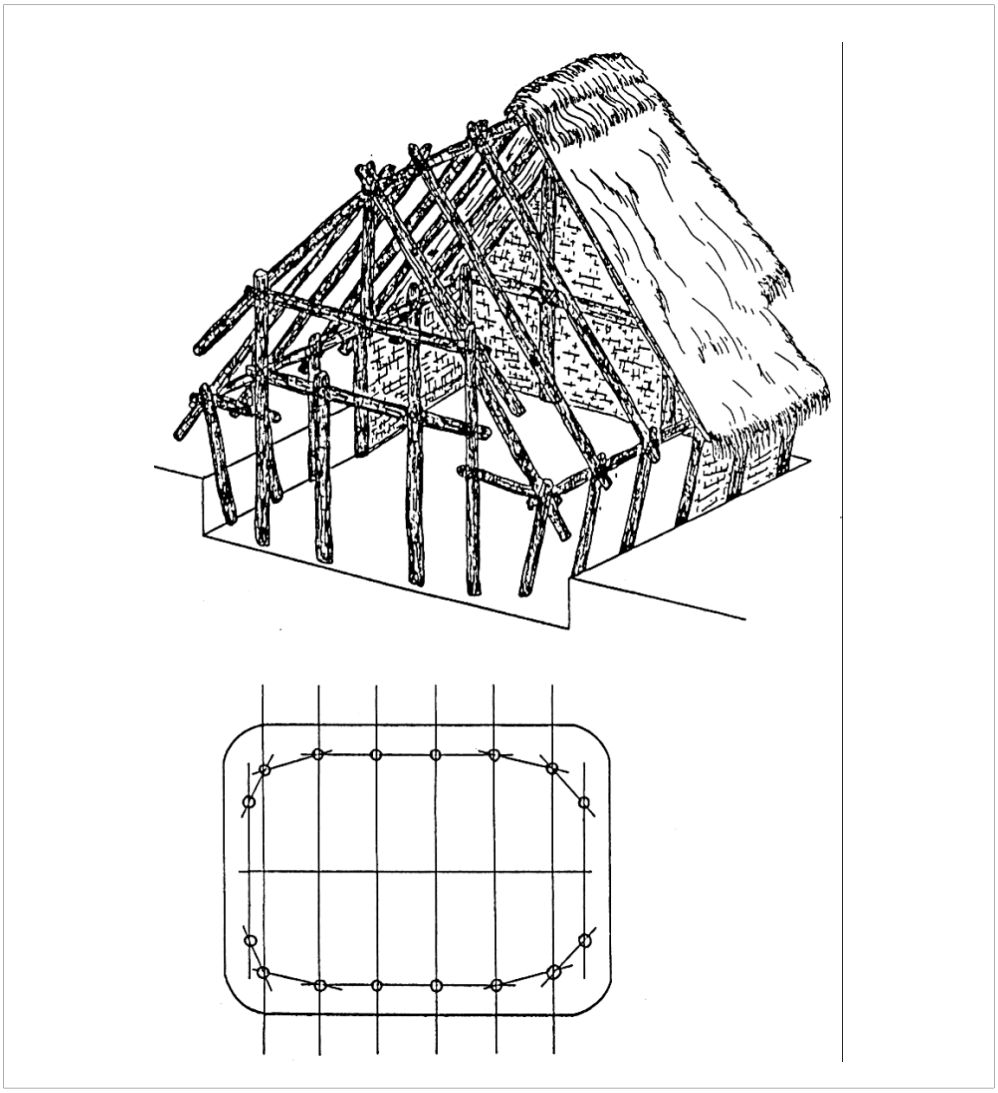
움의 깊이는 청동기시대 보다 30~50cm 가량 깊어지는데 움의 깊이는 보온 문제와 관련된 것인 만큼 원삼국시대의 기후가 청동기시대 보다 추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집안에 장치한 화덕으로도 증명된다. 원삼국시대의 집터는 85기 중에서 40기가 화덕이 있는 반면, 청동기시대 집터는 74기 중에서 5기가 화덕이 있을 뿐이었다.

전남지역의 원삼국시대 집은 원추무주움집, 원추2주움집, 원추4주움집, 사각추무주움집, 장방맞배1열움집 등이 청동기시대의 전통을 이으면서 사각추4주움집, 장방맞배3열움집 등이 추가되고 있다.

동거 가족 관계는 1인당 최소 공간을 3.24㎡로 보고 저장, 출입, 작업, 화덕 등 공동 공간을 0.5㎡로 보았을 때 3~6명으로 한 쌍의 부부와 1~4명인 핵가족에 해당된다. 또 조사된 집터 중 확장한 것으로 믿어지는 집터가 거의 없다.

최대 직경 10~20cm에 불과한 통나무와 갈대와 같은 풀로 지은 움집이기에 내구연한이 그다지 길지 못하고 기존 움집의 확장보다는 새로운 움집을 짓는 것이 간편한 일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 기존의 움집을 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거나 자녀가 결혼하면 새 집을 지어 분가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70]

69)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2권. 1993. 263쪽.
70)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2권. 1993. 266~267쪽.



낙수리 집자리 평면Ⅱ형 복원도

승주 대곡리 도롱 주거지 조사 보고서에"Ⅰa기(期)와 Ⅰb기, Ⅱ기로 세분하여 가족 수를 계산해 본 바 시기적으로 선주한 Ⅰa기는 대부분 5~8인의 대가족 사회를 구성했으나 후대의 Ⅰb기와 Ⅱ기는 2인에서 4인의 구성원으로 된 핵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이러한 사실은 고고학에서 사회경제생활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71]고 하였다.

이 보고서의 편년은 Ⅰa기는 BC 5~BC 3세기, Ⅰb기는 BC 3세기~AD 1~2세기, Ⅱ기는 하한 연대를 AD 4세기로 보았다. 이 발굴 조사 기록으로 본다면 『위지』의 기록은 초기 마한

71) 『주암댐 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Ⅵ)』. 86~87 추가 주거지. 1989, 230쪽.

의 실정을 잘 서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한 사람들의 풍습 역시 중국사서(中國史書)에 잘 나타나 있다. 마한 사람들은 금과 은 보다는 구슬(주-珠)을 좋아하여 이로써 의복을 장식하고 목걸이나 귀걸이까지 구슬을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성질이 몹시 강하고 용맹스러우며 머리는 대개 뾰족한 날상투(귀두로계-魁頭露紒)였고, 겉옷은 베 두루마기(포포-布泡)에 신은 짚신(초이-草履)이나 가죽신(혁이-革履)을 신었고 왜와 가까워 왜의 습속(習俗)인 문신(文身)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위의 기록도 신빙성이 있는 기록인 것 같다. 마한의 영속이었던 우리 함평지방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 발굴한 고분에서는 거의가 유리 구슬류나 굽은 옥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후한서』에는 마한에 성곽이 없다고 하였는데, 『위지』 「동이전」과 『진서(晉書)』 「사이전(四夷傳)」 등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 『위지』 「동이전」

"나라 안에 역사가 있거나 성을 쌓는 일이 생기면 나이 젊고 용맹하고 씩씩한 자를 뽑아서 모두 등가죽에 큰 노끈을 꿰어 기다란 큰 나무에 붙들어 매고 날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잡아 당겨 힘을 써도 아픈 줄을 모르도록 단련한다. 이것은 젊은이의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 외에 또 몸을 튼튼히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 『진서(晉書)』 「사이전(四夷傳)」

"그들은 활과 방패와 창을 쓸 줄 모른다. 그리고 비록 싸우고 공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한 서로 먼저 굴복하는 것을 귀히 여긴다."

○ 『위지』 「동이전」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데에는 관(棺)은 쓰지만 곽(槨)은 쓰지 않는다."

○ 『위지』 「동이전」을 비롯한 중국의 정사

"5월이 되어 씨를 뿌리고 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술을 마시고 놀아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춤을 출 때는 여럿이 모여 춤추고 노래하는데 한 사람이 춤을 추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일어나 서로 뒤를 따르면서 땅을 밟고 높이 뛴다. 이 춤추는 모습은 탁무(鐸舞)와 같다. 10월에 농사가 끝나면 이렇게 또 한번 논다.

귀신을 몹시 믿기 때문에 고을마다 한 사람을 뽑아 세워서 천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을 천군(天君)이라 부른다. 또 이들 여러 나라에는 각각 따로 읍이 있는데 이것을 소도(蘇塗)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사방에서 도망 온 사람이 이곳에 모여드는데 돌아가지를 않는다. 이들은 도둑질을 좋아한다. 그들이 소도를 세운 뜻은 마치 불가에서 절을 세우는 것과 같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마한에는 정치적인 군장(君長. 읍차-邑借)과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이 분리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천군은 별읍인 소도에서 농경의식과 종교의식을 주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유풍은 근래까지 마을 어귀에 솟대(솟댓가. 솔대, 짐대 등으로도 부름)를 세우고 신성시하는 곳이 많았으며 무속인(巫俗人)들이 집 앞에 대나무나 소나무에 방울을 매달아 세우고 있다.

이상과 같이 마한사람들의 풍속을 살펴봤다. 그러면 마한 이외 당시 진한과 변한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마한 풍습과 어떤 것들이 같았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면이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후한서』 「동이전」에 기록된 진한과 변한사람들의 풍습을 다음과 같이 옮겨보았다.

"진한의 늙은이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진나라에서 괴로운 역사(役事)를 피해 도망 온 사람들이 한(韓)나라로 가자 마한이 동쪽 국경지방 땅을 쪼개서 이들에게 주었다. 이들은 나라를 방(邦)이라 하고, 활을 호(弧)라 하고, 도둑을 구(寇)라 하고, 술 돌리는 것을 상(觴)이라 하고, 서로 부르는 것을 사(徙)라고 해서 모두 진나라 말과 비슷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곳을 진한(秦韓)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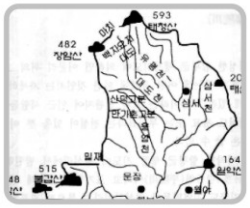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성책과 집과 방이 있고 모든 조그만 고을이라도 저마다 모두 우두머리(거수-渠帥)가 있다. 이 우두머리를 제일 큰 고을에 서는 신지(臣智)라 하고, 그 다음은 검측(儉側)이라 하고, 또 그 다음은 번지(樊祇)라 하고, 다음은 살해(殺奚), 그 다음은 읍해(邑借)라 한다.

땅은 기름지고 아름다워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다. 누에치는 법을 알아 비단을 짜서 입는다. 또 소와 말을 타고 다닌다. 혼인하는데 예법에 맞도록 하고 길을 다닐 때는 서로 양보한다.

이 나라에서는 철이 나는데 이것을 예, 왜, 마한과 거래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데 이 철로 표준을 삼는다. 이 나라 풍속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고 비파 뜯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를 낳으면 그 머리를 모질게 하기 위해 돌로 눌러 놓는다. 변진과 진한이 모두 섞여 산다. 그래서 성곽이나 의복이 모두 이들과 비슷하다. 하지만 풍속은 현저히 다르다. 사람들의 모양은 모두 키가 크고 장대하며 머리털이 아름답고 의복이 깨끗하다. 그러나 형벌과 법은 엄하고 까다롭다. 왜와 가깝기 때문에 몸뚱이를 바늘로 찔러서 먹물을 넣어 글씨나 그림을 넣는 자가 있다."

제3장 신미제국(新彌諸國)과 함평



신미제국의 실체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삼국유사』 등 우리나라 옛 사서에는 단 한 줄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중국정사(中國正史)인 『진서(晉書)』 「장화전(張華傳)」 태강 3년(太康. 서기 282)조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나타난다.

"동이의 마한과 신미 여러 나라는 산에 의지하고 바다를 끼고 사는데 나라의 거리는 4천리며 대대로 붙이지 않은 채 20여 개국이 살아오는데 모두 사신을 보내어 조헌한다.(東夷馬韓新彌諸國 依山大海 去州四千餘里 歷世未附者二十餘個國 竝遣使朝獻)"

또 『진서(晉書)』 「사이전(四夷傳)」 한(韓)조에는 마한의 사신이 진나라에 온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함녕(咸寧) 3년(277년)에 다시오고 그 이듬해(278)도 또 와서 물건을 바쳤다. 무제 태강 원년(太康. 280년)과 2년(281년), 3년(282년)에 그 나라 왕은 자주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고(共主頻遣使入貢方物), 7년(286년), 8년(287년), 9년(288년), 10년(289년)에도 자주 왔다. 태희 원년(太熙. 290년)에도 동이교위 하감(何龕)에게 와서 물건을 바쳤다."

위의 두 기록을 살펴보면 같은 282년(태강 3년)에 「사이전」에는 동이마한(東夷馬韓)이 사신을 보냈고, 「장화전」에는 동이마한 신미(東夷馬韓新彌)가 사신을 보냈다고 마한과 신미를 대등한 나라로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유의할 바는 "동이마한신미제국(東夷馬韓新彌諸國)"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진서』 기록에 대하여 태희(290), 영희(永熙. 서진 혜제 연호. 290) 당시를 근거하여 『삼국사기』를 지었다는 김부식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를 부정하였다.

"마한이 망했는데도 왕망 때부터 아래로 태강에 이르기까지 근 300년간 존재했다는 것인데, 이때는 백제라 칭하던 시기다."

그런가 하면 정약용(丁若鏞)의 경우는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 중 「마한고(馬韓考)」에서 신미제국의 실체를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위치 비정 등에는 이르지 못했다.

"진서에 안북장군(安北將軍) 장화가 마한의 신미제국은 산에 의지하고 바다를 끼고 대대로 붙이지 않은 채 20여 개국이 살아오는데 모두 사신을 보내어 조헌한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신미가 어떤 나라인지는 알 수 없어도 요컨대 서진시대(西晉時代)에 마한의 여러 나라가 백제에 복속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관계로 20여 개국이 각각 조헌했을 것이다. 후한서에 마한은 54개국인데 백제(伯濟)는 본래 그 중의 1개국이다. 범엽(范曄)이 역사를 쓸 때 백제(伯濟)에는 통일하지 못한 곳이 남아 있었다고 했고, 북사(北史)에도 역시 백제(伯濟)는 마한의 속국이라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낙준(成洛俊)은 신미제국의 실체를 인정함과 동시에 위치 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72]

"3세기 후반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마한 등 동이제국에서 중국의 진에 사신을 파견한 기사가 빈번하게 보인다. 여기에 주목되는 부분은 마한, 신미제국 등이 사신을 보내는데 20여국이 역세미부(歷世未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한은 이미 함녕 3년(277)에 복래(復來)하였다 했으므로 역세미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기(帝紀)의 마한과 장화전에 나오는 마한은 그 실체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73] 특히 신미국의 등장은 서남해안에 자리 잡고 있던 마한의 잔여세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 주고 있다. 마한의 54개국 이름에는 신미국이 보이지 않아 그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미국을 비롯한 20여국의 위치에 대하여 '의산대해 거주사천여리(依山大海去州四千餘里)'라 한 것을 근거로 중부 이남의 서해안으로 추정하거나[74] 보다 구체적으로 전라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산재하였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 근거로 영상강 유역의 옹관고분을 들기도 한다. 또한 신미국은 목지국 세력 해체 이후 백제의 세력권에서 이탈한 마한의 잔여 세력으로서 『일본서기』 신공기(日本書記神功紀) 49(서기 369년)에 보이는 침미(忱彌. 多禮)의 음이 신미(新彌)와 비슷함을 들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75]

또 이해준(李海濬)은 위치 비정 뿐 아니라 신미제국의 존속 기간까지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76]

"한국 역사상에서 마한 세력은 대체로 서기 369년(근초고왕 24)에 백제에 복속된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영산강유역 혹은 서남해안 지역의 모든 마한세력들이 이때에 일괄적으로 복속되었을까 하는 문제는 아직도 의문점이 많다. 오히려 369년의 마한 정복은 전북, 충청도 지방의 마한세력에 대한 기사로 이해하고 나머지 마한세력들(특히 마한의 중심 세력과 대등한 문화와 정치적 지위를 지녔던 영산강, 서남해안 지역의 반독립적 토착세력들)의 경우는 불완전한 정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이 지역의 문화 양상이 한강이나 금강유역과는 크게 다르며 수준 높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인돌의 왕국으로 지칭되는 것처럼 선사문화의 기층이 넓었고 옹관묘라는 독특한 지역 묘제를 성립시킨 집단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중국의 진서를 보면 마한의 신미제국 기사가 보이는데 이들 20여국은 '산을 의지하고 바다에 연하여 있으며 독자적으로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등'매우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음이 지적된다. 진서에서 말하는 신미제국이 바로 영산강 유역의 마한 세력일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지역의 마한세력이 금강이나 한강유역의 마한세력과는 별도의 문화권을 형성하여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바로 이들은 백제의 복속 과정에서 가장 늦게 남아있던 잔존세력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는 백제의 문화 흔적들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 같은 추정을 더욱 가능하게 한다."

---

72)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2권. 1993. 322~323쪽.
73) 노중국(盧重國), 「목지국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백재논총』 2집.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0. 88쪽.
74) 이병도(李丙燾), 『한국 고대사의 연구』, 박영사. 1976. 481쪽.
75) 노중국(盧重國), 「마한의 성립과 변천」, 『마한·백제문화』 제10집.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7. 38~41쪽.
노중국(盧重國), 「목지국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백재논총』 2집.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0. 89쪽.
76) 이해준, 『다시 쓰는 전라도 역사』, 금호문화, 1995. 금호문화. 23~24쪽.

그 뿐 아니라 김학휘(金學煇)는 "고대 영산강" 논고에서 신미제국의 태동에 대한 배경과 설립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유원재(兪元載) 교수는 '동이마한신미제국(東夷馬韓新彌諸國)'을 동이마한 신미 등을 비롯한 20여 국이 내부(來附)했다는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이곳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미국의 존재다. 이는 분명 마한내의 새로운 세력의 부상을 의미하며 이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신미국은 마한과 함께 대등한 위치에서 진과 교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마한 내의 세력 변화를 의미하고 이제까지 마한을 대표하던 목지국의 세력과 대등하게 성장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략… 차령(車嶺) 금강의 이북을 백제에 잠식당한 마한의 잔여 세력은 익산의 건마국(乾馬國)을 중심으로 새로운 마한의 세력이 편성되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이전의 목지국이 마한의 칭호로 진에 알려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건마국도 마한의 칭호를 습용(襲用)하여 진과 교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 백제의 계속된 남진으로 건마국 중심의 마한세력도 해체되었을 것이다. 그 후 신미국으로 표현되던 세력이 새로이 나타나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진과 교섭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신미국의 존재에 대하여 필자는 1982년 영산강유역의 옹관묘 집단으로 비정한 바 있으며, 또한 최몽룡(崔夢龍) 노중국(盧重國) 교수도 영산강유역의 옹관묘 집단으로 비정한 바 있다. 계속되는 남진에 의해 익산의 건마국 중심의 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후의 마한은 보다 남쪽 영산강유역의 신미국을 중심으로 마한의 세력이 재편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진서 장화전에 신미국이 마한 등의 세력과 대등하게 나타나는 282년부터였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미제국은 우리나라 사서에는 기록된 바 없지만, 중국사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그 신미제국의 위치를 우리 함평군을 비롯한 영산강유역에 비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를 독무덤 조성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진서의 장화전을 소개하면서 "동이마한신미제국(東夷馬韓新彌諸國)"을 "동이의 마한과 신미 여러 나라"로 번역하였다. 이는 신미(新彌)가 마한연맹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종주세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미의 여러 나라는 마한세력의 재편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신미의 여러 나라는 언제 설립되었을까?

이는 자료의 부족, 연구의 미진으로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서기 282년에 신미국이란 이름으로 진에 사신을 보냈고 20여 개국이 있는데 모두 조헌한다고 하였으니 그 이전에 이미 태동했을 것이며, 이때는 신미가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지배권을 행사하던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대형 독무덤이 출현하는 3세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서에 나타난 마한의 사신 파견 기록은 283년부터 2년간 끊겼다가 286년부터 291년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학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진서에 나타나는 마한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차령 금강의 이북에 위치하던 초기 목지국 중심의 마한세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백제의 고이왕대에 정복당한 차령 금강 이북의 마한을 제외한 차령 금강 이남의 마한 잔여 세력들의 역사 활동인 것이다. 마한은 차령 금강 이북의 세력을 잃고 익산에 있던 건마국이 중심이 되는 세력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들이 마한의 대표세력으로서 중국과 교섭을 시도한 것이 진서 277~282년까지의 교섭 기사인 듯하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신미국으로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면서 이들도 독자적으로 마한과 함께 교섭을 시

도하였는데 이의 세력 변화를 알려 주는 것이 바로 282년의 교섭 기사라 할 수 있다. 이는 익산이나 부여 등에서 출토된 진경(晉鏡)이 이러한 시기에 교역된 것이었지 않나 생각된다.

그 후 계속되는 백제의 남진에 의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익산 건마국 중심의 마한세력은 영산강유역에 위치하던 신미국에 마한의 종주국적인 지위를 넘겨주었던 것 같다. 진서에 286년 이후 마한으로만 나타나는 마한의 교섭은 영산강유역의 신미국 중심의 마한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들 마한의 역사적 활동이 290년을 끝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들 마한이 백제에 의해 점령당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시 진에서 팔왕의 난(八王亂) 등 혼란 정국이 전개되었던 까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신미의 여러 나라는 언제 백제에 영속되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도 아직은 정확히 말할 수 없다. 한국 역사상에는 마한의 잔여세력 즉 신미의 여러 나라가 백제에 영속된 것을 다음의 『일본서기』 신공기(日本書記 神功紀) 49년에 나오는, 반 설화적 기사를 들어 일단 369년(근초고왕 24년)으로 보고 있다.

백제의 청에 따라 장군 아리다베스(荒田別), 시카아베스(鹿我別), 가라라가이시(木羅介資), 사사노궤(沙沙奴跪)에게 명하여 정병을 이끌고 가라(加羅) 방면으로 출병 가라로부터 비자본(比自本)[77] 등 7국을 평정하고 서쪽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병사를 서쪽으로 이동 고해진(古奚津)[78]에 이르렀다. 남만, 침미다례(忱彌多禮)[79]를 없애고 백제에 주었다. 백제왕 초고(肖古)와 왕자 귀수(貴首)가 군사를 이끌고 왔다. 이때 '북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北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80]이 스스로 항복하여 왔다. 백제왕 부자와 아리다, 가라라 등이 모두 의류촌(意流村)[81]에서 만났다.<仍移兵西廻 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伏 是以 百濟王父子及荒田別 木羅介資等 共會意流村(今云州流須祇) 相見欣慼>"

이 기록이 전라도 지방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주 9)에서 보듯이 학자간의 위치 비정이 다르고 이에 대한 후학의 연구도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강역을 크게 확장한 왕이다. 평양까지 진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전사케 하였으며 372년에는 진(晉)에 사신을 보내어 외교 관계를 맺었고 국사(國史)를 쓰게 하는 등 국력을 튼튼히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서에는 기록이 없지만 일본서기의 기록대로 남쪽의 경략에도 힘을 썼으리라는 점에는 수긍이 간다. 또 369년에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지방까지를 정복한 백제가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해 372년에 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볼 수가 있다.

---

77) 현 경남 창녕(昌寧) 지방으로 봄.

78) 고해진은 이병도는 구해국(狗奚國)으로 보고 강진(康津)에 비정했으며, 천관우는 이병도와 같이 구해국으로 보았으나 위치비정은 고서이(古西伊)로 보아 해남군 마산면(馬山面)에 비정하였다.

79) 이병도가 강진의 옛 동음현(冬音縣)으로 비정하였다.

80) "比利辟中苞彌支半古四邑" 이 부분의 해석이 학자간에 다르다.
이병도는 비리, 벽중, 포미지, 반고의 4개의 읍으로 보았고,
천관우는 비리, 벽중, 포미,지반, 고사의 다섯읍으로 보았다.
이병도는 포미지는 파노미(巴老彌)로 보고 나주(羅州)에 비정하고 벽중은 벽비리국(辟卑離國)으로 보고 파부리현(波夫里縣) 즉 보성(寶城)으로 .모두 전남지역에 비정했다.
천관우는 비리는 일이국(一離國) 으로보고 오늘의 부안군 보안(保安)으로, 벽중은 구사오단(臼斯烏旦)으로 보고 오늘의 김제군 금구(金溝)로, 포미는 불미국(不彌國)으로 보고 정읍(井邑)에, 지반은 부안(扶安), 고사는 고사부리(古沙夫里)로 보고 정읍의 고부(古阜)에 비정 모두 전라북도 지방으로 비정하였다.

81) 이병도는 의류촌을 잉리아현(仍利阿縣)으로 보고 화순(和順)이라 했다.

신미(新彌)의 이름이 신공기의 침미(忱彌)와 비슷함을 들어 노중국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백제가 369년에 전남 지역을 일단 정복했지만 정치적 복속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믿어진다.

그것은 영산강유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백제 왕릉 보다 규모가 더 큰 대형고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형고분들은 이전의 독무덤과 마찬가지로 봉토 돌방무덤도 5세기 말까지 계속 조성되고 있다. 백제에 완전히 정치적으로 복속되었다면 이러한 고분은 조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영산강 유역의 마한은 최종 잔여세력인 신미의 여러 나라로 존재하면서 5세기 말까지는 존속했다고 보아야 한다.

신미의 여러 나라가 이때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근초고왕 대 이후 백제가 고구려와의 국경에서 분쟁이 심해 국력을 북쪽에 쏟을 수밖에 없어 남쪽은 한번 스쳐간 정도로 방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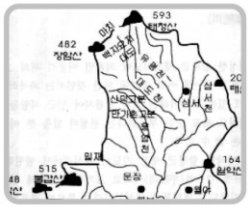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우리 함평지역이 신미제국에 영속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신미제국 중 중심적 거점 세력이 살았다는 점에서도 지역 내 분포하고 있는 대형고분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성낙준은 당시 신미제국의 주요 거점들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 "옹관고분이든 석실고분이든 대형의 봉토분이 분포한 곳은 유력한 토착집단 또는 재지세력의 근거지였을 것이다. 특히 옹관묘의 중핵지대인 나주시 반남면이나 영암군 시종면을 비롯하여 위로는 광주광역시와 함평군 월야면 일대, 서쪽으로는 함평읍과 무안 사창리 일대, 남으로는 해남 북일면 일대에 대형고분이 분포하고 있어서 이곳들을 중요 거점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82]

이러한 견해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갖는 견해이다. 위에서 살핀 바를 요약한다면 신미제국은 마한의 재편세력으로 대략 3세기 말 이전에 우리 함평지역을 비롯한 영산강, 나아가 전남지방에서 연맹체를 형성하여 282년에는 진(晉)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등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였고 그들은 독무덤이라는 독특한 지역 묘제를 성립시켰으며 적어도 5세기 말까지는 존속하였다.

82)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2권. 1993. 325쪽.

제4장 백제(百濟)시대의 함평



제1절 함평의 백제 영속

앞장(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역사에서는 『일본서기』 신공기(日本書記神功紀) 49년조를 들어 함평을 비롯한 영산강유역, 나아가 전남지방이 369년(근초고왕 24)에 백제에 영속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백제의 이 지역 정복은 정치적 복속(服屬)까지는 이르지 못해 이 지역은 마한의 전통을 이은 신미제국으로 적어도 5세기까지는 존속하면서 독특한 독무덤의 지역묘제(地域墓制)를 형성하였고, 특히 우리 함평지역은 마한시대나 신미제국시대에 걸쳐 중심적 역할을 했을 거점세력이 살았음을 군내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대형고분들이 말해 주고 있다. 앞으로 이 고분들이 체계적인 학술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고대사가 밝게 규명되리라 믿는다.

우리 함평지역을 비롯한 영산강유역, 나아가 전남지방이 언제 백제에 완전히 복속되었는가에 대해 학계에서는 다음 기록 즉,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東城王) 20년(498)조의 기록을 주목하고 있다.

> "8월. 왕이 탐라(耽羅)가 조공의 예를 닦지 않으므로 친히 치기 위하여 무진주(武珍州. 현 광주)에 당도하니 탐라가 듣고 사신을 보내어 사죄를 청하므로 드디어 중지하였다. 탐라는 곧 탐모라(耽牟羅)이다.(八月 王以耽羅 不修貢賦 親王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耽羅卽耽牟羅)."

왕이 친히 광주까지 온 것은 당시 이 지방이 백제에 복속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만일 복속되지 않았다면 이 지방에 와서 전쟁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록은 백제가 신미의 여러 나라는 물론 제주도까지를 복속시켰다는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함평지역은 5세기 말경 백제에 완전 영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백제는 고구려의 일파(一派)인 부여씨(扶餘氏)의 집단이 남으로 내려와 마한의 왕으로부터 북쪽 100리 땅을 얻어 건국한 나라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시조(始祖) 건국 설화(建國說話)와 개치왕(蓋齒王)이 북위(北魏)에 보낸 국서 중에 "신여고구려원출부여(臣與高句麗源出扶餘)"라는 말이다. 그리고 백제의 왕묘로 추정되는 서울 석촌동(石村洞)의 기단식돌무지무덤(基段式積石塚)이 압록강유역의 고구려 것과 직결된다는 고고학적인 발굴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백제(伯濟)의 건국 초기 지배적 집단으로는 온조집단(溫祚集團), 비류집단(沸流集團), 북부의 해씨(解氏) 및 진씨(眞氏)집단, 흘우(屹于)집단 등이다. 이들은 시기적으로는 약간 다르게 남으로 내려와 살면서 점차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본다. 건국 설화에 보면, 처음에는 미추홀(彌鄒忽)에 자리 잡은 비류집단이 주도권을 장악하다가 아우인 온조집단으로 합류하였다.

백제국은 온조왕 13년(BC 6)에 이르면 북으로는 패하(浿河.예성강), 남으로는 웅천(熊川. 안성천, 금강?), 동으로는 주양(走壤. 춘천), 서로는 서해까지 영역을 확대하였고 고이왕(古爾王) 13년(246)때는 중국의 군현을 공략할 만큼 국력이 강성해졌으며 근초고왕(近肖古王)대에 들어서서는 24년(369)에는 전라도 일대의 마한을 일차 정복하였고, 29년(374)에는 평양까지 쳐들어가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등 국토를 넓혔으며 근구수왕(近仇首王) 1년(375)에는 박사 고흥(高興)을 시켜 처음으로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가르친 사람이 백제의 왕인 박사며 일본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추앙하고 있다. 이는 이미 백제에 박사제가 정착되어 상당수의 박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미루어 백제의 문화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국권을 튼튼히 함과 아울러 해외 진출에도 눈부셨다.

중국의 송서(宋書), 양서(梁書), 남사(南史)등에 의하면, 고구려의 요동(遼東) 점유에 대하여 백제는 다음의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요서(遼西)를 점유했다.

○ 송서 이만전 백제(宋書夷蠻傳百濟)[83]

"백제국은 본래 고려(高麗. 여기서의 고려는 고구려를 말함)와 함께 모두 요동 동쪽 천 여리 되는 곳에 있었다. 그 뒤에 고려는 요동을 침략해서 소유했고, 백제는 요서를 침략해서 소유했다. 이래서 백제의 도읍은 진평군 진평현(晉平縣)에 있었다.(百濟國 本與高麗俱在遼東之東千餘里.其後高麗略有遼東 百濟略有遼 百濟所治 謂之晉平郡晉平縣)."

○ 양서 제이전 백제(梁書諸夷傳百濟)[84]

"백제란 그 조상은 동이(東夷)다. 동이는 세 한국(韓國)이 있으니 첫째는 마한이요, 둘째는 진한이요, 셋째는 변한이다. 변한과 진한은 각각 열 두 나라가 있고 마한은 54개국이나 되었다. 그 중에 큰 나라는 인가가 만여 호나 되고 작은 나라는 수천 호가 되어 모두 합치면 십여만 호가 되며 백제는 그 중의 하나이다. 그것이 뒤에 와서 점점 강해져서 모든 조그만 나라들을 합쳤다. 그 나라는 본래 구려와 함께 요동 동쪽에 있었는데 진나라 때에 구려가 이미 요동을 침략해 차지하게 되자 백제도 역시 요서의 진, 평 두 군의 땅을 점령해서 스스로 백제군(百濟郡)을 설치했다.[85](百濟者 其先東夷 有三韓國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弁韓辰韓各十二國 馬韓有五十四個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百濟卽其一也 後漸强大 兼諸小國 其國本與句麗俱在遼東之東千餘里 晉世句麗旣略有遼東百濟亦據有遼西 晉平二郡地이 自置百濟郡)."

○ 남사 동이열전 백제전(南史東夷列傳百濟傳)[86]에도 기록이 있는데 양서와 똑같은 내용이다.

---

83) 양(梁)의 심약(沈約)이 제나라 무왕의 칙령을 받아 지은 역사책. 100권. 남북조시대의 송의 정사. 제기(帝紀) 10권, 지(志) 30권, 열전 60권. 무제에서 순제까지 역사 기록.

84) 남조 양나라 4대의 사적을 기록한 정사(正史).

85) 백제의 요서 경략은 근초고왕대(346~374)의 일로 보인다. <번역자의 주석>

86) 양서의 내용과 같은데 이들 자료는 모두 『삼국지』 「동이전」의 기사를 취하지 않고 『후한서』 「동이열전」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백제의 요서 경략은 상업 활동과 전략적인 가치를 지닌 식민지(植民地)와 같은 성격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백제는 요서 경략뿐 아니라 이 시기에 일본 방면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이 시대의 상징 유물이 근초고왕이 왜왕에게 주었다는 칠지도(七支刀)다.

이 칠지도를 백제왕이 왜왕에게 하사(下賜)한 것이냐, 헌상(獻上)한 것이냐를 놓고 명문(銘文) 해석에 지금까지 100년을 논쟁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칠지도에는 앞과 뒷면에 다음과 같이 명문이 새겨져 있다.

<앞면> 泰○四年○月十六日丙午正陽造白鍊鋼七支刀○벽百兵宜○供侯王○○○○作
<뒷면> 先世以來有此刀百濟王世○奇生聖音故爲 倭王旨造傳○後世

이병도는 앞면의 명문을"태(泰)○년○월 16일 병오(丙午) 정양(正陽)에 연강철(鍊鋼鐵)의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는 나아가 백병을 물리 칠 수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왜왕에게 공급 할만하다. ○○○○가 만들었다."라고 해석하고, 뒷면은 "선세(先世) 이래로 아직 이 칼이 없었던바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奇生聖音)이 짐짓 왜왕 지(倭王旨)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라고 풀이하였다.

간지(干支)상에는 서로 맞지 않지만『일본서기』신공기 52년 기록에도 이 칠지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가을 9월. 정묘삭(丁卯朔) 병자(丙子)에 구저(久低) 등이 천웅장언(千熊長彦)을 따라 예궐하여 칠지도 일구(七支刀一口)와 칠자거울 일면(七子鏡一面)과 함께 여러 가지 보물을 바치었다. 이때 말하기를 '신의 나라는 서쪽에 큰 물이 있는데 곡라철산(谷那鐵山)에서부터 발원합니다. 그곳은 7일간을 가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인데 마침내 이 물을 마시고 이 산철을 취한 것이니 성조에 영구히 받드십시오.'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자료에 나오는 칠지도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칠지도는 백제에서 제작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부월(斧鉞)이나 도검(刀劍)을 주는 것은 하위자에 대한 상위자의 신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명문상에 드러나는 분위기가 하사 쪽에 가깝다. 따라서 이 칠지도는 백제왕이 왜왕에게 하사한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백제가 요서를 경략하고 일본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은 중국 대륙에서 진(晉)이 몰락하고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87]이 와중에 빠진 틈을 타서 해상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또한 백제는 영역의 확대와 아울러 내적으로는 고이계(古爾系) 해씨(解氏) 세력에서 초고계(肖古系) 진씨(眞氏) 세력으로 세력 교체가 이루어져 왕권이 강화되었다. 근초고왕 대부터 전성기를 이루던 백제는 개로왕(蓋鹵王)의 패사(敗死. 474년)로 수도를 공주(公州)로 옮겼고 백제의 한강유역 상실은 물적 손실 이외에 중국과의 교통로를 빼앗기게 되어 크게 위축되었다.

87) 중국에서 서진(西晉) 말부터 남북조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호(五胡)와 한민족(漢民族)이 중국 북부에 세운 16개국 및 그 시대의 명칭.

동성왕 대에 이르러 안정과 도약을 하던 백제는 후에 지금의 부여로 도읍을 옮겼고 남부여(南扶餘)라 했다. 31대 의자왕(義慈王) 대에 이르러 백제는 멸망했고 뒤이어 백제 유민들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나 그 것도 실패로 돌아가 결국 663년 신라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함평지역이 백제 영속으로 존속한 기간은 5세기 말경부터 서기 663년까지 대략 200여년 미만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백제의 관제(官制)와 함평

백제의 관제는 260년(古爾王 27) 정월에 정비되었는데, 백제가 삼국 중 제일 먼저 관제를 정비할 수 있었던 것은 토착민에 비해 지배자인 유민이 훨씬 뛰어난 기술문화를 가짐으로서 토착민의 부족적(部族的) 기반을 쉽게 수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이왕 이전의 관제에 좌보(左輔), 우보(右輔), 좌장(左將) 등의 관직이 보이고 그들에게 병마(兵馬)에 대한 일을 맡겼으며 좌·우보의 임명은 주로 왕족이나 북부의 해씨(解氏), 진씨(眞氏), 동부의 흘씨(屹氏)집단에 주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관제는 우리 함평과는 무관하다. 이 때 우리 함평은 마한 아니면 신미제국에 영속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고이왕 때 일차 정비된 백제의 관제는 침류왕 때 다시 정비되었다. 백제의 정비된 관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왕 밑에 6좌평(六佐平)이 있어 각기 임무를 맡고 있다. 좌평제는 상좌평 설치 등의 변화를 겪었으며, 전지왕대(腆支王. 재위 405~419)에 이르러 최고 지배 귀족이 진씨(眞氏)에서 해씨(解氏)로 교체되고 최고 관직으로 상좌평이 설치되었다.

<표> 6좌평(佐平)과 임무

왕
- 내신(內臣)좌평 : 장선납사(掌宣納事) – 왕명 출납(王命出納), 수석좌평
- 내두(內頭)좌평 : 장고장사(掌庫藏事) – 재무(財務)
- 내법(內法)좌평 : 장례의사(掌禮儀事) – 종교, 교육, 외교
- 위사(衛士)좌평 : 장숙위사(掌宿衛事) – 숙위(宿衛)
- 조정(朝廷)좌평 : 장형옥사(掌刑獄事) – 사법(司法)
- 병관(兵官)좌평 : 장외병마(掌外兵馬) – 국방(國防)

2등급인 달솔(達率)은 30명이었고 3등급인 은솔(銀率)부터는 정원제가 없었다.

1등급에서 6등급인 나솔까지의 좌평과 솔자류(率字類)에 해당하는 관직자는 자의(紫衣)를 입고 관(冠)을 은화로 장식하였으며 7등급부터 11등급까지의 덕자류(德字類)는 비의(緋衣)를 입고 그 이하 16등급까지는 청의(靑衣)를 입었다.

다음은『삼국사기』잡지(三國史記雜誌)의 복제(服制)에 중국 사서의 기록들을 정리했다.

○ 북사(北史)의 기록

"백제의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으며 조배(朝拜)와 제사 같은 때는 관(冠)의 양쪽 가에 깃을 더하고 전쟁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며, 나솔 이상의 관은 은화로 꾸미고 장덕은 자줏빛 띠를 띠고, 시덕은 검은 띠를 띠고, 고덕은 붉은 띠를 띠고, 계덕은 푸른 띠를 띠고, 대덕과 문독은 모두 누런 띠를 띠고, 무독으로부터 극우까지는 모두 흰 띠를 띠었다."

○ 수서(隋書)의 기록

"백제는 좌평부터 장덕까지는 자색 의복에 자색 띠를 두르고 시덕은 흰 띠, 고덕은 붉은 띠, 계덕은 푸른 띠, 대덕은 누런띠, 문덕부터 극우까지는 하얀 띠를 두른다. 관은 같으나 나솔 이상은 은 꽃으로 장식한다."

○ 당서(唐書)의 기록

"백제의 임금은 큰소매 자줏빛 도포에 푸른 비단 바지를 입고 검은 비단에 금화로 장식한 관을 쓰고 흰 가죽 띠를 띠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관인(官人)은 모두 붉은 옷을 입고 은 꽃으로 관을 꾸미고, 서민은 붉은 옷과 자줏빛 옷을 입을 수 없다."

이는 신라의 복색제와 비교되는 것으로 신분제적인 제약을 의미한 것 같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백제의 관제표

등급	관계명(官階名)		의복(衣服)의 색	관식(冠飾) 및 의대(衣帶)
1	좌평	佐平	자의(紫衣)	관(冠)을 은화(銀花)로 장식하고 자대(紫帶)를 두른다.
2	달솔	達率		
3	은솔	銀率		
4	덕솔	德率		
5	한솔	扞率		
6	나솔	奈率		
7	장덕	將德	비의(緋衣)	자대(紫帶) 흑대(黑帶) 적대(赤帶) 청대(青帶) 황대(黃帶)
8	시덕	施德		
9	고덕	固德		
10	계덕	季德		
11	대덕	對德		
12	문독	文督	청의(青衣)	백대(白帶)
13	무독	武督		
14	좌군	佐軍		
15	진무	振武		
16	극우	剋虞		

백제의 지방통치제 중 왕과 후제(王侯制)가 나온다. 이 왕, 후제는 개로왕대(蓋鹵王代. 455~474)부터 동성왕대(東城王代. 479~500)에만 나타나고 또 중국의 사서에만 나온다.

그러나 이 왕, 후제는 전남지방을 생각해 볼 때 주목되어야할 사항이다. 이 왕, 후제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각양각색으로 앞으로의 연구 추이를 지켜 볼 수밖에 없음을 먼저 말해둔다. 중국사서(中國史書)에 왕, 후제의 명칭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아래와 같다.[88]

개로왕 4년	여기(餘紀)	행관군장군우현왕(行冠軍將軍右賢王)	송서(宋書)
(458)	여곤(餘昆)	행정로장군좌현왕(行征虜將軍左賢王)	
18년	여례(餘禮)	관군장군부마도위불사후장사(冠軍將軍駙馬都威弗斯侯長史)	위서(魏書)
(472)	장무(張茂)	용양장군대방태수사마(龍讓將軍帶方太守司馬)	
동성왕12년	저근(姐瑾)	영삭장군면중왕(寧朔將軍面中王)	남제서(南齊書)
(490)		-행관군장군도장군도한왕(行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	
	여고(餘古)	건위장군팔중후(建威將軍八中侯)	
		-행영삭장군아착왕(行寧朔將軍阿錯王)	
	여력(餘歷)	건위장군(建威將軍)-행용양장군매라왕(行龍讓將軍邁羅王)	
	여고(餘固)	광무장군(廣武將軍)-행건위장군불사후(行建威將軍弗斯侯)	
	고달(高達)	행건위장군광양태수겸장사(行建威將軍廣陽太守兼長史)	
		-행용양장군대방태수(行龍讓將軍帶方太守)	
	양무(楊茂)	행건위장군조선태수겸사마(行建威將軍朝鮮太守兼司馬)	
		-행건위장군광릉태수(行建威將軍廣陵太守)	
	회매(會邁)	행선위장군견참군(行宣威將軍兼參軍)	
		-행광무장군청하태수(行廣武將軍淸河太守)	
17년	사법명(沙法名)	행정로장군매라왕(行征虜將軍邁羅王)	남제서(南齊書)
(495)	찬수류(贊首流)	행안국장군벽중왕(行安國將軍벽中王)	
	해례곤(解禮昆)	행무위장군불중후(行武威將軍弗中侯)	
	목우나(木于那)	행광위장군면중후(行廣威將軍面中侯)	
	모유(慕遺)	행용양장군낙랑태수겸장사(行龍讓將軍樂浪太守兼長史)	
	왕무(王茂)	행건무장군성양태수겸사마(行建武將軍城陽太守兼司馬)	
	장색(張塞)	겸참군행진무장군조선태수(兼參軍行振武將軍朝鮮太守)	

왕, 후 앞에 붙어 있는 불사(弗斯), 불중(弗中), 도한(都漢), 팔중(八中), 아착(阿錯), 매라(邁羅), 벽중(辟中), 면중(面中) 등을 지명으로 보는 데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일인 학자 말송보화(末松保和)는 이와 같은 지명을 다음과 같이 전남지역에 비정하고, 그 이유로 백제가 이 시기에 전남지역을 확고하게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불사와 불중-불사분사국(不斯濆邪國)-비사벌(比斯伐)-전주, 또는 속로불사(速盧不斯)-분차군(分嵯郡)-보성군 대포리.
도한-무주 두힐현(武州豆肹縣)-나주시 다시면, 또는 금산군 두힐현-고흥
면중-무진주(武珍州)-광주,
팔중-발라군(發羅郡)-나주, 또는 반나부리(半那夫里)-나주시 반남면 일대
아착-무주 아차산군(阿次山郡)-신안군 압해면
매라-매로국(邁盧國)-마서량(馬西良)-옥구, 또는 마사량현(馬斯良縣)-장흥군 회녕
벽중-벽골군-김제

"이들 지역이 전라도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이때에 백제가 이 지역에 대해 확고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를 또 남제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데서 비롯된다."

88) 김주성. 『전남도지』 3권. 전라남도, 1993. 28쪽에서 가려 뽑았다.

이와 관련하여 천관우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명들을 모두 충청도와 전북지방에 해당한다며 위치 비정을 하였다.

불사, 불중-벌수지(伐首只)-충남 당진군
면중- ?
아차-원촌(源村)-완주군 봉동
벽중-벽골-김제
도한-득안(得安), 덕은(德恩)-논산군 은진
팔중-벌음지(伐音支)-공주군 유구(維鳩)
매라-옥구 혹은 옥구 부근

위의 두 학자간의 위치 비정 가운데 필자는 천관우의 비정이 좀더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은 동성왕 당시의 정황을 생각하고 또 영산강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대형 독무덤과 돌방무덤을 볼 때 동성왕 18년(498)에 탐라를 치기 위해 친히 왕이 광주에 온 기사로 전남지방이 이 때는 이미 백제의 영속 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면에까지는 확고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로왕으로부터 동성왕 12년까지는 왕족을 다수 왕, 후로 임명하였고 또 동성왕 17년에는 대성 팔족(大姓八族)을 왕, 후로 임명하였으나 왕, 후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는 않았다.

한편 왕, 후로 임명하였어도 실제로 그 지역에 파견한 것 같지는 않다. 또 좌, 우현왕은 지방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그 명칭상에 의하면 중앙관료 조직 내에서 국왕을 밀접하게 보좌해 주는 제도로 보는 사람이 많다.

백제는 고구려의 침입으로 475년(문주왕 1)에 서울을 남쪽 웅진(熊津. 현 공주)으로 옮긴 후 이에 새로운 정치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서(周書)나 북사(北史)에 나오는 22부의 중앙관서(中央官署. 내관 12, 외관 10)는 웅진 천도 이후 동성왕 말년경(末年頃)에 이루어진 제도일 것으로 보며, 이 제도는 우리 함평지방을 비롯해 전남북 전역에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관부(內官部) 12부는 전내부(前內部), 곡부(穀部), 육부(肉部), 내경부(內廐部), 마부(馬部), 도부(刀部), 공덕부(功德部), 약부(藥部), 목부(木部), 법부(法部), 후궁부(後宮部)로 왕실 소속의 재산과 장전(莊田) 노예 등을 관할하는 업무를 꾸려 나갔다.

외간부(外官部) 10부는 사군부(司軍部. 군사관계 업무), 사도부(司徒部. 교육, 의례), 사공부(司空部. 경제, 재정), 사관부(司冠部. 형벌), 점구부(點口部), 외사부(外舍部), 객부(客部), 조부(조部), 일관부(日官部), 도시부(都市部) 등이다.

좌평 이하 16품에 속한 관원들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 일했다.

이처럼 관부를 세분시킨 것은 귀족 세력의 권력 집중을 막고 상대적으로 주권의 전제화(專制化)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본다.

고위 관직자들을 3년 1교대로 바꾸었는데 이는 장기 집무에 따른 부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서에는 당시 세금의 징수와 형벌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세금은 포목과 비단과 실과 삼, 쌀 등으로 받는데 풍년과 흉년에 따라 차등 있게 받는다. 그들의 형벌 처결 방법에는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나 전쟁에서 퇴군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는 목을 벤다. 도둑질을 한 자는 귀양을 보내고 훔친 물건의 갑절을 받아들인다. 여자로서 간음을 범한 자는 식구들을 몰수 해다가 남편 집의 종으로 삼는다."

제3절 백제의 행정구역(行政區域)과 함평

백제의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百濟本紀) 온조왕 31년(서기 13)조와 33년(서기 15)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온조왕 31년(서기 13)조

"봄. 정월에 국내의 민호를 나누어 남북부로 하였다(…春正月分國內 民戶爲南北部)."

○ 온조왕 33년(서기 15)조

"8월. 가을에 추가하여 동서 2부를 두었다(…秋八月 加置東西二部)."

이 기록으로 온조왕 대에 백제는 영역을 동서남북 4부로 나누었고 중앙을 합해 5부제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래 5방 조직(五方組織)이나 왕부족연맹(王部族聯盟)은 몽고나 서역(西域) 등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여와 고구려가 왕부적조직(王部的組織)을 가진 경험을 백제도 따랐을 것으로 본다.

부(部)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으로 대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다.

○ 다루왕 29년(서기 59)조

"봄, 2월 왕이 동부에 명하여 우곡성을 쌓아 말갈을 방비케 하였다(春二月 王命 東部築牛谷城以備靺鞨)."

○ 다루왕 33년(서기 63)조

"동부 흘우(屹于)가 말갈과 싸워 마착산(馬着山) 서쪽에서 이겨 죽이고 포획함이 실로 많았다. 왕이 기뻐하고 흘우에게 상으로 말 10필과 조(租) 500석을 내렸다."

이로 볼 때 부(部)는 노력 동원의 단위가 되고 전쟁도 치루는 지방 행정단위임을 알 수 있다.

이 5부제는 비유왕(毗有王. 427~455)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본다. 그것은 비유왕 2년 기록에 4부를 돌아보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우리 함평에는 적용되지 안했다. 그것은 이때는 함평이 백제의 영속 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웅진시대(熊津時代)의 지방통치조직은 담로제(擔魯制)였다. 이 때는 우리 함평도 백제의 지배

하에 들어간 때로 보기 때문에 이 담로제는 우리 함평지역과도 직접 관련되는 제도이나 함평에 관해서는 이에 관련된 자료가 전하는 것이 없어 자세한 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담로제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읍을 중심으로 지방통치를 행하는 거점지배 방식을 택한 것이다. 지방의 중심지역을 담로라 할 수 있다면, 담로지역에는 통치를 위한 어떤 형태든 구조물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 구조물을 통상 성(城)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담로는 이 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통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는 학자간에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이병도 박사도 담로(擔魯)를 "드르" "다라"의 한문 표기로 보고 읍(邑) 또는 성(城)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담로는 지방통치의 중심지인 만큼 담로를 중심으로 몇 개의 성이 편제되어 있었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어울리는 성을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찾아보면 적현성(赤峴城), 가림성(加林城), 북한산성(北漢山城), 사정성(沙井城) 등을 담로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성들은 군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89]

웅진시대 백제는 다음의 양서 제이전 백제조(梁書諸夷傳百濟條)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 담로를 편성되어 있었다.

> "치도를 고마성(固麻城)이라 부르고 읍을 담로라고 한다. 중국의 군현과 같은 것이다. 그 나라에는 22개의 담로가 있는데 모두가 자제 종족(子弟宗族)으로 분담하였다."

이 제도가 중국에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 상당 기간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담로제도는 3세기 초 구수왕대(仇首王代)에 처음 보이나 이때는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웅진시대 후기에서 사비시대(泗비時代)에 이르러 지방 제도가 개편되어 수도를 5부로 나누고[90] 각부는 다시 5항(巷)으로 나누었다. 부(部)에는 500명의 군대를 두었다.[91] 그리고 수도의 가호는 1만여 호였다.

지방은 5방(方)으로 나누고 각 방에는 방령(方領) 1인을 두었는데 달솔을 임명하였고 방령은 700~1,200명의 군대를 통솔하였으며 방령을 보좌하는 방좌(方佐) 2명을 두었다. 각 방은 많으면 10개 군(郡), 적으면 6~7개 군을 두었고 군에는 군장(郡將) 3인을 임명했다.

군장은 덕솔 또는 은솔을 임명했고 군의 예하인 현(縣)에는 도사(道使) 또는 성주(城主)를 두었다.

지방조직의 기초단위는 백제 역시 성(城)과 촌(村)이었다. 성은 부족국가시대부터 있던 것으로 계속하여 일정지역의 중심지로 남았을 것이다.

우리 함평은 5방 중에서 남방인 구지하성(久知下城)에 속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으나 위치 비정을 통해 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이는 중방인 고사성(古沙城)에 속해야 옳다.

그런데 천관우가 <표>에서 중방과 남방이 바뀌었다고 주장하였다. 고사성(古沙城)의 위치 비정이 고사부리(古沙夫里. 고부)에 틀림없다면 이수(里數)도 구지하성과 바뀌었으며 방위도 바뀌

89) 김주성(金周成). 『전남도지』 3권. 전라남도, 1993. 34쪽.
90) 수도 5부 : 상부(上部), 전부(前部), 중부(中部), 하부(下部), 후부(後部).
91) 북사(北史) 백제전에 의함.

었다.

따라서 천관우의 주장은 옳은 것으로 이해되며 <표>를 천관우 학설에 따라 수정하면 우리 함평은 김제군 금구(金溝)로 비정되는 중방의 구지하성(久知下城)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읍시 고부면으로 비정하는 남방의 고사성에 속하는 것이다.

<표> 남천(南遷) 후 백제의 왕성(王城) 및 5방(方)

방(方)	중 국 사 서 (史書)				현 위치(現位置)	참 고
	주서(周書) 백제전	북서(北書) 백제전	괄 지 지 (括志地)			
왕 성 (王城)	고마성 (固麻城)	구발성 (俱拔城) 일명 고마성	왕성(王城) 거적성 (居狄城)	국남(國南) 260리(里)	웅진 : 고마성(固麻城) 부여:구발성(俱拔城)	공주와 부여가 혼동되었음
중 방 (中方)	고사성 (古沙城)	고사성	고사성	국남 260리	정읍고부(井邑古阜) 고사부리(古沙夫里)	남방(南方) 이어야 옳다
동 방 (東方)	득안성 (得安城)	득안성	득안성	국동남 100리	논산은진(恩津) 덕근(德根)→덕은(德恩)	
남 방 (南方)	구지하성 (久知下城)	구지하성	변성(卞城)	국남 360리	김제금강구(金堤錦江口) 구지지산(九知只山)	중방(中方) 이어야 옳다.
서 방 (西方)	도선성 (刀先城)	도선성	역광성 (力光城)	국서 350리	대흥서산(大興瑞山) 임존성(任存城) ?	
북 방 (北方)	웅진성 (熊津城)	웅진성	웅진성 (熊津城) 일명 고마성	국동북 60리	주(公州)	부여로 천도한 후의 공주

『삼국유사』에 의하면 백제가 멸망할 당시 백제의 행정구역은 5부(部) 37군(郡) 200성(城) 76만 호였다.

함평은 물아혜군(勿阿兮郡. 현 무안군)의 속현으로 있었고 당시에는 굴내현(屈乃縣. 현 함평읍, 손불, 신광, 대동면)과 다지현(多只縣. 현 나산, 해보, 월야면)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군, 현의 하부조직인 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 200여 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 함평에 있는 기산성(箕山城), 금성산성(金城山城), 철성산성(鐵城山城), 월악산성(月岳山城), 보평산성(普平山城) 등도 200여 성 중의 하나로 구실했을 것으로 본다.

또 이들 성 중 굴내현의 치소는 함평읍 자풍리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서남해안에서 가장 큰 규모인 연장 4㎞의 대동면 용성리 금성산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다지현의 치소는 철성산성의 배후인 나산면 초포리에 있다가 월악산성의 배후인 월야면 월계리로 옮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유적 유물 항을 볼 것>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우리 군과 관계되는 기재 분을 가려 뽑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무안군(務安郡)은 본디 백제의 물아혜군(勿阿兮郡)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지금도 인습한다. 4현(縣)을 거느렸다.

함풍현(咸豊縣)은 본디 백제의 굴내현(屈乃縣)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지금까지 인습한다.
다기현(多岐縣)은 본디 백제의 다지현(多只縣)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지금의 모평현(牟平縣)이다.
해제현(海際縣)은 본디 백제의 도제현(道際縣)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임치현(臨淄縣)은 본디 백제의 고록지현(古祿只縣) 일명 개요(開要)인데 경덕왕 때 고친 이름이다.
여황현(艅艎縣)은 본디 백제의 수천현(水川縣)인데 경덕왕 때 바꾸어 오늘에 이른다.

백제 때에 우리 전남에 있었던 군, 현을 삼국사기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과 대조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백제의 주(州), 군(郡), 현(縣)의 수는 모두 147개 이다.

<표> 전남지방의 백제군현(百濟郡縣)

주(1) 군(14 내기군 제외) 현(44)

주,군명(州郡名)	속 현 명(屬縣名)		현 재 지 명	참 고
물아혜군 (勿阿兮郡)			함평 학교, 엄다. 무안 무안읍, 청계, 몽탄 일원	
	굴 내 현	屈 乃 縣	함평군 함평읍, 손불, 신광, 대동면	
	다 지 현	多 只 縣	〃 나산, 해보, 월야면	
	도 제 현	道 際 縣	무안군 해제면	일명 음해(陰海)
무진주(武珍州)			광주, 광산 일부 지역	일명 노지(奴只)
	미동부리현	未冬夫里縣	나주시 남평, 다도, 봉황, 금천, 산포	
	복 룡 현	伏 龍 縣	광산구 평동, 삼도, 송정 일부 지역	
	굴 지 현	屈 支 縣	담양군 창평, 고서면	
분차군(分嵯郡)			보성 벌교. 순천 낙안, 외서, 별량 지역	일명 부사(夫沙)
	조조례현	助助禮縣	고흥군 남양, 과역, 대서면	
	동 로 현	冬 老 縣	보성군 조성면 지역	
	두 힐 현	豆 肹 縣	고흥군 두원, 고암면	
	비 사 현	比 史 縣	고흥군 동강면. 보성군 벌교, 조성	
복홀군(伏忽郡)			보성군 벌교읍 미력면	
	마사량현	馬斯良縣	보성군 회천, 웅치면	
	계 천 현	季 川 縣	장흥군 장평, 장동, 유치면	
	오 차 현	烏 次 縣	장흥군 관산, 대덕읍	
	고마미지현	古馬彌知縣	〃 장흥읍, 부산, 안양면	
추자혜군 (秋子兮郡)			담양군 담양읍, 무정면	
	과 지 현	菓 支 縣	곡성군 옥과, 입, 겸, 오산면	일명 과혜(菓兮)
	율 지 현	栗 支 縣	담양군 금성면 지역	
월라군(月奈郡)			영암군 영암읍, 군서, 덕진면	
	반나부리현	半奈夫里縣	나주시 반남면	
	아로곡현	阿老谷縣	영암군 금정면. 나주시 세지면	
	고 미 현	古 彌 縣	〃 미암, 학산, 삼호면	
	고미이현	古彌伊縣	장성군 장성읍, 북일면	고시이현(古尸伊縣)
	구사진혜현	丘斯珍兮縣	〃 진원, 남면	
	소비혜현	所非兮縣	〃 삼계, 삼서, 동화, 황룡면	

주,군명(州郡名)	속 현 명(屬縣名)		현 재 지 명	참 고
무시이군 (武尸伊郡)			영광군 영광읍	
	상 로 현	上 老 縣	전북 고창군	
	모양부리현	毛良夫里縣	〃 〃	
	송미지현	松彌知縣	〃 〃	
감평군(欿平郡)			순천시 승주	일명 무평(武平)
	원 촌 현	猿 村 縣	여수, 여천시	
	마 로 현	馬 老 縣	광양시 지역	
	돌 산 현	突 山 縣	여천군 돌산읍	
이릉부리군 (尒陵夫里郡)			화순군 능주면	일명 죽수(竹樹)부리 인부리(仁夫里)
파부리군 (波夫里郡)			보성군 복내면	
	잉리아현	仍利阿縣	화순군 화순읍	일명 해빈(海濱)
발라군(發羅郡)			나주시	
	두 힐 현	豆肹 縣	나주시 다시면	
	보어산군	寶於山縣	나주시 봉황면	
	수 천 현	水 川 縣	광산구 본양, 임곡동	수입이(水入伊). 조선조 함평현
도무군(道武郡)			강진군 강진읍 북부, 성산, 작천면	
	고서이현	古西伊縣	해남군 마산, 계곡면	
	동 음 현	冬 音 縣	강진군 강진읍 남부, 도암면	
	새 금 현	塞 琴 縣	해남군 현산, 삼산면	일명 투빈(投濱)
	황 술 현	黃 述 縣	〃 황산, 문내, 화원면 지역	
인진도군 (因珍島郡)			진도군 고군면	
	도 산 현	徒 山 縣	진도군 군내면	일명 원산(猿山)
	매구리현	買仇里縣	〃 임회면	해도(海島)
아차산군 (阿次山郡)			신안군 압해면	
	갈 초 현	葛 草 縣	영광군 군남면	아로(何老), 곡야(谷野)
	고록지현	古祿只縣	영광군 백수읍, 염산면 또는 무안군 해제면 임수리, 신안군 임자도	일명개요(開要) 조선조 함평현
	거지산현	居知山縣	신안군 장산면	일명 안릉(安陵)
욕내군(欲內郡)			곡성군 곡성읍, 죽곡, 목사동면	
	둔 지 현	遁 支 縣	순천시 주암면	
	구차례현	仇次禮縣	구례군 지역	
	두부지현	豆夫只縣	화순군 동복, 이서, 북, 남면	
내기군(奈己郡)			미상(未詳)·이병도 경북 영주 비정 삼국사기 권 37 백제조에는 나와 있으나 경덕왕 때 개편한 권 36에는 나와 있지 않다.	

한편 유창균(兪昌均)이 『한국 고대 한자음의 연구』 Ⅱ(1981, 영남대학교 출판부 간)에서 일본서기(日本書記)에 나오는 지명을 백제의 군현과 연관하여 위치를 비정한 바 있다.

우리 함평지방을 비롯하여 전남지역에 있었던 군현에 비정한 곳을 가려 뽑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다.

<표 4> 일본서기에 나타난 지명의 백제군현 비정

일본서기(日本書記)의 지명(地名)	동가명자음(仝假名字音)	백제(百濟)	동재구음(仝再構音)	참 고
곡나(谷那)	コクナ	굴내(屈乃. 함풍현-咸豐縣)	kər-nar	함평군 함평읍 일원
고난성(高難城)	カウナンノサシ	〃	kər-nar	〃
미저(彌氐)	ミチ	미동부리(未冬夫里)	mər-sər	나주시 다도, 봉황, 남평 일원
모궁(牟弓)	ムチ	무진주(武珍州. 무주-武州)	mər-tər	광주시 일원
미자지진(尾資之津)	ビシノツ	분차(分嵯. 분령현-分嶺縣)	bər-tsa	순천시 낙안, 보성군벌교읍 일원
도도지유산(都都支留山)	ツツキルノムレ	조조례(助助禮. 충열-忠烈)	dədə-li	고흥군 남양, 과역면
고연단경(古連旦經)	コレンタンケイ	구사진혜(丘斯珍兮.진원현)	kəsər-tər-ki	장성군 진원면 일원
침복기고(枕服岐古)	シムフクキサシ	소비혜(所非兮. 삼계-森溪)	səbər kər	장성군 삼계면 일원
구사모라(久斯牟羅)	クシムラ	구사진혜(丘斯珍兮.진원현)		장성군 진원면 일원
고해진(古奚津)	コケッ	구해소(舊奚所. 강진-康津)	kəkər	강진군 칠양면
침미다례(枕彌多禮)	トムタレ	도무(道武. 양무군-陽武郡)	təmər-dar	강진군 북부 지역

위 표에서 보듯이 유창균은 곡라와 고난성을 백제의 굴내현(현 함평군의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 지역)에 비정하고 있는데, 곡라에 대해서 김정호(金井昊. 현 진도문화원장)는 광양의 골약부곡(骨若部曲) 아니면 해남의 군곡(郡谷)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후학의 깊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제4절 백제의 문화와 함평

백제의 문화는 북방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백제 전형의 섬세하고 우아한 문화를 형성시켰고 이 문화는 신라로 이어져 신라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우게 하였다.

신라의 중요 사찰과 탑 등이 백제에서 초빙해간 목수나 석공에 의해 건립된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백제가 건축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인 것이다.

그런데 백제문화는 왕성했던 고구려와 삼국을 병합한 신라문화에 가리어 그 진가가 오늘까지

도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백제문화의 진수를 보여준 것은 무령왕릉(武寧王陵)의 발굴이 이루어진 뒤부터이다. 무령왕릉의 유물은 백제 특유의 섬세 우아한 문화를 보여 주었고 고구려나 신라문화에 결코 손색이 없는 찬연한 문화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무령왕릉이 발굴 조사되면서 그늘에 가렸던 백제문화가 햇볕을 보게 되고 백제문화 정립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백제 사람들이 한자(漢字)를 익힌 것은 3세기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古爾王) 51년(284년)조의 내용에서도 그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 고이왕(古爾王) 51년(284년)조

"이 해에 백제가 왜국에 서적을 보냈다.[92] 왜는 처음에 문헌이 없다가 이에 이르러 비로소 백제를 통해 중국 문자를 얻었고 의복의 제도가 없다가 백제왕이[93] 재봉하는 여공(女工)을 보내므로 하여 비로소 복색이 있게 되었다."

○ 근구수왕(近仇首王) 1년(375)조

"백제가 처음으로 박사를 두었다. 백제는 개국한 이래로 문자 기록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처음으로 문자로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 고흥을 박사로 삼은 것이다. 백제의 풍속이 옛 책과 역사책을 읽기를 좋아하며 관리가 글을 지을 줄 아는데 능했고 또 의약(醫學), 약학(藥學), 시귀(蓍龜)[94], 상법(相法),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술수(術數)를 알았다."

○ 주서 이역전 백제(周書異域傳百濟)조

"모두 고서(古書)와 사서(史書)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 좀 뛰어난 자는 자못 글을 지을 줄 안다. 또 음양과 오행을 터득하고 송나라의 원가력(元嘉曆)[95]을 사용하여 인월(寅月)로 세수(歲首)를 삼는다.[96] 또 의약과 복서(卜筮)와 점치고 상(相)보는 일을 안다."

위의 기록들을 보면 우선 백제에는 고이왕대에 이미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중국 서적을 많이 들여와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에 이미 일본에 한문 서책을 보내 그들을 깨우칠 정도였는데, 거의 1세기가 지난 375년 근구수왕 1년에야 역사를 글로 쓰도록 했다니 어찌된 일일까?

그것은 이 해에 법적인 사관(史官)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375년은 근초고왕이 영산강유역을 비롯한 전남북지방의 마한을 복속시켰다는 369년으로부터 6년 후이다. 따라서 마한 영속이었던 우리 함평지방을 비롯한 영산강유역의 역사가 소상히 기록될 법한 일인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 이에 대해서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으니 이 또한 어찌된 일일까?

고흥에게 쓰도록 했다는 백제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또한 의문으로 앞으로 풀어 나가야할

92) 해동기에는 왜왕 응신(應神) 15년 갑자년에 백제가 서적을 보냈다고 하였다.
93) 왜사에는 백제왕 아화(阿花)로 기록되어 있다.
94) 점칠 때 쓰는 가새풀(시초. 비수리라고도 함)과 거북(태워서 길흉을 점친다)을 말함.
95) 송문제(宋文帝) 원가 20년(元嘉. 443) 하승천 등이 찬정해 2년 후인 22년(445)부터 널리 사용하여 명성을 얻게 되었다.
96) 음력 정월을 인(寅)이 든 달로 삼는다는 뜻.

과제이다. 아직 이 시대를 전후한 명문이 들어 있는 기물이나 고분의 껴묻기 거리가 우리 전남 지방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당시 마한 영속으로 보는 우리 지방에 한자가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백제가 284년에 일본에까지 책을 보내 문자를 전수시켰다면 그 이전에 마한에도 한자가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백제의 복제(服制)는 어떠했을까? 앞 항 관제에서 관리와 임금의 복제는 살펴보았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의 복제는 어떠했을까. 이에 대해서 삼국사기 잡지(雜誌) 복제조에서, 백제의 의복제도는 잘 고찰 할 수 없으므로 중국 역대 사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적는다며 다음과 같이 각종 사서의 실린 고구려의 복제를 소개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 북사(北史) 고구려전

"고구려 사람은 모두 머리에 절풍(折風)을 썼는데 모양이 고깔 같다. 사인(士人)은 두 개의 새 깃(鳥羽)을 더 꽂으며 귀한 사람은 그 관(冠)을 소골(蔬骨)이라 말하는데 자줏빛 비단을 많이 써서 이를 만들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 의복은 큰 소매 적삼과 통 넓은 바지를 입고, 흰 가죽 띠를 띠고 노란 가죽신을 신고, 부인은 치마저고리에 선(襈)을 더한다."

○ 북사(北史) 백제전

"사람들은 신라 고구려 왜 등이 섞여 있고 또 중국 사람도 있다. 그들의 음식과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 통전(通典)

"백제는 그 의복이 남자는 대략 고구려와 같으며 부인의 옷은 도포와 흡사하여 소매가 좀 컸다."

○ 주서 이역전

"백제 남자의 옷은 고구려와 비슷하다. 그 나라는 땅이 몹시 습하고 기후는 매우 따뜻하다. 오곡과 여러 가지 과실, 모든 채소와 술과 식혜, 갖가지 술안주와 반찬, 그리고 약품들은 중국과 같다. 그러나 다만 나귀나 노새, 양, 오리 같은 등속이 없다."

○ 남사 동이열전 백제(南史東夷列傳百濟)

"언어와 복장은 고구려와 거의 같다. 모자를 관(冠)이라 부르고, 저고리를 복삼(復衫), 바지를 단(褌. 홑옷)이라한다. 그 나라 말에는 중국의 말이 섞여 있으니 이것 또한 진, 한(秦漢)의 유속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모자를 관, 여자의 윗옷을 단삼(單衫) 또는 적삼(赤衫)이라고 부르고 바지를 홑바지라 하는데 이 때의 명칭이 그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민가(民家)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다만 서울의 풍납동(風納洞)의 초기 토성에서 경질의 고대 기와편과 초석(礎石)이 출토된 점을 보아 이 때에 이미 국가의 중요 건물은 기와집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祀禮)에 대해서도 삼국사기 잡지의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며 고기(古記)와 중국 사서의

기록을 인용하였다.

○ 책부원구(冊府元龜)

"백제는 매년 봄 2월, 여름 5월, 가을 8월, 겨울 11월에 왕이 하느님 및 오제(五帝)의 신께 제사하고 그 시조 구태묘(仇台廟)를 나라 동쪽에 세우고 연중 네 차례 제사한다."

○ 김부식의 주석

"해동고기(海東古記)를 살펴보면 혹은 시조 동명이라 하고 혹은 시조 우태라고 하였으며 북사 및 수서에는 모두 '동명의 후손에 우태가 있어 나라를 대방에 세웠다.'고 하였는데 책부원구에는 '시조 구태'라 하였다. 그러나 동명이 시조가 된 사적이 명백하니 그 나머지는 믿을 수 없다,"

○ 고기(古記)

"온조왕 20년 봄 2월, 단을 쌓아 천지에 제사하였다. 38년 겨울 10월, 다루왕(多婁王) 2년 봄 2월, 고이왕(古爾王) 5년 봄 정월, 10년 봄 정월, 14년 봄 정월, 근초고왕(近肖古王) 2년 봄 정월, 아신왕(阿莘王) 2년 봄 정월, 전지왕(전支王) 2년 봄 정월, 모태왕(牟太王) 11년 겨울 10월에도 아울러 위와 같이 제사를 수행하였다. 책계왕(責稽王) 2년 봄 정월, 분서왕(汾西王) 2년 봄 정월, 계왕(契王) 2년 여름 4월에도 아울러 이와 같이 수행하였다,"

○ 북사 열전 백제(北史列傳百濟) 및 주서 이역전 백제(周書異域傳百濟)

"아침에 절할 때(朝拜)나 제사를 지낼 때는 관의 양쪽 곁(兩廂)에 새의 깃을 꽂는다. 부모상이나 남편 상에는 3년 동안 복(服)을 입으며 그 나머지 친척들은 장사만 치르면 복을 벗는다.""절하고 뵙는 데는 양손을 땅에 짚는 것을 공손하다고 한다."

앞의 기록을 보면, 3년 복을 입은 우리의 복제가 백제부터 전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백제의 민간 풍속 중 인사드리는 방법으로 절하고 뵙는 데는 양손을 땅에 짚는 것을 공손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앞 장(章) 마한 풍속에서 마한 사람은 꿇어 앉아 인사드릴 줄을 모른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마한 사람들이 백제에 영속된 이후 이러한 예법을 받아들여 오늘에 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혼인의 풍습은 주서, 북사, 수서에 중국과 같다고 하였고 부인들은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않고 처녀 때는 머리를 땋아 뒤로 드리웠다가 시집을 가면 두 갈래로 나누어 머리 위로 틀어 올린다고 하였다. 여자의 머리무세는 지금까지도 전승되는 풍습이다.

중국 사서의 기록에는 없지만 남자도 관례(冠禮. 성인이 됨을 뜻하는 예식)를 올리기 전에는 머리를 땋아 뒤로 드리웠는데 이를 편발(編髮.辯髮)이라 하였고 이 편발은 몽고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민족의 공통된 풍습이었으며 우리나라는 고려 공민왕 때 이를 폐지하였다.

북사에 의하면, 악기로는 고각(鼓角)[97], 공후(箜篌)[98], 쟁(箏)[99], 우(竽)[100], 호(篪)[101], 적

97) 군중(軍中)의 호령에 쓰이는 북과 뿔로 만든 나팔.

98) 악기의 이름으로 수(竪)공후, 와(臥)공후, 봉수(鳳首)공후의 세 가지가 있다. 수공후는 서구의 하아프와 비슷하고 와공후는 슬(瑟. 중국의 악기)과 비슷하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공후는 백제금(百濟琴)이라하며 수공후이다. 감후라고도 한다.

99) 거문고의 일종으로 옛날에는 5현(絃)이었고 대나무로 만들었다. 모양은 공(거문고와 비슷한 현악기)과 비슷하다. 진(秦)의 몽염이 고쳐서 12현 나무로 만들고 모양도 변하여 슬과 같이하였다. 당 이후에는 13현을 사용한다.

100) 피리의 일종으로 중국자(尺)로 4자 2치(寸)며 옛날에는 36개의 대나무관으로 만들었으나 후세에는 19개로 만들었다. 대나무를 재료로 하고 모양은 뒤얽혀 있어 새의 집을 본떴다.

(笛) 등의 악기가 있고, 오락으로는 투호(投壺), 저포(樗蒲)[102], 농주(弄珠)[103], 악삭(握槊)[104]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장기와 바둑을 좋아했다고 하였다.

또 북사, 수서 동이열전 백제(隋書東夷列傳百濟)에 "백제에는 여덟 씨족의 대성(大姓)이 있으니 사씨(沙氏), 연(燕)씨, 협(劦)씨, 해(解)씨, 정(貞)씨, 국(國)씨, 목(木)씨, 묘(苗)씨 이다." 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백제의 대성팔족(大姓八族)이 백제 역사의 전 시기를 통하여 존재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사비시대 백제 귀족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데 지나지 않으며 이들 가문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성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한성시대에는 진(眞)씨와 해씨 같은 왕비족이 왕족과 더불어 귀족 세력의 중심을 이루었으나 웅진시대에는 이 같은 전통적인 가문 이외에 백(苩)씨, 연씨, 사씨(沙宅), 목(木. 木劦)씨 등 새로운 재지세력이 대두하여 신, 구 양 세력이 균형을 이루었고, 사비시대에는 연씨와 더불어 특히 사씨(沙宅)의 정치적 사회적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대성팔족에 대하여 삼국사기 및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이들 8대 성과 왕족들이 중신으로 임용된 수를 시대별로 파악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105]

8성에 관한 사료로는 수서, 북사, 신당서의 백제전과 괄지지(括地志), 통전의 백제조,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각 책마다 간오 또는 오사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통전(通典)에 "사, 연, 협(劦의 음 狹), 해, 진(眞.貞), 국, 목, 백(苩의 음 白. 苗)씨를 가장 정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106]

<표> 백제 중신(重臣)의 성씨 일람표

시대 \ 성씨		연	목협	해	진	국	목	묘	왕족	기타	계
한성시대	온조(溫祚)~사반(沙伴)			1	2				1	1	5
	고이(古爾)~비류(比流)			1	4				4	3	12
	근초(近肖)~개치(蓋齒)			3	4				3	1	12
웅진시대	문주(文周)~삼근(三斤)			1	1				1		3
	동성(東城)~무녕(武寧)	2			1			1	1	1(1)	8(1)
사비시대	성왕(聖王)~무왕(武王)	1(1)	(1)	1			(2)	1		1(8)	4(14)
	의자왕(義慈王)					(1)			(2)	14(8)	14(14)
계		3(1)	(1)	7	12	(1)	(2)	2	10(2)	21(17)	58(29)

범례 ◆전거 : 삼국사기, 일본서기 ◆( )는 일본서기에 의함 ◆제2품 덕솔(德率) 이상

101) 악기의 일종으로 대나무로 만들었다. 중국자로 긴 것은 1자 4치며, 짧은 것은 1자 2치다. 8~9개의 구멍이 있으며 상부의 한 구멍을 불어 소리를 낸다.

102) 주사위 같은 것을 나무로 만들어 던져서 이기고 짐을 겨루던 놀이. 윷과 비슷하다.

103) 구슬을 가지고 노는 놀이로 능완주라고 한다.

104) 쌍륙(雙陸)과 비슷한 놀이의 도구로서 통아희구에 보면 악삭, 장행국, 파라새, 쌍육은 모두 한 가지 종류이니 후위 때 이소가 말하기를 "조식이 장행국을, 호왕이 악삭을 만들었는데 악삭은 역시 쌍육의 일종이다."라고 했다.(이민수 '조선전' 220~221쪽)

105) 양기석. 『웅진시대의 백제 지배층 연구』, 8쪽.

106) 이홍직(李弘稙), 『백제인명고』, 333쪽.

백제 문화의 흐름은 그들의 유적 유물인 묘제(墓制)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돌무지무덤과 돌방무덤은 백제의 대표적인 묘제였다.

한강유역에 많이 남아있는 백제 초기의 돌무지무덤(積石塚)이나 돌방봉토분(石室封土墳)이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공주 송산리(松山里)에서 부여 능산리(陵山里)로 이어지는 고분군은 구조면에서는 위축되나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마한시대의 함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평을 비롯한 전남지역에서는 백제의 대표적인 묘제인 돌무지무덤이나 돌방무덤 대신 널무덤이나 독무덤을 사용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체가 마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5세기 말, 6세기 초에 들어서면 전남지역에서도 돌방무덤이 사용되기 시작하므로 전남지역이 이때 백제에 복속된 것으로 이해됨도 설명한 바가 있다.

전남지방에서도 우리 함평지역이 돌방무덤의 분포 기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전남지역의 돌방무덤 발굴 사례는 극히 미미하며 그것도 우리 함평의 월야면 월계리 12개분(墳), 예덕리 1개 분, 합 13분을 제하면 다른 지방의 예는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다.

함평지역의 돌방무덤은 독무덤 밀집지역에 함께 섞여 있는 것이 특색이다. 함평읍 대덕, 진양리 일대, 학교면 마산리 표산, 나산면 초포리 사산, 월야면 예덕, 월계리 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또 13개 분의 축조 연대를 6세기 초, 또는 중엽으로 보고 있으나 출토 유물은 백제와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 없어 복속 이후에도 마한문화를 고집스럽게 고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예덕리 신덕 장고형고분의 돌방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봉토의 모습이 닮아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적 유물 항에서 자세히 언급함>

제5절　백제의 토속신앙(土俗信仰)과 종교

1. 소도(蘇塗. 솟대, 짐대, 솟대가)

백제의 토속신앙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의 신앙을 토속신앙이라 할 때 그것은 무속신앙(巫俗信仰)이 되고 “무(巫)”는 신라에서 왕의 명칭인 “차차웅(次次雄)”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무격신앙(巫覡信仰)이 고대 우리나라에서 갖는 비중은 참으로 큰 것이다.

이 무격신앙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 마한 지역에 존재한 소도 신앙인 것이다. 소도신앙은 앞장 마한의 풍속에서 살펴 본 바가 있다.

1970년 대전 괴정동(槐亭洞)에서 소도 그림과 다른 면(面)에 농경문양(農耕文樣)이 새겨진 농경문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은 청동기 문화의 소산(所産)인 동시에 농경 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한다.

앞서 말했지만 "무(巫)"는 "정(政)"과 "교(敎)"를 지배했으나 마한에서는 "정(政)"과 "제(祭. 敎)"를 분리하여[107]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天君)이 있었음을 위지 동이전 등 중국의 사서에서 볼 수 있다.

소도신앙은 초기 철기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청동기 보다 우수한 철제 농기구나 무기를 가지고 등장한 북방 유이민(流離民)의 우세 지배 체제에 대한 반항이 소도신앙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철기를 가진 부족이 천신족(天神族)의 관념으로 정치적 지배자가 되었다면 토착부족은 소도신앙을 고수함으로써 제사장(祭祀長) 층으로 등장하였을 것이다. "정(政)"과 "제(祭)"를 분리한 것은 여기에 까닭이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마한을 통합한 백제는 새로 영속된 지역에 강력한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지배권에 대한 반항으로 소도신앙은 굳어졌고 결국은 민간신앙으로 뿌리를 내려 오랜 기간 지속되었을 것이다.

소도신앙의 제사장인 천군은 후일 일관(日官) 등의 직책으로 바뀌어졌다고 보며 중국문화의 물결은 천신(天神) 숭배의 사상을 유학(儒學)으로 소도신앙을 불교로 흡수 시켰을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소도신앙은 뿌리를 잃어 후일에는 농가에서 풍년을 비는 뜻으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장대에 매달아 집 앞에 세우거나, 액맥이를 한다며 정월 보름 경에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 그 끝에 오리와 오색 헝겁을 달아 세우는 짐대 풍속으로, 또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 장대 끝에 붉은 칠을 하고 거기에 푸른 칠을 한 나무로 용을 만들어 매달아 마을 어귀에 세우는 솔대 풍속으로 바뀌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우리 함평군 곳곳에서 짐대가 세워진 마을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그 풍속마저 끊겨 "솟대거리""솔대거리"라는 지명이 전할 뿐이며 그 지명에 대해 설명해 줄 사람도 드물게 되었다.

함평읍 광교와 옥천 마을 사이를 "솔대거리"라 부르는 촌로들이 더러 있는데 이 지명이 마한의 소도가 그대로 전해오는 것인지 후일 "솔대쟁이"[108] 들의 놀음 터여서 붙여진 것인지 모른다.

"솔대거리"라는 지명은 나산면 나산리 등 군내에 여러 곳이 있다. 우리 함평은 유독 다른 지방보다 짐대나 솟대 사상이 뿌리 깊었다고 본다.

2. 불교(佛敎)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침류왕(枕流王) 원년(384년)이다. 진(晉)의 승려 마라란타(摩羅難陀)에 의해 전교된 불교는 385년에는 한산(漢山)에 불사(佛寺)가 이룩되고 승려 10여명이 제도(濟度)되었다.

107) 1987.2에 발굴한 함평군 나산면 초포리 사촌(沙村) 돌널무덤에서 발굴한 청동기 중에 무기류와 의기류가 함께 출토되어 명실공히 "정(政)"과 "제(祭)"를 관장한 실력자의 무덤으로 본 사례도 있다.

108) 솟대 끝에서 재주를 부리는 사람. 일종의 광대.

백제 불교는 그 특성이 율학(律學) 연구에 있었다. 미륵불광사사적(彌勒佛光寺事蹟)에 따르면 백제의 승려 겸익(謙益)이 성왕(聖王) 4년(526)에 인도에서 범승(梵僧) 배달다삼장(倍達多三藏)과 함께 범본 오부율(梵本五部律) 가지고 입국하여 28명의 승려와 함께 힘을 합해 율부 27권을 번역하였다.

또 담욱(曇旭)과 혜인(惠仁)은 이에 대한 율소(律疏) 36권을 저술하였으며 번역된 신율의 서문을 썼다고 한다. 그리고 성행한 백제의 율학은 위덕왕(威德王) 35년(588)에는 일본의 최초 니승(尼僧)인 선신니(善信尼)가 백제에 유학하여 육법계(六法戒)를 받고 이듬해 비니구족계(比尼具足戒)를 받은 후 귀국하여 일본 율학(律學)의 시조가 되었다.

위덕왕 후기에는 법화삼매(法華三昧)를 증득(證得)하고 귀국한 현광(玄光)이 교화에 정진함으로 백제의 법화불교를 선관적(禪觀的)이며 계율적이고 참회적(懺悔的)이며 독송적(讀誦的)인 면으로 전개시켰으며 그 대표적 실례가 무왕대(武王代)의 혜현(惠現) 법화경독송(法華經讀誦)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천적 경향은 신앙생활을 더욱 진지하게 심화시켜 전부터 행해오던 관음신앙(觀音信仰)을 한층 성행하게 하였다.

또한 백제 사회에서는 사상적 밑받침이 되는 유교사상(儒敎思想)의 예(禮)가 불교의 계(戒)와 조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동진(東晉)에서도 나타나는데 백제 또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백제문화는 일찍부터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세련되었기 때문에 유교를 폭넓게 이해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며 이것이 백제 불교가 율학을 강조하게 하였을 것으로 본다. 남사나 북사에는“중과 비구니가 있고, 사탑(寺塔)은 많아도 도사는 없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백제에 불교가 널리 성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우리 함평지역을 비롯한 전남지방에 언제 불교가 전파되었을까?

마라란타가 법성포(法聖浦)로 들어와 백제에 불교를 전했으며 그 대표적인 사찰이 불갑사(佛甲寺)며 함평의 손불(孫佛) 등 불교와 관련된 이 지역의 이름이 이를 증거 한다는 전설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전설에 그칠 따름이며, 전남지방에 불교가 전파된 자초지종을 알 수 있는 믿을만한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계표(李啓杓)는 전남지방의 불교 전파에 대하여, “당시의 기록이 아닌 조선 후기의 기록에 의하여 불갑사, 무위사, 대흥사, 백양사, 화엄사, 불회사, 선암사, 관음사, 개천사 등이 백제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고 한다. 이들 기록들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이들 절터에서 백제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출토품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빙할만한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남지방에 불교가 전파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정읍에서 백제 불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정읍지방은 전근대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남지방과는 지근의 거리에서 동일한 생활문화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남지방에서 백제시대의 불상, 와당이 출토되었다는 전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지방에 백제시대의 불교가 전파는 하였으나 그것이 지역의 거점에만 전파되었기 때문에 많은 불교유물,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백제시대의 불교유물 유적을 발굴하고 후대의 문헌 사료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이 이

루어진다면 백제시대의 전남 불교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전망해 본다."[109]고 하였다.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에 소재한 용천사(龍泉寺)가 백제 무왕(武王) 원년(600년)에 세운 절이라는 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설은 6.25 한국전쟁 때 이 절이 불탄 후 한 스님이 근거한 자료도 없이 연혁에 "백제 무왕 원년 창건"이라고 썼던데 유래한다. 용천사에 대해 남아 있는 자료는 1930년에 간행한 함평군지(咸平郡誌)와 증보교정 조선사찰사료(增補校訂朝鮮寺刹史料)다.

함평군지 산천조(山川條)에, "모악산(母岳山)은 북쪽으로 30리인 해보면에 있다. 불갑산의 곧은 낙맥이 내려오다가 구름 사이에 특출하였다. 당 정관(唐貞觀. 627~649) 때부터 내려오는 용천사가 있다(在北三十里海保面 自佛甲山直落特出雲間 自唐貞觀有龍泉寺)."라 하였다.

이 기록은 용천사가 불타기 전이니 당시의 연혁을 참조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창건 연대에 대해 확인할 자료가 없고 또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믿기 어려운 기록으로 남을 뿐이다.

증보교정 조선사찰사료에 용천사의 대웅전을 단청(丹靑)하면서 기록해 놓은 연혁이 있다. "이 절은 신라시대의 절이다. 당 현종조(唐玄宗朝. 712~756) 때 국사(國師) 행사존사가 창건하였다(盖寺也者新羅 大唐玄宗朝 國幸師尊思者 創建也)."라고 하였다.

지금은 자료 출처가 밝혀진 이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다. 당 현종조는 신라 성덕왕(聖德王. 702~736)~효성왕(孝成王. 737~741)~경덕왕(景德王. 742~764)대에 해당한다.

성덕왕 때 많은 불사를 한 것으로 미루어 성덕왕대에 창건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다. <통일 신라의 유적 유물을 볼 것>

3. 도교(道敎)

도교는 후한의 장릉(張陵)이 종래의 노장사상(老莊思想)에 신선술을 가하여 창시(創始)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도가사상(道家思想)에 신선술을 가미한 도교가 언제부터 백제에 전래했고 함평을 비롯한 이웃 지역에 어느 정도 포교되었는지는 전거할 기록이 없어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침입해 오므로 근초고왕(近肖古王)은 태자(太子)[110] 를 파견하여 이를 막게 하였는데, 태자가 반걸양(半乞壤)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 사람 사기(斯紀)가 찾아와 "저들의 군사는 비록 수는 많으나 수를 많게 하기 위하여 모은 의병일 따름이고 날랜 군사는 적기병(赤旗兵) 뿐이니 적기병만 격파하면 나머지 무리는 스스로 궤멸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사기는 원래 백제 사람이었으나 국마(國馬)를 돌보다가 발굽에 상처를 낸 후 죄가 두려워 고구려로 도망간 사람이었다. 태자는 사기의 말을 듣기로 하고 수곡성(水谷城)의 서부에 이르렀다.

109) 전라남도, 『전라남도지』 3권. 1993. 50쪽.
110) 13대 근구수왕(近仇首王)을 말함.

장군 막고해(莫古解)가 이르기를, “일찍 도가(道家)의 말을 들으니 만족할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소득도 많은데 어찌 더 많은 것을 구하려 합니까?”하였다. 태자는 이 말을 듣고 그만 두었다.[111]

이 기록에서 막고해가 도가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면 375년 이전에 백제에 도교가 전래했고 상당히 깊숙이 연구되고 그 영향 또한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도교의 신선사상(神仙思想)은 토착적 민간신앙과 크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아주 번성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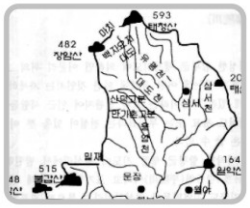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영암의 덕진포는 당시 서남해안의 대표적 항구였다. 그리고 함평의 굴내포(屈乃浦) 또한 외국과 통상하는 중심지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항구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함평지역에 일찍이 도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근래 몇 학자가 고대 마한과 백제시대 굴내포의 역할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기대된다. 단 도교의 일종인 오두미교(五斗米敎)는 백제 말기 고구려를 통해 포교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으로 백제문화의 전반을 대략 살펴보았다. 함평지역이 백제에 영속된 5세기 이후도 이 지역은 백제의 문물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마한의 문화를 고집스레 지켜온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백제의 대표적인 묘제라 할 수 있는 돌방무덤을 받아들이면서도 껴묻기 한 유물이 백제와는 다른 마한 전통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11) 『삼국사기』 24권 .근구수왕 원년(375)조.

제5장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復興運動)



제1절 백제의 멸망과 당(唐) 지배기의 함평

신라가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준비를 하게 된 것은 655년경이다. 이후 5년간 백제 정벌을 목표로 군사적 경제적 준비를 끝낸 신라는 당(唐)에 사신을 보내 동맹군(同盟軍)의 출정을 협의하였다.

659년에 아찬 진주(眞珠)를 병부령(兵部令)에 임명하고 660년 1월에는 김유신(金庾信)을 상대등(上大等)에 임명하여 군사적인 체제를 마쳤다.

660년 3월, 소정방(蘇定方)을 총사령관으로 13만 군대가 산동반도의 내주(萊州)를 출발 서해안의 덕물도(德物島)에 도착하였고 신라군은 5월에 왕이 김유신, 진주, 천존(天存) 등 장수와 5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천정으로 출병하였다.

나·당 연합군은 작전 회의를 거쳐 백제 침공의 기본책(基本策)을 마련하였다.

신라군은 금돌성(今突城)을 거쳐 탄현(炭峴)을 넘어 황산(黃山) 평야로 진격하여 부여를 함락하며, 당나라 군대는 뱃길로 기벌포(伎伐浦)에서 백강(白江)으로 들어가 주유성(周留城)을 거쳐 부여를 공략하되 양군은 7월 10일 사비성에서 합류하기로 하였다.

나·당군의 침공을 받은 백제는 당병을 먼저 치고 후에 신라를 공격하자는 의직(義直), 흥수(興首) 등 좌평의 관등을 지낸 대성팔족(大姓八族) 측과 신라를 먼저 공격하고 후에 당군을 격파하자는 달솔 상영(常永) 등 신진 귀족측이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대책회의를 연일 계속하다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반대론인 당군이 백강에 들어오고, 신라군이 탄현을 넘은 후에 일전을 치른다는 결론을 지었다.

이 결론이 백제의 망국을 자초했다고 후대의 사가(史家)와 전략가들은 평하고 있다. 쉽게 탄현을 넘은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階白)장군이 이끄는 5천의 결사대에 의해 4번이나 패전하는 곤욕을 겪었으나 끝내 이를 격파하고 기벌포에서 크게 이긴 당군은 주유성을 거쳐 기본작전 계획대로 사비성에 당도했다.

의자왕은 일단 웅진성으로 피하였으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 태자와 함께 항복함으로서 백제의 왕조는 끝났다.

삼국사기에서는 당시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해 놓고 있다.

"의자왕 20년(660년) 6월 정방은 군사를 시켜 성곽에 뛰어올라 당의 깃발을 세우니 태(泰)는 크게 다급하여 문을 열고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왕 및 태자 효(孝)와 여러 성(城)이 다 항복하니 정방(定方)은 왕 및 태자 효, 왕자 태, 융(隆), 연(演)과 대신, 장수 88명과 백성 12,807명을 당의 서울로 압송했다."

이 때의 백제 땅은 5부(部) 37군(郡) 200성(城) 76만 호(戶)였다. 백제가 강성했을 때는 수도만도 152,300 호였다.

전후의 처리는 당에 의해 좌우되었다. 660년 9월에 당은 백제의 땅에 웅진(熊津), 마한(馬韓), 동명(東明), 금연(金漣), 덕안(德安) 등 다섯 도독부(都督部)를 만들어 각각 주, 현을 통솔하게 하는 동시에 거장(渠長)을 뽑아 도독(都督), 자사(刺史), 현령(縣令)을 삼아 다스리게 하고 낭장(郎將) 유인원(劉仁願)에게 명하여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도성을 지키게 하니 신라왕도 왕자 인태(仁泰) 및 사찬 일원(日原), 급찬 길나(吉那)를 보내어 군사 7천으로 그들을 돕게 하였다. 또 좌위낭장(左衛郎將) 왕문도(王文度)를 웅진 도독에 임명하여 남은 군중을 무마하게 하였다.

안종복은 그의 저서 동사강목(東史綱目)에서 5 도독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북사에 '백제에 5성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것은 득안성(得安城)이라 부른다,' 했는데 본래의 이름은 덕근지(德近支)로 지금의 은진현(恩津縣)이며 바로 덕안(德安) 도독부고 마한은 지금의 익산인 듯하고 동명과 금연은 알 수 없다."

이 편제로 보았을 때 당시 함평은 마한 도독부에 속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통치 기구는 백제 유민의 부흥운동과 신라의 당 축출운동에 의해 개편되었다.

한편 소정방은 포로를 이끌고 사자성에서 출범하여 당으로 돌아갔는데 신라에서는 김인문(金仁問) 및 사찬 유돈(儒敦)과 대내마 중지(中知) 등이 따라갔다. 소정방은 돌아가서 의자왕 등을 황제에게 알현 시켰는데 황제는 칙천문(則天門)에 나아가서 포로를 받고 그들을 책망한 후 용서해 주었다.

삼국사기에 의자왕이 항복한 후의 백제의 동정에 대해 몇 가지 기록이 있다.

○ 665년(唐 仁德 2년. 신라 문무왕 5년) 기록

"부여융(扶餘隆)은 신라왕과 더불어 웅진성에 모여 백마(白馬)의 피로써 맹세하고 인궤는 맹세한 글을 짓고 드디어 금서철계(金書鐵契)를 만들어 신라의 종묘에 비치하였다. 맹세한 글월은 신라본기에 적혀 있다. 인원 등이 돌아가니 부여융은 신라를 두려워하여 역시 당경(唐京)으로 들어갔다.

의봉연중(儀鳳. 676~678)에 부여융을 웅진도독부대방군왕(熊津都督府帶方郡王)을 삼아 본국으로 보내어 남은 백성들을 안돈시키게 함과 동시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신성(新城)에 옮기어 그로써 통솔케 하였다. 그 때 신라가 강하므로 융은 감히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고구려에 붙어 있다가 죽었다. 당 무후(武后)는 그의 손자 경(敬)에게 왕위를 계승케 하였는데 그 땅이 이미 신라, 발해, 말갈의 소유가 되어 국계(國系)가 드디어 끊어졌다."

○ 맹세문의 내용

"지난날에 백제의 선왕이 역리와 순리에 혼미하여 이웃과 우호가 돈독하지 못했으며 친척[112]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였다. 고구려와 결탁하고 왜국과 교통하여 그들과 함께 잔폭하였으며 신라에 침략하여 읍을 깨뜨리고 성을 도륙하니 잠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 천자께서는 하나의 물건이라도 없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이 고통 받는 것을 가엾게 여기시어 자주 사신을 보내어 우호를 닦으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지세가 험준하고 도로가 먼 것만 믿고 하늘의 도리를 업신여겨 태만히 하였다. 황제께서 이에 분노하시어 죄인을 치고 백성을 위로하는 일을 삼가 거행하시니 정기(旌旗)가 나가는 곳에 한번의 싸움으로 모두가 평정되었다. 진실로 궁궐은 못을 파고, 집은 웅덩이를 파서 뒷날의 징계를 삼고 폐단을 뿌리 채 뽑아 다음 사람에게 훈계를 남겨야할 일이다.

그러나 약한 자를 감싸주고 배반하는 자를 토벌하는 것이 전왕의 아름다운 법도요, 망한 자를 일으켜 주고 끊어진 나라를 이어주는 것은 옛 천인의 통규이다. 일은 반드시 옛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 시책에 전해 오고 있다. 그런 까닭에 전 백제 태자가 사가정경 부여융(前百濟太子司稼正卿扶餘隆)을 세워 웅진도독으로 삼아서 제사를 받들고 그의 고장을 보존하게 하였다. 신라에 의존하여 영원한 동맹국으로서 각자 묵은 감정을 버리고 굳게 화친하라. 조명을 공손히 받들고 영원한 번국이 되라. 그리하여 사신 우위장군 노성현공 유인원을 보내어 친히 임하여 타이르고 깨우침과 아울러 짐의 뜻을 멀리 펴게 하노니, 혼인으로 약속하고 맹세로서 다짐한다.

희생을 잡아 피를 마시는 것은 우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돈독히 하기 위함이니 재앙은 나누어 갖고 환란을 당하여서는 서로 구제하여 은의가 형제와 같이 지내도록 하라. 윤언을 공손히 받들어 함부로 저버리지 말며 맹세를 하고 나서는 다 같이 송백처럼 언제고 변함이 없으라. 만약 마음이 변하여 신의를 저버리고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침범하는 일이 있다면 신명께서 이를 보고 온갖 재앙을 내려서 자손이 번창하지 않게 되어 사직을 지킬 사람이 없게 될 것이며 제사는 끊기고 남아나는 유족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서철계(金書鐵契)를 만들어 종묘에 간직하는 것이니 자손만대토록 행하여 범함이 없어야 한다. 신명이 듣고 있으니 이로서 누릴 복이 결정되리라."

○ 김부식의 논(論)

"신라의 고사에 '하늘이 금궤를 내려 주었으므로 성을 김(金)씨라 하였다.' 하였으나 그 말이 괴이하여 믿어지지 않는다. 신(臣)이 역사를 편수함에 있어 그 말이 오래도록 전해오기 때문에 깎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또 들으니 신라 사람이 자칭 소호김천씨(小昊金天氏)의 후손인 까닭으로 성을 김씨라 하였다. <신라 국자박사(國子博士) 설인선(薛因宣)이 지은 김유신의 비 및 박거물(朴居勿)이 글을 짓고 요극일(姚克一)이 글씨를 쓴 삼랑사(三朗寺) 비문에 보임>

고구려 역시 고신씨(高辛氏) 후손이므로 성을 고(高)씨라 하였다고 한다. <진서에 보임>

고사에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진한의 난리시대에 중국 사람이 많이 해동으로 갔다.' 하였으니 삼국의 조상이 참으로 옛 성인의 자손이었던가? 어찌 그리 나라를 오래도록 향유(享有)하였던고?

백제의 말엽에 이르러 행하는 짓이 거의 도리에 맞지 않으며 이로움과 편의를 따라 신라의 중성(重城)과 거진(巨鎭)을 탈취하기를 마지않았으니 이른바 '어진이와 친하며 이웃과 좋게 지냄은 나라의 보배' 라는 것이 아니다. 이에 당나라 천자는 두 번째 조서를 내려 그 원혼을 풀라고 하였는데 겉으로 따르는 척하고 안으로 어기어 대국에 죄를 지었으니 망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부식은 백제가 망한 것을 백제가 신라를 자주 침범한데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였다. 민족사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면 물고 물리던 삼국의 강역 싸움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 백제를 친 그 소위를 나무라는 논을 붙였어야 할 것이다.

112) 백제와 신라가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함.

663년에 백제군을 완전히 토벌한 당군(唐軍)은 백제의 5도독부를 고쳐 웅진도독부로 단일화하고, 그 밑에 동명(東明), 지침(支浸), 노산(魯山), 고사(古四), 사반(沙泮), 대방(帶方), 분차주(分嵯州)를 두어 현을 소속케 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669년(文武王 9) 2월조에 이세적(李世勣)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천남생(泉男生. 연개소문의 아들), 유인궤(劉仁軌)와 더불어 고구려의 여러 성을 도독부를 설치하여 다스릴 것을 상의하였다.

칙령을 받아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가 거느리는 예하의 주를 편의에 따라 나누었는데 그 주문(奏文)의 목록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사주(古四州)는 본디 고사부리(古沙夫里)로 5현(縣)을 거느렸다.
  평왜현(平倭縣)은 본디 고사부촌(古沙夫村),
  대산현(帶山縣)은 본디 대시산(大尸山)
  벽성현(辟城縣)은 본디 벽골(辟骨),
  좌찬현(佐贊縣)은 본디 상두(上杜)
  순모현(淳牟縣)은 본디 두내지(豆奈只)다.
사반주(沙拌州)는 본디 호시이성(號尸伊城)으로 4현을 거느렸다
  모지현(牟支縣)은 본디 호시이촌(號尸伊村)
  무할현(無割縣)은 본디 모량부리(毛良夫里)
  좌로현(佐魯縣)은 본디 상로(上老)
  다지현(多只縣)은 본디 부지(夫只)다.
대방주(帶方州)는 본디 죽성군(竹城郡)으로 6현을 거느렸다.
  지류현(至留縣)은 본디 지류(知留)
  군라현(軍那縣)은 본디 굴내(屈奈)
  도산현(徒山縣)은 본디 추산(抽山)
  반라성(半那城)은 본디 반나부리(半奈夫里)
  죽군현(竹軍縣)은 본디 두힐(豆肹)
  포현현(布賢縣)은 본디 파로미(巴老彌)다.
분차주(分嵯州)는 본디 파지성(波知城)으로 4현을 거느렸다.
  귀단현(貴旦縣)은 본디 구사진혜(仇斯珍兮)
  수원현(首原縣)은 본디 매성평(買省坪)
  고서현(皐西縣)은 본디 추자혜(秋子兮)
  군지현(軍支縣) 이다."

이에 대해 정약용(丁若鏞)과 윤정기(尹廷琦)는 당시 사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 정약용(丁若鏞)

"대방주는 이세적, 유인궤 등 여러 사람이 편의상 세운 이름으로 그 땅의 본래 이름이 아니다. 지금 지지를 고찰해 보면, 군라(軍那)는 함평(咸平)이요, 반라는 반남(潘南)이며 두힐은 회진(會津)이다. 두힐은 본래 이름이 죽군으로 이른바 대방주인데 지금의 나주 회진의 옛 현이다. 그러나 불과 10여년 후에 백제의 옛 땅은 모두 신라의 군, 현이 되었다. 당나라 사람들이 경영하여 관리함에 불복하여 이영공(李英公)이 상주한 글도 역시 공언(空言)으로 시행에 미치지 못했다."

○ 윤정기(尹廷琦)의 저서 『동환록』의 회진대방(會津帶方)[113]조

"대방주는 본래 죽군성으로 오늘의 나주 회진(옛 현임)이며 거느리는 현이 6개현이다.
지유현(至留縣)은 본래 지유현(知留縣)이다. 군라현(軍那縣)은 본래 굴내현(屈奈. 굴라로도 읽음)으로 지금의 함평이다. 도산현은 본래 추산 또는 뇌산현(牢山)으로 지금은 진도현과 합하였다. 반라현은 본래 반나부리 즉 반남(潘南)의 고현(古縣)으로 지금은 나주와 합쳤다. 죽군현은 본래 두힐현 즉 회진의 옛 현으로 지금은 나주와 합쳤다. 포현현은 본래 파로미현이다."

이 때 현 함평군인 다지현(多只縣. 동사강목은 화순 동복. 대동지지는 함평 나산으로 비정)은 사반주(沙拌州. 동사강목은 장성, 대동지지는 영광으로 비정)에 속했고, 군라현(軍那縣. 삼국사기 지리지 屈乃縣)은 대방주(帶方州. 나주시 다시면으로 봄)의 속현이 되었다.

이 행정구역은 671년까지 존속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현 전남지역에 해당하는 주, 현에 대한 학자들의 위치 비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당 웅진도독부 관하 주현(州縣)에 대한 위치 비정

삼국사기 지리지 (三國史記地理志)	동사강목(東史綱目) (안정복-安鼎福)	대동지지(大東地志) (김정호-金正浩)	미송보화 (末松保和). 1935	천관우 (千寬宇) 1979	전남의 마을유래집(김정호)
웅진도독부·13현	?	?	?	부여(扶餘)	
귀화현(歸化縣)	회령(會寧.장흥 대덕)	?	?	?	마사량(麻斯良)
동명주·4현	?	부여	공주(公州)	공주	
치신현(齒辛縣)	?	안노(安老.영암금정)	?	청주(淸州 ?)	아노곡(阿老谷)
지침주·현	?	홍주(洪州)	?	예산대흥(大興)	
노산주·6현	?	노성(魯城. 논산)	함열(咸悅)	익산. 함열	
아착현(阿錯縣)	?	여수(麗水)	?	완주봉동(鳳東)	원촌(猿村)
고사주·5현	?	고부(古阜)	고부	정읍 고부	고사부리
사반주·4현	?	장성(長城)	영광(靈光)	영광	호시이성. 장성
모지현(牟支縣)	장성	영광	영광	영광	호시이촌. 영광
무할현(無割縣)	고창(高敞)	고창	고창	고창	모양부리. 고창
좌로현(佐魯縣)	무장(茂長)	무장	무장	고창해리(海里)	상노(上老)무장
다지현(多支縣)	동덕(同德.동복-同福)	모평(牟平.함평나산)	?	함평 나산	부비(夫只)나산
대방주·6현	회진. 나주(羅州)	나주	나주 (?)	나주 다시	회진(會津)
지유현(至留縣)	?	?	?	?	지유(智留)철야
군나현(軍那縣)	함평	함평	함평	함평	굴내(屈奈)함평
도산현(徒山縣)	가흥(嘉興.진도 군내)	가흥	진도고두산록	진도 군내면	추산(抽山)월가
반나현(半那縣)	반남(潘南)	반남	반남	반남	반나부리. 반남
죽군현(竹軍縣)	회진(나주.다시-多侍)	회진(會津)	다시	나주 다시	두힐(豆肹)신풍
포현현(布賢縣)	?	?	?	나주(?)	파노미. 나주시
분차주·4현	낙안(樂安)	낙안	낙안	낙안. 보성복내	파지성.광주(?)
귀단현(貴旦縣)	진원(珍原)	진원	진원	장성 진원	구사진혜. 진원
수원현(首原縣)	?	?	?	분차주치(州治)	매성평. 무진
고서현(皐西縣)	담양(潭陽)	담양	담양	담양	추자혜. 무정
군지현(軍支縣)	낙안. 군지(軍知)부곡	낙안.군지부곡(部曲)	창평(昌平)	담양 창평	창평

113) 5대방(帶方) 중의 하나. 5대방은 장단대방(長湍), 연안대방(延安), 회진대방(會津), 남원대방(南原), 요동대방(遼東)이다.

제2절 백제 유민(遺民)의 부흥운동

백제 유민의 부흥운동은 부여 함락 후인 660년 7월부터 바로 시작되었으며 그 전모는 다음과 같다.

○ 660년 9월 3일 소정방이 포로들을 이끌고 당으로 떠나기 이전부터 백제의 민중은 남잠성(南岑城), 진현성(眞峴城), 임존성(任存城) 등에서, 또 두시원악(豆尸原嶽)에서는 좌평 정무(正武)가 무리를 모아 나·당군에 대항하고 있었다. 나·당군이 임존성을 공격하였으나 백제의 군사들이 험악한 곳에 의지하여 있으므로 격파하지 못했다.

○ 660년 9월 23일 소정방의 부대가 떠난 것을 알아낸 백제의 부흥군은 당군 1만과 신라군 7천명이 지키고 있는 사비성으로 쳐들어 와서 이미 항복한 사람들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했다. 이들은 나·당군의 반격을 받자 사비성 남령(南嶺)으로 물러나 4~5 성책을 굳게 쌓고 무리를 모아 진을 쳤다. 그리고 틈을 보아 다른 읍성을 공격하였다.

여기에 20여 성이 호응하였고 당은 웅진도독에 왕문도를 임명하여 백제로 파견하고 신라에 부흥군 토벌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귀국 중이던 무열왕은 660년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이례성(爾禮城. 현 논산)을 공격하여 빼앗고 앞의 20여 성도 다시 항복을 받고 사비성 남령을 공격하여 1,500여명을 살상하였다.

○ 660년 11월 5일 신라군은 계탄(鷄灘)을 건너 왕흥사(王興寺), 남잠성(南岑城)을 공격하여 7백여 부흥군을 격파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초기의 부흥군은 사비성 남령에 주력부대를 두고 20여 성이 이에 호응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은 백제의 중부와 서부에 해당하며 조직적이기 보다는 산발적이었다. 이 때 우리 함평지역은 신라의 편이기 보다는 부흥군 쪽에 협조를 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 661년부터는 부흥운동이 조직화 되었다. 의자왕의 종형제(從兄弟)인 복신(福信)과 중 도침(道琛)이 주유성(周留城. 현 한산)에 근거를 두고 안으로는 부흥군의 지휘 체제를 세우고 밖으로는 일본에 원군을 요청하고 일본에 가 있는 왕자 부여풍(扶餘豊)을 모셔와 백제왕의 이름으로 부흥군을 이끌었다. 이 때 겸풍달(兼風達) 지방의 군장(郡將) 흑치상지(黑齒常之)가 3만의 병력으로 3백여 성을 수복하고 [114] 복신의 부흥군과 합쳤다. 이 때는 우리 함평은 물론 서남해의 섬 지방까지도 부흥군 지배에 놓였을 것으로 보인다. 부흥군이 사비성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나·당 연합군을 포위한 상태였다.

○ 661년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아량이성(亞良伊城)과 그 이웃인 고사비성(古沙比城. 전북 고부)에서 신라군이 세 번 토벌전을 벌렸으나 신라군이 크게 패하였다. 이는 신라군이 강대해진 백제 부흥군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고 전북지방에서 큰 전투가 있었음을 보여 주며 또 부흥군의 세력이 대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661년 당은 유인궤(劉仁軌)를 원군으로 보냈다. 부흥군은 백강 입구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당군의 상륙을 막으려 했으나 1만 여의 전사자만 내고 퇴각했다. 이 때 양군의 대치 상황을 보면 나·당군은 부여와 공주지역에, 부흥군은 한산(韓山), 대흥(大興), 임피(臨陂), 부여남령(扶餘南嶺)이라 할 수 있고 우리 함평지역을 비롯한 전남지방 일원은 후방 기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백제 부흥군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662년 7월부터다. 복신(福信)의 손에 의해 중 도침(道琛)이 살해되고 복신은 662년 7월 풍왕(豊王)에게 살해되는 내분을 겪어야 했고 당에 잡혀갔던 왕자 융(隆)이 백제로 돌아와 백제 유민을 선무하였다. 대전 방면에 있던 부흥군이 나·당 연합군에게 패퇴하고 유성(儒城)을 비롯한 여러 성이 함락되었다.

○ 663년 2월부터 나·당 연합군의 공격이 적극화 되었다. 안정복은 그의 저서 동사강목(東史綱目) 백제조에서 당시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114) 백제가 패망할 때 200여 성이었는데 300여성을 수복했다고 함은 기록에 과장이 있거나 성의 개념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663년(계해년. 신라 문무왕 3년. 고구려 보장왕 22년. 백제 풍왕 3년) 이 해에 백제는 망하여 두 나라가 되었다.

2월. 신라가 장군 흠순과 천존 등을 보내어 백제의 거열성<居列城. 지지(地志)는 진주가 백제의 거열성이라 하였고 또 거창(居昌)이 거열성이 된다 하였는데 아마도 그 땅이 아니고 별로 다른 성이 있는 듯하다>을 공격하여 취하고 7백여 급을 베었으며, 또 거물(居勿), 사평<沙平. 지금의 홍주(洪州) 신평현(新平縣), 거물은 미상>의 두 성을 공격하여 항복 받았고, 덕안성(德安城)을 공격하여 1천여 급을 베었다.

9월에는 당의 유인궤, 손인사 및 신라왕이 백제 및 왜의 구원병을 백강에서 공격하여 패퇴시켰고 이어 문무왕과 김유신, 당의 유인원(劉仁願)과 손인사(孫仁師)가 육로(陸路)로, 또 당의 유인궤와 백제 왕자 융이 수로(水路)로 부흥군의 본거지인 주유성(周留城)을 공략하였다.

이 싸움에서 주유성이 함락되고 백제왕 부여풍은 고구려로 망명하였고 풍의 왕자들은 항복하였으며 백제가 드디어 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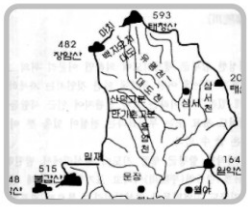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그러나 백제의 완전 멸망은 임존성(任存城) 패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존성에는 백제의 지수신(遲受信)장군이 웅거하면서 신라에 항거하였다.

백제의 모든 성이 항복하였으나 지수신만이 임존성에 웅거하였는데 지세가 험하고 성이 견고하며 또 저장해둔 양식이 많아서 신라군이 주유성 함락의 여세를 몰아 한 달간을 공격하였어도 함락되지 않았다.

11월에야 장수 흑치상지가 당에 항복하였고 수장(守將) 지수신이 고구려로 달아나므로 하여 임존성이 함락되고 백제 부흥운동의 불길이 꺼지고 말았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백제 유민의 부흥운동은 전라북도 이북의 지역에서 주로 싸웠고 전남지방은 주전장(主戰場)이 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우리 함평지역은 백제 유민의 부흥운동에 협력은 했을 것이고 부흥운동의 불길이 충청도 쪽에서 꺼지자 자연히 신라의 지배권으로 흡수되었을 것이다.

제6장 마한·백제의 유적(遺蹟)과 유물(遺物)



제1절 고분(古墳)

함평군내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을 마한(馬韓)과 신미(新彌), 백제시대 등으로 분류하여 기술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연구가 분류 단계에 이르지 않은 관계로 이 항에 묶어서 정리하였다.

고분이란 일반적 의미로는 고대의 무덤을 말하지만, 고고학적인 면에서는 한정적(限定的) 의미로 대개 삼국시대(三國時代)에 해당하는 무덤을 일컫는다.

고분은 봉토(封土)의 형식에 따라 원형분(圓形墳), 방대형분(方台形墳), 장고형분(長鼓形墳· 일본은 전방후원분-前方後圓形墳), 이음돌무덤(즙석분-葺石墳), 표형분(瓢形墳), 돌무지무덤(적석총-積石塚)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내부의 형식에 의해 널무덤(土壙墓), 돌널무덤(石棺墓), 덧널무덤(木棺墓), 돌방무덤(石室墳), 독무덤(甕棺墓)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인류가 처음으로 시신(屍身)을 땅에 묻은 것은 중석기시대 때 이라크의 샤니다르 동굴 유적에 네안데르탈인이 묻힌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신석기시대부터 이루어진 무덤 유적이 발견 조사되었을 뿐이다.

분묘는 사자(死者)에 대한 애착과 존경, 영혼에 대한 숭배 등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간의 정신적, 신앙적 규범에서 보수성을 지니며 그 장법(葬法)이 전래되었다. 그러므로 무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시대의 제도, 풍습, 신앙 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며 더욱이 죽은 사람의 영혼 세계를 위하여 껴묻기 한 물품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사상, 문화, 예술까지를 알아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고분 유적이 보존되어야하는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앞 장(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평지역을 비롯한 영산강 유역에는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형 독무덤이라는 독특한 묘제를 가지고 있다. 또 전국에서 고분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95년 6월말까지 지표조사 된 영산강 수계(水系)의 고분은 381기며[115] 그 중에서도 함평군에 149기, 영암군에 104기, 나주시에 70기가 집중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고분들은 권위와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왕도 문화권의 고분들과 봉분의 크기에서 비견하여 뒤질 바가 없는 고분

115) 장성 9기, 담양 3기, 광주 18기, 나주 70기, 함평 149기, 영암 104기, 무안 19기, 화순 9기 등 합 381기.

이 있으며, 봉분의 형태, 내부의 구조에 있어 다른 지방보다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야 학계에서 영산강 유역의 대형독무덤을 들어 이 지역이 백제의 지배권에 들지 않고 마한 또는 신미제국의 영속에 있었다는 견해에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지방, 특히 함평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돌방무덤을 한성 백제의 지배 하에 영향을 받아 축조된 고분이라는 현재의 학설에는 필자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의문의 한 예를 들면,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에 있는 봉분 밑지름 30m, 높이 5m의 고분은 고분 상부에 들어나기 시작한 석재로 보아 돌방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무덤이 한성 백제에서 파견한 관리의 무덤이거나 백제 지배하의 이 지역 세력가의 무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왕릉보다 관리의 묘나 또는 지배 하에 있는 이 지역 세력가의 무덤은 규모가 더 클 수 없기 때문이다.

내부 구조가 돌방이고 봉분의 형태가 장고형인 총 길이 51m, 원지름 30m인 예덕리 신덕고분을 한성 백제의 영향 하에 축조한 돌방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대동면 금산리 산 84-2번지 내에 있는 밑변 40× 50m, 높이 10m인 방대형 이음돌고분(방대형 즙석분-方台形葺石墳)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정부와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다분히 왕도 문화권 유적 발굴에만 치우쳐 한번도 왕도 문화권이 되어본 적이 없는 전남지방 문화권은 소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동안 봉분이 깡그리 훼손되고 내부가 도굴되어 고분으로서의 가치가 영원히 사장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함평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 유역의 고분에 대해 학술적인 치밀한 연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함평군의 고분 분포 현황

함평군의 고분에 대한 종합적인 첫 조사는 1984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함평군에는 51기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90년에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월계리 석계고분군에서 이루어졌고, 또 같은 해 리현석에 의해 종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총 125기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뒤 1993년에는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98기가 조사 확인되었고,[116] 1999년 함평군사편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46개 군집에서 149기가 조사 확인되었다.[117] 이어 2003년에는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에 의해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총 40개 군집에서 109기가 조사 확인되었다.[118] 또 이보다 앞선 2000년에는 전남지역 고분 측량 과정에서 함평군에

116)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함평군, 『함평군의 문화유적』, 1993.

117) 함평군사편찬위원회, 『함평군사』, 1999, 464~469쪽. 함평군내에 분포되어 있는 고분은 읍면별로는 월야면이 40기로 제일 많고, 이어서 학교면 33기, 나산면 29기, 함평읍 25기, 대동면 12기, 해보면 7기, 손불·신광·엄다면이 각각 1기로 총 46개 군집에 149기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118) 전라남도·함평군·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함평군-』, 2003.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함평읍 12(25), 손불 1(1), 학교 4(24), 엄다 1(1), 대동 3(5), 나산 5(13), 해보 8(10), 월야 6(30) 등 총 40개 군집에 109기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었다.

소재하는 다수의 고분들이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측량조사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마산리 표산 1호분이 전형적인 장고분임이 밝혀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후 2005년 함평군에서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고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향후 학술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관내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줄 것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 박물관 측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관내의 고분에 대한 측량조사와 종합정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때의 조사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모든 지표조사와 측량조사, 그리고 발굴조사의 결과 등을 종합하고 또 측량 가능한 고분은 새로이 측량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49개 고분군이 조사 정리되었다.[119]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모든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되, 최근에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한 『함평의 고분』에 실려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발굴조사 고분을 비롯한 측량조사 또는 미발굴조사 고분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2. 함평군의 발굴조사 고분

1) 월야면 월계리 석계 고분군

1990년 3월 11일에 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원들이 하루 동안 월계리 석계마을 뒷산과 마을안의 대밭을 지표조사 했었다.

그 때 이미 지표면에 석재가 노출한 추정 돌방무덤 등 봉토를 확인할 수 있는 원형분 11기를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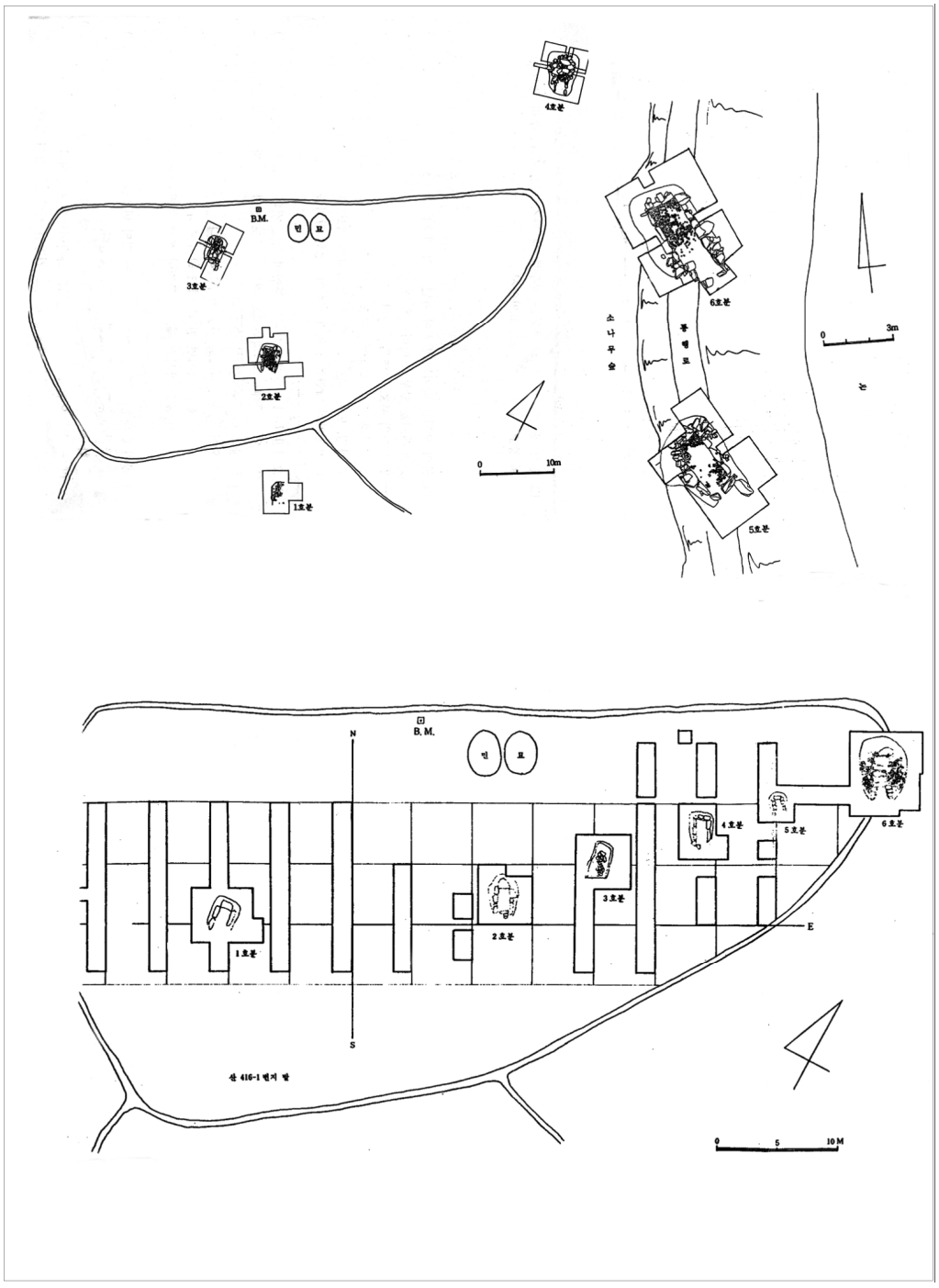
그 후 이 마을의 김영희 씨가 자기 밭(416-1번지)을 중장비를 이용해 정리하다가 8점의 토기가 출토되자 중장비 기사와 함께 전남대학교박물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김영진 교수와 최인선 등이 현지를 답사하여 이 일대가 돌방무덤이 군집되어 있는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발굴 허가조치를 취하여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돌방무덤 6기를 발굴하였고, 이 고분 유적은 지금까지 전남지역에서 확인된 돌방무덤 군집 중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예덕리 만가촌, 신덕고분들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성이 있어 1991년 11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김영진 교수가 책임조사원이 되어 전남대학교박물관 발군진에 의해 2차로 돌방무덤 6기를 더 발굴하였다.

1차 발굴은 개간 중 파괴된 1기를 비롯해 6기를 발굴했는데 이미 도굴되었거나 흔적이 있는 무덤들 이었으며, 2차는 1차 발굴 때 2기의 돌방무덤을 발굴한 바 있는 산을 개간한 김영희 소유 밭을 전면적으로 발굴했다.

1, 2차 발굴 무덤 중 주목되는 것은 크게 훼손되거나 도굴되지 않은 1차 발굴의 소나무 숲에 있던 90-4호분(四號墳)과 2차 발굴의 91-4호분, 91-6호분이다.

119) 전남대학교박물관·함평군, 『함평의 고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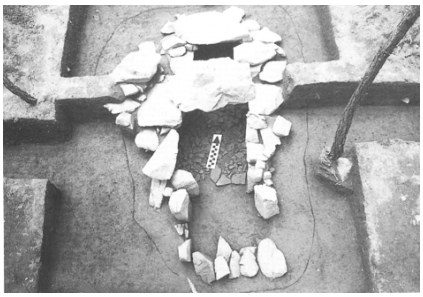
1, 2차 발굴 유적 분포도

90-4호분에서는 철기로는 관고리 8점, 관못 23점, 토기로는 장군 1점, 병 3점, 항아리 3점, 유개고배 5쌍, 구슬류로는 유리구슬 3점과 호박구슬 1점이 출토되었고, 91-4호분에서는 토기류 18점, 관못 8점이 출토되었으며, 91-6호분에서는 토기류 3점과 5인의 인골이 발굴되었다. 이 세 무덤의 축조규모와 유물의 출토과정 그리고 성격을 알아보면 대체적으로 석계고분군의 성격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발굴보고서 내용 일부를 발췌한다.

(1) 유구(遺構)의 구조 및 규모(規模)

① 90-4호분

토광은 경사진 구릉을 깎아내고 만들었는데 장축 530cm, 단축 380cm, 내외의 크기며 경사면을 깎아 만들었기 때문에 높은 쪽은 깊이가 100cm에 달하고 낮은 쪽은 깊이가 20cm, 정도에 불과하다. 석실은 현실의 벽 부분만이 지하에 들어가고 현실 천정과 출입 시설은 대부분 지상으로 올라온다.



90-4호분 유물 수습전 유구 모습

석실은 토광 우측으로 약간 치우쳐 축조되었는데 현실의 크기는 길이 290cm, 너비 150cm, 높이 110cm 내외이며, 출입 시설은 길이 100cm, 너비 110cm 내외의 규모다. 석실의 축조 순서는 먼저 현실의 북벽을 세우고 나서 동벽, 서벽, 남벽의 순으로 쌓았으며 천정과 출입시설은 맨 마지막에 완성시켰는데 천정과 출입시설 사이의 선후관계는 알기 어렵다.



90-4호분 부장품 배치상태

현실의 북벽은 길이 130cm, 높이 90cm, 두께 30cm 내외 크기의 5각형에 가까운 판석 1매를 옆으로 눕혀 세우되 5각형의 꼭지점 부분을 위로 가게 하였다. 그리고 그 위쪽에 길이 30~50cm, 높이 20cm 내외 크기의 할석을 1~2단 더 쌓아 수평이 되도록 하였다.

동, 서벽은 각각 길이 50~90cm, 높이 50~60cm, 두께 20~30cm 규모의 판석을 4장씩 눕히거나 세운 다음 그 위에 다시 판석과 할석을 2~3단씩 쌓아 올려 북벽의 높이와 맞추고 있는데 북벽에서 내려오면서 점차 낮아져서 북벽 쪽의 높이가 최고 120cm 에 달하는데 반해 남쪽은 100cm 내외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양 벽은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씩 좁아져서 바닥 폭이 140~150cm에 달하는데 반해 천정 쪽은 80~100cm에 불과하다.

남벽은 서벽에 잇대어 길이 50cm, 높이 75cm, 두께 20cm 크기의 할석을 깔았는데 드문드문 빈자리도 있다.

출입 시설은 남벽에 치우쳐 마련되었는데 서벽 남쪽 끝에 세운 판석 1매와 동벽 사이가 입구

에 해당되며 그 너비는 80cm이다.

이 입구 밖으로는 2열의 석열이 뻗어나가고 있는데 서쪽부분은 유일한 남벽석의 동쪽 끝에서 17cm쯤 서쪽으로 나간 지점에서 시작되어 30~40cm, 길이의 괴석 세 개가 이어져 내려와 전체 길이 105cm에 이른다.

동쪽 부분은 동벽의 마지막 벽석에 이어 길이 50cm, 높이 70cm의 판석이 1매 서되 동벽 바깥쪽으로 15cm 가량 벌어져 있고 그 남쪽은 파괴되었다.

이 두 석열은 횡구식에 해당하는 출입 시설의 묘도라고 하겠는데, 남벽과 동벽 사이의 입구 폭이 80cm인데 반해 묘도의 최고 폭은120cm에 달하고 있어 입구보다 훨씬 넓다.

묘도의 남쪽 끝에는 30~70cm 크기의 돌 5개가 동서 방향으로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고 묘도 내부 바닥은 생토층 그대로이다.

천정은 천정석 2매만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북벽 위에, 하나는 현실 중간에 걸쳐 있다. 북벽에 걸쳐있는 천정석은 길이 140cm, 너비 85cm, 두께 70cm에 달하는 삼각형에 가까운 괴석이고 현실 중간에 걸쳐있는 천정석은 길이 150cm, 너비 75cm, 두께 50cm의 장방형 판석이다.

이 두 천정석 사이의 최소 공간은 40cm로서 1매의 천정석이 빠진 것으로 보며, 남쪽 천정석과 현실 남벽 사이의 최소 공간은 110cm로서 2매 정도의 천정석이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묘도 내부에는 길이 95cm, 폭 65cm 규모의 장대석 1매가 다른 장대석 위에 덮여 있는데 폐쇄석으로 볼 수 있지만 남벽과 묘도 북쪽에 덮여 있던 천정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② 91-4호분



91-4호분 윤곽 노출상태

동쪽에 설치한 시굴갱(試掘坑)에서 길이 120cm에 달하는 장대석(長大石)과 이 장대석 북쪽 끝에서 서쪽으로 꺾여가는 석열(石列)이 노출됨에 따라 확장 발굴이 실시되었다. 평면 노출과 병행하여 둑을 통해 봉토의 규모를 알아보려고 하였지만 표토가 완전히 교란되어 알 수가 없었고 돌방 내부는 흙으로 차 있었는데 퇴적토는 비교적 고운 흙이었으며 시굴갱의 동쪽 끝에서 3점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돌방은 산 경사면을 L자 형태로 파낸 토광 안에 축조하였다.

토광은 25° 기운 북서-남동 방향의 부정형(不定形)인데 크기는 길이 300cm, 너비 210cm 정도이고 깊이는 가장 깊은 북쪽 벽이 80cm에 달한다.

돌방은 토광의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축조되었는데 장축 방향은 토광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돌방의 천정은 완전히 없어졌고 북벽은 거의 완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세 벽은 파괴되었지만 전체 규모는 알 수 있었다.

돌방의 길이는 240cm, 너비는 105cm이며 현재 남아 있는 북벽의 높이가 100cm이므로 돌

방의 최대 높이 역시 그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벽은 두 장의 부정형 판석을 나란히 세워 1단으로 하고 그 위에는 작은 할석을 2단 정도로 불규칙하게 더 쌓았다.

동벽과 서벽 역시 북벽과 마찬가지로 부정형 판석 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정연하지 못하고 매우 조잡하다.

북벽과 접속 상태를 보면 동, 서벽 모두 북벽 안쪽으로 들어와서 형태를 띠고 있다.

남벽은 서벽 끝에서 직각으로 꺾어 25cm 폭으로 기둥 돌 2개를 세운 것인데 바깥 돌은 그 끝이 거의 직각으로 다듬어져서 다시 남쪽으로 꺾여 나감으로써 출입시설의 일부가 되고 있다.

즉 출입구는 이 남벽의 동쪽 끝에서 동벽까지에 해당하는데 연도(羨道)는 아니고 남벽 일부를 터낸 횡구식(橫口式)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생토 그대로서 굴곡이 심한데 남벽에서 70cm 떨어진 바닥 중앙에 길이 25cm너비 16cm 두께 5cm 크기의 삼각형 판석이 1장 놓여 있다.

③ 91-6호분

이 무덤은 지표조사 때 약간 봉분이 남아 있었는데 그 봉분이 밭둑과 연결되어 있어 밭둑이냐 봉분 흔적이냐를 놓고 조사진이 논의를 한 바 있고 일단 1기의 고분으로 보자는데 의견을 모았었다.

이 고분은 1, 2차에 걸쳐 발굴한 12기 고분 중 내부구조가 거의 손상이 없이 드러난 유일한 무덤이다.



91-6호분 입구 폐쇄적 제거 후 모습



91-6호분 출토 인골 경화 처리 작업 광경

돌방은 산의 경사를 따라 L자 형태로 파낸 토광 안에 축조되었는데 토광은 약 20° 기운 북북서-남남동 방향을 취하고 부정형으로 만들어졌다.

그 규모는 길이 230cm, 최대 너비 450cm이고 가장 깊은 북벽 쪽은 깊이가 130cm에 달한다. 돌방은 토광의 장축 방향을 따라 토광 중앙에 설치되었는데 천정 돌의 양쪽으로 할석들을 상당량 깔아 주었고, 남벽 밖으로는 묘도를 설치하였다.

돌방의 크기는 길이 230cm, 너비 150cm, 최대 높이 120cm에 달하며, 묘도는 길이 120cm, 북쪽 폭 90cm, 남쪽 폭 150cm 크기이다.

북벽은 장대판석(長大板石) 1장을 옆으로 눕힌 다음 그 위에 장대석 1장을 걸쳤다.

동벽과 서벽은 모두 장대판석 2장을 옆으로 눕힌 다음 그 위에 1~2장의 장대석을 겹치면서 안쪽으로 좁아지게 하였다.

북벽과 접촉관계를 보면 동, 서벽 모두 북벽 밖으로 약간씩 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Π 형태를 띠고 있다.

남벽은 서벽에 이어 1장의 판석을 세운 것이며 이 남벽의 동쪽 끝과 동벽 사이는 출입구로 되어 있다.

천정은 4장의 판석으로 구성되었고, 바닥은 길이 170cm에 달하는 장대판석을 비롯한 몇 장의 판석으로 이루어졌다.

출입시설은 연도(羨道)로서 동벽 밖으로는 길이 90cm의 판석을 연결하였고, 남벽의 동쪽 끝에서는 2장의 판석을 나란히 연결하여 길이가 90cm에 달하게 하되 동벽과 서벽 사이에 너비 50cm, 높이 30cm내 크기의 장대석 1장을 걸쳐 어깨돌(肩石)로 삼았으며, 이 어깨돌과 연도 양 벽 위에 다시 판석 2장을 걸쳐 연도의 천정을 이루게 하였다.

이 연도의 크기는 길이가 90cm, 위쪽 너비 80cm, 아래쪽 너비 100cm, 높이 60cm이다.

돌방 바닥은 이 연도에서 끝나되 사각형으로 잘 다듬어진 장대석 2장이 마무리하고 있어서 문지방돌(門地枋石)을 이루고 있다.

발굴 때 제거한 석문(石門)은 바로 이 문지방돌과 그 위의 어깨돌에 기대고 서 있던 것이다. 그리고 연도의 양쪽 벽 끝에서부터는 할석을 쌓아 길이 120cm의 八자형 묘도를 설치하였다.

(2) 껴묻기한 유물(副葬遺物)

① 90-4호분

- 항아리(壺) : 3점이 출토되었다.



4호분 출토 호 1

▵ **항아리 1** : 남벽 앞바닥 중간지점에서 반듯하게 서있던 것이다. 굵은 모래알이 다량 섞여 있으며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띨 정도로 소성도(燒成度)가 높은 회청색의 경질토기다.

짧게 올라와서 바로 끝나는 구연에 옆으로 긴 타원형 몸체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약간 좁힌 듯 하면서 날렵한 평저(平底)로 끝나는데 아랫부분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 있다. 몸체 어깨 쪽 두 군데에 한 줄씩의 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입 지름 9.3cm, 배(腹)지름 17.5cm, 밑지름 8.5cm, 높이 12.4cm, 두께 0.6~1.5cm이다.



4호분 출토 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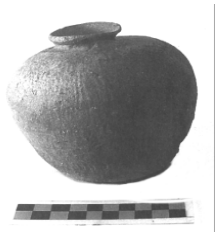
▵ **항아리 2** : 서벽과 남벽이 만나는 현실 서남모서리에서 반듯이 서있는 채로 발굴된 것이다. 굵은 모래알이 약간 섞였으며 회청색 경질토기며 가볍게 외반하는 짧은 목에서 크게 벌어져 내려오는 몸체는 한쪽으로 약간 찌그러들었고 저부 쪽에서 좁아들면서 평저로 끝난다. 입 지름 8.5cm, 배 지름 14cm, 밑지름 9cm, 높이 11.2cm, 두께 0.4~1.0cm이다.

▵ **항아리 3** : 현실 중앙선에서 서벽 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서 옆으로 누운 채 출토된 것이다.


4호분 출토 호 3

굵은 모래알이 다량 섞인 회청색 경질토기라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구이가 고르지 못해서 무른 부분이 많다.
몸체에 비해 넓은 구연은 45°방향으로 벌어지다가 짧게 끝나며 몸체는 어깨에서 급히 좁아져 내려오다가 평저로 끝난다.
입 지름 10.5cm, 배 지름 14.3cm, 밑지름 7.5cm, 높이 12.3cm, 두께 0.3~1.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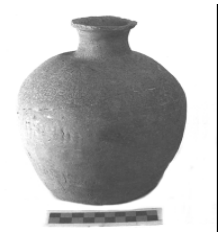
• 병(甁) : 4점이 출토되었다.


4호분 출토 병 1

▵ **병 1 :** 항아리 3 바로 옆에서 누운 채로 출토되었다.
굵은 모래알이 약간 섞인 회청색 경질토기지만 바닥 쪽의 구이(燒成)가 고르지 못하며 45°각도로 외반하는 짧은 목은 한쪽으로 기울었고 구형(球形)에 가까운 몸체는 좁혀지면서 평저로 끝난다.
몸체 전면에 집선문이 시문된 흔적이 약하게 남아 있다.
입 지름 4.5cm, 배 지름 12.5cm, 밑지름 8cm, 높이 11cm, 두께 0.5~1.0cm이다.


4호분 출토 병 2

▵ **병 2 :** 남벽에 가까운 서벽에 붙어서 약 20cm 두께의 흙 위에 반듯하게 서있는 채로 발굴되었다.
굵은 모래알이 약간 섞인 회청색 경질토기며 구연부와 몸체부 한쪽이 크게 찌그러들었고 그릇의 입술부는 정교하게 잘 다듬어졌으며 몸체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크게 좁혀져 평저로 끝난다.
몸체 전면에 집선문이 시문된 도박 흔적이 약하게 남아 있다.
입 지름 7.3cm, 배 지름 17.5cm, 밑지름 9cm, 높이 18cm, 두께 0.5~0.6cm이다.


4호분 출토 병 3

▵ **병 3 :** 횡구부(橫口部) 동쪽 끝 동벽 바로 아래서 밖으로 넘어진 채 발굴된 것으로 바탕흙(胎土)은 정선되었고 어깨에 자연유가 덮인 회청색 경질토기다.
비교적 높이 올라온 목에서 구연이 약하게 벌어지며 구형에 가까운 몸체에 평저로 끝나는데 구연 주변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입 지름 6.5cm, 배 지름 17.3cm, 밑지름 10.7cm, 높이 18.5cm, 두께 0.5~1.0cm이다.


4호분 출토 횡병

▵ **횡병(橫甁. 장군 모양의 병) :** 서남쪽 모서리에 가까운 지점에서 4점의 다른 토기와 함께 출토된 것이다.
약 10cm 두께의 흙 위에서 구연이 거의 바닥 쪽으로 향할 정도로 거꾸로 뒤집힌 채 발굴되었다.
굵은 모래알이 다량 섞인 회청색 경질토기며 한쪽 배가 약간 더 큰 비대칭형의 몸체를 가졌는데 배가 더 부른 쪽은 전면적으로 자연유가

덮여 있고 반대쪽은 구이가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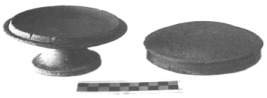
구연은 반구(盤九) 형태며 몸체는 물레를 사용한 흔적이 돌아간다. 입 지름 6.5cm, 길이 26.5cm, 높이 21.5cm, 두께 0.5~1.1cm이다.



4호분 출토 고배와 잔 Se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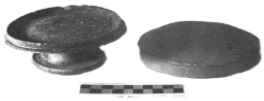
4호분 출토고배와잔Set 2



4호분 출토고배와잔 Set 3



90-4호분출토고배와잔 Set 4



90-4호분출토고배와잔 Set 5

• 고배(高杯) : 뚜껑 끼워 5쌍이 출토되었다.

▵ **배대(杯臺) :** 모두 5점으로 현실 남쪽으로 치우친 중앙 지점으로부터 동벽에 이르기까지 뚜껑 5점과 함께 나란히 출토된 것인데 모두 뚜껑이 벗겨져 있었다.

굵은 모래알이 약간 섞인 바탕흙이며 구이 상태도 양호한 회청색의 경질토기다.

배신(杯身)이 모두 대단히 얕아서 뚜껑받이 턱이 그대로 바닥에 이어질 정도며 대족(臺足)은 바닥에서 크게 벌어지는데 투창(透窓. 구멍)은 없다.

입 지름 11.5~12.0cm, 높이 5~6cm이다.

▵ **뚜껑(蓋) :** 모두 5점으로 배대 바로 옆에서 출토된 것이다.

굵은 모래알이 많이 섞인 바탕흙의 회청색 경질토기지만 전반적으로 구이가 나빠서 무른 부분을 가진 것이 많으며 드림부는 약간 외반된 편인데 외반도가 클수록 몸체는 얕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입 지름 12.5~14cm, 높이 3.7~4.3cm, 두께 0.3~0.9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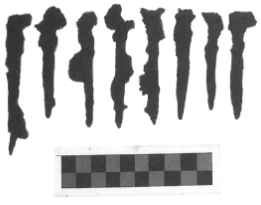
90-4호분 출토 관고리

• 관고리 : 모두 8점인데 4점은 1호분과 2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같이 좌금부가 달린 것이고 나머지 4점은 3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흡사하게 고리와 못만 있는 것이다. 전자는 서벽 쪽에서, 후자는 동벽 쪽에서 출토되었다.

좌금부의 직경은 6cm 내외이고 좌금부가 없는 것의 직경은 7cm 내외로 크다.

• 관못 : 모두 3점이 출토 되었다.

비교적 원상이 잘 남은 편이며 부분적으로 목질이 남아 있는 것도 있다. 모두 4각형의 머리에 단면 4각형의 몸통을 가진 것인데 긴 것의 길이는 8.5cm에 이른다.



90-4호분 출토 관못

• 구슬 : 4점이 출토되었다.

3점은 남청색의 유리며 1점은 황색 호박(琥珀)이다.

모두 직경 0.5~0.7cm에 달하는데 정연한 형태는 아니며 두께 역시 일정하지 않아서 0.2~0.6cm에 이르는데 그 중 1점은 한쪽 두께 0.45cm, 다른 한 쪽 두께 0.3cm로서 비스듬하다.

② 91-4호분



91-4호분 유물 배치상태

돌방내부의 퇴적토 중간을 절개하면서 3점의 토기를 확인한 후 돌방 내부에서 모두 15점의 토기와 8점의 관못을 발굴하였다.

토기는 북벽 중앙에서 90cm 떨어진 바닥 중앙에서 1점이 출토되었고 이 토기의 동쪽으로 동벽에 기대어 3점의 토기기가 남북으로 나란히 배치된 채 출토되었으며, 서남 모서리에서 8점, 입구에서 3점이 출토되었다.

서남 모서리에서 8점 중 2점은 항아리와 병이고 5점은 개배(蓋杯)이며 1점은 개(蓋)인데 개배 5점과 개 1점은 나란히 포개져서 서벽에 붙은 채로 출토되었다.

모든 토기 중 반듯하게 세워진 상태로 출토된 것은 동벽에 나란히 있던 3점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옆으로 눕거나 약간씩 기울어져 있었다.

토기의 종류는 개배 6점, 개 2점, 입술이 약간 외반한 목짧은항아리(短頸壺) 3점, 항아리 3점, 병 1점이다.

관못은 북벽 쪽에서 6점, 남벽 쪽에서 2점이 출토되었는데 특별한 정형은 보이지 않고 이미 부식되어 버린 것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개배(蓋杯)



91-4호분 출토 개배 1

▵ **개배 1 :** 북벽 중앙에서 90cm 떨어진 바닥 중간지점에서 출토된 것인데 바닥에서 5cm쯤 떠 있었다.

굵은 모래알이 섞인 회청색 경질토기(灰青色硬質土器)로서 입술 일부가 깨지고 밑 부위는 깊지 못한데 그나마 안쪽으로 휘어져 있다.

입 지름 11.4cm, 배부 지름 12.8cm, 높이 2.6cm, 두께 0.3~0.8cm이다.

▵ **개배 2 :** 서벽 쪽에 겹쳐 있는 6점 중의 하나로 북쪽 끝에 위치했다. 는 모래알이 섞인 회청색 경질토기로 구이 상태는 양호하다.

안쪽 밑면에 물레(回轉板)에 의한 동심원(同心圓)이 촘촘히 나있고 밑 부위는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져서 평저(平底)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다. 입 지름 11.1cm, 배 지름 12.6cm, 높이 3.1cm, 두께 0.4~0.6cm 이다.



91-4호분 출토 개배 2

▵ **개배 3 :** 서벽의 6점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굵은 모래알이 섞인 회청색 경질토기지만 외면은 약간 무른 편이다.

안쪽 면에는 거칠게 터진 금이 여러 갈래로 나있고 물레 사용으로 보이는 동심원이 촘촘히 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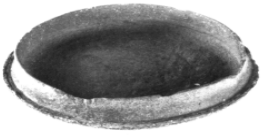
밑 부위는 약간 오그라졌지만 원저(圓底)에 가까우며 개배 중 바닥이 제일 깊다. 입 지름 12.1cm, 배 지름 13.2cm,높이 3.3cm, 두께 0.4~0.7cm이다.



91-4호분 출토 개배 3

▵ **개배 4 :** 서벽의 6점 중 북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몸체 바탕흙은 가는 모래알이 섞였고 자연유가 덮일 정도로 잘 구워졌고 밑 부위는 평저에 가까울 정도로 편평하게 다듬어졌다.

입 지름 10.7cm, 배 지름 12.2cm, 높이 2.7cm, 두께 0.3~0.7cm이다.



91-4호분 출토 개배 4

▵ **개배 5 :** 서벽 6점의 토기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는 모래알이 섞인 황갈색을 띤 연질토기로 다른 경질 개배들은 뚜껑받이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서 뚜껑받이 턱이 오목한데 이 개배는 뚜껑받이가 수평으로 만들어진 점이 차이가 난다.

밑 부위는 약간 눌러져서 편평하다.

입 지름 10.0cm, 배 지름 11.1cm, 높이 2.9cm, 두께 0.3~0.6cm이다.



91-4호분 출토 개배 5

▵ **개배 6 :** 서벽의 6점 토기 중 가장 남쪽에서 출토된 것이다. 굵은 모래알이 섞인 회청색 경질토기다.

몸체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고 안쪽 면에는 물레를 사용한 듯 동심원이 촘촘히 나있다.

입 지름 11.4cm, 배 지름 12.7cm, 높이 3.1cm, 두께 0.3~0.6cm이다.



91-4호분 출토 개배 6

• 개(蓋)



91-4호붙 출토 개 1

▵ **개 1 :** 서벽 6점의 토기 중 남쪽에서 두 번째에서 출토한 것이다.

굵은 모래알이 섞인 황갈색 연질토기로 몸체는 거의 활모양(弧形)을 이루고 있으며 손잡이는 없다.

입 지름 12.3cm, 배 지름 12.9cm, 높이 3.6cm, 두께 0.4~0.6cm이다.

▵ **개 2 :** 입구에서 출토한 3점 중 유일한 개로 흙 위에 약간 떠 있었고 가는 모래알이 섞인 황갈색 연질토기며 몸체는 활모양으로 올라가다가 수평으로 끝났다.

입 지름 12.1cm, 배 지름 12.4cm, 높이 3.8cm, 두께 0.3~0.6cm이다.



91-4호분 출토 개 2

• 짧은목 항아리 (短頸壺)



91-4호분 출토 항아리 1

▵ **짧은목 항아리 1 :** 동벽 중간에서 나란히 출토된 3점의 토기 중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정선된 바탕흙의 회청색 경질토기지만 구은 온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약간 외반된 짧은 목이 있고 몸체는 상부에서 최대로 벌어진 다음 급히 좁아져 내려오다가 평저로 끝나고 있다.

입 지름 10.9cm, 배 지름 15.2cm, 밑바닥 7.0cm, 높이 11.6cm, 두께 0.4~0.5cm이다.

▵ **짧은목 항아리 2 :** 동벽 출토 3점 토기 중 남쪽에 위치한 것이며 정선된 바탕흙의 회청색 경질토기며 약간 외반된 짧은 목에 낮은 몸체가 이어지는 평저 토기다. 입 지름 11.5cm, 배 지름 16.0cm, 밑바닥지름 7.7cm, 높이 10.5cm, 두께 0.5~1.0cm이다.



91-4호분 출토 항아리 2



91-4호분 출토 항아리 3

▵ **짧은목 항아리 3 :** 서남쪽 모서리에 집중된 토기 중 북쪽 끝에서 출토되었다. 굵은 모래알이 다량 섞인 거친 바탕흙에 구은 온도가 높은 회청색 경질토기다.

짧고 날씬한 목이 있고 몸체는 위쪽에서 최대로 벌어진 다음 급하게 좁아지다가 평저로 끝난다.

입 지름 9.8cm, 배 지름 15.0cm, 밑바닥지름 7.1cm, 높이 10.0cm, 두께 0.3~0.6cm이다.

● 항아리



91-4호분 출토 호 1

▵ **항아리 1 :** 동벽 중앙에서 출토된 3점의 토기 중 중간에 위치하던 것이다.

굵은 모래알이 섞인 회청색 경질토기로 입은 짧게 올라와서 외반되는데 두께가 얇아지면서 둥그스럼한 입술로 끝나며 몸체는 입 쪽에서 꺾어내려 오다가 위쪽에서 최대 폭을 형성하고 급히 좁아지면서 평저로 끝난다.

입 지름 11.5cm, 배 지름 14.6cm, 밑바닥 지름 6.8cm, 높이 12.5cm, 두께 0.3~0.6cm이다.



91-4호분 출토 호 2

▵ **항아리 2 :** 횡구부(橫口部)에서 출토한 3점 중 북쪽에 있던 것이다.

비교적 정선된 바탕흙에 회청색 경질토기로서 외면에 물레를 사용한 흔적으로 보이는 촘촘한 수평선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

입은 짧게 외반되다가 ㄷ자 형태의 입술을 이루며 몸체는 상부에서 최대 폭이 형성되고 급히 좁아지면서 내려오다가 평저로 끝난다.

입 지름 12.5cm, 배 지름 16.5cm, 밑바닥 6.2cm, 높이 15.5cm, 두께 0.5~0.7cm이다.



91-4호분 출토 호 3

▵ **항아리 3 :** 횡구부에서 출토한 3점 중 동쪽에서 출토된 것이다. 가는 모래알이 약간 섞인 회청색 경질토기이지만 아래 부위의 상태는 구이가 불량하다. 입술은 짧게 외반되다가 ㄷ자 형태로 꺾인 입술을 이룬다. 몸체는 중앙보다 약간 높은 지점에서 최대 폭을 이루고 길게 좁아져 내려오다가 평저(平底)로 끝난다.

입 지름 12.4㎝. 배 지름 16.0㎝. 밑바닥지름 8.6㎝. 높이 15.5㎝. 두께 0.5~0.7㎝이다.

● 병(甁)



91-4호분 출토 병

서남 모서리 쪽에서 출토한 것이며 정선된 바탕흙의 회백색 경질토기로서 표면에는 평행 집선문(集線文)이 군데군데 나 있는데 그릇을 만들 때 두드린 흔적으로 보인다.

좁고 짧은 목에서 크게 벌어지는 입은 오목하게 패인 입술을 이루는데 입 부위는 전체적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몸체는 상부에 최대 폭이 있으나 크게 좁아져 내려오지는 않고 약간 불룩하게 좁아지면서 내려오다가 평저로 끝난다.

입 지름 7.3cm, 배 지름 19.2cm, 밑바닥 9.8cm, 높이 24.5cm, 두께 0.6~0.7cm이다.

● 관못

서북 모서리에서 1점, 바닥 북쪽 가운데서 4점, 동벽 북쪽에서 1점, 서남 모서리 토기 집중 출토지에서 2점 등 8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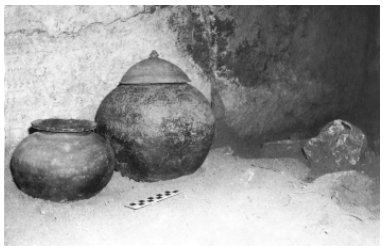
모두 심하게 부식되었고 일부분이 훼손된 것도 있어 자세한 형태는 알기 어렵다.

가장 긴 것은 8cm 정도이고 가장 짧은 것은 3cm 정도이다.



91-4호분 출토 관 못

③ 91-6호분



91-6호분 토기 출토

입구 가까운 서벽 아래서 1점의 항아리와 뚜껑을 갖춘 1점의 직립 짧은 목 항아리가 출토되었고 짧은 목 항아리 속에는 농어 뼈로 추정되는 동물 뼈 일부가 담겨 있었다.

돌방의 규모에 비해 껴묻기 품목은 미약하기 짝이 없어 토기류 3점과 인골뿐이다.

● 항아리

▵ **항아리 :** 굵은 모래알이 섞인 경질토기로서 표면에는 물레를 사용한 흔적으로 보이는 수평선(水平線)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

짧은 목에서 크게 벌어지면서 ㄷ자 형태의 입술을 이루고 있고 몸체는 위쪽에서 최대의 폭을 이루고 급하게 좁아지면서 평저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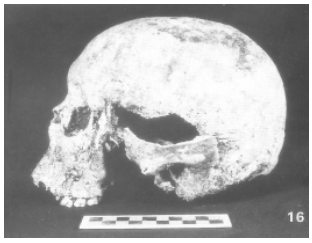
입 지름 11.4cm, 배 지름 18.0cm, 밑바닥 7.9cm, 높이 15.4cm, 두께 0.4~0.6cm이다.

▵ **직립 짧은 목 항아리(直立短頸壺) :** 굵은 모래알이 섞인 바탕흙에 회청색을 띠고 어깨에 자연유가 덮인 경질토기다.

짧고 곧은 입부위에서 거의 구형(球形)을 이룬 몸체는 좁은 평저로 끝난다.

목에서 3cm 되는 지점과 5cm 되는 지점에는 각각 한 줄씩의 파상문(波狀文)이 돌아가고 그 아래 몸체의 가장 넓은 지점에는 2줄의 파상집선문(波狀集線文)이 시문되어 있으며 밑 부위에는 격자문(格子文)이 희미하게 나있다. 입 지름 10.7cm, 배 지름 25.1cm, 밑바닥 9.1cm, 높이 23.3cm, 두께 0.6~0.7cm.

● **개(蓋) :** 정선된 바탕흙의 경질토기로 둥근 사발을 엎어 놓고 맨 위에 보주형(寶珠形) 꼭지를 달아 놓은 것같이 생겼다.



16번 두개골 옆면

드림부는 뚜껑받이와 八자형을 이루고 있고 무늬는 아니지만 표면에는 물레를 사용한 흔적으로 보이는 수평선이 여러 줄 돌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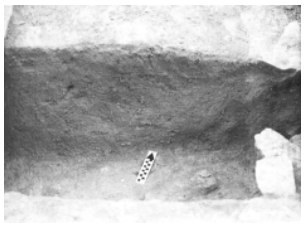
입 지름 12.8cm, 최대 폭 15.1cm, 높이 6.8cm, 두께 0.4~0.8cm이다.

● 인골(人骨)

돌방 바닥 2중간 지점에서부터 북벽 아래까지의 전면 바닥

돌 위에서 5구(五軀)의 사람 뼈가 나왔는데 뼈 위에는 30cm 정도 흙이 덮여 있었다.

전혀 관 못이 발굴되지 않은 점과 바닥이 정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목관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며 뼈 위에 덮인 흙은 후대에 유입된 것으로 본다.



91-2호분 윤곽 노출 상태

머리뼈와 사지 뼈들이 서로 뒤엉켜 발굴되었다(<다음의 91-6호분 인골 배치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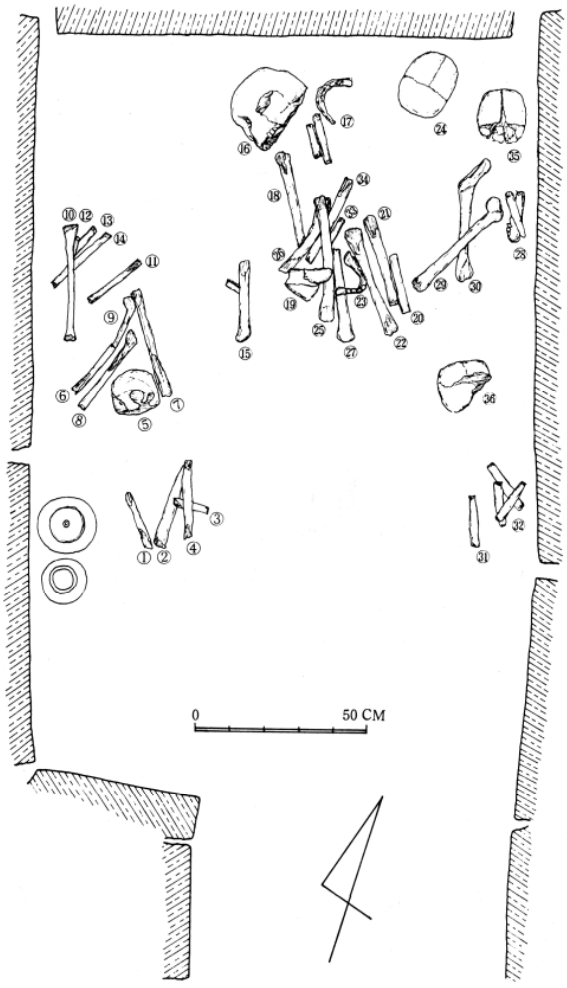
발굴 자료는 분석결과 여러 인골 가운데 북벽 중앙에서 출토된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머리뼈(번호 16)는 50세 전후의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또 그 우측의 머리뼈(번호 24)는 40대의 여성이고, 동북 모서리의 머리뼈(번호 35)는 8세 정도의 남성이며, 서벽 옆의 머리뼈(번호 5)는 10세 이전의 어린이, 동벽 옆의 머리뼈(번호 36)는 소아(小兒)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성인남녀 2인과 남자 아이가 포함된 3인의 소아들은 부부와 자녀들로 볼 수 있어 한 가족으로 추정할 수 있고, 3인의 어린이가 합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 동시 합장으로 보이나 뼈들이 심히 교란되어 있는 점으로 보면 추가로 장사를 치렀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정연한 연도의 막음 상태와 묻혀 있는 사람들이 성인 남녀와 3명의 소아라는 점에서 한 가족의 동시장일 것으로 보며, 뼈가 심히 교란된 것은 야생동물의 내부 침입과 출입구덩이를 통한 봉토의 유입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이 동시에 묻히게 된 원인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확한 사유는 알기가 불가능하며 전염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가족사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91-6호분 인골 배치도

(3) 1, 2차 발굴현황(發掘現況)

① 1차(90년) 발굴현황

고분 번호	입 지 (立地)	형식	장축 방향	돌 방			출 입 구			벽석	천장석	바닥	배수시설	침향	합장여부	출토유물	비고
				평면	규모(m)	장단비	위치	규모(m)	시설								
90-1	능선정상.지하	미상	남북	장방형	파 괴	미상	미상	파 괴		할석	미상	할석	무	미상	미상	관고리,관못	
90-2	능성정상.지하	맞조립식	남북	장방형	2.8×1.4×1.2	2.0	미상	파 괴		판석 할석	미상	할석	무	북침	합장	항아리, 관못.관고리	
90-3	능선정상.지하	4벽수직식	남북	장방형	2.5×1.2×1.1	2.1	편우	1.2×1.0×0.6		판석	판석	판석 할석	무	북침	단장	도자 관못,관고리 (3점)	횡구식
90-4	능선정상.지하	맞조립식	남북	장방형	2.9×1.5×1.1	1.9	편우	1.0×1.1×0.8		판석 할석	괴석	할석	무	북침	합장	장군,호, 고배,관고리, 유리구슬	
90-5	능선사면.지하	맞조립식	남북	장방형	2.7×1.2×1.0	2.3	편우	0.7×0.7×0.4		할석	미상	할석	무	미상	미상	관옥,유리구슬,관못	횡구식
90-6	능선사면.지하	맞조립식	남북	장방형	2.8×1.3×0.9	2.2	편우	1.1×1.1×0.8		할석	미상	할석	무	미상	미상	관못,관고리	횡구식

② 2차(91년) 발굴 현황

( )안의 수치는 남아 있는 크기임

구분 / 호수	장축 방향	현실 형태와 구분 길이×너비×높이(cm)	출입구 형태와 규모 길이×너비×높이(cm)	현실 벽면	천 정	현실 바닥	침 향	출토 유물
91-1	남북	장 방 형 (180×80×(35)	(횡구식)	파 괴	파 괴	판 석	북 침 (단장)	철도자 1점, (석침-石枕)
91-2	남북	장 방 형 240×100×(100)	(횡혈식)	판석+할석	파 괴	할 석	북 침	관못 1점
91-3	남북	장 방 형 220×100×(0)	(횡구식)	파 괴	파 괴	판석+할석	북 침	없 음
91-4	남북	장 방 형 240×105×(100)	횡구식	판석+할석	파 괴	생 토	북 침 (합장)	토기 15점, 관못 8점
91-5	남북	장 방 형 120×50×60	(횡구식)	판석+할석	파 괴	생 토	북 침 단 장	관못 4점
91-6	남북	장 방 형 230×150×120	횡혈식 90×100×60	판석수직+할석맞조립	장대 판석6매	판 석	북침 5인 합장	토기 3점, 사람뼈(5명)

(4) 축조 연대(年代)와 성격

석계 돌방무덤은 횡구식(橫口式)을 기본으로 하는 그 구조에 있어서 전남지방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비슷한 구조의 돌방무덤은 충남 보령시 보령면 구룡리, 보령리, 논산시 표정리, 공주시 남산리, 송학리 등지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이들 유적들은 대체적으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축조 연대를 잡고 있는데 석계 유적 역시 구조나 유물로 보아 이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마한을 병합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문헌 기록을 중시한 근초고왕 대로 보는 견해와 대세론적인 관점에서 538년의 백제 지방관제 정비 이후로 보는 견해, 그리고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고고학적인 증거로서 돌방무덤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

석계의 돌방무덤들은 영산강 유역에서 대형독무덤이 소멸하는 단계에서 대형독무덤을 대체해 나가는 고분들로 판단되는데, 돌방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독무덤을 쓰던 사람들인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는 영산강 유역 독무덤 축조 세력의 변화 과정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백제 초기에 병행하는 시기에 영산강 유역에서는 서울, 공주 등 백제 중심지역의 대표적 묘제인 돌무지무덤이나 돌방무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대형독무덤과 널무덤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당시 영산강유역에는 백제와는 별개의 독자적 정치집단이 존재하고 그 구체적인 실체가 마한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영산강유역에서도 돌방무덤의 도입과 함께 대형독무덤은 소멸하게 된다. 흔히 문화적 변혁은 정치적인 변화에 수반된다는 점에서 영산강유역의 독자적인 토착사회가 본격적으로 백제의 지배 하에 들어간 사실로 이해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의 토착사회가 백제로 편입되는 문제는 돌방무덤으로 대표되는 고고학 자료 이외에도 백제의 성장이라는 대세론적인 측면과 문헌 자료를 볼 때 그 타당성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독무덤제로 대표되는 사회는 5세기 말, 6세기 초기에 백제에 통합되고 중앙에서 내려온 새로운 관리들에 의해 지배되면서 그들에 의해 돌방무덤이 축조된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돌방무덤 사용자가 중앙에서 파견된 새로운 관리들이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기존의 독무덤을 쓰던 토착세력들은 백제로의 통합과 함께 무력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였거나 독무덤, 돌방무덤이 아닌 제3의 묘제를 썼을 것이데, 지금까지의 자료로는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또 돌방무덤을 쓴 사람들이 중앙에서 파견된 새로운 지배자들이라면 중앙의 돌방무덤 축조의 전통을 고수하였을 것인데, 영산강유역의 돌방무덤에서는 오히려 독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진 것이 섞여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묻힌 사람의 침향(枕向)과 관계되는 돌방의 장축방향(長軸方向)으로서 일반적으로 돌방무덤은 북침(北枕)이 기본이기 때문에 남북 장축을 취하고 있는데, 독무덤에서 흔히 보이는 동서 장축을 가진 돌방무덤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덕리 신덕의 장고형고분에서 조사된 돌방과 해남 월송리의 조산고분의 돌방, 영암 봉성리 진등의 돌방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더구나 영암 수산리 조감고분은 돌방과 독이 동일 봉토 내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120] 이들 돌방무덤을 전혀 새로운 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출토 유물에 있어 독무덤 출토품과 돌방무덤 출토 유물은 시기적인 차이에 의한 변화라는 미미한 차이 이외에 문화적 계통 차이에 의한 유물이나 유물 조합상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석계돌방무덤군은 독널무덤과 교체되는 단계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면서도 그 묻힌 사람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일 가능성 보다는 독무덤을 쓰던 토착세력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동서 장축을 가진 몇몇 돌방무덤들은 예외 없이 독무덤의 축조지역이라 할 수 있는 평야지대나 그 주변의 낮은 구릉에 자리잡고 있는데, 돌방무덤이 축조되기 시작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아직 구릉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이례적(異例的)인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특히 영암 수산리 조감고분은 토착집단에 의한 독무덤과 돌방무덤의 교체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한다.

석계고분군은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돌방무덤 군집 유적인 만큼 전체 유적의 절반 정도라도 발굴이 이루어져야만 석계고분군의 연대, 폭과 계통, 성격 등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2) 월야면 예덕리 만가촌 고분군

이 고분은 월야면 예덕리 산 170-12, 13 번지 내에 있는 고분으로 1981년 10월 20일 전남도지정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되었다.

1994년 12월 30일부터 1995년 3월 28일까지 전남대학교박물관 발굴진[121]에 의해 1차 발굴을 완료하였는데, 1차 발굴에 대한 약식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만가촌고분군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

따라서 발굴진의 약식보고와 책임 조사원인 임영진 교수가 제39회 전국역사학대회(1996. 5. 31~6. 1)에서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과 영산강유역의 고분 주구(周溝)」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요지문을 간추려 여기에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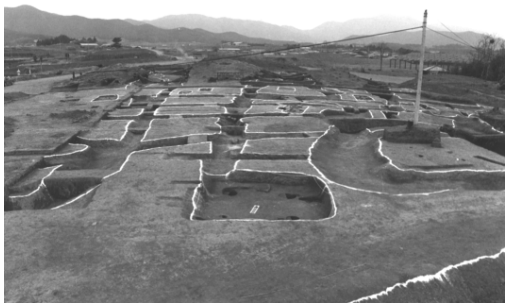
(1) 발굴 경위

1994년 함평군에서 만가촌 고분군을 정비 복원하려는 계획 아래 각 고분마다 4개의 시굴갱을 분구 자락에 설치하여 분구 끝부분을 파악함으로써 각 고분의 정확한 평면 형태를 알 수 있

120) 정식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함평읍 진양리 화동의 훼손 무덤은 돌널, 독무덤, 돌방이 동일 봉토 내에 공존하고 있었고 또 진양리 대진의 김대순 묘역의 훼손된 고분에서는 독무덤, 돌널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1990년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조사>

121) 단장 : 김동수 (金東洙. 전남대학교 박물관장), 책임조사원 : 임영진 (林永珍. 박물관 고고부장)

을 것으로 여겨 그 조사를 전남대학교박물관에 의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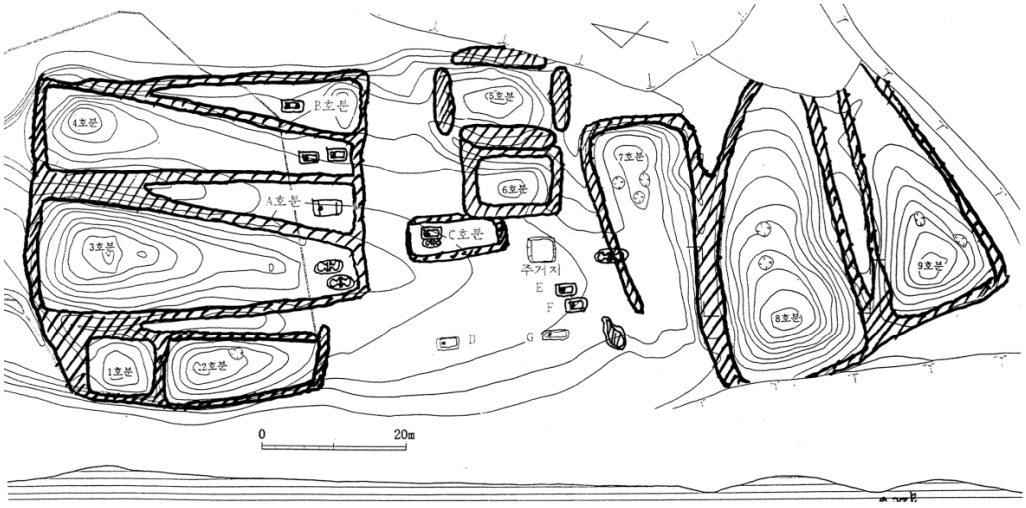
만가촌 고분군 평지 전면조사지역 전경

그런데 조사를 맡은 전남대학교 박물관 측이 조사를 해본 결과 각 고분마다 평면형태가 대단히 불규칙하여 4개의 시굴갱 조사만으로는 각 고분의 평면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예정된 복원 작업을 미루고 먼저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경비 등 여러 여건상 모든 고분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어려워 1995년 1월부터 3월까지 일단 6호분과 7호분 북·서쪽에 비교적 넓게 남아있는 편평한 지역을 전면 발굴하게 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고분들은 이미 시행한 4개씩의 시굴갱 조사만으로 복원될 처지에 놓였고, 이를 방치할 경우 주구가 파괴되면서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형태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복원공사를 맡은 회사의 책임자를 설득하여 6호분과 평지를 발굴하는 동안 나머지 고분들의 주구만이라도 학술적으로 조사하여 각 고분의 평면형태와 주구시설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만가촌고분들은 1년이 넘는 발굴조사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이월되고 부분적인 조사를 거친 다음, 1995년 12월에 1차 복원을 마쳤는데 발굴조사 결과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3기가 평면에서 확인됨에 따라 복원 예정이었던 9기 가운데 7, 8, 9호분은 2차 발굴조사와 복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새로 확인한 3기를 추가하여 모두 9기(도면 1, 2, 3, 4, 5, 6호분과 A, B, C호분)의 고분만 복원한 것이다.



만가촌 고분군 평면도와 유구 분포도(模式圖)
– 빗금 부분은 분구 주변의 주구(周構)임. 등고선 간격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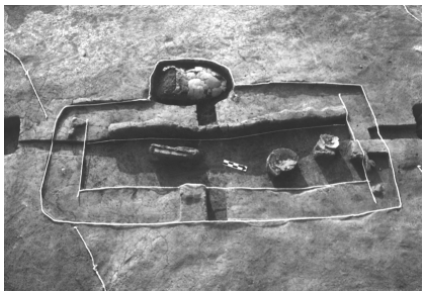
(2) 만가촌 고분군의 구조와 특성

만가촌고분군은 외형상 9기가 들어나 있었고 6기가 전남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1983년 국립광주박물관 조사진과 리현석(작고)이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마을의 노인들이 증언하기를 1970년대 야산개발을 하기 전에 이 일대에는 외형상 3기씩 짝을 이룬 10여 무더기의 고분들이 서로 방향을 달리하며 있었다고 했다. 가장 큰 고분이 1, 3, 4호 바로 북쪽, 현 평지에 동서 방향을 이루며 있었다고 하였다.



고분군 전경

외형상 뚜렷이 들어난 9기의 고분들은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저평한 구릉지에 위치하였고, 고분군의 북쪽 지역에 4기의 고분들이 구릉 방향과 일치하는 남북방향 장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고(도면 1~4호), 남쪽 지역에는 3기의 고분들이 구릉 방향과 직교하는 동서 장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도면 7~9), 중간 지역은 서쪽은 평지며 동쪽에 치우쳐 2기의 고분들이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도면 5, 6호)



3호분 남쪽에서 조사된 토광목관표

발굴조사는 이 중간 지역의 평지와 6호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복원 예정이었던 나머지 고분들에 대해서도 주변 조사를 통해 주구시설을 전면적으로 확인하였다.

봉분이 뚜렷한 고분 중 전면 발굴을 한 고분은 6호분인데 6호분은 만가촌고분 중에 작은 고분이며 1994년 시술조사를 통해 동쪽 변의 중간부분이 분구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혹시 장고형을 띤 것이 아닌가 추측했었다. 그런데 1995년 전면 발굴조사 결과 6호분의 동쪽에 5호분이 축조되면서 5호분의 서쪽 주구가 6호분의 동쪽뿐만 아니라 분구 일부까지도 깎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6호분은 남북 사다리꼴 고분으로서 길이 15.6m, 남은 너비 6.4m, 높이 0.8m며 분구 주변에 주구가 마련되어 있고 생토를 바닥으로 하여 그 위에 약 10㎝ 두께의 목탄 섞인 질흙 층이 전면에 깔려 있다. 고분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진 지점에서 2.3m 간격으로 남쪽과 북쪽에 각각 1점씩의 둥근바닥항아리(원저호-圓底壺)가 놓여 있었었는데 시신의 머리 쪽과 발쪽에 부장했던 것으로 추정하며 시신은 별도의 토광이 없이 목탄 바닥 면 위에 바로 안치하고 그 위로 낮은 분구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지에서는 목관 1기와 옹관 4기, 토기 요지 1기, 네모꼴의 주거지 1기[122]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옹관 2기는 3호분의 바로 남쪽에서, 목관 2기는 4호분의 바로 남쪽에서 발굴되었

122) 이 주거지는 고분 조성시기와 같은 시기의 것으로 보며 출토된 유물이 토기 1점 뿐인 것으로 볼 때 일반 주거지이기 보다는 고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주거지가 아닌가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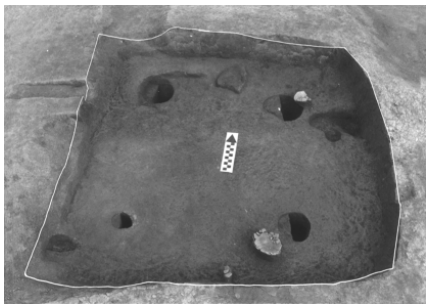
는데 3호분과 4호분의 주구가 각각 이들을 포함하는 범위에 걸쳐 있음이 밝혀져 3호분과 4호분의 남쪽 일부가 후대에 삭평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나머지 매장 유구 가운데 목관 2기는 3호분 동쪽과 4호분 동쪽의 좁은 공간에 1기씩 위치하면서 주구로 둘러싸인 독립된 분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A호분, B호분), 목관 1기와 옹관 1기는 6호분의 서쪽에서 역시 주구로 둘러싸인 독립된 분구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한다.(C호분)



토기가마터 전경

그러나 나머지 목관 4기와 옹관 1기 주변에는 주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구의 규모를 알 수 없으며 특히 주목할 옹관 1기는 7호분의 북쪽 주구 퇴적토에 걸쳐 있어 독립된 분구를 가졌던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못하다.



주거지 전경

각 고분의 주변에서 주구가 확인되어 이를 통해 각 고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 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주구는 분구의 네 변을 따라 조성되었고 인접된 고분끼리는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5호분에서는 네 변이 연결되지 않고 사우돌출형 고분의 경우처럼 각 변 마다 독립되어 있다. 주구의 폭과 깊이는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면 형태가 정연하지 못한데 특히 분구가 높은 쪽이 넓고 깊다.

만가촌고분의 발굴 책임조사원인 임영진 교수는 만가촌고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만가촌고분들은 밀집도가 대단히 높으며 기존 고분 사이에 남겨진 좁고 긴 자투리 공간까지 활용하고 있다.

둘째, 만가촌고분들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이나 높이에 비해 기다란 분구를 가진 것이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한 분구 안에 여러 기의 매장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만가촌고분들은 분구 주변에 주구를 갖고 있지만 윤곽선이 정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위의 둘째 특징과 함께 고분이 일시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추가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가되 추가장 때마다 분구가 옆으로 확장된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앞으로 뚜렷한 분구를 가진 7, 8, 9호분을 추가 발굴하여 한 분구 내에 몇 개의 매장주체가 공존하고, 또 각 매장 주체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매장 주체부는 동시에 안치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장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만가촌에서는 6호분처럼 목관이나 옹관장이 아닌 부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한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기원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제시되었다.

다섯째, 7호분의 주구 퇴적토에서 발굴된 대형 이음독무덤(합구식옹관-合口式甕棺)은 영산강 유역의 대형옹관 가운데 가장 빠른 유형에 해당하는 3세기 초반경의 것이기 때문에 7호분의 축조 연대는 2세기 대까지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또 나머지 고분들도 3세기 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영산강유역의 원삼국시대를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예덕리 만가촌 고분 현황>

전면발굴 : 6호분. A, B, C호분. 평지(단위 : m)

호 수	평면 형태	규 모 (길이×너비)	조 사 유 구 (길이×너비)		출 토 유 물	참 고
1호분	네 모 꼴	8.0×7.2			옹관	동북쪽 모서리에서 출토
2호분	긴삼각형에 가까운 사다리꼴	21.8×9.5				
3호분	〃	47.3×15.3	1호 옹관	토광:2.67×1.08 옹관:1.98×0.82	덩이쇠. 작은구슬옥 10점 납작바닥 바리모양토기 3점	이음독무덤
			2호 옹관	토광:2.54×1.15 옹관:약 2.0		이음독무덤
4호분	〃	48.5×12.7	1호 토광	3.98×1.42	이중입술단지.납작바닥단지.손칼	목관 흔적
			2호 토광	3.02×1.50	둥근바닥단지(圓底壺)	목관 흔적
5호분	사다리꼴	19.2×10.7				
6호분	사다리꼴	15.6× 6.4			둥근바닥단지 2점	부탄장?
7호분	긴삼각형에 가까운 사다리꼴	33.0×11.0				
8호분	〃	54.0×16.0				
9호분	〃	45.5×13.4				
A호분	〃	20.0× 6.5	토 광	4.32×1.58		목관 흔적
B호분	〃	23.5× 8.8	토 광	3.30×1.35	이중입술단지. 둥근바닥단지	목관 흔적
C호분	사다리꼴	19.0× 7.0	토 광	3.50×1.48	원저호.곡옥.철검.환두도.덩이쇠	목관흔적. 옹관매장
평 지			D호토광	3.70×1.65	원저호. 작은바리2. 손칼. 철편	목관 흔적
			E호토광	2.56×1.03	손잡이달린바리. 소형원저호	목관 흔적
			F호토광	2.25×1.35	외반평저호	목관 흔적
			G호토광	3.45×1.22	연질토기편. 철기편	목관 흔적
			A호옹관	1.92×0.82	소형원저호. 바리모양토기	이음독무덤
			주 거 지	4.2×4.1×0.35	바리모양토기	기둥구멍 4개
			토기가마	8.2	토기편 다수	

(3) 만가촌 고분의 출토 유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만가촌고분군은 1차 발굴을 마쳤을 뿐이며 따라서 발굴보고서도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는 1차 발굴한 유물 중 대표적인 것만을 골라 간략하게 소개한다.

① 손잡이 달린 토기(外把手附土器)

널무덤에서 출토되었고 내외면은 황갈색, 속심은 흑회색을 띠고 있고 깎은듯 반반한 편평바닥에 곧게 올라가는 몸통을 가진 발형태(鉢形態)며 몸통 한쪽에 좁고 길죽한 손잡이가 달려 있다.

크기 : 입지름 12.1㎝. 높이 16.1㎝. 두께 0.5㎝

② 회색 둥근바닥 작은단지(灰色圓底小壺)

널무덤에서 출토되었고 회색연질인 비교적 작은 단지다. 둥근바닥에 둥글게 올라가는 몸통, 곧게 세워진 짧은 목을 가지고 있다.

크기 : 입지름 11.2㎝. 높이 14.9㎝. 두께 0.4㎝

③ 적갈색 납작바닥 토기(赤褐色平底土器)

독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적갈색 연질의 큰 발형 토기에 가깝다. 상당히 넓은 편평바닥에 몸통은 약간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원통형이며 아가리는 오목한 기미를 보인다.

크기 : 입지름 12.8㎝. 높이 18.1㎝. 두께 0.6㎝

④ 적갈색 발형 토기(赤褐色鉢形土器)

독무덤에서 출토되었고 적갈색 연질이며 편평한 바닥에 몸통은 둥글게 좁아드는 발형에 가깝다. 아가리는 심하게 벌어졌으며 아가리의 끝은 반반하게 처리하였다.

크기 : 15.9㎝. 높이 14.5㎝. 두께 0.5㎝

⑤ 이음독(合口式甕棺)

7호분의 주구 퇴적토에서 발굴되었고 두점 모두 벌어지는 넓은 아가리에 긴 목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폭경은 몸통의 상부에 있다. 몸통에는 문살무늬(格子)를 두드려 새겼고 어깨에는 톱니무늬(鋸齒文)가 돌려져 있다. 영산강유역의 대형독무덤중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다.

크기 : 동쪽독 입지름 87㎝. 높이 85㎝. 두께 1.9㎝

서쪽독 입지름 96㎝. 높이 98㎝. 두께 1.9㎝

<토기, 이음독 등 유물 사진은 3편 화보 참조>

⑥ 곱은옥(曲玉)

널무덤에서 출토되었고 비교적 소형에 속한다. 머리 부분에는 구멍이 1개 뚫려 있으며 꼬리 부분의 끝은 몽둑하다.

크기 : 길이 1.5㎝. 두께 0.35㎝. 구멍지름 0.1㎝

⑦ 구슬

독무덤에서 출토하였고 모두 소환옥으로 색갈은 주황색, 옥색, 암회색을 띠며 재질은 유리제, 석제 등이다.

크기 : 0.3~0.6㎝. 구멍지름 0.05~0.15㎝

⑧ 철제 손칼(鐵製刀子)

널무덤에서 출토되었고 단조풍으로서 완형이다. 자루부분은 날부분이 그대로 좁아들면서 만들어졌다.

크기 : 길이 9.1㎝. 너비 1.8㎝. 두께 0.4㎝

(4) 만가촌 고분군과 영산강유역 고분과의 관계

영산강유역에 속하는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만가촌, 해보면 금덕리 고두, 나산면 초포리 사산과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반남면 대안, 신촌, 덕산리, 영암군 시종면 신연, 옥야, 내동, 만수리, 무안군 몽탄면 사창리에는 옹관을 주체로한 대형고분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분구의 모양은 원형, 네모꼴(方形), 긴세모꼴에 가까운 긴사다리꼴, 사다리꼴, 장고형 등 다양하기 이를데 없다.

그리고 이들 고분중 발굴을 마친 고분을 살펴보면 거의 분구 주위에 주구가 갖추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임영진 교수는 "함평 예덕리 만가촌 고분과 영산강유역 고분의 주구"에서 분구형태의 변천과정과 조성 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영산강유역의 고분들은 대형 옹관을 매장주체로 갖고 있는 독특함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지만 대형 옹관을 중심으로 한 내부시설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분구 자체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소홀해지게 되었다. 다행히 근년에 들어 각 고분의 정확한 분구형태에 관심이 집중되고 고분 주변의 시설들에 대한 조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이미 잘 알려진 원형이나 방형 분구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분구가 확인되고 아울러 이들 고분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주구가 확인됨으로써 기존에 조사된 원형이나 방형분구의 고분들도 주구를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원형이나 방형 평면의 고분 가운데 주구가 파악된 예는 나주 반남면의 덕산리 3호분과 대안리 3호분, 영암 시종의 옥야리 14호분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지금까지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된 주구를 갖춘 고분은 다음 표와 같다.

영산강유역의 주구 고분 일람표 <만가촌고분. 장고분 제외>

단위 : m

유적명			평면 형태	무덤 크기	주구 폭	출토 유물
영암군 시종면	신연리	8호	사다리꼴	24.5× 13.7	1.8	목관1, 옹관1
		9호	사다리꼴	20× 14.5× (2)	(1.4)	목관3, 옹관4
		10호	긴사다리꼴	30.5× 12.5× (1.8)	2.4	
		11호	긴사다리골	(25)× 17.5× (1.7)		
		12호	긴사다리골	(20)× 17.5× (0.8)		
		13호	사다리꼴	13× 10.8× (1.4)	1.2	
		14호	긴사다리골	22.5× 15× (0.6)	1.5	
	옥야리	6호	사다리꼴	(30× 23.5× 2.5)	(1.3)	옹관4
		14호	원 형	11× (1.7)		옹관2
	초분골	1호	긴사다리골	33× 15× 5	2.2	목관 3, 옹관5
		2호	사다리꼴	16.5× 15	1.1	목관2, 옹관1
	내동리	7호	사다리꼴	13.4× 9.4× (3)	1.4	토광1, 옹관6
	만수리	4호	긴사다리꼴	(37× 20)	(1.9)	목관7, 옹관2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호	사다리꼴	(16.6× 14.1)	(1.2)	
		3호	네 모 꼴	19× 18× (3.5)	1.1	각변 주구 독립
		9호	사다리꼴	44× 35× (8.4)	1.3	옹관
	신촌리	6호	사다리꼴 ?		(2.0)	옹관
	덕산리	2호	사다리꼴	(28.7× 16.8× 3.6)	(1.7)	
		3호	원 형	(46× 44× 9)		옹관

이 고분들의 연대는 크게 보아 함평 예덕리 고분들이 2세기에서 3세기에 걸치는 가장 빠른 시기에 해당하고 영암 시종이 3~4세기 대, 나주 반남이 4~5세기 대에 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6세기 이후에는 구릉이나 평지의 대규모 고분 대신 산 중복에 소규모 돌방무덤(석실분)들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영산강유역 대형 고분들의 분구는 시기적으로 빠른 만가촌 고분의 분구가 긴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의 고분들은 긴사다리꼴이거나 사다리꼴에 가까운 장방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만가촌 고분과 같은 형태에서 사다리꼴을 거쳐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변천상은 고분의 분포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고 판단된다. 영산강유역에서 가장 많은 고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암군 시종면과 나주 반남면 일대의 고분들을 보면 영산강의 지류인 삼포강을 따라 신연, 옥야, 만수리 등 주로 긴사다리꼴을 가진 영암 시종면 일대의 고분들은 하류쪽에 분포되어 있고 덕산리 등 주로 원형 평면을 가진 영암 시종면 일대의 고분들은 상류 쪽에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반남면 덕산리 일대의 고분들이 대형 옹관묘로서는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으므로 시기적으로 앞선 삼포강의 하류 쪽에 사다리꼴 고분들이 많이 있다가 점차 고분의중심이 상류쪽으로 옮겨가면서 방형이나 원형고분이 주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구형태의 변화 속에서도 주구는 일관하게 조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주구는 배수, 묘역구분, 채토 가운데 한가지이거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영산강유역의 고분에 수반되는 주구들은 분구 축조를 위한 채토가 주목적으로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배수와 모역구분의 삼중 효과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구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채토장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는 이유는 만가촌 고분과 같은 이른 시기의 고분일수록 분구가 넓고 높은 지점이 주구도 가장 넓고 깊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만가촌 고분은 2~3세기 대에 축조된 고분으로 영산강유역의 대형 독무덤 중 이른 시기에 해당하고 모두 주구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공백으로 남아 있는 영산강유역의 원삼국문화를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유적이기 때문에 조속히 2차 마무리 발굴을 시행한 후 복원함과 동시 사적지로 지정 하여야 할 것이다.

3) 월야면 예덕리 신덕 고분군

(1) 발견경위와 발굴조사 경위

신덕고분군은 면도(面道) 204호선(정산리 장교-예덕리 발산), 농도(農道) 310호선(월계리 덕신-예덕리 신덕)이 교차하는 지점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에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용암리와 월계리에는 고인돌과 선돌, 동남쪽 멀리에 월악산성이 있으며, 남쪽 500m 지점에 예덕리 만가촌(萬家村)고분군이 있고, 남서쪽 신성의 개간된 밭에서는 대형 독의 잔편이 무수히 발견되며, 북쪽 1㎞(함평군의 최 북단) 지점에는 1990년과 1991년 전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일부가 발굴된 월계리 석계(石溪)고분군이 있고, 북동쪽 멀리에는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보생리의 고분군이 위치한다.

신덕고분군과 만가촌고분군은 남쪽으로 펼쳐지는 월야평야의 북단으로 해발 20m 이하의 저구릉지대며 1970년대 야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일대가 중장비에 의해 밭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개발에 신덕고분과 만가촌 고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신덕고분은 마을 사람들이 마분정(馬糞町-일제 때 표기. 馬墳頂-원래의 우리 지명) 또는 장고산이라 부르는 등 산으로 믿고 있

어 공동묘지로 활용하였으며 만가촌고분은 문중산이었기 때문이다.

신덕 마을 이장의 말에 의하면 신덕장고분 북서쪽 400m 구릉 하단에 신덕장고형고분과 모양이 같고 또 규모도 거의 같은 고분 1기가 있었는데 윗쪽의 높은 구릉을 깎아내려 현재와 같은 평편한 밭을 일구었다고 한다.

또 당시 작업을 할 때 손질한 긴 돌이 불도저 삽날에 밀려나온 적이 있고 이 돌은 그대로 땅속에 묻혔다고 한다.

이 돌이 신덕장고분 내의 장대석과 같은 성격의 돌이었다면 매몰된 고분 또한 돌방을 갖춘 고분이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신덕고분군은 장고분 1기와 장고분 방부(方部) 바로 북쪽에 원형분 1기가 있으며 이 고분군은 1983년 11월 국립광주박물관 조사진과 필자가 함께 함평군의 문화유적을 지표조사할 때 조사한 고분으로 1기가 일본의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과 분형이 비슷함을 볼 수 있었으나 당시만하여도 한반도내의 장고형고분 존재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없을 때였다.

따라서 함평문화유적지표조사(咸平文化遺蹟地表調査. 국립광주박물관. 백제문화개발연구원 간행. 1984)에서 서성훈(徐成勳)은 신덕고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치 누에고치처럼 보이는 형국이어서 표형분으로 믿었지만 남쪽에 위치한 분구와 북쪽에 위치한 분구의 고저가 심하게 차이가 나서 우선 별도의 것으로 간주하였다. 차후 세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지형이나 지세로 보아 전체로 토축된 분구가 아니고 자연적인 구릉의 정부에 마련된 분묘로 추정된다. 남쪽에 구축된 분구는 원형에 가까운데 동서 직경 26m, 남북 28m, 높이 4m의 거대한 봉토로서 우뚝 솟았다. 봉토 정상에는 예비군 참호가 2개소 파여 있으며 4기의 민묘도 조성되어 있다.

이와 연결되어 북쪽에 위치한 고분은 보다 분구의 규모가 작아서 동서 직경 21m, 남북 22m, 높이 3m 인데 레벨상에서 2m 정도 낮아서 표형으로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 한다. 봉분 위에는 도굴 갱이 뚫려 있고 전방의 봉토와 연결되는 잘룩한 부위에서부터 봉토 남사면에 걸쳐 5기의 분묘가 있다.

두 고분을 연결해서 보면 그 형상이 표형분처럼 보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레벨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송림이 뒤덮여 산처럼 보이기도 한다. 매장 구조는 옹관인지 석실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굴착된 갱을 통해서 성토된 토축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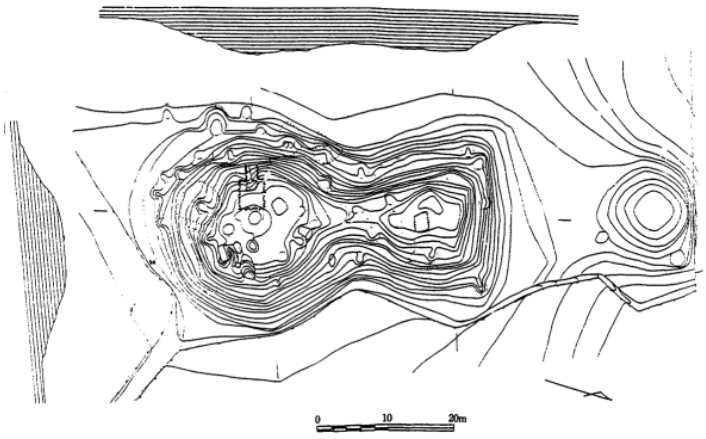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전방후원분과 비슷한 장고형고분이 영산강유역에서 발견되기 시작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강인구 교수는 장고분의 봉토 발생과정을 방형(方形)→장방형(長方形)→구미근(丘尾根)에서 원형화(圓形化), 방형분+방형분 근접→전방후방(前方後方)→후부원형화→전방후원형(前方後圓形)으로 도식(圖式)하고 그 예를 들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영암군 시종면 태간리(泰澗里) 입석의 자라봉고분이 발견되고 이어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 신방의 장고봉고분과 삼산면 용두리 용두장고분이 발견되었고 강인구에 의해 새로 발견된 신방의 장고봉고분이 분구가 측량되어 발표되었으며 그리고 말무덤이라 전해오는 용두장고분이 강인구, 서성훈에 의해 실측 발표되었다.

1989년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 월계 장고분이 발견되고 1990년 8월 손불면 죽암리 산334-4번지의 장고산고분을 필자가 발견하여 학계에 알려 광주박물관에서 현지를 조사 대형의 장고형 고분임을 확인하였고 이 고분의 발견으로 광주박물관에서 죽암, 신덕고분의 분구 측량

을 하기로 하였다.

1991년 3월 21일에 죽암리 장고산고분 측량을 먼저 시작하였다.



신덕고분군 분구 실측도

등고선(等高線. Contour Line)을 25㎝로 한데다 전장 70m에 이르는 대형고분이라 26일에야 측량을 마쳤고 이날 신덕고분을 측량하기 위하여 현지에 도착한 광주박물관 측량진이 장고분 봉토를 살피던 중 원형부의 정상을 벗어난 서쪽 경사면에 동서 방향으로 "ㅓ"자형으로 비교적 정연하게 판 길이 3.5m, 폭 1m, 깊이 0.6~0.8m, 그리고 돌방의 벽쪽은 2m로 넓혀 판 도굴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북쪽의 원형분 1기도 정상부에 도굴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주박물관에서는 동행하였던 나홍채 함평군 공보실 문화관광계장으로 하여금 도굴에 대한 행정조치와 수사를 의뢰토록 했었다.

밖에서 도굴갱을 통하여 내부를 살핀 광주박물관 조사진은 내부에 약간의 유물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제2차 도굴의 염려가 있어 돌방 내부에 대해서 만이라도 긴급 수습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조사계획을 세워 문화재관리국에 긴급 수습조사 허가서를 제출하여 1991년 6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1차발굴을 하였고 문화재관리국과 전라남도 및 함평군의 협조로 3천만원의 발굴비를 확보하여 봉토의 축조 방법 등을 밝히기 위한 2차발굴을 1992년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40일 동안에 시행하였다.

신덕장고분은 분구형태가 장고형이라는데서 주위의 여러 장고형고분들과 함께 관심의 대상이 되며 비록 도굴에 의한 긴급 발굴이었지만 우리 나라 장고형고분중 최초로 그 내부와 외부의 축조형식을 살필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덕장고분을 발굴한 후 새로 전남 지역에서 발견된 장고형고분은,

광주시 광산구 명화동(明花洞)장고분 (1994. 3. 28~5. 20 발굴)

광산구 월계동 1, 2호분

광산구 요기동 조산고분 등이다.

또 영산강유역에 산재한 장고형고분 중 신덕장고분 외에 지금까지 발굴한 고분은

영암 시종 태간리 자라봉고분 : 1991년 발굴. 4세기 축조. 구덩식돌방

광주 광산구 명화동고분 : 1994년 발굴. 앞트기식

광주 광산구 월계동 1·2호분 : 1994년 발굴. 5세기 후반 축조. 굴식 돌방

(2) 장고형 고분(長鼓形古墳)[123]의 현상

① 분구(墳丘)와 외부시설

대체로 남북 장축이며 방부가 북쪽을 향하고 있고 전체 길이가 51m, 원부의 지름이 30m, 방부의 앞면이 25m, 허리부위가 19m이다.

높이는 원부가 가장 높은데 자락에서 5m, 방부의 정상은 4m, 허리부위는 3.25m이고 방부는 앞이 약간 "八"자형으로 벌려져 있다.

봉토의 축조는 가장자리로부터 흙을 먼저 쌓았고 안쪽보다 바깥쪽이 단단하게 다져졌으며 방부(方部)와 원부(圓部)의 연결부분이 톱날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방부와 원부를 동시에 쌓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방부의 정면은 두께가 많은 토층이 겹겹이 쌓인 반면 원부쪽은 3~4개의 토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나타난 토층의 흙이 서로 다른데 이는 흙을 채취한 장소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후원부의 동편은 암흑회색의 질흙층이 두터운데 서편의 흙은 황갈색의 마사토층이 두텁고 동편에 있는 암흑회색의 질흙층은 전혀 없다.

또 방부 앞부분의 토층도 동편과 서편이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장고분의 외부시설로는 도랑과 봉토의 중복과 가장자리에 전반적으로 2단의 석열(石列)이 둘러져 있고 극히 일부만 표토(表土) 위로 노출되어 있다.

도랑은 방부 정면은 정연하지 않고 가운데 부분은 약간 깊게 파 돌렸으나 양쪽 모서리 부분은 희미한 흔적만 보이고 도랑 안에는 충적된 토층에 큰 사람의 머리정도 또는 그 보다 약간 작은 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생토층 바닥에 놓인 것은 없었고 양쪽 모서리 쪽에는 아예 없었다.

방부의 서쪽 도랑은 매우 깊고 원부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각을 이루며 연결되었으며 너비도 3m가까이 되어 넓고 매우 많은 돌이 깔렸는데 바닥에서 30~40㎝ 정도 떠있었다.

이 도랑은 지반을 파서 만든 것으로 봉토의 외곽은 현 지표의 지하에 지반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방부의 동편 즉 허리에 해당하는 곳은 아주 얇게 팠으며 가운데가 불룩하여 방부의 도랑과 원부의 도랑을 구분해 판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부에서는 동쪽과 남쪽의 도랑은 깊게 팠고 널길(연도-羨道)이 위치한 서쪽 부분은 도랑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② 내부 구조와 유물 수습 개황

내부 주체는 돌방이며 돌방은 널길(연도-羨道)과 묘도를 갖추고 있는 대형 굴식돌방이고 돌

123) 우리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고분 중 일본의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과 봉분의 형태가 비슷한 고분을 소재지 지역민들이 모양을 들어 장고산으로 부르고 있다. 이 고분을 일부 학자들은 전방후원형고분(前方後圓形古墳)이라 부르고 있으나 성낙준은 지역민들이 부르고 있는 이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느냐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필자도 이 견해에 따르기로 하여 장고형고분이라고 표기하였다.

방의 방향은 봉토의 장축 방향과는 직교하는 동서 장축이며 널길을 서쪽에 두고 있어서 북쪽에 있는 원형고분 돌방과 같은 방향이다.

돌방의 형식은 소위 "모"자형 돌방구조로 널길이 서벽의 중앙에 달려 있다.

묘방(현실-玄室)에는 중앙에서 약간 북쪽에 치우쳐 널받침(관대-棺臺)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 널조각과 인골편이 남아 있었으며 묘방의 네 벽은 맞조임식으로 쌓았는데 아래에는 넓은 장대 판석석을 깔고 위에는 네모진 막돌을 촘촘히 쌓았다.

막돌은 좌우의 열이 정연하지 않으나 대게 7~8단으로 쌓았고 그 사이에 작은 막돌을 끼었으며 천정은 2매석을 덮었고 입구는 좌우 각 1매의 두꺼운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판석형의 괴석을 얹어 이마돌로 하였다.

묘방의 규모는 긴 벽의 남벽 바닥이 288㎝, 북벽 바닥은 299㎝이고 남벽의 상부는 213㎝, 북벽의 상부는 188㎝이며 동벽은 바닥이 239㎝, 상부가 131㎝이다.

벽의 높이는 가장 낮은 서벽 쪽이 240㎝, 가장 높은 곳은 동벽으로 261㎝이며 천정은 동서로 204㎝, 남북으로 145㎝이다.

널받침은 길이 247㎝, 너비 90㎝, 높이 30㎝이며 길다란 막돌을 남북 방향으로 병렬(竝列)시켜 쌓고 가장자리는 동서 방향으로 세워 마구리 돌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이에 작은 막돌을 채웠다.

관대는 북벽에 붙여서 쌓았으며 서쪽인 입구 쪽은 문턱에서 40㎝가량 떨어져 있고 입구의 문은 높이가 121㎝, 바닥의 너비는 96㎝, 상부는 90㎝이다.

묘방의 바닥은 막돌을 고르게 깔아 편평하게 하였으며 천정과 네 벽 및 문의 안쪽은 주칠(朱漆)이 되어 있고 문비석(門扉石)은 현문의 바깥에 세웠는데 문턱에 약간 못미치게 세운 후 남쪽에서 작은 돌을 끼워 고정시켰다.

묘방의 바닥과 널받침 위에서 도굴 유물을 제외하고 수습한 유물은 1점의 긴목항아리 (장경호-長頸壺)와 다량의 철기, 그리고 장신구류인데 종류별로 보면 널장식에 쓴 여러 가지 관못과 관고리, 마구류로 말재갈과 말띠꾸미개, 발걸이, 생활용구와 무기로는 손칼, 쇠낫, 쇠도끼, 쇠화살촉, 비늘 갑옷 조각 등이며 장신구로는 금제 귀걸이, 금동관 잔편, 각종의 구슬이다.

묘도는 八자형으로 벌려 쌓았으며 정연하지는 않다.

막음돌 끝에서 다량의 토기를 발굴하였는데 대부분이 뚜껑접시(개배-蓋杯)고 굽다리접시(고배-高杯)도 섞여 있었으며 묘도의 남벽 끝에서는 항아리와 약간의 철기 및 칠기(漆器)의 흔적이 넓은 범위에 걸쳐 남아있었고 그중 완형상태로 출토된 문살무늬(격자문-格子文) 항아리는 뚜껑을 돌로 덮었으며 항아리 안에 물이 절반가량 들어 있었고 물 속에는 도미의 뼈로 보이는 물고기 뼈가 들어 있어서 장례와 관련된 의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124]

배수로는 널길 부위의 중앙에서 약간 남쪽에 치우쳐 너비 50㎝, 깊이 15㎝ 정도의 홈만을 팠고 그 안에 잡석은 전혀 넣지 않았다.

널길 부위에는 현문에서 2m떨어진 거리에 두개의 기둥구멍이 있는데 이 역시 의식에 관련된

124) 신덕고분군에서 북쪽으로 1.5㎞떨어진 석계고분군의 돌방무덤에서도 물고기 뼈가 들어 있는 항아리를 발굴한 예가 있다.

것이 아닌가 한다.

석실의 축조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북벽이 위치한 곳의 흙을 걷어낸바 돌방은 생토면에 바닥을 만들면서 벽석을 세우고 상반의 돌을 쌓으면서는 벽석의 안정을 위하여 보강 돌을 경사지게 얹으면서 쌓았다.

돌방이 맞조임식인 까닭에 보강 돌들은 위로 올라가면서 석실쪽으로 좁혀 놓였다. 원형부의 서편에 돌방이 위치하기 때문에 동편에 하나 더 돌방이 있지 않나하여 조사하였으나 다른 내부 축조물은 없었다.

방형부의 이미 파여졌던 곳 북편에서 타원형의 저장구덩이 발견되었다.

이 저장구덩은 고분 축조 이전에 파여졌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풍화 암반으로 구성된 구지표를 타원형으로 파냈다.

깊이는 구지표상에서 120㎝ 정도까지 팠으며 벽은 고르지 않고 벽에 잔나무 뿌리가 많이 붙어 있으며 바닥은 편평하지만 고르지는 않았다.

저장구덩에 채워진 흙은 암회갈색, 회갈색, 황갈색층에 황색마사토층이 간층으로 끼었는데 바닥 가까이에 이르러 약간의 숯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충적토 내에서는 연질 또는 경질의 토기편이 조금 수습되었다.

그러나 바닥에서는 전혀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발굴 모습은 제3편 화보를 참조할 것>

③ 출토 유물 개략

㉮ 토기류

•긴목항아리(장경호-長莖壺) : 돌방내부에서 토기로서는 유일하게 동남 모서리 가까이에서 아가리를 서쪽으로 향한 채 출토되었는데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약간 파손되었다. (높이 21.2㎝. 입지름 12.1㎝, 몸체 최대 지름 16.4㎝)

•문살무늬항아리(격자문호-格子文壺) : 묘도의 남벽 끝에서 출토되었다. 바르게 놓인 채로 돌로 뚜껑을 덮었는데 안에는 절반쯤 물이 들어 있었다.(높이 39.1㎝. 입지름 20.9㎝. 몸체 최대 지름 42.0㎝)

•삿무늬 항아리 (승석문호-繩蓆文壺) : 묘도의 남벽 끝에 붙여 묻혀 있었다. 앞의 문살무늬 항아리와 나란히 놓여 있었으며 돌로 뚜껑을 덮어 바르게 놓았으나 발굴 때는 파손되어 내려앉아 있었다.(높이 37.6㎝. 입지름 19.2㎝. 몸체 최대 지름 36.9㎝)

•굽다리접시(고배-高杯) : 널길 부위 폐쇠석 바로 앞에서 56조에 달하는 뚜껑접시와 함께 3점이 출토되었는데 3점 모두 형식이 다르다.

가장 큰차이는 다리부위에 배치된 굽구멍(투창-透窓)인데 1점은 2단 원형 굽구멍이고 1점은 굽구멍이 없으며 1점은 긴삼각형 굽구멍이 뚫려 있다.

•뚜껑접시 (개배-蓋杯) : 돌방의 현문(玄門) 폐쇠석 앞에서 굽다리접시와 함께 56조가 출토되었고 경질과 연질이 섞여 있으며 뚜껑은 모두 꼭지가 없고 운두(그릇이나 신 따위의 울의 높이)가 비교적 높은 것들이다. 뚜껑(개-蓋)은 몸부위가 얇지만 둥근편이며 대부분 그릇의 면을

회전물손질에 의해 정리했고 그릇의 바탕흙은 가는모래가 섞인 질흑을 사용했다.

㉯ 목관 관계류

•목관잔편 : 관대 위와 북서쪽 바닥에 세워진 채로 떨어져 있었는데 관대 위에 놓인 것은 겹쳐져 있었다.

•관고리 : 모두 8점이 수습되었지만 부식이 심하여 자릿쇠(좌금구-座金具)까지 남아 있는 경우는 3점이다.

자릿쇠는 직경 5㎝ 내외의 원형 철판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단면 원형의 철대(鐵帶)를 구부려 끝을 맞붙인 형태의 쇠못을 끼웠는데 이 쇠못의 머리에 둥근쇠고리(원환-圓鐶)를 달았다.

•관못 (관정-棺釘) : 관못은 머리가 둥근 못, 편원형(偏圓形) 못, 네모 꼴 못의 3종류가 수습되었다. 그 중 둥근 못이 25점, 편원형 못이 18점, 네모 꼴 못이 26점으로 모두 69개체분이 발굴되었으나 부식이 심하여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길이에 따라서는 편원형 못이 대형에 속하고 둥근 못이 다음 크기며 네모꼴 못은 길이가 가장 짧은데 못머리에 모두 은도금이 되어 있어서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박았던 못임을 보여주고 있다.

㉰ 마구류

•말재갈 (함-銜) : 철기류가 무더기로 쌓였던 돌방 서북 모서리에 가까운 현문 안쪽의 북편에서 출토되었다. 철제 삼연식(三連式)으로 수화(銹化. 쇠생의)가 심하고 왼편 재갈 바깥고리(외환-外環) 일부와 긴네모꼴로 된 재갈쇠 멈추개(경판-鏡板)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의 파악은 가능하다.

재갈 길이 : 좌측 9.2㎝. 중앙 6.9㎝. 우측 9.1㎝

고삐이음대 : 좌측 19.1㎝. 우측 18.0㎝. 철판 길이 : 8.2㎝

•말띠꾸미개(운주-雲珠) : 널길과 돌방내에서 각각 1점씩 수습되었고 철에 은장(銀裝)을 한것으로 중앙의 반구(半球)를 중심하여 4개의 다리(각-脚)가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다리에는 각각 1개씩의 머리가 둥그런 못(원두정-圓頭釘)이 박혀 있으며 안쪽을 다시 철대(鐵帶)로 묶어 고정시켰는데 은장식이 대부분 벗겨져 흔적만 남아 있고 반구부의 겉면도 심하게 부식 균열되어 있다.

반구부 직경 3.0㎝. 두께 0.4㎝

•발걸이 (등자-鐙子) : 발을 밟는 부위의 밑면을 이루는 철판대(鐵板帶)로 길이 1.7㎝ 가량의 둥그런 머리를한 못이 좌우 2열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고 안쪽에는 목질이 두텁게 남아 있다.

㉱ 무기류

•쇠도끼(철부-鐵斧) : 15점이 출토되었는데 비교적 작은 것들이어서 부장용인 듯하다.

•쇠칼(철도-鐵刀) : 도굴갱의 매몰된 흙 속에서 파편 상태로 발굴하였다.

•쇠화살촉(철촉-鐵鏃) : 돌방안 서북 모서리에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모두 200개체분 이상이 수습되었으나 파손되고 심하게 부식되어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모두 목이 긴 화살촉(장경족-長徑鏃)이며 화살촉의 형태는 유엽형(柳葉形)과 세모꼴의 두 종류가 있으나 유엽

형 계동이 대부분이며 세모꼴 중에는 화살몸체(족신-鏃身)와 목(경-徑)이 명료하게 구분되는 구(區)를 가진 것이 많다.

•비늘갑옷 (찰갑-札甲) : 돌방 북서쪽 모서리에 쇠화살과 뒤섞여 놓여 있었는데 도굴시 이동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각도 다량이며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가운데가 휘어 있는 것도 있다. (길이 5.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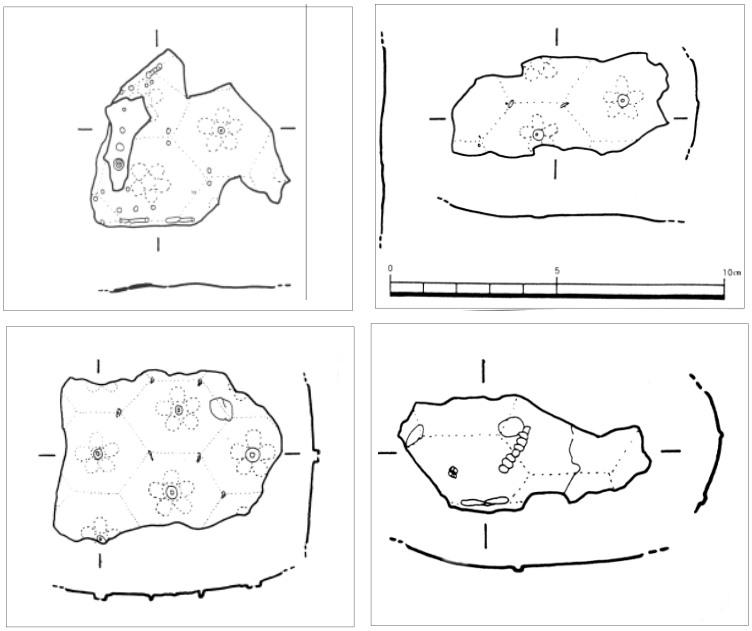
㉮ 농공기류(農工器類)

•낫 (철겸-鐵鎌) : 널길부위에서 출토하였다.

•손칼(도자-刀子) : 칼의 슴베를 감쌌던 칼집 입구의 금구(金具) 부분 1편을 비롯하여 모두 4점이 수습되었다. 3점의 손칼에는 모두 슴베에 세로 방향으로 목질 흔적이 있다.

㉯ 장신구류(裝身具類)

•금동편(金銅片) : 금동편은 대부분 관대의 동쪽에 치우쳐 수습되었는데 두개골의 부스러기와 함께 놓여있어서 침향이 동침이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맞가지 모양(수지형-樹枝形)의 편(片)도 있으며 이 편에는 영락(瓔珞)이 붙어있다. 내관 또는 모(帽)의 편으로 생각되는 이 잔편들에는 육각(六角)의 압출문, 즉 거북등무늬(龜甲文)의 중앙에 작은 화엽문을 압출시켰고 남청색의 구슬이 부착되어 있다. 두께 약 0.5㎜ 가량의 금동판으로 여러 개의 거북등무늬를 연속하여 양출(陽出)하고 거북등무늬의 중앙에는 연두색이나 청색의 작은구슬(옥-玉)이 일과(一顆)씩 부착되어 있다. 또 작은 구슬을 중심으로 하여



1호분출토금동편

그 주위에 오판화문(五瓣花文)이 1개씩 타출(打出)되어 있다. 거북등무늬 1변의 길이는 1.6㎝이고 거북등무늬 안에 1개씩 배치한 오판화문의 폭은 1.2~1.5㎝, 작은 옥의 지름은 0.2~0.4㎝이다. 거북등무늬의 육각형을 나타내는 선들이 서로 만나는 접점에는 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2개의 구멍을 뚫고 거기에 가는 금동선을 꿰어 여러 번 꼰 다음 끝에는 둥근 영락을 매달았다.

도금 부분은 대부분 탈락되어 군데군데 흔적만 남아 있고 영락들도 대부분 결실되었다.

다음에 설명할 맞가지장식의 편과 함께 생각한다면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9호분, 을독(乙甕棺)에서 출토한 금동관의 외관(外冠)이 연상되지만 이 금동관의 내관에 배치된 인동문이나 같은 을독 출토 금동답(金銅沓)의 마름모무늬(菱形文)와는 문양상의 차이를 보인다. (현존 길이 6.5㎝. 6.6㎝. 7.7㎝. 5.8㎝)

•금동관편(金銅冠片) : 앞에 설명한 금동잔편들과 동일한 형태의 맞가지 모양으로 재단하였고 작은 구슬이나 영락의 형태 부착방법도 같다. 줄기 부분이나 꽃잎 부분의 가장자리에는 한줄의 점열(點列)을 타출하여 구획을 하였으며 장식적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 중앙의 줄기 부분에서 3군데, 좌우의 가지 부분에서 6군데의 영락 흔적이 발견된다, 금동관의 외관 장식일 가능성이 높다.(현재 길이 7.1㎝)

•금제 귀걸이 (금제이식-金製耳飾) : 한 쌍이 북쪽 측면 관대석 사이에 떨어져 있었다. 두께 0.3㎝의 금대(金帶)를 둥글게 다듬고 그것을 구부려 둥근고리를 만든 간단한 형식으로 주환(主環)만 2개며 중간 장식이나 끝의 장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鈴泉里) 돌방고분에서 출토된 귀걸이와 비슷한 형태다.

•옥류(玉類) : 곱은옥 4점, 호박제 대롱옥(관옥-琥珀製管玉) 10점<3점은 표면이 팔각 (八角)을 이루는 다면옥(多面玉)이며 나머지 7점은 배가 부른 대롱형, 또는 대추형임>, 다색환옥(多色丸玉) 4점, 유리옥(琉璃玉. 지름 0.5㎝ 이상의 비교적 굵은 것으로 1점은 백색, 9점은 연두색, 20점은 청색이며 구옥이지만 양쪽 마구리를 편평하게 만들어서 구옥과 북옥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음) 30점, 이음구슬 (연주옥-連珠玉. 지름 0.3㎝ 내외이며 백색 유리옥에 금박 은박을 입힌 것으로 0.1㎝ 내외의 구멍이 뚫림) 102점, 중공(中空)의 반구(半球)를 붙여 만든 은공옥(銀空玉), 극소형의 작은 옥은 황색이 64점, 흑색이 451점, 연두색이 4,067점인데 이것들이 관에도 장식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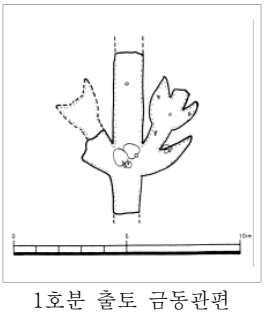
㉮ 기타

•철지도금 원형장식(鐵地鍍金圓形裝飾) : 2점이 출토되었고 두께 0.1㎝의 철판으로 반구형태를 만들어 윗면에 하나는 은도금을 했으며 하나는 금도금을 했다. 반구 가장자리는 수평으로 외반(外反)되면서 짧은 둘레의 가장자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가장자리의 양쪽에 원형장식을 부착시킬 때 썼던 연결용 굽구멍(투공-透孔)의 흔적을 볼 수 있고 바닥에는 가죽 흔적이 부착되어 있다.

④ 도굴품의 압수 경위

신덕고분은 앞 항에서 언급하였듯이 도굴되는 수난을 겪은 고분이다.

도굴 사실의 확인 시점이 도굴행위가 일어난 직후였기에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중 신원을 밝히지 않은 관람객을 가장한 사람이 국립중앙박물관 동문에 포장 상자를 맡기고는 찾아가지 않아 그 내용물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물은 철제 긴칼, 투구, 갑



1호분 출토 금동관편

옷, 모진쇠창(철모-鐵鉾), 물미(석돌-石突), 마구류 등 고분 출토의 철기류였다.

이 유물이 혹시 신덕고분에서 도굴한 것이 아닐까 추정되어 수습 조사 유물과 대조 확인한 결과 신덕고분 출토품이 확실해졌고 그 후 붙잡힌 일부 도굴범의 진술에서 거듭 확인되었다.

⑤ 신덕 장고형고분의 성격과 붙임말

이 고분은 도랑을 가진 고분이고 돌방이 원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며 완전한 성토분이라는 점과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내부구조가 밝혀진 장고형고분으로서 앞으로 원삼국 또는 삼국시대의 고분연구는 물론 일본의 고분과 비교검토 될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비록 도굴꾼에 의해 일부 유물이 훼손되고 또 그 놓인 위치를 분명히 밝힐 수 없는 점과 아직 도굴범 전원이 잡히지 않아 유물의 전모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수습발굴에서 출토되었던 금동관의 잔편이 압수유물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 현재는 아쉬움을 더하고 있지만 돌방 내부와 묘도에서 확인된 자료와 압수 유물을 통하여 고분문화의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들이 보충된 것은 사실이다.

후일 정식 발굴보고서가 나올 때는 도굴범이 모두 잡혀 신덕장고분의 유물 전모가 소상히 밝혀져 고분 축조 당시의 사회 제 측면을 살핌으로하여 부족한 문헌사의 방증자료로서 고대사의 재구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3) 원형고분(圓形古墳)의 현상

① 분구와 외부 시설

이 고분은 장고형고분의 방형부 끝자락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봉토는 각 트렌치의 토층 단면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단단하게 다졌으며 흙은 주변에서 채토한 것으로 보이는 주로 적색의 마사토로 이루어졌고 켜를 형성하고 있다.

널길 부위의 배수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시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널길 쪽은 돌방을 폐쇄한 후 메웠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이곳의 토층만이 켜를 형성하지 않고 단순층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곳보다 흙이 무르기 때문이다.

또한 봉토내에서 상당량의 작은토기 파편과 돌화살촉, 쇠낫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주변의 문화층에서 채토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봉토의 범위 안에서는 민묘의 흔적이 없었으나 남서구역에서 민묘 등이 나타났고 봉토의 서쪽 자락 즉 배수로의 북쪽에서 3독합구식의 현대 독이 놓여 있었다.

봉토 정상의 남반부에는 함몰 부분은 없었으나 도굴갱이 긴네모꼴로 넓게 나타났고 이 도굴갱은 돌방의 천정돌을 들추고 행해진 것이다.

도굴 때 천정돌을 들추고는 큼직한 막돌을 고인 후 드나든 것으로 판단한다.

봉토의 규모는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지름 20~21m 정도로 추정되며 형태는 정원형(正圓形)에 가깝고 봉토의 높이는 구지표를 기준으로 할 때 3m 쯤이다.

발굴 전에는 봉토의 자락을 벗어나서는 거의 편평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이 원형분에 도랑이

있을 것이라고는 추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 발굴하여 보니 깊이나 너비가 고르지 않은 도랑이 파였음을 확인하였다.

도랑의 대체적인 너비는 2~3m, 깊이는 깊은 곳은 1m에 가까우나 낮은 곳은 흔적 정도만 남아 있고 봉토의 서쪽, 즉 배수로가 뻗어 있는 곳은 흔적도 없었다.

장고분의 돌방 서쪽의 자락에도 도랑의 흔적이 없었는데 이 원형분도 도랑을 돌렸으되 배수로가 있는 서쪽의 자락으로는 원래 도랑을 파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② 내부구조

돌방이 축조되어 있다.

돌방은 전형적인 백제계 굴식(횡혈식-橫穴式)으로 백제 후기에 많이 축조되고 있는 평사천정 또는 굄식천정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내부가 완전히 도굴되었고 바닥에 깔았던 편평석들도 들추어져 흩어져 있었다.

도굴은 적어도 2차에 걸쳐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은 천정석 1매를 떠들고 침입하였고, 또 한 번은 널길의 천정석을 옆으로 재끼고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발굴 조사 당시 돌방의 내부에는 도굴갱을 통해 흙이 쏟아져 들어와 절반 이상의 공간이 흙과 돌들에 의해 충적된 상태였다.

이 돌방은 부여 능산리 동 5호분과 비슷하며 긴네모꼴의 널방(현실-玄室)에 짧은 널길과 묘도가 딸리고 길다란 배수로가 뚫려 있다.

장축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이며 천정석이 구지표면에 놓인 지하식 돌방에 해당한다.

널길은 남벽에 치우쳐 있고 널길까지의 석재는 모두 잘 다듬은 판석을 이용하였다.

묘도는 매우 짧으나 바깥을 벌렸고 돌방의 축조는 먼저 지표상에 돌방의 규모보다 약간 넓은 긴네모꼴의 구덩이를 140㎝ 정도로 파고난 뒤 벽석을 세우기 위한 세장한 홈을 파서 수직으로 놓은 후 파여진 구덩이의 벽에 버팀목을 받쳐가면서 돌방을 짜 맞추었다고 생각된다.

널방의 크기는 길이가 250㎝이고 너비가 125㎝여서 2 :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천정까지는 119㎝이며 굄돌의 높이는 24㎝이고 천정의 너비는 90㎝이다.

널방의 석재는 천정 4매, 북벽 3매, 남벽 4매, 동벽 1매, 서벽 3매인데 동벽은 상부를 사다리꼴로 다듬어서 굄돌과 천정돌이 맞닿을 수 있게 처리하였고 서벽은 남벽쪽은 석주형의 판석을, 북벽쪽은 장대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사다리꼴로 다듬은 판석을 중방 즉 이마돌로 올려 놓았다.

그리고 굄돌은 남벽과 북벽 모두 2매를 끼웠으며 각 돌의 이음매에는 황백색의 차진 질흙으로 틈을 매워 방수를 하였다.

바닥은 오벽인 동벽에 붙은 판석만이 본래의 위치에 놓여 있을 뿐 나머지는 제 위치를 벗어나 있어서 추정 복원하였으나 정확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런데 바닥석은 천정이나 벽석처럼 잘 다듬은 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돌들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널방 바닥의 아래에는 배수를 위하여 깨진 잔돌을 깔았는데 널길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장축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너비 50㎝, 깊이 20㎝ 내외의 배수로를 지반을 파서 만들고 그 곳에도

잔돌을 가득 채워 넣었다.
이 배수로는 봉토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곳까지 연이어 있다.

널길부위는 짧은 널길과 넓게 벌어진 묘도로 구성되어 있다.

널길은 양벽과 천정, 바닥을 각 1매의 잘 다듬어진 판석으로 짜 맞추었으며 바닥석 만은 밑에 홈을 파서 배수가 용이하도록 다듬었다.

널길의 길이는 55㎝이며 너비는 널방쪽이 84㎝, 입구쪽이 81㎝이고 널길 끝에는 굵은 할석재의 폐쇄석이 놓였고 널길 바닥에도 폐쇄석이 있었으나 도굴로 제 위치를 벗어나 있어서 원래의 상태는 알 수가 없었다.

널길 끝에 달린 묘도는 남벽은 80㎝, 북벽은 100㎝이고 남벽에는 판석형의 돌 1매를 세우고 나머지를 납작한 막돌로 쌓았다.

북벽은 할석을 옆으로 길게하여 쌓았으며 널길의 벽석 끝에 큰 할석을 비스듬하게 기대어 놓아서 이 돌이 묘도석과 닿아 있다.

벽의 높이는 널길 천정석의 높이와 같게 하였다.

배수로는 매우 길어서 널길 끝에서 18.5m 에 달한다.

따라서 봉토의 직경이 대체로 20m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봉토의 범위를 벗어나 뻗었는데 이는 배수로의 레벨을 유지하면서 지표면에 이르기까지 밋밋한 경사로 이루어진 서쪽으로 확대하였던 때문인 듯하다.

배수로는 지반을 1.5~1m 정도로 널길의 바닥 깊이까지 판뒤 다시 너비 50㎝ 내외로 좁힌 구덩이를 파고 여기에 크고 작은 막돌을 가득 채웠다.

배수로에 막돌을 깔 때 양벽쪽에는 편평한 막돌을 세워서 배수가 보다 용이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수로에 세워진 막돌 가운데는 돌방의 석재와 동일한 것들이 작은 파편으로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석재를 현장에서 다듬으며 돌방을 축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출토유물

㉮ 돌방내부 출토유물

적어도 2차에 걸쳐 도굴되었기 때문에 수습한 유물이 3종밖에 되지 않는다.

㉠ 사발형 토기편

도굴갱으로부터 유입된 흙 속에서 수습되었으며 파편이지만 입술부위로부터 밑바닥 일부까지 남아 있어 기형의 복원이 가능하다.

납작 바닥에 거의 곧은 몸통을 가지며 몸통 끝에서 입술이 짧게 바라져 있는데 입술부위 안쪽에 요면(凹面)이 있고 바탕흙은 질흙에 약간의 모래가 섞였으며 회흑색을 띠는 경질이다.

전면을 물레에 의한 회전물손질을 하였다.

높이 8.3㎝

㉡ 관못

돌방안 널문 안쪽에서 북벽에 치우쳐 5점이 출토되었는데 부식이 심하고 특히 못머리가 대부분 결실되어 못머리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못 면의 단면은 모두 네모꼴이다.

㉢ 북옥(구옥-臼玉)

남청색 유리제로서 상 하면은 반듯하게 잘랐으며 측면은 둥글게 되어 있다.

중앙에 줄을 끼는 구멍이 1개 있다.

길이 0.45㎝, 직경 0.65㎝

㉡ 봉토에서 출토된 유물

토기류로는 토기 입술부위편 3점, 청자 접시 1점, 두들개(박자-拍子) 1점 도가니(감과-坩堝) 1점, 가락바퀴(방추차-紡錘車) 1점이 출토되었다.

철기류로는 낫 1점, 석기류로는 돌화살촉 1점이 출토되었다.

㉠ 주변 유규에서 출토된 유물

장고분과 원형분 사이의 평탄지에서 수습된 현대옹관들은 모두 일상용의 옹기들인데 자배기류와 물동이류의 두 종류다.

이 고분 일대는 근세에 들어 공동묘지로 이용되던 곳이다.

㉣ 신덕 원형고분의 성격과 축조 시기

원형분은 장고형고분의 방부 북쪽에 있어서 배총인지의 여부가 의문이었는데 서로 도랑을 함께 하지않고 있고 돌방의 구조도 상이하며 시기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어 배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고분의 돌방형식은 백제후기의 능산리 고분양식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남지방에서 이러한 돌방형식은 적어도 6세기 중반 이후에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맞조임식의 돌방인 장고형고분과는 상당한 시기를 가질 것으로 본다.

4)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고분군[125]

고양촌 고분군은 대덕리 고양촌 295-5번지 일대, 즉 마을 남쪽 구릉 정상부에 있는 대덕리 고양 고분군 가군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능선상에 분포하고 있다. 현재 고분의 주구로 볼 수 있는 것이 3기이지만 평면 방형인 주구를 제외하면 고분과의 관련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그리고 환두도가 출토된 토광묘를 비롯한 4기의 토광묘와 옹관묘 1기가 더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석관묘 등이 다수 조사되었다.

(1) 1호분(1호 주구)

125) 이영철·이은정, 『함평 고양촌 유적』, (재)호남문화재연구원·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5.

구릉 정상부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거지와 석관묘를 파괴하고 축조 하였다. 현재 남동쪽 부분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구는 ㄷ자형을 띠고 있지만 원래는 ㅁ자형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너비 200~450㎝ 깊이 12~62㎝이다. 평면 방형인 고분의 주구로 추정되며 분구에 해당하는 주구 내곽 부분의 규모는 길이 11m 이상 너비13.3m 이다. 고분의 장축방향은 동북-남서이며 남동쪽 주구에서 장란형토기와 타날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 2호 주구

구릉 정상부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주구는 평면 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너비 34~50㎝ 깊이 6㎝ 내외이다. 주구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 즉 분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서지름 3.45m 남북지름 3.65m로 소형이다. 고분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작은 편이며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

(3) 1호 옹관묘

구릉 북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옹관묘의 동쪽에는 너비 35~70㎝, 깊이 4~14㎝ 크기의 주구가 감싸고 있는데 상호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옹관은 토광을 파서 안치하였는데 단옹식이며 막음시설이나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옹관의 밑 부분은 의도적으로 깼다.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한 동-서이며 크기는 길이 117㎝ 너비 89㎝이다. 옹관 안에서 광구소호와 철정이 출토되었다.

(4) 1호 토광묘

평면 장방형의 토광묘로 15호 석관묘, 2호 주구와 중복되어 있다.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축방향은 동-서이고 길이 151㎝, 너비 46㎝, 깊이 33㎝이다. 바닥에서 환두도가 출토 되었다. 고양촌 유적에서는 토광묘가 3기 더 조사되었으나 출토된 유물이 없이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5) 함평읍 만흥리 국산 고분군[126]

국산 고분군은 함평읍 만흥리 국산마을 뒤 구릉 정상부(전 312-46번지)에 있는데 토광묘 2기가 남북으로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분포하고 있다.

토광묘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한 북동-남서이며 중복된 1호 주거지와도 같은 방향이다. 고분과 주거지의 선후관계는 주거지가 먼저 조영된 것으로 밝혀져 이 일대가 주거공간으로 이용되다가 점차 매장공간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1) 1호 토광묘

1호 주거지의 북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2호 토광묘와 바로 인접해 있다. 토광의

126) 최성락·한옥민, 『함평 성남·국산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1.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토광은 수직으로 파졌는데 북벽은 생토를 팠으며 남벽은 주거지의 퇴적토를 파 들어가서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토광의 크기는 길이 230㎝, 너비 134㎝, 깊이 46㎝이고 목관 흔적으로 추정되는 회백색 점토 띠가 부분적으로 확인 되었다. 주구나 분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바닥 중앙에서 호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2) 2호 토광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며 1호 토광묘에서 남쪽으로 2m 정도 떨어져 있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다. 토광은 생토를 ㄴ자형으로 파서 축조한 지하식이며 북벽 아래에서 141x72㎝ 정도의 단을 형성하고 있다. 크기는 길이 396㎝, 너비 158㎝, 깊이 40㎝ 정도이다. 목관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분구나 주구도 조사되지 않았다. 경배, 호형토기, 직구단지, 호형토기편, 부형철기 3점, 철겸 2점, 이형철기, 철도자, 철모형철기 등이 출토 되었다.

6) 함평읍 성남리 고분군[127]

성남리 고분은 함평읍 성남리 성북마을 서쪽 구릉상(전 871 일대)에 위치한다. 이 유적에서는 토광묘 4기, 옹관묘 2기와 함께 원형유구 100여개,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5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토광묘는 구릉 하단부에 옹관묘는 구릉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토광묘 4기는 서로 30m 이상씩 떨어져 있으며 1기만 주구가 둘러쳐 있다. 옹관묘 2기 가운데 2호는 훼손이 심해서 원형을 파악할 수 없고 1호는 대형 옹관묘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1) 1호 토광묘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크기는 길이 258㎝, 너비 87㎝, 남은 깊이 5~7㎝이다. 호형토기, 경배, 토기 동체부편, 철도자, 옥 등이 출토 되었다.

(2) 2호 토광묘

토광은 절반 정도 파괴되었지만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크기는 남은 길이 120㎝, 너비 92㎝, 남은 깊이 20~25㎝이다. 호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3) 3호 토광묘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동-북서이다.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규모는 길이 257㎝, 너비 158㎝, 깊이 5~10㎝이다. 4호 토광묘의 주구와 중복되어 있는데 3

127) 최성락·한옥민, 『함평 성남·국산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1.

호 토광묘가 먼저 조영되었다. 호형토기와 옥 등이 출토되었다.

(4) 4호 토광묘

토광 주위에 주구가 둘러져 있다. 토광묘는 지반토를 얕게 파서 조성한 반지하식이며 분구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크기는 길이 270㎝, 너비 90㎝, 깊이 4~8㎝이다. 토광 바닥에서 회백색 점토띠가 확인되고 있어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구는 ㄱ자 형태로 일부만 남아 있는데 크기는 남북 길이 710㎝, 동서 길이 272㎝, 최대 너비 96㎝이다. 퇴적토에서 토기편 1점이 출토되었다.

(5) 1호 옹관묘

주옹과 부옹의 구연부를 맞대어 놓은 합구식 옹관묘이다. 주옹은 산사면 위쪽인 북쪽에 두고 부옹은 남쪽에 놓았으나 주, 부옹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주옹의 밑 부분을 의도적으로 뚫고 장경호로 마감한 일종의 3옹식이다. 장축방향은 남동-북서이다. 주옹의 크기는 복원구경 90.2㎝, 남은 높이 112.3㎝ 이며, 부옹의 크기는 복원구경 93㎝, 남은 높이 98.2㎝이다. 막음옹으로 사용된 장경호는 구경 29.4㎝, 동최대경 24.6㎝, 저경 13.2㎝, 높이 36.2㎝이다. 출토된 유물로는 광구호를 비롯하여 토기저부편, 철부, 옥 등이 있다.

(6) 2호 옹관묘

1호 옹관묘에서 북쪽으로 15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심하게 파괴되어 원래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옹관 구연부 주변에서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7) 함평읍 진양리 중랑(하느리) 고분군[128]

중랑 고분군은 함평읍 진양리 중랑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조문수 씨 소유의 밭 953-6번지와 장선표, 장재호 씨 소유의 임야 일대 구릉에 소재하였었다. 이 유적은 해발 58m와 해발 62.1m의 구릉 사이에 형성된 모두갯재를 통과하는 일반도로 23호선의 동·서 양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23번 일반국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가지구, 동쪽은 나지구로 구분되는데, 가지구에서는 제형고분 및 그와 관련된 목관묘 2기와 별개의 토광묘 1기 및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나지구에서는 방형고분이 조사되었다.

중랑 유적에서는 이밖에도 청동기시대(3기), 철기시대(3기), 삼국시대(199기)에 이르는 205기의 수혈주거지가 발굴 조사되었다.

(1) 제형고분

128) 최성락·이영철·한옥민·윤효남, 『함평 중랑유적 Ⅱ-분묘-』,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3.

가지구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고분의 분구는 전혀 남아 있지 않고 ㄷ자형으로 돌아가는 평면 장제형의 주구만 남아 있다. 고분의 중심부에서는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쪽 끝 부분에서 고분의 장축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조영된 목관묘 2기가 조사되었다. 고분의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며 규모는 길이 29.52m, 너비 20.24m이고 주구의 깊이는 56~90m이다. 주구 바닥에서 대옹편 등이 출토되었다.

① 1호 목관묘

제형고분의 꼬리 쪽에서 조사되었다. 위치로 보아 제형고분과 관련된 매장시설로 추정된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에 가까운 북동-남서이다. 토광의 크기는 길이 267㎝, 너비 100㎝, 깊이 9~14㎝이다. 토광에는 목관을 안치하였는데, 목관의 크기는 길이 204㎝, 너비 79㎝이다. 적갈색연질토기편과 철겸이 출토되었는데 적갈색연질토기편은 호형토기로 추정된다.

② 2호 목관묘

제형고분의 꼬리 쪽에서 조사되었는데 위치로 보아 제형고분과 관련된 매장시설로 추정된다. 1호 토광묘의 바로 서쪽에 있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나 변이 고르지 못하며 장축방향은 동-서이다. 크기는 길이 168㎝, 너비 57㎝, 깊이 5~12㎝이며 바닥에 부분적으로 회백색 점토띠가 확인되고 있어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에서 회백색연질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 3호 토광묘

가지구의 동쪽 구릉사면에서 조사되었다. 61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있는데, 주거지가 축조되면서 북쪽부분이 절반 이상 파괴되었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크기는 남은 길이 95㎝, 너비 116㎝, 깊이 10~16㎝이다. 바닥에서 구형 호와 소형 호가 출토되었다.

(3) 1호 옹관묘

가지구의 동쪽 구릉 끝자락에서 조사되었다. 옹관묘는 118호와 119호 주거지의 중간에 있는데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퇴적된 흑갈색 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옹관은 전용 옹관 1개만 있는데 굴광 상태로 보아 주옹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동-서에 가까운 북서-남동이다. 주옹은 황갈색연질이며 크기는 남은 높이 109㎝, 복원 동최대경 72.5㎝, 기벽 두께 15~20㎝이다. 옹관에서 철자도와 옥이 출토되었다.

(4) 나지구의 구릉 서사면에서 조사되고 주거지들이 폐기된 이후에 조영 고분의 분구는 완전히 삭평되었고 주구만 남아 있으며 그나마 서쪽 주구는 국도 23호선이 건설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다. 분구는 남아있지 않지만 주구 내곽이 30x30㎝ 정도여서 분구는 정방형으로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구의 크기는 너비 2.5~5.54m, 깊이 0.25~1.25m인데 바닥은 모서리로

가면서 깊이가 얕아진다. 북쪽 주구에 대옹편과 함께 석실 벽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노출되어 분구에는 여러 기의 매장시설들이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구에서는 다량의 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 분주토기, 호형토기, 유공광구소호, 개배, 옹관편, 완형토기, 발형토기, 시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분주토기는 주구 전면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분구 가장자리에 배열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8) 손불면 죽암리 소명 고분[129]

소명 고분은 손불면 죽암리 소명마을 서쪽 구릉상(산9-10)에 위치한다. 이곳은 해발 46.9m 높이의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내려오는 구릉 능선에 해당하는데,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7기를 비롯하여 삼국시대의 수혈주거지 183기, 토기제작 관련 수혈 1기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분은 이들 주거지 군집에서 약간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데, 구릉 능선에서 남서쪽으로 분지된 작은 가지 구릉의 정상부(해발 32m)에 해당한다. 고분이 위치한 곳을 바로 벗어나면 구릉은 급경사를 이루며 떨어지고 있다. 고분에서 남쪽으로 2㎞ 정도 떨어져 함평 죽암리 장고산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소명 고분은 원형 고분으로 분구는 완전히 삭평되었고 원형으로 돌아가는 주구가 얕게 남아 있다. 주구의 크기는 너비 2.2m, 깊이 8~19㎝이다. 주구만 남아 있기 때문에 고분의 구조와 규모 등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구 내곽선 지름이 8.8m, 외곽선 지름이 11.1m 이므로 지면이 삭평된 것을 고려해 보면 원래는 주구 내곽선 지름이 8m, 외곽선 지름이 12m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원래 고분의 규모는 분구 지름 8m, 주구 너비 4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주구의 남동쪽에서 원저호 2개체가 출토되었고 황백색 연질의 파수와 파편들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이 고분의 발굴조사는 2003년 전남대학교 박물관과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실시되어 『함평 소명 주거지』 라는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9) 학교면 월산리 송산 고분군

월산리 송산유적에서는 주거지 3기를 비롯하여 옹관묘 12기, 석관묘 1기, 주구토광묘 8기, 토광묘 7기,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석관묘에서는 4매의 개석이 확인되었으며, 벽석 주변으로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특히 석관 주변으로 10㎝ 내외의 주공이 등간격으로 확인되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옹관묘는 일상용기를 사용하여 횡치한 합구식으로 3옹식과 단옹식도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주구토광묘 8기, 옹관묘 6기,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주구토광묘는 유적의 구릉 정상부와 중앙부에 조영되었고 형태는 원형계(타원형), 방형계로 구분되며 매장주체

129) 임영진·이승룡·전형민, 『함평 소명 주거지』, 전남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3.

부는 모두 토광묘이다. 부장유물은 주구에서 이중구연호와 토기편이, 5호 매장주체부에서 철겸과 철부가 1점 출토되었을 뿐 전반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삼국시대 옹관묘는 정상부에서 중앙부까지 사면부에 조영되었으며 횡치한 합구식으로 일상 용기를 사용한 것과 고식(선황리식) 옹관을 합구한 것이 있다. 토광묘는 장축 길이가 4m가 넘는 대형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변에서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고 있어 주구와 관련된 묘제일 가능성이있다.

10) 학교면 월산리 반암 고분군[130]

반암고분군은 학교면 월산리 반암 전 258-1번지 일대에 총 9기의 고분이 있는데, 이곳은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해발 60~70m의 구릉 정상부에 해당한다. 다시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m 지점에는 마산리 표산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이 고분군은 지난 2005년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제형계고분 7기, 방형고분 1기, 원형고분 1기 등과 함께 삼국시대 주거지 25기, 환호시설 등이 발굴 조사되었다.

제형고분과 방형고분은 구릉 정상부에 모여 있고 원형고 분은 주거지들이 군집해 있는 동쪽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1) 제형계고분

구릉 정상부와 사면에 이어지는 지역에서 7기가 조사되었다. 분구는 완전히 삭평되고 주구만 남아 있다. 주구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에서 토광묘와 옹관묘가 조사되었지만 유물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2) 방형고분

제형고분들과 같이 구릉 정상부에서 사면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방형을 띠는 주구가 ㄱ자 형으로 남아있다. 매장시설로는 토광묘와 옹관묘가 조사되었는데 중심부에 토광묘가 조영되고 나서 옹관묘가 축조되었고 일상 용기를 사용한 옹관묘와 토광묘가 1기씩 더 추가되었다.

(3) 원형고분

학교천 일대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에 입지하며 바로 인접해서 주거지들이 위치해 있다. 고분은 주거지들과 제형고분이 폐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영되었다.

130) (재)호남문화재연구원, 「무안~광주간 고속도로건설공사구간내 문화유적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및현장설명회자료), 2005.

11) 엄다면 성천리 와촌 고분[131]

성천리 와촌 유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되어 2001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와 2003년 호남문화재연구원의 시굴조사를 통해 20개의 유적이 확인된바 있고, 2004~2005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와촌마을은 해발 70~80m의 구릉성 산지 동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유적은 마을에서 동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구릉성 산지 사이에 형성된 계곡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들어오는 계곡이 끝나면서 경사지로 변화되는 곳으로 해발 25~45m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이 유적에서는 생활유적으로는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6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55기와 함께 수혈유구 및 구상유구가 조사되었고, 매장유적으로는 청동기시대 석곽묘 2기와 토광묘 7기, 그리고 고려·조선시대의 무덤 등이 조사되었다.

와촌 유적은 함평천으로 합류하는 작은 계곡의 시작지점에 위치하고 있지만 삼국시대에 이르면 50기가 넘는 주거지들이 밀집분포하고 있는 중급 규모의 취락을 이루고 있다. 이 유적은 당시 취락의 입지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삼국시대 주거지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엄다면 신계리 장동 · 생곡 고분[132]

신계리 장동·생곡 유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되어 2001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와 2003년 호남문화재연구원의 시굴조사를 통해 20개의 유적이 확인된바 있고, 2005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신계리는 함평의 남서쪽에 위치하는데 대부분 50m 이하의 낮은 구릉과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다. 유적은 20~30m 내외 높이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서로 700m 간격을 두고 2개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2개의 유적 가운데 동쪽 구릉의 고속도로 본선 부지에 위치하는 유적을 장동유적, 서쪽 구릉의 함평분기점 부지에 위치하는 유적을 생곡유적이라 명명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장동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9기, 옹관묘 2기, 용도 미상의 수혈 2기 등이 조사되었고, 생곡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6기, 조선시대의 건물지와 회격묘 1기가 조사되었다. 대규모 취락유적은 아니지만 길이 9m에 이르는 대형주거지와 외곽을 도랑이 감싸고 있는 주거지 등이 확인되어 이 지역의 삼국시대 주거지 연구에 있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 대동면 금산리 노적 고분군

금산리 노적 고분군은 국도 23호선과 지방도 808호선이 교차하는 삼거리 농협 창고 뒤 구릉

131) 전남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함평 성천리 와촌 유적』, 2007.
132) 전남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함평 신계리 유적』, 2007.

에 위치한다.

고분은 1970년대에 야산을 개간한 이복남 소유 800여 평의 밭과 개간하지 않은 200여 평에 수십 여기가 분포했었는데, 개간한 밭에는 고분인 것 같아 남겨두었다는 흙무더기 네 개가 있을 뿐이며 개간하지 않은 산에는 자세히 관찰하면 5~10m의 간격으로 8기가 있으나 봉분이 뚜렷이 남은 것은 1기뿐이다.

개간할 때 많은 고분을 훼손하였지만 석재는 나온 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개간한 밭에 무수히 널려있는 각종 토기편을 볼 때 이곳의 고분은 널무덤(土壙墓)이 주를 이룬 듯 하다.

개간하지 않은 서쪽 산속에 초승달 형태를 한 둔덕이 고분 분포지를 에워싸고 있는데 폭 4m, 높이 2m, 길이 130m이며 오늘날 묘 뒤에 물에 의해 토사가 들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두르는 둔덕과 같다.

이 고분군은 함평~함평IC 구간내 문화유적조사에 따라 2003년 4월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이 유적에서는 주거지 7기, 주구 2기, 수혈 5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구릉의 사면에 축조되어 하단부가 모두 유실된 상태로 조사되었는데 구릉 전면에 고르게 분포하며 중복된 것은 없다. 평면형태는 기본적으로 방형이며 내부시설로 부뚜막, 연도, 주공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외부의 어깨면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형 주구가 돌려져 있다. 화덕은 4기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는데 유실이 심하여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부뚜막 구조로 동벽 중앙부에 축조되었다. 2호 주거지에서 점토로 만든 부뚜막 벽체가 확인되었고, 3호 주거지에서는 석재를 이용한 지주시설, 4호 주거지에서는 판석을 이용한 구들, 그리고 2·3·5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 외부로 이어지는 연도부가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은 대부분 토기로 총 166점의 유물 중 토기 160점이며, 석기 4점, 철기 1점, 옥 1점이 있다. 토기에는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등 생활용기와 개배, 고배, 분주토기 등 고분관련 유물도 포함되어 있다.

14) 대동면 향교리 향교 고분군[133]

향교리 향교 고분군은 대동면 보건소 남쪽 산사면 끝자락 산 24, 26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은 소로를 만들면서 호형토기 1점이 발견되어 2000년 5월 매장문화재로 신고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분구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나 단정하기 어렵고 높이 20~40m 정도의 성토흔적이 관찰된다. 유물은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 까지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 하였는데 제형주구를 갖춘 고분에서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으며 이밖에도 토광묘 1기와 석곽묘 2기가 더 조사되었다.

(1) 1호분

조사지역에서 가장 남서쪽에 있는 고분이다. 분구 주위에 주구가 둘러져 있으며 분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매장문화재로 신고된 토기가 수습된 지점의 지면이 약간 도드라져 있어 분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제형계이며 장축방향은

133) 김건수·이영철·한옥민, 『함평 향교 고분』, (재)호남문화재연구원·함평군·전라남도, 2004.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남북(N3°W)으로 토광묘와는 반대 방향이다. 주구는 너비 134㎝, 깊이 44㎝ 정도로 팠는데 모서리 쪽으로 가면서 얕게 파졌고 내곽 쪽보다는 외곽 쪽이 완경사로 파졌다. 주구를 포함한 고분의 규모는 남은 길이 5.02m, 남은 너비 5.08m이고 분구에 해당하는 주구 사이의 너비는 2.42~3.24m 이다.

(2) 1호 토광묘

1호분의 중심 매장시설로 추정된다. 토광은 진입로가 개설되면서 절반 정도 파괴되었다. 토광은 생토를 파고 들어갔는데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좁아들었다. 토광에는 목관을 안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목관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아 정확한 목관의 구조와 크기는 알 수 없다. 토광묘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40°E)로 등고선방향과 대체로 일치하고 고분의 장축방향과 직교하고 있다. 토광의 크기는 상부길이 193㎝, 하부길이 160㎝, 남은 너비 58㎝, 깊이 36㎝이다. 호형토기와 평저광구호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3) 2호 토광묘

1호 토광묘에서 동쪽으로 5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쪽 부분은 2호 석곽묘와 중복되어 있는데 석곽묘가 조영되면서 남쪽 단변이 파괴되었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남-북(N9°E)인데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이다. 토광의 크기는 남은 길이 217㎝, 너비 75~79㎝, 깊이 20㎝ 정도이다.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토광묘 부근에서 토제옥 1점이 수습되었다.

(4) 1호 석곽묘

2호 토광묘에서 동쪽으로 1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석곽은 대부분 파괴되고 바닥과 벽석 일부만 남아 있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는 북동 남서(N39°E)이다. 동벽석은 모두 유실되었고 서벽석 일부만 남아 있다. 바닥에는 15~28㎝ 크기의 할석을 전면에 깔았으며 틈새에는 10㎝ 크기의 작은 할석으로 메웠다. 석곽의 크기는 남은 길이 135㎝, 남은 너비 62㎝이다 바닥에서 합 2점과 뚜껑 1점이 출토되었다.

(5) 2호 석곽묘

1호 석곽묘의 서쪽에 바로 인접해 있으며 2호 토광묘와 중복되어 있는데 2호 토광묘를 파괴하고 축도되었다. 석곽은 대부분 유실되고 바닥만 일부 남아있다. 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구조와 규모는 알 수 없다. 바닥은 할석으로 전면을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의 크기는 남은 길이 149㎝, 남은 너비 87㎝이다.

15) 해보면 용산리 고분군[134)]

용산리는 영광군과 경계를 이루는 노령산맥에서 남동쪽으로 흘러내린 산지가 낮아지면서 형성된 구릉지역(전7-9, 7-5, 7-12, 7-17, 7-16, 도1072-8, 1072-7, 1071-2, 1072-14, 1072-15, 1072-16)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해보중앙초등학교 북쪽 구릉상에 위치하는데 토광묘 1기, 석실분 2기와 함께 청동기시대의 석관묘 10기, 원삼국~삼국시대의 주거지 8기가 구릉에서 조사되었고 곡간평지에서 저장혈 2기와 도랑 등이 확인되었다.

(1) 토광묘

구릉 경사면에 축조되었다. 토광의 장축 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고 있어 남-북에 가깝다. 토광의 규모는 길이 234㎝, 너비 85㎝, 깊이 25~35㎝이다. 토광 북벽 쪽에서 호형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중앙에서 관옥 1점과 유리구슬 14점이 출토되었다.

(2) 1호 석실분

구릉 정상부에서 조사되었는데 심하게 파괴되어 구조와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벽석과 배수로의 흔적으로 고분임을 알 수 있다. 북벽은 120㎝ 크기의 판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동서 양벽은 100㎝ 정도의 판석 3~4매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토광으로 보아 현실의 크기는 길이 180㎝, 너비 70㎝ 정도이고,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부분의 길이 150㎝, 너비 60㎝ 정도이다. 현실 중앙 바닥에는 너비 30~40㎝의 배수로가 입구 쪽으로 이어져 있다.

(3) 2호 석실분

석실과 주구가 확인되었다. 주구는 석실의 동북쪽에 일부 남아 있는데 크기는 너비 250㎝, 깊이 20㎝이다. 고분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게 축조되었는데 연도가 거의 생략된 형태의 횡혈식석실분으로 추정된다. 현실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20㎝, 너비 110㎝이다. 현실은 대형판석 1매로 후벽을 쌓고 동벽은 2매의 판석으로 세웠다. 서벽은 1매만 남아 있다. 바닥은 판석을 깔았으며 바닥석 아래에는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다.

16) 해보면 용산리 백토 고분군

용산리 백토 유적은 1998~199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불갑산의 산줄기로 그 사이에는 소규모의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는데 유적은'방잔등'이라 불리는 구릉과 곡간평야의 저습지에서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 삼국시대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동기시대 석관묘 계통의 분묘는 모두 10기가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수혈식 묘제로 소량의 무문토기편과 석촉, 소형관옥편 등이 출토되었다. 또 주거지는 구릉의 말단부에서 8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주위에 조성된 민묘로 인해 파괴되었다. 이외에도 구릉지역에서는 토광묘 1기, 삼국시대 주거지 1

134) 최성락·김건수, 『영광 학정리·함평 용산리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기, 석실분 2기 등이 확인되었고 곡간평야의 저습지에서는 저장혈 2기와 도랑 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1) 삼국시대의 돌방무덤

2기를 확인 발굴하였는데 1호는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만 남았고, 2호는 3벽이 일부남아 발굴 조사하였다. 2기의 돌방무덤은 흙을 파내고 돌방을 만든 반구덩식이다. 2호 무덤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데 크기는 장축 570cm, 단축 110cm, 깊이 90cm이며, 양쪽은 장벽은 3매의 판석과 2단의 할석으로 이루어졌고, 단벽은 1매의 판석과 1단의 장대석으로 이루어졌다. 돌방 바깥쪽에는 벽석을 보강하기 위해서 할석과 질흙으로 충진하고 있다. 출토 유물은 없으며 6세기 후반에 조성한 것으로 본다. 함평읍 대덕리 백곡 마을 앞 묘제공원에 옮겨 복원하였다.

(2) 저장구덩이(貯藏穴)

9호 집터 남서쪽 논에서 2기가 발굴되었는데 당시 식생활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1호 : 크기는 120× 100× 30cm이고 내부에서 소량의 박과 외의 종자와 다량의 도토리류 등이 나왔다.

2호 : 크기는 170× 110× 25cm이고 내부에서 삼족기, 홈돌 등의 유물과 소량의 박과 외의 종자 및 다량의 도토리류가 출토되었다.

17) 월야면 월야리 순촌 고분군[135]

순촌 마을은 해발 50m 내외인 구릉의 남쪽 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고분군은 마을 앞에 계단식 논과 구릉(답 278, 216)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문화마을이 조성되는 A지구에서는 제형이나 장방형 주구를 갖춘 고분 27기, 옹관묘 12기, 토광묘 3기,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B지구에서는 제형이나 장방형 주구를 갖춘 고분 5기, 옹관묘 1기, 토광묘 2기, 고분의 주구로 추정되는 구 7기가 조사되었다. C지구에서는 제형이나 장방형 주구를 갖춘 고분 2기, 석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순촌 유적에서 조사된 고분은 주로 평면장제형이나 제형을 띠고 있으며 좁은 범위에 밀집해서 분포하고 있다.

(1) A지구 1호분

주변이 계단식 논으로 개간되면서 파괴되어 주구 일부만 남아 있다. 두 개의 주구가 대칭을 이루며 구릉경사면과 직교하고 있다. 주구는 바닥면만 확인되었는데 너비 62㎝, 깊이 10~40㎝이다. 주구의 단면 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며 내곽 쪽이 외곽 쪽보다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주구를 통해 본 고분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며 규모는 남은 길이 6.2m, 남은 너비 3.4m이다. 매장 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135) 최성락·박철원·최미숙, 『함평 월야 순촌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농업기반공사· 함평군, 2001.

(2) A지구 2호분

1호분에서 동쪽으로 4m 정도 떨어져 있다. 3호분과 중복되어 있는데 2호분이 나중에 축조되었다. 주구의 키기는 너비 140㎝, 깊이 60㎝ 정도이며 외곽 쪽은 비교적 완경사로 파졌지만 내곽 쪽은 수직에 가깝게 파졌다. 주구가 일부만 남아있어 고분의 평면형태는 알 수 없지만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으로 볼 수 있다. 규모는 남은 길이 5.7m, 넘은 너비 8.6m이다.

(3) A지구 3호분

2호분과 중복되어 있는데 3호분이 먼저 축조되었다. 주구는 일부만 남아 있는데 현재 크기는 너비 100~280㎝, 깊이 20㎝ 정도이다. 주구는 단면 U자형을 이루지만 내곽 쪽이 외곽 쪽에 비해 급경사이다. 고분의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며 규모는 남은 길이 7.2m, 남은 너비 7.1m 이다. 동쪽 주구에서 광구호 1점이 출토되었다.

(4) A지구 4호분

3호분에서 동북 쪽으로 3m 정도 떨어져 있다. 주구 일부만 남아 있는데 크기는 너비 180㎝,깊이 20~30㎝ 정도이다. 주구로 본 고분의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며 규모는 남은 길이 6.5m, 남은 너비 5.5m 이다.

(5) A지구 5호분

4호분에서 동북 쪽으로 6m 정도 떨어져 있다. 주구는 너비 70㎝, 깊이 20~40㎝ 정도이다. 주구의 일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고분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며 규모는 남은 길이 3.6m, 넘은 너비 2.8m 이다.

(6) A지구 6호분

5호분에서 동북 쪽으로 4m 정도 떨어져 있다. 주구는 너비 70㎝, 깊이 20~25㎝ 정도이다. 주구가 일부만 남아 있기 때문에 고분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며 규모는 남은 길이 5.4m, 남은 너비 3.8m 이다.

(7) A지구 7호분

6호분에서 동북 쪽으로 4m 정도 떨어져 있다. 주구는 너비 65㎝, 깊이 20㎝ 정도이다. 고분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며 규모는 남은 길이 2.2m이다.

(8) A지구 8호분

주구 일부만 남아 있는데 크기는 너비 100㎝, 깊이 10~30㎝ 정도이다. 고분의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며 규모는 남은 길이 7.4m, 남은 너비 6m이다.

(9) A지구 9호분

8호분에서 동북 쪽으로 6m 정도 떨어져 있다. 주구는 일부만 남아 있는데 크기는 남은 길이 300㎝, 너비 75㎝, 깊이 16㎝ 정도이다. 고분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며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10) A지구 10호분

토광묘와 주구 일부가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고분의 머리 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구는 너비 125㎝, 깊이 80㎝의 크기이며 내곽 쪽은 급경사로, 외곽 쪽은 완경사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남은 길이 4.4m, 너비 4m 이다. 토광묘는 고분의 머리 쪽에 있는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바닥 중앙에서 소형 환옥 5점이 출토되었다. 토광의 크기는 남은 길이 190㎝, 너비 140㎝, 깊이 38㎝이다.

(11) A지구 11호분

10호분과 중복되어 있는데 11호분이 먼저 축조되었다. ㄷ자형으로 돌아가는 제형주구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에 토광묘가 자리하고 있다. 주구는 너비 90~165㎝, 깊이 10~30㎝의 크기인데 내곽 쪽은 급경사로, 외곽 쪽은 완경사로 파졌다. 주구는 가운데 쪽이 깊고 모서리 쪽으로 가면서 얕아지고 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남은 길이 12m, 너비 8.6m이다. 동쪽주구에서 호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토광묘는 머리 쪽 중앙에 조영된 11호분의 중심 매장시설로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토광의 크기는 남은 길이 200㎝, 너비 155㎝, 깊이 25㎝이다.

(12) A지구 12호분

11호분과 13호분 사이에서 11, 13호분을 파괴하고 축조하였다. e자형으로 돌아가는 제형주구로 둘러싸인 내부공간에 토광묘가 조영되었다. 주구는 너비 75~100㎝, 깊이 90㎝ 정도인데 동쪽주구에는 주구를 파괴하고 축조한 토광묘 1기가 있다. 고분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남은길이 14.9m, 너비 12.5m이다. 토광묘는 머리 쪽 중앙에 조영된 12호분의 중심 매장시설로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토광의 크기는 길이 280㎝, 너비 170㎝, 깊이 20㎝이다. 토광의 북쪽 바닥에서 파수부발형토기 1점과 다수의 환옥이, 남쪽에서 철도자 1점, 완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13) A지구 13호분

12호분과 중복되어 있는데 13호분이 먼저 축조되었다. 주구의 크기는 남은 길이 1,280㎝, 너비 140㎝, 깊이 60㎝ 정도이다. 주구가 일부만 남아 있어 고분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주구에서 호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14) A지구 15호분

13호, 16호, 19호분과 중복되어있다. 제형주구로 둘러싸인 내부공간에 토광묘가 조형되었다. 주구는 너비 70~130㎝, 깊이 50~60㎝ 정도이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방형계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길이 13m, 너비 4.4m이다. 토광묘는 토광이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북쪽 바닥에서 판재의 목탄이 깔려 있었다. 토광의 크기는 320㎝, 깊이 20~25㎝인데 북쪽 바닥에서 환옥 18점이 출토되었다.

(15) A지구 16호분

주구는 너비 160㎝, 깊이 50~60㎝ 크기로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주구로 보아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남은 길이 8.2m, 너비 6.1m이다. 이중구연호와 저부편이 주구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16) A지구 17호분

18호분과 중복되어 있다. 주구의 크기는 너비 40~160㎝,깊이 20~60㎝이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남은 길이 4m, 남은 너비 10.4m이다.

(17) A지구 18호분

17호분과 중복되어 있는데 18호분이 나중에 조영되었다. 주구의 크기는 너비 40~100㎝, 깊이 20~60㎝이다. 고분은 아래쪽이 유실되었지만 남아 있는 부분으로 보아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남은 길이 7.2m, 너비12m이다.

(18) A지구 19호분

15호분과 중복되어 있는데 19호분이 나중에 조영되었다. 주구의 크기는 너비 40~80㎝, 깊이 20~30㎝이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길이 12.5m, 너비 8.3m이다.

(19) A지구 20호분

15호, 21호분과 중복되어 있는데 20호분이 가장 먼저 조영되었다. 20호분에서는 주구와 매장 시설은 토광묘가 함께 조사되었다. 주구의 크기는 너비 120~180㎝, 깊이 20~50㎝인데 일부만 남아 있어 고분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고분의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로 추정되며 규모는 남은 길이 10.4m, 남은 너비 5.2m이다. 북쪽 주구에서 옹관이 확인되었다.

(20) A지구 21호분

20호분을 파괴하고 축조하였다. 주구는 너비 210~380㎝, 깊이 60~70㎝ 크기로 파졌는데 가운데 쪽은 깊고 넓게 파졌으며 모서리로 가면서 좁고 얕게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길이 35.2㎝, 너비 18.6㎝이다.

(21) A지구 22호분

21호분에서 북동쪽으로 4m 정도 떨어져 있다. 주구는 너비 300㎝, 깊이 30~40㎝ 크기로 파졌지만 민가에 의해 파괴되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남아있는 주구로 보아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제형으로 추정되며 장축 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남은 길이 21m, 너비 15.3m이다.

(22) A지구 23호분

24호분과 중복되어 있는데 23호분이 먼저 조영되었다. 주구는 너비 60㎝, 깊이 50~70㎝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남은 길이 12m, 너비6.4m이다.

(23) A지구 24호분

23호분과 중복되어 있는데 24호분이 나중에 조영되었다. 주구는 너비 80~160㎝, 깊이 20~60㎝ 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남은 길이 16m, 너비 9.9m이다. 주구 안에서 탄화된 판재가 확인되었으며 동쪽 주구의 끝부분에서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24-1호 옹관묘는 동쪽 주구에서 조사되었다. 단옹식 옹관묘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이고 전체길이는 116㎝이다. 옹관은 황갈색 연질로 소성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완만하게 올라온 동체부는 중간에서 최대경을 이루며 내만되어 올라와 급하게 외반된 구연을 형성하였다. 동체부에는 격자문을 타날했으며 목주위에는 거치문을 시문하였다.

(24) A지구 25호분

24호분의 동쪽주구 일부를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주구와 매장시설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주구는 너비 140㎝, 깊이 20~30㎝ 정도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길이 10m, 너비 5m이다. 주구에서 옹관편이 출토되었다. 토광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토광의 규모는 길이 460㎝, 너비 200㎝, 깊이 20㎝이다. 토광 바닥에서 철겸 2점과 철편이 출토되었다.

(25) A지구 26호분

27호, 28호분과 중복되어 있다. 주구는 너비 260㎝.깊이 60~130㎝ 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길이 31m, 너비 7.2m이다. 주구에서 옹관과 연질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매장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후대에 고분을 파괴하고 주거지가 축조되었다.

(26) A지구 27호분

26호, 28호분과 중복되어 있다, 주구는 너비 60㎝, 깊이 10~20㎝ 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길이 7.8m, 남은 너비 3.6m이다.

(27) A지구 28호분

26호, 27호분과 중복되어 있다. 주구는 너비 160㎝, 깊이 10~60㎝ 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자운데 주구 1개가 더 확인되었는데 묘역 확장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 이며 규모는 길이 11m, 너비9m이다. 주구에서 호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28) A지구 29호분

32호분과 중복되어 있다. 주구는 너비 230㎝, 깊이 60~80㎝ 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길이 24m, 너비 10.8m이다. 서쪽주구에서 이중구연호 1점이 출토되었다.

(29) A지구 30호분

29호분과 연접해 있다. 주구는 너비 120㎝, 깊이 10~50㎝ 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마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규모는 남은 길이 9m, 너비 7.4m이다.

(30) A지구 31호분

38호, 39호분과 중복되어 있다. 주구는 너비 200㎝, 깊이 20~50㎝크기로 파졌으며 가운데쪽이 깊고 모서리 쪽으로 가면서 얕게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길이 32m, 너비 4m이다.

(31) A지구 32호분

29, 33호분과 중복되어 있다. 매장시설은 고분 중심부에서 옹관묘 1기가 확인되었으며 북쪽에 치우쳐 1기가 더 조사되었다. 주구는 너비 90㎝,깊이 10~60㎝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길이 10m, 너비 3m 이다. 주구에서 옹관편이 출토되었다.

① 옹관묘 : 고분 중심부에서 조사된 옹관묘로 길이 300㎝의 정타원형 토광을 파서 안치하였는데 부옹의 입구를 주옹에 밀어 넣었다. 옹관의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며 전체길이는 220㎝ 정도이다. 주옹은 적갈색 경질로 U 자형을 이루고 있다. 동체부에는 격자문이 고르게 타날되어 있으며 상부에 하트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다. 크기는 높이 125㎝, 구연부 지름 97㎝이다. 부옹은 회청색경질이며 목 부분에는 돌대가 있다. 동체부에는 격자문에 타날되어 있으며 상단에 하트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다. 크기는 높이 120㎝, 구연부 지름 80㎝이다. 부옹에서 이중구 연호 1점, 주옹에서 철부와 철모가 출토되었다.

② 32-1호 옹관묘 : 옹관은 토광을 파서 안치한 합구식으로 구연부를 서로 맞대고 있다. 옹관의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며 전체 길이는 80㎝이다.

(32) A지구 34호분

35, 39호분과 중복되어 있다. 주구는 너비 100㎝, 깊이 20~40㎝ 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길이 20.2m, 너비 7m이다.

(33) A지구 35호분

34, 36호와 중복되어 있다. 주구는 너비 100㎝, 깊이 30~50㎝ 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길이 9,2m, 너비 7.4m이다. 주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호형토기 1점이 수습되었다. 고분의 중심부에서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으며 남서쪽 가장자리에 치우쳐 옹관묘 2기가 확인되었다.

① 토광묘 : 고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중심 매장시설로 생각된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 크기는 길이 300㎝, 너비 100㎝, 깊이 25㎝이다.

② 35-1호 옹관묘 : 고분의 남서쪽 모서리에서 확인되었다. 옹관은 호형토기 2점을 맞대어 만든 합구식이며 100㎝ 크기의 토광을 파고 안치하였다. 장축 방향은 남-북이며 전체길이는 60㎝이다. 주옹은 일상용 호를 사용하였다. 바닥은 평저이며 남은 높이 28.9㎝이다. 부옹은 일상용 옹으로 남은 높이 23.3㎝이다.

③ 35-2호 옹관묘 : 고분의 남쪽에서 확인되었다. 옹형토기와 파수부토기를 맞대어 만든 합구식이다. 옹관은 120㎝ 크기의 토광을 파고 안치하였다. 장축 방향은 동-서이며 전체길이는 88㎝이다. 주옹은 일상용 옹형 토기를 사용하였으며 크기는 높이 54.6㎝, 구연부 지름 31.6㎝이다. 부옹의 크기는 높이 20.9㎝, 구연부 지름 29.7㎝이다.

(34) A지구 36호분

35호분과 중복되어 있다 .주구는 너비 120㎝,깊이 30~90㎝의 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길이 12m, 너비 6m이다. 동쪽주구에서 호형토기편이 확인되었다.

(35) A지구 37호분

21호분과 중복되어 있다. 주구는 너비 100㎝. 깊이 20~50㎝의 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남은 길이 7m, 너비 6.5m이다.

(36) A지구 38호분

31, 40호분과 중복되어 있는데 31호분보다 나중에 조영되었다. 주구는 너비 320㎝, 깊이 20~70㎝의 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길이 15m, 너비 5.6m이다. 주구에서 옹관편이 흩어진 채 확인되었다. 38-1호 옹관묘는 38호분의 주구에서 노출되었다. 부옹은 회청색경질로 소성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크기는 높이 96㎝, 구연부 지름 82.5㎝이다.

(37) A지구 39호분

34, 38호분과 중복되어 있다. 주구는 너비 80~200㎝, 깊이 10~30㎝의 크기로 파졌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마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길이 12m, 너비5.5m이다. 매장시설로는 토광묘 1기와 옹관묘 5기가 있는데 고분가운데에 토광묘가 있고 그 주위에 옹관묘 5기가 분포되어 있는데 옹관묘를 매장하면서 고분이 점차 확장되었다.

① 토광묘 : 고분의 중심 매장시설로 판단된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크기는 길이 428㎝, 너비 180㎝, 남은 깊이 10㎝이다 .토광의 남쪽 바닥에서 철모와 철부가 출토되었다.

② 39-1호 옹관묘 : 39호 토광묘의 남동쪽에 있다. 옹관은 230㎝ 크기의 장타원형 토광을 파서 안치하였다. 부옹의 구연부를 주옹 안쪽으로 밀어 넣은 합구식옹관묘로 장축방향은 남-북이며. 전체길이는 140㎝ 정도이다. 주옹은 황갈색연질이며 바닥에는 지름 8㎝ 크기의 원형돌기가 있다. 크기는 높이 75㎝, 구연부지름 65.4㎝이다. 부옹은 황갈색연질이며 구연부를 주옹에 삽입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깨뜨렸다. 크기는 남은 높이 76㎝, 저부지름 10㎝이다. 부옹에서 발형토기 1점, 광구호 1점, 환옥 1점이 출토되었다.

③ 39-2호 옹관묘 : 39호 토광묘의 남쪽 모서리에 있다. 옹관은 130㎝ 크기로 타원형 토광을 판 후 안치하였는데 옹형토기의 입구를 옹형토기 저부편으로 막아 만들었다. 옹관의 장축방향은 동-서이며 전체길이는 67㎝ 정도이다. 주옹은 동체부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있다. 황갈색연질로 크기는 높이 48㎝, 구연부지름 24.1㎝이다. 막음옹은 일상용 옹편을 사용하였는데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다. 황갈색 연질이며 크기는 남은 높이 28㎝이다.

④ 39-3호 옹관묘 : 39호 토광묘의 서쪽에 있다. 옹관은 250㎝ 크기로 장타원형 토광을 파서 안치하였으며 옹의 구연부를 맞대어 만든 합구식이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며 전체길이는 194㎝이다. 주옹은 회갈색연질이며 크기는 높이 95.2㎝, 구연부지름 88㎝이다. 부옹은 황갈색연질이며 크기는 높이 97.5㎝, 구연부지름 80㎝이다. 주옹에서 소형환옥 6점이 출토되었다.

⑤ 39-4호 옹관묘 : 39호 토광묘의 서쪽 중앙에 있다. 옹형토기를 이용한 합구식 옹관묘로 소형이다. 옹관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며 전체길이는 74㎝ 정도이다. 주옹은 복원불가능하며 부옹은 복원높이 47.5㎝, 구연부지름 22.8㎝의 크기이다.

⑥ 39-5호 옹관묘 : 토광묘의 북쪽 모서리에 있다. 옹형토기 입구를 적갈색 연질 동체부편을 이용해 막음한 소형 옹관묘이다. 옹관은 160㎝ 정도의 타원형 토광을 파서 안치하였으며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이고 전체 길이는 50㎝이다. 옹관은 황갈색 연질 옹형토기를 이용하였는데 크기는 복원높이 40.5㎝, 구연부 지름 32.4㎝이다.

(38) A지구 41호분

주구는 너비 140㎝,깊이 20~40㎝로 파졌으며 꼬리 쪽이 유실되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규모는 길이 25m, 너비 8.5m이다. 동쪽주구에서 옹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① 41-1호 옹관묘 : 41호분의 동쪽주구에서 옹관편들이 흩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옹관 저부가 유실돼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고 크기는 남은 높이 42㎝, 복원 지름 94㎝이다.

(39) A지구 1호 토광묘

1호분에서 서쪽으로 6m 정도 떨어진 사면부에 위치하는데 남서쪽 모서리 일부가 유실되었다. 토광의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크기는 길이 178㎝, 너비 85㎝, 깊이 25㎝이다. 북벽에 치우쳐 완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40) A지구 2호 토광묘

13호분의 북쪽에 있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동-서이다. 크기는 길이 130㎝, 너비 48㎝, 깊이 10㎝이다. 동쪽 모서리에서 호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41) A지구 3호 토광묘

12호분의 동쪽 주구를 파괴하고 축조하였다. 토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크기는 길이 368㎝, 너비 136㎝, 깊이 40㎝이다. 바닥에서 발형토기와 철겸이 출토되었다.

(42) B지구 1호분

고분의 평면형태는 장제형이며 장축 방향은 동-서이다. 규모는 남은 길이 25m, 너비 13m이다. 머리 쪽 중앙에서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주구의 크기는 너비 110~250㎝,깊이 50~90㎝이며 단면 형태는 완만한 U 자형을 띠고 있다. 주구에서 회색연질토기가 출토되었으나 복원 불가능 하다. 토광묘는 머리 쪽 중앙에서 조사된 것으로 이 고분의 중심 매장시설로 추정된다. 토광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동-서이다. 크기는 길이 480㎝, 너비 220㎝, 깊이 34㎝이다.

(43) B지구 2호분

주구는 ㄱ자형으로만 확인되었는데 주구의 크기는 너비 70~100㎝, 깊이 10~30㎝이며 단면 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다. 머리 쪽 중앙에서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고분의 규모는 남은 길이 11.2m, 남은 너비 10.4m이다. 토광묘는 머리 쪽 중앙에서 조사된 것으로 이 고분의 중심매장시설로 추정된다. 토광묘는 절반 정도 유실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동-서이다. 크기는 남은 길이 90㎝, 너비 70㎝, 깊이 3㎝이다.

(44) B지구 3호분

고분의 평면형태는 방형인데 주구가 ㄱ자와 ㄴ자 모양으로 엇갈리게 되어 있다. 주구의 크기는 너비 50~55㎝,길이 10~20㎝이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다. 고분의 장축방향은 남-북이며 규모는 길이 5.4m, 너비3.6m이다.

(45) B지구 4호분

주구는 너비 60㎝, 깊이 10㎝의 크기로 남아 있어 고분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그러나2호 토광묘가 바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 토광묘가 4호분의 매장시설인 것으로 추정된다. 2호 토광묘는 4호분의 주구에서 서쪽으로 1.5m 정도 떨어져 있어 이 고분의 매장시설로 추정된다. 토광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이다. 크기는 남은 길이 200㎝, 너비 84㎝, 깊이 13㎝이다.

(46) B지구 5호분

고분의 평면 형태는 장제형인데 ㄷ자형 주구만 남아있다. 장축 방향은 남-북이며 규모는 남은 길이 18m, 너비 7.2m이다. 고분 중앙에서 토광묘가 조사되었고 북쪽 꼬리 쪽에서 옹관묘 1기가 더 확인되었다. 주구는 너비 200㎝, 깊이 40~110㎝의 크기로 파졌고 단면 형태는 완만한 U자형을 이루고 있다.

① 토광묘 : 고분의 중앙에서 머리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데 위치로 보아 5호분의 중심매장시설로 추정된다. 토광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이다. 크기는 길이 440㎝, 너비 160㎝, 깊이 34㎝이다.

② B지구 5-1호 옹관묘 : 고분의 북쪽 꼬리부분에서 확인되었다. 토광만 남아 있고 옹관은 대부분 유실됐고 황갈색 연질이며 크기는 높이 55㎝, 구연부지름 30.6㎝이다.

(47) B지구 1호 토광묘

3호분에서 동쪽으로 4m 정도 떨어져 있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이다. 크기는 길이 175㎝, 너비 52㎝, 깊이 22㎝이다.

(48) C지구 1호분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주구와 매장시설은 토광묘가 구릉 방향과 동일하게 노출되었고 서쪽 주구에서 소형옹관이 조사되었다. 동쪽 주구의 바닥에서 호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① 토광묘 : 주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토광묘로 이 고분의 중심 매장시설로 추정된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크기는 남은 길이 480㎝, 너비 150㎝, 깊이 30㎝이다 북쪽 바닥에서 호형토기 1점과 환옥 3점이 출토되었다.

② 1-1호 옹관묘 : 남쪽 주구에서 확인되었는데 바닥만 남아 있다. 옹관은 135㎝크기로 토광을 파서 안치하였는데 주옹은 옹관을 이용하였고 막음옹은 일상용 호를 사용하였다. 옹관의 장축방향은 동-서이며 전체길이는 100㎝이다. 주옹 바닥에는 지름 5㎝의 돌기가 있으며

크기는 높이 70㎝, 구연부지름 59㎝이다. 막음옹은 호형토기 저부를 사용하였는데 복원 불가능하다. 주옹 바닥에서 양이부호가 출토되었다.

(49) C지구 2호분

1호분과 겹쳐 있지만 도로 개설시 대부분 유실되고 주구 일부만 남아 있어 고분의 형태와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

18) 신광면 함정리 무송 유적

신광면 함정리 산 77-1번지내의 45× 35m 조사구역에서 중복된 집터를 포함하여 11기의 원삼국시대 집터를 확인하였다.

등고선을 따라 3열로 배열되었고 집터의 평면 형태는 방형이나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단면 형태는 경사면을 파고 만들었기 때문에 "L"자형을 이루고 있고 집터에는 벽구가 만들어졌으며 일부 집터에서 화덕자리나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은 큰항아리, 이중구연호(二重口緣壺), 잡이달린 항아리, 장란형토기, 덩이쇠(철정-鐵鋌), 쇠칼(철도자-鐵刀子) 등이며 1호 주거지 출토 이중구연호 안에서 탄화미가 나왔다.

집터의 분포 상황과 이 일대의 지형으로 보아 공사 구간에서 벗어난 구릉 위쪽으로도 계속 집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무송 주거지 발굴 현황

호수	평면 형태	장 축 방 향	규 모 (m) 장축×단축×깊이	내부 구조			출 토 유 물	참 고
				벽구	노지	주공		
1	장방형	북동 - 남서 (N 40° E)	450× 380× 40	◦		4	큰항아리. 이중구연호. 탄화미. 수정. 쇠손칼	벽구가 양쪽으로 돌출됨
2	〃	북동 - 남서 (N 57° E)	380× 305× 50	◦			장란형토기. 잡이달린항아리. 덩이쇠. 가락바퀴	남쪽 일부 유실
3	〃	북서북-남동남 (N 22° W)	390× 350× 38	◦			토기편	선(선) 3호 후(후) 3-1호
3-1	방 형	북서북-남동남 (N 22° W)	380× 360× 50	◦	◦	2	〃	
4	〃	북동 - 남서 (N 52° E)	395× 290× 31	◦	◦	2	외반구연호. 토기편	반파
5	〃	동북동-서남서 (N 63° E)	340× 260× 70				토기편	선 5호 후 5-1호
5-1	〃	동북동-남서서 (N 69° E)	408× 243× 48	◦			〃	
6	〃	북서 - 남동 (N 56° W)	320× 175× 33	◦			〃	반파
7	〃	북서 - 남동 (N 40° W)	330× 120× 10	◦			〃	〃
8	〃	북서 - 남동 (N 37° W)	350× 220× 33	◦			〃	〃
9	〃	남 - 북 (N 2° E)	333× 200× 18	◦	◦		〃	〃

3. 함평군의 미 발굴조사 고분

1) 함평읍 대덕리 고양 고분군(가군)[136]

고양 고분군 가군은 이전 군사에서 고양촌 돌방고분군(석실분)으로 소개된 고분이다. 고양마을은 해발 134.5m 높이의 중봉의 동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고분은 마을 앞 구릉에 분포하고 있다.

중봉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산 능선은 해발 50m 정도까지는 급경사를 이루다가 점차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남동쪽으로 내려오던 산 능선은 해발 25m 정도부터 북동쪽으로 진해하는데 구릉 능선에 남북으로 1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2기의 고분이 위치해 있다.

남쪽 고분이 1호분, 북쪽 고분이 2호분이며 각각 큰동산과 작은동산(또는 필봉)이라 불리는 곳이다. 고분이 있는 구릉은 평지 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함평천유역의 넓은 평지를 조망할 수 있다. 현재 이 고분군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1호(2001년 9월 27일)로 지정되어 있다.

(1) 1호분

남쪽에 있는 고분으로 해발 30m 정도의 구릉 정상부에 있으며 큰동산이라 부른다. 분구의 남쪽과 동쪽 끝자락에 각각 2기의 민묘가 들어서면서 분형이 약간 변형되었고 분구 정상에는 도굴갱으로 보이는 함몰부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말기에 도굴되었다고 전한다. 분구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주변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에 분구 끝자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지름 25m 내외, 높이 3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2) 2호분

1호분에서 북동쪽으로 15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작은동산이라 불리는 곳이다. 고분은 북동쪽으로 진행하는 구릉 능선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고분 북동쪽 끝자락은 바로 급경사를 이루며 평지로 떨어지고 있다. 분정에는 최규현의 7대조 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석실의 석재로 보이는 판석이 노출되어 있다. 분구의 남동쪽과 북서쪽 사면에도 민묘들이 있었는데 고분 정비를 하면서 이장되었다. 분구는 전체적으로 잘 남아 있지만 민묘가 만들어지면서 약간 변형되었다. 분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27m, 높이 4m 내외이고 분정에는 지름 12m 정도의 평탄부가 형성되어 있다.

2) 함평읍 대덕리 고양 고분군(나군)

고양 고분군 나군은 대덕리 산11-7번지 일대, 즉 마을 남쪽 구릉 정상부에 있다. 이 구릉은 해발 134.5m 높이의 중봉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산 능선이 낮아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주변

136) 임영진·조진선, 『전남지역 고분 측량보고서』, 전라남도·전남대학교박물관, 2000.

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민묘도 다수 분포해 있다. 예전 이 고분군에서는 적갈색연질토기편과 회청색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수풀이 우거져 고분을 찾을 수 없다. 구릉 정상부에서는 함평천 유역의 넓은 평지를 조망할 수 있다.

3) 함평읍 대덕리 대덕(고양촌 함평북초교 옆) 고분군

대덕 고분군은 함평읍 대덕리 산 18-2 일대, 즉 폐교된 함평북초등학교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해발 80m 정도인 영대산의 남동쪽 사면으로 20° 정도로 비교적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 일대에는 원래 3기의 고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2기의 고분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1·2호분은 함평북초교 서편 담장 끝에 있는데 아래 쪽에 민묘들이 만들어지면서 1호분은 남쪽 일부가 깎여나갔고 2호분은 2/3 정도 파괴되었다.

1호분은 남동-북서 방향으로 형성되었는데 고분 바로아래 있는 최병호의 무덤 쪽에서 보면 남동이 낮고 북서가 높은데 북서는 지름 13.5m의 원형으로 보이나 자세히 관찰하면 네모꼴로도 볼 수 있으며 남동은 지름 9.5m의 원형 또는 네모꼴로 보여 장고형 고분으로도 볼 수 있고 전방후방분(前方後方墳)으로도 볼 수 있으나 우선 장방형분(長方形墳)으로 정리한다. 크기는 장축 23m, 단축 13.5m, 높이 4m 규모이다.

2호분은 1호분 남동 끝자락과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남북으로 조성되었는데 장타원형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우선 장방형으로 정리한다. 1·2호분의 배치 형태는"ㄱ"자를 이룬다. 크기는 장축 13m, 단축 10m, 높이 1.5m 규모이다.

3호분은 김영갑의 대밭에 있었던 것으로 마을 사람들이 장군묘라 불렀는데 1970년대 대밭을 일구어 밭을 만들면서 훼손되었다. 이곳에서 대형 독(甕棺)이 나왔다고 전하나 그 독도 골동품 장사들이 가져가 확인할 수가 없다.

4) 함평읍 옥산리 용촌 고분

용촌 고분은 함평읍 옥산리 용촌마을 답 845, 841-1, 2, 3번지 일대, 즉 함평만으로 이어지는 마을 남쪽 구릉사면에 위치한다. 이곳에 있던 용촌 고분은 개답공사를 하면서 원형을 잃게 되었는데 본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지름 6m, 높이 1.5m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고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5) 함평읍 진양리 각골 고분군

각골 고분군은 함평읍 진양리 입동마을 남서쪽 구릉에(대303-19, 과303-18, 전303-16, 303-15, 303-14, 303-10, 303-12) 위치한다. 이곳은 북쪽의 해발 135.2m 높이의 영태산과 남쪽의 중봉(해발134.5m) 사이에 형성된 계곡의 남쪽 사면에 해당하는 곳인데 현재는 과수

원으로 경작되고 있다. 과수원을 개간할 때 많은 석곽묘가 확인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고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6) 함평읍 진양리 화동 고분군(가군)

화동 고분군(가군)은 함평읍 진양리 화동마을 서쪽에 있는 해발 86m 높이의 야산 남쪽 사면(산 8-1번지)에 위치한다. 이곳은 함평천 주변에 형성된 평지가 잘 조망되는 곳인데 2기의 고분이 동서방향으로 약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란하게 분포하고 있다. 모두 분구가 뚜렷하게 남아 있으나 인근의 함평 영화학교 운동장이 만들어지면서 분구 북쪽 끝자락 일부가 훼손되었다. 현재 이 고분군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01호(2001년 9월 27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1) 1호분

화동 고분군은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동서 양쪽으로 2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호분은 동쪽에 있는 큰 고분이다. 이 고분은 남쪽과 남동쪽 끝자락에 민묘가 조성되어 있지만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분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정에 평탄부가 형성되지 않아 단면형태는 반구형을 띠고 있다. 분구의 규모는 지름 20m 내외, 높이 3.3m 내외이다.

(2) 2호분

2호분은 1호분의 서쪽에 있는 작은 고분으로 이 고분 또한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분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분정에 평탄부가 형성되지 않은 반구형이다. 분구의 규모는 지름 12~13m, 높이 1.5m 이다.

7) 함평읍 진양리 화동 고분군(나군)

화동 고분군(나군)은 국도 23번 도로에서 마을 진입로를 따라 약 200m 정도 들어간 도로변 산기슭(산8-1번지)에 위치한다. 이곳은 화동 고분군(가군)에서 남쪽으로 약 4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기존의 조사보고 내용을 참고해 보면 모두 3기가 분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1호분

마을 어귀 도로변 산기슭에 위치한 초대형 고분으로 1984년 광주박물관 조사진과 지표조사를 할 때 1기의 돌방무덤으로 정리했었다. 그러나 그 뒤 1989년 12월, 땅 소유자가 가묘(家墓)를 중장비로 정리하면서 훼손한 것을 조사하였는바, 돌방, 돌널, 독무덤이 동일 봉분 내에 함께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수의 토기편과 대형 독의 잔편을 수습하였다. 이러한 무덤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조사 보고된 바가 없는 귀중한 유적인데 무지로 인해 그 가치를 잃고 만 것이다. 고분의 규모는 지름 40m, 높이 5m 정도의 원형분으로 분정에는 도굴갱이 드러나 있었다.

(2) 2, 3호분

2, 3호분은 1호분에서 북쪽으로 약 150m 정도 떨어진 함평노씨 선산에 나란히 분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먼저 2호분은 돌방무덤으로 발견당시 뚜껑돌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마을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도굴되어 돌방 안을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고분의 규모는 조사당시 지름 14m, 높이 1.5m 정도의 원형분이었다.

또 3호분은 지름 20m, 높이 2.5m 정도의 원형분으로 2호분 보다 규모면에서는 큰 봉분인데, 발견 당시에는 봉분이 잘 남아 있고 주위에서는 토기나 독의 잔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나 지금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8) 함평읍 장년리 김대순 묘역 고분군

하느리 정류장에서 국도 23호선을 따라 300m쯤 북쪽으로 가다보면 경주이씨 선산이 나오고 천수답(天水畓)이 펼쳐지는데 이 논의 북단에 잘 치장된 김대순 가문의 묘역이 있다. 이 묘역 내에 봉분 지름 20m 가량의 원형분이 있었는데, 1990년 묘역을 정리하면서 완전 훼손하였다.

훼손된 상태에서 1차 조사를 했는데 고분 중심부였을 것으로 보이는 곳에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전용 독이 매장되었고 그 남쪽아래 7m 지점에 돌널이 조성되어 한 봉분 내에 두 형식이 혼재했었다.

전용 독은 심히 훼손되어 몇 조각만 수습되었고 돌널은 길이 2m, 폭 1m의 바닥 돌만 제자리에 있었다. 뚜껑돌이 없었다는 전언에 따라 내부형식을 돌널로 추정한 것이다. 당시 광주박물관 성낙준 학예관과 2차 조사에 나섰을 때는 바닥 돌도 4매만 남고 모두 치워졌었다. 치장한 김씨묘역 서쪽 도랑 바로 곁에 1기의 고분이 있고 고분 남쪽 바로 아래 1기의 민묘가 있다.

규모 1호분. 봉분형태 : 원형. 내부형식 : 독무덤, 돌널무덤 혼재. 크기 : 실측불가
2호분. 봉분형태 : 원형. 크기 : 지름 10m, 높이 1m

9) 함평읍 진양리 하느리(경주이씨 선산) 고분군

하느리 고분군은 함평읍 진양리 함평고등학교 후문에서 장고산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약 100m 가량 가면 도로와 연접한 구릉 정상에 1호분이 위치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능선을 타고 북쪽으로 약 100m 정도 더 내려가면 김인배의 묘가 있는데 이곳에 2호분이 위치해 있다. 좀더 정확한 지번은 산 19-1·2임, 전 1390-1, 1372, 1390-5, 임 1373-2 등지이다.

1호분 주변에는 2~3m 크기의 소형분들이 심하게 파괴된 상태로 있었으며 2호분 주변에도 고분이 더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확인하기 어렵다.

(1) 1호분

1호분은 분구의 북쪽 부분이 채토되면서 1/3 정도 파괴되었다. 분정 남쪽에는 2x3m 정도

크기의 도굴 갱이 남아 있는데, 참고문헌에 의하면 1991년 11월경에 도굴되었다고 한다. 도굴 갱 주변에는 석재들이 노출되어 있어 매장시설은 석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5.8m, 높이 1.8m이다. 고분 주변에서 철편과 토기편 그리고 다량의 옹관편들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2) 2호분

1호분에서 서남쪽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구릉 정상부에서 20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온 사면에 위치한다. 이 일대에는 2기의 고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1기만 남아있다. 고분의 북쪽 1/4 정도는 밭으로 개간되어 파괴되었고, 남동쪽에는 민묘가 조영되면서 일부 훼손되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지름 약 12m, 높이 1.5m 정도이다. 고분 주변에 조영된 민묘 주위에서 토기편과 옹관편들이 수습되었다.

10) 함평읍 석성리 성들 고분군

성들 고분군은 함평읍 석성리 성덕마을 132번지를 비롯해 전 132-2, 413-26, 임413-1 일대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곳 성덕마을은 함평만으로 돌출한 구릉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으로는 깊게 만입한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데, 고분은 서쪽 구릉상에 있는 박찬석 소유의 양돈장 일대에 분포하고 있었으나 농장이 만들어지면서 파괴되어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이곳 일대의 구릉을 마을 사람들은'터맷갓'이라 부르는데, 이곳에 3기의 고분이 있었지만 대부분 파괴되어 정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주변에서 많은 토기편과 옹관편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에 의하면 이 일대 구릉에는 많은 고분이 분포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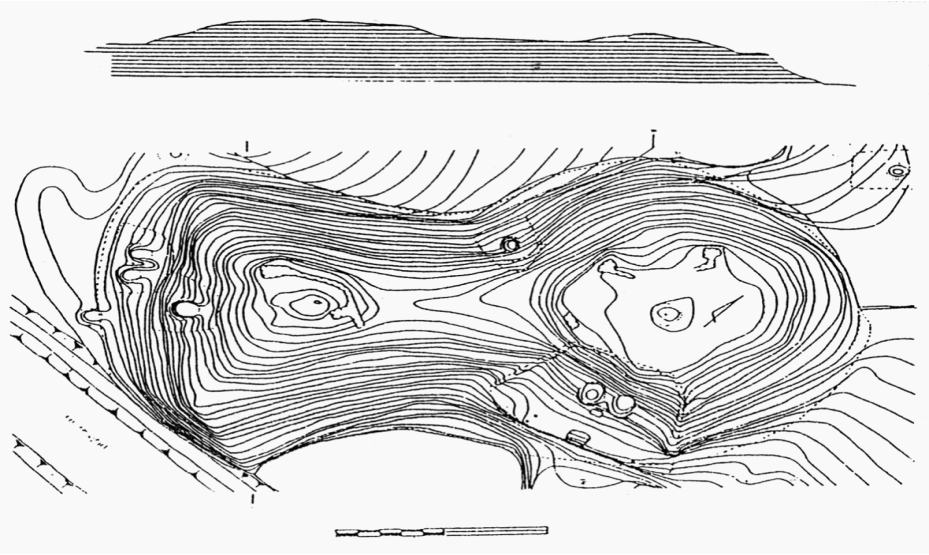
11) 함평읍 자풍리 신풍 고분군

신풍 고분군은 함평읍 자풍리 신풍마을 답 793-1, 임 793-3, 802-4, 전 797-5번지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마을 입구에 함평이씨 시조 묘역이 있는데, 고분은 이 묘역 뒤편(북쪽)으로 약 50m 쯤에 1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2기의 고분이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1호분은 산길 조성으로 인해 일부 훼손되었으며 2호분은 시누대가 자라는 곳에 있어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변에 유물의 잔편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도굴되지 않은 것 같고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고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인데, 규모는 1호분이 지름 18m, 높이 2.3m, 2호분이 지름 17m, 높이 1.2m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고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12) 손불면 죽암리 장고산 고분

장고산 고분은 손불면 죽암리 산 333-4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신광면 유천리 미출마을 어귀에서 서쪽으로 약 100m 가량 떨어진 표고 20m 정도의 구릉이다. 또 이곳은 '떼등'이라 불리는 곳으로 목교저수지와 그 주변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는 곳이다.



죽림 장고형 고분 실측도

고분에서 2.5㎞ 가량 떨어진 지점에 제방이 축조되기 전에는 해발 4m 내외를 이루는 목교저수지 부근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고분은 원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분은 구릉 능선에 축조되어 있는데 구릉 위쪽은 원부, 아래쪽은 방부 형태로 축조한 장고분이다. 분구는 전체적으로 잘 남아 있지만, 예비군 참호가 곳곳에 파지고 민묘가 조영되면서 일부 훼손되었고 분구 남쪽 모서리는 농수로와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잘려나갔다. 집터가 있었다는 고분 동남쪽도 상당히 깎여나갔다.

분구의 평면형태는 장고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원부는 지형상 위쪽인 북동쪽에 있고 방부는 아래쪽인 남서쪽에 있다. 외형상 관찰되는 분구의 규모는 전체길이 66m 내외, 원부지름 36m 내외, 높이 5m 내외, 방부전단 추정너비 36m 내외, 높이 5m 내외인데 원부가 지형상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발고도상 2m 정도 높다. 분구의 주변, 즉 방부 전면과 원부의 북동쪽에서 너비 6~8m 정도의 주구 흔적이 확인되었다.

현재는 정비복원이 이루어져 있는데 정비복원에 앞서 간단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분구의 규모는 최대길이 68m, 원부지름 36m, 원부높이 4.5m(구지표면 기준) 내외이다. 방부는 좌우가 비대칭으로 원부 끝에서 방부 중앙까지 30m이지만 방부 북서쪽은 이보다 2.5m 가량 더 짧

고 남동쪽은 2m 가량 더 길다.

주구는 분구 외곽이 개간되면서 깎여나간 부분이 많아 분명하지 않지만 분구 외곽선을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너비는 6m 내외이고, 깊이는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1.5m 내외로 추정된다.

고분의 남동쪽 약 300m 거리에 장고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명칭은 바로 이 고분의 분구 형태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이 고분은 현재 전라남도 기념물 제152호(1994년 1월 31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13) 함평읍 자풍리 비아 고분군

비아 고분군은 마을 남동쪽에 있는 자풍저수지 남서쪽 구릉사면(산 95임, 답 295)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조사보고 내용 등을 참고해 보면, 민묘 주변에 2기의 고분이 분포해 있었고 조사 당시 석열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고분의 정확한 위치와 구조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14) 학교면 마산리 표산 고분군

표산 고분군은 학교면 마산리 표산마을 서쪽 표고 10~40m의 나지막한 구릉 함평노씨와 진주정씨문중 산 16-2번지 일대 약 2만여 평에 분포해 있다.

이 고분군은 1984년 국립광주박물관 조사에 의해 9기가 확인되고, 그 뒤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에서 4기를 더 확인해 13기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후 2000년 전남대박물관 조사팀에 의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 현재는 총 15기 이상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분이 분포해 있는 이 지역은 '왕무덤' 또는 '8장수무덤'으로 불리는데 완만하게 내려오던 구릉 능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장고분이 축조되어 있고, 장고분의 원부 남동쪽에 4기, 방부 전면에 1기의 중형 원분이 있으며, 장고분에서 30m 정도 떨어진 서쪽에도 중·대형 원분 4기가 더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소형 고분이 더 확인되는데 육안으로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은 장고분을 둘러싸고 있는 5기 정도이다.

장고분을 1호로 명명하고 중형 원분들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2~10호로 명명하였으며 소형 원분을 11~15호로 명명하였다. 장고분의 주구에 3~5호분이 축조되어 고분 상호간의 선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이 표산고분군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122호(1988년 12월 21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계획적으로 표산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도굴꾼에 의해 철저히 도굴되었고, 또 도굴 이후로는 도박꾼들의 도박장으로도 활용되었고 한다.

(1) 1호분(장고분)

1호분은 고분군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다. 구릉 위쪽인 북서쪽에 방부를 두고 아래쪽인 남동쪽에 원부를 축조하였다. 고분은 도굴갱이 파지고 민묘가 조성되면서 상당히 훼손되었지만 분형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원부에는 분정의 남쪽에 지름 7m 정도의 도굴갱이 있는데 도굴하면서 파낸 흙을 원부 정상부에 쌓아 놓았다. 방부에도 도굴갱이 있고 흙을 정상부에 쌓아 놓았다. 분구 외곽으로는 주구의 흔적이 뚜렷하다. 고분의 규모는 분구 전체길이 46m, 원부지름 25m, 높이 5m, 방부 전단너비 26m, 높이 4m, 경부너비 13m 정도지만 주구 외곽선의 높이(추정 구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이보다 1~2m 축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구는 북동쪽 경부에서 가장 깊게 나타나는데 깊이가 1.5m에 이른다. 주구의 평면형태가 방패형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점에 따라 너비 차이가 날 것인데 원부 정면에서는 8m 내외이다. 원부의 남서쪽에는 5호분이, 방부 정면에는 6호분이 잇대어 조영되어 있다.

(2) 2호분(중형 원분)

2호분은 1호 장고분의 원부에서 남동남쪽으로 20m 정도 떨어져 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15m, 높이 1.5m 내외이다. 분구 정상에는 지금 6m 정도의 도굴갱이 파여 있다. 동쪽에는 소형 원분인 10호분이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고 서쪽에는 중형 원분인 3호분이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다. 서북쪽에는 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중형 원분인 4호분이 있다.

(3) 3호분(중형 원분)

3호분은 1호 장고분의 원부에서 남쪽으로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중형 원분이다. 동쪽으로는 2호분과, 북쪽으로는 4호분과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12m, 높이 1m 내외이다.

(4) 4호분(중형 원분)

4호분은 1호 장고분의 원부에서 남쪽으로 5m 정도 떨어져 있는 중형 원분이다. 1호분의 주구 일부를 훼손하고 축조되었다. 남쪽으로는 3호분과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으며 분정에는 도굴갱이 남아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12~15m, 높이 1m 내외이다.

(5) 5호분(중형 원분)

5호분은 1호 장고분 원부의 남서쪽에 잇대어져 있는 중형 원분으로 1호 장고분의 주구에 축조되어 있다. 분정에는 도굴갱이 남아있고 동남쪽으로 4호분과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15m, 높이 1.3m 내외이다.

(6) 6호분(중형 원분)

6호분은 1호 장고분의 방부 전면에 있는 중형 원분으로 4~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1호 장고분의 주구를 훼손하고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의 남서쪽에서 분정까지 10x6m 크기의 도굴갱이 이어져 있어 분구가 심하게 파괴되었다. 분구 주위에서는 주구의 흔적이 확인되는데, 특히 북서쪽에서 너비 5m 내외의 주구 흔적이 뚜렷하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15m, 높이 1.5m 내외이다.

(7) 7호분(중형 원분)

표산 고분군은 크게 두개의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남동쪽에는 1호 장고분을 중심으로 다수의 고분이 분포해 있고 북서쪽에는 대형 원분인 9호분을 중심으로 중형고분 3기가 함께 분포해 있다. 7호분은 그 가운데 가장 남동쪽에 있는 고분으로 6호분에서 북서쪽으로 20m 정도 떨어져 있다. 서쪽으로는 8호분과, 북쪽으로는 9호분과 연접해 있다. 고분은 심하게 도굴되어 분구 곳곳에 크고 작은 도굴갱들이 파져있으며 분구 주위로는 너비 5m 정도의 주구 흔적이 남아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15m, 높이 1.5m 정도이다.

(8) 8호분(중형 원분)

9호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북서쪽 군집 가운데 남서쪽에 있는 고분이다. 고분은 분구가 높지 않고 서쪽에 민묘가 조영되어 있어 도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민묘가 조영되면서 분구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분구 주위로는 주구 흔적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12.5m, 높이 1m 정도이다.

(9) 9호분(대형 원분)

9호분은 북서쪽 군집 가운데 가장 큰 고분이며 전체 고분군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10호분과 연접해있으며 남서쪽으로는 7호분과 주구를 맞대고 있다. 고분은 북쪽 부분이 심하게 파괴되었는데 도굴된 흔적으로 생각된다. 분구 주위로는 너비 5m 정도의 주구 흔적이 잘 남아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24m, 높이 3m 정도이다.

(10) 10호분(중형 원분)

10호분은 북서쪽 군집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9호분, 남쪽으로 7호분과 연접해 있다. 고분은 심하게 도굴되어 분구 곳곳에 크고 작은 도굴갱들이 파져 있다. 분정에는 길이 110㎝, 너비 30㎝ 정도의 판석이 노출되어 있고 분구의 남서쪽에도 석재가 노출되어 있어 고분의 매장시설은 석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노출되어 있는 석재가 모두 원 위치라면 석실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며 전체길이는 50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분구 주위로는 주구 흔적이 남아 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18m, 높이 2m 정도이다.

(11) 11호분(소형 원분)

11호분은 1호 장고분의 원부에서 남동쪽으로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소형 원분이다. 남서쪽으로 2m 정도 간격을 두고 12호분이 있으며 고분은 겨우 분구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6m, 높이 0.5m 정도이다.

(12) 12호분(소형 원분)

12호분은 1호 장고분의 원부에서 남동쪽으로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소형 원분으로 2호분과 11호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은 겨우 분구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인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분구의 규모는 지름 6m, 높이 0.8m 정도이다.

(13) 13호분(소형 원분)

13호분은 1호 장고분의 방부에서 남서쪽으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소형 원분으로 겨우 봉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며,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분구의 규모는 지름 6m, 높이 0.5m 정도이다.

(14) 14호분(소형 원분)

14호분은 1호 장고분의 방부 북쪽 모서리에서 북쪽으로 15m 정도 떨어져 있는 소형 원분으로 겨우 봉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북동쪽으로 3m 정도 떨어져 15호분이 위치하고 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5m, 높이 0.5m 정도이다.

(15) 15호분(소형 원분)

15호분은 1호 장고분의 방부 북쪽 모서리에서 북쪽으로 20m 정도 떨어져 있는 소형 원분으로 겨우 봉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남서쪽으로 3m 정도 떨어져 14호분이 위치하고 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7m, 높이 0.5m 정도이다.

15) 학교면 마산리 청수원 고분군

청수원 고분군은 학교면 마산리 청수원 마을 앞에 있는 청수원교회를 중심으로 도로 동서쪽 구릉(묘219, 전222, 답220. 임221, 221-1)에 위치한다. 이곳은 청수원 마을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으로 현재는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최초 발견당시 도로 동쪽에 형성된 구릉 단애 면에서 일부 파괴된 상태의 옹관 노출을 확인하였고 이 옹관은 대형 전용 옹관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고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16) 학교면 월호리 망월동 고분군

망월동 고분군은 학교면 월호리 망월동 뒷산(산 15임)과 월호저수지 부근 구릉에 있다. 먼저

마을 뒤 양씨선산의 산정(해발 약 60~70m)에 1기의 옹관고분 흔적이 있는데, 이 일대에는 원래 수십 기의 옹관고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는 이곳 일대가 마사토로 형성되어 있어서 분구가 대부분 유실된 관계로 고분의 수효나 형태를 가려내기 어렵다.

이곳 주변에는 마을사람들이 묘를 쓰기 위해 땅을 파다가 방치한 옹관 편들이 여기저기에 드러나 있는데, 구연부가 두텁고 그 아래에 톱니무늬가 있으며 모래알이 많이 섞인 바탕흙으로 구어 낸 전형적인 옹관 편과 구연부가 밖으로 젖혀진 일상의 대형 항아리 편들이 대부분 수습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고분은 마을에서 월호저수지로 가는 구릉에 있는데 소나무 숲 사이에 봉토가 잘 남아 있는 1기의 고분으로 중앙에 도굴 갱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에 더 많은 옹관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17) 학교면 월호리 배야 고분

배야 고분은 학교면 월호리 배야 마을 앞에 형성된 낮은 구릉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곳 일대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고 이들 민묘 뒤쪽에 낮게 남은 고분의 분구가 확인된다. 고분의 북쪽은 밭으로 경작되면서 파괴되었고 남쪽은 민묘가 조영되면서 훼손 되었다. 분정에는 석실의 석재로 추정되는 돌들이 노출되어 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12m, 높이 1.5m이다.

18) 엄다면 엄다리 제동 고분

제동고분은 엄다면 엄다리 제동마을 전 541, 542, 543, 544, 545, 565-3, 565-1번지에 있다. 이곳은 제동마을 동쪽에 있는 해발 44.2m 높이의 윤암산(輪岩山)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린 구릉능선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변이 넓게 조망되는 곳이며, 구릉 동쪽 사면에는 자산서원이 있다.

마을사람들은 고분이 있는 이곳 윤암산 정상부근 일대를 '천문단(天文壇)'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 대학자였던 곤재 정개청(鄭介淸)이 '휘천의 '등 천문 관측기구를 이곳에 설치하고 천문을 연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동 고분의 최초 발견 경위를 보면, 1986년 가을 고성정씨들이 곤재 정개청선생의 유적인 천문단을 정리하기 위해 풀을 제거하며 상부를 손질하다가 영산강유역 특유의 U자 독이 표출되어 작업을 중지하였고, 이를 리현석(작고)이 국립광주박물관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대형 옹관이 매장된 고분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당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분은 방형에 가까운 평면형태에 분정에 평탄부가 형성되어 있어 방대형 처럼 보였고, 규모는 동변 11m, 서변 10m, 남변 9m, 북변 17m, 높이 1.6m 정도였다고 했다. 그리고 분구에서 옹관묘 2기가 노출되었는데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남북방향으로 안치된 옹관묘는 주옹을 북쪽에 배치하고 있었으며 전체 길이는 280㎝에 달했고 주옹의 크기는 길이 197㎝, 입 지름 117㎝, 두께 8㎝ 였다고 한다. 또 동서방향으로 안치된 옹관묘는 주옹을 서쪽에 배치하였고 전체 길이는 240㎝였으며 주옹의 크기는 길이 128㎝, 입 지름 91㎝, 두께 5.5㎝인 것으로 정리했다.

이후 이 고분은 2006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조사 확인된 고분의 현황은 1986년 광주박물관이 조사한 것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주변이 밭으로 경작되면서 고분이 변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고, 고분의 평면형태는 방형의 분위기가 남아 있지만 뚜렷하지 않고 규모는 길이 14.5m, 너비 12.5m, 높이 1.5m인 것으로 조사 정리하였다.

19) 대동면 금산리 노적 방대형 이음돌고분

노적 방대형 이음돌고분은 대동면 금산리 산 84-2번지에 있다. 이곳은 국도 23호선과 지방도 808호선이 이어지는 즉, 함평읍과 신광면 그리고 대동면이 교차하는 노적 삼거리의 북쪽 구릉 정상부에 해당하는데 이 일대는 해발 50m 내외의 구릉성 산지가 발달해 있다. 또 고분의 동쪽에는 함평천 상류의 충적평지가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는 함평만이 내려다보이고 약 700m 정도에 죽암리 장고산고분이 위치해 있다.

고분은 남쪽으로 내려오던 구릉의 능선이 동쪽으로 꺾이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분구의 서쪽 모서리에서 동쪽 모서리로 구릉의 능선이 흘러가고 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마름모꼴을 띠는 모죽임 방형인데 구릉의 능선방향인 서쪽과 동쪽 모서리는 예각을 띠고 있고 남쪽과 북쪽 모서리는 둔각을 이루고 있다. 분구의 주위에서는 주구의 흔적이 완연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구릉 위쪽에 해당하는 동쪽 부분에 잘 남아 있다.

현재 상태에서 확인된 분구의 규모는 남·서변과 북·동변 길이 45m 정도, 북·서변과 남·동변 길이 40m, 높이 7m 정도인데 구 지표를 감안하면 분구의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분구 사면에는 할석이 다수 노출되어 있어서 분구 표면을 덮었던 즙석으로 추정되고, 분정에는 분구의 장축방향을 따라 형성된 비스듬한 평탄부가 있는데 북서-남동 길이 20m, 남서-북동 너비 12m 정도이다. 이 분정에는 2기의 민묘(전주 이씨)가 조영되어 있으며 분정 평탄부의 북서쪽 끝부분에 매장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길이 1.8m, 폭 0.6m, 두께 0.3m 정도의 판석이 일부 노출되어 있다.

이 고분은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발견한 이음돌고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전라남도 기념물 제151호로 지정(1994년 1월 31일)되어 관리되고 있다.

한편 작고한 리현석 씨에 의하면, 이 고분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40m 지점에 봉분의 윤곽이 약간 드러나는 2호분이 있는데 이곳에서 소형 독과 토기 잔편을 수습한 바 있고, 2호분에서 북쪽으로 약 30m 지점에 역시 도두룩한 형적이 남아 있는 3호분에서는 대형독과 토관으로 추정되는 잔편과 각종 토기 잔편을 수습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1호분 북쪽에 위치한 노재풍(魯在豐)의 묘역 일대에서도 독과 토기의 잔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가 집중적으로 고분

이 분포되었음을 밝힌바 있다.

20) 대동면 금곡리 나막 고분

나막 고분은 대동면 월송리에서 금곡리 나막으로 가는 도로의 남쪽 산기슭(산 79-1임)에 있다. 이곳은 북쪽의 해발 262.6m 높이의 철성산과 남쪽 산지 사이에 형성된 고갯마루에 해당하는데 주위에는 6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지름 12m, 높이 2m 정도이고, 내부 돌방은 도굴로 인해 네 벽이 드러나 있어 길이 2.4m, 폭 0.8m임을 확인하였으나 높이는 흙이 채워져 있어 실측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유물의 잔편도 수습하지 못했다고 기존 군지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 고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2006년 전남대학교 박물관 측의 조사보고서에 쓰여 있다.

21) 나산면 구산리 광영 고분군

광영고분군은 나산면 구산리 광영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3-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진주정씨 재각과 예전 정학근 씨의 집(29번지)이 있는데, 이곳 뒤편 해발 92.8m의 일명 옥녀봉이라고 하는 산(36-2번지) 정상에서 약간 내려온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고분은 대부분 지름 2m, 높이 1m 가량의 소형 고분들로 최초 발견 당시 석곽의 석재로 추정되는 30x20x8㎝ 크기의 돌들이 들어나 있었고 10여개 이상의 도굴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88년에는 이곳에서 약재를 캐던 사람이 토기 5점을 수습하여 군에 신고하였는데 이 토기들은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2) 나산면 구산리 원구산 고분

구산리 원구산 고분은 마을 입구의 폐교된 나산서초교 뒤편에 있는'조산'이라 불리는 구릉상(산 36-2임)에 위치하고 있다. 원구산 마을은 해발 100m 내외의 산지 사이에 형성된 곡간평지가 만나면서 형성된 비교적 넓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고분이 위치한 일대는 산지에서 내려와 형성된 독립 구릉으로 주변을 흐르는 구산천과 평능천, 그리고 주변에 형성된 곡간평지가 잘 조망되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23) 나산면 초포리 사산 고분군

사산고분군은 나산면 초포리 사산마을 동쪽에 있는 해발 54.6m의 구릉성 산지(임 740-2)에 있는데, 마을사람들은 이곳 일대를 '뒷뫼 '또는 '말무덤(말묏등)'이라 부른다.

최근에 조사 정리하여 간행한 『함평의 고분』(2006년)에서는 『함평문화유적지표조사』(1984

년) 및 「영산강유역의 선사 유적유물-영산강유역 고고학적 조사연구(2)」 (1973년) 등에서 "길이 15~20m, 높이 3m 규모의 고분 4기가 분포하고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3기만 확인되고, 고분의 평면 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구릉 정상부에 2기가 북서-남동방향으로 분포하며, 북쪽 사면에 1기가 더 있는데 모두 심하게 도굴되어 분구도 심하게 파괴되었다."고 했다. 조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호분 : 구릉 정상부 위치 2기 중 남동쪽 고분, 지름 12m 높이 1m 정도
(2) 2호분 : 구릉 정상부 위치 2기 중 북서쪽 고분, 1호와 15m 간격, 지름 13m 높이 1~1.5m
(3) 3호분 : 구릉 북쪽사면 위치, 2호분과 20m 간격, 지름 18m 높이 3m내외

이 가운데 1호분에서는 1970년대 초 옹관이 출토되어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크기는 큰 옹관이 길이 110㎝, 입 지름 62㎝이고 작은 옹관은 길이 98㎝, 입 지름 63㎝으로 2개의 독을 맞춰 끼운 합구식으로 전체 길이는 208㎝이다.

한편 1999년에 간행한 『함평군사』 에서는 이 외에도 "독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이규행 집 뒤안 대밭의 모과나무 곁과 이성화 집 뒤안 대밭에 있는데 지름 18m정도의 원형분이며 높이는 1m 미만인데 주위에 흩어진 잔편은 없다."했고, 또 "돌방무덤은 모두 2기가 확인되었는데 옹관이 출토된 1호분과 가까운 함평이씨 선산에 1기가 있으며 이 고분은 봉분의 내부까지도 마을사람들이 담장 축조나 마을 안길 축대용으로 사용해 버려 그 흔적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이동범(74세)의 말에 의하면 파괴 이전에 직사각형의 형태로 돌이 쌓였었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돌방무덤이 틀림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또 1기는 이건풍 소유의 대밭 북단에 있으며 이성화 집 뒤의 고분과는 50m의 거리인데, 해방 직전에 일본인들에 의해 도굴되었다고 하며 현재 남아 있는 상태로 보면 석실의 방향은 동서 할석조 맞조임식으로 봉토의 형태는 대략 지름 10m정도의 원형분으로 볼 수 있고 돌방의 크기는 동서 190cm, 남북 110cm, 높이 80cm 정도인데 주위에 밀려 있는 뚜껑돌의 크기는 60×120×14cm이다."고 했다.

24) 나산면 삼축리 상축 고분군

상축고분군은 나산면 삼축리 상축마을 진입로의 북쪽 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릉(平陵)'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마을 뒤쪽에 있는 해발 81.2m 높이의 두류봉(頭流峯)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산사면(산 19임)에 해당하는 곳으로 고분군은 동서방향으로 3열을 이루며 모두 6기가 분포하고 있다.

이 고분군은 남쪽으로는 넓게 펼쳐진 나산평야를 건너 수하리 국사봉(282.3m)과 정면으로 마주 보고, 동쪽으로는 용두리의 고인돌군과 연결되는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초포리 사산고분군과 약 1㎞ 거리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배치 상태는 구릉 상부에 나란히 2기(1·2호)가 있고, 그 아

래 중간에 3기(3·4·5호)가 역시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제일 아래쪽에는 분구가 조금 작은 1기(6호)가 5호분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고분들은 규모와 분포상태로 보아 삼국시대 이후에 해당하는 고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1호분 : 상부 왼쪽 위치, 지름 7.5m, 높이 2m 내외
(2) 2호분 : 상부 우측 위치, 지름 7m, 높이 2m 내외
(3) 3호분 : 중간 왼쪽 위치, 지름 6.5m, 높이 1.5m 내외
(4) 4호분 : 중간 가운데 위치, 지름 6.5m, 높이 1.8m 내외
(5) 5호분 : 중간 우측 위치, 지름 6.5m, 높이 1.8m 내외
(6) 6호분 : 중간 5호분 아래 위치, 지름 4.5m, 높이 1.3m 내외

어쨌든 이 고분군의 관리상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매우 잘 보존되어오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이 고분들에 나있는 풀을 남몰래 베고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면 훌륭한 아들과 딸을 낳게 된다는 전설 때문에 서로가 벌초를 하며 보살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연유에서 이 분묘를 '평릉'이라 했는가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이 고분군이 있는 삼축리를 비롯하여 우치, 초포, 월봉, 덕림, 원선, 구산리가 1932년 식지면(食知面)과 합하여 나산면으로 부르기 전에는 평릉면(平陵面)에 속했던 곳이다. 평릉면이란 이름이 이 고분군의 명칭에서 따온 것이라고 전하는데, 지금까지 찾은 '평릉면'이란 지명이 기재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742년 간행의 『함평이씨족보』 다. 그렇다면 평릉이란 이름은 이 기록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고분군은 '왕묘'나 '부마묘(駙馬墓)'로 전해오고 있다. 함평 사람 중 부마가 된 사람은 기록상 함평모씨(咸平牟氏)의 시조 경(慶) 뿐이다. 모씨의 족보에 "尙公主宋京王氏 父仁宗構祖睿宗侯曾祖할麗太祖建后"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려사』 에는 경(慶)이 부마였다는 기록이 없다. 『고려사』 에는 공주의 남편만 기록되어 있으니 공주가 아니라 아마도 옹주(翁主)였던 것 같다.

이처럼 모씨의 시조가 부마였던 점이나 또 모씨의 상대 실전(失傳) 묘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고분군은 아마도 모씨의 시조와 관련한 묘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성훈은 『함평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에서 다음과 같이 고려 왕실과 관련하여 고분군의 명칭에 대해 설명한바 있다.

> "주민들의 진술은 한결 같이 왕묘 또는 부마묘로 전해왔다고 주장한다. 지표 조사만으로는 그에 대한 내용 파악이 전연 불가능한 일이나 분묘의 배치와 그 규모 등으로 미루어 구릉 상부의 2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어서 '평릉'이란 이름은 이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통일신라 하대에 이르면 중앙의 지방통치제가 해이해지고 각지에서 재지세력(在地勢力)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현재의 함평에서 웅거하던 호족이 고려를 세운 왕건과 제휴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반대급부를 받았던 결과로서 그들의 묘가'능(陵)'이라는 격상된 칭호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는데, 이는 1940년경 이 고분군의 남동쪽을 개간할 때 마을 사람들이 주춧돌과 수많은 기와편을 수습하여 이 전설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묘 동쪽에 궁궐 같이 큰 제각과 묘지기가 사는 집이 있었으나 어느 해에 불이나 전소하였고 묘지기도 떠났다."

25) 나산면 수하리 장재 고분

수하리 장재 고분은 마을 뒤쪽에 있는 해발 49.2m의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약간 내려온 사면(임 750-2, 전 750-12)에 위치하는데 바로 옆에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장재마을은 동쪽의 산지가 서쪽으로 내려오면서 고막원천 변으로 돌출된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분은 구릉의 북서쪽으로는 나산천이 휘감아 돌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고분의 중앙에는 함몰된 흔적이 있으며 주변에 잡석들이 널려져 있다. 주변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과 회색연질토기편이 수습된바 있다.

26) 해보면 대창리 성대 고분

성대고분은 해보면 대창리 성대 정병환 씨 소유의 논밭(전 590, 589-1, 답 588-3, 587-1) 사이에 있다.

마을사람들은 이 고분을 '말무덤' 또는 '몰무덤'이라고도 부르는데, 주위에는 낮은 구릉과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분봉 정상에는 수십 년생 팽나무가 자라고 있다. 분봉의 형태는 원형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작과 성토로 인해 정확한 분형을 파악할 수 없다. 현재 남아 있는 고분의 규모는 지름 10m, 높이 1.5m 정도로 파악된다.

27) 해보면 금덕리 고두 고분군

고두고분군은 해보면 금덕리 고두마을 임 48-1, 48-6, 전 48-54, 48-15번지 일대 구릉에 있다.

원래는 이곳 이외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 곁에 1기가 있었는데 정자를 짓느라 약 ⅓가량이 훼손되었고, 중형일 것으로 여겨지는 독의 잔편을 다량 수습하였다고 한다. 수습된 독의 두께는 약 4~5mm 정로로 아주 엷고 경질이며 회흑색을 띠고 있었다. 이곳 1호분의 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지름 15m, 높이 1.5m 정도였다고 하나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또 이곳에서 농로를 따라 북서쪽으로 약 500여 미터 떨어진 구릉 경사면의 소나무 숲에 나란히 원형형태의 고분 2기(2호분; 지름 18m 높이 2m, 3호분; 지름 20m 높이 2.5)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1기만 확인된다.

현재 남아있는 고분은 기존에 조사된 3기의 고분 가운데 가장 큰 3호분일 가능성이 크지만 상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1호분으로 명명하였다. 고분은 구릉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린 구릉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55m 정도 되는 지점이다. 고분의 평면 형태는 원형

이며 분구의 규모는 지름 15m, 높이 2.2m이다. 북동쪽은 비교적 잘 남아있지만 남서쪽은 밭으로 개간되면서 심하게 파괴되었는데 남쪽에 형성된 분구의 단애면에 석재가 노출되어 있다. 석재는 1.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는데 분구 정점에서 정남쪽 방향이어서 석실의 출입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28) 해보면 금덕리 만년 고분

만년고분은 해보면 금덕리 전 266-1, 266, 267번지에 있다. 이곳은 만년마을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곳인데, 매미(고분)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모습과 같다 하여 마을사람들은 일명 '매미명당'이라 부른다.

고분 바로 곁에는 안씨 묘가 있는데 고분의 평면은 제형이지만 안씨 묘를 조성하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현재 고분의 평면형태는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봉분형태를 아직 찾지 못한 아주 독특한 형태로 묘의 앞과 뒤에 긴 꼬리가 달린 장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장축방향은 동서인데 동쪽 끝부분은 민묘가 조성되면서 훼손되었다. 규모는 장경 11m, 단경 7.5m, 높이 1.5~1.8m이다.

29) 해보면 금덕리 두레섬 고분

두레섬 고분은 해보면 금덕리 전391-2, 392, 393, 395, 396, 399-3, 398-2, 399-14, 399-15 일대 구릉에 있다. 이곳은 고두저수지 제방 옆 구릉 능선에 해당하는 곳으로 고분은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구릉 말단부에 있다.

기존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고분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지름 12m, 높이 2m 정도라 하였지만 지금은 겨우 그 흔적만 알아볼 수 있다.

30) 해보면 문장리 문암 고분

문암 고분은 해보면 문장리 문암 전344-3, 344-4 구릉 정상에 있다. 이곳은 문장 3·1만세 기념탑이 있는 곳에서 문암마을 쪽으로 약 100미터쯤의 도로변 왼쪽인데, 주변의 넓은 평지와 구릉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곳이다.

기존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고분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8m, 높이 3m 정도로 주위에는 10여 기의 민묘가 조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분구의 남서쪽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분봉 북쪽에 길이 120cm, 폭 60cm의 도굴갱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고분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다만 석실의 천정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석재가 놓여 있는 곳이 약간 둔덕져 있어 아마도 이 부근이 고분의 위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1) 해보면 문장리 상귀 고분

문장리 상귀 고분은 문장 3.1 만세탑에서 상귀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의 서쪽, 25번 일반국도와 사이에 있는 구릉사면(임 78-4, 78-26, 78-27)에 위치하고 있다. 이 구릉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가지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고분의 평면형태는 제형에 가깝고 규모는 길이 15~20m, 높이 1~2m로 낮은 편이다. 또한 고분 주변에서 회청색경질토기와 회색연질토기 등이 수습된바 있다. 지금은 이 일대가 잔디밭 등으로 개간되어 고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32) 해보면 상곡리 운곡 고분

운곡마을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남북 방향으로 이어지는 좁고 긴 곡간 평지가 펼쳐져 있다. 고분은 마을 앞 논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분구에 자연암반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노출되어 있어 독립된 자연구릉으로 볼 수도 있지만 평면형태가 정원형에 가깝고 분정에 평탄부가 형성되어 있어 고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규모는 지름 35m 내외, 높이 4.5m이다.

33) 해보면 광암리 광동 고분

광동 마을은 모악산(해발 338.7m)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 사이에 형성된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계곡 가장 안쪽에는 용천사가 자리하고 있고 고분은 용천사 부도군에서 용천사로 올라가는 소로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수로공사로 인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전언에 따르면 2m 정도의 긴 장대석을 바닥석으로 하고 그 위는 잔돌을 이용해 쌓았으며 긴 판석 2매로 뚜껑돌을 삼아 축조한 것이라고 한다.

34) 월야면 용암리 방하 고분

방하고분은 월야면 용암리 방하 산 52-4임, 54, 전112-3, 97 구릉에 있다. 이곳은 폐교된 월야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북쪽으로 약 100미터 지점 도로변 우측에 자리한 신씨묘역 정상에 해당한다.

고분의 장축방향은 남-북이며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에 가깝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분으로 추정되지만 분구에 노출된 토양이 주변의 흙과 동일하고 또 유물도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아직은 고분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고분 남쪽에 신씨 묘역이 조성되면서 상당부분 훼손되었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규모는 길이 10m(기존 조사에는 20m), 높이 2m 정도이다.

35) 월야면 용암리 신성 고분

신성고분은 월야면 용암리 신성마을 뒤편 구릉 정상(산24)에 있다. 기존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이곳 구릉 정상부에 지름 약 20m, 높이 1m에 달하는 분구가 있고 구릉 남사면은 밭으로 개간되었지만 주변 곳곳에서 다량의 옹관 편들이 수습되어 이 고분을 대형 옹관묘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1.5km 거리에 만가촌 고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곳 일대에 더 많은 고분이 분포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고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36) 월야면 정산리 내정 고분

내정고분은 정산리 내정 대352-1, 354-7, 전351, 394-87, 394-89, 임334-58에 있다. 이곳은 마을 남동쪽 구릉사면의 끝자락에 해당하는데, 고분 위로 민가의 담장이 가로질러 있어 심하게 파괴된 상태다.

외형상 분구 성토층이 뚜렷하지 않아 고분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기존의 군사에 의하면 고분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9m, 너비 6m, 높이 2.5m라고 했다. 그러나 2006년 전남대 박물관 측은 고분의 평면형태를 원형으로 추정하고 규모도 지름 6m 내외, 높이 1~1.5m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 외에도 1999년의 『함평군사』에는 내정마을에 더 많은 고분이 있었던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마을 어귀에서 국도 24호선을 따라 동북쪽으로 200m 가량 가다보면 산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을 따라 300m 쯤 가면 밭가에 원형으로 된 2기의 고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을사람들은 이 고분을 가리켜 '왕무덤' 또는 '말무덤'이라 부르고 고분 주위의 경작자들이 봉분을 많이 훼손하였다고 했다. 당시 실측한 1호분의 크기는 지름 14m, 높이 2m이고, 2호분은 지름 12m, 높이 1.5m 정도였다.

이 뿐 아니라 이곳에서 또 북쪽으로 300m 지점에도 일명 '왕무덤'이라 부르던 2기의 고분이 있었으나 이 고분은 일제강점기 말에 도굴되었다가 1970년대 밭으로 개간하면서 완전히 훼손하였다고 했다.

37) 월야면 월악리 연당 고분

연당고분은 월야면 월악리 연당마을 앞 진주정씨 선산에 있다. 이곳은 일명'돌뫼'라 부르는 구릉지대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고분은 구릉 서쪽 말단부에 있다.

1999년의 『함평군사』에 의하면 고분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지름 약 10m, 높이 1m 정도인데 고분의 정상부에 개석으로 보이는 60×30cm 크기의 석재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돌방무덤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고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이곳 고분에서 남동쪽으로 약 20m 지점에 지석묘군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분과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제2절 산 성 (山城)

1. 기산성(箕山城)

소재지 : 함평읍 기각리, 함평리 기산

1) 축성과 폐성

기산성은 함평읍의 주산인 해발 147.3m 높이의 기산봉(箕山峯)에 위치한다. 이 성은 읍성(邑城)임에도 불구하고 군창을 비롯해 우물 6개소와 1개소의 연못 등 산성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읍성과 산성의 역할을 모두 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현(縣)의 치소와 거리가 불과 5리(2km)이기 때문에 별도의 읍성이나 산성을 축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작 기산성의 축성시기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언제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지금의 기산봉 팔각정에서 관음사 쪽으로 내려가는 성벽 곁에서 고대 토기편들이 많이 수습되고, 이들 토기편 가운데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토기편이 함평초등학교 향토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기산성은 적어도 삼국시대에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기산성은 이후 어느 시기 어떤 이유에 의해서 폐성되었을까. 다음에 인용한 노경덕(盧憬德)과 서대근(徐大謹)의 행장 및 『나주군지』의 글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유추해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들로서 주목된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함평성(咸平城)에 들어갔다. 이때 현감 이극성(李克誠)이 군대를 이끌고 영남으로 떠나며 그를 수성장(守城將)으로 삼아 군량과 병기를 관리케 하였다. 그는 함평의 기산성을 잘 지키는 한편, 팔양재(八良峙)의 의병들이 식량이 끊겨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의곡을 모아 위험을 무릅쓰고 수송함으로써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후 정유재란이 막바지에 이르러 왜적이 함평읍 내교리 대화(大化)에 있던 향교에 불을 지르자 노복들이 모두 도주하였으므로 자비를 들여 제향을 받들며 자기 집 노복들을 교직으로 삼게 하였다."(해보출신 노경덕 행장)

"정유재란 때 함평 수성장 김전재와 함께 싸우다가 성이 함락됨과 동시에 수성장과 같이 전사하였다."(함평인 서대근 행장)

"몽탄에 상륙하여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온 적중 일부가 사포를 거쳐 토교 쪽으로 향하여 함평에 침입한 것이 1597년 9월 초(음력)였다."(1981년 간행 『나주군지』 정유재란조)

또 1656년에 간행한 『동국여지지』에는"금폐(今廢)"라고 기재되어 있다(<표1> 참조).

위의 기록으로 보아 임진왜란 때에는 노경덕이 수성장이 되어 기산성을 지켰고, 1597년 9월 초에 왜적의 손에 의해 성이 함락되고 수성군이 전몰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때까지는

기산성이 성의 구실을 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60년 후의 기록(동국여지지)에 지금은 폐성되었다고 했으니 정유재란 때 망가진 성을 복구하지 않았음이 확실하여 기산성의 폐성은 1597년 9월로 보아야한다.

2) 기산성의 규모와 보존 현황

기산성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처음 보인다. 이후 각종 지리지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각종 지리지에 기록된 기산성의 개황(槪況)

지리지 이름	간행연대	성의 명칭	둘 레	높이	샘	연못	참 고
세종실록지리지	1454	읍 성	432보 3자	·	·	·	석축(石築)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	기 산 성	1,857자	9자	6	1	석축.유군창(有軍倉)
동국여지지	1656	〃	1,850자	·	6	1	석축. 금폐(今廢)
여지도서	1759	〃	·	·	·	·	금폐
만기요람	1808	〃	1,850자	·	·	·	
대동지지	1864	기산고성	1,850자	·	6	1	
함평현읍지	1871	기 산 성	·	·	·	·	금폐
증보문헌비고	1908	〃	1,850자	9자	6	1	
호남지	1925	〃	1,857자	9자	6	1	
함평군지	1930	〃	1,857자	9자	6	1	유군고(有軍庫).금폐
조선보물고적조사	1942	〃	600간	2간			토루(土壘)

기산성은 147.3m의 기산봉 주봉에서 북쪽으로 130m의 봉우리로 이어지고 여기서 서쪽으로는 낮아지면서 잣골재[137]에 200여m 못 미치는 경사지에서 남쪽으로 꺾여 관음사 앞 대밭의 골짜기로 내려오다가 현 팔각정 쪽으로 오르막을 타고 이어져 기산의 제2 봉우리인 팔각정에서 동쪽으로 꺾여 상봉에서 만나는 포곡식(包谷式) 산성이다.

1984년 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원들이 둘레를 실측한 결과 성가퀴(城堞. 雉堞)를 제외한 둘레가 980m에 이르러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와 가장 근사치를 보였다.

출토되는 기왓장으로 보아 문은 두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관음사 앞의 대밭이 시작되는 곳으로 보이며, 성의 지형으로 보아 이 문이 주 통로였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은 정상에서 북쪽의 130m 봉우리와 이어지는 중간 지점으로 많은 기왓장이 쌓여 있다.

앞의 <표 1>을 보면 성벽의 높이는 9자로 같으나 둘레는 서로 같은 기록도 있으나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성가퀴의 둘레를 포함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일 뿐 증축 등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록을 미터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137) 작곡재, 작국재, 잣곡재(栢谷峙)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잣성(城)에서 유래한 잣골재(城峙)가 옳은 표기다.

둘레 : 세종실록지리지	432보 3자 × 5 × 31.24cm = 686m	
	432보 3자 × 6 × 31.24cm = 820m	
신증동국여지승람	1,857자 × 46.73cm(포백자) = 868m	
동국여지지	1,850자 × 46.73cm(포백자) = 865m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	600간 × 180cm = 1,080m	
높이 신증동국여지승람	9자 × 46.73cm = 4.2m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	2간 × 180cm = 3.6m	

기산성의 축성 방식에 대해 모든 지리지가 석축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는 토루로 보고하고 있는데 실은 산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바깥 면은 자연 경사를 이용하여 돌로 쌓고 안쪽은 흙과 잡석을 채워 다진 즉, 외축내탁(外築內托) 방법으로 쌓은 토석성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성가퀴(城堞.雉堞)는 동벽 구간에 2곳, 북벽 구간에 3곳으로 모두 5곳인데 이들 성가퀴는 기산봉 정상부와 산 능선 중간부분의 작은 봉우리를 이루는 지형에 위치하여 적을 방어하는데 유리한 지형을 최대한으로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성가퀴의 거리와 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기산성의 성가퀴 현황

- 1호 성가퀴(일인들의 방공 감시소 설치. 현 통신 시설로 파괴)→ 200m(2호 성가퀴)→ 142m(3호 성가퀴)→ 40m(4호 성가퀴)→ 156m(5호 성가퀴)

호 수	길이(m)	폭(m)	장축 방향	평면 형태	축조 위치	축조 방법
1호 성가퀴	6.5	5	남 - 북	장방형	성벽 중간	축성과동일
2호 〃	6.7~7	3.7~4	〃	〃	〃	〃
3호 〃	14.7~15	16	동 - 서	〃	〃	〃
4호 〃	실측불가	6.5	남 - 북	〃	회절부	〃
5호 〃	12	10.5	〃	〃	〃	〃

성의 보존상태는 기산봉 정상으로부터 북쪽의 130m 봉우리까지의 동벽은 약 200m이며 이 구간은 능선 바깥면의 급경사를 이용하여 밖은 돌로 쌓고 안은 성 안의 흙을 완만하게 경사를 유지하며 깎아 쌓아 올렸고 현재 남아 있는 성벽 중 가장 뚜렷하게 보존되어 있다.

현재 위 폭 2.5m, 아래 폭 6.5~7m 정도로서 단면은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성벽이 3m 이상 남아 있는 곳도 있다.

북벽은 약 350m며 서쪽으로 점점 낮아지는 지형을 이루며 축성은 동벽과 같은 형식이나 동벽에 비해 경사가 완만하므로 일부 구간에서는 바깥 면을 깎아내고 돌을 쌓았다. 현재 위 폭 1~1.5m, 아래 폭 5~6.5m, 성 바깥 높이 2m, 안쪽 높이 1m 가량이 남았으며 단면은 사다리꼴에 가깝다.

서벽은 약 300m 가량인데 동벽과 북벽에 비해 훼손이 심하다. 현재 위쪽 폭 1m 내외, 아래쪽 폭 4~5m, 높이 1m 내외가 남았고 성문지였을 곳에는 기산 공원화계획에 의해 넓은 길이 뚫렸다.

남벽은 팔각정 아래에서 상봉까지의 구간으로 일제강점기 방공시설, 6.25 한국전쟁 때 초소 설치 등으로 인해 훼손되어 지금은 성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시설물은 북벽 중간 지점에서 성안으로 30m 지점에서 군창 터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건물지의 주추가 노출되어 있고 우물 2개소와 연못 터는 확인하였다.

2. 금성산성(金城山城)

소재지 : 대동면 용성리 금성동 금성산

1) 축성(築城)과 폐성(廢城)

금성동은 함평읍에서 북으로 6km 거리며 마을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해발 227.5m의 금성산은 정상부를 정점으로 북쪽으로 1개의 능선과 남쪽으로 2개의 능선이 뻗어 내려 금성동을 에워쌌는데 한줄기는 남쪽을 향해 거의 직선을 이루며 뻗어내려 마을 어귀 서편에서 머무르며, 또 한줄기는 동쪽 220m의 봉우리에서 남진하여 마을 어귀 동쪽 박재순 집 곁에서 머문다. 양쪽 산줄기가 머문 사이인 200m 가량의 남쪽은 평지로 대동평야와 연결된다.

금성산성은 산줄기와 계곡을 포용하여 쌓은 포곡식이며 토축인 북벽의 50m정도를 제외하고는 석축이고 전남의 서해안지대에 있는 성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이다.

이 성을 언제 쌓았는가는 전하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농경지가 된 성안의 이곳 저곳에서 고대 토기편이 수습되고 성안의 지명에 원님이 살았다는 원터, 죄수를 가두었다는 옥터 등의 지명이 전해오고 남쪽이 평지여서 산성이라기보다는 읍성으로서의 조건을 더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자 간에 이 성이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에 현의 치소(고려시대 咸豐縣. 백제 屈乃縣)였거나 서쪽 1~2km 내에 분포하고 있는 금산리 노적의 이음돌고분, 죽암리 장고형 고분, 진양리 하느리 고분, 대덕리 고양촌고분 등 대형 고분의 피장자 세력과 크게 관련이 있는 성이었을 것이라는 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 이 성은 서쪽 지근에는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에서 발원한 함평천이 남으로 흐르고 있고, 해보면 용천사에서 발원한 대동천이 성의 동쪽을 감돌아 성 남쪽을 가로질러 외덕 마을 앞 들판에서 함평천과 합류하기 때문에 이들 하천이 자연의 해자(垓字) 몫을 하였고 또 이들 하천에 근세까지 배가 드나들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로는 물론 천혜의 요새지(要塞地)였다.

이 성이 정확히 언제 폐쇄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다음의 <표 3>에서 보듯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금반퇴폐(今半頹廢)"라고 기술하였고, 『동국여지지』에는 "금진퇴비(今盡頹圮)"라 하였다. 즉 1531년에 반이 무너진 상태라면 성을 보살피지 않은지가 오래 전이라는 말이 된다. 또 그 후 125년 기록에 전부 무너졌다고 했으니 지금 상태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였던 것 같다. 대략 금성산성은 고려 말을 전후하여 폐성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금성산에 대한 성임(成任)의 시 한 수가 실려 전한다.

등임이 반드시 놀고 구경하고 즐김이 아니요	登臨非足好遊觀
가는 말을 잠간 쉬어 한가한 것을 빌림일세	試憩征鞍暫借閑
긴 길은 북으로 가리역에 통하고	長路北通嘉里驛
뜬 구름은 동으로 금성산에 잇 닿았네	浮雲東接金城山
남풍에 베개와 댓자리는 속세를 벗어난 듯	薰風釰簟紅塵外
긴 여름날에 누각이 푸른 나무 사이에 있네	永日蒼楹綠樹間
석류꽃의 붉음이 한창이어서	賴有榴花紅爛漫
나그네 길에 그런대로 다시 한번 웃음일세	客中聊復一開顔

2) 금성산성의 규모와 보존 현황

금성산성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함평현 고적조에 처음 보이며, 이후 각종 지리지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각종 지지(地誌)에 기록된 금성산성의 개황

지지 이름	간행년	둘 레	높이	참 고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	1300자	5자	작은 내(川)가 있음. 현재 반 무너짐(今半頹廢)
동국여지지	1656	·	·	내유소계. 현재 모두 무너짐(今盡頹圮)
여지도서	1759	·	·	지금은 폐성임(今廢)
대동지지	1864	1300자	·	작은 내(川) 있음(有小溪)
함평현읍지	1871	·	·	지금은 폐성임(今廢)
증보문헌비고	1908	1300자	·	금폐. 안에 작은 내가 있음(內有小溪)
호남지	1925	·	·	유지가 지금 있음(遺址尙存)
함평군지	1930	·	·	오래전에 폐성됨(舊廢)
조선보물고적조사	1942	1500간	·	서변, 금성, 구룡, 판교에 있음. 석루(石壘)며 곳곳이 붕괴됨

각종 지리지에 기록된 금성산성의 규모를 미터로 환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둘레 1,300자 × 46.73cm(포백자) = 608m.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1,500간 × 180cm(포백자) = 2,772m.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
높이 5 × 46.73cm(포백자) = 2.3m

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진이 둘레를 실측한 결과 2,700m였는데 이 수치는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와 거의 일치한다.

지리지의 608m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는 어디에 근거한 기록인 줄 모르겠다.

현재 대부분의 성벽이 심히 무너져 내렸으나 형적이 전혀 없는 부분은 드물다. 동벽은 금성마을의 박재순 집 뒤안에서 시작하여 능선을 따라 동북쪽의 210m 봉우리까지 이어지는데 다른 구간에 비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급경사 지역과 암벽으로 이어져 있어 암벽의 위나 암벽 사이에 보축하여 성으로 이용한 부분도 보인다.

높이가 2m 이상 잔존해 있는 곳도 있다. 동벽의 중간 지점인 속칭 동문(東門) 터는 평평한 암반이 깔려 있으며 암반에 기둥자리 흔적으로 보이는 네모진 구멍이 여러개 확인된다.

북벽은 동벽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금성산 정상부까지로 네 벽 중 가장 짧다. 동벽과 북벽이 갈라지는 지점에 장대지(將臺址) 또는 망루지(望樓址)였을 것으로 보이는 장방형의 건물터가 남아 있는데 길이 15× 10m, 높이 1.5~2.7m 규모다.

북벽의 속칭 "뒷등"에는 북문이 설치되었다고 하나 현재 확인되는 것이 없다. 건물터에서 50m 가량 지나면 성이 내리막을 타는데 약 50m가 토성으로 되어 있다. 서벽은 북벽이 갈라지는 지점으로부터 금성 마을 서편에서 능선이 멈추는 곳까지로 네 벽 중 가장 길다.

서벽은 동, 북벽보다 경사가 완만한 곳이며 성의 보존 상태는 300m 가량 무너진 성 돌이 산재해 있는 등 동벽과 거의 같은 상태다.

남벽은 두 능선의 초입부(初入部)를 직선으로 가로질러 연결하였는데 지금은 민가의 중심부가 되어 훼손이 극히 심하다. 옥터라 전하는 곳만 기단에서 3단까지가 보존되고 있고 성문터는 마을로 들어서는 큰길이 되었다. 그러나 집집마다 남아 있는 성터를 연결지어 보면 대략 규모를 알 수 있다.

성안은 모두 경작지로 변했으며 작은 냇은 지금도 배수 구실을 하고 있으며 안샘도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이 되고 있다. 박재순 집 담벽 밑을 통해 대동천과 만나는 지점까지 돌로 쌓은 수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1970년대 말 농경지 정리를 하면서 그대로 메워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농경지 정리를 할 당시는 밭이었으나 지금은 논이 된 마을 동각까지의 일대에서 구들장이 수없이 나왔다고 한다. 이는 옛날에 성 밖에도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3. 보평산성(普平山城)

소재지 : 함평읍 자풍리 비아. 무안읍 용월리 약곡 마을

1) 축성과 폐성

보평산은 해발 225m의 산으로 함평군 함평읍과 무안군의 현경면, 무안읍과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보평산은 그 지맥이 셋으로 갈리는데 북동진한 한줄기는 함평군 함평읍 자풍리를 거쳐 엄다면 신계리 석문에서 머물며, 이 지맥에서 갈려 남진한 한줄기는 무안읍 용월리 노동 마을의 서편 토성 저수지에서 멈추고, 정상으로부터 남서진한 한줄기는 무안읍 고절리 상고절 마을의 북편으로 이어진다.

남진하는 두 산줄기상에 쌓은 성이 바로 보평산성으로 지금은 무안군에 속한다. 그런데 엄연한 무안군 소재의 보평산성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 성이 함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곡까지 북동진한 지맥중 남진한 지맥과의 갈림목에서 자풍리 비아의 성재(城峙)라 부르는 곳까지 약 200m에 성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성재에서 자풍리 비아 쪽으로 오솔길을 따라 200m 지점에 석축을 한 건물지(建物址)가 남아 있어 함평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함평 쪽으로 쌓은 이 성이나 건물지에 대한 기록은 아직 찾지를 못해 그 내력을 알 수 없다.

보평산성에 관한 기록은 다음의 <표 4>에서 보듯이 『여지도서』에 처음 보이는데 "무안현의 북쪽 5리에 있고 물양고지(勿良古址)라 전한다."고 했다. 물양은 944년(고려 혜종 원년)에 변경된 무안의 옛 이름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보평산성은 대략 고려 초에 쌓은 성이라 볼 수 있으며 물양의 치소였던 것도 알 수 있다. 물양군은 991년에 무안현으로 고쳐져 나주목에 예속되었다.

보평산성의 폐성 연대는 정유재란 때 박제(朴悌), 송백창(宋伯倡) 등이 의병을 모아 보평산성에서 싸웠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는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각종 지리지에 기록된 보평산성의 개황

지리지 이름	간행년	명 칭	참 고
여지도서	1759	보평산 토성	물양고지라 전함(諺云勿良古址)
대동지지	1864	보평산 고성	흙으로 쌓은 옛 성터(土築古址. 世傳勿良時古基)
증보문헌비고	1908	보평산성	흙으로 쌓은 물양의 옛터. 지금은 폐퇴함(今頹廢)
면성지(綿城誌)	1925	보평산성	면주의 성터가 지금도 남아 있음(綿州城址有存)

2) 보평산성의 규모와 보존 현황

보평산성의 규모에 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 때 조사 기록한 『조선보물고적조사 자료』 뿐이다.

이 보고서에는 "산록의 밭 가운데 높이 약 6자의 토루(土壘)가 약 30간(間)이 있고 보평산성 또는 물양군터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미터로 환산해 보면 30간× 1.8m = 54m이다. 이는 남벽의 잔존 부분만 실측한 것이며 현재 남아있는 이 성의 둘레는 1.5km 가량이고 산 능선과 계곡을 포용하여 쌓은 포곡식 산성이다.

동, 서벽 전체와 북벽의 일부는 산 능선 정상부의 외면을 돌로 쌓고 내면은 흙으로 채운 외축내탁법에 의해 축조하였고 북벽의 일부와 약곡마을 서편의 토성저수지 북쪽 200m 지점의 계곡을 가로질러 쌓은 남벽 전체는 토축(土築)이다.

성내의 계곡부는 완만한 경사의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민묘 등으로 인해 건물터 등의 유구는 찾을 수 없다.

현존하는 성의 시설물로는 3개소의 문터가 남아 있는데 서문터는 무안읍 매곡리 발산마을로 통하는 소로이며, 남문터는 무안읍 용월리 노동 마을에서 성내부로 통하는 소로이고, 동문터는 용월리 약곡마을로 통하는 고개마루 정상 부근에 위치한다. 성내부에서 토성저수지로 흘러드는 시내물이 통과하고 있는 민묘와 남벽 사이가 수구로 추정된다.

성내부에서 고려~조선시대의 기와편과 그릇편이 수습되어 성의 축조연대와 사용 시기를 입증해 주고 있다.

4. 철성산성(鐵城山城)

소재지 : 대동면 금곡리 나막마을 뒤 철성산 서쪽 봉우리

1) 축성과 폐성

현재 산성으로 오르는 길은 월송제 서편의 소로를 따라 법흥사를 거쳐 철성산 북편으로 오르는 산길과 나막마을에서 철성산 남쪽으로 오르는 산길이 있는데 나막을 통해 오르는 것이 수월하다.

성이 축조된 철성산 서쪽 봉우리는 해발 220m며 산세는 북쪽과 동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이 낮으며 나막마을 쪽으로는 계곡지형을 이루고 있다.

철성산이 소재한 이곳 일대는 무안군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함평군 학교면에 편입되었고 1973년 행정구역 조정 때 대동면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철성산성에 관한 기록은 무안현의 지리지에서 찾아야하는데 『대동지지』에 "현의 동쪽 30리에 있다."고만 하였고, 1924년 간행 『면성지』에 "동쪽 30리 철성산에 있고 백제 때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이라 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이라는 기록은 잘못된 기록이다. 당시 백제와 일본과는 사이가 극히 좋은 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내에서 고대 토기편이 수습되고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군으로 보아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보이며 성내의 면적이 비좁고 무안현의 치소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며 또 필요성이 적었던 관계로 고려와 조선조에서는 성이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철성산성의 규모와 보존 현황

이 성의 규모에 대해 기록한 지지나 현 읍지류는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 때 조사 기록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학교면 동암리에 소재하는 성으로 둘레 300간의 석성으로 높이 1간, 폭 4간이며 곳곳이 붕괴되었다." 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철성산성의 규모를 미터로 환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둘레 300간 × 1.8m = 540m
높이 1간 × 1.8m = 1.8m
폭 4간 × 1.8m = 7.2m

그러나 실제 성의 둘레는 700m 정도다. 이 성은 테뫼식 산성으로 평면 형태는 부정형이며 성벽은 성내부의 높이까지 산 정상부의 바깥 면 일부를 삭토하고 돌로 쌓았는데(內托法) 바깥면의 경사로 인해 성 돌을 약간씩 내경시켜 쌓았으나 거의 수직에 가깝다. 현재 대부분의 성벽은 무너진 상태며 동벽과 남벽의 일부에 석축이 잔존하고 있다. 잔존한 동벽의 경우는 높이

1.5~1.8m, 폭 6.5m, 규모로서 40× 20cm 내외의 석재를 다듬은 면을 바깥쪽으로 하여 쌓았다.

특히 동벽은 성의 외면이 급경사를 이룬 관계로 무너진 돌이 14m까지 널려 있는 곳이 있다. 계곡면에 있는 남벽은 동벽과 같은 크기의 돌로 성벽을 약간 안쪽으로 내경시켜 쌓았는데 길이 23m, 높이 1~1.5m, 폭 4m의 석축이 남아 있다. 남벽은 계곡의 상단을 가로질러 쌓은 관계로 다른 성벽에 비해 높게 쌓았다.

성내 시설물로는 북벽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 동서, 남북의 길이가 16m인 거의 정사각형을 이룬 건물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은 헬기 이착륙장으로 쓰고 있다. 남벽 부근에도 건물이 들어설만한 평탄지가 있으나 민묘 조성으로 훼손되었으며 성가퀴(雉)나 문터의 흔적은 확일 할 수 없다. 성내에는 속칭 "요강샘"이라 불리는 샘이 있다.

5. 월악산성(月岳山城)

소재지 : 월야면 월악리 동산마을 월악산

1) 축성과 폐성

월악산은 해발 164.7m의 남북 장축의 산으로 산 정상부는 함평군 월야면과 장성군 삼서면과의 접경을 이룬다. 월악산 주변은 대개 낮은 산과 구릉뿐이어서 낮은 산이지만 사방이 잘 조망된다.

월악산성에 대한 기록은 지지류에는 없고, 다만 1895년 간행 『함평현읍지』에 "산성터가 남아 있으며 성안에 서실(書室)이 있다."고 하였고, 그 뒤에 간행된 『군지』에는 터가 남아 있다고만 하였다. 따라서 축성연대나 폐성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고분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아주 고대의 성으로 추정해 보며 조선시대 때 간행한 지지류에 월악산성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잊혀진 성이라면 고대에 폐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월악산성의 규모와 보존 현황

이 성은 남북 장축의 월악산을 둘러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이다. 월악산은 남북에 각각 1개씩의 큰 바위가 있는데 성축은 이 암벽 사이를 연결하고 동산마을 쪽을 향한 계곡부의 정상부를 가로질러 쌓아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삼태기 모양이다.

성벽은 산 바깥면의 경사를 이용하여 35× 15cm정도의 잡석으로 쌓고 안은 흙과 잡석을 섞어 채운 내탁법 축성이다. 북벽은 그동안 성벽 위쪽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낙엽 등으로 인해 토성처럼 보인다.

성의 둘레는 약 600m며 높이와 폭은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높이는 1~1.5m, 폭 6m의 규모다. 현재 북벽과 서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남벽은 계곡의 경사와 주민들이 돌을 쓰기 위해 훼손하여 거의 무너져 있다.

성내의 시설물로는 남벽에 접하고 있는 계곡 정상부에 동서 장축의 17× 12m 건물자리가

남아 있는데 현재 평탄한 대지에 군데군데 석재편이 산재해 있다. 문터나 우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3절 유물 산포지와 수습유물

1.유물산포지

번호	유 적 명	지 번	시 대	비고
1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	전767, 757, 768, 19, 16, 15, 12, 756, 대766, 750-4, 765, 769-1, 17, 도16-1	삼국	
2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	전652-2, 655, 654, 653, 652-3, 652-5, 652-6, 649, 656-1, 묘648, 답638-1	삼국	
3	함평읍 대덕리 고양(가)	답381-1, 319-1, 327-1. 333-2, 대300, 319-2, 321-1, 전306, 305-6, 305-1, 304-1, 323-1, 323-2, 323-3, 322-1, 325-8, 325-5, 325-6, 328-2, 326-1, 327-2, 임325-7	철기 삼국	
4	함평읍 대덕리 고양(나)	대985, 988, 987, 산72-2, 산43, 전1033-4, 1033-5, 985-1	삼국	
5	함평읍 만흥리 초동	산6-6, 6-4, 6-1, 7-1, 2-1, 3, 3-1, 4, 5, 전10-4, 10-1, 2-2	삼국	
6	함평읍 성남리 성북	답883-1, 883-2, 883-3, 883-4, 883-5, 883-6, 1179-1, 1179-2, 1179-3, 1189-4, 1189-5, 1189-6, 임915-1, 123, 전161, 160	삼국	
7	함평읍 자풍리 신풍	묘651-1, 705, 전682-2, 680-1, 701-1, 703, 704, 709, 710, 708, 도680-3, 680-5, 696-1, 697-2, 임68-2, 대700-1	삼국	
8	함평읍 진양리 양림(가)	답75, 76-3, 112, 113, 114, 115, 116, 묘111, 전244, 55-1	삼국	
9	함평읍 진양리 양림(나)	임882-11, 882-40, 882-100, 전882-39, 882-72, 888	삼국	
10	함평읍 진양리 화동	답768, 771-1, 771, 781-1, 768, 767-2, 1426-7, 1426-8, 1426-9, 1426-10, 1416-2, 구1432, 전773-1, 767-1, 774-1, 778, 777-2, 도1426, 임774-3, 773-1	삼국	
11	나산면 나산리 방하	전797, 796, 778, 798, 799, 800, 801, 805, 815, 816, 814, 813, 820-1, 817, 답804, 803, 802, 818, 산57, 산65, 묘806	삼국	
12	나산면 덕림리 백양	산2-1, 답732-10, 733-1, 733-2, 734-1, 734-2, 734-3, 734-4, 736-1, 736-2, 구767, 도768, 772, 임238-1, 338-1, 전237-1, 237, 239	삼국	
13	나산면 월봉리 안영	임489, 대490, 491, 497, 492-1, 493-10, 495, 전136, 134, 137, 488, 454, 484, 483, 498-1, 499-2, 499-1, 500-2, 501, 답487, 486, 486-1, 504, 591-11, 591-14, 591-13, 591-12, 505-1	삼국	
14	나산면 이문리 석지	전12-1, 12, 10, 13, 14, 17, 답16, 18, 20, 20-2, 21, 23, 산109-1	삼국	
15	대동면 강운리 주평	임697-11, 697-10, 전682, 683, 684, 697-12, 982, 답697-9, 944-9, 945-1, 945-2, 945-3, 945-4, 945-5, 945-6, 947-1, 947-2, 947-3, 947-4, 946-4, 946-1, 946-2, 946-3, 946-4, 구984, 도983	삼국	
16	대동면 금곡리 금곡	산38, 산37, 산33, 산34, 전296, 297, 298, 299, 293, 295, 345, 365-1, 352, 364, 365, 363, 임351, 답294, 대300-1, 301, 302	삼국	

번호	유 적 명	지 번	시 대	비고
17	대동면 금곡리 나막	전674-1, 674-2, 673, 670, 675, 668, 676, 677, 678, 679-1, 665, 667, 655-1, 656, 658, 660, 661-1, 661-2, 663, 664-1, 666, 657, 654, 651, 646, 645, 644, 659, 686-1, 686-9, 671-3, 662, 652-1, 650, 643-1, 643, 642-2, 답653, 묘653, 묘669, 임669, 임671-2	삼국	
18	대동면 금산리 노적(가)	전705-1, 705-7, 776-1, 775-1, 779-1, 780, 780-1, 779-2, 779-3, 783, 784, 709-1, 701, 712-3, 712-1, 712-4, 705-5, 705-8, 답777-3, 715-1, 716-3, 774-1, 714-1, 714-2, 714-3, 714-4, 714-5, 692-1, 696-1, 임705-10, 705-11, 705-5, 대698, 697	삼국	
19	대동면 금산리 노적(나)	전481, 480, 485, 485-2, 485-3, 486, 493, 492-2, 477, 477-1, 477-2, 477-3, 479, 479-1, 479-2, 485-1, 464, 467, 442, 답484, 483, 482-2, 482-3, 487-1, 489, 480-1, 488, 65-1, 470, 471, 472, 476-2	삼국	
20	대동면 금산리 녹파	산9-1, 12-2, 13, 11, 30-4, 30-3, 20-5, 전422-42, 422-30, 대422-40, 422-21	삼국	
21	대동면 향교리 남교	전468, 467, 466, 422, 419, 423-2, 423, 424, 421, 420, 415-1, 427, 433, 434, 432, 414-1, 428-1, 462-2, 459-1, 460, 453, 456-1, 451, 438, 430, 450, 449, 456, 462, 421-1, 대465, 464-1, 475, 435, 436, 426-1, 437, 440, 446-2, 446, 441, 444, 452, 454	삼국	
22	손불면 동암리 매곡	답7, 11, 전6, 8, 9, 10, 12, 12-1, 12-2, 12-3, 12-4, 13, 14, 15, 49-1, 50, 51, 52, 53, 55, 임16-1, 16-3, 16-4, 16-5, 묘54	삼국	
23	손불면 석창리 대발	산34-3, 34-5, 34-6, 33-2, 33-3, 33-5, 38-1, 전63-2, 63-1, 62-10, 62-11, 62-12, 60-1, 62-1, 66-3, 66-4, 산42, 답60, 63, 64	삼국	
24	손불면 죽암리 죽림	임458-4, 458-1, 458-5, 458-6, 458-10, 전458-3, 458-15, 458-11, 458-13, 658-9, 626, 624, 627, 628, 630, 631, 635-17, 161, 164, 165, 166, 625, 613, 614, 617, 458-7, 458-8, 458-24, 대160, 632	삼국	
25	신광면 가덕리 가덕	전314, 313-12, 313-5, 250, 251, 354-1, 354-2, 315, 317-1, 313-7, 313-8, 309, 312, 임313-1, 313-10, 313-11, 249-1, 249-2, 313-9, 313-2, 313-3, 252-1, 252-2, 답253, 252-3	삼국	
26	신광면 가덕리 매산	전193-1, 193-2, 192, 173, 174, 194, 199-4, 199-3, 172, 175, 199-9, 196, 198, 206, 205, 199-1, 171-2, 190, 임179-4, 179-1, 199-6, 199-2, 199-3, 199-10, 200, 199-8, 대199-7	삼국	
27	신광면 가덕리 호덕	전351-1, 351-2, 532-1, 330-1, 324, 325-1, 322-2, 536, 535-1, 352, 533, 329, 328, 326-1, 537, 649-6, 답350, 350-3, 349-2, 350-1, 333, 332, 334-1, 334, 331, 334-2, 336-2, 337-2, 338-2, 339-2, 임649-27, 649-28, 649-1	삼국	
28	신광면 함정리 무송	전520, 179-1, 179, 452, 455, 520-1, 답519, 453, 454, 456, 산741, 75, 76, 67, 도704	삼국	
29	엄다면 삼정리 송정	전968, 961, 960, 955, 959, 957, 956, 954, 953, 958, 950, 966, 963, 952, 969, 임941-6, 941-2, 967, 753-3, 753-4, 753-5, 754	삼국	
30	엄다면 성천리 성암	전770, 770-1, 771, 700-1, 760-2, 769, 760-3, 700-4, 792-14, 792-8, 792-1, 792-12, 792-13, 792-18, 793-4, 768, 772, 792-7, 758-2, 759, 763, 766, 767, 793-2, 793-1, 793-3, 792-17, 792-19, 219, 220, 217, 794, 795, 797, 797-1, 765, 218, 답793	삼국	
31	엄다면 성천리 와촌	전402, 403, 405, 406, 407, 408, 409, 399, 396, 395, 394, 832-1, 829, 830, 832, 답400, 401, 411-1, 임40-1, 418-1, 418-4	삼국	
32	엄다면 송로리 노상	전365, 366, 364, 569, 569-1, 363, 362, 368, 369-2, 369-1, 370-2, 370-1, 369, 340-4, 568, 570, 567, 임371-2, 371-3, 371-4, 371-1, 371-5, 570-1, 571, 573, 답340-3, 340-2, 361-1, 1126, 1130-1	삼국	

번호	유 적 명	지 번	시 대	비고
33	엄다면 신계리 장동	전537-3, 539, 538, 540-2, 538-2, 574, 573, 570, 571, 572, 569, 568, 586, 565, 567-2, 임540-1, 567-1, 537-1, 답1119-6, 1181-1, 1173-1, 1173-2, 1173-3, 1173-4, 1173-5, 1173-6, 1173-7, 1116-7, 1116-8, 1116-9	삼국	
34	월야면 계림리 가차	전506, 507, 506-2, 506-9, 506-6, 506-13, 506-14, 506-7, 506-4, 514-2, 514-8, 495-3, 472-3, 470, 471-1, 514-13, 514-6, 대494, 산46-3, 산37-7, 산38-5	삼국 조선	
35	월야면 계림리 시목	산20-1, 28, 28-1, 29-1, 27-1, 27-3, 26-1, 26-2, 47-3, 49-6, 전43-4, 43-3, 43-2, 44, 281-5	삼국	
36	월야면 용월리 월봉	임367-2, 367-28, 367-129, 367-160, 367-167, 367-127, 367-42, 367-43, 도367-148, 367-49, 367-48, 367-142, 367-156, 전404, 403, 398, 396, 370, 367-1, 대399, 400, 397, 395	삼국	
37	월야면 월악리 노동	임137-1, 138-5, 138-6, 138-9, 85, 전144, 142, 138-3, 138-11, 138-7, 138-8, 132, 133, 134-1, 145, 136-1, 146-1, 76-1, 76-2, 77, 78, 82-1, 83-1	삼국	
38	월야면 월악리 봉덕	산2-1, 2-4, 6-2, 3-1, 5-1, 전206-1, 206-2, 206, 205-3, 4	삼국	
39	월야면 정산리 내정(가)	전479, 479-10, 480, 481-6, 481-7, 481-5, 487-1, 486-1, 487-21, 487-24, 487-23, 478, 487-25, 487-28, 479-13, 479-12, 479-14, 479-16, 479-32, 479-30, 답488-1, 488,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삼국	
40	월야면 정산리 내정(나)	대354-7, 352-1, 전351, 394-89, 394-87, 394-87, 394-88, 394-100, 349, 348-1, 394-74, 임334-58, 334-61, 답368, 368-1, 368-2, 368-3, 368-4, 368-5, 368-6, 368-7, 368-8, 368-11, 368-12, 368-13, 368-14, 368-15, 368-16, 368-17, 368-30	삼국	
41	월야면 정산리 동촌	목279-6,279-36, 279-53, 279-51, 279-52, 전279-40, 279-37, 279-43, 279-8, 279-5, 279-9, 281, 281-1, 280, 282, 283, 842, 843, 844, 844-1, 234-1, 234-4, 234-5, 임234-2, 234-6, 234-15, 279-41, 279-3, 279-34, 279-50	삼국	
42	월야면 정산리 영가	답904-2, 904-3, 904-4, 904-5, 904-6, 904-7, 904-8, 904-10, 904-9, 904-12, 904-13, 904-20, 904-19, 480-7, 480-6, 480-5, 480-9, 480-8, 480-3, 310, 485-11, 485-2, 485-3, 전313-1, 483-9, 483-8, 임900-3	삼국	
43	학교면 석정리 화지	산5, 6, 7, 12, 8, 9, 10-1, 11, 전59-1, 60, 61, 62, 62-2, 63, 71-5, 71-2, 68, 66-1, 67	삼국	
44	학교면 월산리 반암	산14, 15-1, 16, 17, 18-1, 20, 21, 전214-1, 213-3, 213-2, 213-4, 213-5, 213-7, 213-2, 213, 답189-4, 189-1, 189-2, 189-3	삼국	
45	학교면 월산리 송산(가)	답849-1, 912, 848-1, 911, 910, 809-1, 900-1, 901, 904, 905, 906, 907, 908, 903, 전918, 922, 923, 924, 921, 802, 825, 896	삼국 고려	
46	학교면 월산리 송산(나)	산62-2, 전784, 783, 782, 781, 779, 780, 786, 738, 739, 740, 743, 742, 744, 727, 736, 741, 737, 735, 734, 733, 730, 728, 729	삼국 고려	
47	학교면 월산리 송산(다)	답943-1, 943-5, 894-1, 893, 896, 895, 889, 897, 897-5, 897-6, 899-4, 899-3, 899-1, 902	삼국	
48	학교면 월산리 송산(라)	답882-1, 881-1, 880-1, 897, 878, 851-1, 850-1, 852-1, 854, 863, 전875, 876, 877, 864	삼국	
49	학교면 월산리 신흥동	산39, 1126-17, 1126-12, 전1253, 1252-1, 1252-2, 1126-1, 1126-5, 1126-3, 1126-6, 1126-4, 1126-10, 1126-11, 1126-7, 1249-1, 1279-10	삼국	
50	학교면 월호리 중천포	산100-2, 2-1, 1, 1-2, 전317, 316-1, 316-5, 315, 313, 314, 309-2, 308, 391-1910-131, 10-131, 1, 309, 301, 2	삼국	
51	학교면 월호리 망월동	임813, 809-1, 809, 전809, 808-2	삼국	

번호	유 적 명	지 번	시 대	비고
52	학교면 월호리 용호	임708, 전707, 706, 732, 답732-1, 733-3, 733-2, 733-4, 733-1, 733-3, 733-5	삼국	
53	해보면 금덕리 고두	전141-28, 141-49, 141-50, 141-51, 141, 270-1, 146, 146-1, 108,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0-10, 141-47, 141-23, 141-22, 141-63, 임 141-55, 141-67, 141-96, 141-95, 141-68, 141-50, 141-20, 141-30	삼국	
54	해보면 문장리 상귀(가)	임78-4, 78-26, 78-27, 78-42, 78-40, 전78-36, 78-48, 78-49, 411-19, 78-15, 78-16, 78-17, 411-8, 412-1, 412-2, 412-3, 411-3, 410-1, 409-1, 409-3, 418, 417, 78-41, 78-45, 답 78-38, 78-39, 78-19, 78-18	삼국	
55	해보면 문장리 상귀(나)	임638-3, 638-8, 638-58, 전634, 633, 638-17, 635, 대638-7	삼국	
56	해보면 용산리 대성	답349-2, 349-3, 349-4, 349-5, 349-6, 349-1, 350-1, 350-2, 350-3, 350-4, 350-5, 350-9, 350-10, 350-11, 351-1, 351-2, 351-3, 351-4, 351-5, 351-6, 351-7, 351-8, 351-9	삼국	
57	해보면 용산리 소성	전512-3, 511-8, 답73-3, 72-3, 517-11, 517-5, 517-7, 517-8, 517-9, 517-10, 517-6, 517-4, 517-3, 517-2, 517-1, 506-4, 506-6, 묘511-7, 815-3, 815-4, 815-5, 815-6, 815-7, 815-8, 815-9, 815-10, 815-11, 815-15, 815-16, 518-7, 518-12, 518-13	삼국	
58	해보면 용산리 주현	임763-3, 644-1, 763-5, 전644-2, 778-1, 766, 777-2, 788-1, 789-2, 답761-1, 761-5, 761-6, 761-7, 761-8, 762-1, 762-2, 762-3, 762-4, 762-5, 760-1, 760-2, 760-3, 760-4, 760-5, 760-6, 760-7, 758-1, 758-2, 758-3, 758-4, 758-5, 758, 757, 782-7	삼국	

1)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

구기산마을 함평군 문화의 집(곤충연구소)과 구기산 공동묘지가 위치한 구릉사면부에 분포되어 있다. 이곳은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일부는 민묘가 자리하고 있다. 주요 수습유물로는 회청색경질토기편과 연질토기편 등이 있다.

2)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

외대화 마을회관 남쪽 구릉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이곳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의 말단부로 현재는 대부분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확인유물은 석촉,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적갈색연질토기편 등이다.

3) 함평읍 대덕리 고양(가)

이 유적은 고양촌으로부터 함평천 방향으로 흘러내린 구릉사면에 분포되어 있다. 유물의 주요 수습지는 남쪽사면 일대이다. 이곳은 고양촌고분 가군과 인접해 있으며 주요 수습유물로는 철기시대 파수편을 비롯해 연질토기편 등이다.

4) 함평읍 대덕리 고양(나)

이 유적은 국도 23호 도로변 미양주유소 맞은편 구릉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 이곳은 모두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일부는 민묘가 자리하고 있다. 고양촌고인돌군이 인접해 있다.

5) 함평읍 만흥리 초동

수호리에서 국도 24호선을 따라 만흥리로 넘어가는 고개 정상부 남서쪽 구릉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이곳으로부터 서쪽에는 초동저수지가 있다. 이곳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 내려오는 구릉부로 남쪽에는 평야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동쪽과 서쪽에는 곡간지가 형성되어 있다. 확인 유물로는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등이다.

6) 함평읍 성남리 성북

성북마을 북쪽 구릉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이곳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북쪽과 동쪽에는 곡간평야가 펼쳐져 있다. 유물이 확인된 지역은 함평이씨 선산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구릉일대이며 이 구릉의 서쪽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성남리 유적이 있다. 확인 유물은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적갈색연질토기편 등이다.

7) 함평읍 자풍리 신풍

신풍 유물산포지는 신풍고인돌 가군이 위치한 그 주변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평지성 구릉지대로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어지고 있으며 주변에는 수많은 토기편들이 산재되어 있다.

8) 함평읍 진양리 양림(가)

양림마을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 이곳은 모두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옹관편,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적갈색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9) 함평읍 진양리 양림(나)

양림마을 서쪽 구릉에 분포되어 있다. 이곳은 중랑유적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으로 이 구릉 전체에 유물이 산포되어 있다. 확인 유물로는 옹관편을 비롯해 적갈색타날문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등이다.

10) 함평읍 진양리 화동

현재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는 함평고등학교와 함평영화학교의 정면에 펼쳐져 있는 곡간지대에서 적갈색연질토기편과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 산지에는 옹관고분과 석실분이 밀집되어 있다.

11) 나산면 나산리 방하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지방도로 825번 남쪽에 위치한 나승선 씨 소유 양계장 주변 구릉사면 일대에 조족문타날경질토기편을 비롯한 각종 토기편들이 산재되어 있다.

12) 나산면 덕림리 백양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백양영당 옆 구릉사면 일대에 회색경질토기편을 비롯한 각종 토기편과 자기편들이 산재되어 있다.

13) 나산면 월봉리 안영

군나무로 지정된 월봉리 안영느티나무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일대에서 회색경질토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14) 나산면 이문리 석지

석지저수지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구릉지대에서 토기파수편를 비롯한 회색경질토기, 무문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15) 대동면 강운리 주평

주평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300m 거리에 있는 작은 구릉 남쪽 사면에서 주로 회청색경질토기편을 비롯한 회색연질토기편, 기와편, 청자편 등이 확인되었다.

16) 대동면 금곡리 금곡

금적동 북쪽 구릉 동쪽 사면의 밭과 민묘가 있는 곳에서 격자문이 타날된 회색경질토기편과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17) 대동면 금곡리 나막

나막에서 상옥리 서옥동으로 가는 도로변 동쪽 구릉(철성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지맥의 말단부) 밭과 민묘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옹관편을 비롯한 적갈색타날문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18) 대동면 금산리 노적(가)

함평읍과 대동면의 경계인 미출 삼거리 서쪽 산사면에 위치한 밭에서 격자문과 평행문이 타날된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19) 대동면 금산리 노적(나)

국도 23호선 인접 구릉사면 밭을 중심으로 한 주변부에서 격자문이 타날된 회청색경질토기편을 비롯한 많은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20) 대동면 금산리 녹파

폐교된 대광초교 대신분교 맞은편 벽류마을 진입로 일대 밭 구릉사면에 다량의 토기편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단경호의 구연부편이 수습되었다.

21) 대동면 향교리 남교

남교마을에서 학교면 마산리로 가는 도로 약 400m 지점 북쪽 저평한 구릉지대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과 회색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이곳 구릉지대 서쪽에는 서교마을이 위치하고 동쪽에는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22) 손불면 동암리 매곡

매곡마을에서 복흥마을로 넘어가는 구릉 남동쪽 사면 전체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과 회색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이곳 주변은 넓은 평야로 되어 있는데 동북쪽은 신광면과 접 해 있고 남쪽은 손불면 죽장리 장동과 접해 있다.

23) 손불면 석창리 대발

석창리 48번지 조판열 씨 댁 뒤쪽 구릉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서 경질토기와 연질토기 잔편들이 수습되었다.

24) 손불면 죽암리 죽림

죽림마을 북쪽 구릉정상부 경사면에서 옹관편과 회색경질토편들이 고루 수습되었다. 이곳 남쪽에는 목교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다.

25) 신광면 가덕리 가덕

가덕마을 서쪽 구릉 전면에서 회색연질토기편과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이곳은 가덕마을 북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 말단부로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민묘도 조성되어 있는데 남서쪽 끝은 국도 23호선과 접해 있다.

26) 신광면 가덕리 매산

신광면과 대동면으로 갈라지는 국도 23호선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약 100m 거리에 있는 신광농협 창고 북쪽 밭 경작지 구릉 전면에서 옹관편을 비롯한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27) 신광면 가덕리 호덕

호덕마을 북동쪽 대부분 밭작물이 경작되는 구릉사면 일대에서 주로 적갈색 및 회색연질토기가 수습되었다.

28) 신광면 함정리 무송

무송마을과 청계동마을 사이 작은 구릉위에 민묘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일대에서 회색경질토기와 연질토기가 수습되었다.

29) 엄다면 삼정리 송정

송정마을 남동쪽에 있는 두개의 낮은 구릉 정상부 민묘 및 밭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서 갈색연질토기편을 비롯한 회색경질토기편, 백자, 가마벽체 등이 확인되었다.

30) 엄다면 성천리 성암

성암마을 앞 도로 동쪽 낮은 구릉지대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과 회색연질토기편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31) 엄다면 성천리 와촌

와촌마을 서북쪽에서 회색연질토기편과 백자편 등이 확인되었다. 이곳은 성천리 송정유물산포지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사방에는 해발 70m 내외의 구릉이 있고 남서쪽에는 용동저수지가 있다.

32) 엄다면 송로리 노상

노상마을 남서쪽 약 300m 지점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낮은 구릉 전면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을 비롯한 회색연질토기편, 적갈색타날문토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곳 북동쪽에는 엄다천이 흐르고 주위는 넓은 평야다.

33) 엄다면 신계리 장동

장동마을 서북쪽에 있는 해발 32m 정도 높이의 낮은 구릉에서 회색경질토기편과 청자편 등이 확인되었다. 이곳은 여러 기의 민묘가 조성되어 있고 그 하단부로는 밭작물이 경작되고 있다.

34) 월야면 계림리 가차

가차마을 내 한흥규 씨가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구릉 일대에 토기편, 화편, 분청자, 백자편들이 다량 산재되어 있다. 이곳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오는 구릉 말단부로 주변은 밭과 민묘가 혼재되어 있다.

35) 월야면 계림리 시목

시목마을 북쪽 구릉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과 회색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이곳은 북동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 말단부로 동쪽에는 월야천의 지류인 계림천이 흐르고 그 주변은 넓은 평야지대다.

36) 월야면 용월리 월봉

월봉마을 북쪽 구릉이 주요 분포지로 최근 민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무문토기를 비롯해 회색연질토기편, 적갈색연질토기편 등이 노출되었다. 이곳은 서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

말단부로 서쪽에는 월야천이 흐르고 그 주변은 넓은 평야지대다.

37) 월야면 월악리 노동

노동마을 북쪽 구릉에 분포되어 있다. 이곳은 장성 서삼면과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북쪽과 서쪽에는 월야천의 지류인 계림천이 흐르고 그 주변은 넓은 평야지대다. 유물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 전면에서 무문토기편을 비롯한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단경호 구연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38) 월야면 월악리 봉덕

봉덕마을 북쪽 구릉 서쪽 단애부에서 무문토기편을 비롯한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적갈색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또 최근에는 민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길이 약 4m 내외의 주거지 흔적이 확인되었고 그 내부에서 목탄과 함께 무문토기편 등이 노출된 바 있다.

39) 월야면 정산리 내정(가)

내정마을 북쪽 밭 경작지 구릉 전체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들이 산재해 있다.

40) 월야면 정산리 내정(나)

내정마을 어귀 동쪽 내정고분이 위치하고 있는 구릉 사면에 회청색경질토기편을 비롯한 연질토기편들이 산재해 있다.

41) 월야면 정산리 동촌

동촌마을 동쪽에 있는 구릉 서쪽 사면세서 집중적으로 회색연질토기편과 회청색경질토기편, 적갈색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42) 월야면 정산리 영가

영가마을 서쪽 해보면과 월야면의 경계지역인 구릉에서 무문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적갈색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43) 학교면 석정리 화지

고막리 광진에서 석정리 화지로 가는 도로에서 약 1.5㎞ 지점에 도로와 고막천의 제방이 나누어지는데 유적은 이곳 서쪽 산기슭에 위치한다. 이곳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곳으로 그 주변에서 회청색경질타날문토기편과 회색연질타날문토기편, 적갈색타날문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44) 학교면 월산리 반암

반암마을 북쪽 구릉지역과 단애면에서 회색연질토기편과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이곳은 완만한 구릉지대로 남쪽은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고 북쪽은 송림이 우거져 있다.

45) 학교면 월산리 송산(가)

신흥동과 송산마을 사이 해발 53.6m 구릉에서 완만하게 뻗어 내린 경사면 최하단부 밭 경작지 남사면 일부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과 자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46) 학교면 월산리 송산(나)

송산마을 뒤 구릉일대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곳은 해발 73.4m에 해당하는 산 봉우리에서 흘러내린 구릉의 남쪽 경사면으로 높이는 표고 20~40m 정도이다. 확인된 유물로는 격자문과 승선문이 타날된 회청색경질토기편과 기와편 등이다.

47) 학교면 월산리 송산(다)

송산마을 입구「이조참의평강채공경유허비」를 중심으로 한 경작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확인된 유물로는 원판형 토제품과 회청색경질토기편으로 이 일대에 넓게 산재해 있다.

48) 학교면 월산리 송산(라)

이 유적은 함평 학교문화마을 조성부지 내에 편입된 지역으로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동신대 박물관에 의해 조사 발굴되었다. 조사 발굴된 유적으로는 철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수혈주거지 14기와 도랑이 확인되었으며, 출토 유물로는 호형토기, 완 주구토기, 방추차, 시루, 장란형토기, 철검, 소옥 등이다.

49) 학교면 월산리 신흥동

신흥동 북쪽 완만한 구릉일대 밭 경작지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과 방추차편 등이 확인되었다.

50) 학교면 월호리 중천포

이 유적은 표고 108.4m 높이의 이별바우산 남동쪽 기슭에 분포되어 있다. 이곳은 중촌포 나루터 북쪽에 해당하는 산기슭으로 현재는 민묘와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옹관편,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51) 학교면 월호리 망월동

망월동 서쪽 구릉 밭 경작지 단애부와 상산김씨 선산 민묘 주변에서 회색연질토기편과 회청색경질토기편이 주로 수습되었다.

52) 학교면 월호리 용호

용호마을 서쪽 약 300m 지점 구릉 말단부의 밭 경작지에서 대형 옹관편과 회청색타날문토기편, 회색연질타날문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53) 해보면 금덕리 고두

문장리 상귀유물산포지(나)에서 서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위치한 구릉에 분포되어 있다. 이곳은 문장리와 금덕리 경계지역으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 정상부에는 목장과 목초지가 있고 그 말단부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는데, 확인된 유물로는 석촉편, 무문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개배편 등이다.

54) 해보면 문장리 상귀(가)

상귀마을 서북쪽 구릉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상귀고분군이 있기도 하다. 해보-삼서간 도로에서 상귀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 단애면에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단면과 유물이 노출되어 있다. 주변에는 회청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편, 적갈색연질토기편 등이 산재해 있다.

55) 해보면 문장리 상귀(나)

상귀마을 서쪽 구릉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곳의 서쪽에는 고두저수지가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곡간지가 형성되어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확인된 유물로는 무문토기편, 석도편,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적갈색연질토기편 등이다.

56) 해보면 용산리 대성

대성마을 북쪽 구릉 전 지역에서 유물이 확인되는데, 구릉 정상부 보호수 주변에서 기와편과 도기편이 확인되었고, 동쪽 경사면에서는 회색연질토기편과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57) 해보면 용산리 소성

소성마을 북쪽 구릉 전면에서 무문토기, 회청색경질토기편, 회색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58) 해보면 용산리 주현

주현마을 남동쪽 구릉에서 회색연질토기편과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2. 수습유물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월야면 월계리 석계고분 유적을 비롯한 최근의 몇몇 곳의 발굴이 이루어져 상당량의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발굴을 통해 출토된 유물은 앞항에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적에서의 유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 나산면 사산 출토 독(甕棺)

사산 뒷산의 고분군 중 1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산일을 하다가 출토한 것이며 현재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청회색 도질(陶質) 독이다.

이 독은 이음독(합구옹-合口甕)으로 시신을 칠성판(七星板) 위에 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좌우로 고정시키기 위한 겸(拑)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독의 크기는 하나는 높이 110cm, 아가리 지름 62cm, 다른 하나는 높이 98cm, 아가리 지름 63cm로 합하면 길이가 208cm가 되어 이 독은 성인의 시신을 그대로 안치한 독으로 보며 이러한 계통의 독무덤이 나주군 반남면 신촌리 일대에서 발굴된 바 있다.[138] 그리고 이러한 독무덤은 함평을 비롯한 영산강 하류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연대는 4세기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함평초등학교 소장 삿무늬(승석문-繩蓆文) 밑둥글항아리 등의 유물

현재 함평초등학교에 소장된 멍석무늬 밑둥글항아리 등 100여 점의 유물은 일본사람 야마다(山田萬吉郎)가 수집한 것으로 모두 함평지방에서 출토된 것을 사들인 것이라고 하나 확실한 출토지는 알 수 없다.

야마다가 수집한 유물은 토기가 주가 아니고 주로 고려청자와 분청자 등이었으며 수집된 양이 수 천점에 이르렀고 특수보관 창고까지 마련했었다. 그중 중요한 유물은 1945년 3월경 일본으로 반출하였고 해방이 되고 남은 유물을 함평초등학교로 옮겼는데 전하기로는 당시에 2,000여 점이었다고 한다. 그 2,000여 점은 그 후 6.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유출되고 1964년에 400여 점이 남아 있어 이를 토대로 고려청자 연구가 추진되고 동년 제10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함평초등학교에 소장된 삿무늬 밑둥글항아리는 3점으로 크기만 다를 뿐 기법은 모두 같다. 삿무늬 토기는 적갈색 조질토기(粗質土器)와 회색 연질토기(軟質土器)에서만 보이며 종행(縱行)하는 밀집된 꼰무늬(밀집승문-密集繩文) 위에 등간격(等間隔)의 횡선(橫線)을 몇 줄 그었다. 이러한 특수 무늬는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지대에서 주로 출토되며 신라 토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이 삿무늬의 토기가 중국 화북지방의 전국시대(戰國時代) 회도(灰陶)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백제토기는 적갈색 조질토기(埴質土器), 회색연질토기(瓦質土器), 도질토기(陶質土器) 등으로 구분하며 백제토기를 통 털어 볼 때 삿무늬의 보편적 사용, 밑둥글 형태의 특이한 성형(成形), 삼족토기(三足土器)의 존재 등을 특색으로 들고 있다. 삼족토기란 고배(高杯) 또는 접시에 3개의 다리가 달린 것인데 회색연질, 도질토기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 삼족토기는 영광, 장성지방에서는 출토된 예가 있으나 아직 함평지방을 비롯한 영산강 일대에서는 출토된 예가 없다.

따라서 이 삼족토기는 한성백제(漢城百濟) 특유의 토기로 보고 있으며 이 삼족토기를 제작하지 않은 영산강유역의 고대 세력이 백제의 영향권에 있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거로 삼고 있다.

138)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또 함평지방을 비롯한 영산강 지방에서 출토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토기가 한성백제 토기와 다른 점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함평지방을 비롯한 영산강 일대에서 출토된 토기를 백제토기라 불러왔다. 이는 크게 잘못이며 앞으로 마한토기와 백제토기로 구분되는 연구가 있어야한다. 엄연히 계통이 다른 두 계통의 토기를 하나로 묶어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Contents

| 제1장 | 개관 542
집필 / 이명헌

| 제2장 | 관제(官制)의 재정비(再整備)와 함평 544
집필 / 이명헌

| 제3장 | 군사조직(軍事組織)과 함평 555
집필 / 이명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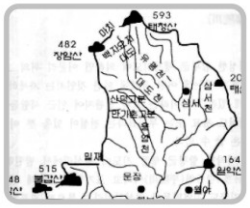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제4편 통일신라시대의 함평

| 제4장 | 통일신라시대의 유적과 유물 560
집필 / 이명헌

| 제5장 | 후삼국시대의 함평 567
집필 / 이명헌

제1장 개 관



백제가 멸망당하고 부흥운동도 실패로 돌아간 후 함평지역은 신라의 영내에 편입되었다. 신라는 정복된 백제와 고구려 지역과 민(民)에 대하여 효율적인 편제를 하였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고지(古地)와 그 유민(流民)에 대하여 관용과 포섭의 시책을 쓰는 한편 강력한 통치를 펴며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통일신라는 전국을 9주(州) 5소경(小京)으로 편제하였다. 전국 9주(州)는 117~120개의 군(郡)과 293~305개의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덕왕 17년(757)에는 전국의 지명을 모두 한식(漢式)으로 바꾸었는데, 함평지역의 경우는 굴내현(屈乃縣)은 함풍현(咸豊縣)으로, 다지현(多只縣)은 다기현(多岐縣)으로 변동되었다.

전국 9주 가운데 종래 백제지역에 설치한 주(州)는 3개였다. 웅천주(熊川州 : 공주), 완산주(完山州 : 전주), 무진주(武珍州 : 광주)가 바로 그것이었다.

무진주에는 15개의 군(郡)과 43개의 현(縣)이 영속되었다. 당시 함평지역의 함풍현과 다기현은 무안군의 영현(領縣)이었으며, 또 무안군은 무주의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런데 행정 계통의 명령은 편제상으로 보면, 주(州)→ 군(郡)→ 현(縣)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나 군과 현의 관계는 영속관계가 분명치 않았고, 다만 주(州)와 군(郡) 사이는 영속관계가 분명하였다. 현과 군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동등하게 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의 영현(領縣)이었던 함평지역의 함풍현과 다기현이 무안군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 행정 사항을 처리했다고 보인다. 아마 특정한 사안에 관해서 무안군의 부분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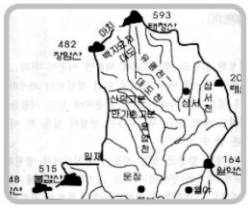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또 함풍현이나 다기현에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두개 현(縣)의 행정상 실무는 주로 촌주(村主)가 담당하였다고 여겨진다. 촌주의 위(位)는 촌주 가문의 인물에게 승계되었으며 임기는 거의 종신이었다.

8세기 말엽 이후 하대(下代)에 접어들면서부터 신라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전국은 혼란의 상태에 들어갔다. 각 지방의 호족세력(豪族勢力)은 각각 독립을 하였으며, 또 농민군(農民軍)은 각 지역을 휩쓸고 다니게 되었다. 재지세력(在地勢力)들은 스스로의 자위 조직을 마련하여 갔는데, 보다 큰 세력에 의지하는 관계도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갔다. 그런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후삼국(後三國)이 성립하였다.

함평지역은 견훤(甄萱)과 왕건(王建)이 세력을 크게 다투었던 곳 가운데 하나였다. 이 지방을 먼저 점거한 사람은 견훤이었다. 그는 전라도민의 호응을 크게 얻어 900년에는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의 대부분을 거의 장악하였다. 그리하여 892년 이후 902년까지 10년간 함평은 후백제 견훤의 지배 하에 있었다.

왕건이 효공왕 7년(903) 수군(水軍)을 거느리고 서해(西海)로부터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와 유역의 10여 군(郡)과 현(縣)을 점령하고 금성(錦城, 현 나주)에 이르렀다. 왕건은 903년부터 918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나주에서 군사 활동을 하면서 머물러 있었다. 함평지역의 함풍현(咸豊縣)·다기현(多岐縣)도 이때 왕건의 영향 하에 들어간 10여 군현(郡縣) 속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2장 관제(官制)의 재정비(再整備)와 함평



제1절 중앙관제의 재정비

삼국통일 전후부터 신라왕실(新羅王室)은 안으로 신라자체 내에서 일어난 신구(新舊) 귀족세력(貴族勢力)의 대립을 정리 도태하여 왕권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밖으로 구(舊)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 고지(故地)라는 새 통합지역에 대한 지배력(支配力)의 안정과 강화를 위하여 중앙관제(中央官制)와 지방 행정조직(行政組織)을 정비하였다. 이 때에 가장 일찍이 성립하여 소박하였던 고구려 지배체제나 삼국(三國) 가운데 가장 정비된 것으로 보였던 백제의 관제보다도 발전하고 정비된 지배체제(支配體制)가 성립되었다. 이것은 고구려와 백제의 지배체제가 붕괴되어 신라의 지배체제가 성립할 기반이 확대된 것에서 가능하였다.

통일신라(統一新羅)의 지배체제가 완성된 것은 신문왕(神文王) 대이었다. 통일기(統一期)의 중앙관제가 진덕여왕(眞德女王) 때에 설치된 최고 행정기관인 집사부(執事部)를 중심으로 하여 행정력의 강화를 보는 것이나 신문왕대에 와서 지방 행정조직의 정비를 보는 것도 왕실의 전제권(專制權)의 강화와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직관지(職官志)에 나타난 통일기(統一期) 신라의 중앙관서(中央官署)의 편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관제의 규모를 그 관원 수에 의하여 생각하면 왕실 직속으로서 관원 수를 명시하지 않는 관서(官署)들과 하급관서의 인원을 제외한 혜공왕 이전의 중앙관서의 편성인원 수를 합계하면 진골신분만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총 36명, 6두품(六頭品)에 해당하는 관계(官階)에 있는 관원이 108명, 5두품(五頭品)에 해당하는 것이 176명, 4두품(四頭品) 이하가 680명으로 총계 1,000명이다. 그리고 앞서 제외한 하급관서의 인원 수 480명까지 합치면 1,480명에 이르고, 또 지방의 주요 행정관 수 591명까지 합치면 총 2,052명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에는 처음부터 편성 인원수를 모르는 것과 불분명하여 누락된 것 등이 많아 정확한 것이 아니나 이 집계만으로도 그 규모의 대개를 짐작 할 수 있다.

진골 관원 수에 대한 6두품 이하의 진골별(眞骨別) 각급 관원수의 비율은 1 : 3, 6 : 10, 8 : 17, 6 : 68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골품(骨品)과 관계(官階)의 관계는 각 골품의 상한선은 확정되어 있으나 그 하한선은 없는 까닭으로 하급관리에 있어서도 진골족이 참여하고 있고, 6두품족이 5두품 이하의 관계에, 5두품족이 4두품 이하의

관계에도 참여하는 일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신분과 관계와의 불일치는 왕실의 전제권 강화에 정비례되는 행정조직의 확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어서 점차 골품이 주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관직의 관계가 주요시되어 하급관계의 관원이 된 자는 그 신분도 반대로 하급신분에 있는 자가 집권세력과 연결되어 상급관계에 오르면서 상급신분을 사칭하는 등 혼란을 빚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점차 넓어지는 정치적 경험 사회적 경험을 정리하면서 성립시킨 통일기의 중앙관제(中央官制)에 나타난 특징을 생각하건대, 첫째로는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삼국시대부터의 관서(官署)의 증설로 점차 육전적(六典的) 운영방향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부(吏部)에 해당하는 위화부(位和府 : 진평왕 3), 호부(戶部)에 해당하는 창부(倉部 : 진덕왕 5)와 예부(禮部 : 진평왕 8), 병부(兵部 : 법흥왕 3), 형부(刑部)에 해당하는 좌우리방부(左右理方府 : 좌리방부는 진덕왕 3, 우리방부는 문무왕 7년에 설치) 공부(工部)에 해당하는 공장부(工匠府 : 신문왕 2)와 예작부(例作府 : 신문왕 6) 등이 차례로 설치되었고, 진덕왕 5년에 설치된 집사부(執事部)가 뒤에 오면서 위에 열거한 제 관서들을 총관하는 성격을 띠게 되면서는 신라정치의 폭이 육전(六典) 조직적 정무분담을 할 만큼 넓어지게 된 것을 말한다. 정무의 육부 분담적 경영은 일찍이 백제의 육좌평(六佐平) 제도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났고 명실상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칭만은 정비된 발해(渤海)의 관제에도 나타나고 있었으나 신라의 관제에서는 명칭은 옛 것을 그만큼 신라사회 자체의 발전과 문화능력의 진전을 본 것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육전 조직적 운영은 중대에 있어서는 왕권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집사부 시중(侍中)의 권한을 증대시켰고 귀족회의장인 상대등(上大等)의 실권을 그만큼 약화시키었다.

그 다음 둘째로 주목할 것은 상문사(詳文師 : 通文博士), 천문(天文), 누각(漏刻), 율령(律令), 산학(算學) 등의 기술관 계통의 관직이 강화된 것이니 이것은 신라문화의 기반을 확대시키는데 커다란 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계층을 성립시키었다. 이 지식층들은 대개 6두품 신분을 가진 자들로 추측되나 하대(下代)에 가서는 중앙귀족과 항쟁하는 지방호족 세력에 가담하는 사회계층으로 성장하게 된다.

셋째로 주의할 것은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있었던 내성(內省)과 함께 왕실의 주요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었으리라고 추측되는 각사(各寺) 성전(成典)의 성립이다. 진평왕 44년(622)에 설립한 내성(內省)은 궁내성(宮內省)과 같은 것으로서 그 장관을 사신(私臣)이라 하여 일반 정무관서(政務官署)와 구분하였다. 이 내성은 왕실 소유의 장원(莊園), 목장(牧場), 소(所)의 예민(隷民) 등을 관할하였으리라 본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직관지(職官志)에 보이는 금전(錦典), 조하방(朝霞房), 염궁(染宮), 염전(染典), 화전(靴典), 도전(陶典) 등이 사실상 이에 속하여 왕실 소용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상품, 무역품까지 생산하여 주요 경제기반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사천왕사성전(四天王寺成典), 봉성사성전(奉聖寺成典), 감은사성전(感恩寺成典), 봉덕사성전(奉德寺成典), 봉은사성전(奉恩寺成典), 영묘사성전(靈廟寺成典), 영흥사성전(永興寺成典) 등 7개 성전(成典)은 승려가 아니라 관리로 사원(寺院)의 장원(莊園)이나 사노비(寺奴婢)의 관할, 고리대업(高利貸業)의 운영을 맡기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태종 6년(659)에 관기(官紀)를 숙정(肅正)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부(司正府)를 두었고, 문무왕 13(673)에는 외사정(外司正)을 133인까지 둔 것이 직관지(職官志) 외관전(外官傳)에 보이는데, 이와 같이 감찰을 크게 확대한 것은 중앙의 귀족세력이나 지방 호족세력을 억압하면서 전제왕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태종 1년(654)에 이방부장관(理方府長官)인 양수(良首)에게 율령(律令)을 참작하여 이방부령(理方府令) 60여 조(條)를 수정케 한 일이 있으니 이로써 실제 행정의 기준을 삼아왔던 것이다. 뒤에 문무왕이 그의 유지에서 이방부령(理方府令) 가운데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개정하라 한 것으로 보아 그 법률이 상당히 가혹하였던 모양이나 이와 같은 이방부(理方府) 외에 다시 사정부(司正府)와 외사정(外司正)까지 두었던 것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어쨌든 문무왕 13년(673)부터 너무 격하시키기는 했어도 백제 유민에게 신라의 관계(官階)를 주어 등용의 길을 열었으며, 674년에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조정시킬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여 이 기준에 따라 백제 유민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세력을 정리하였다.

예컨대 백제유민 가운데 백제 관계의 2위인 달솔(達率) 벼슬을 한 사람은 신라 중앙 관계의 10인 대나마(大奈麻) 벼슬을 할 수 있고, 또 지방관으로는 4위인 귀간(貴干) 벼슬을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신라 사람으로 중앙에서 10위인 대나마 벼슬을 한 사람은 지방에서 4위인 귀간 벼슬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표> 참조).

<표> 신라관계(新羅官階)와 공복(公服), 백제유민에게 수여한 관계(官階)

신 라 관 계 (新羅官階)					공 복(公服)	백제관계	
관계	중 앙 관 계 명	비 고	관계	지방관계명		관 계	관 계 명
1	이벌찬(伊伐飡)	진 골			자의(紫衣)		
2	이 찬(伊 飡)	〃			〃		
3	잡 찬(迊 飡)	〃			〃		
4	파진찬(波珍飡)	〃			〃		
5	대아찬(大阿飡)	〃			〃		
6	아 찬(阿 飡)	6두품			비의(緋衣)		
7	일길찬(一吉飡)	〃	1	악간(嶽干)	〃		
8	사 찬(沙 飡)	〃	2	술간(述干)	〃		
9	급벌찬(級伐飡)	〃	3	고간(高干)	〃		
10	대나마(大奈麻)	5두품	4	귀간(貴干)	청의(靑衣)	2	달솔(達率)
11	나 마(奈 麻)	〃	5	찬간(撰干)	〃	3	은솔(恩率)
12	대 사(大 舍)	4두품	6	상간(上干)	황의(黃衣)	4	덕솔(德率)
13	사 지(舍 知)	〃	7	간(干)	〃	5	한솔(汗率)
14	길 사(吉 士)	〃	8	일벌(一伐)	〃	6	나솔(奈率)
15	대 오(大 烏)	〃	9	일척(一尺)	〃	7	장덕(將德)
16	소 오(小 烏)	〃	10	피일(彼日)	〃		
17	조 위(造 位)	〃	11	아척(阿尺)	〃		

제2절 지방 행정조직의 정비

통일 후 신라의 영역은 신라 본래 판도의 3배로 확대되었다. 이 확대지역의 지배에 있어서 먼저 해결하여야 할 두 가지 현안이 있었다. 그 하나는 갑자기 확대된 수취기반(收取基盤)의 분배문제를 놓고 전제적 왕실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금 신라의 지배세력을 재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둘째는 확대된 지역에 거주하는 고구려(高句麗)와 백제계(百濟系) 주민의 복속(服屬)을 확실히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로서 나타난 것이 9주(九州) 제도와 5소경(五小京) 제도의 확립이요, 9서당(九誓幢)과 10정(十停) 등 군사제도(軍事制度)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첫째의 문제인 수취기반(收取基盤)의 분배는 신라귀족사회(新羅貴族社會)의 갈등과 모순을 해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으나 분배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신라사회의 모순을 오히려 격화시키는 것이므로 이 문제의 처리는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백제멸망 후부터 일어난 부당분자(付唐分子)나 기타의 모역사건(謀逆事件)이나 신문왕 때에 일어난 왕비부(王妃父)인 김흠돌(金欽突)이나 흥원(興元), 그리고 진공(眞功) 등의 모역사건들도 그와 같은 전면적인 지배세력의 재편성 과정에서 불리하게 된 것에 원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라는 정비된 지방행정조직이나 군사제도를 정비하기 전에 문무왕대에서 신문왕대에 걸쳐서 먼저 여제유민(麗濟遺民)을 흡수하고 지방 지배기반을 재차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문무왕 13년(673)에는 앞서 살핀 <표>와 같이 그 구백제(舊百濟) 관계 고하(官階高下)에 준하여 차등 있게 신라의 관계를 주었다.

백제 관계(官階)로 2등, 3등인 달솔(達率), 은솔(恩率)에게 신라의 10등 대나마(大奈麻)나 11등 나마(奈麻)를 준 것은 지나친 격하 같이 보이나 생각하건대 달솔(達率)과 은솔(恩率) 등의 고위 계(階)는 백제의 지배체제에 기생하였을 적에 상승한 관계요 실제에 갖고 있는 세력은 신라의 5두품 이하의 지방족장(地方族長)인 대나마급(大奈麻級) 이하의 것이었던 까닭으로 그 현실세력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태종 무열왕 때에는 이와는 달리 백제인(百濟人)에게도 6두품 관계를 준 일이 있다. 신문왕 6년(686)에는 고구려인(高句麗人)에게도 본국의 관계에 준하여 신라의 관위를 주었으니 주부(主簿)에게는 7등 일길찬(一吉飡), 대상(大相)에게는 8등 사찬(沙飡), 위두대형(位頭大兄)과 종대상(從大相)에게는 9등 급찬(級飡), 소상(小相), 적상(狄相)에게는 11등 나마(奈麻), 그 이하의 소형(小兄)에게는 대사(大舍), 제형(諸兄)에게는 사지(舍知), 선인(先人)에게는 길차(吉次), 자위(自位)에게는 오지(烏知)를 각각 주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무왕 13년 백제인을 신라 관인(官人)으로 흡수하고 난 다음 해에 지방향직계(地方鄕職階)를 완성하였으니 이 지방향직계의 중앙관계와 골품제도와의 상호관련성은 앞서 살펴본 <표>와 같다.

이와 같이 자기 도태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라 귀족세력을 재편성하고 난 다음에 신라의 골품제도의 원칙에 따라 중앙관계와 지방관계를 조정시킬 수 있는 기준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옛날 고구려(高句麗)와 백제(百濟)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세력(地方勢力)들을 정리하고 난 뒤에 9주 제도와 5소경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9주 5소경 제도는 대개 신문왕 7년(687)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는 본래의 신라지역과 옛날 가야(加耶) 지역의 사벌주(沙伐州), 삽량주(揷良州), 청주(菁州), 전(前) 백제지역의 웅천주(熊川州), 완산주(完山州), 무진주(武珍州), 그리고 구(舊) 고구려지역에 한산주(漢山州), 수약주(首若州), 하서주(河西州) 등을 두어 9주로 하였다. 또한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북원경(北原京)과 중원경(中原京) 외에 문무왕 20년(680)에 금관경(金官京 : 김해), 신문왕 5년(685)에 서원경(西原京 : 청주)을 새로 두어 5소경이라 하였다.

<표> 9주 5소경

구주명(九州名)	경덕왕 16년 개정 명칭	오소경(五小京)	영속(領屬)		현재 명칭
			군(郡)	현(縣)	
사벌주(沙伐州)	상주(尙州)		10	30	상주(尙州)
삽량주(揷良州)	양주(良州)	금관경(金官京 : 金海)	12	34	양산(梁山)
청 주(菁 州)	강주(康州)		11	27	진주(晋州)
한산주(漢山州)	한주(漢州)	중원경(中原京 : 忠州)	27	46	광주(廣州)
수약주(首若州)	삭주(朔州)	북원경(北原京 : 原州)	11	27	춘천(春川)
하서주(河西州)	명주(溟州)		9	25	강릉(江陵)
웅천주(熊川州)	웅주(熊州)	서 경(西 京 : 淸州)	13	29	공주(公州)
완산주(完山州)	전주(全州)	남원경(南原京 : 南原)	10	31	전주(全州)
무진주(武珍州)	광주(光州)		14	44	광주(光州)
계(計)	9	5	117	293	

주(州)의 성격을 살피건대 통일 후의 주(州)와 삼국시대의 주(州)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삼국시대의 주(州)라는 것은 구역으로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주치(主治)의 소재지가 군사 근거지로서의 기능이 보다 주요시되었고, 군사상 필요에 따라 주치(主治)나 주(州)의 이동과 치폐를 자주하여 왔던 것인데 통일 후에 와서야 고정된 지방 행정구역의 성격이 성립된 것이다.

이때 우리 함평지역은 지금의 광주지역인 무진주(武珍州)에 속해 있었다.

각 주(州)와 군현(郡縣) 및 소경(小京)에는 중앙에서 책임자와 부책임자 등을 파견하고, 그 밑의 실무행정은 그 지방민이 맡게 하였다. 그러므로 책임자는 중앙의 위계(位階)를 가질 수 있었으나 실무 행정관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위(外位)라는 별도의 품계를 가졌다.

<표 > 외관(外官) 행정 관리의 편성

관직 (官職)	총관 (摠管)	주조 (州助)	사마 (司馬)	군태수 (郡太守)	현령 (縣令)	사신 (仕臣)	사대사 (仕大舍)	소수 (小守)	외사정 (外司正)	계 (計)
정원	9	9	9	115	201	5	5	85	133	571

주(州)에는 장관으로서 총관(원성왕 이후에는 '도독'이라함)을 두었으며, 이찬(伊湌-2위)에서 급찬(級湌-9위)까지의 품계에서 임명한다. 주총관 밑의 주조(州助; 부관)는 중아찬(重阿湌-6위)에서 나마(奈麻-11위)까지의 품계에서 임명한다. 그리고 속관(屬官)인 사마(司馬)는 대나마(大奈麻-10위)에서 사지(舍知-13위)까지의 품계에서 임명하였다.

군(郡)의 책임자인 군태수(郡太守)는 중아찬에서 사지까지의 품계에 있는 자를 임명하고, 현(縣)의 책임자는 현령(縣令) 또는 소수(小守)라 하여 사찬(沙湌-8위)에서 조위(造位-17위)까지의 품계에서 선발 임명했다.

소경(小京)의 책임자는 사신(仕臣)이라 부르고 파진찬(波珍湌-4위)에서 급벌찬(級伐湌-9위)까지의 품계에서 임명했으며, 부관인 사대사(仕大舍)는 대나마(大奈麻)에서 사지(舍知)까지의 품계에서 임명하였다. 그리고 외사정(外司正)은 지방관을 감찰하는 벼슬로 주·군·현에 1명씩 임명했다. 이러한 관직제로 미루어 보아 당시 우리 함평에는 현령(縣令)이 임명되어 파견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오소경은 금관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백산맥 외곽지역에 배치하고 있으니 여기에 경주인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키어 지방지배의 가지 구실을 하게 한 것이었다.

한편 군현(郡縣) 밑의 최하 행정단위는 촌(村)이었다. 촌은 대개 10여 호 가량의 혈연집단이 거주하는 자연마을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몇 개의 자연 마을을 묶어 행정촌(行政村)을 편성하였다. 이 행정촌에는 촌사(村司)가 설치되었고 촌사는 내시령(內視令), 촌주(村主), 군사(軍師), 옥관(玉官)으로 구성했다. 내시령은 중앙에서 행정촌에 파견한 관리로서 조용조(租庸調)의 업무를 맡겼고 이들에게는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용조의 업무란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나라에 바치는 곡물의 부과를 비롯하여 공역(公役)에 종사하는 대신 피륙을 바치는 일과 호(戶)를 대상으로 하는 특산물 진상 등을 관장하는 임무를 말한다.

촌주는 상촌주(上村主), 제2촌주, 제3촌주의 서열이 정해졌고 이들은 주와 현의 일에 참여하는 한편 내시령과 함께 마을을 이끌어가는 임무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진촌주(眞村主)의 신분을 가졌으며 사찬(沙湌-8위)까지의 벼슬에 오를 수가 있었다.

촌주의 위(位)는 촌주 가문의 인물에게 승계되었으며 임기는 거의 종신이었다. 또 촌주 가운데서 상수(上守)를 부여받은 사람이 있는데 상수의 임무를 맡은 촌주는 소속 촌(마을)의 지방관리를 감찰 보고하며 상급기관의 정책에 자문했다.

상수에 임명된 촌주는 상수소목전(上守燒木田)이라는 토지를 지급받고, 촌주에게는 촌주위답(村主位畓)을 지급 받아 경제적인 생활 보장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촌주는 왕경(王京)의 4~5두품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기도 했다. 촌주에 대한 이 같은 후한 대우는 정부가 그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또 통치를 하는데 용이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당시 행정관리 가운데 군사(軍師)라는 관직이 있었다. 이는 촌락사회의 안녕과 질서, 군사적인 임무를 담당한 촌주중의 하나로 생각되며, 옥관(玉官)은 역시 촌주중의 하나인 차촌주(次村主)로 자연마을의 책임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들에게는 위답(位畓)이 주어지지 않았고, 다만 주민과 옷 색깔을 달리 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조용조의 징수 업무를 비롯하여

자연촌의 종교적 의식집행이나 토지 경작과 같은 공동생활의 지도자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의 행정촌 마다에는 『촌락장적(村落帳籍)』이라는 문서가 있었다. 일본의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이『촌락장적』은 경덕왕 14년(755)에 기록된 것으로 서원경(西原京) 및 인근 4개 촌에 대한 제반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당시 신라 지배하의 모든 촌락이 이러한 장적문서를 구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라 하겠다. 어쨌든 당시의 장적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촌(村)마다의 호수를 비롯하여 인구수, 소와 말, 뽕나무, 잣나무, 대추나무 수, 그리고 토지면적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인구는 연령에 따라 정(丁-丁女), 조자(助子-助子女), 추자(追子-追子女), 소자(小子-小子女), 제공(除公-除母), 노공(老公-老母) 등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연(烟=戶)은 역투(役投), 징수 대상인 장정 등 정녀(丁女)의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정(丁) 및 정녀(丁女)의 수가 13명인 가호를 상상연(上上烟)이라 하고, 9명인 가호를 중중연(中中烟), 5명인 가호를 하하연(下下烟)이라 구분하여 불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 연(호)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배려로 2정(丁)을 제외시켰다. 당시 이러한 가호의 9등급 제도를 공연(孔烟)이라 했다.

위와 같은 장적 문서가 우리 함평지역에도 있었을 것이나 아직까지 전해오는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제3절 함풍현(咸豊縣)과 다기현(多岐縣)

함평지방이 신라의 영역이 된 것은 백제의 수도 부여가 나당(羅唐)의 연합군에 의하여 함락되고 의자왕이 항복을 한 660년 7월부터가 아니라 백제유민의 부흥운동이 좌절된 문무왕 4년(664) 초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의 영역에서 후백제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은 신라 진성여왕 6년(892) 즉 견훤이 무진주(武珍州)의 동남쪽 군현(郡縣)들을 통합하여 나라를 세우면서부터였다. 따라서 함평이 신라의 영역으로 신라의 지배를 받은 것은 약 230여 년간이 된다.

우리가 현재 주로 쓰고 있는 각 지역의 한자식 지명은 경덕왕 17년(757)에 전국의 지명(地名)을 모두 한식(漢式)으로 바꾸면서부터였다. 9주 가운데 하나였던 무진주도 이때 무주(武州)로 바뀌었고, 무진주의 영속 군이었던 물아혜군(勿阿兮郡)은 지금의 무안군(務安郡)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무안의 속현이었던 우리 함평지역도 이때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된다.

즉 굴내현(屈乃縣; 현 함평읍 손불 신광 대동면 지역)은 함풍현(咸豊縣)으로 다지현(多只縣)은 다기현(多岐縣; 현 나산 해보 월야면 지역)으로 명칭이 각각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무주(武州)에는 14개의 군(郡)과 44개의 현(縣)이 영속되었었다. 행정 계통의 명령은 편제상으로 보면 주(州)→ 군(郡)→ 현(縣)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와 군 사이에는 영속

관계가 분명하였으나 군과 현의 영속 관계는 분명치 않았다. 군과 현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었지만 동등하게 주(州)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당시 무안군의 속현이었던 우리 함평지역의 함풍현과 다기현은 무안군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 행정사항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소경(小京)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 행정구역으로서 본래의 신라 영토가 아닌 다른 정복지역의 지배층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 수도인 경주(慶州)를 모방하여 도시와 촌락을 구성하였다. 행정적인 중요한 관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군이나 현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주에 영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남원경(南原京)과 함평지역의 현(縣)들과는 직접적 행정 관련이 없었다는 말이 된다.

<표> 통일신라시대 무주(武州) 관할하의 군현(郡縣) 영속(領屬) 체제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를 참조하여 작성함.

영 군 명 (領郡名)			속 현 명 (屬縣名)		
경덕왕 이전	경덕왕 이후	현재	경덕왕 이전	경덕왕 이후	현지역
무 진 주(武 珍 州)	무 주(武 州)	광 주	미동부리현(未冬夫里縣) 복 룡 현(伏 龍 縣) 굴 지 현(屈 支 縣)	현웅현(玄雄縣) 용산현(龍山縣) 기양현(祈陽縣)	나주군 나주군 담양군
분 차 군(分 嵯 郡)	분령군(分嶺郡)	낙 안	조조례현(助助禮縣) 동 노 현(冬 老 縣) 두 힐 현(豆 肹 縣) 북 사 현(北 史 縣)	충렬현(忠烈縣) 조양현(兆陽縣) 강원현(薑原縣) 백주현(栢舟縣)	고흥군 보성군 보성군 고흥군
복 홀 군(伏 忽 郡)	보성군(寶城郡)	보 성	마사량현(馬斯良縣) 계 천 현(季 川 縣) 오 차 현(烏 次 縣) 고마미지현(古馬彌知縣)	벌노현(伐老縣) 계수현(季水縣) 오아현(烏兒縣) 마읍현(馬邑縣)	보성군 보성군 보성군 보성군
추자혜군(秋子兮郡)	추성군(秋城郡)	담 양	과 지 현(菓 支 縣) 율 지 현(栗 支 縣)	옥과현(玉果縣) 율원현(栗原縣)	곡성군 담양군
반나부리현(半奈夫里縣)	반남군(潘南郡)	반 남	아노곡현(阿老谷縣) 고 미 현(古 彌 縣)	야노현(野老縣) 곤미현(昆湄縣)	영암군 영암군
월 나 군(月 奈 郡)	영암군(靈巖郡)	영 암			
고시이현(古尸伊縣)	압성군(押城郡)	장 성	구사진혜현(丘斯珍兮縣) 소비혜현(所非兮縣)	진원현(珍原縣) 삼계현(森溪縣)	장성군 장성군
무시이군(武尸伊郡)	무령군(武靈郡)	영 광	상 노 현(上 老 縣)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 송미지현(松彌知縣)	장사현(長沙縣) 고창현(高敞縣) 무송현(茂松縣)	고창군 고창군 고창군
갈 평 군(歇 平 郡)	승평군(昇平郡)	순 천	원 촌 현(猿 村 縣) 마 노 현(馬 老 縣) 돌 산 현(突 山 縣)	해읍현(海邑縣) 희양현(晞陽縣) 노산현(盧山縣)	여수시 광양군 여수시
욕 내 군(欲 乃 郡)	곡성군(谷城郡)	곡 성	둔 지 현(遁 支 縣) 구차례현(仇次禮縣) 두부지현(豆夫只縣)	부유현(富有縣) 구례현(求禮縣) 동복현(同福縣)	순천시 구례군 화순군

영 군 명 (領郡名)			속 현 명 (屬縣名)		
경덕왕 이전	경덕왕 이후	현재	경덕왕 이전	경덕왕 이후	현지역
전능부리군(全陵夫里郡)	능성군(陵城郡)	능 주	파부리군(波夫里郡) 잉리아현(仍利阿縣)	부리현(富里縣) 여미현(汝湄縣)	화순군 화순군
발 나 군(發 羅 郡)	금산군(錦山郡)	나 주	두 힐 현(豆 肹 縣) 실어산현(實於山縣) 수 천 현(水 川 縣)	회진현(會津縣) 철야현(鐵冶縣) 여황현(艅艎縣)	나주군 나주군 광산군
도 무 군(道 武 郡)	양무군(陽武郡)	강 진	고서이현(古西伊縣) 동 음 현(冬 音 縣) 색 금 현(塞 琴 縣) 황 술 현(黃 述 縣)	고안현(固安縣) 탐진현(耽津縣) 침명현(浸溟縣) 황원현(黃原縣)	해남군 강진군 해남군 해남군
물아혜군(勿阿兮郡)	무안군(務安郡)	무 안	굴 내 현(屈 乃 縣) 다 지 현(多 只 縣) 도 제 현(道 除 縣) 인진도군(因珍島郡)	함풍현(咸豊縣) 다기현(多岐縣) 해제현(海際縣) 진도현(珍島縣)	함평군 함평군 무안군 진도군
도 산 군(徒 山 郡)	뢰산군(牢山郡)	진 도	매구리현(買仇里縣)	섬탐현(蟾耽縣)	진도군
아차산군(阿次山郡)	압해군(壓海郡)	압해도	아 노 현(阿 老 縣) 고록지현(古祿只縣) 거지산현(居知山縣)	갈도현(喝島縣) 염해현(鹽海縣) 안파현(安波縣)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제4절 영풍향(永豊鄕)과 다경부곡(多慶部曲)

향(鄕) 소(所) 부곡(部曲)은 신라시대부터 존재하였으며 이 가운데 소(所)는 고려 초기에 형성되어 고려시기 동안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서 존재하였다. 그러나 일반 군현과는 달리 군현의 직촌이 아닌 임내(任內)로 주변의 다른 촌락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특수촌락으로 이해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향·소·부곡은 천민들의 집단거주지로 알려져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향·소·부곡민들을 단순히 천민이라고 보는 것에만 치우쳐 향·소·부곡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향·소·부곡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향·소·부곡에 대한 개념 정의일 것이다. 그러나 그럴만한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개념은 파악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한국사에서 부곡제의 개념이나 성격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동국여지승람』 권7, 여주목(驪州牧) 고적(古跡) 등신장조(登神莊條)의 기록이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지금 살펴 보건데, 신라에서 주군(州郡)을 설치할 때 그 전정(田丁)과 호구(戶口)가 현(縣)이 되지 못하는 것은 혹은 향(鄕)으로 혹은 부곡(部曲)으로 두어 소재하고 있는 읍에 예속시켰다. 고려 때에는 또한 소(所)라는 것이 있었는데 금소(金所), 은소(銀所), 철소(鐵所), 동소(銅所), 사소(絲所), 주소(紬所), 지소(紙所), 와소(瓦所), 탄소(炭所), 염소(鹽所), 묵소(墨所), 곽소(藿所), 옹기소(甕器所), 어량소(魚梁所), 강소(薑所) 등의 구별이 있어 각각 그 물건을 공납하였다. ……. 또 처(處)라고 칭하고 장(莊)이라 칭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각 궁전과 사원(寺院), 내장댁(內莊宅)에 속하였다. 위의 모든 곳에는 토성이민(土姓吏民)이 있는데 김부식(金富軾)이 편찬한 『삼국사지리지(三國史地理

志)』에는 모두 갖추어 싣지 않았다. 정인지(鄭麟止)가 펴낸 『고려사(高麗史)』도 그것을 따랐다. 지금 이미 모든 성씨(姓氏)는 그 성씨의 근본이 되는 땅을 싣지 않을 수 없으므로 『주관육익(周官六翼)』에 의거하여 증거 되었는데 지금 상고할만한 것은 겨우 열에 하나 둘에 불과하며 모두 읍마다 고적(古跡)의 밑에 달았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향과 부곡은 신라가 주군을 설치할 때부터 존재하였으며, 전정이나 호구 면에서 군이나 현이 될 수 없는 곳으로, 소재하고 있는 군현에 소속시켰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소는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금·은·동 등 물품을 생산 공납하는 곳이다. 장과 처는 소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부터 존재하였고, 각 궁원·사원·내장댁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들 집단에는 모두 토성이민이 있었다. 현재 『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수록된 것은 전체의 10분의 1~2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기록에서 향·소·부곡을 일반 군현과 구별하여 적음으로써 특수촌락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향·소·부곡·장·처의 역할이 서로 달랐음을 보여 주고 있다. 향과 부곡의 역할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소는 특정 물품을 생산, 공납하는 것이었고, 장과 처는 궁원과 사원, 그리고 내장댁에 예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들의 발생시기도 향과 부곡은 신라 때부터 있었음에 반해 소와 장, 처는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제도의 형성 시기를 보면 향과 부곡은 신라, 소·장·처는 고려시대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고려시대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정리되어 간다.

한편 이러한 제도의 연구에 주된 방향은 향·소·부곡민의 신분을 규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양인론(良人論)과 천인론(賤人論) 가운데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였다.

먼저 그동안 정설처럼 간주되어 왔던 천인론의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백남운과 임건상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두 가지 논리를 전제로 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하나는 중국과 일본의 부곡이 천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국의 부곡집단을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즉 부곡이라는 것이 중국사, 일본사, 한국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중국과 일본 부곡의 성격을 한국사에 적용 이해하려 하였다.

다음으로 천인론자들은 사적 유물론을 전제로 고대 노예제의 한국적 지표로서 부곡집단을 설정하고 있다. 백남운은 부곡을 집단적 노예, 종족적 노예로서 규정하였고, 임건상은 기원 전후 철기문화의 전래로 사회적 분업이 발전하여 토호세력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자 소국의 분립과 소국간의 투쟁이 빈번해지는데서 발생한 광범위한 예속민 집단을 부곡제 집단의 형태로 보았다.

한편 양인론은 초기에 사료 검토에 치중한 실증적인 방식에 의존하였으나 연구의 심화에 따라 발생 기원론과 결부시켜 문제에 접근하였다. 먼저 이우성은 고려후기 우리 함평지역과 이웃한 나주 거평부곡(居平部曲 : 현 나주시 문평문 일대)에 관한 사례를 통하여 이곳의 부곡민은 자영농민으로서 국가에 조세를 부담하여 군현민과 교류 이동을 할 정도로 군현인과 신분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거평부곡은 여러 성씨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연적 공동체적 유대가 강하게 남아 있거나 배타적 폐쇄적이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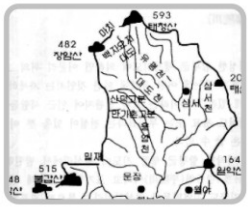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평부곡의 주민은 결코 천민이 아님을 주장하여 그동안 정설처럼 간주되어 왔던 천인설에 대해 최초로 재고의 여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어쨌든 이러한 천인론과 양인론의 논쟁은 1980년대 이후 점차 양인론적인 면이 좀더 우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함평지역에는 이러한 성격을 지닌 특수지역으로 영풍향과 다경부곡이 있었다. 대체로 향·소·부곡의 존속 상한(上限)을 조선시대 초로 볼 때 우리 함평의 영풍향과 다경부곡은 조선 태종대 까지 존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가운데 영풍향은 현 함평읍 성남리 전112·109·111번지 및 임110번지 일대 지성마을 초입 서해안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곳에서 많은 기왓장 파편이 수습되었고 예로부터 혹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골샘'이라 불리는 샘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샘은 2000년 서해안고속도로 개설 당시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묻혀버린 관계로 지금은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당시 영풍향의 주민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우선 신분적으로는 양인에 가까우면서도 천민과 같은 신분적 제약이 일부 가해진 영풍향 주민을 비롯해 소·부곡·역·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군·현민들과 달리 천시 차별받았다. 그리고 거주가 소속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문무 관직을 갖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거주지를 벗어나 일반 군현에 나가 살게 해주는 것이 국가적 포상이 되곤 하였다. 또한 거주지 주민들의 전공 등에 대한 포상으로 거주지 자체를 군현으로 승격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반란을 일으킨 군현지역을 집단적으로 처벌하여 부곡 등으로 강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지역의 주민은 자신의 출생지역에 긴박되어 집단적으로 정해진 생산이나 임무에 종사해야 했다. 향·부곡·장·처의 주민은 농업생산에, 소의 주민은 수공품이나 광산품의 생산에, 역과 진의 주민은 각각 육로교통과 도선(渡船)의 임무에 종사해야만 했다.

한편 다경부곡은 지금의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에 있었다. 다경부곡의 지리적 입지양상은 낮은 구릉지대로 대부분이 밭이다. 이런 낮은 구릉지대는 현재 대부분을 밭으로 이용하나 과거에는 이런 구릉에 숲이 우거졌다고 한다. 또한 논으로 이용되는 곳도 대부분이 바다를 간척한 곳으로 그 이전에는 동산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제3장 군사조직과 함평



신라의 군사제도(軍事制度)는 국가의 성장과 삼국 항쟁의 진전에 따라 군대의 증설과 개편을 되풀이 하는 등 많은 변천을 거쳐 통일기(統一期)에 와서 정비되었다.

삼국시대 이후 신라 군사력(軍事力)의 주축은 6정(六停)이었고, 이 6정의 성립과정에서도 그러한 변천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원래 신라의 군대편성으로서 가장 먼저 된 것은 벌휴왕(伐休王) 2년(185)에 파진찬(波珍飡) 구도(仇道)와 일길찬(一吉飡) 구수혜(仇須兮)를 좌우군주(左右軍主)로 삼았던 일이 있다. 이것은 그 연대를 믿기는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신라 초기의 군대가 좌우 두 개의 부대로 나뉘어졌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또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16년(473)에는 아찬(阿飡) 벌지(伐智)와 급찬(級飡) 덕지(德智)를 좌우 장군으로 임명한 일이 있었다. 여기에서 장군(將軍)이란 명칭은 이전 시기의 좌우군주의 '군주(軍主)'를 명칭상 장군으로 고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뒤 지증왕 6년(505)에 실직주(悉直州), 법흥왕 12년(525)에 사벌주(沙伐州), 진흥왕 14년(553)에 신주(新州), 16년에 바자화군(比自火郡)에 하주(下州), 17년(556)에 비렬홀주(比列忽州) 등을 설치하고 각각 군주를 임명하여 지방 주둔군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좌우군주가 통솔하는 중앙의 군대가 편성되어 6정의 모체가 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좌우군주(左右軍主) → 대당(大幢)
사 벌 주(沙 伐 州) → 상주정(上州停 : 진흥왕 13) → 귀당(貴幢)
신 주(新 州) → 남천정(南川停 : 진흥왕 29) → 한산정(漢山停)
비열홀주(比列忽主) → 우수정(牛首停)
실 직 주(悉 直 主) → 하서정(河西停)
하 주(下 主) → 완산정(完山停)

이와 같이 신라의 기간병력은 6정이었고 이들이 바로 삼국(三國) 항쟁과 나당전쟁(羅唐戰爭) 등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동안에 많은 부대편성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들이 곧 통일 후에는 9서당, 10정, 5주서(五州誓), 삼변수(三邊守) 등으로 재편성되어 군사조직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표> 9서당(九誓幢)

NO	서당명(誓幢名)	설치 연대	금색(衿色)	구성 집단
1	녹금서당(綠衿誓幢)	진평왕 5년(583)	녹자색(綠紫色)	신 라 인(新 羅 人)
2	자금서당(紫衿誓幢)	진평왕 47년(625)	자녹색(紫綠色)	신 라 인(新 羅 人)
3	백금서당(白衿誓幢)	문무왕 12년(672)	백청색(白靑色)	백 제 인(百 濟 人)
4	비금서당(緋衿誓幢)	문무왕 12년(672)	비 색(緋 色)	신 라 인(新 羅 人)
5	황금서당(黃衿誓幢)	신문왕 3년(683)	황적색(黃赤色)	고구려인(高句麗人)
6	흑금서당(黑衿誓幢)	신문왕 3년(683)	흑적색(黑赤色)	말 갈 인(靺 鞨 人)
7	벽금서당(碧衿誓幢)	신문왕 6년(686)	벽황색(碧黃色)	보덕성인(報德城人)
8	적금서당(赤衿誓幢)	신문왕 6년(686)	적흑색(赤黑色)	보덕성인(報德城人)
9	청금서당(靑衿誓幢)	신문왕 7년(687)	청백색(靑白色)	백 제 인(百 濟 人)

새롭게 정비된 군사조직은 한 마디로 구 고구려계와 백제계 유민들의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와 앞서 살펴본 9주 5소경이라는 지방행정제도와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예컨대 9서당 가운데 6개의 서당은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계(高句麗系 : 報德城民 포함)를 비롯한 백제계(百濟系) 및 말갈계(靺鞨系) 주민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복속 주민들을 우선 군대조직으로 편성하여 흡수 재조직한 것을 말한다.

<표> 군사구역(軍事區域) 일람표

군편성 / 지역	6정(六停)	10정(十停)		五州誓	三邊守
		정명(停名)	위치		
경도(京都)	대 당(大 幢)				
상주(尙州)	상주정(上州停)	음리화정(音里火停)	경북 상주		
양주(良州)		삼양화정(參良火停)	경북 달성		
강주(康州)		소삼정(召參停)	경남 함안	청 주 서	
한주(漢州)	한산정(漢山停)	남천정(南川停)	경기 이천	한산주서	한산변
		골내근정(骨乃斤停)	경기 여주		
삭주(朔州)	우수정(牛首停)	벌력천정(伐力川停)	강원 홍천	우수주서	우수변
명주(溟州)	하서정(河西停)	이화혜정(伊火兮停)	경북 청송	하서주서	하서변
웅주(熊州)		고양부리정(古良夫里停)	충남 청양		
전주(全州)	완산정(完山正)	거사물정(居斯勿停)	전북 임실	완산주서	
무주(武州)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	전남 나주		
계(計)	6	10		5	3

한편 10정(十停)은 뒤에 와서 군관구적(軍管區的) 성격으로 변한 것으로 추측되나 9주의 주치(主治)와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9주의 행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5소경에는 소경여갑(小京餘甲)을 배치하였으니 이 여갑(餘甲)이란 명칭은 독립부대란 의미를 가진 것 같다. 총 39여 갑 가운데 경여갑(京餘甲)과 소경여갑(小京餘甲), 외여갑(外餘甲)이 있었으니 경여갑은 수도(首都)에, 소경여갑은 5소경에, 외여갑은 특별한 요충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5주서(五州誓)의 성격은 분명치 않다. 다만 청주서(菁州誓), 완산주서(完山州誓), 한산주서(漢山州誓), 우수주서(牛首州誓), 하서주서(河西州誓) 등의 배치가 소백산맥 외곽 지역이라는 점에서 5소경의 기능과도 어떤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직관지(職官志 : 武官)에 나타난 군 편성을 보면 우수주서와 하서주서는 실 병력이 많지 않아 명목 뿐의 설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함은 삼변수(三邊守 : 한산변수, 우수변수, 하서변수) 가운데의 2변수인 우수변수와 하서변수의 설치로 보완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군 편성으로서는 6정, 9서당, 10정과 앞서 말한 5주서, 39여갑당, 삼변수 이 외에도 삼무당(三武幢), 만보당(萬步幢), 백관당(百官幢) 기타 내용을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부대편성이 있었다.

병과(兵科)로는 보병과 기병을 주로 하는 외에도 사설당(四設幢) 즉 노당(弩幢=弩手部隊), 운제당(雲梯幢=登城器部隊), 충당(衝幢=毁城器部隊), 석투당(石投幢=拔石部隊) 등 특수 기술병과가 있었다. 이밖에 궁수부대로서 이궁(二弓 : 漢山州弓尺, 河西州弓尺)과 창병부대로서 장창당(長槍幢) 등이 설치되었다.

군관편성은 최고 장군(정원 38명)에서 비롯하여 대관대감(大官大監), 대대감(隊大監), 제감(第監), 감사지(監舍知), 대척(大尺) 등이나 삼천당주(三千幢主)나 삼천졸(三千卒), 삼천감(三千監), 군사감(軍師監), 대장척당주(大匠尺幢主), 대장대감(大匠大監), 보기감(步騎監) 등, 위계(位階)와 직능이 분화함에서 28종의 군관(軍官)이 있어 그 총수가 직관지에 나타난 것만 해도 3,228명에 달하고 있다.

삼국(三國) 가운데 가장 후진이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국방력 충실에 기울였던 관계로 고대국가의 군사제도로서는 놀랍게 정비된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비된 국방력 체제를 어느 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예컨대 9서당의 경우 나당전쟁시 필요하여 편성하기 시작하였던 것이고, 후에는 여제유민(麗濟遺民)의 통합 방안으로서 필요하였던 것이나 통일이 안정된 뒤에 와서는 실제에 있어서 해체되든가 10정에 흡수되지 않았는가 한다. 그리고 원래부터 신라군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6정도 대당(大幢)이나 귀당(貴幢)은 신라귀족세력과 밀착하고 있어서 그대로 남았을 것이나 지방 배치의 나머지 4정은 10정에 흡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시 국방상 필요하였던 군편성이 뒤에 와서는 단순히 노동력 수취의 필요성에서 유지되다가 신라 하대(下代)에 와서는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많지 않았는가 한다.

제1절 6정(停)과 10정(停) 제도

삼국통일 이전 신라의 군사조직은 수도를 방위하기 위한 대당(大幢)이 중심이 되어 영토가 확장되면서 곳곳에 군단(軍團)을 배치하여 6정(停)이 되었다. 삼국이 통일되자 이 6정은 그대로 두고 새로이 9주(州)와 수도 방위를 위해 새로운 군단을 만들어 배치하게 된다. 각 주(州)에는 1개 군단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주(漢州)만은 지역이 넓다는 이유로 2개 군단을 배치하여 10개 군단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10정(停)이라는 것이다.

이 10정은 뒤에 와서 군관구적(軍管區的)인 성격으로 변모한 것 같다. 당시 9주의 주치소(州治所)와 가까운 곳에 각각 배치했던 10정은 9주의 행정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함평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재의 나주시 남평면에 설치되었던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과 관련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표> 10정(十停)

10정명(十停名)	소속주(所屬州)	현재 지명	복 색(服 色)
음리화정(音里火停)	상 주(尙 州)	경북 상주	청 색(靑 色)
삼양화정(參良火停)	양 주(良 州)	경북 달성	흑 색(黑 色)
소삼정(召參停)	강 주(康 州)	경남 함안	흑 색(黑 色)
남천정(南川停)	한 주(漢 州)	경기 이천	황 색(黃 色)
골내근정(骨乃斤停)	한 주(漢 州)	경기 여주	황 색(黃 色)
벌역천정(伐力川停)	삭 주(朔 州)	강원 홍천	녹 색(綠 色)
이화혜정(伊火兮停)	명 주(溟 州)	경북 청송	녹 색(綠 色)
고양부리정(古良夫里停)	웅 주(熊 州)	충남 청양	청 색(靑 色)
거사물정(居斯勿停)	전 주(全 州)	전북 전주	청 색(靑 色)
미다부리정(未多夫里停)	무 주(武 州)	전남 나주	흑 색(黑 色)

제2절 9서당(九誓幢)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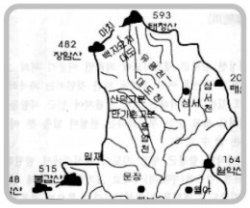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신라의 군사조직을 보면 중앙에는 왕궁을 호위하는 시위군(侍衛軍)과 9서당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중 9서당 가운데 6개는 고구려계를 비롯하여 백제계, 말갈계 등의 주민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점령지역의 주민들을 우선 군대조직으로 흡수하려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리 함평지역민들이 속했던 백제의 유민들은 백금(白衿), 청금(靑衿) 등 2개의 서당으로 편성되어졌다.

당시 서당의 차이는 금색(衿色)에 따라 구별했다. 금색이란 금(衿)의 제도, 즉 띠를 두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전(書傳)』에는 '휘치(徽幟)'라고 했고, 『시전(詩傳)』에는 '직문조장(織文鳥章)'이라 일컫고 주석에 조장(鳥章)은 조준(鳥準)의 문채(文彩)로 장수 이하는 모두 옷에 착용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서(漢書)』에는 '기치(旗幟)'라고 했으며, 『주례(周禮)』

에는 사상씨(司常氏)가 9개의 기(旗)에 각각 다른 물건을 그렸고, 그것을 휘치(휘장)로써 서로 구별했다고 적혀 있다.

신라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표>와 같이 그 휘치로 청(靑), 적(赤), 흑(黑) 등을 사용했다. 당시 우리 함평사람들은 백청색(白靑色) 금색의 백금서당(白衿誓幢), 청백색(靑白色) 금색의 청금서당(靑衿誓幢)에 편입되어 왕궁의 경비를 담당해야 했었다.

제4장 통일신라시대의 유적과 유물



제1절 5교 9산(五敎 九山)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면서 유교가 한학을 익히는 방편이라는 차원을 넘어 독자적인 사상으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신문왕 2년(682) 국학(國學)이 설립되어 유교사상을 보급하였다. 설총(薛聰)은 유교 경전에 우리말 토를 달아 읽는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이는 유교 경전 공부를 용이하게 하였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사회에서는 유교사상 가운데, 군주에 대한 충(忠)이 강력한 왕권과 집권국가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념으로서 강조되고, 혈족 단위의 분화가 진전되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소가족이 사회의 기본 생활단위가 되어감에 따라 효(孝)가 생활윤리로서 강조되었다.

당시 국학에선 수학 단계를 3등급으로 나누었고, 교육 과목으로 유교 경전과 문선(文選) 등이 있었는데, 『논어』와 『효경』이 필수과목이었다는 사실은 이 같은 점을 말해준다. 군주는 아버지이고 관리는 어머니이며 백성은 어린 자식이니, 부모·자식이 각기 본분을 다하면 국가가 평안해질 것이라는 뜻을 담아 노래한 「안민가(安民歌)」라는 향가는 이 시기 유교 사상에 대한 이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처럼 통일신라시대에는 유교적 윤리관을 교육시켜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등 유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이 외에도 통일신라시대의 문화는 이 땅에 불교문화를 찬연하게 꽃피운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시대의 불교는 5교 9산으로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불교가 삼국시대의 불교와 다른 점의 하나는 종파가 형성된 것이었다. 하나의 종파는 시조(始祖), 소의경전(所依經典) 즉 교리상의 특성, 교단조직 등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성립된다. 통일신라시대 종파를 뚜렷이 형성한 것은 의상을 시조로 하는 화엄종이었다.

의상은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엄(智儼)의 문하에서 중국 화엄학 승려인 법장과 함께 수학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부석사를 중심으로 포교와 수행을 하였다. 그의 제자들은 전국의 주요 화엄종 사찰들을 이끌어나가 하나의 종단을 형성했다. 의상의 대표적 저술은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이다. 여기서 그는'하나가 곧 다수이며, 다수가 곧 하나(一卽多 多卽一)'이라는 『화엄경(華嚴經)』의 종지(宗旨)를 담은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의 다양한 현상은 결국 일심(一心)에 의하여 통섭(統攝)된다는 그의 화엄사상을 함축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외에 유식학 계통의 법상종(法相宗)도 하나의 종파를 형성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은 점이 있다.

어쨌든 종파불교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신라 말 선종(禪宗)이 대두한 이후였다. 종파성이 강한 선종의 흥륭(興隆)에 자극을 받아 교종(敎宗)의 각 유파들도 종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고려 불교계로 이어졌다.

<표> 5교(五敎)

5교(五敎)	계 종 자	왕 조	근 본 도 장
열반종(涅槃宗)	보덕화상(普德和尙)	신라 무열왕	전주 경복사(景福寺)
계율종(戒律宗)	자장율사(慈藏律師)	신라 선덕왕	양산 통도사(通度寺)
법성종(法性宗)	원효대사(元曉大師)	신라 문무왕	경주 분황사(芬皇寺)
화엄종(華嚴宗)	의상대사(義相大師)	신라 문무왕	영주 부석사(浮石寺)
법상종(法相宗)	진표율사(眞表律師)	신라 경덕왕	김제 금산사(金山寺)

※ 우리 전남지역에는 무주(武州)의 속현(屬縣)인 지금의 구례에 화엄사(華嚴寺)가 있다.

선종은 9세기 초 이후 유행하였다. 선종은 경전에 대한 공부와 교리 연구를 통한 수행을 강조하는 교종과는 달리, 복잡한 교리에서 벗어나 심성을 도야하는 데 치중한 바,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불성을 깨달아 부처가 됨(不立文字 見性成佛)'을 추구하였다. 선종은 구체적인 수행방법이 조용히 사색을 하는 선(禪)이었으므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신라 말 고려 초의 이른바 선종 9산문(九山門)을 처음 연 승려들은 대부분 6두품 출신이고, 그들을 지원한 이들은 그 지방의 호족들이었다. 이는 선종의 간결한 논리와 수행방법이 소박한 무인적 기질을 지닌 지방 호족들의 성향에 부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연 9산문은 그들을 후원한 유력한 호족의 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선종 사찰은 지방사회의 정신적 중심지가 되었고, 수도를 중심으로 한 기존 질서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녔다.

선종에서는 각 승려의 수행 즉 깨달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그 기준이란 스승이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는 계보가 한층 중시되었고, 자연 각 산문별로 종파성이 강하였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선종의 흥륭은 신라 하대의 지방분권화 경향을 가속화하였고, 선종 사찰은 다수의 승려를 두고 넓은 농장을 소유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지방세력이 되어갔다. 우리 함평지역과 연관지을 수 있는 9산문으로는 장흥 보림사(寶林寺)의 동리산문(桐裡山門)을 비롯하여 남원 실상사(實相寺)의 실상산문(實相山門), 그리고 뒷날 독립 산문이 되지는 못했지만 지리산 쌍계사(雙溪寺)의 진감선사문도(眞鑑禪師門徒)가 있다. 이들 사찰에는 많은 불교문화의 미술 공예품들이 현재까지도 남겨져 있다.

▷ 가지산파(迦知山派)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寶林寺)
개 조(開 祖) : 도의(道義), 왕씨(王氏), 북한군인(北漢郡人), 문하생 염거(廉居).
개산인(開山人) : 제3조 체징(體澄), 김씨(金氏), 웅진인(熊津人), 문하생 의차(義車) 등 800여명.

▷ 동리산파(桐里山派)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사(泰安寺)
개 조(開 祖) : 혜철(惠哲), 박씨(朴氏), 경사인(京師人), 문하생 도선(道詵) 등 수 백인.
개산인(開山人) : 제2조 도선(道詵), 김씨(金氏), 영암인(靈巖人), 문하생 경보(慶甫) 등 수 백인.
▷ 실상산파(實相山派) : 전북 남원군 산내면 실상사(實相寺)
개 조(開 祖) : 홍척(洪陟), 문하생 수철(秀澈) 등 다수.
개산인(開山人) : 제2조 수철(秀澈), 조부(祖父) 때에 진골(眞骨)에서 강등됨, 문하생 음광(飮光) 등 다수.

제2절 용천사(龍泉寺)

용천사는 해보면 광암리 415번지 모악산 자락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의 말사이다.

용천사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사역(寺域)의 전체 범위를 알 수 있었고, 특히 대웅전 뒤편의 건물지에서 소조나한상이 출토되어 나한전이 존재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용천사라는 절 이름은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돌계단 오른쪽에 있는 샘에서 비롯되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샘은 서해로 통하였는데 여기에 살던 용이 승천하여 이 샘을'용천(龍泉)'이라 불렀으며, 그로 인해 절 이름도 '용천사'라 했다고 한다.

용천사의 창건에 대하여는 백제시대 말기에 해당되는 654년에 창건되었다고 구전되어 오거나, 혹은 600년(백제 무왕 1)에 행은존자(幸恩尊者)가 창건했다고 하나 신빙성이 의심되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다만 용천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비록 조선후기의 기록이지만, 「咸平龍泉寺熟石壘階勸文」과 「全羅南道咸平郡龍泉寺大雄殿懸板丹靑記」란 두 문헌기록은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백암성총(栢庵性聰·1631~1700)이 지은 「함평용천사숙석루계권문」에 의하면, 신라시대의 행은존자(行思尊者)가 용천사를 개산(開山)하여 해문대총림(海門大叢林)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 숙종 31년(1705)의 「용천사대웅전현판단청기」에는 당나라 현종조 (712~756) 에 국행사(國幸師)와 존사(尊思)가 창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을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에 용천사가 창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건자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행사존자와 국행사와 존사로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어느 기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어쨌거나 통일신라시기에 용천사가 창건되어졌고 이 용천사를 중심으로 함평불교가 성장해 갔다고 이해된다.

고려시기에 이르러 용천사는 충렬왕 1년(1275) 각적국사(覺積國師)에 의해 중수되었다고 전한다. 고려 전시기에 걸쳐 책봉된 국사·왕사 가운데 각적국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순천의 수

선사 제13세이며, 장성 정토사(현 백양사), 영광 불갑사에 연고가 있는 각진국사(覺眞國師) 복구(復丘·1270~1355)가 있는데, 고려후기 용천사의 중창주 각적국사는 바로 각진국사 복구의 오인이 아닌가 쉽다. 각진국사 복구는 장성 정토사 출신의 승려로 수선사의 제13세 사주가 되었다. 그는 1351년 왕사로 책봉된 이후 마지막 주석지 영광 불갑사에 머무르며 불갑사를 새롭게 중창하여 교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는 사후에 각진국사로 추증된 인물이다.

용천사는 고려후기에 불갑사의 교세 확장과 연관되어 각진국사 복구나 그의 제자들에 의해 13세기 후반에 중창되었지 않았을까 싶다. 아마 13세기 후반 함평불교는 영광 불갑사나 장성 정토사의 불교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함평불교의 구조는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여도 좋을 듯 싶다. 왜냐하면 함평지역 대부분의 사찰들이 한결같이 장성 백양사의 말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도록 용천사는 함평지역 대표적인 사찰로 이해하여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까지의 상황을 알려주는 『동국여지승람』 36 함평현 불우조에 용천사가 고산사, 월양사, 서상사와 더불어 기록되어 있어 여전히 함평지역의 대표사찰로 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조선전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에 용천사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호남읍지(1871년경), 호남읍지(1895년경), 함평현읍지(1899년), 함평군지(1906년), 속수함평지(1930년) 등에 나타나 있다. 어쨌든 조선전기 이후 용천사의 연혁은 앞서 살핀 「용천사대웅전현판단청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 단청기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요즘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단청이 아니라 절을 대대적으로 중건 내지 중수한 불사를 뜻하는 것 같다.

임진왜란에 이은 정유재란 때 절이 폐허화되었다가 1632년(인조 10)에 법당을 새로 짓는 등의 중창이 있었고, 이어서 1638년에 쌍연(雙衍) 스님이 중수했다. 그러나 그 뒤 건물이 퇴락되므로 1705년(숙종 31)에 여러 스님과 시주자들이 힘을 합해 절을 중건하고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단청기를 지었다. 이 무렵 절의 번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우수한 석등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범우고」·「가람고」 등 16세기 이후의 지리서 및 사찰 연혁서에도 용천사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

근대에 와서는 1938년에 사찰이 중수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찰이 전소되었다. 즉 1951년 음력 1월 15일 국군토벌대의 작전 도중에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당시 국군 토벌대가 용천사 일대에 포탄을 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당시 용천사에는 빨치산 불갑산지구 사령부가 주둔하였고, 이로 인해 군경합동 토벌대가 공비소탕작전 과정에서 포탄을 쏘아 화재가 일어나 소실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의 내용은 당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함평양민학살』(정찬동)과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김영택) 등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용천사 피해과정과 관련한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보병 제11사단 제20연대 선발대인 연대 수색대가 작전명령을 시작하는 전날 19일 밤 9시를 기해 함평소재지를 출발했다. 수색대 50여 명은 신광면 소재지를 지나 밤을 이용해 불갑산으로 향하는 광암리 쪽에 깊숙이 침투했다.

대전차포 중대도 19일 밤 연대 수색대에 이어 함평소재지를 떠나 대각리 쪽으로 향했다. 제2대대는 7개 방면으로 불갑산을 포위하고 총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제5중대는 새벽 3시에 나산면 초포리에서 출발했다. 후방 고지에 도착하여 용천사 부근으로 도주하는 유격대를 추격한 후에 서남고지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잠복을 했다. 제6중대는 새벽 5시에 영광 영양리에서 출발하여 불갑산 515.8고지 연실봉을 점령한 후에 유격대원들이 도피한 용천사 고지를 총공격했다. 적을 건문산으로 도주하게 했다. 제7중대는 새벽 2시에 나산 삼축를 출발, 339고지에 도달했다. 적을 용천사 부근으로 도주케 했다. 213고지에서 적의 퇴로를 차단했다. 제8중대는 새벽 5시에 해보 금곡리에서 출발하여 금계리에 도착했다. 태청산 부근으로 향하는 적의 퇴로를 차단했다. 제6중대 지원을 받아 용천사 부근 283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고 불갑산을 사수하며 국군을 공격하는 적 유격대와 치열한 전투를 했다. 제8중대와 제6중대는 283고지 부근에 완강히 저항하는 유격대를 총 공격하여 건문산 유격대를 총공격하여 건문산으로 분산 도주케 하고는 용천사와 283고지를 점령했다.

연대 중포중대는 새벽 3시에 영광 안맹리에서 출발하여 불갑면 불갑사쪽으로 향했다. 국군 제2대대는 불갑산을 중심으로 삼고 7개 방향으로 총공격을 시작했다. 주력부대가 있는 용천사 일대에 포사격 대전차 포사격은 물론이요, 중무장한 보병들은 각 침투지역에 집중 사격을 실시했다. 무장한 유격대들은 쫓기고 밀리며 저항을 했으나 쉴새 없이 쏟아지는 포탄과 기관총 소총 사격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불갑산은 군인들과 후방에 경찰이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출은 불가능했다. 유격대와 비무장한 좌익가족, 그리고 피란민들은 군인들의 집중사격에 쓰러지고 있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도망을 치고 있는 불갑산에 포위된 이들은 좁혀 들어오는 군인들의 총탄에 맥없이 쓰러지고 있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긴 장마철 쏟아지는 비처럼 총포탄은 불갑산에 들어온 좌익들과 억울하게 입산한 사람들까지 초토화시키고 있었다. 피란처로 불갑산에 입산했거나, 우익인사로 끌려온 사람들은 불갑산을 탈출하려고 했으나 공비들이 이탈방지에 주력했기 때문에 산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전남 서부지구사령부에 완전무장을 한 5백여 명의 유격대들은 막강한 화력으로 좁혀들어오는 국군 앞에서는 죽음뿐이었다. 산등성이와 골짜기에는 시체들이 깔리고 있었다. 시체가 산을 덮고 있었다. 용천사 골짜기 개울물은 붉은 핏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마다 발을 딛을 수 없게 시체가 깔렸고, 붉은 피가 빗물처럼 흘렸다.

제2대대의 불갑산 공비토벌작전은 2일만에 완료했다. 1950년 10월 23일부터 불갑산에 입산한 영광, 함평, 무안, 신안, 진도, 장성, 나주 일부지역 사람들을 포함한 5만7천여 명은 1951년 2월 22일 4개월 동안의 불갑산 생활을 마감했다.

함평소재지로 끌려온 입산자 500명은 함평여자중학교 운동장에서 집결시킨 후 학교면 으름재로 끌고가 모두 사살했다. 불갑산에서 빠져나간 유격대 200여 명은 장성 태청산으로 도망을 한 다음 장성 인근지역에 출몰했다. 제2대대 제6중대로 하여금 소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불갑산 소탕작전 완료 후 10일 만인 3월 3일 태청산 유격대를 소탕했다. 그러나 아직도 살아남은 유격대 70여 명이 군인과 경찰을 피해 다니고 있었다. 장성군 삼서면 녹사태 마을 근처에 유격대들이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군경은 합동작전으로 기습을 했다. 유격대들은 전멸했다. 이날이 3월 25일이었다.

그리하여 보병 제11사단은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3월 30일까지 180일 동안 호남지구 공비토벌작전을 완료하고 4월 6일 전주에서 대구로 복귀했다. 제11사단은 제20연대 제2대대가 1951년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 동안 불갑산 공비토벌작전을 완료하고 350여 명의 공비를 격멸했다는 전과를 발표했다.

제2대대 소속인 제5중대는 1950년 10월 22일 밤 함평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1951년 2월 22일까지 4개월 동안 월야면 장교, 동촌, 다래기, 외치와 해보면 성대, 모평과 나산면 계동, 소재마을 등 8개 지역 주민 천여 명의 남녀노소 양민을 학살한 비극을 남기고 불갑산 공비토벌 후 원대 복귀했다."

용천사 경내 건축문화재의 피해는 1951년 음력 1월 15일 국군토벌대의 작전 도중 포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화재 이전의 용천사에 대한 증언 내용을 요약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용천사는 1951년 음력 1월 15일 국군토벌대의 작전 도중에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당시 국군 토벌대가 용천사 일대에 포탄을 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용천사 마당 앞 끝부분에 3칸의 문간채가 있었는데 이는 중앙 통로이며 좌우의 내부에는 비가 있었다. 문간채와 대웅전 사이 좌우에는 향좌에 요사채가, 향우에 시왕전이 있었으며, 문간채와 시왕전 사이에는 승방이 있었다. 시왕전은 4칸 규모이며 문 좌우에는 주먹을 든 역사상이 있었고, 책을 든 시왕들과 지장보살도 있었다. 대웅전은 3칸이었으며 불상은 3분을 봉안하였는데 모두 좌상이었다. 후불탱화가 괘불과 유사했고, 불상 위에 기와집(천개)이 있었다. 대웅전은 단청과 탱화가 고색창연 했고, 각종 기물들이 섬세했으며 불갑사 법당보다 더 조각 솜씨가 좋았다. 대웅전 뒤에는 노천, 오백나한전, 산신각, 칠성각의 기능을 한 7칸 규모의 건물이 있었고, 용마루 맨 위에 청기와가 놓였다. 흰색으로 기억되는 나한상이 많았으며 그 나한상 맨 앞줄에는 색깔이 다양한 좌불 여럿을 보았다. 괘불은 마포바탕에 우람한 부처가 그려졌으며 후불탱화와 유사했다. 대웅전 뒤편에 괘불함이 있었으며 한 때 불갑사에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당시는 산으로 괘불함을 지고 넘어갔다."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1951년 화재 이전의 용천사에 건물 배치를 재구성해 보면, 문간채와 대웅전, 시왕전, 요사채가 ㅁ자 형으로 배치되었으며, 문간채와 시왕전 사이에 승방이, 대웅전 뒤편에 오백나한전이 위치한다. 문간채의 자리에서는 누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대형 석재들이 발견되었는데, 2001년 발굴조사를 통해 정면 7칸 측면 2칸의 누각 건물지로 밝혀졌다.

한편 용천사는 건축문화재가 전소될 당시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1932년 6월 20일 <조선총독부 관보>에 보고 된 귀중품 대다수가 소실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석탑과 부도뿐이다.

근래의 중창불사는 1964년 금당(錦堂) 스님이 옛 보광전 자리에 약 10평의 대웅전을 복원했고, 1984년에는 박상철 스님에 의해 21평의 요사채가 건립되었다. 그리고 1988년 7월 27일 이명심(李明心)보살이 주지로 있을 때 전통사찰로 등록되었다. 그 뒤의 주지스님은 심원(深元 : 法號 默菴, 俗名 申宗奎)스님이었으며, 1996년 10평의 대웅보전을 헐고 새로이 28평의 대웅보전을 복원하였고 1997년에 사천왕문을 신축하였다. 또 최근 2003년에는 지장전과 모악산 용천사 석등을 새롭게 중건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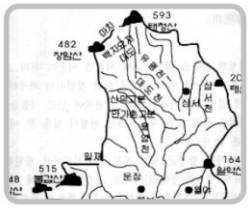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으로 부연을 둔 겹처마를 갖추었다. 낮은 석축기단 위에 덤벙 주추를 놓고 원주를 세웠다. 원주 위로는 창방을 깔고 그 위에 평방 없이 2익공의 공포를 썼다. 그리고 대웅전 안에는 1990년 초반에 조성된 불상이 본존불로 모셔져 있다. 현재 용천사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4호인 석등을 비롯하여 17세기 후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시계 및 삼층석탑 등이 있다.

<표> 조선총독부 관보 목록 및 현존유무

명칭	개수	품질	형태	크기	현존유무
아미타불	1	목제도금	좌상	높이 4촌	×
아미타불	1	〃	〃	높이 1척 4촌	×
관세음보살	1	〃	〃	높이 3척 3촌	×
대세지보살	1	〃	〃	〃	×
후불탱	1	견제	괘도	세로 11척 4촌, 가로 10척 9촌	×
괘불탱	1	〃	〃	세로 30척, 가로 19척	×
신중탱	1	〃	〃	세로 5척, 가로 6척 5촌	×
독성탱	1	〃	〃	세로 3척 3촌, 가로 2척 6촌	×
관세음보살	1	목제도금	좌상	높이 2척 1촌	×
후불탱	2	견제	괘도	세로 4척 5촌, 가로 6척 6촌	×
신중탱	1	〃	〃	세로 4척 3촌, 가로 3척 2촌	×
칠성탱	2	〃	〃	세로 5척 4촌, 가로 5척 6촌	×
산신탱	2	〃	〃	세로 4척, 가로 4척 3촌	×
석가모니불	1	목제도분	좌상	높이 2척	×
미륵보살	1	〃	〃	높이 1척 3촌	×
갈라보살	1	〃	〃	〃	×
나한	15	〃	〃	높이 1척 4촌	×
독성탱	1	견제	괘도	세로 3척, 가로 2척	×
현왕탱	1	〃	〃	세로 5척, 가로 3척 2촌	×
청정법신불	1	목제도분	좌상	높이 3척 2촌	×
원만보신불	1	〃	〃	높이 3척 3촌	×
백억화신불	1	〃	〃	〃	×
현겁천불	128	〃	〃		×
지장보살	1	목제도금	〃	높이 3척 9촌	×
지장탱	1	견제	괘도	세로 6척, 가로 7척 7촌	×
명부시왕	10	목제도분	좌상	높이 5척	×
도명존자	1	〃	입상	높이 4척 6촌	×
무독귀왕	1	〃	〃	높이 4척 5촌	×
명부판관	2	〃	〃	높이 3척 9촌	×
명부귀왕	2	〃	〃	높이 3척 4촌	×
선악녹사(善惡祿司)	2	〃	〃	높이 3척	×
시위동자	8	〃	〃	높이 2척 5촌	×
명부사자	2	〃	〃	높이 3척 6촌	×
수문장	2	〃	〃	높이 5척 5촌	×
대종	1	동제	원형	높이 3척 4촌 5분	×
소종	1	〃	〃	높이 8촌	×
석탑	1	석제	입형	높이 9척 2촌	○
부도	4	〃	〃	높이 4척 7촌	○
연화경	40	지제	제본		×
화엄경	70	〃	〃		×

※ 조선총독부 관보 제1634호(1932년 6월 20일) 용천사 귀중품 목록 참고

제5장 후삼국시대의 함평



제1절 후삼국의 성립과정

1. 신라 통치력의 붕괴와 군웅(群雄) 봉기(蜂起)

신라는 하대(下代)가 시작되면서부터 귀족사회(貴族社會)가 사치와 부패에 빠지게 되면서 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다.

안으로는 중앙귀족(中央貴族)의 왕위쟁탈전(王位爭奪戰)이 격심하게 전개되었다. 예컨대 혜공왕(惠恭王) 4년(768)부터 정강왕(定康王) 2년(887)까지 100여 년 동안에 선덕왕(宣德王), 원성왕(元聖王), 소성왕(昭聖王), 애장왕(哀莊王), 헌덕왕(憲德王), 흥덕왕(興德王), 희강왕(僖康王), 민애왕(閔哀王), 신무왕(神武王), 문성왕(文聖王), 헌안왕(憲安王), 경문왕(景文王), 헌강왕(憲康王) 등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 정치적 변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밖으로는 김헌창(金憲昌), 범문(梵文), 장보고(張保皐) 등 불평귀족(不平貴族)과 군진세력가(軍鎭勢力家)의 반란이 속출하는 등 지배계급의 분열 대립이 격화되어 정치적인 혼란을 빚어냄으로써 신라 정부의 통치력이 점차 약화되어 갔다.

한편 지방에서는 중앙정권에서 떨어져 나온 귀족이나 또는 지방의 세력가 중에서 불교사원(佛敎寺院), 해외무역(海外貿易), 군진세력(軍鎭勢力) 같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호족(豪族)으로 성장하여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등장함으로써 중앙집권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지방분권적(地方分權的)인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진성여왕(眞聖女王) 때에 이르러 급속히 악화되어 신라는 전국적이고 항구적인 내란의 도가니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었다. 즉 신라 51대 왕인 진성여왕(887~897)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고 간신배를 가까이 하여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므로 국가 재정을 좀먹었으며 또 뇌물이 성행하고 관리의 임관(任官)과 면관(免官)이 공정치 못하여 정치가 극도로 어지러워지게 되었다.

여기에다 흉년으로 기근까지 들게 되니 백성이 유리(流移)하고 도적이 벌 떼처럼 일어나 민심이 동요되고, 지방의 여러 주군에서는 조세(租稅)를 내지 않아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조세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미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에서 시행될 수는 없었다.

지방에서는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

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진성여왕 3년(889)에 이르러서는 신라가 전면적인 내란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전국적인 내란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바로 농민(農民)이었다. 다시 말하면 각지의 반란군은 농민의 불만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왜냐하면 골품제(骨品制)를 포함한 신라의 사회적인 모순과 정권쟁탈을 위시한 정치적인 혼란 등 각종의 원인들로 인하여 신라의 통치력이 붕괴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배계층에 관계되는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하류층의 농민들에게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의 격화가 결과적으로는 신라사회의 저변층을 이루는 농민들의 생활을 곤궁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 농민들은 이미 훨씬 전부터 과중한 조세의 부담과 가혹한 역역(力役)의 징발 때문에 이미 신라의 전성시대로부터 유망(流亡)의 경향이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또 귀족사회 말기의 퇴폐적인 향락생활과 국가기구의 해이로 말미암은 부담의 가중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이들 압박에 시달린 농민들은 유민(流民)이 되어 사방으로 흘러 다니거나 세력 있는 귀족들의 장원(莊園)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병(私兵)이 되기도 하고, 노예(奴隸)가 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무리를 지어서 도적(盜賊)이 되어 질서를 교란케 하였다. 이러한 상태가 진성여왕의 조세독촉을 계기로 하여 마침내 폭발하여 전국적인 내란의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각지의 수많은 반란세력(叛亂勢力)들 가운데 주목되는 세력으로는 사벌주(沙伐州 : 尙州)의 원종(元宗)과 애노(哀奴), 죽주(竹州 : 安城의 竹山)의 기훤(箕萱), 북원(北原 : 原州)의 양길(梁吉), 완산주(完山州 : 全州)의 견훤(甄萱), 철원(鐵圓 : 鐵原)의 궁예(弓裔)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농민들의 불만을 기반으로 하여 일어난 세력이었다. 그리고 이 때에 이르러서는 신라의 골품제와 같은 사회를 규제하는 모든 제한이 일체 타파되고 오직 실력에 의하여 약육강식(弱肉强食)하는 전국시대(戰國時代)가 되었으므로 각지에서는 무수한 군웅(群雄)이 들고 일어나 활거하게 되었다.

한편 신라정부는 이와 같이 각지에서 일어나는 반란군을 진압할 정규군(正規軍)을 갖지 못하게 된지 이미 오래였다. 따라서 지방의 각 군현(郡縣)에서는 스스로 이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리하여 군의 태수(太守)나 현령(縣令)들은 독자적으로 사병을 길러서 성주(城主) 혹은 장군(將軍)이라 칭하고 점점 중앙정부의 명령계통(命令系統)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신라정부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거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라에 배반하고 반란군과 결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신라는 지리멸렬의 혼란상태에 빠지고 이로부터 약 50년에 걸친 내란기(內亂期)가 시작되게 되었다.

2. 견훤(甄萱)·궁예(弓裔) 세력의 성장과 후백제·태봉(泰封)의 성립

처음 원종(元宗), 애노(哀奴), 기훤(箕萱), 양길(梁吉) 등의 세력은 아직까지 지방의 한 개 반란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속에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여 신라와 대항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견훤(甄萱)과 궁예(弓裔)의 세력이었다. 다시 말하면 견훤과 궁예

는 각각 주위의 대소 반란세력들을 병합하여 점차 그들의 세력을 성장시키어 마침내 후백제(後百濟)와 태봉(泰封)이란 국가를 건국하게 되었던 것이다.

견훤은 상주(尙州) 가은현(加恩縣)의 농민출신이었다. 본래의 성(姓)은 이씨(李氏)였는데 뒤에 견씨(甄氏)로 성을 삼았다고 한다. 그는 체모(體貌)가 웅기(雄奇)하고 지기(志氣)가 씩씩하여 군인이 되어 서·남해(西南海) 방면에서 싸울 때에는 용기가 있어서 항상 다른 군사의 앞장을 섰으므로 그 공로에 의해 비장(裨將)이 되었다. 그러다가 진성여왕의 실정(失政)과 기근(饑饉)으로 백성이 유리(流移)하고 도적이 봉기하자 견훤은 큰 뜻을 품고 무리를 모아 서남지방의 주현(州縣)을 쳐서 반란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궁예는 신라 헌안왕(憲安王)의 서자(庶子)로서 성(姓)은 김씨(金氏)였다.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을 유모(乳母)가 구해 도망하여 숨어서 길렀는데, 이 사건 때에 실수로 한 눈이 먼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도 그는 정권 다툼에 희생되어 지방으로 몰려난 자였던 것 같다.

이와 같이 견훤이나 궁예는 모두 신라계통 출신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훤이나 궁예는 각각 백제와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였던 것을 보면, 결국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 즉 자신들의 출세를 위하여 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그만한 이유 즉 고구려나 백제의 부흥을 표방하여야 할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이제 그러한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말한 여러 반란세력 가운데서 주목되는 세력들은 대부분이 신라의 외곽지대인 경기, 강원, 충청, 전라도 지방에서 활약하였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이들 외곽지대는 이 때에 이미 신라의 통치력이 완전히 상실된 반면, 과거에 원신라(原新羅)의 영토였던 경상도 지방에서는 약간이나마 신라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기한 반란세력의 활동이 신라의 외곽지대가 중심이 되었던 좀더 중요한 원인을 찾아보면 이들 경기, 강원, 충청도, 전라도지방은 과거 중기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의 영토였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 고구려 백제의 판도였던 이들 외곽지대의 주민구성은 당연히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고구려 백제의 전통이 농후하게 잔존하고 있었던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후백제의 영토가 과거 백제의 영토와 대체로 일치하며, 태봉의 영토가 대부분 과거 고구려의 영토 내에 성립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견훤이나 궁예가 백제나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고 후백제(後百濟)와 후고려(後高麗)를 건국한 사실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때에 경기, 강원도 이북지방에서는 고구려 부흥의 기운이, 전라도 및 충남지방에서는 백제 부흥의 기운이 강력하게 유행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들 지방에서는 어떠한 문제보다도 백제나 고구려의 부흥 표방이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고구려 유민이나 백제 유민이 신라정부의 차별대우와 실정에 대하여 품고 있는 반감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이 견훤과 궁예로 하여금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을 표방하고 후백제와 후고려(태봉)를 건국하게 한 것이다.

이제 견훤의 백제부흥 표방과 궁예의 고구려부흥 표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즉 효공

왕(孝恭王) 4년(900)에 견훤이 무진주(武珍州 : 광주)로부터 서순(西巡)하여 완산주(完山州 : 전주)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므로 이를 기뻐하여 견훤은 측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백제의 부흥과 신라에 대한 복수를 표방하고 후백제왕(後百濟王)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우리 삼한(三韓) 시초에 마한(馬韓)이 먼저 일어난 뒤에 혁거세(赫居世)가 발흥하였으므로 진한(辰韓), 변한(卞韓)이 이에 따라 일어났으며 이에 백제(百濟)가 금마산(金馬山)에 건국하여 600년이 되었던바 총장(總章) 가운데 당(唐)나라 고종(高宗)이 신라(新羅)의 청에 따라 장군 소정방(蘇定方)을 보내어 수군(水軍) 13만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오니 신라의 김유신(金庾信)은 땅을 휘말아 황산(黃山)을 지나 사비(泗沘)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백제를 쳐서 멸망시켰던바 이제 내가 어찌 완산(完山)에 도읍(都邑)을 세워 의자왕(義慈王)의 분함을 풀지 아니하랴?"

한편 궁예 또한 이듬해인 효공왕(孝恭王) 5년(901),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역시 고구려의 부흥과 신라에 대한 복수를 표방하였다.

"옛날에 신라가 당(唐)나라에서 군사를 청하여다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므로 평양(平壤) 옛 서울이 무성한 풀로 가득하게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으리라."

궁예는 그러면서 후고려왕(後高麗王)이라 칭하였는데 이러한 내면에는 신라에 대한 적개심이 내포되어 있었다. 예컨대 일찍이 궁예가 남쪽지방으로 순행할 때 흥주(興州 : 榮州) 부석사(浮石寺)에 있는 신라왕의 벽화를 보고 칼을 빼어 친 일이 있고, 또 국인(國人)으로 하여금 신라를 멸도(滅都)라 부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에서 항복해 오는 자는 모조리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백제의 계승을 주장하는 견훤의 세력과 고구려의 계승을 주장하는 궁예의 세력이 성립함으로써 이로부터 약 50년에 걸친 한국사상 최대의 내란기인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가 전개되었다.

제2절 후백제(後百濟)와 함평

견훤은 통일신라 말기 전라도 서남지방 방술군(防戍軍)의 비장(裨將)이었다. 당시 신라 사회는 정치적 영향력의 부재로 인해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견훤은 큰 뜻을 품고 무리를 모아 서남지방의 주현(州縣)을 쳐서 세력을 확장시켰다. 각지의 호응을 얻어 몇 달 사이 군사 5천이 되었고, 진성여왕 6년(892)에는 무진주(武珍州 : 광주)를 점령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어 서남지방 각지의 호응을 얻어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의 대부분을 점유하였다. 그리고 효공왕 4년(900)에는 마침내 완산주(完山州 : 전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부흥과 신라의 타도를 표방하면서 정식으로 후백제왕을 자칭하고 관직(官職)을 설치하니 이에 국가의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고 남중국의 오월(吳越)과 친교를 가졌다. 이 때 우리 함평지역도 견훤에게 점거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리하여 후백제의 판도는 한 때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경상도의 서부까지 손을 뻗쳤었다. 대체로 충청남도의 중부선에서는 태봉(泰封 : 고려)과 대치하고 남쪽에서는 전라남도의 서남부에서 왕건의 수군과 다투고 있었으며, 동쪽에서는 상주(尙州) 합천(陜川) 진주(晉州)를 잇는 선을 전선으로 하여 한 때는 안동(安東) 영천(永川) 경주(慶州) 등지까지 깊숙이 진출하기도 하였다.

견훤은 본래 상주(尙州)의 가은현(加恩縣) 사람으로 성은 이씨(李氏)였는데 후에 견씨(甄氏)로 바꾸었고, 그의 아버지 아자개(阿慈介)는 농사꾼이다가 가세(家勢)를 일으켜 장군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다음의 「이제가기(李磾家記)」의 내용에 따르면, 아자개는 중앙 귀족이었다가 상주지방으로 나가 호족이 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진흥대왕의 비 사도(思刀)의 시호(諡號)는 백성부인(白誠婦人)이니 그의 셋째 아들 구륜공(仇輪公)의 아들인 파진간(波珍干) 선품(善品)의 각간(角干) 작진(酌珍)이 왕교파리(王咬巴里)를 아내로 맞아 각간(角干) 원선(元善)을 낳으니 이가 바로 아자개(阿慈介)다. 아자개의 제1처(妻)는 상원부인(上原婦人), 제2처(妻)는 남원부인(南原婦人)이며 남원부인이 5남1녀를 낳았다. 장자는 상부 훤(萱)이요, 차자는 장군 능애(能哀), 삼자는 장군 용개(龍盖), 사자는 보개(寶盖), 오자는 장군 소개(小盖)며, 1녀는 대주도금(大主刀金)이다."

한편 『삼국유사(三國遺事)』 견훤조(甄萱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있어 견훤의 탄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유추해볼 수 있게 해 주목된다.

"옛날 한 부자가 광주(光州)의 북촌(北村)에 살았는데 딸이 하나 있어 단정하였다. 딸이 그의 부친에게 이르되 매양 밤이 되면 붉은색(紫色) 옷을 입은 남자가 침실에 와서 교혼(交婚)한다고 함에 그의 부친이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찔러두라 하였다. 딸이 그렇게 실행한 이튿날 실을 따라 찾아가 보니 북쪽 담 아래 큰 지렁이의 허리에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 후 사내아이를 낳으니 나이 15세에 자칭 견훤(甄萱)이라 하였다."

앞의 기록 내용은 이씨(李氏)를 견씨(甄氏)로 바꾼 신화적 사례며 견훤의 어머니 집안이 본디 광주지방(光州地方)의 토착 호족(豪族)이 아니었나를 추측케 한다. 견훤은 모친의 세력을 등에 업고 기반을 닦아 농정위주의 사회였던 당시 호남의 곡창지대를 장악함으로써 후삼국 가운데에서 한때 가장 강성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제3절 태봉국(泰封國)과 함평

1. 태봉국의 성립과 멸망

궁예는 처음 세달사(世達寺 : 榮州 浮石寺)의 중이 되어 이름을 선종(善宗)이라 하였는데 자라나면서 승률(僧律)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담기(膽氣)가 있었다. 그는 세상이 소란하여지자, 「어지러움을 틈타서 무리를 모으면 뜻을 이룰 수 있겠다」 하고 진성여왕 5년(891)에 죽주(竹州 : 安

城의 竹山)의 반란군 두목 기훤(箕萱)에게 투신(投身)하였다. 그러다 기훤(箕萱)이 거만하여 함부로 대하므로 이에 불만을 품은 궁예는 기훤의 부하인 원회(元會)와 신선(申渲) 등과 함께 다시 북원(北原 : 原州)의 반란군 두목 양길(梁吉)에게 투항하였다.

양길은 궁예를 우대하여 일을 맡기었으며 드디어 군사를 나누어 북원 동쪽의 땅을 공략케 하였다. 이에 궁예는 양길 휘하의 군사 100여 기(騎)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나아가 치악산 석남사(石南寺)에 본부를 두고 주천(酒泉 : 영월군 주천면), 나성(柰城 : 영월), 울오(鬱烏 : 평창), 어진(御珍 : 정선) 등 10여 군현(郡縣)을 습격하여 이를 모두 점령하였다. 그리고 진성여왕 8년(894)에는 명주(溟州 : 강릉)에 들어갔다. 이 때에 궁예의 세력은 이미 군사의 수가 3,500명이나 되는 큰 세력으로 성장되어 있었는데 그는 이를 14대(隊)로 나누어 편성하고 부장들로 하여금 통솔케 하였다. 그는 또 사졸(士卒)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주고 뺏는 데에 있어서도 공평무사하였으므로 모두가 존경하고 아끼어 장군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궁예는 강릉으로부터 해안을 끼고 북상하며 각 군현을 점령하고, 다시 영서(嶺西)로 넘어와 저족(猪足 : 인제), 성천(猩川 : 화천), 부약(夫若 : 김화), 금성(金城 : 김화의 금성), 철원(鐵圓 : 鐵原) 등 10여 군현을 점령하고 철원에 도읍(都邑)을 정하였다. 이에 궁예의 위세가 사방에 떨치어져서 패서(浿西 : 황해도)의 적구(賊寇) 등 각지의 세력이 많이 항복하여 오게 되었다. 궁예는 세력이 커졌으므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될 만하다 하고 진성여왕 9년(895)에 비로소 내외의 관직을 설치하여 국가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송악군(松岳郡 : 개성)의 대호족(大豪族)인 왕건(王建)의 부자(父子)가 귀순하여 왔으며 이어 승령(僧嶺 : 漣川의 朔寧)과 임강(臨江 : 長湍)을 점령하였다. 진성여왕 11년(897)에는 인물(仁物 : 德水), 공암(孔巖 : 김포의 陽川), 검포(黔浦 : 金浦), 혈구(穴口 : 강화) 등을 점유하고 효공왕(孝恭王) 2년(898)에는 서울을 송악군(松岳郡)으로 옮기고 양주(楊州)와 견주(見州 : 양주의 일부)를 쳤다.

그런데 이 때에 과거 궁예의 주인이었던 양길은 아직 북원에 웅거하여 국원(國原 : 충주) 등 30여 성의 정병으로 궁예를 습격하려고 진군하므로 궁예가 이를 먼저 쳐서 크게 격파하였다. 그리고 효공왕 4년(900)에는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당성(唐城 : 남양), 괴양(槐壤 : 괴산) 등 군현을 점령하니 이제 궁예의 세력은 강원, 경기, 황해, 충청북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세력이 되었다.

이에 궁예는 효공왕 5년(901) 고구려의 부흥과 신라의 타도를 표방하며 왕위에 나아가 국호를 후고려(後高麗)라 하고 스스로 왕을 칭하니 이로부터 국가의 기초가 확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궁예는 국력이 더욱 강화되자 효공왕 8년(904)에는 국호(國號)를 마진(摩震)으로 고치고 연호(年號)를 무태(武泰)로 정하였다. 또 정부 관제를 정하였는데 국사(國事)를 총리하는 관청으로는 광평성(廣評省)을 설치하고 그 책임자로 광치나(匡治奈 : 뒤의 侍中 즉 首相)를 비롯하여 서서(徐書 : 뒤의 侍郎) 등의 관직을 두는가 하면 그 밑에 실무 부서를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당당한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효공왕 9년(905)에는 서울을 다시 철원으로 옮기고 연호를 성책(聖冊)으로 고쳤으며, 효공왕 15년(911)에는 국호를 다시 태봉(泰封),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로, 또 신덕왕(神德王) 3년(914)에는 연호를 정개(政開)로 고쳤다.

이 후 궁예는 휘하의 장군 왕건(王建) 등을 보내어 각지를 공략케 하여 강원, 경기, 황해, 충

청북도의 지역 전부 이외에도 평안남도 일부, 충청남도의 북부 및 경상북도의 서북부, 그리고 전라남도의 서부와 남부를 점령하여 당시 후삼국 판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최대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궁예는 출생부터가 불운하였다. 그는 신라 왕자로 태어났으면서도 망명하며 지방에서 숨어 살게 되었다. 또 피신하는 북새통에 한 눈까지 멀게 되었다. 그 생활은 유모가 노동하여 기르는 형편이었으므로 고생스러운 인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궁예의 성격이 반사회적이고 파괴적인 경향을 띠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출가하여 중이 되었으면서도 승려로서의 근검한 생활과 교리의 연구 같은 데에는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율 같은 것은 무시하는 등 삐뚤어진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왕건(王建)이 염해현(厭海縣 : 지금의 신안군 압해면)의 적수(賊帥) 능창(能昌)을 잡아 보내자 크게 기뻐하여 능창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해적들이 모두 너를 추천하여 영웅이라 한다는데 이제 포로가 되었으니 어찌 나의 귀신 같은 계산이 아니겠느냐?"하고 사람들에게 구경시킨 후 목을 베게 한 것을 보면 그는 한 개의 속된 인간이었다. 더욱이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신라를 멸도(滅都)라 부르게 하고 신라로부터 항복해 오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게 한 데에 이르러서는 그는 난세를 수습하고 평화를 이룩할만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처음에 정치적인 필요에 의하여 고구려의 부흥과 계승을 표방하고 국호도 후고려(後高麗)라 하였으나 그의 세력이 확대되고 국가의 기반이 확고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후고려라는 국호를 버렸다. 그리고 마진(摩震), 태봉(泰封)으로 고쳤는데 이것은 결국 '고구려의 부흥'이라는 국가적인 이상을 버리고 '궁예의 명예'라는 개인적인 욕망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것은 일종의 영웅주의(英雄主義)의 발로였던 것이다. 아마도 이 일을 계기로 하여 궁예는 민심을 잃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궁예의 영웅주의는 자신의 과시욕으로 나타났으니 효공왕 9년(905)에 서울을 송악에서 다시 철원으로 옮기고 궁궐과 전각을 수리하는데 사치를 다하여 굉장하게 꾸민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영웅주의가 심해지자 그것은 또 일종의 과대망상증까지 나타내게 되었다. 그는 자기를 '미륵불(彌勒佛)'이라 칭하고 그의 큰 아들을 '청광보살(靑光菩薩)', 작은 아들을 '신광보살(神光菩薩)'이라고 하였으며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머리싸개를 쓰고 몸에는 방포(方袍)를 입고 외출할 때에는 백마(白馬)를 타고 채단으로써 그 갈기와 꼬리를 장식하였으며 동남동녀(童男童女)로 하여금 번개(幡蓋)와 향화(香花)를 받들어 앞장서게 하고 승려 200여 명으로 하여금 범패(梵唄)를 부르며 뒤따르게 하였다.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의 이상한 행동이 점점 심해져서 포학한 짓까지 하게 되었다. 즉 그는 의심증이 생겨서 915년에는 그의 부인 강씨(康氏)가 다른 사람과 간통하였다 하고 강씨와 그의 두 아들을 죽였다. 이후 점점 의심증이 심하여져서 문무관료(文武官僚)에서 평민(平民)에 이르기까지 반역죄를 씌워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가 빈번하게 생기게 되었으며 어떤 때에는 그 수가 하루에 100명이 되는 날도 있었다. 이리하여 궁예의 신하와 백성들은 두려워서 불안에 싸이게 되었다. 게다가 그의 사치와 낭비로 말미암아 세금과 부역이 과중하게 되어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상하 모두가 궁예를 증오하게 되어 마침내 918년(경명왕 2) 홍유

(洪儒), 배현경(裵玄慶),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 등 부하들에 의하여 축출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궁예는 뜻을 세운지 28년, 왕으로서의 18년 만에 몰락하였으며 그가 세운 태봉국(泰封國)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2. 영산강 유역을 장악한 왕건(王建)

궁예의 뒤를 이어 북방의 왕자(王者)로 추대된 것은 왕건(王建)이었다. 진성여왕 10년(896) 왕건의 부자가 궁예에게 귀순하자 궁예는 왕건의 아버지 용건(龍建)을 금성(金城 : 金化) 태수(太守)에 임명하고 왕건은 약관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장군(將軍)으로 등용하여 육해(陸海) 양면으로 여러 번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싸우게 하였다. 그리하여 왕건은 효공왕 2년(898)에 양주와 견주를 공격하고, 2년 뒤인 900년에는 광주(廣州) 충주 청주 및 당성 괴양 등의 군현을 공격하여 이를 모두 점령하는 등 육전에서도 수 삼차의 전공을 세웠으나 왕건의 중요한 활동은 대부분이 수군활동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것은 왕건이 해상활동가 집안의 출신으로서 이를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즉 왕건은 효공왕 7년(903)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에서 전라남도 해안으로 나아가 금성군(錦城郡 : 나주) 등 10여 군현(郡縣)을 쳐서 점령하고, 909년에는 진도(珍島)와 고이도성(皐夷島城 : 현 신안군 압해면 고이도)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이듬해는 견훤이 친히 거느린 수륙 정병(精兵)을 덕진포에서 크게 격파하고 수 십 군현을 점령함으로서 이 곳의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왕건은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치어 수군을 거느리고 전라남도 지방으로 출정하여 혹은 이 지방의 군현을 점령하고, 혹은 직접 견훤과 싸워 이를 격파시킴으로써 후백제의 세력을 꺾는 등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왕건이 수군을 거느리고 나주지방을 공략한 것은 단순히 나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군현을 점령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써 후백제의 배후를 위협 교란하여 후백제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는 곧 북(北)으로는 태봉(泰封)에 대한 공격을 약화시키고 동(東)으로는 미약한 신라(新羅)를 후백제가 병탄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이며, 또 서남(西南) 쪽으로는 해상(海上)을 봉쇄함으로써 후백제의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에 대한 외교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왕건은 전라남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쪽의 점령 군현을 근거로 하고 해안을 따라 경상남도 해안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는 뒷날 육지로 낙동강을 끼고 남하하는 고려의 세력과 강주(康州 : 晉州)에서 연락함으로써 후백제를 포위하는 성과를 올리고 마침내 후백제를 타도하고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군웅활거의 시대에 우리 함평은 어떠했을까?

후백제 견훤의 영역 하에 있었던 우리 함평지역은 그러나 효공왕 7년(903)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안을 타고 남하한 왕건이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와 나주를 비롯한 인근 10여 군현(郡縣)을 쳐서 점령하게 되었고, 이어 909년에는 진도(珍島)와 고이도성이 점령됨으로서 환란의 파장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긴 세월동안 전란의 와중에서 살았음도 확실하다. 다시 말하면 왕건이 나주를 비롯한 인근 수십 군현을 점령할 때 우리 함평지역도 그들 군현 가운데 포함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영산강 유역에서 벌어졌던 큰 전투 가운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909년 왕건이 수군을 거느리고 무주(광주) 염해현(鹽海縣 : 현 신안군 압해면 일대인 듯 함)에 이르러 견훤군이 오월(吳越)로 보내는 배를 나포하여 돌아오니 궁예가 매우 기뻐하고 다시 왕건으로 하여금 전함들을 정주(貞州 : 현 경기 풍덕)에서 수리케 한 다음 알찬(閼粲)인 종희(宗希)와 김언(金言)을 부장으로 출병하였으며 군사의 수효는 2,500여명이었다. 진도군(珍島郡)을 쳐 빼앗고 전진하여 고이도(皐夷島 : 현 신안군 압해면 古耳島)에 이르니 성중(城中)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의 위용을 보고 항복하였다."

"910년 왕건이 나주포(羅州浦 : 현 나주시 동강면 몽송마을 앞인 듯함)에 이르니 견훤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전함을 배열하니 목포로부터 덕진포(德津浦 : 현 영암군 덕진면)에 이르기까지 잇대어 있고 종횡하여 병세(兵勢)가 자못 충천하여 있어 여러 장수들이 크게 근심하였다. 왕건이 말하기를 '근심할 것 없다. 싸움에 이기는 것은 화합하는데 있는 것이지 수가 많은데 있지 않다'며 독전하였고, 때마침 견훤군 쪽으로 바람이 불므로 화공법을 써 내리치니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는 등 500여 군사를 잃었고 그 자신은 간신히 작은 배를 타고 도주하였다."

"반남포(潘南浦)에 이르기 전에 적정을 살피기 위해 헤엄 잘 치는 장정 10여 명을 선발해 건너가게 하였다. 캄캄한 밤을 틈타 압해도의 해적 능창(能昌)이 흩어진 견훤의 군사를 모으고 있었다. 척후병에게 사로잡힌 능창이 왕건에게 인도 되었고 그는 효수되었으며 반남포도 무사히 함락되었다."

한편 몽탄강 전설에서는 두대산(頭台山)에 이엉을 둘러 노적처럼 보이게 하고 몽탄강의 지류인 파군천(破軍川)에 횟가루를 뿌려 쌀뜨물과 흡사하게 하여 이곳에 견훤군을 유인 매복한 병사로 하여금 치게 하여 승리하였으며 이러한 전법은 꿈에 신인(神人)이 알려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의 내용으로 보아 반남포는 원래 견훤의 휘하에 있었으나 덕진포 해전에서 왕건의 점령지가 되었고, 지금의 신안군 일대의 도서지역에서 활동하였던 해적들까지도 견훤의 편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왕건이 903년 나주를 점령하고 돌아간 다음 영산강 일대는 다시 견훤의 수군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견훤은 목포와 덕진포를 잇는 선에서 나주를 해상 봉쇄한다는 작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남포까지를 다시 왕건이 점령함으로써 해상 봉쇄의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

궁예는 왕건의 이러한 성과와 이전의 공을 높이 찬양하여 건화(乾化) 3년(912) 파진찬겸 시중(波珍粲兼侍中)으로 직(職)을 높여 왕건을 중앙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경직(京職)으로 그가 떠난 후 견훤군의 압력이 다시 가중됨으로 정개(政開) 1년(914) 함대 사령관이 되어 2천 병력을 거느리고 다시 출병 작전을 마치고 돌아갔다.

왕건이 귀경했을 때는 궁예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었고, 왕건이 떠난 나주지방은 견훤군의 침입을 받으니 이를 구실삼아 왕건은 재래의 병선(兵船)에다 새 전함 100여 척과 대선(大船) 10여 척을 추가하여 3천군으로 출병하였는데 큰 배의 크기는 방(方)이 16보(步)나 되었고 그 위에 망루를 세워 위용을 갖추었다.

한편 이상옥(李相玉)이 지은 설화 『한국의 역사』에 기술된 곡강(曲江 : 학교면 월호리 망월동 앞의 영산강 중류를 고려 때 부르던 이름)으로부터 사호강(沙湖江 : 곡강에서 현 몽탄강까지에 이르는 영산강 중류를 말함)에서 벌어진 수십 차례의 밀고 밀리는 왕건과 견훤군의 전투상황은

우리의 가슴을 놀라게 하고 있다. 나주군 반남면(潘南面) 대안(大安), 신촌(新村), 흥덕리(興德里) 일대에서는 지금도 견훤군과 왕건군이 싸울 때 썼던 화살촉 등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상과 같이 후백제와 태봉국이 영산강 유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혈전에 혈전을 거듭하게 된 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백제의 배후를 위협 교란하여 후백제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고, 또는 북으로는 태봉(泰封)에 대한 공격을 약화시키고 동쪽으로는 미약한 신라(新羅)를 후백제가 병탄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이었으며, 서남쪽으로는 해상(海上)을 봉쇄함으로써 후백제의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에 대한 외교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곳 일대가 아마도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왕건과 견훤군의 밀고 밀리는 여러 전투는 당시 힘없는 백성들의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극도의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함평지역민들이 역사상 가장 수난을 겪었던 시기였던 것으로도 여겨진다.

어쨌든 우리 함평지역은 918년으로부터 고려의 영토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의 영속하에 놓인 이후로는 견훤군의 힘이 극히 미약해져 영산강 유역은 다시 평온을 되찾고 급기야 936년 후백제가 종언을 고하게 되고 신라 또한 자진 항복함으로 해서 고려 통일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3. 서군교(誓軍橋)와 파군교(破軍橋)

서군교(誓軍橋)는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에 있는 다리로 지금은 삼덕교(三德橋)라 부른다. 그리고 파군교(破軍橋)는 무안군 몽탄면 소재지에서 일로읍 쪽으로 약 4Km 가량 가다보면 청룡리 당호제(唐湖堤)가 나오는데 바로 당호저수지 위를 가로지른 몽탄~일로간의 길목에 있는 다리를 말한다. 옛날 이 다리는 나무다리였으나 이곳에 저수지가 생기던 1974년 시멘트 다리로 크게 만들었다.

당호저수지가 축조되기 전 이곳은 박곡천(朴谷川) 또는 파군천(破軍川)이라 했으며, 파군천이라 부르게 된 유래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두 가지의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이는 몽탄강(夢灘江) 지명 전설과 함께 전해오는 것으로 그 가운데 하나는 이곳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김해김씨(金海金氏) 가문에 전해오는 것으로 「김유신(金庾信) 장군이 백제(百濟)의 잔당을 격파한 곳」이라는 전설이고, 다른 하나는「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910년 후백제의 견훤군(甄萱軍)을 대파한 곳」이라는 것이다.

무안군의 옛 군지(郡誌)에서는 다음과 같이 왕건에 관한 전설만 수록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파군교(破軍橋)는 박곡(朴谷)에 있으며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견훤군(甄萱軍)을 맞아 대파시킨 곳으로 이에 붙여진 이름이다(破軍橋 在朴谷方麗太祖邀甄萱軍鏖擊大破故仍名焉」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1981년에 간행한 무안군의『내고장전통가꾸기』에서도 「김해김씨들은 김유신 장군이 백제 잔당을 격파한 곳이라고 말하나, 이는 왕건이 견훤군을 대파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전제하고 몽탄강 전설을 인용, 상세하게 왕건의 행적을 들고 있다.

어쨌든 김해김씨 가문에서 전해오는 전설처럼 이곳에서 백제군(百濟軍)이 나당연합군(羅唐聯

合軍)에 쫓겨 격파되었다면 그 시기는 636년으로 백제의 정규군이 아니라 왕은 당나라로 잡혀간 뒤 각처에서 일어났던 부흥군(復興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지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다리 곁에 있는 산은 대둔산(해발 145m)으로 전쟁 때 이엉을 입혀 노적으로 보이게 했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파군교에서 일로읍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장묻재'라는 지명이 있다. 이곳에 옛날 '고총(古塚)'이 있었는데 장군이 무더기로 죽어 묻힌 무덤이라 하여 일제 때 호리꾼들의 출입이 잦았었다고 한다. 또 파군교에서 1Km 거리의 양장리(良將里)의 '장동(將洞)'이란 이름도 이곳 전설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호리(唐湖里)'도 당(唐)나라 군사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백제 부흥군은 주로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나당연합군과 싸운 기록들만 남아 있다. 다만 최후의 패잔 유민 1천여 명이 663년 9월 25일 구례성(求禮城)을 거쳐 섬진강 하구에서 일본(日本)으로 떠났다는 전남과의 관련 흔적이 보일 뿐이다.

한편 몽탄이란 지명은 고려 태조 왕건이 꿈에 선몽을 받고 건넌 여울이라 하여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설에 왕건이 후백제 견훤군에 쫓겨 나주 동강면 몽송에 이르러 지친 몸으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선인이 나타나 강이 말랐으니 빨리 건너 몸을 피하라고 잠을 깨웠다. 깨어나 강가에 이르니 강물이 말랐으므로 무안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고 그가 이 강물을 건너자 다시 물이 차 후백제군의 추격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곳 강폭은 700여 미터로 깊은 곳은 수심이 10미터에 달한다. 지금은 목포 하구언공사가 이뤄져 이 물목은 간만의 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전에는 물이 들고 나는데 따라 수심의 차가 2미터 이상씩 하루 네 번 바뀌었다. 사실로 왕건이 이 물목을 나룻배 없이 건넜다면 이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을 보인 곳이라 할 것이다. 어쨌든 전설은 왕건이 꿈을 꾼 곳은 몽송이요 꿈을 꾸고 건넌 마을은 몽탄이 되었다고 전해온다. 고려 태조 왕건이 궁예의 부하 장수로 있던 시절 전남에 온 것은 기록상 네 번이다. 맨 처음은 903년 3월로 후백제가 동북쪽에 세력을 뻗혀가고 있는 틈을 노려 배후인 나주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6년 뒤인 909년 그는 다시 고이도와 진도를 친 뒤 목포를 거쳐 덕진포로 들어가 반남을 치고 다시 나주에 입성했다. 세 번째가 912년 이었으며 네 번째가 914년인데 그는 이미 세 번째 나주에 왔을 때 나주부인(오달린의 딸 오씨)으로부터 첫아들 혜종(惠宗)을 얻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먼저 서군교와 파군교의 지명은 같은 시대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고, 서군교(誓軍橋)는 출발지며 파군교(破軍橋)는 승리를 쟁취한 곳이라는 점이다. 또 이들 두 지역은 역사적으로 전적지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서군교는 원래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 후에 썩게 되자 일명 '썩은 다리'라고도 불렸으며 1935년 신작로가 만들어지면서 콘크리트로 개설하였고 이름도 이때부터는 '삼덕교'라 바꿔 부르고 있다. 현재 서군교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이 삼덕교는 길이 15m, 폭 5m로 유허비가 있는 곳과는 약 30여 미터의 거리에 위치했다.

우리 함평의 서군교에 대해서는 옛 군지 등에서 어떤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1921년 4월 김유신 장군의 후손으로 신광면 유천리에 살던 김봉수(金鳳洙)가 <신라흥무왕서군교유

허비(新羅興武王誓軍橋遺墟碑)>라는 비를 세워 지금까지 볼 수 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2.2m, 폭 66Cm로 삼덕리에 거주하는 김길용(金吉龍) 소유지에 세워져 있었으나 지금은 삼덕교에서 신광면소재지로 들어가는 삼거리 좌측 도로변으로 이설되었다.

이 비문에는 흥무왕의 가계(家系)와 행적을 적고 전해오는 흥무왕의 기적을 적은 다음 지금까지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는 표적이 없어 한심하던 차 이 비를 세움으로 하여 만세 후손에게 잊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비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하자면 김유신 장군이 백제군을 칠 때 군사들이 서약한 다리목이 이곳이요, 마지막으로 백제군을 파한 곳이 무안군 몽탄면의 파군다리라는 것이다. 비문 일부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略-.唐將蘇定方滅百濟南征時夫餘之白馬江釣龍台扶安之來蘇寺遇金岩咸平之誓軍橋務安之罷軍橋也,傳人我興武王之奇蹟也,千有載滄桑之餘號一言表蹟豈不寒心哉今營立片石以記之如履覩誓軍之日也. -略- 有明朝鮮五十七世孫前參奉鳳洙均立謹記六十一世孫秉燮謹書辛酉四月日」

이 기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있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다. 김유신의 5만 대군은 금돌성(今突城)을 거쳐 탄현(炭峴)을 넘어 부여를 공격하였고, 백제 유민의 부흥운동에 의하여 661년에는 백제의 옛 성 거의가 부흥군의 세력 하에 있었고 663년 9월에는 문무왕(文武王)과 김유신이 백제 부흥군 토벌에 참여하였으나 우리 전남의 어느 고을도 주전장(主戰場)이 된바 없으며 후방 기지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주전장은 전라북도의 일부와 충청도 일원이었고 주류성(周留城) 싸움과 임존성(任存城) 싸움에서 결판이 나 백제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고 말았다.

어쨌든 무안군의 파군교와 왕건과 연결을 짓듯이 함평의 서군교도 왕건과 관련될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근거 자료를 찾아보았다.

먼저 서군교 서북쪽에 있는 함평의 주산(主山)인 군유산(郡遊山)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曾東國輿地勝覽)』에 '군니산(君尼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군니'는 임금과 관련된 뜻을 가진 말이다. 그리고 이 산에는 '마구청(馬廐廳)'이라는 이름을 가진 넓은 풀밭이 있고, '마구청'이라는 이름은 '말(馬)'을 돌보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 군유산 아래 마을인 '삼천동(三千洞 또는 三泉洞)'은 고려 군사 3천명이 주둔해서 삼천동이라 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이와 함께 극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풍부한 수량을 가진 샘 세 개가 있다고 해서 삼천동이라 했다는 설도 있다. 또한 삼천동에서 능선 하나를 넘으면 이웃한 손불면 북성리의 '차경'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은 서울이 될 뻔 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이곳 일대는 무안군 해제반도와 바로 지척의 거리다.

909년 진도(珍島)와 고이도(皐夷島)를 친 왕건의 2,500여 수군은 이듬해에서야 몽탄 앞 바다인 덕진포전투(德津浦戰鬪 : 파군교 전투)를 치렀으므로 적어도 반년이 넘는 기간을 전투 준비에 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서해 쪽의 군사 요충지인 군유산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병력의 일부 또는 거의를 함평의 군유산 일대에 상륙시켜 수륙전을 전개하기 위한 군대 조련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앞서 살핀 관련성 있는 지명 이외에도 군유산 속에는 '장군대(將軍台)'라는 지명이 전해오고 수많은 기왓장들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군유산 일대에서 군대 조련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 당시의 상황하에서 함평지역민들은 아마도 후백제 견훤의 편에 서기보다는 왕건의 편에 섰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함평은 나주와 이웃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주 태생이자 호족(豪族)이었던 다린군(多隣君)의 딸 오씨(吳氏)가 왕건의 부인이라는 점 등에서 지역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왕건은 군유산에서 보강한 육군과 수군의 일부를 조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삼천동 전설이 바로 왕건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조련을 마친 왕건의 군대가 서군교에서 서군(誓軍)을 마치고 남쪽으로 진격하여 박곡천(朴谷川)에 이르러 작전상 매복을 시키고 해제반도(海際半島) 쪽에서 목포로 출발한 수군이 견훤군을 박곡천으로 유인하여 수륙 양면전을 감행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군교 근처의 지명으로 삼덕리의 '건무산(建武山)', 월암리의 '군장산(軍藏山)' 등이 군(軍)과 관련을 갖고 있음도 이곳이 전적지임을 입증해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어쨌든 서군교와 무안의 파군교는 매우 관련성이 있는 이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단 시대와 인물의 차이는 꼭 밝혀져야 하며 앞으로 많은 자료가 나와 이를 규명하여 올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이다.



Contents

| 제1장 | 중앙관제(中央官制) *582*
집필 / 이명헌

| 제2장 |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평 *585*
집필 / 이명헌

| 제3장 | 지방군사 조직과 함평 *594*
집필 / 이명헌

| 제4장 | 재정(財政)과 농민의 부담 *595*
집필 / 이명헌

제5편 고려시대의 함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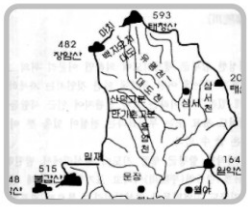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 제5장 | 조운(漕運)·역참제(驛站制)와 함평 *600*
집필 / 이명헌

| 제6장 | 외침과 함평 *612*
집필 / 이명헌

| 제7장 | 과거제도와 함평출신 급제자 *621*
집필 / 이명헌

| 제8장 | 고려시대의 유적과 유물 *623*
집필 / 이명헌

제1장 중앙관제



고려의 중앙관제는 건국초기부터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고려 건국 이후 60여 년이 지난 성종(成宗) 시대에 이르러서야 고려적(高麗的)인 관제(官制)의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태조 왕건이 왕위에 오른 후 취한 인사 조치에서 12개의 관명(官名)이 나오는데 그 관부(官府)와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개 관명(官名)

광평성(光評省) : 시중(侍中), 시랑(侍郎), 낭중(郎中), 원외랑(員外郎)의 관직이 있고, 문자 그대로 널리 평의(評議)하는 기관으로 유력한 지방호족들의 초고 출사(出仕) 기관이었다.

내봉성(內奉省) : 왕명을 받들어 행정(行政)을 실시함

순금부(徇軍部) : 군령을 담당하는 최고 통수부

병 부(兵 部) : 군정(軍政)을 장악하고 왕명을 이행함

창 부(倉 部) : 국가의 공적인 재정(財政)을 담당함

의형대(義刑台) : 형벌에 관한 일을 맡아 봄

도항사(都航司) : 수군(水軍)을 관장함

물장성(物藏省) : 공기(工技) 보장(寶藏)을 관장, 병기(兵器)관장 부처로도 봄

내천부(內泉部) : 궁중의 재화(財貨)를 관장함

백서성(白書省) : 후에 설립한 내서성(內書省)의 전신, 학문적인 업무를 담당

내 군(內 軍) : 의물(儀物)의 공급을 관장하고 왕의 시위를 담당함

내의성(內議省) : 유교의 정치 이상에 입각하여 정사(政事)를 논의하거나 간언

고려초기의 이러한 관부 가운데 광평성(廣評省)과 내봉성(內奉省), 그리고 내의성(內議省) 등은 중앙관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초기의 관부는 성종 1년(982)부터 여러 차례의 정비를 거쳐 성종 14년(995)에 상서도성(尙書都省)과 문사성(門史省 : 후에 中書省), 문하성(門下省) 등 3성(省)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상서도성에 6부(部)를 두어 3성 6부제(三省 六部制)가 되었으며, 이는 당(唐)나라의 관제를 모방한 것이었으나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당나라의 중서성(中書省)에서는 소칙을 작성하고 문하성에서는 이를 심의하고 상서성에서는 이를 집행하는 병립 관계였지만, 고려에서는 내사성(內史省)과 문하성(門下省)이 마치 하나의 성(省)처럼 운영되고 있어 정무(政務)를 수행하는 상하관계를 이루었다. 이후 7시(侍)를 설치함으로서 3성6부7시(三省六部七侍)의 관제가 되었고, 이들의 상호관계는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에 잘 나타나 있다.

재상(宰相)은 6부(部)를 통솔하고 6부는 시(寺), 감(監), 신(信), 고(庫)를 통솔했다. 고려에서 재상은 2품 이상의 고관인데 3성에서는 재신(宰臣)으로 칭해져 있다. 재신은 실질적으로 내사문하성만으로 한정되어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었다. 내사문하성에서는 재신과 다른 직무를 맡고 있는 성랑(省郎)이라 불리는 관직이 있었다.

□ 6부(部)

사부(史部) : 문관의 인사와 훈봉(勳俸)을 맡아 봄.
호부(戶部) : 호구, 조세(租稅), 화폐 등의 재정을 맡아 봄.
예부(禮部) : 의례, 제사, 외교, 교육, 과거 등의 일을 맡아 봄.
병부(兵部) : 무관의 인사, 군사(軍事)를 맡아 봄.
형부(刑部) : 재판, 감옥, 치안을 맡아 봄.
공부(工部) : 토목, 건축, 교통, 개간 등의 일을 맡아 봄.

위와 같은 6부에는 장관으로 상서(尙書)가 있고, 상서 위에 판사(判事)가 있어 판사직을 겸하는 내사문하성의 재신(宰臣)이 6부를 통솔하였다.

□ 7시(寺)

위위시(衛尉寺) : 의장(儀仗)을 맡아 봄.
태복시(太僕寺) : 궁중의 왕의 가마, 말 목장의 일을 맡아 봄.
예빈시(禮賓寺) : 빈객 영접.
사농시(司農寺) : 제사에 쓰이는 곡식과 적전(籍田)의 일을 맡아 봄.
대부시(大府寺) : 궁중의 재화(財貨)를 맡아 봄.
사재시(司宰寺) : 생선, 고기, 소금, 연료 등의 일을 맡아 봄.
사수시(司水寺) : 전함의 수리와 운수(運輸)에 대한 일을 맡아 봄.

□ 감(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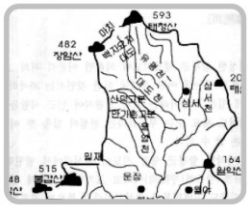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국자감(國子監) : 태조 이래의 교육기관인 경학(京學)을 개칭한 관청.
소부감(小府監) : 대궐안의 공예품과 보물을 맡아 봄.
군기감(軍器監) : 군기를 관장함.
사천감(司天監) : 천문을 관장함.
대의감(大醫監) : 의료를 관장함.

□ 고(庫)

전저창(典儲倉)
광흥창(廣興倉) : 벼슬아치들의 봉급을 맡아 봄.
요물창(料物倉) : 궁중의 미곡을 맡아 봄.
의염창(義鹽倉) : 소금을 관장함.
내 고(內 庫) : 임금의 물품을 맡아 봄.
가각고(架閣庫) : 궁중의 도서(圖書)와 전적(典籍)을 맡아 봄.

이밖에 특수 기관으로는 삼사(三司), 중추원(中樞院), 어사대(御史台), 예문관(禮文館), 사천대(司天台), 춘추관(春秋館) 등이 있었고, 의정(議政) 기관으로는 병마사(兵馬使=都堂)가 있었다.

제2장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평



제1절 12목(牧) 12주(州) 설치

우리 함평지방이 고려의 영역이 된 것은 고려가 건국한 918년 이전인 태봉국(泰封國) 때부터이다. 그리고 고려가 건국되면서부터는 전란의 와중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장성이나, 광산, 광주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까지 후백제의 영역이었다.

고려 초에는 서경(西京)과 안남(安南), 안동(安東), 등주(等州)와 몇 개의 진(鎭)을 제외하고는 일반의 주(州), 부(府), 군현(郡縣)에는 지방관을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은 그 지방의 향리(鄕吏) 계층이 다스렸고 그들에게는 일정한 직제가 있었는데, 성종 2년(983)에 12목(牧)을 설치하면서 향리들의 이름도 바뀌었다. 성종 2년의 12목 설치는 고려가 지방제도를 정비한 첫 걸음이었다.

12목이 설치된 곳은 양주(楊州),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진주(晋州), 상주(尙州), 전주(全州), 나주(羅州), 승주(昇州), 해주(海州), 황주(黃州) 등 모두'주(州)'자가 들어감으로서'12주(州)'라고도 한다.

12주는 당시에 있어서 지방행정의 거점이며 우리 전남지역을 살펴 볼 때 나주와 승주에 목이 설치되었다.

통일신라 때 9주의 하나였던 무주(武州)가 이 시기에는 격하되고 상대적으로 나주와 승주가 격상되게 된다. 이것은 아마도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있어서 나주가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무주는 936년까지 후백제의 영토로 존속하였던 까닭이 아닌가 여겨진다.

성종은 12목을 설치하면서 12목에는 처자를 거느리고 임지에 부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 함평은 나주목의 관할 하에 있었고 외임(外任)은 부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리(鄕吏)가 고을을 다스렸다고 본다. 앞서 12목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향리들의 이름도 바뀌어졌다고 하였는데 그 향직(鄕職)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안의 표기는 개정 이전의 명칭이다.

사호(司戶) — 호정(戶正) — 부호정(副戶正) — 사(史) → 총무,일반업무
(戶部) (郎中) (原外郎) (執事)
호장(戶長) — 부호장(副戶長) — 사병(司兵) — 병정(兵正) — 부병정(副兵正) — 병사(兵史) → 군사업무
(堂大等) (大等) (兵部) (兵部卿) (筵上) (維乃)
사창(司倉) — 창정(倉正) → 재정업무
(倉部) (倉部卿)

이들 향직들의 영향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는 대단하였으리라 믿는다. 그렇다고 이들 향직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위임하지는 않은 것 같다. '금유(今有)', '조장(租藏)'은 외읍에 심부름하던 자의 이름인데 국초(國初)부터 있었고, 성종 2년에 파(罷)했다는 기록은 금유와 조장이 중앙에서 파견된 조세 징수 담당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영향 또한 대단했으리라 믿는다.

징수된 조세는 전운사(轉運使)가 중앙으로 수송했으나 전운사는 상주관은 아니었다. 또 고을에 사심관(事審官)을 두었는데, 호장(戶長) 이하의 향직은 중앙에서 임명한 사심관의 감독을 받아야 했다. 사심에게는 호장 이하 향직에 대한 인사권까지 부여되어 있었다. 이로보아 호장은 중앙의 직접 통제를 받은 것 같다.

사심관은 태조 때부터 있었다. 그 수가 과다해지자 병폐가 생겼고 이를 막기 위하여 성종 15년(996) 정수(丁數)에 비례하는 정원제를 실시하였다. 백성의 선거에 의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단 민망(民望)은 적더라도 혁혁한 문벌에 한해서는 관의 추천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정수(丁數)에 의한 사심관의 정원수는 500정 이상일 경우 4명, 300정 이상 3명, 300정 이하 2명 등이다.

현종 9년(1018)에는 향리들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였고, 향직의 수를 제한하는 정원제를 실시하였으며, 문종 5년(1051)에는 향직의 승진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도 하였다.

<표> 향직(鄕職)의 정원(定員)

향직 \ 정수	1,000정 이상	500정 이상	300정 이상	100정 이상
호장(戶長)	8	7	5	4
부호장(副戶長)	4	2	2	1
병정(兵正), 부병정(副兵正)	각 2	각 2	각 2	각 1
창정(倉正), 부창정(副倉正)	각 2	각 2	각 2	각 1
사(史)	20	14	10	6
병(兵), 창사(倉史)	각 10	각 8	각 6	각 4
공수(公須), 식록사(食祿史)	각 6	각 4	각 4	각 3
객사사(客舍史), 약점사(藥店史), 옥사(獄史)	각 4	각 2	각 2	각 1

* 『나주군지(羅州郡誌)』에 의함

제2절　함풍현(咸豊縣)과 모평현(牟平縣)의 설치

성종 11년(992)에는 전국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 관(關), 역(驛), 강(江), 포(浦)의 이름을 고쳤다.

태조 23년(940)에 개칭된 것은 신라적이거나 백제적인 지방행정 체제를 명칭상으로 나마 고려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9주 5소경과 그 외 몇 지역만 바꾸었지만 이때는 광범위하게 이름을 고려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우리 함평지역에 있던 백제 때의 굴내현(屈乃縣)은 신라 조에 바꾼 함풍현(咸豊縣) 그대로 두었으나 백제 때 다지현(多只縣)은 신라 조에서 다기현(多岐縣), 고려조에서는 모평현(牟平縣)으로 바꾸었다. 고려시대에는 현 함평군 지역에 함풍현과 모평현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신라 때부터 내려온 영풍향(永豊鄕)과 다경부곡(多慶部曲)은 이때도 있었으리라 보아진다. 그러나 함평의 향과 부곡은 당시 나주목에 속해 있었다.

제3절　10도제(道制) 실시와 함평

성종 14년(995)에 10도제(道制)가 실시되고 동시에 12목(牧)이 절도사체제(節度使體制)로 개편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도제(道制)의 출현이다.

우리 역사상 행정구역을 일컫는 말로 '도(道)'라는 말이 이때부터 사용되었으며 후에 5도(道) 양계(兩界)를 거쳐 조선시대는 8도 13도로 바뀌는 변천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제도에 있어 기간(基幹)을 이루었다.

10도와 12목의 주(州) 그리고 관할구역을 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고, 함평은 이 가운데 해양도(海陽道)에 속했다.

10도제는 당(唐)의 제도에서 모방하였고 10도는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구획되었다. 도의 장관은 관찰사(觀察使)며 도의 구역을 순회하면서 감찰,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성종 2년에 설치되었던 12목에는 절도사(節度使)를 두는 절도사제로 개편하였는데 이는 행정적인 통치방법을 군사적으로 바꾸었음을 의미한다. 12목보다 작은 주(州)에는 7도 단련사(團練使), 11 단련사(團練使), 21 방어사(防禦使), 15 자사(刺使)가 설치되었다.

목종 8년(1005)에 다시 지방제도를 개편하였는데 지방관인 외관(外官)을 태감(汰減)하여 12절도사와 4도호부, 동서양계(東西兩界)의 방어진사(防禦鎭使), 현령(縣令), 진장(鎭將)만을 두고 관찰사, 도단련사, 단련사, 자사를 폐지하였다.

<표> 10도와 관할구역

도명(道名)	관할주, 현수	소속주 도호부명	관할구역(현재)	비 고
관서도(關西道)	29주 82현	양주(楊州), 광주(廣州), 황주(黃州), 해주(海州)	경기도, 황해도	적현(赤縣), 기현(畿縣) 제외
중원도(中原道)	13주 42현	충주(忠州), 청주(淸州)	충청북도	
하남도(河南道)	11주 34현	공주(公州)	충청남도	
강남도(江南道)	9주 43현	전주(全州)	전라북도	
해양도(海陽道)	14주 62현	안남도호부(靈巖),	전라남도	
	12주 48현	나주(羅州), 승주(昇州)		
영남도(嶺南道)	9주 35현	상주(尙州)	경상북도 일부	
영동도(嶺東道)	10주 37현	안동(安東)도호부	경상북도 일부	
산남도(山南道)	7주 62현	진주(晋州)	경상남도 일부	
삭방도(朔方道)	14주 4현 7진	안변(安邊)도호부	강원,함남 일부	
패서도(浿西道)		안북(安北)도호부	평안남북도	
계(計)	128주 449현 7진			

현종 3년(1012)에는 12절도사를 폐지하고 5도호부, 75안무사를 두었다. 이는 군사적인 면으로 지방조직을 개편했다는 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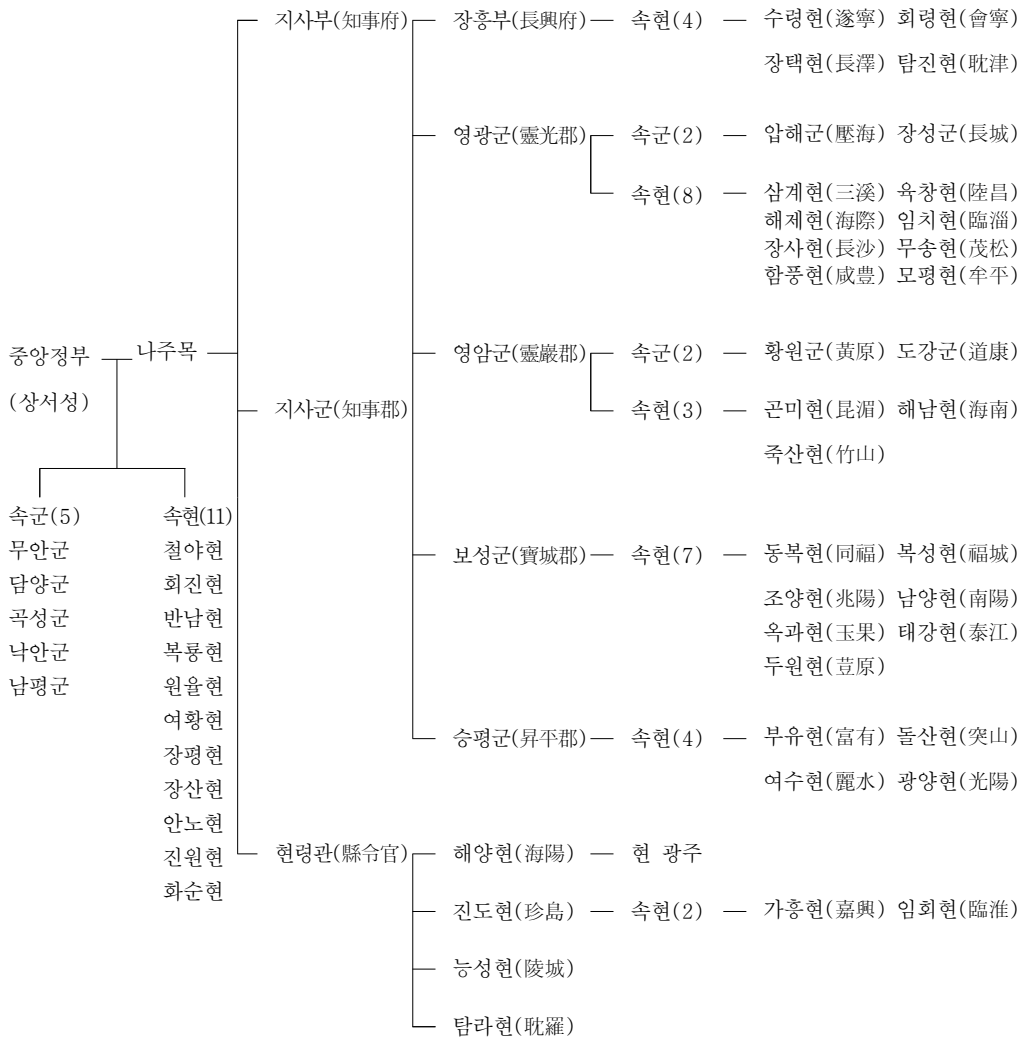
75안무사는 설치 6년 만에 폐지되고 현종 9년(1018)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4도호부, 8목, 56지주사, 28진장, 20현령을 두게 되었는데 4도호부는 안동, 안서, 안변, 안북을 말하며 8목은 광주, 충주, 청주, 진주, 상주, 나주, 황주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주, 군, 진, 현에는 중앙에서 지방관을 임명하였고 속군, 속현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우리 함평의 함풍현은 영광의 속현으로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관은 파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리들이 고을을 다스렸다.

현종 9년(1018)에 실시한 지방제도 개편 중 우리 전남지방 관계를 열거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1목(牧), 1부(府), 4령군(領郡), 9속군(屬郡), 4현령(縣令), 39속현(屬縣)으로 10명의 지방관(地方官)이 파견되었다.

여기서 하나 밝혀야 할 것은 옥산현(玉山縣)이다. 무안군의 옛 군지 고적조(古蹟條)에 '옥산현은 금동 쪽에 있었고 철성산조를 보라(玉山縣在金洞方見鐵城山條)'하였다. 그런데 철성산조(鐵城山條)에는 '남쪽의 일봉, 즉 옥녀봉 아래에 옥산현 터가 있으며 지금의 옥동이다(南粧出一峰峰卽玉女峰下有玉山縣遺址今玉洞)'라고 하였다.

성종 때 지방개편을 했을 때는 우리 전남에 62개의 현이 있었으나 현종 때 개편은 <도표>에서 보듯이 조금 줄었다.



옥산현은 현종 조 개편 이전에 있던 현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옥동에 현청(縣廳)이 있었다는 이 기록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옥산현은 해남군에 있는 옥동(玉洞)에 소재했다. 이는 『무안군지』 편찬자가 해남의 옥동을 함평의 옥동(玉洞)으로 잘못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함평의 옥동은 1914년까지 무안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무안군지』에 언급되어 있었던 것이다.

<도표>에서 보듯이 우리 전남지방에는 10개의 행정구역에는 외관이 파견되고 48개의 행정구역에는 외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전남의 거점인 나주목(羅州牧)에는 3품(品) 이상의 장관이 있었고, 그 밑에는 부사(副使)와 판관(判官), 사록(司錄), 장서기(掌書記), 법조(法曹), 의사(醫師), 문사(文師)가 있었다.

그리고 영군(領郡)인 지사부군(知事府郡)에는 5품(品) 이상의 장(長)과 그 밑에 부사와 판관이 있었으며, 현(縣)에는 7품의 장과 8품의 현위(縣尉)가 있었다.

앞서도 말했지만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의 지방행정 사무는 향리가 맡았다. 따라서 중앙의 명령이 지금의 함평에까지 이르는 데는 중앙정부의 상서성(尙書省)→ 나주목(羅州牧)→ 영광군(靈光郡)→ 함풍현(咸豊縣) 및 모평현(牟平縣)의 계통을 거쳤을 것이다.

제4절 안찰사(按察使) 제도 실시와 함평

10 도주목제(道州牧制)는 인종 대(재위연간 : 1123~1146)를 고비로 퇴거되고 안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안찰사제는 전국을 5도(道)로 나누고 그곳에 장관으로 안찰사를 파견하는 제도였다.

5도는 양광충청도(楊廣忠淸道), 경상진주도(慶尙晋州道), 전라주도(全羅州道), 서해도(西海道), 춘주도(春州道)를 말한다. 전라주도는 지금의 전주와 나주를 거점으로 한 전남 북 일대가 이에 해당되며 전라주도에도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1명의 안찰사가 파견되고 임기는 6개월로 봄, 여름과 가을, 겨울 두 때에 교체하였다.

안찰사는 3년을 임기로 주, 현에 보내진 외관과는 달랐다. 안찰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시 파견되는 봉사직(奉使職)이었다. 주, 군, 현의 밑에는 신라 때나 거의 다름없이 촌이 있었고, 촌의 우두머리로는 촌장(村長)과 촌정(村正)이 있었으며 이들은 일반 백성들을 직접 통솔하였다. 촌에는 자연 마을을 연상시키는 자연촌(自然村)과 몇 개의 자연 마을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지역촌(地域村)이 있었는데 촌장이 있는 고려의 촌은 지역촌이었다고 볼 수 있다. 촌의 우두머리를 촌장, 촌정으로 부른 것은 고려 초부터가 아니다.

성종 6년 9월에 여러 촌의 대감(大監)과 제감(弟監)을 촌장, 촌정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대감이니 제감이니 하는 말은 원래 신라 병부(兵部)의 시위부에 속하는 고급 무관의 직명이었다.

신라에서는 촌의 우두머리를 촌주(村主), 차촌주(次村主)라 불렀다. 그런데 고려 초에 촌의 우두머리를 대감, 제감이라 부른 것은 신라말 후삼국이 병립하면서 호족들이 장군이라고 스스로를 호칭할 때 대응하여 생긴 이름이라 볼 수 있다.

대감, 제감은 단순한 촌락의 지배가 아니라 촌민을 무장시켜 지휘하는 군사적 통솔자이기도 하였다. 대감, 제감이 촌장, 촌정으로 바뀐 것은 촌의 통솔자에게 군사적 성격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제5절 무인정권(武人政權) 대두와 함평의 감무설치

고려 제1, 제2의 도시인 개경과 서경을 크게 파괴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문벌중심 정치체제의 모순이 폭발한 결과였다. 묘청의 난이 김부식 일파에 의해 진압된 후 문벌체제의 정치적 경직성과 모순은 더욱 확대되어갔다. 그러한 가운데 차별대우로 불만이 고조되어있던 무신(武臣)들이 의종(毅宗) 24년(1170) 8월에 반란을 일으켰다. 군대의 통솔을 맡은 무신들이 일으킨 이 반란에는 고된 역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급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일반 군인들이 적극 가담하였다.

정중부(鄭仲夫) 등 무신들은 명종(明宗)을 옹립하고(1170)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이후 4반세기 동안 정치는 혼란 속에 빠졌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 함평지방은 정중부 등에 의해 추대 즉위한 명종 2년(1172), 함풍현과 모평현에 감무(監務)가 설치되어 고려시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게 되었다.

명종 3년(1173)부터 3년간에 걸쳐 김보당의 난, 조위총의 난, 귀법사 승려들의 난 등 무신정권을 전복하려는 문신세력 계열의 반란이 연이어 일어났고, 정치적 혼란 속에 지방민에 대한 수탈이 자행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민란도 빈발하였다.

무신정권 내부에서도 분쟁과 무력정변이 거듭 일어나 집권자인 무인집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초기의 무인정권에서는 무신들의 최고 회의기구인 중방(重房)을 통해서 통치함으로써 일반 무신들도 중방을 통해 무신정권에 참여하였고, 그만큼 무인집정의 권력에 도전하는 다른 무신세력들이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무신난 초에는 정중부·이의방·이고가 공동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1171년에 이고가 제거되고 1174년에는 이의방이 제거됨으로써 정중부가 단독으로 집권하게 되었다. 명종 9년(1179)에는 경대승이 그를 제거하고 집권하였으나 1183년 병사하였고, 그 후 이의민이 집권하였다.

명종 26년(1196)에는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집권하였다. 그의 집권기에도 정쟁이 있었으나 점차 정치적 혼란은 수습되었고, 이후 그의 후손인 최우(후에 崔怡로 개명)·최항·최의로 이어지는 최씨정권이 62년간 계속되었다.

집권 초 10개 조항의 정치개혁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은 최충헌은 정치개혁을 표방하면서 전반적인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는 무반의 최고직인 상장군과 문반의 최고 요직을 겸하고 인사권과 감찰권도 장악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이 옹립한 희종(熙宗)에 의해 진강후(晋康侯)로 책봉되었다.

최충헌은 기존의 정부기구들을 형식적으로만 기능하게 하고, 최고 집정기구인 교정도감을 새로이 설치하여 관리들에 대한 감찰을 비롯해 모든 정사를 총관하였다. 그는 이 기구의 수장인 교정별감이 되었고, 그 후의 무인집정들도 이를 물려받았다.

최씨 무신정권은 권력의 기반이 확립됨에 따라 사회 각 세력들에 대한 대응에도 변화를 보였다. 최충헌은 무력을 동원하여 도처에서 빈발하던 민란을 철저히 진압하였다. 처음부터 거듭 무신정권에 반기를 든 교종 계통의 사원들은 최씨정권의 억압으로 타격을 받았다. 한편 최씨

정권은 문벌체제 아래에서 빛을 보지 못한 선종 계열의 사원을 지원하고 그와 연결하려 하였다. 또한 최충헌은 무신집권 이후 취해져온 문인들에 대한 억제정책을 바꾸어, 그들을 등용함으로써 그 행정적인 능력을 활용하였다.

고종(高宗) 6년(1219) 최충헌이 사망한 후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최우가 집권하였다. 최우 집권기에는 무인집정의 통치기구가 더욱 정비되었다. 문무관리의 인사를 관장하는 기존의 이부·병부와 별도로 정방(政房)이 설치되어 무인집정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가 제도화되었다. 또한 최우는 문신들을 등용을 확대하고, 서방(書房)을 설치하여 재능 있는 문사들로 하여금 숙위(宿衛)하면서 정치적 자문을 담당하게 하였다.

최씨정권은 무인집정의 호위병인 사병을 크게 확대하였다. 초기 무인집정들이 신변의 호위를 위해 양성한 소규모 사병은 경대승 집권기에 좀더 조직화되어 도방(都房)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다가 폐지되었는데, 최충헌은 이를 대폭 확대하여 재건하고,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6번(六番)으로 교대하며 숙위하게 하였다. 그 후 도방은 더욱 확대되어, 최항 대에는 36번으로 교대하기에 이르렀다. 사병의 중추를 이룬 것은 무인집정들의 문객들이었는데, 최충헌의 경우는 문객이 3천명에 달했다고 한다. 문객들은 유력자와 사적인 주종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문·무의 재능으로 충성을 바치는 추종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권세가의 비호 아래 출세의 길을 열었다.

최우는 도방과 별도로 삼별초(三別抄)를 조직함으로써 병권도 완전히 장악하였다. 별초는 특수 선발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삼별초는 처음에 야별초(夜別抄)라는 이름의 치안유지 부대였다가 조직이 확대되어 삼별초로 된 것이다. 이들은 유명무실화한 기존 군대의 기능을 대신하였으며, 몽고군과의 항전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이들은 국고에서 녹봉을 받는 공적인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권이 무신정권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사병과 함께 무신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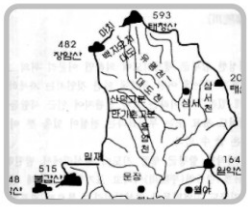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이와 같은 무신정권에 농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위협을 받았다. 즉 12세기 초 이래 토지겸병에 따른 수취의 증가, 빈번해진 이상기후에 따른 흉작, 전란 등은 기근을 불러왔고, 경제적 파탄으로 유망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무신난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그래서 하층민의 봉기는 무신정권 초부터 30년간 집중적으로 각지에서 발생하였다. 예컨대 명종 12년(1182) 수령의 탐학에 저항한 농민봉기가 충청도지역에서 있었는데, 같은 시기 전라도에서도 산발적인 지방민 봉기가 있었다. 무신집권기에 발생한 하층민들(양민·천민·종속구역민)의 봉기는 대부분 가혹한 수탈에 몰려 일어난 저항이었으나, 일부 봉기에서는 정권과 체제에 저항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최씨정권이 들어서면서 강력한 토벌로써 하층민들의 봉기를 억제하였으나,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 현저한 것은 종속구역민들의 변화였으니, 이들 구역에서는 주민의 이탈이 잇따랐다. 그리하여 890여 개에 달하던 종속구역이 12세기와 13세기를 거치는 동안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 남은 것들도 대부분 그 성격이 일반 군·현 또는 그 속의 일반 촌락과 같은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듯이 우리 함평지방에서도 공양왕 3년(1391), 종속구역이었던 영풍향

(永豊鄕)과 다경부곡(多慶部曲) 그리고 해제권농방축어사(海際權農防築禦使)를 함평현의 감무(監務)가 겸임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고려시대에는 양인층보다 하층에는 신분적으로 양인에 가까우면서도 천민과 같은 신분적 제약이 일부 가해진 향·소·부곡이나 역·진 등의 종속구역민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군·현의 주민과 달리 천시와 차별을 받았는데, 거주가 소속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문무 관직을 갖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제3장 지방군사 조직과 함평



고려건국 이후 초반기에는 지방호족들이 거의 독자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군대를 통솔하였다. 그러던 것이 광종~성종 대에 이르러 중앙정부기구의 개편과 함께 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가 점차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지방호족들 휘하의 군사력도 점차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정종 2년(947)에 거란의 침공에 대비하여 편성된 30만의 광군(光軍)은 지방호족세력들에 의해 조직되고 통솔된 지방 단위의 병력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각 지방에는 병부(兵部)라는 기구가 있어 지방 단위의 병력을 관장하였는데, 그 명칭은 중앙정부의 군관계 최고 관부명과 같았다. 성종 2년에는 그 병부가 사병(司兵)이라는 명칭으로 격하되었고, 성종 6년(987)에는 주·군의 무기가 수거되어 농기구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성종 14년경에는 6위(六衛)가 정비되어 중앙군 조직이 성립하였고, 그 후 2군(二軍)이 추가되었다. 2군 6위로 편성된 고려의 중앙군에는 1천명을 단위로 하는 45개의 영(領)이 있었다. 또한 현종 대에는 지방 단위의 광군(光軍)이 해체되어 주현군(州縣軍)으로 편성됨으로써 중앙군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당시 지방 단위의 광군은 지방호족들에 의해 징집되고 그들에 의하여 지휘되는 농민예비군편제(農民豫備軍編制)를 취했으며 중앙에 광군사(光軍司)가 있어 이를 통제하는 제도였다. 그러던 것이 현종 3년(1012)부터 9년(1018) 사이에 광군이 주현군으로 개편되면서 중앙군의 지휘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주현군에는 보승(保勝), 정용(精勇), 1·2·3품군(品軍)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군대다운 군대는 보승과 정용군이었고, 일품군은 전투나 방위의 목적이 아닌 공역(工役)을 위해 동원되었다. 그리고 2·3품군은 공역의 목적은 같지만 촌(村)에 부대조직이 있고, 촌의 촌장 또는 촌정의 지휘를 받아 통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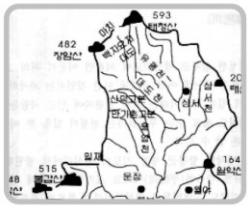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보승과 정용, 일품군은 주·군·현에 배속되었고, 보승과 정용군은 설치된 단위 행정구역의 장이 지휘를 맡았다. 그리고 1품군은 향리(鄕吏)가 지휘를 맡았다. 이는 명칭상 군대이지 일반 농민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함평지방에는 2·3품군만 있었다.

당시 전남지방의 주현군의 배속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주현군(州縣軍) 배속표

배속지명	보승	정용	1품	계
나주목(羅州牧)	454	848	922	2,224
영광(靈光)		401	368	769
보성(寶城)	322	412	513	1,247
승평(昇平=昇州)	240	184	415	839
계	1,016	1,845	2,218	5,079

제4장 재정(財政)과 농민의 부담



제1절 국가재정(國家財政)

1. 세제의 개편과 역분전(役分田)

고려 태조는 즉위 다음달에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태봉 때의 과중한 수취율을 3분의 1로 낮춘 십일세(什一稅)를 공포하였다.

이 세는 대다수의 농민을 포함한 농토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생산물의 10분의 1을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대상에게 내는 것이었다. 이 10분의 1 수취율은 둔전(屯田) 등의 국유지에 적용되는 4분의 1의 수취율과, 타인의 토지를 빌려 경작할 경우 적용되는 2분의 1의 수취율과 함께 토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는 고려시대로 들어오면서 토지를 기준으로 한 수취제가 확립되어 감을 의미한다.

토지를 기준으로 한 수취제는 토지의 휴한기간이 길고 불규칙한 단계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러한 수취제가 발달한 것은 농지의 휴한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농업기술이 보편화한 데 기인한다. 그에 따라 고려시대에는 논밭을 각각 2년 휴한, 1년 휴한, 연작(連作)하는 토지로 등급을 나누어 재역(再易), 일역(一易), 불역(不易)이라 하는 제도가 성립하였다.

새롭게 시행된 세제는 점차 정착되어갔다. 복속된 호족들이 지배하는 지역의 일부는 국가의 수취지로 접수되고, 그 나머지는 호족이나 호족출신 관리들에게 녹읍(祿邑)의 형태로 주어져 기득권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호족들의 녹읍에 대한 통제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일세와 같은 혁신적 제도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웠으므로, 중앙정부의 힘이 강하게 미치는 지역부터 시행되었다. 십일세가 공포된 후에도 농민들에 대한 과도한 수취가 계속되어 그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지방도 있었다. 중앙정부의 힘이 강화된 태조 17년(934)에 태조는 예산진(禮山鎭)에 행차하여 농민들에 대한 수취의 법적 한도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명하고 위반하는 자를 엄벌할 것을 선포하였다.

종전에는 지역 단위로 할당된 녹읍에서 높은 비율로 생산물이 수취되었고, 녹읍민의 역역(力役)이 징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녹읍에 대한 수취가 생산물의 10분의 1로 제한되는 변화는 사실상 녹읍제도 자체의 소멸과 수조지(收租地)제도로서의 이행을 의미하였다. 934년의 태조의 명령 이후 녹읍은 점차 사라졌고, 후삼국을 통일한 후인 940년에는 전결(田結)을 단위로 하여 수조지를 지급하는 역분전(役分田)제도가 시행되었다.

역분전제도는 통일을 이룬 후 신하와 군사들에게 공로 등에 따라 수조지를 지급한 것이었으

나, 지역 단위가 아니라 좀더 세분된 농지면적 단위로 수조지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경종 대에 처음 실시되는 전시과(田柴科)제도(976)의 선구가 되었다. 전시과제도가 성립한 이후에도 십일세는 중요한 세제로서 계속 시행되었다.

2. 전시과(田柴科) 제도

고려시대 초기에 호족출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녹읍은 역분전제도가 시행되면서 토지의 면적단위인 결(結)을 기초로 지급되는 수조지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경종 원년(976)에는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제도가 성립하였다. 호족출신들이 가졌던 지방 농민들의 농토에 대한 수조권은 일단 국가에 회수되는 형식을 거쳐 일부는 국가에 귀속되어 국고의 수입원으로 되고 일부는 직역자(職役者)들에게 전시과의 과전(科田)으로 지급되었다.

호족출신들이 고려 지배층의 주축으로 전환되고, 시정전시과가 그 지배층을 비롯한 직역자들에 대한 경제적 급부제도로 성립됨으로써, 시정전시과제도는 자연히 호족출신들의 기존 경제적 기반을 조정하여 이를 다시 분급해주는 의미를 지녔다. 시정전시과의 등급을 관품(官品)보다도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인품(人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수여한 것은 그러한 기득권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단 직역체제와 전시과제도가 성립한 후에는 신분과 함께 직역이 일반적으로 대를 이어 유지됨에 따라 목종(穆宗) 원년(998)에 개정된 전시과제도부터는 관직 내지 직역만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이 정해졌다.

전시과제도는 수조권의 대상이 되는 전지(田地)와 땔감 채취지인 시지(柴地)를 등급(科)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한 제도였다. 국유지 성격의 임야에 설정된 시지와 달리 수조권의 대상인 전지는 사유지였다. 전시과의 수조권은 토지의 이용, 매매, 상속, 기증 등의 제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민전(民田) 위에 설정되었다. 민전은 지배층도 소유하였으나 그 대부분은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백정 농민들이 대대로 상속받은 것이었다. 민전의 소유자는 생산물의 10분의 1을 국가에 내거나 국가가 지정한 수조권자에게 내야 했다. 자신의 소유지를 수조지로 할당받았을 경우는 그 수조액 만큼을 면제받았다. 전시과의 수조지들은, 징수된 조(租)가 국방상의 경비로 충당되는 양계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분급되었다.

전시과의 수조지의 경우는 대개 지방관에 의해 생산이 독려되고 조의 징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통제가 백정 농민들에게 가해졌다. 수조권자들에게는 소정의 권리증서가 수여되었고, 지역 내지 관인 신분이 세습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수조지 역시 세습적으로 보유되었다. 군인전(軍人田)의 경우는 군인의 직역과 함께 친속(親屬)에게 직접 승계되었다. 문무 관리들의 수조지도 대대로 이어지는 관인 신분과 함께 자손에게 승계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 때문에 영속적인 가업(家業)이라는 의미에서 영업전(永業田) 또는 조업전(祖業田)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수조권은 시초 단계에서부터 지배층의 기득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고, 국가의 공적 통제를 받는 가운데서도 사적 권리에 준하는 성격을 지녀 그 세습적 보유가 제도적으로 밑받침되고 있었다. 12세기 말 이후 수조지에 연계되어 있던 직역 봉사의 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유명무실해지자, 수조지의 사적 권리에 준하는 성격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배층과 연결된 수조권을 소유권보다 우위에 놓는 경향이 있었으니, 수조권

자를 전주(田主)라 하는 한편, 그 대상 토지의 소유자를 전객(佃客)이라 하였다. 피지배층인 농민들은 자신의 소유지를 경작하는 자영농이라 해도 전객으로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수조권적인 토지지배는 14세기 말 과전법(科田法)이 제정됨으로써 일차적으로 크게 축소되고, 그 후 직전법(職田法)을 거쳐 사실상 소멸되어 갔으나,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주축을 이룬 토지지배 방식이었다.

제2절 공해전시(公廨田柴)

공해전시는 관공서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전제(田制)로서 주·부·군·현과 향·부곡·역 등에 지급한 땅을 말하며, 성종 2년(983)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시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지급된 공해전시를 우리 함평지방과 관련 있는 것만 골라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주·부·군·현은 성종 2년 2월에 외관(外官)을 파견한 12목뿐만 아니라 당시 행정 단위였던 것은 모두 망라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100정 이하의 주지사(州知事)에도 60결을 지급하였지만 20정(丁) 이하의 주·현에까지 외관을 파견했을리 없고 특수 행정구역인 향·부곡·역까지 함께 씌어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함평은 당시에 함풍현과 모평현이 있었음은 이미 말한바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함평현(咸平縣 : 함풍+모평현)의 정수는 1,608정(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둘로 나누어 보면 800여 정이 된다. 성종 때 적어도 500여 정은 되었으리라고 볼 때 함풍현과 모평현에 지급된 공해전시를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지방(地方) 공해전시(公廨田柴)

구 분		행정구역의 크 기	지 급 토 지			공수시지 (公須柴地)	
			공수전 (公須田)	지전 (紙田)	장전 (長田)		
일 반 행정구역	주부군현 (州府郡縣)	1,000정 이상	300결			80결	단, 12목은 모두 100결. 지주사(知州事)는 모두 60결
		500정 이상	150결	15결	5결	60결	
		200정 이상				40결	
		100정 이상	70결	10결		40결	
		100정 이하	60결		4결	20결	
		60정 이하	40결			20결	
		30정 이하	20결			20결	
		20정 이하	10결	7결	3결	20결	
특 수 행정구역	향(鄕) 부곡(部曲)	1,000정 이상	20결				
		100정 이상	15결				
		50정 이하	10결	3결	2결		
	역(驛)	대로역(大路)	60결	5결	2결	50결	
		중로역(中路)	40결	2결	2결	30결	
		소로역(小路)	20결	2결		15결	

앞의 <표>에서 볼 때 일반 행정구역과 특수 행정구역과는 지급 수량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1,000정(丁) 이상인 주·부·군·현에는 공수전 300결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1,000정 이상인 향(鄕)과 부곡(部曲)에는 20결만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역(驛)의 경우는 대로(大路) 60결, 중로(中路) 40결, 소로(小路) 20결로 향과 부곡보다 더 많은 량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국가에서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비중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함평지역에는 소로역이 두 곳에 있었다. 함풍현의 가풍역(街豊驛)과 모평현의 덕수역(德樹驛)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가풍역은 조선시대에 가리역(加里驛)이라 불렸던 곳으로 지금의 신광면 가덕리에 있었다. 그리고 덕수역은 조선시대에 없어진 역으로서 확실한 위치는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나산면 구산리 내동(전 505번지와 대 508번지 일대)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들 역은 공수전 20결을 비롯하여 지전(紙田) 2결, 공수시(公須柴) 15결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영풍향과 다경부곡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100정은 되었을 것이고 나주에 소속되어 있어 15결의 공수전만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앞의 <표>에서 말하는 공수전은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방행정의 필요 경비로 충당했고, 외관이 파견된 곳에서는 녹봉(祿俸)에 해당하는 반액을 지급했다. 다시 말하면 반액 녹봉을 지급하고 난 잔여분으로 행정경비를 충당했던 것이다. 『고려사』 권80 식화지(食貨志) 3, 녹봉(祿俸) 외관록(外官錄)에,'좌창(左倉)에 반(半)을 지급하고 반은 외읍(外邑)에서 지급한다.'라는 기록에서 그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전(紙田)은 사무용 종이를 충당하기 위한 토질 종이 뿐 아니라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용구(用具)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장전(長田)은 호장(戶長)을 비롯하여 향장(鄕長), 부곡장(部曲長), 역장(驛長) 등에게 지급된 토지였다. 공수시(公須柴)는 대체로 공수전의 쓰임과 비슷하나 땔감, 토목공사에 필수적인 목재, 석재 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했을 것이다.

제3절　농민의 부담

고려시대 피지배층은 공민(公民)인 양인(良人) 중의 평민층, 공적·사적 권리의 일부가 박탈되어 어느 정도 천민(賤民)같이 대우받은 향·부곡 등의 종속구역민, 공민으로서의 자격이 완전히 박탈된 천민 등 세 가지 신분층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자유로운 신분인 양인의 대다수는 농민으로, 이들은 직역이 없는 백정(白丁)이었다. 이들은 자기 소유의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빌려 차경(借耕)하였다. 차경을 하는 경우 이들은 지주에게 수확물의 2분의 1을 지대로 물었으며,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더라도 조(租)로서 생산물의 10분의 1을 국가기관이나 전시과제도에 의해 지정된 수조권자(收租權者)에게 물어야 했다. 백정 농민들은 이외에도 지방별로 할당된 물품을 징수하는 공부(貢賦)

와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역(力役)을 부담해야 했다.

백정 농민층은 법제적으로는 과거시험 중 명경과(明經科)와 잡과(雜科)에 응시할 자격을 가졌고, 수조지를 받는 군인 등으로 선발될 수도 있었다. 한편 양인 수공업자와 상인들은 백정 농민보다 천시되어, 문무의 관직에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도 양인으로서 공부와 역역의 의무를 졌다.

양인층보다 하층에는 신분적으로 양인에 가까우면서도 천민과 같은 신분적 제약이 일부 가해진 향·소·부곡이나 역·진 등의 종속구역민이 존재하였다. 이들 종속구역민들에 대해서는 천민이나 양인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으나, 어쨌든 이들은 군·현민과 달리 천시와 차별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의 출생지역에 긴박되어 집단적으로 정해진 생산이나 임무에 종사해야 했다. 향·부곡·장·처의 주민들은 농업생산에, 소의 주민은 수공품이나 광산품의 생산에, 역과 진의 주민은 각각 육로교통과 도선(渡船)의 임무에 종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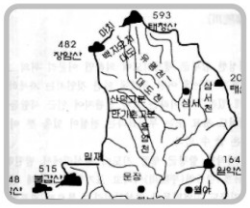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 대부분의 농민들은 조(租), 공부(貢賦), 역역(力役) 등의 부담을 져야 했다. 특히 각 지방의 특산물은 모두 공부수취(貢賦收取)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외관이 주재하는 곳에만 공부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속군현(屬郡縣)이나 향(鄕), 부곡민(部曲民)들은 주군현에 부과된 공부의 부담액을 나누어 물어야만 했다.

우리 함평지역의 경우는 당시 영광군(속군 2곳, 속현 8곳)에 부과된 공부 부담액을 같이 나누어 물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영군(領郡)의 중간 수취에 따른 착취까지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당시 함평 사람들이 부담했던 공부는 아마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토산물(土産物)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자료이긴 하지만, 토산물이란 쉽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고려시대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토산물들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함평지방의 토산물로는 모시, 닥나무, 왕골, 목면, 대나무, 대화살, 석류, 감, 비자, 작설차, 감태, 조기, 백새우, 민어, 밴댕이, 숭어, 낙지, 굴 조개, 소합, 준치, 여우와 삵의 가죽, 족제비 꼬리털(黃毛) 등이다.

한편 고려시대 16세~59세의 농민들은 역역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역역이란 노동력을 국가가 무상으로 수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궁궐이나 사찰, 관아, 성보(城堡), 도로건설, 제방의 개수 등에 동원되었다. 이밖에도 농민들은 지방에 있는 왕실과 왕족들의 토지를 경작하는데도 강제 동원되는 등 다양한 부담을 안고 살아야 했다.

제5장 조운(漕運)·역참제(驛站制)와 함평



제1절 조 운

조운(漕運)이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국가에서 수운(水運)을 통해 세곡 즉,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류의 운송과 유통은 수운(水運)과 육운(陸運)으로 나뉘며, 수운은 바다를 이용하는 해운(海運)과 하운(河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물류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까지도 포함된다. 조운은 수운과 육운을 겸하기도 하지만, 주로 선박을 이용한 수운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운영주체가 국가이고 세곡의 운송과 수납 기능까지 갖는 점에서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길은 육로와 운반시설이 발달되지 않았던 전통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운송로였다. 특히 국가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곡 운송은 많은 양을 신속하게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선박과 물길을 이용하였는데 이를 조운이라고 한다.

조운은 기원전 3세기경 중국 진(秦)나라 시기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7세기 초, 수(隋)나라 때 중국 내륙을 남북으로 잇는 대운하(大運河)가 개통되면서 남방의 곡물이 북부지방으로 운송되는 길이 열렸고,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당(唐)나라 때이며, 국가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유지된 시기는 원(元)나라에 이르러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가 확립된 삼국시기에 국가운영의 중요 수단으로 바닷길과 내륙 수운을 활발하게 이용하였으며, 세곡운송도 그러했을 것이다. 특히 백제는 교통과 조세, 물자 교류를 고려하여 수도를 한강과 금강 하안에 두었으며, 조세 담당기관인 곡부(穀部)가 설치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시기에는 창부(倉部)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어 고려시기 조운은 제도로서 정비되어 이후 조선시대까지 약 1천년 동안 국가 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었다.

1. 고려시대 조운제도

고려시대 조운제도는 국가에서 지방의 조운 거점에 조창(漕倉)을 설치하여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을 체계적으로 운송하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조운은 조전(漕轉), 조만(漕輓), 해조(海漕), 해조운(海漕運)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중앙 권력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국가의 재정 기반인 조세 수취와 운송 제도였다. 당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안과 강변의 60개 포(浦)를 거점으로 조세 운송이 이뤄졌다. 60포는 주로 내륙수로가 발달한 한강유역의 경기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고려 초기의 군현은 신라 말 이래 지방호족 세력의 근거지로서 지방통제가 미약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포(布)와 조운선은 지방 호족세력들의 권력 하에 있었다. 당시 세곡은 60포구를 중심으로 수도 개경까지 운송되었으며, 이들 포구는 호족들의 거점이나 다름없었다.

각 포구에서 개경에 이르는 운임과 운송과정은 호족들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감독하기 위하여 외읍(外邑)에 금유(今有)와 조장(租藏)을, 운송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도에 전운사(轉運使)를 임시로 파견하였다.

<표> 고려 초의 60포와 각 포의 운송료(輸京價)

수경가	포구(옛 지명)		소재지	위치	비고
5석(20.0%)	통조포	말조포	사주 통양창	경남 남해안	
	나 포	골 포	합포현 석두창		
6석(16.6%)	파평포	부사포	낙안군	전남 남해안	
	조양포	사비포	승평군 해룡창		
	풍조포	마서량포			
	해안포	마로포	광양군		
	안파포	동조포	조양현		
	리경포	소정포	여수현		
	여수포	금천포	대원군(충주)	남한강 내륙수로	
	은섬포	섬구포	평원군(원주)		
8석(12.5%)	조동포	신 포	영암군 장흥창	전남 서해안	
	남해포	목 포	통의군(나주)		
	통진포	치을포	나주 해릉창		
	덕 포	덕진포	무안군		
	곤강포	백암포	음죽현	남한강 내륙수로	
	황려포	황리내지	(여주)		
	해위포	위 포	장연현	황해도 연안	
9석(11.1%)	利通浦	굴내포	合豊郡(咸豊縣)	전남북 연안	함평 관련 포구
	부용포	아무포	영광군 부용창		
	여섭포	주을재	보안군(보안현)		
	제안포	무 포	보안군 안흥창		
	고총포	대모포	안산군(대산군)		
	속통포	소진포	승화군(전주)		
	조종포	진 포	임피군 진성창		
	서하군포	풍 주	(풍주)	서해도 해안	

수경가	포구(옛 지명)		소재지	위치	비고
10석(10.0%)7	징파포	등승포		남한강 내륙수로	
	안석포	범귀이포			
	류조포	류정포			
	이화포	이 포			
	녹화포	화인수사포	천령군		
	장암포	앙암포			
	양원포	황진포	양근군		
	화제포	화련체포			
	은파포	구지진			
	여산포	산척포			
	신어포	소신사포			
15석(6.6%)	미풍포	부지포	한남군(수주)	경기도 서해안	
	식랑포	가서포			
	백천포	금다천포	대천군		
18석(5.5%)	상원포	상진촌포	회안군(광주)	한강 하류	
	화평포	무한포			
	노수포	미음포	광릉군(양주)		
	종산포	거지산포	광릉군(양주)		
20석(5.0%)	덕원포	치음연포	광릉군(양주)		
	심원포	과지포	(과주)		
	향덕포	동지포	회안군(광주)		
	심축포	하치음연포	시흥군		
	단천포	적어포	시흥군		
21석(4.8%)	조해포	성초포			
	청수포	가을근실포			
	광통포	진 포	공암현		
	양류포	양등포	김포현		
	덕양포	소지포	덕양군(행주)		
	영석포	소근포			
	거안포	거을포	김포현		
	자석포	감암포	김포현		

그러던 것이 성종 때에 들어와 지방 행정기구의 정비와 더불어 포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조운도 점차 국가가 장악하게 되었다. 즉 성종 11년(992)에 60포의 조운 비용을 국가에서 규제하는 수경가(輸京價)를 제정하였는데, 이 수경가는 개경까지의 운송 거리에 따라 운송가격을 10단계로 구분하고 동시에 조운 조건의 난이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는 운임제도였다. 그러면서 성종은 포구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지방 호족들을 흡수 통제하고 국가재정과 백성의 안정을 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조운제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마련되는 과정을 반영하

는 것이라 하겠다.

앞의 <표>는 한정훈(「고려 초기 교통과 조세운송 체계의 성립」, 『고려시대 교통과 조세운송체계 연구』,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p.58-59)의 표를 좀더 간략하게 재정리한 것이다. 당시 수경가 제도에 의하면, 운송료 1석당 먼 곳은 5석부터 가까운 곳은 21석까지 개경으로 세곡 운송이 가능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60포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곳이 많지만, 수경가 만으로도 개경과 거리의 원근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60포의 위치는 아직까지 실제 지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많고, 사료의 오기 혹은 지명 비정에 의견이 갈리는 것도 있다. 예컨대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로 우리 함평지역과 관련하여 윤경진(「고려 성종 11년의 읍호 개정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 45, 2002, p.181)은 60포 중 이통포(利通浦)의 소재지 즉, 합풍군(合豊郡)을 함풍현(咸豊縣)이 아닌 무풍현(茂豊縣)의 오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백제시대로부터 굴내현(屈乃縣)의 대표적 포구라 하여 굴내포(屈乃浦)라 이름 하였던 포구 이름을 고려 성종 11년(992)에 지방 호족들을 흡수 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에서 각 포구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굴내포의 이름도 이통포로 바뀌게 되었고, 합풍군의 경우는 통일신라 경덕왕 17년(757)에 굴내현을 개명한 함풍현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이통포, 즉 굴내포는 우리 함평지역에 있었던 포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굴내포(이통포)는 지금의 함평 어느 지역에 있었던 것일까.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굴내포는 함평읍 장년리 구주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주포 즉 지금의 장년리 백년과 월선마을이 위치한 곳은 백제 때 굴내현에 속해 있었던 곳이고, 굴내현의 대표적 포구가 있던 곳이라 하여 포구 이름을 굴내포라 하였다는 구전이 있다. 또 조창의 위치 비정에 있어서는 지금 마을나무 노거수(팽나무)가 있는 곽구현 씨 소유 대지와 언덕 밭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초기까지 함평지역의 세곡은 바로 이곳 굴내포(구주포)에 모아졌다가 매년 봄 수도 개경으로 운송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고려시대 조운제도는 성종 이후 현종(1010~1031) 연간에는 군현제(郡縣制)를 개편하여 지방의 조세 운송망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조운제도는 60포에서 12개 조창으로 정비되면서 체계화되었고, 정종(1035~1046) 때에는 12개 조창의 조운선 수를 정하였다. 그리고 문종(1047~1083) 때에는 서해도(西海道)에 안란창(安瀾倉)을 추가 설치하게 되어 이후 조창은 고려시대 중앙의 왕권과 지방의 호족세력 사이의 역학관계 속에서 지방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병행하여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 조창으로 정비되었다.

고려시대 13개 조창의 분포는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강 수로에 2개소, 남해연안 3개소, 서해연안 8개소이며, 지역별로는 경상도 2개소, 전라도 6개소, 충청도 2개소, 경기도 1개소, 강원도 1개소, 황해도 1개소 등이다. 이들 조창은 대부분 이전의 60포가 위치한 곳으로서, 조창이 위치한 지역은 이전부터 해상이나 수상교통의 중심지였다.

다음의 <표> 고려시대 13개 조창의 위치는 2009년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운로 및 조창지역 조사결과 보고> 자료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고려시대 13조창(漕倉)

조창 이름	위 치 (현 재)	포의 옛 이름	포의 새 이름	조운선	적재량
덕흥창(德興倉)	충주(충북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창동)	金遷浦	麗水浦	평저선 20척	200석
흥원창(興元倉)	원주(강원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蟾口浦	銀蟾浦	평저선 21척	200석
하양창(河陽倉)	아주(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打伊浦	便涉浦	초마선 6척	1,000석
영풍창(永豊倉)	부성(충남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	倉 浦	초마선 6척	1,000석
안흥창(安興倉)	보안(전북 부안군 보안면 염전리)	無 浦	濟安浦	초마선 6척	1,000석
진성창(鎭城倉)	임피(전북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鎭 浦	朝宗浦	초마선 6척	1,000석
해능창(海陵倉)	나주(전남 나주시 영산동)	置乙浦	通津浦	초마선 6척	1,000석
부용창(芙蓉倉)	영광(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고법성)	阿無浦	芙蓉浦	초마선 6척	1,000석
장흥창(長興倉)	영암(전남 영암군 군서면 해창리)	薪 浦	潮東浦	초마선 6척	1,000석
해룡창(海龍倉)	승주(전남 순천시 흥내동 해룡산)	沙飛浦	潮陽浦	초마선 6척	1,000석
통양창(通陽倉)	사주(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末潮浦	通潮浦	초마선 6척	1,000석
석두창(石頭倉)	합포(경남 마산시 산호동)	骨 浦	螺 浦	초마선 6척	
안란창(安瀾倉)	장연(황해 장연군 해안면 구진리)	–	海葦浦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의 전남지방에 설치되었던 당시 조창은 모두 4곳이었다. 그리고 우리 함평지방에서 거둔 세곡은 60포를 운영하던 고려 초기까지만 하여도 굴내포에서 받아들여 보관하였다가 운송하던 것을 13개 조창이 정비된 이 시기부터는 이웃한 영광의 부용창(芙蓉倉), 즉 법성포로 운반하여 그곳에 보관하였다가 개경으로 운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전남의 4개 조창 가운데 조선시대까지 존속한 곳은 영광의 법성창과 나주의 해능창(海陵倉), 즉 영산창(榮山倉)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영산창의 경우 강이 토사(土沙)로 메워진 관계로 조선 중종 7년(1512)에 폐쇄됨으로서 결국 법성창만이 남게 되었다.

조창은 백성들에게 조세로 거둔 쌀, 보리, 콩, 조와 같은 세곡(稅穀)과 공물(貢物)을 수납, 보관하던 창고로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운의 물류 거점이 되었다. 또 조창에는 원활한 조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박, 선창, 성곽,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관리 감독하는 판관과 색전이 주재하였다. 이들은 조창이 소재한 촌락을 관할하며 그 주민들을 선운에 동원하였다. 해변이나 강변에 세곡을 모아 보관하는 조창을 두고 세곡을 거둬들였다. 여러 고을에서 현물로 거둔 세곡은 조창에 일정기간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2월부터 뱃길로 당시 수도인 개경에 있는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다. 서해 연안 바닷길을 따라 항해하여 예성강을 통해서 개경에 도달하였고, 이렇게 운송한 세곡은 왕실과 백관(百官)의 녹봉, 군자, 진휼(진휼) 등에 사용되었다.

이 13개 조창을 근간으로 하여 고려의 조운제도는 왕조가 사라질 때까지 운영되었다. 따라서 고려의 조운제도는 건국된 지 140년 가까이 13조창으로 정비되어 조선왕조에 의해 재편될 때까지 350년가량 운영되었다. 그러나 조창도 말기에 왜구가 창궐하면서 대부분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2. 고려시대 조운선의 운영

조창에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의 성격도 있다. 먼저 조창에는 판관(判官)이라는 최고 감독관리가 주재하였다. 판관은 중앙에서 파견하였으며 관할 영역을 다스리고 주민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세곡 수납과 조운을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였다. 이러한 막중한 일 때문에 외관의 대우를 받아 미곡 20석의 녹봉을 지급받았다.

향리는 고려시대 국가권력의 최 말단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창에도 색전(色典)이라 불리는 향리가 존재하였다. 색전은 조운선을 몰고 가는 초공(梢工), 수수(水手)의 선원들과 더불어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져야하는 보상의 주체였으므로 조운 수행에 있어서 실제적 책임자였다. 즉, 조창 소속의 색전은 판관의 지휘 하에 세곡을 조창에 수납하고, 조운선에 승선하여 조운을 감독하며, 그리고 개경에 도착하여 세곡을 경창에 납입시키는 임무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시대 조운선의 선원은 키잡이, 배꾼, 잡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운선이 정해진 기한에 출발하였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여 초공(키잡이) 3명 이상, 수수(배꾼)와 잡부 5명 이상이 미곡과 함께 침몰한 경우에는 조세를 다시 징수해야 했다. 그리고 기한보다 늦게 출발하였고 초공·수수의 3분의 1까지의 인원이 빠져 죽은 경우에는 그 고을의 관장·색전·초공·수수 등에게 나누어 징수하게 하였다.

조운선 항해에는 초공·수수·잡부 등이 동원되었는데, 초마선 1척당 초공 12명, 수수와 잡부 20명 등 총 32명이 승선하였다. 그러면 조창 당 6척이 출항하면 총 200명이 동원되었던 샘이다. 이들은 모두 조창의 주민으로서, 평상시에는 어업과 선운업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색전, 즉 향리의 지휘 하에 해로 또는 수로를 잘 살펴가면서 조선을 난파시키지 않고 세곡을 목적지인 경창까지 운송하여야만 했다.

조운의 일은 국가적인 일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역(役)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조운의 역은 운송 도중에 세곡에 손실이 생기면 보상을 해야 하는 매우 가혹한 의무까지 부과되었다. 또한 조창민들은 수군에도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노고는 매우 무거웠을 것이다.

고려후기에 이르러 정치·사회적 변동으로 인한 지배체제의 동요는 조창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특히 조창제도의 존립기반을 이룬 군현제의 변혁, 삼별초의 난, 왜구의 침입 등은 조운제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국가 통제 하에 있던 조운은 각 지방의 군현이 주관하는 분산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 즉 바다나 하천에 인접한 군현은 각자 스스로가 조운선을 구비하고 세곡을 운반해야 하였으며 민간인에게 청부를 맡기는 곳도 나타났다.

3. 고려시대 조운선의 세곡 운송

조운선은 먼 거리 바닷길을 항해하기 때문에 1년 1회 운항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국가 재정원인 세곡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계절풍을 이용해야 하였다. 우리나라는 1년 중 6·7·8월은

풍고(風高)라 하여 풍파가 심하여 선박의 운항이 어려웠고, 파도가 일지 않고 행선이 적합한 시기는 풍화(風和)라 하여 2월에서 5월 사이였다. 따라서 조운선의 운항 시기는 이때에 맞추었다. 세곡은 11~12월에 거두어 일단 조창에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2월부터 수송을 시작하여 가까운 조창에서는 4월까지 3개월 안에, 먼 곳의 조창에서는 5월까지 4개월 안에 조운을 마쳐야 했다.

고려 초기 13개 조창에서 보유한 선박은 초마선 66척, 평저선 41척 등 모두 107척이었다. 이들이 1년에 운송할 수 있는 총 적재량은 74,200석이었다. 적재량이 초마선은 척당 1천석이었기 때문에 66척이 적재할 수 있는 양은 66,000석이었고, 평저선은 척당 2백석이었기 때문에 41척이 적재할 수 있는 양은 8,200석이었다. 그러므로 전체 조운에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이르렀다. 한강을 오가는 평저선이나 수도 인근의 초마선은 적어도 1회 이상 운항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송량은 이보다 많았을 것이다. 또한 고려후기에 왜구에게 한 번 약탈당한 전라도 조운선이 200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운선과 함께 일반 사선도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고려시대 조세제도

고려왕조는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고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각 군·현의 규모에 따라 부세를 균등하게 나누었다. 고려의 조세 제도는 군·현민의 재산 소유에 따른 조세징수가 원칙이었으며, 주현·속현·향·부곡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었다.

조세 제도는 크게 토지와 사람에 부과하는 3종류 세금이 있었다. 이것은 전조(田租, 田賦)·공물(貢物, 貢賦)·요역(徭役) 또는 조(租)·조(調)·역(役), 조(租)·포(布)·역(役)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조는 토지세의 하나로서 토지에 대한 수조율은 1/10, 1/4, 1/2 등으로 나누어 정하였다. 땅을 소유한 백성은 수확물의 1/10을 국가에 토지세로 냈으며, 공해전·둔전 등 국·공유지를 빌려 경작할 경우는 1/4, 일반 사유지를 빌려 경작할 경우는 1/2를 토지세로 냈다.

공물은 중앙에서 지방의 호구(戶口)를 기준으로 각 지방 군현 단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지방의 특산물이나 토산물, 수공업품을 바치는 공납(貢納)이다. 공물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상공(常貢)과 수시로 징수하는 별공(別貢)이 있었다. 상공은 매년 각 주·현으로부터 일정한 양의 현물을 세금으로 받는 것으로 금·백금·구리·철·소금·쇠가죽 등이었다. 별공은 특수 생산지에서만 거두는 것으로 쇠·구리·자기·종이·먹 등이 있다.

요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으로서 삼국시대 세제인 조·용·조 중에서 용(庸)에 해당한다. 노동력의 수취는 징발 주체에 따라 국가의 요역과 군현의 상요(常徭)가 있으며, 주로 조세 운반, 공물 조달, 토목공사 등에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특수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어세(漁稅), 염세(鹽稅), 상세(商稅), 산세(山稅), 선세(船稅)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 조세제도는 중앙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때 전국의 바닷길과 육로의 교통망도 정비하였다. 그것이 바로 조운과 역참 제도이다. 조운은 조세 수취와 운송을 위해 창(倉)을 운영한 것이며, 역참(驛站)은 교통과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지에 역(驛)을 설치한 국가제도이다.

일정한 지역에 역을 설치하고 도로를 정비하여 중앙과 지방 사이의 명령을 전달하고 관리의 사행 및 운수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육상에는 육참(陸站), 해상이나 강변에는 수참(水站)을 설치하여 수로와 육로를 연결하였다. 이러한 조운과 역참은 모두 지방의 행정구역 확립과 호족세력을 통제하는데 기여하였다.

제2절 역참제(驛站制)와 함평의 역

1. 역제의 기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이르러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를 형성해 가며 지방통치를 원활히 하고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가 발달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조직을 발전시켜 중앙의 정치적인 명령이 미치게 하는 행정로이자 문화를 파급시키는 문화로의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지형상 요새가 되는 곳에 성책을 축조하여 외적을 방비하며 지역주민의 안보를 기하는 군사로가 생겨 삼국의 주요간선 형성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정치적, 군사적 요구에 따라 발달한 도로가 제도적으로 체계화 된 것이 바로 우역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제의 기원은 이처럼 도로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역제의 기원은 어제부터였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삼국사기』에 실린 기록을 전거로 하여 신라 소지왕 9년(487년)으로 보고 있다. 즉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9년 3월조에 의하면, "비로소 사방에 우역을 두고 왕은 관사에 명하여 관도를 수리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록만으로는 당시의 도로 사정을 알 길이 없으나 '관도(官道)'라는 표기로 볼 때 이 관도는 주요 간선도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신라 문주왕 8년(668)에 왕이 당나라의 고구려 원정을 돕기 위해 출진했다가 "환국 길에 올라 요돌역에 행차했다."는 기록이 있어 비록 한 개의 역에 지나지 않지만 비로소 역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또 『삼국사기』 권37 잡지 제6 지리4 고구려조에 의하면, 고구려에서의 역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즉 "국내성은 평양으로부터 17역을 거쳐서 이르게 되고, 발해의 남해, 부여, 압록, 책성의 4부는 모두 고구려의 옛 땅인데 신라 천정군으로부터 책성부에 이르기까지 무릇 39역이다."하여 당시 역로에 설치돼 있던 역의 수효를 엿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삼국시대의 역제는 통일신라로 이어졌고, 이후 정치제도 개편과 함께 우역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경도역(京都驛)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그 뒤 경덕왕은 종래의 경도역을 도정역(都停驛)이라 고쳤다가 다시 경도역으로 고치고, 그 관리를 17관등 가운데 열두 번째에 해당하는 대사(大舍) 2인에게 맡겼고, 또 사(史) 2인을 두었다.

통일신라는 기존보다도 확대된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재편하였는데, 이 행정구역의 재편성은 곧 경주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도로 조직의 재편성과도 연결이 되었다. 즉 문주왕 17년(677)에서 신문왕 7년(687) 사이에 이루어진 9주 5소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함께 9주에 설치된 군영인 정(停)은 주로 치소를 군사적으로 지키는 위치에 있어 군사적 행정적 성격을 띤 간선도로로 발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려시대의 역제

1) 역제의 정비

고려시대에 있어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제가 도입되고 지방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 때(981~997) 12목이 설치된 이후부터이다. 12목은 통일신라 이래 고려 초기에 이르는 동안 지방행정상의 요지가 되어 오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중앙 행정력의 지방으로의 파급은 고려의 우역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성종 때에 주·부·군·현·관(館)·역(驛)에 각각 경제적인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 사실에서도 그러한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 즉 각 관아의 가옥 수선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관리의 숙박과 접대 따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공수전(公須田)을 지급한 것과 종이·먹·붓 등을 사들인다거나 그 밖의 잡비에 쓰도록 지전(紙田)과 역의 장에게 급료 대신 지급하는 장전(長田) 등의 토지를 지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료 공급처인 공수시지(公須柴地)를 지급하는 등 역의 경제적인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또 성종 11년(992) 11월에는 주·부·군·현 및 관·역·강·포의 이름을 다시 정하고, 역에 있어서 역장과 호장에 대한 칭호를 구분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비 과정을 거쳐 『고려사』 권82 병지(兵志) 참역조(站驛條)의 기록에 의하면, 전국의 역은 점차로 중앙의 통제 밑에 들게 되었고 개경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역로망을 형성하여 22역도(驛道)에 총 525개소의 역을 설치하여 방대한 역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2) 역의 등급과 역로망의 분포

고려시대의 각 역은 그 위치나 역도의 대소와 중요도에 따라 대로·중로·소로 등 3등급으로 나누고, 실무에 종사하는 역정(驛丁)을 차등 있게 배정하고, 또 그 역정의 수에 따라 역장(驛長)을 2~3명씩 두었다. 즉 역장은 대로에 속해 있고 역정이 40정 이상이면 3명, 중로에 속해 있고 역정이 10정 이상이면 2명, 소로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중로의 예에 따라 정하였다.

또 『고려사』 역지 병참조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전국의 역을 1과(科) 75명, 2과 60명, 3과 45명, 4과 35명, 5과 12명, 6과 7명 등 총 6등급으로 나누어 역정 각각 배정하였다. 역로의 등급인 대·중·소로와 역참의 등급인 1~6과를 나누는 기준은 확실히는 알 수 없다. 다만 배정되는 역정의 수를 비교해 볼 때, 대로는 1~2과에, 중로는 3~4과에, 소로는 5~6과에 대비하여 생각할 수 있고, 역의 중요도에 따라 역정의 배정이 변동되기도 하였다.

한편 『고려사』 역지 병참조에 나타난 고려시대의 역도의 체계에 따른 역로망을 살펴보면, 산

예도(10역), 금교도(16역), 파령도(11역), 홍교도(12역), 홍화도(29역), 운중도(43역), 도원도(21역), 삭망도(42역), 청교도(15역), 춘주도(24역), 평구도(30역), 명주도(28역), 광주도(15역), 충청주도(34역), 전공주도(21역), 승나주도(30역), 산남도(28역), 남원도(12역), 경주도(23역), 금주도(31역), 상주도(25역), 경산부도(25역) 등 총 22개 역도에 525개 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 우리 함평지방에는 2개소에 역(驛)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들 역은 앞의 22개 역도 가운데 승나주도(昇羅州道)에 속해 있었다.

하나는 함풍현에 속한 가풍역(街豊驛)이고, 또 하나는 모평현에 속한 덕수역(德樹驛)이었다. 이중 가풍역은 조선시대 가리역(加里驛)으로 이름이 바뀌어 존속했던 것으로 지금의 신광면 가덕리에 있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덕수역은 조선시대 때 역이 폐지되어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 역은 나산면 덕림리에 있었다는 주장과 또 덕림리와 지근거리인 지금의 구산리 방두동에 있던 조선시대의 구미원(龜尾院) 근처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들 두 지역은 조선시대 국도가 지나던 쌍령(雙嶺)에 위치하고, 또 고려시대에도 이곳은 국도이었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두 곳 중 어느 한곳에는 분명 덕수역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 함평지방에는 가풍역과 덕수역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들 역은 22개 역도 가운데 승나주도에 소속돼 있었는데 당시 승나주도의 간선(幹線)에는 가풍역과 덕수역을 비롯해 모두 30개의 역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 역은 대부분 지금의 전남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청암(靑岩, 나주)	조림(鳥林, 철치)	벽산(碧山, 수녕)	선암(仙岩, 광주)
가림(嘉林, 화순)	별진(別珍, 죽산)	경덕(敬德, 광주)	녹사(綠沙, 영광)
남리(南里, 황원)	덕기(德奇, 담양)	단암(丹巖, 장선)	군지(軍知, 복성)
경신(慶新, 무안)	청송(靑松, 무송)	가신(嘉新, 보성)	청연(靑淵, 무안)
가풍(街豊, 함평)	파청(波靑, 조양)	용계(龍溪, 무안)	덕수(德樹, 모평)
낙신(樂新, 낙안)	광리(廣里, 남평)	영보(永保, 영암)	익신(益新, 광양)
인물(仁物, 능성)	통곡(通谷, 도강)	섬거(蟾居, 광양)	영신(永新, 진원)
녹산(綠山, 해남)	율양(栗陽, 승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승나주도에 소속된 역은 모두 30개 역이었다. 이들 역 가운데 승나주도의 수역(首驛)은 청암역(靑岩驛)이었을 것이고, 청암역은 나주 북 5리(里)에 위치하면서 11개소의 속역(屬驛)을 거느리고 있었다. 우리 함평지방의 가풍역과 덕수역은 바로 이 청암역의 속역이었다.

3) 역의 운영

고려시대에 역을 운영하는 경제적 기초는 공수전(公須田)을 비롯한 지전(紙田)과 장전(長田), 공수시(公須柴) 등이 지급되어 운영 경비에 충당되었다. 983년(성종 2) 6월 전국의 주·부·군·현·관·역에 대하여 토지를 나누어 지급할 때 다음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등급의 역마다 차등 있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또 이로부터 10년 뒤인 993년(성종 12)에는 주·부·군·현·역로에 공수시지(公須柴地)를 지급하였는데, 이때도 각 역의 구역과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지를 배정함으로써 고려시대 역의 경제적인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표> 역 공해전(公廨田)과 시지(柴地)

등급	983년 지급 토지			993년 지급 시지		
	공수전(公須田)	지전(紙田)	장전(長田)	동서도(東西道)	양계(兩界)	동서남북
대로역	60결	5결	2결	50결		
중로역	40결	2결	2결	30결	20결	
소로역	20결	2결				15결

한편 역무를 총괄하는 최고기관은 중앙의 경우 병부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국의 우역사무를 맡았던 기관은 공역서(供驛署)였다. 공역서에는 영(令) 2명(종7품), 승(丞) 2명(종8품)의 관리와 사(史) 4명, 기관(記官) 2명, 막사(幕士) 40명이 속해 있었다.

지방의 경우는 초기에 외관으로 제도순관(諸道巡官) 또는 역순관(驛巡官)이 있었으나 현종 때는 제도관역사(諸道館驛使)로 명칭이 바뀌었고, 중기 이후에는 무신난 등으로 제도가 문란해졌다. 1226년(고종 13)에는 일부 역에 임진과교별감(臨津課橋別監)을 두었고, 1272년(원종 13)에는 각 도에 정역소복별감(程驛蘇復別監)을 파견하여 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역과 관련된 관직으로 찰방(察訪)이 있다. 찰방은 처음에는 역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방관리 전체를 감찰 대상으로 했다가 뒤에 역로 행정만을 주로 담당하였다. 이처럼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들은 지방의 역도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리나 여러 역을 순회하면서 그 운영을 감독하는데 그치고 실제의 역의 운영은 역장(驛長) 이하 역수(驛首)가 담당하였다.

전국의 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각 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였다. 역민(驛民)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역호(驛戶)로서 역장(驛長)·역리(驛吏)·역정(驛丁) 등이 포함되었고 그밖에 노비(奴婢)가 있었다. 역을 운영하는 데에는 관리자와 실무자가 일정한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역에는 대·중·소의 구분에 따라 역장이나 역정 수에 차등이 있었다. 즉 2~3명의 역장 밑에 많을 경우에는 75명, 적을 경우에는 7명 정도의 역정이 있었다. 우리 함평지방의 역은 당시 소로역(小路驛)에 해당하였으므로 2명 정도의 역리가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역민들은 토지에 의거하여 일정한 취락을 이루고 생활을 영위하였다. 또한 역민들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양의 조세를 납부하였고 각 역에서는 소정의 시탄공(柴炭貢)을 내야 했다.

역리는 그 역에 소요되는 말(馬)을 충당해야 했고, 그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일반 역호로 강등되었다. 이처럼 역리는 일반 역민과는 구별되었으나 군현의 이속과는 달리 인식되었다. 역민과 군현인 사이의 결혼 자체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았으나 신분의 간격이 완고하였다. 또한 역민은 원칙적으로 관직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었다. 역민들은 일반 군·현인들보다 사회적인 처지도 뒤져 있을 뿐 아니라 나라에 대한 각종 경제적인 부담도 컸다. 따라서 도망역호(逃亡驛戶)가 늘어나고 역로의 형편은 점점 쇠잔해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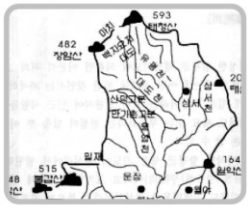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역에서 하는 업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면서 명령과 보고를 전달하는 일이었다. 공문의 전달방법에 있어서는 전달사항의 완급(緩急)에 따라 일정한 규정을 두었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 **현령(懸鈴) 전송 :** 가죽 부대에 문서를 넣어 전송할 때 방울을 달아서 알아보게 하는 방법으로 사항의 급한 정도에 따라 3급(至急)·2급(普急)·1급(平常) 등 세 종류로 구분해 가장 급한 3급의 경우 방울 3개, 2급인 경우 2개, 1급인 경우 1개로 운행하였다.

○ **피각(皮角) 전송 :** 일출·일몰시간과 관련하여 하루 동안에 통과하는 역의 수를 정하였다. 2월부터 7월까지 낮이 비교적 긴 동안에는 3급인 경우 6역, 2급인 경우 5역, 1급인 경우 4역을 통과하도록 하였고, 8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낮이 비교적 짧은 동안에는 3급인 경우 5역, 2급인 경우 4역, 1급인 경우 3역을 통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역마(驛馬)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효의 관마(官馬)를 준비하여 공문서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관리의 품계에 따라 역마를 사용하게 하고 규정 외의 역마 사용을 금지하였다. 『고려사』 권82 병지 역참조에 의하면, 1274년(원종 15) "각 도에 사무를 위해 나가는 대소 관원이 사용할 수 있는 관마는 재추의 경우 14필, 3품관 및 안렴사는 7필, 참상별감은 5필, 참외별감 및 외관참 이상은 4필, 참외는 2필, 참상도령 지유 등 차사원은 3필, 장교는 1필"로 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 역무와 노역의 과중으로 인해 역호가 도망가고 또한 역이 쇠잔해지는 등 폐단이 심각해져 역마의 운행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이 있었다.

제6장 외침과 함평



제1절 거란(契丹)의 침입

고려가 성립되는 10세기에 중국에서는 당(唐)이 멸망하고 5대 10국을 거쳐 송(宋)이 대두하였고, 북방에서는 916년 거란(契丹)이 흥기하여 926년 발해(渤海)를 멸망시키고 중국으로 남하하여 북경 부근의 땅을 장악하였다. 10세기 중엽 이후에 동아시아에는 고려, 송, 거란의 3국의 국제관계가 형성되었다.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적대적이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북진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반대로 거란은 만주지역을 차지하고 남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태조 25년(942)에 거란이 사신을 보내 낙타 50필을 바치자, 태조는 "거란은 발해와의 맹약을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발해를 공멸한 나라이므로 교빙할 수 없다."하여 사신을 섬에 귀양 보내고 낙타는 개경의 만부교 아래에 붙들어 매어 굶어 죽게 하였다. 그리고 태조는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이고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청천강까지 국경을 넓혔다.

이러한 태조의 북진정책은 후대의 왕들에게 계승되었다. 정종은 북방 개척을 위해 서경 천도를 계획하는 동시에 광군사를 설치하고 광군 30만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또한 광종은 청천강을 넘어 압록강 사이에 성을 쌓아 방비하였으며, 발해 유민들이 세운 정안국과 통교하였다.

한편 송과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면서 고려는 친송-반거란 정책을 펴가면서도 거란과 송의 대립에 군사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다. 송은 과거 5대 시기에 거란에게 양도하였던 연운 16주를 되찾으려고 두 차례에 걸쳐 거란을 공격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거란은 거란대로 중국으로 진입하려고 애썼다. 10세기 후반에 거란은 송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압록강 유역의 서여진을 정복하고 정안국을 멸망시킨 다음 고려로 쳐들어왔다. 이후 3차에 걸친 거란의 침입은 모두 고려와 송의 외교 관계를 차단시켜서 송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거란이 처음 침입한 것은 성종 12년(993) 8월이었다. 거란의 장수 소손녕이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왔다. 이때 고려의 조정에서는 영토의 일부를 떼어 주고 거란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희는 거란의 침입 목적이 영토의 확장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적장 소손녕과 외교적인 담판을 벌였다. 고려는 송과의 관계를 끊고 앞으로 거란과 적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란군을 철수는 시키고 오히려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고려의 영토는 처음으로 압록강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고려가 송과 계속 교류하고 강동 6주를 군사적인 거점으로 삼자, 거란은 이에 불만을 품고 현종 원년(1010)에 다시 침입하였다. 이보다 앞서 고려에서 장군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옹립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거란의 성종이 강종의 죄를 묻는다는 구실로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거란군은 개경을 함락시켰고 이로 인해 현종은 공주(公州)와 삼례(三禮)를 거쳐 1월 13일 나주(羅州)까지 피난하였다. 그러나 양규의 군대가 거란군의 후방을 공격하고 고려인의 저항이 치열하자, 거란군은 이후 고려의 왕이 친히 거란을 방문한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고 10일 만에 물러갔다. 현종이 당시 피난하여 나주에 도착하였을 때는 거란군이 강화를 맺고 개경에서 퇴진한 이틀 후였다. 현종은 1월 21일 나주를 출발하여 2월 23일 다시 개경으로 환궁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나주에는 얼마 되지 않은 기간(1주일 정도)이기는 하지만 임시 수도로서 행재소(行在所)가 설치된 기록을 갖게 되었다.

그 후 거란은 고려의 왕이 친히 거란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강동 6주의 반환을 내걸고 현종 9년(1018) 12월에 소배압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개경까지 다시 쳐들어왔다. 그러나 강감찬이 지휘하는 고려군은 압록강 흥화진에서 거란군을 크게 무찌르고 퇴각하는 적군을 귀주에서 다시 섬멸시켰다. 이후 고려는 거란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개경에 나성을 쌓는 등 국방을 더욱 강화하였고, 덕종 때에는 압록강 입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아 북방세력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당시 거란의 침입은 우리 함평지방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제3차 침입 때에는 고려의 군사도 20만이 동원되었다고 하니 이 고장의 수많은 청장년들이 참여하였으리라 믿어지며, 장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인해 지역민의 생활은 비참하였을 것이다.

제2절 몽고(蒙古)의 침입

고려의 무신정권의 우두머리인 최충헌이 독재 정치를 하고 있던 13세기 초에 북방의 몽골족은 부족을 통합하고 세계 제국을 세울 기반을 닦고 있었다. 칭기즈칸은 몽골 서쪽에 있는 티베트족의 나라 서하를 정벌하고 이어 금을 공격하였다. 금의 지배 아래 있던 거란족은 이 기회를 틈타 나라를 세웠으나 곧 몽고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몽고에 쫓긴 거란족은 고려로 쳐들어와서 북쪽지방을 약탈하고 개경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거란족을 평양 동쪽의 강동성에 몰아넣었다. 1218년 9월의 일이었다.

이 무렵 간도 지방에는 금의 장군 포선만노가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세운 동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칭기즈칸은 만주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먼저 동진국을 복속시키고 동진국의 군대를 동원하여 강동성으로 가게 하였다. 이때 몽고는 고려에 공동 작전을 제의하였다. 고종 6년(1219) 정월에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은 강동성을 점거하고 있던 거란족을

항복시켰다. 고려와 몽고 사이에는'두 나라는 영구히 형제가 되어 자손이 만대에 이르기까지 오늘을 잊지 말 것이다.'라는 내용의 맹약이 맺어졌다.

그 후 몽고는 큰 은혜나 베푼 듯이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자 고려는 이에 반발하였다. 그러던 중 몽고의 사신 제구유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압록강 가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다. 고려에 군사를 보내 전쟁을 벌이려고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몽고는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 고종 18년(1231) 쳐들어왔다. 당시 고려의 집권자는 최우였는데, 그는 정부군을 동원하여 몽고와 싸우게 하였다. 그러나 개경이 포위되고 몽고군이 충주, 청주까지 내려오자 고려는 일단 강화를 교섭하였다. 몽고는 고려 서북면의 40여 성에 민사 행정을 다루는 다루가치 72명을 두고 1232년 1월 철수하였다. 이어 개경에도 다루가치를 보내어 우리의 움직임을 일일이 감시하는 한편 많은 양의 공물과 인질, 군대, 기술자 등을 요구하였다.

참고로 당시 몽고가 우리에게 요구하였던 공물의 물목만을 살펴보면, 수달피 가죽 1만, 가는 명주 3천필, 가는 모시 2천필, 설면자(綿子) 1만근, 용단 먹 1천정(丁), 붓 2백관(管), 종이 10만장, 자초(紫草) 5근, 홍화(紅花), 남순(藍筍), 주홍(朱紅) 각 50근, 자황(紫黃), 광칠(光漆), 오동나무 기름 각 10근 등이었다.

이후 고려는 해전에 약한 몽고군을 피해 서울을 강화도로 옮겨 적극적인 항전 태세를 갖추었다. 각 지방에도 사람을 보내 백성들에게 산성과 섬으로 들어가 지키도록 하였다. 최우가 서울을 강화로 옮긴 것은 몽고의 침략과 농민, 천민의 항쟁으로부터 자기의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지배층들은 강화에서 전과 다름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하지만 본토에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을 세워 주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었다.

몽고는 이후 1258년까지 6차례에 걸쳐 쳐들어왔는데, 그 기간은 무려 30년이나 되었다. 몽고의 제2차 침입은 강화도에서의 항몽을 이유로 처인(處仁, 현 용인)까지 진격해왔으나, 이때는 고려 민간 용장인 김윤후(金允侯)에 의해 몽고장수가 전사하자 몽고군이 퇴각했다. 이때 고려는 대장경 등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되는 비운을 맞았다.

제3차 침입은 고종 22년(1235)부터 26년(1239) 사이에 장기적으로 전쟁이 계속 되었다. 이때는 전남지방을 제외한 전 국토가 전화에 휩싸였는데, 전북의 고부와 부안까지 몽고군이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경주의 황룡사 9층탑이 불타 소실되었고 장기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물론 농토가 황폐되어 백성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이러한 내용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우리 함평지방의 생활형편 또한 그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4차 침입은 고종 32년(1247)의 일이었다. 침입의 구실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천도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때는 전쟁의 피해가 전국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어 제5차 침입은 고종 40년(1253)에 있었다. 이때는 몽고군이 전주까지 쳐들어왔으나 당시 고려도 조직적인 저항을 하여 몽고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천도한다는 조건으로 몽고군은 이 전쟁에서 철군하였다.

1254년에 시작된 제6차 침입의 피해는 특히 심했다. 이때의 참혹한 모습이 "이 해에 몽고병에게 사로잡힌 남녀가 무려 20만 6,800여 명이며, 살육된 자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저

들이 지나간 고을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때의 침입은 고려의 왕만 개경으로 나오고 신하들은 그대로 강화도에 남아있다는 구실을 들어 고종 41년(1254)부터 46년(1259)까지 무려 6년간에 걸쳐 네 번이나 침입을 자행하였다.

실제로 몽고의 침입에 대항하여 싸운 것은 고려의 정부군이 아니라 일반 농민이나 천민이었다. 12세기 이후로 전국에서 농민, 천민들이 가혹한 정치에 반대하여 봉기하였는데, 이제는 이들도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었다. 그러한 예로 마산(평북 귀주 부근) 초적의 우두머리가 최우를 찾아와서 정병 5000명을 내어 몽고군을 몰아내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초적은 일반 농민이 아니고 무장한 농민 반란군인데 이들조차 몽고와 싸우는데 앞장선 것이었다. 노비나 부곡, 소의 백성들도 몽고에 대항하여 열심히 싸웠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정부에 협력한 것은 아니었다. 전쟁 기간에도 지배층이 농민에게서 걷어가는 세금은 여전하여, 농민들은 정부의 수탈과 몽고의 침략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농민들 가운데는 몽고군이 오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었고, 몽고에 투항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몽고와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도 지배층의 수탈에 대항하여 봉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전남지역과 관련해서는 담양의 초적 이연년의 예가 그것이다.

한편 제6차 침입기간 중 우리 전남이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입은 것은 두 번째 침입 때였다. 『고려사』에 따르면, 충주에서 패퇴한 몽고군이 전남으로 진격로를 바꾼 것은 고종 42년(1255) 10월이며 이때 광주·나주·장성·영광·담양 등이 적에게 유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함평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인근 지역의 정황으로 보아 우리 함평지방도 그들에게 유린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몽고의 장수 차라대는 이때 광주 무등산에 주둔하며 인근 지역을 노략질하였다.

당시 몽고군이 전남지역에 침입하게 되자 이곳 지역민들에 의한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고려의 부패한 무인정권과 관련된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몽고군이 전남지역을 침입할 때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몽고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환영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당시 최충헌 일가의 60여 년에 이르는 장기 무인세도(武人勢道)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단상이라 하겠다. 그리고 당시 전남지역에는 최씨 일가의 농장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하여 전남지역민들은 몽고군의 피해에 못지않은 그들의 수탈에 탈진 상태였을 것이다.

다음은 당시 몽고군이 전남지역에 쳐들어왔을 때 지역적인 정황을 엿볼 수 있는 『고려사』 권24 세가조 고종 43년 4월조의 내용이다.

> "이광(李廣)과 송군비(宋軍斐)가 영광으로 가서 길을 나누어 칠 것을 약속하였으나 몽고군이 이를 알고 미리 방비함으로 이광은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송군비는 입암산성(立岩山城, 장성 입암면에 있는 산성)을 보수하였다. 성안에 있던 장정들이 모두 적에게 투항하고 오직 늙은이와 어린애들만 남아 있었다. …. 후략."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지역민들의 성향과 파견된 정부군이 싸우지도 못하고 장성으로 퇴각했음을 엿볼 수 있고, 또 이광과 송군비가 전남지역에 파견된 것이 고종 43년(1256) 1월이었기 때문에 이미 영광과 우리 함평지역이 몽고군 침입 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몽

고 장수 차라대가 강화도 앞 갑환강(甲患江)에 나타난 것이 고종 43년(1256) 8월이었으므로 우리 전남지방이 몽고군의 수중에 있었던 것은 약 10개월 동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후 본토에 남아 끈질기게 투쟁하는 고려 백성들 때문에 몽고는 고려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고려와 몽고 두 나라는 싸움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교섭을 벌였다. 몽고는 고려의 왕이 직접 몽고의 조정에 와서 황제를 만나고 서울을 다시 개경으로 옮기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다 전쟁이 길어지고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가 어렵게 되자, 몽고는 고려 왕 대신에 태자를 보내는 것으로 요구 조건을 완화하여 강화를 제의하였다.

때마침 고려에서는 문신 유경과 무신 김준이 중심이 되어 최의를 죽임으로써 몽고와 싸울 것을 주장해 온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졌다. 몇 달 뒤에는 조휘, 탁청이 철령 이북의 땅을 몽고에 바치고 투항하자 몽고는 이곳을 직속령으로 삼아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였다. 고려는 큰 타격을 받았다. 마침내 고려는 굴복하여 태자를 몽고 조정에 보내었고 고려와 몽고 사이에 실질적인 강화가 이루어졌다.

고려 태자가 몽고 황제를 만나러 가고 있을 때 고려에서는 고종이 죽었고, 다음 달에는 몽고 황제 헌종도 남송을 정벌하다가 죽었다. 몽고에서는 황제의 자리를 놓고 헌종의 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태자는 결단을 내려 이들 중 쿠빌라이를 만나러 갔다. 이때 쿠빌라이는 "고려는 만리 밖의 나라로서 당 태종 이래로 친히 쳤으나 굴복시키지 못하였는데 지금 그 세자가 스스로 나에게 돌아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며 일면 놀라고 크게 반가워하였다. 고종의 죽음을 전해들은 태자는 고려로 돌아와 왕위에 올라 원종이 되었고, 쿠빌라이도 세조로 즉위하였다.

제3절 삼별초(三別抄)의 항몽(抗蒙)과 함평

고려의 지배층 안에서는 몽고와 강화는 맺어졌지만 강화도에 남아 몽고와 싸울 것을 주장하는 집권 무신과 몽고를 끌어들여 권력을 되찾으려는 왕, 문신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원종 11년 왕과 문신은 몽고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 무신정권을 무너뜨린 후 개경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고려 국왕은 100여 년간 빼앗겼던 왕권을 되찾았지만, 반면에 고려는 더욱더 몽고에 종속되었다.

30년 동안이나 농민, 천민의 항전을 토대로 몽고의 침략을 막아 냈던 삼별초(三別抄)는, 고려 정부가 몽고와 굴욕적인 강화를 맺자 이에 반대하여 들고일어났다. 삼별초는 고려가 수도의 치안을 위해 설치한 야별초(夜別抄)가 좌우로 나뉘고 몽고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로 구성된 신의군(神義軍)을 합쳐 부른 이름이다.

삼별초는 몽고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하여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국왕과 문신들이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끝내 개경 천도가 이루어지자 이들 삼별초는 배중손(裵仲孫)을 중심으로 하

여 원종 11년(1270) 6월 '반개경정부, 반몽고'의 기치를 들고 왕족인 원종의 동생 승화후(承化候) 온(溫)을 국왕으로 추대하고 새 정부를 세웠다.

이후 삼별초는 나주와 전주를 공략하다 정부군과 여몽 연합군에 패해 진도로 들어갔으나 해상권은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 뒤 여몽 연합군의 진도 공략은 수차례에 걸쳐 시도되었고 끝내는 진도가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자 삼별초는 탐라(제주도)로 다시 옮겨가 고려 정부와 몽고의 연합군에 맞서 싸웠다.

당시 삼별초의 세력은 한때 전라도의 연안 여러 섬은 물론 경상도의 남해, 진주, 거제, 합포(마산), 동래, 금주(김해)까지 판도를 넓혔고, 또 일본과도 우호관계를 맺기 위하여 사신을 보냈으며 밀양과 개경 등 여러 고을이 이들에게 호응하여 관청의 노비들과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이는 몽고와 고려 정부의 이중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당시 삼별초의 위세가 어떠했는지는 다음의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전라도에 토벌사로 부임한 참지정사(參知政事) 신사전(申思佺)은 나주에 이르러 삼별초군이 나주를 공략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개경으로 달아나 버렸고, 나주부사(羅州副使) 박부(朴浮) 등은 투항과 저항을 결정 못하고 있었으며, 전주부사(全州副使) 이빈(李彬)도 성을 버리고 도주하였다."(『고려사』 103권 김응덕 傳).

"삼별초가 진도에 진을 치고 있으며 주와 군을 약탈하고 제지(帝旨)를 주며 전라도 안찰사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수확을 독촉하여 해도(海都)에 옮겨 살게 하였다."(『고려사』 권26, 원종 11년 8월조).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고려 정부와 몽고의 연합군에 의해 짓밟혔고 삼별초도 진압되었다. 즉, 제주도에서 재건의 바탕을 마련하던 삼별초는 원종 14년(1273) 4월 김방경과 몽고의 홍다구(洪茶丘)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한 맺힌 항몽 전쟁의 끝을 맺었다.

이로써 고려 안에서 몽고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거되었고, 고려의 몽고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는 이후 원(元)이 망할 때까지 80여 년에 걸쳐 이어졌다. 하나의 예로 고려는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되어 왕의 칭호도 조(祖)나 종(宗)자를 쓰지 못하고 왕(王)이나 충(忠)자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속에서도 몽고풍이 크게 유행하였다.

삼별초의 3년간에 걸친 항몽전 기간동안 우리 함평지역은 적어도 2년간은 삼별초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그들이 관리를 파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다만 해로(海路)가 그들에 의해 봉쇄되었으므로 우리 함평에서 거둬들인 조세가 영광 법성창을 통해 고려 중앙정부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제4절 왜구(倭寇)의 침입

고려후기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모순에 직면하고 있었다. 안으로는 권문세족과 불교사

원 세력이 농장을 확대하고 농민들을 노비로 삼아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밖으로는 80여 년에 걸쳐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민족적 모순이 심화되었다. 공민왕이 재위했던 14세기 중엽은 중국 대륙에서 원(元)과 명(明)이 교체되는 시기로, 고려로서는 원, 그리고 원과 결탁되어 있는 권문세족을 모두 몰아낼 좋은 기회였다. 그리하여 반원 개혁정치를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아직 이를 추진할 만한 사회 세력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여 목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이 무렵에 왜구와 홍건적의 침략이 심해지고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무장 세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홍건적은 원 말기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중국 북부지방에서 일어난 한족 반란군의 하나였다. 이들은 국호를 송(宋)이라 일컬을 정도로 세력이 커졌다. 그 후 원의 각지를 침공하였는데, 그 중 한 무리가 랴오양까지 진출하였다가 원의 군대의 반격을 받고 고려 영토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홍건적의 첫 번째 침입은 공민왕 8년에 있었고, 두 번째 침입은 동왕 10년 10월에 있었다. 첫 번째는 4만여 명이 서경까지 쳐들어왔으나 함종 전투에서 2만여 명을 베는 전과를 올렸고, 두 번째는 10만여 명이 압록강을 건너 개경까지 점령하였으나 이듬해 정월 최영, 이성계 등이 20만 병력을 이끌고 개경을 공략하여 10만 명에 가까운 홍건적을 죽여 물리쳤다.

또 고려 말에는 왜구의 창궐로 심한 고통을 겪었다. 왜구는 대마도에 나타났으며, 그들은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와 돌아다니는가 하면, 서울인 개경 근처에까지 나타났다. 그리하여 내륙 지방으로 서울을 옮기자는 천도론이 나오고, 연해의 주와 군이'쓸쓸하게 텅 비어 버렸다.'고 할 정도였다.

이 시기에 왜구가 그렇게 창궐한 데는 일본의 국내 사정과도 관련이 있었다. 당시 일본은 1333년에 가마쿠라 바쿠후가 멸망하고 그 후 새로이 무로마치 바쿠후가 들어섬과 동시에 황실이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는 남북조 시대가 1392년까지 계속되었다. 전쟁 때문에 중앙의 통치 권력이 지방에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하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해적 떼를 이루어 고려와 중국 연안을 노략질했던 것이다.

왜구들이 약탈하려 한 주된 목표물은 곡식이었다. 왜구들이 주로 조세로 걷은 곡식을 모아 놓은 조창과 그것을 운반하는 조운선을 습격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고려에서는 육로를 이용해 곡식을 운반하려했지만 저들은 내륙까지도 침탈해 왔으며, 민가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곡물을 빼앗아 갔다. 또 고려의 민들을 잡아가 노예로 팔기도 하였다.

고려는 왜구의 침략에 대해 회유와 무력 토벌의 양면책을 썼지만, 이중 직접 토벌에 좀더 적극적이었다. 예컨대 우왕 2년에 대규모의 왜구가 충남 연산 부근에 침입하자, 최영이 출정하여 홍산에서 크게 무찔렀는가 하면, 우왕 6년에는 500척이나 되는 왜적 선단이 금강 어귀의 진포에 들어와 배를 묶어 놓고 연안에 올라와 약탈을 자행하자, 최무선 등이 화포를 사용하여 배를 모두 불사르고 적을 무찔렀다. 이미 상륙해 있던 왜구가 각지를 노략하면서 남원, 운봉에까지 이르자 이성계 등이 거느린 군사가 황산에서 이들과 싸워 크게 이겼다. 이때 적이 흘린 피 때문에 냇물이 67일간이나 핏빛으로 흘러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었다 하며 노획한 말도 1600여 필이나 되었다는 것을 보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 창왕 원년(1389)에는 경상 도원수 박위가 병선 100여 척을 거느리고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여 적선 300척과 가옥을 불태우고 붙잡혀 간 고려인 100여 명을 구해 돌아왔다. 이 정벌을 계기로 왜구의 침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왜구의 창궐로 고려가 입은 피해와 영향은 실로 컸다. 조운이 원활하지 못해 국가 재정을 어렵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며 연해 지역은 텅 비어 쓸쓸한 상태가 오래 계속됨으로 인해 농토 역시 황폐해졌다.

고려후기 왜구의 침입 회수는 무려 392회에 이른다. 그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함경남도(8회), 평안남도(4회), 평안북도(8회), 황 해 도(27회), 경 기 도(56회),
강 원 도(32회), 충청남도(53회), 충청북도(9회), 전라남도(31회), 전라북도(24회),
경상남도(85회), 경상북도(54회), 제 주 도(1회)

또 왜구가 본격적으로 침입한 시기는 충정왕 2년(1350)부터이고, 고려말기에 이를수록 그 횟수가 늘어 우왕(禑王) 때에는 378회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또 이 때에는 왜구의 규모도 커져 고려군과 맞싸울 정도였다.

한편 고종 10년(1223)부터 공양왕 3년(1391)때까지 침입한 왕조별 왜구의 침입 회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 종(高 宗, 1213~1259) : 7회
원 종(元 宗, 1259~1274) : 2회
충렬왕(忠烈王, 1274~1308) : 2회
충숙왕(忠肅王, 1313~1329) : 2회
충정왕(忠定王, 1349~1351) : 10회
공민왕(恭愍王, 1351~1374) : 74회
우 왕(禑 王, 1374~1388) : 378회
창 왕(昌 王, 1388~1389) : 5회
공양왕(恭讓王, 1389~1392) : 4회

우리 전남지역에 왜구가 출몰하기 시작한 것은 충정왕 2년(1350) 4월부터였다. 전남의 여러 지역 가운데에서도 왜구의 침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순천이었고, 그 다음이 광주, 장흥 등지였다. 또 규모가 컸을 때는 순천지방에 침입한 왜구의 배가 무려 100여 척이나 되었다. 우리 함평과 이웃한 영광의 경우 각각 2회의 침입을 받았고, 나주와 영산포 그리고 목포 등도 침입을 당했다. 다음은 전남지방의 왜구침입 횟수를 각 지역별로 조사해 정리한 현황이다.

순천(7회), 낙안(樂安=순천지방, 3회), 부유(富有=순천지방, 1회), 광주(6회), 장흥(4회), 영광(2회), 도강(道康=강진지방, 2회), 탐진(耽津=강진지방, 1회), 담양(1회), 조양(兆陽=보성지방, 1회), 화순(1회), 동복(同福=화순지방, 1회), 능성(陵城=화순지방, 1회), 고흥(1회), 풍안(豊安=고흥지방, 1회), 구례(1회), 해남(1회), 목포(1회), 나주(1회), 함풍(1회), 모평(1회), 영산포(1회), 장성(1회), 곡성(1회), 옥과(玉果=곡성지방,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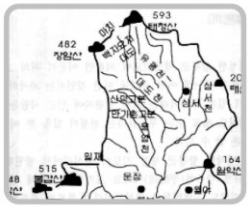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특히 우리 전남지방은 이성계에 의해 지리산의 지맥인 운봉(雲峰)의 황산(荒山)에서 격멸된 아지발도(阿只拔都)라는 15세 소년이 이끄는 왜구에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 운봉 황산에는 현재 전승비와 기념각이 세워져 있다.

『고려사』 등 옛 기록에 우리 함평지방이 침입을 받았다는 기록은 1회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 고을인 영광이나 목포, 나주 등지에 침입했을 때 침입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영산포와 나주를 공략할 때는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갔을 것이므로 우리 함평지역을 통과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가 컸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참고로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 고을의 왜구 침입에 관한 기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74년(공민왕 23) 3월 : 김광(金廣)은 목포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관직과 상을 받았다.
1376년(우 왕 2) 7월 : 왜구가 전라도 원수영(元水營)을 공략하고 영산(榮山)에 침입, 전함을 불태웠고 나주에 쳐들어가 마구 불 지르고 약탈을 자행
1377년(신 우 3) 9월 : 왜구가 함풍, 모평현에 침입했다.
1378년(우 왕 4) 10월 : 왜구가 영광, 광주, 동복현을 공략했다.
1350년(충정왕 2) 4월 : 왜구가 영광, 순천, 구례, 장흥에 침입했다.

제7장 과거제도와 함평출신 급제자(及第者)



고려는 제3대 광종(光宗) 때부터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다.

과거제도는 시(詩)를 비롯하여 부(賦)나 송(頌)을 주로 보았기 때문에 유학자(儒學者)들의 문장이 미려해지고 문풍(文風)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성종대(成宗代)에는 중앙에 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학교를 두고 경전(經典)의 교육과 보급에 힘썼다. 그리고 최충(崔沖)을 위시한 사학(私學)이 융성하여 유교경전을 교수(敎授)하였는데 과거제도와 발맞추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후백제인들이 과거제도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던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등용되는 것을 희망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성종은 지방향리들의 자제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쏟았는데 이는 향리의 자제들을 과거란 제도를 통해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자는 부호장(副戶長) 이상의 자손이었던 것 같다.

우리 함평사람들로 고려조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함평노씨(咸平魯氏), 함평이씨(咸平李氏), 함평모씨(咸平牟氏)가 각각 7명으로 함평이 본관인 성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인동장씨(仁同張氏), 이천서씨(利川徐氏)가 각각 3명, 파평윤씨(坡平尹氏)와 진주정씨(晋州鄭氏)가 각각 1명 등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고려조 때 함평지역내의 호족은 이들 성씨가 아니었나 짐작케 하며, 특히 함평모씨는 중앙관직에 고관이 많아 고려의 중앙귀족화를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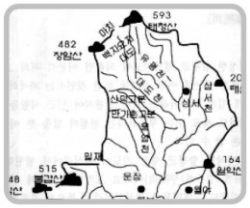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어쨌든 함평이 본관인 노씨, 모씨, 이씨 가운데에 급제한 사람들은 함풍이나 모평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적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함평사람으로서 고려시대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는 1871년에 발행한『함평현읍지(咸平縣邑誌)』를 비롯해 1895년, 1899년, 1906년, 1930년, 1969년에 각각 간행한『함평군지(咸平郡誌)』와 각 문중의 『보첩(譜牒)』및『한국인의 족보』등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표> 고려시대 함평인 과거급제자

성 명 (姓名)	본 관(本貫)	왕 조(王朝)	관 직 (官職)	비 고
이 화(李 和)	함평(咸平)	광종(光宗)	신호위대장군(神虎衛大將軍)	
노 목(魯 穆)	〃		문하시중(門下侍中)	함풍군(咸豊君)
모 경(牟 慶)	〃		평장사(平章事)	모평군
이 림(李 琳)	〃	정종(靖宗)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	
이광봉(李光逢)	〃		중대광(重大匡), 좌명공신	함풍부원군
노몽필(魯夢弼)	〃		전중내급사(典中內給事)	
이 연(李 延)	〃		밀직대제학(密直大提學)	
모광정(牟光炡)	〃		평장사(平章事)	
이안저(李安抵)	〃		밀직부사(密直副使)	
이인관(李仁琯)	〃	신종(神宗)	예빈경(禮賓卿)	
이 습(李 襲)	〃		예의판서(禮儀判書)	
노인후(魯仁厚)	〃		예부상서(禮部尙書)	
모정린(牟挺麟)	〃		시중전서(侍中典書)	
모원기(牟元機)	〃		평장사(平章事)	모정린의 자
모여장(牟汝長)	〃		대아찬(大阿飡)	
노관도(魯貫道)	〃		평장사(平章事)	함풍군
노창문(魯彰文)	〃		밀직사사(密直司事)	
모 호(牟 皓)	〃		부원수, 평장사(平章事)	
모시영(牟時靈)	〃		평장사(平章事)	
노여희(魯汝姬)	〃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노 신(魯 愼)	〃		상호군(上護軍)	함풍군
장백림(張百林)	인동(仁同)		우참찬(右參贊)	
장 주(張 稠)	〃		통례문사(通禮門事)	
정 황(鄭 璜)	진주(晋州)		검교상서(檢校尙書)	충장공(忠莊公)
장 온(張 縕)	인동(仁同)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	
윤 길(尹 趌)	파평(坡平)		한림학사	
서 린(徐 鱗)	이천(利川)		병부상서(兵部尙書)	
서 수(徐 琇)	〃		수문전학사(守門殿學士)	희양군(曦陽君)
서희찬(徐希贊)	〃		평장사(平章事)	기성군(箕城君)

제8장 고려시대의 유적과 유물



제1절 함평의 고려 사찰(寺刹)과 유물(遺物)

고려시대의 문화는 우선 불교문화로 대표되고 있다. 불교의 융성이 고려의 융성이었고 불교의 문란이 망국을 자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함평에는 고려 때 세웠던 절이 현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불우조(佛宇條)에 기록되어 있는 사찰 가운데 신라시대 때 창건됐다는 용천사(龍泉寺)를 제외한 나머지의 사찰은 모두다 고려시대에 세운 절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절은 고산사(高山寺), 월양사(月良寺), 용천사(龍泉寺), 서상사(瑞祥寺, 일명 君遊寺), 죽림사(竹林寺), 대굴사(大堀寺) 등이다. 이 가운데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신라시대에 창건한 용천사를 제외한 나머지 절은 고려시대에 창건하였던 사찰로 보인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유물과 주위 사람들의 구전에 따르면 고려시대의 사찰로서 극락사(極樂寺)와 옥천사(玉泉寺)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 고산사지(高山寺址)

고산사지는 함평향교에서 저수지를 지나 약 1.5km 가량 떨어진 고산봉(高山峰 : 해발 359.1m) 중턱에 있다.

18세기 중·후반기에 작성된 『여지도서(輿地圖書)』 및 『범우고(梵宇攷)』에는 모두 "금폐(今廢)"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고산사는 아마도 18세기 중반 이전에 폐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86년 현지에서 수습된 막새에 '주□만력십년옥□(主□萬曆十年玉)'이라는 명문(銘文)이 보여 주목된다. 만력 10년은 1582년(선조 15)으로 이 때는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꼭 10년 전이다. 그러니까 고산사는 이 무렵에 한번 대대적인 중창을 했거나 아니면 어느 일부분의 건물을 보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지(寺址)의 현 상태는 뒤편에 민묘(民墓) 2기가 들어서 있고 숲이 우거져 정확한 현상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가로 약 50m, 세로 20m 규모의 평지가 남아 있다. 그리고 두께 25Cm, 직경 120Cm 되는 원형 석재가 숲속에서 발견되었으나 이 석재는 주초석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것이어서 그 용도를 알 수 없다.

어쨌든 고산사지는 고려 초반기로 추정되는 마애불의 조성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창건했던 사찰이 아닌가 한다.

2. 고산사지(高山寺址) 마애여래좌상(磨崖如來坐像)

고산사지 마애여래좌상은 사지(寺址)에서 약 100m 떨어진 북쪽 바위에 새겨져 있는 마애불이다.

이 마애여래좌상은 새겨져 있는 암반 자체의 석질이 좋지 않아 마모가 심하여 신체 각 부위의 조각 솜씨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우람하고 그 앞에 서면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마애불은 정서(正西)에서 약 15도 정도 남쪽 면을 향하고 있다.

먼저 상호를 보면, 시멘트를 발라 훼손된 코를 보수한 흔적이 엿보여 정확한 윤곽은 알 수 없다. 역시 눈이나 귀의 모습도 형식화 되고 마모 상태가 심하여 원래의 모습을 가려낼 수가 없다. 두정은 소발인 것 같으며 육계가 높게 솟아있다. 목에 3도가 보이지 않고 그 자리가 마모된 듯 하며 가슴이 유독 앞으로 삐져나와 도드라지게 보인다. 양 어깨는 머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넓게 벌어져 당당하게 보인다. 법의는 통견인지 우견편단인지 현 상태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수인(手印)은 두 손을 모아 가부좌를 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무릎은 결가부좌한 상태이나 길상좌인지 아니면 향마좌인지의 여부를 가려낼 수가 없다.

무릎 밑으로는 1단의 괴임을 돌출시켜 대좌와 신체 부위를 구분시켰으며 그 하단에는 형식적인 연화문이 음각으로 처리되었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을 나타냈으나 장식된 화염무늬나 기타 문양을 꾸미지 않았다. 두광 안에는 둥근 소형의 원형을 둘러 2중 두광으로 처리하였다.

이 마애불은 상호의 자세한 분위기를 살필 수 없고 기타 세부적인 기법에서 간략화 또는 생략되는 경향이 보이긴 하나 당당한 어깨와 가슴, 폭이 지나치게 넓어진 가부좌의 모습 등은 옛 양식을 간직한 듯하다. 따라서 조성연대는 일단 고려 초반기로 추정되며, 군내에 남아 있는 완형 마애불로는 유일한 것이다.

이 마애불의 규모로는 총고 365Cm, 좌 상고Cm 203Cm, 두고 42Cm, 안고 30Cm, 안 폭 24Cm, 어깨 폭 100Cm, 무릎 폭 185Cm, 무릎 고 42Cm, 신광 폭 220Cm, 두광 폭 191Cm, 대좌 폭 245Cm, 대좌 고 40Cm 등이다.

3. 군유사지(君遊寺址)

군유사지는 신광면 송사리 삼천동마을 뒤 약 800m 지점 군유산(君遊山·403m) 중턱에 있다. 마을에서 절터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이다.

군유사의 원래 이름은 '서상사(瑞祥寺)' 또는 '은국사(殷國寺)'라 했는데, 연대가 가장 빠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서상사'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의 지지류(地志類)에는 모두'군유사'로 기록되어 있다.

군유사는 1759년 작성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군유산에 있는 절로 현에서 북으로 30리 거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금폐(今廢)'라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또 『범우고』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금폐'라는 기록은 없다. 그러던 것이 1895년에 간행된 『함평현읍지』에 군유사는 폐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군유사는 한국전쟁 당시 화재로 인해 폐사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또 지명과 관련하여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즉 군유사는 이름 그대로 임금이 잠시 놀다 갔다하여 생긴 이름인데, 군유사가 있는 군유산의 이름도 임금이 머물다 갔다하여 머무를 '유(留)'자를 써서 '군유산(君留山)'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임금은 고려 공민왕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인근지역의 지명들, 즉 풀을 먹여 훈련시켰다는 '마구청(馬廐廳)'이나 또는 3천의 군대를 주둔시켜 전쟁준비를 하였다는 '삼천동(三千(泉)洞)'등의 지명 등을 고려한다면 공민왕 보다는 고려를 건국했던 왕건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군유사지는 현재 가로 약 80m, 세로 50m 정도의 규모이며, 사지의 형상은 뒤편의 평지에 약간의 지형 손상이 있으나 거의 원상태를 유지한 듯하다. 지금도 사지에서는 많은 와편과 토기편 그리고 도자기편이 수습되고 있고 주초석도 몇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자기편은 고려 상감청자에서 조선초기의 분청사기, 조선후기의 백자 및 옹기편이 수습되고 있다. 사지 앞에는 밑 둘레 3m 높이 25m 정도의 비자나무가 있고, 좌측에는 감나무(2그루)와 팽나무(1그루) 고목이 서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군유사는 현재 함평읍 함평리 357번지 이동범(李東範)집 정원으로 옮겨진 부도(浮屠)의 연대가 고려하대(高麗下代) 이며, 또한 와편이나 토기 및 도자기편의 연대가 12~13세기 이전으로 상한(上限)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고려시대 초기 이후에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세기 이후 19세기까지 가람이 존속했던 것으로 보이고, 1895년경 전후시기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사되었다. 그 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래의 사찰이 폐찰 된 이후 1950년 이전 시기 누군가에 의해 또다시 폐사지에 암자 형태의 절을 지었고, 이 절이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군유사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과 관련하여 군경에 의해 전소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의 내용은 당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함평양민학살』(정찬동)과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김영택) 등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군유사 피해과정과 관련한 군유산작전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보병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는 불갑산 주둔 빨치산 토벌에 앞서 군유산에 주둔한 공비들을 먼저 소탕하고자 작전계획을 세웠다. 불갑산에서 서쪽으로 약 50리 거리에 있는 군유산은 영광과 함평군의 경계에 위치한다. 함평쪽에는 손불면 북성리에 접해 있고, 신광면 산내리 등 험한 산세로 연결되어 있었다. 군경이 함평까지 진주하여 전 지역을 확보했으나 유독 북성리와 산내리는 불갑산 주둔 빨치산이 확보하고 있었다.

손불면 북성리 사기마을 45호 280명, 차경마을 40호 250명, 승선마을 35호 190명, 신광면 송사리 삼천동마을 70여호 등 집집마다 입산한 좌익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죽지 않으려면 방도가 없었고, 주둔 대부분의 좌익세력은 무안 해제방면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마을사람들보다 그 숫자가 많아 군유산 골짜기에도 살고 있었다.

1951년 2월 19일(음력 1. 14) 10시경, 손불면 소재지 월천리 등지에서 요란한 총성이 온 산천을 떠들썩하게 흔들고 있었다. 무장한 빨치산 대원들이 마을 골목을 돌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모두 군유산으로 올라가도록 유도하였다.

빨치산 대원들은 좌익은 물론이요 모든 마을사람들을 군유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8부 능선에 배치, 어깨동무를 하게 하여 사람 장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무장한 대원들은 군유산 봉우리에 올라가 군경을 향해 총을 쏘았다. 손불 북성리쪽의 봉우리에서 신호탄이 군유산 봉우리를 향해 발사되었다. 작전개시 신호였다. 사방으로 군유산을 향해 군경들이 진격을 했다.

마을 집집마다 군인들이 불을 질렀다. 군유산을 포위하여 산으로 진격을 계속했다. 신광면 송사지역에서 군인들이 군유산 봉우리를 점령했다. 무장한 빨치산 대원들은 이미 도망을 가고 없었다. 어깨동무를 했던 수백명의 대열이 일시에 흩어져 산 아래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군인들은 산 아래로 내려오고, 산밑에 있던 군경들은 넓은 산을 포위하여 그물로 고기를 잡듯 서서히 조여 오기 시작했다. 채포된 사람들은 산봉우리에 모아놓고 군인들은 옷 색깔이 황토 빛이나 갈색 빛이 나는 사람들만을 골라 사살했다. 빨치산 유격대들이 그와 같은 색깔의 옷을 많이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대부분 총살을 시켰다.

참혹한 군유산 작전이 끝났다. 여기저기 산등성이에 시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차경 큰골과 사기 큰골의 수 천평 넓은 땅이 시체로 덮여 있었다. 골짜기에서만도 수천여명이 사살되었다. 북성리 입구 승원마을 앞 냇가에서도 수백명이 총살을 당했다. 군유산 작전으로 수천 명의 생명들은 좌익도 우익도 원망할 필요도 없이 전쟁의 비극이 만들어낸 동족살인극이었다."

삼천동 마을 거주 최정의 씨 증언에 따라 한국전쟁 이전 시기 군유사의 가람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유사는 한국전쟁 이전 시기 두 분의 스님이 상주하고 있었다. 절에는 법당을 비롯하여 종각, 5층 석탑 등이 있었다. 법당은 약 4칸 정도의 규모로 함석으로 된 우진각 지붕이었으며, 법당 앞에는 2층 누각 형태의 종각이 있었다. 그리고 종각 우측 법당과 종각 사이에는 5층 석탑이 있었다.

그러나 군유사는 1951년 2월 19일(음력 1. 14)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시에 군경에 의해 법당과 종각이 전소되었고, 5층 석탑은 전쟁이후 무너져 있었는데 언젠가 없어졌다.

4. 군유사지(君遊寺址) 부도(浮屠)

이 부도는 원래 군유산 서상사지(군유사)에 있었던 것인데(신광면 송사리 송계마을) 6.25때 절이 폐사되면서 산 주인인 이동범(李東範)의 집(함평읍 함평리 357) 정원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다. 이동범은 한말 만경과 은율군수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이후 그의 손자 이일완(李日完)과 후손들이 관리해 오고 있는 이 부도는 기단부, 탑신, 옥개석, 상륜부가 완전하게 남아 있는 수준급으로 군내에서 유일한 것이다.

부도의 가장 밑 부분인 기단부를 보면 2단의 방형 지대석을 4개의 장대석으로 짜 맞추고 그 위로 1석(石)의 하대석을 안치하였다. 하대석은 4면의 각 면에 우주와 중앙에 탱주 2주를 얕게 목각하고 상면은 2단 각형 괴임을 하여 상층의 앙, 복연 중석을 받치고 있다. 복연은 16엽으로 원형이며 상층 앙연도 원형 16엽인데 현재는 뒤집혀 있는 상태이다. 그 위에 다시 1매의 원형 판석을 삽입, 위층의 탑신을 받게 했다. 탑신은 8각인데 각 면에 당호나 문호형의 장식이 보이지 않으며 옥개석은 8각으로 위층은 기왓골 없이 우동마루가 뚜렷하고 처마는 투박하다. 아랫면은 연목을 각출한 1단의 층 단을 두었다. 상륜은 원형의 복발과 보주를 올려놓았으나 보주가 원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조성연대는 고려 하대로 추정된다.

이 부도의 규모는 총고 194Cm, 탑신 고 56Cm, 지대석 폭 126Cm, 지대석 고 16Cm, 하대석 폭 78Cm, 하대석 고 28Cm 등이다.

5. 해보 탑동 사지(寺址)

모산마을 남쪽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작은 계곡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남쪽에 좀 더 깊숙하게 이어지는 계곡이 탑동(골)이다. 계곡은 너비 100m 미만으로 동북쪽에서 남서쪽으로 300~400m 깊이로 형성되어 있는데 계곡이 끝나는 산 능선 바로 아래쪽에 형성된 좁은 대지에 석불입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일대는 해발 70~90m의 낮은 야산으로 곳곳에는 민묘들이 조성되어 있고 두개의 얕은 산 능선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는 계단식 논이 있다. 계단식 논들은 현재 더 이상 경작되지 않지만 가장 위쪽 논에 물웅덩이가 남아있어 절 시암(샘)으로 추정된다. 샘의 북쪽에는 민묘들이 집중적으로 조성된 작은 산 능선이 있는데 여기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71호인 함평 해보리 석불입상이 있었다고 한다.

석불이 세워져 있었던 능선 대지부터 샘 부근의 계곡부에서는 기와조각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를 다듬은 흔적이 있는 석재도 확인되어서 이 일대에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함평 해보리 석불입상과 동여정(同余亭)의 주초석으로 사용된 석탑재가 모두 여기에서 반출된 것이라고 하므로 이 일대가 절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를 죽림사지(竹林寺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사찰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6. 해보 탑 앞 사지(寺址)

해보 탑 앞 사지는 모산마을 바로 북쪽에 형성된 작은 계곡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해발 70m 정도의 얕은 계곡으로 대부분 전답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곳곳에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동쪽은 트여있지만 서·남·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쪽 논의 가장자리에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고여 있는데 주민들은 샘이 있었다고 한다.

이 일대의 밭과 논둑에는 수지문 기와편을 비롯한 다수의 기와편들과 청자편을 비롯한 자기편들이 산재되어 있어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건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초석 등의 시설물은 찾아볼 수 없다. 유물들은 최근에 조성된 민묘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넓지 않아 그다지 크지 않은 건물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건물지의 구체적인 성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기와편과 자기편, 탑 앞이라는 이곳의 지명 그리고 모산마을 남쪽 계곡에 있는 탑동사지와 함께 큰절, 작은 절로 불렸다는 주민들의 전언 등으로 보아 탑골사지와 관련된 또 다른 사지로 추정된다.

7. 해보 탑동(塔洞) 석불입상(石佛立像)

해보 탑동 석불입상은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71호(1990.2.24)로 지정되어 있다. 원

래 이 석불입상은 해보면 해보리 탑골의 절터에 세워져 있었으나 주민들의 신고로 밀반출될 위기를 모면하고 지금의 위치인 함평군민 복지회관의 앞뜰로 옮겨지게 되었다.

석불입상의 원 소재지인 해보리 산 61번지 일대는 해발 80~85m의 낮은 야산으로, 파평윤씨 사매당파 문중의 산과 논밭으로 이루어졌다. 문중 산에는 파평윤씨 문중 묘 7기가 들어섰고 주변에는 시누대가 무성하며 소량의 와편과 일부 면이 잘 다듬어진 석재가 발견되었다. 절터 향 좌측에는 지금도 풍부한 수량을 보이는 샘이 있다.

절터에는 석불과 함께 석탑 1기도 있었으나 파평윤씨 문중에서 동여정을 건립하면서 주춧돌로 사용했다고 한다. 석불입상은 모산마을에 거주하는 노병기(1941년생) 씨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파평윤씨 문중묘역 중앙부의 향 우측에 서 있었는데 1980년 무렵 동네 젊은이들이 넘어뜨려 버렸다고 한다. 그 때 대좌 구멍에서 고서들이 발견되었으나 지금은 행방을 알 길이 없다고 한다.

이후 1980년 8월경 파평윤씨 문중에서 석불을 매각해 버렸고, 이로 인해 석불을 탑재(탑골 사지 뒤편 고개) 너머 발미마을 쪽 길가로 약 200m 정도 이동시킨 후 실어갈 차량을 기다리는 도중에 리현석(작고) 씨가 발견하여 군에 신고하였다. 이어 전라남도의 긴급조치로 타지로 반출을 막았다. 그 뒤 문중 관계자들에게 문화재 매각과 이동의 부당함을 설득시켜 함평군청으로 이전하여 보존하도록 합의했다.

1982년 4월 25일 함평읍 함평리 154-1번지에 자리한 함평군민 복지회관의 앞뜰로 옮긴 뒤 이전 표석을 세웠다. 이때에 석불을 대좌 위에 세우려다 보니 석불 하반부가 파손된 상태여서 대좌에 마련된 장방형의 구멍에 들어가지 않자 석불 하반부를 5㎝ 정도 다듬어서 대좌의 구멍에 끼우고 시멘트로 마감했다고 한다.

이 석불은 광배와 대좌를 갖춘 완전한 불상이다. 광배와 발등까지를 1석(石)으로 하고 대좌는 별석(別石)으로 하였으며 대좌 위에 발등을 양각하여 신체 부분에서 발등을 떼어서 대좌와 연결시켜 1석(石)으로 하여 마무리 하였다.

먼저 머리 부분을 보면 소발에 높직한 육계가 솟아 있으며 머리와 이마부분 사이에 1조의 음각 띠를 도려 얼굴 면과 머리를 구분시켜 놓았다. 상호를 보면 눈과 코, 입 등이 비교적 입체적인 사실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인중의 확실한 표현과 고졸한 미소는 이 불상이 시대적으로 고식을 띠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호형을 그리면서 펼쳐진 동그란 눈썹과 눈 꼬리가 약간 치켜선 모양은 통일신라시대에서도 유행하였지만 이러한 양식이 고려로 내려오면서는 더욱 옆으로 퍼지면서 눈 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해지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석불의 조성연대를 비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 더구나 양 뺨에서 나타난 알맞은 피부감이라든지 턱 밑으로 내려오는 적당한 볼륨은 통일신라시대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로서, 불상 하체의 옷 무늬에서 보여준 고려적인 요소만 제외하면 통일신라 말기까지 올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귀는 길게 늘어뜨려 어깨 위에 멎었으며 목에는 3도가 보이고 법의는 우견편단인데 옷의 무늬가 좌측 어깨를 걸쳐 평행선으로 내려와 하체를 덮는 지극히 도식화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고려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화순 운주사의

석불군에서 나타나는 옷의 무늬와 관련되고 있어 이 시대의 전남에 분포한 석불양식의 전파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대좌는 자연석을 약간 다듬어 상면에 복연을 형식적으로 장식하였으며 전면에는 몸체와 발등을 길게 조각함으로써 대좌에서는 완전히 퇴화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손 모습은 역V자형을 취하고 있으며 왼 주먹을 오른손이 감싸고 있는데 지권인인지의 여부는 더 자세한 고찰이 요구된다. 광배는 두광과 그 주변에 화염무늬를 장식한 주형광배로서 신체부분 하단에서는 각종 문양을 생략하였다. 불상 등의 표면은 별 조식이 보이지 않으며 평평하게 처리하였다.

이 석불은 두광이나 화염무늬, 상호 등에서 보여준 온화하고 알맞은 양감 및 입체감은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고수한 면이 있으나 불신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일부 양식이 퇴화되는 등의 수법은 시대적으로 하한(下限)하는 경향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간략화 되고 수직적인 옷 주름 등에서 더욱 그런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이 석불 입상의 조성연대는 고려시대 11~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석불입상의 크기를 보면 총 높이 292Cm, 입상 몸통높이 211Cm, 머리높이 63Cm, 얼굴높이 38Cm, 얼굴 폭 33Cm, 어깨 폭 64Cm, 광배 폭 90Cm, 대좌 높이 32Cm 등이다.

8. 해보 해보리 동여정(同余亭) 탑재(塔材)

동여정 탑재는 광주와 영광간의 해보면 소재지 문장리에서 함평을 향해 국도를 따라 약 1.5Km 쯤 가다보면 도로에서 우측으로 약 300m 떨어진 야산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파평윤씨 문중에서 세운 동여정(同余亭)이라는 정자가 있고 이 탑재, 즉 석탑부재는 정자의 주춧돌로 사용되고 있다.

이 탑재는 원래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71호로 지정된 석불입상과 함께 해보리 탑골 옛 절터(해보리 산61번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 상모평마을에 거주하는 윤석근 씨(1926년생)의 증언에 의하면, 파평윤씨 문중에서 동여정을 건립할 때 석불이 있던 탑골의 옛 절터에서 석탑을 넘어뜨리고 그 탑재를 옮겨와서 주춧돌로 사용했다는 집안 어른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정자에 걸려진 「동여정기(同余亭記)」의 말미에 "영력오정유오월일 월성최맹현서(永歷五年丁酉五月日 月城崔孟鉉書)"라는 내용이 보인다. 영력 5년은 1651년으로 신묘년(辛卯年)에 해당되어 연호와 간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간지의 연대를 취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정유년은 1657년(효종 8)으로 영력 10년에 해당된다. 정자에는 또 조선말기 항일 의병장인 기우만(奇宇萬·1846~1916)이 쓴 또 다른 「동여정기」가 걸려 있다. 이 두개의 현판으로 미루어 보아 동여정은 1657년 이전에 최초로 건립되고 기우만이 「동여정기」를 쓰기 이전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탑재가 동여정의 주춧돌로 사용되기 위해 옮겨진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동여정의 중수시기를 「동여정기」를 쓴 기우만의 활동연대로 미루어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초기로 추정하거나, 별제공파와 사매당파의 형성시기와 관련해서 170년 전(1830년대)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동여정은 모두 8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좌우측면 2개와 우측후면 1개의 기둥은 자연석 초석을 사용하고 나머지 5개(전면 3개, 후면 2개)의 기둥은 탑재를 사용하였다. 주춧돌로 사용된 탑재 5개는 옥개석(지붕돌) 3개와 탑신석(옥신석·몸돌) 2개로 나누어진다.

먼저 전면 좌측의 것은 탑신석으로 네 면에 우주(모서리 기둥)가 표현되었다. 크기는 가로 61㎝, 세로 61㎝, 높이 27㎝ 이상이다. 그리고 전면 중앙의 것은 옥개석으로 층급받침은 4단이다. 크기는 가로 96㎝, 세로 97㎝, 상면가로 65㎝, 상면세로 64㎝, 높이 26 이상이다. 또 다른 전면 우측의 것은 탑신석의 네 면에 불상이 새겨졌다. 그 가운데 세 면에는 불상 하부가 땅에 묻혀 있어 명확하지 않지만 좌상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한 분씩 선각(2면) 또는 양각(1면)으로 새겨졌다. 이 가운데 양각으로 새겨진 면은 선각으로 두광까지 표현하였다. 나머지 한 면에는 장방형의 구획을 두르고 그 안에 측와상(側臥像) 형태의 와불(臥佛)을 선각으로 표현한 듯한 형상이 보인다. 크기는 가로 49㎝, 세로 48㎝, 높이 23㎝ 이상이다.

다음으로 후면 좌측의 것은 옥개석으로 우동마루와 완만한 낙수면, 처마 끝이 약간 들린 듯한 모습이다. 크기는 가로 81㎝, 세로 84㎝, 상면 가로 46.5㎝, 상면 세로 46.5㎝, 높이 21.5㎝ 이상이다. 끝으로 후면 중앙의 것은 옥개석으로 층급받침은 3단이다. 크기는 가로 62㎝, 세로 66㎝, 높이 22㎝ 이상이다.

이들 탑재는 층급받침이나 낙수면의 경사, 옥개석의 반전각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으로 보인다. 옥개석이 3개인 점은 적어도 3층 이상의 석탑이란 증거이나 아쉽게도 동여정이나 탑골사지 부근에서 상륜부재나 기단석재, 지대석재 등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9. 손불 사기봉(沙器峯) 마애불(磨崖佛)

사기봉 마애불은 손불면 북성리 사기마을 뒷산에 있다. 해발 357m의 사기봉(일명 彌勒峰)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서쪽으로 약 200m 지점에 높이 약 15m, 폭 5m 정도의 자연암이 수직으로 솟아 있는데, 이 자연암 편평한 면의 동쪽 면과 북쪽 면에 각각 마애불이 새겨져 있다. 군유산의 지봉인 사기봉은 북성리 사기마을(沙器 또는 沙己)에서 약 1시간쯤 오르는 거리이다.

먼저 동쪽 면의 마애불을 보면 동쪽에서 약 15도 정도 남쪽을 바라보게 새겨 놓았는데 총 높이는 약 3m 정도의 음각마애불이다. 암면이 고르지 못하고 요철이 심하여 옷의 무늬나 각 부분의 윤곽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좌상으로 보인다. 얼굴 표면을 보면 계란형이긴 하나 두상의 형태가 분명치 않아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여래상인 것이 분명하다. 치켜 뜬 눈과 눈썹, 납작한 코, 길고 두툼한 일자형의 입술이 드러나며 그 밑으로 턱 부분과 삼도가 확연히 나타난다. 어깨 쪽으로 내려와서는 왼쪽에서 두세 줄의 법의 자락이 가슴 아래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 우견편단으로 보이며 무릎 쪽에 와서는 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지만 결가부좌를 한 왼쪽 무릎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러나 발 모습이라든가 옷의 무늬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길상좌 또는 항마좌의 여부를 알 수 없다.

다음으로 북쪽 면의 마애불은 동쪽과 북쪽의 중간지점을 향하고 있다. 앞의 마애불에 비해 조금 작은 편인데 역시 동쪽면의 마애불과 비슷한 음각으로 새겼다. 주로 상호부분만 드러나고

신체 각부에서는 윤곽을 잡을 수가 없어 전체 모습이 파악되지 않는다. 총 높이는 약 2m 정도이며 어깨 폭이 95Cm이다. 치켜 뜬 눈과 눈썹, 턱과 3도가 보인다. 신체부위에서는 거의 의습이 드러나지 않는데 쌍 V자형의 옷 무늬가 나타나며 신체하단은 전혀 묘사된 선각이 없다. 아마도 미완성 작품이 아닌가 한다.

사기봉의 마애불은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사기마을 인근에 있는 옛 옥천사(玉泉寺)에 속한 미륵암에서 조성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마애불의 위치는 오히려 현 영광에 속한 연흥사(煙興寺)에 가까운 곳이며, 또 연흥사에 고려 초기에 속한 3층 탑재가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같은 마애불도 조성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성 시기는 고려 하대로 추정된다.

10. 대굴사지(大堀寺址)

대굴사지는 학교면 곡창리 대곡마을 대굴산 기슭 752번지에 있다. 이곳은 1914년까지 무안군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으나 이후 함평군으로 편입된 지역이다.

이곳 대굴사지는 사지(寺址)라는 중요성도 있지만 옛 수영지(水營址)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주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고수영(古水營)은 대굴포에 있었는데 지금은 해남으로 옮겼다."라는 내용이 전한다. 그리고 해남 우수영에 있었던 옛 수영이 지금의 대굴사지가 있는 대굴포(大堀浦)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대굴사는 고려시대의 인물인 김극기(金克己)의 시(詩)에도 나올 정도로 그 규모나 주변 경관이 아름다웠던 것 같다.

현 대굴사지로 전해지는 대곡마을은 함평군과 나주시 동강면을 경계로 하는 영산강의 북안에 위치한다. 이곳은 마을의 북쪽에 솟아있는 대굴산(일명 冊峰 또는 백바위 140.8m)과 남서쪽에 위치하는 지네봉(해발 157.5m)을 사이에 두고 그 지맥이 마을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분지 형이며 남쪽으로는 영산강이 흐르고 있어 글자 그대로 배산임수(背山臨水)로서 천연의 요새지이다. 대굴산은 「대동여지도」(1861년)와 「무안현지도」(1872년)에 표시되어 있으며, 특히 「무안현지도」에는 대굴산이라는 명칭이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면성지(綿城誌)』 산천조에는 대굴산과 대굴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대굴산은 서흥이라고도 불리며 읍으로부터 동쪽으로 2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진례면에 있다. 속금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뻗어 나와 봉우리를 이루었고 그 안에 대굴사가 있다. 또한 삼족당 김대유는 「江山前朝寺層岩赤氣 分明學士記千載塔凌雲」이라는 시를 남겼다.…"

또 현재 사지가 있는 대곡마을은 약 10여 호의 민가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사지는 이 마을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대굴산(책봉)의 남서쪽 기슭으로, 지금의 예전 최영호 씨가 소유하고 있는 민가 뒤편의 어씨(魚氏) 선산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이다.

어씨(魚氏) 선산에는 총 9기의 민묘가 있으며 그 가운데 3기를 제외한 나머지 6기는 모두 근래에 와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묘역 제일 위편 좌측 묘의 비문을 보면, 이 묘의 주인공은 고원군수(高原郡守)를 지낸 어사충(魚史忠)의 묘로서 이 비의 건립연대는 1742년(영조 18)이다.

고원군은 지금의 함경남도 남부에 있는 군의 지명이다. 다음 그 밑으로 우측에 있는 묘는 어사직(魚史直)의 묘로서 벼슬은 통덕랑을 지냈으며 비의 건립은 1715년(숙종 41)이다. 또 한 기의 묘는 약간 밑으로 내려와 좌측에 있는데 역시 통덕랑을 지낸 어유호(魚有浩)의 묘로서 전면에 비석은 없으나 앞에서와 같이 17~18세기의 묘로 보인다.

대굴사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태종7년 12월 신사(辛巳)조에서 처음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찰들로 하여금 각 고을에서 복을 빌던 절을 대신하게 하도록 의정부에서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난해 사원들을 폐할 때 삼한 이래의 큰 사찰들까지도 폐하였으며 폐한 절에 주지를 내려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승도들이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일 산수 좋은 곳의 대가람을 택하여 폐지된 사원을 대신한다면, 승도들도 거주할 곳을 얻게 될 것입니다.'이리하여 여러 고을에서 복을 빌던 절을 모두 명찰로 대신하였는데 …(중략), 천태종으로는 충주의 엄정사, 초계의 백암사, 태산의 흥룡사, 정산의 계봉사, 영평의 백운사, 광주의 청계사, 영해의 우장사, 대구의 용천사, 도강의 무위사, 운봉의 원수사, 대흥의 송림사, 문화의 구업사, 김산의 진흥사, 무안의 대굴사(大堀寺), 장사의 선운사, 제주의 장락사, 용구의 서봉사이고, …(후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굴사는 천태종 사찰로 도강(현 강진)의 무위사와 함께 조선시대 초까지 큰 사세(寺勢)를 유지하고 있던 대가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조선시대 초기 이전 고려시대로부터 사찰이 존재하였음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대굴사를 다음에서 보는바와 같이 옥천암(玉泉庵)이라 불렀다는 무안군의 읍지인 『면성지』의 기사는 조선 중기 이후 대굴사의 사세(寺勢)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면성지』에 기록된 김대유(金大有)의 글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굴사는 일명 옥천암(玉泉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굴산에 있다. 창건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현종 정미년(1667, 현종 8)에 모두 무너졌으나 무안현감 어진열(魚 震 說)이 절을 철거하고 불상과 다른 기물들을 인근에 있는 총지사(摠持寺·무안)로 보내고 그곳을 소유하였다."

위 기록으로 보아 대굴사는 현종 8년(1667) 이전에 이미 폐찰되었으며, 당시 대굴사의 불상과 다른 기물들을 옮겼다는 총지사는 지금의 무안군 몽탄면 대치리에 있던 대 가람이었다. 그러나 이 사찰은 현재 터만 남아 있으며 1810년을 전후해서 폐찰 되었다.

또 위의 기록으로 보아 대굴사의 절터 일부분은 이후 무안현감 어진열(魚震說)에 의해 문중산으로 활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함종어씨(咸從魚氏) 족보(族譜)를 확인한 결과 현재 어씨(魚氏) 선산에 안장되어 있는 어사충(魚史忠)을 비롯해 어사직(魚史直), 어유호(魚有浩) 등은 무안현감을 지낸 어진열(魚震說)의 후손들이며 실제로 어사충(魚史忠)의 비석 후면에 어진열(魚震說)은 어사충(魚史忠)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다.[139]

139) 1999년 판 함평군사에는 어사충, 어사직, 어유호 등이 어진열의 조상으로 표기되었으며 어진열은 어사충의 5대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어씨(魚氏) 문중(門中)의 어강(魚漮) 이사(理事)가 어사충(魚史忠)의 묘비명(墓碑銘)과 족보(族譜) 복사본등으로 고증(考證)을 하여 바로잡아 기록한다.

이처럼 대굴사는 당시 무안현감이라는 신분에 의해 헐리었다. 또한 절터의 등허리가 특정 문중의 묘역으로 쓰였다. 이는 당시 억불(抑佛)에 따른 사회상의 일면으로 생각해야 하지 꼭 어느 한 문중에 의한 강제적인 압력행사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옥천은 마을 안에 있는 샘의 명칭으로 현재까지 마을의 상수원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현재 대굴사지에는 대숲과 잡목이 우거져 있으며 와편과 자기편들이 산포되어 있으나 절과 관련된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습유물로는 기와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도기편, 청자편 그리고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와 백자편 등이 있다.

11. 월양사(月陽寺)

해보면 해보리와 상곡리, 산내리를 경계하는 월양산에 있던 절로 파악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초기 이전부터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아직 발견된 바 없고 주춧돌과 깨어진 기왓장이 절터임을 말해 줄 뿐이다.

12. 극락사(極樂寺)

감방산 용굴에서 남쪽으로 약 500m 지점인 감방산 산속에 있던 절이며 행정구역으로는 함평읍 자풍리에 속한다. 이 절도 조선시대 때 폐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석불이나 부도, 석탑 등의 유물은 없고 이 절 경내에 세워졌던 소형(小形) 동자석(童子石) 2기가 자풍리 신풍마을 어귀에 옮기어 전해오고 있다.

제2절 고려청자(高麗靑磁) 도요지(陶窯址)

함평군에는 옛 도요지가 많이 있다. 조선시대 때는 이 고장에서 생산된 도자기가 특산품으로 꼽히기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옛 도요지 가운데 고려청자 도요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고 조선시대의 도요지는 조선시대의 유적 유물 편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고려청자에 대해서 간략히 말해보면, 고려청자는 원래 중국의 송(宋), 원(元)의 영향을 받아 제작이 이루어졌으나 우리 선조들은 송, 원의 청자를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창력을 발휘하여 세계 어느 나라의 도자기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비취색을 만들어 냈으며 그 오묘한 빛깔은 고도 문명시대라는 오늘에도 그 신비를 풀지 못하고 있다.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은 그 원인이 일하는데 잡념을 넣지 않고 자기의 온갖 정성을 쏟았으며 자연에 순응했고 상욕(商慾)이 들지 않은 순수한 산물(産物)이라는데 가치가 있다.

비취색 밑에 숨어 있는 단운고학(斷雲孤鶴)의 상감(象嵌)[140], 한들한들 흐느적이며 부풀어 오

른 물레[141]의 흔적이 정중동(靜中動)의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예가인 영국의 버나드리치 박사는, "고려청자의 깊고 엷고 적적한 맛의 오묘함을 꼭 내손으로 이루고 싶다. 내가 영국에 돌아가서 만일 이런 색의 도자기를 만들어 낸다면 나는 저 흐린 하늘 아래서 살고 있는 내 나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려청자를 세계 사람들은 근래까지도 중국 또는 일본의 특수 자기로 아는 사람이 많았으나 이제는 한국 사람이 만든 세계적인 우수품인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까지 전남에서 고려청자 요지가 발견된 곳은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칠양면 심흥리,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 동암리,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등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상품을 만들어낸 곳은 전남의 강진군 대구면과 전북의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등이다.

함평군의 청자 도요지는 1983년 리현석(작고)이 손불면 양재리 밭 512 번지(리종일 소유, 1호요)와 양재리 산 142-7번지(리종욱 소유, 7호요), 두 곳의 고려청자 도요지를 발견, 『함평군사』에 수록했는데 1987년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원 김정영, 박문식이 재조사에 나서 밭 512번지 요에서는 고려청자 외에 조선시대 초에 분청자도 만들었음을 확인하였고, 2곳 외에 리종휘 소유의 논(5호요), 박의구 소유의 논(8호요), 리정훈 소유의 논(3호요), 3곳과 또 손불면 동암리에도 청자요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바 있고, 1988년에는 광주박물관 조사진이 여시밭굴요(2호요), 리재오가 대밭요(4호요), 7호요에서 동남쪽 50m 지점요(6호요)를 추가 확인하여 모두 8기를 확인하였다(광주박물관은 김정영, 박문식이 확인한 박의구 소유 논의 요를 조사하지 못함).

광주박물관의 조사보고서[142] 내용에 리현석(작고)과 김정영, 박문식 등이 조사한 바를 보충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유적현황

도요지는 양재리 장재동 마을 안쪽과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남쪽을 제외하고는 월암산의 산줄기에 의해 둘러싸인 분지형이며 마을 북쪽으로는 계곡을 막아 만든 저수지가 위치한다. 총 7기가 조사되었는데 주변에 산재해 있는 도편들로 보아 더욱 많은 도요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호 요지

장재동에서 동쪽으로 600m 지점의 계단식 논(1983년 조사시 밭 512 번지, 리종일 소유)에 위치한다. 민묘와 함께 잣나무가 서있는 이곳은 월암산의 산줄기가 남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경사면에 해당한다. 최근 밭을 논으로 개간하면서 원래의 모습을 완전 상실하였는데 논둑의 경사면에 소량의 도편만이 박혀 있을 뿐 가마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수습된 도편의 종류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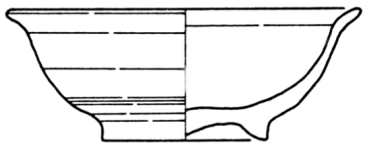
140) 상감 : 그릇의 몸에 쇠나 대칼로 무늬를 파고 그 속에 황토나 백토를 넣어 검은색과 흰색을 나타나게 하는 기법이 기법은 은 세공의 기법을 도자기에 응용한 것이다.
141) 물레 : 그릇의 모양을 만들어낼 때 쓰는 기구
142) 전남지방도요지조사보고서(Ⅱ). 1988.

접, 접시, 잔, 광구병, 갑발편 등이다.

* 1983년 조사시 밭에 가마벽 편과 도지미 등이 널려 있었고 극히 일부의 요벽도 확인되었다.
* 1987년 조사시 조선시대 초의 분청자편도 수습되었다.

2호 요지

장재동 마을에서 서쪽으로 20m 지점의 속칭 '여시밭골' 남쪽 사면에 위치한다. 장재동 고인돌로부터 서쪽으로 50m 지점의 밭과 민묘 주위로 골짜기 지형의 사면이다. 가마의 장축 방향은 골짜기의 흐름과 일치하는 남~북으로 길이는 현재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보아 15m 정도로 여겨진다. 수습된 도편은 대접, 접시편 등이며 도지미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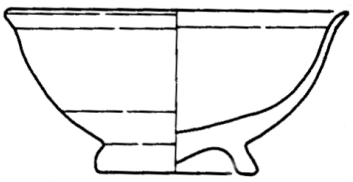
양재리 2호 도요지 녹청자 초벌구이 접시

녹청자 초벌구이 접시로 구연이 외반되고 측사면의 선이 둥글게 굽어 있으며 굽은 바닥 안쪽을 얕게 깎아 만들었다. 바탕흙은 모래알이 섞인 조질(粗質)이다.

3호 요지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150m 지점에 위치한 리정훈 소유의 밭에 위치한다. 이곳은 복룡산의 산줄기에 의해 형성된 골짜기 지형으로 요지는 서쪽 구릉 사면에 동-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수습된 도편은 대접, 접시, 합뚜껑 등이며 도지미 파편도 보인다.



양재리 4호 도요지 녹청자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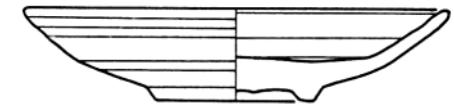
4호 요지

마을 중앙 리재오 집의 대나무 숲에 위치한다. 이곳은 복룡산에서 마을 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중심지점으로 밭과 집 주위에 수많은 도편이 산재해 있으며 밭고랑 사이의 수로에는 퇴적층의 단면이 노출되어 있다. 수습 파편의 종류는 대접, 접시, 잔, 합뚜껑, 완 등이다.

* 녹청자 잔은 구연이 넓게 외반되어 있으며 굽다리는 높고 밖으로 벌어진 형태다. 바탕흙은 모래알이 섞여 있으며 녹청색의 투명유(透明釉)가 굽다리 안까지 시유되고 유빙열(釉氷裂)이 심하다. 안쪽에는 점토가 섞인 내화토 비짐눈의 흔적이 보인다.

5호 요지

4호 요지에서 북쪽으로 50m 지점에 위치하는 이종휘 소유의 논에 있다. 동쪽으로는 100m 지점에 당산나무가 바라보이는 이곳은 계단식 밭과 논 사이의 경계 지점에 많은 도편



양재리 5호 도요지 녹청자 접시

들이 산재해 있으나 경작으로 인해 전형을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수습 도편은 대접, 접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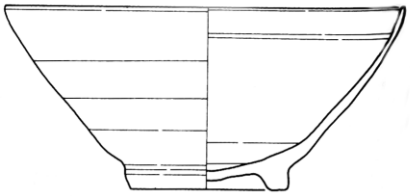
* 녹청자 접시는 회색의 사질토 위에 녹청색의 투명유가 굽다리 안쪽까지 시유되었고 굽다리 바닥에는 내화토 비짐눈과 모래 받침 흔적이 보인다.

6호 요지

7호 요지에서 동남쪽으로 50m 지점의 밭과 도랑 사이의 경계지점에 많은 도편이 산재해 있으며 도랑 경사면에는 퇴적층의 흔적이 보인다. 수습 도편은 대접, 접시, 잔 등이다.

7호 요지

6호 요지에서 서북쪽으로 50m 지점의 속칭 '사랑매깟'이라 불리는 산기슭(리종욱 소유)의 남쪽 사면에 수많은 도편과 함께 퇴적층의 단면이 노출되어 있다. 퇴적층의 길이는 6m, 폭 4m로 퇴적층 일부가 경작으로 인해 파헤쳐져 있다. 또한 논둑 단면에는 가마의 흔적이 노출되어 있다. 수습 도편은 순청자 대접, 녹청자류의 대접, 접시, 완 등이 있으며 갑발편과 도지미도 보인다.



양재리 7호 도요지 녹청자 대접

* 1983년 조사 때는 순청자의 파편은 보이지 않았었다.

거의가 녹청자로 대구면이나 보안면에서 청자 쇠퇴기인 14세기에 만든 것과 비교되는 조잡성을 띠고 있고 주로 민간의 생활용품들이었다.

이 요에서 발견되는 청자 대야의 잔편과 밥그릇, 국그릇의 잔편은 함평지역에서 출토되어 현재 함평초등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청자 대야와 식기류 완형과 색깔, 기법이 거의 일치되고 있어 함평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려청자가 이 요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 녹청자 대접은 바탕흙은 모래알이 섞인 조질로 회색을 띠며 기벽이 얇고 녹청유가 굽다리 안쪽까지 시유되어 있다. 그릇 전면에 미세한 유빙열이 보이고 내사면에는 희미한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8호 요지

박의구 소유의 논에 있으며 청자와 분청자편이 수습되었다.

정양모는 그의 저서 『한국의 도자기』에서 양재리 고려청자 도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양재리 장재동에는 마을 안과 마을 주변 곳곳에 5개의 청자요지가 있다. 도편의 태토(胎土)는 사립(沙粒)이 섞인 조질(粗質) 태토로 치밀하지 못하여 기벽(器壁)이 얇고 유색(釉色)은 녹청색 또는 회청색으로 유빙열(釉氷裂)이 있고 굽다리 안까지 시유(施釉)되었다. 문양은 음각과 또 흑상감(黑象嵌)으로 시문(施紋)되어 있는데 그 예가 희귀하고 도자기에 상감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초기 양상을 밝혀 줄 귀중한 자료라 생각된다. 모든 대접과 접시는 내저(內底)와 굽다리에 내화토(耐火土) 비짐눈을 4~5개 받치고 포개어 구웠으며 요도구(窯道具)인 갑발과 갑발 받침, 도지미 등이 약간 출토되었다."[143]

143)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1991. 188쪽

양재리의 도요지 중 동쪽과 남쪽의 논과 밭에 있던 요지는 1994년 경지정리 때 발굴 조사도 없이 완전 훼손되고 말았다.

제3절 고막천 석교(古幕川 石橋)

고막천 석교는 현재 학교면 고막리 고막천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나주시 문평면과 함평군 학교면의 시·군계에 흐르는 고막천에 동서로 가로 걸쳐진 널다리 형식의 돌다리이다. 이곳은 예전 호남선 고막원역에서 서북쪽으로 약 1㎞쯤 떨어진 곳이며, 목포-광주간 국도 1호선 상의 철근콘크리트교인 고막교에서 북쪽 약 500m 상류이다. 하천 흐름의 개선과 수해예방을 위한 조치로 원래 고막천 석교가 가설된 때보다 제방이 약 5m 정도 더 높여져 폭우 때마다 물 속으로 잠기게 되어 본의 아니게 잠수교의 신세가 되었다.

이 고막천 석교의 다리 형식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놓여진 일반적인 널다리(桁橋) 형식으로 교각이 5개소이고 6경간(徑間)이나 되는 다경간(多徑間)의 다리이다. 2001년 문화재청에서 실측조사 및 수리공사시 실측한 결과에 의하면, 고막천 석교의 다리 길이는 상판기준 L=20.0m이고, 정상적인 폭 유지상판기준의 폭은 B=3.5m이며, 지대석 상단에서 바닥 돌 상단까지의 높이는 H=2.5m의 규모이었다.

이 다리는 오랜 세월 견디어 오면서 잦은 수해로 인해 여러 차례 다리의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때마다 당시 여건에 맞게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현존 다리의 형식으로 보아 다리의 큰 틀은 다리길이, 폭, 높이 등은 바뀌지 않았으나 그 대신 세부구조는 많이 변하였다.

고막천 석교의 재질은 전적으로 이 일대에서 많이 생산되는 푸른빛이 나는 화성암중 변성암이 주를 이루고, 일부는 붉은 색조를 띄는 것도 있다. 이 석재는 건축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화강석에 비하여 압축강도, 흡수율 등으로 비교하여 다소 약한 재료이다. 그리고 2001년 조사 때 예상치 못했던 나무말뚝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소나무이고 일부는 느티나무와 상수리나무임이 밝혀졌다. 이는 예전에 지반 보강방법으로 지하수면 아래에서 생목(生木)이 썩지 않는 원리를 이용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막천 석교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온전히 견디어 온 것은 다리의 기초가 튼튼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다리 기초는 하상(河床)의 연약지반에 나무말뚝을 촘촘히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장대석과 같은 규격이 큰 돌로 겹쳐 놓은 다음 다리발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각 주변이 물로 인해 파여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각 주변에 상당 두께의 잡석을 촘촘히 박아 다리 기초 주위가 세굴(洗掘)되지 않게 한 덕분이었다.

교각의 구성은 교각마다 다리발을 3개로 구성함으로써 2칸 형식으로 하였다. 이 다리발에 사용된 기둥은 정방형에 가까운 장대석 고주형식이었다고 보여 지나, 수해가 발생될 때 장대석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규격이 적은 석재를 임시변통으로 사용하면서 몇 개를 겹쳐

쌓아 올려 구조적으로 불안하자 횡으로 마치 뜬 창방이나 다리발 중간에 멍에 돌 걸치듯이 한 구조로 일부가 변하였다.

고막천 석교의 축조연대에 대해서는 2001년 조사 때 다리에서 출토된 나무말뚝의 재료를 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조선 초기까지 올라가나 이 시료가 과연 초축 때 것이었느냐 등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시대 편년으로 보아 최소한 조선 초기 이전에 가설된 다리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 고막천 석교는 오래되고 오늘날까지 튼튼하게 견디어 온 우수한 돌다리였기에 여러 명칭으로 불리어져 왔다. 대표적인 명칭으로 돌로 된 다리라 하여 "독다리"라 하였고, 또 마을에서 떡을 만들어 이 다리를 지나 나주, 영산포 등지에 떡을 팔았다하여 "떡다리" 또는 "똑다리"라 하였으며, 고막대사(古幕大師)가 가설하였다하여 "고막교"라고도 불려졌다.

그러나 기록상에 보이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대표적인 고막천 석교의 기록은 『동국여지승람』(1481년)과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등에 보일 뿐 언제 누가 축조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구전에 의한 가설은 고려 원종 14~15년(1273~1274)에 무안의 법천사 도승 고막대사가 도술로 이 다리를 가설하였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그러던 차에 2001년 문화재청에 의해 완전해체 과정에서 다리바닥에서 소나무와 느티나무 및 참나무의 나무말뚝 41개가 발견되었고, 이 나무말뚝을 시료한 탄소연대측정 결과 이 다리가 조선전기 고려 말까지 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설로 내려오는 고려 원종 때의 고막대사가 가설한 다리라는 것은 증명하지 못하였지만, 그동안 막연하게 알려진 고막천 석교가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다.

또 이 정도의 축조 시기의 확인으로 인해 명실 공히 국도 상에 위치한 제대로 형식을 갖춘 최고의 다리임도 확인되었다. 그 결과 이 고막천 석교는 그동안 지방 유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2003년 3월 14일 보물 제1372호로 승격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제4절 고분군(古墳群)과 묘(墓)

1. 나산 삼축리 상축 평릉(平陵) 고분군(古墳群)

함평에서 장성으로 이어지는 24번 국도변에 나산면 삼축리 상축마을이 있다. 상축 고분군은 바로 이 상축마을로 진입하는 소로를 따라 약 50m 정도 들어가면 도로변에 일명 '평능(平陵)이라 불리는 구릉지대가 있는데 이 구릉상에 동~서 2열로 배열되어 있다. 구릉 남쪽 면에 위치한 고분은 모두 원형으로 형태가 뚜렷한 것이 5기, 민밋한 것이 3기인데 대표적인 1기의 크기는 둘레가 20m, 높이가 2m정도다.

고분이 분포한 구릉의 지형을 살펴보면 북으로 300m 지점에 자리한 사산고분군과 같은 평

지성 구릉지대로 구릉 주변은 해보천과 월야천(고막천의 지류)을 끼고 발달한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맞은편에 국사봉(해발 282.3m)이 있다.

고분의 봉토는 채로 친 것 같이 자갈 하나 섞여 있지 않으며 토사가 많은 지역인데도 이곳에는 잔디가 잘 심어져 풍우의 피해도 받지 않는다.

주민들에게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이 분묘 가운데 1기가 왕묘, 또는 부마묘로 전해오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묘각과 묘직이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묘각과 묘지기는 없어졌고, 남이 보지 않는 밤중에 벌초를 해주면 훌륭한 자식을 얻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이로 인해 손질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 1930년 이 고분군 동쪽 100m 떨어진 곳에서 밭을 일구다 큰 주추 20여 개와 기와 파편이 수없이 나와 이 고분군 옆에 묘각이 있었다는 설을 증명해 준바 있다.

또한 이 고분군이 있는 지형을 평릉(平陵)이라 불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평릉면과 식지면(食知面)이 합쳐져서 나산면이 되기 이전(1932년 이전)의 평릉면이라는 면의 이름도 바로 이 고분군의 평릉이라는 지명에서 유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 마을에서 19대 약 500년 이상을 살아온 가문에서도 왕묘, 또는 부마묘라고 줄곧 전해 내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설에는 고려 헌종(1094-1095)때 생긴 능이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나 그 근원을 찾을 길이 없다. 고려 헌종이라면 재위 1년 정도만에 폐위된 왕이다. 이 고분군은 1984년 광주박물관에서 그리고 1993년에는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바 있다.

2. 함평 성남 함평이씨 시조묘(始祖墓)

함평이씨 시조묘는 함평읍 성남리 지성마을 입구에 위치한다. 정확한 지번은 대 794, 임 793-3이고, 경위도상으로는 N35-02-02.17, E126-28-59.49이다. 이 묘의 조성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묘의 피장자는 함평이씨 시조 이언(李彦)으로 알려져 있다.

묘 앞에는 <고려신무위대장군함풍이공휘언지묘(高麗神武衛大將軍咸豊李公諱彦之墓)>라 새겨진 두개의 비가 있으며 묘원 앞에는 재실인 경모재(景慕齋)가 있다.



Contents

| 제1장 | 개관 *642*
집필 / 김영택

| 제2장 | 조선의 건국과 함평현의 신설 *644*
집필 / 김영택

| 제3장 | 성리학의 보급과 함평의 사림문화 *686*
집필 / 김영택

| 제4장 | 조선중기 외침과 의병활동 *727*
집필 / 김영택

| 제5장 |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변화 *774*
집필 / 김영택



제6편 조선시대의 함평

| 제6장 |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운영과 함평농민항쟁 *803*
집필 / 김영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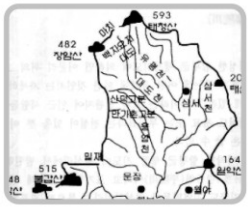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 제7장 | 동학(東學)농민전쟁과 함평 *856*
집필 / 김영택

| 제8장 | 항일의병(抗日義兵)의 전개와 함평인의 활약 *875*
집필 / 김영택

| 제9장 | 조선시대의 유적과 유물 *931*
집필 / 이명헌

| 제10장 | 고문서 및 전적자료 *1012*
집필 / 이명헌

제1장 개 관



여말선초(麗末鮮初)는 동아시아 역사상 일대 전환기였다. 밖으로는 원, 명(元 明) 교체기에 해당되며, 한반도에서는 원의 간섭을 배제해 민족 내지 국가자주권을 확립하려는 개혁정치가 수행되고 이것이 결국 고려왕조의 멸망과 조선왕조의 성립으로 발전한 왕조교체기에 해당된다. 숭유억불정책을 통하여 성리학적 명분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왕조(朝鮮王朝)는 중앙집권적 양반관료체제를 성립시키면서 8도제와 군현제(郡縣制)를 통하여 지방을 단일체계로 포용하면서 왕권강화와 국부 및 민생안정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과거제를 한층 발전시키면서 양반관료를 충원하고 각 지방의 사족을 체제 내에 수용하여 세계역사상 흔치 않는 사림정치를 펼쳐나갔다.

이 같은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을 구현한 제도와 법제정리는 거의 한 세기 동안 계속된 mx에 경국대전으로 완결을 보았다. 우리 함평은 태종 조(太宗 朝)에 들어 중앙의 직할 군현으로 승격되었고 이후 과거제를 통하여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와 이념이 심화되고 사림에 의한 여론정치와 지방자치적성격의 민인(民人)지배가 한층 강화되었지만 왕명으로 임용되는 군현 수령들의 탐학이 극심해 여러 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 함평은 독자적 사족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었으니 지금의 엄다면에 강학을 열었던 정개청(鄭介淸)이라는 걸출한 당대의 학자를 배출하였다. 정개청은 당시에 이미 당색을 달리한 율곡(栗谷) 이이(李珥)로부터도 학문의 성과를 인정받았을 정도로 성리학, 이중에서도 특히 예학에 밝았으며 천문·지리·역사 등 다방면에 걸쳐 독보적 위상을 정립하고 이 지방의 사족교육과 향약의 실시에 따른 민풍교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일찍부터 이이와 더불어 왜구의 침략을 예견하고 국방강화책을 개진하였을 만큼 국제정세에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선조조(宣祖朝)의 조선조정은 지나친 당파경쟁과 유약한 문민정치에 빠져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시책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1592(壬辰·宣祖 25)년 일본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 패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순신의 수군이 남해연안을 굳건히 방위함에 따라 다소 안정된 상황 하에서 국토와 향촌을 지키려는 의욕을 가진 유림과 상인(常人)들이 반상의 계급을 떠나 분연히 의병으로 일어났다. 호남의병은 이 고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걸쳐 활동하였다. 남원·금산·진주 등의 전투에서 함평출신 의병들의 활약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정의 당쟁와중에서 이순신이 해임·소환됨에 따라 남해의 방어선이 무너짐과 동시에 정유재란을 맞았을 때 함평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함평의 절부(節婦)와 의부(義夫)들이 장렬하게 죽음을 택해 이에 항거하였다. 이 점은 오늘날에 와서도 자랑스러운 호국정신·인간승리의 귀감으로 만인에 의해 회자되고 있다. 청의 침략에 따른 정묘·병자호란에서 함평의 의병은 전쟁지역과 매우 멀리 있었기 때문에 직접 결전에 임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의병의 궐기가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참전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삼전도의 국치

를 당하는 역사의 비극을 맞아야 했다.

조선후기 함평사회의 변화는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활발한 농지개발·농법개선·수리시설의 확충에 따른 경제적 발전과 궤를 같이 했다. 경제발전의 성과는 사회적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 이전 시기에는 주로 양반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노비와 소작인을 통해 경작하면서 부와 권위를 독점했다. 그러나 조선후기, 특히 숙종·영종·정조시대로 내려오면서 조·청·일 3국 간 활발해진 무역성황에 따른 국부의 축적과 함께 경작사상 내지 노동정신을 배격한 양반제도의 취약점이 현실화 되어 점차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 진취적이고 경제적인 현실에 눈을 뜬 농민들이 대거 출현하여 보다 많은 농지를 취득해 경작하는 한편 생산된 농작물에 대한 경제적 소비와 거래에 적극 대응하면서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신분을 상승시켜 나갔다. 새로운 사회세력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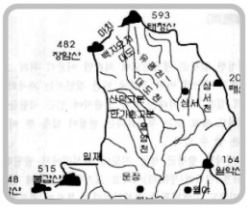
한편에서의 신분상승과 부의 축적은 다른 편에 선 농민들의 무전(無錢)·무토(無土)상민으로의 전락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도 과거와 같은 단순한 피지배 대상에 머물지는 않았다.

이 같은 변화는 조선후기의 수취체제의 개편으로 이어졌고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배체제·피지배체제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향촌사회의 변화를 크게 촉진시켰으며, 또한 이것은 지방통치정책으로 제기된 면리제(面里制)의 강화와 오가작통제 등과 맞물리면서 점차 면리행정에 양반 아닌 중인(中人·常人·民間) 참여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가난한 농민이라고 하여도 동회·동계 등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후기 주자학적 종법사상의 심화 실천에 따른 동족마을의 확산과도 관련이 있게 된다. 이른바 조선후기 '면리자치(面里自治)'의 신장이었다.

그러나 향리와 토호 층은 이 같은 면리자치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며 자체적인 방어자세를 취하고 나섰다. 전결(田結)과 가호(家戶)를 은폐하면서 국가에 대한 조세의 포탈과 감축을 부단하게 시도하였던 이들은 일반농민에 대한 억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려 했고 해당 고을 수령이 이에 동조하면 더없이 유리하게 벌여나갈 수 있었다. 세도정권은 그러한 기반과 조건을 조성하여 주었다. 그들로부터 새로운 자금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도정권 시기의 지방행정은 적지 않게 파행으로 치닫게 되고 민생의 침학으로 이어졌다. 이는 이미 성숙할 대로 성숙한 농민들의 자아의식을 발동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 바로 1862년 삼남농민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함평에서도 걸출한 민중적 지도자 정한순(鄭翰淳)에 의해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투쟁지역 중 하나일 만큼 강력하게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조정은 실제적 농민소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양반·관료들의 두둔으로 끝내버리는 삼남농민항쟁의 어설픈 수습으로 인해 결국 세도정권을 종식시키게 되고 32년 후 갑오농민항쟁의 모태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대원군 집정시기에 함평은 많은 측면에서 정상적인 지방행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그 시기는 겨우 10년에 지나지 않았다. 대원군 퇴진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개항과 대일미곡무역의 확대 그리고 국가재정의 팽창과 위기의 파급은 지방에서의 토호의 발호와 미곡가의 상승, 지방행정의 난맥상으로 이어졌다. 조선은 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갑오농민전쟁을 맞게 된다.

제2장 조선의 건국과 함평현 신설



제1절 중앙 및 지방제도 개혁과 함평현의 성립

1. 중앙정치기구의 개편

조선왕조의 창건은 고려 중기에서 시작되는 무신정권과 원의 지배체제에 수립,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개혁정치의 연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졌다. 왕위에 오른 태조는 처음에는 고려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도읍도 개경에 그대로 두었으며, 고려의 제도를 승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미 '조선'을 개국한 공신 및 추종세려들은 고려와 다른 독단의 국가편제로 전환시키고자 제반 문물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개혁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들의 개혁구상은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태조의 즉위 교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

왕은 이르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君長)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그럼으로, 군도(君道)의 득실(得失)이 있게 되어, 인심(人心)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天命)의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여기 매어있으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건국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고자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례를 조목별로 후면(後面)에 열거한다. 아아,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사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받드는 힘을 입어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그대 백성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게 하라.

1.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왕조에서는 소목(昭穆)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중략).
1. 문무(文武) 두 과거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에 생도를 더 두고 강학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1. 관혼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1.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간(臺諫)·육조(六曹)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이 임무를 맡겨서 만 30개월이 되어, 치적(治績)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은 발탁 등용시키고,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천거한 거주(擧主-천거한 사람)에게 죄가 미치게 할 것이다.

1. 충신·효자·의부(義夫)·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해야 될 것이다.
1. 환과고독(鰥寡孤獨)은 왕정(王政)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해야 될 것이다.
1. 외방(外方)의 이속(吏屬)이 서울에 올라와서 부역에 종사함이 기인(其人)과 막사(幕士)와 같이 하여, 선군(選軍)을 설치함으로부터는 스스로 그 임무가 있었으나, 법이 오래 됨에 따라 폐단이 생겨 노역을 노예와 같이 하니, 원망이 실로 많다.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전곡(錢穀)의 경비(經費)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義成倉)·덕천창(德泉倉) 등의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는 삼사(三司)의 회계·출납하는 수효에 의뢰하고, 헌사(憲司)의 감찰은 풍저창(豊儲倉)과 광흥창(廣興倉)의 예(例)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1. 역(驛)과 관(館)을 설치하는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부터는 차견(差遣)하는 공적인 사행(使行)에게 <관(官)에서> 급료(給料)를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공급(供給)을 정지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주객(主客)을 모두 논죄(論罪)하게 할 것이다.
1. 배를 탄 군사(騎船軍)는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니, 불쌍히 여겨 구휼해야 될 처지이다. 그 소재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부역을 면제해 주고 조호(助戶)를 더 정하여 윤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고, 그 생선과 소금에서 나는 이익은 그들이 스스로 취하도록 허용하고 관부(官府)에서 전매(專賣)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호포(戶布)를 설치한 것은 다만 잡공(雜貢)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의 말기에는 이미 호포를 바치게 하고 또한 잡공도 징수하여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호포를 일체 모두 감면하고, 각도에서 구은 소금은 안렴사(按廉使)에게 부탁하여 염장관(鹽場官)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들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이다. 국둔전(國屯田)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陰竹)의 둔전(屯田)을 제외하고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고려의 말기에는 형률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刑曹)·순군부(巡軍府)·가구소(街衢所)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刑法)·청송(聽訟)·국힐(鞫詰)을 관장하고, 순군(巡軍)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을 관장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첩(謝貼)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資産)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그 부과(附過)해서 환직(還職)하는 것과 수속(收贖)해서 해임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율문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며, 가구소(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
1. 전법(田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에 의거할 것이며, 만약 증감할 것이 있으면 주장관(主掌官)이 재량하여 위에 아뢰어 시행할 것이다.
1. 경상도의 배에 싣는 공물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후략).[144]

여기에서 태조는 공부(貢賦)의 감면, 형벌의 명정(明淨), 과거의 시행, 수령의 전최(殿最) 등 각 방면에 걸친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을 천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조선개국세력은 이 같은 국정방침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기반을 닦기 위하여 관제를 개편하였다. 바로 즉위교서가 발표된 날에 나온 '문무백관의 제(制)'가 바로 그것이다. 이때의 관제개혁은 고려후기 이래의 도평의사사를 최고기관으로 하는 점에서 고려의 제도를 이어가는 것이었으나, 각 품계와 관서의 계서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태조 3년 정도전이 편찬한

144) 『태조실록』 권 1, 원년 7월 28일.

『조선경국대전』에서 보듯이 「주례(周禮)」의 재상중심 정치체제를 구현한 것이었다. 이 같은 도평의사사 중심체제는 사병혁파(私兵革罷)라고 하는 통일적 군제의 준비과정에서 이방원(李芳遠-태종) 등의 국왕 권 중심주의와 마찰을 일으켜 결국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이방원이 이미 세자로서 실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정종 2년(1400) 4월에는 사병을 혁파한데 이어 관제를 개정하였다. 이때 도평의사사가 없어지고 의정부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중추원은 삼군부로 고쳐 삼군부 관원이 의정부에 합좌하는 것을 금지하여 문무의 구분을 바로 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였다. 이후 태종 원년(1401) 7월에는 문하부를 폐지할 때에 그 재신(宰臣)들은 의정부에 합하고 낭사(郎舍, 堂下官)는 사간원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의정부를 최고의 정치기관으로 만들었다. 이어서 태종은 즉위 5년이 되자 육조를 승격하여 그 장관을 정3품(전서-典書)에서 정2품(판서-判書)으로 격상시키고 정4품 의랑(議郎)을 정3품 참의(參議)로 승격시켜 국가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참판을 둠으로써 종래 행정집행기관에 불과했던 육조의 구성이 확대되었으며 권한은 강화되었다. 이로서 육조는 의정부와 더불어 핵심적인 정치기관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는 기존의 의정부가 갖던 인사권을 갖게 되었다. 조선시대 정치체제의 핵심이 되는 의정부·육조체제는 태종대에 성립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타고 태종은 1414년(태종 14)에 의정부 서사권(署事權)을 부정하고 육조의 국왕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의정부는 사대문서(事大文書)와 중죄인에 대한 재심 등의 업무만을 맡게 된데 반하여 거의 모든 정무는 육조에서 각각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국왕의 처결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다. 이 같은 육조직계제는 세종 18년(1436)에 이르러 다시 의정부서사제로 환원되었으나 인사·군사·형옥문제는 육조에서 직계할 수 있어 의정부서사제와 육조직계제의 절충적인 체제가 되었으며, 의정부의 권한도 상당히 회복되었다. 세종대 후반에 의정부서사제하에서 왕권과 신권(臣權)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교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고 왕권도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권이 다시 허약해진 단종대에 이르러 의정부서사제는 의정부 재상(宰相)들의 정치권력이 지나치게 강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즉위하면서 왕권강화를 위하여 다시 육조 직계제를 강행하였다. 이 체제는 중종 11년(1516)에 가서 의정부서사제로 돌아가지만, 이처럼 의정부·육조체제는 왕권과 관련하여 정치적 위치에 변동이 있었다. 왕권과 신권(臣權)의 상호관계에서 보면, 태조·태종·세조대에는 왕권이 신권을 압도한 시대였고, 세종 대에는 왕권(王權)과 신권(臣權)이 조화를 이룬 시대였으며, 성종 대는 왕권이 약간 약화되고 신권이 강화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양반관료체제의 틀은 이미 태종대에 그 기초가 잡혔으며, 세종대에 관직제도와 그 운영에 약간의 보완·정리가 이루어졌고, 세조대에 《경국대전》 편찬에 착수하여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쳐 성종 16년에 반행(頒行)하게 됨으로써 조선의 정치제도와 관료체제의 정비사업은 일단락되었다.

《경국대전》은 육전체제(六典體制)로서 모든 국가기관과 국정을 육전에 분속시켰다. 국왕을 정점으로 하고, 그 아래에 국정과 백관을 통섭하는 최고의 정치기관으로서 의정부가 있으나, 육조에서 국정과 관서를 분장하게 됨으로써 육조의 정치적·행정적 기능과 위상이 확대·강화되었다. 의정부·육조체제는 주대(周代)의 3공(公)·6경제(卿制)와 유사한 제도이며, 조선시대 정치체제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承政院), 정치에 대한 언론과 백관을 규찰하고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맡은 사헌부(司憲府), 왕에 대한 간쟁과 정치에 대한 언론을 맡은 사간원(司諫院), 왕의 정치적·학술적 자문과 학술·문한(文翰)·언론을 맡은 홍문관(弘文館) 등이 왕권정치의 핵심기관으로서, 왕권과 신권을 상호견제하고 조절하면서 이상적인 유학통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관료는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안에서 다시 경관직(京官職)과 외관직(外官職)으로 구분되었다. 문반의 경관직은 의정부·육조를 위시하여 중앙에 있는 관서에 소속된 관직이며 그 장관의 직품에 따라 정1품아문(衙門)으로부터 종6품아문까지 있다.

문반의 외관직으로는 정2품인 각 도의 관찰사가 있고, 그 밑에 목민관(牧民官)으로서 부윤(府尹, 종2품)·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목사(牧使, 정3품)·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군수(郡守, 종4품)·현령(縣令, 종5품)·현감(縣監, 종6품) 등이 있어서 지방의 행정이 이루어졌다. 관찰사는 도의 장관으로서 행정·사법·군사를 통괄하고 관할 수령(首領)을 지휘·감독하는 임무를 띠었고, 그 밑에 보좌관으로서 도사(都事, 종5품)와 행정관으로서 판관(判官, 종5품)을 두었다. 경관직과 외관직의 밑에는 말단행정을 담당하는 경아전(京衙前, 녹사-錄事·서리-書吏)과 외아전(外衙前. 향리-鄕吏)이 있으며, 외아전은 현지인 출신으로 임용되는 이방(吏房)·호방(戶房)·예방(禮房)·병방(兵房)·형방(刑房)·공방(工房) 등 6방(房)을 두어 왕명으로 임용되는 방백(方伯)과 수령(首領)의 지방행정을 돕도록 되어 있다.

무반의 경관직으로는 중추부(中樞府)·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오위(五衛)·내금위(內禁衛)·사간원(司諫院)·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등이 있는데, 그 중 중추부는 소임이 없는 문무당상관(文武堂上官)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었다. 오위도총부는 오위의 군무를 다스리는 관서이나 그 당상은 대개 문신이 겸하게 되어 있고, 오위의 장(將, 종2품)도 대개 문관이 겸하게 되어 있어, 실제 무반 경관직의 당상직은 문반이 겸하고 무반은 당하직만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외관직으로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종2품)·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정3품)·병마우후(兵馬虞候, 종3품)·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종4품)·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종3품)·수군우후(水軍虞候, 정4품)·수군만호(水軍萬戶, 종4품)·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종6품) 등의 무관직이 있어 각 지역의 진관(鎭管)에서 군사를 영솔하였다.

이와 같은 관료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물질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니 과전법은 그 근간이 되는 것이었다.

고려 말 농장의 확대는 국가재정 및 사대부와 양인농민 모두를 어렵게 하였고, 이의 해결책이 사전개혁(私田改革)으로 나타나 과전법(科田法)이 공포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전기 토지제도는 이 과전법이 근간이 됨은 물론이다.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지배신분인 양반에 대한 토지급여를 제도화해서 과전법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 조선왕조는 국가운영에 참여하는 양반과 기구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장을 해주었고 대신 그들로부터 직역을 봉공(奉公)받았던 것이다. 과전법체제 하에서 양반관료들은 전임(前任)이나 현임(現任)을 막론하고 모두 18과로 나뉘어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의 과전(科田)을 지급받았다. 과전은 경기지방에 한하여 분급했는데, 이것은 모든 양반이 원칙상 왕경(王京)주위의 경기(京畿)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숙위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원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제로는 경기 이외의 지방에서 사전(私田)이 성장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려 말의

사전(私田)의 폐해를 수습하고 지방 세력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145] 이 과전은 당대에 한하는 것으로 세습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과전을 지급받았던 관리가 죽었을 경우에도 그의 처가 재가하지 않으면 수신전(守信田)이라는 명목으로, 또 어린 자녀들만 남았을 경우에는 휼양전(恤養田)이라는 명목으로 존치시켜 사실상 세습이 가능하였다.

양반들은 관료로서 과전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공신전(功臣田)도 받았다. 특히 국초에는 개국공신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의 정변이 있을 때마다 공신책봉이 있었으므로 공신전은 날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전과는 달리 법제적으로 세습이 허용되었다. 또한 비관료 양반들에게도 급전(給田)이 취해져 지방에 거주하는 한량관(閑良官)들은 1년 중에서 일정한 기간을 부경시위(赴京侍衛)하는 조건으로 군전(軍田)을 지급받았다. 이 밖에도 과전법체제에서는 왕궁소유의 내수사전(內需司田), 지방관청의 늠전(廩田), 각급학교에 지급된 학전(學田), 사찰에 지급된 사사전(寺社田) 등의 토지지목이 있었다.

양반은 자기과전의 경작자로부터 10분의 1 세율의 전조(田租)를 징수하였는데, 이 밖에도 곡초(穀草)·수납가(輸納價), 기타 잡물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그 수입이 많았다. 이 때 사전주는 경작자로부터 생산량의 10분의 1을 전조로 받아서 그 가운데 15분의 1 만을 지세(地稅)로서 국가에 납부하면 되었으니, 양반에 의한 농민지배는 이런 제도에 의해 보장받았던 것이다. 과전법, 즉 수조권에 의한 토지·농민 지배는 15세기 말에 이르면 현저히 약화되었다. 양반층 내부에서 과전을 둘러싼 갈등이 팽배하고 전주와 전객 사이의 대립이 격심해졌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 사이에 중앙집권화를 더욱 추진하여 세조 12년(1466) 직전법(職田法)을 실시함으로써 토지의 지급대상을 현직관으로 한정하였고, 성종대에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여 전주(田主)의 직접 수조를 지양(止揚)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명종대에 가면 실행이 불가능하여지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제 양반관료들은 녹봉만을 받게 되었다.[146]

관원의 보충은 과거제도와 문음(門蔭)·취재(取才)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성균관은 문과에 응시할 유생들을 위한 과거준비교육을 담당하였으니 이는 문관중심의 관료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아울러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향교에 의존하였으나 후반으로 가면서 서원제도(書院制度)가 활성화되어 사교육(私敎育)의 중심이 되었다.

2. 지방제도의 개혁과 함평현의 신설

1) 8도제와 전라도

왕권의 강화를 특성으로 하는 중앙의 편제 구성과 아울러 지방행정기관의 편제와 지방관의 권한강화는 초기 중앙집권화정책의 중요한 방향이며, 왕조(王朝)의 민에 대한 일원적이고 직접적 지배라는 면에서 국초부터 서둘러 시행하였다.

태조 때에는 고려의 유제(遺制)에 따라 전국을 경기·5도 양계(五道 兩界)로 하였으나 태종

145) 한영우,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朝鮮前期社會經濟硏究)』, 을유문화사, 1983.
146) 이경식, 「조선전기 직전제(朝鮮前期 職田制)의 운영(運營)과 그 변동(變動)」, 『한국사 연구(韓國史硏究)』 28집, 1980.

13년(1413)에 8도로 개편하고 도 밑에 부(府)·목(牧)·군(郡)·현(縣)을 설치하여 조선시대 지방조직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전국을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함경(영안)·평안 등 8도로 나누고, 도 아래에는 부·목·군·현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감사)가 파견되었는데, 그는 방백(方伯)이라 하여 자기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 즉 부윤(府尹)·목사(牧使)·군수(郡守)·현령, 감(縣令, 監) 등을 통할 감독하였다. 이 관찰사는 지방의 병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방 세력화할 위험이 있어 1년 360일로 임기가 제한되었다.

관찰사(觀察使, 方伯·監司)에게는 행정·군사·사법 3권을 행사하는 강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단임제로 하였고 아울러 상피제가 적용되었다.

부에는 대도호부에 부윤, 도호부에 부사가 파견되고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과 현감이 파견되었는데 관찰사와 동격인 부윤을 제외하고 부사 이하 현감까지를 수령 또는 목민관이라 통칭하였다.

다음은 전남지역 군현의 등급의 변천을 정리한 것이다.

<표 255> 전남지역 행정구획의 각호(各號) 등급의 변천표(★표는 변화가 있었던 곳)

수령(품계)	세종실록지리지	경국대전	동국여지승람	비고
목사(정3품)	나주	나주 광주	나주	광주 강등
도호부사 (정3품)	장흥 담양 순천	장흥 담양 순천	장흥 담양 순천	
군수(종4품)	해진★ 영암 영광 무진★ 보성 낙안	진도★ 영암 영광 보성 낙안	해진★ 영암 영광 무진★ 보성 낙안	해진-해남 진도로 분리
현령(종5품)	능성 창평	능성 창평	능성 창평	
현감(종6품)	강진 함평 남평 무안 장성 구례 곡성 광양 화순 동복 옥과 진원 고흥★	강진 함평 남평 무안 장성 구례 곡성 광양 화순 동복 옥과 진원 고흥 흥양★ 해남★	광산★ 강진 함평 남평 무안 장성 구례 곡성 광양 화순 동복 옥과 진원 고흥 흥양 해남	고흥-흥양

한편 도와 군현 사이의 중간적 존재로서 도의 지시를 소령(所領)의 군현에 전달하면서 군현을 통솔하던 과도기적인 존재로서 '계수관(界守官)'이 설치되어 있었다. 고려후기 전라도의 계수관은 전주·광주·승주(순천)·익주(익산)였는데, 조선 태조 2년(1392)에 익주와 승주가 제외되고 완주(전주)·나주·광주가 되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다음의 도표와 같이 광주가 제외되고 전주·나주·장흥·남원이 되었다.[147]

<표 256> 전라도의 계수관과 소속군현(所領郡縣)

	도호부사 (都護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 지현사(縣監, 知縣事)
전주부		진산 금산 익산 고부 김제		옥과 함열 용안 고산 부안 정읍 태인 여산
나주부		해진 영암 영광		강진 무장 함평 남평 무안 고창 흥덕 장성
남원도호부		순창	용담	
장흥도호부	순천 담양	무진 보성 남원	능성 창평	화순 동복 옥과 진원

147) 이존희, 『조선시대지방행정연구』, 일조각, 1990, 33쪽.

2) 군현제의 정비와 함평현의 신설

조선 초기지방제도의 확립과정에서 핵심적인 사업은 전국에 걸쳐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하는 문제였다. 이것은 고려시기 지방제도가 군현제와 부곡제(部曲制)라는 이원구조를 가지면서 초래된 문제점, 이를 테면 같은 지방이라도 관찰사, 목사, 현령, 현감 등 군왕이 임명하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군(州郡)·주현(州縣)과 그렇지 못한 속현(屬縣. 領縣) 즉 향(鄕)·소(所)·부곡(部曲)이라는 지역(이를 통칭 任內라고 한다)에 대하여 차별하는 데에서 오는 민생의 수준차이, 나아가서 이중적인 행정체계에서 오는 난맥상을 극복하는 데에서 필요하였다. 더욱이나 새로 개창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러한 문제점만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나 국가의 통일적 지방통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국 8도의 여러 고을을 군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고려시대에 하나의 독립적 행정구획으로서 주군·주현의 영향 하에 있었던 속현, 이른바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이 몽고 침략과 지배, 그리고 연이은 홍건적과 왜구의 창궐 과정에서 점차 소멸하여 갔다고 하는 점이 배경이 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구가 희박하고 경지가 적은 임내(任內)는 소멸하고 대신 몽고 침략기 이래로 꾸준히 개간이 진행되고 인구가 번창하게 된 지역은 점차 독자적인 군현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에는 감무를 파견하여 주현에 준하도록 편제를 재정비했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어 주현 내지는 다른 군현에 편성되도록 하였다. 조선 초기 군현제의 확대과정은 유명무실한 임내를 처리하고 감무가 파견된 군현에 과거의 주군현의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이었다.[148] 당시 민간에서도 이러한 군현으로서의 승격과 직속 수령의 파견을 원했다. 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은 하루속히 속현제를 없애고 주현제를 실시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주·부·군·현의 관리가 그 속현(屬縣)을 침탈하는 일이 있어, 속현의 백성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밤낮으로 직속 수령을 얻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토지의 넓이와 백성의 다소를 헤아려서 수령을 파견하시와, 백성을 다 같이 보살피시고 고루 사랑하시는 혜택을 베풀도록 하시옵소서.' 하였다.[149]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개의 독자적인 행정단위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할 만큼 인구 및 전결의 수가 차지 않은 고을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때 이러한 소규모 고을은 통합하거나 다른 군현에 합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군자(軍資)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러할 필요가 있었다. 태종 14년 6월 8월 군자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의 하나로 서로간의 거리가 가까운 군현들을 모두 병합하고자 하여 용구(龍驅)와 처인(處仁)을 합쳐 용인(龍仁)으로 하는 등으로 영길도(永吉道)를 제외한 7도 소재의 34개 군현을 17현으로 만드는 대대적인 군현병합이 시도되었다.[150] 태종 이후의 병합 조치는 그 후로도 꾸준히 계속되었으며, 병합된 군현을 복설시키는 조처도 아울러 취해졌다.

148) 이수건, 「조선초기 군현제 정비와 지방통제체제(朝鮮初期 郡縣制 整備와 地方統治體制)」, 『한국중세사회사연구(韓國中世社會史硏究)』, 426쪽.
149) 『세종실록』 권7, 2년 윤1월 29일.
150) 『태종실록』 권 28, 14년 8월 신유.

전라도 서남해안 지방에서는 도강현(道康縣)과 탐진현(耽津縣)이 강진현으로, 해남현과 진도군이 해진군(海珍郡)으로 합병되었다가 세종 19년에 진도군과 해남현으로 복구되고 고흥이 보성의 남양현을 합병하여 흥양현이 되었다.

그런데 군현제로의 체제적 편제는 수월한 것이 아니었다. 지방지배세력 등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읍치 읍성의 존치여부도 문제가 되었다. 또한 일정 지역에 대한 타 지방의 지배세력의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일률적으로 균형 잡힌 행정구역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바로 월경지(越境地) 및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에 관한 문제이다. 월경지란 특정지역 군현의 소속토지가 소속군현지역과 절연된 채 다른 군현의 경내 속에 넘어가 존재하는 형태를 이르는 것으로 비지(飛地)라고도 한다. 견아상입지는 특정군현의 토지가 다른 군현지역에 마치 견아(犬牙)가 맞물려 있는 것 같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형태를 이른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함평 다경(多慶)과 해제가 무안현 서면 정도로 정비되어야 할 대상지이었다. 그러나 월경지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한 말(舊韓末)에 해당되는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를 기다려야만 하였다. 이처럼 월경지라는 매우 불합리하게 보이는 행정구획이 조선말까지 존속하였던 이유는 "현상유지를 우선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고식적인 태도, 조선 초기이래의 군현병합책의 실패, 당시 수취체제의 모순과 지방행정체계의 미비로 말미암은 필요성, 당해 월경지의 일반주민과 사족(士族)의 존속 희망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계가 있기는 하였지만, 조선전기 지방제도의 개편과정에서 달성되었던 전국적인 통일적 군현편제는 국가와 지방의 관계가 수직적 일원적인 관계로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회발전의 산물이며 성과이었다고 하겠다.

우리 고장도 함풍현(咸豊縣)과 모평현(牟平縣)이 합병되면서 인근 영광군 속현이었던 해제현(海際縣)과 임치현(臨淄縣 또는 臨緇縣) 그리고 나주군 소속이었던 영풍향(永豊鄕)·다경부곡(多慶部曲)을 합하여 함평현(咸平縣)으로 재편되었다. 이렇게 하여 함평현에는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여 함평현의 신설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 257> 함평현의 신설과 임내

신 설 현 (新設縣)	병합된 현과 향·부곡			
	태조 1년 (1392년)	고려 현종 9년(1018)	신라 경덕왕 16년(757)	백 제
함 평 현 (咸平縣) 태종 9년 (1409)	함풍현	함풍현(咸豊縣. 영광 속현)	함풍현(咸豊縣. 무안 속현)	굴 내 현(屈乃縣)
		해제현(海際縣. 영광 속현)	해제현(海際縣. 무안 속현)	도 제 현(道際縣)
		임치현(臨淄縣. 영광 속현)	임해현(臨海縣. 압해 소속)	고록지현(古祿縣)
		영풍향(永豊鄕. 나주 소속)		×
		다경부곡(多慶部曲. 나주소속)		×
	모평현	모평현(牟平縣. 영광 속현)	다기현(多岐縣.무안 속현)	다 지 현(多只縣)

★補論　함평군 600년의 역사적 의의

2009년은 함평군으로서는 의미가 큰 해였다. 조선이 개국한지 18년이 되던 1409년(태종 9년) 태종은 고려의 구습을 혁파하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고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착수했다. 이 때 영광군 령(領-屬縣)이던 함풍(咸豊)·모평(牟平) 두 현(縣)을 통합하고 영광군 속현이었던 해제현(海際縣)과[151] 임치현 그리고 나주군 소속이었던 영풍향(永豊鄕)·다경부곡(多慶部曲)을 병합하여 함평현(咸平縣)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종 6품의 현감을 임명해 국왕이 직접 통치하는 현령관급(縣令官級)으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505년 후인 1914년 현의 명칭이 군(郡)으로 바뀌면서 '함평군'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9년은 바로 그 600주년이 되는 해다.

당초 함풍현은 백제 때 굴내현(屈乃縣)이었다. 통일신라 때 함풍현으로 개칭되었고 고려 때 무안군 령에서 영광군 령으로 바뀌었다. 모평현은 백제 때 다지현(多只縣), 통일신라 때 다기현(多岐縣)이었다가 고려 때 모평현으로 개칭되고 무안군 령에서 영광군 령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태종 9년 두 현이 합쳐져 함평현으로 개편되고 현감이 임명되었던 것.

『고려사(高麗史)』「지리지(地理志)」를 보면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조직은 경(京)·목(牧)·도호부(都護府)·군(郡)·현(縣)·진(鎭) 등 6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체계는 기능상 경→목→지사군(知事郡)→현령관급(縣令官級)의 민정적(民政的) 계열과 도호부→방어군(防禦郡)→진의 군사적(軍政的) 계열, 다시 말하면 내치행정(內治行政)과 국방임무(國防任務)를 수행하는 지방행정조직으로 나누어 있었다. 두 계열의 말단 관부(官府), 즉 군수, 현령(또는 현감), 진사(鎭使)는[152] 그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수의 속군현(屬郡縣)을 거느리고 독자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시대 가장 기초적인 지방행정조직은 경·목·부 아래에 설치된 지사군과 현, 도호부 아래의 방어군과 진이었다. 당시 전국에는 129개 군과 335개현, 28개의 진이 분포되어 있었다. 군은 내용상 방어군 44, 지사군 17, 속군 68개소로 나누어 있었다. 방어군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 설치된 군정적 관부로서 주로 국경지대나 해안지역에 설치되어 있었고 지사군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노역을 동원하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민정적인 관부로서 군사적 필요에 의한 방어군 이외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각기 국왕에 의해 종 4품의 군수가 임명되는 독립적인 관부로서 독자적 행정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68개의 속군(屬郡)은 이들 독립적인 관부와 달리 군수가 임명되지 않고 경·목·부·지사군·방어군에 예속되어 행정적인 지배와 통제를 받았다.

다음으로「지리지」에 실려 있는 335개현 중에는 방어군·지사군과 같이 국왕에 의해 종 5품

151) 海際縣은 1906년 군 단위 행정구역 정비 때 무안군 海際面이 됨으로써 함평군(현)에서 떨어져 나간다.

152) 鎭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설치된 官府였다. 또한 鎭은 고려 태조 때부터 私兵的인 성격의 城과는 대조적으로 국방의 조직망이었다. 후삼국 통일이전에는 남북방의 국경지대에 설치되었으나 남방지역의 鎭은 그 후 소멸되고 북방에만 존재하였다.「地理志」에 所載된 29개 鎭 가운데 西海道와 白翎鎭을 제외하고는 모두 兩界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국경의 최전선에 설치된 鎭에는 예외적으로 屬郡縣을 전혀 거느리지 않았다. 그러나 鎭에는 수장인 鎭使와 鎭將이 파견되어 각각 독립적인 행정기관 임무를 수행했다(박종기,『고려시대 부곡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4, 84쪽).

의 현령 또는 종 6품의 현감이 임명돼 독립적인 관부의 역할을 수행했던 30개소의 현령관급 현(현령은 14개현, 현감은 16개현)은 전국 5도 및 양계(兩界)의 국경지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나머지 305개현은 속현으로 속군과 같이 현령이나 현감이 임명되지 않아 경·목·부·군·현령관급 현에 각기 예속되어 행정적인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어 독립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1409년 제도개편과 동시에 현감이 임명되는 함평현은 비로소 이 때부터 독립적인 관부 역할을 하는 현령관급 30개현 중 하나가 되었고 함평현으로 개편되기 이전의 함풍현과 모평현은 현령 또는 현감이 없는 305개 속현 중 하나로서 백제·통일신라시대에는 무안군, 고려시대에는 영광군에 예속되어 있었다.

당시 말단지역은 지배방식 차원에서 독립적 관부였던 현령관급 이상의 군현과 그렇지 않은 속군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다. 그것은 국왕의 지방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통제는 군수나 현령(또는 현감)이 임명되는 현령관급 이상의 군현에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관부는 제도적으로 비록 그 격(格)이나 장(長)의 품계에 있어 높고 낮음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독립적인 행정기구로서 조정의 정령(政令)을 집행하거나 세금징수·노역동원 등 일반 행정을 수행하면서 예하에 속군현(屬郡縣)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일했다. 따라서 국왕의 직접적인 통치는 현령관급 이상의 군현에 국한되었고 속군현에 대해서는 현령관급 이상의 군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함평현으로 개편된 1409년(태종 9년), 국왕 태종이 임명한 현감을 통해 직접 통치하는 현령관급 현으로 승격, 그 위상이 제고되었고 2009년은 그 600년이 되는 것이다.[153]

3. 군제개혁의 추이와 대굴포 전라수영(大堀浦全羅水營)·임치진(臨淄鎭)

1) 중앙 및 지방군제의 정비와 군역제도(軍役制度)

국초부터 꾸준히 시도되었던 군제의 개편작업은 정종 2년 당시 세자이던 이방원(태종)이 사병을 혁파함으로써 병권의 집중에 성공하였고, 이 후 세조 때에 이르러 오위제(五衛制)의 확립으로 일단락되었다. 세조 3년(1457)에 오위가 형성되고, 12년(1466)에 오위도총부가 설치되었다. 이 때 중추원은 중추부(中樞府)로 개칭되어 무반의 최고기관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아무런 실권이 없는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였다. 중앙군의 근간이 된 5위(五衛)는 의흥위(中衛)·용양위(左衛)·호분위(右衛)·충좌위(前衛)·충무위(後衛)로 구성되었다.[154] 이들 5위는 각기 분담된 지방의 병력을 통할하였으니 의흥위는 서울 중부와 개성부·경기·강원·황해도의 군사, 용양위는 서울 동부와 경상도, 호분위는 서울 서부와 평안도, 충좌위는 서울 남부와 전라도, 충무위는 서울 북부와 함경도의 군사를 각각 통할하였다. 또 5위는 5부(部)로 구성되었고 각 부는 4통(統)으로 나뉘었으며, 각 통의 아래에는 여(旅)·대(隊)·오(伍)·졸(卒)의 계통이 세워져 있었

153) 本文은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박종기 저 『高麗時代 部曲制硏究』(서울대 출판부, 1994) 참조.
154) 민현구, 「근세조선전기 군사제도의 성립(近世朝鮮前期 軍事制度의 成立)」,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 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다.

5위의 중심병력은 갑사(甲士)를 위시한 직업군인으로서 이들은 시험에 의해 선발되었다. 물론 양인 가운데 군역으로서 번상시위하는 정병(正兵)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정규적인 병력은 아니었고, 따라서 그 비중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의 군제(軍制) 편성에 의하면 우리 함평은 5위 중에서 전위(前衛)인 충좌위 소관하의 나주 진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번상군은 충좌위 우부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함평의 충좌위 소속 번상군은 28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전라도의 5위 편성표와 전라도 진관의 군인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58> 전라도 5위 편성표

	소 속
전 위 (前衛)	충좌위, 충의위, 충찬위, 파적위가 속함
중 부 (中部)	전주 진영의 군사가 소속
좌 부 (左部)	순천진관의 군사가 소속
우 부 (右部)	나주진영 군사가 속함
전 부 (前部)	장흥, 제주진관 군사가 속함
후 부 (後部)	남원진관 군사가 소속

<표 259> 전라도 진관의 군인수

군장(軍長) / 명칭	소재지	군 인 수				
		정군(正軍)	수성군(守城軍)	조역군(助役軍)	기타장인(匠人)	계
병마도절제사	강 진	498	51	183	141	853
병마첨절제사	옥구진	300				300
병마첨절제사	부안진	300				300
병마첨절제사	무장진	300				300
병마첨절제사	조양진	300				300

조선시대의 군제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군이었다. 지방군제 역시 세조 때에 정비되었는데, 우선 세조 원년(1455)에는 이 때까지 북방의 익군(翼軍)과 남방의 영진군(營鎭軍)으로 2원화되어 있던 군사조직을 북방의 예에 따라 군익도(軍翼道)의 체제로 통일하였다. 이는 각 도를 몇 개의 군익도로 나누고, 각 군익도는 다시 중·좌·우의 3익으로 편성하여 인근의 여러 고을들을 여기에 소속시킴으로써 하나의 군사단위를 이루도록 한 것이었다.

이것이 2년 뒤에는 다시 진관(鎭管)체제로 변경되어 지방군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진관체제는 군익도의 중첩성을 지양하고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진(鎭)들을 이에 속하게 하여 하나의 진관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의 성격을 갖추도록 한 것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한 육군편제는 다음의 도표와 같다. 함평현감은 나주진관(羅州鎭管)에 소속되고 절제도위의 직함을 가졌다.

<표 260> 전라도 육군편제

관 찰 사	병사(兵使), 수사(水使)겸임	감영 : 전주
병 사, 우 후		병영 : 강진
첨 절 제 사	동 첨 절 제 사	절 제 도 위
전주진관:전주부윤 병마절제사	익산군수 김제군수 고부군수 금산군수 진산군수 여산군수	전주판관 정읍현감 흥덕현감 부안현감 만경현령 용안현감 함열현감 고산현감 옥구현감 임피현령 금구현령 태인현감
나주진관:나주목사	광주목사 영암군수 영광군수	나주판관 광주판관 함평현감 고창현감 장성현감 진원현감 무장현감 남평현감 무안현감
남원진관:남원부사	담양부사 순천부사	남원판관 임실현감 무주현감 곡성현감 진안현감 담현감 옥과현감 운봉현감 창평현감 장수현감
장흥진관:장흥부사	진도군수	강진현감 해남현감
순천진관:순천부사	낙안군수 보성군수	광양현감 구례현감 흥양현감 능성현감 동복현감 화순현감

조선 전기의 지방군사제도는 이 진관체제를 바탕으로 조직되었다. 먼저 각 도에는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두고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하여 군사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병영과 수영은 한 도에 각각 하나씩을 두고 관찰사가 병사와 수사를 겸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국방상의 요지에는 병영·수영을 증치하여 따로 전임(專任)의 병사·수사를 파견하였다. 병사는 경기·황해·강원도에 1명씩, 충청·전라·평안도에 2명씩, 경상·함경도에 3명씩을 두었고, 수사는 황해·강원도에 1명씩, 경기·충청·평안도에 2명씩, 경상·전라·함경도에 3명씩을 두었다. 전임 병사·수사는 같은 병사·수사이지만 겸 병사·수사인 감사에게 눌리어 수령들이 경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양자 사이의 통솔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휘계통이 서지 않을 때도 있었다. 진관체제에 있어서 병사가 있는 곳을 주진(主鎭)이라 하였고, 그 아래에도 군사적 요충지로서 거진(巨鎭) 등 대소의 진이 있어 병영 및 수영의 통제를 받았다. 이 때 거진은 부윤(종2품)과 목사(정3품)가 각각 절제사·첨절제사를 겸하면서 진관의 군사권을 장악하였고, 그 아래의 여러 진(鎭)은 군수(종4품) 이하의 지방관이 동 첨절제사 이하의 직함을 겸하면서 군사를 지휘하였다.

이 때 육군만이 아니라 수군도 진관체제 아래 편제되었다. 수군절도사(정3품)가 도의 최고 책임자였는데 전라도는 좌군수군절도사와 우군수군절도사가 수군 전임 최고 책임자로 있었고, 관찰사가 겸임하는 수군절도사직이 또 있었다. 좌수영은 순천 내례포(현 여수)에, 우수영은 해남에 있었다. 각 수영 아래에는 첨절제사가 관장하는 진관이 있었으며, 그 아래 만호가 관할하는 선군이 활동하는 지역이 있었다.

2) 함평 전라수영의 치폐와 임치진

국초에는 중요한 해안 포구에 영진(營鎭)을 두었다. 영진에는 처치사(處置使)·절제사(節制使)·도만호(都萬戶)·만호(萬戶) 등을 배치하여 수군을 지휘하였다. 조선 초에는 육군보다 수군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고려 말부터 잦은 왜구 침입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조선시대 초기의 수군은 고려 말과 같이 기선군(騎船軍)이라 불렀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선군(船軍)으로 표시되어 있고, 우리 함평에는 379명의 선군이 배당되어 있었다. 이들은 다른 지방 사람들과 똑 같이 1년에 6개월간 해상 복무를 했을 것이며 복무지는 처치사 영이 설치된 현재의 학교면 곡창리에 소재한 대굴포나 우도 만호가 설치된 해제면 임수리(당시에는 함평현 소속)의 원곶(垣串)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수군의 군장(軍長)은 국초에는 처치사(종3품)를 요항(要港)에 배치하다가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로 바꾸었고, 세종 2년(1420)에는 수군도절제사를 폐지하여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두기 시작했고, 세조 12년(1467)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都使)로 바꾸었다. 또 수군은 육군과는 달리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수령이 겸직하는 경우가 없었다.

(1) 대굴포 전라도수영(全羅道水營)[155]

조선조 건국 초기에는 전라도수영이 현 전라북도 옥구(沃溝)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태종 8년(1408) 12월에 옥구는 전라도 해안선의 중앙에 있지 않아 방비업무에 허점이 많다는 전라도절제사의 상소에 따라 당시 무안현이었던 대굴포로 전라도수영을 옮겼다.[156]

세종 14년(1432) 10월 20일 전라도 순찰사 정흠지(鄭欽之)의 상계에 따라 대굴포에 있던 전라도수영을 당시 무안현이었던 목포만호(木浦萬戶)로 옮겼다.[157]

1440년 목포의 전라도수영을 해남의 황원(黃源)으로 옮겼으며 성종 10년(1479)년 1월 6일에 해안선이 길어서 1개의 수영으로는 방위가 어렵다는 이극배(李克培)의 상계에 따라 황원의 전라도수영이 수군절도사영(정 3품)인 전라도 우수영이 되었고, 당시 순천부 내례포(內禮浦, 현 여수시)에 전라도 좌수영이 설치되었다.

이상의 실록으로 대굴포(大堀浦) 전라도수영은 1408년에 설치되어 1432년에 폐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종 14년(1432)에 찬진(撰進)되었던 세종실록지리지에 수군처치사영인 무안현 대굴포의 전라도수영에 전선 24척(대선 8척, 중선 16척) 수군 1,895명이 배치되었다는 기록은 대굴포 수영이 상당히 대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대굴포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자.

옛 문헌들이 대굴포로 기록한 곳은 현재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대곡으로 본다.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함평군으로 편입된 무안군 진례면(進禮面)이다. 이 곳을 대굴포로 보는 데는 다음의 사료가 인용된다. 성종 12년(1481)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 고적항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수영(古水營)은 대굴포에 있었다. 지금은 해남으로 옮겼다"

또 대굴포에 대해서는

"무안현 동쪽 20리 나주 금강하류로 고려 때는 이 강을 지세(地勢)에 등져 흐르는 3대강의 하나라"

155) 1479년 해남의 황원수영이 우수영이 되고 순천부 내례포(현 여수시)에 좌수영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전라도에는 수영이 하나였고 당시 전라도에 여도량도만호(呂島梁都萬戶), 우도에 함평현 원곶도만호(垣串都萬戶. 현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156) 『태종 실록』, 8년 12월 丁酉條.

157) 『세종실록』, 14년 1월 乙巳條.

고 하였으며, 대동지지(大東地誌)에는

"우수영의 고지가 대굴포에 있고 무안현 동쪽 20리다"

라고 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에 대굴사(大堀寺)가 나오고 이 절은 대굴산에 있다며 고려 명종 때의 시인 김극기(金克己)의 시 한수를 곁들여 적어 놓았다.

서호(西湖)의 흥취를 따라
멀리 백련(白蓮) 스님을 찾네
대나무숲 동산에 가을 일찍 맞이하고
소나무 가린 창문은 새벽빛을 늦게 보내네

-이하 생략-

이 시로는 어렴풋이 현재 대곡(大谷) 근처임을 알 수 있을 뿐이며, 이 지역에서 몇 대를 살았다는 90세 노인도 대굴포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1789년 호구총수 지명에도 지금의 대곡(大谷)으로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지세에 등져 흐르는 3대강의 하나인 금강 하류와 배류지는 현재 학교면 월호리 망월동 앞들을 배야(背野)라 부르고 있고 그 지명 유래를 잘 알고 있어 바로 확증되었다.

옛 면성지(綿城誌. 무안의 고명)의 기록은 대굴포를 찾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

산천조에 대굴산은 일명 서흥산(瑞興山)으로 현의 동쪽 20리 진례 속금산(束錦山) 서쪽에 있는 산인데 다음과 같은 김대유(金大有)의 시가 전해 오고 있다고 했다.

강상에는 전조(前朝)의 절이 있고
층층 바위에는 빨간 기운 서려 있네
학사가 분명 기록하거늘
천년 실은 탑이 구름 뚫은 절을 보네

또 대굴사에 대해서는,

"일명 옥천암(玉泉庵)이라고 하며 대굴산에 있고 언제 창건했는지는 모르나 현종 정미년(1667)에 절이 폐퇴되어 현감 어진열(魚震說)이 철거를 하고 불상과 기물은 총지사(摠持寺)에 보내고 산은 어진열이 소유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해 속금산 서쪽의 여러 산을 답사해보니 현재 지네 같이 생긴 바위가 있다하여 지네봉, 한편으로는 책을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것과 같이 보이는 바위가 있다 하여 책봉으로 불리우고, 산이 붉은 기가 서려 있는 것까지 청사진처럼 김대유의 시와 같았고 전조의 절이 있다는 귀절을 뒷받침 할 고려청자와 조선시대의 분청사기 파편, 깨진 기왓장 등이 산 아래 밭에서 무수히 나왔고, 절터 바로 위 북쪽에 무안현감을 지낸 어진열(魚震說) 후손들의 묘소가 있다. 어씨문중(魚氏門中)에서도 사찰(寺刹)이 없어진 후 자신들의 문중 묘역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또 절터 근처의 대숲은 김극기의 시를 연상하게 하며 절터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는

어떤 가뭄에도 논 몇 두락에 물을 댈 수 있는 샘이 하나 있는데 이 샘을 옥천(玉泉)이라고 한다.

지세에 비해 물이 등져 흐른다는 배류지인 배야까지는 1㎞ 거리다.

마을 앞의 도랑에 있는 평편한 바위는 수통막(水統幕), 배야가 펼쳐지는 망월동 마을의 얕은 산은 동막(東幕), 동막에서 남쪽 강기슭에 자리한 언덕은 빈정(賓亭)이라 부르고 있다. 배들의 통제소가 있어 수통막이라 했고, 동막은 동쪽의 초소며, 빈정은 외래객을 맞는 정자였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양창(糧倉)" "창골" "창등"이라고 부르는 득량(得梁)골 암벽의 산에는 많은 기왓장 파편과 주추가 있어 전해오는 지명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고 동국여지승람에,

"현의 남쪽 20리에 강소창(舡所倉)이 있다."

하였는데 이와 일치하는 지점이 된다.

골짜기를 뜻하는 우리말은 "굴"과 "골"이 함께 쓰임을 볼 수 있다.

"대사동(大寺洞)"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골짜기를 한젓굴, 한절골, 한적굴, 한적골로 부르는가 하면 수박굴, 수박골로 쓰는 것이 그 예이다.

세종실록지리지가 발행되던 때 대굴포(大堀浦)도 굴과 골이 함께 쓰임에 의해 훗날 표기가 "굴(堀)" 아닌 "곡(谷)"이 되어 "대곡(大谷)" 이란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본다.

배들의 정박지였을 포구는 현재 토사에 의해 논이 되어 있고, 식수원이었을 옥천은 마을의 간이상수원이 되었다.

대굴포 전라수영은 영산강 유역중 내륙에 해당하는 유일한 수군진지였다는 점에서 유적지로 길이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경 종	윤동달(尹東達)	파 평	은경(殷卿)의 손자	선전
	이우백(李友柏)	경 주		주부
	최석륜(崔錫崙)	해 주		판관
	이경지(李慶智)	함 평	원형(元亨)의 아들	수문장
영 조	정익신(鄭翊臣)	진 주		
	박순원(朴淳元)	함 양	세규(世規)의 아들	부사
	임득황(任得璜)	풍 천		사과
	홍여준(洪汝俊)	남 양	익생(益生)의 후손	현감
	이수익(李受益)	함 평	시첨(時瞻)의 아들	함안군수
	이지창(李芝昌)	경 주		영장
	모옥성(牟沃成)	함 평		부장
	정익창(鄭益昌)	진 주	황(璜)의 후손	만호
	정 우(鄭 禑)	진 주		통제사
	최후상(崔后相)	해 주		판관
	김치백(金致伯)	선 산	언탐의 후손	사과
	김필중(金必重)	상 산		부장
	모국성(牟國成)	함 평	권의 후손	절충
	노윤대(魯胤大)	함 평	빈의 아들	첨사
	김시호(金時浩)	상 산	빈의 아들	첨사
	김시욱(金時昱)	상 산	사충(思忠)의 손자	첨사
	김득원(金得垣)	상 산	중후(重厚)의 아들	중추부도사
	어석규(魚錫圭)	함 종	사충(史忠)의 손자	도총부도사

(2) 임치진

임치의 한자 표기는 모두 “임치(臨淄)”로 되어 있는데 경국대전만은 “임치(臨緇)”로 되어 있다. “淄”나 “緇”는 다같이 검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임치진은 조선시대 말 정확히 말해 1906년까지 함평군에 속해 있던 지금의 해제면 임수리(臨水里)에 설치된 수군진으로 1871년에 간행한 함평현읍지에 간략히 임치진지가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건치(建置) 연대가 없고 다른 기록 또한 마찬가지여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부터 중요시되던 수군진지임은 확실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우도만호(右道萬戶)가 함평현 서쪽 원곶(垣串)에 있고, 선군(船軍) 1,055명에 전함 18척이 있다고 하였다. 또 우도만호는 “목포만호, 다첨포(多僉浦)만호, 법성포(法聖浦)만호, 검모포(黔毛浦)만호, 군산(群山)만호를 통할한다”고 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원곶이 우도만호가 있던 이 곳이 아닌가 한다. 함평현 서쪽의 수군 진지는 임치밖에 없고 후에 임치진이 통할하던 여러 진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치진은 원곶이 만호 개설부터 조선시대의 수군진지 역할을 했다고 본다. 또 세조 12年(1467)부터 임치도진관으로 개칭되지 않았는가 한다. 왜냐하면 12년에 육군과 수군의 편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고 이때의 체제가 별다른 변동이 없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으며 여기에 임치도진관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전라도 수군진관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표 262> 전라도 수군진관(水軍鎭管)

수사3(관찰사, 전라좌수영, 전라우수영)

좌수사 우후 (左水使, 虞候)	좌수영: 순천 오동도(梧桐島, 현 여수)	
	첨절제사(僉節制使)	만 호(萬戶)
	사도진관(蛇島鎭管) 사도(興陽)첨사(僉使)	회녕포(장흥)만호, 달양(達梁,영암)만호, 여도(呂島,흥양)만호, 마도(馬島, 강진)만호, 녹도만호, 발포(鉢浦, 흥양)만호, 돌산도(突山, 순천, 현 여수)만호
우수사, 우후	우수영 : 해남 울돌목	
	임치도진관(臨置島) 임치도(咸平)	법성호만호, 목포만호, 검모포(黔毛浦,부안)만호, 다경포(多慶, 영광 현 무안)만호, 어란포(於蘭, 영암)만호, 군산포 만호, 남도포(南桃 진도) 만호, 금갑도(金甲, 진도) 만호.

경국대전의 수군편제는 중종 17년(1522) 6월 왜구가 추자도 침입을 비롯하여 잦은 침구를 하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잦은 왜구의 침입이 있자 중종 17년에 가리포(加里浦)에 진관을 설치하고 지도(智島)』 신지도(新智島)』 이진(梨津) 등에 포(浦)를 신설 하였다. 개편된 전라도의 진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63> 중종 17년 전라도 진관 개편표

진 관	만 호
사도진관	회녕포, 여도, 녹도, 발포
임치도진관	검모포, 법성포. 다경포, 목포, 군산포, 남도포, 지도포(신설)
가리포진관(신설)	마도, 어란포, 금갑도, 신지도(신설)

위의 표에서 보면 임치도진관은 개편전의 어란포와 금갑도포만호를 가리포 진관에 이양하고 지도만호를 신설하여 7곳의 만호를 통괄하게 되었다. 1871년에 간행된 함평현읍지 관방조의 임치진 소속관하진(所屬管下鎭)을 보면 이진만호가 편입되고 검모포, 법성포, 군산포는 이속되어 있다.

그러나 1895년에 간행한 함평현읍지에는 중종 때 개편한 소속 관하진 그대로가 실려 있으며 다만 남도포와 금갑포만호가 첨사로 바뀌었다는 기록만 있다. 이로 미루어 세조이후 중종을 거쳐 1894년 갑오경장으로 혁파될 때까지 수군진에는 큰 개편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1871년 간행 함평현읍지와 1895년 간행된 함평현읍지에 기록된 임치진에 대한 기록과 소속된 섬의 방비 체계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임치진에 진촌이 있었는데 그 호수는 1871년에 82호이었다. 임치진의 지휘체계는 전초(前哨)가 이진(梨津)만호이며 좌초(左哨)가 어란포(於蘭浦) 만호이고 중초(中哨)는 목포 만호, 우초(右哨)는 무안현감이 맡고 함평현감은 후초(後哨)를 맡았다. 임치진에는 주사군(舟師軍)이 281명인데 영광군 112명, 무장현(茂長縣) 25명, 함평현 202명, 남평현(南平縣) 112명의 장정이 6개월씩 근무하였다. 관속으로는 1년 3교대로 4개월씩 근무하는 장교 6명(총수는 18명), 진무(鎭撫) 6명, 통인(通引) 1명 관노 3명, 사령 4명이 있었는데 1895년 당시에는 군관 18명, 진리(鎭吏) 14명, 지인(知印) 5명, 사령(使令) 16명과 군뢰(軍牢)가 7명이었다. 임치진에 있는 전선(戰船)은 1871년에 서자(署字)1호 전선 1척, 홍자병선(洪字兵船) 1척, 방선(防船) 1척, 일사후선(一伺候船, 정찰하는 배) 1척, 이사후선 1척으로 5척이었으며, 1895년에는 2척으로 우수영과 함편현에 각각 1척씩 소속되었다.

<표 264> 임치진에 소속된 섬의 방비체계

섬의 이름	임치진과의 거리		
		영 장(營將)	작 대(作隊)
영광 돈작도(鮕作島)	서쪽수로(水路) 30리	1	9
어의도(於義島)	서쪽수로 50리	1	19
대낙월도(大落月島)	서쪽수로 70리	1	25
소낙월도(小落月島)	서쪽수로 105리	1	20
노록도(老鹿島)	서쪽수로 150리	1	6
나주 팔금도(八禽島)	남쪽수로 300리	1	50

4. 교통 통신 및 조운시설의 확충

1) 교통 통신 및 조운시설의 정비

(1) 조선의 역제(驛制)와 함평

중앙의 통치력이 지방에 효율적으로 미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연락망이 필요하다. 지방관의 파견과 중앙의 명령전달만으로 중앙과 지방이 하나의 통치 영역권에 편제될 수 있으나, 가능한 통신 수단의 이용이야말로 서로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전근대 사회에서 통신 수단은 다양하지 못하였다. 거의 사람이 필요한 문서나 전달사항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물론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말이나 선박 등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봉수와 같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특별한 통신수단을 갖지 못한 시대에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으로 사람이 직접 전달을 하되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전달통로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역(驛)을 들 수 있다. 특히 역은 초기에는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후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였다.

고려의 역제는 원(元)의 간섭기 동안 원에 의해 통제되면서 변질되었다. 이후 고려 말에 이르러 역에 역승(驛丞)을 파견하여 역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158] 조선시대의 역제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되 수도의 천도와 함께 새로이 정비하였다. 역은 수개 내지 수십 개씩 묶어서 자기 구역을 정하여 도(道)로 구분하였고, 각 역도(驛道)에는 찰방(察訪) 또는 역승을 파견하여 도내의 역정(驛定)을 관할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하여 전국의 역도를 살펴보면 한양을 중심으로 하여 좌도 충청도 정역찰방(程驛察訪), 우도 정역찰방, 경기·강원도 정역찰방 소관의 역들이 있었고, 그 밖에 황해도의 첨로찰방(站路察訪), 평안도의 관로찰방(館路察訪) 등의 역들이 있었다. 이들 역은 찰방소관의 역이며, 동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좌로·우로·관동로와 특별히 사행로(使行路)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 각 도의 역도 중에서 비중이 매우 컸다. 그 밖에 도별로 역승소관의 역도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역도를 도별로 보면 경기 8, 충청도 9, 경상도 10, 전라도 7, 황해도 3, 강원도 3, 함경도 3, 평안도 1 등 도합 44개 역도가 있었다.

조선시대의 역 및 역도는 고려시대 역 및 역도의 수와 비교해 보면 역수에 있어서는 480 : 525로서 45개역 정도가 감소되고 있고, 반면 역도에 있어서는 44 : 22로서 22개 역도가 증가되고 있다. 감소를 보인 45개 지역의 분포를 따져보면 황해도 및 평안도 지역에서 많은 역이 폐쇄되고 있고, 반면 경상도에서는 30개 정도의 새로운 역이 설치되어 있다. 황해도와 평안도에서의 역의 대폭적인 폐쇄에 반해 경상도 지역에서의 새로운 역의 증설은 교통·통신의 중요도가 대륙 변경지역에서 해양변경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군사적·외교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물화의 빈번한 교통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시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158) 허선도, 「역제(驛制)」, 『한국군제사』 근세조선전기편, 1968, 537쪽.

<표 265> 세종실록지리지 소재 전라도 역편제

역 참 도	최고관리	소속역수	소 속 역
창 활 도	역 승	11	잔수 갈담 오수 은령 통도 인월 익신 섬거 양률 낙수 지신
앵 곡 도	역 승	5	거산 천원 부흥 내재 영원
제 원 도	역 승	2	달계 소천
벽 사 도	역 승	9	파청 진원 통로 낙신 영보 별진 녹산 양강 가신
삼 례 도	역 승	6	반석 양재 오원 재곡 소안 옥포
청 엄 도	역 승	9	단암 선엄 신안 녹사 청송 영신 청연 경신 가리
경 양 도	역 승	8	덕기 가림 인물 창신 대부 금부 오림 광리

조선초기의 역도의 재편성은 다소 수정되어 경국대전에는 역은 대개 480여개, 역도는 40여개에 달한다고 했다. 조선전기 전라도 지역 역 편제를 알기 위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와 경국대전에 기재된 역 편제내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6> 경국대전 소재 전라도 역편제

역 참 도	최고관리	소속역수	소 속 역
삼 례 도 (전주)	찰 방	12	반석(전주) 오원(임실) 갈담(임실) 소안(임피) 임곡(함열) 양재(여산) 앵곡(전주) 거산(태인) 천원(정읍) 영원(고부) 부흥(부안) 내재(김제)
오 수 도 (남원)	찰 방	11	창활(남원) 동도(남원) 응령(남원) 인월(성봉) 잔수(구례) 지신(곡성) 양률(순천) 낙수(순천) 덕양(순천) 익시(광양) 섬거(광양)
청 암 도 (나주)	찰 방	11	단암(장성) 영신(장성) 선암(광주) 신안(나주) 녹사(영광) 가리(함평) 영보(영암) 경신(무안) 광리(남평) 오림(남평) 청송(무장)
경 양 도 (광주)	역 승	6	덕기(담양) 가림(화순) 인물(능주) 금부(동복) 창신(순창) 대부(옥과)
벽 사 도 (장흥)	역 승	9	가신(보성) 파청(보성) 양강(흥양) 낙승(낙안) 진원(강진) 통로(강진) 녹산(해남) 별진(해남) 남리(해남)
제 원 도 (금산)	역 승	4	소천(무주) 달계(용담) 단령(진안) 옥포(고산)

세종실록 지리지가 만들어진 단종 때까지는 전라도지역은 7개역도로 구분되어 역이 편제되어 있었으며, 각 역도에는 역승(종9품)이 파견되어 관할 소속 역을 관장하였다. 그러던 것이 경국대전에 이르면 6개역도로 구분되고, 삼례와 오수, 청암역도의 역에는 찰방이 파견되어 그 역도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상도와 벽사도, 제원도의 3개도에 역승이 예전처럼 파견되었다. 이것은 역도의 구분에는 약간의 변화에 불과했지만, 역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에는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가 지급되었다. 역을 운영하기 위한 공수전(公須田)이

대로(大路)에는 20결, 중로(中路)에는 15결, 소로(小路)에는 5결이 지급되었으며, 역장에게는 장전(長田) 2결, 부역장에게는 부장전 1결 50부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역의 급주졸(急走卒)에게 50부의 급주전이 지급되었다. 이 밖에도 말의 등급에 따라 각기 마전(馬田)이 지급되었다. 비록 역이 행정적인 전달통로의 구실을 하였고, 경제적 유통 상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나 역에서 부담을 지고 있던 역리, 역정들은 다른 행정구역의 사람들에 비하여 천대받았으며, 부담하는 일도 훨씬 고된 것이었다.

역이 교통, 통신수단으로서 거점역할을 하였다면 도로는 그러한 거점을 연결하는 신경줄기였다고 하겠다. 경국대전에는 서울을 기점으로 5개 방면에 도로망이 대·중·소로로 구분되어 전국을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院)을 도로변에 두어 숙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9개 방면의 도로망이 있었으며, 전라도의 경우 제7로에 해당하였으며 전주 삼례를 통하여 현 전남지역에 이르도록 되어 있었다. 이 도로망은 해남 관두량을 통하여 제주에 해로(海路)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다. 역에서 역마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마패(馬牌)라는 증빙이 필요했다. 마패는 사용할 말을 그 수 대로 그려 넣은 구리로 만든 원패(圓牌)인데 사용자의 관품에 따라 제공하는 말의 수효가 달랐다.

<표 267> 품계에 따른 馬匹數

관품(官品) / 마종(馬種)		대군(大君)·의정(議政)	정2품 이상	종2품	3품 당상관	6품 이상	9품 이상	어사(御使)	부경사(赴京使)·부사(副使)·통신사
승마(乘馬)	상등마(上等馬)	1	1	1	1	0	0	1	1
	중등마(中等馬)	0	0	0	0	0	1	0	0
	하등마(下等馬)	3	3	2	2	1	0	1	0
마태마(馬太馬)		3	2	2	1	1	1	1	2
계		7	6	5	4	2	2	3	3

함평은 고려 때부터 나주의 청암도(靑岩道)에 속하였으나, 조선에 이르러 모평현에 있던 덕수역(德樹驛)은 폐지되고 가리역(加里驛)만 남아 있게 되었다. 가리역은 지금의 신광면 가덕리 지내마을 앞에 고려시대부터 설치되어 있던 역이다. 가리역은 소로역의 하등역이기 때문에 관둔전 12결과 공수전 5결을 지급받고 노비 30명을 배치 받았다.

청암도의 찰방은 나주의 청암에서 장성의 단암으로 옮겼는데 확실한 문헌의 기록이 없어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따라서 가리역은 단암역의 속역이 되었는데 1871년에 간행한 한평현읍지에 장성 단암역의 속역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1871년 이전에 단암역이 찰방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리역은 무안→함평→무장→흥덕→정읍→태인→금구→삼례·제6로→소사→한성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국도상(國道上)의 역이었다.

한편 고려와 조선은 중요한 길목에 역을 두는 한편 원을 두었다. 원은 관명을 띠고 여행하는 사람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일을 하였다. 귀빈은 지방관아에 부설된 객사에서 접대하였지만 그 외는 원에서 묵게 하였다. 세종 27년부터는 원이 소재하는 부근의 주민으로 원주(院主)를 삼고

원을 관리케 하였으며 후기에는 인근에 있는 절의 중들로 하여금 원주가 되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원주에게는 원주전(院主田)이 지급되었는데 소로에 있는 원에는 45부(負)를 지급했다.

조선시대의 도로표시는 주척(周尺) 6척을 1보(步), 360보를 1리(里), 30리를 1식(息)으로 하였다. 경복궁 앞의 원표(元標)를 기점으로 도정(道程)을 따라 매 10리에 흙을 쌓아 단을 만든 소후(小堠) 1매, 30리에 대후를 두되 후에는 이수와 지명을 새기게 했다. 또 5리에 정자(亭子)를 세우거나 30리마다 느릅나무 또는 버드나무를 심기도 했다. 함평에 있던 원들은 청암도 소로의 가리역 소관하에 5개의 원을 관장하였는데,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8> 함평의 원(院)

위치 / 원명	위 치	참 고
고 막 원 (古幕院)	현 학교면 고막리	고막원에 원루가 있어 중앙관청에서 내려오는 관원이나 지방 수령이 순시할 때 휴게소로 사용하였고, 신구 수령의 교대장소로 이용하였다.
귀 미 원 (龜尾院)	현 해보면 문장리 귀밀	현 상귀밀에 있었다. 귀미(龜尾)→구밀(求密)→귀밀(歸密)로 지명이 바뀌었다.
유 현 원 (紐峴院)	현 신광면 삼덕리 원골	가리역과는 15리 거리며 영광의 녹사역으로 통하는 중간 지점이나 지금은 함정리 쪽으로 국도가 있어 폐로(廢路)되어 길은 형적을 찾을 수 없다.
사 기 원 (四岐院)	현 월야면 외치리 백야	백야 마을에서 동쪽으로 500여m 떨어진 외치재 못미쳐 소재하며 현재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옹 산 원 (瓮山院)	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1906년 해제면과 다경면이 무안군으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함평현에 소속된 원이었다.

(2) 조선의 봉수제(烽燧制)와 함평

봉수는 중요한 통신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써 변경의 긴급한 정황을 중앙 또는 변경의 기지에 알리는 순전한 군사상 목적으로 이미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다. 대략 수십 리의 일정한 거리마다 후망(候望)의 요지(要地)가 되는 산정에 봉수대를 설치하고 '야즉 거화(夜則擧火) 주즉 번시(晝則燔柴)'하여 평상시에는 1거(炬)를, 적이 나타나면 2거를, 경계에 접근하면 3거를, 경계를 범하면 4거를, 접전하면 5거를 올리되 서울에서는 오원(五員)이 병조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진장(鎭將)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159]

봉수는 목멱산(木覓山)을 중심으로 5대(臺)로 이어졌는데 동측으로부터 제1대는 영안도·강원도에서 오는 양주 아차산(楊州峨嵯山)의 봉수에 준하고, 제2대는 경상도에서 오는 광주 천천령(廣州穿川嶺)의 봉수에 준하고, 제3대는 평안도 육로로부터 오는 모악 동봉(母岳東峰)의 봉수에 준하고, 제4대는 평안도·황해도의 해로로부터 오는 모악 서봉(母岳西峰)의 봉수에 준하고, 제5대는 충청도·전라도에서 오는 양천 개화산(陽川開花山)의 봉수에 준한다는 5개의 연락조직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들어온 내용은 병조에서 사람을 지정하여 망을 보게 하고 이튿날 새벽에 승정원에 보고하여 왕에게 아뢰게 하였으나 만약 변고가 있을 때에는 야간이라도 즉시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봉수대에 주둔하는 병력구성을 보면 목멱산은 봉수대 매소마다 군사 4인, 오원(五員) 2

159)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봉수조(烽燧條).

인을, 연변은 봉수대 매소에 군사 10인, 오장 2인을, 내지는 봉수대 매소에 군사 6인, 오장 2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봉수요원은 봉수군(烽燧軍)과 오장(五長. 또는 오원-五員)이 있었다. 봉수군은 밤낮으로 경계 관찰을 하는 사람이고 오장은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봉수대의 입직(入直) 요원과 정원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69> 봉수대의 입직 및 정원

봉수별	봉 군		오 장		입직계	상·하양번	정 원		
	매소입직	5개소	매소입직	5개소		1일 교체	봉군	오장	계
연변봉수	5	25	1	5	30	50	50	10	60
내지봉수	3	15	1	5	20	30	30	10	40
경(京)봉수	2	10	1	5	10	20	20	10	30

일반적으로 봉수군은 반드시 부근사람으로 하였다. 이는 출퇴번(出退番)의 편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함평지역에 있던 옹산, 해제 봉수는 그 지역주민이 봉수군과 오장직을 맡았다. 봉수에는 직봉(直烽)과 간봉(間烽)이 있는데 주요선을 직봉이라 했고 직봉은 동북은 경흥(慶興), 동남은 동래(東萊), 서북은 강계(江界)와 의주(義州), 서남은 순천(順天)의 5개처를 기점으로 하여 모두 서울의 목멱산을 종점으로 하였다.

간봉은 보조선을 말하며 직봉사이의 중간지역을 연락하는 장거리의 것도 있고, 국경방면의 전선 초소로부터 본진이나 본읍(本邑)으로 보고하는 단거리도 있었다. 직봉 5개 노선 중 전라도 해안선을 통과하는 봉수선은 순천의 돌산도→백야곶→흥양의 팔전산→마북산→천등산→장기산→장흥의 전일산→천관산→강진의 원포→좌곡산→완도→영암의 달마산→해남의 관두산→진도의 여귀산→해남의 황원성→나주의 군산→무안의 유달산→고림산→함평의 옹산→해제→영광의 차음산→고도도→홍농산→무장의 고리포→소응포→부안의 월곡리→점방산→계화리→옥구의 화산→임피의 오성산→불지산→함열의 소방산→용안의 광두원→이하 생략→한성 목멱산의 제5봉으로 되어 있다.

이 봉수로에 따라 함평으로 된 옹산과 해제봉수는 1906년 행정구역정리 때 모두 무안군으로 편입되었다. 옹산봉수는 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에 위치한 봉대산에 있던 봉수로 현재 무안군 청계면의 도대봉의 신호를 받아 해제로 이어주는 연안(沿岸) 봉수였다. 해제봉수는 현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의 봉대산에 있던 봉수로 194.7m 높이의 봉대산에 오르면 함평, 영광, 해남, 진도의 산세와 바다 위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섬들이 한 눈에 조망된다. 성을 쌓은 흔적과 봉수군들이 기거하며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조개껍질이 지금도 많이 나온다. 영광의 차음산(次音山)으로 이어지는 봉수였다. 옹산봉수와 해제봉수에서 사용했던 집기를 수집하였던 것을 1906년에 발행한 함평군지에 다음의 도표와 같이 등재했다.

<표 270> 옹산봉수와 해제봉수의 집기

옹산봉수 집기	조총 2병(鳥銃二柄) 화철 1개(火鐵一介) 솥 1좌(釜 一座) 소거(小炬) 25병,	환도(環刀) 1병 약승(藥升) 3개 편전 3부(片箭三部) 동거(同炬) 7병	겸자 1개(鎌子一介), 기 1면(旗 一面) 수마석 200개(水磨石二百介) 명송거(明松炬) 20병
해제봉수 집기	조총(鳥銃) 2병 식정(食鼎) 1좌 통아 3개(筒兒三箇) 화철(火鐵) 1개 겸자(鎌子) 1개 명송거(明松炬) 20병	환도(環刀) 1병 장전(長箭) 3부 이약통(耳藥桶) 1개 죽취라(竹吹螺) 1개 소거(小炬) 25병	솥(釜) 1좌 편전(片箭) 3부 약승(藥升) 1개 수마석(水磨石) 200개 동거(同炬) 7병

2) 조운(漕運)과 창고(倉庫)

조운은 국가가 조세로 징수한 미곡이나 포백(布帛)을 해상을 통하여 선박으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가 특별히 조창(漕倉)을 두고, 조운제도를 명문화 한 것은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세금이 주로 해상과 강을 통하여 운송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내륙을 통하여 운반하는 육운도 있었지만 조운에 미칠 바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조운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국가의 재정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고려 초기 성립한 조운제는 고려 말에 왜구가 남부지역의 연안과 내륙에 이르기까지 침략하여 옴에 따라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공민왕대부터 왜구가 조운선을 약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다가 우왕대부터 조운의 기능이 상실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조운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육로를 통하여 조세를 운반하였지만 그리 손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공양왕대 실권을 장악하면서 다시 조운을 통한 세금 운반을 꾀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운제도가 정비되었지만 태종 무렵에는 거듭되는 침몰사고로 육로수송을 권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육로수송은 해상수송의 편리함에 따르지 못해 다시 조운을 정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조운제도는 경국대전의 반포와 더불어 이렇게 완비되었다.

<표 271> 전라도지역 조창

창 고 명	소 속 주 현	정치 선박
나주 영산창	나주 강진 진조 무안 영암 순천 광주 낙안 광양 화순 남평 동복 흥양 보성 능성 장흥 진원	53척
영광 법성포창	영광 흥덕 부안 함평 무장 장성 정읍 고부 옥과 고창 담양 곡성 창평 순창	39척
용안 덕성창	함열 용안 전주 임피 김제 금구 익산 만경 여산 금산 진산 태인 옥구 고산 용담 임실 남원 장수 운봉 진안 무주	63척

조선 초기 전남지역에는 나주와 영광 두 곳에 조창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나주 영산창은 전남 해안지역과 고려시대 장흥창에서 담당하던 지역의 조세를 모아 중앙으로 운반하는 집결지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영광 법성창은 전남내륙지역과 전북내륙의 일부지역의 조세운반 창고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중종 7년(1512)에 나주 영산창이 수로가 험하여 배가 전복된다는 이유로 폐쇄되하면서 전남지역의 조운은 법성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라도 지역의 조창은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처럼 조창을 통하여 운반된 조세는 중앙의 각 창고에 용도별로 나뉘어 보관되었다. 조운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선박 수뿐만 아니라 필요 인원과 적재량, 운임 등을 규정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 전라도지역의 조창은 변화가 보인다. 이 때 조정한 조창의 소속 주·현을 《대전회통(大典會通)》과 《만기요람(萬機要覽)》의 해당조항에서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표 272> 조선 후기의 조창

창고이름	소재지	소속 주현
성 당 창	함 열	함열 고산 진산 운봉 익산 용담 남원
군 산 창	옥 구	옥구 전주 진안 장수 금구 태인 임실
법 성 창	영 광	영광 광주 담양 순창 옥과 고창 화순 곡성 동복 정읍 창평 장성 법성

그런데 위의 도표를 보면 함평과 나주, 무안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871년에 간행한 함평읍지에 의하면 '함평현에서 2월에 창고문을 열어 3월에 적재하고 도포(道浦)를 출발하여 경창(京倉)으로 운송하였는데, 1회 운송은 10일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법성창을 거치지 않고 함평과 무안, 나주는 지금의 손불면 해창(海倉)에서 직접 경창으로 세곡 등을 운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조선시대 함평의 현감과 지방행정

1) 조선시대의 함평현감

우리 고장에는 문·무·음사(陰仕)출신으로 종 6품의 현감이 파견되었다. 이때 관찰사 이하 지방관은 자기출신지역에 부임하지 못하도록 하여 통치상의 정실을 방지하고 지방 세력과 결탁하여 독자적 분권화를 방지하고자 하였던 상피제(相避制)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함평현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함평의 현감은 비록 종 6품이지만 목민관으로서의 임무는 여타 수령과 다르지 않았으니, 행정·사법·군정 등 모든 일을 왕권을 대행하는 차원에서 총괄하였다. 그 중 민정관계로는 농업장려(農桑盛··호구확보(戶口增)·교육진흥(學校興)·군정대비(軍政修)·부역책임(賦役均)·재판처리(詞訟簡)·향

리단속(奸猾息)으로 집약되는 '수령 7사(事)'를 그 주요 임무로 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령은 왕권을 대행하여 직접 대민통치를 담당하는 목민관이었기에 수령의 능력과 처신은 곧바로 민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따라서 관찰사는 수령의 치적과 행실을 살펴 "선(善)·최(最)·악(惡)·전(殿)"의 4등급으로 1년에 두 번씩 수령을 평가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이 보고가 수령의 승진이나 퇴출의 자료로 삼았다. 이러한 수령의 전최법은 태조 즉위부터 강조되어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고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앙관리는 해당 관청의 당상관, 제주 및 소속된 조(曹)의 당상관이, 지방관리는 관찰사가 해마다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등급을 평정(등재-等第)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열 차례 평정에서 열 차례 상(上)으로 평정되면 표창하여 한 품계를 올려주며 당하에서 더 올라가 품계가 없을 때에는 관직을 올려주되 목사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두 번 '(中)' 평정을 받으면 녹봉 없는 관리(무녹관-無祿官)로 채용하고 세 번 '중' 평정을 받으면 파직시킨다. 다섯 차례 평정이거나 두 차례 평정이거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중'만 한번 있으면 현재보다 높은 자리에 임명되지 않으며 '중'이 두 번 있으면 파직시킨다. 당상관인 고을원은 한번만 '중' 평정을 받아도 파직시킨다.[160]

현감의 임기는 처음에는 1,800일로 정해져 구임(久任)함으로서 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후에는 3년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현감이 임기규정에 따라 지방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감 있고 구임의 위치에서 행정을 어떻게 제대로 펼쳤는가에 대한 상황을 조선전기의 경우에는 살필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함평현은 신설된 태종 9년(1409)부터 약 100여 년 간 현감의 인적사항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관정루(觀政樓)에 정인지(鄭麟趾)의 '누기(樓記)'가 실려 있고 여기에 현감 김계보(金季甫)가 부임 1년 후부터 관정루를 지었다는 말이 씌여 있는 것으로 보아 1442년에 그가 현감으로 부임하였다는 사실과 또한 역락정(亦樂亭)에 현감 이계의(李繼義)의 기문이 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그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현감으로 부임하였다는 사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함평현감의 출신도 우리는 살필 수 없다. 다만 정인지의 관정루기에 의하면 문과출신이 부임했던 것으로 추정될 따름이다. 당시 지방수령의 자격을 엄격하게 하고자 하였던 세종초기의 진언과 그 실행의 차원에서 이를 짐작할 따름이며, 그 시기 함평현감의 수준을 엿보는데 정인지의 누기가 참조될 것으로 본다.[161]

16세기 중반이후에는 주로 무과출신자들이 부임하였는데 이것은 연해안 방어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이었다.

조선후기 함평의 현감은 옛 군지 등을 통하여 1600년부터 1894년까지 약 300년간 함평현감을 지낸 171인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현감의 근무기한인 3년을 채운 사람은 단 19명뿐이고 어떤 경우에는 부임도중에도 교체되는 사례까지 보이고 있다. 전 수령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6개월가량으로 1년 미만에 이임한 현감이 전체의 42.6%나 되는 것을 볼 때 현감의 교체가 빈번하였음

160)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포폄조(褒貶條). 전최(殿最)란 관리들의 성적을 높이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대체로 전최의 방법은 상·중·하의 세 등급으로 구별하고 한문으로는 짤막한 평을 붙이는 것이 전래하는 규례로 되었다.

161) 樓記 原文은 조선시대 제9장 유적과 유물의 觀政樓와 鄭麟趾 記文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임사유를 살펴보면 영전한 현감이 60여 명에 불과하고, 반면에 파면된 현감은 75명이나 된다. 그 파면사유로는 암행어사의 장계에 의해 파면된 계파(啓罷)가 16명, 치적이 좋지 못해 파면 또는 해임으로 폄하(貶下)된 현감이 29명이나 되었던 것으로 볼 때, 조선후기 수령들의 폐정이 얼마나 자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게 될 철종 13년(1862년)의 농민들의 임술민란(壬戌民亂·농민항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잉태되어 오고 있었다.

<표 273> 함평 현감들의 재임기간

재임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1년	1년~ 1.5년	2년	3년	4년	4년 이상	계
인원	2	8	19	50	30	21	22	14	5	171

<표 274> 함평현감의 출신별 통계

구 분	문 과	무 과	음 사 (陰仕)	합 계
인원	91	54	40	185

한편 함평현감 역시 문·무·음사 출신이면 서용되는 것이었지만 현감의 출신을 보면 시기적인 변화의 추세를 엿볼 수 있다. 16세기 중반이후 17세기 처음 10여년은 무과출신이, 그 이후 문과출신이, 그러다가 18세기에 들어서 문·무과가 교차(交叉)로 발령되고, 간혹 음사 출신이 발령되다가, 1853년부터는 계속 음사출신이 발령되었다.

시기가 내려올수록 음사출신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노론의 일당전제와 함께 소수가문에 의한 권력의 전횡이 극심하여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함평현감 명단 및 이임사유 그리고 출신을 정리한 것이다.

▲ 함평현감

현감 이름	출신	부 임	이 임	이임 사유 및 참고사항
노영돈(盧永敦)		1427. 02. 25		왕조실록에 의하여 추가
정유임(鄭有臨)		1433. 12. 19		〃
김계보(金季甫)	문	1442.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여 새로 추가
이조원(李調元)		1451. 02. 19		왕조실록에 의하여 추가
박수지(朴遂智)		1455. 07. 12		〃 (전 예산현감)
홍계생(洪季生)		1473. 01. 08		〃
이계의(李繼義)				구 함평군지의 누정편에 의하여 새로 추가
유신종(兪愼宗)				1500년 초엽 봉직. 족보에 의하여 추가

현감 이름	출신	부 임	이 임	이임 사유 및 참고사항
이세장(李世章)			1532. 12. 30	왕조실록에 의하여 추가 (무능력 폄출)
우 봉(禹 鳳)	무	1557		
우 붕(禹 鵬)	무	1562		
정홍헌(鄭弘獻)			1566. 07. 26	왕조실록에 의하여 추가 (비리 관련 폄출)
김 식(金 湜)	무			
최철윤(崔鐵崙)	무			
송 섭(宋 涉)	무			
정문립(鄭文立)	무			
남궁란(南宮欄)	무			
임영립(林英立)	무			
고득준(高得俊)	무			
전응량(全應良)	문			왕조실록에 의해 추가
이극성(李克誠)	문	1592		
최정립(崔挺立)	무		1596. 05. 13	왕조실록에 의하여 파직일 기입
손경지(孫景祉)	무		1597. 07. 28	왕조실록 (견내량 싸움에서 전사)
이정경(李禎慶)	무	1599. 07. 12		왕조실록에 의하여 부임일 기록
최 안(崔 晼)	무	1601. 12. 30		〃
이유현(李有賢)	무		1604. 09. 19	왕조실록에 의하여 퇴임일 기록
장국주(張國柱)	무	1604. 09. 29		왕조실록에 의하여 부임일 기록
조 기(趙 琦)	무	1607		
이산배(李山培)	무	1609		
유경선(柳慶善)	무	1609		
이 엄(李 淹)	무	1611		
김 식(金 植)	무	1611		
전삼달(全三達)	무	1612		
강 작(康 綽)	무	1612		
이대길(李大吉)	무	1613		
위정철(魏廷喆)	무	1615		
이 정(李 挺)	무	1616		
박정원(朴鼎元)	문	1617		계파
이 란(李 灤)	무	1618		
이응남(李應男)	무	1620		
이홍망(李弘望)	문	1622		1624년 건립비 함평공원에 있음
이 박(李 泊)	문	1624		
이기언(李祇言)	문	1624		
박정청(朴烶淸)	문	1625		1627년 건립비에 의하여 박정을 고침
목성선(睦性善)	문	1627		1627년 건립비 함평공원에 있음
안헌징(安獻徵)	문	1628		1631년 건립비 함평공원에 있음
박일성(朴日省)	문	1630		
윤 강(尹 綱)	문	1632		
신응망(辛應望)	문	1634		

현감 이름	출신	부 임	이 임	이임 사유 및 참고사항
홍찬서(洪纘緖)	문	1635		
김여옥(金汝鈺)	문	1636		
강 번(姜 翻)	문	1637		
김정현(金鼎鉉)	문	1638		
노후설(盧后卨)	문	1639		
윤 집(尹 集)	문	1640		
이이송(李爾松)	문	1643		
윤세임(尹世任)	문	1644		
오 섬(吳 暹)	문	1649		
황준고(黃儁考)	문	1649		
이유석(李惟碩)	문	1651		
김우형(金宇亨)	문	1653	1656	전주판관으로
이만길(李晩吉)	문	1656. 05.	1657	전주판관으로 1657 건립비 함평공원에 있음
오익청(吳翼淸)	문	1657	1658. 05.	어사계파 비문에 의해 익청으로 고침
이민징(李敏徵)	문	1658	1659.	어사계파
이관징(李觀徵)	문	1659	1660. 08.	경파(京罷)
이광적(李光迪)	문	1660. 09.	1663. 02.	경체(京遞)
박신규(朴信圭)	문	1663. 04.	1665. 04.	기관(棄官)
윤형성(尹衡星)	문	1665. 04.	1667. 01.	기관
어진익(魚震翼)	문	1667. 02.	1668. 08.	경파
오시복(吳始復)	문	1668. 10.	1670. 07.	기관
김 주(金 週)	문	1670. 08.	1671. 12.	폄하(貶下)
안한규(安漢圭)	문	1672. 02.	1673. 04.	계파(啓罷)
민홍도(閔弘道)	문	1673. 06.	1674. 04.	별세
김천일(金千鎰)	문	1675. 06.	1675. 12.	폄하
최준상(崔俊尙)	문	1676. 02.	1676. 12.	경파
남필성(南弼星)	문	1677. 02.	1679. 08.	내간(內艱. 어머니나 할머니 상을 당함)
성석진(成碩盡)	문	1679. 10.	1681. 02.	어사계파
홍만조(洪萬朝)	문	1681. 06.	1683. 08.	수찬(修撰)으로
이원령(李元齡)	문	1683. 10.	1684. 06.	폄하
심 엽(沈 燁)	무	1684. 08.	1685. 07.	내간
이후정(李后定)	문	1685. 09.	1686. 05.	경파
이상인(李相仁)	무	1686. 06.	1686. 12.	폄하
이 박(李 博)	문	1687. 01.	1687. 12.	재상파(災傷罷)
민 순(閔 純)	무	1688. 01.	1691. 04.	어사계파
윤이후(尹爾厚)	문	1691. 04.	1692. 03.	어사계파
심 방(沈 枋)	문	1692. 05	1693. 06.	동지사 서장관으로 선발됨
권성영(權성永)	문	1693. 08.	1694. 12.	지평(持平)으로 性 偕
이영한(李榮漢)	무	1695. 02.	1696. 06.	폄하
이언경(李彦經)	문	1696. 08.	1698. 07.	지평으로, 1702 건립비가 함평공원에 있음
성초준(成楚俊)	무	1698. 10.	1699. 06.	폄하

현감 이름	출신	부 임	이 임	이임 사유 및 참고사항
권이진(權以鎭)	문	1699. 07.	1701. 11.	사서로, 1702 건립비가 함평공원에 있음
최동명(崔東溟)	무	1702. 01.	1702. 06.	어사계파
신필현(申弼賢)	문	1702. 07.	1703. 06.	폄하
정이운(鄭以雲)	무	1703. 09.	1706. 07.	계파
박만항(朴萬恒)	문	1706. 09.	1707. 12.	폄하
이교악(李喬岳)	문	1708. 02.	1709. 07.	사서(司書)로
김정삼(金鼎三)	무	1709. 09.	1710. 06.	폄하
김명형(金命衡)	문	1710. 07.	1711. 07.	내간
유성하(柳星河)	음	1711. 09.	1712. 06.	폄하
황 유(黃 愈)	문	1712. 09.	1713. 07.	세선건(稅船件)으로 경파
심우량(沈遇良)	무	1713. 08.	1713. 12.	어사계파
민창기(閔昌基)	무	1714. 01.	1715. 06.	폄하
이단장(李端章)	문	1715. 09.	1717. 03.	어사계파
황응수(騜應洙)	무	1717. 05.	1721. 09.	어사계파
이광보(李光普)	문	1721. 11.	1724. 06.	정체(呈遞)
이세주(李世柱)	문	1724. 07.	1725. 06.	기관
이 강(李 鋼)	문	1725. 08.	1726. 03.	계파
남익엽(南益曄)	문	1726. 03.	1726. 12.	폄하
노삼방(盧三邦)	문	1727. 02.	1727. 12.	어사계파
김석기(金錫基)	무	1727. 12.	1729. 09.	외간(外艱)
이일제(李日躋)	문	1729. 11.	1730. 09.	장령(掌令)으로
홍약수(洪若水)	문	1730. 11.	1733. 05.	말미를 받아 내왕함(受由乃往)
김오응(金五應)	문	1733. 07.	1736. 10.	정체(呈遞)
송교명(宋敎明)	문	1736. 11.	1737. 12.	수찬(修撰)으로
박필재(朴弼載)	문	1738. 02.	1738. 10.	사표
이경열(李景說)	무	1739. 01.	1739. 06.	폄하
오명후(吳明厚)	문	1739. 08.	1742. 01.	폄하
윤동준(尹東浚)	문	1742. 04.	1742. 07.	내간
이성억(李聖憶)	문	1742. 09.	1745. 10.	지평으로
박창윤(朴昌潤)	문	1745. 12.	1747. 08.	수사계파(水使啓罷)
이중석(李重錫)	무	1747. 11.	1748. 07.	폄하
유현장(柳顯章)	문	1748. 09.	1750. 03.	벽동군수로
조덕준(趙德濬)	무	1750. 05.	1751. 02.	내간
정항령(鄭恒齡)	문	1751. 04.	1752. 04.	경파
이광우(李光佑)	무	1752. 05.	1753. 08.	경파
김광국(金光國)	문	1753. 10.	1757. 07.	사간(司諫)으로
전진상(田晉祥)	무	1757. 08.	1760. 06.	점하(點下)
윤광국(尹光國)	문	1760. 07.	1764. 02.	폄하
박성협(朴聖浹)	무	1764. 03.	1765. 04.	패선(敗船)관계로 파면
이백령(李栢齡)	무	1765. 04.	1767. 07.	임기만료
이혜조(李惠祚)	문	1767. 07.	1769. 05.	임기만료

현감 이름	출신	부 임	이 임	이임 사유 및 참고사항
김이준(金履準)	무	1769. 05.	1769. 09.	소파(疏罷)
박종신(朴宗新)	무	1769. 09.	1770. 10.	별세
안성빈(安聖彬)	문	1770. 11.	1772. 01.	내간
신익빈(申益彬)	문	1772. 02.	1772. 05.	경파
임익창(任益昌)	무	1772. 05.	1772. 12.	별세
임덕제(林德躋)	문	1773. 01.	1774. 03.	별세
신재문(申載文)	무	1774. 06.	1776. 06.	임기만료
송환철(宋煥喆)	문	1776. 07.	1778. 02.	응교(應敎)로 영전
이상눌(李尙訥)	무	1778. 02.	1781. 02.	전주영장(全州營將)으로
강 인(姜 寅)	문	1781. 03.	1782. 12.	수찬(修撰)으로
유현상(兪鉉商)	무	1782. 12.	1783. 12.	조운대고(遭運大故)
성덕우(成德雨)	문	1783. 12.	1784. 02.	교리(校理)로
송관휴(宋觀休)	무	1784. 12	1787. 05.	낙안(樂安)군수로
박종정(朴宗正)	문	1787. 05.	1788. 10.	경파
심 석(沈 錫)	무	1788. 11	1788. 11.	대정(大靜)현감으로
신상녕(辛翔寧)	무	1788. 12.	1789. 02.	체직(遞職)
전응순(全應舜)	무	1789. 03.	1791. 06.	임기만료
송환질(宋煥質)	음	1791. 08.	1793. 07.	별세
한흥유(韓興裕)	문	1793. 07.	1794. 11.	파직(罷職)
홍술조(洪述祖)	음	1794. 11.	1795. 07.	진도군수로
김기헌(金箕憲)		1795. 07.	1799. 05.	영천군수로
신 서(申 漵)	문	1799. 05.	1800. 06.	폄파(貶罷)
이극풍(李克豊)	무	1800. 08.	1801. 04.	경파
최이형(崔履亨)	문	1801. 04.	1801. 12	폄파
이병덕(李秉德)	무	1802. 01.	1802. 12.	폄파
오연상(吳淵常)	문	1803. 02.	1804. 12.	부수찬(副修撰)으로
이재홍(李載弘)	무	1804. 12.	1805. 06.	외간
홍의영(洪儀泳)	문	1805. 06.	1806. 07.	부수찬으로
이영식(李英植)	무	1806. 08.	1808. 05.	외간
이 조(李 潮)	문	1808. 06.	1811. 02.	별세
이익서(李益緖)	무	1811. 03.	1812. 10.	순영(巡營)계파
이경삼(李敬參)	문	1812. 11.	1814. 06.	부수찬으로
이완식(李完植)	무	1814. 07.	1815. 07.	구세미납파(舊稅米納罷)
이명서(李明緖)	문	1815. 08.	1815. 10.	광양현감과 상환(相換)
구재항(具載恒)	무	1815. 10.	1816. 06.	계체(啓遞)
강시환(姜時煥)	문	1816. 06.	1817. 04.	체직(遞職), 1822 건립비 존재
김진정(金鎭鼎)	무	1817. 05.	1819. 여름	폄하
윤명규(尹明圭)	문	1819. 07	1821. 05.	정체(呈遞)
원영도(元永道)	무	1821. 08.	1821. 08.	내간
권 복(權 馥)	문	1821. 10.	1823. 02.	정언(正言)으로, 함산가(咸山歌)가 있음
오치현(吳致賢)	무	1823. 02.	1823. 05.	경파

현감 이름	출신	부 임	이 임	이임 사유 및 참고사항
이기화(李基華)	문	1823. 06.	1825. 12.	장령(掌令)으로
이만학(李晩學)	무	1825. 12.	1828. 06.	폄파(貶罷)
이재학(李在學)	문	1828. 06.	1829. 05.	지평(持平)으로
이광룡(李光龍)	무	1829. 06.	1830. 12.	폄파
민영세(閔英世)	문	1830. 12.	1832. 06.	교리(校理)로
김기조(金箕祖)	무	1832. 6.	1835. 06.	순천영장(順天營將)으로
홍의석(洪義錫)	문	1835. 06.	1836. 10.	정체
황해영(黃海瑛)	문	1836. 10.	1837. 06.	폄파
조백승(曺柏承)	무	1837. 06.	1838. 05.	사직단 실화(社稷壇失火)로 취라(就拿)
심동규(沈東奎)	문	1838. 05.	1841. 05.	정언으로
유 숙(柳 琡)	무	1841. 05.	1842. 12.	정체
김상직(金相稷)	문	1842. 12.	1844. 05.	정체, 1853 건립비 함평공원에 있음
허 채(許 采)	무	1844. 05.	1845. 06.	폄파
유진익(柳進翼)	음	1846. 06.	1846. 07.	폄파
이유응(李裕膺)	문	1846. 07.	1847. 04.	체직
윤석하(尹錫夏)	무	1847. 05.	1847. 12.	어사계파
허 전(許 傳)	문	1847. 12.	1849. 07.	이조거하(吏曹居下)로
장일환(張日煥)	무	1849. 07.	1851. 06.	폄파, 1854 건립비 함평공원에 있음
이진면(李鎭冕)	무	1851. 06.	1852. 06.	폄파
홍우길(洪祐吉)	문	1852. 06.	1852. 12.	정체
이종만(李鍾晩)	무	1852. 11.	1853. 11.	경파
정재기(鄭在箕)	음	1853. 12.	1854. 12.	이조거하로
조연천(趙然天)	음	1855. 02.	1856. 06.	폄하
홍선용(洪選容)	음	1856. 06.	1856. 12.	폄하
홍우신(洪祐信)	음	1856. 02.	1857. 06.	거중점하(居中點下)
정재용(鄭在容)	음	1857. 06.	1858. 12.	김해부사(金海府使)로
김직선(金直善)	음	1858. 12.	1859. 06.	영월군수로
이휘단(李彙湍)	음	1859. 06.	1859. 10.	풍기군수로
권명규(權命圭)	음	1859. 10.	1862. 04.	함평농민항쟁으로 파직과 함께 귀양
김기순(金箕恂)	음	1862. 04.	1862. 10.	진주목사로
윤장선(尹章善)	음	1862. 10.	1863. 06.	이조거하로
남희중(南羲重)	음	1863. 07.	1864. 11.	성주목사로
윤종의(尹宗儀)	음	1864. 11.	1867. 05.	청풍부사(淸風府使)로
김낙균(金樂均)	음	1867. 05.	1868. 05.	내간, 1873 건립비 함평공원에 있음.
홍병위(洪秉瑋)	음	1868. 06.	1871. 04.	장성부사로
김병우(金炳右)	음	1871. 04.	1874. 08.	안성군수로
조장희(趙章熙)	음	1874. 08.	1877. 02.	평창군수로
이용일(李用一)	음	1877. 02.	1877. 07.	별세
윤영선(尹永善)	음	1878. 07.	1880. 04.	경파
권재우(權在禹)	음	1880. 05.	1883. 02.	어사계파
민준호(閔濬鎬)	음	1883. 03.	1884. 02.	경파

현감 이름	출신	부 임	이 임	이임 사유 및 참고사항
이주필(李周弼)	음	1885. 02.	1885. 10.	석성(石城)현감으로
홍우룡(洪祐龍)	음	1885. 10.	1886. 12.	평택현감으로
윤자선(尹滋善)	음	1886. 12.	1887. 10.	경체
정기우(鄭基雨)	음	1887. 10.	1888. 05.	경산현령(慶山縣令)과 상환(相換)
이주필(李周弼)	음	1888. 05.	1889. 07.	안협현감과 상환
김택수(金澤秀)	음	1889. 07.	1892. 12.	익산군수로
권풍식(權豊植)	음	1893. 03.	1893. 12.	갑오농민전쟁으로 서울로 압송되었으나, 본 군민의 진정으로 1895년 전주판관으로
이중익(李重益)		1894		수재문집(守齋文集)에서 보충

▲ 함평군수(1895~1909)

성 명	출신	도 임	이 임	참 고
이석규(李錫珪)	음사	1895. 08. 10	1897. 03. 05	1895. 5. 26 함평군으로 바뀜. 김제군수로
서민순(徐敏淳)	음사	1897. 03. 05	1899. 07.	영해(寧海)군수로
민태식(閔泰植)	음사	1899. 07.	1899. 10.	연안군수 재직시 잘못으로 서울로 가 파직됨
경용중(慶龍重)	음사	1900. 04. 11	1900. 11. 09	비인(庇仁)군수로
윤우선(尹寓善)	음사	1900. 11. 24	1901. 03. 14	정 3품. 서천(舒川)군수로
정대위(丁大緯)	음사	1901. 03. 14	1901. 06. 29	〃 . 부평(富平)군수로
이창익(李昌翼)	음사	1901. 06. 29	1901. 08. 28	〃 . 무장(茂長)군수로
김상일(金相一)	음사	1901. 08. 29	1902. 01. 28	〃 . 청풍(淸風)군수로
윤숙영(尹肅榮)	음사	1902. 02. 16	1903. 06	〃 .
박준승(朴準承)	음사	1903. 07.	1907. 08.	〃 . 1906년 함평군지 발간
진상언(秦尙彦)		1907. 08.	1908. 09. 20	
김장석(金庄錫)		1908. 09. 16	1912.	본군 군수로 재직 중 한일합병

2) 함평현의 토성(土姓)과 조선 전기 유향소

목민관은 지방에서의 왕권을 대행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법·군정(軍政)의 전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국왕(중앙정부)이 임명하는 수령의 독단으로 지방통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방마다 각기 그 지방의 사정이나 특성이 있는 것이고, 지방본래의 토착적인 지배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들의 여론이나 동향을 무시하고 통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조선을 건국하였던 건국주체라고 하더라도 지방의 사족을 무시하고 정치를 할 수 없었던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으며, 다소 사정은 다르지만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기 이전의 임명직 군수가 있었을 때에도 군수가 권한대로 할 수 없고 지역의 여론과 실정

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조선전기에 있어서 지역여론을 견지하고 수령권(首領權)을 견제하는 세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들은 다름 아닌 재지사족(在地士族) 내지는 유향품관 등으로서 여말 선초에 있어서 관직을 역임한 전직 관료군(官僚群)이거나 여말 선초의 외적의 침략에 맞서 군공(軍功)을 세우거나 조선건국에 협력한 대가로 첨설직 검교직 등의 실직 아닌 허직(虛職·명예직)을 제수(除授)받고 낙향한 사족 층이었거나 지역에 대대로 토착한 세가거족(世家鉅族) 등이었다. 일괄하여 중앙의 현 집권세력과 대비하여 재지사족 혹은 유향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재지 또는 재향(在鄕) 지배세력이었던 것이다. 이들 재지세력은 지방마다 유향소(留鄕所)를 두고 사족의 여론을 등에 업으면서 일향의 자치를 추구하였던 것이며, 중앙에는 경재소(京在所)를 두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또한 세력을 견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지지배층의 권한이 비대하여지면 왕권(중앙정부)의 지방침투가 가로막히게 되는 이상 수령권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또한 이들이 경재소나 여러 다른 소원을 통하여 수령권을 제약하거나 수령을 교체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재지지배층이 수령권을 능멸하고 백성을 침탈하는 등 반집권적 토호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폐단이 건국 후 얼마 되지 않아 노골화되었다. 강력한 국왕권의 신봉자인 태종이 이를 간과할리 없었다. 태종 6년(1406)에 단행된 유향소 혁파는 이러한 과정의 산물이었다. 이것이 중앙집권체제 확립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수령의 불법행위와 향리의 폐단 등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제기되자 세종 10년(1428)에 다시 유향소가 복설되었으나 세조 말에 폐지되었다가 성종 19년(1488)에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이 때의 유향소는 관 주도의 기구로 변질되어 재지세력의 사회적 지위는 하락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 전기 치폐를 거듭하던 유향소가 함평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운영되었는가에 대하여는 현재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어떠한 세력이 이를 구성하고 참여하였을 것인가는 세종실록지리지의 토성조(土姓條)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고려태조 23년경을 전후하여 군현별로 지역에 토착한 유력한 씨족 또는 그곳을 본관으로 하면서 읍사를 구성하였던 성씨집단에 성씨를 분정하였는데 이때 각 군현에서는 당대의 「씨족지(氏族志)」와 같은 성씨록을 작성 비치하였다. 이때의 유력 토착씨족의 성을 토성이라고 하였던 것이고 이것은 중앙에도 '관(關)'으로 보고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 경기도 광주목 성씨조의 '土姓 三, 李安金 加續姓 三 朴盧張, 此六姓 據古籍及 本道關 錄之, 其云加續者 古籍所書也 後皆倣此'라고 한데서 알 수 있다.

즉 토성이란 고적과 각도에서 올린 관(關)에 등재되어 있는 성으로 토풍 토속 토병 토관과 같이 토박이 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가속성은 토성의 분정 이후 어느 시점에서 지방에 토착하게 되면서 성씨록에 올랐거나 중앙에 보고하는 '관'에 올랐던 성씨이었다.

이에 비하여 망성은 '凡稱亡姓 謂古籍所有 而今無者'(세종실록지리지 광주목 성씨조) 즉 고적에는 올라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성씨를 말하는 것이며, '續姓…古籍所無 今據本道關 續

錄'(세종실록지리지 경기도 양근군-陽根郡- 성씨조)이라고 하여 고적에는 없지만, 그 후 본도의 관에 올라있는 성씨를 바로 속성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성씨는 비단 군현에만 분정된 것이 아니라 속현·향·소·부곡 등의 임내(任內)에도 분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 상의 성씨조를 보면 당시의 함평지방의 유력 씨족의 배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9>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이는 함평지방의 유력 성씨 일람표

	토 성 (土 姓)	속성(續姓)	망 성(亡姓)
함풍(咸豊)	임(任) 노(魯) 이(李) 문(文) 공(孔) 정(鄭) (6)	강(姜) (1)	
모평(牟平)	오(吳) 정(鄭) 모(牟) (3)	김(金) (1)	갈(碣) (1)
해제(海際)	노(盧) 이(李) 반(潘) 양(楊) 신(辛) (5)		
영풍(永豊)	유(兪) 이(李) 박(朴) 정(鄭) (4)		정(丁) (1)
다경(多慶)			유(兪)윤(尹)(2)

그리고 이후 군현과 임내의 구분이 사라지고 그 차별이 거의 없어지게 된 동국여지승람이 찬집(撰集)된 시기에 이르면 성씨도 그러한 구분이 없이 등록되게 된 것인데 바로 이러한 성씨들이 조선전기 지방의 유력사족 혹은 재지세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표 20>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함평지방의 유력 성씨 일람표

	토 성 (土 姓)	속 성 (續姓)
함 풍	임(任) 노(魯) 이(李) 문(文) 공(孔) 정(鄭) (6)	강(姜)
모 평	오(吳) 정(鄭) 모(牟) 갈(碣) (4)	김(金)
해 제	노(盧) 이(李) 반(潘) 양(楊) 신(辛) 임(任) 최(崔) (7)	
영 풍	유(兪) 정(程) 이(李) 박(朴) 정(鄭) (5)	
다 경	유(兪) 윤(尹) (2)	

이렇다고 한다면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에 나오는 강씨(姜氏)의 경우와 같이 향리가문으로서 지방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씨를 제외한 나머지 토성·속성성씨의 유력자들을 중심으로 유향소가 설치되고 운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함평의 유향소는 <표 19>와 <표 20>에서 볼 수 있는 유력한 성씨를 중심으로 하여 유지되었으며, 이들 가문이 우리지방의 명가(名家)이었을 것이다.

이들 중에서 우리 지방의 대표적인 가문을 생진과(生進科)와 문과(文科) 입격자 수를 분석하여 살펴볼 수가 있다. 과거 자체의 성격상 통계적 가치에 의해 단정이 내려질 성격이 아니지만, 과거의 합격은 가문의 성쇠를 좌우하고 지방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한 가문은 향촌사회의 유력한 가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문은 함평 이, 나주 정, 진주 정, 함평 모, 함평 노(魯), 광산 김, 죽산 안, 이천

서, 밀양 박씨 등이라 할 수 있다.

3) 관아와 향리

현감은 지방 행정의 총괄자이고 실무행정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구실(役)을 담당하는 계층을 향리(鄕吏)라고 한다. 실제 집행은 중앙의 6조(曹)의 축소체제인 6방(房)으로 나누어 향리 즉 아전(衙前)들이 맡아 보았다. 모든 지방행정 단위에는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방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 업무는 지방의 향리들이 이를 향역으로 세습하면서 담당하였다.[162] 이들 향리 즉 아전은 신분적으로는 중인(中人)에 속하였고 향리역이라는 신역(身役)을 지는 세습집단으로 이들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다.

국초에는 외역전(外役田)을 주어 생활기반을 보장하여 주었으나 세종 말년에 이를 철폐하여 녹봉마저 지급되지 않았고 지방자체에서 조달하게 하였다. 세종 때에는 80% 이상의 향리가 이속(移屬)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들 향리는 세습적이기 때문에 성씨도 한정되어 있었다. 이들 향리는 그들 내부에도 계층이 있었는데 호장층(戶長層)』 6방층』 색리층(色吏層)이었다. 호장층은 상층 향리요, 색리층은 천역에 가까운 하층 향리였다.

향리 가운데 현사(縣事)를 맡아보는 호장은 수령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수석이었고, 호장 이외에 이방·형방의 권한이 커서 이들을 삼공형(三公兄)이라 은유하여 불렀다. 향리가 수령을 돕는 문관적인 관료라면 군사나 치안을 담당하는 무관적 관료는 군교(軍校)나 사령(使令)이었다. 군교는 군관과 포교(捕校)를 말하며 군관은 군사적인 실무를 맡았고, 포교는 치안관계의 실무를 맡았으며, 이를 집행하는 사령은 문졸(門卒)·일수(日守)·나장(羅將)·군노(軍奴)로 별칭 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 관아에는 관노가 있었고, 관노도 급창(及唱), 고직(庫直), 구종(駒從), 고자(庫子)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관아의 잡일을 맡아 보았다. 또 관아에는 관비가 있었는데 이들도 기생, 수급비(水汲婢)로 나뉘어 있었다. 향리나 공천출신의 연소자로 수령의 신변에서 사환역할을 하는 자를 통인(通人)이라 하였다.

또한 향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서울에 파견·상주시켜 그 고을의 공부를 수납하도록 한 경저리(京邸吏)가 있었으며, 감영에는 영저리(營邸吏)를 두었다. 경재소·경저리의 제도는 당시로서는 지방과 감영 혹은 도성과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지방 향리세력에 대한 통제의 장치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어떤 성씨 집단이 함평지역의 향리역(鄕吏役)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에 "함풍현의 속성으로 강씨(姜氏)를 들고 향리역이었으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모평현의 속성에 김씨를 들고 향리역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 선초에는 강씨는 함풍현, 김씨는 모평현의 속성으로 향리역을 세습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162)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 5, 1970.

6. 조선전기 부세제도와 함평의 재정

1) 조선전기 부세제도와 함평의 전결(田結)·호구(戶口)·토공(土貢)

조선시대 부세제도는 조용조체제를 기축으로 운영되었으니 전결에는 조(租), 인신에는 용(傭), 가호에는 공물(貢物)을 부과하는 원칙이 있었다. 즉 모든 토지는 이념적 왕토사상에 입각하여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였으며 모든 신민은 그 인신의 분수(신분)에 따라 구실(역)을 바치고 몫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이미 가호를 이루는 자는 여러 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그 산물의 일정부분을 국가에 공물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에서 조세(租稅)·신역(身役)·공물이라고 하는 3대 부세조목이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분제를 기초한 양반관료사회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던 조선왕조는 이 같은 조세 요역 공물을 모든 민인에게 일괄적이고 균평하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토지로부터 조세를 거두는 것이지만, 일부 토지는 양반관료 및 지배층에게 조를 거두는 권리를 분급하여 그 특권을 보장하여 주었으며 따라서 양반관료의 사유지가 그 자신의 과전(科田)으로 분정(分定)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조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조(免租)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민의 경우는 그의 토지가 과전으로 책정되었다면 국가에 조세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과전을 받는 양반관료에게 전조(田租)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이때 그 양반은 그 자신의 소유 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조권(收租權)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전주(田主)가 되고 농민은 그 토지가 사유지이었다고 하여도 전조를 납부하는 자로서의 전객(佃客)이라고 하는 칭호를 띄게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주객의 전도라고 할 수 있지만 신분제에 기초한 양반관료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조선왕조의 토지제도에서는 상하관계 명분질서가 관철되는 '합리적 정당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신역(身役)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양반으로서 관직에 나가면 그 자체가 양반의 구실을 하는 것이며, 왕실에 교대로 숙위하는 검교 한량관이나 공신자제는 그 자체가 자신의 몫이었다. 더욱이나 이들에게는 그 대가로서 과전 등 경제적 보상이 따르고 있었다. 향리도 그 구실로 지방의 행정을 맡아보는 것이며, 역리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천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처가 어디냐에 따라 공노비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관청에서 천역에 종사하여야 하였고, 사노비인 경우에는 주인가(主人家)의 강제노역에 동원되도록 되어 있었다. 일반 양민의 경우에도 각종 역이 부과되었다. 군사가 되는 일, 봉수꾼이 되는 일, 국가나 지방의 각종 사역에 징발되는 일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장정에게 노역을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병이 되었을 때에는 그의 군장이나 군량 등을 보조하는 여정(餘丁)을 두었으며(이를 당시에는 봉족-奉足-이라고 하였다) 각종 요역(繇役)을 징발할 때에도 처음에는 인정을 기준을 기준으로 '10정(丁) 이상이면 대호(大戶)가 되고 5정 이상이면 중호가 되고, 4정 이하이면 소호가 되게 하여 정(丁)을 계산하여 백성을 등록시키고, 만약 요역이 있으면, 대호(大戶)는 1명을 내고 중호는 둘을 합하여 1명을 내고 소호는 셋을 합하여 1명을 내도록 하였다'가[163] 이후에는 전결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니 세종조의 대·중·소·잔·잔잔호의 5등호제로 요역을 징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경국대전에서 이는 5결에 1정을 내는 기준으로 정착되었다. 군역이나 요역으로 민생이 극도로 위태해지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재생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163) 『태조실록』 권 2, 원년 9월 24일 임인.

그런데 이 같은 역을 실제 담당하지 않고 이를테면 역역(力役)을 제공하지 않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거두었으니, 천민의 경우에는 이를 신공(身貢)이라고 하였으며, 양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금지되었지만, 정병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포목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방군수포(放軍收布)'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고정되어 부세가 되었을 때 이를 군역세(軍役稅)·양역포(良役布) 혹은 군포(軍布) 등으로 불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신분제와 직역체제에 의하여 당시의 민인은 국가로부터 차별적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구실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가호에 대한 공물의 수취에서도 이러한 차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때의 차등은 지역의 토산에 따라 지역적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도 특정 산물의 산출여부에 따라 내부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한 지방에서 공물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식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때 어느 정도의 공물을 납부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신분적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와 가산의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이 때 가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결과 노비가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 이중 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방침이 있었다. 조선왕조는 전결의 다과를 기준으로 호 등을 정하여 공물을 징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에 있어서 이것은 농가의 재생산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공물을 징수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공물을 전혀 납부할 수 없는 가호에 대해서는 그를 대신하여 부역으로 대신하여야 했다. 이 때의 부역은 그러한 공물을 생산 채취하는 일에 동원되는 것일 수 있었고, 아니면 그러한 공물의 운반에 동원되는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때에도 실제의 부담 관계에 들어서면 그 부담은 하층으로 전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도성에는 공물이 없었다. 이것은 당시의 도성이란 국가의 상징으로 통치의 근간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도성의 각호는 공물을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통치에 필요한 중요한 역사나 수림의 보호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준설공사나 도성주위 산림의 송충이를 잡는 일 따위가 그것이었다. 여기에서 도성의 각호는 마치 외방에서 공물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노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에 필요한 노력을 제공하여야 하였는데 조선초기에는 여기에서 대소 관료나 일반민가 간에 모두 부과하였는데, 이 때 관료의 경우는 그 자신이 직접 사역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가노가 대신 이를 담당하였다. 우리는 이를 품종(品從)이라고 하는 것인데 각 품에 따라 종복(從僕)을 낸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방의 공물을 납부함에 있어서 재지사족이나 지방지배층은 노복을 대신 보냄으로써 이를 마감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그런데 이 같은 부세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기 위한 장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지의 경우 실제 경작하고 있으면서도 황폐한 토지로 조작하거나 아예 은폐하여 경작지가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반대의 경우 진폐지(塵肺地)인데도 기간전(起墾田)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또한 년년 새로 개간되거나 황무지가 된 경우도 파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지의 변동을 자세히 파악하여 장부를 만들어 놓는 일 즉 토지조사와 토지장부가 필요할 터이었다. 예전에는 이를 양전(量田)이라고 하고 그 장부를 양안(量案)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양전은 삼국시대부터 있어왔지만 조선에 들어와서는 태종대에 3남을 필두로 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상의 양전은 수시로 하면 좋았지만 토지의 변동이란 천재지변에 따른 지형변화가 크게 오지 않는 한,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유랑민의 발생 등의 조건이 있지 않는 한, 당시의 인력에 의한 농지의 개발 같은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의 변동이란 일정한 시차가 있는 것이므로 양전을 시행하게 되면서

오는 인력과 비용의 소요가 엄청났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20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규정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 토지에 대한 조사가 조세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지의 소유주나 조세의 납부자가 새로 개간한 토지가 파악되거나 혹은 세액이 오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로서도 이 같은 거대한 사업을 규정대로 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 같은 토지조사는 지금과 같이 절대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수확량에 따라 조세량을 결정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확량이 같은 땅을 같은 결부로 파악하는 측량이었다. 이른바 결부제(結負制)인 것인데, 그 단위가 되는 결부속파(結負束把)는 바로 수확의 단위이었던 것이니, 손으로 쥘 수 있을 만큼의 한움큼이 파(把), 그 열이 모이면 한 묶음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속(束), 그 열은 한 짐이 된다는 부(負), 그리고 100부가 1결(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측량함에 있어서는 수확량을 비정하여 전지의 등급을 1-6등으로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척(尺)을 달리하는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을 채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국대전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한 후 대장을 만들어 본조, 본도, 본 고을에 보관한다.

1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주척(周尺)으로 바꾸어 4자 7치 7푼 5리에 해당하고 2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5자 1치 7푼 9리, 3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5자 7치 3리, 4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6자 4치 3푼 4리, 5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7자 5치 5푼, 6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9자 5치 5푼에 해당한다. 실지면적에서 한자를 줌(把)이라고 하고 10줌을 뭇(束)이라 하고 10뭇을 짐(負)이라 하고 100짐을 결(結)이라고 한다. 1등전 1결은 38묘(畝)에 해당하고 2등전은 44묘 7푼, 3등전은 54묘 2푼, 4등전은 69묘, 5등전은 95묘, 6등전은 152묘에 해당한다.

각 등급이 토지 14짐이 중국의 1묘에 해당한다.

늘 경작하는 토지를 정전(正田)이라 하며 경작하기도 하고 묵이기도 하는 토지를 속전이라고 한다. 정전이라고는 하지만 토질이 메말라서 곡식이 잘 되지 않는 토지라든가 속전(續田)이라고는 하지만 땅이 기름져서 소출이 곱절이나 많이 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고을원이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다음번 식년에 개정한다."[164]

신역 및 공물수취제도의 경우에도 있어서도 그에 합당한 조사가 있어야 하였다. 더욱이나 흔히 백정(白丁) 은정(隱丁) 누정(漏丁) 혹은 은루호(隱漏戶) 협호(挾戶)라고 하여 실제 역역(力役)에도 종사하지 않고 신공(身貢)이나 역포(役布)를 납부하지 않는 장정이 있을 수 있었으니 국가는 이러한 계층이 많으면 국가재정에도 불리하고 또한 부세의 균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신역과 공물이 인정(人丁)과 가호를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그 조사는 당연히 호구조사이어야 하였다. 그런데 호구는 '농촌'과 농업이 중심이 되는 자급적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그 부침과 이동이 심하고 변동이 격심함으로 토지와 같이 2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을 소요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특히 인구파악이 단순한 부세수취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인의 동태와 그 신분제의 유지 통제라고 하는 국가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인 만큼 매년 할 수 있으면 좋았지만, 당시에는 매 3년에 한 차례 실시하였다. 국가는 일정한 규식(호구식)을 통하여 호구를 조사하고 호구단자(戶口單字)를 발급하였으며 이를 편제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간의 호구의 이동 실태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민인의 동향과 신분제의 유지를 관철하였으며 인정과 가호를 대상으로 한 신역과 공

164)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양전조(量田條).

물을 부과 수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전결과 호구의 조사를 통하여 '토지와 인민'을 국가체제에서 파악하고 조용조체제(租庸調體制)에 기초한 조세·신역·공물을 수취하였던 것이다.

조선전기 함평현의 경우, 양전을 통하여 그 전결은 5,895결로 파악되었는데 이중 답이 약간 많아 3,203결이 되었다. 여기에서 과전법 단계에서는 수확량의 10분의 1의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 결 조 30두, 세 2두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경차관을 파견하거나 수령 등의 답험손실에 의하여 풍흉에 따라 수확량에 따라 다소의 감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세종 26년(1444) 공법(貢法)의 실시로 연분 9등제가 시행되면서 수확량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매 결 4-20斗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전조와 전세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통괄하여 전세가 되었다.

그리고 호구조사를 통한 호구 수는 315호, 1608명이었으며 이중에서 정병에 해당하는 것은 군정(軍丁) 8, 시위군 28, 영진군 55, 선군 379명 이었다. 나머지는 양인 정남의 경우는 봉족(여정)으로 편성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세종실록 지리지 단계에서의 전라남도와 광주의 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전라남도의 군현별 호구수

군 현	호	구 (口)
나 주 목	1,089	4,026
해 진 군	122	707
영 암 군	333	1,229
영 광 군	331	2,137
강 진 현	355	1,644
함 평 현	315	1,608
남 평 현	236	1,333
무 안 현	315	1,030
장 성 현	183	840
구 례 현	137	677
곡 성 현	148	657
광 양 현	228	1,220
장 흥 도 호 부	276	1,041
담 양 도 호 부	346	1,760
순 천 도 호 부	467	2,618
무 진 군	860	4,182
보 성 군	253	1,245
낙 안 군	306	1,439
고 흥 군	157	686
능 성 군	139	763

군 현	호	구(口)
창평현	219	952
화순현	209	615
동복현	90	289
옥과현	136	837
진원현	144	747
합계	7,394	34,282

조선전기 함평의 토산은 모시·닥나무·왕골·대나무·대화살·무쇠·쇠·자기·석류·감·비자·황각·차·감태·조기·백새우·민어·밴댕이·숭어·낙지·굴조개·소합·준치·오징어 이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특산물로서 바치는 공물은 비자(榧子)·석류(石榴)·여우(弧)·삵(狸)·황모(黃毛)·작설차·죽순·돗자리·칠(漆)·상어·지초(芝草)·녹용(鹿茸)·맥문동(麥冬門)·자하거(紫荷渠)이었다.

2) 조선전기의 면리제(面里制)·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와 함평

조선전기 지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령칠사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사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장치로서 이웃이 보증을 서도록 하는 다른 표현을 빌자면 이웃간에 상호연대책임과 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등의 목적에서 인보법을 시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때가 태종 7년 정월이었는데, 이에 대한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65]

> 인보법(隣保法) 같은 것은 매년 호구(戶口)의 증감(增減)과, 인물(人物)의 양천(良賤)과, 군민(軍民)의 장약(壯弱)과, 단쌍(單雙)·생산(生産)·물고(物故)를 두루 알지 못함이 없으므로, 유이(流移)하거나 용은(容隱)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릇 원근(遠近)에 차발(差發)하는 경중(輕重)과 부역(賦役)을 평균하게 하는 것은 군국(軍國)의 급한 일인데, 각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수고롭게 하거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도, 한달 안에 가만히 앉아서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監司)가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않기 때문에, 수령들이 한갓 문구로만 여깁니다. 빌건대, 수판(受判)하여 행이(行移)한 인보법(隣保法)의 조목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상고하여, 오는 12월 안으로 성적(成籍)하여 의정부에 올리게 하고, 만일 조령(條令)을 늦게 봉행(奉行)하였거나 절목(節目)의 사의(事意)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착오하였으면, 수령(守令)·도관찰사(都觀察使)·도순문사(都巡問使)·도수령관(道首領官)을 모두 율(律)에 비추어 논죄하게 하고, 그 호적(戶籍)은 3년에 한 번씩 갈아서 성적(成績)하여 의정부에 올리게 하되, 영구한 법식을 삼도록 하소서.

인보법은 군액(軍額) 파악, 노비변정사업 등과 같은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하부의 행정체계 내지는 기구를 갖출 필요가 있었으니 인보법은 점차 호패법 오가작통법 그리고 면리제로 정비되었던 것이다. 태종 12년에는 실시가 건의되고 동 13년 9월에 이르러 시행되게 된 호패법은 호구파악과 성적(成績)에 커다란

165) 『태종실록』 권 14, 7년 11월 2일(임자).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특히 호패법은 유망민이나 탈루자를 색출하여 징병·요역·조세수취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실시된 것으로 농민의 이동을 억제하고 토지에 긴박시킬 필요에서 정책화된 것으로 민인생활의 적극적 규제책이었다고 하겠다.

면리제는 선초 군현제를 정비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차 그 틀이 세워졌다. 그것은 향·소·부곡·장·처 등의 특수행정구역과 임내의 직촌화, 군현의 재정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윤곽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게 되었다. 『소학(小學)』에 소개되어 고려 말기에 이성계 등의 개혁세력에 의하여 적극 개진된 향사리장제(鄕社里長制)를 바탕으로 한 리정제(里正制)가 도입되고 오가작통제가 시행되면서 면리제는 점차 지방통치의 기본행정체계로서 자리를 잡아갔다. 5가 1통에 따라 통주(統主)를 두고 5통을 1리로 하여 이정(里正)을 둔다고 하는 방침에 의하여 이를 통할하는 면제가 확립된 것이다.

이와 아울러 면리의 직임조직도 정비되고 있다. 여기에서 면에 근농관(勸農官)을 두도록 하였으며 의창곡의 분급과 호적의 작성 등의 임무가 있었을 때에는 감고(監考), 별감(別監) 등을 두도록 하여 관의 업무를 일정하게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 임무와 역할은 호적작성을 비롯하여 적군(籍軍), 양안(量田), 징세, 조역(助役), 포도(捕盜), 민(民)의 유망(流亡)단속, 관개수리시설의 감독 등과 같이 1읍 단위의 제반사를 처리하는데 조력하였으며, 그들은 향리와 향청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수령의 지휘감독 하 매월 5일마다 관아에 출입하면서 향촌행정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면리제는 앞에서 보듯이 한 군현의 호수가 많은 경우 나주는 1000여 호가 넘지만 가장 적은 동복현의 경우 90호로 100호에도 차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제가 그대로 시행되기란 한계가 있었다. 자연촌의 발달이 미비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면의 발달은 기대하기 곤란한 것이었다. 조선전기 면리제는 면의 경우는 일정한 구역과 호구가 파악되는 바의 영역면이 아니라 일종의 방위면체제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겠다. 즉 관아를 중심으로 각 읍이 동·서·남·북면, 그리고 내면(內面) 등으로 방위에 따라 구획되었던 것이다.

3) 조선전기 지방재정제도와 함평의 재정

조선시대의 지방재정 중에서 수입은 국가가 지급한 토지의 소출이다. 국가에서 지급한 토지는 지방관헌의 급료로 지급하여 준 아록전(衙祿田), 빈객(賓客)의 접대비 지출을 위한 공수전(公須田), 부족한 경비를 보충하는 관둔전(官屯田) 그리고 군현에 배정된 노비와 말을 가지고 운영하였다. 지급된 토지로도 부족한 경비는 수시로 민호(民戶)에 배당하던지 아니면 요역을 징발하여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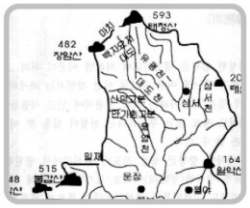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함평 역시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가 지급되었다. 지방에서는 이러한 토지에서 조를 거두어 재정에 충당하였던 것이다. 름전(廩田)이란 명목으로 지방관리의 생활비와 지방관청의 유지비로 토지가 지급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경국대전에 보이는 지급대상과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80> 름전(廩田)의 지급 현황

부, 대도호부, 목	아록전 50결, 공수전 50결
도호부	아록전 50결
군, 현	각각 아록전 50결
역	대로 20결, 중로 15결, 소로 5결, 역장 2결, 역 부장 1결 50속, 역졸 50속, 대마(大馬) 7결, 중마 5결 50속, 소마 4결.
참(站)	아록전 5결
원	대로 1결 35속, 중로 90속, 소로 45속.
도(渡)	아록전 8결, 진척 (津尺. 대진-大津 10결 50속, 중진 7결, 소진 3결 50속)
수능군(守陵軍)	매인 2결
수부(水夫)	매인 1결 35속
빙부(氷夫)	매인 1결

이외에도 요역을 징발하는 등으로 관아의 필요 소요물품을 생산하거나 가호나 전결에 이를 배정하여 징수하여 충당하였다. 그리고 관아에서 필요한 노동력은 신역제에 의하여 가호에 부여된 세습적 구실을 징발하는 것으로 충당하였다. 그 대가는 없었다.

제3장 성리학의 보급과 함평의 사림문화



제1절 조선시대 교육제도와 과거제

1. 조선시대 교육제도와 함평향교

1) 조선시대의 관학(官學)과 함평향교

조선의 건국과 함께 유교를 국시로 정하였던 왕조와 사대부는 학교를 매우 중시하였다. 태종즉위 후 얼마 안 되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배극렴(裴克廉)·조준(趙浚) 등이 22개 조목을 상언(上言)하는 중에서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고, 농상(農桑)은 의식(衣食)의 근본이니, 학교를 일으켜서 인재(人才)를 양성하고, 농상을 권장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할 것"을 제일 첫 조목에 넣어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166]

그들의 교육제도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는 향교의 설치로 나타났으니 개혁파 사대부의 학교 중시는 "학교는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원천이며 국가의 치란과 정치의 성패가 모두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래 전쟁으로 인해 학교가 폐하여지고 풀이 자라 무성해지며 향원이 선비 이름을 칭탁하여 원컨대 이제부터 근면하고 박학한 자를 교수관으로 삼아 5도에 각 1인씩 나누어 보내어 군현을 두루 다니게 하여 그 마필은 모두 향교에 맡겨 주관케 하고 또 주군에 한거하여 유(儒)를 업으로 삼는 자로 본관교도로 삼아 항상 사서와 오경을 읽게 하여 실용의 인재를 이루도록' 하자는 조준 등의 상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167] 그래서 건국 주체세력은 도적을 그치게 하는 일보다 학교를 진흥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던 것인데, 우왕 원년 때 시행된 수령의 평가기준에 없던 '학교흥(學校興)' 조항이 이후에는 첨가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가 되면 한성부에는 성균관과 사부학당을 두고 외방 고을마다 향교를 설치하여 양반과 서인의 자제로서 15세 이상이 되면 입학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양반의 자제들이었다. 각 고을 향교의 정원은 고을의 크기에 따라 달랐는데 부와 목은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이었다. 교관도 고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큰 고을에는 문과 출신의 종6품 교수(敎授), 작은 고을에는 생원진사 출신인 종9품의 훈도(訓導)를 파견하였다. 생도는 교관으로부터 강경(講經)과 제술(製述) 등을 배웠는데 이 때의 교재는 대개 소학(小學)·가례(家禮)·사서오경(四書五經)·근사록(近思錄)·심경(心經)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166) 『태조실록』 권 2, 원년 9월 24일 임인.
167) 『고려사』 권 74, 지(志) 권 28, 선거(選擧) 2, 학교(學校) 공양왕 원년 12월.

그러나 관학을 통한 유교의 보급과 인재의 양성은 머지않아 난관에 부딪쳤다. 선초에는 각 주군현의 학교에 각각 토지를 내려서 이를 향교의 소용에 충당하려는 것이었으나,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향교나 사부학당의 경우 생도의 숙식이 문제였다. 먼 곳에 살고 있는 생도의 경우 통학이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숙식을 해결하여야 하였는데 숙소로 이용되는 동재(東齋)나 서재(西齋)가 비좁았을 뿐만 아니라 숙식의 비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향교의 경우에는 교관조차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 실정으로라면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나, 름료(廩料)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까닭에 학행이 두드러진 자라 하더라고 이를 기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관료 중심의 국가인 조선왕조의 지배계급이던 양반들에게는 관직이라는 벼슬자리에 나가는 것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서, 유교적 지식을 갖춘 관리, 예컨대 문과급제자나 생원진사 입격자는 교관을 한직으로 여겨 부임을 기피하는 일이 예사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교육제도의 맹점은 대부분의 경우 교육과정이 과거를 보는 수단 내지는 단계로 인식된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도 과거의 준비처럼 되었다. 사대부의 자제들은 7, 8세가 되면 사설(私設)의 서당(書堂)에 들어가 훈장으로부터 천자문(千字文)과 동몽선습(童蒙先習) 등 학문의 기초와 습자를 배우고, 15, 16세가 되면 서울은 사학(四學), 지방은 향교에 들어가 5, 6년 동안 면학하면서 소과(小科)에 응시 합격하여, 생원·진사의 칭호를 받아 성균관에 진학하였다. 여기에서 공부하면서 다시 대과(大科)에 응시하여 급제하면 비로소 관직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목적하는 바가 모두 과거에 필요한 경학(經學)과 시문(詩文)을 배워서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는데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사학이나 향교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과에 응시하여 생원·진사가 될 수 있었고, 생원·진사가 아닌 사람이나 성균관에서 수학(修學)하지 않은 사람도 대과에 응시하여 급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당, 사학 또는 향교, 성균관은 오늘의 초·중·고·대학의 각급 학교와 같이 상하의 연계계통이 서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조선시기의 교육은 숭유억불(崇儒抑佛)의 차원에서 유학에 중점이 두어지고 과거응시를 위한 과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발전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즉 교육에 대한 진흥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유교주의적 교화, 풍속의 교정에 있었으며 과거준비를 위한 수단의 의미로서 요즘의 표현에 의한 학문을 진흥한다는 의미는 없었다. 실제로 당시의 사회에서는 학문이란 극소수의 자유의지에 의한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수기(修己)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며, 치인(治人)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학문의 발전은 지극히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국가의 공식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였다.

조선창업과 동시에 전국의 각 군현(郡縣)에 최한 1개소 이상씩 향교를 설치하라는 태조의 명에 따라 함평에도 향교가 건립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당초에는 현내(縣內)에서 서쪽으로 2리, 현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어 초가로 영조(營造)하였으나 지리가 불편하고 규모가 졸열하여, 인조 3년(1625)에 현감 박정청(朴烶淸)이 현 동쪽 고산 아래 십정지지(十井之地)를 택하여 영조를 시작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여진족의 침략(정묘호란)으로 이루지 못하고, 인조 9년(1631) 현감 박일성(朴日省)이 향유(鄕儒)와 함께 협의하여 완의(完議)를 거쳐서 그 이듬해인 1632년에 예조(禮曹)에 보고하고 이건(移建)하였으

니 오늘의 대동면 향교리 590번지이다.

2) 조선시대 사학의 흥성과 양사재(養士齋)

관학인 향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하자 이를 대신하여 서원과 서당 등의 사학(私學)이 점차 흥성하게 되었다.

서원은 고려시대 이래의 사학인 서재(書齋)에 선현을 봉사하는 사묘(祠廟)를 겸한 것으로서 주로 명유(名儒)·선배의 연고지에 세워져 그 지방의 양반자제들을 교육하였다. 최초의 서원은 중종 38년(1543)의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었다. 초기의 서원은 사묘에 부수된 유생들의 독서처(讀書處)로 건립되었다. 따라서 사림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다만 관학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의 기구로 인식되었다. 이후 봉사대상인물이 없는 경우에도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서재·정사(精舍)라 하지 않고 서원으로 명명하게 되면서 서원은 사림의 강학·장수처(藏修處)로서 그 성격이 분명해지면서 사림세력의 향촌활동에서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림의 학문적 기반으로서의 서원제도의 보급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초부터 계속되어 온 사림세력의 유교적 향촌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서원은 훈척계(勳戚系)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명종 때까지는 사림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주요한 기반이 될 수 없었으며, 다만 이 시기에 피폐된 관학인 향교에 대신하는 사림들의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 주목받고 있었다. 또한 서원은 지방에서 중소 지주층의 지식화를 촉진시키고 사림의 확대 재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들이 정치여론집단을 형성하고 훗날 붕당정치의 저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사림파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선조 대부터 그들에 의해 전개되는 붕당정치와 관련되면서 서원은 점차 그 역할을 증대시켜 나갔다. 이 때부터 서원의 건립은 지방의 유력한 양반들 사이에서 유행하여 선조 대에는 사액서원만 해도 전국에 100개가 넘을 정도였다. 이들 사액서원은 국가로부터 서적·노비·토지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면세·면역의 특권까지 누렸으므로 관학인 향교를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세력과 권위 면에서도 능가했다.

사학으로서 서원 다음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서당이었다. 서당은 대부분 소규모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선후기에 이르면 문중이나 마을에서 자제들의 교육을 위하여 인근의 학자를 훈장으로 초빙하여 얼마간의 급료를 주고 의식을 해결해 주면서 인근 마을의 자제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또한 부유한 집안에서 오로지 자기집안의 자제교육을 위하여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당은 입학자격이나 정원이 유동적이었으며 훈장이나 생도에 따라 교육 내용도 다양하였다. 초보적인 천자문을 가르치는 것부터 성리대전과 같은 고급단계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초급과정에서는 천자문·사자소학·동몽선습·격몽요결 등을 읽혔으며 중급과정에서는 통감·고문진보·사서오경·당송팔대가문 등을 강독하였다. 조선시대 서당이 어느 정도이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1911년 단계에서 조사된 바로는 1만 6,000여개나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 고을에 적어도 30여개 이상 있었다는 말이 된다. 서당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하여 문중이나 마을에서는 서당계 혹은 학계 등을 결성하여 기금을 모으고 이를 증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당시 조선후기에 이르러 향교와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타

개책의 일환으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재원을 모아 양사재(養士齋)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이 때 재생(齋生)들은 혹한기와 혹서기를 피하여 양사재에 거처하면서 훈장의 지도 아래 매일 강경과 제술을 반복하였는데, 이 때 충당되는 비용은 관민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학계 등을 운영하였거나 아니면 생도들이 학습료를 내는 방식으로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생원·진사시(小科)에 합격한 사람들로 자격을 제한하여 이들이 공부한 사마재(司馬齋)가 있었다. 우리 함평에도 향교에 양사재가 설립되었었다. 대성전 서북쪽에 사마재가 있었고 또한 양사재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양사재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그 임원에는 훈장 1인, 장의(掌議) 2인, 색장(色掌) 2인이 있었으며, 학도 등의 명부인 '사마안(司馬案)' '거접안(居接案)' 등과 '재임안(齋任案)'이 남아 있다.

2. 조선시대 과거제와 함평

신라 후기에 들어 유학의 진흥을 위하여 국학을 설치하고 인재의 등용에 있어서 독서삼품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유학의 소양을 중심하여 관리를 채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골귀족층의 반발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후 도당유학생(渡唐留學生)을 통하여 선진유학이 유입되었지만 정작 유학(儒學)은 통치이데올로기가 아니었으며, 골품제 하의 폐쇄적 인재등용 관리임용제와 융합되지 못한 바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러한 유학을 수학한 문인계층이 고려건국에 참여하게 되면서 유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국가와 사회의 이념은 불교에 의탁한 바가 많았다. 그러나 유학이 국가통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고려 광종 대에는 후주인(後周人)으로 고려에 귀화한 쌍기(雙冀)의 건의에 의해 과거제가 시행되어 고려국가의 지배관료가 되는 등용문이 되었다. 고려시기 과거는 제술과 명경과 잡과로 구분되었는데, 명경은 강경(講經)을 주로 하고 제술(製述)은 시(詩)·부(賦)·송(頌)·시무책(時務策)이 주요 과목이었다. 고려시기에는 한당유학의 영향으로 경학보다는 사장이 중시되었으므로 제술과가 중심이 되었다. 잡과는 모두 10업(業)으로 구분되었으니 명법(明法)·명산(明算)·명서(明書)·의(醫)·복(卜)·지리·삼례(三禮)·삼전(三傳)·하론업(何論業)이었다. 이 같은 고려의 과거제도는 조선창업 직후 입관보리법에 의하여 문과와 무과 그리고 잡과로 바뀌었는데 잡과의 경우에는 '이과(吏科)' 역과(譯科), 음양과(陰陽科), 의과(醫科)로 축소되었다.[168] 이중 이과는 상급서리인 성중관(成衆官)을 뽑는 시험이었으니 뒤에 율과(律科)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성균관의 입학자격을 주는 소과가 추가되었다. 그러니 조선시대에는 과거는 소과·문과·무과·잡과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또한 과거제 시행의 주관을 보다 국가중심으로 바꿨다.

고려시기 문벌귀족의 전횡시기와 후기 권문세족이 권력을 오로지 하던 시기에는 과거제도 역시 본연의 능력본위의 인재선발의 기능을 다하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고려시기 과거제는 좌주문생제(座主門生制)라고 하여 과거를 주관하는 장시관(掌試官)을 지공거(知貢擧)라고 하고 이를 학사(學士)라 칭하였으며 그 아래에서 급제한 문생을 은문(恩門)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장시관을 좌주(座主)라고 하였는데 좌주-문생 간에는 부자의 관계와 같은 깊은 학연이 맺어지게 되어 과거제는 실로 고려귀족의 붕당·학벌·족벌을 유지하는 한 가지 수단이 되었다.

조선 건국과 함께 이 같은 좌주-문생제의 폐해가 크게 문제가 되어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고

168) 『태조실록』 권1, 원년 8월 2일(신해)

문과와 소과는 예조, 무과는 병조, 잡과는 예조와 해당관청에서 주관하였다.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문·무 관료들을 대상으로 보이는 중시(重試)도 예조에서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시험은 예조와 병조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무과의 경우 전시는 국왕이 직접 주재하게 됨으로서 인재등용에서의 세가명문족의 붕당결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전시를 시행함으로서 국왕의 인재선발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가 태종 13년(1413)이었다.

조선의 과거는 정기시(定期試)와 부정기시(不定期試)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정기시는 3년에 한 번 자(子)·묘(卯)·오(午)·유년(酉年)에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가 있었으며, 수시로 열린 부정기시에는 증광시·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이 있었다. 식년시와 증광시는 소과·문과·무과·잡과가 모두 실시되었으나 별시·알성시·정시·춘당대시는 문과와 무과만이 열렸고, 알성시·황감시(黃柑試)·통독(通讀)·절목제(節目製)·전강(殿講) 등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별시는 문과에만, 사학(四學)의 합제(合製)는 생원·진사시에만, 도시(都試)·관무재(觀武才) 등은 무과에만 있었다. 경사가 겹칠 때 실시되는 대증광시에서는 문·무과에 한하여 증액해서 뽑았고 생원·진사시나 잡과는 증광시에서도 식년시의 액수대로 뽑았다.

1) 소과(小科)

소과는 진사시와 생원시가 있었는데 선초에는 강경을 중시하고 고려시대 귀족들의 사장(詞章) 중시풍조를 없애기 위하여 생원시만 실시하였다. 즉, 태조 원년 7월에 내린 즉위교서에서 진사시에 해당하는 국자감시(國子監試)는 혁파되었다. 이는 주자학을 신봉하는 개혁파 사대부들이 감시(監試)가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폐풍을 자아낸 장본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감시는 고려귀족들의 붕당·학벌·족벌을 유지·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기 하다.

그러나 고려 일대를 거쳐 설행되어 온 감시를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어려웠으며 당시 유생들의 관념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진사시를 혁파하기로 한 다음 해인 태조 2년(1393)에는 감시(진사시)를 실시하여 박안신(朴安信) 등 99인을 뽑았다. 고려시대의 국자감시도 대체로 99인을 뽑았었다. 그러나 태종 4년(1404)에 예조에서 제정한 과거법에서 진사시는 다시없어졌다. 그러나 진사시 폐지에 대한 반대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진사시 혁파는 태조대의 정도전의 주장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서 그가 제거된 태종대에는 경학(經學)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사장도 아울러 공부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점점 높아 갔다. 더구나 정도전을 대신하여 문한(文翰)을 잡은 권근은 고려 말 사장파의 거두로서 과거시험에 기초과목인 경학도 중요하지만 응용과목인 시·부를 모르면 실제 관직생활을 영위하는 데 실용적이 못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사시의 복구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세종 20년(1438)에 진사시가 복구되었다. 그러나 역시 진사시가 경학위주의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6년 만인 세종 26년(1444)에 다시 혁파되었다가 단종 1년(1453)에 부활되었다. 그 이후 진사시는 과거제도가 철폐된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진사시는 조선 초기 60년간 실시되지 못한 셈이다.[169]

169) 송준호, 『이조 생원진사시 연구(李朝 生員進士試 硏究)』, 국회도서관, 1970, 13-14쪽. ; 조선 초기는 적어도 생원시가 진사시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설에는 태조가 일찍이 생원시에 합격한 바가 있어서 진사시보다 생원시를 중요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경학우선주의의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생원·진사시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로 구분되었는데 초시는 한성시(漢城試)와 향시(鄕試)가 있었다. 한성시에서는 200인, 각도에서 실시하는 향시에서는 500인씩 선발하여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나타나 있는 생원·진사시 초시의 시취액수(試取額數) 및 왕대별 시취액수와 설행회수(設行回數)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생원·진사시 초시의 시취액수

도별 / 시험별	한성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계
생원초시	200	60	90	90	45	35	45	35	100	700
진사초시	200	60	90	90	45	35	45	35	100	700

<표 2> 국왕재임기별 생원(生員)·진사시(進士試) 시취액수(試取額數)

	횟수	생원	진사	계
태 종	1	99		99
세 종	1	198		198
예 종	1	100	100	200
성 종	3	235	234	469
연 산	4	380	400	780
중 종	10	1,001	1,000	2,001
명 종	7	701	696	1,397
선 조	14	1,998	2,000	3,998
계	41	4,712	4,430	9.142

그리고 한성시와 향시를 정규적인 초시라고 한다면 사학의 학관이 사학(四學)생도의 과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제술(製述)·고강(考講)의 두 종류로 과업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합제나 한성부 판윤이나 각도 감사가 사학생도나 향교교생을 대상으로 제술과 고강으로 우수자를 선발하는 공도회(公都會) 등도 이를 통과하면 예조에서 실시하는 복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다. 소과 복시에서는 생원·진사 각 100인씩을 합격시키게 되어 있었다.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것을 입격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에 1등 5인, 2등 25인, 3등 70인을 가려내서 백패를 내리고 주과를 주었다. 그러나 잡과 합격자의 백패와는 달리 생원·진사시 합격자의 백패에는 국왕의 어보(御寶) 중의 하나인 과거보(科擧寶)를 찍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생원·진사시의 백패는 국왕이 내려주는 합격증이었다. 생원·진사시에는 국왕이 친히 참석하는 전시(殿試)가 없었다. 전시는 문·무과에만 있었다. 조선시대의 생원·진사 입격자의 총수는 생원 2만 4,221, 진사 2

조선 초기와는 달리 조선 후기에는 생원시와 진사시의 비중이 같았으나 조선 말기에는 오히려 생원시보다 진사시가 더 중시되었다.

만 3,766인으로 합계 4만 7,997인이었다.

생원 진사는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문과에 합격하여(이를 급제 혹은 출신이라고 한다)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었다. 생원·진사에 입격하는 것만으로 벼슬을 살기는 어려웠으며 얻는다 하여도 하급직인 능참봉·교수·훈도 등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생원·진사만 되어도 면역의 특권이 주어지는 등의 향촌에서의 사족으로서의 사회적 대우는 현저한 것이었다.

이러한 무관 사족 등은 향촌사회에서 사마소(司馬所) 등 지방양반들의 자치 기구를 만들어 향촌지배에 앞장섰다. 향교의 청금록을 장악하고 서원의 유사(有司)를 맡는 것도 이들의 할 일이었다. 따라서 생원·진사는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이었을 뿐 아니라 지방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확실한 양반의 자격증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문과 몇 장, 생원·진사 몇 장을 냈느냐에 따라 가문의 성쇠가 좌우되었다. 이들은 생원·진사의 자격을 내세워 지방민의 교화, 하층민의 지배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인물의 진퇴, 조세수납, 군역정책, 수리시설의 관리·이용, 혼인관계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들은 또한 지방토호로서 지방수령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과 권한을 독차지하였으며 지방양반으로서 지방통치에 군림하고 있었다. 이들은 서양의 젠틀맨(신사)나 중국의 향신계층과 같은 지위와 권한·역할을 가지고 있던 지방사회의 지배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문과에는 급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생원·진사가 되고자 애쓰는 것이었으며 조선 후기로 올수록 생원·진사를 양산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조선 전기의 선조 대까지 함평출신으로 생원·진사시에 입격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표 3> 함평출신 생진과 급제자 명단

왕 조	성 명	본 관	급 제 과	급 제 년	참 고
태 종	노희안(魯希顔)	함 평	진 사		신의 아들
세 종	이운경(李云卿)	함 평	진 사	1426	접의 아들
	이순지(李舜枝)	함 평	생 원	1444	운경의 아들
	김오정(金五鼎)	상 산	진 사		덕생의 아들
	김영진(金永璡)	광 산	진 사		정의 후손
	이준성(李俊成)	함 평	진 사		습의 아들
	이 영(李 英)	함 평	진 사		준성의 아들
문 종	윤덕생(尹德生)	파 평	생 원	1453	길의 아들
	이손무(李孫茂)	함 평	진 사		영의 아들
	이승안(李承顔)	함 평	진 사		손무의 아들
단종-세조	이여림(李汝霖)	함 평	생 원	1462	순지의 아들
	이호인(李好仁)	함 평	진 사		승안의 아들
	김기서(金奇瑞)	광 산	진 사		영진이 아들
	유경지(兪敬止)	기 계	진 사		
	노사관(魯思寬)	함 평	생 원		득평의 후손
	조명손(趙溟孫)	한 양	생 원		인옥의 후손
	노성지(魯誠之)	함 평	진 사		신의 후손
	백맹동(白孟冬)	수 원	진 사	1465	장의 후손
	오치신(吳致信)	낙 안	생 원	1453	철검의 후손

왕 조	성 명	본 관	급 제 과	급 제 년	참 고
성 종	이 식(李 軾)	함 평	진 사	1471	여림의 아들
	정 남(鄭 楠)	하 동	진 사	1471	수의 아들
	노사주(魯思周)	함 평	생 원		득평의 후손
	윤은경(尹殷卿)	파 평	진 사	1477	선의 후손
	노회석(魯懷碩)	함 평	진 사	1492	신의 후손
연 산 군	김팽조(金彭祖)	김 해	생 원	1501	수항의 손자
중 종	이의제(李依堤)	함 평	생 원		광봉의 후손
	진이손(陳二孫)	여 양	진 사		맹경의 아들
	이의번(李依蕃)	함 평	진 사		광봉의 후손
	이암손(李巖孫)	양 성	진 사		
	노희찬(魯熙纘)	함 평	생 원		유안의 후손
	이의수(李依樹)	함 평	생 원		광봉의 후손
	안충달(安忠達)	죽 산	진 사	1505	원형의 후손
	노희윤(魯熙胤)	함 평	생 원		유안의 후손
	이의정(李依禎)	함 평	생 원		호인의 후손
	윤 척(尹 濩)	파 평	진 사	1507	은경의 후손
	정희교(鄭希僑	경 주	진 사	1504	인조의 후손
	백문학(白文鶴)	수 원	생 원	1506	맹동의 아들
	박언징(朴彦徵)	무 안	진 사	1513	익경의 후손
	정 사(鄭 獅)	광 산	진 사	1534	은종의 아들
	노길상(盧吉祥)	광 산	진 사		시의 아들
	장맹준(張孟駿)	인 동	진 사		백림의 후손
	김팽노(金彭老)	김 해	생 원		수항의 후손
	노철남(盧鐵男)	광 산	진 사	1537	극창의 아들
	노옥남(盧玉男)	광 산	생 원	1537	철남의 아우
인 종	이문화(李文華)	경 주	진 사		
	김 보(金 寶)	광 산	진 사		석원의 아들
	김 윤(金 潤)	김 해	진 사		수항의 손자
명 종	노몽호(魯夢虎)	함 평	진 사	1546	성지의 후손
	서 열(徐 說)	이 천	진 사		연의 아들
	진 흠(陳 欽)	여 양	진 사		맹경의 손자
	노검세(魯儉世)	함 평	진 사	1546	성지의 후손
명 종	서 간(徐 諫)	이 천	생 원		열의 아우
	서경란(徐慶鸞)	이 천	진 사		효당의 후손
	최경홍(崔慶弘)	해 주	진 사	1549	천두의 아들
	나 지(羅 祉)	금 성	진 사		은제의 후손
	김덕란(金德鸞)		진 사		
	안온후(安溫厚)	죽 산	진 사	1552	원형의 후손
	윤 의(尹 漪)	파 평	진 사	1564	덕생의 후손

왕 조	성 명	본 관	급 제 과	급 제 년	참 고
선 조	정현보(鄭賢輔)	진 주	진 사	1576	분의 후손
	정현계(鄭賢繼)	진 주	생 원	1579	분의 후손
	정 감(鄭 瑊)	진 주	진 사		분의 후손
	김팽우(金彭祐)	김 해	진 사	1582	수항의 손자
	백광순(白光純)	수 원	생 원	1588	원의 아들
	이 의(李 寲)	함 평	생 원		광봉의 후손
	김경희(金景禧)	광 산	생 원		석원의 후손
	이 보(李 寶)	양 성	생 원		
	정희득(鄭希得)	진 주	생 원		
	이 업(李 業)	함 평	생 원		광봉의 후손
	정수곤(鄭秀崑)	나 주	진 사		
	정 준(鄭 浚)	광 산	진 사		인진의 후손
	정 성(鄭 晟)	진 주	진 사		
	김몽웅(金夢熊)	김 해	생 원		
	정인방(鄭仁方)	광 산	진 사	1588	사의 아들
	서경인(徐景仁)	이 천	진 사		간의 아들
	안희적(安希勣)	죽 산	진 사		충달의 손자
	이 정(李 艇)	경 주	진 사	1588	제현의 후손
	안여천(安汝天)	죽 산	생 원	1600	충달의 손자
	이 별(李 鼈)	함 평	진 사		
	김덕유(金德裕)	상 산	진 사		우생의 후손
	노상문(魯尙文)	함 평	진 사	1606	성지의 증손
광 해 군	조 문(趙 汶)	한 양	진 사	1615	광성의 아들
	어한명(魚漢明)	함 종	생 원	1618	세공의 후손
인 조	배 흘(裵 紇)	달 성	생 원	1633	운룡의 후손
	정 치(鄭 墀)	진 주	진 사		희득의 아들
	이형립(李亨立)	함 평	생 원		령의 아들
	진 함(陳 涵)	여 양	진 사		맹경의 후손
	정 목(鄭 穆)	진 주	생 원		
	심봉서(沈鳳瑞)	청 송	생 원		
	정세윤(鄭世胤)	나 주	진 사		가신의 후손
	김효정(金孝貞)		생 원		
	김 징(金 澄)		생 원		
인 조	정인정(鄭仁貞)	진 주	생 원		
	김정하(金鼎夏)		진 사		
	노종국(魯宗國)	함 평	진 사	1633	성지의 후손
	임 기(任 琪)	풍 천	생 원		명필의 후손

왕 조	성 명	본 관	급 제 과	급 제 년	참 고
효 종	안국재(安國宰)	죽 산	생 원		충달의 증손
	이시첨(李時瞻)	함 평	생 원	1657	규의 후손
	정상주(鄭相周)	진 주	생 원		
	정여우(鄭汝祐)	동 래	생 원		
	윤제민(尹濟民)	파 평	진 사	1657	황의 증손
	노 탁(魯 濯)	함 평	생 원	1657	성지의 후손
	윤하민(尹夏民)	파 평	진 사	1657	길의 증손
	김이식(金以植)	김 해	생 원		희눌의 후손
현 종	정 헌(鄭 櫶)	진 주	진 사		
	박은로(朴殷輅)		생 원		
숙 종	안여해(安汝諧)	죽 산	진 사		충달의 손자
	이휴삼(李休三)	양 성	진 사		
	정동후(鄭東後)	동 래	생 원		
	정덕휴(鄭德休)	진 주	생 원		
	이세추(李世樞)	함 평	생 원		광봉의 후손
	이대휘(李大彙)	함 평	생 원		여림의 후손
	안치량(安致亮)	죽 산	생 원		충달의 후손
	정태동(鄭泰東)	진 주	진 사		
	이준림(李俊林)	함 평	진 사		여림의 후손
	정동리(鄭東里)	동 래	생 원		흠지의 후손
	안치응(安致膺)	죽 산	진 사		여기의 후손
	진정후(陳廷泩)	여 양	생 원		맹경의 후손
	이세식(李世植)	함 평	진 사		광봉의 후손
	안치중(安致中)	죽 산	진 사	1681	충달의 후손
	진달후(陳達泩)	여 양	생 원		맹경의 후손
	문두성(文斗星)	남 평	생 원		
	어사주(魚史周)	함 종	진 사	1687	한명의 손자
	김장백(金章白)	상 산	진 사		진화의 아들
숙 종	조형엽(曺亨燁)	창 녕	생 원	1696	흡의 후손
	김진화(金振華)	상 산	진 사		덕생의 후손
	정항운(鄭恒運)	나 주	진 사		국의 후손
	정여경(鄭餘慶)	진 주	진 사	1714	분의 후손
경 종	정만재(鄭萬재)	진 주	생 원		
	정영신(鄭英臣)	진 주	생 원		
	최 화(崔 和)	탐 진	생 원	1721	학령의 후손
	윤주간(尹周幹)	파 평	생 원	1723	제민의 손자
	장원성(張元星)	인 동	진 사	1723	안세의 후손
	정용신(鄭龍臣)	진 주	생 원		
	오중현(吳仲賢)		진 사		

왕 조	성 명	본 관	급 제 과	급 제 년	참 고
영 조	정양원(鄭陽元)	동 래	진 사		
	이대옥(李大玉)	함 평	생 원		여림의 후손
	신백제(申栢濟)	고 령	진 사	1761	숙주의 후손
	윤 해(尹 諧)	파 평	진 사	1765	주간의 아들
	김제충(金濟忠)	김 해	진 사		
정 조	편대순(片大順)	석 강	생 원		갈송의 후손
	이시발(李時發)	전 주	진 사		
	이기주(李基疇)	함 평	진 사		
순 조	김두환(金斗煥)	나 주	진 사	1825	대경의 후손
	이병서(李秉緖)	함 평	진 사		
	신광섭(申光涉)	평 산	진 사		
	모응삼(牟應三)	함 평	생 원		달겸의 아들
	문승달(文昇達)	남 평	생 원		익점의 후손
헌 종	안정로(安挺魯)	죽 산	생 원	1837	치택의 손자
	신시만(辛時萬)	영 산	진 사		극경의 후손
고 종	신유장(辛裕章)	영 산	진 사		극경의 후손
	이계익(李啓益)	함 평	진 사		명룡의 후손
	임백무(任百武)	풍 천	생 원		
	이유순(李儒淳)	함 평	생 원		주의 후손
	이계백(李啓柏)	함 평	진 사	1879	인걸의 후손
	오덕영(吳悳泳)	해 주	진 사		한묵의 아들
	노영식(魯榮植)	함 평	진 사	1867	성지의 후손
	이 풍(李 豊)	전 주	진 사	1873	조의 후손
	이대규(李大奎)	함 평	생 원		경인의 조카
	김홍석(金弘錫)	선 산	진 사	1887	우류의 후손
	김병규(金秉圭)	선 산	진 사	1891	우류의 후손
	이철규(李喆圭)	함 평	생 원		경인의 아들
	이남규(李南圭)	함 평	진 사		경인의 아들
	장원식(張源植)	인 동	진 사		백림의 후손
	임운필(林雲弼)	평 택	진 사	1891	식의 후손
	정상홍(丁祥弘)	압 해	진 사	1891	극순의 후손

여기에서 보면 함평의 경우, 선조 때까지의 생원과 진사가 전국적으로 각각 4,712인과 4,430인이었는데 함평의 입격자수는 각각 26인과 54인으로 전체의 0.55%, 1.2%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 후 조선후기 이래(광해군 이후)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의 함평인은 모두 85인이었다.

2) 문과(文科)

문과는 대과 혹은 동당시(東堂試)라고도 하였는데 이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생원·진사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반 유생인 유학에게도 자격이 주어졌다. 문과도 정기시인 식년(式年) 문과와 부정기적인 기타의 문과로 나눌 수 있다.

식년문과는 초시(初試)·복시(覆試. 會試)·전시(殿試)의 3단계를 거치게 되었고 이중 초시·복시는 초장·중장·종장으로 나누어 고시하였다. 초시는 향시(鄕試)·한성시(漢城試)·관시(館試)가 있었는데 소과와 같이 식년 이전해(上式年)에 각도와 한성부에서 시행하였고 관시는 성균관에서 실시하였다. 초시인 향시에서 150인, 한성시에서 40인, 관시에서 50인을 뽑았다. 문과 초시인 관시·한성시·향시의 시취액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문과초시 시취액수(文科初試 試取額數)

구 분		1417년 이전	1417년 이후	『경국대전』	『속대전』
관 시		30(人)	50	50	50
한 성 시		30	40	40	40
향시	경기도	20	20	20	20
	강원도	15	10	15	15
	황해도	15	10	10	10
	충청도	20	20	25	25
	경상도	30	30	30	30
	전라도	20	20	25	25
	평안도	10	10	15	15
	함경도	10	10	10	12
계		200	200	240	222

이렇게 뽑힌 총 240인의 초시합격자는 그 이듬해 식년에 서울에 모아놓고 복시를 시행하였는데 복시의 초장에는 강경(講經)을 시험했고 중장·종장에는 제술을 시험했다. 따라서 전자를 강경시(講經試), 후자를 회시(會試)라 하여 별개의 고시로 여겨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강경만을 하자는 주장이 우세하였으나 이후 제술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끈질기게 계속되어 문과시험에 초장은 강경(講經)을 하고, 중장에 시(詩)·부(賦), 종장에 책문(策文)을 쓰게 하였다. 고려시대의 제술업과 명경업을 문과시험에 통합한 것이다. 초장·중장·종장의 시험성적을 합하여 33인을 뽑았다.

회시를 통과하면 전시에 임해야 하였다. 회시 합격자 33인과 직부전시자(直赴殿試者)를 시어소(時御所)의 전정(殿庭)에서 국왕이 의정 1인으로 명관, 종 2품 이상 3인을 독권관, 3품 이하 5인을 대독관으로 하여 대책·표·전·잠·송·제·조 중의 1편을, 조선후기에는 이에 논·부·명을 추가하여 10편중에서 1편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그 중에서 대책(책문)이 가장 빈번하게 고시되었다. 이리하여 33인의 차서를 정하였는데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을 정하였던 것이다. 갑과 3인 중 1등을 장원(壯元)이라 하였고, 2등을 방안(榜眼), 3등을 탐화(探花. 郞)

라 하여 우대하였다. 이 중 탐화는 어사화(御賜花)를 국왕으로부터 받아 급제자들의 모자에 왕 앞에서 나누어 꽂아 주는 일을 맡았던 데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문과 급제자에게는 무과급제자와 함께 붉은 색의 합격증인 홍패(紅牌)를 주었다. 홍패에는 국왕의 과거보(科擧寶)라는 옥새(玉璽)를 찍어 주었다.

기타의 문과로는 즉위경이나 30년 등극경과 같은 큰 경사가 있었을 때 실시하는 증광문과나 기타 큰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는 별시문과, 외방의 행재소에 시행하는 외방별시, 문묘제례 후의 성균관에 친림하여 시행하는 알성(親臨)문과, 매년 춘추에 성균관 유생을 시어서의 전정에서 고시하였던 정시문과, 여러 군문의 무사를 춘당대에서 시재(試才)할 때 시행하는 춘당대시문과 등이 있었다.

증광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정기적인 과거는 문과 또는 무과만 특별히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식년시 이외에 각종 별시를 자주 실시한 것은 양반들의 집요한 요구 때문이었다. 양반들은 그들의 가문과 신분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관직을 차지하고자 하였고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과의 복시에서는 33인을 뽑게 되어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는 24인, 많게는 74인을 뽑은 때도 있었다. 적게 뽑을 때는 적합한 인재가 많지 않았을 경우이고 초과에서 뽑을 때는 전강(殿講)·통독(通讀)·도기과(到記科) 등의 직부생(直赴生)과 은사(恩賜)가 합쳐졌을 경우이다. 또한 조선 후기로 올수록 문·무과의 경우는 양반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뽑는 수가 많았다.

조선시대에 실시한 문과의 횟수를 보면 정시의 206회와 별시의 180회, 식년시 167회의 순이었으며, 급제자수는 식년시의 6,123인이 가장 많고 정시의 2,610인, 별시의 2,385인 순이었다. 조선시대 문과의 종류별 시험횟수와 선발인원은 848회에 걸쳐 1만 5,137인이었다. 문과의 종류별 시험회수와 선발인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문과(文科)의 종류별(種類別) 시험회수(試驗回數) 및 선발인원(選拔人員)

시험종류	설행 회수	선발 인원
식년시(式年試)	167	6,123
증광시(增廣試)	60	2,447
알성시(謁聖試)	57	398
별 시(別 試)	187	2,385
춘당대시(春塘臺試)	34	207
정 시(庭 試)	206	2,610
친 시(親 試)	18	193
춘 시(春 試)	4	52
중 시(重 試)	52	380
발영시(拔英試)	1	40
등준시(登俊試)	2	27
진현시(進賢試)	1	4
탁영시(擢英試)	1	12
구현시(求賢試)	1	5
현량과(賢良科)	1	28
충량과(忠良科)	1	3
신구과(新舊科)	1	5
비천시(丕闡試)	1	4
도 과(道 科)	9	66
경무대시(景武臺試)	6	82
명륜당시(明倫堂試)	1	7
전 시(殿 試)	1	59
계	848	15,137

그런데 이 기간 함평출신으로 1930년에 간행된 함평군지에 의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모두 126인이 급제하였음을 볼 수 있겠는데 이는 전체의 0.83%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표 6> 함평출신 문과 급제자 명단

구 분	성 명	본 관	등과년도	참 고	
태 조	이인문(李仁問)	함 평		언(彦)의 후손	밀직제학
	노성안(魯成顔)	함 평		신(愼)의 아들	현감
	김운보(金云寶)	상 산		언(彦)의 아들	중추부사
	이 번(李 蕃)	함 평		인문(仁問)의 아들	강원감사
	이 양(李 襄)	함 평		인문의 아들	감사
	정 초(鄭 初)	나 주		가신(可臣)의 증손	증 호판(戶判)
정 종	노유안(魯有顔)	함 평		신의 아들	한림
	이현우(李玄雨)	함 평		인관(仁琯)의 아들	집의
	이삼길(李三吉)	함 평		번(蕃)의 아들	증 병판
	이삼언(李三言)	함 평		양(襄)의 아들	부윤(府尹)
	정극기(鄭克己)	나 주		초(初)의 아들	증 예판
태 종	이춘수(李春秀)	함 평		삼길(三吉)의 아들	증 이판
	노득평(魯得平)	함 평		유안의 아들	사인(舍人)
	모 순(牟 恂)	함 평		호(皓)의 후손	사간(司諫)
	노안충(魯安忠)	함 평		득평(得平)의 아들	정랑
	이 긍(李 兢)	함 평		춘수(春秀)의 아들	대제학, 이판
세 종	모익천(牟翊阡)	함 평		순의 아들	좌찬성
	김수항(金壽恒)	김 해		탁(琢)의 증손	이의(吏議)
	이손무(李孫茂)	함 평		영(英)의 아들	현감
	모 규(牟 珪)	함 평		순의 후손	한성판윤
	정 수(鄭 樧)	하 동		지(地)의 후손	산음현감
	김수연(金壽延)	김 해		탁의 후손	병마절도사
	김호인(金好仁)	김 해		수연의 아들	호참(戶參)
문 종	정 훈(鄭 薰)	나 주		길(佶)의 후손	정언(正言)
단 종	이손수(李孫秀)	함 평		삼길의 아들	부사
	정지아(鄭之雅)	나 주		문진(文振)의 후손	정랑
	이 곤(李 崑)	함 평		언의 후손	상의원직장
	정 국(鄭 菊)	나 주		진(軫)의 아들	증 예판
세조-성종	조 호(趙 瑚)	한 양		인옥(仁沃)의 후손	판윤
	이계방(李桂芳)	함 평		곤(崑)의 아들	전적(典籍)
	노사민(魯思敏)	함 평		안충(安忠)의 아들	정랑
	이덕번(李德蕃)	전 주			찬성
	이 관(李 寬)	전 주			도총관
	박숭지(朴崇之)	밀 양		양의 아들	황주목사
	김석원(金錫元)	광 산		연의 후손	교리(校理)
	이 주(李 稠)	함 평		인문(仁問)의 후손	현감
	이검손(李儉孫)	함 평		온의 후순	여산군수

왕 조	성 명	본 관	등과년도	참 고	
세조-성종	김윤제(金允悌)	광 주		운의 아들	교리
	진맹경(陳孟卿)	여 양		인각(麟角)의 후손	여산군수
	장 웅(張 雄)	인 동		현의 아들	경주부윤
	신공제(申公濟)	고 령		말주(末舟)의 손자	이판
	노극창(盧克昌)	광 산		상지(尙枝)의 아들	남원부사
	안충달(安忠達)	죽 산	1474	유(裕)의 후손	병조정랑
	이충례(李忠禮)	함 평		식(軾)의 아들	예조정랑
	정익종(鄭益宗)	나 주		극기(克己)의 후손	장령(掌令)
	김몽웅(金夢熊)	광 산			현감
	이 금(李 嶔)	함 평		검손(儉遜)의 아들	부사
	서 옥(徐 沃)	이 천		효당(孝堂)의 증손	현감
	이 하(李 河)	양 성		자양(白良)의 후손	현감
	심희무(沈希武)	청 송		덕부(德符)의 후손	찰방
	심안평(沈安枰)	청 송		희무의 손자	홍문관수찬
명 종	장이길(張以吉)	흥 성		현(俔)의 아들	이참
	최몽근(崔夢根)	해 주			정헌
선 조	정 성(鄭 晟)	진 주		억(億)의 증손	설서(說書)
	김 수(金 邃)	김 해		팽우(彭祐)의 아들	교리
	김희눌(金希訥)	김 해		목경(牧卿)의 후손	
	윤 길(尹 吉)	파 평	1565	은경(殷卿)의 증손	공주외 7읍 수령
	조팽년(趙彭年)	한 양		인옥(仁沃)의 후손	교리
인 조	윤지임(尹之任)	파 평	1629	정현(挺賢)의 아들	집의(執義)
	조 정(曺 挺)	창 녕		흡(恰)의 후손	군수
	노원혁(盧元赫)	광 산		길상(吉祥)의 아들	현감
	윤정호(尹挺豪)	파 평		길의 후손	사헌부장령
	서경룡(徐景龍)	이 천		효당의 후손	판관
효 종	안여지(安汝止)	죽 산		충달의 후손	열서
	정동후(鄭東後)	동 래		재흥(再興)의 손자	승지
	안여기(安汝器)	죽 산		충달(忠達)의 후손	고령 현감
	정건주(鄭建周)	진 주		함일(咸一)의 증손	정언
현 종	김상하(金尙夏)	광 산		휘의 후손	예조정랑
	어진열(魚震說)	함 종		한명(漢明)의 아들	무안현감
숙 종	윤상로(尹尙輅)	파 평	1675	헌(憲)의 후손	현감
	이송재(李松齋)	경 주		정(艇)의 증손	수령
	이석삼(李錫三)	양 성		인기(仁奇)의 후손	좌랑
	모세번(牟世蕃)	함 평		순(恂)의 후손	현감
	이창석(李昌碩)	경 주		송재(松齋)의 아들	군수
	장용한(張用漢)	흥 성		이길(以吉)의 증손	전적
	이 후(李 后)	양 성		인기의 후손	찰방

왕 조	성 명	본 관	등과년도	참 고	
숙 종	김한로(金漢老)	상 산		덕생(德生)의 후손	현령
	김중태(金重泰)	상 산	1690	덕생의 후손	고성현령
	이회원(李會元)	경 주		서윤(緖胤)의 아들	사성(司成)
	노삼석(盧三錫)	광 산		극창(克昌)의 후손	수령
	진만재(陳晩宰)	여 양		맹경(孟卿)의 후손	예조정랑
	정두제(鄭斗齊)	경 주	1705	인조(仁祚)의 후손	호의
	박수일(朴守一)	밀 양		사감(嗣監)의 후손	현감
경 종	모세무(牟世茂)	함 평		순의 후손	찰방
	정재교(鄭再僑)	나 주		익종의 후손	현감
	김홍제(金弘濟)	도 강			좌랑
	조원서(趙遠瑞)	한 양		문(汶)의 아들	첨지
영 조	이홍직(李弘稷)	함 평		준림(俊林)의 아들	영광군수
	안치택(安致宅)	죽 산		충달의 후손	이랑
	이두삼(李斗三)	함 평		백년(柏年)의 아들	양산군수
	안 절(安 節)	죽 산		여기의 후손	전적
	이명룡(李命龍)	함 평		순화(舜華)의 후손	정랑
	조경수(曺敬修)	창 녕		정의 증손	대정현감
	이양태(李陽泰)	양 성		인기의 후손	군수
	정 진(鄭 津)	나 주		훈(薰)의 후손	도사
	이보영(李普榮)	함 평		홍직의 아들	봉상시참봉
	정택신(鄭宅臣)	진 주		주(紬)의 후손	남포수가의호군
	김관흠(金觀欽)	상 산		중태(重泰)의 후손	집의
	유홍관(兪鴻觀)	기 계			전적
	김우해(金宇海)	상 산		덕생의 후손	도사(都事)
	이의철(李宜喆)	양 성		인기의 후손	전적
	모경관(牟景觀)	함 평	1750	순의 후손	판관
	박요석(朴堯錫)	밀 양		충원(忠元)의 후손	예의
	편운태(片云泰)	절 강		갈송(碣頌)의 후손	지평
정 조	안형직(安衡稷)	죽 산		충달이 후손	참의
	이태희(李泰熙)	경 주		창석(昌錫)의 증손	지평
	이돈현(李敦賢)	함 평		명룡(命龍)의 손자	시강원열서
	정 유(鄭 濡)	진 주		희득(希得)의 후손	장령
	이돈하(李敦夏)	함 평		돈현의 동생	현감. 정언
	이신희(李頤熙)	경 주	1791	태희의 아우	지평
	오상욱(吳相昱)	금 성			참의
	모달겸(牟達兼)	함 평	1789	경관의 아들	장령
	정계충(鄭繼忠)	진 주		분의 후손	공참
	신 근(申 近)	고 령		숙주의 후손	강진현감

왕 조	성 명	본 관	등과년도	참 고	
순 조	이치오(李致五)	경 주	1828	태희의 아들	군수
	김정규(金正奎)	광 산	1807	득남의 후손	이조좌랑
	정 탁(鄭 琢)	진 주		성의 후손	도사
	정화석(鄭華錫)	동 래		흠지의 후손	장령
헌 종	윤성진(尹聖鎭)	파 평		필규의 아들	사간
철 종	윤자화(尹滋華)	파 평	1855	기진의 아들	사간
	정종악(鄭鍾岳)	진 주		기규의 아들	승지
	장인택(張仁澤)	흥 성			직강(直講)
	이기영(李琪永)	부 평			승지
고 종	오성선(吳成善)	해 주		한묵의 아들	홍문관비서
	이집호(李集鎬)	경 주		결의 후손	도사
	김규영(金奎榮)	김 해			통례(通禮)

3) 무과(武科)

고려시대에는 예종 4년(1109)부터 인종 11년(1133)까지 24년간을 제외하고는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숭문언무(崇文偃武) 정책으로 무관을 양성하는 무학(武學)이나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에 무관은 행오(行伍)에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뽑아 쓰는데 그치고 있었다. 지방의 반독립적인 무적성격이 강한 호족세력을 누르고 중앙집권적인 문치주의를 확립키 위해서였다. 고려 광종 대에 과거제도를 실시할 때 잡과에 해당하는 잡업만 실시하고 무업(武業)을 실시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무 양반 관료제를 운영하려면 문·무과가 균형 있게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양반관료체제에서는 문반과 아울러 무반이 짝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 말에 이르러 무학은 설치되었으나 무과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무과의 실시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과에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자(子)·묘(卯)·오(午)·유년(酉年)에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정기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시험인 별시가 있었다. 3년 1시(試)의 원칙은 이미 고려 선종 대에 정해졌으나 고려시대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 후 태조 2년(1393) 3월에 3년 1시의 원칙이 다시 확인되어 태종 2년(1400) 무과부터 철저히 준수되어 왔다. 식년무과에는 식년문과처럼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시험이 있었다. 그러나 무과에는 문과의 생원·진사시과 같은 예비시험이 없었다. 무과초시에는 훈련원에서 실시되는 원시(院試)와 각 도별로 실시되는 향시가 있었다. 무과초시의 정액은 다음과 같다.[170]

170) 『태종실록(太宗實錄)』 권 3, 태종 2년 정월 을축(乙丑.)
『경국대전(經國大典)』 권 4, 병전 시취(試取).

<표 7> 무과초시 시취액수(武科初試 試取額數)

구 분	원시(院試)	향 시(鄕 試)							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태종 2년	50	30	30	20	10	10	15	15	220
경국대전	70	30	25	25	10	10	10	10	190

원시는 훈련원에서 녹명시취(錄名試取)하였고, 향시는 각도 병마절도사가 차사원(差使院)을 보내어 녹명 시취하였다. 초시에서 뽑힌 190인은 다시 병조에서 실시하는 복시에 응시하여 28인을 뽑아 전시에서 왕의 친임 하에 등급을 정하여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을 정하였다. 그러다가 무과의 경기향시는 태종 2년부터 있어 왔으나 세종 8년 정월에 폐지되고 그 액수는 원시에 편입되어 50인에서 70인으로 늘었다.[171] 식년무과는 거의 식년문과와 함께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초시는 상식년(上式年)인 인(寅)·신(申)·사(巳)·해년(亥年) 가을에, 복시와 전시는 식년인 자·묘·오·유년 봄에 실시되었다.

무과에는 식년시 이외에 증광시·별시·알성시·정시·관무재·중시·발영시·등준시·진현시 등의 별시가 있었다. 그리고 무과와는 조금 다르지만 지방의 한량과 군관·조관을 대상으로 무예를 시험보이는 도시(都試)와 관무과(觀武科)가 있었다. 도시는 무관들의 무예를 꾸준히 연마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선시대에만 있던 시험이었다. 이것은 문관의 문신월과법에 비견되는 시취제도였다. 그러나 도시의 주목적은 중앙군을 대상으로 하여 훌륭한 갑사(甲士)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식년무과에서는 28인의 정원을 대체로 지켰으나 별시무과의 경우는 항상 식년무과 시취액수보다 많이 뽑았다. 특히 세조 6년(1460) 9월의 별시무과에서는 3,000여 인의 응시자 중 1,813인을 급제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 해 10월 세조는 황해·평안 양도 응시자를 모아 평양별시무과를 설행하여 100인을 더 뽑았다.

이것은 여진정벌을 위한 군사모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처였다. 세조는 북정(北征)에 따른 야인(野人)의 회유책 또는 서북 지방민을 위한 인심수습책의 하나로서 별시무과를 자주 실시하여 많은 인원을 뽑았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 만과설행(萬科設行)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계속되는 외침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각 진(鎭)에 배치되어 있는 유망병의 원수를 채울 수 없는 데다가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변장(邊將)들의 침탈로 도망병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만과를 자주 설행하여 군사를 보충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양란(兩亂)을 거치면서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전공을 세운 사람은 정도에 따라 무과에 등과시키기로 하였다. 조선시대 함평출신 무과 급제자는 다음과 같다.

171)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31, 세종 8년, 정월 기유(己酉).

<표 8> 함평출신 무과급제자 명단

왕 조	성 명	본 관	참 고	
태 조	이 온(李 蘊)	함 평	계(桂)의 아들	개성부윤
	정홍진(鄭弘鎭)	나 주	전(銓)의 아들	첨의(僉議)
태 종	이자보(李自寶)	함 평	현우(玄雨)의 아들	모평현감
세 종	정극념(鄭克念)	나 주	초계(初季)의 아들	부사
	이극명(李克明)	함 평	극해(克諧)의 아들	병판
	서순지(徐順止)	이 천	희찬(希贊)의 아들	장령
	정보신(鄭甫新)	나 주	사인(舍人)의 아들	우윤(右尹)
문 종	김세상(金世祥)	김 해	호인(好仁)의 아들	순천부사
세 조	이수적(李綏迪)	경 주		판관
	정 긍(鄭 兢)	나 주	섭(燮)의 아들	공조정랑
	노중손(魯仲孫)	함 평	사민(思敏)의 아들	부사
	이경훈(李景勳)	경 주		훈련별감
	이천수(李天壽)	경 주	정(挺)의 아들	호군
	이 성(李 晟)	경 주		선략장군
	노흥도(魯興道)	함 평	신(愼)의 후손	대호군
성 종	윤 완(尹 莞)	파 평	덕생(德生)의 아들	현감
	이종생(李從生)	함 평	극명(克明)의 아들	적기공신
	윤 설(尹 說)	파 평	완(莞)의 아들	병사
	이 규(李 珪)	함 평	인문(仁問)의 후손	담양부사
	서효강(徐孝綱)	이 천		병사
	장 웅(張 雄)	인 동	현(眩)의 아들	목사
	진중경(陳仲卿)	여 양	온(溫)의 후손	부장(部將)
	이종수(李從遂)	함 영	종생(從生)의 아우	병참
	정극순(鄭克淳)	영 성	찬(贊)의 증손	풍천부사
중 종	이순화(李舜華)	함 평	접의 아들	만호
	정효조(鄭孝祖)	나 주	관(觀)의 아들	병사
	이석림(李碩林)	함 평		현감
	윤천승(尹天昇)	파 평	설(說)의 아들	현감
	서효업(徐孝業)	이 천		판관
	김몽호(金夢虎)			
	이 척(李 陟)	함 평	검손(儉遜)의 아들	예의(禮議)
	노 시(盧 偲)	광 산	성연(成連)의 아들	첨사(僉使)
	김언침(金彦琛)	상 산	양생(陽生)의 후손	선전(宣傳)
	이세현(李世賢)	함 평	척의 아들	형의(刑議)
	정이은(鄭以殷)	나 주	익종(益宗)의 아들	사정(司正)
	정종순(鄭宗舜)	진 주	억(億)의 아들	어모장군(禦侮將軍)
	정종문(鄭宗文)	진 주	황(璜)의 아들	어모장군

왕 조	성 명	본 관	참 고	
인 종	윤승문(尹承文)	파 평	자중(自中)의 아들	사과(司果)
	김 속(金 涑)	김 해		수사
	정국주(鄭國柱)	나 주		사과
	김석구(金錫九)	김 해		사과
	정사현(鄭士賢)	나 주		사과
	장득생(張得生)	흥 성	이길(以吉)의 아들	부호군
	김덕희(金德希)	김 해		목사
명 종	윤언상(尹彦商)	파 평	자중의 후손	목사
	진경후(陳敬厚)	여 양	맹경(孟卿)의 후손	부장
	서인준(徐仁俊)	이 천		습독(習讀)
	진관후(陳寬厚)	여 양	맹경의 후손	부장
	유대린(兪大鱗)	기 계		주부
	나천도(羅天渡)	금 성		선전
	최 흘(崔 屹)	해 주		만호
	김사눌(金思訥)	김 해		판관
	홍정익(洪廷翊)	풍 산		선전
	서 주(徐 註)	이 천	효당의 증손	비인현감
	양윤덕(梁潤德)	제 주	동재(棟材)의 후손	선전
	장덕명(張德明)	흥 덕		주부
선 조	이충실(李忠實)	함 평	접의 후손	봉사
	윤사상(尹思商)	파 평	자중의 손자	부사
	정 응(鄭 應)	나 주		선전
	장덕수(張德守)	인 동		주부
	정민득(鄭敏得)	진 주		도사
	이 호(李 浩)	경 주		사과
	이덕일(李德一)	함 평	광봉(光逢)의 후손	우후(虞候)
	정 진(鄭 縉)	나 주		첨정
	윤인형(尹仁衡)	파 평	사상(思商)의 아들	부사
	최금수(崔錦壽)	해 주		참봉
	이 익(李 瀷)	경 주	정(艇)의 아들	사과
	이춘란(李春蘭)	함 평		판관
	정충량(鄭忠良)	진 주		첨정
	이춘방(李春芳)	함 평		판관
	정득량(鄭得良)	진 주		부장
	윤예형(尹禮衡)	파 평	사상의 아들	부원수
	진 근(陳 瑾)	여 양		봉사(奉事)
	박응주(朴應柱)	밀 양	득림(得霖)의 증손	주부
	윤형우(尹衡祐)	파 평	언상(彦商)의 조카	司果
	윤 붕(尹 鵬)	파 평	언상의 손자	부사
	정민수(鄭民秀)	나 주		현감

왕 조	성 명	본 관	참 고	
	김몽복(金夢福)	선 산	우류(右鏐)의 후손	참군(參軍)
	정기린(鄭麒麟)	하 동		부장(部長)
	장우한(張宇翰)	인 동		군자정(軍資正)
	김몽성(金夢成)	선 산	우류의 후손	주부(主簿)
	정 회(鄭 繪)	나 주		현감
	윤형록(尹衡錄)	파 평	언상의 아들	사과
	이덕행(李德行)	함 평		현감
	정 유(鄭 維)	나 주		봉사
	윤 해(尹 海)	파 평	형수(衡袖)의 아들	교위(校尉)
	모효립(牟孝立)	함 평		선전
	이충직(李忠直)	함 평		사정
	윤은형(尹殷衡)	파 평	사상의 아들	주부
	이원상(李元祥)	양 성		현감
	모유상(牟有祥)	함 평		선전
	윤 원(尹 原)	파 평	예형(禮衡)의 아들	선전
	이덕수(李德秀)	양 성		봉사
	이우춘(李遇春)	함 평		첨정
	윤 옥(尹 沃)	파 평	형필(衡弼)의 조카	절충어사(折衝御使)
	김광립(金光立)	김 해		목사
	이중춘(李仲春)	함 평	여정(汝貞)의 후손	첨정
선 조	윤 함(尹 涵)	파 평	형필의 아들	판관
	윤 사(尹 嗣)	파 평	형필의 아들	판관
	서덕숭(徐德崇)	이 천		통중군(統中軍)
	최이형(崔以亨)	해 주		주부
	윤 섭(尹 涉)	파 평	형필의 조카	군자감정(軍資監正)
	윤 각(尹 慤)	파 평	인형(仁衡)의 아들	비변랑(備邊郎)
	이홍희(李弘禧)	함 평		선전
	이개옥(李啓沃)	함 평	순화(舜華)의 후손	봉사
	김득남(金得男)	광 산		선전
	전응량(全應良)	천 안	익(翊)의 후손	주부
	이진문(李振門)	함 평		주부
	진계훼(陳季虺)	여 양	맹경의 후손	부장
	전계신(全繼信)	천 안	응량(應良)의 아들	주부.선무원종 1등공신
	임 열(任 烈)	풍 천		주부
	김 속(金 涑)	상 산	덕생(德生)의 후손	부사
	모익룡(牟翼龍)	함 평		오위장(五衛將)
	전여한(全汝翰)	천 안	계신의 아들	현감
	김 결(金 潔)	상 산	덕생의 후손	부사
	장만생(張晩生)	흥 성	이길(以吉)의 아들	형참
	이덕록(李德祿)	함 평		선전
	문극경(文克慶)	남 평		도사

왕 조	성 명	본 관	참 고	
	전여핵(全汝翮)	천 안	계신의 아들	주부
	모섭룡(牟燮龍)	함 평		사과
	문 세(文 世)	남 평		수문장(守門將)
	전여시(全汝翅)	천 안	계신의 아들	주부
	유언득(兪彦得)	기 계		주부
	조몽린(趙夢麟)	한 양		참군
	전여상(全汝翔)	천 안	계신의 아들	주부
	이선란(李仙蘭)	함 평	덕연(德連)의 아들	첨추
	노 홍(魯 弘)	함 평	몽호(夢虎)의 아들	선략장군(宣略將軍)
선 조	김정국(金定國)	선 산	석규(石圭)의 아들	선략장군
	김몽룡(金夢龍)	선 산	우류(右鏐)의 아들	판관
	김 빈(金 儐)	상 산	오정(五鼎)의 후손	첨사
	노대수(魯大秀)	함 평	중손(仲孫)의 후손	병절교위(校尉)
	정유정(鄭惟精)	경 주	인조(仁祚)의 후손	봉사
	박의남(朴義男)	밀 양	이상(以祥)의 아들	주부
	노흥문(魯興文)	함 평	성지(誠之)의 후손	만경현령
	노홍도(魯弘道)	함 평	신의 후손	봉사
	채구령(蔡九齡)	평 강	경(卿)의 손자	선전
	정세화(丁世華)	영 성	극순(克淳)의 증손	도총부도사
	정대명(鄭大鳴)	진 주		직장(直長)
	윤 헌(尹 憲)	파 평	사상의 손자	주부
	정대붕(鄭大鵬)	진 주		도사
	최대급(崔大岌)	해 주		주부
인 조	윤덕봉(尹德鳳)	파 평	형필의 손자	봉사
	김사수(金泗秀)	금 녕		선무원종 공신 녹훈
	박성오(朴省吾)	함 양		병사
	노경원(盧慶元)	광 산	윤창(允昌)의 증손	선전
	모유년(牟有年)	함 평		사과
	이홍지(李弘祉)	함 평		선전
	이홍복(李弘福)	함 평		우후
	윤지한(尹之翰)	파 평		사과
	노찬원(盧贊元)	광 산	극창의 증손	선전
	이혁서(李赫緖)	함 평		선전
	장안도(張安道)	홍 성	이길의 손자	부정(副正)
인 조	이양열(李揚烈)	함 평		사과
	이만령(李萬齡)	함 평		선전
	노일경(魯一慶)	함 평		봉사
	정봉주(鄭封周)	진 주	경득(慶得)의 후손	주부
	장남익(張南翼)	인 동	창윤(昌允)의 아들	좌윤(左尹)
	윤정생(尹挺生)	파 평	기의 아들	형의(刑議)
	김중성(金仲誠)	상 산	덕유(德裕)의 아들	부장

왕 조	성 명	본 관	참 고	
인 조	정 위(鄭 暐)	진 주	지일(之一)의 아들	첨사
	정 칭(鄭 秤)	진 주	경득(慶得)의 아들	중호군(中護軍)
	이사필(李思弼)	함 평	선란(仙蘭)의 아들	봉사
	이만수(李萬壽)	함 평	종의(宗義)의 후손	선전
	서국보(徐國寶)	이 천	효당의 후손	첨사
	김효신(金孝信)	광 산	태흘(泰屹)의 아들	병사(兵使)
	정 타(鄭 橢)	진 주	경득의 아들	부호군
효 종	최경헌(崔景憲)	해 주		판관
	윤원빈(尹元賓)	파 평	형수의 후손	주부
	유시일(兪時逸)	기 계		사과
	홍 우(洪 宇)	남 양		봉사
	윤유달(尹有達)	파 평	형수의 후손	선전
	이만화(李晩華)	양 성		선전
	이중화(李重華)	양 성		만호
	김방보(金邦寶)	광 산	득남의 아들	군수
	장안민(張安民)	흥 성	이길의 후손	수문장
	이 결(李 潔)	경 주		부사
	이일화(李一華)	양 성		선교랑(宣敎郞)
	이여명(李汝明)	전 주	장길의 손자	사과
	조몽길(趙夢吉)	한 양		봉사
	조인흡(趙仁洽)	한 양	몽길의 아들	별제(別提)
	정대주(鄭大周)	진 주	경득의 손자	부호군(副護軍)
현 종	모유추(牟有秋)	함 평		부사
	정덕기(鄭德基)	진 주	절의 후손	현감
	이청수(李淸秀)	경 주		선전
	이유천(李有天)	함 평	개옥의 손자	선전
	윤정규(尹挺奎)	진 주	경득의 손자	부호군
숙 종	정택주(鄭宅周)	진 주		현감
	정필신(鄭弼臣)	진 주		영장(營將)
	이철암(李哲黯)	고 성		사과
	모유하(牟有夏)	함 평	유추(有秋)의 아우	사과
	나위추(羅緯樞)	금 성		교위
	모윤흥(牟潤興)	함 평	은제(殷制)의 후손	판관
	이득원(李得元)	함 평		주부
	최준헌(崔俊憲)	해 주		첨정
	최유헌(崔裕憲)	해 주		판관
	모일성(牟一成)	함 평		현감
	이유춘(李綏春)	경 주		선전
	최백륜(崔伯崙)	해 주		판관
	정충달(鄭忠達)	하 동	지(地)의 후손	
	모유빈(牟有頻)	함 평		교위

왕 조	성 명	본 관	참 고	
숙 종	김관기(金寬琪)	광 산	방보(邦寶)의 아들	선전
	이백익(李白益)	함 평	수익(受益)의 아우	판관
	정거삼(鄭居三)	하 동	수의 후손	부호군
	어사충(魚史忠)	함 종	진열(震說)의 아들	고원군수
	신세장(申世漳)	고 령	국조(國操)의 아들	부호군
경 종	윤동달(尹東達)	파 평	은경(殷卿)의 손자	선전
	이우백(李友柏)	경 주		주부
	최석륜(崔錫崙)	해 주		판관
	이경지(李慶智)	함 평	원형(元亨)의 아들	수문장
영 조	정익신(鄭翊臣)	진 주		
	박순원(朴淳元)	함 양	세규(世規)의 아들	부사
	임득황(任得璜)	풍 천		사과
	홍여준(洪汝俊)	남 양	익생(益生)의 후손	현감
	이수익(李受益)	함 평	시첨(時瞻)의 아들	함안군수
	이지창(李芝昌)	경 주		영장
	모옥성(牟沃成)	함 평		부장
	정익창(鄭益昌)	진 주	황(璜)의 후손	만호
	정 우(鄭 禑)	진 주		통제사
	최후상(崔后相)	해 주		판관
	김치백(金致伯)	선 산	언탐의 후손	사과
	김필중(金必重)	상 산		부장
	모국성(牟國成)	함 평	권의 후손	절충
	노윤대(魯胤大)	함 평	빈의 아들	첨사
	김시호(金時浩)	상 산	빈의 아들	첨사
	김시욱(金時昱)	상 산		첨사
	김득원(金得垣)	상 산	중후(重厚)의 아들	중추부도사
	어석규(魚錫圭)	함 종	사충(史忠)의 손자	도총부도사
정 조	김수광(金守光)	상 산	한로(漢老)의 증손	수사
	이이배(李以培)	경 주		판관
	정석좌(鄭錫佐)	진 주		선전
	이경배(李敬培)	경 주		부정
	정만진(鄭萬鎭)	진 주		오위장
	정사의(鄭思義)	진 주		절제사
	윤창신(尹昌莘)	파 평	승민(承敏)의 증손	오위장
순 조	김상유(金相有)	상 산	한로의 후손	우후
	임광좌(任光佐)	풍 천		주부
	이택기(李宅杞)	함 평	접의 후손	교위
	묶주현(文周顯)	남 평	승달(昇達)의 후손	오위충장장
철 종	이제풍(李濟豊)	전 주	장길(長吉)의 아들	비변랑

왕 조	성 명	본 관	참 고	
고 종	정창수(鄭昌洙)	전 주	황의 후손	사과
	이계송(李啓松)	함 평	순의 후손	오위장
	이상환(李相桓)	전 주		사과
	이계순(李啓筍)	함 평		현감
	모홍민(牟弘民)	함 평		오위장
	이태형(李泰亨)	함 평		첨사
	장인환(張仁煥)	인 동		만호
	모수학(牟壽鶴)	함 평		오위장
	김용우(金容祐)	김 해		오위장
	김규룡(金奎龍)	김 해		사과
	이돈찬(李敦燦)	함 평	온의 후손	사과
	김기준(金基濬)	상 산		사과
	박관래(朴寬來)	밀 양		사과
	문경학(文慶鶴)	남 평		오위장
	이용헌(李龍憲)	함 평		사과
	김봉식(金鳳植)	광 산	윤제(允悌)의 후손	순천영장
	이창범(李昌範)	함 평	계생(啓性)의 아들	오위장
	이봉옥(李鳳玉)	전 주	화원(華元)의 손자	부사과
	지상윤(池象胤)	충 주	계최(繼崔)의 후손	현감
	천재창(千載昌)	영 양	만리(萬里)의 후손	

<표 9> 1930년에 간행된 군지에서 누락된 인물을 구록(舊錄)에 의하여 추가한 명단

성 명	참 고	성 명	참 고	성 명	참 고
임광생(任廣生)	봉 사	임준성(林俊成)	판 관	김정석(金貞碩)	을 과
이곤옥(李崑玉)	봉 사	임기백(林起白)	첨 지	김사수(金士洙)	병 과
채우령(蔡禹齡)	현 감	임기송(林起松)	첨 사	김봉순(金奉錞)	동 추
최천륙(崔天陸)	을 과	박 선(朴 善)	만 호	최 필(崔 弼)	사 과
최천복(崔天福)	병 과	박세빈(朴世彬)	병 과	최덕해(崔德海)	주 부
이태항(李泰恒)	병 과	김흥립(金興立)	을 과	배덕남(裵德男)	수문장
진관후(陳貫厚)	군 수	김봉현(金奉鉉)	을 과	최정해(崔挺海)	교 위
이국화(李國華)	병 과	김봉당(金奉鏜)	을 과	김대남(金大男)	병 과
정시웅(鄭時雄)	사 과	김 명(金 鳴)	사 과	김 회(金 誨)	주 부
김덕민(金德敏)	사 과	김광하(金光夏)	병 과	김정화(金鼎和)	병 과
임사빈(林士儐)	현 감	김진하(金振夏)	병 과	김남혁(金南赫)	병 과
임일주(林一柱)	병 과	김기하(金器夏)	을 과	임질생(任質生)	병 과
임한주(林漢柱)	만 호	김내하(金鼐夏)	을 과	김원백(金元伯)	을 과
백경선(白卿鮮)	만 호	김성원(金聲遠)	병 과	양윤정(梁允井)	선 전
김사경(金士慶)	을 과	이정빈(李廷賓)	병 과	양윤덕(梁允德)	갑 과
서경일(徐敬一)	병 과	김익중(金益重)	만 호	김경희(金景禧)	주 부
김응국(金應國)	주 부	김창수(金昌壽)	부 장	김경철(金景喆)	주 부
전정달(全廷達)	첨 정	이상필(李尙弼)	병 과	김경립(金景立)	갑 과
김상백(金尙白)	판 관	채 택(蔡 澤)	병 과	김시계(金時繼)	참 군
김상표(金尙表)	판 관	조희건(趙熙建)	사 과	김익구(김翊龜)	병 과
장덕명(張德明)	주 부	오종립(吳宗立)	병 과	배효립(裵孝立)	첨 정
장득신(張得信)	판 관	정귀현(鄭貴縣)	선 전	장득복(張得福)	사 과
홍희준(洪希俊)	동 지	김천군(金天君)	병 과	김문헌(金文憲)	병 과
정영명(鄭英明)	첨 사	채기문(蔡起文)	병 과	유석득(兪錫得)	판 관
정후재(鄭厚載)	을 과	이시필(李時弼)	병 과	김영진(金永珍)	사 직
이천룡(李天龍)	병 과	채원삼(蔡元三)	병 과	김정운(金汀運)	병 과
정지수(丁智秀)	주 부	양악유(梁罥濡)	병 과	정응상(鄭應祥)	병 과
김정일(金廷逸)	병 과	양악영(梁罥泳)	병 과	정시욱(鄭時昱)	병 과

제2절 호남사림의 성장과 함평의 정개청(鄭介淸)·기축옥사(己丑獄事)

1. 사림파의 성장과 호남사림

1) 사림파성장의 배경과 의의

15세기 조선사회는 성리학의 철학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쏟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과 명의 압력, 대토지 소유의 확대, 불교의 폐해와 민생의 피폐 등 고려시대부터 누적되어온 대내외적 모순을 극복하고 왕조교체에 따른 새로운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당시 건국세력의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성리학적인 명분론도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었다. 역성혁명이기는 하지만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으며 나아가 신분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건국세력이 명분적인 면에 크게 집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성종 대에 들어서면서 고려 말 온건개혁파로 조선창업에 참여하지 않고 재야에 남아 있던 세력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영남사림(嶺南士林)이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조선왕조에는 새로운 정치적 기풍의 등장을 예고하는 징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향촌재지세력이었던 이들의 등장은 그 때까지 지속되어온 초기의 학문적 경향과 전통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사림이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성종 대였다. 성종 자신이 호문(好文)의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오면 국왕과 훈구관료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성종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관료층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성향에 따라 등장하게 되는 사림들은 성리학 본령에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그 성과를 실제 정치에 운용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향촌에서 일체의 사회관계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으로 구체화되었다. 15세기에 이미 민간 자치적 곡물대여기관인 사창제(社倉制)의 실시와 유향소 복설 운동으로 나타났던 이들의 움직임은 16세기에 들어와 서원의 설립과 향약의 보급으로 그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재지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지방의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이들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은 훈척계열의 비리행위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의식은 사상적인 면에서 성리학의 도리론·명분론에 대한 확신과 자신들이 농촌에서 ·척신들의 비리행위를 직접 체험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은 주로 언관(言官) 직을 차지하고 훈구대신들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에 수세에 몰린 훈척계열들이 사림파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서 일으킨 것이 곧 사화(士禍)였다.

연산군과 중종 조에 걸쳐 일어나는 사화로 인하여 정계에서 물러났던 사림들은 향촌에서의 사회관계를 재정비하고 향촌운동을 기하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하였으니 중종 대 이후의 향약보급운동이 그것이었다. 당시의 경제변동에 편승한 훈척계열의 비리행위에 직면한 사림들은 훈척들의

대민수탈(對民收奪)을 위한 지방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던 경재소(京在所)·유향소(留鄕所) 등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향약의 보급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는 유교 윤리를 향촌사회의 자치조직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훈척의 비리를 배제하고 당시의 소농민(小農民) 층의 유망(流亡)을 방지하여 향촌의 근본적인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중종 대에 조광조가 처음으로 이를 보급하다가 기묘사화로 일단 실패하였지만 그 뒤에도 각지의 사림들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향약을 통해 자치제의 실현은 신분간의 대립을 재지양반(在地兩班)의 대농민 통제로써 조정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구상된 것이었으므로 이를 통해서 지방 사림들의 농민지배는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림의 사회적 지위도 그만큼 견고해졌으니 이것이 결국은 서원을 통한 사림의 결속 및 재생산과 함께 수차례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사림은 훈척의 비리와 탄압에 직면하여 도덕성과 수신(修身)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학문적으로 승화시키면서, 성리학적 세계관과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15세기 말 이후 사림들은 끊임없이 정계진출을 기도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수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이러한 풍조는 더욱 현저해졌다. 또한 훈척계열(勳戚系列)의 비리를 비판하고 유교적 이상정치, 즉 도(道)에 입각한 왕정을 구현한다는 이들의 정치철학은 학문에 있어서 인간의 심성에 대한 탐구를 심화시켜 성리학의 발달을 보게 하였다.[172] 마침내 훈구계열의 관료군은 사림으로 대체되었고, 선조대에 이르면 사림정치가 구현되게 되었다.[173]

16세기 이래 사림의 위상이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은 성리학, 특히 주자성리학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 조선사회에 성리학적 질서를 보편화시킴으로써 사상 및 사회체계에 기본적인 바탕을 제공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림의 성장과정은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과정이었으며 이는 성리학 경전에 대한 주역서(註譯書)와 이론서(理論書), 즉 성리서(性理書)의 수입과 간행·보급 등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성리학서의 수입과 간행·보급을 통해 사림들은 보다 성리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성리학에 대한 이해도 심화시켜 나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가 성리학에 대한 다양한 주석서와 이론서를 저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명종 말 선조 초에 성리학은 조선사회에서 거의 완전히 이해되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학문풍토를 신랄히 비판하면서 먼저 수기(修己)에 힘쓸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주자성리학 수신서인 『소학(小學)』이 중시되었다.[174]

성리학에서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는 도학적 성격의 강화와 함께 나타나는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주자(朱子) 중심, 의리 중심의 도통론이 확립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재야학자들의 학문을 계승하였고 동시에 세조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이 학문에 반영된 것이었으며 훈척을 공격하는 효율적인 무기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정계에서의 훈구파에 대한 공격은 한편에서의 농민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측면을 구현하게 되었다. 주자의 권농문(勸農文)에 나오는 바의 지주전호관계의 명분을 향촌사회에서 시행하고자 한 것

172) 이태진, 『조선유교사회사론(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1989.
173) 한상권, 「16·7세기 향약(鄕約)의 기구(機構)와 성격(性格)」, 『진단학보(震檀學報)』 58, 1984.
174) 김준석, 「조선전기(朝鮮前期)의 사회사상(社會思想) - <소학(小學)>의 사회적 기능 분석(社會的 機能 分析)을 중심으로-」, 『동방학지(東方學志)』, 29, 1981.

이었다. 주자 권농문은 전주는 토지, 전호는 노동을 내어 영농하는 것이므로 일방의 수탈과 침학이나 혹은 저항은 용납되지 않은 것이고, 함께 나란히 짓는다는 의미에서의 병작(竝作)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비록 하층민이지만 보호와 규제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하층민에 대한 일방적 구속을 전제하지 않은 전근대적이지만 쌍무적인 관계를 천명한 것이었다. 그만큼 전호농민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념은 바로 향약에서 구현되었으니 향규(鄕規)가 사족내부의 약속이었다고 한다면 향약(鄕約)은 일향약속이라고 하였듯이 일향의 모든 계급 계층에 통용될 성질의 것이었다. 율곡(栗谷)의 해주향약이나 서원향약에서 보듯이 사족의 주도아래 하민(상천)이 포괄된 것이 바로 향약이었던 것이다. 결국 향촌사회 운영이나 부세의 징수 등에서 하층민을 향약에 끌어들임으로써 한편에서의 지배와 한편에서의 인정과 보호를 겨냥한 것이었고, 이것은 당시 하층민에게는 '더 나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겠다. 그래서 하층민은 명분차원에서 반강제적 측면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의 하계(촌계 향도계) 등을 사족의 상계(上契)와 합하게 되는 것을 용인하게 되었다. 이른바 상하합계인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일향차원 즉 고을 단위로 확산되는 것이 바로 이시기 향약의 성격이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다.

2) 호남사림의 성장

이처럼 16세기는 향촌재지세력이었던 사림이 훈구세력과의 대립과정을 통하여 중앙정치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는 시기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학파의 형성과정이기도 하였으며, 성리학의 이해와 지연·혈연 등과 관련하여 붕당의 전개과정이기도 하였다. 학파를 보면 서경덕(徐敬德)학파가 제일 먼저 형성되고 뒤를 이어 이황(李滉)학파와 조식(曺植)학파, 마지막으로 16세기 후반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학파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붕당은 대체로 서경덕·조식·이황학파는 동인(東人)으로 이이와 성혼학파는 서인(西人)으로 자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학파와 붕당을 이해할 때 기호지방과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서경덕은 경기도에 이이 성혼은 경기·충청도에 근거를 두면서 호남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황학파는 경상좌도 조식학파는 경상우도에 기반으로 가진 것으로 보았으며, 이황·조식학파는 성종대 영남사림파, 서경덕·이이·성혼학파는 중종 대 기호사림파와 연결해 설명되어 왔다. 결국 호남사림은 기호사림에 포함되어 논의되었으며 그나마 경기·충청지방의 주변부로 강하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16세기 호남사림은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다양한 학파가 공존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또한 선조 초년에는 중앙정계에도 적지 않게 진출하여 주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호남사림은 이미 연산군 대에 두각을 나타냈으니 영광의 송흠(宋欽)과 나주의 최부(崔溥)와 같은 이들이 있었다. 후자는 특히 동국통감의 사평을 쓴 인물로 유명하다. 그리고 연산군의 기묘사화에서 화를 입었는데 이 때 호남출신은 전체 피화자의 12%를 점하고 있었다. 중종 대에 이르러 기준(奇遵)·최산두(崔山斗)·유운(柳雲)·윤구(尹衢)·유성춘(柳成春)·안처순(安處順)·양팽손(梁彭孫)·고운(高雲)·박상(朴祥)·박소(朴紹)·송순(宋純) 등이 그들이었다.

명종 대에 이르러 성리학의 이기심성론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면서 조선사상계가 활발한 논의

를 하게 되어 호남사림도 내부의 분파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니 먼저 서경덕과 이황·조식의 학파가 형성된 것과 궤를 같이하였다. 호남에서의 서경덕 학파로는 박순(朴淳. 1523-1589)·이중호(李仲虎, 1512-1554) 등을 비롯하여 노수신(盧守愼)·윤행(尹行)·윤의중(尹毅中)·박응남(朴應南) 등이 있어 이들 문인들과의 입장을 같이 하였으니 앞에서 말한 나주의 최부의 계열이 이에 합류하였다. 이중호의 아들로 후일 동인의 중심인물이 되는 이발(李潑)·이길(李洁) 등과 정개청(鄭介淸)도 이에 속했다. 한편 연산조의 송흠과 중종 대의 박상을 잇는 면앙정 송순도 일파를 이루었는데, 김인후(金麟厚)·나세찬(羅世纘)·기대승(奇大升)·임형수(林亨洙)·임억령(林億齡)·양산보(梁山甫)·양응정(梁應鼎)·유희춘(柳希春)·오겸(吳謙) 등이 있었다. 여기에는 후일 정철(鄭澈)·고경명(高敬命)·김천일(金千鎰)·이후백(李後白) 등이 이에 연결되고 서인으로 결집하게 된다.

호남사림은 선조 6년(1573) 박순이 좌의정, 노수신이 우의정, 유희춘이 대사헌이 되면서 신진사류(소당-小黨)가 구신들(노당-老黨)을 물리치고 정계의 주도권을 잡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선조 8년 동·서 분당에 따라 신진사류는 붕당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동인에는 서경덕·이황·조식의 학파, 서인에는 이이·성혼의 학파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에 따라 호남사림도 동서로 분립하게 되었던 것인데 호남에서의 분기대립은 서경덕 학파와 이이학파의 대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이이·성혼·송익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정철이 중앙정계에서 서인의 주요인물로 부각되면서 대립은 첨예화되었다. 본래 정철 가문은 서울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을사사화를 계기로 집안이 몰락하자 16세 때인 명종 6년(1551)에 담양 창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의 호남사림보다는 재지적기반이 취약한 편이었다. 그는 인면정가단(仁俛亭歌壇)과 성산가단(星山歌壇)을 중심으로 한 문학 활동을 통하여 송순·임억령·김인후·기대승에게 사사하였으며 박순·송익필·성혼·이이·백광훈·고경명·최경 등과 교유하여 기존의 송순계열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서경덕 계열을 계승한 정개청(鄭介淸)·이발(李潑) 세력과 대립하게 된다.

2. 정개청의 학문세계와 기축옥사(己丑獄事)

1) 정개청의 생애와 사상

박순·이중호·노수신에 이어 호남의 서경덕학파의 대표자격이었던 정개청은 본관은 고성(固城), 자 의백(義伯) 호는 곤재(困齋)이며, 시호는 문청공(文淸公)으로 중종 24년(1529)에 부 세웅과 모 금성 나씨 사이에서 나주 금성산 아래 대곡동에서 태어났다가 중년에 나주 곡강촌(현재 동강면)으로 이거하였으며, 1570년경 무안 엄담(淹潭) 윤암(輪岩. 현재의 함평 엄다면 엄다리 제동-濟洞)에 정착하여 정사를 짓고 후학양성에 전념하였다. 그간 많은 재상들의 천거가 있어 교정랑청에 불려가고 곡성현감 등에 부임하였으나 그 관직생활은 1년이 되지 못되었다.

서경덕의 문인으로 나주와 무안·함평에 재지적기반을 가지면서 강의계 등을 중심으로 학문을 가르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는데 그는 예학과 역학뿐만이 아니라 역사·천문·지리·

의약·산수(算數)·복서(卜書)·덕공력(德功力)의 기술 등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박순에 의해 왜적을 막을 수 있는 팔도도원수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그의 문인은 매우 많아 이중호의 문인이었던 나사침(羅士枕)의 아들인 나덕명(羅德明)·덕준(德峻)·덕윤(德潤) 3형제들과 그의 사위인 정식(鄭湜), 나세찬(羅世纘)의 손자인 나덕원(羅德元), 안응정(安應鼎) 문하이었던 안중묵(安重默), 최경회(崔慶會)의 조카이었던 최홍우(崔弘宇), 유몽정(柳夢井)의 종질인 유양(柳瀁), 윤형정(尹衡貞)의 아들이었던 윤제 (尹濟) 등 나주·화순·함평·보성 등의 유력가문 출신들이었다. 그는 평생을 격물치지하는 바의 학문에 힘을 쏟아 공리와 관직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다음과 같은 시가 전하고 있다.

千乘景公同草腐　천승 수레끄는 경공도 풀과 같이 썩는데
一瓢顔子柱天榮　한쪽박의 안자는 하늘의 영화를 기둥삼네
是知仁義眞良貴　이로서 알겠느니 인의가 진실로 참되고 귀한 것을
莫道公侯謾姓名　공후를 말하여 성명을 오만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그의 인품과 학식에 대하여 박순은 주자·정자 이후의 단 한사람이며 윤선도에게서는 동방의 진유(眞儒)로서 이황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의 당대의 명성은 붕당을 달리한 유희춘·이이 등에게서도 인정되었다. '미암 유희춘(眉岩 柳希春)은 선생의 간절하고 깊은 함양(涵養)을 마땅히 여기어 후학의 사표로 근덕(勤德)하여 덕준 등으로 하여금 이에 종사(從師)케 하였으며 율곡 이이(栗谷李珥)도 또한 덕준 등에게 이르기를, 정모(鄭某)는 학행(學行)이 독실하여 가히 사람들의 스승이 될 만함으로 모름지기 자주 종유(從遊)하라'고 인정하고 격찬할 정도였다.

그도 여타의 사림과 마찬가지로 선학과 노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는 선학에 대하여 '선학(禪學)을 하는 사람은 맨 처음부터 욕심을 막고 사색(思索)을 가다듬으며 걱정을 내쫓는 정신을 양성하여 형체를 떠나고(離形) 잡념을 떠나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함으로 몸만 결백하게 할 뿐이어서 그 마음이 세상의 임무(任務)를 싫어하고 번거롭게 여기며 직분(職分)을 버리고 청허(淸虛)함 만 탐내어 사모하여, 성분(性分)을 멸각(滅却)시키고 손발을 제멋대로 두어 종일(終日) 아무 것도 하지를 않으며 스스로 고상하고 미묘함을 직접 끊고 능히 만사에 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의 사물(事物)이 면전(面前)에 다다르면 명선(明善)과 성신(誠身)의 공(功)이 없어 일곱 번 엎어지고 여덟 번 넘어져(七顚八倒) 실심(失心)해 어떻게 조치할 바도 모르고 그 해(害)가 미치는 바에 대해 세밀히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청정과욕을 교지로 삼고 있기에 시무에 아무런 대처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장학에 대하여서도 '심사(心思)와 지려(知慮)는 고허(高虛)하고 현묘(玄妙)하여 그 아는 바는 모두 실질(實質)이 없고 형체가 없어 가히 포착(捕捉)함을 얻지 못하고 그 말한 바는 모두 바람과 같고 그 그림자와 같아서 가히 형용(形容)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라고 하여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나친 자연주의가 인간사회 내부의 질서와 윤리를 부정하는 결과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노장과 선학의 비판이 현실주의적 질서와 명분에 입각한 것임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선생은 성리학을 본위로 하면서 철저히 주자를 신봉하지만 천문·지리 등의 실용학문에도 적잖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배불적 사상체계로 인하여 불교에 대한 유생의 침탈은 용납하지 않았다. 무안 승달산의 목암(木菴)이란 암자가 공허(空虛)하였기에 강학의 장소로 하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승려의 사옥(舍屋)을 강당으로 삼자고 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온당한 것 같았으나 문득 재삼 생각해 보니 그 의사(意思)의 기상(氣像)이 특히 좋지 못함이 한두 가지가 아닐 뿐 아니다. 비록 승사(僧舍)라고는 하나 저쪽에선 수긍하지 않는데 우리가 강압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이익을 취하는 기상이며 여러 사람의 시주(施主)를 모아 강당을 짓는데 힘을 썼는데 한 가지의 공로도 없으면서 거처(居處)만 편히 하려고 했으니 염치없는 부끄러운 모습인데 도리어 불상을 옮기라고 크게 주장하니 그 기상이 장차 동몽(童蒙)을 양성함에 정당함을 찾아야할 터에 먼저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여줌이 옳은 일이라고 하겠는가? 사군자(士君子)의 행할 바 일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은 구차스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금지하였던 것이다.

그는 격물치지 궁리수신의 결과가 성인군자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 범인에게도 가능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하늘의 강충(降衷)은 본래 범인(凡人)과 성인(聖人)의 구별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 하늘의 인간에게 내리는 치우침 없는 덕목 즉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기론(理氣論)에서도 '이(理)는 기(氣)없는 이는 없으며, 기는 이(理)없는 기는 없다. 그러므로 이가 있는 곳에 기가 모여들며 기가 있는 곳에 역시 이가 드러난다. 이것이 소위 일이이(一而二) 이이일(二而一)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여 이기불상리(理氣不相離) 이기불상잡(理氣不相雜)의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면서도 이기불상리에 가까웠다. 주기설의 입장이면서도 이기일체설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는 일찍부터 '주자(朱子)의 서적이 깊고 간절하며 통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글이 한없이 넓고 크고 웅대하여 초학자가 이를 두루 보고 그 간절한 요지(要旨)를 얻기가 쉽지 않으니 어리석은 내 생각으로는 병폐(病弊)가 되는 것이기에 나누어진 부문(部門)을 추출(抽出) 기록하여 보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주자의 학문적 고지에 도달하기 위한 입문서와 같은 「초학절요」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입문서를 편찬한다는 것은 주자에 대한 깊은 연구의 결과이었다. 따라서 그는 주자를 깊이 신봉하면서도 주자자신의 이설에 대해 날카로운 해석을 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주자는 처음에는 '대학(大學)에 나오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기본과 소학(小學)이 기본으로 삼은 덕성의 함양과를 구분하였던 오류를 중년에 이르러 배움에는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의 상호의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설파하고 그러한 원인이 초년에 선학에 심취하여 마음을 안정하고 마음을 찾는 것을 주장하여 서책만을 고수한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주자의 이 같은 전후의 소견이 다른 것을 이미 주자가 깨우친 만큼 주자의 가르침에 따라 덕성의 함양에도 처음부터 똑같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던 것이다. 그의 주자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는 이 같은 주자의 전후설이 다른 것에 대하여서도 주목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이니 주자에 대한 신봉이라고 하더라도 '비판적' 궁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향약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가 47세 되던 1575년 2월 그의 문도에게 향약가입을 촉구하는 글에서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성명(性命)을 조심스럽게 회복해야할 것이니 그 간절함은 소

학과 사서(四書)에 조리가 밝게 갖추어진 것만 같음이 없고 각각 사사(私事)의 마음을 도맡아 다스리고 끝내 능히 하나의 덕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또 증손향약(增損鄕約)의 두루 상세하고 간이(簡易)함 만 같은 것이 없으니'라고 하여 하늘이 부여한 성명(性命)을 회복하려면 소학과 사서가 필수적이며 사회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증손여씨향약(增損呂氏鄕約)'은 그 요체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향약을 실시하여 그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향약이란 '전지(田地)의 근본이 없고 한갓 사소(些少)하게 향약의 권고한 바에 경계만 한다면 귀 먹이나 눈먼 사람에게 소리와 색깔을 살피게 하는 책임을 주는 셈이 되며 저울추를 버리고 물건의 경중(輕重)을 다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그가 사는 땅과 경작하는 논밭을 근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재지의 현장을 근본으로 삼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향약을 덕업상권 환난상휼이라고 하는 조목이 갖는 실용적 의미에 천착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는 정철 등이 무등산 자락을 중심으로 한 가단(歌壇)을 중심으로 사림을 흡수하면서 청풍명월을 노래하는 사풍에 대하여 지극히 비판적이었다. 그는 정철의 이 같은 활동을 '주색에 창광(倡狂)하고 예법을 능멸하니 호남사람들이 언동을 마구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경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사(放肆)함을 즐기는 자가 초목이 비바람에 나부끼어 쓰러지듯 쏠려 청담(淸談)을 종주(宗主)로 삼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를 경계하기 위하여 '동한진송소상부동설(東漢晉宋所尙不同說)'이라고 하는 논설을 지었는데 이는 동한은 절의, 진송은 청담을 숭상하였다는 사실을 서술하였는데 그 폐단을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 '대개 절의적(節義的)인 사람은 그 마음이 천하를 높이 보고 한 세상을 거만하게 흘겨보아 예의의 법규를 벗어나고 성명(性命)의 올바름을 조촐히 하지 못하여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름이 있다하여 끝내는 군교(群狡)가 아울러 일어나고 신기(神器)를 사시(邪視)하게 되며 청담(淸淡)의 유(類)에 이르러서는 다만 이 파도를 따르고 흐름을 좇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 부귀는 필요없고 빈천(貧賤)은 능히 잊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일변(一邊)은 비록 청고(淸高)한 것 같으나 저 일변은 실로 권리를 부르고 재화(財貨)를 받아드림을 면치 못하고 또 한 때 이를 사모하며 모효(摸效)한 자를 서로 이끌어 교허(驕虛)하고 부탄(浮誕)하게 하여 끝내 진기(振起)를 회복할 계책을 없게 해 이로써 찬탈(簒奪)의 세력을 형성 시킨다'

그는 이 글을 통하여 절의와 청담이 실로 독선과 무례의 다름이 아님을 주장하였던 것이며 이는 곧 소부 허유 식의 무책임과 노장의 허무 자연주의의 추종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실용을 중시하고 예법을 강조하며 거경궁리를 주종으로 한 도학지상주의자로서의 정개청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그는 또한 임진왜란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율곡이 일본의 침략을 예견하고 10만양병설을 주장하였듯이 거유 정개청도 1588년에 이미 왜적의 침입이 있을 것이니 이 침입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도이장욕유변(島夷將欲有變)"의 상소를 올린 바 있으며 선조는 당시 영의정이던 박순에게 "왜구들이 침입을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수가 누구냐?"고 물었고, 박순은 "지리에 밝고 모든 분야에 조예가 깊은 정개청 같은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주고받은 사실이 대동야승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4년을 앞서 보는 정개청의 상소도 율곡의 10만양병설이 묵살된 것처럼 채택되지 않았다.

정개청의 “도이장욕유변” 상소문은 그의 저서인 우득록(愚得錄) 제3권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그의 저서는 스승을 배반했다고 하여 같은 남인들도 꺼려했다고 기록한 책도 있지만 정개청은 당(黨)을 싫어하여 어느 편당에 들기를 꺼려하였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여 다방면에 밝은 당대의 대학자였음을 대동야승의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주역(周易) 소자율여신서(邵子律呂新書)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 힘씀이 더욱 독실하여 천문, 지리, 의약, 복서, 산수, 전진(戰陳)의 법과 황왕제패(皇王帝霸)의 도덕공력(道德功力)의 술(術)을 연구하지 않음이 없었다.

실지로 본 것이 고명하나 항상 통하지 못한것 처럼하고 조예가 정묘하고 깊어도 진보하지 못한 것처럼 하고 아름다운 덕이 쌓였으나 스스로 들어내지 아니하며 쉬지 않고 반성하여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우리 동방의 도학이 전하는 유래가 있으나 오현(五賢. 일두-一蠹·한훤-寒暄·정암-靜菴·회재-晦齊·퇴계-退溪) 뒤에는 들리는 사람이 없더니 선생이 남쪽에서 우뚝 일어나 개연히 사도로써 자임하여 회제·퇴계 두 선생과 더불어 이론을 세우고 일을 행함에 있어 서로 발명되었으니 어찌 맹자 말씀에 ‘문왕(文王)을 기다리지 않고도 오히려 일어났다’는 호걸이 아닌가. 사암 박상국(思庵朴相國. 박순), 아계 이상국(鵝溪李相國. 이산해), 소재 노상국(蘇齋盧相國. 노수신)이 모두 일대의 명현이었는데 선생의 도덕이 순수하다는 것을 잘 알아 치도(治道)를 논하기도 하고 예문을 가려 풀이하는 등 서신 왕래가 끊이지 않았으며 천거하고 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선조께서는 “정개청을 당초에 역적으로 지목해서 국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서애 유선생(西崖柳先生. 유성룡)은 ‘개청은 호남의 인물중 제일 이름이 있고 평생에 학술, 행검으로 자임하였는데 우연히 한편의 글로 죽기까지 하였다’라 하였고.”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정개청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다. 이러한 학문적 성취와 비판적이지만 철저한 주자신봉주의자인 정개청에게 시련이 다가왔으니 바로 기축옥사이다.

2) 기축옥사(己丑獄事)와 정개청(鄭介淸)

한국에서 붕당형성의 기미는 고려 말에 재지중소지주층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을 때 이미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미는 정치의 주도권이 결국 국가적 개혁론자들에게 돌아가 이들에 의해 과전제가 시행되면서 크게 억제되었다.

또한 붕당은 유교정치사상에서는 본래 용납되지 않았다. 중국 한당대(漢唐代)의 유교정치사상에서 붕당은 오히려 죄악시되었다. 중국에서 송대(宋代)에 이르러 붕당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재지중소지주층이 확대되고 또 그 정치참여의식이 높아진 결과였다. 이들이 황제와 관료중심의 정치를 지양하여 지방사회에서의 재향지주들의 정치적 역할을 주장하는 한편 중앙정치에 대한 지식인들의 여론, 즉 공론(公論)의 중요성도 강조하게 됨에 따라 붕당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 결집으로서 붕당은 사화기(士禍期)에 이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때는 훈척계가 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의 사림파는 아직 비판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시기의 정치를 바로 붕당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 사림파의 정치적 우세는 선조의 즉위를 계기로 척신의 정치적 비중이 크게 쇠퇴하는 가운데 확보되었다. 붕당이 학연에 근거하여 동인·서인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후의 일이었다. 붕당정치는 선

조 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사실 동·서 분당 이래 얼마 되지 않아 당파간의 대립은 중앙정계에만 머물지 않고, "시정(市井)·궁향(窮鄕)·벽촌(僻村)까지도 모두 동서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상태에 돌입해 있었던 것이다. 영남지역에서는 대체로 퇴계와 남명(南冥)의 문도들이 학연·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들은 또한 대체로 동인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서인의 세가 별로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호남지역은 그 양상이 영남지역과 조금 달라서 여러 계열의 문도(門徒)들이 얽혀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동서분당의 상황에서는 김인후·기대승·이환(李恒)·이이·성혼(成渾)의 문도들이 대개 서인으로 입장을 표했음에 비해 이중호(이발의 부)·김근공(金謹恭)·민순(閔純)·정개청·정여립(鄭汝立) 및 그의 문도들은 대개 동인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때문에 호남지역은 동·서인이 상당수 혼재되어 분립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정여립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정여립 모반사건의 전말을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175]

황해도 관찰사 한준(韓準), 재령 군수(載寧郡守) 박충간(朴忠侃), 안악 군수(安岳郡守) 이축(李軸), 신천 군수(信川郡守) 한응인(韓應寅) 등이 변서(變書)를 올려 '전 수찬 정여립이 모반한다.'고 하였는데, 여립이 망명(亡命)하였다.

당초 여립이 왕의 견책을 자주 입고 호남 금구현(金溝縣)으로 달아나서 전주에 거주하기도 하였고 김제(金堤)·진안(鎭安)의 별장을 왕래하였다. 조정에서 그가 퇴휴(退休)하는 것을 애석히 여겨 논천(論薦)이 서로 잇따라 매양 청망(淸望)에 주의(注擬)하였으나 상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여립이 본디 발호(跋扈)하는 뜻이 있었는데 억누름이 심하게 되자 배반하려는 모의를 더욱 펴게 되었다.

이에 강학(講學)을 가탁하여 무뢰배를 불러모았는데, 무사와 승도(僧徒)들도 그 가운데 섞여 있었다. 호강한 세력으로 남의 재물을 함부로 강탈하여 전원(田園)을 광대하게 점유하고 나서 또 주군(州郡)에 구청하여 조금만 마음에 만족하지 않으면 곧 대관(臺官)에게 부탁하여 공격 모함하니, 복종하여 따르는 자가 문을 메웠고 선물과 증유(贈遺)가 뜻에 차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자산이 실로 관가(官家)와 같았는데 이것으로 몰래 무리들을 길렀다.

이때 국가가 군정(軍政)이 문란하고 재력이 탕갈되었는데, 해마다 흉년과 재변이 들고 도적이 간간이 일어났다. 민간에서 항상 일족과 이웃의 군포(軍布)를 징수하는 것을 괴롭게 여기고 또 북계(北界) 백성을 쇄환(刷還)하는 소요가 있었다. 여립이, 백성이 반란을 생각하는 조짐이 있는 것을 보고 드디어 그들과 반란을 도모하기로 결의하였다. 또 해서(海西)는 풍속이 완악(頑惡)한데다가 일찍이 임꺽정(林巨正)의 난리가 있음을 보고 황해 도사(黃海都事)가 되기를 청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안악(安岳) 사람 변숭복(邊崇福)·박연령(朴延齡), 해주 사람 지함두(池涵斗) 등과 몰래 서로 교결하여 돌려가며 꾀니 응하는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 지함두란 자는 본래 교생(校生)으로 문자를 꽤 알았는데 간사한 행실로 향리에 죄를 얻었다. 이름을 여러 번 변경하고서 누른 갓과 도복(道服)을 착용하고 호남·호서를 돌아다니며 여립을 사사(師事)하였다. 해서 사람으로 제자라 일컬으며 왕래한 자로서 함두 같은 축이 많았다.

이보다 앞서 1백여 년 전에, 민간에 '목자(木子)가 망하고 전읍(奠邑)이 일어난다.'는 참언(讖言)이 있었다. 여립이 요승(妖僧) 의연(義衍)과 모의하여 이를 옥판(玉版)에 새긴 다음 지리산 석굴 안에 간직하였다. 의연이 승도인 도잠(道潛)·설청(雪淸) 등과 산을 유람한다고 핑계하고 지리산에 이르러서는 '아무 방위에 보기(寶氣)가 있다.' 하고 같이 가게 하여 옥판을 찾아내어 여립에게 돌려주니, 여립이 같은 동아리에게 비밀히 보여주고는 그 말을 누설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여립이 일찍이 중 의연의 무리와 국내의 산천을 두루 유람하다가 폐사(廢寺)의 벽에 시를 쓰기를,

175) 『선조수정실록』 23권, 22년 10월 1일(을해).

손이 되어 남쪽 지방 노닌 지 오래인데
계룡산이 눈에 더욱 환하여라
무자·기축년에 형통한 운수 열리거니
태평 성세 이루는 것 무엇이 어려우랴

하였는데, 그 시가 많이 전파하였다. 또 무명자가(無名子歌)를 지었으니, 모두 백성이 곤궁하여 난을 일으키려는 뜻을 기술한 것이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지 못하였다.

여립은 잡술에 두루 통하여 감여(堪輿)와 성기(星紀) 등에 관한 서적을 중국에서 사다가 무리들과 강설(講說)하였고 국가에 장차 임진 왜변(壬辰倭變)이 있을 것을 알고 때를 타고 갑자기 일어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웃 고을의 여러 무사, 공사천(公私賤)의 장용(壯勇)한 사람 등과 대동계(大同契)를 만들어 매월 15일에 한 곳에 모여 활쏘기를 겨루고 주식(酒食)을 장만하여 즐기면서 말하기를, "활쏘기란 육예(六藝) 중의 하나이니, 남자로서 마땅히 학습해야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수학(受學)하는 문인은 모두 활쏘기를 익히는 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모두들 말하기를, "우리 동방의 선유(先儒)들은 예학(禮學)만 알 뿐이었는데, 사예(射藝)를 가르치는 것에 이르러서는 오직 우리 선생이 있을 뿐이다." 하였다.

정해년 왜변에 열읍(列邑)이 군사를 조발(調發)하였는데 전주 부윤(全州府尹) 남언경(南彦經)이 소활하여 조처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립을 청하여 군대를 나누게 하였더니, 여립이 사양하지 않고 담담하여 한 번 호령하는 사이에 군병이 모였는데, 부서를 나누어 조견(調遣)하는 데 있어 하루가 안 되어 마무리지었다. 그 장령(將領)들은 여립이 모두 대동계(大同契)에 들어 있는 친밀한 무사를 썼다.… 해서 지방이 바야흐로 임꺽정의 난을 겪었는데 여립의 요언(妖言)을 듣게 되어서는 백성들과 관리들이 두려워하여 모두 군장(軍裝)을 예비하고 급경(急警)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여립의 도당들도 그 사이에 섞여서 또한 변고에 대비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앞을 다투어 병기를 수리하였는데, 실정을 모르는 자는 도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겼다.

이때 해서에 떠도는 말이 자자하였는데, "호남 전주 지방에 성인이 일어나서 우리 백성을 구제할 것이다. 그때에는 수륙(水陸)의 조례와 일족·이웃의 요역과 추쇄(推刷) 등의 일을 모두 감면할 것이고 공·사천과 서얼(庶孼)을 금고(禁錮)하는 법을 모두 혁제(革除)할 것이니 이로부터 국가가 태평하고 무사할 것이다." 하였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현혹되어 왁자하게 전파하였다.

여립이 사기(事機)가 자못 누설되어 사람들의 말이 점차 널리 퍼진 것을 보고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하여 변란을 일으키려는 계책을 결정하였다. 이에 비밀로 부서(部署)를 약속하여 이해 겨울 말에 서남 지방에서 일시에 군사를 일으키기로 기약하고, 강진(江津)에 얼음이 얼어 관방(關防)에 원조가 없기를 기다려 곧바로 경도(京都)를 침범한 뒤 무기고를 불태우고 강창(江倉)을 빼앗아 점거한 다음, 도성 안에 심복을 배치하여 내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객을 나누어 보내어 대장 신립(申砬)과 병조 판서를 먼저 죽이고 전지(傳旨)를 사칭하여 병사(兵使)와 방백(方伯)을 죽이도록 언약하였다. 또 대관(臺官)에게 청탁하여 전라감사와 전주 부윤을 논핵해서 파면하고 그 틈을 타서 거사하기로 하였다.

이로서 보면 정여립이란 인물은 대동계 등을 통하여 전주·태인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한 재지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왕위세습과 사대주의를 부정하고 역사의식에서도 중국의 위·오·촉한의 삼국 중에서 위(魏)가 정통이라고 하는 혈연주의적 역사계승의식을 부정하는 등의 정통성리학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잡술에 두루 통하고 사예(射藝)를 강조하였으며 대동계에 공사천(公私賤)을 참여시키고 서얼과 천인을 금고하는 법을 모두 혁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정여립이 동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인의 동인제거의 옥사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인 측은 혹독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으니 우득록 부록 상권 곤재선생사실에 나오는 바만 열거를 하면 다음과 같다.

"정여립(鄭汝立)이 변사(變事)를 일으킨 것이 상정(上程)되어 정철(鄭澈)이 위임받은 관리 (委官)가 되었으며 그 기회를 타서 화(禍)를 꾸며 선(善)한 무리들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먼저 여립(汝立)으로써 위학능문(僞學能文)으로 한 세상을 속인 것으로 삼고 진신(振紳)사이에 이름높은 유자(儒者)와 티없이 맑은 선비가 모두 그 속임을 입게 되고 여립이 주살(誅殺)되었으며 우상 정언신(鄭彦信)은 갑산(甲山)에 유배되었다가 이로 인해 배소에서 죽고, 참판 정언지(鄭彦智)는 강계(江界)로 귀양갔으며, 참의 백유양(白惟讓)은 옥중에서 장살되고 직제학 홍종록(洪宗祿)은 구성(龜城)으로 귀양가고, 구암한백겸(久庵韓百謙)은 곤장 맞고 멀리 귀양갔으며 영남의 수우 최영경(崔永慶)은 옥중에서 장살되고, 조계 유종지(潮溪柳宗智)는 남명(南冥)의 문인으로 옥중에서 장살되고, 동강 김우옹(東岡金宇顒) 역시 남명의 문인으로 회령(會寧)에 유배되었다"

그런데 정철과 같은 호남에 기반을 둔 사림관리가 가장 혹독한 피해를 당하였으니 부제학 이발(李潑. 자 경함-景涵. 호 동-東岩), 그 아우 사인 이길(李洁. 자 경연-景淵. 호, 남계-南溪), 지평 유몽정(柳夢井. 자 경서-景瑞, 호 청계-淸溪), 도사 조대중(曺大中. 자, 화우-和宇. 호 정곡-鼎谷), 찰방 이황종(李黃鐘. 자, 중초-仲初. 호 만취-晩翠) 등이 옥중에서 장살되었고 그 나머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기축옥사는 전후 사자(死者) 수백 명, 조신명환으로 죽은 자 10여명, 연좌되어 유배된 자 수백 명, 파출자(罷出者) 수십 명이었다. 기축옥사에 연루된 유명 인사들을 발췌하여 보면 <표 >와 같다.

<표 10> 기축옥사에 피해를 당한 호남사류

이 름	본관	당시 관직	최종관직	사 우 관 계	거주지 및 활동지	제소자 (提訴者)	참 고	전 거
정개청 (鄭介淸)	고성	퇴관	곡성현감		나주,함평	정암수 등 50여명		고성정씨 족보,행장 등
나사침 (羅士忱)	나주	〃	이산현감	李仲虎	나주	〃		금호집, 나주나씨족보
나덕명 (羅德明)	〃		금부도사	정개청	나주 함평	〃	사침의 장자	소포집 〃
나덕준 (羅德峻)	〃	유학	현감	〃	〃	〃	〃 차자	금암집 〃
나덕윤 (羅德潤)	〃	진사	〃	〃	〃	〃	〃 삼자	금봉집 〃
나덕현 (羅德顯)	〃	유학	참봉	〃	〃	〃	〃 사자	금호집 〃
나덕헌 (羅德憲)	〃	유학	수사		나주,함평	〃	〃 육자	〃
이 발 (李 潑)	광산	부제학		이 이	남평,서울	양천회(梁千會) 외	이중호 아들	기축실록
이 길 (李 洁)	〃	응교		김근공	〃	〃	〃	〃
이 급 (李 汲)	〃	정읍 현감			〃	〃	〃	〃
조대중 (曺大中)	창녕	전라 도사		유희춘 이 황	화순	〃		기출실록
조민중 (曺敏中)	〃	사마 (司馬)			〃	〃	대중의 형	〃
조수훈 (曺守訓)	〃	첨정			〃	〃	대중의 조카	〃
조수성 (曺守誠)	〃		헌능참봉		〃	정암수 등 50명	〃	〃
조수홍 (曺守弘)	〃	유학	개문정자		〃	〃	민중의 아들	〃
조수흠 (曺守欽)	〃		참봉		〃	〃	대중의 아들	〃
조수경 (曺守敬)	〃				〃	〃	〃	〃
고수정 (曺守正)	〃	첨지			〃	〃	〃	〃
유몽정 (柳夢井)	문화	군수			나주	정암수.오희길		〃
이유경 (李有慶)	경주		증 정랑	이 이	〃	유발(柳潑)	이잠의 증손	한국고사 (古事)대전
이황종 (李黃鐘)	전주	찰방		최영경	영광	강해(姜海) 양천회	이발 모친 윤씨 황종의 외조카	〃
이극부 (李克扶)	〃	생원	찰방	정여립	〃	홍천경	황종의 조카	〃
김극성 (金克成)	영광	유학	지평		〃	〃	나덕헌 사돈	〃
이대립 (李大立)	광산				능주	〃	이발의 종질	〃
윤의중 (尹毅中)	해남	판서			해남	〃	이발의 외숙	기축실록

기축옥사의 여파는 곧 정개청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호남인 정암수 등 10명이 상소를 올려 '정개청은 오랫동안 정여립과 교유하면서 사설(邪說)에 동화한 자'라고 하고 '일찍이 절의를 배제하는 일설(一說)을 지어 후생과 소자(小子)를 의혹케 했는데 그 말에 이르되 그 폐해는 반드시 범법작란(犯法作亂)을 아울러 일으킬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상소에는 아계 이산해·서애 유성룡·두암 김응남(斗岩 金應南) 등이 함께 규탄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상소는 한때 정개청이 정여립과 함께 교정랑청(校正郞廳)에서 만나 조금 면식의 분수가 있는 것을 교유하여 동화되었다는 등의 말로써 무고했으며 또 앞에서 저술한 바의 '동한진송소상불동설'에서의 절의(節義)의 독선적 측면을 지적함을 절의를 배제한 것으로 모함한 것이었다. 이에 선조는 정암수의 상소가 '간인의 사주에서 나왔다'는 판단으로 의금부에 하옥하여 국문하도록 하였으나 정철 등은 양사를 동원하여 국문의 부당성을 상소하게 하여 결국 불문에 부쳐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무안의 유생 배명(裵萯) 등이 정개청의 무고 당함의 원통함을 상소하였으나 결국 정개청은 나주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때가 그의 나이 60세 되던 1590년 4월이었다. 투옥된 처음의 이유는 정개청에게 학문을 배운 나주인 조봉서란 자가 정개청을 따라 정여립의 집에 가서 그 집터를 보아 주었다'고 하는 무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는데 정여립의 몰수문서 가운데 정개청의 서한이 있음이 밝혀지게 되면서 정철에 의하여 정여립과의 교결이 주장되고 이것이 수용되어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당하는데 배소에 도착한지 1달여 만에 고문의 상처로 병을 얻고 1590년 7월 27일 별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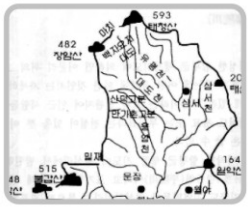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이처럼 정여립의 모역사건은 당시의 정치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 정여립과 친교가 있었던 다수의 동인계 인사가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거나 유배·파직되었다. 기축옥사는 중앙정계에서는 동·서인간의 정권쟁탈을 위한 대립으로, 지방에서는 당파적 입장 차이를 바탕으로 한 향권(鄕權)장악을 위한 대립으로 전개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호남사림이 다수 연루되게 된 것은 바로 후자의 요인에 의해서라고 보이는데, 기축옥사의 피화인 중 이발 형제와 유몽정 등은 중앙정치무대에서의 대립으로 정개청 및 나덕명·나덕준 등 나씨 일가의 피화는 지방사림간의 향권장악을 둘러싼 대립에서 연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축옥사의 전개 중 호남사림이 관련된 부분은 정여립의 역옥에 편승하여 호남지방에서 서인계가 동인 내지는 자신들에게 대립되는 세력들을 축출하려고 한 것이었다. 특히 호남지방의 사림이 피해가 혹심하였다.

정여립의 역모에 연루된 호남사림은 대부분 동인계열 인물이었는데 그들은 이 사건에 연루되기 전부터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를 조직하고 향약을 보급하면서 나주에 건립된 경현서원을 무대로 향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세는 서인계 사림으로부터 견제 받을 요소가 되었고 정여립 모반사건이 터지자 이를 빌미로 서인계 사림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었다. 그 배경에는 서인계의 우세한 학연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심지어는 오늘날의 우리 정치사회계에 존재하는 호남지방에 대한 지역차별정책의 연원으로 지적되기까지 할 정도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남지역은 이후 당쟁의 진전에 따른 정권의 교체 때마다 이전의 구원(仇怨)에 바탕을 둔 심각한 대립의 양상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정철의 비호를 받고 있었던 호남사림의 대부분은 이기심성론 등의 학문분야 보다는 문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 면앙정가단과 성산가단을 중심으로 시가 문학 활동을 활발히 벌인 결과, 성리학의 본령인 철학과 예학 등에서 기호사림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역사란 보이지 않게 잉태되고 성사되게 마련. 바로 3년 후 닥쳐오는 임진왜란은 동인의 침체, 서인의 발호과정에서 호남사류의 대부분이 그 한편에 연루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된다.

제4장 조선중기 외침과 의병활동



제1절 조선중기 수취체제의 모순과 군역체제의 동요

조선전기 관료군-양반지배층은 과전법에 의해 개인이 수조할 수 있는 토지 인 과전·공신전 등의 명목으로 분급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반들의 경제기반은 국가로부터 지급된 과전 등의 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과전 등 국가에서 지급한 토지는 관직 및 직역과 결부시켜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었지만 양반들은 이 밖에도 사적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사유지를 노비노동을 이용해서 경작하거나 또는 빈농·무전농민에게 대하여 경작케 하고 수확을 반분하는 병작반수제로 경영하였다. 이러한 토지는 농장이라고 불리었는데, 양반이 신분적으로 농민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은 여기에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적토지소유를 통한 특권의 유지확대는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양반관료에의 수조권을 통한 토지분급제가 15세기 말을 거치면서 현저히 약화되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 양반층 내부에서 과전을 둘러싼 갈등이 팽배하고 전주와 전객사이의 대립이 격심해졌기 때문이다.

과전을 분급받는 전주는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가지고 있던 전지를 명목상의 사전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소유하는 사전으로 취급하여 '전주답험'을 하고자 하였던 것에서 보듯이 과전에서의 전주(수조권자)의 전횡이 심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폐해는 세종대에 변계량과 조말생, 원숙이 올린 글에 잘 표현되어 있다.[176]

변계량이 계하기를, "비록 모두 사전(私田)을 심사하라고 한다해도, 누가 즐겨서 답험(踏驗)하고 검사하는 데 마음을 쓰겠는가. 정유년에 이미 이 법을 행하였으나, 이에 맞지 않으므로, 다른 위관(委官)을 시켜 다시 심사하였고, 그래도 맞지 않은 자에게는 다 형장 1백을 내렸으니, 만일 흉년이 들면, 사전도 아울러 심사하고, 풍년이 들면, 밭 임자에게 맡겨서 스스로 심사할 것을 허가할 것이요, 혹 <지시하는 대로> 못하는 사람은 죄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고, 조말생은 계하기를, "만약 흉년에 아울러 심사하고 풍년에는 전주(田主)가 스스로 심사하는 것을 허락하면, 이것은 흉년에는 납세를 정확하게 하고, 풍년에는 마음대로 걷게 하는 것이라, 실로 중정(中正)한 방법이 아니니, 행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경차관(敬差官)을 보낼 때에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을 한결같이 중정하게 답험할 것을 명하면, 사전에서 조세 받는 법이 거의 공평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계사(啓事)하는 여러 신하가 나가니, 원숙이 계하기를, "이제 한 이랑[畝]을 건너서 하나는 공전이요, 다른 하나는 사전이라 한다면, 그 조세를 받는데 있어서 많고 적은 것이 크게 서로 같지 아니하겠으니,

176) 『세종실록』 4권, 1년 7월 18일(신유).

백성들이 원망할 것이며, 전주가 비록 마음대로 무리하게 거두어들인다 하여도, 소작하는 사람은 머리를 굽혀 가며 청종(聽從)하기에 겨를이 없으리니, 어찌 감히 스스로 호소하겠습니까." 하였다.

국가는 이에 대하여 과전이 비록 관료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사전이지만 여타 국가기관이나 왕실에서 수조하는 공전과 다름없는 국전임을 천명하면서 그 전횡을 가로막고자 하였으나, 실제 이것은 여의치 못하였다. 전호의 민생침탈에 따른 불만과 저항이 적지 않게 일어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나, 과전은 한정되었는데 현직 아닌 전임관(前任官)에게도 과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과전 분급 상에서의 관료내부의 알력과 대립을 한층 격화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분급대상자에게 과전을 규정대로 지급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에 국왕중심적집권화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세조는 즉위 12년(1466)에 토지의 지급대상을 현직관료에 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니 직전법(職田法)은 바로 이를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전주와 전호의 대립분란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의 직접 수조권을 회수하고 관에서 수조하여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명종대에 가면 실행이 불가능하여졌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제 양반관료들은 녹봉만을 받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대신해서 사적소유지의 집중을 도모해 나갔던 것이다.[177]

15세기 말부터 수조권을 매개로 한 토지지배가 무너지면서 소유권에 바탕을 둔 토지지배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생산력의 꾸준한 발전을 토대로 대토지 집적을 둘러싼 지주전호제라는 새로운 생산관계가 정립되어갔다. 왕실과 지배층들은 개간과 아울러 일반 민전을 매입하거나 겸병하여 대토지농장을 형성함으로써 부를 축적해나갔다. 농장은 이미 이전시기부터 전해오는 것이 많았고 평안도·황해도·강원도의 묵은 땅을 개간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생산력이 높아진 15세기 말부터 지배층들이 적극적인 신전(新田) 개발이나 매매·겸병·탈점·장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대함으로써 더욱 발달해갔다.

새로운 농법의 개발과 농업생산력의 증대로 경작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인구증가로 땅값이 등귀하자 지주들은 토지개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지주들의 신전 개간의 일반적인 형태는 연해안 지역의 간석지 개간인 언전(堰田) 곧 해택지(海澤地) 개발이었다. 간석지 개간문제도 고려말에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인력동원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15세기 말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중앙의 왕실이나 권세가가 주로 중심이 되어 추진한 해택지 개발은 전라도와 평안도에 이르기까지 서해안 전지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었다.

한편 정치적으로 자행되는 폭정과 사화(士禍) 등으로 통치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국가의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직접적 지배력이 약화되어 갔다. 양반관리들은 경재소를 통해 연고지를 장악해 품관층(品官層)을 위압 조종하면서 수령의 관권을 매개로 농민의 토지를 강탈하고 양인을 노비로 만들며 강 하천을 점탈하는 횡포를 감행하는 등 향촌사회에 대한 자의적인 지배와 수탈을 강화해나갔다. 농장주들은 농장 주변의 다소 넉넉한 양인농민들은 반상(伴倘)으로, 그리고 빈한한 농민들은 고공·비부라 부르면서 끌어들여 자신의 협호로 삼아 농장을 관리하거나 경작하게 하였다.[178] 향촌사

177) 이경식, 「조선전기 직전제(朝鮮前期 職田制)의 운영(運營)과 그 변동(變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 28, 1980.
178) 한희숙, 「조선초기의 반당」, 『역사학보』 112, 역사학회, 1986.

회 안에서도 재경 관인과 수령의 관권에 유착한 품관·향리 등 재지토호들이 군현의 실권을 장악하고 그들의 지주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반 농민들의 피해는 점점 더 심화되어갔다. 이들 역시 민전(民田)을 강탈하고 양인을 노비로 만들며 자기의 사적지배지를 확대하고 강하천(江河川)의 수리권 따위를 점유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양반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노비와 토지는 전국에 널려 있었는데 그중에 하3도(下三道)가 가장 많았다.

대토지의 집적 확대를 통한 지배층의 축재행위는 농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대토지 집적의 전개는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끼쳤으나 농민경영의 분화와 하층농민의 몰락을 초래하여 향촌사회 내부의 지주소작제에 입각한 소작농민을 광범위하게 창출하였다. 토지소유의 경쟁에 의해 개간이 촉진되고 농민들도 자기 토지를 소유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한편으로는 소유경쟁에서 뒤져 토지를 잃게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15세기에 연작상경화가 보편적으로 된 이래 16세기에도 농업생산력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다. 집약적 농법의 진행에 따라 시비법이 발달하여 인분(人糞)의 사용이 늘어났고, 특히 벼농사에서 집약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중소 지주인 사림세력들에 의해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천방(川防, 보-洑)이 설치되고, 궁가(宮家)와 권세가에 의해 서·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염전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179]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지주제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 15세기 후반기 이래 권세가나 궁가, 그리고 중소 지주층에 의한 대토지소유의 발달로 과중한 국역부담에 의해 몰락하고 있던 양인농민은 더욱더 몰락해갔다. 몰락한 양인농민은 농장에 편입되어 노비로서 강한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 속박을 받았다.

이와 같이 지주제가 발달하면서 국역을 담당해야 했던 권세가나 중소 지주인 사족층은 점차 면역을 합법화 했다. 몰락한 양인농민을 농장의 노비로 편입하면서 향촌사회에서 지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던 양반층의 신분관은 그 이전 시기보다 폐쇄적으로 되어 갔다.

자영농민을 기초로 한 조선 초기의 국역 편성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게 되었으니 과중한 국역부담에 의한 양인농민의 몰락과 농장의 노비화, 그리고 지주-전호관계의 발달이 그 배경이 되었다. 그나마 형식상 존재하던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의 부병제 원칙은 거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붕괴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농민층의 생활이 크게 향상된 것은 아니었다. 계속적인 수리사업이나 농업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생산력 수준은 농가의 자립적 생활과 농업경영을 보장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명목의 부세는 농민생활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는데 공물의 방납과 가중한 군역의무 등은 농민생활을 곤경에 빠뜨렸으며 연산군의 학정 이후 훈구대신의 전횡에 따라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면서 지방행정의 난맥상을 더한층 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각처에 유민이 많이 생겨나고 도적도 일어났다. 그 유명한 임꺽정 등의 활동이 있었던 것도 이 때였다.

15세기 후반에 활발해진 도적들과 농민의 저항은 자연재해에 따른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179) 이태진, 「16세기 동아시아 경제변동과 정치·사회적동향」, 『한국사학』 9, 1987.

이들의 활동은 15세기 전반의 양상을 그대로 잇는 경우가 많았으나 집단적인 도적무리와 수적(水賊)·산적(山賊)들의 활동이 더욱 확산되고 무장이 고도화된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양계지역과 황해도·강원도 등 경기 이북에서는 산간을 근거로 곡물을 약탈하는 산적들의 활동이 빈발하였고, 하삼도에서는 향촌사회 내에서의 빈부격차에 따른 소규모 또는 대규모의 절도·강도·살인행위가 늘어갔다. 또한 전라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활동이 활기를 띠자 이를 노리는 해안이나 강변의 수로를 낀 수적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이 외에 전국적으로 재인·신백정이나 화적·명화적 등의 활동도 여전하였다. 당시 유자광(柳子光)이 "도적이 오늘날보다 성한 적은 없으며 서울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나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과장한 것은 지배층의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180]

한편 조선전기 중앙 5위제(衛制)와 지방의 진관체제를 기축으로 한 군사제도는 16세기에 이르면 거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백기에 접어들었다. 진관체제 하에서 병력의 근간을 이룬 것은 양인 농민이었다. 양반자제들에게도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역을 지지 않았고 향리와 공사의 노비는 본래의 역이 있으므로 군역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양인의 군역은 상대적으로 가중되었으며 상당한 고역이기도 하였다. 양인 농민들은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일단 징발이 되면 정병(正兵)으로서 서울에 번상하거나 지방의 제진에 부방하였다. 그러나 양인 농민 모두가 현역군인인 정병으로 징발되는 것은 아니었다. 16-60세의 정남(丁男)은 모두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번상하는 정병을 재정적으로 돕는 봉족(奉足)이 되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군호(軍戶)의 편성이었다.[181] 이 제도는 세조 때에 군액 확보작업이 추진되면서 이른바 보법(保法)으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정남 2명을 1보로 해서 군호의 기본단위로 삼아 갑사(甲士)』 정병(正兵)』 수군(水軍) 등 병종에 따라 봉족의 수를 다르게 제한하여 그 경비를 마련케 한 것이었다. 그러나 뒤에는 대가를 받고 군역을 대신 치르는 대역자(代役者)가 생겼고, 이에 병조에서 군역의무자로부터 수포하여 이것으로 군인을 고용하는 제도가 나타났으며, 지방의 각 진관에서는 정병이 일정한 포를 진관에 바치고 군역을 면하는 방군수포(放軍收布)가 행해졌다. 그 부담은 농민생활을 압박하는 수준이었음은 물론이다. 지방군으로 영진군 이외에 수성군(守城軍)과 기선군(騎船軍, 수군)이 있었지만 이들은 일반 농민으로 돌아가면서 충원하였지만 16세기 이후가 되면 거의 정액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예비군적 성격의 잡색군은 향리, 관노, 무역백정(無役白丁), 공사천(公私賤)을 망라하여 내륙지방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제하였지만 실제의 전력으로 간주할 수는 없었다. 임진왜란은 이런 상황 하에서 일어났다.

180) 한희숙, 『한국사학』 8, 한길사, 1994, 141-142쪽.
181) 이종하, 「조선왕조의 봉족제(朝鮮王朝의 奉足制)」, 『영남대논문집』 사회과학편 9, 1976.

제2절 임진(壬辰)·정유왜란(丁酉倭亂)과 함평

1. 임진왜란의 발발과 전황

조선에 아무런 예고 없이 일본대군이 침략을 개시한 것은 선조 25년(1592) 4월 14일이었다. 일본은 이미 전쟁 전에 몇 번의 외교사절을 보내왔고 이에 대하여 조선에서도 통신사로 황윤길(黃允吉)과 김성일(金誠一)을 일본에 파견하여 외교적인 접촉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외교교섭에서 조선은 일본이 의도한 침략의 속셈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선린만을 희구하였다. 이리하여 외교교섭은 결렬되었고 일본의 침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에서 몇 사람의 무능한 수령을 교체하고 영남과 호남지방의 연안을 중심으로 그 요해처에 성지(城池)의 수축과 무기의 정비에 힘을 썼다. 그러나 이것마저 민심의 동요만 일으켰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지하고 말았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외교교섭이 결렬되자 바로 침략군을 편성하기 시작하여 1진에서 16진까지를 육군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수군 약간을 두었는데 총 병력은 28만 1,800여명이었다. 이들의 선발대인 1진에서 4진까지는 3월 1일부터 그들의 본거지인 명호옥(名護屋)을 떠나 일기도(壹岐島)로 출발케 하고 5진 이하는 각기 인솔하는 대장의 근거지를 떠나 명호옥에 집결하는 시기를 정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들의 선발대 1만 7,000명을 군선 약 700여척에 싣고 부산포에 상륙했다. 일본군이 조선의 저항을 받지 않고 상륙했고, 이후의 전투에서 조선군이 실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이었다. 조선은 건국 이래 200년간의 평화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군정이 문란하고 군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또 실전의 경험이 전혀 없었다. 반면에 일본군은 오랜 전란을 겪어 전쟁의 경험이 풍부하였다. 특히 일본은 역사 이래 지속적으로 무장이 정국을 장악하는 등 무단정치를 펼쳐오고 있어 군사들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조직적인 군율에 익숙해 있는데다 수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선군은 이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게다가 조선 군대의 주무기가 활인데 비하여 그들은 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므로 조선군에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싸우기도 전에 패배의식이 팽배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관이나 군 지휘관은 일본군이 경내에 침입하기도 전에 도주하였다. 이것은 지배층에 불만을 품은 민중이나 군졸들이 반항하는 사례가 있어서 일본군을 대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왜군이 대거 쳐들어왔다는 변보(邊報)가 조선조정에 전달된 것은 난이 일어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다. 급보를 접한 조정에서 급히 대책을 논의한 끝에 임시변통으로 방어대책을 세우고 장수들을 해당 지역에 내려 보냈으나 인솔한 병력이 적어서 적을 맞아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수령들도 각자 소속군사를 이끌고 경장(京將)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군량이 떨어지고 적이 박두하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흩어졌다. 조선의 관군은 요해처에 진을 치고 왜군을 맞아 싸웠으나 패했고 적은 부산진을 침입한 지 보름 남짓한 기간에 서울까지 도달하였다.

일이 다급해지자 선조는 왕자를 여러 도에 파견하여 근왕병을 모으게 하고, 국왕이 서행(西行)에 나서기에 앞서 이양원(李陽元)을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삼아 도성을 지키게 하고 김명원

(金命元)을 도원수로 삼아 한강을 지키게 하였으나 병력이 적어서 적을 막아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4월 30일 밤에 왕은 서울을 떠났고 소서행장의 1번대와 가등청정의 2번대가 각각 5월 2일과 3일에 서울에 당도하였다. 도원수가 한강수비의 어려움을 알고 임진강으로 물러나자 유도대장도 도성의 방어를 포기하고 물러났다. 개성에 머물고 있던 국왕일행은 도성이 왜군에게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평양으로 옮겼으며, 김명원의 임진강 방어마저 실패하여 개성이 함락되고 적이 계속 북침하자 평양수비도 포기하고 의주로 옮겼다. 임진강 패전에 이어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하삼도(下三道)의 대군마저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 북상도중 용인·수원 사이에서 대패했다. 관군에 대한 기대는 절망적이었다.

임진강을 건넌 왜군은 3군으로 나누어 소서행장군은 평안도 방면으로 침입하여 6월에 평양을 점령하고 본거지로 삼았으며, 함경도로 침입한 가등청정의 군은 함경감사 유영립(柳永立)을 포로로 하고 임해군과 순화군 두 왕자도 반민(叛民)에 의해 포박되어 적진에 인도되는 등 도 전체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3번대의 주장 흑전장정(黑田長政)의 군은 해주를 본거지로 삼고 대부분의 고을을 침범하여 분탕질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6월 이후 8도 전역에서 의병과 의승군(義僧軍)이 봉기하여 무력한 관군을 대신하여 적군과 싸웠고 수군 또한 활약이 커서 전세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트이기 시작하였다.

2. 의병의 봉기와 함평출신 의병의 활약

의병이 봉기하게 된 동기는 관군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국토가 적에게 짓밟히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가자 동족을 구하고 스스로 향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이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자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의병장은 대개가 전직관원으로 문반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무인들은 소수였으며 덕망이 있어 지방에서 추앙을 받는 유생들도 있었다. 의병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민족적 저항의식이며 이를 촉발시킨 것이 의병장이었고, 유교의 도덕적 교훈인 근왕정신이 오랜 유교교육을 통하여 깊이 뿌리를 박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3도의 관군이 무너지자 조정에서는 초유사(招諭使)를 각 지방에 파견하여 관군의 재건을 위한 근왕병의 궐기를 외쳤으나 백성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민이나 천민들의 일부는 관권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항은 왕이 서울을 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에서 이제 국가는 망할 것이라는 생각에 연유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영남에서 곽재우가 4월 22일에 의병을 일으키자 김면·정인홍 등이 뒤를 이어 의병을 규합했고, 이와 거의 동시에 호남에서는 김천일·고경명 등이, 호서에서는 조헌 등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의 대부분은 전직관료이거나 유생이며 이들이 근왕창의를 부르짖고 궐기하면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민중이 스스로 모여들어 의병진을 형성하였다. 이들 의병장은 단독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수의 의병집단은 보다 명망있는 의병집단에 통합되어 대부대의 의병군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의병의 궐기를 창도한 의병장과 이에 호응하는 의병들 사이에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경제적인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을 한 덩어리로 뭉치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의병장은 대부분 양반 중에서도 문반출신이며, 전직관료라 할지라도 야인(野人)으로 있었고, 지방의 거족인 이들이 평소에 배운 것은 유교의 도의적 교훈을 실천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이 유교에 연유한 도의적 교훈인 근왕정신은 지방의 유력 층인 유생들 사이에 팽배하였고 이들은 지방의 수령과 무장들의 무능과 비겁함에 격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병들의 궐기는 향토와 동족의 방어를 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일본의 야만성에 대한 민족감정의 발로였다. 유교적 윤리를 철저한 사회적 규범으로 하고 있었던 조선은 고려 말부터 왜구의 계속적인 약탈행위로 인하여 일본인을 침략자로 여겼으며 문화적으로 멸시하여 <왜> 또는 <섬 오랑캐>라고 불렀다. 이러한 일본인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민족적 저항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의병의 봉기였다.[182] 의병의 바탕을 이룬 것은 민족의 저항정신이며 이를 촉발시키고 조직화시킨 것이 각 지방의 의병장이었다. 그들은 각 지방에서 사회의 상층부에 있으면서 정신적인 지도층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중·소지주 층으로 농민들과는 토지를 매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군의 향토침입은 바로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

한편 일반 민중들은 관권에 의한 강제징집으로 무능한 장군의 지휘를 받아 전국의 전선을 전전하며 싸우기보다는 평소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의병장의 휘하에서 싸우기를 바랐던 것이며 향토 주변에서 부모와 처자를 보호하기에는 관군보다 의병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였다. 조정에서도 의병의 봉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의병을 공적인 군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일반 민중의 의병진 참가는 줄을 잇게 되었다.

각 지방의 의병봉기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수군의 연전연승이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경상도 좌·우수영의 수군은 일본군에 단 한번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져버렸다. 일본수군은 그들 육군의 북상에 호응하여 남해에서 서해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라 좌·우수영의 수군은 남해안에서 일본수군을 쳐부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이 침략의 거점으로 삼고 있던 부산까지 작전범위를 넓혀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군은 보충 병력이나 군수품의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들의 사기는 점차 저하되어 갔다.

의병을 널리 일어나게 한 것은 또한 조정의 의병장에 대한 직첩의 부여였다. 임진란 직후 조정에서는 관군의 모병을 위해 각 도에 선전관이나 안집사를 파견하여 모병에 노력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인 의병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이들을 격려하고 공적인 군대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5월말이나 6월초였다.

이 소모의병에는 왕세자의 힘이 컸다. 7월에 세자가 친히 쓴 글이 의병장 김천일에게 전달되고 이어 의병의 궐기를 촉구하는 격문이 각 도에 전달되었다. 소모의병은 의병봉기에 중대한 계기를 이루었다. 문치를 이념으로 하고 관료에 의한 통치를 시행하고 있었던 조선왕조에서 개인이 사병을 모집한다는 행위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반역에 해당되며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처음 곽재우가 의병을 규합하고 있을 때 합천군수 전견룡이 곽재우를 역적으로 조정에 보고

182) 최영희, 「일본의 침구(日本의 侵寇)」,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295쪽.

하고 의병에 참가한 자를 흩어지게 한 것은 관군과 의병간의 불화 등에도 원인이 있었으나 아무리 전시라 할지라도 사병을 모집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통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호남에서도 고경명과 김천일이 의병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고려되어 유명무실하기는 하지만 관군이 있었으므로 의병의 봉기를 주저하였던 것이다.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이른바 정여립 모반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병의 봉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고경명이 전라도순찰사인 이광의 2차에 걸친 징모 령에 전적으로 협조하였던 일은 이러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조정에서 이를 헤아려 신속히 정여립 모반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사면령을 내려 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도 하나의 커다란 장애를 없애는 적절한 조치였다.

그 위에 조정에서는 각처의 의병장에게 이례적인 벼슬과 상을 내려 의병을 고무하였다. 의병장의 대부분은 전직관료이거나 아직 벼슬을 구하지 못한 유생과 서얼이었다. 그들이 희구해 온 것은 관직의 획득이었으므로 조정에서 의병장에게 관직을 부여한 것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모든 의병장이 전직관료라 하더라도 호서의 심수경을 제외하고는 고급관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바랐던 것이 현직에의 복귀나 보다 높은 관직이 획득이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의병장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고 농민이나 천민에 있어서도 그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비변사에서도 민심의 안정이나 국가멸망의 위기에서 의병의 역할이 관군보다 크다고 보고 의병을 권장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리하여 의병장에게는 벼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하였다. 의병이 작전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군기와 군량을 공급했고 저명한 의병장에게는 수령과 동등한 대우를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의병장은 지방에서 수령에 못지않은 위엄과 권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기에 전라도 의병장인 고경명의 의병군에는 수령과 무장이 그 휘하에 들어가기도 했고 관군과 의병군의 협동작전이 별로 잡음이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의병의 전략이나 전술은 고경명과 같이 대부대로 정규전을 펼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예외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지리와 지세를 이용한 유격전을 펼쳤다. 이는 의병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후방을 교란하여 전의를 상실케 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임란초기에 큰 역할을 수행했던 의병은 전란의 장기화에 따라 점차 변질되어 갔다. 선조 25년(1592) 10월 이후에는 각 지방에서 의병이 우후죽순 같이 일어나고 이들 의병이 난립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켰다. 또한 의병 중에는 명목뿐인 의병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의병이 변모된 것은 임란초기에는 각 지방에서 명망이 두터운 의병장이 봉기하였으나 이후에는 이들을 대신할 만한 의병장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군의 징모를 꺼리는 의병들이 의병장으로서 적격유무를 헤아리지 않고 이름 없는 의병장의 휘하에 모였기 때문이다. 100여 진에 이른 의병 중에는 안전한 곳에서 영세한 적이나 쫓고 전공을 탐내거나 관군과 대립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등 국가의 통제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국가에 해독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졌다.[183]

조정에서는 이러한 의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난이 일어나던 해 10월부터 논의를 거듭하여 남도의병을 우성전(禹性傳)으로 하여금 통솔시키려 하였고, 또 경기·충청·전라도의병을 권율

183) 『선조실록(先祖實錄)』 권 32, 선조(先祖) 25년 11월.

과 권징에게 분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직 우의정 심수경이 의병장을 칭하게 되자, 그로 하여금 모든 의병을 통솔케 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의 일련의 조치에 의하여 의병의 통합이 명목상으로는 이루어진 것 같았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각지에 의병이 난립하였고 그들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이다.

선조 26년에 명나라의 본격적인 원군이 조선에 이르러 관군과 명군에 의하여 평양이 회복되고, 위축된 일본군에 대한 대규모의 반격이 시도되자 조정에서는 전투를 담당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군량을 나르기 위하여 의병을 쓰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의병의 전투역할이 감소되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군도 군량의 부족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병에게 군량을 공급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의병은 스스로 군량을 마련하거나 백성들의 자진납부에 의지해야 했다. 그러나 전란에다 기근이 겹쳐 경기·전라·경상도에서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는 등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 있어 의병에게 군량을 내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의병은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도망병이 줄을 잇게 되어 의병 중에는 떼도둑으로 변하는 일조차 있게 되었다.

관군과 명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전란이 초기와는 달리 관군의 권위가 높아지고 민심이 안정되면서 의병의 존재가치는 떨어졌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각 지방의 의병을 관군에서 흡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군이나 수령의 강력한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조 26년(1593) 조정의 의병 관병화(官兵化) 조치에 따라 상당수의 의병장은 관인(官人)이 되었다. 원래 의병장은 관인 지향적이어서 조정과의 연관을 희망하였다. 의병장 중에는 소기의 목적을 이룬 자도 있었고 전투 중에 순국하여 사후에 보상을 받기도 하였다. 정월에 조정의 대신들이 관군과 명군만으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의병은 쓸모없는 군대'라고 공언할 만큼 의병은 질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후기에 이를수록 의병장의 질적 저하와 관군에서 도망했거나 이기심에서 의병에 참여하는 등 의병의 저질화가 가속화되어 의병에게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또 설사 훌륭한 의병장이 대국적 견지에서 행동하려해도 의병들의 집단의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진퇴가 임의적으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의병군은 갖가지 폐단을 일으켰고 전란중의 기근으로 의병의 난행이 점점 늘어났다.

임진왜란 중 집단적인 약탈이 시작된 것은 당년 겨울부터였다. 그리고 시일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다. 전란으로 질병과 기근이 심해지자 의병 중에는 떼 지어 관을 습격하여 관곡을 약탈하는 가짜의병도 나타났다. 전란으로 인한 관권의 공백상태와 관의 권위상실로 말미암아 초기부터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반관적(半官的) 경향이 특히 심했던 함경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민심이 불온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 후 기근과 질병이 만연되자 반란의 온상이 되었고 모처럼 의병군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식량의 부족으로 도망자가 뒤를 이어 의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

의병 최후의 저명한 의병장은 김덕령(金德齡)이었다. 그는 선조 26년 12월 광주에서 기병하니 조정에서도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아니하여 충용장(忠勇將)이란 칭호를 내렸다. 그리고 전국에 난립한 의병진을 통합하기 위하여 8도 의병대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군량확보의 어려움으로 3,000여명의 의병 중 500여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귀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에는 500명의 군량확보도 어려워 둔전을 계획하였으니 식량문제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때마침 이몽학(李夢鶴)의 반란이 일어났고 김덕령이 이 사건에 관계가 있다는 무고에 의하여 희생을 당한 후에는 의병장이 존재하였어도 이미 의병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임진왜란 중의 의병처럼 외적의 침입과 그들의 점령 하에서 광범위하고도 자발적인 저항이 일어났던 경우는 거의 없다. 더욱이 의병은 관군이 괴산되고 조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무정부적인 혼란한 사회에서 침략군의 격퇴와 근왕을 목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 집단을 이루어 봉기하였다. 당시 일본군의 미 침략기지인 전라도와 일본군이 유린한 경상·함경도에서의 의병봉기는 더욱 의미가 컸다.

전라도 의병이 봉기하게 된 것은 이광(李洸)의 용인패전 이후이나 그에 앞서 순창의 양사충(楊士衡)의 구국거의(救國擧義)가 주장되었고 그 후 전주 유생들이 궐기하여 전라좌도의 여러 고을에 통고문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또한 전라도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이는 유팽로(柳彭老)였다. 그가 서울에서 남하하여 옥과의 고향으로 내려오던 중 순창에서 반민이 집결하여 순창읍을 공격하려는 것을 설득하여 의병대장을 자칭하고 그들을 인솔하여 옥과에 이르렀으나 전투를 담당할 만한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의병이라기보다는 불량배의 집단이었기에 유팽로는 의병장을 자칭하였지만 그들을 인솔하여 전투장에 나갈 수 없었다. 유팽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고경명을 비롯한 최경회·김덕령·양대박 등을 설득하여 의병군을 형성코자 그들을 순방했다.

이와는 별도로 나주에서 김천일(金千鎰)이 서울함락의 소식을 접하고 고경명·박광옥·정담·최경회 등에게 글을 보내 거의를 촉구하였고 5월 6일에는 고경명과 담양에서 만나 거의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들 의병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동을 같이 하지 못하였다. 김천일은 양산숙·양산룡·임권·서정후 등 주로 나주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의병장으로 추대한 뒤 의병 300여명을 모아 훈련과 장비를 갖춘 후 북상하였고 진군도중 그 병력은 700여명으로 늘어났다.

1) 금산전투와 함평의병

6월 25일 고경명(高敬命)의 의병군이 여산에 이르렀을 때 왜군은 황간으로부터 금산에 침입하여 이곳에서 전주로 침입코자 하였다. 고경명을 비롯한 여러 의병장들의 북상의지와는 달리 왜군의 전주침입 기도에 대하여 의병들의 거의 모두가 "전주는 호남의 근본이기 때문에 금산의 왜군을 먼저 격멸하여 전주를 구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의병들의 주장에 대하여 고경명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이 요청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이의 성공을 위하여 호서의병장 조헌에게 금산의 왜적을 합심하여 공격하자는 격문을 보냈다.

금산에 침입한 왜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권율과 동복현감 황진의 관군 1,500명은 금산서편의 이치(梨峙)에 진을 치고 있었으며 김제군수 정담, 해남현감 변응정, 의병장 황박 등의 군대는 금산 남쪽의 웅치에 진을 쳐서 왜장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의 부대와 대진하고 있었다. 소조천융경의 부대는 경상도의 성주·선산·김천 등을 거쳐 서울에 유진하고 있었고 그 별대를 안국사(安國寺) 혜경(惠瓊)의 지휘 하에 유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조천융경은 왜장들의 작전회의에서 전라도 방면을 담당하게

되어 먼저 별군으로 하여금 남원을 유린한 후 전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경상도 의병장 곽재우의 군사들에 의하여 그 진로가 저지되었다. 소조천융경은 서울에서 이 소식을 듣고 서울을 떠나 청주를 거쳐 남하하게 되었고, 안국사 혜경은 할 수 없이 성주를 우회하여 소조천융경의 군대와 합류하여 전라도에 침입키로 하였다. 즉 왜군의 1대는 지례와 거창을 치고 또 별대는 횡간과 영동을 거쳐서 무주에 침입한 다음 계속해서 금산을 공격했는데 금산군수 권종은 이들을 맞아 선방하였으나 끝내 장렬하게 전몰하였다. 이리하여 금산에 안국사 혜경이 유둔하게 되었다. 그는 의령에서 곽재우의 의병군에게 패배하여 치욕을 만회하기 위하여 용담과 진안을 공격한 다음 웅치를 넘어 전주로 진공하려 하였고, 또 별군 1,000여명은 금산에 진을 치고 이치를 거쳐 전주로 침입코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금산에 유둔한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권율이 이치를 지키고 있었고 웅치는 김제군수 정담이 방어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웅치전투(7-8일), 이치전투(8일), 금산전투(9-10일)의 처절한 싸움이 전개되었다. 7일과 8일의 웅치전은 정담과 휘하 장병이 사력을 다하여 방어하다가 백병전을 전개하여 적을 무찔렀으나 중과부적으로 정담 이하 많은 장병이 전사하고 방어진도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치전투에서는 권율과 황진의 군대가 적을 마침내 격파함으로써 전라도 보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경명의 의병군이 진산에서 전군을 재편성하여 1진을 그곳에 두고 본진으로 삼고 유팽로를 선봉장으로 안영(安瑛)을 후군장으로 삼아 7월 8일 금산성을 향하여 출진하였다. 그런데 금산성의 공격에 전라도방어사 곽영(郭嶸)과의 합동작전이 약속되어 있었으므로 그들과 공격부서를 상의하여 관군은 북문을, 의병군은 서문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다. 10일 전투에서 일본군은 관군진이 취약함을 알고 이곳에 집중공격을 하자 방어사 곽영 휘하의 영암·광주·흥덕의 여러 관군진이 무너지자 이에 의병진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되어 패퇴하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고경명을 비롯하여 그의 차남 인후(因厚), 부장 안영·유팽로 등 여러 의병장은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이 전투에서 비록 의병군은 패배하였지만 생존한 의병들이 유능한 권율 장군의 막하에 편입 수습되어 이치의 지세를 이용하여 왜군의 전주침입에 쐐기를 박아 이들을 격퇴시킬 수 있었고 문홍헌의 예와 같이 최경회의 의병활동에 기여하는 의병들이 많았다. 한편 왜군이 금산 전에서 승전은 하였으나 전주침입의 예기가 꺾이어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때 이치전과 금산전은 각기 따로 전개되었지만 소조천융경은 고경명 의병군의 금산진격에 따른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치의 공격을 단념하고 바로 금산으로 물러났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경명의 의병군은 이치의 권율 군에 적절하게 부응하여 측면에서 도움을 주었고 그들이 바랐던 향토방위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웅치·이치·금산전은 관군의 공주회전과 용인패전의 거듭된 실패로 의기소침하고 왜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던 전라도의 관군과 의병에 실전의 경험과 승리에의 확신을 안겨주어 왜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전투였다고 할 수 있다.

웅치·이치·금산전투로 일본군의 전라도침입이 저지되고 전라도의 인적·물적자원이 보전되어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였다. 또한 이순신과 이억기의 수군기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서 해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안겨다 준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권율 스스로도 이 웅치전을 행주산성의 승리보다 값진 것으로 평가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전투에 가담한 부대를 간추려 보면 충청도 옥천에서 기병한 조헌, 나주의 김천일, 광주의 고경명, 장성현감 이귀(李貴), 순창현감 김제민(金濟民) 부대들이다. 금산 1차전(7월 9-10일)과 2차 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운 함평출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귀지(姜貴知, 진주) 선무원종 2등 공신에 책록되었다.
◇김의생(金義生, 광산) 전사함.
◇노성니(魯省尼, 함평) 전사함.
◇박광조(朴光祖, 호 지봉-砥峯. 밀양) 1588년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를 지냈으며 임진란이 일어나자 아우 박광종(朴光宗)과 더불어 의병을 모아 고경명 휘하에 가담하여 전공을 세우고 전사했으며 둘 다 선무원종 공신에 책록되었다.
◇박응주(朴應柱, 밀양) 전사.
◇이방필(李邦弼, 함평) 전사.
◇이 원(李 轅, 함평), 이령(李軨, 원의 아우), 이가(李軻, 원의 원우)
3형제가 의병과 의곡, 노복 10여명을 거느리고 고경명 휘하에 들어가 많은 무공을 세웠으며 금산전투에서 모두 순국하였다.
◇정 유(鄭維, 나주)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고경명 휘하에서 싸우다가 금산전투에서 전사.
◇정인세(鄭仁世, 나주)
정유와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
◇정 회(鄭繪, 호 : 송계-松溪, 본관 : 나주, 1564-1592)
◇정민수(鄭民秀, 호 : 월암-月岩, 1569-1592, 회의 삼종제)
회와 민수는 의병 105명을 모집하여 의주로 가려다가 조헌이 공주에서 의기를 내걸고 영호남 의사들에게 격문을 띄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묘에 나아가 나라를 위해 의롭게 죽기를 맹세하고 조헌의 막하로 달려갔다. 민수는 일찍이 조헌에게 사사한 적이 있어 환영을 받았고 회는 조헌과 초면이었으나 사람됨이 비범함을 인정받아 편장을 삼았다. 형제는 청주전투에서 최선봉에 분정하여 청주를 탈환하는데 공을 세웠다. 7월 18일 제2차 금산전투에 이르러 권율 장군의 원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수많은 왜군이 공격해왔다. 이때 조헌이 "오늘은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생사진퇴에 마땅히 의에 부끄럼이 없이하라"는 군령을 내렸다. 이 군령에 의해 비록 수는 적으나 모두들 용기를 내어 싸웠다. 그러나 화살이 다 떨어지고 기진하여 더 이상 적을 막을 수가 없게 되자 적군이 군막 안으로 몰려들었다. 조헌은 전사할 때까지 북을 치며 독전하였다. 이 모습을 본 두 형제는 "스승과 함께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며 다시 기운을 내어 적과 분전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회와 민수 모두 선무원종 3등 훈에 책록되고 오산사에 배향되었다.
◇홍희준(洪希俊, 풍산)
고경명 휘하 별장으로 참전하여 순절하였다.

2) 남문창의(南門倡義)와 함평출신 의병들

고경명 의병부대가 금산전투에서 참담하게 패전함에 따라 의병부대를 이끌었던 대부분의 주전(主戰)인사들이 전몰하고 장수를 잃은 의병들은 지리멸열 해산되었다. 전라도에서는 일부의 관군이 남아 있었을 뿐 군사적인 공백지대가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공백을 메우고자 감연히 봉

기한 의병이 화순의 최경회(崔慶會), 보성의 임계영(任啓英), 장성의 김경수(金景壽) 의병장이었다.

당초 임진란 때 전라도의병의 주류를 이루었던 의병장은 김천일·최경회·임계영이었지만 이 밖에 또 다른 한 사람 김경수가 장성 남문에서 의병을 규합하고 있었다.

★ 금산 700의사 패몰의 소식을 전해들은 김경수는 7월 19일 장성현 남문에 의병청을 세우고 전라도 각 지방에 격문을 보냈다. 각 처에서는 이에 즉각 찬동하고 호응하여 의병과 군량미가 모아졌다. 8월 24일에는 군사 239명, 군량 190석 2말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너무 적어 "호랑이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격이 되고 만다."는 김경수의 말에 다시 각 지방으로 돌아가 더 많은 의병과 곡식을 모으고 나섰다.

임진년 11월 17일 남문의병은 맹주 김경수, 의병장 김제민(金齊閔), 부사(副事) 기호간(奇好諫), 참모 김홍우(金弘宇), 종사(從事) 윤진(尹軫), 의곡장(義穀將) 기호증(奇好曾)이 부서를 담당하여 의병부대를 편성한 후 11월 24일 북상을 개시했다. 이 때 남문의병청에 모인 의병 수는 1,651명, 군량은 490석이었다. 이들은 김제민을 의병대장으로 옹립하여 그를 선두로 장성을 떠나 북쪽으로 진격하였다. 김제민 의병부대는 작전활동을 벌이며 용인까지 진격했으나 군사적인 교전이나 성과는 별로 없었다. 김제민 남문의병은 12월 15일 당시 수원과 안성 사이에 주둔하고 있었던 변이중(邊以中)의 소모사군(召募使軍)과 병합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남문의병은 오히려 외적보다는 혹한과 군량결핍으로 더 이상 의병부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자 다음 해인 선조 26년 정월 중순 회군을 결정하고 장성으로 되돌아와 의병활동을 벌이다 해산했다. 제1차 남문의병부대 창의활동은 이렇게 끝났다.

이러한 남문창의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201년 후인 1794년에 세운 "오산남문창의비(鰲山南門倡義碑)" 한 대목에, "…장성인 김경수가 금산의 패전소식을 듣고 기효련(奇孝鍊), 윤진과 같이 장성 남문에서 창의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니 이에 장성에서는 정운룡(鄭雲龍), 영광에서는 이응종(李應鐘), 고창에서는 김홍우(金弘宇), 태인에서는 이수일(李守一), 담양에서는 김언조(金彦助), 나주에서는 김경남(金景男)·김부(金溥)·홍원(洪遠), 함평에서는 정절(鄭嶭), 부안에서는 김억일(金億鎰)·김해(金垓)·김홍원(金弘遠), 무안(현재 함평)에서는 윤황(尹趪), 정읍에서는 유희진(柳希津), 무장에서는 김성진(金聲振)이 다투어 호응해 자제(子弟)와 가동(家僮), 그리고 마을 젊은이들을 모으니 2,000여명에 이르렀다 …"고 기록되어 있다.

★ 남문 「창의일기(倡義日記)」에는 의병조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1592년 7월 28일. 정읍의 유희진, 태인의 이수일, 무안의 윤황, 나주의 김단·김명·김경남·김홍원 등이 차례로 도착하니 그들을 따라온 의사가 100여명이었다.」

△ 「8월 25일. 함평의 정충량·정득량이 찾아왔다.」

△ 「9월 24일. 윤황의 편지가 도착하였는데 병사 72명, 군량미 25석, 소 2마리, 말 9필을 모았다고 한다.」

△ 「11월 10일. 윤황이 의병 89명, 군량미 32석, 장편전(長片箭) 17족을 가지고 왔다.」

△ 「11월 11일. 정절이 의사 57명, 군량미 28석, 말 2필, 예환(銳丸) 7개, 장편전 42족을 가지고 왔다.」

★ 남문을 출발하여 북상한 의병창의군 활동에 대한 「창의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1592년 12월 19일, 직산에서 이여송에게 패하여 내려오던 왜군을 만나 대파하였다. 직산읍으로 진군하다가 왜적 수백 명을 만나 오랜 시간 싸운 끝에 수십 명을 죽여 진문에 매달고 김제민 의병장이 좌우병사들에게 말하기를 '의거한지 몇 달 만에 겨우 왜적 수백 명을 죽였으니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아직 싸움의 승패는 가히 추측할 수 없다.」

△「1593년 1월 10일, 이여송에게 패하여 돌아오는 소서행장 부대를 용인에서 만나 크게 격파하였다. 이후 적과의 화의(和議)가 대두되자 남문창의병들은 장성으로 돌아와 해산하였다.」

★ 남문의병은 다시 같은 해(1593년·선조26년) 5월 말 일본군이 관군과 명군의 추격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경수 의병장을 중심으로 제2차 의병투쟁을 펼치고자 의병을 모집하고 나섰다. 이 때 김신남(金信南)·김광우(金光宇)·김언희(金彦希) 등이 적극 참여했으며 특히 장성현감 이귀의 협력이 컸다. 6월 2일. 윤황이 의사 100여명과 군량미 70석을 보내왔고 또한 김익웅이 합세하였다. 이렇게 모집하여 편성된 제2차 남문의병부대는 선조 26년(계사년) 6월 7일 장성을 출발하여 동월 15일에 진주에 도착했다. 여기서 미리와 있던 고종후 부대와 합류하여 진주성 전투에 참가하여 처절하게 싸우다가 산화하였다. ★ 제3차 남문의병부대의 창의활동은 정유재란 때인 1597년(선조 30년) 8월, 남원이 위기에 처했다는 급보에 접한 김경수가 김신남을 시켜 의병부대를 결성하게 하였다. 그들은 제1차 활동 때와 같이 북상하여 안성에서 교전한 후 9월 15일 귀향하였다.

이와 같이 3차에 걸친 남문의병부대의 창의활동은 다른 의병부대와 같이 전과 면에서는 그렇게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의병을 규합하여 내 고장,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맨주먹으로 투쟁했던 숭고한 애향·애국심의 발로였다. 이 때문에 그들의 조국수호와 민심안정이라는 당당한 역할수행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충절을 기리기 위해 1794년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에 창의비와 비각을 세웠고 북이면 직도리에는 사우를 세웠으며 이 사우는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철폐되었다가, 1932년 북이면 모현리에 복원했으나 일제의 억압으로 향사(享祀)치 못했다. 드디어 1946년 해방과 더불어 69위를 봉향해 오다가 1981년부터는 향사(享祀)일을 음력 9월 15일에서 2월 27일로 바꾸고 사우명칭도 "오산창의사(鰲山倡義祠)"라 하였으며 1982년에는 오산사 묘정비(廟庭碑)를 건립했다. 오산창의사에 배향된 분들의 활동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김익웅(金翼熊, 호 : 월포-月圃, 본관 : 김해)=정유재란 전공자를 참고할 것.

◇김덕생(金德生, 호 : 모재-慕齋, 김익웅의 아들)=김익웅과 김덕생 부자는 의곡과 의병을 모아 남문의병과 합세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윤 황(尹趪, 호 : 노파-老坡, 본관 : 파평)=남문창의 격문을 받고 7월 28일에 의병과 의곡을 가지고 남문 창의소로 달려간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옥동출신 의병장이다. 그는 창의소에서 다시 향리로 돌아와 11월 10일 의병 89명, 군량미 32석을 가지고 창의소로 다시 가서 합세하였으며 직산전투에서는 적 수십 급을 베는 등 큰 무공을 세웠다. 다음해인 1593년 용인전투를 거쳐 의병이 해산하자 향리로 돌아와 700여석이나 되는 의곡을 모아 행재소에 보냈다. 제2차 남문창의에 수많은 의병과 참전하여 진주성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히 순국하였다. 옛 기록에는 옥동이 당시에 무안현이었으므로 무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원개(李元愷, 호 : 원재-遠齋, 본관 : 함평)=학문이 뛰어난 나산면 초포리 출신으로 의곡을 모아 남문 의병청에 보냈으며 난리가 평정된 후 여러 번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서 후학지도에 평생을 바쳤다.

◇정득량(鄭得良)=이순신 휘하의 의병을 참조할 것.

◇정충량(鄭忠良)=이순신 휘하의 의병을 참조할 것.

◇정 절(鄭 嶰, 호 : 월촌-月村, 본관 : 진주, 1536-1597)=의병 57명, 군량 28석을 모아 남문의병청으로 가서 김경수, 이귀 등과 전략을 세우고 휴병족식(休兵足食)에 대한 10개조를 작성하여 보냈다. 의병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군율을 엄격하게 한 후 의병장 김제민과 함께 직산 전투에서는 적장 2명과 병졸 수십 급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진위(振威) 전투에서는 적 정찰병 15명을 사로잡아 그중 13명을 포살하고 2명을 놓아 주는 전과를 올렸으며 그 후 향리로 돌아와 의곡과 모시베를 행재소로 보냈다. 정유재란 때는 90세 노모에게 화가 미칠까 염려하여 가족과 마을사람을 이끌고 서울로 피난을 가던 길에 영광군 백수면 묵방포에서 적에게 붙잡혀 항거하다가 두 팔이 잘려 순절하였다. 어머니 함평 이씨, 부인 영광 김씨, 며느리 함평 이씨(정호인이 아내) 등은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하였고, 아들 호인과 호례는 일본으로 잡혀 갔으나 꿋꿋한 조선인의 의기를 보여 주고 귀국하였다.

3) 제2차 진주성 싸움과 함평출신 의병들

금산에서 고경명 의병군의 패보에 접한 보성에서는 전 현감 임계영·박광전(朴光前), 전정자 정은제(鄭恩悌), 진사 김여중(金汝重)·문위세(文緯世), 능성현령 김익복(金益福) 등이 합동하여 격문을 여러 읍에 발송하였다. 7월20일 임계영을 전라좌의병장으로 추대하고 문위세를 양향관(粮餉官), 박근효(朴根孝)를 참모관, 정은제를 종사관으로 삼고 호자(虎字)를 장표로 하였다.

이들 임계영의 좌의병군은 장흥·낙안·순천·구례를 거쳐 남원에 이르는 동안 장흥에서는 관청의 방해도 받았고 낙안에서도 의병군에 호의적이 아니어서 괴로움도 받았지만, 순천에서는 무과출신의 전 만호 장윤(張潤)이 참여하고 부장(副將)으로 활약하여 좌의병군의 전략과 전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들 전라도 좌·우의병군은 남원을 거점으로 금산·용담·무주·진안·장수 등 왜적에게 점령되어 있는 지역의 왜군과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영남의병장 김면과 우도관찰사 김성일이 전라도관찰사와 전라 좌·우의 병장에게 각각 경상도 내원(來援)을 요청하였다. 전라도 의병군의 영남지방 출병과 부원(赴援) 요청은 1차적으로는 전라도지방에 본격적인 적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라도는 아직 적의 침입을 받고 있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관군과 의병모집, 그리고 군량미조달과 경상 우도에서의 피난민 대거유입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거듭되고 있던 때였다. 바로 전라도 의병은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향토수호가 목전에 닥쳐온 왜적만이 아니라, 나라에 침입한 왜적을 물리치는 것 역시 향토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의식을 갖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그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을 때 오직 전라도만이 국토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생각을 사림(士林)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차의 진주성 전투는 임진년 10월에 일본군 3만이 총공세를 펼쳤으나 진주목사를 비롯한 조선관군의 용전분투로 그들을 패퇴시킨 곳이다. 일본군은 기회만 있으면 다시 대

군을 투입하여 진주성을 공략하여 그들의 실추된 위신을 되찾고 패사한 왜군의 한을 풀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또한 진주가 호남으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이었기에 이를 공략하여 남방보급기지를 확고히 구축하여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영남일대에 있었던 일본군은 전열을 정비하여 창원을 거쳐 함안에 이른 다음 의령과 반성의 두 길을 따라 진주성에 육박하였다.

진주가 이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조선의 관군은 남하하는 왜적을 추격하여 영남에 주둔하고 있었다. 즉 도원수 김원명과 순찰사 이빈은 각도의 관병을 거느리고 선산과 의령에 있었고, 전라병사 선거이·충청병사 황진·전라방어사 이복남 등도 각기 군대를 인솔하고 이에 이르렀다. 전라감사 권율 또한 장졸을 거느리고 운봉을 넘어 창녕에 이르렀다.

한편 이여송의 명군은 서울에 진을 치고 있어 왜적을 추격하여 남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명군 측은 오히려 소서행장의 말에 따라 진주성의 공성(空城) 책을 제안하였다. 공성 책이란 진주성을 비우고 우리 군대가 철수하면 왜군과의 충돌을 피해 그들이 스스로 물러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왜군의 진주성공격에 대한 일시적 기만술책이라고 판단한 조선 관군 및 의병장들은 결코 현명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진주의 공성화 문제를 두고 조선의 관군과 의병장들이 함안에서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진주수호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가 노정되었다. 즉 20여만의 막강한 왜군을 대적할 수 없어 공성 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은 도원수 김원명, 체찰사 권율, 의병장 곽재우였고 공성 책은 기만술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죽음을 무릎 쓰고라도 진주성을 사수해야 한다는 쪽은 의병장 김천일을 비롯한 경상우병사 최경회, 충청병사 황진 등이었다. 불행하게도 양론은 끝내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분열되었다. 관군과 의병 그리고 명군의 연합전선을 펴서 대적하더라도 승리를 기약하기 어려운 정세에서 진주성의 사수문제는 각 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에 맡겨졌다.

이리하여 도원수 김명원, 체찰사 권율 등은 남원 운봉 등지로 떠났고 체찰사 이빈과 의병장 곽재우는 이곳을 떠나 원성현을 거쳐 서쪽 산음으로 돌아갔다. 또한 전라좌의병장 임계영은 사천에서 호남으로 돌아가고 그 외 전라병사 선거이 등 여러 장수들도 흩어져 버렸다.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외부에서 입성한 관군 및 의병부대 병력 3,000여 명과 본래부터 상주하고 있었던 병력을 재편성하여 수성구역을 분담시켰다. 의병장 김천일과 경상우병사 최경회가 주장이 되고 황진을 수성장으로 삼고 여러 도의 관군과 의병을 요소에 배치하여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이 수성에 있어서 김천일은 의병장들의 절제를 맡았으며, 최경회는 관군의 절제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드디어 6월 19일 10만 명에 가까운 왜적이 진주성 외곽을 포위하고 20일에는 동북산성에 출몰하고 나섰다. 고립무원의 진주성의 혈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적이 서북쪽 호수의 물을 빼고 흙으로 메운 뒤에 큰길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22일 오전 10시경에 시작된 전투가 밤중까지 계속되어 수성군은 왜군의 세 차례 파상공격을 선방하였으나 외원군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임우화(林遇華)를 구원특사로 보냈다. 그러나 실패했다.

23일에는 적이 호수의 물을 모조리 뽑아 길을 만들고 성벽의 초석을 파기 시작하였다. 이어 24일에는 적이 병력을 증강하여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25일과 26일에는 날이 갈수록

적의 공격이 치열해졌으나 수성군은 현자총통을 비롯한 화기(火器)로 대항하고 돌을 굴리는 등의 처절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피아의 공방이 계속되다가 29일 적이 성벽을 쇠막대로 파괴하여 동문을 통하여 침입해 왔으나 이종인과 그 휘하 장병이 물리쳤다. 그러나 적은 서북문도 같은 수법으로 공격해 오자 창의군이 밀리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촉석루로 장졸들이 후퇴하게 되는데 김천일은 큰아들 상건(象乾)과 양산숙(梁山璹)이 호위하고 최경회는 문헌홍이, 고종후는 김계휘·고경원이 부축하여 북향재배 후 남강에 투신하였다. 이종인·강희열 등 10여 명은 최후까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특히 이종인은 남강에 다다르자 좌우 팔에 적을 껴안고 "김해부사 여기서 죽노라" 외치고 남강에 투신하였다. 10일 간 계속된 진주성 전투는 왜적침입 후 최대의 비극이었다. 이 싸움에서 성을 끝내 사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왜군이 진주 서쪽으로 진격하는데 쐐기를 박았으니 호남을 지켜야 한다는 향토방위의 목적은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진주성 전투에 참전한 함평출신 의병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정 감(鄭瑊, 호 : 신재-愼齋, 본관 : 진주, 1562-1593)=단종 때 우의정을 지낸 정분(鄭苯)의 5세손으로 명종 때 대학자인 우계(牛溪) 성혼(成渾)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23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그는 학문뿐만이 아니라 무예가 특출하여 29세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부인 정현보와 함께 의병을 모아 함평을 중심으로 하는 향토방위에 힘을 쓰다가 김천일 부대에 합세하여 진주성 전투에 참전하였다. 진주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해있을 때 김천일 장군 부자가 순절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진주성 싸움의 용장인 나주의 의병장 양산숙 등과 촉석루에 올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북쪽을 향해 네 번 절을 한 후 부하 군사들에게, "왜적을 격퇴하기 전에 김천일 장군이 순절하였으니 우리 또한 장군의 뒤를 따를 뿐이다"라고 말한 다음 장검을 빼어들고 말 위에 올라 적진으로 돌격하였다. 이에 군사들도 용기백배하여 장군의 뒤를 따라 백병전을 전개하여 적 수십 급을 베었으나 중과부적으로 이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였다. 이 충절을 높이 사 선무원종 1등 공신에 책록하였고 1867년 학교면 마산리 표산마을에 충신문을 세워 그의 충절을 높이 기리게 하였다.

◇정기린(鄭麒麟, 별호 : 백자장-白字將, 본관 : 하동, 1570-1593)=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위엄이 있어 나이 15세 때에 무과에 급제하여 좌부장(左副將)과 사복내승(司僕內乘)의 직책을 역임하고 향리에 내려와 있던 중 임란이 일어나자 고경명의 격문에 호응하여 의병을 모아 백의(白衣)를 입고 백마(白馬)를 타고 백기(白旗)를 세워 삼백(三白)의 뜻을 표하니 그를 백자장(白字將)이라는 별호(別號)가 붙었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금산으로 가서 고경명과 합세하여 금산전투에 임했으나 고경명 등이 전사하고 성이 함락되자 고경명 장군에 대한 제사를 올리고 남은 의병과 함께 김천일 부대에 합류하여 남원 탈환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 백자장 부대라면 왜군들이 질겁하였다. 진주성이 함락될 당시 그는 거제 현령 김준민과 함께 마산포에서 진주성의 분패를 설욕하고자 적을 공격하였으나 김준민은 전사하고 그는 목숨을 건졌으나 싸움에서 진 장수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다며 자결하였다. 선무원종 공신록에 책록되고 인조 때 통정대부로 증직되었으며 후손들이 망운면 연리 저동과 함평읍 자풍리에 충효단을 지어 흠모하고 있다. 함평읍 수호리 송정 마을 뒷산에 묘소가 있다.

◇김몽희(金夢禧, 호 : 경봉-慶峯, 본관 : 상산)

◇김몽서(金夢瑞, 몽희의 아우)=몽희·몽서 형제는 의병을 모아 진주성 전투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으나 모두 전사하였다.
◇박수기(朴壽麒, 호 : 남포-南浦, 1545-1593)=김천일 휘하 의병으로 참전하여 진주성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며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후에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박언후(朴彦後, 본관 : 무안)=1592년 7월 영동(永同)·황간(黃澗)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고 진주성 전투에서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뛰어들어 투신자살하였다.
◇안 빈(安礩·호 : 외리정-外里亭, 본관 : 죽산)=김천일 막하에서 공을 세웠고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하였다.
◇윤 근(尹瑾, 호 : 퇴은-退隱, 본관 : 파평)=선조 때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임진란이 일어나자 7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서만 볼 수 없다며 김천일 창의소로 달려가 그의 원숙한 지략과 재능을 발휘하여 여러 차례 승전케 하는 공을 세웠다. 진주성을 지키려고 김천일과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성이 함락되는 비운을 맞았다. 그는 "80 나이에 군진에 뛰어 듬은 공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진실한 가훈에 따름이니 이 몸 부끄럼 없이 강물에 뛰어드노라"라는 글을 남기고 남강에 투신자살하였다. 후에 병조참판에 증직되고 정려의 은전이 내려 해보면 상곡리 송산 마을에 충열각을 세워 그 거룩한 뜻을 기렸다. 지금은 충열각이 오래되어 헐리고 없다.
◇장이길(張以吉, 호 : 야우-野憂, 본관 : 흥덕)=김천일 막하에서 활약하였고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3. 관군(官軍)의 승첩과 함평출신 전공자(戰功者)

1) 행주대첩과 함평출신 전공자

선조 26년(1593) 2월 한성 근교에서 벌어진 행주산성 전투는 명군의 벽제관 패전이후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잘 싸워서 일격에 일본군을 섬멸한 대표적인 전승이었다. 이 전투의 주장이었던 전라도순찰사 권율(權慄)은 휘하의 군사 2,000명을 인솔하여 용인의 광교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또한 양천에서는 전라도 소모사(召募使) 변이중이, 통진에서는 충청병사 허욱(許頊)이, 그리고 전라도의 창의사 김천일이 각각 휘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서울 탈환에 대비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한 후 한성수복을 위해 행주산성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명군의 공격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서는 조선군부터 퇴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행주산성에 주둔한 조선군이 명군의 한성(漢城) 진공작전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한강수로(漢江水路)를 이용해 명군에게 군량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일본군은 이를 저지하고자 3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행주산성을 공격하였다.[184]

행주산성의 전투는 병력과 조직, 그리고 군사들의 전술면에서 조선군이 일본군보다 훨씬 열세였다. 그러나 화력의 운용과 군관민이 일치된 항전의식에서는 조선군이 우세하였다. 특히 성

184) 장학근, 「임진왜란기(壬辰倭亂期) 관군의 활약」, 『한국사론(韓國史論)』 22, 1992, 93쪽.

중 백성들의 민보의식(民保意識)은 군민의 혈전과 독전하는 장수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케 함으로써 대첩을 거둘 수 있었다. 행주대첩의 승전보가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명군으로 하여금 한성수복에 임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명군은 조선 측의 기대와는 달리 강화교섭을 통하여 일본의 침략전쟁을 종결시키려 하였다.[185] 행주대첩에 참여한 함평출신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료가 드문 관계로 기록에 전하는 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채우령(蔡禹齡, 본관 : 평강)=현 무안군 해제면 출신으로 일찍이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3읍의 수령을 지냈으며 93명의 동지와 함께 권율 막하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전사하였고 선무원종 공신록에 책록되었으며, 후에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채종해(蔡宗海, 본관 : 평강)=현 무안군 해제면 출신으로 권율 막하에서 활동하였으며 행주산성 전투에서는 많은 적과 용전분투하여 전과를 올리다가 중상을 입자 적진으로 돌격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우춘(李遇春, 본관 : 함평)=대동면의 모정과 함께 의병을 모집해 동으로 출병하였다. 순천에 이르러 예교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그 후 행주싸움에 가담하여 많은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후에 선무원종 2등 공신에 책록되었다.

2) 이순신의 해전과 함평출신 전공자

임진왜란 때에 해전에서 일본수군을 격퇴하여 제해권을 장악한 조선의 수군은 전라좌·우수군과 경상우수군이었고, 특히 그 주력은 이순신이 이끈 전라좌수군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집권층은 조선의 수군으로는 해상에서 일본군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속단함으로써 처음부터 육상방위에 주력할 것을 고집해 왔다. 이는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일관된 흐름이었다. 즉 일본군이 해전에 능한 반면에 조선 측은 육전에 능한 것으로 오판하여 적이 쳐들어올 경우 그들을 육지로 끌어올려 대적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186]

그러나 해상방위에 대한 기본인식이 이와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뒷날 조선수군이 승리한 원인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세조 때부터 제도화되어 국방체제의 근간이 되어 온 진관체제가 명종 10년(1555년)에 있었던 왜구의 침입, 즉 을묘왜란(乙卯倭亂)을 전후한 시기에 제승방략이란 새로운 제도로 바뀜에 따라 해방(海防)체제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과거의 진관(鎭管)체제는 육상과 해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육상의 진관체제는 지방행정 단위인 읍 자체를 군사조직 단위인 진(鎭)으로 편성하여 각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군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겸하게 하였지만, 수군의 경우에는 행정구획과 관련시키지 않고 연해지역 요해처에 설치된 정규수군(正規水軍)의 진(鎭)을 묶어 연해지역의 읍까지 관할하는 진관조직으로 개편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종전의 진관체제 밑에서는 정규수군이 연해안의 각 진포(鎭浦)에만 소속되어 수군으로서의 자체임무만 수행했었지만 이제는 연해지역 각 읍에까지 수군기지를 설치하여 수사(水使) 관할 하에 둠으로써 수군은 물론이고 정규수군 아닌 일반주민들도 필요에 따라 비정규순

185) 장학근, 위의 글, 94-95쪽.
186) 『선조수정실록』 권 25, 선조 24년 7월.

군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종전의 해방체제를 크게 바꿔놓은 것이었다. 이것은 중종 5년(1510년) 삼포(東萊의 富山浦·熊川의 乃而浦·蔚山의 鹽浦)에 거류하던 왜인들이 변란을 일으킨 삼포왜란(三浦倭亂) 이후 자주 일어난 왜구들의 침입과 노략에 대비한 해방강화책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연해지역 전역을 수군 관할구역으로 묶어서 평소에 바다와 선박에 익숙한 주민들을 현지의 비정규수군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에서 46척에 달하는 포작선을 동원하였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군이 임란 전에 이미 전라도의 수군편제에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훗날 수군이 승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왜란 발발 1년 전인 선조 24년(1591) 2월 이순신(李舜臣)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였다.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후 이순신은 먼저 각종 군기(軍器)와 군사시설을 점검하고 번갈아 들며 나는 군사들을 점고하는 등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하기 시작하였다. 군기를 검열한 결과 관리상태의 부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소속 수군진의 담당 색리(色吏)는 물론 궁장(弓匠)·감고(監考)까지 처벌하였으며, 일개 토병이 작업 중 민폐를 끼쳤다 하여 엄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탈영자는 즉시 목을 베어 효시하였을 정도로 엄격한 군율을 적용하였다. 선조 25년 2월 하순에는 관내 제진(諸鎭)을 순시하며 군비상태를 점검하여 녹도를 위시한 각 진의 전투준비가 대체로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사도진에 많은 결함이 있자 이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왜란이 임박할 무렵까지 그가 군비를 갖추는 데 가장 관심을 쏟은 것은 거북선 건조문제와 수영 앞바다에 가설한 철쇠장치(鐵鎖裝置)였다. 철쇄장치는 3월 하순경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거북선은 일본군의 침공 직전인 4월 11일에 범포(帆布) 제작을 끝내고 다음날 선상에서 지자포(地字砲)와 현자포(玄字砲)를 시험 발사하였다. 이로써 수사 이순신이 부임한 후 1년간에 걸쳐 전라좌수군은 적침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철저히 완료한 셈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라좌수군의 경우 을묘왜변 이후에 도입된 새로운 해방체제에 의해 좌수영 관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신분층의 광범위한 수군병력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이순신이 부임한 뒤 수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전선·화포 등 모든 군비를 갖춘 다음 임란을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1·2차 출전을 통하여 남해에서 일본수군을 크게 격파하였을 때 육상에서는 이미 서울이 함락되었고 선조는 서울을 빠져나와 개성·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난하고 있었다. 육지의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나 적을 공격하였으나 일본군은 계속 북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이 바다에서 연패하자 풍신수길(豊臣秀吉)은 수군에게 총출동을 지시하여 단시일 내에 합동작전으로 조선수군을 격파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이 때 그들은 3대로 나누어 남해에서 전라도로 진격한 다음 서해로 북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들 간의 공명심 다툼으로 말미암아 합동작전이 무산된 상태에서 견내량과 안골포 해전에서 대패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수군 전체가 궤멸되고 말았다. 이 후 계속된 수년 간의 전쟁은 오직 풍신수길의 실망을 더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산대첩의 결과는 해전에서 뿐만 아니라 임란 전반의 전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한산도 해전은 일본군으로 하여금 제해권 장악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 전체를 반신불수가 되도록 하여 평양까지 진출한 소서행장군이 더 이상 일보도 전진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이 때부터 풍신수길은 일본 수군장들에게 해전을 중지하고 거제도에 축성하여 웅거하면서 기회를 보아 육지로부터 조선수군을 제압하는 작전을 모색케 하도록 지시하였다.

옥포 해전으로부터 부산포 해전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간에 걸친 초기해전에서 조선수군은 일본의 전선만 해도 약 330여 척을 격파하거나 불태워 없애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 아울러 그 결과는 해전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세에 있어서 조선 측으로 하여금 종래의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전의 승첩은 명장 이순신의 작전 지휘 밑에서 싸운 전라좌·우수군과 원균(元均)의 경상우수군이 연합작전을 펴 이루어낸 결과였다.

한편 조선수군의 전력은 실전을 수행한 군사들의 전투력에서도 월등하였다. 수군병력의 대부분이 해전에 강한 해안지방의 토착민이라는 점도 작용하였지만, 특히 수군편제 안에 연계된 비정규적 토병제도는 전투력증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평상시 수영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던 토병들은 전시에 수군진에 전속된 일종의 용병적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187] 이 같은 토병의 존재는 전라좌수군의 예를 통하여 확인되는데 분명한 것은 임진왜란 중 조선수군이 기능적 특수군까지 갖춘 상태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는 사실이다.

육상에서 의병이 일어난 것과 같이 해전에서도 해상에 익숙한 연해민(沿海民)들이 봉기하여 수군과 결합하였으니, 해상의병(海上義兵)이 바로 이들이다. 해전은 육전과는 달라서 전선과 특수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서는 아예 전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해상의병의 대부분은 육상의병과는 달리 독자적인 활동을 편 것이 아니라 수사 휘하에 들어가 활약하였다.

전라좌수영을 중심으로 일어난 해상의병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전라좌수군이 몇 차례의 해전을 치르고 난 후인 선조 25년(1592) 7월 이후의 일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옥포 해전으로부터 한산도 해전에 이르기까지 조선수군이 일본수군을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해전에 자신감을 갖게 된 동시에 그간의 병력손실로 인해 상당한 충원이 필요할 시기였다. 따라서 8월에 들어서서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수영 관내의 제읍에 격문을 띄어 의병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개월 만에 순천·흥양·광양 등지에서 400여 명의 승려들이 달려와서 결집하였고 진사·한량·교생 등 향반층(鄕班層)에서도 의병을 이끌고 모여들었다. 이들은 모두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지휘통제 하에 들어가 직접 해전에 참전하거나 해안지역 요해처를 지켜냈다. 해전에 자원하여 군량을 스스로 마련하면서 떨친 의병의 의기와 전공이 정규군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아 조선수군이 제해권을 장악함에 있어서는 해상의병의 역할도 작지 않았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함평출신으로 이들 해전에 참전하여 공을 세운 이들을 편의상 정유재란 시 해전의 전공자들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 붕(尹鵬, 본관 : 파평)=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이순신 휘하에서 일령장(一領將)으로 당항포 싸움 등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정유재란 때에도 빛나는 무공을 세웠으며 선무원종 2등 훈에 록훈되었다.

◇정충량(鄭忠良, 호 : 송계-松溪, 본관 : 진주, 시호 : 충렬공-忠烈公)=임진란이 일어나자 사촌 아우 득량과 함께 남문의병청에 들러 그들을 격려 지원했고 돌아와 그는 도원수 김명원

187) 이장희, 「조선전기(朝鮮前期)의 토병(土兵)에 대하여」, 『남사정재각박사고희기념동양학논총(藍士鄭在覺博士古稀紀念東洋學論叢)』, 1984.

의 막하로 갔다. 김명원은 그들의 기량을 보고난 후 전라우수사 이억기의 휘하에 배속시켰다. 이억기 우수사는 충량의 지략과 용맹을 알고 종사관에 임명하였다. 이 무렵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구원병을 청해왔는데 이억기 우수사가 전라 우수영의 관할 경계선을 넘기 주저했다. 이 때 충량이 "호남은 우리나라의 보루요, 호남 없이는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소. 위중한 이 때에 어찌 관할 경계만 따질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이 우수사가 용단을 내려 병선 25척을 이끌고 당항포 앞바다에 이르러 연합하였다. 견내량 전투에서는 도망치려는 적을 선두에 나아가 들이쳐 적장을 사살하여 대승을 거두었고 이틀 후 안골포 전투에서는 우리 전선과 적의 전선 간에 백병전이 벌어졌을 때도 지략과 용맹으로 대승리를 하였다. 이 싸움의 전과는 남문 창의 비문에도 소개되어 있다. 1592년 8월 귀향하여 형제가 남문의병청을 방문하여 격려하였고 11월에는 의병 50명과 군량 30석을 모아 남문의병청에 보낸 후 그들은 다시 도원수 김명원의 막하로 갔다. 1593년 초에 군기사(軍器使)가 되어 의주로 가서 왕을 호위하였고 6월에 실시한 별과 을과에 합격하여 김명원 막하의 수문장을 지내다가 7월에 사임했다. 권율이 충량의 지략과 전공을 듣고 불러 충청수사 정걸(鄭傑)의 막하로 보내 파괴된 전선(戰船)과 군기를 수리하는 책임을 맡아 완수했고 1594년 훈련원 주부에 제수되어 전라 우수영에 배속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이억기 수사가 전사했을 때 그는 흩어진 군진을 수습하여 위기를 넘겼고, 김억추가 우수사로 부임하자 파괴된 병선과 군기를 수리하는 책임자로 임명되어 소임을 완수했으며, 노량해전에서는 거제 현령 안위(安衛)와 합세하여 적의 예봉을 꺾었다. 1598년 왜교전투에서는 적선 25척을 격침시켰으며, 11월 노량해전에서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도 끝까지 싸웠다. 난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1년이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1605년 선무원종 2등 훈에 책록되고 후에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해보면 금계리 지곡 마을에 신도비가 세워졌다. 11세손 광원(光源)이 현재도 공신록을 보관하고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정득량(鄭得良, 호 : 죽포-竹圃, 1569-1598, 충량의 사촌 아우)=충량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1592년 8월에는 부장이 되었으며 1597년 한산도 전투에서는 왜적 수십 명을 사살하는 전공을 세웠다.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는 승승장구 적을 괴멸하며 진격했으나 적탄에 맞아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사하였다. 충량이 시신을 거두어 반장했고 선무원종 2등 훈에 책록되었다. 충량과 함께 지산사에 배향되었으나 고종 때 훼철되었다.

◇김몽복(金夢福, 호 ; 竹圃, 본관 : 善山)

◇김몽성(金夢成, 호 ; 松圃)

◇김몽룡(金夢龍, 호 ; 春潭)=몽성은 몽복의 아우, 몽룡은 몽복의 삼종제다. 나산면 용두리 출신인 세 사람 모두 선조 때 무과(武科)에 급제한 이들은 정유재란 당시 모두 이순신 휘하에 배속되어 유진장(留鎭將) 등 지휘관으로 소임을 다해 여러 해전에서 승전의 공훈을 세웠다. 이순신 좌막(佐幕)을 맡아 많은 전공을 세웠던 몽성은 1958년 11월 18일 노량해전에서 바다에 빠진 수많은 병사들을 구하다가 두발의 적 탄환을 맞고 이순신과 함께 순절하였고 몽복은 다음 날 역시 독전하다 순국하였다. 몽룡은 몽복·몽성 형제의 순국소식을 전해 듣고 그 원수를 갚겠다며 계속 독전하다 중상을 입은 데다 화살과 군량미마저 떨어지자 앙천통곡(仰天痛哭)하면서 귀향했다. 이들 모두가 선무원종 2등 공신에 책록되었으며, 후에 몽복은 병조판서, 몽성은 이조참판, 몽룡은 병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선호사(船湖祠)에 모두 배향되었으나 고종 때 훼철되었다. 선호사는 1983년 복원되었다.

◇김 위(金渭, 본관 : 김해)=우수사 이억추 휘하에서 무공을 세우고 이억추와 함께 전몰하였으며 선무원종 공신록에 녹훈되었다.

◇김종진(金宗晉, 본관 : 광산)=노량해전에서 전사 하였다.

◇이극성(李克誠, 호 : 문헌-文軒, 본관 : 함평)=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안 노복들을 거느리고 이순신 막하에 합류하였다. 당포와 고도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한편 1598년 9월 함평에 밀어닥친 왜적이 현 향교리에 있던 극성의 집으로 들어서자 집을 지키고 있던 그의 딸 셋이 "이놈들, 이 집이 뉘 집인 줄 아느냐? 우리 집이 바로 이 장군 집이다. 무엄하다"며 호통을 쳤다. 야수가 된 왜적은 그들을 무참히 학살했다. 후에 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문을 세웠으나 세월의 흐름에 퇴락되어 철거되고 지금은 그 자리에 유허비가 세워졌다.

◇이 급(李伋, 호 : 삼회당-三悔堂, 본관 : 함평)=임진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이순신 군진에 합류하여 전공을 세우고 전사했다.

◇이덕경(李德敬. 일명 덕연-德連, 본관 : 함평)=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란 때 창의하여 이순신 휘하에서 적 수십 급을 베는 전공을 세웠다. 선무원종 공신에 책록되었다.

◇이덕일(李德一·호 : 칠실-漆室, 본관 : 함평, 1561-1622)=대동면 향교리 태생으로 1594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피난민을 모아 의병을 조직하여 일본의 수군과 싸웠는데 특히 벽파진, 당사도, 고금도, 대굴포, 몽탄해전에서 치열한 싸움 끝에 적의 기세를 꺾는 등 전공을 세워 이순신에게 인정받아 그 막하에서 복무하였다. 종 3품인 병마우후를 지냈으며 증직으로 병조판서를 받았다. 광해군 때 대비를 폐하려 하자 반대상소를 올린 기개 꿋꿋한 선비였다. 국정이 문란함을 한탄하여 우국가(憂國歌) 28수를 지어 애타는 심정을 읊었으니 시조 한 구절에서도 그의 우국충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힘써하는 싸움 나라위한 싸움인가
옷밥에 묻혀 있어 할 일이 없어 싸호놋다.
아마도 그치지 아니하니 다시 어이 하리오.

유물로 군도(軍刀) 한토막이 후손에게 전해오고 있으며 기개 높은 충절과 학풍을 기리기 위하여 1712년 향교리 하교 마을에 월산사를 세우고 충무공과 함께 배향하였는데 고종 때에 훼철되고 대신 유허비가 세워졌다. 이 유허비마저 일제 말엽에 헐려 매몰됐다가 해방 후 파내어 다시 세웠다. 함평군 내의 이 충무공을 배향사우는 월산사 뿐이었다.

◇이 용(李蓉)=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였다.

◇이충옥(李忠沃, 본관 : 함평)

◇이충인(李忠仁, 호 ; 청송-聽松, 충옥의 아우)=충옥과 충인 형제는 의병에 가담하여 이순신 휘하에서 활약하다가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였다.

◇이홍우(李鴻遇)

◇장우한(張宇翰, 본관 : 인동)=임진왜란 때 이순신 군진에서 다수의 전공을 세우고 전사하였

다.

◇정 응(鄭鷹, 호 : 애죽헌-愛竹軒, 본관 : 나주, 1562-1598)

◇정 홍(鄭鴻, 호 : 애송헌-愛松軒, 응의 아우, 1565-1598)

◇정 진(鄭縉, 호 : 고정-高亭, 응의 7촌 조카, 1551-1598)=이들은 모두 월야면 출신으로 선조 16년 세 사람이 같은 해 같은 무과에 급제함으로써 온 고을의 칭송이 자자했다. 이들은 무(武) 뿐만이 아니라 문(文)도 겸비하였으며 당쟁의 혐오감에 벼슬을 버린 후 향리에 내려와 있었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바로 의병을 모아 처음에는 고경명 휘하에서 활약하였으나 금산전투에서 패전하자 향리로 돌아와 다시 의병을 모집해 도원수 김명원의 휘하로 들어간 후 거기서 정충량·득량 형제와 함께 전라우수사 이억기 휘하로 배속되었다. 이들을 만나 본 이억기 수사는 "그대들은 무과에 급제한 영재들이며 가히 국사를 논하고 병선을 맡길 만 하다"며 기뻐했다. 이 우수사는 응과 홍 형제를 좌우 보익장으로 임명했고 이들 형제는 당항포·안골포 전투에서 대승했다. 이순신의 장계에 의해 응과 홍은 훈련원 주부, 진은 훈련원 부정에 제수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웠고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응이 먼저 전사하고 이어 홍과 진도 모두 전사하였다. 이들 부인들도 꿋꿋한 열부로 '죽사동 3 열부'로 이름이 났다. 정조 33년(1799) 전라도 유림들이 상주하여 순조 1년(1801) 응과 홍, 진 모두에게 병조참의가 추증되고 월야의 오산사에 배향되었다.

3) 함평출신 호종공신

일본군의 북상을 방어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남하한 이일이 상주에서 패전하였다는 소식과 연이어 신립이 충주방어에 실패하였다는 보고를 전해들은 도성의 인심은 흉흉했다. 이는 천연적으로 지세가 험한 죽령·조령·추풍령 등지에서 일본군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과 충주 이북에는 어떤 방어선도 고려하지 않아 서울이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민심의 안정을 위하여 왕의 둘째 아들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한편 각 도 관찰사에게는 시급히 군사를 이끌고 서울로 와서 도성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여 병사를 모집해 서울로 집결하도록 하였다. 도성의 방어를 위하여 성의 수축명령이 내려졌으나 전혀 시행되지 않았음은 물론 수비하는 군사도 크게 부족하였다.

이와 같이 도성이 위기에 처했던 4월 29일 조정에서는 종친과 대신의 건의에 따라 평양으로의 천도를 결정하고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4월 30일 새벽 왕은 평양으로 몽진하고자 서울을 출발했다. 국왕일행이 서울을 벗어나자 도성은 혼란이 극에 달했다. 왕의 서천(西遷)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백성은 불안감을 더해 갔고, 일본군이 침입하기도 전에 피란소동이 일어났다. 국왕일행이 천신만고 끝에 음혜령(陰惠嶺)을 넘었을 때는 호종하는 신하들이 유성룡·이산해·이항복 등 100여명에 불과했다. 왕이 개성에 이르렀을 때 그 곳 백성들은 왕의 일행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실정을 들어 비난하고 돌을 던지기까지 하였다. 왕의 행렬이 개성을 떠나 5월 7일 평양에 이르렀을 때 평양감사 송언신이 3,000여 기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가(大駕)를 맞이하자 호종하는 신하들은 비로소 안심했다.

조정에서는 개성에서 일본군이 서울에 입성했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평양에 이르렀다. 이 때 어전회의에서 이항복은 명에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두수는 "명군이 한 번 우리나라 경내에 들어오면 그 후에 난처한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유로 명나라 원군요청을 적극 반대하였다. 스스로 힘에 의하여 일본군을 무찌르려는 그의 정신과 선견지명이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지만, 상황은 이미 조선의 힘으로는 일본군을 격퇴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고 있었다.

국왕의 서천은 처음부터 확고한 계획도 없었다. 다만 일차적인 목적지는 평양이었다. 그러나 북상해 오는 일본군의 그칠 줄 모르는 진군위세에 조정의 논의는 구구하였다. 함흥으로 또는 강계로 피하자는 논의와 평양을 사수하자는 주장이 서로 맞섰다. 그러나 평양을 사수하자는 윤두수와 유성룡 등의 주장이 관철되어 우의정 윤두수에게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이원익을 거느리고 평양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평양성의 방비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군의 북상은 멈추지 아니하고 대동강 연안에 이르게 되어 조정에서는 다시 북행을 결정해야 했다. 국왕의 평양 이탈은 평양성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들 중 위정자의 무능과 무책임에 격분하여 난을 일으키려는 불온한 움직임이 있었고, 성밖으로 나가려는 궁녀들과 대신들의 길을 막고 구타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윤두수 등에게 평양성의 방어를 명령한 국왕 선조의 일행은 6월 13일 평양을 떠나 숙천·안주를 거쳐 영변에 이르러 함경도로 가려고 하다가 이항복·이덕형의 의견에 따라 의주로 향하였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와 같이 평양을 떠난 후에도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 것인지 계획조차 없었다. 왕은 박천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정치적 잘못을 뉘우치고 분조(分朝)의 뜻을 굳히고 군국의 대권을 세자인 광해군에게 맡기려 하였다.

왕의 일행이 정주에 머물고 있을 때 평양성 함락의 흉보를 접한 왕은 세자와 다른 방면으로 분리 행동하는 이른바 분조의 뜻을 굳히고 광해군에게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강계를 목표로 나아가게 하고 각 지방에 근왕의 군사를 징모하도록 하였다.

왕의 일행은 가산·정주·용천을 거쳐 6월 23일 의주에 이르러 의주목사의 거소를 행궁으로 정하였다. 이 무렵 조선군은 다행스럽게도 2차 평양전을 계기로 하여 재건되고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실증한 것이 제1차 진주전의 승리와 행주의 대승이었다. 행주에서 아군이 승리한 후 일본군은 다시 서울 이북에 출병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철수를 서두르게 하였다. 조선은 끝까지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회담을 반대하였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명나라는 외정(外征)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명희생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고 일본군은 연이은 수군의 패전, 그리고 조선의 관군과 의병의 공격을 받아 보급에 위협이 가중되어 전선을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으로 강화회담이 진전되어 일본군은 남쪽으로 철수하고 명군도 주력부대를 철수하여 이후 5년간 소강상태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왕을 호종한 함평출신 호종공신들이 있었다.

◇김응량(金應良, 본관 : 천안)=임진 호종공신록에 책록.
◇서경붕(徐景鵬, 본관 : 이천)=임진란 때 왕을 호종하였고 왜적에게 체포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3년 후에 환국했다.
◇윤형필(尹衡弼, 호 : 성호-城湖, 본관 : 파평)=명유인 아버지 영상(榮商)에게 학문을 닦았

다. 궁마(弓馬)에도 뛰어났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전 군수로서 왕을 호위하고 의주까지 갔으며 의주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군량미 3,000석과 의병 700명을 모아 바닷길로 무사히 행재소에 도착하여 왕의 칭찬을 받았다. 또 평안도 안변전투에서는 무장으로 활약하여 적을 크게 무찔렀으며 이 전공을 이여송이 치하하였고 이덕양이 왕에게 알려 선무원종 1등 공신에 록훈되고 공직은 누차 승진되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부친과 함께 성산사에 배향하였으나 고종때 훼철되고 그 자리에 유허비를 세웠다.

◇서경춘(徐景春, 본관 : 이천)=임진란 때 왕을 호종하다가 경붕과 함께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3년 만에 풀려나왔다. 그 후 죄인을 자처하여 두문불출하였다.

◇이장길(李長吉, 호 : 어은-魚隱, 본관 : 전주)=왕이 의주로 파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의병을 모아 북행하였다. 그는 평양지방의 여러 고을을 탈환하는데 공을 세웠고 의주에서 왕을 호종하였다. 호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전계신(全繼信, 호 운송-雲松. 본관 : 천안)=목사 응충의 아들로 1587년 무과에 급제하여 동래성에서 병마도위로 재임하던 중 임진란이 일어나고 동래성이 함락되자 기장(機張)수군방어진으로 합류해 백의종군하면서 많은 공을 세웠다. 1602년 4월 이덕형의 밀명으로 왜의 사신 교지정(橋智正)과 접촉 덕천가강(德川家康)의 첩지를 받아 조정에 바쳤다. 1603년 비변사를 통해 그에게 대마도주 종의지(宗義智)를 움직여 덕천가강의 처소를 구하라는 어명을 받아 이를 수행하였으며 선무원종 1등 공신에 책록되었다. 1617년 5월 일본과 임진란 포로송환건을 협상하는 전권대사로 임명되어 현해탄을 건너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국할 때 남녀 포로 100여명을 대동하였다. 만년에 고향 합평읍 성남리 초동으로 내려와 임천과 벗하며 여생을 보냈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91세의 장수를 누렸다.

◇정인영(鄭仁榮, 본관 : 광산)=호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조몽린(趙夢麟, 본관 : 한양)=선조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호종공신록에 책록되었다.

◇윤 함(尹涵, 본관 : 파평)=임진란 때 의병을 모아 군량을 행재소까지 운반하였고 왕을 호종했으며 전투에서는 종횡무진 활약하였다.

임진란 때 각처에서 전공을 세운 함평출신은 다음과 같다.

◇윤예형(尹禮衡, 호 : 임천, 본관 : 파평)=아버지 사상(思商), 아우 인형(仁衡) 등 무과급제 가문의 전통을 그도 이었다. 선조 때 등과하여 여러 곳의 수령을 지내며 선정을 베풀었고, 1589년 명천부사로 부임하여 재직하고 있던 중에 임진란이 일어났다. 그는 경기 감사 심대(沈岱)의 종사관이 되어 신출귀몰하는 전략을 세워 적에게 많은 손실을 주었다. 이 공으로 부원수겸 선봉장이 되어 삭령(朔寧)과 철원 전투에서 관군을 지휘하여 큰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군량과 화살이 다 떨어지자 절명시를 남기고 순국하였다. 그로부터 7년 후 왕이 비로소 그의 충절을 알고 제관을 보내 해보의 월양산 아래 초혼장을 치르게 하였으며 선무원종 2등 공신에 책록되었다. 분매사에 배향되었다.

◇윤 원(尹愿, 예형의 아들)=가문의 전통에 의하여 선조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아버지와 함께 군진에 있다가 아버지의 장열한 순국을 보고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나도 충신의 아들임을 보여 주리라"는 혈서를 쓴 후 적진에 뛰어들어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윤 옥(尹沃, 호 송파-松坡. 본관 : 파평)=윤형필의 조카로 1590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왕이 의주 행재소에 있을 때 숙부 형필과 함께 왕을 호종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왕의 호종뿐만 아니라 의병들과 합세하여 여러 번 적을 물리쳐 이겼고 특히 숙부와 함께 출전하여 평안도 안변의진과 함께 적군을 협공하여 분전한 안변전투는 전사에 남을 큰 승리였다. 그러나 그는 이 전투에서 적탄에 맞아 순국하였다. 조정으로부터 그에게 절충어사가 추증되었고 선무원종 1등 공신에 책록되었다.

◇김덕수(金德秀, 본관 : 선산)=집의 하인 100여명과 마을 젊은이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하여 강릉전투에서 적 수십 명을 사살했으나 화살이 떨어진 데다 많은 적에게 포위까지 되자 물속으로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후에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김 송(金松, 본관 : 금령)=임진란 때 수도 서울을 방비하다가 밤에 기습한 왜병과 싸워 여러 명을 죽이고 그도 전사하였다.

◇서덕숭(徐德崇, 본관 : 이천)=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통영성을 지키다가 순국하였다.

◇신언백(申彦伯, 본관 : 평산)=임진왜란 때 순국하였다.

◇박사현(朴嗣賢, 호 : 雲峯, 본관 : 밀양)=군자판감으로 조헌 휘하에서 청주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하였다. 선무원종 공신록에 책록되었다.

◇윤 길(尹趌, 호 : 동파, 본관 : 파평)=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삼례 찰방으로 복무하던 중 임진란을 맞아 태조의 어영과 실록, 제기(祭器)를 정읍 내장산 용굴에 감추어 병화를 막게 한 후 무주 현감의 도움으로 권율이 지키는 행주산성으로 옮겨 보존케 한 후 순찰사 황신과 출전하여 연승하였다. 광해군 때 무고로 치사당한 후 인조 때 신원되었고 숙종 때 도승지에 증직되었다.

◇윤 섭(尹涉, 호 : 성암-城岩, 본관 : 파평)=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선무원종 공신록에 책록되었다.

◇이덕림(李德林, 본관 : 양성)=선무원종 공신록에 책록되었다.

◇이원상(李元祥, 본관 : 양성)=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임진란 때 순국하여 선무원종 공신록에 책록되었다.

◇이춘란(李春蘭, 본관 : 함평)=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판관을 지냈으며 임진란 때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재차 창의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선무원종 1등 공훈에 올랐으나 불행히도 자세한 행적이 전하지 않는다.

◇이홍복(李弘福, 본관 : 함평)=무과에 급제하였고 선무원종 공신이 되었다.

◇장덕수(張德守, 본관 : 인동)=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란이 일어나자 동생 덕춘과 함께 의곡을 모아 각 의병처에 수송하다가 전사하였다.

◇최경헌(崔景憲, 본관 : 해주)=임금이 의주에서 환도할 때 약을 진상하였다.

◇최 필(崔弼, 본관 : 해주)=임진란 때 순국하였다.

4. 정유재란과 함평출신 의병

1) 남원전과 함평출신 의병들

조선군과 명군이 선조 30년 6월 중순까지 일본의 전면적인 재침에 대비하여 지상에서 방어전을, 해상에서 선제공격을 전개하려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일본군도 재침준비를 거의 완료하고 호남으로 향하는 길목의 수륙병진(水陸竝進)의 침공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선조 29년 12월과 선조 30년 정월 사이에 일본군의 선봉인 소서행장과 가등청정은 동래·부산·울산 등지에 교두보를 다시 구축하였고, 선조 30년 3월 중순부터 일본군의 주력 14만 1,500여 명이 계속 바다를 건너왔다. 일본의 육군은 4, 5월 사이에 거제·안골포·가덕도 등지를 장악하고, 김해·창원·함안·진주·고성·사천·곤양 등지를 왕래하면서 작전지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연합함대를 구성한 일본수군이 거제도 등 요새화시킨 함대(艦隊)기지를 거점으로 남해안 해상에서 작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7월 들어 육군과 합동으로 통제영이 있는 한산도의 조선 수군을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소서행장은 이 작전을 위해 요시다로 하여금 일본 후속군의 도해(渡海) 시일을 조선군 측에 알려 조선수군을 유인하려고 하였다.

도체찰사 이원익과 도원수 권율은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조선수군이 부산 앞 해역으로 나가면 패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수사(水使)들의 의견조차 무시하였다. 또한 남원을 방어하던 부총병 양원이 선조에게 조선수군으로 하여금 왜군의 도해 및 보급로를 공격할 것을 제의하자, 조정은 조선수군의 조일해상 로(朝日海上 路) 차단작전을 도체찰사와 도원수에게 독촉하였고 이들은 통제사 원균에게 즉시 이 작전을 수행하도록 강요했다.

무리한 작전과 일본군의 철저한 준비로 말미암아 조선수군은 참패하고 한산도 방어진까지 무너졌다. 일본수군은 한 때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호남에 대한 수륙병진의 호기를 맞게 되었다. 앞서 풍신수길은 왜군의 재침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영·호남을 전면 침공할 것을 일본장수들에게 다시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왜군은 8월 상순 육군을 좌·우군으로 나누고 경상좌우도 요충인 진주와 전라도방어의 핵인 남원 및 전주를 차례로 공략하려는 계획 하에 진군하였다. 일본수군도 남해안에 상륙하거나 섬진강을 거슬러 남원공략에 나서는 등 호남으로 수륙병진하여 왔다.

한편 조·명군도 왜군의 전면공격에 대비했다. 도체찰사 이원익은 선산 금오산성에, 도원수 권율은 성주·금산방면에, 경상우병사 김응서는 합천에, 구례현감 이원춘은 남원에 포진하였고, 또한 도독 마귀의 지휘로 양원·오유충·진우충·목국기는 각각 남원·충주·전주·성주를 방어하고 있었다.

일본의 좌군과 수군은 구례와 운봉에 집결하여 8월 12일 남원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당시 성내에는 접반사 정기원, 전라병사 이복남 등이 이끄는 조선군과 부총병 양원이 이끄는 요동병 총 4,000여명이 성을 지키고 있었다. 민병들의 지원을 받은 조·명 합동수성군은 열세한 병력인데도 3일간 항전하였다. 그러나 수성전의 경험이 없던 양원의 작전실패로 8월 15일 남원성은 적에게 함락되어 이복남 등 조선군의 모든 장수들이 전사하였으며 양원 등 명병(明兵)

100여 명만이 탈출하였다.

일본군은 남원성을 함락시킨 후, 전주로 향하였는데 이곳을 지키던 유격 진우충마저 도망하였으므로 전주까지 무혈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남원성 공략에 그 주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육해로 우회하는 작전을 벌이며 7월 27일부터 8월 15일 함락 때까지 20여 일간 소비하는 바람에 조·명군은 일본군의 북상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7월 22일 3도 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이순신은 칠천량 해전으로 붕괴된 조선수군을 일본수군의 추격을 받지 않고 다시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남원성 전투는 일본군이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략적으로는 서울로 향한 북상작전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함평출신으로 남원성 전에 참여하여 순절한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김수연(金壽淵, 호 : 금은-錦隱, 본관 : 광산)=수연의 아버지는 현감을 지냈으며 그도 성격이 침착하고 담력이 뛰어나 명종 때에 무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집의를 지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6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모아 아들 5형제를 앞세우고 전라병사 이복남의 막하로 달려갔을 때 마침 이복남이 전사하고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손수 군사들을 격려 분전하다가 자신도 전사하였다. 그의 아들 5형제도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적진에 뛰어들어 노호와 같이 싸워 많은 적을 사살하였으나 기진하여 모두 순국했다. 수연의 아내 김해 김씨가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나라를 위해 아들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죽었다. 어찌 나라고 살기를 바랄 것이냐"며 일주일간을 굶어 죽었으며 큰며느리 정씨 또한 "나 혼자만의 충신의 아내가 안 되어서는 안된다"며 목매어 자살하였다. 1문1세(一門一世), 1충5효2열(一忠五孝二烈)을 낳았으니 당시 세인들은 이 가문을 크게 추앙하였으며 숙종 19년(1693) 학교면 금송리에 금우사를 세워 배향함으로써 그들의 빛나는 우국충절에 보답케 하였다. 이러한 예는 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사례라 보며 만세에 길이 전할 충효사상의 귀감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춘풍(李春豊, 본관 : 경주)=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싸웠고 정유재란 때에도 노복 10여 명을 거느리고 이복남 막하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최제남(崔悌男, 본관 : 전주)=임진란 때는 이순신 휘하에서 당포·한산 전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이복남·오응정·오언상들과 함께 전투를 치르다가 남원전투에서 이들과 같이 순절하였다.

그 밖에 정유재란 때 함평출신으로 전공을 세운 이들에 대해서 살피면 다음과 같다.

◇이충실(李忠實, 호 : 성와-誠窩, 본관 : 함평)=임진란 때는 직접 창의하여 의병들을 이끌고 이순신 휘하로 들어가 당포 등 해전에서 공을 세웠고, 1596년에는 젊은이를 능가하는 무술의 기량을 보여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당포와 영등을 지키는 육전장(陸戰將)으로 배임되어 이순신은 해전에서 그는 육전에서 승승장구하였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전갈을 받고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상륙해 오는 적의 패잔병을 맞아 수십명을 사살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적의 조총에 맞아 전사하였다.

◇정운길(鄭雲吉, 호 : 都事公, 본관 : 동래)=지혜와 무예가 뛰어난 사람으로 수사 오숙(吳淑)

의 사위가 되어 처가인 상주에 살면서 사마시에 합격하여 의금부도사를 지냈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정기룡과 함께 의병을 규합하여 전공을 세웠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지자 향리에 돌아와 있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마을 청장년과 아들, 노복들을 거느리고 기병하였다. 현 장성군 삼서면 우치에 이르러 적과 전투 중 포로가 되어 살해되었다.

◇김익웅(金翼熊, 호 : 월포-月圃, 본관 : 김해)=이율곡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정철, 고경명과 도의로 사귀었으며 정유재란 때 창의하여 무등산 전투에서 대공을 세워 후일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서대근(徐大謹, 본관 : 이천)=정유재란 때 함평읍 수성장(守城將) 김전재와 함께 기산산성에 침입한 왜적과 싸우다가 성이 함락되면서 수성장과 함께 전사하였다.

◇윤성립(尹誠立, 본관 : 파평)=정유재란 때 부모가 적에게 화를 입자 자진하여 창의하여 진주성으로 가서 싸우다가 순국하였다.

◇노경덕(盧憬德, 본관 : 광산)=임진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향토를 방위하였고, 때마침 함평현감 이극성이 군을 이끌고 영남으로 떠나며 그를 수성장으로 삼아 군량, 병기 등을 관할하게 하였다. 정유재란 때 왜적의 손에 의해 함평향교가 불타고 노복들이 모두 도주해 버리자 자비로 제향을 받들고 자기 집 노복들을 교직으로 삼게 하였다. 후에 이 공이 인정되어 증 병조판서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제수되었다.

◇모 정(牟禎, 호 : 덕암-德巖, 본관 : 함평)=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함평을 출발하여 동으로 진군하여 순천의 예교에서 적을 만나 지략과 용맹으로 일격에 적을 쳐부수고 여세를 몰아 거제 지방에까지 추격하여 전공을 세웠다. 1598년 전사했고 그 유해를 대동면 향교리에 옮겨 안장했으며 후일 병조참판에 중직되었다.

2) 기산산성(箕山山城)의 함락과 함평의 피해

임진란 때는 직접적인 왜적의 피해가 없었던 함평이 정유재란 때는 일본군이 먼저 호남 쪽을 유린함으로 인하여 적의 피해가 심각했다. 정유재란 때 적의 침입에 따른 노략질은 함평의 전 지역에 걸쳐 자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손불면 동암리 여막을 지키고 있던 정준(鄭浚)은 함평을 분탕질하는 왜적의 무리들에 대한 울분을 한 수의 시로 달래었다. 이 시는 그의 문집에 실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왜놈들 창궐해서 이 나라 덮쳐오니
의분과 비통함이 뉘라서 다를 손가
임께서 파천하여 먼지 길 1천리요
백성들은 난을 피해 산중 길 메우누나
찬 서리 밤이 깊어 이 내 마음 차가웁고
밝은 날 창문에는 붉은 간담 비치리라

맨주먹 빈손이라 평정할 계획 없네
이 목숨 죽기까지 선친여막 지킬리라.

앞서 기술한 남원전투에서 승리한 왜군은 전주를 무혈점령하고 전의(全義)·진천(鎭川)으로 나아가 1597년 9월 5일 직산의 소사평야에서 조·명연합군과 맞닥뜨려 격전을 치른 일본군은 대패하여 북상하려는 진군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고니시군은 서해안과 나주·해남 방면을 거쳐 순천 해룡면 신성리에 도착하여 장기전에 대비하였고, 적의 좌군(左軍) 주력은 8월 27일 전주를 떠나 익산·진안을 거쳐 9월 1일 석성현에 이르렀고, 이어 9월 7일에는 서천·한산·용안·함열·금구·태인·정읍에 진출한 후 9월 15일 작전회의를 가진 후 분담지역을 정하였는데 전북의 고부와 전남의 나주지역을 맡은 적장은 장증아부원친(長曾我部元親)이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우리 함평의 월야·해보·나산면에 침입한 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야면 월악리 출신 정운길의 행장에, 적이 영광의 우치에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청장년들을 모아 우치로 진군하여 "나는 상주성에서 싸웠던 정운길이다. 너희 놈들을 그때 못다 죽인 것이 한이 되었는데 우리 고향까지 쳐들어와 천추의 한을 만들고 있으니 네놈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며 적진으로 뛰어들어 좌충우돌 수많은 적을 베다가 적의 구원병 도착으로 인해 마침내 포로가 되어 곧 처형되었다. 운길의 아들 돈(燉)이 100여명 노복들을 거느리고 "내 부친을 해한 자는 나의 칼을 받으라, 우리 부자가 여괴(勵鬼)가 되어 반드시 가문과 국가의 원수를 갚으리라" 외치며 적진에 뛰어들어 접전을 벌인 후 역시 전사했다.

함평의 8열부기명(八烈婦記銘)에는 "왜적이 나주와 영광까지 몰려오자 마을 대표자 정운길이 우치 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하였으므로 정주일(鄭主一)과 정함일(鄭咸一)이 마을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하였다(1597. 9. 10).

이 기록으로 우치 전투는 1597년 9월 10일 바로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8열부기명에 의하면 "이튿날(9.11) 수레에 짐을 싣고 법성 쪽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영광과 함평의 경계인 밀재를 막 넘으려 할 때 적병 10여명에게 사로 잡혀 불갑사로 끌려갔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9월 11일에는 영광과 함평 해보면 일대가 적의 수중에 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함평읍을 비롯한 다른 면에도 왜적이 침입한 사실이 적기된 기록들을 보면 정응(鄭鷹) 형제의 행장에, "응의 부인 광산 정씨, 홍의 아내 광산 김씨, 진의 부인 순창 설씨는 죽사동으로 피난을 했다가 적에게 붙들리자 모두 자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죽사골"이라 부르고 있는 나산면 용두리의 산속까지 왜적이 침입했음을 보여준다.

이극성(李克誠)의 행장에, "왜적이 극성의 집에 들어서자 집을 지키고 있던 그의 딸 셋이 '이 집이 뉘 집인 줄 아느냐? 바로 이 장군 집인데 무엄하다'며 호통을 쳤다. 그러나 왜적은 그의 딸 셋을 모두 무참히 죽였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이극성의 집이 지금의 대동면 향교리에 있었으니 향교리에 왜적이 침입하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노경득(盧憬德)의 행장에, "왜적의 손에 의해 함평읍 내교리 외대화 부근에 있던 함평의 향교가 불타고 노복들이 모두 도주해 버리자 자비로 제향을 받들며 자기 집 노복들을 교직으로 삼았다." 하여, 함평읍에 침입한 왜적이 방화를 자행한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또한 서대근(徐大謹)의 행장에는 “함평읍 수성장(守城長) 김전재와 함께 싸우다가 성이 함락됨과 동시에 수성장과 함께 전사하였다”고 하여, 함평성 바로 기산성이 정유재란 때 함락되었음을 알려주고 있고 수성장을 비롯한 수성군의 피해가 컸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산성의 함락 시기에 대해서는 “패주하던 적의 일부가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와 그 선발대가 몽탄강에 침입하였다. 정유년(1597) 9월 1일이었다. 몽탄강은 곡강과 접하고 있다. -중략- 이틀 후(9.3) 7,000여명이 상륙하였다.”고 나주군지에 기록되어 있다.

현 나주군 동강면 월송리에 상륙한 적은 의병들과 격전을 벌인 후 곡강에 이르러 대굴포 전투를 벌였고 일부 병력이 현재의 사포에서 토교천을 거쳐 함평읍에 침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9월 3일 바로 뒤라고 할 수 있다. 목포 쪽에서 쳐들어온 왜적은 무안읍을 거쳐 무안읍 고절리 뒷산인 보평산에서 무안 출신인 박제(朴悌)·송백(宋栢)·송경(宋瓊) 등의 의병과 접전을 벌였다. 이 싸움 역시 9월 3일 바로 뒤라 할 수 있으며 함평읍의 자풍리와 성남리, 엄다면 일대가 이때 적의 피해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군이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수군병력이 이들을 격퇴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 때는 이 순신이 옥중에서 풀려나와 삼도수군통제사로 재 등용되어 전열을 가다듬고 있던 시기이며 9월 16일 남아 있는 12척의 전선으로 명량에서 적선 30척을 격침시키고 제해권을 다시 찾기 직전의 일이었고 몽탄강을 거슬러 올라왔던 적선들도 9월 16일 이후에는 대패하였기에 그들은 육로로 순천을 향해 갈 수 밖에 없었다. 용천사의 연혁에도 정유재란 때 불탔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 열거한 기록들은 함평군 전역이 왜적에게 유린되었고 병화가 극심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3) 대굴포 전투

우리 함평에서 큰 싸움이 벌어진 곳은 기산산성 공방전과 대굴포 전투이다. 대굴포는 1432년까지 전라수영의 진지가 있었던 곳이며 현 사포에서 동쪽으로 1km 지점이다.

대굴포는 1914년 이전에는 무안군 진례면이었고 현재는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대곡마을이다. 당시 배를 정박시키던 포구는 현재 논이 되어 있다.

무안 출신 김충수(金忠秀)의[188] 행장을 보면, “정유재란이 일어나니 공은 집안에서 심부름하는 사람과 마을사람은 물론 인근의 뜻있는 장사 1,000여 명을 규합하여 관군을 돕고자 길을 떠나려던 차에 적의 배가 몽탄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다. 공은 부인 나씨와 두 어린 아들을 몽탄강 사포나루 위 대곡산에 은신케 하고 병졸을 사포나루에 모이게 하여 준비된 배에 승선시켜 적과 교전하고 있는 잠깐 사이에 수많은 적선(敵船)에서 내린 군사가 강을 덮어버려 할 수 없이 대곡산으로 후퇴하여 진을 치고 싸웠으나 사로잡혔다. 목에다 칼을 대고 항복을 권유했으나 끝내 ‘나는 이 나라의 신하인데 어찌 너희들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며 굽히지 않았다. 적은 좌우로 서서 공의 몸을 후려쳐 죽게 하였다.”고 하였다.

무안읍 고절리 보평산 전적을 소개하는 글에, “보평산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한 우리 의병들

188) 현재 종손은 함평군 대동면으로 이거하였음

은 크게 흩어지고 지도자 송백·박간 등이 잡혀 끌려가다가 살해되었다. 이 때 박재와 송욱이 남은 의병을 거느리고 왜적을 쫓아 몽탄강에 이르니 또 적선이 거슬러 올라오고 있어 이들과 대적하여 큰 전과를 올렸으나 중과부적으로 우리 군이 패하여 송욱은 분함을 참지 못하여 물속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몽탄강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대굴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그것은 현 대곡마을 동편에 송 장군비와 무덤이 있고 비문에 당시의 대굴포 전투상황이 씌어있기 때문이다. 대굴포 싸움은 1597년 9월 3일 전후였 던 것으로 보인다.

4) 동막(東幕)전투

정유재란 때 함평의 전적지로 동막·고산곡·병풍암 등이 있다. 이 전적지의 전황에 대해서는 1708년에 진사 이사성(李師聖)이 지은 칠실유고(漆室遺稿) 중에서 칠실전(漆室傳)에 기록이 되어 있다.

"정유년에 적이 호남의 각 고을을 분탕질 칠 때 각 군이 모두 궤멸되었는데, 공이 향병을 모아 우선 고산 골로 들어갔는데 따르는 사람이 인근에서 모여든 수백 인이었다. 이에 공이 적과 대적할 것을 생각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뛰어나가 화살 하나로 두 명을 사살하자 수목 사이를 왕래하던 적이 크게 놀랐다. 다음날 동막산중으로 이동했는데 선조의 묘가 있는 곳이었다. 사방의 산봉우리들이 강물과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얀 천 바탕에 '정충(精忠)'이란 두 글자를 쓴 기(旗)를 험한 산꼭대기에 세웠다. 이에 적도 감히 근접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병풍암으로 이동했고 산상에서 일제히 돌을 아래로 굴리며 '이 장군이 여기 있노라. 너희들이 죽기를 원하는가'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함성을 치르면서 공격하자 적들은 달아나고 말았다."

칠실은 이덕일의 호로, 그는 임진왜란 후인 1594년 별시에서 무과에 급제했는데 문과(대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라가 병란에 휩싸이자 무과를 택했다. 무과에 급제는 했으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고향에 돌아와 있다가 정유재란을 만났고 앞에서 언급한 대굴포 전투, 기산성 함락 등 함평에 왜적이 쳐들어와 기승을 부리자 향병을 모아 적과 통쾌한 일전을 치룬 것이다.

동막 전투 이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순신에 의해 발탁되고 그 휘하에서 공을 세웠다. 동막은 금성산성 동쪽 5km 지점에 있다. 금성산성의 동쪽 초소막이란 데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현재도 동막재라는 지명이 있고 연암리의 옥련동과 통하는 고개이다. 동막재 주위에는 많은 고총이 있어 옛날 전적지라는 입증을 하고 있다. 왜적에게 호되게 분탕질 당한 전적지뿐인 우리고장에 통쾌한 승리를 이루었던 전적지가 동막 전적지이다.

5) 월악(月岳)의 팔열부 '정려각'(八烈婦 '旌閭閣')

(1) 함평 팔열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지변마을 앞에 건립되어 있는 팔열부 정려각은 1974년 5월22일 전남 지방 문화재(기념물) 제8호로 등록된 문화유산이다.

일반인들은 보통 팔열각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건물은 열부들이 순절한지 84년후인 1681년(肅宗7년 辛酉年) 에 국포명정(國褒銘旌)되고 이듬해인 1682년 현재의 위치에 정면 3칸, 측면 3칸, 맞배지붕의 형태로 '旌閭閣' 건물이 건축되어 300년이 지나도 원형이 보존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건축물이다.

정유재란(丁酉再亂)(선조30년.1597년1월15일)이 발발하자 마을의 주장격인 정운길(鄭雲吉)(東萊人)이 장성군 삼서면(당시는 영광 우치)에 쳐들어온 왜적을 섬멸하고자 아들 정돈(鄭燉)과 청장년 그리고 노복들을 데리고 자진 전투에 참여하여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자 마을의 부장격인 정주일(鄭主一)(晉州人)과 정함일(鄭咸一)(晉州人)이 1797년9월10일 마을 주민회의를 소집하여 앞날의 대책을 협의 하였다(*정호인의 정유피난기에 기록됨)



<팔열부 정려각>

이 회의에서 '왜적은 가는데 마다 약탈과 방화, 겁탈을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임진란 때 의병활동을 했거나 관직에 있는 가족들은 가차 없이 죽인다는데 앉아서 화를 당하느니 가족들을 그들의 손이 미칠 수 없는 먼 곳에 피신시키고 우리는 단 한 놈의 왜놈이라도 죽이고 죽자'는 결의를 했다.

그래서 이튿날 가족들을 바닷길로 서울에 피신시키기 위하여 수레에 짐을 싣고 법성포 쪽으로 향했다.

피난지를 서울로 택한 것은 적이 전주 방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다. 피난을 떠난 그들이 영광과 함평의 경계인 해보 밀재(매레미재, 밀래미재)를 막 넘으려 할 때 왜군 10여명이 나타나 그들을 사로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잡힌 곳에서 이십여리 떨어진 불갑사(佛甲寺)로 끌고 갔다. 이날 밤 왜군들은 이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세 명이 감시를 하고 나머지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정 절, 정경득 등의 남자들이 숨겼던 칼과 몽둥이로 그들을 사살하고 불갑사를 빠져나와 보통 때는 하룻길인 법성포를 밤에만 걸어 15일 후 9월 26일 법성포에 도착하였고 이튿날 가까스로 배 한 척을 구해 법성포를 떠났다.

이들이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묵방포(墨防浦) 앞 칠산(七山)바다에 이르렀을 때 왜적의 배 5척이 나타나 싸움이 벌어졌고 몇 분 안 되어 포로로 잡히는 위기에 처하자 운길의 아내 함양 오씨가 "살아서 욕을 보고 가문과 나라의 이름을 더럽히느니 보다 죽는 것이 옳다"며 물속으로 뛰어 들자 일행 중 부녀자 11분도 치마를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을 하였는데 그중 함

평군 월야면 월악리에 거주하였던 8분의 열부를 함평 월악 동래·진주 양 정씨(兩鄭氏)의 '8열부'라 부르고 있으며 순절한 날자가 1597년 음력 9월 27일이다.
(*정유피란기는 9월 28일 순절, 해상록과 만사록은 9월 27일 순절로 기록)
그분들을 나열하면 ①동래정씨(東萊鄭氏) 운길(雲吉)의 아내 함양오씨(咸陽吳氏), ②진주정씨(晋州鄭氏) 주일(主一)의 아내 함평이씨(咸平李氏). ③주일의 아들 절(節)의 아내 영광김씨(靈光金氏), ④절의 아들 호인(好仁)의 아내 함평이씨, ⑤진주정씨 함일(咸一)의 아내 함평이씨, ⑥함일의 아들 경득(慶得)의 아내 순천박씨(順天朴氏), ⑦함일의 아들 희득(希得)의 아내 함평이씨, ⑧함일의 딸(처녀) 진주정씨다.
함께 순절하신 분 중 서울 분으로 친정으로 피난왔던 ①심해(沈諧)의 아내 동래정씨(운길의 장녀), ②권척(勸陟)의 아내 동래정씨(운길의 차녀)로 두 분이며, 무장현(茂長縣) 거주자로 함께 순절 하신 분은 ①오굉(吳宏)의 아내 황주변씨(邊氏)(운길의 처남부인), ②김한국(金翰國)의 아내 함양오씨(咸陽吳氏)(운길 처질녀) 두 분인데 거주지에 정려각(旌閭閣)을 건립하고 후손들이 추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순절하신 분들의 관계를 보면 東萊 정운길 가족과 관계된 인원이 5명으로 가장 많고 晉州 정주일의 가족 3명과 晉州 정함일의 가족이 4명이며 진주정씨 7분들은 정운길과 외척관계에 있으며 다음과 같다.

<12열부의 姻叔관계>

崙石---億---종순------主一----------節----------好人
(처;함평이씨) (처;영광김씨) (처;함평이씨)
---덕일----------박(등.자평)
중---종필------咸一----------慶得
(처;함평이씨) (처;순천박씨)
-希得
(처;함평이씨)
-딸(처녀)
딸---雲吉-------첫딸(심계처)
(夫;允愊) (처;함양오씨) 둘째딸(권척처)
처남 오굉처 황주변씨--오굉딸(김한국처)

정호인 등 12명은 왜승 현소(玄蘇)의 주선으로 1599년 7월 귀국하였다.

(2) 순절의 기록

순절하신분의 인적사항과 순절의 내용들은 당시에 함께 피란을 가며 일기로 기록을 남긴 鄭好仁(당시 만 18세)의 기록과(정유피란기丁酉避亂記;1957년 8월12일부터 1599년 7월 23일까지.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 1986년 3월 번역본 발행), 鄭敬得(湖山公. 1569.9.9 ~1630.5.29)의 기록(만사록 萬死錄;光武6년·1902년 한문본 간행. 1986.11.한글번역본 발행), 鄭希得(月峯公. 1573~1640.경득 친동생)의 기록(해상록 海上錄;1597년 8월 13일부터 1599년 7월 28일까지.丙午年·1846년 6대손 간潤 한문판 간행. 1986년 8월 번역본 발행)에 자세히 적혀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국찬역사문헌인 동국신속삼강행실록 829페이지에 12열부의 순절 그림과 한자 개인별 내역은 물론 언문(言文)으로 해석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38권 539페이지에도 12열부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록에 기록된 12열부 순절도>

또한 예조완문(禮曺完文)이 정유피난기 132페이지(원문 209페이지)와 만사록 162페이지(원문 271페이지)에 '8열부녀의 정려각 통문'이 저자들의 후손이 첨가 기록해 놓은 것으로 이때 임금님께 청원한 후손은 선략장군 행 용양위 부사과 宣略將軍 行 龍驤衛副司果 신臣 정택주鄭宅周(晉州人.정희득의 손자). 유학幼學 신臣 정익주鄭翊周(晉州人.정경득의 손자). 유학幼學 신臣 정동수鄭東粹(東萊人.정운길의 고손자). 유학幼學 신臣 정석경鄭碩卿(晉州人.정호인의 손자)이며, 강희 20년(康熙 1681년) 6월 29일 좌승지 박순차朴純次가 임금님께 결재를 올리니 시행하라고 지시가 내려 같은 연도 7월 3일 전라도 관찰사겸 순찰사가 함평현으로 이첩하자 함평현에서는 7월12일 열녀정문을 하루속히 세운 후 이첩된 것을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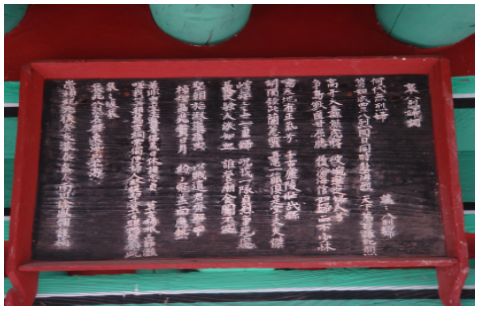
'팔열부 정려각' 정면 외편에 '애팔열부사哀八烈婦辭' 편액이 걸려 있는데
숭정계해늦봄崇禎癸亥暮春(肅宗 9년 1683년 임) 침랑 남천 서봉령 삼가지음
寢郎 南川 徐鳳翎謹稿 의 글이다. 만사록과 해상록 말미에 번역되어 게재된 원문을 옮긴다.

8열부를 애도함
어느 시대에 열부가 없으리오만
우리 함평 땅 여덟 열녀 한날 한시에 바다에 뛰어든 일만 같은이 없도다.
슬프고 슬프도다.
천하 만고에 뉘 이 열(烈)에 비할까

생각하니 당시 조제흑치(雕題黑齒;이빨을 검게 염색하고 이마에 자문한 오랑캐의 풍속)들이 천마말 만배로 바다를 덮어오니
하늘 기둥 무너지고 지축(地軸)이 끊어질듯 했었네.
높게 휘날리는 큰 깃발, 웅호(熊虎)같은 장수들
새짐승같이 다투어 숨으며 무릎 꿇기 달게 여겼네.
저 아름답고 연약한 부인네들이여,
푸른바다 밝기를 고향에 돌아가는 것같이 믿어(信如歸) 조금도 놀라지 않았도다.
아! 천지에 정기(正氣)있음이여!
어찌해 특별히 이 혜란(蕙蘭;난초의 일종)같은 여자에게만 주는가.
천고(千古) 여능(廬陵) 장한 고을에는
5충(五忠)과 1절(一節)이 모두 당당한 장부 호걸일세.
오강위의 한 정조 굳은 여자는
글한 사람으로 하여금 길이 피눈물나게 하네.
하물며 우리 일대(一代)의 정열(貞烈)이 다투어 죽은 곳은
뉘 사당을 지어 영원불멸을 도모할꼬.
성조(聖朝)에서 어진이를 표창하여 넋을 편안히 하니
정려(旌閭)의 문이 빛나 해와 달과 다투도다.
임금을 적에게 버려두고 갑옷 벗어던진 많은 벼슬아치들
낯 응당 뜨거웠으리.
만일 중봉(重峯;조헌의 호)과 제봉(霽峯;고경명 호) 휴정(休靜;서산대사 법명) 등의 충열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 만고강상(萬古綱常)이 오직 부인들로하여 마침내 유지케 되었으리.
양근(楊根;경기도 양평)땅의 세절부 빠져죽은 여울(三節灘)을 말하지 말고
수양(睢陽)땅의 쌍묘(雙廟) 높은 것 말하지 말게
슬프고 또 슬프도다.
이 팔열부 이름 동해와 함께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로다.

(3) 순절장소의 역사적 기록

순절한 장소인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묵방포 바닷가 암벽에도 '함평 월악 양정씨 도해 순절소'라는 음각 글씨를 양정씨 문중 대표들이 새겨서 후일 발생할 분란을 방지토록 대비 해 두었다.



<애 팔열부사 한시 편액 사진>





<묵방포 암벽의 음각글씨 사진>

※ 묵방포 암벽글씨 내용

■ 위치 : 영광군 백수면 대신리 묵방포 바닷가 바위

■ 내용

有明萬曆 丁酉倭亂 咸平月
岳 兩鄭氏八烈婦 蹈海殉節
所
崇禎紀元後五 晋州鄭氏後孫 五奎碩奎東源
辛未 三月 日 東萊鄭氏後孫 寅禹碩朝 竪
晋州人 良出
在燮
永煥
重竪
晋州人 來休
啓休
東萊人 寅壽
癸酉 六月 日

<<연대별 참고사항>>

■ 丁酉倭亂 : 1597년 宣祖 30년. 0 萬曆 : 1573 ~ 1620 (중국 明 神宗)

■ 丁酉 : 1597. 1657. 1717. 1837. 1897. **1957**. 2017

■ 崇禎 : 1628 ~ 1644 (중국 明 毅宗)

■ 紀元後 5 : 60년×5= 300년+1629년=1929년.

■ 辛未 : 1631. 1691. 1751. 1811. 1871. **1931.** 1991.

■ 癸酉 : 1573. 1633. 1693. 1753. 1813. 1873. **1933.** 1993.

(4) 경도인(京都人) 동래정씨 2분의 정려

경도인 2분의 인적사항은 정운길의 장녀인 심해의 처와 차녀인 권척의 처인바, 심해의 처는 시가댁인 충남아산시 움봉면 산동리에 후손들이 정려각을
세워서 조상의 얼을 기리고 있지만 권척의 처는 지금까지도 정려의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으로 지금도 계속하여 찾고있는 중이다.

<심해 沈諧의 처 동래정씨 정려각 사진>

■ 위치 : 충남 아산시 움봉면 산동리 뫼골마을(100여호 집성 거주)
■ 관리 : 12대손 심중근





(5) 무장현의 황주변씨(黃州邊氏)와 함양오씨(咸陽吳氏) 2분의 정려

조선시대의 무장현 무장읍지인 송사지(松沙誌)의 열부편과 충편을 확인하였으나 종적을 찾을 길이 없었고, 고창군사에서도 2분의 행적을 찾지 못하였다.
무장현(茂長縣) 사람 함양 오굉吳宏의 처 黃州 변씨와 오굉의 딸로 김한국金翰國의 처인 오씨의 정려는 옛 무장현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정려문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함양오씨인 오굉과 처 변씨는 정유재란시에 사망하여 아들이 절손된 상태로 족보에서 확인되어 정려문을 세울 직계 후손이 없다보니 추진하지 못한듯 하다는 함양오씨 문중분들의 견해다.
김한국의 처 오씨(오굉의 딸)에 대한 정려는 오씨가 김한국과 결혼한 내용이 함양오씨 족보에서 확인되었으나 더 이상은 확인 할 길이 없어서 정려문에 대한 사항은 계속하여 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적으로 아직까지 정려문을 세우지 못하였다면 이제라도 후손들이 정려문을 세우도록 동국신속삼강행실(乾)과 조선왕조실록(숙종실록편)자료를 제공하여 건립토록 함으로서 조상의 얼을 지키는 교육장으로 조성해야 한다.

<함양오씨 족보>

오굉吳宏은 함양오씨 沙湖公派 12세손으로 父는 오세웅吳世雄이며 자녀는 딸만 2명으로 큰딸

은 水使 나덕헌羅德憲과 둘째딸은 김한국金翰國과 혼인했다고 기록되고 아들이 없어 후사를 잇지못하여 정려문을 세우지 못했다.

(6) 팔열부 정려각의 현판

팔열부 정각의 열부 현판은 우측에서부터 다음 순서로 게첨되어 있다



<정면에서 좌측>



<정면에서 중심>



<정면에서 우측>

열부학생정호인처이씨지려 숭정기원후신유6월 일 명립	열여통훈대부청암도찰방정함일여정씨지려숭정기원후신유6월 일 명립	열부성균진사정희득처이씨지려 숭정기원후신유6월 일 명립	열부증장악원정정경득처박씨지려 숭정기원후신유6월 일 명립	열부봉훈랑정절처 박씨지려 숭정기원후신유6월 일 명립	열부통훈대부청암도찰방정함일처이씨지려숭정기원후신유6월 일 명립	열부부장정주일처이씨지려 숭정기원후신유6월 일 명립	승훈랑의금부도사정운길처오씨지려숭정기원후신유6월 일 명립

(7) 홍살문



팔열부의 정려를 기리기 위해 팔열부 정려각 전방 500m지점인 마을 진입로 2차선 도로변에 대형 홍살문이 건립되어 마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의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징적인 열부마을의 정기를 주고있다.

(8) 예조완문(禮曹完文)

이 예조완문은 정호인의 정유재란 피란일기인 '정유피란기' 말미에 후손들이 첨가 기록해 놓았으며, 또한 정경득의 정유피란 일기인 '만사록' 부록에 게재된 내용으로 강희20년(康熙.1681년) 6월 29일자로 임금님이 윤허한 것이므로 정유(丁酉) 후(後) 84년 기록이어서 내용자체가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예조완문은 전라도 함평에 사는 선략장군 행 용양위 부사과 臣 정택주(鄭宅周.晉州人. 호산공 정경득의 弟 민득의 손자), 유학 臣 정익주(鄭翊周.晉州人. 호산공 정경득의 손자), 유학 臣 정동수(鄭東粹.東萊人. 도사공 정운길의 고손자), 유학 臣 정석경(鄭碩卿.晉州人. 월봉공 정호인의 손자))이 "예조에서 조사하여 임금님께 재가를 받아 이 일을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상소를 올려 정문을 건립토록 윤허 받은 예조완문이다.

원문과 번역문을 스캔하여 기록한다. 여기에는 경도인 2명의 열부와 무장현 사람 2열부도 포함되어 총 12열부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6) 죽사동(竹寺洞)의 3열부

정유재란 때 8열부녀가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함으로써 이 나라 부녀들의 지조와 절개를 본보여 준 사례와 비견하여 하나도 손색이 없는 육지의 3열부가 있었으니 이들이 나산면 용두리 죽사골로 피란했다가 왜적에게 붙들리자 같은 시각에 목숨을 끊은 죽사동의 3열부이다. 이들 열부들도 8열부녀와 똑같이 추앙될 만 하며, 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응(鄭應)의 아내 광산김씨. 양정리
② 정홍(鄭鴻)의 아내 광산김씨. 양정리
③ 정진(鄭縉)의 아내 옥천설씨. 용월리

이 3열부의 남편들인 정응과 홍은 형제간이며 진은 응의 7촌 조카로 이억기 휘하에서 군장(軍將)으로 전공을 세우고 순국한 사람들이다(이순신 휘하에서 전공을 세운 사람들 참조).

3열부들은 그들의 남편이 의병으로 출전하자 가정을 지키다가 왜적이 월야 해보로 밀려들자 첩첩한 산골인 죽사골로 피란하였으나 죽사동 깊은 골짜기까지 침입한 왜적에게 붙들리는 몸이 되었고 이들도 "살아서 수모를 겪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옳다"며 자결한 것이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그것도 함께 끊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들 3열부의 장함은 우리 후손들이 추앙해야 할 훌륭한 역사다.

정각은 세워진 바가 없고 각자 입비만 되었을 뿐이다.

7) 정유피란기(丁酉避亂記)· 만사록(萬死錄)· 해상록(海上錄)

왜적에게 포로가 된 사람 중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강항(姜沆. 간양록-看羊錄, 영광사람), 노인(魯認. 금계일기-錦溪日記, 나주사람), 정호인(鄭好人, 정유피란기, 함평사람), 정경득(鄭敬得. 만사록, 함평사람), 정희득(鄭希得. 해상록, 함평사람) 등이 있다.

이들 기록 중 간양록은 1981년에 각색되어 TV프로에 연속극으로 반영되어 온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나 정유재란에 대한 연구 자료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함평사람들의 『정유피란기』·『만사록』·『해상록』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후손된 우리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정유피란기는 정호인이 쓴 정유재란의 포로수기로 그는 영광군 백수면 묵방포에서 포로가 되었다. 그의 피란기는 1597년 8월 12일부터 1599년 7월 23일까지의 피맺힌 적중수기(賊中手

記)로 원본은 한 백지 6절본으로 되어있고 72장이다.

모필 묵사 순한문체(毛筆墨寫純漢文体)이며 해상록·만사록과 정유피란기를 비교하여 기록된 일수(日數)를 살펴보면 세 기록이 공통되는 일자를 1일로 치고 계산해서 386일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세 기록이 공통되는 일수는 224일로 전체의 58%며 해상록과 만사록에만 나오는 일수는 50일로 13%이고 정유피란기와 만사록에만 나오는 일수는 48일로 13% 정도다. 정유피란기와 해상록의 중복일수는 겨우 2일에 지나지 않는다. 또 만사록에만 나오는 일수는 28일, 정유피란기는 33일, 해상록은 단 1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해상록과 만사록의 간행차이가 100년에 이르고 있는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해상록보다 100년 뒤에 간행된 만사록 내용과 문장을 보면 해상록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된 흔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기록 사이에서 생신(生新)한 증인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정유피란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포로가 되어 거의 같은 곳에서 같은 사실을 견문하였기에 내용이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기록했더라도 문체는 달라야 할 텐데 해상록과 만사록은 자구의 선택마저 동일한 것이 165일이나 되며 삼자가 동일문체인 것이 12일이나 되는데 세 사람이 이것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귀국 후인 6월 17일부터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어느 한 사람의 일기에 의하여 상호보완된 것으로 본다. 같은 날자, 같은 내용의 사실이라도 정유피란기의 기록은 해상록과 만사록의 문체와는 아주 달라 정유피란기의 생신미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20세에 불과해 소년티를 갓 벗은 청년으로서 적의 포로가 된 그들이 보여준 기개와 절조에 우리는 찬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생혼(生魂)이 담긴 몇 부분을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598년 9월 22일.

아우가 나더러 “우리는 살아서 돌아갈 계획을 세우지 않았소, 그런데 살아 돌아가기 전에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니요? 글을 팔아 은전을 벌어서 산다는 것은 훼절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꼭 훼절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나는 “이미 아는 것이 없는 자로 자처해 오고 있지 않느냐” 대답했다. 아우가 다시 말하기를 “글을 지어주는 것과 베껴주는 것은 다르니 그러면 베껴주기라도 합시다” “그럼 그 일은 네가 하여라”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 9월 24일.

아우가 왜놈의 문질(文帙)을 베껴 팔았기에 당장 굶어 죽기는 면했다.

단 이틀간의 이 일기에서도 우리는 그들 형제의 성격과 고난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고귀한 정신의 자세를 읽을 수가 있다. 정호인은 끝내 왜놈들과 학문을 논하거나 시귀를 주고 받지 않았다. 왜인들이 초청하거나 찾아와 시 귀절이나 나누고자 하면 그는 병중이라는 구실을 붙여 거절하였다. 적중에서 그것도 포로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큼의 비굴함이나 나약함을 보이지 않

고 꿋꿋한 함평인의 기개와 조선선비의 고고한 자세를 보여준 정신면의 승리는 후세에게 길이 전해 져야 하는 귀감인 것이다.

정유피란기의 말미에 일본지방 66주 및 8도 639군 2도(島)와 일본의 풍물기가 수록되어 있고 끝에 "만력(萬歷) 41년 맹하초길서(孟夏初吉書)"라 씌어 있다. 이는 1613년으로 호인이 귀국한지 14년만인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만사록의 "일본풍토기"와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만사록의 풍토기는 강항의 간양록과 비교하여 끝부분에 임진 정유 군수(軍數)가 더 있을 뿐 그 내용 전반이 고스란히 같다. 이는 서로가 자료를 교환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어느 쪽이 어느 쪽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고 해상록을 통하여 귀국 후 그들이 만난 것은 알 수 있다.

◆ 해상록

월봉(月峯) 정희득(1573~1640)의 저작으로 정조 22년에 간행되었고 1597년 8월 13일부터 1599년 7월 28일까지의 적중일기로 정유피란기와 거의 같은 일수다. 해상록에는 일본사람들의 풍속이 시(詩)로 많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의 일본풍속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실례로 왜속(倭俗)이란 제목을 붙인 시 한수를 소개한다.

경작하며 사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고
시서를 아는 사람은 몇몇이 아니더라
사람마다 허리 밑에 훈도시만 차고 있고
혹독한 형벌로 거리마다 시체더라
부모의 상기는 30일 뿐이요
사당은 아예 없고 화장하는 풍속이더라

◆ 만사록

희득의 친형인 호산(湖山) 정경득(1569-1630)의 저작으로 광무 8년에 간행되었고 처음과 끝이 해상록과 일치하고 있다. 왜인들과의 시작(詩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억류기간 동안 그들과 일면 화합하면서 학문으로 그들을 일깨운 일면을 볼 수가 있다. 이들 적중일기 중 원본이 전해오고 있는 것은 정유피란기 뿐이며 그 원본은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경득·희득은 억류기간중 망궐단(望闕壇)·망향단(望鄕壇)·망해단(望海壇)을 쌓고 매달 초하루와 명절에는 이곳에 엎드려 통곡했다고 한다.

호인, 경득, 희득 등 12명은 왜 승 현소(倭僧玄蘇)의 주선으로 귀국의 길이 트여 1599년 7월 귀국하게 되었다. 이들이 남긴 세 기록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함평인의 꿋꿋한 기상과 의지가 담긴 책이며 왜적에게 함평인 나아가 한국인의 참모습을 보여준 살아있는 기록인 것이다. 더욱이 정유피란기는 원본이 전해오고 있어 각종 적중일기를 비교하는데 귀중항 증인구실을 하고 있으며 정유재란을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참고로 다른 군 출신의 적중 일기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간양록

수은 강항의 저작으로 일기체는 아니나 포로생활 중 왜인들에게 학문을 일깨워준 상황과 시문의 교환 등이 기술되어 있다. 강항은 영광군 불갑면 출신으로 1597년 9월 14일 왜군이 영광을 분탕질 치자 피란을 떠났다가 9월 23일에 피로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3년 후인 1600년 5월에 부산에 도착했다.

정유피란기를 쓴 정호인이 9월 23일에 피로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이며 정호인보다 약 7개월가량 늦게 귀국했다. 정유피란기의 1598년 8월 5일 기록에 피랍된 사족(士族)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정호인은 강항이 피랍되어 일본 땅에 온 것은 알고 있었으나 서로 간 서신의 내왕은 없었던 것 같다. 정유피란기에는 강항 외에 영광의 김봉(金琫), 무안의 서경붕(徐景鵬), 경춘(景春)[189], 광주의 고경민(高敬民), 창평의 이갑(李甲)을 기술하고 있다.

◆ 금계일기

나주출신 금계 노인(1566-1622)의 저작이나 현존하는 일기는 결락이 많고 적중기록도 1599년 2월 22일에서 같은 해 3월 17일까지 뿐이며 일본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생활한 기록이다.

정호인의 정유피란기를 보면 그들이 일본 억류 중에 서로 서신을 교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98년 9월 9일자 정호인의 정유피란기에 노인으로부터 답서가 왔다는 말과 함께 노인이 호인의 답서를 기다린다는 귀절이 실려 있다.

제3절 정묘(丁卯)·병자호란(丙子胡亂)과 함평출신 전공자

1. 정묘호란과 함평출신 의병

후금(後金)의 누루하치는 천명(天命) 10년(1625) 수도를 요양에서 심양으로 옮기고 성경(盛京)이라 하였으며, 계속 요서지방으로 진격하여 산해관을 공격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영원성을 공격하다가 원숭환의 강한 저항을 받았는데 이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그는 그 이듬해 죽었으며, 그의 8번째 아들인 황태극(皇太極)이 즉위하니 그가 곧 태종이다. 태종은 집권한지 얼마 안 되는 인조 5년(1627)에 조선을 침입하여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정묘호란이 발발하면서 1월 13일 후금군이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침범한 다음, 정주·곽산·안주·평양·황주·평산을 차례로 함락시키고 화의를 제기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교섭 끝

189) 피란기에는 서경붕(徐慶鵬), 경춘(慶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족보를 확인하여 경(慶)자를 경(景)자로 고침

에 마침내 3월 3일 강화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후금군은 계속 의주에 군병을 주둔시키고 있다가 8월에 이르러 남아있던 군대를 철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쟁이 종료되었다.

조선의 관군은 연전연패하여 황해도 평산 이북지방은 완전히 침략군의 말발굽에 유린당하는 처참한 지경이었다. 조선의 지배층은 대부분 문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국방을 소홀히 한 것이 패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변경을 지키는 장수들의 태만과 안일한 태도와 서민들의 동요가 적군이 쉽게 침입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한 반면에 뜻밖에 적의 침공을 받고 미처 손을 쓸 수 없었던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역량을 모아 적을 격퇴하기 위해 과감히 나섰다. 적이 통과한 청천강 이북지역은 1월말부터 의병투쟁에 나서서 적의 배후를 끊고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청천강 이남과 황해도에서도 의병부대를 편성하여 공격에 나섰다. 다음에 의주·용천·운암·철산·선천·곽산·정주·평양·용강 등지에서의 의병들의 활약상도 눈부시었다.

전라도에서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즉시 의병이 일어났다. 우리 함평사람들은 주로 안방준(安邦俊) 의병대장 휘하로 들어가 활동하였다. 안방준을 비롯한 전라도의병들은 호소사(號召使) 김장생(金長生)의 권고로 고순후(高循厚)를 의병장으로 삼아 무기와 군량을 갖추고 청주까지 북상하였다. 그러나 후금군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로 돌아오고 말았다.

2. 병자호란과 함평출신 의병

후금 측에서는 정묘화약에 대하여 그들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정묘호란이 종결된 이후에도 모문룡의 세력은 그대로 동강진을 근거로 하여 은밀히 조선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후금의 배후에서 계속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었고, 장차 후금이 명나라와 총력전을 벌이게 될 때 모문룡의 군사가 그들의 대명작전(對明作戰)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후금은 종래의 화약조건을 개정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그 영내에 있는 모문룡 군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조선은 정묘화약이 양국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후금의 강요에 못 이겨 체결된 것인 만큼 내면적으로 명나라와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후금을 견제하려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또 조선은 사신 및 국서(國書)의 왕래 등 후금과의 외교적인 접촉이 있을 때마다 문자나 언어를 통하여 은연중에 후금을 모독했는가 하면, 후금의 세폐 증액요구를 거부하고 도리어 감액을 요구하여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여 후금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리하여 후금은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켜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화약의 개정을 모색하게 되었다. 조선에 대하여 세폐의 증액과 군신관계의 수립을 강요하는 등 온갖 위협을 강요하던 청 태종은 조선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치자 인조 14년(1636) 12월에 다시 조선을 침입하는 군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여 발발한 병자호란 때에도 여러 곳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그런데 의병이 조직적으로 구성된 것은 후방지역인 호남이었다. 청의 침입 소식이 전해지자 옥과현감 이흥발, 대동찰방 이기발, 순창현감 최온, 전 한림 양만용, 전 찰방 유즙 등이 자진하여 의병모집에 앞장섰다. 인조 14년 12월

19일 포위중인 남한산성에서 위급을 알리며 의병을 규합하고 군량과 무기를 수집하여 청의 침략군을 무찌르라는 교서가 전달되자 기병의 움직임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다음해 정월 20일 이들은 여산에 모여 소모사(召募使)의 책임을 띄고 공주에 있는 정홍명(鄭弘溟)을 대장으로 정하는 한편, 전라감사 이시방과도 합세할 것을 결의하였다. 정홍명은 당시 충청도 의병장으로 공주에서 각처로부터 모여든 의병들을 점검하여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만을 선발하였는데 실적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소모의병장이 된 것은 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병장으로서 소모사를 겸하였는지 아니면 의병장이 되었다가 소모사에 차정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호남의병의 구성은 정홍명을 대장으로 추대하기 전에 이미 갖추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도내 각 읍의 의병 소모의 책임자는 도유사(都有司)였으며, 이것이 정해진 고을은 옥과·창평·광주·남평·능주·화순·동복·낙안·흥양·보성·장흥·해남·진도·고부·고창·순천·영광·무장·흥덕·함평 등으로 적게는 2, 3인에서 많게는 14인의 도유사가 있는 곳도 있었다.

의병소모에 활약한 인사들 중에는 정묘호란 때 의병막부의 핵심간부로 활약했던 인물이 많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병자호란 때의 호남의병의 경우 정묘의병의 인사가 다수 참여하였으며, 이들에 의해서 의병활동이 주도되었던 것 같다.

그 후 소모사 정홍명은 호소사의 직함을 받고 이흥발·이기발·최온·양만용·유즙 5인이 주축이 되어 여산에 모인 의병을 이끌고 포위된 남한산성을 향해 출정 길에 올랐다. 그러나 청주에 이르렀을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청나라에 굴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진군을 포기하고 의병을 해산하여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감으로써 호남의병은 청군과 일전을 겨뤄보지도 못하고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정묘·병자혼란 때 함평출신으로 공을 세운 이들은 다음과 같다.

◇정대명(鄭大鳴, 호 : 지곡-芝谷, 본관 : 진주, 1574-1647)=정충량의 아들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평소에 우의를 두텁게 하던 재야의 충의장사들을 규합하여 전라병사 김준용의 창의소로 갔다. 호남의병의 진용이 짜여질 때 그는 별장직을 맡았으며 주야 행군하여 광교산에 도착하여 전열을 가다듬어 6호장(虎將)과 더불어 적을 섬멸하였다. 이들이 빛나는 전과를 거두자 이들에게 돌아갈 공을 시기한 전라감사 이시방(李時芳)이 금전패(禁戰牌)를 내고 군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고의로 끊어버려 광교산(현 서울의 용산)에서 퇴진할 수 밖에 없었다. 광교산 전투는 병자호란 중 처음이자 마지막인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화평조약이 맺어진 후 향리로 돌아 온 정대명은 국가에서 몇 번이나 등용의 길을 열었으나 불응하고 향리에서 살았으며 일생동안 청(淸)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 절의를 보였다.

◇신경정(申景楨, 본관 : 평산)=강진의 김수권 막하에서 활약 하였고 광교산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이 호(李浩, 본관 : 경주)=신경정과 함께 광교산 전투에 참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했다.

◇장남기(張南驥, 본관 : 인동)=인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정대명 휘하의 의병에 합류하여 빛나는 전과를 거두고 순국하였다.

◇나 각(羅珏, 호 송파-松坡. 본관 : 금성)=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여산까지 북상하다가 국왕

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했다.

◇노덕원(魯德元, 본관 : 함평)=임진란 때는 창의하여 조헌의 막하에서 싸웠고 금산전투에서 패한 후 이순신의 휘하에서 한산대첩 등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병자호란 때는 양곡을 운반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어한명(魚漢明, 본관 : 함종)=임진왜란 때는 경기좌도 수군 판관으로 재직했으며 병자호란 때에도 많은 활약을 하였다.

◇정 직(鄭稷, 본관 : 진주)=정묘호란 때에도 자진하여 창의하였으며 병자호란 때는 안방준과 더불어 창의하여 남한산성으로 진격하던 중 국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했다.

◇윤유삼(尹有三, 본관 : 파평)

◇윤은노(尹殷老·본관 : 파평)

◇윤지망(尹之望, 본관 : 파평)

◇장의철(張義喆, 본관 : 인동)

◇이수온(李守溫, 호 : 三懷齋, 본관 : 함평)

◇이 번(李瀪, 호 : 淸軒, 본관 : 전주)

◇조 정(曺綎, 호 : 栗齋, 본관 : 창녕)

이상에서 열거한 의병들 외에 관군으로서 병자호란 때 전공을 세운 함평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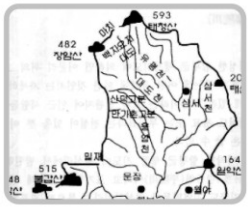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김득남(金得男, 호 : 매죽헌-梅竹軒, 본관 : 광산)=인조 때인 1621년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1663년 선전직에 제수되었고 인조반정 때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에 책록되었으며 1624년 이괄의 난으로 왕이 공주로 파천할 때 호종하였다. 병자호란 때는 동궁과 함께 전주로 내려와 있다가 타계하였다. 순조 28년(1828)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박성오(朴省吾, 호 : 조양헌-朝陽軒, 본관 : 함양)=병사직에 재직하였고 정사 2등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이괄의 난 때는 왕을 공주까지 호종하였다. 병자호란 때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자 성안에 머물며 성밖으로 나아가 청 나라 군사와 여러번 싸워 장수의 실력을 발휘 하였고, 후에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정 적(鄭鏑, 호 : 쌍풍-雙風, 본관 : 진주)=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수성에 큰 공을 세웠다.

◇지여해(池如海, 호 : 송헌-松軒, 본관 : 충주)=남한산성을 지킬 때 여러 번 성밖으로 나아가 청병과 싸워 이겼으며, 후에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제5장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변화



제1절 조선후기 국가제도의 개편과 함평지방

1. 조선후기 군제개편과 함평의 군기(軍器) · 군물(軍物)

1) 조선후기 중앙 및 지방군제의 개편

조선 성종 때 여진과 왜구의 변방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설치된 비변사는 1555년 을묘왜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로 발전하였다가 임진왜란을 당해 전쟁수행과 국무처리의 최고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정부 각 기관의 역할을 회복하자는 주장도 없지는 않았지만 전후 복구와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을 업고 비변사는 그대로 존치되었는데 이후 더욱 그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였다. 이 같은 비변사의 확대과정은 의정부와 육조를 주축으로 한 조선 전기 이래의 국가행정체계의 일정한 수정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비변사 제조 및 당상으로 합의제에 의해 국정을 요리할 수 있는 벌열의 권력독점기구로 변질됨으로써 이후 일당전제 세도정치기의 권력기구로 전락하게 된다.

조선전기 중앙5위제(衛制)와 지방의 진관체제를 기축으로 한 군사제도는 16세기에 이르면 거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백기에 접어드는데 이 때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조선왕조는 새로운 군사제도를 창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중앙에 훈련도감, 지방에 속오군을 설치한 것은 군사제도의 일대전환을 이루었으니, 일정한 급료를 지급하여 군대를 양성하는 급료병 즉 용병제로의 전환의 기틀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이로써 조선 전기의 병·농 일치제로부터 병·농을 분리하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 또한 국방의 제 일선에 선 지방군은 훈련도감과 같이 급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진관체제의 보완책으로 속오군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훈련도감이 설치된 이후 중앙의 군제는 후금의 침략에 대응하고 이괄의 난 등을 거치면서 도성을 방위할 수 있는 군영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으니 총융청·수어청·어영청이 잇따라 창설되고 숙종 대에는 금위영이 위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중앙군제는 5군영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자기의 향리를 지킬 수 있는 향토방위군적 속오군은 왜란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에서 전방위적 총력적 방위태세 확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양인(良人) 뿐만이 아니라 공·사천(公·私賤)이 함께 편제되었다. 속오군은 처음에 훈련도감의 조련지시에 따라 도 순

찰사 책임아래 각 영장(營將) 중심으로 습진(習陳)이 이루어지고 파총(把摠)·초관(哨官)·대총(隊摠)·기총(旗摠)에 의하여 각 교장에서 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습진·연병(鍊兵)의 최고 책임자인 영장의 직위는 군자주부(軍資主簿. 종6품)·수문장(守門將. 종6품-종9품)·군수(종4품) 등으로 일정한 위계질서가 없었고 파총·초관도 일정한 질서가 없었다. 그것은 속오군이 임기응변의 긴급조처로 실시되고, 따라서 지휘자의 계급의 높고 낮음보다 군사훈련의 감당능력이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수령은 일반행정이 많았기 때문에 군사조련의 대강을 별도로 파총·초관을 두어 군사훈련을 담당하게 하였다.

속오군의 습진의 경우에는 아무런 국가적 보수가 없었고 속오군 자신이 양식과 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속오군은 지휘자의 위계질서의 혼란과 훈련에 대한 무보수로 임시성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백성은 보장도 없이 일신양역(一身兩役)을 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한 채 종래 수령의 영장·파총 겸임을 배제했던 정부는 보수문제로 점차 수령에게 군직을 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속오군의 훈련과 명령의 계통을 체찰사(體察使)-감병사(監兵使)-진관절제사(鎭管節制使)-동첨도위(同僉都尉)-초관-기대총(旗隊摠)의 선에서 조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임란 후 지방군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면서 속오군의 연습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고 더욱이 속오군의 다소로써 수령을 상벌하였기 때문에 수령들이 수 채우기에 급급하여 노약 병질자(病疾者)가 속오군의 대부분이었다.

이괄의 난을 겪고 후금의 침략위협에 직면하자, 조선왕조는 모순과 폐단을 내포한 속오군 편제를 종래의 수령중심에서 전문적인 영장중심으로 전환시켜 지방군을 정비·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인조 5년(1627) 4월에 전문적인 조련을 위한 영장제도가 성립되었고 속오군의 조련권(영장)과 행정권(수령)이 엄연히 구분되었다. 영장은 계급상 당상관으로 수령보다 높았지만 그 권한은 속오군에 국한되었다. 이 영장제도는 과거 지방관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을 전문적인 무신으로 담당케 한 것으로 군제상 일단의 진전을 가져왔고 속오군도 보다 충실해졌다. 그러나 지방수령의 반발, 재정적인 뒷받침의 부족, 그리고 능력 있는 무신의 결핍 등으로 영장제도의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병자호란 때 속오군이 지방방비를 하지 못하고 청군이 10여일 만에 서울에 입성하는 허점을 드러냈던 것이다.

호란을 계기로 속오군은 다시 수령을 중심으로 존치되다가 효종 때 영장제도가 복설되고 효종 승하 후 또 다시 논란이 거듭되다가 속대전상(續大典上)으로는 거의 겸영장제도(兼營將制度)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속오군의 제도적인 빈번한 변개는 조선후기의 군제가 왕성 중심의 5군영제로 개편되기 시작하여 경군문(京軍門)에 너무 치중한 결과로부터 비롯되었다. 또 수미(收米)·포법(布法)이 효종 원년(1650) 개성속오(開城束伍)에 적용된 이후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거의 보편화되었다. 그러므로 속오군의 편성체계는 사실상 마비되고 조련·습진이 몇 년 동안 실시되지 않아서 속오군은 명존무실(名存無實)의 상태에 빠져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다. 수미·포법의 적용으로 국가의 정군(正軍)과 속오군의 구분이 없어졌다. 속오군의 훈련을 받고 싶지 않으면 쌀과 베를 내면 되었고, 내지 못하는 자들이 속오군이 되었다. 또 수령들이 초실유근착자(稍實有根着者)는 모두 기보양역(騎步良役)으로 옮겨 경사(京師)의 논실(論實)을 면하려는 폐단까지 속출하였다. 그리고 영장을 중심으로 군령·군사정책이 형식적으로나마 그대로 상호

작용하며 계속되어 나감으로써 영장은 속오군, 감병사는 아병(牙兵), 수령은 이노대(吏奴隊) 등의 다기한 군사체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효종이후 속오군은 이러한 모순 때문에 조궁방포(操弓放砲)를 상하가 몰랐고 조련교습은커녕 거의 군대가 전충(塡充)되지 않았고 교린작대(交隣作隊)의 원칙마저 적용되지 않았다. 당쟁의 격화 속에서도 국방문제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속오군의 유명무실의 상태는 오래 지속되었다.

<표 1> 전라도 5영과 속현

영 명 (營名)	소 재	장관(將官)	속 현	병 수 (兵 數)
전 영 (前營)	순천부	순천부사	순천, 장흥, 진도, 낙안, 보성, 강진, 흥양, 동복, 광양, 해남	마병(馬兵) 5초(哨), 속오(束伍) 46초, 표하군(標下軍) 188, 당보군(塘報軍) 120, 수솔군(隨率軍) 895
좌 영 (左營)	남원부	남원도호부사	남원, 곡성, 장수, 창평, 옥과, 구례, 운봉	마병 2초, 속오 34초, 표하군 287, 당보군 120, 수솔군 492
중 영 (中營)	전주부	따로임명	전주, 김제, 고부, 진안, 임실, 금구, 만경, 부안	마병 5초, 속오 46초, 표하군 454, 당보군 59, 수솔군 689
우 영 (右營)	나 주	따로임명	나주, 광주, 능주, 영암, 영광, 화순, 남평, 무안, 함평(咸平), 무장	마병 5초, 속오 52초, 표하군 210, 당보군 120, 수솔군 865
후 영 (後營)	여 산	여산부사	여산, 익산, 고산, 금산, 진산, 용안, 함열, 임피, 옥구, 용담	마병 4초, 속오 34초, 표하군 317, 당보군 117, 수솔군 629

이 같은 속오군을 주축으로 한 지방군제는 병자호란을 겪은 뒤인 효종 5년(1654), 군사제도를 전국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변화가 생겼다. 이때 전라도는 5영을 두고 각 군현을 여기에 속하게 하였다. 5영은 병마절도사를 겸직하는 감사와 또 한명의 절도사 아래에 편제되어 있었다. 그 편제를 『증보문헌비고』를 통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위의 표와 같이 전남지방에는 순천부에 전영이, 나주에 우영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재의 전남지방에 속하는 23개 군현은 순천의 전영에 순천·장흥 등 10개, 나주의 우영에 함평·나주·광주·능주 등 9개, 남원의 좌영에 곡성·창평·옥과·구례 등 4개가 각각 속해 있었다. 여기서 우리 함평은 나주의 우영에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전라좌우수영의 편제 및 속읍

전라좌수영	장관(將官)	좌수사(左水使) 1
	장교(將校)	중군(中軍) 1 시변군관(待變軍官) 170, 선장(船長) 7, 지곡관(知穀官) 2, 기패관(旗牌官) 50, 포도관(捕盜官) 8, 훈도(訓導) 9, 화포교사(火砲敎師) 1
	군졸(軍卒)	화포수(火砲手) 40, 사수(射手) 105, 포수 146, 표하군 408, 타수(舵手) 24, 요수(繚手) 8, 무상(舞上) 8, 선직(船直) 4, 능노군(能櫓軍) 673, 입방군(入防軍) 4,145, 장졸 총 3,615, 수용군(需用軍) 800(각읍), 군수군(軍需軍) 150(각읍), 모군(募軍) 100
	속읍(屬邑)	순천, 장흥, 낙안, 보성, 흥양, 광양, 방로(防踏), 사도(蛇渡), 여도(呂島), 녹도(鹿島), 발포(鉢浦), 고돌산(古突山)
	선종(船種)	전선(戰船) 9, 구선(龜船) 6, 해골선(海鶻船) 1, 방선(防船) 15, 사후선(伺候船) 30, 병선(兵船) 17
전라우수영	장 관	우수사(右水使) 1
	장 교	중군 1 대변군관 170, 선장 7, 포고관(布告官) 2, 지곡관 6, 기패관 25, 포도관 8, 훈도 6, 교사 1, 장교 28, 교사 8
	군 졸	화포수 42, 사수 116, 포수 140, 표하군 246, 타수 21, 요수 8, 무상 9, 선직 8, 능노군 546, 입방군 3,530, 장졸 총 7,443, 수용군 600(각읍), 수번군(輸番軍) 1,114
	속 읍	나주, 영암, 진도, 영광, 해남, 함평(咸平), 법성, 군산, 고군산(古群山), 위도, 임치(臨淄), 고금도(古今島), 가리포(加里浦), 금갑도(金甲島), 어란(於蘭), 검모포(黔毛浦), 지도(智島), 임자도(荏子島)
	선 종	전선 20, 구선 8, 해골선 1, 방선 11, 사후선 56, 병선 28

수군을 살펴보면 전라도에는 2곳의 수영이 있었다. 이 수영은 모두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전남지방에 두었는데 여수에 좌수영, 해남에 우수영이 있었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우수영과 좌수영의 편제 및 속읍은 <표 2>와 같다. 한편 우리 함평은 나주진영에 속하는 우수영의 속읍이었다.

2) 함평의 군기 군물

조선후기에 이르면 군령 권은 병사와 수사, 그리고 영장에 있었지만 군기와 군비를 수리하고 성곽을 개수하는 책임은 수령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졌다. 다음은 함평에서 보관된 군기물에 대한 기록이다.

옛 『현읍군지』에 의하면 육군의 군기고는 객사 동쪽에 있었다고 하고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기산산성에 군창(軍倉)과 군기고(軍器庫)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함평현의 육군 군기물은 기산산성이 폐성되기 이전인 정유재란 때까지는 기산산성 안의 군기고에 군기물을 보관하였고 그 이후에는 객사 동편에 있는 군기고에 보관했다고 볼 수 있다.

<육군기물(陸軍器物) 목록>

정철조총(正鐵鳥銃)	270병(柄)	교자궁 현	113조
천보조총(千步鳥銃)	33병	수노궁 시(矢. 화살)	2, 057개
연환(鉛丸. 납탄)	240,650개	편전(片箭)	88부 18개
화승(火繩)	407사리(沙里)	장창(長槍)	1,071병(柄)
흑각궁(黑角弓)	207장(張)	거마작(拒馬作)	75좌(座)
교자궁(交子弓)	108장	장전(長箭. 긴화살)	166부(部) 15개
수노기(手弩機)	73좌(座)	통아(筒兒. 화살통)	110개
수노궁(手弩弓)	50장	환도(還刀)	260병(柄)
수노궁 현(弦)	47조	행고(行鼓)	13좌(座)
군복	52건(件)	오색표기(五色標旗)	110면(面)
채불(綵袚)	1개	치우기두(雉羽旗頭)	30개
화약	2,350근(斤)	전립(戰笠)	32立
왜조총(倭鳥銃)	2병	능철(菱鐵. 마름쇠)	30개
수연환(水鉛丸)	9,000개	철갑주(鐵甲冑)	7건(件)
화철(火鐵)	149개	오방신기(五方神旗)	30면
흑각궁 현(弦. 활시위)	207조(條)	나팔	1쌍

<수군기물(水軍器物) 목록>

교자궁(交子弓)	40장(張)	자통(字銃)	20개
통아(筒兒)	300개	목송(木宋)	43개
편전	2,900개	목전(木箭. 연습용 나무화살)	19개
불랑기佛狼機. 청동포)	7위(位)	분화통(噴火筒)	25개
숙통포(熟筒砲)	3좌(座)	능철(菱鐵)	279개
질려(蒺藜. 남가세)	1좌	지소원화(地小援火)	40개
현자총(玄字銃)	6병(柄)	고(鼓)	4좌(座)
연환(鉛丸)	50개	철갑(鐵甲)	50부(部)
격목(檄木)	43개	각양언(各樣櫃)	5좌(座)
약승(藥升)	420개	고초기(高招旗)	5면(面)
와관(瓦罐)	20좌	흑대기(黑大旗)	1면(面)
구철(鉤鐵. 쇠갈고랑이)	232개	영기(令旗)	1쌍(雙)
석류전(石硫箭.유황화살)	92개	궁현(弓弦. 활시위)	50조(條)
장전(長箭)	1,900개	삼지창(三枝槍)	10병(柄)
지자총(地字銃)	3병	대연환(大鉛丸)	30개
승자총(勝字銃)	11병	화약(火藥)	340근
주(冑. 투구)	50항(項)	황촉(黃燭. 밀초)	300개
오방신기(五方神旗)	5면(面)	조총(鳥銃)	70병(柄)
표기(標旗)	3면	수철환(水鐵丸)	520개
풍정인기(風正認旗)	1면	소연환(小鉛丸)	133개
순시(巡視)	1쌍(雙)	환도(還刀)	24병(柄)

<전선집물(戰船什物)>

서자 6호 전선(署字六號戰船) 1척 <길이 13파(把), 높이 1파 3자 5촌, 넓이 4파> <본판 5립(立), 좌판(左板) 12립, 우판 12립>	황죽(荒竹) 3개	용솔줄(龍總芧) 4리(里)	풍석(風席) 2건(件)
	대다줄(大多芧) 1건	소다줄(小多芧) 1건	시(鴟) 1개
	창목(槍木) 2개	철갑(鐵甲) 2개	조판(漕板) 1립(立)
	노(櫓) 2좌	사곡죽(沙曲竹) 5개	기죽(旗竹) 11개
	대기(大旗) 1건	소기 2건	수항(手缸) 1개
	철정구목개(鐵鼎具木盖) 1좌	부좌(釜子) 1좌	작오(斫五) 1개
	수통(水桶) 1좌	정심(苧芯) 10립	중고(中鼓) 1좌
	예비중줄(中芧) 2건	지의목(地衣木) 1부	상장(上帳)판목 6립
	우장(雨帳) 4개	공판(孔板) 2개	거수표(去水瓢) 2개
	수줄통(手芧桶) 1개	권정목(卷精木) 1개	
서자6호전병사후선(戰兵伺候船) 1척 <길이 6파, 넓이 1파 5촌, 높이 2자>	본판(本板) 4립	좌협판(左挾板) 6립	노(櫓) 3개
	시(鴟) 1개	창목 1개	사곡죽 1개

2. 조선후기 수취체제의 개편과 함평의 부세

16세기 이후 해이되어 오던 수취제도는 양란을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붕괴되었고, 따라서 조선 조정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전세 및 전세제와 공납제·부역제 등 모든 조세제도에 대한 개편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두 차례의 전란은 토지·인정·호구 등 모든 것을 파괴하고 감축시켜 버렸다. 전후 복구사업은 호패법의 실시를 통한 인구의 통제, 노비추쇄사업을 통한 도망노비의 색출, 그리고 적극적 개간과 양전사업, 대동법의 실시에 의한 공물을 전결에 부과하는 대동법의 전국적 실시, 그리고 군역제의 폐단을 줄이고 군사 및 각 아문의 재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역변통 및 균역제의 실시, 그리고 중앙 관아 및 지방관청의 재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환곡 모곡의 부세화정책 등이 그것이었다.

1) 전결세제(田結稅制)의 변동과 함평의 결총·세액

양란 후 최대의 문제는 농경지의 황폐와 그에 따른 전제의 문란이었다. 전국의 토지결수는 종래의 170만 결에서 왜란 직후에는 54만 결로 격감하였는데 그것은 경작지의 황폐와 토지대장의 소실에 따른 결과였다. 따라서 조정은 서둘러 경작지를 확충하는 한편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농지개간은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허용되었고 개간자에겐 개간지의 소유권과 함께 보통 3년간의 면세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력이 튼튼하고 권세가 있는 왕실·각급 관청 및 양반·토호 등 지배층이 중심이 되었으며, 개간에 부여되는 각종혜택도 이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향유되었다.[190]

또한 조정은 농토의 확대와 더불어 거기에서 나오는 전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전사업을 서둘렀다. 이것은 양안(量案. 토지대장)에 빠진 은결(隱結)을 찾아내서 다시 양안에 올려 세원을

190)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朝鮮後期農業史硏究)』, 일조각, 1970. I

증가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그 결과 광해군 때 54만 결에 불과하였던 전국의 토지가 인조 때 120만 결로 늘어났고 숙종 때에는 140만결, 그리고 영·정조대에는 최고 145만결까지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토지의 증가에 따라서 국가는 양전사업을 시행하였으니 인조의 갑술양전(1634)과 숙종 때의 기해, 경자양전(1719-20)이 그것이었다. 이 시기 양전은 조선전기의 수등이척법에 의한 결수 산정이 아니라 1등전 양전척을 사용하는 바의 동일양전척제에 의하여 1등전 1결을 기준으로 2등전 85부, 3등전 70부, 4등전 55부, 5등전 40부, 6등전 25부로 하는 체감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전결세 수취는 전세·삼수미·대동미·결전 등이었다. 세종대의 공법에 의하여 연분 9등 법에 따라 4-20두이었던 전세는 농지의 황폐, 농민의 곤궁, 지주제의 확대라고 하는 상황에서 인조 대에 이르러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미(米) 4두로 고정되는 영정법(永定法)으로 되었다. 전세의 징수기준이 풍흉에 관계없이 하하년(下下年)을 기준으로 한 미 4두로 하향조정되었으므로 국가의 재정수입은 여전히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해가 있었을 때에는 비총 법에 의한 일정한 비율의 전세 액을 감면하여 주는 식이었다. 삼수미는 훈련도감의 군병을 양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된 세목으로 1결에 2두를 부과하였다.

대동미는 각 군현에 부과하는 공물을 폐지하고 그에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전결에 이를 부과하여 수세하는 일종의 전결세였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방납의 성행으로 공납은 농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 있었는데, 전란을 거치면서는 그 징수의 기반마저 붕괴되어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이다. 방납의 폐해를 조정하여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려는 논의는 이미 왜란 전부터 대공수미(代貢收米), 즉 공물을 미곡으로 대신 거두는 방안이 제창되었는데 이이, 이원익 등이 이를 적극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육 등에 의하여 조선후기에 들어 대동법으로 공식화되어 시행되었던 것이다. 대동법 하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대신 쌀로 통일하여 징수하였고,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뀌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당 미 12두만을 납부하면 되었으므로 종전 공납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또한 쌀을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포·목·전 등으로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충청·전라·경상·황해 4도에서는 연해읍과 산군(山郡)을 구별하여 각각 쌀 혹은 포·전으로 상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화한 것으로 토지소유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과세하였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세제로 발전한 것이었고, 지금까지의 현물징수가 미·포·전 등으로 대신 됨으로써 조세의 금납화가 이루어졌다. 결전은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정 1명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하고 그에 부족한 재원을 어염세(魚鹽稅)·선세(船稅) 등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래도 부족한 재원이 있었기에 이를 전결에 전가한 것이었다. 군역민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대신 토지에 대한 과세로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다. 결국 인정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인두세가 약화되면서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결과 나타난 세목인 셈이었다. 이외에도 대원군 집정기가 되면 강화도방어를 위한 군량·군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포량미가 부과되었다. 이로서 전결에는 전세, 대동미, 삼수미, 결전(결작미), 포량미가 부과된 것이었다.

<표 3> 전결세의 상납처별 세목별 상납액

상 납 처	세 목	상납액
호 조	전 세	미 1.053석 13두 5승
	잡 비	미 425석 6두
	전 세	태 665석 9두 9승
	잡 비	태 84석 11두 3승
	잡 비	미 188석 10두 7승
훈련도감	삼 수 량	미 493석 5승
	잡 비	미 157석 8두 8승
선 혜 청	대 동	미 3.512석
	잡 비	미 923석 11두 7승
	대 동	태 175석 5승
	잡 비	태 15석 13두 2승
	잡 비	미 36석 4두
균 역 청	결 전	전 3.103량 1전 7푼
	잡 비	전 31량 3푼

당시 군현에는 군현의 전결총액에 이 같은 세목에 따른 세액의 총액을 납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상납액은 이를 상회하였다. 전결세 상납에 따른 각종 비용 이를테면 전결세를 상납하는데 필요한 조운비용이나 운반비, 그에 필요한 사무비 그리고 경향 각처의 관리에게 주는 예채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항목은 당시 잡비로 총칭되었던 것이며, 일종의 부가비용과 같은 것이었다. 함평의 전결총수는 「여지도서」(영조 33년)에 의하면 한전 2,701결 6부 7속, 수전이 3,326결 60부로서 도합 6,027결 66부 7속이었다.

이외에도 궁방전이나 각 아문의 둔전이 있으면 각 군현에서는 그에 대하여서도 전결세를 수합하여 소관 궁방이나 각 아문에 납부하여야 하였는데 「부역실총」의 단계에서 함평현의 경우에는 육상궁(毓祥宮)·선희궁(宣禧宮)·어의궁(於義宮)에 쌀을 각각 53석 4두 4승(잡비 15석 7두 8승), 59석 5두 2승(17석 1두 6승), 100석 8두 1승(29석 6두 7승)을 상납하고 있었다. 이후 전결세의 추이를 살필 수 없지만, 1871년의 함평현읍지를 통하여 보면 결총은 모두 5, 895결 60부 8속(이중 논 3,203결 33부 6속 밭 2,490결 16부 2속인데 합계에 약간의 착오가 있는 듯하다)인데, 그 세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1871년 전결세의 세목별 세액

호조 전 세	원미(元米)	1,070섬 7말 6홉
	태(太)	688섬 3말 9되 2합
	위태(位太)	175섬 5되
훈련도감 삼수량	미(米)	507섬 3되 4홉
대동청 대동미	저치미	204섬 13말 5홉
	상납미	3,587섬
균역청 결 전	전	1,238량 1전 7푼

함평군에서는 전결세를 작인으로부터 가을에 징수하는데 처음에는 8결을 단위로 호수를 내어 그로 하여금 징수하여 관에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점차 마을을 단위로 읍내에서 서쪽으로 약 20리 떨어진 손불면의 해창(海倉)으로 징수 보관하였다가 그 이듬해 2월에 창고를 열고 3월에 배에 실어 본현의 도포(道浦)를 떠나 영광의 포작도(鮑作島), 칠산바다를 거쳐 군산, 홍주 등의 연안을 거쳐 경기 강화의 통진을 통과하여 경강에 도착하는데 거의 10일이 걸려 상납미를 납부하였다.

2) 군역제(軍役制)의 변동과 함평의 군액

조선전기에 확립된 병농일치의 군역제는 16세기에 들어와 직접적인 군역대신 포(布)를 수납하는 방군 수포제로 전환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양란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양인(良人) 장정들의 대부분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는 납포군(納布軍)으로 바뀌었다.

<표 5> 함평현의 군정군보별 정액과 군역세액

소관처	군정군보	정수	세액	
			정액	잡비
훈련도감	포수(砲手)보	242명	목(木) 4동 42필	119량 3전
	군향(軍餉)보	69명	미(米) 23석	미 5석 12두 4승
어영청 (御營廳)	상번보군(上番步軍)	101명		
	보군자보(步軍資保)	108명	목 5동 18필	107량 9전
	관납보(官納保)	208명		
	경안보(京案保)	60명		
금위영 (禁衛營)	상번보군	17명		
	보군자보	17명	미 67석 10두	미 27석 1두
	관납보	203명		
	별파진보(別破陣保)	1명	목 1필	
병조	기병(騎兵)	102명	목 2동 12필	48량 1전 3푼
	보병(步兵)	6명		
	금군보(禁軍保)	249명	목 5동 20필	105량 1전 4푼
	보직(褓直)	21명		
장악원 (掌樂院)	악생(樂生)	1명		
	악생보(樂生保)	8명		
	악공보(樂工保)	24명	목 32필	16량 5전
사복시	제원(諸員)	13명	목 25필	11량 7전
공조	장인(匠人)	6명		
군기시	별파진보	6명		
법성포	조군(漕軍)호보	96명	목 1동 46필	3량

소 관 처	군 정 군 보	정 수	세 액	
			정 액	잡 비
우 수 영	수 군(水 軍)	1427명	목 11동 27필	93량 9전 4푼
임 치 진			목 202필	5량
다 경 진			목 11동 9필	11량
이 진 진	사 부(射 夫)		목 24필	2량 5전
금 모 포	정 병(正 兵)		목 1동	5량
여 도 진			목 15필	3량
봉군(烽軍)	호	50명		
	보	100명		
감영(監營)	제번군관(除番軍官)	15인	목 15필	3량 9전 5푼
병 영	신 선(新 選)	19명	38량	5량 7전
	군 뢰(軍 牢)	32명	32량	4량 4전 8푼
	기 수(旗 手)	35명	35량	4량 6전
	취 타 수(吹打手)	30명	30량	4량 2전
	수 용 군(需用軍)	30명	30량	4량 2전
나 주 진	각청취반군(吹飯軍)	5명		
합 계		3,301명		

그런데 이 때 군포는 군정, 군보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2-3필의 차이가 났으니 양인은 현역을 선호하기 마련으로 군정수괄에 따른 분란이 그치지 않았다. 또한 군정을 수괄하거나 군포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하던 수령·아전들의 농간과 횡포가 심하여 양역의 폐해는 극심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민은 군역을 피하기 위하여 전곡을 바치는 납속으로 공명첩을 사서 양반의 신분이 되거나 아니면 족보를 고치거나 호적을 변개하여 유학을 모칭(冒稱)하고 환부역조(換父易祖)하는 등의 방법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방법을 구사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가 축적되어야 하였으니 결국 생활이 조금 넉넉한 초실(稍實)층은 점차 군역의 부담에서 벗어났고 이것도 되지 않으면 군관의 칭호를 얻고자 하였으며 향교나 서원의 교생을 칭하여 이를 피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소농·빈농층에게 군역의 부담이 전가되어 그들의 생활을 크게 어렵게 만들었다.

조선왕조는 숙종 37년(1711)에 '양역변통절목'을 반포하여 군정의 수괄에 있어서 관의 간여를 줄이고 동리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모든 군역의 세액을 2필로 통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당시 농민들에게 그 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는 것이었다. 더구나 군역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곧 양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실제 그를 인정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거의 모든 양민은 이를 회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영조 26년에 실시한 균역법은 그러한 질곡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정의 군포를 1필로 줄여주는 대신 그 부족한 재원을 일부는 결전의 명목으로 토지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어염세나 무세, 선세 등에서 충당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현별로 군정 군보를 할당하여 세액을 징수하였으니, 조선후기에 들면 이 같은 군정 군보는 실제 징집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군포를 납부하면 되었으니, 군현에서는 이를 그 주민에게 할당하여 군현의 책임량을 채우면 되는 식이었다.

『양역실총』 및 『부역실총』에 의하여 각 군영 및 아문 영문에서 함평에 배정된 군정 군보 등의 정액과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보면 <표 5>와 같다.

이상 함평현에 할당된 군정 군보의 총수 즉 경외의 각 아문 군영에서 함평현에 배정한 양영의 총수는 3,301명이었는데 이때 함평의 총 호수는 7,552호이었다. 이중 남정(男丁)이 양인과 천인을 합하여 11,543구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남정 3.5명당 1명의 군정을 내고 있었고 1호당 0.44명의 양역세를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3) 환곡제의 운영과 함평의 곡총

본래 환곡은 군량과 진휼 그리고 상평을 위하여 국가가 곡식을 보관·비축하는 데에서 곡식을 저장만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곡식을 내고들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며 이 때 민간에게 대여하고 회수하는 과정의 이름이었다. 즉 곡식을 바꾼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말로 조적(糶糴)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곡식을 바꿀 때 여러 가지 곡식의 손실이 있을 수 있었으니, 되질을 할 때 떨어질 수가 있었으며, 보관과정에서 쥐가 들거나 비에 젖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의 곡 량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에 대여하고 회수할 때 얼마간의 곡식을 더 받아야 원곡을 채울 수 있었을 것이니, 이를 모곡(耗穀)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후기가 되면 이 같은 모곡을 부세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른바 모곡을 취하여 경비에 보충하였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취모보용(取耗補用)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취모보용이 여러 재정아문이나 군문의 경영에 없지 않아서는 안 되었으니 각 아문은 다투어 원곡을 창설하여 각 군현에 배정하고 그 모곡을 거두어 재원으로 삼았으며, 환곡은 마침내 부세와 같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들어 각 군현에 배정된 원곡은 내고 들이는 과정에서 민간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자연재해 등을 당하거나 이서 층의 포흠 등으로 원곡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원곡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원곡을 설치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환곡의 곡 량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그에 대한 모곡의 양이 늘어났고, 결국 이는 부세의 가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에서 보면 일종의 공공기금과 같은 것으로 이를 민간에 대여하여 그 이자로 공공기관의 살림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오늘날은 그 수혜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일면 합리적인 것이지만, 조선후기에서는 실제 곡식을 분급하지도 않고 모곡만을 거두는 일까지 있어 그 폐단이 극심한 바가 많았다. 또한 춘궁기에 화폐로 대여하고 추수기에는 현물로 거두는 등의 곡가의 계절적 차이를 이용한 환곡행위도 서슴지 않고 자행되었으니 그 민폐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같은 환곡의 배정은 고을마다 예외가 없었으니, 함평현의 경우에도 적지 않는 환곡이 배정되었다. 다음은 「여지도서」에 등재된 소관 처별 환곡의 곡총이다.

<표 6> 여지도서 상의 함평의 조적

주 관 처	곡 종	수 량
군자창(軍資倉)	미	36석 5승 7합
	조	67석 11두 7승
	피 모	130석 6두 4승 6합
	진 맥	21석 1두 3승 8합
진색(賑色)	미	192석 3두 8승
	태	217석 14두 6승 1합
	조	743석 3두 5합
상평창(常平倉)	미	216석 8두 3승
	태	231석 5두 9승 8합
	조	4,356석 5두 8승 7합
	피모(皮牟)	7,499석 2두 5승 7합
	진맥(眞麥)	1,722석 2두 8승 4합

함평에서의 조적은 미(쌀)와 태(콩) 그리고 조(수수)는 10월에 창고를 열어 분급하고 12월에 마감하여 봉고(封庫)하며 모맥은 5월에 창고를 열어 분급하고 6월에는 이를 마감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후 함평의 환곡총액은 크게 늘어났고, 이것이 후일 함평농민봉기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로 1871년의 환곡총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1871년 환곡의 곡종별 총량

각아문피모 (各衙門皮牟)	3,388석 7두 6승
직 맥 (直 麥)	1,337석 6두 9승
환 미 (還 米)	5,840석 16두 9승
태 (太)	710석 6두 1승
조 (租)	15,501석 6승
병인정묘별비(丙寅丁卯別備) 환미	3,275석

<표 8> 유진익 전수전여물목(傳受傳與物目)

	곡 종	전 수 (傳受)	전 여 (傳與)
군자창		667석 7두 7승 4작 6되	676석 4두 5승 5합 5작
상진청	미 (米)	118석 9두 2승 1합 4작	118석 10두 4승 7합
	태 (太)	6석 13두 9승 9합 9작	6석 14두 2승 2합 9작
	조 (租)	1,398석 6두 1승 6합 6작	1,354석 5승 8합 2작
	피모(皮牟)	221석 10두 9승 3합 6작	230석 8두 9승 7합 6작

<표 9> 유진익 전수곡품물(傳受穀品物)의 내역

구분	내 역	곡 종 별 수 량				
		미(米)	태(太)	정조(正租)	피모(皮牟)	진맥표(眞麥表)
군자창	대하(貸下)			166석 10두		
	항하(上下)	11석 11두 3승				
	환분(還分)				32석 1두 3승	9석 5두 7승
	유고(留庫)	402석 14두 8승		43석 3두 3승		
상진청	대하(貸下)	16석 7두 9승		187석 7두 7승		
	환분(還分)				110석 13두	
	병영이획(兵營移劃)	100석		400석		
	미봉(未捧)		3석 2두	671석		
	유고(留庫)	2석 1두 3승	3석 11두 9승	139석 13두 4승	110석 12두 9승	

조선후기 함평의 양곡을 통한 환곡을 어떻게 분급하고 상납관청에는 얼마를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중 일부를 공용 및 관수로 사용하였는가를 1845년 6월 25일부터 그 이듬해 6월 15일까지 약 1년간 함평현감으로 재임한 유진익(柳進翼. 1787-1851, 풍산인)의 해유문서(解由文書)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191] 이를 통하여 함평현의 환곡 및 양곡운영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해유문서에는 자신의 전임자로부터 전수받은 양곡현황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임자의 재정운영도 확인할 수 있다.

1845년(헌종 12)에 부임한 함평 현감 유진익은 그 전임자인 허채(許采)로부터 군자창전유고(軍資倉前留庫) 및 상진청(常賑廳) 몫으로 <표 8, 9>와 같이 군자창전유미 곡물 도합 670여석과 상진청곡 1,750여석을 전수받았다. 이외에도 소금 21석, 곡자(누룩) 7동(同) 4원(圓), 돼지가 암컷 20마리, 수컷 120마리, 그리고 염소가 수컷이 65마리, 암컷이 15마리가 있었다.[192] 이외에도 잃어버리고 죽은 말(故失馬)이 목면 15필로 계상하여 전수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퇴임 시에 이상의 가축 및 물품과 함께 전수 받은 수와 거의 비슷한 양의 곡물을 후임 현감에게 전계하여 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해유문서는 이 같은 재정현황 외에도 그간의 재정운영의 일단을 알려주고 있다. 즉 전수곡물의 내역을 보면 대여(대하) 환곡분급(환분) 지불(上下)그리고 병영에 이획하는 등의 재정집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 해유문서란 현감이 교체되면서 후임 현감이 교체당시의 당 지방의 재정현황을 관찰사에 보고한 것인데, 이를 받은 관찰사는 이를 호조에 보고하고 호조는 이를 확인하는 일련의 문서를 말한다. 이 해유문서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호조와 병조에서 이조에 이를 통고하고 이조는 이를 당 현감에 전하여 그 임기를 마감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유진익의 해유문서는 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풍산류씨가 편에 나온다).

192) 그러나 아쉽게도 관아가 기르고 있는 가축 등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가축을 관아(이러한 일은 대개 관사(官司)에서 담당한다)에서 사육하였다면, 사실을 은폐하였던지 아니면, 관아의 가축사육의 유명무실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 이미 관아의 가축사육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러한 만큼의 가축을 매년 민간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 유진익 전계 곡물(傳繼 穀物)의 내역

	내 역	곡 종 별 수 량				
		미(米)	태(太)	정조(正租)	피모(皮牟)	진맥표(眞麥表)
군자창	대하(貸下)			166석 10두		
	상하(上下)	17석 4두 3승				
	환분(還分)				14석 7두 8승	10석 4두 8승
	유고(留庫)	373석 10두 6승		4석 14두 5승		
상진청	대하(貸下)	16석 7두 8승		187석 7두 7승		
	환분(還分)				115석 4두 5승	
	병영이획(兵營移劃)	100석		400석		
	미봉(未捧)		3석	671석		
	유고(留庫)	2석 2두 6승	3석 14두 2승	75석 12두 4승	115석 4두 4승	

전임자 허채는 군자창전유고 몫으로는 대동미를 상납하는 일을 맡은 대동청에 166여석을 빌려주었으며 피모 32석여, 진맥 9여석을 환곡으로 분급하여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규장각 책지가(冊紙價)등 상납물종의 값을 쌀로 7석 5두 가량 지불하고 봄 제향의 제주나 말 2필의 분양(分養)하는 3개월 치 급료 등으로 지불하였다. 또한 상진청 몫의 쌀과 수수(조)는 병영에 이획하고 혹은 대하 하였으며, 피모의 약 절반은 환곡으로 민간에 분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동청에 일시 대하하거나 각종 물품, 그리고 병영에 이획하는 곡물은 쌀과 수수(조)를 쓰면서 민간에 분급하는 곡종은 전부 맥류 그것도 피모(皮牟. 껍보리)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은 물론 곡식을 들고 나가는데 있어서 나피모를 보관 저장하는데 있어서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었겠지만, 이미 부세의 일종으로 전환되어 민간에 많은 질곡을 안겨주고 있었던 환곡의 주요 곡종이 피모였다는 사실에서 민간이 당하게 될 울분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겠다. 유진익(柳進翼) 역시 전임현감과 대동소이한 재정 집행을 하고 있었다. 유진익의 재임 기간이 되면 다소 상하 비용의 지급이 전임현감 때의 11석 11두 보다 다소 늘어나고 있었다. 이것은 전년도 현감이 상하한 항목 규장각책지가 제향제주, 분양마필가 이외에도 칙수(勅需)로 소용되는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 때 소용되었던 물품은 주로 둥글고 붉거나 쪽 빛나는 파란 부채를 비롯하여 후백지(厚白紙. 두꺼운 백지) 초석(草席) 등이었는데 칙사의 수요로 그만큼 함평현의 재물지출이 늘어났던 것이다.

4) 진상 및 별공제의 잔재와 함평의 진상품

대동법에 의하여 진상 별공은 일단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지방에서는 왕실이나 상급관청 등에서 요구하는 별공이나 상납 물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비용을 위하여 대동법에서는 지방에서 그러한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동저치미를 군현에 남겨주는 것이 상례가 되어 이 같이 진상은 원칙적으로 관에서 조변하는 것이었으나 그 권한은 전적으로 지방관에게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 민호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 허다하였다. 더구나 조선후기로 시기가 내려올수록 저치미의 양은 적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현에서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가호나 전결에 부과하도록 된 것이지만, 본래 대동법에 의하여 전부 마감한 것으로 된 공물을 재차 납부하는 식이 되는 것이었다. 특히 중앙에서는 탕감하여주는 공물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여전히 민호에게 이를 징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지방관의 재량에 맡길 뿐 이에 대한 정제(定制)가 없었기 때문에 민생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관찰사 이하 지방수령은 관비(官備)의 진상물을 사용(私用)할 뿐만 아니라 민호에서 책납하는 경우에도 대개는 그 정액의 몇 곱절을 징수 착복하였다. 이와 같은 수령의 불법 수탈 행위는 가끔 조정에서 논의된 바가 없지 않지만 결국에는 통상예사로서 낙착되고 말았다. 함평현의 경우, 조선후기 진상물은 여지도서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말린 숭어(乾秀魚), 말린 새우(乾大蝦), 조기(細鱗石首魚), 굴비(仇乙非), 말린 꿩고기(乾雉) 말린 오징어(乾鳥賦魚) 보리(大麥), 밀(小麥), 햅쌀(新稻米) 홍시(紅柿), 산 꿩(生雉), 산 노루(生獐), 산 사슴(生鹿), 꿀(淸密), 청 대죽(靑大竹)이었다.

이것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1871년, 1895년에도 그대로 실리고 있음을 보면 이 시기 함평의 특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1899년 간행의 읍지에는 말린 새우, 말린 꿩고기, 산 노루와 사슴이 제외되고 숭어알(秀魚卵)·다시마(多士麻)·잣(佰子)이 새 진공물이 되었다.

제2절 조선후기 붕당대립과 함평의 자산서원(紫山書院)

1. 붕당대립과 자산서원의 치폐

조선시대 정치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당파성론(黨派性論)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즉, 그 정치는 거의 사화와 당쟁으로 이어지다시피 했으며, 정치가 이렇게 분열과 대립을 거듭하는 속에서 사회발전 같은 것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왕조가 이민족에게 국권을 잃는 것으로 끝난 것도 정치의 이러한 난맥상으로 보는 당연한 결과였다. 조선시대 정치사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최근 새로운 비판을 받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도 당파성론의 영향은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본래 각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과 성과의 총합과 같은 것이어서 한 민족의 역사에서도 그 정치의 형태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상례이다. 한국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사화·당쟁은 한 시대의 역사적 조건을 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성리학적 붕당정치는 본래 공치주의(共治主義)에 입각한 것이었다. 즉, 고대의 유교가 천도(天道)를 제왕(帝王)만의 것으로 규정하여 왕정수행에서 신하를 순전한 보필자의 위치에 있게 한 반면, 신유학(新儒學)에서는 천도·천리를 군신(君臣)이 함께 알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치의 주체인 군주는 특히 학식이 있는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알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재지지주층은 향당결성의 움직임을 새로이 보였고, 관료로 중앙에 진출한 자들은 정치세력으로서의 붕당형성의 기미를 뚜렷하게 보았다. 사림파의 등장이 바로 그 실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선조대의 정국은 사림계의 진출이 현저하였지만 붕당정치의 실현이란 측면에서는 아직도 과

도기적인 한계가 있었다. 붕당정치 실현의 확실한 토대는 인조반정을 계기로 잡혔다. 인조반정은 율곡(栗谷) 이이(李珥) 학통의 서인(西人)이 주도하고 퇴계(退溪) 이황(李滉) 학통의 남인(南人_)이 동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떻든 이후 정치를 주도한 서인과 남인은 모두 학파적 결속을 확고히 한 정파들로서 이런 요건의 구비는 성리학적 붕당정치 실현의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 두 정파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공도 실현에 노력하는 학파라는 것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비판적인 공존체제를 구축하여 갔다. 그리고 이런 체제의 정치적 여론은 주로 서원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중앙에 진출한 자파의 관료들을 통해 중앙정치에 반영되도록 이끌어갔다. 각 학파에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물이 사림(士林)이란 이름으로 그 여론을 주도하는 존재가 된 것도 이 시기 특유의 것이었다. 각지 서원은 향약적 방식을 통해 군현단위의 향촌질서를 주도해 지방통치에도 왕을 대신하는 지방관과 역할을 분담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국가재조 차원의 제도개편과 사회경제적 발전변동은 수월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거듭된 환국으로 표현되는 바의 붕당간의 정국교체가 잦아지면서 붕당대립은 상호 불용의 상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개청의 신원운동과 사원(祠院)철폐는 동인과 서인의 정권 방향에 따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되풀이되었다.[193]

선조 24년(1591) 정철(鄭澈)이 축출당하고 동인이 집권하면서 정개청의 신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광해군 8년(光海君1616) 현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제동마을에 자산서원(紫山書院)이 세워졌다. 이는 동인계열의 남·북인이 합세하여 이룬 성과였다. 그러나 서인들에 의한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성공하자 김장생(金長生)의 상소에 의해 인조 2년 (1624) 서원이 철폐되었다. 그 뒤 1년 만에 정개청은 다시 복위되고 서원도 복설되었다.

그 후 효종 8년(孝宗 1657)에 서인의 송준길(宋浚吉), 민정중 등의 상소로 자산서원은 또다시 철폐되었다. 다시 동인계열의 남인인 윤선도(尹善道)와 허목(許穆··영의정을 지냄)의 상소로 숙종 3년(肅宗··1677)에 복설되었으며, 경신년(庚申·1680) 남인대출척(南人大黜陟)으로 또 다시 철폐되는 화를 당하고 기사환국(己巳換局·1689)으로 남인이 다시 집권하자 또 다시 복설되었고 갑술옥사(甲戌獄事)로 남인이 다시 쫓겨나자 철폐되었다. 이렇듯 사후에도 엎치락덮치락 파란을 겪는 자산서원은 당쟁으로 인한 침해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었다. 복원되고 헐리는 과정의 이모저모가 대동야승의 "기축록(己丑錄) 하권 "속기축록"에 수록되어 있어 이를 읽어 보노라면 만감이 교차된다.

남인과 서인의 정권 교체 때 마다 복원되고 폐철되는 비운을 맞은 자산서원에 대해 그 이모저모를 언급하려면 엄청난 분량이 되기에 여기서는 한 사례만 들기로 하겠다. 효종 8년(1657)에 송준길(宋浚吉)이 기축년 옥사 때보다 더한 모함으로 사우철폐를 상소한데 대하여 윤선도(尹善道)가 부당성을 1658년 6월에 상소한 바 있다. 이 상소에서 윤선도는 정개청의 무고함과 인품을 장문(長文)으로 엮고 있다. 몇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청이 소인들에게 질시를 당하여 혹독히 역사(轢沙)의 화(禍)를 입어 기축 년 옥사에 무고하게 죽었다가 다행히 설원(雪寃)함을 입은 지 36년이 되었는데 이제 기축 년보다 배나 심한 모함을 받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개청이 열성조(列聖朝)의 보살핌에 힘입어 초야에서 분발하여 일어나 독실하게 배우고 힘써 행

193) 김동수(金東洙), 「16~17세기 호남사림(湖南史林)의 존재형태에 대한 고찰 —특히 정개청의 문인집단(門人集團)과 자산서원의 치폐(置廢)사건을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 7집, 1977

하여 식견이 투철하고 사업을 이루어 세상에서 추앙하는바 되니 사람의 종장(宗匠)이 될 뿐 아니라 여러 재상이 천거하고 임금께서 부르심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결코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범상한 사람이 죄 없이 오명을 쓰면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니 미천한 신하가 가슴을 치며 원통히 하매 6월에 서리가 내리고, 잔약한 여자가 하늘을 원망하매 3년이 가물었다 하는데 하물며 지극한 행검이 몸에 배어 있어 도(道)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 황천의 원통함을 겨우 씻었다가 후세의 무고함이 더욱 혹독하다면 이 어찌 밝은 세상이라 하겠습니까? 반드시 밝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중략」

윤선도의 상소는 개청에게 오명을 다시 쓰게 하려는 행위를 탄식하고 있으며 그 무함(誣陷)이 밝게 밝혀지기를 간원하고 있다.

「……사원(祠院) 창건의 여부는 다만 그 사람이 어질고 그른 것으로 논해야지 그 사람의 세계(世系)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송준길이 개청은 무안관속(務安官屬)이었다는 말에 대한 무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서두다. 또 송준길이 "개청은 스승을 배반하고 도리어 스승을 배척하는 자에게 붙었다"는 말에 윤선도는 터무니없게 사제지간으로 얽어 무함하는 것을 질타했다.

「옛 상신(相臣) 박순(朴淳)은 계미 생(1524)인데 나이 31세가 되어 계축년(1553) 정시(廷試)에 장원하고 갑자년에 직제학을 거쳐 승지에 올랐으며 을축 년에 대사헌에 제수되고 무신년에 예조판서가 되었으며 임신년(1572)에 정승이 되었습니다. 개청은 기축 생(1529)이니 박순이 개청보다 6세가 위인데 개청이 견수의 나이(肩隨之年·5년이 위이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로 어찌 스승과 문인(門人)의 의의를 맺어 수학(受學)할 리 있겠으며 비록 수학하더라도 박순이 나이 30세가 되기 전에 사람을 가르칠 리 있습니까? 30세 이후에는 환로(宦路)에 종사여서 서울에 있었고 개청은 시골에 있었으니 박순이 비록 개청을 가르치려하고 개청이 박순에게 배우려 하였더라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개청의 사고(私稿) 우득록(遇得錄) 가운데 박순에게 보내는 글 몇 편이 실려 있는데 그 제목에 사암(思庵)에게 주는 글, 사암에게 올리는 글이라 하였으며 글의 서두에는 후생(後生) 개청, 혹은 개청이라고 한 것이 많고 문생이라 이르지 않았으니 문생이 아닌 것이 분명 합니다.」

또한 윤선도의 상소는 정여립 역모에 전연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낱낱이 지적했다.

「개청이 구원(九原)의 썩은 뼈가 된지 이미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람으로 누가 혐의하고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비록 죄를 얽더라도 이로울 바가 없고 원통을 씻더라도 해로울 바 없을 것인데 무함하는 것이 기축 년보다 곱절이나 되는 것은 개청은 자취지화(自取之禍)로 돌리고 정철이 선비 죽였다는 이름을 벗기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사우철폐의 속마음을 밝힌 후 효종의 결단을 촉구했다.

「……성상께서는 미쇄(微鎖)한 것을 통촉하시고 덕음(德音·임금의 말씀)을 내리시어 황천(黃泉)에 있는 개청의 원통을 씻고 사방 사림의 공론을 통쾌하게 하시어 국시를 바로잡고 나라의 명백(明白)을 길이 하여 주시면 종사(宗社)의 다행이겠나이다.」

여기에 개청의 인품과 『우득록』에서 느끼는 학문적 가치를 열거하고 『우득록』 발간사업까지를 제의하고 있다. 실로 장문(長文)인 상소였다. 그러나 이 상소는 정원에서 되돌려주고 말아 후대에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사우가 철폐될 때의 상황이 또 다른 상소에 있어 그 비참함을 볼 수 있다. 효종 8년(1657) 서인인 송준길 상소에 의하여 자산서원이 철폐된 후 1675년 4월에 유학 나적(幼學羅積)등 사림(士林)들이 올린 상소에 대한 비통한 심경을 털어놨다.

「……계해년(1623) 반정(反正) 뒤에 서원이 신설되어 관작이 회복됨에 많은 선비들이 용동(聳動)하여 개청이 살던 무안현(현 함평군)에다 사우(祠宇)를 지어 이로써 인조(仁祖)의 성덕을 빛내고 많은 선비들이 경앙(景仰)하는 마음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유년(1657) 판서 송준길이 개청이 상신 박순에게 교육을 받고 나중에 도리어 박순을 공격 배척하는 자들에게 붙었고 그의 이름이 기축역옥(己丑逆獄) 공초(供招)에 나오며 그가 일찍이 배절의론(排節義論)을 지었다는 등의 무함을 어전에서 계달하고 사우철폐를 청하여 본읍(本邑·현 무안)이 그 위판(位板)을 불사르고 제기를 부셨으며 재목과 기와는 거두어 마굿간을 만드니 마치 역적의 집을 파 해쳐 연못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 너무 심합니다.—후략—」

앞서도 말했듯이 이 기록은 기축록에 실려 있다. 기축록은 2권인데 1권은 최영경(崔永慶)의 행장과 그가 무함을 입은 원통함을 풀고 부끄러운 일을 씻어버리는 내용(伸寃雪恥·伸雪·雪憤伸寃) 등이 실려 있고, 1권은 "기축록 하" " 속기축록"으로 나뉘어 개청이 모함 입은 사실을 실었는데 그 때에 추안(推案)과 소(訴)와 차자(箚子)가 기록되어 있다. 기축록은 대동야승(大東野乘) 17·18권에 편집되어 오늘에 전하고 있다.

정개청의 신원운동과 자산서원의 치폐과정을 연대표로 작성하면 <표>와 같다.

<표 11> 정개청 신원운동과 자산서원 치폐 연대표

시 기	신원·서원복설	배척·서원훼철
1589(선조 22) 12.	배명 등이 정개청 신원 상소	
1595(선조 28)	나덕윤 등이 신원상소, 유성룡의 계사	
1596(선조 29) 12.	전 의금부도사 나덕명 등이 정개청, 유몽정, 이황종, 조대중, 이발, 이길의 신원 상소	
1598(선조 31)	화순사람 조수홍이 이발, 이길, 유몽정, 조대중, 이황종의 신원 상소	
1599(선조 32) 8. 2	전 별좌 나덕준 등이 정개청 신원 상소	
1603(선조 36) 3.17 3.18 4. 8	전 직장 안중묵이 정개청 신원 상소 의금부에서 협의하여 계를 올림 당상, 심희수, 송언신의 은전을 베풀어 주자는 계를 올림	
1606(선조 39) 10.	무장사람 전 찰방 오익창 등이 정개청, 이발, 이길, 유몽정, 조대중의 신원 상소	
1607(선조 40) 1.21 4.29	유생 양극린 등이 정개청, 유몽정, 조대중, 이발, 이길 등 신원 상소 전 참봉 최홍우 등이 이발, 이길, 유몽정, 정개청의 신원 상소	
1608(선조 41) 2. 2. ?	선조 승하, 광해군 즉위 전 의금부도사 나덕윤이 정개청 신원 상소 나주 생원 강봉람이 정개청, 이발, 이길, 유몽정, 조대중의 신원 상소	

시 기	신원·서원복설	배척·서원훼철
1609(광해 1)	삼사에서 정개청, 이발, 이길, 백유양 등 4 신하의 신원을 전달하는 계를 올림	
1610(광해 2) 2. 2~4	선조의 3년상 후 삼사에 바꿈이 있었음 4신하에 대한 신원 계사가 계속 됨.(2월 사헌부, 사간원에서 연하여 계를 올렸고, 17일 홍문관, 19일 홍문관, 4월 25일 삼사합계, 27일·28일·29일에 다시 합계하는 등 계사가 연이음)	
1611(광해 8) 6. 4 가을	유생 유광렬이 다섯 신하의 신원소를 정원에 내어 15일 윤허 윤암 옛터에 정개청 사우건립(직첩은 회복하지 못함)	
1611(광해 8) ? ?	생원 강봉람이 유몽정, 조대중에게도 은전을 베풀어 주기를 청원 나원길 등이 이발의 적물가산과 정개청의 관작 환급을 상소	
1624(인조 2) 여름	다섯 신하의 복관(復官)에 대한 특명 수의(收議)	
1625(인조 3) 2.	5인의 관작 복위	
1657(효종 8) 9. 27		찬선 송준길 등이 건의하여 정개청의 사우가 훼철 됨
1658(효종 9) 6.	정개청 증손 국헌이 상소했으나 도로 내주었음. 전 참의 윤선도가 정개청을 위해 상소 윤선도가 만언소를 올려 정개청의 신설을 제기	응교 이단상(李端相) 및 사학의 유생들이 정개청 배척 상소
1675(숙종 1) 4. 1 4. 10	나주 유생 나적 등이 정개청 설원, 사우 복건 상소 유학 안민유 등이 정개청 설원, 사우 복건 상소	
1676(숙종 2) 4.	무장사람 생원 오상옥 등이 정개청 사우 복건 상소	
1677(숙종 3) 5.22	우의정 허목이 정개청 사우 복건에 대한 장계(사우복설)	
1678(숙종 4) 겨울 11. 5	무안유생 서국빈 등이 정개청 사우 청액 상소 예조판서 목래선(睦來善)이 사액 장계	
1680(숙종 8) 여름 ? 가을	전라감사 임규가 정개청 비방, 서원훼철을 상소 광주사람 유경서 등이 정개청 비방, 서원훼철 장계	자산서원 훼철
1689(숙종 15) 4.11 4.13 4.	나주 유생 나두하 등이 자산서원 복설 상소 우의정 김덕원, 대사성 유명현, 우부승지 이시만이 복설논의 정개청의 우득록을 홍문관에서 등진	
1691(숙종 17)	자산서원 복설(대소 총 22칸)	
1692(숙종 18) 3.18 여름	자산서원으로 사액, 예조정랑 조세항 치제 우득록 발간	
1694(숙종 20) 2.27	정개청, 중훈대부사헌부집의 증직	자산서원 훼철논의 일어남
1702(숙종 28) 5.26 6.16 9.17	시강관 이만성, 자산서원 훼철을 청하는 계를 올림 무장 유생 오정훈 등이 정개청의 원통함을 진언하는 상소(7.18 나주 추선사, 8.19 나주 쌍계사에서 17읍 유생 300명이 소회를 열어 17명이 상경, 전달)	자산서원 다시 훼철(3차)
1752(영조 28)	자산서원 복설(4차)	
1762(영조 38)	자산서원 훼철(4차)	
1789(정조 13) 4.	복설(강당, 사우), 제동서원이라 부르다가 제동사라 함(5차)	
1791(정조 15)	사우완건	
1868(고종 5)		훼철
1987~1998	사우 복설	

2. 동족(同族) 마을의 확대와 서원사우

서원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목되며 그 역할이 커지는 것은 이른바 산림세력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17세기 중반이후부터다. 이 시기는 붕당정치가 성리학적 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명분과 의리중심으로 전환되어 향촌사림의 여론이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때였다. 당시 향촌의 사림은 이러한 붕당정치의 전개과정 속에서 중앙정치세력과 연계하여 향촌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였으며, 중앙관료들은 지방의 서원조직을 통해 자파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 하였다. 따라서 당시 향촌사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차적 거점이었던 서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17세기 중반 이후 붕당정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유림의 집단상소인 유소(儒疏)는 대체로 향교·서원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동성촌락(同姓村落)의 발달과 함께 동성집단 내부의 상호결속과 사회적 지위 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원은 족적기반의 중심기구로 그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갔다. 이는 향촌사회에서 기존의 사족지배(士族支配)가 점차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했다. 특히 이 시기 향안·향약 등 사족간의 결속을 보장하던 자치조직이 쇠퇴하던 현상은 사족들로 하여금 문중적(門中的) 보장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였다. 이러한 가문의식의 현저한 발휘 속에 서원의 역할도 문중 내 명조(名祖)·현조(顯祖)의 제향을 통한 향중의 벌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유지, 문중자제의 교육과 교화를 통한 문중 내 윤리질서의 유지 등을 도모할 수 있었다.

17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원(院)·사(祠)의 건립은 향중(鄕中) 공동의 관심사에서 출발하였으나,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서 지역·씨족별로 개별화 추세를 보이면서 문중의 파벌로 더욱 세분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원장·유사 등 당시 서원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원임의 구성에서도 나타나고 시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피봉사자의 후손의 비중이 커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 서원은 이전까지의 향촌공동체적 성격에서 벗어나 점차 가문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나 그 시점은 각 서원의 형편이나 성격에 따라 다소 달랐다.

따라서 원·사는 종래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가 크게 축소되었고, 사현(祀賢)의 기능만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향촌에서의 문중의 우위권 경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한편으로는 그들 문중의 사회적·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갔다. 또한 17세기 이후 서원이 급격히 남설(濫設)되면서 폐단이 노정되자 설립과 사액에 대한 국가적 통제 책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권한은 지방관에 귀속되었다. 서원유림들이 지방관으로 대표되는 관권(官權)에 대해 일정하게나마 그들의 자유로운 향촌 내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의 공적승인이라 할 수 있는 사액을 받는 것뿐이었다.

한편 이러한 추세에 따른 양반층의 급증은 동족 마을을 형성시키기도 하였다. 동족마을은 유교의 실천윤리가 지체를 자랑하는데 내세워지는 사회적인 위세에서도 연유된 점이 적지 않았지만, 광대한 전지(田地)를 기초로 해서 지방의 문벌들이 동조의식(同祖意識) 아래의 생활조직에서도 기인했다. 동족마을은 동조의식을 가진 동성동본의 남계 친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한 마을에 동성동본의 사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동족마을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동족이 그 마을의 사회생활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 하는 질적인 면과 집단적으로 거주하되 어느 정도로 많은 동족이 모여 사느냐하는 그 마을에 있어서의 동족의 양적인 면도 아울러 다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족마을의 형성은 이미 다른 주민이 마을을 형성한 곳에 새로운 동족이 입주하여 그 마을의 지배적 동족으로 발전하는 경우와 새로운 개척지에 거주지를 정하여 동족마을로 발전시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동족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까지 소급시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동족마을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 혹은 그보다 훨씬 후대가 아닌가 여겨진다.[194]

동족집단은 가계(家系)의 계승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가족의식의 강화와 함께 출현한 것이며, 동조의식에 바탕을 둔 혈연집단이다. 따라서 동족집단은 가족제도 특히 상속이나 제사와 밀접히 관련된다. 조상숭배는 제사를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남계 친족집단의 강화는 상속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 장유(長幼)의 구분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상속제도나 제사양식의 변천은 동족집단의 형성·발전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족집단의 형성은 조상숭배(제사의 중시)의 강조와 또 남계 친족집단의 강화(차등 상속)와 때를 같이 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분재기(分財記)의 분석을 통해서 제사대상의 범위와 그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제사의 대상자>

명 칭	1500 - 1659	1660 - 1749	1750 - 1880
봉사(奉祀)	21	20	3
제사(祭祀)	·	2	·
승중(承重)	1	2	·
사위(祀位)	1	·	·
본종봉사(本宗奉祀)	·	1	·
부모봉사(父母奉祀)	·	4	5
조부모·부모봉사	·	2	1
증·조·부모	·	·	2
고·증·조·부모	·	·	1
조부모·조상제사	·	1	·
부모·선세(先世)봉사	·	1	·
7대위사(七代位士)	·	·	1
원봉사(元奉祀)·신봉사(新奉祀)	·	1	·
조상제수·부모기제·외조부모	1	·	·
외가제사	·	1	·
본종·처변(妻邊)·부모	·	1	·
외가제사·승중	1	·	·
불명	2	·	·
계	27	36	13

이와 같이 동족이 집단의식을 가지고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들 동족에는 대개 하나의 조직체가 구성된다. 이 조직체를 문중 또는 종중이라 한다. 이 종중은 공동 조상의 제사에

194) 최재석, 『한국사(韓國史)』 13, 국사편찬위원회, 1990, 524쪽.

의해서 맺어진 자손의 집단이므로 자연적인 집단이라 하겠지만, 일정한 범위의 동족이 의식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종의 인위적인 집단이다. 다시 말하면 동족이 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거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종중이나 문중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집단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구성할 때 형성되는 것이다. 참고로 함평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의 전국분포를 1985년 경제기획원의 인구주택 센서스 통계로 살펴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함평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의 전국 분포>

본　　관	가구	인구
함평김(金)씨	223	943
함평이(李)씨	24,776	103,697
함평정(鄭)씨	1,462	6,425
함평오(吳)씨	747	3,282
함평문(文)씨	158	850
함평임(任)씨	25	116
함평노(魯)씨	6,125	25,852
함평모(牟)씨	3,656	15,539
함평윤(尹)씨	198	910
함풍이(李)씨	1,487	7,162
함풍정(程)씨	5	24

이러한 동족의 위세를 표시하는 기록의 대표적인 것이 족보와 문집이다. 족보에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조상의 관직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상이 베푼 선정, 왕으로부터 받은 포상 등이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동족의 사회적 위세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조상의 관직의 크기와 수에 의해 결정되며, 그들의 행정과 학문의 정도에 따라 대우를 받는 것이다. 동족의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그들은 반드시 동족의 중심인물인 가장 높은 관직을 지낸 조상을 내세우게 한다. 이 조상이 또 하나의 파(派)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족보 외에 동족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또 하나의 기록은 조상의 문집이다. 문집은 조상의 학업을 과시하는 것으로서 때로는 서원 등에 보관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여 그들 동족의 위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 교지(敎旨)도 소중히 보관하는 문서의 하나인데, 대체로 한국 사람이 금전에 관한 기록은 소중히 보관하지 않으면서 족보·문집·교지 등의 문서를 소중히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동족의 사회적 위세를 높이려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위세를 표시하는 물적 시설로는 묘지·열녀비·효자비·정려·신도비·재실(齋室)·사당 등등 대단히 많다. 동족의 중심인물의 존재나 효자·열녀·충신 등의 존재는 단지 기록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물적인 시설에 의해 과시함으로써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열녀비·효자비·신도비·정려 등이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설립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동족의 위세를 높여 주는데 크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원 및 향교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다. 서원이나

향교에 자기 동족의 조상을 모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 동족의 조상이 배향된 서원, 향교를 거대하게 건축하거나 수축하는데 거액의 해당 동족의 종중재산을 기부하였던 것이다.

한편 원래 서원은 선현의 봉사와 자제교육의 뜻으로 설립된 것이지만 전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면세·면역(免役)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 피역자들이 모여들었으며 지방농민을 괴롭히고 지방행정에 압력을 가하기까지 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였는데, 대원군의 과감한 철폐로 그 폐단이 없어지게 되었다. 대원군은 지방 양반들의 세력기반이 되었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여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했다. 이 때 철폐된 서원은 600여 개나 되었다. 함평의 서원 및 사우(祠宇)의 존폐상황을 대원군에 의하여 고종 6년(1868)에 실시된 서원철폐를 전후로 구분하고, 이후 복설된 사우를 별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서원 훼철 령 이전에 폐철된 함평의 사우

사우이름		소재지	배향인물
모양사	牟陽祠	나산면 초포리	이유인(李有仁, 침랑)
매당사	梅堂祠	나산면 상곡리	윤삼거(尹三擧)
분충사	奮忠祠	신광면 월암리	이송재(李松齋), 이창석(李昌碩), 이태희(李泰熙), 이치오(李致五)
달덕사	達德祠	월야면 월야리	최익현(崔益鉉)
분매사	盆梅祠	해보면 상곡리	1868년에 해제면 분매리로 이전, 윤길 외 2명
월계사	月溪祠	해보면 대각리	진흠봉(陳欽鳳), 진만재(陳晩宰)
동암사	東巖祠	대동면 월송리	오철검(吳哲儉)
화전사	花田祠	나산면 화 전	강자순(姜子順)
양림사	陽林祠	함평읍 진양리	장남기(張南騎) 장두익(張斗翊)
효동사	孝洞祠	손불면 동암리	정준(鄭浚) 정오찬(鄭五贊) 현재 원모재(遠慕齋)로 개칭
산정사	山亭祠	신광면 복흥리	심안평(沈安枰) 심지선(沈之渲)

<표 13> 서원 철폐령 때 훼철된 함평의 사우

사우이름		소재지	배향인물 (配享人物)
자양서원	紫陽書院	나산면 우치리	주자, 송시열
유애사	遺愛祠	함평읍 기각리	박정원(朴鼎元) 등 현감
수산사	水山祠	함평읍 수호리	임영(任泳, 대사헌)
증산사	甑山祠	나산면 이문리	김덕생(金德生, 좌명공신)
월산사	月山祠	대동면 향교리	이순신(李舜臣, 동제사) 이덕일(李德一, 우후)
임천사	林泉祠	해보면 상곡리	윤길(尹吉, 한림) 윤덕생(尹德生, 생원) 윤예형(尹禮衡,부사)
나산사	羅山祠	나산면 나산리	안충달(安忠達) 안여해(安汝海, 진사) 안치택(安致宅, 지평)
월호사	月湖祠	월야면 월악리	정경득(鄭慶得, 처사) 정희득(鄭希得,진사)
초포사	草浦祠	나산면 초포리	이순화(李舜華, 통훈)
성산사	城山祠	해보면 용산리	윤영상(尹榮商, 참봉) 윤형필(尹衡弼, 호조공신, 호참)
지산사	芝山祠	해보면 금계리	정충량(鄭忠良, 선무원종공신) 정득량(得良, 부장) 정대명(鄭大鳴, 직장)
선호서원	船湖書院	나산면 이문리	김석규(金石奎), 김몽복(夢福,임란공신), 김몽성(夢成), 김여정(汝淨), 김선창(善昌)
매곡사	梅谷祠	현 무안군으로	김득남(金得男)
고양사	高陽祠	함평읍 대덕리	최금수(崔錦壽) 최경헌(景憲, 판관)
송암사	松岩祠	나산면 송암리	신극례(辛克禮), 신극경(辛克敬), 신효돈(辛孝敦)

<표 14> 복설된 사우(祠宇)

명칭·소재지	배 향 (配享) 인 물	참 고
증산사(甑山祠) 나산면 이문리 증산마을	·주벽 : 김덕생(金德生. 본관:상산, 호:증산, 시호 : 충간-忠簡), 좌명 공신추증, 가선대부 동지중추원사) ·배위 : 김중선(金重璿.1659-1702, 충간공의 9대손, 호 : 최락당-最樂堂, 성리학자) ·배위 : 김한로(金漢老.1646-1687, 충간공 8세손, 호:선계당善繼堂, 관작:현령·춘추관 기주관)	세종대 건립 1597년 정유재란때 소실 1693년 재건 1868년 훼철 1873년 복설 제향일 음력 2월 20일
사산사(射山祠) 나산면 초포리 사산마을	·주벽 : 이언(李彦.950-975) 함평이씨 시조, 관작:고려 신무위 대장군 ·배위 : 이춘수(李春秀, 관작:전라좌수사) : 이종생(李從生,1423-1495), 함성군(咸城君), 시호:장양(蔣襄) 관작 : 병마절도사 : 이긍(李兢), 기성군(箕城君), 관작 : 이조판서 : 이접(李摺), 호:효우당(孝友堂), 성리학자. : 이주(李稠), 호:경재(敬齋), 관작 : 함평현감	1790년 창건 1868년 훼철 1936년 복설 제향일 : 음2월중정일
원모사(遠慕祠) 함평읍 진양리 양림	·배향 : 장백림(張百林. 1123-1204), 본관:인동 호:원모재(遠慕齋), 관작 : 의정부 우참찬	1649년창건,1868년훼철 1956년 복설 1981년 증설개축 제향일:음10월1일
표산사(杓山祠) 학교면 마산리 표산	·주벽 : 정분(鄭笨.1224~1298, 본관:진주, 호:애일당(愛日堂) 시호 : 충장(忠壯) 관작:우의정 ·배위 : 정감(鄭瑊, 선무원종1등공신, 임진·정유란의 진주성 전투를 참조할 것.	1935년 창건 제향일 : 음 3월 5일
덕천사(德川祠) 신광면 삼덕리 덕천	·주벽 : 모순(牟恂.1373-1460), 본관:함평, 호:절강(截江) 관작:의정부 사인. 효자 ·배위 : 모유추(牟有秋.1637-1709), 호:금석당(金石堂) 관작:현감, 찰방	1947년 창설 제향일:음 3월 17일
오산사(鰲山祠) 월야면 용월리 외세	·주벽 : 정가신(鄭可信.1224-1298), 본관:나주, 호:설재(雪齋),시호:문정공(文靖公).한림학사 ·배위 : 정훈(鄭薰.1401-?, 문정공의 6세손), 호:기재(棄齋). 관작:사헌부감찰, 단종조 충신 : 정응(鄭應. 기재공의 5세손), 임란공신 : 정홍(鄭鴻), 임란공신 : 정진(鄭縉), 임란공신 : 정회(鄭繪), 임란공신 : 정민수(鄭民秀), 임란공신	1778년 창건 1868년 훼철 1929년 복설 제향일 : 음 3월 1일
수벽사(修闢祠) 해보면 상곡리 모평	·배향 : 윤관(尹瓘.?-1111) 본관:파평, 호:묵재(默齋), 시호:문숙(文肅), 고려중기의 명신, 관작:수태보 문하시중 관병부사	1957년 창건, 함평군 문화재 3호 1980년 증축 단청 제향일:3월 중정일
사매사(四梅祠) 해보면 용산리 소성	·배향 : 윤삼거(尹三擧.1644-1718), 본관:파평, 호:사매당(四梅堂), 성리학자	1882년 창건 제향일:음 9월 9일
백야사(百野祠) 월야면 백야리 679번지	·배향 : 정도성(鄭導誠.1725-?), 호:삼근당(三近堂), 성리학자	1756년 영당 심근당 건립 1868년 훼철 1950년 복설 제향일 : 음 3월 7일 1978년 현건물 개축

명칭·소재지	배 향 인 물	참 고
충의사(忠毅祠) 나산면 덕림리 죽림	·주벽 : 김문기(金文起.1387-1465), 호:백촌(百村), 시호 : 충의, 관작:이조판서 ·배위 : 김현석(金玄錫.1410-1456), 호:여병재(女甁齋), 영월현감 : 김정호(金定浩.1566-1593), 호:일성재(日星齋), 관작:증 한성부판윤 : 김응무(金應武.1590-1624), 호:해은(海隱), 관작:선전관 : 김 당(金 鐺), 호:관암(冠岩) : 김태원(金泰元), 항일의병장	1930년 창건
상곡사(上谷祠) 학교면 죽정리 상곡	·배향 : 정현보(鄭賢補), 본관:진주, 성균관생원, 임진란 공신	1870년 창건 제향일:음 9월9일
삼일사(三一祠) 손불면 죽장리 장동	·부벽 : 김두삼(金斗三), 1884-1931, 본관:광산, 호:영빈(潁濱)성리학자 ·배위 : 김규일(金珪馹.1894-1979), 호:현재(玄齋) 성리학자	1931, 영당창건 1964, 3. 1당 창건 1983. 3. 1사 개칭 제향일:음 2월그믐
송계사(松溪祠) 나산면 송암리 송계	·배향 : 노극창(盧克昌.1482-1568), 본관:광산 호:송계, 남원부사, 광주목사	1946년 창건
해강사(海岡祠) 학교면 죽정리 정자동	·배향 : 정윤경(鄭允京.1885-1950), 본관:진주 호:해강, 성리학자	제향일:음 4월 6일 1970년 창건
제동사(濟洞祠)	자산서원 훼철 이후의 이름. <붕당대립과 자산서원 치폐 항을 볼것> 지산서원 복설(1988-1998)	
선호사(船湖祠)	주벽 ; 김우륨(金右謬), 본관 ; 선산, 고려 충선왕 간의대부 부벽 ; 김석규(金石圭) ; 사헌부 집의, 성리학자 배향 ; 김몽목(金夢福) ; 임진란 공신, 증 병조판서 김몽성(金夢成) ; 임진란 공신, 증 이조참판 김몽득(金夢得) : 사림·성리학자, 증 이조참판 김몽룡(金夢龍) ; 임진란 공신, 증 병조참판	1983년 선호서원 복설 향사일; 음력 10월 15일

동족의 사회적 위세를 높이는 행동은 혼인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동족 내부에서 항렬이나 연령의 권위를 중요시 하는 것도 동족의 위세에 관계되는 것이다. 조상의 제사나 장례식을 대규모로 거행하여 타 종족에 과시하는 것은 동족의 위세에 관계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유림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도 동족의 사회적 위세를 높이는 것으로 인식된다.

요컨대, 한국 동족의 중심적 기능은 생활의 협동이 아니라 조상의 제사와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후기로 내려올수록 특히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려는 기능이 가장 중심적 목적으로 되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제사를 성대히 거행하는 이면에는 그들의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절 조선후기 경제변동과 향촌사회의 발전

1. 조선후기 경제발전과 함평의 제언·장시

16~7세기의 연이은 전란과 정변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양란이후 전국적 수준에서 전개된 활발하고 신속한 농지개간과 농사법개선에 따라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화폐경제가 확대됨으로써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반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의 수취제도의 개편도 이 시기의 경제발달과 사회변동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경제의 발달은 우선 농업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니 조선후기의 농업은 농지개간의 활발한 전개와 수리시설의 보급에 따른 생산력의 급증으로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 함평의 경우에도 많은 저수지가 있었으며, 또한 강물 길을 막아 물을 조정하는 천보(川洑)도 많이 생겨났다. 1895년 함평군지에 의하면 제언(堤堰) 28고(庫), 천보 25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함평군지에 나오는 27곳의 저수지를 위치와 크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함평의 제언(堤堰)

제 언 명 칭	위 치	크 기
읍 하 제(邑 下 堤)	동현내면(함평읍) 사정자 1리	주위 225척 수심 2척
논 치 제(論 峙 堤)	동현내면(현 대동면) 5리	주위 575척 수심 3척 5촌
외평릉제(外平陵堤)	평릉면 25리	주위 108척 수심 2척
초 포 제(草 浦 堤)	평릉면 초포 30리	주위 341척 수심 4척
나 산 제(羅 山 堤)	식지면 나산 25리	주위 415척 수심 3척
사 창 제(社 倉 堤)	해보면 사창 30리	주위 318척 수심 4척
모 산 제(毛 山 堤)	해보면 모산 30리	주위 3215척 수심 5척
보 하 제(堡 下 堤)	해보면 40리	주위 215척 수심 3척
고 두 제(鼓 頭 堤)	해보면 고두촌 40리	주위 310척 수심 2척
문 암 제(文 巖 堤)	해보면 문암리 40리	주위 205척 수심 2척
동 산 제(東 山 堤)	월악면 동산 40리	주위 318척 수심 2척
서 변 제(西 邊 堤)	월악면 금석동 40리	주위 200척 수심 3척
순 촌 제(蓴 村 堤)	월악면 순촌 40리	주위 586척 수심 4척
지 변 제(池 邊 堤)	월악면 지변리 40리	주위 305척 수심 3척
괴 정 제(槐 亭 堤)	월악면 괴정리 40리	주위 305척 수심 3척
남 촌 제(南 村 堤)	월악면 남촌 40리	주위 418척 수심 3척
옹 점 제(瓮 店 堤)	갈동면 35리	주위 325척 수심 3척
가 리 제(加 里 堤)	신광면 가리 20리	주위 1040척 수심 4척
옥 산 제(玉 山 堤)	영풍면 옥산동 10리	주위 512척 수심 3척
만 년 제(萬 年 堤)	영풍면 만년동 10리	주위 410척 수심 2척
성 북 제(城 北 堤)	영풍면 성북 10리	주위 350척 수심 3척
작 국 제(作 局 堤)	서현내면 동백정 3리	주위 553척 수심 4척
양 림 제(良 林 堤)	서현내면 양림 7리	주위 1120척 수심 4척
대 천 제(大 泉 堤)	서현내면 대천 7리	주위 985척 수심 4척
대 진 제(大 津 堤)	서현내면 중량리 10리	주위 1915척 수심 4척5촌
동 산 제(東 山 堤)	다경면 동산리 30리	주위 305척 수심 2척
순 지 제(蓴 池 堤)	서현내면 10리	주위 350척 수심 3척

농업생산의 발달은 지주제(地主制)의 변동을 불러왔다. 당시 양반 지배층은 농지개간에 있어서 필요한 노동력을 모민(募民)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었다. 농민을 모아 개간을 하고 그 대가로 해당 토지의 보유권, 즉 소작권을 급여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개간은 대개 지주-전호 관계를 전제로 해서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종래와 같이 부역노동이나 압량위천(壓良爲賤)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립되었으므로 지주(地主)와 전호(佃戶)의 관계도 노주(奴主)관계와 같은 지배·예속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진전하였다. 즉, 지주-전호관계가 보다 경제적인 관계로 진행된 것이다.

한편 농업노동력의 절감과 생산력의 증대에 힘입어 근면한 일부 농민들은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부를 축적하여 지주로 승격되었다. 이들은 자작농이거나 소작농이거나를 막론하고 농업생산성의 상승을 토대로 이른바 광작을 행하여 수확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당시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관련해서 시장을 상대로 하는 농업, 즉 상업적 농업을 병행하여 부를 축적시켜나갔다.

이 때의 주요상품은 곡물을 비롯해서 직물·채소·유채류·약재·연초·돗자리 등이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임노동이 기본이었으니, 이러한 농업경영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던 새로운 계층을 경영 형 부농이라 한다. 이러한 광작이나 상업적 농업에는 소작농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도 지주로 성장하는 사람이 생겨 서민지주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 서민지주는 경영 형 부농과 함께 농민층의 광범한 분화에 따른 조선후기 사회발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 토지에서 유리된 많은 농민이 발생하였으니 이들의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농촌에 남아 고용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용농(雇傭農)이 되든지 아니면 산간으로 이동하여 농지를 개간하는 화전민(火田民)이 되든지 아니면 도서지방으로 이주하여 농지를 개간하고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당시 새로운 상업중심지로 떠오르던 포구나 도시로 진출하던지 아니면 보부상 등의 행상에 나서고 있었다. 이른바 사회적 발전은 사회적 분업을 확대시키고 사회이동을 활발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산간의 산전이 개간되고 도서에 전토가 늘어났으며 각처의 장시가 생기면서 물산의 집산지나 중개지에 객주(客主)·여각(旅閣) 등의 상업자본가 층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18세기 중엽에 전국의 장시는 이미 1,000여 개소를 넘을 정도로 발달해 있었다. 이는 대개 5일장으로 하루왕래가 가능한 30-40리의 거리를 표준으로 하나의 시장 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상설시(常設市)로 발전한 곳도 있었다.

전남지방에서 최초로 장시의 출현을 보게 된 무안과 나주지역은 영산강을 끼고 서남해안과 접하고 있어서 일찍이 해양문화와 내륙문화를 연결하는 호남의 대표적인 수운로(水運路)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왔다. 영산강은 나주의 노안면과 금천면의 경계에서 서남합류(西南合流)하여 영산포를 거치면서 우리 함평과 무안 등지를 지나서 목포 앞 바다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함평지역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나주를 중심으로 한 영산포구의 중심지로 호남지방의 사회·경제적인 요충지였다. 그리고 영산강을 끼고 상품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상업망이 구축되고 시장체계가 이루어지자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수공업제품 및 어패류 등이 포구와 선상들을 통하여 서울이나 내륙 깊숙한 곳까지도 운송되기 시작하였다.

함평지역에서 지방장시의 발달이후 생산되었던 토산물과 유통·산물을 살펴보기 위하여 16세기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토산물과 18세기 말의 『증보문헌비고』, 19세기 초의 『임원경제지』에 나타난 함평지역의 유통·산물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6> 조선시대 함평의 토산물

16세기 함평지역의 토산물	모시, 닥나무, 왕골, 대마무, 대화살, 무쇠, 쇠, 자기, 석류, 감, 비자, 황각, 차, 감태, 조기, 백새우, 민어, 밴댕이, 숭어, 낙지, 굴조개, 소합, 준치, 오징어
18·19세기 함평지역의 토산물	쌀, 면포, 면화, 모시, 숭어, 광어, 오적어, 민어, 석화, 소금, 석류, 토기, 돗자리, 소
19세기 말 함평의 물산	저(苧)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함평지역의 토산물은 16세기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기간동안 토산물과 유통·산물과의 비교대상 물품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외적인 요인의 변화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함평에도 많은 장시가 생겨나게 되었으니 함평읍장, 나산장, 문장장 등이 이때 성립하고 이러한 장시는 무안군이나 영광군과의 인근경제권을 이루게 되었다.

2. 신분제의 해체와 평민의 성장

조선후기는 신분제의 현저한 변화과정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신분은 대체로 양반·중인·평민·천민의 4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기에는 지배층은 훈족(勳族)·환족(宦族)·충신(忠臣)의 후예 및 유림이 주가 된 양반층과 서얼과 기술직을 중심으로 한 중인층이 있었다. 반면에 피지배층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평민과 공·사천과 화척(火尺)이나 재인(才人) 등의 특수직역 층으로 이루어진 천민(賤民)이 있었다. 그런데 전체인구 비례에서 지배층이었던 양반은 적었고, 평민이 대부분이었으며, 천민은 양반층의 비례보다도 오히려 많았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 농업생산의 발달과 상품·화폐경제의 진전, 그리고 수공업 및 광업의 발달은 조선후기에 나타난 새로운 경제상의 변화였으며, 따라서 이는 자연히 사회 층의 분화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경영 형 부농과 서민지주, 그리고 상업자본가와 임노동자 및 독립 자영수공업자 등 새로운 계층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종래의 사회구성을 변질시켜 신분제를 붕괴시켰으니, 농민층과 양반층의 분해, 노비제의 해체 등이 그 실상이었다.

농민층의 분해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를 중심으로 한 지주와 전호 및 무전농민으로의 분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전통사회에서는 언제나 있어왔던 것이지만, 이 시기에는 특히 소작지의 보유관계를 둘러싸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특징이었다. 농업기술의 혁신과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경영 형 부농의 성장과 이들의 소작지 집적은 다른 한편에서 빈농 및 무전(無錢)농민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들 몰락농민들은 유리(遊離)하거나 임노동자로 전환되었다.[195]

이러한 분해현상은 양반층에서도 심각하였다. 직전제의 폐지, 그리고 노론의 일당 전제와 세도 정

치가 양반관료정치의 파탄을 초래하여 여기서 실세한 양반들이 몰락하여 잔반(殘班)으로 전락하였다. 이들 잔반은 자영농의 처지에 있거나 심하면 소작전호로까지 전락하였으며, 혹은 상업·수공업으로 전업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의 실학자나 농촌지식인은 대개 몰락양반이었으니, 이들은 양반관료나 지주와는 이해관계를 달리하였고 기본적으로 농민층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었다. 농민층과 양반층 내에서의 경제적 계층변화로 종래의 신분적 지배와 예속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부(富)를 통해 노비와 양인 층이 각각 양인·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지배 신분층이 격증되고 반대로 피지배층은 격감하는 사태가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신분의 상승은 여러 가지 기회와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양란이후 군공(軍功)·납속(納贖)을 통한 면천(免賤)·수직(壽職)의 시책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은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하층민의 신분극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부를 축적한 양인·노비들은 이 방법이외에도 호적을 고쳐 유학(幼學)·진사(進士)를 사칭하거나 몰락한 양반의 족보를 매입하여 환부역조(換父易祖)하는 등 여러 가지 통로로 신분상승을 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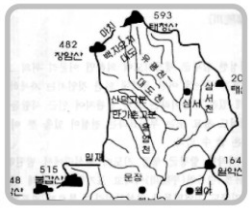
이러한 신분변동은 서얼과 중인층에서도 나타났다. 양반사회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던 서얼은 18·19세기에 활발한 소통운동(疏通運動)을 전개한 나머지 특히 무관을 주로 하는 문·무고관의 직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양반의 서얼출신이 많았던 중인들도 조선후기에는 문학운동을 일으키고 또 신분차별을 반대하는 통청운동(通淸運動)을 전개하여 비록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양반사회의 신분질서를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196]

이제 신분의 절대적인 명문은 퇴색해갔으며, 특히 노비(奴婢) 수의 격감에 따라 노비제는 더 이상 제도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노비신분법도 변경되어 현종 10년(1669)에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편이 천민이면 그 자식도 천민이 되던 종래의 법제가 폐지되고 일단 종모법(從母法)으로 바뀌어 모의 신분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는데, 이 법은 그 후 여러 차례의 치폐과정을 거쳐 영조 7년(1731)에 확정되었다.

노비제도의 해이는 양반사회체제를 그 기반에서부터 요동시키는 것이었다. 정부의 각급 기관은 예하의 노비를 사실상 부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켜 군포를 받는 편이 나을 정도였다. 따라서 18세기 후반에는 노비라는 명칭자체를 없애자는 의견까지 제기되었고, 마침내 순조 원년(1801)에는 내수사(內需司)와 궁방(宮房) 소속의 관노비 3만 6,974명과 각급 관청의 각사노비(各司奴婢) 2만 9,093명 등 모두 6만 6,067명의 장적을 소각하여 양인으로 해방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때 관노비 가운데 납공하는 내시노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궁방과 관아에서 직접 사역하던 노비와 사노비는 제외되었지만 이것으로 신분제의 붕괴를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노비들의 신분해방투쟁의 성과였다. 이것은 그 후 고종 23년(1886) 노비의 신분세습법이 폐지되고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으로 사노비까지 법제적으로 해방되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195) 김용섭, 「양안(量案)의 연구(硏究) - 조선후기(朝鮮後期)의 농가경제(農家經濟)」(상·하), 『사학연구(史學硏究)』 7·8, 1960.
196) 한영우, 「조선후기 중인(中人)에 대하여」, 『한국학보』 45, 1986.

제6장 조선후기 지방행정의 운영과 함평농민항쟁



제1절 함평의 지방행정과 면리제의 발전

1. 함평지방의 지방재정의 운용과 민고의 운영

1) 함평의 공해(公廨)

함평의 각종 관청과 이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면 아래와 같다.

1871년에 발행된 읍지를 보면 함평의 공해로는 기산관(箕山館)이라고 하는 객사(客舍), 녹죽당(菉竹堂)이라고 하는 정각(政閣)으로서의 동헌(東軒), 향사당(鄕射堂), 훈련청(訓練廳) 등이 있었다. 1871년에는 이미 훈련청 등이 없어지고 이후 1895년 읍지에 보면 장청(將廳)·현사(縣司)·작청(作廳)·형청(刑廳) 등이 새로 공해로 추가되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공서가 본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독자적인 건물을 이 때에 마련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실제 일제시기 1930년에 나온 「속수함평지(續修咸平誌)」에 따르면 이외에도 많은 공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형방의 형옥이 있었던 추청(秋廳), 가축 등을 기르는 장방청(長房廳)·봉공청(奉公廳)·대동청(大同廳) 등도 아울러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이러한 공해에서 향임·향리·색장 등이 사무를 보았을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함평에는 세곡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환곡을 나누는 여러 창고가 있었는데 읍 서쪽에 사창(司倉)과 저치창(儲置倉), 읍 동쪽 30리 해보면에 있었던 사창(社倉), 읍에서 서쪽으로 60리 떨어진 해제면에 있었던 임치창(臨淄倉), 그리고 손불에 있어 전세나 대동미를 거두었던 해창(海倉), 그리고 1867년 환곡을 정리하여 새로 창설된 별환미를 저장하는 별환미창(別還米倉)이 현 내 교촌·평릉면 사산촌·식지면 나산촌·갈동면 고정자촌·월악면 지변촌·대야동면 송정촌·해보면 모평촌·대동면 정창촌·신광면 가야촌·손불면 해창촌·영풍면 주포촌·서현내면 대진촌·다경면 용정리·해제면 응양리 등 14곳에 있었다. 이외에 군기고(軍器庫)·수군고(水軍庫) 등이 있었는데 1895년대로 오면 거의 없어지고 다만 해창·임치창·군기고·수군고 등이 남아있었다. 따라서 함평에는 이 같은 공해와 창고를 관장하는 향리나 색장(色掌)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군역세나 대동미를 징수하고 상납하며, 전결세의 몫을 확정하기 위하여 결민에 대한 경작 토지를 조사하는 서원(書員) 등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이르면 향청을 맡아보는 향임이 있었을 것이며 이들은 향사당을 근거로 향사례와 향약을 실시하며 향풍을 교정하고 향리·색장 등을 규찰하였을 것이다. 이들에게도 일정한 소정의 비용이 할당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2) 조선후기 함평의 재정운영과 직임의 사무

조선전기의 각 군현은 국가로부터 관둔전과 늠전(廩田)이 지급되었는데 조선후기에 이르면 관둔전 등은 없어지고 다만 늠전으로서 아록전과 공수전 등이 분급되었다. 군현에 공수전은 없었고 다만 아록결 40결만을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물자와 노력은 민호나 전결에 부과하던지 징발하였다. 조선후기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 대동저치미를 관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그 용도가 공물 진상 등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관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조선후기 요역제가 해체되면서 관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또한 물자를 비축하고자 하였을 때 별도의 지방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감영이나 수영 등의 상급관청에 보내는 전관이나 각종 관용의 목적에서 쓰이는 쇄마의 비용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각 지방에서 흔히 들어가는 지출항목을『반계수록』에 적힌 대로 정리하여 보면 <표 17>과 같다.

먼저 첫 째로는 지방관의 소요미곡이나 제반 관수품으로 공용 및 관청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있으며 둘째로는 아객(衙客)·감사순행에 따라 지출하는 경비, 셋째로는 공문서 작성에 쓰이는 종이 값 등, 관청건물·성(城) 등의 보수수선에 드는 역가(役價) 및 물품 비, 향소·장관청(將官廳)·향교에서 쓰는 지필묵을 비롯한 비용, 그리고 군사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하는 호군미(犒軍米), 사직·석존 등 제반 제사에 드는 비용, 가정제읍인(加定諸邑人)들의 봉급, 조선(漕船) 개조 비, 감영·병영에 보내는 공물운반비(쇄마비-刷馬費) 등이 있었다. 영조 대에 편찬된『부역실총』상에서 나타난 함평현 본읍에서 수입하여 지출하는 규모는 다음과 같았다.

<표 17> 18세기 중엽 재정지출과 수입

본관수미(本官需米)	300석	황밀가미(黃蜜價米)	5석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10석	빙정가미(氷丁價米)	42석
아록(衙祿) 미(米) 태(太)	16석 9두 3승 8석 14두 8승	장세전(場稅錢)	103량 6전
사색보전(四色保錢)	710량	초혜(草鞋)	54죽(竹)
치계지지가미(雉鷄紙地價米)	387석 5두 5승	마승(麻繩)	1천파(把)
시목가미(柴木價米)	98석	마철(馬鐵)	5부(部)
고초거탄가미(藁草炬炭價米)	31석	민고(民庫) 미(米) 전(錢)	359석 2140량 8전

조선후기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이를 위하여 수령이 일정한 재원을 출연하고 민호에게서 징수하여 일정한 기금(본전)을 세워서 이를 민간에 이식하여 이자를 거두는 방식 즉 입본취식으로 그 소요비용에 지변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전답을 확보하여 이를 몇 농민에게 짓도록 하여 그 도조를 받아 충당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군현의 공전(公田)을 두는 방식이었다. 아니면 특정한 면이나 동리에 관에서 필요한 물건을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세를 면제하는 방식도 있었다. 이런 촌락을 계방촌(稧房村)이라고도 하였다. 각 고을에서는 그 고을이 필요한 물자로 인력을 마련함에 있어서 일정한 규식이 있었으며 각 공서(公署)별로 그가 소요하는 금액이 정해졌다. 우리는 이를 읍 사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같으면 연중예산지출지침 내지는 조례와 같은 것이

었다. 여기에서는 읍의 공공적인 용도와 수입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당시 이를 공물(公物)·공전(公錢)·공역(公役)·공전(公田)이라고 하여 각 읍 재정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읍의 공고(公庫)를 설치하였는데 민에게 혜택을 주고 민에게서 추렴하여 운용한다고 하여 이를 민고(民庫)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민고가 읍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었으니 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규모는 점차 커지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재정규모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었는가는 여기에서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1895년 읍지에 나오는 함평현 사례를 통하여 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1895년 당시 읍의 재정지출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당시 지방재정 및 행정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에서의 읍 사례를 수집하였던 것인 만큼 그 이전의 사례가 그대로 전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조선후기 늦어도 대원군 집정 기 이후의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18> 함평현의 관용 지출 항목별 지출액

관수미(官需米)	310석(石)　　40석 제감,
결역미(結役米)	235石 3두(斗)
생어가(生魚價)	200냥
지보전(紙保錢)	164냥
사색보전(四色保錢)	834냥
향패전(鄕棑錢)	500냥
장세전(場稅錢)	298냥 8푼
황밀가(黃蜜價)	60냥
정조제타(正朝祭馱)	26냥┐
한식제타(寒食祭馱)	26냥 |　부쇄가 증감(夫刷價曾減)
단오제타(端午祭馱)	26냥 |
추석제타(秋夕祭馱)	26냥┘
세미 및 세태	해마다 다른데 매년 3월에 취용
결(역)미 여미(餘米)	130석 8두 1되 9홉,
아록전(衙祿田) 55결	전세 3월 취용
소정전(所耕田) 20결	시가에 따라 돈으로 걷는데 작부(作伕)시 취용
어세전(魚稅錢)	20냥 7전 7푼
무녀포(巫女布)	14냥 1전
환곡(쌀 콩 나락 보리 밀)	해마다 다르다
고청(雇廳)	48냥 : 사삭제수 첨타가(四朔祭需添馱價)
재백지가(灾白紙價)	60냥
망건(網巾)	20사(事)
마철(馬鐵)	3부(部) : 매 달 초하루 예납(例納)
신연타가(新延馱價)	350냥
관둔전 수조(官屯田收租)	재결 제감(災結除減)
구관타가(舊官馱價)	468냥 6전
전선증미가(戰船蒸米價)	18냥 수조(水操)를 하지 않을 때 거둠

그러면 함평의 재정지출과 일반 행정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1895년 함평현 사례를 통하여 전재하면서 그에 필요한 설명을 덧붙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함평에서는 대동저치미나 결역세·장세·향배전, 55결 규모의 아록전에서 거둔 전세·어세·사색보

인 무녀 등에서 신역 세 등을 징수하였는데 이는 정액이 있는 수입이었다.[197] 그리고 이외에도 관에서 마련한 20결의 소경전에서의 징수하는 작료, 환곡에서의 이자조 중의 일부인 색락미 등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는 일정하지 않았다. 이를 가지고 함평현에서는 관수미와 기타 영저리·경저리 등의 역가, 4개의 제사에 드는 운반비(타가-駄價), 그리고 재결을 조사하는 종이 값, 그리고 신구관이 교체할 때 드는 쇄마가 등에 지출하였다. 이것은 아마 이방과 좌수 등이 총괄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집행하는 관서도 별도로 있었을 것인데, 대동청·고마청 등이 이에 소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 등은 다소 가감과 함께 용도변경이 있었으니 관수미가 310석에서 40석이 줄어 270석으로 하고, 1년 4철 제례에 드는 비용 104량이 인부를 부리는 부쇄가(夫刷價)로 돌리고 있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인 항목은 뭐니 해도 관수미와 역가미이었으며 또한 신구관의 교체 때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매월 사용하는 액수를 정하여 집행하였고 윤달이 있는 달은 이를 별도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재물과 양곡을 관장하고 민정을 수행하는 향리 및 색리 층에게도 재원이 할당되어 이를 집행하였다.

먼저 각 읍의 시탄과 고초 마료 등을 마련하고 관노비 차역 등을 관할하는 호장(戶長)은 이외에도 정조(正朝)가 되면 도성에 올라가 사헌부·이조·예조 등에 예물을 올리는 일을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매년 시탄가로 321냥과 고초 마료가로 11석을 사용하였다. 이는 전부 결역미를 징수한 중에서 할당되었다. 또한 상경 시 예물은 양인 50명과 사노 12명으로 구성된 예목보(禮木保) 62명으로부터 양인 1냥 5전씩 사노는 1량씩 징수하여 마련하였다.

이방(吏房)은 매년 여름과 겨울에 포폄을 위한 자료로서의 실제 근무한 날을 실사장(實仕狀)을 작성하는 일을 하며 또한 인리와 통인·훈도·사령 등을 차역함에 있어서 이를 통고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호방은 균역청으로 가는 어세 전을 여름·겨울에 상납하기 이전에 1/10을 거두어 관에 납부하는 일과 훈련도감 둔세 미 2석 12두 3승 6홉을 매년 세선으로 상납하는 일, 무녀포를 걷는데 원무 29명은 1명당 2냥 2전씩을 거두어 63냥 8전을 채우고 반 무녀 13명은 1냥 1전씩 거두어 14냥 3전을 만들어 모두 78냥 1전이 되는데, 이중 45냥을 상납하고, 나머지 중에서 색리지필 가·도화랑(都花郞)·공인(工人)·사령홍화가로 각 4량씩을 지출하고 나머지 14냥 1전은 관용으로 돌렸다. 그리고 호방은 경내의 제언(堤堰) 28처와 천보(川洑) 25곳에서 각 2냥씩을 거두어 매년 순사도 순시의 비용에 보충해야 했다. 예방은 향교 교생 30명과 보노(保奴) 40명을 관할하고 문선왕(공자) 석존제(중춘·중추 상정일-上丁日)를 비롯하여 사직 제(중춘 중추 상무일-上戊日) 여제(厲祭. 청명-淸明- 및 가을) 성황제(城隍祭. 춘 추) 등의 제사를 거행하였다. 또한 장악원의 악공 32명과 악공보인 6명, 그리고 법성포의 조군(漕軍) 96명에게 명령을 내리었다. 또한 내의원(內醫院)에 진상하는 청죽을 마련하는 데에 할당된 보인(保人. 청죽보-靑竹保) 155명에게서 2냥씩 징수하였으며 순영문진상보 112명 중 양인 89명에게서 2냥씩, 사천 23명에게서 1냥씩을 수봉하였으며 진상배지보(進上陪持保) 60명으로부터 1냥씩을 거두었다.

병방은 주로 각 군정 군보에게서 군역 세를 징수하여 상납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가 관장하는 군정·군보는 훈련도감 포보(砲保) 242명, 사복시 제원(諸員) 25명, 균역청 선무군관 147인,

197) 위 표에서의 세미가 대동저치미일 것으로 생각되며 결역 미는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영저리의 역가와 관문을 전달하고 수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전결에 부과한 일종의 잡역 세였다.

병조 기병 121명, 충익위 3인, 충순위 7인, 순영 제번군관(除番軍官) 15인, 악안장포(樂安匠布) 15인이었다. 병방은 또한 다경면 서쪽 30리와 해제면 서쪽 60리에 있는 두 곳의 봉수(烽燧)를 관장하고 그에 소속된 별장 14인과 군 150명, 그리고 대직(臺直) 2명을 지휘하였다. 매월 초하루에 풍 변을 보고하는 일도 병방의 소관이었다. 이 같이 군정·군보에게서 군역 세를 징수하고 보고하는 일에 필요하고 또한 병영 등에 납부하는 지필묵은 공방(工房)에서 지변하였다.

형방(刑房)은 살옥죄인을 감영에 이관하면서 월 3회에 걸쳐 추핵하고 민에게 올라오는 청원서(소지-所志)를 받들어 열람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소용되는 형틀이나 곤장 등의 목재를 금송도감이나 각 면에서 분정하여 충당하였다.

공방은 관청에 소용되는 여러 물종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철·탄(炭)과 목(木)·피(皮)·지물과 초석 및 대중승(大中繩)은 본가(本價)를 지급하고 무용(貿用)하였고, 죽상자(竹箱子)는 죽재입점(竹滓笠店)에서, 옹(瓮)·사기(沙器)는 옹기점과 사기점, 마철 3부는 야장(冶匠)에게서 거두어 사용하였으며 송판(松板)은 금송감관(禁松監官)에게 첩문(帖文)을 내려 책용(責用)하였다. 그리고 망건은 본래 있었던 망건장 20명에게 춘추로 거두었는데 지금 망건장은 5명밖에 없었다. 공방은 이외에도 군정·군보명목의 신역 세를 징수하였으니 병조장(兵曹匠) 223명, 금복직(禁袱直) 30명에게 세금을 거두어 상납하였으며 사색보(四色保) 423명으로부터 834냥, 지물보(紙物保) 100명에게서 160냥을 매달 초에 나누어 거두었으며, 승번전(僧番錢) 62냥을 징수하는 것도 그의 소관이었다. 그리고 세선의 장발을 감독하고 대동저치미 10석과 고마청의 이자 전 130냥으로 절선(節扇)을 마련하여 진상하는 일도 그 몫이었다. 그리고 각 처에서 필요한 종이를 공급하였으니, 장지(壯紙)는 16장(丈)이었고 백지는 7속이었다. 당시 종이 값은 간지(簡紙) 1속(束)에 2냥 5전, 중장지(中壯紙) 1속은 5전, 차장지(次壯紙)는 1속에 1냥 1전, 그리고 백지와 상지(常紙)는 1속에 각각 1전 8푼, 1전 5푼이었다.

조선말기 함평의 전결 수는 원결 5,927결 44부 4속이었는데 전결 세를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작부(作夫)라고 하여 결민의 결수를 조사하고, 깃기(긍기-矜記)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대개 각 면에 파견되는 서원이었고, 이를 도서원이 총괄하였던 것이다. 이들에게도 일정한 비용이 소용되었으니 이를 당시 진재(陳災)를 조사하는 종이라는 의미에서 재백지(灾白紙)라 하였는데, 그 값이 쌀 50석에 이르렀다. 도서원은 여기에서 순영에 필요한 백지 800속 값으로 쌀 25섬을 내고, 나머지 25섬으로 해색차지(該色次知)와 관가의 백지 40속과 서청(書廳)의 문서지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도서원은 규장각의 둔전세미(屯田稅米) 25석 6말 2되 5홉을 둔감이 내려올 때 대전(代錢) 상납하는 일도 맡아하였다. 이들이 바로 둔전의 작인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타의 색리로는 사창색(司倉色)·금위색(禁衛色)·능로색(能櫓色)·속오색(束伍色)·어영색(御營色)·전선색(戰船色)·군기색(軍器色) 등이 있었는데 사창색은 각 아문의 미(米) 4,270석 7말 1되, 조(租) 1만 6,869석 1되, 태(太) 1,286석 6말 2되, 피모(皮牟) 2,703석 13말 7되, 진맥(眞麥) 1,081석 8말 4되를 관장하였으며, 금위색은 금위영 상번 군 17명, 자보(資保) 17명을 통할하고 금위영에 납부하는 별파진포(別破陣保) 1명에게서 보인가를 거두었다. 능노 색은 전선의 능노 군 224명을 관할하고 속오 색에게는 속오군 511명이 있었다. 어영색은 어영청에 속한 군보(軍保) 208명, 경안군보(京案軍保) 60명, 납상군번(納上番軍) 101명, 자보 108명과 병영에 소속된 삼색보(三色保) 80명과 신선보(新選保) 19명에게서 군역세를 징수하였다. 그리고 전선색은 전선 1척, 병선 1척, 사

후선 1척을 관리하고 굴토한 인부를 고용하는 돈 60냥과 대소 갈물(葛物)을 사야 하는 쌀 15섬 초둔(草屯)에 들어간 쌀 7석 7말 5되를 관리하였다. 민호에서 추렴한 전죽가(箭竹價)를 병영의 저리에 납부하는 일이나 연말에 당하여 각 아문에 인정 채 60냥을 내는 일은 군기색이 담당하였는데, 그는 훈련도감 군향보(軍餉保) 69명과 작미보(作米保) 303명으로부터 군역세도 아울러 징수 상납하였다. 주사색(舟師色)이란 수영·다경진·여도진·이진·임치진·검모포·신지도·격포 등에 소속된 총 1,449명의 군역세를 거두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관청색은 관수미 260석과 사객지공미 10석을 관리하였으며 또한 기타 잡물도 가격에 따라 사서 지출하는 색리이었다.

함평의 지방행정은 이 같은 내직의 직임 층이 읍에서 실무를 관장하고 면리 차원에서는 외직 체계에 있는 면리임 층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수행되었다.

2. 함평의 호구와 면리제(面里制)의 발전

1) 조선후기 호적제와 함평의 호구

조선시대 호구의 파악과 성적에 의한 호적의 작성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신분제적 명분과 편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민정(民政)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호구를 파악하고 군역제(軍役制)를 비롯한 부세제도(賦稅制度)를 운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호구의 파악은 편호(編戶)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지금과 같이 혈연적 추상적 '호(戶)'를 호적으로 편제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명분적 주거세대를 '호'로 파악하였던 관계로 실제 가옥이 나누어지고 별도의 굴뚝(煙)을 두면서 별산(別産)한다고 하여도, 주가(住家)를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니 많은 노비의 세대는 주인호(主人戶)에 편입되어 있고 또한 형제자질(兄弟子姪)도 한꺼번에 1호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 실제 호를 대상으로 요여(徭役)을 징발할 때에도 별도 살림을 내고 있는 자연호로서의 연호(煙戶)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몇 개의 자연호를 묶어 1호로 삼아 요역을 징발하여, 이러한 부세의 단위로서의 '호'를 연호와 구별하기 위하여 편호라 하였던 것인데, 조선시기 호적의 작성은 바로 이 같은 편호를 중심으로 하였던 것으로 따라서 호적에 오른 호가 있고 그렇지 않는 호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호적에 올린 호는 '원호(元戶)'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농업생산이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직업이 생겨나면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고 또한 신분의 이동·상승이 전개되면서 양반의 비중이 더욱 커가게 되는 한편 이제까지 주가(主家)에 종속하는 노비호 등도 점차 자립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조선후기 호적법은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점차 호구조사와 파악을 본래의 원호(元戶)·편호(編戶) 개념으로 하지 않고, 집터가 있고 가옥이 세워져 있는 가좌호(家座戶)로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 가좌법(家座法)이 민정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요체가 된다고 하였던 것은 바로 가호의 활발한 이동과 분화·자립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목민관이 부세를 공평히 하고 환곡을 분급하고 또한 진휼을 형평성 있게 실시하려고 하였을 때 그 만큼 가좌에 따라 호구를 조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때문이었다. 이 같은 가좌법은 오늘날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세대장부로 정비되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가좌 성책(成冊)이었던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주민등록대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날의 주민등록대장은 세대별로 묶여있고 가산이 기록되지 않은데 비하여 과거의 가좌대장은 동리별

로 정리하여 면별로 편성하며 가좌호 마다 가옥, 가산의 규모를 정리하였다고 하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가산 정도는 국세청 등의 세금납부 장부에 의하여 조사하면 되었던 것이지만, 그때에는 바로 가좌대장에 나오는 가산의 수준을 보면서 진휼하거나 환곡을 분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가좌호로 호구를 파악하면 호적에 나타난 호수보다 훨씬 많은 호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만약 가좌법에 따라 호적을 편성하여 중앙에 보고하면 중앙에서는 이를 기초로 환곡액과 군총을 늘리게 될 것이므로, 대개 지방관은 중앙에 보고하는 호적은 관법(寬法)으로 느긋하게 호적을 작성하는 것이고, 지방의 민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가좌대장은 핵법(覈法)으로 은루(隱漏)가 없이 처리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도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강조하고 권유한 바이지만 실제 향촌사회에서 다산의 지침대로 가좌대장조차도 일일이 은루가 없이 작성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각 군현내의 면리간의 이해관계가 있었고, 여전히 많은 빈잔(貧殘)한 이주농민은 독립가옥을 가지지 못하고 남의 집 협실(夾室)이나 협가(夾家)에 살고 있었으며, 또한 산직이나 청직 등 양반가나 공해에서 사역하는 민호가 있었을 때 그대로 올리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 호구는 가좌법에 의하여 지방에서는 파악되었다고 해도 실제 중앙에 보고된 것은 그 자체로 은폐되고 누락된 호구가 많은 호적이었던 것인데, 우리는 현재 아쉽게도 함평에 조선시대의 호적대장뿐만이 아니라 가좌대장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함평의 호구를 자세히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아쉬운 대로 당시에 작성된 여러 차례의 국가자료 즉 여지도서 호구총수 그리고 국가에 보고한 읍지 등에서 조선후기 호구의 추이만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9> 여지도서에 나타난 함평현 면별 호구수(1759)

면 명(面名)	호 수	인 구 수		
		남	여	계
동현내면(東縣內面)	691	910	1,190	2,100
평 능 면(平 陵 面)	514	739	918	1,675
식 지 면(食 知 面)	620	736	1,083	1,819
갈 동 면(葛 洞 面)	169	246	295	541
월 악 면(月 岳 面)	223	363	403	766
대야동면(大也洞面)	452	679	788	1,467
해 보 면(海 保 面)	698	1,061	1,330	2,391
대 동 면(大 洞 面)	655	806	1,104	1,910
신 광 면(新 光 面)	688	757	1,131	1,888
손 불 면(孫 佛 面)	733	982	1,030	2,112
서현내면(西縣內面)	416	414	711	1,125
영 풍 면(永 豊 面)	281	515	456	1,171
다 경 면(多 慶 面)	494	449	773	1,222
해 제 면(海 際 面)	878	1,207	1,361	2,568
계	7,512	9,904	12,072	22,755

<표 20> 호구총수에 나타난 함평현 면별 호구수(1789)

면 명 (面名)	호 수	인 구 수			소속 이수(里數)
		남	여	계	
동현내면(東縣內面)	667	875	995	1,870	21
평 능 면(平 陵 面)	493	740	860	1,600	38
식 지 면(食 知 面)	544	772	973	1,745	47
갈 동 면(葛 洞 面)	155	249	285	534	16
월 악 면(月 岳 面)	226	335	346	681	25
대야동면(大也洞面)	313	451	730	1,181	26
해 보 면(海 保 面)	745	1,054	1,299	2,353	58
대 동 면(大 洞 面)	568	776	1,003	1,779	35
신 광 면(新 光 面)	653	740	1,145	1,885	41
손 불 면(孫 佛 面)	622	912	1,085	1,997	41
서현내면(西縣內面)	399	561	734	1,295	17
영 풍 면(永 豊 面)	294	483	622	1,105	34
다 경 면(多 慶 面)	458	649	833	1,481	36
해 제 면(海 際 面)	911	1,159	1,726	2,885	40
계	7,048	9,756	12,635	22,391	472

<표 21> 호구총수에 나타난 무안현 면별 호구수(1789)

* 함평군으로 편입된 면만 옮김

구분 \ 면		계	신마노면 (新午老面)	금동면 (金洞面)	진례면 (進禮面)	좌랑촌면 (佐郎村面)	엄다산면 (嚴多山面)
호 수		1,763	265	475	342	320	361
인 구 수	계	5,928	1,077	1,441	1,166	1,229	1,015
	남	2,866	551	704	532	587	492
	여	3,062	526	737	634	642	523
소속 마을 수		114	25	30	17	19	23

이에 따르면 조선후기 영조대 기묘장적(1759)에 의하면 함평현의 호구는 편호 7,512호로서 남자 9,904구, 여자 1민 2,072구이었으며, 「양역실총」에서는 7,552호, 양천을 합한 남자가 1만 1,543명이었다. 그리고 호구총수단계(1789)에 이르면 7,048호이었으며, 남자는 9,756명, 여자가 1만 2,635명이었다. 결국 1895년 함평현읍지에 나오는 14개면 7,048호와 각 면별 호구 수는 호구총수 단계의 면별 호구수를 그대로 전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당시 은루호(隱漏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선 1914년도 「전라남도 통계요람」에 의하면 1만 1,462호, 6만 3,290명인 것으로 보면 조선말기에 이르면 거의 1만여호에 가까웠지 않을까 추측된다. 그리고 이를 조선전기 세종 조의 함평현 원호가 겨우 315호에 지나지 않았음과 비교하면 조선후기 인구의 증가와 함께 호적제의 정비와 호구파악의 수준이 한층 강화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겠다.

2) 함평의 면리제와 향촌자치의 발전

조선시대의 전기의 면리제(面里制)는 방위면체제(方位面體制)로서 권농관을 위촉하여 군현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인구의 증가와 농지의 개간 등에 따라 자연촌이 성장하면서 이 방면의 고유명칭이 붙는 면리체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면리제의 변화는 자연촌의 성장을 배경으로 국가의 지방통제 책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조선후기 사회의 발전과 변동의 과정에서 민인이 면리를 중심으로 자치역량을 신장시켜가고 있었음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

면에는 면수(面首)·풍헌(風憲)·면임(面任) 등의 직임과 향약기구를 관장하는 약정(約正) 등의 임원이 있게 되고, 면 아래에 편제된 자연촌은 점차 이·동으로서의 위상이 부여되면서 존위(尊位)·이정(里正)·동장(洞長) 등의 동임(洞任) 층이 사무를 맡아보았다.

면리임(面里任)은 사족이 그 직임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양인 층으로 '초실착근자(稍實着根者)'들이 담당하였는데 그들은 호적작성을 비롯하여 적군(籍軍), 양전(量田), 징세, 조역(助役), 포도(捕盜), 민의 유망 단속(流亡團束), 관개수리시설의 감독 등과 같이 일읍단위의 제반사를 처리하는데 조력하였으며, 그들은 수령의 지휘감독 하에서 향리와 향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었다. 여기에서 면리임은 지방통치기구에서 외직체계로서의 위상이 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위로는 향소(鄕所), 아래로는 호수(戶首)·통수(統首)에 이르는 이졸임장(吏卒任掌)은 '관과 민 사이에 항상 동연 관철하여 막힘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바로 면리임에 그 몫이 부여된 것이었다.

한편 조선후기에 들어서 5가작통제(五家作統制)는 보다 강력한 향촌통치의 방책으로 추진되었다. 본래 5가작통제는 태종 8년(1408)에 성석린(成石璘)의 건의에서 논의된 '인보정장지법(隣保正長之法)'에서 비롯하여 세종 때에 확립되었으며, 『경국대전』의 호적 조에서는 동리별로 가좌 순에 따라 5가1통으로 작통하여 통주(統主)를 두게 되었는데 자연촌의 성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인구가 늘고 자연촌이 성장하면서 5가작통제의 의의가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숙종 원년 '오가작통사목'은 그 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조선왕조는 국가 재조(再造) 방책의 하나로 농업생산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며, 또한 민호가 성장하고 자립하는 후세를 수용하면서 촌락을 리·통으로 편성하는 한편, '통과 이에 농상권장(農桑勸奬)·부세독징(賦稅督徵)·상부상조(相扶相助)'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책임을 강조하였다.[198]

이후 18세기 초에 이르면 많은 군정이 도망하고 또한 군역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군정의 궐액을 관아에서 직접 충원하는 방식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를 보충하는 책임과 권한을 동리에 맡기게 되었다. 이른바 숙종 37년 「양역변통절목」에 의한 '이대정법(里代定法.里定法)'이었던 것이다.

이정법에서는 동리는 그 동리의 군정을 책임지고 충원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의무는 촌민의 동리차원에서나마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었다.

또한 「오가통사목」에서는 민간의 구휼을 담당할 사창을 면 단위로 자율적으로 창설하여 운

198) 이태진(李泰鎭), 「17·8세기 향도(香徒)조직의 분화와 두레의 발생」, 『진단학보(震檀學報)』 67, 1989.

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선정을 펴고 있었던 지방관은 사창의 운영은 실제 '일촌 상하의 공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만큼 색리를 비롯한 관은 그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촌락(동리)은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지방관으로부터 일정한 자치영역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었다. 국가로서도 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촌락이 자율적으로 부세를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납부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향리층의 촌락으로 횡행하는 것은 민폐를 야기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다반사이었던 까닭이었다. 이리하여 조선후기 촌락은 환곡과 전결세와 군역세를 촌락을 단위로 부과하고 촌락에서는 그에 할당된 액수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면의 풍헌을 통하던지 아니면 직접 관에 납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촌락마다 출현하게 된 동계 동약 등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다산 정약용 같은 선비는 바로 촌락에서 '상족과 하족이 구별없이 균등하게 군포세 등을 마련하고 납부하는 당시의 현실을 보고 이것은 바로 민이 스스로의 권세로 한 법을 세워(民自權立一法) 고통을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양법(良法)'이 된다고 하였다.[199]

이처럼 촌락의 성장과 민의 자치역량 신장으로 인해 이향 층(吏鄕層)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여지는 그만큼 줄어지는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동리차원에서 공동으로 여러 부세를 책임지고 납부하는 공동납의 관행은 면리자치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고 실제 근대적인 여명기에 신분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일반 평민이 염원하는 바의 균부균세(均賦均稅)의 실현과정이기도 하였다.

우리 함평의 경우도 많은 촌락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세를 징수하여 관에 납부하면서 촌락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자치역량을 신장시켜 나갔을 것이다. 호구총수에서 각 면에 소속된 동리를 조사하여 밝힌 것은 촌락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원형을 구현하였을 함평의 동리(촌락) 수를 각 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호구총수에 나타난 각 면 관할리

* 출전 : 1789년 호구총수
* 원문에는 상주고리, 중교동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리(里)"자를 생략함. 여기서의 "리"는 마을을 의미함

면	이수	소 속 동 리 명 칭
동현내면 (東縣內面)	21	상주고(上朱庫) 하주고(下朱庫) 동부(東部) 서부(西部) 기영(箕潁) 기산(箕山) 수산(水山) 고시(古市) 하교(下校) 중교동(中校洞) 강정(江亭) 신기(新基) 호동(虎洞) 운대(雲臺) 송정(松亭) 신흥(新興) 신대(新臺) 기남(箕南) 산직(山直) 광치(廣峙) 누각(樓閣)
평 릉 면 (平 陵 面)	38	가식동(可食洞) 광령(廣令) 삼구동(三龜洞) 내천동(內泉洞) 양지(陽地) 동을거동(冬乙巨洞) 신기(新箕) 내동(內洞) 구산(龜山) 평지(平地) 조산(造山) 막적동(莫迪洞) 안덕동(安德洞) 백양동(白羊洞) 사동(蛇洞) 명금치(鳴琴峙) 월랑(月朗) 쌍령(雙嶺) 은선동(隱仙洞) 안영동(安寧洞) 부벽정(浮碧亭) 하축동(下柷洞) 동축동(東柷洞) 상축동(上柷洞) 외평릉(外平陵) 원촌(院村) 분토동(分土洞) 구초포(舊草浦) 하초포(下草浦) 수각(水閣) 남촌(南村) 남당(南堂) 화정(花亭) 금대(金臺) 천동(川洞) 호암(湖巖)里 상중치(上中峙) 하중치(下中峙)

199)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1집 권9, 「신포의(身布議)」, 1책, 182-183쪽.

면	이수	소 속 동 리 명 칭
신 광 면 (新 光 面)	41	미출동(米出洞) 벽유동(碧柳洞) 가리(加里) 서목동(西目洞) 장산(長山) 월성(月城) 월흥(月興) 유암(流巖) 신천(新川) 용암(用巖) 연천(燕川) 연서(延西) 산동(山洞) 산저(山底) 가야동(加也洞) 산직(山直) 사천(沙川) 유덕목(柳德木) 박치(朴峙) 복령(福令) 덕림(德林) 백오개(白午介) 운제(云梯) 덕천(德川) 초내동(草乃洞) 신산직(新山直) 입점(笠店) 원남(元南) 좌야(左也) 청계동(淸溪洞) 하촌(下村) 동산(東山) 용촌(用村) 용호동(用虎洞) 구판교(舊板喬) 신려(新余) 보전(甫田) 송계(松溪) 해안(海安) 수장동(水長洞) 송정(松亭)
영 풍 면 (永 豊 面)	34	장고산(長古山) 백여동(白余洞) 신양(新良) 흥룡(興龍) 모읍(毛邑) 용계(龍溪) 자양(紫陽) 묘동(廟洞) 가천(佳川) 돌두(乭頭) 성덕(聖德) 신흥(新興) 중촌(中村) 칠현(七賢) 신안(新安) 천변(泉邊) 만년동(萬年洞) 사지(四池) 성북(城北) 신풍(新豊) 가양(佳良) 비화동(比化洞) 복령(伏令) 성남(城南) 원당(元堂) 장지(長支) 소등라(小登羅) 송전(松亭) 대등라(大登羅) 해동(海洞) 평호(平湖) 연화동(連化洞) 산직(山直)
서현내면 (西縣內面)	17	백년동(百年洞) 대진(大津) 가금(加金) 중양림(中良林) 괴정(槐亭) 고양(古陽) 사직(社稷) 대천(大泉) 산음(山陰) 내대화(內大化) 외대화(外大化) 산직(山直) 대사동(大寺洞) 상주고(上朱庫) 하주고(下朱庫) 남산(南山) 광교(廣橋)
대 동 면 (大 洞 面)	35	아차동(牙次洞) 고산동(高山洞) 외가여(外可余) 내덕여(內德余) 용안동(龍安洞) 정창(丁倉) 오만(五萬) 성정(城丁) 호정(好亭) 읍두정(邑頭亭) 괴동(槐洞) 수암(水巖) 구적(九積) 마치(馬峙) 구당동(嫗堂洞) 용두(龍頭) 수현(水硯) 서변(西邊) 금성동(金成洞) 하천동(荷川洞) 당산정(唐山亭) 송정(松亭) 용암(龍巖) 구룡동(九龍洞) 용연(龍淵) 운림(雲林) 판교촌(板橋村) 갈구지(渴龜池) 용성(龍城) 마갈산(馬渴山) 금구동(金龜洞) 세동(細洞) 신촌(新村) 감산(甘山) 복덕동(福德洞)
손 불 면 (孫 佛 面)	41	묘동(廟洞) 가덕산(加德山) 화양(花陽) 운계동(雲溪洞) 해창동변(海倉東邊) 산어(山魚) 감남지(甘南只) 기사리동변(其士里東邊) 기사리서변(其士里西邊) 수철동(水鐵洞) 기사리산직(其士里山直) 갈마동(渴馬洞) 신흥(新興) 저전동(楮田洞) 구봉(九峰) 얼전(孼田) 비천(飛川) 용산(龍山) 백여지(白歟只) 신기(新基) 백양동(白良洞) 돌포(乭浦) 완정(完丁) 영안동(永安洞) 외사기(外沙器) 호암(湖巖) 모량개(毛良界) 사기소(沙器所) 차경동(且京洞) 복암(伏巖) 백안동(白安洞) 벽초동(碧草洞) 치동동(崔童洞) 삼괴동(三槐洞) 복흥동(卜興洞) 죽림(竹林) 장동양지(墻洞陽地) 장동(墻洞) 우천(牛川)
갈 동 면 (葛 洞 面)	16	용촌(龍村) 월봉(月峰) 오수촌(五水村) 외세동(外細洞) 내세동(內細洞) 백운동(白雲洞) 고정자(高亭子) 음지(陰地) 양지(陽地) 동산(東山) 덕산(德山) 덕령(德令) 난산(卵山) 뉴산(鈕山) 장항(獐項)
다 경 면 (多 慶 面)	36	포당두(浦唐頭) 육당두(六唐頭) 원정(元丁) 괴당(槐堂) 동산(東山) 방축내(方丑內) 예북(艾北) 마산(馬山) 화정(花亭) 기동(基洞) 통정(桶丁) 송정(松亭) 유목정(柳木丁) 포림(浦林) 동장(東長) 모양(毛良) 석북(席北) 죽도(竹島) 모두동(斗毛洞) 조강미(潮江米) 내윤정(內用亭) 외용정(外用亭) 봉대(烽臺) 곡지(曲池) 사교(沙橋) 장치(長峙) 신정(新丁) 만수동(萬水洞) 홀거(笏擧) 대치(大峙) 신기(新基) 동화촌(東花村) 외마산(外馬山) 내마산(內馬山) 외각입(外角入) 내각입(內角入)
해 제 면 (海 際 面)	30	수정(水井) 도성(道城) 이방(移方) 무리(無里) 암리(巖里) 용산(龍山) 오류동(五柳洞) 외진목(外眞木) 내진목(內眞木) 동정(東井) 신풍(新豊) 영촌(令村) 입석(立石) 송계(松溪) 도리(道里) 포리(浦里) 저도(楮島) 합정(合井) 외분매동(外盆梅洞) 내분매동(內盆梅洞) 고읍내(古邑內) 중촌(中村) 가여백(加汝白) 정촌(井村) 슬산(瑟山) 신촌(新村) 신사내(新士內) 신리(新里) 외정사내(外井士內) 송전(松田) 외남(外南) 독길(獨吉) 차경(且耕) 당동(堂洞) 내아사내(內牙士乃) 창촌(倉村) 임치(臨淄) 구등길(舊登吉) 신등길(新登吉) 발산(鉢山)
대야동면 (大野洞面)	26	가차암(加次巖) 호동(弧洞) 내정자(內亭子) 마분정(馬墳亭) 노송(老松) 덕산(德山) 주저(舟底) 석계(石溪) 성산(城山) 장내(墻內) 연화동(連化洞) 상방하(上方下) 하방하(下方下) 국정(局亭) 마감동(馬甘洞) 분토동(分土洞) 송정(松亭) 괴동(槐洞) 대농소(大農所) 서촌(西村) 동촌(東村) 신기(新基) 춘부동(春夫洞) 와촌(瓦村) 죽산(竹山) 팔음교(八音橋)
해 보 면 (海 保 面)	58	계동(桂洞) 자양(紫陽) 병암(屛巖) 도연지(倒連池) 송산(松山) 안인산직(安仁山直) 안인동(安仁洞) 각공(角公) 월대(月垈) 오두치(烏頭峙) 분매동(分梅洞) 용흥동(龍興洞) 운암(雲巖) 광동(廣洞) 선치(蟬峙) 신산직(新山直) 산내(山內) 금산직(今山直) 신계(新溪) 지족동(知足洞) 연암(連巖) 월라(月奈) 월선동(月仙洞) 옹점(瓮店) 상발미(上發美) 하발미(下發美) 사장(沙場) 내대(內代) 천변(川邊) 수각(水閣) 지변(池邊) 중촌(中村) 상평지(上平池) 중평지(中平池) 하평지(下平池) 칠성(七星) 성대(星垈) 원축동(元築洞) 사창(社倉) 성산(城山) 창남(蒼南) 연동(鳶洞) 경덕(京德) 용반동(龍反洞) 이성(鯉城) 방축내(防築內) 주현(舟峴) 석교(石橋) 신귀밀(新歸密) 상귀밀(上歸密) 가오지(加五旨) 신교(新橋) 선장(蟬場) 만연동(萬延洞) 명암(鳴巖) 화촌(花村) 하고두(下庫頭) 유정(柳亭)

면	이수	소 속 동 리 명 칭
월 악 면 (月 岳 面)	25	당장동(堂丈洞) 외치(外峙) 고와회(古臥回) 동촌(東村) 상촌(上村) 중촌(中村) 남촌(南村) 동산(東山) 지변(池邊) 내동(內洞) 순촌(蓴村) 평촌(坪村) 금석동(金石洞) 송계촌(松溪村) 연원촌(延月村) 괴정촌(槐亭村) 율이(栗里) 이인촌(里仁村) 부소(釜所) 중보촌(中堡村) 녹동(祿洞) 봉덕(鳳德) 연당(蓮塘) 복룡촌(伏龍村) 옹점(瓮店)
식 지 면 (食 知 面)	47	옹점(鎔店) 마흘산(馬屹山) 은기(銀基) 정양동(靜養洞) 대천동(大泉洞) 향수동(香樹洞) 서호정(西湖亭) 호암(湖巖) 신풍정(新豊亭) 동촌(東村) 방현(榜峴) 남호동(南湖洞) 기룡동(騎龍洞) 방하동(芳荷洞) 관동(冠洞) 입봉(笠峯) 연대(蓮臺) 신평(新平) 송학정(松鶴亭) 복연동(福連洞) 원정자(元亭子) 봉학산(鳳鶴山) 중함(中咸) 양선동(養善洞) 송계(松溪) 유동(柳洞) 장재동(壯才洞) 상촌(上村) 양지(陽地) 외서지(外鋤地) 동산(東山) 유리점(流離店) 성재동(聖才洞) 개복동(盖福洞) 유덕산(有德山) 선박(船泊) 용암(龍巖) 석령(石令) 음지(陰地) 이문내(里門內) 내증산(內甑山) 오호동(五湖洞) 오호남(五湖南) 사정(沙亭) 오서동(五西洞) 연암(蓮巖) 용두(龍頭)

<표 23> 호구총수에 나타난 무안현 관할 각 면의 마을(1789년)

* 함평군으로 편입된 면만 옮김

면 이 름	마을 수	관 할 마 을
신마노면 (新勿老面)	25	수산(水山) 포향정(抱香亭) 구산(龜山) 쌍천(雙川) 호연정(浩然亭) 와촌(瓦村) 신촌(新村) 용암(龍巖) 칠성촌(七星村) 갈동(葛洞) 용흥(龍興) 옥매동(玉梅洞) 장지촌(長之村) 수정동(水淨洞) 상신기(上新基) 석문내(石門內) 노송정(老松亭) 신기(新基) 국당(國堂) 중촌(中村) 신흥동(新興洞) 신정(新亭) 연국정(戀國亭) 북산(北山) 사양동(士良洞)
금 동 면 (金 洞 面)	30	고막원(古幕院) 상지동(上旨洞) 두지동(斗之洞) 북산촌(北山村) 내동(內洞) 금적동(金積洞) 동막동(東幕洞) 옥산동(玉山洞) 희방(希方) 나막(羅幕) 양동(陽洞) 석령(石令) 성암(星巖) 오소(五所) 시랑동(侍郎洞) 학송정(鶴松亭) 신흥동(新興洞) 백연동(百蓮洞) 유점(鍮店) 죽총(竹叢) 갈구지(渴龜池) 보화촌(寶化村) 산직촌(山直村) 대천동(大川洞) 옥련동(玉蓮洞) 신기(新基) 청수원(淸水院) 옥마동(玉馬洞) 호암동(虎巖洞) 삼거(三巨)
진 례 면 (進 禮 面)	17	광진(廣津) 호지(花枝) 석정(石井) 동림동(東林洞) 반송정(盤松亭) 자인동(自仁洞) 선암동(仙巖洞) 동금산(東錦山) 중촌(中村) 임강(臨江) 배야(背野) 대곡(大谷) 사호포(沙湖浦) 고창산(古倉山) 신기(新基) 영촌(永村) 월명동(月明洞)
좌랑촌면 (佐郎村面)	19	귀래촌(歸來村) 이암(耳巖) 호양촌(湖陽村) 쌍교(雙橋) 용계동(龍溪洞) 명암(銘巖) 소신기(所新基) 경화동(京化洞) 신경동(新慶洞) 송정(松亭) 송산(松山) 신흥동(新興洞) 반송동(盤松洞) 금동촌(金洞村) 산직촌(山直村) 월명촌(月明村) 덕산(德山) 정자동(亭子洞) 상곡(上谷)
엄다산면 (嚴多山面)	24	노상(路上) 광보(廣保) 석천동(石泉洞) 월천동(月泉洞) 해정(蟹井) 야리(野里) 불암(佛巖) 거제동(巨濟洞) 성산(星山) 운흥동(雲興洞) 송촌(松村) 평촌(平村) 신촌(新村) 수정동(水井洞) 영천(永川) 복영촌(伏永村) 흥룡동(興龍洞) 월산(月山) 직촌(直村) 상정(上亭) 삼정동(三亭洞) 벽류동(碧流洞) 벽류정(碧流亭)

제2절 세도정권 기 함평농민항쟁

1. 세도정권 기 함평 지방행정의 폐막(弊瘼)

조선후기 17세기-18세기 초반의 효종-숙종대 국가재조기의 경제발전과 제도개편을 기반으로 18세기 전반에서 말엽에 이르는 영조-정조대에 이르면 조선왕조는 완연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국가의 재조를 둘러싼 붕당간의 정권투쟁은 처음에는 남인-서인간의 쟁패기를 거쳐 노론-소론-남인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잦은 '환국(換局)'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7세기 중반 이래 이러한 권력투쟁은 처음에는 '예론(禮論)' '사문시비(斯文是非)'등의 명목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신강(臣强)' '간범명의(干犯名義)' '동궁보호(東宮保護)' '호역(護逆)'과 같은 쟁점으로 옮겨가면서 상호 불용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1710년대 후반 이래 당론에 의한 국왕선택으로 지배층 내부는 양립할 수 없었던 분열과 대립을 초래되었다. 그것은 '심지어 일실지내(一室之內)라도 간과(干戈)를 서로 드리댄다'[200] 혹은 '지친(至親) 사이라도 구수(仇讐)를 보는 듯한 사람이 있다'라고[201]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 노론에 의하여 옹립된 영조에 대하여 소론과 남인의 대노론 강경세력(탁남-濁南, 준소-峻少)에 의하여 반정 기도가 있게 되었고 이는 1729년의 이인좌 란으로 폭발하게 되는데 이후 영조는 탕평책을 통하여 붕당의 종식을 꾀하게 되지만, 결국 정권은 노론과 소론 등에 의한 소수의 벌열가문에 의해 독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말았다. 이후 정조는 이를 억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자 정권은 마침내 몇 개 가문의 독점물이 되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19세기에 들어 세도정치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세도정치는 정권에 반대하는 사림의 여론이 탄압받고 소수 가문의 이해에 의하여 공론이 억압되는 권력행사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점차 공론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곧 정치권 내부의 비판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국가운영 및 지방통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향촌사회에서도 이 같은 징후가 나타났으니 바로 수령은 일부의 향리와 향임을 통하여 부세액을 늘리고 이를 기화로 민생은 곤궁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삼정(三政) 운영에서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조장하고 있었다.

조선전기 전결(田結)·인신(人身)·가호(家戶)를 대상으로 한 조용조(租庸調)체제는 조선후기에도 그대로 근간이 유지되지만, 공물을 전결에 부과하는 대동법(大同法)의 시행과 취모보용(取耗補用)에 의한 환곡의 부세화로 인하여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 그리고 민고(民庫)라고 하는 사정체제(四政體制)로 운영되었다.[202] 조선후기 부세제도는 신분제와 결부제 그리고 총액제를 그 운영원리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세의 납부 및 징수의 단위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민의 자치에 의하여 균부균세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면리에서의 자치영역의 확대는 신분제에 구애받지 않고 관리 및 외부의 간섭과 개입이 배제되었을 때 그 일정한 수준이 기대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정(三政) 운영에서 은결(隱結)·은정(隱丁)을 능사(能事)로 하는 토호무단(土豪武斷)·간리활향(奸吏猾鄕)은 촌락의 자율적 역할을 부정하고 그 휘하에 두고자 하는 일관된 경향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세도정권 기 이후 '수령-이향지배체제'의 일각을 일부 부민세력이 담당하고, 향회가 수탈을 합리화하는 기구로 되면서 면리에는 수탈의 하급 기능만이 강요되는 양

200) 『경종실록(景宗實錄)』 권 12, 경종(景宗) 3년 6월, 경인조(庚寅條) 41책, 293쪽.
201) 최규서(崔奎瑞), 「병후만록(病後漫錄)」, 『패림(稗林)』 9집, 58-59쪽.
202) 金容燮, 「朝鮮後期의 賦稅制度 釐正策)」, 『韓國近代農業史硏究(상)』 증보판, 일조각, 1984.

상이 일반화되었다.

그렇다고 세도정권 기 함평의 지방행정이 악정으로만 점철된 것은 아니었다. 우선 당시 암행어사에 의하여 선정을 한 수령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함평현감 이경삼(李敬參)은 근열(近列)에 분우(分憂)하다가 새로 도임하여 정사에 힘을 다하는데 민을 가엾이 여기는 바가 우선이며, 향리를 단속하는 것은 매우 엄하니, 환곡을 거두고 진휼을 펴는데 현저하게 성근(誠勤)한 바가 있으며, 일을 결단함에도 청송은 상세하게 살피고 있다.[203]

함평현감 구재환(具載恒)은 사람이 비록 종상(綜詳)하고 그 처신이 읍에 위엄이 서기는 하나 환곡의 폐막과 군정의 명파(名疤)에 있어서 갑자기 실효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나, 활리가 재결을 훔쳐가는 것은 엄히 단속하고 있다.[204]

함평현감 권복(權馥)은 종련(綜鍊)의 재주와 문치의 칭송이 있으니, 친히 사무를 성심으로 집행하며, 두루 성은에 보답하기를 의도하여 고질적 폐막을 자세히 살펴 정사에서 교혁을 앞세우니 향리의 포흠(逋欠)을 회수하고 또한 상정가(詳定價)로서 징수하니 환곡을 받는 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관수(官需)는 시장의 가격보다 싸게 내도록 하니 결세를 내는 집에서는 모두 청렴하다고 하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205]

함평현감 유숙(柳琡)은 콩으로 받는 대동세가 연납된 것과 유리(由吏)가 가하(加下)한 일 등을 능히 차례대로 완료하고 마감하였는데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부노(父老)에게 미육을 내려 우대하고 혜택을 주었으며 혼례와 장례에 전포(錢布)를 두루 분급하여 주었으니 이에 가상합니다.[206]

함평현감 정재용(鄭在容)은 탱자 밭에 난새(鸞)가 서식하는 것이 아까운 것처럼 유인(游刃)으로 닭을 베는 것처럼 창고의 간특함을 순시하여 검사하여 적체된 세금은 모두 거두어들였으며, 가호의 폐막은 모두 고질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하여 효과를 보았고 관아 문에는 북을 달아놓아 백성이 서슴지 않고 이를 치도록 하였으며, 향약을 이끌어 완고한 풍속을 감화하였습니다.[207]

여기에서 보면 선정을 하고 있던 수령은 향리를 단속하고 향리의 포흠전곡을 회수하였으며 또한 민고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등의 일을 하였으며, 환곡을 분급하여 진휼에서 성적을 올리고 환곡을 돈으로 회수함에 있어서 상정가를 적용함으로 혜택을 주었으며, 관수품을 민호에 징수하면서 시장가격 이하로 가격을 정하여 민호에 혜택을 주는 등의 일을 하였고 이외에 소송을 처리함에서의 명쾌하게 결단하였으며 신문고와 같은 북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부로를 우대하고 혼·장례에서의 물품을 보조하는 것도 선정의 요목에 들어갔다.

이 같은 선정평가에 보듯이 이 시기에 있어서는 향리세력의 발호는 물론 시장가격의 등귀와 하락을 이용한 공물·공곡의 운영에서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의 비리가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그를 원만하게 해결하면 훌륭한 수령이 되는 것이었다. 당시 세도정권기의 폐정 하에서도 함평에서 적지 않는 수령이 이 같은 선정을 하고 있었던 것은 다행이겠으나 선정의 내용을 보면 민생을 억압하는

203) 『日省錄』, 순조 13년 1813 4월 13일.
204) 『일성록』, 순조 16년 1816 6월 10일, 호남 암행어사, 「趙萬永 書啓」.
205) 『일성록』, 순조 22년 1822 7월 9일, 전라우도 암행어사, 「權敦仁 書啓」.
206) 『일성록』, 헌종 8년 1842년 8월 17일, 전라우도암행어사, 「趙龜夏 書啓」.
207) 『일성록』, 철종 8년 1857 12월 21일, 전라우도암행어사, 「成彝鎬 書啓」.

근본적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운영차원에서의 부분적인 개선이나 정무수행상의 성심·근로한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보다 많은 수령은 당시의 폐정에 그대로 물들어 있었다. 그러한 수령을 암행어사 서계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함평현감 김기헌(金箕憲)은 작년 농사가 거의 우심한 것과 같았는데도, 재결(災結)을 그다지 받지 못하여 실제적인 혜택을 강구하지 않으니 민원이 먼저 일어나 태수가 착하지 못하여 주선하는 것은 다만 우금(牛禁)을 지엄하게 할 뿐이라고 하는데, 관포(官庖)에서 우금을 결단하는 것이 가히 조령(朝令)을 봉준한다 하겠으나, 범도자(犯屠者)에 대한 벌금이 30여 냥에 이르니 이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208]

함평 전 현감 이영식(李英植)은 객사를 개건하고 관청을 수리한다고 칭하면서 본읍의 원호(元戶) 6,252호 중에서 빈잔(貧殘)하고 도고(逃故)한 호를 제외한 나머지 실호(實戶)에 매호 나락 3말을 평균으로 분배하여 거두니 모두 조 1,050석인데, 1석에 1냥 2전 5푼으로 작전하니 모두 1,312냥 5전이었으며, 이 또한 부족하다고 하여 이상의 실호에게 또 다시 보리 5말을 분배하니 모두 1,900석이었다. 이를 여름에 거두는 것에 혼입하여 돈으로 계산하여 빼내어 취용하고자 하였을 때 마침 연고가 있어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아홉 면의 민인배(民人輩)가 겸관인 영광군수 엄기(嚴耆)에 가서 호소하니, 겸관 영광군수가 거두지 말라고 하는 전령을 내려 주었다. 이 외에도 전 현감은 환곡을 사사로이 쌀 625석, 나락 6,655석을 더 분급하였으니, 그 중 원모미(元耗米) 2석 9두를 제외한 이자 쌀 69석과 원모조 56석을 제외한 나락 이자 1,212석을 가지고 쌀은 한 섬에 3냥 1전으로 하고, 나락은 한 섬에 1냥 2전 5푼으로 하여 모두 1,456냥을 만들고, 더해 만든 쌀(加作米) 300석으로 한 섬에서 9전씩을 더 거두었으니 이것이 또한 270냥에 이르는데, 그 나머지를 유리(由吏)를 시켜 도로 입본(立本)하게 하니 유리는 이를 본전과 함께 투식하게 되었다. 이 같이 막중한 환곡을 도무지 허부로 돌려놓았으니, 극히 안타깝고 놀라울 따름이다. 그래서 신은 출도하자 유리를 추치하여 본전 660냥을 즉시 징출하여 겸관에 보냈습니다.[209]

함평 전전 현감 이완식(李完植)은 지난 봄 진휼할 때에 12순을 통계하여 기민 3만 9,806구(口)내에 1만 6,008구를 허록하여 진수(賑需)에 들어간 나락과 보리 4,938석과 쌀 576석 내에 진수로 실제 쓴 것은 나락과 보리가 1,535석이며, 쌀이 170석에 지나지 않아, 남은 나락 1,700석과 쌀 200석은 경기도 장단 사람 유엽(柳熀)이란 자의 이름으로 원납한 것으로 하였으니, 처음부터 한 톨의 곡식도 내지 않았는데도 이를 감영에 보고하여 상을 청하였으니 극히 불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자체적으로 비축한 나락과 보리가 100석인데 남아있는 것은 3,403석이며, 쌀이 56석을 자체비축하였다고 하였는데도 남아있는 것은 405석으로 되어 있으니 소위 원납(願納)과 자비(自備)를 합하여 남아있는 나락과 보리쌀을 합한 1,751석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허록(虛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수 전 6,531냥 내에서 실제 지출한 것은 6,396량이니 나머지 135량은 모두 건몰(乾沒)이니 그 죄상은 유사에 품처토록 하여주십시오.[210]

함평 전 현감 심동규(沈東奎)는 경자 년에 이전(移轉)한 쌀값 1,000 냥을 대동세로 바치던 콩 값으로 상납하고 이것을 환곡으로 분급하여 이로 인하여 기한을 넘겨 민원을 일으켰습니다. 근경에서 온 적객(謫客)과 친하여 세곡 784석 12두를 고가로 돈으로 바꾸어 원성이 자자하였는데 그 이익이 적객에 돌아갔다고 하지만 비방하는 말은 모두 수령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향임을 차임하여 받는 예채(賣鄕錢) 400냥은 혹은 관용으로 썼다고 하고 혹은 책객(冊客)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하니 모두 근거가 있는 말이었습니다.[211]

208) 『일성록』, 정조 23년(1799) 5월 7일, 호남암행어사, 「柳畊 書啓」.
209) 『일성록』, 순조 8년(1808) 6월 17일, 호남우도 암행어사, 「徐有望 書啓」.
210) 『일성록』, 순조 16년 1816 6월 10일, 호남암행어사, 「趙萬永 書啓」.

함평 전전 현감 유진익(柳進翼)은 정사를 사람답지 못한 이에게 위임하여 읍사(邑事)가 저절로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세미 값을 추후에 더하기도 하고, 포흠 전을 거두는데 중간에 없어졌는데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212]

함평 전 현감 이진면(李鎭冕)은 정령을 오로지 향리와 향임의 말만 들으면서 영위하는 바는 또한 뇌물을 받을 따름으로 이에 체임한지 3년이 지났어도 쌓인 비방이 일경에 가득 퍼져있었습니다.[213]

함평 전 현감 홍우신(洪祐信)은 이미 폄출(貶黜)되었습니다.[214]

함평 전전 현감 홍선용(洪選容)은 자못 성적(聲績)이 있다고 하여 수령으로 차임된 것이 마땅하였다고 하였는데 담금질하고 숫돌에 가는 것처럼 하여야 할 것인데 명주옷을 관아에 풀어놓고 청송을 처리함에 늦고 빠른 것이 절도가 없으며 영각(鈴閣. 동헌)을 시장처럼 만들어 향임·향직을 팔아 넘겨 뇌물이 모여들었습니다. 좌수는 300냥, 이방 1,000냥 호장 150냥 도회색(都倉色) 150냥인데 병진 년(1856)에는 200냥을 받았습니다. 이전해온 환곡도 돈 2,400냥을 감영에 획부하여 주기를 청하여 이를 향리 배에 맡겨 없어지게 하여 환곡포흠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진 년(1856) 세미를 늦게 실어낸 일로 순영에서 이향(吏鄕)을 잡아들이라 하였을 때 이를 방해하고 요로에 보고하는데 150냥을 거두었으니, 폄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215]

이 때의 수령은 향임으로부터 예채를 지나치게 거두거나 혹은 이향에 정사를 위임하고 그리고 이를 책객(수령이 대동한 비서격의 인물)과 결탁하게 하여 환곡을 착복하고 환곡을 회수할 때 돈으로 받는데 이를 고가로 하여 그 잉여를 가로채는 일, 그리고 기민진휼(饑民賑恤)을 잘못하여 곡식을 없애고, 원납 곡을 납부하지도 않았는데 원납 인이 있었다고 보고한 일, 그리고 객사와 관청을 수리하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전곡을 징수한 일 등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항상 이향 층과 책객 등이 결탁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적지 않은 수령들이 이들 세력을 이용하여 민생의 곤궁을 생각하지 않고 치부하고 뇌물을 받는데 몰두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860년대 농민항쟁은 "임술민우불심어토호간리이작야(壬戌民擾不堪於土豪奸吏而作也-임술, 철종13년에 일어난 민란은 감히 토호와 간리들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까지 일컫게 되었다.[216]

세도정권 말기에 이르면 함평은 저채(邸債)의 폐단을 집중적으로 당하게 되었다. 당시 세공(歲貢)의 납부, 문서의 연락 등을 맡는 영주인 등은 이러한 역할로 인하여 수중에 항상 많은 액수의 공가나 조세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전곡을 본전으로 하여 지방수령이나 관속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식의 고리대를 하였던 것이며, 또한 해당지방의 경사로의 상납물이나 관속들의 출사로비(出使路費) 등을 자신들이 먼저 선납하고 나중에 변제 받았는데, 이때에도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징수하였다. 이것이 바로 저채인데 함평의 경우는 1859년에 저채의 규모가 5,432냥 5전이었고 3년이 지난 1862년에는 무려 3만 2,315냥으로 6배나 증가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지방관속이 변제를 생각하지 않고 저채를 빌렸으며, 실제 있지도 않는 저채가 있다고 하였던 때문이었다. 이 같은 저채의 이자는

211) 『일성록』, 헌종 8년 1842 8월 17일, 전라우도암행어사, 「趙龜夏 書啓」.
212) 『일성록』, 헌종 13년 1847 11월 26일, 전라우도암행어사, 「兪致崇 書啓」.
213) 『일성록』, 철종 5년 1854 7월 3일, 전라우도암행어사, 「朴麟夏 書啓」.
214) 『일성록』, 철종 8년 1857 12월 21일, 전라우도암행어사, 「成彝鎬 書啓」.
215) 『일성록』, 철종 8년 1857 12월 21일, 전라우도암행어사, 「成彝鎬 書啓」.
216) 『일성록』, 고종(高宗) 4년 4월 21일, 4책, 161쪽.

결국 민호(民戶)에게 전가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암행어사도 저채는 신포(身布)·연역(烟役)·환곡(還穀) 등과 같이 민생침탈의 조건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민생을 곤궁하게 하는 침우(侵擾)는 하나에 그치지 않고 신포(身布)·연역·부세(賦稅)·환곡 그리고 이를 빙자한 이예(吏隷)의 주구(誅求) 등에 있습니다. 근일에 이르러 저채가 첨가되어 큰 폐막이 되었는데 어찌 그만두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장차 백성은 안정되어 이를 받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채를 오래 끌어 쉬는 해가 있으면 배로 늘어나고, 해가 가면 또 더해지는데 심지어 1-2냥 본전이 몇 년이 안 되어 천백이 되니 마침내는 이를 결세장부와 환곡장부로 옮겨 놓으니, 저리는 오로지 그 이익을 차지하게 되고 결민과 환호는 먹지도 않는 것을 포흠한 것으로 되고 맙니다. 함평·진주에서 일어난 변에서 들리는 바를 살펴보면 가히 놀라운 마음뿐입니다. 이것은 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저채의 족징을 통금하여야 하는 일을 묘당에서 품처하도록 하시옵소서."[217]

2. 1862년 함평농민항쟁

세도정권 기 소수가문의 권력독점과 정치적 파행은 지방행정을 난맥으로 몰아넣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다. 더욱이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농민층의 분화는 한층 진행되어 영세농·소작전호·무전 농의 수는 갈수록 늘어만 갔고, 더욱이 빈번한 자연재해와 질병은 이들의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분제의 해체와 면리자치의 성장을 객관적 배경으로 하면서 각처에서의 빈발하는 농민저항의 확산은 그들의 정치의식·사회의식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세도정치가 시작된 직후인 순조 즉위년(1800)에 경상도 안동에서 60여명의 농민이 관아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함경도 단천·북청과 경기도 개성, 강원도 춘천 등지에서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났으니, 이는 조선사회의 모순이 농민의 주체적 항쟁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순조 11년(1811)에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었다. 정주성에 근거하여 완강하고 지구적 저항을 하고 있었던 반군 측 농민에 대한 조정 측의 진압은 가히 공포적이었다. 그러나 홍경래 난을 계기로 이후에도 농민층의 항쟁은 각 지역에서 산발적이긴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제주도·용인·전주 등지에서 민란이 계획되었다가 사전에 발각당한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전남지역에서는 무안현에서 무안현감 성수묵(成遂默)이 현민들에게 보복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전국 각지에 걸쳐 괘서·방서사건도 빈발하였다. 농민들의 저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성을 띠어 각처에서 화적(火賊)·수적(水賊) 등 도적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서강단(西江團)·폐사군단(廢四郡團)·유단(流團) 등의 명칭을 가지고 커다란 조직을 결성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순조 33년에는 서울에서 미곡상과 관리들의 농간으로 쌀값이 폭등하자 영세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고, 헌종 7년(1841)에는 경주의 농민 수백 명이 서울까지 올라와 환곡의 부정을 고발하는 복합(伏閤)상소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민이나 농민들의 동향은

217) 『일성록』, 철종 13년 1862 6월 1일, 전라우도암행어사, 「趙秉式 別單」.

적극적인 항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 이제 민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철종 13년(1862) 벽두에 일어난 진주농민항쟁을 시발로 3남 지방을 위시한 전국 각지에서 농민의 봉기가 일어났다.[218] 같은 철종 13년에는 제주도에서 세 차례에 걸친 과격한 농민항쟁이 일어났고, 이 밖에도 전국에 걸쳐 모두 70여회의 농민봉기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들 농민항쟁은 어느 지역에서나 모두 삼정(三政-田政·軍政·還穀)의 문란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으며, 그 규모나 양상도 비슷하여 처음에는 문서로 10여 차례 관청에 호소하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력행사로 나오는 것이었다. 이 때 농민들은 농기구나 죽창을 들고 관청을 습격하여 아전을 죽이고 조세문서를 불 지르곤 하였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농민항쟁에 대하여 조정은 종래 홍경래의 난에서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은 무력에 의한 토벌을 계속할 수만은 없었다. 이에 조정은 유화책을 써서 우선 선무사(宣撫使)·안핵사(按覈使)를 파견하여 농민들의 요구조건을 수락하고 말썽 난 관리나 아전을 파직·유배시켜 민심을 진정시킨 뒤 난의 주모자를 처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농민항쟁의 전개 속에서 농민의 사회의식은 더욱 상승하였고 그들 농민지도층의 지도력도 한층 향상되어 갔다. 이리하여 농민항쟁은 대원군 치세나 개항 이후까지도 줄기차게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농민들의 주체적 항쟁은 조선의 양반사회체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킨 요인이 되었다.

1862년 농민항쟁은 전국 70여개 군현에서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전라도 지역에서 38군데에서 봉기하였으며 그 중 함평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다.

1862년 함평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의 전개는 다음의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등소(等訴), 즉 정소(呈訴)·격쟁(擊錚)·거화(擧火) 등을 통해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한 시기.

두 번째는 4월 16일, 14개 면의 향촌민이 죽창과 깃발을 들고 장시(場市)에 모여 궐기한 후 간리 및 토호들의 집을 습격하고 동헌으로 쳐들어가 현감과 이서들을 추방하는 전면적 봉기단계.

세 번째는 읍내 및 동헌을 습격한 향민들과 주도자들이 교원(校院)에 둔취하면서 읍의 행정권을 25일 동안 장악하는 단계,

네 번째는 5월 10일 정한순(鄭翰淳)을 비롯한 주동 농민들이 안핵사와 우영장(右營將) 앞에 스스로 나타나서 직접 '십조앙진' 처결을 소원(訴寃)한 다음 스스로 해산함으로써 봉기를 마무리하는 단계.[219]

다섯 번째는 조정에서 봉기 주동자 및 동조자들과 현감이하 이서·토호들을 징치하는 단계다.

먼저 함평농민들은 전면봉기에 앞서 갖가지 합법적인 등소운동을 벌였다.

우선 정한순을 중심으로 한 봉기의 주동자들은 먼저 폐막 10조와 수령·관속들의 부정사실을 관찰사에게 의송(議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향회(鄕會)를 통해 이것을 농민들로부터 추인을 받았다. 당시 정한순 등은 자신의 행위가 '보국위민(輔國爲民)'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

218) 김용섭, 「철종조 민란발생(哲宗朝 民亂發生)에 대한 시고(試考)」, 『역사교육(<歷史敎育)』 1, 1956.
219) 손형부, 『전라남도지(全羅南道誌)』 6, 1993, 40쪽.

고 있었다. 더구나 수리(首吏) 이방헌(李邦憲)이 여기에 가담하여 제반 폐막사실을 알려 주었기 때문에 폐막사실에 대한 농민들의 믿음은 깊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정한순 등 지도부의 의식과 주장이 14개 면의 훈장·면임을 비롯한 전 향민들에게 접목됨으로써 모든 향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도회에서 정한순·안종팔 등 향촌의 대표들이 소장에 연명하였고 이어 소장(訴狀)을 감영에 보냈다. 그런데 감영의 조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 권명규(權命奎) 현감이 서울의 명문세가(名門勢家) 출신이라는 것도 함평농민들의 소장처리를 외면해버린 중요한 단서였다. 이에 불복한 주동자들은 사헌부에 정소(呈訴)하고 그래도 유야무야되자 국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직소하는 격쟁(擊錚)까지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 합법적 수단으로 거화(擧火·횃불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려고 하였다. 4월 중순 함평농민 300여명은 서울 남산에 올라 거화사건, 이른바 횃불시위를 벌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국왕에게 직소하고자 했다. 철종은 궁성에서 함평농민들의 거화사실을 알고 거화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과 조건을 직접 들은 뒤 잘 처분하고 봉공(俸供)할 것을 해당 관아에 하명했다. 그런데도 이조나 호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행하지 않았다. 이 처럼 함평백성들은 등소와 함께 격쟁·거화 등 갖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문제해결의 원칙만 제시했을 뿐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은 채 오히려 무고한 죄를 조작해 주동자들을 처벌하려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함평현 관아는 정한순과 안종팔 등 장소(狀訴)에 연명한 사람들에 대해 '인적위조(人的僞造)에 의한 무고혐의'를 뒤집어 씌워 유배의 형을 내렸다. 이에 정한순 등 주모자들은 즉시 피함으로써 체포를 면한 채 향촌민들에게 자신들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설파하면서 집단적 봉기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 지난 봄 이후 허다한 폐막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결세(結稅)의 징수, 관결(官結)의 가징(加徵), 허액뿐인 환곡의 문제였다. 여러 차례 중앙과 감영에 정수하였고 심지어 격쟁까지 벌였으나 국왕의 재가(裁可) 사항이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함평현에서는 감영의 인신을 위조하여 무고했다는 혐의로 감영에 보고하고 형배(刑配)를 가하려 하고 있다. 하늘의 해 아래에서 결백함을 보여줄 수 없으니 억울하여 미칠 지경이다.[220]

이제 마지막 단계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면적 봉기뿐이었다. 항쟁주도자들은 각 면에 통문을 돌려 거사를 알렸고 농민들은 각 면에서 무리를 지어 봉기를 준비하여 4월 16일 11시경 적촌리 장시(場市)로 모여들었다. 모여든 농민의 숫자가 수천 명에 달할 만큼 생각보다 많은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농민들은 제각각 면과 이명(面·里名)을 쓴 깃발을 앞세웠으며 노·약자를 불문하고 대부분 죽창이나 작대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정한순의 주도에 따라 적촌리 장시를 철시하고 읍내로 몰려가 가장 먼저 토호 김상원(金相元)과 이완헌(李完憲)의 집을 부수고 불을 질렀다. 이 두 사람은 저채(邸債) 징수에 관련하는 등 평소 농민들에게 원성이 높았던 토호들이었다. 이어 주요직임을 맡고 있던 호장 이희

220) 『龍湖間錄』 3, 국사편찬위원회 간, 「咸平亂 魁 鄭翰淳 供招,」, 73쪽.

서(李熙緖)·이방 이흥원(李興源)·좌수 장채성(張采成)의 집을 습격하였고, 저채 징수에 직접 관여한 간리 모관진(牟寬晋)·이택서(李澤緖) 등의 집을 부수고 불 질렀다. 농민들은 읍 권을 장악하고 함평현 향촌에서 권력을 남용해 농민들을 괴롭혔던 자들의 집을 거의 예외 없이 습격하였다. 이밖에 고리대나 고율의 소작료를 통해 평소 농민수탈에 앞장섰던 지주·부민들의 집도 훼파되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공격한 집에서 전곡(錢穀)을 빼어내 모두 우리들의 것을 탈취해 간 것'이라며 자신들의 양곡으로 삼거나 이웃 농민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후 농민들은 죽창을 들고 동헌을 공격했다. 먼저 공문서인 각종 서책(書冊)과 문부(文簿)들을 모두 탈취했다. 그리고 포교를 구금하고 감옥을 열어 죄수들을 방면한 다음 권명규(權命奎) 현감을 붙잡아 구타하는 등 난도질하는 곤욕을 보인 다음 담가에 담아 당시 무안현이던 논치(論峙, 현재의 학교면 노치) 밖으로 쫓아냈다. 이런 와중에서 이서배(吏胥輩)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모두 도망해 버림으로써 함평현 내는 공권력 상의 행정적 통치가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봉기농민들은 현 동쪽 5 리에 위치한 교원(校院)을 근거지로 하여 동헌과 각 면을 수시로 순시하였다. 봉기농민들은 요호(饒戶)에게 전곡을 조달하여 장기간 둔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였다. 정한순을 비롯한 항쟁지도부가 자주 순찰하였고, 사기가 높아 기세등등하였으며 또 관아의 비리파악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정에서 보낸 조사관을 농민들이 시찰하고 감시하였으며 이서들을 지휘하여 조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독촉했다. 이 모든 지시는 '장군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의 장군은 정한순을 지칭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처럼 정한순 등 주도자들은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교원에 둔취하면서 5월 10일까지 거의 한 달 가까운 25일 동안 읍 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행사했다.

이러했던 함평농민항쟁은 주도자들이 이정현(李正鉉) 안핵사와 우영장에게 자수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이 때 자수하게 된 동기는 전 현감과 전 감사의 착취를 폭로하여 중앙에서 이를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국왕의 명을 받은 안핵사가 도착했으므로 자수했던 것이다. 함평농민들이 등소운동을 전개하고 마침내 봉기까지 하면서 성취하고자 하였던 것은 다음의 앙진(仰陳) 10조에 잘 나타나 있다.

1. 조창(漕倉)에 납부하는 조세가 읍창(邑倉)에서 거두는 양보다 많은 것.
2. 궁방전의 수세(결세)가 고가인 것.
3. 허결을 빙자하여 탈루한 폐단.
4. 경채(京債. 일명 邸債) 명목으로 억울하게 징수당한 액수가 3만 2,315냥에 이른 것.
5. 경채 가운데 미수분과 서리들이 암출(暗出)해 낸 영환전(營還錢) 7,400냥을 환곡 장부에 첨부시킨 것.
6. 영저리(營邸吏) 역가를 세미가(稅米價)에 붙여서 부과한 것.
7. 본읍 환곡이 본래 2만 4,000여 석인데 매년 늘어나서 11만 석에 이르도록 과다하게 부과한 것.
8. 본읍 매호 작전(作錢)과 매 결두(結頭)가 1냥 정도였는데 지난 해 모작전(牟作錢)이 매석 4냥, 조환(租還)이 매호 9냥 5전, 매결 8냥 5전이 된 것.
9. 군정(軍丁)·유망(流亡)·번전(番錢)을 호와 결에 따라 거두었는데 매결 8, 9냥씩 남징(濫徵)하는 것.
10. 관에서 미납한 액수를 7년간 배봉토록 하여 매호 5, 6푼 정도였는데 근래에는 결두에 1전 8, 9푼에 이르도록 남징(濫徵)하는 것.

결국 함평의 농민들은 결세·환곡·저채·잡세 등에서 오는 과도한 수탈과 중간착복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궐기하였던 것이다. 이후 조정에서는 함평농민항쟁에 참여하였던 관속·봉

기농민들에 대한 처벌을 단행하였다.

6월 4일 주모자인 정한순·수리 이방헌·핵심 참모 김기용(金己容)·각 면 훈장 김백환(金百煥)·진경심(陳敬心)·홍일모(洪日模) 등 6명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행동대 격인 채행렬(蔡行烈)·도화집(陶化執)·장문열(蔣文烈)·정식인(丁寔人)·성익모(成益模)·정성팔·성맹권(成孟權)·김광제(金光濟)·안희석(安希石)·노연옥·노건달(魯健達)·성중집(成仲執) 등과 숙부와 동생이 함께 가담한 이몽아(李夢兒)·이석보(李石甫), 각 면 훈장 중 효수 대상 3인을 제외한 11인은 엄형 2차 전주옥(全州獄)으로 이송되어 원지(遠地)에 정배를 당하였다.

또한 등소에 연명한 안종팔(安宗八)은 비록 봉기당일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이미 영문인적위조 일로 유배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배되었다. 아울러 이돈일(李敦一) 등 13명의 각 면 면임들도 장정 징발과 양식제공 혐의로써 엄형 3차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외에 훈장 정길진(鄭吉鎭)과 도피중인 토호 김상원(金相元) 등 7명은 각 진영에 체포해 줄 것을 요망하였다.

한편 관리들에 대한 처벌도 병행하였다. 이는 통치기강의 재건과 농민들에 대한 가시적인 회유책의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먼저 전 현감 권명규(權命奎)는 경상도 영해부로 유배되었고, 문제가 된 저채에 관여했던 함평 경저리 차순행(車順行)은 형조의 명에 따라 경기감영에서 본도로 압송되었다. 봉기농민들에게 집과 재산이 소훼당했던 좌수 장채성(張采成), 호장 이희서(李熙緖.희순-熙循으로 적혀 있는 곳도 있으나 항렬자로 보아 희서가 옳음), 이방 이흥원(李興元)은 이목지임(耳目之任)으로서 봉기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 엄형 3차후에 도배(島配)하였다.

이외 수교(首校) 정문유(丁文柳), 인감색(印監色) 안양중(安陽重), 색리(色吏) 승발(承發), 작전색 이택서(作錢色 李澤緖) 등 3인, 그리고 수통인, 도사령, 수노 등에 대해서도 수탈에 대한 동조 죄와 봉기진압에 소홀했던 죄를 물어 엄형 3차에 처하였다.

이와 같이 봉기에 참여한 농민들은 가혹한 수탈 속에서 여러 차례의 향회를 통해 10조 폐막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식이 고조되었다. 따라서 정한순을 장군으로 추대하고 탐관오리와 악질 지주·부민을 징치하는데 적극행동으로 나섰던 것이다. 이와 같은 향촌사회의 여러 계층이 참여하여 전개한 함평농민항쟁은 단순한 민란이 아니라 조직력을 가지고 '병란(兵亂)'의 양상을 띠며 지속적인 추진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다.

(補論) 1862년 함평농민항쟁에 대한 재검토[221]

1, 19세기 전후 함평현감의 폐정과 항쟁의 배경

(1) 수령권(首領權) 강화정책의 한계와 수령-이(吏)·향(鄕) 지배체제

221) 함평농민항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보다 소상하게 연구한 신영호의 (2005학년도,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62년 咸平 農民抗爭에 대한 再檢討」를 本誌體制에 맞춰 보완·가필해 전재하며 지면관계상 머리말과 맺음말은 삭제했다. 당해 필자의 양해를 구한다.

조선전기 향촌사회에서는 수령의 군현통치가 재지사족(在地士族) 층과의 일정한 타협과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향촌지배체제는 영종(英宗)·정조(正祖)시대에 이르러 중앙정치와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를 통해 수령권(首領權)의 상대적인 강화를 가져오게 되고, 또한 사족의 향권(鄕權) 상실의 계기를 이루었다.

'수령'이라 하면 대체로 군현단위의 우두머리로서 부윤(府尹)에서 현감(縣監)까지를 지칭한다. 여기에 외관직인 찰방(察訪)·첨사(僉使)·만호(萬戶)·감목관(監牧官) 등은 향촌지배의 측면에서 그 역할은 수령과 다를 바 없었다. 역참(驛站)의 일을 맡아보던 찰방이나 목마(牧馬)를 위해 설치된 감목관 또한 수령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에 이르러 수령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인가. 바로 수세(收稅)였다. 이는 영·정조대의 탕평책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당시의 탕평책은 왕 아래에 새로운 군문(軍門)을 두어 왕권을 지지하는 물리력을 다지고 왕의 측근관료를 확보하면서, 백성을 직접 파악하고 완결하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왕권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가 필요했다.

이러한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수령권의 강화가 뒤따라야 했고, 수령권의 강화는 자연히 향촌사회의 재지세력과의 마찰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795년(정조 19) 초산부 아이진 첨사 이신형(楚山府 阿耳鎭 僉使 李信馨)이 진졸(鎭卒)인 이장 최봉덕(崔奉德)을 다스리려다 오히려 구타당하는 일이 있었고,[222] 함창현감 박재순(咸昌縣監 朴載淳)이 현리 오계권(吳啓權) 등의 묵은 포흠(逋欠)을 조사하다가 그를 죽이자 그 족속들이 관정(官廷)에 난입하는 일도 있었다.[223] 수령에 의한 잔혹한 남장(濫杖)사건 또한 자주 발생했는데 창원부사 이여절(昌原府使 李如節)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여절은 부사재임 시 사족을 포함한 25인을 살상했다.[224] 죽은 자 가운데는 관속뿐만 아니라 면임(面任), 동임(洞任)과 감관(監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조와 중앙관료들의 입장은 탕평기의 왕권강화와 그 연장선으로서의 수령권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잘 보여준다. 이 사건에 대한 조정의 논의는 일단 이여절의 남장(濫杖)이 잔혹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모두 경내(境內)의 민인(民人)이고 공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잔혹함보다는 수령권의 약화(命吏無權)를 우려했던 것이다. 수령권의 강화를 위해 수령에게 생살여탈(生殺與奪)의 권한을 빌려주자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수령의 위노(威怒)와 남장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225]

이와 같은 수령권의 남용은 세도정권과 수령의 사적이득을 위하여 행사되어 졌을 뿐이지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에 의한 향촌질서를 재건시킨다는 원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영광군수 이제만(李濟萬)과 김해부사 서배수(徐配修) 등이 지방관으로서 치부한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었음은 그것을 뜻한다.[226] 정조대의 수령권 강화를 통한 향촌통제는 사족들의 사적지배영역을 수령(首領)이라는 관료조직으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처럼

222) 『正祖實錄』 권 43, 정조 19년 7월 무오.
223) 『正祖實錄』 권 43, 정조 19년 8월 경인.
224) 『正祖實錄』 권 43, 정조 19년 8월 임인. "…殺傷人命二十五之多 形具違制 用刑濫酷"
225) 정진영, 1994년, 『1894년 농민항쟁연구』, 「19세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와 대립관계」, 1994년, 288쪽.
226) 『정조실록』 권 44, 정조 20년 6월 병술.

세도정권하에서 수령권 강화정책이 하부통치조직에서 오용(誤用)·왜곡됨으로써 수탈적 성격이 짙은 수령—리(吏)·향(鄕)이 주도하는 향촌사회를 낳게 했다.[227]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수령권의 강화는 부세운영과 결부되어 직접적인 대민침탈로 나타나게 된다. 중앙재정이 악화되어 이것이 전적으로 지방재정으로 전가되고, 농민의 저항과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부세운영이 어렵게 됨으로써, 그리고 향촌사회 세력간의 역학(力學)관계가 변화됨에 따라 수령권의 부세운영은 국가의 법제적인 틀을 벗어나게 되어버렸다. 이러한 사정에서 이 시기의 부세운영은 군현의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기존의 조용조(租庸調)체제가 부세운영의 바탕을 이루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시기부터 진행되어 온 공동납의 형태가 보편적으로 관행화되고 있었고, 조세의 전세화(田稅化)와 금납화(金納化), 그리고 이것의 최종형태인 도결제(都結制)가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령권의 탈선은 이러한 부세운영의 장치로서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수탈을 통해서도 자행되고 있었다. 부민(富民)에 대한 수탈이 그것이다.[228]

이렇듯 수령에 대한 중앙정부의 비호와 대민침탈로 인한 사적이익 취득으로 인해 수령의 권한과 위상은 문란해 질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19세기 세도정권하에서는 지방수령에 대한 인사(人事)가 세도가의 자제에게만 국한되어 수령으로 서임되었던 것도 사적이득(私的利得)을 취하고자 하는 데에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었다.

(2) 정조대(正祖代) 이후 함평현감의 치적평가

향촌지배의 수탈이 수령-이·향 지배체제의 구조 속에서 자행되었을 때 함평의 수령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19세기 전후에 함평수령들의 선정(善政)과 실정(失政)을 암행어사 서계(書啓)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당시 함평현 수령들의 실태는 어떠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세도정권 기 함평에서 펼쳐진 지방행정이 악정(惡政)으로만 점철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812년부터 1814년까지 약 1년 8개월을 재임했던 이경삼(李敬參)을 비롯하여 1815년부터 1816년까지의 구재항(具載恒), 1821년부터 1823년까지 재임하며 함산가(咸山歌)를[229] 지었던 권복(權馥), 1841년부터 1842년까지의 유숙(柳琡), 1857년부터 1859년까지의 정재용(鄭在容) 등은 암행어사 서계를 통해 선정을 베풀었던 수령으로 보고(報告)되어 있었다.

이들 수령의 공통적인 선정요목은 향리의 단속과 민고재정(民庫財政)의 낭비를 방지하는 일이었다. 환곡을 분급해 진휼에서 성적을 올리고 환곡을 작전(作錢)함에 있어서는 가격을 상세히 적용해 혜택이 향촌 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관수품(官需品)을 민호(民戶)에 공급하면서 시장가격 이하의 싼값으로 매김으로써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고, 신문고와 같은 북을 설

227) 고석규, 1998년,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88쪽.
228) 정진영, 1994년, 『1894년 농민항쟁연구』, 「19세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와 대립관계」, 1994년, 291쪽. ; 함평지역 부세수탈에 관한 내용은 4장 1절 십조 앙진의 내용과 특징에서 부세운영에 대한 폐단에 대해 언급할 것임.
229) 이 시는 함평의 절경과 명승지를 예찬한 시로 당시 동헌으로 사용되던 녹죽당에 현판으로 걸려 있어서 군민들에게 애송되었다. 그러나 현판은 없어지고 1907년 간행된 군지의 제영조에 수록됨으로서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

치해 소송이나 민원을 해결했다. 이밖에 부로(父老)를 우대하고 향민들의 혼·장례품(婚·葬禮品)을 지원하는 것도 선정의 요목에 들어갔다.

특히 수령들은 향리들을 제대로 관장하고 통솔하는 것이 공통된 선정요목이었다. 이는 당시 수령—이·향 주도의 향촌지배체제에서 향리들의 발호를 제압하는 것은 바로 수령과 이서층(吏胥層)의 결탁에 따른 농민수탈이 상존하지 않았음을 조정에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세도정권기의 왜곡된 수령권 강화정책에서도 적지 않은 수령이 이 같은 선정을 베풀고 있었다. 하지만 선정의 내용은 부세 수취체제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농민들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운영차원의 부분적인 개선이나 정무수행상의 성실성 등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19세기 모든 지방관의 주요임무가 부세수취에 집중되고 있었고 이로 인한 폐단이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 함평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왜곡된 수령권 강화정책이 19세기 향촌지배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수령들의 폐정사례는 여러 암행어사들의 서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1795년(정조 19) 7월 부임해 1799년(정조 23) 12월에 영천군수로 전임해 간 김기헌(金箕憲)의 경우를 보자.

"함평현감 김기헌(金箕憲)은 작년 농사가 거의 우심한 것과 같았는데도, 재결(災結)을 그다지 받지 못하여 실제적인 혜택을 강구하지 않으니 민원이 먼저 일어나 태수가 착하지 못하여 주선하는 것은 다만 우금(牛禁)을 지엄하게 할 뿐이라고 하는데, 관포(官庖)에서 우금을 결단하는 것이 가히 조령(朝令)을 봉준한다 하겠으나, 범도자(犯屠者)에 대한 벌금이 30여 냥에 이르니 이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230)

그는 흉년임에도 재결을 받지 못하는 무능한 수령으로 소를 잡지 못하게 하는 법만 엄히 지키고 범도자(犯屠者)들에게는 과도한 벌금만 재촉하는 수령이었다. 하지만 향리들과의 결탁이나 특별한 범죄행위는 별로 나타내지 않았다.

무관으로 벼슬길에 올라 1806년(순조 6) 8월부터 1808년(순조 8) 5월까지 1년 9개월을 함평현감으로 근무했던 이영식(李英植)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함평 전 현감 이영식(李英植)은 객사를 개건하고 관청을 수리한다고 칭하면서 본 읍의 元戶 6,252호 중에서 빈잔하고 도고(逃故)한 호를 제외한 나머지 실호(實戶)에 매호 나락 3말을 평균으로 분배하여 거두니 모두 조 1,050석인데, 1석에 1냥 2전 5푼으로 작전하니 모두 1,312냥 5전이었으며, 이 또한 부족하다고 하여 이상의 실호에게 또 다시 보리 5말을 분배하니 모두 1,900석이었다. 이를 여름에 거두는 것에 혼입하여 돈으로 계산하여 빼내어 취용하고자 하였을 때 마침 연고가 있어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아홉 면의 민인배(民人輩)가 겸관인 영광군수 엄기(嚴耆)에게 가서 호소하니, 겸관 영광군수가 거두지 말라고 하는 전령을 내려주었다. 이 외에도 전 현감은 환곡을 사사로이 쌀 625석, 나락 6,655석을 더 분급하였으니, 그 중 원모미(元耗米) 2석 9두를 제외한 이자 쌀 69석과 원모 조 56석을 제외한 나락 이자 1,212석을 가지고 쌀은 섬에 3냥 1전으로 하고, 나락은 한 섬에 1냥 2전 5푼으로 하여 모두 1,456냥을 만들고, 가작미(加作米) 300석으로 섬에서 9전씩을 더 거두었으니 이것이 또한 270냥에 이르는데, 그 나머지

230) 『日省錄』 정조 23년 5월 7일 호남암행어사 柳畊書啓.

를 유리(由吏)를 시켜 도로 입본(立本)하게 하니 유리는 이를 본전과 함께 투식하게 되었다. 이같이 막중한 환곡을 도무지 허부로 돌려놓았으니, 극히 안타깝고 놀라울 따름이다. 그래서 신은 출도하자 유리를 추치하여 본전 660냥을 즉시 징출하여 겸관에 보냈습니다."[231]

여기서 보듯 이영식은 객사재건과 관아수리를 이유로 함평의 실호(實戶)에게 조 1,050석을 거두었는데, 이 것을 작전(作錢)하여 1,312냥 5전을 만들었으나 이도 부족하여 보리를 다시 거두어들이고 있다. 또한 그는 환곡을 사사로이 거둬들여 돈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아전 이방(吏房)을 시켜 가을에 쌀로 갚게 하고 있다. 그가 연고가 있어 사임하자 이방은 본전과 이자를 모두 훔쳤고 이는 허부로 돌려놓았던 것이다. 이에 이방은 죄를 받고 660냥의 본전을 내놓고 있다. 이 서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함평의 모든 실호 즉, 요호부민(饒戶富民)들마저도 균등한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무관으로 출사해 1814년(순조 14) 7월부터 1815년(순조 15) 7월까지 재임했던 이완식(李完植)의 경우는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공급해야할 진휼미를 착복한 사례다.

"함평 전전 현감 이완식李完植)은 지난 봄 진휼할 때에 12순을 통계하여 기민 39,806구(口)내에 16,008구를 허록하여 진수(賑需_에 들어간 나락과 보리 4,938석과 쌀 576석 내에 진수로 실제 쓴 것은 나락과 보리가 1,535석이며, 쌀이 170석에 지나지 않아, 남은 나락 1,700석과 쌀 200석은 경기도 장단 사람 유황(柳熀)이란 자의 이름으로 원납한 것으로 하였으니, 처음부터 한 톨의 곡식도 내지 않았음에도 이를 감영에 보고하여 상을 청하였으니 극히 불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자체적으로 비축한 나락과 보리가 100석인데 남아있는 것은 3,403석이며, 쌀이 56석을 자체 비축하였다고 하였는데도 남아있는 것은 405석으로 되어 있으니 소위 원납(願納)과 자비(自備)를 합하여 남아있는 나락 보리쌀을 합한 1,751석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허록(虛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전 6,531냥 내에서 실제 지출한 것은 6,396량이니 나머지 135량은 모두 건몰(乾沒)이니 그 죄상은 유사에 품처토록 하여 주십시오."[232]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완식은 기민(饑民)을 허위로 기재해 진휼미를 제대로 사용치 않았으며 남은 나락은 감영에 한 톨의 곡식도 납부치 않고 있다. 비축미 또한 허위로 기재했고, 진수전 가운데 135냥을 빼돌렸다. 이러한 죄상으로 끝내 파직된다.

문관으로 출사해 1838년(헌종 4) 5월부터 1841년(헌종 7) 5월까지 3년여를 함평현감으로 재임했던 심동규(沈東奎)는 적객(謫客)과 책객(冊客)에게 공금이 들어가고 있다.

"함평 전현감 심동규(沈東奎)는 경자년에 이전(移轉)한 쌀값 1천냥을 대동세로 바치던 콩 값으로 상납하고 이것을 환곡으로 분급하여 이로 인하여 기한을 넘겨 민원을 일으켰습니다. 근경에서 온 적객(謫客)과 친하여 세곡 784석 12두를 고가로 돈으로 바꾸어 원성이 자자하였는데 그 이익이 적객에 돌아갔다고 하지만 비방하는 말은 모두 수령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향임을 차임하여 받는 매향전(賣鄕錢) 400냥은 혹은 관용으로 썼다고 하고 혹은 책객(冊客)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하니 모두 근거가 있는 말이었습니다."[233]

231) 『日省錄』 순조 8년 6월 17일 호남우도 암행어사 徐有望書啓
232) 『日省錄』 순조 16년 6월 10일 호남암행어사 趙萬永書啓
233) 『日省錄』 헌종 8년 8월 17일 전라우도암행어사 趙龜夏書啓

그는 먼저 환곡을 분급하여 기한을 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곡을 돈으로 바꾸어 귀향 온 적객에게 주고 있다. 이는 당시의 관례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세곡은 향촌민들에게서 나온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당시 향촌사회 부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향임·차임과 관련한 매향전(賣鄕錢)에 관한 기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죄상에도 심동규는 정언으로 영전되어 간다.

1845년(헌종 11) 6월 25일부터 이듬해 6월 15일까지 약 1년간 함평현감으로 재임한 유진익(柳進翼·1787~1851, 풍산인)역시 세미와 포흠전의 미숙한 운영으로 보고 된다.

"함평 전전 현감 유진익(柳進翼)은 정사를 사람답지 못한 이에게 위임하여 읍사(邑事)가 저절로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세미의 값을 추후에 더하기도 하고, 포흠전을 거두는데 중간에 없어졌는데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234]

그는 이러한 죄상으로 폄파(貶罷)되나 그의 재임기간동안 함평의 양곡을 통한 환곡을 어떻게 분급하고 상납관청에는 얼마를 납부했으며 나머지 중 일부를 공용 및 관수로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기록한 해유문서(解由文書)가 그의 후임자에 의해 남겨져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235] 이를 통해 보면 함평현의 환곡 및 양곡운영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해유문서에는 자신의 전임자로부터 전수받은 양곡현황도 기록되어 있어 전임자의 재정운영상황도 확인된다.

무관으로 1851년(철종 2년) 6월부터 1852년(철종 3년) 6월까지 부임한 이진면(李鎭冕)은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재임기간동안 향리층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지른 죄상으로 해임되었다.

"함평 전현감 이진면(李鎭冕)은 정령을 오로지 향리와 향임의 말만 들으면서 영위하는 바는 또한 뇌물을 받을 따름으로 이에 체임한지 3년이 지났어도 쌓인 비방이 일경에 가득 퍼졌습니다."[236]

이진면은 3년 재임기간 동안 뇌물로 인한 비방이 하늘을 찔렀던 모양이다.

1856년(철종 7) 12월부터 1857년(철종 8) 6월까지 재임했던 홍우신(洪祐信)에 대해서는 간략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치적 평가에서 중등을 맞음으로서 파직되었다.

"함평 전현감 홍우신(洪祐信)은 이미 폄출(貶黜)되었습니다."[237]

---

234) 『日省錄』 헌종 13년 11월 26일 전라우도암행어사 兪致崇書啓

235) 해유문서는 후임 현감 李裕膺이 함평현의 재정현황을 관찰사에게 보고한 문서로서 관찰사는 이를 호조에 보고했고, 호조는 이를 확인했다. 이 문서는 일괄문서로서 호조나 병조에서 확인한 문서와 해유문서, 그리고 이를 상급관청에 올린 문서가 일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문서는 私家에 보존되어 있는데 호조와 병조에서 통보받은 이조가 발급한 照訖帖이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정신문화연구원 풍산류씨 집성편에 나오며, 해유문서에 관한 내용은 1999년 간행된 『함평군사』에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다.

236) 『日省錄』 철종 5년 7월 3일 전라우도암행어사 朴麟夏書啓

237) 『日省錄』 철종 8년 12월 21일 전라우도암행어사 成彝鎬書啓

홍유신 역시 성실치 못한 재임기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음사로 출사해 1856년(철종 7) 6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6개월여를 재임한 홍선용(洪選容)의 경우는 이·향 층과 결탁하고 향임·향직을 파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함평 전전 현감 홍선용(洪選容(은 자못 성적(聲績(이 있다고 하여 수령으로 차임된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담금질하고 숫돌에 가는 것처럼 하여야 할 것인데 명주옷을 관아에 풀어놓고 청송을 처리함에 늦고 빠른 것이 절도가 없으며 영각(鈴閣)을 시장처럼 만들어 향임 향직을 팔아 넘겨 뇌물이 모여들었습니다. 좌수는 300냥, 이방 1천냥 호장 150냥 도창색(都倉色) 150냥인데 병진년(1856)에는 200냥을 받았습니다. 이전해 온 환곡조 돈 2,400냥을 감영에 획부하여 주기를 청하여 이를 향리배에 맡겨 없어지게 하여 환곡 포흠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진년(1856) 세미를 늦게 실어낸 일로 순영에서 이향(吏鄕)을 잡아들이라 하였을 때 이를 방해하고 요로에 보고하는데 150냥을 거두었으니, 폄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238]

그는 아전의 요직인 이방에서 천민의 직임인 도창색(都倉色)에 이르기까지 향직을 팔아 이득을 남겼고, 세미를 늦게 실어낸 일로 이향(吏鄕)을 잡아들이려 할 때도 방해했다. 이러한 죄상으로 6개월 밖에 재임치 못하고 폄파(貶罷)되기에 이른다.

이렇듯 당시의 수령은 대부분이 향리층과 결탁하여 요호부민(饒戶富民)을 포함한 향촌민들에게 폐정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는 19세기의 수령—이·향 주도의 왜곡된 수령강화책의 폐단에서 나온 것으로 향임·차임과 관련하여 매향전(賣鄕錢)을 지나치게 거두거나 혹은 이·향 층에 정사를 위임하고 이를 책객(冊客)과 결탁하게 하여 환곡을 착복했다. 또한 환곡을 회수할 때 이를 고가의 돈으로 납부케 하고 그 잉여 분을 가로챘고, 기민진휼을 잘못하여 곡식을 없애고, 원납 곡을 납부하지도 않았는데 원납 인이 있었다고 보고한 일, 객사와 관청을 수리하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전곡을 많이 징수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항상 지방출신이었던 향리 및 지방토호들과의 결탁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이들 향리층과 토호세력들은 민란을 일으킨 농민들에 의해 동헌의 공격에 앞서 가장 먼저 공격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당시 적지 않은 수령들이 이들 세력을 이용하여 민생의 곤궁을 생각하지 않고 치부하고 뇌물을 받는데 몰두했다. 그래서 1860년대 농민항쟁은 "壬戌民擾不堪於土豪奸吏而作也(임술민요불감어토호간이이작야)"라며 '임술민란은 토호와 간리(奸吏)들이 빚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미 민란을 예견하고 있었다.[239]

(3) 저채(邸債) 운용과 대민 수탈

1862년 가장 먼저 함평에서 농민소요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저채문제였다. 이는 함평농민항쟁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다른 지역의 항쟁이 주로 환곡운영의 폐단에서 기인

238) 『日省錄』 철종 8년 12월 21일 전라우도암행어사 成彝鎬書啓
239) 『日省錄』 고종 4년 4월 21일 4책 161쪽.

한 것이었지만 함평에서는 환곡보다도 1859년부터 1862년의 3년 사이에 6배나 불어난 저채를 농민에게 부담시킨 때문이었다.[240] 항쟁 당시의 암행어사 조병식도 저채는 신포(身布)·연역(煙役)·환곡(還穀) 등과 같이 민생침탈의 조건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민생을 곤궁하게 하는 침요(侵擾)는 하나에 그치지 않고 신포(身布)·연역(煙役)·부세(賦稅)·환곡(還穀) 그리고 이를 빙자한 리예(吏隷)의 주구(誅求) 등에 있습니다. 근일에 이르러 저채가 첨가되어 큰 폐막이 되었는데 어찌 그만 두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장차 백성은 안정되어 이를 받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채를 오래 끌어 쉬는 해가 있으면 배로 늘어나고, 해가 가면 또 더해지는데 심지어 1, 2냥 본전이 몇 년이 안 되어 천, 백이 되니 마침내는 이를 결세장부와 환곡장부로 옮겨 놓으니, 저리는 오로지 그 이익을 차지하게 되고 결민과 환호는 먹지도 않는 것을 포흠한 것으로 되고 맙니다. 함평, 진주에서 일어난 변에서 들리는 바를 살펴보면 가히 놀라운 마음뿐입니다. 이것은 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저채를 족징을 통금하여야 하는 일을 묘당에서 품처하도록 하시옵소서."[241]

그렇다면 이렇듯 짧은 시간에 저채가 대규모로 증가되고 농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 이는 저채의 상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것이었다.

저채의 운영과정에서 관속(官屬)들이 변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채를 빌려가고, 영저리나 경저리들은 삭·년(朔·年)을 기간으로 비싼 이자로 독징(瀆懲)하였다. 지방수령들은 저채의 환보가 요구되면 우선 전세·균역세와 같은 공전(公錢)으로 선납하였다. 차후 경상사(京上司)에서 조세의 납부를 독촉하면 변제능력이 없는 관속들을 대신하여 농민들에게 재징하는 사례가 속출했던 것이다.[242] 바로 이 점이 환곡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게 되는데, 저채를 작환(作還)시켜 전체 농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전라좌도 암행어사 김원성은 저채가 채환(債還)의 명목으로 1석(石)당 1양(兩) 8, 9전(錢)씩 이민(吏民)에게 분급되었는데 1인당 적으면 7, 80석, 많을 경우 4, 500석에 이른 사실을 지적하고 이 같은 대규모의 저채를 징수하는데 족징·인징이 행해졌다고 보고했다.[243]

이처럼 관은 재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관속들의 포흠을 농민들에게 대부분 전가시키고 있었다. 더구나 전기적 자본으로서 식리하는 운영과정에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상환하지 못한 저채는 원금 외에 이자까지 첨가되어 규모가 눈 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 같은 리포(吏逋)는 지방수령의 묵인 하에 조세의 재징(再徵)·채환(債還) 형식으로 둔갑해 철저히 농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었다. 당시 황해감사 이유원의 '삼정구폐론(三政捄弊論)' 가운데 저채의 상환문제는 차금자인 해당관속과의 문제이며 일반농민과는 무관하다는 보고는 저채의 폐단을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다.[244]

240) 함평 지역 저채에 관한 내용은 4장 1절의 십조앙진 분석편의 저채항 참조.
241) 『日省錄』 철종 13년 6월 1일 전라우도암행어사 趙秉式 別單
242) 『備邊司謄錄』 철종 12년 7월 10일 "…湖南京司各上納 … 近聞外邑中 或因邸債及私債之報償事 先以民捧之公錢中劃給 而上納則愆期不納 若有上司催督 則或勒賃或再徵…"
243) 『日省錄』 철종 13년 7월 2일 전라좌도 암행어사 김원성별단
244) 『備邊司謄錄』 철종 13년 8월 23일, "…邸債 鄕將吏奴等 官屬外 村民推責 切物聽理事也.

2, 농민항쟁의 대립세력 분석

본 장에서는 함평농민항쟁의 주도집단과 참가 층, 그리고 공격대상이 되었던 피공격 층이 어떠한 계층이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위 두 계층, 즉 주도 집단 및 이에 동조한 계층과 대립 또는 모순관계에 있었던 사회계층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함평의 농민항쟁이 갖는 역사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론에 앞서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이 글이 반봉건적 항쟁의 기저라는 조선후기 항쟁의 전반적 양상을 살피기보다는, 농민항쟁을 통해 19세기 향촌사회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따라서 당시 함평의 최고 권력자였던 현감을 둘러싼 수탈과 피수탈자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1) 주동자 정한순(鄭翰淳)과 지도층의 구성과 의식

한달 가까이 지속된 농민항쟁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항쟁을 주도한 주도 층은 대민(大民)·수리(首吏)·훈장(訓長)·면임(面任) 등의 신분이었고, 이들의 주도아래 수천 명의 농민들이 봉기에 참여했.[245]

1789년 호구총수에 따르면 함평현의 인구가 총 2만 2,391명으로 나타나고 이 가운데 남자는 9,756명으로 나타난다. 당시 호구에 들지 못했던 노비나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수천 명의 농민동원은 대단한 것이었다. 또한 수천 명의 농민은 사발통문을 보고 불시에 몰려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들 농민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성장한 농민의식과 함께 향촌사회에 결성되어 있던 향회(鄕會)때문이었다.[246]

19세기에 있어 향회는 두 가지 모습으로 향촌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 관치보조기구로서 어용적 향회, 즉 작은 향회와 교화위주에 뿌리를 둔 큰 향회가 있었다.

먼저 작은 향회는 수령의 입장에서 향회를 빙자하여 수탈의 명분을 찾고자 할 때, 수령은 이런 향회를 찾았다. 소수의 향회는 우선 구성원이 소수였다. 수령과 입장을 함께하는 소수로 구성된 향회라야 만만했다. 이른바 어용적 향회였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모임이 어디로 튈지 몰라 의견통일에 애를 먹게 된다. 따라서 다수가 참여하는 일향 단위의 향회를 열거나 또는 열리도록 놓아두는 것은 수령에게 결코 유리할 수 없었다. 설사 강제로 누를 수 있더라도 많은 무리가 따를 뿐이었다. 그래서 수령은 가급적 큰 향회를 피하고 작은 향회를 선호했

245) 『龍湖閒錄』 권 3, 湖南按覈啓本 76쪽, 『承政院日記』, 철종 13년 4월 22일조, 『備邊司謄錄』, 철종 13년 임술 5월 29일조. 등의 기록에 의하면 항쟁의 주동자로 효수를 당했던 6인과 처벌을 당했던 항쟁조직들의 면면과 참가농민층은 모두 大小民·首吏·訓長·面任의 신분임을 알 수 있다.

246) 부세납부조직으로서 향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나아가 저항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음에 대한 참고논문, 안병욱, 1986년 「조선후기 자치와 저항조직으로서의 향회」 『성심여대 논문집』 18, ; 고석규, 1998년, 『19세기 향촌사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다. 작은 향회는 향임·장교·이서 층을 그 구성원으로 하며 수령의 비리를 공론이란 형식을 빌려 합법화 시키는 이른바 관치보조기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탈을 일상화하는 존재로 머물렀다.

이에 반해 교화 위주의 향회에 뿌리를 둔 큰 향회는 수령의 위세에 눌려 마지못해 그 결정을 합리화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점차 저항적 단체조직으로 변모해가는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큰 향회는 부세문제에서 그 결정이 반민(班民)이나 요호부민들의 이해에 배치될 때에는, 언제라도 저항조직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수탈이 가중되던 19세기 상황에서의 향회는 저항의 기능을 행하는 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247]

함평의 향회는 후자의 경우로서 각종 부세의 납부조직이었던 향회의 조직이 그대로 봉기의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각종 기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 …향회를 통해 모집된 수천 명은 한 달 동안 진을 치며 교원을 오염시키고 …"[248]

위 글을 보면 향회를 통해 모집된 농민들에 의해 함평의 농민항쟁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항쟁의 수습과정에서도 향회를 통해 결정하라는 칙교를 내리기도 했다.

"…소위 상납 조와 각항의 세미가 없어진 것은 본읍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데 백성에게 다시 징수하는 것은 스스로 향중회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라. 다만 부족분 1만 2,000냥은 징수토록 하며 나머지 1만 4,000냥은 탕감토록 하고 저리(邸吏)와 함께 각 면의 대소두민(大小頭民)이 서로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라…"[249]

저채 등 부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갖가지 징수문제는 향인들의 회의(향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향촌사회에 있어 향회는 농민들에게 중앙의 권력보다는 피부에 직접 닿을 수밖에 없는 구속력이 있는 조직이었다. 이렇듯 향회를 통해 조직된 함평의 향민들은 정한순·김백환·진경필·홍일모 등과 같이 훈장으로 생계를 잇던 몰락양반, 이방헌과 같은 이서 층, 식량을 제공했던 요호 층[250], 그리고 항쟁의 주축을 이뤘던 소빈민 층[251] 등이 합연한 연합세

247) 고석규, 앞의 책 274쪽.

248) 『龍湖閒錄』 卷3 營奇 90쪽. "…聚會幾千 屯結一朔 汚穢校院…"

249) 『承政院日記』 철종 13년 6월 9일조 " …所謂上納條段各項稅米欠縮條 而本邑已例 再徵於民 故自鄕中會議 只以一萬二千兩結斂收捧 其餘一萬四千兩 蕩減次 與邸吏及各面大小頭民 互相完議 …"

250) 요호층의 식량분배에 대해서는 각주 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1) 토호층, 요호부민층, 소빈민층 등이 연합세력을 형성하여 농민항쟁 발생 배경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는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가 있다. 그는 자체적 조직역량을 키운 소빈민층이 수탈의 대상으로 확대된 일부 토호·요호부민층과 연합하면서 저항세력으로 결집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1862년 농민항쟁의 주요한 대립관계를 수령-이·향 층 중심의 향촌지배세력 대 저항세력화한 토호·요호부민층 및 소빈민층의 연합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 주도층의 세력을 토호·요호부민 주도와 소빈농층 주도로 나누는 양진석, 「1862년 농민항쟁의 배경과 주도층의 성격」, 『1894년 농민전쟁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견해도 있다. 즉 토호·요호부민과 소빈농층을 주도층의 다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양진석은 그의 논문에서 주도세력으로 초군들의 참여가 자주 들어지고 있고 초군들은 농민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빈민을 소빈농으로 사용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력을 형성했고, 이들은 그 뜻한 바가 같지 않았어도 함평 농민항쟁의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농민항쟁의 주도인물의 면면을 살펴보자.

농민항쟁의 주도 층은 모두 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처벌상황으로 살펴 본 것으로 <표 1>에서 보듯이 대부분 수리(首吏) 및 훈장(訓長)으로 향촌사회의 말단 지배계층이었다.

<표 1> 함평 농민항쟁의 주도층[252]

성 명	신 분	거 주 지	주 요 임 무
鄭 翰 淳	京尙接長	식지면 중촌	장군으로 지칭되던 항쟁의 우두머리
李 邦 憲	首吏	東縣內面	거사 모의, 정보제공, 참모역할
金 百 煥	訓長	(?)	거사 계획 수립 및 장정 징발
陳 敬 心	訓長	(?)	거사 계획 수립 및 장정 징발
洪 日 模	訓長	(?)	거사 계획 수립 및 장정 징발
金 己 容	?	(?)	자금과 양식 조달 및 분배

먼저 장군으로 호칭되며 항쟁을 주도했던 정한순(鄭翰淳)의 신분을 보면 식지면 중촌마을에[253] 거주하던 몰락양반이었으며, 재지명망가로서 향촌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본래 경상접장으로서 지금은 출파(出派)의 거괴(渠魁)이다."[254]

위 기록에서 보듯 거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55] 비록 소요적괴(騷擾賊魁)이지만 '거괴(巨魁)'라는 용어를 동원하여 상당히 존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전라좌도 삼읍 암행어사 김원성은 농민봉기의 지도층을 출파와 좌파로 구분하고 지방의 토호세력들을 농민항쟁을 일으킨 원인세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는 토호 가운데 문자에 밝고 권력

하지만 함평의 항쟁은 전 군민이 참여했고 초군이 주도세력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빈민이 옳다고 여겨 이하 소빈민으로 통일한다.

252) 출전 ; 『龍湖閒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253) 공초기록에 食知面 中村마을 출신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식지면 중촌(현 나산면 사정마을)마을은 상산김씨의 집성촌이다. 오히려 중촌마을과 약 3㎞정도 떨어진 석지마을이 나주정씨의 집성촌이다. 필자가 나주정씨의 족보를 확인한 결과 나주정씨의 족보에서는 어디에도 정한순이란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당시의 상황이 국가에 대한 변란이므로 문중의 족보에서 일부러 빼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이름에 사용되는 항렬자가 없었고 오히려 진주정씨 자우계 40세 손들이 淳자 항렬을 사용하고 있었다. 진주정씨는 함평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성으로 1,400년 초반 함평에 入鄕한 이래 많은 인물을 배출했던 명문성씨다. 정한순 또한 진주정씨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함평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진주정씨는 예계이다.

42) 『龍湖閒錄』, 卷3 營奇 90쪽.

255) 본고에서 19세기 함평농민항쟁의 저항세력과 향촌지배세력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좋겠으나 본고의 論題상 항쟁의 주도 인물 6인을 통한 개괄적인 모습을 투영해 보도록 하겠다.

을 지닌 자로서 관을 사찰하고 그 득실을 논하며 거짓말을 만들어 지시하는 자를 '좌파', 어려움을 무릅쓰고 경향(京鄕)에 출몰하는 자를 '출파'라 지목하고 있다.256)

"…항쟁초기에 항상 통문을 돌리면서 사람을 모으려는 과정이 있었음을 주목하고 이를 주도한 자는 당연히 글을 알고 동시에 지벌(地閥)이 있어서 평범한 백성들과는 다른 자…"257)

위 글은 진주안핵사 박규수가 당시 민란에 대한 분석보고로서 그 주동자를 향촌사회에서 세력(끝 발)을 행사하는 자로 보고 있었다. 이렇듯 당시의 관에서는 민란주도 층으로 몰락양반, 농촌지식인, 재지 명망가로 보고 있었고, 역시 정한순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십건(十件)의 민막(民瘼)을 들고 경향(京鄕)을 오가며 일읍(一邑)에 통론(通論)을 하던…"258)

뿐만 아니라 정한순을 각 지방의 토호세력과 연계된 출파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었다.

또 정한순을 몰락양반으로 보는 다른 근거로 앞서 언급했던 '본래 경상접장으로서…' 라는 기록이다. 본래 접장(接長)의 사전적 의미는 접의 우두머리와 서당에서 나이와 학력이 가장 높은 사람을 뽑아 선생을 돕게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와 동조했던 주도 층 인물 6인 가운데 3인이 훈장이었고 정한순은 이들의 우두머리였으며, 관아에서는 그를 폄하하는 차원에서 접장이라 불렀던 것이다.259) 따라서 정한순은 훈장(訓長)과 행매업(行賣業)을 그 업으로 자영했던 조선후기의 몰락한 전형적인 빈곤지식인이었다. 그가 출사(出仕)를 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신분적인 환경 때문에 일찍부터 조선왕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관측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환경과 당시의 사회적 모순은 그로 하여금 지방수령들의 폐정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이끌고 경향을 오가며 정소와 격쟁으로 향촌사회의 비극적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려는데 앞장서게 되었을 터이다.

정소 및 격쟁과 함께 그는 남산에서 일으켰던 거화 또한 그가 주동자였음이 분명했다.

"…백성들을 모집하여 소란에 이르게 한 것은 반드시 연유가 있을 듯 하여 그 죄상을 감안해 심문하니 일전 남산에서 거화를 한 자로 이미 해당 현의 백성이었습니다… "260)

256) 『日省錄』 철종 13년 7월 2일.
257) 『日省錄』 5쪽.
258) 『龍湖閒錄』 卷3 營奇 85쪽
259) 갑오농민전쟁으로 被逮되었던 전봉준이 법정에서 신문받을 때, "네가 고부에 머물러 살 때 동학을 가르쳤는가?(汝住接古阜時 不行敎東學乎)"라는 질문에 전봉준은 "나는 서당의 선생으로서 아동을 가르쳤을 뿐 동학의 교리를 준행하거나 가르친 바가 없다.(矣身訓導 如干童蒙 無東學行敎之事)"라고 대답한다. 즉, 여기에서 '接'이라는 단어는 동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接長이 아닌 '住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한때 머물러 산다'는 뜻으로 한글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이다. 이와 함께 '接'은 학동의 우두머리가 아닌 훈장을 지칭하며, 봉기에 참여한 14인의 훈장들은 모두 정한순을 우러러보아 따르고 화답했음이 나타난다. 각주 54 참조
260) 『承政院日記』 제2650책 철종 13년 2월 望後."…致寡召亂, 必有其由 拿問勘處 日前擧火於南山者 旣是該縣之

공초 심문자들도 이미 정한순이 거화를 일으킨 주동자였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정한순은 이를 부인하지 않고 공초에서 저간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봄 이후 허다한 폐막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결세(結稅)의 징수, 궁결(宮結)의 가징(加徵), 허액 뿐인 환곡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차례 감영과 조정에 정소하였고 심지어 격쟁·거화까지 벌였으나 전하의 재가사항이 끝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평현에서는 감영의 인신을 위조하여 무고했다는 혐의로 감영에 보고하고 형배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하늘의 해 아래에서 결백함을 보여줄 수 없으니 억울하여 미칠 지경입니다."261)

정소·격쟁·거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감영과 중앙을 왕래하였던 그였기에 외부의 정세에도 밝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정부의 지역 수탈실태와 진주 등 경상도 지역과 익산의 민란에 관한 소식도 일찍 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밝았던 외부사정 소식과 몰락했지만 양반으로서의 가문과 그가 갖고 있던 지식 등은 각 면의 면임·훈장과 함평현의 수리(首吏)까지 그가 주도하는 농민소요에 동조하게 했던 원동력이자 지도력이었다. 그는 또한 요호부민들로부터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집을 훼손하고 함께 미곡을 범해 식량으로 취했으며, 각 면의 요호(饒戶)들은 자신들의 힘에 맞춰 나누어 내어 주었다…"262)

이러한 대중적 지지기반과 그의 인품은 봉기의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조정에서 밝힌 정한순의 죄목은 보국위민(輔國爲民)의 기치를 내걸었고 농민들은 그의 명령을 '장군의 명령'이라 하며 무조건 따랐으며, 봉기농민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점열(點閱)하기도 했다. 또한 죄수 방면, 포졸에 대한 무장해제 및 감금 등의 모든 지시는 장군의 명령을 칭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조사관을 농민들이 사찰, 감시했으며 이서들을 지휘하여 조사가 잘 마무리되게 독촉했다. 이러한 범죄로 그는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는 정부의 지목을 받게 된다.263)

정한순과 함께 함평의 농민항쟁을 이끌었던 이방헌(李邦憲·1824~1862. 6. 4)은264) 함평현

民…"

261) 『龍湖閒錄』 卷3 營奇 73쪽."…作春以後 許多弊瘼中 最尤甚之計板從排 宮結加徵 遲滯虛張事 矯捄次 屢呈京營, 至於擊錚 而判下文蹟 終不施行 竟以營門印蹟僞造事 構誣報營 仍刑配 天日之下 無可暴白 冤鬱成狂…"

262) 『龍湖閒錄』 卷3 營奇 73쪽."…至於毁家者之如干米穀 取而食之 各面饒戶之隨力分給…"

263) 『龍湖閒錄』 卷3 營奇 90, 91쪽. "…輔國爲民 又何稱也 抄戶攘奪 儲畜皆空 藉民點閱 湯火如赴 放出獄囚 自今長吏之事 拘係鎭校 稱以將軍之令 締結邑吏 伺察査官 指揮吏胥 督促調停 擁衆叩閽 雖云褰旗撤槍 以此罪犯 萬剔猶輕…"

264) 咸平李氏인 그는 字가 顯叔으로 시조의 26세손이다. 敦燮의 둘째 아들로 현재의 함평읍인 동헌내면에서 태어났다. 아내는 밀양 孫基采 딸이며 현재 그의 玄孫이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南極齋(노인정) 총무를 맡고 있었다. 이방헌의 후손인 榮行(一名 東榮)은 그의 부친인 載宣의 생존 때까지 함평에서 거주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부친의 나이 17세 때인 1920년대 후반에 영광으로 이주해 정착했다는데 농민항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자로 간 이방헌의 큰 아들 啓殷이 함평군 署理와 지도, 무안 등의 군수를 역임한 것을 볼 때 함평농민항쟁으로 인한 가문의 피해도 없었다. 함평군사 등 일부 책자에 이방헌의 손자가 子元으로 되어 있으나 필자의 확인결과 이자원은 이방헌의 동생인 李頤憲의 후손으로 밝혀졌다.

의 수리(首吏)로[265] 재임하던 중 항쟁의 주역으로 뛰어드는데 그의 봉기참여는 농민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현청의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그였기에 관리들의 탐학사실을 폭로하고 농민군의 계략을 수립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관원이면서도 정한순과 같이 서슴없이 봉기를 논의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벌였다. 또 그의 주된 역할은 정한순의 참모로서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그는 정한순을 무척 존경하고 따랐던 것 같다.[266]

실제 그는 정한순을 증명하고자 할 때 알지 못하게 했으며 농민군이 둔취(屯聚)한 곳에 때에 맞춰 음식을 운송했다. 자신 또한 그곳에 있으면서 정한순의 이야기를 전했고, 정한순이 체포된 후에도 정한순의 식사를 받드는 것을 자원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는 성공까지 단안(斷案)하여 정한순과 같은 법으로 처벌받기에 이른 것이다.[267] 이와 함께 옥에 갇혔을 당시 정한순의 식사제공을 자원할 정도였다면 그의 경제력은 다른 농민들에 비해 월등하거나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다음은 훈장의 신분으로 봉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김백련(金百煥)[268]·진경심(陳敬心)[269]·홍일모(洪日模)였다.[270] 이들의 출신지와 가문, 그리고 성장과정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직 없다. 하지만 조선후기 몰락양반의 대표적 직업이 설경(舌耕·訓長)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 또한 훈장을 업으로 살아가는 빈곤한 몰락지식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14개 면의 훈장을 대표하여 정한순·이방헌·김기용 등의 주도 층과 함께 농민항쟁에서 주도적으로 봉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맡았었다.

특히 향촌 지배세력의 말단조직 가운데 하나인 면임을 맡고 있던 이돈일(李敦一) 등 13명의 면임들이 향촌안의 공동체조직을 동원하여 장정들을 징발해 봉기가 일어나도록 이끌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종 부세징수에 관여하고 행정업무를 전달하는 등 수령의 통치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말단 지배층에 해당되었던 면임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봉기를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의미했다. 이들에게는 농민주도의 향회나 전면봉기 때 불참농민들에게 벌전(罰錢)을 부과하거나 집을 부수는 등의 공동체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봉기농민들의 참여율로 볼 때 그 강제력을 실제 발동했음이 분명했다. 더욱이 조선후기 함평의 방면(坊面)이 14개였음을 감안할 때 14인의 훈장과 13인의 면임참여는 함평농민항쟁이 거군적(擧郡的)으로 전개되었음을 온 천하에 알게 해주는 단서이기도 했다.

---

265) 향리 및 향전에 대해서는 본서 5장 대립관계의 특성과 항쟁의 성격 편에서 검토될 것이다.

266) 『備邊司謄錄』 철종 13년 5월 29일조. "이방헌은 관원인 首吏를 얻었으면서도 계략에 화답하고 응한 것이 분명하고 으뜸가는 괴한을 두루 근심하고 愛護한 자취가 이에 있습니다."

267) 『龍湖閒錄』 卷3 營奇 "欲證鄭翰淳者 計固叵測 一屯聚處 時或送食 傳說自在 罪魁就捕後 自願供飯 妖侄之衆指眞贓難掩 斷案旣成 合施翰淳己施之律"

268) 김백환은 김씨라는 성씨의 특성상 애초부터 살피기는 어려웠다.

269) 함평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진씨는 驪陽陣氏로 모두 禮賓卿派이다. 나머지 본관은 없다시피 할 정도이다. 여양진씨는 조선중기 나주에서 함평으로 이주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함평에는 약 90여 호가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여 호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은 해보면 대각리 각궁마을로 이 마을은 여양진씨들이 개촌한 마을. 따라서 진경심은 이 마을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 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270) 함평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본관은 南陽과 豊山이다. 나머지 본관은 1~2가구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두 본관이 모두 거주하는 곳은 신광면 유천리로 필자가 확인한 결과 어느 족보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남양홍씨는 함평 전역에 퍼져 살고 있지만 풍산홍씨는 신광면 유천리, 대동면 금산리, 엄다면 신계리에 10호 이상이 모여살고 있다.

또한 14개 면의 훈장들은 정한순을 매우 숭상하고 우러러보았다. 그 가운데 김백환·진경심·홍일모 3인은 밀어(密語)로 무리들을 더욱 긴박시키는 죄를 범했고, 따라서 다른 11인의 훈장들보다 엄한 형벌에 처해졌다. 다른 훈장들은 코가 베어지는 정도의 가벼운 벌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극형인 교수형에 처해진 것이다.[271] 단죄를 받았던 이들 3인의 훈장을 제외한 의형(劓刑)만을 당하기로 되어 있던 11인은 5월 30일 자로 감형되어 엄형 2차와 원지에 정배되는 형벌로 낮추어진다.[272] 하여튼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약으로 항쟁은 조직적이고 비교적 장기간 전개될 수 있었다.

봉기에 사용되는 자금과 식량을 관리했던 김기용(金己容)[273] 또한 출신지와 가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봉기에 사용되는 자금과 식량을 관리하고 곳곳에서의 지휘와 연락임무를 맡았었다면 상당한 재력가이자 아는 것이 많은 몰락양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그는 간리(奸吏)와 토호(土豪)들에게서 빼앗은 전곡(錢穀)과 요호(饒戶)들에게서 분급 받은 전곡들을 관리하면서 군정들에게 급식을 분배해주었다. 또한 정한순의 지휘를 받아들여 방법과 계략을 운용했다. 이러한 죄로 용서받지 못하고 교수형에 처해진 것이다.[274]

이상을 통해서 살펴 본 함평농민항쟁의 주도 층은 빈곤한 지식층으로서 향촌사회의 최하위 지배계층임을 알 수 있다.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후기의 하나의 대립관계 즉, 수탈자 대 피수탈자의 관계에서 수탈자의 신분이 될 수 있었던 수리(首吏) 이방헌이 농민군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방헌의 참여는 농민군에 큰 힘과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달간 교원에 둔취하며 함평의 읍 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이 분명했다.[275]

(2) 현감 권명규(權命奎)와 수탈계층의 성격과 의식

271) 『龍湖閒錄』 卷3 營奇 91쪽. "…各面訓長金百煥等十四人段 望風響應 盖鄭翰淳 如非郡附 渠能宜假 宜施劓殄之律 而就其中 金百煥金敬心洪日模段 附而密語 衆指尤緊 似當施以加倍之律…" 여기에서는 陣敬心이 金敬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같은 책 京奇 92쪽과 비변사등록 철종 13년 임술 5월 29일조에는 모두 陣敬心으로 기록되어있어 본고에서는 진경심으로 표기한다.

272) 『承政院日記』, 壬戌 5월 30일. 辛亥. "…並與各面訓長中 斷辟三人外十一人 嚴刑二次 遠地定配…"

273) 이 지역 향토사가의 제보에 의하면 월야면 월계리 석계마을의 光山金氏가 유력하다는 견해에 따라 필자가 석계마을을 확인해 보았다. 이 마을은 일제강점기 만세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한데 바로 이곳의 서당에서 만세운동이 발원했다. 따라서 훈장들 또한 많이 배출됐던 곳이다. 그렇지만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광산김씨의 行列은 金己容이 사용하는 己자 항렬이 아닌 箕자 항렬이었다. 따라서 그는 광산김씨가 아니며 앞의 김백환과 연관지어 살펴보거나 상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274) 『龍湖閒錄』 卷3 營奇. "…亂魁同心 主管錢穀 給餉軍丁 運方畧聽指揮 其罪奚但金木 當律斷不容貸…"

275) ※ 함평농민 항쟁을 주도한 인물요약(효수당한 6명); ★ **정한순(鄭翰淳)**=현 나산면 이문리 증산 출신으로 전해오나 가문과 성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공초 기록에서 경상접장(京商接長)을 지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면의 면임(面任. 오늘의 면장), 훈장, 함평현의 수리(首吏)까지가 그가 주도하는 함평농민항쟁에 동조한 것을 보면 인품이 그지 없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김백환(金百煥)·진경심(陳敬心)·홍일모(洪日模)**=훈장으로서 함평농민항쟁에 참여하였고 특히 봉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맡았었다. 출신지와 가문, 그리고 성장 등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아직 없다. ★ **김기용(金己容)**=출신지와 가문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봉기에 사용되는 자금과 식량을 관리하고 곳곳에서 지휘와 연락의 임무를 맡았다. ★ **이방헌(李邦憲). 1824~1862. 6. 4 자 현숙(顯叔). 시조의 26세손.**=돈섭(敦燮)의 둘째 아들로 함평읍에서 태어났다. 함평현의 수리(首吏)로 재임하던 중 정한순 등과 함께 함평농민항쟁의 주동자가 되어 관리들의 탐학 사실을 폭로하였으며 많은 농민들이 부식을 제공하면서 적극 참여하게 하였다. 아내는 밀양 손기채(孫基采)의 딸이며 손자 자원(子元)이 서울특별시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장날을 택해 봉기한 농민군들이 공격해야 할 대상은 두 곳이었다. 공적권력과 사적권력으로 모두 조세체계를 이용하여 농민들을 수탈한 계층들이었다. 함평의 농민들이 먼저 공격한 곳은 사적권력이었다. 현감 권명규와 결탁하여 저채(邸債)징수에 앞장섰던 관계로 평소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자자하게 들었던 토호 김상원(金相元)과 이완헌(李完憲)의 집이 부서지고 불에 탔다. 다음으로 이목지임(耳目之任)으로 꼽히는 호장 이희서(李熙緖)·이방 이흥원(李興源)·좌수 장채성(張采成)의 집을 습격했고 저채징수에 직접 관여한 간리(奸吏) 모관진(牟寬晋)·이택서(李澤緖)의 집 또한 습격을 받았다.

농민들은 가장 먼저 토호를 공격했지만 주된 공격목표는 관아의 리서(吏胥)들이었다. 이서들은 봉기과정에서 수령과 달리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봉기농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조세의 부정에 대한 투쟁이 전개되는 한 실제로 조세를 부정하게 사리(私利)로 징수했던 이서들이 공격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했다. 토호들 또한 현감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기에 공격대상이 되었다. 다음의 공격대상자에서 보듯이 현감 권명규를 제외하면 모두 토호와 이서 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농민군의 주요 공격 대상과 죄목276)

포 탈 자	신 분	죄 목
權命奎	縣監	세미를 농민에게 분배하여 加徵, 3만냥이 넘는 저채 結斂, 9천여석을 환곡으로 만들어 假作
車順行	京邸吏	경저리로 지방의 토호나 관리들에 저채를 대여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자신도 이익 취득
張采成	座首	저채에 관여하고 봉기 대처 미흡
李熙緖	戶長	〃
李興源	吏房	〃
牟寬晋	奸吏	저채에 관여
李澤緖	作錢色	조세 수봉
金相元	土豪	저채를 수봉하고 家舍 毁燒, 농민군 피해 도피
李完憲	土豪	〃

이같이 농민들의 공격이 이서들에게 집중된 것은 이들이 농민들을 직접 수탈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저채와 관련해 농민들에게 온갖 수탈을 자행했던 토호와 이서들을 공격한 농민군들의 다음 목표는 동헌이었다. 동헌을 공격하는 이유는 조세수탈에 대한 공적인 권력에 대항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현감은 고을의 통치권한을 국왕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직접 공격한다는 것은 곧 조선왕조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웠지만 현감 또한 공격대상임에는 분명했다.

봉기농민들은 공략한 동헌을 장악한 후 공권력의 상징물이던 서책(書冊)과 각종 문부(文簿), 방내등물(房內等物)을 모두 탈취했다. 그리고 진교(鎭敎)를 구금하고 감옥을 열어 죄수를 방면

276) 출전 : 『龍湖閒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했다. 또한 당시 현감이던 권명규를 구타와 곤욕을 보인 후 담가(擔架)에 태워 무안현의 론치(論峙)밖으로 쫓아냈다.277)

이렇듯 농민군의 공격방향은 국가의 조세수탈과 이에 따른 동헌 관속에 대한 습격뿐만 아니라 향촌지배자집단에 대해서도 행해졌다. 대체로 수령과 결탁하여 읍 권 장악에 앞장섰던 토호들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고리대나 고율의 소작료를 통해 농민수탈에 앞장섰던 수탈계층들이다.

농민군에게 공격당한 관리 및 토호들 가운데 권명규 현감과 김상원은 주목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다. 먼저 함평지역의 토호 및 이서세력들과 결탁하여 온갖 부정을 저질렀던 현감 권명규는 중앙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가문으로 보인다. 그는 1859년 10월에 함평현감으로 부임해 1862년 농민항쟁으로 파직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여를 함평현감으로 재직하는데 이미 1860년 4월 해보면의 창곡(倉穀)에서 모조(牟租) 6,273석이 불에 타는 실화(失火)사건으로 중앙에 징계토록 보고 되기도 했었다.

"…해당 현령 권명규의 첩정을 낱낱이 열거해보니 해보면 사창(社倉)의 창고와 창고의 노적(露積)이 실화되었으며 불에 탄 모조(牟租)의 합이 6,273석으로 불가불 수준이 이러한대 본 현의 총수외의 곡식이 3만으로 위태로움에 가깝습니다. … 당해 사관은 추고(推考)하여 봉쇄하고 본 현감은 나처(拿處)하고 그날 밤 맡아서 지키던 사령과 창고지기는 엄형 유배로 비치고 하추봉(夏秋捧)의 남색(監色)은 비록 창저(倉底)와 다름이 있더라도 몸은 더불어 있으니 평상시 검사의 실수고 무죄라 할 수 없어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무거운 죄를 따라 징계하여 다스리고 창사(倉舍)는 중건하며 영읍은 길게 경륜하며 제 환총(還總)은 원래 수에 있는 즉 이제 총수 외에 근 3만포니 어찌 명색이 이와 같을 것입니까…" 278)

이와 같은 실정(失政)으로 파직에 가까운 처벌이 상신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862년 농민항쟁이 발발할 때까지 1년이 넘게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배경이 어느 정도임을 짐작케 한다.

또한 엄다면 엄다리 제동마을에 자리한 정개청(鄭介淸)을 봉사(奉祀)하는 자산서원에는 그가 작성한 제동사기(濟洞祠記)가 자리하고 있었다. 정개청의 행적과 사우에 대한 그간의 복설과 훼철의 사정에 대해서 적고 있었는데 정개청의 후손이 부탁을 해서 기문(記文)을 적었다는 내용으로 1860년 가을에 만들어졌다. 4월에 해보면 창곡실화(倉穀失火)사건으로 중앙에 징계토록 보고 되었음에도 당시는 무안 땅이었던 이곳 사우에 같은 해 가을 기산태수(箕山太守)라는 호칭까지 써가며 기문을 써 줄 정도로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안출신이었다.

항쟁 당시 그의 죄상은 세미를 농민에게 분배하여 가징(加徵)했고 3만 냥이 넘는 저채를 결렴시키는데 관여했으며, 9,000여석을 환곡으로 만들어 가작(假作)한 것이다. 그리고 농민군에 의해 함평현에서 쫓기는 수모를 당했으며, 중앙으로부터는 파직당하고 유배되지만 이 또한 1년

277) 현재의 학교면 마산리 표산마을 인근의 老峙를 가리킨다. 1862년 당시 이 곳은 목포부에 속했던 곳이다. 권명규 현감은 군중들에 의해 현의 경계 밖으로 쫓김으로서 이미 현감으로서 권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학교면은 1914년 3월 1일부로 함평군에 속하게 된다.

278) 『備邊司謄錄』 哲宗 11년 4월 8일, 25권 247책, 511쪽.

여 만에 풀려나 복권된다는 점에서도 그의 위력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농민군에 의해 가장 먼저 공격을 당했던 토호 김상원(金相元)은[279] 중년에 함평읍의 고양촌으로 이거하여 말년까지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 곳에서 농민항쟁을 겪게 된다. 적촌리[280] 장시를 철시한 농민군에 의해 이완헌과 함께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고 피신을 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저채징수에 관련되어 평소 농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토호들로, 항쟁이 진정된 5월 10일 이후에도 농민군의 공격이 두려워 도피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김상원이 이 일만 겪은 것은 아니었다. 김상원의 공덕비라 불리는 '현감남희중영세불망비(縣監南羲重永世不忘碑)'가 농민항쟁 7년 후 1869년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마을에 세워지게 된다.

이 비석의 건립 경위를 살펴보면 이렇다. 그 단서는 1840년(헌종 6)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40년 여름 함평은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대안 책으로 진휼미를 함평에 공급했다. 바로 함평사정을 중앙에 상소한 사람은 김상원이었다. 이러한 공으로 김상원은 함평현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 후 김상원의 나이 70세가 되자 함평현민들은 진휼의 공을 기리고자 김상원의 공덕비를 세우려 했다. 이에 김상원은 당대 현감이었던 남희중에게 공을 돌렸고, 그 결과 현감 남희중의 공덕비가 세워졌다. 따라서 고양촌 마을사람들은 현감 남희중의 공덕비를 가리켜 김상원의 공덕비라 부르기도 한다.[281]

비의 전면에는 "세 조폐환보선비 현감남의중영세불망비 이재거함민회소(稅 漕幣還補船費 縣監南羲重永世不忘碑 二載居官咸民會甦)"라 쓰여 있고, 비의 뒷면에는 "동치팔년 기사십이월수립 유사 김상원 읍리 손광록(同治八年 己巳十二月 竪立 有司 金相元 邑吏 孫光錄)"이라 적혀 있어 이 비를 건립했던 주체가 김상원과 손광록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김상원은 함평현민들에게 이중적인 양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1840년 흉년으로 인해 현민들이 고통을 받자 조정에 상소하여 진휼미를 공급받도록 했지만, 저채(邸債)를 방납(防納)해주고 이익을 취하기도 했던 사람, 이런 연유로 농민군의 공격대상이 된 것이다.[282]

김상원과 함께 농민군에 의해 집과 가재도구가 불에 타올랐던 이완헌(李完憲)은 함평이씨로 토호인 그 역시 저채를 수봉(收捧)하는 죄를 지었다. 이로 인해 그 또한 김상원과 함께 농민군을 피해 도망가기까지 했다.[283] 그는 농민들에게 저채를 직접 수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올렸던 사람이다. 이자의 고율에 상관치 않고 경저리 차순행(車順行)으로부터 저채를 빌

279) 『商山金氏領中樞公派慕堂公家乘譜』 1982년 1월. 1800년 9월 19일 태어나 1882년 12월 24일 죽은 그의 자는 聖裕, 호는 破愚이다. 商山金氏 領中樞公派로 시조의 25세손이다. 億海의 큰아들로 식지면 중촌(현 나산면 이문리 증산)마을에서 태어났고 壽職으로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됐다. 현재 나산면 이문리 증산마을과 함평읍에 그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증산마을은 商山金氏의 집성촌이다.

280) 『龍湖閒錄』과 『壬戌錄』, 『備邊司謄錄』, 『朝鮮王朝實錄』 등 각종 기록에 邑前市와 赤村里 장시로 병기되어 나타난다. 현재 이 곳은 함평읍 기각리 구시장 마을 주변으로 1950년대까지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지금도 촌로들은 이 곳을 적촌리라 부르기도 한다.

281) 함평군, 1906년, 1969년, 『함평군지』. 金容熙, 金成斗, 1982년 1월, 『商山金氏領中樞公派慕堂公家乘譜』.

282) 그는 농민군에게 공격당하는 신세지만 그로 인한 죄목으로 정부에서도 수배령이 내리게 된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선지 수배령은 풀리고 壽職벼슬까지 받게 된다.

283) 『龍湖閒錄』 卷3 咸平按覈使啓本. "… 鄕人李元憲等二人 一則邸債收捧 一則家舍毁燒之人 逃躲可痛 …" 이곳 안핵사계본에는 李元憲으로 나오고 있으나 정한순 공초와 비변사등록에는 李完憲으로 나오고 있어 李元憲은 誤記로 보인다.

려 쓴 후 현감 권명규와 결탁해 모든 부담을 농민들에게 돌렸던 것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봉기가 일어나자 김상원과 함께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다음은 함평농민항쟁의 주된 이유인 저채의 운용을 맡고 있었던 차순행이다.[284] 서울에 주재하면서 함평의 서울에 대한 일을 대행하는 경저리였던 그 역시 저채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그로 인해 그 또한 처벌을 면치 못한다. 그는 지방의 토호나 관리들에게 저채를 빌려주고 이익을 취하게 했으며, 그 또한 저채를 이용해 방납을 함으로서 개인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봉기 당시 서울에 있었던 그는 항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농민봉기의 주요한 원인이 저채에 있자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조의 명에 따라 경기감영에서 본도로 압송된다.[285]

좌수, 호장, 이방 등 현청의 주요직임을 맡고 있던 장채성(張采成),[286] 이희서(李熙緖),[287] 이흥원(李興源)은 이목지임(耳目之任)에도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봉기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이들 또한 자신들의 가사와 재산 또한 농민들의 공격을 면하지 못했다.[288] 이 가운데 이희서는 수리의 신분으로 환곡의 폐단을 임시변통으로 꾸며 맞추었고, 저채를 꾀하여 얻었으며 이무미(移貿米) 4,000석을 당장에 편안한 것만을 취하려는 속셈으로 잠시 둘러대어 백성들에게 폐를 크게 끼쳤다 하여 죄를 더하여 받는다.[289]

수령과 결탁하여 간리로 지칭되던 모관진은 저채에 관여하던 향리 층이다. 함평에 거주하는 모씨(牟氏)는 함평모씨(咸平牟氏) 단일 본인데 이들의 최초 세거지는 고려시대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이다. 함평에 정착한 이후 모씨(牟氏)들의 행적은 함평의 토호세력으로서 손색없는 성씨이다. 이들이 공격대상이 된 공통점은 농민항쟁의 발생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바로 경저리였던 차순행을 중심으로 한 저채의 방납과 그로 인한 개인적인 식리 및 결렴(結斂)을 통한 일시적인 징수였다.[290]

농민들이 이들을 공격한 것은 이미 토호들의 전횡을 목도했고, 또한 준납(準納)할 저채의 명목으로 리포(吏逋)를 민포(民逋)로 전가시킨 이서배들의 행위를 간파하고 정확한 수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현감 권명규 또한 이·향 층과의 결탁으로 사적으로 재화를 축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10조앙진을 통해 부세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읍권을 장악한 자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는 함평의 지배질서 자체를 부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

284) 延安車氏. 함평에는 연안의 단일 本만이 거주하고 있고 문절공파다. 현재 함평에는 약 10여 호가 거주하고 있는 稀姓이며, 손불면 궁산리에 약간의 가구만이 모여 살고 있다.

285) 『承政院日記』 壬戌 6월 1일. 壬子. " …咸平邸吏車順行 出付畿營 使之前站 押送該道之意敢啓 傳曰 知道."

286) 함평에 거주하는 張氏로는 仁同과 興城의 두 본이 있다. 인동과 흥성 두 성씨 모두 집성 촌락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지역의 명문성씨들로 지방 호족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집안이다. 인동장씨는 참찬공파가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과 월야면 정산리에, 진가가파가 엄다면 영흥리와 나산면 구산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흥성장씨는 직장공파가 신광면 계천리 사천에 야유공파가 엄다면 송로리 노상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287) 함평이씨로 熙循으로 적혀 있는 곳도 있으나 항렬자로 보아 熙緖가 옳다.

288) 이들은 농민군의 주된 공격목표가 부패한 향리 층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은 邸債의 防納에 계속적으로 관여했고 농민군들에게 공격받았던 것이다.

289) 『龍湖閒錄』 卷3 咸平按覈使啓本, 91쪽. " … 座首張采成 戶長李熙循 吏房李興元等段 旣遭此變 可想身不顧身不遑家 而爲耳目之任 不得應變之計 一般厥罪 而就其中 李熙循段 身爲首吏 還弊彌縫 邸債圖得 移貿米四千石 挪移姑息 大關民弊 …"

290) 邸債의 방납에 관해서는 다음 '십조앙진'의 내용과 특징 참조.

3. 농민들의 요구조건과 조정의 대응

(1) 십조앙진의 내용과 특징

대민수탈에 맞서 봉기한 농민군은 한달여의 읍 권을 장악한 후 십조앙진을 제출하며 안핵사에게 자진 출두했다. 이 십종앙진(十條仰陳)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집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수령 및 이서들의 수탈대상으로서, 항쟁에 참여한 의도가 각기 달랐으므로 양상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은 최대의 공통점을 제시하는 선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

요구사항이란 주로 부세운영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십조앙진에는 전결세(田結稅) 운영과 환곡, 균역세, 저채문제, 잡역세 등과 함께 부세와 관련한 호렴(戶斂)·결렴(結斂) 등의 문제가 그대로 표출되어 있었다.

농민군이 제시한 십조앙진을 살펴보자.[291]

1. 조창(漕倉)에 납부하는 조세가 읍창(邑倉)에서 거두는 양보다 많은 일.
2. 궁방전(宮房田)의 수세(收稅)가 고가(高價)인 일.
3. 허결(虛結)을 빙자한 폐단의 일.
4. 경채(京債) 저채(邸債) 명목으로 억울하게 징수한 액수가 3만 2,000냥에 이른 일.
5. 경채 미수분과 간리들이 몰래 빼낸 영환전(營還錢) 7,400냥을 환곡장부에 첨부시킨 일.
6. 영저리(營邸吏) 역가를 세미가(稅米價)에 붙여서 매결 3말 3홉씩 부과하여 거둬들인 일.
7. 병신년(1836) 환곡 2만 4,000석을 매년 증세하여 기십 만석에 이르게 부과한 일.
8. 본읍(本邑) 매호작전(每戶作錢)과 매 결두(結頭)가 1냥 정도였는데 지난해 모작전(牟作錢)이 매석 4냥이었고 조환(租還)이 매호 9냥 5전, 매결 8냥 5전으로 늘어난 일.
9. 군정유망번전(軍丁流亡番錢)을 호와 결에 거두었는데 매결(每結) 8, 9냥을 거둔 일.
10. 미납한 관의 7년 도봉(排捧)이 매호당 불과 5, 6푼인데 근래에 들어 매결 1전 8푼에 이른 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전결세 운영을 둘러싼 문제다. 이는 궁전에서 거두어들이는 육상궁·선희궁·어의궁의 규정된 세미 외에 상당량의 잡비를 농민들에게 부담시킨 결과다.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환곡의 문제다. 물론 다섯 번째는 저채와도 연관이 있다. 먼

291) 『龍湖閒錄』 卷3 營奇 74쪽, "故以十條仰陳 一, 漕納濫捧事, 一, 官結高價事, 一, 虛結蒙頉事, 一, 京邸冤徵 爲三萬二千餘兩事, 一, 京債未收 奸吏輩暗出營還錢七千四百兩 付於還簿事, 一, 營邸役價米 換以稅米價 今年則每結頭一斗三合式付之 漕稅收捧事, 一, 本邑還穀 以丙申條論之 合爲二萬四千餘石 而年加稅增 不知爲幾十萬石事, 一, 本邑每戶作錢 每結頭不過一兩零 而去年則牟作錢每石爲四兩 租還每戶爲九兩五錢 每結爲八兩五錢事, 一, 軍丁流亡番錢 戶結排斂 春秋等每結八九兩事, 一, 未納官七年排捧 每戶不過五六分 而近則每結頭至于一錢八分事, 一, 一轉達于天陛 爲釐正千萬顒祝云云"

저 일곱 번째부터 살펴보면 1856년 함평의 환총은 2만 4,000여 석에 불과했으나 몇 년 사이에 4, 5배 증가하여 1862년에는 거의 11만석에 달하고 있었다. 이를 함평현의 총 호수에 대비해 보면 각 호당 분급 액수는 15석을 상회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함평현의 전 토지 생산량을 상회하고 있었다. 또한 환호(還戶)는 재력과 권력 있는 자들을 제외시켰고, 그 담세의 부담은 필연적으로 일부 농민들에게만 돌아갔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액은 이미 최대 담세가능 량을 훨씬 상회하게 되는 것이었다.

여기에 이서의 포흠을 농민의 부담으로 옮기기도 했다. 지방관이나 관속들이 관 위주의 재정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궐액을 환곡제도를 통해 농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다. 경채미수분과 간리배가 몰래 빼낸 영환전 7,400냥을 환곡장부에 첨부시켜 전체농민의 부담으로 만들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홉 번째는 균역세의 문제다. 18세기 이후 신분제의 동요로 피역자(避役者)가 늘어나면서 점차 군포납부와 입역(立役)하는 방식의 군정운영은 군현단위에서는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요호(饒戶)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역(避役)해 갔고, 군안(軍案)에 등록된 자들은 무세빈잔민(無勢貧殘民)들이어서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군역이 중첩되어 갔다. 하지만 무세빈잔민(無稅貧殘民)들도 군역부담의 과중함 때문에 양반가의 묘지기나 산지기, 행랑살이 등으로 군역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292]

이렇듯 양인농민들의 끊임없는 일탈은 계속됐고, 이렇게 일탈된 허액 분은 잔존농민이 부담해야 했다. 함평의 경우 허액의 보충명목으로 봄·가을에 호·결당 징수한 액수가 8, 9냥에 이르렀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의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농민들의 최고 논점이 되었던 저채, 특히 경채에 의한 농민들의 착취였다. 하급관리나 토호들이 이자의 고율에 개의치 않고 우(偶)에 경채를 빌려 쓴 후 상환할 때는 공전을 사용하거나 환곡 혹은 잡세로 조장하여 농민들에게 다시 걷었던 것이다. 이를 국가 또는 지방관아에서 징수편의를 위해 묵인하는 것은 물론 장려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 또한 호장 이희서와 토호 이완헌·김상원 등이 경저리였던 차순행으로부터 저채를 빌어 사적으로 식리하고 있었고, 권명규 현감은 이를 묵인해주고 오히려 결렴(結斂)을 통해 3만 냥이 넘는 액수를 일거에 징수했던 것이다.

당시 농민들은 1859년 5,432냥 5전에 불과하던 저채의 본전이 3년 뒤인 1861년에는 이자와 잡비가 첨가되어 무려 3만 2,315냥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빌려준 곳이 확실한 액수는 6,315냥에 불과하니 즉각 환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수수하고 그에 관련된 저채가 모두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어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은 조선후기 사회의 크나큰 모순이었다.

첫 번째와 여섯 번째는 잡역세의 문제였다. 당시 조창이나 읍 창에서 거두어들이는 세미가 결당 21두였으나 1862년 들어 수세 액이 결당 22두 8승 8홉 1작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일종의 잡세였던 영저리의 진상·역가미로 결당 1두 3홉이 삽입된데 기인한 것으로 여겼다. 여섯 번째로는 영저리(營邸吏)의 역가를 세미 가에 붙여서 징수한 것이다. 또한 별도의 계정(計定)도

292) 고동환, 1991년, 『1894년 농민항쟁연구1』, 「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74쪽.

없이 조창에 납부하는 전세의 양이 읍 창보다 훨씬 많았던 점도 문제가 되었다.

여덟 번째와 마지막 항은 앞의 부세와 관련되지만 이를 호렴·결렴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었다. 종전까지 호당 5, 6푼에 불과했던 징수조가 결당 1전 8푼으로 증가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조세의 화폐납부 때 호·결당 1냥에 불과하던 것이 모(牟)의 경우 매석 4냥, 조환(租還)의 경우 호당 9냥 5전, 결당 8냥 5전으로 급등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처럼 농민들의 요구조건은 10개 항목이지만 운영과정에서 서로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여기에서 농민들의 근본문제이자 절실한 이해관계가 걸린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요구조건을 담은 소지가 소빈민의 조직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초기 등소운동과정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항쟁을 이끈 지도부의 성향 때문이었다. 봉건지배체제의 최 말단 지배계급으로 각종 부세의 징수에 관여하고 행정업무를 전달하는 등 수령의 통치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향리·훈장·면임 등의 항쟁지도 층에게 부세문제는 자신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농민들에게 직접 부세를 징수하던 그들에게는 봉건적 부세체제야말로 개선해야할 문제였다. 항쟁의 동력이었던 농민들 또한 봉건적 부세제제를 개선하려는 입장이 우선적이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는 지방관으로부터의 답변을 넘어서 가능한 한 책임 있는 중앙이나 중앙관리로부터 확인받고자 했다. 우두머리였던 정한순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5월 10일 봉기에 참여했던 소빈민들과 함께 전주를 출발한 안핵사 앞에 나서서 십조앙진을 올리게 되고, 농민군이었던 대소민(大小民)들은 북쪽을 향해 춤을 추면서 일제히 해산하고 귀가한다. 그리고 정한순을 포함한 항쟁의 지도부들은 모두 옥에 갇히게 된다.[293]

(2) 조정의 미봉적 대응

1862년의 농민항쟁은 봉건체제를 유지하려는 조정에 큰 타격을 주었다. 진주농민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초기 농민항쟁 발생시 조정은 항쟁의 원인이 수령의 실정에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국왕의 덕정은 계속 농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일부 부패한 수령들을 제거함으로서 농민들의 봉기를 초기에 봉합코자 했다. 당연히 조정에서는 온건적인 입장으로 주동자들의 처벌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4월 2일 익산 안핵사로 떠나는 이정현에게 내린 어명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조가(朝家)의 덕의(德義)를 선포하여 각자의 본분에 힘쓰게 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마땅하다고 여겨지면 추착(推捉)하되 한명의 백성이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294]

농민들의 소요에 있어 소극적인 대처, 즉 백성들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라는 것이었다.

293) 『龍湖閒錄』 卷3 咸平按覈使啓本 76쪽. "臣於初四日 自全州府離發 初六日到咸平縣 則亂魁鄭翰淳 擁中來往於校院之間 其徒滋蔓 其聲勢猖狂 故臣各歧偵探 多般曉諭是白可尼 初十日哺時 鄭哥 率其徒黨幾千名 塞旗撤搶 來詣官門, 自訴冤云 故並其徒黨招致 反復開諭是乎 則大小民人 莫不感悟 北向蹈舞 一齊散歸 故同鄭翰淳 因爲還囚是白遣 …"

294) 『日省錄』, 철종 13년 4월 3일.

그러나 함평의 격렬한 항쟁은 이제까지 행해 온 조정의 대처방안을 일대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의 온건적인 입장을 버리고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함평봉기의 소식은 '함평공형문장(咸平公兄文狀)'을 통해 전라감영에 전해졌고 전라감사는 이 사실을 중앙에 보고한다. 이어 현감 권명규를 파출시키고 무안현감 정순조를 겸관케 했다. 전라가도사(全羅假都事) 민세호(閔世鎬) 또한 조정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주도록 요구한다.

"함평의 일은 칭병소란(稱兵騷亂)·세변(世變)이기 때문에 항리항법(恒理恒法)으로서는 책하기 어려우니 조정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줄 것…"295)

보고를 받은 철종은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하명한다.

"영·호(嶺·湖)의 폐악이 계속된다는 것을 듣는데 대단히 놀랄 일이다. 함평의 그것은 칭병소란보다 심한 바가 있다. … 설령 수령이 실정한 바가 있더라도 백성의 도리상 명분을 범하고 윗사람을 능멸함이 이토록 심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백성은 부모 받들 듯이 수령에게 해야 하는데 구타하고 짓밟기가 이에 이르렀는가. 이런 무리들은 잠시라도 용인하여 방관할 수 없다. 오로지 법을 좇아 난의 싹을 잘라야 한다."296)

이에 따라 비변사(備邊司)에서는 각 진영에서 포교를 풀어 진압하고 주동자를 체포할 것을 명했다. 또한 동시에 회유책으로 안핵사와 선무사를 파견하는데, 5월 3일 안핵사 이정현은 정한순을 체포하지 못해 자세한 조사가 힘들다고 보고했다. 철종은 먼저 추종자들을 대상으로 구핵해야 한다며 속히 각 진영에 정한순의 체포를 명했다. 좌의정 조두순 또한 정한순 체포에 노력할 것이며 방관하는 영장(營將)은 군령으로 다스릴 것을 엄명했다.297)

이 때 정한순이 십조앙진을 바치고 자수했던 것이다. 이에 안핵사 이정현은 광주부사 서경순, 장흥부사 박대수, 신임 함평현감 김기순을 조사관으로 삼아 조사하게 했다. 5월 30일 안핵사는 최종처리결과를 중앙에 보고하고 항쟁관련자 22명을 진영의 감옥에 감금했다.298)

이후 조정에서는 함평농민항쟁에 참여했던 관속·농민들에 대해 처벌을 단행한다. 6명의 주동자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효수했고, 추종자들은 대부분 유형(流刑)의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현감을 비롯한 관리들에 대한 처벌도 병행하게 되는데 부세수탈의 책임과 봉기진압에 소홀했던 책임을 묻게 된다. 이들 또한 도배(島配)와 유배(流配)형을 받는다.299)

하지만 영해부로 유배되었던 현감 권명규는 1863년 7월 30일 전라감사 김시연, 진주병사 백낙신 등과 함께 전리(田里)로 방축(放逐)된다. 곧 방면된 것이다. 주도자 6명을 효수시킨데 비해 원인제공자였던 감사와 현감은 1년여 만에 방면됨으로써 조선후기 양반사회의 한계를 드러

295) 『日省錄』 哲宗 13년 4월 21일.
296) 『承政院日記』 哲宗 13년 4월 22일.
297) 『承政院日記』 哲宗 13년 4월 22일.
298) 『龍湖閒錄』 卷3 營奇 85쪽.
299) 개별적인 처벌상황은 이미 앞선 장들에서 서술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생략한다.

내 보였다.[300] 이러한 불공정한 처단은 30년 후 동학민란으로 발전하게 된다.

6월 9일 입궐한 안핵사 이정현은 국왕과 연설(筵說)할 때 거의 한달 동안이나 지속된 함평의 봉기는 자신이 들어가 조가(朝家)의 덕의(德義)를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해산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환곡, 저채, 관속들의 비행, 순영에 납부하는 작전냥, 조창에 납부하는 세미의 양이 읍창에 납부하는 양보다 많은 점 등 구체적인 함평의 폐막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세·환결의 징수는 감영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전라감사 김시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철종은 "부세의 문제는 함평만이 아니라 삼남 모두의 문제이다"고 하여 이정책(釐整策)해결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301]

이에 따라 조정은 6월 10일 삼정개혁을 공포하고 6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재야 유생 층과 관료들로부터 개혁안(改革案)을 널리 모집한 후 윤 8월 19일 '삼정이정책(三政釐整策)'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삼정이정책(三政釐整策)' 자체는 원칙에 대한 천명에 그쳤을 뿐 이의 구체적인 시행을 강제하는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중세사회의 기본모순이 토지소유관계를 둘러싼 계급대립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부분적인 문제점의 해결에만 관심을 둔 것이었다. '삼정리정책'은 지배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실시가 유보되다가 다시 본래의 제도로 환원되었다. '삼정이정책절목(三政釐整節目)'이 반포되고 곧 폐지되는 과정에서 농민봉기가 잇따라 유발되었다. 조선왕조는 체제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자 봉기과정에서 제기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처럼 대규모 개혁 책을 내놓았다가 수습국면에 들어서자 이를 기민하게 철회함으로써 재차 농민들을 속이고 나온 것이다. 이는 조정 대응책의 허구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었다.

4. 대립관계의 특성과 항쟁의 성격

(1) 향리층(鄕吏層)의 이중적 양태

1862년 일어난 함평의 농민항쟁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다. 어떤 점에서는 전국 70여개 군현에서 일어난 기존의 농민봉기와 유사한 점이, 또는 일부분이지만 함평만의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함평의 농민항쟁은 말단지배계층이 주도하고 요호부민이 지원하고 대소민이 동력이 되는 거군적(擧郡的) 양상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비록 말단이지만 지역사회의 소수 지배계층에 해당되는 수리(首吏)·면임(面任)·훈장(訓長) 등이 주동자인 정한순과 함께 피지배계층인 대소민(大小民)의 주류층인 농민을 이끌고 항쟁을 모의하고 벌였다는 점이다.

300) 『朝鮮王朝實錄 哲宗』 14년 7월 30일, 48책, 662쪽.
301) 『承政院日記』, 哲宗 13년 6월 9일. 全羅道按覈使入侍筵說.

이들 항쟁의 주도자들은 같은 향리(鄕吏)들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함평의 향리들은 19세기 향리들의 진보적인 모습과 구시대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서로 공격자와 피공격자의 대립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수리(首吏) 이방헌을 비롯한 정길진(鄭吉鎭) 등 훈장 14명과 이돈일 등 면임 13명 등이 봉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끌었다. 이에 반해 경저리 차순행과 호장 이희서·이방 이흥원, 여기에 간리로 지칭되던 모관진·이택서 등은 저채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끝에 농민군에게 공격당했다.

이 같은 이서(吏胥)들의 농민봉기가담사실에 대해 그들의 계급적 속성에서 볼 때 단지 보신책이고 기회주의적인 행위였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전면봉기로 인해 봉건적 지배층으로서의 권위가 함몰되는 순간 수령의 편에 서서 생명을 걸기보다는 소극적이나마 농민에게 화응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농민봉기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했던 능동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본래 이들은 정규녹봉이 없었고 승진이나 신분상승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농민봉기에 따른 통치체제의 붕괴시기에 자신들의 불만을 일정하게 표출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든 이들의 항쟁가담은 대 부세(賦稅)투쟁에서 농민들의 주장의 근거를 크게 보강시키는 역할을 하게 해주었다.[302]

그렇다면 우두머리 정한순과 수리였던 이방헌을 포함한 주도인물 6인과 각 면의 훈장, 면임들이 항쟁을 일으키며 주동적 역할을 했던 연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두 개의 견해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이방헌 등 항쟁을 주도했던 이·향들은 당시의 부패한 이·향들에 비해 선각자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18, 19세기 향 권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 즉 향전의 양상으로 보는 견해이다.

선각자적인 견해로 보는 이유로 먼저 중앙에서 안핵사가 오자 정한순을 포함한 주동자 모두가 스스로 자현(自現)하는 모습이다.

"구감사 구현감이 불법을 많이 저질러서 그 곤경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금일 사군(使君)의 행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사실이 드러남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스스로 나타난 것이며 죄수가 되고자 합니다."[303]

전 감사와 현감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시정치 않고 있지만 조정에서 국왕의 명을 받은 안핵사가 내려왔으므로 여기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스스로 자현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탈취가 목적이 아니라 수령방백들의 가렴주구를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그 실현을 기대하며 자현했다는 뜻이 된다. 그들도 변란이나 작변을 일으킨 주동자들에게 조정이 어떠한 형벌을 내릴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스스로 자현했고 극단의 형까지는 이르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외 없이 효수형이 내려지게 된다.

302) 오영교, 앞의 책 714쪽.

303) 『龍湖閒錄』 卷3 營奇 72쪽. "…則所謂鄭翰淳 自現曰 舊伯與舊官 多行不法 不耐其困 至於此境 幸於今日 逢此使君行次 則矣等所願 可以暴白 故如是自現 渠自就囚云…"

또한 우두머리 정한순이 수리 이방헌과 훈장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음을 들 수 있다. 이방헌의 경우는 정한순이 옥에 갇혔을 때 스스로 식사를 제공했을 정도였고, 주동자였던 홍일모·진경심·김백환 등을 포함한 각 면의 훈장들도 정한순을 우러러보아 그를 따르면서 봉기에도 참여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함평농민항쟁은 단순히 향 권 장악을 목적으로 일어난 봉기가 아니라 향촌사회의 수탈적 모순에 저항코자 일어난 봉기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이방헌 등 농민봉기에 참여했던 이서 층들은 모두 각자의 임무를 맡아 주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향리들의 부정이 19세기 일어난 농민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선각자들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먼저 부패한 수령과 관청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하지만 이서 층 내에서도 구시대적인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부류 또한 있었다. 농민군에 공격당했던 이들로 조선후기 향리사회의 부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점이었다.

본래 이서 층이라 함은 이속(吏屬)·군교(軍校)·노비(奴婢)를 관속삼반(官屬三班)이라 하며 수령을 보좌하는 기구로는 작청(作廳)과 서원청(書員廳), 군교의 장청(將廳), 노비의 통인청(通引廳·奴令廳)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 가운데 18, 19세기 들어 부세운영과 더불어 역할이 커지는 것은 작청, 서원청, 통인청이었다. 지방 이서는 영리(營吏)와 읍리(邑吏), 역리(驛吏)로 대별되었고, 이 가운데 이서 층이라 함은 각 읍의 관아에 소속되어 있는 읍리(邑吏)를 주로 의미하였다. 이들 이서들은 이력(履歷)의 차서(次序)와 공로의 다과(多寡)에 따라 순차(循次)에 차임되었고, 그 계급방한(階級防限)은 관방보다 심하다고 주장되기도 했지만 이는 다만 원칙이 그렇다는 것일 뿐 실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분방(分房)시의 차임봉뢰(差任捧賂) 또한 일상적 현상이었다. 거의 모든 암행어사 서계에 차임봉뢰와 관련된 보고는 수없이 많다.[304]

함평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1842년(헌종 8)의 심동규와[305] 1857년(철종 8) 의 전전 현감 홍선용[306]의 경우는 매향 매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19세기의 거의 모든 이서 층은 그 직임을 둘러싸고 매임가(賣任價)가 정해져 있었다. 뇌물을 주고 매수한 직임이었기에 이서 층들의 농민수탈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었다.

수령 또한 자신의 고과(考課·殿最)와 관련되어 부세(賦稅)·자비세(自備穀)·군기성해(軍器城廨)의 수보(修補) 등과 같은 일을 처리해야 했고, 게다가 사리까지 채워야 했으니 이·향 층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이·향 층도 수령의 비호 하에 자신들의 사적욕구를 쉽게 만족시킬 수 있었다. 특히 이서 층의 경우는 정식녹봉이 없다는 것이 주구와 어렵(漁獵)의 길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한 요인이기도 했다. 더구나 시킬 무리들이 청렴해도 종내 현영(顯榮)이 없었기 때문에 이득이 명예보다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향은 관치보조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향회를 통해 형식적 공론을 유도·형성하여 수령 권 행사에 명분을 대주었고, 또 비리에 편승되었다.[307]

함평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어 현감 권명규와 결탁한 이·향의 차순행·장채성·이희

304) 고석규, 앞의 책 146쪽.
305) 1장 암행어사 서계별단 중 『日省錄』, 철종 8년 8월 17일 전라우도암행어사, 趙龜夏書啓 참조.
306) 1장 암행어사 서계별단 중 『日省錄』, 철종 8년 12월 21일 전라우도암행어사, 成彝鎬書啓 참조.
307) 고석규, 앞의 책 167쪽.

서·이흥원·모관진·이택서, 그리고 토호 층으로서의 김상원과 이완헌 역시 횡행하던 조선후기의 부패한 사회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은 당연한 현상이기도 했다.

두 번째로 향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적 갈등이라는 견해이다. 항쟁에 앞장섰던 이방헌을 포함한 이·향들은 수령 권과의 결탁을 둘러싸고 배제된 자들었다는 것이다.

암행어사 서계에서 밝혀진 대로 함평수령들은 매향 매임을 자행하고 있었다. 정한순·이방헌 등은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된 자들로 향촌사회의 말단 지배기구에 위치한 자들이었지만 19세기 향촌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이들을 수탈의 대상에서 비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향촌지배체제에 편입되지 못하고 탈락한 이들이었기에 함평의 농민항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주도 층이 지니는 계급적 속성상 농민들이 요구했던 십조앙진은 봉건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이서 층 가운데서도 함평이씨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또한 주목된다. 조선 초기 함평에 입향(入鄕)하여 관향까지 함평으로 받은 이래 지역토호세력으로서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함평이씨들의 위상이 바로 그 것이다.

이들은 함평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성씨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조선중기와 후기에는 향리 층으로서 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었음이 농민항쟁의 인물부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향리 층과 토호 층으로서 서로 공격하고 공격당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리 이방헌, 면임 이돈일 등은 농민군의 입장에서 토호 이완헌, 간리로 지칭되던 이택서 등은 피격자의 입장에 서고 있었다. 이는 함평이씨 종족 내에서도 향촌지배 기구에서 배제된 자들이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함평이씨들의 토호세력 및 이서 층으로서 중요한 직임이 소수의 특정가계에 독점되어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308]

(2) '병란'으로서의 항쟁의 성격

전라도가도사(全羅道暇都事) 민세호는 이를 '칭병소란(稱兵騷亂)'으로 규정하여 특별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고, 국왕은 그보다 더 한다고 말했다. 사실 정한순은 1894년 동학농민항쟁 때 내걸린 '보국위민(輔國爲民)'의 기치를 이 때 이미 내걸었고 농민들은 정한순을 장군으로 부르고 죽창으로 무장하고서 그를 호위함과 동시에 그의 명령을 '장군의 명령'이라며 적극 시행했다. 또 "적민점열 탕화여부(籍民點閱 湯火如赴)"라는[309] 표현처럼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자체수효를 확인하는 점고(點考)와 사열(査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동헌 습격 때 "일시응성 사변분파(一時應聲 四邊分派)"할[310] 정도로 일사 분란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감

308) 본고에서는 함평이씨들의 가계와 그들의 함평에서 향리가로서의 위치 및 영향력에 대해서 상론할 여유는 없지만 농민항쟁 이후 갑오농민전쟁 등을 거치면서 현대 없지르기까지 함평이씨들은 몰락했다거나 또는 계층적 분화 없이 이 지역에서 그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309) 『龍湖閒錄』 卷3 咸平按覈使啓本 90쪽.

310) 이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龍湖閒錄』 卷3 咸平公兄文狀 57, 58.쪽의 十六日出文狀以稅米計辨事 營門印信僞造罪發配本邑民鄭翰淳 嘯聚徒黨 橫行各面 燒毁人家, 攫奪民財 聲聞狼藉矣 當日四時量 同黨不知幾千名 標立旗幟 屯陣於邑前市邊是如何 一時應聲 四邊分派 各持竹槍 攔入東軒 破窓壁捽曳官家 直仆於丈餘之軒下脫冠網裂衣冠 無數亂打幾至氣絶 仍爲擔舁 毆去于校村是白遣 在傍之冊實二員及三班下人之被槍逢打 至於垂死者 姑未之其數 而變出不意 形

에 대한 납치·심문과 각 종 문부의 수거, 죄수방면, 포졸에 대한 무장 해제 및 감금 등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동자들은 각기 임무를 정해 항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다. 항쟁에 필요한 자금은 농민들에 원성이 높았던 토호나 이서 층들에게서 빼앗기도 하고, 요호(饒戶)들의 힘에 맞춰 나누어 내도록 했다. 그리고 향회를 통해서 항쟁의 동력인 소 빈민층을 동원했다.

또한 함평의 항쟁이 주목되는 것은 앞서 밝혔듯이 정부의 대응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로 발발한 진주항쟁 이후 온건한 방법으로 대처하던 정부는 함평항쟁 이후의 농민봉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처결하기 시작하고 나온 곳이다. 5월 들어 항쟁은 고산을 필두로 부안·금구·강진·장흥·순천 등 전라도 각지로 파급되었고, 5월 10일 이후에는 은진·회덕·공주 등 충청도 까지 확산되자 정부는 강경진압을 통해 지역적인 확산을 막고자 했다. 곧 봉기가 발생하면 감사나 수령이 자체적으로 먼저 처벌하고 난 뒤 보고할 것(先斬後啓)을 명하였다.[311]

이에 따라 봉기의 주동자들은 예외 없이 효수되었으며 추종자도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등 무거운 형벌로 대응하고 나왔다.

함평의 항쟁이 얼마나 격렬하게 세상에 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봉기가 마무리 된 다음 해인 1863년 10월 서울에서 장기형이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린 죄로 체포되는 사례로 나타났다.

"호남에서 민요를 일으킨 정한순이 필히 장구대진(長驅大進)할 것이다"

그만큼 함평의 농민봉기와 정한순은 서울에까지 크게 알려졌던 것이다.[312]

함평의 농민항쟁은 분명 단순한 민란을 넘어서 변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보다 발전적 형태의 민생봉기였다. 하지만 조선왕조 우려했던 병란(兵亂)의 성격을 갖추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정한순을 비롯한 농민항쟁 주동자들의 투쟁범위나 목표가 함평고을이라는 범위에 국한되어 있었고, 당시 농민들을 억압하던 수단이었던 전국적 차원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도나 목표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저 국왕의 덕정(德政)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중앙에서 안핵사가 내려오자 스스로 자현했고, 십조앙진을 제출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던 것이다.

하지만 1862년 일어난 함평의 농민항쟁은 격쟁에서 남산거화, 그리고 항쟁에 이르기까지 조직력과 추진력, 그리고 7년 뒤인 1868년~1869년의 병영·광양의 병란과 1894년의 갑오농민항쟁으로까지 발전해 가는 과정은 분명 평가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임이 분명하다.

止爲先馳告云云.이 있고 이외에도 『龍湖閒錄』 咸平縣令罷黜狀啓, 58쪽과 『壬戌錄』 備邊司啓, 62, 63쪽이 있다.

311) 『承政院日記』 제2651책 철종 13년 5월 15일.

312) 『捕盜廳謄錄』 中 癸亥 10月 亂言告發.

제3절 대원군정권 이후의 함평지방

1. 대원군집정 기 민정의 개혁과 함평사회

대원군의 민심수습과 민정쇄신책은 삼정이정과 토호금단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원군 집정 기 세정(稅政)·이정(釐正)은 전결과 가호에서의 은루(隱漏)를 밝혀내고, 세역(稅役)을 부과함으로써 부세의 불균(不均)·불평을 줄여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대원군 아버지 남연군(南延君)의 수묘호(守墓戶)부터 조사하여 원정(元定) 이외는 모두 군환호역(軍還戶役)에 충당하도록 한다든지, '경반(京班)과 토호의 전장(田庄)부터 일일이 수세하고 가경지도 일체를 조사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이러한 부세제도 이정 책은 고종친정을 알리는 대왕대비 교서에서도 천명되었던 바, 애민·안민·보민 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고종은 이후 '민부즉국역부(民富則國亦富)' 즉 민부론(民富論)을 제기하기조차 했다. 이 때의 '민(民)'은 호남유림의 종장 기정진(奇正鎭)이 제기한 대로 소민(小民)이었다. 그러나 고종의 소민보호론(小民保護論)은 토지개혁과 같은 방식을 구상한 것은 아니었다. 고종은 즉위 이듬해 한 학인관료가 반계사상(磻溪思想)을 수용한 전제개혁(田制改革)을 요구하자, 그것은 반대자가 많아 할 수 없지만 다만 호우겸병자(豪右兼幷者)의 입을 막는 데는 그런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을 뿐이었다. 또한 그것은 대왕대비 교서의 '경천(敬天) 법조(法祖) 근학(勤學) 애민(愛民) 예우대신(禮遇大臣) 전보세신(全保世臣)'이라고 하는 바에서 보듯이 기본법제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기본 틀을 벗어나거나 교목세가(喬木世家)를 부정하면서 추구될 성질은 아니었다. 이로서 보면 고종 역시 다른 많은 지배층과 마찬가지로 균산균부론(均産均賦論)이 아닌 균부균세론(均賦均稅論)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전면적 부세체제의 개혁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고종은 중궁전의 산실청(産室廳) 설치에 즈음해서 '소민이 보존되기 어려움은 오직 대민의 침우(侵擾)에 있음'을 언명하였듯이 대민의 침탈을 줄이는 것이 소민안정보호에 우선 긴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까닭에 고종은 모든 정무를 직접 청단(聽斷)하면서 먼저 토호금단의 교시를 진언문(眞諺文)으로 등사하여 방방곡곡에 내걸게 하였다. 여기에서 고종은 토호를 국·관·민(國官民)이라고 하는 통치 행정계통의 침입·방해자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바로 강력한 토호금압책(土豪禁壓策)이었던 것이다. 만동묘를 비롯한 각처의 서원사우를 훼철시킨 것도 이것을 통하여 지방의 토호 유림이 세력을 결집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면서 민생을 침해하였다는 명분에서였다.

대원군집정 기 삼정이정정책의 초기에는 은결 누호의 사출(査出)이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점차 환곡제는 사창제(社倉制)로 변화시키고 군역제는 호포법(戶布法)으로 바꾸는 것으로 귀결지었다. 이러한 제도는 분명히 중세적 신분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었지만, 그를 근본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향촌사회에서의 파장은 적지 않았다. 전라도의 경우 감사 이호준(李鎬俊)은 재임 중 변방군사시설을 많이 확충하였는데, '열군(列郡)을 탄압한다'의 명성을 얻어 임기를 연장하였을 정도로 상당히 강경한 인물로 평가되었고 서정쇄신에 더욱 박차를

가했었다.[313]

함평의 경우도 이 같은 흐름에서 행정쇄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암행어사의 서계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함평현감 김락균(金樂均)은 부임 전이며, 전 현감 윤종의(尹宗儀)는 임장들의 사례에 맞지 않는 주구를 통렬히 금지하고 면회에서 명목이 없이 쓰는 남비(濫費)를 태감(汰減)하였습니다.[314]

함평현감 홍병위(洪秉瑋)는 부임한 지 겨우 50여일이 지났는데도 포흠한 것을 회수한 것이 9,000냥이 넘었고, 3,000병의 조총을 더 준비하였으며 2,000근의 화약을 새로 저축하였다. 초기의 정사가 이러하니 이후도 기대할 만합니다.[315]

함평 전 현감 김락균(金樂均)은 군포를 각동에 균등히 분배하여 다행히도 허액에 따른 원망이 없었으며, 관에서 보낸 차사(差使)가 외촌에 이르지 않도록 하였으니 그 향리 등을 단속하는 엄함의 증험이 있었습니다.[316]

대원군집정 기 파견된 세 차례의 암행어사는 모두 함평수령의 치적을 지적하고 있었을 정도였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향을 엄중히 단속하여 포흠곡(逋欠穀)을 회수하고 군포를 각동에 균등히 배분하며 관의 차사가 촌락에 출몰하면서 일으킬 폐단을 미연에 차단하고 나아가 세도정권 기 이향의 수탈기구로 변해버린 면회 등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일을 금지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군기·군비의 수선 확충의 치적도 이룩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원군집정 기에 있어서는 병인(1863)·신미(1871) 두 차례의 외침이 있었던 까닭에 그에 대비하기 위한 군비확장 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것이며 그리하여 전라도의 경우도 '삼군부에서 나주목 포군 100명, 진도부 화포군 100명, 담양부 포군 25명… 함평현 포군 50명, 무안현 포군 22명…설치한다고 계언하였다.'고[317] 하였듯이 많은 포군·화포군이 각 군현별로 창설되었다. 이른바 지방 상비군을 창설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지방군제의 정비과정에서 이를 이용한 가렴주구가 있었고 민폐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즉 감영에서 각 군현의 포군을 관할하는 별포 청이 설치되었는데 이 별포 청에서 군수(軍需)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각 군현의 민전을 탈취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니 함평과 무안·영광이 그 피해를 적지 않게 당하고 있었다. 무안출신으로 장령을 지낸 박기종(朴淇鍾)의 상소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 무릇 열읍에 별도로 포군을 설치함은 국가의 힐융(詰戎)의 계책인 것인데, 그 급료를 창설함에서 조정에 계문하여 공화(公貨) 중에서 구획하거나 아니면 관름을 내어 규칙을 세우는 것이 사세의 당연한 것인데도 어찌하여 민전을 강탈하여 어렵지 않게 그에 속하게 합니까? 신은 호남인입니다. 신이 목도한 것을 여쭙자면 작년에 영광·함평·무안 등의 읍에서 본도 감영의 별포청에 빼앗긴 것만 하여도 3,000석이 넘습니다. 지방관이 어찌 그 법의가 어찌된 바를 몰랐겠습니까? 극악대대(極惡大憝)하여 노적(孥籍)한 이외에 민전을 빼앗아 속공(屬公)한 일은 듣지 못한 바이온데 간민이 전토로서 소송하여 이치가 없는 소송을 일으켜 이를 빼앗아 별포청에 넣어버리니, 별포청이 계략을 써서 이를 얻어낸 것이 그 백성을 병들

313) 「고종실록(高宗實錄)」 권 8 고종 8년 9월 15일, 上 376쪽.
314) 『일성록』, 고종 4년(1867) 6월 5일, 전라도암행어사 윤자승-尹滋承-서계.
315) 『일성록』, 고종 5년(1868) 11월 10일, 전라우도암행어사 이돈상-李敦相-서계.
316) 『일성록』, 고종 5년(1868) 11월 10일, 전라우도암행어사 이돈상-李敦相-서계.
317) 『고종실록』 권 8, 고종 8년(1871) 5월 29일.

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소위 별포청의 별장 백낙서란 자는 그 사인(私人) 김치경이란 자를 시켜 삼읍 간에 횡행토록 하여 작년 비로소 땅을 빼앗은 후 재작년의 도조를 쫓아 거두니 강제로 거두어들인 것이 수천 량이 될 것입니다. 감영의 세력을 빙자하여 농절의 궁민을 타읍에 가두면서 오직 고문으로 이를 다스리고 공갈과 협박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이 백성이 불쌍하옵니다. 영읍을 뛰어다녀도 항소할 길이 없으니 이로 인하여 패가 폐농한 자가 100여 호에 이르고 있습니다.[318]"

2. 민씨 집정 기 민정과 함평사회

대원군이 최익현의 상소로 정치에서 손을 떼고 중전 민씨(명성황후)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지방사회에서 가장 두르러진 큰 변화는 그간에 거의 소식(掃拭)되었던 토호들이 다시 일어난 것이었다.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선지 1년이 채 못 되어 당시 영의정 이유원은 경연석상에서 '무단(武斷)토호의 악습을 지난 10년에는 듣지 못하였는데 근일에 외방의 여러 도에서 그 악습이 다시 넝쿨자라 듯 커지고 평민은 잔해(殘害)하여 수원이 낭자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319]

토호무단은 시기가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려 소민에 대한 폐해가 '홍수와 한발 그리고 도적의 환란보다 심하다'라고 운위될 지경이 되었다. 토호무단은 실제 수령의 불법과 간리의 범포(犯逋)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원군 하야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있게 된 일본과의 국교확대와 개항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전개된 연안의 미곡무역과 금 건 수입으로 농촌사회는 크게 동요하였던 것이다. 일본으로의 미곡수출로 인하여 쌀을 비축할 수 있는 지주와 대상(大商)은 일본이라는 새로운 미곡시장의 융기(隆起)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데에 비하여 미곡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미곡을 구입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임금 노동자나 미곡을 소작료로 지주에 받쳐야 하는 빈농층은 더욱 생활의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개항에 따른 국가예산의 팽창은 재정위기를 가져오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주조한 당오전은 인플레를 가속화하면서 농가경제를 핍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앙재정의 확대의 파장이 지방에도 미치게 되면서 지방에서의 각종 부세는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고 심지어 많은 지방관은 지방에서 거둔 부세를 현물로 징수하여 미곡상인에 넘기고 난 후 현금으로 상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는데, 이때 거의 모든 연안의 지방관은 조운선이 패몰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다. 또한 조운선의 잦은 패몰이 만성화되자 국가는 별도로 외국으로부터 기선을 임대하여 세곡을 실어 나르는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이때 그에 소용되는 비용은 이전의 조운선에 비하여 훨씬 많아지는 것을 그대로 농민에 전가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방에서도 부세는 여러 명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 고종 15년 전라좌도 암행어사의 별단에 나오는 전결세 부분만을 보더라도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국전(國典)에 나오는 수세법에 의하면 1결에 전세 6두, 대동미 12두, 삼수미 1두 2승, 포량미 1두 3승, 결전 5전이며 여기에 각 읍의 결역미 몇 석을 합하면 1결의 세금은 20여두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전 이외에도 상사(上司)에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치시미(雉柴米) 4두, 선가미(船價米) 3두 5승이 있어 이 외에는 가렴할 수 없는 것인데도 열읍에서는 사사로이 조례를 만들어 선주(船主)에 지급하는 것으

318) 『고종실록』 권11, 고종 11년(1874) 3월 3일
319) 『일성록』, 고종 11년 10월 8일

로 가승미(加升米), 곡상미(斛上米), 첨가미(添價米), 부가미(浮價米), 인정미(人情米), 가급미(加給米), 부족미 등의 명색이 있고, 읍용으로는 경주인역가미(京主人役價米), 영주인역가미, 진상역가미, 삭선별가미(朔繕別添米), 제주접응미(濟州接應米), 민고미(民庫米), 전관미(傳關米), 기선료미(騎船料米), 간색미(看色米), 낙정미(落庭米), 타석미(打石米) 등의 항목이 있으니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향리들은 이것을 가지런히 적어 1결에 얼마가 되니 이를 납부하라고 발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소위 계판(計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계판 이외에도 결역은 여전히 많습니다. 환곡을 전결로 나누어 배분하기, 환곡을 받는 결민(結民)이 납부하는 액은 해마다 10여 냥을 내려가지 않고, 민고결렴전도 여러 냥에 이릅니다. 또 신구관의 쇄마 가를 전결에서 거두니 8-9냥이 되며 표류선박을 응접한다는 명목으로 거두는 것도 해마다 5-6냥이 됩니다. 그리고서 해마다 서원고급조(書員考給租) 4-5두, 면주인 근수조(面主人勤受租) 2-3두를 더하여 징수하니 계판 내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합하면 1결에 쌀로 거의 100두가 되니 잡역의 번중함이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계판이 나오면 방납(防納)이 생겨나게 되어 은결과 위결, 그리고 복호와 궁방 등의 결세를 공가(公家. 국가)에 내지 않는 땅에서는 전방(錢防)이다 미방(米防)이다하여 전방은 30여 냥, 미방은 50여 두에 이릅니다. 결부(結夫)의 결가(結價)가 각 읍이 같지는 않으나 금년으로 말하자면 혹 28-냥 혹 32-3냥이 되고 있습니다."[320]

이러한 상황에서도 함평의 경우

'현감 이용일(李用一)은 4,000냥의 포흠(逋欠)을 거두어들이니 교활한 향리들이 두려움을 알고 3면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줄여주었으니 궁부(窮蔀)가 고마움을 알고 있으며, 청송에서는 그 처결하는 바가 명쾌하고 세금을 가둠에서는 침요의 폐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321]

와 같이 민정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수령이 있기는 하였지만, 지방행정의 폐단은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다. 한 때

'인근의 업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새로 명예로움이 바야흐로 우거질 것입니다'

라고 기대를 모았던 함평현감 조장희(趙璋熙)는

'진대(賑貸)함에 있어서 실제의 혜택이 있도록 천금(천냥)을 자기가 출연하였으며 징렴의 번거로움을 염려하여 5백냥을 먼저 보조'하는 등의 업적을 쌓았으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아객(衙客)이 정사에 간여하는 단서가 있으며 향리들의 결세를 방납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자년(1876) 봄 거두는 세미 중 3,327석을 2월에 징수하지 않고 한 섬에 12냥씩 수납하도록 하였는데 늦여름에 이르러 어려움이 생겨 선주에게 첨전으로 지불한 17,160냥을 민결에 전가하여 징수하고 또한 사창미 995석을 마음대로 옮겨 세미에 충당하였으며, 입본하는 날에 이르러 다만 3냥을 파급할 따름이었으니 갈리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322]

라고 하여 폄출(貶黜)을 당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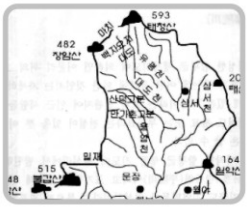
조 현감의 경우에는 향리 층의 전결세 방납을 막지 못하고 아객의 정사간여를 허용하는 등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가 폄출되었던 이유는 선주에게 지급하는 첨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재

320) 『日省錄』, 고종(高宗) 15년 4월 4일, 전라좌도암행어사 沈東臣 別單.
321) 『日省錄』, 고종 15년 1878 6월 16일 전라우도암행어사 魚允中 서계.
322) 일성록(日省錄) 고종 11년 1874 12월 16일 전라우도암행어사 엄세영(嚴世永)서계
일성록(日省錄) 고종 15년 1878 6월 16일 전라우도암행어사 어윤중서계(魚允中書啓)

원을 전용하였던 것이고, 결세를 제때에 징수하지 않으면서 입본하는 과정에서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곧 민생의 곤궁, 농촌사회의 격동으로 이어지면서 시기가 내려올수록 더욱 심해지게 되고, 조선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커녕 더욱 사태를 악화시켰던 나머지 마침내 갑오농민전쟁으로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7장 동학농민전쟁 (東學農民戰爭) 과 함평



제1절 동학농민전쟁 발발의 역사적 배경

동학의 발흥과정은 앞에서 설명하였거니와 이 글의 주 내용인 동학농민전쟁을 다루기에 앞서 동학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농민전쟁은 왜 발생했는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1863년 12월말(양력으로는 1864년 1월) 철종이 재위 14년 만에 후사(後嗣)없이 승하한 후 나이 12세이던 고종이 등극하고 생부(生父)인 이하응(李昰應)이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으로서 섭정이 되어 국정을 총괄하게 되었다. 대원군은 섭정기간 동안 탐관오리의 숙청, 말썽 많은 서원(書院)철폐, 부패된 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세도세력인 안동김씨들을 몰아내고 또 각종 폐습을 바로 잡아 나라가 잘되는 듯 했으나 대원군이 경복궁 등을 무리하게 중건(重建)하면서 원납전(願納錢) 등을 강요함으로써 '원납전(怨納錢)이 되어버리는 폐단(弊端)을 유발한데다 대원군이 섭정에서 물러나고 민비(閔妃)가 정치실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여흥민씨(閔氏)라는 새로운 세도세력이 등장,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관기(官紀)는 다시 문란해져 갔다. 매관매직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연히 자행되고 탐관오리들은 세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 때의 상황을 실증해주는 자료가 백지교지(白紙敎旨)다. 어인이 찍혀있는 이 백지교지는 돈만 주면 살 수 있었고 여기에다 자기집안사람의 이름만 기재하면 훌륭한 가문임을 남에게 내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왕의 임명장까지 백지로 나도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생산의욕을 잃는 것은 당연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나약해진 왕권에 조선을 호시탐탐(虎視耽耽) 노리는 외세(外勢)의 물결이 거세어진 판국이어서 "척양·척왜(斥洋·斥倭) 제폭구민(除暴救民)"이라는 구호를 내건 동학과 당시 민중의 주류였던 농민들이 손을 잡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동학교문(敎門)은 온갖 박해 속에서도 서양과 왜적을 배척하고 탐관오리제거와 세제(稅制) 개혁 그리고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으니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등불일 수밖에 없었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영국·프랑스 등 서구(西歐) 제국주의에 무력(無力)한 대국(大國)으로 전락하고 그 곁에 있던 조선은 개화(開化)와 쇄국주의(鎖國主義)를 거듭하는 혼미를 계속하고 있었다. 심지어 민비를 중심으로 하는 민씨 지배 하의 조정은 외세에 의존하려는 나약성을 표출하고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국가의 재정적인 궁핍은 더욱 심해갔다. 면세(免稅)·진황(陳荒)·은결(隱結) 등에 의해 수입이 감소된 데다 개항이후 내외국 사절의 영송, 배상금의 지불, 새로운 문명시설의 도입 등 지출이 급증하고 있었다. 이 같은 과다 지출비용은 관세수입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해야 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재정수입은 농촌에서

거둬들이는 갖가지 명목의 세금이었다. 농민들은 이러한 비용증가에 따른 중과세에 시달리는데다 관리와 향리들의 횡포도 자심하여 양반관리들에 대한 불평과 원한은 극도에 달해 곳곳에서 크고 작은 민란이 잇달았고 화적떼들이 빈번하게 출몰해 양민들을 괴롭혔다.

더욱이나 이미 침투해 있던 일본의 경제적 약탈이 농촌경제를 더욱 피폐시켜 나갔다.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수출품 대부분은 농산물 그 중에서도 쌀이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무뢰배나 낭인(浪人)출신의 일본상인들은 농민들이 면제품(綿製品)·솥·남비·농기구·석유·소금 등 생활에 편리한 수입품을 사들이기 위해 쌀을 팔수밖에 없는 사정을 교묘히 악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약점을 노려 미리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자를 얹혀 계산하는 방법으로 농산물을 헐값에 회수해 가는 고리대금업 성격의 선매(先買)행위를 자행, 이중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반항으로 방곡령(防穀令)이 내려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일본의 항의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농민들은 계속 수탈을 당해 더욱 굶주리고 일본 상인에 대한 적개심은 고조(高潮)되어 갔다.[323]

이러한 상황속에서 탐관오리를 구축(驅逐)한다는 제폭제민(除暴濟民)과 외세를 몰아내겠다는 척왜(斥倭)·척양(斥洋)을 부르짖는 동학이 등장한 것이다.

제2절 동학의 창도와 탄압

세상이 어지럽고 사회가 혼란해지면 구민제세(救民濟世)를 내세우는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한 종교 즉 신흥종교가 등장하게 마련이다. 19세기 중엽 등장한 동학도 같은 맥락이었다. 안동김씨의 세도정치와 탐관오리들의 횡행으로 삼정(三政, 전부-田賦.군정-軍政.환곡-還穀)이 문란해진데다 서세동점(西勢東漸)에 따라 천주교와 서양서적 반입, 아편전쟁 소식 등 서양세력이 침투하면서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자 20여년 동안 구도방랑(求道放浪)했다는 최제우(崔濟愚)가 철종 11년(1860년) 4월 '제세안민(濟世安民)'을 내 세워 서학(西學. 天主敎)에 대항하는 동학(東學)을 창도(創道)하였다. 최제우는 순조(純祖) 24년(1824년) 경주에서 태어났으며 그 아버지는 유학(儒學)에 종사하였고 문벌은 향반(鄕班)이었으나 몰락 양반의 후예에 서출(庶出)의 독자로서 사회적 가정적으로 매우 불우한 소년기를 보내고 20세에 출가구도(出家求道)의 길에 나섰다. 천하의 명산대찰을 찾아 구도하였으나 만족을 얻지 못해 낙망하고 탄식하였다 한다. 그는 부득이 당시의 사회정세와 시의(時宜)에 맞는 신교의(新敎義)를 안출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324] 그는 드디어 천신(天神)에게 천명(天命)을 받았다고 하여 천주교의 천주(天主)를 연상케 하는 '하늘' 곧 '천(天)'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최제우의 동학은 중국 청나라 말기 '천주(天主)' '상제(上帝)'를 내세웠던 홍수전(洪秀全)의 태평천국 운동과 창도시기와 사회적 환경, 종교적 목적, 나중에 최제우 자신이 처형됨으로써 실질적인 동학운동에 직접 뛰어들지는 못하게 되지만 농민전쟁으로 이어져 군사적 힘으로 밀어 붙이다가 종말을 고하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태평천국 운동의 영향을 받았

323) 이기백, 『韓國史新論』, 367쪽, 1997, 일조각..
324) 이상백, 『한국사(韓國史)』, 근세후기편(近世後期篇), 530쪽, 진단학회, 1968, 을유문화사.

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해 알 길이 없다.

그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을 하늘처럼 대하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현세를 천국의 세계로 만들자는 논리다. 그리고 동학사상 속에는 유교·불교·도교(道敎·仙道)의 장점을 취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 비록 서학을 배척한다고는 했으나 천주교의 교리도 가미(加味)되어 있으며 민간신앙도 흡수되어 있었다. 운수사상이나 궁궁을을(弓弓乙乙)의 영부(靈符)와 주문(呪文)을 암송하는 것 등은 민간신앙이 가미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2세 교주인 최시형(崔時亨)에 의해 편찬되는 『동경대전(東經大全)』과 『용담유사(龍潭遺詞)』 등에 잘 나타나있다.[325] 특히 동학의 교리 중에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이니 '광제창생(廣濟蒼生)'이니 하여 부패한 양반정치를 개혁할 것과 시운(時運)에 따라 새로운 사회 즉 후천(後天)이 개벽(開闢)한다는 뜻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척왜(斥倭)·척양(斥洋) 등의 반 침략적 사상에 따른 애국운동의 이상(理想)과 반 양반적 논리를 고취하여 양반계급 내지 지배계층의 가렴주구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일반 민중들이 쉽게 영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326] 이는 동학이 구세(救世)만을 제창하는 단순한 종교라기보다는 민족주의 사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학은 사회혼란으로부터 자신과 국가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일반민중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학은 창도된 지 3년째인 철종 13년(1862년)부터 농촌지역인 경상도 각지에 지부인 접소(接所)를 설치하고 명망있는 인물을 접주(接主, 포교사)로 임명하여 교세를 크게 넓혀 나갔다. 경상도뿐이 아니었다. 전라도로 옮겨간 후 교세는 더욱 불붙어 충청도·강원도 등 전국으로 확산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중에 동학농민전쟁의 중심지가 되는 전라도에 동학이 전해진 것은 동학을 창도한 최제우 교조가 무주(茂朱)를 거쳐 남원의 은적암(隱寂菴)에 기거하던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교세(敎勢)가 미약하였으나 1891년경에는 교도 수도 많았고 그 조직도 활발하여 어느 지방보다도 열을 올렸다. 동학농민전쟁을 주도한 사람들이 모두 이 무렵 동학에 입문(入門) 하게 된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동학교도들이 암송하는 주문(呪文)이나 교리(敎理) 중에 나타나는 '천주' 나 '상제'라는 용어가 사학(邪學)한데다 동학의 교세가 날로 확산되는데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서학(西學·天主敎)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조정은 새롭게 등장한 동학의 교세가 너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자 청나라에서 벌어졌던 태평천국 운동 파급에 자극을 받은 나머지 더 이상의 방관은 사직(社稷)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철종 13년(1862년) 9월 최제우를 비롯한 일당 20여명을 체포, 심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상감영에서 조사토록 한 조정은 동학이 해민패속(害民敗俗)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어 석방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은 미구에 다시 피해를 입을 것을 짐작하고 다음 해인 철종 14년 12월 최제우를 다시 체포하여 그 다음 해인 고종(高宗) 원년(元年. 1863년) 3월 대구(大邱) 남문 밖에서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를 씌워 최제우를 참형하고 나머지를 유배시켰다.[327]

325) 이기백, 『韓國史新論』 339쪽, 1997, 일조각.
326) 이광린, 『한국사 강좌』 14쪽, 1981, 일조각.
327) 이광린, 위책 15쪽. ; 이상백, 『한국사』 근세후기편, 356쪽, 진단학회, 1968, 을유문화사.

제3절 동학교단의 발전과 교조 신원(伸寃) 운동

교조 최제우는 처음 체포됐다가 일단 풀려난 후인 철종 14년(1863년) 8월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사전에 그 도통을 수제자인 최시형(崔時亨)에게 전수시켰다. 2세 교주가 등장한 것이다. 최제우가 처형당한 갑자년(甲子年, 1864년) 이후 몇 해 동안 동학 교문(敎門)은 불법화된 교단으로 조정 관헌의 탄압이 극심하여 좀처럼 교세를 만회하기가 어려웠다. 관헌의 지목추적(指目追跡)이 심해 최시형은 도피 은신하여 성명(性命)을 보전하기에도 급급할 지경이었다.[328] 그는 관의 박해를 피해 경상·강원·충청 3도의 접경지역인 태백산맥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 때가 동학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부진한 시기였다. 그러나 2세 교주 최시형의 불굴 불효한 의지와 노력은 만난을 배제하고 교세재건에 박차를 가하여 교세재건에 큰 공적을 세우게 된다.[329] 18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교세확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개항과 임오군란, 정변(政變) 등 복잡한 대내·대외문제에 부닥치자 조정은 동학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틈을 이용한 최시형 교주는 경상·전라·충청 등 삼남지방에서 포교활동을 활발하게 펼침으로써 많은 교도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고종 20년(1883년) 손병희(孫秉熙)·손천민(孫天民)·박인호(朴寅浩) 등 뒷날 동학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충청도출신의 소위 후기의 북접계(北接系) 간부들을 입도시키는 성과를 올리게 되고 고종 28년, 29년에는 손화중(孫和中)·김개남(金開南) 등 전라도 출신의 소위 후기 남접계(南接系) 거물들을 입도시켜 동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된다.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의 기수가 되는 전봉준(全琫準)은 이보다 1, 2년 앞서 입도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시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330] 이같이 교세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경전(經典)의 편찬과 교단의 조직화였다. 최시형은 고종 17년(1880년) 5월 강원도 인제군 갑둔리에 경전 간행소를 설치하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간행하는 한편 교도의 1단을 포(包)로 하고 포를 통솔하는 사람을 접주, 각 접주 통솔자를 도접주(都接主. 大接主)로 하였다. 그리고 각 포에는 이른바 6임의 제도를 시행하여 교장(敎長)·교수(敎授)·도집(都執)·집강(執綱)·대정(大正)·중정(中正)의 여섯 가지 임무를 분장케 하였다. 또 신자의 총 집회기관으로 중앙인 충청도에는 법소(法所)를, 각지에는 도소(都所)를 설치하여 조직화하는데 성공했다.[331]

한편 동학의 간부들은 고종 29년 11월(1892년 11월) 교조 최제우의 신원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당시 충청도 관찰사에게 1차 신원 소장을 제출한 후 여의치 않자 고종 30년(1893년) 3월 25일 교도 40여명을 시켜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3일 3야(夜) 동안 교조 신원을 호소하는 복합상소(伏閤上疏)를 올렸다. 그러나 우두머리인 소두(疏頭) 박인호가 체포되고 교도들은 강제 해산 당함으로써 교조신원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비록 교조신원운동은 실패로 끝났으나 동학은 종교운동을 벗어나 제폭구민과 척왜·척양을

328) 이선근, 『한국사』 현대편, 5쪽, 진단학회, 1968, 을유문화사.
329) 이선근, 위책, 4쪽.
330) 이광린, 앞의 책, 275쪽.
331) 이광린, 앞의 책, 276-281쪽.

부르짖는 정치운동으로 번져 어느덧 경기도이남·강원·충청·전라·경상도 전 지역이 그 영향권 안에 들게 되는 큰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제4절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

이 같이 불길처럼 번지던 동학운동은 전라북도의 고부(古阜)에서 말세적 징후의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를 규탄하는데서 폭발, 농민전쟁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나라의 곡창인 전라도에는 오래전부터 농민을 침해하고 토색질하는 탐관오리들의 발호가 다른 어느 지방보다 우심하여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인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에 민루낙(民淚落)이요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는 가사(歌詞)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이 같은 상황은 조선조말까지 계속되면서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극심해져 이 무렵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탐관오리의 전형적 표상이 고종 29년(1892년) 말 고부(古阜)군수로 부임한 조병갑(趙秉甲)에게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332] 조병갑이 가렴 주구하는 수법을 보면 이렇다.

1) 황무지를 일구어 백성들에게 그대로 경작하라고 관가의 문권(文券)까지 발급해 주고 면세까지 약속한 다음 가을에는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 착복하는 것.

2) 양민에게 불효·불목·음행·잡기이니 하는 따위의 없는 죄목을 씌워 금품을 받아내는 것이 2만량이었다.

3) 태인 군수를 지낸 그의 아버지 공적비 건립을 핑계로 강제 수렴한 것이 1,000냥이었다.

4) 대동미를 민간에서 징수할 때는 양질의 쌀 16두(斗)를 표준으로 삼아 수렴한 뒤 나라에 바칠 때는 질이 나쁜 값싼 녹미를 사서 바침으로써 그 차액을 가로챘었다.[333]

전라도는 곡창으로 물자가 풍부했던 곳이므로 조선조 전시기에 걸쳐 항상 가혹한 수탈의 대상이 되었음은 이미 설명했거니와 정부의 재정도 주로 전라도에 의존하고 있었으니 미곡의 상납 량이 타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종 20년(1883년) 쌀로 내는 전세량(田稅量)이 6만 1,053섬으로 당시 전국 세미(稅米) 9만 4,736섬의 3분의 2가 넘었고 콩 또한 1만 5,455섬으로 제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조선후기 관방이나 관아의 둔전(屯田) 설치도 다른 어느 지방보다 많았었다. 또 파견되는 도장(導掌)이나 감관(監官)의 세곡독징(稅穀督徵)과 중간의 농간이 혹심하여 농민들은 2중, 3중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334] 특히 개항이후 대량의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일본상인들의 횡포가 자심해 경제적 압박은 가중되어 있었다. 반정부·반외세의 감정이 팽배할 대로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병갑의 가렴주구행태는 더욱 박차를 가해 자행되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만석보(萬石洑)를 놔두고 노임 한 푼 주지 않고 농민을 동원해 새로운 보를 축조한 다음 추수가 끝나자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두락 당 쌀 1두 내지 2두씩의 수세(水稅)를 과다하게 부과해 징수한 700여석을 사취해 버리는 사태에 이르렀

332) 이선근, 앞의 책, 38쪽.
333) 이선근, 앞의 책, 41쪽.
334) 이광린, 앞의 책 282쪽. ; 한우근, 『동학과 농민봉기』, 95쪽, 1995, 일조각.

다.[335] 처음에 농민들은 전봉준을 앞세우고 진정과 호소로 해결하려 하였다. 본래 태인현(泰仁縣) 향반출신으로 당시 40세였던 전봉준은 당시 호남지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던 민요(民擾)의 두령으로 나섰다가 관아에 붙잡혀 장사(杖死) 당했던 전창혁(全彰赫)의 아들로서 담력이 출중하고 기백이 당당해 이미 인근 민중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어 녹두장군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조병갑의 탐욕과 횡포를 묵과할 수 없어 농민들을 이끌고 그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면감(免減)을 호소했다. 그러나 탐학한 조병갑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전봉준 등을 체포 구금했다가 석방하기도 했다. 전봉준은 힘의 응징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익서(鄭益瑞)·김도삼(金道三) 등과 함께 고종 31년(1894년) 2월 10일(음력 정월 10일)[336] 봉기를 맹약하고 다음 4개항을 결의 했다.

1) 고부성을 격파하고 조병갑을 효수할 것.
2)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3)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침환한 탐리를 격징할 것.
4) 전주영(全州營)을 함락하고 경사(京師)로 직향할 것.[337]

드디어 이날 새벽 만석보 남쪽 마항시장에 1,000여명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모여들었다. 전봉준은 이들을 이끌고 고부군청으로 돌입했다. 모두들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몽둥이와 죽창을 손에 들었다. 이들은 동학도라기보다는 조병갑의 탐학에 분노한 일반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조병갑은 어느새 피신해버리는 바람에 붙잡을 수가 없었다. 성난 농민들은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꺼내 무장하는 한편 창고를 부수고 조병갑이 불법으로 거둔 수세곡을 끄집어내 백성들에게 돌려준 다음 원망의 표적이었던 신보(新洑)를 부숴버렸다.[338] 간신히 몰래 빠져 나가는데 성공한 조병갑은 전주감영으로 달려가서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에게 농민들의 민요(民擾)라고 속여 보고한 후 1,000명의 진압병력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거부당하고 말았다. 전라감사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조정은 2월 15일 조병갑을 체포 문죄케 하는 한편 김문현을 3등 감봉한 후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를 안핵사로 삼고 박원명(朴源明)을 고부군수로 임명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봉준과 농민군들은 일단 자진해산하고 조정의 사후수습을 관망하고 있었다. 이때 이용태가 민란의 원인과 원성을 잘 파악하여 성의와 아량을 가지고 수습에 임했더라면 고부민란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통상적인 민요로 끝나고 말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의 수습 방법이 졸렬하다 못해 오히려 농민봉기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려 기만과 탄압책을 강행하는 바람에 더욱 원성을 사게 됨으로써 사태는 도리어 악화돼 공전(空前)의 대반란 내지 내전으로 치닫고 말았다.[339]

조정의 처사와 이용태 안핵사의 횡포에 격분한 전봉준은 '후천개벽'의 동학정신을 발휘하고 사회모순의 수술에 동학교문의 조직세력을 동원하기로 결심하고 인근지방 동학 접주들에게 통문을 보내 '보국안민(保國安民)'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수천의 호응을 얻어 1894년 3월 21

335) 한우근, 앞의 책, 96, 97쪽. ; 이광린, 앞의 책, 283쪽.
336) 갑오농민전쟁 발발 일자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한우근은 2월 16일(『동학과 농민봉기』, 98쪽), 이광린, 이선근, 이존희는 2월 10일(음 1월 10일, 『한국사강좌』, 284쪽, 『한국사(韓國史)』 현대편, 44쪽, 『동아대백과사전』 9권, 633쪽, 1983, 동아출판사), 이홍직은 2월 15일(『국사대사전』 상권, 445쪽, 1963, 지문각), 북한의 『조선근대역사』는 2월 25일(同書, 137쪽, 1988, 일송정)로 되어 있다. 1894년 정월 10일은 양력으로 2월 10일이다. 필자는 한교수의 2월 10일(음력 정월 10일)을 따르기로 했다.
337) 이광린, 앞의 책, 284쪽.
338) 이광린, 앞의 책, 284쪽. ; 이선근, 앞의 책, 44쪽.
339) 이선근, 앞의 책.

일 고부 북쪽에 있는 백산(白山)을 점거 하였다. 본격적으로 동학교민이 합세한 농민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높이 50m밖에 안되는 낮은 산이지만 곡창지대인 만경·동진 양강(兩江) 유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요새이고 양식을 보급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지대이기 때문이다. 뒤이어 김제·부안·고창 등 인근지역 동학 농민들도 백산으로 모여들었다. 그 수는 1만 명가량이었다. 여기서 동학군은 대오를 정비하여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손화중·김개남을 총관령(總管領)으로 삼아 전봉준을 보좌케 했다. 백기(白旗)에 '동도대장(東徒大將)'이라고 크게 쓴 기치를 내세우고 기세를 올렸다. 전봉준은 다음과 같은 강령을 선포하고 창의(倡義)의 뜻을 천명했다.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2) 충효를 다하여 제세 안민할 것.
3) 왜이(倭夷)를 축멸하여 성도(聖道)를 밝힐 것.
4) 병을 거느리고 입경(入京)하여 권귀(權貴)를 모두 죽일 것.[340]

여기서 전봉준은 사방에 격문을 띄워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우리가 의(義)를 들어 여기에 이름은 그 본의가 결코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올려놓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의 무리를 축출하고자 함이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은 물론 방백과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하급관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소용없느니라."[341]

그 깃발 아래 모여든 장령(將領·頭領)들이 수없이 많았고 특히 전라도는 전 지역에서 거의 참여하였다. 전봉준은 4월 4일(음력임) 부안군아를 습격한 후 7일에는 다시 고부군으로 옮겼다. 동학농민군은 고부 남쪽 황토현(黃土峴)에서 전주 감영의 관군을 맞아 싸워 대승을 거두고 남쪽으로 치고 내려가 정읍·고창·무장·영광을 차례로 점령하고 함평·무안·나주를 거쳐 다시 북상하기 시작했다. 이 때 조정에서는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하여 800명의 경군(京軍)을 보냈으나 장성에서 패하고 말았다. 승승장구한 동학농민군은 그해 5월 전주감영을 점령하고 6월 초순에는 전라도 일대가 사실상 농민군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342]

그러나 이 1차 봉기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인물(간부) 중에는 우리 함평출신의 이름이 전연 나타나지 않고 있다.[343] 뒷날 2차봉기 때는 함평출신 장령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백산을 점거한 동학농민군은 4월 7일(음력임)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해 대승을 거두어 사기가 오를대로 올라 있었다. 이들은 정읍에 진출했고 8일에는 흥덕·고창, 9일에는 무장을 점령했다. 3일동안 무장에 머무른 동학군은 일부를 잔류시키고 4월 12일(양력 5월 16일) 1만명으로

340) 이광린, 앞의 책.
341) 이기백, 앞의 책 286쪽. 고어문(古語文) 투를 필자가 현대어(現代語) 문투로 약간 개작(改作)했음.
342)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443쪽, 1997, 경세원.
343) 당시 양호초토사의 보고서를 보면 포살된 함평출신 접주명단이 많이 기재되어 있으나 모두가 2차 봉기 때의 참여 장령들이고 1차 봉기 때는 1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함평출신 장령들이 1차 봉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늘어난 주력부대를 이끌고 영광에 진주해 군기고에서 무기를 노획했다. 이때 영광군수 민영수(閔泳壽)는 법성포에서 관곡을 배에 싣고 해상으로 도망하였다. 영광에서 나흘을 머문 동학군은 음력 4월 16일(양력 5월 19일) 일부 세력을 영광에 남겨두고 6~7,000명이 함평으로 향했다.

당시 함평은 현감 권풍식(權豊植)의 휘하에 수성군(守城軍) 150여명이 있었으나 동학군에게 우선 숫자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함평을 점령한 전봉준은 영광으로 되돌아가 21일까지 머물면서 작전 계획을 세웠다.[344]

현감 권풍식의 보고 내용은 이렇다.

"16일 신시(申時) 동도(東徒·동학농민군을 말함) 6~7000명이 영광으로부터 기치(旗幟)를 앞세우고 대부분 창과 칼을 들었고 일부는 대포를 쏘며 쳐들어 왔다. 기마병(騎馬兵)도 100여명이나 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갑옷을 입었고 혹은 전립을 쓴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즉시 동헌으로 쳐들어가니 이때 관문을 지키고 있던 교리(校吏) 노령(奴令) 수성군 150명과 접전이 벌어졌으나 수성군은 중과부적이어서 태반이 창, 검에 찔려 부상을 입고 도망쳤다. 동학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에 각 면의 사림(士林) 100여명이 동헌을 지키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동헌을 향해 외쳤다. '우리는 탐관오리를 징치하고 고을 수령들의 민폐를 바로잡으며 나라를 도와 백성들을 편히 하기 위하여 각 고을을 돌아 이 고을에 왔다. 지금 사인(士人)들이 동헌을 호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고을 현감의 치적을 가히 알만하다.'고 하였다.[345]

"이 말을 들은 후 사인들이 동헌에서 물러갔다. 동학군은 동헌을 점령한 뒤에 공형(公兄)들을 잡아들인 후 자신들을 환영치 않은 죄를 물어 대곤(大棍·큰매) 다섯 대씩을 때렸다."[346]

권풍식 현감이 작성한 이 보고문으로 당시의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초토사(招討使) 홍계훈(洪啓薰)은 동학농민군의 진로를 막고 토벌하려는 생각은 않고 동학농민군의 뒤만 쫓으면서 동학농민군과 내통했다고 영장(營長) 김시풍(金始豊)을 참수하는 등 비웃음만 사는 일을 하고 있었다.[347]

홍계훈 초토사는 4월 21일 영광에 도착했다. 그는 함평현감 권풍식으로부터 동학농민군이 22일 나주와 장성으로 향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현감을 통해 보내온 동학농민군의 원정서(寃情書)를 받았다. 그러나 어귀(語句)가 아주 불손한 내용들이었다. 함평에 머물던 동학군은 22일 두 편으로 나누어 1편대는 나주로 또 1편대는 나산(羅山)을 경유하여 장성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다음 날 월평리(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가 이학승(李學承)·원세록(元世祿)·오건영(吳建永)이 이끄는 초토사의 관군 300여명으로부터 포격을 받는 불의의 기습으로 4, 50명의 희생자를 냈으나 관군을 패주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리하여 종사군관(從事軍官) 이효응(李斅應)·배은환(裵垠煥)으로 하여금 윤음(綸音·왕의 친서)을 전달토록 동학군에게 보냈으나 그들은 포로가 되고 말았다.

4월 22일 홍계훈 초토사는 함평의 수교(首校)·공형(公兄)들을 잡아들여 가쇄(枷鎖)를 씌워

344) 전라남도지 1982, 683쪽에 의함.

345) 권풍식은 경기도 여주출신으로 당시 36세. 이 때 권풍식 현감은 자리를 피했으나 그는 군민들의 원성을 살 만큼 악정을 펴지 않은 듯 다른 고을 수령들과는 동학군으로부터 달리 아무런 질책을 받지 않고 곧 바로 현직에 복귀해 홍계훈 양호초토사에게 관내현황을 보고하는 등 수령으로서의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346) 공형(公兄)이란 삼공형(三公兄)의 줄임말로서 조선조(朝鮮朝) 각 고을의 호장(戶長)·이방(吏房)·수형리(首刑吏)의 세 관속(官屬)을 말한다.

347) 함평군, 『咸平郡史』 392쪽 1984년.

엄중하게 다스리게 했고 악정을 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학군으로부터 아무런 질책을 받지 않은 권풍식 현감이[348] 오히려 동학농민군을 비호했다는 죄를 씌워 서울로 압송해 다음해인 1895년 3월 법무아문(法務衙門) 권설재판소(權說裁判所)에서 곤장 100대에 처하는 형을 받게 했다.[349]

그런데 사록(史錄)과는 다르게 함평의 옛 군지 '읍재 선생안(邑在先生案)'에는 '동학농민군에게 군기를 빼앗겼다는 죄로 서울로 압송됐으나 유림들의 진정으로 1895년 4월 전주 판관(判官)으로 전임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어 권풍식 현감이 사면, 복직되었음이 나타나 있으나 100대의 태형 면제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350]

제5절 전주화약과 집강소 설치

장성군에 주둔하고 있던 동학농민군은 양력 5월 28일[351] 갈재(蘆嶺)를 넘어 정읍을 거쳐 30일 원평(院坪)을 지나 전주에서 30리 떨어진 두정(豆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동학군은 다음 날인 31일(음력 4월 27일) 전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전주성(全州城)은 김문현 감사는 파직되고 후임 감사 김학진(金鶴鎭)은 아직 부임하지 않고 있던 터라 성내의 판관과 군졸들은 대적하지도 못하고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동학군은 관군과 전투다운 전투 한번 치르지도 않고 전주성에 입성하게 됐다. 이 때의 전주점령은 동학군이 가장 떨치던 시기이니 호남(전라도) 일대는 동학군에 의해 거의 휩쓸다시피 되었다. 호남 중에도 특히 무장·영광·함평·장성·담양·무안·장흥·동복·흥양·부안·고부 등은 동학군의 소굴을 이루었다.[352] 홍계훈의 관군은 장성에서 패배하기도 했지만 기(氣)를 잃지 않고 동학군의 뒤를 따라 다음날인 6월 1일(음 4월 28일) 전주성밖에 이르러 남쪽인 완산에 진을 치고 동학군과 대치하게 되었다.[353] 동학군은 전주성의 방수(防守)를 굳게 하는 한편 자주 문을 열고 나와 관군과 교전하였다. 이렇게 연일연전(連日連戰) 관군은 마침내 맹렬한 포격을 가하여 동학군에게 많은 희생을 입히는 동시에 선유문(宣諭文)을 내려 속히 귀순 해산하라는 뜻을 포고하였다.[354]

이 같이 동학군이 득세를 하고 있을 무렵 조정은 관군만으로는 동학군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에서의 자기세력을 다시 강화하기위한 좋은 기회라고 여긴 청나라는 엽지초(葉志超)로 하여금 3,000의 병력을 이끌고 아산만에 상륙하

348) 경기도 여주 태생, 당시 36세.
349)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함평군문헌사료집』 중권, 102쪽, 1993.
350) '이동요시(以東擾時) 견탈군기(見奪軍器) 사압거경사(事押去京司) 인본읍(因本邑) 유생명원(儒生鳴寃) 잉위몽유(仍爲蒙宥) 을미사월일(乙未四月日) 이배(移拜) 전주판관全州判官)' 『함평군지(咸平郡誌)』 1969년.
351) 이 글에서 양력과 음력을 혼용하고 있는 것은 사료(史料) 또는 자료집(資料集)은 물론이고 학자들의 저서나 연구논문이 경우에 따라 양력을 쓰기도 하고 음력을 쓰기도 하기 때문이다.
352) 이병도, 『한국사대관』, 507쪽, 1975, 보문각.
353) 한우근, 앞의 책, 116, 118쪽.
354) 李丙燾, 앞의 책, 507쪽.

게 했다. 청나라는 천진조약에 따라 이 사실을 일본에 통고했다. 이에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군함 7척과 7,000여 군대를 인천에 상륙시키게 된다. 이 같이 청·일 두 나라의 군대가 대치함으로써 조선을 둘러싼 주변의 국제정세가 미묘해지자 조정은 하루 속히 동학군을 회유하여 해산시킬 필요를 느끼고 휴전교섭을 제의했다. 전봉준은 동학군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정부군의 제의를 받고 이를 소청에 의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폐정개혁을 조건으로 휴전이 성립되었다. 동학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은 그들이 봉기 당초부터 주장했던 것들로 양반들의 부당한 가렴주구 배격과 외세침투 반대가 그 주류였다. 관군과 동학군은 서로 협력하고 폐정을 개혁하자는데 합의하는 이른바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성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군은 서울로 올라가고 동학군은 전라도 53개 읍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했다.[355]

집강소란 동학군이 점령한 고을 관청 안에 우두머리인 집강(執綱)을 임명하고 집강아래에 서기·성찰(省察)·집사·동몽(童蒙) 등 임원을 두었으며 대소 관리들은 그들을 도와 서정(庶政)을 처리하게 하였다. 군수나 현감은 이 제도 하에서는 이름뿐이었다. 전주에는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를 두어 전봉준이 이를 총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전라도에서 집강소 설치를 거부한 곳은 나주·남원·운봉뿐이었다. 나주와 남원·운봉 세 고을의 수령들이 집강소 설치도 반대하고 또 전주의 대도소(大都所) 지시에도 따르지 않으므로 대도소는 최경선(崔景善)을 나주에, 김계남을 남원에, 김봉득(金鳳得)을 운봉에 보내어 그들을 굴복시키도록 했다.

최경선은 3,000명의 동학군을 이끌고 1894년 음 7월 2일 나주에 도착하였으나 나주목사가 성을 끝내 고수하였다. 이에 전봉준은 최경선에게 군을 거두어 전주로 돌아오게 하고 스스로 몇 사람을 대동하여 직접 담판에 나섰다. 나주목사와의 담판에 나선 전봉준이 말했다는 내용이 동학군의 사상과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기에 여기에 옮겨본다.[356]

「전 봉준은 나주성(羅州城)의 동문을 통해 관아에 들어섰다. 당황한 목사는 황망히 일어나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동학군 대장 전봉준이요. 주관(主官)은 괴히 여길 것이 없소. 그대도 조선 사람이요 나도 조선 사람이라 조선 사람으로서 대하기를 어찌 이와 같이 주저 하시오. 방금 우리나라는 외이(外夷)가 독한 손을 내밀어 침략을 꾀하고 국정은 나날이 그릇되어 가서 나라의 존망이 목전에 있음을 그대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소. 어서 바삐 꿈을 깨시오."

목사는 늠름한 전봉준의 기풍에 간담이 서늘해지고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항변할 수가 없었다. 전봉준은 이것이 천하의 대세며 각 군에 집강소를 두고 서로 나라 일을 의논케 된 사실을 말했다. 말을 듣고는 이에 거역할 이유가 없어 순순히 전봉준의 지시에 따랐다」[357] 전봉준은 이렇게 해서 모두 승복시키는데 성공하게 된다.

집강소가 행한 12개 개혁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동학교도와 정부와의 사이에 쌓인 원한의 감정을 씻어버리고 모든 행정에 협력할 것.

2)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해서 일일이 엄벌할 것.

355) 이기백, 앞의 책, 373쪽.
356)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함.
357) 앞의 『咸平郡史』, 393쪽

3) 횡포가 심했던 부호의 무리는 엄징할 것.
4)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는 징벌할 것.
5) 노비문서(奴婢文書)는 불태워 버릴 것.
6) 칠반천인(七般賤人)의[358]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이 머리에 쓰는 패랭이는 벗겨버릴 것.
7)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것.
8) 명분 없는 잡세는 모두 거두지 말 것.
9) 관리의 채용은 지벌(地閥)을 타파하여 고루 인재를 등용할 것.
10) 왜(倭)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1) 공사채(公社債)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할 것.
12) 토지는 평등하게 나누어 경작하게 할 것.[359]

이 조항들을 보면 조정이나 양반의 동학에 대한 탄압과 농민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수탈을 중지할 것, 신분상의 모든 차별대우를 폐지할 것,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내통하는 자를 엄징할 것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집강소를 통한 개혁운동은 농민들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동학의 세력은 비단 전라도뿐만 아니라 삼남지방을 비롯하여 북으로 평안도 함경도까지 뻗쳐 있었다.[360]

제6절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와 함평

동학도들이 전주화약 이후 전라도 각 지방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과 병란의 뒷수습을 하고 있는 동안 국내외 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1894년 6월 21일(양력) 경복궁을 침입하여 우리군인을 축출하고 민씨 정권을 몰아내고 대원군을 받들어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한편 6월 23일 청국 군함을 포격하여 격침시켜 청·일 전쟁을 도발했던 것이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승리를 거듭하던 일본군은 청나라 육·해군을 전멸 상태에 몰아넣자 그 승리를 앞세워 조선의 정국을 좌지우지 하고 있었다. 당초부터 척왜(斥倭)를 부르짖던 동학군이 일본에게 지배되는 현상을 보고 묵과할 수는 없었다. 전봉준은 이 같은 일본군의 만행을 보고 심한 분노심을 일으키고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해 재기(再起)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곡식이 여무는 9월(양력 10월) 기포(起包)하기로 하고 각지의 접주들에게 통문을 띄웠다. 전봉준은 전주에서, 손화중은 광주에서 기포하는 등 전라도 각 읍의 동학농민군은 우후죽순처럼 봉기하여 삼례역으로 향하였다. 9월 18일(양력 10월 26일) 전주·고창·태인·남원·금구·함열·무장·영광·정읍·김제·고부·삼례·순창·원평·장흥·해남·무안·장성·나주·함평·흥덕·순천·흥양·보성·광주·임실·담양 등 27개 지역에서 삼례역으로 몰려온 동학군은 무려 11만 5,000명이었다. 제일 많은 인원이 동원된 곳은 영광 8,000명, 원평·무장·태인이 각 7,000명, 고부 6,000명이었다.[361] 이것이 제2차 동학농민군 봉기다.

358) 조예(早隷) 나장(羅將) 일자(日字) 조군(漕軍) 수군(水軍) 봉군(烽軍) 역보(驛保)를 말함.
359) 이광린, 앞의 책, 297쪽.
360) 이기백, 앞의 책, 373쪽.

이 무렵 교주 최시형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의 동학도, 이른바 북접은 종교적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며 전봉준이 지휘하는 전라도 동학도 즉 남접의 무력투쟁에 반대하고 있어 남·북접사이에는 미묘한 균열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남접의 항일 구국투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오지영(吳知泳)과 여러 두령들의 설득과 화해가 받아들여져 대동단결의 기치를 들고 손병희 지휘아래 10만여 명의 북접동학농민군이 청산에 집결했다. 곧 이어 삼례의 남접 동학군과 청산의 북접동학군은 10월 중순 논산에서 합세하기에 이르렀다.[362] '남·북통일 동학농민군'이 새롭게 형성된 것이다. 제1차 봉기가 탐관오리에 대항하는 민권의 투쟁이었다고 한다면 삼례(參禮)의 재봉기는 침략자 일본을 무찔러 민족과 국가를 보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봉준은 '양호창의영수(兩湖倡義領袖)'라는 명의로 충청도 관찰사 박제순(朴齊純)에게 다음과 같은 격문을 보내 재봉기의 뜻을 천명하였다. 동학군재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호소이기도 했다.

"……일본 무리들이 구실을 만들어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 임금님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을 어지럽게 함을 어찌 그대로 참을 수가 있다는 말이요. 옛날 임진란 병화 때에도 능침(陵寢)을 파헤치고 궁궐과 종묘를 불태우고 군친(君親)을 욕보이고 백성을 살육한 것에 대한 모든 신민(臣民)이 분하게 여겨 천년을 가도 잊을 수 없는 한으로 남아 있소. 초야의 필부와 몽매한 어린아이까지도 울분과 근심을 떨굴 수가 없는데 하물며 각하는 세록충훈(世祿忠勳)으로서 평민소부(平民小夫)보다 몇 갑절이 되지 않겠소. 오늘 날의 조정대신들은 망령되고 구차하게 생명을 보전하고자 위로는 군부(君父)를 위협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속여 왜이(倭夷)와 연결하여 삼남의 국민에게 원한을 사며 함부로 친위군을 움직여 선왕(先王)의 적자(赤子)를 해치고자 하니 참으로 그 무슨 뜻이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편단심 죽음을 각오하고 천하의 인신(人臣)으로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쓸어버림으로써 선왕조(先王朝) 500년 동안의 유육(遺育)의 은혜에 보답코자 하니 원컨대 각하께서도 맹성(猛省)하여 의로서 함께 죽음을 각오한다면 천만다행이겠소."[363]

이 글에서 전봉준은 동학군의 재봉기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기에 처한 나라의 안녕을 위해 좌시할 수만은 없어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우국충정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학군 재봉기의 보고를 받은 조정은 신정희(申正熙)를 양호순무사로 임명하여 출동케 하였다. 이노우에(井上馨) 공사의 증원군 요청에 따라 10월 15일(11월 12일)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이 3개 방면으로 나누어 형식상의 관군을 앞세우고 충청도와 전라도로 남진해 왔다.

동학농민군의 수는 비록 20여만 명이었으나 현대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웅치(熊峙)에서 패퇴한 후 다시 논산에서 공주로 직통하는 길목인 우금치(牛金峙)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6, 7일 동안 4, 50회에 걸쳐 벌어진 공방전 끝에 현대무기의 우세한 화력에 참패, 1만여명 중 겨우 500여명만이 살아남은 우금치 전투는 처참하다 못해 비극이었다. 동학농민군은 공주·전주에서 패퇴한 후 일본군과 관군의 철저한 토벌과 수색작전으로 진압되어 갔다. 공주에서 태인으로 패주하던 김개남 두령이 체포되고 충청도에서 관군의 기습을 받은 손병희 부대는 충주에서 자진 해산할

361) 한우근, 앞의 책, 145쪽.
362) 이광린, 앞의 책, 308쪽. ; 한우근, 앞의 책, 145쪽.
363) 오지영, 『동학사(東學史)』, 140, 141쪽, 1940, 영창서관.

수밖에 없었다. 금구·원평으로 후퇴한 전봉준은 정읍 입암산성으로 피신했다가 갈재를 넘어 순창 피노리(避老里)로 들어갔다. 여기서 김덕명(金德明)·최경선(崔慶善) 등 동지들과 재기를 도모하던 중 그해 12월 2일(1894년 12월 30일) 밤 불의의 기습을 받고 체포되었다. 이들은 서울로 압송돼 재판을 받고 고종 32년 3월 29일(양. 1895년 4월 23일) 동지들과 함께 효수형을 당했다. 고종 31년 1월 10일(양.1894년 2월 10일) 고부 민란으로부터 1년 1개월 20일을 끌었던 동학농민전쟁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364]

이 2차 봉기에는 이 모(李 某)라는 지도자가 함평 동학군 1,000여명을 인솔하고 9월 18일(10월 26일) 삼례역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오지영의 『동학사』는 기록하고 있다. 다만 함평 동학농민군을 이끈 지도자가 다음 표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모(李 某)라고만 밝혀져 있을 뿐 실명(實名)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참고로 재봉기에 참여한 지도급 인물과 참여한 사람들의 수효를 전남지방만 간추리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3> 동학군의 재봉기에 참여한 지도급 인물과 병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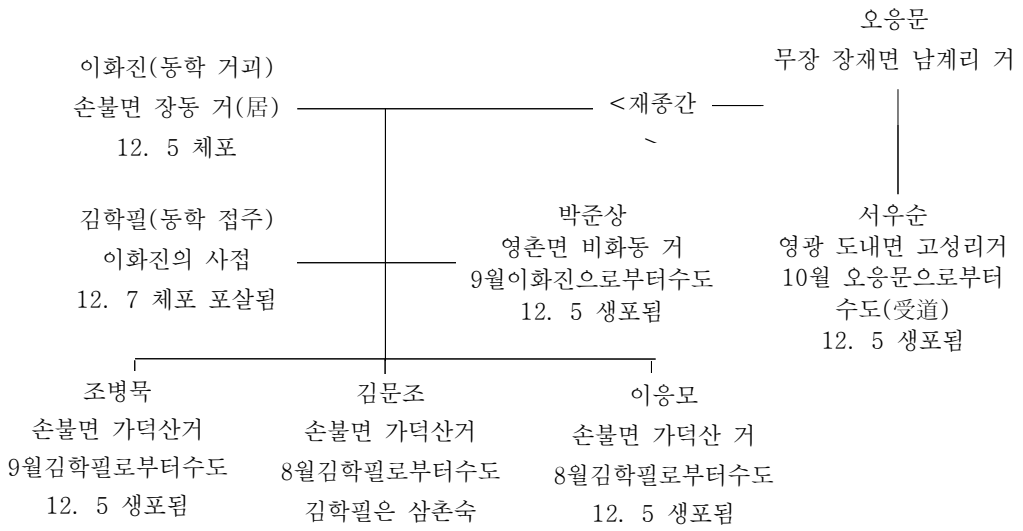
지 명	지 도 인 물	병 력 수	참 고
광 주	박성동(朴成東)	4,000	1차봉기에도 참여
담 양	김중화(金重華)	3,000	〃
영 광	오하영(吳河泳) 오시영(時永)	8,000	〃
함 평	이○○(李○○)	1,000	
장 성	기우선(奇宇善)	1,000	
장 흥	이방언(李邦彦)	5,000	
해 남	김병태(金炳泰)	3,000	
무 안	배규인(裵圭仁)	2,000	1차봉기에도 참여
나 주	오근선(吳勤善)	3,000	
순 천	박락양(朴洛陽)	5,000	
흥양(고흥)	유희도(柳希道)	3,000	
보 성	문장형(文章衡)	3,000	

다만 고종 28년(1891년)부터 동학농민군전쟁 당시까지 격포진관 고군산 수군첨절제사(格浦鎭管古群山 水軍僉節制使) 직(職)에 있던 이태형(李泰亨)이 관군의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일본의 세력이 이 땅에서 커져서는 안 된다는 명분아래 동학에 가담하였고 제2차 봉기 때 함평의 동학군들을 삼례에 집결한 이○○이었는데 수군절제사라는 현 직함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며 나중에 동학도를 색출하여 처단할 때 고창현감을 지낸 이진구의 밀고로 체포되어 나주감영으로 압송돼 곤처형되고, 뒷날 그의 아들 충범(忠範)이 밀고자를 살해하여 아버지의 원혼을 달래기로 결심하고 밀고자의 뒤를 밟다가 살해한 곳이 산업회사(産業會社·현 함평읍 기각리의 사거리) 앞이며 밀고자의 창자를 씹으며 거리를 활보했던 사건이 바로 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365]

364) 한우근, 앞의 책, 194쪽, ; 이광린, 앞의 책, 313쪽.
365) 李泰亨이 수군첨절제사로 부임한 교지 확인<1890년 10월에 발령되어 1891년에 부임 함>.

또 황현(黃炫)은 『오하기문(梧下記聞)』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366]

"고창군수를 지냈던 이진구는 원래 함평아전이었다. 난(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 초기에 함평의 이상삼(李相三)이[367] 적과 내통하였는데 적이 평정되자 민병에 가담하여 스스로 수성장(守城將)이라 하였다. 진구는 민종렬을 사주하여 상삼을 불러오도록 하여 죽여 버렸다. 이도재 전라감사는 진구를 소모관에 임명하였고, 진구가 소모관이 되어 함평에 이르렀을 때 삼삼의 아들 다섯이 갑자기 덤벼들어 그를 죽여 버렸다. 진구는 여러 읍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묵은 감정만을 갚았고, 영광에 들어가서는 20여명을 죽이는 등 그에게 횡액을 당한 사람이 많았으므로 그가 죽자 사람들은 다행으로 여겼다."



함평군의 동학포교실태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가 『전남 동학농민 혁명사』에 실려 있다.[368]

"…… 영광의 동학조직이 이웃 무장, 함평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동학란 기록' 상편 '순무선봉진등록' 갑오년 12월조에 실린 함평 동학 거괴 이화진(李化辰)이 체포될 당시 함께 생포된 6명의 농민군에 대한 문초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에는 조병묵·서우순·김문조·이응모·박준산 등 5인과 초 5일에 생포되었다가 초 9일에 옥사한 김봉규 등에 관한 문초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초 내용을 검토해 보면 갑오년 당시 무장·영광·함평 지방의 동학포교실태를 짐작하게 해주는 흥미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공초 내용에 의거하여 갑오년 당시 함평 일대의 동학 포교실태와 조직도를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동학포교도'에 의거하여 분석해 보면 "함평·무장·영광지방의 포교가 상호 밀접

366) 김종일 번역. 역사비평사. 1994. 85쪽
367) 오하기문에는 이상삼(李象三)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가전(家傳)의 기록에 이태형의 자가 상삼(相三)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삼(相三)으로 정정하여 표기하였다.
368) 이상식 · 박맹수·홍영기 공저. 1996. 6. 30, 전라남도. 146~147쪽

한 관계를 가지면서 전개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포교도는 또한 이들 세 지방의 동학조직이 근간이 되어 농민군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화진이 함평의 대접주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또 참고로 장성유인 변만기(邊萬基·鳳南) 저 『봉남일기』의 함평 관계기록을 옮겨본다.

○1894년 11월 22일

고창의 임천서(林天瑞)가 기병하여 함평으로 갔다고 한다. 저자를 돌아보니 장이 서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이 초저녁별처럼 드물었으며 동학군이 운집하여 온통 살벌한 분위기였다.

흥덕·고창의 동학군 1,000여명이 장동행(張東行)의 인솔아래 나주로 행군하여 갔으며 흥덕의 대접주는 고영숙(高泳淑), 고창의 접주는 홍동관(洪東寬)이라고 한다. ……

○11월 24일

……고부 사람의 말에 따르면 전명숙(全明淑·전봉준의 자)이 여섯 차례의 패배로 동학군이 거의 전멸되어 겨우 자기 몸만 빠져 나왔다고 한다. 나주에 집결한 동학군은 주로 손화중(孫華中) 최경선(崔景善)을 비롯하여 장흥의 이방언(李邦彦), 함평의 이화진(李化辰·손불면 출신), 무안의 배규인(裵圭仁), 담양의 국문보(鞠文甫) 등이 지휘했다. 이들은 호남의 유명 접주들이다. ……

이 일기를 통해 동학군이 패퇴하여 나주성을 포위 했을 때는 함평의 이화진 접주가 여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패퇴한 동학군이 나주성을 포위한 것은 1894년 11월 20일이었다.[369]

제7절 동학군의 좌절과 함평의 피해

조정과 일본군은 동학농민전쟁이 끝나자 동학군을 색출하기 위해 모든 행정 및 수사력을 총동원했다. 심지어 현상금을 걸어 밀고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작통제(作統制)다.[370] 우리 함평은 남평·무안과 묶어 1통이 되었다.

동학교도가 적은 곳은 1군 단위, 많은 곳은 4읍 1통을 만들었으므로 우리 함평은 오지영의 『동학사』에 기재된 동학군의 수는 다른 곳에 비해 많은 곳이 아니지만 동학도가 많은 곳으로 취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월에 접어들어 동학군 지도자들이 속속 체포되어 총살되는 등 피의 선풍이 곳곳에서 불어 닥쳤다. 앞의 『동학사』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동학군으로서 관병, 일병, 수성군, 민포군(民布軍)에게 당한 참살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곳은 호남이 제일 심했고 충청도가 다음이며 그 밖에 경상·강원·경기·황해 등의 여러 도에서도 살해가 많았다. 전후 피해자를 계산하면 3~40만의 다수에 달하였고 동학교도의 재산이라고는 모두 관리의 것이 되고 가옥은 죄다 불속에 들어갔으며 기타 부녀강탈과 능욕은 차마 다 말할 수 없다. …… 특히 함평·영광·나주·강진·장흥·보성·순천 등의 피해가 가장 심했다."

369) 앞의 『함평군사』, 396쪽.

370) 동학군을 색출 처단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한 임시조치로 도내 4읍(邑)을 1단위로 1통을 지어 진압하되 동학도가 적은 곳은 1군 단위, 많은 곳은 4읍 1통을 만들었다.

동학교도 오지영의 기록이어서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처참했던 당시를 짐작케 했다.
일본군이 전라도 각 군의 수령들로부터 동학군 처단사항을 보고받았는데, 다음과 같다.

"해남부근 250명, 강진부근 320명, 장흥부근 320명, 나주부근 230명, 그리고 함평·무안·영암·광주·능주·담양·장성·영광·순창·운봉·무장 등에서는 30~50명씩을 처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보고문과는 다르게 많은 수효가 처단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순무선봉진등록'에서[371] 함평지역의 피해 상황을 가려 뽑으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음력 일자로 배열하였다.

○1894년 12월 5일

함평현감의 첩보에 의하면 동학괴수 이화진(李化辰)을 포살하고 수종 6명을 붙잡아 처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날 이른바 접주라하는 김경오(金京五)·이춘익(李春益)·이재면(李在冕, 在民으로 기록된 곳도 있음)·이곤진(李坤辰)·김성필(金成必)·김인오(金仁五, 二五로 된 곳도 있음)·김성서(金成西, 成四로 된 곳도 있음)·노덕휘(魯德輝, 德八-로 된 곳도 있음) 등 이상 9명을 함평현에서 체포, 총살하였으며 남은 무리들은 행적을 찾아 그 뿌리를 없애게 하였다.

○12월 6일

함평현감의 첩보에 의하면 접주 김치오(金致五)·정원오(鄭元五)·정곤서(鄭坤西)·김경선(金京先. 京舟로 된 곳도 있음)·윤경욱(尹景郁) 이상 5명을 붙잡아 즉시 죽였고 거괴 이화진의 수종인 조병묵(曺丙默)·서우순(徐右順)·김문조(金文祚)·이응모(李應模)·김봉규(金奉圭)·박준상(朴俊尙) 이상 6명을 붙잡아 나주감영으로 이송하여 경중에 따라 처벌케 하였고 나머지는 행적을 찾아 날마다 그 토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2월 7일

함평현감의 보고에 의하면 이두연(李斗連)·김학필(金學必)·이관섭(李關燮)·이창규(李昌圭)·공명오(孔明五) 이상 5명을 체포하여 즉시 함평에서 총살하고 그 연유를 보고했다.

○12월 8일

접주 이재복(李在卜)·김원숙(金元淑)을 함평에서 총살하였고, 거괴 이은중(李殷仲)을 수성군이 체포하여 처분을 기다렸다.

○12월 9일

윤정보(尹正甫)·장경삼(張京三, 신광면 복치출신)·대접주 박춘서(朴春西)·정평오(鄭平五)·김시환(金時煥)·윤찬진(尹贊辰)·김경문(金京文)·박경중(朴京仲) 이상 8명을 함평에서 즉시 죽이고 그 사유를 보고했다.

함평현감의 보고에 의하면 "동학도들이 모두 흩어져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은데 거괴들이 반드시 촌중에 숨을 것 같아 각 면리나 연해안에 엄중하게 명하여 도망한 자들을 모두 체포하게 했다. 유명한 거괴나 접주들은 성명을 바꾼 자나 비록 추종자들이라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수색하고 있다. 동학군이 창궐한 지 9개월이 다 되어 그 거괴나 접주의 성명은 현감이나 이교(吏校)들이 대개 알 터이니 체포자를 급수에 따라 시상하게 하면 빠짐없이 소탕할 것이며 수성군 3,000명도 도시나 시골을 가릴 것 없이 수색하여 놓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371) 『동학란 기록』 상 568~573쪽. 이 기록은 관변 측 기록이어서 동학농민군을 적, 지도자를 괴수 또는 거괴라 하였다.

○12월 10일
정경택(鄭京宅)·서기현(徐基鉉) 체포하여 나주 감영으로 송치.

○12월 15일
함평현감의 보고서에 의하면 본현의 거괴 이은중이 지난 8일에 본현 수성군에게 체포되어 조사하여 초토영에 보고했는데 그 회답에 이은중이 7월에 성을 공격한 사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한 번 더 조사하여 보고서와 이은중을 초토영으로 압송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12월 22일
함평현감의 보고에 의하면 이화진의 수종 조병묵·서유순·김문조·이응모·김봉규·박준상 등 6명의 심문내용으로 보아 모두 이화진과 같이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동학입도 과정, 그리고 활동 상황들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는데 김봉규는 구타당하여 죽었다. <앞항을 볼 것>

○12월 25일 <족보와 황현의 오하기문에 의거 추가 기록함>
이태형(李泰亨) 체포하여 나주 감영으로 송치한 후 처형함

○1895. 2. 17 <최현식·이상식 등 조사 추가 기록>
장옥삼(張玉三)·장공삼(張公三) 함평현에서 체포 포살함

'전라도 각 읍 소착 동도수효 및 소획집물 보록성책(全羅道各邑所捉東徒數爻及所獲什物保錄成冊)'에는[372] 또 다른 체포·처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함평동학도 서우순(徐右順) 등 10명을 1월 19일 경군이 체포하여 우진영으로 압송하여 엄격하게 심문하여 정황을 알게했다.
홍곤삼(洪坤三)등 11명을 같은 날 체포하여 압송 두루 조사했다.
○함평접주 김경오(金京五)·이춘익(李春益)·이재민(李在民) 12월 22일 체포 포살(砲殺)함
○이곤진(李坤辰)·김성일(金成一)·김인오(金仁五)·김성서(金成西)·노덕팔(魯德八)·김치오(金致五)·정원오(鄭元五)·정곤서(鄭坤西)·김경주(金京舟) 초 7일 체포 포살
○김시환(金時煥)·윤찬진(尹贊辰)·김경문(金京文)·박경중(朴京仲) 포살
○거괴 이은중(李殷仲)을 우진영에서 엄격히 문초하여 동정을 알아냄
○동당(同黨) 이재복(李在卜)·김원숙(金元淑) 12일 체포하여 정황을 알고 포살함

이 문서는 앞의 '순무선봉진등록'과 비교해 보면 체포·처형의 날짜가 다르며 홍곤삼·김성일·김성오 등이 추가되었으며 장경삼 등 많은 인명이 누락되어 있고 이재면은 이재민으로 노덕휘는 노덕팔로, 김경선은 김경주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 인물들에 대한 문중확인이 아직 되지 않아 어느 기록이 정확한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훗날 가려지기를 바란다.

● 함평사람으로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여 활약했던 사람 중 지금까지 행적이 밝혀진 사람은 아래와 같다.

◇이화진(李化辰) : 본관 공주. 본명 경진(景鎭). 자 백인(伯仁). 호 두암(斗庵). 재명의 아들로 손

372) 규장각 소장. 1896-7.

불면 죽장리에서 출생했다. 화진은 동학교단의 이름인 것 같다.

함평군의 대접주며 9월 봉기에 참여했다 전봉준의 특명으로 일본군의 해상상륙에 대비하여 함평에 잔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화중·최경선과 같이 11월 22일 나주성을 공격했으며 27일에 광주에 입성했다가 12월 1일 군을 해산하고 고향에 돌아와 활약하다가 12월 5일 관헌에게 체포되어 형사하였다. 아버지 재명도 아들로 인해 죽었다.

◇장헌규(張獻圭) : 1842~1894 본관 흥성(興城). 자 경삼(京三) 또는 경삼(敬三). 호 혜암(惠岩). 중조 영(英)의 18세손. 대만(大萬)의 맏아들. 신광면 계천리 사천에서 태어났으며 성장해서 이웃 괴치마을로 이사하여 살았다. 그는 학문을 닦아 한 때 과거에도 뜻을 두었으나 어지러운 세태에 뜻한 바 있어 아우 옥삼(玉三)의 처조카인 이화진(李化辰)의 권유로 두 아우와 더불어 3형제가 동학농민군에 투신하였고 그는 접주(接主)를 맡았다.

지금 괴치마을 앞 들녘을 "삼정들"이라 하는데 전설로는 이들 3형제가 이곳에서 군사를 조련한 곳이라 한다. "삼정"은 세 사람의 장정(壯丁)이란 뜻일 수도 있으나 "삼장(三張)"의 전음(轉音)에서 온 것 같다.

일본군과 관군의 토벌작전에 대항하여 염산·영광·무안 싸움을 끝내고 부상을 치료하고자 집으로 돌아오던 중 1894년 12월 9일에 체포되어 당일 함평현에서 형사(刑死)했다. 아내는 함평이씨 기유(基有)의 딸이다. 3형제 선각자들의 뜻을 받들고 이 나라 역사발전에 헌신한 정신을 길이 기리기 위하여 경향 각지의 뜻있는 분들과 문중이 힘을 합해 1997년 사천 마을 앞에 공적비를 세웠다<제6편 화보참조>.

◇장동규(張同圭) : 1851~1895 본관 흥성. 자 옥삼(玉三). 호 정의재(貞義齋). 대만(大萬)의 셋째 아들. 헌규의 아우. 동학접주 이화진의 고모부. 신광면 계천리 사천에서 태어났다. 형 경삼, 아우 응규(應圭)와 함께 3형제가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출전 염산·영광·무안 싸움에 참전하였고 일본군과 관군토벌대에 체포되어 1895년 2월 17일 아우 공삼(公三)과 함평현에서 형사하였다. 아내는 공주이씨 학길(學吉)의 딸이다.

◇장응규(張應圭) : 1854~1895 자 공삼(公三) 본관 흥성. 대만(大萬)의 넷 째 아들. 동규의 아우. 신광면 계천리 사천에서 태어났다. 형 경삼(京三, 獻圭)·옥삼(玉三, 同圭)과 더불어 1894년 동학농민군에 참여하여 염산·영광·무안 싸움에 참전하였고 일본군과 관군토벌대에 체포되어 1895년 2월 17일 형 옥삼과 함평현에서 형사했다. 아내는 풍산임씨(任氏) 내현(乃鉉)의 딸, 해주최씨 명규(明珪)의 딸이다.

◇정평오(鄭平五) : 본명 상규. 자 평서(平西). 본관 진주. 호 동의당. 해보면 해보리 지곡 출신이며 일찍이 학문을 닦고 동학에 입교하여 1894년 9월 봉기에 참여하였다가 12월 9일 대동면 서호리 수암 골짜기에서 체포되어 형사했다.

◇임종량 : 호 경암(敬庵. 최시형에게 받음) ; 이화진과 동갑으로 동학농민군이 함평에 진입했을 때 가담하여 장성 황룡전투에도 참여하였다. 9월 재봉기에도 가담하였다가 공주에서 퇴퇴한 후 장성 갈재에서 군이 해산되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영광군 염산면 먹골로 피했으나 추격을 받자 부상당한 몸으로 계룡산 갑사·신원사·용화사 등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고 뒤에 동학교단의 재건에 힘썼는데 이 때 많은 재산을 쾌척하였다.[373]

◇김학필(金學必) : 손불면 출신으로 이화진의 포교로 동학에 가담하였고 1894년 12월 7일 관군에 체포되어 포살되었다.

◇조병묵(曺炳默) : 손불면 궁산리 덕산 출신으로 9월에 김학필로부터 수도(受道)하였고 12월 5일에 체포되었다.

◇김문조(金文祚) : 손불면 궁산리 덕산 출신으로 김학필의 조카. 학필로부터 수도하였고 12월 5일 체포되었다.

◇이응모(李應模) : 손불면 궁산리 덕산 출신으로 김학필로부터 수도하였고 12월 5일에 체포되었다.

◇국문권(鞠文權, 1839~1909) : 자 원흥(元興), 호 화곡(華谷) 현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 삼미천(三尾川) 마을에 살면서 동학에 가담하여 접주가 되었으며 1894년 12월 12일 송진팔(宋辰八) 등 18명과 함께 체포된 후 영광으로 압송되어 밤에 동지들과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가 포살형을 받았는데 어깨 부위에 총상만을 입고 구사일생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삼미천을 떠나 신광면 송사리 군유산으로 숨어들어 살았으며 총상의 후유증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는 효자로 이조(吏曹)에서 장려 포장을 받기도 하였다. 『전라도 소착 소획 동도 성책』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다.

"12월 12일 무장에서 체포된 영광출신 송진팔 등 18명이 영광으로 압송되어 그 활동의 경중에 따라 처형되었다."

◇나주군 접주 나동환(羅東煥)의 부인 정씨(鄭氏)는 현 함평군 대동면 연암리 다라실 친가에 와서 남편과 같이 은신하고 있었는데 함평 수성장이 거느리는 수색대가 들이닥쳐 정씨를 연행하여 남편의 행방을 대라며 심하게 고문을 가했다. 정씨는 끝까지 함구하는 바람에 고문치사 당했다. 마침 남편 나씨는 부재중이었다. 『나주군지』

이 기록은 당시 동학도 색출의 비인도적 행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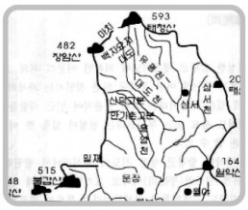
민중의 뜻을 보여준 동학농민전쟁, 외세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활활 타오르던 구국의 불길은 1895년 3월 29일 전봉준·손화중·최경선·성두환·김덕명 등 동학지도자들이 처형됨으로써 꺼지고 말았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비명에 간 전봉준을 기리는 이 노래가 방방곡곡으로 애처롭게 퍼져 나갔다.[374]

373) 역사문제연구소·동학농민항쟁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다시 피는 녹두꽃」 역사비평사. 1994. 152~158쪽.
374) 앞의 『함평군사』, 398쪽.

제8장 항일의병의 전개와 함평인의 활약



제1절 민비시해(閔妃弑害)와 1차 의병 봉기

본래 의병은 외국군의 침략을 받아 관군이 패퇴함으로써 사직이 위태롭게 될 때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벌이는 무장구국운동을 말한다. 고구려와 백제가 패망했을 때 부흥운동을 벌였던 것도 일종의 의병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관리와 백성들이 뭉쳐 항몽(抗蒙) 투쟁을 벌였던 것도 의병활동이었다. 그러나 명실 공히 가장 대표적인 의병활동은 임진왜란 때였다. 부산포에 상륙한 후 승승장구하면서 북상하는 일본군에 관군이 일패도지하고 국왕이 의주로 몽진하는 상황이었을 때 전국 유생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와 사직을 구하고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 왜군에 항전함으로써 나중에 국토를 수복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말기로 들어와 다시 일제의 침략을 받아 국권이 위태롭게 되자 의병활동이 곳곳에서 잇따르게 된다.

동학농민전쟁이 진압된 후 일제검거 령을 피해 지하로 숨어들었던 동학군을 중심으로 을미사변이 발생하자 반일(反日) 의병활동이 벌어지게 된다.[375] 다시 말하면 조선조 말기의 의병봉기는 을미사변의 비보에 단발령이 공포되자 유생과 동학군을 중심으로 한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친일관아와 일본군을 습격함으로써 비롯되었다.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말(韓末) 항일의병 활동은 을미사변 후의 제1차, 을사늑약(乙巳勒約, 일명, 을사보호조약)[376] 후인 제2차, 군대해산령 후인 제3차로 구분된다.[377]

제1차 의병봉기는 을미사변(乙未事變)[378]과 단발령(斷髮令)[379]에 따른 울분이 폭발, 1896년 1월 20일을 전후하여 일어났다. 고종 32년 8월 20일 일본인 낭인들을 앞세운 일본군에 의해 국모인 민비(閔妃)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의 비보에 접한 유생들은 이틀 후인 8월 22일(1895년 10월 10일) 서울에 창의소(倡義所)를 설치하고 고시문(告示文)을 내붙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10월 11일(11월 26일) 충청도 보은에서 문석봉(文錫鳳) 등의 유생들이 왜적토벌의 뜻을 선포했는가 하면 제천에서는 류인석(柳麟錫) 등이 역시 토적(討賊)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을미사변으로 인해 국내민심이 극도로 어수선하던 차에 11월 15일(12월 30일) 또 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으니 이른바 단발령이다. '짐이 발(髮)을 단(斷)하여 신민(臣民)에게 선(先)하노니 이유중(爾有衆)은 짐의 의(意)를 극

375) 李光麟, 『韓國史 講座』, 313쪽, 1981, 일조각.
376) 통상적으로 알려진 '을사보호조약'은 일제(日帝)의 용어다. 이 조약 체결 당시 유림이나 선비들은 '억지로 맺어진 조약'이라는 뜻으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일컬었기에 여기서는 이에 따르기로 했다.
377) 앞의 『함평군사』, 399쪽.
378) 1895년 8월 20일 일본인들에 의하여 민비(閔妃)가 시해된 사건.
379) 1895년 11월 15일(양 12월 31일)에 내려진 단발령.

례(克禮)하여 만국으로 병존하는 대업을 성(成)케 하라'는 고종의 조칙이 내려진 것이다.[380] 성년 남자의 머리 위에 튼 상투를 자르라는 명령이었다. 이유는 활동상 건강상 나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1월 16일 아침 조정 각부의 관료와 군인, 순검 등에 대해 일제히 삭발이 강행되었다. 17일은 양력으로 건원(建元) 원년(1896) 정월 1일로 신년이다. 이날부터 단발령은 전 국민에게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발이나 원성 또한 만만치 않아 유림의 거물인 최익현(崔益鉉)은 '내 목을 자를지 언 정 내 머리는 자르지 못한다'며 펄쩍 뛰었다. 심지어 서울 장안의 물가가 껑충 뛰었다. 농민들이 성내에 들어오다가 머리를 잘릴까봐 들어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생들은 1월과 2월, 전국에서 봉기하였다. 이른바 구한말 최초의 의병인 을미의병이 터진 것이다.

의병들은 친일내각을 받드는 지방 관리들을 처단하고 관군과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또한 전선 등 일본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주둔지를 습격하였다. 이천과 여주의 의병 2,000명, 춘천방면의 3,000명이 남한산성으로 몰려들었다. 강릉·원주·함경도·평안도·황해도에서도 의병이 관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하거나 패퇴하기를 거듭하고 있었다. 전라도·경상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성의 기우만(奇宇萬)은 각처의 의병을 광주로 집결시켜 호남창의군을 편성했고 안동에서는 의병장으로 추대된 권세영(權世淵)이 안동부(安東府)를 점령하기도 했다. 그 후 경상도 각지에서 모여든 의병이 4만을 헤아렸다.[381] 이 때의 의병봉기는 관찰사 3명 살해, 관찰사 피수봉욕(被囚逢辱) 4건, 지방 군수 살해 11건, 참서관(參書官) 살해 2건, 일본인 살해 43건 이었다. 이중에서 김 구(金九·昌洙)가 1896년 3월 9일 대동강 하류 치하포(治下浦)에서 일본육군 중위 도타(土田濃亮)를 살해한 사건은 유명하다.

우리 전남지방은 장성출신 기우만(奇宇萬)·기삼연(奇參衍)·현직관료인 해남군수 정석진(鄭錫振)·담양군수 민종렬(閔鍾烈) 등이 일어나 참서관(현 : 부지사급) 안종수(安鍾洙)를 불법횡포 및 단발령에 앞장선 죄로 처단하였으며 광주와 나주 등 13개 고을에서 일제히 봉기하였다.

이 제1차 의병봉기 당시 우리 함평에서는 집단봉기가 없었고 개인 활동상황에서 보듯이 몇 사람이 다른 지방 사람들과 합세하였을 뿐이다.[382]

제2절 을사늑약(乙巳勒約)과 2차 의병봉기

제2차 의병 봉기는 1905년 11월 18일 새벽 2시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우리의 외교권 내지 내치권이 일본에 넘어간 것에 항거하여 일어났다. 고종 32년(1895년) 을미사변 뒤 토왜(討倭)의 기치아래 의병이 각지에서 봉기 항쟁하다가 1년 만에 해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권이 침탈되자 더 광범하고 격렬하게 봉기하였다. 광무 9년(1905년) 9월 원용팔(元容八)이 을사늑약 체결을 예견하고 두 달 전 사방에 격문을 보내 제천·청풍·횡성·홍천 등지에서 1,000여명을 모아 일어났다. 그는 을미사변 뒤 류인석이 이끄는 호좌의병진(湖左義兵陣)의 중군(中軍)으로 활략했었다. 그

380) 이광린, 앞의 책, 377쪽.
381) 이광린, 앞의 책, 381쪽.
382) 앞의 『함평군사』, 399쪽.

러나 그는 관군에 붙잡혀 옥사하고 그가 이끌던 의병들은 해산하고 말았다. 또한 이규석(李圭錫) 등은 단양에서 봉기했으나 관군의 기습을 받아 해산하게 된다. 이들의 봉기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유생과 농민들이 일어나 관군 또는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 무렵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 가운데 가장 대규모로 활동을 벌이고 또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의병장은 민종식(閔宗植)·최익현·신돌석(申乭石)이었다.

민종식은 민비의 일족으로 을사조약 후 관직을 버리고 충청도 정산군으로 낙향하여 국권회복의 기회를 보아오다가 홍산(鴻山)에서 1,100여명으로 기병하여 충청도 일대 곳곳에서 일본군을 기습하고 전투를 벌여 격퇴하는 등의 맹활약을 했으나 현대무기의 일본군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체포돼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다.[383] 비슷한 시기에 최익현은 각지의 제자와 동문 등 유생들을 태인 무성서원으로 모이게 하여 6월 4일 기병하였다. 나중에 정읍·태인·곡성에서 활동했으나 남원진위대에게 붙잡혀 일본 대마도에 유배됐으나 일본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며 식음을 전폐하는 바람에 아사(餓死)하고 말았다. 광무 11년(1907년) 1월 5일 그의 시신이 초량에 돌아왔을 때 국민들은 대성통곡했다. 한편 경상도 지방에서는 신돌석 등 많은 의병장이 등장해 곳곳에서 맹활약을 벌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때부터 1906년 9월까지 의병활동이 전개된 지역은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의 5도(道) 40여군(郡)에 이르렀으며 1906년 10월부터 1907년 7월까지는 황해도가 추가되어 6도 58개 군이었다.

이 기간의 전남의병은 최익현(崔益鉉)의 부대가 선두로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가 체포되어 대마도(對馬島)로 유배된 후 단식투쟁을 하다가 순국하자 그 뒤를 이어 고광순(高光洵)의 창평 의병, 양회일(梁會一)의 화순 의병, 백낙구(白樂九)의 광양 의병, 이대극(李大克)의 영광 의병이 봉기했다. 이밖에 장성에서 기우만, 임실에서 강재천(姜在天), 남원에서 양한규(梁漢奎)가 봉기했으나 남원진위대 또는 일본군에게 패주해야 했다.[384]

제3절 군대해산에 따른 3차 봉기와 함평

제3차 의병 봉기는 융희(隆熙) 원년(1907년)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 일명 韓日新協約)을[385] 체결한 뒤 7월 31일 한국군을 강제로 해산시키자 이에 격분하여 서울의 시위대 군인을 비롯하

383) 이광린, 앞의 책 504쪽.

384) 이광린, 앞의 책 507쪽.

385) 1907년(융희 1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위한 예비조치로 체결한 7개 항목의 조약을 말한다. 을사늑약 이후 한국에 통감부를 두고 외교권을 빼앗는 등 여러 가지로 내정을 간섭해 오던 일본은 해아 밀사사건(海牙密使事件)을 계기로 한 층 강력한 침략행위에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일본은 우선 밀사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묻고 그를 퇴위시키는 한편 보다 강력한 통감의 권한과 일본인관리 채용 등을 강요하는 내용의 원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완용(李完用) 내각은 즉시 각의를 열고 일본이 제시한 원안을 한 자의 수정도 없이 채택, 그 날로 황제의 제가를 강제로 받아 이완용이 전권위원이 되어 7월 24일 밤 통감사택에서 7개항의 신협약을 조인하였다. 이에 부연하여 각조항의 시행규칙에 관하여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한국군대의 해산, 사법권의 위임, 일본인차관(次官)의 채용, 경찰권의 위임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한국에는 일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현되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화 되었으며 군대해산에 따라 각지에서는 무장 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정미칠조약 전문은 이홍직 저, 국사대사전 하권, 지문각, 1963, 1683쪽 참조.

여 지방의 진위대 병력이 항거하면서 의병운동에 가담하였다. 특히 원주진위대와 강화도분견대의 봉기가 두드러졌다. 더욱이 1, 2차 때와는 달리 조직·전술·장비 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본격적인 의병전투를 전개할 수 있었고 지역도 전국은 물론 만주의 간도(間島), 노령(露領)의 연해주(沿海州)까지 확산되었다.

원주진위대의 봉기는 양력 8월 5일이었다. 대대장 홍유형(洪裕馨)이 정부의 소집명령을 받고 상경한 틈을 타 대대장 대리 김덕제(金德濟)와 특무장교 민긍호(閔肯鎬)가 전 군인을 장악하고 원주시민과 합세하여 봉기하였다. 이들은 군청·경찰분소·우편국을 습격하고 무기고에서 총기와 탄약 등 무력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충주 일본수비대의 공격을 받았으나 물러서지 않고 충주·제천·죽산·장호원·여주·홍천·평창·강능·간성·양양 방면으로 진출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이밖에 강화분견대·진주진위대·홍천분견대·수원진위대도 의병이 되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또 김운노(金雲老)·송창헌(宋昌憲)·임용헌(林容憲) 등은 충청북도에서 봉기하였고 해산된 서울의 시위대는 보은·상주·청주·성주·거창으로 내려와 활동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전 해에 봉기한 신돌석 부대가 일월산을 중심으로 강원도와의 접경지대에서 맹활약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전해에 창평에서 봉기했던 고광순이 지리산에서, 기증연(奇曾衍)이 장성에서, 이석용(李錫庸)이 함평에서, 문태수(文泰洙)가 무주에서 봉기한 후 일본군에 대항해 맹렬히 활동하고 있었다. 또 함경도에서는 이정태(李廷泰)·차도선(車道善), 평안도에서는 박의석(朴義奭) 등이 봉기해 활동하고 있었다.[386] 이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봉기하여 일군에 저항하는 의병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여기서 먼저 말해 둘 것은 이 제3차 의병 활동 기를 통하여 '삼성 삼평(三城三平)'[387]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이 말은 오늘날 인심이 까다로운 곳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으나 사실은 배일(排日)사상이 투철하여 골머리를 앓은 일본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었다. '삼성 삼평' 중의 하나인 우리 함평은 창평·남평과 더불어 의병활동이 수없이 벌어졌었고 의병대장 또한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자랑스러운 곳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가져야 한다.[388]

제3차 의병활동은 곳곳에서 함평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빛나는 항일 의병역사(義兵歷史)를 장식하고 있다.

19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일본 군・경과의 전국 교전회수는 323회에 참전의병은 44만, 116명으로 집계되었다. 항일의병활동에 있어 1·2차 의병활동은 전남출신의 활동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까닭은 철종 조 민중봉기 이후 동학농민전쟁을 통해 많은 인재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차 의병 활동 기에 접어들면서 임진・정유재란 당시 망국의 단계에서 나라를 구했던 호국의 후예로서 반봉건, 반제국주의 혁명운동이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군전쟁에 적극 참여했던 기질을 발휘하여 1908년에는 적과의 교전이 274회(전국의 19.9%), 1909년에는 547회(전국의 31.5%)에 이르렀고 참전 의병수도 17만 579명(전국의 46.6%)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1908년에는 하루 1건에 가까운 의병전이 전남지역에서 이루어졌고 1909년에는 하루 2건에 가까운 접전이 전남지역에서 이루어졌었다. 그 중에서도 함평지역에서의 전투는 다른

386) 이광린, 앞의 책, 509쪽.
387) 삼평은 함평·남평·창평을 말하고 삼성은 보성·장성·곡성을 말한다.
388) 앞의 『함평군사』, 399쪽.

지역에서보다 횟수가 많다. 참고로 1908년부터 1910년까지의 전국 의병 전투상황을 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4> 각도별 의병교전회수와 교전 의병 수[389]

구분 / 년도	교전회수(交戰回數)			교전의병수			교전회수(%)			교전의병수(%)		
도 별	1908	1909	1910	1908	1909	1910	1908	1909	1910	1908	1909	1910
경 기	78	165	31	1,453	3,453	402	4.0	9.5	24.2	1.8	9.0	21.9
충 북	113	66	4	6,815	832	38	5.7	3.8	3.1	8.0	2.2	2.1
충 남	217	138	2	7,666	1,003	6	11.0	7.9	1.6	9.2	2.5	0.3
전 북	219	273	5	9,960	5,576	36	11.1	15.8	3.9	12.0	14.5	2.0
전 남	274	574	1	10,544	17,579	5	13.9	31.5	0.8	12.7	46.6	0.3
경 남	153	61	–	3,328	934	–	7.7	3.6	–	4.0	2.4	–
경 북	158	161	14	5,702	3,667	185	7.9	9.3	11.0	6.9	9.5	10.1
강 원	273	124	20	18,599	2,468	343	13.8	7.2	15.0	22.5	6.4	18.7

구분 / 년도	교전회수(交戰回數)			교전의병수			교전회수(%)			교전의병수(%)		
도 별	1908	1909	1910	1908	1909	1910	1908	1909	1910	1908	1909	1910
황 해	232	111	31	1,998	2,148	478	11.7	6.4	24.2	9.7	5.5	26.1
평 남	108	61	14	1,391	540	115	5.5	3.6	10.9	1.7	1.4	6.3
평 북	41	17	–	2,590	123	–	2.1	0.5	–	3.1	0.3	–
함 남	99	14	6	6,438	270	224	5.0	0.9	4.7	7.8	0.7	12.2
함 북	11	–	–	280	–	–	0.6	–	–	0.3	–	–
합 계	1,976	1,738	128	82,767	38,593	1,832	100	100	100	100	100	100

위 통계를 보면 제3차 의병 전쟁기에 해당되는 1908년의 교전회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으로 273회이고 1909년은 574회로 압도적으로 많다. 의병 수에서도 강원도가 1만 8,599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은 1만, 544명에 이르러 타도의 추종을 불허한다. 더욱이 1909년의 의병 수에서는 전남이 1만 7,579명으로 전국(남북 13개)의병 수 3만 8,593명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
일본 경찰이 3차 의병활동에 관해 기술한 『전남폭도사(全南暴徒史)』는[390] 이 때의 제3차 의병활동을 3기로 나누고 각기의 의병활동 개요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 중 첫 부분만 소개한다.

"본도(本道=전남)에서 봉기한 폭도사실을 적음에 있어 편의상 이를 3기(三期)로 나눈다.

389)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권, 597쪽.
390) 전남에서 발생한 의병소탕에 관한 일본경찰기록으로 일본에서 발견돼 1976년 복사본을 입수함으로써 당시 전남도내 항일의병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이일룡(李一龍)의 번역본 『秘錄 韓末 全南義兵戰鬪史(비록 한말의병전투사)』에 전문이 수록되어 1977년 전인인서관(全日印書館)에서 발간되었다.

☆제1기 : 광무 10년(1906) 1월부터 융희 원년(1907) 12월 까지.

☆제2기 : 융희 2년(1908) 1월부터 12월까지.

☆제3기 : 융희 3년(1909) 1월부터 12월까지.

★제1기의 대표적 거괴(巨魁)는 최익현(崔益鉉)·고광순(高光洵)·기삼연(奇參衍) 등이며 모두 명문벌족(名門閥族) 출신으로 경서(經書)나 사기(史記)에 통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익현 같은 사람은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제2기에 이르러서는 이따금 놀고먹는 무리들이 사욕을 채우고자 의병의 미명(美名)을 빌어 약탈을 하는 자가 있었다. 2기의 대표적 거괴(巨魁)는 김태원(金太元)[391]·김율(金聿) 형제다.

★제2기의 후반기에서 제3기에 걸쳐서는 의병을 빙자한 의적(義賊)이나 화적(火賊)떼가 출몰하여 백성들은 잠시라도 편안한 날을 보낼 수가 없었다. 이 기간의 대표적 거괴는 전해산(全海山)·심남일(沈南一)·안계홍(安桂洪) 세 사람이다.

제2기와 제3기의 의적은 1기와는 달리 그 우두머리들이 보기 드물게 학식이 있고 애국의 지성에서 나온 사람도 있으나 그 대다수는 약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한인(日·韓人)의 구별 없이 도처에서 살인, 방화, 강도, 강간을 자행하여 그 행위는 일반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

『전남폭도사』 내용을 보면 기술한 사람 자신이 의병장들을 폄하(貶下)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의 마음에서 쓴 흔적이 가끔 나타난다. 의병들이 '명문벌족'이라든지, '경서(經書)와 사서(史書)에 해박'하다든지, 보기 드물게 '학덕이 높고 애국의 지성에서 봉기했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지목한 6대 거괴(巨魁) 중에 우리 함평출신이 셋(김태원·김율·심남일)이나 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도 앞서 제3차 항일의병은 함평사람들이 주도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에 수긍이 간다.

제3차 의병의 제2기 의병장 김태원과 김 율은 나산면 수하리 갈마지 마을과 도랑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이름의 한 마을로 형성된 나주군 거평면 갈마지 마을(현 나주시 문평면)에서 출생한 후 부모들에 의해 함평군 나산면(당시 식지면) 수상리 대안촌(大安村)으로 이거, 유년시절을 보내며 성장함으로써 이곳이 본적지로 되어 있다. 김태원의 가족들은 그가 순국한 후 대안촌에서 함평읍 내교리(현 함평읍 내교리 1구 리사무소 자리)로 다시 이주했다. 이 때문에 함평은 그의 유년시절 이후의 생활터전 및 항일의병활동의 주무대가 되었다.[392]

제3기의 대표적 의병장 심남일(沈南一·본명 : 수택·守澤)은 현 월야면 정산리 신기마을(당시는 內山) 태생으로 여기서 나고 자랐다.

391) 『全南暴徒史』 인명색인 란에 수록된 金'太'元은 金'泰'元의 오식이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인용했다.
392) 후손과 주위사람들의 증언에 의함.

제4절 호남 의병전쟁과 남한 대토벌작전[393]

1) 호남지방의 의병전쟁[394]

일본군은 1909년 7월 4일 자국 내각회의에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통합하기로 기본방침을 결정하자 1909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공세를 펴고 나왔다. 이른바 남한 대토벌작전을 벌이고 나왔다.

두말 할 것 없이 한말 의병전쟁을 선도한 지도사상은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이다. 이 사상의 2대 연원이 경기도의 화서 이항로(華西 李恒老·1792-1868)와 전라도의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 ·1798-1876)이다. 1907년 8월 대한제국군이 해산되자 호남지방에서 의병전쟁 봉화를 올린 것이 1907년 9월 장성의 기삼연이 결성한 '호남창의회맹소'다. 그는 기정진의 종질(從姪)이 된다. 따라서 회맹소의 수뇌부 구성은 주로 유생들이었다.[395] 회맹소란 이름 그대로 여러 의병부대의 연합체다. 이미 호남지방에서는 을사늑약 이후 순창에서 거의한 최익현의 의병투쟁이 실패한 뒤에 불이 꺼지고 있었으나 회맹소가 깃발을 올린데 자극을 받아 의병활동이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기삼연 자신은 1908년 정월에 체포되어 처형되었으나 회맹소의 수뇌부들은 각지에서 의병세력을 온존하게 유지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기삼연이 중심이 된 '호남창의회맹소' 수뇌부는 당초 그 중심이 유생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김삼연은 김봉규나 박도정과 같은 평민 의병장을 대담하게 수뇌부에 등용하여 중책을 맡기고 있었다. 그는 1896년 을미의병전쟁 때에도 역시 전라도 장성에서 거의했으나 전주진위대에 체포되었다가 탈출한 바가 있다. 그 후 1907년 9월에 거의했다가 1908년 정월 일군에 붙잡혀 처형된 후 김용구가 도통령(都統領)이 되어 그 부대를 인솔해서 전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도 1908년 4월 일군과의 격전에서 총상을 입게된다. 그 부대를 다시 이어받아 투쟁을 계속한 사람이 박도경이다. 기삼연이 체포된 직후인 1908년 2월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성 사창 부근 ; 약 50-150명의 집단 1개와 40-50명의 집단 두어 개, 의병장 김용구와 김태원
(2) 태인-순창 간 ; 약 50-60명 내지 10-20명 집단이 각처에서 출몰, 의병장 이철형(이진사)
(3) 영광-함평 간 ; 약 50명-60명 내지 20-30명 집단 두어 개, 의병장 김율·조성인
(4) 무장 ; 약 20-30명 집단 1개, 의병장 불명[396]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삼연이 처형된 뒤 그 후계자가 김용구이고 그도 부상을 당하여 백암산에서 은신하게 되지만 기삼연~김용구 인맥의 의병장들이 이 무렵 각처에서 분산 활동하고

393) 제4절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1, 2 ,3차 의병전쟁을 호남중심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는 한편 일제가 한일합병을 앞두고 대대적인 의병토벌작전에 나서는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394) 1909년 친일적인 미국인 스티븐스를 암살한 장인환의사를 보도하던 미국언론들은 한국 의병전쟁을 성전(聖戰, Holy War)이라고 표현했다.
395) 다음 제5절 김태원 참조.
3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국권회복운동), 1999, 497쪽 재인용.

있었다.

기삼연 의병부대 봉기 이후 호남지역에서는 새로운 의병부대들이 여기 저기 속출해 봉기했다. 이들 의병부대 가운데는 기삼연의 연합의진과 직접·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 무렵 일제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김태원·김율 형제를 비롯하여 김용구(金容球)·이석용(李錫庸)·오성술(吳聖述) 등은 독립부대를 이끌고 독자적으로 투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기삼연의 참모 내지는 부장(部將)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들보다 다소 늦게 독립부대를 형성한 박도경(朴道京)·조경환(曺京煥)·김공삼(金公三)·전해산(全海山) 등의 의병장들도 기삼연의 의병봉기에 참가한 인물들이다. 또 1908년 이후 새롭게 출현한 의병부대 가운데 상당수는 이들의 의병진으로부터 재차 분화된 의병부대들이었다.[397]

전라남북도에서 기삼연·이속용 같은 유생들이 의병장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나 1909년 후반기에는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앞 표 24에서 제시된 내용을 다시 간추리면 1908년 후반기에 최고조에 달했던 의병전쟁이 점차 수그러들고 1909년 전반기에 전라남북도가 전국 의병전쟁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의병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1908년 후반기 들어 전국적인 의병전쟁 횟수는 1,97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라남도에서 벌어진 전투횟수는 270건(13.8%)으로 강원도의 272건(13.9%)과 거의 비슷하다.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1, 2위를 차지한다.

또한 1908년 후반기 들어 각 지방에서 일 군경과의 전투에 참가한 전국 의병 수는 8만 2,767명이다. 이 중 강원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1만 8,599명(22.5%)을 차지해 1위이고 전라남도 1만 544명(12.7%), 전라북도 9,960명(12.0%), 황해도 7,998명(9.7%), 충청남도 7,666명(9.0%) 순이다.

그런데 1909년 전반기에 이르면 지방별로 의병전쟁의 양상이 일변하게 되는데 이 무렵 전국적인 전투횟수가 1,738건이다.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31.5%를 차지하는 547건, 전라북도가 15.8%인 273건으로 전남북을 합치면 47.3%를 차지하는 820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전투에 참가한 의병수를 보더라도 전라남도가 45.6%를 차지하는 1만 7,579명, 전라북도가 14.5%인 5,576명, 양자를 합치면 전국적인 의병전쟁 참가의병 수의 60.1%가 되는 2만 3,155명이나 된다. 바꿔 말하면 전반적인 의병전쟁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지만 1909년 전반기의 전국적 전투횟수의 47.3%, 참가 의병수의 60.1%가 전라남북도에 집중해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를 진원지로 하는 의병전쟁은 호남전체로 확산되지만 그 의병전쟁은 바다건너 제주도까지 파급된다.

의병부대의 행동방식은 백주에 공공연하게 해당 중심지에 들어가 정찰하고 기습하는 전형적인 게릴라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투방식은 의병과 민중이 일체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술이었다. 의병과 일본군 간의 전투는 화승총과 38식 소총과의 전투였다. 물론 화승총이 38식 소총을 당해 낼 수 없지만 여기에 대응해서 의병들은 화승총을 개량한 뇌관식(雷管式) 화승총이다. 이것도 38식 소총에 미칠 수는 없었지만 그만큼 의병투쟁은 무기전쟁이었다.

39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국권회복운동), 1999, 497쪽 재인용.

2) 남한 대토벌작전

남한 대토벌작전은 1909년 7월 4일 일본 내각이 한일합병을 기정사실화하는 결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직접 통치할 때 거추장스러운 의병들을 미리 쓸어버리겠다는 의지로 펼쳐진 것이다. 그리고 그 주 대상지역은 의병전쟁이 가망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던 전라남북도였다. 토벌작전이 시작되기 전 전남지방의 의병활동은 일본군 자신들이 파악한 대로 200명 이상의 의병부대만 해도 영광과 무안지방의 전해산 부대(500명), 능주부근에서 출몰하는 심남일 부대(500명), 보성부근에서 활약하는 안규홍 부대(450명), 역시 보성부근의 임창모 부대(300명), 광양부근의 강무경 부대(300명)였다. 100명이상의 의병부대도 황준성(150명), 김경구(130명) 등 6개 부대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일군이 특히 주목하는 부대는 거괴(巨魁)라 호칭하는 심남일·강무경·안규홍(안계홍)·임창모 부대였다.

일제는 자기네들에게 가장 중요한 쌀 주산지인 전라남북도가 '폭도'들에 점거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지역을 소탕하여 자신들의 식량 주 공급지로 확보하려는 의지와 여기의 곡창지대 토지에 투자하여 경제침략을 꾀하려는 것이 첫째 목표였다. 또 하나는 임진란 때 이순신에게 패퇴하여 전라도지방을 얼씬거리지 못했던 일본 역사상의 불명예에 대한 명예회복도 기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의 작전계획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그 외곽에 위치한 전라북도 남부와 경상남도 서부를 포함한 광활한 지역이었다. 기간은 1909년 9월 1일부터 3기로 나눈 40일 간이었다. 제1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2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3기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였다. 그런 작전은 10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이 기간동안 임시파견대 2개 연대와 헌병·경찰을 투입하고 해상에는 수뢰정(水雷艇) 4척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작전은 의병과 민중들의 일체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교반적 방법'을 동원했다.

> 토벌군을 세분하여 한정된 지역 내에서 교반적(攪拌的)인 수색을 하고 전후좌우로 왕복을 반복하여 기병적(奇兵的)인 수단을 써서 폭도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을 엿볼 여유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해상에서도 수뢰정·경비선 및 소수부대로 연안 도서 등으로 도망가는 폭도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포위망을 조밀하게 옥죄어 드디어 그들이 진퇴양난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398]

일제는 10월 1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10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마을 간의 왕복을 차단하고 한 마을 2회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10여회에 걸쳐 수색을 반복하였다.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친 토벌작전으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외곽 일대는 살육·방화·약탈·폭행 등으로 생지옥이 되었다. 구례 출신 황현(黃玹)은 『매천야록(梅泉野錄)』 권 6에서 '의병들은 삼삼오오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강한 자는 앞으로 돌진해서 싸우다가 죽고 약한 자는 달아나다가 칼을 맞고 죽어갔다. 점차 쫓기어서 강진·해남에 이르니 달아날 곳이 없어 죽은 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고 통탄했다.[399]

---

39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국권회복운동), 1999, 504쪽 재인용.

1909년 9월과 10월 일본군의 남한지역에 대한 잔인한 토벌작전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의병들은 대거 만주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갔으며 잔여세력은 황해도, 경상도의 산악지대에 분산되어 항일투쟁을 계속했다. 만주지역으로 옮겨간 의병세력은 애국계몽세력과 제휴하여 근대적 독립군 부대로 재편되어 항일무장투쟁을 계속했다.

2개월에 걸친 작전으로 200명 이상의 의병부대를 거느린 의병장 중에서 전해산을 제외한 심남일·안규홍·임창모·강무경을 비롯한 103명의 의병장과 4,138명의 의병들이 자수·체포·사살되었다. 전해산도 은신 중 12월에 체포되었다. '남한대토벌작전'의 결과 대한제국 합병의 최후 걸림돌이었던 전라남도의 의병활동은 1909년 말까지 사실상 마무리 되고 일제의 경제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토벌작전이 끝나자 일본군을 뒤따라 일본인 지주와 상인들이 곡창지대를 노려서 쇄도하는 모습은 확연했다. 당시 일본은 자기네 자본을 무제한 침투시키기 위해 화폐정리사업을 추진하고 구화폐인 백동화(白銅貨)와 엽전(葉錢)을 회수하고 신화폐를 발행하였다.

이렇게 1909년 10월 30일 '남한대토벌작전'은 끝났으나 소부대에 의한 게릴라투쟁이 소규모로 벌어져 이들을 소탕하는데 소부대를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가 대한제국을 합방하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제5절 함평출신 3대 의병장(義兵將)[400]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부터 2009년까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만 1,766명을 포상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장 30명, 건국훈장 대통령장 93명, 건국훈장 독립장 800명, 건국훈장 애국장 3,557명, 건국훈장 애족장 4,414명, 건국포장 804명, 대통령표창 2068명, 외국인 포상자 45명이다. 함평출신으로서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우국지사는 김태원(金泰元)·김율(金聿)·심남일(沈南一) 등 3대 의병장을 비롯한 의병운동 애국지사와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 등 모두 46명이다. 여기서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공훈록』에 실린 공훈기록 전문(全文)을 싣고 아직 포상을 받지 못한 분은 애국운동을 펼친 내용을 요약해서 실을 것이다. 함평군 출신 애국지사의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국가로부터 애국운동에 대한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표적인 분은 3·1운동 1주년을 기해 1920년 3월 26일 함평장터에서 만세시위운동을 벌였던 주도자 11명을 이끈 주동자 조사현(曺士鉉)과 윤치선(尹致璿)이다. 다른 9명은 올 3월까지 포상을 받았다. 그 후손들은 물론 주변이나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배려로 한 사람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

39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국권회복운동), 1999, 505쪽 재인용
400) 일제경찰이 기록한 『全南暴徒史(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는 '3大 巨魁'로 표현하고 있다.

★ 김태원(金泰元) 의병장

<호 : 죽봉(竹峯), 자 : 준(準), 본관 : 경주 1870. 9. 16~1908. 4. 25>

김태원은 나주군 문평면 갈마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가 함평군 나산면 수상리 대안촌으로 이거하여 여기서 소년기를 보내며 한학을 공부한 후 순능(順陵) 참봉 벼슬을 지냈다. 을미왜란과 단발령이 내리자 김하락(金河洛)·조성학(趙性學)·구연영(具然英)·신용희(申龍熙) 등과 함께 의진을 차리고 이천(利川)·양근(楊根)·지평(砥平)·광주(廣州)·안성(安城)·음죽(陰竹) 등지에서 활약하였으며 1896년 2월 일시 제천의진(提川義鎭)과 합세하여 적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1907년 7월 아우 김율(金聿)과 함께 다시 의병을 일으키고 그 해 9월 장성 출신 김삼연(奇參衍)이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를 편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그 부대의 선봉장(先峰將)을 자처했다.

기삼연은 1851년 장성에서 진사 기봉진(奇鳳鎭)의 4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전통적인 유가(儒家) 가문으로 고종 대에 호조판서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당시 6대 (性理學者) 중 한사람일 정도로 유명한 기정진(奇正鎭)·기산도(奇山度)와 함께 한말 의병전쟁에 참전한 인사를 많이 배출한 집안출신이다. 기삼연은 을미왜란과 단발령이 내려지자 1896년 2월 장성에서 기우만(奇宇萬) 의병장과 함께 거의(擧義)하고 나섰다. 그는 스스로 군무를 담당하여 백마를 타고 다니며 의병을 모집하는 백마장군이었다. 그러나 그가 나주와 장성을 중심으로 의병을 모집하고 있을 때 학부대신 신기선(申箕善)과 이겸제(李謙濟)가 관병(官兵) 500여명을 거느리고 와서 전하는 고종(高宗)의 선유(宣諭)를 받아들여 일단 의병을 해산하되 다시 거의할 것을 기약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일진회원의 밀고로 탄로되어 결국 전주진위대에 체포돼 전주감영에 수감되었다가 서울 평리원(平理院)으로 이감되었다. 그 후 4개월 만에 탈옥에 성공한 기삼연은 가족을 데리고 산중으로 들어가 기회를 보며 은신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던 1907년 9월 장성군 동화면 수연산(隨緣山, 당시 함평군 대화면) 석수암(石水庵)과 삼계면 수옥리 왕녀봉에서 다시 의병을 모아 훈련시킨 후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라 이름하는 의병진을 편성하여 재기하고 나서자 김태원이 선봉장을 맡고 나섰다. 이 때의 의진 명단으로 보더라도 기삼연의 호남창의회맹소는 호남의병의 원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 장 기삼연(奇參衍)
통 령 김용구(金容球)
참 모 김엽중(金燁中)·김봉수(金鳳樹)
종 사 김익중(金翼中)·서석구(徐錫球)·전수용(全垂鏞)·이석용(李錫庸)
선 봉 김 준(金 準=金泰元)
중 군 이철형(李哲衡)
후 군 이남규(李南奎)
운 량 김태수(金泰洙)
총 독 백효인(白孝仁)

감 기　이영화(李英華)
좌 익　김창복(金昌馥)
우 익　허경화(許景和)
포 대　김기순(金基淳)[401]

기삼연 의병대는 격문을 지어 민중의 협력을 촉구하고 적에게 부역하는 자는 처단하고 그 재산을 몰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그 격문 끝에 평민이 일본인 한 사람을 죽이면 100냥을 주고 순검이나 일진회원이 일진회원 한 사람을 죽이면 죄를 면하여 주고 두 사람을 죽이면 100냥을 준다고 포고했다. 그 후 기삼연은 무장·법성포·고창·장성에서 활약하다가 1907년 9월 23일(음) 고창 문수암(文殊庵)으로 진군하던 중 접근해 오는 적과 교전하여 적장을 살해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지만 기삼연 의병진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때 모양(牟陽) 이민(吏民)들이 의병진에 적극 협력하여 기밀을 알려주고 군기·군량까지 제공해 주었다. 이 전투에서 김태원의 공이 컸지만 의병 3, 4명이 전사하는 불운이 겹치기도 했다. 마침 적들이 대거 내습해온다는 정보에 접한 의병들이 일시 흩어지고 탈출해야하는 불리한 사태로 발전했다. 이 때 고을 사람들이 무기를 수습해주고 기밀을 알려주어 다시 모여들어 재기할 수 있었다. 12월 7일 밤 10시 경 100여명의 의병들이 법성포 순사주재소를 기습 공격하여 불태운 다음 적 10여명을 사살하는 한편 일본사람 가옥도 10여 채를 불태우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창고를 털어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빼내어 일부는 군량으로 삼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11월 25일 종사 김익중(金翼中)과 후군 이남규(李南奎, 나산면 수하리 출신)가 전사한데 따른 복수전이었다. 이후 기삼연 의진은 여러 곳에서 공략을 거듭하다가 산세가 험준한 금성(金城)으로 들어가 1908년 새해의 설을 지낼 작정이었다.

그러나 밤에 큰 비가 내려 노숙하는 사졸들의 옷이 젖어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있을 때 수비의 허술함을 틈탄 적이 공격해 왔다. 결국 완전히 포위된 채 4,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간신히 탈출하여 순창 복흥산(福興山)으로 들어갔다. 기삼연은 더 이상 의병부대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보고 부상한 장졸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 설을 지내도록 한 후 보름날에 모이자며 해산했다.

이 때 기삼연이 순창 구수동(九水洞)으로 옮겨 촌가에 잠복한 채 1908년 새해 설상을 받는 순간 갑자기 적군이 들이 닥쳤다. 중과부적으로 결국 붙잡혀 담양을 거쳐 광주로 이송되었다.

마침 김태원 선봉장은 창평에서 일본군 토벌대장 요시다(吉田)를 죽이고 잔병들을 추격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도 부하 강길환(姜吉煥)·조덕관(趙德寬)이 전사하는 등 위급에 몰리고 있었다. 마침 아우 김율(金聿)의 의병진이 협공하여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바로 이 때 기삼연의 체포소식을 들었다. 그는 정병 30명을 별도로 이끌고 기삼연 생환작전에 나섰다, 그러나 기삼연은 이미 경무서(警務署)에 수감된 뒤였다. 일본군은 요시다 이하 다수의 일본군을 살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기삼연을 무참하게 난자한 끝에 설 다음 날인 1908년 1월 2일 광주시 서천교(西川橋) 밑 백사장에서 처형했다.[402]

김태원은 12월 7일 법성포 전투를 마쳤을 때 기삼연으로부터 별도의 의병부대 창설을 권유받고 있

40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국권회복운동), 1999, 426—427쪽 재인용.
40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 1999, 428쪽에서 재인용.

던 참이었다. 이제 정신적 지주였던 기삼연이 순국한 이상 자신의 의병부대 창설을 망설일 수가 없었다. 그는 기삼연 부대의 종사관(從事官)이었던 전해산(全海山 · 후에 독립부대 창설)과 김두식(金斗植)·김연석(金練石)·김경화(金景和)·이주현(李周鉉)·김재원(金在元)·조덕관(趙德寬, 해보면 출신)·이규동(李奎東)·이상인(李象仁)·김상민(金相閔)·정인면(鄭仁勉, 나산면 출신)·임규하(林圭夏)·임종풍(林鍾豊) 등과 함께 독립부대 김태원 의진을 창설하였다. 부대원은 200명에서 400명이었다. 이 때부터 김태원은 스스로 대장이라 칭하였고 군도를 차고 쌍안경을 가지고 다녔다. 동작이 기민하여 신출귀몰하였으므로 일인들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의병들로부터도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았었다.

김태원은 1908년 3월 21일 장성 광곡(廣谷)에서 부하 80여명을 이끌고 잠복활동을 하다가 일군의 토벌대에 포위되어 집중공격을 받고 암굴에 숨어 있다가 밤을 틈타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으나 그 후에도 10여 차례 공격을 받았다. 다시 나주 박산촌(博山村)에 은신하여 부상당한 지병을 치료하고 있던 중 적에게 발각되었지만 악화된 지병 때문에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4월 25일 광산군(현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漁等山)에서 2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집중포격을 받고 순국하였다.

김태원은 일찍이 의병을 일으켜 적병 수백 명을 살상하였으나 '병(兵)은 정예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역설하여 늘상 거느린 부하는 3, 4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정예주의를 지켜 부하들의 훈련을 치밀하게 시켰기 때문에 김태원 부하로서 의진(義鎭)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의 순국 후에도 각기 의병장이 되어 각처에서 의병전쟁을 벌여 혁혁한 공을 세운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김태원의 부하로 나중에 유명한 의병장이 된 사람은 조경환(曺京煥)·전해산(全海山), 그리고 오성술(吳聖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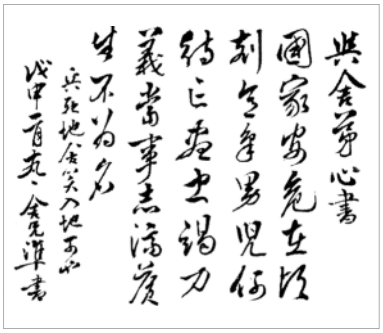
또한 김태원 부하들 중 체포된 후의 재판기록을 보면 김태원의 활약상과 규모와 정신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김태원 장군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게 도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주에서 미곡상을 하던 당시 34세의 조정인(趙正仁)은 정상적 무기를 휴대한 400여명의 정예의병들과 함께 나주·함평·장성 등지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혐의로 체포되어 1908년 6월 교수형을 선고받는다. 그는 대한독립을 위해 당연한 할일을 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또 한 사람의 부하인 18세의 심수근(沈守根)은 조정인의 명령을 받아 나주 가산(佳山)에서 탄환을 제조하는 현장을 경비하다가 1908년 4월에 체포되어 조정인과 함께 교수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도 마찬가지였다. 또 무안군 금동면 옥동(현 함평군 대동면 옥동)에서 살던 윤원거(尹元擧)는 1907년 12월 14·15일 이틀 간 김태원과 그 부하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어 문초를 받았다, 그도 역시 당당하게 할일을 다했다고 말했다.[403]

이밖에 『전남폭도사』 와 각 군 군지(郡誌), 주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라 김태원 부대의 활동상황을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07년 12월(양) : 나주 삼가면(三加面, 현 광산군 삼도면) 유의근(柳宜根) 집에 의병 30여명을 이끌고 가서 그를 붙잡아 북쪽 산에서 처형했다.

△1908년 1월 1일 : 이후 담양·함평·창평·영광 등으로 돌아다니며 종횡무진 하였는데

4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 1999, 429—431쪽 재인용.



김준이 아우 김율에게 보낸 편지

『전남폭도사』에는 '비적이 각 군을 밤낮으로 횡행하기에 관민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천도교인과 일진회원의 조난이 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때의 활동 중 가장 빛나는 것은 음력 1월 1일 창평의 무동촌(舞童村)에서 의병 토벌에 악명이 높던 요시다(吉田勝三郎) 부대장을 살해한 것이다. 이 전황에 대해 그의 추모비, 또는 이미 발간된 각 군 군지에서 발췌해 보면 '키가 장대한 요시다는 김태원의 의병부대를 포위하고 의기양양하게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김태원은 자신과 정포(精砲) 2명을 돌담사이에 매복시켰다. 의병의 동태가 조용해지자 요시다는 망원경으로 근처를 둘러본 다음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왔다. 숨어있던 김태원은 정확히 조준하여 요시다를 명중시켰고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를 칼로 찔러 즉사시켰다. 부대장을 잃은 토벌대 100여 명은 모두 도주했고 의병들은 사기가 충천했으며 요시다의 쌍안경과 권총 그리고 다수의 총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1908년 1월 17일(이후 일자 양력임) : 나산면(당시 평릉면) 김선달(金先達) 집에 잠입하여 한전(韓錢) 1천관(貫)을 가져갔다.

△1월 22일 : 기삼연·김율과 합세하여 함평주재소를 쳤다.

△2월 20일 : 장성 토정리(土亭里)에서 적병 50명을 포살(砲殺)하였다.

△3월 : 나산시장에 쳐들어 온 일군과 정면으로 충돌, 20여명을 사살하고 수십 명을 부상케 했다.

△3월 20일 : 장성 남삼면 월암리(南三面月岩里, 현 황룡면 황룡리 월암)에서 6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5시간동안 싸웠다. 적괴 다나까(田中)와 스에보베(末延)를 부상시켰다.

△1908년 4월 25일 : 함평군 오산면 박동산(烏山面 博山, 현 광산군 임곡면 오산리 박산)에서 요통(腰痛)을 치료하고 있던 중 기병 및 특설순사대로 편성된 토벌대에 의해 포위된 채 교전하다가 오후 4시경 부하 13명과 함께 장렬히 순국하였다.[404] .

『전남폭도사』에 기록된 이 날의 보고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30세 …… 융희 원년(1907) 11월 동생 율(聿)과 기삼연 등이 호응하여 의병을 일으켜 그 세력이 한창일 때는 200명이 넘었다. 나주 부근을 본거지로 하여 함평·장성·영광·담양 등 각 군에 횡행하면서 교묘하게 관헌의 손을 피했는데 융희 2년 2월 우리 토벌대와 장성군 서이면(西二面, 현 황룡면 일부)에서 크게 패한 후 점차 세력이 쇠퇴하였다. 동년 4월 25일 박산동에서 토벌대와 싸워 드디어 전몰했다"

404) 이 같은 갑작스러운 순국으로 그의 개인기록이나 유품을 전해 받지 못했음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선열유묵첩(先烈遺墨帖)」에 김태원의 친필 편지가 소개되어 있다. 그 필력이 웅경할 뿐 아니라 내용이 애국충정에 절절하여 이은상(李殷相)이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국가의 안위가 경각에 있는데 의기남아가 어찌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겠느냐? 진충갈력(盡忠竭力)하는 것이 의에 마땅한 일이요 창생을 건지는데 뜻이 있을 뿐 명예를 위하는데 있지 않다. 병(兵)은 죽을 곳에 웃음을 머금고 들어가는 것이 옳으리라"

이 편지는 동생 김 율(金聿)에게 거의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으로 마음속에서 울어나 보낸 편지다. 대개 '나는 나라를 위해 싸울 테니 너는 내 대신 부모님 잘 모시고 집안 일을 잘 다스리라'는 보통 사람의 심정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너도 일어나라는 우국충정의 내용이었다. 30세 젊은 나이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롭게 순국한 김태원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함평공원에 공적비가 세워지고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으며 광주시 농성동(광주공단 입구)에 동상과 기념비를 건립하였다(화보 참조).

또 담양 남 초등학교 교정에도 동상이 세워져 있다. 어등산(魚登山)에 묻혔던 체혼(体魂)은 1959년 국립묘지 77호에 옮겨져 안장되어 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된 공훈내용[405]

성명: 김태원(金泰元)
생존기간: 1870.9.16~1908.4.25
훈격(년도): 독립장(62)
출생지: 전남 나주

김태원은 1870년 9월 16일 전남 나주군 문평면 갈마리(文平面 渴馬里)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지략(智略)이 웅대하였으며 벼슬은 순릉참봉(順陵參奉)에 그쳤으나 국운이 기울어지매 국사에 부심하였다. 갑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동학(東學)에 척양척왜(斥洋斥倭) 사상이 있다하므로 일시 참여하였으나 민폐가 자심하여 아우 율(聿)과 함께 수원에 피해 살았다. 1907년 9월 성재 기삼연(省齋 奇參衍)이 장성(長城)에서 거의하였다는 말을 듣고 일가인 전 참봉 김 돈(金 燉)과 의논하여 군사를 이끌고 합세하여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의 선봉장이 되었다. 9월 9일에는 고창(高敞)의 일군을 무찔렀으며, 의진의 전세를 확장할 목적으로 김 준은 성재와 영역을 달리하여 활약할 것을 결의하였다. 1907년 10월 4일에는 몽암 신덕순(夢庵 申德淳)과 정읍 내장사(內藏寺)에서 만나서 창의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서로 합세하기로 하고 덕순은 도독이 되고, 태원은 선봉이 되고, 아우 박사(博士) 율은 호군(護軍)이 되었다. 이 때 의사가 이미 수백 명이 되었으므로 광주 영(營)을 무찌르고 목포(木浦)를 깨뜨릴 계획으로 광주로 격문을 띄웠다. 그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순창(淳昌) 회문산(回文山)으로 들어가 무기를 감추어 두었

405) 『독립유공자공훈록』은 국가보훈처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서훈한 1만 1,399명(외국인 45명 포함)의 공훈내용을 총 16권에 수록하여 발간한 책임. 다만 2006년↔2008년에 서훈된 사람은 제17권에 수록, 2009년에 발간할 예정이고 앞으로 추가로 서훈된 사람 공훈내용도 계속 발간될 예정이다.

던 곳을 찾아갔으나 이미 적에게 빼앗긴 뒤 였다. 다시 회문산으로 회군하였는데 적군의 내침을 당하였다. 밤길 1백여 리나 걸어온 군사들이 모두 휴식하고 있을 때이었다. 이 전투에서 신덕순은 체포되어 정읍으로 압송되고, 의진은 일시 무너졌다. 12월 김 준은 나주·함평·장성·무안 등지를 신출귀몰하듯 휩쓸어 함평주재소를 습격하여 일인 순사를 사살하고, 수차례 토벌대와 접전하고 이어서 그 지휘가 천단조장(川端曹長)과 부하를 사살하는 등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지만, 김 준 의진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즈음 체포당한 부하들의 재판기록을 보면 그의 활약상과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나주에서 미곡상을 하던 당시 34세의 조정인(趙正仁)은 수백 명과 함께 4백여 정의 총기를 휴대하고 나주·함평·장성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한 혐의로 1908년 6월 체포되어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18세의 심수근(沈守根)은 조정인의 명을 받아 나주 가산(佳山)에서 탄환제조하는 것을 경비하다가 4월에 체포되어 조정인과 함께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윤원거(尹元擧)는 무안군 금동면 옥동(金洞面 玉洞)에서 살던 사람으로 12월 14~15일경(양) 김 준과 그의 부하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때 이응문(李應文)으로부터 돈 23관을 기탁 받았다. 물론 이 돈은 김 준의 거사 자금의 일부이었다. 그 이후 성재와 합진하여 영광에 있는 적의 소굴을 소탕하고자 하여 먼저 법성포(法聖浦)에 불을 질러 공격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이것은 11월 25일 참모장 김익중(金翼中)과 이남규(李南圭)가 전사한 것에 대한 보복전이었다. 다시 김 준은 광주·나주로 옮기고 성재는 장성으로 돌아갔다. 이때 율의 진은 사호(沙湖)에 있었는데 율이 본래 성재의 문인으로서 박사(博士)라 칭해졌으므로 그의 진을 박사진이라 일컬었다. 때마침 율의 진이 적의 공격을 받아 흩어졌으므로 선봉장 조경환(曺京煥)·도포장 최동학(崔東鶴)과 상의하여 의진을 동복·창평 등지로 옮겼다. 김 율 역시 군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따랐다. 창평의 지곡(芝谷)에 도착하여 하루를 머물고 무동촌(舞童村)으로 진군한 것이 1908년 1월 1일(음)이었다. 이 날은 순창(淳昌) 구수동(九水洞)에서 은신하고 있던 성재 기삼연이 체포된 날이다. 한편 김 준은 적장 길전 승삼랑(吉田勝三郎)이 이끄는 기마병에 쫓기게 되었다. 길전은 10척 장신으로 용력이 뛰어났으나 접전 끝에 김 준에 의해 사살되었다. 그러나 김 준의 부하 강길환(姜吉煥)·조덕관(趙德寬)이 전사하여 형세가 심히 위급하였으나, 김 율의 군사가 협공하여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 전투에 이운선(李雲善)이 참여하였는데 김 준이 전사할 때까지 함께 활약하다가 다시 조경환의 부하가 되었으며, 1909년에 체포되어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민영(李敏英) 역시 김 준의 부하로서 5년형을 받았다. 그 후 김 준의 의진은 장성 월평(月坪)에 머물렀다. 이 때 성재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상복을 입고 토천(土泉) 뒷산에 돌로 성을 쌓아 적병을 유인하여 적장 철도삼전(鐵道三田)을 사살하였다. 그날 밤으로 영광 땅으로 향하였는데 낭월산(郎月山)에서 적을 만나 도포장 최동학이 죽고 이어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그의 정신적 지주였던 성재 사후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전세를 화려하게 펼쳤다. 세력 확대를 위하여 이대극(李大克)과 결탁하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스스로 대장으로 칭하였고 군도를 차고 쌍안경을 가지고 다녔는데 동작이 기민하여 신출귀몰하였으므로 당시 일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의 전공은 동료 의병들 간에도 크게 평가되고 있었다. 3월 21일(양) 장성군 광곡(廣谷)에서 부하 약 80명을 이끌고 잠복 활동하다가 토벌대의 포위 공격을 받고 암굴에 은거하였다가 밤을 타서 탈출하였으며, 그

후 10여하 적의 공격을 받았다. 다시 나주 박산촌(博山村)에서 지병을 치료하다가 적에게 발각되었으나 그의 지병이 악화되어 대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4월 25일(양) 부하 20여 명과 함께 적에 의해 어등산(魚等山)에서 사·순국하고 말았다. 일찍이 그와 함께 의거를 일으킨 동지이며 아우인 율 역시 3월 30일 체포되어 김 준 사후에 처형당하였다. 그의 처는 아들 하나를 기르다가 고종의 상을 당하자 아들을 문중에 맡기고 그날 밤 자결하였다. 그는 일찍이 의병을 일으켜 적병 수백을 살상하였으나, 병(兵)은 정예(精銳)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역설하여 늘상 거느린 부하는 삼·사십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의병에 있어서 정예주의를 지켜 부하 훈련에 치밀하였기 때문에 그의 부하이었던 사람들이 그의 사후 각기 의병장이 되어 각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의 부하로써 유명한 의병장이 된 인물은 조경환과 오성술(吳聖述)·전해산(全海山)을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제10권 404쪽).[406]

★ 김 율(金聿) 의병장 (1881~1908. 4. 25)

일찍이 기삼연의 문하에서 많은 한서(漢書)를 탐독하여 문필이 뛰어나고 지식이 풍부해 박사라 칭해졌으므로 나중에 김율 의진을 박사 의진이라고도 불렀다. 김 율은 친형인 김태원(金泰元)의 우국충정어린 권고에 의해 창의(倡義)하였다. 처음에는 스승인 기삼연(奇參衍) 호남창의회맹(湖南倡義會盟, 일명 기삼연 부대)의 한 군사(軍士)에 불과했으나 후에 기삼연의 '호남창의회맹' 대장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407]

『전남폭도사』의 기록에도 김 율이 거괴로 수록되어 있고 그를 처단한 보고문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다.

"…… 연령 27세, 한서를 읽고 문필에 능하다. 스스로 박사라 칭하고 성품이 완미(碩迷)하고 항상 배일사상(排日思想)을 품고 한국의 대관(大官)이 일본에 아부하여 3,000년 예의의 고국(古國)을 판다고 개탄, 융희 원년(1907) 11월 거괴 기삼연 및 형 김태원 등과 호응하여 도당을 모아 그 세력이 한창일 때는 200여명에 이르렀다. 1908. 3월 함평군 죽산(竹山, 현 월야면 월야리 대매)에서 토벌대와 싸워 크게 패해 세력이 약화되었고 드디어 광주군 소지면(光州郡 所旨面, 현 광산군 송정읍)에서 생포되었는데 4월 25일 도주를 꾀하다 총살되었다."

그의 의병활동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908년 1월 3일 : 부하 100명을 이끌고 함평 주재소를 습격, 순사 2명, 우편 취급소장 및 재류민 2명과 교전 그들을 학교면까지 쫓아냈으며 소지품을 모두 노획하고 응원부대가 도착하자 나산으로 피해 다시 격전을 벌이다가 잠적하였다.

『전남폭도사』에 '1월 상순에서 중순까지 함평·영광에 집단이 배회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김 율 부대를 지칭하는 듯하다.

406)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0권 404쪽. ; 이하 독립유공자로 인증되어 『독립유공자공훈록』에 서술되어 있는 독립유공자들은 이 공훈록 원문을 그대로 전재했다.
407) 『나주군지』, 150쪽, 1980년.

△1월 22일 : 김율·기삼연·김태원의 연합부대 400여명이 재차 함평주재소를 습격하고 절골(현 함평읍 대사동)로 잠적했다. 이날 그들은 순사 3명, 헌병 1명 등 다수의 적과 교전했는데 하다노(波多野) 순사를 살해했으며 목포분견대장 등이 지원오기까지 8시간이나 싸웠다.

△1908년 1월 상순 : 배일격문을 돌리고 일본인 관민(官民)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다. 이후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공을 세웠으나 월야면 월야리 전투에서 패해 쇠퇴했다.

△3월 29일 : 오후 1시 이마무라(今村), 이마구(尹熊) 두 중위가 이끄는 토벌대와 광주군 소지면 정동(所旨面 鼎洞, 현 송정읍)에서 1시간 동안 교전하다가 소지면 신기리(新基里)에서 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4월 25일 : 임곡면 박산에서 일본군에게 사살된 형 김태원의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 끌려가던 중 탈출을 기도하다가 총살되었다.

※ 김 율 의병장은 형인 김태원 의병장의 그늘에 가려 지금껏 그의 공적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형의 공적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는 탁월한 의병장이었음이 밝혀졌다.

☆『독립유공자공훈록』에 수록된 공훈내용.

성명: 김 율(金聿)
생존기간: 1908;27세~1908. 4.25
훈격(년도): 독립장(95)
출생지: 전남 나주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나주에서 형인 김태원(金泰元 ; 金準)과 더불어 거의한 뒤 기삼연(奇參衍) 의진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이후 분진(分陣)하여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륵약(乙巳勒約)」으로 일제에 의해 자주적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듬해 1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국왕의 통치권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국망의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한 언론 활동, 종교와 그 단체를 통한 종교 활동, 각종 학회와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활동, 국어와 국사 연구를 통한 학술 활동 등 각 방면의 국민계몽운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같은 시기인 1906년 10월 5일 김 률은 형인 김태원과 함께 나주에서 봉기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기삼연의 문하생으로, 1907년 9월 기삼연을 중심으로 김용구(金容球)·김태원·이석용(李錫庸)·전해산(全海山)·심남일(沈南一) 등이 연합하여 결성한 호남창의맹소(湖南倡義盟所)에 가담하여 주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김태원과 함께 무장(茂長)·법성포(法聖浦)·고창(高敞)·장성(長城) 등지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여 큰 전과를 올렸다. 특히 1907년 10월 29일에는 고창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고, 같은 해 12월 7일에는 법성포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여 무기를 노획하여 무장을 강화하고, 그곳 사창(社倉)을 점령하여 저장되어 있던 양곡을 압수하여 군량미로 충당하였다. 그리고 그는 1908년 1월 3일 1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함평(咸平) 순사주재소를 공격 점령하여 무기와 금품을 노획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1월 22일에도 그는 기삼연 의병장과 합동하여 4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재차 함평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인 파다야(波多野) 순사를 사살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2월 2일 기삼연 의병장이 피체되어 순국한 뒤, 그는 김태원과 함께 기삼연 의진의 주력부대를 지휘하며 광주 일원 곳곳에서 일본군을 유격전술로 공격하여 전과를 올렸는데, 특히 창평(昌平)에서 길전승삼랑(吉田勝三郎)의 기병대를 공격하여 이를 대파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같은 해 3월 30일 그는 광산(光山)군 송정읍(松汀邑)에서 피체되어 4월 25일 전사한 형 김태원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가는 도중 탈출을 기도하다가 일제에 의해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제12권 513쪽).

★ 심남일 (沈南一, 또는 沈守澤) 의병장 (호 : 南一; 본명: 심수택,

본관 : 청송, 1871~1910. 9. 1)

1908년 초반기의 의병사(義兵史)를 이 고장 출신 김태원과 김 율 형제가 이끌었다면 1908년 후반기와 1909년 중반기까지는 심남일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월야면 정산리 태생인 심남일은 일찍이 학문을 닦아 사서삼경(四書三經)에 능통하였으며 향리에서 향교장의(鄕校掌儀)와 도의사(道議事)를 역임했고 서당훈장도 지낸 바 있는 향반(鄕班)이었다. 러일전쟁 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통분을 금하지 못한 심남일은 1907년 11월 1일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 덕동(元山里 德洞, 갓점·笠店)에서 거의(擧義)할 것을 결심하고 우선 의병장 김태원의 아우 김율 의진의 부장이 되어 의병을 모집한 다음 이듬해 2월 13일 남평으로 행군하면서 적과의 접전을 감행하면서 본격적인 위병투쟁을 벌였다. 그 후 장성·함평·영광·남원·보성·영암·장흥 등지에서 6, 700명의 의병을 모아 적과의 교전을 벌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김율이 순국하자 심남일은 스스로 장군이 되어 군율을 엄격히 하고 진용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의진을 편성하고 각 군의 수령과 향교에 통문을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본래 의병은 일찍이 박은식(朴殷植)이 말한대로 민군(民軍)으로서 농촌마을 주민들의 자기방어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촌락은 전통적으로 향약(鄕約)·향규(鄕規)·동계(洞契) 또는 촌계(村契)로 결속된 공동체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자치단체로 존속하여 왔다. 민군은 마로 이러한 촌락공동체를 바탕으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향촌단위의 최저 단위는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그 군사행정은 '십호일병(十戶一兵)'의 원칙에 따라 선발되는 것이 상례였다. 이 '십호일병'의 원칙에 따라 소집된 민병들은 다시 '십병일초(十兵一哨)'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었으니 그 장을 '초십장(哨十長)'이라 하였다.[408] 이 같이 의병의 기본 편성단위는 전통적인 십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 상부조직은 전해산(全海山)의 진중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졸병(卒兵)→일십장(一什長)→도십장(都什長)→도포(都袍)→선봉(先鋒)→대장(大將)의 수직관계로 형성되어 있었다. 유명한 호남의병장 심남일 의진의 경우도 포졸·기사·보병·서사(庶事)를 10명으로 편성하고 통장

40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 1999, 468쪽 재인용.

(統長)이 이를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엄격한 군율을 정하여 의병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의 「고시군중문(告示軍中文)」에 9개항의 군율을 정해놓고 이를 어긴 자는 란군(亂軍)이요, 적군(賊軍)이요, 도군(盜軍)이라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심남일 의진의 군율은 매우 엄격했었다.

(1) 의병이란 명칭을 한 이상 군사가 지나가는 곳에서 만약 무뢰한 행위가 있거나 혹은 몽둥이로 촌백성을 두들기거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바로 란군(亂軍)이니 죄의 경종에 따라 처단한다.
(2) 지나가는 부락에서 만약 재물이나 곡식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적군(賊軍)이니 참형에 처한다.
(3) 혹시 부녀자들을 겁탈하거나 또는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있으면 도군(盜軍)이니 용서 없이 처단한다.
(4) 혹시 소나 말을 약탈하거나 닭과 개를 함부로 죽이는 일이 있으면 도군이니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5) 의병소의 장령이라 칭하고 가인(假印)을 찍어서 민간에 토색질하는 일이 있으면 이는 폭군(暴軍)이니 동중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잡아 올리면 의병소로부터 처참한다.
(6) 읍이나 부중(府中)을 지나갈 때 혹시 창고 자물쇠를 임의로 부수거나 관가의 물건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나라에서 떳떳한 형벌이 있도록 관가에 보고하여 처벌받게 한다.
(7) 각처의 전답곡물을 보호하여 한길로 조심해 다닐 것이며 만약 함부로 밟아 넘기면 죄를 준다.
(8) 복병했을 때 포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방포(放砲)하여야 하며 만약 머뭇거리기만 하고 발포하지 않으면 죄를 받는다.
(9) 호군장이 징을 치면 일제히 모여 함께 밥을 먹어야 하며 앞당겨 오는 자도 뒤에 떨어져 오는 자도 죄에 해당된다.[409]

다음은 심남일 의진의 부대편성표다.

심남일 의병부대 편성표

◇의병대장 : 심수택(沈守澤 또는 沈南一)
◇선봉장(先峰將) : 강무경(姜務景, 무장)·임만선(林萬先)·장인보(張仁甫)
◇중군장(中軍將) : 안찬재(安贊在),·박사화(朴士化, 영암, 후에 독립부대를 만듬)
◇후군장(後軍將) : 노병우(盧炳友)·나성화(羅聖化)·최우평(崔友平)·김성재(金聖載)
◇도총장(都總將) : 김도숙(金道淑)
◇통　장(統　將) : 유치선(柳致先)·공진숙(孔盡淑)
◇군량장(軍糧將) : 이세창(李世昌, 장흥)

40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3, 1999, 469쪽 재인용.

◇호군장(犒軍將) : 강달주(姜達周, 나주)·정관오(鄭官午, 나주)
◇기군장(起軍將) : 장문연(張文然)·이덕삼(李德三)·김치홍(金致弘, 영암)
◇서기겸 모사(謀事) : 염원숙(廉元淑)
◇도 포(都 砲) : 장경선(張京先)·김판옥(金判玉)·선도명(宣道明)
◇도집사(都執事) : 최유승(崔有承)
◇모 사(謀 事) : 권 택(權 澤·나주)·정영태(鄭榮兌)

위의 심남일 의병부대 진용을 보면 기삼연 부대가 장성사람들을 주축으로 편성한 것과는 달리 전라도 각 지역사람을 망라한 광범위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인 의병진을 구축한 심남일 의병장은 격고문(檄告文), 토왜(土倭)에게 타이름, 각 고을 향교에 통고함, 각처 보조원에게 경고함, 각고을 면장·영원(領員)에게 고시(告示)함, 군중(軍中)에게 고시함, 왜적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무리들에게 경유(警喩)함 등 많은 경고문과 격문을 각기 해당되는 곳곳에 띠웠다.[410] 다시 말하면 심남일 의병장은 격문을 돌려 의병을 규합하고 우리 국민으로써 도리를 다할 것을 격려하는 한편 왜적과 일진회원들에게는 엄중한 경유문을 보내 이적행위를 하지말 것을 경고했었다.

다음은『진지록』에 실려있는「격고문」 내용이다. 이「격고문」만을 보아도 그가 왜 의병을 일으켰고 그의 자세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우리내의 관리 및 모든 백성들은 내말을 분명히 들으라. 무릇 신하란 임금의 팔다리요.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신하와 백성이 임금이 없으면 누구를 추대하며 임금이 신하와 백성이 아니면 누구를 부릴 것이랴. 아, 왜놈이 우리 나라에 미친 화는 옛날 임진년에는 단지 우리 백성에게만 미쳤지만 오늘날의 화는 우리 땅덩어리마져 삼키고 우리 국모를 시해하고 우리 재정을 빼앗고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앉아서 대궐만 지키게 하여 마치 후한(後漢) 말기에 헌제(獻帝)가 허창(許昌)에 있는 것과 같이 되었다.

저 소위 총독(總督)이란 것이 무슨 위치며 고문(顧問)이란 것이 무슨 벼슬이냐. 그런데 조정의 직계나 정치의 법령이 모두 그놈들의 손아귀에 들었으니 이러고도 과연 나라와 임금이 있다 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침에 자연 눈물이 뜨겁고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생이 허공에 턱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닐진데 어떻게 살아나갈 길이 없으니 우리 팔도 사람들은 다같이 풍파를 만난 배를 탄 신세인즉 고래떼 같이 악독한 왜놈에게 잡혀먹기 전에 서로 분발한다면 우리 강토를 회복하고 우리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 터가 오늘에 잡힐지 모르지 않는가.

수택(守澤)은 초야에 미천한 몸으로 군사에 관한 일을 배우지 못했는데 동지들의 추대를 입어 외람되이 맹주(盟主)가 되었다. 그래서 한 밤중에 저 유곤(劉琨)처럼 닭소리를 듣고 일어났고 큰 강 가운데서 조적(祖逖)같이 돛대를 치며 맹서코 이 나라를 깨끗이 밝히기로 했다. 엎드려 바라건데 조정의 벼슬아치나 산림의 숨은 인재들은 수택더러 그 자격이 아니라 이르지만 마

410) 이러한 내용들은 그가 뒷날 체포되어 수감 중일 때 틈틈이 집필하여 같은 청송심씨(靑松沈氏)인 당시 형무관 심모(沈某)를 통해 그의 아들 상국(相國)을 거쳐 손자 심명재(沈銘裁)에게 전해진 『진지록(盡知錄)』에 남아있다(손자 심명재의 증언). 이『진지록』내용을 보면 당시의 의병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들어있어『의병항쟁사 자료집-한국독립운동사』2권에도 수록되어 있다.

시고 각자 의분심을 일으켜 함께 큰 일을 치뤄 나간다면 천하 만국이 또한 반드시 바람소리 듣고 호응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의기를 결행한 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시(詩)로 남겼다.

“초야의 서생이 갑옷을 떨쳐입고	林下書生振鐵衣
바람타고 남도하니 말도 빨리 달리도다	乘風南渡馬如飛
왜놈들을 모두다 쓸어 버리지 못하면	蛮夷若末掃平盡
모래밭에 죽어서 돌아오지 않으리“	一死沙場誓不歸

심남일 본인이 옥중에서 쓴 『진지록(盡知錄)』의 ‘접전일기(接戰日記)’와 일본경찰이 작성한 『전남폭도사』를 대조해 보면 양, 음력 차이가 있고 공교롭게도 ‘접전일기’에 수록된 13회의 기록 중 2회의 접전만 내용이 동일하다. 그 외는 서로가 기록하지 않은 전투내용이다.

이러한 점에서 내용이 같은 접전만 『진지록』의 접전일기에서 서로 비교하고 양편의 기록을 소개한다. 먼저 『진지록』의 ‘접전일기(음력)’를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08년 3월 7일 : 남평으로부터 행군하여 강진 오치동(五治洞)에 당도했다. 군문을 굳게 잠그고 군사들과 더불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왜병 수백 명이 싸움을 걸어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싸워 적 수십 명을 목 베고 무기를 빼앗았다.

△1908년 4월 15일 : 장흥 관동(官洞)에 유진하고 있는데 이를 염탐한 일본 병정 7명이 습격해 왔다. 이에 앞서 우리는 곽암(藿岩)에 매복해 두어 기습하는 적을 포 1발로 박살냈다. 3명이 땅에 넘어지고 다른 놈들은 도주했다.

△6월 19일 : 남평 죽곡(竹谷)에 유진하고 장담원 주점 10여 호를 연댄 담장아래 매복한 다음 보발군을 시켜 곧 병참소에 알리게 하였다. 저물녘에 적 60여명이 떼 지어오므로 우리 군사가 한꺼번에 발포하여 5명의 왜적을 죽이고 철천(鐵川)으로 퇴진했다.

△6월 25일 : 능주 노구두(老狗頭) 접전. 남평 판촌(坂村)에 군사를 주둔하고 있으면서 노구두 지형을 잘 아는 노병우(盧炳友)에게 정병 90명을 주어 ‘적 6~7명이 방금 지나갔으니 그들을 추격 성공하고 돌아오라’했다. 그는 즉시 행군하여 적과 교전하여 잠깐 사이에 5명을 사살하고 말 2필과 무기 등을 빼앗아 돌아 왔다.

△7월 그믐날 : 영암 사촌(沙村) 전투. 모사 권 택의 점괘에 따라 좌우로 돌담이 있는 사촌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있는데 왜장 금평산(琴平山)의 기병 20여명이 쏜살같이 달려왔다. 일부러 후군이 포를 터뜨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니 적이 포 소리를 듣고 우리를 추격해 왔다. 이에 복병이 일제히 포를 쏘아 금평산과 그 기병 10명을 죽이고 행장과 무기를 노획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의 접전이었고 우리는 당산촌(堂山村)으로 와 유진하였다.

△8월 1일 : 나주 반치(盤峙) 접전. 새벽에 생각하니 금평산(琴平山)의 시체를 운반해 가기 위해서 많은 적이 와 반치에 진을 칠 듯 했다. 좁은 길목에 우리 군사가 매복해 있는데 생각대로 40여명의 적이 영암으로부터 오고 있었다. 곧 이어 싸움이 벌어지고 20여명의 적을 사살했으나 우리 장수 조기보(趙奇普)가 순절했다.

△9월 20일 : 대치(大峙)에서 유진하고 있는데 정탐꾼이 와서 '순사부대 30여명이 신풍에 묵고 있다'고 하였다. 선봉 강현수(姜鉉秀)를 불러 100여명을 거느리고 기습하게 하였다. 이에 작전을 전개하여 왜적 20여명을 살상하였다.

그러나 장흥 신풍(新豊) 접전에 대해 『전남폭도사』 의 9월 26일(양력)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오후 9시 김 경시(金 警視)가 인솔하는 18명의 순사대가 장흥군 유지면 신보(柳枝面 新洑, 현 유치면 신풍)에서 적 100명과 충돌, 5명을 죽이고 교란시켰는데 아군도 순사 1명이 즉사하고 4명이 부상했다."

이 두 기록의 전과(戰果)의 차이는 서로가 과장하고 숨기는 데서 다르다고 본다. 양쪽 모두 피해가 컸던 것 같다.

접전 일자의 '9월 20일'이라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접전날짜는 옥중에서 기억하여 썼기 때문에 꼭 맞는다고 할 수 없다.[411]

△10월 9일 :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해남성 밖 10리 지점에 유진했다. 낮에는 위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밤 10시경에 포를 쏘며 성안으로 들어가 적 100여명을 살상했다. 그들의 헌병 분대였다. 새벽이 되기 전에 대둔사(大芚寺)로 퇴진했다.

△10월 27일 : 능주 돌정(石亭) 접전. 나와 선봉 강무경은 병이 나서 영암 분토동(紛土洞)에 누워 있고 중군 박사화, 후군 노병우, 최우평, 통장 김도숙, 기군장 장문연, 호군장 정관오가 군을 이끌고 이날 밤 노안리(老安里)로 출진, 이튿날 능주읍에 있는 헌병을 무찌를 계획으로 돌정리에서 군사를 먹였다. 이튿날 왜적 300여명과 10여 차례 접전을 했으나 큰 승부가 없었다.

이 싸움에서 후군장 최우평과 군사 20여명이 쓰러지고 적도 20여명이 죽었다. 이에 대한 전투 내용을 『전남폭도사』 11월 26일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전 9시 적 150명과 능주군 부자면 석정리(富者面 石亭里·현 화순군 춘양면)에서 맞닥뜨렸다. 나주 경찰서원과 헌병보조원 합동정찰대가 이완동(梨浣洞·현 화순군 이양면)에서 접전 5명을 죽이고 2명을 생포했다."

여기서도 전과(戰果)는 서로 다르다.

△1909년 3월 8일 : 남평 거성동(巨聲洞) 접전. 대장서리 강현수는 박봉주(朴奉柱)·박채옹(朴彩洪)과 함께 나주 월교리(月橋里)에 유진하였다. 이날 밤 세 사람의 진이 남평 운삼동(雲三洞)에서 집합하여 선동(船洞)으로 옮기는데 정탐꾼이 왜적 15명이 몰래 운곡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에 군사를 정돈하여 본진은 장암(墻岩), 박봉주박채홍은 철천(鐵川), 박민홍(朴玟洪)은 선동에 주둔하였다. 정탐꾼이 적이 선동으로 들어갔다 하여 작전대로 들이쳐 5명을 죽였고 나머지는 영산포로 도망치게 했다. 이튿날 1부대는 동쪽 대치(大峙)에 매복, 능주의 적을 방어하고 1부대는 대항봉(大巷峰)에 매복하여 광주나주남평 3고을의 적을 방어하고 1부대는 서남간 월임치(月任峙)에 매복하여 영암의 적을 방어하고 1부대는 덕룡산(德龍山) 상봉에 매복하고 1부대는 병암치(屛岩峙)에 매복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작전을 세웠다. 능주 쪽 전투에서는 15명의 적을 사살했고 광주 쪽에서는 경무사(警武師)와 졸

411) 손자 심명재 증언을 참고함.

병 수십 명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 우리 군사도 약간명이 죽었고 박여홍(朴汝洪)·박태환(朴泰煥)·박기춘(朴基春) 등 간부들이 전사했다.

△3월 11일 : 능주 풍치(風峙) 접전. 장흥 한담리(寒潭里)에 유진하고 있다가 적병이 10시경에는 올 듯하여 풍치 바윗돌 사이에 잠복하였다. 12고을 연합부대 왜적 400명이 팔방으로 포위하고 들어와 격전을 벌여 100여명을 죽였으나 물러가지 않으므로 나는 징을 쳐서 8문의 하나인 두문(杜門)으로 적을 유인하였다.

이 작전 이후 다음과 같은 동요가 유행하였다.

"심남일은 용마타고
산 밖으로 뛰어갔고
강현수는 풍운조화부려
공중으로 날아갔다"

△4월 2일 : 보성 곰재(熊峙) 접전. 장흥 우산(牛山)에 주둔했다. 능주의 헌병 20여명이 매달 5차례씩 장흥을 통과한다는 말에 작전을 전개하여 적 8명 사살, 대포 2문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5월 12일 : 보성 천동(泉洞) 접전. 천동에 주둔하여 안규홍(安圭洪) 창의장을 석호산(石虎山)으로 불러 병사를 의논했다. 백리밖에 있는 군량을 실어오게 하고 소를 잡아 군사를 먹이며 산상에 깃발을 날렸다. 보성의 왜병이 이를 보고 싸움을 걸어오므로 접전하여 5명을 죽였다.

이날 조서(詔書)가 도착하였다. 이 무슨 운명이냐, 하늘을 우러러 통곡한다. 나는 장차 어디로 가리오.

△7월 21일(양) 왕의 조서를 받고 고민하던 심남일은 해산명령에 따르기로 하고 영암군 금마면(金磨面) 고인동(古引洞)에서 의병을 해산했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시로 이렇게 표현했다.

가을바람 쓸쓸한데 장졸이 이별하니
고인산(古引山) 앞 가는 말이 더디구나
성진(猩辰)을 씻을 날 끝끝내 있으리니
삼년기한 사생은 어기지 않으리라.

『全南暴徒史(전남폭도사)』(『秘錄 韓末全南義兵戰鬪史』, 李一龍 譯)에서 심남일로 기록한 전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여기서 적은 의병을, 아군은 일본군을 말한다. 『전남폭도사』에 심남일의 초기 활동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908년 8월 26일 : 영암수비대장 구스모도(楠本) 대위가 이끄는 토벌대가 내동산(內洞山·현 덕진면 영보리)에서 거괴 심남일이 이끄는 폭도(이하 적이라 기술함) 100여명이 공격해오므로 응전 중 영암 수비대에서 특무조장 등 16명이 응원을 와 적 10명을 죽이고 격퇴했다. 아군도 1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했다.

△8월 28일 : 영암 수비병 하사 이하 9명이 장흥군 유치면 한대동(有治面 寒大洞, 현 영암군 영암읍)에서 적 150명과 조우해 2시간 동안 교전했으나 탄약이 떨어져 귀대했다.

△8월 29일 : 장흥 관내에 적도가 들끓어 순사대를 급히 파견해달라는 전보가 왔다. 기병과 순사를 영암·장흥에 파견했다.

△10월 22일 : 오후 1시 히라노(平野) 토벌대가 함평군 여황면 용진산(艅艎面 龍珍山·현 광산군 본양면 왕동리와 임곡면 사호리 경계임)에서 심남일·전해산의 합동 집단 150명과 조우, 이를 격퇴했다. 10명을 죽이고 화승총 4, 군도 4자루를 노획했다. 정보조원(鄭補助員)이 전사했다.

△10월 23일 : 석문산(石門山, 현 광산군 본양면)에서 심남일·전해산·조경환(曺京煥)·김기순(金基順)의 합동집단 250명과 충돌, 11명을 죽이고 화승총 5, 권총 1, 나팔 1, 기타 잡품을 노획했다.

△1909년 1월 19일 : 영산포 헌병 분대 1, 2 연합 토벌대가 나주군 수다면 초동(水多面 草洞, 현 다시면 영동리)에서 심남일·박민홍(朴玟洪)이 이끄는 150명과 교전, 3명을 죽이고 격퇴했다.

△4월 26일 : 오전 6시 적 300명이 장흥군 장동면 내장리(長東面內場里, 현 장동면)에 내습하여 공금 영수원 정사흠(鄭士欽)을 결박, 현 장평면 용강리에서 총살하였다.

△7월 1일 : 장흥군 장서면 봉무리(長西面 鳳舞里, 장평면 청룡리 초장골)에 적 60명이 내습했다. 사창장(社倉場) 헌병파견소 소속 헌병과 보조원 10여명이 달려가 교전, 적 5명을 죽이고 격퇴했다.

자기들의 전과를 과시하기 위하여 크게 위장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이 자료는 '접전 일기'와 함께 심남일 의병활동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국왕의 의병부대 해산에 대한 조서를 받고 그의 부대를 해산한 후 심남일은 능주의 풍치(風峙, 현 화순군 청풍리와 이만리 소재) 산 속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되었다.

『전남폭도사』는 당시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1909년 10월 9일 오전 6시 사다께(佐竹) 대위가 이끄는 47명의 토벌대가 능주군 풍치 산속 암굴에서 거괴 심남일(당 38세)과 그의 부장 강무경(姜武景) 및 처첩을 체포했다"

체포된 후 광주 감옥에 있다가 대구로 옮긴 후 1910년 9월 1일 처형되었는데 그는 끝까지 침략자 일본을 규탄하고 자기는 조국을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형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고국강산(訣故國江山)'이라는 시를 남겼다.

"문명한 일월중의 우리 강산이	文明日月此江山
홀연히 들인 티끌에 어둠 속에 잠겨 있어라	忽入腥塵晻瞬間
개인 하늘 보지 못하고 지하로 가니	未睹一晴歸地下
천추에 벽혈되어 자국마다 얼룩지리"	千秋化碧血痕斑

그는 비록 짧은 일생을 마치고 갔지만 그를 기리는 국민들에 의해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고 그를 추모하는 비가 광주공원(실내 체육관 건너편)에 우뚝 서 있어 우리들 속에 길이길이 살아있다. 그의 부인 평택 임씨(林)는 그가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전갈을 받고 충격을 받아 양눈을 보지 못한 채 여생을 보냈는데 밝은 일월(日月)을 보지 못할 바에야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며 자위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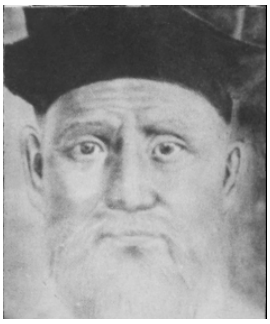
☆『독립유공자 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심남일(沈南一)
생존기간: 1871.2.10~1910.7.23
훈격(년도): 독립장(62)
출생지: 전남 함평

심남일은 1871년 2월 10일(음력) 전남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새터(咸平郡 月也面 新基)에서 출생하였다. 일찍이 학문을 닦아 사서삼경에 능통하였고, 향리에서 면장(面長)·향교장의(鄕校掌議)·도의사(道議事) 등을 역임하고 또 서당의 훈장으로서도 재직한 바 있는 향반(鄕班)이었다. 노일전쟁 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 되고,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늑결되자 통분을 금할 길 없어 거의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의병장 김 준(金準·金泰元)의 아우 율(聿)의 부장이 되어 장성(長城)·영광(靈光)·함평(咸平)·남원(南原)·보성(寶城)·장흥(長興) 등지에서 일군과 항전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김 율이 전사하자 스스로 대장이 되어 군율을 엄히 하고 진용을 재정비하였다. 이때 그의 예하 장병과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봉장 강무경(姜武景)·임만선(任萬善)·장인보(張仁甫) 중군장 안찬재(安贊在)·박사화(朴士化) 후군장 노병우(盧炳友)·나성화(羅聖化)·최우평(崔友平)·김성재(金聖載) 도통장 김도숙(金道淑) 통 장 유치선(柳致先)·공진숙(孔盡淑) 군량장 이세창(李世昌) 호군장 강달주(姜達周)·정관오(鄭官午) 기군장 장문연(張文然)·이덕삼(李德三) 서기겸모사 염원숙(廉元淑) 도 포 장경선(張京先)·김판옥(金判玉)·선도명(宣道明) 도집사 최유승(崔有承) 모 사 권 택(權澤)·정영태(鄭榮兌) 그리고 향리에서 도학으로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규율을 엄히 하고 민폐를 적게 하기 위하여 민가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무단 내정돌입과 부녀자를 겁간하든지, 가축을 희생시키는 일 등에 대하여 엄히 처단할 것을 공포하였다. 1907년 11월 1일 함평군 신광면(新光面)에서 기치를 올려 의병을 모집·훈련하기 시작하여 1908년 2월 13일 남평(南平)으로 행군하면서 적과의 접전을 감행하였다. 그의 첫 접전은 3월 7일 강진면 오치동(吾治洞)에서 있었다. 적병 수백 명을 맞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경까지의 교전 끝에 수십 명을 살상하고 무기를 다수 노획하여 의병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이어서 4월 15일 장흥(長興)·곽암(藿岩)에서 적 3명을 사살하고, 6월 19일 남평 장담원(長淡院) 전투에서 적 5명을 베고, 6월 25일 능주 노구두(綾州 老狗頭)에서 적 5명을 베고 말 2필과 무기를 노획하였다. 7월 30일 영암 사촌(靈岩 沙村) 전투에서 적 10여 명을 죽이고, 8월 1일 나주 반치(羅州 盤峙)에서, 9월 20일 장흥 신풍(長興 新豊)에서, 10월 9일 해남 성내(海南 城內)에서, 10월 27일 능주 돌정(石亭) 등지에서 모두 백여 급을 살상하였다. 이와 같은 전투에서 큰 성과를 올렸으나 불행하게도 심남일과 선봉장 강무경이 병석에 눕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봄까지 접전일기에 기록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기간동안 추위와 병고로 인하여 은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1909년 3월 다시 격렬한 교전을 재개하였다. 3월 8일 대장 서리 강현수(姜鉉秀)·박봉주(朴奉柱)·박채홍(朴彩洪)이 나주 월교리(月橋里)에 유진하였다가 밤에 남평 운삼동(雲三洞)에 집합하여 선동(船洞)으로 옮기는데,

탐마대(探馬隊)로부터 적이 내습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심남일은 미리 의병을 요소 요소에 매복시켰다가 적 5명을 사살하자 적은 영산포(榮山浦)로 달아났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전투를 전개해야 할 것을 계획하고 한편으로 영산포의 적을 격동시키면서 인근의 의병 부대에 통기하여 연합 작전을 꾀하였다. 이 때 수북(水北)의 전수용(全垂鏞)·이대국(李大局)·오인수(吳仁洙), 산동(山東)의 안규홍(安圭洪)·김여회(金如會)·유춘신(柳春信) 등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중에 특히 안규홍과는 끝까지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심남일은 전군을 5부대로 나누어서 동쪽 대치(大峙), 대항봉(大巷峯), 월임치(月任峙), 덕룡산(德龍山) 꼭대기, 병암치(屛岩峙)에 각기 매복시켜서 적의 내습에 대비하였다. 다음날 새벽부터 능주·광주·나주·남평·영암으로부터 내습해 온 적병과 접전하여 적 70여 명을 사로잡고 수십 명을 사살하였다. 아군의 희생도 적지 않았으며, 본진의 총독 박기춘(朴基春)·좌익장 박여홍(朴汝洪)·우익장 박태환(朴泰煥)이 전사하였다. 11일, 계속하여 적의 내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능주 풍치(風峙)의 좌우에 잠복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웃 12고을의 적병 4백여 명의 포위 공격을 받아 백여 명을 죽였는데도 적병은 물러가지 않았다. 세부득이하여 징을 쳐서 전병을 불러들여 두문(杜門) 북쪽으로 후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그의 신출귀몰한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동요가 생겨났다.

남일이 용마를 타고　　南一乘龍馬
산밖으로 솟아오르면　　而聳出於山外
현수는 풍운을 조화하여　絃秀風雲造化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飛上空中



4월 2일에는 장흥 우산(牛山)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곳은 능주 헌병이 매달 5차례씩 20여 명이 장흥을 통과하는 곳이었다. 이날 강현수가 의병 20명을 거느리고 매복하고 있다가 포를 터트려 적 8명을 사살하자 나머지는 모두 도망해 달아났다. 그래서 대포 2개와 다수의 무기를 포획할 수 있었다. 5월 12일 보성 천동(泉洞)에 주둔하고 보성의 창의장 안규홍과 석호산(石虎山)에서 만나 연합 작전을 계획하였다. 작전수행을 위해 중군장 안찬재(安贊在)와 통장 김도숙에게 군량을 백 리 밖에서 운반해 오도록 하고, 후군장 김성재(金聖載)와 호군장 강달주(姜達周)에게 군사들을 잘 먹이게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보성의 왜장이 산상에 올린 의병의 깃발을 보고 50명 군사를 거느리고 내침해 오자 이들과 격전하여 적 5명을 사살하였다. 그 후 안규홍과 장래의 전략을 기획할 때 이세창(李世昌)이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정한 이치이니 남·북도의 의병이 합세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모두 그 말을 옳게 여겨 각지의 의병 부대와 연락하여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가던 중 의병을 해산하라는 황제의 조칙이 내려지게 되었다. 협박에 못 이겨 내려진 조칙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1909년 7월 21일 영망군 금마면 고인동(金磨面 古引洞)에서 자진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그는 다음과 같은 감

회를 표한 바 있다.

쓸쓸히 장수랑 군사들은 눈물로 이별 짓고 고인산을 떠남에 말조차 더디구나. 왜적을 없앨 날이 언젠가 있으리니 지난 3년 맹서한 일 부디 잊지 마세.
(秋風將卒泣相離 古引山前馬去遲 一掃腥塵終有一 草違三載死生期)

의병을 해산한 후 심남일은 강무경과 함께 능주로 잠행하여 전의 전투지였던 풍치의 바위굴 안에서 신병을 치료하던 중 10월 9일(음 8월 26일) 이를 탐지한 일군에게 체포되었다. 9월 2일 광주로 이송되었다가 12월 15일에 대구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두 곳의 감옥에서 '10월 20일 광주 담판'과 '12월 15일 담판', 그리고 '대구 담판' 등의 글을 남겨 놓고 있다. 이 때 심남일은, "제 나라를 위한 것도 죄가 될진대 남의 나라를 빼앗은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느냐?" 대장부가 비록 너희에게 사로잡혔지만 쥐같은 네놈들과는 옳다 그르다 따지고 싶지 않다." 고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끝까지 일제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불의를 질책한 후 마지막으로 고국산천에 그의 단심(丹心)을 터트리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고, 1910년 7월 23일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을 받고 39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해같이 밝고 달같이 밝던 이 강산, 홀연히 성진에 덮여 앞길 캄캄한데 미처 맑은 날 맞이 못한 채 지하로 돌아가니 멍든 피 푸르러 천 년은 가리." (文明日月比江山 忽入腥塵 曖問 未覩一晴歸地下 千秋化碧血痕班) 그의 부하 중 권영회(權寧會)는 1909년 7월 교수형을 언도받았으며, 김치홍(金致洪)은 그해 10월에, 이세창은 9월에 교수형을 언도받고 모두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제1권 691쪽).

제6절 의병사상 빛나는 함평출신 의병장들[412]

★ 김계선(金啓先, 호 : 老石, 본관 : 善山)
김태원 의병부대에서 활동하였다.

★ 김교락(金敎洛 · 일명 敎炫, 호 ; 南崗. 자 : 德範, 본관 : 善山)
나산면 용두리 선박마을 출신인 김교락(사진)은 1905년 일제의 강압으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일명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선봉부대인 김태원 의진(義陣)에 참가, 의병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1908년 4월 의병장 김태원·김 율 형제가 순국하고 1910년 경술국치를 맞자 1915년 채기중(蔡祺中)에 의해 2년 전 이미 창단된 대한광복단에[413] 참여하고 있던 정동근(鄭東根)을 비

412) 함평출신 3대 의병장 이외 의병장 또는 의병활동지사들은 제5절에 가 나 다 순으로 수록했음.
413) 1913년 경북 풍기에서 발족된 독립운동단체로서 처음에는 蔡祺中·庾昌淳·柳璋烈·韓 焄·姜炳洙·金炳然·鄭萬

롯한 양기중(梁基重)·양재홍(梁在鴻)·김영하(金榮夏)·문재교(文在敎)·고성후(高成厚)·양치덕(梁致德)·이중(李仲)·이영운(李永云) 등 전남지방에서 규합된 동지들과 함께 1,000여원의 군자금을 모아 만주 독립군부대에 보내는 한편 친일분자를 처단하는 지하 비밀독립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는 1918년 1월 15명의 동지들과 함께 함평헌병분소를 습격하는데 성공했지만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한 회원의 밀고로 대한광복단의 비밀조직이 탄로됨으로써 제주도로부터 만주에 이르기까지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는 선풍이 불었다. 전남지방에 침투하여 활동하던 채기중(蔡祺中)이 목포에서 체포되어 처형되고 경북지방에서 암약하던 김교락(金敎洛)도 동지 9인과 함께 결국 체포되어 1919년 3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9년형을 마친 1927년 가출옥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격상시켰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김교락(金敎洛)
생존기간: 1882.12.20~1954. 8. 8
훈격(년도): 애국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통분한 마음을 품고 있던 그는 이후 독립운동의 방안을 모색하던 끝에 1917년 정동근(鄭東根)·양기중(梁基重)·양재홍(梁在鴻)·김영하(金榮夏)·문재교(文在敎)·고성후(高成厚) 등의 동지와 함께 군자금 모집활동을 펴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이후 권총·철봉(鐵棒)·도검 등을 휴대하고 나주·함평·화순·순천 등 주로 전남지역에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1년여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천여원의 군자금을 수합하였다. 그러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일경에 피체되어 1919년 3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언도받았으나 징역 9년형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제7권 349쪽).

★ 김교환(金敎環 · 호 : 義堂, 자 ; 東述, 본관 : 선산)

처음에는 김태원 의병부대에서, 후에는 전해산 부대에서 수십 회 왜병과 교전하여 공을 세웠

敎·金相玉 등이 비밀결사인 '대한광복단'을 조직하여 광복운동을 전개하다가 1915년 대구의 朴尙鎭·梁濟安·禹在龍 등이 합류한 후 명칭을 '광복회'로 바꾸었고 1916년 金佐鎭·盧伯麟·申鉉大·尹洪重·申斗鉉 등을 참여시켜 '광복단'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경상도 관찰사이자 악질 친일분자인 張承遠과 충남 아산의 친일부호인 朴容夏를 암살하는 등 친일세력 암살과 군 자금 모금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는 한편 국내외에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보내기도 했다. 회원은 약 200명이고 비밀조직이어서 좀처럼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1918년 1월 회원인 李鍾國이 천안경찰서에 밀고함으로써 정체가 밝혀져 전국적인 검거선풍이 불어 박상진 등 38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를 면한 남은 회원들은 만주로 건너갔고 국내에 남은 韓 焄을 중심으로 3·1운동 이후 재기하여 활발하게 모금활동을 벌였다. 만주의 광복단은 미국 의원단의 입국을 계기로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金相玉·韓 焄·金東淳 등 20여명을 국내로 보냈으나 비밀이 누설되어 체포됨으로써 실패했다.

다. 김교환은 후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병공적도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 1953년 발행된 그의 본관인 『선산김씨 대동보』에 「義堂 敎環(東述)傳(의당교환전)」이라는 글이 실려 있어 의병활동부분만 요약, 번역해 전재함으로써 그의 훌륭했던 의병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예찬하고자 한다.

「교환은 함평과 나주 경계인 선박마을에서 태어났다. 우리나라는 을미년부터 정미년까지 10여년 도적 같은 신하들이 왜(倭)의 무리가 되어 강제로 머리 깍고 조약을 체결하며 토지와 인민을 말아서 상해(桑海)의 동쪽에 던져버렸다. 조정의 대신이하 사상공(四相公)들이 연이어 순국하고 최면암(崔勉菴-崔益鉉)은 살아서 의를 들고 일어났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서 인(仁)을 이루셨으며 송연제(宋淵齋)는 대전에서 순도(殉道)했다. 나라의 일은 어지럽고 인심은 흉흉했으니 초야에 묻혀 사는 위포지사(韋布之士)라도 충과 의로 분격하여 일사보국(一死報國)을 아니할 수 없을 때였다.

우리 고을에 참봉(參奉) 준(準, 金泰元)과 박사(博士) 율(聿) 형제가 있으니 담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11월 27일 고을의 유생들 모모와 함께 죽촌(나산면 송암리)마을 김병규(金秉圭) 진사 집에서 모였다. 조약을 이미 정해놓고 진사께서 교환(敎環)을 불러 말하기를 "나는 상복(喪服, 모친상 중이었음)을 입어 정성을 다할 수 없으나 교환이 비록 어리지만 항적(項籍, 초패왕을 말함)이 도강(渡江)한 나이이니 당연히 도원결의를 해야 될 때이다. 각별히 힘써 일을 따라 임금의 어려움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하니, 김 참봉이 말하기를 "기삼연(奇參衍)이 장성에서 의거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단번에 가서 만나도록 하라"하였다. 결국 길에서 그를 만나 말을 나누고는 크게 즐거워 선봉에 섰다. 교환은 고창의 문수산 싸움에서 두 번 다 소득을 얻어 돌아오니 이 때로부터 김 참봉 형제를 모시고 사방의 정보를 정탐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일에 힘썼다.

12월 23일 사호리(沙湖里)에서 싸움이 붙었고 무등산(無等山)으로 진군하여 무동촌(舞童村)에서 잤을 때는 무신(戊申)년 정월초하루였다. 적을 만나 한 바탕 싸워 대장 요시다(吉田)의 목을 벤 후에 의로운 소리들이 크게 일어났으나 기삼연과 김태원이 다 적에게 희생되었다. 돌아와 장성 토천리(土泉里)에 이르러 적을 쳐서 크게 승리하고 영광 랑월산에서 연거푸 싸웠으며 대곡 뒷산에서도 또 싸웠다. 군사를 옮겨 어등산 산중에 이르렀는데 마침 허리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 적이 사방에서 이르렀다. 김태원은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마침내 돌 위에 앉아 차분히 의를 취하였으니 교환이 시신을 수습하여 안장한 게 3월 24일이었다. 전해산(全海山)과 이석용(李錫庸)은 장성에 이르러 김태원의 순절소식을 듣고 가슴아파하며 탄식을 멈추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의병장수 오성술(吳聖述)이 맞이하여 도림(道林)에 이르러 수삭(數朔)을 머무는데 김태원의 흩어진 군사들이 소문을 듣고 다들 모여 함께 장군으로 추대하였다. 6월에 의군이 양암정(羊巖亭)에 모였을 때 교환이 한 사람을 만났으니 귀양살이 했던 정원집(鄭元執)이었다. 7월 29일 전해산을 대장으로, 정원집을 선봉으로 추대하고 군대를 움직여 불갑산에 이르러 한번 싸우고 탄치(蟬峙)에서 또 싸웠는데 일병을 죽이고 기계를 빼앗았다. 10월에 석문산(石門山)에 들어가서 또 크게 싸웠는데 밤에 고막(古幕)의 병참(兵站)을 쳐서 여러 명의 적을 죽이고 정원집이 곧바로 병참에 들어가 기기들을 수습하던 중 총에 맞아 상처를 입으니 군중이 기(氣)를 잃고 영광 오동치(梧桐峙)로 옮기면서 크게 한바탕 싸우고 돌아오니 3월 27일이었다. 하령(下令)이 말하기를"무더운 여름이 앞에 있으니 가을을 기다려 다시 움직이는 것이 났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김교환은 어려서 의를 위해 일어나 2년 동안 적을 벤 것이 매우 많았다. 그러나 최면암은 인을 이루었고, 송연재는 도를 위해 죽었으며, 기성제(奇省齋. 기삼연) 고록천(高鹿泉) 김죽봉(金竹峰, 김태원) 전해산(全海山) 제공(諸公들은 다 절개를 세우고 의를 위해 죽었으니 따라 갈 곳이 없었다. 교환이 말하기를 "나는 본시 한사(寒士,'보잘 것 없는 선비'라는 뜻으로 자신을 낮추는 말)이니 (나의) 한갓 죽음은 세상에 유익함이 없으며,

그런대로 살다가 만약 순풍을 만나면 뒤의 기회를 도모 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고 세상일을 잊기로 하였다.」

★ 김두식(金斗植)

김태원 부대에서 활동하였다.

★ 김병규(金秉奎, 일명 敎煥, 호 : 晩惺齋, 본관 : 선산)

성균관 진사(進士)인 그는 김태원 의병부대가 맹 활략하는 동안 그 부대원으로서 김태원과 더불어 작전을 모의하고 수행하여 왜적을 교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공을 세움으로써 김태원의 신임이 두터웠다. 효심이 두터운 그는 나중에 노모의 병환 위중 소식을 듣고 잠시 김태원 의병부대에서 이탈하여 노모병환에 지성으로 간병하는 도중 손가락을 잘라 그의 피를 노모에게 공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노모의 상중(喪中)에 김태원의 순국소식을 듣고 함께 하지 못했다며 통곡했다. 그는 망국의 한을 품고 향리(鄕里)에 은거하여 후진교육에 열중하는 가운데 고종의 승하와 3·1운동소식을 접하고 앞산에 올라 망단을 세우고 북향재배(北向再拜)한 후 즉석에서 국권회복을 기원하는 '聞大韓獨立萬歲(문대한독립만세)'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2003년 8월 15일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고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또한 2005년 12월 10일 그가 여생을 보내다 숨진 나산면 송암리 694번지 옛 집터에 '진사 김병규 항일의병 행적비'가 세워졌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김병규(金秉圭)
생존기간: 1865~1935. 7. 8
훈격(년도): 건국포장(2003)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본관은 선산(善山)으로 1891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성균관 진사가 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재종제 김교환(金敎環)과 함께 죽봉(竹峰) 김태원(金泰元) 의진에 참여하였다. 김병규는 김태원 의병의 참모가 되어 기삼연(奇參衍)부대와 연합하여 항쟁하는 등 전술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 김병규는 김태원 의병장과 함께 월현(月峴)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던 중 체포되어 혹형(酷刑)을 받았다. 그는 1919년 3월 광무황제의 승하소식을 접하고 마을 산에 단(壇)을 쌓고 북향망곡(北向望哭)하였으며 3·1운동이 일어나자 [문대한독립만세(聞大韓獨立萬歲)]라는 시를 지어 독립을 기원했다고 한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제15권 67쪽).

★ 김용우(金容禹 · 호 : 希庵, 본관 : 상산)

1907년 김태원과 창의 병량(兵糧)을 모았고 나주·장성·영광 등 전투에 참전하였다. 특히 고막

원 병참소 습격에 공이 컸다.

★ 김원길(金元吉, 별명 鄭光州)

김원길은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를 맞아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함평에서 의병부대를 창설하고 활동하던 중 1909년 4월 24일 동료의병 30여명과 함께 광주군(光州郡) 우산면(牛山面) 수곡리(水谷里)에서 광주 헌병분견소를 기습하다 헌병과 경찰 합동군에게 피체되었다. 그는 호송 도중 결박을 풀고 탈출하다가 총격을 가하는 일본군에게 피살, 순국했다. 정부는 1996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김원길(金元吉)
생존기간: 1909;30세~1909. 4.24
훈격(년도): 애국장(96)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일제는 1904년 2월 한국 침략의 경쟁국인 러시아 군대를 기습 공격하여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한일의정서를 강제하여 한국을 전쟁기지로 삼았다. 그런 다음 같은 해 8월에는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를 강요하여 재정권과 외교권을 장악하여 갔다. 이어 1905년 화폐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더니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였다. 1907년에는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내정을 완전 장악한 후 군대마저 강제 해산하였다. 이제 대한제국은 자주권을 잃어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것과 같았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와 항쟁하였다. 대한제국군 출신의 해산 군인을 비롯하여 새로이 많은 인사들이 거의하여 의병전쟁을 전민족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갔다. 아울러 의병진의 전력도 증강되어 전국 곳곳에서 일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1907년 이후 1909년까지의 의병 전사자가 10만 명으로 알려질 정도로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들의 항쟁은 처절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자 김원길은 일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1908년 전남 함평에서 의진 미상(未詳)의 부대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1909년 4월 24일 동료 의병 30여명과 함께 광주군(光州郡) 우산면(牛山面) 수곡리(水谷里)에서 광주 헌병분견소(憲兵分遣所) 헌병과 경찰 합동군에게 피체되었으나, 호송 도중 결박을 풀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제14권 185쪽).

★ 김헌관(金憲寬 · 호 : 雪竹, 본관 : 김해)

함평읍 수호리 출신으로 1907년부터 김태원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각 처 전투에서 공을 세웠

다. 김태원이 전사하자 향리로 돌아와 숨어있던 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악형을 받아 끝내 불구의 몸이 된 채 여생을 마쳤다. 1982년 향리인 수호리에 공적비를 세워 그의 공을 기리고 있다.

★ 노경수(魯璟洙 · 호 : 正庵, 본관 : 함평)

1906년 동지 이영태(李榮泰)와 창의하여 김태원 부대에 가담 고창·무장 등지의 여러 전투에서 적을 사살하는 의병투쟁의 전과를 크게 올렸다.

★ 박성헌(朴成憲 · 일명 : 成寬, 본관 : 밀양, 1856~1926)

해보면 해보리 모산마을 출신이며 박장봉(朴章奉)과 함께 이강산 의병 부대에 가담하여 불갑산을 근거지로 왜적과 싸웠으며 이강산 · 박장봉 · 정인술 등이 나주 헌병분견소 구밀파견소 밀정 4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때 그도 잡혀 심하게 고문을 당한 후 풀려나왔으나 감시가 심해 곡성군 입면 약천리(立面 藥川里) 산속으로 피신한 후 항일사상을 배양하고 함평에 오가면서 의병활동을 계속했다.

★ 박영근(朴永根) 의병장 (본관 : 무안, 1895↔1910. 7. 23)

함평군 식지면 유덕산(食知面 有德山, 현 나산면 수상리) 출신으로 나이 20여세에 식지면 대안촌(大安村, 나산면 수상리)에서 서당의 훈도를 지냈다.

그의 행적이 몇 곳에 소개되어 있으나 음력으로 기술되고 불충분한 점이 있어 여기에는 그의 재판기록을 참고하여 활동상황을 엮는다.

박영근의 의병활동은 조경환(曺京煥)[414]의 휘하에서 시작되었다.

414) 성명: 조경환(曺京煥, 일명 準煥), 생존기간: 1876.2.14↔1908.12.19, 건국훈장 독립장(63), 전라남도 광산출신. 9세부터 22세까지 유학(儒學)을 수학한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의 문인이었다. 1900년부터 전국 명산대천을 순례하여 산세와 지리를 답사기록하고 스스로 호를 대천이라 하였다. 1907년 대한제국군이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통분함을 금치 못하고, 1907년 12월 초순 광주·함평 등지에서 이원오(李元五)·김동수(金東洙)·양상기(梁相基) 등과 의병을 일으키기로 합의하고, 10일 함평으로 김태원(金泰元)을 찾아가 13일 그와 함께 거의기병(擧義起兵)하고 좌익장(左翼將)을 맡아 항일전을 벌였다. 14일 새벽 함평읍내의 일군을 급습하여 적 수십 명을 생포하고 총 18정 및 다수의 화약과 탄환을 노획하였다. 그날 밤 학포(鶴浦)에 주둔한 일본의 기병대를 습격하고 함평향교 뒷산으로 퇴각하여 전 현감 이용안(李龍安)의 집에서 휴식하였다. 그 후 마치 주점(馬峙 酒店)에서 김 박사 의진, 이 진사 의진과 합세하고 자신은 선봉장이 되었다. 17일에 함평 동촌리(東村里)에 사는 임용여(林龍汝)의 집에서 김 박사 의진이 일군에게 포위당하여 악전고투하므로 조경환은 의병 약간 명을 인솔하여 응원 공격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7일 영광군 사창(靈光郡 社倉, 지금의 장성사창)을 습격하고 군량을 확보하였다. 1908년 1월 1일 적의 동태를 미리 파악하고 창평(昌平)의 무동촌(舞童村)에 잠복 대기하고 있다가 내습하는 일본헌병대를 맞아 싸워 대장 요시다(吉田) 이하 수명을 포살하였다. 11월 장성(長城)의 낭월산(浪月山)에서 일대 격전을 전개하여 무수한 적을 무찔렀으나 아군도 4명의 중상자를 내었다. 3월 7일 영광의 토산(土山)에서 교전이 벌어졌는바 적의 예상 밖의 강력한 대항으로 아군이 불리하게 되었다. 이에 의병을 불갑사(佛甲寺)로 후퇴시키고 부상병을 치료케 하며 무기를 보수하였다. 25일에는 의진을 2대로 나누어 1대는 김태원이 영솔하여 천곡(天谷)으로 갔고, 조경환은 나머지를 영솔하고 광산군 어등산(魚登山)으로 가서 적과 교전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두 부대가 모두 참패를 당하고 김태원이 중상을 입었으므로 함께 함평의 당산촌(堂山村) 나평집(羅平集)의 집에 은신하였다. 4월 8일부터 함평의 지월치(芝月峙) 표군팔(表君八)의 집에서 전략수립 막료회의를 주재하였으며, 5월 5일에 이르러 전해산(全海山)이 의진을 영솔하여 왔다. 6월 2일 영산으로 가서 동곡(桐谷)에서 이대왕(李大旺)의 의진과 합세하여 적의 포수 1명을 생포하였다. 6월 30일 전해산과 다시 의병을 나누어 동각리(東角里) 유군발(柳君跋)의 집에 묵으면서 의진을 정비하고 있던 중 김태원이 처형되었다는 비보를 접

1908년 4월 10일 조경환의 부대에 가담하여 13일까지 함평군 각처에서 싸우다가 그의 부대를 떠났다. 7월 29일경부터 다시 조경환과 함께 8월 23일까지 활동하다가(부대원 약 60명) 1908년 8월 23일 전해산(全海山)이[415] 독립부대를 창설하자 그 부대의 호군장(犒軍將)이 되었다. 이때 전해산 부대의 진용은 선봉장 정원집(鄭元執), 도포장(都砲將) 이범진(李凡振), 중군장(中軍將) 김원범(金元範, 광주출신 의병장 원국의 동생), 후군장 윤동수(尹東秀)였다.

박영근은 전해산 의병장과 함께 1908년 9월 26일 불갑산 전투, 10월 9일 함평군 장본면 석문산(章本面 石門山, 현 광산군 본양면) 전투, 11월 3일 함평군 적양면(赤良面, 현 광산군 본양면) 전투, 11월 22일 광주 대치(大峙, 현 담양군 한재면) 전투, 11월 25일 장성군 자인곡(自仁谷) 전투, 11월 26일 순창군 내동(內洞) 전투, 12월 8일 순창군 삼남면(森南面) 낭월산(郎月山) 전투, 1909년 5월 4일 영광군 육창면 오동촌(현 군남면) 전투에서 일본 수비대 헌병 및 순사들과 싸워 크게 이겼다.

육창전투에서는 손불면 양재리 사람들이 많이 참전했다고 전한다. 1909년 5월 28일 전해산 부대가 해산되자 30여명을 규합하여 의병장이 되었다.

이 때 전해산과 작별하면서 주고받은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절실한 우국충정으로 가득하여 여기에 소개한다.

전해산의 시

“호남의 3월, 살구꽃이 흩날리는데	湖南三月杏花飛
나라 위해 싸우던 서생 갑옷을 벗네	爲國書生廢鐵衣
산새들도 이러한 일 알고 있는지	山鳥亦知能世事
밤새도록 울어대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네.“	哭吾長衣故園歸

박 영근의 시

“살구꽃 피는 3월에 눈발이 휫날리네	杏花三月雪花飛
지기(志氣)있는 남아로서 참아 갑옷은 못 벗겠네	志氣男兒未脫衣
만약에 이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若將我國無恢復

하고 9월 7일 그의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그후 중의에 따라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호남창의대장이라 칭하고 각지 향교에 수차 격문을 발송하여 항일사상을 고취시키는 한편 전군을 영솔하고 흑석리(黑石里)로 가서 경찰대와 교전한 결과 대장 정득주(鄭得柱) 이하 수명을 생포하였다. 10월 2일 오수산(烏首山)에서 교전하여 일병 수명을 무찔렀고, 7일에는 함평의 석문(石門)에서 적 수십 명을 무찔렀다. 29일에는 장성(長城)의 고산(高山)에서 휴군하던 중 대치(大峙)에서 전해산의 의진이 적과 교전 중이라는 정보에 접하고 의진을 이끌고 대치로 가서 응원하여 적 수십 명을 생포하였다. 11월 8일 광주의 동촌(東村)에서 적과 접전하였으며, 11월 25일 전해산 의진의 유완요(柳完堯)와 김여효(金汝孝)의 세 의진이 합진하여 적과 교전 끝에 적 수십 명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연전연승하던 의진은 1908년 음력 12월 19일 구정을 앞두고 과세차 의병을 귀향시키고 몇 명의 막료와 함께 어등산 사동(寺洞)에 은신하고 있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일본 헌병대의 급습을 받아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기증 받은 백마를 타고 이리저리 내달으며 일병을 무찌르던 중 적탄이 오른쪽 가슴에 연달아 두 발이 명중되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깨달은 조경환은 목에 걸린 망원경을 벗어 놓고 왼쪽 품안에 깊이 간직하고 있던 의진명단을 꺼내 불사른 후 조용히 순국하였다. 정부는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독립유공자 공훈록』 제1권 921쪽). ; 함평출신이 아닌 광산출신이지만 한 때 김태원 의병부대에 참여했다가 독립부대를 만들어 함평을 근거지로 전남 각지에서 왜적과 싸운 의병장이어서 참고로 각주에 싣는다.

415) 전북 임실 출신. 본명 수용(垂鏞). 1907년(융희 1년) 장성(長城)에서 장성(長城) 수록산(隨綠山)에서 각로의군(各路義軍)을 회맹(會盟)하여 대장에 기삼연(奇參衍)을 추대하고 자신은 종사(從事)가 되어 격문을 각처에 전하는 한편 고창 문수사에서 적군과 싸워 대승했다. 그 후 함평 김태원 부대에 참여했다가 김태원이 순국하자 부대를 수습하여 함평·영광·나주·광산·광주·장성·담양 등지로 다니며 왜적에 대한 의병투쟁을 계속했다.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죽어서 돌아갈 지언정 살아서는 못 가겠네.“ 死後寧歸生不歸

의병장이 된 후 그는 함평 · 영광 · 장성 · 광주 · 무장(전북) · 나주 등지에서 싸웠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을 들면 다음과 같다.

△1909년 6월 8일 ; 함평군 해보면의 공금 영수원 성년풍(成年豊)의 집에 잠입하여 200냥을 빼앗고, 6월 14일 갈동면 양촌리(월야면) 공금 영수원 김돈섭(金敦燮) 집에서 100냥을 징발하고, 6월 19일 영광군 불갑면 건두산에서 적과 싸워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1908년 10월 4일 ; 의병을 빙자하여 양민의 재산을 도둑질 한 박기춘(朴基春, 심남일 의병부대의 박기춘과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을 잡아 나산면에서 처형했고 11일에는 장성 사람 김기순(金基順)이 박기춘과 같은 행동을 함으로 처형했다.

△1909년 7월 17일(양) ; 부대를 해산시키고 함평군 대화면(大化面, 현 장성군 동화면) 누님 집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어(음 7월 13일) 1910년 5월 심수택 · 강무경 · 오성술과 함께 대구 감옥으로 이송되었다가 7월 23일 전해산과 같이 교수형을 당했다.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압수된 증거물은 다음과 같다.

‘보병총 1정, 화승총 16정, 탄약함 18개, 탄약 7발, 보병총 약협 19발, 탄환 900발, 화약 1관 5백문, 초석(硝石) 6백문, 배낭 1개, 곤봉 1개’

26세를 일기로 장열하게 순국한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1975년 10월 함평공원에 기적비를 세웠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박영근(朴永根)
생존기간: 1885. 9.15~1910. 7.23
훈격(년도): 애국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박영근은 전라남도 함평(咸平) 사람으로서 전해산(全海山)과 더불어 1907년 나주(羅州)에서 의거의 기치를 올렸다. 전해산 의진은 처음에 기삼연(奇參衍) 의진의 조경환(曺京煥)의병장 휘하에 들어가 그 지휘를 받았다. 1908년 1월 의병장 기삼연이 광주에서 순국하였다. 그후 조경환의 의진에서 1908년 4월부터 8월까지 함평·광주·장성 등지에서 일군과 교전하였고 군자금을 모금하여 군대의 장비보강에 주력하였다. 1908년 8월 23일 전해산이 조경환과 갈라져 독립하여 의진을 형성하였을 때 박영근은 전해산 의진에 소속되었다. 전해산 의진의 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봉장 정원집(鄭元執), 호군장 박영근(朴永根), 중군장 김원범(金元範), 도포장 이범진(李凡振), 후군장 윤동수(尹東秀) 즉 호군장에 임명된 박영근은 군수품을 조달·운반하는 치중(輜重)을 담당하였다. 또한 접전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1908년 9월 26일 영광군 불갑산(佛甲山)에서, 10월 9일 영광군 장본면 석문(章本面 石門) 안에서, 11월 3일 적량면(赤良面)에서, 22일 광주군 대치(大峙)에서, 25일 장성군 자인곡(自引谷)에서, 26일 순창군 내동(內洞)에서,

12월 8일 삼남면(森南面) 낭월산(郎月山)에서, 21일 식지면 대안촌(食知面 大安村)에서, 1909년 5월 4일 영광군 육창면 묵동(六昌面 默洞)에서 일본 수비대와 헌병대 및 경찰관과 교전하였다. 1909년 5월 28일 전해산 의진이 해산하자, 그 중에 30명을 규합하고 보병총 1정, 화승총 16정, 그리고 다량의 화약과 탄환을 휴대하고 독립 의진을 구성하였다. 6월 8일과 14일 함평군 일대에서 군자금 모금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6월 19일에는 영광군 불리면 건두산(佛里面 乾頭山)에서 일본 수비대, 헌병대와 교전하였다. 이후 7월 16·17일까지 영광·장성·광주·무장·나주 일대에서 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불의한 짓을 혐오하여 의병을 빙자하여 민폐를 끼쳤던 박기춘(朴基春)과 김기순(金基順) 등을 1908년 10월과 11월에 처단하기도 하였다. 1910년 1월 영광 불리면 건두산(乾頭山)에서 일본 수비대와 교전하였으나, 적 수십 명에게 포위되어 마침내 체포되었다. 광주지방재판소에서 1910년 6월 3일 유죄선고를 받고 1910년 7월 21일 사형언도가 확정되어 교수형에 처해져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제1권 631쪽).

★ 박장봉(朴章奉, 출생 ; 월야)

함평출신인 박장봉은 이강산과 함께 1909년 8월 29일(음 7월 14일) 함평 등지에서 적과 교전한 후 나주 헌병 분견소 구밀파견소의 악질밀정으로서 평소 의병활동을 방해해오던 반민족분자 이판안(李判安)·김정태(金正泰)·최치도(崔致道)·박복남(朴福男)이 그곳 이양삼(李良三)의 집에 온 것을 탐지하고 이들을 처단하는데 앞장섰다. 이강산은 이들이 주막에 모여 있는 것을 탐지하고 박장봉을 비롯하여 박치일(朴致一)·정인술(鄭寅述)·서상학(徐成學) 외 2인에게 작전을 지시하였고, 이들이 주막에 이르렀을 때, 마침 양창국(梁昌國)과 박병수(朴丙洙)가 그 곳에 와 있었으므로 이들을 동참시켜 여덟 명이 합심하여 이판안·김정태·최치도를 현장에서 살해하고 박복남을 산중으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이 사건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광주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대구복심법원 공소심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1910년 6월 10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30세의 젊은 나이였다. 본관과 구체적인 출신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200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박장봉
생존기간: 1881↔1910. 6. 2
훈격(년도): 애족장(2003)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전해산(全海山) 의진에서 활동하였으며 이후 1909년 7월부터 9월까지 전남 함평·영광 등지에서 이강산(李江山) 의진에 가담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박장봉은 이강산이 망국의 상황에서 1909년 7월 의병을 일으키기로 뜻을 세우고 함평군 대야면에서

동지를 모집하자 서성학·정인술·박치일·양창국 등과 이강산의 뜻에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의병을 조직하였다. 이강산은 일찍이 의병전선에 참전하여 명성을 날렸던 김준(金準 : 金泰元) 의진을 계승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김준이 1908년 봄 일본군과 교전 끝에 순국하자 독자적으로 의진을 편성하여 계속 활동하였다. 박장봉은 이강산과 함께 1909년 8월 29일 함평 등지에서 적과 교전한 후 나주 헌병 분견소 구밀파견소의 밀정 이판안(李判安)·김정태(金正泰)·최치도(崔致道)·박복남(朴福男)이 그곳 이양삼(李良三)의 집에 온 것을 탐지하고 이들을 처단하였다. 이들은 평소에 의병활동을 방해해오던 인물로서 반민족분자로 지목되어 있었다. 이강산은 이들이 주막에 모여 있는 것을 탐지하고 박장봉을 비롯하여 박치일·정인술·서성학 외 2인에게 작전을 지시하였고, 이들이 주막에 이르렀을 때, 마침 양창국(梁昌國)과 박병수(朴丙洙)가 그 곳에 와 있었으므로 이들도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렇게 의견이 일치된 8사람이 협력하여 이판안·김정태·최치도를 현장에서 살해하고 박복남을 산중으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박장봉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적에게 탐지되어 피체되었으며, 1909년 12월 25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모살(謀殺)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10년 6월 2일 마침내 형이 집행되어 사형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제15권 199쪽).

★ 박치일(朴致一, 출신 ; 월야)

박치일 역시 앞의 박장봉과 같이 나주 헌병분견소 구밀파견소의 악질밀정인 이판안(李判安)·김정태(金正泰)·최치도(崔致道)·박복남(朴福男)이 그곳 이양삼(李良三)의 집에 온 것을 탐지하고 이들을 처단하였다. 이들은 평소에 의병활동을 방해해오던 인물로서 반민족분자로 지목되어 있었다. 광주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대구공소심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1910년 6월 10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박치일(朴致一)

생존기간: 1882. 7.17↔1910. 6. 2
훈격(년도): 애국장(90)
출생지: 전남 화순

박치일은 전라남도 화순(和順) 출신이다. 1909년 7월 하순경에 김 준(金準) 휘하에서 이강산(李江山)을 의병장으로 하여 의거에 참여하였다. 이때 정인술(鄭寅述)·박장봉(朴章奉)·서성학(徐成學)·양창국(梁昌國) 등이 함께 참가하였다. 8월 29일에는 나주헌병분견소 구례파견소의 밀정

으로 활약하던 이판안(李判安)·김정태(金正泰)·최치도(崔致道)·박복남(朴福男)을 살해하는 등의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그간의 활약상이 적에게 노출되어 체포되었다. 12월 25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모살죄로 교수형이 언도되어 항소하였으나 1910년 3월 8일 대구공소심(大邱控訴審)에서 기각되었다. 6월 2일 대구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제1권 640쪽).[416]

★ 서성학(徐成學, 출생 ; 월야)

역시 앞의 박장봉·박치일과 함께 악질 친일밀정 4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1910년 6월 2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정부는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서성학(徐成學)
생존기간: 1910년 46세~
훈격(년도): 애국장(99)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09년 7월부터 9월 경까지 전남 함평·영광 등지에서 이강산(李江山) 의진에 가담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상업에 종사하던 평민 출신의 이강산은 망국의 상황에서 1909년 7월 의병을 일으키기로 뜻을 세우고 함평군 대야면에서 동지를 모집하였다. 이때 서성학은 정인술·박치일·양창국·박장봉 등과 함께 이강산과 뜻을 같이 하기로 결의하고 의병을 조직하였다. 이강산은 일찍이 의병전선에 참전하여 명성을 드날렸던 김준(金準 : 金泰元) 의진을 계승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의 선봉장 김준은 1908년 봄 일본군과 교전 끝에 순국하였지만, 김준의 의병부대는 그 부하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강산은 독자적으로 의진을 편성하여 계속 활동하였다. 이강산의진에서 서성학 등은 함평·영광 등을 무대로 군자금을 모집하는 한편 1909년 8월에는 나주헌병분견소 구밀파견소에 속해 있으면서 평소 의병활동을 방해하던 밀정 3인을 처단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1909년 12월 25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모살죄로 사형을 받고 1910년 6월 2일 대구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제14권 395쪽).

416) 박차일은 당초 화순에서 태어났으나 월야로 이거하여 거주한데다 그의 활동 주무대가 함평의 문장과 월야였으므로 여기(함평군사)에 게재한다.

★ 서봉관(徐鳳寬·호 : 存誠齋, 본관 : 이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동지들을 규합하여 왜적과 싸우다 순국하였다.

★ 신동욱(辛東旭·호 : 心史, 본관 : 영산, 1870. 2. 1~1942. 11. 6)

★ 신동화(辛東華·호 : 春松 · 동욱의 아우, 1875. 8. 22~1946. 9. 24)

나산면 송암리 출신인 이들 형제는 일제를 규탄하는 반일운동을 전개하면서 소위 일제의 은사금(恩賜金)을 끝까지 거부하다 투옥되었던 신성준(辛性準)의 아들로 1907~1908년 김태원·전수용·심남일·정원집(鄭元執·서울) 의병장들과 거의한 바 있으며 주로 이들의 의병부대에 군량미 등 주로 군수물자를 공급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함평의 이영준(李永俊)·정우찬(나주)·이종석(전주)·유도희(정읍) 등 동지들을 규합하여 러시아제(露國製) 무기를 수입, 의거를 꾀하다가 장성에서 체포되어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417]

★ 심상국(沈相國 · 호 : 雲山, 1889~1958)

심남일 의병장의 장남으로 심남일 의병부대가 창설될 때 겨우 18세의 나이로 소모사장(召募司將)을 맡은 그는 7척 거구(七尺巨軀)였다. 1908년 3월 강진 오치(吾峙) 전투로부터 1909년 5월 보성 천동(泉洞) 전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도왔다. 나산면 송암리 신동욱(辛東旭)으로부터 군량의곡(軍糧義穀)으로 쌀 40석을 헌납 받는 등 군자금과 군량미 모집에 힘썼으며 1911년 임곡헌병대로부터 가택수색을 당할 때 금평산(琴平山, 일본 헌병수비대장)의 유품이 발견되어 태형(笞刑) 90대를 맞고 풀려났었다. 일경은 다시 그를 사상범으로 구속 기소, 광주형무소에서 8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출감하였고 3·1운동 때는 은사(恩師) 오준선과 고종인산(因山)에 함께 참여, 통곡하고 만세를 주동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5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방면되었다. 1942년 대홍수 때 가옥이 파괴되어 복구자금을 수령해가라는 통지를 받고 '더러운 왜놈의 돈은 받지 않는다'고 거부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그의 장남이 징병영장을 받자 나라의 원수를 못 갚아 한인데 원수를 위해 싸워서는 안 된다며 지리산으로 아들과 같이 피신하는 등 항일에 앞장섰다.

★ 양창국(梁昌國, 출생 ; 월야면)

나라가 망하는 위급한 시국을 맞은 양창국은 당시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김태원의 막하에서, 다음에는 조경환과 함께 항일의병부대를 편성하여 투쟁하다가 전해산 부대에 다시 합류하여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해산부대가 해산함에 다라 1909년 7월 하순 박치일(朴致一)·이강

417) 이 두 형제의 의병활동 역시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 전거를 제대로 찾지 못해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 속히 공인되기를 기대하는 바다. 특히 신동욱은 고종의 밀명을 받은 임병찬(林秉瓚)이 조직한 '독립의군부' 함평군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의 의병활동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산(李江山) 등 20여명과 함께 독립부대를 창설, 불갑산을 근거지로 삼아 함평·영광 등을 종횡무진하며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날이 갈수록 왜적들은 악랄해져 우국지사 가족에게까지 학살과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으며 헌병 밀정들의 횡포 또한 목불인견이었다. 1909년 8월 29일(음 7월 14일) 대야면 내정리(大野面 內亭里, 현 월야면) 산중에 잠입해 있을 무렵 나주헌병대 구밀(求密, 현 해보면 문장리) 파견소의 악질 밀정 이판안(李判安)·김정태(金正泰)·최치도(崔致道)·박복남(朴福男) 등 4명이 구밀에서 주막을 경영하는 이양삼(李良三)집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평소 소행에 분개하고 있던 양창국은 그 원한을 씻기 위해 이강산을 비롯한 박치일(월야면 출생 29세)·정인술(鄭寅述, 월야면 36세)·박장봉(해보면 30세)·서성학(월야면 46세)과 함께 쟁기보습 조각과 몽둥이를 들고 급습하여 이판안·김정태·최치도는 그 자리에서 즉사케 하고 박복남은 내정리의 산속으로 끌고 가 처치하였다. 조국을 배반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다. 이 때 합세한 의병은 위의 6명이 함께 잡혀 광주지방재판소 교수형을 선고받고 대구 복심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1910년 6월 2일 대구형무소에서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들을 '6의사(六義士)'라 부르며 고향후세들이 추앙하고 있다. 정부는 35세의 나이로 순국한 그의 장한 얼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 12월 13일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양창국(梁昌國)
생존기간: 1884. 5. 5↔1910. 6. 2
훈격(년도): 애국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라남도 함평(咸平) 출신이다. 1909년 국운은 날로 기울어 일제는 본격적으로 식민지화의 초석을 다지고 있던 시기이다. 이때는 일제의 끈질긴 의병 토벌전에 의해 의병운동도 패색이 짙어졌고 대규모의 의진 구성보다는 유격전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점에서 1909년 7월 하순경 양창국은 김 준(金準·泰元) 의진 휘하의 이강산(李江山) 부대에 입대하여 활약하였다. 8월 29일 함평군 대월면 내정리(大月面 內亭里) 산중에서 유진하고 있을 때, 나주헌병 분견소 구밀 파견소의 밀정인 이판안(李判安)·김정태(金正泰)·최치도(崔致道)·박복남(朴福男) 등 4명이 주막을 경영하는 이양삼(李良三) 집에 온 것이 탐지되었다. 이들은 평소에 이강산 의진의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오던 존재라서 곧 제거되어야 하였다. 양창국은 동료 6명과 함께 이양삼의 집에 이르러 주민 2명의 협력하에서 그들을 난타하여 타살시키고 그 중에 박복남은 산중으로 연행하여 자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의병운동이 적에게 노정되어 많은 동지들이 체포되었다. 양창국은 처음에 몸을 숨겨 피신하였으나 더 이상 은신생활을 지탱할 수 없어 일경에 자수하였다. 양창국은 동료와 함께 재판에 회부되어 1909년 12월 25일 광주 지방 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10년 4월 27일 끝내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사형,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제1권 727쪽).

★ 오영찬(吳泳瓚·호 : 後栢堂, 본관 : 낙안, 1874~1936)

김태원 의병장의 처남으로 거병에 따르는 군량·병기 등에 관해 사전협의하였고 1906년 11월 김태원 부대의 일원으로 나산헌병소를 습격, 권총 3 정 등 다수를 노획하는 전공을 세웠다. 1906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나주·영산포·광주 무등산·화순 동복 등지에서 기습작전을 벌였고 1907년에는 장성 백양사·부안·변산·고창·함평의 헌병소를 습격하였으며 1908년 정월 창평에서 요시다(吉田)를 사살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박산(博山 : 현 광산군 임곡면)에서 김태원이 전사하자 흩어진 부대를 수습하는데 힘썼으며 그도 총상을 입고 피신하였다. 그 후 그는 장성의 산중에 숨어 지내면서 노모(老母)를 극진히 봉양했다. 나산면 출신(원적은 김태원과 같은 갈마지이고 본적은 나산면 삼축리)이다. 정부는 그의 의병활동 공적을 인정하고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오영찬(吳泳瓚)
생존기간: 1874. 4. 5~1936. 6. 8
훈격(년도): 애족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라남도 함평(咸平) 출신으로 의병장 김 준(金準)의 처남이다. 1905년 일제의 강제에 의하여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 준에게 총 2,000정을 주어 의거를 도왔다. 1906년 10월 6일 김 준 의진과 기삼연(奇參衍) 의진이 합진하자 이에 참가하여 고창(高敞) 방등산(方登山), 영광(靈光)의 불갑산(佛甲山) 등지에서 왜군과 접전하였다. 이어서 나주(羅州) 영산포(榮山浦)에서 석성(石城)에 복병하였다가 적 120여명을 살해하고 무기 120여 정을 탈취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1908년 3월 25일 의병장 김 준이 나주 상박산(上博山)에 유진하고 박천(博川) 전투에서 적과 접전하던 중 전사하였을 때 오영찬은 이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두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12월 1일 장성(長城)에서 적에게 체포되어, 오영찬은 죽느니만 못하다고 여겨 속히 죽이라고 적을 크게 꾸짖었다. 적은 패군을 죽이는 것은 무익하다고 여겨 석방시켰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1권 742쪽).

★ 윤의병(尹誼炳·호 : 東下, 본관 : 파평)

제1차 의병봉기 때[418] 장성출신 기우만(奇宇萬)과 거의(擧義)하려다 발각되어 산속에 살면서 고종이 승하하자 '왜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지 못하면 상복을 벗지 말라'는 통문을 전국 각지에 보냈다. 이후 체포되어 목포형무소에 갇혔으나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장문의 글을 총독

418) 을미사변에 분격하여 1896년 1월 20일 이후 봉기한 의병을 말함.

에게 보내 주효하여 석방되었다. 그러나 종신토록 백립(白笠)을 벗지 않았다.

★ 이강산(李江山) 의병장(본관 : 함평, 자 : 仁國, 일명 : 敦益)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위국진충(爲國盡忠)을 못한다면 누가 대장부라 하리오'라는 노래를 지었고 지니고 다니던 칼에도 '위국진충'을 새겼다. 그는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김태원의 막하에서, 다음에는 조경환과 함께 항일의병 전을 펴다가 전해산 부대와 합류하여 전공을 세웠으나 전해산의 부대가 해산하자 1909년 7월 하순 박치일(朴致一)·양창국(梁昌國) 등 20여명과 함께 독립부대를 창설, 의병장이 되어 불갑산을 근거지로 함평·영광 등을 종횡하며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날이 갈수록 왜적들은 악랄해졌고 그의 가족에게 만행이 자행되었으며 헌병밀정들의 횡포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1909년 8월 29일(음 7월 14일) 대야면 내정리(大野面 內亭里, 현 월야면) 산중에 잠입해 있을 무렵 나주 헌병대 구밀(求密, 현 해보면 문장리) 파견소의 악질밀정 이판안(李判安)·김정태(金正泰)·최치도(崔致道)·박복남(朴福男) 등 네 명이 구밀에서 주막을 경영하는 이양삼(李良三)집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평소 소행에 분개하고 있던 차 그 원한을 씻기 위해 쟁기의 파편과 몽둥이를 들고 급습하여 이판안·김정태·최치도는 그 자리에서 즉사케 하고 박복남은 내정리 산속으로 끌고 가 처형하였다. 조국을 배반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다. 이 때 합세한 의병은 박치일(월야면 출생 29세)·정인술(鄭寅述, 월야면 36세)·박장봉(朴章奉, 해보면 30세)·서성학(徐成學, 월야면 46세)·양창국(36세)이었다. 나중에 이강산과 위의 5명이 함께 잡혀 대구 형무소에서 모두 교수형을 당했다. 월야의 6의사(六義士)라며 후세들이 추앙하고 있다. 37세의 나이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그의 장한 얼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 12월 13일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고 해보면 금덕리 묘소에는 목포 원호지청 주관으로 묘비가 세워졌다. 후사(後嗣)가 없으므로 손녀인 이금순(李今順)이 제사를 받들고 있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이강산(李江山)
생존기간: 1874. 4.16~1910. 6. 6
훈격(년도): 독립장(77)
출생지: 전남 함평

전라남도 함평(咸平) 출신으로 상업에 종사하였다. 1909년 7월 하순경에 함평군 대야면 복룡리(大也面 伏龍里)에서 동지 박치일(朴致一)·정인술(鄭寅述)·박장봉(朴章奉)·서성학(徐成學)·양창국(梁昌國) 등과 함께 의거의 기치를 올렸다. 이들은 일찍이 의병운동에 참여하여 명성을 드날리고 있던 김 준(金準, 泰元)의병장 휘하에 입대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밀정 이판안(李判安)·김정태(金正泰)·최치도(崔致道)·박복남(朴福男)이 그곳 이양삼(李良三)의 주막에 모여 있는 것을 탐지하였다. 1909년 8월 29일 함평 등지에서 적과 교전한 후 나주 헌병 분견소 구

밀파견소의 이들은 평소에 의병활동을 방해해 오던 인물로서 반민족분자로 지목되어 있었다. 이강산은 함께 동행하고 있던 박치일·정인술·박장봉·서성학 외 2인에게 작전을 지시하였다. 이들이 이양삼의 집에 이르렀을 때, 마침 양창국(梁昌國)과 박병수(朴丙洙)가 그곳에 와 있었으므로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 이에 양창국과 박병수도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렇게 의견이 일치된 8사람이 협력하여 이판안·김정태·최치도를 현장에서 살해하고 박복남을 산중으로 연행하여 살해하였다. 그후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적에게 탐지되어 체포되었으며, 1909년 12월 25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모살죄(謀殺罪)로 교수형이 언도되어 항소하였으나 1910년 3월 8일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서 기각되어 원심(原審)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1910년 6월 6일 마침내 형이 집행되어 사형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제1권 801쪽).

★ 이남규(李南奎 · 본관 : 함평, 1867~1907. 11. 7)

조선조에서 마지막 시행한 사마시(司馬試) 진사과(進士科)에 합격(1894)한 선비이자 유림으로서 을사늑약에 울분을 참지 못하던 중 장성의 기삼연(奇參衍)이 창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암촌(文庵村, 나산면 수하리)에 살고 있던 이남규는 바로 도랑하나 건너 이웃마을이자 나주의 갈마지촌(渴馬村)에 살고 있던 김태원을 찾아가 거의(擧義)를 상론했다. 그는 장성의 기삼연 의진에 참여하여 1907년 9월 25일(음) 전북 무장으로 진격, 적장을 살해하는 전과를 올렸고 11월 3일 밤 10시 경에는 법성포에 나아가 적 10여명과 일본사람 가옥 10여 채를 불살랐다. 이 전투가 끝난 후 기삼연 대장의 권유에 따라 새로 창설된 김태원 의병부대의 대원이 되어 11월 7일 고창 전에서 적에게 포위되어 용전분투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이남규(李南奎)
생존기간: 1856. 8.26~1907.11. 7
훈격(년도): 애국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라남도 함평(咸平) 출신이다. 1907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 체결되고 이어서 일제의 책동에 의하여 한국군이 8월에 해산되었다. 이남규는 통분함을 금치 못하다가 을미 의병으로서 호남에서 이름을 드날린 기삼연(奇參衍)과 더불어 석수승암(石水僧庵)에 회동하여 거의하였다. 이어서 의진의 진용을 편성하였는데 이남규는 후군(後軍)에 임명되었다. 음력 9월 23일 의진은 고창 문수암(高敞 文殊庵)으로 진군하는데 이를 탐지한 적군의 내습을 받아 접전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안겨 주었다. 교전 끝에 고창성을 함락시키고 성하(城下)에서 부하를 지휘하던 중 성이 다시 무너져 중상을 입고 은신하였다. 그러나 끝내 어느 여인의 밀고로 적에게 체포되어 1907

년 11월 7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제1권 813쪽).

★ 이돈구(李敦求 · 호 : 松塢, 본관 : 함평)

1908년 동지 여러 명과 거의(擧義)를 하다가 사전에 누설되어 무안의 입석전(立石戰)을 치르는데 그치고 말았다.

★ 이두헌(李斗憲 · 본관 : 함평, 호 : 南坡)

28세에 의병이 된 그는 전해산 부대의 참모장(參謀將)이 되어 1908년 7월 25일(양 9. 26) 불갑산 전투, 10월 6일(음) 나주 대명촌 전투, 10월 24일(음) 담양 대치 전투를 치르고 1901년 1월 1일(양) 고막원 병참소를 습격했다. 이 전투에 대해 『전남폭도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전 3시 총을 휴대한 비도 약 100명이 고막원 분견소에 침입, 응전 격퇴시켰는데 보조원 2명이 즉사했다. 학다리 주재소와 목포경찰서 경찰이 지원하기 위해 급히 달려왔으나 교전 후여서 종적을 알 수 없었다. 1월 5일 5시 고막원 분견소 헌병이 전사한 보조원의 시체를 호송중인데 시랑면 문암리(侍郎面 文岩里, 현 다시면 가운리에 따른 촌락)에서 약 50명의 비도로부터 습격을 받아 보조원 1명이 또 전사했다. 즉시 추격했으나 종적을 잃었다."

1909년 3월 20일(양 5, 4) 영광 오동촌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전해산 부대가 해산된 후 나산면 송암리 산중에 숨어 지내다가 체포되어 광주옥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해보면 용산리에 의적비가 세워졌다.[419]

★ 이원범(李元範 · 본관 : 함평)

부친 이남규 호군장(犒軍將·기삼연 부대)과 함께 의병에 참여하였다. 전북 고창 싸움에서 아버지가 순절하자 적중에 뛰어들어 아버지의 시신을 부둥켜안고 그도 순국하였다.

★ 이진욱(李珍旭 · 본관 : 함평)

이남규의 숙부(叔父)로서 감찰(監察) 벼슬에 있던 그는 이남규와 그 아들이 순국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1907년 12월(음) 김태원 부대에 가담하여 싸우다 1908년 3월 17일 나산(羅山) 전투에서 순국하였다.

---

419) 이두헌의 의병공적은 아직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 그 후손이나 지인들이 그 공훈을 찾아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여 공식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여기에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공훈록』에 수록된 공훈내용을 싣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하 공훈내용을 싣지 못하는 다른 유공자들도 마찬가지다.

★ 전관섭(全貫燮 · 호:逸隱)

★ 전상회(全相繪·관섭의 숙부)

★ 전성섭(全晟燮 · 관섭의 형)

이들 세 의병은 천안 전씨 한 가문으로 전해산 부대가 불갑산 전투를 치르고 손불면 양재리로 옮겨 주둔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의병이 되었다. 양재리에 주둔했던 의병들은 현 영광군 군남면의 오동촌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후 이들 3의병은 신명을 다해 싸웠다.

★ 전창권(全昌權 · 호 : 기은, 본관 : 천안)

제2차 의병봉기(을사늑약 반대 의병봉기) 때 최익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결지로 가려했으나 80 고령이라 가지 못하고 2년 후 울화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02년 기로소(耆老所)에[420] 입소했던 중신으로 1909년 가선대부가 증직되었다.

★ 정낙중(鄭洛中)

정낙중은 기삼연 호남창의회맹의 선봉부대인 김태원 의진에 소속되어 2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남 각지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집요한 추격을 받은 김태원 의병장이 광주 어등산(魚登山) 전투에서 전사하자, 그는 1909년 2월 박사화(朴士化) 의진에 참여하여 의병투쟁을 계속하였다. 박사화 의진은 1909년 6월 나주군 욱곡면(郁谷面) 방축동(防築洞)에서 일본헌병과 보조원 4명을 기습 공격하여, 헌병 1명을 부상시키고 보조원 1명을 사살하는 전공을 세웠다. 또한 7월에는 영암군 종남면(終南面) 화수동(花水洞)에서 친일 동장 김치수를 처형하였으며 지도군(智島郡) 압해면(押海面)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낙중은 이어 1909년 8월부터 나성화(羅成化) 의진에 입진하여 제4초 십장(第4哨 什長)의 직임을 맡아 군사들과 함께 전남 무안부(務安府) 삼향면(三鄕面)에서 일본인 율산학길(栗山鶴吉)을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다 결국 일본군에 체포되어 1910년 1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교수형이 선고되어 처형돼 순국했다. 정부는 200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정낙중(鄭洛仲)

420) 조선조의 경로당. 기사(耆社)라고도 한다. 태조때 경로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 정 2 품 이상 벼슬을 한 사람 중에서 70세 이상이 되었거나 임금도 연로하면 참가하는 곳.

생존기간: 1910년 27세~1910. 3월
훈격(년도): 애국장(200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그는 일제의 국권침탈로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1907년 김태원(金泰元 : 일명 金準) 의진에 참여하여 대일항전에 나섰다. 의병장 김태원은 1907년 전남 장성에서 거의한 기삼연(奇參衍) 의병장의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에서 선봉장으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특히 1908년 1월 무동촌(舞童村)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적장 길전승삼랑(吉田勝三郎)을 사살하는 등 나주·영광·광주·함평 등 전남 일대를 누비며 맹위를 떨쳤다. 정낙중은 이와 같은 김태원의진에 소속되어 2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전남 각처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집요한 추격을 받고 마침내 광주 어등산(魚登山) 전투에서 김태원 의병장이 전사 순국하자, 그는 1909년 2월 박사화(朴士化)의진에 참여하여 대일항전을 계속하였다. 박사화 의진은 1909년 6월 나주군 욱곡면(郁谷面) 방축동(防築洞)에서 일본 헌병과 보조원 4명을 기습 공격하여, 헌병 1명을 부상시키고 보조원 1명을 사살하는 등 전공을 세웠다. 또한 7월에는 영암군 종남면(終南面) 화수동(花水洞)에서 친일 동장 김치수를 처단하였으며 지도군(智島郡) 압해면(押海面)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활동하였다. 정낙중은 이러한 박사화의진에 소속되어 전남 각지를 넘나들며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이어 1909년 8월부터는 나성화(羅成化)의진에 입진하여 대일항전의지를 불태웠다. 정낙중은 나성화의진에 소속되어 제4초 십장(第4哨 什長)의 직임을 맡아 군사들과 함께 전남 무안부(務安府) 삼향면(三鄕面)에서 일본인 율산학길(栗山鶴吉)을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결국 일본군에 체포되어 1910년 1월 26일 고등법원에서 교수형이 확정되어 3월 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제14권 713쪽).

★ 정동근(鄭東根·호 : 雲史, 1869~1954)

나산면 수상리 출신으로 최익현에게 사사(師事)하였고 경북 풍기에서 발족한 광복단에 제자인 김교락과 함께 1917년부터 참여한 후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앞장섰다. 동포들로부터 의로운 헌금을 받아 모으는 한편 친일세력들에게는 총칼로 협박하여 강제로 금품을 빼앗아 만주 등지의 독립군에 보내오다가 체포되어 대구복심법원에서 15년형을 언도받아 복역했다. 1977년 건국공로표창을 받았다. 나산면 수상리 출신이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정동근(鄭東根)
생존기간: 1867.4.22~1945.1.24
훈격(년도): 애국장(90)
출생지: 전남 나주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경술국치 이후 국권회복을 위해 기회를 모색하던 중 1917년경 뜻을 같이하는 김교락(金敎洛)·양재홍(梁在鴻)·문재교(文在敎)·김영하(金榮夏)·고성후(高成厚) 등과 동지적 결합을 맺고 우선 독립운동에 필요한 군자금 모집활동을 폈다. 이후 이들은 나주·함평(咸平)·화순(和順)·순천(順天) 등 주로 전남지역에서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1년여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1,000여원의 군자금을 수합하면서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러던 중 일경에 피체되어 1918년 1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언도받고 항소했으나 1919년 3월 대구복심법원에서 1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제7권 638쪽).[421]

★ 정석면(鄭錫冕 · 호 : 義齋, 본관 ; 나주)

★ 정헌면(鄭憲冕 · 호 : 後竹堂, 錫冕의 형)

형제가 김태원 부대에 가담하여 1907년 11월 장성 백양사, 담양 대치, 고창, 고산, 순창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특히 이들의 전공 중에서 가장 빛나는 전과는 1909년 3월 26일 순창에서 왜군토벌대 부대장(副隊長) 오가다(岡田)를 사살한 것이다.

☆『독립유공자공훈록』수록 공훈내용

성명: 정석면(鄭錫冕)
생존기간: 1886. 3. 8~1909. 4.29
훈격(년도): 애국장(91)
출생지: 전남 함평

정석면은 전라남도 함평(咸平) 출신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906년 호남 일대의 의병운동을 주도한 성재 기삼연(省齋 奇參衍)의진에 참여하여 광주(光州)·나주(羅州)·장흥(長興)에서 적과 접전하였다. 특히 왜장 강전(岡田)을 생포하여 처단하고 그들의 야포(野砲)와 탄환(彈丸)을 탈취하여 의병을 무장시키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1907년 4월 29일 백양사(白洋寺)에서 접전하던 중 적의 탄환을 맞고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1권 902쪽).[422]

421) 정동근 역시 나주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나산면 수상리로 이거하여 거주하면서 군자금 모금에 앞장서는 등 독립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함평출신으로 간주했다.

★ 정윤면(鄭胤勉·호 : 忍齋, 본관 : 나주, 1851. 4. 22~1908)

나산면 이문리출신으로 김태원과 함께 기삼연 의병부대에서 활약하다가 김태원이 독립부대를 창설하자 김태원 부대원으로 영광 염산전투 등 각처의 의병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 그는 광산군 어등산(魚登山) 전투에서 패하자 재기를 꿈꾸며 고향에서 의병과 자금을 모으고 있던 중 발각되어 1908년 2월 11일 밤에 체포되어 나주군 문평면 갈마지 뒷산에서 처형되었다.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정윤면(鄭胤勉)
생존기간: 1851. 4.22~1908. 2.11
훈격(년도): 애국장(91)
출생지: 전남 함평

전라남도 함평(咸平) 출신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이에 반대하여 거의하였다. 처음에 그는 기삼연(奇參衍) 의진에 입대하여 활약하였고, 후에 김태원(金泰元) 의병장 휘하에서 의병으로 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활약하였다. 그 중에서 나주(羅州) 영산포(榮山浦) 전투와 광산군(光山郡) 본량면(本良面) 어등산(魚登山)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1908년 초 의병장 기삼연과 김태원이 전사하자 나머지 의병을 규합하여 재정비하고 계속하여 재기할 것을 도모하던 중 적군의 습격을 받아 체포되었다. 1908년 2월 11일 나주 거평방(居平坊)의 산기슭에서 적에게 살해당하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1권 911쪽).

★ 정병표(鄭炳豹·호 : 壯庵, 본관 : 나주)

전해산 의병부대에서 활약했다.

★ 정인술(鄭寅述, 일명 允摸, 자 : 金模, 호 : 松隱, 본관 : 동래, 1875~1910)

처음에는 기삼연, 그 후에는 김태원·전해산 부대에서 활동하다가 이강산 의병대가 창설되자 여기에 참여, 불갑산을 근거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강산과 함께 이판안(李判安)·김정태(金正泰)·최치도(崔致道)·박복남(朴福男) 등 왜놈의 악질밀정 4명을 구밀(현 : 해보면 문장리)에서 사살한 후 체포되어 광주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 선고를 받았다. 대구복심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대구형무소에서 1910년 6월 10일 이강산 등 5명의 동지와 함께 처형되었다. 정부는 1977년 12월 13

422) 정석면은 형 정헌면과 함께 의병투쟁을 벌였으나 국가로부터 정석면만 공인받았음을 밝혀둔다.

일 건국표창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정인술(鄭寅述)
생존기간: 1879. 3.15~1910. 5.
훈격(년도): 애국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라남도 함평(咸平) 출신이다. 1907년 9월 호남의 기삼연(奇參衍) 의진에 입진하여 담양·능주·장성 등지에서 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 1908년 3월 김 준(金準) 의진에 입진하여 장성·담양·광주 등지에서 적과 접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5월 이후에는 조경환(曺京煥) 의진에 소속되어 함평·나주 등지에서 교전하였다. 1909년에는 전해산(全海山) 의진에 소속되어 소모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이후 이강산(李江山)의 지휘하에 함평 지방의 나주 헌병 분견소 밀정 이판안(李判安)·김정태(金正泰)·최치도(崔致道)를 동지 박치일(朴致一)과 함께 처단하였다. 그후 이러한 일련의 의병운동이 노출되어 체포되었으며, 광주지방 재판소에서 소위 폭동 및 모살죄로 1909년 12월 25일 교수형을 선고받고 대구공소원에 공소하였으나 1910년 3월 8일 공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어 사형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제1권 912쪽).

★ 정일삼(鄭壹三, 일명 鄭基三)

정일삼은 김삼연 의진과 김태원·김율 형제의진에 참여하여 전북 고창과 광주·나주·함평에서 의병활동을 벌였다. 특히 정일삼은 1907년 10월 4일 오영찬(吳泳瓚)·최득권(崔得權) 등 동지 10여 명과 함께 엽총 16정을 구입하여 무장하고, 다음 날 밤 김태원·김율과 함께 나주에서 거의하였다. 이어 같은 달 6일 5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한 뒤 고창 문수사(文殊寺)에 가서 기삼연 의진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1908년 2월 2일 기삼연 의병장이 피체되어 순국한 이후에는, 김태원 및 김율의 의진에 다시 종군하면서 1908년 3월까지 고창·광주·나주·함평 등지에서 의병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1995년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정일삼(鄭壹三)
생존기간: 1885. 7.19~1964.12.12
훈격(년도): 건국포장(95)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기삼연(奇參衍) 의진 및 김태원(金泰元)·김율(金聿) 의진에 참여하여 전북 고창(高敞), 전남 광주(光州)·나주(羅州)·함평(咸平)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아래 1905년 11월 체결된 「을사륵약(乙巳勒約)」은 우리 민족에게 국망의 위기를 절감하게 하였다. 국권강탈 행위인 을사륵약은 일제가 그간 은폐해 왔던 한국 식민지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언론활동·종교활동·교육활동·학술활동 등을 통한 국민 계몽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이었다. 특히 의병운동은 1907년 7월 「정미7조약(丁未7條約)」에 따른 군대해산으로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국민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정일삼은 이같은 시기인 1907년 10월 4일 오영찬(吳泳瓚)·최득권(崔得權) 등 동지 10여 명과 함께 엽총 16정을 구입하여 무장을 준비하고, 다음 날 밤 김태원·김율과 함께 나주에서 거의 하였다. 이어 같은 달 6일 5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한 뒤 고창 문수사(文殊寺)에 가서 기삼연 의진과 합진하여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기삼연 의진에서 활동하다가 1908년 2월 2일 기삼연 의병장이 피체되어 순국한 이후에는, 김태원 및 김율의 의진에 종군하면서 1908년 3월 경까지 고창·광주·나주·함평 등지에서 일제에 항전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제13권 520쪽).

★ 정환세(鄭桓世 · 호 : 月亭, 본관 : 진주)

최익현 의병 부대에서 활약했다.

★ 정후현(鄭厚鉉 · 호 : 桂亭, 본관 : 진주)

김태원 의병부대에서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치사 당했다.

★ 정희면(鄭凞冕, 본관 ; 나주)

정희면은 1906년 국권회복을 위해 일심계(一心契)를 조직하여 동지를 규합한 후 기삼연 의진에 들어가 김형식(金炯植)·박용근(朴溶根)·오태윤(吳泰允)·이영화(李永華) 등과 함께 의병을 이끌고 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 후에도 계속 의병활동을 벌이다 1908년 체포되어 6개월 유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정희면(鄭熙冕)
생존기간: 1866. 8.15~1945. 9.14
훈격(년도): 애족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06년 봄 국권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김용구(金容球)가 일심계(一心契)를 조직하고 동지를 규합할 때 여기에 동참하여 활동하였고, 이어 1907년 8월에는 기삼연(奇參衍) 의병장의 휘하에 들어가 김형식(金炯植)·박용근(朴溶根)·오태윤(吳泰允)·이영화(李永華) 등과 함께 의병을 소모하는 한편 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같은 해 10월 일군이 수백 명의 군중을 모아 놓고 김용구의 집에 방화할 때 피체되어 광주(光州)로 이송되었으며 1908년 봄 유형(流刑) 6개월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제9권 446쪽).

★ 편무경(片茂景 · 호 : 德圃, 본관 : 절강)

16세 때 같은 동네의 박영근이 전해산 부대의 호군장이 된 것을 부럽게 생각했으나 나이가 어려 실전의병(實戰義兵)으로는 출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해산 부대의 근거지가 된 유덕산(有德山)이 왜적의 나산병참소와 구밀파견소 그리고 네 거리헌병소가 각각 10리 안팎이었기 때문에 전령의 자격을 얻어(전해산 의병일지에는 편군(片君)으로만 표기됨) 항상 적의 동태를 살펴 의병진에 알림으로써 피해를 면하게 하기도 하고 승전케도 하였다. 1924~25년에는 편덕렬(片德烈·서울출신, 독립유공자 표창자)과 함평·나주에서 임시정부 자금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활동한 사람들[423]

※ 주소는 현재로 바꾸어 썼음.

성	명	주 소	연령	성	명	주 소	연령
이경률	李京律	월야면 방축	55	양편국	梁片局	해보면 시장	34
방응오	房應五	〃	61	이계선	李桂善	해보면 주현	21
김영철	金永哲	나산면 월봉리 안영동	31	김봉규	金奉圭	나산면 유덕산	30
배성관	裵成寬	신광면 사천	27	박선겸	朴善兼	해보면 가정	40
정흥숙	鄭興肅	나산면 삼축리	27	박장엽	朴長葉	해보면 오두	51
박문경	朴文景	월야면	37	오진상	吳鎭相	해보면 창서	47
김병환	金炳煥	대동면 백호리 백년동	21	강대성	姜大成	해보면	30
배운오	裵雲五	나산면 장재동	23	김정식	金正植	나산면 초포리 사산	36
김윤섭	金允燮	나산면 월평	30	윤효중	尹孝重	해보면 상옥리 모평	23
강봉옥	姜奉玉	월야면 외치리	27	박삼봉	朴三奉	함평읍 장교리 만년	23

423) 『전남폭도사』를 번역 출판한 李龍의 『秘史 韓末義戰史』, 146~152쪽.

이들 가운데 오직 오진상 만이 국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았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 속히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공인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오진상(吳鎭相) 의병장

오진상은 조선 왕조의 사헌부 감찰 직을 역임한 선비이자 유림의 거물로서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패망하는 상황을 암담하게 여긴 나머지 당초에는 최익현 의진에 참여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체포되어 대마도로 유배되어 가는데 자극받아 함평으로 낙향하여 수하인 김태원 의진에 들어가 호군장 및 참모를 맡아 전남 북에서 광범하게 활동한 의병장이다. 그가 속한 김태원 의진은 고막원에 있는 일본군 헌병대를 습격하여 병기를 탈취하였고, 이후 전북 고창과 담양 창평 등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잇달라 펼쳤다. 이듬해인 1907년 7월 일제가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강요하고 군대를 강제 해산하여 우리나라의 무력을 말살하는 등 식민지화 정책을 더욱 가속시켜 나갔다. 이에 김태원 의진은 1908년 일본군 부대를 공격하여 요시다(吉田) 중위를 사살하는 등 대승을 거두었고, 그해 3월 25일에는 나주의 상박산(上博山)에서 일본군과 또 다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전투력의 열세로 패전하고 김태원 의병장마저 전사하고 말았다. 오진상은 김태원 부대의 패잔병을 수습해 항일 무장투쟁을 계속 벌이다가 1909년 8월 15일 전남 사천(砂川) 매곡(梅谷)에서 일본군 보병 제1연대에 체포되었다. 이 때 일본군은 그를 위협하고 회유하였으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채 오히려 꾸짖자 사살해버렸다.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수록 공훈내용

성명: 오진상(吳鎭相)
생존기간: 1908;47세~1909. 8.15
훈격(년도): 애국장(95)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김태운 의진의 호군장(護軍將) 겸 참모로 전북·전남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를 강박하여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주권을 제약하였다. 이에 분격하여 우리 민족은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의 의병운동을 일으켜 무너져가는 국권을 회복코자 노력하였다.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출신인 오진상 역시 이러한 시기인 1906년 4월 국권회복을 이룩하겠다는 일념으로 당시 재야 유림의 거두로서 의병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최익현(崔益鉉) 의진에 참여코자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익현이 일본군에 피체되었으므로 통곡하고 남으로 내려와 김준 및 그의 동생 률(聿)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병기와 군복을 준비한 후 의병 수백 명을 모아 김준을 의병장으로 삼고 자신은 호군장(護軍將) 겸 참모로 활약하였다. 그가 속한 김준 의진은 전남 나주(羅州) 고막원에 있는 일본군 헌병대를 습격하여 병기를 탈취하였고, 이후 전북 고창

(高昌)·창평(昌平) 등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명성을 크게 떨쳤다. 이듬해인 1907년 7월 일제는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고 군대를 강제 해산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말살하는 등 식민지화 정책을 더욱 가속시켜 갔다. 이에 김준 의진은 1908년 일본군을 공격하여 고위 간부 요시다(吉田)를 사살하는 등 대승을 거두었고, 그해 3월 25일에는 나주의 상박산(上博山)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화력과 전투력의 열세로 말미암아 패전하고 김준 의병장 역시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진상은 패잔병을 수습하여 지속적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1909년 8월 15일 전남 사천(砂川) 매곡(梅谷)에서 일본군 보병 제1연대에 피체되었다. 이 때 일본군은 그를 위협하고 회유하였으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꾸짖다가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제13권 104쪽).

제7절 함평의 항일의병 전적지(戰跡地)

『한국독립운동사』(법원재판기록, 부록 한국폭도 봉기의 건), 『전남폭도사』(전남도경이 작성한 각종 비밀서류), 각 군 군지, 의병 개인행장기(個人行狀記) 등을 참조하여 함평에서 있었던 항일의병과 일본 군경 간에 벌어진 접전 지를 명확한 일자가 있는 것만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함평읍은 1907년 1월 30일, 담양읍을 1월 하순에 습격한 기삼연이 나주를 치려고 계획했던 곳이었으나 그나마 여기서 크게 패해(나산 쪽에서 전해온 것) 전북 순창군 조동(淳昌郡 槽洞, 현 복흥면 동산리)으로 피신했다가 체포되어 총살당했다.

○식지면 이문리(食知面 二門里, 현 나산면 이문리)는 1909년 12월 12일 이후 조정인(趙正仁, 나주 출신 의병장)이 탄약제조소(彈藥製造所)를 세워 의병활동에 필요한 실탄을 제조 공급하였던 곳이다.

○신광면 원산리 덕동(元山里 德洞, 옛 갓점·笠店)은 1907년 11월 1일~1908년 2월까지 심남일 의병장이 각 처에 격문을 띄우고 의병을 모아 훈련을 시켰던 곳이다. 그 수효가 6~700명에 이르렀다 한다.

○나산시장은 1907년 3월 김태원 부대가 왜병과 접전한 끝에 20여명을 사살한 곳이다.
또 나산시장은 1년 5개월 후인 1908년 8월 16일, 의병 60명이 나타나 일본 헌병들과 교전했던 곳이다. 『전남폭도사』는 한인 6명을 총살하고 1명을 부상케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나산시장은 1908년 10월 4일, 박영근 의병장이 의병을 빙자하여 양민의 금품을 강탈하던 박기춘을 공개 처형했던 곳이다.

○나산·해보면 일대는 1907년 8월~10월, 조경환(曺京煥, 광주출신 의병장) 의병부대 150여명이 왜적과 접전했던 곳이다.

○월악면 괴정리(月岳面 槐亭里, 현 월야면 괴정) 정이원(鄭頤元) 집은 1907년 11월 20일, 의병 4명이 내습하여 엽전 100냥을 군자금으로 가져갔던 곳이다(당시 의병배치 상황으로 보아

기삼연 부대인 듯 하다).

○함평주재소(현 함평경찰서?)는 1908년 1월 3일, 김 율(金聿) 부대 100여명이 내습하여 순사들과 교전하던 곳으로 왜적 응원부대가 오자 학교면 쪽으로 후퇴했다가 나산으로 피해 그 곳에서 싸우다 잠적했다. 이 때 왜인들 소지품을 다수 노획했다.

○또한 김태원·김율 연합부대 400여명은 19일 후인 1월 22일, 다시 함평주재소를 공격했다. 『전남폭도사』에는 히다노(波多野) 순사가 전사하고 목포분견대 소장 이하 6명이 응원하여 8시간 전투 끝에 격퇴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함평·장성·나주 일대는 1908년 1월 5일, 요시다(吉田) 소좌가 의병부대 토벌작전을 펼쳤던 곳이다.

○평능면(현 나산면) 김선달(金先達) 집은 1908년 1월 17일, 김태원 부대 20여명이 침입하여 한전(韓錢) 1,000관을 가져갔던 곳이다. 경찰이이 급거 출동했으나 잠적한 후였다.

○월야의 죽산(竹山, 현 대매)마을은 1908년 2월, 김 율 부대가 왜적과 싸웠으나 대패했던 곳이다.

○월악면 동촌(東村, 현 월야면 정산리)은 1908년 3월 28일, 의병 30여명이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던 곳이다. 『전남폭도사』에는 적 5명 사살, 1명 생포로 기록되어 있다.

○함평군(현 월야면인 듯) 월평리(月平里, 장성군)는 1908년 3월 29일, 일본군 수비대와 의병 50명이 교전했던 곳이다.

○나산 서북쪽 교동(橋洞, 현 우치리인 듯)은 1908년 4월 2일, 의병 40명과 일본헌병 사천(沙川, 신광면) 파견대 나산분견대가 교전했던 곳이다. 『전남폭도사』는 의병 16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광 서남방 40리 지점(신광면 유천리인 듯)은 1908년 4월 27일, 전해산 부대 100여명과 영광의 헌병·순사들과 교전했던 곳이다. 통감부에 보고하기는 적 40명을 사살했다고 하였다.

○영광 서남방 25리 지점(신광 함정, 원산리인 듯)은 1908년 4월 29일, 의병 20명과 일본헌병 또는 순사들과 교전했던 곳이다.

○나산 동북 15리(해보 쪽임)는 1908년 5월 4일, 10명의 의병들이 일본헌병들과 교전하여 1명을 사살 했다고 통감부에 보고 되어 있다. 그러나 확실한 장소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 신광면 오류동(梧柳洞, 현 유천리) 김의지(金義之)집은 1908년 5월 11일, 의병 10명이 침입하여 한전 5 관문(貫文)을 가져간 곳이다.

○평능면 우치(牛峙, 현 나산면 우치리) 공금영수원 김윤충(金允琉) 집은 1908년 6월 1일, 의병 10명이 내습하여 공금 22원, 엽전 900문을 가져간 곳이다.

○무안군 신로면 화계리(新老面 花溪里, 현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공금영수원 이용운(李庸運) 집은 1908년 6월 1일, 의병 10명이 내습하여 공금 80원, 엽전 4관문을 가져갔던 곳이다. 순사들이 출동했으나 잠적한 후였다.

○무안군 두동(斗洞, 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은 1908년 6월 7일, 의병 15명이 전주 기병대 가와바다(川畑) 소위 부대와 접전 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의병 1명이 죽고 4명이 포로로 잡혔던 곳이다.

○영풍면 기성동(永豊面 箕城洞, 현 함평읍 성남리) 솔밭은 6월 15일, 의병 60명이 함평주둔 헌병들과 교전했던 곳이다. 『전남폭도사』는 비도 8명 살해하고 화승총 등을 노획했다고 기

술하고 있다.

○신광 사천(沙川) 헌병소 북쪽 10리(함정리 쪽이 됨) 지점은 6월 18일, 의병 100명이 일본헌병들과 교전했던 곳이다.

○영광 동남 20리(불갑산인 듯) 고지(高地)는 6월 19일, 영광의 일본군연합토벌대 60여명이 의병 130명과 교전했던 곳이다. 통감부에 보고 되기는 비적 73명 사살, 1명 생포, 총기 10정 노획이라고 했다.

○영광·함평·나주·장성 일대는 1908년 9월 30일, 고부(古阜) 주둔 일본군 기병 3중대가 의병들을 토벌하기 위한 작전을 일제히 개시했던 곳이다.

○신광 벽류리(현 유천리 벽류동) 세금영수원 홍우준(洪祐俊) 집은 1908년 10월 2일, 의병이 내습하여 공금 71원, 엽전 5관문, 소 1마리를 가져갔던 것이다. 순사가 도착했을 때는 잠적한 후였다.

○중산포(中山浦, 현 학교면 월호리 중천포)의 일본인 하라(原柱重, 나까노현 출신) 집은 11월 9일, 의병 6명이 들이닥쳐 엽총 수십 자루를 빼앗아 간 곳이다. 무안 순사들이 출동했으나 잠적한 후였다.

○장북면 송여봉 평촌(長北面 松余峰 平村, 현 월야면 월야리)은 1908년 11월 9일, 전해산 부대 100여명이 일군과 싸웠던 곳이다. 시라이시(白石) 순사 외 다수가 부상했다.

○식지면 대안촌(大安村, 현 나산면 수상리)는 1908년 12월 21일, 전해산·박영근 의병부대와 왜인 토벌대가 접전했던 곳이다. 대안촌은 이 때 뿐만 아니라 김태원·조경환 부대도 여러 번 일본군과 싸웠던 곳이었다.

△원산촌(元山村, 신광면 원산리)는 1909년 2월 24일 무안군 몽탄에 거주하던 고오리(小折菱次郎)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다 의병 4명에게 습격을 당해 엽총을 뺏기고 부상당했던 곳이다.

○해보면 발미동(發美洞)은 1909년 4월 14일, 전해산·박경욱(朴京旭, 영광출신 의병장)·김원국(金元國, 광주출신 의병장)의 합동의병부대 330명이 영광 헌병 분견소부대와 교전, 양측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손불면 양재리는 1909년 5월 초, 전해산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이 부대는 여기서 전열을 가다듬어 5월 4일 영광군 군남면 오동촌 전투를 치르게 된다.

○해보면 공금영수원 성년풍(成年豊) 집은 1909년 6월 8일, 박영근 의병부대가 잠입하여 현금 200냥을 빼앗아 갔던 곳이다.

○갈동면 양촌리(葛洞面楊村里, 현 월야면) 공금영수원 김돈섭(金敦燮) 집은 1909년 6월 14일, 박영근 부대가 잠입해 100냥을 빼앗아 갔던 곳이다.

○월야면 월악산(月岳山)은 1909년 7월 4일, 구밀파견헌병대 및 삼거리파견헌병대와 이금재(李錦齋)가 이끄는 50명의 의병들이 접전, 의병 3명이 전사했던 곳이다.

○월야면 외치리는 1909년 7월 30일 새벽 2시 의병 20명이 나타나 공금영수원 정종진(鄭鍾晋) 등 3명을 사살했던 곳이다.

○군동면 상교리(郡東面 上校里, 현 대동면 향교리) 이강균(李康均) 집은 1909년 8월 12일 오후 7시, 의병 10명이 내습하여 그를 쏘아 부상케 했던 곳이다.

○평릉면 삼구동(平陵面 三九洞, 나산면 구산리)은 1909년 8월 26일, 의병 10명이 내습, 면장

과 공금영수원으로부터 공금 60원, 엽전 12냥을 빼앗아 갔던 곳이다.
○해보면 불갑산 지역은 1909년 8월 28일, 구밀헌병대가 의병을 발견, 접전했던 곳인 데 그들은 의병 3명을 사살했다고 보고했다.
○대야면 내정리(大野面 內亭里, 월야면)는 1909년 8월 29일, 집결해 있던 이강산 의병부대가 구밀의 주막에서 악질 왜놈밀정 이판안·김정태·최치도·박복남을 사살했던 곳이다.

1909년 10월 25일 왜인들의 의병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토벌작전은 끝이 났다. 이른바 나가다니가와(長谷川好道)가 지휘하는 일본군의 '남한대토벌작전'이 끝난 것이다. 『전남폭도사』는 당시의 전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폭도 사살 : 420명
체포 또는 자수자 : 1,687명(이중 자수자 860명)
노획 총기 : 455정
노획 도쟁(刀錚) : 51정

제8절 일제 헌병부대(憲兵部隊)와 함평 주둔지

의병 탄압의 기수라 할 수 있는 일본헌병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주둔한 것은 1896년 1월 임시헌병대가 도착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처음에는 군용전신선(軍用電信線)을 보호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그 수효도 110명에 불과했다. 조선 점령의 전위대였던 것이다.

이들은 1904년 노일전쟁이 터지자 한국주차헌병대(韓國駐箚憲兵隊)로 명칭을 바꾸었고 일본이 한국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며 그들의 임무도 의병탄압을 본무(本務)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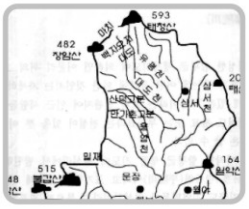
초대 헌병대장 아까시(明石元二郎) 육군 소장은 헌병수를 2,369명으로 늘리는 한편 사법경찰과 행정경찰까지 장악하고 이른바 헌병정치를 시행했다. 1908년에는 헌병 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4,065명의 조선인을 뽑아 앞잡이 밀정으로 고용했고 아까시는 나중에 육군대장으로 승진, 대만총독이 되었다.

일본 헌병대는 서울·청주·대구·평양 등 7개소에 주둔했다. 처음에는 대구헌병대가 전라도를 관할했으나 곧 광주에도 본부를 두었다. 이어 의병활동이 강한 함평·벌교·담양에 헌병분견소를 설치했고 또 영산포·장흥·순천·동복(화순군)·장성에 헌병 분대를, 남평·나주·화순·능주 등 50개 지역에 헌병파견소 또는 헌병출장소를 설치했는데 우리 함평지역에 설치한 파견소는 학교면·신광면 사천(沙川)·나산·해보면 구밀(求密, 현 문장리)등 무려 5군데로 전남지역 파견소의 1/10을 차지했다.

일제가 함평지역에 대한 압력을 얼마나 가했는가는 헌병분견소와 파견소 설치로 짐작할 수가 있다. 1908년에는 함평읍 기각리에 순검청(巡檢廳)도 설치하여 의병토벌에 가담하였다.

'한국항일의병사(韓國抗日義兵史)'는 '함평의병사'를 모르고는 기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제9장 조선시대의 유적과 유물



제1절　함평향교(咸平鄕校)

<조선시대 제3장 제1절 1항 중 조선시대 관학(官學)과 함평향교를 볼 것>

제2절 서원(書院), 사우(祠宇), 영당(影堂), 단묘(壇廟)

1. 서원 · 사우

서원(書院)은 조선중기 이후 학문 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士林)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자치 운영기구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서원은 흔히 서재(書齋), 사우(祠宇) 등과 혼칭되고 성격도 비슷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구분되는 바가 있다.

한편 서원과 같이 그 성격면에서 비슷한 유적으로 사우(祠宇)라는 것이 있다. 사우(祠宇)는 선조(先祖) 혹은 선현(先賢)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 두고 매년 수차례에 걸쳐 제향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 명칭은 곳에 따라 향현사(鄕賢祠), 향사(鄕祠), 이사(里祠), 영당(影堂), 별묘(別廟), 세덕사(世德祠), 유애사(遺愛祠), 생사당(生祠堂)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어쨌든 서원과 사우의 발생은 인간의 본연적 의지인 선조와 선현의 숭배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원과 사우 등은 본래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엄밀히 구별된다.

<표> 목적 기능에 따른 서원 사우의 비교

구 분	명 칭	목 적	기 능	제향인물	구 조
서원(書院)	서원(書院)	사문진흥 (斯文振興) 인재양성	장수(藏修) 강학(講學) 사현(祀賢)	유학자	사, 강당, 재, 서고, 기타
사우(祠宇)	사(祠), 사우(祠宇), 영당(影堂), 향현사(鄕賢祠), 별묘(別廟), 향사(鄕祠), 세덕사(世德祠), 효사(孝社), 유애사(遺愛祠), 생사당(生祠堂)	보본숭현 (報本崇賢) 교 화	사현(祀賢)	충절인	사
기 타	서재(書齋), 정사(精舍)	인재양성	독서 교육		서재, 정사

조선시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평지역에 존재했었던 서원 사우는 38개소였고 서원 사우가 훼철되기 시작한 1863년 이전에 세워진 서원 사우는 28개소로 전남의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수효를 차지했다.

서원 사우의 설립은 향촌사회의 유림의 활성도, 위선사업(爲先事業)의 열정과 재지 사족(在地士族)의 세력권 형성과 세력의 유지강화, 그리고 명분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남의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서원 사우가 세워졌던 함평의 당시 세력권도를 살필 수가 있을 것이다.

- **함평군의 서원 사우**

•1863~1867년까지 자진 훼철한 서원 사우 : 자양서원 등 모두 12개소
•1868년 훼철령 때 훼철된 서원 사우 : 고양사 등 모두 14개소
•1868년 이후 복설, 신설돼 현재 제향을 하고 있는 서원 사우 : 자산서원 등 모두 15개소
<이들 서원 사우 내역은 조선시대 제5장 2절을 볼 것>

다음은 이들 서원 사우 가운데 자료가 전하는 서원 사우에 대해 개략을 기술한 것이다.

1) 자산서원(紫山書院)

<조선시대 제5장 2절 1항 붕당대립과 자산서원의 치폐를 볼 것>

2) 증산사(甑山祠)

증산사는 나산면 이문리(里門里) 사정마을 844번지에 소재한다. 증산사는 사정마을의 정 중앙에 자리 잡은 상산김씨(商山金氏)의 선조 3위를 배향한 사우이다. 원래 1693년(숙종 19) 창건 당시에는 충간공(忠簡公) 김덕생(金德生 : 고려말~조선초)만을 독향하였었으나 후에 훼철되었다가 1933년에 다시 복설하면서 충간공의 8세손인 선계당(善繼堂) 김한노(金漢老 : 1646~1687)와 9세손인 최락당(最樂堂) 김중선(金重璿 : 1659~1702)을 추배하여 현재 모두 3

위를 배향하고 있다.

이 증산사의 건립 내력은 세종조의 영당(影堂) 건립에서부터 비롯된다. 즉 김덕생은 조선시대 초 개국세력으로서 박포(朴苞)가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1400년)때 태종을 도와 권근(權近 : 1352~1409) 이천우(李天祐 : 1354~1417) 등과 함께 난을 평정하고 태종의 즉위에 공헌함으로써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오르는 등 태종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뒤에 그의 공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모함을 받아 극형에 처해졌는데 당시 백성들이 그의 억울함을 듣고 모두 슬퍼하였다고 한다.

그 후 1422년(세종 4) 뜻있는 이들의 상소에 의해 조정에서는 공을 가정대부(嘉靖大夫) 동지중추원부사(同知中樞院副事)에 추증하는 한편 영당 건립을 명하였다. 이 영당은 둘째 아들인 김중명(金仲明)이 공의 사후에 입향하여 상산김씨(商山金氏)들이 최초 세거지가 되었던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오수산 아래에 건립되었으며, 당시 영당건립의 경제적 뒷받침은 세종의 특명으로 하사된 토지 60결(結)을 이용하였다고 한다(송징은 찬, <증산공행장>). 이때 김덕생의 아우인 담양부사 김우생(金祐生)의 노력이 컸고 계자(繼子)인 김중명이 사자(嗣子)로서 대(代)를 잇게 되어 함평 일대에 그 문족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이 영당은 영정과 함께 소실되어 폐허화 되었다. 이후 복구되지 못한 채 100 여년이 지났는데 1692년(숙종 18)에 이르러 이를 안타까이 여기던 함평관내 사림들이 영당과 함께 공의 사우건립을 결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듬해인 1693년 구지(舊址)의 서쪽 증산촌(甑山村 : 현 소재지)에 사우를 창건하였던 것이다. <증산공행장>에 의하면 사우를 건립하고 첫 제향 때에는 원근장포(遠近章甫) 수 백인이 모여 향사하였다고 한다.

창건 이후 훼철되기까지의 자세한 사적(事蹟)은 자료로써 확인되지 않으며, 충간공을 독향하여 오던 증산사는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에 의해 다른 원·사와 마찬가지로 철폐되었다.

그 후 1933년 유림 윤용병(尹鎔炳) 등의 발의와 지역유림들의 유론(儒論)에 따라 구지(舊址)에 사우를 복설하면서 충간공의 8세손으로 학업이 대성하여 병조판서에까지 이른 선계당(善繼堂) 김한로(金漢老 : 1646~1687)와 효행과 학문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졌던 9세손 최락당(最樂堂) 김중선(金重璿 : 1659~1702)을 추배하였다. 이 복설에 공이 컸던 송석(松石) 김용조(金鎔祚)의 공적비가 1984년 건립되어 현재 사우 입구에 서 있으며, 현재의 건물은 1968년에 전체적으로 중수하였던 것이다.

김덕생(고려말~조선초)은 개국원종공신 죽헌공(竹軒公)의 아들로 자는 대원(大元), 호는 증산(甑山)이고 본관은 상산(商山)이다. 용력이 뛰어나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였다. 또한 그는 1404년(태조4)에 방원(芳遠 : 태종)이 사냥을 나가 표범의 습격을 받게 되어 신변이 위험했을 때 단한 개의 화살로 이를 쏘아 죽이니 태종이 이를 기뻐하고 말(馬)을 하사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 후 공은 박포 등이 주동이 된 제2차 왕자의 난(1400년)때 권근·이천우 등과 더불어 태종을 도와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웠고, 태종이 즉위하자 그 공으로 좌명공신의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 후 주위로부터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에 의하여 극형에 처해졌다. 공이 졸한 뒤

1422년(세종 4) 조정으로부터 가정대부동지중추원부사에 추증되고 충간(忠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아울러 공의 행적을 기록한 비를 세우도록 명하는 한편, 전(田) 60결(結)을 하사하고 영당을 세워 제향토록 하였다. 정유재란으로 영당이 불타 없어지자 100여년 뒤인 1693년(숙종 19) 공을 흠모하는 함평관내 사림들에 의해 증산사에 주벽으로 제향 되었다. <상산김씨세적>에 그에 관한 행장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김한로(1646~1687)는 충간공 김덕생의 8대손으로 호는 선계당이다. 일찍이 학업이 대성하여 1675년(숙종 1)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친 끝에 용강현령(龍岡縣令)을 지내다 곧 내직에 들어가 병조좌랑을 거쳐 예조좌랑으로서 춘추관기주관을 겸하였다. 1686년(숙종 12)에는 노봉(老峰) 민정중(閔鼎重)을 비롯하여 당대 명사 16인 등과 함께 휘헌대왕비(徽憲大王妃)의 작품인 소병(素屛) 한 벌씩을 하사 받기도 하였다. 역시 <상산김씨세적>에 그에 대한 행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김중선(1659~1702)은 충간공 김덕생의 9대손으로 호는 최락당이다.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7세 때 어머니가 병이 나자 단지(斷指)하였고, 돌아가신 뒤에도 3년을 하루같이 시묘하자 당시 향인들이 공의 효성을 증민(曾閔)에 비하였다 한다. 학문에 뜻을 두어 침랑 이유인(李有仁)과 함께 성리학의 강구에 전심하는 한편 여러 선배들과 향음주례를 행하여 크게 향속의 교화에 이바지하였다. 1689년(숙종 15) 송시열이 제주도에 안치되고 김수항(金壽恒)의 관직이 삭탈되는 한편 이이·성혼이 문묘에서 출향되는 지경에 이르고, 왕비 민씨마저 폐출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을 한탄하였다고 한다. 공에 대한 자세히 행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최락당유적>(1913년, 1책, 기우만 서>이 있다.

증산사가 입지한 곳은 약간 언덕진 경사지로서 건물의 배치는 일반적인 배치형태와 다르다. 즉 강당과 사당이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으로 일축선상에 놓여 있지 않고, 사선 방향으로 제향과 강학구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아래쪽에 설정된 강학구역과 좌측 위편의 제향구역과의 지반 차는 약 3.6m로 되어있다. 건물 역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당과 1964년에 건립하였던 것으로 전후에는 퇴를 둘러 정면 4칸 팔작집으로 이루어진 강당인 경모재(景慕齋), 그리고 내삼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산사와 관련된 자료로는 강당인 경모재 안에 걸려있는 현판 3매가 있으나 이 또한 시기적으로 모두 증산사 복설 이후의 것으로 ①<경모재기>(1934년, 송기만), ②<증산사중건기>(1934년, 송병관), ③<중수기>(1980년, 김인경) 등이 있다.

3) 사산사(射山祠, 舊 射亭村祠)

사산사는 나산면 초포리(草浦里) 사산마을 734번지에 소재한다. 『문헌비고』와 『전고대방』에 사정촌사우(射亭村祠宇)로 기록된 이 사우는 함평이씨의 시조인 이언(李彦 : 고려 광종대)을 주벽으로, 10세손 이춘수(李春秀 : 고려 공민왕대)와 그의 아들 이긍(李兢 : 1389~1433)과 이접(李楪), 그리고 이종생(李從生 : 1423~1495)을 배향했던 사우였다. 그 후 훼철되었다가 1936년 다시 현재의 규모로 복설하면서 이종생의 동생 이종수(李從遂)와 이춘수의 조카인 이주(李

稠)를 마저 추배하여 현재는 모두 7위를 배향하고 있다.

창건연대에 대하여도 1670년 설과 1700년 설이 있으나, 유허비는 최초 창건연대를 1700년(숙종 26)이었음을 밝히고 있고, 당시는 시조인 함풍군 이언만을 제향하고 있다가 1790년에 이르러 나머지 4위를 추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우의 건립과정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언급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 사우가 최초 건립되었을 때에는 문중의 사당, 혹은 문중사우의 형태로 출발하였다가 향사우로 변천되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670년 창건 설은 바로 이 문중사우로서의 설립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는 이유인(李有仁)의 주력으로 그의 직계 선조인 이언, 이춘수, 이접, 이순지, 이순화 등 5위를 모셨다고 한다. 그러나 1700년대에 이르러 이 사우를 공식 절차를 거치는 향사우로 발전시키면서 문중의 합의로 시조인 이언만을 독향하는 사우가 되었다.

당시의 사산사 건립에는 이홍직(李弘稷)과 이명룡(李命龍)이 주력하였는데 특히 이홍직(李弘稷)은 그의 아들 이보영(李普榮)과 함께 중앙정계에서 현달했던 인물이었고, 결국 그들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예측하게 된다.

그 후 1790년에 이르러 사산사는 함평유림들의 논의와 후손들의 합의에 따라 이춘수, 이종생, 이긍, 이접 등 제현을 추배하여 모두 5위를 봉향하게 되었다. 이들 배향위들은 시조 이언의 10세손(춘수·종생)과 11세손(춘수의 두 아들인 긍과 접)으로서 모두 함평이씨 가문의 지위를 선양했던 인물들이었다.

1868년 다른 서원·사우들과 마찬가지로 사산사도 훼철되었으며, 1872년에는 유허지에 유허비를 세웠고, 1936년 현재의 규모로 복설하였다. 이 복설을 전후하여 이종생의 동생 이종수와 이춘수의 조카인 이주를 마저 추배하여 현재는 모두 7위를 모시고 있다.

이 사산사는 이웃한 나산면 우치리 계동마을에 건립되었던 모양사(牟陽祠, 이유인 제향) 및 초포리의 초포사(草浦祠 : 이순신·이유인·이명룡 제향)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야 하며, 조선후기 문중사우와 향사우가 분리 건립되는 과정을 밝혀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이언(고려 광종대)은 함평이씨의 시조로서 고려 광종조(재위 950~975)에 무신으로 출사하여 벼슬이 신무위대장군에 이르고 함풍군(咸豊君)에 봉군되었다.

이춘수(고려 공민왕대)는 함풍군 이언의 10세손으로 재덕과 문무를 겸비하여 이름을 날렸고, 홍문관 응교로 재직 때에는 학문으로, 그리고 여말의 왜구 창궐기 때에는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어 무장으로서의 명성도 얻었다.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이긍(1389~1433)은 1405년 생원시에 급제한 후 1427년(세종 9) 중시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교리, 승정원 제조, 판사재감사, 예조참의, 승정원 우부대언, 이조 좌·우참의, 공조참판, 성균관 대사성,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쳐 이조판서와 기성군(箕城君)에 봉해지는 영예를 누렸다. 1433년 사신으로 중국에 가서 성삼문과 같이 접영시에 급제한 일은 유명하며, 이해 5월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사명을 띠고 다시 명나라에 가던 도중 갈수참(葛水站)에서 병을 얻어 44세를 일기로 죽었다. 이에 세종은 예관을 보내 공을 장례토록 하였다.

이접(조선초~연산군대)은 호를 효우당(孝友堂)이라 하며 이춘수의 아들이자 이긍의 동생이다. 일찍이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가 수업하면서 김굉필, 정여창 등과 교의를 맺었고, 효의와 경술

에 뛰어나 세상 사람들이 효우선생이라 칭했다. 향리에 사괴정(四槐亭 : 현재 나산면 우치리에 터가 남아 있음)을 지어 강학의 장소로 삼아 후학을 길렀으며, 학행으로 천거되어 소격서 참봉과 예조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연산군 때에 사화가 거듭되자 두문불출하고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이종생(1423~1495)은 자를 계지(繼之)라 하였고 어려서부터 기국이 출중하여 남다름을 보였다. 특히 활 쏘는 솜씨가 좋아 1460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1467년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자 선봉으로 출전 겁에 질린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난을 평정하여 적개공신에 훈록되고 함성군(咸城君)에 봉해졌다. 그 후 여진족 이만주(李滿住)를 토벌하기도 하였고, 이듬해 영월부사, 절도사로 승진한 뒤 평안 · 충청 · 함경 · 경상도 절도사를 두루 역임하였다. 장량(莊襄)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이종수(세종~연산군대)는 이종생의 아우이다.

이주(조선초~연산군대)는 이춘수의 조카이다.

사산사는 사산마을의 안쪽 중앙에 남서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사우가 입지한 곳은 거의 평탄한 곳이나 제향과 강학의 두 구역은 약 2.5m 정도의 지반차를 두어 내삼문 좌우의 담장과 함께 경역을 확실히 하였다. 건물의 전체 배치 모습은 전학 후묘의 유형이며, 현재 사당은 1936년에 건립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다. 강당인 경행당(景行堂)은 원래 1946년 사우와 내삼문의 일축선상에 건립한 것으로 남향이었던 건물이다. 이것을 1990년 지금과 같이 동향으로 바꿔 내삼문 우측에 다시 건립하였는데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내·외삼문 가운데 현재의 내삼문은 1988년에 개축한 것이다.

사산사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로는 ①<함평이씨선생사유허비>(1872년, 이유중 기, 이돈호 서, 이민숙(李敏淑)·이용헌 세움, 높이 165㎝, 폭 58㎝, 두께 18.5㎝, 9행40자)가 있다. 현재 이 비는 강당인 내삼문 앞 좌측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②사당 복건시(1936년)의 통문 5매와 ③<사산사복건기>(1936년, 이민선 지음) 등이 있다.

4) 기산사지(箕山祠址, 舊遺愛祠)

기산사지는 함평읍 기각리(箕閣里) 현 기산초등학교 자리에 소재했었다. 기산사는 원래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출을 지지하는 이 지역 선비들의 상소를 막았던 당시의 함평현감 동호(東湖) 박정원(朴鼎元 : 1574~1626)을 제향하는 사우로 1705년(숙종 31)에 건립하였던 유적이었으나 현재는 유허만 남아 전한다. 이같이 기산사가 창건되는 것은 박정원이 죽은 지 80년이 되던 1705년(숙종 31)에 그의 충의가 조정에 알려져 대사간으로 증직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박정원(1574~1626)은 자를 계선(季善), 호를 동호(東湖)라 하였고 본관은 밀양이다. 1609년 사마시에 합격 광흥봉사(廣興奉事)를 거쳐 1616년(광해군 8)에는 문과에 합격하여 승정원 주서(注書)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그는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함평현감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1618년(광해군 10) 이해(李垓) 이위(李偉) 윤유겸(尹惟謙) 등 57인이 정인홍(鄭仁弘) 이이첨(李爾瞻)의 앞잡이가 되어 인목대비를 폐출하여 선비의 책임을 다한다는 말로 각 군에 선전하자 인접

고을 선비들의 찬성 상소가 준비되고 그 장소가 함평향교로 정해졌다. 그는 이 같은 모임을 막아 함평의 유림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당시 대사간 윤인(尹認) 사간 신광업(辛光業) 정언 이원여 등이 박정원은 본래 딴 뜻이 있어 대론을 막고 폐모론을 반대하더니 함평으로 내려간 뒤 더욱 그 뜻을 펴려고 하여 호남유생들이 함평에 모였을 때 내쫓고 또한 함평유생들로 하여금 상소하는데 일체 참여치 못하게 하였으니 역을 보호하는 그 죄가 마땅히 징계치 않을 수 없다고 탄핵하게 되자 이로 인해 은퇴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후에도 그는 상황이 급전되어 그의 용단이 널리 알려졌으나 결코 앞에 나섬이 없이 은인자중하여 칭송을 받았다. 곧이어 조정의 공론으로 흥양현감이 되었고, 이후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순찰병마사로 대가를 호종한 공으로 호조정랑 겸 춘추기주관에 승배 되었다. 그리고 1625년(인조 3) 평안도사로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사직 하고 여강정사에서 53세의 나이로 죽었다. 사후 80여년이 지난 1705년(숙종 31) 당시 우의정이었던 녹천 이유의 상소로 대사간에 증직되었고, 또한 그해 정월에는 함평사림들이 발의하여 규약을 만들고, 7월에는 기산 아래 영수 물가에다 사우를 건립하여 공을 배향하게 되었다. 그의 행적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묘지명과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지은 묘갈명에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동호 박정원의 행적은 당시의 호남지역의 사림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자료가 된다. 이는 당시 정치세력화한 재지사족이 분열된 모습을 이 사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 · 이위 · 윤유겸 등 57인의 존재는 소위 대북파와 연결된 호남지역 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이들 대립되는 지방 사림들의 동향과 이 사우의 존립, 발전은 직결되어 있었으리라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서원 · 사우의 기록에는 동호 박정원만을 독향하였던 사우로 기록하고 있으나, 『속수함평지』(1930년간) 권2, 사우조의 기록에는 박정원 이외에도 함평현감을 역임했던 오이익(吳以翼 : 1618~1666), 이관징(李觀徵 : 1618~1695), 이후정(李后定 : 1631~1689), 이교악(李喬岳 : 1653~1728), 임덕제(林德蹄, 1722~1774), 강시환(姜時煥 : 1766~ ?) 등을 제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이들 여러 제향인들이 누구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 사우에 배향되게 되었는지는 확실한 자료가 없어 알 길이 없다. 다만 이들은 모두 함평현감으로 재임하였던 인물들이며,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불우한 입장에 처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를 애석하게 생각한 이 지방 유림들에 의해 추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의 추배 시기는 현재 전해지는 자료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다만 1930년에 간행한 『속수함평지』의 읍재선생안(邑宰先生案)에 이들 추배인물들 가운데 강시환이 함평현감으로 재임했던 시기가 1816~1817년으로 기록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이들의 추배 시기는 1817년 이후일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현재 기산사의 유지로 알려져 있는 기산초등학교에는 사우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기산사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지금까지 함평공원에 유애비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금번 조사를 통하여 실제 박정원과 기산사에 관련된 유애비는 없었다. 이는 1625년에 함평현감으로

도임하였던 <현감박공정청위선정비>(1627년, 높이 128㎝, 폭 61㎝, 두께 22㎝)를 기산사와 관련된 박정원의 유애비로 잘못 파악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필사본인 ①<동호박선생사적>이 발견되어 기산사에 관련된 유애비의 내용과 그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사적기에 기록된 유애비에 관한 내용으로는 ②<박후정원청덕인위비>(1618년 건립, 1676년 개수)라 되어 있고, 또한 이 사적기에 수록된 ③채색의 서원 배치도와 서원조성 당시의 임원명단 등은 이 사우의 연혁을 보완하는데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동호박선생사적기>에 의하면 사우의 좌측에 비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박정원 이외에 기산사에 제향되었다고 하는 역대 함평현감들 가운데 현재 비가 함평공원에 남아 있는 것은 ④<현감오후이익청백명간휼민선정비>(무술년, 높이 96㎝, 폭 48㎝, 두께 12㎝)과 ⑤<현감강후시환선정비>(1822년, 높이 156㎝, 폭 66㎝, 두께 19㎝) 뿐이다.

5) 수산사지(水山祠址)

수산사는 지금의 함평읍 수호리 수산봉과 만봉 사이의 골짜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일대가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다.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이나『서원가고(書院可攷)』,『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전고대방(典故大方)』등에 의하면 수산사는 1709년(숙종 35) 창계(滄溪) 임영(林泳 : 1649~1696)을 제향하기 위해 창건하였던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사우의 창건 동기나 그 과정 등은 자료의 부족으로 현재까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으로 인해 소실되었다가 중건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임영(林泳 : 1649~1696)의 자는 덕함(德涵), 호는 창계(滄溪)이며 본관은 나주이다. 첨지중추부사 박일유(林一儒)의 아들로 태어나 이단상(李端相) 박세채(朴世采)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1665년(현종 6) 사마시에 합격하여 1671년 문과에 급제한 후 사가독서(賜暇讀書) 했다. 후에 이조정랑·검상·부제학·대사헌·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694년(숙종 20)에는 대사간·개성부유수를 거쳐 이듬해 부제학이 되었으나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자 조정에서는 공에게 약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공은 경사(經史)에 정통하고 문장이 뛰어났으며,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사후(死後)에 나주 창계서원(滄溪書院)에 배향되었고, 공의 저서로는『창계집(滄溪集)』27권이 현전하고 있다.

수산사와 관련된 유물.유적은 특별히 남아 전하는 것이 없다. 다만 수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신광면 복흥리 유덕 뒷산에 소재한 나주임씨(羅州林氏) 문중의 묘소에 있는 일명 용두비가 수산성의 배향인물인 임영과 관련되어 주목된다. 이 비는 임타(林타)와 임일유(林一儒)의 공적과 유덕을 기리기 위해 왕이 하사하였던 것으로 1777년에 세워진 비다. 이는 임영이 임타의 손자이자 임유일의 셋째 아들이 되는 것으로 이들 나주임씨 문중은 임영의 할아버지인 임타가 인조반정으로 정사공신에 책록됨과 동시에 정계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결국은 임영대에 와서야 그 빛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임타(1593~1664)의 자는 실지, 호는 몽촌으로 임영의 조부이며, 당대의 문호였던 백호(白湖) 임제(林悌)선생의 당질이다. 1618년(광해군 10)에 생원 진사의 양과에 합격하였으며, 인조반정 때는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록되어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내섬시 주부, 장예원 사평, 호조 정랑, 사복시 첨정, 오위장을 역임했으며, 외직으로는 태인, 함흥, 순창, 금산, 칠곡, 이천, 상주, 파주, 서산 등 제읍의 목민관을 지냈다. 특히 함경도 판관을 역임할 때에 베풀었던 치적이 뛰어남을 인정받고 그 공로로써 통정대부에 올랐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강직한 성격에 붕당을 경원하고 주관이 뚜렷해 사려가 깊었을 뿐 아니라 효심이 지극하여 모친을 섬기는데 정성을 다 하였다. 또한 금산에서 재직 시에는 12조에 달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민생을 건지고 나라를 복되게 하는 좋은 의견이라 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기까지 하였다고도 전해온다.

임일유(林一儒 : 1611~1684)는 몽촌 임타의 장남이자 임영의 부친으로 자는 노유, 시호는 서윤공(庶尹公)이다. 그는 1633년(인조 11) 진사시에 합격하고 한성 서윤과 외관으로 인진, 용안현감, 함흥 판관을 거쳐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들 나주임씨 가는 실제 나주 출신들로서 어느 시기 어떤 요인으로 함평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또 임영의 조부인 임타는 어떤 연계로 하여 인조반정의 공신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창계 임영을 제향하기 위해 창건하였다는 수산사의 창건 동기나 그 과정 등은 자료의 부족으로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하는 말에 임영이 말년에 선영이 있는 함평의 수산에 이거하여 살며 수산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가 지은 시 가운데 수산정을 읊은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하는 말이 헛된 말은 아닌 듯 하다. 앞으로 수산사에 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자료의 확보를 통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자양서원지(紫陽書院址)

자양서원은 나산면 우치리 자양산(紫陽山) 아래에 소재했던 서원이다. 1726년(영조 2) 건립된 것으로 알려지는 이 서원은 주자(朱子)와 함께 우암 송시열(宋時烈)을 제향했던 곳이다. 이곳 서원이 위치한 곳은 주자의 후손이라고 전해지는 신안주씨(新安朱氏)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도 하였을 뿐더러 주자가 태어났다는 운곡(雲谷)이란 지명(해보면 상곡리 운곡)과, 주자가 공부하였던 자양(紫陽)이라는 지명(일명 자양산)이 있는 곳이었기에 주자의 학덕을 이어받는 의미로 서원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서원의 경우 현재까지 그 건립배경이나 운영의 실태를 알려주는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그 전말을 기술하기 어려우며, 노·소론 계열간의 지방적인 분열이나 그에 대응하는 양태로 이 서원의 건립이 이루어졌던 것이라는 추측이 들 뿐이다.

자양서원에 관한 여타의 자료가 빈약한 관계로 그 유적의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현지 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서원의 위치는 현재 정홍식(나산면 우치리)씨가 경작하는 논으로 이곳에는 크나큰 자연암반이 있었고, 또 자양서원(紫陽書院)이라 새겨진 돌이 있었으나 초석들과 함께 지난 1985년경 경지정리로 파괴되어 매몰 되었다고 한다.

자양서원에 관련된 유적으로는 현재 계동마을 입구에 세워진 <하마비(下馬碑)>(높이 116㎝, 폭 50㎝, 두께 20㎝)가 유일한 것이다. 이 하마비는 원래 지금의 자양서원지로 알려져 있는 정홍식 씨의 논에 세워져 있던 것을 당시 마을 이장인 정해주가 경리정리 때 지금의 위치로 옮겨 다 놓았다고 한다.

7) 월산사(月山祠)

월산사는 현재 대동면 향교리 남교마을 426번지에 소재한다. 월산사는 원래 유허비만이 남아 있던 것을 최근 들어 복원사업을 통해 사우의 모습이 일신되었다. 이 사우는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 1545~1598)과 칠실(漆室) 이덕일(李德一 : 1561~1622)을 제향했던 곳으로 최초 건립의 단서가 마련된 것은 1712년(숙종 38) 이덕일의 사당이 이 마을 북쪽에 건립된 데에서 비롯된다.

이 이덕일(李德一) 사당의 건립은 그의 충의를 흠모하던 함평유림의 발의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당시의 사정은 문두성(文斗星)의 <개기축문(開基祝文)>과 정덕휴(鄭德休)의 <상량문(上樑文)>을 통해서 그 대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사당 이름은 월산사가 아니었고, 『충무공전서』에서 보이듯 당시의 이름은 칠실사(漆室祠-堂)이었던 것 같다.

그 후 1731년(영조 7)에 이르러 호남유림과 태학 유생들이 칠실 이덕일과 충무공 이순신이 왜란 중에 세운 공과 그들의 인연을 내세워 유적과 가까운 이곳 함평 월산에 충무공 이순신을 주벽으로 하여 이덕일을 배향할 것을 건의하여 현재의 유지(遺址)에 이건하면서 사우의 명칭도 월산사(月山祠)라 개칭하였다.

당시 건립과정은 진사 이준림(李俊林) 등이 함평현감에게 올린 <월산사영건시 다사 상서(月山祠營建時多士上書)>에 잘 밝혀져 있다. 당시 인접한 나주, 능주, 영광, 무안, 남평, 영암, 화순 지역의 유림들이 이건에 호응하였고, 함평 현감 홍약수(洪若秀)는 사우건립에 필요한 재목과 인부들을 동원하여 주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특히 이 이건 때에 이덕일과 충무공의 관련성이 부각되어 다시 한번 칠실 이덕일의 행적과 충의가 확인되었고, 아마도 이 이건과 함께 강당인 경충당(景忠堂 : 이는 景慕忠賢의 의미라고 함) 및 동재인 수도재(守道齋) 서재인 강의재(講義齋)가 건립되었던 것 같다.

이건 당시의 자료로는 충무공과 칠실공의 <합향시제문(合享時祭文)>과 <경충당기(景忠堂記)> 등이 현재 이덕일의 유고인 『칠실유고(漆室遺稿)』에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여 사우 이름을 월산사로 바꾸고 충무공까지 합향하면서 건물까지 규모 있게 건립한 월산사는 이후 함평의 유력한 서원세력으로 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훼실되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을 뿐이며, 이건 직후인 1732년(영조 8) 칠실공의 유고가 4책으로 편찬된 것도 그 같은 활발한 움직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1738년 함평현감이었던 박필재(朴弼載 : 임기 1738.2~1738.10)의 <경충당기> 이외에는 월산사와 관련된 자료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130여년이 지나 월산사도 다른 서원 사우와 마찬가지로 대원군의 서원철폐(1868년)로 훼철되었으며, 1911년에 이르

러 후손 이재정(李載正) 이계두(李啓斗) 이계묵(李啓默) 등이 사우 터에 유허비를 건립 제향해 왔었다. 그러나 이 또한 일제 말엽인 1940년 왜경에 의해 이 비가 폐치될 운명에 처하였던 것을 후손 이기순(李機淳) 이건영(李建榮) 등이 진정하여 매안(埋安)하는 것으로 위기를 넘겼고, 해방되던 해인 1945년 11월 다시 빛을 보아 세워지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순신(1545~1598)은 조선시대의 뛰어난 명장으로 자는 여해(汝諧)이며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1579년(선조 9) 식년무과에 병과(兵科)로 급제한 이후 함경도 동구비보(권관), 발포수군만호, 건원보권관, 훈련원참군, 사복시주부, 조산보만호, 선전관, 정읍현감 등을 역임하는 등 미관 말직만을 지내다가 1591년(宣祖 24) 서애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전라좌도수군절도사에 올랐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 당포, 당항포, 한산도, 안골포 등에서 연이어 적선을 무찔렀다. 또 적군의 근거지인 부산에 쳐들어가 적선 백여 척을 부수고 부산과 웅천(熊川)의 적군을 완전히 소탕하였으며, 한산도(閑山島)로 진(陣)을 옮겨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이듬해 명나라 수군이 내원(內援)하자 죽도(竹島)에 진을 치고 이어 장문포(長門浦)에서 왜군을 격파 적군의 후방을 교란하였으며 서해안으로 진출하려는 적 수군의 전진을 막아 왜군의 작전에 큰 차질을 주었다. 그러나 1597년(선조 30) 원균(元均)의 모함으로 한성(漢城)에 압송되어 참형을 받게 되었다가 정탁(鄭琢)의 변호로 권률(權慄)의 막하에서 백의종군하였다. 그해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원균이 참패당하자 삼도수군통제사에 재임되어 명량(鳴梁)에서 남은 전선 12척으로 133척의 적군과 대결, 31척을 부수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1598년(선조 31) 고금도(古今島)로 진을 옮긴 후 철수하는 적선 500척이 노량(露梁)에 집결해 있다는 정보에 따라 명나라 도독 진린(陳璘)의 수군과 합세하여 적을 섬멸하고 혼전 중 적의 유탄에 맞아 순절했다.

1604년(선조 37) 선무공신 1등이 되고 좌의정과 덕풍부원군에 추봉, 1613년(광해군 5)에는 다시 영의정에 가증(加贈)되었다. 저서로는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가 있으며, 여수의 충위사, 충무의 충렬사(忠烈祠) 아산의 현충사(顯忠祠), 장흥의 반계사(盤谿祠) 등에 배향되었다.

이덕일(1561~1622)은 함평출신의 충절인물로 자는 경이(敬而), 호는 칠실(漆室)이며 본관은 함평이다. 첨지중추부사 이은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학문을 열심히 닦아 이름을 떨쳤으며, 수은(睡隱) 강항(姜沆)과는 동학으로 교의가 깊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공은 학문을 그만두고 무예를 닦아 무과에 급제하였었다. 그리고 정유재란을 당하여서는 함평 주민과 피난민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하여 고산(孤山 : 현 향교리 뒷산의 고산골)과 동막(東幕 : 현 신광면 월암리 동막동으로 추정) 등지에서 왜적을 무찌르며 당시 해전에서 고군분투하던 충무공을 도왔다. 이덕일과 충무공의 인연은 전일 충무공이 목포에 머물렀을 때 당시의 폐단과 군사전략을 지어 바친 것이 인연이 되어 공의 신임이 두터웠고, 그의 막하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한바가 많았다고 한다. 그 후 1600년(선조 33) 공은 월사 이정구의 추천으로 절충장군이 되고, 1610년에는 성을 쌓아 왜적을 막아야 된다는 상소를 올려 그의 탁월한 식견을 인정받았다. 곧이어 병조좌랑, 통제영병마절도사가 되었고, 광해의 난정이 계속되자 1613년(광해군 5) 낙향하여 은거하다가 인목대비의 폐출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유명한 우국가(憂國歌) 28장을 지었다. 이 우국가는 국문학사상 주목받는 것으로 칠실의 생애와 함께 연구가 더욱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자료라고 생각된다.

원래 월산사 유허지에는 사우의 초석과 유허비만이 남아 있었다. 월산사와 관련된 유적 유물은 유허지에 세워진 ①<월산사양선생유허비>(1911년, 송겸순 지음, 높이 260㎝, 폭 71㎝, 두께 34㎝)가 있다. 그리고 ②이덕일의 문집인 『칠실유고』는 1732년에 편찬되어 전해지는데 모두 4권으로 되어 있으며, 서문은 5세손인 이세식(李世植)이 지었다. 원래 칠실공의 유고로는 모의록(募義錄)과 상소문 등이 많았으나 대부분 산질되었고, 1732년 간행본에 수록된 <대동강도소(大同江都疏)>, <폐대비척소(廢大妃斥疏)>, <우국가(憂國歌)> 등 5편만이 전해진다. 권2부터 권4까지는 부록으로 칠실 이덕일의 행적, 혹은 그의 공적과 관련된 후대인의 기록들이 월산사 기록과 함께 첨부되어 있다. 이 유고는 1985년 후손 이건영에 의해 영인본으로 발간되었다. 한편 ③이덕일의 묘소가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평암에 있으며, ④공의 유물로는 그의 12세손 이남진(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이 소장하고 있는 군도편(軍刀片)이 있다고 한다. ⑤칠실 이덕일의 생장지이자 유허지인 이곳 남교마을에는 직접 월산사와 관련된 유적은 아니나 『칠실유고』를 편집했던 그의 5세손 이세식(李世植)의 영당(影堂)이 남아 있기도 하다.

8) 모양사지(牟陽祠址)

모양사지는 나산면 우치리(牛峙里) 계동마을 앞에 소재한다. 모양사는 함평군의 서원·사우 가운데 인접한 자양서원과 함께 그 건립의 유서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유적이다. 현재의 위치도 분명한 근거는 없으며, 단지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모든 서원 관련 기록에 이유인(李有仁 : 현종~숙종대)을 제향한 사우로, 그리고 건립연대를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열읍원우사적』의 함평지역 기록을 미루어 보아 1760년대 이전에 건립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모양사(牟陽祠)의 건립이 인접한 초포리의 사산사(射山祠)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건립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사산사가 향사우로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건립된 것은 1700년 이었으나, 이미 이보다 30년 전인 1670년에 이유인(李有仁)에 의하여 문사적인 성격의 사우가 설립되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로서는 이유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그의 직계선조들을 모셨던 이 사우가 1700년에 이르러 같은 문족이면서 세력을 떨쳤던 이홍직(李弘稷 : 1705~?), 이보영(李普榮) 부자와 이명룡(李命龍 : 1708~?)을 중심으로 합의에 의해 문족의 시조인 이언(李彦 : 고려 광종대)만을 제향하는 사우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문족간의 이해관계가 있었을 것임을 예상케 되며, 이 문제가 혹 이유인을 독향하는 모양사(牟陽祠)의 창건으로 귀결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보다 정확한 자료가 검출되지 않는 현재로서의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며, 다른 자료의 검출을 기다려 보완·재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우리는 이후 인접한 초포리(원초포)에 별도로 초포사(草浦祠)가 건립되는 것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사산사가 1700년 이언(李彦)을 독향하는 향사우로 발전하고 1790년에 4위의 추배가 이루어지자 원래 그곳에 모셔졌던 이순화(李舜華)를 원초포의 별도 사우로 모시게 되었고, 뒤에 이곳에 이명룡(李命龍)과 이유인(李有仁 : 이유인의 배향은 모

양사의 훼철이후)을 배향하였기 때문이다.

파우(破愚) 이유인(李有仁 : 현종~숙종대)의 자세한 행적은 문집이나 기타 관련 사적들 속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가 현종~숙종 연간에 활동했던 이 지역의 유력 인물임은 증산사에 후일 배향된 최락당(最樂堂) 김중선(金重璿 : 1659~1702)과의 학문적 교유를 보아서도 짐작이 되나 보다 상세한 행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모양사지(牟陽祠址)로 추정하는 곳으로는 우치리 계동마을 앞 산기슭으로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원래는 함평이씨문중의 문답이었으나 현재는 나산면 우치리 계동마을 정세권이의 소유지).

9) 송암사지(松岩祠址)

송암사지는 나산면 송암리 송암마을에 소재한다. 송암사는 조선개국 초 1398년(태조 7) 왕위계승권을 에워싸고 왕자들 사이의 골육상쟁의 비극인 왕자의 난과 1401년(태종 1) 박포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정사(定社),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었던 취산군(鷲山君) 신극례(辛克禮 : 1359~1407)와 그의 아우 판서공 신극경(辛克敬 : 1366~?), 그리고 판서공의 아들인 부사공 신효돈(辛孝敦 : 고려말~조선초) 등 영산신씨(靈山辛氏) 3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1847년(헌종 13)에 창건된 사우이다.

그러나 송암사도 다른 서원 사우와 마찬가지로 1868년(고종 5) 서원 훼철령으로 철폐의 비운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 후 복원을 끝내 이루지 못하다가 15세 후손 신성준(辛性準)이 1918년 사우의 옛 구지에 유허비를 세우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송암사우유허비실기(松巖祠宇遺墟碑實記)>(1918년, 이병수 기록)).

송암사의 최초 건립에 대하여 『함평군사』(1984년)에는 취산군의 14세손인 신유장(辛裕章 : 1804~1899)이 사우를 건립하여 후진 교화와 강론, 그리고 학당의 구실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송암사 건립에 신유장의 역할은 상당하였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 이는 신유장이 일찍이 소년시절부터 경서, 의서, 술서, 문학서 등을 두루 섭렵하였고, 또한 천리에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장가로 박학다식한 성리학자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본다면 송암사는 신유장이 그의 선조들을 제향하는 재실, 또는 후진 교화의 강론을 하던 서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것이 후일 사우로서 발전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그가 생존 당시에 활동하였던 배경으로 보아 영산신씨의 문사적인 일에서나 향론의 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이다.

신극례(辛克禮 : 1359~1407)의 본관은 영산인데 그의 시조는 고려 예종~인종 조에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냈던 신경(辛鏡 : 1107~1138)이다. 공은 신경의 12세손으로 1398년(태조 7) 조선개국 초 당시 상장군(上將軍)에 있을 때 왕자의 난이라 일컬어지는 방석(芳碩)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이 되었다(『태조실록』 권 15, 태조 7년 무인, 9월 기축조). 그리고 1401년(태종 1)에는 박포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평정하는데 협력하여 태종을 왕

위에 오르게 한 공훈으로 진충좌명일등공신이 되었다(『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신사, 정월 을해조). 그 후 조정으로부터 취산군(鷲山君)에 봉해졌고, 또한 영의정에 증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특별한 은혜로 묘정(廟庭) 부조전(不祧殿)에 배향되었다. 그런데 공의 행적을 기록한 <송암사우유허비실기>에는 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이 왕위찬탈을 계획하고 단종의 측근자인 김종서와 황보인 그리고 안평대군 등을 제거하는데 공이 컸던 사람들에게 하사하였던 정난공신(靖難功臣)의 철권을 하사받았다고 기록 되어있으나 이는 약간의 착종이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의 생몰년에 대한 <영산신씨보첩>의 기록에는 그가 1407년에 이미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정란공신을 하사 받았다는 1450년대와는 무려 50여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편 신극례는 조선개국과 함께 왕실과 서로 연계되어 성장한 무관출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그의 공신훈록 표창의 기사에 그의 관직명이 상장군, 좌군동지총제라는 기록에서 엿볼 수가 있었고, 또 그가 왕실과 연계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태종실록』 권1, 총서, 기묘년(1399) 9월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공정왕(정종)이 아들이 없고, 개국정사(開國定社)의 계책이 모두 정안군(靖安君 : 태종)에게서 나왔다 하여 도승지 이문화(李文和)를 보내어 태조께 아뢰고 책봉하여 왕세자를 삼았다. 처음에 태조가 현비강씨(顯妃康氏)의 소생인 방석(芳碩)을 봉하여 세자를 삼았더니, 정희계(鄭熙啓 : ?~1396)의 아내가 현비에게 말하기를 '정안군이 세자가 되면 심히 인망(人望)에 합할 것입니다. 지금 방석을 세우니 필경은 반드시 좋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정희계의 아내는 취산군(鷲山君) 신극례(辛克禮)의 누이이고, 현비(顯妃)의 삼촌 질녀(姪女)였다."

이처럼 영산신씨 가는 당시 왕실과 개국공신(정희계)들 간의 혼인관계로 서로 연을 맺게 됨으로서 조선의 개국과 함께 새롭게 부각될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초기 영산신씨들의 성장 배경에 대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위의 실록기사(1399년)에서 보았듯이 태조의 부인인 현비 강씨는 신극례의 고모의 딸로서 신극례와는 내종 4촌간이 되고, 태조 이성계와는 내종 4촌 처남 매부지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왕자의 난에 의해 피살되었던 강씨의 소생인 방번(芳蕃)과 방석(芳碩)은 그의 내종질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하여 신극례는 강씨의 소생인 왕세자 방석의 편에 서지 않고, 정안군(태종)의 편에서 세자 폐위를 도와 정사공신이 되었을까. 당시 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어찌할 수 없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였다고도 볼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럼 송암사에 배향되었던 신극례 및 영산신씨 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지만, 현재로는 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한 그 실마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 정확한 진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극경(辛克敬 : 1366~?)은 취산군 신극례의 아우로 1401년(태종 1) 박포의 난이 일어나자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와 더불어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정사좌명원종공신(定社佐命原從功臣)에 훈록되고 형조판서가 되었다.

신효돈(辛孝敦 : 고려말~조선초)은 판서공 신극경의 아들로 학행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충과 효로써 등문하게 되어 왕의 신임으로 부사에 제수되었다는 내용 이외에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현재 송암사(松巖祠)는 송암마을 중앙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예전의 유지에 주춧돌만이 묻혀있고 주위에는 죽순이 자라 무성한 대밭을 이루고 있을 따름이다.

송암사와 관련되는 자료는 너무나 빈약하다. 직접 관련되는 자료로서는 현재 유지에 세워져 있는 ①<송암사우유허비실기>(1918년, 이병수 기록, 신성준 세움, 높이 89㎝, 폭 55㎝, 두께 25㎝, 12행38자) 뿐이다. 이 유허비는 사우가 훼철된 뒤 복설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던 후손 신성준이 옛 유지 앞 길가에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의 비이다. 한편 송암사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유지(遺址) 옆에 자리 잡은 영산신씨의 종가인 신용의 사랑방에는 그의 5대조부인 만회 신유장의 유고집을 비롯하여 1,000 여권의 전적과 300여 년 전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화와 풍경화 4폭 등이 소장되어 있다.

10) 충의사(忠毅祠)(永慕祠)의 역사

함평군 나산면 덕림의 옥녀봉(玉女峰) 아래에 있는 충의사(忠毅祠)는 영모사의 고친 이름이다. 후석(糇石) 오준선(吳駿善)이 1922년에 지은 영모사기(永慕祠記)와 이조판서를 지낸 석운(石雲) 박기양(朴箕陽)이 1923년에 지은 영모각기(永慕閣記)에 의거할 것 같으면 세조 병자(丙子)년에 단종(端宗) 복위를 꾀하다 차열형(車裂刑)에 처해진 백촌(白村)선생 김문기(金文起)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제단을 모시고 봄가을로 제향을 올리다가 1910년대 후반에 영모사를 창건하면서 당시 단종에게 충성을 다하다 목숨을 잃은 세 분 정승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정분(鄭苯) 등의 위패를 함께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1999년에 발행한 「함평군사」에는 영모사의 고친 이름인 충의사로 표기하고 1919년경에 창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단(祭壇)에서 사자(祠字)로 바꾼 것은 제단의 제사로는 그분들의 충절에 걸맞지 않는 미안함에서 사자(祠字)를 지어 춘추향(春秋享)으로 번듯하게 제향을 올리고자 하는 정성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림(士林)과 문중의 열악한 재원과 나라가 망한 속에서 경영하다보니 목재며 갖은 준비물들이 법도에 다 맞을 수 없었다. 이에 6·25의 참화를 겪우 벗어난 1950년대 후반에 중수하기로 사림의 의견을 모으고 마침내 1959년에 영모사를 중수하였다. 이것이 현재 중수상량문에 기록된 기해(己亥)년의 일이다. 아울러 이때 사자의 이름을 충의사로 바꾸고 세 분 정승의 위패를 매안(埋安)하고서 아버지 백촌의 죄에 연좌되어 죽은 아드님 영월군수 여병재 현석과 자손들 중 임진왜란에 집안사람들을 앞장세우고 의병을 일으켜 진주성 싸움에서 장렬히 싸우다 남강에 몸을 던진 일성재(日星齋) 정호(定浩), 고흥에서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 죽은 관암(冠巖) 당(鏜), 인조 연간에 이괄(李适)이 일으킨 급작스러운 난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조정에서 인조를 등에 업고 공주까지 모신 해은(海隱) 응무(應武),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와 민족이 신음할 때 과감히 의병을 일으켜 전라도 일대에서 혁혁한 전공으로 일본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 의병장(義兵將) 김태원(金泰元) 장군의 위패를 새로 봉안하고 오늘날까지 제사를 올리면서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그러나 충의사는 불망본(不忘本)의 정신으로 1910년대에 쓰였던 목재들을 최대한 살리고 지

붕을 이었던 기왓장들도 사우와 강당이며 문루의 지붕들에 듬성듬성 얹었다.

지금 화장실 건물의 전체 지붕을 덮고 있는 예전의 흙으로 구운 기와가 당시의 정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또 현재 사자의 경내 여기저기에 쌓여져 있는 기왓장 더미는 바로 예전에 사자의 지붕을 덮었던 기왓장들이다.

충의사는 영모사의 역사와 영모사 이전의 제단의 전통까지를 함께 이어받은 일백여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진 사자(祠字)이며, 위패가 모셔진 분들은 이 땅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다. 국가를 위해 영화스러운 벼슬과 목숨마저 초개처럼 버린 이분들을 현창하는 것은 자손의 도리이자 크게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된다.

(1) 경주김씨 영모각 기문(慶州金氏 永慕閣 記文)

영모각은 바로 단종을 위해 절의를 지킨 백촌(白村)김선생 문기(文起), 시호 충의공(忠毅公)의 충절을 기리는 곳이다. 그 당시 함께 순절한 세 분 정승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정분(鄭苯)도 기산(箕山)의 덕림(德林)에 함께 신주(神主)를 모시었다.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인가하면 백촌의 후손들인 억희(億喜), 영희(英喜), 계희(桂喜), 상린(商麟), 상업(商業)이다. 여러 자손들의 이 일은 위대하고 훌륭하도다. 충신의 옛 집안 자손들이 두터운 음덕으로 다시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벌였으니 이는 하늘이 백촌을 먼 옛날에 훌륭한 업적으로 그림자를 남기게 하고 다시 아득한 훗 세상에 백촌을 기리는 메라리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다. 피는 선죽교의 돌다리를 물들일만한 포은(圃隱) 선생의 기상이고 자규루(子規樓)에 밝은 달이 빛난다는 단종대왕의 서글픈 정신이리라. 여기에서 충효 두 글자는 예나 이제나 똑같은 마음임을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무릇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뉘라서 뛸 듯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영모각이 이루어지던 날 사람을 보내 달려와 내게 말하기를, “선조의 태양처럼 빛나는 충성과 세 분 정승의 하늘을 꿰뚫는 의리는 이 세상이 다하도록 사라지게 할 수 없다. 이에 약간의 제목을 모아 영모각을 세우고 난초가 피는 봄날과 국화가 피는 가을날에 제수를 차려 올리고자 합니다. 이에 감히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마침내 병을 참아가며 붓을 들어 멀리 그분들의 충효를 전하고자 하는 정성을 돕게 되었다. 감히 내가 문장에 능숙해서가 아니고 기록이 없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어져서이다. 이때는 계해년(서기 1923년)의 봄날이다.

(2) 영모사의 기문(永慕祠의 記文)

공손히 생각하건대 단종대왕께서 임금 자리를 물려주실 적에 사육신 같은 충신이 있어 복위를 도모하려다 의롭게 죽어갔다. 그때 사육신과 의리를 함께하며 사육신과 같은 날 살신성인(殺身成仁)하신 분이 있었다. 이조판서(吏曹判書) 백촌(白村)선생 김공(金公) 문기(文起)가 바로 그 분이시다.

당일 함께 돌아가신 여러 분들의 충성과 의리는 빛나고 빛나며 뜨겁고 뜨거웠다. 그러나 그

사건이 시대의 금기(禁忌)로 묶이며 이름들이 죄인의 명부에 올라있기를 수백년이었다.

숙종조의 정유년(숙종 43년, 서기 1717년)에 이르러서야 단종의 군위(君位)와 묘호(廟號)가 회복되고, 당시 의리를 위해 죽어간 여러 신료들에게 특별 명령으로 억울함을 씻어주고 생전에 지낸 벼슬들을 회복시키고 시호를 내렸다. 이때 공에게 특별히 좌찬성(左贊成)을 증직하고 충의(忠毅)의 시호를 내렸으며, 장능(莊陵)의 문 밖 제단에 배향하여 제사를 받게 하니 위패의 서열은 사육신 신주의 윗자리였으니, 어지신 숙종의 충성을 표창하고 높이신 일은 지극하고 더할 나위없어 다시 더 바랄것이 없다 할 것이다.

사림들이 백촌을 위해 사자(祠字)를 짓고 제향을 올리는 곳이 전국 7~8곳에 이르렀으니 또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겠다. 아! 선생의 굳은 충성과 위대한 절의는 이 땅의 산천과 더불어 우뚝이 솟아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눈과 귀에 환히 혁혁하기가 마치 어제 일어남이나 매한가지였다. 그러나 한 차례 무진년(고종 5년, 서기 1868년)의 서원철폐(書院撤廢)를 거치면서 떠받들 수 있는 길도 없고 제사를 지내는 곳도 없게 되어 사림들의 울분이 마음속에 쌓여 온지 오래였다.

다행스럽게 선생의 후손 상선(商善), 상인(商仁), 상옥(商玉)이 유독 선조를 사모하는 정신이 간절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기산(箕山) 동쪽의 옥녀봉(玉女峰)에 제단을 모시고서 봄가으로 제사를 받들었다. 그리고 또 다시 사자(祠字)를 제단(祭壇) 터에 짓고서는 서원의 규범을 대략 본떠 위패(位牌)를 모시고 정성스러운 예를 올리니 그 마음 참으로 애틋하다 말할 수 있으랴 . 아아! 지금 의리가 캄캄히 꽉 막히면서 윤리와 기강이 거의 소멸되어버렸다.

오늘날 선생에게 제사 올리는 집을 새로 새운 일은 그 또한 윤리가 붙잡아지고 기강이 세워지려는 앞선 조짐일 것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으로 애틋하게 공경심이 일어나거나 충성과 의리의 마음이 뭉클일지 않는다면 반드시 인간의 마음이 없는 자일 것이다.

상선(商善)이 그의 족숙(族叔)인 정희(正熙)를 보내 나에게 이에 관한 일들을 기록해 주기를 청하기에 내 늙고 또 병들었다 하나 어찌 차마 거절할 수 있겠는가.

사자(祠字)의 이름을 충의사(忠毅祠)라 하지 않고 영모사라고 한 것은 조상을 영원히 사모해야 한다는 자손의 법 삼아야 할 효심을 기록해 두자는 뜻에서이다.

현묵암무(서기 1922년) 섣달 하순에 금성(錦城) 오준선(吳駿善)은 삼가 기록한다.

(3)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 선생 (왕조실록에 의거)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 선생은 단종 복위를 꾀하시다 돌아가신 충신이다.

선생의 관향(貫鄕)은 경주(慶州),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마암(馬巖), 아버지는 증(贈) 영의정 관(領議政 觀), 어머니는 옥천육씨(沃川陸氏) 전공총랑 비(典工摠郎 埤)의 따님이다. 충북 옥구군 이완면 백야리에서 독자로 태어나 세종 8년(서기 1426년) 병자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세종 12년에 태종실록 기사관(太宗實錄 記事官), 예문관 검열(藝文館 檢閱)로 출사를 시작하여 세종 18년 사간원 조헌납(司諫院 左獻納), 19년 병조 정랑, 21년 경상감영 경력(慶尙監營 經歷), 23년 경창부 소윤(慶昌府 少尹), 24년 의정부 사인(議政府 舍人), 26년 봉상사윤(奉常寺

尹)으로 평안도 경차관(敬差官)에 임명되고, 27년 함길도 도진무(都鎭撫), 30년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 31년 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 32년 병조 참의(兵曹 參議)등을 역임하였다.

이어 문종이 즉위한 해인 서기 1450년 5월에 동부승지(同副承旨), 7월에 우부승지(右副承旨), 9월에 좌부승지(左部承旨), 원년에 함길도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역임하였다.

문종이 승하하시고 이어 즉위한 단종 원년인 서기 1452년 9월에 형조참판(刑曹參判), 11월에 함길도 도절제사(都節制使)를 역임하셨다.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긴 뒤 세조 원년(서기1454년)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오르고, 이어 2년에 삼군진무소 도진무(三軍鎭撫所 都鎭撫)에 올랐다.

선생은 충신이기 이전에 효자였다. 아버지의 삼년상에 하루도 묘소를 찾지 않는 날이 없어 삼년상을 마친 다음 인근 사람들이 선생의 효성에 감복하여 백야리를 효자동으로 불러 마을 이름이 바뀔 정도였다. 세종 27년 4월 23일의 기사를 살피면 선생이 계모(繼母)의 상을 당하여 고향 옥구에서 거상(居喪)하고 있었는데 함길도 도절제사 박종우(朴從愚)가 도진무(都鎭撫)로 추천하여 임명되자 "신의 어미가 일찍 세상을 하직하여 나이 13세 때부터 계모의 손에서 자라 그 은혜와 의리가 지극히 중하옵니다. 신이 독자여서 상사를 돌보지 아니하고 먼 지방으로 부임하기에는 실로 마음이 아프고 민망스럽습니다. 더욱이나 신을 본디 옹졸하고 허약하여 무사(武事)에 익숙지 못하오니 신의 임명을 바꾸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라고 상소하자 성군(聖君) 세종(世宗)은 이를 윤허하지 아니하고 기복(起復)하여 부임시키며 옷 한 벌과 활 화살을 내려 보내고 좌승지 유의손(左承旨 柳義孫)을 보내 고기를 먹도록 권유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선생은 문무를 겸전하셨다. 함길도 도관찰사에 임명된 날의 기사를 살피면 "김문기는 성품이 화통하고 말을 잘하였다. 이때 임금이 함길도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고자 하셨는데 조정의 의견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홀로 김문기만이 그 이익된 점을 말하였고, 또 무예도 조금 알았던 까닭에 마침내 기건(奇虔)를 대신하여 임명하였다."고 하였다.

선생의 무예에 대한 조예는 세조 2년 4월 기사에 공조판서(工曹判書) 김문기는 선비이지만 활쏘기에도 능하다는 신료의 말을 들은 세조가 불러 시험하였더니 과연 말과 같이 연중(連中)하여 다른 신료에게는 활과 화살만을 상으로 내렸는데 김문기에게는 환도(環刀)를 더 내렸다는 가사가 실려 있다. 이것이 백촌 선생이 변방의 책임을 연이어 맡아 수행한 이유였다. 또 둔전(屯田)제도를 처음 성공시켜 문종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으며 수양대군의 계유정란(戒喩靖亂)에 반대한 이징옥(李澄玉)의 반란을 진압된 뒤 진정되지 않는 북방의 드센 민심을 수습시키기 위해 선생이 도절제사에 임명되어 이를 수습한 것은 바로 선생의 지략과 포용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울러 재직 중 함길도 변경에서 당시 조선을 괴롭히던 야인 부락의 형세를 낱낱이 정탐하여 조정에 보고함으로써 조정이 향후 야인 정책을 기초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남겼다. 선생의 일생일대의 공적은 북방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생은 불의를 미워하여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를 문종실록 즉위년(文宗實錄 卽位年) 9월 18일(己未)의 기사에서 살피면 "김문기는 성품이 악을 미워하며 도당(都堂)에 모여 의견을 모을 적에 벼슬에서 내쳐야할 사람들에 대한 말들이 대부분 그의 입에서 나왔다. 혹여 그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마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

럼 하여 전연 말에 거리낌이 없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이 선생이 세상이 이미 돌릴 수 없는 세조시대로 흘러갔는데에도 단종 복위을 위하여 공조판서라는 높은 직위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전의 군주 단종을 위하여 그 어려운 혁명을 도모하게 한 힘이었다.

‘방약무인(傍若無人)’ 이것이 선생의 올곧은 판단을 올곧게 이어가게 해주는 힘이었던 것이다. 선생의 눈에는 판서라는 직함도 하나의 뜬 구름이었을 뿐이었다. 세조 2년 6월 초 이튿날(庚子) 김질(金礩)의 고변으로부터 6월 8일 군기감(軍器監) 앞에서 차열형(車裂刑)에 처해지던 날가지 가혹한 고문이 이어져 모두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자백하였으나 선생만은 불복하고 초연히 아들 현석(玄錫)과 형장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선생의 죄명을 세조실록 2년 6월 8일(己巳)의 기사로 살피면 “문기가 박팽년(朴彭年)과 친족 관계이면서 또 매우 친밀하였다. 문기가 당시에 도진무(都鎭撫) 벼슬을 하고 있어서 팽년이며 (成)삼문(三問) 등과 모의하면서 말하기를 다만 너희들은 안에서 일을 성사시키기만 하라. 내가 밖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비록 이일을 반대해 저항하는 자가 있다 하여도 제압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

위의 말이 선생이 단종복위에 담당한 역할이다. 이 죄가 선생이 아들과 함께 차열형(車裂刑)을 당한 죄목인 것이다. 후일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모두 논하여 공훈을 정하면서 선생은 문신 조극관(閔伸 趙克寬) 두 판서와 함께 삼중신(三重臣)으로 일컬어지나 두 분 판서는 모두 계유정란(癸酉靖亂)에 희생된 분들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복위를 위해 희생된 거사(擧事)에서 선생은 가장 높은 직함을 가진 분이었다. 이것이 근자에 사육신(死六臣)의 한 분이라는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킨 소이이다.

이후 영조 연간에 억울함이 풀렸고 정조 2년에 충의의 감호(감호)가 내려지고 녕월 장능(寧越 莊陵)의 충신단(忠臣壇)에 배식되고 공주 동학사 숙모전(東鶴寺 肅慕殿)에 배향되었다.

고려(高麗)를 무너뜨리고 건국한 조선(朝鮮)은 국가의 이념을 공맹(孔孟)의 도학(道學)구현에 두었다. 공맹의 도학은 한마디로 오륜(五倫)이다. 오륜의 첫째는 부자유친(父子有親), 둘째는 군신유의(君臣有義)이다. 백촌 선생은 부자유친을 구현하였고 군신유의를 실현하였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기본 덕목이자 조선 건국의 기초였다. 백촌 선생의 살신성인은 바로 조선조 선비정신을 투철하게 세상에 실현해 낸 장대한 거사이다. 조선이 건국되어 선비를 기른지 60여년 만에 이룩한 일대의 괘거이기도 하다. 백촌 선생 등이 당시 몸으로 보여준 이 의거(義擧)가 조선조 5백년을 이어오는 선비정신의 선구(先驅)였다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여병재 김현석(汝甁齋 金鉉錫)

김현석(金玄錫)은 백촌 김문기(白村 金文起) 선생과 선산김씨 이조판서 문청공 김효정(善山金氏 吏曹判書 文靖公 金孝貞)의 따님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는 태초(太初), 여병재(汝甁齋)는 그의 호이다.

벼슬은 거창현감을 거쳐 녕월군수(寧越郡守)를 지내셨다. 녕월의 단종의 능 남쪽에 단종 즉위년(서기 1452년) 9월에 세운 선정비(善政碑)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다. 그 비의 앞에는

군수김공현석청덕비(郡守金公玄錫淸德碑)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황명경태삼년구월일(皇明景泰三年九月日)이라고 쓰여 있다.

세조의 그 서슬 퍼런 세월을 이 비가 오늘날까지 견뎌왔다는 것은 곧 여병제의 당시 영월에 끼친 덕화가 어떠하였을 것임을 웅변하고 있다할 것이다.

여병재는 아버지의 죄에 연루되어 아버지와 함께 세조 2년 6월 8일 군기감 앞에서 교수형(絞首刑)을 당하여 묘소마저 없다. 정조 15년(서기 1791년) 어명에 의하여 영월 장능의 조사단(朝士壇)에 배식(配食)되었고 아울러 공주 동학사 숙모전(東鶴寺 肅慕殿)에 배향(配享)되었다.

(5) 일성재 김정호(日星齋 金定浩)

공의 처음 이름은 영호(永浩) 자는 백천(伯天) 일성재(日星齋)는 공의 호이다. 선조 9년에 고향 경남의 안음(安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성균생원으로 수의 부위(修義 副衛)벼슬을 지낸 의봉(儀鳳), 어머니는 동래정씨 현감 벼슬을 지낸 표(彪)의 따님이다.

백촌 선생 김문기가 6대조이다. 안음에서 해남으로 이사하여 일성산(日星山)에 정자를 마련하고 지내시다가 선조 연간에 무과에 등과한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집안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의병을 규합하여 준봉 고종후(準峰 高從厚)와 진주성 싸움에 참가하였다. 처절한 전투 끝에 따르던 병사가 모두 죽고 화살마저 동이 나자 북쪽을 향해 통곡의 눈물을 뿌린 뒤 마침내 남강에 뛰어들어 의연히 죽음을 택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계사년(癸巳年) 7월 7일이었다. 뒤에 공의 충절을 표창하여 한성부 판윤(漢城府 判尹)을 증직(贈職)으로 내리고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봉하였다. 후일 자손들이 해남군 문내면 충평리 갈우촌 뒷산에 초혼장(招魂葬)으로 묘소를 모셨다. 사실이 해남읍지(海南邑誌)에 전한다.

(6) 해은 김응무(海隱 金應武)

공의 자는 선서(善瑞), 호는 해은(海隱)이다. 아버지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한 일성재 김정호(日星齋 金定浩)이고 어머니는 한양조씨 명인(漢陽趙氏 命仁)의 따님이다.

선조 23년(서기 1590년)에 태어나 진주성에서 순절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문인의 길을 포기하고 무예를 닦아 광해군(光海君) 12년(서기 1620년)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이괄(李适)의 난을 당하여 당시 선전관(宣傳官)으로 인조를 모시다가 한성(漢城)이 함락되려는 위급한 상황에서 모두가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인조를 등에 업고 변문(便門)으로 급히 피신하여 공주까지 모시었다.

이괄(李适)의 난이 평정된 뒤 인조가 특별 전교로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6천여 사람들의 높으 적개심을 곰곰이 생각할 때 김응무의 군주를 등에 업고 위급을 피한 정성은 최명길(崔鳴吉)과 이서(李曙)의 공에 비겨 낮지 않다" 라고 하시고 두 귀의 시를 지어 내리니 "하늘이 김응무를 출생시켜 나에게 기둥이며 주춧돌과 같은 신하를 삼아 주셨네. 의복과 채찍과 활

등을 후하게 더 내려 후세 사람들에게 알리노라" 하였다.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에 봉해지고 자헌대부춘추관한성부판윤(資憲大夫春秋館漢城府判尹)이 증직되었다.

당시에 내린 관복의 흉배(胸背)가 자손 집안에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공에 대한 일들은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능주읍지(綾州邑誌) 등에 실려 전한다.

2. 영당(影堂)

· 유덕영당(有德影堂) : 나산면 수상리, 나도의(羅燾毅) 영당, 1950년 창건
· 덕천영당(德川影堂) : 신광면 삼덕리, 모유추(牟有秋) 영당
· 백양영당(白羊影堂) : 나산면 덕림리, 이회원(李會元) 영당
· 보진영당(保眞影堂) : 대동면 향교리, 이세추(李世樞) 영당
· 우천영당(牛川影堂) : 함평읍 함평리, 김유신(金庾信) 영당, 1922년 창건

3. 단묘(壇廟)

1) 사직단(社稷壇)

사직단은 토신(土神)에게 오곡(五穀)의 풍요를 빌기 위하여 설치한 제단으로 '사(社)'는 땅의 신(地神)을 말하고 '직(稷)'은 곡식의 신(穀神)을 상징한 것이다.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풍습이다. 사직제는 매년 봄 음력 2월과 가을의 음력 8월로 나누어 지냈는데 혈제(血祭)라 하여 제수(祭需)에 돼지의 피와 머리를 날 것으로 사용하였다.

사직단은 중앙(서울), 각 현에 1곳씩 있었고 1894년 이후에 제사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함평의 사직단은 옛 군지에 "서쪽 4리 옛 서현내면(西縣內面)에 있고 춘추 상무일에 대제를 지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지금의 일명 '작곡재'를 넘어 영광과 옥산리로 갈리는 백곡마을 어귀에서 동쪽으로 200m 지점의 구룡이다. 높이 1.5m 가량의 흙과 돌을 합한 석축이 남아 있고 주위에 깨어진 기왓장이 흩어져 있다.

2) 여단(勵壇)

여제(勵祭)는 전염병 등의 질병을 막아달라는 뜻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 제단 역시 서울을 비롯하여 각 지방에 있었다.

서낭신과 주인 없는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여 역질을 막고 그들을 위로 한다는 뜻에서 발생 하였다.

1871년에 간행한 『함평현읍지』 의 재정사례(財政事例)에 보면 예방(禮房)의 책무 가운데 성

황제와 여제는 봄과 가을에 지내며, 봄에는 여제를 청명 일에 지내고 가을의 중앙 여제에는 예조에 가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제는 의탁할 데 없는 주인 없는 신(神) 15위를 동서에 모신 후 배향하게 되는데 동쪽에는 병화(兵禍)를 입은 혼, 강도를 만나 죽은 혼, 강간으로 죽은 혼, 천재로 죽은 혼, 역병(疫病)으로 죽은 혼을 제사한다. 그리고 서쪽에는 맹수와 독충의 피해를 입고 죽은 혼을 비롯하여 난산(難産)으로 죽은 혼, 담장이나 지붕이 무너져 깔려 죽은 혼,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은 혼, 자결한 혼, 벼락 맞아 죽은 혼, 추락하여 죽은 주인 없는 혼을 제사했다.

이 제사의 특색은 제물을 음복회식(飮福會食)하지 않고 모두 제단 부근이나 냇물에 뿌려 없앤 것이다. 함평의 여단은 옛 군지에 '현 북쪽 3리 기산 뒤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 백곡마을 앞의 기산봉 기슭 어디쯤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로선 그 형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3) 성황당(城隍堂)

성황제를 지내던 단(壇)을 가리켜 성황당이라 한다. 서낭신(성황신)은 마을을 지켜주는 신으로 무녀(巫女)로 하여금 제사를 주제하게 했다.

1성1읍(一城一邑)을 수호한다는 서낭신을 모신 성황사는 '아사(衙舍) 서쪽 기산봉 아래에 있다.'라고 옛 군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지금의 함평리 작곡재 노거목(老巨木) 바로 곁에 있었다.

1970년대까지도 조그마한 초가집이 있었으나 그 후에 헐리었다. 성황제는 앞서 여제에서 언급했듯이 여제 3일전에 지냈다. 성황당제는 아마도 여제와 함께 폐지된 것으로 여겨진다.

4) 우단(雩壇)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쌓은 단(壇)을 우단이라 한다. 기우제란 하지(夏至)가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아 모내기를 못할 때 비 내리기를 기원하는 제사로 나라에서는 왕 스스로가 치도(治道)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몸을 청결히 한 후 식음을 전폐하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고 왕궁에서 촌가(村家)로 나와 거처하기도 하였다.

민가에서는 산상(山上)이나 냇가에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를 신역(神域)으로 선포한 후 마을 전체가 집단적 공동행사로 기우제를 지냈다. 제주(祭主)는 지방 관원의 장(長)이 맡았으며, 제물(祭物)은 돼지, 닭, 과일, 떡, 밥, 포 등을 올리고 때로는 무녀(巫女)의 가무(歌舞)도 있었다.

집집마다 문 앞에는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달아 빈병을 거꾸로 매달았고 살아있는 나무(生木) 가지를 꺾어다 꽂았다.

이러한 형태의 기우제를 근년에까지 지냈던 우리 함평지역의 기우제 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함평읍 수호리 수산봉산상(水山峯山上)

· 함평읍 대덕리 영대산상(靈台山上)
· 함평읍 자풍리 감악산상(紺岳山上)
· 함평읍 석성리 석두(石頭 : 돌머리)
· 신광면 송사리 군유산상(君遊山上)
· 학교면 금송리 속금산상(束錦山上)
· 학교면 곡창리 옥수봉상(玉岫峯上)
· 엄다면 삼정리 한문산상(悍門山上)
· 대동면 덕산리 고산봉상(高山峯上)
· 나산면 월봉리 천주봉상(天柱峯上)
· 월야면 월악리 월악산상(月岳山上)

5) 가묘단(家廟壇)

조상의 묘소를 잃어버렸을 때 또는 태어나고 죽은 곳을 모를 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곳을 말한다.

· 인동장씨 추원단 : 함평읍 진양리, 장효원 장주 장한숙 등 배향제단
· 함평이씨 향파단 : 함평읍 만흥리, 이광봉 이연 배향제단(1905년 설단)
· 밀양박씨 제 단 : 손불면 동암리, 박영 배향제단
· 인동장씨 향사단 : 학교면 석정리, 장내유 장경도 장흥연 장원성 배향제단(1926년 설단)
· 광산김씨 충절단 : 학교면 금송리, 김수연 김모용 김상종 배향제단
· 한양조씨 정절단 : 대동면 운교리, 조평 배향제단(1935년 설단)
· 함평노씨 세 단 : 학교면 마당곡, 노신의 자손 4세 7위 배향제단
· 광산노씨 향사단 : 나산면 구산리, 노삼석 배향제단(1928년 설단)
· 기계유씨 제 단 : 나산면 용두리, 유혁과 그 자손들의 배향제단
· 선산김씨 삼세단 : 나산면 원선리, 김침 김안란 김길 배향제단(1957년 설단)

6) 망곡단(望哭壇)

임금이 돌아 가셨을 때 서울을 향해 곡을 하기위해 쌓은 단을 가리킨다. 우리 함평에도 여러 산상(山上)에 망곡단이 있었음을 옛 기록에서 볼 수 있다.

· 나산면 건지봉상(乾支峯上)
· 학교면 석정리 월채산(月釵山) 중턱
· 함평읍 수호리 남단산(南壇山)
· 손불면 죽정리 발봉산(鉢峰山) : 순종 승하때 망곡

· 해보면 상곡리 송정치(松亭峙) : 고종 승하때 망곡
· 함평읍 만흥리 국산마을 뒤 구릉 : 효종 승하때 망곡(후에 戀國堂을 지음)

7) 천문단(天文壇)

엄다면 엄다리 제동마을 뒷산인 윤암산(輪岩山, 일명 啼鳳山) 산상에 있는 단이다. 이 단은 조선조 선조(宣祖)때의 학자 곤재 정개청이 천문을 관찰하였던 곳이라 하여 지금까지 '천문단'이라 불려지고 있다.

정개청은 이곳 천문단에서 밤에 천기를 관찰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도 가로 16×세로15×높이1.5m의 천문단의 형적이 남아 있으나 관련된 유물은 1940년경 도굴 당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과 고성정씨들의 말에 의하면 사면 벽을 돌로 쌓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흙으로 덮여져 있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곤재의 천문단 터는 1986년 내부에 대형독이 묻혀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방대형 고분임이 드러났다.

윤암산은 학다리 쪽에서 보면 얕은 구릉으로 보이나 천문단에 올라보면 사방이 두루 훤히 보인다. 천문관측 장소로는 더 없이 좋은 곳이며 개청이 이곳에 터를 잡은 까닭의 하나가 윤암산 천문단 터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3절 누(樓)·정(亭)·당(堂)·재(齋)·각(閣)

1. 누·정·당의 성격과 함평군의 대표적 누·정·당

누정(樓亭)이란 누각과 정자의 약칭이다. 정자를 앞세워 정루(亭樓)라고도 하나, 이는 『여지승람(輿地勝覽)』의 누정조(樓亭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樓), 정(亭), 당(堂), 대(臺), 각(閣), 헌(軒), 청(廳), 관(館), 관(觀), 방(房) 등을 범칭한 개념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어디를 가든지 도처에 누정이 분포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누정은 처자와 함께 가족집단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마을속의 살림집과는 달리 자연을 배경으로 한 남성 위주의 유람 내지 휴식공간으로 가옥 외에 특별히 지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누각과 정자는 우리나라의 전근대사회에 있어서 교양인들의 지적 활동의 장소로 상층 지배계층의 문화가 구체적으로 발원되고 있는 장소인 셈이다. 누각이나 정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런저런 인연을 가진 교양인들이 모여서 시정(詩情)을 교환하거나, 시국담이나 경륜을 술회하였으며, 향리(鄕里)의 자제들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또는 은둔하며 소요하거나 학업을 닦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족들의 향회의 집회소, 특정사회세력의 분파적 집회소로 활용되었던 곳이기도 하여 그 조직의 성원과 목적에 따라 성격이 매우 다양하며 구성원의 이해와 결집력이 강

하게 드러나는 유적이다.

따라서 누정에 대한 조사는 건립 연유나 출입인의 면모, 누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과 성격, 건립과정 등의 파악에 집중되어야 하며 당시 지식인들의 관념형태 등을 추출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함평군의 누정조사에 대한 최근의 연구조사는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가 1987년에 조사 보고한 <전남지방의 누정조사연구(Ⅳ)> ~목포 · 무안 · 함평 · 영광~(『호남문화연구(湖南文化硏究)』 제17집)이 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함평지방에는 현존하는 누정이 80개, 현존하지 않는 누정이 66개 등 총 146개로 함평지방 누정의 수효는 화순과 나주 다음으로 그 분포 수효가 많다.

1) 관정루(觀政樓)와 정인지(鄭麟趾)의 기문(記文)

관정루는 1443년에 현감 김계보(金季甫)가 지은 누각으로 지금의 구기산 앞 함평이씨 선산에 지었고 연못 터가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함평현 누정 관정루조에 실려 있는 정인지의 <관정루기>는 함평에 대한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며 누기를 쓴 정인지가 영의정을 지냈다는 사실보다는 관정루에 대한 규모와 정취, 그리고 5백여 년 전 함평의 옛 모습을 그려 보는데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여기에 전문을 옮긴다. 뿐만 아니라 성임(成任)을 비롯한 조계생(趙啓生), 김유(金紐) 등의 시도 함께 소개하겠다.

정인지의 관정루기는 당시 사간원(司諫院)의 사간(司諫)으로 있던 함평출신 모순(牟恂)의 청에 의하여 정인지가 누(樓)의 이름을 '관정(觀亭)'이라 하고 기문(記文)을 지은 것이다.

"누관을 짓는 것이 정치하는 데에 무슨 관계가 있으랴마는 국가가 다스려지고 문란한 자취나 주군(州郡)이 창성하고 쇠퇴한 유래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예전에 선양공(禪襄公)이 진(陳)나라를 지나다가 현내(縣內)에 숙박할 곳이 없으매 진나라가 앞으로 망할 것을 알았고, 공자가 포(浦)에 들어가서 담장과 집이 완고한 것을 보고 중유(仲由 : 子路)의 선정(善政)을 알았다.

대체로 조정이 도리를 잃으면 정령(政令)이 가혹하고 아전이 용렬하고 백성이 원망하고 주군이 쇠폐하게 되며 어찌 누관이 세워지기를 바라랴. 반드시 조정이 맑고 밝아서 정사가 닦아진 뒤에야 수령의 자리에 인재가 발탁되어 백성이 편안하고 재물이 풍부해져서 여러 가지 피폐한 것이 모두 부흥하여 주, 군이 창성하고 정치가 날로 융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서 안팎이 태평한지 50년이 넘었으며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그 선임(選任)을 잘 하였다. 더욱 함평은 바다가 곁에 있고 토지가 비옥하다. 바다가 곁에 있으므로 경비가 해이하지 않아야 하고 토지가 비옥하므로 백성이 많으니 반드시 문무를 겸비한 인재라야 비로소 올바른 수령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김계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도임한지 1년 만에 아전에게 위엄이 행해지고 백성이 은혜가 더해지고 7사(七事 : 지방수령이 행해야할 7가지 행정 강령)는 여러 고을 가운데서 으뜸이어서 일을 처결하고 사람에게 응접하는 것이 넉넉하여 여유가 있었다. 이윽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누각과 연못은 다만 놀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번거로운 걱정을 성정(性政)을 즐겁게 하여 침울함을 물리치고 시원함을 맞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 고을에 그것이 없으니 어찌 사명을 존경하여 접대하는 데에 결함이 되지 않으랴.'하고 곧 일이 없는 중들을 모아 벌채를 하고 기와를 굽고 객사 동쪽에 터를 잡아 계해년(1443) 1월에 일을 시작하여 몇 달이 지나서 낙성했다.

갑자년(1444) 여름에 단청하니 사치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으며 재물은 관가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역사(役事)는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발돋움한 듯이 높이 솟고 새가 날개를 펴고 날 듯 한 모양을 하고 있으니 고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신기하다 하였고 누각 곁에는 못(池)을 파고 연(蓮)을 심었는데 넓이가 두어 묘나 되어 누각은 경치를 더 하였다.

아, 아, 김군(현감 김계보)이 정치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함평의 고을 됨이 산세는 길게 잇달아 북에서 왔으며 솔과 대나무가 울창하고 넓은 들이 멀리 뻗어 남쪽이 티였고 내의 흐름이 물대기에 좋고 멀리 바라보면 잇 달은 봉우리와 겹친 산이 구름연기 자욱한 안개사이에 감추었다가 비치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하여 가을 달과 봄바람에 기상이 천만가지다.

예전에는 사람은 사람대로 경치는 경치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함께 여기에 모였다. 이 누각에 오르는 사람이면 누구나 쇄락한 정신이 밝아지고 넓은 도량과 활달한 기상과 한가로운 흥취를 굽어보고 우러러 보면서 얻지 않겠는가.

밭 갈고 짐승 치고 고기 잡고 나무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서로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오고가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소와 말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일시에 즐거운 구경이다. 지간원 모군(牟君 : 모순)이 나에게 말하기를 '함평은 나의 고향이요 당신도 일찍이 구경하였는데 기문(記文)과 시(詩)가 없을 수 없으니 부디 나를 위해 지어 주시오.'하며 아울러 이름도 붙여 주기를 청하므로 내가 사양해도 안 되어 '관정(觀政)'이란 두 글자로 편액 하노라."

○ <성임(成任)의 시(詩), 『신증동국여지승람』 함평현 누정 관정루조>

등임이 반드시 놀고 구경하길 즐김이 아니요
가는 말을 잠깐 쉬어 한가함을 빌리는 것일세
긴 길은 북쪽으로 가리역에 통하고
뜬 구름은 동으로 금성산에 잇닿았네
남풍에 베게와 삿 자리는 속세를 벗어난듯
긴 여름날에 누각이 푸른나무 사이에 있네
석류꽃의 붉음이 한창이어서
나그네 길에 그런대로 다시 한바탕 웃음일세.

○ <조계생(趙啓生)의 시(詩), 『신증동국여지승람』 함평현 제영조(題詠條)>

샘맑고 대나무 길고 바다와 산도 깊은데
성(城) 곁의 인가는 숲에 반쯤 가렸네.

○ <김뉴(金紐)의 시(詩), 『신증동국여지승람』 함평현 누정 제영조(題詠條>

어지러운 봉우리 푸른 곳에 해운(海雲) 짙고
가을빛 멀리 푸르러 저녁 숲에 안겼네.

2) 희우루(喜雨樓)

건립연대나 장소는 정확히 모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관정루와 함께 기술되어 있는데 객헌(客軒)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관정루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희우루 경내에 측우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희우루라는 이름도 이 측우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며 일제 강점기 초의 보고서에 측우기가 현존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그 측우기 행방 또한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

3) 망월루(望月樓)

망월루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옛 『함평군지』에 의하면, 이 망월루는 현감 남필성(南弼星)이 세웠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남필성 현감은 1677년 2월부터 1679년 8월까지 함평현에 재임 했었던 인물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망월루는 적어도 1677~1679년 사이에 건립되었던 누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석옹루(石翁樓)

신광면 삼덕리 좌야출신 현감 모일성(牟一成)에 의해 건립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모일성(1678~1747)은 부사 모유추(牟有秋)의 둘째 아들로 1705년 무과에 급제하여 부장, 주부, 언양현감, 진해현감, 원주병마절도사를 지낸 인물이므로 그가 말년에 지은 것으로 생각하면 1730~40년대에 해당한다.

어디에다 건립했던 누각인지는 전하지 않아 알 수 없다지만 현재 삼덕리 좌야마을 모원의 집 앞 의동정사(蟻洞精舍)내에 <석옹루>라는 편액이 걸려져 있다.

5) 역락정(亦樂亭)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현의 동쪽 2리에 있고, 현감 이계의(李繼義)가 지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관덕정의 위치를 옛 군지에서 북 1리라 표기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 2리는 아마도 함평공원과 그 주변 어디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립연대는 1557년 이전이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1557년부터 기재된 함평현감의 명단에 현감 이계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감 이계의는 1557년 이전에 함평현감으로 부임하였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들에서도 이계의의 정기(亭記)가 있다고만 기재되었을 뿐 그 내용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6) 평지정(平志亭)

평지정은 '현감 장일환(張日煥)이 건립한 것으로 동헌(東軒) 뒤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라고 하였다. 장일환은 1849년 7월부터 1851년 6월까지 함평현감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이다.

7) 연예정(鍊藝亭)

1871년 『함평현읍지』에 현감 홍병위(洪秉偉)가 남산(南山 : 현 천주교 앞 구릉, 1980년대 중반부터 채토 작업이 진행되어 일부 구릉만 남음)에 지었다고 하였고 이때에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천연색 「함평현지도」(규장각 소장)에 연예정이 나와 있는데 지도에 그려진 위치가 1871년 현 읍지의 기록과 같다.

그러나 1895년 현 읍지에는 연예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연예정은 1895년 이전에 폐정(廢亭)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 관덕정(觀德亭, 원래 영수정-潁水亭, 영파정-潁波亭)

관덕정(觀德亭)은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 앞 영수천변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자를 영수정(潁水亭)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정자는 영파정(潁波亭) 이안(李岸)이 세웠다고 전해지며 처음에는 그의 아호인 '영파정'을 정자의 이름으로 하였다.

원래 이 정자가 건립된 단초는 1454년(단종 2)으로 올라간다. 당시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보위에 오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자 당시 정계에 몸을 담고 있던 함평출신 영파정 이안(1414~?)이 이에 반대하고 함평으로 낙향하여 내려와 이 정자를 짓고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안은 자가 야부(野夫), 호는 영파정, 본관은 함평(咸平)으로 원래 직산(稷山)에서 세거하였으며 세종 대에 진사가 되었다. 1454년(단종 2) 박팽년(朴彭年)의 천거로 남부참봉에 제수 된 후 이듬해 단종 폐위론이 대두되자 항거하다 벼슬을 버리고 신말주(申末舟)와 더불어 나주 금안동(金鞍洞)으로 은거하였다. 그 후 그는 다시 함평 기산으로 이거하여 이 정자를 짓고 중국의 허유와 소부를 자처하며 티 없이 살았다. 말년에 조정에서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으로 징소 되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고 유유자적하며 시문을 읊고 강론하였다. 이 같은 이안(李岸)의 생애와 사적을 상고하건대 이 정자의 처음 창건연대는 1450~1460년대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이 정자는 처음 건립 당시에는 이안의 호인 영파정을 정자의 이름으로 하였으나, 이후 때로는 영수헌(潁水軒)이라고도 불리었는데 이는 이삼만(李三萬)의 제액(題額)에 전한다.

그러나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 이 정자는 병화에 의해 전면 소실되었다. 그 후 현재의 건물 규모로 현재의 위치에 다시 건립된 것은 이로부터 200여년이 경과한 뒤의 일이었다. 1807년(순조 7) 7월 권재우(權在禹) 등 몇몇 유지들과 후손들이 뜻을 모아 함평공원 뒷산에 유허비를 세웠고, 1820~1821년 사이에는 군수 권직(權稷)과 김상직(金相稷)에 의해 중건되었던 것이다. 그 후 이 정자는 1843년 군민의 궁도 무예를 위한 건물로 중수 활용되었다(<영수정중수기>(1881년, 권재우), <영수정중수게판>(1883년 참조)).

현재 이 정자의 상량에 1843년의 기명(記銘)이 보이는 것으로도 이러한 사정은 확실하며, 이후 다시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정자가 퇴락하여지자 함평군수를 비롯한 관내의 향품(鄕品), 이교(吏校)들에 의해 1881년과 1883년 사이에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졌다. 당시 이 정자의 명칭은 영수정 혹은 관덕정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으며, 점차 함평이씨의 함평 입향조 이안의 유적에서 관립적인 강무(講武)와 사례(射禮)의 유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가 있다.

이후 영파정은 영수(潁水) 또는 관덕정(觀德亭)으로 지칭되면서 함평군의 사정(射亭)으로 성격을 확립하여 갔고(이동선(李東瑄), 이영헌(李瑛憲) 중수기(重修記) 참조), 그리고 1933년과 1966년에 담장 등을 보수하여 향리인들의 궁도 무예의 도장으로 활용하게 하였으나 영수천의 직강공사로 인해 과녁이 멀어지게 되자 궁도장의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이에 이곳에는 현재 한국 국악협회와 대한 시우회(時友會) 함평지회가 건물을 관리사용하고 있다.

영파정 이안이 남긴 시(詩) 가운데,

"정자가 높으니 날아가는 기러기의 등이 보이고(樓高飛雁平看背)
냇물이 맑으니 노니는 새우의 수염을 세겠네(水淨遊蝦細數髮)"

라는 시가는 당시 영수정의 맑은 정취와 그의 한가로움을 엿 볼 수가 있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를 애송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덕정과 관련하여 1803.11~1804.12월까지 함평현감을 역임했던 오연상(吳淵常)의 시(詩)와 어사 이면상(李冕相)의 시(詩)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오연상의 시(詩)

십리 들 허허벌판 볼만한 곳 없지마는
이 정자 여기 있어 쓸쓸함 달래주네
물도 맑은 봄 냇가에 노는 고기 구경하고
해 지는 다리 아래 말 세우고 즐기었네
길은 모두 멀리 뻗어 마을마다 들어갔고
산줄기 높이 솟아 이골 저골 나누었네
아득한 서울 소식 생각조차 막막하여
날아가는 저 기러기 편지 한장 보내야지.

○ 어사 이면상(李冕相)의 시(詩)

기산영수 볼만한 곳 없지만은
이 정자 시 한수가 외로움 달래주네
표주박 걸던 언덕 나무도 늙고
견음교(牽飮橋) 아래 물도 맑구나
그 두분(소부와 허유) 만일 만난다면
천년이란 긴 세월이 멀지 않으리
나는 오고 공은 이미 신선되어 가셨으니
선학이 꿈속에서 날아 다니네.

현재 영파정은 함평읍의 진산(鎭山)인 기산을 배후로 하여 경관이 수려하다. 정자 좌우측으로는 민가들이 들어서 있고 비교적 높은 기단 위에 건립되어 동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자 좌측에는 관리사가 있고, 우측 뜰에는 <영파정유허비(潁波亭遺墟碑)>가 세워져 있으며 담장으로 둘러져 있다. 현재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집으로 내부는 좌측 측면 1칸만을 온돌방으로 꾸미고 모두 우물마루를 깐 대청으로 되어 있다. 이 정자는 1988년 지방 유형문화재 자료 제168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이 정자와 관련되는 유적 유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영파정유허비>(1807년경, 이민보 지음, 높이 143㎝, 폭 54㎝, 두께 28㎝, 10행37자) : 이 비는 영파정의 건립경위를 기록한 유허비로, 원래는 함평공공도서관 옆에 있었던 것을 1987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온 것이다.

②제영문(題詠文) 7개 : 봉상언, 이석규, 오연상, 윤종의, 이면상, 이영헌, 윤숙영 등.

③<중수기(重修記)> : 1981년 권재우, 1883년 권·민군수 외, 1891년 어사 이면상, 1933년 이동선, 1939년 조이섭, 1966년 이영헌 등이 지은 것이 있다.

9) 이인정(里仁亭)

이인정은 나산면 나산리 대정마을 입구에 있다. 마을 입구 좌측에 있는 이 정자는 1694년(숙종 20) 죽산안씨(竹山安氏)들이 주축이 되어 최초 마을 뒷 산기슭에 창건되었다. 그리고 정자의 이름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인(仁)한 마을에서 사는 것이 아름답다(이인위미 : 里仁爲美)"라는 구절을 따다 짓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자는 최초 건립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1724년(경종 4) 북암(北巖) 아래로 이건하였고, 이로부터 36년의 세월이 흘렀던 1759년(영조 35) 또다시 중수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져 이건 되었던 것은 이로부터 74년 후인 1832년(순조 32) 이었다. 이후에도 1949년에 또 한 차례의 중수를 거쳐 1981년에는 동·서향으로 있던 건물을 마을 입구의 차량통행에 불편하다 하여 지금의 위치로 옮기어 현재와 같이 남북방향으로 되었다.

이처럼 이인정은 수차례의 중수를 거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자주 위치를 변경 이건하였던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상량문에서는 첫 번째 이건 때 1724년은 곧 갑진년으로 청룡(靑龍)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던 1832년은 임진년으로 즉 흑룡(黑龍)에 해당한다 하여 풍수설에 입각하여 이건 중수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자에서는 매양 마을의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시(詩)와 예(禮)를 강론하고 좋은 사업을 권장하며 이웃과 종족 간에 화목을 다지기 위해 인(仁)을 근본으로 하였다. 또한 당시 이 마을에서는 주로 뽕과 삼을 많이 재배하였던 듯 하며, 이인정 이건 중수에 소요되었던 비용은 메기굿(농악)을 쳐서 마련하였다.

현재 이인정은 누대형(樓臺形)의 건물로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있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맞배지붕이며, 건물 내부는 마루로 되어있고 기문(記文)과 제영문(題詠文) 등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인정이 위치한 마을 뒤편에는 옥녀봉(玉女峰)이라 불리는 산이 있으며, 정자 옆에는 연못이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연못은 옥녀봉에 살고 있던 옥녀(玉女)가 언제나 자기의 몸 매무새를 가다듬을 때 이용했다는 거울이라 전해온다. 연못 주위에는 울창한 숲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이인정을 건립할 당시 심었다는 나무들로 현재 4백여 풍상을 겪어오고 있다. 한편 정자 앞에는 지석묘로 보이는 장방형의 대형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얽힌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이인정과 관련된 자료로는 우선 송시열의 제자 가운데 명필가로 알려진 권수암(權遂庵)이 쓴 이인정의 현판을 비롯하여 <훈유여강산열만추(訓留與江山閱萬秋)> 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위치로 이 정자를 이건할 때 쓰여진 <이인정이건기(里仁亭移建記)>와 <이인정중수이건상량문(里仁亭重修移建上樑文)>, 여러 명사들의 시가 전해온다. 이 가운데 2편의 시를 소개한다.

○ 안여기(安女器)의 시(詩)

강산이 아름답기 남쪽에서 으뜸이라
삼라만상 그 경치를 어찌 다 거두우리
수양버들 잎은 지고 성긴 가지 나부껴도

늦게 핀 연꽃이 바람일어 향기 그윽 풍겨오네
천봉우리 고운 산색 긴 병풍 펼치었고
한줄기 맑은 시내 푸른 구슬 흘러가네
좋은 모임 오래오래 노소가 함께하니
잔을 들며 서로 즐겨 몇 세월이 지났는고.

* 안여기는 나산리 출신으로 조선시대 효종 때 문과에 급제, 고령·창평현감 등을 역임하였음

○ 대사헌 이언경의 시(詩)

일찍이 좋은 정자 있음 알았고
이제야 이름난 땅 와서 노니네
못 물은 맑아서 거울을 연 듯
나무는 늙어서 난간을 누르네
시골 노인들 잇달아 모여오고
들 밖에서 드는 술잔 차례차례 권한다네
취기가 올라오자 자리 옮겨 노니는데
넘어가는 저녁 해 다시 잡아 두었으면.

10) 백화정(百花亭)

백화정은 월야면 외치리 철봉산 아래에 있는 정자로 진주정씨 화정처사(花亭處士) 정휴동(鄭休東)이 세웠다.

이 정자는 한때 후학을 기르던 글방으로 쓰였고 위국충정에 닳아 오른 선비들의 담론장으로도 쓰여 왔다. 이 정자의 이름은 나주목사가 현란한 화초와 울창한 수목을 상찬하여 '백화정(百花亭)'이라 지어주었다고 한다. 1943년경 한옥으로 개수하였고 1990년경 재차 개·보수를 통해 현재에 이른다. 주위경관이 빼어나 휴식 장소로는 그만이다.

조선시대 말기의 학자 기정진(奇正鎭)이 강론을 펴던 이 정자에는 기정진의 중수기를 비롯하여 많은 명사들의 글귀가 새겨진 현판이 걸려있다. 정자를 세운 정휴동의 시 한 수를 소개한다.

높고 정결한 이 땅에 삼칸 집 마련하여
속세를 떠나 유유히 예서 한평생 마치려 함일레
난간을 스쳐 흐르는 맑은 내는 귀인의 패옥 소리인양 들리고
세곡을 끼고 있는 양쪽 초록 봉우리들은 소라처럼 다 붙었다
잔나비 사슴이랑 같이 사는 터라 학은 분명 나의 시 벗이요
낚싯대 있으니 고기를 못 낚을까 집에 오면 용수 낀 술항아리가 없겠는가
꽃과 돌 뜰에 차 있고 서책은 방에 가득 차 있어
산속 집에서 생활하는 계획이 이만하면 넉넉하리.

11) 수성당(壽星堂)

관아내(官衙內)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12) 녹죽당(綠竹堂)

녹죽당은 노매당(老梅堂)이란 별호(別號)를 가졌던 당으로 바로 아사(衙舍)였다. 전 군청 후관 자리에 있었으며 해방 후 군 청사로 쓰이다가 6.25 전란중인 1950년 10월 19일 밤 적도들의 손에 의해 불태워졌다. 이러한 내용은 1930년에 간행했던『함평군지』에 잘 나타나는데 녹죽당에는 역대의 여러 현감들이 쓴 시가 또한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기록에 전하는 몇몇의 시(詩)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현감 오연상(吳淵常)의 시(詩)

시상이 떠오르기에 병상에서 일어나니
아름다운 봄의 경치 이곳저곳 물 들었네
꾀꼬리는 언덕 위 구름 속에서 노래하고
꽃들은 강 나룻가 비 지난 뒤 만발했네
동헌은 고요하고 공문조차 뜸한데
옥루(玉樓)의 소식 몰라 편지 한 장 올렸네
풍악도 다 끝나고 등잔 밑 외론 밤에
영주(瀛州 : 강릉)의 옛집 생각 꿈속에 떠오르네.

* 오연상의 재임기간은 1803.11~1804.12월까지 이고 그는 문과출신이었다.

○ 현감 이재홍(李載弘)의 시(詩)

지난해 동각(東閣) 수레에서 내렸는데
어느 사이 철은 바뀌어 버들 빛이 푸르짝네
밀린 공문 괴롭히어 잠잘 틈도 없으며
부엌엔 손님대접 음식도 또한 없네
근심이 많을 땐 벼슬을 버리고 싶고
길은 멀어 헛되이 편지 냄도 수고로울 뿐이네
못난 사람이 어려운 때 원의 자리 맡았으나
관리들이 끼치는 민폐 이내 막아보리라.

* 이재홍의 재임기간은 1804.12~1805.12월까지 이고 그는 무과출신이었다.

○ 현감 이기화(李基華)의 시(詩)

이조(吏曹)에서 날 불러 함평현감 제수하니
임금님 품은 뜻 못다 펼까 두려웁네
힘쓰고 또 힘써서 폐단 찾아 바로잡고
내 원래 능력 모자라지만 고루 살게 하고 싶네
유공(庾公 : 중국 지방수령)은 부질없이 다락에 올라 구경만 했고
급암(중국 회양현 태수)은 누어서도 치정(治政)을 잘 했다네
외람되어 운당(녹죽당을 중국고사에 나오는 운당에 비유)에다 시 한수 적었으니
등왕각(중국고사에 나오는 누각)의 시귀 처럼 오래 빛나길 바라네.

* 이기화의 재임기간은1823.6~1825.12월까지 이고, 그는 문과출신이었다.

○ 현감 심동규(沈東奎)의 시(詩)

늙으막에 함평에 와 벼슬살이를 하는 것도
생각하면 임금의 은혜 바다 같아라
백성들은 곤궁하고 조세는 급해
처음마음 저버릴까 걱정이 되네.

* 심동규의 재임기간은 1838.5~1841.5월까지 이고, 그는 문과출신이었는데 정언(正言)으로 승진되어 갔다.

○ 어사 이면상(李冕相)의 시(詩)

그대(현감 심동규를 가르킨듯 함)의 좋은 손이 백성들 건져내니
산도 예사 편안하고 물도 따라 맑아졌네
태평성세 글재주는 서울까지 알려졌고
만년의 벼슬업적 남쪽 고을 소문났네
거문고 소리 들으며 선리와(중국고사에 나오는 미인) 같이 웃을 수 있고
동헌에 들어서면 두보의 시정을 느끼네
명성 있으면 그 속에 숨은 노력 들어 있으니
원컨대 송덕일랑 오래오래 전해져다오.

○ 군수 박준승(朴準承)의 시(詩)

한 고을 고른 정사 관민이 함께 하니
기산영수 이름난 골 뜻과 정을 다 하였네
곳곳마다 삼 심고 뽕 심어 복축(卜築)도 많았는데
집집마다 꽃과 대는 봄 마을을 그리었네
임금 혜 고루입어 태평스런 세상이요
그 은혜 티끌만도 못 갚아 황공한 마음일레
시골노인 서로 와서 풍년을 전하니
근심 없이 사는 백성 절로 절로 잘도 사네.

* 박준승의 재임기간은 1903.7~1907.8월까지였다.

13) 사매당(四梅堂)

사매당은 해보면 용산리 대성마을에 있는 정자로 파평윤씨 사매당 윤삼거(尹三擧)가 세웠다. 사매당을 처음 건립할 당시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에다 매화나무 네그루를 심었다. 이러한 연유로 하여 당(堂)의 이름도 '사매당'이라 명명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세월이 많이 흘러 연못은 황폐화 되고 네 그루 매화나무만이 남아 볼품이 없게 되었던 것을 1983년 사매당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옛 정취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였다. 어찌되었건 이 당(堂)의 이름인 '사매당'이란 제액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썼다고 전해지고, 이외 많은 문사들의 싯귀가 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싯귀들은 우암 송시열의 글을 찬미하는 내용들인데 이 가운데 사매당의 옛 모습과 윤삼거의 품격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는 2편의 글을 소개한다.

○ 권수암(權遂庵)의 시(詩)

반이랑 연못에 늘어선 매화 네 그루
온갖 꽃향기 담아 작은 집을 지었구나
늙은 주인 말없이 주자서(朱子書)만 읽고 있는데
어찌 저 가슴속에 티끌 한 점 끼었겠소.

○ 정문암(鄭文岩)의 시(詩)

못 속엔 연꽃 있고 언덕엔 매화 있어
사철을 나누어 두 철 꽃이 피겠구나
듣자니 문 위에 우암 글씨 걸었다고
사롱(紗籠)으로 정성스레 보호하여 좀 벌레를 막는구나.

2. 정(亭), 당(堂), 헌(軒), 정사(精舍), 암(庵) 일람표

1) 정(亭)

세심정(洗心亭) : 함평 함평공원, 1907년 이동범(만경·은율군수)이 건립, 1977년 보수함
매월정(梅月亭) : 함평 금성 나경세(羅景世)가 세움, 지금은 없음
연　정(蓮　亭) : 함평 함평리, 육모정이라고도 하며 이동범의 휴식소, 지금은 없음
백원정(百源亭) : 함평 성남리 초동, 광산 노철수(盧澈秀)의 강학소
해은정(海隱亭) : 함평 석성리 석두, 김해 김환구(金煥奎)의 만년 휴식소(임봉철 제액)
송파정(松坡亭) : 함평 성남리 석북, 함평 이현범(李賢範)의 강학소(이종택 기문)
만락정(晩樂亭) : 손불 학산리 지호, 함평 이돈우(李敦友)의 만년 휴식소
쌍율정(雙栗亭) : 손불 월천리 월산, 진주 정원규(鄭願奎)가 시를 읊조린 곳
취와정(醉窩亭) : 손불 북성리, 밀양 박치민(朴致敏)의 휴식소(기우만 기문)
월파정(月坡亭) : 손불 대전리, 김해 김석엽(金錫燁)의 휴식소(윤용구 제액)
갈수정(葛搜亭) : 손불 승선, 밀양 박준엽(朴準燁)의 휴식소(기우만 기문)
영음정(潁陰亭) : 손불 은곡, 김해 김봉규(金鳳奎)가 세움
소산정(小山亭) : 손불 죽암리 석영, 광산 김병찬(金秉燦)의 만년 휴식소
귀래정(歸來亭) : 신광 유천리, 김해 김봉수(金鳳洙)가 세움(송겸순 기문)
의두정(依斗亭) : 신광 유천리, 김해 김봉수(金鳳洙)가 세움(송병찬 기문)
망우정(忘憂亭) : 학교 죽정리, 진주 정윤진(鄭胤晋)의 강학소(이병수 기문)
동호정(東湖亭) : 학교 석정리 동림, 인동 장덕진(張德軫)의 휴식소(윤용구 제액)
반환정(盤桓亭) : 학교 석정리 반곡, 고령 신국조(申國操)·우조(佑操)의 은거소(송철현 시)
망호정(望湖亭) : 학교 월호리, 남원 양근(梁瑾)의 강학소
반송정(盤松亭) : 학교 석정리 반곡, 고성 김익경(金益卿)의 은거소(1503년 건립), 지금은 없음
유남정(悠南亭) : 학교 복천리 두동, 함평 노유탁(魯愉鐸)의 휴식소(이병수 기문)
현재정(玄齋亭) : 신광 월암리 연천, 경주 이집구(李集龜)의 휴식소(윤용구 제액)

쌍향정(雙香亭) : 대동 금곡리, 이천 서상기(徐相基)의 강학소
보은정(寶隱亭) : 엄다 신계리, 고원 김원삼(金源三)의 장루소(杖屨所;나성수의 시)
영목정(永睦亭) : 엄다 성천리, 이천서씨의 종회소(宗會所); 서병기의 시)
관수정(觀水亭) : 엄다 신계리 화계, 전주 이강운(李康運) 휴식소
송은정(松隱亭) : 엄다 송로리 송촌, 나주 정광열(鄭光烈) 별장, 1812년 무안 성동에서 이건
영은정(永隱亭) : 엄다 화양리 영화, 한양 조화년(趙華年) 여막에 후손 조인방(趙寅邦)이 건립
구곡정(九曲亭) : 대동 용성리 구룡동, 함평 이돈(李敦)의 쉼터
오일정(五一亭) : 대동 향교리, 향교내 사우(士友) 51명이 오륜(五倫)의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
삼현정(三賢亭) : 대동 상옥리 옥동, 파평 윤황(尹趪) 윤길(尹趌) 윤제민(尹濟民)의 유지(遺址)
삼인정(三印亭) : 대동 덕산리 아차, 여양 진만재(陳晩宰)가 세움, 지금은 없음
반환정(盤桓亭) : 대동 덕산리 고산, 함평 이유찬(李儒讚)의 휴식소(이승옥 기문)
두암정(斗庵亭) : 대동 운교리, 한양 조상윤(趙相允)의 휴식소
풍수정(風樹亭) : 나산 이문리, 상산 김경식(金慶植)이 세움(이병수 기문)
자락정(自樂亭) : 나산 삼축리, 밀양 박봉혁(朴葑赫)이 세움(송병화 시)
송암정(松岩亭) : 나산 수하리 빙하, 경주 이종문(李鍾文)의 휴식소(윤용구 제액)
남파정(南坡亭) : 나산 구산리 광령, 밀양 박기영(朴基永)이 세움
영사정(詠四亭) : 나산 삼축리, 신평 송승은(宋承殷)이 세움(김훈 시)
호은정(湖隱亭) : 나산 용두리 선박, 선산 김해용(金海容)의 휴식소(기우만 시)
영모정(永慕亭) : 나산 덕림리 백양, 경주 이시영(李時榮)이 세움
사괴정(四槐亭) : 나산 초포리 장송동, 함평 이접(李慴)의 장루소(杖屨所), 지금은 없음
동여정(同余亭) : 해보, 파평 윤희상(尹希商)의 장루소(杖屨所; 최익현 기)
낙풍정(樂豊亭) : 나산 우치리 계동, 진주 정우묵(鄭右默)이 세움(오원규 기)
강 정(江 亭) : 해보 상곡리, 파평 윤형수(尹衡袖)가 세움(하서 김인후 시)
세이정(洗耳亭) : 해보 금계리, 함평 이영헌(李穎憲)의 장루소(杖屨所)
이락정(二樂亭) : 해보 상곡리 운곡, 파평 윤삼진(尹三鎭)의 휴식소
백인정(百忍亭) : 해보 금계리 지곡, 진주 정태흥(鄭泰興)·태유(泰有) 형제 세움, 손자 병원(秉源)이 중건
취석정(醉石亭) : 해보 함평 이돈형(李敦炯)이 세움
후송정(後松亭) : 해보 용산리 주현, 동래 정인휴(鄭寅休)의 휴식소
희동정(喜同亭) : 월야 월악리, 진주 동래정씨(東萊鄭氏)들이 세움(정종악 기)
영사정(永思亭) : 월야 월악리 노강, 이천 서봉관(徐鳳寬)이 세움(최익현 기)
월호정(月湖亭) : 월야 월야리 순촌, 진주 정경득(鄭慶得)·희득(希得)의 장루소(杖屨所; 조병세 기)
사인정(舍人亭) : 월야 월악리, 함평 노득평(魯得平)의 휴식소, 지금은 없음
사인정(四印亭) : 월야 월악리 내동, 진주 정함도(鄭咸道), 아들 정유(鄭維)·정면(鄭綿)·정주(鄭紬) 등 4부자
호산정(湖山亭) : 월야 외치리 백야, 진주 정경득(鄭慶得)이 세움(함평군수 박준승 시)
연암정(蓮菴亭) : 월야 용암리 연화, 동래 정인식(鄭寅植)이 세움(오계수 기)
농산정(農汕亭) : 월야 용암리 은암, 함양 박한풍(朴漢豊)이 세움(오준선 기)

정산정(靖山亭) : 월야 정산리, 함평 이계화(李啓華)의 강학소
만송정(晩松亭) : 월야 용정리 송정, 인동 장한식(張漢植)의 휴식소(최영조 기)
자형정(紫荊亭) : 월야 월계리 석계, 광산 김상순(金相純)·상린(相麟) 형제 휴식소(최익현 기)

2) 당(堂)

백원당(柏源堂) : 함평 대덕리 백곡, 김해 김병환(金炳煥)의 휴식소
중심당(中心堂) : 함평 내고리 대화, 함평 모달겸(牟達兼)이 세움, 지금은 없음
사우당(四友堂) : 함평 장교리 칠현, 경주 이종순(李鍾詢)이 시를 읊조리는 곳
계지당(繼志堂) : 학교 곡창리 대곡, 함종 어사충(魚史忠)의 퇴임후 은거소, 지금은 없음
우우당(踽踽堂) : 대동 서호리 호정, 경주 최윤(崔潤)의 휴식소
충의당(忠義堂) : 월야 영월리 내세, 나주정씨(羅州鄭氏)가 세움(최익현 기)
석노당(石老堂) : 월야 양정리, 나주 정종면(鄭宗冕)의 만년 휴식소(양계묵 기)
죽림당(竹林堂) : 월야 백야리, 진주 정릉(鄭稜)이 세움(최익현 기)
후백당(後百堂) : 나산 삼축리, 낙안 오영찬(吳永瓚)의 휴식소, 1928년 건립
진수당(進修堂) : 나산 초포리, 함평 이순화(李舜華)가 덕을 닦고 수업에 정진하던 곳
우　당(愚　堂) : 나산 나산리, 죽산 안시용(安時鎔)의 휴식소(송심석 제액)

3) 헌(軒)

경재헌(敬梓軒) : 대동 강운리 호동, 문화 유희석(柳熙奭)이 세움
영사헌(永思軒) : 해보, 파평 윤희상(尹希商) 외 1명을 제사하는 곳

4) 정사(精舍)

시당정사(時塘精舍) : 함평 수호리 대등, 함평 이돈옥(李敦玉) 휴식소
경회정사(景懷精舍) : 함평 자풍리, 경회재유적지(景懷齋遺蹟址)에 건립하여 독서를 권장
영빈정사(潁濱精舍) : 손불 죽장리 장동, 광산 김두삼(金斗三)의 강학소(윤용구 제액)
월산정사(月山精舍) : 손불, 김해 김광재(金光載) 수장소
우산정사(牛山精舍) : 학교 석정리 송정, 청주 한봉섭(韓鳳燮)의 강학소
옥산정사(玉山精舍) : 대동 상옥리 옥동, 파평 윤태종(尹泰鍾)의 휴식소(이승욱 기문)
덕암정사(德岩精舍) : 대동, 광산 김보(金寶)를 제사하는 곳
월악정사(月岳精舍) : 월야 월악리 연당, 진주 정태환(鄭泰桓)의 휴식소
성호정사(城湖精舍) : 나산 용두리, 파평 윤형필(尹衡弼)을 제사하는 곳
창남정사(滄南精舍) : 해보 대창리 창서, 파평 윤길(尹吉) 윤덕생(尹德生)을 제사하는 곳
임천정사(林泉精舍) : 해보 상곡리 모평, 파평 윤만(尹蔓)을 제사하는

5) 암(庵)

성　암(省　庵) : 학교 월산리 시랑, 낙안 오영균(吳泳昀)의 휴식소
모　암(慕　庵) : 엄다 화양리 영화, 나주 김명섭(金明燮)이 세움(김용덕의 시)
죽백암(竹柏菴) : 대동 덕산리 고산, 함평 이희맹(李希孟) 이희증(李希曾)의 묘각
미　암(薇　菴) : 해보 금계리 지곡, 진주 정덕요(鄭德曜)가 세움, 1873년 종헌(鍾憲) 주필(柱弼) 등이 발미마을로 이건(민병승 기)

3. 재(齋)와 각(閣) 일람표

1) 재(齋)

송촌재(松村齋) : 함평 수호리 송정, 나주 나학성(羅鶴成)의 강학소, 1922년 건립
흥인재(興仁齋) : 함평 만흥리, 창녕조씨(昌寧曺氏) 제실
지선재(止善齋) : 함평 진양리 양림, 인동 장창윤(張昌胤)의 휴식소, 1924년 건립
경모재(景慕齋) : 함평 성남리, 함평이씨 시조 함풍군(咸豊君) 이언(李彦)을 제사하는 곳
경회재(景懷齋) : 함평 자풍리, 하동 정남(鄭楠)의 제실
승무재(繩武齋) : 함평 가동리, 나주 나시남(羅詩男) 나각(羅珏)의 묘각
영모재(永慕齋) : 함평 진양리 양림, 인동 장두익(張斗翊)을 제사하는 곳, 1910년 건립
원모재(遠慕齋) : 함평 성남리 소등, 나주 나무회(羅茂檜)의 제각
청절재(淸節齋) : 함평 성남리 성북, 함평 이곤(李崑)을 제사하는 곳
염수재(念修齋) : 함평 장년리 장고산, 인동 장남비(張南誹)를 제사하는 곳
경모재(景慕齋) : 함평 진양리 양림, 인동 장백림(張百林)·두갑(張斗甲) 제향처, 1915년 건립, 1981년 중건
세월재(歲月齋) : 함평 만흥리 초동, 광산 노길강(盧吉岡)의 제실
난와재(蘭窩齋) : 함평 옥산리, 밀양 박수성(朴守成)의 휴식소
송파재(松坡齋) : 함평 가동리, 나주 나각(羅珏)을 제사하는 곳
송계재(松溪齋) : 함평 수호리 해동, 창녕 조석태(曺錫泰)가 건립
경모재(敬慕齋) : 함평 수호리, 금성 나무삼(羅茂杉)의 장루소(杖屢所)
백계재(柏溪齋) : 함평 대덕리 백곡, 김해 김응광(金應光)의 장루소(杖屢所)
수정재(守靜齋) : 손불 양재리, 함평 모수택(牟秀澤)의 휴식소
지송재(遲松齋) : 손불 대전리, 김해 김석환(金錫煥)의 강학소
초연재(超然齋) : 손불 대전리, 광산 김기순(金箕舜)의 강학소
완정재(浣亭齋) : 손불 대전리, 진주 정종우(鄭鍾禹)를 제사하는 곳
옥천재(玉泉齋) : 손불 양재리 장재, 전주 이문일(李文日)·신섭(信燮)·운섭(運燮)·지섭(枝燮)·영섭(英燮)의 제사처
송은재(松隱齋) : 손불 양재리 장재, 진주 정재(鄭梓)의 휴식소, 지금은 없음
영모재(永慕齋) : 손불 북성리 사기, 밀양 박재근(朴載根)을 제사하는 곳
망운재(望雲齋) : 손불 동암리 동백, 김해 김석영(金錫瑛)을 제사하는 곳

우심재(牛心齋) : 손불 동암리 우미산, 양성 이암손(李岩孫) 휴식소
영모재(永慕齋) : 손불 동암리 복흥, 함평 이상경(李傷敬)의 수장소
풍서재(豊西齋) : 손불 동암리 복흥, 함평 이덕추(李德樞)의 수장소
발운재(鉢雲齋) : 손불 죽장리, 김해 김염소(金廉素)가 시를 읊조리던 곳
주정재(主靜齋) : 손불 산남리 수연, 전만조(全萬祥)의 제실
애오재(愛吾齋) : 신광 월암리 연천, 경주 이태희(李泰熙) 휴식소, 지금은 없음
송계재(松溪齋) : 신광 삼덕리 좌야, 진주 정충량(鄭忠良)을 제사하는 곳, 1904년 건립
영모재(永慕齋) : 신광 복흥리, 청송 심안평(沈安枰) 수장소 , 1915년 건립
수존재(修尊齋) : 신광 백운리 종곡, 함평 노급(魯汲)·창종(昌宗)·현삼(賢參)을 제사처
화수재(花樹齋) : 신광 월암리 신촌, 경주이씨 종회당
추모재(追慕齋) : 신광 월암리 신촌, 한양 조호(趙湖)를 제사하는 곳, 1885년 건립
저존재(著存齋) : 신광 삼덕리 덕산, 파평 윤대성(尹大成)과 부인 나주나씨를 제사하는 곳
돈목재(敦睦齋) : 신광 계천리 사천, 흥덕장씨 종회소, 1895년 건립
우송재(友松齋) : 신광 계천리 사천, 흥덕장씨 건립
열습재(說習齋) : 신광 월암리 연천, 경주 이태희(李泰熙) 휴식소, 지금은 없음
강노재(講魯齋) : 학교 복흥리 복치, 청송심씨 강학소
영향재(永香齋) : 학교 월송리 시랑, 경주 이규섭(李圭燮)을 제사하는 곳
영모재(永慕齋) : 학교, 함평노씨 제실
영안재(永安齋) : 학교 죽정리, 진주 정철민(鄭哲民)·윤진(胤晋)·망구(望久)를 제사하는 곳
월산재(月山齋) : 학교 월산리, 광산 김성옥(金聲玉)·경온(景溫)·백진(白晋)·자귀(自貴)를 제사하는 곳
육영재(育英齋) : 학교 복천리 두동, 함평 노태신(魯泰臣) 휴식소, 종친들 모임장소
모란재(牡丹齋) : 학교 복천리 내동, 무안 박언징(朴彦徵)·충후(忠厚)를 제사하는 곳, 인조때 건립
존경재(存敬齋) : 학교, 함평노씨 제실
모충재(慕忠齋) : 학교 월호리, 남원 양운수(梁運壽)를 제사하는 곳
영사재(永思齋) : 학교, 함평노씨 제실
영모재(永慕齋) : 학교 월산리 화산, 함평노씨 제실
추모재(追慕齋) : 학교 마산리 옥마동, 진주 정사린(鄭士麟)과 부인 대구배씨(大邱裵氏)를 제사하는 곳, 1901년 건립
영모재(永慕齋) : 학교 사거리, 충주 지경생(池敬生) 이하 3명의 제각, 1903년 건립
오사재(五思齋) : 학교 월산리 화산, 함평노씨 제실
원모재(遠慕齋) : 학교 죽정리 호암, 함평 이상겸(李尙謙) 이하를 제사하는 곳, 1884년 건립
건모재(建慕齋) : 학교 곡창리, 서정 정인명(鄭仁明)과 부인 낭주최씨를 제사하는 곳, 1891년 건립
경모재(景慕齋) : 대동 금곡리 파평 윤처중(尹處中) 옥동 입향조 외 선인 제실
영효재(永孝齋) : 학교, 김해 김제성(金濟聲)을 제사하는 곳
수정재(守貞齋) : 엄다 엄다리 성산, 파평 윤제(尹濟)의 장루소(杖屢所), 1931년 건립
수연재(水蓮齋) : 엄다 화양리, 함평 모익룡(牟翼龍)·세무(世茂)·세번(世蕃)·윤천(潤天)을 제사하는 곳
영목재(永睦齋) : 엄다 성천리, 이천 서경춘(徐景春) 이하를 제사하는 곳, 1904년 건립

귀후재(歸厚齋) : 엄다 영흥리, 파평 윤정호(尹挺豪)·지신(之信)을 제사하는 곳, 1884년 건립
추유재(追惟齋) : 엄다 엄다리 불암, 영양 천태진(千泰進)을 제사하는 곳
영흥재(永興齋) : 엄다 영흥리, 전주 최서(崔曙) 최인호(崔仁浩)를 제사하는 곳
운성재(運星齋) : 엄다 엄다리 성산, 파평 윤제(尹濟)의 휴식소
영수재(永守齋) : 엄다 영흥리 흥룡, 나주 임후진(林后鎭)의 휴식소
영모재(永慕齋) : 대동 월송리 학송, 낙안 오서(吳瑞)를 제사하는 곳, 1897년 건립
영모재(永慕齋) : 대동 금곡리 나막, 평산 신유(申裕)의 의이소(衣履所)
향양재(向陽齋) : 대동 월송리 동암, 낙안 오경근(吳景根)의 강학소
쌍향재(雙香齋) : 대동 금곡리 금적, 아천 서윤조(徐崙祖)·국주(國柱)·국평(國平)·국상(國相)을 제사하는 곳, 1885년 건립
호은재(湖隱齋) : 대동 금곡리, 진주 정지소(鄭之韶)를 제사하는 곳, 1884년 건립
기첨재(无添齋) : 대동 금곡리 나막, 함평 노권(魯權)을 제사하는 곳, 1888년 건립
삼물재(三物齋) : 대동 덕산리 고산, 공영계원(共榮契員)들이 건립함
학공재(鶴孔齋) : 대동 금곡리 나막, 평산 신호균(申湖均)·수균(守均)의 강학소, 지금은 없음
영사재(永思齋) : 대동, 밀양 박문인(朴文仁)을 제사하는 곳
모열재(慕烈齋) : 대동 상옥리 옥동, 파평 윤길을 제사하는 곳
사후재(思厚齋) : 대동, 평산 신순(申純) 신명조(申明潮)의 의이소(衣履所)
영효재(永孝齋) : 대동, 김해 김제성(金濟聲)을 제사하는 곳
영모재(永慕齋) : 대동 월송리, 낙안오씨 제실
보양재(補養齋) : 나산 나산리, 죽산 안여기(安汝器) 안여해(安汝諧)의 휴식소
존성재(存誠齋) : 나산 나산리, 죽산 안기준(安基駿)의 휴식소
원모재(遠慕齋) : 나산 수상리, 기계 유순인(兪舜仁) 유희식(兪希軾)을 제사하는 곳, 1731년 건립
기양재(箕陽齋) : 나산 구산리, 함평 이안(李岸)을 제사하는 곳
영사재(永思齋) : 나산 삼축리, 함평 이접(李慴) 이운창(李云昌) 이운경(李云卿)을 제사하는 곳
추원재(追遠齋) : 나산 송암리, 영산 신성(辛誠) 신몽남(辛夢南) 신사남(辛賜男)을 제사하는 곳
돈목재(敦睦齋) : 나산 우치리, 함평 이여림(李汝霖)·軾·忠仁·發·忠禮·忠達·塤·克哲의 제사처
추감재(追感齋) : 나산 구산리, 광산 노영석(盧永錫)을 제사하는 곳
학암재(鶴岩齋) : 나산 송암리, 나주 정국(鄭菊) 정섭(鄭燮)을 제사하는 곳
송우재(松隅齋) : 나산 초포리 사산, 함평 이순지(李舜枝)를 제사하는 곳, 1935년 건립
수졸재(守拙齋) : 나산 이문리 증산, 상산 김중태(金重泰)가 건립, 지금은 없음
승효재(承效齋) : 나산 나산리, 죽산 안지송(安志松) 안수성(安秀聖) 안정환(安瀞煥) 등이 건립
후모재(後慕齋) : 나산, 함평 이여림(李汝霖)을 제사하는 곳
호은재(湖隱齋) : 나산, 함평 이시태(李時泰)를 제사하는 곳
함훈재(銜訓齋) : 나산 구산리 내동, 죽산 안희훈(安希勳) 안국인(安國仁)을 제사하는 곳
충사재(忠思齋) : 나산 우치리, 동래 정동구(鄭東龜)를 제사하는 곳
영모재(永慕齋) : 나산, 죽산 안국상(安國相)·여기(汝器)·여삼(汝三)을 제사하는 곳
영모재(영모재) : 나산 구산리 원구산 파평 윤은경(尹殷卿)을 제사지내는 곳

영사재(永思齋) : 나산 구산리, 죽산 안국형(安國衡) 안여지(安汝止)를 제사하는 곳
모선재(慕先齋) : 나산 구산리, 죽산 안국재(安國宰) 안여해(安汝諧)를 제사하는 곳
유음재(柳陰齋) : 나산 원선리 유촌, 김해김씨 제실
신묵재(愼默齋) : 해보 금계리 지곡, 진주 정태유(鄭泰有)가 건립
영양재(潁陽齋) : 해보 상곡리 모평, 파평 윤상룡(尹相龍)이 건립
귀전재(歸顚齋) : 해보 상곡리, 파평 윤자화(尹滋華) 만년 거처지
추당재(秋塘齋) : 해보 상곡리, 파평 윤항식(尹桓植)의 아들 윤공삼(尹公三)이 건립
월양재(月陽齋) : 해보 월양산 아래, 파평 윤형수(尹衡袖)를 제사하는 곳
석천재(石泉齋) : 해보 옥녀봉 아래, 파평 윤유징(尹有徵)을 제사하는 곳
원후재(遠厚齋) : 해보 해보리 모산, 광산 노복수(盧福壽) 노일철(盧日哲)을 제사하는 곳
원모재(遠慕齋) : 해보 해보리, 병자호란 공신인 정대명(鄭大鳴)을 제사하는 곳, 1981년 건립
금산재(金山齋) : 해보 금계리, 진주 정신(鄭伸)을 제사하는 곳
충의재(忠義齋) : 해보, 함평 이령(李軨)을 제사하는 곳
항동재(項洞齋) : 해보 산내리, 파평 윤형정(尹衡禎)을 제사하는 곳
산천재(山泉齋) : 월야 양정리, 진주 정종악(鄭鍾岳)의 장루소(杖屨所)
오수재(五秀齋) : 월야, 이천 서철순(徐喆淳)이 건립
향양재(向陽齋) : 월야 양정리 양지, 천안 전이제(全以悌) 만년 휴식소
운담재(雲潭齋) : 월야 계산당 아래, 함평 이계성(李啓性)·계동(啓東)·계순(啓淳)을 제사하는 곳
성산재(城山齋) : 월야 월악리, 진주 정성도(鄭成道)·흥도(興道)·윤석(崙石) 제향소, 1400년 건립
동덕재(東德齋) : 월야 월악리, 진주 정억(鄭億)을 제사하는 곳
분산재(芬山齋) : 월야 외치리, 진주 정방일(鄭邦一) 정성(鄭晟)을 제사하는 곳, 1688년 건립
영모재(永慕齋) : 월야 월악리, 동래 정운길(鄭雲吉)을 제사하는 곳
내기재(內基齋) : 월야 외치리, 진주 정종일(鄭鍾一)을 제사하는 곳
봉산재(鳳山齋) : 월야 월악리 봉덕, 진주 정병휴(鄭炳休)가 건립
충의재(忠義齋) : 월야 월야리 앞 아래, 진주 정경득(鄭慶得)을 제사하는 곳

2) 각(閣)

사현각(四賢閣) : 나산 나산리, 죽산 안여기(安汝器)·치택(致宅)·정노(挺魯)·지양(志養)의 세서소 (안시용 건립, 송병순 기)
수　각(水　閣) : 나산 초포리, 함평 이순화(李舜華)가 건립
세모각(世慕閣) : 나산 용두리, 나주 정훈(鄭 薰)·응(鷹)·홍(鴻)·진(縉)·회(繪)·민수(民秀)·기수(麒壽)·황수(凰壽)를 제사하는 곳
영사각(永思閣) : 나산, 상산 김세석(金世奭)을 제사하는 곳
서운각(瑞雲閣) : 해보 금덕리, 진주정씨 제실

제4절 정려(旌閭)·정려각(旌閭閣)

충(忠) 효(孝) 열(烈)의 인물에 대한 표창 사실은 정려문(旌閭門)이나 정려각(旌閭閣) 혹은 기념비(紀念碑) 등의 형태가 유적으로 남아 있으며, 관련 자료는 대부분 관리자나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다.

한편 때때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서원(書院) 사우(祠宇) 종가(宗家) 재실(齋室)에서 함께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장 자료의 종류로는 소지(所志) 통문(通文) 천장(薦狀) 복호(復戶) 면역문서(免役文書) 정려(旌閭)의 건립자료 등이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인물에 관련된 것이지만 후손들이 지방사회에서 유력성씨로 성장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우가 많아 주목되는 유적과 자료들이라 하겠다.

어쨌든 함평의 정려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는 옛 『군지』 및 『함평군의 문화유적』 등을 참조하여 요약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된 '정려'라는 말은 삼강문(三綱門)을 비롯하여 충(忠), 효(孝), 열(烈), 충렬(忠烈), 충효(忠孝), 효열(孝烈) 등을 총 망라한 의미이다.

1. 함평의 정려(旌閭) 일람

*표 : 해설한 정려

함평모씨삼강문 : 함평읍 성남리 성북, 충신 모호, 효자 모규현, 효부 밀양박씨(모대진처), 열부 함평이씨(모대옥 처), 1873년 건립

남평문씨효열비각 : 함평읍 옥산리, 열부 함평이씨(문득중 처), 효자 문사현, 1943년 건립

* 함평노씨효자정문 : 함평읍 진양리 대진, 효자 노허, 1661년 건립

* 하동정씨효행정려 : 함평읍 자풍리 금곡, 효자 정종악, 1858년 건립

* 인동장씨효자정려 : 함평읍 진양리 양림, 효자 장창윤, 1892년 건립

열부무안박씨정려 : 함평읍 장교리, 효열부 무안박씨(전주 이재방 처), 1960년 건립

광산김씨열부비각 : 함평읍 장년리 월선, 열부 광산김씨(금녕 김이옥 처)

나주나씨삼효비 : 함평읍 가동리 가동, 효자 나정량, 나정우, 나정윤, 1900년 건립

인동장씨효행비 : 함평읍 진양리 양림, 효자 장규환, 1910년 건립

열부밀양박씨비 : 함평읍 성남리, 효부 밀양박씨(함평 모대진 처)

열부함평이씨비 : 함평읍 성남리, 열부 함평이씨(함평 모대옥 처), 1935년 건립

* 함평이씨삼강비 : 함평읍 대덕리 대천, 충신 이우춘, 효자 이이숙, 열부 여양진씨, 1848년 건립

밀양박씨효자각 : 함평읍 옥산리 가작동, 효자 박영원, 1906년 건립

밀양박씨삼강문 : 손불면 북성리 승선, 충신 박이상, 박의현, 박의선, 효자 박동근, 박권문, 박준엽, 효부 천안전씨(박준엽 처), 김해김씨(박길래 처), 1899년 건립

천안전씨삼강문 : 손불면 산남리 감남, 절의 전창권, 효자 전석환, 전기상, 효열부 함안이씨(전석환 처), 반남박씨(전기상 처), 1939년 건립

광산김씨삼강문 : 손불면 죽암리 석령, 절의 김종도, 효자 김두규, 열부 청송심씨(김귀철 처), 1944년 건립
김해김씨효열문 : 손불면 동암리 벽초, 효자 김창화, 열부 밀양박씨(김영두 처), 1937년 건립
함평모씨효열각 : 손불면 양재리 모량, 효자 모대규, 효열부 한양조씨, 1936년 건립
의령남씨효열각 : 손불면 산남리 기서, 효자 남창희, 열부 나주임씨(남유희 처), 1946년 건립
* 김해김씨효자려 : 손불면 대전리 저전, 효자 김승필, 1897년 건립
함평노씨효열각 : 손불면 산남리 용흥, 효열부 함평노씨(광산 김기원 처), 1946년 건립
광주이씨효열문 : 손불면 궁산리 덕산, 효열부 광주이씨(경주 김상경 처), 1934년 건립
양성이씨효열비각 : 손불면 동암, 효열부 양성이씨(광주 정제성 처)
함평노씨효열비각 : 손불면 지곡, 효열부 함평노씨(광산 김기원 처), 1886년 건립
진주강씨열행비각 : 손불면 죽장리 장동, 열부 진주강씨(광주 이재역 처), 1929년 건립
김해김씨열행비각 : 손불면 양재리 장재, 열부 김해김씨(전주 이상연 처), 1956년 건립
흥덕장씨열행비 : 손불면 학산리 평산, 열부 흥덕장씨(수원 백충흠 처)
밀양박씨효행비 : 손불면 양재리, 효자 박동환, 1945년 건립
김해김씨삼강문 : 신광면 유천리, 충신 김희눌, 효자 김이식, 열부 양성이씨(김충배 처), 기계 유씨(김석영 처), 1936년 건립
함양박씨효열문 : 신광면 원선리 덕동, 열부 연일정씨, 효자 박찬문
경주이씨삼효각 : 신광면 월암리 연천, 효자 이백제, 이동권, 이집구, 1938년 건립
평강채씨효자려 : 신광면 보여리 보전, 효자 채덕린, 1891년 건립
풍천임씨효열비 : 신광면 가덕리, 효열부 풍천임씨(전주 이용섭 처), 1946년 건립
전주이씨삼강비 : 학교면 석정리 원석정, 충신 이상질, 효자 이맹석, 열부 낙안오씨(이정훈 처), 이천서씨(이경구 처), 1877년 건립
남원양씨쌍효정려 : 학교면 월호리 용호동, 효자 양주헌, 양하환, 1893년 건립
전주최씨충렬문 : 학교면 금송리, 충신 최제남, 열부 전주유씨, 1740년 건립
* 진주정씨삼세충효문 : 학교면 죽정리 정자동, 충신 정현보, 효자 정윤진, 정인겸, 1870년 건립
* 진주정씨충신각 : 학교면 마산리 표산, 충신 정감, 1867년 건립
* 함평노씨세효각 : 학교면 복천리 두동, 효자 노봉채, 노영수, 노재홍, 1888년 건립
남원양씨쌍효려 : 학교면 월호리 용호, 효자 양주헌, 양하환, 1893년 건립
* 함평노씨효자각 : 학교면 복천리 장동, 효자 노영훈, 1891년 건립
낙안오씨효자각 : 학교면 월송리, 효자 오진의, 고종조 때 건립
남원양씨효자비 : 학교면 월호리, 효자 양윤석
천안전씨효열문 : 학교면 고막리 광진, 전사진, 전익서, 인동장씨(전영진 처), 1880년 건립
열부인동장씨비 : 학교면 석정리 흥용, 열부 인동장씨(이병일 처), 1893년 건립
남원양씨삼강문 : 효자 양근, 절의 양운수, 열부 나주임씨(양운수 처)
* 나주정씨삼강문 : 엄다면 송로리 송촌, 충신 정봉수, 효자 정봉징, 열부 순천박씨(정선중 처) 1742년 건립

나주김씨효열문 : 엄다면 신계리, 효자 김달해, 열부 해주최씨(김달해 처), 1886년 건립
* 광산김씨삼효문 : 엄다면 신계리 장동, 효자 김동인, 김동후, 김동우, 1878년 건립
* 효자서명규정려 : 엄다면 성천리 와촌, 효자 서명규, 1896년 건립
금성나씨정열각 : 엄다면 성천리 와촌, 정열부 금성나씨(이천 서언유 처), 1902년 건립
진주정씨효열비각 : 엄다면 신계리, 효열부 진주정씨(나주 김연구 처)
금성나씨정열비각 : 엄다면 용암, 열부 금성나씨(이천 서언유 처), 1899년 건립
* 파평윤씨효자각 : 엄다면 엄다리 별뫼, 효자 윤행덕, 1888년 건립
영성정씨효열각 : 엄다면 성천리 용흥, 효자 정재흥, 정상홍, 열부 청도김씨(정상홍 처), 1896년 건립
함평이씨삼강문 : 대동면 향교리, 충신 이극성, 효자 이윤덕, 열행 이극성 딸 3형제, 열부 광산김씨
밀양박씨효열비각 : 대동면 덕산리 고산, 효열부 밀양박씨(함평 이방서 처)
청송심씨효열비각 : 대동면 덕산리 덕산, 효열부 청송심씨(광산 김재혁 처), 1960년 건립
* 열부대구배씨정려 : 대동면 상옥리 옥동, 열부 대구배씨(윤황 처), 1681년 건립
효자오진의정려각 : 대동면 월송리 83-2, 효자 오진의, 1890년 건립
김해김씨삼강문 : 나산면 구산리, 충신 김광립, 효자 김상빈, 열부 강화최씨
기계유씨삼강문 : 나산면 용두리, 충신 유극겸, 유진홍, 효자 유승준, 열부 이천서씨, 함평이씨
남평문씨효자려 : 나산면 구산리 냉천, 효자 문영호, 1892년 건립
죽산안씨정려 : 나산면 나산리 대정, 효자 안봉윤, 1843년 건립
* 인동장씨정려 : 나산면 용두리 회화정, 열부 인동장씨(유경손 처), 1503년 건립
함양박씨효열각 : 나산면 덕림리 백양, 효자 이세철·급우, 열부 함양박씨(이세철 처), 1895년 건립
진주정씨삼강문 : 해보면 금계리 연동, 충신 정충량, 정득량, 정대명, 효자 정주언, 정한열, 열녀 양성이씨(정시현 처), 1926년 건립
밀양박씨효자려 : 해보면 문장리, 효자 박종구, 1934년 건립
창녕조씨열부려 : 해보면 성대, 열부 창녕조씨(안동 김영필 처)
* 신천강씨열녀각 : 해보면 상곡리 상모평, 효열부 신천강씨(파평 윤해 처), 1812년 건립
창녕조씨효열비 : 해보면 해보리, 효열부 창녕조씨(진주 정문원 처), 1945년 건립
열부밀양박씨비 : 해보면 광암리, 열부 밀양박씨(상산 김만호 처), 1953년 건립
* 팔열부녀정각 : 월야면 월악리 지변, 함양오씨(정운길 처), 함평이씨(정주일 처), 영광김씨(정절 처), 함평이씨(정호인 처), 함평이씨(정함일 처), 순천박씨(정경득 처), 함평이씨(정희득 처), 진주정씨(정함일의 딸), 1681년 건립
* 나주정씨삼강문 : 월야면 양정리 기전, 충신 정응, 효자 정진복, 열녀 죽산안씨(정진복 처), 1899년 건립
함평이씨삼강비 : 월야면 용정리, 충의 이원, 이령, 이가, 효자 이응국, 열부 행주기씨, 1940년 건립
함양박씨삼강문 : 월야면 용암리 은암, 충신 박성오, 효자 박동진, 박수진, 열부 진주정씨, 나주정씨, 1898년 건립
* 인동장씨효열각 : 월야면 용정리 용수, 열녀 금성오씨(장현명 처), 효자 장재원, 1899년 건립
나주정씨삼효각 : 월야면 용월리 내세, 효자 정형시, 정수영, 정수현, 1890년 건립

함평이씨효열비각 : 월야면 예덕리, 효열부 함평이씨(죽산 안기정 처), 1898년 건립
* 열부반남·충주박씨비각 : 월야면 용월리 노장, 열부 반남박씨 및 충주박씨, 성종대 건립

2. 해설(解說) 정려

1) 열부 반남박씨(潘南朴氏) 및 충주박씨(忠州朴氏) 비각(碑閣)

열부 반남박씨, 충주박씨 비각은 월야면 용월리 노장마을 입구 도로변에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노장마을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용두마을로 내려가는 길 좌측편에 있다.

열부 반남박씨, 충주박씨 비각은 현재 함평지역에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제일 앞서 건립된 정려 비각이다. 이 비각과 관련된 반남박씨 및 충주박씨는 이천서씨문중(利川徐氏門中)으로 출가한 여인들로 곧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이다. 이들은 각각 부군(夫君)에 대한 열행(烈行) 사실이 조정(朝廷)에 알려져 조선조 성종대(成宗代; 재위연간, 1470~1494)에 명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천서씨문중 후손들은 이러한 선조들의 애뜻한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정려 비각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유적이 퇴폐하여 무너지게 되자 14세손인 서응환(徐應煥)과 서응록(徐應祿)이 1869년(고종 6) 옛 유지에 다시 정려 비각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반남박씨(潘南朴氏)는 이천서씨 학생 서중원(徐中元)의 처다. 부인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부인은 어느 날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내다보니 호랑이가 남편을 물고 해하려 하였다. 그런데 비명 소리를 듣고도 이웃 사람들은 겁을 먹고 누구하나 구하려 들지 않았다. 이에 부인은 이러다가는 끝내 남편이 죽고 말겠구나하는 생각에 정신없이 호랑이에게 달려들어 사력을 다해 남편을 구해냈고 부인은 이내 호랑이에 의해 죽고 말았다. 후에 이러한 일이 조정에 알려져 임금으로부터 명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반남박씨 부인에 대한 행적은 실제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36 함평현 열녀조(烈女條)에 기록되어 있다.

충주박씨(忠州朴氏)는 시어머니 반남박씨를 닮아서인지 그녀의 남편 서윤중(徐允仲)이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되자 자기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피를 먹임으로서 사흘을 더 연명케 했다고 한다. 그리고 상(喪)이 끝나고도 복을 벗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친정어머니로부터 개가를 권유받았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가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뜬 후에서야 다시 집에 돌아와 복을 입고 머리를 기르며 평생 수절했다고 한다. 이러한 충주박씨에 대한 행적 또한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이러한 행적은 1759년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1871년과 1895년에 각각 편찬한 『호남읍지중함평현읍지(湖南邑誌中咸平縣邑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현재 마을 앞 도로변 산기슭에 자리한 이 정려 비각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허름한 비각의 내부에는 반남, 충주박씨에 대한 각각의 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반남, 충주박씨와 관련되는 자료로는 몇 가지 지리지 내용(간단한 내용이지만)을 제외하고 나

면 특별한 자료는 없다. 다만 현재 이들에 관련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비각 내에 세워져 있는 다음과 같은 2기의 비(碑)이다.

①<열부 용양위 부사정 서중원처 반남박씨지비>(1869년, 함평현감 홍병위 식(識), 높이 144㎝, 폭 58㎝, 두께 17㎝).

②<열부 조봉대부 정략장군 서윤중처 충주박씨지비>(1869년, 서영관(徐榮寬), 높이 140㎝, 폭 58㎝, 두께 17㎝).

2) 인동장씨(仁同張氏) 정려각

인동장씨 정려각은 나산면 용두리 회화정마을 좌측 동각(洞閣) 윗쪽에 있다. 이 정려각은 기계유씨(杞溪兪氏) 유경손(兪敬孫)의 처 인동장씨의 열행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1503년(연산군 9)에 명정을 받아 같은해 비(碑)와 함께 건립된 정려각이다.

인동장씨 정려각은 현재 함평지역에서는 16세기 초에 건립된 유일한 유적 가운데 하나로 『조선왕조실록』 13책(연산군일기)와 『동국신속삼강행실』 권1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6, 함평현 열녀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 국가로부터 명정이 하사되었음이 알 수 있다.

> "장씨(張氏)는 학생 유경손(兪敬孫)의 아내인데 남편이 죽게 되자 빈소(殯所)에 있으면서 날마다 세 번씩 상식(喪食)을 베풀었고, 복을 벗고 나서도 오히려 조석 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시부모 모시기에도 또한 마음껏 다 하였다."

한편 전해오는 구전에 의하면, 현재 정려각 내에 세워져 있는 비는 원래 나산면 석현리(石峴里; 현 나산면 구산리와 대동면 강운리의 경계지점)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전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기계유씨의 족보상에는 유경손의 묘가 덕여촌(德餘村 : 구산골)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아마도 이들은 당시 현재의 나산면 구산리 일대에서 세거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1503년 최초 건립 이후 현재의 위치로 유적이 옮겨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사연의 변천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으로서는 자료의 부족과 전일에 대한 내용을 기억할만한 사람이 없어 그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현재의 유적은 정려각 내부에 걸려져 있는 <정려각중수기(旌閭閣重修記)>를 살펴보면 1991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 중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인동장씨 정려각은 1991년 보수 단청한 것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주위는 담장으로 둘려져 있다. 정려각 내부에는 <낭부유경손처장씨지여(郎婦兪敬孫妻張氏之閭)>(1503년, 높이 128㎝, 폭 38㎝, 두께 22㎝)라는 삿갓형의 비(碑)와 <정려각중수기(旌閭閣重修記)>(1991년, 유병기 기)가 있다. 그리고 정려각 우측 앞에는 <기계유씨세장산(杞溪兪氏世葬山)>(1937년, 유사 유병채)이라는 비가 있고, 뒤쪽에는 기계유씨 선산이 위치한다.

3) 효자 노허(魯訏) 정려

효자 노허의 정려는 함평읍 진양리 대진마을 입구 우측 도로변에 있다. 이 정려는 효자 노허의 효성을 후세에 영세토록 기리기 위해 1636년(인조 14) 명정을 받아 1661년(현종 2) 후손들이 건립한 정려이다.

효자 노허(1545~1581)는 자가 극화(克和), 본관은 함평(咸平)으로 조선 명종~선조대의 인물이다.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서모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부모에 대한 봉양이 어찌나 지극했던지 한번은 눈보라치는 추운 날씨에 두꺼운 방죽(엄다면 성천리 노도리 방죽이었다 함)의 두꺼운 얼음을 두들겨 깨고 잉어를 잡아다 어버이를 봉양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부친께서 중병으로 사경을 해매이게 되자 절지수혈 회생케 하여 40여년을 더 살게 하였다. 어느 해는 극심한 춘궁기를 맞아 양식이 없게 되어 부모 봉양의 근심으로 갓 나온 보리 목을 어루만지며 서럽게 울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해는 어느 해 보다도 보리목이 일찍 여물어 가까스로 그 위급함을 모면하였는데 이는 하늘이 감탄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효성의 지극함은 그가 죽고난 뒤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어 1636년(인조 14)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은 복호(復戶 : 면세)를 받게 되었다. 이후 정려를 건립하려 했으나 그해 병자호란이 일어나 실행치 못하다가 그로부터 25년 후인 1661년(현종 2)에서야 후손들이 힘을 모아 정려를 건립하게 되었다. 그 뒤 1804년(순조 4) 한 번의 중수를 거쳐 현재의 건물은 1864년(고종 1) 9대손인 노복렬(魯福烈)에 의해서 다시 중수된 것이다. 이때 노복렬이 선조의 효행 사실을 상소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노허는 가선대부 이조판서로 증직되어지기도 하였다. 현재의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2칸, 팔작와가로 되어 있고 주위는 담장으로 둘려져 있다.

관련 자료로는 <고효자증가선대부이조참판노허지여(故孝子贈嘉善大夫吏曹參判魯訏之閭)>(1636년, 명정)을 비롯하여 <노효자정려기(魯孝子旌閭記)>(1864년, 기정진 기), 그리고 노허의 정려 좌측에 같은 함평노씨이면서 노허의 9대손인 <효자 노영열(魯榮烈 : 1832~1876)유허비>(1918년, 송용재 지음, 높이 155㎝, 폭 52㎝, 두께 31㎝)가 있다.

4) 팔열부녀정각(八烈婦女旌閣)

< 조선시대 4장 2절 2항 중 월야 8열부녀와 정각을 볼 것>

5) 열부 대구배씨(烈婦大邱裵氏) 정려

열부 대구배씨 정려는 대동면 상옥리 옥동마을 앞 정미소 좌측 도로변에 있다. 이는 임란왜란 충신 윤황(1562~1596)의 처 대구배씨의 유덕을 기념하기 위해 1681년(숙종 7)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아 같은 해 마을 어귀에 건립한 정려이다. 이 정려는 이후 1914년에 한 번의 중수를 하였고, 그 뒤 약 50여년 후인 1961년 원래의 위치에서 지금의 위치로 옮겨 건립함으로

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대구배씨 정려가 세워지게 된 단초는 광해군대(재임기간; 1609~1623)로 올라간다. 이는 대구배씨의 증손자, 즉 효자 윤제민(尹濟民 : 1694~1750)에 의해서였다. 윤제민은 1615년 국가에서 간행한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이라는 책을 읽다가 열녀(烈女)편 제8권에 자신의 할머니인 대구배씨에 대한 열행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내용에는 열행 사실과 왜군들에 의해 화(禍)를 입던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광해군대에 명정됐다는 기록이 있음도 확인한다.

이러한 연고로 하여 할머니에 대한 열행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고자 1681년 청포전소(淸褒典疏)라는 상소를 올리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3일에는 상경하여 임금이 익능(翼陵)으로 행차하는 길에 가전상언(駕前上言)을 하게 되자 임금은 예조에 하문하여 이를 알아보게 하였다. 이후 예조에서 『동국신속삼강행실』을 증빙 자료로 하여 그 사실이 명백한지라 임금에게 재가할 것을 청하게 되었고, 이어 11월 3일 동부승지 이유차(李濡次)의 소관으로 특별히 정려하라는 재가(裁可)를 받게 되었다(「예조계(禮曹啓)」 1681년, 9월 13일과 11월 3일 참조).

이렇게 하여 열부 대구배씨는 1596년 왜적에 의해 죽은 지 85년 동안 그 행적이 가리어져 있다가 증손 윤제민에 의해 그 사실이 밝고 빛나게 되었고 정려 또한 세워지게 되었다(「정문서(旌文序)」 1681년, 윤제민 참조).

열부 대구배씨(?~1596)는 윤황의 처이며 그녀의 아버지는 첨추 배광언(裵光彦)이다. 남편 윤황(1562~1596)의 자는 여행(汝行), 호는 노파(老坡)이며 본관은 파평(坡平)으로 윤관의 10세손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효가 지극하였고 또한 문장(文章)과 경서(經書)에도 능하였는데 후에 추천으로 사재감정(司宰監正)에 이르렀다. 1592년(선조 25) 임란왜란이 일어나자 윤황은 오봉(鰲峰) 김제민(金齊閔), 김경수(金景壽) 등과 같이 오성남문(鰲城南門)에 의병청(義兵廳)을 설치하고 병정(兵丁) 8백여 명을 모집하여 진양(晉陽)에 있는 고종후(高從厚)에게 보내고 또한 곡식 7백 여석을 의곡대장 기효증(奇孝曾)에게 촉탁하여 행재소에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1596년(선조 29) 왜적이 다시 침입하게 되자 먼저 처자들을 무안군 죽도(竹島)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집안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울도포(蔚島浦)에 이르러 적과 교전 대항하였으나 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순절하였다.

이에 대구배씨는 남편 윤황이 울도포에서 적과 대항하다 순절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살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때 왜적이 그 섬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에 배씨부인은 남편을 살해한 왜적인지라 얼마나 치가 떨리던지 왜적을 향해 마구 꾸짖자 왜적이 배씨부인을 잡아다 죽여 간을 도려내어 나무에 걸어두었다고 한다. 이때 14세인 딸이 어머니를 해하려는 것을 가로막다가 같이 순사하였고, 12, 10세 된 아들 윤지립(尹之立)과 윤지발(尹之發)은 왜적의 포로가 되어 순천 예교에 이르러 서로 죽을 것을 맹세하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 모친 배씨의 시체를 찾아 부친의 시신과 함께 합장하였다 한다.

현재 열부 대구배씨정려는 정·측면 각각 1칸의 팔작와가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정려의 뒤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와가의 삼현정(三賢亭)이 있는데 이는 1916년 후손 중 윤용식(尹

勇植)이 충신 윤황과 그의 동생 윤길, 그리고 증손인 윤제민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또한 이 삼현정 앞에는 파평윤씨삼강비(坡平尹氏三綱碑)가 세워져 있고 이는 1904년 파평윤씨문중에서 선조 중 충신 윤황과 윤황의 증손인 효자 윤제민, 그리고 종손 윤헌(尹憲), 윤제민의 증손 윤모(尹謨), 윤길의 9대손 윤철성(尹哲成), 열부 대구배씨 등 모두 6명의 유덕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이 정려와 관련되는 자료로는 정려 내부에 걸려있는 편액류로 ①<정유왜란 ○○○○(丁酉倭亂 ○○○○>(1766년, 윤태봉.윤제민), ②<열고통훈대부사재감정증숭록대부판의금부사윤황처증정경부인대구배씨지여(烈故通訓大夫司宰監正贈崇祿大夫判義禁府事尹趪妻贈貞敬夫人大邱裵氏之閭)>(1681년, 명정), ③<중수기(重修記)>(1914년, 기우만 서), ④<정려 이건기(旌閭移建記)>(1961년, 윤현식 기) 등이 있다.

한편 파평윤씨문중에서는 윤황과 윤길, 그리고 윤제민에 대한 유고를 ⑤『삼현실기(三賢實記)』(1914년, 송철헌 서, 기재 발, 윤태혁·윤태승 후)가 전해오고 있다. 이는 후손 중 윤철성(尹哲成)·태승(泰丞)·용식(勇植)·현식(炫植) 등이 주축이 되어 집성한 것으로 임란 당시의 전황과 이 지역민들의 활동상을 일부나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6) 나주정씨삼강문(羅州鄭氏三綱門)

나주정씨 삼강문은 엄다면 송로리 송촌마을 좌측 변두리에 있다. 이 삼강문은 임진·정유왜란의 충신 정황수(鄭凰壽 : 1562~1628)와 그의 현손인 효자 정봉징(鄭鳳徵 : 1682~1733), 그리고 정봉징의 질부(侄婦)인 열부 순천박씨(順天朴氏 : 숙종~영조대)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이 삼강문은 원래 1712년(숙종 38)에 명정을 받아 1742년(영조 18) 무안 성동외(城東外) 월천리(月川里)에 세워졌던 것이었으나 뒤에 후손들의 이거로 1795년(정조 19) 후손들이 지금의 자리에 다시 중건하게 되면서 비도 이때 각각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충신 정황수(鄭凰壽 : 1562~1628)의 자는 영수, 호는 월봉(月峰), 본관은 나주(羅州)이며 고려 충렬왕대에 문신이었던 정가신(鄭可臣)의 11대손이다. 공은 효우가 지극하고 지절이 강개하였으며 1591년(선조 24)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임진란에는 김예수(金禮秀) 정현보(鄭賢輔) 배명(裵溟) 등과 함께 창의하여 의병 수 백명을 모아 최경회(崔慶會)의 막하로 들어가 남원(南原)과 장수(長水) 등지로 진병(進兵)하여 금산(錦山)과 무주(茂州)의 적을 격파하였다. 그 후 이현(梨峴)에 주둔한 적이 남하하여 노략질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안현으로 돌아와 의병청을 설치하고 성곽을 수리하여 적의 침략을 저지하였다. 1593년에는 순찰사 권률(權慄)의 추천으로 무안 임치(臨淄)로 이주한 후 적을 추격하여 다경포와 목포 등지에서 연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서생포(西生浦)로 출진 절영도(絶影島)에서 한 척의 배로 적을 격파하는 전공을 세워 그 공으로 군기사판사(軍器寺判事)에 임명되었다. 또한 1608년(선조 41)에는 충청방어사로서 해적의 창궐을 만나 수사 이간(李侃)과 첨사 이경필(李景苾)과 함께 안흥(安興)에 진을 치고 있다가 공격해오는 적선 40여 척을 격파하였던 공으로 가선대부에 승배되었다. 1618년(광해군 10)에는 이이첨의 무리들이 향교에 모여 흉소를 꾀하려

하자 두 아들인 정위(鄭緯)와 정기(鄭紀), 그리고 배명(裵溟)과 함께 이들을 성토하여 축출하기도 하였다. 사후 충무공 이순신의 막하에서 활동하다 노량해전에서 순절하였던 족형 월탄(月灘) 정기수(鄭麒壽)와 함께 월천사(月川祠)에 배향되었다.

효자 정봉징(鄭鳳徵 : 1682~1733)의 자는 명서(鳴瑞), 호는 남파(南坡)이며, 충신 정황수(鄭凰壽)의 현손이다. 공은 남달리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모친이 병환으로 위급하게 되자 절지주혈하여 모친의 생명을 더 연명케 하였다고 한다.

열녀 순천박씨(順天朴氏 : 숙종~영조대)는 효자 박창석(朴昌碩)의 여(女)로 증호조참판 정선중(鄭選中)의 처이고, 충신 정황수(鄭凰壽)의 5세 손부이자 효자 정봉징(鄭鳳徵)의 질부이다. 부인은 원래 성품이 단정하여 한결같이 부덕의 도리를 지켰으나 남편이 죽고 난 뒤 소상(小喪)이 되자 남편의 뒤를 따르기로 맹세하고 집 앞에 있는 우물에 나아가 큰 돌을 몸에 품고 그 우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이에 1758년(영조 34) 관찰사 이창수(李昌壽)의 추천 상소에 의해 명정을 받았고, 1795년(정조 19)에는 증직과 함께 예조로부터 삼강문 건립에 쓰일 재목과 기와 등을 하사 받아 정문을 건립하게 되었다.

현재 이 삼강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소슬 삼문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내부 중앙에는 충신 정황수의 비가 있고 그 좌우측에 효자 정봉징과 열녀 순천박씨의 비가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다. 이 삼강문 사방 주위에는 담장이 둘려져 있으며, 삼강문 좌측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으로 된 매죽재(梅竹齋)가 있다.

관련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증열부호조참판정선중처정부인박씨지문(贈烈婦戶曹參判鄭選中妻貞夫人朴氏之門)>(1758년, 명정편액)

②<충신방어사정공황수지비(忠臣防禦使鄭公凰壽之碑)>(1795년, 정한흥 찬(鄭漢興 撰), 높이 150㎝, 폭 45㎝, 두께 19㎝)

③<효자진사정공봉징지비(孝子進士鄭公鳳徵之碑)>(1795년, 높이 127.5㎝, 폭 39.5㎝, 두께 16㎝)

④<열부정부인순천박씨지비(烈婦貞夫人順天朴氏之碑)>(1795년, 높이 146.5㎝, 폭 44㎝, 두께 18㎝)

⑤<정씨삼강사실기(鄭氏三綱事實記)>(1796년, 정우택 기(鄭遇澤 記))

⑥<삼강실기(三綱實記)>(1800년, 이승욱 식(李承旭 識))

7) 신천강씨열녀각(信川康氏烈女閣)

신천강씨 열녀각은 해보면 상곡리 상모평 임천산(林泉山) 산기슭, 즉 상모평마을 우측 변두리에 있다. 이 열녀각은 1597년 정유재란 때 부군인 윤해(尹海 : 1541~1597)가 왜병에게 살해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다 함께 처참한 죽음을 당한 신천강씨(信川康氏 : ?~1597)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812년(순조 12)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아 같은 해 후손들에 의하여 건립되어진 열녀각이다.

신천강씨(信川康氏 : ?~1597)는 파평윤씨 윤관(尹瓘)의 16대손인 윤해(尹海)의 처이다. 정유

재란 때 집안사람들은 모두 왜적을 막으러 출전하였는데, 부군인 윤해는 이때 병을 얻어 고향에서 치료 중이었었다. 그런데 왜병이 해보면 상곡리까지 침입하게 되자 신천 강씨와 윤해는 이들의 갖은 악행을 피하고자 지금의 상곡 화수산(花樹山)으로 피란하다 왜적에게 발각이 되어 죽음에 임박하게 되었다. 이에 강씨 부인은 겁에 질려 궁리 끝에 은쟁반과 비단 2필을 손에 들어 보이며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였으므로 간신히 그 죽음의 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그러나 강씨 부인과 윤해는 또 다시 왜적에게 발각되었고, 왜적의 칼날이 남편 윤해를 내리 치려고 하자 강씨 부인이 두 팔로서 막고자 하였으나 이내 그녀의 양 팔은 그 칼날에 잘려 떨어지고 남편 윤해 또한 왜적에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후에 강씨 부인의 열행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1812년(순조 12) 영의정을 역임하였던 정원용(鄭元容)의 기문(記文)을 받아 열려각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이 열녀각은 정면 1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며 홍살문과 담장으로 둘러져 있다.

열녀각 앞 좌측에는 높이 118㎝, 폭 52㎝, 두께 15㎝ 크기의 <충노도생비(忠奴道生碑) 충비사월비(忠婢四月碑)> 1기가 있는데, 이는 주인인 윤해와 그의 부인 신천강씨가 죽게되자 그들의 어린 자식인 윤성립(尹誠立)과 윤정립(尹挺立)를 보살펴 길러준 은덕을 기념하기 위해 후일 문중에서 건립하였던 비이다.

신천강씨열녀각과 관련되는 자료로서 특이한 것은 없다. 다만 현재 열녀각 내에 걸려 있는 다음과 같은 명정 당시의 명정편액과 정려기 등이 있을 뿐이다.

①<열녀려절교위충좌위우부장윤해처의인신천강씨지여(烈女勵節校尉忠佐衛右部將尹海妻宜人信川康氏之閭)>(1812년, 명정)

②<열부강씨정려기(烈婦康氏旌閭記)>(1812년, 정원용 식(鄭元容 識))

8) 효자 정종악(鄭宗岳) 정려

효자 정종악 정려는 함평읍 자풍리 금곡마을 앞 입구 우측 도로변에 있다. 이 정려는 부자(父子)가 대를 이어 효로서 세인들의 귀감이 되게 하였던 하동정씨 모재(慕齋) 정종악(鄭宗岳 : 1737~1784)과 그의 아들 신재(新齋) 정덕현(鄭德玹 : 1775~1839)의 효행 사실을 널리 기념하고자 1858년(철종 9)년 후손들에 의해 마을 앞 길가에 세워진 정려이다.

이처럼 효자 정종악의 정려가 세워지게 되었던 단초는 1800년(정조 24)으로 올라가게 된다. 즉 효자 정종악이 죽고 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효행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향도에서 추천을 하고 곧이어 도백(道伯)이 예조에 계(啓)를 올렸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걸쳐 1833년(순조 33)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게 되었으나 후손들의 가세가 넉넉지 못한 탓에 곧바로 정려를 건립하지 못하다가 15년 후인 1858년(철종 9)에서야 정려문과 함께 그의 행적을 기록한 비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13년 후인 1871년(고종 8)에는 그의 아들 정덕현(鄭德玹)이 부친의 효를 본받아 행했다 하여 그에 대한 효행 사실비가 세워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하동정씨 쌍효정려'라 부르지 않고 '효자 정종악 정려'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건립되어진 정려문과 비는 많은 세월이 흘러 퇴락의 위기에 처하

게 되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후손들이 1988년 보수를 하면서 비가 세워져 있는 위에 목조 와가를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효자 정종악(鄭宗岳 : 1737~1784)의 자는 중후(重厚), 호는 모재(慕齋), 본관은 하동(河東)으로 정도윤(鄭道潤 : 1701~1771)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사친에 대한 효가 지극하였는데 부친의 병환 때는 날마다 하늘에 축원하였고, 또한 부친의 몸에 난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효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부친의 상을 당하여서는 3년간의 시묘를 했다. 그리고 그는 모친 이천서씨(利川徐氏)의 병환 때도 대변을 맛보아 간호했으며 상을 당하여 또한 3년간의 시묘 생활을 하였는데 그가 당시 모친의 묘전에서 생활할 때 호랑이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후에 공이 죽고 나자 이러한 효행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향도의 추천을 받아 조정으로부터 명정과 아울러 증사헌부 감찰직을 하사받게 되었다.

그의 아들 정덕현(鄭德玹 : 1775~1839)의 호는 신재(新齋)인데 어렸을 때부터 부친의 효행에 감읍하였던지라 부친 정종악이 늙고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갖은 약재를 마련하여 대접했다. 그러나 부친이 회복치 못하고 끝내 돌아가시게 되자 예로서 상을 치루고 또 3년의 시묘를 살았다. 이처럼 부자가 효로서 대를 이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자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을 가리켜 '효자동(孝子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현재 이 정려는 정 측면 각각 1칸의 정려문과 그 뒤로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팔작 와가로 되어있는 비각이다. 비각의 내부 중앙에는 정종악의 비가, 그리고 그 앞 우측에는 그의 아들 정덕현의 비가 세워져 있다.

효자 정종악과 그의 아들 정덕현에 관련되는 특별한 자료는 현재 남아 전하는 것이 없다. 다만 이들 부자의 일부 행적이나마 엿볼 수 있는 것으로는 현재 정려비각 내부에 세워져 있는 다음과 같은 2기의 비가 있다.

①<효정모재정공종악지비(孝旌慕齋鄭公宗岳之碑)>, 1858년, 이승욱(李承旭) 찬(撰), 오준선(吳駿善) 술(述), 박림상(朴琳相) 서(書), 높이 170㎝, 폭 61㎝, 두께 24㎝)

②<효자 신재정공덕현지비(孝子新齋鄭公德玹之碑)>, 1871년, 박승재(朴丞載) 술(述), 정순화(鄭淳和) 서(書), 정익채(鄭益采) 정복채(鄭馥采) 세움, 높이 168㎝, 폭 60㎝, 두께 26㎝)

9) 함평이씨 삼강비(咸平李氏三綱碑)

함평이씨 삼강비는 원래 함평읍 대덕리 대천(大泉 : 한샘)마을 입구 우측 들녘에 있었다. 그러던 것을 최근 들어 마을 앞산 지평공 파시조 묘역으로 올라가는 도로 입구로 이전하였다. 이 삼강비는 임진 정유재란 당시 전공을 세우고 순절한 충신 이우춘(李遇春)과 그의 아들 효자 이이숙(李以琡), 그리고 이우춘의 처 열녀 여양진씨(驪陽陳氏) 등 충·효·열의 뜻을 후세에 영세토록 기념하기 위해 충신 이우춘의 9세손인 이유신(李儒臣)이 중심이 되어 1848년(헌종 14)에 세운 비이다.

충신 이우춘(1554~1597)의 자는 경보(景甫)이며 함풍군 이규(李珪)의 15세 손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김천일 고경명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투에 참여하였고, 1597

년(선조 30) 정유재란 때는 행주전투에 참전하여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때 세웠던 공으로 선무원종이등공신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순천 예교전(曳橋戰)에서 단필로 적진에 뛰어들어 수천의 적과 대항하다 힘이 다하여 순절하게 되었다. 이에 선조임금으로부터 선조복유(宣祖伏惟)의 옥패(玉牌)를 하사 받았다.

효자 이이숙(?~1618)의 자는 여온(汝溫)으로 충신 이우춘의 양 아들인데 생부(生父)는 이수춘(李遂春)이다. 그는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정유재란 때는 부친 이우춘과 함께 순천 예교전에 참전하였는데 부친이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꼭 왜적을 섬멸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그는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왜구와 싸움으로서 결코 부친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다. 부인은 흥양유씨(興陽柳氏) 유방정(柳邦貞)의 딸이다.

열녀 여양진씨(驪陽陳氏 : 명종~광해군대)는 충신 이우춘의 부인으로 부군이 전장에서 순절하게 되자 20세의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어 일생을 수절하였다.

현재 마을 앞 들녘에 서있는 <함평이씨삼강비(咸平李氏三綱碑)>는 1848년, 김훈(金勳)이 찬(撰)했던 것으로 높이 172㎝, 폭 56㎝, 두께 22㎝로 마을을 향해 세워져 있고 그 주위로는 벽돌담이 쌓여져 있다.

관련되는 유물로는 충신 이우춘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가 순절한 이후 선조임금으로부터 하사받았다는 옥패가 전해져오는데 길이 27㎝, 폭 3.5㎝, 두께 1.5㎝의 옥돌에 <선조복유하사이우춘(宣祖伏惟下賜李遇春)>이라 쓰여 있다.

10) 정감충신각(鄭瑊忠臣閣)

정감 충신각은 학교면 마산리 표산마을 중앙에 있는 마을 동각(洞閣) 우측에 있다. 이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전투에서 적과 싸우다 장렬히 순절한 충신 정감(?~1593)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867년(고종 4)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아 같은 해에 건립하였던 충신각이다.

정감(?~1593)의 자는 옥경(玉磬) 호는 신재(愼齋)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단종조(端宗朝)에 우의정을 역임했던 정분의 6세손이다. 공은 성품이 강직하고 담력이 남달리 뛰어나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좋아하여 향사(鄕射)나 승마(乘馬)에 참여하여 기능을 연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성리학에 힘썼다. 이처럼 공은 어렸을 때부터 문무(文武)를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효가 또한 지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1588년(선조 21)에는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유생으로 대과에 급제키 위해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자 백부(伯父) 정현보(鄭賢輔 : 1546~?)와 더불어 결사구국(決死救國)할 것을 맹세하고 공은 창의사 건재(健齋) 김천일(金千鎰 : 1537~1593)의 막하에 들어가 소모사(召募使)가 되어 영남 각지를 순회하며 의병과 군량을 모취 하였다. 이어 공은 영호남의 전운사(轉運使)가 되어 의병청을 설치하고 병정(兵丁)을 훈련시키며 군무를 감독 지휘하였을 뿐 아니라 각지에 격문을 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민들의 사기를 높여 임전태세를 강화하였다. 1593년 6월에는 지난해 10월 진주성에서 대패하였던 왜군이 이를 보복하기 위해 총 연합하여 대병력을 이끌고 다시 진주성을 침입하게 되었다. 이때 명

군(明軍)은 회담을 이유로 참여치 못하고 또한 관군도 의령(宜寧)지역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직 창의사 김천일 장군만이 진주성으로 돌진하여 입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은 당시 전투대장으로 수성의 직임을 맡았는데 드디어 6월 20일 왜군은 약 5만의 병력으로 진주성을 포위하고 침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공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측의 군사들이 성벽을 철통같이 방어함으로 수일간의 공방전이 계속되었으나, 29일에는 적군이 맹렬히 공격을 하게 되자 성벽이 붕괴되어 성안으로 적군이 조수와 같이 밀려들어 왔다. 이렇게 되자 성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또 피아의 분간도 어렵게 되었는데 이때 김천일 장군이 아들과 함께 남강(南江)에 투신자살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공은 양산숙, 송재민 등과 함께 촉석루에 올라 북향사배하고 홀연히 장검을 빼어들고 적진에 뛰어 들어가 적 수백 급을 참획하였으나 이내 순절하고 말았다. 이후 공은 1605년(선조 38) 선무원종일등공신에 책록되고 통훈대부사복시정(通訓大夫司僕寺正)으로 추증되었다. 그리고 1867(고종 4)에는 조정으로부터 충절 정려가 명해져 충신각이 건립되어졌고, 1936년에는 공의 5대조 충장공(忠莊公) 정분과 함께 표산사(杓山祠)에 배향되었다.

현재 이 충신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내부에는 명정 편액과 정려기 등이 걸려 있고, 그 앞에는 문이 있으며 사방 주위는 담장으로 둘려져 있다. 그리고 이 충신각 앞 좌측에는 1992년에 건립한 김경수(金敬洙) 찬(撰), 강정희(姜正熙) 서(書)의 빗돌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충신 정감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또한 충신각의 뒤편에는 진주정씨문중에서 1933년에 건립한 표산사가 있는데, 이는 진주정씨 선조 중 단종조에 우의정이었던 충장공 정분과 정분의 손자이자 진주정씨 무안파 시조인 정지소(鄭之韶), 그리고 충신 정감 등 3명의 위패를 모셔 제향해오는 사우이다.

정감충신각과 관련되는 자료로 특별히 남아있는 것은 없다. 다만 함평에 거주하는 진주정씨는 크게 황파(璜派)와 분파(苯派)로 나누어지는데 황파의 손(孫)은 주로 월야면 일대에, 그리고 분파는 학교면 일대가 주세거지이다. 이중 충신 정감은 그의 5대조가 즉 분파의 시조가 된다. 그런데 분파의 후손들은 시조인 정분이 단종조 때 우의정이었던 이유로 세조찬탈 이후 각지에 흩어져 숨어 살아야만 했었다. 즉 정분의 아들 정광로(鄭光露)는 장흥(長興)으로 낙향하여 이름을 바꾸어 백씨(白氏) 집에서 머슴을 살다 결국 백씨 집 딸과 혼인하여 아들 셋을 낳았다. 그중의 막내가 무안파 입향조인 정지소(鄭之韶)인데 그는 장흥에서 나주 거평(居平)으로 이거하여 살다가 광주 도야, 화순, 강진, 영광 등으로 각각 아들들을 분산 이거하여 살게 하고 자신은 장남 정적선(鄭積善)과 함께 무안(현재 함평군 학교면)으로 이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현재 학교면으로 이거 정착하게 된 진주정씨는 충신 정감과 관련되는 충신각(忠臣閣)과 표산사가 표산마을에 있다. 이와 함께 죽정리 정자동에는 상곡사(上谷祠)와 진주정씨충효문(晉州鄭氏忠孝門)이 있는데, 상곡사에는 정분을 주벽으로 하고 정현보(鄭賢輔)와 정현보의 8대손 정계충(鄭繼忠)을 배향하고 있다. 그리고 진주정씨 충효문에는 충신 정현보를 비롯해 효자인 그의 현손 정윤진(鄭胤晉)과 7대손인 정인겸(鄭仁謙)을 모시고 있다.

현재 정감충신각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편액들이 걸려져 있다.

①<단묘조 우의정 충장공휘분(端廟朝右議政忠莊公諱苯), 효자 광노공휘원(孝子狂奴公諱遠), 증 도승지 독곡공휘명세(贈都丞旨獨谷公諱名世), 청안현감공 휘명원(淸安縣監公諱名遠), 삼

세충효문재어장흥남문외석대상(三世忠孝門在於長興南門外石臺上), 성균생원동암공 휘현보 충문재어본현좌랑정자동(成均生員東庵公諱賢輔忠門在於本縣佐郎亭子洞)>

②<선묘조 원종일등공신 성균진사 증 통훈대부 사복시정 진주정감지여(宣廟朝原從一等功臣成均進士贈通訓大夫司僕正晉州鄭瑊之閭)>, 1867년 명정편액

③<충신 진사 사복시정 정공정려기(忠臣進士司僕寺正鄭公旌閭記)>, 1867년 현감 홍우경(洪佑慶) 술(述)

11) 진주정씨 삼세충효문(晋州鄭氏三世忠孝門)

진주정씨 삼세충효문은 학교면 죽정리 정자동 마을 동각 뒤쪽 상곡사(上谷祠) 좌측에 있다. 이 충효문은 임란충신 정현보(鄭賢輔 : 1546~?)와 그의 현손인 효자 정윤진(鄭胤晉 : 1686~?), 정윤진의 증손 정인겸(鄭仁謙 : 1723~1807) 등의 충효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870년(고종 7)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아 건립되어진 것이다.

충신 정현보(1546~?)의 자는 성좌(聖佐), 호는 동암(東菴),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단종조(端宗朝)에 우의정을 역임하였던 정분의 5세손이다. 공은 성균관 생원을 지냈는데 1592년(선조 25) 임란왜란이 일어나게 되자 조카 정감과 함께 결사구국 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리고 조카 정감은 창의사 건재 김천일(1537~1593)의 막하에 들어가 소모사가 되어 활동을 하고, 공은 최경회 장군의 군진으로 들어가 주룡(朱龍 : 현재 무안군 몽탄면 몽탄강)전투 등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나 그 뒤 목포해전(木浦海戰)에서 순절하게 되었다.

효자 정윤진(1686~?)의 자는 시우(時愚), 호는 망우옹(忘憂翁)으로 충신 정현보의 현손이다. 공은 일찍이 사친에 도를 깨달아 아버지 정문원(鄭文遠 : 1647~1720)과 어머니 고성정씨(固城鄭氏)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정효자라 칭하였으며, 1794년(정조 18)에는 효행 탁이로 통훈대부 사복시정(通訓大夫司僕寺正)에 증직되었다. 그리고 그 뒤 1870년(고종 7) 향도의 추천으로 효자 명정을 받았다.

효자 정인겸(1723~1807)의 자는 군익(君益), 호는 무위와(無爲窩)로 충신 정현보의 8세손이며 효자 정윤진의 증손이다. 공은 일찍이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부친상중에 나쁜 괴질이 나돌았지만 자기의 몸은 돌보지 않고 상청(喪廳)을 지키며 향을 계속 피웠다고 한다. 그 후 1794년(정조 18) 효행 탁이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에 증직되고, 이어 1802년(순조 2)에는 가의대부에 승배되었다. 그리고 1870년(고종 7) 향도의 추천으로 효자 명정을 받았다.

현재의 진주정씨충효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맛배 지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충효문 우측에는 충효문 건립 당시에 함께 건립하였다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맛배 지붕으로 된 상곡사가 있는데 그 앞에는 소슬 삼문이 있다. 삼문의 앞에는 효자 정윤진의 호를 따다 이름한 망우정(忘憂亭)이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와가로 되어있어 상곡사와는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진주정씨충효문과 관련되는 자료로서 충효문 내부에는 원래 10여개의 편액이 있었다고 전하

지만 지금은 모두 소실되어 없고, 다만 <진주정씨삼세충효문(晋州鄭氏三世忠孝門)>이란 편액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사유고(菊史遺稿)』(1623년, 정의립 서)와 <국사선생유고서(菊史先生遺稿序)>(기미년, 김인경 서, 이병춘 발), 『진주정씨충효록(晉州鄭氏忠孝錄)』(1790년 초판발행) 등이 전하였다고 한다. 이 가운데 『국사유고』와 <국사선생유고서>는 6.25 전쟁 때 분실되었고, 현재는 『진주정씨충효록』만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충효문과 관련되어지는 상곡사(上谷祠)는 충장공 정분을 주벽으로 하고 충신 정현보(鄭賢輔)와 정현보의 8대손 정계충(鄭繼忠)을 배향하고 있는 곳이다. 또 이와 함께 이웃한 마산리 표산마을에는 표산사(杓山祠)와 정감충신각이 있는데 이는 상곡사와 진주정씨충효문과는 서로 관련되어지는 유적들이다.

12) 광산김씨 삼효문(光山金氏三孝門)

광산김씨 삼효문은 엄다면 신계리 장동마을 중앙 양승열, 이종국의 집 사이에 있다. 이 삼효문은 광산김씨 효자 삼형제인 김동인(金東仁 : 1787~1856)과 김동후 (金東厚 : 1790~1841), 그리고 김동우(金東友 : 1806~?)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873년(고종 10)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아 1878년(고종 15) 후손들에 의해 건립되었던 것이다.

효자 삼형제 김동인(1787~1856)의 자는 인백(仁伯), 호는 송죽정(松竹亭)이고, 김동후(1790~1841)의 자는 의백(義伯)이며, 김동우(1806~?)의 자는 신백(信伯), 호는 휴헌(休軒),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이들은 모두 증 한성좌윤(贈漢城左尹) 김용해(金龍海 : 1763~1842)의 아들이 된다. 이들 삼형제는 일찍이 효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깨달아 부모에 대한 효가 극진하였다고 한다. 평소 부모에게 고기 대접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또한 언제나 땔감을 집안에 가득 쌓아 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인 정부인(貞夫人) 풍천임씨(豊川任氏 : 1762~1802)가 병에 걸려 위독하게 되자 장남인 김동인은 손가락을 깨물어 모친의 입에 주혈시켜 회생케 하였다. 그리고 동생 김동후는 모친의 똥을 손수 맛보며 병이 완쾌되기를 하늘에 축원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의 허벅지 살을 베어 모친께 드렸다고 한다. 그러나 풍천임씨는 아들들의 이 같은 지극한 효성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귀의 객이 되자 삼형제는 조석으로 곡배 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들 삼형제는 또 부친 김용해(金龍海)가 늙어 병이 들게 되자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약을 구해 치료하였으나 효험을 얻지 못하게 되고 부친은 살아있는 고기와 나물(생채)을 찾았다. 그러나 때가 겨울인지라 이들 삼형제는 이를 근심하다 김동인은 얼음을 깨어 고기를 얻고, 또 동생 김동우는 자기의 살을 베어 부친께 받쳐 부친의 병환을 회복케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후일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자 이들 삼형제는 모친 사후 때와 같이 조석으로 곡배하며 삼년의 시묘생활을 했다고 한다. 후에 이러한 효행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또 1862년(철종 13) 김동인의 아들 김종혁(金宗爀 : 1812~1890)이 부친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명정을 추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향도의 추천으로 1873년(고종 10)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장손 김종혁이 곧 효자문을 건립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죽게 되자 그로부터 5년 후인 1878년(고종 15) 그의 손자 김정호(金正鎬)가 그 뜻을 이어 받아 삼효문을 건립하게 되었다.

현재 마을 중앙에 자리한 광산 김씨 삼효문은 정·측면 각각 1칸의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5개의 편액이 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역시 정 측면이 각각 1칸으로 된 문이 위치한다.

광산 김씨 삼효문과 관련되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이 명정 당시 내려진 삼형제의 명정 편액과 1878년 삼효문 건립시에 찬한 김종혁의 사위 서원보(徐元輔)와 1931년에 이승욱(李承旭)이 찬한 정려기(旌閭記)만 남아 전할 뿐이다.

①<효자 증 가선대부 공조참판겸동지중추부사 광산김동인지여(孝子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中樞府事光山金東仁之閭)>, 1873년 명정

②<효자 증 통훈대부 사헌부지평 광산김동후지여(孝子贈通訓大夫司憲府持平光山金東厚之閭)>, 1873년 명정

③<효자 조봉대부 동몽교관겸숭정대부 동지중추부사 광산김동우지여(孝子朝奉大夫童蒙敎官兼崇政大夫同知中樞府事光山金東友之閭)>, 1873년 명정

④<광산김씨삼효정려기(光山金氏三孝旌閭記)>, 1878년 서원보(徐元輔) 기(記)

⑤<광산김씨삼효정려사실기(光山金氏三孝旌閭事實記)>, 1931년 이승욱(李承旭) 기(記)

13) 인동장씨 효열각(仁同張氏孝烈閣)

인동장씨 효열각은 월야면 용정리 용수마을 입구 우측에 있는 유적이다. 이는 장현명(張鉉明)의 처 열부 금성오씨(錦城吳氏)의 효열행과 그의 양 아들 효자 징재원(張在源)의 효행 사실을 기리기 위해 1877년(고종 14) 예조로부터 완문(完文)을 받아 1899년 인동장씨 문중에서 건립하였다가 1962년에 이를 다시 중수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열부 금성오씨는 금성군(錦城君) 오겸(吳謙)의 12세 손이다. 18세의 나이로 장현명(張鉉明)에게 결혼하였으나 결혼 한지 3개월 만에 남편이 위독하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에 기도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내 죽게 되자 부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남편의 시신이 장지로 떠날 때는 우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으나 시부모가 극구 말리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 부인이 당시 죽지 못하였던 것은 시부모를 봉양할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그 후 조카 장재원(張在源)을 양자로 삼아 시부모 봉양 및 아들의 교육에 지극하였다고 한다. 부인이 죽고 난 뒤 향도의 추천으로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1877년(고종 14) 예조(禮曹)로부터 완문(完文)이 내려졌고, 이후 1899년에 후손들에 의해 그의 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효자 장재원의 자는 윤칠(允七), 호는 요한당(要閒堂), 본관은 인동(仁同)이며, 참찬(參贊) 장백림(張百林)의 후손으로 장현명(張鉉明)의 아들이다. 원래 그의 생부는 장현규(張鉉奎)인데 장현명이 손이 없이 죽게 되자 열부 금성오씨에게 양자를 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양모 열부 금성오씨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어 봉양할 때는 말없이 정성들

여 모친의 마음에 맞도록 온정을 쏟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틈만 있으면 주경야독으로 학문을 익히었는데 이를 본 종족들과 향리인들이 모두 감흥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친상을 당하여 시묘살이 할 때는 울움 소리가 어찌나 크고 서러운지 향민들이 모두 감읍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밤마다 범이 나와 그를 호위하자 모든 사람들은 그의 효성스러움이 하늘을 감동시킨 소치라 하였다. 한편 그는 삼년상을 마친 후에도 모친의 묘 아래에다 작은 당(堂)을 짓고 당의 이름을 요한당(要閒堂)이라 하고 주위에 과수를 심어 키우면서 종신토록 그곳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거처하던 곳을'효자산(孝子山)'이라 하고, 또 그 마을을 '효자리(孝子里)'라 불렀다고 한다. 그가 죽은 후 1877년(고종 14) 이러한 사실에 대해 향도에서 추천하여 예조에 알리게 되자 복호(復戶)를 면하게 되었고, 1899년에는 후손들이 마을 앞에 비각을 건립하게 되었다.

현재 인동장씨 효열각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의 석각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부에는 금성오씨와 장재원의 비가 각각 세워져 있다.

열부 금성오씨와 효자 장재원에 관련되는 자료로서 그들에 대하여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기 위해 1877년 전라도 유생 영암(靈巖) 박문혁(朴文嬛)외 21개 현(縣) 57명이 올렸던 <상서(上書 : 가로 56㎝, 세로 90㎝)>를 비롯해 같은 해 예조(禮曹)로부터 내려진 <춘조완문(春曹完文 : 가로 33㎝, 세로 35㎝)>, 그리고 이들과는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후손 장우식(張佑植)이 1902년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로부터 하사 받았던 <차첩(差帖 : 가로 59㎝, 세로 90㎝)> 등이 전해오고 있다. 그리고 비각 내에는 <유인 금성오씨 효열비(儒人錦城吳氏孝烈碑)>(1899년, 박한풍 찬, 정병련 수, 높이 142㎝, 폭 60㎝, 두께 24㎝)와 <학생 장공재원 효행사적비(學生張公在源孝行事蹟碑)>(1962년, 높이 129㎝, 폭 55㎝, 두께 27㎝)가 있다.

14) 함평노씨 세효각(咸平魯氏世孝閣)

함평노씨 세효각은 학교면 복천리 두동마을 중앙 동각 옆에 있다. 이 세효각은 함평노씨 선조 중 동몽교관 노봉채(魯鳳採 : 1782~1845)와 그의 아들 사헌부감찰 노영숙(魯榮璹 : 1806~1874), 그리고 그의 손자 사헌부지평 노재홍(魯在弘 : 1839~1884) 등 3대에 걸친 효행사실을 기리기 위해 1887년(고종 24)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아 이듬해인 1888년 후손들에 의해 건립되어진 효자각이다. 그러던 것이 이후 퇴락하여 무너지게 되자 1947년에는 마을민과 함평노씨문중에서 힘을 합해 현재의 위치에 다시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효자 노봉채(1782~1845)의 자는 의여(儀汝), 호는 묵암(默菴), 본관은 함평으로 육영재(育英齋) 노태신(魯泰臣 : 1752~1828)의 큰아들이다. 공은 천성이 순후하고 기상이 활달하였는데 어릴 때부터 부친에게 학문을 배워 일찍이 문장에 조예가 깊었었다. 성장하면서 향시에 여러 번 합격하고 어버이에게 영화의 기쁨을 안겨주고자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모친이 돌아가시게 되자 그 뜻을 포기하고 향리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 뒤 부친이 병상에 누어 수년간 고생을 하게 되자 손수 대변을 맛보아 병세를 짐작하고, 또 부친이 산에서 자란 자라를 먹기 원하자 자라가 나올 시기도 아닌데도 갖은 방법을 통해 그것을 구하

여 대접하자 크게 효험을 보았다 한다.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효자의 성감이라 칭하고 향도의 추천이 논의되자 그는 도리어 불효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극구 만류하였다 한다.

효자 노영숙(1806~1874)의 자는 덕담(德膽)으로 효자 노봉채의 장남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효성이 남달리 지극하였는데 이는 조부모에 대한 부친의 효행을 평소 성장하며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부친상을 당하여 삼년동안 시묘를 하였는데 이를 마친 다음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지않고 부친의 묘전에 나아가 성묘를 하며 상복을 벗지 않았다 한다. 또 그 후에 모친의 상을 당하여서도 부친의 상 때와 한가지로 실천을 하게 되자 많은 향리 사람들은 이들 부자에 대한 효에 대하여 칭송이 자자하였다고 한다.

효자 노재홍(1839~1884)의 자는 성집(聖集)으로 효자 노영숙의 막내아들이다. 그는 부친 노영수가 늙고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갖은 약재와 좋은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하였다 한다. 그리고 부친이 위급하게 되자 그의 손가락을 깨물어 부친의 입에 피를 주입시켜 하루를 더 연명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에 향도에서는 이들 3세에 대한 효행 사실을 추천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로서 1887년(고종 24)에는 조정으로부터 삼세효자(三世孝子) 정려와 각각의 증직이 내려지게 되어 이듬해 세효각을 건립하였다.

현재 세효각은 정·측면 각각 2칸의 팔작지붕으로 내부에는 명정 편액과 세효각기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세효각의 옆에는 함평노씨세덕비와 마을 동각이 있다.

현재 세효각과 관련되어 남아 전하는 자료로는 건물 내에 있는 다음과 같은 명정 편액 등이다.

①<효자 증 동몽교관 조봉대부 함평노공봉채지려>(1887년, 명정)
②<효자 증 통훈대부 사헌부감찰 함평노공영수지려>(1887년, 명정)
③<효자 증 통훈대부 사헌부지평 함평노공재홍지려>(1887년, 명정)
④<세효각기>(1888년, 박기종 기)

15) 파평윤씨 효자각(坡平尹氏孝子閣)

파평윤씨 효자각은 엄다면 엄다리 성산(星山; 별뫼)마을 입구 마을창고 뒤편에 있다. 이는 이 마을의 효자 윤행덕(尹行德 : 1809~1896)의 효행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1888년(고종 25)에 건립한 것이다.

효자 윤행덕의 자는 성집(聖執), 호는 운암(雲庵),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그는 나이 어린 6세 때 부친 윤선희(尹先喜)를 여의고 홀로 계신 모친을 극진히 봉양하였다. 원래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효행이 남달랐으나 모친의 병중에는 더욱더 그 효성이 지극하였던 탓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존경하였다. 이에 그의 효행 사실이 향리에 널리 알리어지게 되었고, 더불어 향도의 추천으로 조정으로 상소가 올리어지게 되자 1888(고종 25) 효자 정려가 하사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이 효자각은 정·측면 각각 1칸씩의 팔작 목조와가로 되어있고, 내부에는 명정 편액과 정려기 등이 있다. 이 효자각은 최근에 새롭게 단청 보수를 하고 주위를 정화하여 보존하고 있

다.

효자 윤행덕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로는 효자각 내부에 있는 <상량문>(1888년, 오계수 지음)과 명정 편액인 <효자 증 조봉대부 동몽교관 윤행덕지려>(1888년, 명정 건립), <윤효자정려기>(1888년, 김상현 지음) 등이다.

한편 윤행덕의 효자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0m 떨어진 마을 앞 중앙에는 그의 선조 수정(守貞) 윤제(尹濟 : 1562~1645)와 관련되는 수정재(守貞齋 : 정면 4칸, 측면 2칸, 팔작와가)가 있다. 윤제와 그의 아들 송돈(松墩) 윤정우(尹挺宇)는 1988년 함평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이들 부자의 유고(遺稿)인 『교재집(喬梓集)』을 국역 발간하였던 적이 있어 익히 알려졌던 인물이다. 그리고 수정 윤제는 이곳 성산(별뫼)마을에 최초로 터를 닦아 정착한 파평윤씨 입향조이기도 하다. 그런데 파평윤씨들이 함평지역에서는 주로 해보 모평에서만 세거하였으나 유독 윤제가 왜 이곳으로 이거 정착하게 됐을까에 대한 의문은 간단하다. 즉 그는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의 제자로 역학(易學)에 밝았던 인물이었는데 그의 부인이 바로 고성정씨(固城鄭氏)인 선무랑(宣務郞) 정응청(鄭應淸)의 딸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부인 고성정씨는 곧 스승인 곤재 정개청의 조카였던 것이며, 이로 미루어 본다면 그는 학연과 혼인관계로 인해 이곳까지 이거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그가 줄곧 해보 모평에서 거주하다 스승인 정개청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됨으로서 좀더 처가와 가까운 이곳 성산(星山 : 정개청을 배향한 자산서원이 있었던 제동마을과는 약 2Km 떨어져 있는 마을임)마을로 이거 정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 노영훈효자각(魯榮勳孝子閣)

노영훈 효자각은 학교면 복천리 장동마을에서 두동마을로 가는 길가 좌측에 있다. 이 효자각은 효자 노영훈(魯榮勳 : 1807~1858)의 효행 사실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함평노씨문중 후손들이 1890년(고종 27)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아 이듬해인 1891년에 건립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러 효자각이 퇴락하여 무너지게 되자 1991년에 예전의 위치에서 약간 우측 아래로 옮기어 새롭게 석각으로 단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효자 노영훈(1807~1858)의 자는 사집(士集), 호는 석천(石泉), 본관은 함평으로 노효채(魯孝採)의 셋째아들이다. 그는 원래 이웃한 두동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여 그 재명(才名)이 널리 알려졌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는 청운의 뜻을 품고 과거에 응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수신제가하여 사람 된 본분을 다할 것을 결심하고 두 형과 더불어 성심으로 부모님을 받들고 논밭을 일구었다. 그러면서도 여가가 있으면 언제나 학문을 닦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가 장성하여 가정형편상 지금의 장동마을로 분가해 나왔으나 사친의 정이 어찌나 지극한지 색다른 음식만 보아도 어버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등 혼정(昏定)과 신성(晨省)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므로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뒷산(백모래재)에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전해온다. 뿐만 아니라 그가 40세 되던 해에 모친이 별세하게 되자 외로우신 부친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모셔오게 되면 두 형님들이 또 다시 모셔갔으며 모셔갈

때는 꼭 삼형제가 몸소 가마를 매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서로 칭송이 자자했다. 그 후 그가 죽은 지 30년이 되던 1888년에는 효행 탁이로 동몽교관 조봉대부(童蒙敎官朝奉大夫)에 증직되어졌고, 이로부터 2년 후인 1890년에는 그에 대한 효행 사실과 학문이 널리 알려져 향도의 추천으로 조정으로부터 효자 정려가 내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1891년(고종 28) 마을 앞에 효자각이 세워지게 되었다.

노영훈의 효자각은 원래 정·측면 각가 1칸의 목조와가로 되어 있었으나 세월이 많이 흘러 효자각이 퇴락하고 무너지게 되자 1991년 예전의 위치에서 약간 우측 아래로 옮겨 건립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규모는 정·측면 각각 1칸의 석각 팔작지붕으로 되어있고, 그 내부에는 증직교지(贈職敎旨)의 내용을 빗돌에 세겨 두었다.

효자 노영훈에 관련된 자료로서는 조정으로부터 하사 받았던 명정 편액 <효자 증 동몽교관 조봉대부 함평노공영훈지여>(1890년)과 <효자 증 동몽교관 석천노공 정려기>(1891년, 기우만 서), 그리고 현재의 효자각 우측에 세워져 있는 <증 동몽교관 조봉대부 석천함평노공영훈효행비>(1991년, 높이 140㎝, 폭 54㎝, 두께 24㎝) 등이 있다. 한편 노영훈의 증손 노지수(魯智洙)가 찬수한 그의 유고집인 『석천유고(石泉遺稿)』(1939년, 노지수 식, 가로 30㎝, 세로 20.5㎝, 1책 3권)가 전하기도 한다.

17) 효자 장창윤정려(孝子張昌胤旌閭)

효자 장창윤 정려는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 앞 들녘에 있다. 이 정려는 효자 장창윤(張昌胤 : 1610~1686)의 효행 사실을 기리기 위해 1892년(고종 29)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아 같은 해에 문중 후손들에 의해서 건립된 것이다.

효자 장창윤(1610~1686)의 자는 수울(秀蔚), 호는 임은(林隱), 본관은 인동(仁同)으로 장우한(張宇翰 : 1572~1654)의 아들이다. 그는 평소 부모에 대한 효도가 지극했으며, 그의 부친 장우한은 정유재란 때 충무공 이순신과 함께 노량해전(1598년)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사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인동장씨 보첩의 기록에는 노량해전을 치렀던 해로부터 56년이나 더 살았던 것으로 되어있어 이는 좀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효자 장창윤은 모친이 늙고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갖은 약재와 좋은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하였으나 끝내 돌아가시려는 위기에 처하자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모친의 입에 넣어 드려 3일간을 더 연명케 하였다. 그가 죽고 난 뒤 이러한 효행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 향도의 추천으로 여러 번 천장을 올렸으나 명정이 내려지지 않다가 그가 죽은 해로부터 206년이 지난 1892년(고종 29)에서야 조정으로부터 명정이 내려지게 되어 문중 후손들이 정려를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이 효자정려는 정·측면 각각 1칸의 팔작 목조와가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명정 편액과 그의 행장이 있다.

효자 장창윤 정려와 직접 관련되는 자료로는 현재 정려각 내부에 보존되어 있는 명정 편액 <효자 통정대부 공조참의 장창윤지여(孝子通政大夫工曺參議張昌胤之閭)>(1892년)와 <장효자행장

(張孝子行狀)>(1892년, 현감 김택수 씀) 등이 있다. 그리고 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이 마을 뒷쪽에 인동장씨 문중 선조인 원모재(遠慕齋) 장백림(張百林 : 1123~1204)을 제향하는 원모사(遠慕祠)가 있다.

18) 효자 서명규정려(孝子徐命奎旌閭)

효자 서명규 정려는 엄다면 성천리 와촌마을 앞 도로변에 있다. 이 정려는 효자 서명규(徐命奎 : 1709~1778)의 효행 사실을 기리기 위해 1892년(고종 29)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아 1896년 후손들에 의해 건립되어진 정려이다. 이후 이 정려는 1975년에 한번의 중수를 걸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효자 서명규(1709~1778)의 자는 명달(命達), 호는 사성재(思誠齋) 또는 훈이(訓二)이며 본관은 이천(利川)으로 고려조 때 문하시중 평장사를 역임했던 서신일(徐神逸)의 13세손이다. 그는 천성이 순박하고 효우가 남달라 언제나 부모에 대한 효를 이루고자 생각하였다 하여 그의 호를 사성재(思誠齋)라 하였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부모에게 좋은 고기반찬으로 대접을 하여는데 한번은 모친의 병환이 심하여 음식을 드시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꿩 고기만을 원하시었다. 이에 그는 산에 들어가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며 울게 되자 갑자기 그의 발 아래로 꿩 한마리가 떨어져 그것으로서 모친의 원을 풀어주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의원이 모친의 병환에는 거북이의 가죽이 제일이라고 하자 백방으로 그것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으나 구하기가 어려운지라 하루는 얼음을 깨며 하늘에 빌었다. 이에 한 마리의 거북이가 얼음 위로 올라오게 되어 의원에게 갔다 받치자 의원은 그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소치라 하고 모친에게 드릴 약에 조제하여 드리니 그것을 먹고 난 모친은 즉시로 병환이 낳았다 한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감동시킨 효자라 칭하였다 하며, 후에 향도의 추천으로 1892년(고종 29) 조정으로부터 효자 정려를 하사 받고 또한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현재 효자 서명규 정려는 정·측면 각각 1칸, 팔작 목조와가로 되어있으며, 내부에는 명정 편액과 정려기 등이 있다. 그 주위로는 담이 둘러져 있고, 이 효자각 좌측으로는 정·측면 각각 2칸의 팔작와가로 된 옥봉정사(玉峰精舍)가 있는데 이는 같은 이천서씨문중 옥봉(玉峰) 서명종(徐明鍾)의 정사이다.

효자 서명규정려와 관련되어 특별히 남아 전하는 자료는 없다. 다만 현재 정려 내부에 다음과 같은 명정편액과 유적비 등이 있다.

①<행 조봉대부 동몽교관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이천서명규지려(行朝奉大夫童蒙敎官贈嘉善大夫吏曹參判利川徐命奎之閭)>(1892년)

②<효자사성처사증이조참판서공정려기(孝子思誠處士贈吏曹參判徐公旌閭記)> (1896년, 김훈기(金勳 記))

③<효자 사성재 서공정려기(孝子思誠齋徐公旌閭記)>(1913년, 기우만 서(奇宇萬 書))

④<사성재공 정려(思誠齋公旌閭)>(1913년, 서치종 발(徐治鍾 跋))

⑤<효자 조봉대부 동몽교관 이천서공사성재 유적비(孝子朝奉大夫童蒙敎官利川徐公思誠齋遺蹟

碑)>(1946년, 최병심 찬(崔秉心 撰), 임철주 서(林哲周 書), 서준조 수(徐準祚 竪))
⑥<사성재정려중수기(思誠齋旌閭重修記)>(1975년, 서상일 기(徐相一 記), 서준서 서(徐準瑞 書))

19) 효자 김승필정려(孝子金陞弼旌閭)

효자 김승필 정려는 손불면 대전리 저전마을 앞 신광면소재지와 연결되는 길 건너편 솔밭에 있다. 이는 효자 김승필(金陞弼 : 1774~1840)의 효행사실을 기리기 위해 김해김씨 문중에서 1893년(고종 30) 명정을 받아 1897년에 건립하게 된 정려이다.

효자 김승필(1774~1840)의 자는 익보(翊甫), 호는 용곡(龍谷), 본관은 김해(金海)로 김진굉(金鎭宏 : 1747~1810)의 장남이다. 그는 평소 부모 봉양에 있어 갖은 좋은 음식을 갖추어 드시게 하였고, 병환 때에는 손수 대변을 맛보아 병세를 알아보는 등 극진히 간호하였다 하는데, 특히 부친의 병환 때에는 그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넣어 줌으로 부친의 생명을 더 연명케 했다고 한다. 이처럼 그의 효행 사실이 널리 알리어지게 되자 1891년에 효행 탁이로 동몽교관 호조참의(童蒙敎官戶曹參議)에 증직되었고, 이후 1893년에는 향도의 추천에 의하여 조정으로부터 명정이 내려져 1897년 후손들에 의해 정려가 건립되게 되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1899년에는 정려각 내부에 그의 정려비가 세워졌다.

현재 효자 김승필의 정려는 정·측면 각각 1칸의 팔작와가에 4주에는 활주로 받쳐져 있으며, 내부에는 명정 편액과 정려기, 그리고 그의 정려비가 세워져 있다. 이중 그의 정려비는 세월이 많이 흘렀던 관계로 자연 파괴가 심하여 비면 반쯤이 거의 떨어져 나가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효자 김승필과 관련되는 자료로는 정려각 내부와 앞에 다음과 같은 명정편액과 정려실기, 그리고 정려비, 유허비 등이 있다.

①<효자 증 동몽교관 호조참의 김승필지여(孝子贈童蒙敎官戶曹參議金陞弼之閭)> (1893년)
②<효자 증 동몽교관 호조참의 김공정려실기(孝子贈童蒙敎官戶曹參議金公旌閭實記)> (1897년, 김훈 기(金勳 記))
③<유명조선 효자 증 통정대부 호조참의 김승필(지)여(有明朝鮮孝子贈通政大夫戶曹參議金陞弼(之)閭)>(1899년)
④<김해김씨 유허비(金海金氏遺墟碑)>(1973년, 김세열 찬(金世烈 撰), 강인환 서(康仁煥 書), 높이 174㎝, 폭 64㎝, 두께 32㎝)

20) 나주정씨 삼강문(羅州鄭氏三綱門)

나주정씨 삼강문은 월야면 양정리 보건진료소 뒷편 언덕 위에 있다. 이는 나주정씨문중 선조 중 임란충신 정응(鄭鷹)과 그의 8세손 효자 정진복(鄭震復), 그리고 정진복의 처 열녀 죽산안씨(竹山安氏)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893년(고종 30)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아 1899년 후손들에 의하여 건립되어진 삼강문이다.

충신 정응(1562~1598)의 자는 덕양(德揚), 호는 애죽헌(愛竹軒), 본관은 나주(羅州)로 정훈(鄭薰)의 5세손이며 충좌위사정(忠佐衛司正) 정원계(鄭元柱)의 아들이다. 공은 일찍이 용모가 준수하고 지절이 강개하였다고 한다. 1588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배하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거의(擧義)하여 초토사(招討使) 고경명(高敬命)의 막하에서 금산전에 참가하였으나 패전 후 일시 귀향하였다. 이어 공은 다시 아우 정홍(鄭鴻)과 재종질 정진(鄭縉)과 함께 의병 수 백인을 모아 수사(水使) 김억추(金億秋)를 찾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을 방문하였던 바 김원수가 크게 기뻐하며 좌수사 이억기(李億祺)의 막하로 보내어 그곳에서 좌우보익장(左右保翼將)으로 당포(唐浦)와 견내량전(見乃梁戰)에서 적 수십 급을 참살하고 안골포(安骨浦)에서 또한 적선 수십척을 격파함에 이억기가 포계(褒啓)하여 공의 형제에게는 훈련원 주부를 제수하고 재종질 정진(鄭縉)에게는 첨정을 내렸다. 그 후 공은 다시 우수사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노량해전(露梁海戰)에 참천하여 적선을 공격하다가 적탄에 맞아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뒤에 1801년(순조 1) 통정대부 병조참의를 추증되었다. 그리고 정응(鄭鷹)은 나주정씨문중의 선조들을 배향하고 있는 오산사(鰲山祠)에 배향되어 있기도 하다.

정진복(1782~?)의 호는 양성당(養性堂)으로 애죽헌 정응(鄭鷹)의 8세손이다. 공은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 섬기기를 하늘같이 하였고, 부친상과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는 모두 6년간의 시묘생활을 하였다. 효행으로 동몽교관에 증직되고 졸한 뒤 1893년에는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추증되었다.

열녀 죽산안씨(1783~?)는 양성당 정진복의 처로 문헌공(文憲公) 안원형(安元衡)의 후손이며 안중노(安仲魯)의 딸이다. 부인은 일찍이 나주정씨 가문으로 출가하여 양가의 시부모 모시기를 성심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부도(婦道)를 다하였다. 1815년(순조 15) 부군이 득병하여 중태에 빠지자 손가락으로 남편의 똥을 맛보는 등 갖은 간호를 다하였으나, 이내 부군이 죽게 되어 거상(居喪) 때는 슬픔에 못 이겨 몇 번이나 기절을 하였다. 그 뒤로도 부인은 부군의 기일(忌日) 때마다 손수 제수(祭需)를 마련하고 옷을 정결하게 차려 입은 다음 사실(私室)에 들어가 스스로 축수하니 인근의 사람들이 모두 감읍하였다.

현재 나주정씨삼강문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으로 된 목조와가와 삼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삼문 앞 우측으로는 정진복의 증손 건암공 부처의 실적비가 세워져 있다. 나주정씨삼강문과 관련되는 자료로는 현재 삼강문내에 다음과 같이 충효열의 명정 편액을 비롯하여 상량문, 그리고 정려기 및 사실기 등이 있다.

①<충신 증 병조참판 정응지여(忠臣贈兵曺參判鄭鷹之閭)>(1893년)
②<효자 증 동몽교관 정진복지여(孝子贈童蒙敎官鄭震復之閭)>(1893년)
③<열녀 증 동몽교관 정진복지처 증 영인죽산안씨지여(烈女贈童蒙敎官鄭震復之妻贈令人竹山安氏之閭)>(1893년)
④<나주정씨 삼강정려 상량문(羅州鄭氏三綱旌閭上樑文)>(1899년, 이채규 서(李彩圭 書))
⑤<정씨 삼강정려기(鄭氏三綱旌閭記)>(1899년, 기우만 서(奇宇萬 書))
⑥<사실(事實)>(1899년, 정설재 식(鄭說再 識))
⑦<나주정씨삼강정려실기(羅州鄭氏三綱旌閭實記)>(1899년, 김훈 찬(金勳 撰))

한편 삼강문 앞 우측에는 1960년 김준식(金駿植)이 짓고 정병화(鄭炳華)가 써서 건립한 <건암정공부처행실적비(健庵鄭公夫妻行實蹟碑 : 높이 145㎝, 폭 54㎝, 두께 21㎝)>가 있는데 이는 정진복의 증손 효자 정관면(鄭官冕 : 1896~1962)의 부부에 대한 사적비이다. 이와 함께 삼강문과 관련되어지는 유적으로는 이곳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용월리 외세마을 뒤편 산기슭에 나주정씨문중 선조들의 유덕과 유풍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오산사(鰲山祠)가 있다. 이곳에는 고려조 때 인물인 설재(雪齋) 정가신(鄭可臣 : 1224~1298)을 주벽으로 하여 조선조 사헌부 감찰로 단종 복위를 꾀하였던 그의 6세손 정훈(鄭薰 : 1401~?)과 임진·정유재란 공신인 정훈의 5세손 정응(鄭應 : 1562~1598) 정홍(鄭鴻 : 1566~1598) 형제, 그리고 정응의 재종질인 정진(鄭縉 : 1551~1598)과 정회(鄭繪 : 1564~1592), 정민수(鄭民秀 : 1569~1592) 등 모두 7명을 배향하고 있다.

3. 금석문(金石文) · 비(碑)

금석문(金石文)은 특히 지방사 자료 가운데 고문서와 함께 주목되는 자료이다. 금석문에 나타난 기록들은 각 지역의 지명(地名), 인명(人名 : 행적), 건립경위(建立經緯)와 주체(主體) 등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관찬적(官撰的)이고 중앙중심적인 문헌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본 절에서 해설한 금석문(金石文) 비(碑)의 종류로는 유적과 관련되는 유허비(遺墟碑), 사적비(事蹟碑), 공덕비(功德碑), 기적비(紀績碑) 등에 한정시켰다. 그러나 실제 현존하는 함평지역의 금석문(비)들은 대부분이 역대 현감이나 군수의 공적(功績) 또는 선정비(善政碑)였고, 몇 개의 원(院)·사(祠)의 유허비(遺墟碑)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각 문족(門族) 선조들의 유적(遺蹟)이나 행적(行蹟碑)이며 그 건립의 년대도 오래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러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함평공원의 공적비군과 아직 군내 각처에 흩어져 있는 현감비, 세운지 오래되었지만 자라나는 독특한 석재를 사용하여 근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광면 복흥리 유덕마을에 있는 임타 부자의 비만 언급한다.

1) 현감 남희중 영세불망비(縣監南羲重永世不忘碑)

현감 남희중 영세불망비는 1869년(고종 6)에 건립한 함평읍에서 영광으로 통하는 국도 23호선을 따라 상행하다 보면 약 2Km 쯤에 위치한 대덕리 고양촌 마을 입구 좌측에 있다.

함평에서는 군내에 산재한 현감 및 기타 공적비 19기(基)를 함평공원으로 옮겨 세워놓았으나 이 비만 고양촌 마을 입구에 남아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정, 공적비는 그 비를 건립한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 비하여 이 비는 건립한 주체가 밝혀져 있고, 그런데다가 비명(碑銘)은 분명 <현감 남후희중 영세불망비(縣監南候羲重永世不忘碑)>라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비를 가리켜 <김상원영세불망비(金相元永世不忘碑)>라 부르고 있다.

또한 이 비와 관련된 김상원은 1862년(철종 13) 함평지역에서 일어났던 농민항쟁과 관련되는 인물이기도 하여 주목된다. 이처럼 현감 남희중 영세불망비는 다른 공적비들에 비하여 특별

한 의미가 있어 함평공원내 공적비군과는 별개로 하여 해설하게 되었다.

"이 비가 최초 건립되게 되었던 발단은 1841년(헌종 7)이었다. 이는 전해의 초여름부터 극심한 가뭄이 들어 현내는 물론 도내에서조차 가을에 수확 할만한 곡식이 없게 되자 민심은 흉흉해졌고 또한 그해의 춘궁기에는 문자 그대로 아사지경이었다. 이러한 처참함을 보고 있던 김상원은 도내와 함평 현민의 휼민에 대한 상소를 올렸고, 임금인 헌종(憲宗)은 즉시 사환미(社還米) 수 백석을 내리게 하여 진휼토록 하여 현 내는 물론 도내의 아사지경에 처하였던 백성들은 다시 회생할 수가 있었다. 당시 이러한 공을 세웠던 김상원은 현 내에서 칭송이 자자하게 되었고, 이후 김상원의 나이 70세가 되던 해 고양촌 마을을 비롯한 함평 현민들은 김상원의 장수를 기념하고 또한 진휼의 공을 기리자며 송덕비(頌德碑)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김상원은 "현민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은 불가한 일이다. 이는 일향에 토주(土主)가 계시는데 일개의 민(民)으로서 송덕비라니 이는 만부당한 일이다"라며 양세(兩稅)를 본창(本倉)으로 환속시켜 현민의 고충을 덜어주었던 현감 남희중의 비를 세우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연유로 하여 세워지게 된 이 비는 원래 송덕자로 지목되었던 김상원은 현감 남희중의 송덕비를 세운 비유사(碑有司)가 되고, 비의 주인공은 현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후대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됨으로써 고양촌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 비를 가리켜 현감 남희중의 비가 아닌 김상원의 송덕비라 부르고 있다."(『함향(咸鄕)』(1989년,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48~49면 참조).

김상원(金相元 : 1800~1882)은 원래 현 나산면 이문리 태생으로 자는 성유(聖裕), 호는 파우(破愚)이다. 김상원이 지금의 고양촌 마을과 연을 맺게 되는 것은 그가 중년에 나산면에서 고양촌으로 이거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는 20세 전후부터 함평향교를 출입하였고 어른을 섬기는데 도(道)와 신의(信義)를 근본으로 하였으며, 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 그리고 동·서재를 중수할 때는 앞장서서 일하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도내(道內)는 물론 도외(道外)의 유림, 그리고 이조(吏曹)와 예조(禮曹)에 교분이 두터운 사람이 많아 당시 호남의 거유(巨儒)로 손꼽혔었다.

그러나 김상원에 대한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지않은 의문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는 그가 63세 되던 1862년 함평지역에서 일어났던 농민항쟁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이다. 즉 1862년 당시 함평지역에서는 불합리하게 부과된 결세와 환곡 등 삼정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거듭 등소운동을 전개했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게 되자 급기야 농민들이 항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함평민들이 항쟁을 통해 요구조건을 제시한 「십조앙진(十條仰陳)」의 내용을 보면 결세, 환곡, 군역세, 저채, 잡세 등 모두가 부세문제였다. 여기서 결세, 환곡, 군역세, 잡세 등은 차지하고라도 당시 함평농민항쟁에서 최고의 논점으로 제기되었던 점은 저채에 대한 농민 착취의 문제였다. 당시 현감이었던 권명규(權命圭 : 재임기간, 1859.10.29~1862.4.16)는 저채가 불법으로 사용되는 점을 묵인해 주고 오히려 결염(結殮)을 통해 3만 냥이 넘는 액수를 일거에 징수했던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호장 이희경과 토호 이완헌 등이 저리 차순행으로부터 저채를 빌려 사적으로 식리했던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등소운동에 연명한 사람들에 대해 인적위조에 대한 무고 혐의죄를 뒤집어 씌어 유배의 형을 내리게 되었다. 이때 정한순(鄭翰淳) 등 주도자들은 즉시 체포, 투옥되지 않은 채 향촌민들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설파하며 모임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당시 동헌내면을 비롯한 14개 면에서 자체 모임을 개최하였고, 급기야는 교원 부근에서 전 향촌민이 참가한 도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이때 도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김백환, 진경필, 홍일권, 정길진 등 각 면의 훈장뿐 아니라 이돈일 등 면임이 전원 적극 가담하였고, 이들이 각 면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인솔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 4월 16일 전면 항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통문을 보고 적촌리 장시에 모여든 농민들은 수천 명에 달하였고, 농민들은 각 면리 명을 쓴 깃발을 앞세워 몰려왔는데 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 죽창, 작대기로 무장하였다. 항쟁농민들의 공격 목표는 동헌(東軒)이었고 아울러 지방관과 결탁하여 읍권 장악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토호, 간리배의 축출이었다.

이때 농민들은 정한순의 지시에 따라 읍내로 몰려가 토호 김상원(金相元)과 이완헌의 집을 부수고 불 질렀다. 이들은 당시 저채징수에도 관련하는 등 평소 농민들에게 원성이 높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집을 훼파당한 뒤에도 이들은 계속적인 농민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항쟁이 진정된 5월 10일 이후까지도 도피의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농민들은 주요 직임을 맡고 있던 호장 이희경, 이방 이홍원, 좌수 장채성의 집을 습격하였고, 저채징수에 직접 관여한 간리 모관진, 이희저 등의 집을 부수고 불 질렀다. 그리고 동헌으로 쳐들어가 현감 권명규의 관모와 의복을 벗기어 찢고 현감을 들어다 교촌 길 위에 옮기어 놓은 다음 부정탐학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현감은 갖은 곤욕을 당하였고 농민들은 다시 현감을 함평현 경계 밖의 무안 논치(論峙)에까지 추방하였다. 농민들은 5월 10일 항쟁이 진정될 때까지 교원에 둔취하면서 읍권을 장악하였다.(『용호한록(龍湖閑錄)』 권3, <함평난괴 정한순공초(咸平亂魁鄭翰淳供招)>.<함평공형문장(咸平公兄文狀); 함평현령파출계장(咸平縣令罷黜狀啓) 함평안핵사계본(咸平按核使啓本)>,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제241책, 철종 13년(1862) 임술, 4월 21일조 참조).

이후에 진행되었던 항쟁 내용에 대해서는 후일 이와 관련된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간단히 일지로 정리하였다.

4월 16일 : 전라감사, 함평현감 권명규 파출, 무안현감 정순조를 겸관으로 차정.
4월 21일 : 의정부에서 전 현감 권명규를 압송하기 위해 나장 파견.
4월 22일 : 전라도사 민세호, 함평봉기에 대해 「칭병초란(稱兵召亂)」이라 보고. 신임 현감으로 김기순(金箕絢) 임명. 함평민의 서울 남산 횃불시위 사건이 비변사 계문을 통해 보고.
4월 23일 : 국왕 철종, 함평농민항쟁에 대해 강경대치 지시. 각 진영으로 하여금 포교를 풀어 진압 지시.
5월 4일 : 익산안핵사 이정현에게 함평안핵사의 임무를 추가로 부여.
5월 6일 : 안핵사 이정현 우영장과 함께 함평에 도착.
5월 10일 : 농민항쟁 주동자 정한순 안핵사 앞에 스스로 나타나 「10조앙진」 제시. 안핵사 이정현 광주부사 서경순·장흥부사 박대수·신임 함평현감 김기현에게 조사지시.
6월 4일 : 주동자 정한순, 이방헌, 김기용, 김백환, 진경필, 홍일권 등 6명 효수.
6월 9일 : 안핵사 이정현, 국왕 철종에게 함평농민항쟁 직접 보고.

이처럼 당시 함평지역에서는 참으로 민심이 흉흉하였었다. 그 후 현감 남희중(재임기간;1863.7~1864.11)은 전 현감 김기순(金箕絢;재임기간, 1862.4.23~1862.10.1)과 윤장선(尹

章善 : 재임기간, 1862.11~1863.6)의 뒤를 이어 도임하게 되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현민들에 대하여 조운의 폐단이었던 조운세를 없애고, 또한 배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도와 양세(兩稅)를 본창(本倉)으로 환속시켜 현민을 회생시키는데 공적을 남겼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상원은 당시 지방관과 결탁하여 읍권 장악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토호였을 뿐만 아니라 저채징수에도 관련되는 등 평소 농민들에게 원성이 높았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집을 훼파당한 뒤에도 계속적인 농민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항쟁이 진압된 이후까지도 도피의 생활을 계속하였다고 했다. 이처럼 농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았던 김상원에 대하여 현민들은 어떤 연유에서 송덕비를 세우려고 했을까. 그것도 칭병초란(稱兵召亂)이라 칭할 만큼 대대적인 함평농민항쟁이 일어났던 해로부터 불과 7년 뒤의 일이었다.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해명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자세히 조사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감 남희중영세불망비문>

(전면)

현감 남후희중 영세불망비	縣監南侯羲重永世不忘碑
세거조폐 환보선비	稅祛漕幣還補船費
이재거관 함민회생	二載居官咸民回甦

(후면)

동치 8년 기사 12월 수립	同治八年己巳十二月竪立
비유사 김상원	碑有司金相元
읍리 손광록	邑吏孫光錄

2) 함평 척화비(咸平斥和碑)

척화비는 대체적으로 바닷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세웠던 것이 특징이다. 현재 함평읍 기각리 함평공원내 공적비군과 함께 있는 이 함평 척화비는 처음 함평 어느 지역에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구전되는 바로는 함평읍 석성리 구주포 부근에 있었던 것이라고 전한다.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은 1977년 함평공원을 정화하면서 군청 뒤뜰에 있던 것을 역대 함평현감, 전라도관찰사 등의 공적·선정비 19기와 함께 옮겨졌다.

원래 이 비의 유래는 흥선대원군이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4월 미국함대(함장 로저스)가 경기도 남양(南陽)에 침입한 신미양요를 승리로 이끈 이후 외적을 배척하고 쇄국을 해야 한다는 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해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중요지역에 세우도록 명함으로써 비롯되었다. 비의 크기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정이 없었으나 다만 그 내용만은 모두 통일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당시 전국 각지에 세워졌던 이 척화비는 이후 외국과 통상이 되면서부터 철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남아 보존되는 것으로는 함평 척화비를 비롯하여 서울(보신각 옆에 세웠던 것을 1882

년 땅속에 묻었다가 1915년 경복궁 근정전 앞뜰로 옮김)경복궁 근정전 앞뜰, 전북 고창, 그리고 부산 등 몇 곳에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편 이 척화비는 재질에 있어 쑥돌을 사용한 호패형의 비로 높이 135㎝, 폭 52㎝, 두께 20㎝, 자경(字經) 8~10㎝(대) 4~5㎝(소)이다. 비의 내용은 '서양 오랑캐들이 침범을 하면 싸우지 않으면, 즉 화친을 해야 하는데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 이를 우리 만세 자손에게 일깨운다. 병인년(1866)에 만들고 신미년(1871)에 세웠다(洋夷侵犯非戰則 和主和賣國戒我萬年子孫 丙寅作 辛未立)'라고 되어있다. 이 척화비는 현재 전남 지방문화재 자료 176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국에 남아 있는 척화비들 가운데 그 크기에 있어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질 뿐만 아니라 전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개화기의 역사 유물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3) 현감 홍병위 영세불망비(縣監洪秉偉永世不忘碑)

현감 홍병위 영세불망비는 1872년(고종 9)에 건립한 것으로 현재 대동면 금산리 감산마을 동북쪽 풍산홍씨(豊山洪氏) 선산 입구에 있다.

이 비의 비문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현감 홍병위는 당시 버려진 논밭 농사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였던 공으로 후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토교장(土橋狀) 작인(作人)들이 건립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비의 건립 주체가 토교장이나 작인이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토교(土橋)라는 다리를 만들어 농민들의 농사에 편리를 제공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1930년 간행『속수함평지(續修咸平誌)』의 읍재선생안조에 현감 홍병위의 재임 연월일과 비각(碑閣)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마도 이 비는 최초 그 비각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비는 원래 대동면 향교리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으나 언제 어떤 이유였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현 위치에서 채 1Km도 못되는 운교리 마량마을 입구로 옮겨져 있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러던 것이 그 후 어떤 연유에서인지 대동제에서 내려오는 물도랑 다리의 판석이 되었던 것을 1980년경 풍산홍씨 문중에서 선산 정화작업을 할 때 현재의 위치로 옮겨다 세워놓은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감 홍병위(재임기간; 1868.6.13~1871.4.25)는 문천군수(文川郡守)에서 함평현감으로 발령을 받아 왔다가 만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성부사(長城府使)로 승배되어 갔던 사람인데 전하는 말로는 그의 본관은 남양이었다고 한다. 현감 홍병위에 대한 행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1871년 간행『호남읍지중함평현읍지』누정조의 기록이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1870년(고종 7) 함평현의 남산에다 연예정(鍊藝亭 : 현재는 전하지 않는 유적으로 이 연예정은 1871년 기록 이후 1895년의 읍지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1871~1895년 사이에 없어졌던 것으로 보인다)을 건립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 하나의 자료로는 비문을 써주었던 것으로 1869년(고종 6) 그는 현 월야면 용월리 노장마을 입구에 소재한 이천서씨(利川徐氏) 문중 서중원(徐仲原)의 처 열녀(烈女) 반남박씨(潘南朴氏)의 비문을 찬(撰)하였다.

현재 홍병위 영세불망비는 풍산홍씨 선산 입구 축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비의 크기는 높이

100㎝, 폭 42㎝, 두께 14㎝로 호패형의 비다. 비문은 아래와 같다.

전면

현감 홍후병위 영세불망비	縣監洪候秉偉永世不忘碑,
폐장완부 농불실시	廢(莊)完(簿) 農不失時
일면근고 백년혜택	一面勤苦 百年惠澤

우측면

동치 11년 4월 토교장 작인 수	同治十一年四月土橋狀作人竪

4) 함평공원내 공적비군(功績碑群)

함평읍 기각리 함평공원 내에 있는 공적비군이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은 1977년 함평공원을 정화하면서 군청 뒤뜰에 있었던 역대 함평현감, 전라도관찰사 등의 공적, 선정비를 옮겨 세우게 되면서이다.

다음의 <표>는 이들 공적·선정비들을 건립연대 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함평공원내 선정비군 일람

№	비 명	연대	비신규격(㎝)		
			높이	폭	두께
1	현감이후홍망인위청덕비(縣監李候弘望仁威淸德碑)	1624	124	65	22
2	현감박공정청위선정비(縣監朴公烶淸威善政碑)	1627	127	60	22
3	현감목후성선선정비(縣監睦候性善善政碑)	1627	132	51	19
4	현감안후헌징선정비(縣監安候獻徵善政碑)	1631	126	57	21
5	현감이후만길정청위명휼민거사비(縣監李候晩吉政淸威明恤民去思碑)	1657	97	50	15
6	현감오후이익청백명간휼민선정비(縣監吳候以翼淸白明簡恤民善政碑)	1658	56	48	12
7	현감권후성영세불망비(縣監權候성永世不忘碑)	1665	134	28	惺偕
8	현감이후언경인선정거사비(縣監李候彦經仁善政去思碑)	1702	119	57	30
9	현감권후이진만세불훤비(縣監權候以鎭萬世不諼碑)	1702	120	53	29
10	현감강후시환선정비(縣監姜候時煥善政碑)	1822	156	66	19
11	현감윤후명규선정비(縣監尹候命圭善政碑)	1822	158	62	15
12	현감김후상직애민선정비(縣監金候相稷愛民善政碑)	1853	139	48	20
13	관찰사정공침조영세불망비(觀察使鄭公寢朝永世不忘碑)	1853	154	54	17
14	현감장후일환휼민선정비(縣監張候日煥恤民善政碑)	1853	129	51	17
15	관찰사정공건조영세불망비(觀察使鄭公健朝永世不忘碑)	1869	141	52	22
16	현감김후락균영세불망비(縣監金候樂均永世不忘碑)	1873	116	56	15
17	관찰사이공호준영세불망비(觀察使李公鎬俊永世不忘碑)	1875	155	57	24
18	함평면장이완범불망비(咸平面長李玩範不忘碑)	1927	169	55	20
19	김여사염소시혜불망비(金女史鹽所施惠不忘碑)	1936	144	54	20

앞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재 함평공원 내에 있는 이들 공적비군은 총 19기로서 공원 입구 좌우측에 일렬로 세워져 있다. 이들 비의 종류별, 성격별, 건립 시기별, 형태별로 분류하

면 다음과 같다.

① 종류별 : 현감비 14기, 관찰사비 3기, 기타 2기
② 성격별 : 선정비와 불망비가 각각 8기, 거사비 2기, 청덕비 1기
③ 시기별 : 17세기 7기, 18세기 2기, 19세기 10기
④ 형태별 : 용두(龍頭) 및 귀면형 7기, 호패형 6기, 사각형 2기, 평비형 4기

5) 현감 조후규순 청덕선정비(縣監趙候奎淳淸德善政碑)

현감 조규순 청덕선정비는 학교면 고막리 원고막마을 고막석교(古幕石橋)가 위치한 제방 위에 세워져있는 비이다.

이 비의 주인공인 조규순은 무안현감(1850. 2~1851. 4)을 지냈으며 경술년에 비를 세웠으니 경술년은 1850년으로 재임기간 중에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가 어떠한 이유로 하여 누구에 의해 어디에 최초 세워졌었던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는다. 다만 현재 현감 조규순의 비와 함께 세워져 있는, 즉 <고막대사비>라고 일컬어지는 비가 원래 예전 국도 1호선 도로변(현재 박고흥 집 135번지)에 있었으나 그 뒤 1970년경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다시 옮겨(116번지) 세워졌다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 새로이 단장을 하였다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마도 이 현감비도 같은 곳에 위치했었던 것을 고막대사비와 함께 지금의 위치로 옮겨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현감 조규순비의 형태는 호패형이며 크기는 높이 120㎝, 폭 56㎝, 두께 16㎝이다. 이 현감비의 옆에는 마술을 부려 고막석교를 놓았다고 전해오는 <고막대사비; 현재 비면 전체가 모두 마멸되어 비명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을유년, 높이 95㎝, 폭 56㎝, 두께 18㎝)와 1970년 이후에 고막대사비의 마멸과 고막석교의 산질 등 유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자 새로이 마을민이 건립하였다는 <고막석교유적비>(노근후 지금, 모찬원 씀, 높이 115㎝, 폭 41㎝, 두께 18㎝)가 있다.

6) 현감 서공상정 영세불망비(縣監徐公相鼎永世不忘碑)

현감 서상정의 영세불망비는 함평읍 가동리 가동마을 중앙 나주정씨 삼효비(羅州鄭氏三孝碑) 우측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비신(碑身)과 비좌(碑座)가 함께 뉘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 비가 최초 어디에 세워졌던 것이며, 어떤 연유로 하여 지금과 같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이 비는 원래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고는 하나 언제 어떤 연유로 지금의 위치로 옮겨와 방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 그 정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현감 서상정은 함평, 무안, 영광군의 현감과 군수 명단에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타 자료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현감 서상정은 재임당시 선정을 베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비문의 내용에 그의 덕이 산과 같다고 한 것으로 쉽게 알 수가 있다.

현재 이 비의 비신(碑身) 크기는 높이 164㎝, 폭 53㎝, 두께 21㎝이고, 비좌(碑座)의 크기는 높이 50㎝, 폭 86㎝, 두께 23㎝이며, 비신을 세워 넣기 위해 만들어진 홈의 크기는 높이 21㎝, 폭 54㎝이다.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현재 비가 뉘어져 있는 관계로 비의 후면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비의 전면에 새겨진 글씨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아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으나 판독되는 비문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감후 서공상정 영세불망비	縣監候徐公相鼎永世不忘碑
여산기덕 일심공정	如山其德　一心公(貞)
사해지택 만고청백	(似)(海)之(澤) 萬古淸白”

7) 나주임씨 타(타)·일유(一儒)의 묘비

이 비는 신광면 복흥리 유덕마을 뒷산 나주임씨 선산의 각자 묘에서 약간 떨어진 서쪽에 세워져 있다. 이는 보통 묘비가 상석 바로 곁에 세워져 있는 다른 집안과는 배치가 크게 다르다.

풍수가의 견해에 의하면 묘역의 서쪽이 허(虛)하기 때문에 이 허함을 묘비로써 채웠다는 것이다.

북쪽에 위치한 상주공 임타(尙州公 林타; 자 실지. 호 몽촌. 1593~1664), 남쪽에 위치한 서윤공 일유(庶尹公 一儒; 자 노유. 1611~1684)의 묘비는 정조 1년인 1777년에 세웠는데, 같은 새김 솜씨에 같은 크기인 높이 200㎝, 넓이 80㎝, 두께 33㎝이다. 비를 받치고 있는 대석은 강화도산 화강석, 비신과 용으로 조각된 처마 돌은 푸른 기가 섞인 검푸른 돌로 함경도 함흥산(咸興産)이며 왕이 친히 내린 하사석(下賜石)이라고 전해온다.

그런데 근래에 이 비의 석재가 특수하여 주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신과 처마 돌의 겉면과 글자를 새긴 안면을 보면 따개비나 전복 부스러기 같은 자디잔 접착물이 수없이 박혀 있어 햇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이 접착물이 아주 느리게 자라고 있어 새긴 글자를 메우고 있고, 일부는 이미 2㎜ 가량 내부에서 솟아올라 다듬은 겉면과 함께 떨어져 나갔고, 그 떨어져나간 표면에서 다시 같은 자람이 연속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묘비를 가리켜 자라는 비석이라 일컫고 있고, 언젠가는 비문 전체를 볼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비의 주인공인 임타는 백호 임제(白湖 林悌)의 당질로 광해군 10년인 1618년에 생원 진사과에 합격하였고,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올라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다. 호조 정랑, 오위장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태인·함흥·순창·금산·칠곡·이천·상주·파주·서산 등 수령을 지냈다. 특히 금산 수령 재직 때 12조에 달하는 개혁상소를 올려 채택되었고 이조 참의에 증직되었다.

일유는 1633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한성서윤(漢城庶尹), 인진·용안현감, 함흥판관을 거쳐 이조참판을 역임했다. 그의 셋째 아들인 임영(林泳)은 전라관찰사, 대사헌을 지냈으며 함평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2절 1항 수산사지(水山祠址)를 볼 것>

비의 주인공들이 함흥 수령과 판관을 지낸 사실이 있는 것을 볼 때 왕이 함흥 돌을 하사한 까닭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5절 조선시대 도요지(陶窯址)와 주물지(鑄物址)

1. 완창(完昌)의 자기소(磁器所)와 쌍령(雙嶺)의 도기소(陶器所)

전편 고려시대의 유적 유물 항에서 고려청자요를 현재까지 손불면 양재리에서 5개소, 동암리에서 1개소를 발견한 사실과 특징을 설명한 바 있다.

조선시대의 도요지는 군내 각처에 분포되어 있고『동국여지승람』특산물조에 도자기가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에 들어와 함평의 도자업은 다른 지방에 비해 앞서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조의 도자기는 대략 두 갈래의 큰 조류를 이루면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한 갈래는 쇠퇴해진 고려청자의 뒤를 이어 일어난 조선 분청자기류며 또 한 갈래는 고려백자(高麗白磁)에 근원을 두고 명(明)나라의 영향을 받으며 세련되어 온 백자의 성행이다.

분청자기류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도공들이 거의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감에 따라 그 기법이 전멸되다시피 되었다.

손불면 양재리와 북성리, 나산면 송암리 음지요가 있는 마을에 "정유재란 때 한 굴 가득한 그릇을 꺼내지 않고 묻어 둔 채 도공이 죽거나 잡혀갔다."는 전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함평의 도공들도 화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포로로 잡아간 조선 도공들의 힘에 의하여 도자기업이 크게 성행하였으며 근세에 이르러 세계 제일의 도자기 생산국으로 발돋움을 하였다.

왜란 이전에 조선의 요업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보면 용재총화(慵齋叢話)에 궁중의 그릇을 모두 백자로 했다는 기록이 있어 세종 대에 이르러 백자의 제조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세조 때에는 오랫동안 희구해오던 청화백자(靑華白磁)가 완성되었으며 약간의 석간주(石間硃) 백자와 주점(朱點) 백자도 좋은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화백자, 석간주, 주점백자 등 화사기류(畵沙器類)의 완성은 명나라 청화백자에서 받은 영향과 고려시대의 화청자(畵靑瓷)에서 오는 전통이 혼성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들 그릇은 각 지방의 자기소(磁器所)와 도기소(陶器所)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자기소라 함은 백자기를 만든 곳을 말하며 도기소란 분청자와 잡기류를 만든 곳을 말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전국의 자기소는 136곳으로 <표 1>과 같으며, 도기소는 185곳에 이르는데 우리 함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 "자기소가 1개소인데 현의 북쪽 완창 마을에 있고, 도기소가 5곳인데 2곳은 완창 마을, 2곳은 현의 서쪽 다경 마을, 1곳은 현의 동쪽 쌍령동에 있는데 모두 하품을 만들었다(磁器所一 在縣北完昌里 陶器所五 二在完昌里 二在縣西多慶里 一在縣東雙嶺洞皆下品)."

여기서 자기소 1곳, 도기소 2곳이 있다고 기재된 현의 북쪽 완창(完昌)은 현 지명에는 없다. 다만 대동면 용성리에 '정창(丁昌)'이라 표기하는 마을이 있는데, 원래 '定昌'으로 표기했

었다는 증언이 있어 '定'자로 초(草)한 것을 인쇄 과정에서 '完'자로 오기한 것이 아닐까 하여 이 마을을 조사 중인데 조선자기의 파편이 마을 안길에서 많이 발견되어 입증은 가나 아직 가마터인 것을 입증할 요도구(窯道具)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쌍령의 도기소는 나산면 원선리 쌍령과 해보면 상곡리 모평 앞의 일명 쌍구렁이라는 곳이 아닐까하는데, 쌍령 일대를 조사하였으나 요 터를 찾지 못했고, 쌍구렁은 국도 24호선을 확 포장하면서 일대가 매립되고 깎이어 이곳에 도기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다경리의 2곳은 현재는 무안군 현경면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표 1> 각도의 자기소

출전 : <세종실록지리지>

도 명	총 수	상 품	중 품	하 품	참 고
경 기 도	14	1		13	*상품 : 궁중과 고관이 사용
경 상 도	23		12	11	중품 : 중산층이 사용
전 라 도	35	3	7	25	하품 : 서민들이 사용
황 해 도	31		15	16	
강 원 도	44		4	7	
평 안 도	4		2	2	
함 경 도	13		1	12	
충 청 도	5			5	
계	136	4	41	91	

2. 함평군의 조선자기 도요지

함평군에는 손불면 학산리의 도석(陶石)과 산남리의 도석과 질흙, 월야면의 양정리 질흙, 함평읍 석성리의 질흙 등 군내 각처에 도자기 원료가 풍부히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손불면 산남리의 질흙은 그 품질이 가히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다.

전편 고려시대 유적 유물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평의 도자업 시발은 고려청자를 만들었던 손불면 양재리에서 시발하였다.

좋은 원료가 풍부히 매장된 손불에서 함평의 도자업이 시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양재리에서 시발한 도자업은 조선조에 이르러 군내 전체에 퍼졌는데 함평의 조선조 도요지는 일제 강점기에 분청자 연구를 위해 함평에 정착했던 일인 도예가 야마다만기지로(山田萬吉郎)에 의해 심도 있게 연구되어 일본에서 7권의 연구서를 간행했으며 국립도서관에 그 간행본이 소장되어 있다.(야마다에 대해서는 함평초등학교 소장 유물에서 언급함)

1980년대에 들어 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에서 함평군의 도요지 분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리현석(작고)과 김정영, 박문식 등이 조사에 나서 야마다가 언급하지 않은 도요지를 조사하였고, 1990년에 광주박물관에서 전남의 도요지를 조사하며 우리 군의 도요지 몇 곳을 조사 보고한

바가 있다.

여기서는 그간 조사된 조선조의 도요지 일람(<표2 참조>)과 광주박물관의 조사보고서(1990. 대흥출판사)를 요약 소개한다.

<표 2> 함평군의 조선조 도요지

* 해방 후 1곳 포함

번호	도요지 소재지	연 대 별	만든 그릇	발견년월	발 견 자	참 고
1	손불면 양재리 밭 512	고려~조선초	청자. 분청자	1983	리현석	이종일 소유밭
2	〃 〃 박의구.논	〃	〃	1987. 8	김정영. 박문식	
3	〃 북성리박용기논	조 선 초	분 청 자	1987. 8	〃	
4	〃 〃 사기. 밭	조 선 초	분 청 자	1941. 7	야마다(山田)	
5	〃 〃 승선. 논	조선후기	백자사발류	1988. 8	김정영. 박문식	소유자 배재길
6	신광면 함정리 구봉.논	여말~조선초	청자. 분청자	1988. 8	〃	소유자 김오근
7	〃 〃 바금정	조선초기	분 청 자	1936.10	야마다	김용길 밭
8	〃 월암리	조선후기	백자사발류	1988.11	조광명 제보	
9	대동면 백호리 갈구지	조선초~말	천목(天目)	1934.	야마다	갈구지 저수지 옆
10	〃 금곡리 나막	조선초~중기	천목. 분청	1934	〃	나막저수지 옆 산자락
11	〃 월송리	조선중기	분 청	1934. 4	〃	
12	〃 연암리	조선중기		1989. 4		
13	〃 용성리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2. 도기소 1. 미확인
14	나산면 초포리 사동	조선조말	백 자	1982.12	리현석	도요지 2개소
15	〃 이문리 석지	조선초~말기	분 청	1934.	야마다	도요지 2개소. 토지
16	〃 수상리 대안촌	조 선 초	분 청	1988. 8	김정영. 박문식	소유 정상균
17	〃 신평리 점방, 산	조선중~말기	백 사 기	1988. 8	〃	밭소유자 유영일.
18	〃 송암리 음지	려말~조선초	분 청	1936	야마다	대안촌 입구
19	〃 〃 불매	조선말기	백 자	1990	광주박물관	
20	〃 이문리 오수산	조선중기	분 청	1934	〃	
21	〃 수하리 백인동	조선말기	눈박이 사발	1983.	리현석	전남 도요지 조사보고Ⅱ
22	해보면 산내리 산안 밭	조선중기	분 청	1937. 4	야마다	밭 소유자 이재홍
23	〃 〃 송산	조선조말	백 자	1990	광주박물관	전남 도요지 조사보고Ⅱ
24	〃 광암리박씨선산	조선중기	분 청	1988. 7	김정영. 박문식	
25	〃 〃 가작	조선초기	분 청		광주박물관	전남 도요지 조사보고Ⅱ
26	해보면 상곡리 쌍구렁	〃	자기소 1		세종실록지리지	미확인
27	월야면 예덕리 발산	조선말기	사기. 등잔류	1983.	리현석	
28	함평읍 장년리 장고산	1945	사 기			1964년 요주 김동윤 제보

1) 대동면 금곡리 나막(羅幕) 도요지

요지가 있는 곳은 나막마을 앞 계곡 안쪽에 있는 저수지 위쪽 수면과 인접된 밭이다. 이 요지에서 출토한 분청사기편의 전체적인 특징은 바탕흙이 조질이고 모래 섞인 흙 비짐눈을 이용하였으며 대접, 접시는 덤벙 수법으로 사발, 병, 단지는 귀얄 수법으로 거칠게 백토분장된 점 등 분청사기 말기의 양상이 나타나 제작 시기는 16세기로 여겨진다.

2) 나산면 이문리 석지(石池) 도요지

석지 마을 북동쪽에 있는 계곡 옆의 밭과 야산의 경계지점에 요지가 있다.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완 등이 발견된다. 제작 시기는 16세기로 여겨진다.

3) 해보면 해보리 가작 도요지

가작마을 서쪽에 남북으로 뻗은 산이 있고 이 산의 남쪽 돌출된 부분의 사면에 요지가 있다. 제작 시기는 16세기로 여겨진다.

4) 대동면 백호리 갈구지(渴龜池) 도요지

보화촌 마을에서 백호 저수지로 향하는 소로의 우측 수면과 인접한 산의 사면에 있는데 지금은 밭으로 개간되었다. 요지 주위에 산재해 있는 파편은 대부분 흑유(黑釉)인데 귀얄과 덤벙 수법으로 분장된 밥그릇. 접시, 대접, 병 등도 발견된다. 흑유편의 기종은 사발과 항아리로 입 부위가 전과 같이 납작하며 바닥은 평편하다. 바탕흙은 모래알이 섞인 조질이고 회색을 띠며 암갈색 유약이 얇게 발라져 있다. 전에는 흙 섞인 모래비짐 눈이 부착되어 있고 바닥에는 모래 받침흔적이 있다.

귀얄과 덤벙 수법으로 분장된 편은 대접과 접시의 경우 덤벙 수법으로 사발과 병은 귀얄로 얇게 백토 분장되어 있다. 제작 시기는 덤벙 또는 귀얄 수법으로 백토 분장하고 모래 비짐 눈 받침을 이용한 점으로 보아 16세기 경으로 여겨진다.

5) 나산면 신평리 전방 백자 도요지

신평리 도장등 마을에서 남서쪽 계곡의 산 사면에 있다.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점방 또는 점뱅이라 부르는데 소나무와 잡목이 우거져 가마는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요벽편과 도침, 백자편 등이 쌓여 있다. 이 요지에서 제작된 백자는 유색이 짙은 회색조의 조질 백자로 내저의 원각(圓刻)이 희미해지고 바탕흙 비짐눈과 모래 받침을 함께 이용하였으며 기형이 둔중해지는 것으로 보아 제작 시기는 17세기 후반으로 여겨진다.

6) 나산면 송암리 불매(佛梅) 백자 도요지

불매 마을 서쪽 20m 지점의 야산 사면에 현재 가마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고 주위에는 요벽과 도침, 백자편이 쌓여 있다. 발견된 백자편의 종류는 대접, 바래기, 접시 등이다.

기벽은 두껍고 짙은 회색유가 발라져 있다. 제작 시기는 19세기 경으로 여겨진다,

7) 나산면 이문리 석지 백자 도요지

분청 도요지에서 북서쪽 50m 지점 묘가 있는 밭에 요지가 있다. 가마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밭 가장자리에 요벽과 수많은 백자편이 쌓여 있다. 요지 앞에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모아 둔 저수지가 내려다보인다. 이 요에서 제작된 백자는 대접과 접시류가 대종을 이루며 기형은 대체로 둔중하고 내저에는 원각이 있다.

유색은 청색을 띠는 회색으로 유면이 거칠고 유빙열이 있다. 굽은 거칠게 깎여 있고 접지면이 넓으며 안쪽을 얕게 깎아내었다. 구울 때 바탕흙 비짐눈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일부는 굵은 모래를 4~5개소에 놓아 포개어 구었다.

이런 특징으로 보아 제작 시기는 17세기 후반으로 본다.

8) 나산면 초포리 사촌(沙村) 백자 도요지

이 마을에는 성격이 같은 백자요지가 2개소에 있다. 사촌 도요지에서 채집된 각 기종의 일반적인 특징은 기벽이 두꺼워 둔중함을 주며 안쪽 바닥과 굽바닥에 모래 섞인 비짐눈을 수 개소에 놓고 포개어 구운 것으로 조선 말기인 19세기 백자요에서 제작된 도자기 양상을 보인다.

9) 해보면 산내리 송산 백자 도요지

마을에서 서북쪽 송산 저수지로 향하는 소로를 따라 약 300m 쯤 가면 왼쪽 산 사면에 요지가 있다. 도편은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며 유색은 청색을 띤 짙은 회색으로 굽 안까지 시유되어 있다.

10) 월야면 예덕리 발산(鉢山) 백자 도요지

마을 북서쪽 구릉 사면에 3기의 요지가 있는데 현재 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백자의 제작 시기는 기벽이 두껍고 둔중하며 모래 섞인 흙 비짐눈을 여러 개 놓고 구운 점과 각진 굽의 제기 등으로 보아 19세기 후반으로 여겨진다.

3. 함평군의 옹기요지

옹기의 수법은 먼 백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살림살이 용기다. 도시는 물론 농촌의 장독대에 옹기가 없는 집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옹기에 대한 기호도가 1970년대에 들어서 떨어졌으니 플라스틱이나 스테인 용기 등장과 옹기 제작에 납 성분이 강하게 들어있는 광명단 등을 사용하여 윤택을 강하게 내다가 인체에 해롭다는 보고가 있은 후 인기가 뚝 떨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전라도 옹기 중에서 대표로 꼽는 강진군 칠량면의 옹기마저 폐요 직전에 놓이게 되었으나 옹기의 장점과 자연유를 사용하는 제법의 부활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함평에는 생활용기를 만든 손불면 죽암리 죽림요와 월야면 영월요가 있었고 이들 요에서 생산된 옹기가 타 지방에서 생산된 옹기보다 질이 좋아 여러 지방으로 팔려 나갔다.

이 두요는 조선조 중기부터 개요 된 전통 있는 요였으나 1970년대 말에 제품을 찾는 사람이 줄어 폐요 하였고 지금은 옹기를 만드는 곳이 군내에는 없다.

손불면 석창리 대등요에서 만들었던 술 도가니는 강도와 색깔 등이 뛰어나 가히 전국 제일이었으나 유리병 사용의 확장으로 폐요되고 말았으며 그 제품을 민속박물관에서 밖에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4. 기와요지

엄다면 성천리 와촌(瓦村)이 기와를 구었던 데서 비롯된 지명이고 300년 역사가 있다고 전하나 지금은 요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매몰되어 있으나 보전된 곳은 나산면 삼축리와 학교면 학교리 영화촌이다.

5. 주물지(鑄物址)

가마를 가지고 철물이나 유기의 원료를 생산했던 된 곳은 다음 표와 같다. 지명으로 보아 주물지는 많은 곳이 앞으로 조사될 것으로 본다.

번호	소 재 지	생산연대	만든 기물(器物)	조사년월	조 사 자
1	해보면 광암리 광암	조 선 중 기	철물주조. 솥	1988.	김정영. 박문식
2	대동면 백호회 백년	〃	〃	1983.	조철주 제보
3	나산면 월봉리 유점	조선중기~근세	유 기 그 릇	1989. 2	리 현 석
4	〃 수하리 유점	조 선 말 기	〃	1990. 4	〃

제6절 사찰(寺刹) 유적(遺蹟)·유물(遺物)

1. 용천사 유물

1) 석등

용천사 석등은 해보면 광암리 용천사 경내에 있다. 석등의 재질은 쑥돌이며 현재 지방 유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 2.37m의 이 석등은 1685년 6월에 만든 것으로 크기나 짜임새에 있어 투박하면서도 정

감이 있어 조선조 석등으로서는 대표급이다. 개석 네 귀에 조각한 거북이 형상은 간략한 수법이나 그 모양이 세련되어 볼품이 있다.

이 석등이 세워진 용천사가 6.25때 불타는 바람에 모든 유물이 분실 또는 손상되었는데 이 석등만은 개석 두 귀의 거북만 파손 되었을 뿐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다.

2) 해시계

용천사 해시계는 세로 39㎝ 두께 14㎝의 정사각형 중 꼭 반쪽만 남아 있는 것으로 재질은 쑥돌이며 용천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재작연대가 명기되어 있는 석등과 돌의 재질이 똑같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1685년(강희 24)에 석등을 만들면서 함께 제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해시계는 6.25때 절이 불탄 후 유실되었으나 1980년 경내 흙 덤이 속에서 반 동강이가 난 한쪽이 발견되어 보관중인데 찾아낸 반쪽이 낮 시간에 해당하는 묘시(卯時; 68시)부터 유시(酉時; 18~20시)까지가 표시되어 있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3) 목조여래좌상

용천사에는 법당인 대웅전에 독존불 1구가 전해지고 있다. 6.25때 절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만일 소실되기 직전에 불상을 구해냈다면 원래 17세기에 절을 중창하면서 봉안했던 불상일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다른 곳에서 옮겨왔을 것이다. 어쨌든 이 불상은 조선시대 후기 불상 가운데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 즉 17~1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정교한 불상이다.

재료가 목재인 이 불은 총 높이 79㎝로 대형에 속하는 불상은 아니다. 나발인 반원형의 머리위에 작은 육계가 솟아있고 전면에는 계주가 보인다. 얼굴은 둥근형으로 백호가 있으며 귀도 적당히 내려와 어깨 위에서 멎어있다. 목에 삼도가 나타나고 법의는 통견인데 한 가닥이 왼쪽 어깨를 걸쳐 등허리를 돌아 왼팔을 감고 있다. 법의 속으로는 일자형인 속내의의 허리띠가 보이며 다리는 오른발이 왼발 위로 올라오는 길상좌를 틀고 있다. 수인은 원래 항마촉지인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두 손 모두 아미타 수인인 중품인을 취하고 있다. 결가부좌를 튼 무릎 위로는 천의자락이 부채 살처럼 유려하게 펴져있다.

이 불상은 어깨가 축 처져있고 약간 뒤로 젖혀진 듯한 허리, 그리고 머리를 앞으로 숙인 점 등 조선시대 불상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보이고 있다. 조성연대는 조선후기인 17~18세기경으로 보인다.

4) 석탑(石塔)

이 석탑은 현재 대웅전의 좌측에 있으나 원래의 위치인지는 알 수 없다. 기단부가 원형대로

결구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인 결구기법을 알 수 없다. 현 상태를 보면 맨 밑에 자연석을 짜 맞추어 기단부로 삼고 그 위에 1매의 갑석이 얹혀져 있다. 탑신부로 올라와서는 탑신과 옥개석이 각 1석씩인 3층 석탑인데 상륜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조성연대는 옆에 있는 석등 연대와 같은 조선조 후기로 추정된다.

5) 부도군(浮屠群)

용천사에는 부도 6기가 전해지고 있다. 원래는 사찰의 경내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것인데 언젠가 한군데로 모아놓은 것이라 한다. 모두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용천사 법당에서 우측으로 약 30~40m 떨어진 곳에 있다.

6) 괘불석주(掛佛石柱)

법당 바로 앞에 있는 한 쌍의 괘불석주이다. 우측의 석주는 높이 100㎝, 폭 50㎝, 두께 18㎝이며 구멍이 위 아래로 두 군데 뚫려 있으며 직경이 8㎝이다. 윗면은 부드럽게 호형으로 잘 다듬어져 있다. 좌측의 석주는 전자보다 조금 낮은 높이인데 높이 91㎝, 폭 48㎝, 두께 14㎝이다. 이 석주에는 마모가 심하여 잘 판독되지 않으나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연호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외에도 여기에 시주자의 명단이 음각되어 있으나 희미하여 알 수가 없다. 조성연대는 1688년으로 석등을 만들고 나서 3년 후에 만든 것이다.

7) 석주(石柱)

이 석주는 법당 우측으로 약 30~40m 떨어져 위치한 부도군 바로 뒤편에 있다. 우측 것은 높이 176㎝, 하단직경 70㎝, 좌측 것은 높이 184㎝, 하단직경 60㎝이다. 이들은 두기 8각이며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 좌측의 석주 정상에는 +자형으로 홈 대를 파 놓았다. 외형상 당간지주로도 볼 수 없으며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

8) 불화(佛畵)

용천사에는 지장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 신중탱화 등 4점의 불화가 봉안되어 있다. 비단에 채색이 된 이들은 모두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붉은색과 자주색, 청색과 초록색이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부조화된 인상을 준다.

각각 불화의 규모를 살펴보면 칠성탱화(140×90㎝), 지장탱화(125×80㎝), 신중탱화(135×85㎝), 산신탱화(105×90㎝) 등이다.

2. 보광사 범종(梵鐘)

보광사는 함평읍 함평리 대사동에 있는 절이다.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 범종은 높이 2.1m 위 둘레 2m 밑 둘레 2.65m 직경 0.83m로 종의 주조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의 범종으로써 약 260년 전으로 추측하고 있다. 종의 겉면에 새겨진 바로는 범주(梵主) 가선(嘉善) 이순창(李淳昌), 주지 계잠(戒岑) 덕현(德賢) 정해(丁亥) 3월이라 새겨져 있다.

이 종의 무게는 500근(약 300Kg)이며 종의 출처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탐문한 바에 따르면 원래 무안의 원갑사(圓甲寺) 즉, 일명 강산사(糠山寺)의 종이라는데 원갑사는 백양사의 말사로 무안군 해제면 강산에 있었다고 『면성지(綿城誌)』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원갑사가 폐사되면서 이 종은 해보면 용천사로 옮겨졌으며 6.25때 용천사가 소각되어 뒹굴고 있던 것을 기동대원들이 현재의 보광사로 옮겨왔다고 한다.

이 범종은 쌍용두통으로 중국 계통의 주조형식이며 종의 윗면 문양이 8개, 중간 둘레에 큰 문양 4개가 새겨져 있고 소리가 해맑아 우수한 범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7절 대굴포(大堀浦) 전라수영(全羅水營)

<조선시대 제2장 3항 중 대굴포 전라수영을 볼 것>

제8절 우득록(愚得錄) 각판(刻版)

각판목(刻版木) : 기름에 튀긴 감나무 판자
판 수(版 數) : 54판(앞뒤 각 2쪽 1판 4쪽)
소장처(所藏處) : 엄다면 엄다리 제동마을 곤재 정개청 사당(제동사)

우득록 각판(목판)은 곤재 정개청의 저서로서 1572년부터 88년까지 무려 16년간에 걸쳐 집필한 문학, 철학, 천문, 역학 등 차원 높은 주옥같은 글로서 3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책이 나올 때 교정은 윤선도가 맡았으며 각판은 여러 번 엎치고 뒤치는 당쟁의 환란 속에서도 보관되어온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시 찍은 판본 1질이 현재 나산면 송암리 신경렬 집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로 수록된 제목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권에는 역모 누명을 씌울 때 논란이 되었던 '동한절의' 와 '진송청담설'을 비롯하여 '선악개천리설', '군신직분', '천리인욕교전설', '군자소인상반설', '논선학', '이기설', '논재상천거', '논성패'등 1백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2권에는 18세기

이후에야 서구에서 정립된 형이상하학에 관한 철학 논문이라 할 '논형이상하'를 비롯하여 '학용심성설', '예학설','강신설', '포희앙관찰이건팔괘도', '논태극도상하권', '근동다풍설재어류', '논음양좌우방'등 1백 수종의 글이 실려 있다. 또 제3권에는'제1소'부터 '제7소'까지의 상소문과 '제문' '편지'등 다수가 실려 있다.

<제2절 서원 사우(영당) 단묘편 중 자산서원 항을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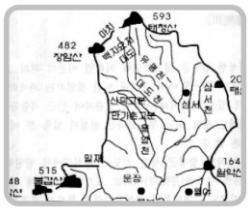
제9절 나산면 초포리 이규행 고가(古家)

<9편 18장 주택의 고가 항을 볼 것>

제10절 문주현(文周顯)의 유품(遺品)

문주현은 1827년생으로 조선 헌종조(憲宗朝)에 무과에 급제했던 인물이다. 그의 유품인 호패(戶牌), 무과 응시 시권(試券), 무과 시험답안지, 교지(敎旨), 어사화(御使花) 등이 대나무로 만든 서류통에 간직되어 후손 문효철 가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는 문주현이 살았던 당시의 사회상이나 개인생활사를 살피는데 증거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일괄유품이라 하겠다.

제10장 고문서 및 전적자료



제1절 고문서(古文書) 및 전적자료(典籍資料) 개요

「고문서 및 전적자료」 편은 지금까지 함평지역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고 누대에 걸쳐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온 각종 고문서 및 전적 자료들을 조사하여 정리한 글이다.

각 시기마다의 고문서 및 전적 자료들은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문서들로서 거짓이 없는 생활사(生活史)의 여실한 기록일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회상(社會相)과 문화(文化)의 단면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1차적 사료(史料)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등한시 하여왔던 관계로 현재도 실은 수많은 고문서 자료들이 산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들어 이러한 고문서 자료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학계나 각종 연구단체에서는 이들 자료들을 역사, 민속, 사회, 제도사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련시켜 연구하는 경향인데, 이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만하다. 광주·전남의 여러 지역에서도 이러한 고문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함평지역 같이 한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그 자료를 한데 묶어 정리했던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순천시의 문화유적』(순천대학박물관 지방문화 자료총서 제1, 순천대학박물관, 순천시, 1992년)의 「고문서 및 전적」편이나 『광주첨단기지 문화유적지표조사』(광주향토문화총서 제9집, 광주직할시,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2년)의 「고문서」편 등에서 고문서를 조사대상으로 하기는 했으나, 자못 내용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필자는 평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 1992년 『함평군의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 함평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고문서 및 전적 자료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가 있었다.

당시 필자는 함평지역에서 세거하는 각 성씨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들을 토대로 하여 조사 자료들을 종류, 시기, 성격별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피려고 하였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각 성씨 가문의 자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되는 유적이나 인물 등을 상호 연계시켜 각 시기마다 함평지역의 사회상과 문화의 특수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어쨌든 여기에서 다루어지게 될 주요 내용은 필자가 당시 『함평군의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에 정리한 함평지역의 옛 문서들이다. 그리고 당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자료를 비롯해 이후 새로이 발견되어진 옛 문서 자료들을 첨가하여 정리하였다.

이들 옛 문서들은 대부분이 함평지역에 널리 산재해 있는 유교유적(서원, 사우, 누, 정, 정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자료들이라 하겠다. 이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인물과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그 후손들이 지방사회에서 유력 성씨로 성장하여가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우가 많다.

제2절 고문서 및 전적 자료의 자료적 가치

일반적으로 학문 쪽에서 다루는 고문서의 의미는 매우 협의로 정의되고 있다. 즉 고문서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게 된 옛 문서'이면서 '문서를 만드는 주체(발급자)와 이를 소지하게 되는 특정한 대상자(수급자)가 있어야' 하고, 또 이와 관련하여 '발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작성된 문서로 규정되어 진다.

다시 말하면 고문서는 "발급자 갑(甲)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자 을(乙)에게 전달한 문서"로 정의되는 셈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논의되는 고문서의 연구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언제, 누가, 어떤 목적에서, 누구에게 준 문서인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고문서는 명확한 수수관계(授受關係)와 목적이 명시되기 때문에 문서로서의 공신력(公信力)을 갖게 되기 마련이며, 그 때문에 생생한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다른 어느 기록물보다도 높게 평가된다. 즉 정부의 편찬물이나 개인문집들이 편찬자의 입장, 목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취사선택된 것인데 반하여, 고문서는 당 시대를 살아간 생활인들의 숨김없는 생생한 자취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고문서 자료는 대부분이 지방 혹은 지방민과 직접 연결된 기록이 많은 점과, 문헌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지닌 수식(과장)이나 이해관계의 반영이 없는 삶의 실제 기록물이라는 점, 그리고 각 시대의 지방 실태나 양상, 사회경제사의 보조 자료나 사적, 유적, 인물에 관련된 기록의 보완작업을 진행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문서의 정의는 마치 오늘날의 공문서와 같은 문서 만에 국한된 느낌이 없지 않다. 이는 보다 넓은 의미의 옛 문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꼭 발급자나 수급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수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흔적으로 일반화되었던 자료들이 있다면 이들은 분명 연구 자료로써 활용되고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당시대의 사회적인 약속으로 의미가 있었다면 그것은 생활문화의 자료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각 시대와 각 지역의 생활문화 실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들 고문서들은 그 1차 사료로서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연구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

다. 그렇게 된 이유로는 첫째 이들 고문서들이 성격상 일회적(一回的)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국한되고 희귀의 정도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관련된 자료가 유일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번 훼실 되거나 산질되면 영원히 그 의미와 사실이 묻혀지는 고고학적 유물과 같은 한계가 있다. 때문에 고문서자료에 대한 관심과 수집이 시기를 다투는 중요한 사정임을 이로써 강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문서 자료들은 자료가 생성된 배경이나 지역적, 시대적인 의미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자료의 작성 주체자가 지니는 사회적인 성격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자료가 지니고 있는 지역성이나 개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연구자가 이들 자료를 종적, 횡적으로 직접 대비하여 활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문서 자료들은 광범하고 지속적인 수집과 정리가 지역별로 행해져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과거의 문화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재해석하느냐가 우선적인 일일 것이다. 또 이 같은 선행적인 작업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같은 자료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어디에 있는지, 또 각 자료마다 어떠한 특징과 한계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흔히 역사학에서는 사료(史料)라고 불려지는 기록 자료를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해왔고, 민속학이나 인류학 같은 분야에서는 구전과 관습행태 등을 그 자료로 이용해 왔다. 물론 민속학이나 인류학의 경우 지금까지는 문자 기록을 자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역사학에 비하여 적었던 관계로 기록 자료의 객관성이나 기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역사학의 경우 민중의 생활사를 이해하려고 할 경우 구전이나 관습 등의 비문헌 자료가 필요해지는 것처럼, 이제는 민속학이나 인류학 분야에서도 자료원의 확대로 점차 기록물을 주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역사연구에 흔히 이용되어 왔던 관찬류(官撰類)의 연대기(年代記)나 제도사적인 법전(法典) 자료들은 대부분 지배층 혹은 중앙중심적인 시각에서 획일화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개인의 저술(문집 등)의 경우도 문장화되고 수식이 심하여 자료로서의 이용에는 많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역사나 문화사를 규명하고 그 성격을 이해하려 할 경우 이러한 여러 기록물들의 한계는 더욱 크게 들어나서 급기야는 역사기록에 대한 불신과 문서자료에 대한 의식적인 거부감까지 생겨난 경향도 있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크게 보이며, 그 때문인지 지역성이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속의 연구과정에서도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상을 반영하는 기록 자료들을 동원하는 연구는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피상적인 의식과 편견과 다르게 우리는 생생한 생활 자료로써 일반적인 편찬 기록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료원으로 이러한 고문서류(古文書類) 자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옛 문서자료들은 어느 유적이나 관련 자료들보다도 시급하게 조사되어 수집 정리되어

야 할 중요한 자료들로서 제4절 <함평지역의 고문서 및 전적자료>에서 소개될 각양각색의 자료들 또한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자료들이라 하겠다.

제3절 옛 문서의 종류와 내용

그러면 본 절에서는 함평지역의 고문서 및 전적자료의 해설과 아울러 자료적 가치 등을 설명하기에 앞서 독자들로 하여금 자료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자료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각 분야별 자료의 해설에 있어서는 특히 문서의 일반적인 성격을 설명하되, 그 고문서 자료가 무엇을 하기 위한 문서로 작성되었으며, 그 문서들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등에 역점을 두면서 정리했다.

1. 호적관련 문서

전통시대에 있어서 호구(인구)수의 파악은 국가 재정상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매 3년마다 전국의 인구수를 행정구역별로 조사하여 출생, 사망, 이주, 도망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호구단자(戶口單子)

각 호주들이 개인의 호구상황을 2부씩 작성하여 관청(官廳)에 제출하는 문서로 오늘날의 호적신고서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2) 준호구(準戶口)

호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관청에서 호적대장을 기초로 재작성해 준 등본을 가르킨다. 이는 백성들이 과거시험, 병역, 소송 등 공적인 업무의 첨부자료나 노비소유 증명, 가문유지(家門維持)의 자료로 삼고자 관청으로부터 호구(戶口) 기록을 발급 받게 되어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문서의 기초로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이 첨부되는 것과 같다.

3) 호적중초(戶籍中抄), 기호성책(飢戶成冊)

호적대장을 개수하기 이전에 마을이나 면단위별로 간략한 인구상황을 조사한 통계문서이다. 때로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호적대장의 내용을 보고 간략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문서의 양식은 오가작통(五家作統)의 기준에 따라 호주의 성명이 기재된다. 그러나 때로는 10가(家)를 1통(統)으로 작통(作統)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하단에 솔거자(率居者)의 숫자가 제시되어 있어

당시의 지역별 총 호수와 인구수를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월악면(月岳面; 현 월야면)의 기호성책(飢戶成冊)은 바로 이러한 호적중초와 비슷한 호적자료라고 할 수 있겠으나 기재양식에 있어 호적중초 보다는 호적대장의 기재 양식과 흡사하다. 예컨대 호적중초에서는 통상 각 마을별로 작통하여 거주 호주의 이름과 그 하단에 동거자의 수치만을 기재하였던데 반해 기호성책에서는 호주(戶主) 및 처(妻)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솔거자녀(率居子女)나 모시고 있는 부모(父母)의 이름과 나이 등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단에는 각각의 사람에 대해 노(老), 장(壯), 약(弱), 아(兒) 등 4가지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호적대장에서 호주와 그의 처에 대한 4조(四祖)와 본관(本貫), 출생년의 내용과 오가(십가)작통(五家(十家)作統)을 적용하지 않았을 뿐 대체적으로 호적대장의 양식과 흡사한 것이다.

4) 호적대장(戶籍臺帳)

호구기록에 관한 자료를 관청에서 책으로 엮은 것을 호적대장이라 하는데 이는 각 호주가 호구단자 2부씩을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게 되어있었다. 관청에서는 이를 3년전의 구호적대장(舊戶籍臺帳)과 대조 확인한 후 1부는 호적대장(戶籍臺帳)을 개수하기 위하여 관청에서 보관하고, 1부는 각 호주(戶主)에게 다시 돌려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호적대장은 한성부(漢城府)와 각 해당 도(道), 군(郡), 현(縣)에서 소장하였던 것으로 작성 단위로는 원칙적으로 면(面)촌(村)이나 리(里)별로 구분하여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에 준하여 작성하였다.

5) 신호적(新戶籍)

갑오경장 이후 새로이 바뀐 호적양식을 가르켜 신호적(新戶籍)이라고 한다. 이 신호적은 1896년 호구조사 규칙 및 세칙이 제정되면서부터 매년 수정되었으며, 거주지를 원적(原籍)으로 정하고 호주가 호구를 신고하게 되어있었다. 이때 신고사항으로는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양자(養子), 파양(罷養), 분가, 일가창립(一家創立), 입가(入家), 폐가(廢家), 폐절가(廢絶家), 재흥(再興), 타인의 호적에 부속(附屬), 이거(移居), 개명(改名) 등을 신고하였다.

기재방식(記載方式) : 호적기재 방식은 연대 거주지 호주 성명 본관 나이 출생년, 호주의 4조(부 조 증조 외조), 호주 처의 사조, 가족(동거인) 및 노비 소유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갑오경장으로 그 양식이 신호적으로 바뀔 때까지 대체적으로 동일하였다. 이러한 호적기록은 신분제도나 가족제도, 또는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며 특히 일가계(一家系)로 연결된 자료일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2. 과거 및 교육관련 문서

1) 시권(試券; 백일장 답안지 또는 과거 채점지)

시권이란 초시(初試)부터 대과(大科)에 이르는 동안에 과거 응시자나 혹은 백일장에 참가한 유생이 제출한 답안지를 말한다. 이 답안지는 관(官)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하였다. 따라서 종이의 규격과 질이 다양하다. 과거시험 응시자는 시험답안지의

오른쪽 상단 혹은 하단에 그의 인적사항 즉 그의 성명, 본관, 나이, 거주지, 4조(부, 조, 증조, 외조)의 신분, 성명, 본관 등을 기록한 뒤 3~4번 접어서 봉하고 그 왼쪽에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고시관(考試官)과 채점관(採點官)이 제출된 답안지에 번호를 일일이 매기고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오른쪽 부분을 절단한 후 채점은 붉은 글씨로 중요부분을 점검하고 낙점(落點; 채점결과)하게 되어 있다. 평가 순위, 즉 차상(次上) 차하(次下)가 결정되면 봉해진 이름을 뜯어 합격자를 방(榜)을 붙여 공고 하였고, 이 과지(科紙)는 후에 응시자에게 돌려주었다.

2) 홍패(紅牌)

홍패는 문·무과의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일종의 합격증서로서 흔히 급제교지(及第敎旨)라고도 한다. 이 문서에 기록된 내용은 급제시기와 급제자의 성명·성적등급 등이었고, 재질로는 붉은 종이(紅唐紙; 중국제 붉은 종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한지(韓紙)에 기록하였다. 문과는 갑과(甲科) 3인, 을과(乙科) 7인, 병과(丙科) 23인을 뽑았다. 이러한 홍패는 한 개인의 이력과 출신을 증빙하는 자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첨부되는 문서 즉 첩지(帖紙)가 있는 경우도 있다.

3) 백패(白牌)

백패는 소과(小科) 잡과(雜科) 이과(吏科) 등에 합격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합격증서로서 홍패와 같이 흔히 급제교지(及第敎旨)라고도 하는데 주로 백색용지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합격시기, 성명, 출신과(생원, 진사, 잡과), 성적등급 등이다. 이 문서 또한 해당 인물의 이력과 경력을 증빙하는 문서로 활용된다.

4) 방목(榜目)

방목은 과거합격자의 명단이다. 문과의 대과(大科) 합격자 명단을 국조방목(國朝榜目)이라 하고, 소과(小科=鄕試) 합격자 명단은 사마방목(司馬榜目)이라 한다. 현전하는 방목은 합격자에게 별책으로 나누어 준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문집의 부록으로 첨부된 경우도 있다. 합격자 명단은 대부분 각 지역의 읍지(邑誌)나 군지류(郡誌類)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의 명단을 별도로 <문과선생안>이나 <사마재안> 등으로 만들어 교육기관(향교, 서원, 서당) 등에 관련 자료로 보존한 경우도 있다. 이 문서는 시기별, 지역별 합격자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고강단자(考講單子) 또는 고과단자(考課單子)

고강 또는 고과단자는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작성된 문서이다. 고강이란 학생들에게 경서(經書)의 한 대목을 제시하고 그 전후의 내용을 암송하고 해석하도록 하여 그 성취도를 평가하는 제도에서 비롯된 문서다.

3. 관리임용관련 문서

1) 교지류(敎旨類)

교지란 국왕이 신하나 백성들에게 관직, 품계, 자격, 시호 등을 내려주는 문서로서 오늘날의 임명장, 발령장, 자격증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지는 시기에 따라 달리 불려지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종류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즉 조선초기에는 왕지(王旨) 관교(官敎)라 하였다가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령(勅令) 또는 칙명(勅命)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교지의 종류에는 고신고지, 급제교지, 추증교지, 시호교지, 사패교지 등이 있다.

고신교지(告身敎旨)는 관리에게 벼슬과 품계를 내려주는 일종의 발령장이다.

급제교지(及第敎旨)는 과거시험 합격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이를 홍패(紅牌) 또는 백패(白牌)라고 하였다.

추증교지(追贈敎旨)는 죽은 뒤에 관직과 품계를 올려주는 것이다.

시호교지(諡號敎旨)는 시호를 내려주는 교지를 말한다.

사패교지(賜牌敎旨)는 왕이 특별히 토지나 물건을 하사하거나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는 교지를 말한다.

이처럼 교지류는 국왕이 신하에 대한 권위의 상징이자 봉건적 관료정치의 유물이기도 하며, 개인의 이력과 경력을 증거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또 이 문서는 해당 가문이나 선조의 권위를 나타내는 자료로 양반가문에 전래되어 오는 고문서 가운데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교첩(敎牒)

교첩이란 조선시대 때 5품 이하의 각 기관 내부의 관직을 임명하거나, 인사이동을 할 때 기관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 오늘날의 인사이동, 혹은 인사발령장과도 같은 것이다. 여기에는 대관의 서명이 있고, 왕명을 받은 시기와 이·병조에서 교첩을 발급한 날짜가 기재된다. 또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 담당자가 수결을 한다. 이러한 교첩에는 대가(代加)와 음가(陰加)가 있다. 대가는 품계에 오를 사람이 자기 대신 자기의 아들, 동생, 사위가 대신 품계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다.

3) 녹권(錄券)

녹권이란 철권(鐵券)이라고도 칭하는 것으로 공신들에게 국가에서 수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고려초기에는 녹권만을 하사하였다고 하나 고려말엽의 중흥공신(中興功臣)들에게는 녹권과 공신교서(功臣敎書)를 함께 하사하였다고 한다. 공신교서는 왕이 직접 내리는 문서이고, 녹권은 왕명을 받들어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발행하였다. 문서는 대부분 필서(筆書), 목활자, 주인책자본(鑄印冊子本) 등으로 해당인에게 1부씩 배포되었다.

함평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진주정씨 정광원 가문에서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을 소장하고 있다. 이는 1605년(선조 38)에 작성하여 배포되었던 것으로 임진왜란 때 공을 세

웠던 정충량(鄭忠良)에게 내려진 녹권이다.

4) 녹패(祿牌)

녹패는 관리에게 녹과(祿科)를 내려주는 것으로 일종의 봉급명세서이다. 녹과는 1과(科)에서 18과(科)로 구분되어 있다.

5) 차첩(差帖)

차첩이란 관청의 장(長)이 관속(官屬)들에게 내리는 첩문(帖文)의 일종으로, 특히 직책에 차정하는 경우를 차첩이라고 구분하여 칭한다. 수령이 향리(鄕吏)나 제관(祭官)을 임명할 경우에도 차첩을 내린다.

4. 명령 및 보고관련 문서

1) 해유문서(解由文書)

해유문서란 관직을 사임하거나 이동될 때 사무 인수인계 문서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관원이 교체될 때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그 사무와 소관물품을 인계하고, 재직 중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기록한 문서이다.

특히 호조 병조관원 및 지방관의 해유는 매우 엄격하였으며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轉職), 승진(昇進), 녹봉(祿俸)에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해유가 완전히 성립되려면 전임관이 후임관에게 보내는 해유이관(解由移關), 해유이관 때 후임관이 관찰사에 올리는 해유첩정(解由牒呈), 관찰사가 호조와 병조에 보내는 이관(移關), 호조, 병조에서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때 이조에 통고하는 이관(移關), 이조에서 전임관에게 발부하는 조흘(照訖)까지 받아야 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이 해유문서는 당시 지방의 행정 및 재정상태, 인사제도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2) 전령(傳令)

전령은 상급관원이 하급관원의 관리(官吏)나 면임(面任) 또는 백성 등에게 보내는 명령서이다. 군사기구에서 특히 많이 활용되었으며 이는 임용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첩문(帖文)

첩문이란 관청의 장(長)이 관속(官屬)들에게 내리는 문서로서 수령이 좌수·별감 또는 제관을 임명할 때 내리는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는 문서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첩(帖)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첩정(牒呈)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는 첩보(牒報)라고도 칭하는 것으로 하급관원 또는 관청에서 상부관원 또는 관청에 올리는 문서를 말한다. 이 자료는 면임, 좌수 등이 수령에게 올리는 문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5. 청원 및 민원관련문서

조선시대 백성들이 왕이나 관청에 자신의 소청 민원을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경로가 있었다. 왕에 대하여 선비들의 경우는 상소(上疏)로, 백성들은 신문고(申聞鼓)나 격쟁의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민원, 청원의 경우는 흔히 소지(所志)라 통칭되는 청원서를 통해 관청에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처럼 소지는 사인(士人)과 서민(庶民)의 생활 중에서 생긴 제반문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생생한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이들 청원, 민원서류들은 각 시대의 지방 실정 및 일반백성들의 처지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어 지방사 연구에는 절대적으로 주목할 자료이다. 또 관청과 관청사이, 관청과 일반백성 사이, 백성들 사이의 제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그 시대인들의 의식범주와 사회성격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1차 사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1) 상소(上疏)

상소는 국왕에게 올리는 글로서 형식에 따라 상소(上疏)와 차자(箚子)로 구분되나 이를 합하여 소차(疏箚)라고도 한다. 상소는 지방 유생층과 관리들이 국왕에게 건의, 청원, 진정 등을 요청한 것인데 반하여, 차자는 대간이나 홍문관 관리가 왕정의 비판, 각종 사건과 관리의 배행 등에 대해 국왕에게 올린 것이다. 이것은 문집에 많이 실려 있기도 하고, 또한 초본이 전해오기도 한다. 상소에는 소를 올리는 사람의 신분과 성명, 연월일이 일정한 문서형식에 맞추어 작성된다. 그러나 문집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또는 초본으로 전해지는 경우에는 투식이 생략되고 본문의 내용만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2) 소지(所志), 등장(等狀), 의송(議送), 상서(上書)

소지는 백성들이 자신의 소청, 민원, 또는 매매를 위하여 관청에 올리는 문서이다. 백성들이 청원, 민원의 내용을 적은 소지를 수령이나 관청에 올리면, 해당 관청(관장)은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데김(제음=題音)이라 한다. 데김이 내려진 소지의 원본은 청원을 한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써 보관케 하였다.

청원의 대상자는 관찰사, 감사, 군수, 현감, 어사 등이다. 이러한 민원의 처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완문(完文)이나 절목(節目) 등으로 작성되기도 하였다. 소지는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소지의 일반적인 것은 산송(山訟), 군역(軍役), 환곡(還穀) 등에 관계되는 것이며, 토지와 노비의 매매를 위해서도 소지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소지는 당 시대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일차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그리고 소지는 내용과 성격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등장(等狀; 연명청원서), 단자(單子), 원정(原情), 상서(上書), 의장(議狀) 등이 그것이다.

등장(等狀)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연명하여 청원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형식과 내

용은 소지와 같다. 의송(議送)은 소송이나 청원 등을 관찰사, 순찰사에게 올리는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형식과 내용은 소지와 같으나 등장, 단자, 상서 등의 양식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양반의 경우 의송을 올릴 때 소유노비의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상서(上書)는 소지류의 일종으로 내용은 산송(山訟), 효행(孝行), 충절(忠節)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형식은 소지와 같다.

3) 입안(立案)

입안은 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개인의 청원에 따라 어떤 사실을 확인하여 공증(公證)해 주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매매와 의송 또는 양자입후를 위해 특정 개인이 소지를 올리면 해당 관청에서는 입안을 발급하여 준다. 따라서 입안은 소지매매명문 등과 함께 연결되어 있었으나 전해지는 과정에서 앞의 것은 탈락되고 입안만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중 양자입사(養子入嗣)를 위한 입안은 예조에서 발급하였다. 토지와 노비 등의 매매에는 반드시 입안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대체로 매매명문의 작성으로 매매가 완결되었으나, 노비의 경우에는 조선후기까지 입안을 발급받았다. 따라서 입안은 노비매매문기와 함께 전래되는 경우가 많다.

4) 통문(通文)

향청, 향교, 서원, 문중, 유생, 보부상 등에서 관계기관이나 구성원에게 공동관심사에 대해 공론(公論)을 얻기 위한 연락용 문서로서 회문(回文)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발급자의 기관과 이름, 그리고 통문을 받을 대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통문의 내용이 관청의 명령에 대한 항거표시를 나타낼 경우 주동자를 감추기 위해 연명을 하지 않고, 문서의 여백에 사발(沙鉢)을 놓고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회람(回覽)하고 서명하기 때문에 사발통문(沙鉢通文)이라고도 하였다.

또 지방유생들이 서원에 배향할 인물을 물색하기 위해 통문을 돌리는 경우에는 각 지방별로 접수하여 서명하고, 아울러 배향인물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특히 사회적, 정치적 활동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촌사회에서 유생들의 위치와 역할 등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이다.

5) 품목(稟目)

서원이나 향교 등에서 상관(上官)이나 해당지역 지방관에게 건의하는 문서이다. 건의에 대한 답변이 품목의 여백에 기록되는데 이를 데김(제음=題音)이라고 한다.

6) 완문(完文)

완문은 주로 관청에서 향교, 서원, 단체, 촌(村), 또는 개인에게 발급해주는 것으로 어떠한 사실을 확인해주거나 권리, 특권을 인정해 주는 일종의 인준(認准)성격의 문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조직에서도 완문이 작성되기도 하나 대개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진정이나 청원에 대해 중앙의 예조, 병조, 호조, 충훈부, 내수사와 지방의 순영, 군, 현, 궁방 등에서 발급해 준

다. 완문의 주된 내용은 관청의 이서(吏胥) 또는 향임(鄕任)들의 불법적인 명령(세금징수), 또는 문중선산의 묘역에 관한 문제, 교생(敎生), 원생(院生), 서원촌(書院村)에 관한 신역(身役), 연호(烟戶), 잡역(雜役), 환상(還上) 등의 면역을 인정 또는 확인해 주는 경우에 많이 활용된다. 문서의 양식은 시행할 내용이 항목별로 적혀있고, 문서의 말미에 지방관청의 실무자가 확인하여 서명 날인(수결)한다.

6. 거래 및 매매관련 문서

1) 명문(明文)

명문이란 토지, 가옥, 노비 등이나 물품에 대한 권리 또는 영업권을 팔고 사거나 주고받을 때 이를 증명하는 근거로서 작성하는 일종의 매매계약서(증명서)이다. 원래 제도적으로는 토지, 가옥, 노비 등을 매매할 경우 매매계약이 있은 지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입안(立案=결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명문의 내용으로는 매매 시기(연대), 매매사유, 매매내용, 가격 등이며 이를 증명하는 매매인, 증인의 성명, 날인 등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날인의 방법으로 사대부는 수결(手決), 그 부인은 인장(印章), 일반 양민은 지인(指印) 또는 촌인(寸印), 천민은 장인(掌印) 또는 수인(手印)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명문은 매매대상이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옥매매문기(家屋賣買文記)를 비롯해 전답매매문기(田畓賣買文記), 노비매매문기(奴婢賣買文記)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가옥 또는 전답매매문기는 가옥이나 전답을 사고팔거나 서로 교환할 때, 또는 샀던 가옥이나 전답을 도로 무를 때에 작성하는 문서로서 가옥(家屋), 전답문권(田畓文券)이라고도 한다. 이 문기에는 연호를 사용했으며 매도인(財主), 매수인, 증인, 필집이 참여했다. 매도사유, 매도물의 소재, 지번, 면적, 매매가격 따위를 기재한 다음 재주, 증인, 필집이 성명을 적고 화압(花押=수결)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매매에 있어서 거래가 성립한 후 15일이 지나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고 매매한 뒤 100일 이내에 관청에 보고하여 허가(立案)를 받아야 하였다.

관청의 입안발급 절차는 매수인이 신청인의 소지(所志)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관할부서에서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입안 발급의 결정을 제음(題音=데김)으로 소지 여백에 써서 돌려주고, 매도인과 증인으로부터 매매사실을 확인하는 초사(招辭=진술)를 받은 뒤, 입안을 완성하여 발급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점차 해이해져서 조선후기에는 입안 발급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답소유자들끼리 서로의 전답을 교환하면서 작성하는 전답교환문기도 있다.

노비문기는 노비의 매매, 상환, 양도 등에 관한 문서로서 노비를 사들인 새 주인이 이를 판 옛 주인으로부터 거래확인을 위해 받는 매매문서이다. 형식은 명문류와 같으며, 내용에는 노비의 이름, 나이, 부모관계, 옛 주인이 조상으로부터 전래받은 노비를 양도하게 된 매매사유 또는

신구(新舊) 소유주의 이름 등이 기재된다. 따라서 이 문서는 특정 노비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증빙하는 자료인 동시에 노비의 신분증서이기도 한 것이다.

2) 수표(手標)

임대, 기탁, 매매, 약속 따위를 할 때 주고 받는 명문과 같은 증서의 하나이다. 때로는 수기(手記)라고도 하여 수표와 서로 혼용되었으므로 용도상 잘 구분되지 않는다.

7. 문중관련 문서

문중관련 문서는 각 성씨 문중에서 각종의 사항과 관련되어지는 일련의 문서들을 말한다.

문중계안(門中契案)은 그 문중계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재하여둔 문서이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문중관련 자료들로는 문임록(門任錄=유사록)과 종계일기(宗契日記), 문중완의(門中完議) 또는 입의(立議), 문중통문(門中通文), 회문(回文) 등이 있다. 문임록(유사록)은 각 문중의 일을 맡아 보는 대표들의 명단을 기재한 문서이고, 종계일기는 종중 또는 문중의 행사 때 집행을 담당한 집사자, 참석자 또는 불참자의 명단, 계에 낸 예전(禮錢)이나 벌전(罰錢) 및 미수금의 내용과 액수, 또는 이러한 사항이 오고 갈 때 작성한 문서류로 종계운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일기이다. 그리고 문중완의와 입의는 문중에서 제사, 묘위, 재산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서로 간에 합의된 사항을 지키자는 뜻에서 작성하였던 문서이고, 문중통문과 회문은 문중에서 그 구성원이나 타 문중 또는 서원 향교 등의 관계기관 인사들에게 상호 관계되는 사항들을 통지하는 문서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해당문중의 정착과정, 성장이나 향촌사회에서의 동향, 문중조직의 내용과 그 담당계층의 성격변화 등을 밝힐 수가 있다. 또한 이들 자료들은 당시 그 문중의 현안문제와 조직의 성격변화, 각 시대별 · 문중별 사회적인 상대적 위상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들로서 지역적인 문제들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는 문서들이다.

8. 혼례 및 장례관련 문서

혼례와 장례에 관련한 자료들로는 예로부터 예(禮)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의 자료들이 있었다. 그중 여기에서는 혼례와 장례에 관련한 사주단자, 연길단자, 의제록송장, 예장지와 장사택일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사주단자(四柱單子)

사주단자는 혼인을 위해 신랑의 생년월일의 간지를 적어 신부 집으로 보내는 단자로 「사성(四星)」「단자(單子)」 또는 「용첩(庸帖)」이라고도 한다. 남자 집에서 청혼의 형식으로 이 단자를 보내면 여자 집에서는 혼인을 승낙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처럼 사주를 주고받는 것을 납채(納采)라 한다. 이는 세로 약 20㎝, 가로 30㎝ 가량의 백지를 다섯 번 접어 그 가운데 칸에 사주를 써넣고 이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은 다음 봉투의 겉면에는 사주(四柱), 뒷면에는 근봉(謹

封)이라 쓴다. 그리고 싸릿대를 반으로 쪼개어 그것을 사주 봉투의 한가운데에 세로로 끼우고, 양끝을 청실홍실로 감되 위에서 밑으로 그리고 밑에서 위로 감은 다음 끝매듭은 동심결로 한다. 이 사주는 청홍색의 사주보에 싸여서 중매인이나 복 많은 사람에 의해 손이 없는 날 신부 집에 전달되는 문서이다.

2) 연길단자(涓吉單子)

신부 집에서 혼인 날짜를 택일하고 이를 알리고자 신랑 집으로 보낸 단자이다. 혼례 시 신랑 측으로부터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신랑, 신부의 생년월일시로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리고 살(煞)없는 날을 골라 택일을 한다. 지역에 따라서 「택일단자(擇日單子)」「날받이」라고도 하며, 그러한 의식을 「납길(納吉)」이라 한다. 연길이 있으면 약혼은 완전히 성립되는 것이다. 연길은 한지(漢紙) 5절지의 가운데에 택일한 날짜를 적고 이를 5번 또는 7번을 접어 보낸다. 연길 서식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인다. 하나는 대례일(大禮日)과 납폐(納幣), 존안일시(尊雁日時)만을 쓸 경우로, 한지 가운데에 「대례연월일(大禮年月日)」이라 쓰고, 이어 「납폐존안동일시(納幣尊雁同日時)」라고 쓴다. 다른 서식은 제목을 「연길(涓吉)」이라 쓰고 신랑 신부의 생년월일시를 각각 내려쓴다. 그리고 혼례 당일 음양오행에 따른 일진(日辰)에 의해 입문시간(入門時間), 납폐 및 존안시간, 함을 놓는 방위, 초례청 설치시간, 대례 당일 피해야 할 주당살과 같은 옥녀(玉女), 태백(太白), 이호(二虎) 등의 방위가 기록된다. 연길 역시 중매인이나 복 많은 사람에 의해 허혼서(許婚書)와 함께 신랑 집으로 보내진다.

3) 의제록송장(衣製錄送狀)

신부 집에서 연길단자와 허혼서를 보낼 때 허혼서와 함께 신랑 도포의 크기를 적은 의제록(衣製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다. 특히 신랑의 도포를 신부 집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상도 지방의 풍속에서 나온 문서다. 이와 관련되는 문서로 의제록단자(衣製錄單子)가 있다. 이는 장제(章製) 또는 의양(衣樣)이라고도 부르며, 신랑이 입을 도포를 신부 집에서 만들 때 참고하기 위하여 길이, 품, 섭, 긴동, 소매 길이 등의 치수를 적어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단자를 말한다.

4) 예장지(禮狀紙)

혼인의 증빙문서로 신랑의 집에서 예단을 갖추어 신부 집으로 보내는 서간(書簡)이다. 두꺼운 종이를 편지모양으로 접어서 사용하는 관계로 예서(禮書), 혼서(婚書), 납폐서(納幣書)라고도 칭한다. 내용은 폐백을 보내니 받아 달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흔히 대례를 올리기 전에 함속에 넣어 함진아비에게 시켜 보낸다. 넓은 의미의 혼서는 사주단자(四柱單子)와 혼인택일에 관한 서장(書狀)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신부가 평생 보관하였다가 죽을 때 관에 넣어 가지고 간다고 한다.

5)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장례 때 음양오행에 따라 그날 일진을 보아 방위와 살(煞)을 가리는데 그 내용을 적은 문서

이다. 대개 장지의 형국과 좌향, 파묘(破墓), 안장(安葬), 계빈(啓殯), 하관(下官), 취토(取土) 시간을 적고 있으며, 또 하관시 보아서는 안 될 간지(干支)와 자손들의 간지가 부기되어 있다.

9. 촌락조직 관련 문서

촌락에서 조직되어졌던 동계(洞契)는 지역사회 구성원 전원을 결속하여 사족 중심의 상하 질서를 강화해 나가려는 목적에서 갖추어진 규약이다. 명칭은 대개 동계, 동약, 동헌, 동규, 이사계(里社契), 동중입의, 동중완의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졌다.

동계는 임란이후 전후복구를 위하여 지역사회 전주민의 협력이 생존조건이었고, 또 전란 중 하층민의 의병활동은 사족들에게 있어서 동반자로 인식되어 종래 사족 사이의 향규와, 하층민 사이의 촌계가 지연(地緣)을 유대로 한 상하합계(上下合契)의 형태로 일원화되면서 성립되었다. 그 내용은 농촌경제의 안정과 동계원의 통제를 통한 상하 신분질서의 확립, 동내 부역의 조정, 혼상(婚喪) 부조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규약에는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동민들의 공동노동을 통해 그것을 해결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10. 개인관련 문서

1) 문집(文集)

문집은 한 개인의 저술을 편집하여 대부분 사후에 간행한 것으로 저자의 인격이나 사상 감정이 잘 드러나 인물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된다. 이와 더불어 저자가 생존해 있을 당시의 시대상, 거주지역의 역사, 민속생활사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문집은 대개 서원이나 문중에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었을 때 출간하게 되는데, 실록(實錄)이나 정사(正史)에서 밝힐 수 없는 사실들도 생활상의 형태로서 보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양반층의 기록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행적을 추앙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제3자에 의해 출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되는 단점이 있다.

문집의 명칭은 저자의 호(號)를 따서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고(文稿), 문집(文集), 실기(實記), 일고(逸稿)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들 문집류는 자료적인 한계점은 있으나 한 인물의 관련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 저자와 관련된 시대나 지역의 사회적인 실상을 밝혀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비슷한 시기의 같은 지역인물 문집은 서로 비교되어야 하고, 각 문집에서 지역이나 민중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 발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함평지역에서의 문집류 자료로서는 기존에 사단법인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에서 자료의 국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1986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연차적으로 자료를 수집 국역 영인화하여 발간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

『정유피란기(丁酉避亂記)』(정호인), 『해상록(海上錄)』(정희득), 『만사록(萬死錄)』(정경득), 『우득록(愚得錄)』(정개청), 『교재집(喬梓集)』(윤제,윤정우), 『송파록(松坡錄)』(나각), 『영언전

(永言傳)』(박봉혁)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2) 행장(行狀)

행장은 한 개인의 일생을 적은 간략한 개인의 약력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일생을 통해서 지역과 당시대의 생활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조망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에 관련되는 자료로는 묘지명(墓誌銘), 묘표(墓表), 묘갈명(墓碣銘), 제문(祭文) 등이 있다. 묘지명이란 죽은 사람의 성명, 행적, 세덕(世德), 자손, 생몰년월일, 무덤의 방향 등을 기록한 것이고, 묘표는 묘역을 알리는 자료로 묘지문이나 지석(誌石)도 이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피장자의 행적이나 전기, 혹은 행적을 칭송하는 명(銘)이 기록되고, 묘갈문이나 비석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제4절 함평지역의 고문서 및 전적자료

본 절에 정리된 함평지역의 고문서 및 전적 자료는 총 671건이다. 이 가운데 고문서류에 해당되는 것이 648건이고, 그 나머지 23건은 전적류의 자료이다.

이들 자료들은 분야별, 성격별 밀집도에 따라 각기 항목별로 분류하여 해설과 아울러 자료적인 가치 등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나, 지면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상 그러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특징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엿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로는 필자가 1990년 초에 조사 정리한바 있는『함평군의 문화유적』「함평의 고문서」(1993년)와 이후 이를 토대로 하여 사단법인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가 펴낸『함평군문헌사료집(하권)』,「문집류 및 고문서류편」등이 있다. 이밖에도『한국의 전통마을④』,「나산 들의 사산마을 옛 문서자료」(1997년)와 『나산마을사』,「옛 문서자료」(1995년)가 있다.

먼저 옛 문서의 종류별 현황을 살펴볼 때 우리 함평지역에서 수습된 대부분의 자료들은 대체로 호적관련 문서를 비롯해 관리임용관련 문서류가 전체자료 총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원 및 민원관련 문서와 과거 교육관련 문서, 그리고 거래 매매관련 문서들 또한 적지 않은 분량의 문서들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함평지역의 옛 문서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이들 자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반면에 나머지 여타 자료들도 수량적으로 볼 때 적은 수효이기는 하지만 이들 자료 또한 당시대에 함평지역민의 사회상이나 각 성씨 문중들 간의 특수성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로서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자료들이다.

한편 함평지역의 옛 문서자료들은 타 지역에서 수습되는 자료들의 양상과 비교해 볼 때 상속관련 문서의 분재기류(分財記類)나 촌락조직 관련의 동계(洞契)와 향약계(鄕約契), 촌계(村契) 문서류(文書類) 등의 자료가 거의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물론 이와 관련되어 보이는 일부 문서가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타 지역의 양상에 비한다면 극히 적은 분량이다.

시기별로는 대체로 18~19세기에 작성 수수된 자료들이 전체 자료 총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호적관련 문서는 18~19세기의 것이 주종을 이루고, 과거 및 교육관련 문서는 19세기, 그리고 관리임용관련 문서는 18~19세기의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청원 및 민원관련 문서는 19~20세기에 주로 작성 수수된 것으로서 그중 상서류(上書類)와 소지류(所志類)가 주종을 이룬다.

그러면 이제 주요 소장처별 자료의 성격을 비롯해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해설 배열은 먼저 고문서는 소장자의 성씨 및 성명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고, 이어 전적류는 전적류의 제목별 가나다순으로 배열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1. 고문서 소장가(所藏家)와 소장 내역

1) 경주이씨 이상근(李相根)

함평읍 기각리 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근(李相根)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류는 총 8건으로 모두 교지(敎旨)이며 시기적으로는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작성 수수되던 것들이다.

8건의 교지는 모두다 이결(李潔)과 관련되는 것으로 1595년의 것이 2건, 1597년 1건, 1601년 2건, 1604년과 1607년의 것이 각각 1건씩이다. 이 가운데 1595년(선조 28) 6월 13일의 교지는 함평지역에서 수습된 옛 문서류 중 시기적으로 제일 앞선 문서이다. 이는 별가(別加)에 의해 이결(李潔)이 종3품의 중훈대부(中訓大夫)로 예조의 예빈사(禮賓寺) 정(正)에 임명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같은 해 10월 1일의 교지는 정3품에 해당하는 절충장군 행충좌위 부사맹 겸 오위장에 임명되었던 내용이다.

한편 그는 1597년 8월 24일 수원도호부사(水原都護府使)에 임명되고, 이후 1601년 4월 11일과 12월 29일, 그리고 이듬해 10월 4일과 1604년 12월 22일, 1607년 4월 4일에는 각각 무관직(武官職)에 임명 승배되어진 내용의 교지이다(<표 1>참조).

<표 1> 이상근(李相根)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교지(敎旨)	1595년	64× 49	국왕(國王)	이결(李潔)	별가(別加)
2	〃	1595년	54× 42	〃	〃	
3	〃	1597년	54× 40	〃	〃	
4	〃	1601년	54× 40	〃	〃	
5	〃	1601년	54× 40	〃	〃	
6	〃	1602년	52× 40	〃	〃	
7	〃	1604년	46× 38	〃	〃	
8	〃	1607년	53× 40	〃	〃	

2) 금성나씨 나광채(羅光埰)

학교면 금송리에 거주하는 나광채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4건이다. 이는 진례향약안을 비롯해 진례면 균부절목 및 부세리정절목, 진례각면리성책 등인데 모두 19세기에 작성된 것들이다.

함평지역은 사족들의 토착적인 전통과 활동이 주목되는 지역이면서도 이제까지 향촌사회 조직을 보여주는 문서들은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그 흔한 향약이나 동계문서가 검출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러한 아쉬움 중 하나였다. 이들 자료를 통한 당시 사회구조나 성격을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는 함평지역에 조선시기의 향촌조직이 없었다기보다는 이에 관한 문서들이 유실되거나 타지로 옮겨 보존된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진례면의 향약자료는 이 같은 아쉬움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게 하여준다. 그리고 진례면 향약의 실체가 확인된 이상 다른 면의 향약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를 유념하면서 다른 자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제명이 「진례향약안」 으로 된 이 자료는 1801년(순조 원년)에 작성된 향약으로 진례면(조선후기에 현재의 학교면에 있었던 무안군 소속의 면)에서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 자료는 표제는 향약안으로 되어 있으나, 서문과 조약, 그리고 참여자의 명단인 약안(좌목)이 모두 합철돼 있다. 서문은 나후근(羅厚根)이 지었는데, 그는 이 서문에서 진례면 훈장으로 차정된 이후 정조의 향약실시 의지를 이어받는 형태로 이 향약이 실시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약조의 내용은 다른 지역의 이 시기 향약과 크게 다르지 않아 4대 강목과 위약자에 대한 차등 있는 벌칙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약조의 말미에는 도정, 부정, 상유사, 유사, 도윤, 사령 등의 직임이 있고, 이어 수령의 수결이 있어 수령향약(주현향약)임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이 자료 가운데에서 함평지역의 사회사 자료로 중시되는 것은 끝에 첨부된 약안(좌목)이다. 여기에는 백인동 이하 모두 15개 마을별로 총 273명의 약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당시의 마을별 성씨구성 및 이들의 사회적 위상을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진례면 균부절목 및 부세리정절목」 은 전후 6년의 시차가 있는 2종의 자료이다. 이는 서로 성격이 같은 문서로 조선후기 각 면 단위의 각종 부세의 내용과 그에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해소책을 정한 일종의 시행령이다. 모두 암행어사의 수결과 마패가 찍혀 있어 순행하던 어사의 민정 처리문서로 보인다.

표제명이 「진례면 균부절목」 으로 붙여진 정축년(1877)의 자료는 내제(內題)가 「호남균부절목」으로 되어 있어 전라감영 전체에 해당되는 부세절목으로 보인다. 암행어사의 진상파악에 이어 사후 조처로서 내려진 이 문서는 서문에서 각 군현의 부세폐단을 개혁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각 면에서 실제 사정을 파악 감영에 성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모두 8개조로 된 조목 내용을 적고 있다. 이어서 당시의 진례면이 속했던 무안현의 각종 세액을 총량으로 적고 토지에 대한 전답 매 결당 각종 세액, 군역세의 부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표제명이 「무안현부세리정절목」 으로 붙여진 문서는 앞의 자료와 연관되면서 당시의 부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진례면 자료이다. 계미년(1883)에 작성된 것으로 부세의 불합리함과

폐정의 혁거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피력한 서문에 이어 모두 9개조의 이정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말미에는 전답 매 결당 징수되는 각종 세액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정확하게 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인명이나 사항이 보이지 않아 작성연대는 불명이나, 내용상 1883년의 문서가 아닌가 일단 추정된다. 이들 두 자료를 통하여 우리는 조선후기 지방사회에 부과된 각 부세의 내용과 부담액,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폐단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례면 각면리성책」 은 앞에서 살핀 정축년의 자료와 연관되는 것으로 부세문제의 구체적인 해소책을 강구하여 성책하여 보고한 후, 이를 토대로 다시 감영의 지시를 받아 무안현의 수령이 예하 각 면에 내린 문서로 보인다.

이 문서는 진례면에 내려진 것이다. 연대는 신사년으로 되어 있어 아마도 1881년으로 추정된다. 서문에 각종 부세의 불균한 사정과 민막의 실상을 열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적었으며, 이어서 각종 부세의 조정 내용을 8개조로 나누어 세액까지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표 2> 참조).

<표 2> 나광채(羅光采) 가 소장 옛 문서

NO	문 서 종 류	발급 연대	규격(㎝)	비 고
1	진례향약안(進禮鄕約案)	1801년	28× 41	57쪽
2	호남균부절목(湖南均賦節目)	1877년	30× 46	32쪽
3	무안현부세리정절목(務安縣賦稅釐正節目)	1883년	29× 44	16쪽
4	진례각면리성책(進禮各面釐成冊)	1881년	19× 34	9쪽

3) 금성나씨 나남채(羅楠埰)

함평읍 가동리 가동마을 출신 나남채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32건으로 대다수가 18세기 초에서 말까지에 걸쳐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이다.

문서의 종류로는 호구단자(준호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외에도 전답 및 노비 매매관련 문서인 명문과 민원 및 청원관련인 소지 등이 있다(<표 3> 참조).

호구단자(준호구)는 약 1세기에 걸쳐 작성 수수된 것으로 3대에 대한 호구상황을 살필 수 있고, 명문은 노비를 매매하였던 내용이다. 그리고 소지는 같은 문중 간에 벌어진 산송(山訟)의 내용으로서 이는 당시 문중간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라 하겠다.

<표 3> 나남채(羅楠埰)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준 호 구(準 戶 口)	1723년	58× 37	함평현감(咸平縣監)	나 중 류(羅 重 瑠)	노(奴)6, 비(婢)6
2	〃	1747년	34× 30	〃	나천익(羅天翼,贊孝)	노1, 비1
3	〃	1749년	48× 37	〃	나 중 류(羅 重 瑠)	노14, 비8
4	〃	1753년	62× 32	〃	〃	?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5	호구단자(戶口單子)	1753년	23× 37	나 찬 효(羅 贊 孝)	함평현감(咸平縣監)	
6	준 호 구(準 戶 口)	1759년	44× 32	함평현감(咸平縣監)	나 찬 효(羅 贊 孝)	노13, 비13
7	〃	1762년	48× 38	〃	〃	〃
8	〃	1762년	33× 33	〃	나 찬 열(羅 贊 烈)	비1
9	〃	1765년	35× 35	〃	〃	노12, 비11
10	호구단자(戶口單子)	1765년	45× 38	나 찬 열(羅 贊 烈)	함평현감(咸平縣監)	〃
11	준 호 구(準 戶 口)	1765년	68× 35	함평현감(咸平縣監)	나 대(羅 玳)	노2, 비3
12	호구단자(戶口單子)	1765년	50× 38	나 대(羅 玳)	현 감(縣 監)	〃
13	〃	1768년	57× 34	나 찬 열(羅 贊 烈)	〃	노12, 비11
14	준 호 구(準 戶 口)	1768년	44× 41	함평현감(咸平縣監)	나 찬 열(羅 贊 烈)	〃
15	〃	1771년	60× 34	〃	나 득 련(羅 得 練)	노3, 비3
16	호구단자(戶口單子)	1771년	29× 36	나 찬 열(羅 贊 烈)	함평현감(咸平縣監)	
17	준 호 구(準 戶 口)	1777년	46× 30	함평현감(咸平縣監)	나 찬 열(羅 贊 烈)	노10, 비11
18	〃	1777년	51× 33	나주목사(羅州牧使)	정 언(鄭 喦)	노6, 비13
19	〃	1780년	47× 39	함평현감(咸平縣監)	나 득 련(羅 得 練)	노2, 비2
20	〃	1783년	45× 33	〃	〃	〃
21	〃	1786년	57× 34	〃	〃	〃
22	〃	1789년	55× 33	〃	〃	노10, 비11
23	〃	1798년	55× 36	〃	〃	노9, 비10
24	호구단자(戶口單子)	1798년	25× 36	정 국 찬(鄭 國 燦)	나주목사(羅州牧使)	金鞍洞 永安
25	준 호 구(準 戶 口)	1801년	56× 36	나주목사(羅州牧使)	정 국 찬(鄭 國 燦)	노8, 비12
26	〃	1888년	47× 32	함평현감(咸平縣監)	나 기 현(羅 基 現)	
27	입 안(立 案)	1703년	170× 29	?	?	
28	산송소지(山訟所志)	1779년	46× 80	찬 효 나(贊 孝 羅)	성 주(城 主)	
29	산송소지(山訟所志)	1779년	60× 90	나 찬 열(羅 贊 烈)	성 주(城 主)	
30	원 정(原 情)	?	200× 23	?	?	진정문, 노비
31	명 문(明 文)	1746년	153× 36	윤 술(尹 述)	나 천 익(羅 天 翼)	노비4 구매득
32	명 문(明 文)	丁亥年	29× 17	정 오 일(鄭 午 日)	나 문 경(羅 文 慶)	先山 매득(先山買得)

4) 나주정씨 정석(鄭錫)

월야면 정산리 고정마을의 정석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15건으로 주로 18세기에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로 관리임용과 과거 및 교육관련 문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문서들을 통하여 살필 수 있는 것으로는 문서의 주체인물이 정률로서 그가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던 행적 등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그리고 과거 교육관련 문서로서 고강단자(考講單子)나 방목(榜目)은 당시의 사회상과 교육제도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라 하겠다(<표 4> 참조).

표 4> 정석(鄭錫)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급자	비 고
1	홍 패(紅 牌)	1762년	64× 90	국 왕(國 王)	정 률	문과급제(文科及第)
2	복시방목(覆試榜目)	정유년	290× 49	?	?	
3	〃	정유년	454× 30	?	?	
4	교 첩(敎 牒)	1763년	66× 56	이조판서(吏曺判書)	정 률	
5	〃	1771년	60× 57	〃	정 함	
6	〃	1778년	77× 55	〃	정형곤	
7	교 지(敎 旨)	1762년	75× 55	국 왕(國 王)	정 률	
8	〃	1766년	72× 56	〃	〃	
9	〃	1767년	70× 59	〃	〃	
10	〃	1776년	70× 51	〃	〃	
11	〃	1776년	70× 51	〃	〃	
12	〃	1776년	77× 58	〃	〃	
13	〃	1777년	75× 57	〃	〃	
14	〃	1790년	70× 52	〃	〃	72세 가자(加資)
15	〃	1790년	70× 52	〃	〃	

5) 남양홍씨 홍영후

신광면 유천리의 남양홍씨 홍영후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준호구(5), 교지(2) 등 총 7건으로 작성 시기는 대체로 18~19세기의 것들이다.

먼저 1747년에 작성 수수된 준호구는 신광면 미출동(米出洞) 제2통 5호에 거주하는 당시 32세의 홍해룡(洪海龍)이 발급받은 것이고, 1753년의 것은 같은 마을 제2통 2호에 거주하는 38세의 홍만종(洪萬鍾)이 발급받은 것이며, 1756년의 것은 홍만종의 나이 41세때 발급받은 것이다. 그리고 1771년의 것은 홍만경(洪萬慶)이, 1807년의 것은 홍응조(洪膺祚)가 발급받은 준호구이다.

한편 1794년에 작성 수수된 2건의 교지가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홍만신(洪萬信)이, 또 하나는 홍만경(洪萬景)이 받은 교지이다(<표 5> 참조).

<표 5> 홍영후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준호구(準戶口)	1747년	52× 34	함평현감	홍해룡(洪海龍)	노 3, 비 6
2	〃	1753년	43× 35	〃	홍만종(洪萬鍾)	노 2, 비 5
3	〃	1756년	26× 33	〃	〃	
4	〃	1771년	37× 34	〃	〃	노 2, 비 7
5	〃	1807년	57× 39	〃	홍응조(洪膺祚)	노 1, 비 4
6	교 지(敎 旨)	1794년	50× 48	국 왕	홍만신(洪萬信)	
7	〃	1794년	50× 48	〃	홍만경(洪萬景)	

6) 남평문씨 문효철(文孝哲)

함평읍 기각리 옥천의 문효철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28건으로 19세기 20세기 초에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이다. 이들 문서류의 주종은 과거 및 관리임용관련 문서들이었으나 이외에도 산송소지(山訟所志)를 비롯해 명문, 준호구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이 가문은 원래 무안에서 대대로 세거하였다가 후대에 현재의 함평으로 이거하여 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표 6> 참조).

<표 6> 문효철(文孝哲)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준 호 구(準 戶 口)	1873년	94× 58	무안현감	문 봉 언	
2	시 권(試 券)	?	150× 73	문 승 달	국 왕	29세, 무안거
3	〃	?	147× 73	문 지 달	〃	22세, 〃
4	〃	?	170× 78	?	〃	생원시 급제
5	〃	?	144× 78	문 주 한	〃	24세, 무안거
6	〃	?	133× 80	문 주 현	〃	25세, 〃
7	〃	?	154× 81	〃	〃	28세, 〃
8	홍 패(紅 牌)	1855년	71× 94	문 주 현	문 주 현	무 과 급 제
9	백 패(白 牌)	1831년	86× 49	〃	문 승 달	생원시 급제
10	사마방목(司馬榜目)	1831년	20× 37	〃	〃	생원시 3등
11	교 지(敎 旨)	1856년	70× 56	〃	문 주 현	
12	〃	1856년	70× 51	〃	〃	
13	〃	1857년	70× 55	〃	〃	
14	교 지(敎 旨)	1857년	70× 54	문 주 현	문 주 현	
15	〃	1858년	78× 56	〃	문주현처조씨	
16	〃	1862년	70× 55	〃	문주현	
17	〃	1904년	61× 36	〃	문봉담	
18	〃	1904년	60× 38	〃	문봉담처최씨	
19	〃	1904년	60× 40	내부대신	문나권	
20	수 교(受 敎)	1791년	28× 35	국 왕	문원태, 종태	역 면제
21	소 지(所 志)	1865년	64× 102	문 주 현	성주	김재걸 암장
22	〃	1865년	40× 79	김재걸외 15	〃	영 광 인
23	〃	1867년	56× 90	김구찬, 두현	〃	각지역 연명
24	〃	1867년	59× 91	문 주 현	〃	
25	〃	1868년	65× 93	〃	〃	
26	명 문(明 文)	1838년	32× 23	김 재 주	?	
27	〃	1868년	63× 52	김례찬, 재철	?	
28	삼현실기(三賢實記)	1851년	19× 30	문벽, 참, 성질	문재흠(발)	장흥 백동사

7) 동래정씨 정진오(鄭鎭午)

나산면 삼축리 하장기의 정진오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2건이다. 문중 및 개인관련 문서인 『종의록(宗議錄)』(1681년)과 문집(文集)인 『정문익공유고(鄭文翼公遺稿)』(1702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조선 중종 때 영의정을 역임하고 그 후 기묘사화 때 피해를 입었던 정광필(鄭光弼; 1462~1538)에 관련되는 문서들로 문중활동 및 개인 인물내역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이다.

정광필의 자는 사훈(士勳), 호는 수천(守天), 시호는 문익(文翼)으로 좌참찬을 역임하였던 정난종(鄭蘭宗)의 아들이다. 그는 1492년(성종 23)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같은 해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옥당(홍문관)의 부제학과 이조참의 등을 역임하다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에게 항소를 올렸다가 미움을 사 아산으로 귀양을 갔다. 그 뒤 다시 중종 때 조정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대사헌, 우참찬, 예·병조판서, 우·좌의정 등을 걸쳐 1516년(중종 11)에는 영의정에 승배되었다. 그러나 그는 또 다시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로 인해 일시 파직되었고, 1537년(중종 32)에는 김안로(金安老)의 참소에 의해 김해(金海)로 귀양을 갔다. 그러나 그해 김안로가 정계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자 다시 석방되었고 사후에는 중종의 사당에 배향되었다.

그의 문집인 『정문익공유고』는 『종의록(宗議錄)』의 간행 이후 정광필에 대한 추숭이 본격화되면서 그의 7대손인 합천군수 정복선(鄭復先)이 1702년 정광필이 남긴 시문 몇 편과 비문, 그리고 그의 고조였던 수죽공(水竹公)의 「구동계소(救桐溪疏)」를 모아 1책으로 집성한 유고이다.

내용은 정광필이 생전에 남겼던 시문 23편과 비문으로 송여해(宋汝諧; 1511년), 송여익(宋汝翼; 연대미상), 하륜(河潤; 1502년)의 묘갈명 등이 첨부되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광필로부터 14대조까지 세계(世系)를 수록하였고, 소세양(蘇世讓)이 찬(撰)하고 이황(李滉)이 서(書)한 정광필의 신도비명(神道碑銘), 정광필의 사적부록(事蹟附錄)과 그의 처 은진송씨(恩津宋氏)에 대한 내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복선의 고조인 수죽공이 올렸던 「구동계소」(1614년)와 자료를 집성할 당시 정복선이 찬한 당숙 동평공재륜부록(堂叔東平公載崙附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종의록(宗議錄)』은 1681년 정광필의 봉사손(奉祀孫)으로 판중추부사 정지화(鄭知和)가 결정되는 과정과 문중의 입의(立議)를 모아 놓은 것으로 직접 함평에 관련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17세기 말의 사손(祀孫) 선정 과정과 선조제향에 관련된 의절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표 7> 참조).

<표 7> 정진오(鄭鎭午)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종의록(宗議錄)	1681년	21×31	?	정지화(鄭知和)	
2	문 집(文 集)	1702년	22.5×35	정광필(鄭光弼), 수죽공(水竹公)		7대손 정복선

8) 안동김씨 김재권(金在權)

해보면 대창리 창서의 김재권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3건으로 18세기 말인 1790년(정조 14)에 작성 수수되었던 교지이다.

3건의 교지는 모두다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였던 김만휘(金萬輝)로 인해 법전(法典)에 의거하여 내려지게 된 추증교지(追贈敎旨)인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부친인 학생 김명백(金明伯)은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의금부사 부총관직에 임명되고, 그의 처숙부인 유씨(庾氏)와 그의 조모(祖母) 이씨(李氏)에게는 각각 정부인(貞夫人)의 직함에 임명되었던 교지이다(<표 8> 참조).

<표 8> 김재권(金在權)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교 지(敎 旨)	1790년	86× 60	국 왕(國 王)	김 명 백(金 明 伯)	김만휘(金萬輝) 부
2	〃	1790년	78× 60	〃	정부인이씨(貞夫人李氏)	김만휘(金萬輝) 조비
3	〃	1790년	85× 60	〃	숙부인유씨(淑夫人庾氏)	김만휘(金萬輝) 처

9) 장수황씨 황의범(黃義範)

대동면 백호리 백년동의 황의범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39건이다. 이들 문서류는 대개 19세기말에서 20세기에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로 민원 및 청원관련 문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외에도 신호적과 명문, 그리고 장례관련 문서인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등이다. 민원 및 청원관련 문서류는 대다수가 효자를 천거하는 내용이고, 명문 또한 모두 전답을 매매한 내용이었는데 이 가문은 효자를 천거하여 명정을 받고자 각 방면으로 계속하여 청원문을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황의범(黃義範)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신 호 적(新 戶 籍)	1899년	22× 36	무 안 부	황 찬 거	금동 주암리
2	〃	1900년	26× 39	〃	황 찬 거	
3	〃	1900년	27× 39	〃	정두해(경주이씨)	타문중자료
4	상 서(上 書)	갑인년	55× 100	유종원외 14	순 찰 사	
5	〃	갑인년	54× 99	이창서외 18	성 주	
6	〃	갑인년	76× 105	김룡해외 21	암행어사	
7	〃	갑술년	60× 92	김재풍외 12	암행어사	
8	〃	정묘년	73× 85	나성환외 11	암행어사	
9	〃	정사년	60× 100	김룡해외 10	〃	
10	〃	무오년	102× 87	이우태외 45	순 찰 사	
11	〃	무오년	60× 100	임규원외 19	성 주	

12	〃	계미년	60× 87	김재현외 6	암행어사	
13	〃	계해년	73× 105	나성환외 14	예조판서	
14	〃	계해년	61× 107	나성환외 14	대종백합하	
15	소 지(所 志)	갑신년	34× 74	황 상 묵	성 주	
16	〃	갑신년	49× 87	〃	〃	
17	〃	을해년	52× 71	황 화 엽	관 찰 사	
18	〃	무자년	53× 95	황 화 엽	관 주	
19	〃	무자년	53× 102	황 학 거	관 사 주	
20	〃	기묘년	35× 64	황 화 엽	관 찰 사	
21	〃	?	43× 78			
22	등 장(等 狀)	갑인년	56× 87	용문면 상하민	성 주	
23	의 송(議 送)	계미년	58× 90	황 상 묵	암행어사	산 송
24	통 문(通 文)	신유년	72× 87	고암서원	나주향교	석천,효 추천
25	품 목(稟 目)	정사년	54× 90	용문면 집강	성 주	〃
26	〃	정사년	70× 90	향중다사	〃	〃
27	〃	기사년	54× 80	향교집강	성 주	효열 추천
28	단 자(單 子)	임오년	53× 85	황상록,영록	향 약 소	면역요청
29	명 문(明 文)	1880년	28× 31	서 학 정	?	전답매매
30	〃	1907년	36× 26	이 춘 원	?	〃
31	〃	1908년	36× 26	김 백 환	?	〃
32	〃	1908년	30× 31	임 사 중	황 행 숙	〃
33	〃	1909년	39× 21	이 문 백	〃	〃
34	〃	1912년	43× 24	김 태 중	황 섭 중	〃
35	수 표(手 標)	계미년	17× 25	?	황 화 엽	
36	효자찬양(孝子讚揚)	?	18× 23	예 조	황 ? ?	
37	효자행장(孝子行狀)	정사년	60× 91	장 헌 주	황 상 녹	
38	장사택일(葬事擇日)	?	53× 35			
39	〃	?	53× 35			

10) 전주리씨 리창규(李昌奎)

엄다면 엄다리의 리창규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3건으로 모두 차첩(差帖)이다. 차첩(差帖)이란 관청의 장(長)이 관속(官屬)들에게 내리는 첩문(帖文)의 일종으로, 특히 직책에 차정하는 경우를 차첩이라고 구분하여 칭한다. 수령이 향리(鄕吏)나 제관(祭官)을 임명할 경우에도 차첩을 내린다.

먼저 1903년의 것은 함평군수가 발급하고 이기호(李淇浩)가 수급한 것으로 이는 유학(幼學) 이기호를 사직제(社稷祭)의 제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1904년에 작성한 나머지 2건의 문서 또한 함평군수가 발급하고 이기호가 수급한 것으로, 이 가운데 6월의 것은 이기호를 엄다면의 집강(執綱; 지금의 면장직)에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10월의 것은 이기호를 엄다면 사수(社首)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표 10> 참조).

<표 10> 리창규(李昌奎)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차 첩(差 帖)	1903년	30× 35	군 수	이기호(李淇浩)	제관 임명장
2	〃	1904년	20× 25	〃	〃	집강 임명장
3	〃	1904년	20× 25	〃	〃	사수 임명장

11) 죽산안씨 안경수

나산면 나산리 출신으로 현재 목포시 대성동 10-2번지에 살고 있는 안경수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류는 총 2건이다. 문서명은 각기 교지(敎旨)와 칙명(勅命)이라 되어 있지만, 실은 같은 성격의 관리 임용 관련문서이다. 이 문서와 관련되는 인물로는 안시량(安時良; 1822~?)과 그의 처 장씨(張氏) 등이다.

먼저 1893년(고종 30) 7월에 발급된 교지는 유인 장씨를 정부인(貞夫人)에 봉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그의 남편 안시량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 교지 말미의 기록 내용을 보면 당시 남편 안시량이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겸 오위장의 벼슬을 맡고 있으므로 법전에 의거 남편의 직책에 따라 부인 장씨에게 정부인이란 직첩을 추증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1902년 11월 8일에 발급된 칙명의 내용은 안시량을 정3품의 통정대부로 품계를 올려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의 나이가 당시 사인(士人)으로써 80세였다는 점 때문에 고종 황제폐하가 은혜를 베풀어 가자(加資)한 것으로 이는 일명 수직(壽職)인 셈이다.

그러나 이 두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간에 맡지 않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1893년 7월의 교지를 보면 안시량이 가선대부, 즉 종2품에 해당하는 벼슬이기에 그의 부인 장씨에게는 정부인이란 직첩을 추증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9년 뒤인 1902년 11월 8일에 발급된 칙명의 내용을 보면 안시량을 정3품의 통정대부로 품계를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곧 안시량의 품계가 종2품에서 정3품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품계를 올린다고 표기하고 있으니 이치에 맡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종2품이었던 사람이 그 이상으로 품계가 올라갔으면 몰라도 이보다 한 등급이 아래인 정3품으로 내려진다는 것은 어딘가 의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893년 7월에 발급된 부인 장씨의 교지와 함께 발급되어졌을 안시량의 교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자료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니 선후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표 11> 참조).

<표 11> 안경수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교 지(敎 旨)	1893년	55× 40	국 왕	유인장씨(孺人張氏)	시양의 처
2	칙 명(勅 命)	1902년	57× 40	국 왕	안 시 양(安 時 良)	당시 80세

12) 죽산안씨 안당순

나산면 나산리 출신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 거주하는 안당순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류는 총 3건이다.

먼저 1534년 3월에 발급한 교지는 안충달이 문과 을과에 2등으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합격 증명서이다. 그리고 1654년 10월 11일에 발급한 교지는 안여지가 문과 병과 14등으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합격증서다.

끝으로 1660년 9월 18일에 발급한 교지는 안여천이 생원시에 27등으로 입격하였음을 증명하는 합격증서이다(<표 12> 참조).

<표 12> 안당순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교 지	1534년	99× 77	국 왕	안 충 달	문과 을과 합격
2	교 지	1654년	103× 74	국 왕	안 여 지	문과 병과 14인
3	교 지	1660년	97× 44	국 왕	안 여 천	생원3등 27인

13) 죽산안씨 안석호(安錫浩)

나산면 나산리 대정마을에 거주하는 안석호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류는 총 9건이다. 이들 문서류는 관리임용 관련문서들인 교첩과 교지 등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 17세기 말에 작성 수수되었던 것들이다. 그리고 문서와 관련되는 인물은 모두 안여기(安汝器 : 1637~1694)와 관련된다.

이들 문서는 나산마을에서 수습된 옛 문서들 가운데 가장 연대가 빠른 시기의 문서들일 뿐 아니라 안여기의 생애 활동사항 중 약 25년 동안의 관리생활에 대한 행적을 일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여겨진다.

어쨌든 안여기와 관련되는 교첩과 교지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모모의 직책에 있는 안여기를 모모의 직책에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5건의 교첩은 이조판서가, 그리고 나머지 4건의 교지는 국왕이 직접 임명한 것이다.

좀더 부연하자면 안여기는 1660년(현종 1) 24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어 33세가 되던 1669년(숙종 10)에 문과 을과(乙科)에 급제하였다. 이로 인해 이듬해 성균관 학유의 초임 관리직에 입문한 이후 이승을 떠나던 1694년(숙종 20)까지 24년 동안 관리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주로 내직인 성균관의 업무를 맡아 보았다(<표 13> 참조).

<표 13> 안석호(安錫浩)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교 첩	1670년	70× 54	이조판서	안 여 기	
2	교 첩	1671년	68× 54	이조판서	안 여 기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3	교 첩	1674년	74× 57	이조판서	안 여 기	
4	교 첩	1674년	70× 57	이조판서	안 여 기	
5	교 첩	1677년	57× 50	이조판서	안 만 재	안여기의 아들
6	교 지	1680년	70× 54	국 왕	안 여 기	
7	교 지	1681년	70× 53	국 왕	안 여 기	
8	교 지	1681년	73× 54	국 왕	안 여 기	
9	교 지	1694년	68× 53	국 왕	안 여 기	

14) 죽산안씨 안재순(安在順)

나산면 나산리 대정마을에 거주하는 안재순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류는 총 14건이다. 그것은 관리임용관련 문서인 교지(11건)을 비롯 혼인관련 문서의 예장지(禮狀紙; 1건), 족보류의 가승보(1건), 기타(1건) 등이다. 작성 시기는 대개 19세기말에 작성 수수되었던 것들이다.

먼저 이들 자료들 중 주목되는 자료는 교지이다. 이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안시악과 그의 아들 안철환과 관련되는 문서들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1883년 9월에 유학 안시악이 받았던 교지 1건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교지는 모두다 안철환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즉 이들 11건의 교지에 대한 주요내용은 1889년 3월 10일 당시 정3품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였던 안철환이 종2품 가의대부 호조참판으로 승직되자 법전의 예에 따라 그의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 모, 처 등에게도 자동으로 직함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이다(<표 14> 참조).

<표 14> 안재순(安在順)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교 지	1883년	50× 44	국 왕	유학 안시악	안철환 부
2	교 지	1889년	50× 45	국 왕	참봉 안철환	
3	교 지	1889년	50× 43	국 왕	승지 안철환	
4	추증 교지	1889년	58× 46	국 왕	임 씨	안철환 처
5	추증 교지	1889년	56× 45	국 왕	가선 안시악	안철환 부
6	추증 교지	1889년	50× 45	국 왕	윤 씨	안철환 모
7	추증 교지	1889년	50× 45	국 왕	학생 안지중	안철환 조
8	추증 교지	1889년	50× 44	국 왕	유인 이 씨	안철환 조 비
9	추증 교지	1889년	50× 44	국 왕	생원 안정노	안철환 증 조
10	추증 교지	1889년	50× 44	국 왕	유인 최 씨	안철환 증조비
11	추증 교지	1889년	50× 45	국 왕	유인 오 씨	안철환 증조비
12	예 장 지	1933년	46× 42	?	참봉 안기주	혼 인 증 빙
13	가 승 보	?	5× 68	?	?	7첩 14면
14	기 타	?	28× 95	?	?	

15) 죽산안씨 안종원

나산면 나산리 출신으로 현재 장흥군 관산면에 거주하는 안종원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류는 총 2건이다. 종류별로는 안치량(安致良)이 생원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지와 안시업(安時業)의 품계를 올린 칙명(勅命)이다.

먼저 1713년 9월 20일에 발급한 교지는 안치량이 생원시험 합격자 33명 가운데 3등으로 32번째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합격 증명서이다. 그리고 1902년 11월 8일에 발급된 칙명의 내용은 안시업을 정3품의 통정대부로 품계를 올려준다는 것인데 품계를 올리는 까닭은 그의 나이가 당시 사인(士人)으로서 88세였기에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 가자(加資)한 것으로 일종의 수직(壽職)인 셈이다(<표 15> 참조).

<표 15> 안종원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교 지	1713년	42× 87	국 왕	안 치 양	생원시 합격
2	칙 령	1902년	54× 40	국 왕	안 시 업	품 계 올림

16) 죽산안씨 안행준

나산면 나산리의 안행준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류는 총 4건이다. 종류별로는 호적관련 문서인 준호구(단자)와 관리임용 관련문서인 교지 및 칙명 등이다. 이 문서들은 시기적으로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작성 수수되었던 것들이고, 관련 인물로는 안종팔(安鍾八; 1808~?)과 안계환(安啓煥) 등이다.

먼저 준호구(단자)는 1867년(고종 4) 당시 식지면 신기리(新基里) 제1통 제1호에 살던 홀아비 유학 안종팔이 60세가 되는 해로 식년(式年)에 따라 작성하여 관(官)에 제출하였던 것 중 1부를 재발급 받은 문서이다. 이는 오늘날의 호적신고서와 등본과 같은 성격의 문서로서 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발급연대와 관청명(함평현), 거주지, 호주의 성명 및 나이와 본관, 부, 조, 증조, 외조(남평문씨), 손자(아들 셋) 등이다.

이밖에도 관리임용 관련문서인 교지와 칙명 등의 문서가 있다. 먼저 이 가운데 1889년(고종 26)에 작성하여 발급된 교지의 내용은 안계환을 무관직인 종4품 선략장군행 용양위 부사과(副司果)에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의 칙명은 1906년 10월 10일에 발급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공명첩(空名帖)이다(<표 16> 참조).

<표 16> 안행준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준호구(단자)	1867년	53× 33	함평현감	안 종 팔	당시 60세
2	교 지	1889년	64× 56	국 왕	안 계 환	
3	칙 명	1906년	53× 40	국 왕		공 명 첩
4	칙 명	1906년	53× 40	국 왕		공 명 첩

17) 진주정씨 정기복(鄭基福)

월야면 월야리 금석마을의 정기복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준호구(準戶口)로 총 2건이다.

작성 시기는 1864년과 1866년으로 함평현감이 발급하고 정오규(鄭五奎)가 수급한 것이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정오규는 64세였고 월악면(月岳面) 순촌(蓴村)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표 17> 참조).

<표 17> 정기복(鄭基福)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준 호 구	1864년	57× 34	함평현감	정 오 규	노비 1
2	준 호 구	1866년	54× 35	함평현감	정 오 규	노비 1

18) 진주정씨 정광원(鄭光源)

해보면 해보리 발미의 정광원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券)』은 1605년(선조 38)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임진 정유란 때 참전하여 공을 세웠던 가문 인물들의 활동상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아울러 이 자료는 당시 참여하였던 인물들에 대하여 각 지역 또는 각 성씨 가문별, 신분계층 등 여러 가지의 면에서 살펴본다면 당시 주민들의 의식구조나 사회 변화상 등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표 18> 참조).

<표 18> 정광원(鄭光源)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녹 권	1605년	2236	국 왕	정충량	선무원종공신녹권

19) 청주한씨 한상태(韓相泰)

학교면 고막리 송암의 한상태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25건이다. 이들 문서류는 대개 18~19세기의 문서들로 준호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 외에도 시권(試券)을 비롯해 백패(白牌), 교지(敎旨) 등도 있다.

이들 옛 문서들 가운데 시기적으로 제일 앞선 것은 1773년 한여태(韓汝泰)가 수직(壽職)으로 받은 가자교지(加資敎旨)이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4대손인 한형교(韓亨敎)가 발급받은 준호구(準戶口)이다. 또한 이들은 대체적으로 3대 90여 년 간에 걸쳐서 작성 수수된 문서들이고, 거주지는 당시 무안현(務安縣)에 속하였던 금동면(金洞面; 지금의 학교면과 대동면 일부지역)이었다.

준호구는 1792년 임자식(壬子式)으로부터 1864년 갑자식(甲子式)까지 모두 19식년분이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 약 5식년분이 빠졌다. 호주별로는 한후량(韓後良) 1건, 한필성(韓弼聖) 8건, 한철이(韓轍履) 2건, 한종이(韓宗履) 1건, 한원교(韓元敎) 3건, 한형교(韓亨敎) 4건 등이다.

문서의 내용과 기재양식에 있어서는 호주와 솔거자녀에 대한 기록만 조금씩 다를 뿐 대체적으로 모두 같은 것들이다. 문서를 통하여 이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이들은 줄곧 무안현 금동면(金洞面) 고막리(古幕里; 현 학교면 고막리)에서 세거하다가 1861년 한형교(韓亨敎=允敎)대에 용현리(龍峴里)로 이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무안 땅에 속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안현감으로부터 문서를 발급 받았으며, 줄곧 노비(奴婢) 3구(口)를 소유하여 왔으나 한형교만 비(婢) 1구(口)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교지 3건 중 1773년 2월 교지는 한여태(韓汝泰)가 당시 81세였으므로 특별히 그에게 가자(加資)하여 통정대부의 직함을 하사하였던 내용이고, 1775년의 교지는 가선대부에 임명된 교지이다. 그리고 같은 해 발급받은 또 하나의 교지는 한후량(韓後良)의 처 유인 밀양이씨(密陽李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봉하는 추증교지이다. 이처럼 이씨가 숙부인으로 임명받게 되었던 사유는 그의 손자 한철이(韓轍履)가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였음으로 법전에 의거 추증된 것이다.

시권(試券)은 1839년과 1843년에 한철이가 과거에 응시하여 작성하였던 시험답안지로 그중 1843년의 것은 그가 진사시(進士試) 3등 제37인으로 합격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백패(白牌)는 1843년 3월 10일에 작성 수수된 것으로 이는 한철이가 진사시에 합격하였던 것을 증빙하는 문서이다(<표 19> 참조).

<표 19> 한상태(韓相泰)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준 호 구	1792년	62× 42	무안현감	한 후 양	노1, 비2
2	〃	1795년	56× 39	〃	한 필 성	〃
3	〃	1798년	61× 39	〃	〃	〃
4	〃	1804년	62× 39	〃	〃	비3
5	〃	1807년	60× 47	〃	〃	〃
6	〃	1810년	66× 38	〃	〃	〃
7	〃	1834년	55× 39	〃	〃	〃
8	〃	1837년	64× 47	〃	〃	〃
9	〃	1837년	38× 45	〃	한 종 이	
10	〃	1840년	58× 39	〃	한 필 성	비3
11	〃	1843년	60× 45	〃	한 철 이	〃
12	〃	1846년	67× 40	〃	〃	〃
13	〃	1849년	67× 42	〃	한 원 교	〃
14	〃	1852년	74× 40	〃	〃	〃
15	〃	1855년	56× 39	〃	〃	〃
16	〃	1855년	57× 40	〃	한 윤 교	비1
17	〃	1858년	54× 41	〃	한희교(윤교)	〃
18	〃	1861년	70× 43	〃	〃	〃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9	〃	1864년	68× 42	〃	〃	〃
20	試 券	1839년	145× 74	?	?	한철리, 56세
21	〃	1843년	145× 70	?	?	한철리, 60세
22	白 牌	1843년	47× 84	〃	한 철 이	진사시 3등
23	敎 旨	1773년	66× 51	국 왕	한 여 태	81세 가자
24	〃	1775년	66× 55	〃	〃	
25	〃	1775년	74× 59	〃	유인이씨	한후량의 처

20) 파평윤씨 윤세기(尹世基)

해보면 상곡리 상모평의 윤세기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6건이다. 이들 문서류는 통문(通文)과 제영문(題詠文) 등으로서 작성시기가 해방 후의 것들이다. 시대는 뒤떨어지지만 서원관련의 사례로서 고식(古式)을 따르고 있으므로 함께 정리하였다.

이중 통문은 내용상 고려조 때의 선조인 윤관(尹瓘)의 사우를 건립하기 위해 각 지역의 향교 유생들과 주고받았던 내용의 문서이고, 제영문은 임천정사(林泉精舍)와 관련된 문기이다(<표 20> 참조).

<표 20> 윤세기(尹世基)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경)통문	1956년	55× 99	함평향교	전라도각향교	윤관사우청
2	〃	1956년	55× 99	나주향교	함평향교	〃
3	〃	1956년	55× 99	광주향교	〃	〃
4	〃	1957년	55× 99	남원향교	〃	〃
5	〃	1957년	55× 99	전주향교	〃	〃
6	제 영 문	?	370× 19	윤서병외16인		임천정사

21) 파평윤씨 윤우중(尹雨重)

파평윤씨 윤우중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1807년에 작성된 준호구 1건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보면 모양리(牟陽里)에 거주하고 있는 당시 37세의 윤인철(尹寅喆)이라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기위해 함평현감으로부터 발급받은 문서이다(<표 21> 참조).

<표 21> 윤우중(尹雨重)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준 호 구	1807년	67× 38	함평현감	윤 인 철	

22) 파평윤씨 윤한식(尹漢植)

파평윤씨 윤한식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3건으로 모두다 관리임명장과 관련되는 일종인 교지(敎旨)이다.

먼저 1681년 12월 20일에 작성 수수된 문서는 통훈대부 행사헌부 장령인 윤길(尹吉)을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예문관 직제학, 상서원 정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증직교지이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같은 해 12월 26일에 작성수수된 것으로 이는 숙부인(淑夫人) 신씨(申氏)와 숙부인 유씨(柳氏)가 받은 증직교지이다(<표 22> 참조).

<표 22> 윤한식(尹漢植)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교 지	1681년	102× 79	국 왕	윤 길	
2	교 지	1681년	102× 79	국 왕	숙부인신씨	
3	교 지	1681년	102× 79	국 왕	숙부인유씨	

23) 하동정씨 정상채(鄭相采)

하동정씨 정상채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교첩(敎牒) 1건 준호구 1건 등 총 2건이다. 먼저 1756년 3월 23일에 작성 수수된 교첩은 이조(吏曹)에서 정5품이던 통선랑(通善郞) 정치도(鄭致道)를 3월 23일자로 같은 품계인 통덕랑(通德郞)에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1771년 정치도가 함평현감으로부터 발급받은 준호구의 내용을 보면 당시 정치도의 나이는 75세였고 영풍면(永豊面) 제25통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23> 참조).

<표 23> 정상채(鄭相采)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교 첩	1756년	국 왕	정 치 도		
2	준 호 구	1771년	함평현감	정 치 도	노 6, 비 12	

24) 함평모씨 모남용(牟楠容)

대동면 용성리 금성동의 모남용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32건이다. 이들 문서류는 대개 18~19세기에 걸쳐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로서 주종은 호적관련 문서인 준호구이다. 이외에도 시권(試券), 교지(敎旨), 차첩(差帖) 등이 있다.

<표 24> 모남용(牟楠容)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준 호 구	1768년	49× 34	함평현감	모 경 장	신호 노5, 비6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2	〃	1771년	44× 35	〃	〃	〃
3	〃	1774년	50× 37	〃	〃	〃
4	〃	1777년	46× 34	〃	〃	〃
5	〃	1792년	37× 43	〃	〃	비2
6	〃	1795년	43× 36	〃	〃	〃
7	〃	1798년	56× 34	〃	〃	〃
8	〃	1807년	50× 35	〃	〃	비2(도망)
9	〃	1810년	48× 36	〃	모 응 내	
10	〃	1810년	56× 34	〃	모 규 원	도망비2
11	〃	1813년	56× 36	〃	모 응 내	
12	〃	1816년	48× 35	〃	〃	
13	〃	1819년	37× 33	〃	모 응 익	
14	〃	1822년	41× 37	〃	〃	개 명
15	〃	1825년	47× 33	〃	〃	
16	〃	1828년	48× 40	〃	〃	도망비2
17	〃	1831년	37× 36	〃	〃	〃
18	〃	1840년	45× 32	〃	모 응 내	〃
19	〃	1843년	52× 32	〃	〃	〃
20	〃	1846년	48× 34	〃	〃	〃
21	〃	1849년	58× 37	〃	〃	〃
22	〃	1852년	54× 30	〃	〃	〃 이거
23	〃	1873년	52× 36	〃	모 규 원	〃 이거
24	〃	1876년	41× 38	〃	〃	〃
25	〃	1885년	52× 36	〃	모 영 진	
26	시 권	?	110× 31	?	모 시 겸	
27	교 지	1756년	68× 55	國 王	모 경 관	
28	〃	1805년	69× 52	〃	모 달 겸	
29	차 첩	1832년	35× 32	觀察使		
30	가 승	?	74× 12	牟景長		13 첩
31	기 타	을축년	37× 32			서 간 문
32	〃	임자년	37× 32			치부 1매

이 가문의 소장문서들은 18세기 말~19세기 초 모경장(牟景長)과 그의 아들 모시겸(牟時兼) 대(代)에 수수되었던 것들로 이후 약 110 여년, 5대(代)에 걸친 가족사항 등을 살필 수 가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이 가문은 뒤에서 살펴본 모정원 가문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모정원, 모남용 가문의 소장 자료의 관련인물인 모경관과 모경장의 부친들은 5형제로 그중 모정원 가문은 장손인 모성경(牟聖耕)의 후손들이고, 모남용 가문은 5형제 중 막내인 모성붕(牟聖鵬)의 손(孫)으로 제일 작은집에 해당하는 셈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두 가문은 당시 같은 형제의 손(孫)들로 대개 “경(景)”자와 “겸(兼)”자, 그리고 “응(應)”자 등 3대(代)에 걸쳐 가문이 번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이들 두 가문의 문서는 서로 같이 대비하여 살

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표 24> 참조).

25) 함평모씨 모상풍(牟相豊)

신광면 삼덕리 덕천의 모상풍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62건이다. 앞서 살핀 모남용 가문과 다음의 모정원 가문과 같은 문족이기는 하나 이 가문은 모성경(牟聖耕), 모성붕(牟聖鵬) 형제의 8대조 모방선(牟方善), 모방익(牟方益) 형제에서 일찍 갈라져 나온 가문이다.

소장한 문서류는 17~19세기에 걸쳐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로 주종은 준호구와 관리임용 관련 문서들이다. 이외에도 민원·청원관련 문서인 소지, 원정, 문중관련 문서인 대문계안(大門契案) 등이 있다(<표 25> 참조). 이중 시기적으로 제일 빠른 문서는 1662년(현종 3)의 것으로 모유추(牟有秋)가 무과에 급제하여 발급받았던 홍패(紅牌)이고, 이후 그의 행적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진 교지들이다. 준호구는 17세기말에 작성되었던 1건 이외에는 이후 약 100 여년 후에 작성되었던 것들이다.

특히 이들 문서들 중 산송소지(山訟所志)는 당시 가문간의 이해관계를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되며, 원정은 이 가문의 가족사항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빚어지는 문제 등을 살필 수 있다는데 가치가 있다. 또한 문중관련 문서로서 대문계안(大門契案)은 당시 이 가문의 정착과정, 성장이나 지역사회에서의 동향, 문중조직의 현안문제와 성격변화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는 문서이다.

<표 25> 모상풍(牟相豊)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준 호 구	1696년	62× 29	함평현감	모유추	매득노5, 비6
2	〃	1798년	41× 43	〃	과부김씨(모한석 처)	신호, 노비 1
3	〃	1801년	62× 31	〃	모철종	
4	〃	1810년	58× 36	〃	모수옥	이 거
5	〃	1813년	48× 40	〃	〃	
6	〃	1822년	56× 32	〃	과부김씨(모수옥 처)	신 호
7	〃	1828년	51× 34	〃	모대발	
8	〃	1831년	48× 34	〃	〃	
9	〃	1837년	55× 34	〃	〃	
10	〃	1840년	57× 35	〃	〃	이 거
11	〃	1843년	61× 33	〃	〃	
12	〃	1846년	63× 35	〃	〃	신매노1, 비1
13	〃	1849년	57× 33	〃	〃	〃
14	〃	1852년	59× 33	〃	〃	〃
15	〃	1855년	58× 37	〃	〃	〃
16	〃	1858년	61× 35	〃	〃	〃
17	〃	1861년	60× 32	〃	〃	〃 이거
18	〃	1864년	65× 39	〃	〃	〃
19	〃	1867년	58× 35	〃	〃	〃
20	〃	1870년	55× 35	〃	〃	〃
21	〃	1873년	56× 33	〃	〃	〃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22	〃	1876년	55× 37	〃	모종훈	〃
23	〃	1879년	56× 35	〃	모태규	개명, 노 1
24	〃	1882년	54× 35	〃	〃	노 1
25	〃	1885년	57× 37	〃	〃	〃
26	〃	1888년	59× 36	〃	〃	〃
27	〃	1891년	57× 33	〃	〃	〃
28	〃	1894년	47× 35	〃	〃	〃
29	홍 패	1662년	80×108	국 왕	모유추	무과급제
30	교 첩	1680년	63× 48	병조판서	모윤흥	가 자
31	〃	1680년	63× 48	〃	〃	〃
32	〃	1680년	63× 48	〃	〃	〃
33	〃	1680년	63× 48	〃	〃	〃
34	〃	1680년	63× 48	〃	〃	〃
35	교 지	1680년	64× 48	병조판서	모윤흥	가 자
36	〃	1699년	73× 52	국 왕	모유추	
37	〃	1699년	75× 53	〃	〃	
38	〃	1734년	70× 55	〃	모윤흥	80세, 가자
39	〃	1734년	75× 54	〃	〃	
40	〃	1740년	58× 54	〃	모국성	
41	〃	1893년	58× 49	〃	모덕기	80세, 가자
42	〃	1893년	60× 49	〃	모양권	효행탁이
43	〃	1893년	57× 48	〃	호판 모양권 처 김씨	
44	〃	1893년	61× 48	〃	모대발	효행탁이
45	〃	1893년	59× 48	〃	좌승지 모대발 처 김씨	
46	〃	1893년	60× 48	국 왕	모한석	효행탁이
47	〃	1893년	58× 48	〃	동몽 모한석 처 김씨	
48	차 첩	1855년	53× 51	현 감	모대발	좌 수
49	〃	1867년	55× 49	현 감	〃	해 창 감
50	전 령	1663년	36× 36	어영대장	모유추	
51	〃	1712년	62× 48	병마절도사	모윤흥	
52	산송소지	1882년	62× 103	모찬협,수영	성주	이진만 투장
53	〃	1882년	67× 37	모순경,찬협	〃	〃
54	〃	1883년	67× 37	모찬협,순경	〃	〃
55	〃	1883년	67× 37	〃	〃	〃
56	〃	1883년	67× 37	모순경,찬협	〃	〃
57	원 정	경오년	83× 39	?	?	
58	〃	〃	153× 39	?	?	
59	대문계안	1817년	28× 24	모씨문중	?	1권(295매)
60	서 예	?	111× 30	?	?	
61	〃	?	111× 30	?	?	
62	고강단자	?	101× 73	?		

26) 함평모씨 모정원(牟正源)

함평읍 내교리 신기의 모정원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39건이다. 이들 문서류는 대개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말에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로서 주종은 준호구와 과거 및 관리임용, 명령보고 관련 문서들이다. 이외에도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았던 사선(賜扇)에 관한 기록과 19세기말 과거시험과 관련되는 각읍공형개탁(各邑公兄開坼) 등이 있다.

<표 26> 모정원(牟正源)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준 호 구	1768년	39× 33	함평현감	모창조(경국)	신 호
2	〃	1795년	56× 35	〃	모 달 원	〃
3	〃	1795년	46× 34	〃	모 대 겸	노 1, 비 1
4	〃	1795년	37× 35	〃	모 순 겸	
5	〃	1798년	52× 33	〃	모 달 겸	노 6, 비 10
6	〃	1801년	66× 36	〃	모신겸(신겸)	노 1, 비 1
7	〃	1810년	61× 37	〃	모 신 겸	비 1
8	〃	1813년	59× 38	〃	모 달 겸	노 2, 비 8
9	〃	1816년	60× 37	〃	모 대 겸	비 1
10	〃	1816년	30× 37	〃	모 대 겸	노 1, 비 3
11	〃	1816년	42× 38	〃	모 달 겸	비 1
12	〃	1840년	42× 34	〃	모 응 춘	신호, 노비
13	〃	1852년	50× 38	〃	모 규 정	노비, 비 2
14	〃	1858년	58× 33	〃	〃	비 5
15	〃	1867년	46× 31	〃	모 규 찬	〃
16	〃	1873년	51× 37	〃	〃	
17	〃	1882년	39× 45	〃	〃	비 1
18	시 권	1801년	61× 100	모 응 원	국 왕	
19	〃	1813년	61× 107	모 응 삼	〃	
20	〃	1814년	194× 140	〃	〃	
21	시 권	?	120× 44	모 응 삼		
22	홍 패	1789년	58× 85	국 왕	모 달 겸	
23	백 패	1814년	49× 87	국 왕	모 응 삼	문과급제
24	교 첩	1753년	73× 57	이조판서	모 경 관	생원시급제
25	〃	1753년	123× 100	〃	〃	
26	〃	1753년	133× 100	〃	〃	
27	〃	1754년	76× 55	〃	〃	
28	교 지	1757년	78× 56	〃	모 경 관	
29	〃	1793년	77× 56	국 왕	모 달 겸	
30	〃	1801년	69× 53	〃	〃	
31	〃	1802년	74× 56	〃	〃	
32	〃	1806년	73× 54	〃	모 달 겸	
33	〃	1813년	80× 58	〃	〃	
34	〃	1814년	79× 57	〃	〃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35	해유첩정	1804년	63× 60	모 달 겸	관 찰 사	
36	해유이관	1805년	63× 60	모 달 겸	호조판서	제원찰방
37	차 첩	1789년	78× 58	이조판서	모 달 겸	
38	공형개탁	1803년	115× 50	제원찰방	각 지 역	시험관 행차
39	어 사	1811년	25× 35	국 왕	모 달 겸	유별선일파

문서류에 나타나는 관련인물을 살펴보면 대개 모경관(牟景觀)을 비롯한 그의 아들 모달겸(牟達兼)과 손자인 모응삼(牟應三)이다. 모달겸은 1789년(정조 13) 문과에 급제한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던 인물이고, 그의 아들 모응삼은 생원시에 합격하였던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이 가문은 이들 부자 특히 모달겸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다음부터 가문이 번성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정원 가문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들 중 해유문서(解由文書)는 이 문서와 직접 관련되어지는 모달겸의 행적을 살필 수 있으나 아쉬운 점은 다른 해유문서에 첨부된 것과 같은 지방행정 및 재정상태, 또는 인사자료는 없다(<표 26> 참조).

27) 함평이씨 이건교(李建敎)

나산면 초포리 사산의 이건교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4건으로 시기적으로는 17세기 초에서 18세기 초에 작성 수수되었던 것들이다.

먼저 표제가 『봉사부군일기(奉事府君日記)』 라는 쓰인 자료는 조선조 광해군 때에 이진문(李振門; 1560~1650년경)이 작성한 것으로 가문 및 인물에 대한 모습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진문이 살았던 당시의 국가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내용 가운데 시조문학상 보기 드문 월령체가의 시조인 「경번당가」 14수(首)가 실려 있기도 하여 국문학적으로도 매우 중요시 되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사산마을 출신이자 금번 군사편찬위원이면서 전남대학교 교수인 이홍길(李洪吉)에 의해 같은 대학 박준규(朴焌圭) 교수가 입수하여 이미 학계에 소개한 바가 있다. 필자는 실제 이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다행이도 1991년 11월 16일 모산(慕山) 학술연구소 전국학술대회에서 시조문학을 연구 발표한 박준규 교수의 「경번당가 고(考)-신자료 봉사부군일기를 주로 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 일기책은 조선조 광해군 때에 사산마을 함평이씨가문의 소장자 이건교의 13대 조상인 이진문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관서지방의 관방에 나아가 그곳의 생생한 생활체험을 쓴 일종의 관방일기이다. 때는 명(明)의 요청으로 후금군(後金軍)을 치기 위해 출군한 도원수 강홍립(姜弘立; 1560~1627)이 항복한 2개월 후이기 때문에 북방의 국경은 이를데 없이 험악하게 긴장된 상태였다. 그러한 시기에 이진문이 이른바 위술병(衛戍兵)으로 뽑혀 천리 타향인 북쪽 변방으로 향

하였다. 이 일기는 작자가 집에서 출발하여 국경 관방지에 이르고, 또 그곳에 머물다가 귀가하기까지 1년여 기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동안 탐방하고 머물렀던 곳의 풍습과 역사, 인정과 풍물은 물론 관방지에서의 쓰라림과 망향의 그리움, 그리고 탐승(探勝)의 흥(興)과 절서유감(節序有感) 등을 담은 귀중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지금으로부터 376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오랜 세월동안 여러 사람의 수중에 들면서 훼손된 부분이 적지 않다. 세로 24㎝, 가로 17㎝, 표지를 합하여 총 54장의 한지에 붓글씨로 쓴 한자기록의 작은 책이다. 기술된 내용을 보면 「일기(日記)」, 「경번당가」, 「증 김장군 응하요동백(贈金將軍應河遼東伯)」, 「김장군 응하전(金將軍應河傳)」, 「김장군 응하 사제문(金將軍應河賜祭文)」, 「이통제사 봉굴격문(李統制使逢屈檄文)」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일기는 세필(細筆)의 글씨임에 대해 그 밖에는 모두 일기문보다 더 큰 글씨로 쓰여져 서로 구별된다.

겉표지에는 『봉사부군일기(奉事府君日記)』 라 쓰여 있고, 아울러 세필로'진경신(盡庚申) 6월 환가(還家)'라 한 기록이 있다. 다음의 첫 장은 앞면에'만력 47년(1619) 기미 5월 5일 소(小)'라 하였고, 뒷면에는 음력 5월 1일부터의 일기가 시작된다. 지면이 훼손되어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나 1619년 5월 1일의 일기 끝에 '자 파주 지 장단 40리 일식(自坡州至長湍四十里一息)'이라 하였다. 그 다음 같은 체제로 4일의 기록에 '자개성 지차저탄 30리 일식(自開城至此猪灘三十里一息)'이라 하였고, 8월의 기록에는'지의주(至義州)'라 써져 있다. 그리고 9월과 10월의 기록에'재의주(在義州)'라 함을 보면 이는 집을 출발한 후 경기도 파주의 여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평북 의주 등 북방에 머물다가 전남 함평의 고향에 환가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축일식(逐日式)의 서술이다. 그리고 일기의 끝부분은 환가하던 달의 기록이다. 그런데 끝에 해당하는 6월의 일기는 먼저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록(a)이 나오고, 다시 1일부터 4일까지의 기록(b)이 앞의 (a)에 이어서 다른 내용으로 후속되고 있어 일정의 중복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에 나타난 환가 과정의 통과지역으로 보아 (b)는 (a)에 이어 축일로 쓴 11일부터 14일까지의 일정이다. 이는 편리하게 십 단위의 숫자 표시를 생략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지적한 만력 47년 기미는 광해군 11년(1619)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다는 경신년은 그 다음해이다. 이런 점에서 이 일기는 1619년 5월 1일부터 익년 6월 14일까지의 생활을 담은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흥미 있는 기록들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행진(行進)과 관방지의 주둔
② 상경(賞景)
③ 고향을 그리는 꿈과 눈물
④ 작시(作詩)로의 술회

①의 행진(行進)에는 이미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출발과 주둔하던 지역, 그리고 환가할 때 경과하던 곳 등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어 기행일기의 느낌을 준다. 이진문이 관방했던 곳은 평북 의주를 중심으로 한 국경지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의 상경(賞景)은 이름 있는 지역들에 이를 때마다 경취 좋은 곳을 찾아다닌 흥취를 기록한 것들이다.

③의 내용은 고향의 부모님과 아내, 또는 친지들을 그리워하는 꿈으로 거의 매일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당시의 관방생활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망향의 정으로 안절부절 했던 것을 짐작케 한다.

④의 작시(作詩)도 일기의 곳곳에서 흔히 보는 예이다. 또한 이진문은 당시 관방생활에서 동향(同鄕)의 다정한 사이인 선술(善述)이라는 사람과도 함께 생활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1월 8일의 기록에 "동향인 선술의 아픈 손을 거두고"라는 글귀가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자료에는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시조 자료인 월령체 시조와, 명(明)의 요청에 의해 원군으로 출군하여 적과 싸우다가 부차령(富車嶺)에서 전사한 김응하(金應河) 장군의 전기(傳記)가 실려 있기도 하여 당시의 사실을 전하는 자료로서도 매우 소중한 자료라 하겠다.

이중 월령체 시조인 경번당가 14수는 1년 열두 달 세시 절서에 따른 감회를 노래한 세시가요이다. 이는 달거리 노래이기 때문에 월령체가라고도 부른다. 국문학상 이 같은 노래는 고려가요인 「동동(動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시조형에서 보기 드문 흥미있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동동(動動)」에 비길 만치 우수하여 국문학상 손꼽는 시적 작품이다.

이진문은 함평이씨 시조 이언(李彦)의 18세손으로 자는 창달(昌達), 호는 후재(後齋)이다. 효심이 지극하여 그 행적은 『호남삼강록』에 전하고, 이웃의 칭송으로 효자비까지 세워졌다. 그는 문학에도 풍부한 재질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수차 응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무과에 응하여 병과에 합격하였다. 이로부터 벼슬은 무과 주부(主簿)를 지낸 것으로 전한다. 그는 이와 같이 과시(科試)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관방 현지에서 그의 임무는 평범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는 효행으로 널리 알려진 전언이 있다. 꿈에 문득 모친상을 당하여 깨고 나서 통곡하고 주육(酒肉)을 삼가며 사치스런 옷 입기를 금했더니 과연 흉문이 전해왔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이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같은 이진문의 행적은 모두 『함평이씨대동보』 또는 『함평군지』 와 『함평삼강실록』 등에 전한다.

한편 이건교가에는 이외 교지 3건이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내용은 이진문의 손자인 이배인(李培仁; 1625~1709)과 증손 이회년(李檜年; 1651~1730)에게 각각 내려졌던 가자(加資) 수직교지(壽職敎旨) 등이다. 먼저 1707년(숙종 33) 3월 3일 이배인에게 내려진 가자교지 1건은 그의 나이가 83세에 이르게 되자 조정으로부터 당상관 정 3품직에 해당하는 통정대부의 직품에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2건은 이회년과 관련되는 것으로 모두 1730년(영조 6) 6월에 내려진 것이다. 이회년은 당시 벼슬이 절충장군 행용양위 부호군이 주어져 있었으나 그의 나이가 80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직품을 올려야 한다는 상언(上言)으로 다시 통정대부의 직품에 임명된 내용이다(<표 27> 참조).

<표 27> 이건교(李建敎)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일 기	1619년	17× 24	이 진 문	이 진 문	
2	교 지	1707년	74× 53	국 왕	이 배 인	82세 가자
3	교 지	1730년	74× 53	국 왕	이 회 년	
4	교 지	1730년	76× 52	국 왕	이 회 년	80세 가자

28) 함평이씨 이건일(李建馹)

나산면 초포리 사산의 이건일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류는 총 77건이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에 작성수수된 것들이고, 종류별로는 전체 문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서간류의 간찰(簡札)이 주종을 이룬다.

간찰은 무진년(19건), 기사년(37건), 경오년(10건)으로 무진년 1월부터 경오년까지 3년 동의 자료이다. 겉봉에 모두 '금천우헌(金泉郵軒)'이라 쓰여진 것으로 보면 이 자료의 수급자는 모두 이돈현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무진년은 1808년이 되고, 기사년은 1809년이며, 경오년은 1810년이 된다. 즉 이돈현의 행적을 보면 1808년 1월 22일 종부사 주부에 임명되고, 이어 같은 해 8월 6일에는 금천도(金泉道; 지금의 경상도 금산) 찰방(察訪)에 임명되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그가 금천도 찰방을 역임하고 있을 때 왕래하던 서간이었음이 확실시 된다. 어쨌든 이와 같은 간찰은 왕복 서간문으로 개인끼리 안부를 묻거나 집안의 경조사문제, 친구 사제간의 학문문답, 현실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자료이다.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인간사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의 생생한 흔적이 남아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입안(立案)은 1832년 7월에 함평현에서 발급한 것이다. 내용은 평릉면 사산촌에 사는 이동헌(李東憲)의 소장을 살펴 보건데, 그의 선조 숙부인의 묘가 대동면 갈구지촌 갑좌지원(甲坐之原)에 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사는 사람이 몰래 투장을 하여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매양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증빙서류로서 삼고, 또한 그러한 일이 차후 일어나지 않도록 입안문서를 만들어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명문(明文)은 1825년 3월 2일에 작성 수수되었던 것으로 당시 유학 이양서(李良緖)가 문족(門族)의 노(奴) 천동(千銅)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하여준 문서다. 즉 이양서가 이거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전답을 처분하면서 주군평(走軍坪)에 있던 의자(衣字) 밭 4두락 12부 9속을 당시 가격 8냥을 받고 영구히 천동에게 팔았음을 증명한다는 문서의 내용이다.

제목이 『삼회재집(三悔齋集)』 이라 쓰여진 문집은 이돈현(1761~1810)의 문집이다. 삼회재는 곧 이돈현의 호다. 필사본인 이 문집은 1804년 4월경으로부터 1808년 7월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작성되었다. 내용은 모두 시(詩)에 해당한 것들이다.

시권책(試券冊)은 『동당시권(東堂試券)』 과 『동구시권(東具試券)』 이 있다. 모두다 필사본으로 자료의 상태가 많이 훼손되어 있다.

<표 28> 이건일(李建馹)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간 찰	무진년	45× 30	홍 하 규	금 천	1월(1808년)
2	간 찰	무진년	39× 29	강 주 환	금 천	1월
3	간 찰	무진년	41× 30	이돈응(제)	금 천	1월
4	간 찰	무진년	43× 33	이 덕 빈	금 천	1월
5	간 찰	무진년	40× 30	이 중 현	금 천	3월 19일
6	간 찰	무진년	45× 31	이 중 현	금 천	5월 11일
7	간 찰	무진년	41× 30	남 정 화	금 천	6월 19일
8	간 찰	무진년	42× 31	남 정 화	금 천	6월 22일
9	간 찰	무진년	46× 36	김현철외 6	금 천	9월
10	간 찰	무진년	48× 32	조 국 명	금 천	9월
11	간 찰	무진년	50× 26	이 덕 빈	금 천	9월
12	간 찰	무진년	39× 32	이기준(제)	금 천	9월
13	간 찰	무진년	35× 24	오 하 철	금 천	9월 12일
14	간 찰	무진년	44× 33	유 진 택	금 천	9월 25일
15	간 찰	무진년	41× 33	이돈응(제)	금 천	10월 5일
16	간 찰	무진년	40× 30	오 하 철	금 천	11월 21일
17	간 찰	무진년	34× 28	정 화 석	금 천	11월 14일
18	간 찰	무진년	53× 32	? 동 엽	금 천	12월
19	간 찰	무진년	43× 30	이석관(제)	금 천	
20	간 찰	기사년	39× 29	?	금 천	1월(1809년)
21	간 찰	기사년	43× 35	김 희 신	금 천	1월 12일
22	간 찰	기사년	48× 32	김 희 신	금 천	1월 13일
23	간 찰	기사년	44× 35	김 희 신	금 천	1월 14일
24	간 찰	기사년	39× 29	백 사 건	금 천	2월
25	간 찰	기사년	47× 34	이 기 표	금 천	2월
26	간 찰	기사년	36× 24	?	금 천	2월
27	간 찰	기사년	43× 35	이 종 운	금 천	2월 2일
28	간 찰	기사년	38× 31	강 세 신	금 천	2월 4일
29	간 찰	기사년	40× 29	이돈응(제)	금 천	2월 19일
30	간 찰	기사년	42× 31	이지복(제)	금 천	2월 25일
31	간 찰	기사년	45× 31	이석관(제)	금 천	3월
32	간 찰	기사년	40× 31	윤 서 유	금 천	3월
33	간 찰	기사년	41× 30	유 진 택	금 천	3월
34	간 찰	기사년	46× 34	임 기 재	금 천	3월
35	간 찰	기사년	57× 35	김 상 순	금 천	3월
36	간 찰	기사년	41× 31	송 응 문	금 천	3월 5일
37	간 찰	기사년	44× 31	안동민참판	금 천	3월 19일
38	간 찰	기사년	48× 34	이진택(제)	금 천	3월 22일
39	간 찰	기사년	56× 37	? 정 원	금 천	4월
40	간 찰	기사년	41× 31	윤 시 유	금 천	4월
41	간 찰	기사년	41× 31	이 몽 용	금 천	4월 2일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42	간 찰	기사년	41× 35	김 희 신	금 천	4월 18일
43	간 찰	기사년	53× 39	노 경 관	금 천	4월 28일
44	간 찰	기사년	38× 29	남원김정언	금 천	8월
45	간 찰	기사년	33× 26	족 중	금 천	8월
46	간 찰	기사년	47× 37	윤 석 영	금 천	8월
47	간 찰	기사년	38× 29	윤 예 현	금 천	9월 10일
48	간 찰	기사년	47× 35	윤 우 낭	금 천	9월 19일
49	간 찰	기사년	47× 24	임 기 재	금 천	10월 10일
50	간 찰	기사년	41× 37	이 몽 용	금 천	11월
51	간 찰	기사년	40× 30	강 주 환	금 천	12월
52	간 찰	기사년	40× 31	윤 예 유	금 천	12월 21일
53	간 찰	기사년	42× 32	이 산	금 천	
54	간 찰	기사년	45× 36	정 ○ ○	금 천	
55	간 찰	기사년	32× 23	이정연(제)	금 천	
56	간 찰	기사년	46× 37	○ 정 원	금 천	
57	간 찰	경오년	48× 31	김 희 신	금 천	1월8일(1810)
58	간 찰	경오년	31× 27	이돈응(제)	금 천	1월 11일
59	간 찰	경오년	39× 31	윤 지 평	금 천	2월 21일
60	간 찰	경오년	43× 28	?	금 천	3월 10일
61	간 찰	경오년	37× 31	이 병 문	금 천	3월 18일
62	간 찰	경오년	44× 27	김 욱 감	금 천	4월
63	간 찰	경오년	54× 35	조 정 언	금 천	
64	간 찰	?	40× 25	이진명(제)	금 천	
65	간 찰	?	40× 31	격 동 김 척	금 천	
66	간 찰	?	?	향리(○○○)	금 천	봉투만 있음
67	남화진경	계미년	22× 31	?		1823년(?)
68	명 문	1825년	24× 18	이 양 서	노천동(奴千銅)	3월 2일
69	입 안	1832년	59× 104	함 평 현 감	이 동	7월
70	삼회재집	?	16× 31	삼 회 재		문집(필사)
71	동당시권	?	24× 34	영 조 사	정랑댁	시 권 철
72	동구시권	신축년	24× 28	?	?	1841년(?)
73	후 집	?	20× 33	?	?	풍우부,구황
74	중국고사	?	20× 27	?	?	
75	시 부 책	?	23× 20	?	?	
76	시 부 책	?	23× 23	?	?	
77	기 타	1775년	40× 37	교중외각인	?	사문(12.10)

이중 『동당시권』 은 겉표지에 영조사(營造司)에서 작성하여 정랑댁(正郎宅)에 보내준 것으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동구시권』 은 신축년이라 쓰여 있는데, 이는 아마도 1841년으로 보인다. 내용은 각기 글 쓴 사람의 성명과 낙점 등이 기록돼 있다.

경문류(經文類)에 해당하는 필사본 『구해남화진경(句解南華眞經)』 이라 쓰여진 이 자료는 작

성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자료의 말미에 '계미년 3월 12일에 필사하기 시작하여 5월 11일에 모두 다 베꼈다'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자료를 작성하였던 계미년은 1823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몰년으로 따져 보아 이동헌의 나이 43세 때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화진경』이란 곧 장주(莊周=莊子)의 저서를 말함이다.

이외에도 이건일가에는 『시부책(詩賦冊)』(2권), 『중국고사류(中國古事類)』(1권), 잡문류에 해당하는 『후집(後集)』(1권)이라는 자료 등이 있다. 이 중 『후집』은 「풍우부(風雨賦)」와 「구황방(救荒方)」 등으로 내용이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1775년 12월 10일에 작성된 「사문(赦文)」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는 교중외(敎中外) 대소신료, 군민, 한량 등이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29) 함평이씨 이건풍(李建豊)

나산면 초포리 사산의 이건풍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100건이다. 시기적으로는 대개 18~19세기에 작성 수수한 것들이다. 이들 자료는 관리임용에 관련한 교지류와 호구관련 문서가 주종을 이루고, 이 외에도 과거 교육관련 문서로서의 시권(試券)이나 고강단자(考講單子), 그리고 첩문(帖文), 통문(通文), 명문(明文), 소지(所志), 수기(표)(手記(標)), 장사택일지(葬事擇日紙), 간찰(簡札) 등이 있기도 하다. 이들 옛 문서에 나타나는 혈연관계는 모두다 이명룡(李命龍; 1708~1789)으로부터 시작한 그의 직계 자손들이다. 이는 약 200여 년간 6대에 걸친 가족사의 행적에 대하여 연대순으로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이건풍은 이밖에도 약 150여건에 달하는 옛 문서류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29> 참조).

<표 29> 이건풍(李建豊)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시 권	1759년	192× 73	이 명 용	이 명 용	15등, 52세
2	시 권	1798년	273× 67	이 돈 덕	이 돈 덕	14등, 38세
3	시 권	1807년	258× 65	이 돈 하	이 돈 하	문과병과 5등
4	시 권	?	220× 56	?	?	
5	시 권	?	298× 56	?	?	
6	고강단자	1750년	105× 56	이 명 용	이 명 용	43세
7	고강단자	1819년	106× 72	이 돈 덕	이 돈 덕	35세
8	고강단자	1822년	92× 66	이 돈 덕	이 돈 덕	38세
9	고강단자	?	107× 67	이 돈 덕	이 돈 덕	
10	고강단자	?	94× 45	?	?	
11	홍 패	1807년	80× 60	국 왕	이 돈 하	문과병과 5등
12	교 첩	1798년	75× 55	이조판서	이 돈 덕	
13	교 첩	1799년	73× 53	이조판서	이 돈 덕	
14	교 첩	1808년	80× 57	이조판서	이 돈 덕	
15	교 첩	1808년	73× 55	이조판서	이 돈 덕	
16	교 지	1763년	74× 51	국 왕	이 명 용	
17	교 지	1763년	74× 57	국 왕	이 명 용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8	교 지	1764년	70× 55	국 왕	이 명 용	
19	교 지	1764년	76× 58	국 왕	이 명 용	
20	교 지	1765년	76× 57	국 왕	이 명 용	
21	교 지	1765년	77× 59	국 왕	이 명 용	
22	교 지	1774년	61× 50	국 왕	이 명 용	
23	교 지	1787년	72× 52	국 왕	이 명 용	80세 가자
24	교 지	1802년	75× 55	국 왕	이 명 용	
25	교 지	1802년	76× 55	국 왕	이 돈 현	
26	교 지	1802년	72× 52	국 왕	이 돈 현	
27	교 지	1804년	73× 54	국 왕	이 돈 현	
28	교 지	1804년	74× 57	국 왕	이 돈 현	
29	교 지	1806년	74× 57	국 왕	이 돈 현	
30	교 지	1807년	70× 54	국 왕	이 돈 현	
31	교 지	1807년	72× 54	국 왕	이 돈 현	
32	교 지	1808년	72× 54	이조판서	이 돈 현	
33	교 지	1808년	70× 54	국 왕	이 돈 현	
34	교 지	1816년	74× 58	국 왕	이 돈 하	
35	교 지	1816년	70× 56	국 왕	이 돈 하	
36	교 지	1817년	81× 56	국 왕	이 돈 하	
37	교 지	1817년	77× 56	국 왕	이 돈 하	
38	교 지	1818년	77× 57	국 왕	이 돈 하	
39	교 지	1827년	70× 52	국 왕	이 돈 하	
40	교 지	1827년	73× 53	국 왕	이 돈 하	
41	교 지	1828년	73× 54	국 왕	이 돈 하	
42	교 지	1830년	74× 54	국 왕	이 돈 하	
43	준 호 구	1798년	53× 38	함평현감	이 돈 상	
44	준 호 구	1798년	54× 38	함평현감	이 돈 하	32세, 노1비3
45	준 호 구	1801년	54× 36	함평현감	이 돈 하	29세, 노1비3
46	준 호 구	1846년	55× 36	함평현감	이 만 헌	32세, 노1비1
47	준 호 구	1852년	42× 33	함평현감	이 백 헌	42세, 노2비1
48	준 호 구	1852년	50× 33	함평현감	이 백 헌	51세, 노2비1
49	준 호 구	1858년	49× 37	함평현감	이 만 헌	51세, 노3비4
50	준 호 구	1864년	55× 33	함평현감	이 백 헌	54세, 노0비2
51	준 호 구	1864년	57× 33	함평현감	이 계 익	63세, 노1비4
52	준 호 구	1867년	54× 33	함평현감	이 만 헌	61세, 노1비3
53	준 호 구	1867년	55× 32	함평현감	이 계 익	63세, 노1비1
54	준 호 구	1867년	40× 33	함평현감	이 광 헌	64세, 노1비2
55	준 호 구	1870년	54× 35	함평현감	이 계 욱	27세, 노1비1
56	준 호 구	1876년	58× 36	함평현감	이 백 헌	62세, 노0비2
57	준 호 구	1876년	52× 35	함평현감	이 백 헌	75세, 노2비2
58	준 호 구	1876년	58× 35	함평현감	이 계 욱	75세, 노1비1
59	준 호 구	1876년	58× 36	함평현감	이 계 익	68세, 노1비2
60	준 호 구	1876년	58× 33	함평현감	이 지 범	73세, 노1비2
61	준 호 구	1879년	53× 36	함평현감	이 계 양	44세, 노3비1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62	준 호 구	1879년	53× 35	함평현감	이 계 순	51세, 노0비1
63	준 호 구	1882년	48× 39	함평현감	이 계 후	60세, 노2비2
64	준 호 구	1882년	43× 39	함평현감	이 계 순	56세, 노1비1
65	준 호 구	1888년	53× 34	함평현감	이 광 헌	63세, 노2비3
66	준 호 구	1894년	56× 33	함평현감	이 광 헌	48세, 노1비1
67	준 호 구	1900년	72× 33	함평현감	이 계 화	54세, 노2비1
68	준 호 구	?	54× 33	이주헌 외 21	?	35세, 노?비?
69	산송소지	1830년	63× 79	이 계 화	성 주	?
70	산송소지	1852년	40× 70	이 계 화	성 주	47세
71	산송소지	1852년	35× 67	이 계 욱	성 주	47세
72	산송소지	1877년	44× 75	이유택외 32	성 주	69세
73	통 문	1800년대	55× 65	이 ○ ○	제 족 문	묘막 건립건
74	명 문	1739년	45× 56	이 기 영	김 순 백	전 매
75	명 문	1784년	38× 27	김맹손처 나소사	이 돈 덕	대전과 산매
76	명 문	1786년	38× 27		노 악 봉	산 매
77	명 문	1795년	40× 28	김 운 백	이 돈 덕	답 매
78	명 문	1861년	39× 26	정 치 감	이 지 범	산 매
79	수 기	1851년	28× 18	김 상 지	이 계 화	산 송 관 련
80	수 기	1852년	16× 24	김 상 지	이 계 화	산 송 관 련
81	수 기	1852년	31× 23	김 상 지	이 계 화	산 송 관 련
82	첩 문	1802년	73× 54	예 문 관	이 계 화	개 명(돈현)
83	첩 문	갑자년	80× 24	?	?	모양원 관련
84	첩 문	무진년	50× 24	?	?	사산사 관련
85	첩보문기	갑자년	95× 25	김 상 의	이 돈 호	읍전세 이속
86	장사택일	기묘년	67× 56	?	?	
87	간 찰	을축년	43× 29	민 용 혁	?	
88	간 찰	병술년	50× 33	김 영 철	?	
89	간 찰	병술년	40× 33	김 영 철	?	
90	간 찰	기사년	33× 28	남 ○ ○	?	
91	간 찰	기사년	44× 30	조 영 신	?	
92	간 찰	기축년	46× 32	?	?	
93	간 찰	신해년	44× 32	이 응 서	?	
94	간 찰	임자년	49× 35	이 응 서	?	
95	간 찰	계축년	47× 35	이 종 진	?	
96	간 찰	계축년	51× 38	이 건 서	?	
97	기 타	?	15× 24	?	?	시 책
98	기 타	?	23× 22	?	?	초서 연습지
99	기 타	?	83× 36	?	?	제 영 문
100	기 타	?	150× 21	?	?	평생 삼분괘

30) 함평이씨 이기범(李基範)

월야면 정산리 서촌의 이기범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서류는 총 2건으로 부세 및 면(面) 경비를 기록한 일종의 치부책이다.

먼저 표제가 『44년도2기호세장부(四十四年度二期戶稅帳簿)』라 쓰여진 것은 1911년 9월에 작성한 것으로 함평군 대야면(大也面)의 부세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각 이별(里別) 호수 및 부세액, 연월일, 면장 성명 등이다. 당시 대야면의 면장은 이계송(李啓宋)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5년도 면경비(四十五年度面經費)』라 표제된 또 하나의 문서는 1912년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대야면에서 소용된 경비를 기록한 일종의 치부책이다(<표 30> 참조).

<표 30> 이기범(李基範)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호세장부	1911년	18.5× 23			명치 44년도 2기
2	면 경 비	1912년	16.5× 25			명치 45년도

31) 함평이씨 이민호(李敏虎)

대동면 금산리 감산마을에 거주하는 이민호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류는 총 61건이다. 시기적으로는 18~19세기에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로서 호구단자(준호구)와 교지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거래 및 매매관련 문서인 명문과 혼례관련 문서인 사주단자, 연길단자, 의제록송장, 예장지, 그리고 호주상속문기 등이 있다.

이들 문서들을 통하여 이민호 씨 가문의 성격을 살펴보면 18세기말 이진항(李震恒)으로부터 약 150여 년 동안 5대(代)에 걸친 가족상황과 거주이동 등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들이다. 이중 호구단자(준호구)는 18세기 중엽에서 갑오경장 이후 신호적(新戶籍) 자료까지 이어지고 있어 호적제도의 변천 등도 아울러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거주이동 당시 가옥 및 전답 등을 매매하면서 작성 수수되었던 명문(明文) 자료는 당시 이들 이 가문과 함평지역민들의 사회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라 하겠다.

이들 옛 문서들 가운데 호적관련 문서인 호구단자(준호구) 및 신호적은 총 28건으로 18세기말 이진항(李震恒)으로부터 5대 약 130여 년간에 걸쳐 작성 수수된 것으로 조선후기 지방 가족제도와 노비소유의 실태 및 그 변천과정 등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문서들은 18세기 중엽에서 갑오경장(1894년) 이후 신호적 문서까지 이어지고 있어 호적제도의 변천과정 등도 아울러 살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교지류나 명문류(明文類), 사주단자, 연길단자, 의제록송장, 예장지, 호주상속문서 등 또한 당시대의 관리임용의 제도사적인 면이나 매매 거래의 사례와 혼인관계 등의 사회 풍속(관습)적인 면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필 수 있다는 점에 가치가 있겠다.

먼저 호구단자(준호구) 및 신호적은 1768년 무자식(戊子式)으로부터 1899년 신호적(新戶籍)

까지 131년 동안에 걸쳐 수수되었던 문서들로 모두 28식년분이 전한다. 이는 시기적으로 48년 동안의 16식년분이 중간에 빠져있는 셈이다. 이중 호구단자는 3건이었고, 준호구는 24건이며, 신호적은 1건이다. 호주별로 각각 발급 수수되었던 건수는 이진항(李震恒) 2건, 이찬운(李燦運) 6건, 이사형(李師馨) 6건, 이삼윤(李三潤) 2건, 이유성(李儒成) 2건, 이유석(李儒碩) 10건 등이다.

한편 이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함평현 서현내면(西縣內面) 대천리(大泉里; 지금의 함평읍 대덕리 대천)와 구성동리(九成洞里; 지금의 함평읍 진양리)에서 줄곧 세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중간에 동현내면(東縣內面)과 손불면(孫佛面), 그리고 무안현(務安縣) 등으로 이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서들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1768년부터 1795년까지 약 30여년 동안 서현내면 대천리에서 거주하다가 1798년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동현내면 고이리(古耳里; 지금의 대동면 향교리 고시)로 이거하여 살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6년 후인 1804년에는 무안현 좌랑면(佐郎面) 신흥리(新興里; 지금의 학교면 월산리 신흥동)로 이거하여 약 10여 년간 세거하였고, 또다시 1813년에는 함평 손불면 월봉리(月峰里)로 이거하여 살았다. 그 후 39년 후인 1852년에는 원래 세거하였던 서현내면 대천리와 가까운 구성동리로 이거하였고, 1870년에는 규동리(奎洞里; 지금의 함평읍 진양리(입동(笠洞)인듯 함), 그리고 1882년에는 가금동리(加金洞里; 지금의 함평읍 진양리 가금)로 이거하였다. 이후 이거 사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초가(草家) 2칸과 전답 등을 모씨(牟氏)에게 방매하고 다시 구성동리로 이거하였다가 약 4년 후에는 또 다시 화동리(華洞里; 지금의 함평읍 진양리 화동)로 이거하여 살았다.

이처럼 여러 곳을 전전하며 세거하여 왔던 이 가문이 이후 다시 현재의 이민호(李敏虎) 씨가 거주하고 있는 대동면 금산리 감산마을로 이거 정착하게 되었던 시기는 1906년으로 파악 된다. 그런데 이들 가문은 1771년부터 약 12년 동안인 1783년까지 노(奴) 1구(口), 비(婢) 3구(口)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문서의 기록에 기록되지 않는다.

한편 교지는 1773년부터 1893년까지에 걸쳐 작성 수수되었던 것으로 시기별로는 1773년 3건, 1774년 2건, 1893년 12건 등이다. 수급자별 문서의 건수는 이진항(李震恒) 5건, 이백윤(李伯潤) 1건, 그의 처 인동장씨(仁同張氏) 1건, 이찬운(李燦運) 1건, 그의 처 함평모씨(咸平牟氏) 1건, 이사형(李師馨) 1건, 그의 처 밀양이씨(密陽李氏) 1건, 이삼윤(李三潤) 1건, 이유석(李儒碩) 2건, 그의 처 경주이씨(慶州李氏) 1건, 광산김씨(光山金氏) 2건 등이다.

이 가운데 1773년 2월 3월 6월과 1774년 9월 11월에 이진항이 발급받은 5건의 교지는 모두 자신의 나이 80세가 넘어 가자(加資)로서 관직이 내려진 내용의 문서이고, 1893년 4월에 발급된 2건의 교지는 효행탁이(孝行卓異)로 천거된 이백윤과 그의 처 인동장씨가 발급받았던 문서이다. 또 같은 해 12월에 발급한 5건의 교지는 법전 예에 따라 가선대부였던 이유석(李儒碩) 때문에 선대가 관직을 제수받는 추증교지(追贈敎旨)로서 그의 증조부모인 이찬운과 함평모씨, 조부모 이사형과 밀양이씨, 그리고 삼촌인 이삼윤 등의 교지이다. 나머지 5건은 이유석과 그의 처 경주이씨 및 광산김씨에게 내려졌던 교지이다. 이유석이 발급받았던 2건의 교지는 그가 조관(朝官)의 몸으로서 나이 80세이 넘게 되자 가자(加資)되었던 교지이고, 나머지 3건의 교지는 이유석으로 인하여 각각 법전에 의거하여 그의 처에게 내려진 추증교지이다(<표 31> 참조).

<표 31>이민호(李敏虎)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준 호 구	1768년	28× 38	함평현감	이 중 운	
2	〃	1771년	35× 28	〃	이 진 항	비(婢)2, 노(奴)2
3	〃	1777년	72× 43	〃	〃	〃
4	〃	1780년	56× 33	〃	이 해 운	〃
5	〃	1783년	54× 35	〃	〃	〃
6	〃	1786년	46× 41	〃	이 찬 운	
7	〃	1789년	60× 34	〃	〃	
8	〃	1792년	50× 34	〃	〃	
9	〃	1792년	50× 34	〃	이 사 형	
10	〃	1795년	49× 41	〃	〃	
11	〃	1798년	48× 34	〃	〃	이 거 (移居)
12	〃	1801년	53× 36	〃	〃	
13	호구단자	1804년	58× 34	이 사 형	무 안 현 감	이거(移居), 신호(新戶)
14	〃	1807년	57× 35	〃	〃	
15	준 호 구	1813년	52× 34	함평현감	이 사 형	이 거 (移居)
16	〃	1852년	39× 31	〃	이 삼 서	이 거 (移居)
17	〃	1852년	60× 37	〃	이 돈 성	
18	〃	1855년	32× 34	〃	이 삼 서	
19	〃	1855년	38× 34	〃	이 돈 성	
20	〃	1870년	58× 42	〃	이 준 석	
21	준 호 구	1876년	59× 34	〃	이 돈 석	
22	〃	1879년	57× 31	〃	〃	
23	〃	1882년	52× 34	〃	〃	
24	〃	1885년	55× 32	〃	〃	
25	〃	1888년	58× 34	〃	이 기 석	
26	〃	1891년	50× 35	〃	〃	
27	〃	1894년	51× 31	〃	〃	
28	신 호 적	1899년	26× 38	군수 서○○	〃	
29	교 지	1773년	75× 53	국 왕	이 진 항	가 자 (加資)
30	〃	1773년	75× 53	〃	〃	
31	교 지	1773년	76× 54	국 왕	이 진 항	가 자
32	〃	1774년	77× 52	〃	〃	
33	〃	1774년	74× 49	〃	〃	효 행 탁 이
34	〃	1893년	56× 46	〃	이 백 윤	
35	〃	1893년	56× 46	〃	이백윤처 유인장씨	추 증
36	〃	1893년	62× 40	〃	이 찬 운	
37	〃	1893년	63× 40	〃	이찬운처 유인모씨	
38	〃	1893년	63× 40	〃	이 사 형	
39	〃	1893년	64× 40	〃	이유석조모유인이씨	
40	〃	1893년	64× 40	〃	이 삼 윤	가 자
41	〃	1893년	63× 40	〃	이 유 석	〃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42	〃	1893년	63× 40	〃	〃	
43	〃	1893년	61× 40	〃	이유석처 유인이씨	
44	〃	1893년	61× 40	〃	이유석처 유인김씨	
45	〃	1893년	63× 40	〃	이유석처 유인김씨	
46	명 문	1814년	36× 37	김 ○ 수	박 응 담	전 답 매 매
47	〃	1891년	39× 19	이 유 원	모 ○ ○	가 대 전 매
48	〃	1906년	36× 35	김 사 윤	이 유 석	가 대 전 매
49	치 부 기	1904년	15× 21			
50	매매문서	1906년	16× 20			
51	〃	1907년	12× 22		이 인 화	
52	〃	?	7× 18			
53	물건교환	1908년	15× 21	이 우 겸	이 인 화	
54	사주단자	경오년	29× 25.5			7월 21일생
55	〃	임자년	43× 24			5월 26일생
56	연길단자	신묘년	41× 25	안 기 하	이 생 원	11월 29일
57	의제록송	신묘년	42× 26	〃	〃	
58	예 장 지	1888년	50× 46	최 익 원	〃	신랑(최관묵)
59	〃	신미년	57× 57	권 상 수	〃	신랑(권정식)
60	〃	신묘년	51× 48	안 기 하	〃	신랑(안종하)
61	호주상속	1909년	25× 31	?	이 인 화	전호주 이유석

명문류(明文類)로서는 가옥 및 전답 등을 매매한 내용의 것이 3건이고, 나머지는 5건은 차용금을 대여할 때 작성한 것이다. 이중 1814년 1월 16일에 작성된 명문은 대대로 땔감을 조달하던 동면(東面; 동현내면인 듯함) 임야 4두락지를 당시 시가 1냥(兩)을 받고 박응담(朴應談)에게 팔았던 내용이다. 그리고 1891년 2월 14일의 명문은 구성동리(九成洞里)로 이거할 당시 기존에 살고 있던 서현내면(西縣內面) 가금동리(加金洞里)의 초가 2칸과 대전(垈田) 1두락지, 기동(基洞) 앞에 있는 밭 1두락지, 마을 앞의 밭 1두락지, 그 아래에 위치한 밭 3두락지를 당시 시세가 14냥(兩)을 받고 모씨(牟氏)에게 방매한 내용이다. 가대전주(家垈田主)는 이유원(李儒元)이고 증인은 노대옥(魯大玉), 그리고 당시 명문 사실을 기록한 사람은 진재욱(陳在旭)이다.

마지막으로 1906년 10월 17일의 명문은 서현내면 화동리에서 현 대동면 금산리 감산으로 이거할 당시 가옥과 전답을 매득할 때 작성 수수된 문서이다. 매매 내용을 살펴보면 대동면 감산에 있는 초가 5칸과 측간·곡간 2간, 모전(茅田) 1편, 대전(垈田) 1두락지, 마을 앞로 이거할 당시 가옥과 전답을 매득할 때 작성 수수된 문서이다. 매매 내용을 살펴보면 대동면 감산에 있는 초가 5칸과 측간·곡간 2간, 모전(茅田) 1편, 대전(垈田) 1두락지, 마을 앞
밭 4두락 1편, 세정들(世丁坪)에 있는 밭 3두락지, 운림촌(雲林村; 현 대동면 운교리 운림) 오른편에 있는 산(산등성이 3개와 계곡 2) 등을 당시 시세가 615냥(兩)을 주고 광산김씨 김사윤(金士允)이라는 사람에게 매득한 내용이다. 이를 매득할 당시 증인은 김선좌(金善佐)였고,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은 이상호(李祥浩)였다.

혼인관련 문서로서 사주단자(四柱單子)는 사성(四星)이라 하여 연월일시가 적혀져 있는 것으로 2건이다. 문서와 관련되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문서의 기록에 해당 인물의 생년월시가 기록되어 있어 임자년(壬子年) 5월 26일생과 경오년(庚午年) 7월 21일생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길단자(涓吉單子) 1건의 내용은 대례(大禮)가 신묘년(辛卯年) 11월 29일, 존안(尊雁)과 납폐(納幣) 또한 같은날이라 기록되어 있다. 의제록송장(衣製錄送狀)은 신묘년(辛卯年) 11월 11일 죽산안씨 안기하(安基河)라는 사람에게 보낸 문서 중 1부인 듯하다. 예장지(禮狀紙)는 모두 3건으로 이중 1888년(무자년) 11월 13일의 것은 해주최씨 최익원(崔益遠)이 함평이씨 이생원(李生員)에게 보낸 혼인의 증빙문서로 내용은 그의 셋째아들 최관묵(崔寬默)이 이생원 댁 딸과 혼인하게 되었으므로 폐백을 받아 달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신미년(辛未年) 4월 6일과 신묘년(辛卯年) 11월 29일의 것은 각각 안동권씨 권상수(權相洙)와 죽산안씨 안기하(安基河)라는 사람이 함평이씨 이생원(李生員)에게 보냈던 문서로 기재 양식은 1888년의 것과 동일하다.

한편 1909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호주상속(戶主相續) 문서는 전호주(前戶主) 이유석(李儒碩)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인 이인화(李仁化)가 호주상속을 받는 내용의 문서로 상속된 연월일은 같은 해 7월 26일이다. 문서의 양식을 보면 본관, 전 호주, 호주된 연월일, 호주상속자의 부모, 호주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호주 처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솔거자녀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상속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32) 함평이씨 이재승(李載承)

나산면 초포리 사산의 이재승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는 1건의 호구단자(戶口單子)이다. 이 문서는 원본 자료가 아닌 사진으로 접사해둔 것이다. 어쨌든 이 문서는 1759년(영조 35) 함평현 평릉면(平陵面) 산정리(山亭里; 현 사산마을의 옛 이름인 듯함)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이명희(李命禧; 1697~1781)가 당시 63세로 호구식(戶口式)에 따라 1756년 병자식에 준하여 작성한 문서인 듯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호주 자신을 비롯한 4조(四祖)와 처, 그리고 처의 4조와 자부(子婦), 솔거노비(率居奴婢)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즉 호주 자신과 그의 처를 포함한 4조의 벼슬과 이름 및 본관 나이 등이 기재되어 있다. 끝부분에는 당시 산정리의 풍헌(風憲) 이정(里正) 감고(監考)였던 이정좌(李廷佐), 김유광(金有光), 문종철(文宗哲) 등의 성명이 쓰여져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당시만 하여도 사산마을에는 함평이씨 이외에 김씨나 문씨 등이 세거하였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시 호주 이명희는 자신을 비롯해 산정리 제2통 제5호에서 부인과 그의 자부, 그리고 노(奴) 얼봉(29세) 및 비(婢) 일선(日先; 27세) 등 모두 6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외거(外居) 노비질(奴婢秩)을 살펴보면 1749년(영조 25)까지만 하여도 노(奴) 8명, 비(婢) 15명 등 총 23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 문서를 작성하던 1759년(영조 35), 그러니까 10년 후인 1749년에는 노(奴) 얼봉과 비(婢) 일선 등 2명만이 남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도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문서 내용의 노비질에서 1749년에 모두 도망하였다는 기록이 엿보이기 때문이다(<표 32> 참조).

<표 32> 이재승(李載承)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호구단자	1759년	?	함평현감	이 명 희	칼라사진 1매

33) 함평이씨 이형채(李炯埰)

나산면 초포리 입석의 이형채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류는 총 22건으로 시기적으로는 19세기 중·후기에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이다. 이 자료들은 모두다 민원내지 청원관련 문서들로 종류별로는 상서(上書) 19건, 다사품목(多士稟目) 2건, 완문(完文) 1건 등이다.

이들 옛 문서들은 모두다 효자 이장헌(李章憲; 1779~1848)의 효행 사실을 천거하여 명정(命旌)을 받고자 각 방면으로 끈질기게 상소문을 올리는 내용의 민정(民情) 문서들이다. 이러한 문서들이 이처럼 일괄문서로서 모두 다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효자 천거와 포장의 과정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다(<표 33> 참조).

<표 33> 이형채(李炯采)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상 서	1841년		안서근 외 27	감 사	8월
2	상 서	1842년		정한순 외 21	어 사	6월
3	상 서	1842년		김 연 외 21	현 감	7월
4	상 서	1842년		민부기 외 28	감 사	8월
5	품 목	1842년		김이해 외 16	현 감	11월 5일
6	상 서	1843년		민부기 외 19	예 조	2월
7	상 서	1844년		정해홍 외 26	감 사	
8	상 서	1847년		유기한 외 24	어 사	7월
9	상 서	1849년		나즙동 외 27	감 사	3월
10	상 서	1849년		유진기 외 28	현 감	9월
11	품 목	1850년		정지서 외 14	현 감	1월
12	상 서	1853년		안생노 외 22	현 감	9월
13	상 서	1853년		안생노 외 22	현 감	11월
14	완 문	1853년		함 평 현 감	이	11월
15	상 서	1854년		고삼진 외 24	어 사	5월
16	상 서	1855년		이제원 외 22	현 감	7월
17	상 서	1863년		이 재 기	현 감	9월
18	상 서	1867년		이 재 일	현 감	11월
19	상 서	1868년		이 재 일	현 감	9월
20	상 서	1876년		이종길 외 27	감 사	3월
21	상 서	1876년		안생노 외 28	어 사	5월 27일
22	상 서	1878년		이 재 일	현 감	10월

34) 흥덕장씨 장갑동(張甲同)

대동면 강운리 상강의 장갑동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류는 총 29건이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 중엽으로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작성 수수되었던 문서들이다. 문서의 종류는 준호구와

교지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문서들과 관련되는 인물은 모두 장봉규(張鳳奎)의 직계 후손들이다. 먼저 호적관련 문서 중 준호구는 최초 1855년 을묘식(乙卯式)으로부터 이후 1888년 무자식(戊子式)까지 10식년 분이다. 최초의 호주는 장봉규로 발급받은 문서는 3건이며, 그의 아들 장인택(張仁澤)은 2건, 그 나머지 5건은 장인원(張仁源)의 차남인 장대순(張台淳)이 백부(伯父)인 장인택에게 출계하여 발급받은 것들이다. 이들은 호구기록에 의하면 함평현 동현내면 강정리(江亭里; 현 대동면 강운리)에서 줄곧 세거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문서의 내용상 수급자인 호주만 다를 뿐 기재양식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3대 33년간 앙역비(仰役婢) 1구(口)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관리임용 관련 문서인 교지와 교첩은 장인택과 그의 양자인 장대순에게 발급되었던 문서들인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장인택과 관련되는 문서들이다. 즉 장인택은 1852년 문과(文科) 급제자로 성균관 학유(學諭)에 임명된 교첩과 이후 1875년까지 16차례에 걸쳐 여러 관직에 임명되는 교지들이다. 나머지 2건은 장대순에게 발급한 교첩으로 이는 그의 부친 장인택의 별가에 의해 대가(代加)로 임명되는 교첩이다(<표 34> 참조).

<표 34> 장갑동(張甲同) 가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준 호 구	1855년	59× 38	함평현감	장봉규	앙역비 1구
2	준 호 구	1858년	57× 38	〃	〃	〃
3	준 호 구	1867년	67× 38	〃	〃	〃
4	준 호 구	1870년	53× 38	〃	장인택	〃
5	준 호 구	1873년	78× 38	〃	〃	〃
6	준 호 구	1876년	82× 38	〃	장태순	〃
7	준 호 구	1879년	64× 39	〃	〃	〃
8	준 호 구	1882년	64× 39	〃	〃	〃
9	준 호 구	1885년	57× 37	〃	〃	〃
10	준 호 구	1888년	56× 38	〃	〃	〃
11	교 첩	1852년	71× 54	이조판서	장인택	문과급제
12	교 첩	1854년	72× 55	〃	〃	
13	교 첩	1875년	71× 53	이조판서	장 태 순	대 가
14	교 첩	1893년	68× 57	〃	〃	
15	교 지	1855년	71× 53	국 왕	〃	
16	〃	1858년	71× 53	〃	〃	
17	〃	1858년	71× 52	〃	〃	
18	〃	1858년	70× 52	〃	〃	
19	〃	1859년	71× 53	〃	〃	
20	〃	1860년	71× 53	〃	〃	
21	〃	1860년	71× 53	〃	〃	
22	〃	1860년	71× 53	〃	〃	
23	〃	1863년	71× 53	〃	〃	
24	〃	1864년	71× 53	〃	〃	
25	〃	1864년	71× 53	〃	〃	
26	〃	1865년	70× 52	〃	〃	
27	〃	1865년	70× 53	〃	〃	
28	〃	1870년	70× 53	〃	〃	
29	〃	1875년	71× 53	〃	〃	

2. 전적(典籍)

1) 교재집(喬梓集)

『교재집』은 수정(守貞) 윤제(尹濟 : 1562~1645), 송돈(松墩) 윤정우(尹挺宇 : 1603~1690) 부자의 글을 한데 엮은 책으로 역학(易學)에 근원을 둔 시가(詩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교재집』은 1989년 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와 파평윤씨 수정공종중회가 국역 발간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학전수서(易學傳授序; 허목)
- 송돈선생시가서(松墩先生詩歌序; 이유인)
- 역학(易學) : 홍범무법(송돈), 강일함삼법(송돈), 점법(수정), 책수와 책명(수정), 구구방수도(수정), 구구적수도(수정), 81책명과 729종 점단(수정), 강일함삼분합변화설(수정)
- 시(詩) : 정곤재의 우득록을 읽고(수정), 이송곡의 시 근사록 유감을 보고, 부원운, 부 차운정관재, 우연히 읊은 12수, 우연히 읊은 13수(이상 송돈)
- 가(歌) : 심덕성가(수정), 기수와 우수의 노래(송돈)
- 시(詩) : 우연히 읊음 4수, 불도를 조롱함, 동백꽃을 보고, 정수업에게 보내는 만장, 이유인의 시에 차운함, 오극의 시를 보고, 송금을 노래함, 유거, 일 상인에게, 달밤에 서당에서, 석대암에서 2수, 석대암에서 주역을 읽는 이유인에게 줌, 섣달 그믐날 밤에, 봄날 낚시질을 하며, 족계에서, 동회에서, 제야에, 자영, 용암에서, 이유인의 시를 보고 3수, 산당의 늦 경치, 새벽 강의, 매화를 보고 2수, 제야에 삼춘운 2수(이상 송돈), 제명(권중경), 발문(김이만), 찬사(이만유), 수정선생묘표(이현규), 수정재중건상량문(이병수), 중건기(윤자후), 후서(이현규), 발문(윤혜종), 후기(윤구병)
- 원문(1735년 필사본)
- 미수기언 역학전수서
- 수정공 세계

2) 만사록(萬死錄)

『만사록』은 호산(湖山) 정경득(鄭慶得 : 1569~1630)이 정유재란 때 일본인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가 겪은 일을 기록한 일기로 『정유피란기』, 『해상록』 등을 살피면 당시 일인들의 포악성과 충효의 선비정신을 알 수 있다.

이 일기책은 1986년 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와 진주정씨 호산공종중회가 국역 발간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서(自序; 정희득), 서(序; 윤봉조), 발(跋; 조엄, 위백규, 증손 정덕휴, 6대손 정간), 상권(上卷; 일기, 일본총도, 왜국풍물기, 임진 정유재란 참여 왜군수와 장수명단, 왜국으로부터 환국하여 부산에서 봉소), 하권(下卷; 시), 진하소(陳賀疏), 충효전(忠孝傳; 위백규), 묘명(墓銘; 박광일), 만사록 원문, 끝말(발문).

3) 만회유고(晩悔遺稿) 및 송암사(松岩祠) 고서(古書)

『만회유고』는 만회(晩悔) 신유장(辛裕章; 1804~1875)의 유고집이다. 만회 신유장은 경서를 비롯해 의서, 술서, 문학 등 다방면을 섭렵, 철리를 터득하여 일가견을 이루었던 당대의 문장가요 박학한 성리학자였다. 『만회유고』에 실린 다음의 시(詩) 한수를 보더라도 그의 고결한 인격과 호연한 기개를 엿볼 수 있다.

<해불암(海佛庵)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구름이 만리(望海雲萬里)
제마음 되찾으니 달이 천추일래(觀心月千秋)
하니바람 내걸음을 끌어들이어(天風引我步)
날듯이 높은 누에 우뚝 섰노라(飄然倚梵樓)

신유장은 송암사(松岩祠)를 짓고 후진의 교화와 강론을 펴 학당의 구실을 하였으며 수사(秀士)를 만나 담론과 시가(詩歌)를 짓고 영송(詠誦)하기도 하였다. 송암사의 장서(臧書)는 엄격한 가훈에 의하여 보관 전래되어 오는 것으로 우득록(愚得錄)을 비롯하여 1천여 권이 된다. 이 가운데 3백여 년이 넘었을만한 산수풍경(山水風景) 민화(民畵) 4폭이 주목된다. 이들 자료는 후손 신경렬(辛暻烈)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1984년 『함평군사』 발간 당시 소개되었다. 군내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4) 사정록(寫情錄)

나산면 초포리 사산마을에 거주하는 이건풍(李建豊)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사정록(寫情錄)』은 가로 21㎝ 세로 35㎝, 48매의 한지(韓紙)로 되어 있다.

이명룡(李命龍)이 지은 이 책의 제목인 사정록은 '생각 나는 대로 기록을 한다.'라는 뜻이며,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룡이 과거에 합격한 뒤의 연기(年記)와 함평이씨 집안의 묘갈명(墓碣銘), 사산사(射山祠), 초포사(草浦祠)의 사기(祠記), 시(詩), 만장(晩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사정록 이외 이건풍 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지(敎旨)를 통하여 작자 이명룡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1763년 7월 19일 통훈대부 성균관 전적(典籍)이 되고, 이어 11월 25일에는 병조좌랑(兵曺佐郞)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1764년 2월 11일에는 공조정랑(工曺正郞)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다시 공조정랑 겸 춘추관기주관(工曺正郞兼 春秋館 記注官)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1765년 6월 22일에는 다시 병조좌랑에 임명되고, 8월 5일에는 청암도찰방(靑巖道察訪)에 임명되었다. 1774년 8월에는 어모장군 선전관(宣傳官)이 되고, 1787년에는 그의 나이 80세가 되자 가자(加資)로 통정대부에 승배되었다.

5) 삼현유고(三賢遺稿)

『삼현유고』는 정유재란 때 장성 남문창의의 주역이었던 노파(老坡) 윤황(1562~?), 몽파(夢坡) 윤길(1564~1615) 형제의 글과 창의사적, 윤황의 증손인 잠정자(岑鼎子) 윤제민(尹濟民;

1634~1690)의 시(詩) 등을 한데 엮은 책이다.

이 유고집은 1986년 파평윤씨 정장공파 옥동문중에서 국역 발간하였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파실기(老坡實記), 노파실기부록(老坡實記附錄), 몽파실기(夢坡實記), 잠정자시집(岑鼎子詩集), 시(詩), 소(疏), 서(序), 기(記), 표(表), 부(賦), 잠정자시집부록(岑鼎子詩集附錄)

6)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券)

공신록이란 국가에 큰 공이 생길 때 임시로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두어 공신의 업적을 마련 1등 공신으로부터 3등 공신에 이르는 전 공신의 이름과 그 행적을 기리기 위한 왕의 명령을 수록한 책을 말하며 각 공신에게 1권씩의 공신록을 하사 하였다.

『선무원종공신록권』 은 임진, 정유재란 때 공신을 수록한 녹권(錄券)이며 우리 함평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희귀한 책이다. 이 녹권은 선무원종 2등 훈에 책록된 정충량에게 하사한 것인데 그 후손들이 잘 보관하여 찢어진 곳 하나가 없다. 해보면 해보리 정광원(鄭光源)이 보관하고 있다. 정충량에 대해서는 임진왜란 관련 이순신 휘하의 의병들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표 18 참조>

7) 송파록(松坡錄)

『송파록』 은 병조호란 때 창의한 바 있던 송파(松坡) 나각(羅珏; 1574~1644) 선생의 유고(遺稿) 가운데 감회(感懷)를 비롯한 시(詩) 170여 수를 모아 엮은 책이다. 이 송파록은 1990년 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가 국역 발간하였다.

8) 애귤재유고(愛橘齋遺稿)

『애귤재유고』 는 순 한문체로 엮어진 책으로 간행시 작성된 애귤재유고서문(愛橘齋遺稿序文)을 비롯하여 시(詩) 92수, 서(書) 19편, 서(序) 3편, 제문(祭文) 3편, 명(銘) 3편, 잡저(雜著) 3편, 기타 부록(附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 애귤재 정경식(鄭慶植; 1845~1889)은 표산마을 출생으로 노사 기정진의 문하생으로서 10여세의 어린 나이에 사서삼경을 통달하는 총명을 보였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고집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효행과 우국충정, 그리고 함평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속적인 서민생활을 노래한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기에 이 유고집은 애귤재 정경식의 인격이나 사상 감정이 잘 드러나 있고, 또한 인물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저자가 생존해 있을 당시의 함평지역에 대한 시대상이나 지역의 역사 민속생활사 등 사회적인 실상을 일부나마 밝혀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리라 보인다.

예컨대 저자 정경식의 부모에 대한 효행과 우국충정, 그리고 함평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속적인 서민생활을 노래한 것들 가운데 주목되는 몇 가지의 글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어버이 성묘 길에서 지은 시>
잡초 우거진 유당에 이르매
불효자는 어린 자식들과 행렬을 짓도다
일찍이 행하지 못한 한맺힌 효도이거니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하리요
묘소를 길지에 택하여 묘역을 가꾸었고
절서 찾아 제사 올리오니 영민하소서
어리석은 생각 새로와지매 통곡할 뿐
묘역을 돌며돌며 눈물만 짓노라.

<정원을 거닐며 지은 시>
십년 세월 정원에 심은 나무 무성하게 자라니
오늘 아침 떼를 지어, 까마귀가 날아들었네
이 새를 인간에 비기면 증자의 효에 버금가리니
사람이 이 새만 못해 어이하리요.

<신재 선조의 충신각 기공식에 대한 시>
진주성에 몰아친 처절한 비바람에
건재와 함께 우리 선조 순국하셨네
일찍이 동반에 올라 명사마이시더니
장강을 굽어보며 피바다를 이루었네
빛나는 고군분투 천지간에 알려지고
나랏님의 은전도 찬란하여라
우리 후손 할일이 이것뿐이랴
정성스레 추모하여 빛내우리라(1867년 22세 때 지은 시)

<국상일에 지은 시>
나랏님이 승하하매 만백성 슬퍼하고
갈아입은 상복들이 더없이 고쇠하구나
만수무강 하시기를 북두성에 빌었더니
해동천지가 어둠에 잠겼어라
창오산이 멀고먼데 어찌 바라보며
두견새 울음소리 차마 듣지 못하겠네
우리님 성덕을 어느 곳에 비길손가
옥황상재이시여 굽어 살피옵소서.

<용천사에서 지은 시>
산문을 들어서니 돌층계 앞을 가리고
소나무 그늘에 스님들 거니네
영곡은 연꽃을 깎아 세운듯 천길이나 우뚝 솟고
용천은 섬돌을 구비 돌아 힘차게 솟구치네
나그네 꿈길 허공을 도는데
스님의 독경소리 이 밤을 지세우고
달빛에 창 밝아 문득 잠이 깨니
종소리 닿는 곳에 내 마음 흘러가네.

9) 영빈유고(潁濱遺稿)

『영빈유고』는 성리학자인 광산김씨 영빈(潁濱) 김두삼(金斗三; 1844~1931)의 유고집이다. 내용을 보면 영상시집 5권과 영상집 5권 가운데 시 244수, 편지 23편, 기타 75편 등 일부를 골라서 순 한문으로 1967년에 손자 김현재(金弦齋)가 편집하고 노경재(魯暻齋)가 감수하여 간행하였다.

김두삼은 송 연재의 문하생이며 초시에는 합격하였으나 조선조 말엽의 매관매직 풍조를 개탄하며 과거를 단념하고 영빈정사(潁濱精舍)에서 후학양성에 전념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고 고종과 순종황제 승하 때는 유생들을 이끌고 발봉산에 올라 망곡하였다.

『영빈유고』에 실린 우국충정의 시(詩) 한수를 소개한다.

<국상을 당하여 산에 올라 곡함(國喪登山望哭)>

오래사 시라 축수했더니 어이 그리 가셨나요	假壽長年祝難求
국상의 예의범절 엄숙하고 장중하네	綴衣麻冕禮儀優
유생들 울어울어 깊은 원한 사무치고	哭班士子冕沈結
간흉들 죄상만은 또렷또렷 더해가네	誤國凶奸罪益浮
무궁화 삼천리 집집마다 눈물이요	翠槿殘花千朶淚
창오산 저문날에 만백성 수심일레	蒼梧落日萬家愁
조선의 긴긴 역사 여기서 끊기다니	春秋史筆朝鮮號
목메인 피눈물 한없이 흐를레라	嗚咽長江不盡流

10) 영언전(永言傳)

『영언전』은 수재(守齋) 박봉혁(朴奉赫; 1873~1935)이 지은 노래집이다. 이 영언전에 나오는 내용은 은유와 고사성어, 명현의 한문 용어와 수많은 고금의 인물들이 등장되어 있어 뜻이 무엇이며 어떤 인물인가를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1991년 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와 밀양박씨 수재공종중회가 주축이 되어 주해(註解) 발간하게 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몽가(啓蒙歌), 유속가(喩俗家), 유몽가(喩蒙歌), 정기가(正氣歌), 권선가(勸善歌), 은사가(隱士歌), 책유가(責儒歌), 노처자수절가(老處子守節歌), 기성가(箕城歌), 십곡가(十曲歌), 허주가(虛舟歌), 조선가(朝鮮歌), 발문(跋文; 박봉혁), 원본(영인)

11) 우득록(愚得錄)

『우득록』은 조선중기 호남사림의 한 봉우리를 이루었던 곤재(困齋) 정개청(鄭介淸; 1529~1590) 선생의 저서로 논(論), 서(序), 설(說), 잡저(雜著), 경학(經學), 상소(上疏), 서(書) 등 총 33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우득록은 1988년 전라남도 향토문화총서 제35집으로 국역 발간하였다. 이 우득록은 수차례에 걸친 당화를 입으면서도 어렵게 보존되어진 자료로 본편 3권과 부록 상하 1권을 합쳐 총 4권으로 되어있다.

본편 1권~2권은 논학문(論學文)으로 배절의론(排節義論)으로 지목된 <동한진송청담부동설(東漢晋宋淸談不同說)>을 비롯하여 논인군지학(論人君之學), 이기설(理氣說), 기질설(氣質說), 예론(禮論), 태극도설(太極圖說) 등의 성리제설(性理諸說)과 의의계서(議義楔序)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3권에는 소, 차, 서, 제문이 실려있으며 부록의 상권에는 곤재의 세계와 사실을 수록(홍중삼 지음)하였고, 하권은 곤재 행장과 곤재전(허목 지음)이 실려 있다.

우득록 각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곤재 정개청의 필초본 『우득록』이 숙종에게 보여진 것으로부터 연유하였다. 이에 1689년(숙종 15) 왕의 특명으로 홍문관에서 등진 작업이 착수된 뒤 나만성(羅晩成)과 나두동(羅斗冬)에 의해 교정 작업이 완료되었고, 1691년(숙종 17)에는 당시 전라감사 이현기(李玄紀)가 별검(別檢) 나두춘(羅斗春)을 시켜 수백 판의 각재를 도와줌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후 각판이 완성된 것은 이듬해 당시 무안현감이었던 홍만조(洪萬朝)가 윤세태(尹世泰)와 윤고완(尹高玩) 등의 무안유생들을 모아 각판하여 완성시켰다. 그리고 부록 상·하권의 간행은 본편이 간행된 지 11년 뒤인 1703년(숙종 29)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래의 우득록 각판은 총 108매였으나 현재 남아 전하는것은 48매에 불과하다. 현전하는 각판의 권별 매수로는 1권이 28매 중 14매, 2권이 27매 중 16매, 3권이 33매 중 11매, 부록이 20매 중 8매로 총 48매가 남아 전한다. 목판의 크기로는 가로 64.5㎝, 세로 11.2㎝이며, 각자(刻字)는 모두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많은 수의 사람이 필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지방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되어 있다.

12) 월악면(月岳面) 기호성책(飢戶成冊)

『월악면 기호성책』의 작성 시기는 1876년(병자년)에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표제(表題)와 내제(內題)에는 모두 『월악면 기호성책(月岳面 飢戶成冊)』이라 쓰여 있다.

『월악면 기호성책』은 호적중초와 비슷하게 호적 작성의 기초 자료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문서의 기재 내용은 1876년 병자식년(丙子式年) 11월에 월악면(현 월야면) 소속 마을(동·촌)의 전체 호수와 인구현황을 기록하고 각 마을(동·촌)별로 기호(飢戶)를 호주(戶主)의 이름과 나이, 처(妻)의 이름(성씨)과 나이, 동거자(同居者) 및 솔거자녀(率居子女)의 이름 나이순으로 기재하였다.

그 하단에는 각각 그 사람의 성장 정도에 따라 노(老), 장(壯), 약(弱), 아(兒)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였고, 자녀에 대한 기재 중 아들인 경우는 이름을 표기하였으나 여자인 경우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다만 1구(口) 2구(口) 등으로 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끝부분에는 노(老), 장(壯), 약(弱), 아(兒)에 대한 남녀 인구수(人口數)의 합계와 가구수(家口數)의 합계를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당시 작성 파악한 마을(동·촌)별 호수를 분석해 보면 마을명 불명(1), 봉덕(鳳德; 6), 중보(中保; 4), 전하산(全下山; 8), 수박등(水泊嶝; 1), 신흥(新興; 3), 금석동(金石洞; 4), 죽산(竹山; 12), 신기(新基; 8), 순촌(蓴村; 10), 송계(松溪; 2), 괴정(槐丁; 3), 상지(上池; 3), 하지(下池; 5), 하내동(下內洞; 8), 상촌(上村; 6), 남촌(南村; 4), 연동(連洞; 3), 동산(東山; 5), 외치노변(外峙路邊; 4), 당장동(堂丈洞; 2), 외치(外峙;

11), 고와동(古臥洞; 2), 상내동(上內洞; 2) 등으로 총 호수(戶數)는 도합 117호(戶) 이다. 남녀별 인구수를 분석하여 보면 남자는 총 203명으로 노남(老男; 28), 장남(壯男; 113), 약남(弱男; 40), 아남(兒男; 22) 이고, 여자는 총 167명으로써 노녀(老女; 39), 장녀(壯女; 85), 약녀(弱女; 32), 아녀(兒女; 11)으로 남녀 도합 370명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표 35>월야면 기호성책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기호성책	1876년	17× 22	월악면		월악면 기호

13) 유천유고(柳川遺稿)

『유천유고』는 함평모씨 유천(柳川) 모종관(牟鍾寬; 1894~1946)의 유고집이다. 그는 전(田) 간재(艮齋)의 문하생으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였으며 후학을 양성하는데 전념하였던 인물로 신광면은 물론 함평군의 각 읍면과 인근의 영광이나 무안 등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유천유고는 1955년부터 발간 준비를 시작하여 1962년에 원고정리를 마무리 지어 순 한문체로 출간하였다. 이 유천유고에는 「조시최면암선생(弔詩崔勉庵先生)」, 「칠석(七夕)」 등 3백여 수(首)의 시문(詩文)과 잡기(雜記)가 수록되어 있다.

14) 자산서원(紫山書院) 소장문서

자산서원은 엄다면 엄다리 제동마을에 있는 서원이다. 이 자산서원과 관련되는 옛 문서는 교지(2) 및 준호구(4) 등으로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1694년 2월 27일에 발급된 교지(敎旨)는 선무랑(善務郞) 곡성현감(谷城縣監)이던 곤재 정개청을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로 임명한다는 일종의 임명장이다. 그리고 1614년에 발급된 또 하나의 교지는 수급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으로 이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무등파크에 거주하는 정성훈이 소장하고 있다.

나머지 4건의 준호구(準戶口) 가운데 1693년의 것은 무안현감이 발급하고 정경헌(鄭敬憲)이 수급한 것이고, 1769년과 1772년의 것은 무안현감이 발급하고 정광영(鄭光榮)이 수급한 것이며, 1828년의 것은 하동부(河東府)에서 발급하고 정성철(鄭聖哲)이 수급한 것이다.

이들 옛 문서의 원 소장자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신기에 거주하는 정병민(鄭柄玟), 정병인(鄭柄仁)이다.(<표 36> 참조).

<표 36> 자산서원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교 지	1694년		국 왕	정 개 청	
2	교 지	1614년		국 왕	?	
3	준 호 구	1693년	39× 32	함평현감	정 경 헌	
4	준 호 구	1769년	34× 38	함평현감	정 광 영	노 1
5	준 호 구	1772년	34× 38	함평현감	정 광 영	노 1
6	준 호 구	1828년	38× 37	하 동 부	정 성 철	노 1

15) 정유피란기(丁酉避亂記)

『정유피란기』는 은와(隱窩) 정호인(鄭好仁; 1579~?)이 정유재란 때 왜적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송환되어 고국에 오기까지(1597.8.12~1599.7.23)의 일기이며, 일본의 8도 66주의 풍물기 등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이 일기책은 6·25 한국 전쟁 때 소실의 위험 속에 있었으나 이를 소중히 보관해온 정성진(鄭性鎭;1916~1966)에 의해 소실의 위기를 넘기고 1972년 8열부녀 정려각을 문화재로 지정할 때 증빙 자료로 제출되어 전남대학교 박물관 조사진에 의하여 정호인의 친필본임이 확인되었고, 1986년 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와 진주정씨 월촌공종중회가 국역 발간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기(1597년 8월~12월, 1598년 1월~12월, 1599년 1월~7월), 왜국(倭國)의 8도(道) 66주(州) 풍물기, 임진왜란 때 왜병수와 왜장수, 팔열부녀 정려각 건립통문, 정유피란기 해제(이을호), 정유피란기 원문, 끝말(跋文).

16) 음지 천룡계 문서

죽산안씨가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산면 나산리의 마을공동 문서로는 『음지천룡계안(陰地天龍楔案)』과 『천룡계전곡경리부(天龍楔錢穀經理簿)』 그리고 『차일계치부책(遮日契置簿冊)』 등이다(<표 37> 참조).

<표 37> 죽산안씨 동족마을 소장 옛 문서

NO	문서 종류	발급연대	규격(㎝)	발 급 자	수 급 자	비 고
1	음지천룡계안	1799년	21× 24	마을민	마을민	1805년 중수
2	천룡계전곡경리부	1922년	20× 22	마을민	마을민	치부책

이들 문서는 촌락조직 및 계(契)조직 관련 자료로서 성격상 나산마을의 동계문서라 할 수 있겠다. 이 가운데 『음지천룡계안』과 『천룡계전곡경리부』는 1800년으로부터 현재까지 매년마다 마을에서 행해지던 천룡제(天龍祭)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문서다.

『음지천룡계안』에는 천룡제계 창설시에 작성되었던 회유문(回諭文)을 비롯하여 완의(完議), 서문(序文), 조약(條約), 진설도(陳設圖), 축문(祝文), 제관(祭官), 좌목(座目 : 계원)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천룡계전곡경리부』에는 물건기(物件記)를 비롯한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計約書), 제수기(祭需記), 추수기(秋收記), 토지세(土地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자료는 적어도 1800년으로부터 현재까지 나산마을의 생활상의 구조나 신앙형태를 살피는데 유용한 자료로 취급될만한 자료라 하겠다.

다음으로 『차일계치부책』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46년(병술) 4월 30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소위 상포계, 또는 상여계 일종의 문서와 관련된다. 이는 마을에서 초상이 났을 때 마을 공동의 차일을 대여해 주고 서로 부조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최초에는 대정마을에서만

행해졌으나 지금은 나산리 전체가 계원으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웃한 동신마을에서는 1972년 1월 20일 이와 비슷한 「동신부락촌계」라는 명목으로 계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데, 이 또한 지금은 차일계와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어쨌든 이 자료는 방하동의 천룡제 관련문서와 함께 마을의 공동조직의 형태를 살피는데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다음의 내용은 1799년(정조 23) 12월 천룡제계 설계시 협의하여 결정한 「설계시 회유문」으로 천룡제의 복설과 천룡제계를 창설하게 된 취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마을에 신사(神社)가 있는 것은 예로부터 준행해온 예절이었습니다. 그중 기룡동으로 뻗혀 내려온 산록이 하나로 모여 봉우리를 이룬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 옛날 노인들이 별도로 산신제(山神祭)를 지낸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사람들이 간혹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사가 어느 때 시작되고, 또 어느 때 중지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지금도 석단(石壇)과 토전(土田) 자리가 완연히 남아있고, 또 사람들도 말하기를 당시에는 마을이 번창하고 과거 급제자 및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고 하면서 그 제의(산신제)가 중간에 폐지된 것을 매우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 전인 무오년(1798)에 마을사람들과 상의하고 기금을 거출하여 다시 그 일(산신제의)을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기금을 받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 있어서는 혹 재력(財力)이 같지 않고 사람의 일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금년(1799)같이 풍년이 들었을 때 일제히 기금을 모아 제를 지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의가 있는 곳에 신(神)의 강림(降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어찌 우리 마을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기룡동으로 부터 방하동과 남호동에 회유(回諭) 하오니, 이 마을에 거주하는 상하민(上下民)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일로 생각하고 전(錢)·미(米)·조(租) 등을 형편에 따라 협조하여 함께 제수(祭需)를 마련하는데 힘써 주신다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동안 명맥이 끊겼던 천룡제는 이듬해인 1800년(순조 즉위년)부터 제의가 거행되게 되었고, 천룡제계 또한 처음으로 강신(講信)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22년 뒤인 1822년(순조 22)에는 계의 운영을 좀더 조직적이고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계의 면모를 일신하는 「완의」와 10개조의 「조약」을 만들게 된다.

내용 중 특이한 점은 「조약」의 제5항을 보면 1822년 당시부터 상하민(上下民)을 막론하고 생기 복덕한 사람이면 누구나 제향의 주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1822년 이전까지는 하민(下民)이 제의 주제자가 될 수 없었던 당시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천룡제계의 구성원 명단인 「좌목」은 죽은자와 신입자 및 추입자가 있을시 그 명단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좌목은 곧 마을의 성씨 구성과 그 변화를 밝히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는데, 자료에 보이는 명단은 근년의 것으로 예전의 구성원을 낱낱이 살필 수 없어 아쉽다. 지금의 자료에 등록된 성씨구성을 살펴보면 이씨(李氏) 11명, 안씨(安氏) 10명, 박씨(朴氏) 3명, 김씨(金氏) 2명, 최(崔)·정(鄭)·노(盧)·강씨(姜氏) 각각 1명씩으로 되어 있다.

다음의 내용은 1822년(순조 22) 12월 10일 안지손(安志遜 : 1781~1833) 안춘노(安春魯 : 1786~1833) 안지신(安志信 : 1782~1834)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 「완문」과 「조약」문이다. 이는 1798년(정조 22) 천룡제 복설논의 이후 최초 제향시기와 그 후 천룡제계가 조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면모가 갖추어지게 된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우리마을이 창설된 것은 대체로 지리(地理)의 맥(脈)을 취한 것에 있는데, 그중 입봉(笠峯)의 한 맥은 우리 마을로 내려온 용(龍)으로써 낚싯대를 드리우고 고기를 낚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즉 우리 마을의 지형은 인걸(人傑)이 많이 나고 가산(家産)이 부유해질 지형이라는 것인데, 마을이 창설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중간에 분산

(分散)되는 근심이 없지 않았었다. 그러나 근래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 들고 점차로 융성해질 기미가 보이므로 마을 어른들은 이에 천룡(天龍)을 경모하는 제의를 치르고자 의논하고 제수(祭需)를 마련할 수 있는 약간의 재력을 마련하여 경신년(1800)으로부터 창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이루어진 이 제향은 곧 각 읍의 사직(社稷)과 각 마을의 리사제(里社祭)와 같은 것으로 이 제향은 우리 마을 주민들의 생리(生理)에서 비롯된 것이니 누가 성의를 다하여 공경히 이행하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사는 정의(情誼)로 이 계를 창계(創楔)하였던 것인즉, 재리(財理)의 이해를 따지지 말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계를 창설한지도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고, 재력 또한 다소 남아 있는 즉 그 추입자(追入者)와 신입자(新入者)에 대해서는 자연히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이 조약을 마련하였으니 모두다 이 뜻을 잘 파악하여 망설이지 말고 영원히 준행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다."

一 제향의 일자는 유사(有司)가 미리 택할 것.
一 제향 때는 계원이 표(標)를 내어 결정하되 미리 재계(齋戒)하여 거행할 것.
一 제향 후 강신(講信)할 때에는 비록 술을 마시더라도 우정을 중시한다면 제각기 신중하여 소란을 피우지 말 것.
一 약간의 전답과 화곡(禾穀)은 유사가 착실히 관리하여 유실되거나 부족한 후환이 없도록 할 것.
一 제향 때에는 정재(正齋)가 고직(庫直)을 정하여 거행하되, 지금으로부터(1822년) 상하민(上下民)을 막론하고 생기(生氣)가 있거나 복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선택하여 거행할 것.
一 이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서 혹 새로 이거해 온 사람이 있으면 당년 강신일에 조(租) 3두를 본 계중에 납입케 한 후 신입케 할 것.
一 옛날 계원 중 그 자손들이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은 당년에 조(租) 1두를 본 계중에 납입케 한 후 추입(追入)케 할 것.
一 신입자와 추입자는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입계하지 않을 경우는 촌중(村中)에서 논책할 것.
一 옛날 계원과 추입자 및 신입자를 막론하고 이 마을에 거주한 후 다른 마을로 이거할 경우에는 영원히 그 본금을 지급하지 말 것이며, 또한 이 계에 관한 일을 간섭하지 말 것.
一 예로부터 수행안(隨行案)이 없었고, 또한 이 계를 창설할 때의 옛 계원들도 이미 고인이 되었으므로, 다만 지금의 추입자와 신입자를 좌목(座目)에 나란히 기록한다.

한편 이로부터 44년이 지난 1866년 1월 15일에는 안시택(安時澤 : 1826~1869)이 다음과 같은 「천룡제계서」를 짓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은 『음지천룡계안』 이 마련되지 못하였다가 비로소 이 시기에 와서야 만들어졌던 것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지천룡계』 라는 명칭은 곧 마을의 풍수지리와 관련한 것이고, 당시만 하여도 남호동(南湖洞) 마을이 존재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상에는 「천룡제계서」의 작성자가 안시택(安時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마도 후대인이 문서를 개안(改案)할 때'택(澤)'을'택(宅)'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무릇 제(祭)라는 것은 사(祀)를 이르는바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禮)를 다한다는 것을 말함이고, 계(楔)라는 것은 합(合)이란 것을 가리키는바 마음을 하나로 합해 정(情)을 키우는 것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제(祭)는 제물(祭物)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력을 투입하여 제사 지내고, 계(楔)는 제각기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여 규약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즉 우리 마을의 천룡제계(天龍祭楔)의 창설은 특히 초상난 집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그러한 예와는

다른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신명(神明)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제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직 우리 나산일동(羅山一洞)은 예로부터 문물이 융성한 곳으로 일컬어졌고 마을 입구에는 사(社)를 마련해 두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사직과 같은 것으로서 매우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유독 음지(陰地)의 천룡(天龍)은 즉 우리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아름다운 곳을 택한 것이라 하겠다. 입봉(笠峯)의 한 맥이 한데 모여 주위를 감돌아 하나의 명승을 이루어 우뚝 솟은 그 천룡의 맥에다가 석단(石壇)과 토전(土田)을 마련하였으니 이곳이 참으로 지령(地靈)이 머무를 수 있는 터라고 할 것이다. 그 우측에는 옥봉(玉峯)이 있는데 그것은 깎아 세워 놓은 듯 하고, 좌측에는 도천(道川 : 나산천)이 있는데 그곳엔 물이 철철 넘치며, 남호동(南湖洞)의 안쪽에는 방하동(芳荷洞)이 있고, 기룡동(騎龍洞)에는 새벽에 습한 구름이 피어올라 인걸이 살만하고 부자와 귀인이 날 만하다는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옛날 어른들은 이미 제사를 지냈던 것이고, 기금을 모아 계를 결성하여 다시 매년마다 예를 다해 제의를 올렸던 것이다. 이로써 그 정재(正齋)는 언제나 복을 받을 징험이 있었으니 그 누가 공경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기미년(1799)으로부터 계를 창설한 이후 제의는 별 탈 없이 잘 모셔졌지만, 재력이 넉넉지 못하고 또한 수행안(隨行案)을 두지 못하였었다. 그러기에 지금에서야 가까스로 계안(楔案)을 개안(改案)하여 무릇 영구히 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후인들은 마음을 함께하여 계를 치루고, 또한 공경한 마음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면 즉 멀지 않아 많은 행복을 내려주어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자료상 「제향시거원」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천룡제향시에는 헌관(獻官) 3명, 축관(祝官) 1명, 집사(執事) 1명, 정재(正齋) 1명 등이 제를 주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스러운 점은 「천룡제축문」에는 제향의 신위를 분명 '천룡지신신위(天龍之神神位)'라 표명해 놓고서도 「진설도」나 현행 제향시 진설의 경우를 보면 술잔이 세 개나 된다. 이는 천룡지신 말고도 또 다른 신위가 있음인지, 아니면 예로부터 그렇게 행해져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같이 행하는지 그 연유를 알 수가 없다.

『음지천룡계안』 과 관련 있는 『천룡계전곡경리부』 라는 자료는 천룡계를 운영해오면서 작성된 계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자료로서 제향시 일정한 기금 등의 수입과 지출, 천룡계 소유전답, 재산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일종의 치부책(置簿冊)이라 할 수 있겠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향시 소요되는 물건기(物件記)와 제수기(祭需記), 그리고 계의 전답을 사고 팔 때 작성하였던 계약서(計約書), 천룡계 소유의 전답에서 소출된 현황을 연도 전답별로 각각 기재한 추수기(秋收記), 경작자들에게 받아들인 토지세(土地稅) 등의 내용들이다.

방하동에 거주하고 있는 안종근(安鍾根)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천룡제계의 재산이 상당히 많았으나 지금은 답 2마지기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한 사정을 증명이라도 하듯 치부책의 내용 중 「토지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천룡제계에서는 1922년(대정 11년) 1월 2일 식지면 나산리 161번지 전(田) 463평 2두락지 1편을 소유자 안종석(安鍾錫)에게 당시의 시세가 45냥을 주고 매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1924년 1월 2일 강신시(講信時)의 기록을 보면 세교평(細橋坪) 답 1두5승락지, 장파평(長波坪) 답 2두락지, 구석평(九夕坪) 전 2두락지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17) 지리와 기행문, 『팔도강산(八道江山)』

이 책은 나산면 이문리 출신인 상산김씨(商山金氏) 삼천리(三千里) 김금남(金今南; 1906~1982)의 저서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40년 동안 걸어서 전국 1백 70여 시

군의 읍면까지를 누비며 명승고적을 비롯하여 풍물, 군 읍면의 유래, 전설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97개소의 명산고봉, 다도해 무인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이 닫지 않는 곳이 없었다. 6.25전쟁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 지기 전인 1931년에는 335일간 행상(行商)을 겸하면서 압록강으로부터 두만강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전역을 찾아다니며 주옥같은 기록을 남겼다. 이 팔도강산은 이런 면에서 '여지승람'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 사람의 집념에 의한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의 기록은 망향에 젖어 있는 실향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상, 하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권은 <남한편>, 2권은 <북한편>이며 프린트판으로 출간된바 있다.

김금남은 북한 기행을 끝내고 향리로 돌아와 오산학원(五山學院)을 인가받아 후진 양성에도 남다른 면을 보였는데, 오산학원은 지금의 이문초등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해방이후 많은 지리와 기행문이 출간되었으나 걸어서 확인한 산 자료가 담긴 지리서로 이에 비길만한 것은 흔치 않다고 본다.

김금남의 살아있는 이 지리서는 부분부분 일간지나 방송에 소개된 바 있다. 그의 고향인 나산면 이문리에는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삼천리 김금남 팔도강산견문기념비>를 세워 두었다.

18) 진지록(盡知錄)

『진지록』은 항일 의병장 심수택의 의병일지이다. 세로 29㎝, 가로 23㎝, 모필(毛筆)본의 이 진지록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격고문(檄告文)」, 「토왜(土倭)에게 이름」, 「각 고을 향교에 통고함」, 「각처 보조원에게 경고함」, 「각 고을 면장 영원(領員) 이장에게 고시함」, 「군중(軍中)에 고시함」 등의 내용이 이 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병의 '진용명단'을 비롯 '접전일기' '광주담판' 등 옥중기록과 옥중에서 술회한 「시(詩)」가 수록되어 있다. 끝으로 오준선(吳駿善)이 쓴 의병장 「심남일전」이 게재되어 있다.

이 진지록은 호남 의병장으로 명성이 높았던 심수택의 투쟁 기록인 만큼 후기 의병 항쟁사를 연구하는데 가치 있는 문헌이 아닐 수 없다. 진지록에 실려 있는 옥중생활(광주옥)의 시 한수를 소개한다.

> 봄 가을 모르는 감옥살이라
> 해묵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네
> 집안 생각나라 근심 모두다 눈물
> 고개 들어 강산을 볼 수도 없어라.

이 진지록은 광주옥에 그가 있을 때 아들 심상국(沈相國)이 면회 때마다 지필묵을 넣어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이 남게 된 이면에는 심씨 성(姓)을 가진 교도관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쨌든 이 진지록은 손자 심명재(沈銘裁)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1984년 『함평군사』 발간시 소개되었다.

19) 칠실유고(漆室遺稿)

『칠실유고』는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을 도와 싸워 혁혁한 무공을 세운바 있는 칠실(漆室) 이덕일(李德一; 1561~1622) 장군이 쓴 상소(上疏)와 우국가(憂國歌) 28장 등을 한데 모아 엮은 책이다.

이 유고집은 1985년 칠실 이덕일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국역 발간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고원문, 어제(御製) 이충무공전서(월산사), 상종백이공서(上宗伯二公書), 계자양휴서(誡子揚休書), 대동강 도소(都疏), 폐 대비척소, 우국가, 청차 강진수소, 포천 절도사소, 이공 칠실전, 칠실 이공 묘갈, 칠실 이공 묘지명, 서칠실 이공 가승후, 칠실 이공 우국가서, 이칠실 우국가후서, 제칠실 우국가후, 월산사 영건시 다사상서, 열읍통문(나주, 능주, 영광, 무안, 남평, 영암, 화순통문), 충무공 합향시 제문, 춘추우정 축문, 개기축문, 상량문, 경충당기, 경충당기, 경충당발, 기문설, 칠실유고서, 칠실 이덕일장군 약력, 함평이씨 세계 분파도, 간행후기, 함풍부원군 약사, 송암집 원문, 동 번역문

20) 태허재유고(太虛齋遺稿)

『태허재유고』는 죽산안씨 태허재 안지환(安志煥 : 1774~1851)이 생존해 있을 때 작성하였던 글들을 모아 후손들이 간행한 문집자료이다.

먼저 이 문집의 전체적인 체제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간행경위나 그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는 「서」와 「발문」, 본문 격에 해당하는 태허재 자신의 글인 「시문(詩文)」「서문(序文)」「서문(書文)」「기문(記文)」「상량문(上樑文)」「제문(祭文)」, 기타 「부록편」 등이다.

태허재 안지환의 자는 덕윤(德潤)이고 호는 태허재(太虛齋)이며 본관은 죽산이다. 그의 증조는 안치열(安致烈 : 1699~1727)이고 할아버지는 안일윤(安一胤 : 1717~1789)이며 아버지는 안창노(安昌魯 : 1740~1799)이다. 그는 높은 학문과 덕행이 있었는데, 영산신씨 신경희(辛慶禧)의 따님과 영산신씨 신득추(辛得秋)의 따님은 전후 그의 두분 어머니이다. 그는 몸집이 크고 재주가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익혀 20세 이전에 문장과 예술이 성취되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향시(鄕試)에는 합격하였으나 문과에는 불합격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강재(剛齋) 송선생(宋穉奎 : 1759~1838)을 찾아가 배알하고 서로 더불어 성리서를 강론하면서 10년 동안 사사하였다. 부모님을 섬길 때는 어버이의 뜻과 몸을 아울러 봉양하면서 모든 정성을 쏟았으며 상(喪)을 당하여서는 장례절차와 제사모시는 것을 한결같이 주자가례를 따랐다고 한다. 만년에 두어 칸 집을 건축하여 「태허재」라고 편액을 걸었다는데, 이는 자중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이라 한다. 부인 파평윤씨는 윤세복(尹世福)의 따님으로 부덕을 갖추었으며 부군과의 사이에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으니 안수량(安秀良 : 1809~1864))과 안수명(安秀明 : 1825~?)이고 따님은 나주김씨 김상규(金相圭)와 광산김씨 김광진(金光晋)에게 시집갔다.

태허재유고에 수록된 자세한 목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序) : 1992년 2월 박래호(朴來鎬)
구서(舊序) : 1895년 7월 외손 김훈(外孫 金勳)
시(詩) : 63수
잡체(雜體; 2수) : 함가(咸歌), 제석감음(除夕感吟)
서(書) : 기가아(奇家兒)
서(序) : 최락당유집서(最樂堂遺集序)
기(記) : 이인정이건기(里仁亭移建記), 불영대기(佛影坮記)
상량문(上樑文) : 이인정중수이건상량문(里仁亭重修移建上樑文), 기산강당중수상량문(箕山講堂重修上樑文)
제문(祭文) : 제고인문(祭故人文), 격주신문(檄酒神文)
부록(附錄) : 근제외조오성관문행선곡유감시후(謹題外祖篔城館聞行船曲有感詩後), 인분가급기경세일기후소식(忍憤歌及己庚歲日記後小識), 제가어습유(諸家語拾遺), 증조고태허재부군묘표(曾祖考太虛齋府君墓表)
발(跋) : 1955년 10월 안기오(安基吾)
편집후기(編輯後記) : 1992년 3월 현손 안석두(玄孫 安錫斗).

21) 해상록(海上錄)

『해상록』은 월봉(月峯) 정희득(鄭希得; 1575~1640)이 정유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겪은 일을 일기로 남긴 것이며, 자작시 400여 편과 타인의 시 130여 편이 함께 실려 있다.

이 일기책은 1986년 함평군 향토문화연구회와 진주정씨 월봉공종중회가 국역 발간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서(自序; 정경득), 구간서(舊刊序; 최익현), 일록(日錄), 환고국일봉소(還故國日封疏), 일본풍토기(日本風土記), 진하소(陳賀疏), 예조완문(禮曹完文), 행장(行狀; 이홍직), 팔열부를 애도함(哀八烈婦辭; 서봉령), 칠산망사단기(七山望祠壇記; 정건주), 한문본(漢文本; 1902년), 발문(跋文; 8대손 정종관).



Contents

| 제1장 |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함평사회의 변동 *1080*
집필 / 김영택(金永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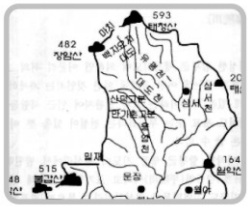
| 제2장 | 민족독립운동의 전개와 함평지방 *1099*
집필 / 김영택(金永澤)

| 제3장 | 해외에서의 민족독립운동의 발전과 함평인의 활약 *1153*
집필 / 김영택(金永澤)



제7편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의 함평

제1장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함평사회의 변동



제1절 일제의 토지침탈과 함평의 일본인 회사농장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제는 우리나라를 완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일본 군대를 전면 배치한 상태에서 식민통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실시하였으니, 일본 화폐를 공식화폐로 하여 무제한 통용하게 하는 '화폐정리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재정과 세정을 장악하기 위하여 '재정정리계획'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이어서 한국인의 제반 저항을 억압하고 한국인의 언론·출판·결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신문지법·보안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의 자원과 토지에 대한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군대 해산을 통하여 한국인의 무장기반을 철저히 훼손하면서 이어 사법권, 경찰권마저 빼앗아 강제합병을 단행하였으니 이 때가 1910년 8월 22일이었다. 이제 한반도는 통감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일본천황의 직할지대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한 군대를 더욱 늘리면서 전국 각처를 헌병경찰에 의한 계엄통치상태에 두었다. 조선총독은 사법·행정·입법을 비롯하여 군대 지휘권까지를 한손에 거머쥔 전제군주와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아래에는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을 두었는데 경무총감은 헌병사령관이 겸임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주둔군 헌병사령관 아까이시 겐지로오(明石元二郎)가 1910년 9월 10일 일본천황의 칙령으로 발표한 헌병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선주둔의 헌병은 육군대신의 관할에 속하며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는 조선총독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조선주둔 헌병은 군사 경찰이외의 치안유지에 관해 경찰을 장악한다. 헌병장교·준사관·하사관·상등병에게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직한 대로 경찰관의 업무를 집행시킬 수 있다.
③ 조선총독부에 경무총감부를 두고 조선주둔헌병사령관으로 이에 충당하며 총독의 명을 받아 조선의 경찰사무를 총리하고 경찰관서의 직원을 지휘 감독케 한다.
④ 각도에 경무부(警務部)를 두고 해당도의 헌병장인 육군좌관(陸軍佐官)으로 부장에 충당하며 경무총장의 명을 받아 도내의 경찰사무를 장리하며 관내의 경찰관서 직원을 지휘 감독케 한다.
⑤ 조선에 근무하는 헌병장교는 조선총독부 경시(警視)로 헌병·준사관·하사관은 조선총독부 경부(警部)로 임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병경찰제 아래서 헌병과 경찰에게는 범죄 즉결처분권과 민사소송 조정권을 비롯해 세금징세권·산림위생 감독권·집달리권과 벌금 및 구류권 등 30여종에 이르는 민간인들의 일상생활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고 심지어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던 태형제(笞刑制)를 다시 부활시켜 그 시행 권을 헌병경찰에게 부여하기까지 했다. 말하자면 전근대적인 중세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야만적 통치방법이 '동양의 유일한 문명국'이라고 자임하던 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헌병과 경찰들은 전국의 방방곡곡에 설치한 헌병분견소·순사주재소·파출소 등에 배치되어 조선인의 일상생활을 감시 감독하였다. 초대 헌병사령관이었던 아까이시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조선통치 비법으로 '마치 바둑판에 바둑알을 깔아 놓듯' 많은 경찰서와 순사주재소 및 헌병분견소를 통해서 조선반도를 물샐 틈이 없이 통치했다고 회고하였다.

1910년 전국에 헌병분견소 653개 처에 2,019명의 헌병이 배치되었고, 이듬해에는 935개처 7,749명으로 1년 사이에 헌병 수를 무려 3배나 증가시켰다. 경찰관서와 경찰의 수도 1910년에 481개소의 588명이였던 것이 이듬해에는 678개소에 6,222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같은 헌병경찰의 증가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18년에 이르면 1만 3,380명에 달하였다. 이밖에도 일본의 정규군 약 2만 3,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 같은 무단통치하에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외견상으로 보면 토지소유권을 조사하여 소유권을 보장하고 지가를 조사하여 토지세를 공평하게 하며, 지형 지모를 조사하여 지적도를 만들고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소유권을 근대적으로 법인화한 위에서 토지소유권의 자유로운 이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이었으며, 토지과세를 강화하여 일제의 식민지 재정을 확대하려는 것이었고, 나아가 지적도를 통하여 도로·철도·제언 그리고 각종 산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일제의 자본이 한국의 토지를 장악하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위한 재원의 확충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일본자본주의의 한국 내에서의 투자와 개발을 위한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것은 '수탈을 위한 토지측량'에 다름이 아니었다.

1910년 9월 임시토지조사국이 되면서 추진된 토지조사는 토지소유권 조사와 지위 등급 및 지가의 조사로 구분되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장부정리-토지조사부 지세명기장 등기부 지적도의 작성으로 마감되었다. 토지소유권의 조사는 임야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종류 지주 등을 조사하여 지적도와 토지조사부를 조제하고 그 강계(疆界)를 조정하여 부동산 등기제도의 소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준비조사와 1필지 조사가 있고 분쟁지 조사가 있은 후 마지막으로 토지소유권과 강계를 확인·시정하게 하였다. 토지등급 및 지가의 조사는 시가지·경지 ·잡종지 등의 3종류에 대하여 지위 및 지가를 책정하여 지세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대지의 등급은 임대가격이나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1평당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위 등급을 정하고 전답·지소·잡종지의 등급은 과거 5년간의 700평당 평균 수확고와 지세, 지질, 수리 교통과 수요·관개·이용정도, 수확물의 품위 이지목(異地目) 또는 양입(量入)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지소(池沼) 및 잡종지의 등급은 밭의 등급에 준거하고 그 수확고는 밭의 주작물인 보리·콩·조·귀리의 수량으로 환산하여 구분하였다. 지위 등급의 조사

는 지세 부과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시하여 지방민의 정확한 진술과 참고자료의 제공을 촉구하였으며 지방청, 금융조합,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각종 자료 제공과 조사에 대한 원조를 구했다. 다음 지가의 산정은 지위 등급을 토대로 하여 정하였으나, 시가지 및 시가지 내의 전답, 대지소(垈池沼) 잡종지 지가조사는 토지의 시가 임대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지리의 편부와 산업의 번한(繁閑) 기타 각종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산출했다.

이 같은 토지조사사업은 총독부의 국유지창출사업이기도 했다. 조선총독 테라우찌는 1910년 10월 5일 총독부에서 열린 각 도지사 회의에서 행한 훈시에서 국유 미간지에 관한 처분에 대해 각 도지사로 하여금 소유자와의 관계, 역사상 내력을 상세히 조사토록 지시했다. 이렇게 하여 창출된 많은 국유지를 일제는 소작제화 하여 조선농민들에게 대여해 소작료를 징수하는 한편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등을 비롯하여 일본인의 토지 및 농업회사에게 불하하는 한편 일본인 농업이민을 유치하여 그들에게 헐값으로 분배하였다.

동척은 1913년까지 4만 7,148 정보를 1,073만여 엔에 매수하고 1914년에는 농공은행(農工銀行)에서 거액을 융자받자 전라·황해 등지의 비옥한 전답을 강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18년 말에 이미 전답·삼림·잡종지를 합하여 7만 5,175정보에 달했으며 회사 창립 때 현물출자형식으로 약탈했던 정부소유지 1만 7,714 정보를 합하여 막대한 토지를 점유한 대지주 회사가 되었다. 이렇게 강점한 토지는 우선 소작인에게 50% 내지 70%에 달하는 비싼 소작료를 받고 대여해주었고 영세농민들에게 빌려준 곡물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고리를 추수 때 현물로 받아들였다.

함평에서도 토지조사사업으로 현 가덕리의 가리역둔전이 몰수되었고 용동궁(龍洞宮) 장토가 몰수되어 100정보 이상의 동척농장이 개설되었다.

한편 러일전쟁 이후 한국농업에 대한 일본인의 침투도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고 많은 토지를 집적하여갔다. 일제의 토지약탈 방법을 보면 제1단계로 "가계발급규칙"에 의거하여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 확립의 단서를 열었고 제2단계는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국지성(局地性)을 폐지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무제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단계는 "토지·가옥저당집행규칙"을 제정해 한국 농민에 대한 고리대금업(高利貸金業)을 합법화하여 민족자본을 침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단계는 1912년 "조선부동산증명령" 및 "조선부동산등기령"을 발표하여 일부 미비했던 그들의 토지소유권을 보완하여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정립했다.

함평에서도 여러 일본인 농장이 설립되었으니 유명한 것만 들어보아도 엄다면의 다까릭기농장(高力農場. 1906)과 함평면의 야마다농장(山田農場. 1907), 엄다면의 나까가와농장(中川農場. 1912), 학교면의 스기농장(鈴木農場. 1906)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농업이민도 늘어났다. 1914년 조사 당시 함평에는 이미 90호의 일본인들이 들어왔고, 이들 중 85호가 토지에 투자한 농업이민이었다. 이들의 토지소유는 평균 30정보에 이르고 전답만을 보더라고 28정보가 넘는 경우가 많았다. 대지주나 일본인 농업이민을 보면 전남전체 중 비율로 보아 유독 함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85> 1914년 경지면적 급 농업자호구(耕地面積及農業者戶口)

구 분	경 지 면 적 (반-反)			농 업 자 호 구					
				일 본 인		조 선 인		합 계	
	전	답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함평	63,590	28,457	92,047	90	374	12,008	61,043	12,098	61,417
전남	1,369,805	1,046,801	2,416,606	1,145	4,403	313,688	1,544,656	314,847	1,549,0

<표 386> 1914년 일본인 농사경영

구 분	경영자수	투 자 액	소 유 지 면 적 반(反)					
			전	답	산 림	원 야	기 타	합 계
함평	85인	490,676원	15,796	8,285	529	94	84	24,788
전남	609인	7,140,625원	181,252	91,421	27,257	11,158	13,797	324,885

<표 387> 100정보 이상 지주(地主)(1930)

구 분	일 본 인	조 선 인	계
함 평	14	6	20
전 남	147	298	445

이러한 일제의 토지침탈은 더 한층 진행되어 1930년도 조사에 의하면 함평에서 100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 20인 가운데 일본인이 14인이나 되었다.[424]

일제의 침탈은 농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삼림·수산, 그리고 광산업에도 그들의 압도적 자본이 권력의 비호 아래 뻗쳐들었다. 1911년 8월 31일 총독부는 고시 제272호로 일본인 벌목업자들에게 한국임야를 마음대로 벌목하여 반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베풀었다. 이어 1912년 9월 13일에는 부령 제20호로서 목재업자의 자격을 일본인에게 널리 확대하였고, 1917년 11월 1일에는 일본칙령 제1호와 12월 6일 부령 제94호로서 벌목업자의 자격을 확대하여 조선인도 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지만 그것은 조선인 유화책으로 확대한 것일 뿐 목재업은 여전히 일본인 수중에 놓여있게 되어 있었다.

일제는 행정적 지원과 기술·장비·자본의 우세를 앞세워 조선연안의 각종 어류와 해산물을 남획하였고 입지조건을 조사하여 패류·어류를 인공양식까지 하였다.

또한 일제는 한국의 지하자원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제3국인의 광업권 신규취득을 금지하기 위하여 1915년 새로이 조선광업 령을 제정하고 1916년 4월 1일부터 조선광업 령 시행규칙 및 조선광업 등록규칙을 시행하였다. 그리하여 이 때부터 일본인을 제외한 제3국인의 광업권 신규취득이 금지되었으며 구 법령의 규정에 없는 주요 광물이 새로 발견된 때는 모두 신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광업권에는 물권(物權)을 인정하여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한 토지의 사용 및 수용에 관해서는 토지수용 령 중의 규정을 준용키로 하였다. 이 법령이 시행된 후 일본인

424) 농림성경성미곡사무소(農林省京城米穀事務所) 군산출장소 『昭和 5年 末 全羅南道·全羅北道 地主條』.

을 제외한 제3국인의 광업은 점차 쇠퇴해 갔으나 일본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광업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광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성황을 이루어 폭리를 취하게 되었다. 더욱이 조선광업 령 시행이후 1918년에 이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금·은·철광·사금 및 사철 등 중요품목을 선정하여 광산 세를 일본인에게만 면제하여 대거 진출한 일본인에게만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선인과 제3국인 세력을 배제해버렸다. 그리하여 일본인 채광의 설비가 점차 대규모화함에 따라 광산조차도 일본인들의 독점기업으로 성행하게 되었다. 이 때에 함평지역에서는 학교면의 속금산 금광, 대동면의 금곡리 금적골 금광, 대동면의 고산봉 금광 등이 일본인들에 의해 채굴되었다.

제2절 일제의 수탈적 개발과 함평의 기업·회사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제창에 따라 세계약소민족국가들의 독립운동 기운이 팽배한 가운데 3·1운동을 비롯한 조선인의 대대적인 반일운동에 직면한 일제는 야수적 탄압을 가하는 한편 조선인의 저항의식·민족의식을 근저에서 말살하고 독립운동 역량을 분열·해체시키기 위해 이른바 기만적 '문화통치'를 내세웠다. 그 요강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고 조선인 자체의 언론을 허용하며 지방자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기구는 더욱 확대되어 1918년 751개소이던 주재소는 1920년에 2,761개소로 3배 이상 늘어났고 경찰인원도 1918년 5,400명에서 2년만인 1920년 1만 8,400명으로 급격히 증원했다. 그 예산도 1918년 약 8백만 원에서 1920년 약 2천 4백만 원으로 3배 이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부(府)·도(道)·면(面)에 형식적으로 설치했던 자문기관 성격의 협의회원 선거권에서도 5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자로 하고 이것도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정면(指定面)에만 구성하게 하는 등 제한선거와 차별선거에 의한 형식적 조치이었을 뿐이었다. 이를 통하여 당시 조선인에게 일본의 제국의회에 조선의 대표를 보내든지 아니면 인도의 국민의회와 같은 조선의회를 창설할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의회의 창설이나 제국의회에 조선인 대표를 파견하는 등의 일은 물론 전반적인 지방자치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경찰업무와 군사업무를 분리하고 경찰과 군대를 증강하여 민족운동과 계급대립 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일부 조선인을 식민지 정책 내로 포섭하여 지배기구의 확대, 강화를 꾀하면서, 학교시설과 언론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황민화 교육을 강화하고 민족문화, 민족역사의 왜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을 뿐으로 '문화'의 이름을 빌려 민족분열 내지 영구적 영토편입을 획책하는 고도의 식민통치정책이었다. 다시 말하면 문화정치의 본질은 '조선을 문화적으로 다스리려는 것이다'는 그들의 선전과는 전연 다른데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선인 부호에게는 노동쟁의·소작쟁의를 통해 노동자·농민과의 대립관계를 정립시켜 조선민족의 단합을 훼방하여 상호 대립토록 분열시키는 한편 여기에 일본자본을 끌어들여 그것과의 연계를 통해 매판화 또는 일본화시킨다.'는 음모가 분명하게 깔려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민족운동 탄압을 위한 악법체계를 더욱 강화시킨 데서 드러나 있었다. 예를 들면

1917년 제정한 '정치범 처벌에 관한 법규'를 1925년에 더욱 가혹한 '치안유지법'으로 바꿨고 1929년에는 더욱 강화된 '신치안유지법'으로 개악하여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검거·투옥·처형하였다.

문화정치를 표방했던 이 시기 일제는 조선에서의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에 착수하였다. 산미증산계획은 일본본토 내에서의 절대적 식량부족사태로 인한 미가폭등을 막음으로써 정국안정을 기하려는데 그 절대적 이유가 있었다. 표면상 일제는 농가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조선의 농업을 개발·향상시키는 특혜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값싼 쌀을 일본으로 대량 반출시켜 그들의 식량난을 타개하려는 저미가정책을 지속시키면서 일본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함으로써 일본자본주의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남 등지에서의 쌀 수입에 따른 외화유출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자본주의의 필요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었다. 1919년 일어난 3·1운동으로 인해 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체제가 근저로부터 요동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위기대응책으로 내세운 것이 '문화정치'였고 이와 관련해 제시된 것이 「산민증식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정부가 도모하는 식량·미가(米價)정책의 한 가운데에 조선 「산미증식계획」이 들어있었다. 바꿔 말하면 「산미증식계획」이라는 조선식민지 산업정책은 필연적으로 일본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로 입안되었었다.[425]

원래 쌀은 밀(小麥)과 달라 1920년대 초는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주로 아시아에서 생산·소비되는 지역적 상품이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관개시설이 불비하여 생산은 천후(天候)에 좌우돼 풍흉이 엇갈리는 농산물이다. 일본에서 생산부족할 경우 외국쌀을 수입하게 되지만 거꾸로 일본에서 생산 과잉될 경우에는 일본쌀 값이 다른 나라보다 항상 비싸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없는 미묘한 관계가 있다. 더욱이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쌀은 인디가 계(系)인데 비해 일본이나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은 샤포니 계여서 각 나라마다 쌀의 맛에 따른 선호도가 달라 수출이 여의치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당시 일본으로서는 쌀의 수요와 공급에서 탄력성이 부족해 가격등락폭이 다른 곡물상품에 비해 현저한 결함을 기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의 쌀은 중요한 작물이자 식량임으로 그의 가격변동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었다.

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1910년대의 일본에서는 쌀값의 변동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1910년 이후 오르기 시작한 쌀값은 1913년부터 내리기 시작해 1914년부터 16년까지 계속 저미가(低米價)시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916년 가을부터 오르기 시작해 계속 올라 고미가(高米價)시대를 맞았다. 1915년 9월 한 섬(石)당 11원하던 쌀값이 4년 후인 1920년 1월에는 일거에 55원으로 다섯 배나 올라버렸다. 특히 1920년대 이후부터의 미가폭등현상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1911년부터 1913년까지의 저미가시대에서 평행선을 긋던 미가지수·물가지수·임금지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16년부터 미가지수가 물가지수를 상회하고 임금지수가 물가지수를 상회하는 불균형이 이루어져 일본경제에 심대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역대정권은 「미가조절령(米價調節令)」 「폭리취체령(暴利取締令)」 「미맥수출제한(米麥輸出制限)」 「외국미관리령(外國米管理令)」 등을 제정하고 발동해 대응하면서 유통면에만 치중하는 한편 식민지인 조선이나 대만에서 식량을 긴급히 수입하는 선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데라우찌(寺內正毅·전 조선총독) 내각시대 들어 고미가(高米價)에 대한 안정정책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1918년 8월 전국 각지에 '쌀 소동(米騷動)'이 벌어지고 말았다. 「곡류수용령(穀類收用

425) 河合和男, 『朝鮮における産米增殖計劃』, 未來社, 1986, 52頁,

令)」까지 발동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데라우찌 내각은 배겨내지 못해 물러나고 하라(原敬政友會)내각이 들어섰다. 하라 내각은 데라우찌 내각의 「곡류수용령」 시행을 중단하고 응급 아닌 영구대책으로 입안 한 것이 「산미증식계획」 이다. 하라 내각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18년 제국의회에 「개간조성법(開墾助成法)」 안을 제출해 의결을 받아냈다. 그 내용은 (1) 15년 간 25만 정보를 개간해 500만 섬을 증산하고 (2) 정부는 개간사업추진에 6%의 조성금을 교부하고 (3) 개간사업규모는 50정보 이상의 대규모에 한한다는 것이었다.[426] 그러나 이 계획은 본토 내 지주와 농지에만 적용하는 한계적이었다.

이에 따라 실시될 「산미증식계획」 은 1920년부터 30개년에 걸쳐 2기로 나누어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20년부터 15개년계획으로 토지개량 면적 42만여 정보에 총예산액 2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미곡 899만 섬을 증산하여 일본으로 800만 섬을 이입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1기 계획은 대부자금의 금리가 높았고 자재가의 상승 등의 요인이 있었고 지주층으로서는 농촌고리대나 소작료수탈에서 오는 수입이 보다 안정적이었던 관계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1925년도에 중단되었다.

1926년부터 12개년계획의 「경신(更新) 산미증식계획」 이 수립되었다. 제2기 계획이라고도 부르는 이 계획의 목표는 쌀 수입으로 인해 국제수지 불균형을 막고자 하는 데 있었다. 제1차 계획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본토에만 적용해 본토 내 지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 했던 것인데 결국 실패로 끝나고 식량수입에 따른 국제수지악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 이상의 국제수지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식민지 특히 조선에서의 산미증식계획이 절실했다. 여기에 「경신산미증식계획」 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개량 35만 정보에 2억8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비롯하여 총사업비 3억2,000여만 원을 계상하여 820만석 정도를 증산하여 일본으로 총 1,000만 섬을 들여간다는 것이었다. '제2기 계획'은 '제1기 계획'과 비교하여 기업가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저리로 알선하였고 토지개량 시행지역의 측량. 설계. 자금의 알선 조달. 공사감독. 사업유지관리 등을 토지개량주식회사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개량부가 대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제2기 계획의 목표는 1926-1929년간에는 목표량을 상회하여 달성하였지만 1930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37년까지의 전체 달성 율도 착수 면적 46%, 준공면적 51%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소화공황'을 당하여 미가폭락에 이어 수리조합의 부실화와 총독부 알선자금 감소 등의 원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미증식계획」 은 조선농업의 구조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쌀과 잡곡을 생산하는 종래의 2모작 생산체제를 미곡 단일품목만을 생산시키는 단작화(單作化), 즉 자기들에게만 필요한 쌀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일모작체제로 급격히 변경시킴으로써 쌀 생산량 자체만을 증가시켜 일본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과의 관건이 되는 일본 내 미곡가격을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427] 1920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의 「산미증식계

426) 河合和男, 앞의 책. 53—59頁.
427) 朴ソプ, 『1930年代朝鮮における農業と農村社會』. 未來社, 1995. 218頁.

획」을 통하여 수리시설은 크게 확장되어 1920년 전체 논의 20%에 지나지 않던 관개 답의 비중이 1935년에는 68%를 상회하였다. 일본품종의 보급률은 1915년 22%, 1920년 57%이었는데 1935년에는 82% 이상이 되었고 또한 화학비료 사용량이 급증하여 양적으로는 1925년에 비해 1933년에는 5.7배가 늘어났다. 전체 비료소비량에서 화학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933년에 이르러 21%를 웃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곡 수확고는 1910년대 중반에 비해 1920년대 후반에는 1.28배 증가하였다. 그런데 일제는 생산증대분 이상을 일본으로 약탈해갔다. 1910대 후반에 비해 1920년대 후반의 미곡유출량은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신산미증식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제는 수리조합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고 아울러 면작사업도 강력하게 추진했었다. 이에 따라 전남은 특히 쌀·면화·천일염 등 삼백(三白)산업이 발달해 목포는 국내 굴지의 무역항이 되었다.[428] 이에 따라 함평도 목포생활권이 되기도 했었다. 도청소재지인 광주 아닌 목포생활권이 되었었다.

이렇듯 총독부는 일본의 대장성과 은행의 과잉자본을 한국에 들여와서 농지개간 토지개량 농사개량을 통하여 조선미를 획기적으로 증산하여 보다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고자 하였다. 이 같은 산미증식계획은 주로 일본인 회사 및 지주가 처음부터 적극 참여하였다. 이들은 총독부를 통하여 조선식산은행 등으로부터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아 개간과 간척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에 대여하였다. 여기에 적지 않는 한국인 지주도 이에 참여하였다.

함평의 경우 당시 경성방직 등을 운영하고 동아일보와 보성전문 등의 언론 교육사업에 활발히 나서고 있었던 당시 '호남재벌'이었던 김년수(金季洙. 金性洙의 아우)도 손불에서 대규모 간척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농지를 조성하였다.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을 입안하면서 한국에서의 회사령을 철폐하였다.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구미의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아시아·아프리카를 식민지화 할 수 있었던 압도적 기술과 자본의 힘에 의한 것과는 완연하게 달랐다. 일제의 식민지화의 힘은 실로 군사적이며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즉 일본은 자국의 후발 자본주의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미 열강의 힘을 빌려 대만과 한국을 식민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자국자본을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구미열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또한 여전히 한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성장하고 있었던 관계로 일본자본이 조선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과 총독부의 정책시행 경과를 기다려야 했다. 조선 내의 조선인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일본자본의 투자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저들은 「회사령」을 만들어 한국에서의 회사설립을 허가제로 하고자 했다. 또한 「특허령」을 반포하여 한국인의 창의적 발명품의 상품화를 제약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유럽열강의 전쟁참여에 힘입어 한국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중국시장에서의 우월한 위상을 십분 활용하게 된 일본으로서는 결국 전화(戰禍)나 전쟁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승전국이 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국에 이은 세계적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428) 자세한 내용은 앞의 河合和男 저 『朝鮮における産米増殖計劃』 이외, 松本武祝 저 『植民地朝鮮の水利組合事業』(未來社, 1991), 澤村東平 著 『近代朝鮮の棉作事業』(未來社, 1985), 朴ソプ 저 『1930年代朝鮮における農業と農村社會』(未來社, 1995)를 참조할 것.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에서의 회사 설립 허가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일제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서 회사령이 철폐된 것이다. 이에 조선에 일본자본의 무제한 진출의 제약은 없어진 셈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3·1운동 이후 총독부 시정방침의 변화에 따른 '문화정치'의 시행, 그리고 일본자본의 막대한 농업부문 투자에 따른 조선에서의 「산미증산계획」 추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을 비롯하여 조선인 지주들도 활발하게 기업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1911년 현재 한국의 민간경영공장은 270개소로 거의 모두가 소규모 생산 공장으로 일본인 소유는 185개에 자본금 총액도 9,82만 6,590원이나 되고 이에 비해 조선인 공장은 1911년 11월 한국인이 최초로 창립한 방직주식회사 경성직유(京城織維)공장 등 직물업, 제혁업(製革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영세하기 짝이 없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겨우 66개로 자본금 총액이라야 고작 63만 7,240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조선을 상품시장 및 원료 생산지로 발전시켜 1917년 말경에는 일본인 소유공장이 736개, 조선인 소유공장이 605개, 한·일 합동소유공장이 4개, 외국인 소유공장이 13개소로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규모면에서 조선인 공장은 일본인 공장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여기에 1920년 이후부터 일본인의 회사설립은 더욱 늘어나고 자본액도 급증하였으니, 회사는 전체의 70%, 자본액은 전체의 83.1%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전남지방에서는 1925년 2월 김상섭(金商燮)이 자본금 30만원으로 목포에 동아고무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1926년 5월 일본인들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전남제사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현준호(玄俊鎬) 등이 일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전남의 공업수준은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1919년 이래 일본인의 투자가 촉진되고 조선인의 기업열이 왕성하여 점차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공장수로 보아 조선인 공장은 겨우 전체의 37%인 160여 개소에 불과했고 일본인 공장은 전체의 61%인 263개소가 되었고 자본금도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업은 주로 정미업·조면업·양조업·전기업·인쇄업·제유업·연와업·철공업 등이었고, 조선인은 주로 정미업·제지업·완초업·부채제조업·기타 죽제품·저마, 마포의 면포업을 경영했는데 이중에서 정미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정미업이 총생산액의 65.8%를 차지하고 조면업이 9.6%, 제사업이 4.7%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공업은 일본의 농업생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1920년대의 함평지역의 회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력계일(高力啓一), 대림공(大林功), 대정보치(大井保治)는 1920년 10월에 자본금 60만원으로 주식회사 고력농장(高力農場)을 설립하여 농림업을 경영하였고, 주포수산합명회사(酒浦水産合名會社)는 1928년 2월에 1만원으로 하정겸태랑(夏井謙太郎)이 설립했는데 해산물 위탁매매를 하였고, 함평흥업주식회사(咸平興産株式會社)는 1925년 10월에 자본금 8만원으로 이재혁(李載爀)이 설립한 회사로 부동산매매·임대차, 비료, 농기구판매, 창고업, 금융대부업에 종사하였고, 함평식산주식회사(咸平殖産株式會社)는 1927년 3월에 자본금 10만원으로 신현기(申鉉麒)가 설립한 회사로 정미, 곡물판매업, 창고업, 면화매매, 비료판매에 종사하였다. 학교합동운수합명회사(鶴橋合同運輸合名會社)는 1928년 2월에 자본금 1만원으로 소림길장(小林吉藏)이 설립한 회사로 운송업, 창고업,

위탁판매에 종사하였고, 함평운수합명회사(咸平運輸合名會社)는 1927년 7월에 자본금 7,250원으로 기부청범(岐部淸範)이 설립한 회사로 운송업, 창고업에 종사하였으며, 함평창고금융주식회사(咸平倉庫金融株式會社)는 1925년 8월에 자본금 2만원으로 김종태(金宗泰)가 설립한 회사로 창고업, 화보(火保)대리운송업, 위탁판매, 금융에 종사한 회사였다. 이들 함평의 회사, 기업은 대체로 농산물의 보관·가공과 판매, 그리고 금융업과 운수업이 대부분이었다. 식민지 현실에서 일본과의 교역관계에서 그만큼 쌀과 면화가 차지한 비중이 컸기 때문이었다.

함평궤도주식회사(咸平軌道株式會社)도 이 때 설립되었다. 호남선이 학교역을 통과하는데 여기에서 함평읍을 잇는 도로는 3등 도로로 노폭이 좁아 통행과 운수에 난관이 많았었다. 이 때문에 궤도노선을 허가하였던 것이다. 1926년 6월에 '1927년 봄에 공사를 시작하여 1년 이내에 완공을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었다. 송본등태(松本藤太)는 1926년 8월에 자본금 10만원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여 궤도운수와 창고업에 종사하였다.

1928년에는 농업회사가 1개소, 상업회사 1개소, 공업회사 2개소, 운수업회사 2개소가 있었고, 1928년의 함평지역의 공업을 보면 <표 4>와 같으며 또한 이 시기가 되면 지금의 함평읍내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잡화상, 곡물상 등의 상점이 많이 생겨나면서 상거래가 활발해졌다.[429]

<표 388> 함평 공장의 민족별 분포와 자본금

종 별	공 장 수	자 본 금(엔)	종 업 원 수
내 지 인 공 장	8	62,500	93
조 선 인 공 장	3	45,000	54
계	11	107,500	147

<표 389> 1920년대의 함평지방 상설점포의 현황

구 분	잡화상	곡물상	양 복	양 종	과 자	자전거	합 계
함 평	30	4	5	6	3	2	50

<표 390> 함평의 상거래 추이

(단위 : 원)

연 도	1925	1926	1927	1931	1934
함 평	851,880	942,200	1,155,996	876,680	549,350

<표 4~9>는 1938년의 함평지역의 회사와 공장생산액과 공업생산액을 정리한 것인데 이들 회사는 함평-학교간 궤도차 운영을 제외하면 금융을 겸하고 있었음이 특징이었다. <표 8, 9>는 함평의 공업생산액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공업생산은 매우 영세하고 소규모의 가내공장에서의 생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관영공장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직공을 고용한 공장의 분야별 생산액을 살피면 <표 8>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430]

429) 「전라남도사정지(全羅南道事情誌)」, 1930 254면 및 『전라남도지』 권13, 1994, 89-90쪽.

<표 391> 1938년 함평지방의 주요회사

회 사 명	위 치	창 립 연 월	영업 종류	자본금	대표자
주식회사 고력농장	엄다면 학야리	대정 9년12월	영농금융	430,000	대림교(大林巧)
주식회사 월산농장	학교면 월산리	소화 4년 8월	영농금융	80,000	한규홍(韓圭興)
함평창고금융주식회사	함평면 기각리	대정14년 8월	반물비료판매,금융	20,000	장봉원(張鳳瑗)
함평궤도주식회사	함평면 기각리	대정15년 8월	궤도자동차경영	50,000	전천상치랑(田川常治郎)

<표 392> 1938년 공업생산액

(단위;원)

구 분	총 수	방적공업	금 속 공 업	기계 기구공업	요 업	화학공업	목 제 품 공 업	식 요 품 공 업	기타공업
전 남	100,786,366	23,775,938	765,957	716,061	451,794	4,208,166	1,105,391	56,514,793	7,212,063
함평군	2,213,764	92,245	1,333	13,246	7,171	46,299	8,493	1,782,715	262,262

<표 393> 1938년 5인 이상 공장의 공업생산액

(단위; 원)

구 분	총 액	방적공업	금속공업	기계기구공업	요 업	식료품공업	기타 공업
전 남	69,257,432	24,548,342	513,638	188,968	87,688	39,200,621	328,445
함평군	1,392,222	17,312	–	–	–	1,374,910	–

한편 일제강점의 농촌금융은 비공식적 농촌고리대가 주류를 이루고 공식부문에서는 금융조합이 중심이 되었다. 금융조합은 일제 통감부가 설치된 이래 각 지방에 설립되었는데 함평의 경우 함평금융조합(함평면)은 명치 43년(1910) 10월 설립되어 함평·대동·학교·엄다·신광·손불 지역에서 영업했다. 조합원으로는 일본인 98명과 조선인 904명이 있었고 대출금은 17만 3,764원, 예금은 14만 0,141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산금융조합(평릉면)은 대정 8년(1919) 8월 설립되어 식지(食知)·평릉(平陵)·월야·해보면에서 영업했다. 조합원으로 일본인 52명과 조선인 691명이 있었고 대출금은 10만 9,802원과 예금 2만 6,297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들 금융조합의 출자금은 2만 2,570원이였다. 이후 1938년에 이르면 함평금융조합의 조합원 수는 4,465명, 자산총액은 1,15만 5,038원으로 늘어난다.

430) 「전라남도사정지」, 1930, 254쪽, 『전라남도지』 권 13, 1994, 89~90쪽.

제3절 함평군민의 생활고와 일제의 총동원체제

일제의 한국침탈은 당시 전체 조선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의 생활을 여지없이 참혹한 지경으로 내몰고 말았다. 당시 농민의 가난은 대다수 농민이 토지가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상황에 근거하고 있었다. 일본인의 토지집적이 진행되면 될수록 조선인 지주의 고리대금 내지 금융자본 운용, 간척·개간사업에의 적극참여가 활발하면 할수록 조선농민의 토지는 일본인을 비롯한 지주수중으로 집중되고 다수 농민은 그 토지를 빌어 경작하는 소작인 처지가 되었다. 이리하여 1930년대에 이르면 전경지의 약 ⅔가 소작농지가 되어버린다.[431]

<표 394> 1930년대 초 자작·소작지(自作 小作地) 경지면적

(단위 : 정보, %)

구 분	전(田)		답(畓)		계	
	자 작	소 작	자 작	소 작	전	연
함 평 군	2,970.9 (32.5)	6,178.5 (67.5)	1,921.3 (37.5)	3,189.1 (62.4)	9,149.4	5,110.4
전 남	67,805.6 (32.6)	140,394.8 (67.4)	123,071.5 (58.9)	85,907.1 (41.1)	208,200.4	208,978.6

이 과정에서 외지자본 및 외지인의 토지소유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외지자본 및 외지인의 토지소유가 증가하고 있었다. 관내지주와 부재지주의 소작지 면적을 전라남도의 여러 군을 통틀어 살펴보면 그 지주가 군내에 거주한 자(군내지주)의 소작지는 65%, 도내에 거주한 지주(도내지주)의 소작지가 22%, 그리고 도밖에서 사는 지주(도외지주)소작지는 13%가 되었다. 대부분이 군내지주의 소유지이지만, 그 군에 살고 있지 않는 도내·도외지주지가 35%에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 함평지방의 경우에는 군내지주 소작지 70%, 도내지주 소작지 20%, 도외지주 소작지가 10%이었다. 함평의 경우는 군내지주의 비중이 다소 높기는 하였지만 이들 중에는 바로 일본인 대지주가 많았다는 사실도 관계가 있었다.

1930년대 소작지의 비율을 살펴보면 1914년 52.3%에서 1939년에는 58.0%로 증대하고 논의 소작지 비율도 1914년 65.3%에서 1939년 67.9%로 높아져서 총농가호수 3.7%에 상당하는 지주가 경지의 58%, 논의 67.9%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인 대지주는 특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함평지방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 부호로는 엄다면의 고리기(高力), 학교면의 아사노(淺野), 다가마스(高松), 야마모도(山本), 함평면의 야마오까(山岡), 야마다(山田)가 있었다.

이같이 소작농지가 많아졌다는 사실은 농촌에서의 소작농민이 그만큼 늘어갔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전라남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1914년에는 지주 0.2%, 자작농 24.5%, 자작지가 있는 소작농(자작겸 소작농, 자·소작농) 48.5%, 자작지가 없는 순 소작농이 26.7%였는데 1919년에는 자경하지 않는 지주(갑)은 0.2%, 자경지가 있는 지주(을)이 1.3%로 모두 1.5%, 자작농 19.2%, 자소

431) 전라남도, 『전남의 미(米)』, 1934.

작농 45.4%, 소작농이 34%로 되어 순 소작농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진행되어 1928년에는 지주(갑) 0.2%, 지주(을) 1.7%, 자작농 18.3%, 자소작농 37.1%, 소작농 42.6%, 화전민 0.7%로 되었다. 이처럼 지주는 약간 증가하였고 자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은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소작농이 급증하여 갔고, 화전민이 하나의 새로운 계층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평지역을 보면 1928년에 지주(갑)이 0.25%, 지주(을)이 1.3%, 자작농이 5.4%, 자작 겸 소작농이 32.4%, 소작농이 61.9%, 화전민이 1.8%였다가 1938년에는 자작농이 4.8%, 자작 겸 소작농이 20%, 소작농이 68.6%, 임금노동이 6.4%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거의 전 농민이 전혀 자신의 토지가 없는 경우가 2/3가 되며 그리고 임금 노동만으로 살아가는 농민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소작농의 급증과 함께 당시 농민경영은 점차 영세화되었으니 이는 인구의 과잉과 경지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었다. 때문에 소작농 간에 소작지라도 얻기 위한 갈등과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지주 측은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소작권을 자주 이동시키고 박탈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한편에서 지주 측의 지대수입을 증대시켜 나갔다.

'소작인과 지주 사이에는 별로 기피하여야 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 그 관계가 극히 평온하였다'고 하는 전통적·온정적 지주·소작관계는 급속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로 '소작농이 매년 분가하고 자작농이 몰락하여 농지를 떠나는 이농자(離農者)가 증가하고 생활이 핍박해졌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합방 이후 사법·행정 기타 여러 가지 관계가 변경되어 지주가 과거의 관습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작권 이동을 배경으로 소작료를 인상하였다. 그리고 지주는 이제까지 자유방임과 독립경영에 맡겨두었던 소작인의 농업경영에 대하여 각종 규제·규율을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상품화에 유리한 품종의 재배를 강요하였다.

> 함평군 나산면 모리(森長治) 외 1인 지주는 소작료 징수에 대해 상조(上租)인 다마금(多麻錦) 등 3종류를 소작인에게 징수한다고 하고 만약 그 외의 것은 벌조(罰租)하여 소작료 매석에 5승씩 가징(加徵)을 한다고 한다.[432]

또한 소작미의 미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수확물을 그대로 납입하고 소작미의 질에 대해서는 별로 까다롭지 않아 질이 아주 조잡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나, 1910년대 말부터는 우선 중백미(中白米)의 납입이 폐지되고, 벼 납입으로 바꾸고 밭의 소작료도 벼로 대납하도록 하면서 이작(裏作)의 소작료까지 징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벼의 품질은 지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품종에 대하여 상품화에 유리한 품종을 강요하게 되었다. 또한 지주는 소작농의 수확이 늘어야 그 자신의 수입도 증가하는 것인 만큼, 농사개량을 위한 자금의 투하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곧 대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비료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추수와 함께 고리로 회수하여 또 다른 고리대로서 농민생활을 영락하게 하였던 것이다. 1926년부터 29년까지 3년 동안 조선전체 농지에서 사용된 무기질질소비료인 유안(硫安) 사용량이 5만 231톤인데 비해 8년 후인 1934년부터 37년까지의 사용량은 5배가 훨씬

432) 동아일보, 1933년 12월 13일자.

넘는 27만 1,835 톤이나 되었다.[433] 그만큼 소작조건의 악화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소작인의 소작료 결정방식에서는 들에서 지주나 그 대리인이 수확량을 산정하여 소작료를 결정하는 집조법(執租法), 수확 후 탈곡하여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소작료를 걷는 타조법(打租法), 그리고 풍흉과 수확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정액을 정하여 징수하는 정조법(定租法)이 있었다. 여기에서 보다 진취적인 것은 정조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생산성의 향상을 넘어서서 고액으로 정해져 있게 되면, 농민에게 가장 불리한 것이기도 하였다.

함평의 경우는 집조의 방식이 없어지고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결정하던지 아니면 미리 정액을 정해 놓는 정조·타조의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소작료는 대부분이 현물(나락)로 납부하고 있었다. 특히 동양척식회사의 횡포는 대단하였다.

'동척의 전답이 많이 있어 매년 6,000 석의 곡식을 수봉하여 가는데 작년 가을에 1할 이상을 더 올려 강제징수하고 동시에 노동을 시켰다'.[434]

<표 395> 소작료의 납부방식 및 결정방식(%)

구 분		소작료납입방식			소작료결정방식		
		현물납	대금납	금납	정조	집조	타조
전남	답	91	7	2	36	51	13
	전	88	9	3	90	3	7
함평	답	90	10	−	40	6	40
	전	90	10	−	98	−	2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소작료 방식에 의하여 소작료는 전체생산물에서 어느 정도 되는가가 농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함평의 경우는 대체로 적은 경우에는 전체생산물의 30% 정도가 되지만 많은 경우는 50%에서 70%에 이르렀으며 평균적으로는 50%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조법에 의하면 흉년이 들 경우 소작료 때문에 농민들은 더욱 어려움에 부닥쳐야 했다.

한재가 심하여 생활이 곤궁한데 군 당국은 태만하여 함평농민의 원성이 극심하다. 학교면·손불면·신광면 등지에서는 주민이 하루 두 끼도 먹을 식량이 없어 풀뿌리와 쑥, 콩잎, 해초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435]

<표 396> 답 소작지의 생산고의 관계(割)

구 분	정 조			타 조			집 조		
	최 고	보 통	최 저	최 고	보 통	최 저	최 고	보 통	최 저
전	7	5	3	7	5	4	7.5	5.5	3
함 평	7	5	3	6	5	4	7.5	5	3

433) 朴ソプ, 『1930年代朝鮮における農業と農村社會』, 未來社, 1995, 92頁
434) 동아일보, 1924년 2월 23일자.
435) 동아일보, 1924년 10월 16일.

그런데 당시 농민들은 소작료만 지주에 납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전라남도의 많은 소작농은 지주가 납부하여야 할 지세나 수리조합비 등까지를 물어내는 상황이었다. 이 또한 함평농민도 예외는 아니었다.

<표 397> 소작인(小作人)에게 공조공과(公租公課)의 전가(轉嫁)

구 분	소화 5년(1930) 지 주 수	지주중의 비율(%)		소화 원년(1926) 소작인수	소작인의 비율(%)	
		전가한자	전가안한자		전가받은자	전가안받은자
전남	6,170	45	55	290,157	51	49

또한 당시 소작농민은 지주가나 토지관리인(마름)한테 무상노동을 제공하거나 선물 등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작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의 부호 이○○이 집을 짓는다고 소작인들을 동원하여 30 리나 되는 산에 가서 재목을 운반하게 하였는데, 논 한 마지기당 기둥 14개씩을 운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부를 사용하고 그 삯전을 소작인에게 담당시키며 다음 해부터는 밭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436]

함평군 식지면 나산리 최○○이라는 일본인 유명지주의 농감으로 일하는 자는 각처 소작인의 고혈을 빨아먹고 뇌물과 금을 주지 않으면 과실 없는 소작을 임의로 선동하여 원성이 자자하다.[437]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소작농민의 생활은 열악하기만 했다. 그런데 비단 자신의 토지가 있다고 하여도 농가경제가 균형을 유지하기란 어려웠다. 수리조합비, 조선농회비를 비롯한 공과금의 과중함, 농업공황에 따른 미가의 하락, 자녀의 취학에 따른 교육비의 증가, 가내수공업의 몰락에 따른 자본제 공장제품의 구입, 농사개량을 위한 비료대금의 지불 등에 있어서 많은 농민은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곡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소작농민은 더욱 생활의 곤궁을 당하게 되었으며 각종 농산물가격의 폭락으로 농가 부업마저 위협받는 지경이 되었다.

재해가 극심해 인심이 흉흉한 중 최근에 곡물 가격이 하루에 60전이 오르고 돈 있는 사람도 사 먹을 수 없게 되어 각 촌에서는 거의 전부가 푸성귀 아니면 보리 국에 나무뿌리를 섞어 먹는 형편으로 상백미 한말 4원 20전이 하루 동안 4원 80전이 되었는데 그것도 없어서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438]

전남의 잠농가(蠶農家)는 2-3년간 견가폭락으로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함평지방의 잠농가들은 크게 불안한 상태라 한다.[439]

이에 따라 농가부채는 더욱 늘어갔다. 1930년부터 1933년 사이에 조선농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자작농의 연간 총수입은 1,117원, 총지출은 1,139원으로 적자액이 22원이고 자소작농의

436) 동아일보, 1923년 11월 1일.
437) 동아일보, 1925년 5월 2일.
438) 동아일보, 1924년 10월 14일.
439) 조선일보, 1931년 5월 29일.

경우 총수입 797원에 총지출이 877원으로 적자액이 80원이며 소작농은 총수입 626원에 총지출 656원으로 적자액이 30원이라고 보고 되었다. 그리하여 농가경제는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다.

특히 농업공황의 여파가 농촌을 강타한 1930년 초에 이르면 자작, 자작 겸 소작농, 소작농 각각 호당 평균부채는 144원·232원·35원이나 되었으며 전체농가의 총 부채는 약 8억 600여만 원이였다. 당시 현미(玄米) 상품의 1석이 18.95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부채는 농가의 생산활동을 통한 농업이윤으로는 보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표 398> 1930년 소작농(小作農)의 부채농가 비율 및 부채액

	부채농가 비율	보통 부채액	최고 부채액
함 평	88%	80원	595원
전 남	75%	55원	428원

부채는 결국 농민의 가산을 팔아 갚게 되는데 채권자의 횡포와 반발할 때의 보복 때문에 실제 농토를 자신의 뜻대로 팔 자유도 없었다.

함평군 식지면 나산리의 2,000여석의 소작료를 받는 일본인 지주 모리(森長治)는 식지면 신평리의 김민두가 모리에게 약간의 토지를 저당하였다가 신광면 김동흔씨에게 팔고 그 대금을 받아다 모리의 채무를 정리하였던바 자기에게 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소작권을 모조리 이동하였다.[440]

<표 399> 1930년 함평지방의 농가형태별 춘궁농가

구 분	자작농	자작겸소작농	순소작농	計
춘궁농가	554호	2,020호	5,442호	8,016
농 가	824호	4,051호	8,439호	13,314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농가는 춘궁기에 들어서면 식량고갈로 인한 생존위기에 부닥치게 된다. 함평지방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 농가의 60% 이상이 춘궁의 곤경에 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적지 않는 농민은 도망의 길을 택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으니 당시 신문은 그 참혹상을 전해주고 있다.

함평군 일대에서 빚에 졸리어 밤중에 부모처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가족 전부를 데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 금번에도 식지, 평릉 양면에서 도망한 호수가 10여호나 된다는데 대부분 작년도 수재와 풍재로 인해 농사를 실패하고 하루 한 끼니도 먹기에 어려운 사람들이다.[441]

전남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일대의 동척회사 소작인 44명은 금년 농작물 전부를 소작료로 동척에 납부

440) 조선일보, 1931년 5월 11일.
441) 동아일보, 1932년 3월 25일.

하고도 미납 석 수가 160여 석이나 되었다 한다. 그래서 전혀 납부할 여지가 없는 소작인 9명은 추상같은 독촉에 견디다 못하여 정든 고향을 작별하고 그만 밤을 타서 도주하였다고 한다.[442]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이응삼씨의 둘째 아들 이봉우가 지난 15일 새벽 쥐약을 먹고 음독자살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심각한 농촌생활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동리의 일가인 이모에게 네 식구의 생명 줄인 논을 차압당하게 되어 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이라고 한다.[443]

이 같은 농민의 가난을 이용하여 지주측은 오히려 소작권을 박탈하고 또한 소작료를 인상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로 인해 농민 이웃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인심이 사나워지고 있다는 것이다.[444]

함평 해보면, 월야면에 동척의 전답 소작인들이 한해(旱害)로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는데 수확이 없는 논에 소작료를 내지 않는다고 미소작료를 대납하거나 비료 대를 갚은 이에게 소작권을 이동하여 주어 인심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445]

함평면 진량리 장원일은 동리 최삼현에게 구타한 죄로 고소당하였는데 그 이유는 장씨가 소작료를 늦게 납부하여서 지주는 장씨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최삼현에게 소작권을 이동하였으나 그것을 모르는 장씨는 면화종자를 심었고 신작인 최씨가 그것을 지주에게 말하였던바 지주는 밭을 갈아 버리고 서숙을 심으라고 하므로 최씨는 지주의 말에 따라 밭을 갈려고 할 때 장씨가 달려와서 최씨를 구타하고 부상시켰으므로 가해자를 고소하였다고 한다.[446]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은 세금을 내지 못하여 차압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1931년 함평군민으로 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자가 2,000호를 훨씬 넘어섰고 군에서는 그들의 집의 방문을 봉인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며 이해 결국 300여 호가 재산을 차압당하였다.[447]

1932년에도 함평군 10개면에 호세 체납자가 3,000여 호가 되어 군에서 가산을 차압하려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생활은 곤란하게 되었던 것이다.[448]

그렇다고 풍년이 되어도 그 시름을 벗기 힘들었으니 그간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소작료가 더 많아 지게 된 때문이었다.

함평의 5만 소작인들은 5년간의 한해로 인해 초근목피로 근근이 생활하고 금년 가을 풍년을 보게 되어 주린 창자에서 한숨을 내쉬게 되었는데 '풍년이다' 하는 소리에 평년작에 비하여 5할을 간평하는 것을 3할 이상을 가하여 비난의 소리가 높고 살길이 없어 일본 대판 등지로 떠나가는 사람이 적지 아니했다.[449]

442) 동아일보, 1933년 12월 14일.
443) 동아일보, 1929년 1월 30일.
444) 동아일보, 1929년 1월 30일.
445) 중외일보, 1930년 3월 5일.
446) 동아일보, 1931년 6월 27일.
447) 조선일보, 1931년 3월 29일 ; 동아일보, 1931년 7월 19일.
448) 동아일보, 1932년 8월 13일.
449) 조선일보, 1930년 10월 22일.

그렇다고 농촌에 남아 있는 농민이 편안할 리가 없었으니 그들에게는 가혹한 소작료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으니 어떤 지주의 경우는 논 4두락에 실 수확이 2석 3두이었는데 소작료가 2석 8두나 징수하였는데 이를 항의한 수십여 호의 농가에 대해서는 소작권을 박탈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였다.[450]

많은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의 임금노동자로 전락해 일제의 각종 토목공사·철도공사·삼림벌채 노동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만주와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또한 외지로 행상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연안의 농민은 해산물을 채취하여 인근시장이나 상가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특히 농번기가 되어도 농민들은 고향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외지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신문은 '고향산천을 등지고 일터를 찾아 떠나가는 한해 민들'이란 제하로 이농민의 실상을 보도하고 있다.

전남 함평군에서 한해가 제일 극심한 학교·엄다 양면의 재해민 30호 가족을 합하여 112명을 또 고무산(古茂山) 소야(小野)시멘트 공장으로 평견보차(平見保次)씨와 풍전(豊田)씨가 인솔하고 지난 12일 오후 0시 48분에 호남선 학교역을 출발하였다고 한다.[451]

일제는 이러한 한국농촌에서의 과잉인구와 그에 따르는 저임금 구조에 포착하여 많은 산업기지를 건설하고 공장에서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1931년 만주침략 이후 15년 전쟁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인력을 중심으로 징용하고 징병하였으며 또한 농촌가정의 여식을 정신근로대로 끌고 갔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전시동원 체제를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은 일본의 대륙병참기지로 설정되었고, 조선의 모든 자원은 침략전쟁에 동원되었다. 이 때 이후로 조선민중은 더욱 철저한 통제를 받았으니 도에서 이(里)에 이르기까지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조직화되고 대공경계(對共警戒)라는 명목으로 약 18만 명으로 2,427개에 달하는 경방단을 조직하여 경찰의 하부기구로 삼았으며, 촌락마다 애국반이라는 것을 설치하였다.

일제는 또한 내선일체를 내세우면서 '황국신민화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로써 조선민중에게 신사(神社) 참배를 강요하였고 부여신궁을 건설하고 1면 1신사의 원칙아래 산간벽지까지 신사를 지었으며, 각 가정에도 신붕(神棚)을 설치하게 하여 참배를 강요하였다. 또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외우도록 강요하였고 조선어사용을 일절 금지하였다.

일제는 1940년에 이르러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이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탄압과 감시도 강화되어 1937년 사상범을 가입시켜 감시하기 위한 '대화숙(大和塾)'이 설치되었고, 다음 해에는 사상전환자를 모아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을 결성했다.

이러한 일련의 전시사상통제정책은 일제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체적으로 수탈하겠다는 의미였다. 1939년 일제는 국민징용령을 공포하고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민중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갔는데, 근로보급대·정신근로대 등의 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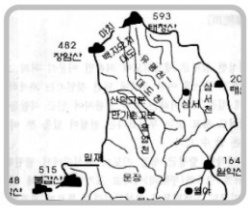
450) 조선일보, 1931년 3월 28일.
451) 동아일보 1935년 8월 15일.

울 아래 공공연하게 납치, 연행이 자행되었다. 강제 연행된 조선인은 광산·발전소·도로공사장·군사기지 공사장·전쟁터 등에서 노동자나 포로감시원, 또는 군 위안부 등이 되어 살인적인 학대와 착취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일제는 조선청년을 총알받이로 내몰았는데 1938년 육군지원병 훈련소의 설치, 1943년 학도지원병제 실시, 1944년 징병제 실시를 통하여 조선청년들을 전쟁터로 몰아냈다. 이로써 1939년 이후 일제가 강제연행해 간 인원은 한반도내의 480만 명, 일본열도에 152만 명, 군대요원으로 20-30만 명, 위안부 14만 명 등 총 700만 명에 달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일본 내 식량생산 부족으로 1940년 신조선산미 증산 계획을 수립하여 농민에게 생산목표를 할당하고 그에 따라 경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1939년부터 공출과 배급제를 실시하여 농산물 유통을 통제함으로서 전시의 식량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1943년에는 조선식량관리영단을 설립하여 주요 식량 전부를 통제하였고, 군수작물과 축산물, 누에, 면화 등 의 섬유자원에 대한 통제의 강화와 전쟁비용과 군수용 광물의 조달을 위해 지하자원의 약탈까지 심화시켜 금·철광석·텅스텐·석탄 등의 광물을 수탈하고, 전쟁의 말기에는 조선인들이 소유한 금·은 등의 귀금속은 물론 가정용품으로 사용하던 수저·요강·세수 대야 등의 놋그릇을 비롯한 모든 금속제품을 약탈해 갔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용 기름을 생산한다며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산으로 내몰아 소나무 가지를 떼어오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강제연행과 자원수탈로 말미암아 농촌의 노동력과 생산재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에서도 일제는 쌀 증산정책을 강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농업공동작업반을 형성하거나 부인·아동·학생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였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등 농민의 노동력 수탈을 강화해 갔다. 농민들은 쌀 생산량의 40-60% 이상을 공출로 빼앗겼다. 자기가 지은 쌀은 물론 농산물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바람에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그 결과 많은 농민들이 경작을 기피하고 초근목피로 연명하였다. 그런데도 일제는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강제저축과 막대한 조세부담을 강요하였다. 1938년부터 마을·직장·학교 단위로 저축 장려운동을 전개하였고, 화폐를 남발하였으며 또한 각종 잡세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전시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확대되어 조선인들의 생활을 급속히 악화되었다.

제2장 민족독립운동의 전개와 함평지방



제1절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환과 함평지방

흔히 1910년대는 의병운동의 궤멸과 일제의 강압적 무단통치로 독립운동의 '암흑기'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제 20세기 벽두의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의 경험을 내재화하면서 운동의 좌절에 대한 심각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 간의 마찰과 갈등의 증폭, 그에 따른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운동의 방략이 보다 선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일제의 무력에 의하여 빼앗긴 나라를 결국 무력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러한 무력을 양성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과 경제를 통한 실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무력의 사용, 더구나 세계 유수의 열강의 반열에 오른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기회를 포착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일본이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 전쟁을 할 때 즉 제2차 중일전쟁·러일전쟁 심지어 미일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야하는 독립운동으로서는 국제적 상황과 민첩하게 결부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무력-실력-전쟁기회 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적 방략은 그에 합당한 운동조직 및 세력 확대 론과 연계되어 있었으니, 현실적으로 일제의 강압이 노골화된 국내에서는 이러한 방략을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국내진공이 유리한 한반도와 대륙의 국경지대에 근거지를 창설하여야 하며 국내와의 연결은 비밀조직체제와 합법적인 상회 내지는 교육조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서의 목표도 분명하게 전환되어야 했다. 일부의 경우는 새로 찾아야 하는 나라는 회복된 국권이 이전과 같이 대한제국에 의하여 향유되고 황제가 이를 대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군주제를 추구하는 복벽주의적 경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세계적 신조류에 민감하게 영향 받고 있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새로 찾는 나라는 국민의사에 의한 정체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공화주의 흐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이같이 1910년대 독립운동은 무력-실력-전쟁론에 의한 방략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근거지의 창설 및 국내에서의 합법, 비합법 조직의 건설, 그리고 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1. 비밀결사 독립의군부 및 광복단 운동과 함평인의 활동

1910년 이후 산발적이지만 강인하게 전개되었던 의병운동도 1914-5년을 기점으로 거의 소멸하였고, 또한 데라우찌(寺內正毅) 총독 암살미수사건이라고 하는 '105인 사건'을 계기로 거의 모든 애국계몽과 광복운동은 표면적으로 합법적 공간을 갖거나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모든 민족독립운동이 전면 휴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국내에서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력을 진작시킴으로서 해외에서의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군자금을 축적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진 비밀결사 운동이 계속되었다. 그러한 비밀결사 중에는 숭실·대성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된 기성볼단(1914), 자립단(1916), 조선식산장려계(1917), 권업회(1917) 및 여성조직으로서의 송죽회(松竹會. 1913)와 같이 청년·학생·중소상공인과 기독교인이 주로 결집하여 교육·선전을 통한 청년·학생들의 친목과 조직화를 꾀하면서 무장투쟁보다는 유화적인 실력양성론을 주장하는 유형도 많이 있었다. 일제는 이에 대해서도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우선 척사적 보수성향의 유생들이 의병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는 복벽주의적 비밀결사가 있었다. 최익현의 문하생으로 대마도에 유배됐다 돌아온 임병찬(林秉瓚)이 퇴위당한 고종의 밀명을 받아 1913년에 조직한 대한독립의군부가 바로 그것이었다. 고종은 일제의 감시가 치밀하고 혹심하여 직접 움직일 수 없는 관계로 신임이 두터운 자에게 칙명을 내려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전라남도 순무대장의 칭호를 받은 임병찬은 비밀리에 호남지방의 의병과 유생을 규합하고 자기 아들인 임응철(林應喆)을 서울로 보내 이인순(李寅淳)·곽한일(郭漢一)·전용규(田瑢圭) 등과 의논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전라남북도 지방부터 의군부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독립의군부는 각국 공사,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 및 각 부와 경무부. 부근 병참(兵站)에 이르기까지 국권회복과 일군철병의 당위성에 관한 투서운동을 부단하게 벌이게 했다. 일제로 하여금 경황이 없게 하고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드높이는 한편 전국에 태극기를 게양하게 함으로써 한국국민의 독립에 대한 열정을 가일층 진작시키고 아울러 전국적인 거사를 유발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거사가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향약(鄕約)을 실시한 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같이 향약을 실시한다는 것은 임병찬이 1904년 창의(倡義) 당시 이미 전라도 관찰사 이용식(李容植)이 도약장(都約長)이 되고 자신은 태인약장(泰仁約長)이 되어 5가작통의 조직으로서 의병운동을 전개하려 하였고, 1906년 면암 최익현(崔益鉉)의 창의 당시에도 처음에는 향약조직을 실시하려 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향약이라고 하는 중세적인 가치규범으로서 국권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의중은 현대적 시각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다만 한일합방 직후에 시도된 전국적 규모의 최초 항일광복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일사상의 정신적 의기를 더욱 강하게 심어주게 되었다는 의미는 크다.

<표 16> 대한독립의군부 호남 각 군 책임자(責任者)

흥덕군	김진기(金鎭基), 김재구(金在龜), 강종회(姜鐘會), 김건(金健)
전주군	김용규(金容圭), 황의찬(黃義贊), 이종석(李宗石), 임병철(林炳哲), 박희동(朴喜東)
구례군	정완석(鄭完錫), 박현주(林顯周), 안창섭, 이주섭(李周燮)
임피군	이춘길(李春吉), 전경인(田耕仁), 문형모(文亨謀), 고규상(高圭相), 이호순(李鎬純) 외 6名
남원군	양상렬(梁相烈), 최영렬(崔英烈)
임실군	한창교(韓昌敎), 송종린(宋鐘麟), 송필호(宋弼浩), 심동만(沈東萬), 변규호(邊奎浩)
광양군	김태희(金泰熙)
고부군	이재우(李在宇), 최락삼(崔樂三), 최성하(崔成夏), 김성태(金成兌), 김덕윤(金德允)
순창군	이순구(李舜九), 이승재(李承宰), 이치민(李致民), 김동식(金東植), 설영환(薛永煥) 외 4名
능주군	문달환(文達煥), 양재해(梁在海), 오재익(吳在益)
운봉군	박봉양(朴鳳陽)
담양군	국채규(鞠采奎), 국무열(鞠武烈)
낙안군	김종주(金鐘胄), 김승제(金承濟), 배영주(裵泳柱)
장흥군	김장현(金章炫), 김승현(金升炫), 김제만(金濟萬)
보성군	박봉준(林鳳準), 안종묵(安鐘默), 김학주(金鶴柱), 임량원(林樑溫), 임량민(林樑民), 임산원(林山源)
부안군	장갑현(張甲鉉), 손태흥(孫泰興), 오상철(吳相喆), 장서규(張瑞圭), 김민술(金敏述) 외 3名
용담군	임병도(林秉燾)
장성군	채규담(蔡圭淡)
정읍군	박중현(朴仲鉉), 김공락(金公洛), 임명술(任明述)
옥과군	제갈하백(諸葛夏帛), 임로준(林魯濬)
곡성군	신중희(申重熙), 양인석(梁仁錫), 이상린(李相麟), 정일우(丁日宇), 정연태(丁淵泰),정래봉(丁來鳳)
고창군	임기옥(林基沃)
진안군	김동규(金東奎)
남평군	윤창혁(尹昌赫)
장수군	이주섭(李鑄燮), 이복흠(李福欽), 황창균(黃昌均)
금산군	이덕기(李德基), 임공흠(林公欽)
무주군	유학증(柳鶴增)
무장군	최진구(崔鎭九), 김영선(金永聲), 김기중(金器重)
나주군	승길량(昇吉亮), 김성대(金星大), 정우찬(鄭遇燦)
고흥군	송주환(宋柱煥)
김제군	조동우(趙東宇), 조종필(趙鐘弼)
돌산군	김재섭(金才燮)
영광군	정학수(丁學秀), 송태식(宋太植), 김병섭(金秉燮), 이이환(李以煥), 정임철(鄭任哲),김택병(金澤柄)
동복군	오계남(吳季男), 오동수(吳東秀)
창평군	박재옥(朴在沃), 고광훈(高光勳), 박재규(朴在奎), 박우선(朴佑善)
화순군	박태연(朴泰淵)
함평군	신동욱(辛東旭)
광주군	정지환(鄭志榮), 최원택(崔元澤), 박지선(朴持善)
여산군	송필규(宋弼奎), 송벼오(宋炳浩)
영암군	현기봉(玄基奉)
여수군	곽정봉(郭正鳳)
순천군	박해섭(朴海燮), 이병욱(李炳郁)
남원군	김인식(金寅植)
지도군	나유영(羅有英)
금구군	온대근(溫大根), 송락태(宋樂泰), 임병욱(林炳郁)
옥구군	임병련(林炳連), 고한일(高漢一), 차윤경(車允京), 조남필(趙南弼), 송익범(宋益範)외 11名

독립의군부에 가입하여 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은 주로 과거 의병활동을 했거나 측면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많았다. 함평군 책임자인 나산면 송암리 신동욱(辛東旭)도 의병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군 단위 하부조직을 완성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명단이 전하지 않는 아쉬움이 크다.

독립의군부의 조직편제는 군 책임자 밑에 이, 동, 면, 방의 책임자로 향장, 이장, 동장, 방장을 두어 이들 책임 하에 국권탈환 운동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1914년 조직원의 한사람인 김창식(金昌植)이 일경에 체포됨으로서 그 내막이 백백 하에 드러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 독립군양성운동의 기치를 세우고 있었던 비밀결사운동이 이 시기의 운동을 주도하였으니 그 대표적인 조직체가 바로 1913년에 조직된 대한광복단(1915년 대한광복회로 개칭)을 비롯하여 조선국권회복단(1913년), 선명당(1915년), 자진회(1918년), 조선국민회(1918년), 이관구 비밀결사(1918년) 등이었다. 이들의 활동목표는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군자금과 군기(軍器) 확보였다. 이 과정에서 친일관료와 부호를 습격 처단하고 청년학생의 조직화와 독립군으로의 양성을 도모하였으며 간도 및 상해 등지의 해외단체와 연계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목표를 명확히 실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때의 비밀결사운동은 대한광복회나 이관구 비밀결사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내보이지 못하였고 1918년을 전후해서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다만 민족의식과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해외에서의 민족운동과의 연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 사립학교와 서당에서까지 청년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벌인 애국적인 신교육운동을 통하여 생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무시켰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함평인도 이 때 비밀결사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 단체가 바로 대한광복단이다. 광복단은 1913년에 채기중(蔡祺中)·유창순(庾昌淳)·유장열(柳璋烈)·한 훈(韓 焄)·장두환(張斗煥) 등이 경상도 풍기(豊基)에서 조직한 비밀결사였다. 2년 후인 1915년 박상진(朴尙鎭)·우재룡(禹在龍)·권영만(權永萬)·양재안(梁濟安)·김경태(金景泰) 등이 입단하면서 명칭을 광복회라 바꾸고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1916년 노백린(盧伯麟)·김좌진(金佐鎭)·신현대(申鉉大)·신두현(申斗鉉) 등이 가담하면서 다시 '광복단'이라 개칭하였다. 그들의 활동목표는 '오인(吾人)은 대한독립광복을 위하여 오인의 생명을 희생에 공함은 물론 오인이 일생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시는 자자손손이 계승하여 수적(讐敵) 일본을 완전히 구축하고 국권을 광복하기까지 절대 불변하고 일심륙력(一心戮力)할 것을 천지신명에게 경고함'이라고 하는 선언문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애국청년을 훈련하여 군대를 편성한 후 무력으로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단원들은 선의로 헌금하도록 부호들을 설득하는 한편 그렇지 않을 경우 강압 수단으로 군자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하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

광복단 전남 제1단은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단장은 양재홍(梁在鴻), 단원은 모두 19명이었다. 이 가운데 우리 함평출신으로 광복단에 가입한 사람은 정동근(鄭東根, 나산면 수상리)·김교락(金敎洛, 나산면 용두리) 두 사람이다. 이들은 함평·나주와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다 1918년 1월에 체포되어 정동근은 징역 15년, 김교락은 12년을 선고 받고 긴 옥고를 치러야 했다. 경상도 먼 지방에서 출발한 비밀결사운동이었지만 우리 함평인은 이에 기꺼이 뛰어들었던 것이다.[452]

2. 함평의 3 · 1운동

1) 3 · 1 운동의 의의와 지방으로의 확산

3·1운동은 극소수 친일세력·친일지주·매판 자본가를 제외한 전 민족이 참여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이것은 의병전쟁·계몽운동·민중의 생존권 투쟁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운동경험이 하나로 수렴된 역사상 최대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도회지에서의 노동자들은 파업·태업의 투쟁을 벌였고 상인들은 철시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학생들은 동맹휴학, 자진퇴교를 감행하였다. 농민들은 장시를 통하여 만세시위를 벌였고 또한 봉화·횃불시위·산호 등의 방식으로 광복운동을 확산·고무시켜 나갔다. 또한 '며칠씩 계속하여 수십 명씩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봉기를 유도하거나 지역적인 연계를 꾀하고' 혹은 '밤마다 거리로 나와 전차나 파출소에 돌팔매질을 하고 돌아다니는' 수많은 '만세 꾼'이 등장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일본의 각지에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토지를 매입, 농장을 설치하고 소작료를 인상하여 조선인 재산가들로 하여금 일본관리를 상등인(上等人)으로 여기도록 하여, 부자는 도적과 같은 폭도 이상의 놈들이다'와 같은 정읍농민의 벽서가 보여주듯이 농민들이 일제의 폭압침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굳어있었고 그러한 요구는 바로 생활에서 도출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독립이 되면 다 같이 잘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농촌의 많은 농민들은 독립이라고 하는 민족적 과제 속에서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러한 까닭에 몽둥이·낫·곡괭이 등으로 전투적 준비를 갖추고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집합하면 우선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기세를 올리고 나아가 면사무소·군청 등 비교적 저항력이 빈약한 관청을 습격함으로써 군중의 사기를 고무하고 마지막에 경찰관서를 습격하는 공격적·적극적 저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3·1운동은 국내적으로 일제의 폭압적 무단정치를 변화시켰고, 국제적으로는 중국 등 아시아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에 커다란 자극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또 민주공화제 이념이 전면적으로 보급되어 공화제 형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신사조가 도입되어 새로운 사회·새로운 국가건설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온 민족의 열화 같은 호응과 투쟁 속에 벌어진 3·1운동은 일제의 잔혹한 탄압으로 인해 독립쟁취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무단통치로 인해 광복운동을 이끌 조직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민족대표들은 국제정세를 낙관적으로 인식하여 청원주의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투항적·타협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민중의 투쟁을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민족해방운동 전개에 커다란 교훈으로 남겨졌다.

452) 제6편 제8장 제5절 「의병사상 빛나는 함평출신 의병들」 란 참조.

지식인 사이에 민중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민중에게는 민족적·계급적 각성이 촉진되었으며 또한 민중의 힘을 결속시키기 위한 지속적 조직운동과 그 운동의 통일적 지도의 필요성이 공감되었다. 이러한 교훈은 대중적 조직운동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었다.

지방의 3·1운동은 대체적으로 지역인사의 고종 인산(因山)참여, 서울거주 지방인의 귀향으로 서울의 3·1운동의 소식과 독립선언서가 전달되면서 후발적으로 벌어졌으나 중앙의 소식과 독립선언서가 전달되기만 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시위가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충분한 운동의 주체적 조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하였던 것이다. 전남지역의 만세운동은 평안도나 경기도 등지에 비해 그렇게 격렬한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이는 이 지역이 천도교나 기독교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뿐만 아니라 유생·유림 층이 한말에 벌어진 의병봉기로 인한 소모적 궤멸을 면하지 못함으로써 광복운동을 선도할 인물이나 조직을 충분히 갖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이나 보통학교 학생들이 직접 운동의 주도 층으로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함평지역도 그러한 양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2) 1919년 함평읍 시위계획의 좌절과 문장의 독립만세 시위

함평의 3·1운동은 고종황제의 인산봉도를 위해 상경하여 탑골공원의 만세시위운동에 가담했다가 불행하게도 일본 관헌에게 붙잡혀 종로경찰서에서 3일간 심한 고문을 받던 중 풀려난 윤백언·정기연·이인행 등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가운데 연행되었다가 고초를 겪고 풀려나 친구 집에서 치료를 받던 이인행과 정기연이 우연히 장성(長城)에서 상경한 기산도(奇山度)와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453] 이들은 기산도를 따라 인천 월미도로 가서 한남수(韓南洙) 등 여러 동지들을 만났고 거기서 독립사상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대회 취지문을 작성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다. 이인행은 그 취지서를 몸에 품고 함평에서 국민대회를 벌일 책임자가 되어 3월 15일 귀향하면서 함평의 3·1운동에 뒤이은 시위가 뒤늦게 불붙게 되었다.

귀향한 이인행과 정기연은 조사현(당시 25세, 농업)·김용언(19세, 학생)·김준령·모순기·김준부·김기성 등과 모임을 갖고 '슬프다 우리 민족들, 4,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어찌하여 왜적 일본에게 국토를 빼앗길 수 있으랴. 우리 힘으로 강토를 찾아보자'라는 국민대회 취지서 전단을 인쇄하고 이를 살포하였다. 시위운동은 4월 26일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4월 17일 김준부·전기성 두 사람이 군내 유지와 학생들에게 전단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왜경에 탐지된데 이어 다음 날인 4월 18일 두 학생이 등교하던 중 검거되어 헌병소로 연행되고 혹심한 고문을 당했다. 이들은 여러 동지의 희생을 막기 위하여 정인옥·장학년·박상수 등 3인 만을 내세우고 다른 주모자들은 토설하지 않았고 다행히 4월 23일 와다나베 교장과 담임 임은수 교사의 백방노력으로 전원 훈계, 방면되었다. 이로 인하여 함평의 4월 26일 시위계획은

453) 기산도(奇山度)는 장성 출신으로 고종 때 벼슬이 호조판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당시 6대 성리학자 중 한사람일 만큼 유명한 유학자(儒學者) 기정진(奇正鎭) 집안사람으로 당시 을사늑약과 한일신협약(일명, 丁未七條約)에 반대하여 일으킨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 의병대장 기삼연(奇參衍)과 함께 의병활동을 벌이다 기삼연의 순국과 일제의 남한 대토벌작전으로 의병활동이 불가능하자 숨어 지내던 중 고종 인산 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던 사람이다.

좌절되고 말았다.

이 같이 1919년 4월의 함평 만세시위 운동은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에 앞선 해보면 문장에서는 거대한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4월 8일 오후 2시 문장 장터에서 김기택(金箕澤)·정용섭(鄭龍燮)·정재남(鄭在南) 등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앞장 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벌였다. 수백 명의 군중들이 이들을 뒤 따르며 호응하고 나섰다. 장터는 만세소리로 진동하였다. 이들은 문장리에 있던 헌병분소를 기습하고 일진은 함평 쪽으로, 일진은 영광 쪽으로, 일진은 송정리 쪽으로 행진하고 있었다. 긴급히 연락을 받은 영광, 함평, 장성, 나주 등지에서 지원 나온 일본경찰대와 헌병들이 총검으로 대오를 해산시키려 밀어붙였다. 때마침 구밀교 건설공사를 맡고 있던 10여명의 일본인 잡역부들이 일본경찰과 헌병들과 함께 쇠망치를 휘두르며 시위대오에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거리는 피바다로 변해버렸다. 아울러 장터로 출동한 일본헌병들이 김기택 등을 구타하고 검거하자 여기에 분개한 장효섭(張孝燮)·이윤상(李潤相) 등이 김기택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이치는 없는 법, 오히려 총기를 마구 난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피바다를 이룬 만세운동은 어둠이 내릴 때까지 계속되었지만 끝내 총검 앞에 해산 할 수밖에 없었다. 죽창을 든 일부청년들이 일경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유혈사태만 더욱 확산시켰다.

문장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나중에 일경과 헌병들에게 붙잡혀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인행·이윤상·김기택·장효섭·정재남·정재식·정용섭·장영안(張永安)·모재명(牟才明)·김여옥(金汝玉)·이양범(李陽範)·이상준(李相俊)·장덕환(張德煥)·장태중(張太仲)·이계동(李啓東)·김용현(金龍鉉)·김재곤(金在崑)·최준달(崔俊達)·모양춘(牟陽春)·민정태(閔鼎泰)·이인덕(李仁德)·김원춘(金源春)·주승환·윤의병(尹誼炳) 등이었다.[454]

★ 김기택 (金箕澤·19세)

김기택은 1919년 4월 8일 함평군 월야면(月也面) 장터에서 정용섭(鄭龍燮)·정재남(鄭在南) 등과 함께 장날을 이용하여, 장 보러 나온 수백 면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준 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돌았다. 그는 시위주동자로 일제 헌병에게 체포된 후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김기택
생존기간: 1900. 3.15~1969.10. 1
훈격(년도): 애족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454) 이들 중 국가로부터 항일운동 공적을 공인받은 사람은 김기택·이인행·정용섭·정재남 등 4명에 불과하다.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19년 함평군의 만세운동은 뒤늦은 3월 26일 읍내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각 면과 마을로 번져갔다. 1919년 4월 8일 그는 함평군 월야면(月也面) 장터에서 정용섭(鄭龍燮)·정재남(鄭在南) 등과 함께 주동이 되어 장날을 이용하여, 장터로 나온 수백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준 후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거리를 돌며 만세시위행진을 벌였다. 그는 이 시위의 주동자로 일제 헌병에게 구타를 당하며 이날 5시경에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5월 2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 받았고 6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제9권 55쪽).

★ 이인행 (李仁行, 일명 ; 홍근·21세 ; 함평, 나산면 초포리)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의 독립선언식에 참석, 시위를 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어 3일간 구금된 후 풀려나 인천의 월미도에서 한남수와 국민대회 취지문을 작성하고 함평 책임자가 되어 귀향한 후 조사현 등과 협의한 끝에 함평읍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이도록 계획을 짰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어 수포로 돌아갔으며 문장에 도착한 그는 이윤상과 접촉하여 1919년 4월 8일 문장 만세운동이 성사되기까지 막후 조정역할을 담당하였다. 1910년 독립운동을 위한 임시정부 국민대회 전남·북 특파원 기산도(奇山度)·김종필(金鍾鞞)과 함께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1919년 10월 21일 체포되어 1920년 7월 19일 광주지방재판소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대구복심법원(覆審法院)에 항고하여 1921년 2월 18일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취하되고 1922년 2월 19일 만기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도 그는 끝까지 항일운동을 벌였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이인행(李仁行)
생존기간: 1898. 7.27~1975. 3.31
훈격(년도): 애족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그는 1919년 10월 임시정부(臨時政府) 특파원 기산도(奇山度)·김종탁(金鍾鐸)과 함께 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독립운동 자금 수합활동을 폈다. 그러던 중 동년 10월 21일 일경에 피체되어 1920년 7월 19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불복·상고하였으나 대구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제7권 588쪽).

★ 정용섭 (鄭龍燮·19세)

정용섭 역시 1919년 4월 8일 함평군 월야면(月也面) 문장리(文場里)에서 김기택(金箕澤)·장효섭(張孝燮) 등과 함께 장날을 이용하여 장터에 모인 수백 명의 면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 체포되었다. 그 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정용섭(鄭龍燮)
생존기간: 1900. 8.17~1962.10.10
훈격(년도): 대통령표창(93)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19년 4월 7일 함평군 월야면(月也面) 문장리(文場里)에서 김기택(金箕澤)·장효섭(張孝燮) 등과 함께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고 태극기를 만들고 격문을 작성하여 각 마을에 전달, 주민들을 규합하였다. 장날인 4월 8일 그는 장터에 모인 수백 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이를 탄압하는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5월 2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11권 267쪽).

★ 정재남 (鄭在南·23세)

정재남 역시 1919년 4월 8일 함평군 월야면(月也面) 문장(文場) 장터에서 김기택(金箕澤)·정용섭(鄭龍燮)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정재남(鄭在南)
생존기간: 1896.11.27~1946.10.26
훈격(년도): 대통령표창(95)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8일 전남 함평군 월야면(月也面) 문장(文場) 장터

에서 김기택(金箕澤)·정용섭(鄭龍燮)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함평의 만세운동은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늦은 3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읍내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이후 4월 1일의 학교면(鶴橋面), 4월 2일의 나산면(羅山面) 등지를 비롯하여 각 면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재남은 서당 출신의 동지들인 김기택·정용섭 등과 함께 월야면의 만세시위를 추진해 갔다. 이들은 4월 8일 문장 장날을 기해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을 세우고, 거사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시켰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 오후 5시를 기해 정재남 등은 미리 준비해 온 태극기와 선언서를 장터에서 배포하면서 수백여 명 군중을 이끌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만세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일경에 의해 현장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고 피체되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5월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13권 521쪽).

3) 3 · 1운동 1주년 시위운동

1920년 3·1운동 1주년이 되자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다시 일어났다. 함평에서도 1주년을 맞은 만세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 특히 3·1운동이 벌어졌던 전해 4월에 일으키고자 했던 만세시위운동이 좌절된 아쉬움이 컸었다.

조사현(曺士鉉)·송대호(宋大浩)·정기연(鄭琪衍) 등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뜻을 둔 젊은이들은 1주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다. 동지들을 급거 규합하고 나섰다. 우선 3월 19일 함평공립보통학교 기숙사에서 회합을 갖고 3월 26일 졸업식이 끝나는 대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담당을 나누어 일반인은 조사현·김재문이 맡고 학생들은 김용언(金用彦)·윤태완(尹泰完)·이행록(李行錄) 등이 맡아 앞장서서 모든 일을 준비하기로 했다. 함평읍은 윤치영, 대동면은 김준령, 나산면은 정기연, 기타 다른 면은 모순기·정영조가 맡는 한편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함평리 최봉길 집과 모순기 집에서 송대호·장정현·이재주·윤치선 등이 주축이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태극기를 함속에 넣어 김용언에게 보내어 기숙사에 숨기도록 했다.

3월 26일 송기호와 정기연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졸업식이 끝난 후 만세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끝에 오후 4시 쯤 이들 생도들을 필두로 청년, 군민들 수백 명이 장터에서 독립만세 함성을 높이 올렸다. 조사현 등이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지를 향해 시위행진을 벌여 나갔다. 이 때 많은 군민들이 따라 나와 만세를 함께 불렀으며, 온 시가는 만세소리로 뒤덮였다. 그러나 포악한 일본헌병과 경찰의 출동으로 평화적 시위대열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쏘아대는 총탄과 휘둘러 대는 대검으로 10여명의 군중이 부상을 입었고, 조사현·송대호·정기연 등 20여명은 연행,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날 밤 9시쯤 기산에서 횃불이 훨훨 타 오르며 만세소리가 요동쳤다. 그 만세소리는 다시 이 산 저 산으로 번져 혹은 산마루에서 혹은 들판에서 혹은 마을에서 진동했다.

또한 4월 1일에는 학교면 학다리 정거장 앞 광장에서 많은 군중들의 만세시위가 벌어졌고, 4월 2일에는 나산면에서 다수의 면민들이 면사무소 앞에 모여 만세를 불렀다. 뿐만 아니라 3일

과 5일 사이에 손불면, 엄다면 등 군내 여러 곳에서 산상봉화와 함께 만세소리가 메아리쳤다.

이 같이 산상봉화와 함께 만세를 부른 함평의 독립운동시위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해 8월에도 일본헌병과 경찰의 만행에 분격한 청년들이 경찰서 및 군청 폭파를 계획하고 폭발물과 권총·탄환 등을 준비하여 기산 숲 속에 감추어 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행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이 같은 함평읍 만세시위운동으로 인하여 조사현 등 20여명이 체포되었음은 물론이다. 그 중 11명이 1920년 4월 26일 광주지방재판소 목포지원 결심공판에서 아래와 같이 1년 반 내지 4개월씩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55]

조사현(曺士鉉·25세)	징역 1년 6개월	함평읍 내교리	농업
송대호(宋大浩·19세)	징역 1년	학교면(현대동면) 옥동리	학생
정기연(鄭琪衍·18세)	징역 1년	식지면(현나산면) 이문리	학생
윤치선(尹致璿·18세)	징역 8개월	함평읍 함평리	학생
모순기(牟順基·22세)	징역 6개월	함평읍 함평리	농업
김준령(金俊玲·19세)	징역 8개월	함평읍 함평리	농업
김재문(金在文·18세)	징역 8개월	대동면 금산리	농업
윤태완(尹泰完·18세)	징역 4개월	학교면(현대동면) 옥동리	학생
이행록(李行錄·18세)	징역 4개월	대동면 용성리	학생
김용언(金用彦·20세)	징역 6개월	학교면 죽정리	학생
정영조(鄭永祚·18세)	징역 8개월	학교면 죽정리	학생

1919년 4월의 시위만세운동계획이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 1주년을 기하는 다음해의 함평시위운동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은 초기에 피검됐던 젊은이들이 주도자를 실토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함으로써 그들에 의해 그 동안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 조사현 (曺士鉉·25세 ; 함평읍 내교리 ; 농업)[456]

함평읍 내교리 출신이자 농사짓고 살던 조사현은 3·1운동 1주년을 그냥 넘기게 되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손수 학생들을 동원하고 태극기를 만들게 하여 1920년 3월 26일 함평장터에서 시위만세운동을 벌였던 사람이다.

'피고 조사현은 대정 8년(1919) 3월 이후 조선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개시하는 소요를 야기한 바 함평지방에 있어서도 같은 시위운동을 하여 조선 독립의 기운을 촉진하고자 했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

455) 명단순서 및 징역형 선고 량·주소는 당시 판결문에 기록된 순서와 형량 및 주소임(괄호 안 주소는 현재)
456) 3·1운동 1주년 시위운동 주도자 11명의 순서는 가 나 다 순이 아니고 판결문 순서에 따라 배열했음.

던바 금년 3월 중 동 운동을 기획할 뜻을 품고 거사를 수행하도록 촉진시켜 대정 9년(1920) 3월 19일 함평공립보통학교 기숙사에 이르러 동 기숙생인 피고 송대호·정기연·윤치선·정영조·김용언·김재문 등에게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함평지역만 빠지면 치욕이니 속히 학생들을 규합하여 시위운동을 거사하라고 선동하였고…(후략).'[457]

위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현은 3·1운동 1주년 함평시장 시위운동의 주동자로서 가장 많은 형량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도 당시 주도자 11명중 조사현과 윤치선 두 사람만이 아직도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 그 후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서둘러 그 공훈을 공인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송대호 (宋大浩·19세 ; 대동면 옥동리(상옥) ; 학생)

1920년 3월 26일 함평읍 만세사건을 일으킨 주도자의 한 사람으로 태극기제작 등 사전준비와 동지규합, 그리고 거사 당일에는 3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수백 명의 동리 시위군중과 함께 내교리 시가지를 누비며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어 1920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제령(制令) 제7호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송대호(宋大浩)
생존기간: 1902. 3. 29~1928. 5.23
훈격(년도): 애족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라남도 함평(咸平)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의 함평읍 장날을 이용하여 조사현(曺士鉉)·정기연(鄭琦衍)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일찍이 이곳의 유지인 조사현·정기연 등과 접촉하면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으며, 마침 광무황제(光武皇帝) 국장에 참례(參禮)하고 귀향한 윤백언(尹伯彦)도 이에 가담하여 함평 장날인 3월 26일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사전준비를 하였다. 이에 그는 김용언(金用彦)·윤태완(尹泰完)·이행록(李行錄) 등과 사전준비를 하면서, 윤치영(尹致榮)·김재문(金在文)은 함평면, 김준령(金俊鈴)은 대동면(大洞面), 모현기(牟顯基)·정영조(鄭永祚)는 그 밖의 다른 면의 책임자로 뽑았다. 3월 26일 오후 4시경 보통학교 학생과 청년·주민들 수백명의 군중이 장날인 함평 장터에 모이자,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조사현 등과 함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시위행진하였다. 그러나 이때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 헌병의 야만적인 무력행사로 10여명의

457) 1920년 4월 26일 광주지방재판소 목포지소의 판결문 내용.

부상자가 발생하고 20여명이 체포되었다. 그는 이때 함께 체포되어 1920년 5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3권 296쪽).

★ 정기연 (琦衍. 또는 琪衍·18세; 식지면(현 나산면) 이문리 ; 학생)

한말 의병으로 활약하여 건국 공로 표창을 받은 정윤면(정胤勉)의 손자로 할아버지가 일제의 총검에 의해 사살되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적개심을 품었다. 1919년 2월 고종황제의 승하소식을 듣고 학업을 중단하고 윤백언·이인행과 함께 상경하여 3월 1일 탑골공원 독립선언에 참석, 시가행진을 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어 종로경찰서에서 3일 간 문초를 받고 풀려나왔다. 귀향하여 조사현·김용언·이행록 등과 협의 4월중에 함평읍 만세 운동을 시행하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농민 운동, 청년운동의 함평군내 지도자로서 활약하는 한편 반일사상을 고취하는 선전문을 집에서 작성·배포하다가 발각되어 나산주재소에 잡혀가 혹독한 고문을 받고 풀려나오기도 했다. 1920년 3월 19일부터 착수한 함평읍 만세사건에는 주동이 되어 3월 26일 성사시켰고 바로 체포되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이송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그는 서울 중동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원사찰이 심하여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1923↔26년까지 조사현·모순기·김재문 등과 신간회 함평군지회를 결성하고 나산분회 장을 맡아 오다가 강압에 의해 해체하는 등 반일항쟁에 앞장서 왔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정기연(鄭琦衍)
생존기간: 1903.6.5~1952.8.11
훈격(년도): 애족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라남도 함평(咸平) 사람이다. 1919년 3월 26일 함평읍 장날을 이용하여 조사현(曺士鉉)·송대호(宋大浩)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일찍이 이곳의 유지인 조사현·송대호 등과 접촉하면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으며, 마침 국장에 참배하고 귀향한 윤백언(尹伯彦)도 이에 가담하여 함평 장날인 3월 26일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사전준비를 하였다. 이에 그는 김용언(金用彦)·윤태완(尹泰完)·이행록(李行錄) 등과 사전준비를 하면서 윤치영(尹致榮)·김재문(金在文)은 함평면, 김준령(金俊鈴)은 대동면(大洞面), 모현기(牟顯基)·정영조(鄭永祚)는 그 밖의 다른 면의 책임자로 뽑았다. 3월 26일 오후 4시경 보통학교 학생과 청년·주민들로 수백명의 시위군중이 장날인 함평 장터에 모이자,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조사현 등과 함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시위행진하였

다. 그러나 이때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 ·헌병의 야만적인 무력행사로 1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0여명이 체포되었다. 이때 그도 함께 체포되었으며, 결국 1920년 5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3권 313쪽).

★ 윤치선 (尹致璿·18세 ; 함평읍 함평리 ; 학생)

1920년 3월 26일 조사현과 함께 3·1운동 1주년을 기한 함평장터 만세사건을 일으킨 주도자의 한 사람으로 태극기제작 등 사전준비와 동지규합에 앞장섰다. 그리고 거사당일에는 3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수백 명의 시위군중들을 인도하면서 함평장터를 떠나 내교리 시가지를 누비며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었다. 1920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제령(制令) 제7호 위반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그의 공적을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

★ 모순기 (牟順基·22세 ; 함평읍 함평리 ; 무직)

모순기는 자기 집에서 태극기 수십 장을 만들어 1920년 3월 26일 오후 4시 함평장터에서 3월 송대호(宋大浩)·조사현(曺士鉉)등과 함께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도 소위 제령 제7호 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또한 모순기는 1925년 8월 5일 함평청년회관에서 조선 각지에서 발생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결성된 조선수재구제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동포 돕기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2008년 정부는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공적조서」458)

성명: 모순기(牟順基)
출신: 전남 함평
생몰년: 1899년 4월 15일~1960년 5월 4일
포상년도: 2009
훈격: 대통령표창

개요
1920年 3月 23日 全南 咸平에서 3·1운동 1주년을 기념한 독립만세운동 거사계획에 찬성하여

458) 모순기는 2008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공훈기록이 실릴 예정인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7권이 아직 발간되지 않아 공훈록에 등재된 내용 대신 서훈을 심사할 당시의 「공적조서」 내용, 즉 판결문과 신문보도문을 대신 첨부한다.

구한국 국기를 제작하고 거사장소인 함평공립보통학교 기숙사에 전달하였다가 체포되어 懲役 6月을 받음.

세부내용

1) [判決文(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1920. 4. 26) 확인]

判 決

○ 被告 : 牟順基(當22年), 無職
本籍 全南 咸平郡 咸平面 咸平里
住居 上同

○ 主文 : 大正8年制令第7號 違反, 懲役 6月

○ 理由

曺士鉉은 1919年 3月이래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이 개시되고, 소요가 야기되었다는 것을 듣고 함평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위운동을 하고 조선독립의 기운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품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여 날로 원하였던 바, 1920年 3月 중 각지에서 同 운동을 기획한다는 뜻을 어렴풋이 듣고 이에 품은 뜻을 마침내 이루고자 하여 1920年 3月 19日 함평공립보통학교 기숙사에 도달하여 同 기숙생인 宋大浩, 鄭琪衍(외 생략) 등에 대해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불구하고 咸平 지방만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치욕이므로 속히 학생을 규합하여 시위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 설명하고 그것을 선동하여 송대호 등 6명은 이에 응하여 함평공립보통학교 졸업식 거행 당일인 동월 26일 이 운동을 결행할 것을 협의하고(중략) 동월 23일 송대호, 정기연은 김준령, 모순기에게 그 계획을 고하고 그 찬동을 얻었으며 모순기 집에서 同人과 함께 구한국국기 수십 본을 작성하여 그것을 가마니에 넣어서 기숙사 내에 몰래 숨겨 두고, 同月 26일 前記 학교에서 졸업식 거행 후 송대호, 정기연은 당일 등교한 학생 등에 대해 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여(중략) 30여명을 이끌고 同日 開市 중인 함평시장에 도달하여 前記 國旗를 지출하여 각자에게 분배하고 同所에서 一團이 되어 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함평읍 內橋里에서 행진하여 同 지방의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2) [判決文(大邱覆審法院 : 1920. 5. 31) 확인]

判 決

○ 1920年 4月 16日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의 懲役 6月 판결에 대한 피고의 控訴

○ 被告 : 牟順基(當22年), 無職
本籍 全南 咸平郡 咸平面 咸平里
住居 上同

○ 主文 : 大正8年制令第7號 違反, 懲役 6月, 控訴棄却

○ 理由

공적내용 1)항과 동일내용

3)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확인]

ㅇ 被告 : 牟順基(1899. 4. 15), 無職
本籍 全南 咸平郡 咸平面 咸平里
住居 上同

ㅇ 1920年 5月 31日 大邱覆審法院에서 大正8年制令第7號 違反으로 懲役 6 月 을 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20年 12月 1日 出獄함.

4) [東亞日報(1925. 8. 9) 확인]

-수재구제회, 함평서 조직

전남 함평에 있는 함평청년회, 함평노농대회, 함평사상동맹, 동아, 조선, 시대일보 각 함평 지국대표자가 지난 5일 오후 함평청년회관에 모여서 조선 내지의 수해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조선수재구제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여 즉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중략) 집행위원으로 모순기(외 생략)씨를 선출하였다 한다.

★ 김준령 (金俊玲·19세 ; 함평읍 함평리 ; 농업)

김준령은 1920년 3월 23일 함평장터에서 3월 26일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태극기 등을 준비한 후 정영조(鄭永祚)·송대호(宋大浩)·조사현(曺士鉉)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 후 제령 제7호 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수록 공훈내용

성명: 김준령(金俊玲)
생존기간: 1901.11.25~1967. 9.11
훈격(년도): 대통령표창(92)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20년 3월 23일 함평군에서 3월 26일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태극기 등을 준비하였다가 이날 정영조(鄭永祚)·송대호(宋大浩)·조사현(曺士鉉)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함평장터에 모인 시위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는 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10권 94쪽).

★ 김재문 (金在文·18세 ; 대동면 금산리 ; 무직)

김재문은 동지들과 함께 모순기(牟順基) 집에서 태극기 수십 장을 만들어 조사현(曺士鉉)·송대호(宋大浩)·정기행(鄭琪行) 등이 계획하여 1920년 3월 26일 오후 4시쯤 함평장터에서 벌어진 3·1운동 1주년 기념 대한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 후 경찰에 체포돼 1920년 5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제령 제7호 위반혐의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김재문(金在文)
생존기간: 1905. 6. 8~1950. 4. 3
훈격(년도): 대통령표창(2005)
출생지: 전남 함평

1919년 3월 26일 전남 함평군(咸平郡) 함평공립보통학교의 졸업식날 함평시장(咸平市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를 계획·주도하였다. 이곳의 만세시위는 조사현(曺士鉉)·송태호(宋太浩)·정기행(鄭琪行) 등에 의해 계획되었는데, 그들은 3월 26일 보통학교 졸업식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고 동지 규합을 분담하는 등 사전준비를 서둘렀다. 그는 3월 19일 보통학교 기숙사를 방문한 조사현 등을 만나 이 계획을 전해듣고서 동참을 결심하여 윤치영(尹致榮)과 함께 함평면 일원의 연락을 맡았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모순기(牟順基)의 집에서 태극기 수십 매를 만드는 등 준비 작업에 참여하였다. 3월 26일 오후 4시경, 그는 졸업식을 마친 공립보통학교 학생 윤태완(尹泰完)·이행록(李行錄) 등 30여 명의 학생을 인솔하여 장이 열리고 있는 함평시장으로 행진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장터를 시위 행진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헌병과 경찰의 무력 탄압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참가자가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20년 5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1922년 9월부터 1925년 11월까지 함평군 손불면 동암리에 건립된 사설 신정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며 후학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16권 170쪽).

★ 윤태완 (尹泰完·18세 ; 학교면(현 대동면) 옥동리 ; 학생)

윤태완 역시 1920년 3월 26일 조사현(曺士鉉)·송태호(宋太浩)·정기연(鄭琪衍) 등과 함께 함평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 체포되어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0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수록 공훈내용

성명: 윤태완(尹泰完)
생존기간: 1903. 7.24~1974.10. 8
훈격(년도): 대통령표창(200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19년 전남 함평읍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곳의 유지 조사현(曺士鉉)·송태호(宋太浩)·정기연(鄭琪衍) 등은 일찍부터 거사에 뜻을 두고 동지들을 규합하였는데 윤태완도 이들과 함께 만세시위 계획에 동참하여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거사일을 3월 26일로 약정하고 태극기를 준비하는 한편 보통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각지의 군중 동원에 나섰다. 그와 김용언(金用彦), 이행록(李行錄) 등이 앞장서서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드디어 3월 26일 오후 4시경 미리 연락된 보통학교 생도들과 시민 등 수백 명이 시장에서 독립만세의 함성을 올렸다. 조사현 등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에 돌입하였다. 특히 보통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모습은 연도의 시민들을 격동시켜 많은 이들이 시위대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일경과 헌병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총검으로 탄압하여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조사현 등 20여 명의 주동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그날 밤에도 시위는 계속되어 읍 북쪽의 기산(箕山)에서 횃불을 높이 올리고 만세의 함성이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일로 체포되어 1920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로 징역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14권 530쪽).

★ 이행록 (李行錄·18세 ; 대동면 용성리 ; 학생)

이행록 역시 1920년 3월 26일 함평장터에서 3·1독립운동 제1주년을 맞아 정영조(鄭永祚)·송대호(宋大浩)·조사현(曺士鉉)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했다가 4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2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수록 공훈내용

성명: 이행록(李行錄)
생존기간: 1902. 3.28~1962.11.25
훈격(년도): 대통령표창(92)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20년 3월 26일 함평군에서 3·1독립운동 제1주년을 맞이하여 만세운동의 재현을 목적으로 정영조(鄭永祚)·송대호(宋大浩)·조사현(曺士鉉)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태극기 수십 매를 준비하고 김용언(金用彦)·윤태완(尹泰完)·윤치영(尹致榮) 등과 같이 각 면에 연락을 취하는 등 준비를 갖춘 후, 이날 시위군중 30여명과 함께 함평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4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10권 287쪽).

★ 김용언 (金用彦·20세 ; 학교면 죽정리 ; 학생)

김용언은 함평공립보통학교 학생으로 송대호(宋大浩)·김재문(金在文)·정영조(鄭永祚) 등과 함께 조사현(曺士鉉)의 주도로 3월 26일 함평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 위해 함평면 함평리의 최봉길(崔奉吉) 집과 기타 몇몇 곳을 빌려 태극기를 만드는 등 비밀리에 거사를 준비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도 이른바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김용언(金用彦)
생존기간: 1900.12.21~1923. 8.13
훈격(년도): 대통령표창(93)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20년 3월 19일 당시 함평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 학생으로 송대호(宋大浩)·김재문(金在文)·정영조(鄭永祚) 등과 함께 조사현(曺士鉉)의 주도로 함평 공립보통학교 졸업식날인 동년 3월 26일에 독립만세운동을 결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동월 21, 22일에 함평군 함평면(咸平面) 함평리(咸平里)의 최봉길(崔奉吉) 집과 기타 몇몇 곳을 빌려 태극기 수십 매를 만드는 등 비밀리에 거사를 준비하다가 일경에 발각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그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1년 7월에는 상해(上海) 임시정부 요원 김상옥(金相玉)과 만나 임시정부 의연금 모금활동을 함께 하고 독립운동에 관한 밀회를 여러 번 갖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11권 70쪽).

★ 정영조 (鄭永祚·18세 학교묜 죽정리 ; 학생)

정영조 역시 1920년 3월 26일 함평장터에서 3월 26일 송대호(宋大浩)·조사현(曺士鉉) 등과 함께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도 소위 제령 제7호 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2008년 정부는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 「공적조서」459)

성명: 정영조
출신: 전남 함평
생몰년: 1903년 7월 23일~1924년 4월 24일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개요

1920년 3월 全南 咸平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자는 曺士鉉의 권유에 찬동하여 태극기를 제작 준비하고 同月 26일 보통학교 학생들을 인솔하며 시위·행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세부내용

1) [判決文(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1920. 4. 26) 확인]

判 決

○ 被告 : 本籍 全羅南道 咸平郡 鶴橋面 竹亭里
學生 鄭永祚 (18年(5月生)) (외 10名 생략)

○ 主文 : 制令 第7號 違反, 懲役 8月

○ 理由 : 피고 曺士鉉은 1919년 3월 이래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 소요가 일어난 것을 듣고 咸平지방에서도 같은 시위운동을 하여 조선독립의 기운을 촉진하려는 희망을 가졌으나 기회를 잡지 못하였는데, (중략) 1920년 3월 19일 咸平公立普通學校 기숙사에 가서 동 기숙생인 피고 宋大浩, 鄭琪衍, 尹致璿, 鄭永祚, 金用彦, 金在文에 대해,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해가고 있는데 함평지방만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치욕이므로 속히 학생을 규합하여 시위운동을 하자는 뜻을 말하고 이를 선동했다. 위 피고 宋大浩 등 6명은 이에 응하여 함평공립보통학교 졸업식 거행 당일인 3월 26일 이 운동을 결행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 宋大浩, 鄭琪衍, 金用彦, 尹致璿은 동월 21일 22일에 걸쳐 咸平郡 咸平面 咸平里 崔奉吉 집 기타에서 舊韓國國旗 수십매를 작성하고 동월 23일 피고 宋大浩, 鄭琪衍은 피고 金俊玲 牟順

459) 정영조는 2008년 국가보훈처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공훈록이 실릴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7권이 아직 발간되지 않아 공훈록에 등재된 내용 대신 서훈을 심사할 당시의 「공적조서」를 대신 첨부합니다.

基에 대해 그 계획을 고하고 찬동을 얻어 다시 동소 牟順基 집에서 同人과 함께 국기 수십 매를 작성하고 이를 前記 기숙사내에 숨겨두었다. 同月 26일 前記 학교에서 졸업식 거행 후 피고 宋大浩, 鄭琪衍은 당일 등교한 학생 등에게 위 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 金俊玲, 金在文 鄭永祚도 함께 同日 권유에 응하는 尹泰完, 李行錄 외 학생 등 30여명을 인솔하여 同日 開市中인 함평시장에 가서 前記 국기를 꺼내어 각자 분배하고 同所에서 一團이 되어 위 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함평읍내 橋里를 행진함으로써 동 지방의 치안을 방해하였다.

2)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20. 5. 31) 확인]
判 決

○ 被告 : 本籍 全羅南道 咸平郡 鶴橋面 竹亭里
學生 鄭永祚 (18年) (외 3名 생략)
○ 主文 : 控訴棄却

3)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확인]
被告 : 鄭永祚(1903. 7. 23) 普通學校生徒
本籍 全羅南道 咸平郡 鶴橋面 竹亭里
住所 上同
受刑事項 : 1920. 5. 31. 大邱覆審法院에서 1919년 制令 제7호 위반으로 懲役 8月을 받고 1921. 1. 31. 출옥함.

4)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03면 참조]
공적내용 1)항과 유사내용

4) 외지에서의 함평출신 3·1운동 및 독립운동 참가

외지에서도 함평출신은 3 · 1운동에 참가하거나 주도하여 옥고를 치른 이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학교면 석정리 출신의 이희우(李喜雨, 일명 連雨)는 나주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3·1운동 이후에는 임시정부와 연락, 전라남도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펴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징역 7년을 복역했다. 경성고보 재학생이던 최강윤(崔康潤, 일명 원수, 함평읍 함평리 출신)은 1919년 3월 5일 제2차 남대문역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3학년이던 그는 경성고보 학생대표로서 다른 학교 대표들과 전날 밤 합숙한 후 3월 5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학생들을 인솔하고 남대문시장을 출발해 조흥은행(현 한국은행)을 거쳐 보신각으로 행진했고 일경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또 함평출신 최경동은 1919년 광주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주모자로 체포되어 징역 8개월을 살았는가하면 1942년 여수 애양원 원장으로 있을 때 원생들에게 배일 연설을 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정진감 (鄭鎭坎·20세)

정진감은 1941년 12월 일제의 도발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1942년 5월 9일 우리나라 청년들에 대한 징병제 실시가 발표되자 재학 중이던 오사카야간중학교(大阪夜間中學校) 이부(二部) 3학년 동급생인 윤병윤(尹炳允)·고방웅(高房雄)·이형휘(李炯徽)·김규장(金圭藏)·하백문(河白文) 등과 비밀리에 만나 한국독립청년당(韓國獨立靑年黨)을 결성하고 40여 차례에 걸쳐 동지규합과 징병거부 정신계도에 진력하다가 1943년 3월 2일 일경에 체포되었다. 1944년 1월 26일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는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정진감(鄭鎭坎)
생존기간: 1921. 7.27~
훈격(년도): 애족장(92)
출생지: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40년 9월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직공 또는 잡역 등에 종사하는 한편, 대판청년회(大阪靑年會) 예비교(豫備敎) 중학교에 다녔다. 이어 1941년 4월에는 대판야간중학교(大阪夜間中學校) 이부(二部) 3학년에 편입하였다. 그는 일본에 건너온 이후 일인의 재일한인에 대한 극심한 민족차별과 비참한 생활상을 목도하면서 한민족의 자유와 행복은 오직 조국독립과 민족해방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 일제의 도발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1942년 5월 9일에 우리 민족 청년에 대한 징병제 실시가 발표되자, 이를 계기로 5월 중순경 동급생인 윤병윤(尹炳允)·고방웅(高房雄)·이형휘(李炯徽)·김규장(金圭藏)·하백문(河白文) 등과 비밀리에 회동, 한국독립청년당(韓國獨立靑年黨)을 결성하고 40여차례에 걸쳐 회합을 가지면서 동지규합과 정신계도에 진력하던 중, 1943년 3월 2일 일경에 피체되고 말았다. 1944년 1월 26일 대판지방재판소(大阪地方裁判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제10권 334쪽).

★ 최강윤 (崔康潤·18세 ; 함평읍 함평리)

경성고보 3학년 때인 1919년 3월 5일에 남대문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고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최강윤(崔康潤)
생존기간: 1901. 8. 9~1959. 7. 2
훈격(년도): 애족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서울 안국동(安國洞)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 3학년에 재학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동년 3월 4일 김종현(金宗鉉)·채순병(蔡順秉) 등과 함께 만세시위에의 참여를 호소하는 취지문 4백여매를 만들어 배부하였다. 다음날에도 계속하여 남대문역전 광장에서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조선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펄럭이며 다수의 적포(赤布)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였다가 3월 9일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 1년 2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제9권 478쪽).

★ 최경동 (崔敬東·18세)

최경동은 처음에 1919년 광주에서 벌어진 3·1운동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그 후에도 꾸준히 배일·항일운동을 펴오던 중 1942년 여수애양원 원생들에게 항일독립정신을 심어준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최경동(崔敬東)
생존기간: 1901. 9. 5~
훈격(년도): 애족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전남 광주(光州)에서 만세시위를 펴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그는 1942년 여수(麗水)에서 애양원(愛養園)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원생들에게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피체되어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제7권 686쪽).

제2절 1920-30년대 민족운동의 발전과 함평

1. 1920년대 민족운동의 분기와 발전

1919년 3·1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좌절되었음에도, 민족의 독립열의를 집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민족의 다수 구성원을 이루는 민중의 바람을 묶어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를 담아 낼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이 없이는 일제의 탄압에 대응할 수 없었다. 또한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공공연한 국제질서로 여겨졌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민족은 피압박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는 세계평화 내지 평등운동세력과 연대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 주었다. 그리고 일제에 의하여 침탈당하고 억압당하는 민중의 의식화·조직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함을 새삼 각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울러 민족의 역량은 추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산업을 통하여 이룩되어지며, 이것은 비단 교육자와 자본가의 몫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인적·물적, 그리고 군사적 기반에서 발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민족주의 세력은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펼쳐나갔다. 조선의 물산을 애용함으로서 조선인의 산업을 육성보호하자는 것이며, 조선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킴으로써 민족을 이끌어갈 젊은 민족지도자로 양성할 수 있다는 현실에 눈을 뜬 것이다. 그러한 운동은 동아일보 등 언론의 힘을 빌리고 각 지역 유지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민족적 교육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식민지 조선이 처한 객관적 현실에 비해 다소 소홀히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를 테면 독립 이후의 신 국가건설 엘리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절실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제의 교육정책과 교육제도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농촌의 수많은 빈농의 자제들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마저 수용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조선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선기업의 물산을 애용한다는 것은 당연한 애국심의 발로이지만, 한편에선 조선의 기업은 가공원료를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구입하는 처지이었다. 이를테면 조선의 방직회사 제품을 애용하

여 조선인 기업이 발전하기는 하지만, 조선의 방직회사는 일본 방적회사의 방적사(原絲)를 구입하여 베를 짜는 수준이었다는 사실, 또한 조선인 기업의 발전이 조선인 전체의 행복이 아니라 자본가의 자본축적으로 귀결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나아가 조선인 기업가는 대지주 출신이 많았던 것인데 이들은 실로 조선인 소작인에게 고율소작료를 징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산업자본화 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운동은 초기의 활발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점차 대중의 지지를 잃어갔다. 더구나 일제는 이 같은 온건한 부르조아적 민족주의운동에 대해서도 용인하지 않았다. 결국 민립대학설립운동은 경성제국대학의 창설로 방해를 당해 일단 잠복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조선기업 지원육성운동으로서의 물산장려운동은 일제의 민족 분열적 공작통치에 의하여 점차 빛을 바랬다. 그러던 차에 동아일보에 실린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란 사설이 1924년 벽두 조선의 사상 운동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설은 독립전쟁론을 포기하고 언론·교육산업의 결사를 통하여 민중계몽운동을 펼쳐 실력을 양성하자는데 있었지만 결국 일제통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절대독립론을 포기하고 독립준비에 역점을 두자는 것이었고, 우선 조선총독 아래 조선의회를 설립하여 의회정치라고 하는 자치를 달성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고자 함이었다. 바꿔 말하면 속칭 계몽주의적 또는 개량주의적 친일정치운동을 합의하고자 하는 '연정회(硏政會)' 창립을 위한 애드벌룬과 같은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혹독한 비판과 함께 매국론(賣國論)으로 귀결됨으로써 결국 이광수는 동아일보를 물러나게 되었지만, 이로부터 민족주의운동은 자치를 당면목표로 하는 타협적·개량적 민족주의 세력과 절대독립론을 고수하는 비타협적·투쟁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양분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계몽주의적 친일세력과 독립주의적 민족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한반도 내에서는 일제와 함께 친일화(親日化)를 추구하는 강압적 민족말살 정책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에 계급타파·빈곤추방·민족해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사조가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틈입해 옴에 따라 혹독한 일제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광복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독립의 방편으로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세력이 생성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겪은 시베리아 한인과 중국에서의 일부 독립운동가, 그리고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이들에게 수용되어 급속하게 한반도내에 전파되었다. 심지어 국내 언론들까지 이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는데 앞장설 정도였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수용은 한국농민과 노동자의 생활이 가난하다는 객관적 토양이 있었던 것이고,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한국수탈이 바로 자본주의 기구에 의한 것인 만큼 그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유용한 이념적 무기가 된다고 믿었던 의식적 판단이 깔려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나 당시의 농촌사정은 일본인 및 그와 함께 하는 조선인 지주의 토지집적에 의한 폐단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일본인의 자본투자로 인하여 값싸고 풍부한 조선의 노동자층은 열악하고 장시간의 작업조건에서 수탈당하고 있던 처지였다. 요·순·우(堯舜禹) 3대에서의 정전제(井田制)나, 조선후기 실학자에 의하여 다른 여러 형태의 토지개혁론에 정전제(丁田制)·여전제(閭田制)·한전제(限田制)·균전제(均田制) 등이 제시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뜻있는 농민들은 사회주의 세력이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 그 또한 정전제

등과 같은 것이라고 하여 친화력을 가지고 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의 공업이나 산업시설은 언젠가는 조선인에게 되돌려질 것이고 이는 곧 국가적 경영에 맡겨지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터였다. 더욱이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철저한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해방이념으로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환상적 부풀림이 조선민족을 더욱 채찍질했다.

이 같은 주체적·객관적 상황아래에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운동은 점차 큰 힘과 탄력을 받아 팽창해가고 있었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운동은 독립운동 못지않은 일제의 탄압이 뒤따랐다. 일제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서구적 자본주의에 익숙해 있는 자국의 팽창정책에 배치된다는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념운동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개적·표면적 활동이 불가능했다. 더욱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수용한 통로가 시베리아, 중국, 일본 등에 걸쳐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 분파로 나뉘어 시작되었으니 시베리아(이르츠크파) 쪽과 연결된 세력은 화요회의 '신사상연구회'를 설립하였고 조선인사회당은 상해파로서 훗날 M·L계가 되었으며, 일본유학생들의 적지 않은 수의 젊은이들이 북풍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서울청년회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경성세력의 '사회주의자동맹'이 엄존한 가운데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상의 수용과 확산과정에서 각 지방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제각기 조직된 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평양의 '독서회', 영흥의 '삭풍회', 성진의 '신인회', 안동의 '화성회', 나주의 '효종단', 대구의 '신사상회', 진도의 '필연단' 등이 그것들 것이다.

이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세력은 노동자·농민 및 청년·학생을 조직화 내지 의식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지방차원에서부터 단체를 설립하였다. 전라도의 경우 1924년 3월 '무산자가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직 단결만이 있을 뿐이므로', '대동단결의 전제로서 먼저 지방적으로 단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아래 전라노농연합회가 결성되었다. 1924년 전반기에 들면 점차 전국적 통일을 이룩하여 조선노농총동맹·조선청년총동맹 등이 설립된다. 그리고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자들은 이 같은 일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1925년 제1차 조선공산당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공산당 조직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내부의 분파적 대응과 일제의 탄압으로 결국 1928년 여름의 제4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을 계기로 소멸되고 만다.

이 같이 1920년대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분립하면서 발전하였지만, 한편에서는 민족독립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당면의 목표를 향한 실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상호간의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지만 모든 요구수준을 일시에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했던 현실에서 이를 지도하고 조정하는 통일적 민족운동 지도기관이 필요하다는 자성론(自省論)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당위성으로 제기·발전되었다. 즉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비록 상호간 분리적입장과 처지에 놓여있었지만 일제의 권력과 자본에 의해 일본에 동화하자고 주장하는 일부 친일세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이 총 망라되어 일제를 공동의 타도대상으로 삼는

통일된 연합전선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른바 민족협동전선 또는 좌우합작노선이 힘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1926년 11월 15일의 정우회선언은 그 기폭제역할을 하였으니 요강은 다음과 같다.

① 분파투쟁의 청산과 사상단체의 통일
② 대중의 단결과 의식각성을 위한 조직 및 교육운동의 제기
③ 종래의 경제투쟁 형태로부터 정치투쟁 형태로의 전환
④ 타락하지 않은 민족주의 세력과의 적극적인 제휴 등이었다.

그 결실은 바로 신간회로 나타났다.

① 우리는 경제적·정치적 각성을 촉진함
②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③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함.

신간회는 이와 같은 강령을 내걸고 1927년 2월 15일에 결성되었다. 이 강령은 비록 식민지 하에서의 심한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현실론을 제시할 수 없는 추상적 이론으로 각색된 채 구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느 노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무조건 단결해야 하고 계급적 위치에서 분출되는 경제적 욕구를 정치적·민족적 견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중을 분명하게 함축하고 있었다. 물론 민족의 단결과 협동은 일제와의 기회주의적 타협이나 경향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으며, 일정한 이념에 치우친 폐쇄주의 경향을 일체 배격하였다. 이리하여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타협적 자치주의를 내건 세력을 배제했으며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계열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을 먼저 내세우는 계급지상주의 세력을 가담시키지 않았다. 전자가 앞에서 본 친일화를 내세우는 연정회였고 후자가 사회주의 세력 중 무산계급 단일당을 주장하는 전진회였다. 전진회는 '조선의 특수사정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하지만 무산계급과 자본계급의 분립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무산계급의 단일정당이 필요하며 그가 안 되면 준비기관이라도 만들어 민족단일당과 협동 혹은 대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간회는 경성에 본부를, 각 지방 군 단위에 지회를 두어 창립 열 달 만인 1927년 12월 27일 100 개의 지회결성기념식을 가질 만큼 조직이 빠르게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1928년 봄이 되면서 신간회 본부는 다음과 방책을 각 지회에 제시했다.

① 농민교양에 적극 노력한다.
② 경작권을 확보하고 외래이민을 방지한다.
③ 조선인 본위의 교양을 확보한다.
④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⑤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하며 지도한다.

⑥ 염색옷의 착용, 단발의 장려로 백의(白衣) 및 망건(網巾)을 폐지한다.

이 같은 6개 항의 실제 당면운동 과제는 표현상으로는 온건한 것 같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지역의 단결과 내실 있는 목적의식을 달성할 수 있는 뚜렷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었다.

전남의 경우는 1927년말까지 13개 군, 1929년 1월까지는 17개 군에서 지회가 결성되었다. 군 지회의 설립은 먼저 지회설립준비위원회(혹은 발기위원회)를 구성하고 3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면 본부에 지회설립신청을 하고 승인이 있게 되면 설립대회의 날짜를 정하여 경찰에 집회허가를 받아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각 지방의 준비위원회는 대체로 뜻있는 개인회원에 의한 구성이 대세를 이루기도 했지만 해당지방의 각종단체의 지지나 후원과 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경우도 많았다. 누구나 신간회 같은 민족운동단체의 등장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민족운동의 역량은 한층 성숙되고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어 갔다. 우리는 흔히 민족운동을 말하면 민족주의와 이를 일체화시키는 경향이 많았지만, 그에 앞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민족의 과제를 실천하는 온갖 운동이 총망라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면 무엇이 민족적 과제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시대적·역사적 현실에서 도출되는 것이 당연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 하에서 조선인의 민족적 현실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가로 집약된다. 이는 모든 민족구성원이 똑같이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보는 이의 현실적 처지와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이었으니, 마치 프리즘을 통하면 같은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같은 물건이라도 관찰하는 각도나 자세에 따라 형체가 달리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지주의 입장과 농민의 입장이 같을 수 없는 것이며,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다른 것이며, 각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계각층은 각각의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고자 했을 때 그 요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청년·학생들은 안정되고 보람 있는 직업과 내실 있는 인간적 교육을 요구할 것이고, 땅이 없는 농민은 토지를 요구할 것이고, 자본가는 자유로운 기업운영과 이윤의 극대화가 보장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에 비하여 노동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과 인간적 대우 그리고 생존에 충분한 보수를 추구할 것이다. 지역마다 지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현안이 있을 것이며, 계급적 처지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계급간·지역간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동은 하고자 하는 열의와 희생이 전제되는 것으로 운동은 소수가 하는 것이지만 다수 민중은 그러한 운동의 필요성을 느낀다하여도 현안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의 전통적 혈연·학연 등의 인간관계가 작용하던지 아니면 구조적 생활현실에서의 참여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처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주나 기업가는 농민에게 고율 소작료를 징수하거나 저임금을 강제하는 당시 구조적 상황에서 소작료를 낮추고 온정적인 차원에서나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여도 이것은 분명 민족적 과제의 실천과정에서의 단순한 미담의 차원에서만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여도 지주·기업가가 현실적으로 식민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면서도 은밀히 임시정부나 운동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일도 일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하 함평에서의 운동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으며 연령층으로 보면 현실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 앞장서게 되는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함평에서의 민립대학설립운동 및 사상단체 신간회(新幹會)

1923년 12월 함평에서도 '민립대학설립기성회' 함평군부가 결성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당시 3·1운동 33인의 한 사람이자 중앙집행위원이던 이갑성 등이 함평에 내려와 강연한 후, 함평군부가 결성되었다. 이 때 집행위원장에 이재혁(李載赫), 상무위원에 모성환(牟星煥) 등 6인, 보관위원에 이재승(李載昇) 등 2인, 감사위원에 이길범(李吉範) 등 3인을 뽑았고 집행위원으로는 이동범(李同範) 등 84인을 선임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각 면에도 회원을 모집하여 지부를 두고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 각 면에 상무집행위원을 파견하여 선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은 당시 함평청년회(회장 李載赫)가 주도하였으며 일반의 참가율도 매우 높아 당일 함평군 지방부 조직 대강연회에는 무려 수백 명이 참가하여 함평청년회관을 가득 메우고도 남았다.[460] 특히 함평에서도 '필시동맹(必是同盟)'이라고 하는 사상단체가 조직되었으니 그때가 1925년 4월이었다.[461]

'필시동맹'의 운동목표나 활동방침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었지만 창립당시 결의사항에 청년운동 문제와 소년단 문제를 거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함평지방 청년들의 민족적의식화 내지 운동적 조직화에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필시(必是)'란 어휘를 해석해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러니까 당시 우리민족에게 가장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독립이었다는 사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일깨움이 절실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동맹'을 일제의 눈을 피해 암묵적 의미의 '필시'라는 용어를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26년 6월 30일 함평형평청년회가 창립될 때 회장 이재오(李載旿)가 축사를 했던 것을 보면 여타 대중운동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1927년 5월 신간회 중앙본부가 창립된 후 얼마 안 되어 함평에서는 함평청년회와 함평청년연합회 등이 신간회를 지지하고 나섰다. 함평청년회에서는 '신간회 촉성을 결의'하였고 청년연합회에서는 '좌익민족주의 대표기관인 신간회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을 결의했다. 이 때가 바로 1927년 3월과 4월이었다.[462]

청년연합회에서 신간회를 '좌익민족주의'라고 지칭하였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간회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이었지만 비타협적 세력과 민족독립 우선론이 협동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전국적 운동의 흐름을 지방차원에서 창조적이

460) 동아일보, 1923년 12월 15일자.
461) 조선일보, 1925년 4월 15일자.
462) 조선일보, 1927년 3월 16일·4월 2일자.

며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의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단체의 지지와 성원에 의해 5월 28일 오후 1시 함평청년회관에서 신간회 함평지회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전남지방에서는 가장 빠른 것이었다.

초대 회장에는 이화범(李和範), 부회장은 서상기(徐相基)가 맡았으며 간사는 송기호(宋琦浩)·나인석(羅仁石)·김두현(金斗鉉)·정규철(丁奎喆)·모순기(牟順基)·김상준(金相俊)·이현(李鉉)·한창호(韓昌鎬)·이성우(李成祐)·이문겸(李文兼)·김상렬(金相烈)·이철(李哲)·이인행(李仁行)·이명준(李明俊)·조사현(曺士鉉)이었고 상무집행위원에는 이인행이 선임되었다. 이후 서상기는 2대 회장이 된다. 이 때의 간사 면면을 보면 당시 함평지방에서의 청년운동·노동운동·농민운동을 끌어가던 인사들이 거의 참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을 만큼 당시 '전 민족적 대표기관으로서의 일반의 기대와 촉망이 높아 이구동성으로 고대하였다'고 한다.[463] 신간회 함평지회는 간사회를 통해 운영되었다. 당시 신문보도를 보면 간사회에는 일반인의 방청참여가 허용될 정도로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제 때에 열리지 못하여 연기한 일도 많았다.[464]

3. 함평의 청년운동과 야학(夜學)

일제강점기 함평의 계몽운동은 청년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20년 7월 7일 창립된 함평청년회는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함평리에 양옥회관을 마련하는 등 처음부터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다. 초대회장은 이재혁이 맡았다. 당시 상당한 재력가였던 그는 함평청년회 활동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청년회는 장정현·정기연 등이 주도적 역할을 맡았었다. 또한 함평청년회는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주도하였음은 물론이고 창립된 지 1년 만에 부녀야학을 개설하여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수신(修身)·산술·습자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당시 수강했던 30여명의 부녀자들은 대부분 중·상류층 읍내 부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진명학원'을 운영하던 함평청년회는 1926년 5월 그 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야학은 함평청년회만 개설한 것이 아니고 다른 개인이나 조직도 개설했었다. 당시 언론은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야학개설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1923년 10월 1일부터 함평 공립보통학교에서 서상혁 외 2인이 부녀야학 강습소를 열어 갑·을 반 60여명을 15-40세로 모집하여 갑반은 3-4학년 과정, 을반은 1-2학년 과정으로 수신·산술·조선어·한문을 강습하여 지난 30일 갑반 18, 을반 30명이 강습 수료증서를 받았다.[465]

해보면 용천사 주지 정응상이 대각리의 노동자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노동야학을 설립하고 강사 송문옥씨를 초청하여 현재 30명이 수강 중이다.[466]

463) 동아일보, 1927년 5월 26일자.
464) 동아일보, 1928년 12월 14일·21일자.
465) 동아일보, 1923년 12월 7일자.
466) 동아일보, 1925년 2월 2일자.

함평 식지면 나산리에 있는 진명야학원은 약 8년 전에 설치하였던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안기용·안종휘·안현순·안정순의 노력으로 다시금 금년 6월 중순 경 무산아동들을 모집하여 강학하였는데 지난 7월 2일 경찰이 인가가 없다는 구실로 폐지명령을 하므로서 당국에 여러 가지 교섭을 하였으나 불응하므로 피눈물을 흘리며 해산하였다.[467]

당시 야학은 단순히 부녀자를 대상으로 외관상 필요한 일본어를 가르치는 수준에서부터 의식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혹은 공식적인 공립보통학교나 청년회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서 초포리 마을에 설립한 '사설학술강습소'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다양했지만 재정문제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또한 농촌의 무산아동 교습까지 일제 경찰의 간섭과 탄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함평청년회는 1926년 1월 전남청년연합회에 가입하였다.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일찍 출범하여 회관까지 갖추고 있던 함평청년회로서는 뒤늦은 가입이라고 하겠다. 이후 1926년 6월 27일에는 대동면에서 대동청년회가 창립되었다. 다른 면에도 청년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길이 없다.

1925년 형평사함평분사(衡平社咸平分社)가 조직된데 이어 1926년 6월 30일 함평형평청년회(咸平衡平靑年會)가 창립되었다. 그 활동은 유명무실했지만 청년도축업자(백정)들이 당시의 차별대우를 시정하려는 노력차원에서 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차별문제를 완전하게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민족독립에 기여하려는 한 가닥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범했음은 분명했다. 여기에는 전술한 필시동맹를 비롯하여 함평청년회, 함평노동조합연합회, 함평농민조합연합회가 적극 지지하면서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 회원은 17세부터 35세까지 모두 17명이 참가했으며 조직을 위원제로 하여 집행위원에 이광현(李光鉉) 등 8인을 선임하였다. 입회비는 50전, 월 회비는 20전이었다. 이들은 또한 함평청년연합회 구성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각 방면으로 산재해 있는 청년단체들을 계통적으로 참여시켜 민족적 청년운동의 통일성을 기하자는 취지였다. 이 흐름에서 1927년 3월 28일 함평청년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중앙집행위원으로는 김상렬(金相烈)·이재혁(李載爀)·이　현(李　鉉)·오정자(吳貞姿)·김창수(金昌洙)·윤병흠(尹炳欽)·이좌연(李佐珚)·배석진(裵錫珍) 등이 선임되었고 이중에서 김상렬(金相烈)이 임시의장을 맡았으며 서기는 이현우(李鉉雨)로 하였다. 여기에서 각 면 각계의 청년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느슨한 연합회보다는 '동맹'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망에 따라 위원들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결실을 봄으로써 1927년 11월 25일 함평청년동맹이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 함평청년회를 이끌던 김상렬이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상무서기 이현·서준(徐準), 집행위원 송기호(宋琪浩)·모성기(牟盛祺)·박상수(朴相水)·신현기(申鉉麒)·이좌형·정기비(鄭琦秘)·김동규(金東奎)·오정자(吳貞子)·윤병현(尹炳鉉)·채길룡(蔡吉龍)·이관혁(李官赫)이 맡고 강승규(姜升奎)·유영기(柳榮基)는 검사위원을 맡았다.

이상과 같이 함평의 청년운동은 초기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자산가, 상층인사들 이 주도하여 출발했다. 나중에는 청년 각층의 계급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점차 반영하면서 지역별 부문별로 발전하다가 청년동맹으로 결집하는 과정으로 발전해 나갔다.

467) 동아일보, 1931년 7월 24일자.

4. 함평의 농민·노동운동

1920년대는 대중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20년 들어 노동조건의 개선, 소작문제의 해결, 상부상조 등을 당면과제로 내세운 조선노동공제회가 서울에서 발족한 이후 각처에서 노동친목회, 소작인회, 농민대회, 노농연맹이 잇따라 조직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 조직을 지역별 권역별로 묶어 전국적인 통일기관으로 결성해 나갔다. 1924년 3월 대구에서는 141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 남조선노농동맹을 결성했고, 이어 그 해 4월에는 전조선노농대회·남선노농동맹·조선노동연맹회 등 182개 단체 대표 200여명이 서울에서 모여 전조선노농총동맹을 발기했다. 그러나 초기의 노동자와 농민문제를 한꺼번에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농민과 노동자의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따로 분립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분립된 조직으로서의 작업이 진행되었고 전국적 차원에서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분립되었다. 이 때가 1927년 9월이었다. 이 같은 농민·노동운동의 조직화를 주도하면서 혹은 이에 고무된 나머지 경향 각처에서 소작쟁의·노동쟁의가 거세게 휘몰아쳤다.

<표 402> 소작쟁의의 전국·전남 발생건수(1920-1930년)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전 남	5	4	-	24	59	105	22	41	85	45
전 국	15	27	24	176	164	204	198	275	1,590	423

<표 403> 전라남도의 노동쟁의 참가건수와 참가인원수(1921-1931)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건 수	1	-	1	1	6	4	3	3	4	11	11
참가인원	230	-	160	115	529	540	293	328	157	1,297	1,183

함평 최초의 노농단체는 1923년 4월 30일 창립된 노동친목회였다. 이는 명칭에서 '친목'이라고 했지만 실제 애경상조(愛敬相弔)는 부대사업으로 했고 '목적적 노동으로 상호협조와 공동의 존영'을 보다 선명하게 내세우고 있었다. 이는 노동문제를 보다 실천적이며 이념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대사조의 변천에 따른 것'이었다.[468]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이를 '미거(美擧)'라고 하여 대서특필했는데 가입회원이 무려 748명에 달하였다. 이 때 회장은 서상호(徐相鎬), 부회장은 임성조(林成祚)였고 총무·회계·서기의 부서를 두고 의결기관으로 평의원회를 두었다. 1923년 7월 노동친목회는 노동회관 건립기금을

468) 조선일보, 1923년 6월 28일자.

조성하기 위해 농악대를 조직, 활용하여 모금활동을 벌였다. 이 해 8월 농악대가 기금을 기탁받기 위하여 기각리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있을 때 친일세력과 사소한 시비가 벌어진 끝에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다. 친일세력들이 보호를 요청하며 경찰서로 피신하자 노동친목회 회원들은 평소에 쌓였던 항일의식이 폭발, 경찰과 충돌한 끝에 경찰서 난입사건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16명이 검거되어 혹독한 취조와 고문을 당하고 목포지청으로 송치되어 소요·건조물 파괴·가택 침입·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부터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함평노동친목회 회원들은 결과적으로 친일파와의 시비가 식민지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번지는 민족적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후 1924년 4월 18일에는 제2기 정기총회를 열어 '혁신' 방안을 강구하여 회칙을 수정하고 회의구성을 간사제로 바꾸었으며 회비를 월 50전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 위원장은 신현기였으며 회칙수정위원으로는 장정현·모순기 등이 맡아 처리하였다.[469]

1924년 10월 13일 3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소작료 운반문제를 거론했다. 그 결과 거리상 2리에 한해 무료로 운반해주되 그 이상이 되면 운임을 요구할 것과 우경(牛耕)시에 도작(稻作) 1두락에서는 60전, 맥작(麥作) 1두락에서는 40전을 받고 일을 하도록 하였으며, 사람은 1일에 주식이 있으면 30전, 주식이 없으면 70전을 받도록 정하였다. 소작료의 무상운반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최저임금 및 노동력의 강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해야한다는 것은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같은 노동친목회의 활약에 대해 당시 경찰은 많은 압박을 가해왔다. 심지어 정기총회까지 봉쇄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 봄에도 200여명의 성원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각 면 노농대회를 조직하고 회관건립기금을 확보하는 방침을 재차 천명하고 마침내 함평노농연맹회로 개칭했다.[470]

1925년 12월에는 목포자유노동조합 파업을 지지하는 격문을 보내고 운수 청부업자 요시다(吉田)조(組)에게 항의문을 보내는 한편 노농연맹회를 농민·고용자·자유노동 3단체로 분립하기로 하였으며 상식을 알려주기 위한 '야학'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농민내부의 고용노동자들이 처한 각각의 현실을 고려하는 노농운동을 진행시키겠다는 의지의 다짐이었다. 따라서 임원구성도 집행위원과 상무집행위원을 두어 합의제로 하기로 하였다.

초창기 노동친목회에서 활동한 사람은 신현기(申鉉麒, 내교리)·조사현(曺士鉉)·이명준(李明俊)·서을남(徐乙南)·김폰바우·장석선(張石善)·서상국(徐相國)·이광(李洸)·최강윤(崔康潤 일명 元水)·이직현(李直鉉)·모영기(牟永基)·이갑원·김준부·장정현(張釘鉉)·김준택 등이었고 위원장 신현기는 사재를 털어 기밀비에 충당하기도 했다.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함평에서도 다른 지역과 같이 노동자·농민의 운동이 분리되어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조직단체 차원에서는 같이 활동하다가 1926년부터 각기 필요에 따라 분립하여 활동했다. 이로써 함평군 각 면의 다양한 운동단체들도 노동조합연합회·농민조합연합회로 결집하게 되었다. 1924년 10월 나산면 초포리에서는 3·1운동 당시 탑골공원 시위에 참가했던 이인행이 '노농공조회(勞農共助會)'를 설립해 평능면·식지면 일원의 노동·소작문제 해결에

469) 조선일보, 1924년 4월 22일자.
470) 동아일보, 1925년 3월 8일자.

노력하고 있었고[471] 1925년 1월에는 신광면 유지의 발기로 400여명이 면민들이 모여 '신광농민대회'를 결성하였으며[472] 1926년 1월에는 '함평농우회(咸平農友會)'가 설립되기도 했다.[473]

이런 단체의 농민·노동자들은 면별 농민조합 결성으로 발전하고 노동자는 직업별 조직체로 전환했다. 함평 노동운동세력은 조합원의 격증에 따라 자유노동자·정미노동자·고용인으로 나누어 단체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각각 자유노동조합·정미노동조합·고용인조합으로 분립한 후 다시 이를 함평노동조합연합회로 통합했다. 상무집행위원으로는 모세기(牟世基)·이현·조만국(趙萬國)이 되고 모세기가 대표를 맡았다. 집행위원으로는 이명준(李明準)·천인관(千仁官)이 맡았다.[474]

농민 측에서는 1926년 1월에 함평농민조합준비회를 결성하고 각 면에 농민조합을 설치하고 각 리에는 농민단을 조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회원에게 「조선농민」이나 기타 농민관련 잡지를 읽게 했고 회비는 춘추에 1원 씩 내기로 했다.


장정현의 장례식장(함평청년회관 앞)

이것이 바탕이 되어 함평노동조합연합회가 결성되었던 1926년 4월 16일에 함평농민조합연합회도 결성되었다. 상무집행위원은 장정현(張玎鉉. 대표)·서도현(徐道鉉)·이동찬(李東贊)이 맡았으며 집행위원은 김경로(金京老) 외 2인이 선임되었다.

그런데 함평의 경우는 각 면별로 농민조합이 먼저 결성돼 농민조합연합회로 발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단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각 면의 농민조합은 농민조합연합회가 구성된 이후 각 면별로 조직되었다. 1926년 6월 25일 제일 먼저 대동면농민조합이 결성되었고 이어 학교면·평릉면·식지면·해보면, 그리고 함평면 순으로 발족되었다. 다른 면에도 농민조합이 결성됐을 것이지만 신문지상에 보이지 않아 알 수가 없다. 각 면 농민조합은 총무부·조사부·경리부·교육부 등의 부서를 두었다.

이들 각 면 농민조합은 당면과제를 결의했던바 함평농민조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각리에 농민단의 조직을 촉구하며
② 작료(作料)는 답 4할, 전 3할로 하고
③ 소작료 무료운반은 1 리 이내에 한한다. 그 이상이 될 경우 매 1 리 1 석에 40전을 운임으로 청구하며,
④ 작료의 두곡(斗斛)은 '평목(平木)'을 사용하며,

471) 조선일보, 1924년 10월 12일자.
472) 조선일보, 1925년 1월 18일자.
473) 시대일보, 1926년 1월 26일자.
474) 조선일보, 1926년 5월 1일자.

⑤ 작료 감정에 농민조합 임원이 참여한다.
⑥ 악질지주에 대항책을 강구한다.

해보농민조합은 위 함평조합의 6개항에 2개항을 추가해 더욱 강력했다.

⑦ 소작권 보장
⑧ 결의문을 지주에 전달할 것을 추가하고 있다.[475]

다른 면의 경우도 대체로 이와 비슷했을 것이다.

이 같은 농민조합결성과 활동으로 여타의 농민단체도 점차 농민조합으로 개조되었다. 1928년 9월 18일 해월농민진흥회는 해보면 문장리에서 300여 회원이 모여 정기총회를 열고 진흥회를 자체적으로 해체하고 '절실히 요구하는 농민조합창립'을 결의하고 소작료율과 소작료 액 결정방식, 소작료납입 이정(里程)을 비롯하여 '무리한 정조(定租)를 해제하고 중간 소작을 방지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476]

이 같은 농민운동 발전은 순조로운 것이 아니었다. 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장정현·이 광은 일제탄압에 의해 실형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농민조직에 가담한 농민에게도 탄압이 가해졌다.

'신광면에 있는 동척은 신광농민회원에게 소작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면서기와 일본이민이 공모하여 소작인을 못살게 하는 일'도 일어났다.[477]

이와 같이 1920년대의 함평에서는 노동자·농민의 단일조직에서 양자가 분리, 노동단체는 직업별 노동조합으로, 농민조합은 지역별로 계열화되었고 이를 노동조합연합회와 농민조합연합회의 양대 기축으로 양립해 발전해 나갔다.

그러면서 구체적 실천운동도 활발해졌으니, 신광면 계천리 소작인 이영대는 수확량 5석에 소작료를 3석 6두를 내라고 하자, 땀 흘려 지은 곡식을 논에 그대로 두고 손대지 않기로 하는 등의 쟁의를 벌였으며[478] 함평군 학교면·엄다면 동척의 소작인들은 흉년으로 벼를 훑어보아도 6할 3푼에 이르는 소작료를 낼 수 없어 이에 불납동맹을 맺고 대항하였다.[479]

노동쟁의도 일어났으니, 함평읍 신곡제사공장 직공 30여명은 감독이 여직공을 구타한 것에 분개하여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480]

1930년대에 들어서면 함평에서는 더욱 많은 소작쟁의가 일어난다. 일제는 만주로 불리는 중국 동북부지방과 본토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조선농촌의 안정이 필요했다. 여기에서 이미 향상

475) 동아일보, 1926년 9월 10일·13일자.
476) 동아일보, 1928년 9월 17일자.
477) 조선일보, 1925년 5월 16일자.
478) 동아일보, 1925년 11년 24일자.
479) 중외일보, 1931년 11년 27일자.
480) 동아일보, 1931년 10월 20일자.

적 현상이 되어버린 농촌의 소작쟁의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1932년 조선 소작조정령(小作調整令)과 1934년 조선 농지령(農地令)을 제정했다. 이는 지주·소작인 간의 사법적 분쟁에 대해 공법적 제약을 가하자는 것으로 소작권을 3년 보장하는 대신 소작인의 쟁의행위를 제도와 법의 권역으로 끌어들여 실력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지주의 자의적인 소작권 이동에 제약을 가하면서도 농민들의 집단적·의식적 소작쟁의를 제압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같은 제도의 틀을 이용하여 함평농민들은 소작권을 보장받기 위해 행정당국과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고 제소하는 등의 활동을 펴나갔다.

<표 404> 전라남도에서의 소작쟁의 건수(1930-1939년)

연도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계
함평	3	1	1	39	43	1498	136	84	102	118	676
전남	146	140	40	665	2,444	5,565	3,771	3,654	4,373	3,608	24,406

그러한 사정을 보도했던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함평·대동 양면 소작인 서봉순 외 26명은 지난 24일 지주 목포부 상빈정에 거주하는 미마쓰(小松)를 걸어 목포재판소에 소작쟁의조정신립(小作爭議調停申立)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전남 영암읍내 문모(文某)가 얼마 전 오까야나기(岡林)라는 사람에게서 이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토지를 비싸게 사서 부친에게 꾸중을 듣게 되었으니 매 번 검미(檢米)는 내가 할 것이니 염려 말고 나의 요구대로 이전 소작료에 1할 5부 가량씩을 올려달라고 하므로 소작인들은 문씨의 말대로 소작계약을 써준 것을 문은 그 소작계약을 가지고 미마쓰(小松)에게 매도하였는데 받은 소작계약에 의한 소작료를 통지하였으므로 소작인 일동은 분기하여 목포재판소에 그와 같이 조정신립을 하였다는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481]

위 보도내용을 보면 지주들이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토지 값을 올려 받기 위해 소작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다음 이를 입증하는 소작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작인에 의한 소작쟁의가 법원에 자주 제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0년대 들어 지주들의 소작료인상 수법과 그에 따른 소작쟁의가 빈발했던 실태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당시의 함평농민들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였으니, 청원·진정운동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1932-3년간에 학교면·엄다면의 가마니 생산자는 학교면의 가마니 매입조합 내의 분파 행위로 인하여 이제까지의 가마니 매입방법이던 경쟁 입찰이 무시되고 지정매입으로 바뀐 것에 반대하여 군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가마니의 지정매입은 결국 가마니 생산업자 다수의 가마니 생산을 봉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마니의 품질을 낮추게 되고 시장에서 가마니를 판매하는 상인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의 신문기사는 이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작년 4월 7일에 함평군 학교·엄다 양면의 가마니 생산자 200여명이 지정매매를 반대하고 경쟁 입찰가격 통일요구로 본군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함은 기보(旣報)하였거니와 지난 2월 27일에는 생산자와

481) 조선일보, 1936년 11월 3일자.

시민 70여명이 협력 연서하여 동면에 거주하는 생산자 대표 한창호, 시민대표 김시숙 2명을 군 당국에 파송하는 동시에 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교매입조합이 신구파로 분립된 이후 생산자나 시민들은 경제상으로 다대한 타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기에 금번에 또 다시 아래와 같은 진정서를 군 당국에 제출하였는데 만약 군에서 입찰판매제도를 시정하여 주지 않으면 또 도 당국에 진정하겠습니다.[482]

또한 함평농민들은 한해(旱害)의 구제를 위하여 취업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하기도 하였다. 즉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요구한 것인데, 이를 총독부에도 전달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그 사정을 신문기사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9일 오후 2시경 전남 함평군 학교·엄다 양면의 한해인(旱害人) 1,106명이 서명 날인하여 구제요구를 진정코자 지용화(池龍化)를 진정대표자로 삼아 군 당국에 와서 한발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터가 없으니 시급히 일하게 해주어 기아선상에 있는 우리 한해민(旱害民)들을 구제해 달라고 군, 경향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총독부에 이 진정서를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한다.[483]

이처럼 함평농민들은 비록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기는 했지만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권익을 찾고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5. 1925년 함평군민대회

1925년 함평군수는 관민합동의 산업시찰단을 모집하여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 동안 수원·경성·철원·원산 등지를 여행한 적이 있었다. 이 때 비용은 각자 사비 50원씩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면비를 지출하여 이에 충당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즉 공금을 무단 전용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산업시찰단은 산업시설을 둘러보는 일보다는 금강산 유람이 목적이었다.

이로 인하여 함평에서는 이를 '군수불미사건(郡守不美事件)'으로 규정하고 군민대회 준비회를 결성하고 대대적인 규탄대회를 열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군수의 명예훼손과 치안의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하였다. 이에 군민대회 준비회는 도지사에게도 공개장를 보내 이를 규탄하였다. 여기에는 함평청년회와 노농대회도 참여했다.

이처럼 함평군민은 일제강점기 참정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였으면서도 함평청년회와 노농대회가 주동이 되어 전군민을 일치단결시켜 지방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었다.[484]

482) 동아일보, 1933년 3월 7일자.
483) 동아일보, 1935년 8월 15일자.
484) 동아일보, 1925년 11월 15일·17일··25일·29일자. ; 조선일보, 1925년 12월 11일자.

6. 월야면민들의 '국유림(國有林) 환수'운동

1928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주민 200 명에서부터 나중에는 거의 500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면사무소와 월야공립보통학교, 그리고 월야 경찰주재소에 진입하여 조선인 면장, 일본인 교장, 일본인 경찰서장을 포위한 채 일본경찰과 대치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마침내 충돌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 때 경찰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르는 한편 발포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 사건은 26일 밤 12시경이 되어서야 겨우 진정되었다.

이로 인해 30여명이 함평경찰서로 연행되어 혹독한 취조를 받은 끝에 그 중 17명이 구속되었다. 이 가운데 김권봉(金權奉, 31세)·박신양(朴新陽. 39세)·정순악(鄭舜岳. 26세)·박판용(朴判用. 25세)·이계열(李啓烈. 52세) 등 5명은 징역 6월 내지 8월이 선고되어 복역했고 이천석(李千石. 24세)·정시환(鄭時煥. 36세)·정대동(鄭大同. 30세)·정석근(鄭碩根. 24세)·정국휴(鄭國休. 51세)·박승하(朴勝夏. 35세)·장길동(張吉同. 21세)·정일휴(鄭日休. 39세)·박승렬(朴勝烈. 21세)·정휴익(鄭休益. 62세)·정봉근(鄭奉根. 32세)·이택춘(李澤春. 女, 56세) 등 11명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또한 정항모(鄭沆模. 33세)는 면소처분을 받았다. 이것이 이른바 '월야면국유림환수운동'이었다.[485]

이는 본래 민유(民有)였던 임야가 난데없이 국유로 바뀐 후 그것이 월야보통학교 학교림으로 불하되면서 불의에 조상대대의 묘소를 모신 임야를 빼앗긴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그 임야가 바로 월야보통학교 뒤쪽에 있던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773번지의 15정 4반 6무 7보(4만 6,387평)과 556-2번지 임야 4정 6반 7무 7보(1만 4,017평)이다.

이 땅은 수령(樹齡)이 100년 이상 된 소나무도 있을 만큼 예로부터 보호금양(保護禁養) 되던 금송(禁松)지역이었다. 아름 들이 4, 5자 되는 소나무는 물론 2, 3자 되는 소나무까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다. 이 곳에는 예로부터 이웃마을 주민들의 조상묘소가 들어서기 시작해 이 무렵에는 모두 111기의 분묘가 봉분되어 있었다. 묘적에 오른 분묘가 37기, 묘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주인이 있는 분묘가 70기로서 연고가 없는 분묘는 4기에 불과했다. 이렇듯 이 곳은 적송(赤松)을 보호하면서 이웃마을 주민들이 대대로 조상의 묘소를 모셔온 유서 깊은 삼림이었다.

이 땅에 아픔과 근심이 새겨지게 된 것은 사실상 국권을 잃은 한말(韓末), 명색뿐인 대한제국 융희 2년(1908) 1월 21일 '삼림령(森林令)'이 공포되면서부터였다. 더욱이 일제는 1910년부터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삼림(森林)을 소유자에 근거하여 제실림(帝室林)·국유림·공유림(公有林)·사유림(私有林)으로 구분한 이 삼림령에 의해 소유자로 하여금 '본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삼림은 모두 국유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여 소유자의 신고

485) 이 글은 소화(昭和) 3년(1928) 9월~12월 형사재판서 원본(刑事裁判書原本. 총무처 기록 보존소 문서 번호 77-5334 micro film 22247)에 의거하였으며 이를 제공해 준 월야면 출신 정한기(鄭漢基)님, 향토사학자 이현석님께 감사드린다.

의무를 명시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유로 간주한다'는 대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때 월악리 주민들이 위의 임야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조상의 분묘가 있고 그들 스스로 금송·보호하였던 임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아니 신고절차가 귀찮았고 기간을 모르고 지나쳐버렸는지도 모른다. 그 후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던 조선총독부는 이 임야를 산림령 규정에 따라 '신고미필을 이유로 국유로 간주' 해버린 것이다.

일제는 한반도를 식민지로 병합하기 이전부터 조선의 원시적인 토지소유 제도를 간파하고 이를 근대적 자본주의 소유제도로 합리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산림 및 농토중심의 한반도국토를 잠식하여 식민통치에 필요한 재정확보차원에서 강제로 국유화하려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었다. 1908년 삼림령을 반포하고 삼림조사사업을 벌이고 나선 것은 그 전 단계였다. 그들은 한걸음 나아가 1909년 7월 내각회의에서 조선을 합병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기정사실로 간주하기 시작한 1910년 3월부터 삼림을 포함한 모든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토지조사령'이 반포되었다. 여기에는 앞서 공포한 삼림령, 즉 소유자에 의한 토지의 신고를 의무화시킨 삼림령도 포함시켰음은 물론이다.

일제는 소유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실제 소유권의 타당성 여부를 사정하는 한편 그 토지의 지적과 지모(地貌)를 조사하고 지가(地價)를 산정해 이를 바탕으로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것을 끝으로 토지조사사업을 8년만인 1918년 완료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970년대 말까지 사용하였던 토지대장이었다. 이 대장이 기초가 되어 등기부가 작성되고 지적도가 만들어졌으며 또한 지세부과가 이루어졌으니 결국 '토지조사사업'은 소유권을 보호하고 과세의 균형을 기하며 아울러 산업개발을 용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선총독부가 한반도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강점한 다음 식민통치에 필요한 재정확보차원과 식민통치의 전위부대로서 이민해온 일본인들에게 무상 또는 헐값으로 토지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월야면을 비롯한 함평군 내의 토지신고는 1915년에 있었다. 이 때 월야면 관련주민들은 이 문제의 임야에 대해 당연히 신고해야 했으나, 당시 농지와 택지를 중심으로 신고했던 일반사정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원래 민유였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빙자료가 없었던 사정도 중요한 이유였다. 더욱이 분묘를 쓰면 관습적으로 사유로 간주되어 관에서는 입안(立案, 묵인)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었음을 감안하여 해당 월야면민들도 그러한 입안을 받았던 관습상의 제도만을 믿었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입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 또는 물질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의 관습상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간단하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제는 연고가 있는 토지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하거나 권장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소홀히 해버리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였다. 그들로서는 신고하는 토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국유화 토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나머지 고의로 방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버린 것이다. 이 방관이 하나의 허점이 되었음은 나중에야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두 건의 임야는 삼림령이 규정한 대로 조선총독부 소유의 국유림으로 둔갑되어 버렸다. 이렇게 해서 조선총독부가 해당임야의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월야공립보통학교 소유임야가 되어버린 것이다.

무지몽매했던 관련주민들은 뒤늦게 법령상의 절차를 소홀히 한 자신들의 무지에 따라 민간인 소유분이 국유림으로 둔갑했음을 깨달았다. 이 들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양도받아 그 소유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늑장을 부린 나머지 차일피일 세월을 흘려버리고 있었다. 뒤늦게라도 서둘러 불하받는 절차를 밟았더라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지도 모르는 가운데 11년 세월이 흘러 1926년(大正 15년) 4월 5일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令)'이 공포되었다.[486]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창출된 막대한 국유림을 연고권자에게 양여함으로써 재정확보는 물론 치산과 식림(植林)의 목적까지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위 법령이 공포되고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월야주민들은 국유림양여를 준비했다. 월악리 773번지 임야와 월악리 556-2번지 임야에 대하여 1926년 5월 28·29일 사이에 관계주민 정대섭(鄭大燮)·정일섭(鄭一燮)·정동욱(鄭東郁) 외 30여명이 '국유삼림양여출원(國有森林讓與出願)'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한 지번으로 통합된 임야를 이해 당사자인 주민에게 분할(分割)·분필(分筆)하는데 필요한 수속수수료(手續手數料)로 1필지 당 2원까지 마련해 국유삼림양여 및 신청서류 제출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함평군삼림조합에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함평군삼림조합은 이 서류를 1928년 1월 중 전라남도 당국에 제출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1926년 5월부터 서둘렀던 주민들의 관련서류가 늦어서 함평산림조합에 1928년 1월에 접수시켰는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고의로 묵혀 놓았다가 1년 반 뒤인 1928년 1월에야 전라남도에 제출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 서류가 전라남도에 제출되기 이전인 1927년 12월 23일에 이미 월악리 773 임야는 월야공립보통학교 학교림이 되었고 월악리 556-2 임야는 1928년 1월 24일자에 학교림으로 양여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개월 이전에만 전라남도에 제출했더라도 이 같은 불행한 사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월야면 주민이 국유림으로 처리된 임야를 양여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측량에 대비하기 위해 그 수속비용을 마련하고 있던 1926년 7월 무렵 전라남도에서는 도지사가 주재하는 '부윤·군수·도사회의(府·郡守·島司會議)'를 열고 이 자리에서 도지사는 '학교림의 설영(設營)에 힘쓸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9월 열린 '전라남도공립보통학교 교장회의'에서 도지사는 '우선적으로 국유림을 학교림으로 대부 혹은 양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 공립보통학교가 학교림을 설영하고자 할 때는 도 당국이 편의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라남도의 정책에 따라 1926년 봄에 개교한 월야공립보통학교 교장(瀨戶省吾)은 본래 학교부지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학교인근 동북쪽에 위치한 바로 문제의 임야에 눈독을 들이고 학교림으로 삼기를 바라고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교장은 우선 이 같은 계획을 함평군수 조

486) 이 법령에 의하여 국유림을 양도받을 수 있는 연고권자는 '① 고기(古記)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의 사찰에 연고가 있을 때의 해당 사찰, ②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한 삼림 중에서 종전의 소유자 혹은 그 상속인, ③ 융희 2년 법령 제1호 삼림령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점유한 삼림 중에서 그 종전의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 ④ 전기 2, 3항에 해당하는 연고권자가 부·면(府·面) 내의 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와 면 거주자로 제한하였다.

상만(趙尙滿)에게 전달했다. 군수는 바로 월야면장과 월야보통학교 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 때 실제 연고관계가 있는 해당 월야면민들의 의견은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군수는 1927년 8월 16일 월야보통학교 측의 '국유림양여신청서'를 접수하자 바로 해당임야의 연고관계를 조사하여 회부해 줄 것을 교장에게 통첩하였다. 이 때 교장은 '본건 임야에는 분묘가 있는 월악리 주민 십수 명의 연고자가 있어 분묘주위는 벌채를 금지하고 육림을 하였지만 나머지 임야는 양림(養林)한 사적(事跡)이 전연 없을 뿐 아니라 다수 연고자는 연고권 취득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때가 1927년 9월이었다. 월야주민들이 불하하려고 나서던 1926년 5월보다 1년 뒤의 일이었다. 동시에 면사무소에서도 임야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올렸으니, 그 내용은 '융희 2년(1908) 삼림령 제19조에 의한 소유자의 지적(地籍)제출사실이 없고 토지조사령이 규정한 소유권 사정 및 기타 측량신청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림으로 양도하여도 물의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더욱이 당해임야는 당초 공립보통학교의 '후보부지'로 내정된바 있었음을 덧붙였다.

이 같은 회신에 따라 함평군수는 '함평군학교비(咸平郡學校費)' 담당자의 자격으로 같은 해 9월 7일 본건임야가 국유지임을 증명하기 위한 국유임야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유림양여원'을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여기에서도 군수는 '융희 2년(1908)의 삼림령이나 대정 4년(1915)의 토지조사령에 의거하여 지적도 제출되지 않았고 신고도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상 연고자가 없음이 인정되며 소재지 주민들도 국유지로 사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불복(不服)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림으로 삼아도 소재지 주민들에게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림으로 삼아다고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전라남도는 이 서류를 접수한 후 '임야의 연고관계'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림신청 면적이 학교림 제한면적을 초과하였는데도 그대로 학교림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1927년 12월 13일 조선총독부로 국유림양여원을 상신했다. 그리하여 월악리 773번지 임야는 1927년 12월 23일 학교림이 되었고, 초과 부분이 있는 월악리 556-2번지 임야는 실제적으로 분할하기 곤란하므로 그대로 학교림으로 할 수 있다고 회신하여 1928년 1월 24일 학교림으로 확정되어버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함평군삼림조합을 통하여 국유림양여를 추진하던 정일섭(鄭一燮)·정동욱(鄭東郁) 등은 1928년 2월경 이미 해당임야가 학교림으로 양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들은 관련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당국에 전후 사실을 알아보고 그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명우(李明雨)에게 왕복여비 및 운동비조로 100원(圓)을 주어 도청으로 보냈다. 그러나 결과는 해당임야는 이미 월야공립보통학교로의 양여가 허가되어 자신들에게로의 양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버렸다. 여기서 이를 반환받기 위한 행정상의 절차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을 통한, 즉 반환소송을 내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반환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관련주민들이 반환운동을 적극 벌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민들의 투쟁적인 반환운동이 소송과정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던 차에 이미 행정명령 및 법률상으로 학교림이 되어버린 임야를 토지대장 등에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 즉 문서정리를 하기위한 측량이 1928년 5월 22일 실시되었다. 관계주민들은 만약 측량이 되고 대장이 정리된다면 이 땅은 영영 학교림이 된다고 여겼다. 따라서 측량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측량을 막지 않으면 안 되었다.

측량이 있던 5월 22일 아침 주민 7, 80명은 문제의 임야에 모여 측량기사가 세워놓은 표목(標木)을 뽑아내고 측량용 새끼줄을 빼앗으며 '우리를 죽이고 학교림으로 해라' '조상의 분묘 산을 뺏으려거든 우리 조상에 말하고 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람들의 얼굴이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다. 이 때 현장을 시찰하던 월야경찰주재소의 순사부장은 '정세가 심히 불온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측량을 중지시켰다. 측량은 5월 26일 다시 실시하기로 하였다.

5월 26일이 되자 설마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가 학교림으로 양여되었을까 하며 반신반의하던 주민들은 어찌되었건 측량만은 막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아침 일찍부터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문제의 임야로 모여들었다. 부녀자도 많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갑형(鄭甲炯)은 '이 산에는 수령이 백년이 넘은 소나무도 있고 분묘가 있어 예로부터 보호·금송되고 연고자도 명백한데 면장이 연고자가 없다고 당국에 잘못 보고하여 학교림이 되었으니 우리는 면장을 데리고 와서 임야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임야반환의 편에 서약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동의한 주민들은 오전 10시 경 월야면사무소로 몰려갔다. 이 때 군중은 100여 명으로 불어났다.

면사무소에서 면장을 만난 주민들은 면장의 변명에 분노하여 '분묘 산을 학교림으로 만든 면장은 도둑이다'라고 규탄하며 면장을 끌고 나오려고 하자, 면장은 숙직실을 통하여 문서창고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면장의 옷이 찢기고 말았는데 나중에 밝혀진 재판기록에는 이를 '폭행으로 납치하려 했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마침내 격분한 군중은 문서창고의 문을 부수고 면장을 끌어내 손발을 묶고 면사무소 앞집으로 끌고 가서 '임야반환승낙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군중은 어느덧 200여 명에 가까웠으며 일부는 죽창을 들고 있었다. 이 때 주재소 순사부장이 나타나서 면장을 주재소로 데리고 가서 보호조치하는 바람에 반환승낙서의 서명을 받아낼 수 없었다.

이에 군중은 월야공립보통학교로 향하였다. 교장에게 문제의 임야는 학교림이 될 수 없음을 알리고 반환승낙서를 받아내고자 했다. 오후 1시 30분경이었다. 등을 밀치고 따귀를 치며 교장을 주재소 앞 십자로(사거리)까지 끌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주재소에 있는 면장을 데리고 나오려다 경찰과 주민들이 주재소 앞에서 대치하였다. 교장을 납치하고 면장을 끌어내려고 하는 대치상태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가 되자 함평경찰서장(及川正人)이 자동차 2대로 도 경부(道警部) 이하 십수 명의 경찰관을 대동하고 월야주재소에 나타났다. 경찰서장은 주재소 동편 구릉(토제-土堤)에 올라가 주민들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기를 2시간여 계속되었으나 주민들은 해산하려고 하지 않았다. 정갑형(鄭甲炯)은 주민들에게 '일보도 물러서지 말 것'을 호소하였고 주민들은 그의 말을 따랐다. 주민들은 거듭 '면장을 넘겨라' '면장은 비겁하다'를 연호하였다. 서장은 주민들

을 문제의 임야로 유인하여 그 틈을 타서 면장을 피신시키고자 하였다. 서장의 끈질긴 해산작전에 주민들도 점차 흩어져 주재소 인근 풀밭으로 물러나 앉아있기도 하고 일부는 흩어지기도 했다. 아마 석양이 되자 저녁식사를 준비하러 돌아가고자 했을 터이다.

오후 8시경 서장은 면장에게 순사정복을 입혀 변장시키고 자동차로 함평읍내로 빼돌리려 했다. 이에 주민들은 서장의 속임수에 화가 치밀어 주재소로 다시 몰려들어 자동차 앞에 드러누워 면장피신을 막아내려고 하였으나 이미 다른 차에 옮겨 탄 면장은 함평읍내로 떠나고 없었다.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치솟았다. 주민들은 면장의 사택으로 몰려갔다. 어느덧 주민들은 400명 내지 500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분노한 주민들이 몰려 경찰과 충돌하고 말았다. 경찰은 곤봉을 휘두르고 주민들은 죽창을 휘둘렀다. 부상을 당한 경찰이 생겨났고 경찰은 주재소로 퇴각하였다. 정갑형은 이 때 경찰서장에게도 '본건 임야를 주민에 바로 교부할 것을 승낙하라'고 강요했다. 이 때 주민 박형산이 크게 다쳤다. 그는 주재소 앞에 쓰러져있었다. 주민들은 그가 죽은 것으로 잘못 알았다. 갑자기 임야반환을 위한 면장초치를 둘러싼 경찰과 주민의 대치상태는 바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호와 함께 경찰과의 직접적인 대치상태로 발전하고 말았다. '면장면회와 부상자처리'를 전제조건으로 경찰서장을 인질로 삼는 사태로 번지고 만 것이다. 이에 경찰은 실탄을 장전하고 공중에 발포하는 공포감을 조성하여 극단의 대치상태를 종식시키려 했다. 모두 23발의 총성이 밤하늘에 울렸다. 사람들이 서서히 해산하기 시작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사태는 간신히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본래 민유지(民有地)였던 임야가 '근대적 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바람에 '국유림'으로 둔갑하고 이것이 연고권이 없는 공립보통학교에 양여되는 식민지적 수탈수법과 침학의 실상이 노정되면서 월야면민을 분노케 하는 단서가 되어 번진 '국유림환수운동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다.

여기서 동족의 재산, 그것도 가까운 고향사람들의 조상대대의 묘소를 모시는 삼림을 이민족의 권력기관에 유리하게 넘겨주는 식민지 권력기구의 하부구성원들의 생리는 순진한 월야면민들을 더욱 슬프게 했다. 이 슬픔과 분노는 터무니없는 증거를 가지고 부리는 책략과 술수에 폭발했던 순한 사람들의 심정, 그것은 너무나 무섭고 슬펐다. 그러나 무서움과 분노도 일본의 식민통치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맥을 쓸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씁쓸함은 더욱 깊었다. 일제는 이들에게 아무런 정상도 고려하지 않고 주거침입·불법체포·상해 등의 혐의로 의법 처리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그때그때의 행동지침을 제시하면서 운동을 선동했던 정일섭·정갑형에 대해 일제는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다.[487]

여기서 월야국유림환수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끝내 임야를 찾지도 못하고 관계자들만 처벌을 받게 된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가 전국적으로 벌인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한다. 조금 장황하겠지만 이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월야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 전국적으로 벌어진 강탈당한 토지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87) 가장 앞장서 주도했던 정일섭·정갑형 두 사람에 대한 형사책벌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일제가 실시했던 우리민족을 분열시키는 이간책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일제는 앞으로 두 사람이 항일운동이나 청년운동에 뛰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회유조치차원에서 처벌하지 않았을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한반도를 침탈하면서 국토를 빼앗아 자기네 식민통치를 위한 재정확보차원과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값싼 농토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한 것이다. 그 것은 19세기말 아이누 족이 지배하고 있던 혹카이도(北海道)를 영토로 편입하면서 실험적으로 실시했던 갖가지로 자행했던 학살과 침탈행태를 종합하여 한반도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였다.

종래 우리나라 토지제도는 국유제 또는 왕유제(王有制)가 원칙이었다. 다시 말하면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는 왕 소유였다. 그 때는 국민(백성)도 왕의 것이었다. 왕은 이러한 토지를 각 관아(官衙)의 관리들에게 급료수단으로 일정기간 일정한 토지의 경작권을 주었고 공신들에게는 공로로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들에게 지급했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해당토지의 수확물을 받는 수조권(收租權)을 일시 넘겨준데 불과할 뿐 소유권 자체를 인정해 것은 아니었다. 경작권은 물론 농민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조권이나 경작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왕에게 반환해야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습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계속 수조권을 행사함으로써 어느 기간이 지나면 사유지처럼 여겨졌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세습해 경작하거나 수조(收租)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국유 또는 왕유개념이 잊혀지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다 그나마 토지의 소유 또는 경작하는 권한을 증명할 문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토지 상호간의 경계선(境界線) 또한 명백하지 않아 토지의 근대적 개념이 전무했었다. 따라서 일제는 이 같은 조선의 원시적이고도 무질서하게 난맥상으로 벌어져 있는 애매한 토지제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바꾸려는 술책, 다시 말하면 소유개념은 물론 소재(所在)·지가(地價)·지력(地力)·지경(地境)·면적(面積) 등을 분명히 하는 근대적 토지제도로 정립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조사사업을 벌였다. 특히 그들은 조선의 무지몽매한 농민들이나 소유자들의 무지와 게으름, 그리고 교통 불편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토지를 '무연고 토지'라는 구실로 모두 강탈하여 총독부 소유로 귀속시켜 벌였던 것이다. 총독부의 월야임야 강제탈취에 따른 '국유림환수운동'은 여기에서 연유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조선의 원시적 토지제도를 근대적 사유제도로 개편함으로써 일제식민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1910년부터 1918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 전역에서 시행한 정략적 경제시책이었다. 이에 앞서 일본이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본격 나선 것은 을사늑약으로 한국통감부를 설치하고 사실상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일제는 특히 1908년 7월 내각회의를 열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의결한 상태였다. 이 때부터 한반도를 영구적 식민지로 삼는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 한 후 그 기초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우선 일본정부는 일본에서 측량기술자를 초빙하고 기술원을 모집하여 측량기술을 습득시키는 한편 이듬해부터는 외국인 즉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가능케 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에 이어 조선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부여하는 '토지가옥저당규칙(土地家屋抵當規則)'을 반포하여 토지·가옥의 매매·저당·교환·증여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법령과 규칙을 먼저 삼림에 적용코자 1908년 삼림령을 반포해 시행했다가 모든 토지로 확대하기 위해 1910년 3월 조선조정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토록 강요함으로써 토지조사사업의 단서를 확립했다. 그리고 그 해 8월 한일합병이 이루어져 조선총독부가 출범하자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해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1개월간의 준비조사를 거쳐 1911년 11월 지적장부조제(地籍帳簿調製)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1912년 8월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을 공포하여 사업을 촉진시키는 한편 '조선부동산등기령(朝鮮不動産登記令)'을 공포·시행하여 토지사유권(土地私有權)의 법적보증을 도모했다. 또한 같은 해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반포하여 한국의 토지 및 부동산 거래와 이동(移動)에 일본 민법(民法)을 포괄적으로 적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적 토지사유제도(土地私有制度)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다음 본격적으로 토지의 소재·가격·지형(地形) 등을 조사하고 측량을 펼치고 나섰다. 또한 1914년 3월 '지세령(地勢令), 같은 해 4월 '토지대장규칙', 1918년 5월 '조선임야조사령'을 공포함으로써 전국적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적 가치관이나 관습은 물론 어느 누구의 의견조차 용인되지 않은 채 일제의 의도대로 진행시켜갔다.

여기서 '토지조사령'에 규정된 토지조사 방법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의중을 충분히 알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는 총독부가 정한 기일 내에 주소·성명, 소유지 명칭, 소재지 지목(地目)·번호·목표·등급·지적·결수(結數)를 토지조사국에 신고해야한다.

(2) 이에 따라 면장·동장·이장(里長) 입회하에 토지를 답사하여 요소에 푯말을 세워 약도를 그리고 각 지방의 토지제도·관습 기타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소유권 사정의 자료로 삼는다.

(3) 이 같은 예비조사가 끝나면 지주·지주대표·동장·이장 입회하에 각 토지의 경계(境界)·지목·지주를 조사해 개황도(槪況圖)를 만들어 세부측도(細部測圖)의 준비 및 토지의 품질을 정한다.

(4) 개황도에 의해 기술자를 동원, 토지의 형상·면적을 측정하여 지적도를 만들고 다시 지적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학술적 방법으로 삼각측량(三角測量)·도근측량(圖根測量)을 실시한다.

(5) 임시조사국장은 지방 유지들로 구성되는 지방토지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가 끝난 지역의 토지판정에 대한 적부(適否)를 심사케 한 후 토지대장을 만들어 토지의 소재·지목·번호·면적·지주 등을 등록케 한다.

(6)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부를 정리한 다음 지주의 토지소유권의 증명인 지권(地券)을 발행한다.

(7) 지주는 지권에 따라 소유토지의 사방(四方)에 푯말을 세워 경계선을 명백히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되어 있었다.

(1) 근대적 의미의 토지소유권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인지, 관료인지, 또는 경작자 자신인지 알지 못했고,

(2) 당시의 농민들은 근대적 법령과 그 수속에 관해 경험이 없었고 신고주의(申告主義)를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에 민족적 감정까지 개재되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데다 세부측량을 담당한 기술자나 통역관에게 속임을 당하기 일쑤였다.

(3) 정한 기일 내에 신고해야한다는 것은 당시의 교통사정으로 보아 불가능했다.

(4) 또한 토지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여 토지를 빼앗긴다는 소문을 계획적으로 퍼뜨려 농민들로 하여금 신고자체를 기피토록 조장했고, 신고에 대한 홍보나 선전을 고의로 기피하여 신고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게 했다.

(5) 일본 헌병들이 동원되어 귀족·대지주·관리들의 토지신고르 공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반농민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증오심을 품게 하는 민족적 이간질을 부채질했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목가적(牧歌的) 농촌생활을 영위해오던 무지한 농민들은 당연히 그의 소유가 되어야 할 민전(民田)이나 민림(民林)마저 빼앗기고 종래의 종족공유(宗族共有)·촌탁·공유의 토지와 삼림 역시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으며 민유지(民有地)이면서도 조선시대 말엽 가혹한 세금과 약탈을 피하기 위하여 궁원전(宮院田) 또는 공해전(公廨田)에 편입시켜 그 명의를 빌리고 있던 경작지까지 총독부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종래의 역전(驛田)·둔전(屯田)·목전(牧田) 등 이른바 공전(公田)은 법적으로는 국가의 소유였지만 실제로는 선조대대로 독점 경작해온 농민의 사유지와 같았으나 이 것 또한 무조건 몰수당하여 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그 면적은 당시 우리나라 전체 경작면적의 20분의 1인 13만 2,633 헥타르로서 이를 경작하고 있던 농민은 무려 33만 1748명이었다. 이들이 월야에서와 같이 조상대대의 농토나 조상묘소를 모신 삼림을 빼앗겨 버린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일본은 토지조사에 따르는 분쟁의 해결과 원활한 조사사업의 진행을 도모한다며 '토지관습조사(土地慣習調査)'를 실시했다. 이 때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구역의 명칭
2, 토지의 명칭과 사용목적
3, 과세지와 비과세지
4, 경지의 경계
5, 산림의 경계
6, 토지표시 부호
7, 토지의 지위·등급·면적, 결수(結數)의 사정 관행
8, 결의 등급별 구분
9, 토지소유권
10, 질권 및 저당권
11, 지주와 소작인과의 관계
12, 토지에 관한 장부서류
13, 인물조사

위와 같은 조사를 선행함으로써 일제는 매(每) 토지나 임야에 대한 침탈의 가능성 여부를 미리 탐지한 다음 1909년 6월 역둔토실지조사(驛屯土實地調査)와 그 해 11월 경기도 부천(富川)에서 시험적이었던 세부측량을 미리 실시하는 결과에 따라 제1차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제4차

까지의 사업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1918년 11월 이완용(李完用)의 토지조사사업종료식 축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크게 토지소유권조사·토지가격조사·지형지모(地形地貌)조사로 나뉘어졌다. 토지소유권 및 토지가격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업무와 측량업무로 분리했다.

(1) 행정구역인 리(里)·동(洞)의 명칭과 구역·경계의 혼선을 정리하고 지명의 통일과 강계(疆界)의 조사, 신고 서류의 수합, 지방경제사정과 토지의 관행을 명확히 하는 '준비조사'.

(2) 토지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지(筆地) 단위로 지주·강계·지목·지번을 조사하는 '일필지조사(一筆地調査)'.

(3) 불분명한 국유지와 민유지, 미정리된 역둔토, 소유권이 불확실한 미개간지를 정리하기 위한 '분쟁지조사(紛爭地調査)'.

(4) 토지의 지목에 따라 수익성의 차이에 근거한 지력(地力)의 우열을 구별하는 '지위등급조사(地位等級調査)'.

(5) 토지조사부·토지대장·토지대장 집계부·지세 명기장(地勢 名寄帳)의 필요에 따른 '장부조제(帳簿調製)'.

(6) 토지소유권 및 그 강계심사의 임무를 위한 '토지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정', (7)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강계의 확정에 대한 토지신고 이후의 각종 변동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이동지 정리異動地整理'

(8) 최종적으로 지적이 이동된 것을 조사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지적조 (地籍調査)' 등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형지모(地形地貌) 조사내용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 삼각측량, (2) 도근측량(圖根測量), (3) 세부측량, (4) 면적계산, (5) 지적도 조제, (6) 이동지정리(異動地整理) 등을 말한다.

총 2,040만 6,489원의 경비와 1만 2,388 명의 인원을 동원한 토지조사사업은 전체 토지 1,910만 7,520 필지의 소유권과 그 강계를 사정하였고 분쟁지 3만 3,937 건, 9만 9,445 필지를 해결하였으며 1,835만 2,380 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地價調査)를 하여 토지조제부 2만 8,357 책, 토지대장 10만 9,998 책, 지세명기장 2만 1050 책, 지적도 81만 2,093 매 등의 지적장부를 조제하였다. 또 측량에 있어서는 이동지 측량 181만 8,364 필지, 삼각측량에 따른 기선측량(基線測量) 13개소, 대삼각본점(大三角本點) 400점과 대삼각보점(大三角補點) 2,401점, 수준점(水準點) 2,823 점, 1 등 및 2 등 도근점 355만 1,606 점, 1필지조사 및 세부측량 1,910만 1,989 필지, 지형측량 143만 1,200방리를 처리하여 8년 8개월 만에 끝을 냈다. 이 같은 거대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제는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기반을 확실히 닦을 수 있었다.

(1) 자본주의적 토지제도확립으로 식민통치의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행정구역·도로·헌병주재지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2) 일본인 이민자들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확보의 수단을 위해 필요했다.

(3) 무지주(無地主)·무신고 토지의 국유화로 통치기구(조산총독부)의 재정을 확립하고 조세

징수의 원천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4) 전통적인 양반계층의 지주권(地主權)을 일제 법령상의 식민지적 지주계층으로 개편하여 식민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하층민과의 단합을 불가능케 했다.

(5) 또한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 한국인의 생활동정을 확실하게 파악함으로써 영구적 식민통치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6) 모든 자원을 확실히 파악함으로써 수탈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로서는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이제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왔던 수백만 명의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영세소작인 또는 화전민으로 전락하거나 자유노동자가 되어 거리를 전전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의 최대지주가 되었으며 여기에 삼림령(森林令)에 의해 종래의 국유산림까지 모두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그 결과 1930년 총독부가 소유한 전답과 임야는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888만 헥타르나 되었다. 총독부는 이 토지를 한반도 식민통치의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후지흥업(불이흥업)·가다쿠라(片倉)·히가시야마(東山)·후지이(藤井) 등의 일본토지회사와 일본식민통치의 전위부대인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무상 또는 헐값으로 불하해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시켜주었다.

이 같이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1) 총독부와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 토지를 사유화(私有化)한 일본인 대지주를 탄생시켰다. 이 중에는 한말부터 고리대금 또는 상업자본에 의하여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토지조사사업 이후 총독부로부터 헐값으로 불하받은 것들이었다.

(2) 한국인 중에서도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획득한 지주가 출현했다. 다만 이들은 민족분열책을 꾀하는 총독부의 지원 아래 대부분의 토지소유권을 획득하여 지주가 되었다.

(3) 세습적인 경작권을 빼앗겨 고율의 소작료(수확의 70%가 소작료, 나머지 30%는 소작인 차지)를 착취당하는 영세소작인이 대량으로 출현하여 비참한 생활로 전락한 농민들이 많아졌다. 1924년 통계에 의하면 전 농가 272만 8,921 가구(家口, 世帶) 중 1년의 수지가 적자인 농가는 127만 3,326 가구로 전체의 44. 6%가 해마다 빚을 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고향을 떠나 화전민이 되었거나 자유노동자로 도시거리를 방황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7. 1930년대 격문사건

1930년 3월 1일 함평에서는 격문이 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11명이 검거되어 7명은 방면되었으나 이현(李鉉. 당시 21세), 이상영(李相英. 당시 19세), 이렬(李烈. 당시 21세), 김계용(金桂用. 당시 19세)이 검거되어 목포검사국으로 송치되었으며 이후 권흥환(權興煥), 황팽규(黃彰奎), 이천범(李千範) 등 3명이 그리고 이어서 광주고보생 이삼희(李三喜), 함평공보생 장희술(張喜述), 농잠보교생 이재연(李載淵) 등 3명 도합 10명이 구속 수감되었다. 당시 학생이었던 이들은 3·1절을 맞이하여 항일 격문을 등사판으로 인쇄하거나 혹은 일일이 펜으로 써서 함평

읍내에 살포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금고 8개월에서 3개월까지를 언도받고 대구복심법원에 항고하였으나 원심대로 선고받았다. 이들의 죄명은 한국인의 출판 언론 활동을 가로막고 있었던 출판법 위반이었다. 이중 광주고보생 이삼희를 제외하고는 함평공립보통학교 학생이었고, 이현이 당시 함평청년동맹원으로 활동하였던 점으로 보면 청년운동과 학생운동의 합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488] 그리고 이 같은 격문사건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 함평지방에서도 함평농잠보습학교가 12월 12일 동조시위를 벌이려다 미연에 발각되어 4명이 구속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1930년대가 되면 함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중운동 특히 사회주의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적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은 비합법적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각 지역 각 부분의 농민조합 노동조합을 보다 정예화하며 의식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일제경찰은 이에 대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른바 당시 '혁명적 농민·노동조합'을 억압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전남 지방에서 혁명적 노동 농민조합결성을 위하여 활동한 단체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1931년 12월에 조직된 '전남노농협의회'를 비롯하여 1933년 5월 결성된 '전남운동협의회'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조직된 '전남적색농민조합' 등이 있었다. 특히 '전남운동협의회'는 해남·완도·영암·강진·장흥에 농민조합을 조직, 상호연계 하에서 8대 슬로건을 내걸고 <농민투쟁>이란 기관지까지 발행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일본영농회사의 토지겸병 반대, 소작료의 인하 및 면제, 호세 및 공과금의 인하, 청년과 소년의 교양 그리고 봉건사상과 지방열의 배격'과 농민의 일상적 요구와 의식개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함평에서의 이러한 운동이 있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사건의 기록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었음을 보면 함평에서도 이 같은 비밀결사형태의 강렬한 이념조직이 준비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 지난 6일 전남 함평경찰서는 돌연히 활동을 개시하여 동군 읍내 소천상점(小泉商店)에 점원으로 있는 이철범(李哲範)을 검거하는 동시에 7일에는 서장이 동서 기동대원을 대동하고 월야, 해보 양면으로 급행하여 월야면 용월리 정시연(鄭時衍)과 동면 외치리 정갑남(鄭甲男)등을 검거하여 가택수색을 일일이 하여 적색 서적과 불온문구가 써 있는 수기장 등을 압수하였다는 바, 정갑남은 당일 해보주재소에서 석방되고 정시연만 본서로 압래하여 비밀리에 엄중한 취조 중이라고 하는데 사건 내용은 절대 비밀에 부침으로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한다.[489]

8. 지주층의 동향과 활동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평의 청년운동과 초기의 노동운동을 주도한 이재혁과 신현기는 함평

488) 중외일보, 1930년 3월 7일·12일·28일자 및 4월 19일자. ; 조선일보, 1930년 3월 28일자 및 4월 14일자.
489) 동아일보, 1932년 10월 11일자.

에서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다. 각각 함평에서는 당시 유명한 회사기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토지도 많았다. 그리고 나머지 인사들도 중농이상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함평은 계급에 따라 적대적 운동을 전개하기 보다는 당시 사회에서의 필요와 요구에 의하여 각각의 현실에서 그를 담당하고 그에 대처하였다고 보겠다. 실제 함평의 지주는 어떤 경우에 농민에게 가혹한 처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어떤 지주의 경우에는 당시로서는 농민운동의 요구조건이 나오기 이전에도 적정선에서 소작료를 징수하는 지주도 있었으니 당시 신문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함평군 신광면 유천리 김동흔, 함평면 장년리 김인선과 김봉규 같은 지주는 작료를 공평하고 3-4할의 소작료를 받는다고 하여 칭송이 자자하였음'을 보도하고 있었다.[490]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지주는 소작농민과 객관적으로 대립하게 되어 있었다. 이들은 군단위로 조직된 지주회(地主會)에 가입하게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대체로 농사지도, 미곡가공의 개선, 농기구의 개량 등의 농사개량 문제나 현안에 대하여 주로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군 당국의 지시나 시정협조요청 등을 청취하고 그들 나름의 현안을 건의하는 수준이었다. 대체로 지주회는 토지조사 사업기간에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함평군은 1921년 6월에 정기총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명예회원 위촉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지주회가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주회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므로 여기에는 당연히 일본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1923년 6월의 총회에서 지주회는 함평농회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조선농회령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서도 농사개량, 농업 종사인 복지증진 등을 내세우면서 보다 철저히 지주를 포섭하고자 한 관제적(官制的) 성격이 강화되었다.[491] 이후 함평농회는 1925년 10월에 함평농업회로 개칭되었다.[492]

함평의 지주 중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사회활동을 하였던 인사나 온정적 지주가 있었다. 이외 일본인 지주 야마다(山田萬吉郎)와 같이 소작인조합을 결성한 경우도 있었다. 전라도 굴지의 대지주였던 야마다는 그 휘하의 많은 소작인들에게 소작인조합을 결성케 하여 농사지도, 상부상조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에 출석한 소작인이 42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493]

그의 지주로서의 위세와 그의 필요에 의하여 소작인조합을 결성한 것이었다. 이는 친일파로서 대지주이었던 송병준이 소작인조합을 결성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나 다름없이 소작인을 훈육(訓育)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 함평 지주의 개인적 활동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집단이나 조직적으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물론 식민지권력의 시정방침에 어긋나거나 저항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 자연재해 등이 있었을 때에는 지주간담회를 열어 '한해가 극심하여 적당한 구제책을 사용하여 구제할 필요성이 있으면 토지 소작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이다.[494]

그러나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이러한 일도 대부분 관(官) 주도로 '한해 민 구제와 소작쟁의 방지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490) 동아일보, 1925년 11월 15일자.
491) 동아일보, 1923년 6월 20일자.
492) 동아일보, 1925년 10월 1일자.
493) 동아일보, 1922년 4월 10일자.
494) 동아일보, 1929년 10월 17일자.

함평군은 한해로 인해 손해가 심하므로 군과 경찰서 양 당국에서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군 지주와 관계관리 들을 함평·학교·해보 3개소에 순차로 소집하여 각 면의 면장 및 경찰관리와 금후 만전을 기하기 위한 직원회를 열어 타협하고 본격적으로 지주 간담회를 하였는데 소작쟁의 적극 방지와 한해 민구제를 합의하였다고 한다.[495]

지방차원에서 지주들은 여러 가지 선행적 사업을 시도하는 한편 산업자본에 투자하는 등의 경제활동에 나서기도 하였지만 일제의 권력과, 강력한 대지주에 의하여 그들의 집단적 조직적 활동은 제한되어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기부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대중운동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수준에서의 개별적 참여는 있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회고담이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9. 광주학생운동과 함평출신 학생

광주학생운동은 1920년대 당시 특수신분으로 대우받았던 학생들이 식민지 지배정책과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부모나 친지 그리고 고향주민들이 겪는 일제의 압박과 침탈에 대한 모순과 불합리성을 인식하는데서 비롯된 민족의식에서 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차별적인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고 조선인 본위의 산업과 인간성을 발휘하기 위한 민족의식을 지니고 동맹휴학, 혹은 독서회나 사회과학 서클 등을 통해 일제에 항거하면서 민족의식을 다져나갔다. 이 같은 1920년대 학생운동의 역량이 1929년 11월의 광주학생운동으로 폭발하였고 그것은 곧 '광주'라고 하는 지역명이 붙어있지만 이미 광주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국적 운동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국내 3대 독립운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흔히 광주학생운동은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데에서 시작된 나주역 충돌사건을 빌미로 일어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의 우연한 계기이었을 뿐,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주체적 역량은 이미 '성진회(醒進會)'나 '독서회중앙본부(讀書會中央本部)'와 같은 학생들의 자발적 주체의식의 조직 활동을 통하여 비축되고 있었고, 나아가 당시 학생들과 연계되어 민족운동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청년운동세력이 조선청년총동맹을 비롯한 노동·농민운동단체와 연결을 맺고 이는 다시 신간회나 근우회 등의 전 민족적 대표기관의 호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광주학생운동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진회와 독서회중앙본부를 먼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성진회는 1926년 11월 3일 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 학생이던 왕재일·장재성 등이 다음과 같은 강령을 내걸고 조직했다.

① 일제의 기반(羈絆)에서 한국의 독립을 쟁취한다.
②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을 절대 반대한다.

495) 동아일보, 1939년 10월 3일자.

③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

아울러 회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부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① 사회과학 연구의 정진.
② 비밀 엄수.
③ 언문신문의 숙독.
④ 동지의 획득을 결정하고 매월 제1·3주 토요일을 연구일로 정하고 활동한다.

성진회 조직목표는 각급학교의 각 학년과 반에 독서회를 조직하고 '광주학생독서회중앙본부'를 창립하는 한편 청년총연맹 및 신간회 등 사회운동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성진회는 광주학생의 통제적 지도기관이라는 기능을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1928년 이후 회원학생의 졸업과 이탈학생의 누증, 도일유학 등으로 회원감소와 일제의 감시가 심해 와해 직전까지 이르러 겨우 명맥만을 유지해 오다가 각급 학교에 독서회가 결성되면서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공주고보·광주사범·광주농업·광주여고보에 독서회가 결성되자 독서회중앙본부가 창립되었다. 1929년 6월이었다. 독서회중앙본부는 졸업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고등보통학교 혹은 농업학교를 졸업하는 자는 사회에 나가 농민 및 노동자에 대하여, 사범학교를 졸업하는 자는 교직에 나가서 학교생도에 대하여, 재학생은 일반학생에 대하여 선전활동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경제의 독립, 조합을 통한 경제투쟁, 일본인 상인에 대한 불매동맹, 동지 상호간의 연락'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생소비조합'과 '장재성 빵집'을 중심으로 회합을 가지면서 가능한 많은 학생을 규합하였다. 그 대신 '학교별 조직원에게도 중앙부의 존재를 절대로 비밀로 할 것'이라고 하여 중앙본부의 존재는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역량의 축적 그리고 1928년 5월부터 4개월간 지속된 맹휴의 경험 등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학생운동은 가능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함평출신 학생들도 각급 학교의 독서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광주고보 독서회에 함평출신인 김재동(金載棟. 나산면 월봉리)이 3학년 학생으로 회원이 되었으나 독서회원 검거 때 체포되어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당했다. 그는 각 학교의 독서회원 91명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어 면소처분을 받았다. 함평군 대동면 상옥리 출신이었던 윤재병(尹在炳) 역시 광주고보 4학년 때 독서회원이 되었다가 11월 3일 시위의 주동자가 됨으로써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는 독서회 활동에 대해서는 면소되었지만 시위운동과 관련하여 금고 4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농업 독서회에 가담한 함평출신 학생으로는 노근후(魯根厚. 학교면 복천리)와 안종변(安鍾卞. 나산면 나산리)이 있었다. 노근후는 독서회원으로 광주학생운동을 주도하였고, 1929년 당시 2학년이었던 안종변은 독서회원 91명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비밀결사를 주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도모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당해야 했다. 안종변에게는 해방 후 명예 졸업장이 수여되었다.

★ 김재동(金載棟·20세 ; 나산면 월봉리)

김재동은 1928년 6월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민족차별에 항거하는 투쟁을 주도하다가 학교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을 당한 후 광주고등보통학교의 독서회에 가입해 동지들의 민족사상을 고취하던 중 1929년 11월 3일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당했다. 그는 1931년 11월 비밀결사인 반제동맹(反帝同盟)과 전남농민조합을 조직하여 광주 등 7개 군의 책임을 맡아 농민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항일사상을 계몽하였다. 그러다가 1932년 4월 항일독립운동 사실이 발각되어 동지 50여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 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김재동(金載棟)
생존기간: 1912. 8. 7~1975.10.25
훈격(년도): 애족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28년 6월 광주고등보통학교(光州高等普通學校) 재학중에 민족차별에 항거하는 투쟁을 주도하다가 학교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을 당한 그는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의 독서회(讀書會)에 가입하여 동지들의 민족사상을 고취하였으며 이어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에 참가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다가 피체되어 1930년 7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예심에서 면소(免訴)가 결정되어 출소하였으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다. 1931년 11월 비밀결사인 반제동맹(反帝同盟)과 전남농민조합(全南農民組合)을 조직하여 광주 등 7개 군의 책임을 맡아 농민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항일사상을 계몽하였으며 동년 12월 19일 전남노농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가 결성되자 위 두 단체를 해체시켜 통합하였다. 그러다가 1932년 4월 항일독립운동 사실이 발각되어 동지 50여명과 함께 피체되었으며, 1934년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8권 359쪽).

★ 노근후 (魯根厚·19세 ; 학교면 복천리)

노근후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이던 1928년 4월 학생비밀결사 성진회(醒進會)에 가입하였다가 체포되어 7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수록 공훈내용

성명: 노근후(魯根厚)
생존기간: 1909. 8.19~
훈격(년도): 대통령표창(93)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광주사범학교(光州師範學校)에 재학 중이던 1928년 4월 학생비밀결사 성진회(醒進會)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1929년 12월 일경에 피체되어 7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제11권 106쪽).

★ 안종변 (安鍾卞·21세 ; 나산면 나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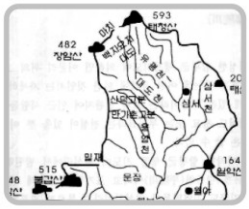
안종변은 광주공립농업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11월 12일 제2차 광주학생운동 시위에 참가했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 후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고 출옥하였다. 그러나 1932년 2월 상순 함평군 식지면 나산리에 거주하던 그는 김재동(金載棟)이 조직한 전남노농협의회에 참가해 야학 및 농민조합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수록 공훈내용

성명: 안종변(安鍾卞)
생존기간: 1911. 7. 6~1959.10. 1
훈격(년도): 애족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29년 10월 광주공립농업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던 중 동교 내에 조직된 독서회(讀書會)와 연계, 2학년 중심의 독서회를 결성하기 위하여 유환묵(劉煥默) 등과 함께 협의를 가졌으며 동년 11월 12일 제2차 광주학생운동 대시위에 참가하여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여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고 출옥하였다. 이듬해인 1932년 2월 상순 함평군(咸平郡) 식지면(食知面) 나산리(羅山里)에 거주하던 그는 전남노농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를 조직한 김재동(金載棟)으로부터 야학 및 농민조합 결성을 위해 일해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위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제9권 242쪽).

제3장 해외에서의 민족운동의 발전과 함평인의 활약



제1절 해외 민족운동의 발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합하기 이전부터 많은 조선인은 농토와 일자리를 찾아서 만주(간도), 연해주, 북중국 그리고 하와이, 미국본토 심지어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세계도처로 이민을 나갔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있던 곳이 만주와 연해주였다. 일제의 탄압이 거세어지면서 뜻있는 많은 인사가 해외로 망명하였다. 나라를 빼앗긴 초기에는 독립지사들은 주로 간도·연해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근거지를 건설하는 한편 자금을 모으고 군사를 양성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제의 강압통치가 심하면 심할수록 점차 국내로부터의 청·장년을 비롯한 많은 우국지사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여러 단체를 결성하고 생존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운동의 방향과 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여러 의견의 조율이 필요했다.

서간도에는 경학사(耕學社)와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가 들어서고, 북간도에는 간민회(墾民會)와 대전학교(大甸學校. 무관학교)가 출범해 있었다. 이주 농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면서 교육과 군사 활동을 통해 대일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었다. 미주지역에서는 1903-05년 노동이민으로 시작된 한인사회의 성장을 바탕으로 1910년 전후부터 '대한인국민회'가 조직되어 배일활동을 전개하면서 간도·연해주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미주지역 운동단체는 독립노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소년병학교(1909), 국민군단(1914)을 설립한 박용만(朴容萬)은 무장투쟁론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에 비해 하와이에서 한인학원을 운영하는 한편 <태평양>이란 잡지를 발간하며 언론을 통한 외교론을 주장하던 이승만과의 대립이 빚어졌다. 이에 대하여 안창호(安昌浩)는 흥사단(興士團)을 창설하고 실력양성론을 제창하고 있었다. 중국 상해에는 박은식(朴殷植)·신규식(申圭植)이 망명해 오면서 한인을 규합하여 동제사(同濟社)를 조직하였고 신한혁명당과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이 결성되었다. 상해독립운동세력은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여 공화주의 이념에 의한 임시정부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독립운동의 좌표를 제시하였다.

러시아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終戰)에 따른 민족자결주의의 확산과 피압박민족의 독립기운 조장이라고 하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해외의 독립운동 세력은 독자적 활동을 모색하였는데 여운형(呂運亨)을 비롯한 동제사의 소장파 인사들은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김규식(金奎植)을 파리의 강화회의에 파견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했으며, 이승만은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을 상대로 일본제국주의 대

신 국제연맹 내지 미국의 위임통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1919년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발표된 2·8 독립선언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어 국내에서의 3·1운동이 일어나자 해외독립운동 세력은 기민하게 움직였으니,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에 의한 고군분투적 독립운동은 지양되어야 하고 일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체운동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고, 파리강화회의 등 국제회의와 세계열강을 상대로 하는 외교활동에서도 개인이나 단체의 명의보다는 '정부'라는 공식명칭의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임시정부의 수립이 적극 추진되었다.

연해주에서는 교포사회를 기반으로 조직된 전로한족회중앙총회(全露韓族會中央總會)를 정부형태를 갖춘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로 개편하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상해에서도 '독립임시사무소'를 두고 임시정부수립에 착수하여 노령 만주지역과 국내에서 온 인사를 묶어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헌장을 결의 채택하였으며 이어서 정부구성을 마치고 이를 선포하였다. 서울에서도 13도 대표 24명의 이름으로 정부수립을 위한 '국민대회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초대 임시정부 요인들(○표는 함평출신 김 철)

이 같은 흐름을 바탕으로 3개의 임시정부가 다음 5개항에 합의하여 결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① 상해와 노령에서 설립한 정부를 일체 해소하고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
② 정부의 위치는 당분간 상해에 둘 것.
③ 상해임시정부에서 수립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은 유효임을 인정할 것.
④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할 것.
⑤ 현재의 각원(閣員)은 일제히 사퇴하고 한성정부가 선임한 각원들이 정부를 인계할 것.

이는 상해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의 일부 세력을 끌어들이고 한성정부의 각료 명단을 채택하여 발족한 것이다.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강대국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외교활동에 역점을 두었다. 외교활동의 일차적 목표는 각종 국제회의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고 국제연맹에 가입하는 것이었으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그 후 임시정부는 중국·소련·영국·미국 등을 비롯한 각국을 상대로 개별적인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그 뒤로는 각국 정부를 제외한 민간지도자들을 상대로 독립운동 지원을 얻기 위한 선전외교에 주력하였다.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서는 '연통제'를 체계화하였다.

국내 각급 행정조직의 책임자로 서울에는 총판(總辦), 각 도에는 독판(督辦), 부와 군에는 부

장과 군장, 면에는 면감(面監)을 두도록 했으나 일제의 철저한 감시와 탄압으로 전국적 조직을 갖추지는 못했고 면단위 조직 역시 사실상 어려웠다. 평안도·함경도·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연통제도 1921년 일본경찰에 그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고 현실적으로도 운용되지 못했다. 이 같이 국제적으로 고립상태인 상해임시정부는 그나마 분열과 침체를 겪는 시련이 닥쳐왔다. 분열은 여러 측면에 원인을 두고 있었다.

첫째로는 노선상의 문제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세기 벽두의 우리나라 국권회복운동은 다양한 이념과 방략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민족역량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겪었는데 결국 그 경험을 계승하고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모색한 국권회복의 방략이 다시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던 무력과 실력과 전쟁이라는 3위 일체적 독립투쟁이었다. 그리고 이는 3·1운동이 남겨준 교훈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지나치게 외교론에 치우쳐 있었다. 여기에서 무장운동론과 실력양성론을 주장한 세력은 임시정부에서 이탈해 나갔다. 그리고 이승만의 분파적·독선적 대미 일변도적 외교행태도 문제되어 결국 그는 탄핵을 당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둘째로는 임시정부 구성인사 내부의 지역적 대립이었으니 기호파(畿湖派)와 서북파(西北派)가 그 것이었다. 기호파는 외교독립론과 온건운동론을, 서북파는 무장투쟁론과 절대독립론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했다. 여기에 더하여 이념상의 대립도 격화되었으니 바로 사회주의의 수용에 따른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가 이끄는 한인사회당과 여타 민족주의 세력과의 대립이었다. 그것은 신구세대의 대립으로 노정되었다. 신진세력은 민족주의를 고수하는 상해임정을 고루하다고 폄하하며 떨어져 나가고 구세대는 신세대를 경망하다고 불신하며 민족주의를 고수하였다. 대체로 신진세력은 사회주의를, 구세대는 민족주의 이외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 같은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박은식·원세훈·김창숙 등 14명에 의한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달 동안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마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창조파와 현 임시정부를 개혁하자는 개조파로 분열되어 결렬되었다. 이로써 상해임정은 이동녕·김구 등의 고수파에 의한 하나의 독립단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김구가 임시정부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시정부 외곽단체로서의 1920년 창립한 '의용단(義勇團)'과 일제의 가공할 만주침략을 규탄하면서 침체된 임시정부에 활력을 넣어 줄 방안을 찾던 중 특수공작을 벌이기 위해 창설한 '특무대(特務隊)' 나중에 개명한 '애국단(愛國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애국단'에서는 이봉창 의사의 일본천황을 향한 폭탄투척사건과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거사를 주도했다. 이를 배후조종한 김구는 일약 임시정부 최고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

1920년대 임시정부의 침체와 대조적으로 1919년 11월 9일 만주 길림성에서 결성된 의열단(義烈團)은 매우 활발하였다. 이들은 폭탄 제조법을 배워 총독부 고관, 군 수뇌, 대만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두 등을 암살 대상으로 하는 '의열단 7 가살'과, 파괴 대상으로 총독부, 동양척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기타 왜적 중요기관 등을 선정하여 행동에 들어갔다.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사건(1920. 9. 14)·최수봉의 밀양 경찰서 투탄사건(1920. 12 .27)·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투탄사건(1921. 9. 21)·상해의 홍코우 공원에서 김익상, 오성륜, 이종암 등에 의한 다나까 대장 저격 미수사건(1922. 3. 28) 등은 일본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신채호가 지은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지침이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한국혁명단·조선혁명당·의열단 등의 대표들이 1932년 11월 상해에서 회동하고 유명무실한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독립운동의 대동단결을 기하기 위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하고 이를 민족혁명당으로 발전시켰다. 김구 등 임시정부의 주류 측은 임시정부의 사수를 내세워 이에 참여하지 않은 채 1935년 한국국민당을 창당함으로써 이에 대응하였다. 한국국민당은 1937년 민족혁명당을 이탈한 조소앙 등의 한국독립당과 이청천 등의 조선혁명당을 통합하여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했다. 이에 맞서 민족혁명당은 조선민족해방자동맹·조선혁명자연맹·조선청년전위동맹 등 주로 사회주의 제 단체를 통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조선혁명당의 세력은 1939년을 거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조선혁명당에 참여한 최창익 등의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탈당하여 중국공산당 지역으로 이동하고 난 후 조선의용군 내의 급진적인 청년세력 또한 중국 국민당정부의 조선의용군 억제정책에 반대하면서 중국공산당 관내로 북상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김원봉이 주도하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이 1939년 김구 중심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결합하여 전국연합전선협회를 결성하고 민족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 이후 김구는 임시정부의 여당으로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여 우익 민족주의 지도자로서 임시정부 주석으로 활동하였으며 김규식은 부주석이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찍부터 군대를 창설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관내에 있던 일제주구들의 유린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중경에 안착하게 되어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을 창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사실상 군 창설이라기보다는 12명으로 구성되는 사령부 발대식이었다. 그 후 사령부 요원들은 중국 각지에 흩어져 광복군 병사모집 운동을 전개하였다. 1년간 300여 명을 모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광복군활동 지원을 꺼려하던 중국국민당 정부도 사회주의계인 조선의용대가 공산당 지역으로 이동하자 점차 광복군에 관심을 가지면서 1941년 말부터는 군사원조를 시작하였다. 또한 국민당정부는 북상하지 않은 조선의용대 잔류 병력을 민족혁명당에 요구하여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군 현지 부대에서 이탈한 학병들이 중경임시정부에 참가함으로써 광복군은 수적·질적으로 증강되어 1945년 4월 현재 564명에 이르렀다.

제2절 함평 인이 참여한 해외독립운동단체

1. 신한청년당

1919년 1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젊은 청년들이 상해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가 된다'는 목표 하에 '대한독립임시사무소'를 설립하였다. 이 단체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고 동경의 2·8선언과 국내에 3·1운동에 깊숙이 관여하였

다. 이들은 3·1운동 후 모여든 선배와 동지들을 규합하여 임시정부 수립에 온갖 힘을 쏟았다. 여기에 함평출신 김 철(金 澈)이 참가하여 실무자로 활략했다.

2. 의용단(義勇團)


日中佛三角紛爭惹起
金哲上海에서被逮
上海爆彈事件共犯

김 석 체포를 보도한 1933년 11월 동아일보.

1920년 김철·손정도·김립·김구·윤현진·김순애 등이 발기인이 되어 만든 단체로 그 활동 범위는 무장독립투쟁을 비롯한 갖가지 독립운동에 간여하는 등 매우 광범위하였으며 국내에 상당한 뿌리를 두고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함평출신 안후덕(安厚德)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1924년 2월 이 단체에 가입해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단체의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포고문과 선전으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적개심을 함양하여 지구력을 갖게 할 것.
② 임시정부의 각 기관을 보좌하여 재정 기타 사무를 원조할 것.
③ 국민에게 개병주의, 개납주의를 고취할 것.
④ 권고 기타의 방법으로 왜(倭) 총독부에 속한 관리들을 퇴직하게 할 것.
⑤ 적의 관청에 세금을 내지 않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
⑥ 일화(日貨)의 사용을 억제할 것.
⑦ 군부에 연락을 취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군사상 실제의 방편을 획책 또는 준비할 것.
⑧ 임시정부 공고 및 기관지의 전포(傳布)를 보편화 할 것
⑨ 본단(本團)과 주의가 같은 다른 단체를 상호 협화(協和) 지원할 것.
⑩ 정부의 명령 또는 지휘가 있을 때, 기타 광복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에는 따라 올 것.

3. 한중호조총사(韓中互助總社)

한중호조총사는 1921년 8월에 중국 각처에 조직된 한중호조사를 연합하여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회원을 보면 중국 측은 교사들이 많이 가담하였고 한국 측은 임시정부 요인과 독립운동에 관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한중호조총사는 상해에 본부를 두고 한국과 중국 측이 10명씩 평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한국 측 평의원으로는 함평출신인 김 철을 비롯하여 한진교·윤현진·서병호 등 10인이었다.

4. 중국본부 한인청년동맹 상해지부(中國本部韓人靑年同盟上海支部)

중국 거주 한국청년들의 독립운동단체이자 민족주의 청년들의 단체로 발족한 재중국한인청년동맹(在中國韓人靑年同盟)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한인청년의 단체였다. 1928년 2월 함평출신 안후덕이 재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에 가입한 후 같은 해 6월 상해지부 지부 위원장이 되어 이 단체를 이끌어 갔다.

5. 애국단(愛國團)

1931년 9월 만주사변 이후 임시정부국무회의에서 일제의 가공할 침략을 규탄하는 한편 침체된 임시정부에 활력을 넣어 줄 방안을 찾던 중 특수공작임무를 수행할 기구를 창설하기로 하고 그 전권을 김구에게 위임한 결과 '특무대(特務隊)'라는 조직이 등장하였고 얼마 후 '애국단'으로 개칭되었다. 이 애국단 소속의 이봉창이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투척한 일과 윤봉길이 홍구공원에서 상해사변 전승축하회를 열던 시라까와(白川義則) 대장을 비롯한 일본군요인들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으로 일본인들은 물론 중국인들까지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봉창 의거에는 함평출신 문기호(文氣鎬)도 관여했다. 이봉창과 때를 같이해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벌였던 그는 거사 뒤 체포되어 오사카(大阪)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사건배후로 김구·김철·조소앙 등이 개입해 있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한편 윤봉길 거사는 1932년 4월 29일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시라가와를 즉사케 하고 현지 총영사 등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이는 침략의 원흉들에게는 철퇴를 내려주었고 조선인들은 물론 상해 침공으로 울분에 가득 차 있던 중국인들에게까지 감명 깊은 사건이었다. 특히 홍구공원 사건은 함평출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임시정부 군무장이던 김 철, 거사성공 후 한국인에게 피난 할 것을 알린 김덕근(金德根), 당시 상해 한인청년당 이사장으로서 김 구의 특수임무를 맡아 윤봉길에게 폭탄을 직접 넘겨 준 김 석(金晳)이 모두 함평출신들이다. 김 석은 홍구공원 사건 후 검거되었고 국내로 압송되어 광주지방법원과 대구복심법원에서 선고받은 5년 8개월 징역형의 옥고를 치렀다.

6. 상해 한인청년당(韓人靑年黨)

1932년 함평 출신인 김 석이 조직한 한국독립당의 외곽단체로서 그가 이사장을 맡았다. 상해 한인청년당은 사회주의자를 배격함과 동시에 정예 독립단원의 양성기관 역할을 담당하였고 김 구의 지시에 의하여 1932년 3월과 4월 조선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이덕주·유진만을 국내에 잠입시켰다. 또한 만주에 있는 관동군사령관과 현지 일본 육·해군 요인암살을 목표로 최홍식·유상근을 대련(大連)에 파견하기도 했다. 상해 한인청년당은 1933년 11월 22일 김 석이 체포됨으로써 해체되었다.

이 당의 당의(黨議)를 보면, '본당은 국토와 국민을 혁명수단으로 완전히 광복하기 위하여 그 전위적 임무를 수행하고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주지로 하는 신민국(新民國) 건설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3절 함평출신 해외독립운동가

★ 김덕근 (金德根 ; 신광면 함정리 ; 1912 - 1981)


김 덕 근

신광면 함정리 출신의 김 철의 조카로 종형 석(晳)과 함께 12세 때에 상해로 건너가 거기서 수학하였다. 화랑단장(花郎團長) 재호한인소년동맹(在滬韓人少年同盟)위원장직을 역임하였고 임정요인들의 수족이 되어 활약했다.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 때 윤의사가 체포된 사실을 불란서 조계 내에 사는 한인들에게 알려 피신하도록 연락하고 돌아오다가 체포되어 본국으로 압송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방이 되고 신광면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부는 1977년 12월 13일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김덕근(金德根)
생존기간: 1912. 9.14~1980.3.17
훈격(년도): 애족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고향에서 신광(新光)학교를 졸업하고 숙부인 임시정부 국무원 김 철(金澈)의 지시로 1929년 1월에 상해(上海)로 망명하였으며, 1930년에는 한인소년동맹위원장(韓人少年同盟委員長)에 피선되었다. 1931년 7월에는 상해 교민단(僑民團)에서 설립한 한인청년당(韓人青年黨)의 사교부장에 임명되어 독립투사의 전위적 임무와 연대적 책임을 실천하고 청년들을 훈련시켜 혁명 역량을 총집결할 목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당원확보에 주력하였다. 1932년 1월에는 화랑사(花郎社)를 창립하였는데 이는 신라의 화랑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식을 환기하고 교양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는 단장에 선출되어 단원들과 함께 임정요인의 연락업무 및 비서역할 등의 업무와 통신사무를 전담하였다. 그는 또한 선무반원으로서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선무 초모공작 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임시정부와 불란서 영사관과의 연락책 및 통역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1932년 4월 29일에 상해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일본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이 때 독립투사인 윤봉길(尹奉吉)이 김 구(金九)의 지령으로 폭탄을 식장 안으로 던진 일대 의거를 단행하였다. 이 의거로 상해 일본파견군 사령관 백천대장과 거류민단장 겸 행정위원장 하단(河端貞次) 등이 죽고 수많은 일인들이 부상을 당했다. 윤봉길의 의거로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독립운동계의 요인과 그 외의 한국인은 일제의 발악적 보복 검색으로 피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거사일인 4월 29일에 김 구(金九)는 교민단 사무소의 중국인 사환을 보내어 염탐케 하였는데 정오 경 그가 돌아와 거사에 성공하고 윤봉길(尹奉吉)은 체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한국인들의 검문, 검색이 강화될 것을 예견한 엄항섭(嚴恒燮)의 지령에 따라 그는 이규홍(李奎洪)과 함께 프랑스조계 거주의 한국인들에게 피난할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다음날 장현근(張鉉瑾)과 함께 상해 일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뒤 안창호(安昌浩)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으며, 20대의 젊은 학생이기 때문에 경성지방법원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전남 함평군(咸平郡) 신광면(新光面) 함정리(咸井里)로 거주지를 제한 받고 살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제5권 485쪽).

★ 김 철 (金澈, 호 : 一江, 본관 : 영산 ; 신광면 함정리 ; 1886~1934)



김 철(金澈)

김 철은 1886년 신광면 함정리 구봉부락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영산이며 김중청, 김영택이라 부르기도 했다. 호는 일강(一江)이다.

1908년 영광 광흥중학교를 마친 후 서울법률전문학교, 일본 메이찌(明治)대학을 졸업하고 1915년 귀국했다. 귀국한 그는 형제들과 상의하여 토지의 일부를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노속(奴屬)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향리에 머무는 동안 조선총독부 고위층으로부터 일제정권에 협력하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권유를 여러 번 받았으나 완강하게 거부하고 조국광복에 몸 바쳐 일할 것을 결심하고 1917년 상해(上海)로 건너가 법률학을 전공한 후 1919년 여운형(呂運亨)과 함께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을 조직하여 구국운동의 첫 사업을 벌이고 나섰다. 김 철은 그 해 2월 신한청년당 대표자격으로 선우회(鮮于赫)·서병호(徐丙浩)와 함께 국내로 잠입해 손병희와 3·1운동의 거사를 모의했고 영광으로 내려와 동창 조병모(曺秉謀)의 집에 은신해 승려로 위장하여 나들이하면서 지방 유지들의 협력을 얻고 또 형제들의 토지를 처분하여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했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그는 상해로 다시 건너가 선우혁(鮮于爀)·서병호(徐丙浩)·현순(玄楯)·최창식(崔昌植) 등 신한청년당 계열 30여명과 함께 상해 불란서 조계(租界) 보창로(寶昌路) 329번지 건물에 '대한독립임시사무소(大韓獨立臨時事務所)'를 개설하고 임시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임시헌장 10개조를 비롯한 조직·관제 등을 마련하는 한편 의정원 의원 및 각료로 선출

될 임정참여인물들의 신원 및 소재 파악 등 핵심적 역할을 맡아 혼신의 힘을 쏟은 끝에 성공적으로 수행해 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이 공식 선언된 후인 1919년 4월 19일 제1회 임시의정원회의(臨時議政院會議)에서 한남수(韓南洙)·장병준(張炳俊)과 함께 전라도 몫의 의정원 의원에 당선되었고 동월 제2회 회의에서 임정 의정원 재무위원 겸 법무위원이 되었다. 그는 8월 5일 교통차장(交通次長)에 임명되어 임시정부 행정실무를 맡았다. 그러나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이 취임하지 않아 총장 직무대행 임무까지 수행했다. 이후 그는 임시정부 내각에서 회계감사원장·군무·재무장·국무원 비서장 등을 역임하면서 임시정부와 고락을 같이 하였다.

국내 조사위원이기도 했던 그는 신한청년당 부주무(副主務)로서 기관지 <신한청년>을 발간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였고 대한적십자회의 상의원(常議員)도 역임했다. 1920년 1월 김구·손정도·김순애 등과 함께 의용단(義勇團)을 조직했고 1921년에는 한중호조총사(韓中互助總社) 한국 측 평의원, 상해 국민대표회 준비위원회 실무를 담당하였다.[496]

1920년 3월 선전위원회가 조직되자 그는 동 위원장 안창호(安昌浩)를 도와 정인과(鄭仁果)·손두환(孫斗煥)·이유필(李裕弼) 등과 함께 선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국내와 해외동포사회에 대하여 임시정부 시책을 광범위하게 선전·홍보하고 국내외 동포로 하여금 임시정부에 군자금 등 물심양면으로 협조토록 심혈을 기울였다.

1922년 7월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 회원으로서 임시정부 의정원과 국민대표회의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전력했는가 하면 1924년 5월 임시정부 국무원회계검사원 검사장(國務院會計檢查員檢查長)에 임명되었다. 또한 1925년 신한청년당 이사, 1926년 12월 임시정부 국무위원에 임명되었고 1930년 군무장(軍務長)에 되어 김 구와 함께 애국단원(愛國團員)인 이봉창(李奉昌)의 일본천황에 대한 폭탄 투척과 윤봉길(尹奉吉)의 홍구공원 거사를 성공적으로 실행케 하는 지원활동을 벌였다.

다음 해인 1931년 10월 안창호와 함께 교민단 심판(僑民團 審判)이 되어 상해교민들의 복지향상과 상호갈등해소에 주력하였고 11월 중국인들과 공동항일전선을 형성하여 '중국항일대동맹(抗日大同盟)'을 조직하고 조소앙과 중국인 오징천(伍澄千)·서천방(徐天放) 등과 함께 상무위원으로 활약하였다.

특히 그는 1932년 1월 현지 교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상해대한교민단 정치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4월 29일 윤봉길 의거 후 그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일제경찰의 체포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5월 10일 김 구와 함께 중국 중부지역인 항주(抗州)로 피신해야 했다. 그는 항주에 있는 청태제2여사(淸泰 第二旅社) 32호실을 빌려 거기에 임시정부 판공처(辦公處)를 개설했다. 1937년 강소성(江蘇省) 진강(鎭江)으로 옮기기까지 5년 동안 계속되는 '임시정부 항주시대'를 열었다.

그해 11월 24일 임시정부 국무위원에 임명되자 의정원 의원직을 사임한 상태에서 1932년 12월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불란서 당국의 항의로 곧 석방되었다.

다음 해인 1933년 3월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사임하고 7월 임정 의정원 의원에 다시 선임되어 의원자격심사위원으로 신도(新到·新參)의원의 자격을 심사했다.

496) 의용단의 임무 10개항은 앞의 제2절 2항 '의용단'을 참조할 것.

1934년 다시 국무위원에 선임되어 재무장(財務長)을 맡기도 했고 국무원 비서장(國務院秘書長)에 임명되기도 하는 등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의정원 의원으로서 광복운동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뿐만 아니라 상해를 떠나 각지로 이동하면서 전전하던 임시정부와 함께 불운의 시기를 몸으로 때우며 보냈다. 또한 국무위원이던 그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이사 14명 중 한 사람으로 활약하기도 있다.

이 같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관련단체에서 다양한 직무를 마다하지 않고 떠맡는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내색한번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 결과 몸이 쇠진하는 건강악화로 발전하고 말았다. 1934년 6월 29일 재발한 급성폐렴의 악화로 항주의 광자병원(廣慈病院)에서 운명하니 구국에 몸 바친 그의 나이 한창 일해야 할 아까운 48세였다.

이에 임시정부는 그가 조국광복을 위해 총력을 쏟다가 망국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그를 높이 기리기 위해 '임시정부장(臨時政府葬)'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김 구를 비롯한 이시영·조완구·송병조·양기탁 등 임정 요인들과 현지 교민들의 호곡 속에 악비묘(岳飛廟) 뒷산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으며 1975년 8월 15일 원호처(현 국가보훈처)와 함평군·영광군, 그리고 후생들이 뜻을 모아 구봉산 기슭인 구봉재(함평군과 영광군 경계)에 숭모비를 세워 그의 높고 깊은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1998년 그의 생가 터인 신광면 함정리 구봉마을에 '김 철 기념관'을 기공하여 5년만인 2003년 6월 준공했다. 또한 함평군은 지난 2009년 6월 29일 '김 철 기념관' 바로 옆자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 역사관(이하 임시정부 청사라 칭함)'을 준공했다. 이 기념관은 620m2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붉은 벽돌집 형태의 중국 상해 현지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건물을 그대로 복원·재현한 것으로 임정의 수립과 활동 및 환국에 이르기까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꾸며졌다. 특히 이 청사에는 김 구 주석의 집무실·임시정부 집무실·의정원 회의실·부엌·침실 등 상해청사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었다.[497] 한편 함평군과 신광면청년회 등 후생들은 그가 타계한 6월 29일을 기려 매년 추모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 『독립유공자공혼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김 철(金澈)
생존기간: 1886.10.15~1934.6.29
훈격(년도): 독립장(62)
출생지: 전남 함평

전라남도 함평(咸平) 사람이다. 1917년 상해로 건너가 법률학을 전공하였으며, 1919년 2월 상해 신한청년당 대표로 선우혁·서병호(徐丙浩)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위해서 국내에 파견되었

497) 함평군민신문, 2009년 7월 13일자. 김창훈, '함평인의 기개로 대한독립만세, 一江 金 澈' 재인용.

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선우 혁(鮮于爀)·서병호(徐丙浩)·현 순(玄楯)·최창식(崔昌植) 등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한 30여 명과 같이 상해(上海), 불란서조계 보창로(寶昌路) 329호 건물에 대한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였다. 1919년 4월 10일 제1회 임시의정원회의에서 그는 한남수(韓南洙)·장병준(張柄俊) 등과 같이 전라도 의원에 당선되었고, 동월 제2회 회의에서는 임정 재무위원 겸 법무위원이 되었다. 동 8월 5일 임시정부 교통차장에 임명되었는데 동 총장 문창범(文昌範)이 취임치 않아 총장대리까지 겸직하였다. 국내 조사원이기도 했던 그는 동시에 신한청년당 부주무(副主務)로서 기관지 「신한청년」을 발간, 독립정신을 고취하였으며 대한적십자회의 상의원(常議員)도 역임하였다. 1920년 1월에 그는 상해에서 김 구(金九)·손정도·김순애 등과 같이 의용단(義勇團)을 발기,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가 관여한 의용단이 하던 일은 10가지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포고문 살포와 선전으로 국민에게 적개심을 격발케 한다. 둘째, 정부를 도와 재정업무를 지원한다. 셋째, 국민에게 개병·개납주의를 고취한다. 넷째, 왜(倭) 총독부에 소속된 관리를 퇴진시킨다. 다섯째, 적의 관청에 납세를 거절케 한다. 여섯째, 일본의 화폐사용을 억제한다. 일곱째, 군사상의 실제방법을 획책한다. 여덟째, 임정의 공보와 기관지를 전달케 한다. 아홉째, 본단과 주의가 같은 다른 단체를 상호협화(協和) 원조한다. 열째, 정부의 명령이나 지휘가 있을 때와 광복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라올 것 등이었다. 1920년 3월에 선전위원회가 조직되자 그는 동 위원장 안창호(安昌浩)를 도와 동지 정인과(鄭仁果)·손두환(孫斗煥)·이유필(李裕弼) 등과 같이 선전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는 국내와 해외 동포사회에 대하여 임시정부의 시책을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국내외 동포로 하여금 임시정부에 물심양면으로의 협조(군자금 등)를 요청하는 일에 심혈을 경주하였다. 1922년 7월에는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 회원으로 임시의정원과 국민대표회의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진력하였다. 1924년 5월에는 임시정부 국무원회계검사원 검사장(國務院會計檢查院檢查長)에 임명되었다. 1925년에는 신한청년당 이사로, 1926년 12월에는 임시정부 국무원에 임명되어 활동하였으며, 1930년에는 군무장(軍務長)으로, 1931년 10월에는 안창호와 함께 교민단(僑民團) 심판(審判)이 되어 상해교민의 복지향상에 전념하였다. 1931년 11월에는 중국인과의 공동항일전선을 형성하여 중국항일대동맹(中國抗日大同盟)을 조직하고 조소앙과 중국인 오징천(伍澄千)·서천방(徐天放) 등과 함께 상무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32년 1월 상해 대한교민단(大韓僑民團)의 정치위원으로 선출되고, 동 11월 24일에 국무위원에 임명되자 의정원의원직을 사임하였다. 1932년말 일시 일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불란서 당국의 항의로 곧 석방되기도 하였다. 1933년 3월에는 임정 국무위원직을 사임하고 동 7월 임시의정원 의원에 다시 선임되어 의원자격심사위원으로 신도(新到)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였다. 1934년에 다시 국무위원에 선임되었고 재무장의 일을 맡았다. 그리고 국무원비서장(國務院秘書長)에 선출되어 임정 이동에 따라 각지를 전전하면서 오로지 조국광복을 위하여 심혈을 경주하였다. 국무위원이기도 했던 그는 한국독립당의 14명 이사 가운데 한사람으로 활약한 바도 있었다. 1934년 6월 29일 항주(杭州) 소재 광자병원(廣慈病院)에서 신병으로 서거하여, 이시영·조완구·송병조·양기탁 등 임정 요인들의 애도 속에 악비묘(岳飛廟) 뒤 묘지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제5권 552쪽).

★ 김 석 (金晳, 본관 : 영산 ; 신광면 함정리 ; 1911~1983)


김 석

김 철의 조카로서 역시 같은 마을인 신광면 함정리에서 태어난 김 석은 영광보통학교 4학년 때 숙부의 부름을 받아 1923년 13세의 소년으로 종제 덕근과 함께 상해로 건너가 상해 영국중학을 1928년 졸업하였다. 그는 졸업과 동시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하여 대동면 상옥리 윤해광(尹海光)과 같이 나주군 문평면사무소 금고를 털어 도주했다가 곧 잡혀 개성(開城)소년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른 뒤 다시 상해로 건너가 1930년 상해 법정대학 정치과에 입학하였다. 그는 재학생의 몸으로 김 구와 김 철 등이 조직한 의용단에 가입해 김동우(金東宇) 등과 함께 간부로 활약하였다. 1932년 1월 상해 한인청년당을 조직해 이사장에 취임하여 활약하였고 임시정부 외교부 비서장, 남경에 본부를 둔 동방피압박민족동맹(東方被壓迫民族同盟) 중앙위원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윤봉길 의거사건에 관련되어 체포령이 내려져 피해 다녀야 했다. 그러나 그는 1933년 11월 22일 검거되어 국내로 압송, 광주지방법원에서 5년 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34년 12월 27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너희들에게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며 법정도주를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8개월의 가형(加刑)을 받았다. 1941년 형기를 마치고 출옥하였으나 1942년 예비검속으로 구속되어 청주형무소에 예방 구금되었다가 1945년 1월 병보석으로 출감하였다. 그 후로도 광주의 대화숙에서 연금생활을 당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8·15 광복 후 전남건국준비위원회 위원, 광주청년대 대장 직을 맡았다. 정부는 1968년 3월 1일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김석(金晳)
생존기간: 1910.3.28~1983.2.25
훈격(년도): 독립장(68)
출생지: 전남 함평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신광면(新光面) 함정리(咸井里) 604에서 김영곤(金永坤, 혹은 金永杓)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으나 조실부모하고 임정 국무위원이 된 숙부 김 철(金徹)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1924년 영광고보(靈光高普)를 중퇴하고 임시정부 국무위원인 김 철(金徹)을 찾아 상해에 도착한 그는 임시정부에 참여하였으며 퍼불릭스쿨에서 수학하고, 1925년 양부의 병간호를

위해 귀국하였다가 다시 상해로 가서 영국중학(英國中學) 「퍼불릭스쿨」을 졸업하였다. 1928년 1월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에 도항하여 와세다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재학중 학자금을 탕진하고 동년 4월 귀향하여 전남 나주군 문평면사무소에 들어가 완구용 권총으로 면장 이하를 협박하여 금고를 빼앗아 도주하다가 체포되었다. 동년 5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개성형무소에서 복역 중 1930년 4월 가출옥하였으며 1931년 7월에 목포를 경유 상해에 도착하였다. 동년 9월 상해의 법정대학 정치과에 입학하여 재학중 김 구 등이 조직한 대한교민단대회(大韓僑民團大會)에 참석하여 서기로 취임하여 만보산(萬 山)사건을 규탄하는 등 활동하였다. 동년 11월 재상해중국학생연합회에서 항일구국의 기치 아래 대일전쟁을 위한 중국 구국학생의용군이 조직되자 법정대학의용군에 가입하여 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의연금 모집에 종사하였다. 1932년 1월 공산단체인 상해한인청년동맹(上海韓人靑年同盟)을 배격하고 일제의 침략세력을 적극 소멸함은 물론 독립투사의 전위적 활동과 지역적 책임완수 및 한국청년의 단체훈련을 실시하여 혁명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강령으로 내걸고 상해한인청년당(上海韓人靑年黨)을 조직하였다. 그는 동당 이사장에 선임되어 활약하였다. 1932년 봄 상해 홍구공원(虹口公園)의 투탄사건이 있은 후 그는 법정대학을 퇴학하고 조소앙계열에 속하여 임시정부 피난자금을 중국홍십자사와 교섭하여 지원 받아 800불을 조소앙에게 전하였으나 김 구계열과 알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동년 11월 22일 중국인 중한민족항일대동맹원(中韓民族抗日大同盟員) 황전영(黃展英)으로부터 대항일전(對抗日戰)에 사용할 폭탄제조 의뢰를 받아 이를 준비하다가 상해 프랑스조계의 황전영의 집에서 홍구공원 사건 혐의자로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로 일경과 프랑스관헌의 분규로 곧 석방되었다. 석방 후 1926년에 조직된 무력단체인 병인의용대(丙寅義勇隊)의 세력을 부활하기 위하여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 1933년 11월 22일 상해에서 다시 일경에 검거되었다. 그는 국내로 압송되어 1934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제5권 550쪽).

★ 문기호 (文氣鎬, 본관 : 남평)

1930년 일본으로 건너가 이봉창의 천황암살을 돕기 위해 지리를 파악하는 등 같이 활약하였다. 1931년 1월 8일 이봉창의 거사는 불행히 미수에 그치고 그도 잡혀 대판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병보석으로 귀가하였으나 집에 돌아온 지 1년이 못되어 타계하였다.[498]

★ 안후덕 (安厚德, 일명 鍾冕, 본관 : 죽산, 호 : 玄圃, ; 월야먄 예덕리 ; 1905~1949)

월야면 예덕리 예동(禮洞)에서 태어나 서울 휘문중학에서 수학하며 일제의 압제를 직접 겪은 그는 조국을 하루 빨리 광복해야겠다는 결심 하에 학업을 중단하고 1924년 2월 상해로 망명했다. 그는 동향의 함평출신인 교통차장 김 철을 만나 휴대하고 간 자기 재산과 금품을 임시정부 운영자금

498) 문기호 독립운동 공적이 아직도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고 있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으로 내놓는 한편 김 구가 이끄는 애국단에 가입함으로써 항일전선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1926년 6월 국내에 잠입한 그는 자기 소유 전 재산을 서울 거주 일본인 시라시마(白島)에게 저당한 당시로서는 거금이던 4만 5,000원을 가지고 상해로 다시 건너가 임시정부 운영자금으로 헌납했다. 1928년 2월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中國本部韓人青年同盟)에 가입하여 같은 해 6월 상해지부 위원장에 선출되고 이어 9월에는 중앙 집행위원으로 활약하던 중 다시 독립자금을 모금하고자 1929년 2월 국내로 잠입하다가 신의주에서 체포된 후 서울로 압송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옥 후 그는 일제의 유혹과 감시가 싫어 전국을 전전하다가 해방을 맞아 안정된 생활을 하는 듯 했으나 혹독한 고문의 어혈이 도져 1949년 11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그의 이 같은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하고 1977년 12월 13일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수록 공훈내용

성명: 안후덕(安厚德)
생존기간: 1905.11.11~1949.11.25
훈격(년도): 애국장(90)
출생지: 전남 함평

전라남도 함평(咸平) 사람이다. 1924년 2월 사재를 정리하여 상해로 망명,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1928년 2월 중국 한인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군자금(軍資金) 모집의 사명을 띠고 은밀히 귀국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저당하고 45,000원(圓)을 가지고 상해로 갔다. 그 금액 중 22,000원은 임시정부에 나머지 20,000원은 정태희(鄭泰熙)의 권유로 한인청년동맹(韓人青年同盟)의 운동자금으로 헌납하였다. 동년 6월 28일에는 한인청년동맹 상해지부 총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7월 29일에는 항일격문을 상해시내에 살포하기도 하였다. 1929년 초에 다시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입국하던 중 신의주에서 일경에 체포되었으며, 동년 6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제5권 657쪽).

★ 이도범 (李燾範, 본관 : 함평, 호 : 東雲)

천도교인으로 3·1운동 때 손병희의 거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왜경에게 체포되어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감 후에는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몸 받혀 일했다.